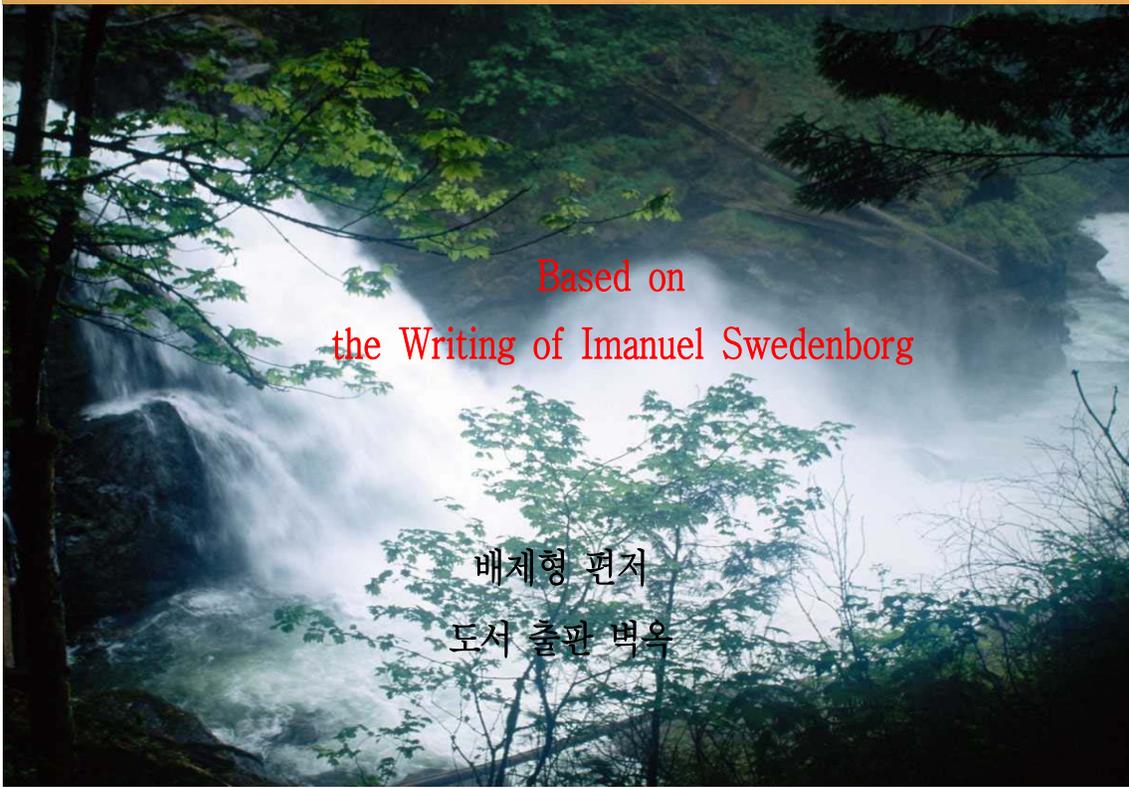




Bible Dictionary by Correspondence

성경 상응사전



Based on
the Writing of Imanuel Swedenborg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Dark sayings of old"

Psalms 78:2,3,4

Speak what is high! high!
Let what is ancient come out of your mouth.

1 Samuel 2:3

성경 상응 사전

Bible Dictionary

by

Correspondence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THE
SWEDENBORG CONCORDANCE

A COMPLETE WORK OF REFERENCE TO THE
THEOLOGICAL WRITING
OF
EMANUEL SWEDENBORG

*BASED ON THE ORIGINAL LATIN WRITINGS
OF THE AUTHOR*

Compiled, Edited, and Translated by the
Rev. JOHN FAULKNER POTTS, B.A

THE SWEDENBORG SOCIETY
20 BLOOMSBURY WAY
LONDON
1976

First Printed 1888
Reprinted 1957, 1976

Printed in Great Britain
at the
University Printing House, Cambridge

이 책을 읽기에 앞서...

이 책을 편역하게 된 제일의 목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천국의 새 교회인이 되어가는 분, 되기를 희망하는 분의 성경의 영적 지식에 보탬이 되고 싶어 집필했다. 아울러 홀로 성경을 읽는 분, 또는 작은 그룹을 지어 성경을 읽는 분들의 영적 의미 파악도 도와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지상에 계실 적에 그분의 재림을 두고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미리 말해주셨다. 즉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힘과 큰 영광과 더불어 하늘의 구름 안에 오심을 볼 것이다." 여기서의 구름은 성경의 글자를 의미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곳, 그분의 오심을 보는 장소는 성경의 글자이다. 진정 당신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스웨덴봄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합리적 이해를 통하여 그 영적 의미를 헤아려 보려 스스로 노력하면 당신의 성경 안에서 그분을 뵈실 것이다.

올해 편저자가 선견자 이마누엘 스웨덴봄의 저술을 접한지 45년의 세월을 맞이하였다. 쉬이 끝낼 수 없고, 출간해본다 해도 누가 그 얼마나 사용하겠느냐는 의구심이 겹쳐 미루다 이제 결심을 굳혀 도전하였다. 기본서의 경우 6권 각1000쪽에 이르고 활자 크기 역시 여느 영어 사전 크기여서 방대한 분량인데, 이를 기초로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재 편집했기에 상당 부분이 생략되고 있다. 그러나 나열된 성경의 각 단어는 빠지지 않고 채우려 하고 있다. 보통 명사나 형용사, 부사 같은 부분에서는 한글 역 성경과 일치 않는 경우가 많고, 고유 명사라 해도 동물, 식물, 광물에 해당되는 단어는 다른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저자의 경우, 평범한 중,고등 학생에게서 널리 애용되는 영한 사전 속의 한글역을 우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고유 명사 즉 이름, 지명 같은 경우는 개역 한글, 내지 표준 새 번역, 등과 일치되게 하고 있다.

본 사전은 책 제목이 말해주듯 성경과 그 상응에 관련되어 스웨덴봄이 설명한 것 만이 한정되고 있다. 성경의 여느 시대적, 역사적, 고고학적 기타 지식에 관한 것은 다른 주석이나 성서 사전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또한 스웨덴봄의 특별한 신학 용어도 대부분 생략되고 있다. 말하자면 성경 속의 단어에 국한되고 있다.

이 사전의 기초서인 스웨덴봄 콩코던스(swedenborg concordance)는 스웨덴봄의 저술 속의 단어나 술어를 찾아 읽는데 속도감과 편리함을 주는데, 본서는 일반 성경 연구자나 성경에 관심 많은 평신도들의 성경 상응 공부에 보탬을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선견자께서 그의 저술에서 번역 사용했거나 슈밋의 라틴 성서(Schmidt's Latin Bible, 1696)로부터 인용한 각 구절을 우선 나열함으로 보다 빠른 성경 구절 의미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책에서 사용되는 성경 구절은 스웨덴봄의 저술에서 발견되는 라틴 번역문으로부터의 영어 번역문이나 기본서인 콩코던스에 있는 영역 성경을 가능한 한 직역하고 한글 성경은 참조하는 수준에서 그쳤는 바, 처음 이 책을 대하는 이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지명이나 인명의 발음 표기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개정 내지 공동 번역 한글을 따르려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린다.

이 책을 이용하다 보면 때로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런 이유는 원저자의 신학 저술이 30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인용문이 중복되는데에서 발생되지만 오히려 이것이 독자의 성경 이해에 보탬을 줄 것 같아 굳이 생략하기까지는 않는다.

이 책의 내용은 100% 스웨덴본의 저술 속의 문장을 각 단어의 내용 파악에 한정시켜 잘라내어 옮겼기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선견자께서 천국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했지만 이 사전에서는 이 성경이 천국을 설명하는데 사용했노라 하는 말 까지는 덧붙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정확한 이해는 스웨덴 본의 저술을 읽어야 하리라 본다. 이럴 경우에는 General Index to Swedenborg's scripture quotations라는 책을 병용하면 쉽게 선견자의 저술을 찾아 읽을 수 있다. 이 책은 www.baysidechurch.org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가끔 성서 구절이 개역 한글이나 기타 여러 영, 한글 성경과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 본서의 경우 스웨덴본이 직접 라틴어로 번역해 사용한 구절의 영어 표기와 일반 영한 사전의 한글 표기를 우선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도 염두하기 바란다.

참고로, 특정한 구절과 연관은 없어 성경 구절을 딱히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단어의 이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져 끌어다 놓은 대목들은 별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

성경 속의 의미를 아주 크게 분류해보면 세 의미를 담고 있다. 천적 의미, 영적 의미, 자연적 의미이다. 대체로 천적, 영적 의미의 파악에 상응 지식이 집중적으로 요구된다. 성경은 문단에 따라, 혹은 구절에 따라 위 세 의미를 모두 포개서 함유하거나 하나, 또는 둘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모세 오경을 시작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시편, 대,소 예언서, 4복음, 계시록은 본 사전의 상응 지식이 큰 도움이 되리라 추측해본다. 율기서 이외의 성경은 상응 지식이 절대 요건은 아닌바. 필요 없거나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3년 4월 성주간에...뉴욕에서...



Emanuel Swedenborg (1688-1772)

이마누엘 스웨덴보름은 남다른 통찰력과 선견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1688년부터 1772년 까지 살면서, 그때 당시 가능할 수 있는 철학과 과학 지식의 대부분을 섭렵하면서, 야금학, 공학, 물리학, 천문학, 생리학, 심리학 등의 발달에 의미심장한 공헌을 했다.

그의 인생 중반기, 그의 관심이 철학과 종교 쪽으로 기울면서, 그는 자신이 영이라는 내적 세계와 접촉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비상한 환상적 능력들이 발달되었고, 동시에 성경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지각했다. 그리고 종교에 자유와 영성의 새 시대를 선포하도록 자신을 불리 내세웠음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옴에 의해 상징되었다고 믿었다.



The fact that when Elijah found Elisha, he was ploughing
with twelve yoke of oxen
pictures

the truth that the effort to do good as fully and throughly as possible
is the best ground for an ability to understand the Word
and to use it for spiritual help. 1 kings 19:19.

성경 약자표

구약 성경

창 창세기
출 출애굽기
레 레위기
민 민수기
신 신명기
여 여호수아
사 사사기
삼상 사무엘상
삼하 사무엘하
왕상 열왕기상
왕하 열왕기하
대상 역대상
대하 역대하
욥 욥기
시 시편
잠 잠언

이 이사야
예 예레미야
애 예레미야애가
겔 에스겔
단 다니엘
호 호세아
욘 요엘
암 아모스
옵 오바다
욘 요나
미 미가
나 나훔
합 하박국
습 스바냐
학 학개
스 스가랴
말 말라기

신약 성경

마 마태복음
막 마가복음
눅 누가복음
요 요한복음
계 요한계시록

"Let him that is a thrist come"

REV 22:17

가까이-가격-가나-가나안

가까이 (near, after, according to)

창33:12-‘네 가까이서 가는 것’=인접함

창41:6-‘그것들에 뒤따라서’=가까이, 또는 경계선에서.

창43:7-‘입에 따라서’=일치하게.

창44:7-‘이 말들에 따라서’=그것, 또는 이와 같은 것.

창45:21-‘마로의 입에 따라서’=좋아하는 쪽에서..

가까이 (near, proximately)

창19:20-‘이 성은 저쪽으로 도망하기에 가깝다’=신앙의 진리로부터 허용될 수 있는 것...‘가깝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진리는 선과 인척 관계에 있기 때문.

창45:10-‘당신은 내 가까이 계실 것이다’=영구히 결합함...그에게 가까이 있는 것, 즉 그에게 계속 가까이 있는 것은 영구히 결합함이다.

* 세 번째 천국에 있는 이들은 슬기롭다 불리는데 그들은 주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서이다. 두 번째 천국에 있는 이들은 총명하다고 부르는데, 그들은 주님에게 꽤 가까이 있다.

* (저 세계의 경우) 생명의 상태가 비슷한 이들은 서로 가까이 있게 나타난다.

출12:4-‘자기 집 가까이 있는 그와 그의 이웃을...’=진리로부터의 가장 가까운 선과 결합함.

출13:17-‘가까웠기 때문에’=우선적으로 자체를 드러내 보이는 것.

* 천국과 지옥은 사람 가까이 있다.

레10:3-‘가까이 있는 그들 안에서 (신성해질 것이다)...’=말씀으로부터 있는 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를 통하여 주님과 결합되는 이들 안에서.

출32:27-‘너희는 그의 형제 사람, 그리고 그의 동료 사람, 그의 이웃 사람을 죽여라’=선과 진리에 관련되는 것의 유입, 이것들과 인척 관계되는 것들의 유입 까지 마감함.

계1:3-‘때가 가깝다(at hand)’=이러이러한 내면의 상태...‘가까이’=내적인 것.

시148:14-‘그분에게 가까운 백성’...진리들을 수단으로 그분과 결합하는 이들은 그분에게 가까이 있다고 불리운다.

* ‘멀리 있는 백성’...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들은 ‘멀리’라고 말해지고, 그에 비해 영적 인간에 있는 선들은 ‘가

까이’라고 말해진다. (이49:1 참조)

* 인간의 내면의 것들은 말씀에서 ‘가까운 것들’로 뜻해지고 있다. (계18:10 참조)

* ‘가까운 이들’=교회 속에 있는 이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이33:13 참조)

가격 (price)

레27:25-‘세겔’=가격, 또는 추정치.

겔45:12-‘세겔’=신성한 것의 가격

이55:1-‘값을 치름도 없이 사는 것’=주님으로부터 얻는 것. 고로 무료로. (=자신의 총명 없이)

애5:4-‘우리의 나무들은 값을 치뤄야 온다’=자신으로부터 있는 가르침. 이로부터는 악들 만이 온다.

이45:13-‘대가 없이, 보수 없이’=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무료로.

가나 (Cana)

요2:1-‘갈릴리 가나의 결혼’=이방인들과 더불어 교회.

가나안 (함의 아들, Canaan)

창9:18-‘함, 그는 가나안의 아버지이다’=내적인 것들 없이 외적인 것들에 있는 부패된 교회로부터의 예배.

창9:25-‘가나안은 저주 있으라’=내적인 것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가 그 자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 가버렸다.

창9:26-‘가나안은 그의 하인일 것이다’=예배가 단지 외적인 것들에서만 있게 만드는 것이 교인을 위해 예배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이들 사이에 있다.

창10:6-‘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은 여러 많은 나라들이었다, 이를 수단으로 내향의 의미에서 (영적) 지식들, 지식들, 그리고 의식들이 의미되어지는데, 이것들은 선행에서 분리된 신앙 속에 있다...‘가나안’ 또는 ‘가나안족’에 의해 내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예배의 외적인 것들, 또는 의식들이 의미되어진다.

가나안 (땅, 토지, Land of Canaan)

* 토지도 참조

겔16:3-여기서의 경우, 내적인 것 없는 외적 예배가 ‘가나안’이다.

창12:5-‘(아브람의 여러 사람들은) 가나안의 토지로 가려고 나아갔다’=그리하여 주님은 사랑의 천적인 것들 쪽으로 나아가셨다는 것. ‘가나안의 토지’는 천국 안에,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주님의 왕국을 표현한다; 이러므

가나안

로 해서 거기에 표현적인 교회가 설립되었다...이로부터 가나안의 토지는 비록 그곳에 거룩한 것이라고는 거의 없이, 오히려 우상숭배자들이나 모독하는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룩한 토지라 불리웠다. 이런 이유에서 이 절과 다음 절에서 '가나안의 토지'에 의해 사랑의 천적인 것들이 의미되어진다; 그 이유가 사랑의 천적인 것들은 주님의 왕국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그분의 왕국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창13:9-'네 앞에 토지 전체가 있지 않느냐?'=모든 선. '토지'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의 토지'=천적인 것, 고로 선.

창13:12-'아브람은 가나안의 토지에서 거주했다'=내적 인간, 이 인간은 사랑의 천적인 것 안에 있었다는 것.

창13:15-'네가 보는 모든 토지를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천적 왕국, 이 왕국은 주님의 것이다는 것..' 그 이유가 토지', 또는 '가나안의 토지'는 천국들에 있는 주님의 왕국, 또는 천국, 그리고 땅 위의 하느님의 왕국, 또는 교회가 표현되어지고 있다.

창13:17-'일어나 이 토지 여기저기를 걸어라'=그분은 천적 왕국을 탐사하실 것이다는 것..'토지', 또는 '가나안의 토지'는 천국들에 있는 하느님의 왕국, 또는 천국, 그리고 땅 위에 있는 하느님의 왕국, 또는 교회가 의미되고 있다.

창15:18-'가나안의 토지'=주님의 왕국. 그러므로 '네 씨에게 나는 이 토지를 줄 것이다'=천국적인 왕국이 선행으로부터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다는 것

창16:3-이것들은 아브람이 '가나안의 토지'에 거주한지 십년에 의해 의미되는 남겨진 것들이다.

창17:8-'가나안의 모든 토지'=천국의 왕국.

민13:2,3-'바란 광야로부터 그들은 가나안의 토지를 탐험했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위한 천국의 왕국이 있다.

창22:17-인간이 영적으로 되어갈 때, 또는 거듭나야할 때, 악들과 거짓들, 마찬가지로 것으로 악귀와 악령들이 그의 문으로부터, 또는 그의 마음으로부터 추방되고, 그 다음 선들과 진리들, 또는 선행과 신앙이 그것들의 자리를 대신 채우고 들어앉는다; 이것이 '네 씨가 네 적들

의 문을 상속 받는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이것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가나안의 토지로부터 나라들을 추방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창28:1-'너는 가나안의 딸들로부터 여인을 데려오지 마라'=악과 거짓에 대한 애정들과 결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가나안'=거짓과 악인 것.

창28:8-'가나안의 딸들', 여기서의 경우=순수하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들; (그 이유는 헷의 딸들로 이해되기 때문).

창31:18-'가나안의 토지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오는 것'=그분의 인성이 신성이 되기 위하여 합리성의 신성한 선과 결합하는 것. '가나안의 토지'=주님의 천적 왕국,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즉 주님을 서술할 때, 그분의 신성한 인간.

여11:16,17-세일 산은 한쪽 측면으로는 가나안의 경계였다.

창33:18-'가나안의 토지에서'=주님의 왕국에서.

창15:18-가나안의 토지는 (태고 교회의 때에는) 이집트의 강으로부터 유브라테 강까지 이르는 모든 토지를 두고 그렇게 불리웠다.

창35:12-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토지, 나는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자연에 있는 신성한 선을 내 것되게 해주심..'가나안의 토지', 여기서 '토지'를 말하는데, 내향의 의미에서=주님의 왕국, 그리고 이로부터의 교회, 이는 땅에 있는 주님의 왕국; 그러므로 그 토지=선, 그이유가 선은 주님의 왕국과 교회의 참 본질이기 때문. 그러나 최고 의미에서, '가나안의 토지'=주님의 신성한 선; 그 이유가 천국들과 땅에 있는 주님의 왕국에 있는 선은 주님으로부터이기 때문.

신11:11-'가나안의 토지'에 의해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교회가 의미되어지는 바, '이 토지는 산들과 계곡이 있어 하늘의 비가 내리면 물들을 마신다' 라고 불리우고 있다.

창42:5-'가뭄이 가나안의 토지에 있었기 때문에'=자연의 교회 속에 있는 것들의 삭막함.

창44:8-'우리는 가나안의 토지로부터 당신에게 (은을) 되가져왔습니다'=종교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복종.

창45:17-'가라, 너희는 가나안의 토지로 가라'=그들의

가나안족-가난-가난한

주거지, 즉 자연의 교회 속의 진리들의 것... '가나안의 토지'=교회 속에 있어 왔던 이들의 주거지; 고로 선과 더불어 교회 속의 진리들의 주거지,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구성하기 때문.

창47:14- '가름이 가나안의 토지에 극심하였다'=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이 결핍됨.

창50:24- ('토지' 여기서, 가나안을 뜻하는데, 고대 교회, 또는 고대인들이 있었던 교회의 상태.)

출3:8- '아름답고 넓은 토지로'=천국, 선행의 선과 신앙의 진리가 있는 곳. '토지' 여기서 '가나안의 토지'=주님의 왕국, 고로 천국.

출6:4- '그들에게 가나안의 토지를 주는 것'=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통한 결합을 수단으로 천국으로 승강됨.

출12:25-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줄 토지로 올 것이다'=주님으로부터 그들과 더불어 있는 천국으로.

출15:15-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이것은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도 똑같은 것, 그리고 그들은 선들을 섞음질하고 진리들을 왜곡해버렸다는 것.

출16:35- '그들은 가나안의 경계에 당도 할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그들은 천국의 영역에 올 때까지 진리로부터의 선을 자기 것 되게 하는 경험을 가졌다는 것... '가나안의 토지'=천국.

출32:34- '가나안의 토지로 백성을 인도하는 것'=그들로 교회이도록 하는 것.

사5:19- '가나안의 왕들이 싸웠다'=악의 거짓들과 맞서는 전투가 있다.

가나안족 (Canaanite)

* 아모리족도 참조

창10:18- '가나안족들'=우상 숭배들 중의 남아있는 것들.

창10:19-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으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에 이르기까지'=내적인 것 없이 외적 예배를 가지는 이들과 더불어 지식들이 확장됨.

창11:6- '가나안족이 토지에 있었다'=그분의 외적 인간 안에 있는 어머니로부터의 유전적 악.

민13:29- '가나안족은 해변과 요단 강둑 근처에 거주한 이들이었다'=외적 인간에 있는 악, 이는 어머니로부터

의 유전적인 것과 같은 악이다.

창13:7- '그리고 가나안족과 브리스족이 그 토지에 그 당시 거주하고 있었다'=외적 인간에 있는 악들과 거짓들. '가나안족들'=외적 인간에 있는 어머니로부터의 유전적 악.

민13:29- 신앙 속의 교리적인 것들을 발달시킨 이들이 '가나안족들'이라 불리졌다, 그리고 그 토지의 다른 거주자와 분리되어 있었다.

창24:3- '너는 내 아들(이삭)을 위한 여인을 가나안족의 딸들로부터 데려오지 마라'=신성한 합리성은 진리에 불일치되는 어떤 애착들과도 결합해서는 안된다는 것... '가나안족'=악; 이로부터 '가나안족의 딸'=진리에 불일치하는 애착들.

창34:30-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여기서의 '가나안족'=교회의 선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브리스족'=교회의 진리에 있는 이들. 이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고대 교회가 아직 그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그들 사이에 교회의 어떤 것이 남아있는 한, '가나안족'=교회의 선, 그리고 '브리스족'=교회의 진리; 그러나 교회의 모든 것이 그들 사이에서 절멸되었을 때, '가나안족'=악, '브리스족'=거짓.

창38:2-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족 사람의 딸을 보았다'=악의 거짓으로부터 악에 대한 애착... '가나안족'=악.

창46:10- '가나안족의 아들 사울'=순수한 근원으로부터가 아닌 교리적인 것.

창50:11- '토지의 거주민, 가나안족'=교회의 선.

출3:8- '가나안족과 헷족 대신에'=악들과 거짓들에 의해 점유된 지역. '가나안족들'=악들과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그리고 '헷족들'=거짓들로부터 악들이 있다.

출6:15- '가나안족의 아들 사울'=교회 밖 행동에 있는 진리에 관한 것들.

출23:28- '가나안족'=더 슬픈 악으로부터의 거짓.

가난 (poverty)

가난한 (poor)

눅14:21- '가난하고, 불구이고, 귀멀고, 보지 못함에 있는 자를 데려오는 것'=이런 언급은 고대 교회에서 흔히 있었다. 이는 신앙 측면에 관한 것이다. 생활 측면은 선 안에 있는바 주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알게 해주어야

가다

할 이들. 즉 아직 주님의 왕국에 관한 이모저모에 관해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들.

눅7:22-말씀을 가지지 않은 이들, 주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는 이들, 가르침 받기를 여전히 갈망하는 이들이 가난한 자라 불리운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시70:5-'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가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은 다윗에 의해 말해지고 있다. 이로 미루어 이는 영적인 가난과 궁핍을 뜻함이 분명하다.

시35:10-'궁핍한 자' 여기서의 경우=진리를 거의 갖지 않고 있는 이들, 게다가 악들과 거짓들의 침투로 감염된 이들.

출23:3-'가난한 사람을 너는 그의 소송 사건에서 (가난을) 참작하지 마라'=진리에 무지한 이들이다 해도 그들에게서 거짓들이 보여질 때 어떤 호의도 있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진리들이 거의 없는 이들, 또한 무지로부터 거짓에 있는 이들. 이들 중에도 선 안에 있는 이들은 진리들로 가르쳐지기를 원한다. 한편 악 안에 있는 이들은 진리들로 가르침 받기를 원치 않는다.

출30:15-'부자는 더 드리지 말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덜 드리지 않을 것이다...'=능력에 속한 것이 무엇 이든 모두,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속하는 모두는 주님께 그 원인을 돌려야 한다.

이41:17-'물을 찾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갈망하는 이들.

계3:17-'비참하고 가난한'=그들에게는 진리들과 선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계13:16-'부유하고 가난한'=많은 적든 영적인 지식과 자연적 지식을 지닌 이들.

마5:3-인간의 '영, the spirit'=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영에서 가난한 자는 복되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속에 천국들의 왕국이 있기 때문이다'로부터 분명해진다.

계2:9-'그리고 가난, 그러나 너는 부자이다'=자신들로부터서는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인정함...여기서 '가난'에 의해 영적인 가난이 뜻해지고 있다.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 교회에 관련해 말해지기 때문.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그런데 부유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알고,

이해하고, 슬기롭다는 것 이것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이다는 것을 심정에서 인정함이다.

계3:17-'그리고 비참하고 가난한'=그들은 진리에 관하여, 선에 관한 지식도 어떤 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것. '가난한'=선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것.

시72:12-'그분이 구원하실 가난한 자'=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이 없으나 그것들을 갈망하는 자.

이3:15-'가난한 자의 얼굴에 땀돌질하는 것'=진리에 무지한 가운데 있으나 진리를 가르침 받기를 갈망하는 자의 진리를 알려하는 애착을 파괴하는 것.

이61:1-'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가난한 자'=말씀을 가지지 않았기에 진리에 무지한 상태에 있어왔던 이들이 이방인들이라 불리워진다.

누14:21-'가난한 자' 등등=자기들이 말씀을 가지지 않았기에 진리에 무지한 상태에 있어온 이들, 이로부터 선에도 결함이 있었던 이들, 따라서 진리를 통하여 선을 가지고져 진리들을 갈망하는 이들.

가다 (go, going)

창8:5-'물들이 가고 실패하고 하고 있는데...'=거짓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창12:4-'아브라함은 갔다'=신성한 것들 쪽으로 더 진전을 이룸.

창12:5-'그들은 가나안의 토지로 가려고 나아갔다'=고로 그분은 사랑의 천적인 것들 쪽으로 발전하셨다.

창19:2-'당신께서는 아침에 일어나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선과 진리에서 확증함.

창21:16-'그녀는 갔다 그리고 그녀 자신을 (아이와) 마주 대하게 앉았다'=생각의 상태...'가는 것'이 이 구절의 경우 소년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인바,=영적 진리로부터 옮겨짐...

창22:19-'그들은 브엘세바로 함께 갔다'=선행과 신앙에 관한 교리가 발전함.

창24:5-'나를 따라 가는 것'=...자연 (평면)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리고 합리적 (평면)과 결합하는 것.

창24:10-'그는 갔다'=그것에 대한 것을 개시함.

창24:55-'가는 것'=떠나는 것.

창24:61-'그들은 사람을 따라갔다'=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의 후원...'따라가는 것', 또는 따르는 것

가다

=인도 아래, 후원 아래.

창24:34-‘그리고 갔다’=생활. (그 이유가) ‘가는 것’=선 속에 있는 일련의 것들 쪽으로 발전해가는 것, 이것은 생활 속에 있다...따라서 삶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단어인 ‘여행하는 것’, ‘체류하는 것’, 그리고 ‘발전하는 것’ 등등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다.

창26:13-‘불어나는 것’, ‘계속 가는 것’, ‘그리고 극도로 커지는 것’=선이 질서에 따라 증가함, 즉 진리로부터 선으로, 그리고 선으로부터 진리로.

창28:7-‘그들은 밧단 아람으로 갔다’=이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으로 감화되는 것. (그 이유가) ‘가는 것’, ‘여행하는 것’=삶의 목적과 질서.

창29:7-‘가는 것’=생활.

창30:26-‘나는 갈 것이다’=신성의 합리적 (평면)과 결합함. (그 이유가) ‘가는 것’, 즉 그의 장소, 그의 토지로 가는 것=합리적 (평면)의 신성과 결합하기를 갈망함.

창31:30-‘지금 내가 가야할 길을 가라’=자아로부터, 그는 자신을 분리하는 것. (그 이유가) ‘꼭 가야 하는 것’=분리되는 것.

창32:1-‘야곱은 자기 길을 갔다’=진리가 연속되는 것.

창33:12-‘함께 여행해서 가자’=선이 진리와 결합함이 계속되는 것. (그 이유가) ‘여행하는 것’, 그리고 ‘가는 것’은 더 먼 것들 쪽으로 발전함을 포함한다.

창33:12-‘네 가까이서 가는 것’=인접함. 여기서의 경우 그들이 결합되는 것, 즉 선이 진리들과 결합되는 것.

창38:19-‘그는 갔다’=생활. 천사와 영들에게도 자기들이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 가고 발전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 나타남을 생산하는 삶의 상태의 변화이다.

창41:55-‘너희는 요셉에게 가라’=그것은 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이다는 것. ‘그에게 가는 것’=그것이 요셉으로부터 이다는 것.

창42:26-‘그 때부터 그들은 갔다’=그 때부터의 생활. (그이유가) ‘가는 것’=사는 것.

창43:8-‘가는 것’=사는 것. ‘그리고 우리는 살 것이다’가 뒤를 잇는바, ‘가는 것’=처음의 영적 삶.

창45:24-‘가는 것’, 또는 떠나가는 것=사는 것, 또한

더 멀리 떨어져 사는 것, 고로 또한 떠나는 것. 고로 이것=숨겨지는 것.

창45:28-‘나는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볼 것이다’=새로운 상태에 먼지의 것이 결합하기를 갈망함. (그이유가) ‘가서 보는 것’=결합되는 것...

출3:11-‘바로에게 가는 것’=감염시키는 거짓됨으로 가는 것.

출10:24-‘너와 함께 가는 것’=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이 떠나보내지는 것.

출12:28-‘가서 하라’=순종하는 것.

출12:32-‘너희는 가라’=그들은 함께 떠나리라는 것.

출13:20-‘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주님의 계속적인 현존(임재).

출13:21-‘낮과 밤으로 가는 것’=두 상태들에 있는 삶.

출14:19-‘그리고 그들을 따라 갔다’=악으로부터의 거 것이 의지 안으로 흐르지 않도록 보호하심.

이30:21-‘이것이 길이다, 너는 이것 안에서 가라’=교리로부터의 진리와 생활로부터의 선.

출23:23-‘내 천사가 네 앞서 갈 때’=주님의 교훈들에 따라 삶. (그 이유가) ‘너 앞서 가는 것’이 주님에 관련해 말해질 경우, 여기서 그는 ‘여호와와 천사’인바=신앙과 생활의 교훈들을 가르치는 것. ‘가는 것’, 그리고 ‘여행하는 것’=사는 것(이기 때문).

출32:1-‘일어나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라’=교리의 거짓들, 예배의 거짓들...‘우리 앞에 가는 것’=그들이 뒤따르려는 것들, 고로 이것에 따라 그들은 예배도 조직할 것이다.

출32:34-‘나의 천사가 네 앞서 갈 것이다’=여전히 신성한 진리가 인도할 것임.

신8:6-‘여호와와 길에서 가는 것’=교리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것.

이2:5-‘너희는 가라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와 빛에서 갈 것이다’=신성한 진리에 따라 사는 것, 고로 지혜로부터 생활함.

창18:16-‘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지각하는 상태에 아직도 있는 것.

창25:32-‘죽으러 가는 것’=이후 다시 일어나는 것.

창26:16-‘우리와 함께 있음으로부터 가는 것’=현존을

가데스-가두리-가득한

건디지 못하는 것.

창27:13-‘가서 나에게 가져오라’=행하는 것.

창37:14-‘가라, 네 형제들의 평화를 보라’=주님의 강림 각각 그리고 모두.

출19:19-‘가는 것 그리고 그 자체 더 강해지는 것’=그것의 증가.

계14:4-‘그분이 어디로 가시든 따라가는 것’=그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교훈들을 행하는 것.

가데스 (Kadesh)

창14:7-‘그들은 엔머스밧으로 왔다, 이곳은 가데스이다’=계속됨...‘가데스’에 의해 진리들이 의미되어진다, 또한 진리들에 관하여 논쟁함도 의미된다. 여기서는 주님이 그분의 첫 전투에서 정복하신 거짓들과 이 거짓에서 파생된 악들에 관한 것을 취급하고 있기에, ‘엔머스밧, 가데스’라는 언급이 있는데, 그이유는 거기서 진리들에 관한 다름이 있었기 때문.

겔47:19, 48:28-‘가데스=진리에 관하여 논쟁이 있는 것.

민21:1-13, 27:14, 신32:51-‘모세가 바위를 친 곳’..이 물은 ‘므리바’라 불리우고 있다. 이는 다툼으로부터이다.

민13:26-스파이들이 되돌아 온 곳 역시 ‘가데스’이고, 거기서 그들은 불평하고 다투었다.

창16:14-‘가데스와 베텓 사이에 있다’=품질, 즉 그분은 이 진리의 품질이 무엇이었는지 보셨다는 것...‘가데스’=진리, 또한 진리들에 관하여 다툼.

창20:1-주님이 선행과 신앙에 관한 교리적인 것들로 처음 가르쳐졌을 때 그분이 계셨던 상태가 ‘가데스와 수르’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시29:8-‘광야’, 그리고 ‘가데스 광야에 의해 어떤 진리와 선도 있지 않는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가두리 (hem)

* 술(fringe)를 참조.

가득한 (full)

때가 됨 (fullness)

충분한 (plenary)

예6:11-거짓들이 확증되었음이 날들이 가득하다 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창23:1-‘127년’=그것들이 가득함, 때가 참...이것은 교

회의 거룩한 것의 끝, 또는 가득 참이다...교회의 상태들과 시간들의 때가 참은 그것들의 끝을 뜻한다...그것의 옛 시대가 때가 참 또는 끝이라 불린다....날의 상태들과 시간들도 마찬가지이다...밤이 올 때, 그것은 때가 참, 또는 끝이다.

창48:19-‘그의 씨가 나라들에 가득 찰 것이다’=신앙으로부터의 진리가 지배할 것이다...‘나라들의 가득 참’=풍부함, 고로 그것이 지배할 것임. 말씀에서 ‘가득 참’=모두, 그리고 풍부한 것, 이것은 진리와 선 모두를 서술한다. 그 이유가 ‘수가 많음, multitude’은 진리를 서술하고, ‘크기, magnitude’는 선을 서술한다. 고로 양쪽에서의 ‘가득함’.

예47:2-‘땅과 그것이 가득 참’=교회의 진리와 선 모두.

겔12:19-‘토지 (land)’=교회. 그리고 ‘가득 참’, 거기 안에 있는 선과 진리. 둘 다가 의미되어진다는 것은 앞서 행해진 것들로부터 분명해진다.

출9:8-‘네 주먹의 가득함을 네게로 가져오라’=받아질 수 있는 한도까지 힘이 주어지는 것...그것이 받아질 수 있는 한도 까지가 ‘가득 함’에 의해 의미된다.

출16:33-‘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의 가득함을 놓아라’=그것이 담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있는 선.

겔19:7-‘땅과 그것의 가득한 것이 황폐해지는 것’=교회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

시89:11-‘가득 함’에 의해 교회를 만드는 모든 진리와 선이 의미되어진다.

계3:2-‘나는 하느님 앞에서 가득한 네 일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그들의 예배의 내면들이 주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그들이 주님과 결합될 때,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가득하다’라고 불리워진다.

계3:2-‘나는 하느님 앞에서 가득한 네 일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단 방법으로 신성 아닌 것이 도덕적 생활 안에 있다는 것...도덕적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이 영적 근원으로부터 있을 때, ‘하느님 앞에서 가득하다’라고 불리워진다. 따라서 일들은 하느님 앞에서 가득하든지, 또는 그들이 하느님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니든지 해야만 할 것이다.

이6:3-이것이 모든 것들을 채우는 신성한 진리이라는 것은 ‘땅의 가득 함이 그분의 영광’이기에 의해 의미되

가라지-가려움-가루

고 있다.

이34:1-‘땅’에 의해 선 측면에서의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의 가득 참’은 진리들 측면의 교회이다.

골2:24-‘마루들은 순수한 곡식으로 가득하다’=그렇기에 가득 함.

신33:16-‘그것의 가득 함’=외적 인간에 있는 지식들.

시89:11-‘세계’=천국과 선 측면에서의 교회.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가득 함’=천국과 진리 측면에서의 교회.

겔19:7-‘토지’=교회.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가득 함’=말씀으로부터 그것에 관하여 있는 진리들.

예6:11-‘날들이 가득 함’=지혜.

암6:8-‘도성’=교회, 그리고 ‘그것의 가득 함’=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그것에 담겨 있다.

시24:1-‘땅’=진리 측면에서의 교회.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가득 참’=복합체에 있는 모든 진리들.

시편50:12-주님께서는 선들과 진리들로부터의 예배를 바라시는 바, 이 구절에서 ‘세계는 나의 것이고 그것에 관하여 가득 함이다’라고 말해진다. ‘가득 함’=그것들의 전체 복합체에 있는 선들과 진리들.

계15:7-‘하느님의 분노가 가득 함’=악으로부터의 모든 거짓들.

계17:3-‘모독의 이름들로 가득함’=섞음질되고 왜곡된 것.

계17:4-‘매춘짓의 불결함과 가증함으로 가득함’=모독한 선들과 진리들로부터.

시79:11-‘그것에 관하여 가득 함’에 의해 교회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이 의미되어진다.

겔16:49-그들이 선행의 선들을 싫어하는 것이 ‘빵이 가득 함’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창35:29-‘늙은 사람 그리고 날들은 가득 차고’=생명의 새로운 것...(그 이유가) ‘날들이 가득 참’=충만된 상태.

가라지 (tares)

마13장-‘가라지들’=악들과 거짓들. (=거짓) (=이전 교회 속의 거짓들과 악들)

* ‘가라지들’인 ‘악한 왕국의 아들들’=교회의 신앙으로부터의 거짓들.

마13장(가라지들의 비유)는 선한 자를 악한 자로부터 꼭 분리해야만 하는 때인 최후의 심판을 취급하고 있

다...‘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가라지들을 뿌렸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갔다’=자연적 인간들과 더불어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은 지옥으로부터 흘러든다, 그리고 받아들여진다...‘가라지들’=거짓으로부터의 악, 즉 거짓들을 통하여 악 안에 있는 이들. (악들, 또는 악 안에 있는 이들) (=악한 자) (=지옥적인 거짓) (=교리, 종교, 예배 속의 거짓들, 이는 악으로부터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불린다) (=최후 심판에서 지옥으로 내던져질 악한 자).

마13:25-‘사람들이 잠든 사이 그의 원수가 와서 가라지들을 뿌렸다’=사람들이 자연적 생활을 이끌어가는 동안, 또는 세상의 생활을 꾸려가는 동안에서 지옥으로부터의 악들은 은밀하게, 또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거짓들을 은근히 불어 넣고 심고 간다...‘씩이 패어났을 때, 그리고 열매를 산출할 때, 이 때에 가라지들 역시 나타났다’=진리가 자라서 선을 생산했을 때,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선들과 뒤섞여 있었다...‘주인님, 우리가 가라지들을 모아들일까요?’=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받아지고 증가되기 앞서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분리하고 내던짐.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아들이려다가 그것들과 더불어 있는 밀이 뽑히지 않도록’=선으로부터의 진리의 증가, 그리고 멸망이 이러하다는 것. 교회의 사람들과 더불어 진리들은 거짓들과 혼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은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것...그들이 재구성될 때 까지...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악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거짓들.

가려움 (itch)

신28:27-‘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을 ...가려움으로 치실 것이다. 궤양의 종류들, 즉 치질, 움, 가려움=악들로부터 오는 아주 많은 종류의 거짓들.

가루 (powder)

출32:20-‘가루가 되도록 갈았다’, 즉 가장 미세해지게 만들었다=지옥적인 즐거움으로부터 거짓을 형성하는 것. 고로 이 구절의 가루=지옥적인 거짓.

가루로 만들다 (grind)

* 맷돌(mill)을 더 보라

신23:1-출입금지=사랑과 선행에 속해 있는 것은 무엇 이든 거절하는 이들.

가루로 만들다-가르치다-가르침을 잘 받는

시2:9-‘쇠홀로 나라들을 찌부러뜨리는 것’=자연적 인간에 있는 악들을 매질하고 길들이는 것.

단7:7-‘그는 계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조각으로 부수었다’=그는 악용하고 파괴했다.

시44:19-‘당신께서는 용들의 장소에서 우리들을 지독하게 부수었습니다’

계2:27-‘질그릇 같이 그들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53:10-증가하는 시험들 속의 슬픔이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두들겨 맞아 약해지기를 원하셨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가르치다 (teach)

선생 (teacher)

가르침을 잘 받는 (teachable)

* learned을 보라, 그리고 instruct, prophet, shepherd도 참조.

* ‘예언자’=가르치는 자. 추상적으로는 교리 자체.

* ‘거짓 예언자’=거짓들을 가르치는 이들.

* ‘사냥하는 것’=가르치는 것, 또한 권유, 설득하는 것. 이는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또는 거짓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양쪽 모두를 의미한다.

예16:15,16-‘어부들’=감각적인 진리들로부터 가르치는 이들. ‘사냥하는 자들’=과학적인 진리들과 교리물들로부터 가르치는 이들. ‘모든 산 위에서, 그리고 모든 언덕 위에서’=선애 애착함에 있는 이들, 그리고 진리에 애착함에 있는 이들을 가르치는 것.

창37:2-‘양떼에 풀을 먹이는 것’=교회에 있는 이들을 교리물들로부터 특별히 가르치는 것.

율2:28-‘예언하는 것’=진리들, 또는 거짓들을 전파하거나 가르치는 것.

창37:7-‘곡식단을 묶는 것’=교리로부터 가르침.

삼하1:24-‘활노래를 가르치는 것’=사랑과 선행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

출4:12-‘나는 네가 말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진행하는 것. 그 이유가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안으로 흐르는 것. 그리고 주님의 신성에 관련해 서술될 경우, 진행되는 것.

출4:15-‘나는 네가 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신성이 행해지는 각각 그리고 모든 것에 (있을 것이다).

출24:12-‘나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적을 것이다’=기록과 정보를 위하여.

이28:26-‘고로 그분은 판단하도록 훈육하시고, 그의 하느님은 그를 가르치신다’=...그에게 총명을 주는 것,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는 것...

계2:20-‘내 종들을 피어내고 가르켰다’...‘가르치는 것’은 진리 또는 거짓 측면을 서술하고 있다.

*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기쁨이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을 가르치고 피어낸다.

눅13:26-‘거리에서 가르치는 것’=신앙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을 아는 것.

이54:13-‘여호와의 가르침이 있을 아들들’=새 천국과 새 교회에 있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을 것이다.

이9:15-‘거짓말을 하는 선생’=거짓들을 확증하기 위해 글자 의미로부터 과학물을 적용하는 수법으로 가르치는 이들.

이30:20-교리로부터 진리가 훈육됨이 ‘너희 눈은 내 선생들을 다시 쳐다볼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선생’=교리.

마23:8-‘너희는 랍비라 불리우지 마라. 너희의 선생,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랍비’, 그리고 ‘선생’=진리를 가르치는 자. 고로 추상적 의미에서 진리에 관한 교리. 그리고 최상의 의미에서 신성한 진리, 이는 ‘그리스도’ 이시다. (고로 이 말들은) 주님만이 신성한 진리이시다 (를 뜻한다).

시76:11-‘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오 여호와시여’=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

미4:2-그들을 이끌어야 할 진리를 가르치라는 것이 ‘그분은 그분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길들에서 갈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26:9-‘당신께서 땅에게 당신의 판결들을 가르치실 때, 세상의 주민들은 정의를 배울 것이다’=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리들을 통하여 선 안에 있다는 것.

가방 (bag)

막6:8,9-‘그들은 금, 은, 낚시, 가방, 또는 빵’을 그들과 더불어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주님 만으

가방-가버나움-가브리엘-가사-가슴

로부터 있는 선들과 진리들이었기 때문.

마10:9,10-주님으로부터가 아닌, 자아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이 '띠(girdle) 안에 있는 금, 은, 놋쇠', 그리고 '가방'을 소유함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눅22:36-'돈지갑을 가지고 있는 자,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가방도 마찬가지이다...'...'돈지갑' 그리고 '가방'은 영적 지식들, 고로 진리들을 의미한다.

눅22:36-'돈지갑과 가방을 가지고 있는 그는 자기로 그것들을 가지게 하라'=그리스도가 이런 것들을 쥐는다고 미리 말해진 말씀을 소유한 이들, 그들은 그것들을 잃는다는 것을 조심하라. 그 이유가 '돈지갑', '가방'은 그 안에 담긴 작은 돈(coin), 돈(money)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 즉 말씀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잃는다는 것.

가버나움 (Kapernaum, Capernaum)

마11:23-'가버나움'=가르쳐진 이들.

가브리엘 (Gabriel)

*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은 천사들의 사회를 일컫는 것일 뿐 천사 누구 한사람의 이름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능으로부터 그렇게 불리워진다.

눅1:19, 26-35-'가브리엘'은 여호와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입으신 인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이시다는 것을 말씀으로부터 가르치는 이들과 더불어 봉사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마리아에게 공표한 천사가 '가브리엘'로 불리워진다. 더 나아가 이 섬김들에 있는 그들이 천국에서 '미가엘', 그리고 '가브리엘'로 불리운다.

가사 (Gaza)

창10:19-'가사'=선행에 관련하여 제시된 일련의 사항들.

가슴 (breast, pap)

이60:16-'이방인들의 젖을 빼는 것, 그리고 왕들의 가슴을 (빼는 것)'=선들이 수여되고 진리들 안에서 훈육하는 것.

겔16:7-'가슴들이 견실하게 되어갔다'=자연적 선.

창49:25-'가슴들의 복'=선과 진리에 애착함들...'가슴들'=선과 진리에 애착함들. '가슴들'=이런 애착들인 이유는 가슴들이 대를 잇는 신체 기관과 교통되기 때문,

그러므로해서 결혼 사랑의 영역에 속하고...결혼 사랑은 선과 진리의 결혼에 상응하고, 또한 유아들이 가슴들을 수단으로 자양분이 먹여지기 때문. 이 애착을 통하여 가슴들은 후손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 결혼적 사랑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60:16-이런 애착들이 이 구절의 '너는 이방인들의 젖을 빨 것이다, 너는 왕들의 가슴들을 빨 것이다'에 있는 '가슴들'에 의해 의미되어있다. '왕들의 가슴들을 빼는 것'=진리로부터의 선. 그이유가 '왕들'=진리들이기 때문.

겔16:7-'그들의 가슴들이 견고하게 되었다'=선과 진리에 대한 내면의 애착들.

겔23:3-'그들의 가슴들이 눌러졌다'=선과 진리에 애착함들이 왜곡됨을 통하여 악용되었다.

호2:2-'가슴들 사이에서 간통함'=선과 진리에 애착함들이 섞여질됨.

호9:14-'마른 가슴들'=선과 진리에 애착함들이 없음.

이32:12-'뛰는 가슴 위에 자신을 졸라매는 것'=진리의 선이 잃어짐 때문에 슬픔에 있는 것.

계1:13-'금빛의 띠로 젖가슴을 묶는 것'=사랑의 선.

눅11:27,28-'당신을 낳은 자궁, 당신에게 젖을 물린 젖가슴은 복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행한자가 더 복있다 하고 말하였다.' '복된 자궁, 복된 젖가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주님의 답변으로부터 분명하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 고로 진리에 애착함,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선에 애착함, 이는 말씀을 지키는 자이다.

이60:16-'이방인들의 젖을 빼는 것'=천적인 선을 은근히 심어줌. '왕들의 가슴들을 빼는 것'=천적 진리를 은근히 심어 줌.

이66:2-'위로함들의 가슴들'=신성한 선...'가슴'=영적인 사랑.

시22:10-'어머니의 가슴들'=교회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영적인 자양분.

눅23:29-'젖을 물린 적이 없는 젖가슴은 복되다'=선행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짜 진리들을 가지지 않은 이들...'젖가슴'은 '젖', 즉 선으로부터의 진리와 비슷한 의미를

가슴-가슴(부위)-가슴받이

가지고 있다.

가슴(부위, breast))

* head도 보라.

출29:26-‘너는 가슴고기를 가져올 것이다’=천국들에 있는 신성한 영적 평면. ‘가슴’=선행으로부터의 선. 최고 의미에서 신성한 영적 평면.

출29:26,27-모세에게는 ‘가슴고기’가 그의 몫으로, 아론에게는 ‘어깨고기’가 주어진 이유는 ‘가슴고기’=주님의 영적 왕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 그리고 ‘어깨고기’=천적 왕국에 있는 신성한 선이었기 때문.

계1:13-신성한 영적 평면이 그분의 ‘눈’에 의해, 그리고 금띠를 두른 가슴에 의해 뜻해져 있다.

가슴 (bosom)

* ‘그분의 가슴에서 데리고 다니신다’는 그분의 사랑, 또는 자비를 서술하고 있다.

가슴받이 (breastplate)

출28:32-‘쇠미늘 갑옷(habergeon, coat of mail)’=강하게 함께 연결된 것.

예46:4-‘갑옷 (brigandine)’=싸우고 저항력이 강함. 갑옷이 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가슴을 에워싸기 때문, 그리고 싸우고 저항하는 모든 힘은 가슴으로부터 팔을 통하여 있기 때문.

* 에봇 위에 있는 가슴받이에 의해 신앙으로부터의 선, 또는 영적 선이 의미되어진다.

* ‘가슴받이’에 의해 천적인 것의 내부를 위한 덮개가 의미되어졌다.

출28:4-‘가슴받이’=신성한 선으로부터 빛을 발하는 신성한 진리...여기서, 천국들에서 가장 안쪽 것들로부터 점진적으로 최말단 것들에서 까지에 있는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가슴받이’가 이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것이 심장이 있는 가슴에 단단히 고정되기 때문, 그리고 귀한 돌(보석)로 채워져 있기 때문, 그리고 심장은 천적 선에 상응하기 때문. 그리고 열 두 보석들은 거기로부터 파생된 신성한 진리에 상응하기 때문. 이로부터 ‘가슴받이’는 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빛을 발하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 ‘판결의 가슴받이’라 불리었는데, 그 이유는 가슴받이가 답을 주었기 때문, 그 때문에 신성한 진리가 계시되

어졌다.

* 천적 왕국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가슴받이의 오른쪽 두 줄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그리고 영적 왕국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은 가슴받이의 왼쪽 두 줄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그이유가 가슴받이는 두 겹 정사각형이기 때문.

* ‘에봇’=영적 천국, 그러나 ‘가슴받이’=처음부터 마지막 까지에 이르는 천국 전체.

출28:22-‘너는 가슴받이 위에 작은 사슬을 끝 쪽에 만 들어라’=가장 바깥쪽 것들에서 천국 전체가 결합됨.

출28:23-‘너는 금으로 가슴받이 위에 두 고리들을 만들 것이다’=신성한 선의 영역(sphere), 이를 통하여 보다 더 높은 천국의 측면에 결합함이 있다. ‘가슴받이’=천국의 표현물.

출28:26-‘에봇 안쪽 근처에 있는 가슴받이의 가장자리’=천국의 중간 부분과 결합, 그리고 보존함.

출28:25,26,27-어깨 조각 위쪽에 가슴받이가 결합함은 천적 선들과 진리들이 거기서 보존됨을 표현한다. 에봇 안쪽 근처 가장자리에 결합함, 또는 중간 부분에 결합함은 영적 선들과 진리들의 보존을 표현한다. 그리고 벨트 위에서 접합하는 마주 보는 어깨 조각 아래쪽에 결합함은 앞의 두 천국으로부터 진행되는 자연적 선들과 진리들을 보존함을 표현하고 있다.

출28:28-‘가슴받이는 에봇으로부터 분리된채로 있지 않을 것이다’=천국의 모든 것들은 영적 왕국의 외적인 것들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가슴받이’=천국의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물.

출28:29-‘판결의 가슴받이에서’=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빛을 발하는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천국의 표현물.

출28:30-‘너는 우림과 둠뭉을 판결의 가슴받이에 놓을 것이다’=최말단 것들에서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가 빛을 발함.

가슴 받이(chest, breastplate)

계9:9-‘철로 된 가슴받이’=진리의 나타남을 생산하는 와적인 것들.

계9:17-‘불과 풍신자석과 유황으로 된 가슴받이들’=악마적인 사랑들의 악들로부터 있는 거짓들을 방어함.

가시-가시나무-가시덤불-가위-가을

가시 (thorn, thorny)

* 엉킴과 찢레나무도 참조

*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들'=악들 (=악의 탐욕).

예12:13-'가시들을 거두어 들임'=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속에 있는 악과 거짓들. (=거짓으로부터의 악들)

출22:6-'만일 불이 가시 나무에 붙게 되면'=그 자체 거짓들 안으로 주입되는 (악한 애착으로부터 오는 분노).

시118:12-'가시들의 불'=악의 탐욕.

마7:16-'가시들로부터 포도들을 거두는 것'=탐욕의 거짓들로부터 신앙과 선행의 선들을...

호2:6-'가시들로 길에 장애물을 놓는 것'=악의 거짓들을 수단으로 모든 생각들에 장애물을 놓는 것.

눅6:44-'가시들과 '가시나무 수풀'=악들은 이런 선들에 반대됨.

겔2:6-그들은 어떤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집세고 가시 많다' 라고 불리운다.

민33:55-'그들은 네 눈에 가시로 있을 것이다'=악의 품은 거짓들은 교회 속의 진리들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호9:6-'가시들이 그들의 천막 안에 있을 것이다'=예배 안에 있는 악의 거짓.

이34:13-'가시들이 그녀의 궁전에서, 엉킴과 찢레나무가 그녀의 견고한 성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그들이 있는 거짓들과 악들이 '가시들', '엉킴', '찢레나무'로 의미되고 있다.

이32:13-'찢레나무의 가시들'=악의 거짓.

호9:6-거짓의 악들이 그들의 모든 선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 '가시가 그들의 성막에 있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가시나무 (bramble)

사9:7-15-'가시나무'=가짜 선. (=거짓의 악이 그들에게 선인 양 나타남)

출3:2-'가시나무 덩굴의 한가운데로부터 불의 불꽃에서'=과학적 진리에 있는 신성한 사랑...'덩굴'=과학적 진리

* '덩굴이 불에 타고 있었다'=과학적 진리가 신성한 사

랑의 선으로 가득차 있었음을 지각함.

* '그리고 덩굴은 전혀 살라지지 않았다'=신성한 진리가 자연 안에서 신성한 선에 합일되었다.

* 주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덩굴'=신성한 사랑.

눅6:44-'그들은 가시나무덩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한다.' '가시들과 가시나무 덩굴'=(외적 인간의 선과 내적 인간의 선에) 반대되는 악들.

이9:18-'엉킴과 가시들'=거짓과 탐욕.

이7:24-'엉킴과 가시들'=악으로부터 거짓, 그리고 '가시들'=거짓으로부터 악

이5:6-'올라 갈 엉킴과 가시'=악의 거짓들.

가시덤불 (thorn-thicket)

예4:7-'가시덤불로부터 사자가...'=악으로부터의 거짓.

이7:24-'찢레나무와 가시덤불'=거짓과 악.

이10:17-'가시덤불과 찢레나무'=교회의 교리 속의 악들과 거짓들.

가위 (scissors)

* 시민적 생활의 진리.

가을 (autumn)

* 주님의 교회는 하루 속의 때들, 일 년 속의 계절들, 금속들에 비교되어 말해진다. 그 중 계절의 경우, 이 교회의 첫 시기는 모든 것들이 꽃피우는 봄에, 그리고 이 교회의 마지막에 앞서 있는 시기는 모든 것들이 비활동적인 시기, 가을에 비교된다. (창15:2의 '해가 저물자...'도 참조)

* 선 안에서 살았던 이가 자기의 자아(proprium) 쪽으로, 뒤로 가는 것을 내버려둘 때, 이는 마치 침수되어진 듯 나타난다. 이런 상태가 영들의 세계에서 저녁, 또는 가을이다.

* (가을과 저녁에 관한 생각들이 천사들과 더불어서는 그들이 셋째 상태 안에 있을 때, 사랑과 지혜에 관한 생각들로 바뀌어진다.)

예48:32-제거되어져왔던 선, 이것 때문에 애곡함이 있는바, 이것이 '가을의 열매들'에 의해 뜻해진다.

예48:32-'가을의 열매들'에 의해 교회의 선들이 의미되어진다.

가인 (Cain, Cainite, Cainan)

*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으로부터의 교리가 '가인'이

가인-가장 높은-가장 좋은

라 분리워진다.

*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으로부터의 예배가 '가인'의 공물(offering)'로 묘사되어 있다.

* 분리된 신앙 속에 있던 이들의 상태가 악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이 '분노가 지퍼짐', 그리고 가인이 지닌 '얼굴이 땅으로 떨거짐'에 의해 묘사되어져 있다.

* 신앙이 다침을 당하지 않게 만듬이 '가인에게 놓인 표시'이다.

* 이교들과 종파들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이름 아래 취급되어진다.

* 고로 교리를 거짓화시키는 이들, 사랑으로부터 신앙을 분리하는 이들, 또는 믿음 만을 고백하는 이들이 '가인'이라 불려졌다.

* (태고 교회의) 첫 자식, 또는 첫 출생이 신앙이다, 여기서 이것이 '가인'이라 분리워진다.

창4:1-'나는 남자, 여호와를 얻었었다'='가인'이라 불려왔던 이들과 더불어 알려진 신앙은 단독적인 것인듯 인정되어졌다는 것.

창4:5-'분노가 가인 안에서 지퍼졌다'='선행이 분리되었다'.

창4:8-'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시간의 간격; '가인'='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창4:8-'가인이 아우 아벨을 향해 일어나 그를 죽였다'='분리된 신앙이 선행을 소멸했다'.

*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베레스와 세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로부터의 의미들은 평행적으로 끌어내린다)

창4:15-'가인을 죽이는 모든 사람 각각은 일곱 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고로 분리된 신앙은 범할 수 없게 붙잡아지게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표시를 놓아 누구도 그를 쳐죽이지 않도록 하셨다'='주님께서는 분리된 신앙이 보존되게 하시는데 있어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시어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

가장 높은 (highest)

단8:23-'위법자들이 그들의 높이에 당도할 때'='진리와 선은 더 이상 없고, 오직 거짓과 악만이.

*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가장 높은 것은 신성한 인간이다...그리고 이로부터 교회의 교리물 사이에 가장

높은 것은 그분의 인간이 신성이시다는 것이다.

창40:17-'가장 높은 바구니 안에'='자발적 측면의 가장 안쪽... '가장 높은'='가장 안쪽...공간에 있는 인간과 더불어 내면적인 것들은 더 높은 것들로 나타난다...그러나 공간에 대한 생각이 중단될 때...마찬가지로 높고 깊은 것에 대한 생각도 (중단된다)...참으로 내면적 천국에서는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 이유는 이런 생각은 공간에 기울어 있기 때문. 그러나 더 완전하고 더 불완전한 것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그 이유가 내면적인 것들은 외면적인 것들 보다 더 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 그리고 내면적인 것들은 신성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것이 가장 높음=가장 안쪽이다 말해진 이유이다.

*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 또는 첫째와 마지막, 동등하게=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 또는 부분들을 함께 전체.

* 주님을 사랑함은 보편적 사랑이다...그이유가 그것은 인간과 더불어 가장 높은 것들에서 주재하기 때문, 그리고 가장 높은 것들은 더 낮은 것들 안으로 흘러든다, 그리고 그것들을 생기 있게 한다.

가장 좋은 (best)

창47:6-'토지의 가장 좋은 곳에서 네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게 하라'='그들은 과학물 한가운데에서 살리라는 것. '가장 좋은 토지'='자연적 마음의 가장 안쪽, 거기에 과학물이 있다... '가장 좋은'='가장 안쪽인 이유, 시야 아래 직접적으로 간직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그이유가 눈은 가장 기뻐하고 애착이 가는 것에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 이것이 가장 안쪽인 이유는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 고로 눈 앞에서 이것은 가장 큰 빛에 있습니다.

출22:4-'그는 자기 소유 들뜰의 가장 좋은 것, 자기 소유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값을 것이다'='되돌림은 아직 온전해 있는 선들과 진리들로부터... '가장 좋은'이라 불리는 것, 이는 소실된 후 여전히 온전해 있다.

가짜의 (spurious)

신23:2-'사생이는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9:7-15-'가시나무, the thorn'='가짜 선

가재도구 (household stuff)

가짜의-가재도구-가져가다 -가져오다-가족

창45:20-‘너희 눈이 너희의 가재도구를 아끼려 하게 말라’=수단이 되는 것들은 관심의 문제가 아니다. ‘가재 도구’, 또는 그릇들=수단이 되는 것들.

가져가다 (take)

(손에) 가지다 (take)

창3:22-‘생명들의 나무를 가져가고, 그리고 먹는다’=사랑과 신앙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 인정하기 까지 한다는 것.

창5:24-‘그는 더 이상 있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가져갔기 때문이다’=후세의 사용을 위하여 그 교리는 보존되어졌다.

창6:21-‘너는 먹어야 하는 모든 식품을 내게로 가져가라’=선들과 즐거움들.

창34:2-‘그는 그녀를 데려갔다, 그리고 그녀와 누웠다’=...결합되는 것...

요3:27-‘천국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

가져 오다 (bring)

데려 오다 (bring)

창30:14-‘그는 그것들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지고 왔다’=외적 진리에 애착함에 적용함. ‘가져오는 것’=적용, 신청

창42:37-‘만일 제가 그를 당신에게 데려오지 않는다면’=매개체가 결합되지 않으면...‘데려 옴’=결합되어짐.

창43:17-‘사람(하인)은 요셉의 집으로 사람들(요셉 형제들)을 데려왔다’=영적 왕국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선 안에 처음 입장함.

창43:18-‘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데려와졌기 때문에’=자연 평면 속에 있는 진리들이 내적인 것에 인접하고 종속되었다는 것...‘데려와짐’=인접되어짐, 그리고 데려와짐=인접됨이기 때문에 데려와짐=종속되어짐이다.

출2:9-‘이 아이를 내가 데려 가져라’=그녀는 자신에게 그것을 인접하게 한다는 것. ‘데려 감’=인접함.

출19:4-‘나는 너를 나에게 데려 왔다’=사랑의 선 쪽으로, 이는 천국에 있다...그 이유가 인간은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선 쪽으로 데려와지기 때문.

출21:6-‘주인은 그를 하나님에게 데려 올 것이다’=신성한 명령에 따라서 그가 들어가는 상태...‘데려오는

것’=들어가는 것.

출22:7-‘집의 주인은 하나님에게 데려와져야 할 것이다’=선으로부터 조회함. ‘하나님에게 데려와지는 것’=조회가 만들어지기 위하여.

계21:24-‘땅의 왕들이 그것 안으로 영광과 영예를 가져 올 것이다’=영적 선으로부터 지혜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은 거기서 주님을 고백하고 자기들과 더불어 있는 모든 진리들과 모든 선은 그분의 덕분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가족 (family)

창8:19-‘그들의 가족들(종족)에 따라’=쌍들...모든 것들이 지금 종족을 표현하도록 질서대로 환원되고 있다. 거듭나는 사람과 더불어 선들과 진리들은 상호 관심을 가지는바 마치 한 줄기로부터의 가족 같다.

창10:5-‘그들의 가족(가문)에 따라’=각각의 성실에 따라서.

창10:20-‘그들의 가족들에 따라서’=그들의 품행에 따라서.

창10:31-‘그들의 가족들에 따라서’=선행에 관련한 그들의 차이에 따라서.

창10:32-‘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다’=세부적 측면에서 고대 교회의 예배들...가족들을 뜻하는게 아니라 영적, 천적인 것에 속한 것들.

창12:3-‘네 안에서 지면의 모든 가족들은 복있을 것이다’=모든 선들과 진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다는 것...‘가족들’은 나라들, 백성들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창24:38-‘내 가족에게’=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

창28:13-‘네 안에서 지면의 모든 가족들은 복될 것이다’=교리로부터의 선의 모든 진리들은 선과 결합할 것이다..‘가족들’=선들, 그리고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출12:21-‘너희 가족들에 따라’=각각의 진리의 선에 따라. ‘가족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관해 말할 때, 이들에 의해 영적 교회=진리로부터의 선들이 의미되어진다.. (그이유가) ‘가족들’은 진리를 통하여 선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 이는 진리로부터의 선이다.

가족 (skin)

* 피부 참조

창3:21-‘그분은 (그들)을 위해 가죽 코트를 만드셨

가족-가족끈-가지

다'=영적, 자연적 선에서 그들을 가르침...일반적인 술어 가족이 여기서 사용되나, 이것은 염소, 양, 숫양의 가족을 암시하는 바, 이런 동물=선, 선행에 대한 애착, 그리고 선행으로부터의 것들.

창27:16-'염소들 새끼의 가족들'=길들여진 선으로부터의 외적 진리들; 그 이유는 '가족들'=외적인 것들...그 이유는 그것들이 동물의 가장 바깥이기 때문. 여기에서 내면의 것들이 종결된다. 이는 인간을 예로 삼아도 마찬가지. 이 의미는 저세상에서의 표현으로부터 파생된다. 피부의 영역에 있는 이들은 외적 선과 진리들만을 가지기 때문.

출25:5-'붉은 숫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외적인 선들과 진리들, 이를 수단으로 그것들은 다함께 붙잡혀 있다; 그 이유가 '가족들'=외적인 것들

출29:14-'그것의 가죽'=최말단에 있는 거짓인 것; 그 이유가 '가죽' 또는 '피부'=최말단에 있는 참된 것...그 이유가 장엄한 사람 안에서 가죽에 관계 있는 이들은 신앙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그들은 상응하는 선이 그다지 많지 않은 이들, 이들은 천국 문간 입구에 있는 이들, 이로부터 가족은 추상적 의미에서 최말단에 있는 진리가 의미된다. 이 구절의 경우 '가죽'=거짓인 것인 이유는 '살'=악의 사랑일 때, 그것의 가죽=그로부터 신앙 속의 거짓인 것 때문.

가죽 (leather)

왕하1:8-'그의 허리 둘레에 가죽 띠를...'=선들에 관련한 글자적 의미.

마3:4-'...가족으로 된 띠'=외적인 진리.

* '가족'=외적인 것; 고로 '가죽 띠'=내적인 것을 함께 연결하여 붙잡는 것...

가족끈 (latchet)

창14:23-'끈으로부터 신발의 가족끈에 이르기 까지...'=불결한 자연적, 육체적이었던 모든 것들. '신발의 끈'에 의해 거짓인 것이 의미된다. 그리고 '신발의 가족 끈'에 의해 악인 것이 의미된다. 이것은 모든 것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아주 작은 것(가치)을 암시하기 때문.

가지 (branch)

마13:32-'가지들'=과학물들.

말4:1-'뿌리와 가지'=선행과 진리.

겔31:10-'수풀 사이에 가지를 주는 것'=과학물로부터 추론하는 것.

마24:32-'그의 가지가 연하여 지는 때...'=새로운 교회의 처음. '무화과 나무'=자연 평면에서의 선. '가지'=이 선에 애착함.

겔19:10-영적 교회가 '포도나무'에 비교되어진다. 그리고 이 교회의 갈래들이 묘사되는데, 자연적 인간의 최말단에 까자조차, 즉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과학물에 가지, 이것이 '영겨진 가지들'이다.

겔36:8-거듭남이 '가지를 주고 열매를 맺는'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레23:40-과학적 진리가 '두꺼운 나무의 가지'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막11:8-'나무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과 지각들. '가지들'=진리 자체.

겔31:5-'가지들'=확장.

겔36:8-'가지'=신앙 속의 진리.

겔19:14-'가지들로부터의 막대'=악이 들어 있는 교리로부터의 거짓.

이19:15-'가지'=영적 진리.

호14:6-세제 상태가 "그의 가지들이 나올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이를 수단으로 과학적 진리와 지식들이 붙어남이 의미되어져 있다.

겔31:9-'가지들이 붙어남을 통해 그들은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합리적으로 지각된 과학적 진리들이 풍부함.

겔31:12-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진리들이 악과 거짓들을 통하여 사라졌음이 '산들 위에, 골짜기 에 그의 가지들이 떨어졌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가지 (spathe)

레23:40-신앙으로부터의 선이 '종려들의 가지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 선으로부터의 내적 진리들.)

가지고 있다 (have)

마13:44-'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파는 것'=그가 전에 가졌던 자아를 멀리하는 것.

눅18:22-'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분배하라'...=자기 소유의 속성(Own), 이는 악

가지고 있다-(손에)가지다-가축때

들과 거짓들 밖에 없는바 멀리해야 한다는 것. 그이유가 이것들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기 때문.

계2:6-'이것을 너는 가지고 있다'=진리들로부터 그들은 알고 있으나 그것으로부터 뜻함은 없다....'그들은 이런 일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해짐은 교회의 교리 속의 진리들로부터 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진다.

마13:12, 막4:25, 마25:28,29, 눅19:24-26-이 구절들은 주님이 말하시는 황폐함과 극점(종말)이다;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에게 주어서 더 풍부해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가진 것 마저 그로부터 거두어질 것이다'...'가지고 있는 모든 이 각각에게는 풍부해지도록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않은 자는 그가 가진 것 마저도 그로부터 거둘 것이다.'

계2:25-'내가 올 때 까지 내가 가진 것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주님이 방문하실 때 까지 뿐만 아니라 영구히 사랑의 선과 신앙의 선의 상태 안에 있으라는 것.

계3:11-'네 가진 것을 단단히 붙잡으라'=끝판에 까지 조차 선행으로부터의 신앙의 상태 안에 영구히 머물라는 것.

마5:23-'너를 향하여 얼마큼을 가지는 것'=분노, 적개심, 미워함...

마10:14-'너를 데려가지(영접하지) 않는 것'...'영접 않는 것'=신앙의 진리들을 거절하는 것.

(손에) 가지다 (take)

*가져가다(take)를 보라.

가축때 (cattle)

* 소떼(cattle)도 참조.

창22:7-'태워 바침을 위한 가축은 어디 있습니까?'=신성해지게 할 인류로부터의 이들은 어디 있는가?

창22:8-'아브라함이 말했다, 하느님이 태워 바침을 위한 가축을 그분 스스로 보실 것이다'=신성한 인간이 신성해지게 될 이들을 설비하신다.

창29:7-'가축때를 그러모아야 할 시각이 아니다'=교회의 선들과 진리들, 그리고 교리적인 것들 속의 선들과 진리들이 아직은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가축때'=교회의 선들과 진리들, 그리고 교리적인 것들 속의 선

들과 진리들, 그이유는 표현 교회의 의식들, 그리고 말 씀에서 있는 동물들,=선에 애착함들, 또는 진리에 애착함들.

창30:32-'일룩지고 반점 있는 가축때를 옮길 것이다'=선하고 참된 모든 것은 악과 거짓과 혼합됨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출12:3-'그들은 자기들에게 각자 가축을 가져올 것이다'=순진에 관련하여, 이는 여기서 말하는 가축은 어린 양, 암염소인 것으로부터 순진에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

출12:3-'조상의 집으로, 집을 위해 가축을'=각각의 특별한 선에 따라서.

출12:4-'만일 가축 한 마리에 비해 그 집이 너무 작다면'=만일 세부적인 선이 순진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면...'소떼'=순진.

출12:5-'은전한 가축'=오점 없는 순진. '가축'=순진.

출13:13-'가축'=순진의 진리. 그이유는 '가축'에 의해 어린 양, 또는 새끼들을 뜻하기 때문.

출22:1(또는 21:37)-'사람이 소나 가축을 훔칠 경우'=누군가로부터 그의 외면이나 내면의 선을 가져가버리는 자.

출22:1(또는 21:37)-'(훔친) 가축 한 마리 당 네 마리(로 배상하라)'=상응하는 처벌이 충분하도록...'가축'=내면의 선.

출22:4(또는 22:3)-'가축까지도'=만일 내면의 진리와 선으로부터이다. '가축'=영적 진리와 선, 고로 내면의 진리와 선. 말씀 안에서, '양떼들, flocks', 때로는 '가축때, cattle'들의 언급이 있다. 그리고 내향의 의미에서 '양떼들'은 내면의 선들과 이 선들로부터의 진리들, 그리고 '가축때'는 내면의 진리들과 이 진리들로부터의 선들이 의미된다. 거듭남의 후기 상태가 위의 양떼에 의해, 거듭남의 전기 상태는 위의 가축때에 의해 의미된다.

이22:13-'황소를 죽이고 가축때를 살육하는 것'=자연적 선과 영적 선을 꺼지게 하는 것.

율1:18-'가축때의 양떼들은 황무해진다'=신앙과 선행 속에 있는 영적 진리와 선이 결핍된다.

가축의 떼 (herd)

창18:7-'아브라함은 가축의 떼 쪽으로 달려갔다'=자연

가축의 떼-가치 없는-가치 있는-간음

적 선...가축의 떼에 속하는 수소와 거세한 소의 의미로부터.

신32:14-'가축의 떼의 버터'=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천적인 것.

* '가축의 떼'=외면의 선 또는 자연적 선.

창32:7-'그는 가축의 떼를 ...두 진영으로 갈랐다'=에서에 의해 표현된 선을 받기 위하여 자연에 있는 선들을 배치하고 준비함. '가축의 떼'=외면의 선들, 또한 비-선들(non-goods)

창50:8-'그의 가축의 떼'=선행의 실시...'가축의 떼들'=선행으로부터의 외면의 선들, 고로 선행의 실시.

가축의 떼 (drove)

창29:2-'그것 근처에 양의 세 떼들이 누워 있었다'=교회의 거룩한 것들, 그리고 교리적인 것들 속의 거룩한 것들...'양의 떼들'=교회 속에 있는 이런 것들, 고로 교리적인 것들.

창29:2-'그 이유가 이 우물로부터 그들은 가축의 떼들에게 물을 먹였기 때문'=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가축의 떼들'=교리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창29:3-'그리로 모든 가축의 떼들이 모였다'=모든 교회들 그리고 교회로부터 파생된 모든 교리적인 것들..

창30:40-'(야곱은) 자기 만을 위한 가축의 떼들을 자신을 위해 두었다'=자신의 힘으로부터 선들과 진리들을 분리함. '가축의 떼들', 양떼에 관해서 아는 것=선들과 진리들.

창32:16-'(야곱은) 가축의 떼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그의 종들의 손에 주었다,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말했다, 나 앞서 건너거라, 그리고 각 가축의 떼들 사이에 간격을 두거라'=어떻게 그들이 개시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령함...'가축의 떼'=과학물들, 또한 지식들, 고로 교리적인 것들. 이것들이 외적 인간 안에, 즉 기억 안에 머무는 한, 그것들은 그의 종들의 손에 주어진 가축의 떼들에 의해 의미된다. '각 가축의 떼들 사이에 간격을 둬'=받아지게 되는 선을 위하여 방법을 준비하는 것.

율1:18-'양의 떼와 목축의 떼들'=내면의 선들과 외면의 선들.

가치 없는 (unworthy)

* 자기는 지독하게 가치 없다는 것을 말해야 할뿐이나

라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 성찬에서 무가치하게 빵을 먹는 자는 악을 자기 것 되게 한다.

시31:9-이해성의 내면의 것들이 거짓들을 통하여 멸해질 때, '무가치함과 더불어 파멸된다'고 말해지고 있다.

가치 있는 (worthy)

창49:3-'능력이 특출하다'=힘...그이유는 능력있는 자는 힘이 있기 때문.

간음 (adultery)

예29:23-'동료의 아내와 간음을 범하는 것'=그것들로부터 똑같이 거짓인 것을 가르치는 것.

민5:21,27-'눕적다리가 타락함(falling)'=결혼적 사랑의 악, 또는 간음.

민22:4,7-'모압', 반대 의미에서=선들에 섞음질하는 자.

출26:10,11-'...와 눕는 것'=뒤집어지는 것, 섞음질하는 것.

* 선에 대한 섞음질이 '간음'에 의해 이해된다, 그리고 진리를 거짓화함은 '매춘'에 의해 이해된다.

호4:13-'매춘을 범하는 것'=진리들을 거짓화하는 것, 그리고 '간음을 범하는 것'=선들을 변질되게 하는 것.

창35:21,22-'간음을 범하는 것'=선들을 변질되게 하는 것, 또는 섞음질하는 것.

출20:13-'너는 간음을 범하지 말라'=신앙과 선행의 것들을 변질되게 하지 말라는 것. 즉 말씀이 거짓들과 악들을 확증하는 데 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또는 질서의 법들이 거꾸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것.

예29:13, 13:25,27, 3:1,2,6,8,9, 이57:3-5, 23:17-'간음을 범하는 것'=자신의 심정, 즉 자아로부터, 또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 말씀 속의 진리들을 설명하거나 곡해하는 것.

겔16:15-17,20,26,28,29, 23장-'간음을 범하는 것'=선과 불법으로 결합함.

* '너는 간음을 범하지 말라.' 간음을 범함이라는 말을 두고 사람들은 그것이 간음을 범하는 것, 매춘을 범하는 것, 외설적인 것들을 하는 것, 음탕한 것들을 말하는 것, 섹욕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 등등으로 이해한다. 영적 왕국의 천사의 경우, 그들은 이 말을 두고 말씀

간직하다

속의 선들에 섞음질하는 것, 말씀의 진리들을 거짓되게 왜곡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천적 왕국의 천사들의 경우, 그들은 이를 두고 주님이 신성하심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모독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계2:20-‘매춘을 범하는 것’=선들이 변질되게 된가를 섞는 것, 그리고 말씀 속의 진리들을 왜곡하는 것. 선행이라는 일조차 배척하기 까지 이르는 믿음만을 확증한 이들이 아들과 어머니의 간음의 욕망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말씀에서 르우벤과 빌하의 간음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호3:1,2-‘여인 간음녀’=진리를 거짓화 함.

계14:4-‘여인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그들은 교회 속의 진리들에 섞음질하지 않았다.

계17:1-‘나는 큰 매춘부가 심판되는 것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말씀 속의 진리들을 모독하고 섞음질하는 이 광신적 신앙에 관련한 계시.

계17:2-‘그들과 더불어 땅의 왕들은 매춘을 범하였다’=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있는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에 섞음질 했다. ‘매춘을 범하는 것’=진리에 섞음질하고 왜곡하는 것.

계17:2-‘땅의 거주민들은 그녀의 매춘짓의 포도주를 마셨다’=이런 광신적 신앙심을 지닌 이들이 말씀에 섞음질하므로 야기되는 영적인 것들의 사악함. ‘매춘’=말씀에 섞음질함과 거짓화함.

예23:14, 29:23-‘간음을 범하는 것’=진리들을 곡해하는 것.

이23:9,10-‘간음자가 가득한 토지’=교회에 있는 선이 모두 섞음질되고 진리는 거짓화 함.

* ‘간음을 범하는 것’=선과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모독하는 것.

호7:3-8-‘간음을 범하는 것’=악들과 거짓들에 의해 말씀 속의 선을 변질되게 하는 것.

예3:9-‘돌과 나무를 가지고 간음을 범하는 것’=바깥쪽 예배의 선들과 진리들을 변질되게 하는 것.

간직하다 (keep)

준수하다 (keep)

보존하다 (preserve)

* 지키다(guard)도 참조

계1:3-‘거기에 씌어진 것들을 간직하는 것’=그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

계3:10-‘네가 내 인내의 말들을 준수했기 때문에’=그들은 악들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다음 거것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계3:10-‘나는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너를 간직할 것이다...’=그들은 최후 심판의 날에 보호되고 보존될 것이다.

계16:15-‘깨어 있어 자기 의복을 간직하는 자는 복이 있다’=...그분을 바라보는 이들을 위한 천국, 그리고 그분의 교훈들에 의거한 삶 안에 남아 있다.

계22:7-‘이 예언의 말들을 준수하는 자는 복이 있다’=주님께서는 이 책의 교리의 진리들을 간직하고 행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계1:3-‘간직하고 준수하는 것’=지각하고, 뜻하고 행동하는 것.

계3:10-‘너는 내 인내의 말을 준수했다’=주님의 교훈에 따라서 살았던 이들...‘준수함’=사는 것.

이56:6-‘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주님과 결합한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간직하는 것’=주님의 가르침에 따른 생활로 결합함.

예33:16-‘그다음 유다는 구원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확실히 거주할 것이다’=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구원될 것이다.

이19:20-‘보존자와 군주’...주님은 사랑의 선으로부터 ‘보존자’, 또는 ‘구세주’라 불린다. 그리고 신앙의 진리로부터 ‘군주’라 불린다.

예46:27, 30:10-‘그들을 먼 곳으로부터 간직할 것’=비록 그들이 구원으로부터 멀다 해도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 ‘포로된 토지로부터 간직하는 것’=천국과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로부터 격리되게 했던 거것들로부터 해방하는 것.

요8:52-‘만일 누군가가 내 말을 간직한다면, 그는 죽음을 결코 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들을 간직하는 것’에 의해 주님의 가르침들에 따라 사는 것이 의미되어진다.

계16:15-‘그리고 자기 의복을 간직하는 것’=그분의 신성한 진리들에 따라 사는 것.

간장-간통-간통하다

요14:23, 15:10-‘내 교훈을 간직하는 것’, ‘말들’, 그리고 ‘명령들’=선행의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웃에게 유용함이다.

간장 (liver)

출29:13-‘간 위에 있는 대망막’=외적 인간의 내면의 선...‘간’에 의해 내면적 깨끗해짐이 의미된다. 그이유가 간은 피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

간통 (fornification)

마19:9-‘간통한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데려온 자는 누구든지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진 이유는 ‘간통’=거짓, 그리고 여인과 더불어서, 악과 거짓에 대한 애착이기 때문. 고로 이 애착은 진리와 선에 대한 이해와는 결단코 일치 않는다.

간통하다 (scortate)

음행 (fornification)

행음 (fornification)

* 매춘부(harlot)도 참조.

계14:8-‘간통의 포도주’=섞음질된 신앙의 진리들.

레21:9-(성직자의 딸에 의해 저질러진) ‘간통’=선을 모독하는 것,

호4:13-악한 생활이 ‘너희 딸들이 음행한다’에 의해 의미되고, 악한 생활로부터의 거짓된 교리는 ‘네 머느리가 간음을 범한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호4:12-‘간통의 영’=악으로부터의 거짓으로 생활함.

창38:24-‘다말이...간통했다’=결혼적인 어떤 것이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간통’=허위...유대 국가는 교회의 내적인 것이 매춘부로서 밖에 달리는 지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생활도 간통과 다르지 않았다.

창38:24-‘그녀는 간통짓을 해서 아이와 함께 있다’=거기서부터 어떤 것이 생산되어질 수 있다는 것...‘간통’=그들의 광신적 신앙심으로부터의 허위.

계9:21-‘간통들’=왜곡한 진리들.

호9:1-‘간통하는 것, 그리고 매춘 샅을 사랑하는 것’=진리들을 거짓화하는 것, 그리고 왜곡된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

나3:4-‘매춘의 간통’=왜곡 자체 (=왜곡된 진리의 선). (=진리의 남용).

신22:20,21-‘만일 처녀임이 그녀에게서 발견되지 않으면 결혼한 소녀를 돌려 쳐죽이는 이유는...’간통’이 진리의 왜곡, 고로 그것이 파괴됨을 의미하기 때문...영적 간통은 진리의 왜곡이다.

계22:15-‘개들, 마술쟁이들, 색골들’=신과 신앙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들. 이들은 천국 ‘밖에’ 있다라고 말해진다.

겔23:3-‘이집트에서 간통하는 것’=과학물을 통하여 진리들을 왜곡하는 것.

겔16:26-‘살(flesh)에서 큰 이집트의 아들들과 간통하는 것’=자연적 인간 만으로부터인 과학물을 통하여 교회의 진리들을 왜곡하는 것.

출34:15-‘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매춘 짓을 한다’=그 결과 악으로부터의 거짓...그이유가 ‘매춘 짓을 하는 것 (간통하는 것)’=불법적으로 결합되는 것. 그리고 ‘나라들의 신들’=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출34:16-‘그리고 그들의 딸들은 자기들의 신들에 따라 매춘 짓을 한다, 그리고 네 아들들로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매춘 짓하게 한다’=선과 진리의 모독. (그 이유가) ‘간통’=불법적 결합(이기 때문).

계2:14-‘발람이 간통 짓을 가르쳤다’=위선적인 일들, 그리고 이를 수단으로 하느님의 예배가 섞음질 된다... ‘간통을 범하는 것’=예배에 섞음질하고 악용하는 것.(=진리들을 왜곡하는 것)

계2:20-‘(이사벨은) 내 종들을 가르쳐 피어서 간통 짓하게 했다’=이로부터 말씀의 진리들은 왜곡되어졌다... ‘간통을 범하는 것’=말씀에 섞음질하고 왜곡하는 것. 이것이 ‘간통’에 의해 의미되는 이유는 말씀의 각각의 것들에는 선과 진리의 결혼이 있기 때문, 그리고 이 결혼은 선이 진리로부터 분리되고 거두어질 때 깨어진다. 이로부터 ‘간통하는 것’=선들에 섞음질하고 말씀 속의 진리들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영적 간통인바, 자기 고유의 추론으로부터 말씀을 왜곡했었던 이들은 사후 간통자가 된다.

계2:21-‘나는 그녀가 자기의 간통을 회개할 시간을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믿음 만으로)라는 이 교리에서 자신을 확증했었던 이들은 설사 말씀 안에서 자기들 교리에 반대되는 것을 보더라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갈고리-갈대-갈대아-갈라 -갈라진 틈-갈렘

것. '간통으로부터 물러서는 것'=여기서의 경우, 말씀을 왜곡함으로부터 물러서는 것.

계9:21-'그들은 자기들의 간통을 회개하지 않았다' (진리를 왜곡함으로부터 실제로는 돌아서지 않았다)

계14:8-'그녀의 간통의 노염의 포도주'=말씀의 모독들, 그리고 교회의 선과 진리에 섞음질 함...'간통'=진리를 왜곡함. '간통의 노염'=섞음질과 모독.

계17:2-'이들과 더불어 땅의 왕들은 간통 짓을 저질렀다'=말씀으로부터 있는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에 섞음질했다는 것. '간통하는 것'=진리들을 왜곡하고 섞음질하는 것.

계21:8-'그리고 살인자들과 간통자들' 등등=십계명의 교훈들을 무용지물되게 한 이들.

계22:15-'간통자들...밖에 있다'=십계명의 가르침들을 무용하게 만든 이들은 누구도 새 예루살렘 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갈고리 (hook)

출26:6-'너는 금으로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 것이다'=선으로부터 결합하는 충분한 능력...'갈고리들'=결합하는 능력. 그 이유가 결합하는 능력은 그것들의 형체로부터, 즉 뒤로 구부러지거나 안으로 굽어진 형체로부터 그들 안에 있기 때문

출26:10-'너는 놋쇠로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 것이다'=외적 선과 결합하는 충분한 능력.

출26:33-'너는 갈고리들 아래 베일을 줄 것이다'=능력, 이로부터 결합의 현실성..

겔19:4-'이집트의 토지 안으로 그는 갈고리를 사용하여 데려가졌다'=거짓인 것을 통한 과학적인 것.

암4:2-'고기를 갈고리로 끌어내는 것'=감각의 오류를 수단으로, 이로부터 감각적 인간은 추론한다.

이19:8-'개천에서 갈고리를 던지는 모든 이가 슬플 것이다'=자연적 인간을 개혁하려고 진리들을 수단으로 가르치는 이들은 노동이 헛될 것이다.

겔29:4-'나는 네 턱에 갈고리를 놓을 것이다'=그가 응징되어지기 때문에 거짓 말함.

이37:29-'나는 네 코에 내 갈고리를 둘 것이다'=그는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가질 것이다. 그 이유가 '코'=지각, 그리고 '갈고리'=거기로부터 끄집어 냄. 육체의 감

각으로 침수됨. 합리성으로부터 분리될 때 어리석어진 다.

갈대 (reed)

겔29:6-'갈대 지팡이'=이와 같은 힘.

마11:7-각자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설명할 때, 말씀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비교되어진다.. 그 이유가 '갈대'는 내적 의미에서 최말단에 있는 말씀, 즉 글자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

시68:30-가장 낮은 것들로부터 사악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갈대로부터의 들짐승'이라 불리운다.

* '갈대로부터의 들짐승들'...=교회의 진리들을 뒤집는 자연적 인간의 과학물

겔29:6-'이스라엘 가문에게 갈대 지팡이'=교인들에게 오류인 자연적 인간의 과학물을 신뢰함.

갈대아 (Chaldea)

창11:28-'갈대아 (나라)의 우르'=거짓이 있는 외적 예배.

* '갈대아'=진리를 모독함.

겔23:17-갈대아인들이 '바벨의 아들들'이라 불리는데 이는 예배에서 모독된 진리들을 명시한다.

갈라 (Calah)

창10:11-'르호보달과 갈라'=또다른 근원으로부터 오는 유사한 것.

* '갈라'=탐욕들로부터의 거짓.

* 교리적인 것들로부터의 거짓들의 셋째 근원은 의지 속에, 고로 탐욕 속에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사랑해주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거기서 파생된 거짓들이 '갈라'라 불리워 지고 있다.

갈라진 틈 (cleft)

* 쪼개다(cleave)를 보라.

갈렘 (Caleb)

여21:12-다시 새로운 교회가 있을 것임이 '상속분으로 갈렘에게 들판들과 마을들이 수여됨'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민14:24-'갈렘'은 교회 안으로 삽입되어지는 이들을 표현했다. 그의 '씨'=교회의 교리로부터의 진리.

갈르엣 (Galeed)

갈르엣-갈릴리-갈멜-갈빛대-감각

창31:47-‘아굽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다’=신성한 자연 평면의 선의 측면에서의 그것의 품질..‘갈르엣’은 ‘쌓아올린 것’, ‘증거자’, 또는 ‘증거가 되게 쌓아 놓은 것’을 뜻한다.

창31:48-‘쌓아 올린 것’=선...그리고 ‘증거’, 진리를 수단으로 선을 확증함...품질 자체가 이름 ‘갈르엣’에 함유되어 있다...이는 라반이 했던 말, ‘이 더미는 오늘 너와 나 사이에 증거이다, 그러므로 그는 ‘갈르엣’이라 불렀다’에 의해 주님의 신성한 자연 평면의 선에 여기서 라반에 의해 의미된 선의 결합의 증거를 의미함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선을 수단으로 주님과 이방인의 결합도 의미된다.

갈릴리 (Galilee)

요2:1-‘갈릴리의 가나에서’=이방인들 사이에서.

마4:13, 이9:1-‘스블론의 토지와 납달리의 토지 그리고 이방인의 갈릴리’=생활의 선 안에 있고 진리를 받는 이들 사이에서 교회가 건설됨, 고로 이들과의 결합, 그리고 악들과 거짓들에 맞선 전투.

갈멜 (Carmel)

이16:10-영적 교회, 이는 ‘갈멜’(또는 ‘열매 풍성한 들판).

예50:19-‘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는 것’=신앙과 선행으로부터의 선 안에서 훈육되는 것.

이35:2-‘레바논’=영적 교회. ‘갈멜과 사론’=천적 교회. 후자는 ‘여호와와의 영광’의 속성이라 단정된다. 이는 선행(charity)인 천적 진리가 뜻해질 때이다. 전자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영예’의 속성이라 단정된다. 이는 선행인 영적 선이 뜻해진다.

이10:18-‘갈멜’=영적 교회, 거기에 포도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35:2-‘갈멜과 사론의 영예’=그들이 받는 신성한 선.

이16:10-교회의 선이 ‘갈멜’에 의해 뜻해진다. 그리고 그로부터의 진리들은 ‘포도원들’에 의해 뜻해진다.

암1:2-‘갈멜의 꼭대기’=교회의 모든 진리들. 그이유는 갈멜에 포도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4:26-‘갈멜’=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영적 교회. 그것이 ‘황무지’임=거기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없음.

이33:9-‘레바논’=선과 진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함에 관

련한 교회. ‘사론, 바산, 갈멜’=말씀의 자연적 의미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에 관련한 교회.

이10:18-‘숲의 영광, 그리고 갈멜, 이는 불과 불꽃이 먹어치워 소멸할 것이다’=진리와 교회의 선으로부터의 진리, 이것이 거짓들과 거짓으로부터의 악들로 변했는 바 파괴될 것이다.

예48:33-심정의 참 환희인 영적 사랑과 천적 사랑의 즐거움이 멀해진다는 것이 ‘갈멜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모두 그러모아짐’에 의해 의미되었다.

갈빛대 (rib)

창2:21,22-자아(proprium)가 ‘여자를 만든 갈빛대’로 불리운다.

* ‘갈빛대’, 이는 가슴의 뼈인바,=인간의 자아, 이 안에는 생명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사실 당사자는 대단히 아끼는 것들이다.

* ‘갈빛대’=생기가 없는 자아. ‘여자로 지음’=주님에 의해 생기 있어짐.

출30:4-‘그것으로부터 두 갈빛대들의 위에’=이 측면에서 진리들과 결합함,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보존됨...‘갈빛대들’, 이것들이 측면들을 뜻할 때=진리들; 그 이유가 측면들이 ‘갈빛대’라 불리고, 남쪽과 북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

단7:5-‘그것의 이빨 사이에 세 갈빛대’=외관들과 오류들.

단7장-‘세 갈빛대’= 말씀 속의 모든 것들...

* ‘이빨 사이 입 안에 있는 세 갈빛대들’=오류들로부터의 추론에 의해 뒤집혀진 말씀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아주 풍부함.

감각 (sense)

* 인간의 영적 생명은 그의 양식인 신앙의 지식에 속하는 것, 선행의 일에 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기쁨을 얻고 유지되어간다. 그러나 인간의 자연적 생명은 육체와 감각에 속하는 것들을 수단으로 기쁨을 얻고 유지되어간다. 이로부터 전투가 발생하고 사랑이 지배권을 획득할 때 까지. 이리하여 그는 천적 인간이 되어간다.

* 외적 감각, 이는 다섯, 즉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이다. 이 감각들은 내적 감각과 상응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촉각은 선에 애착함에, 후각은 지각에 대한 애

감각적인

착에, 미각은 맛에 대한 애착에, 청각은 배움, 그리고 순종에 대한 애착에, 시각은 이해함과 슬기로워짐에 대한 애착에 상응한다.

* 아내는 세 감각, 즉 시각, 청각, 그리고 촉각을 수단으로 자기 남편의 애착을 안다.

* 모든 사랑은 그것 고유의 감각을 가진다. 이해함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보는 것에 대한 사랑은 시각을 가진다... 귀기울여 듣고 순종을 사랑함으로부터 듣는 것에 대한 사랑은 청각을 가진다. 지각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공기에서 돌아 흐르는 이런 것들을 맛에 대한 사랑은 미각을 가진다. 선과 진리를 자아에 붙어 넣음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자아에 자양분을 공급함에 대한 사랑은 미각을 가진다. 대상물을 알려함에 대한 사랑은 자신을 인도하고 신중해짐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촉각을 가진다. 그리고 자신이 짝과 결합함에 대한 사랑은 선과 진리의 하나됨으로부터 촉각을 가지는 이유로 해서 이 감각은 모든 감각들의 기초되는 감각, 공유 감각이다.

감각적인 (sensuous)

* '바로', 그리고 '이집트'=감각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 감각적인 것이 '뱀'에 의해 표현되어진다.

* 뱀들이 땅에 가장 가까이 있듯이, 신체에 가장 가까운 것이 감각이다. 이로부터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추론함은 '뱀의 독'이라 불리운다.

* '눅쇠 뱀'=주님의 감각적 평면.

창3:2,3-'그것을 만지지 말라'=감각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으로부터 신앙 속의 선과 진리를 곰곰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

창12:4-'룻도 그와 함께 갔다'=감각적인 것. '룻'은 주님의 감각적 평면과 육체 평면에 관련하여 주님을 표현했다. (소년시절의 그분의 상태에서)

사5:17-'길르앗'=감각적인 선, 또는 쾌락.

예6:1-'악이 북쪽으로부터'=감각적인 것 그리고 파생되는 과학적인 것.

창36:12-'엘리바스에게 그녀는 아말렉을 낳았다'=감각적인 것.

창37:14-'그는 헤브론의 골짜기로부터 (요셉을) 보냈다'=신성한 자연적 평면과 감각적 평면으로부터.

창40:1-'술 맡은 자'=외적인 감각적인 것 또는 신체의

감각적인 것, 이는 내적 인간의 지적 평면에 종속되고 있다.

* 인간의 모든 외적인 감각들은 그의 내적인 감각들에 관계를 맺고 있다. 그이유가 그것들은 인간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적 감각들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신체에 놓여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적 감각들이 내적 감각 위에 군림할 때, 인간과 더불어 모든 것은 뒤집어져 있다. 그 이유가 내적 감각들은 외적 감각이 명령하는 것을 입증하는 종들에 불과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거꾸로의 질서이다.

창40:1-'뺨굽는 자'=외적 감각적인 것, 또는 신체의 감각들, 이는 내적 인간의 자발적 평면에 종속된다.

창49:19-'갓' 또한=감각적인 것으로부터 판단하는 이들.

겔29:4-'비늘'=감각적인 것들.

출8:12-'이'=감각적인 것에 있는 악. 신앙의 지식 안에 있어왔지만 생활의 악에 있는 이들의 감각적인 것.

출20:4-'땅 아래 물들 안에 있는 것'=육체의 감각에 있는 것들은 (신성한 예배를 받지 않는다.)

출20:11-'바다'=인간의 육에 접촉된 감각들.

출23:11-'들짐승'=감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들, 이것은 쾌락과 즐거움이라 불린다. 그것들이 진리로부터의 즐거움인 이유는 감각적인 것들, 이것은 신체를 통하여 세상과 즉각 교통하고 따라서 영적 선으로부터의 어떤 것을 거의 도출하지 않기 때문.

출23:31-'광야'=선과 진리가 없는 곳, 이와 같은 경우가 감각이다. 감각은 천적 선, 영적 진리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체와 세상으로부터 즐거움과 쾌락을 가지고 있다. '광야'=가장 바깥.

출27:4-'(제단에 있는) 창살'=외적 감각, 이는 인간과 더불어 있는 최말단이다. 그러므로 제단을 빙둘러 놓인다. 이 감각이 '창살'에 의해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들어온 것들, 즉 진리들과 선들을 체질해 우선 분리하기 때문이다. 만일 감각이 선으로부터이다면, 그것은 선들과 선으로부터의 진리들만 입장을 승인하고 악과 악으로부터의 거짓은 거절한다. 그이유가 감각은 최말단에서 지적이고 자발적인 것의 지각함과 민감함 자체이기 때문, 고로 그것들의 애착들에 정확히 일치되게 형성되기 때

감옥-감지하다-감도림-감돌-갓-갓후손

문. 감각의 품질은 신체의 많은 것들에 의해 예증될 수도 있다. 신체의 맨끝의 모든 곳은 거기서 그물 형태로 있다. 이를 수단으로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체질된다.

출29:3-‘한 바구니’=이런 (천적인 것들)이 있는 감각... 바구니=감각인 이유는 감각은 인간 생명의 최말단이기 때문, 그리고 모든 내면의 것들은 최말단에서 질서 있게 저장되기 때문.

출29:12-‘모든 피는 제단의 기초에 부을 것이다’=인간의 생명의 최말단인 감각 안에 신성한 진리는 모두 있다...그리고 이것은 외적 감각이라 불리운다.

암3:12-‘침대의 귀퉁이와 침상의 맨끝’=가장 낮은 자연 평면, 이는 외적 감각이다, 그리고 그것의 선과 진리.

출30:18-‘그것의 받침도 놋쇠’=최말단 자연의 선, 이는 감각이다...그리고 외적 감각이라 불리운다.

호2:12-‘숲’=오류에 파묻혀 있는 감각적 인간.

레19:27, 21:5-‘머리털과 턱수염’=인간 생명의 최말단, 이는 육체의 감각이라 불리운다.

요9:6,7,11,15-‘소경’=여기서의 경우, 진리의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이들, 그 이유는 그들이 감각적이기 때문이다.

계9:3-‘메뚜기’=감각, 이는 인간 사고의 생명의 최말단, 또는 생각이 멈추는 최말단, 이해함이 존재하는 최말단이다.

감각적 진리 (sensuous truth)

이60:17-‘돌을 위해 철을’=감각적 진리를 위해 자연적 진리들.

창7:14-‘날개 달린 것들’=감각적인 진리. 감각적 진리들은 맨 끝에 해당되는 것인 보는 것과 들음 속에 있다. 이 맨 끝이 ‘날개 달린 것들’이라 불린다.

창12:5-‘롯, 자기 형제의 아들’=감각적 진리, 고로 어린 아이 안으로 은근히 심어지는 처음 진리이다.

예16:16-‘어부들’=감각적인 진리들로부터 가르치는 이들.

창30:35-‘아들들’=여기서의 경우, 감각적 진리들, 이것이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감각적인 것들 속에 있기 때문, 그리고 자연적 마음의 가장 바깥 것들이기

때문.

출10:26-‘발굽’=최말단 등급에 있는 진리, 고로 감각적 진리.

출22:8-‘의복’ 여기서의 경우=감각적 진리, 그이유가 의복은 가장 낮은 것, 가장 바깥에 해당되기 때문.

출23:31-‘수프 바다’=감각적이고 과학적인 진리들, 이것은 인간과 더불어 최말단의 것이다.

출22:24-‘저당’=여기서의 경우, 감각적 진리.

출30:23-‘가장 좋은 몰약’=감각적 진리를 지각함.

출30:34-‘소합향’=감각적 진리에 애착함.

계11:1-‘갈대’=감각적 진리, 이는 최말단, 즉 자연적 인간, 악한 자를 포함하여 그들과 더불어 있는 것과 같은 감각적 진리.

감맛 사람들 (Gammadim)

겔27:11-‘네 망대들에 감맛 사람들이’=내면적 진리에 관한 지식.

감복숭아 (almond)

감복숭아 나무 (almond tree)

아몬드(almond)

창43:11-‘테레빈 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런 진리들에 상응하는 생활의 선들...‘감복숭아’=내면의 자연적 선의 진리들에 상응하는 생활의 선.

예50:11,12-‘감복숭아 나무’=내면의 진리로부터 지각함. 여기서는 여호와에 관련되어 서술되는 바=그것을 지켜 봄.

민17:8-레위 지파를 위한 아론의 막대로부터 꽃이 핀 아몬드들=선행의 선들과 생활의 선들.

출25:33-‘아몬드들 같은 세 사발(bowl)=선으로부터 과학물에 관련한 것이 가득함.

민17:8-‘아몬드’=생활의 선.

민17:8-‘아몬드’=선행으로부터의 선.

감싸다 (bind up)

눅10:34-‘상처들을 감싸는 것’=진리에 애착함에 가해진 상해를 치료함.

눅10:29-37-‘상처들을 싸매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그것의 생명을 상해를 입힌 거짓들에 맞서 치료를 준비하는 것.

감옥-감지하다-갑도림-갑돌-갓-갓후손

이1:6-‘감싸매지도 않은, 기름으로 완하되게 하지도 않은’=회개를 통하여 수정되지 않은, 선을 통하여 부드러워지지 않은.

이30:26-진리들을 통하여 교리를 개혁함이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위법함을 감싸실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감옥 (prison)

* bind, guard도 참조.

마25장-묶인 자, 또는 ‘감옥에’있는 이들=자기들 안에는 거짓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이들.

창39:20-‘그는 감옥에 그를 집어넣었다’=거짓이 선에 맞서 말함에 관하여.

이42:22-신앙의 진리들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때, ‘감옥의 집’이라고 말해진다.

계20:7-‘사탄이 감옥으로부터 풀려날 것이다’=신앙의 거짓 안에서 자신들을 확증했던 이들이 풀려난다는 것.

이42:7-그들이 무지와 거짓들로부터 데려내어진다는 것이 ‘묶인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냄’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예20,27장-예레미야가 ‘감옥 안으로 인도하였다’는 이와 같은 것이 교회와 교회의 교리에 있어질 것임을 표현했다. 이것이 유다 전체가 바빌론 포로가 되어 끄러가버림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감지하다 (apprehend)

예46:8,9-여기서의 ‘이집트’란 자기들이 과학적인 것으로부터 그것을 감지하지 아니하면 아무 것도 믿지 않는 이들을 명시한다.

마13:16, 눅10:23-‘그들이 주님...을 본 것’이 복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그들이 이해성으로 감지했다는 것이다.

창21:30-32, 26:32,33-‘브엘세바’란 신앙의 교리에 다시 인접한 인간의 합리적인 것들을 의미한다...그리고 고로 교리는 인간의 납득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

예46:11,19,24-‘이집트의 딸’은 신앙 속의 진리가 그러한지 여부를 과학적인 것들로부터 추론하는 것에 집착함이다. 이로부터 일어나는 광신적 신앙은 감각에 의해 감지되지 않으면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다.

창42:23-‘그들 사이에 통역자가 있었다’=그당시 영적

인 것들 모두는 이와 달리해서는 감지되지 않았다.

이28:13-‘붙잡혀지는 것’=(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 의해) 끌려가버리고 마는 것.

이61:1-‘묶여진 그들, 눈이 포로가 된 그들’은 진리들을 보기를 부인해버린 이들을 의미한다.

갑도림 (Caphtorim)

갑돌 (Caphtor)

창10:13-‘미스라임이 갑도림을 낳았다’, 등등=여러 많은 나라들, 이를 수단으로 여러 가지 의식들이 의미되어진다.

암9:7-‘갑돌로부터 블레셋들을’=외면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내면의 진리들을 개시한 이들, 그러나 그것을 곡해한 이들, 그리고 곡해한 것 가지고 거짓들과 악들을 확증하는데 응용한 이들.

예47:4-신앙으로부터의 내면적 진리들이 ‘블레셋’이다. 그리고 외면의 진리들이 ‘갑돌의 섬의 남은 자’이다.

갓 (Gad)

갓 후손 (Gadites)

* 군대, troop도 참조

창30:11-‘그녀는 그의 이름을 갓이라 불렀다’=그것에 관련한 품질, 즉 신앙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일들 (works).

* ‘갓’에 의해 반대적인 의미, 즉 신앙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지 않은 이들, 일들 안에 있지 않은 이들도 문맥에 따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신앙으로부터의 선, 이는 내적 인간 속에 있다, 그리고 선한 일들, 이는 외적 인간 속에 있다. 이는 인간이 거듭남을 수단으로 교회가 되기 전, 신앙과 행동 안에서 인정되어져 가야 하는 세 번째 일반적 대체이다.

계7:5-‘유다’가 첫 번째, ‘르우벤’이 두 번째, ‘갓’이 세 번째로 언급되고 있다. 이 세 지파는 첫째 등급을 구성한다. 주님의 왕국을 취급할 때, ‘유다’=천적인 선, 이는 세 번째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품질, ‘르우벤’=영적 선, 이는 신앙의 선, 두 번째 천국에 있는 품질과 같다, 그리고 ‘갓’=자연적 선, 이는 첫 번째 천국에 있는 품질이다.

창35:26-‘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의 아들들, 갓과 아셀’=외면의 것들에 이바지하는 것들...그녀의 아들들=

강

이런 매체들, 필수적인 것들이 갓과 아셀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갓'은 최고 의미에서 전능과 전지, 내적 의미에서 신앙의 선, 외적 의미에서 일들이다.

창46:16-'갓의 아들들; 시본, 그리고 학기, 수니, 그리고 에스본, 에리, 그리고 아로디, 아렐'=신앙의 선, 그리고 파생되는 일들, 그리고 그것들의 교리적인 것들.

창49:19-'갓'=선으로부터는 아직은 아닌 진리로부터의 일들...'갓'=일들. 여기서의 경우, 진리로부터의 일들, 그리고 선으로부터는 아직 아니다. 이는 그에 대한 묘사를 내적 의미에서 살피면 분명해진다.

이65:11-자기들로서는 진리라고 여기는 비진리로부터 외적인 일들을 하는 이들이 이 구절에서 '갓'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여호와를 돌보지 않는 자들, 내 거룩함의 산을 잇는 이들, 갓을 위해 식탁을 차리는 이들, 므니에게 제주를 가득 붓는 이들.' '갓에게 식탁을 차리는 것'=일들 만에 있는 것.

예49:1-'암몬의 아들들에 대하여: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는 상속자가 없느냐? 하고 말하신다. 무엇 때문에 그의 왕이 갓을 상속하며 그의 백성들이 그의 성읍들에 거주하느냐?' '갓을 상속하는 것'=비진리로부터 일들 안에서 사는 것. '암몬의 아들들'은 진리들을 왜곡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자들.

창49:19-'그는 뒤꿈치를 파괴할 것이다'=결과적으로 자연 평면에서 무질서...선으로부터는 아직 아니고 진리로부터 일하는 이들은 그들의 자연 평면에서는 무질서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그이유가 일들이 자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영향을 미친 정도 만큼 자신들의 내면의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이유는 내면의 것이 종결되는 곳이 자연 평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질서하다면 내면으로부터 흐르는 것 역시 무질서해지고, 무질서한 것은 어둡고 불투명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볼 수 없다. 불투명 상태에서 결국 그들은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붙잡는바, 비진리로부터 그들은 일을 수행한다.

민2:10-15-'남쪽'=빛에 있는 진리인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는 남쪽에 진영을 펼쳤다. 갓 지파에 의해 (믿음의) 진리들로부터의 일들이 의미된다....그리고 진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남쪽 방면에 있는데, 빛에

속하기 때문이다.

계7:5, 창30:11, 49:9, 신33:20,21, 민32:1-끝절, 34:14, 신3:16,17, 33:20,21, 이65:11, 예49:1-3-'각 지파 일반 이천 명이 날인되어졌다'=생활에서의 사용 (use), 이는 (천적) 사랑으로부터 지혜 속에 있다...이는 주님의 새 교회와 새 천국 안에 있게 될 이들과 더불어 있다. '갓'은 최고 의미에서 전능을 의미한다. 영적 의미에서 생활의 선, 이것 또한 선용이다. 자연적 의미에서는 일함이다. 여기서는 생활에서의 선용들, 그이유가 그는 르우벤과 유다에 뒤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혜를 통하여 있는 천적 사랑이 선용들을 생산한다... '갓'은 생활의 선을 의미하기에 열매들이라 또한 불리우는데, 이는 그가 군대(troop), 더미(heap)라 불리우는 것으로부터 분명해진다. 또한 그의 아버지에게 의한 축복으로부터, 모세에 의한 축복으로부터, 그의 상속분으로부터, 그가 지닌 반대적 의미로부터도 분명하다.

신33:20-모든 힘은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있기에, 이것이 '사자'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모세가 말했다. '갓에게 나비(넓이, breadth)를 주는 자에게 복 있다. 그는 사자 같이 거주한다...'갓'에 의해 최고 의미에서 전능이 의미된다. 이로부터 표현 의미에서 진리 속에 있는 힘...이로부터 '갓에게 넓이를 주는 자는 복 있다'고 말해지는데, 그이유가 '넓이'는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49장-여기서 '갓'에 의해 교리의 진리들에 따른 생활의 선이 의미된다.

이16:9-'야셀', '십마의 포도나무', '헤스본과 엘르알레'에 의해 외적 교회의 사람, 즉 세상 사랑을 옹호하는 가운데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이다. 그이유가 위 네 장소들은 르우벤과 갓 후손에게 주어진 상속지 안에 있었기 때문, 르우벤, 갓 후손은 요단 밖에 거주했기 때문에, 외적 교회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강 (river)

* brook도 참조

시36:8-'당신의 유쾌하심의 강'=신앙 속의 영적인 것.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총명과 행복).

겔31:15-지옥으로부터의 추잡한 것들이 '강들'이라 불리운다.

강

예46:8-‘이집트의 강들’=갓가지 거짓된 과학적 사실들.
 예47:2-‘범람하는 시내’=거짓. (=진리를 이해함을 파괴하는 과학적인 것)
 이30:33-‘유황이 타는 시내’=자아 사랑의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시24:2-‘그분은 홍수들 위에 그것을 설립하셨다’=총명 속에 있는 것들 위에. (=신앙 속의 진리들 위에).
 출1:22-‘모든 아들...너희는 강에 던질 것이다’=그들은 모든 진리들을 거짓에 담글 것이라는 것.
 이18:1-‘구스의 강들 넘어’=그들이 거짓 원리들을 확증하는 수단인 지식들 쪽으로
 출2:3-‘그녀는 강둑의 창포 안에 그것을 놓았다’=거짓된 과학물 사이에, ‘이집트의 강’=거짓인 것.
 이19:6-‘강들’=총명 속의 것들
 출2:5-‘강에서 씻는 것’=거짓인 것으로부터의 예배.
 출7:15-‘강둑’=거짓의 상태 안에 침입된 이들이 있었다.
 출7:19-‘그들의 시내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강들 위에’=거짓의 교리들 안으로...‘시내들과 강들’, 이는 물의 집합인 바,=교리들; 이 구절의 경우 거짓 교리들. ‘시내들’=총명에 관한 것들, 고로 진리 속의 것들; 반대 의미에서 총명에 반대되는 것, 고로 거짓 속의 것들.
 겔32:14-‘이집트의 ‘물들’ 그리고 ‘강들’=과학적 진리들.
 요7:38-‘생명 있는 물의 강들’=주님 만으로부터 (풍부하게) 있는 신성한 진리.
 마7:27-‘홍수들이 왔다, 그리고 그 집을 때렸다’=거짓들이 넘쳐남...또한 ‘홍수들’=시험들, 시험은 거짓의 범람이다.
 계12:15-‘뱀은 홍수 같은 물을...토했다’=거짓들로부터의 추론이 대단히 풍부함.
 시24:2-‘홍수들’=교리적인 것들.
 단7:10-‘불의 시내가 흐른다’=사랑의 신성한 선; 그리고 ‘발행됨, going forth’=신성한 진리가 진행됨.
 이33:21-‘장엄한 여호와는 우리에게 강들의 장소, 시내의 장소(일 것이다)...‘강들’=지혜; ‘시내’=총명.
 시110:7-‘그분은 길에서 시내를 마실 것이다’=글자로 있는 말씀.
 계9:14-‘큰 강 유브라테’=지식들로부터 있는 인간의

합리성.
 시72:8-‘강으로부터 땅의 끝들까지’=합리적이고 영적인 것들의 확장.
 요7:38-‘배에서 나오는 강들’=내면적으로 이해함, 또는 총명.
 이19:5,6-‘시내들이 물러갈 것이다’=영적 총명의 모든 것들이 떠날 것이다.
 마7장-‘홍수들’=이 구절의 경우 비로부터 물의 범람=시험들.
 창2장-‘강’, 동산에서=지혜; ‘첫째 강’=선과 진리; ‘둘째 강’=선과 진리, 또는 사랑과 신앙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한 지식들; ‘셋째 강’=이성; ‘넷째 강’=외적 인간 속에 있는 지식. 위 모두는 지혜로부터 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과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이다.
 * ‘에덴으로부터 흐르는 강’=사랑으로부터의 지혜.
 창15:18-‘이집트의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테 강까지’=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의 확장; ‘이집트의 강까지’=영적인 것들의 확장; ‘유브라테 강까지’=천적인 것들의 확장.
 겔31장-‘강들’ 등등=영적 선들, 이 선들 사이에 그것의 뿌리가 있었다.
 시89:25-‘강들에 오른손을 놓는 것’=진리에 관한 지식 안에서 힘을 얻는 것.
 창24:10-‘아람 나하라임’, 또는 ‘강들의 시리아’=진리에 관한 지식들, 그 이유는 ‘강들’=총명, 이것은 진리에 관한 지식 속에 있다.
 겔47:9-‘강’=말씀;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는 물들’=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
 이30:28-‘범람하는 시내’=거짓이 넘쳐 흐름.
 창31:21-‘(야곱)이 강을 건넜다’=결합이 있는 상태. 여기서의 강은 유브라테=신성과 결합, 그 이유는 이 강은 저쪽 편에서 가나안의 경계였기 때문...이제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 이 강은 그의 첫 번째 경계였다, 고로=결합...
 창32:23-‘(야곱은) 그것들이 강을 건너게 만들었다’=한층 더 은근히 심어짐(further insinuation).
 계8:10-‘강들, 물들의 원천들’=총명과 말씀으로부터의 지혜.

강

예2:18-‘앗수르와 강의 물들’=생활의 선과 신앙 속의 진리에 맞서 이런 과학적 사실로부터 추론함.

창41:2-(바로가 꿈을 꾸기를) ‘그는 강가에 서있었다’=경계로부터 경계까지. ‘강’, 여기서는 이집트의 강, 또는 나일 강,=경계인데, 큰 강들, 즉 유브라테, 요단, 그리고 나일은 가나안의 최말단 경계들이었다.

창41:3-‘강둑에서’=경계들에서.

겔47장-‘강둑에서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올라왔다’=총명과 지혜의 것들.

이35:6-‘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의 평지에 시내들(이 흐른다)’=그들을 위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계12:15-‘홍수 같은 물’=악으로부터의 거짓,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추론함.

출7:18-‘강이 악취를 풍길 것이다’=그것을 혐오함. 여기서의 강은 이집트의 강이고 이 강이 피로 변했다=왜곡된 진리.

출8:3-‘강이 개구리들을 출현시킬 것이다’=이런 거짓들로부터의 추론들.

출8:9-‘강 안에서만 그것들은 살아남을 것이다’=그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짓들과 더불어 남겨져야 할 것.

시74:15-‘당신은 세찬 강들을 말리셨다’=한층 더 센 거짓들이 흐트러지는 것

겔47장-‘강들’=총명에 관한 것들, 이것은 믿음 속의 진리들로부터 있다.

이30:33-‘유황의 시내’=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악들로부터의 거짓들.

출23:31-‘사막으로부터 강에까지’=감각성의 즐거움으로부터 합리성의 선과 진리까지. (그 이유가 유브라테 강을 뜻하기 때문)

시80:11-‘바다로 그리고 강으로’=내면의 진리들과 선들 쪽으로.

이50:2-‘나는 강을 광야로 만든다’=진리들 자체가 황폐되는 것.

이7:19-‘황량함들의 강들’=교리 속의 진리들이 완전히 황량해졌다. (=거기에 진리들은 없다)

계8:10-‘강들의 삼분의 일이 떨어졌다’=모든 진리들이 완전히 왜곡되었다. ‘강들’=풍부한 진리들.

계16:4-‘그의 대접을 강들 위에 쏟았다’=그것들과 더불어 이해성 안으로 유입됨...‘강들’=교리와 생활을 위한 합리적 인간, 고로 이해성을 섬기는데 충분한 진리들.

계22:1-‘수정 같이 빛을 내는 생명의 물의 순수한 강’=말씀의 영적 의미로부터 반투명 하는 신성한 진리가 풍부함.

계22장-‘강’=신성한 진리. (=총명)

이19:5-‘강이 말리울 것이다’=진리로부터의 교리가 없다, 이리므로 총명도 없다

이48:18- ‘강 같은 평화’=풍부함.

신8:7-교회와 ‘물 있는 강들의 토지’라 불린다, 그 이유는 ‘물 있는 강’=진리로부터의 교리들이기 때문.

시104:10-‘그분은 샘들을 강들 안으로 보내신다’=거기로부터의 총명.

이57:5-‘강들’=자기 고유의 총명.

이41:18-‘강들을 여는 것’=총명을 주는 것.

시74:15-‘원천과 홍수들’=교리 속의 거짓들, 이것은 인간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이다. ‘세찬 강들’=거짓의 원리들이 확증되어 파생됨.

이43:2-‘내가...강을 통과하여 건널 때, 그것들이 너를 침몰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진리들에 맞서는 거짓들로부터의 추론들(이 들어와 부패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50:2-‘나는 강들을 광야로 만든다’=(진리들에 관한) 합리적 인간을 박탈하는 것, 고로 더 이상 총명은 없다.

이43:20-‘쓸쓸한 장소에 강들이..’=이전에 있지 않았던 진리로부터의 총명.

겔47장-‘강’=신성한 진리를 영접함으로부터의 총명...(=총명과 지혜)

예17:8-‘강가로 그의 뿌리들을 보내는 것’=영적인 것으로부터 자연적인 것으로 총명이 확장됨.

민24:6,7-‘강가에 심었다’ 그리고 ‘물들’=신성한 진리가 흐름, 이로부터 총명이 있음.

겔31:4-총명이 증가함이 ‘그것의 강들이 그의 심은 것을 빙들러 달린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시105:41-‘그분은 바위를 여셨다...강 같이 메마른 장소에서 내달렸다...’강들’=총명과 지혜.

합3:8-‘강들’, 그리고 ‘바다’=교회의 모든 것, 그 이유

강도-강력한

는 그들=그것의 최말단들.

시46:4,5-말씀, 또는 교회를 위한 신성한 진리는 멸해 지지 않는다. '강이, 시내가 있어 하느님의 도성을 기쁘게 만들 것이다...그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여기서의 '강'은 '원천'과 같은 의미, 즉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의 '시내들' 때문, 시내=진리들.

이37:25-'이집트의 강들'=진리에 관한 지식과 통각함, ...그 이유는 자연적 인간(이집트)이 지식과 통각을 가지는 것은 마치 영적 인간이 총명을 가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겔30:12-'나는 강들을 마른 (토지)로 만들 것이다'=진리에 관한 지식과 통각함은 더 이상 없다.

이42:15-'나는 강들을 섬들로 만들 것이다'=총명이 멸해질 것이라는 것.

이18:2-'강들이 망쳐버린 토지' '강들'=인간 고유의 총명 속에 있는 거짓들.

시124:4-'시내가 우리 혼을 삼켰다'. '시내'=진리들에 맞서 이런 거짓들로부터 추론함. 이것은 인간이 진리들과 진리들에 따른 생활을 통하여 받는 영적 생명을 파괴했다.

신1:7, 여1:4-'큰 강'=영적인 것들이 합리적인 것들 안으로 유입됨.

이8:7-'힘차고 많은 강의 물들, 앗수르 왕'=오류와 거짓들 만으로 추론함.

이19:6-'이집트의 강들이 줄어들고 마를 것이다'=자연적 총명의 모든 것들이 멸해질 것이다.

열하19:24-'이집트의 강들'=영적 근원으로부터 있는 과학물로부터의 자연적 인간의 총명.

예2:18-'어찌하여 너는 강의 물들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가?'=거기로부터 추론함, 그때부터 믿음 속의 거짓들이 있다.

시107:33-'그분은 강들을 광야로 만드신다'=진리를 이해함으로써의 총명, 또는 말씀을 이해함으로써의 총명이 악으로부터의 거짓을 수단으로 황폐되었다

이41:18-'나는 절벽들에 강들을 열 것이다'=영적 진리들로부터의 총명.

시104:10-'원천들'=말씀 속의 진리들; 그리고 '강들'=

거기로부터의 총명.

이30:28-'범람하는 시내'=거짓들로부터 추론함.

강도 (robber, robbery, rob)

* steal 도 참조.

눅10:30-'강도들에 의해 심히 다친 사람'=악들과 거짓들을 통하여 유대인에 의해 영적으로 심히 다친 자.

마21:13-'도둑들의 굴'=교회와 예배를 모독함.

눅10:30-'강도들에 의해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지옥으로부터 있는 이들의 침투로 감염당한 이들. 이들이 강도들인데, 그 이유는 그들은 영적 생명에 상해를 입히고 죽이고 하기 때문.

예7:11-'이 집이 도적의 소굴이 되어졌느냐?' '강도의 굴'=교리의 거짓들로부터 생활의 악...교리의 거짓들로부터 생활의 악이 된 교회가 '강도들의 굴'인 이유는 '굴'=이것,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진리들을 훔치고, 훔친 진리들을 왜곡하고, 거짓들과 악들에 왜곡한 진리들을 응용하고, 결국 진리들을 소멸시키는 자들이 '강도들'이기 때문.

* '강도들'=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을 약탈하는 이들, 그로부터 자신들을 위해 이익을 챙기는 이들.

눅10장-'강도들'=악들을 있게 하는 거짓들을 주입하는 이들. 특별히 유대인들. '심히 다침'이 이런 악들이다.

강력한 (mighty)

* prevail, force, strength, strong 도 참조.

창49:24-'그는 자기 활의 강력함 아래 앉을 것이다'=그는 교리 속의 싸우는 진리에 의해 안전해 있다. 교리의 강력함은 진리이다.

겔30:23-'강력한(the mighty) 것과 부러진 것'=상해를 받지 않아 저항하는 것들, 그리고 상해를 당해 저항하지 못하는 것들.

이25:3-'강한 나라들의 성읍들'=교리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사랑의 선들에 있는 이들. 그리고 모든 영적 힘이 거기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한 나라들'이라 불린다.

강림 (advent)

삼하23:2-4, 창1:5-세상 안으로 주님의 강림이 '아침'이라 불리운다.

이40:3,6-'외치는 자의 소리'=주님의 강림을 알림. 일

강림

반적으로 그분의 강림에 대한 모든 알림은 거듭나는 자에게 받아쓰게 하여 있다.

합3:2-'햇수들의 한가운데'=주님의 강림, 세월의 간격 중에서, 보다 짧은 간격에서 주님의 오심은 인간이 거듭나질 때, 보다 오래 걸리는 간격은 주님의 교회가 새로이 일어날 때.

창7:4-'칠일'. 거룩한 숫자=주님이 세상으로 강림하심, 또한 주님의 강림을 기뻐함. 특수적 측면일 경우, 주님의 강림의 각각 모두. 그분의 강림 각각 모두는 거듭나는 이들에게는 시작, 황폐되는 이들에게는 끝장을 포함한다. 고로 고대 교회의 사람에게 그분의 강림은 시험의 시작이었다.

민19:11,12,16,19-천국에서 '3'과 '7'은 부활과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일반적 거룩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민24:17,18-'나는 그분을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세상으로의 주님의 강림.

창19:23,24, 시101:8, 예20:16-'아침', 그것 고유의 의미 측면에서=주님, 그분의 강림, 고로 그분의 왕국이 가까이 끌어당겨짐, 또한 '아침'=새로운 교회의 일어남.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지상에서 주님의 왕국이 기 때문.

창20:3-'하느님의 오심'=지각, 그 이유는 지각은 지적 능력 안으로 신성의 강림, 또는 신성의 유입 외 더는 아니기 때문.

호6:1,2-'세째 날에 (그분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주님의 강림과 부활.

요16:28-'내가 세상으로 왔다'=그분이 한 인간 같이 계셨다는 것.

마24:27-'...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오심은 그분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신다는 글자에 의거 있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각 사람 안에 그분의 현존하심,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만큼 더 거행된다.

마24:30-'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들에서 오는 것을 볼 것이다'=그 때 말씀은 그 내향의 의미에 관련하여 밝히 알림이 있을 것이다...여기서 이것이 주님의 강림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분은 글자대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다.

마24:3-'옛 교회가 끝나고 새 교회가 시작하는 때가'

마지막 심판과 사람의 아들의 오심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21:11,12-'아침이 온다'=주님의 강림.

마24:39-'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있을 것이다'=그들은 신성한 진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창37:14-'자기 형제들의 평화를 보려고 요셉이 감'=주님의 강림 각각 모두...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진리가 말씀으로부터 생각 안으로 흐를 때 주님의 강림은 그 각각에서도 있기 때문.

창49:10-'실로가 오시기 까지'=주님의 강림, 그때 당시 평화의 고요함.

출3:16-'나는 너희를 방문했다'=영적 왕국의 교인에게 주님의 강림. '방문하는 것'=주님의 강림, 이는 교회의 마지막 때에 앞서 진행되는 절차. 이것이 주님의 강림이라 불리는 것은 이런 말씀, 즉 '당신의 오심과 시대의 종말의 표시는 무엇일 것입니까?'는 구절로부터도 명백해진다. (마24:3)

출15:9-'적들이 말했다'=주님의 강림 이전, 악들과 거짓들에 있었던 이들의 생각. 그 이유가 그 때 당시 지옥의 패거리들이 자유롭게 떼지어 이리저리 다녔고, 그런 터에 거기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려 침투하고 별짓을 다 도모했기 때문.

출16:7-'아침에 너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새로운 상태의 시작에서 주님의 강림. '여호와의 영광'=현존과 강림.

마24:3,30-'주님의 오심'=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옛 교회인으로부터서는 부인되고 새 교회인으로부터서는 인정됨.

출19:11-'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의 눈에 내려오실 것이다'=주님의 강림, 그리고 그때 당시 계발됨. 그이유가 '내려오는 것', 이것이 주님께 관련되어질 때=유입을 통한 그분의 현존, 고로 그분의 강림.

출24:10-'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보았다'=주님이 강림하시어 말씀에 현존함.

출24:16-'그분은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부르셨다'=진리가 선에 결합함을 수단으로 주님의 강림이 있음.

눅18:8-'주님의 오심'은 교회의 마지막에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계시가 있음 이다.

강요자-강하게 하다

이52:8-'경비원'=주님의 강림에 관하여 말씀을 수색하는 이들.

* 힘과 영광과 더불어 하늘의 구름들에 주님이 오심=말씀 안에 그분은 현존하심, 그리고 계시하심.

* '구름들 안에 주님의 오심'은 이 구절 글자 그대로의 나타남을 뜻하는 것이 아닌 말씀 안에 나타나심. 그 이유 말씀은 신성한 진리 곧 주님이시기 때문.

* 그분의 강림은 '왕국의 복음'이라 불리운다.

* '시대의 종말'=옛 교회의 마지막 상태,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새 교회의 첫 상태.

*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강한 인내심으로 예상함'=주님의 강림.

이30:26-'그 날'=옛 교회가 파괴되었을 때, 그리고 새 것이 건립되는 때, 주님의 강림.

계2:25-'내가 올 때까지 단단히 붙잡으라'=새로운 천국과 새로운 교회가 있을 때 까지, 이것이 주님의 강림이다.

계3:11-'나는 빠르게 온다'=주님의 강림, 그 때 그들로부터 새 교회가...

계11:15-'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냈다'=극점에 도달한 후 교회의 상태를 검사하고 명명백백하게 함, 이는 주님의 강림과 그분의 왕국의 강림이 있을 때이다.

계14:6-'영원한 복음'=주님의 강림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천국을 통하여 내려 올 새 교회에 관하여 알림.

마16:27, 24:30, 26:64, 막14:61,62, 눅21:27, 22:69-'하늘의 구름들에 주님이 오심'은 그분은 심판하러 오실 때 그분은 말씀의 글자 의미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는 오셨기 때문에, 즉 그분은 말씀의 글자 의미 안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심으로 말씀의 글자 의미에 나타나셨다는 것, 그 글자 안에서는 주님 만이 취급된다는 것, 그분 자신이 천국과 땅의 유일한 하느님이시다는 것을 영적 의미를 통해 밝히 알리셨다.

계16:15-'보라 나는 도둑 같이 온다'=주님의 강림.

계19:11-'나는 천국이 열린 것을 보았다, 그리고 흰 말이 보였다'=주님에 의해 밝히 알려진 말씀의 영적 의미, 그리고 이로부터 말씀의 내적 의미가 알려짐, 이것

이 주님의 강림이다.

계22:7-'보아라, 나는 빠르게 온다'=주님은 확실히 오신다, 그리고 이제 주님에 의해 열려진 이 책의 가르침들, 또는 진리들을 간직하고 행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계22:17-'그리고 영과 신부가 말한다, 오소서'=천국과 교회가 주님의 강림을 갈망함.

계22:17-'듣는 자가 오소서 하고 말하고 싶다면 말하게 하라'=주님의 강림에 관하여, 새 천국과 새 교회에 관하여 어떤 것을 아는 자는 그것이 오도록 간구할 것이다.

계22:20-'그렇다, 나는 빠르게 온다, 아멘, 그렇다, 온다, 주 예수'=그분이 세상에서 입으시고 신성화하신 그분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 그분은 신랑과 남편으로서 오신다는 것, 그분의 교회는 신부와 아내로서 그분을 갈망한다는 것.

* '서쪽으로부터 일어나는 구름'=교회의 마지막에서 주님의 강림.

* '주님의 오심'=새 교회의 시작.

강요자 (extractor)

출3:7-'강요자들'=그들에게 봉사를 강요하기를 원하는 이들.

출5:6-'백성의 강요자들'=가까웁게 떼지어 몰려드는 이들. '강요자'=섬기기를 강요하는 이들. 그리고 이것이 떼지어 엄습함을 수단으로 결과 되는 바, '강요자들'=떼지어 엄습하는 이들, 즉 가까웁게 떼지어 엄습하는 이들...그이유가 강요자들은 이집트인들 출신이기 때문.

출5:14-'바로의 강요자들이 그들 위에 세운...'=떼지은 엄습자들에 의해 주입당해지고 있는 이들.

이3:12-'강요자들'=진리들에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

강하게 하다 (strengthen)

* confirm, strong도 참조.

창21:18-'네 손을 그 아이 안에서 강하게 하거라'=그 때로부터 떠받쳐줌.

이41:10-'나는 너를 강하게 했다, 그렇다, 내가 너를 도왔다'=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신성한 선으로부터 있는 전능과 전지로부터 힘과 총명을 주는 것.

시89:21-'내 팔이 너를 강하게 하리라'=거기로부터의

강한-...같이(같은)

전능.

강한 (strong)

시110:3-‘네 강함의 날에’=시험들에서 있는 그분의 승리.

출19:19-‘나팔의 소리가...극도로 강해졌을 때’=그것의 증가.

시68:30-그들이 예리하게 추론하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자의 회당’이라 불리워진다.

시24:8-‘여호와와 강하시고 전쟁의 영웅이시다’

예46:5-‘그들의 강한 자들’=지옥들.

계5:2-‘큰 음성으로 전도하는 강한 천사’=생각 안으로 깊게 흐르는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그분이 ‘강한 천사’라 불리우신다. 그 이유는 힘을 가지고 전도하고 힘을 가지고 전도되는 것이 생각 깊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

계19:18-‘강한’=말씀으로부터의 교리로부터 해박한 이들. 추상적으로 거기로부터 해박함.

겔39:18-‘강한 것’=악을 파괴하는 선으로부터의 진리.

계19:18-‘강한 자들’=자연적 진리들.

계76:5-‘심정에서 강한 자’=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예50:36-‘강한 자들’=거짓들과 이 거짓들로부터의 추론들.

암2:16-‘심정에서 강한 그 사람’=자기 거짓들을 신뢰하는 자.

이21:17-‘강한 자들의 활’=거짓들을 압도하는 지식들로부터의 진리의 교리.

예31:11-‘그 사람 보다 더 강한 그 사람의 손’=이전에 소유권을 쥐었던 악과 거짓.

이3:2-‘강한 자와 용사를 제거하는 것’=악들과 거짓들에 대한 모든 저항을 제거하는 것.

계10:1-‘강한 천사’=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겔39:18-‘강한 자’, 즉 ‘수소들’=선으로부터의 애착들 (=자연적 인간의 애착들).

겔39:18-‘강한 자와 용사’=악과 거짓과 싸우고 파괴하는 선과 진리(또는 선으로부터의 진리).

시68:30-감각의 오류로부터 있는 이 과학물들은 강하게 설득하는바, 그들은 ‘강한 자들의 회당’이라 불리워

진다.

시132:8-‘네 강함의 궤’=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이를 통하여 주님은 신성한 힘을 가지신다.

이28:6-‘여호와께서는 문으로부터 전쟁을 쫓아버리는 이들에게 강함을 위해 계실 것이다’=주님은 말씀과 말씀으로부터의 교리를 지켜 방어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해지려는 폭력을 예방해주신다.

...같이(같은) (as)

* 주님은...또 다른 사람 같이 태어나셨다...

* 주님은 평범한 여느 한 사람으로서 가르쳐졌다...

창25:31-‘오늘 같이 네 생득권을 나에게 팔라’=진리 측면인 교리가 시간 차원에서는 우선 순위인 듯 비쳐진다는 것. ‘오늘로서, as today’=시간 차원에서, as to time...그리고 ‘오늘’=영속적인 것, 영원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오늘’이 지닌 이 의미가 표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같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이 사용한 ‘...로서, as’의 뜻은 시간 차원에서는 (생득권이 에서로부터 야곱에게 팔렸으므로 생득권이 야곱의 것으로) 영원히 있는 듯하나, (겔으로만) 그럴 뿐이라는 것.

*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 like of God.’이 되는 수단은 자신에게 있는 이런 것들이 마치 자신으로부터인 것 같이 여기는 느낌이다. 그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가 지식을 지니고 태어나지 않고 그것을 받기 때문, 그리고 그가 받은 것은 마치 자신으로부터인 것 같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다. 고로 느끼는 것, 역시 주님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는 인간 당사자로 하여금 뜻하고 생각하고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자신으로부터인 것 같이 있게 함으로 그는 짐승이 아닌 사람 인바, 그는 지식을 받고, 그 지식을 총명으로 한 단계 높이고, 지혜로까지 드높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리하여 주님은 인간을 그분 자신에게 결합되게, 그리고 인간은 자신을 주님에게 결합되게 할 수 있다.

계9:7-‘그들의 얼굴들은 사람들의 얼굴 같이 있었다’=그것들은 진리에 애착함들 같이 자신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얼굴’은 진리에 애착함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메뚜기에 관련해 말해지므로 그것들은 자신들에게 ‘사람의

값다-개

얼굴 같이' 즉 진리에 애착함 같이 나타났다고 씌여지고 있다.

값다 (repay)

출21:34-‘값는 것’=수정하는 것.

출21:36-‘값는 것’=회복하는 것.

출22:1-‘값는 것’=벌금.

출22:3-‘값는 것’=수정과 반환(배상).

출22:4-‘값는 것’=배상.

출22:9-‘값는 것’=배상.

개 (dog)

출11:7-‘이스라엘의 어떤 아들에게서도 개는 제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더 붙어서는 지옥에 떨어짐이나 탄식함이 있지 않을 것이다.

출11:7, 마15:26-28, 막7:27,28, 눅16:21-‘개가 그것의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개가 지닌 의미 때문이다. ‘개’=가장 낮은 것, 또는 교회에 있는 비열한 자들, 그리고 이해함이 미미한 이들. 그리고 반대적 의미에서, 교회의 신앙 바깥에 온전히 머무르는 이들, 그리고 신앙 속에 있는 것들을 남용하는 자들. ‘개들’=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다는 것은 위 마15:26-28, 막7:27,28로부터 분명하다. 여기서 ‘아들들’=그것의 밖에 있는 이들.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종기를 핏은 ‘개들’에 의해서도 분명해진다. ‘부자’에 의해 교회 내에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이56:10, 시59:7,15, 68:24, 마7:6-‘개들’=교회 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이런 저런 것들에 관해 수다떠는 이들, 반대적 의미에서, 신앙 속에 있는 것들에 남용을 쏟아 붓는 이들.

삼상24:15, 삼하9:8, 16:9-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열한 것, 반드시 내던져 버려야 하는 것이 ‘죽은 개’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출22:31-‘너는 그것을 개에게 던질 것이다’=불결한 것. ‘개들’=신앙의 선을 왜곡하는 수법으로 불결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들.

출22:31, 막7:26, 마15:22-‘개들’=왜곡함으로 신앙의 선을 불결하게 만드는 이들인 이유는 개들은 불결한 것들을 먹고, 사람들에게서 짓고 물기 때문. 이로부터 유대

인들은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에 있는 교회 밖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다, 그리고 가장 비열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방인들이 ‘개들’이라 불리운 것은 주님께서 그리스 출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로부터도 분명해진다. 여기서 ‘개’는 교회 밖에 있었던 이들을 의미했다.

* 이와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종기를 핏은 개들’=교회 밖에 있되 비록 신앙으로부터의 진짜 선은 아닐지라도 선 안에 있던 이들.

계22:15-‘밖에는 개들과 마술가들, 색골들이 있다’...=믿음 속의 선과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 그들이 천국 또는 교회 밖에 있을 때, 그것들은 ‘밖에’ 있다 라고 말해진다.

마7:6, 신23:18-선이 왜곡되고, 그러므로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 ‘개들’에 의해 의미되는 것은 이 구절로부터 분명하다. ‘너는 개 값을 여호와와 집으로 가져오지 마라...그것은 네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22:16,20-‘개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내 유일한 것을 개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소서.’ 여기서 ‘개들’=신앙의 선을 파괴하는 이들, 그리고 이들은 악심을 품은 집단 ‘이라 불린다.

왕상14:11, 16:4, 21:23,24, 왕하9:10,36, 예15:3-‘그들이 내어줌을 당하는 것’ 그리고 ‘개들에 의해 삼켜지는 것’=그들은 불결한 것들을 수단으로 멸해지리라는 것.

삼상24:15, 삼하3:8, 9:8, 16:9-그들은 자신들을 ‘죽은 개들’에 비교했다는 것=그들은 가장 비열한 것으로 간주되어졌고 내던져야하는 것.

욥30:1, 삼상24:15, 삼하9:8, 왕하8:13- 불결한 자들. 그러므로 신명기서에서, ‘너는 여호와와 집으로 개 값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해지고 있다.

왕상21:23, 왕하9:10-‘개들이 이사벨을 먹을 것이다’=불결과 모독.

이66:11-선에 대한 지각이 없는 이들,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들은 혼이 굳어진 ‘개들’이라 불린다. 이것들은 포만을 모른다. 즉 선을 받을 수 없다.

사7:15-‘물을 자기 손으로 개같이 튕겨먹듯 튕겨먹는 이들’=진리들에 의욕을 가진 이들. 고로 얼마 정도의 자연적인 애착으로부터 라도 진리들을 알려 애쓰는 이

개구리-개암나무-개천-거대한 바다 동물-거룩한

들, 그 이유가 ‘개’=식욕, 의욕, 바람.

마7:6-‘너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개들’=현세에의 강한 욕망과 의욕.

개구리 (frog)

* (황폐해짐의) 세 번째 수준이 교회의 선과 진리에 맞서 거짓들로부터 추론함인데, 이것이 강으로부터 올라온 개구리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출7:27-‘나는 네 모든 경계를 개구리들을 가지고 세계 칠 것이다’=단지 거짓들로부터 추론함들. (그이유가) ‘개구리들’=추론들.

계16:13,14-‘개구리들’=거짓들로부터의 추론들

시105:30-‘그분은 그들의 토지 안으로, 그들의 왕들의 침실 안에 개구리들이 기어오르게 만드셨다.’ ‘왕들의 침실 안에’라고 말해지는데, 진리들에 맞서 거짓들로부터 추론함이 뜻해지기 때문이다.

출7:28-‘그리고 강은 개구리가 기어오르게 만들 것이다’=이란 거짓들로부터 추론함들.

출7:29-‘그리고 개구리들은 너 위에, 네 백성 위에, 네 종들 위에 기어오를 것이다’=거짓들로부터의 추론들은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있을 것이다.

출8:2-‘그리고 개구리들이 올라왔다’=단지 거짓들로부터 추리함(ratiocination)들.

출8:3-‘그리고 (마술사들이) 이집트의 토지 위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들었다’=자연적 마음으로부터의 추리함에 관하여.

출8:4-‘나로부터, 내 백성들로부터 개구리들을 제거해다오’=그것들은 거짓들 만으로의 추론에 내몰리지 않을 것.

출8:5-‘당신으로부터, 당신의 집으로부터 개구리들이 끊어지는 것’=추리함은 중단될 것이라는 것.

출8:7-‘그리고 개구리들은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집으로부터, 당신의 종들로부터,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제거될 것이다’=그들은 단지 거짓들로부터 추론함에 몰입되지 않을 것.

출8:9-‘그리고 개구리들은 집으로부터, 뜰로부터, 들판으로부터 죽었다’=자연 평면 어느 곳에서이든 그들로부터 있는 단지 거짓들로부터의 추론은 중단되었다.

시105:30-‘토지에 기어오르는 개구리들’=거짓들로부터

있는 자연적 인간의 추론들.

개암나무 (hazel)

* 나무의 어떤 종(species)=외면의 선들과 진리들, 이는 자연적 인간 속에 있다. 포플러나무, 개암나무, 플라타너스나무 등등이다.

창30:37-‘개암나무와 플라타너스나무’=자연적 진리들의 힘. ‘개암나무와 플라타너스’=자연적 진리들.

개천 (ditch)

단9:25-‘거리와 개천이 회복될 것이다.’ ‘거리’=진리, ‘개천’=교리.

거대한 바다 동물 (Leviathan)

이27:1, 시74:14, 욥40:25-32, 41:1-26-‘고래들’=신앙 속의 진리를 타락시키는 과학물들. 그들=오류로부터 추론함, 이로부터 거짓들이 온다...욥기서의 경우 좋은 의미에서 인바, ‘거대한 바다 동물’=진리들로부터 추론함. 진리들로부터 추론함은 거짓들로부터 추론함에 직 반대된다.

이27:1-‘거대한 바다 동물, 좀 긴 뱀’=자기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모두 거절하는 이들. 고로 단지 감각적인 것, 신앙이 결핍된 이들, 그 이유는 그들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 ‘꼬부라진 뱀’=어떤 이유로 해서 믿지 않고 있는데 자기들은 믿고 있다고 하는 이들.

시74편-‘고래’와 ‘거대한 바다 동물’=과학물들, 이는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인간 속에 있다, 영적 인간이 단혀질 때, 이로부터 거짓이 있다.

시104:26-‘거대한 바다 동물’, 즉 고래는 복합체 안에서 자연적 인간의 모든 것들을 뜻한다. 이것이 얇아 따른 즐거움으로부터, 그리고 얇아로부터 자기는 지혜 있다 하여 즐거워 함으로부터 ‘바다에서 놀고 있다’라고 말해진다.

거룩한 (holy)

마24:15-‘거룩한 장소에 서있다’=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이 황폐해짐. ‘거룩한 장소’=사랑과 신앙의 상태... 이 상태의 거룩한 것은 사랑의 선과 이 선에서 파생되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이다. 말씀에서 이외의 것은 뜻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것들이 거룩 그 자체, 신성하심이신 주님으로부터 있기 때문.

거룩한

출3:5-‘거룩함으로부터의 지면’=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거룩한 것. 고로 그것=그분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거룩의 상태.

출15:11-‘거룩함에서 누가 당신 같으리이까?’=그분으로부터 거룩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출15:13-‘당신의 거룩함의 거주지’=신성이 있는 천국. 그 이유가 ‘거룩함’은 신성한 진리를 서술하기 때문...(이것이) 천국을 만든다.

신33:8-‘거룩한 인간’=주님...

출19:6-‘거룩한 나라’=영적 왕국...‘거룩한’은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서술하고 있다. 이로부터 ‘거룩한 나라’=진리가 선으로부터 있음.

출22:31-‘너는 나에게 거룩함으로부터의 사람들일 것이다’=그 당시 선으로부터 있는 생명의 상태...‘거룩함으로부터의 사람들’=주님에 의해 인도어지는 이들. 그 이유가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이 거룩 자체이기 때문, 이로부터 그것을 신앙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받는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 성인들, saints로 불리워진다.

출26:33-‘베일로 너를 위하여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들로부터의 거룩한 것 사이를 구별하게 하라’=영적인 선 사이를...그리고 천적인 선...‘거룩한 것’=중간 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 ‘거룩한 것들로부터의 거룩한 것’=가장 깊은 천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

출26:34-‘거룩함들로부터의 거룩함’=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선이 있는 곳.

출28:29-‘그가 거룩함 안으로 들어감에서’=모든 예배에서...제단에서 있는 그의 모든 행정, 그리고 성막에서는 ‘거룩함’이라 불렀다

출28:36-‘여호와에게 거룩함’=주님의 신성한 인간, 그리고 그로부터 있는 천적, 영적 모든 선. ‘거룩함’=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 고로 신성한 인간에 관련한 주님, 이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천국들에 신성한 모든 것이 있다. 이로부터 천적인 선, 영적인 선은 거룩하다. 그 이유가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천국들과 땅에 있는 유일한 거룩이다.

출28:36-‘여호와께 거룩함’이 금판에 새겨진 이유는 이

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전체 백성의 시야에 있어지기 때문. 그리하여 예배에서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것이 있었다. 이 거룩은 보편적 천국에 있는 거룩과 상응한다. 이는 신성한 인간이다. 그 이유가 이것이 천국을 만들기 때문...그러므로 이 가장 거룩한 것이 그들의 마음에서 보편적으로 군림할 때, 예배의 모든 것이 성스러워지게 된다.

출29:21-‘그와 그의 의복은 거룩하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의복도 거룩하다’=천국들 안에 있는 신성한 모든 것들. ‘거룩’=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것, 그 이유는 그분만이 유일한 거룩이기 때문. 고로 그것=신성한 것.

출29:31-‘너는 거룩한 장소에서 고기를 삶을 것이다’=주님으로부터 예증 안에서 교리의 진리들을 통하여 생활의 사용들을 위해 선을 준비함...‘거룩한 장소에서’=신성한 예증으로부터. 그 이유가 ‘거룩한 장소’=주님의 신성이 현존하는 곳.

출29:37-‘제단은 거룩함으로부터의 거룩일 것이다’=천적 왕국, 거기서 주님은 사랑의 선에서 현존하신다.

출30:10-‘이것은 여호와께 거룩들로부터의 거룩일 것이다’=신성한 천적 평면으로부터이기 때문...

출30:37-‘여호와께 거룩한 그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예배는 신성을 사랑함에 응용되어야 한다는 것.

출31:11-‘거룩한 것을 위해’=표현 교회를 위해.

출31:14-‘이는 너에게 거룩이기 때문에’=그러므로 천국을 만드는 모든 선과 진리. ‘거룩’=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 고로 사랑의 선과 믿음의 진리.

출31:15-‘여호와께 거룩한’=신성인 것=그분의 신성한 인간,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

계3:7-‘거룩이신 그분, 참이신 그분’=신성한 진리에 관한 주님...그 이유는 주님은 그분의 신성한 진리로부터 ‘거룩’이라 불리시기 때문...그러므로 이는 그분의 진행되는 신성, 이는 신성한 진리, ‘거룩한 영, 성령’이라 불리워진다.

계5:8-‘거룩한 사람들’=영적인 선들과 진리들에 있는 이들.

계8:3-‘거룩한 사람들’=영적 왕국에 있는 이들.

계11:18-‘거룩한 사람들’=이런 것들에 따라 생활하는

거룩한

이들.

계13:7-‘거룩한 사람들’=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들에 있는 이들, 그러므로 추상적으로 인물 들로부터, 신성한 진리들.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계8:10-‘여기 거룩한 사람들의 신앙과 인내가 있다’=주님의 새 교회의 사람은 그의 생명과 신앙에 관련하여 그것들로부터의 시험들을 수단으로 탐구되어진다는 것...‘거룩한 사람들’=주님의 새 교회 속에 있는 이들. 특별히 신성한 진리 안에 있는 이들 (=그분으로부터 영적으로 되어간 이들의 시험들).

계15:3-‘거룩한 사람들의 왕’=그분으로부터 천국과 교회에 있는 신성한 진리. 그이유가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들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기 때문.

계15:4-‘당신 만이 거룩하시다’=그분은 말씀, 진리, 계몽해주심이다 (=선 자체, 진리 자체).

계16:6-‘그들은 거룩한 사람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뿌렸다’=말씀으로부터의 모든 교리적인 진리들을 곡해한 믿음 만으로의 교리...‘거룩한 사람들’=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들에 있는 교회 속의 사람들.

계17:6-‘여인은 거룩한 사람들의 피로 술취했다’=주님과 말씀과 교회 속의 선과 진리에 섞음질하고 모독함으로부터 발광하는 광신적 신앙...‘거룩한 사람들’=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들에 있는 이들, 그리고 추상적으로,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말씀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그러므로 교회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계18:20-‘네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말씀으로부터 선들과 진리들에 있는 교인들.

계19:8-‘고운 모시옷은 거룩한 사람들의 정의이다’=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주님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생활의 선을 가지고 있다. ‘거룩한 사람들’=주님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

계20:6-‘..그는 거룩하고 복되다’=주님과의 결합을 수단으로 신성한 진리들에 예증을 가진 그는 ‘거룩’이라고 말해진다.

계20:9-‘거룩한 사람들의 진영을 에워싸는 것’=들러볼

어 새 교회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

계21:2-새 예루살렘이 주님으로부터 ‘거룩’이라고 말해진다. 그분 만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것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로부터.

계22:11-‘거룩한 그는 계속 거룩히 있으라’=진리들에 있는 그는 진리들 안에 더욱 더 있을 것이다.

계5:8-‘거룩한 사람들의 기도’=영적 선으로부터의 예배. ‘거룩한 사람들’=영적인 것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 왕국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라 불리기 때문...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뜻한다. 그리고 ‘거룩한’에 의해 그분의 영적 왕국을 구성하는 신성한 진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

시85:8-‘여호와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하실 것이다’=그분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 있는 선과 진리의 결합을 통하여 그분 자신과의 결합을 주실 것이다...‘거룩한 사람들’=진리들을 통하여 선 안에 있는 이들.

단9:24-‘거룩한 것들로부터의 거룩한 것을 기름붓는 것’=주님의 신성한 인간은 여호와, 또는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이다. (=신성 자체와의 합일을 수단으로 그분의 인간이 신성화하심. 또한 그분을 사랑함으로부터 있는 모든 예배)

계6:10-‘거룩하고 참되다’=정의이신 분.

계8:3-‘모든 거룩한 사람들’=진리들을 통하여 선에 있는 이들, 고로 영적 선에 있는 이들. (그리고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져 구원된 이들)

이64:11-‘거룩함의 집’=천적 교회.

단7:25-‘가장 높은 자들로부터의 거룩한 사람들’=신성한 진리들.

단12:7-‘거룩함의 백성’=신성한 진리들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추상적으로 신성한 진리들.

시65:4-‘성전의 거룩함으로 만족하는 것’=신성한 진리로부터 총명에 있는 것...‘거룩’은 영적 선을 서술한다. 이는 진리이다.

이27:13-‘거룩함의 산’=생활의 선에 관련한 교회.

시132:9-‘너희 거룩한 사람들로 환호하게 하라’=영적 선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선행으로부터의 예배. 그이유

거만한-거십-거주하다-거짓말을 하다-거짓말쟁이

가 그들은 영적 왕국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라 불리기 때문. (=진리들에 있는 이들, 고로 추상적으로 천국과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

시15:1-‘거룩함의 산’, 이를 수단으로 예루살렘이 뜻해 진다=이 선으로부터의 교리 속의 진리들에 관련한 교회.

마27:53-시온에 의해, 여기서는 ‘거룩한 성’에 의해 뜻해지고, 천국을 표현했다, 거기는 주님이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지배하신다.

계16:5-‘그리고 거룩하다’=신성한 진리에 관하여.

시15:1-‘그분의 거룩함의 장소’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뜻한다, 이 성을 수단으로 교리에 관한 교회가 의미된다.

거리 (street)

예9:21-‘거리에 있는 유아’=발생하고 있는 진리.

애2:12-‘도성의 거리들’=진리들.

애2:19-‘거리들’=진리들.

창19:2-‘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낼 것이다’=말하자면 그분은 진리로부터의 심판을 원하셨다는 것...말씀에서, ‘거리’는 ‘길’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즉 진리. 그이유가 거리는 도성의 길이기 때문.

단9:25-‘거리와 개천이 회복될 것이다’=그 당시 진리와 선이 있을 것이다.

눅14:21-‘거리와 골목길로 빨리 가거라’=그는 얼마간의 진짜 진리, 즉 선으로부터 빛을 내는 진리를 어느 곳에서 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

예6:11-‘예루살렘의 거리들’=교회 안에 군림하는 거짓들.

이51:20-‘모든 거리의 머리에 눕는 것’=모든 진리를 빼앗는 것. (=진리가 흐트러지게 나타나는 것)

이24:11-‘거리에서 포도주 위에 울음이...’=거짓의 상태...‘거리들’=진리들 쪽으로 인도하는 것들 (=진리의 결핍 때문에 탄식함, 그리고 진리가 거짓과 뒤섞임)

눅13:26-‘당신은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쳤다’=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진리들을 전도하는 것. 그이유가 이전에는 전도가 거리에서 행해졌기 때문. ‘거리들’=교회의 교리 속의 진리들.

예48:38-‘거리들에서 슬퍼함’=모든 진리가 황폐됨.

계11:8-‘그들의 시체는 큰 도성의 거리 위에 누일 것이다’=...믿음 만으로 정의로워진다는 교리의 거짓들. ‘거리’=거짓.

계21:21-‘도성의 거리는 말하자면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다’=새 교회의 모든 진리, 그리고 이 교회의 교리 속의 모든 진리는 형체에서 주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나와 빛과 함께 흐르는 사랑의 선이라는 것... ‘도성의 거리’에 의해 교회의 교리 속의 진리가 의미된다.

계22:2-‘그것의 거리 한가운데에 생명의 나무가 있었다’=교리의 가장 인쪽에서 주님은 그분의 신성한 사랑 안에 계신다. ‘거리’=교회의 교리 속의 진리.

예5:1-‘예루살렘의 거리들을 이리저리 달려라’, 그리고 ‘거기로부터 사방으로 찾아보라’=그 교회의 교리물들 안을 보고 조사하는 것...‘거리들’, ‘방면들’=교리물들.

예2:19-‘모든 거리들의 머리에서 배고픔을 통하여 현기증나는 것’=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의 결핍을 통하여 영적 생명이 박탈되는 것.

숙8:15-‘도성의 거리들은 거리에서 노는 소년 소녀들로 꽉 찰 것이다’...‘도성의 거리들’=교리 속의 진리. ‘거리들에서 노는 소년들과 소녀들’=진리와 선에 애착함들 (그리고 그들의 기쁨들. 이 기쁨은 교리의 진리들로 사는 이들에게 풍부해 있을 것이다) (=교리물로부터 기뻐 환호하는 순진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

예11:13-‘예루살렘의 도로들’=교회의 교리 속의 거짓들.

애4:14-‘거리들에서 눈멀어 방황하는 것’=진리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

겔26:11-‘그들에 의해 짓밟힐 거리들’=교회의 교리 속의 진리들, 이것은 완전하게 파괴될 것이다.

애4:8-‘거리들에 알려져 있지 않는 것’=순수한 진리들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 것.

예14:16-‘예루살렘의 거리들’=교회의 진리들.

예7:17-‘예루살렘의 거리들’=(교회의) 진리들. 여기서는 거짓들 (=교회의 교리 속의 진리들)

계11:8-‘큰 도성의 거리’=교리로부터의 진리와 선. 반대적 의미에서 교리로부터의 거짓과 악. 그이유가 ‘거리’에 의해 인도하는 진리, 반대 의미로는 인도하는 거

거만한-거십-거주하다-거짓말을 하다-거짓말쟁이

짓.

이59:14-‘거리’=진리가 인도하는 곳인바, ‘진리가 거리에서 헛딤어 곱드러졌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나2:4-‘거리들’과 ‘구역들’=각 사람의 애착과 지각과 일치하는 것. 이렇게 말해진다. ‘병거가 거리들에서 격노했고, 그것들은 사방으로 이리저리 달렸다.’

애4장-‘거리들’=생활의 선 쪽으로 인도하는 교리 속의 진리들. 또는 우리가 그것에 따라 살아 갈 진리.

예44:9-‘예루살렘의 거리들’=교리 속의 거짓들.

이15:3-‘거리들’=그들과 더불어 외면의 것들.

거만한 (proud)

* 자만(pride)을 보라.

거십 (Khesib, Chesib)

창38:5-‘그녀가 그르 낳았을 때, 그는 거십에 있었다.’ ‘거십’=‘셀라’에 의해 의미된 우상숭배의 상태, 이 상태에 유대 나라가 있었다.

거주하다 (dwell, inhabit)

창9:27-‘그는 썸의 천막들에서 거주할 것이다’=예배의 내적인 것들은 외적인 것들에 있어야 할지 모른다....고대 사람들은 천막과 더불어 여행했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거주했다...이로부터 ‘체류하는 것, 우거하는 것’, 그리고 ‘거주하는 것’=사는 것.

창11:2-‘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거주했다’=거기로부터의 삶. ‘거주하는 것’, 말씀에서=사는 것. 단어 ‘거주하다’는 말씀의 예언과 역사적인 것들 모두에서 많이 등장한다. 그 이유는 태고인들이 천막에서 거주했기 때문이다...‘천막’=예배에 있는 거룩한 것. ‘거주하는 것’, 좋은 의미에서=사는 것, 또는 삶.

거짓말을 하다 (lie)

거짓말쟁이 (liar)

창21:23-‘만일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의심 없이.

이9:15-‘거짓말의 선생, 예언자는 꼬리이다.’ ‘꼬리’=거짓, 이것이 말씀에서 ‘거짓말’이라 불린다.

나3:1-‘거짓말로 차있다’=거짓.

출5:9-‘그들이 거짓의 말들 쪽으로 보지 않게 되돌아보지 않게 하라’=그들이 진리들 쪽으로 자신들을 돌리

지 않도록...‘거짓말의 말들’, 거짓들에 있는 이들에 의해 말해질 때=진리들. 그이유가 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진리들을 거짓들이라 부르기 때문.

출20:16-‘너는 거짓말을 증거로 네 이웃에 대답하지마라’=선이 악이라, 거짓이 진리라 불리워서는 안된다는 것. 또는 악이 선이라, 거짓이 진리라 불려져서는 안된다는 것. ‘거짓말로 증거함’=거짓으로부터의 확증...‘거짓말’=신앙 속의 거짓인 것.

이57:4-‘거짓말’=거짓.

출23:7-‘거짓말의 말로부터 너는 네 자신을 멀리 떨리지게 간직하라’=악으로부터의 거짓을 혐오함.

예10:14-‘거짓말’=악으로부터의 거짓.

호12:1-‘거짓말을 불리고 황폐케하는 것’=진리들을 왜곡하는 것, 고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

예50:36-‘어리석어질 거짓말쟁이’=그들의 교리의 거짓들.

계2:2-‘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발견할 것이다’=그들이 거짓들에 있다는 것.

계3:9-‘그러나 거짓말을 한다’=그럼에도 그들과 더불어 교회가 없다.

계21:8-‘거짓말쟁이’=...악으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이들.

계21:27-‘가증함과 거짓말을 하는 것’=확증으로부터 악들을 행하고, 고로 또한 거짓들을 일삼는 자...‘거짓말’=모든 종류의 거짓들. 여기서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이는 그 자체 악들이다. 고로 악을 확증하는 거짓들, 이는 확증한 악들과 같다.

계22:15-‘거짓말을 사랑하고 만드는 자는 누구든지’=십계명을 소용없게 만드는 이들.

요8:44-‘거짓말’이 거짓을 뜻하는바, ‘악마는 제 속으로부터 거짓을 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하신다.

거짓 예언자 (false prophet)

마7:15-‘양의 옷을 입은 거짓 예언자들, 그들은 내향으로는 탐욕하는 늑대들이다’=거짓들이 마치 진리인듯 가르치는 자들. 외견으로는 도덕적 삶을 꾸리는 이들, 허나 그들 자신의 영으로부터 생각할 때,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세상 밖에 생각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어떤 진리들도 결여된채 골몰하고 있다.

거친 곡식 가루-거품-건강한-건너다-건조물-건축하다

마24:11,24-‘거짓 예언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은 말씀을 뒤집고 거짓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을 뜻한다.

계16:13-‘거짓 예언자의 입으로부터’=생활로부터 분리된 신앙 속의 교리, 이 교리로 정의로워진다는 것을 왜곡한 말씀으로부터 확증했다.

거친 곡식 가루 (flour, meal)

* 고운 곡식가루(fine flour)도 참조.

창18:6-‘고운 곡식가루’=그당시 주님과 더불어 천적 평면과 영적 평면.

왕하4:41-‘엘리사가 술에 던진 거친 곡식 가루’=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또는 천적 평면으로부터 있는 영적 평면. 고로 말씀으로부터의 영적 진리를 수단으로 수정되어졌다는 것.

이47:2-‘맷돌을 가져다가 거칠게 간 곡식 가루를 으개는 것’=자기들이 뒤집어 놓은 진리들로부터 교리적인 것들을 부화하는 것. 그이유가 밀, 또는 보리로부터인 곡식 가루(meal)=선으로부터 진리들. 반대 의미에서 그들이 누군가를 부추키기 위해 뒤집어 놓은 진리들.

왕상17:14-‘곡식 가루의 통’=선으로부터의 진리. (=진리로부터의 선)

마13:33-‘곡식 가루’=진리로부터 선이 있음.

호8:7-‘싹이 곡식 가루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불모, 그이유는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없기 때문.

왕상17:14-‘곡식 가루’=교회의 진리. 그리고 ‘기름’=그것의 선.

이47:2-‘거친 곡식 가루를 타는 것’=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악들을 확증하는데 사용하려고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축출하는 것. ‘타는 것, grind’=축출하는 것. ‘곡식 가루’=그것을 섬기도록 한 진리.

거품 (foam)

* 더껍이(scum)을 보라.

건강한 (healthy)

* 낫게하다(heal)을 보라

건너다 (pass over)

* 통과하다(pass through)를 보라.

건조물 (structure)

계21:18-‘성벽의 건조물...’성벽’=글자 의미에서의 말

씀. 그것의 건조물=그것의 모든 것. 그이유가 성벽 전체가 건조물이기 때문.

건축하다 (build)

창2:22-‘건축하는 것’=땅에 떨어져 있는 것, 무너진 것, 타락한 것을 일으켜 세움, 끌어 올림이다.

* 말씀에서, ‘건축하는 것, 세우는 것, to build’은 악들을, ‘건립하는 것, 꼴꼴이 세우는 것, to erect’은 거짓들을, 그리고 ‘새로이 함, 갱신하는 것, to renew’은 악들과 거짓들 양쪽에 관련하여 서술될 때 사용된다.

창10:11-‘그는 니느웨를 건축했다’=그는 신앙 속의 교리적인 것들을 자신을 위해 (골격을) 만들었다 (formed)는 것.

창11:4-‘우리가 성과 탑을 건축하자’=그들은 교리와 예배에 모양을 지었다 (변화 시켰다, fashioned).

창11:8-‘그들은 성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했다’=이와 같은 교리는 받아지지 않았다는 것.

창16:2-‘어쩌면 나는 그녀를 수단으로 가문을 건축할 수 있을지 모른다’=이리하여 합리성이 태어나질 수 있다는 것.

창22:9-‘제단을 건축하는 것’=신성한 인간을 준비하는 것.

예22:13-‘정의 없이 집을 건축하고 심판 없이 깊은 방을 건축하는 것’=선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종교적인 것을 함께 놓는 것.

창30:3-‘나는 그녀를 수단으로 건축할 것이다’=그리하여 그것은 생명을 가질 것이라는 것. ‘건축되는 것’=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 또는 사는 것.

창33:17-‘(야곱은) 자신에게 집을 건축했다’=그 상태에서 진리로부터 선이 증가함. ‘집을 건축하는 것’=총명과 지혜에서 외적 인간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총명은 진리 속에, 그리고 선으로부터의 지혜 속에 있는바, 여기서의 경우, ‘집을 건축하는 것’=진리로부터 선이 증가하는 것.

눅14:28-‘탑을 건축하는 것’=자신을 위해 내면의 진리들을 포획하는 것.

암9:14-‘황폐된 도성을 건축하는 것’=왜곡된 진리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을 바로 잡는 것.

마21:42-‘건축자들’=교회 속에 있는 이들.

건축자-걷다

단9:25-‘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교회를 새로이 하는 것.

속6:15-‘여호와와의 성전을 건축할 멀리 있는 이들’=이전에는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로부터 옮겨 있던 이들이 교회에 앉을 것이다.

시51:18-‘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사랑의 선 쪽으로 인도함으로, 그리고 교리 속의 진리들을 가르침으로 해서 교회를 회복하는 것.

이44:26-교회와 교리를 회복함이 ‘사람이 거주함’과 ‘건축됨’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45:13-‘그는 내 도성을 건축할 것이다’=그는 진리로부터의 교리를 회복할 것이다.

건축자 (architect, builder)

시118:22-‘이 돌을 거절한 건축자, 또는 건설자’란 주님,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모든 신성한 진리를 거절해 버린 유대 교회 속에 있는 이들.

걷다 (walk)

* step, wander, way도 참조

창3:14-‘뱀도 걷는 것’=천국적인 것들 쪽인 위를 향하여 쳐다볼 수 없음.

창5:22-‘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신앙으로부터의 교리. (=신앙의 교리에 따라 살고 가르치는 것; 그러나 ‘여호와와 더불어 걷는 것’=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 ‘걷는 것’은 익숙해 있는 관용구이다. 즉 사는 것이다; ‘법 대로’, ‘규례에 의거’, ‘참 진리 안에서’ 걷는 것= 그와 같이 사는 것. 특히 ‘걷는 것’은 ‘길’과 관련이 깊다. 즉 진리 속에 길이 있다. 그러므로 신앙 속에 있다, 즉 신앙의 교리 속에 있다.

창13:17-‘일어나라, 토지를 관통하여 걸어라’=그는 천국의 왕국을 통째로 바라보리라는 것.

창15:2-‘나는 아이 없이 걷고 있다’=내적인 교회가 없다는 것. ‘걷는 것’=사는 것.

창17:1-‘내 앞에서 걸으라’=신앙의 진리. 그이유가 ‘걷는 것’=신앙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것.

미4:5-‘그것의 하느님의 이름에서 걷는 것’=예배를 모독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와의 이름에서 걷는 것’=진정한 예배.

창24:65-‘우리를 만나러 들판을 걷는 이는 어떤 사람

인가?’=합리성에 대한 탐구, 이것은 선 만으로 있었다. 그것이 선 안에 있음이 ‘걷는 것’, 즉, 들판에서 명상하는 것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요11:9,10-‘만일 누군가가 낮에 걷는다면 그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걷는다면, 그는 걸려 넘어진다’...‘낮에 걷는 것’=진리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밤에 걷는 것’=거짓 안에서 사는 것.

창48:15-‘하느님, 내 조상 앞에서 걸으셨던 분’=신성으로부터 내적 선과 내적 진리는 생명을 가졌다...‘걷는 것’=사는 것, 또는 생명을 가지는 것.

출9:23-‘불이 땅에서 걸었다’=자연적 마음은 그것의 가장 낮은 부분 아래쪽을 (탐욕을 수단으로) 소유했다.

출16:4-‘그들이 내 법에서 걸을 수 있는지, 아닌지’=그들이 진리와 선으로부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아닌지. ‘걷는 것’=사는 것...‘걷는 것’은 참 단어에서는 영적 의미로부터 의미를 가진다. 물론 많은 단어들에서도 그렇기는 하다.

출21:19-‘만일 그가 일어나서 버틸 것(지팡이)에 의지해 걷는다면’=그 안에 있는 생명의 힘들...‘걷는 것’=사는 것.

계2:1-‘일곱 금촛대 한가운데에서 걷는 것’=그분으로부터 모든 계발이 있다는 것...‘걷는 것’이라고 말해진 이유는 ‘걷는 것’=사는 것이기 때문.

막2:9-‘침대를 운반하는 것, 그리고 걷는 것’=교리에서 묵상하는 것.

계3:4-‘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그들은 주님의 영적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는 것, 그이유는 그들은 그분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기 때문. ‘걷는 것’, 말씀에서=사는 것.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그분으로부터 사는 것.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가지는 그들의 영적 생명)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것).

계9:20-‘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것’=그것 안에 영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그리고 진실로 합리적인 생명도 없는 것...‘걷는 것’=사는 것. (=그것 안에, 그것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이해함도 없고, 선에 대한 지각도 없으나, 영적 생명은 전혀 없

다.)

계16:15-‘벗은채 걷는 것’=진리들 없이 사는 것.

계21:19-‘구원되는 나라들이 그것의 빛 안에서 걸을 것이다’=생명의 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신성한 진리들에 따라 거기 안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볼 것이다.

요5:8-‘네 침대를 들고 걷는 것’=교리,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삶.

시128:1-‘그분의 길들에서 걷는 것’=명령들을 행하는 것. (=신성한 진리들에 따라 사는 것)

마14장, 요6장-‘주님께서 바다에서 걸으심’=이들 최말단들 안으로 유입됨과 현존하심. 고로 천국의 최말단들에 있는 이들에게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생명. 신성으로부터의 그들의 생명이 바다에서 주님이 걸으심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그리고 그들의 불명료하고 흔들리는 신앙이 베드로가 바다에서 걷다가 빠져버린 사실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그이유가 말씀에서 ‘걷는 것’=사는 것이기 때문.

겔28:14-‘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에서 걸었다’=생명이 있는 것에 따라 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요21:18-‘허리를 매는 것’, 그리고 ‘걷는 것’=진리들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들에 따라 사는 것.

검 (sword)

창3:24-‘그 자체 회전하는 불 검’=발광하는 탐욕들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설득력을 지닌 인간 고유의 사랑. 이것들은 믿음의 신비들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나, 이것들로부터서는 지상적이고 육체적인 것 만이 쟁취될 뿐이다. (=최말단에 있는 신성한 진리, 이는 글자의 의미에 있는 말씀 같아서, 이 진리는 (다른 목적, 용도에) 충당되어질 수도 있다.) (=거짓들에 있는 모든 것을 대단하게 거절함과 몰아냄) (=천적 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방어함)

이66:16-‘검’=거짓들을 처벌함.

예5:12-‘검과 기근’=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을 빼앗기는 것...‘검’=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황폐해짐.

여5:2-‘돌들의 검들’=그들과 더불어 있는 육욕적인 사랑들을 응징하고 몰아내도록 그들에게 불어 넣어진 진리들.

창27:40-‘네 검을 수단으로 너는 살 것이다...’=진리가 선과 결합되어 있는 한, 선은 걸보기로는 진리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듯 하리라는 것; ‘검’=전투하는 진리...그리고 결합은 전투를 수단으로, 즉 시험을 수단으로 결과되어진다.

겔26:11-‘검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거짓을 수단으로 진리들을 파괴하는 것.

예12:12-‘여호와와 검이 삼킨다’=진리의 황폐.

창34:25-여기서 ‘검’=또한 악도 의미하는 이유는 이 검은 레위의 검이었기 때문...

마10:34-‘내가 평화를 보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시험들; 그 이유가 ‘검’=전투하는 진리,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전투하는 거짓.

출5:3-‘그분이 우리를 악성 유행병이나 검으로 치시지 않도록’=악과 거짓의 저주를 피하도록.

출5:21-‘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검을 놓는 것’=이로부터 그들은 거짓들을 수단으로 교회 속의 진리들을 파괴하려는데 골몰한다는 것. ‘검’=전투하고 황폐시키는 거짓.

출15:9-‘나는 내 검을 빨 것이다’=악으로부터의 거짓이 계속적으로 전투함.

삼상15:33-‘네 검이 여인을 사별하게 했다’=그들의 거짓은 선에 애착함에 폭력을 가했다는 것.

여5:13-‘검을 빼어 손에 들고’=전투에서 힘을 과시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그 이유가 ‘검’=전투하는 진리; 그리고 ‘빼어든 검’, 거짓들과 악들에 맞서 계속 전투함.

출18:4-‘그분이 나를 바로의 검에서 구원하셨다’=침투하는 이들의 거짓으로부터 구원함. ‘검’=반대적 의미에서 전투하고 황폐하게 하는 거짓.

신13:15-‘검의 입’=진리가 악으로부터 있는 거짓과 전투하여 파괴함.

출22:24-‘나는 너를 검으로 살해할 것이다’=그들은 자신들로부터 거짓을 통하여 선과 진리를 빼앗긴다는 것.

출32:27-‘너희 모든 사람 각각은 자기 넓적 다리에 자기 검을 놓아라’=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악으로부터의 거짓에 맞서 전투함.

이1:20-‘검에 의해 삼켜지는 것’=악의 거짓에 의해 멸

검은-검게 하다-검음

해지는 것.

속11:17-‘검이 그의 오른쪽 눈에 ...있을 것이다’=이해함에 있는 모든 진리가 거짓을 통하여 멸해질 것이다.

겔16:40-‘그들이 너를 검으로 조각나게 할 것이다’=교회는 진리를 왜곡시킴을 통하여 깡그리 죽어질 것이다.

시45:3-‘네 검을 네 넓적다리에 차라’=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으로부터 전투하고 있음.

예12:12-‘여호와의 검이 삼킨다’=진리를 파괴하는 거짓.

레26:6-‘검이 너희 토지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거짓이 진리를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삼하1:22-‘사울의 검’=선으로부터의 진리.

이41:2-‘그분은 나라들을 ...그분의 검의 먼지 같게 주신다’=주님께서는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마치 그들이 아무 것도 아닌 듯하게 ...악들을 흐트신다.

시7:12-‘하느님께서는 그분의 검을 날카롭게 하셨다’... 사실 악인이 스스로 검을 날카롭게 한다...‘그가 검을 날카롭게 한다’=그는 자신을 위해 거짓을 획득한다. 이를 수단으로 그는 진리에 맞서 전투한다.

이51:19-‘검’=더 이상 진리가 없기 까지 조차 진리에 관한 지식이 박탈됨.

예9:16-‘나는 그들 뒤를 따라 검을 보낼 것이다’=악의 거짓들로 해서 파괴되는 것.

시55:21-‘그의 말들은 기쁨 보다 더 부드럽다마는 그들은 검을 빼어 들었다’=그들이 거짓들을 말하는 동안 선한 애착들을 자극하는데,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피어낸다...‘뽑아든 검’=파괴하는 거짓.

나3:15-‘검이 너를 자를 것이다’=그들은 거짓들을 통하여 멸해질 것이다.

시57:4-‘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검이다’=거짓들로부터의 교활한 추론들. 이것들이 ‘날카로운 검’이라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검’=진리를 파괴하는 거짓.

겔21:15-진리를 파괴하는 거짓의 무시무시함과 흉악함이 ‘검이 번개를 만들었고 살육을 위해 날카로워졌다’로 묘사되고 있다.

속11:17-‘검이 그의 팔에 있을 것이다’=거짓이 의지 속의 모든 선을 파괴함.

눅21:24-‘그들은 검의 입에 떨어질 것이다’=그들은 거

짓들을 통하여 멸망할 것이다. (=거짓들을 통하여 진리의 파멸)

예46:10-‘검이 삼킬 것이고 배터지게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거짓들을 통하여, 그리고 진리의 거짓화를 통하여 자연적 인간이 완전 파멸됨.

속11:13-‘용사의 검’=진리가 강력하게 거짓을 파괴함.

이2:4,미4:3-모든 사람이 만족함으로 전투들이 중지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은 검을 쳐서(녹여서) 보습으로 만들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검’ 그리고 ‘창’=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맞서 전투하는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그리고 그 반대 의미도 있다.

예43:11-‘검을 위해 있는 그들은 검으로 칠 것이다’=파생되는 거짓들을 통하여 파멸됨.

단11:33-‘검에 의해 쇠하는 것’=거짓들을 통하여 멸해지는 것.

신32:42-‘내 검이 살을 삼킬 것이다’=거짓들이 선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파괴할 것이다.

마26:52-‘검을 취하는 그들 모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믿음 속의 거짓을 받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의해 멸망하는 것.

눅22:36-‘검이 없는 그는 자기 옷을 팔아 그것을 살 것이다’=진리들을 가지지 않은 이들은 그들 자신인 것들을 반드시 거절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거짓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진리들을 포획해야 한다. ‘검’=거짓에 맞서는 진리의 전투, 그리고 거짓의 파멸.

애2:21-‘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검에 의해 쓰러졌었다’=진리에 대한 모든 애착과 진리를 이해함이 거짓들을 통하여 멸해졌었다.

시78:64-‘그녀의 성직자들이 검에 쓰러졌었다’=교회의 선들, 이는 일들로부터의 선들, 선행으로부터의 선들, 그리고 생활로부터의 선들인데, 이것이 거짓들을 통하여 파괴되어 왔었다.

예5:17-‘검으로 가난해지게 하는 것’=악의 거짓들을 통하여 파괴되어지는 것.

창49:5-‘폭력의 도구들이 그들의 검들이다’=거짓들과 악들이 진리들과 선들에 폭력을 휘둘렀다. (=교리적인 것들이 선행의 일들을 파괴하는데 쓰인다...‘검들’=교리

겉나게 하다-게걸스럽게 먹다-게난-게네사렛-게달-게달족-게르숨

적인 것들; 그 이유가 '검들'=믿음 속의 진리들, 이를 수단으로 악들과 거짓들에 맞서는 전투가 수행되어지기 때문; 고로 '검들'=교리적인 것들.)

계6:4-'큰 검'=진리에 맞서 전투하는 거짓. (=악의 거짓들을 통한 진리의 파멸)

계13:10-'만일 누가 검으로 죽인다면, 그도 반드시 검으로 죽을 것이다'=거짓들을 수단으로 또 다른 사람의 혼을 파괴하는 그는 거짓들을 수단으로 파괴되고 멸해질 것이다.

계13:14-'검의 타격을 받았는데 살았다...'=자연적인 것들 속의 품질을 수단으로 말씀의 자연적 의미로부터 취해진 것들이 결합되어졌다. '검'=진리에 맞선 거짓의 전투, 그리고 거짓들을 통한 진리의 파멸.

계1:16-'그분의 입으로부터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나온다'=주님에 의해 말씀과 이로부터 파생된 교리를 수단으로 거짓들이 흩어짐.

계19장-'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 거짓들과 악들에 맞서 전투하는 말씀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가 의미된다. (=주님에 의해 파생되는 교리를 수단으로 거짓들이 흩어짐.)

계6:8-'검에 의해', 등등=교리의 거짓들, 등등에 의해. '검'=악들과 거짓들에 맞서 전투하고 파괴하는 진리; 반대 의미에서, 선들과 진리들에 맞서 전투하는 거짓.

계19:21-'그리고 나머지는 말 위에 타신 그분의 입으로부터 진행되는 검에 죽임을 당했다'=개혁 교회 가운데 있는 다양한 교회 집단들 모두는 자기들에게 이미 친숙해져 있는 말씀 속의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지 않았는 바, 말씀이 그들을 판결했다, 그리고 멸해졌다...'그분의 입으로부터 진행되는 말 위에 탄 그분의 검'은 악의 거짓들에 맞서 전투하는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의미된다.

계2:12-'이런 것들을 날카로운 양날을 지닌 검을 가지신 그분이 말하신다'=주님, 그분만이 시험들에서 전투하신다.

계2:15-'나는 내 입의 검을 가지고 그들에 맞서 싸울 것이다'=(이와같이) 흩어질 것.

검은 (black)

검게 하다 (blacken)

검음 (blackness)

예4:28-'그들은 검어질' 것이다, '그들은 빛이 없을 것' 이라고 그들에 관해 서술되는데, 이때란 선으로부터의 어떤 지해도, 진리로부터의 어떤 총명도 없을 때이다.

울2:10-선들과 진리들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때, 그들이 '검어진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겔32:7-그 당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 멀해지는 것이 '나는 하늘들의 별들을 검게 할 것이고, 모든 빛의 발광체를 검게 할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울2장-그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그들은 '검게 된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예4:28-'하늘들은 빛이 없고 검게 될 것이다'=교인의 내면들, 악들과 거짓들을 통하여 단혀질 때, 천국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는다, 대신 지옥으로부터 어둠을 받는다.

겔32:7-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없다는 것이 '나는 거기로부터의 별들을 검게 할 것이다'에 의해 의미된다.

울4장-하늘들이 '검어진다'라고 말해지는데, 이때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하여 어떤 애착도, 진리에 대한 어떤 지각도 흐르지 않을 때이다.

시42:9, 43:2-표현 교회에서 슬퍼함은 선과 진리가 없는 마음의 영적 고통을 표현했기에, 그들은 '검게되었다', 다윗이 말한바, '어찌하여 제가 적들의 압제에서 검게 되었습니까?'

울2장-'태양과 달이 검게 되었다'=악으로부터의 거짓. 창30:32-'어린 양들에서 검은 가축 모두'=순진의 자아...'검은'=자아.

계6:5-'검은 말',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사람=지적인 진리가 소멸됨.

마5:36-'머리털을 검게 만드는 것'=거짓이 거짓이라고 자신으로부터 말하는 것...'검은'은 거짓인 것을 서술한다.

계6장-'검은 말'=교회의 세 번째 상태에서 진리 측면이 파괴된 말씀에 관한 이해.

계6장-'나는 보았다 그리고 보라 검은 말'=말씀에 관한 이해가 진리 측면에 관련하여, 고로 교리에 관련하여 파괴되었다...'검은'=진리 없음인 이유는 검다는 희다에 반대이기 때문. 이 검음이 말씀의 진리들을 왜곡

게바-게헤나-겐족-겟세마네-겨울-겨자-격노

한 이들과 더불어 위세를 떨친다. 다른 것은 빨강에 반대되어 있다. 이 검음이 말씀 속의 선들에 섞음질했던 이들과 더불어 위세를 떨친다. 후자의 흑암은 악마적이고 다른 흑암은 사탄적이다.

계6장-‘나는 보았다, 그리고 잘 보니 검은 말’=말씀에 대한 이해가 진리에 관련하여, 고로 교리에 관련하여 파괴되었다...‘검다’=진리 없다, 고로 거짓인 이유는 흑색이 흰색에 반대되고, 흰색은 진리를 서술하기 때문. 흰색은 빛에서, 흑색은 어둠에서 근원된다. 고로 빛이 없음에서, 그리고 빛은 진리이다. 영계에서 검음은 두 겹의 근원으로부터 있다. 천적 왕국에 있는 이들에게 우세한 것이 불꽃인데, 이 불꽃이 없음으로부터이다. 다른 하나는 흰색의 빛나는 빛의 없음으로부터이다. 이 빛은 영적 왕국에 있는 이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있다. 이 후자의 검음은 어둠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전자는 매우 짙은 어둠이다. 이 두 검음은 서로가 다르다. 하나는 역겹지만 다른 하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것들이 의미하는 거짓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역겨운 검음은 악마들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나타난다. 이 역겨운 진리는 부엉이(horned owl)가 태양의 빛을 대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역겨울 정도는 아닌 검음은 사탄들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나타난다. 이것들은 진리에 반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썩독새목의 새(night-owl)에 비교된다.

계6:12-‘태양은 머리털로 짠 삼베옷 같이 검게 되었다’=그들과 더불어 사랑의 모든 선은 섞음질되어졌다는 것...그 이유는 그 자체에서 섞음질된 선은 악이고, 악은 검기 때문이다.

숙6:2-‘검은 말들’=시작에서 진리에 관련한 이해의 품질.

애5:10-‘불가마 같이 검게 되는 것’=거짓으로부터 자신의 악 안에 있는 것.

계6-‘태양은 머리털로 짠 베옷 같이 검게 되었다’=사랑의 모든 선이 사라졌다는 것.

미3:6-‘낮은 그들 위에서 검게 되어 갈 것이다’=이해를 검게 하는 지옥으로부터의 짙은 어둠

겁나게 하다 (terrify)

* 공포(terror)를 보라.

게걸스럽게 먹다 (devour)

예12:12-‘검이 게걸스럽게 먹는다’=진리의 황폐해짐.

겔19:6-‘먹이감을 잡는 것, 사람을 게걸스럽게 먹는 것’=진리들과 선들을 파괴하는 것.

계10:9-‘작은 책을 게걸스럽게 먹는 것’=그것을 인정하는 것.

계12:4-‘(여인의 아이를) 게걸스럽게 먹는 것’=그것을 소멸하는 것.

계11:5-‘그들이 적들을 게걸스럽게 먹는 것’=그들은 악의 거짓들을 통하여 멸해지리라는 것.

겔16:20-‘아들들과 딸들을 게걸스럽게 먹히도록 제물로 바치는 것’=교회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을 소진하고 파괴하는 것.

예12:12-‘여호와의 검이 게걸스럽게 먹는 것’=거짓이 파괴함.

게난 (Kenan)

창5:9-‘에노스는...게난을 낳았다!’...‘게난’에 의해 이전의 교회를 계승한 넷째 교회가 의미되고 있다.

게네사렛 (Gennesaret)

눅5:1-‘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즈님을 서술할 경우,=복합체에 있는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게달 (Kedar)

게달족 (Kedarites)

겔27:12-‘게달의 군주들’=그들의 총명.

이60:7-‘게달의 양떼’=신성한 천적인 것들.

창25:14-‘나비웃, 게달’, 등등 (이스마엘의 아들들)=영적 교회 속의 모든 것들, 특히 이방인들과 더불어 영적 교회 속에 있는 것들.

이21:16,17-‘게달’=단순한 진리에 있는 이들.

게르솜 (Gershom)

출2:22-‘그는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불렀다’=이런 진리들의 품질...즉 그들은 자신의 것에서가 아닌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들이다.

출18:3-‘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었다’, 그 이유는 그가 ‘나는 외국의 토지에서 방랑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했다기 때문=교회 밖의 사람들의 진리로부터의 선

격렬한-건고한-건과-건디다-결혼식-결혼의-결혼 생활-결혼하다

게바 (Kephas)

요1:42-‘너는 게바라 불릴 것이다, 이는 번역하면 바위이다.’ 게바는 시리아어에서 바위를 뜻한다, 그리고 이 대목의 베드로도 ‘게바’라 불린다. 게바는 히브리어에서도 ‘바위’이다. 이는 예4:29, 욥30:6에서도 분명해진다. 거기서 바위가 복수로 ‘바위들’로 언급되고 있다.

*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교회의 첫째인 바,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았고, 사도들의 첫째이었다. 또한 주님에 의해 ‘게바’라 불리었다. 이는 ‘바위’이다. 그러나 그가 한 인물로서 불리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 라고 불리었다. ‘바위’는 최고 의미에서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이 의미된다. 이로부터 관계적 의미에서 ‘바위’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베드로’의 의미 파악 역시 같은 방법 아래 있다.

게헤나 (Gehenna)

마18:9-‘불의 게헤나’

막9장-여기서 게헤나, 또는 지옥이 취급된다.

마5:29-‘그리고 네 온 몸을 게헤나 안으로 던지지 마라’

* ‘게헤나’는 현세에의 욕망으로부터의 지옥이다.

막9:45-‘꺼질 수 없는 불 안으로, 게헤나 안으로 던져지는 것’

겐족 (Kenite)

창15:19-‘겐족과 그니스족과 갓문족’=거짓들, 이것들은 주님의 왕국에서 추방되어져 있다.

겻세마네 (Gethemane)

* 이와같은 것이 겻세마네와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 (이 세 체자들이) 겻세마네에서 주님을 시중들었다.

겨울 (winter)

* 여름을 참조

* 사랑 없는 신앙 생활은 마치 겨울의 열 없는 빛과 같다.

막13:18,19-신앙 없음, 그리고 사랑 없는 신앙이 주님에 의해 ‘겨울’에 비교되고 있다...‘너의 도망감이 겨울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이유는 이것이 고난의 날들이기 때문이다...’겨울’=사랑 없음의 생활.

겨자 (mustard)

마13:31-‘겨자 씨’=인간이 영적이기 이전 그의 선. 이 씨가 ‘모든 씨들에서 가장 작은’ 이유는 영적이지 않은 인간은 선이 행해질 때 그 선이 자기로부터라고 상상하기 때문에서이다. 자아로부터 있는 것은 악밖에 없다. 그러나 그가 거듭나는 상태에 있을 경우, 선으로부터의 어떤 것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선은 모든 선 중에서 가장 작다. 드디어 신앙이 사랑과 결합되는 도중에 있을 때, 이 작은 씨는 크게 되어간다. 그래서 연한 풀 수준의 식물이 된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사랑과 결합되었을 때, 이 씨는 나무이다. 그러면 ‘하늘들로부터의 새들’, 여기서의 경우, 이는 진리들, 또는 지적인 것들이다. 이것들이 ‘이 나무의 가지들에 그들의 둥지를 만든다.’ 이것은 과학물들이다.

* 겨자 씨로부터의 나무에 의해 진리를 통하여 아주 작은 선을 개시하는 교인 또는 교회가 의미된다. 만일 이 매우 작은 영적 선이 인간에게 뿌리를 내리면, 그것은 옥토의 씨 같이 성장한다... ‘하늘의 새들, 이것이 가지에 둥지를 건축한다’=진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파생되는 생각들.

* 만일 사람이 세상에서 악이 죄가 됨을 알고 악들에 맞서 전투함을 수단으로 영적인 어떤 것을 획득한다면, 비록 그가 획득한 것이 미미할지라도, 그는 구원되어진다. 그리고 후에 그가 획득한 영적인 것의 사용은 ‘겨자 씨가 나무로 성장하듯’ 그렇게 불어난다.

격노 (fury)

창49:7-‘그들의 노염은 저주될 것이다. 그것이 격렬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격노는 저주될 것이다. 그것이 과중했기 때문이다’=진리와 선으로부터 돌아섬에 대한 별. ‘노염’=진리로부터 후퇴함. ‘격노’=선으로부터 후퇴함.

계19:5-‘그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격노와 노염의 포도즙들을 밟는다’=주님만이 교회로부터의 모든 악을 참아 내시고, 말씀에 가해진 모든 폭력, 고로 그분 자신에 가해진 모든 폭력을 참아내신다. ‘하느님의 격노와 노염의 포도주’=말씀으로부터 있는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 이것이 모독되고 섞음질되었다, 고로 교회로부터의 악들과 거짓들.

예3:1-‘격노의 막대기’에 의해 지옥의 거짓이 지배함이

격렬한-견고한-견과-견디다-결혼식-결혼의-결혼 생활-결혼하다

의미된다.

격렬한 (vehement)

창49:7-‘그들의 노염은 저주될 것이다, 그것이 격렬했기 때문이다’=선으로부터 비통하게 돌아섬. 그결과 지옥에 떨어짐...‘격렬한 노염’=비통한 돌아섬.

이19:4-‘격렬한 왕이 그들을 통치할 것이다’=악의 거짓이 거기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

견고한 (adamantine)

* 금강석(diamond)을 보라.

견과 (nut)

창43:11-‘테레빈 나무 견과들과 아몬드들’=이런 진리들에 상응하는 생활의 선.

견디다 (endure)

계2:3-‘너는 견뎠다, 그리고 너는 인내를 가지고 있다’=그들과 더불어 끈기(인내). (=신앙의 진리들에 맞서 공격하는 이들에 저항함).

결혼식 (wedding)

결혼의 (nuptial)

결혼 생활(wedlock, marriage)

마22:11-(결혼 의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한 의미가 영계에서 경험에 의해 보여졌다)

마24:38-‘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결혼에서 주고...’=악과 거짓을 제 것 만드는 것에 관련한 그들의 상태, 그리고 그 결과 그것들과 결합함...‘결혼하는 것’=악과의 결합, ‘결혼에서 주는 것’=거짓과의 결합. (=거짓이 악과, 악이 거짓과 결합하는 것)

마25:10-‘준비된 이들은 그분과 더불어 결혼식(장) 안으로 갔다’=선 안에 있고 이 선에서 파생되는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은 천국 안으로 영접된다는 것. 천국은 선과 진리의 결혼인 천국의 결혼으로부터 ‘결혼식’과 매우 비슷하다. (=사랑과 신앙을 수단으로 주님과 결합함.) (=선과 진리의 결혼으로부터 있는 천국과 교회).

마9:15, 눅5:34-‘결혼-방(wedding-chamber)의 아들들은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슬퍼할 수 있겠느냐?’ 교회의 진리들 안에 있고 선을 받는 이들이 ‘결혼-방의 아들들’이라 불린다. 그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이 ‘신랑’이기 때문이다. 결혼-방의 아들들이 신

랑이 함께 있는 한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복되고 행복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있기 때문, 한편 그들은 그들의 선과 결합한 진리 안에 있다.

레22:12-‘외국인과 결혼한 성직자의 딸은 들어 올려 바친 제물은 먹지 못한다’=교회의 거룩한 것들은 교회의 진리들과 결합하지 않은 선과는 어울려질 수 없다.

* 진리들 안에 있지 않은 자가 ‘결혼 의복을 입지 않은’ 자로 말해지고 있다. (결혼 의복=말씀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하느님의 아들, 천국과 땅의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 신앙.) (=선으로부터의 진리.) (=영적 인간의 총명, 이는 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으로부터이다. 그러나 ‘결혼 의복을 입지 않은 자’=위선자, 즉 여전히 자연적일 뿐인데, 도덕적 삶을 수단으로 영적 삶을 위조한다.)

마25:10-‘결혼식’=주님께서 사랑의 선과 신앙의 선을 수단으로 천국과 교회와 결혼하심.

계19:7-‘그 이유는 어린 양의 결혼이 다가오기 때문’=이 때로부터 주님과 교회의 완전한 결혼이 결과되어진다.

계19:9-‘어린 양의 결혼 만찬에 불리우는 사람은 복있다’=주님의 새 교회 속에 있는 것들을 받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주님과 결합하고, 교회로 되어가서 결국 천국 안으로 영접되는 이들.

요2장-‘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방인들 사이에 교회가...

시78:63-‘그녀의 처녀들은 결혼하지 않았다’=진리에 애착함들이 진리에 대한 비이해함을 통해 사멸되었다.

결혼하다 (marry, wed)

이62:4-이해함이 의지와 짝을 이루었을 때, 또는 신앙이 사랑과 짝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결혼한 토지’라고 주님께 의해 불리워진다.

창20:3-‘그녀는 남편에 결혼 했다’=참된 신앙의 교리가 천적인 것과 결합했다는 것...그러므로 여기서 ‘남편에 결혼했다’=진리가 선에 결합했다는 것, 이 진리 또한 선이라는 것.

이44:1-‘결혼된 그녀의 아들들 보다 더 많은 아들들’=

경계-경계시키다-경멸하다-경비원

이전의 황폐한 교회의 진리들 보다 더 많은 진리들.

마24:38-‘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결혼에서 주고’=악과 거짓을 제 것 삼은 그들의 상태, 이로부터 파생된 결합...‘결혼하는 것’=악과 결합함. 그리고 ‘결혼에서 주는 것’=거짓과 결합함.

경계 (boundary, term)

끝내다 (terminate)

* border, canaan도 참조

창10:19-‘가나안족의 경계선’=그들과 더불어 지식들의 확장.

창23:17-‘경계선’과 ‘주변’=외면에 있는 것들.

창28:18-‘그는 기둥을 위해 그것을 놓았다’=거룩한 경계...선은 선 안에서 종결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가능한데, 그이유는 진리가 선의 그릇이기 때문.

창40:16-‘구멍이 있다, perforated’=중간 어느 곳에서 종결됨이 없다. 내면의 것들은 등급별로 구분되어진다, 그리고 각기 제 등급에서 종결되어진다, 그리고 종결됨을 통하여 더 낮은 등급과 분리되어진다...모든 등급들은 잘 종결될 필요가 있다, 이 종결을 수단으로 서로서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출10:4-‘네 경계 안에 메뚜기’=가장 바깥쪽 것들에 있는 거짓,

출13:7-‘모든 네 경계에’=선으로부터의 진리가 그 자체 넓혀지는 곳은 어디든지. ‘경계, border’=선으로부터의 진리가 팽창함. 그이유가 모든 진리는 각기 자신의 팽창을 가진다, 고로 그것의 경계선을 가진다.

출16:36-‘그들은 가나안 토지의 경계에 올 때 까지 만나를 먹었다’=그들은 천국의 영역에 올 때까지 진리로부터의 선을 제 것 되게 했다. ‘가나안의 토지의 경계’=천국의 입구, 또는 천국이 시작되는 구역.

출19:12-‘너는 백성 주변에 경계를 세울 것이다’=선의 영적 영역 쪽으로 보다 더 먼 것은 아닌 천국 쪽으로의 확장.

출23:31-‘너는 네 경계를 홍해로부터 블레셋의 바다에 까지로 세울 것이다’=과학적 진리로부터 신앙의 내면적 진리 쪽으로 확장함.

출28:14-‘끝들’=가장 바깥쪽 것들.

출28:22-‘너는 가슴받이 끝에 사슬을 놓아라’=가장 바

깃쪽 것들에서 천국의 전체가 결합하는 것.

출34:24-‘나는 네 경계가 확장되게 만들 것이다’=선으로부터의 진리가 불어나고 확장됨.

이60:18-‘경계들에서’=자연적 인간에서, 이 인간에서 영적인 것들이 종결된다.

시144:14-‘경계’=이 모든 것들.

시105:31-‘경계’=내면의 것이 중단되는 최말단, 여기에 모두 함께 있다.

출28:31-‘나는 네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의 바다에 까지, 그리고 사막으로부터 강에 까지.’ 가나안의 경계들=교회의 최말단 것들, 이는 과학적 진리들, 말씀으로부터 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합리적인 것들이다.

이19:19-‘(이집트의) 경계’=과학적 진리.

경계시키다 (alarm)

출19:16-‘진영에서 모든 백성은 떨덜 떨었다’=이제 막 받으려하는 이들에게 있는 거룩한 전율.

솔2:6-‘경계시킨 백성들’=거짓들에 있는 이들.

이41:5-‘섬들이 와서 덜덜 떨었고, 땅의 끝들이 경계시켜졌다...’ 그들의 두려워함과 경계시킴은 멸망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이 몹시 뒤흔들림을 의미한다.

경멸하다 (contemn, contempt)

렘36:5-‘혼의 경멸과 더불어’

창38:23-‘우리가 경멸하지 않도록’=창피, 불명예.

경비원 (watchman)

* 지키다(keep, guard)를 보라.

* 파수꾼도 참조

이23:13-‘감시탑, 망루’=몽상들.

이56:10-‘눈 먼 경비원들’=추론함으로부터 거짓 안에 있는 이들.

창31:49- ‘보는 것’, 또는 ‘감시하는 것’ (즉 미스바)=현존함.

이32:14-‘높은 곳과 경계탑이 영원히 동굴 같이 있을 것이다’=교회는 더 이상 그들과 더불어 존재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거기에 생활의 악과 교리의 거짓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호9:8-‘에브라임은 나의 하느님과 더불어 경비원이다’=말씀을 이해함; 이로부터 그는 ‘하느님과 더불어 경비원

경이-경작하다-경작자-경축하다-경호인-계단-계발하다-
계산하다-계속되는-계속 채우다-계수-계피-고난

'이라 불린다.

경이 (prodigy)

* 불가사의한 조짐

출3:3-'나는 하늘들에서 경이들을 줄 것이다.

마24:24-'나는 큰 표시들과 경이들을 줄 것이다'=외적인 나타남과 오류들로부터 확증하게 하고 설득 당하게 하는 것들. 이를 수단으로 유혹 당해지게 자신들을 단 순히 괴롭힌다.

출7:3-'나는 내 표시와 내 경이들을 배가할 것이다'=여러 종류의 혼계들... '표시들과 경이들'=진리의 확증들. 그리고 신성한 힘의 매체, 여기서는 혼계.

출7:9-'경이를 주는 것'=확증하기를 원하는 것. '경이들과 표시들'=진리들의 확증들.

경작하다 (till, cultivate)

경작자 (tiller)

* 예배(worship)도 참조

겔36:9-'너희는 경작하고 씨뿌릴 것이다'=이런 것들을 잉태시키는 것.

창2:15-'(에덴의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도록...'=그가 이 모든 것들을 향유하되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말라는 것, 그 이유는 그것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

창4:2-'지면의 '경작자'=선행이 결여된 사람.

창4:12-'지면을 경작함'= 이 분열(종파), 또는 이교를 경작(탐닉)하는 것.

경축하다 (celebrate)

창49:8-'네 형제들이 너를 경축할 것이다'=(천적) 교회는 여타 교회들 보다 빼어날 것이라는 것.

경호인 (guard)

* 지키다(guard)를 보라.

계단 (stairs)

* 사다리 (ladder)를 보라.

계발하다 (illuminate)

* 밝게하다를 보라.

계산하다 (compute)

계13:18-'짐승의 수를 계산하는 것'=교회 속의 왜곡된 이런 저런 진리들을 검사하여 아는 것.

계13:18-'세는 것'=조회하는 것.

계속되는 (continual)

출28:29-'여호와 앞에서 계속적으로 기억함을 위해'=자비로부터 영원으로.

출28:30-'여호와 앞에서 그의 가슴에 계속적으로'=선으로부터 영구히 빛을 발하는 것... '계속적으로'=영구적으로.

출29:38-'아론의 이마에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를 표현... '계속적으로'=영원히.

계속 채우다 (replenish)

* 채우다를 참조

계수 (number)

* 수(number)를 보라.

계피 (cassia, kessia)

겔27:19-'계피와 창포'=자연적 진리, 그러나 이로부터 선이 온다.

출30:24-'계피'=선으로부터의 내면의 진리. '계피'=내적 인간의 내면의 진리...계피는 가장 안쪽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순서상 네 번째에 있기 때문이다. '계피'=선으로부터의 진리인 이유는 가장 깊은 진리는 선으로부터 직접 진행되기 때문, 그리고 더 낮은 것들 안에서 선과 결합을 행한다.. 이는 지적 측면이 의지 측면과 하나로 행동할 때 거행된다.

시45편-'계피'=세제 등급의 선.

계피 (cinnamon)

출30:23-'향기 높은 계피(육계) '=자연적 진리에 애착함과 지각.

계18:23-'계피'=천적 사랑으로부터의 선.

고난 (tribulation)

마24:9-'그 때에 그들은 너를 고난 안으로 넘기고 너를 죽일 것이다'=선과 진리는 멀해질 것이다. 첫째로, '고난'을 수단으로, 즉 곡해, 악용을 수단으로.

계7:14-'이들은 큰 고뇌함으로부터 온 이들'=그들은 시험들에 있어왔던 이들이다.

고귀한 (noble)

예2:21-'고귀한 포도나무'=영적 교회의 사람.

창49:11-'고귀한 포도나무'=천적 교회 속에 있는 지적 평면.

고뇌-고대-고대 교회

눅19:12-'고귀한 사람'은 주님을 뜻한다.

고뇌 (anguish)

이30:6-'협약하고 고뇌의 토지'=선행으로부터의 선과 신앙으로부터의 진리가 있지 않을 교회.

고대 (antiquity, ancient)

겔36:11-'고대' [옛 계급]=태고(최 고대) 교회(the Most Ancient Church).

이37:36-'고대 시절'=노아의 홍수 이전.

말3:4-'고대의 햇수들'=고대 교회.

창26:18-'이삭은 되돌아와서 그들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절에 팠었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주님께서는 고대인들이 소유했던 진리들을 여실 것이라는 것.

창34:2-'히위족 하몰의 아들'=고대 사람으로부터.

창34:4-'세겔의 아버지 하몰은 고대인들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창34:13-'세겔'=고대인들 사이에 있는 진리, 또는 고대의 신성한 지주로부터의 진리.

이19:11-고대 교회의 진리들이 '고대의 왕들'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왕상4:34-희미하게 이해함 같은 경우는 고대인들에게 결코 없었다. 그들의 지혜는 내면의 것들에 몰입되어 있었다. 고로 그들의 지적 능력과 자발적 능력은 함께 완전하였다...고대인의 관심사가 어려웠다는 것은 오늘 까지 존재하는 그들의 저술 흔적이나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것이 많은 이의 바램이었다는 구절로부터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창47:30-'내가 나의 조상들과 더불어 누울 것이다'=고대인들이 가졌던 삶.

창50:24-'그분께서는 너희를 이 토지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토지로 올라가게 만드실 것이다'=그들은 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교회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는 것.

단7:9-'날들 가운데의 고대인'은 천적 선에 관련한 주님, 마찬가지로 태고 교회에 계셨던 주님이시다. 이 교회가 천적 교회이었고, 말씀에서는 '고대'라 불리워진다.

미5:2, 단7:9, 이9:6-'날들 가운데의 고대인'이 영원으로부터의 주님이시다는 것은 미가서로부터 분명해진다.

이23:18-'The merchandise of Tyre shall be for

them that dwell before Jehovah, to eat to satiety and for a covering with what is ancient, 두로의 상품은 여호와 앞에서 거주하는 그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하여, 고대의 것으로 된 덮개를 위하여 있을 것이다.' '고대'가 진짜인 것이라 말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대인들 사이에 진짜 진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12:9-'옛 뱀'이라 불리는 이유는 옛날에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 교회 (Ancient Church)

* 히브리 교회, 태고 교회, 노아 등도 참조하라.

겔36:11,12-'시작들'=홍수 후 고대 교회.

겔16장-이 장에서 고대 교회가 취급되고 있다.

말3:2,3,4-'옛 것의 날들', '고대의 햇수들'=고대 교회.

창5:28,29-홍수 후 세 교회의 부모인 열째 교회가 '노아'라 일컬어졌는데, 이 교회는 고대 교회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

신32:7,8-'세대 그리고 세대'=고대 교회들.

예30:20-'그것의 아들들은 이전과 같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집회가 내 앞에서 설립되어질 것이다'=고대 교회로부터의 진리들.

창5:32-'노아'=고대 교회, 또는 남아 있는 태고 교회로부터의 교리.

창5:32-'노아'=고대 교회. '셈, 함, 야벳'=부모가 노아라 불리는 고대 교회 이었던 세 고대 교회들.

창6:8-'노아'=새로운 교회. 이 교회는 홍수 전의 교회인 태고 교회와 다른 바 홍수 후의 교회인 이 교회는 고대 교회라 불리워졌다. 위 교회들의 상태는 아주 다르다...고대 교회의 상태, 또는 '노아'라 불리는 교회는 선하고 참된 것에 관하여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고대 교회는 영적인 교회이다.

창6장-노아라 불리는 [고대 교회]의 형성이나 구조가 '방주'를 수단으로 묘사되고 서술되어지고 있다.

* 고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즉 본질은 선행(charity)이었다.

* '노아'라 불리는 교회 외에도, 그때에 다른 교회들이 있었다.

* '셈, 함, 야벳'이라 부른 모든 교회들이 고대 교회로 불리운 교회를 만들어냈다.

고대교회

* '노아'는 고대 교회는 아니고 이 교회의 부모, 또는 씨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노아'는 '셈, 함, 야벳'과 함께 태고 교회를 즉각 뒤이어 고대 교회를 구성했다.

* '노아'는 고대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설립하였다...이 세 교회들이 고대 교회의 구성 요소들이다.

창9:20, 이5:1-3-고대 교회, 영적인데, '포도원'에 의해 묘사되어지고 있다...즉 '나는 내 사랑하는 이에게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내 사랑하는 이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에서 '포도원'=고대 교회.

호9:10-'이스라엘'=고대 교회.

창10:1-'이것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들이다'=일반적으로 '노아'인 고대 교회의 교리물들과 예배들로부터의 갈래들.

창10:21-여기서의 '셈'=일반적으로 고대 교회.

창10:21-'셈으로부터 태어났다'=새로운 교회가 고대 교회로부터 존재했다는 것.

창10:21-그는 '에벨'의 모든 아들들의 아버지'이다=이 두 번째 고대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것은 그것들의 아버지적인 이전의 고대 교회로부터 존재했다.

창10:21-'야벳의 형은 에벨로 불린 이 두 번째 교회에 포함되고 있으면서 형으로서 첫 고대 교회에 있었다. 그 이유가 '야벳'=교회 속에 안쪽 예배가 있는 교회의 바깥쪽 예배이기 때문. 고로 또한 새로운 고대 교회의 예배, 이 예배는 외형을 중시했다...그러므로 '야벳의 형'=새로운 고대 교회의 예배, 이것은 외향적이었던는 것.

창10:32-'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속들이다'=세부적 측면에서의 고대 교회의 예배들.

창11:8-'그들은 도성을 세우는 것을 중단했다'=자아를 예배함, 자아를 사랑함을 안에 지닌 교리, 또는 예배가 이 고대 교회에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

창11:9-'여호와께서는 온 땅의 입술을 혼동되게 하셨다'=이 고대 교회의 상태, 이 교회의 내향적 예배는 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

창11:10-'이것들은 셈의 출생들이다'=두번째 고대 교회의 갈래들.

창11:10-'홍수 후 2 년'=홍수 이후 두 번째 교회...이

두 번째 교회가 시작된 때.

창11:14-'셀라는 30년을 살았다'=이 교회의 세 번째 상태의 시작. '그리고 에벨을 낳았다'=그때부터 파생됨, 이를 수단으로 두 번째 교회의 일반적 측면의 예배가 의미되어지고 있다.

창11:16-'에벨은 34년을 살았다'=이 교회의 네 번째 상태의 시작.

창11:25-'테라'=우상 예배. 이 두 번째 교회는 내향의 예배로부터 퇴보되었다, 그리고 내향적 예배에 섞음질 함에 따라 결국 우상 예배가 되고 말았다...그들의 대다수가 하나님(God)으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하느님들(gods)을 예배했다.

창13:10-'하느님의 동산은 합리성이 영적일 때, 즉 영적 근원으로부터 일 때, 고대 교회와 같을 때.

욥30:3-7-진리의 황폐함이 고대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말해져 왔던 형체들을 수단으로 여기서 기술되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욥기서는 고대 교회의 책이기 때문.

민21:14-16, 21:27-30, 예48:45-'여호와와 전쟁들'을 수록한 책이 고대 교회에 있었다...그리고 '예언적 계수자들(Enunciators)의 책'...이로부터 우리는 고대 교회의 저술을 역사적, 예언적 부분 모두에서 그러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신성하고 영감된 것들이다.

예2:2-'에루살렘'=고대 교회, 이 교회는 영적이었다.

창34:2-'세겜'=고대 시대로부터의 교회 속의 진리.

창34:6-여기서의 '야곱'=외향의 고대 교회. 그 이유가 그 교회가 후손들 사이에 설립되어 왔기 때문. 그리고 그들은 고대인들 사이에 널리 보급된 내면의 진리들을 받았을런지도 모른다.

창34:6-'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말을 하려고 그에게 갔다'=고대인들과 더불어 있는 교회로부터의 진리가 야곱의 후손들 사이에서 새로이 설립되어지는 고대 교회의 진리와 상담함.

창34:19-'디나'=고대 교회 속의 진리에 애착함 ...그리고 이와 더불어, 또는 같은 것으로, 이 교회와 결합을 원했다.

창34:30-'토지의 주민'=고대 교회 속에 있었던 이들.

창36:2-'헷족 엘른의 딸 아다, 그리고 히위족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고대 교회로부터 있는 것

고독한-고라-고래

과 같은 것(외관적 진리에 애착함).

창37:2-'요셉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악한 소문을 가져왔다.'...'아버지'=선. 여기서의 고대 교회의 선. 이것이 야곱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창37:3-'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모든 형제들 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주님의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자연과 결합되었다. 개략적 의미에서 '아버지'인 고대 교회와 결합되었다.

창37:12-'그들의 아버지(야곱)=고대 교회, 그리고 또한 원시 교회

창37:32-'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가져왔다'=고대 교회, 또한 원시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과 대비해봄...이 두 교회는 내향의 것들에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외향의 것들에서만 다르다. 고대 교회의 외향의 것들은 주님, 그분의 왕국의 천적이고 영적인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다. 즉 사랑과 선행, 이로부터 파생된 신앙에 관한 모든 것 역시 표현하고 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것들의 표현이 기독교 교회 속에 있다.

창37:35-'나는 통곡하면서 무덤으로 내 아들에게로 내려 갈 것이다'=고대 교회는 멸해지리라는 것.

호9:10-'이스라엘'=시작되던 시점에서의 고대 영적 교회. '아버지들(조상들)', 여기서와 그밖에서도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고 고대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의 사람들이다.

이19:11-'슬기로운 자, 그리고 고대의 왕들'=고대 교회 속의 진리들.

말3:4-'이전의 햇수들'=고대 교회의 상태들, 이것은 영적이었다.

창48:21-'그리고 너를 다시 네 아버지들의 토지로 데려 갈 것이다'=고대 교회들의 양쪽 모두의 상태...'아버지들(조상)'=고대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태고 교회 속에 있는 이들.

창49:25-'네 아버지의 하느님으로부터'=그분은 고대 교회의 하느님이시다는 것. 야곱, 여기서 '아버지'=고대 교회. 이 교회는 영적 교회였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 안에서 예배되었다, 이 분이 여기서 고대 교회의 하느님에 의해 의미된다.

출3:6-'나는 네 아버지(선조)의 하느님이다'=고대 교

회 속의 신성...고대 교회가 '아버지'라 불리워지는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계승한 교회들이 출생되었기 때문, 즉 히브리 교회, 후에 야곱의 후손들 사이에 있는 교회.

신32:7-'세대와 세대의 햇수들'=고대 교회의 때(시절).

말3:1,4-'이전의 햇수들'=고대 교회.

신33:13-16-'시대의 언덕들'=고대 교회.

겔19:10-'포도나무 같은 네 어머니'=고대 교회, 이 교회는 생활의 선 안에, 고로 진리들 안에 있었다.

이54:6-'젊은 여인'=고대 교회, 이 교회는 고뇌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었다

고독한 (solitary)

신33:28-'고독한'=악들과 거짓들에 의해 감염되지 않은 이들.

고라 (Korah)

민16장-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들에 속한 자들이 비록 그들이 제단으로부터 불을 가져와 향을 피웠다 해도 땅에 의해 삼킴을 당한 이유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들의 불평이 천적 사랑의 선을 모독함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이유가 모세와 아론에 의해 주님이 표현되었기 때문; 그래서 불평하는 것, 즉 주님에게 반역하는 것, 그런데 거룩한 것들을 수행하는 것은 모독이다.

고래 (whale)

* 거대한 바다 동물, leviathan도 보라.

출29:3-바로는 '바다에 있는 고래들'에 비교되어진다. 그 이유는 고래=일반적 측면의 과학물들이기 때문.

출7:9-'물 뱀'=오류만 있는 것,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거짓들...그 이유가, 원어적으로 보면, '뱀, serpent' 이 여기서의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와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졌기 때문. 그리고 '고래'=일반적 측면에서의 기억 속의 지식.

시74:13-'너는 물들 위에 있는 고래들의 머리를 부수었다, 너는 거대한 바다 동물의 머리들을 부수었다.' 이것은 신앙 속의 진리들을 파괴하는 지식들을 취급하고 있다. 머리들이 부셔질 '고래들'=일반적 측면의 과학물들. 그리고 '거대한 바다 동물'도 마찬가지.

시148:7-'땅으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 고래들과 깊음들이여'=인간에 있는 선들과 진리들, 이로부터 그

고레스-고리

는 하느님을 예배한다...‘고래들과 깊은들’=일반적 측면에서의 과학물들과 지식들, 또는 전체 복합체에 있는 과학물들과 지식들.

창1:21-‘하느님께서는 큰 고래들을 창조하셨다’=과학물들의 일반적인 것들, 이것 아래, 이것으로부터 세세한 과학물들이 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존재하고 존속하려면 어떤 일반적인 것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우주에 없기 때문.

시107:23,24-‘고래’=과학물들의 일반적 측면...그러므로 ‘배를 가지고 바다로 내려가는 그들, 이들은 여호와 의 일들, 그분의 경이함을 깊은에서 보았었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27:1-‘살륙당할’ ‘바다에 있는 고래들’=일반적 측면에서의 과학물들.

마12:40-요나가 ‘삼일 밤낮을 고래 안에’있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땅의 심장에서’ 그렇게 계셨다는 것을 표현했다. 그리고 요나의 말, ‘지옥의 배로부터 나는 외쳤다’는 주님의 끔찍한 시험들을 묘사하고 있다.

예51:34-‘그는 고래 같이 나를 삼켰다’ (이는 느부갓네살에 관해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신성한 진리를 모독한 이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더 그것을 마시기 때문, 그리고 그것을 육욕적인 사랑들에, 특히 지배욕에 응용했기 때문.) ‘고래’=자연으로부터의 최말단. 이 안에 자아 사랑에 있는 이들이 있다.

겔29:3-‘보라, 나는 너, 이집트의 왕 바로, 그의 강들에 누운 큰 고래에 맞서 있다.’ ‘큰 고래’란 일반적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의 기억 속의 지식이 의미되나, 여기서는 왜곡된 기억 속의 지식이다.

예51:34-‘고래’=‘용’과 같다. 이는 원어에서 양쪽으로 사용된다.

예14:6-이 문맥에서 ‘용’으로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 측면에서의 뱀들도 의미한다. 또한 바다에 있는 고래들도 번역된다. 번역된 단어는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진다. 즉 일반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자연 평면, 이는 감각적 평면이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될 것이다, ‘그들은 고래들 같이 바람을 내뿜는다.’

고레스 (cyrus)

이45:1-여기서 ‘고레스’에 의해 표현적 의미에서 인성

에 관련되는 주님이 취급되고 있다

고리 (ring)

반지 (ring)

이3:21-‘반지들과 코보석들’=선과 그것의 표지.

창41:42-‘그리고 바로는 자기 손으로부터 반지를 옮겼다’=그가 이전에 가졌던 권력에 관하여 확증하는 것... ‘반지’=확증하는 것...이로부터 ‘그가 반지를 옮겼다’란 이전에 그가 가졌던 권력을 양위하는 것.

창41:42-‘반지를 다른 자의 손에 놓는 것’=그의 것이었던 권능을 타인에게 양도했다고 확증하는 것.

출25:12-‘너는 금 고리 네 개를 그것(궤)을 위하여 제조할 것이다’=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과 결합했다, 이는 어느 곳이든지 빙둘러 있다. ‘고리들’=선과 진리의 결합.

출25:12-‘그것의 이쪽에 두 고리, 그것의 다른 쪽에 두 고리’=진리가 선과, 선이 진리와 결혼함... ‘고리들’=결합 또는 선과 진리의 결혼.

* ‘고리들’=결합 그 자체...‘장대’는 사람의 팔과 관련된 다. 고리는 팔이 가슴과 연결되는 곳에 있는 볼(ball)과 이 볼을 받는 구멍으로 접합되는 관절과 같다.

출25:14-‘너는 고리들 안으로 장대를 놓을 것이다’=신성한 영역의 힘... ‘고리들’=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에 결합되었음, 이는 모든 측면에 빙둘러 있다. 고로 일반적 측면에서 천국을 아우르고 마감하는 신성의 활동 범위. 그리고 세부적 측면에서는 천국의 사회들과 천사들.

출25:15-‘장대는 궤의 고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힘은 선과 진리의 신성한 영역으로부터 꾸준히 있다.

출25:26-‘너는 금 고리 네 개를 그것(탁자)을 위하여 만들 것이다’=천국적 결혼의 최말단 저장소(그릇), 이는 신성한 진리와 더불어 신성한 선의 그릇이다. ‘금 고리 네 개’=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과 결합함, 이는 어느 곳에도 빙둘러 있다. 고로 천국적 결혼의 최말단 그릇, 이는 신성한 선이 신성한 진리와 더불어 것이다.

출25:26-‘너는 그것의 네 모퉁이에 고리들을 놓을 것이다’=신성한 진리가 최말단들에서 신성한 선과 결합함으로부터 있는 안전함...

출26:24-넢관들은 ‘한 고리’ 아래에서 쌍을 이루어 있을 것이다.=고로 일관성과 견실함. ‘고리’=결합. 여기서

고리대금-고멜-고모라-고백하다

결합을 통하여 건설함.

출27:4-‘너는 놋쇠로 고리 네 개를 그물 위에 만들 것이다’=선의 영역을 통하여 결합이 있다...‘고리들’=신성한 선의 영역과 신성한 진리의 영역, 이를 통하여 결합이 있다.

출28:23-‘너는 금 고리 두 개를 가슴받이에 만들 것이다’=신성한 선의 영역을 통하여 더 높은 천국 측면에 결합이 있다...‘금 고리 두 개’=신성한 선의 영역을 통하여 결합이 있다.

출28:23-‘두 고리들은 가슴받이 맨 끝에 놓을 것이다’=천국의 맨 바깥에서 신성한 선의 영역의 결합.

출28:28-‘너는 가슴받이를 그것의 고리들로부터 에봇의 고리와 묶어라’=영적 왕국의 외부에서 신성한 선의 영역을 통하여 천국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결합함.

출30:4-‘너는 그것(향제단)을 위하여 경계선 아래에 금고리 두 개를 만들 것이다’=신성한 선의 영역을 통하여 결합과 보존이 있다.

눅15:22,23-방탕한 아들의 손에 끼워준 ‘반지’=내적 인간 안에서 선과 진리의 결합

고리대금 (usury)

레25:36-38, 신23:20,21-‘너는 네 형제에게 은으로부터의 고리대금, 식품으로부터의 고리대금, (이런 식으로) 어떤 것으로부터의 고리대금을 받으려 하지 말라...외국인에게 너는 고리대금을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른다.’ ‘은을 받으려 고리대금을 네 형제에게 놓는 것’=이익을 취하려고 진리들을 빌려주는 것, 또는 가르치는 것. ‘식품을 받으려 고리대금을 놓는 것’=이익을 취하려고 진리로부터의 선들을 빌려주는 것...그러나 외국인에게 고리대금을 받는 것은 허용된 이유는 ‘외국인들에 의해 선 또는 진리의 어떤 것을 인정하여 받지 않는 이들, 고로 이익을 위하여서만 선을 행하는 이들이 의미되어져 있기 때문. 이것들은 인간을 섬길 뿐이다.

시15:5-‘고리대금 위에 자기 은을 주는 앓는 자...결코 움직여지지 앓을 것이다.’ ‘고리대금 위에 은을 주는 것(고리대금을 받으려 은을 주는 것)’=이득만을 위해 가르치는 것. 고로 보수를 위해 선인 것을 행하는 것.

출22:24-‘너는 그 사람에게 고리대금을 놓지 마라’=결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

고멜 (Gomer)

창10:2-‘고멜, 마곳,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는 여러 나라들을 말하는데, 이 나라와 더불어 내적인 것에 상응하는 외적 예배가 있었다. 그리고 내적 의미에서 그들을 수단으로 그들이 신성하게 준수했던 예식과 동일한 아주 많은 고리들이 의미되고 있다.

고모라 (Gomorrah)

창13:10-‘고모라’=거짓된 설득들.

* ‘고모라’=자아 사랑과 거짓으로부터 명령을 집행하는 파생된 탐욕

* ‘고모라’=자아 사랑의 악으로부터 있는 모든 거짓.

신32:32-‘들판들과 고모라의 포도들’=거짓들로부터의 악들.

예23:14-‘고모라 주민 같은 주민들’=교리의 거짓들로부터의 악한 생활.

고백하다 (confess)

예30:19-진리에 애착함 들이 ‘고백’, 그리고 놓고 있는 그들의 음성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29:35-‘이제 나는 여호와를 고백하리라’=최고 의미에서, 주님. 내적 의미에서, 거기로부터 파생된 교리. 여기서, 사랑의 신성 그리고 그분의 천적 왕국. ‘고백하는 것’, 외적 의미에서=말씀으로부터의 교리. 그 이유가 평범한 대화에서 조차 고백이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선포함 외 더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 고로 고백이란 사람이 믿는 것들, 당사자에게 교리인 것들이라고 납득되어진다. 이로부터 내적 의미에서 ‘고백함’=말씀이다가 뒤따른다. 그이유가 신앙의 교리, 선행의 교리 모두는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고백하는 것’, 최고 의미에서=주님인 이유는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서이다....이로부터 ‘여호와를 고백하는 것’=사랑의 신성과 그분의 천적 왕국. 그이유가 주님은 신성 자체, 그리고 이것의 유입이 그분의 왕국을 만들기 때문, 그리고 이것은 그분으로부터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다. 여호와를 고백함으로써 명명된 이름 ‘유다’=사랑의 신성, 그리고 주님의 천적 왕국.

계3:5-‘나는 그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고백할 것이다’=주님으로부터인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에 있는 이들은 받아질 것이다....

고생-고센-고수풀-고아

누군가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그의 품질을 인식하는 것이다.

시147:7-영적 선으로부터, 그리고 영적 진리로부터 고백함이 이 구절에서 '너는 여호와께 고백함을 수단으로, 그리고 하프를 우리의 하느님에게 연주함으로 답하라'로 표현되어져 있다.

시26:7-'들려지게 고백의 음성을 만드는 것'=진리들로부터의 예배.

고생 (trouble)

출18:8-길을 가면서 그들 위에 떨어진 모든 고생=시험들에 있는 수고함. 그이유가 '고생'=수고함이기 때문, 이것은 시험들을 서술한다.

계16:10-'그들은 고생 때문에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다'=그들은 진리들을 견뎌낼 수 없었다. 여기서 고생은 거짓들로부터의 고생을 뜻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거짓들은 그들에게 어떤 고생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서이다. 그들의 고생은 진리들로부터이다.

계16:10-'그리고 그들의 고생과 종기 때문에 천국의 하느님을 모독하였다'=그들은 자기들의 내면의 저항 때문에 주님 만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심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생들'에 의해 이것을 인정함으로부터의 고생이 의미되어진다. 고로 내면의 거짓들로부터의 저항. 이 저항은 골치 아픈 것이기 때문. '고생들'은 거짓들을 서술한다.

고센 (Goshen)

창45:10-'당신은 고센의 토지에 거주할 것입니다'=자연 평면에서 중간인 것. '고센 토지'=중간, 또는 가장 안쪽. 이 토지가 이집트에 있고, 이집트가 자연 평면에 있는 과학적인 것을 의미하는 바, 고센=자연에서 중간인 것, 또는 가장 안쪽인 것이다. 그이유가 고센은 이집트의 토지 중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 마찬가지로 과학물이 있는 곳, 자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중간에, 또는 중앙에 있기 때문. 그이유가 선 자체, 일종의 태양 같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측면에 있는 것에 빛을 준다.

창46:28-'그 자신 앞에 고센을 보여주는 것'=자연에서 중간에 관하여...자연에서 중간 또는 가장 깊은 것은 거기 안의 가장 좋은 것이 의미된다. 그 이유가 가장 좋

은 것은 중간에 있기 때문...그리고 그것 주위 각처에 선들이 천국적 형태에서 배치된다.

출8:18-'나는 그 날에 고센의 토지를 구별할 것이다'=그들은 비록 영적 교회의 이들 근처에 나타난다 해도, 그들을 감염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고수풀 (coriander)

출16:31-'고수풀의 씨 같이, 희었다'=거기 안에 있는 진리, 그것은 순수했다는 것...'고수풀의 씨'라 말해진 이유는 그것이 희었기 때문.

* '고수풀의 씨, 희다'=천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

고아 (orphan)

* 고아=아버지가 없는 이들은 순진과 선행의 상태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선인 것을 알고 행하기를 갈망하는 이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는 교회 밖의 이들에게 많다. 이들을 주님은 보살피신다. 그리고 다른 삶에서 아들로 양자 삼으신다. **예49:11, 신10:18**-주님 만이 선과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 고아들을 남겨두어라, 내가 그들을 생기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해지고, 또한 신명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의 재판을 집행하신다.'

출22:22-'그리고 고아'=진리 안에 있고 선 안에 있지 않은 이들, 그러나 선을 갈망하는 이들. 그이유가 '고아'=진리에 있고 선을 갈망하는 이들이기 때문. 이들이 '고아들'에 의해 의미되는 이유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윈 아들들-내면의 선과 진리를 빼앗긴 이들이 고아이기 때문.

요14:18-'고아들'=말씀으로부터 교회의 신앙 속의 진리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 그리고 후에 그것들을 수단으로 선쪽으로 인도되는 이들이다는 것은 다음 구절로부터 분명하다. '나는 너를 고아들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올 것이다.'

출22:24-'네 아들들이 고아들이 될 것이다'=같은 때에 진리들이 멀해질 것이라는 것. '고아들'=진리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선 안에 있지 않은 이들, 그러나 여전히 선을 갈망하는 이들. 여기서의 경우, 진리 안에 있는 이들, 그러나 선을 갈망하지 않는 이들, 고로 이들과 더 붙은 진리들은 멀해진다. 이 구절의 고아들은 악에 관

고안하다-고약-고약한 냄새가 나다-고용인-고용하다

런되어 말해지고 있다.

시68:5-‘고아들의 아버지가...하느님이시다.’ ‘고아들’=마치 유아들 같이 순진의 선에 있는 이들, 그러나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이들, 이들의 아버지가 주님이라고 말해진다. 그이유는 아버지 같이 그분은 그들을 인도하고, 진리를 통하여 선 안으로, 즉 생활의 선 안으로, 또는 지혜의 선 안으로 인도하신다. ‘고아’인 진리 없는 선은 진리로부터의 교리를 수단으로 지혜의 선이 되어간다.

고안하다 (contrive)

출26:31-‘고안하는 작업’

출26:1-‘고안자의 작업으로 너는 그것들을 만들 것이다’=지적인 것. ‘고안자’=지적인 것, 그이유가 이것은 생각하고 생각된 것을 작업하기 때문.

출31:4-‘교묘한 작품들을 창안(devise)하는 것’, 또는 발명품들을 고안하는 것=이해성으로부터 진행되는 것.

암6:5-‘노래하려고 악기를 발명(invent)해내는 것

고약 (ointment)

* 기름을 부음(바름)(anoint)를 보라.

고약한 냄새가 나다 (stink)

창34:30-‘너희는 토지의 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겨서 나를 괴롭혔다’=고대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을 혐오할 것이라는 것.

암4:10-‘나는 너의 진영에서 네 코에까지 오도록 고약한 냄새가 나게 만들었다.’...‘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역겨운 것, 이는 지옥으로부터 발산된다.

출7:18-‘강은 고약한 냄새를 낼 것이다’=기억 속의 지식이 진리를 혐오함.

출8:14-‘토지는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악취나서 결과적으로 불쾌한 것.

마7:17, 12:33-‘부패한 나무는 악한 열매들을 만든다.’

이34:3-악들을 통하여 멸해질 이들의 지옥에 떨어짐이 ‘그 시체의 악취가 올라 움’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악취를 풍김’=그들이 지옥에 떨어짐.

고용하다 (hire)

급료, 삿 (hire)

보상, 상금 (reward)

고용인, 삿꾼 (hireling)

창15:1-‘나는...네 큰 상금이다’=승리들의 끝

창29:15-‘나에게 말하라, 무엇이 너의 대가(급료)인가?’=거기에 결합의 수단이 있을 것이라는 것...거기=결합의 수단 밖에 더 아니다. 천사들은 보상에 관하여 어떤 것을 지독하게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어떤 선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생각하는 것조차 지독히 혐오한다. 그 이유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악밖에 없음을 천사들은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들 자신인 것으로부터 행동되는 것은 무엇이든 보상에 반대되는 것도 수반되어진다...오히려 보상이 목적으로 기대될 때, 선 자체는 선이 되어 가지 않는다. 이로부터 ‘보상’이 말씀에서 언급되어질 때, 천사들은 보상의 어떤 것을 지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짜로 수여된 것, 주님에 의한 자비의 어떤 것을 지각한다. 더욱이, 보상은 아직 개시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결합의 수단으로서 봉사함 속에 있다. 그이유가 아직은 선 쪽으로, 그리고 선의 애착 쪽으로 개시되지 않은 그들은 보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하는 선은 선에 애착함으로부터가 아니기 때문, 그러나 인간이 거듭나야 하게 될 때, 그제서야 순서가 거꾸로 된다. 그리하여 선에 애착함 이 되어 간다. 그런다음 그는 더 이상 보상을 찾지 않는다.

창30:18-‘레아가 말했다, 하느님께서 내 삿을 주셨다, 그 이유는 내가 내 몸종을 내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최고 의미에서=진리로부터의 신성한 선 그리고 선으로부터의 진리. 내적 의미에서 천국의 결혼 사랑. 외적 의미에서, 상호간의 사랑...‘삿’은 말씀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나 ‘삿’의 의미를 아는 자는 거의 없다...선행에 대한 애착은 보상을 기대하는 모든 선한 행위를 혐오한다. 선행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보상은 자기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자기들의 선한 행위를 타인이 응낙함 자체이다. 이 정도로도 말씀에서 언급되는 ‘보상’이 무엇인지 분명할 것이다. 즉 보상은 선행으로부터의 행복과 즐거움이다. 또는 상호간의 사랑으로부터의 더없는 행복과 기쁨이다.

창30:28-‘네 임금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그것을 줄 것이다’=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신으로부터 주어야 하

고용하다

리라는 것.

창30:32-‘내 품삯일 것이다’=그것이 자신으로부터 있다는 것.

창30:33-‘너는 내 앞에 내 삯을 오게 하리라 때문’=그분의 자아...‘삯’, 주님을 서술할 경우,=자아. 즉 그분 자신의 힘으로 획득한 것.

창31:7-‘너희 아버지는 나를 속였다, 그리고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었다’=그분이 자신으로부터 이 선의 것들에 응용할 때, 그분에 관련되는 선의 상태, 그리고 큰 변화...‘품삯’=그분 자신으로부터.

창31:8-‘그가 얼룩진 양떼가 네 품삯이다 라고 말하면 온 양떼는 얼룩진 것을 낳았다’=그의 자유. 그리고 그의 자유에서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가져와 졌다는 것.

호9:1-‘음란의 삯을 사랑하는 것’=왜곡된 진리들을 사랑하는 것.

출2:9-‘나는 네 급료를 네게 줄 것이다’=보답.

이23:18-‘상품, 그리고 음란의 삯’=악한 사용에 응용된 지식들.

출12:45-‘고용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이득을 위해 선한 것을 행하는 이들.

요10:12,13-‘고용인, 삯꾼’은 임금을 위해 노동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종들이었으나 구매한 종들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이윤을 위해 선인 것을 행하는 이들을 뜻한다. 그리고 더 내적 의미에서, 다른 삶에서 보상을 위해 선한 것을 행하는 이들이다. 고로 일들을 수단으로 공격을 원하는 이들이다. 이와 같은 이들은 천사들과 결코 연합될 수 없다...이를 두고 주님께서 말하신다. ‘삯꾼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내팽개친다...삯꾼은 도망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삯꾼이기 때문이다. 예46:20,21도 참조.

눅6:31-35, 14:12-14-다른 삶에서 대가를 기대하여 선인 것을 행하는 이들, 그들이 ‘삯꾼’에 의해 의미되는데, 이들은 앞서 취급한 이들과는 다르다, 그들도 끝으로 천국에서 행복과 생명을 가져본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서조차 그들은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예배를 자신에게 돌리고 자아 사랑이 그들 사방에 가득하기에 그들은 천사들과 연합되어질 수 없다. 그 이유가 천사들은

선한 일을 두고 보상이라는 것은 단어를 생각하는 것조차 혐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된가를 잘 처리하는 것, 주님께서 가르치신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빌려주어라, 다시 아무것도 희망하지마라. 그러면 네 보상은 위대할 것이다.’

출22:14(15)-‘만일 고용인이 그것과 함께 있다면’=만일 이득을 위한 선을 위하여 있다면. ‘고용인’=이득을 위해 선을 행하는 이들, 또는 보상을 기대하여 선을 행하는 이들. 고로 추상적 의미에서 이득의 선, 또는 보상.

출22:14(15)-‘그는 그의 고용됨 안에 올 것이다’=복종과 섬김.

신23:18-‘매음녀의 삯’=신앙 속의 왜곡된 진리.

예46:21-‘송아지들 같은 고용인들’=이득을 위하여 선인 것을 행하는 이들.

마10:41-‘이름’, ‘예언자의 보상’=신성한 진리들에 있는 이들의 상태와 행복. ‘이름’과 ‘의로운 자의 보상’=신성한 선들에 있는 이들의 상태와 행복.

마10:41-‘자기의 보상을 받는 것’=받아들임에 따라 구원되어지는 것.

계11:18-‘그의 종들에게 보상하는 것’=...이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과 행복.

계22:12-‘내 보상은 나와 함께 있다’=주님 자신이 천국이시고 영원한 삶의 행복이시다는 것.

겔16:33-‘그녀가 그녀의 애인에게 주는 대가들’=거짓들을 뽐냄.

미1:7-‘매춘의 대가’=그들이 거짓들과 악들에 응용하여 왜곡했던 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

막9:41-‘그는 자기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그들은 천국의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요4:36-진리에 대한 영적 애정에 있는 새 교회인들, 이로부터 천국에 있는 이들이 ‘거두는 자는 자기 삯을 받는다’에서 뜻해져 있다.

예31:16-‘그의 보상’=진리에 대한 영적 애착으로부터 이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을 위한 천국.

이49:4-‘보상’, 여기서=진리에 관하여 영적 애착에 있는 교회.

고운 곡식 가루-고운 아마포

시127:3-‘보상’=천국에 있는 이들이 가지는 행복.
 마5:12-‘네 보상은 천국들에서 위대하다’=진리에 관하여 영적 애착에 있는 이들을 위한 환희와 더불은 천국.
 이23:17-거짓의 뽀냄이 ‘두로의 매춘부와 음란의 대가’로 의미되어 있다.
고운 곡식 가루 (fine flour)
 창18:6-‘고운 곡식 가루’=그 당시 주님과 더불은 영적, 천적인 것.
 * (식사-공물에서) ‘고운 곡식 가루’=그것의 영적인 것.
 * 케익을 만든 고운 곡식 가루는 빵과 같은 의미이다.
 * (얼굴들의 빵에서) 고운 곡식 가루=천적 그리고 영적인 것.
 겔16:13-고대 교회의 선과 진리에 애착함들이 ‘고운 곡식 가루, 꿀, 기름’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레7:12-‘물에 적신 고운 곡식 가루’=신앙의 천적인 것들.
 * (식사 공물에서) 고운 곡식 가루=이웃을 향한 선행.
 겔16장-‘고운 곡식 가루’=영적인 것. (=진리)
 * 밀=선, 고운 밀가루=그것의 진리.
 출29:2-‘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너는 그것들을 만들 것이다’=신성한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고운 곡식 가루’=진리.
 계18:13-‘고운 곡식 가루’=천적인 진리.
 * (식사 공물에서) ‘고운 곡식 가루’=진짜 진리.
 * ‘고운 곡식 가루’=영적 선으로부터의 진리, 그이유는 이것이 밀로부터이기 때문, 이를 수단으로 영적 선이 의미된다.
고운 아마포 (fine linen)
 겔27:16-‘고운 아마포’=선에 대한 지식.
 겔16:10-그것의 더 낮은 영적인 것들, 그리고 교리적인 것들이 ‘수를 놓는 일로, 고운 아마포로, 명주실로 만든 의복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계19:14-‘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로 입고’=사랑에서 동일한,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한 신앙 안에서 동일한.
 창41:42-‘고운 아마포의 의복으로 그를 입히고’=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을 외적으로 표시함. ‘고운 아마포의 의복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그 이유가 고운 아

마포의 의복들은 빛나는 흰 옷, 동시에 찬연히 빛나는 옷이었기 때문. 이렇게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는 빛나는 흰색, 광채나는 흰색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천국의 빛나는 흰색과 광채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빛으로부터이다.
 * ‘고운 아마포’ 그리고 ‘고운 아마포의 의복들’은 여타 말씀에서도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겔16:10-‘고운 아마포’=자연적 진리들, 그리고 ‘명주’는 영적 진리들.
 계19:8-고운 아마포가 거룩한 사람들의 정의인 이유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정의를 입고 있기 때문. 그들의 의복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빛 덕택에 광채나고 희게 빛나고 있다.
 계19:13-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는 천사들은 고운 아마포로 옷입은듯, 즉 광채나는 빛나게 흰 고운 아마포를 입은 듯 나타난다. 이로부터 고운 아마포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대한 외적 표시임이 매우 분명하다.
 겔16:10-‘고운 아마포와 명주’=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천국의 빛에서 이것들은 가장 빛나고 투명하다.
 눅16:19-‘자색과 고운 아마포’=말씀으로부터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 (고운 아마포=천적 근원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는 신성으로부터이다.) (=진짜 진리) (=말씀 속의 진리)
 출25:4-‘고운 아마포 실’=거기서부터 파생된 진리...‘고운 아마포’=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양쪽 모두=자연적 인간에 있는 진리. ‘고운 아마 실’=그것의 흰색과 부드러움 때문에 천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
 출26:1-‘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천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 두 번째 천국에서 이 진리는 첫 순위에 있다. 그러나 베일에서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는 마지막 순위에 있다.
 출27:9-‘고운 아마포로 꼬아 만든’=지적인 것으로부터. ‘고운 아마포’=천적인 근원으로부터의 진리. 그러므로 ‘꼬아진 고운 아마포’=지적인 것. 그 이유는 이것은 말하자면 천적인 근원으로부터 꼬아 만든 것 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해성이 진짜 진리들로 형성되는 한 그것은 뛰어나다. 그리고 ‘꼬아진 고운 아마포’이

고자 -고집 센-고통

다. 그이유가 ‘고운 아마포’=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이기 때문.

출28:39-‘너는 고운 아마포로 관을 만들 것이다’=거기 지혜...‘고운 아마포’=천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 그 이 유가 이로부터 진리는 여기서 관에 의해 의미되는 지혜 에 오기 때문.

계18:12-‘고운 아마포’, 등등=일반적으로, 천적인 선들 과 진리들.

계19:8-‘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아마포를 입도록 그녀 에게 주어졌다’=주님의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은 말썸 을 통하여 진짜이고 순수한 진리들로 주님께 의해 가르 쳐진다는 것...‘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아마포’=선로부터 빛나고 진리들로부터 순수함. 그리고 순수한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말썸을 통하여서 만 주어지는바 이것 역 시 의미한다. ‘깨끗하고 빛남’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이 유는 ‘깨끗함’=악으로부터 자유함, 고로 이것은 선으로 부터 빛난다. 그리고 ‘빛남’=거짓으로부터 자유함, 고로 이것은 진리로부터 있는 순수함이다.

계19:8-‘고운 아마포는 거룩한 사람들의 정의이다’=말 썸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주님의 교회 속에 있 는 이들과 더불어 생활의 선들이 있다.

계19:14-‘천국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 마포로 옷입고, 흰말들을 타고 그분을 뒤따랐다’=새 기 독인의 천국에 있는 천사들, 그들은 말썸을 내면적으로 이해하여 주님과 결합하였는바, 고로 순수하고 진짜 진 리들 안에 있다.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주님으로 부터 말썸을 통하여 있는 순수하고 진짜인 진리.

* ‘고운 아마포’=천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 ‘명주, silk’=영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수놓음’=자연 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

겔27:7-‘고운 아마포’=영적 진리.

계18:12-‘고운 아마포와 심홍색, crimson’=천적 근원 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이 모독되었다.

출28:39-‘고운 아마포의 상의(coat)’=특별한 측면에서 신성의 영적 평면.

고자 (eunuch)

마태19:12-천국적 결혼에 있는 그들이 ‘고자들’이라 불 린다.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된 고자’, 이들은 천적 천

사들과 같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고자’, 이들은 영적 천사들과 같다. ‘자신이 만든 고자’, 이들은 천사 같은 영들과 같다. 이들은 자발적인 것 보다는 순종해야 한 다는 의무감에서 선을 행한 이들이다.

이56:3-‘고자’=선에 관련한 자연적 인간...그 이유가 주님의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있기 때문...이들은 자연적이다, 그러나 선 안에 있다, 이들은 ‘고자들’이다.

* ‘하느님의 왕국을 위하여 자신을 고자로 만든 고자’란 영적인 고자, 즉 결혼에서 매춘의 악들로부터 자신을 지킨 이들.

* 유대 국가와 더불어 결혼들은 영적 의미에서 이해할 경우, 간음들이었다...이런고로 주님께서 고자들에 관하 여 말하셨다, 고자에 의해 악한 애정을 가지고 결혼 안 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뜻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럴 경우 진리와 선에 대한 이해가 남용되고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고로 ‘고자들’이란 진리 와 선을 이해함이 진리와 선에 애착함과 결합한 이들을 뜻한다. 이들이 ‘고자’라 불려진 이유는 그들에게는 음 란한 것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진리와 선을 이해함과 진리와 선에 애착함의 결혼은 세 겹으로 존재한다. 천적 등급의 이 결혼은 ‘어미의 자 궁으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고자’이다. 영적 등급의 이 결혼은 ‘사람이 고자로 만든 고자’이다. 자연적 등급의 이 결혼은 자신이 고자로 만든 고자’이다.

고집 센 (refractory)

숙7:11-‘고집 센 어깨를 주는 것’=저항하는 것.

겔2:6-그러므로, 그들은 ‘고집 세다’, 그리고 ‘가시 있 다’라 불려진다.

이30:9-‘고집 센 아들들에게 화있다’=자신을 돌아서게 한 이들의 지옥에 떨어짐 때문에 통곡함.

고통 (affliction)

막13:18,19-‘고통의 날’=다른 삶에서 그의 비참한 상 태.

창15:13-‘그들은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비통한 그들 의 시험.

마6:13-‘우리를 시험 쪽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시 험에 관한 생각 그리고 악에 관한 생각이 선 만이 남아 있을 때까지 선한 영들에 의해 거절되어졌다...이 속에

고통

서 선은 무수한 생각들을 형성했다....어떻게 선이 인간의 고뇌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여전히 고뇌는 인간과 그의 악으로부터 있다.

창16:9-'네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어원적으로보면 이 단어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려고 표현되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자신을 강요하는 것임은 말씀의 많은 곳에서 명백하다.

창16:11-'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그녀가 자신을 복종되게 했을 때, 겸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내향의 인간의 힘에 자신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마24:21-'그 다음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조차도 있지 않았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선과 진리에 관련하여 교회의 극도의 악용과 황폐함, 이것은 모두이다.

창29:32-'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셨다'=선에 도착하는 상태. '고통'=시험, 이것은 선에 도착하는 수단인바, '내 고통'은 바깥쪽인 진리로부터, 안쪽인 선에 도착하는 상태이다.

마24:29-'이 날들의 환란이후 즉각'=신앙 속에 있는 진리에 관련하여 교회의 상태, 진리의 황폐함. 말씀의 여러 곳에서 '고통, 고난, 환란'이라 불린다.

창41:52-'내 고통의 토지에서'=그가 시험들을 견뎌낸 곳.

출1:11-'짐들로 해서 고통을 주자'=노예 상태를 통해 더욱 압제하는 것.

출1:12-'그들은 고통을 더 받은 만큼 더 그들은 증가했다'=진리는 떼지어 연습한 (거짓)에 따라 더 성장했다. '고통을 주는 것'=떼지어 연습하는 것.

출3:7-'여호와께서 말하셨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아왔다'=거짓이 떼지어 연습한 이후 영적 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한 자비.

출3:17-'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만들 것이다'=거짓 과학적인 것들에 의한 떼지은 연습으로부터의 해방과 승강.

출4:31-'그분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이런 큰 시험들 후에.

출22:20-'너희는 채류자를 압제하지 말 것과 괴롭히지

말 것이다'=신앙으로부터 진리들과 선들에 관해 훈육받은 이들은 신앙의 거짓들과 생활의 악들로부터 연습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출22:22-'괴롭히는 것'. 진리로 훈육받고 선으로 인도되어지는 이들에 관련해 말해질 경우,=사기치는 것.

계1:9-'환란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것을) 강한 인내심으로 예상함에서'=악들과 거짓들에 의해 교회 안에 떼지어 연습한 이런 것들, 그러나 이것들은 그분의 오심에서 주님께 의해 제거될 것이다. '환란'=선행의 어떤 선도, 신앙의 진리도 더 이상 없고, 그 대신 악들과 거짓들만이 있는 교회의 상태.

계2:9-'나는 네 고뇌함과 궁핍을 알았었다'=그들은 거짓들 안에 있다, 고로 선들 안에 있지 않다는 것... '고뇌함'=거짓들.

계2:10-'너는 열흘 동안 고난을 가질 것이다'=그들이 거짓들 안에 머물고져 하는 한, 충분한 시간을 견뎌낼 것이다. '고난', 여기서 떼지어 연습함, 고로 시험.

계2:22-'보라, 나는 그녀를 침상으로 내던질 것이다, 그리고 간음을 범한 그들은 그녀와 더불어 큰 고난으로 내던져질 것이다'=그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 안에 왜곡된 것과 더불어 남아 있을 것, 그리고 그들은 거짓들에 의해 비통하게 떼지은 연습을 당할 것이다.

계7:14-'이들은 큰 고뇌함으로부터 온 이들이다'=시험들 가운데 있어왔던 이들, 그리고 악들과 거짓들에 맞서 싸웠던 이들.

이54:11-'너 고통받는 (자) '=이방인과 더불어 주님께 의해 건설될 교회.

마24장에서-'환란'=악들과 거짓들에 의해 습격당할 때 교회의 상태.

마24장에서-기독교 교회에서 거짓들의 떼지은 연습, 이로 인해 모든 진리의 소멸, 황폐해짐이 '큰 환란'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마24, 막13, 눅21장에서-'큰 환란'=거짓화되지 않거나 절멸하지 않은 어떤 진리도 남아있지 않는 때까지 거짓에 의해 진리는 공격당할 것.

요16:33-'세상에서 너희는 고난을 가질 것이다.' 여기서 '평화'는 '고난'에 반대되어진다, 그 이유는 '고난'이 악들과 거짓들의 떼지은 연습을 의미하기 때문. 이것은

고투하다-고페르 목재-고함치다-고환-곡-곡식

신성한 평화 안에 있는 이들이 세상에서 있는 한, 그들과 더불어 있다. 그이유가 이들을 에워싼 육체가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기 때문, 고로 고난이 있다.

이54:6-'영이 고통받는 것'=진리들을 바라고 진리들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슬픔 안에 있을 때의 교회에 관해 말해진다.

이54:11-'사나운 비바람에 뒤흔들려지고 고통받은 자'=거짓들의 떼지는 엄습과 여기저기로 운반된 것은 거짓들 때문이라고 말해진다.

이58:10-'배고픈 자'=선을 바라는 이들. '고통받는 자'=진리를 바라는 이들.

고투하다 (struggle)

* 버둥거리다(struggle)를 보라

고페르 목재 (gopher wood)

창6:14-'고페르목재'=현세에의 욕망 즉 색욕, 물욕(concupiscences)등등.

* 고페르 목재는 마치 전나무(fir) 같이 불이 잘 붙는 재질이 풍부한 나무이다.

고함치다 (roar)

이59:11-'우리는 곱들 같이 고함친다'=자연적 인간의 슬픔.

고환 (testicle)

* spermatice 도 참조

신23:1-'고환을 다친 자들'=사랑과 선행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거절하는 자들.

곡 (Gog)

겔39장-'곡'=내적 예배를 파괴하는 외적인 것으로부터 교리적인 것을 납득하는 이들.

겔38:2-'곡, 그리고 마곡의 토지'=외적인 것들에서 예배함.

겔39장-이 장에서 취급되는 주제는 내적 예배로부터 분리되고 우상을 만든 외적 예배이다. 이것이 '곡, 메섹, 두발'로 의미되고, 이들을 수단으로 그들이 세워놓고 말 씬의 글자 의미로부터 확증한 교리적인 것들, 고로 진리들을 왜곡하고, 내적 예배를 파괴한 이들.

계20:8-'곡과 마곡'=내적 영적 예배로부터 분리된 외적 자연적 예배에 있는 이들.

곡식 (corn)

애2:12-'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느냐?'=사랑과 신앙이 어디있는가?

창27:28-'풍성한 곡식'=거기로부터의 자연적 선.

호14:7-'곡식'=영적인 선.

율1:10-'곡식'=교회의 모든 선.

창41:49-'요셉은 곡식을 바다의 모래 만큼 거두어들였다'=선을 수단으로 진리가 풍성함. '곡식'=의지와 행동에 있는 진리.

창42:3-'이집트로부터 곡식을 사는 것'=과학물을 통하여 진리의 선을 자신들 것이 되게 하는 것.

창42:25-'그들은 곡식으로 그들의 그릇들을 채웠다'=과학물이 진리로부터의 선과 더불어 수여되었다는 것. '곡식'=진리로부터의 선, 또는 진리의 선.

창45:23-'열 마리의 암나귀가 곡식과 빵을 운반하고 있다'=진리의 선, 그리고 선의 진리...'곡식'=진리의 선, 그러나 여기서는 선의 진리인 이유는 요셉, 즉 내적인 것의 천적 평면으로부터이기 때문.

시78:24-'곡식'=진리의 선.

출22:29-'곡식'=신앙 속의 진리의 선.

호2:9-'곡식'=영적 교회의 내면의 선.

애2:12-'곡식'=진리의 선.

율1:10-'곡식'=외적 인간에 있는 갖가지 종류의 선.

율2:24-그 때부터 그들은 형제와 동료를 향한 사랑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 '마루들이 순수한 곡식으로 가득할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신7:13-'곡식과 새 포도주'=자연적 인간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

시65:13-'곡식'=자연적 진리.

애2:12-'곡식과 포도주'=교리의 선과 그것의 진리.

숙9:17-'곡식은 젊은이를 자라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처녀를 자라게 할 것이다'=진리를 이해함과 진리에 애착함은 그분에 의해 선을 통하여 그리고 진리를 통하여 형성될 것이다.

율2:24-'마루들이 곡식으로 가득하다'=그들이 가지는 천적인 선은 풍부하다.

곡해하다 (pervert)

* 벗어나게 하다(pervert)를 보라.

곡해하다-골리앗-골방-골짜기

골리앗 (Goliath)

* '골리앗'=자기 총명으로부터의 교만.

* '골리앗', 그는 블레셋 출신이었다, 그러므로 '할례받지 않은 자'였는바, 그는 선 없는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했다. 선 없는 진리들은 왜곡한 진리들이다, 이는 그 자체 거짓들이다. 이로부터 골리앗을 쳐부순 다윗의 승리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설명될 것이다.

골방 (inner room, inner chamber)

* 방, chamber를 보라

골짜기 (valley)

창11:2-'그들은 시날의 토지에서 골짜기를 발견했다'=그들의 예배는 더 불순해지고 모독되었다는 것..'골짜기'=산 보다 더 낮은 것; 고로 예배에서 보다 더 낮은 것, 즉 외면의 것.

이22:1-'환상의 골짜기'=몽상과 추론에 의해 예배가 왜곡되어지고 결국 모독되었다.

창14:3-'잇딤의 골짜기에서'=탐욕의 불결한 것들.

창14:17-'사웨 골짜기에서, 이는 왕의 골짜기이다'=그 당시 선과 진리에 관련한 외적 인간의 상태. '사웨의 골짜기'=외적 인간의 선들. 그리고 '왕의 골짜기'=외적 인간의 진리들. 외적 인간이 '골짜기'라 불리운다. 이는 골짜기가 보다 아래쪽이라는 사실로부터이다.

창26:17-'(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 거주했다'=그분은 자신을 더 낮은 합리적인 것들에서 시작하게 하셨다, 즉 자신을 내면의 나타남으로부터 외면의 나타남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 '골짜기'=보다 낮은, 또는 외면의 것들.

창26:19-'골짜기에서 (땅을) 파는 것'=그들이 있는 곳에 관하여 진리들에 의거 아래쪽 더 낮은 것을 추구하는 것. '골짜기'=더 낮은 것.

눅3:5-'모든 골짜기가 채워질 것이다.' '골짜기'=낮게 있는 것.

창37:14-'그는 헤브론의 골짜기로부터 그를 보냈다'=신성의 자연적 평면과 감각 평면으로부터. '골짜기'=아래 있는 것들.

이22:1-'환상의 골짜기'=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에 관한 몽상, 고로 더 낮은 것으로부터.

이22:7-'골짜기들의 선택'=자연적 또는 외적 인간에

있는 선들과 진리들.

이40:4-'모든 골짜기가 드높여질 것이다.' '골짜기'=낮은 것.

예2:23-'골짜기에 있는 네 길을 보라.' '골짜기'=과학적, 감각적인 것들. 그들이 남용함으로 인해 더 낮아진 것들.

예21:13-'골짜기의 주민들'=선행이 있지 않은 신앙.

예49:4-'너는 골짜기들을 자랑하려들지 마라. 네 골짜기는 흘러가버렸다, 타락한 딸아.' '계곡'=예배에 있는 외적인 것들, 이는 또한 가장 낮은 것이다.

시23:4-'그들의 골짜기'=더 낮은 것들, 이는 상대적으로 그늘에 있다.

신11:11-골짜기들이 산들과 언덕들 사이에, 또는 그것들 아래에 있는바, '골짜기'는 교회의 보다 낮은 또는 외면의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언덕', '산'은 더 높은 것, 또는 내면의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나안의 토지에 의해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교회가 의미되는바, 말해지기를, '산들과 골짜기들의 토지, 하늘로부터의 비의 물을 마신다.'

사5:15-'그의 발 아래 계곡에서'=가장 낮은 것들에서 삼키는 것.

신21:4-'경작하지도, 씨를 뿌리지도 못하는 메마른 골짜기'=계발되지 않은 자연적 마음, 그 결과 신앙의 선과 진리에 무지한 자연적 마음.

슥14:4-'동쪽을 향하여 그리고 바다쪽을 향하여 산이 쪼개짐, 큰 계곡에서'=천국과 지옥의 분리.

이65:10-'아골의 골짜기'=(천적 선이 있는) 외적인 것.

겔36:6-'물의 흐름과 골짜기들'=교회의 최말단들인 진리들과 선들.

신8:7-외면의 진리들이 '골짜기로부터' 솟는다고 말해진다. 그 이유는 '골짜기'=이와 같은 진리들이 있는 곳이 낮고 외면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28:4-'살찐 것들의 골짜기의 머리'=자연적 인간의 총명.

시104:8-'당신이 그들을 위해 발견한 장소로 산들이 올라가고, 골짜기들이 내려간다'=그들로부터의 자연적 사랑들과 악들 대신에 그들로부터 천적 사랑들과 선들이 삼입되었다. 그리고 거짓들 대신에 일반적 진리들이

골풀-곰

승인되었다.

속14:5-‘그때에 너는 내 산들의 계곡을 통과하여 도망하라’=그때에 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은 구조될 것이다...‘산들의 계곡’=진리에 대한 지식들에 있는 이들, 이로부터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

겔6:3-‘운하들과 계곡들’=외면 또는 자연적인 것들.

미1:4-‘계곡들’=파생되는 것들.

이41:18-‘계곡들의 한가운데’=외면적인 인간 안에.

민24:6-‘계곡 같이 그들은 심었다’=자연적 인간의 총명. 이에 비해 ‘동산’=영적 인간의 총명.

신11:11-‘산들과 계곡들의 토지’=교회의 더 높은 것과 더 낮은 것, 즉 교회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시23:4-‘내가 그늘 있는 골짜기에서 걸을 때,’=불명료한 이해로 진리들이 그들의 빛에 의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41:18-‘계곡 한가운데 샘들’=자연적 진리들로부터의 총명.

시65:13-‘계곡들이 곡식으로 덮혀있다’=자연적 마음이 자연적 진리를 받고 있다.

골풀 (rush, bulrush)

출2:3-‘그녀는 골풀 상자를 가져왔다’=주위에 있는 하찮은 것...‘골풀’=하찮은 것, 그렇다해도 아직은 진리로부터 파생된 것.

이35:7-‘갈대와 골풀 대신 풀이...’=진리를 함유하지 않은 것들 대신 과학적 진리가 있을 것이다.

이19:15-‘골풀’=감각적 과학물, 이는 최말단 진리이다.

* ‘갈대와 골풀’=감각적 근원으로부터의 지식, 또는 이 지식을 통하여 감각들의 오류가 확정되는 것. 그 자체에 한정해 생각한다면, 가장 수준 낮은 자연 평면에 있는 단지 지식인 것, 그리고 이것은 물질적, 육체적인 것이라 불리고, 이것에는 생명이 아주 조금 있거나 거의 없다.

곰 (bear)

왕하2:24-‘암곰들’=말씀의 내적 의미로부터 분리된 글자 의미.

계13:2-‘그분의 발은 곰의 발 같았다’=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의 오류로 가득차 있어 말씀을 읽으나 이해되지 않는다...‘곰’은 말씀을 읽기는 하나 이해 못하는 이

들, 고로 오류들을 받는다. 이런 인물들이 ‘곰들’에 의해 의미된다는 것이 영계에서 나에게 보여진 것으로부터 분명하다. 거기서 어떤 이들은 곰 가죽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말씀을 읽는 이들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리적인 어떤 진리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진리의 외관을 확정했는바 이로부터는 오류가 오고 있다. 피해를 주는 곰들이 거기서 나타난다. 그리고 곰들은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또한 흰 것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들로 해서 구별되어진다. 해를 가하지 않는 곰은 송아지, 또는 양의 머리들을 가지고 있다.

단7:5-‘곰에 의해 교회의 두 번째 상태가 묘사되고 있다. 즉 말씀이 읽히고 있으나 이해되지 않는 상태이다.

호13:8-‘곰이 빼앗았다’=거짓으로부터 있는 악의 힘.

단7장-‘곰 같은 짐승’에 의해 두 번째 상태, 지배함이 말씀을 수단으로 확정되어질 때가 의미된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영계에서 곰 같이 나타난다.

계13장-‘그분의 발은 말하자면 곰의 발’=자연적인 것들로부터, 이는 오류들이다...‘곰’=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모두 말씀의 자연적 의미로부터의 힘에 있는 이들.

왕하2:24-‘숲으로부터 암곰들’에 의해 말씀의 자연적 의미, 또는 글자 의미로부터의 힘이 의미되어있다.

삼상17:34-37-사자와 곰을 쳐죽이는 힘이 다윗에게 주어진 이유는 다윗이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했기 때문. 반대적 의미에서는 이 진리에 맞서는 거짓의 힘.

단7장-곰 같았던 이 두 번째 짐승은 말씀 속의 진리를 왜곡함, 여전히 남아있는 글자 의미에 있는 힘을 의미했다.

호13장-‘곰이 빼앗듯 그를 만나는 것’=말씀의 글자 의미를 왜곡함.

애3:10-‘나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곰’=자연적 인간이 글자 의미를 남용했다.

암5:19-‘사자로부터 도망하는 그가 곰을 만나듯’=거짓의 지배 때문에 두려워함,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진리들을 찾음, 이는 왜곡되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그 이유가 ‘사자를 피해 도망하는데 곰을 만나는’ 그는 악

공적-공포-공허

으로부터 내면적으로 거짓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는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진리들을 알려 노력하는데, 이럴 경우 그의 악으로부터의 내면적 거짓은 그로 하여금 글자 의미마저 남용하게 만든다.

이11:7-'암소와 곰이 풀을 먹을 것이고, 어린 것들이 함께 누워 있을 것이다'=말씀의 진리들을 왜곡하는 자연적 인간의 욕망과 힘. 그리고 이것은 자연적 인간의 선에, 그리고 그것의 애착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것. '암소, heifer'=자연적 인간의 진리와 선에 애착함. '곰'=말씀의 글자 의미의 진리들을 왜곡하는 자연적 인간의 욕망과 힘.

이59:11-'우리는 곰 같이 자란다, 그리고 우리는 비둘기 같이 신음한다'=자연적 인간의 슬픔, 그리고 거기로부터 영적 인간의 슬픔.

왕하2:24-'곰들'=진리의 최말단들로부터 세력을 지닌 이들.

곳간 (barn, garner)

시144:13-'곡창(곳간)을 가득채운 식품'=영적인 선, 즉 진리와 선.

시144편-'곡창'에 의해, 그리고 '식품'에 의해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이 의미된다. 그이유가 영적 식품이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 이를 통하여 총명이 있다.

학2:19-'종자들이 아직 곳간에 있느냐?... '곳간'=이런 것들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이든, 교인이든, 사람의 마음이든. 주체인 것.

마13:30-'곳간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천국과 결합하는 것.

공간 (space)

창34:21-'공간이 넓다'=진리에 관련하여 확장.

이33:21-'공간의 넓이'=불어나고 확장하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공격하다 (attack)

출17:8-'(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그들은 그들(이스라엘)이 격심한 시험을 견디는 동안 공격했다는 것...'싸우는 것'=내면의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수단으로 공격하는 것...'아말렉'에 의해 표현된 그들은 저세상 삶에서 그들이 기진맥진하여 항복의 시험에 이른 시험에 있는 이들을 공격한다.

출5:9-'용역이 사람들에게 더 무거워지게 만들어라'=공격이 더 강력해지는 것.

계2:10-'네게 고통을 주는 것을 두려워 말라'=네가 악들의 침입을 받고 거짓의 공격을 당할 때 자포자기 말 것.

계11:7-'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만들 것이다'=지옥의 사랑으로부터 공격함.

출5:8-'그들은 게으르다'=그들이 충분히 공격받지 않았기 때문에.

출13:17-'만일 백성들이 전쟁을 볼 때, 후회한다면'=공격을 통해 그들은 진리로부터 외면하려 들 것이다.

출32:17-'진영에 전쟁의 소리가 있다'=지옥으로부터의 악들과 거짓들을 수단으로 천국과 교회로부터 있는 진리와 선을 공격함.

신20:10-'네가 성읍을 공격하려 그 성에 가까이 올 때...'

공국 (prince)

* 제 1 인자(prince)를 보라

공기 (air)

계16:17-'일곱째 천사가 공기 안으로 그의 대접을 쏟았다'=개혁 교회들의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것 안으로 주님으로부터의 유입이 즉시 있었다.

공물 (tribute)

창49:15-'그는 공물에 종일 것이다'=그는 공적을 가질 것이다.

출1:11-'공물의 왕자들'=그들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거짓들. '공물들'=섬김들.

이31:8-'그의 젊은 이들은 공물을 위해 있을 것이다'=진리가 거짓에 복종하리라는 것.

마17:25-'공물과 통행세를 주는 것'=복종하고 섬기는 것. 그러므로 공물은 외국인에게 부과되어졌다.

공작 (peacock)

왕상 10:22-'상아, 원숭이, 공작'=외적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

공적 (merit)

창22:3-'장작들을 쪼개는 것'=일들로부터 있는 선들에 공적을 놓는 것.

창30:31-33-'흰'(것)=진리. 더 적절하게 말하면 주님

공적-공포-공허

의 공적과 정의. 이로부터 인간과 더불어 주님의 공적과 정의. 이 흰것은 빛남이라 불리운다. 그러나 흰것의 반대 의미에서는,=자신의 정의, 또는 자신의 공적. 그 이유가 선이 없는 진리는 자아 공적을 받들기 때문. 누군가가 진리의 선으로부터 선인 것을 행할 경우, 그는 언제나 보상되기를 원한다.

창30:31-33-‘어린 양에서 흰 것’=선들에 놓여진 공적. 그이유가 선들에 공적을 놓는 자는 모든 선이 자신으로부터 있다고 인정하고 믿는다. 그리고 이로부터 그는 공적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자신과 비교해 타인을 경멸한다. 더 나아가 정죄하기까지 한다.

창31:49-‘흠참...’=공적으로부터의 악. 이 악은 인간이 선을 자신의 공로로 돌릴 때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공적으로 받기를 원한다. 이 악이 내적 의미에서 ‘도둑’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마25:9-‘오히려 너희는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사라’=공적으로부터의 선. 공적을 떠벌리는 이들이 ‘파는 자들’이다.

요10:1-‘도둑’=공적으로부터의 악.

창49:14-‘짐들 사이에 앉는 것’=공적으로 치부하려는 악 사이에 있는 것.

창49:15-‘짐을 지는 것’=공적을 내세우려 일을 하는 것.

창49:15-‘공물에 종이 되는 것’=일들에 의해 공적을 원하는 이들. 이들은 가장 낮은 섬김들이다.

출12:45-‘고용된 자’, 더 내면의 의미에서=다른 삶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선인 것을 행하는 이들. 고로 일들을 통하여 공적있음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들.

출25:5-‘그리고 싯딤 목재들’=주님으로부터 있는 공적으로부터의 선들. 고로 주님 만으로부터의 선들. ‘목재들’=공적으로부터의 선. 공적의 선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선, 이 선은 인간과 더불어 기독교인의 선, 또는 영적 선이다. 이 선을 통하여 인간은 구원되어진다. 여느 다른 근원으로부터 진행되는 선은 선이 아니다.

출25:10-‘싯딤 목재’=정의, 이는 공적의 선이다. 그 이유인즉, 주님은 그분 자신의 힘으로부터 보편적 천국을

질서 안으로 환원하고 지옥을 복종시키셨다. 동시에 자신 안에서 인간을 신성으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공적과 정의는 그분의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지배하는 한 개의 유일한 선은 공적의 선과 주님의 정의이다. 고로 그분의 신성한 인간이다. 그이유는 이 인간이 공적과 정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계2:6-‘니골라당의 일들’=공적을 주장하는 일들.

공포 (terror)

겁나게 하다 (terrify)

* dread, fear도 참조

창9:2-‘너에 대한 두려움(fear)과 너에 대한 공포가...’=내적 인간의 지배. ‘두려움’=악들에 관련되고, ‘공포’는 거짓에 관련되어 언급하고 있다. 내적 인간이 지배할 때, 인간은 악들 때문에 두려움에 있다, 그리고 거짓들 때문에 공포에 있다. 그러나 공포에 있는 것은 오직 외적 인간 뿐이다.

창15:12-‘큰 어둠의 공포’=어둠이 팽창했다는 것...

창35:5-‘하느님의 공포가 성읍들에 있었다’=거짓들과 악들은 가까이 올 수 없었다. ‘하느님의 공포’=보호.

출15:15-‘공포가 그들을 붙잡았다’=그들은 감히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었다...공포에 있는 자의 경우, 그의 파는 차지고, 정맥들로 돌진하고, 순환이 멈추고, 이로부터 신경은 흐늘흐늘거린다, 그리고 힘은 빠지고, 따라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출23:27-‘나는 네 앞에 내 공포를 보낼 것이다’=선의 진리들 때문에 거짓의 악들에 있는 이들의 공포.

계11:13-‘그 나머지는 겁에 질려 있었다’=그들이 다른 사람의 파멸을 보았을 때, 두려움으로부터.

이33:18-‘네 심정은 공포를 목상할 것이다’=교회의 상태를 기억함.

예4:25-‘각 처에 공포가’=영적 죽음.

이17:14-‘공포’=파멸.

공허 (void)

* 텅빔을 보라

과부 (widow)

과부 생활(신세, widowhood)

미망인이 된 (widowed)

과부-과부 생활(신세)

* (말씀에서) ‘과부들’=진리의 상태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선의 상태에 있는 이들,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 또는 선의 상태에 있다 하기 보다는 진리의 상태에 있고, 선을 갈망하는 이들.

창38:11-‘네 아버지의 집에서 과부로 남아 있으라’=자신으로부터 멀리 함.

시68:5-‘과부들’=성인으로 진리 안에 있는 이들, 그러나 아직 선 안에 있지 않은 이들. 이들의 ‘재판관’이 ‘하느님’이시라고 말해지는데, 그이유는 그분이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 그리고 이 인도는 선을 수단으로 진리 안으로, 즉 총명 안으로 이다. (그이유가) ‘과부’인 선이 없는 진리가 선한 생활을 수단으로 총명의 진리가 되기 때문.

마23:14-‘과부의 집을 삼키는 것’=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의 진리를 박탈하고, 거짓들을 가르치는 것.

왕상17장-‘사렘다의 과부’ (그녀에게 엘리야를 보냈다)란 진리를 갈망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표현했다.

눅4:25,26-그러나 황폐된 교회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내지지 않았다’=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이런 인물들. 그 이유는 진리가 없는 곳에 선도 없기 때문.

레21:13,14, 렘44:22, 레22:12,13-‘과부’는 교회의 선이 없는 교회의 진리를 표현했다...그러므로 고대 교회에서 성직자들은 성직자의 과부가 아닌 과부와의 결혼을 금했다..‘성직자의 과부’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을 표현했다. 그러므로 아이가 없는 성직자의 딸이었던 과부는 거룩한 것을 먹도록 허용했다.

창38:14-‘그녀는 입었던 과부 생활의 의복들을 제거했다’=선으로부터의 진리를 흉내냄. 그이유가 ‘과부’=선 없이 진리 안에 있는 이들, 그럼에도 선을 수단으로 인도되기를 갈망하는 이들. 그리고 과부들이 입었던 ‘의복들’은 이런 진리를 표현했다...따라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과부의 표현을 벗는 것...그리고 그녀가 ‘자기 베일로 자신을 가리웠을 때’=선으로부터의 진리를 흉내냄.

창38:19-‘그녀는 자기의 과부 생활의 옷을 입었다’=총명. 그이유가 ‘과부’=선을 수단으로 인도되기를 갈망하는 선 없는 진리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 그리고 ‘의복

들’=진리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취해질 때=총명. 진짜 의미에서의 ‘과부’일 경우=선을 수단으로 총명의 진리 안으로 인도되기를 갈망하는 진리에 있는 자.

이47:8-그들의 영적 생명의 소멸이 ‘과부 생활’, 또는 ‘사별’로 묘사되어진다. ‘과부 생활’=진리의 결핍과 선의 결핍.

출22:21(22)-‘어느 과부나... (괴롭히지 마라)’=진리 없이 선 안에 있는 자, 그러나 진리를 갈망하는 자...‘과부’=이와 같은 이유는 ‘남자’=진리, 그리고 그의 여자=선이기 때문. 그러므로 ‘남자의 여인이 과부가 되었다’=진리 없는 선. 그러나 더 내면의 의미에서, ‘과부’=선 없는 진리, 그 이유는 이 의미에서 ‘남편’=선, 그리고 그의 ‘아내’=진리이기 때문...그러나 천적 교회가 여기서 취급되지 않고 영적 교회가 취급되는바, ‘과부’는 선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는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자.

눅4:25-‘엘리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그 당시 교회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인정하는 상태. 그이유가 ‘과부들’=진리 없이 선 안에 있는 이들...‘엘리아의 시대’=그 당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상태.

출22:23(24)-‘네 여인들은 과부들이 될 것이다’=그들과 더불어 선들은 멀해질 것이다...그이유가 ‘과부들’=선 안에 있고 진리를 갈망하면서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이들. 그러나 여기서, 진리를 갈망하지 않는 이들, 그이유가 ‘과부들을 괴롭히는’자들을 다루는바, 악이 취급되기 때문.

신24:17-‘너는 과부의 옷을 저당잡지 마라’=여하한 방법이든 선을 갈망하는 진리들을 가져가서는 안된다...‘과부’=진리들을 갈망하는 선 안에 있는 자. 또는 추상적 측면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선. 그이유가 만일 진리가 취해진다면, 선과 그것의 갈망함도 멀해지기 때문.

렘19:7-‘그는 그들의 과부들을 능욕했다’=진리를 갈망하는 선을 악용하는 것.

계18:7-‘나는 과부가 아니다’=그들은 자신들을 방어할 것이다. 그이유가 ‘과부’=방어함이 없는 자, 남자가 없기 때문. ‘과부’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교회로서의 바빌론을 뜻했기 때문.

과수 해충-과일-과자-관

예15:8-‘과부들이 바다의 모래 만큼 불어날 것이다’= 악 안에 있고 거짓들을 갈망하는 이들.

이47:8-‘나는 과부로서 앉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별을 모를 것이다’=추종자, 의존자, 예배자가 결핍되지 않는다.

레21:13-‘높은 성직자는...과부를 취하지 말 것이다.. ‘과부’=진리 없는 선, 그 이유는 ‘남자’인 진리가 떠났기 때문.

과수 해충 (eruca, palmerworm)

암4:9-‘과수 해충이 그것들을 삼킨다’

암4:9-이런 선들을 받아들임이 없는 연유로 벌받음이 ‘과수 해충이 올리브 나무들을 먹어치운다’로 의미되어 있다.

욘2:25-‘나는 메뚜기(locust), 투구벌레(beetle), bruchus, 과수 해충이 먹어치운 햇수를 너에게 보상하겠다.’ 이는 최극단에 있는 악들과 거짓들, 즉 교회인의 외적 감각 부분에 있는 거짓들과 악들이 위의 곤충들에 의해 의미된다.

암4:9-‘과수 해충’=과피하는 거짓.

과일 (fruit)

* 열매를 참조

과자 (cake)

* 케이크(cake)도 보라.

창18:6-‘고운 곡분 가루 세 분량을 준비하여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어라’=그 상태에 있는 그분의 사랑의 천적 평면.

왕상17:13-첫 장소에서 그녀가 엘리야를 위해 만든 ‘과자’=주님을 사랑함으로써의 선.

출12:39-‘그들은 이집트로부터 가져온 반죽을 누룩 없는 과자로 구웠다’=선의 진리로부터 다시 거짓이 전혀 없는 선을 생산했다는 것...‘과자’=선인 이유는 그것들이 빵이기 때문.

출16:31-‘그것의 맛은 꿀 과자 같았다’=즐거웠던 선, 기쁨을 통하여 진리로부터 선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 ‘과자’=영적인 선.

왕상17장-‘곡식 가루, meal’=선으로부터의 진리, ‘기름, oil’=사랑의 선, 그리고 이것들로부터의 ‘과자’=그것 고유의 선과 결합한 진리.

출29:2-‘기름과 섞은 누룩 없는 과자’=천적 평면 중간 의 순수함. ‘과자’=천적 평면의 중간.

레2장-‘과자’=내적 인간에서 천적 평면의 중간인 이유는 그것들이 두 번째 순서에 있기 때문.

예7:18-‘하늘들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드는 것’=천적 사랑의 선으로부터 악마에게 예배하는 것.

호7:8-그러나 영적 사랑의 선이 ‘과자’로 의미된다. 즉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과자가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과자’는 원어에서 또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영적 사랑의 선. ‘뒤집지 않은 과자’는 외적 인간이 내적 인간을 지배할 때 이다.

겔4:12,15-‘사람의 똥을 가지고 만든 보리 과자’=자아 사랑의 악들로 오염된 교회의 내면의 선. ‘쇠똥으로 만든 과자’=이 사랑의 악들로 더럽혀진 교회의 외적 선.

예7:17,18-‘하늘들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드는 것’=갖가지 종류의 지옥의 악들을 예배하는 것. ‘과자를 만드는 것’=악들로부터 예배하는 것.

관 (mitre)

이28:5-‘아름다움의 관’=진리 속에 있는 총명. (=신성한 총명) (=총명)

출28:4-‘그리고 관’=총명과 지혜...그이유는 이것은 머리를 위한 덮개이기 때문. 그리고 머리는 인간의 내면의 것들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총명과 지혜 속에 있다.

출28:4, 레16:4, 겔44:18-아론의 관=지혜, 그 이유는 그것이 고운 아마포로 만들었고, 그리고 거룩함의 왕관 (crown)이 그것 위에 놓여졌는데 이것은 순금관이었고, 이 관 위에 ‘여호와께 거룩함’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이에 비해 아론에게 속한 것, 즉 아마포로 된 관, 그리고 아마포 의복의 나머지는 진리 속에 있는 총명을 의미했고, 선 속에 있는 지혜는 아니었다. ‘아마포’=인간의 자연 평면에 있는 진리. 고로 ‘아마포 관’=자연적 총명.

출28:37-‘관 위에 있을 것이다’=무한한 지혜로부터. (그이유가) ‘관’=총명, 그리고 아론에 의해 표현된 주님께 관해 말해질 때, ‘관’=신성, 무한한 지혜.

출28:39-‘너는 고운 아마포로 관을 만들 것이다’=거기에 있는 지혜.

출29:6-‘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둘 것이다’=신성한 지

관대함-관목-관악기-관절이 어긋남-광대뼈-광야

해.

이62:3-‘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아름다움의 관일 것이다, 그리고 네 하느님의 손에서 왕국의 관일 것이다.’
‘아름다움의 관’=진리 속에 있는 총명.

이61:10-‘신랑이 관을 쓰는 것.’ ‘관을 쓰는 것’=지혜를 입는 것.

관대함 (clemency)

이63:9-‘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관대하심(pity)에서 그분은 그들을 되찾으셨다’

창19:16-‘룻 위에 (내린) 여호와의 관대하심에서’=은총과 자비.

출4:14-‘여호와의 노염이 모세에게 지퍼졌다’=관대함.
‘여호와의 노염’은 노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자비를 뜻한다. 여기서는 관대하심...그이유는 이것이 모세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여기의 모세는 그분이 세상에 계셨을 때 신성한 진리에 관련된다는 주님을 표현했다.

은4:10,11-‘너는 호리병박 식물을 불쌍히 여겼다...그런데 어찌 내가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관목 (shrub)

* 키작은 나무(shrub)도 보라.

창2:5-천적 인간의 과학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이 ‘관목’과 ‘풀잎’으로 묘사되고 있다.

* 들판의 관목’=그의 외적 인간이 생산하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

이7:17-‘관목들’=발생하려고 하는 같은 종류의 진리들.

관악기 (pipe)

겔28:13-‘작은 북(taboret, timbrel)과 피리(pipe)=선과 진리에 애착함 들, 그리고 이 애착들로부터의 환희(joy).

이5:12-‘파이프’ 등등, 여기서는 반대적 의미=악의 거짓들로부터의 자랑과 우쭐덤.

관절이 어긋남 (out of joint)

창32:25-‘야곱의 허벅지의 우묵한 곳은 그와 씨름 중에 관절이 어긋났다’=아직은 진리가 그 자체를 선과 완전하게 결합하는 힘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관절이 어긋나는 것’=진리들은 선과 함께 모두 천적 영적 선에 들어갈 수 있는 질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 (=내적 역

사적 의미에서, 야곱의 후손에서 결합은 완전하게 상해를 입었고 결합은 어긋났다는 것.)

광대뼈 (cheekbone)

* 턱뼈(jawbone)를 보라.

광야 (wilderness)

사막 (desert)

이40:3-‘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신앙이 없는 교회 안에서.

창16:7-‘광야에서 물들의 샘 근처’=아직은 생명을 획득하지 못한 자연적 진리; 그이유가 ‘광야’=생명이 있다고는 하나 거의 없는 상태.

민32:11-이십 세 이상 모두는 광야에서 죽었다. 그이유는 악이 그들에게 귀속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시험에 노출된 이들을 표현했다.

창21:14-‘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변하기 쉬운 상태, 또는 헤매는 상태.

이35:1,6-‘사막이 기뻐날뛰며...광야에서는 물이 솟는다...’... ‘광야’, 또는 ‘사막’=진리의 황무함.

창21:20-‘소년(이스마엘)은 광야에서 거주하였다’=상대적으로 희미한 것.

계12장-‘광야로 피신한 여인’=교회의 시험.

이21:1-‘바다의 사막’=과학물과 파생되는 추론들을 수단으로 황폐된 진리.

시107:4-선에 관하여 무지한 이들에 관해,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말해진다; 그리고 진리에 관하여 무지한 이들에 관해서는 ‘황량한 길에서’ ‘그들은 방황했다’라고 말해진다.

마24:26-‘만일 그들이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라고 말한다면, 가지마라’=그들이 진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것. 황폐된 진리가 ‘광야’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예12:10-‘고독의 광야’=교회의 황폐함.

창37:22-‘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 안에 넣자’=그들의 거짓들 사이에.

호9:10-‘광야에서 포도들’=아직 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합리적 선.

겔36:4-거듭남에 선행하는 황무함이 ‘황무지와 버린

광야

성읍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호2:3-‘광야 같이 그녀를 만드는 것’=모든 진리를 소멸하는 것.

출3:1-‘그는 광야 뒤쪽으로 양떼를 이끌었다’=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 시험들을 수행한 후...

출3:18-‘광야 안으로 삼일 동안 가게 하라’=비록 희미함에 있다해도 거짓들로부터 완전히 옮겨진 상태에 있는 진리로부터의 생활.

이35:6-‘광야에 물들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그들이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을 소유함. ‘광야’, ‘사막’=무지의 결과로 신앙에 관한 지식.

출4:27-‘광야 안으로’=전에는 결합이 없던 곳.

출5:1-‘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축제를 열도록’=그들은 자기들이 지닌 희미한 신앙에서도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부터 예배할런지 모른다는 것.

출7:16-‘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도록’=희미한 것 안에서 예배함.

이41:18-‘나는 광야를 물들의 못으로 만들 것이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주는 것...

출13:18-‘하느님은 백성들을 돌려 광야의 길로 인도했다’=신성의 후원 아래 그들은 시험들을 통하여 신앙 속의 선들과 진리들을 확인하도록 데려와졌다.

출13:20-‘광야 끝’=시험들의 첫 상태.

출14:3-‘광야가 그들을 감금했다’=희미함이 그들을 점유했다.

출14:11-‘광야에서 죽는 것’=시험의 상태에서 굴복하는 것.

출16:2-‘광야에서’=시험의 상태.

출16:10-‘그들은 광야 쪽을 뒤돌아 보았다’=그들이 있어왔던 시험의 상태를 마음에서 상기해봄.

출16:14-‘보라, 광야의 얼굴들 위에’=새 자발성(의지).

출16:32-‘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빵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려 해서이다’=시험의 상태 안에 있을 때 진리로부터의 선.

출18:5-‘(이드로가) 광야로 모세에게 (왔다)’=시험들이 있을 때, 거듭나기 전 상태에서 결합.

출19:1-‘그들은 시내 광야에 왔다’=신앙의 진리들이

심어지게 되는 선의 상태.

출23:31-‘광야로부터 강에까지’=감각적 평면으로부터의 즐거움으로부터 합리성의 선과 진리에까지 조차.

이50:2-‘나는 강들을 광야로 만든다’=진리 자체가 황폐해져 있다.

레16:21,22-속죄 염소가 ‘광야로 보내졌다, 그리고 ‘분리된 토지’=지옥.

호2:3-‘광야’=선이 결핍된 것; ‘가뭄의 토지’=진리들이 결핍된 것.

이41:19-‘광야에 이것들을 심는 것’=교회 밖 토지에, 고로 이방인 사이에.

이51:3-‘그는 그녀의 광야를 에덴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녀의 황무지를 여호와와 동산으로 만드셨다’=진리의 결핍과 진리에 무지함을 지혜와 총명 쪽으로.

계12:6-‘여인은 광야로 피신했다’=아주 적은 사람들 사이에서 새 예루살렘이 있는 처음의 교회.

계12:14-‘그녀는 광야 쪽으로, 그녀의 장소 쪽으로 날아갔다’=아주 적은 사람 사이에 있는 동안 (이 교회의) 보호.

계17:3-‘그는 영에서 나를 광야 쪽으로 운반했다’=그는 교회의 모든 것들이 황폐된 것들과 더불어 있는 이들 쪽으로 영적 상태에서 운반되었다.

이35:1-‘너희 광야와 메마른 장소는 즐거워하라, 그리고 사막은 크게 기뻐하라, 그리고 장미 같이 꽃피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계몽됨을 다룬다; 그들이 진리와 선에 무지함이 ‘광야와 메마른 장소’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침 받는 것 때문에 있는 그들의 환희가 ‘즐거워함’, ‘크게 기뻐함’, 그리고 ‘꽃이 피’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이41:19-‘나는 광야에 썩다의 삼나무, 도금양, 기름의 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교회가 건립됨을 다룬다; ‘광야’=선 없음, 그이유는 진리에 무지함 때문.

이6:12-‘버려진 장소들이 토지 한가운데에서 불어날 것이다’=어떤 진리도 없는바 어떤 선도 없을 것이다.

예23:10-‘광야의 목초지가 말랐다’=이런 교회에 영적 자양분이 없다.

이42:11-‘광야와 거기의 성읍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

광활한 공간

이게 하자.’ 이는 교회 밖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교회의 건립이 있음을 취급한다.

이51:3-‘그분은 그녀의 광야를 에덴 같이, 그녀의 황무지를 여호와와 동산 같이 만드실 것이다’=그들은 진리와 선을 풍부히 가질 것이다.

겔34:25-‘그들은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악의 탐욕들이 그들에게 침입 못할 것이다.

시107:35-‘그분은 광야를 물들의 못으로 바꾸신다’=진리의 무지함이 있는 곳에 진리의 풍부함이 있을 것이다.

욥2:22-‘광야의 주거지가 풀이 무성하게 만들어졌다’=전에 아무 것도 있지 않았던 거기에 진리에 관한 것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32:14-‘궁전이 광야일 것이다’=전체 교회의 황폐함.

예13:24-‘광야의 바람’=진리가 없는 곳, 그 결과 거짓만 있는 곳.

호13:15-‘광야로부터의 동풍’=외적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있는 오류들에 의한 그것의 파멸.

이54:6-‘여인이 버림받고 영에서 고뇌한다’=진리 안에 있지 않은 교회, 그러나 아직도 진리에 애착하고 갈망하는 교회.

예12:10-‘값나가는 들판을 황량한 광야로 만드는 것’=교회에 선과 진리가 하나도 남지 않게 주님의 교회를 파괴함.

계12장-여인이 ‘자양분을 받는 광야’=선과 진리를 받음이 없음.

이43:20-‘나는 광야에서 물들을 주었다, 그리고 황무지에서 강들을 주었다’=전에 무지함에 있어 왔었던 이들이 진리와 파생되는 충명을 빨아들이는 것.

겔34:25-‘광야에서 대담하게 거주하는 것, 그리고 숲들에서 잡자는 것’=그들은 비록 그것들 사이에 있다해도 탐욕들에 의해 감염됨으로부터 안전히 있을 것.

욥3:19-‘에돔은 황폐한 광야에 있을 것이다’=자연적 인간은 선들이 결핍해 있을 것, 그 결과 단지 악들에 있을 것이다.

겔19:13-‘그리고 지금 그녀는 광야에, 가뭄과 목마름의 토지에 심겨진다’=교회가 진리의 선, 선의 진리가 없을 때까지 황폐해질 것이다.

예4:26-‘가르멜 광야’=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결핍된 영적 교회.

욥1:19-‘불이 광야의 주택을 삼켰다...’=자아 사랑이 선으로부터의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모든 지각을 살라버렸다.

욥2:3-‘폐물의 광야’=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이해함이 없음, 그 결과 악으로부터 있는 거짓들로부터 사악함.

시107:33-‘그분은 강들을 광야로 만드신다’=내적 의미 측면에서 말씀을 이해함, 진리를 이해함으로부터 있는 충명이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에 의해 황폐되었다.

욥3:2-‘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광야에 있는 강도 같이 노략질하고 죽이는 자.

눅13:35-‘네 집이 사막 같이 되어 남겨졌다’=교회는 선이 없기 때문에 진리들이 결핍되어 있다.

이32:15-‘그다음 광야는 열매있는 들판일 것이다’=영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가 그들 안에 심어질 것이다.

시65:12-‘광야의 주택들이 서서히 드러난다’=그들의 마음들, 전에는 무지 안에 있었으나 진리들을 인정하고 받는다.

호2:14-탐욕들과 거짓들은 시험을 수단으로 제거되어 야만 한다는 것이 ‘나는 그녀를 광야 안으로 데려오겠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호13:5-‘나는 가뭄의 토지에, 광야에 있는 너를 알았다’=선 없는 상태와 진리 없는 상태.

광활한 공간 (expanse)

창1:6-‘물들의 한가운데에 광활한 공간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이 물들과 물들을 구분되게 하라’...내적 인간이 ‘광활한 공간’이라 불리운다. 내적 인간 안에 있는 지식들이 ‘광활한 공간 위의 물들’이라 불리우고, 외적 인간의 과학적 사실들이 ‘광활한 공간 아래의 물들’이라 불리운다.

창1:14-그러므로 발광체들이 ‘하늘들의 광활한 공간에’ 놓여졌다고 말해진다. 즉 내적 인간 안에...

겔27:7-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배에 속한 것들, 즉 돛(sail, expansionem) 같은 것에 의해 묘사되었다.

출9:29-‘내가 여호와께 내 손바닥을 펼 것이다’=중재...‘손바닥을 펴는 것’은 심정의 탄원에 상응하는 몸짓이다.

팬이로 파다 - 괴로워 하다 - 괴롭히다 - 교회

단12:3-‘그다음 총명한 자는 궁창의 빛남 같이 빛을 낼 것이다’.

시150:1-‘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는 것’=주님으로부터 있는 선행의 선으로부터.

겔19:8-‘그 사람 위에 그물을 펴는 것’=지상적 사랑들과 그로부터 추론함을 수단으로 펴는 것.

출25:20-‘거룩들이 그들의 날개들을 위쪽으로 펼칠 것이다’= 믿음의 진리의 승강

팬이로 파다 (hoe)

이7:25-‘팬이로 팬이질할 산들’=선을 사랑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이들.

이5:6-‘가지는 잘라내지고 팬이로 파지도 못하는 것’= 계몽되어질 수 없음, 이렇게 받기 위해 준비했다.

괴로워하다 (suffer)

창35:16-‘라헬은 ...힘든 것으로 괴로워했다’=내면의 진리에 대한 시험들.

계2:10-‘네가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마라’=네가 거짓들에 침입을 당하고 악의 습격을 받을 때, 자포자기 말라. 그 이유는 생활은 선 안에 있는데, 교리는 거짓들에 있을 경우, 이는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괴롭히다 (straiten)

* 좁은(narrow)을 보라.

괴롭히다 (torment)

계9:5-‘다섯 달 동안 괴롭히는 것’=잠간 동안 인사불성한 상태에 있는 것. (=이해함이 어두워지는 것, 그리고 진리를 봄으로부터 물러나지는 것).

계9:5-‘그들의 괴로움은 전같이 사람을 쏘 때, 전갈로부터의 괴로움 같았다’=이것은 그들의 설득력을 수단으로 행동되어진다는 것. (이해함이 어두워지고 진리를 봄에서 물러나지는 것은 마음에서 얼을 빼지게 하는 수단인 설득력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

계11:10-‘이 두 예언자들이 땅 위에 거주하는 이들을 괴롭혔다’=이 두 본질은 개혁 교파의 두 본질과 반대되어 가기에 새 교회의 이 두 본질은 그들이 경멸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

계14:10-‘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괴롭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괴롭힘의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 이로부터 파생되는 탐욕들,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자아 총명으로부터의 교만.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지옥에서 괴롭힘.

계18:7-‘그녀에게 괴롭힘을 주는 것’=내적 고통

계20:10-‘낮과 밤 괴롭혀지는 것’=꾸준히 내면적으로 침투해 판치는 것.

계18:10-‘그녀의 괴로움을 두려워함 때문에’=지옥의 처벌 때문에 두려워함.

교회 (church)

창3:15-‘여자’=교회

창3:16-‘여자’=교회, 여기서는 자아로부터 악용된 교회

창3:17-‘네 생명의 모든 날들’=교회의 마지막에 까지. 두 번째 교회, 태고 교회 만큼 천적 수준이지는 못했다. ‘셋’이라 불리운다.

창5:6,9,12,15,18,21-세 번째 교회는 ‘에노스’, 네 번째는 ‘게난’, 다섯 번째는 ‘마하랄렐’, 여섯 번째는 ‘야렛’, 일곱 번째는 ‘에녹’, 여덟 번째는 ‘므두셀라’라 불리웠다.

창5:2,3 5:25-‘아홉 번째 교회가 ‘라멕’이라 불리웠다.

창5:28,29-열 번째 교회, 홍수 후 세 교회들의 아버지가 ‘노아’이다. 이 교회가 고대 교회라 불리운다.

창5:2-‘여성’=교회

창7:13-‘노아의 아내’=교회 자체,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세 아들들의 세 아내들’=거기로부터 파생된 교회 자체. 교회의 사람이 언급될 때, 그 사람=교회 전체, 또는 교회의 머리, 그 당시 ‘아내’=교회.

창9:10-‘방주로부터 나간 모두’=교회의 사람. ‘땅의 들 짐승’=교회 밖의 사람.

창15:3-‘나에게 당신은 씨를 주지 않았습니까’=교회의 내적인 것이 없다는 것...사랑과 사랑으로부터의 신앙이 교회의 내적인 것이다. 사랑과 신앙으로부터 분리된 교리적인 것은 교회의 내적인 것을 결코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선행 속에, 선행으로부터 있는 교리적인 것은 내적인 것을 만든다.

창15:12-‘해가 짐’=교회의 마지막 때. 이는 종말 (consummation)이라 불린다. 이 때란 어떤 선행도 없는 때이다. 주님의 교회가 하루의 때들에 비교된다.

교회

창15:12-‘깊은 잠이 아브람에게 떨어졌다’=그 당시 교회는 어둠에 있었다는 것.

창15:13-‘자기들의 것이 아닌 토지에서’=교회가 선행과 신앙에 있는 이들 속에 있지 않은 듯 교회가 있는 곳.

창17:13-‘네 집에서 태어난 자, 네 은으로 사들인 자’=천적, 영적 모두에서 교회 내에 있는 이들.

창19장-‘소돔’=악한 자, 특히 교회 내의 악한 자.

마13:13-‘보고 듣는 이들’=교회 내에 있는 이들, 비록 보고 듣지만 이해 못한다.

이23:15-‘칠십 년’=교회가 존재 안으로 와서 기한이 만료하는 때까지, 전체 시기.

창23:2-‘사리는 죽었다’=신앙 속의 진리에 관련된 밤. 죽는다가 교회를 서술할 경우, 이는 교회의 마지막 때, 즉 모든 신앙, 즉 선행이 종료되는 것, 이 때가 ‘밤’이라 불린다.

창23:2-‘키랏아르바, 여기는 가나안의 토지에 있는 헤브론이다’=교회에서. ‘키랏아르바’=진리 측면에서의 교회. ‘가나안의 토지에 있는 헤브론’=선 측면에서의 교회.

창23:2-‘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통곡했고, 그녀 때문에 슬피 울었다’=교회 안에 신앙의 진리 측면에 관련하여, 그리고 선 측면에 관련하여 밤이었기에 주님께서 슬퍼하심.

창23:9-‘들판의 끝에서’=교회가 거의 없는 곳.

마24장-교회의 악용됨의 첫 상태가 여기서 의미된다. 이는 그들이 선인 것과 진리인 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기를 시작하는 때, 따라서 그것에 관하여 논쟁만 즐비한바, 이로 인해 거짓들이 출현한다.

창29:3-‘가축떼’=교회들, 또한 교회들 속에 있는 교리물들.

창29:31-‘불임’=그로부터 교리가 없다, 고로 교회도 없다.

단7:4-교회의 첫 번째 상태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묘사되어 있다.

마24:29-‘천국들의 힘이 흔들릴 것이다’=교회의 기초들, 그들이 멸망할 때, 이것이 흔들린다고 말해진다. 그 이유가 땅의 교회는 천국의 기초이기 때문, 그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천국들을 통하여 선과 진리의 유입은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선들과 진리들에서 종결되기 때문. 그러므로 교회의 사람이 더 이상 천국으로부터의 것을 받지 않겠다는 뒤집어진 상태에 있게 되면, 천국의 힘들이 흔들린다고 말해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남아있어야 할 교회의 어떤 것들을 언제나 설비해두시고 있으시다. 그래서 옛 교회가 멸해질 때, 새 교회가 건설되도록 하신다.

창31:49-‘...사람이 그의 형제로부터,,,’=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의 (분리).

계20:9-‘거룩한 사람들의 진영’=천국, 또는 땅 위 주님의 왕국, 이는 교회이다.

창34:10-‘우리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한 개의 교회를 만드는 것.

창38장-‘이 장은 유대 교회와 진짜 교회를 취급한다. 진짜 교회가 ‘다말’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숙5:3-‘온 땅의 얼굴’=보편적인 교회.

창40:15-‘히브리인들의 토지로부터’=교회로부터.

창49:1-‘나는 날들의 끝에서 너희에게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할 것이다’=그 당시 그들이 질서에서 있게 될 교회 상태의 품질.

창49장-이 장에서 그들로부터 명명된 지파, 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선들과 진리들에 관련된 교회의 모든 상태들, 고로 교회 내의 모든 사람 각각의 영적 생명에 관련된 모든 상태들이 묘사되고 있다.

창50:5-‘보라 나는 죽는다’=교회가 존재하기를 중단했다는 것.

출2:6-‘이는 히브리인의 아이 중 하나이다’=그것은 교회 자체로부터 였다는 것.

출2:7-‘히브리인들로부터 유모 여인...’=선이 교회 자체로부터 그것 안으로 은근히 심어짐.

출2:13-‘보라 두 히브리 남자들이 싸우고 있다’=교회 내에서 그들은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통각함.

출2:13-‘잘못을 했던 그가...’=신앙의 진리에 있지 않았는데, 여전히 교회 내에 있는 그가...그 이유가 교회 내에는 신앙의 진리에 있는 이들이 있고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이교로부터 분명해진다. 이교 안에 있고 신앙의 진리 안에 있지

구덩이

않은 자가 여기서 ‘잘못을 했던 사람’으로 뜻해진다.

출2:14-‘누가 너를 우리 위의 왕자와 재판관으로 만들었는가?’=그는 교회 내에서 의견의 불일치를 소화해낼 만큼 신앙의 진리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음을 지각함.

출2:16-‘미디안의 성직자는 일곱 딸을 가졌다’=교회의 거룩한 것들. ‘성직자의 딸’=교회의 거룩한 것. 고로 선에 관련한 교회...고로 ‘미디안 성직자의 일곱 딸들’=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의 교회 속의 거룩한 것들. 이들은 교회의 외적 측면에 있는 단순한 선에 있는 것으로 말해진다. 이들은 말씀을 글자 의미에 관련하여, 각자의 납득함에 따라 믿고, 그들이 믿는 것에 따라 사는 이들이다...교회의 내적인 것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을 통하여 흘러든다. 그러나 그들이 내면의 진리들 안에 있지 않을 경우, 흘러든 선은 일반적 등급인바, 불투명한채 있다.

출3:1-‘양떼,’ 여기서=단순한 선에 있는 이들의 교회. ‘미디안의 성직자’=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있는 이들의 교회.

출10:21-용어, ‘질은 어둠’은 모든 어둠 중에서도 가장 질은 어둠을 뜻한다. 이는 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짓을 의미한다. 이런 거짓들이 교회 속에 있어 온 이들과 더불어 존재 안으로 와진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던 신앙의 교훈들에 반대하여 살았다. 이 거짓들이 흘러들게 한 악은 교회에, 천국에, 주님에 반대되어 있다. 고로 선과 진리에 직반대 된다.

출12:19-‘체류자이든, 토지의 출생자이든’=교회 속에 있는 이들, 그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났든, 밖에서 태어났든지.

출18:4-‘엘리에셀’=교회 내에 있는 이들의 선과 진리의 품질.

시57:18-‘세계’=교회.

출21:8-‘외국 백성’=교회 밖에 있는 이들, 고로 교회의 신앙 속에 있지 않은 이들.

눅4:24-‘예언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받아지지 않는다’=주님과 그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는 교회 밖보다 교회 내에서 심정으로는 덜 사랑되고 덜 받아진다.

레26:31-‘성소’=교회. ‘성소’=교회 속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

겔37:27-‘거주(주택)’=천국, 또한 주님이 계신 교회.

속14:4-‘올리브들의 산’=사랑과 선행으로부터의 선, 고로 교회, 그 이유가 이 선이 교회를 만들기 때문.

요18:27,28, 막13:35-답이 울었을 때의 시간=교회의 마지막 상태.

출34:1-‘너는 이전의 것과 같게 두 돌 판을 자르거라’=교회의 외적인 것, 이런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있었다.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만드는 신앙의 모든 진리와 사랑의 선은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고로 말씀에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는데, 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1:20-‘네가 본 일곱 촛대들은 일곱 교회들이다’=땅에 있는 새 교회...다양한 상태를 지닌 보편적 새 교회가 ‘일곱 교회들’로 묘사되어 있다.

계22:16-‘교회들에서’=전체 기독 세계 앞에서, 그 이유는 여기서 뜻해진 교회들이기 때문.

구덩이 (pit)

슌2:9-‘소금 구덩이’=황폐된 진리.

이51:1-주님이 신성한 진리에 관련해 ‘구덩이’라 불려진다.

시88:4-‘구덩이에 있는’ 이들.

창37:20-‘구덩이 중 하나에 그를 놓아두자’=거짓들 사이에. ‘구덩이들’=거짓들인 이유는 거짓의 원리에 있어 왔던 사람들은 사후 더 낮은 땅에 한동안 있게 해서 거짓들이 그들로부터 제거될 때 까지이다...‘구덩이’라 불리는 장소, 더 낮은 땅 아래는 ‘구덩이’라 불리는 황폐된 곳이다.

창37:28-‘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렸다’=도와줌, 그가 거짓들 사이에 있지 않도록 이다.

창37:29-‘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왔다’=교회의 신앙이 분리된 신앙 속에 있는 거짓들을 쳐다보게 되었다.

속9:11-‘구덩이로부터 갇힌 자를 내보내는 것’=황폐함에 있는 이들, 그리고 시험에 있는 이들.

창40:15-‘그들이 나를 구덩이에 넣었다’=거짓들 사이에 있기를 거절함.

창41:14-‘그들은 성급히 그를 구덩이에서 꺼내었다’=시험의 상태에서부터 방해하듯 성급한 거절...‘구덩이’=황

구렁(텅이)-구름

폐한 상태. 또한 시험의 상태.

출12:29-‘구렁이의 집에 있는 포로된 자’=육체의 감각적인 것 안에 있는 이. 고로 진리들과 선들에 관한 길은 어둠에 있는 이, 그이유는 지각하는 능력 조차 없기 때문.

출21:33-‘만일 사람이 구렁이를 열게 된다면’=만일 누군가가 또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짓을 받을 것이라면.

출21:33-‘또는 만일 사람이 구렁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았을 때)’= 또는 만일 그 자신 거짓인 것을 고안할 것이라면.

출21:33-‘...구렁이에 빠지는 것’=자연 평면의 선과 진리를 서술할 때=약용하는 것.

마15:14-‘구렁이’=거짓인바, 주님께서 교회의 거짓들에 관하여 이야기 하셨을 때 이렇게 말하셨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둘 다 구렁이에 빠진다.’ ‘구렁이에 빠지는 것’=진리를 뒤집는 것.

출21:34-‘구렁이의 주인은 되갚을 것이다’=그와 더불어 있는 거짓은 수정해야 될 것이다.

겔19:4,8-‘나라들이 그를 잡은 구렁이’=악의 거짓.

숙9:11-‘구렁이에 갇힌 자’=세상으로 주님의 강림에 의해 구원된 영적 교회의 사람들. ‘물이 없는 구렁이’라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물’=진리이기 때문.

예14:3-‘구렁이들’=진리들이 있는 곳. 고로 교리.

이51:1-‘구렁이로부터 파내지는 것’=신성한 선들로부터 거듭나지는 것.

예2:13-‘깨어진 구렁이(저수탱크)’=조리가 서지 않는 교리물들.

예2:6-‘구렁이의 토지, 질은 그들의 토지’=진리에 무지한 상태,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거짓의 상태.

이51:14-무지의 거짓들로부터의 해방이 ‘그는 구렁이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예38장-‘예레미야를 내던져 둔 구렁이’=왜곡된 교리의 진리.

시88:4-‘구렁이로 내려간 이들과 더불어’=마치 지옥 안에 있는 것처럼.

시88:6-‘당신은 나를 더 낮은 것들의 구렁이에 놓아두었다’=이런 것이 있는 지옥의 장소에.

시40:2-‘황폐됨의 구렁이’=교리의 거짓.

예2:6-‘적막함의 토지, 구렁이의 토지’=문제를 일으키는 악들과 거짓들에 관련한 시험들의 상태.

구렁(텅이)(gulf)

* 만(gulf)을 보라

구름 (cloud)

마24:30-‘하늘들의 구름들’=말씀의 글자 의미.

겔30:3-‘구름의 날’=거짓.

창9:13-‘나는 구름에 활을 주었다’=거듭나는 영적 인간의 상태.

* ‘구름’=어두운 빛, 밝은 빛에 있는 천적 인간에 비교해본다면 상대적으로 영적 인간은 이 빛에 있다. 그와 더불어는 어둠함, 여기서 ‘구름’이라 불리는데, 이는 거짓이다. 이는 그의 지적인 자아와 같다. 그리고 순진과 선행, 주님으로부터의 자비가 이 자아 안으로 은근히 심어질 때, 이 구름은 더 이상 거짓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 선행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의 구름 안으로 들어가 일하신다. 이로부터 마치 태양이 구름에 맞부딪치듯 빛이 일어난다. 그러면 구름은 더 밝아지고 색깔도 다양해져 있다. 또한 구름 안에 활의 모습이 발생한다. 구름이 더 얇다면, 즉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과 더 혼합된다면, 활은 더 아름답다. 그러나 이 구름이 더 밀집되고 있다면, 즉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이 더 적다면 활은 덜 아름답다...

* 진리의 나타남들(외관, appearances) 모두는 구름들이다. 인간이 말씀의 글자 의미에 있을 때, 인간은 이 구름 안에 있다. 그 이유가 말씀은 나타남들에 따라 말해지기 때문. 그러나 그가 말씀을 단순히 믿을 때, 비록 그가 나타남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해도 선행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구름은 비교적 얇다. 이 구름에서 주님에 의하여 교회 밖 사람들의 양심이 만들어진다.

* 진리에 대한 모든 무지함 역시 구름들인데, 이는 사람이 신앙 속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때이다. 이 구름에서 주님에 의해 교회 밖 사람들의 양심이 만들어진다.

* 모든 거짓들 또한 구름들이다, 그러나 이 구름들은 어둠이다. 이는 거짓 양심, 또는 양심이란 것이 없는 이들에게 널리 퍼져있다.

구름

* 이런 것들이 일반적 측면에서의 구름들의 품질이다. 그들의 (구름의) 양에 관련하여도 인간과 더불어 이런 구름들이 있다. 아주 밀집한 경우, 그런데 그가 그것들의 밀집함을 알았다면 그는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광선도 그것들을 통과하여 갈 수 없었다는 것에 의아했을 것이다. 자기의 구름의 양은 아주 작다고 상상하는 그의 구름의 양은 때때로 대단히 많다. 자기의 구름이 많다고 여긴 그는 때때로 아주 적다.

* 이와 같은 구름이 영적 인간과 더불어 있는 구름들이다. 그러나 천적 인간과 더불어 이와 같은 큰 구름들은 없다.

* 그의 지적 측면에서 어둠함 모두, 또는 자기 구름의 밀집함 모두는 (그의 옛 의지)로부터이다. 이것은 거기로부터 안으로 계속적으로 흘러든다. 그리고 흘러듬에 비례해서, 이 구름은 지적 부분에서 뻣뻣한 상태가 되어간다. 그러나 제거됨에 비례해서 그것은 얇아진다.

창9:14-‘땅 위 구름으로 해서 내가 흐려짐에서, in clouding Me with a cloud upon the earth’= 인간의 자발적 자아 때문에 선행으로부터의 신앙이 나타나지 않을 때.

시68:4-‘구름들을 타는 것’=내면의 것, 또는 내적 의미에 관련하여 말씀을 이해하는 것. ‘구름들’=글자에 있는 말씀, 이 안에 내적 의미가 있다.

마24:30-‘그들은 힘과 큰 영광과 더불어 하늘들의 구름들에서 오는 사람의 아들을 볼 것이다’=그때에 말씀은 그것의 내적 의미에 관련하여 밝히 알려질 것이다. ‘구름들’=글자 의미.

삼하22:12-‘하늘들의 구름들’=글자로 있는 말씀.

이4:5-‘낮에는 구름’=말씀의 글자 의미.

이4:5-외적 의미에 관련한 말씀은 구름에 있다, 그 이유는 인간 마음이 어둠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말씀이 구름에 있지 않다면, 그나마 말씀은 거의 누구에게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적 의미 속에 있는 거룩한 것들은 세상에 있는 악들에 의해 모독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신다. ‘여호와와는 시온 산의 모든 거주하는 장소에, 그녀의 회합에 낮에 구름을 창조할 것이다.’

출24장-마찬가지로 시나 산에서도 구름과 영광. 구름,

그리고 여호와와 영광이 보여진 이유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안에 있는 모세는 율법, 즉 역사적 측면의 말씀을 표현했기 때문에서였다.

시68:4-‘구름들을 타시는 그분을 격찬하라.’ ‘구름들’=말씀의 글자 의미.

출19:9-‘구름의 한가운데에’라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구름’=글자로 있는 말씀.

출18:21-‘낮에는 구름 기둥’=계발의 상태에 있을 때, 진리의 어둠함을 수단으로 이 계발은 완화되어졌다... ‘구름’=진리의 어둠함, 그 이유는 구름은 태양으로부터의 빛을 감소시키기 때문. 따라서 빛의 강도를 완화되게 하기 때문. 말씀에서 여호와와 구름에서 나타나셨다, 구름으로 휘감으셨다, 또는 구름들이 그분의 발 아래 있었다 라고 말해지고 있다. 거기서 ‘구름’에 의해 진리의 어둠함이 뜻해진다. 특별하게는 말씀의 글자 의미....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영광 안에서 나타나셨을 때, ‘구름’에 의해 의미되어졌다. 말씀의 글자 의미가 ‘구름’이라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내적 의미가 ‘영광’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듭난 자, 계발된 자 외에는 인간에 의해 납득되어질 수 없다.

출14:20-‘구름과 어둠이 있었다’=한쪽 측면에 악으로부터의 거짓이 농축된 것... ‘구름’=거짓.

출16:10-‘여호와와 영광이 구름에서 보여졌다’=지각에 숙박하고 있는 진리에 주님이 현존하심(임재함). ‘구름’=말씀의 글자 의미, 고로 지각에 숙박하고 있음..

출19:9-‘보라, 나는 뻣뻣한 구름 안에서 너에게 갈 것이다’=이는 자연 평면의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나타남에서 거행될 것이다.

출19:16-‘무거운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받아지게 되는 이들에 비교된 신성의 상태, 고로 글자에서의 말씀, 여기서의 경우, 야곱으로부터 있는 백성에게 숙박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그것들이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에 관련하여 큰 어둠에 있었기에, ‘무거운 구름’, 그리고 ‘뻣뻣한 구름’이라 말해진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무거운 구름에 계셨던 이유이다. 다른 삶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은 그 거짓들의 품질과 양에 따라 뻣뻣하고 검은 구름을 휘감고 있다.

구름

출24:15-‘산을 덮은 구름’= 내적인 것을 덮고 있는 말씀의 외적인 것, 또는 천국을 덮고 있는 외적인 것.

출24:16-‘구름이 이것을 덮었다’=말씀의 최말단, 이는 상대적으로 희미하다. ‘구름’=말씀의 최말단. 이 의미가 ‘구름’이라 불리는 이유는 내적 의미에 비해 희미하기 때문.

이4:5-‘낮에 구름’=진리에 베일을 씌. 고로 납득력에 따라 속박함.

시104:3-그분이 ‘그분의 병거를 만드느’ ‘구름들’=진리로부터 교리가 있음.

출24:18-‘모세는 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외적 의미로 있는 말씀.

마24:30-‘구름들’=세상의 빛에서 있는 것과 같은 신성한 진리. 고로 인간과 더불어 있는 것과 같은 신성한 진리. 그러므로 말씀의 외적 의미에 관련된 말씀이 ‘구름’에 의해 뜻해진다.

출34:5-‘여호와께서 구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와 더불어 서셨다’=신성이 있는 말씀의 외적인 것.

마24:30-‘구름들’=말씀의 글자의 의미.

마17:5-제자들을 뒤덮은 ‘빛나는 구름’=글자 의미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음성이 그것으로부터 들려졌다, 이렇게 말하셨다, ‘이는 내 사랑되는 아들, 너희는 그에게서 들으라’.

계1:7-‘그분은 하늘의 구름들을 사용하여 오신다’=주님은 말씀의 글자 의미에서 자신을 밝히 알리실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에서 말씀의 영적 의미를 여실 것이다.

계10:1-구름에 휩싸였고, 그의 머리 넘어 위에 무지개가...=그분의 신성한 자연 평면과 영적 평면. 그가 휩싸였던 ‘구름’=신성한 자연 평면. 그러므로 ‘구름’=자연적 의미에서의 말씀, 이 의미 또한 그분으로부터 있다, 고로 그분의 것이요, 그분 자신이다.

계11:12-‘그들은 구름 안에서 하늘로 올라갔다’=천국으로 올려짐, 그리고 거기서 말씀의 글자 의미에 있는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주님과 결합함, ‘구름’=말씀의 글자 의미, 그리고 이를 통하여 주님과 결합함이 있고 천사들과 제휴함도 있다.

계14:14-‘나는 보았다, 그리고 바라보니 흰 구름, 그리

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을 닮은 분이 앉아 계셨다’=말씀에 관련한 주님. ‘구름’=글자 의미로 있는 말씀. 그리고 ‘흰 구름’=내면적으로 있는 글자 의미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말씀에 관련되는 주님을 뜻한다. 그러므로 말해지는 바,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을 닮은 분이 앉아계셨다.’

계1:7-‘잘 보라, 그분은 구름들을 사용하여 오신다’=주님께서는 내적 의미를 통하여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밝히 알리신다는 것. ‘구름들’=최말단에 있는 신성한 진리, 고로 글자로 있는 말씀.

* ‘구름들’=최말단에 있는 신성한 진리인 이유는 영계에서의 나타남 때문이다: 거기서 구름은 여러 빛깔로 나타난다. 세 번째 천국에서는 불꽃의 빛으로, 두 번째 천국에서는 빛나는 흰 빛으로, 첫 번째 천국에서는 보다 밀도가 높은 빛으로 나타난다. 거기서 모든 이는 이 빛들이 천사들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진리임을 알고 있다. 그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가 천사들을 통과하여 갈 때, 이 진리는 그들의 총명에 따라 보다 희박하거나 보다 짙은 구름 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계14:14-‘흰 구름’=말씀의 글자적 의미.

시77:17-‘구름들이 물을 떨어 뜨렸다’=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의 진리들.

예4:13-‘그는 구름 같이 올라갈 것이다’=거짓들.

이60:8-‘구름 같이 나르고, 창문으로 비둘기 같이 나르는 것’=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찾고 조사하는 것.

시104:3-‘구름을 병거로 만드시는 분’=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의 진리로부터의 교리.

이4:5-‘진리들에 관련한 외적 또는 글자적 의미가 ‘낮’의 구름’에 의해 뜻해진다.

예4:29-거짓들이 ‘구름’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겔38:16-‘구름들’=악의 거짓들.

시58:37-‘구름들에 있는 신뢰하는 증거’=글자 의미에 있는 말씀.

시147:8-여호와께서 하늘들을 덮은 ‘구름들’=외적 진리들, 이는 말씀의 글자 의미와 같다.

예4:29-‘구름들 안으로 가는 것’=진리를 인정함이 없는 것 안으로.

구리-구매-구멍

삼하23:4-‘구름들 없는 아침’=순수한 신성한 진리.
단7:13-‘하늘들의 구름들’=글자로 있는 말씀, 이 안에서 그분은 오신다고 말해진다, 그 이유는 말씀이 그분을 취급하기 때문.
이25:5-‘그분은 구름의 그림자로 열기를 제압하실 것이다’=그분은 거짓으로부터의 현세에의 욕망을 방어하실 것이다.
이19:1-‘여호와께서는 빠른 구름을 타신다’=주님은 진리들을 가지고 이해성을 계발하신다. ‘빠른 구름’=진리.
신33:26-‘구름들 위 하늘에서 타시는 것’=말씀의 글자의 의미인 자연적 진리를 영적 진리의 유입을 통해 계발하시는 것. 천국들에 있는 신성한 진리는 영적 진리이고, 땅에 있는 신성한 진리는 자연적 진리이고, 후자는 전자를 통하여 계발되어지는바, 말해지기를 ‘구름 위에서 그분의 장엄함에서.’
시18:12-글자적 의미의 불명료함이 거기로부터 사라짐이 ‘그분 앞 빛남에서 구름들은 사라졌다’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시68:4-‘구름들을 타시는 그분’=계발에 관련한 주님. ‘구름들’=영계로부터 신성한 진리인 빛의 유입을 통하여 계발되어지는 최말단 진리들.
나1:3-‘구름들은 그분의 발의 먼지들이다’=최말단에 있는 진리, 이는 말씀의 글자의 의미이다. 영적인 진리인 천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는 글자 의미에서 안주하고 살아간다.
이5:6-‘나는 비오게 하는 구름들에게 비 없게 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구름들’=글자로 있는 말씀. ‘비 없음’=말씀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를 이해함이 없음.
시147:8-‘구름들을 가지고 하늘을 덮는 것’=말씀의 영적인 것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 이는 말씀의 글자의 의미에서와 같은 자연적 진리들을 통하여 천국들에서 이다
사5:4-‘하늘들이 떨어트렸다, 구름들이 물을 떨어트렸다’=신성한 진리의 가르침, 유입, 지각. ‘하늘들’=진리의 내면적인 것들. ‘구름들’=말씀의 글자 의미와 같은 외면의 것들.
시77:17-‘구름들이 물들을 떨어트렸다’=진짜 진리들이 말씀의 글자의 의미로부터 파생되어진다는 것.

이18:4-‘이슬의 구름’=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열매 풍성함.
겔10:4-‘구름’ 그리고 ‘여호와와 번쩍임’=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눅12:54-‘서쪽으로부터 올라오는 구름’=교회의 마지막에서 주님이 강림하심이 말씀에서 미리 말해졌다. ‘구름’=글자에서의 말씀.
겔30:3-‘구름의 날’=이해 못하는 진리로부터, 고로 거짓으로부터 있는 교회의 상태.
이19:1-‘가벼운 구름’=영적 자연적인 것에 있는 신성한 진리. 이로부터 자연 평면의 인간의 품질이 어떤지가 나타난다.
민10:34-‘낮에 여호와와 구름’=글자의 의미에 있는 말씀 같은 최말단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보호함. 그이유가 이를 수단으로 할 경우, 주님은 악을 수단으로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 그리고 이것은 말씀의 내면의 것들을 보호한다.
출19:9-‘구름의 어둠’이 언급되어진다. 그 이유는 ‘구름’=글자에서의 말씀이기 때문.
이14:14-‘구름의 높음들’=말씀의 내면의 진리들.

구리 (copper)

- * 놋쇠, brass를 참조.
- * 구리=자연적 선.
- * 구리, 또는 놋쇠=선행의 선.
- * 구리=자연적 선, 이는 최말단 천국의 선이다.

구매 (purchase)

- * 사다(buy)를 보라.

구멍 (hole)

이19:9, 겔8:7-10, 창40:16-19-‘구멍들이 가득한 일들’, ‘구멍들’에 의해 의미되는바 선과 진리에 애착함들이 없어 의지에서 종결됨, 실행이 없는 것, 선과 진리가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함을 의미한다.
출33:22-‘모세는 바위의 구멍 안에 놓였다’=신앙의 불명료한 것, 안개 낀이 그를 덮었다, 그리고 이를 수단으로 그는 보호되어졌다.
예13:4-‘바위의 구멍 안에 허리띠가 감추어졌다’=진리가 왜곡되었다.
예16:16-‘바위들의 구멍들 안에’=신앙 속에 있는 이들,

구별하다 - 구부리다 - 구스 - 구원

그럼에도 계발되지 않는 이들. 고로 신앙의 불명료함에 있는 이들.

옵3절-‘바위들의 구멍들에 거주하는 것’=신앙의 거짓들 안에...다른 삶에서 이런 자들은 바위의 구멍에 거주한다.

마19:24-‘바늘의 눈’=영적 진리.

이11:8-독사의 구멍.

예16:16-‘바위의 구멍에 있는’ 이들=진리의 불명료한 것에 있는 이들.

예49:16-‘바위의 구멍에 거주함.’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이들, 그리고 그것들에 들어감은 거기에 있는 구멍 같이 나타난다. 이것이 (위에서) 뜻해졌다.

예13:4-‘바위’=진리 측면에서 교회의 모든 것, 여기서는 거짓 측면에서 교회의 모든 것, 그이유가 ‘바위의 구멍 안에’라고 말해지기 때문.

예13:7-생활의 악들과 교리의 거짓들을 통하여 말씀이 왜곡됨, 그것을 옹호하는 파생적인 추론들이 ‘유브라테 강에서 바위의 구멍에 있는 손상된 허리띠’에 의해 의미된다.

이11:8-‘독사의 구멍’=사기치고 현혹하는 영들이 있는 지옥들

구별하다 (distinguish, distintion)

창1:4-‘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다’

창1:6-‘물들 안에서 물들 사이를 구별하자...그다음 그분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을 구별하신다.

* 거듭나기 전, 인간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은) 구분됨이 없다고 상상한다, 따라서 구분된 것들로부터는 단하나의 혼동된 것을 만든다. 그러므로 처음 말해지는 것은...‘물들 안에서 물들을 구별하자’이지, ‘물들 사이에서 물들을 구별하자’가 아니다.

* 그러므로 먼저 언급된 것은 광활한 공간 아래 있는 것들로부터 구별함이다.

구부리다 (bend)

창24:26-‘자신을 구부림’, 그리고 ‘자신을 굽혀 절함’=기뻐하는 것, 즐거워 하는 것. 구부림과 절함은 겸손함의 몸짓, 굴종함의 행동, 이는 슬프던지 기쁜 상태이던지 모두에 해당된다.

창43:28-‘자신을 구부리는 것’=외면의 굴복함. ‘자신을

굽혀 절함’=내면의 굴복함. 그 이유가 구부림은 굽혀 절함 보다 수준이 덜한 상태이기 때문. ‘구부림’=진리 측면에서의 굴복함.

출4:31-‘자신을 구부리는 것’=외면의 굴복, 진리에 있는 이들의 굴복, ‘굽혀 절함’은 내면의 굴복, 선에 있는 이들의 굴복.

구스 (cush)

* 에티오피아(Ethiopia)를 보라.

창2:13-‘구스의 토지’=마음, 또는 능력. 이 강의 것들은 이해성에 관련되는데,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도 이것에 속한다.

*구스, 또는 에티오피아의 토지는 금, 보석들, 향신료들이 풍부한데, 이것은 선과 진리, 감사히 여겨지는 것들, 즉 사랑과 신앙 속의 것들을 의미한다.

구원 (salvation, saving)

이49:6-‘내 구원을 땅의 맨 끝 까지’.

출14:13-‘잠잠히 서있으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자신들에 의해서는 전혀 아니고 오직 주님 만에 의한 구원.

출15:2-‘그분은 내 구원이 되셨다’=거기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것.

이63:5-‘나 자신의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왔다’=...주님은 이런 것들을 그분 자신의 힘으로부터 하셨다는 것...거기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것이 ‘그분은 구원하는데 위대한 분’, ‘그분은 그들의 구세주가 되었다’로 묘사되어 있다.

계7:10-‘구원은 하느님에게...’=주님은 구원 그자체이시다는 것, 모든 구원은 그분으로부터이다는 것, 그분은 구세주이시다는 것.

계12:10-‘이제 구원과 힘이 오고 있다’=지금 그들은 주님의 신성한 힘에 의해 구원되어진다.

계9:1-‘구원과 영광과 영예와 힘이 주 우리의 하느님에게’=이제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것, 그 이유는 이제 그분의 신성한 권능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의 받아들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원은 주 우리의 하느님에게’=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이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

마18:11, 눅19:10-주님은 모든 사람 각각과 더불어 이

구유-구조하다-구치소

런 저런 구원들(개혁, 거듭남 등등)을 계속적으로 작업 하신다. 그 이유가 이것들이 천국으로의 계단들이기 때문.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됨은 그분의 목표이다. 그분은 이 목적을 뜻하시고 수단들을 동원하신다. 그분의 강림, 구속, 수난 등등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있었다. 구원이 그분의 목적이었고, 영원까지 그분의 목적일 진대, 위의 언급된 작업들은 중간에 해당되는 목적들이고, 구원은 최말단 목적이다.

눅2:30,31-주님이 세상에 오셨던 당시 그분을 영접한 이는 구원되었기에, (시므온은) 주님을 이렇게 불렀다, '내 눈이 구원을 보았다, 이것을 그분은 모든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다.'

시68:26-'구원의 샘 (또는 이스라엘의 샘)'=영적 선, 그 이유는 이를 통하여 구원이 있기 때문.

시96:2-'이름'은 진리에 관련해 말해지고, '구원'은 선에 대해 말해진다.

시119:166-'구원'=영원한 생명.

이52:7-'구원을 듣도록 만드는 것'=진리들을 통하여, 이 진리에 따른 생활을 통하여 그분과 결합함, 그 이유는 이를 통하여 구원이 있기 때문.

이51:5-'내 정의가 가까이 있다, 내 구원이 앞으로 나갔다'=심판, 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이 구원되는 때이다. '정의'는 선에 있는 이들의 구원, '구원들'은 진리들에 있는 이들.

시18:46-'내 구원의 하느님을 드높여라'=그분은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을 통하여 예배되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거기로부터 구원이 있기 때문.

시42:11, 43:5-'내 얼굴들의 구원들'=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 고로 마음과 애착들 속에 있는 것들, 결과적으로 사랑과 신앙 속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구원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구원들'이라 불린다.

시80:2-그들이 구원되리라는 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소서'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계7:10-'구원이 우리의 하느님에게...'=영원한 생명은 주님 만으로부터 있다는 것...'구원'=영원한 생명. 그 이유가 '영원한 생명'에 의해 영원한 구원이 뜻해지기 때문이다.

이59:11-'우리는 우리로부터 먼 구원을 기다리고 있

다'=구원의 희망, 그러나 헛되다.

마7:1,2, 창18:32-그들은 자기들이 행한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되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주님은 금하셨다. 많은 경험으로부터 내가 아바, 사람들은 만일 그가 선행의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아껴두신 선을 받고, 생활에서 진리의 나타남이 있었다면 모든 종교로부터 구원되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는 열을 위하여 멸하지 않을 것이다'에 의해 뜻해져 있다. 즉 인간 자신에게 열(주님이 아껴두신 것, remains)이 있다면 그는 이를 수단으로 구원된다는 말이다.

구유 (trough)

창24:20-'그녀는 구유 안으로 그녀의 물동이를 비웠다'=신성한 선 쪽으로 개시되어지는 진리에 애착함이 분리됨...'구유'=진리로부터의 선. 그 이유가 구유에 있는 물=진리. 구유 자체는, 나무(wood)와 같은 의미인 선.

창30:38-'그는 막대기들을 낙수홈통(수로, gutters)들에 놓았다'=더 준비함. '낙수홈통'=자연에 있는 진리의 선.

출2:16-'그들은 구유들을 채웠다'=선행의 교리가 풍부하다. '구유'=선행의 교리인 이유는 그것이 나무로 된 구유이기 때문, 이 안으로 샘으로부터 양떼가 마실 물이 길어진다.

구조하다 (rescue)

창19:17-'네 목숨을 위해 달아나라'=영원한 생명을 위해 상의함.

창32:11-'나를 내 형제의 손으로부터 구조해주십시오'=관계적인 상태.

출18:8-'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다'=신성한 도움으로 해방됨.

이46:4-'구조되는 것'=지옥으로부터 있는 악들과 거짓들을 거두어 제거하는 것.

시91:14-'구조하는 것'=거짓들로부터 철수하는 것.

구치소 (custody)

* 지키다(guard)를 보라.

구해내다 (deliver)

* rescue, 또는 free도 참조

창32:30-'나는 하느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리고 내

구해나다 -군기-군단-군대

혼은 보전되었다' =그분은 가장 슬픈 시험들을 견뎌내셨다, 마치 이것들은 신성으로부터 인 것처럼...

출2:19-‘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으로부터 구해내었다’=교회에 인접한 과학적 진리가 악으로부터의 거짓의 교리의 힘을 이겨냈다. ‘구해냄’=이겨냄.

출3:8-‘나는 이집트인들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해내려 내려 왔다’=그분은 거짓 과학물의 힘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가게 했다는 것. ‘구해내는 것’=석방하는 것.

출5:23-‘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지 않으셨다’=그들은 거짓들로 인한 감염되는 상태에서 석방되지 아니 하였다는 것.

출12:27-‘그는 우리의 집들을 구해내셨다’=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들 어느 것도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이유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의 선에 있었기 때문.

출18:4-‘나를 바로의 검으로부터 구하셨다’=감염시키는 이들의 거짓으로부터 구하심.

출18:8-‘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다’=주님의 신성의 도움을 수단으로 구해냄.

군기 (banner)

* 기(banner)를 보라.

군단 (legion)

마26:53-‘천사들의 열두 군단’=보편적인 천국.

군대 (army, host)

창2:1-‘하늘들과 땅이 마무리되어졌다, 그리고 그것들의 모든 군대.’...‘그것들의 모든 군대’는 사랑, 신앙,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지식들, 이는 앞 장에서 ‘큰 발광체들’과 ‘별들’에 의해 의미되어진 것들이다.

단8장-‘(숫양에 의해 짓밟힌) 하늘들의 군대와 별들은 선들과 진리들이다.

계19:14-‘백마 위에서 그분을 뒤따른 천국들에 있는 군대들’=내면적 측면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이들.

창26:26-‘그의 군대 장군 비골’...‘군대’=교리적인 것들 자체...반대 의미일 경우, 거짓, 이교적인 것들.

슌1:4,5-‘하늘들의 군대’=진리들.

단8장-‘군대’ 좋은 의미에서 진리인바, ‘그는 땅으로 군대를 내던졌다’, 그다음 ‘그는 땅으로 진리를 내던졌다’고 말해지고 있다.

계19장-‘천국에서 그분을 뒤따른 그분의 군대’=거기로부터의 진리들, 고로 진리들 안에 있는 천국에 있는 이들.

시33:6-‘여호와와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만들어졌고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하여 그것들의 모든 군대.’ ‘그것들의 군대’, 또는 하늘의 군대=진리들.

눅2:13-‘군대’에 의해 진리들이 의미되는바, 왕국의 아들들,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이 있는 진리들로부터 ‘천국들의 군대’라고 불리워진다. 즉 ‘갑자기 천국의 수많은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문단에서 ‘천국들의 군대’=진리들, 고로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이 천사들이다.

슌9:8-‘나는 군대에 관련하여 내 집에 진영을 놓을 것이다’...‘주님의 군대’=신성한 진리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주님 만이 지옥들에 맞서 싸우시기 때문에...주님은 말씀에서 ‘여호와 체바올’이라 여러 곳에서 불리우시고 있다. 즉 군대들의 여호와.

출7:4, 12:17,41,51-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들이 주님의 천국 왕국을 표현했는바, 그리고 ‘지파들’, 또한 ‘12’는 한 복합체 안에 있는 신앙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의미했다. 즉 왕국의 모든 진리들. 그들은 ‘여호와와 군대들’이라 불린다.

겔27:10,11-‘군대’에 의해 진리들이 의미되고 있다.

이24:21-‘군대들’, 반대 의미에서 거짓들이다...

이34:2-‘하늘들의 군대’라 불리워지는 별들은 지식들, 고로 진리들이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거짓들이다.

예44:17-19-‘하늘들의 군대들’, 순수 의미에서 진리들이다. 그러나 반대 의미에서 거짓들.

단8장-‘하늘들의 군대들, 그리고 별들’은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

창50:9-‘군대는 심히 많았다’=진리들과 선들이 결합되었다...‘군대’=진리들과 선들.

출6:26-‘그들의 군대들에 의해’=진리 안에 있는 선의 자질과 종류에 따라...‘군대’=신앙 속에 있는 진리들. 그러나 영적 교회의 선들은 그것들의 본질 측면에서 진리들 밖에 더 아니다...이로부터 ‘군대’에 의해, 영적 왕국의 교회 내에 거듭나는 이들에 관해 말해질 때, 진리로부터의 선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의미되어진

군대

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들의 군대들에 따라' 인도해내라고 말해짐은 그들이 이집트를 나갈 때의 그들에 관련해 말해진 것이다. 내향적 의미에서 그들이 거짓들과의 전투들에서 벗어나는 때이다. 고로 그들이 영적 전투 임무를 실행한 이후이다. '그들의 군대들에 따라' 이끌어냄의 적절한 뜻이란, 그들은 진리들 안에 있는 선들에 관련하여 식별되어야 한다는 것, 고로 선의 품질에 따라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질서 안에서 그들이 천국들에 있는 주님의 왕국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출7:4-'나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인도해낼 것이다'=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는 이들은 구원되어야 한다는 것...'군대'=진리들 안에 있는 갖가지 종류의 선들.

출12:17-'그이유는 이 동일한 날에 나는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네 군대들을 데려올 것이기 때문'=선행과 신앙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악들과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로부터 분리함이 거행될 것이다...'군대들'=선행과 신앙 속에 있는 일련의 것들.

출12:41-'여호와와 그의 모든 군대들은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나아갔다'=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 꺼내졌다...'여호와와 그의 군대들'=영적 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진리들과 선들, 고로 진리와 선 안에 있는 이들.

출12:51-'그들의 군대들에 의거해서'=이들은 진리로부터의 선의 품질에 따라 구별되었다...'군대들'=선들과 진리들. '군대들에 의거하여'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의해 표현되어진 이들은 진리로부터의 선의 품질에 따라 구별되어졌다는 의미이다...그 이유가 모든 선은 진리로부터 선의 품질을 지니기 때문.

출14:4-'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때문에'=악으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은 지옥에 침수된다...'바로와 그의 군대'에 의해 거짓들 자체가 의미되어진다. '군대들'은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다.

출15:4-'바로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그분은 바다 안으로 내던지셨다'=악으로부터의 거짓들, 특수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모두에서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에 있는 교회인들, 거기 악한 생활 안에 있는 이들은 자신들을 그분의 현존 앞에서 지옥으로 던질 것이다...'군대'=일반

적 측면에서 거짓들.

단8장-'천국들의 군대에게'=천국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에 맞서.

시33:6-'그들의 모든 군대'는 천사들이다, 그들이 신성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정도 만큼에서.

이13:4, 40:26, 시147:4-'군대'는 교회와 천국 속의 진리들과 선들이다.

민1:2,3,18 등등-'군대'에 의해 그들이 잘 배열된 진리 안에 있어 만일 악들과 거짓들이 공격해온다면 겁내지 않고 물리치는 것을 의미한다.

계9:16-'기병 군대들의 수는 이만 만이었다'=믿음 만으로 추론함, 이와 더불어 그들의 마음들의 내면들은 악의 거짓들로부터 가득해졌다. '군대들'에 의해 선들과 진리들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악들과 거짓들, 악의 거짓들.

계9:16, 시148:2,3-말씀에서 '군대들'에 의해 천국과 교회 속의 선들과 진리들이 의미된다는 것, 반대 의미에서는 악들과 거짓들이 의미된다는 것은 태양, 달, 별이 '군대'라 불리는 장소로부터 명백해진다, 그리고 '태양'에 의해서는 사랑의 선이, '달'에 의해서는 신앙의 진리가, '별'에 의해서는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의미된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는 그 대칭되는 것들이다.

계19:14-'백마 위의 그분을 뒤따르는 천국의 군대들'=말씀을 내면적으로 이해하여 주님과 결합한 새 기독교에 있는 천사들...'천국에 있는 군대들'에 의해 신성한 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는 천사가 뜻해지고 있다.

계19:19-'나는 짐승과 땅의 왕들, 그들의 군대들이 말 위에 앉으신 그분과 그분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내향적인 모든 악, 믿음만으로 고백했던 자들, 그들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부하들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진리들에 폭행을 자행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에게 침투하려 들 것이다...'그들의 군대들'에 의해 거짓들에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있는 모든 이들이 의미된다.

계19:19-'군대'에 의해 신성한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고로 추상적으로는 신성한 진리들, 고로 주님의 새 천국과 새 교회 속에 있는 이들.

군림하다-군인

시103:21-‘여호와와의 군대’는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 말했다.

시33:6,7-‘천국들의 군대’=사랑과 신앙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천국과 교회로부터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

이24:21,23-‘군대’=모든 악들.

시148:2-4-‘그분의 모든 군대여 그분을 찬양하라’=전체 복합체 안에 있는 선들과 진리들.

이34:4-‘천국들의 군대들’(즉 태양, 달, 별들)=사랑과 신앙으로부터 있는 모든 선들과 진리들.

예33:22-‘하늘들의 군대’=영적 인간에 있는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 ‘바다의 모래’=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

계9:16-말씀에서 ‘군대들’에 의해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에 맞서 싸우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의미된다. 그러나 반대 의미에서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맞서 싸우는 악으로부터의 거짓이 의미된다.

계9:16-그들이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태양, 달, 별들, 그리고 또한 천사들이 ‘여호와와의 군대’라 불리우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해진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합체에 있는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을 의미하기 때문.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들에 의해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이 의미되기 때문에 ‘군대’라 불리운다.

단8:10-14-‘하늘들의 군대, 그가 땅으로 내던졌다’에 의해 천국 속의 진리들과 선들이 의미되고 있다.

계9:16, 율2:11, 속9:8, 시103:21, 왕상22:19,20, 계19:14, 19:19-천사들이 함께 모인 것, 그들의 연계함이 군대들이라 불리는 것은 ‘천사’에 의해, 마찬가지로 ‘군대들’에 의해 신성한 진리들과 선들이 의미되기 때문, 그 이유가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그것들을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

민1:3, 2:3,9,16,24, 4:3,23,30,39 계9:16, 출6:26, 7:4, 12:17, 12:41,-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군대들’인 복수로 불려지는 이유는 각 지파가 ‘군대’이기 때문...지파들이 ‘군대들’이라 불리워진 이유는 다함께 취해진 12 지파는 교회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을 표현했기 때문, 그리고 각 지파는 그것 속의 일부 보편적 본질을 표현했기 때문.

계9:16, 예19:13, 8:2 습1:5, 신4:19, 17:3-‘천국들의 군대들’에 의해 여기서 태양, 달, 별이 의미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에 의해 복합체에 있는 모든 선들과 진리들이 의미되기 때문. 그러나 여기서는 복합체에 있는 모든 거짓들과 악들.

계9:16, 눅22:20-‘내가 군대들로 에워싸인 예루살렘을 볼 때’...=거짓들이 교회를 점령했음.

계9:16, 시44:9-‘당신은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가시지 않는다’=그분은 그들을 방어해주시지 아니했다는 것, 그 이유는 그들이 악의 거짓들 안에 있기 때문.

계9:16, 율2:25-‘내가 너희 사이에 보낸 군대, 즉 메뚜기(locust), 굼벵이(grub), 날개 없는 메뚜기(unwinged locust) 모충(caterpillar)’. 갖가지 종류의 거짓들과 악들이 ‘군대’에 의해 의미됨은 분명하다.

예8:2-‘하늘들의 군대’=모든 종류의 거짓들과 악들.

군림하다 (reign)

창37:8-‘참으로 내가 우리 위에 군림할 것이냐?’=그들은 지적 측면의 것들에 관련하여 복종되어지고 말 것이냐?

출15:18-‘여호와께서 영원하게 군림하실 것이다’=그분은 천국과 땅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계20:4-‘그리스도와 더불어 군림하는 것’=주님의 왕국 안에서 있는 것.

군인 (soldier)

싸우다 (fight)

이31:4- 사랑의 선이 있는 곳,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즉 그것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출14:14-‘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주님만이 시험들의 전투를 견뎌내신다.

요19:24-‘군인들이 이것을 했다’는 것=이것은 진리를 위하여 싸울 이들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

요19:34-또한 주님을 다함께 부인한 그들이 그분의 옆구리를 찌른 군인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군인에 의해, 또는 거기에 있는 군인들에 의해 교회 속에 있는 이들, 주님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이들, 특별하게는 유대 교회 속에 있는 이들, 일반적으로는 거짓들과 악들에 있는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고로 그들은 그분의 옷을 나눠가졌다.

군주-군중-굳건한-굳게 결합하다-굴레-굽다-궁극-궁전

요19:34-‘군인들’=교회 속의 진리들과 선들을 위해 싸워야 할 이들.

이31:8-악의 거짓들이 교회의 선들과 싸움이 ‘시온 산에 맞서 싸우는 모든 나라들의 군중’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이31:4-‘시온산에서 싸우는 것, 그것의 언덕에서 싸우는 것’=신성한 진리로부터 심판을 행하는 것.

군주 (duke)

* 지도자(leader)를 보라

군중 (crowd)

출12:38-‘큰 혼합된 군중’=진짜이지 않은 선들과 진리들.

계7:9-‘아무도 셀 수 없는 (만민의) 큰 군중’=일일이 열거된 이들 속에 있지 않은 모든 이들, 그림에도 주님의 새 천국과 새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최말단 천국과 외적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의 품질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계17:5-‘군중들’=훈련 중인 이들.

계19:1-‘천국에 있는 큰 군중’=더 낮은 천국들의 천사들.

굳건한 (firm)

출17:12-‘그의 손들은 굳건했다’=힘의 세기.

시51:10-‘굳건한(steadfast) 영’=진리를 이해함과 진리로부터의 신앙.

시75:3-‘그것의 기둥들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교회가 기초되어야 할 진리를 지지하는 것.

시51:10-‘내 한가운데에서 굳건한 영을 새로이 하는 것’=신앙의 진리에 관련하여 개혁하는 것.

이54:2-‘말뚝을 강화하는 것’=말씀으로부터 확증함.

굳게 결합하다 (cleave)

창2:24-‘그의 아내와 굳게 결합하는 것’=내적인 것은 외적인 것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

창29:34-‘이제 나의 남자는 나에게 굳게 결합 할 것이다.’ 최고 높은 의미에서=사랑과 자비; 내적 의미에서, 선행, 외적 의미에서 결합; 여기서의 경우, 영적 사랑.

* 술어 ‘굳게 결합하다’로부터 레위라고 이름지어졌다.

굴레 (bridle)

계14:20-‘말들의 굴레’들=말씀의 진리들, 이를 수단으로 이해성이 인도된다.

* ‘말들의 굴레들’=통치와 지배, 그 이유가 말 위에 앉은 자가 굴레를 수단으로 말들을 통제하기 때문.

굽다 (roast)

출2:8-‘불로 굽다’=사랑 속에 있는 선. 그이유가 불로 구워진 것들=사랑의 선, 그리고 ‘구워진’은 사랑을 불어넣은 것, 결과적으로는 선. 말씀에서 구워진 것과 삶아진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 구워진 것은 선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불을 수단으로 했기 때문.

눅24:42-‘벌집과 구운 물고기’=말씀의 외적 의미. 물고기는 진리 측면에 관련한 말씀의 외적 의미.

* ‘불로 굽다’=천적 사랑의 선과 영적 사랑의 선, 반대 의미에서=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악.

이44:16-‘구운 것을 굽고 살을 굽는 것’, ‘to roast a roast’, and ‘to roast flesh’=육육에 찬 사랑으로부터 악을 작업하는 것.

궁극 (ultimate)

* 맨 마지막(last)을 보라.

궁전 (palace)

예9:21-‘궁전’, 또는 집=자발적인 것(voluntary thing).

이32:14-‘궁전은 사막일 것이다’=선들이 거주하는 곳.

애2:7-‘궁전들’=교리 속의 것들.

시48:3-진리들이 천적 선에 있는 이들에게 새겨진다는 것이 ‘하느님은 그녀의 궁전에 알려져 있다’에서 의미되어 있다.

이32:14-‘궁전’=선으로부터의 진리에 관련되는 교회의 전체.

시48:13-‘그녀의 궁전들을 구별하는 것’=진리로부터의 선들을 지각하는 것. 그 이유가 ‘집들’=선들, 그리고 ‘궁전들’=진리로부터의 더 고상한 선들.

예9:21-‘궁전들’=생각과 애착의 모든 것들.

예9:21-‘궁전들’=인간 마음의 더 내면적인 것들, 고로 더 고상한 것들.

암6:8-‘궁전들’=거짓들 자체. 이것이 ‘궁전들’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랑하기 때문. 그리고 그것이 더 화려하게 나타나게 하려고 그들의 거짓들이 외적 형체에 장식되어 있기 때문.

궁창-궁핍한 -권능-궤

이34:13-그들을 방어하는 궤변들이 ‘궁전들’과 ‘방비시설’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시144:12-진리에 애착함이 ‘궁전의 모양새에 맞추어 자른 모퉁이 돌’에 비교되고 있다. 그 이유는 ‘궁전’은 이해함을 표현하고, 이 안에서 (주님의) 진리들이 아름다운 형체들로 있기 때문, 그리고 그들이 진리에 애착함에 있을 때, 그들은 아름다운 형체에 있는다.

예30:18-‘궁전은 그것의 방식에 따라 거주될 것이다’=고대인들이 진리를 이해하는 식과 같이 주님의 진리들에 대한 영적인 이해. 그이유가 이해성 안에 그들의 형체들에 있는 영적 진리들이 있기 때문. 이것이 눈 앞에 표현될 때, 궁전 같이 나타난다.

예6:5-진리를 이해함을 파괴하려 진력함이 ‘그녀의 궁전들을 파괴하자’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시45:15-‘상아로 된 궁전들’=합리적 인간으로부터의 진리들, 고로 합리적 진리들.

궁창 (expansive)

* 광활한 공간을 보라

궁핍한 (needy)

출22:24(25)-‘만일 내가 내 백성, 너와 함께 있는 궁핍한 자에게 은을 빌려준다면’=진리에 무지해 있고 여전히 진리를 배우기를 갈망하는 이들을 가르침...그이유가 이들은 영적 필요함에 있는바 가르쳐져야 하기 때문.

시72:4-‘궁핍한 자’ 여기서는 영적 필요함에 있는 이들이다, 그리고 고로 배고픈 이들, 진리들을 갈망하는 이들, 진리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이들.

시35:10-‘궁핍한’=진리를 거의 가지지 않은 이들. 그리고 ‘가난한 자’=선이 거의 없는 이들, 이 두 부류 모두 악들과 거짓들에 감염되어 있다. 이 감염들로부터 원어의 표현에서는 ‘궁핍한 자’=‘고뇌하는 자’.

출23:6-‘너는 궁핍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비틀지 마라’=무지함에 있는 이들이 지닌 조금의 진리를 파괴해선 안된다. ‘궁핍한 자’=무지로 인해 진리를 거의 가지지 않은 이들, 그러나 가르침 받기를 갈망하는 이들.

출23:11-‘네 백성의 궁핍한 자가 먹을 것이다’=약간의 진리들에 있고 진리의 가르침을 원하는 이들과 더불어

선행의 선이 결합함.

계3:17-‘비참하고, 궁핍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진리가 생활에 심어짐이 결핍되었다. 고로 선이 없다.

계2:9-‘(나는) 고뇌함, 가난(을 알고 있다)’=그들은 거짓들에 있다는 것, 고로 선 안에 있지 않다는 것.

시34:10-‘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떤 선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주님에 의해 사랑되고 그분으로부터 선들과 진리들을 받는 이들. ‘필요와 배고픔을 가질 짧은 사자’=자신들로부터 알아내고 현명해 있다는 자들.

이25:4-‘가난하고 궁핍한 자’=진리에 무지하여 선이 결핍된 자, 그러나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

이41:17-이방인들이 진리에 무지하고 진리에 결합이 있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불린다

시113:7-‘여호와를 가난한 자를 똥 언덕에서 들어 올린다’=무지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이들, 고로 선 안에 있지 않은 이들.

권능 (power)

* 힘(power)을 보라.

궤 (노아의 궤, ark of Noah)

* 방주를 보라

궤 (언약의 궤, ark of Covenant)

민10:35,36-광야에서의 궤의 여행은 전투들과 시험들을 의미한다; 궤의 휴식은 평화의 상태; 그러므로 궤가 여행했을 때, 모세는 말했다, ‘일어나소서, 여호와시여, 그리고 당신의 적들을 당신의 얼굴로부터 흠뜨리소서’; 그리고 궤가 휴식하자, 그는 말했다, ‘수많은 이스라엘 족에게로 돌아오소서 여호와시여!’...

창3:24-안에 증거(십계)가 있었던 궤는 ‘생명들의 나무’와도 꼭 같다; 즉 주님과 주님 속에 만 있는 천국적인 것들.

삼하6:6,7-궤는 주님, 고로 거룩하고 천국적인 모든 것을 표현했다; 우짜가 자기 손을 궤에 놓는 것은 인간 자신의 힘을 신뢰함을 표현했다.

삼상6:11,12-가장 안쪽에 안치된 궤는 주님 자신을 표현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십계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 그러나 바깥쪽인 천막은 주님의 왕국을 표현했다.

* 궤와 더불어는 성막...주님 자신이 궤 안에 있는 (십계의) 증거, 그리고 궤 위에 있는 자비석에 의해 표현되

궤

어졌다.

* 그들이 안쪽 예배 없이 바깥쪽 예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고로 그들이 산이나 숲 자체를 예배했다...그러므로 그들은 공통되는 것, 마지막으로 성전에 있는 궤 만에 예배하도록 제한이 가해졌다.

* 하나님의 궤가 불레셋족에게 빼앗겼을 때...'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씌움'=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을 잃었음에 통곡함; 그 이유가 '궤'는 주님의 왕국, 최고 의미에서 주님 자신, 이로부터 교회의 거룩한 것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옷을 찢음'은 신성한 진리를 잃었음에 통곡함, 그리고 '머리 위에 먼지를 뒤집어 씌움'은 신성한 선을 잃었음에 슬퍼함이 의미된다.

삼하6:8- 궤에 의해 천국이, 최고 의미에서는 주님 자신이, 고로 신성한 선이 표현되어졌다; '우짜'에 의해 섬기는 것, 즉 진리가 표현되었는데, 그 이유는 진리는 선을 섬기기 때문; 이 질서가 깨트려짐이 우짜의 법 위반에 의해 의미되었다.

창50:26-'(요셉은) 이집트에서 궤 안에 놓여졌다'=교회의 과학적 지식 안에 감추임. '궤'는 어떤 것 안에 저장됨, 또는 감추임을 의미한다.

창50:26- '귀중품을 넣는 상자(돈궤, coffer)'. 또는 작은 궤(ark)=둘레에 있는 어떤 것, 또는 어떤 것이 두루 에워 씌움.

출2:2-모세는 신성으로부터의 법, 또는 말씀에 관련된 주님을, 특별하게는 역사적인 말씀에 관련된 말씀을 표현하도록 준비되었다. 그러므로, 때가 당도하자, 그는 (신성으로부터의 법은) 유아였을 때, 작은 궤, 실지로는 흔하거나 조금 조잡한 수준의 상자 안에 놓여졌었다. 그 이유는 이 법의 첫 출생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그 후 이 법이(모세의 얼굴이) 시나이 산으로부터 빛을 내었을 때, '증거의 궤'라 불리는 궤 안에 안치되어졌다... 이때부터 궤는 지극히 거룩했다, 그 이유는 이 궤가 신성한 법에 관련한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 두 돌판이...궤안에 놓였기 때문에,,,그러므로 궤는 '언약의 궤'라 불리운다.

* 천막 한 가운데 궤 안에 있는 법에 의해 말씀에 관련한 주님이 표현되어졌다.

출25장-'궤'에 의해 가장 깊은 천국이 표현되어졌다.

* 증거가 안에 있는 궤는 가장 깊은 천국, 그리고 이 천국에 계신 주님 자신을 표현했다.

출25:10-'너는 궤를 만들 것이다'=가장 깊은 천국...그 이유가 궤 안에 있는 (십계의) 증거, 또는 법이 주님을 의미했기 때문, 그리고 (십계의) 증거는 신성한 진리, 그리고 신성한 진리는 천국 안에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 그러므로 궤는 지극히 거룩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해 여호와로서 예배되어졌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거기서 거주하신다고, 그리고 거룩 사이에 계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

예3:14,16,17-궤가 주님을 대표한다는 것...이 절로부터도 분명해진다...이전 교회를 대표함은 폐지된다는 것이 여기서 '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출25:14-'궤의 양쪽에'=최말단에 있는 천국을 에워싼 신성한 영역력(Divine sphere).

출25:14-'그것들 안에서 궤를 운반하는 것'=천국의 확고부동함과 생존.

출25:16-'너는 증거(판)을 궤에게 줄 것이다'=신성한 진리, 이것이 천국에 계신 주님이시다. '궤'=천국.

* 궤=주님이 계신 천국.

출25:21-'너는 궤에게 증거(판)을 줄 것이다'=천국에 계신 주님으로부터...'궤'=천국.

출25:22-'증거의 궤 위에 있는..'=천국에 계신 주님보다 더붙어. '궤'=천국을 표현한다.

* 증거(판)이 있는 궤에 의해 가장 깊은 천국, 또는 셋째 천국이 표현되어졌다.

출26:33-'베일 안쪽으로부터 저쪽에 증거의 궤를 가져올 것이다'=하나를 이루는 매체 안에서 가장 깊은 천국이 존재함...'증거의 궤'=가장 깊은 천국.

출26:34-'너는 지극히 거룩함에 있는 증거의 궤 위에 자비석을 줄 것이다'=가장 깊은 천국 안에 있는 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예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심...'증거의 궤'=가장 깊은 천국,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

출30:6-'너는 증거의 궤 넘어 있는 베일 앞에 그것을 줄 것이다'=내면의 천국, 여기는 가장 깊은 천국과의 결합이 있는 곳이다...'증거의 궤'=가장 깊은 천국.

귀

출30:26-'(너는) 증거의 궤에 (기름부을 것이다)=가장 깊은 천국 속에 있는 천적 수준의 선 안에서...증거의 궤에 의해 가장 깊은 천국의 선이 의미되어진다. 궤가 가장 깊은 천국이라는 것, 증거는 거기에 계신 주님이 시다는 것, 그리고 이 천국을 통치하는 선은 주님을 사랑함이라는 것...그러므로 '증거의 궤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가장 깊은 천국 속에 있는 천적 선에서 주님의 신성이 표현되게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출31:7-'만남의 천막, 그리고 증거와 더불어 궤'=일반적 측면에서 천국의 표현, 주님이 계신 곳...만남의 천막 베일 안쪽, 궤가 있는 곳은 가장 깊은 천국, 또는 셋째 천국을 표현했다...

계11:19-'하느님의 성전이 천국에서 열려졌다, 그리고 그분의 언약의 궤가 성전에서 보여졌다'=새 천국, 그 안에서 주님은 그분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 예배되어진다. 그리고 그들은 십계명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다; 이것은 새 교회의 두 필수요소이다, 이를 수단으로 결합이 있다...'성전에 있는 궤에 의해 십계명이 의미된다.

계11:19-'그분의 언약의 궤가 성전에서 보여졌다'=신성한 진리, 이를 수단으로 주님과 더불어 결합이 있다. '언약의 궤'=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언약의 궤가 보여진 것은 성전이 나타났기 때문, 예루살렘 한 가운데 궤가 있었고, 이 궤 안에 법의 두 돌판이 안치되어져 있었다, 이를 수단으로 보편적 의미에서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고로 주님 자신, 이 분은 천국들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이다...궤가 이를 의미한 것은 만남의 천막이 세 천국들; 즉 바깥쪽은 첫 번째 천국, 또는 최말단 천국; 베일까지의 천막 자체는 중간 천국, 또는 두 번째 천국, 그리고 베일 안쪽, 궤, 이 위에 그룹들과 더불어 자비석은 가장 깊은 천국, 세 번째 천국; 그리고 율법 자체, 궤 안에 있는 것은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 또는 말씀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과 결합이 있기에 궤는 '언약의 궤'라 불리운다.

시132편-'당신 강하심의 궤에 의해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가 의미된다; 그 이유가 이를 수단으로 주님은 신성한 힘을 가지시기 때문.

귀 (ear)

* 듣다도 참조

예6:10-'할례 받지 않은 귀'=경청함이 없음.

창20:8-'그는 그들의 귀에 이 모든 말을 이야기 했다'=거기로부터 확증한 것들 쪽으로, 그들의 순종함 쪽으로 까지 조차 권면함. '귀들'=순종, 그이유는 들음과 순종 사이에 상응이 있기 때문, 이 상응은 단어 '들음', 더 나아가 '경청함'에 숨어있다. 이 상응의 근원은 저쪽 삶으로부터이다. 거기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들은 귀의 영역에 속하고 있다. 그들은 들음 자체에 순종한다.

이6:10-'귀들을 가지고 듣는 것'=애착을 가지고 지각하는 것, 고로 순종하는 것.

창23:10-'헤스의 아들들의 귀에서'=순종.

창23:16-'그는 헤스의 아들들의 귀에 이야기했다'=새 교회 속에 있었던 이들의 수용력에 따라서...'귀'=순종; 이로부터 '귀에 이야기하는 것'=수용력에 따라서; 그 이유가 수용력이란 누군가가 지각하고 뜻하는 것에 따라 받는 것, 고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24:22-'사람은 귀를 위한 드림 장식(pendant)를 가져왔다'=신성한 선.

겔23:25-'코와 귀를 제거하는 것'=진리와 선을 지각함, 그리고 믿음 속의 순종.

암3:12-'귀 한 조각'=진리로부터 뜻함.

출29:20-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직의 임무가 맡겨졌을 때, 명령되었는 바...'모세는 숫양의 피를 가져다가 그것을 아론의 귀의 컷볼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귀의 컷볼에 바르라'는 것이다...이 예식은 믿음 속의 의지를 표현했다. 말하자면 성직자는 이런 의지에서 그의 임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내적 의미는 이러한바, 의지로부터 있는 믿음 속의 거룩한 것들은 감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출21:6, 신15:17-'귀'=순종, 그리고 내적 의미에서, 순종에서 파생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봉사하던 것(주인)으로부터 떠나기를 원치 않는 중에 실시된 의식으로 부터 한층 더 명백하다...'문설주에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는 것'=영구히 섬기는 것, 또는 순종하는 것; 영적 의미에서, 진리를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것, 그러나 순종으로부터 진리를 뜻하는 것, 따라서 이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귀고리-귀를 기울이다

창44:18-‘당신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마디 이야기하게 해주기를 원하나이다’=받음과 들음에 관하여 탄원함...‘귀’=순종; 여기서, 친절한 귀기울임, 또는 들어줌, 그 이유가 아랫 사람이 윗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창50:4-‘바로 귀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 말하기를,’=동의를 간청함...‘귀’=순종; 여기서 동의함, 그 이유는 이것이 왕에게 보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10:2-‘귀에 말하는 것’=그들이 알고 통각할런지 모른다는 것.

출11:2-‘지금 백성의 귀에 말하라’=통보와 순종...순종이 ‘귀에 말함’에서 의미되고 있다; 그 이유가 귀는 순종과 상응하기 때문, 이로부터 순종도 의미한다.

출17:14-‘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고정되게 하라’=순종되어야 한다는 것.

출24:7-‘그는 그것을 백성의 귀에 읽었다’=경청을 위해 그리고 순종을 위해...‘귀에’=순종을 위해; 그 이유가 ‘귀’, 그리고 ‘듣는 것’=순종하는 것이기 때문.

출29:20-‘너는 그것을 아론의 오른쪽 귀의 콧볼에,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의 콧볼에 발라야 한다’=천국들에서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의 모든 지각력...‘귀’=지각하는 것; 여기서의 경우 천국과 교회에서 신성한 진리를 지각하는 것; 그 이유가 모든 지각력이 거기서 파생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여기서는 천적 왕국에서의 지각력을 의미하고 있다. 그 이유가 거기서는 진리를 선으로부터 지각하기 때문이다. ‘콧볼’은 귀의 가장 바깥인바=전부, 또는 모두...‘오른 쪽 귀’=선으로부터 진리를 지각함.

계2:7-‘귀를 가진 자는 자기로 하여금 성령이 교회들에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자는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가 새 예루살렘인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순종해야 한다.

계13:9-‘만일 누군가가 귀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로 듣게 하라’=슬기로우시기를 원하는 자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들을 귀를 가지는 것’=지각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또한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

막7:35-‘귀가 주님에 의해 열려짐’=진리를 지각함, 그

리고 순종함.

이30:21-교리 속의 진리들에 따른 생활의 선이 ‘네 귀가 말을 들을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계8장-‘만일 누군가가 귀를 가지고 있다면, 그로 듣게 하라’=진리를 이해하는 이들, 이로부터 선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한 받아들임... ‘귀를 가지는 것’과 ‘듣는 것’ 모두 진리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선을 지각하는 것;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 속에 있고, 선을 지각하는 것은 애착 속에 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귀 또는 들음 속에 있다. 그 이유가 귀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성의 시야를 통과하여 의지 속의 애착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귀’와 ‘들음’은 경청함과 순종을 의미해주고 있다; 이로부터 ‘뭔가를 듣는 것’=이해하는 것; 그리고 ‘뭔가를 듣는 것, 또는 주의해 듣는 것’=순종하는 것; 그리고 둘 모두 ‘경청함’에 의해 의미된다.

마13:16-‘네 귀는 복 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듣기 때문이다...’귀, 여기서의 경우=순종, 고로 믿음 속의 진리들에 따라 생활함; 그리고 ‘듣는 것’=순종하는 것과 사는 것.

귀고리 (earring)

사8:24-‘금귀고리’=단순한 선 속에 있는 것들.

창35:4-‘그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실체의 것들. (그 이유가) 귀고리들은 순종을 표현하는 표지(insignia)이고, 순종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은 실제의 것들이기 때문.

겔16:12-‘코 장식구’=선을 지각함, ‘귀의 귀고리’=진리를 지각함, 순종.

출32:2-‘너희 여인, 너의 아들들, 너의 딸들의 귀로부터 금귀고리들을 떼어내라’=외적인 사랑들, 이로부터 파생된 원리들을 옹호하도록 말씀의 글자 의미 같은 것을 끌어냄. ‘귀에 있는 금귀고리’=외적 사랑들 속에 있는 즐거움과 순종을 표현하는 표지.

귀를 기울이다 (hearken)

겔3:6-아직 그들은 선행 안에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 라고 그들에 관해 서술되고 있다

창16:2-‘아브람은 사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그것은 그 외 달리 행해질 수 없었다는 것.

예6:10-‘그들의 귀는 할레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귀기울임 수 없다.’ ‘할레받지 않은 귀’=귀기울임이 없

귀리-귀머거리

음, 말씀은 그들에게 비난함이었다.

창27:13-‘오직 내 음성에 귀기울여라’=결과로부터. ‘음성에 귀기울이는 것’=순종하는 것.

창37:27-‘그의 형제들은 귀기울였다’=스스로를 낮춤.

창42:22-‘너희는 귀기울이지 않는다’=비 수용. ‘듣는 것’, 또는 ‘귀기울임’=순종하는 것. 그것=순종인바, 그것=받는 것. 그이유는 신앙이 받아쓰는 것을 순종하는 자는 그와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

출15:26-‘만일 네가 그분의 교훈들에 귀기울인다면’=순종, 그리고 신앙의 선들에 따른 생활. ‘귀기울이는 것’=순종과 생활.

출18:24-‘모세는 장인의 음성에 귀기울였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을 행했다’=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성직 수임에 따른 결과.

이21:7-‘깊이 귀기울임’=그 교리에 따른 생활.

이34:1-‘귀기울이는 것’=순종하는 것 그리고 가르쳐지는 것.

귀리 (spelt)

겔4:9,12,13-밀, 보리, 콩, 렌즈콩, 기장, 귀리 등등=빵, 그러나 특별한 측면에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빵=선, 고로 선의 다른 종류들이 언급된 곡식에 의해 의미된다. 더 고상한 종류의 선은 밀과 보리에 의해, 덜 고상한 선은 콩과 렌즈콩에 의해 의미된다.

겔4:9-‘밀, 보리, 콩, 렌즈콩, 기장, 귀리’=선의 종류들, 그리고 이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종류들.

출9:31,32-비축되어진 선들과 진리들이 ‘주님이 아껴두신 것들, remains’에 의해 의미된다. 이것들이 이 두 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아마와 보리는 내려침을 당하고 밀과 귀리는 내려침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그이유는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출9:32-‘그리고 밀과 귀리’=내면의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그것의 진리...‘귀리’=‘밀’에 의해 의미되는 선에 상응하는 내면적 자연으로부터의 진리.

이28:26-‘보리’=외적 인간의 사랑의 선. ‘귀리’=그것의 진리.

이28:26-‘밀’=선. ‘보리’=진리. ‘귀리’=지식들.

귀머거리 (deaf)

이43:8-‘귀들을 가진 귀머거리’=진리들을 응낙하는 이

들.

출4:11-‘귀머거리’=진리를 지각함이 없음, 그 결과 순종함이 없음. ‘귀머거리’=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각 못하는 이들, 고로 진리에 순종도 없는 이들. ‘귀머거리’가 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들음이 지각함과 순종 모두에 상응하기 때문. 말씀에서, ‘귀머거리’에 의해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의미되기도 한다, 그들이 이런 이유는 말씀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 고로 그것에 따라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 따라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은 그것들에 따라 산다. **이43:8**-‘귀머거리’ 여기서=주님의 강림을 통하여 신앙의 진리를 받는 상태, 즉 이 진리를 지각하고 순종하는 상태에 오게 될 이들.

레19:14-‘귀머거리’가 이 의미를 지녔기에, 표현 교회와 더불어 사람은 ‘귀머은 자를 저주하는 것이’ 금하여졌다.

눅7:22-‘귀머거리가 듣는다.’ ‘귀머거리’=신앙의 진리를 지각할 수 없어 그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이들.

막7:37-‘그분은 귀머거리를 듣게 만드다.’ ‘귀머거리’=신앙으로부터의 진리를 모른 이들, 고로 그것들에 따른 삶도 없는 이들.

이29:18-‘책의 말들을 듣는 귀머거리’=진리들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할 수 없는 이들.

이35:5-선에 대한 지각함과 뜻함에 있지 않은 이들이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42:19-‘내 중 외에 누가 눈먼 자이더냐? 내가 보낸 내 천사 같이 귀머거리이더냐?’ 그분이 ‘소경’, ‘귀머거리’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마치 그분은 사람들의 죄들을 보지 못하고 지각도 하시지 못하는 듯 계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그분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구부러져 부러지지 않게 인도하시기 때문, 하여 그들이 악들로부터 물러나고 선 쪽으로 향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보거나 지각한 경우 같이 그들을 치시거나 벌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 ‘눈먼 자’와 좋은 신성한 진리에 관련해 말해지고, ‘귀머거리’와 ‘천사’는 신성한 선에 관련하여 말해진다. 그이유가 ‘소경’은 이해성에, ‘귀머거리’는 지각에 관계하기 때문. 그리고 ‘귀

귀중한-귓바퀴-그늘-그림자-그다라-그돌라오멜

먹음'은 지각에 그리고 의지에 관계한다.

막9:25-그는 주님의 의하여 '귀멀고 병어리'라고 일컬어진다. 그 이유는 그가 진리를 지각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

귀중한 (precious)

예20:5-'모든 귀중한 것'=신앙에 대한 지식들.

창24:53-'그는 그녀의 형제에게 귀한 것들을 주었다'=자연적 선을 위한 영적인 것들. '귀한 것'=영적인 것.

신33:13-'천국의 귀한 것들'=영적인 것들, 이것이 '이슬'이다.

계21장-'귀한 돌'=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신앙의 진리.

신33장-이 '귀한 것들'=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 이로부터 교리가 있다.

계18:19-'그녀의 호화스러움 때문에 부자로 만들어졌다'=이 광신적 신앙의 거룩한 것들에 의해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

시45:9-'왕의 딸들이 귀중한 자들 사이에 있다'=진리에 애착함들 자체.

신33:13,14,15,16-'땅의 귀중한 것들'=교회 속에 있는 영적 선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진리들. '하늘의 귀한 것들, 이슬, 그리고 땅 아래 누워있는 심해'=내적, 외적 인간에 있는 영적, 천적인 것들. '태양의 생산물의 귀한 것들, 달들의 생산물의 귀한 것들'=천적 왕국과 영적 왕국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들. 선행의 선들이 진짜 일 때, 그들은 '영원한 언덕들의 귀한 것들'이라 불리운다.

계18:12-'귀한 나무'=우수한 나무, 고로 합리적 선.

귓바퀴 (earlap)

암3:12-'귀의 귓바퀴'=자연적 인간이 통각하는 것.

출29:20-'오른쪽 귓바퀴'=선으로부터 진리를 지각하는 것.

그늘 (shade)

그림자 (shadow)

창19:8-'내 들보의 그림자'=희미한 일반적 (지각).

이9:2-'죽음의 그림자에서 사는 것'=선과 진리의 무지함에서.

시23:4-'그림자의 골짜기'=상대적으로 그늘진 더 낮은

것들.

이18:1-'날개들로 그림자지게 하는 토지'=과학물들로부터 추론함들을 통하여 그 자체를 어렵게 하는 교회.

이4:6-'낮 때에 그늘'을 위하여

시121:5-'네 오른 선에 그늘 있기 위해'=악과 거짓에 맞서 보호되는 것. 여기서의 '그늘'은 태양 그늘이다.

이25:5-'구름의 그늘'=이런 것들로부터 방어함.

예2:6-'밀집한 구름의 토지를 통과하여'=진리에 무지한 상태, 그 결과 거짓 (=희미한 진리에 대한 이해성)

애4:20-'그의 그림자에서 사는 것'=악으로부터의 거짓들에 맞서 그분의 보호 안에 있는 것.

이38:8-'아하즈의 계단에서 그림자를 뒤로 당김'=그 때를 길어지게 함.

시44:19-이것들이 있는 거짓이 '죽음의 그림자'라 불리운다.

시23:4-'그늘진 계곡에서 걷는 것'=희미하게 이해함은 빛으로부터 진리들을 나타내지 않는다.

겔17:23-'그것의 가지들의 그림자에서 거주하는 것'=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종결됨. 그 이유가 이것들이 합리적 진리들을 감싸서 보호하고 안내하기 때문.

그다라 (Gedaliah)

예41:3-바벨의 왕이 그 토지에 통치자로 만든 '그다라'는 모독한 것들, 추상적으로는 갖가지 종류의 모독들이 의미된다.

그돌라오멜 (Chedorlamer)

창14:4-주님이 싸우셨던 여러 악들과 거짓들이 어린 시절에는 그다지 나타나지 아니했는데, 그 다음 그것들이 폭발적으로 튀어나왔다는 것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던 왕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14:1-'그돌라오멜' 등등=아주 많은 종류의 외관상의 선들과 진리들, 이것은 그 자체로는 주님의 외적 인간에서 선들과 진리들은 아니다.

창14:4-'12년 동안 그들은 그돌라오멜을 섬겼다'=악들과 거짓들은 어린 시절 동안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그것들은 외관상의 선과 진리를 섬겼다는 것.

창14:5-'그돌라오멜이 왔다'=외적 인간에 있는 외관상의 선...여기서 '그돌라오멜'=오직 선, 그 이유는 '그리

그두라-그랄-그렇게-그루터기-그룹

고 그와 더불어 있는 왕들이 첨가되었기 때문.

창14:17-‘그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외관상의 선들과 진리들에 대한 변론과 해방.

그두라 (keturah)

* 아브라함도 참조

* ‘아브라함과 그두라’=신성의 영적 평면에서의 주님.

* 아브라함의 여자(그두라)는 신성한 영적 선에 인접한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한다.

창25:1-‘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다’=이 신성한 진리의 본질.

창25:4-‘이 모두는 그두라의 아들들이었다’=교리적인 것들, 그로부터의 예배들에 관하여...‘그두라’는 신성한 영적 선과 결합한 신성한 영적 진리를 표현한다. 고로 주님의 영적 왕국 속에 있는 것들, 교리적인 것들에 따라 있는 예배.

그랄 (Gerar)

* ‘그랄’=신앙에 관련하여 계시된(밝히 알게 해주신) 것들; 고로 일반적으로는 신앙 자체.

창20:1-‘(아브라함은) 그랄에 체류하였다’=그때부터 있는 신앙의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그랄’=신앙의 영적인 것. ‘그랄’은 창세기의 여러 곳에서, 즉 10:19, 26:1,6,17,20,26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것=신앙. 이런 이유는 그랄이 블레셋 지역에 있기 때문; ‘블레셋 지역’에 의해 영계에서 알고 있는 신앙에 관한 자연계의 지식이 사라져 없어짐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랄은 블레셋 왕 자신이 거주한 장소 였다. 이로부터 ‘그랄’은 신앙 자체를 의미했다; 그리고 ‘그랄의 왕’에 의해서는 신앙 자체 속의 진리가 의미되었다.

창26:6-‘이삭은 그랄에 거주했다’=인접되어져 있는 합리적인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앙 속에 있는 이런 것들에 관련한 주님의 상태. (그 이유가) ‘그랄에 거주하는 것’=신앙 속에 있는 이런 것들에 있는 것, 고로 이런 것들에 관한 상태...‘그랄’=신앙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창26:17-‘그는 그랄의 계곡에 천막을 쳤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했다’=그분께서는 자신을 더 낮은 합리성 쪽으로 향하게 하셨다. 또는 내면의 나타남으로부터 외면

의 나타남 쪽으로 향하게 하셨다. (그 이유가) ‘그랄의 골짜기’=더 낮은 합리적인 것들, 또는 진리의 외면적 나타남. 그 이유가 ‘계곡’=낮은 것들...그리고 ‘그랄’=신앙 속에 있는 것들, 고로 진리 속에 있는 것들.

창26:20-‘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그랄’=신앙. 고로 ‘그랄 계곡의 목자들’=말씀의 글자 의미 외에는 어떤 의미도 인정하지 않는 이들.

창26:26-‘아비멜렉이 그랄로부터 그에게 갔다’=합리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신앙 속의 교리...‘그랄’=신앙.

그렇게 (so)

* 천적 왕국의 천사들은 그것이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 하고 말한다.

마5:37-영적 왕국의 천사들은 그것이 그런지 아닌지를 논쟁한다. 그러나 천적 왕국의 천사들은 그것이 그렇다를 알고 지각한다. 이로부터 주님은 말하시기를, ‘너희의 대화에는 예, 예가 있게 하라...’

* 천적인 천사들은 예, 또는 아니오 만을 말한다.

* 천적인 천사들은 그것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 라고만 하여 결코 토론 않는다.

그루터기 (stubble)

* 줄기(stalk)를 보라

그루터기 (stock, stump)

창34:11-‘세겜’=고대 신성의 그루터기로부터의 진리.

계22:16-다윗이 신성의 진리 측면을 표현한다는 것, 하여 주님께서는 기꺼이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태어나셨고, ‘그의 뿌리(그루터기)와 후손’이라 불리우셨다.

단4:15-땅에서 남아있을 ‘뿌리들의 그루터기’=말씀, 글자만으로부터 이해됨의 말씀, 그리고 이것은 단지 알아진 어떤 것, 단지 기억안에 자리하고 있고, 이로부터 언어를 통해 밖으로 나갈 뿐이다. (=말씀, 이를 통하여 교회는 소생할 것이다.)

그룹 (cherub)

창3:24-고로 그들이 믿음 속의 거룩한 것들을 모독하지 않도록 설비되어 졌는데, 이것이 그들이 쫓겨남에 의해, 그리고 그룹들이 화염검과 더불어 거주하여, 생명들의 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킴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창3:24-‘그룹들이 동쪽에 거주하게 함’=믿음의 어떤 신비 안으로 인간이 진입함에 맞서 설비되는 것...‘그룹

그룹

들'에 의해 믿음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안으로 진입함을 예방해주시려는 주님의 섭리가 의미되고 있다.

* '그룹들'=인간이 제 고유의 것으로부터,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과학물로부터, 신앙의 신비 안으로 미친듯 들어가서 그것들을 모독하여 영원히 멸망함을 방지해주시려는 주님의 섭리.

출25:22, 민7:89-유대인들의 품성이 이리한바 만일 그들이 주님의 강림 등등을 알았었다면, 그들은 모독죄를 범하여 영원히 멸해졌을 것이다. 이것이 자비석 위에, 성막의 커튼 안에, 휘장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룹들에 의해 의미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지키심을 계속하신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이로부터 또한 주님은 자주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 불리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룹들 사이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셨다.

시18:10-'그룹을 타셨다'='인간이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신비들 안으로 제 자신으로부터 들어감을 방지하는 주님의 섭리.

시80:1-'그룹들에 거주함'=누군가가 주님에 의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사랑과 신앙의 거룩한 것들로 들어 가겠다 하는 것을 예방하시는 섭리 측면의 주님.

왕상6장-'그룹들'에 의해 주님의 섭리, 고로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부터 있다는 것이 표현되어졌다.

겔1장-주님의 신성한 섭리가 여기서 그룹들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이다.

왕상6:23-33-'그룹들' 그리고 또한 '성소의 문들'=천적 사랑을 통하지 않고 그분께로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주님의 경계와 섭리; 그러므로 그것들은 기름의 나무(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다.

출25:18-'너는 두 그룹들을 만들 것이다'=사랑의 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께의 접근 불가 그리고 입장 불가, (그 이유가) '그룹'=사랑의 선을 통하지 않으면 주님께의 어떤 접근도 못하게 방지하시려는 경계하심과 섭리. 이것이 그룹들에 의한 의미인바, 그들은 কে 위에 있는 자비석 위에 놓여졌다, 그리고 속이 찬 금으로 만들어졌다.

출25:20-'그룹들의 날개는 위쪽을 향하여 뻗어졌다'에

의해 신앙의 진리를 통하여 주님 쪽으로 선이 승강함을 의미했다, 그 이유가 '그룹들'은 선을 통해 그분에게 접근함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출25:22-'두 그룹들 사이로부터'=천적 선과 영적 선이 함께 결합이 있는 곳. '두 그룹들'=천적 선과 영적 선, 이를 통하여 주님께의 접근이 있다.

출26:1-'그룹들과 더불어'=지옥들이 접근하여 상처를 입히려 함에서 주님께서 천국을 지키시고 방지하심. '그룹들'=선을 통하지 않고 주님께 접근함을 경계하시고 섭리하심, 그리고 천국과 인간에 있는 주님으로부터의 선이 상처 받음을 예방하심, 결과적으로 지옥이 접근하여 상처 입힘에서 천국을 보호하심.

출26:31-'그룹들과 더불어'=영적 선과 천적 선이 뒤섞임으로부터, 즉 중간 천국과 가장 깊은 천국의 선이 뒤섞임을 방지하시려 경계하심.

왕하7:29-'그룹들'을 수단으로 (인간이 제 고유의 감각적 측면으로부터, 즉 세상적 측면으로부터 천국과 교회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방어하심. 그 이유가 이것은 신성한 질서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계4:6,8, 겔10:12-그룹들을 수단으로 말씀의 영적 의미가 상처 받음을 방지하시고저 하여 있는 주님의 경계와 섭리가 의미되어 있다. 이것이 '앞과 뒤에 눈들로 가득한' 그룹들인 네 동물들로 말해진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들은 눈들로 가득했다'. 또한 그룹들을 실은 바퀴들도 돌아가며 눈들로 가득했다.

겔10:18-'그룹들'=사랑의 선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려는 어떤 접근도 방지하고자 경계함에 관하여와 섭리하심에 관한 주님.

겔1:5,6-이 이유 때문에 네 그룹들을 수단으로 사랑의 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접근도 허용되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주님의 경계와 섭리가 의미되는 바, 네 그룹들은 비록 그 각각이 네 얼굴들을 가졌다해도 사람 같이 보여졌다.

겔1:26-'동물들' 같이 보여진 '그룹들'에 의해 신성한 섭리 측면의 주님, 사랑의 선 아니고서는 그분께로 접근 못하게 하시는 측면의 주님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경계 그 자체가 천국들 안에 있고, 특히 가장

그릇

깊은 천국 안에는 더욱 강하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그룹들’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주님은 천국들 그룹에 있으신 바, 그분은 그룹들 위에 있는 보좌에 계신 것으로 보여진다.

겔28:14-말씀의 글자 의미가 ‘그룹, 넓게 덮음’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그릇 (vessel)

단1:2-‘하느님의 집의 그릇들’=거룩한 것들 (모독했다).

눅17:31-‘집에 있는 그의 그릇들’=선 속에 있는 진리들. ‘그것들을 가지러 내려감’=선으로부터 진리 쪽으로 떠남.

겔16:17-‘금과 은으로 장식한 그릇들’=말씀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

예48:11,38-‘그릇들로부터 그릇들 까지 텅비는 것’=(개혁되지 않는 것...선 자체가 기쁨이 없는 그릇이라 불린다).

겔27:13-‘눛그릇’=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자연적인 선들.

이66:20-‘깨끗한 그릇에 있는 제물’=내적 인간에 관계되고 있는 외적 인간에 대한 표현이다...그이유가 ‘깨끗한 그릇’=일치하는 외적인 것, 고로 외적인 것들에 있는 것들, 즉 과학물들, 지식들, 교리물들.

예14:3-‘텅빈 그릇들’=안에 진리가 없는 지식들, 또는 안에 선이 없는 진리들.

마25:4-‘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다’=진리들 안에 선이 있었음, 즉 신앙 안에 선행이 있었음.

창24:53-‘좋은 은 그릇, 금 그릇, 의복들을 가져갔다’=진리와 선과 그것들을 장식하는 것들...‘그릇들’이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진리에 애착함을 서술하기 때문. 진리 자체로만 간주해보면 그것은 선을 담는 그릇 밖에 더 아니다. ‘은 그릇’=특별한 측면에서는 과학물들, 그이유가 이것들이 진리를 담고 있는 용기이기 때문. ‘금 그릇’=특별한 측면에서 진리들, 그 이유는 이것들이 선을 담는 용기이기 때문.

창31:37-‘그의 집의 그릇들’=그의 자신의 진리들.

*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릇들’=신앙의 교리적인 것

들.

예14:3-‘텅빈 그릇들’=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아닌 진리.

신23:24-‘그릇’=교회의 진리.

여7:11-‘그릇들’=거룩한 진리들.

민19:15-‘죽은 자의 집에 있는 열려 있는 그릇들은 불결하다.’

창42:25-그들은 곡식으로 자기들의 그릇들을 채웠다’=과학물들이 진리로부터 있는 선에 수여되었다.

창43:11-‘너의 그릇들에 토지의 노래들을 가져가라’=신앙 속의 진리들에서 선택한 교회의 것들.

예18:4-‘용기장이의 그릇’=신앙으로부터의 진리.

이18:2-‘골풀 줄기로 만든 그릇’=가장 낮은 진리들의 저장소.

계3:22-‘은 그릇’=진리의 과학물들. ‘금 그릇’=선의 과학물들. 과학물들(기억-지식들)이 ‘그릇들’이라 불리는 데, 그 이유는 그것들은 일반적인 것이고 그것들 내에 무수한 진리들과 수많은 겹겹의 선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겔27:13-‘눛그릇’=선으로부터의 신앙 속의 외면의 진리. 그 이유가 ‘그릇들’=외면의 진리들이기 때문.

출22:7-‘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보관하도록 은이나 그릇들을 줄 경우’=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기억에 있는 과학물들...‘그릇들’=이와 상응하는 과학물들인 이유는 모든 영적 진리들은 과학물들 안에 마치 그릇들에 담듯 저장되기 때문. 그리고 모든 과학물들은 그것들이 함유하는 진리들에 상응한다.

출25:9-(성막의) 모든 그릇들의 모양=주님으로부터 있는 모든 천적, 영적인 것에 대한 표현. ‘그릇들’=진리들. 여기서의 경우, 주님으로부터 있는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 그 이유가 ‘그릇들’에 의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뜻해지기 때문.

출25:29-그릇들, 일반적 측면에서=과학물들, 또는 지식들. 그러므로 특별한 측면일 경우, (‘탁자의) 그릇들’=천적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

출27:19-‘모든 섬김에 있는 주택의 모든 집기들에 관하여’=외적 인간에 속해 있는 기억된 진리들과 선들.

레6:28-‘도기, 그것에서 삶아진다’=선과 부합되지 않는 거짓. ‘눛 그릇’=선이 있는 교리적인 것.

그리고-그리다-그리스도

출30:27-‘훗대와 그것의 그릇들’=영적 진리...그리고 섬기는 진리들... 그 이유가 ‘그것의 그릇들’=기억의 진리들, 이것이 섬기는 것들이다.

출30:28-‘(태워 바치는 제단의) 모든 그릇들’=신성한 선들과 신성한 진리들. 그 이유가 ‘그릇들’=지식들과 과학물들. 그러나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서술할 때, 그들=섬기는 신성한 선들과 신성한 진리들.

출31:7-‘(그분의) 천막의 모든 그릇들’=모든 섬기는 선들과 진리들에 대한 표현인 것. 그 이유가 만민의 천막의 그릇들=천국들에 유용한 선들과 진리들, 고로 이것은 섬긴다. 그리고 섬기는 선들과 진리들은 지식들과 과학물들이다.

계2:27-‘용기장이의 그릇들’=인간 고유의 총명 속의 것들, 이것들은 모두 거짓이다, 그 자체 아무 것도 아니다.

예14:3-‘그들은 텅빈 그릇들을 가지고 되돌아 왔다’=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지식도, 이해함도 없다. 말씀에서 ‘그릇들’=진리를 담은 용기, 고로 기억과 이해함에 관한 것들.

겔16:17-‘주님의 금과 은으로부터 장식한 그릇들’=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 이것은 글자 의미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이다...이것들이 ‘그릇들’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것들이 그것 안에 영적 진리들과 선들을 포함하기 때문. 그리고 그들이 ‘장식하는 그릇들’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들은 내면의 것들의 형체들이고 나타남들이기 때문.

겔12:7-‘어둠에서 벽을 통하여 옮기려는 그릇을 끄집어내는 것’=말씀으로부터의 모든 교리 속의 진리들을 내던지는 것.

단11:8-‘바람의 그들의 그릇들’=자연적 진리들.

계18:12-‘상아로 된 모든 그릇, 그리고 귀한 나무로 만든 그릇’=모독된 합리적 진리들과 선들.

이61:10-‘신부가 자신을 자기의 그릇들(보석들)로 단장하듯’=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그리고 (and)

창30:6-이 하나의 것이 양쪽 모두의 표현들에 의해 의미되어질 때, 그것들은 ‘그리고 또한’에 의해 함께 결합되어진다.

창39:7-상태의 덜 중요한 변화들은 ‘그리고’를 수단으로 암시되어진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

창43:2-고대 때의 최초 언어에서는 구두점(stop)을 찍는 것을 수단으로 의미가 구별되지 아니한채, 천국의 말을 모방하여 본문이 계속되어졌다. 그리고 구두점 대신에 ‘그리고’가 있었다, 그리고 또한 ‘...있었다, there was’, 또는 ‘...하였다, ...하게 되었다, came to pass’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고 라는 단어는 자주 등장한다..

* 천적인 천사들(셋째 천국, 가장 높은, 또는 가장 깊은 천국의 천사들)의 말에는 딱딱한 자음이 빠져 있다,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중재를 수단으로 드물지만 자음 하나로부터 또다른 자음으로 건너간다. 그러므로 해서 불변화사인 ‘그리고’가 말씀 안에서 자주 삽입되어진다. 히브리 본래 단어로 말씀을 읽을 경우, 이 불변화사는 부드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단어는 모음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그리다 (paint)

* 그림물감(paint)을 보라.

그리스도 (christ)

눅2:11-‘그리스도이신 구세주 주님’.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쁨부워진 자, 왕을 대표한다. ‘주님’은 여호와를 대리한다. 전자는 진리 측면, 후자는 선의 측면에서이다.

마24:5,23,24=신성이 아닌 진리들, 그러나 거짓들.

마23:10-‘너의 스승은 한분, 그리스도이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

마24장-자신을 기독인이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말하는 이들, 그런데 그들의 명령들에 따라 살지 않는 이들, 이들은 그분을 우상적으로 예배한다. 그이유는 그들이 그분의 이름 만을 예배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마24:23-‘그때에 누가 너에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또는 저기 있다 말한다면, 믿지 마라’=그들의 교리에 대하여 주의하라는 권면. ‘그리스도’=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 이로부터 말씀에 관련한 주님. 그러나 여기서는 반대 의미인바, 왜곡된 신성한 진리, 또는 거짓으로부터의 교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

그림물감-그림자-그만두다-그모스

이 일어날 것이다'=그 교리의 거짓들. '거짓 그리스도들'=왜곡된 말씀들, 또는 신성이지 않은 진리들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

눅2:26-'주님의 그리스도'=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그 이유가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다, 그리고 메시아는 기름부워진 자, 또는 왕이다.

계11:15-'세상의 왕국들은 우리의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있다'=천국과 교회는 그것들이 시작으로부터 그러했듯 주님의 것이 되어갔다는 것, 그리고 지금 또한 그들은 그분의 신성한 인간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신성한 인간이 뜻해진다. 이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계12:10-'우리의 하느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힘'=주님 만이 천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통치하시기 때문. '하느님'에 의해 신성 자체가 뜻해진다...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신성한 인간이 뜻해지는데, 이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계20:4-'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주님과 결합되고 그분의 왕국에 얼마 동안 있어왔었던 이들.

마16:16-'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그분은 신성한 진리이시다는 것.

계11:5-주님은 신성한 선으로부터 '주님'이라 불리고 신성한 진리로부터 '그리스도'라 불리신다.

마23:8-'선생 그리스도'=신성한 진리.

막9:41-'내 이름에서 물 한잔을 주는 것, 네가 그리스도에 속해있기 때문에'=진리를 사랑함으로부터 진리를 가르치는 것, 고로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가르치는 것. 마찬가지로 그것을 행하는 것...'그리스도'=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

그림물감 (paint)

페인트로 칠하다 (paint)

그리다 (paint)

예22:14-'주홍(vermilion) 페인트로 칠하는 것'=영적 진리들을 왜곡하는 것.

겔23:14-'벽에 그림물감으로 그려진 사람들'=외적인 것들에서 나타나 있는 진리; '주홍으로 칠해진 형상들'도 마찬가지이다.

계18:13-'페인트' 등등=예배의 영적인 것들.

겔23:14-'그녀가 벽에 그림물감으로 그려진 사람들, 주홍 그림물감으로 그려진 갈대아인들의 형상들을 보았을 때,'=감각들의 오류들로부터의 몽상, 이는 감각적 인간으로부터 있다; 그리고 파생되는 논쟁들, 이로부터 왜곡된 것들이 있다.

그림자 (shadow)

* 그늘, shade를 보라

그만두다 (cease)

창8:22-'중단되지 않을 것이다'=언제나...

출4:26-'그분은 그(him)로부터 그만두었다'=표현하는 것의 허용.

출5:5-'너는 그들이 자기들의 짐들로부터 그만두게 만든다'=그들은 충분히 감염되지는 아니했다는 것.

출9:29-'그만두는 것'=이 상태의 끝.

출4:12-'우리가 이집트인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라'=그들은 자신들을 포기함으로부터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출21:19-'정지'=(손해보지 않도록) 보장함.

출23:5-'옳음을 중지하는 것'=가르침도 수정도 없다.

출23:12-'일곱째 날에 너는 중지할 것이다'=내적인 것들에서 일 때의 선의 상태, 그리고 그당시 평화의 고요함...'중지하는 것', 또는 일에서 쉬는 것=그당시 평화의 조용함.

레26:6-'악한 들짐승들이 중지될 것이다'=악한 애착들과 현세에의 욕망이 있지 않을 것이다.

겔26:13-'선에 관한 지식의 황폐함이 '나는 너희 노래들의 씨끄러움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이30:11-'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우리의 얼굴로부터 중지되게 만들어라'=주님, 생각과 애착으로부터.

이1:16-'씻는 것'=거짓들과 악들을 제거하는 것, 그러므로 '악을 행하기를 그만두어라'고 말해진다.

사5:6,7-황량함이 '길들이 중단되었고...넓은 장소가 중단되었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그모스 (Chemosh)

예48장-그들에게 불어 넣은 거짓들이 '그모스'로 의미되고 있다.

그물-그발-극복하다-극점에 달하다

* 모압의 신이 그모스였다.

예48:46-‘그모스의 백성’에 의해 자연적 진리에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그물 (net)

겔19:8-‘그 사람 위에 그물을 펼치는 것’=지상의 사람들의 즐거움들을 수단으로 유혹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추론함들을 수단으로 피는 것.

출27:4-‘너는 그것을 위하여 창살의 그물 세공을 할 것이다’=감각적인 것, 이는 최말단 이다.

출27:4-‘그물’=생활의 가장 바깥쪽, 이는 이해함과 의지 속에 있는 내면의 생활과 상응한다.

출27:5-‘그물은 제단의 중간에 까지 있을 것이다’=감각적인 것의 확장. ‘그물’=감각적인 것.

합1:15-‘그의 그물 안으로 그리모는 것’=악하고 거짓인 것 안으로.

요21:6-‘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내려라’=그들은 생활의 선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것. 그렇게 하여 그들은 이방인들을 교회로 전향하게 하리라는 것이 끌어올리기도 벅찰만큼 물고기가 많이 발견됨으로 의미되고 있다.

그발 (Gebal)

시83:7-‘그발과 암문’=교리의 외적인 것들에 있는 이들.

극복하다 (overcome)

계21:7-‘극복하는 것’=선과 진리로부터 싸우는 것. 그 이유가 악은 선을 통하여, 거짓은 진리를 통하여 극복되기 때문.

계2:7-‘극복하는 자에게’=악들과 거짓들에 맞서 싸우는 이들, 하여 개혁되는 이들.

계3:12-‘극복하는 자’=주님으로부터 진리들과 선 안에 꾸준히 남아있는 이들.

계3:21-‘극복하는 자에게’=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명령들에 따른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하고 있는 이들.

계3:21-‘내가 극복한 것 같이’=그분의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용인한 시험들을 통하여, 이 시험의 마지막체인 것,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또한 말씀의 모든 것들을 충만되게 하심을 통하여, 그분은 지옥들을 정복하셨고, 그분의 인간을 신성화하셨다.

계6:2-‘그분은 정복에 정복을 더하며 나아갔다’=거짓들과 악들에게 영원히 승리함.

계11:7-‘그들을 이겨내고 죽이는 것’=스스로 그것들을 거절하고 근절시킨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다른 이들과 더불어.

계21:7-‘극복하는 자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자신들과 더불어 있는 악들을 정복하는 이들...그리고 그들이 바빌로니아 자들과 용의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유혹될 때 굴복하지 않는 이들은 천국 안으로 올 것이다.

계2:7-‘이겨내는 것’=심정 안에서 받는 것.

계2:11-‘극복하는 것’=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까지에서 조차 진리에 대한 순수한 애착 안에 남아있는 것.

계2:17-‘극복하는 자’=시험들을 이겨내는 자.

계2:26-‘이겨내는 것’=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의 즐거움에 맞서 싸우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

계5:5-‘사자가 이겨냈다’=주님, 이 분은 그분 자신의 힘으로부터 지옥들을 복종시켰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천국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질서 안으로 환원되게 하셨다.

계12:11-‘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를 이겨냈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저항하고 승리함.

극점에 달하다 (consummate)

종말 (consummation)

창15:16-‘아모리족의 불법이 아직은 극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마지막 때, 즉 선이 더 이상 없는 때...

창18:21-‘나는 내게 도달한 함성 같이 극점에 도달함을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는 알 것이다’=악이 그것의 높이에 도착했는지 여부.

마24:3-‘시대의 종말’=교회의 마지막 때, 고로 그것의 끝장, 선행이 없기에 신앙도 없는 때. ‘시대’=시작부터 끝장까지의 교회의 기간.

계10:7-‘하느님의 신비는 극점에 달할 것이다’=그때에 두 성경에서 미리 말해진 것이 나타날 것이다...‘극점에 도달해지는 것’=끝장을 가지기 위해 채워지는 것, 그다음 나타나는 것.

근심-근채-금

계15:1-‘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극점에 도달되었기 때문에’=교회의 황폐함, 그리고 그다음 그것의 끝장.

계15:8-‘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들이 극점에 도달할 때 까지’=황폐됨 후, 교회의 끝장이 있다.

계17:7-‘하나님의 말씀이 극점에 도달할 때까지’=그들에 관한 미리 말해진 모든 것들이 완성하기 까지. ‘극점에 도달하는 것’=가득 차는 것, 완성되는 것.

마28:20-‘시대의 종말 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교회의 끝장 까지. 그때에 만일 그들이 주님께로 접근 않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지도 않는다면 그들은 주님께 의해 남겨지고, 주님께 의해 남겨지면 그들은 종교가 없는 이교도 같이 되어간다. 그때에 주님은 그분의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과 더불어서만 계실 것이다. 이런 사항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시대의 종말에서 조차’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계20:3-‘천 년이 다 채워질 때까지’=얼마 동안을 위하여.

이24:13-‘포도 수확이 완결될 때 남겨진 떨기 송이들’에 비교되어진다.

이28:22-이 나라와 더불어는 교회는 깡그리 파괴되었다는 것이 ‘나는 온 땅 위에 있는 종말과 작정된 것을 군대들의 주 여호와로부터 들었다’에 의해 뜻해져 있다. ‘종말과 작정됨’=완전한 파멸.

단9:24-교회에 있는 모든 이가 교리에서는 거짓에, 생활은 악에 있을 때.

단12:7-‘극점에 달함’=가득하기 까지 채움.

계15:8-‘극점에 도달되어지는 것’=끝내지는 것, 여기서는 거절되는 것.

요19:30-이스라엘 교회와 유대 교회의 종말이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되어졌다, It is consummated’라고 주님께서 외치셨을 때 완성되었다.

근심 (anxiety)

창3:16-‘나는 네 슬픔을 크게 늘리겠다’=전투, 그리고 전투로부터의 근심.

계2:9-‘그리고 고뇌’=진리들을 갈망함으로부터의 근심.

이5:30-‘근심’=악.

근채 (cummin)

이28:25-‘근채’=과학물들, 그 이유는 인간이 총명을 받기 위하여 습득되는 첫 번째 것이 기억-지식(과학물)이기 때문.

금 (gold, goim, golden, gilded)

창2:11,12-‘거기에 금이 있다. 그리고 그 토지의 금은 선이다’...‘금’=선...‘금이 두 번 언급된 이유, 이 구절에서의 금=사랑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사랑으로부터의 신앙 속의 선이기 때문...’이와 같은 상태가 천적 인간이다.

예10:4-‘그들이 금으로 장식한 우상들’, 즉 선 인듯 여겨지는 거짓들.

이60:17-‘낯쇠를 위해 금’=자연적 선을 위해 천적 선

겔27:23-‘금’=주님을 사랑함

겔16:17-‘금’=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들.

신7:25-‘국가들의 금’=악들.

출20:23-‘탐욕들이 ‘금으로 된 하나님들이다’

창13:2-‘그리고 금에’=진리들로부터의 선들; (그이유가) ‘금’=천적인 선, 또는 지혜와 사랑의 선.

단10:5-‘우바스의 금’=사랑으로부터 있는 지혜의 선.

단15장-‘금과 은 그릇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이것이 모독되었다.

창24:22-‘금장식구(pendant of gold)’=신성한 선; 그 이유는 주님이 취급되기 때문.

창24:35-‘은과 금’=(특수한 측면의 진리와 구별되는) 일반적 측면의 진리들.

이60:6-선에 관한 교리적인 것들이 ‘금’이다.

사8:24-‘금 귀걸이’=단순한 선 속에 있는 것들.

예51:7-그들이 거룩함으로 가리워 놓은 거짓이 ‘금잔’이다.

여7:21-‘금 혀(tongue of gold)’=거짓과 유사한 것.

창41:42-‘금목걸이’=선을 통하여 결합.

계3:18-‘금을 사는 것’=선을 포획하고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

겔16:13-‘금과 은으로 장식’=천적, 영적 선과 진리로.

창44:8-‘어찌 우리가...은, 금을 훔치겠습니까?’=왜 우리는 자신을 위해 진리와 선을 청구하는가?

계4:4-‘그들의 머리에 금빛의 왕관을...’=지혜의 선들.

출3:22-‘금집기들’=선에 관한 과학적 사실들.

열상6:32-거룩들과 종려나무들을 덧씌운 ‘금’=사랑의

선,, 이 선이 천국들 안에서 보편적으로 지배한다.

출20:23-‘은으로 된 하느님들, 그리고 금으로 된 하느님들’= 외적 형체에서는 진리들과 선들 같이 나타나나 내적 형체는 거짓들과 악들인 것들...‘금’ 반대 의미에서 =악.

이40:19-‘금으로 덧씌우는 것’=외적 형체에서 선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

단2장-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를 수용함에 관련하여 첫째 상태는 ‘금’이다; 그 이유는 ‘금’에 의해 천적 선, 즉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이 의미되기 때문이다.

출25:3-‘금과 은’=일반적 측면에서 내적 선과 진리.

출25:11-‘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덧씌울 것이다’=이 모든 것들은 선에 기초되어진다는 것.

출25:12-‘금고리 네 개’=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과 결합되어 있고, 이것은 모든 측면들을 빙둘러 있다.

출25:13-‘너는 그것들을 금으로 덧씌울 것이다’=모든 측면들에 있는 선.

출25:17-‘너는 순금으로 자비석(mercy-seat)을 만들 것이다’=들음과 사랑의 선으로부터 예배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

출25:18-‘속이 비지 않은 금으로 그것들을 만들 것이다’=선의 표현. ‘금’=사랑의 선.

출25:24-‘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덧씌울 것이다’=자비로부터 이 선의 표현. ‘금으로 덧씌우는 것’=선의 표현; 그 이유가 ‘금’=사랑의 선; 그러므로 이 선이 소개 되는 곳은 금을 수단으로 표현되어졌다.

출25:31-‘순금으로’=천적인 선으로부터.

출25:36-‘한 개의 속이 비지 않은 순금인 것’=완성되고 완전인 것, 그 이유는 동일한 선으로부터이기 때문.

출25:38-‘순금의’=선으로부터 역시.

출25:39-‘순금 한 달란트’=모든 것들의 근원되는 한 개의 선...선은 생산되고 파생되는 모든 것들 안에 있어야만 하는 바; 그러므로 천적 선은 영적 선들 안에, 그 다음 영적 선들로부터 과학물 안에 있어야만 하는 바, 훗대는 속이 비지 않은 순금으로 만들 것; 그리고 손잡이(shaft), 가지(branch), 사발들(bowls), 석류들(pomegranates), 그리고 꽃들(flowers)을 위 순금으로

만들라고 명령되었다.

출28:5-‘그들은 금을 취할 것이다’=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선; (그 이유가) ‘금’=사랑의 선...그리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이 금은 예배의 모든 곳에서 쉬어 짜도록 함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금이 이 이유 때문에 모든 곳에서 쉬어 짜졌는바, 아론의 옷에 의해 영적 왕국의 천국이 표현되어졌고, 그리고 선이 이 천국을 지배하고, 여타 다른 천국도 지배한다는 것이 표현되어졌다.

출28:11-‘금장식핀(ouches of gold) 안에’=선으로부터 존재하고 생존함.

출28:14-‘두개의 순금으로 만든 작은 사슬’=전체 왕국의 선에 밀착함...‘순금’이라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신성으로부터의 선이 의미되기 때문이다.

출28:20-‘그것들을 채우고(filling) 금으로 에워쌀 것이다’=일반적으로 그리고 특수적으로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은 주님에 속한 주님으로부터의 사랑 속에 있는 선으로부터 진행될 것이다.

출28:22-‘순금으로’=천적 선을 통하여. ‘금’=사랑의 선...그리고 ‘순금’이라 말해지는 바, 이는 천적 선이 뜻해진다; 그 이유가 천적 선과 영적 선이 있고, 그것들 각각은 내적 선과 외적 선이다,...이런 모든 선들이 ‘금’이라 불리고, ‘우바즈로부터’, ‘오빌로부터’, ‘세바로부터’, ‘하월라’ 그리고 ‘다르싯으로부터’의 ‘금’이라 하여 구별되고 있다. (이 금들=천적 선, 영적 선, 지식들 속의 선, 그리고 과학물의 선)

출28:24-‘두 고리에 땅은 금실을 놓음’에 의해 신성한 기운을 가져 분리할 수 없는 선의 결합의 방법이 의미된다.

출28:33-‘금방울’=선으로부터의 예배와 교리 속의 모든 것들이 교인에게로 건너 감.

출28:36-‘순금판’=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계발됨

마10:9-주님으로부터가 아닌 자아로부터의 선과 진리가 ‘그들의 띠 안에 있는 금, 은, 놋쇠’에 의해 의미된다.

출30:3-‘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덮어 씌우라’=선으로부터 있는 예배의 모든 것들을 표현함.

출30:3-‘가장자리를 빙둘러 금으로’=악들이 접근하여

금강석-급료-기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으로부터 한계를 그음.

출30:4-‘가장자리 아래로부터 그것(제단을 뿔 채)을 위해 금고리 두 개를...’=신성한 선의 영역, 이를 수단으로 결합과 보존함이 있다.

출31:4-금과 은과 놋으로 만드는 것=의지로부터 이해성 속에 있는 내, 외면의 선들과 진리들을 표현하는 것.

출32:2-‘귀들로부터 금귀고리들을 떼어내는 것’=외적 사랑들과 그로부터 파생된 원리들을 옹호하는 것들을 글자 의미로부터 추출해냄. ‘금’=사랑의 선; 여기서는 외적 사랑들의 즐거움.

출32:31-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금으로 하느님들을 만들었다=그들은 지옥적 즐거움을 숭배한다. ‘금’=외적 사랑들의 즐거움, 지옥적 즐거움.

삼상6:4-‘금치질(종기)’=순수해지고 선을 만든 자연적 사랑들. ‘금쥐’=교회의 황폐해짐은 선을 수단으로 제거됨.

계1:12-‘일곱 금 촛대들’=새 교회, 이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주님에 의해 개발되어짐...촛대들이 금빛으로 보여진 이유, ‘금’=선이기 때문; 그리고 모두 각각의 (일곱) 교회는 진리들을 통하여 형성된 선으로부터 (주님의) 교회이다.

계1:13-‘금빛나는 띠로 가슴 주위를 동여매신...’=진행되어가고 동시에 결합되는 신성, 즉 신성한 선.

계3:18-‘나는 네가 나에게서 불로 제련된 금을 사서, 부유해지라고 조언한다’=그들이 슬기로워지도록 사랑의 선을 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획득하기를 권면함.

계4:4-‘그들은 자기들 머리에 금빛의 왕관을 가졌다’=사랑으로부터 지혜 속에 있는 것들...‘금’=사랑의 선.

계17:4-‘금과 귀한 돌’=영적 왕국의 천사들에게 있는 신성한 선과 진리.

계21:15-‘도성을 측량하는 금빛의 갈대’=사랑의 선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새 교회를 이해하고 그 교회의 품질을 아는 것이 주님에 의해 주어져 있다는 것.

계21:18-‘도성은 순수한 유리 같은 순금이였다’=이 교회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빛과 함께 흐르는 사랑의 선이다.

겔28:4-‘네 보물에 있는 금’=선에 관한 지식들.

시45:9-‘오빌의 최고의 금으로 (꾸민) 여왕(왕후)이 그의(왕의) 오른쪽에’=사랑의 선에 있는 주님의 천적 왕국.

예10:9-‘다시스로부터의 은, 그리고 우바스로부터의 금’=진리와 선으로 외적 형태에서 나타남.

겔7장-‘그들의 은과 금’=자아 총명과 자아 의지로부터 있는 종교 속의 거짓들과 악들.

욥31:24-‘금을 희망으로 만들고, 순금을 내 신뢰라 말하는 것’=그는 자아로부터의 선의 어떤 것을 믿는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시45:13-‘그녀의 의복은 금을 섞어 짜다’=사랑의 선으로부터 형성된 진리들을 수여함.

예51:7-‘금잔’=선을 파괴하는 거짓.

계18:12-‘금과 은의 상품’=일반적으로 교회 속의, 교리 속의, 말씀 속의 선들과 진리들 모두가 모독되어졌다; 고로 일반적으로 모든 악들과 거짓들, 이로부터 그들은 이득을 파생시킨다.

금강석 (diamond)

견고한, 다이아몬드 같은 (adamantine)

출28:18-‘녹옥수, 청옥, 금강석’=진리로부터의 천적 사랑.

* 이 열의 세 번째인 ‘금강석’=천적 사랑의 진리인 이유는 그것의 반투명으로부터이고, 이 반투명은 내면의 푸름에 접근한다. 그이유가 이 열의 돌들의 색깔들, 또한 앞 열의 것 역시 이 돌을 통하여 빛나는데, 그이유는 이 돌이 마지막째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뒤를 잇는 열과 교통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가장 깊은 천국의 선과 진리들과 뒤잇는 것들에 있는 선과 진리들에 관련하여서도 똑같다.

속7:12-‘그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

예17:1-아주 깊이 뿌리박혀 제거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 ‘유다의 죄는 다이아몬드 철필로 씌어져 있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급료 (hire)

* 고용하다, hire를 보라

기 (군기, banner, ensign)

출17:15-‘그는 그것을 여호와 닮은 것이라고 불렀다’=내면의 거짓에 있는 이들에 맞서는 전쟁은 꾸준함, 그리고

기근-기념의

주님의 보호가 있음... '여호와 닛씨', 원어에서 '여호와, 나의 군기(군대 깃발)'을 뜻한다. 그리고 기 또는 표장 (ensign)은 말씀에서 전쟁에 [함께] 부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전쟁이 '여호와와 전쟁'이라 불리울 때, 이것이 함께 부름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런 사실, 즉, 화합이 거행될 때, 그것이 여행을 위해서이든, 축제를 위해서이든, 전쟁을 위해서 이든 그들은 나팔을 불고, 그다음 산 (높은 곳)에서 기를 들어올리는 관습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31:9-'그의 군주들은 기로 인해 오싹해질 것이다.' 자신의 총명으로부터도 신성한 것들에 슬기로워진다고 자신을 믿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여기서 취급되어진다... '기로 오싹해질 군주들'=제1의 거짓들. '기를 수단으로'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그것들이 진리들과의 전투에서 흩어지지 않으려하기 때문,...

기근 (famine)

배고픔 (hunger)

예29:18-'기근' 등등=모독의 처벌들.

이58:10-'혼을 배고픔 쪽으로 끌어내는 것'=일반적 측면에서의 선행의 선들. (=신앙의 진리들로 훈육되기를 갈망하는 자)

창12:10-'토지에 기근이 있었다'=(영적) 지식들이 결핍함.

* '기근'은 천적인 것에 관련하여 황폐함에 관계한다.

시107:9-'배고픈 혼'=지식들을 갈망하는 이들.

왕하 25:3-'도성에 기근이'=남아있는 신앙이 아무것도 없었다.

왕상17장-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에 기근이=교회에서 진리의 황폐함.

창41장-'기근의 칠 년'=영적 왕국의 신성의 천적인 것 외에는 과학물에 선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뒤를 잇는다.

창41:27-'기근의 칠 년이 있을 것이다'=진리의 나타남이 실패하고 은둔한 듯 된다.

창41:30-그것들 후에 기근의 칠 년이 일어날 것이다'=진리의 실패가 있을 것이다.

* '기근'=선에 대한 지식들의 실패, 고로 진리의 실패.

창42:19-'네 집의 기근을 위하여 식량을 운반하라'=그

들은 있는 진리의 황량함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상담할 자유에 있다는 것... '기근'=지식들의 실패, 그리고 황량함.

창45:6-'기근'=선의 실패.

왕하4:38-'기근'=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들의 실패.

출16:3-'이 전체 회중이 배고픔으로 죽는 것'=그들은 기쁨의 실패와 선의 실패로부터 만기가 되리라는 것... '기근', 여기서=기쁨의 선의 실패.

눅4:25-'모든 토지에 큰 기근'=외적 교회의 황폐함. 그 이유가 '기근'=진리와 선의 실패와 황량함.

암8:11-'빵의 기근도 아니고, 물이 없는 목마름의 기근도 아니고, 여호와와 말을 들음에서의 기근이다'=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의 실패와 회소함.

삼하24:13-'기근의 칠 년'...'기근'에 의해 신앙과 사랑 속에 있는 선들과 진리들의 실패와 회소해짐. 그이유가 이런 것들이 기근이 지속되는 동안 떨어질 빵, 식품, 밀, 보리, 기름, 포도주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

계6:8-'기근'=생활 속의 악.

계18:8-'기근'=모든 진리에 대한 이해함의 결핍 (=오로지 악과 거짓만 있을 때)

예14:18-'도성에 기근'=교리에서 모든 진리의 실패.

예15:2-'기근을 위해서는 기근 쪽으로'=진리들을 거절하는 이들은 거짓들을 통하여 멸해질 것이다.

이14:30-'나는 기근으로 네 뿌리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네 남은 것을 죽일 것이다'=모든 진리들, 제일의 진리로부터 최말단의 진리까지 모든 진리들이 거짓들을 통하여 멸해질 것이다.

기념의 (memorial)

출3:15-'이것은 대대 손손 나의 기념물이다'=(신성한 인간은) 영구히 예배되어야 한다는 것. '기념물'=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신성을 서술할 경우, 예배에서의 품질...'기념물'은 예배에서 진리에 관련한 신성의 품질을 서술한다. '기념물'=예배에서 신성의 품질.

시30:4-'거룩한'은 진리를 서술하고, 이로부터의 예배는 '그의 거룩함에 대한 기념식'에 의해 의미된다.

출12:14-'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로 있을 것이다'=예배에서 이 상태의 품질.

출13:9-'네 눈들 사이에서 기념물로 있을 것이다'=이

기다

것은 이해성에서 항구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 '기념물'=항구적으로 기억하고 있음, '기념물'이라 말해지는 데, 그 이유는 말씀에서 기념물은 지적 측면을 서술하기 때문.

출17:14-‘책 안에 이 기념물을 적어라’=영구히 기억하기 위하여. ‘기억’=기억되어 있어야 하는 것, 또는 기억 안에 있는 것.

레24:7-‘이것은 기념물로서의 빵일 것’=주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

기다 (creep, creeping)

창1:20-인간이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는 ‘물들 속의 기는 것들’에 비교된다.

* 물들이 산출하는 기는 것들=과학적 사실들, 이것은 외적 인간 속에 있다...물들 속의 기는 것들, 또는 물고기들=과학적 사실들.

창1:24-이해성 속의 것들이 물들이 기계 한 ‘기는 것들’에 의해 의미되어진다....의지 속의 것들은 이 구절에서 토지가 생산하는 ‘생 혼’에 의해, 그리고 ‘짐승’에 의해, 그리고 ‘기는 것’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6:7-‘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그리고 기는 것조차’=의지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를 절멸시킬 것이다...의지 속의 것들이 ‘짐승들’과 ‘기는 것들’이라 불린다; 여기서 ‘기는 것들’=육체 쾌락과 감각적 쾌락.

창6:20-‘새’=지적인 것, ‘짐승’=자발적인 것; 그리고 ‘지면의 기는 것’=지적, 자발적인 것 모두, 그러나 가장 수준 낮은 것. 이는 지면의 기는 것이 가장 낮은 것임을 생각해보면 쉽게 명백해질 것이다.

창7:8-‘지면 위를 기는 모든 것’=감각적인 것...태고인들은 인간의 감각적인 것들과 인간을 쾌락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기는 것들에 비교해서 그렇게 불렀다. 그 이유가 그것들이 가장 바깥쪽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마치 인간이 표면 위를 기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자체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7:14-‘땅 위를 기는 기는 모든 것’=감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선...기는 것은 마지막에서 언급되고 있다...동물들, 짐승들, 그리고 토지 위를 기는 기는 것들=자발적인 것들.

창7:21-‘땅 위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등등에 관한 것=그들의 설득들; 이 안에 있는...‘땅 위에서 기는 기는 것’=육체적이고 지상적인 것들...대홍수 이전의 설득들이 여기서 충분히 묘사되고 있다.

창7:23-‘기는 것’=쾌락들.

창8:17-‘새’=지적인 것, 그리고 ‘짐승’=내적 인간의 자발적인 것; 그리고 ‘땅 위를 기는 모든 기는 것’= 외적 인간에 있는 지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에 상응하는 똑같은 것; 그 이유가 이 문맥에서 ‘땅 위를 기는 모든 기는 것’이 새, 또는 지적인 것과, 그리고 짐승, 또는 자발적인 것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고인들은 감각적인 것과 신체의 쾌락들을 기는 것들이라 불렀다. 그 이유가 그것들이 땅 위를 기는 기는 것과 아주 똑같기 때문이다...

창8:19-‘모든 들짐승과 모든 기는 것’=그의 선들...‘기는 것’=외적 인간의 선들. ‘모든 새, 그리고 땅 위를 기는 모든 것’=진리들...‘땅 위를 기는 것’=외적 진리들...앞 절에서 ‘기는 기는 것’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외적 인간의 선과 진리 모두를 의미했기 때문.

창9:2-‘지면이 기어다니게 만드는 모든 것’=선에 애착함들.

창9:3, 레11:23,29,30-‘살아 있는 모든 기는 것’=그 안에 선이 있는 모든 쾌락들, 이것은 살아 있다. 이 구절의 ‘기는 것’은 모든 깨끗한 짐승들과 새들을 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고기를 위해 주어진다’ 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적당한 의미로서 여기서의 ‘기는 것’은 레위기 11장에서 언급되어지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불결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여기서와 같이 그것들은 양식을 위해 주어진 동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는 것들’이라 불린다, 그 이유는 그것들=쾌락들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애착들은 ‘깨끗한 짐승들’에 의해 의미된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기의 쾌락들에서만 지각될 때, 그러므로 해서 인간이 그것들을 쾌락이라 부를 때, 그것들은 여기서와 같이 ‘기는 것들’이라 불린다.

겔8:10-‘기는 것의 모든 형상’=추잡한 쾌락들, 탐욕 있는 내면들...

기대하다-기도하다

레5:2, 11:31,32,33, 22:5,6-‘기는 것’=추잡한 것들인 바, 그것들은 표현 교회에서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것들을 만지는 것조차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들에 닿은 자는 불결한 자로 취급했다.

시69:34-‘바다들에서 기는 모든 것’=감각적인 이들.

호2:18-‘토지의 기는 것과...의 언약’=교회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과...결합.

시148:10-‘기는 것, 그리고 모두 각각의 날개 있는 새’=자연적 인간의 선과 진리로부터의 기쁨과 영적 인간의 선과 진리로부터의 기쁨.

겔38:20-‘토지 위를 기는 기는 것’=감각적 부류에 있는 것들, 이것은 기쁨들과 과학적 사실과 더불어 자연계의 최말단 수준의 것들이다.

시104-‘기는 것’=살아 있는 과학적 사실들.

신32:24-‘토지의 기는 것들’=감각적 인간 속의 것들; 영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될 때, 이것들은 오로지 악들로부터의 거짓들일 뿐이다.

시104편-‘무수한 기고 있는 것’=거기에 있는 과학적 사실인 것.

시148편-‘기는 것’=감각적 인간, 이는 자연적 인간 중에서 최말단이다

호2장-‘토지의 기는 것’=자연적 인간 속의 과학적인 것, 특별하게는 감각적 인간의 과학적인 것.

겔47:9-‘기는 생 혼’=그들의 쾌락들 (=신앙 속에 있는 과학적 진리들)

기대하다 (expect)

창8:10-‘그는 아직 칠 일을 기다렸다’=거듭남의 두 번째 상태...사이에 들어있는 시간이 ‘그는 기다렸다’로 표현되어 있다.

계1:9-‘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심 있는 기대...’=주님의 강림.

*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함’=그분의 인간 안에 계신 주님과 신성에 관한 지식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함’=교회가 주님을 아는 그 때가 올 때.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되는 때란) 그분의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인정하는 때이다...이것이 말해지는 교회는 현재의 교회 뒤를 이어 오는 교회이다. 그이유는 그 교회가 ‘기대함’에서 뜻해지기 때문이다.

시130:5,6-주님의 강림이 ‘나는 여호와를 기다렸다. 내 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

시104:27-‘기다리는 것’=갈망하는 것.

이59:9-‘우리는 빛을 기대하나 어둠이 바라보였다’=진리를 예상함(기대함), 그러나 거짓이 보였다.

기도하다 (pray)

예31:9-‘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슬픔과 자포자기의 상태.

계5:8-‘이는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들이다’=영적 선들과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과 더불어 선행 속에 있는 애착들로부터 신앙 속에 있는 생각들. ‘기도들’은 기도를 받음하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신앙의 것들, 동시에 선행의 것을 뜻한다. 그이유가 이것들 없는 기도라면 이는 텅빈 소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시141:3,5-기도들은 입으로부터가 아니고, 입을 통하여 심정으로부터 인 바,,,말해지기를,‘내 입술들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악들이 아직도 자기에게 맞서 소용에 닿고 있다는 것을 슬피하는바, ‘내 기도들은 아직도 그들의 악들에 있기 때문에...’하고 말한다.

이56:7-‘나는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만들 것이다’=그는 영적 진리들을 그들에게 선물할 것이라는 것. ‘기도하는 집’, 또는 성전=천국, 거기에는 영적 진리들이 있다.

마21:13-‘내 집은 기도하는 사람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예배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집전되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의 집’이라 불려졌다. ‘기도하는 사람들’=예배.

계8:3-‘기도와 더불어 향이 바쳐질 것이다’에 의해 기도를 뜻하는게 아니라,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을 통한 기도이다. 그 이유가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인간이 간구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 그리고 인간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따라 생활하고 있을 때, 그는 꾸준히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 말씀에서 ‘기도’는 인간과 더불어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을 뜻하지, 입으로부터의 기도는 아니다.

예3:8-그는 거짓들 때문에 들려질 수 없다는 것이 ... ‘그는 내 기도들에 장애물을 놓는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기둥-기라다임-기랏아르바-기력을 빼앗다-기르가스족

기둥 (column, pillar)

* 상 (statue)도 참조

출2:30-‘연기 기둥들’=거짓들.

출13:21-‘낮에는 구름 기둥에서’=계발의 상태에 있을 때, 진리의 희미함을 수단으로 부드럽게 되었다.

출13:21, 계10:1-‘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라고 말해 지는데...그 이유는 ‘기둥’이 받쳐주는 것, 그리고 받쳐 주는 것이란 자연 평면을 서술하기 때문...이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들의 발은 ‘불 기둥 같이’ 나타났다.

출13:22-‘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주님의 현존, 이 현존은 영구적이었던 것. 그 이유가 천사들의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 천사들이 백성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

출14:19-‘구름 기둥이 그들 앞으로부터 갔다, 그리고 그들 뒤에 섰다’=이전에 지적인 것을 보호하듯 자발적인 것을 보호하는 주님의 현존...이것은 안에 주님이 계신 천사의 합창이다.

출14:24-‘불과 구름의 기둥에서’=거기 신성한 선과 진리의 현존.

시99:7-‘그분은 구름 기둥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다’...‘구름’=글자로 있는 말씀, 또는 최말단들에 있는 신성한 진리.

출26:32-‘너는 싯딤 목재의 네 기둥들에 그것을 놓을 것이다’=주님 한분에게만 있는 공적의 선이 결합하고 받쳐줌...‘기둥들’=받쳐줌...‘기둥’=받침인 이유는 그것들이 베일을 칠 수 있게 해주기 때문.

출26:37-‘너는 (뿔개틀) 결기 위한 기둥 다섯을 싯딤 목재로 만들 것이다’=주님의 신성한 인간 속에 있는 공적의 선을 통하여, 충분히 있는 하나되게 하는 매체의 받쳐줌.

출27:10-‘그것의 기둥 스무 개’=충분히 받쳐주는 진리로부터의 선. ‘기둥들’=천국의 선들과 지지하는 교회.

출27:17-‘빙둘러 있는 바깥쪽의 모든 기둥들’=천국을 받치는 모든 선...‘기둥들’=받치는 선들.

출33:9-‘모세가 천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천막의 문에 섰다, 그리고 그분은 모세와 이야기 하신다’=말씀이 그들의 납득력으로부터 사라진 이

후, 농도 짙은 불명료함이 그들의 밝을 점유했다는 것, 그럼에도 내부로부터는 명료한 지각이 있었다는 것... ‘구름 기둥’=이 나라에 비교되는 매우 짙은 불명료함.

계3:12-‘나는 그를 내 하느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만들 것이다’=주님으로부터의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이것들과 더불어 있는 이들이 천국에서 주님의 교회를 받칠 것이다...‘기둥’=교회를 받쳐주고 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말씀의 신성한 진리들이다.

계10:1-‘불 기둥 같은 그의 발’=신성한 사랑에 관련된 주님의 신성한 자연 평면. 이것이 모든 것을 받친다... ‘기둥’=지지.

예1:18-‘철 기둥을 위하여’=그것을 받치는 진리.

예31:21-‘표지들을 지정하는 것, 기둥들을 놓는 것’=근본되는 교회의 것들을 가르침, 이것들이 ‘기둥들’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것들이 교회를 받치고 있기 때문.

시75:3-‘땅의 기둥들을 튼튼해지게 하는 것’=교회가 기초한 진리들을 지지하는 것.

왕상7:15-22-‘성전의 현관은 최말단 천국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의미했다. 이 천국이 두 개의 높은 천국들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둥들은 성전의 현관에 놓여졌다.’

기라다임 (kiriathaim)

예48:1-그들의 흠뻑 물든 거짓들이 ‘느보, 기라다임’ 등등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기랏-아르바 (kirjath-arba)

창23:2-‘기랏아르바에서, 여기는 가나안의 토지에 있는 헤브론이다’=교회에서. (그이유가) ‘기랏-아르바’=진리 측면에 관련한 교회.

창35:27-‘마므레 기랏-아르바’=진리 측면에 관련한 자연 평면의 상태...‘기랏-아르바’=진리 측면에 관련한 교회, 고로 진리.

기력을 빼앗다 (enervate)

창49:6-‘자기들의 즐거움에서 그들은 황소를 느슨해지게 했다’=그들은 타락한 의지로부터 선행 속에 있는 외적 선을 완전하게 쇠약해지게 했다는 것.

기르가스족 (Girgashite)

창10:16-‘...기르가스족’ 등등은 아주 많은 나라였고, 이를 수단으로 아주 많은 우상숭배자들을 의미했다...마

기름

치 지구에서 온난 지대에 있는 겨울 같다.

기름 (oil)

* 기름을 부음(anoint), 올리브(olive)도 참조.

레8:10-‘꿀, 그리고 기름’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겔16:9-‘기름을 바르는 것’=선으로 충전하는 것.

예31:12-‘기름’=선으로부터 있는 것들.

창28:18-‘그는 (상, statue)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거룩한 선. (그이유가) ‘기름’=사랑, 또는 선의 천적 평면..(이 의식은) 진리는 선 없이 존재하지 않았다 는 것, 즉 진리는 선으로부터서 존재 했다는 의미했다.

창35:14-‘그는 (상, statue) 위에 기름을 부었다

왕상17장-‘기름의 병’=선행과 사랑.

시23:5-‘기름으로 머리를 살지게 만드는 것’=사랑의 선을 선물하는 것.

계6:6-‘기름’=천적 사랑의 선.

이5:1-‘기름의 아들의 뿔’=사랑의 선으로부터 이 교회의 신앙 속의 진리....‘기름의 아들’=천적 왕국의 사랑의 외적 선. 천적 왕국이 ‘올리브 나무’, 또는 ‘올리브 밭’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기름’=천적 사랑의 선이기 때문.

왕상17장-‘기름’=사랑의 선.

이41:19-‘기름의 나무’=천적 선.

출25:6-‘발광을 위한 기름’=상호 사랑과 선행 안에 있는 내적 선. (그이유가) ‘기름’=사랑의 선.

출27:20-‘그들이 올리브 기름을 너에게 가져오게 하라’=선행의 선과 신앙의 선. (그이유가) ‘올리브의 기름’=천적 사랑의 선. 그러나 여기서는 영적 사랑의 선, 즉 이웃을 향한 선행의 선, 그리고 신앙으로부터의 선이다. 이 선이 여기서 ‘올리브의 기름’에 의해 의미되는 이유는 이 기름은 발광(등불)을 위한 것이기 때문. 발광을 위한 기름은 두 번째 천국인 영적 천국을 의미한다. ‘기름’과 ‘기름나무’는 말씀에서 천적인 선과 영적인 선 모두를 의미하는데, 천적 왕국, 또는 천적 교회가 취급될 경우, 천적인 선, 영적 왕국, 또는 영적 교회가 취급될 경우는 영적 선이다.

시133:2-‘기름’=선.

시89:20-‘여호와께서 그를 기름부은 거룩함의 기름’=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

출29:2-‘기름과 혼합한 누룩 없는 것의 과자’=중간 천적인 것의 순수함.

출29:2-‘기름을 부은 누룩 없는 것의 웨이퍼(wafer)’=외적 인간에 있는 천적인 것.

겔16:13-‘기름’=사랑의 선.

출29:7-‘너는 기름부음의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주님에 있는 신성한 선에 대한 표현. ‘기름’=사랑의 선,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주님에 있는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

출29:40-‘기름’=천적인 선.

출30:24-‘올리브의 기름’=주님의 신성한 천적인 선. ‘기름’=선, 천적, 영적 모두에서. 그리고 ‘올리브’ (열매)=천적인 사랑. 이로부터 ‘올리브의 기름’=사랑의 천적인 선, 또는 천적인 선. 주님의 신성한 천적인 선이라 말해진 이유는 모든 선, 이는 본질적으로 천국들에 있는 선이고, 이는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이기 때문.

출30:25-‘거룩함의 기름부음의 기름일 것이다’=신성한 인간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함.

계6:16-‘기름과 포도주는 다치게 말라’=말씀 안에 내면적으로 감추여 놓인 거룩한 선들과 진리들은 깨뜨려 지거나 모독되지 않도록 주님에 의해 설비되어 있다는 것.

계18:13-‘기름’=사랑의 선.

신33:24-‘아셀은 자기 발을 기름에 담글 것이다’=자연적 즐거움. ‘기름’=즐거움.

신32:13-‘바위의 단단함으로부터 기름’=진리들을 통하여 있는 영적 선.

미6:7-‘기름의 강들’=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들.

예31:12-‘기름’=영적 인간의 선.

을1:10-‘기름’=내적 인간에 있는 선.

예41:8-‘기름’=내적 인간의 선.

신8:8-‘올리브의 기름, 그리고 꿀’=사랑의 선과 그것의 즐거움에 관련한 교회.

겔16:9-‘기름을 바르는 것’=사랑의 선을 가지고 선물하는 것.

예31:12-‘새 포도주(must)와 기름’=선과 진리.

을2:24-‘새 포도주와 기름’=교회의 선과 진리.

이5:1-영적 왕국의 개시식이 ‘기름의 뿔’에 의해 뜻해

기름나무-기름을 부음-기름을 바름

진다. 그리고 ‘기름의 아들’=선으로부터의 진리.
호2:22-‘기름’=선.
시23:5-‘당신께서는 기름을 가지고 내 머리를 살찌게 만든다’=선으로부터 있는 지혜.
호12:1-‘이집트로 기름을 운반하러 내려감’=과학물로부터 추론함을 수단으로 교회의 선들을 악용하는 것.
막6:13-‘기름’=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 그래서 영적으로 아픈 이들이 이를 수단으로 치료되는 바,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기름을 발라서 치료했다.’
암6:6-‘기름들의 첫 열매들’=선으로부터의 외부적인 것들.
겔27:17-‘기름’=영적 인간에 있는 사랑의 선.
시55:21-‘기름’=내적 애착으로부터의 선.
율2:24-‘곡식’, 그리고 ‘기름’=교회의 선들.
겔16:13-‘기름’=영적인 선, 또는 내적 인간으로부터의 것.
신28:40-‘기름을 바르지 못해지는 것’=어떤 선과 그로부터의 기쁨을 향유 못하는 것.
시45:7-‘환희의 기름을 바르는 것’=시험들에서 승리한 것들을 수단으로 자신에게 하나되게 하시는 것.
시89:20-‘거룩함의 기름을 가지고 나는 그에게 기름부었다’=신성한 인간에 관련한 주님, 그리고 신성 자체에 합일하심...그리고 이 합일됨이 ‘거룩함의 기름으로 기름부으셨다’에 의해 뜻해진다. 그 이유가 ‘거룩함의 기름’=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그리고 ‘기름부워지는 것’=세상에서 주님의 인간 속에 있으셨던 신성한 진리에 하나되는 것.
시109:18-‘기름’=사랑으로부터의 악들.
마25:9,10-‘기름을 사는 것’=사후 사랑의 선을 자신을 위해 포획하는 것.
이1:6-‘기름으로 누그러지게 못한다’=회개를 수단으로 수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을 수단으로 누그러진다.
계18:13-‘포도주와 기름’=천적 근원으로부터 있는 진리들과 선들로부터의 예배. ‘기름’, 거룩함의 기름부음의 기름을 뜻하고 있을 때,=천적 사랑의 선. 그러나 그들이 축계들에서 자신들에게 기름 붓는 기름을 뜻할 경우,=영적 사랑의 선.
기름나무 (oil tree)

이41:19-‘기름나무’=영적 인간 또는 내적 인간에 있는 어떤 것 (=선을 지각함과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지각함.)
기름을 부음 (anointing, ointment)
기름을 바름
 * 올리브 기름은 머리에 기름부을 때와 등잔의 기름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기름은 천적인 모든 것을 표현한다.
 *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부어진 자, 왕을 나타낸다. ‘주님’은 여호와를 나타낸다. 전자는 진리 측면에 관하여 이고, 후자는 선 측면에 관하여 이다.
 * 왕들이 기름부어졌다는 것, 이로부터 ‘기름부어진 자’라 불려진 것은 그들에게 부여된 기름=선이었기 때문 인바, 왕이 의미하는 진리는 반드시 선으로부터 있어야 한다.
창31:13-‘내가 기둥을 기름부은 곳...’=진리로부터의 선이 있는 곳...‘기름붓는 것’ 또는 기둥의 머리에 기름을 쏟는 것=진리를 선으로 만드는 것.
창43:11-‘유향(resin)’=선으로부터의 진리, 그이유가 연고(ointment)에도 등급이 있기 때문.
요19:2,3,5-‘왕’=신성으로부터의 진리.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 메시아인 ‘기름부은 자’, 그리스어에서는 그리스도.
미6:13,15-‘올리브를 밟으나 자신에게 기름을 바르지는 못 할 것이다’=생활의 선에 관하여 훈육받지만, 여전히 그것에 따라 살지는 않는다.
신28:40-‘기름으로 기름부어지지 않는다’=천적 사랑의 선 안에 있지 않는다.
출25:6-‘기름부음의 기름을 위한 향신료’=취임하는 선 속에 있는 내향의 진리들...‘기름부음’=표현하려고 취임하는 것.
출28:41-‘너는 그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을 것이다’=사랑의 선에 관련되는 주님에 대한 표징. ‘기름붓는 것’=표현하려 취임하는 것.
삼상10:1, 15:1, 16:3,6,12, 24:6, 26:9,11,16, 삼하1:16,2:4,7, 5:3, 19:21, 왕상1:34,35, 19:15,16, 왕하9:3, 11:12, 23:30, 애4:20, 합3:13, 시2:2,6, 20:6, 28:8, 45:7, 84:9, 89:20,38, 132:17-‘여호와와 기름부

기름을 부음

음=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

출29:2-'기름을 섞은 누룩 넣지 않은 것으로 된 과자 '=바깥쪽 인간에 있는 천적인 것...과자가 빵. 그리고 딱 다음인 세 번째에서 말해지는 바 (이는 세 겹 중에서 바깥쪽을 뜻한다).

출29:7-'너는 기름부음의 기름을 가져올 것이다'=주님에 있는 신성한 선의 표현...'기름부음'=이 선을 표현하려 취임함.

출29:7-'그리고 너는 그의 머리에 그것을 부어서 그를 기름부을 것이다'=주님의 인간 측면 전체에서 주님에 있는 신성한 선을 표현...'기름부는 것'=이런 것을 표현.

출29:22, 레7:32,34,35-가슴과 넓적 다리는 영적, 천적 선의 표현이기에 '기름부어진 것'이라 불리운다...'기름부어짐'=신성한 선 측면의 주님을 표현.

출29:29,레21:10-주님의 인간 측면을 신성화 하심(glorification)이 '기름부음', 그리고 두 번째 상태가 '손을 채움, filling of the hand'으로 불리운다.

출29:29-'그들(의복들)이 기름부워지기 위해...'=신성한 선 측면의 주님을 표현하는 것. '기름부음'=신성한 선 측면의 주님을 표현하려고 취임함.

출29:35-'기름을 부음은 주님의 인간 측면이 신성화되심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손을 채움'은 천국들 안으로, 그리고 교회 안으로 그분이 입류하심을 표현하였다. '기름을 부음'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선, 그 결과 신성화되심을 표현했다. 이 신성화되심은 신성한 인간이 '아버지'라 불리운 신성 자체에 합일되어지는 것이다.

출29:36-'너는 그것(제단)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천국과 교회에서 주님으로부터의 주님의 신성한 선을 표현하도록 취임함. '기름을 부음'=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하도록 취임함. 이 구절의 경우, 천국과 교회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그이유가 주님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든 교회인과 천국의 천사와 더불어 주님 또한 표현하기 때문.

시45:7-'하느님은 당신, 당신의 하느님을 즐거움의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음'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있는 신성한 선의 표현밖에 더 아니다.

출30:25-'고약 중의 고약'=그분의 인간 속의 각각 그리고 모든 것(신성). '고약, 기름을 부음의 기름에 관련해 말해질 때, 이를 수단으로 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신성한 선을 표현했다. 이는 그분의 인간의 각각 그리고 모든 것에 있는 신성이다. 이것이 '고약 중의 고약'에 의해 의미되어진 이유는 위에 언급된 모든 향신료가...'고약 중의 고약'을 수단으로 이해되기 때문. 원어에서 일반적인 향신료가 이 단어(고약 중의 고약)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이나, 번역자들은 '기름을 부음으로부터의 고약'이라 말한다.

출30:25-'고약 제조인의 일'=임신되셨던 때부터 주님 안에 있었던 그분의 신성의 일하심과 유입하심. '고약 제조인'=그것을 움직이는 누구, 주님에 관련해 말해질 경우=신성 자체.

출30:26-'너는 만남의 천막을 그것과 함께 기름을 부을 것이다'=천국들에 있는 주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 '거룩함의 기름으로 기름을 붓는 것'=신성한 인간 측면에서 주님의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을 표현하도록 권유하는 것. 그 이유가 '기름을 붓는 것'=표현을 권유하는 것. 그이유가 기름을 부워진 것이 거룩하다고 불리우는 것은 기름으로부터가 아니라 기름에 의해 의미된 신성의 표현으로부터이기 때문.

출30:26-'그리고 증거의 케...' '증거의 케에 기름을 붓는 것'=가장 깊은 천국 속에 있는 천적인 선에 있는 신성을 표현하도록 권유하는 것. '기름을 붓는 것'=주님의 신성을 표현하도록 권유하는 것.

출30:29-...이로부터 기름을 부어진 것들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현존하심과 유입되심으로부터 '거룩들 중의 거룩'이라 불리워진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출30:33-'이것과 똑같은 고약을 만드는 사람'=예술로부터 신성한 것들의 모조품(신성한 것들을 모방함). '고약'=주님 만에 속하는 신성한 진리들, 주님만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들.

출30:34-'고약 제조인의 일로 고약을...'=각각과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신성의 유입, 그리고 일하심. '고약' 또는 '향신료'=예배의 각각과 모든 것들에 있는 진리들. 그리고 '고약 제조인의 일', 또는 '향신료 (향수) 제조인'='주님의 신성이 작업하심, 그리고 유입이 있음.

기병-기브아-기브온-기브온족-기뻐

시89:20,25-27,29-시편의 많은 장소에서 '다윗', '기름을 부은 자', 그리고 '왕'에 의해 주님이 의미되어진다.

시132:17-'나의 기름 부은 자'=신성한 진리 측면의 주님.

겔16:9-'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붓는 것'=사랑의 선을 부여하는 것.

* 주님이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에 의해 의미되어지는데, 그이유가 '아버지', 그리고 '여호와'로 불린 신성 자체, 이는 본질 측면에서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이고 이 신성이 신성한 인간을 기름부웠다...'기름을 부음'=주님의 신성 자체로부터 진행되는 그분의 신성한 인간, 고로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 '여호와와 기름부은 자'=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

*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을 붓는 것'=시험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자신에게 하나되게 하는 것.

* '기름 부어지는 것'=세상에서 주님 속에 있었던 신성한 진리에 하나되어지는 것.

* '종'으로서의 다윗=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의 신성한 인간. 그리고 '기름 부어진 자'로서의 다윗=이것이 신성한 선에 하나됨.

* 이로부터 주님은 '기름 부은 자'라 불리우신다. 이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신성한 선으로부터 그분의 인간 안에서 신성한 진리에 하나됨. 그이유가 이 합일로부터 주님의 인간은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에 의해 이해되어진다.

계18:13-'고약'=천적 사랑의 선. 고약이 한계를 정했다.

기병 (horseman, cavalry)

* 타다(rider)를 보라.

기브아 (Gibeah)

호5:8-'기브아, 라마, 벵아웬'=베냐민인 천적인 것으로부터 영적 진리 속에 있는 것들. 그 이유가 기브아는 베냐민 속에 있기 때문.

삼하6:2,3-교회의 자연 평면인 교회의 최말단이 유다의 바알이 있었던 곳, 기브아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기브온 (Gibeon)

기브온족 (Gibonite)

* '기브온족'은 교회에서 섬겨야 할 이들의 어떤 것을 표현했다.

여9장-물을 길어오는 것은 진리들을 알기를 계속적으로 바램을 표현했다, 그러나 알려는 바램이 아는 것 이상의 다른 목적이 없는 것, 안 것을 가지고 어떤 선용에 충당해야겠다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이와같은 상태의 사람들은 가장 낮은 자로 평가된다.

여9:7, 11:19-히위족은 보다 직바른 나라들에 사이에 있어서 그들과 더불어는 불법은 완전히 극점에 달할 정도는 아니었다...주님의 섭리 속에서 기브온 주민 히위 사람은 보존되어졌다.

기뻐 (glad)

이24:11-'황폐해진 기쁨(gladness)'은 진리를 서술한다. '사라진 토지의 기쁨(joy)'은 선을 서술한다.

창31:27-'나는 너를 기쁨에서 그리고 노래들에서 보냈을 것이다'=자기는 진리 쪽에 있다고 자아로부터 믿고 있는 상태. 그 이유가 기쁨(gladness)과 노래들은 진리들을 서술하기 때문.

출4:14-'(아론은) 자기 심정에서 기뻐할 것이다'=사랑의 애착. (그 이유가) '심정에서 기뻐해지는 것'=사랑 속에 있는 애착으로부터의 즐거움(pleasantness)과 기쁨(delight)이기 때문.

레23:40-그러므로 뒤따른 것, '너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할 것이다.'

신16:14,15-'그때에 온전히 기뻐함'은 주님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이들이 지니는 것과 같은 기쁨(joy)이 의미된다.

계11:10-'즐거워하고(rejoice) 기뻐하는(glad) 것'=심정의 애착의 즐거움(delight)과 혼의 애착의 즐거움(delight). 전자는 의지 속에, 후자는 이해성 속에 있다.

예7:34-'환희의 목소리, 기쁨의 목소리'=선에 애착함과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의 즐거움(delight).

이24:7-그러므로 말해진다, '잘 보라, 심정에 있는 모든 기쁨이 통곡한다.' 말씀에서 '기쁨(gladness)에 의해서 영적인 기쁨(gladness)이 의미되는데, 이는 진리와 선에 애착함들로부터 모두 있다. '노래함'은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의 기쁨(gladness)을 증거함을 의미한다.

기수-기술공

속10:7-거기서부터 천국적인 즐거움(delight)이 '그들의 심정은 포도주와 더불어서 같이 기뻐해질 것이다'로 의미되고 있다.

신33:18-'그의 나감에서 기뻐하는 것'=그들은 모든 진짜 진리들과 선들에서 즐거움(delight)을 가진다는 것.

예20:15-'그가 그를 매우 기쁘게 만들었다'=애착으로부터 거짓을 수용함.

이32:13-'홍겨운 도성에서 기쁨의 모든 집들 위에'=말씀으로부터 교리의 선들과 진리들이 애착과 더불어 받아지는 곳.

예31:13-'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기뻐할 것이다'=진리의 영적 애착에 있는 이들의 심정의 기쁨.

기수 (rider)

* 타다(ride)를 보라.

기술공 (artificier)

창4:22-'두발가인은 놋쇠와 철을 다루는 모든 기술공의 선생이었다'=자연적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

창4:22, 계18:22, 이40:19,20-말씀에서 '기술공'에 의해 슬기롭고, 총명하고, 아는 것이 많은 자가 의미되어 진다. 여기서의 경우 '철과 놋쇠를 다루는 기술공'인바 이는 자연적 선과 진리에 아는 것이 많은 이들. 계시록의 경우, '공예품을 다루는 장인'=아는 것이 풍부한 자, 또는 진리와 선에 관한 과학. 이사야서의 경우, '기술공이 새긴 형상을 부어낸다...그는 새긴 형상을 준비하려고 똑똑한 기술공을 자신을 위해 찾는다'=몽상으로부터 거짓인 것을 자신을 위해 창안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도록 나타나게 가르치는 이들.

창4:22, 예10:9-예레미야서에서, '!...우바스의 기술공의 일, 주물공의 손들의 일로부터 (가져온) 금...' 이는 거짓들을 가르치는 이들, 말씀을 가지고 꾸며낸 일을 생산하는 것을 응낙하는 이들을 의미한다...이런 인물들이 우상들을, 또는 거짓들을 생산하는 기술공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호13:2-'그것의 모두는 기술공들의 일(이다)='자아 총명

호13:2-'그것의 모두는 기술공들의 일(이다)='모든 것이 자아로부터의 추론들을 수단으로 있다.

이40장-'기술공'=자아로부터 부화하고 생산하는 이들.

호13장-'기술공의 일'=인간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가 아닌, 고로 내향의 의미로부터 분리된 말씀의 바깥쪽 의미로부터의 교리. 이런 교리는 바깥쪽에 만에 있고, 동시에 내향의 것들에는 있지 않는 이들과 더불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자아와 세상을 사랑함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있지 않은 이들과 더불어 존재한다.

이40장-'기술공'은 그의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거짓인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계18장-'공예품을 다루는 그 어떤 기술공도 네게서 더 이상 발견 아니될 것이다'=그것에 따른 교리와 생활로부터 이런 광신적 신앙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는 자신들에 의존하는 만큼에서 영적 진리에 대한 어떤 이해함도 없고, 영적 진리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다는 것. 말씀의 영적 의미에서, '기술공'은 총명 있는 자, 그리고 이해함으로부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좋은 의미에서 천국에 있는 진리들을 이해함으로부터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악한 의미에서 지옥에 있는 거짓들을 이해함으로부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좋은 측면, 악한 측면의 사람 모두는 갖가지 종류를 창안해내고 이것이 또 새끼를 치고 하여 수많은 교리나 생활 상이 존재한다. 이런 것을 통털어 본 구절에서 '공예품을 다루는 모두 각각의 기술공'이라 일컫고 있다. '기술공' 역시 자기들의 손재주와 예술로부터, 상응으로부터 지혜와 총명, 그리고 과학 속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상응으로부터라고도 말해지는 이유는 인간의 모두 각각의 일도 상응의 범주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으로부터 시행되는 모든 작업, 만일 그것이 천국의 총명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 즉 어떤 선용을 위해 있어진다면 상응이 존재한다. 천국적인 총명으로부터의 어떤 것, 내지 천국적인 주제일 경우 금, 은, 보석을 다루는 기술공의 일에 상응한다. 다른 경우, 즉 놋쇠, 철, 나무, 돌을 다루는 기술공의 일에, 또다른 경우, 옷, 아마포, 의복, 다양한 종류의 입을 것들을 다루는 기술공의 일에 상응한다....

계18장, 출31:3, 36:1,2,8, 26:1,31,35, 28:6, 39:8, 28:11-'기술공'=진리를 이해함에 있는 이들, 그리고 이로부터 진리를 생각함에 있는 이들.

기억-기억하고 있다-기울다-기적

계18장, 호13:2, 이40:19,20, 예10:3,9, 신27:15-반대 의미에서 '기술공의 일'은 자아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을 의미한다. 이로부터서는 거짓인 것 밖에 생산되는 것이 없다.

계9:20, 출20:15, 여8:30,31, 왕상6:7-말씀에서 '금속 기술공', '기술공', '노동자'의 일은 자아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교리, 종교, 그리고 예배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고로 제단, 또한 성전은 다듬지 않은 돌, 즉 돌을 통째로 사용해서 짓도록 명령되어졌다.

계9:20, 이40:19,20-'기술공' 그리고 '구조공',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가 찾아낸 재치있는 기술공'은 (자기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생산한 것과 같은) 이런 교리들을 생산하고 골격을 짜내는 이들을 뜻한다.

계18:22-'공예품을 다루는 모두 각각의 기술공은 더 이상 네게서 찾지 못할 것이다'=지혜, 총명, 그리고 과학은 더 이상 없다. '모든 공예품을 다루는 기술공'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해성 측면에 속하고, 이해성 측면은 '공예품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

기억 (memory)

창40:14-'당신과 더불어 나를 기억해주시오'=신앙을 받아들임...그이유가 주님을 기억하고 회상함은 신앙 외 다른 근원은 없기 때문.

창40:14-'바로에게 나를 생각해내게 만드시오'=자연의 내면과 교통함.

출13:3-'회상하다'=그것은 회상되어야 한다는 것.

계3:3-'그러므로 생각해내라'=그것은 생각 안으로 오리라는 것.

기억하고 있다 (remember)

창8:1-'하느님이 기억하셨다'=...특별한 측면에서, 그분은 자비를 가지셨다는 것; 그분의 기억하심은 자비이다. 이는 특히 시험 후에 서술되어진다....'하느님이 기억하신다'=시험의 끝, 그리고 갱신의 시작.

창9:15-'나는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거듭나는 자를 향한 주님의 자비...그 이유가 '기억하신다'는 단어는 주님께 관련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창30:22-'하느님은 라헬을 기억하셨다'=예견.

창40:23-'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모든 방법에서 아직까지는 결합이 없음.

창41:9-'저는 오늘에야 내 죄를 기억합니다'=분열의 상태에 관하여...(그 이유가) '기억함'=결합...그이유는 다른 삶에서 누군가를 기억할 경우 결합이 있기 때문.

창42:19-'요셉은 꿈들을 기억했다'=그는 있어질 것들을 미리 보았다. (그 이유가) '기억하는 것'=현존함. 그 이유는 기억함 안에서 진행될 어떤 것이 상연되기도 하기 때문.

출6:5-'나는 내 언약을 기억했다'=감염됨으로부터 면제함.

출13장-이 장은 주님께 의해 해방됨을 영구히 기억함을 다룬다.

출20:8-'기억하고 있다'=생각에서 영구적인 것.

출28:12-'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한 기억함의 돌들'=영구히 자비로부터.

출30:16-'여호와 앞에서 기억함을 위해 있을 것이다'=고로 주님께 의한 교회의 보존.

눅22:19-'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겔23:27-'더 이상 이집트를 기억 못한다'=더 이상 진리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다.

기울다 (incline)

창39:21-'그는 자비를 그에게 기울였다'=각각의 것에 있는 신성한 사랑.

시144:5-'하늘들을 굽혀 절하게 하고(bow) 내려오는 것'=방문하고 심판하는 것.

시45:10-'귀를 기울이는 것'=순종.

기적 (miracle)

출3:20-'나는 내 모든 경이로움들을 가지고 이집트를 치 것이다'=거짓들에 신성의 힘이 맞섬. '경이로움들'=신성한 힘의 수단들. 이 수단들에 의해 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복종된다는 것이 이집트에 행해진 경이로움들, 또는 기적들로부터 분명해진다.

* 주님께 의해 행해진 모든 기적들=인류의 상태와 교회의 상태가 주님이 세상 안으로 강림에 의해 구원되었음. 즉 선행의 신앙을 받은 이들을 지옥으로부터 해방하셨다는 것. 주님의 기적들은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서에서 취급된 모든 기적들=교회의 상태와 주님의 왕국의 상태. 이 안에서 신성의 기적들은 비록 외적 형체에서는 엇비슷할 수 있는 미술적 기

기초-기초의-기초

적들과는 구별된다.

계12:1, 출7:3, 신6:22-‘표시(sign)들’은 진리로부터의 것에 관련된다. ‘기적들’은 선으로부터의 것들에 관련된다.

기초 (fountation)

기초의 (foundamental)

이58:12-‘대대손손의 기초들’=신앙의 영적 측면에 속하는 것들, 이것들은 고대 시대 이래 타락해왔다.

이40:21-‘땅의 기초들’=교회의 기초들.

신32:22-‘산들의 기초들’=지옥들...그들이 ‘산들의 기초들’이라 불리는 이유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지옥을 통치하고 거기로부터 존재하기 때문.

합3:13-‘기초로부터 목에 이르기까지 조차 발가벗겨 놓였다’=도중에서 가로채진 결합.

출9:18-‘기초된 날로부터 지금까지’=다른 사람(것)들과는 이와같은 파괴는 없었다. ‘날’=상태, 그리고 ‘기초’=그것의 품질.

계21장-기초들인 귀한 돌들=질서의 최말단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

시104:5-‘땅이 기초를 놓은 기초들(bases)’=최말단에 있는 진리들.

이40:21-‘땅의 기초들’=신앙 속의 진리들. 그이유가 이런 진리들이 기초들로서 교회를 섬기기 때문.

이54:11-사파이어로 놓여진 기초들=이 왕국의 외적인 것들. 그이유가 기초들은 아래에 놓인 것이기 때문.

출29:12-‘제단의 기초’=감각 평면, 이는 인간 생명의 최말단이다. ‘제단의 기초’가 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제단이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표현하기 때문, 그러므로 그것의 ‘기초’=인간에 있는 생명의 최말단인 것, 이것은 외적 감각 평면이라 불리운다.

계21장-‘성벽의 기초들’=그 교리에 기초를 주게 되는 지식들.

계13:8-‘세상의 창설 때에서부터 죽임을 당한’=주님의 신성한 인간은 교회의 설립 때로부터 인정되지 않았다.

계17:8-‘그들의 이름들은 세상의 창설 때부터 생명의 책에 씌어있지 않았다’=교회의 설립 때부터, 여기서의 경우 이 광신적 신앙의 설립 때부터 말씀으로부터의 교리 안에 있지 않는 이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이

들.

계21:14-‘열 두 기초들을 가진 도성의 벽’=새 교회 교리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글자 의미로 있는 말씀. ‘기초들’은 교리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열 둘’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교회는 교리 위에 기초되는데, 교리의 모든 것들은 ‘새 예루살렘 성벽의 열두 기초들’에 의해 의미된다. 그리고 교회는 교리로부터 교회인바, 그것의 기초들이 세세하게 취급된다. 말씀에서 ‘땅의 기초들’이란 교회의 기초들을 뜻한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들은 말씀으로부터 밖에 더 없고, 교리적인 것들이라 불리운다. 그 이유는 말씀 자체가 교회의 기초들을 형성하기 때문.

계21:19-‘도성의 벽의 기초들은 모든 귀중한 돌로 장식되어져 있었다’=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취해진 새 예루살렘의 교리의 모든 것들은 거기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받음의 정도에 따라 빛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시18:7-‘산들’=사랑의 선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초들’=신앙의 진리들.

신32:22-‘불 위에 놓은 산들의 기초들’=교회가 기초된 진리들, 이 진리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다.

눅11:50-‘세상의 창설’=교회의 설립.

미6:2-‘땅’=교회 그리고 그것의 ‘기초들’=여타의 모든 것이 기초된 원리들.

미1:6-‘기초들’=교회가 기초된 자연적 진리들.

이30:32-말씀의 글자적 의미 속의 진리들이 ‘기초의 막대기’에 의해 뜻해지는 이유는 이 의미는 그것의 영적 의미 속의 진리들에 기초이기 때문이다.

시18:15-진리 측면에 관련하여, 선 측면에 관련하여 교회의 모든 것들이 기초로부터 전복되어왔다는 것이 ‘물들의 바닥이 나타났고, 세상의 기초들이 밝히 알려졌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14:32-‘여호와께서 시온에 기초를 두셨다’=교회는 이런 것들에 의해 설립되어질 것이다.

기초 (base)

* 받침, ultimate도 참조

시104:5-‘땅’=교회. ‘그것이 세워진 기초들’=최말단에 있는 진리들, 말씀 속의 것들이 글자 의미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이로부터 말해지는바, ‘그것은 영원히 움

기품있는-기혼-기회-길

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욥38:6-‘기초들’=지탱하는 진리들 자체.

출26:19-‘널판 아래에 받침을...’, 이는 ‘받침’에 의해 의미되는 진리는 이 선으로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의미 되어 있다.

시104:5-‘여호와께서는 그것의 기초를 땅에 세우시어 그것이 영원히 제거되지 않도록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것이 영원히 제거되지 않도록 세우시기 위해 사용한 ‘기초’란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이다.

욥38장-‘기초들’ 등등=자연적 인간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 위에 인간과 더불어 교회의 창설(토대)가 있다.

삼상2:8-‘땅의 기초들’=외면의 진리들, 예를 들면, 말씀의 글자 의미 등등, 그이유가 내면의 진리들은 외면의 진리들을 토대로 하여 있기 때문.

기품있는 (elegant)

창49:21-‘기품있는 강연을 주고 있다’=마음의 기쁨. 그 이유가 모든 강연은 마음으로부터 진행하기 때문. 마음이 기쁘고 유쾌할 때, 기품을 가지고 말하게 된다.

기혼 (Gihon)

창2:13-‘둘째 강 이름은 기혼이다’=선과 진리, 또는 사랑과 신앙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한 지식.

기회 (chance)

출21:13-‘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의 손으로 오도록 하셨다면’=기회로서 나타남, 이는 고대인들의 생각 함으로부터 분명하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손에 오도록 하셨다’라고 말하여 기회를 표현했다.

길 (way)

* 걷다, walk도 참조.

* 지각 (perception)은 내적인 길을 수단으로, 교리는 외적인 길을 수단으로 있게 된다.

창6:12-‘모든 육체가 땅 위 그것의 길을 타락시켰다’=인간의 육체적인 것(물질적인 것)이 진리에 대한 모든 이해를 파괴했다. ‘길’=진리에 대한 이해, 또는 진리 자체.

창16:7-‘술(Shur)로 가는 길’=과학물들로부터 진행되는 것들. ‘길’=진리로 이끄는 것, 그리고 진리로부터 진행되는 것.

창18:19-‘여호와와 그의 길을 간직하는 것’=그들이 훈육되는 수단인 교리, 그리고 이것은 그분으로부터 있다.

창19:2-‘너는 네 길을 갈 것이다’=진리 안에서 확증함.

시25:12-‘그분은 그분이 선택한 길에서 그분을 가르칠 것이다’=진리에서.

애1:4-‘시온의 길들이 통곡한다’=선으로부터의 진리는 더 이상 없다.

창24:21-‘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번성하게 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신성한 진리에 관하여 문의함. ‘길’=진리.

창24:27-‘제가 길에 있는 동안’=합리성에서 진리가 결합하는 상태에서. 그 이유가 이것이 여기서 취급된 주제이기 때문. ‘길’=진리. 그리고 누군가가 ‘길 가는 중에’ 있다 라고 말해질 때, 이는 그가 자기가 목적인 방향으로의 전진해감이다.

이40:3-‘여호와와 그의 길을 예비하라’=진리를 받을 수 있게 자아를 준비하는 것.

창24:56-‘여호와가 내 길을 번영하게 하셨다’=선과 결합되어지게 되어 있는 진리에 관련한 모든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 이유가 ‘길’=진리.

눅8:5-‘어떤 것은 단단한 길에 떨어졌다’=거짓 안으로.

눅3:5-‘거친 길들이 편편한 길이 될 것이다’=무지로부터의 거짓들이 진리들로 바뀔 것이다.

시107:4-‘그들은 광야에서, 길의 고독함에서 배회할 것이다’=선에 관해 무지함에, 진리에 관해 무지함에 있는 이들.

창30:36-‘그는 사흘 길이 뜨게 하였다’=완전하게 분리되었다.

창31:23-‘칠 일의 길’=진리로부터의 거룩한 것.

창38:16-‘길’=거짓.

이49:8-‘길 위에서 풀을 뜯는 것’=진리들로 가르쳐지는 것.

창42:25-‘길에서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주는 것’=그들이 가진 진리들을 떠받침. ‘길’=진리. 그러나 여기서, ‘길에서(길을 가는 중에)’=그들이 그 상태에 있는 한. 그 이유가 ‘길을 가는 중 인 것’=선과 결합한 진리의 상태.

창45:23-‘길을 가는’=한편.

길

창49:17-‘단(은) 길에 있는 뱀’=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추론함.

출4:24=‘길에서’=설립된 것.

출13:17-‘블레셋의 토지의 길’=선으로부터 있지 않은 신앙의 길로 건너감. ‘길’=진리, 여기서는 그것 쪽으로 건너감.

출13:18-‘광야의 길’=시험들을 수행하는 것, 고로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을 확증하는 것.

출13:21-‘길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여호와와 인도하심을 말하는데,=섭리, 그리고 신성의 후원.

이58:13-‘네 고유의 길들(방법들)로 행동하지 않는 것’=자아로부터 행동하지 않는 것.

출18:8-‘길에서 그들이 마주 친 모든 곤경’=시험들에서의 수고함. 그이유가 여기서의 ‘길’은 광야이기 때문.

출18:20-‘너는 그들이 걸어야만 하는 길을 그들이 알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총명의 빛, 그리고 파생되는 생활. 그이유가 ‘길’은 진리를 이해함을 서술하는데, 여기서는 내면의 수준에서의 이해함이다.

마21:8-‘군중은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그이유는 교인들을 인도하는 수단이 ‘길’ 즉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30:21-‘이것이 길이다, 너는 그것에서 걸으라’=교리의 진리에서, 그리고 생활의 선에서. ‘길’=인도하는 진리.

출23:20-‘길에서 너를 지켜주는 것’=그분의 섭리 그리고 악의 거짓들로부터 후견역을 해주심.

예2:17-‘길을 인도하는 것’=진리를 가르치는 것.

출32:8-‘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길에서 떠났다’=그들은 자신들을 신성한 진리로부터 제거했다는 것.

출33:13-‘내가 당신을 알게 하소서, 당신의 길을 나에게 알게 만드소서’=품질에 관련하여 신성에 관하여 훈육하심. ‘여호와와 길’=신성한 진리가 인도함.

눅8:5-‘어떤 것은 길 위에 떨어졌다’=진리에 관심 없는 이들.

계15:3-‘정의와 진실이 당신의 길입니다’=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정의와 진실이라는 것.

계16:12-‘태양이 올라옴으로부터 왕들의 길이 준비되어진다는 것’=주님으로부터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있

는 이들. ‘길을 준비하는 것’=입문을 위해 준비하는 것.

예17:10-‘그의 길들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신앙 속에 있는 그의 진리들에 따라.

시107:7-‘그는 직바른 길쪽으로 그들을 인도했다’=진짜 진리 쪽으로,

이42:16-‘나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로 소경을 인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작은 길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진리들과 진리들로부터의 선들, 그들은 이것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33:8-‘도보 여행자가 중단되었다’=더 이상 신앙으로부터의 어떤 진리도 없다.

레26:22-‘네 길은 황폐되어 놓여있을 것이다’=그들은 진리들을 박탈 당할 것이라는 것. 그이유가 ‘길들’=선으로 인도하는 진리들이기 때문.

말2:8-‘너는 길을 벗어나 다른 쪽으로 돌아섰다’=이스라엘 교회는 말씀 속의 진리를 악용했다. ‘길’=교리 속의 진리들.

사5:20-‘그들의 진로로부터의 별들이 시스라에 맞서 싸웠다’=천국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들을 수단으로 전투함.

이43:19-‘나는 광야에 길을 만들기 까지 할 것이다’=전에 거기에 아무 것도 없었던 곳에 진리가 있을 것이다.

시86:11-‘나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소서, 오 여호와여’=우리가 따라 살아야만 하는 진리를 가르침.

시128:1-‘그분의 길에서 걷는 자는 복있다’=신성한 진리들에 따라 사는 것.

예32:39-‘나는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주어서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주님을 예배하려는 하나의 의지와 하나의 이해성. ‘길’=이해성의 진리가 인도함.

예6:25-‘너는 길에서 가지 마라’=이와 같은 때...자아를 위해 상담할 때, 교리 속의 것들이 상담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

이10:26-‘이집트의 길’=자연적 인간의 과학물들. 이로부터 추론들이 결과되어진다.

예3:2-‘아라비안이 광야에서 같이 길들 위에 너는 앉았다’=진리의 어떤 것이 출시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기다리는 상태에 있는 것. ‘길들’=교회의 진리들.

길갈-길르앗-길이

호13:7-‘표범 같이 나는 길 위에서 지켜볼 것이다’=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추론들을 통하여 진리가 왜곡됨.

이45:13-‘나는 그의 모든 길들을 곧바르게 할 것이다’=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들.

길갈 (Gilgal)

여5:9-‘그는 그 장소의 이름을 길갈,이라 불렀다.’ 즉 굴림, 넘겨짐.

*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동쪽에 있는 길갈에 이 돌들을 세운 이유는 ‘길갈’=교회로의 입문을 위해 봉사하는 자연적 진리로부터의 교리 이었기 때문이다.

길르앗 (Gilead)

창31:21-‘그는 길르앗 산을 향하여 자기 얼굴들을 놓았다’=거기 있는 선. ‘산’=사랑의 천적 평면. 그리고 ‘길르앗’=그것의 품질. 강이 그 경계선이었고, 결합이 처음 있었던 곳이기 ‘길르앗 산’, 이는 요단 이쪽(가나안 영역에 진입하기 이전)에 있었는데=선과 더불어 처음 결합.

민32:1,26-41, 신3:8,10-16, 여13:24-31-산이 있었던 길르앗의 토지는 넓은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가나안의 토지의 한계 내에 있었다. 그것은 요단 이쪽 편이었다.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 들에 양도되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토지가 한 복합체로 표현되어 질 경우, ‘길르앗부터 단 까지’라고 말해졌다.

창31:23-‘그리고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합류했다’=그것에 의해서 결합의 어떤 것이 있다. ‘길르앗 산’=처음 결합이 있는 선.

창31:25-‘그리고 라반은 자기 천막을 그의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산에 고정 시켰다’=얼마간의 결합이 있는 선의 상태. ‘길르앗 산’=처음 결합과 마지막 결합이 있는 곳.

사5:17-‘길르앗’=감각적인 선, 또는 즐거움. 거듭나질 때 인간은 이 선을 통하여 처음 거듭남이 개시된다.

창37:25-‘이스마엘족의 한 무리가 길르앗으로부터 왔다’=단순한 선에 있는 이들. ‘길르앗’=외면의 선, 이를 통하여 인간이 거듭날 때 처음 거듭남이 개시된다.

숙10:10-‘그들을 길르앗의 토지로, 레바논으로 데려오는 것’=선행의 선이 있는 교회의 선 쪽으로, 그리고 신앙의 선과 진리 쪽으로,, 후자는 ‘레바논’이다. 전자는

‘길르앗의 토지’이다.

예1:19-이방인들이 주님에 의해 인도되어지고 선행의 선 안에서 훈육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은 갈멜에서, 바산에서, 에브라임과 길르앗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사5:17-‘길르앗’에 의해 자연적 인간이 의미된다.

시60:7, 108:8-‘길르앗’에 의해 자연 평면이 의미된다.

사5:17-‘길르앗’은 ‘므낫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므낫세’에 의해 자연적 인간의 선이 의미된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 이 구절에서 말해지기를, ‘길르앗, 왜 너는 요르단 건너에서 거주하는가?’에 의해 왜 너는 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외적인 것들에만 거주하는가?가 의미되고 있다. 그이유가 교회의 외적인 것이 요단 넘어 있는 지역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

숙10장-‘길르앗의 토지’와 ‘레바논’에 의해 자연적 인간에 있는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이 의미된다.

예46:11-‘길르앗’에 의해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추론함이 의미된다, 이로부터 거짓들이 확정되어진다.

길이 (length, long)

창6:15-‘길이’=이러한 것들의 거룩함...이를 말씀으로부터 잘 확증해내 지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은 거기서 취급되는 주제에 따라 서술되기 때문; 예를 들면, 시간에 응용되는 ‘길이’는 항구적인 것을, ‘날들의 길이’일 경우는 영원한 것을, 장소에 응용될 경우는 거룩한 것을 각각 서술한다.

창13:17-‘그것의 길이에 의거, 그리고 넓이에 의거’=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 또는 선인 것과 진리인 것.

* 천적 왕국, 또는 선은 제1 순위인바 길이에 비교되고, 영적 왕국, 또는 진리는 둘째 순위 인바 넓이에 비교된다.

출25:10-‘그것의 길이는 두 큐빗 반’=선에 관련한 모든 것.

출25:23-‘그것의 길이는 두 큐빗’=선과 결합함에 관련한 모든 것.

출26:2-‘한 커튼의 길이는 28큐빗’=선으로부터의 진리가 거룩인 것. ‘길이’=선.

출26:8-‘한 커튼의 길이는 30 큐빗’=선으로부터의 진

깃딤-깊은

리가 충만한 것. '깊이'=선.

출26:16-‘판자의 길이는 열 큐빗’=이 선은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다는 것. ‘깊이’=선, 여기서는 지지하는 선, 이는 공적의 선이다.

출27:1-‘길이는 5큐빗, 넓이는 5큐빗’=선으로부터 그리고 진리로부터 균등하게.

출27:9-‘길이는 일 백 큐빗’=주님으로부터의 선으로 충만함.

출27:18-‘뜰의 길이는 큐빗으로 일 백’=이 천국의 선이 충만함 쪽으로.

계21:16-‘그것의 길이는 그것의 넓이 만큼 크다’=이 교회에 있는 선과 진리는 본질과 형체가 하나를 만들듯, 하나로 만든다. 도성 예루살렘의 ‘깊이’에 의해 교회의 선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의 넓이에 의해 교회의 진리가 의미된다.

계21:16-‘깊이, 그리고 넓이, 그리고 높이는 균등했다’=그것 속의 모든 것들은 사랑의 선으로부터였다. 그 이유가 ‘깊이’에 의해 사랑의 선이 의미된다. 깊이가 앞서 진행하고 다른 것도 이것에 따라 ‘균등하게’ 진행되기 때문.

이45:14-그들은 선으로부터 ‘깊이의 사람들, 키가 큰 사람들’이라 불리운다. 그 이유가 ‘깊이’=선과 선의 품질.

깃딤 (Chittim, Kittim)

창10:4-‘야완의 아들들’=‘야완’ 나라에 널리 퍼졌던 예베로부터 파생된 외적 예베를 아직 지녔던 다른 나라들; ‘엘리사, 달시스, 깃딤, 도다님’은 위와 같은 예베가 있었던 나라들였다, 그리고 이들을 수단으로 많은 교리들, 예식들이 의미되었는데, 이는 ‘야완’과 더불어 외적 예베로부터 파생되었다.

예2:9, 이23:12-‘깃딤’=의식들(rituals)

겔27:6-‘깃딤의 섬들로부터의 배의 들보’=예베의 외적인 것들, 고로 천적 등급에 관련있는 의식들.

예2:10-‘깃딤의 섬들’=예베로부터 더 멀리 있는 이들, 즉 단순한 선에 있는 이들, 고로 자연적 진리에 있는 이방인들.

이23:1-‘깃딤의 섬들’=우상적인 것이 의미되어진다.

이23:1,2,4-6, 예2:10,11-‘깃딤의 섬들’=진리들에서

자연적으로 사는 그들이 있는 곳.

깊은 (deep)

창1:2, 이51:10-‘깊음의 얼굴’=탐욕들과 이로부터의 거짓들, 그는 이 안에, 이로부터 전적으로 존재한다. 그가 빛을 가지고 있지 않은바, 그는 심연 같고 혼돈된 어두운 어떤 것 같다. 이와같은 것이 말씀의 여러 곳에서 ‘심연과 바다의 깊이’이라 불린다. 이것이 인간이 거듭나기 앞서 ‘말리워지고’ ‘소모되어진다’.

창7:11-‘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자발적 측면에 관련된 시험이 최고조에 이룸...‘깊음’=탐욕들과 그로부터의 거짓들.

겔26:19-‘깊음’ 그리고 ‘많은 물들’=극도의 시험.

욘2:5-‘물들’ 그리고 ‘깊음’=극도의 시험.

겔26:19-고대 시대 때 깊음은 지옥을 뜻했다; 그리고 몽상과 거짓 설득들은 물들과 홍수들 그리고 그로부터의 연기에 견주었다; 지옥들 속의 어떤 것을 알게 하려고 마치 깊음이나 바다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이 구절로부터 지옥이 ‘깊음’, 그리고 그로부터의 육욕적인 것들이 ‘홍수들’이라 불리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계11:7-‘바닥 없는 구덩이’=지옥.

신8:7-‘강들’, ‘물들’, ‘샘들’, 그리고 ‘깊음들’=그로부터 파생된 진리들.

시78:15-‘물들’, ‘홍수들’, 그리고 ‘깊음들’=주님으로부터의 진리들.

신33:13-‘아래 누운 깊음’=자연적인 것들.

계11:7-‘바닥 없는 구덩이’ 또는 지옥으로부터의 짐승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교회 내에 있는 선과 진리가 황폐됨.

창49:25, 신33:13-‘아래 누운 깊음의 복주심’=자연에 있는 과학적 사실들...‘아래 누운 깊음’=자연에 있는 과학적 사실들; 자연은 하늘에 해당되는 내면의 것에 견주어 아래 누운 깊음이라 불린다. 그리고 자연이 아래 누운 깊음이라 부르기에 과학적 사실 또한 의미한다. 그 이유는 과학적 사실은 그로 인한 기쁨과 더불어 자연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또한 요셉을 축복함에서 ‘깊음’=자연에 있는 과학적 사실들.

욘2:5-‘회감은 깊음’=거짓으로부터의 악.

계9:2-‘심연의 구덩이’= 지옥.

깊은

이51:10-‘큰 깊은의 물들’, 그리고 ‘바다의 깊은들’=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악한 생활 속에 있던 이들이 있는 지옥.

출15:5-‘깊음이 그들을 덮었다’=탐욕들로부터의 거짓들이 그들을 압도했다는 것. ‘깊음들’은 말씀에서 물들을 뜻하고, 그리고 깊은들에 있는 아주 많은 물들도 뜻한다; 그리고 물들=진리들 또는 거짓들; 그리고 깊은들=지옥들; 이로부터 ‘깊음들’= 탐욕들로부터의 거짓들, 또한 지옥들.

겔31:4-‘깊음들’이 말씀에서 깊은들 안에 있는 물들, 그리고 물이 풍부함을 뜻하고 있다. 이런 구절들에서 ‘깊음들’은 풍부한 물들을 표시하는바, ‘깊음’ 또는 풍부한 물들은 신앙으로부터 있는 풍부한 진리를 말해준다.

시78:15-‘그분은 바위로부터 큰 깊음을 만드시어 그들로 마시게 했다’=결함 없는 신앙 속의 진리들.

신8:7-‘깊음들이 계곡으로부터, 산으로부터 발행하고 있다’=사랑으로부터 있는 신앙의 진리들.

출15:8-‘깊음들이 바다의 심장 안에서 동결되었다’=자아 사랑의 탐욕들 속의 악으로부터 있는 오로지 거짓들인 것은 전혀 빠져나올 수 없었다. ‘깊음들’= 탐욕들로부터의 거짓들, 또한 지옥들.

시104:6-‘웃으로 덮은 듯 가려진 깊은’=자연적 인간을 위한 과학적 진리.

계9:1-‘심연의 구덩이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다’=그들의 지옥이 열렸다...‘심연’=믿음 만으로 정의로워지고 구원된다고 확증한 개혁 교회로부터의 모든 이들이 있는 지옥.

계9:11-‘그들이 왕을 가졌는데, 심연의 천사이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그립어로는 아볼루온이다’=욕욕으로부터의 거짓들 안에 있고, 말씀을 온전히 왜곡해버림으로 교회를 파괴한 사탄의 지옥 안에 있는 이들...‘심연’=사탄의 지옥, 거기에 이들이 있다.

계17:8-‘이제 막 심연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가려하고 있다’=평신도와 보통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받음에 관련하여 추기경 회의에서 협의된 것, 그러나 그것은 거절되었다.

계20:1-‘심연의 열쇠를 가지는 것’=지옥을 열고 닫는 신성의 힘.

계20:3-‘그가 심연으로 던져짐’=그들은 지옥을 향하여 내려간다는 것.

계9:11-‘심연’=이러한 거짓들의 거처.

시33:7-‘그분이 보물들 안에 수여하는 깊은들’=자연적 인간의 가장 일반적이고 최말단인 과학적 감각적인 것들, 이와 동시에 그것 안에 내면의 진리, 또는 보다 높은 진리가 있다.

시91:4-‘깊음 아래 신뢰하는 것’=과학적 진리, 이는 자연에 있는 신성의 영적인 것.

창49장-‘아래 누워 있는 깊은의 축복’=외적 인간 또는 자연적 인간 안에서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번성함.

시135편-‘바다들’과 ‘깊음들’=(천국의) 최말단에 있는 이들.

겔31:15-‘그에게 덮여진 깊은’=진리에 관한 지식들... ‘깊음’, 또는 ‘바다’=자연적 인간 안에 있는 일반적인 과학력과 인식력

신8장-‘샘들’=내면의 진리들; ‘깊음들’=외면의 진리들.

시148:7-‘고래들’과 ‘깊음들’=일반적으로 있거나 또는 복합체의 전체에 있는 과학적 사실과 인식력.

시36편-‘깊음’=일반적인 진리들, 이것은 신앙 속의 진리들이라 불리기도 한다.

시104편-‘깊음’=일반적인 과학적 사실들.

신8장-‘계곡으로부터 그리고 산으로부터 발행하는 깊은들’=자연적 인간 안에, 그리고 영적 인간 안에 있는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겔31장-‘깊음들’=자연적 인간 안에 있는 진리에 관한 지식들.

계9장-‘심연의 구덩이’=악의 거짓들이 있는 지옥, 거기로부터 악의 거짓들이 나온다.

시148편-‘깊음들’과 ‘바다들’=과학적 사실이 있는 자연 자체.

시36:6-‘심판들’은 신성한 진리들을 서술하고, 이것이 ‘큰 깊은’과 비교되고 있다. 그 이유가 ‘큰 깊은’=신성한 진리.

겔3:5-‘입술이 깊은...’=비록 교리 측면에서는 거짓 가운데 있지만 아직 선행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다.

출15:5-‘그들은 돌 같이 깊은 속으로 내려갔다’=그들

까마귀-깎다-깜짝 놀라다

은 그들의 중량 만큼 더 낮은 것에 가라앉았다...‘깊음 들’=지옥이 있는 더 낮은 것들.

미7:19-‘바다의 깊이’=지옥.

계2:24-그들이 말할 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오로지 거짓들 뿐인 그들의 내면의 것들을 이해 못하는 (이들)...그것의 ‘깊은 것’=선행으로부터 분리된 교리의 내면의 것들...이 교리의 깊은 것과 내면의 것들은 그들의 책들, 강연들, 설교 등등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33:19-‘입술이 깊은 백성’=외관을 진리로 씌우기까지 하여 확증한 교리의 거짓들.

겔3:6-‘입술의 깊이 속의 백성’=명료치 못한 교리 안에 있는 이들.

시107:24-‘깊은 곳에 있는 경이로운 것’=총명과 지혜로부터 감추인 것들.

시69:14-‘물들의 깊이들’=지옥들로부터의 거짓들; ‘깊은 것이 나를 삼키지 않게 하소서’=악의 거짓들이 있는 지옥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소서, 또는 지옥으로부터 있는 악의 거짓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소서.

이51:10-‘이것이...’그분은 바다를 말리셨다...그리고 구속자들이 건널 길을 위해 깊음을 놓으신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숙10:11-‘강의 모든 깊은 것을 말리는 것’=악의 모든 거짓들, 더 깊은 악의 모든 거짓들 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

미7:19-‘바다의 깊이들’=악의 거짓들이 있는 지옥, 그곳으로부터 악의 거짓들이 출현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바다의 깊은 곳으로 내던지셨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욘2:3-‘바다의 심장에 이르는 깊이 안으로’=지옥.

시88:6-‘깊음에서’= 악에서.

마18:6-‘바다의 깊이 안에 가라앉는 것’=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

까마귀 (raven)

창8:7-‘그는 까마귀를 내보냈다, 그리고 그것은 나가서 가고 되돌아 오고 했다’=거짓들이 아직도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

이34:11-세상에서 신성한 진리가 유용함을 만들지 않

을 때 튀어나오는 일종의 거짓들.

시147:9-‘까마귀의 아들들’=오류로부터 어둡한 발광체에 있는 이들. 이런 경우가 이방인들의 경우에 많다. 그러므로 말해지기를, ‘그분은 우는 까마귀의 아들들에게 주신다.’

깎다 (shear)

신21:12-거짓들로부터 깨끗해짐이 ...‘그녀는 자기 머리털을 깎아야 할 것’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31:9-‘라반은 자기 양떼의 털을 깎으러 갔다’=선용의 상태 그리고 선의 결과...‘깎는 것’=선용(use), 고로 결과(end).

창38:12-‘털깎는자’=유용함, 고로 유용하기를 뜻하는 것, ...의견을 듣는 것.

창41:14-[요셉은] 자신을 깎았다’=외면의 자연적인 것들에 관련된 것을 거절하고 바꿈. 머리털이나 턱수염을 ‘깎는 것’=외면의 자연으로부터 있는 것들을 거절함. 그이유가 깎인 머리털=자연 평면.

겔44:20-‘머리털을 밀지 말고 깎기만 하라’=자연 평면을 거절 하지 않는 것, 그러나 동의하여 그것에 숙박하는 것, 고로 그것을 중속시키는 것.

민6:9-‘그의 나지르 신분의 이행을 마치는 날에 나지르인은 자기 머리를 깎아도 된다.’

이7:20-‘머리를 미는(shave) 것’=교회의 내적 진리들이 결핍되는 것. ‘머리털을 밀고 턱수염을 없애버리는 것’=그것의 외적 진리들이 결핍되는 것.

깜짝 놀라다 (amaze)

창24:21-‘사람은 이런 그녀로 해서 깜짝 놀랐지만 이런 자신을 억제하고 있었다’=이런 것들에 관련해 지각하는 상태...그가 깜짝 놀란 것은 정작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창43:33-‘사람들은 놀라워졌다’=상태의 변화...‘놀라워지는 것’=생각들의 상태가 예상함 없이 갑작스럽게 변함. 이것이 놀람의 원인이기에 이 의미를 가진다.

출16:15-‘그들은 그의 형제 사람에게 말했다’=깜짝 놀람...그들이 만나를 보았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졌다.

계9:10-‘그들은 다섯 달 동안 사람을 다치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그들은 진리를 이해하고 있고 선을 지각하고 있는 이들을 일종의 망연자실한(멍청해지는)

까마귀-깍다-깜짝놀라다-깨끗함

상태로 가져다 놓는다는 것.

계9:5-‘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은 죽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것이었다’=이것은 하느님의 섭리 속에 있는바, 그들은 이해하는 능력과 진리와 선을 뜻하는 것을 거두어 갈 수는 없다는 것, 그러나 잠간동안 명칭해지는 상태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계9:10-‘그들은 전갈의 것을 닮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왜곡되어진 말씀 속의 진리들, 이를 발판으로 그들은 명칭해지는 상태를 도출해낸다.

신23:28-‘심정의 깜짝 놀람’=선을 뜻하려는 의지가 없음.

숙12:4-‘그 날에 나는 놀라움과 더불어 모든 말을 처 죽일 것이다...’놀람이 선에 대한 지각을 가지지 않을 때의 이해성에 관련해 말해지고 있다, 그리고 ‘눈멀음’은 진리에 대한 지각을 가지지 않을 때의 이해성에 관련해 말해지고 있다.

겔26:18-‘놀라워지는 것’=상태에 관련한 것이 모두 바뀌는 것.

계9:10-‘그것들의 권능은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었다’=그들이 진리의 이해와 선의 지각을 명칭해지도록 한다는 것...여기서 ‘다치게 하는 것’이 명칭해짐을 의미하는 이유는 그것의 꼬리가 전갈의 꼬리와 같다고 말했기 때문, 그리고 ‘전갈’은 숨막히고 열빠지게 하는 설득하는 것, 고로 명칭해짐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깨끗함 (cleanness)

창7:2-‘모든 깨끗한 짐승’=선한 애착들.

* 근원적 언어에서 ‘흠없음’이 깨끗함과 순수함을 뜻하는 단어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계19:14-‘회고 깨끗한 모시로 옷입고’=사랑 안에 그리고 그로부터 신앙 안에서.

시19:9-‘여호와를 경외함은 깨끗하다’=사랑.

겔36:25-‘깨끗한 물들을 뿌리는 것’=심정의 순수함. 고로 ‘깨끗해지는 것’=신성하게 하는 것.

겔39:12-‘일곱 달 동안 토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교회에 있는 선과 진리의 충분한 회복.

출24:10-‘깨끗함에 관하여는 천국의 실체인듯’=천사의

천국의 반투명함.

시51:10-‘깨끗한 심정’=깨끗치 않은 악을 혐오하는 의지.

출29:36-‘너는 제단 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것이다’=천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악들로부터 순수해 있음. ‘깨끗해짐’=순수해짐.

마23:26-‘바깥쪽 역시 깨끗해질 것이다’=고로 외면들이 순수해질 것이다.

계19:14-‘깨끗하고 눈부신 고운 아마포’=선으로부터 빛나고 진리들로부터 순수해짐. ‘깨끗함’=악으로부터 자유해 있는 것, 고로 선으로부터 빛나는 것.

겔39:12-‘그들을 매장하고, 토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그것들 모두를 파괴하고, 그것들로부터의 교회를 완전히 깨끗이 함.

시51:10-‘깨끗한 심정을 창조하는 것’=사랑의 선에 관련하여 개혁하는 것.

시24:4-‘깨끗한 손들을 가진 그 사람’=신앙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 그리고 ‘심정에서 순수함’=사랑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이들.

요2:6-‘유대인들의 정결케함’=죄들로부터 순수해짐, 고로 유대 교회의 모든 것들, 그 이유가 교회는 죄들로부터 순수해짐을 교회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로 중시하기 때문.

요13:10-‘씻은 자’=내면적으로 깨끗한 자. ‘자기 받을 씻는 것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다’=그 당시 그는 외면적으로 깨끗해 있다는 것.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계15:6-신성한 진리는 그것이 진짜이라는 사실로부터 ‘깨끗함’이라 불리운다.

눅11:25-‘집을 쓸었다’=진리들에 반대되는 생활

마23:26-‘잔과 접시의 안쪽을 깨끗하게 하는 것’=내면들, 즉 의지와 생각 속에, 고로 사랑과 신앙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순수하게 하는 것.

이4:4-‘깨끗해짐으로부터의 영’=영적 진리에 애착함.

시80:8,9-‘그것을 심는 것, 그것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뿌리를 깊게 하는 것’=질서에 따른 훈육, 이러하다: 첫째, 지식들을 붙여넣는다. 다음, 광야에서 그리고 시험받는다. 그리고 그 후에 가나안의 토지로 입장함, 즉 교회 안으로 입문됨. 이 세 단계가 위

깨어나다-깨어있다

구절에 의미되어 있다.

깨어 나다 (awake)

창9:24-‘노아는 그의 포도주로부터 깨어 났다’=그가 더 나은 가르침을 받았을 때.

창28:16-‘아침은 그의 잠으로부터 깨어났다’=계발됨... ‘잠으로부터 깨어나는 것’=계발되어지는 것.

창41:1-‘바로는 깨어났다’=자연 평면에서 계발되는 상태... ‘깨어나는 것’=계발되어지는 것.

마25:1-12-‘잠드는 것 그리고 깨어나는 것’=자연적 평면인 이세상에서의 인간의 삶, 그리고 영적 평면인 사후 인간의 삶.

깨어 있다 (awake, watch)

마25:13-‘그러므로 깨어 있으라’=신앙으로부터의 가르침에 따른 생활에 전념함, 이것이 깨어 있음이다.

창41:5-‘잠자는 것’=불분명한 상태, 그이유가 영적 의미에서 잠에 대한 더 이상의 의미는 없기 때문. 고로 깨어 있음은 명료한 상태. 진리들이 희미함 안에 있을 경우 영적 잠들어있고, 진리들이 명확해 있을 경우 영적 깨어 있음이다. 이는 영인의 경우도 완전 똑같다.

계3:2-‘깨어 있으라’=그들은 진리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는 것... 진리들을 배우고 그것에 따라 생활함은 잠에서 일어나 깨어 있는 것과 같다... 자연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이 있을 경우, 이는 깨어있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진리들로부터서만 올 수 있다.

계16:15-‘깨어 있고 자기의 의복을 간수한 사람은 복 있다’=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위한 천국... ‘깨어 있는 것’=영적으로 사는 것, 즉 진리들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그것들에 따른 생활을 꾸리는 것,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계3:2-‘깨어 있으라’=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생명을 포획해야 한다는 것. ‘깨어 있는 것’=영적 삶 안에 있는 것, 그러나 여기서의 경우, 도덕적 생활에 있고 영적 생활 안에는 있지 않은 이들이 취급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영적 삶을 포획해야 할 것. ‘깨어 나다’, ‘깨어 있다’가 이 삶을 의미하는 이유는 영적 삶과 영적인 것 없는 도덕적 삶의 관계는 깨어있음과 잠자고 있음의 관계와 같다.

마24:42-‘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이유가 너희는 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들에 의해 그가 죽을 때 사랑과 신앙에 관련된 인간의 상태가 뜻해진다. 그이유가 그다음 그의 심판 역시 있기 때문... ‘깨어있음’에 의해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음이 뜻해진다. 이는 영적인 생명이다. 그리고 ‘잠들’은 영적 생명이 결핍된 자연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뜻해지고 있다.

눅12:37-‘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을 발견하게 하면, 그 종은 복있다...’ 여기서 역시 ‘깨어 있음’에 의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이 의미되고 있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은 이들이다. 그이유는 이들이 야말로 신성한 진리들에 관한 총명과 지혜의 빛 안으로 오기 때문.

마25:13-‘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이유는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도 시간도 모르기 때문이다’=그들은 사랑 그리고 사랑으로부터의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이 소유하는 영적 생명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

눅21:36-‘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언제나 기도하고 있어라...’ 여기서 역시 ‘깨어 있다는 것’=영적 생명을 받는 것. ‘언제나 기도하는 것’=자신을 준비하는 것.

계16:15-‘보라 나는 도적 같이 온다, 깨어 있고 자기 옷을 간수하는 자는 복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주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는 것.

애2:9-‘일어서라, 경계들의 시작에서, 밤에 외쳐라...’ ‘밤’, 여기서=신앙 없는 상태. ‘경계들의 시작’=신앙이 개시하는 때, 고로 계발의 상태가 개시하는 때, 이는 인간이 영적으로 되어갈 때 존재한다.

계3:3-‘만일 그러므로 네가 깨어 있지 않다면’=만일 네가 영적 생명을 포획하지 못하면.

마24:25-이것은 ‘네 번째 경계(제 4시 경)’에서 거행되었다는 것, 이는 교회의 첫 상태를 의미했다. 즉 새벽이 나타나는 때, 아침이 꼭 있게 되는 때이다. 그이유가 이때서야 선이 진리를 통하여 행동을 시작하고, 그다음 주님의 강림이 거행되기 때문.

단4:13-‘지키는 사람과 거룩한 이가 천국으로부터 왔다...’

이29:8-‘배고픈 자가 꿈에서 먹는다, 그러나 그가 깨어

깨우다-깨뜨리다-깨뜨림-꺼내다-껍질

날 때 그의 혼은 단식했다...' '그가 깨어날 때'=선인 것의 본성이 열려질 때.

계16장-'깨어있는 자는 복있다'=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행복한 상태...'깨어 있다'=자신들을 위해 영적 생명을 포획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주님을 찾고 바라봄에 의해서 포획되어진다, 그이유는 주님 자신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인간이 주님으로부터의 생명 안에 있을 때, 그는 깨어 있음 안에 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으로부터의 생명 안에 있을 때, 그는 잠자고 있다. 바꿔말해, 인간이 영적 삶 안에 있을 때, 그는 깨어 있음에 있다. 그러나 영적 삶과 분리된 자연적 삶에 만 있을 때 그는 잠자고 있다.

깨우다 (rouse)

창49:9-'누가 그를 성나게 할 수 있을까?'=그는 지옥들에 있는 모든 것에서 안전하다는 것.

요5:21-'죽은 자를 깨우는 것'=생명으로 부활, 자연적 죽음 뿐 아니라 영적 죽음까지 포함해서 이다.

깨뜨리다 (break)

깨뜨림 (breach)

호2:18-'전쟁의 무기들이 부서짐'. 탐욕과 거짓들이 중지됨에서 인간에게 평화의 교요가 온다.

레21:19-'부러진 발과 손'=악용된 바깥쪽 예배에 있는 이들을 표현했다.,

이24:10-'망가진 텅빔의 도성'=진리가 박탈된 인간 마음.

민12:12-'뼈를 부러뜨리지 마라'= 최고 의미에서 신성한 진리에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그리고 표현 의미에서 어떤 선으로부터의 진리에도 폭력을 휘두르지 마라.

출22:10-'만일 그것이 죽거나 깨뜨림을 당했거나'=손실, 또는 상해. 말씀에서 '깨뜨림', '깨뜨러지는 것'=사라짐, 또한 상해.

이30:26=선생의 사악함으로부터, 현세에의 욕망으로부터, 여타 다른 원인으로부터 기어다니는 교리의 거짓.

이28:13-'깨뜨러지는 것'=진리들과 선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

출32:19= '그는 자기 손으로부터 돌판을 내던져 산 아래에서 그것들을 깨뜨렸다'=말씀의 바깥쪽 의미는 그 나라 때문에 바뀌고 달라졌다. '그것들을 자기 손으로부

터 내던져 깨뜨렸다'=순수한 바깥쪽 의미가 파괴되었다.

출34:13-'너는 그들의 (우)상들을 깨뜨릴 것이다'=악으로부터의 거짓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30:14-그들이 거짓들에 자신들을 완전히 담그어서 남은 진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웅기장이의 병들이 깨뜨려졌다'로 묘사되어 있다.

단8:8-'큰 뿔이 부러짐'=거기로부터 태어난 많은 거짓들로 나누어졌다.

예2:13-'물들을 담지 못하는 깨뜨려진 단지들'=자신의 총명, 즉 자아로부터 교리적인 것을 부화하는 것.

시51:17-깨뜨려진 영과 부서진 심정=시험의 상태, 그 결과 각각의 삶은 염치 없음.

창38:29-'너는 깨뜨려서 네 위에 깨뜨림이 있다'=가상적으로 선으로부터 진리가 분리됨.

이58:12-'깨뜨림을 고치는 것'=거짓들을 수정하는 것.

겔22:30-'깨뜨림에 서있는 것'=거짓의 침입에 맞서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

출19:22-'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깨뜨림을 만들지 않도록'=선으로부터의 분리...그 이유는 성직자들에 관해 말해졌기 때문.

출19:24-'그분이 그들에게 깨뜨림을 만들지 않도록'=진리와 선으로부터 분리...그 이유는 백성이 포함되었기 때문.

암9:11-'깨뜨림을 마감짓는 것'=(거짓들을 제거하는 것)

시50:2-'깨뜨림'=교회를 약해지게 함, 그 결과 진리가 악용되고 거짓이 쏟아져 들어 옴.

시144:14-'깨뜨림 없음'=그들은 시종일관 함.

꺼내다 (draw out)

이58:10-'혼을 배고픔으로부터 꺼내는 것'=일반적인 선행의 선들.

껍질 (peel)

창30:37-'그는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색을 내었다'=내면의 진리의 힘을 배치함. '껍질을 벗기는 것'=내면의 것들이 열려 놓이도록 외면의 것을 벗김.

경충 뛰다 (leap)

이35:6-'그는 수사슴 같이 뿔 것이다'=진리를 지각함

경충뒤다-깨느른한-꼬리

으로부터 오는 환희.

요4:14-‘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

깨느른한 (languid)

신7:15-‘여호와께서는 너희로부터 이집트의 모든 악한 깨느름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애5:17-‘깨느른한 심정’=더이상 선에 대한 의지가 없음.

이33:9-‘토지’=교회, 이것이 ‘통곡하고 깨느른하다’고 말해진다. 이는 거짓들이 진리로서 인정되어질 때이다.

이24:7-‘통곡하고 무기력(깨느른해)지는 것’=(교회의 진리들이) 박탈됨.

예15:9-‘일곱을 낳은 그녀는 깨느른해진다’=그 교회는 멸해질 것이다.

겔31:15-교회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있지 않을 것임이 ‘들판의 나무들이 그녀 위에서 깨느른할 것이다’로 의미되어 있다.

이19:8-‘슬퍼지는 것’ 그리고 ‘깨느른해지는 것’=노동하는 것.

이33:9-말씀의 자연적 감각으로부터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황폐됨이 ‘통곡하는 것, 깨느른해지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24:4-교회의 황폐함이 ‘통곡하는 것’, ‘지겨워지는 것’, ‘깨느른해지는 것’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꼬리 (tail)

출4:4-‘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것을 꼬리를 수단으로 잡으라’=감각적 평면의 최말단을 수단으로 승강하는 힘. ‘뱀의 꼬리’=감각적 평면의 최말단. 그것의 ‘꼬리’=거기서 최말단, 또는 가장 낮은 것. ‘뱀의 꼬리’에 의해 거짓 자체가 의미된다. 그 이유가 이것이 (그 감각 평면의) 최말단, 또는 가장 낮은 것이기 때문.

계9:10-‘전갈을 닮은 꼬리, 꼬리에 쏘는 것이 있다’=거짓들로부터의 교묘한 추론들.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설득하고, 상해를 입힌다.

계9:19-‘꼬리들은 뱀 같다’=거짓들로부터 추론함, 이를 수단으로 상해가 입혀진다. 이것이 한층 더 심한 이유는 그것들은 ‘말들의’ 꼬리들이었고, ‘그들은 머리들을 가졌다’라고 말해졌기 때문이다.

계12:4-‘용의 꼬리’=거짓들로부터 추론함.

이19:15-‘머리와 꼬리’=(교회의 내면과 외면).

출29:22, 레3:9-‘꼬리’=(천국들에 있는) 모든 진리. 그 이유가 ‘숫양의 꼬리’=진리(이기 때문). ‘꼬리’=진리인 이유는 이것이 최말단이고, 최말단에 진리가 있기 때문. 더욱이 꼬리는 대뇌와 소뇌의 최말단이다. 그 이유가 이것들은 척추골로 계속되어 내려가고 그 끝이 꼬리이기 때문이다. 고로 꼬리는 그것들의 최말단 충양돌기이다. 그러므로 말해지는바, 제물에서 ‘꼬리는 등뼈 근처에서 제거되어졌다’

계9:10-‘그것들은 전갈 같은 꼬리를 가졌다’=왜곡된 말씀 속의 진리들,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이해성을 무감각해지게 유인해낸다. ‘꼬리’에 의해 머리의 최말단이 의미되는데, 그 이유는 뇌는 척추를 통하여 꼬리에까지 계속되어지기 때문이어서이다. 그러므로 머리와 꼬리는 처음과 마지막으로 하나를 만든다. 그러므로 ‘머리’에 의해 믿음 만으로 의미를 의미할 경우, ‘꼬리’에 의해서는 말씀으로부터 있는 전체로서, 고로 왜곡된 말씀 속의 진리들로부터 믿음만의 교리를 확증해줌을 의미한다.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종교의 원리를 가져오는 이들,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 삼는 이들은 말씀으로부터 확증하는 뭔가를 가져간다, 그리고 그것을 꼬리로 놓는다. 꼬리는 뇌가 척추를 통해 계속된 최말단인바, 꼬리를 가진 짐승인 개를 살펴보면, 만일 우리가 개를 어루만져주어 달래면, 그의 등은 편편해 있고, 만일 성나게 건들면, 그의 등은 굽어져 일어남을 관찰 할 수 있다.

계9:10-‘그들의 꼬리에 쏘는 것이 있었다’=말씀의 왜곡이 교활함. (그이유가) ‘꼬리들’=왜곡된 말씀 속의 진리들(이기 때문).

계9:19-‘그이유가 그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머리들을 가졌고, 이것들로 그들은 다치게 했다’=그들은 감각적이고, 거꾸로 있고, 입으로 진리들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들 종교의 교리의 머리를 만드는 원리로부터 진리들을 왜곡해버린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사기를 친다.

계12:4-‘그의 꼬리는 하늘의 별들 삼분의 일을 끌어내려 땅으로 내던졌다’=말씀 속의 진리들을 왜곡함을 수단으로 그들은 교회로부터 선과 진리에 대한 모든 영적인 지식들을 멀어지게 했다, 그리고 거짓들에 말씀을 응용함으로 말씀 속의 진리들을 깡그리 파괴했다.

꼬부라진-꼭대기-꿀-꽃는 구멍-꽃이 피다

꼬부라진 (crooked)

사5:6-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악용되어진 것이 '꼬부라진 길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27:1-'리위야단, 꼬부라진 뱀'=교묘한.

사5:6-'꼬부라진 길에서 가는 것'=진리들로부터 떠나 배회하는 것.

꼭대기 (top)

창49:26-'나지르인의 머리의 관'=외면의 것들

창49:26-'그의 형제의 뽑힌 자의 머리의 관'=그 교회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 안을 흐르는 영적 왕국.

이3:17-'벗어지게 만들 머리의 관'=이 교회에서 박탈 될 총명.

신33:16-'그의 형제의 나지르인의 머리의 관'=외적 인간 속에 있는 총명과 지식

호4:13-'산 꼭대기에서 제물을 바치는 것'=자아 사략 으로부터 예배함.

신33:20-'머리의 관'=내적 진리

암1:2-'갈멜(산)의 꼭대기'=교회의 진리들, 그 이유는 갈멜에 포도원들이 있었기 때문.

꿀 (fodder)

창24:25-'짚'=과학적 진리들. '많은 꿀 까지'=그들의 선들.

창24:32-'그는 낙타들에게 짚과 꿀을 주었다'=진리들과 선들을 가르침. '짚'=자연적 인간의 진리들. '꿀'=거기에 있는 선들.

창42:27-'나귀에게 꿀을 주는 것'=과학물들을 곱씹어 보는 것. 그 이유가 꿀은 나귀의 양식이고 이는 짚과 겨로 구성되어있기 때문.

창43:24-'그는 그들의 나귀들에 꿀을 주었다'=선에 관한 가르침. '꿀을 주는 것', 이는 먹이는 것,=이 선을 가르치는 것. 과학물로부터의 선은 과학적 진리들로부터의 즐거움이다.

꽃는 구멍 (socket)

출28:11-'꽃는 구멍을 금으로 에워싸라, enclosed in ouches of gold'=선으로부터 계속되는 것, 그리고 그것 으로부터 존재를 파생시키는 것.

출28:14-'꽃는 구멍(ouches)을 금으로 (들썩워 박으라)'=선과 진리로부터의 존재와 생존.

출28:25-어깨 위에 있는 '꽃는 구멍(ouches)'=선으로부터의 진리의 존재와 생존.

꽃이 피다 (flower)

창40:10-'거기로부터 꽃이 올라왔다'=거듭남 근처에 와있는 상태. (그이유가) 열매에 앞서 나무로부터 올라 온 꽃=거듭남 앞의 상태. 잎이 무성한 싹은 첫 번째 상태를 표현한다. 두 번째 상태는 개화기, 또는 거듭남 앞의 중간에 해당하는 상태. 그리고 세 번째 상태는 결실. 이로부터 잎=총명 속의 것들, 즉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그리고 꽃들은 지혜 속의 것들, 즉 신앙으로부터의 선들, 그 이유는 이것들은 거듭남으로부터 직접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매들은 생활 속의 것들, 즉 선행의 일들이다.

왕상6:29-그룹들, 종려나무들, 그리고 성전의 벽에 꽃들이 있다=섭리, 지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총명, 고로 천국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꽃에 의해 그분 으로부터의 진리 속에 있는 총명이 표현되었다.

출25:31-'그것의 꽃들'=진리의 과학물들. '꽃들'=진리의 과학물인 이유는 꽃들은 열매에 앞서 내밀어진 것들이기 때문, 그리고 그들의 진로에서 열매와 씨들을 생산하기 때문. 이 경우는 총명과 지혜에 관련하여 인간 과도 비슷하다. 진리의 과학물이 먼저 진행되고, 그들의 진로에서 인간과 더불어 지혜 속에 있는 것들을 생산한다. 이로부터 진리의 과학물은 꽃과도 같다. 그리고 생활의 선, 이는 지혜의 선인데 열매와 같다. 이로부터 꽃=진리로부터의 과학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리들, 그리고 열매들은 선들임을 알 것이다.

이35:1,2-진리들로 혼욕됨 으로부터 그리고 계몽됨 으로부터 와지는 그들의 환희가 '즐거워하는 것', '무척 기쁜 것', '꽃피는 것'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28:1-'시드는 영광의 꽃'=교회의 진리가 그것의 출생에서 파괴되었다.

이40:6,7-그당시 인간과 더불어 어떤 과학적 진리도, 어떤 영적 진리도 있지 않을 것임이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모든 그것의 거룩함은 들판의 꽃 같다. 풀은 시든다, 꽃이 진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풀'=과학적 진리. 그리고 '들판의 꽃'=영적 진리.

단4:12-'거기로부터의 잎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꽃은

피다-꾸머낸 일-꾸밈

많았다=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과 애착들, 그리고 파생되는 총명.

민17:8-아론의 막대기가 꽃이 피고 아몬드들(almonds)을 생산한 이유는 그의 막대기가 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표현했기 때문. 그리고 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진리 만이 선행의 선인 열매를 생산한다. 따라서 그의 막대기는 꽃이 피었고 아몬드들을 생산했다.

피다 (allure)

출23:33-‘그것은 너희에게 울무 일 것이다’=악들의 피임과 사기.

꾸머낸 일 (figment)

창6:5-‘심정의 생각들이 꾸머낸 일’=선과 진리를 지각함이 없다...죽이고야 말 설득함들이 여기서 ‘심정의 생각들이 꾸머낸 일’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그러나 생각들이라는 표현을 뺐을 경우, 즉 ‘심정이 꾸머낸 일’=자아 사랑, 또는 탐욕들로부터의 악.

창8:22-‘인간의 심정이 꾸머낸 일은 그의 어린 시절로부터도 악하다’=인간의 자발성은 모두 악이다.

꾸밈 (ornament)

단8:9-‘영광’=진리의 상태.

예48:17-‘아름다운 막대기’=진리로부터의 힘.

이52:1-‘아름다운 의복’=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이63:15-‘영광스러운 처소’=영적 천국 속의 이들이 있는 천국.

단8:9-‘영광을 향하여’=교회에 맞서.

출28:2-‘영광을 위해, 그리고 아름다움을 위해’=내적 그리고 외적 형체에서 천적 왕국에 결합한 영적 왕국에서 있는 것과 같은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는 것. ‘아름다움’=외적 형체에서의 신성한 진리. 그이유가 외적인 것들에서 나타나는 신성한 진리의 아름다움과 광휘가 ‘아름다움’에 의해 의미된다. 이로부터 내적 의미에 있는 말씀은 ‘영광’이라 불린다.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파생된 광휘와 아름다움에 상대적으로 말할 때 ‘아름다움’이라 불린다.

애2:2-‘이스라엘의 아름다움’=영적 교회, 이 교회가 진리의 광휘와 아름다움으로부터 ‘아름다움(또는 영광)’이라 불린다.

단11:16-영광의 토지=신성한 진리, 또는 말씀이 있는

주님의 교회.

이28:5-‘꾸민 왕관(crown)’, 그리고 아름다운 왕관(diadem). ‘꾸민 왕관’=선 속에 있는 지혜. ‘아름다운 왕관’=진리 속에 있는 총명.

이62:3-‘여호와와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 그리고 네 하느님의 손에 있는 왕국의 왕관.’ ‘아름다운 왕관’=선 속에 있는 지혜, 그리고 ‘왕국의 왕관’=진리 속에 있는 총명.

예13:18-‘네 아름다운 왕관’=신성한 진리로부터 선 속에 있는 지혜. 그 이유가 ‘아름다움’=교회의 신성한 진리.

출28:40-‘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아름다움을 위하여’=영적 교회의 진리.

겔16:12-‘아름다운 왕관’=영적 선, 이는 진리의 선이다. ‘왕관’=선, ‘아름다운’=영적인 것.

시45:3-‘네 영광과 영예에서 네 넓적 다리에 네 검을 차라’...‘영광’에 의해 신성한 진리가, ‘영예’에 의해 신성한 선이 의미된다.

시89:17-‘당신은 그들의 힘의 광휘이시기 때문’...말씀에서 ‘광휘(영광)’은 교회에 관련된 것, 그리고 거기 있는 진리로부터의 교리에 관련된 것을 서술한다.

단8:9-‘동쪽’, 그리고 ‘영광’=선이 진리를 통하여 그것의 명료함에 있는 곳.

이60:7-‘나는 내 영광의 집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주님의 신성한 인간 안에 그들은 있을 것이다...‘영광의 집’=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그분의 신성한 인간.

이64:11-‘우리의 아름다움’=영적 교회.

이4:2-‘여호와와 어린 가지가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해 있을 것이다’=진리가 교회에서 새로이 출생될 것이다...모든 아름다움은 진리에 대한 영적 애착과 그 결과인 결합으로부터 존재하고 그와 달리는 아름다움이 없는바 ‘우리의 수치를 거두어다오’라고 말해진다. (이4:1)

예48:17-‘힘의 막대기’=자연적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 ‘아름다움의 막대기’=영적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

시78:61-‘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적들의 손에 주었다’=영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연적 진리. 이것이 ‘영광’에 의해 의미된다. 그리고 악들에 의한 그것의 파멸이 ‘적의

꾸짖다 - 꿀

손에 주어지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겔7:20-그의 장식품의 '아름다움'=교회 그리고 그것의 교리.

꾸짖다 (scold, rebuke)

창37:10-'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성냄.

이50:2-'여호와와의 꾸짖음'=모든 진리가 황폐함. (=교회의 파멸)

시76:6-'아굽의 하느님의 견책'=스스로 자기들의 상태를 거꾸로 함.

시18:15-이 파멸은 신성한 것들에 맞서는 악한 자의 격노함과 중요함으로부터 이다는 것이 '당신의 견책을 인하여, 오, 여호와여'에 의해 의미된다. '견책', 그리고 '여호와와 쿠투명의 숨'에 의해 그분의 노염과 분노가 의미된다. 이는 나타남에 의거 말해지는 표현이다.

이37:3-이것이 심정과 지성의 슬픔이었다는 것, 교회에게는 창피한 것이라는 것이 '곤란, 책망, 오만 무례함의 날'로 의미되어 있다.

꾸짖다 (reprove)

요3:20-'그의 일들이 꾸짖어지지 않도록'

계3:19-'내가 사랑한 만큼, 나는 꾸짖고 징벌한다'=시험들.

꿀 (honey)

슌20:17-'꿀과 버터의 강들'=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

이7:15-'꿀과 버터를 먹는 것'=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 ('꿀'=천적 평면으로부터인 것).

겔16:13-진리와 선에 대한 그것의 애착들이 '고운 곡분 가루', 그리고 '꿀', 그리고 '기름'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7:22-'꿀'=거기로부터의 행복한 것.

겔27:17-그들의 행복한 것이 '꿀'이다.

창43:11-'유향(resin) 조금과 꿀 조금'=외면의 자연적인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그리고 그것의 즐거움.

이7:22-'꿀'=그들로부터인 것, 고로 행복한 것, 유쾌한 것, 기쁜 것.

겔16:13-'꿀'=(영적 평면)으로부터의 유쾌함.

겔27:17-'꿀'=천적인 선들과 진리들, 그리고 영적인 선들과 진리들을 배우고 앎에 대한 애착들로부터의 즐거움과 유쾌함.

신32:13-'바위로부터 꿀을 빼는 것'=과학적 진리들로부터의 즐거움.

시81:16-'바위로부터의 꿀을 가지고 그들은 만족시키는 것'=신앙 속의 진리들로부터의 즐거움.

신8:8-'기름의 올리브와 꿀의 토지'=영적 선과 그것의 유쾌함.

시19:10-'꿀과 송이꿀 보다 더 달다'=선으로부터의 즐거움 그리고 진리로부터의 유쾌함.

마3:4-'그의 식품은 메뚜기들과 들꿀이었다'=말씀, 선에 관련한 글자적 의미에 있는 말씀. 그것의 즐거움이 '들꿀'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겔3:3, 계10:9,10-외적 의미 측면에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부터 얻게 되는 즐거움이 '꿀'로 묘사되고 있다... 외적 형체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즐거움게 나타난다는 것이 (책울) 맛봄이 '꿀 같이 달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레2:11-'꿀'=선과 진리로부터 있는 즐거움, 또는 그것들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있는 즐거움. 그리고 특별하게는 그것=외적인 즐거움. 고로 외면적 자연 평면의 것. 이 즐거움은 감각적인 것들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있는 것과 같은 바, 그리고 그것 안에 세상 사랑으로부터의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바, 식사 공물(meat-offering)에서 꿀의 사용이 금하여졌다. 거기서 '꿀'=외적인 즐거움, 이것에는 세상 사랑의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마치 누룩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금하여졌다.

신32:13-고대 교회의 다양한 선들이 '꿀', '기름', '버터', '지방'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출3:8-'젖과 꿀이 흐름'=과생되는 유쾌함과 즐거움... '꿀'=즐거움.

출16:31-'그것의 맛은 꿀을 섞어 만든 과자였다'=선, 그것은 즐겁다. 이는 즐거움을 수단으로 진리로부터 만들어진 선과 같다. '꿀'=자연적 즐거움.

출33:3-'젖과 꿀이 흐르는 토지로'=신앙의 선과 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유쾌함과 즐거움. '꿀'=천적인 선, 이는 사랑의 선이다.

출16:31-'꿀'=그것의 외적인 즐거움.

예41:8-'꿀'=그것으로부터의 즐거움.

꿈

겔27:17-‘꿀’=자연적 인간에 있는 사랑의 선.
 눅24:42-‘꿀’=진리를 있게 하는 선에 관련한 자연 평면.
 겔16:13-‘꿀’=자연적 선, 또는 외적 인간의 선.
 이7:22-‘버터와 꿀을 토지에 남겨진 모든 이가 먹을 것이다.’ ‘버터와 꿀’=영적 선과 자연적 선.
 계10:9-‘네 입에서 꿀 같이 달 것이다’=외면의 즐거움... ‘꿀 같이 달다’=자연적 선의 즐거움.
 이7:15-‘꿀’=자연적 선의 즐거움...가나안의 토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토지’라 불려졌다..그것들의 즐거움들과 함께 이 선들은 ‘젖과 꿀’로 의미되어지고 있다.
 삼하14:25-29-주님의 교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가나안에 많은 꿀이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로부터 미루어 알 수 있다.
 신32:13-‘꿀’=자연적 사랑의 즐거움.
 시81편-‘바위로부터 꿀’=주님으로부터 진리들을 통하여 있는 자연적 선의 즐거움.
 신8:8-‘기름과 꿀’=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에 있는 사랑의 선.
 사14:8,9-‘삼손은 사자의 시체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했다.’ 이 대목이 의미하는바, 이 신앙이 사라진 후, 그것 대신에 그 자리를 선행의 선이 계승한다는 것이다.
 계10:10-‘그것은 내 입에서 꿀 같이 달았다’=글자 의미 측면의 말씀은 아직까지는 선의 즐거움으로 지각되어졌다.
꿈 (dream)
 창20:3-‘밤에 꿈에서’=희미한 (지각). 지각이 취급되어질 때, ‘꿈’=깨어있음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희미한 어떤 것, 게다가 ‘밤에 꿈에서’라고 말할 경우, 더 한층 희미한 어떤 것을 뜻한다.
 창28:12-‘(야콥은) 꿈을 꾸었다’=미리 봄. ‘꿈꾸는 것’=미래의 것을 미리 말하는 것. 그 이유가 예언적인 꿈, 이는 신성이었는바 미래의 것들을 예언함이었다... 이런 것들이 ‘꿈’과 ‘꿈을 꾸는 것’에 의해 내적 의미에서 의미되는바, 꿈이 주님을 취급할 경우, 이는 최고 의미에서 예언이 의미된다. 그 이유가 예언들은 주님의 신성한 예언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창31:10-‘나는 내 눈을 들어올렸고 꿈에서 보았다’=불

명료한 것에서 자연적 선이 지각함. ‘꿈에서’=불명료한 것에서.
 창31:11-‘그리고 하느님의 천사가 꿈에서 나에게 말했다’=신성으로부터의 지각, 그리고 희미한 것에서 현존함.
 창31:24-‘하느님께서 밤중에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오셨다’=그자체로만 남아있을 때 이 선의 희미한 지각... ‘밤중에 꿈’=희미한 것.
 창37:5-‘요셉은 꿈을 꾸었다’=그분 자신에 관하여 설교함. ‘꿈을 꾸는 것’=설교하는 것. 그리고 이 꿈이 요셉을 취급하는바, 이것=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하여 설교하는 것. 여기서 ‘꿈’=설교인 이유는 요셉의 두 번의 꿈에서 요셉에 관하여 모든 것이 미리 보여지고 설비되어졌기 때문. 고대 시대 때에, 신성한 진리들은 언어, 환상, 때로는 꿈에서 명백해졌다. 이로부터 신성한 진리가 말이나 환상들, 꿈들을 수단으로 예언자들에게 명백해졌는바, ‘예언자’=진리들을 가르치는 자, 또는 추상적 의미에서 교리 속의 진리들을 의미하고 있다.
 창37:19-‘꿈들의 이 주인이 온다’=이런 것들이 헛되다는 것. ‘꿈들’=설교들. 여기서, 신성한 진리를 설교함, 그이유는 이것이 요셉을 두고 말해졌기 때문. 그러나 신성한 진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됨이라는 교리에 있는 이들에 의해 그것의 본질 측면에서 거절될 경우, 여기서와 같이 ‘꿈들’=헛된 것들. 그리고 ‘꿈들의 주인’=그들의 설교자.
 창40:5-‘그들은 모두 꿈을 꾸었다’=이런저런 것들에 관한 예언...‘꿈’, 최고 의미에서=예언인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하여 직접 흘러드는 꿈들은 미래의 것들을 말하기 때문, 마치 이 대목의 술 담당 신하와 빵 담당 신하의 꿈, 그리고 바로의 꿈들, 느부갓네살의 꿈,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언적인 꿈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창41:1-‘바로가 꿈을 꾸는데’=자연 평면에 관련하여 설비되는 것. ‘꿈꾸는 것’=미래의 것들에 대한 예언. 고로 최고 의미에서 예언. 따라서 그것=예언, 미리보는 것인바, 그것은 또한=섭리, 설비되는 것, 그이유가 이것은 저것 없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창41:11-‘우리는 한 밤에 꿈을 꾸었다’=희미한 상태에

꺾매다-꺾찌르다-끈-끊다

서 예견된 것.

창43:9-‘요셉은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을 기억 해냈다’=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이 자연 평면에 있는 교회의 일반적 진리들에 관련해 무엇이 발생할 것인지를 미리 보았다는 것. ‘꿈들’=예견, 예언, 사건.

신13:1-‘만일 너희들 중에서 예언자, 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면...’ ‘꿈꾸는 자’=뭔가를 하도록 부추키는 자. 추상적 의미에서 행해지게 하는 원인인 선동함, 자극함...예언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음성을 수단으로 가르쳐졌다, 그리고 꿈장이들은 행동 쪽으로 자극하는 표징들을 수단으로 했다. 이것들이 꿈장이의 애착안으로 흘러들고 이로부터 생각의 시야로도 흘러들었다. 그 이유가 인간이 꿈을 꿀 때, 그의 자연적 이해성은 잠잠해지고 애착으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내는 그의 영적 시야가 열리어지기 때문.

이29:8-배고픈 자가 꿈에서 먹는다’=선에 관하여 오류적인 견해와 신앙.

꺾매다 (sew)

창3:7-‘있을 꺾매는’ 것=변명하는 것

눅5:36-‘이것을 다른 것에 합치거나 꺾매는 것은 둘 모두를 파괴한다.

꺾찌르다 (pierce)

계1:7-‘그분을 꺾찌른 자들’=교회에서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이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꺾찌르는 것’=말씀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옆구리를 꺾찌르는 것’=신성한 진리를 영적, 자연적 측면 모두에서 거짓을 수단으로 파괴하는 것, 고로 말씀의 영적 의미, 자연적 의미 모두를 파괴하는 것.

* ‘그들이 그분의 옆구리를 꺾찢었다’는 것은 말씀 속의 모든 진리, 모든 선을 완전하게 소멸시켰다는 것.

끈 (band, bandage)

겔34:27-‘멍에의 끈들’=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의 악의 기쁨, 이 기쁨은 그들로 계속 억매여 있게 한다.

눅2:11,12,16-‘너희는 강보에 싸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발견할 것이다.’...‘강보로 싸다’라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강보’=첫번째의 진리들, 이 진리는 순진으로부터

의 진리들, 또한 이 진리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진리들이기 때문. 유아에 관련되는 별거벗은 진리를 빼앗김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왜 천사가, ‘너희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발견할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시일 것이다’라고 말했는지를 분명히 알 것이다.

끈 (cord)

예10:20-‘커튼들과 끈들’=천적인 것들로부터의 영적인 것들.

이44:2-‘긴 끈들’=진리들의 충분한 연결.

이33:20-‘끈들’=결합하는 것들.

출28:14-‘새끼 끈 끄는 일로’=결합의 방법.

이5:18-‘덧없음의 끈들’=거짓들의 결합들, 이를 통하여 불법이 오고, 생활의 악이 온다.

출28:22-‘새끼 끄는 일로’=분리시킬 수 없는 결합.

예10:20-‘끈들이 뜯겨져 나갔다’=더 이상 선과 진리의 결합이 없다, 또는 진리들 서로와 서로 사이에 더 이상 결합이 없다.

시18:5-‘끈들, 그리고 죽음의 올라미들’=시험들, 이는 지옥으로부터인 바, ‘지옥의 끈들’이라 불린다.

시118:27-‘끈들로 묶는 것’=결합하는 것.

이54:2-‘끈들을 길게 하는 것’=그것들의 확장.

끊다 (cut off)

베다 (cut)

중단하다 (cut off)

이 9:10-‘돌을 자르는(hewn) 것’=창안한 것.

출20:22-‘너는 그것들을 잘라서(다듬어서, hewn) 건축 하지 말라’=자신의 총명으로부터는 안된다. ‘다듬은 돌들’=인간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것들. 그 이유가 ‘돌들’=진리들, 그리고 베는 것, 또는 그것들에 맞추는 것=부화하는 것, 진리들을 고안해내는 것, 또는 자아로부터, 또는 인간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같은 것. 인간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고안해낸 것은 인간으로부터 생명을 가진다. 이 생명은 생명이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의 자아는 악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 예 배되어져야 하는 진리들은 말씀으로부터서만 가져와져야 한다. 진리들이 자아로부터 취해질 때, 그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듯 자아 위엄과 지상적 소유와

끊다

부 자체가 생명의 목적으로 가지게 된다. 그리하면 복합체 안의 모든 악이기도 한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신19:5, 예46:22,23-‘나무를 자르는(hewn) 것’=일들에 공적을 놓는 것. 그러나 ‘숲에서 나무를 자르는 것’=그 것들, 그것들과 비슷한 것에 대해 토의하는 것, 또한 그것들을 물어봄의 주제로 만드는 것. 그 이유가 ‘숲’=종교적인 것이기 때문. 이와 같은 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도끼를 가지고 숲에서 나무를 베는(hewn)’것에 의해서도 의미되고 있다. 즉 ‘이집트의 품꾼들이 힘으로부터 나가서 벌목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나, 그들은 자기들의 숲을 베어뜨릴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여기서 ‘숲에서 나무를 베어뜨리는 것’=거짓 광신적 신앙으로부터 행동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것들을 파괴하는 것. 그 이유가 교회는 지식들로부터 ‘숲’이라 불리우는데, 그이유는 ‘나무들(trees)’=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과 지각이기 때문.

이22:16-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이런 것들을 만듬이 ‘쫓아냄’ 그리고 ‘잘라냄’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예48:37-‘모든 손들 안에 베어진 것들’=왜곡한 것들.

출29:17-‘너는 숫양을 조각으로 자를 것이다’=내면의 것들이 질서 있게 구분하여 배열됨. ‘조각으로 자름’=내면의 것들을 순서있게 배열함.

예34:18-‘두 부분으로 잘라온 송아지’=이쪽 측면에서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선, 다른쪽 측면에서 인간에 의해 받은 선, 이로부터 결합이 온다.

출14:16-‘바다를 가름’=그 결과 거짓이 흩어짐.

출14:21-‘물들이 베어짐’=진리로부터 분리되고 제거됨. 그이유가 ‘물들을 가르는 것’=거짓의 분리와 흩어짐이기 때문.

호13:8-탐욕과 거짓이 그들을 파괴할 것임이 ‘들짐승이 그들을 찢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왕상13:3-예배가 전혀 없다가 ‘제단이 찌짐’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출4:25-‘그녀는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랐다’=육욕적 사랑들을 제거함. ‘잘라냄’=제거함.

이9:20-‘그는 오른손에서 자를 것이다.’=...쪽으로 문의 하는 것.

단9:26-‘메시아가 끊길 것이다.’

단4:14-‘나무를 베어 쓰러뜨릴 것이고 가지들을 잘라낼 것이다.’

창9:11-‘모든 육은 홍수의 물로 더 이상 잘라내지지 않을 것이다’=그들은 태고 교회의 마지막 후손이 멸해 지듯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요나2:6-‘내가 산들의 절단함 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주님의 시험들이 묘사되어 있다.

창17:14-‘혼이 그의 백성들로부터 잘라내질 것이다’=영원한 죽음. ‘백성들’=진리들에 있는 자, 즉 천사들, 그리고 혼이 그들로부터 잘라내진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 또는 영원한 죽음에 멸해짐이다.

출23:23-‘나는 그를 잘라낼 것이다’=주님께서 교회에 침입하는 악들과 거짓들에 맞서 보호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실 때... ‘잘라내는 것’=보호하는 것, 고로 제거하는 것. 지옥이 제거되는 유일한 때는 주님에 의해 천국을 보호하심을 강구하실 때이다.

출32:16-‘필체는 돌판 위에서 잘라내는 하느님의 필체였다.’ ‘돌판 위에서 자름’=외적인 것 위에 있는 내적인 것, 또는 외적인 것 안에 있는 내적인 것.

호10:7-‘사마리아가 잘라진다.’

암3:14-‘제단의 뿔들이 잘라질 것이다.’

예47:4-‘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남아 있는 도와줄 자를 끊어버리는 것’=그들은 진리와 선의 어떤 지식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

예33:17-‘이스라엘의 집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그 당시에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가 영구히 교회에서 통치할 것이다.

예2:13-‘구덩이를 파는 것, 물을 담지 못할 터진 구덩이’=인간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교리적인 것들을 부화하는 것.

시88:5-‘당신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자, 당신 손으로부터 잘라진 자’=모든 진리와 선이 박탈된 자.

레16:22-‘끊어짐의 토지, 그리고 광야’=지옥.

애3:9-‘다듬은(잘라낸) 돌’=인간 자신의 총명에 속하는 이런저런 것들. ‘다듬은 돌’이 이런 의미를 가지기에, 다듬은 돌로 제단을 세우는 것은 금하여졌다.

끌어내다

이5:2-‘그는 그 안에 포도즙들을 짜다(hew out).’

예10:3-‘그가 숲에서 베어낸 나무, 그리고 도끼를 가진 인부의 손의 일’=악, 이로부터 예배가 있다, 이 예배는 인간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거짓들을 통하여 틀을 갖추었다.

창41:36-‘이 토지는 흉년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인간이 진리의 결핍을 통하여 멀해지지 않도록...‘끌어지는 것’=멀하는 것.

출8:9-‘너로부터, 그리고 네 집으로부터 개구리들은 끊길 것이다’=추론들이 중단될 것이다...‘끊는 것’=중단하는 것. 그 이유가 ‘끊는 것’은 개구리들을 서술하기 때문, 그리고 중단하는 것은 추론들을 서술하기 때문.

겔14:21-‘사람과 짐승을 그것으로부터 끊는 것’=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선이 황폐되는 것.

출9:15-‘너는 땅으로부터 절단될 것이다’=더 이상 교회의 것들을 수단으로 어떤 소통도 있지 않을 것. ‘절단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것들에 관해 말해질 때, =분리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분리될 때, 또는 교회의 것들을 수단으로 천국과의 교통이 더 이상 없을 때, 인간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절단되어지는’ 것이다.

출12:19-‘혼이 이스라엘로부터 끊길 것이다’=그는 영적 교회에 속해 있는 이들로부터 분리되어질 것,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것. ‘끊기는 것’=분리되는 것, 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출30:33-‘그의 백성들로부터 잘리울 것이다’=분리와 영적 죽음. ‘잘리워지고 죽이는 것’=선 안에, 이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리고 영적 생명에 관련하여 멀해지는 것.

출30:38-‘그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잘리울 것이다’=천국과 교회로부터 분리함, 그리고 영적 죽음. 그것=천국으로부터 분리함.

출31:14-‘그 혼은 백성 한가운데로부터 잘리울 것이다’=천국과 교회는 그와 더불어 있지 않다, 대신 지옥.

출34:13-‘너는 그의 작은 숲을 베어뜨릴 것이다’=그들의 교리적인 것들은 지독하게 거절되어진다는 것.

이48:19-‘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여호와 앞에서 멀해지지 않을 것’=결합이 결과되게 하는 상태의 품질, 이 상태는 교회에 속하는 이들의 영적 상태이다.

겔25:16-‘나는 그렛 사람을 끊을 것이다.’

슌1:3-‘토지의 표면으로부터 사람을 끊는 것’=진리와 지혜에 대한 애착을 [끊는 것.]

암3:14-‘악의 거짓들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이 ‘제단의 뿔들이 잘려져 땅에 떨어질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슌9:10-그당시 유대인들 사이의 교회에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임이 ‘나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를 수단으로 거기에서는 교리 안에 어떤 진리도 없고, 진리에 대한 이해함도 없고, 그 결과 거짓에 맞서는 어떤 전투나 저항도 없을 것이 의미되어 있다.

눅:714-삼년 동안 그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발견치 못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자르자고 포도원지기에 말했다. 이는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이 나라와 더불어 자연적 선이 없었다를 의미한다.

이37:24-‘산들의 높은 곳으로, 레바논 쪽으로, 그리고 그의 드높은 삼목을 베어뜨리고, 그리고 품질 좋은 전나무(를 베어뜨리고)’=교회 속의 선들과 진리들을 내적, 외적 측면 모두에서 파괴하려 애씀.

예9:21-‘어린 아이를 도로로부터 끊고, 젊은이를 늙은 장소로부터 끊는 것’=성장하는 진리를, 태어나는 진리를 황폐하게 하는 것.

이9:14-‘그는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를 자를 것이다’=모든 총명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그들로부터 멀해질 것이다.

예49:26, 50:30-거짓을 향한 진리의 방어는 없게 될 것임이 ‘모든 용사는 끊길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레20:3-이 거짓이 말씀과 교회 속의 모든 선에 파괴적이라는 것이 ‘나는 내 얼굴을 이 사람에게 맞서 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자기 백성들 한가운데로부터 자를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끌어내다 (draw)

요12:32-주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에게 끌어내신다는 것, 이렇게 가르치신다. ‘만일 내가 땅으로부터 높여질 것이라면, 나는 나 자신에게 모든 이를 끌어낼 것이다.’

끓이다 (seethe)

끓이다-끝-끝내다-끝머리-나 -나가다

출16:23-‘끓이는 것’=진리의 결합을 위해 준비함.
출34:26-‘너희는 염소 어미의 젖에서 그 새끼를 끓이지 말라’=뒤의 상태 속의 순진의 선은 앞의 상태 속의 순진의 진리와 뒤섞여져서는 안된다는 것.
끝 (end)
 * intend, purpose, church, consummate, evening, extreme도 참조.
창6:13-‘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왔다’=인류는 멸해질 수밖에 없다.
이54:12-‘경계(선)’=과학적이고 감각적인 것.
예25:33-‘땅의 끝으로부터 땅의 끝까지’=교회와 교회에 속하는 모든 것.
이41:5-교회의 마지막 경계(선)들이 ‘땅의 끝들’이라 불린다.
마24:13-‘끝까지 보존하는 자는 구원될 것이다’=선행 안에 있는 이들의 구원. ‘끝까지 보존하는 자’=피임 당하는 고통에 자신을 시달리게 하지 않은 자, 유혹을 아예 쳐다보지도, 안중에 없던 자, 고로 시험들을 산출하지 않은 자.
마24:14-교회가 이 상태에 있을 때,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출13:20-‘광야의 끝에서’=시험들의 첫 상태...이 상태가 광야의 끝에서 개시되었는바, ‘광야의 끝’에 의해 첫 상태가 의미된다.
신33:17-‘땅의 끝들’=교회가 있는 모든 방면에서.
계2:26-‘끝까지 간직하는 것’=죽음에 이르기 까지 (사랑과 신앙 안에서) 보존하는 것.
겔7:2-‘끝이 땅의 네 방위에서 오고 있다’=끝을 맞이한 교회의 마지막 때와 상태.
이54:12-‘끝’과 ‘기초’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자연적 인간이다, 그 이유는 거기에서 영적 인간의 선들과 진리들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단11:40-‘끝의 때’=교회의 마지막 때, 선이 없기에 진리도 없는 때.
겔7:6-‘끝이 온다, 끝이 온다.’ 여기서 ‘끝’은 교회의 끝을 의미한다.
예25:33-‘땅의 끝으로부터 그것의 끝까지’=교회의 최초되는 것으로부터 최말단까지, 고로 갖가지 종류의 거

짓들.
끝내다 (terminate)
 * 경계(boundary)를 보라.
끝머리 (edge)
 * mouth도 참조
출26:4-접합하는 그 말단에서 한 커튼의 끝머리에=이 것이 중지되고 저것이 시작하는 곳, 고로 두 개가 함께 결합하는 가장자리(border).
출28:26-‘에봇 안쪽들을 향한 이쪽에 있는 가슴판의 끝머리’=천국의 중간 부분과 결합함, 고로 보존함...
나 (I, ego)
 * me, self도 참조
창25:22-‘나는’, 또는 ‘어이할꼬’=만일 그들이 이 문제로 싸웠다면, 그들은 합리적 진리로부터의 유입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로부터 궁핍, 고생이 뒤 따른다.
창28:15-‘잘 보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신성인 것... (그이유가) ‘나’가 여기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 고로 주님의 신성인 것.
창41:44-‘나는 바로이다’=거기로부터의 자연 평면인 것.
창42:18-‘나는 하느님을 경외한다’=신성으로부터. 그 이유가 요셉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최고 의미에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된다.
출6:6-‘나는 여호와이다’=신성을 수단으로 확증함.
출10:2-‘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로 알도록’=주님이 유일한 하느님이시다는 것이 알려질런지 모른다.
계3:21-‘내가 이겨냈을 때...같이...’
슌2:15-‘나만 있고 나 외에 아무도 없다’=자아 총명의 거짓.
나가다 (go out, egression)
출구 (outlet, end)
창10:14-‘그들은 나갔다’=이 인물들과 더불어는 지식들은 과학물들이라는 것...이 구절의 경우, 그들이 ‘태어났다(begotten)’가 아닌 ‘그들은 나왔다’라고 말해진다.
창15:4-‘창자들로부터 나가는 것’=주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이들.

나가다

창19:23-‘태양이 땅 위에서 나갔다’=마지막 때,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라 불린다.

창34:24-‘나가는 것’=물러나는 것.

창47:10-‘그는 바로 앞으로부터 나갔다’=시간에 관련하여 분리됨. ‘나가는 것’=분리되는 것.

출1:5-‘넓적다리로부터 나가는 것’=천국적 결혼으로부터의 선과 진리.

출7:15-‘그는 물들 쪽으로 나갔다’=감염되고 있는 이들은 오류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으리라는 것.

출8:25-‘모세는 말했다, 나는 너로부터 나간다.’=그들 사이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나타남이 제거됨. ‘나가는 것’=제거.

출9:33-‘모세는 바로로부터 나갔다’=그들로부터 분리됨.

계3:12-‘그는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것이다’=그들은 거기에 영원히 남으리라는 것.

마15:18-‘입으로부터 나가는 것’=의지로부터의 생각.

계11:5-‘불이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갔다’

창4:16-‘여호와와 얼굴로부터 나가는 것’=사랑으로부터의 믿음의 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창8:7-‘나가고 되돌아 오고 하면서 나갔다’=(이와 같은 그들의 상태).

창15:14-‘그들은 큰 물질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해방. ‘나가는 것’=해방되는 것.

창19:6-‘뭇은 문쪽으로 그들에게 나갔다’=그는 신중하게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것.

창10:14-‘일어나라, 이 장소로부터 나가라’=그들은 약한 상태에 남아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나가는 것’=물러나는 것, 또는 머물지 않는 것.

창25:25-‘빨강이 먼저 나갔다.’ ‘나가는 것’=태어나는 것.

창27:30-‘야곱이 얼굴로부터 막 나가자 마자...’=신성한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생활. (그 이유가) ‘얼굴로부터 막 나가자 마자’=야곱에 의해 표현되어졌던 이런저런 것들이 중단되었을 때, 고로 상태가 바뀌었을 때.

창28:10-‘야곱은 브엘세바로부터 나갔다’=신성한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생활. ‘가는 것’=사는

것.

창31:13-‘이 토지로부터 나가는 것’=이 선으로부터 분리함.

창38:28-‘먼저 나가는 것’=먼저임, 보다 중요함, 보다 높음.

창41:45-‘요셉은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나갔다’=자연 평면 모두가 그의 것이었을 때, ‘나가는 것’ 여기서는=안으로 흐르는 것.

창41:46-‘요셉은 바로 앞으로부터 나갔다’=일반적인 자연 평면이 그의 것이었을 때, ‘나가는 것’=그의 것이다...그 이유가 나가는 것, 또는 진행하는 것, 영적 의미에서=자신의 자아가 또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 앞에서 표현되는 것, 고로 똑같은 것이 또다른 형태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

창42:28-‘그들의 심정이 나갔다’=두려움...그 이유가 두려움에 있는 심장은 두근거리기 때문.

창43:31-‘(요셉은) 나갔다’=제거를 수단으로.

창44:28-‘누구가 나로부터 나갔다’=내적 선의 외관상 떠남.

출4:14-‘그가 너를 만나러 나간다’=영접함. (그 이유가) ‘만나러 나감’, 여기서는=받기 위한 준비가 표현되기 때문.

출5:10-‘나가는 것’=파견함.

출5:20-‘바로로부터 나가는 것’=거짓들이 그렇게 많이 감염시키지 않았을 때.

출8:12-‘모세와 아론은 바로로부터 나갔다’=단지 거짓들로부터 추론했던 이들로부터 분리함.

출11:4-‘나는 이집트의 한가운데로 나갈 것이다’=그 당시 모든 각처에 신성이 현존함.

출11:8-너와 네 발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가라’=그들이 진리 안에 있는 이들로부터 떠날지 모른다는 탄원.

출11:8-‘그리고 그 후 내가 그렇게 나갈 것이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떠나리라는 것.

출11:8-‘그는 노염이 격노하여 바로로부터 나갔다’=지옥에 떨어지게 될 이들로부터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현존이 산산조각됨.

출12:22-‘나가지 않는 것’=항구적으로 남는 것.

나감향-나귀-나귀 새끼

출12:41-‘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나가는 것’=감염됨으로부터 나가 해방되는 것.

출15:22-‘그들은 술(Shur)의 광야쪽으로 나갔다’=그후 그들이 만날 시험의 상태.

출18:7-‘만나러 나가는 것’=응용함.

출19:17-‘백성이 하느님을 만나도록 만드는 것’=신성을 받기 위해 그들을 준비되게 하는 힘.

출21:3-‘나가는 것’=전투 후의 상태.

출21:11-‘나가는 것’=소원해짐(estrangement).

출21:22-‘나가는 것’, 진리들로부터 선이 형성됨을 서술할 때,=내적 인간으로부터 외적 인간 안으로.

출23:16-‘해(year)의 끝’=일들의 끝.

왕하2:21-‘물들의 출구’=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받는 인간의 자연 평면.

시121:8-‘나감과 들어움을 지키심’=선과 진리의 상태에 따른 생활의 전체.

요10:9-‘들어가고 나가는 것’=생활의 모든 상태에 관련하여 주님에 의해 인도되는 것, 고로 자유로부터 선을 뜻하고 생각하는 것.

출34:34-‘나가고 말하는 것’=소통함.

시107:35-‘물들의 출구’=풍부함. 자연적 인간이 ‘출구’이다.

신33:8-‘즐거울지라, 스블론야, 네 나감에서’=그들은 모든 진짜 진리들과 선들 안에서 기뻐함을 가진다는 것. ‘나가는 것’, 또는 ‘출구’=모든 것들, 그이유는 그것=최말단들, 결과, 그리고 종결이기 때문.

계18:4-‘그녀로부터 나가라, 내 백성아’=그들은 그들을 떠나야 하리라는 것, 그리고 그들과 어떤 왕래도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

나감향 (onycha)

출30:34-‘나감향’=내면의 자연적 진리에 애착함. (그이유가) ‘냄새가 좋은 나감향’=자연적 진리에 애착함. ‘나감향은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냄새가 좋은’은 감사하여기는 것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이는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이다. 고로 애착 자체...이것이 ‘나감향’을 수단으로 의미되어진 자연에 있는 진리에 애착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두 번째 장소에서 명명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나감향은 자연적 진리에 애착함이 의미

된다. 이는 자연적 인간에 있는 내면의 진리이다. 향신료를 수단으로 의미되어진 진리는 영적 등급에 속한다.

나귀 (ass)

나귀 새끼(ass's colt)

어린 나귀(young ass)

창12:16-과학적인 것들, 그 자체로만 본다면 ‘나귀들과 남종들’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것들로부터의 즐거움은 ‘여종들과 암나귀들’이다.

창16:12-‘말’, ‘노새’, ‘나귀’가 말씀에서 언급될 때, = 지적, 합리적, 그리고 과학적인 것.

삼상8:16-‘남종, 여종, 젊은 이들, 그리고 나귀들을 수단으로 그는 자기 일을 행할 것이다’에 의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수단으로 그는 (거짓들을) 확증할 것이다가 의미되고 있다.

창22:3-‘(아브라함은) 나귀에 안장을 엮었다’=그가 준비한 자연적 인간.

창22:3-‘낙타’에 의해 일반적 측면에서의 과학적인 것, ‘나귀’에 의해 세부적 측면에서의 과학적인 것이 의미되어진다.

창22:3-인간과 더불어 자연적 평면을 구성하는 두가지 것이 있다...즉 자연적 선과 자연적 진리이다. 자연적 선은 선행과 신앙으로부터 흐르는 기쁨이다. 자연적 진리는 그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것이다. 이 자연적 진리가 ‘나귀’에 의해 의미된 것이다.

이30:6-‘어린 나귀’=세부적 측면의 과학적인 것.

이32:20-‘소의 발과 나귀의 발을 보냄’=용역을 하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 ‘소’=선의 측면에서의 자연적 평면, ‘나귀’=진리 측면에서의 자연적 평면.

창49:11-‘그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그리고 그의 암나귀의 아들을 훌륭한 포도나무에 묶는 것.’ ‘나귀의 새끼’=자연적 진리, ‘암나귀의 아들’=합리적 진리. ‘암나귀의 아들’=합리적 진리인 이유는 ‘암나귀’=자연적 진리에 애착함, 이 애착의 아들=합리적 진리이기 때문.

사5:9,10, 12:14, 왕상1:33,38,44,45-사사는 암나귀를, 그의 아들은 나귀 새끼를 공식적으로 탔다. 그 이유는 사사들이 교회의 선들을, 그의 아들들은 이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숙9:9,10-‘암나귀’는 자연적 선과 진리에 애착함을 표

나귀

현했고 의미했다. '암노새'는 합리적 진리에 애착함, '나귀', '나귀 새끼'는 자연적 진리 자체를, 그리고 '노새', 그리고 '암나귀의 아들'은 합리적 진리를 의미하고 표현했다.

마21:5-'나귀 위에 타신 것'은 주님의 자연적 평면이 종속시켜졌다는 표시였다. 그리고 '암나귀의 아들, 땅아지 위에 타신 것'은 주님의 합리적 평면이 종속시켜졌다는 표시였다.

출21:33,34, 23:4,5, 신22:1,3,4,10,11, 출23:12-'황소'와 '나귀'에 의해 선과 진리에 관한 자연적 인간을 의미했기에 많은 법들이 주어졌던 것.

이30:6-'어린 나귀들의 어깨에서 그들의 재물을 운반하는 것'=그들의 합리적 평면에 있는 지식들. '어린 나귀'=합리적 진리.

이21:7-'나귀의 2륜 전차'=세부적 과학적인 것의 집단.

창24:35-'낙타, 나귀' 등등=특수적 측면에서의 진리들.

창30:43-'그리고 낙타들과 나귀들'=외면, 그리고 선으로부터의 외적 진리들. '낙타들'=자연적 인간의 일반적 과학적인 것들. 일반적 과학적인 것들은 보다 더 낮고 더 외면인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다. 그리고 '나귀'=한층 더 낮거나 외적인 진리들.

창32:15-'암나귀 스물과 땅아지 열' 등등=일반적, 특수적 측면에서 섬기는 것들. '암나귀와 그들의 땅아지'=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일련의 것들.

창34:28-'그리고 그들의 나귀들'=거기로부터 파생된 진리들. 즉 자연적, 합리적 선으로부터.

창36:24-'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기르는 중에'=그가 과학물에 있었을 때.

창42:26-'그들은 자기들의 나귀 위에 식량을 얹었다'=진리들이 과학적인 것들 안으로 다함께 모였다...'나귀'=과학적인 것.

창42:26-이런 성경의 말들은 상응을 대입할 경우, 영적으로 납득된다...즉 '나귀들' 대신에 자연적 평면에 있는 과학적인 것들을 대입하면 된다. 말씀에서 '나귀'에 의해 섬기는 것들이 의미된다. 고로 과학적인 것들...

창42:27-'여관에서 자기 나귀에게 꼴을 먹이는 것'=그들이 자연적 평면의 외면에 있는 과학적인 것들에 관하여 곰곰이 생각할 때...'나귀'=과학적인 것들.

창43:18-'노예로 우리를 데려가고 우리의 나귀도'=각각의 자연적 평면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소용이 없다는 것...'나귀'=자연 평면에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은 과학적인 것들이다. 여기서의 경우, 외면의 자연 평면에 있는 과학적인 것들, 그이유가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 의미된 진리들은 내면의 자연 평면에 있기 때문.

창43:24-'그는 그들의 나귀에게 꼴을 주었다'=선에 관하여 가르침. '나귀'에 의해 과학적인 것들이 의미되어 진다. 이로부터 '나귀에게 꼴을 먹임'에 의해 과학적인 것들로부터의 선에 관하여 가르침이 의미된다.

창44:3-'사람들이 떠나졌다, 그들 그리고 그들의 나귀들'=바깥쪽의 자연적 인간이 여하간 그것의 진리들과 과학적인 것들과 더불어 제거되었다는 것...'나귀'=과학적인 것들.

창44:13-'모든 이 각각은 자기 나귀에 타고 성으로 되돌아 왔다'=진리들이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과학적인 것들 안으로 되돌려졌다는 것. '나귀'=과학적인 것.

신22:10-'소와 나귀를 함께 겨리 지워 갈아 일구는 것'이 금해졌다, 그이유는 '소로 갈아 일굼'=자연 평면에 있는 선, 그리고 '나귀로 갈아 일굼'=자연 평면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 '나귀'=과학적인 진리, 고로 자연 평면에 있는 진리. 이 구절의 명령의 내적 원인, 또는 영적 원인은 이렇다. 즉 천사들은 선과 진리에 대하여 분리된 생각을 가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이다.

창45:23-'이집트의 물품을 운반하는 나귀 열 마리'=많은 것들과 함께 섬기는 과학적인 것들...'나귀들'=과학적인 것들.

창45:23-'곡식과 빵을 나르는 암나귀 열 마리'=선으로부터의 진리와 진리로부터의 선...'암나귀'=섬기는 것들.

창45:23-'암나귀는 곡식과 빵을 나르고, 나귀는 이집트의 물품을 나른' 이유는 '나귀'는 진리에 관계하는 한도에서 섬기는 것들을, 암나귀는 선에 관계하는 한도에서 섬기는 것들이 의미되기 때문.

창47:17-'나귀'=섬기는 것들.

창49:11-'그는 그의 나귀 땅아지를 포도나무에 맨다'=바깥쪽 교회를 위한 자연 평면에 있는 진리...'나귀'=섬김.

출4:20-'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타게

나누다

만들었다'=새로운 총명을 섬길 이런 것들...'나귀'=섬기는 진리. 여기서는 새로운 총명을 섬기는 진리.

출9:3-'말들 안으로, 나귀들 안으로, 낙타들 안으로'= 신앙 속에 있는 진리로부터의 지적 그리고 과학적인 것들...'나귀'=지적 평면을 섬기는 것들, 고로 또한 과학적인 것들.

출13:13-'나귀를 연 모든 것을 너는 작은 가축(cattle)으로 되살 것이다'=자연적일 뿐인 신앙을 주님의 것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순진으로부터의 진리는 주님의 것으로 돌려도 된다...'나귀'=자연적인 것, 그이유가 '나귀'에 의해 과학적인 것이 의미되기 때문, 또는 섬기는 것, 고로 또한 자연 평면, 그이유가 과학적인 것들이 자연 평면에 있기 때문, 그리고 자연 평면은 영적 평면에 비교해 볼 때 영적 평면을 섬긴다.

출20:17-(십계명에 있는) '나귀'=자연적 진리에 애착함.

창31:33-'소나 나귀가 그 안에 빠졌을' 경우=자연 평면에 있는 선과 진리를 오용했다는 것...'나귀'=자연에 있는 진리.

출22:4-'소로부터 나귀까지'=외면의 선 또는 진리로부터...'나귀'=자연으로부터의 진리.

출23:4-'네가 네 원수의 길없는 소나 나귀를 만날 때'=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순수하지 않은 선, 순수하지 않은 진리...'나귀'=바깥쪽 인간의 진리.

출23:5-'네가 집 아래 눌러진 원수의 나귀를 볼 때'=교회의 선에 일치 않는 거짓, 이로부터 막 멀해지려 하고 있다는 것...'나귀'=과학적 진리. 고로 반대 의미에서 과학적 거짓.

이32:20-'소의 발과 나귀의 발을 보내는 것'=바깥쪽의 선들과 진리들이 가르쳐지는 것.

출23:12-'네 소와 네 나귀가 쉬어야 할 것'=바깥쪽의 선들과 진리들 다함께를 위한 평화의 고요함...'나귀'=바깥쪽의 진리.

마18:6-'나귀'=자연 평면, 그이유는 나귀는 섬기기 때문. 이로부터 '나귀에 의해 회전하는 연자 맷돌, ass millstone'=자연적 세상적으로 있는 과학적인 것.

이30:6-'나귀'=과학.

사5:10-'흰 암나귀'=선에 관한 합리적 평면.

눅14:5-'너희 중 누가 구덩이에 빠진 나귀나 소를 가진다면'. '나귀' 그리고 '소'에 의해 자연적 인간의 진리와 선이 의미되어진다.

이30:6-'나귀들'=감각적 인간 속의 것들.

겔28:20-'나귀의 살'=인간 고유의 자발적 부분(의지 측면).

나누다 (divide)

마24:51-'그는 그를 조각조각으로 자를 것이다'=선들과 진리들로부터 분리하고 제거함. 그 이유가 이들은 선과 진리의 지식을 지닌 이들, 그런데 악한 생활 안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 이들은 '조각조각으로 잘려진다'라고 말해지는바, 이는 그들로부터 그 지식들이 제거될 때이다.

창49:27-'전리품을 나누는 것'=천국 왕국에서 소유함을 주는 것.

출15:9-'나는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봉사함.

출21:35-'그들은 그것으로부터의 은을 나눌 것이다'=그것의 진리는 흠뜨려지리라는 것. '나누는 것'=사라지는 것인 이유는 만일 연합된 어떤 것들이 나누인다면, 그것들 또한 흠뜨려짐이기 때문. 자기의 의도함, 또는 마음을 나누는 자는 그것을 파괴한다. 선으로부터 진리를 나누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마디로 하나로 있어야 하는 것이 만일 나누인다면 멀해지고 만다. 이 나뉘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에 의해서도 뜻해진다. 이렇게 행동하는 자는 나누인 마음을 가지는 바, 이로부터 파멸이 온다.

요19:23,24, 시22:18-'제비를 던지고 나누는 것'=조각조각으로 끌어 당김과 그것들을 흠뜨림. 속웃은 나누지 않았다=신성한 천적 진리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영적 진리는 흠어질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이 진리는 말씀의 내적 진리이기 때문이다.

암7:17-'토지는 줄을 그어 나뉠 것이다'=교회와 교회의 모든 것은 흠뜨려질 것이다.

창15:10-'그는 그것들을 가운데에서 나누었다'=교회와 주님.

창15:10-'그는 날아다니는 것들은 나누지 않았다'=영적인 것들에는 어떤 유사성이나 상응함이 있지 않다는

나누어주다 -나단 -나답 -나라

것. 제물에서, 새들은 나누지 않았다. 그 이유가 나누는 것은 서로를 대칭되게 놓는 것, 그것들이 적절히 상응하도록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누어주다 (impart)

* (마음에) 심다(implant)를 참조

나단 (Nathan)

슌7:12-‘나단’=진리로부터의 교리.

나답 (Nadab)

출24:1-‘나답과 아비후’=내,외적 의미들로부터의 교리. (그 이유가)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이기 때문. 아론에 의해 말씀이 의미될 때,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는 교리가 의미되어진다. 큰 아들에 의해서는 내적 의미로부터의 교리가, 작은 아들에 의해서는 외적 의미로부터의 교리가 의미된다. (이 두 교리들은 하나의 교리이다).

레10:1-3-‘나답과 아비후’는 말씀으로부터의 교리를 표현했는바, 그들이 말씀으로부터인 교리 외 어떤 다른 교리로 예배했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 다른 근원으로부터 향로에 있는 불=말씀 외 다른 근원으로부터의 교리.

출28:1-‘나답과 아비후’=파생된 신성한 영적 평면. (그 이유가) 아론의 아들들은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 신성한 영적 평면은 신성한 천적 평면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이다. 고로 주님의 신성은 두 번째 천국에서 받아졌다. 이것이 아론의 첫, 둘째 아들의 출생에 의해 표현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마치 가장 깊은 천국 안에 있는 천적 선으로부터 태어난듯 진행되기 때문이다.

나라 (nation)

민23:9-‘나라들’=악들.

미7:16-‘나라들’=자아를 신뢰하는 이들.

겔30:3-‘나라들의 날’=이방인들, 또는 사악함.

* ‘나라들’=의지 속에 있는 악들, 또는 탐욕 속에 있는 악들; ‘백성’=거짓들.

창10:5-‘이들로부터 그들의 토지들에 있는 나라들의 섬들이 흩어졌다’=많은 나라들의 예배들이 이것들로부터 생겨났다.

창10:5-‘그들의 나라들에 관련한’=일반적 측면에서 (견해와 성실) 양쪽에 관련하여.

창10:31-‘그들의 나라들에서’=선행 속에 있는 것들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창10:32-‘그들의 나라에서’=일반적인 교회의 예배들.

창10:32-‘이들로부터 나라들이 땅에 두루 퍼졌다’=거기서부터 선 쪽이든 악 쪽이든 교회의 모든 예배가 왔다. ‘나라’에 의해 가족들의 숫자 모두가 의미되어진다. 태고 교회에서, 그리고 고대 교회에서, 한 아버지를 인정한 가족들의 숫자가 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나라들’=교회의 예배들, 그리고 사실상, 예배에 있는 선들, 또는 악들에 관련한 경우는 이렇다. 천사들이 가족들이나 나라들이라는 말을 들을 경우, 그들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그 나라와 더불어 예배에 관한 생각을 가진다. 이로부터 내적 의미에서 ‘나라’에 의해 교회의 예배 외 다른 것은 의미되지 않는다.

창12:2-‘나는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천국에 있는 왕국과 땅에 있는 왕국. (그 이유가) ‘나라’=사랑의 천적 평면 그리고 파생되는 선(이기 때문). 고로 사랑으로부터의 천적 평면과 선행으로부터의 천적 평면에 있는 모든 사람. 이 구절의 경우 주님이 취급되는바, 천적인 모든 것,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하는 모든 선이 뜻해진다. 고로 사랑과 선행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그분의 왕국. 최고 의미에서, 주님 자신이 ‘큰 나라’라 불리운다, 그이유는 그분이 천적 왕국 자체, 선 자체이기 때문이다.

시106:5-여기서 ‘나라’는 주님의 왕국을 표시하고 있다.

창14:9-‘고임왕 디달’, 또는 ‘나라들의’=선.

마24:7-선행 없음이 ‘나라가 나라에 맞선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15:14-‘또한 그들이 섬길 그 나라’=압제하는 악한 자. ‘나라’, 진짜 의미에서,=선들, 같은 것으로 선한 자...그러나 반대 의미에서 ‘나라’=악들, 또는 같은 것으로 악한 자.

창17:4-‘너는 수많은 나라들을 위한 아버지일 것이다’=인간 실체가 신성 실체와 하나됨.

창17:6-‘나는 너에게 나라들을 줄 것이다’=모든 선은 그분으로부터 있다는 것. 그이유가 ‘나라들’은 천적, 순

나라

수 의미에서,=선.

이9:16-‘나라들의 젖을 빼는 것, 그리고 왕들의 가슴’=선들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 그리고 진리들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

창17:16-‘그녀는 나라들을 위해 있을 것이다’=파생되는 선들.

창17:20-‘나는 그에게 큰 나라를 줄 것이다’=선들의 결실, 그리고 그것들의 증가.

창18:18-‘현존의 아브라함은 크고 수많은 나라를 위해 있을 것이다’=모든 선, 파생되는 모든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일 것이다. ‘나라’=선. ‘크고 수많은 나라’=선과 파생되는 진리.

창18:18-‘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나라들은 복있을 것이다’=선행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분에 의해 구원될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들’에 의해 내적 의미에서, 사랑의 선들과 선행의 선들에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계18:3-‘그녀가 마시게 만든 나라들’=모독되어진 선들.

겔25:7-‘그들이 나라들에게 전리품으로 주어지고 있다’=그들이 악들에 의해 소유당해진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잘라낸다’=거짓들을 수단으로.

창20:4-‘주여, 당신은 의로운 나라를 죽이시렵니까?’=선과 진리가 소멸되어질 것인지 아닌지.

예51:20-‘나라들’, 그리고 ‘왕국들’=교리 속에 있는 악들과 거짓들.

겔37:21-‘나라’=영적 교회의 선, 또는 교리로부터의 선.

창21:13-‘하녀의 아들 또한 나는 그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신앙으로부터의 선을 받을 영적 교회. ‘나라’=선, 여기서, 신앙의 선, 그이유는 이것이 영적 교회를 서술하기 때문.

창21:18-‘그 이유는 내가 그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영적 교회. (그이유가) ‘큰 나라’=영적 교회, 이 교회는 신앙의 선을 받을 것이다. ‘큰 나라’라고 말해진 이유는 영적 왕국은 주님의 두 번째 왕국이기 때문.

눅21:24-‘모든 나라들’에 의해 갖가지 종류의 악들이 의미된다. 이 악들 사이에서 그들은 포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애2:9-‘나라들 사이에 그녀의 왕들과 군주들...’=진리들이 악들 안에 침수되어진다는 것.

신28:49-‘땅의 맨끝, 먼데로부터의 나라’=악들과 거짓들, 또는 악과 거짓 안에 있는 이들.

사80:8-‘나라들을 몰아내는 것’=악들을 걸러내는 것.

창25:23-‘두 나라가 네 자궁 안에 있다’=내면의 선과 외면의 선에 관련한 자연 평면.

암9:12-‘그분의 이름이 불리울 나라들’=교회 밖 선 안에 있는 이들. ‘나라들’=선 안에 있는 이들.

창16:4-‘네(이삭) 안에서 땅의 모든 나라들은 복있을 것이다’=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선 안에 있는 모든 이들.

마24:9-‘모든 나라들에 의해 (미움받는다)’=악 안에 있는 이들을 수단으로.

마24:14-‘모든 나라들에 증거로’=악한 자에게.

이34:2-‘나라들을 향하여 여호와와 그의 뜨거움이...’=악을 향한 증오.

마10:5-‘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마라’ ‘이방인들’=악 안에 있는 이들.

창35:11-‘나라와 나라들의 단체가 너로부터 있을 것이다’=선, 그리고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형체들.

마25:32-‘그분 앞에 모든 나라들을 그러모을 것이다’=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 모두는 명명백백해질 것이다.

창46:3-‘나는 너에게 큰 나라를 앞힐 것이다’=진리들은 선으로 되어 갈 것이다.

출9:24-‘그것이 나라로 있었던 이래로부터’=자연적 마음이 선과 파생되는 진리를 인정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나라’=선, 그리고 이것이 이집트의 토지에 관련해 말해지는바, 이를 수단으로 자연적 마음 속에 있는 과학적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그러므로 또한 ‘나라’=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예6:22-‘땅의 변두리로부터의 큰 나라’=선에 완전히 반대되는 악 안에 있는 이들.

출19:6-‘그리고 거룩한 나라’=고로 영적 왕국. (그이유가) ‘나라’=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서술하고 있다. 이로부터 ‘거룩한 나라’=선으로부터 진리가 있음. ‘성직자들의 왕국’, 그리고 ‘거룩한 나라’ 모두=영적 왕국, 그러나 차이점은 있다. 즉 ‘성직자들의 왕국’=진리로부터

나라

선 안에 있는 이들. '거룩한 나라'=선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이로부터 진리 안에도 있는 이들. 전자는 진리들을 수단으로 주님을 위쪽 방향에서 쳐다본다. 후자의 경우, 그들은 주님 안에 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진리를 찾는다. 이 두 상태들은 거듭나아가는 동안 이것이 저것을, 저것이 이것을 계승해간다. 그리고 이들 안에서 있는 영적 왕국, 즉 천국의 생명은 주님께 의해 심겨지고 있다.

예25:31-'나라들을 향한 여호와의 소송(suit)'=진리들을 위해 주님이 거짓들과 경쟁하심, 그리고 선을 위하여 악들과 경쟁하심. 방어하심 역시 의미한다. '나라들'=거짓들과 악들.

눅21:24-'나라들 사이에서 그들은 포로로 있을 것이고, 이들을 수단으로 교회는 '짓밟힐 것이다'=악들로부터 거짓들이 있다.

신7:2,24-26-그러므로, 또한, 가나안의 토지에 있는 나라들은 바쳐져야 할 것이라고 명령되어졌다. 그이유가 이 나라들은 이전에 그 토지에서 교회를 설립했었다. 그러나 그들이 표현적 예배를 우상 예배로 바꾸었을 때, 고로 왜곡된 진리들과 섞음질된 선들로 바뀌었을 때, 명령된바, 그곳의 사람들, 성읍들, 그 안의 모든 것들은 저주하도록, 바쳐지도록 했다. 그 이유는 거기의 모든 것들이 악과 거짓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즉 성읍들은 거짓 자체로부터의 교리, 짐승은 악한 애착을, 금과 은은 그들의 악들과 거짓들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출23:24-'너는 (나라들을) 확실히 파괴할 것이다'=악들은 완전하게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

신12:30-'나라들'=악들과 파생되는 거짓들.

이60:11-'나라들의 군대'=신앙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이들.

계21장-거룩한 예루살렘에 의해=(유럽의) 현 교회가 황폐된 후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새 교회가 뜻해진다.

계11:2-'거룩한 성을 짓밟도록 나라들에게 주어졌다'=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의 악들이 교회를 파괴한다.

속14:3-'여호와께서 나가시어 나라들에 맞서 싸우실 것이다'=주님은 지옥들에 맞서 싸우실 것이다. 그이유가 '나라들'=지옥들로부터 있는 악한 자들.

시110:6-'그분은 나라들 사이를 판결하셨다'=악들을 흠뜨림.

출32:10-'나는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어딘가 딴 곳에서 말씀은 선이고 특출할 것이다...'나라'=선 안에 있는 이들. 고로 추상적으로 이들로부터의 선.

출33:13-'이 나라가 당신의 백성임을 보십시오'=여호와와의 나라'=신성 자체가 거주하시는 곳. 그리고 영적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가 있는 곳, 그 이유가 사랑과 신앙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다함께 있는 곳이 '여호와와의 나라'이기 때문.

출34:10-'모든 나라들에서'=교회가 없는 곳에서. 그 이유가 말씀에서 '나라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이유가 그들은 말씀으로부터의 진리의 빛에 있지 않기 때문에서이다.

계2:26-'그에게 나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힘을 줄 것이다'=그들은 자신들과 더불어 지옥으로부터 있는 악을 정복할 것이다.

계5:9-'모든 종족, 그리고 혀(언어), 그리고 백성, 그리고 나라로부터'=교리에서 진리 안에, 생활에서 선들 안에 있는 이들은 그들이 교회 안에 있든, 어떤 종교이든 주님께 의해 되찾아져 왔었다는 것.

계10:11-'너는 백성들과 나라들에 다시 예언해야만 한다'=신앙 만에 있는 이들의 품질은 그 품질 이상의 것이 더 가르쳐질 것이다.

계11:2-'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교회의 상태는 생활의 악들에 의해 파괴되고 황량해져 갔기 때문이다.

계11:9-백성들, 그리고 종족들, 그리고 혀들, 그리고 나라들에 의해 교리의 거짓들 안에, 고로 믿음 만으로부터 오는 생활의 악 안에 있어 왔고, 있을 개혁 교회로부터의 모든 이를 뜻한다. '나라들'에 의해 생활의 악들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계11:18-'그리고 나라들은 노여워져 있어왔다'=믿음만의 교리에 있고, 이 교리로부터 생활의 악 안에 있는 이들. 이들은 자기들 신앙에 맞서 있는 이들에게 노여워하고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계13:7-'그리고 모든 종족과 혀와 나라를 다스리는 권능이 (짐승에게) 주어졌다'=고로 교회의 교리 측면과

나라

생활 측면 양쪽에서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함. '나라'에 의해 (교회의 교리에 따른) 생활이 의미된다.

계14:6-‘그리고 모든 나라, 그리고 종족, 그리고 혀, 그리고 백성에게’=종교로부터 선 안에, 교리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나라’에 의해 선 안에 있는 이들, 추상적으로 선들이 의미된다.

계15:4-‘그러므로 모든 나라들이 와서 당신 앞에서 경배할 것이다’=사랑과 선행의 선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주님을 유일한 하느님으로 인정할 것이다.

계18:23-‘마법을 수단으로 모든 나라들을 유혹해왔다’=그들의 악독한 예술,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모든 이의 더 낮은 마음들을 끌고 가버렸다.

계20:3-‘유혹하지 않아야 할 나라들’에 의해 선이 뜻해진다. ‘나라들’에 의해 생활의 선에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생활의 악에 있는 이들.

계21:19-‘구원되는 나라들은 그것의 빛에서 걸을 것이다’=생활의 선에 있고 주님을 믿는 이들은 신성한 진리들에 따라 거거서 살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 안에서 그것들을 볼 것이다.

계21:26-‘그리고 그들은 그것 안으로 나라들의 영예와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들어오는 이들은 주님만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고, 교회의 모든 진리, 종교의 모든 선은 그분으로부터 있다는 신앙과 인정함과 고백함을 자기들과 더불어 가져올 것이다.

계22:2-‘나무의 잎들은 나라들의 치료를 위해 있다’=합리적 진리들을 수단으로 악들과 그 악에서 파생되는 거짓들에 있는 이들도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 철저한 생각에 걸맞게 사는 쪽으로 데려가진다는 것. ‘나라들’은 여기서의 경우, 악 안에, 그리고 이 악에서 파생하는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겔7:24-‘나라들의 가장 나쁜’=악으로부터의 끔찍한 거짓들.

이54:3-‘네 씨가 나라들을 상속할 것이다’=선들.

마10:5-‘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마라’=악으로부터의 거짓.

시72:11-‘모든 나라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다’=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모든 이.

학2:7-‘나는 모든 나라들을 휘저을 것이다, 이는 나라

들의 최상의 것이 오도록 하기 위함이다’=주님의 강림에 관련하여. ‘나라들’에 의해 선 안에, 그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예50:41-‘큰 나라’=악들.

계21:26-‘나라들’=선 안에 있는 이들.

시102:15-‘나라들은 여호와와 이름을 경외할 것이다’=선 안에 있는 이들.

이45:1-‘그 앞에 복종될 나라들’=악에 관련한 지옥들.

이26:15-‘당신께서는 나라를 추가하셨다, 여호와시여’=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 이들을 그분은 자신에게 바치셨다.

계5:9-‘(모든) 백성과 나라(로부터)’=주님의 영적 교회 속에, 천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 말씀에서 ‘백성’에 의해 영적 선에 있는 이들, ‘나라’에 의해 천적 선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창12:2-‘큰 나라’는 신성한 선에 관해 말해지고 있다.

나3:4-‘나라들을 파는 것’=선들이 소원해지는 것.

출23:29, 신7:22-‘나라들(이 조금씩 몰아내진다)’=인간이 유전적인 것으로부터 가지는 악들.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이것들은 조금씩 제거되어진다.

시79:1-‘나라들’=생활의 악들과 교리의 거짓들.

눅21:24-‘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혀질 것이다’=교리 측면에서의 교회가 생활의 악들과 교리 속의 거짓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됨. ‘이방인의 때가 충만될 때 까지’=악이 극점에 도달될 때.

예4:7-‘나라들의 파괴자’=거짓으로부터의 선이 교회의 선을 파괴함.

겔31:6-그것의 그림자 안에서 모든 큰 나라들이 거주했다’=자연적 인간에 있는 애착으로부터의 선들.

시80편-‘나라들을 몰아내는 것’=진리들을 수단으로 몰아내지는 자연적 인간의 악들.

겔29:15-‘그들은 미천한 왕국일 것인바, 너는 네 자신을 나라들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쇠하여지게 하여 나라들을 지배 못하게 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앞부분에서 언급된 ‘나라들’은 교회의 진리들, 후반부에 언급된 ‘나라들’은 교회의 선들.

마20:19-‘그분을 정죄하고 이방에게 넘길 것이다’=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을 지옥 쪽으로 관철하고, 그것

나르다

들을 지옥으로부터 있는 악들과 거짓들에 넘기는 것.
'이방인들'=지옥으로부터 있는 악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선을 파괴한다.

나르다 (bear)

지탱하다 (bear)

참다 (bear)

창49:15-'그는 나르기 위해 그의 어깨를 구부렸다'=여전히 그는 모든 일 아래 노동하고 있다는 것...'나르는 것'=공적을 가질 요령으로 일들을 행하는 것...'나르다'고 말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선에 애착함으로부터 선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 고로 자유로부터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는 자아에 대한 애착으로부터인바, 노예일 뿐이기 때문.

창13:6-'그 토지는 그들이 함께 거주하도록 지탱해줄 수 없었다'=내향의 천적인 것들에 속하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룯에 의해 의미된 것들과는 함께 있을 수 없었다.

창45:19-'당신의 아버지를 운반하여(모시고) 오라'=그들이 봉사하고 가까워짐.

창45:27-'그리고 그는 요셉이 자기를 운반하기(모시기) 위해 보낸 마차를 보았다'=설득을 발휘하는 거기로 부터의 교리적인 것들. '그를 운반하는 것'=설득을 발휘한 것들. 그 이유가 그를 요셉에게 운반하는 것, 그를 보는 것은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

창46:5-'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을 운반했다'=영적 진리들이 자연적 진리가 더 향상되게 했다는 것. '그들이 운반했다'=그들이 더 향상되게 했다인 이유는 자연적 진리에 비교하여 영적 진리들을 서술했기 때문.

창47:30-'너는 이집트로부터 나를 운반할 것이다'=지식들로부터 승강함이 있을 것이다. '나를 운반하는 것'=승강함, 그 이유는 이집트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올라감'이라 불리우기 때문.

창50:13-'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를 가나안의 토지로 운반했다'=교회가 저쪽으로 이동했다(운반되었다). '그들이 운반했다'= 옮겨지는 것.

출19:4-'나는 너를 독수리의 날개들로 날랐다'=그들은 진리들을 통하여 천국의 빛으로 승강되었다는 것. '깊어

지는 것'=승강되는 것.

출20:7-'너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무익하게 하지(take) 말라'=신앙으로부터의 진리와 선을 모독함과 욕설을 함.

출23:1-'너는 텅빈 보고를 채택하지(나르지, take up, bear) 말라'=거짓들에 귀기울이지 말라. '보고를 채택하는 것'=듣고 행하는 것, 고로 귀기울이는 것.

출23:21-'그는 네 범법에서 참지 않을 것이다'=이런 것들은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증오할 것이다. '네 범법을 참지 않을 것'=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참지 않을 것. 그 이유는 그것들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증오하기 때문이다.

출28:12-'어깨 위에서 '나르는 것', 또는 운반하는 것=진리와 선을 신성하게 보존하심.

출34:7-'불법, 위법, 죄들을 가지고 가심'=악의 제거, 이 악으로부터의 거짓을 제거해서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심. '가지고 가는 것, 제거하는 것'=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것을 옮겨버리는 것.

계2:2-'너는 악한 자를 (보고) 참을 수 없다'=너는 악들이 선들이라, 선들이 악들이라 불리게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 그 이유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교리로부터의 진리들에 반대되기 때문.

계2:2-'너는 악한 자를 (보고) 참을 수 없다'=그들이 악들을 거절하는 것. '참아질 수 없다'=거절하는 것, 그 이유는 참을 수 없는 것은 거절하기 때문.

출19:4-'독수리의 날개로 (실어) 날라, 데려오는 것'=종명 안으로, 그 이유가 천국과 천국의 빛 안으로 이기 때문이다.

시24:5-'복을 지나는 것'=신성한 진리를 받는 것, 그리고 '정의를 지나는 것'=신성한 선을 받는 것.

시107:37-'열매가 증가하여 산출되는 것'=(영적 진리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선들을 받는 것.

* 주님께서 인류의 불법들을 짚어지셨다는 것은 설교자들의 공통된 표현이다. 그러나 그분 자신에게로 불법과 악들을 돌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유전적인 방법 외에는 없다.

겔4:6-'너는 사십 일 동안 유다 가문의 불법을 몸에 지닐 것이다(깊어질 것이다)'=유대 교회의 황폐된 기간.

나르다

또한 주님의 시험을 표현함, 그 이유가 ‘그는 유다 가문의 불법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지기 때문. **이53:4**—‘확실히 그는 우리의 질병들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들을 운반하셨다.’ 이 말들에 의해서 주님이 겪는 시험들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신실한 자는 시험들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들을 자신에게로 돌려서 짊어지신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험들과의 전투와 그 승리를 수단으로 지옥들을 정복하셨다. 게다가 모든 신실한 자가 겪는 시험들을 견뎌내셨다. 이는 그분의 인간 본질 측면에서조차 그분만이 이기셨다.

이40:3—거듭나고 교회를 만든 이들이 ‘자궁으로부터 견뎌냄’라고 말해지고 있다.

출18:22—‘그와 더불어 [짐을] 떠맡는 것’=보조와 지탱의 수단이 있는 것.

출25:14—‘그것들에서 켈을 운반하는 것’=천국의 생존과 견고함. ‘운반하는 것’=선과 진리의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있는 것. 고로 생겨나고 생존하는 것.

출25:28—‘탁자는 그것들과 더불어 운반되어질 것이다’=거기로부터 있는 견고함. ‘운반되어지는 것’=생겨나고 머무르고 생존하는 것, 고로 견고함.

이48:4—‘백발이 되기 까지 나는 너를 운반할 것이다. 나는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운반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탱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만든다’=나오는 것, ‘운반한다’=머무르는 것, 생존하는 것, ‘지탱시킨다’=항구적으로 생겨나온다는 것.

출12:34—‘그들의 어깨에 놓고 나르는 것’=모든 사람의 일과 힘을 가지고 영원히 선과 진리의 상태에서 보존하는 것.

이46:7—‘운반하는 것’=그것 고유의 상태에서 간직하는 것.

창49:5, 시81:6, 이9:4, 10:27, 마23:4, 습3:9—‘어깨 위에서 나르는 것’, 복종의 상태일 경우=노예, 그리고 명령의 상태일 경우 가장 높은 힘.

출28:29—‘아론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를 것이다’=모두 각각의 종류에 관련하여 선과 진리가 주님에 의해 보존됨. ‘나르는 것’, 가슴판을 서술할 때=보존하는 것. 그이유가 가슴판에서 나르는 것은 보존되어지

는 것이기 때문. 또한 신성을 서술할 경우 ‘나르는 것’=선과 진리의 상태에서 보존하는 것.

출28:29—‘가슴에서 나르는 것’=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보존하는 것.

출28:38—‘아론은 거룩한 것들의 불법을 (짊어지고) 나를 것이다’=선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악들과 거짓들이 주님에 의해 제거됨. ‘불법을 나르는 것’=선 안에 있는 이들에게 있는 거짓들과 악들을 제거함.

출28:38—‘불법을 나르는 것’=선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거짓들과 악들을, 또는 죄들을 제거함이라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에 관해 말해지기 때문, 그이유가 주님은 아론에 의해 표현되었기 때문.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모든 일은 아론의 직능, 성직 임무에 의해 표현되었기 때문. 주님에 관련하여 교회가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은 인류를 위해 죄들을 짊어 나르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법들과 죄들을 나르는 것에 의해 의미되는 것에 관해서이다. ‘불법을 짊어져 나름’은 당사자의 실지의 죄를 대신 짊어짐이 아니다. 그이유가 행위들은 사후에도 여전히 그의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의 죄나 불법은 그것들을 짊어지신다는 그분에게 이동되어질 수 없다. 주님에 의해 불법, 또는 죄를 짊어지고 나르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지옥들에 대적 할 수 없고 그분만이 가능 한바, 그분이 지옥들에 맞서 싸우실 때를 뜻하는 것이다.

출28:38—‘불법을 나름’이 아론에 관하여 말해지는 것은 그가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의 성직 임무는 구원에 관한 주님의 모든 일을 표현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구원하는 일의 제1의 부분은 인간을 지옥들로부터 되찾아 해방되게 하는 것, 그리고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출29:38, 민18:1,22,23—‘거룩한 것들의 불법들을 아론이 짊어짐(떠맡음)’은 주님에 의해 선 안에 있는 이들로부터 죄들을 제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님에 의한 그것들의 제거는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 이것이 ‘불법을 짊어져 나름’이다. 민수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하시기를, 너와 너와 더불어 네 아들들은 성소의 불법을 짊어질 것이다. 너 또한 그리고 너와 더불어 네

나머지

아들들은 너희 성직 임무의 불법을 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죽는 것을 수단으로 죄를 짊어지기 위해 회중의 성막으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인이 성막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의 불법을 짊어질 것이다.’

레10:16,17-‘불법을 짊어지는 것’=속죄하는 것, 고로 죄들을 제거하는 것. ‘모세는 엘르아잘과 이다말에게 화를 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죄 바침의 솜염소를 태웠기 때문인데,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그것을 거룩함의 장소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회중의 불법들을 짊어지라고,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속죄하라고 내게 준 것이기 때문이다.’

출29:38-‘죄들을 짊어지는 것’, 성직 임무에 관련해 말해지지 않을 경우=정죄되어지는 것, 고로 죽는 것.

출28:43-‘그들이 불법을 짊어지고 죽지 않도록’=모든 예배를 소멸시킴. ‘불법을 짊어짐’, 이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직 임무에 관련해 말해질 때=선 안에 있는 이들에게 있는 악들과 거짓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심. 그러나 ‘불법을 짊어지고 죽음’이 그들에 관련해 말해질 때, 이는 모든 예배가 소멸됨을 의미한다.

* 말씀의 여러 곳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불법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해지는데, 이는 그들이 규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을 때, 이를 수단으로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됨이 의미되어진다.

레7:18, 19:7,8-‘불법을 짊어지는 것’은 여기서의 경우, 자기들의 죄들 안에 남는 것, 그리하여 정죄됨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출28:43-‘불법을 짊어짐’이 악한 심정으로부터 악들을 행하는 이들에 관해서 말해질 경우, 참으로 정죄됨을 의미한다.

출30:4-‘운반하는 것’=보존하는 것.

출30:4-‘그것들에서 (제단을) 운반하려고’=이 상태에서 그것에 의해 보존함. ‘운반하는 것’=선과 진리의 상태에서 간직하는 것, 고로 생겨나와 머무르는 것, 그리고 보존하는 것.

이40:11-‘그분은 그들을 자기 품에서 운반하실 것이다.’

이63:9-‘그분은 영원의 모든 날들 (동안에) 그들을 운

반하실 것이다’=그분의 신성한 사랑이 (이 구절에서) 묘사되어져 있다.

이53:11-‘그분의 지식들을 수단으로 내 정의로운 종이, 그분이 그들의 불법들을 짊어지실 것, 이것 안에서, 많은 (자)를 의로워지게 할 것이다.’ 지옥들과의 그분의 전투, 그리고 지옥들을 복종케 함이 의미되고 있다. ‘불법을 짊어짐’이 그분께서 불법들을 자신에게 이동하게 할 것이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옥들로부터 있는 악들을 정복하시기 위해 그것들이 그분 자신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나머지 (residue)

남은 것 (what is left)

* 남다(remain), 아껴두신 것(remains)도 참조.

* 교회의 핵(nucleus)은 언제나 남아 있다...이는 태고 교회와 더불어서도 그러했는데, 나머지는 홍수 조차에서도 남았다, 그리고 그것 후에 계속되었다. 이 나머지가 ‘노아’라 불리워진다.

이4:3-‘시온에 남아 있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

* ‘10’은 나머지를 함축하고 있다.

이7:22-‘남은 그들’=아껴두신 것.

창14:10-‘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모두가 정복되지는 아니했다.

레6:15-남아 있는 것은 이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것이다’=사람의 상호적인 것, 그리고 자기 것 됨.

이11:16-‘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살아 남는 선들과 진리들.

출10:5-‘우박으로부터 남은 것의 나머지’=진리는 이전의 거짓을 수단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출10:15-‘남은 푸른 것은 없다’=진리의 감성적인 모든 것이 말살되어졌다.

출12:10-‘아침 까지 남은 것’=중간의 상태.

출16:19-‘누구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아있게 하지 마라’=그것을 자신들로부터 획득하려고 갈망해서는 안된다.

출23:11-‘그들이 남긴 것’=그들에 의해 남아있어 왔던 것.

이14:30-‘남은 이들’=교회의 남은 모든 것들.

나무

나무 (tree)

* wood, grove, plantation, olive, vine, fig, palm, cedar등도 참조.

창1:12-인간 거듭남의 세 번째 상태는 회개의 상태, 이 상태에서 인간은 내적 인간으로부터 선행의 일 같은 선들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직 생명이 없다. 그 이유는 그 선들이 자신으로부터 있게 되었다고 상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열매의 나무'라 ...불리우고 있다.

마13:32-신앙이 사랑과 결합되어졌을 때, 드디어 그것은 '나무'가 되어간다. 그런다음 진리들인 새들이 그 나무 가지들에 둥지를 튼다. 위의 진리들=과학적 사실들.

창2:9-'보기에 유쾌한 나무들'=진리의 지각들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선의 지각들. 사랑이 '생명들의 나무'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신앙은 '지식의 나무'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 '생명들의 나무'=사랑과 사랑에서 파생된 신앙.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즉 기억 속의 지식으로부터 있는 신앙.

창2:16-'모든 나무를 먹는 것'=선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각으로부터 아는 것. '나무'=지각.

창2:16,17-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것을)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 너는 그것으로부터(의 것을) 먹지 말라. 그이유가 네가 먹는 그날 너는 정녕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16,17절=주님으로부터의 모든 지각을 수단으로 선택하고 참된 것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으나, 자아와 세상으로부터, 즉 감각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믿음의 신비들을 수색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럴 경우 믿음 속의 천적인 것들이 죽는다.

겔31:16-'에텐의 나무들'=과학적 사실과 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 (=믿음의 지식에 관한 지식) (=지각들)

창3:2,3-'동산의 나무의 열매'=태고 교회로부터 그들에게 계시된 선과 진리;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하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믿음으로부터의 선과 진리, 이것을 그들은 자신들로부터 배우려 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만지지 말라'=그들은 믿음 속의 선과 진리를 자신들로부터, 또는 감각적인 것과 과학적 사실로부터

꿈꿈이 생각하려 들지 말라. 시도할 경우 '죽는다'=이러므로 있는 결과는 모든 총명, 지혜, 신앙이 멀해진다.

창3:5-'만일 그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그들의 눈들이 열릴 것'=만일 감각적이고 과학적 사실로부터, 즉 자신들로부터, 믿음 속의 것들을 뒤지면 그들은 이 경우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볼 것...

창3:8-'동산의 나무 한가운데' 그 안에 그들은 자신들을 숨겼다=자연적 선...'나무'=지각; 그러나 아주 적은 지각, 고로 이 지각을 표현한 나무는 단수로 표현하여 마치 나무 한 그루만이 동산에 남아 있는 듯 여겨지게 하고 있다.

창3:22-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들의 나무의 열매를 취하지 않도록'=그는 믿음의 신비들을 훈육받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가 그는 결코 '영원히 사는 것'인 영원히 구원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창3:24-'생명들의 나무의 길을 지키려고'=그가 거룩한 것들을 모독하지 않도록.

울1:12-'나무들'=지식들.

시148:9-'열매의 나무'=천적 인간.

시104:16-'여호와의 나무들과 레바논의 삼목(cedar)들'=영적 인간.

이4:12-'들판의 나무들'=그때부터 있는 믿음.

창18:4-'나무 아래 눕다'=그분이 있으셨던 그분의 상태를 지각하심에서.

창18:8-'그는 나무 아래 그들 앞에 섰다'=그때부터의 지각...주님이 신성한 지각 쪽으로 가까이 당겨지셨다는 것.

계2:7-'생명의 나무'=천적인 것 자체; 그리고 최고 의 미에서 주님 자신, 그 이유는 모든 천적인 것, 즉 모든 사랑과 선행은 그분으로부터 있기 때문. 고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주님을 먹는 것과 같다; 고로 사랑과 선행, 마찬가지로 천적인 것과 천국적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기부받아야 마땅하다.

겔20:28-'뒤엎힌 나무'=말씀을 수단으로 받아쓰지 않은 것들, 그러나 인간 교유의 과학적 사실들.

창23:17-'들판에 있었던 모든 나무'=교회의 내면의 지식들; 그 이유가 '나무'=천적 교회가 취급될 때는 지각들, 영적 교회가 취급될 때는 지식들이기 때문; 여기서

나무

는 내면의 지식들, 그 이유는 '들판에서'...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그다음 '그로부터 모든 경계 안에 있었던...'라는 말이 뒤잇는다. 이를 수단으로 외면의 지식들이 의미되고 있다.

이57:5-'모든 푸른 나무 아래'=모든 거짓들의 신앙으로부터. (=뒤집혀진 이해성으로부터 거짓을 지각하는 것)

레23:40-기억 속의 진리가 '뻑뻑한 나무의 가지'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계9:25-'(우박이) 들판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린다'=(그 거짓이) 교회의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들을 파괴했다.

계9:4-'나무'=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선으로부터 진리를 지각함)

출10:5-'너희를 위하여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나무를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그런 결과 교회로부터 그들에 의해 소유되었던 모든 지식들이 소진됨...'나무'=선과 진리에 관한 지각들, 또는 지식들.

레23:40-'영예의 나무의 열매'=천적 선.

창3:24-'생명들의 나무'=주님으로부터 있는 사랑의 선, 고로 주님; 그리고 (이제는) 그분은 사랑의 선을 통하여 구원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기에 이르는 길을 '지키심'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단4장- (느부갓네살의 꿈 속의) 나무, 그리고 그것의 높이는 '바벨'로 의미되는 광신적 신앙의 성장...(=천적인 교회)

창세기에서-'지식의 나무'=이 교회를 파괴한 과학적 사실.

창3:24-'생명의 나무의 길'=주님 쪽으로 진입함, 이것을 인간은 말씀을 수단으로 가진다.

계7:2-'...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게...'= 선한 자가 악한 자와 결합되어 있는 곳인 낮은 부분들 안으로의 유입은 주님에 의해 보류되었다. (=선한 자가 해를 입지 않도록...그들과 더불어 어떤 지각이 있다)

계8:7-'나무들의 삼분의 일이 태워졌다'=진리에 대한 모든 애착과 지각, 이것이 교회 속의 사람을 만드는데 이것이 멀해졌다....'나무'에 의해 인간이 의미되었다; 인간이 의지 속에 있는 애착으로부터, 그리고 이해성 속

에 있는 지각으로부터 사람인바, 이것들이 '나무'에 의해 의미되었다. 또한 인간과 나무 사이에 상응이 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나무들의 낙원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천사들의 애착들과 그로부터 파생된 지각들과 상응한다; 그리고 지옥의 어떤 장소에서도 역시 나무들이 있어 거기 있는 이들의 욕망과 그로부터 파생된 생각들에 따라서 나쁜 열매들을 맺고 있다.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과 지각은 악한 사랑들에 뿌리를 둔 탐욕들을 통해 사멸된다는 것.)

계9:4-'그들은 어떤 나무도...다치지 않도록'=그들은 진리와 선에 대한 어떤 애착과 지각을...거두어 갈 수 없도록 하시는 주님의 신성한 섭리...(=그들은 말씀에 있는 진리와 선에 대한 어떤 지식에도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

계22:2-'그것의 도로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의 나무가 있었고, 열 두 가지 열매들을 맺고 있었다'=교회 안에서 교리와 그로부터 파생된 생활 속의 가장 깊은 곳에 신성한 사랑으로 계신 주님이 있으시고, 인간이 판단하기에 자신으로부터 인듯 외관상 나타나는 모든 선들이 그분으로부터 흐르고 있다...'생명의 나무'=신성한 사랑에 관련되는 주님.

계22:14-'그들의 힘은 생명의 나무 안에 있을런지 모른다는 것'=결국에 사랑을 통하여, 즉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은 그들 안에 있을런지 모른다...그이유가 신성한 사랑으로 계신 주님이 '생명의 나무'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 그리고 그 나무에 있는 '권능'은 주님으로부터의 권능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창3장-'생명의 나무'=천적인 사랑, 이는 주님을 사랑함이다. (=보다 높은 천국들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 이것은 사랑의 선, 선행의 선, 이 선들로부터 파생되는 기쁨이다.

마7:19-'좋은 열매를 산출하지 않는 모든 나무는 잘리워 불에 던져진다'=믿음 안에 있고 선행이 없는 이들.

이44:23-'숲에 있는 나무들'=진리에 관한 지식들.

이44:23-'모든 나무'=자연적 인간에 있는 인식력과 과학적 사실.

나무-나병-나비-나사로-나실인-나실 신분

계22장='생명의 나무'=선으로부터의 진리에 대한 주님으로부터 있는 지각.

예17:7-'그는 물들 옆에 심어진 나무 같을 것이다...' 주님에 의해 인도되어지게 하려고 자신을 고통받게 하는 이들이 '나무', 그리고 나무의 성장과 결실에 비교되고 있다. 그 이유가 말씀에서 '나무'=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과 지각, 그 결과 이것들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 '물들 옆에 심어진 나무'=주님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이 있는 인간.

겔47:7-'강둑 이쪽과 저쪽에 있는 많은 나무들'=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과 지각들.

창3장-그들이 먹었을 때의 그 '나무'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인간을 의미했다.

나무 (wood)

* 목재(wood)를 보라.

나병 (leprosy)

출4:6-'그의 손들은 나병이 들어 눈 같이 희어 있었다'=진리를 모독함. '손들'=진리, 그리고 '나병에 걸림'=모독함, 특히 진리를 모독함.

레13:12-14-'머리부터 발뒤꿈치까지 나병에 걸린 자'란 내적인 진리들을 아는데, 그것을 인정 않는 자를 뜻한다. 그는 내면적 측면에서의 모독은 아니고 외면적 모독에 있다. 이는 제거되어진다. 그러므로 그는 '깨끗하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알고 믿고 있는데, 그것들에 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내면적 측면에서의 모독에 있다. 이는 믿어진 것을 나중에 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해지는바, '생살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날, 그는 부정(unclean)할 것이다.

삼하3:29-'나병에 걸린 자'=신앙으로부터의 진리를 모독함.

눅7:22-'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 '나병 환자'=불결한 이들, 그리고 깨끗해지기를 계속 갈망하는 자.

나비 (breadth)

* 넓이(breadth)를 보라.

나사로 (Lazarus)

*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로부터 산 자로 일으키심은 이방인들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소생을 포함하고 있

다.

눅16:19-21-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교회 내에 있으나 진리에 무지함 때문에 선 안에 거의 있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진리로 훈육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이 나사로로 불리운 이유는 주님에 의해 일으켜진 자가 나사로였기 때문이다. 말해지는바,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친구였다, 그는 식탁에서 주님에게 기대고 있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수러기로 배를 채우길 원했다란 진리들을 풍부히 지닌 교회 사람으로부터 몇가지 진리만이라도 배우고 싶은 그의 열망을 의미한다.

요11:3,5,11,36-가난한 사람 '나사로'에 의해 말씀을 지니지 못한 이방인들이 뜻해진다. 이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경멸되고 거절 당했다는 것이 종기가 가득한채 부자의 현관에 내쳐져 있는 나사로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방인들이 나사로에 의해 뜻해진 이유는 이방인들이 주님에 의해 사랑되어졌기 때문. 그들은 죽은 자로부터 소생한 나사로 같이 주님에 의해 사랑되었다. 그리고 그의 친구라 불리웠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식탁에서 있었다.

나실인 (Nazarite)

나실 신분 (Nazariteship)

* samson도 참조.

민6:4-나실인을 위한 법-그가 나실 신분의 날들에 있는 동안 그는 포도, 그로부터의 포도주의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된다...그런 이유는 나실인이 천적 인간을 표현했기 때문에서이다. 천적 인간은 영적인 것들은 언급하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는다. 포도주나 포도 등등은 영적인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나실인이 그것을 먹는 것이 금하여졌다. 즉 천적 인간이 영적인 것들과 왕래하고 그것들과 결합하는 것, 영적인 것이 자신에게 어울리게 하는 것이 금해졌다는 말이다.

민6:5,18,19-'머리털'은 진리에 관련한 자연 평면을 의미했다는 것은 나실 신분으로부터도 분명하다. 나실인들은 나실인의 서약을 준수하는 동안 내내 '면도칼이 자기의 머리를 지나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되어 있다. 그들은 신성한 인간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천적 교회의 사람을 표현했다,

나아마 -나아만-나이-나일

이는 주님의 '모습(likeness)'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머리털을 수단으로 천적 인간의 자연 평면을 표현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별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자연적 인간을 벗어내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했다. 이것은 날들이 충족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의 머리털을 밀어 그것을 제물 아래 불에 두도록 한 것에서 의미되었다.

창49:26-'자기 형제의 나실인의 최정점(머리의 관, crown)을 위하여'=외면의 것들에 관련하여. '나실인'=외면의 것들, 그이유는 나실인은 신성한 인간의 외적 측면인 신성한 자연 평면에 관련되는 주님을 표현했다. 나실인이 이것을 표현했다는 것은 나실 신분은 머리털 이다는 것, 그것의 거룩함은 머리털에 존재한다는 것, 등의 사실로부터 분명해진다. 그이유가 머리털은 자연 평면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이는 나실 신분을 서약하는 이들로부터 명백하다. 또한 이는 나실인이었던 삼손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그의 힘은 그의 머리털에 존재했다.

민6:3,4-이 법은 나실 신분의 날들을 채우기 앞서 나실인을 위한 법이다. 그이유는 이후 그는 주님의 첫 번째 상태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했기 때문. 주님이 가졌던 첫 상태는 그분이 감각적 (인간)이셨다는 것. 이 감각적 측면은 머리의 머리털에 의해 의미되었다. 그리고 감각 측면은 인간의 생명의 맨 끝에 해당된다. 그리고 모든 힘은 맨 끝에 주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이런 강함을 가졌다. 이런 강함을 주님이 어린 아이이셨을 때 가지셨다. 이를 수단으로 그분은 감각적인 것의 총체라 할 수도 있는 가장 끈적한 지옥들과 싸우고 정복하셨다. 이런 주님의 상태는 나실인이 날들을 채우는 기간으로 표현되어졌다. 이것들이 완료되었을 때, 주님은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인간이셨던 평면으로부터 신성한 영적이고 천적 평면으로 진입하셨다. 이제, 이 상태와 그것의 선과 진리가 '포도'와 '포도주'에 의해 의미되는바, 나실인은 그의 날들이 차기까지 포도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나아마 (Naamah)

창4:22-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똑같은 교회, 또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자연적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

나아만 (Naaman)

왕하5장-시리아로부터의 나병환자 나아만은 말씀으로부터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왜곡하는 이들을 표현하고 의미하고 있다.

나이 (age)

햇수 (age)

시대, 시절 (age)

* period도 참조

창21:2-'그의 노령에'...나이=상태

마25:17-'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신앙을 선행에 인접되게 하는 단계, 즉 발전된 신앙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사람들.

* '햇수'는 10년이다(창4:24, A433항 참조 바람).

창9:12-'대대(손손)'=영구한 것.

창15:9-교회의 마지막 때가 '세째 날', '세째 주', '세번째 달', '제 삼년에', 그리고 '세 살, third age'로 의미되고 있다.

말3:4-'시절의 날들'=태고 교회.

창49:26-'시대의 언덕들의 바램과 동등하게'=천적인 상호 사랑 쪽으로, '시대의 언덕들'=상호 사랑으로부터인 것.

합3:6-'영원의 산들'=태고 교회의 사랑으로부터의 선, '시대의 언덕들'=이 교회의 상호 사랑으로부터의 선. 전자는 이 교회의 내적인 것, 후자는 외적인 것.

출14:13-'너는 영원히 더 이상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한번 중단된 거짓들은 영원히 중단되어진다.

출27:21-'영원히'=영원한 것.

출30:21-'영원히, for ever'=영원인 것, what is eternal인 이유는 시대, age에 의해 마지막까지 포함되는 기간이 뜻해지기 때문이다. 원어의 경우에도 '시대'라는 표현을 수단으로 영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일 (Nile)

창41:1-'강', 여기서의 경우, 이집트의 강, 또는 나일,=경계(선). 그 이유가 큰 강들, 즉 유브라테, 요단, 나일은 가나안의 토지의 맨 끝 경계이기 때문. 나일, 또는 이집트의 강은 지적 부분에 복종하는 감각적인 것들, 고로 그것들로부터 있는 과학물들을 표현했다. 그 이유가 이것들은 주님의 왕국의 영적인 것들의 최말단들이

나타나다

기 때문이다.

이23:3-‘나일의 수확’=교회 밖(즉 과학적인 진리로부터)의 선.

나타나다 (appear)

외관 (appearance)

창6:6-(주님께서 후회하셨다)고 말해진 것은 겉보기(나타나 보여지는 것)에 따라 기록되어진 것일 뿐이다.

창9:13-진리의 모든 나타남이 ‘구름들’이다. 인간이 말씀의 글자 의미 안에 있을 때가 ‘구름들’이다. 그 이유가 말씀 안에서 아주 많은 것들이 겉보기에 의거해 말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말씀을 단순하게 믿을 때, 그래서 비록 말씀의 외관 만에 남아있는다 해도 그가 선행을 우선시하면서 말씀의 외관을 지니고 있다면, 이 ‘구름’은 상대적으로 얇다.

창11:5-‘여호와께서 보기 위해 내려오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는 글자 의미 만에서, 인간과 더불어 인간의 사고력 수준에서 표현된 것일 뿐이다. 어떤 것이 내향의 의미에서 표현될 경우, 그것은 그 본질 자체이다.

창14:1-‘그들은 바깥쪽 인간 안에 있었던 선들과 진리들, 오직 선들과 진리들인 듯 나타나는 것들이었다. 이로부터 주님은 그분의 어린 시절에 악들과 거짓들에 맞서 싸우셨다...선들과 진리들의 외관이 나타나는 것이 이 절에 언급되는 왕들로 의미되어 있다.

창14:12-그 자체 선들과 진리들이 아닌 겉보기에 선들과 진리들인 것이 바깥쪽 인간을 점령했다.

창14:15-‘그는 밤중에 그들(적들)에게 자신을 분배했다’=외관적인 선들과 진리들이 있는 그들...어떤 것이 겉보기에서의 선과 진리인지, 아니면 진짜 선과 진리인지, 판단함에 무지할 경우 그는 그들의 상태에 있다고 일컬어진다. 겉보기에서만 선과 진리에 있는 이들도 자기들이 진짜의 선과 진리에 있다고 상상한다. 외관적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악과 거짓이 그들을 만든다, 그리고 악과 거짓들을 진짜 선과 진리인듯 비치게 한다.

창14:15-‘그들이 ‘쳐부서’졌고’ 다메섹의 왼쪽에 있는 호바에까지 추격했다’라고 말해질 때, 이는 외관상의 선들과 진리들이 순수해져 가는 쪽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눅1:80-‘이스라엘에게 그의 나타남의 날까지’

창17:1-‘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명백함.

창18:1-‘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주님의 지각.

출26:31-34, 36:35,36, 마27:51, 막15:38, 눅23:45-‘베일 veil’은 합리성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의 가장 가깝고 가장 안쪽에서의 나타남을 표현했다. 이 안에 세 번째 천국의 천사들이 있다. 이 나타남이 ‘푸른색, 심홍색,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 그리고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에 의해 묘사되어져 있다...이로부터 ‘베일이 찢겨짐’=주님이 모든 겉보기를 훌뜨리셔서 신성 자체쪽으로 진입하셨음.

출26:36,37, 36:37,38-(천막의 문이 되는) ‘걸어두는 것(두 번째 베일)’에 의해서는 앞쪽의 베일에 비해 보다 더 수준 낮고, 더 외면인 선과 진리의 나타남, 또는 두 번째 천국의 천사들이 있는 곳인 합리성의 중간 부분이 표현되어졌다. 이 두 베일의 외관은 거의 같으나 이런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베일을 위해서는 다섯 기둥들과 받침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 숫자 5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음(little)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나타남(두 번째 베일)은 첫 번째 베일, 즉 가장 안쪽의 천국, 또는 세 번째 천국에 비해 (주님께) 덜 밀착되었고 (가까워지지 못하고), 덜 천적이다 (영적 수준일 뿐이다)는 말이다...

출27:16,17, 38:18,19-(뜰의 문이 되는) ‘걸어두는 것(세 번째 베일)’은 첫 번째 천국의 천사들이 있는 곳, 합리성의 가장 낮은 것, 즉 보다 더 외면, 보다 더 수준 낮은 선과 진리의 나타남을 표현했다. 이 나타남도 그것들이 내면의 것들에 상응하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묘사되긴 했으나 이런 차이는 있다. 즉 그 기둥들은 금으로 덧씌워있지 않았고 은으로 띠매어졌고, 갈고리들도 은으로 되었다. 이것들에 의해 과학적인 것을 근원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이끌어 내는 합리적 진리들이 의미되었다.

요13:31,32, 창22:9-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이 진리가 시험들을 겪었다. 이 진리는 신성한 진리는 아니고 합리적 진리인데, 이는 천사들과 더불어 있는 진리이다. 이 진리가 진리의 나타남

나타나다

(외관)을 구성한다. 이 진리가 신성화되기 이전인 '사람의 아들'로 불리워진다. 그러나 주님의 신성화되신 신성한 인간에 있는 신성한 진리는 나타남을 초월해 있는 바, 천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의 이해함의 수준이 높다 해도 가닿을 수 없다.

창24:65-'그녀는 베일을 가져다가 자신을 덮었다'=진리의 나타남(겉모습)...신부는 그녀가 신랑에게 처음 접근할 때 베일을 사용해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는데, 이는 진리의 나타남을 표현하고 있다. 진리의 겉모습은 진리들 그 자체는 아니고 진리들 같이 나타난다. 진리에 애착함 만이 진리의 나타남을 통하여 선에 애착함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결합이 있기 전까지는 진리의 나타남은 벗겨지지 않는다...

창26장-이 장에서 취급되는 주제는 세 겹 등차의 진리의 나타남에 관하여, 즉 어떻게 그들이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인접하는지, 그렇게 해서 진리들과 그들의 교리적인 것들이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이다.

창26:1-13-보다 높은 수준으로부터의 진리의 나타남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말씀의 내향적 의미에서의 진리의 나타남 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나타남 안에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이 있다.(1-6절) 그리고 신성한 진리와 선은 그들이 나타남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은 납득되어질 수 없는데,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7-13절) 그다음 보다 낮은 수준의 진리의 나타남에 관하여 이다. 이는 말씀의 내면의 의미 안에 있다. 이 안에 내향의 교회 속에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14-17절) 그다음 이 보다 더 낮은 수준의 진리의 나타남에 관하여 이다. 이는 말씀의 글자 의미 안에 있다. 이 안에 외향의 교회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18-25절) 그리고 아직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함이 있다 (26-33절).

창26:2-'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 생각함...

창26:4-'나는 이 모든 토지들을 줄 것이다'=영적인 것들. 이는 '토지들'의 의미로부터 분명하다. 이는 신성에 의해 예증된 것인 합리적인 것, 진리의 외관들 이다. 이 외관들은 진리들인바, 영적인 것들이다.

창26:12-'이삭은 그 토지에 씨를 뿌렸다'=합리성에 나타나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내면의 진리들...'토지'=합리적인 것들, 신성에 의해 예증된 것들, 진리의 외관들, 똑같은 말로 합리성에 나타나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내면의 진리들. 이 외관, 또는 이 진리들은 보다 수준 높은 등차 속에 있다...진리의 이런 나타남 안에 천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사는 인간의 이해함을 엄청나게 능가한다.

창26:12-...이 구절은 내향의 의미, 또는 관계적 의미에서 보다 더 높은 등차의 나타남에 관한 것을 취급하고 있다...이 나타남의 풍부함이 '그는 그 해에 백배되는 분량을 발견했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진리의 나타남, 또는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들과 더불어는 경우는 보다 낮은 등차의 진리의 나타남을 엄청나게 초월해 있다 이다.

창26:17-'(이삭은) 그랄의 계곡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했다'=보다 수준 낮은 합리적인 것 쪽으로, 또는 내면의 나타남으로부터 외면의 나타남으로 까지.

창26:20-'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가르치는 이들은 거기서 이와 같은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 그이유는 그들이 반대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그랄의 목자들은 말씀의 글자 외에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이다. 그들이 이와 같은 것, 즉 내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반대 쪽에 나타나기 때문. 즉 내향의 의미 안에 있는 것과 글자 의미 안에 있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 그러나 그들이 반대 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이유가 그들은 전적으로 상응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그들이 반대쪽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말씀을 보는 이들이 반대인 것 안에 있기 때문.

창26:24-'여호와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하셨다'=이 희미함에 관하여 주님이 지각하심...(주님의) 인간이 신성화되지 않는 한 여호와와 나타남은 신성한 지각, 또는 신성으로부터의 지각이었다.

창27:41, 숙8:17, 신16:22, 예12:8 호9:15-'미워함', 주님을 서술할 경우, 내향의 의미에서는 미워함이 아닌 자비이다, 그이유는 신성이 자비이기 때문. 그러나 이것이 악 안에 있는 인간 안으로 흐를 때, 그는 악으로부

나타내다-나팔-나팔부는 사람

터의 처벌에 몰입한다, 이것이 당사자에게 미워함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나타나기에 말씀의 글자 의미 역시 그렇게 기록될 수 밖에 없다.

마24:30-'그리고 그다음 천국에서 사람의 아들의 표시가 나타날 것이다'=그때에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나타남. '표시'가 나타남이다. 교회가 황폐해지는 횃수 만큼 주님이 오시는 횃수도 많아진다. 두 비교되는 나타남이 있다. 하나는 명백한 나타남, 즉 그분이 마르세에서 아브라함에게, 덩불에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토지에 진입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경우이다. 또하나의 나타남은 그리 명백하지 않은 나타남이다. 이는 영감에 의한 나타남, 이는 말씀이 기록된 수단이고, 이후 이 말씀을 통한 나타남이 후자의 경우이고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의 나타남에 해당된다.

창32:31-'절뚝거림'의 적절한 의미는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이들이다. 이들 안으로 영적인 진리들은 흐를 수 없는데, 그이유는 자연적 나타남과 감각으로부터의 오류 때문이다.

창37:2-'요셉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악한 보고를 가져다 주었다'=(신성한 진리)로부터 그들이 어떤 품질 속에 있었는지가 나타났다는 것.

창37:3-'그는 그에게 다양한 색깔로 된 외투를 만들어 (입혔)다'=그때부터 진리의 나타남, 이로부터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이 알려지고 구별되어진다.

창37:23-'그들은 그를 그의 채색 외투로부터 발가벗겼다'=그들은 진리의 나타남을 흠뜨리고 전멸시켰다는 것...이것은 진리 자체가 거절된 이후 거행된다. 그이유가 진리 자체는 그 자체로부터 마음들을 빛나게 하기 때문. 설사 이것이 소멸되었어도 선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특별히 나타난다.

창37:23-'그가 입었던 채색의 외투'=선으로부터의 진리에 관련하여 나타남의 품질...나타남의 품질이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따라 있다는 것은 천국의 빛에서 관조될 때의 진리의 나타남으로부터 분명해진다.

창37:31-'그들은 요셉의 외투를 가져왔다'=나타남...지금 취급되는 것은 신성한 진리들에 맞서 거짓인 것을 확증함에 관하여서이다....그리고 이것은 나타남을 수단

으로, 말씀의 글자의 의미로부터 추론함을 통하여 표출되어진다.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해석을 수단으로 거짓인 것을 확증함이 모든 나타남들이다. 이로인해 단순한 사람들은 타락 쪽으로 곧잘 이끌려지고 만다. 그리고 거짓은 진리인 듯 표출되고, 진리는 거짓으로 둔갑되어 있다.

창37:32-'그들은 채색의 외투를 보냈다'=외관을 더럽혔다.

창42:13-'한 명은 있지 않다'=신성한 영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창43:30-'그는 침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울었다'=그 자체 외관상은 아니다. '침실로 가는 것'=그 자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창43:31-'그는 자기 얼굴을 씻었다'=나타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

출6:3-'나타나는 것', 또는 '보여지는 것', 여호와에 관련해 말해질 때=신성으로부터의 지각.

출18:22-'그리고 조그만 모든 말(언쟁)은 그들이 판결할 것이다'=(신성 보다) 또다른 근원으로부터 어떤 특수한 것, 각각의 것이 나타남.

출23:17-'한 해에 세 번 너희 모든 남성은 주 여호와 의 얼굴 앞에서 보여져야 할 것이다'=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서도 역시 주님은 계속 나타나시고 현존하신다.

창5:1-'하느님의 모습'은 마치 사랑과 지혜가 인간 안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모습과 충만한 나타남이다...사랑과 지혜가 그의 것인 듯 인간 안에 있는 모습 또는 나타남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그로 하느님과 결합할 수 있게 하여 영원히 살게 하는 원인이 된다.

나타내다(manifest)

* 명백히 하다를 보라

나팔 (trumpet)

나팔부는 사람 (trumpeter)

* instrument, sound도 참조

계18:22-'나팔부는 사람들'=신앙으로부터의 선들.

* '나팔로 소리를 내는 것'=영적인 표현.

호5:8-'나팔로 소리내는 것'=교회외의 지적 측면(에브라임)이 황폐되었다는 것을 알림.

나홀-낙원

출19:16-‘극도로 큰 나팔 음성’=천적 상태로 둘러싸여 짐. 그 이유가 나팔의 ‘음성’, 또는 ‘소리’=천적 선으로부터의 진리. ‘음성’=진리, ‘나팔’=천적 선이기 때문.

출20:18-‘나팔의 음성’=천국을 통하여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들. 그 이유가 ‘나팔의 음성’=신성 주위에 있는 천사의 천국의 상태, 그리고 또한 거기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마24:31-‘나팔의 음성’=내적 형체 안에 천국을 통하여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그것의 복음 전도.

계18:22-‘피리부는 자와 나팔부는 자’의 ‘음성’, 또는 ‘소리’는 천적인 애착들과 관계되고 있다. (=천적 진리와 선에 애착함)

숙9:14-‘그는 나팔로 소리낼 것이다’=선을 명백히 지각함.

습1:16-‘나팔의 날과 소리냄의 날’=영적 전투, 이는 거 것들과 악들을 향하여 있다.

시81:2-‘나팔로 소리냄’=예배.

예6:1-‘나팔을 소리내는 것’=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의 교회를 향한 전투.

숙9:14-‘나팔로 소리내는 것’=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흠뜨리는 것.

이27:13-주님에 의해 교회로 소집함이 ‘그 날에 큰 나팔이 소리내질 것이다’에 의미되어 있다.

나홀 (Nahor, 데라의 아버지)

창11:22-‘스룩은 나홀을 낳았다’=거기로부터 파생됨. 나홀은 그것의 아버지(조상)으로서 그로부터 그의 이름으로 명명된 나라였다, 이를 수단으로 우상숭배 쪽으로 바짝 다가간 예배를 의미했다.

나홀 (Nahor, 데라의 아들)

창11:26-‘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거기로부터 파생됨. 아브람, 나홀, 하란은 실존 인물들이다, 이들로부터도 역시 나라들이 명명되었는데, 우상숭배자들이었다.

* 우상숭배에 세 종류가 있는데, 그중 둘째가 세상 사랑으로부터인데, 이것이 (‘나홀’)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24:10-‘나홀 성읍 쪽으로’=관련된 교리적인 것들. ‘나홀’은 관계된 것을 표현한다. 그 이유가 나홀은 아브람의 형제였다. 나홀로부터 브두엘이 있었고, 브두엘로

부터 리브가가 있었다.

창29:5-‘당신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그들은 그의 지주(stock)로부터의 선을 가졌다는 것. ‘나홀’은 ‘라반’이라는 선을 있게 한 공통의 지주를 표현한다.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교회들을 있게 한 공통의 지주를 표현한다. 그 중에서 아브람은 진짜 교회의 표현을 입는다. 나홀, 진짜 교회 비슷한 교회로부터의 것이 말씀을 가지지 않은 나라들과 더불어 있다. 이로부터 나홀, 브드엘, 라반에 의해 공통의 지주로부터의 방계적 선이 표현되었다. 그들이 있는 이 선 안에 주님의 교회로부터 있는 이들이 이방인과 더불어 있다.

창31:53-‘아브람의 하느님과 나홀의 하느님이 우리 사이에서 판결하신다’=교회 내에 있는 이들의 선 안으로 신성(이 유입됨), 그리고 교회 밖 이들의 선 안으로 신성(이 유입됨). ‘나홀의 하느님’=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 관련한 주님의 신성인 이유는 나홀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표현하기 때문. 그리고 그의 아들들, 거기서 형제에 안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

낙원 (paradise)

* garden 참조

* 낙원=천국.

* 여섯째 날의 끝에서, 인간은 천국으로, 또는 천국적 낙원이 소개받아진다.

계2:7-‘하느님의 낙원의 한가운데 있는...’=내면적으로 지혜와 신앙의 진리들 안에. ‘하느님의 낙원’=지혜로부터의 진리들과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이는 말씀에 있는 ‘동산, garden’의 의미로부터 분명하다.

계2:7-‘하느님의 낙원의 한가운데 있는...’=저쪽에서 보고, 저쪽으로부터 진행하는 교회 안에, 천국 안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들. ‘낙원’=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과 파생되는 총명. 그리고 이것들이 ‘낙원’에 의해 의미되는바, ‘하느님의 낙원’은 천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천국, 교회가 ‘하느님의 낙원’이라 불리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총명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의 ‘낙원’은 낙원의 동산이 뜻해진다고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상의 낙원이 뜻해진 것은 아니다. 이 낙원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총명과 지혜 안에 있는

낙타

이들에 의해 소유되어진다.

낙타 (camel)

창12:16-‘낙타들’ 등등=과학적인 것들에 속하는 일반적인 모든 것들...‘낙타들’=일반적 쓰임들.

* 낙타=일반적 측면에서의 과학적인 것.

창24:10-‘그는 자기 주인의 낙타 중에서 열 마리를 취해 가지고 떠나갔다’=자연적 인간에 있는 일반적인 과학적인 것...‘낙타들’=일반적인 과학물들

이30:6-‘낙타들의 등 위에 그들의 보물들...’=그들의 자연 평면에 있는 지식들. ‘낙타들의 등’=자연적인 것. ‘낙타’ 자체=거기 있는 일반적인 과학물들.

창24:11-‘그는 낙타들로 그들 무릎을 앞쪽으로 꿇게 만들었다’=일반적 과학물의 일반적 배열.

창24:14-‘나는 당신의 낙타들 또한 마시게 할 것이다’=자연적 인간에서 모든 과학물들로부터의 계발. ‘낙타’=일반적 과학물들. 고로 일반적으로, 또는 모두.

창24:31-‘낙타를 위한 장소’=저쪽에 섬김 속에 있을 모든 것들을 위한 상태. ‘낙타들’=일반적 과학물들, 그리고 섬김들. 그이유가 자연적 인간의 모든 것들은 영적 인간을 섬기는 용도 외 다른 쓸모는 없기 때문. 그러므로 ‘종들’, ‘하녀들’, ‘낙타들’, 그리고 ‘나귀들’, 내적 의미에서, 자연적 인간 속의 이러저런 것들을 특별하게 의미한다.

창24:32-‘그리고 그는 낙타들을 풀어 놓았다’=섬김 속에 있어진 것들을 위한 자유. ‘낙타들’=일반적 과학물들, 고로 섬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창24:32-‘그리고 그는 낙타들에게 짚과 사료를 주었다’=진리들과 선들을 가르침.

창24:61-‘그들은 낙타들 위에 탔다’=과학적 자연적인 것들 위로 승강된 지적인 것들. ‘낙타들’=자연적 인간에 있는 일반적 과학물들, 고로 과학적 자연적인 것들.

창24:63-‘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다’=자연적 인간에 있는 일반적 과학물들.

창24:64-‘(리브가는)낙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자연적 인간에 있는 과학물들로부터 (진리에 애착함)의 분리. ‘낙타들’=자연적 인간에 있는 과학적인 것들.

예49:29-‘낙타들’=일반적인 과학물들.

창30:43-‘낙타들과 나귀들’=외면과 외부의 선으로부터

의 진리. ‘낙타들’=자연적 인간의 일반적 과학물들. 일반적 과학물은 더 낮고 더 외면에 속하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다.

창31:17-‘(야곱은)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들 위에 올렸다’=이런저런 진리들과 애착들의 승강,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에서 질서적으로 배열함. ‘낙타들’=자연에 있는 일반적 과학물들.

창31:14-‘(라헬은) 그것들을 낙타의 짚 안에 두었다’=과학물들 안에.

창32:7-‘(야곱은)두 진영으로 낙타들을 갈랐다’=에서의 의해 표현된 선을 받기 위해 자연 평면에 있는 진리들과 선들을 준비시키고 배열함. ‘낙타들’=외면 또는 일반적 진리들, 고로 또한 비 진리들.

창32:15-‘젖을 내는 낙타들’ 등등=일반적 섬김들. ‘암 낙타들’ 등등=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있는 이러저런 것들.

창37:25-‘향신료를 나르는 낙타들’=내면의 자연적 진리들. 일반적으로 ‘낙타들’=자연적으로부터 있고 영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자연적 인간에 있는 일반적 과학물들.

마3:4, 막1:6-‘낙타털 옷’=글자 의미에 놓인 진리 측면에서의 말씀...그 이유가 자연인 것이 ‘털’에 의해, 또한 ‘낙타’에 의해 의미된다.

출9:3-‘낙타들’=일반적인 과학물들.

왕하1:8-‘낙타의 털들’=세상에서 인간 앞에 나타나는 과학적 진리들.

예49:29-‘낙타들’=일반적 과학물들.

이30:6-‘나귀’=지식, 또한 ‘낙타’=지식.

이60:6-‘낙타들의 군대’=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에 있는 모든 것.

예49:32-‘낙타들’=확증해주는 과학물들.

마3:4, 막1:6-‘낙타의 털’=자연적 인간의 최말단, 이는 감각 부분이다.

마3:4, 막1:6-‘낙타의 털’=자연적 인간의 최말단들, 즉 말씀의 외면의 것들.

예49:29-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낙타들’에 의해 의미된다.

난로 (fireplace, hearth)

난로-날

겔24:5-‘뼈들의 난로’=진리에 애착함

요20:9-‘숫불’=선

이30:14-‘난로’=선 측면에서의 말씀.

이31:9-‘그분의 난로는 시온에 있고, 그리고 그분의 오븐(oven)은 예루살렘에 있다’...천적인 사랑은 관계적으로 ‘난로’이고, 교리로부터의 진리는 빵이 만들어지는 오븐과 같다.

요21:9-‘난로’, 또는 ‘불’=선...‘난로’ 또는 ‘불’=사랑의 선.

날 (day)

* 낮도 참조

* 말씀에서 때 자체를 말하기 위해 ‘날’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 여섯 날들 또는 기간은 아주 많이 연속되는 인간 거듭남의 상태

* 가장 오래된 때를...예언서들에서는 ‘옛적’이라 부르고 있다. 또한 ‘영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슌14:7-‘여호와께 알려진 어떤 날이 있을 것이다; 낮도, 밤도 아니다; 저녁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거듭나야져 가는 인간에 관련된 것.

막13:19-‘고뇌의 날들’=저 세상 삶에 있는 그의 비참한 상태.

창1:14-광명체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위해 있을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개별적으로도 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에는 바뀐이 있다. 이 변화들이 ‘날들과 해들의 바뀐이다; 날들의 바뀐은 아침으로부터 정오, 그리하여 저녁까지, 그리고 밤으로부터 아침 까지이다.

창3:17-‘네 생명의 모든 날들 (=네 평생)’=교회의 마지막까지 조차.

창4:3-‘날들의 끝 (=세월)’=때가 (발전하여) 나아감.

말3:4-‘영원의 날들’=태고 교회; ‘고대의 해(year)들’=고대 교회.

창5:4-‘날들’=일반적인 시간들과 상태들. 말씀에서 모든 때(time)를 날들로 부르는 경우는 아주 흔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때의 상태는 ‘낮’에 의해 의미된다; 그리고 ‘해’가 추가될 경우, 해들의 때는 상태의 품질, 고로 특수한 측면에서의 품질을 의미한다.

창8:6-‘40일의 끝에 오게 되었다’=이전 상태의 기간, 그리고 뒤이어지는 상태의 시작...시험 이후 상태가 여기서 취급되고 있는바, 사십 밤들이 아닌 사십 낮들이라 말해지고 있다. 그 이유가 지금 선행(charity)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 이를 두고 말씀에서 낮에 비교되고, ‘낮’이라 불리워진다; 앞서 있는 믿음, 아직은 선행과 밀접하게 결합되지 않고 있는 바 밤에 비교되고 ‘밤’이라 불리운다.

창8:22-‘아직 땅의 모든 날들에’=모든 때; 그이유가 ‘날’=때...이기 때문.

신32:7-‘태고 교회와 고대 교회가 ‘영원의 날들’, 그리고 ‘세대와 세대의 해들’이다.

슌1:14-‘여호와와의 날’=교회의 마지막 때와 상태.

창17:23-‘똑같은 날에’=그때 당시. ‘날’=때와 상태.

창18:11-‘날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때가 압박한 것. 말씀에서 ‘날’은 ‘해’와 일반적인 것은 비슷하다. 즉 때=상태; 그러므로 여기서 ‘날들로 들어감’=그분이 인간을 벗는 상태 안으로 들어감; 고로 때가 압박한 것.

호6:2-‘삼일째 날’=심판, 또는 주님의 강림.

창21:8-‘그가 이삭에게서 젖을 떼이던 그 날에’=완성인 것, 그리고 성결함의 시작. ‘날’=말씀에서 상태.

이23:15-‘칠십 년들’=전체 시기, 교회 존재의 시작으로부터 교회가 종료할 때 까지, 이는 또한 한 왕의 ‘날들’이다.

시77:5-‘옛 날들’ 그리고 ‘시대들의 햇수들’=(태고와 고대) 교회들.

창24:1-‘늙은 아브라함은 날들에 왔다’=주님의 인성이 신성이 되는 상태가 압박했다...‘날’=상태.

창24:55-‘하루 또는 열 이후에 당신은 갈 것이다’=그들에게 나타나는 떠남의 상태는 충만해 있다. ‘날’=상태

창25:7-‘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의 생애의 햇수의 날들이다’=신성의 본질 측면에 관련하여 표현한 주님의 상태. ‘날들과 햇수들’=상태들.

창25:24-‘그녀의 날들은 출산하도록 가득 찼다’=결과의 첫 상태. ‘날들’=상태들.

출22:30-제 어머니와 칠일 동안 있어야 하는 이유는 ‘칠일째 날’이 천적 인간을 의미하기 때문; 여덟째 날에

그것이 여호와께 드러졌던 이유는 '팔일 쟈 날=새로운 시작으로부터 계속인 것, 즉 사랑의 연속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

창26:8-'..이었던 이유는 거기서 날들이 그에게 길어졌기 때문이다'=수용함의 상태, '날들'=상태들.

창26:18-'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시절'=진리 측면에 관하여 앞서는 때와 상태...'날들'=때와 상태.

창26:32-'그 날이 되었다'=(교리에 관한) 상태.

창26:33-'이 날 까지 조차'=상태의 영존.

창27:2-'나는 내 죽음의 날을 모른다'=자연계에서의 삶. '날'=상태...고로 '죽음의 날'은 생명으로 소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창27:41-'슬픔의 날들'=역으로 된 상태.

창27:44-'그와 며칠을 머무리라'=연속인 것...'날들'=때들과 상태들.

출20:12-'토지 위에서 날들'=그때부터 주님의 왕국에 있는 선의 상태들.

마24:19-'이들의 날들'=그 당시 교회가 있어질 상태들.

마24:22-'날들이 짧아져 갈 것'=제거되는 상태

창29:7-'보라 아직은 낮이 한창이다'=지금 상태는 발전하고 있다는 것.

창29:14-'그는 날들의 한 달을 그와 더불어 거주했다'=삶의 새로운 상태...'날들의 한 달'=새로운 상태...해, 달, 날이 단수로 언급될 경우, 그것은=전체 상태, 고로 이전 상태의 끝과 이후 상태의 시작.

창29:20-'그것들(칠 년)은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며칠로서 그의 눈 안에 있었다'=사랑의 상태...'날들'= 상태들.

창29:21-'내 날 수가 찼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갈 것이다'=지금은 새로운 상태이다. '날들'=상태들.

창30:14-'르우벤은 수확하는 날들에 갔다'=사랑과 선행의 상태에 관련되는 믿음. '날들'=상태들.

창30:16-'그는 자신과 야곱 사이에 삼일의 길을 놓았다'=그들의 상태는 아주 분리되었다...'날들'=상태들.

마24:29-'이러한 날들의 고뇌 후에 즉각적으로'=믿음 속에 있는 교회의 진리에 관련된 상태..'날들'=상태들.

창31:22-'삼일 쟈 날에 라반에게 말해졌다'=결합의 끝장. '삼일 쟈 날'=마지막인 것, 그리고 또한 완성되는

것, 고로 마지막, 그러나 시작이기도 한데 그 이유가 결합의 상태가 끝남은 새로운 상태의 시작이기 때문, 이는 분리됨의 하나이고, 이 상태가 여기서 '삼일 쟈 날'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마24:36-'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그 때에 있는 교회의 상태는 땅이든 천국이든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의 '날과 시간'은 날과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선과 진리에 관한 상태를 뜻한다.

창33:16-'에서는 시날 쪽 그의 길로 해서 그 날 되돌아 갔다'=그때 당시 신성한 자연적 선의 상태, 이 상태에서 선과 진리가 결합되어졌다. '날'=상태.

창34:25-'삼일 쟈가 되었다'=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 '삼일 쟈 날'=시작부터 끝까지 완성인 것, 고로 계속인 것 역시 의미한다.

창35:3-'내 환난의 날에 나에게 답하셨던...'=선 보다 진리를 우선시했던 상태에서. '날'=상태.

창35:28-'그리고 이삭의 날들...이였다'=신성한 합리성의 지금의 상태. '날들'=상태들.

창35:29-'늙고 날들이 찼다'=삶의 새로운 것...'날들이 찼음'=충만한 상태.

창37:34-'그는 그의 아들 때문에 많은 날들을 슬퍼했다'=파괴된 선과 진리 때문에 슬퍼하는 상태...'날들'=상태들; 여기서 큰 슬픔의 상태...그 이유는 '많은 날'이라고 말해졌기 때문.

창38:12-'날들이 곱해졌다'=상태의 변화... 그 이유가 '날', '때'는 내적 의미에서 상태이기 때문.

암9:11-'영원의 날들에 따라 짓는 것'=고대 시대에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상태, 이 때는 말씀에서 '영원의 날들', 그리고 '시대의 날들', 그리고 '세대와 세대의 날들'이라 부르고 있다.

창39:10-'그녀는 요셉에게 날마다 말했다'=...인 것에 관한 생각...'날마다' 또는 매일 마다=집요하게.

창40:4-'그들은 감옥에 날들 동안 있었다'=그들은 거절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 '날들'=상태들; 여기서 '날들 동안'=오랜 시간 동안의 상태.

창40:12-'세 어린 가지는 삼 일이다'=마지막에 까지 조차 계속되는 갈래들...'날들'=상태들.

창40:13-‘삼일 내에’=그 당시 새로운 것...‘날들’=상태들...이로부터 분명한 바, ‘삼일’=완성된 상태; 그런 결과 ‘삼일 내에’ 또는 ‘삼일 후에’=새로운 상태; 그 이유가 상태가 마무리된 이후 새 것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창40:18-‘삼일이다’=마지막 까지 조차.

창40:19-‘삼일 내에’=마지막 안에 있는 것.

창40:20-‘삼일째 되는 날이 왔다’=마지막 안에. ‘삼일째 날’=마지막 상태; 그 이유가 ‘날’=상태.

창42:18-‘요셉은 삼일째 날에 그들에게 말했다’=완성됨이 마무리지어 졌을 때, 그 자체로부터 분리된 일련의 진리들에 관하여 영적 인간 속의 천적인 것이 지각함...‘삼일째 날’=새로운 것이 올 때의 마지막 상태.

창43:9-‘나는 모든 날들에서 당신에게 죄있을 것이다’=교회는 더 이상 어떤 선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날들에서’=영구히, 그러므로 더 이상.

요9:4-‘낮’=선으로부터의 진리; ‘밤’=악으로부터의 거짓. 교회의 처음 때가 ‘낮’에 의해 의미된다. 이때는 그들이 선 안에 있어서 진리가 받아들여졌다. ‘밤’에 의해 의미된 교회의 마지막 때가 있다. 이때 그들은 선 안에 있지 않아서 진리의 어떤 것도 받아지지 않는다.

창47:8-‘네 생애의 햇수의 날들은 얼마인가?’=영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자연적 삶의 상태에 관하여. ‘날들’, 그리고 ‘햇수들’=상태들.

창47:9-‘내 머무름들의 햇수들의 날들’=삶의 연속적인 것들에 관하여. ‘날들’ 그리고 ‘햇수들’=상태들.

창47:26-‘오늘에 조차도’=영원 까지.

창47:28-‘야곱의 날들, 그의 삶의 햇수들, 칠년 그리고 일백 사십 년이었다.’=일반적 상태와 그것의 품질.

창47:29-‘이스라엘의 날은 죽어감 쪽으로 더 가까이 당겨졌다’= 거둢나기 앞서 즉각적으로 있는 상태...‘날들’=상태들.

창48:15-‘그때로부터 이 날 까지’=계속적으로. ‘오늘’ 또는 ‘이 날’=영속적이고 영원인 것.

창48:20-‘그는 이 날에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영원히 있을 것에 대한 예견과 섭리.

창49:1-‘나는 날들의 끝에서 발생할 것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그 당시 그들이 있었던 그 질서 안에 있는 교회의 상태의 품질...‘날들의 끝’=상태의 마지막, 이 안에

그것들은 함께 있다; 그 이유가 ‘날들’=상태들이기 때문이다.

창50:1,3-‘사십 일이 그에게 채워졌다’=시험들을 통하여 준비되는 상태...‘날들’=상태들.

창50:20-‘이 날에 따라 행하기 위하여’=그것은 영원으로부터의 질서에 따라 있다는 것...‘이 날에 따라서’=영원으로부터.

출2:11-‘그것들의 날들 안에서 (세월이)지났고 모세는 성장했다’=이런 상태들이 지속되었을 때, 그리고 과학적 진리들이 불어남. ‘날들’=상태들.

예12:3-‘죽일 날’=선행이 없기에 더 이상 어떤 신앙도 없어 교회가 황폐되는 때.

출2:23-‘그것들의 날들 안에서 지나왔다’=상태의 많은 변화 후에. ‘날들’=상태들.

출5:6-‘바로는 그 날 명령했다’=저 상태 동안 교회 속의 진리들에 침입하려는 탐욕.

출5:13-‘하루(에 마치기로) 약속된 너희 일들을 그 날에 마무리하라’=그들은 모든 상태에서 거짓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하루 안에서 하루의 할당량’=모든 상태에서.

출6:28-‘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땅에서 모세에게 이야기 하셨던 그 날이 왔다’=아직 지옥에 있는 이들의 근처에 있는 한편, 주님의 영적 왕국 속에 있던 이들에게 명령이 신성으로부터의 법에 의해 주어졌던 때의 교회의 상태. ‘날’=상태.

출10:22-‘삼일 동안’=충만된 상태.

출12:15-‘첫 날에서 조차 너희는 너희 집으로부터 누룩이 중지되게 만들 것이다’=선 안에는 어떤 거짓이든 없어야 한다. ‘첫 날’=그 상태의 시작.

출12:15-‘첫 날로부터 칠일째 날 까지 조차’=거룩한 충만된 상태. ‘칠일’=거룩한 상태, 충만된 상태.

출12:16-‘일곱째 날에 너희를 위해 거룩한 집회가 있을 것이다’=고로 상태의 마지막에서. ‘일곱째 날’, 이 날은 축제의 마지막 것이었다=그로부터 마지막.

출12:19-‘칠일 동안’=이 상태의 전체 기간. ‘일곱 날’=거룩한 상태, 그리고 또한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기간, 또는 충분한 상태; ‘한 주간’의 의미도 같다.

출12:51-‘이 똑같은 날에 실현되었다’=주님께서 현존

하시는 상태. '날'=때와 상태.

출13:6-'칠일 쟈 날 여호와께 축제를 드려라'=주님께 대한 거룩한 예배. '칠일 쟈 날'=거룩한 상태.

출16:1-'둘째 달 제 15일 쟈에'=상대적 측면에서의 상태... '달'=이전 상태의 끝과 뒤잇는 것, 즉 새로운 상태의 시작; '날'=일반적 측면에서의 상태.

출16:4-'그들은 하루(a day)의 필요량(word)을 당일(its own day)에 수집할 것이다'=필요성은 요지부동하게.

출16:5-'여섯째 날에 있을 것이다'=각 상태의 끝에서. '날'=상태.

출16:26-'육일 동안 너희는 그것을 수집할 것이다'=진리가 선과 결합하기 앞서 진리를 받음. '6일'=전투와 노동의 상태; 여기서 진리를 받는 상태, 또는 선이 진리를 통하여 획득되어지는 상태, 이런 이유가 이 상태에서 전투와 수고함이 있기 때문...

출19:1-'이 날에'=그 때에...'날'=상태; 그러므로, '이 날에'=상태가 충만해지는 그 때에.

출20:12-'네 날들이 토지 위에서 길어질 것이다'=그 결과로서 있는 천국에서의 생명의 상태...'네 날들'=생명의 상태.

이13:9-'여호와와의 잔인한 날'=교회의 마지막 때. 어떤 신앙과 선행도 더 이상 있지 않는 때.

욥2:1-'여호와와의 날'=마지막 상태, 또는 교회의 마지막 때, 즉 더 이상 어떤 진리도 있지 않고, 진리 대신에 거짓이 있을 때.

출21:21-'만일 그가 하루 또는 이틀 계속할 것이라면'=충만함에서 조차 남아 있는 생명의 상태. '날'=생명의 상태; '이틀'=계승되고 있는 상태, 고로 충만한 상태.

눅4:25-'엘리아(Elias)의 날들에'=그때에 말씀으로부터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받는 상태...'날들'=상태들.

출22:30-'칠일 동안 그것은 제 어미와 있을 것이다'=진리들과 더불어 첫 상태. '칠일'=거듭나야지는 이들의 첫 상태; 그 이유가 '날들'=상태들이기 때문.

* '팔일 쟈에 너는 그것을 나에게 줄 것이다'=뒤잇는 상태의 시작, 즉 생활이 선으로부터 있을 때...'팔일 쟈 날'=뒤를 잇는 상태의 시작.

출23:26-'네 날들의 숫자를 나는 채울 것이다'=충만된 상태에 까지. '날들'=생명의 상태들.

출24:16-'육일'=진리의 상태에 있는 동안.

출29:36-'매일' 또는 '날마다'=계속적으로.

출29:37-'칠일 동안 너는 제단 위에 화해시킬 것이다'=천국과 교회 안으로의 유입에 관련하여 충만하다는 것. '칠일'=충만하다는 것.

출29:38-'매일'=모두 각각의 상태에서; 그 이유가 '날'은 상태를 의미하고, 날의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의 번제가 있는바 모두 각각의 상태가 의미되어진다.

시90:12-'우리의 날들을 세는 것'=삶의 상태들을 정리 정돈 하는 것. 그들이 정리 정돈 될 때, 즉 그들이 마감 되어졌을 때 날들이 세어진다 라고 말해지는 바, 마치 이사야서 38:10의 구절 같다.

욥1:15-여기서는 주님의 강림이 취급되고 있다. 그 이유가 그것이 '여호와와의 날'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이다.

이24:21, 욥2:1, 3:14-'여호와와의 날'은 주님의 강림을 뜻하고 있다. 이 강림은 교회에 선과 진리의 어떤 잔여도 없는 곳, 그리고 주님께 관한 어떤 지식도 남지 않은 곳에서 거행되었다.

마24:22-'이것들의 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구원될 어떤 육체도 없다, 그러나 뽑힌 자 때문에 이것들의 날들은 짧아질 것이다'=교회가 그것의 때 앞서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깡그리 멸해질 것이다.

계2:10-'너희들은 열흘 동안 고뇌를 가질 것이다'=이것은 충만된 시기를 지속하는 것, 즉 그들이 거짓들 안에 남기를 계속 원하는 것...'열흘'=충만까지의 이 상태의 기간. 그 이유가 '날들'=상태들이기 때문이다.

계9:15-'한 시간, 하루, 한 달, 그리고 한 해'=계속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모든 시기가 똑같음.

계18:8-'하루에'=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심판은 '심판의 날'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이19:23,24-'날'이 두 번 언급되었는바, 이는 주님의 처음과 둘째 강림을 뜻한다.

창1장-'저녁과 아침이 하루'에 의해 뜻해진 것...'날'=일반적인 때이다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아주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이 단어가 때(time)를 뜻하기 때문이다.

날

눅17:22-‘그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사람의 아들의 날들의 하나를 보기를 갈망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의 날들의 하나를 갈망함’=어떤 점에서 일 경우 진짜인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갈망하는 것.

계2:13-‘내 순교자이었던 안디바가 너희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던 날에’=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고백하는 모두가 미움을 받은 그 때와 그 상태. ‘날’=때와 상태.

시139:16-‘당신의 책에 내 모든 날들이 씌여졌습니다, 그 안에서 내 모든 날들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의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생애의 모든 상태들...

시110:5-‘분노의 날’=전투의 상태.

이13:9-‘여호와와의 날’=심판이 도래하는 때, 곧 교회의 마지막 끝.

시44:22-‘우리는 날마다 죽여졌다’=우리 자신 속의 것으로 해서 우리는 거짓 안으로 빠져들고 있고, 그것들로 해서 엉뚱한 쪽으로 인도된다.

이30:25-‘큰 살육의 날’=사악한 자가 정죄되고 멸해지는 마지막 심판.

이63:4-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지옥으로 내던짐이 ‘원수 갚는 날이 내 심정 안에 있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시137:18-‘완전한 자의 날들’=선 안에 있고, 이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 또는 선행 안에 있는 이들, 이 선행으로부터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의 상태들.

이19:18-‘그 날에’=주님의 강림, 그리고 그때 주님으로부터의 과학적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의 상태들.

이13:9-‘분개함과 성냄의 분노의 잔인한 여호와와의 날’=마지막 심판의 날.

이2:12-‘만군의 여호와와의 날’=마지막 심판...

계6:17-‘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오기 때문이다’=악한 자 위에 마지막 심판이...악한 자 위에 있는 마지막 심판이 ‘분개의 날’, ‘분노의 날’, ‘성남의 날’. 그리고 ‘원수 갚는 날’ 등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선한 자 위에 있는 심판은 ‘주님의 오심의 때’ 등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34:8, 61:2-‘여호와와의 원수 갚는 날’, ‘마찬가지로’ 그분의 성내심의 날, 그리고 ‘그분의 분노의 날’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한다.

속14:8-‘그 날에’=그분의 강림.

요11:9-‘날’=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서 계발됨; 그리고 ‘낮의 열두 시간들’=선으로부터의 진리 속의 모든 것들.

예31:27-‘날들이 오고 있다’=주님의 강림.

신33:25-‘말씀이 영원 까지 영속될 것이라는 것이 ‘네 날들 같이 네 명성도 있을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27:13-‘그날에 큰 나팔이 소리낼 것이다...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강림에 관하여 말해지는 것이다.

호6:2-‘세째 날에’=충분한 재구성과 회복.

말4:1-‘보라, 가마 같이 태우는 날이 온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마지막 때, 즉 그때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관해 말해지는 것들이다.

계9:6-‘이런 날들’=그 당시

이17:7-‘그 날에 사람은 자기를 지은 자를 뒤돌아 쳐다 볼 것이다...이런 사항들은 주님의 강림 그리고 그럴 당시 새로운 교회에 관해 말해졌다.

울2:2, 습1:15-이로부터 악의 거짓들 안에 있는 자들이 멸해지는 때인 마지막 심판이 ‘구름과 어스프레한 날’이라 불리운다.

계10:7-‘일곱 번 째 천사의 목소리의 날’=교회의 마지막 상태.

계11:3-‘일천 이백 육십 일 동안’=옛 교회의 끝 그리고 새 교회의 시작에서 조차.

계11:6-교회의 끝에서 이 계시 그리고 계시로부터 전도함이 ‘두 증인의 예언의 날’에서 뜻해지고 있다.

이27:12-‘그 날에’=주님의 강림.

겔30:3-‘구름의 날’=이해되지 않은 진리들의 결과, 즉 거짓들 위에 있는 교회의 상태.

계119-‘삼일 그리고 절반’=완전한 것, 여기서는 완전한 소멸.

계11:11-‘삼일 반 후에’=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고로 옛 교회의 끝 그리고 새 교회의 시작...‘삼일 반’이라고 말해진 이유는 말씀에서 ‘날’=상태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교회의 마지막 상태.

시89:29-‘하늘들의 날들’=그분의 신성으로부터 있는 온 천국의 상태들.

날개

예17:11-'생명 속에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지식들은 멀해진다는 것이 '그의 날들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그것들을 저버린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예30:7-'큰 날'=주님의 강림, 그리고 그 당시 그분에 의한 심판.

호2:15-'청년기의 날들'=고대 교회의 시대들.

암5:18-'여호와와 날'=주님의 강림, 그들이 내내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분...그러나 주님은 지상의 어떤 왕국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 그리고 유대 국가는 악의 거짓들 안에 있었다, 이런 것이 그 당시 명백했다, 그래서 말해지나, '여호와와 날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슬픔이 있다; 네게 여호와와 날이 무엇이나? 그것은 어둠의 하나요 빛의 하나는 아니다'

예48:47-'날들의 맨 끝'=주님의 강림.

호2:18-'그 날에'= 주님의 강림

날개 (wing)

* fly, vibratory도 참조

창7:14-'새'=영적 진리; '날고 있는 것(동물)'=자연적 진리; 그리고 '날개 달린 것'=감각적 진리

이8:8-'날개들'=거짓들을 오게 하는 추론들.

* 말씀에서, '날개들'=진리 속에 있는 것들.

이40:31-'독수리 같이 강한 날개로 올라 감'=진리를 이해함에 관하여, 고로 합리성에 관련하여 성장하는 것.

단7:4-'독수리의 날개'=자아로부터의 합리적인 것들...

이18:1-'날개로 그늘 있게 하는 토지'=과학물로 추론함으로 자체를 어렵게 하는 교회.

출19:4-'나는 너를 독수리들의 날개 위에서 실어날랐다'=그들은 진리들을 수단으로 천국의 빛 쪽으로 승강되어 갔었다는 것.

시68:13-'비둘기의 날개들'=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그것들은 '은으로 덧입혀졌다'라고 말해지는데, 그이유는 '은'=선으로부터의 진리이기 때문(=영적 진리들).

시91:4-'여호와와 날개로 덮여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날개들 아래 의지하는 것'=보호와 신앙으로부터의 신뢰.

출25:20-'그들은 그들의 날개들을 위쪽으로 펼칠 것이다'=신앙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승강함. 그이유가 '날개들'=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그리고 '날개들을

위쪽으로 펼치는 것'=승강하는 것, 그 이유는 날개들을 위쪽으로 펼침에는 자아를 승강시키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 (고로) 그룹들의 날개들이 위쪽으로 팽창됨에 의해 신앙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주님 쪽으로의 선의 승강이 의미된다.(=세 번째 천국에 있는 신성의 영적 평면)
출25:20-'그들의 날개들을 가지고 자비석 위를 덮음'=...덮는 영적인 것들. 그 이유가 '날개들'=신앙으로부터의 진리, 또는 영적인 것들, (그리고 이것들은 천적인 것을 옷입는다).

겔10:5-'날개들의 음성'=선으로부터의 신앙의 진리.

출27:14-(성막 뜰의) '날개'=진리가 빛에 있는 곳...그 이유는 이 날개는 남쪽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 이에 비해 '북쪽을 향하는 날개의 걸이들'은 희미함에 있는 진리들이 의미된다.

겔17:3-'큰 독수리, 큰 날개를 가지고'=영적 교회의 내면의 진리. '날개들'=외면의 진리들.

계4:8-'넷(4)의 살아있는 창조물들은 빙둘러 각 여섯 날개들을 가졌다'=힘(권능) 측면에서의, 보호 측면에서의 말씀. '날개들'=힘들, 또한 보호함들.(=신성한 천적 평면의 둘레의 모든 측면에 신성한 영적 평면이 나타남.)

이6:2-'날개들을 가지고 스랍들은 자기들의 얼굴과 발을 덮었다'=보호함들. 그리고 '그들은 날개를 가지고 날았다'=힘들.

계9:9-(매뚜기들의) 날개들의 음성은 마치 전쟁으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마차의 음성 같았다=교리의 진리들로부터와 같은 그들의 추론들. '날개들의 음성'=추론들, 그 이유는 '나는 것'=지각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계12:14-'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들이 주어졌다'=새 교회를 위한 신성의 빈틈없음. '날개들'=힘과 보호 (=주님께서 새 교회의 사람들에게 주는 영적 총명과 빈틈없음, '날개들'=영적인 것들) (=진리를 이해함).

단7:6-(표범의) 새들의 것 같은 네 날개들=거짓을 확증함들.

말4:2-'그분의 날개들에서 치료함과 더불어'=신앙의 진리를 통하여 개혁함. (=선으로부터 진리를 통하여)

날다 - 날랜

시18:10-‘그분은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실어 날려졌다’=자연계에 있는 그분의 편재(omnipresence)하심. (=이해함을 주시는 것, 그리고 최말단 천국을 계발하는 것.)

시55:6-‘누가 나에게 비둘기 같도록 날개를 줄 것인가?’

신4:17-‘날개 있는 새’=영적 진리를 이해함.

겔16:8-‘나는 너 위에 내 날개를 펼쳤다’=영적 진리를 통하여 개혁이 결과되어왔다.

시104:3-‘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걷는 것’=글자 안에 있는 영적 의미.

호4:19-‘바람은 그녀를 자기의 날개로 묶었다’=오류로부터 추리(론)함, 이로부터 거짓들이 온다.

겔39:17-‘모든 날개의 새에게 말하라’=교회의 회복을 취급한다. ‘모든 날개의 새’=전체 복합체에 있는 영적 진리. ‘날개들’(‘새’도 마찬가지)=영적인 것들.

삼상15:27-사무엘의 도포 자락이 찢어짐=사울로부터 왕국이 찢겨짐...그 이유가 ‘도포 자락’=최말단에 있는 신성한 진리, 또는 일반적 측면에서의 모든 신성한 진리.

삼상24:4-삼상15:27에서와 같은 의미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찢음에도 들어있다.

숙8:23-‘유대인의 옷자락’=이 선으로부터의 진리.

시61:4-‘나는 당신의 날개들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것이다’=신성한 진리들 안에서. 그이유가 여호와의 날개들=영적 진리들이기 때문.

날다 (fly)

창15:11-‘나는 것들이 시체들 위에 내려왔다’=악들과 파괴하기를 원했던 악에서 파생되는 거짓들. ‘나는 것’=거짓. 말씀에서 ‘나는 것’=진리, 반대 의미에서 거짓.

출8:21-그들의 황폐함의 다섯째 등급은 그들이 이런 악들로부터 거짓들에 있었다는 것, 이를 수단으로 모든 진리가 파괴되었다는 것. 이것들이 ‘해로운 나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11:14-‘블레셋의 여개 위에서 나는 것’=신앙으로부터의 내면의 진리들을 받아들여 소유해버리는 것.

계8:13-‘천국의 한가운데를 날고 말하는 것’=아래를

쳐다보는 것, 명백하게 보는 것, 그리고 밝을 보는 것. 여기서의 경우, 교회를 위해 천국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으로부터의 새로운 것.

계19:17-‘천국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라’=진리에 대한 영적 애착에 있는 모든 이, 그리고 그러므로 천국을 생각하는 모든 이. ‘천국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것’=명백하게 보는 것, 출석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60:8-‘구름 같이 나는 것. 그리고 비둘기가 자기들의 창문들 쪽으로 나는 것’=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진리를 수색하고 조회해보는 것.

시65:6-진리에 조회해봄, 그리고 돌아서는 장소에 관하여 빈틈없음이 ‘누가 비둘기 같은 날개를 나에게 줄 것인가? 나는 내가 거주할 곳으로 날아갈 것이다’=이를 통하여 지옥에 떨어짐으로부터 생명을 구출하는 것.

호9:11-‘새 같이 나는 것’=신성한 진리가 박탈됨.

신4:17-‘하늘을 향해 나는 것’=신성의 것들에서 총명으로부터 있는 빈틈없음.

계8:3-‘나는 것’=계발되는 것 그리고 이해함을 주는 것.

눅8:5-씨를 먹어치운 ‘하늘의 새들’=거짓들

호9:11-‘날아가버리는 것’=흐트러지는 것. 날아가버리는 것이 언급되는데 이는 새가 언급되기 때문.

날랜 (swift)

* 악을 거절함에 대한 생각은 신속함이 그 생각을 시중 들어야 한다.

삼하1:23-‘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들 보다 더 날랐다.’ ‘날람’, 말씀에서, 총명이라 단정할 때=진리에 애착함.

예4:13-‘그의 말들은 독수리들 보다 더 날래다’=진리들에 맞서 추론함, 그리고 그것들을 파괴함. 그이유가 말씀에서 ‘날람’, 그리고 ‘성급함’, 말씀에서 애착과 바램에 의해 휘저어짐이 의미된다.

이30:16-‘너는 말했다...우리는 날람 위에 탈 것이다. 그러므로 너를 추격하는 그들은 날람을 만들 것이다.’ ‘날람을 타는 것’=자신의 이해성, 이로부터의 생각과 추론으로부터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몹시 탐하는 것. 그러면 거짓들이 깨부수고 소유함을 가진다는 것이 ‘그러므로 너를 추격하는 그들은 날람을 만들 것이다’에

날마다-날인하다-날카로운-남기다-남다

의해 의미되어 있다. '날램', 그리고 '성급함'=탐욕으로부터, 또는 사랑으로부터 행해지는 것.

이32:4-'어눌한 자의 혀가 말하는데 날램 것이다'=교회의 진리들을 거의 납득할 수 없는 이들이 애착으로부터 그것들을 인정할 것이다. '날램'은 애착으로 풀이된다.

날마다 (daily)

* 천사들의 경우 그들이 더 내면적으로 더욱 완전해져 갈수록 더욱 덜 그들은 과거의 것, 미래의 것으로 근심하고 꼼꼼이 생각하지 않는다...그런고로 그들은 근심 걱정들로부터 자유하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날마다 받은 만나로, 그리고 주님의 기도에서 날마다 필요한 분량의 빵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 '날마다' 그리고 '오늘'=영구적인 것이라는 것은 모두 각각의 날에 실시되고 있는 제물로부터 명백하다. '날', '날마다', 그리고 '오늘'이 지닌 의미 때문에 그것들은 '계속적' 또는 영구적 제물이라고 불리웠다.

* 주님의 기도에서 '날마다'는 매 순간들을 뜻한다. 그러므로 '날마다'= 연속적인 것들 안의 매 순간들이라는 공식도 도출 될런지 모른다. (천사들의) 동시에 있는 것들에서 이것은 하느님 메시아의 영광으로 바뀌는바 순간들은 어떤 깨짐이나 구분됨 없이 계속적이다. 이로부터 천사들의 지각이나 행복이 있다.

날인하다 (seal)

* sign도 참조.

계7장-'그들의 이마들에 날인하는 것', 또는 날인하는 것=주님에 의해 인정되는 것 그리고 구원되는 것.

계7:3-'우리가 우리의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날인할 때 까지'=주님으로부터의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이 분리될 때 까지. '이마들에 날인하는 것'은 거기서 그들에게 날인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을 구별해내고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계7:4-'나는 날인된 숫자를 들었다'=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선 안에 있는 이들의 품질.

날카로운 (sharp, acute)

계14:17-'날카로운 낫'=말씀의 신성한 진리.

합1:8-'저녁 이리들을 초월하여 날카롭다'=오류들을

수단으로 사기쳐 피어냄

계14장-'날카로운'=정밀한, 절묘한, 완전한.

남기다 (leave)

* residue도 참조.

창2:24-'아버지와 어머니를 남겨두고(떠나)'=내적 인간으로부터 물러나는 것.

창44:22-'남기는 것'=분리되는 것.

창50:8-'남는 것' 여기서의 경우=거기 있는 것.

출2:20-'남자를 남겨두는 것'=결합되어질 수 없다는 것.

출9:21-'들판에 남기는 것'=악들로부터의 거것들을 수단으로 멸해짐, 이것이 '우박'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출10:5-'우박으로부터 남은 나머지'=진리는 이전의 거것을 수단으로 소멸되지 않았다.

출10:26-'남겨지게 하지 말라는 것'=원해지게 하지말라는 것.

출12:10-'너는 아침 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출14:28-'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모두 그리고 각각.

출29:34-'고기와 빵의 어떤 것이 남아 있는 것'=자기 것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

창2:24, 마19:4,5-인간이 '남겨야 할(바둔채 잇고 있어 야 할)' '아버지와 어머니'란 영적 의미에서 그의 의지 속의 자아(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의 이해성 속의 자아 이다 (자신의 지혜를 사랑하는 것).

계2:4-'처음의 선행을 바둔채 잇고 있다'=그것을 지식들의 본질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것.

남다 (remain)

* 인간이 한번 획득했던 것은 무엇이든 남는다.

* 세상에 있는 그의 생명은 그와 더불어 남는다.

* 인간이 생각했던 아주 작은 악, 또는 실제로 행동된 미미한 악이다 해도 남는다.

* 인간이 생각했던 선, 행해진 모든 선은 남는다.

* 첫 합리성으로부터의 모든 것은 남는다.

* 모든 애착, 파생되는 생각들은 사후 남는다.

창22:5-'나귀와 함께 여기 남으라'=분리.

창24:55-'소녀가 우리와 함께 남아있게 하자'=붙들.

* 악과 거것은 천사들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과 더불어 남아 있다.

남성

* 내면의 생명은 사후 남는다.

남성 (male, masculine)

* 남자, 여자, 여성도 참조

창1:27-‘그분은 그들,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에 의해 내적 의미에서 의미되는 것은 태고 교회에게는 매우 잘 알려져 있다...그러므로 그들은 영적 인간에 있는 이해성을 남성이라, 의지를 여성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 둘이 하나로써 행동했을 때 그들은 결혼이라 불렀다.

창5:2-‘그분은 그들,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에 의해 신앙과 사랑 사이의 결혼이 의미되었다.

창6:19-‘그들은 남성과 여성일 것이다’...‘남성’=진리; ‘여성’=선.

창17:12-‘모든 남성’=신앙의 진리 안에 있는 아들; (그이유가) ‘남성’=진리.

숙8:4-‘늙은 남자들(남성들)=확인된 진리들.

겔16:17-‘남성의 형상들’=그들은 진리들로서 나타난다. (=진리의 외관과 닮음)

민31:7-‘모든 남성’=거짓들.

창34:25-‘그들은 모든 남성을 죽였다’=그들은 교리 속의 진리들을 근절했다는 것...‘남성’=진리.

출12:5-‘남성’=선행으로부터의 신앙 속에 있는 것; (그이유가) ‘남자’=신앙 속의 진리; 고로 선행으로부터 있는(생긴) 신앙; 그이유가 신앙 속의 진리는 그것이 선행의 선과 함께 있지 않으면, 특히 그것이 선행의 선으로부터 있지 않으면 신앙 속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 남성(수컷)이어야 했던 이유는 이 어린 양=영적 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 속의 순진이기 때문; 그리고 영적 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신앙으로부터의 진리 외에 더 다른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이 진리는 이것이 선행의 애착으로부터 행동 안으로 가져다 놓일 때 비로소 선이라 불려지기 때문이다. 그런고로해서 어린 양은 수컷이어야 했다. 다른 축제에서의 경우 암컷 어린 양이 선으로부터의 예배가 표현되어질 때 희생 제물로 쓰였다.

출12:48-‘모든 남성은 그에게 할례 받게 하라’= 그것의 진리는 불순한 사랑들로부터 정화되어야만 한다는

것...‘남성’=신앙 속의 진리.

출23:17-‘한 해에 세 번 모든 남성은 주 여호와와 얼굴 앞에서 보여질 것이다’=신앙 속의 진리들 안에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시고 현존하신다...‘남성’=신앙 속의 진리.

출34:19-‘너는 모든 네 가족들에게서 수컷을 줄 것이다’=진리를 수단으로 주어진 것.

계12:5-‘그녀는 남성 아들을 출산했다’=새 교회 속의 교리. 말씀에서 ‘아들’에 의해 교리 속의 진리가 의미되어진다...그러나 ‘남성 아들’에 의해서는 영적 인간 안에서 임신되고 자연적 인간 안에서 출생한 진리를 의미한다.

마19:4-6-‘남성과 여성’에 의해 의미되는 것들은 하나로 있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하나되어야 함을 이 구절에서 주님은 가르치시고 있다. 이 구절은 자연적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성과 여성은 더 이상 둘이 아닌 한 몸(flesh)이다’에 의해 뜻해진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영적 의미에서 ‘남성과 여성’은 진리와 선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또한 생활의 교리인 진리로부터의 교리, 그리고 교리의 생명인 진리로부터의 생활이 뜻해진다. 이것들은 둘이 어서는 안되고 꼭 하나이어야 한다.

출13:12, 신15:19, 눅2:23-교리로부터의 진리, 또는 진리로부터의 교리가 ‘남성’에 의해 의미되는바, ‘자궁을 연 모든 남성은 여호와께 거룩할 것이다’는 법이 전달되어졌다.

레6:11,12, 7:6-모든 영적 자양분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인바, ‘성직자들 사이에 있는 남성은 거룩한 것들을 먹어도 된다’라는 법이 교부되었다. 그 이유는 ‘남성’에 의해 교리의 진리들이 의미되기 때문.

예20:15-‘남성이 당신에게 태어났다고 말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거짓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자.

말1:14-‘양떼에 있는 수컷’=말씀으로부터 교리의 진짜 진리.

* 아내는 선에 애착함, 남편은 진리를 이해함. 더 나아가 여성들과 남성들은 이와같이 태어난다.

남아있는 것 (remains)

남아있는 것-남은 것-남자

* 아껴두신 것(remains)을 보라.

남은 것 (what is left)

* 나머지, residue를 보라

남자 (man)

* 성년 남자 (virile), 아내 (wife)도 참조하라.

창2:23-‘남자’=내적 인간.

창3장에서- 합리성이 ‘남자’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창3:6-‘남자가 먹음’에 의해 합리성이 동의했음이 표현되었다.

창3:16-‘네 남자에게 네 순종을’=여기서도 ‘남자’에 의해 합리성이 의미되고 이것에 (교회가) 순종할 것이다...

겔16:45-‘남자’=주님, 또는 모든 천적인 것.

창4:1-‘나는 남자 여호와를 낳았다’=‘가인’이라 불리는 이들과 더불어 신앙은 자동적으로 생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인정되어졌다는 것.

창4:23-‘나는 내 상처 때문에 남자를 죽였다’=그가 신앙을 꺼지게 했었다는 것.

예44:7-‘남자와 아내’=진리의 지적인 것들, 그리고 선의 자발적인 것들.

창7:2-‘너는 정결한 짐승 중에서 남자와 그의 아내 일곱쌍을 네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것 중에서 남자와 그의 아내 둘쌍을 네게로 가져오라’...‘남자와 그의 아내’에 의해 진리들이 선들과 결합되었음이 의미되었다.

창9:5-‘남자 형제의 손으로부터’=모든 그의 지성으로부터...‘사람과 더불어 지성이 남자 형제라 불리웠다’...그 이유가 이해성이 ‘남자’라 불리기 때문.

* 단어 사용에서 ‘남편’ 대신 ‘남자’가 등장할 때, ‘남자’=진리, 그리고 ‘아내’=선.

창12:20-‘바로가 그의 남자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했다’=과학적 사실이 주님을 떠났다...‘남자들’=지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또는 지식에 관련해 서술될 때, ‘남자들’=거기에 채택된 것들.

창13:8-‘우리는 남자들 형제이다’=자신들 안에서 그들은 연합되었다; (그 이유가) ‘남자 형제’=진리와 선(의 연합이기 때문).

창13:11-‘남자는 그의 형제로부터’=분열.

창13:13-‘소돔의 남자들은 악했다...’...‘남자들’=지성과 합리성, 여기서는 과학적인 것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외적 인간을 서술했기 때문.

요1:13-‘남자의 의지’=사랑 또는 선행으로부터의 신앙에 반대인 것. 이것이 ‘남자’에 의해 의미되는 것이다...(=거짓으로부터 설득함), (=지적 측면의 자아).

창14:24-‘나와 더불어 갔던 남자들의 뭇’=천사들; (그 이유가) 천사들이...‘남자들’이라 불리기 때문.

창18:2-‘아브라함 맞은편에 서있는 남자 셋’=신성 자체, 신성으로부터의 인간, 그리고 나아가는 거룩함.

창19:8-‘남자를 몰랐던...’=거짓이 그들을 오염시키지 않았다는 것; 그 이유가 ‘남자’=합리적 진리;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거짓.

창19:9-‘그들은 남자를 몰아쳤다’=그들은 진리에 폭력을 행사하고 싶었다는 것...‘남자’=인간과 더불어 지적이고 합리적인 것, 고로 진리.

창19:11-‘집의 문에 있었던 남자들’=합리적인 것들,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교리적인 것들, 이를 빌미로 선행의 선에 폭력이 제공되었다.

창19:12-‘남자들이 롯에게 말했다’=주님은 선행의 선에 있는 이들을 타이르신다는 것. ‘남자들’=주님.

창19:31-‘땅에 남자가 없다’=더 이상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시147:10-‘남자의 다리들’=선을 행함에 대한 인간 고유의 힘.

창24:13-‘도성의 남자들’=진리들.

창24:16-‘한 명의 남자도 그녀를 알지 않았다’=모든 거짓으로부터 순수함.

창24:61-여기서의 ‘남자’=자연성 속의 신성한 진리.

창25:27-‘(사냥을) 아는(knowing) 남자 또는 (사냥을) 잘하는(skillful) 남자’=진리에의 애착.

창26:11-영적 천국의 교회에 있는 이들이 취급되는 바...‘남자와 여자’라고 말해지고 있다.

창26:31-‘남자가 그의 형제에게’=진리의 선 안에 있는 이들...‘남자’=진리.

창29:32-‘이제 내 남자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그때부터 진리의 선이 있다...‘남자’=진리.

창33:1-‘남자들’=자연 안으로 흘러들 때 선과 결합이

남자

있어 왔던 합리적 진리들

창34:20-‘도성의 남자들’=교리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그 이유가 도성의 주민이 ‘도성의 남자들’이라 불리울 경우 그것은 교리의 선이 아니고 진리들이 의미되어 진다.

창34:21-‘이 남자들은 우리와 평화할 수 있다’=교리적인 것들에 관하여 동의함. ‘남자들’=진리들, 그러므로 교리적인 것들.

창37:15-‘들판의 남자’=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있는 생활의 선. ‘남자’라 말해진 이유는 ‘남자’에 의해 교회 속에 있는 진리가 의미되기 때문.

창37:19-‘남자가 그의 형제에게’=상호적으로.

창38:21-‘그는 그곳의 남자들에게 물었다’=진리들이 상담되어졌다는 것.

창39:1-‘이집트 남자’=자연적 진리.

창39:14-‘그 여자는 집의 남자들에게 소리쳤다’=악의 거짓들.

창41:38-‘남자’=진리.

창42:30-‘남자 주인’=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 ‘남자’는 영적인 것을 서술한다, 그 이유는 ‘남자’=진리.

창43:3-‘요셉이 여기서 ‘남자’라 불리우는 바, ‘그 사람’=영적인 것, 또는 내부로부터 흐르는 진리.

창43:15-‘남자들’=진리들.

창43:19-‘요셉의 집 남자’=외적 교회 속에 있는 것, 고로 교리적인 것.

창47:6-‘능력 있는 남자들’=교리 안에 더 우수한 것들. 그 이유가 ‘남자’=충명한 자, 또한 진리, 결과적으로 교리.

창49:6-‘그들이 남자를 죽였다’=그들은 신앙을 꺼지게 했다...‘남자’=신앙 속의 진리.

출1:1-‘남자와 그의 집이 왔다’=진리에 관련하여 그리고 선에 관련하여.

출2:1-‘레위 가문의 남자가 (장가) 갔다’=선으로부터의 진리의 근원. ‘남자’=진리.

출2:21-‘남자’=그 교회 속의 선으로부터의 진리.

출10:23-‘그들은 남자 그의 형제를 보지 않았다’=그들은 어떤 선으로부터의 진리도 가지지 못했다.

출11:2-‘남자’는 진리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여자’는

선에 관련이 있다.

출11:7-‘남자로부터 짐승 까지’=진리에 관련한 것도 아니고, 선에 관련한 것도 아니다.

출17:9-‘우리를 위해 남자들을 뽑아라’=그는 전투를 위해 진리들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출18:16-‘남자와 그의 동료 사이를 판결하는 것’=진리들 사이에 배치함.

출18:21-‘활기 있는 남자’=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 힘을 가진 이들.

출18:21-‘진리로부터의 남자, 이득을 미워하는 자’=진리들은 세상적인 목적 없이 순수하기 때문에.

출19:13-‘짐승이든 남자들이든,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선과 진리는 영적 생명을 잃을 것이다.

예5:1-‘판결을 하는 남자’=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출21:12-‘남자를 처죽인 자, 그는 죽는다’=신앙 속의 진리에 해를 가함, 그리고 그 결과는 영적 생명의 손실이다.

출21:16-‘남자를 훔치는 것’=악들에 신앙 속의 진리를 응용함.

출21:18-‘남자들이 논쟁할 때’=진리들에 관하여 자신 안에서 논쟁이 있을 때...‘남자들’=충명 있는 이들, 그리고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추상적 의미에서 지적인 것들과 진리들.

출21:22-‘남자들이 다툰질 할 때’=진리들에 관하여 비통한 논쟁.

출21:26-‘남자’=내적 인간...그 이유가 신앙 속의 진리가 내적 인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출21:28-‘남자’=신앙 속의 진리.

단10:5-‘남자가 모시옷을 입었다’=최고 의미에서 주님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 그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가 천국과 교회에서 주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겔23:14-‘남자들이 벽에 색칠했다’=외적인 것들에 있는 진리의 외관.

출32:1-‘모세가 여기서 ‘그 남자’라 불리는 이유는 말씀에서 ‘남자’에 의해 진리가 의미되기 때문이다.

신22:5-남자들이 여자들에 어울리는 직무에 들어갈 수

남쪽

없는 이유, 그리고 그 직무들을 올바르게 이행할 수 없는 이유는 남자는 여자들의 애착 안에 있지 않기 때문. 여인의 애착은 남자의 애착과 철저히 차별되어 있다. 남성의 애착과 지각은 창조로부터 차별되었기에...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 사이에 있는 규례는 이리하다. 즉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은 역겨운 것이기 때문이다.

창2:23-'그녀는 여자(Ishah)라 부를 것이다, 그이유는 그녀는 남자(Ish)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이다...남자의 가슴에 의해 여자의 가슴과 구별되는 필수적이고 적당한 것이 의미되었다. 이것은 지혜이다...

시64:6-'남자의 중간'=진리가 있는 지성.

예9:10-'그것을 통과하는 남자가 없다'=더 이상 진리가 없다, 고로 더 이상 총명이 없다.

예51:22-'남자와 여자'=진리와 그것의 애착.

이4:1-'일곱 여자가 남자 하나를 붙잡을 것이다'=애착으로부터 그들은 진리를 바라고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예31:22-'여자가 남자를 에워쌀 것이다'=새로운 교회는 진리가 그것 자신의 애착과 결합되어짐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암6:9- '열 명의 남자'=모든 진리들.

창3장-'여자의 남자'=합리성.

창3장- (영적인 것에서 분리된 자연적 인간의) 지성이 '남자'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남쪽 (south, southern)

* '남쪽에 있는 이들'=진리의 빛 안에 있는 이들.

출26:35-'(등잔대는) 남쪽을 향한 주택의 측면에'=천국에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는 가장 큰 빛에 있다.

욥39:26-'남쪽을 향하여 그녀의 날개들을 퍼는 것'=자아를 총명의 빛 쪽으로 인도하는 것.

슌6:6-'남쪽'=진리로부터의 명백함.

눅12:55-'네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볼 때'=그분의 강림에 관하여 전도함.

창12-'남쪽을 향하여 이집트로'=주님의 다섯째 상태.

창12:9-'남쪽을 향하여'=선들과 진리들 안으로, 고로

내면들이 명료한 상태 안으로.

창12:9-'남쪽', 여기서의 경우,=총명, 이는 (영적)지식들을 수단으로 획득되어진다. 이것들은 천적 진리들과 영적 진리들이고, 이것들은 천국에서 아주 많은 빛을 방사한다. 주님에게 지금 이 지식들이 붙어넣어지고 있는바, 이는 그분의 인간 본질에 관련하여 그분이 천국의 빛 자체가 되시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것이 '아브라함은 남쪽을 향하여 여행했다'로 말해지고 있다.

창13:1-'남쪽을 향하여'=천국적 빛 안으로. '남쪽'=내면에 관련하여 명료한 상태.

창13:3-'남쪽으로부터 벨엘에 까지'=총명의 빛으로부터 지혜의 빛 안으로.

단11:40-'남쪽의 왕'=선들과 진리들에 있는 이들, (=진리들) (=진리로부터의 빛에 있는 이들)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창20:1-'아브라함은 남쪽의 토지를 향하여 여행했다'=신앙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 안으로 주님께서 진보하십시오.

이30:6-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안에 있는 이들, 그러나 지식 속에 있을 뿐, 이 지식을 생활 속에 있게 만들지 않는 이들이 '남쪽의 짐승들'이라 불린다.

창24:62-'그는 남쪽의 토지에서 거주했다'=신성의 빛에서. '남쪽'=빛, 사실상, 총명의 빛, 이는 지혜이다.

암8:9-'정오에 해가 짐'=지식을 가진 이들과 더불어 희미함.

슌6:6-'남쪽의 토지'=지식들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있는 이들.

창43:16-'그들은 정오에 나와 정찬을 먹을 것이다'=매체와 더불어서 일 때, 결합되었다. 그이유가 '정오'=빛의 상태, 고로 매체에 의해 의미된 상태.

시91:6-'대낮에 꺾히되게 하는 죽음'=인간이 노골적으로 사는 악, 이를 수단으로 진리가 파괴되어진다.

욥19절-'남쪽의 그들'=진리의 빛에 있는 이들.

출26:18-'남쪽을 향하는 남쪽의 모퉁이를 위하여'=진리가 빛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과 가장 깊은 것들 쪽으로 까지. 그 이유가 '남쪽'에 의해 빛의 상태가 의미된다, 이는 진리들로부터의 총명의 상태이다, 고로 또한 내면의 상태이다.

남편-남-납달리

이43:6-‘나는 남쪽에 말할 것이다’=교회 내에 있는 이들인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빛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러므로 이들에게 ‘만류하지 말라’라고 말해 진다.

계21:13-‘남쪽에 세 문들...’ ‘남쪽에 의해 지혜, 그리고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진리에 애착함, 고로 더...그 이유는 주님이 태양이시기 때문...그리고 그분의 측면에서 남쪽과 북쪽, 그분의 오른쪽 측면은 남쪽...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더 많은 애착으로부터 지혜 안에 있는 이들은 남쪽에 거주한다. 더 적은 애착으로부터 지혜 안에 있는 이들은 북쪽에 거주한다.

겔20:47-‘남쪽의 숲’=교회 내의 거짓, 결과적으로 거기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 교회가 ‘남쪽’에 의해 의미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진리의 빛에 있어질 수 있기 때문.

신33:23-예증들이 ‘남쪽’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예17:26-‘남쪽’=영적 선에 있는 이들 그리고 이로부터 진리의 빛에 있는 이들.

예6:4-진리를 공개적으로 파괴하려는 골몰함이 ‘정오에 올라가자’에 의미되고 있다.

이58:10-‘네 짝은 구름이 대낮으로 있을 것이다’=무지함에 있으나 여전히 갈망하는 이들에게 진리와 선을 이해함이 주어질 것이다.

남편 (husband)

* 남자, 아내도 참조.

* 말씀에서 ‘남편’이 언급될 때, ‘남편’=선, 그리고 ‘아내’=진리. 그러나 ‘남편’이 언급되지 않고 ‘남자’가 말해질 때, 남자=진리, ‘아내’=선.

* 선, 또는 선을 사랑함을 그들은 남편되는 사람으로 일컫는다. 진리, 또는 진리를 사랑함을 그들은 아내되는 사람으로 일컫는다.

창20:3-‘그녀는 남편에게 결혼했다’=참 신앙으로부터의 교리가 천적 평면(왕국)과 결합되어진다. ‘남편’이 말씀에서 언급되어질 때, 그것은 선. 그리고 ‘아내’=진리. 그러나 남편이 ‘남자’라 불리울 때, ‘남자’=진리, 그리고 ‘아내’는 선. 그러므로 ‘남편에 결혼했다’=진리가 선과 결합되어졌다는 것.

겔16:45-‘그들이 싫어했던 남편들’=선들.

신28:54, 삼하12:8, 신28:56-이로부터 아내는 ‘그녀의 남편의 품(bosom) 속의 아내’라 불리운다. 그리고 남편은 ‘그의 아내의 품 속의 남편’이라 불린다. 그런 이유는 이것이 저것, 저것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창3장-‘남편’으로서의 ‘남자’는 선에 관련한 천적 교회가 뜻해진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진리에 관련한 천적 교회.

계21:2-‘그녀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같이 준비되어...’=교회는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과 결합된다..

납 (lead)

출15:10-‘그들은 납 같이 깊음을 추구했다’=악들이 그들을 더 낮은 것들 쪽으로 끌어내렸다. ‘납 같이’라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납’이 악을 의미하기 때문.

겔27:18-납은 여타 금속들 보다 더 저열(ignorable)한바, 납=가장 낮은 수준의 악, 즉 외면의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악.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 납=가장 낮은 수준의 선.

겔22:18, 예6:29-글자 의미 속의 것들이 ‘놋쇠, 주석, 철, 그리고 납’에 의해 의미된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에 의해 자연적 인간의 선들과 진리들이 의미되기 때문

납달리 (Naphtali)

창30:8-‘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다’=인간이 극복하는 시험의 품질, 또한 자연적 인간에 의한 저항의 품질. 품질 자체가 ‘납달리’에 의해 의미된다. 그이유가 ‘납달리’는 ‘고투함’으로부터 명명되었기 때문. 이로부터 또한 ‘납달리’에 의해 교회의 두 번째 일반적 진리가 표현되어졌다. 그이유가 시험은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과의 결합에서 매체 역할을 하기 때문.

창35:25-‘빌하의 아들들...단과 납달리’=내적인 것들을 뒤따르며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의 본질이 ‘단과 납달리’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납달리’, 최고 의미에서=(그분) 자신의 힘, 내적의미에서 (인간이) 정복하는 시험, 외적 의미에서 자연적 인간에 의한 저항.

창46:24-‘납달리의 아들, 야스엘, 구니, 예셀과 실렘’=승리가 있는 시험, 그리고 그것들에 관한 교리적인 것들.

창49:21-‘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 세련된 강연을 한다.’ ‘납달리’=시험 이후 상태. ‘풀어놓은 암사슴’=자연

납두힘-납작한 냄비-낮-낮게하다-낮

적 애착의 자유. '세련된 강연'=마음의 즐거움.

계7:6-'납달리 지파로부터 일만 이천이 날인되어졌다'=주님의 새 천국과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과 더불어 있는, 쓸모 있는 것(use)을 지각함, 그리고 어떤 쓸모 있음이 있는지를 지각함. '납달리'에 의해 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고유의 힘이 의미된다. 영적 의미에서 시험과 승리. 자연적 의미에서 자연적 인간에 의한 고투. 그 이유가 그는 '고투함'으로부터 명명되었기 때문. 그러나 여기서 '납달리'에 의해 쓸모 있는 것을 지각함, 그리고 어떤 쓸모 있음이 있는지를 지각함이 의미되는 이유는 그가 시리즈에서 '아셀' 뒤를 잇기 때문, 아셀은 쓸모 있음들을 사랑함을 의미하고 있다. 더욱이 시험들을 정복한 이들은 쓸모 있음의 내면적 지각을 가진다. 그 이유가 마음의 내면들을 시험들을 수단으로 열려지기 때문이다. '납달리의 지파'=이 지각에 관련한 천사나 사람.

신33:23-'고투함들'로부터 그렇게 불리운 '납달리'=시험들, 위로함, (그리고 이것들 이후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복받음. 이것이 '선한 즐거움과 여호와의 복주심으로 만족해 한다'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계7:6-'아셀', '납달리', '므낏세'의 세 지파=영적 선을 충분하게 구성하는 것들.

* 이웃을 향한 선행(charity)이 이 세 지파, '아셀, 납달리, 므낏세'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 (세부적으로 볼 때) '납달리'에 의해서는 (이웃을 향한 선행 안에 있는) 이들의 거듭남이 의미된다.

사5장-납달리와 스블론 지파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로부터의 전투를 의미하는바, 납달리 지파는 전투를, 스블론 지파는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지파만이 전투에 참가했다.

이9:1,2, 마4:13-17-'스블론과 납달리'에 의해 진리와 선의 결합이 의미되고, 거짓들과 악들에 맞서 싸움, 그 결과 개혁됨이 의미된다.

시68:27-'스블론과 납달리'에 의해 최고 의미에서는 (지상의) 그분 자신에게 시험을 허용하시고, 그분 고유의 힘으로 승리하심을 수단으로 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신성 자체와 합일됨이 의미되어 있다.

납두힘 (Naphthim)

창10:13-'미스라임이...납두힘을 낳았다'=여러 많은 나라들, 이들을 수단으로 아주 많아진 의식들이 의미되고 있다. 이 의식들은 단지 과학적인 것일 뿐이다.

납작한 냄비 (pan)

레2:4-7-오븐(oven)에서 구워진 식사 공물은 납작한 냄비(번철)에서 구워진 것, (뚜껑 있는) 납작한 냄비(술)에서 구워진 것과 구별되었다. 이 세 가지 식사 공물에 의해 사랑의 선의 다양함이 의미되고 있다.

민11:8-'그들은 (만나를) 납작한 냄비에서 끓였다'

출27:3-'너는 재들을 거두어 갈 납작한 냄비를 만들 것이다'=사용 후 제거되는 것들.

겔4:3-이와같은 (왜곡되고 섞음질한) 진리가 '그가 자신과 도성 사이에 벽으로 삼고져 놓은 쇠로 만든 납작한 냄비(전철, 번철)'에 의해 의미되었다.

낮 (sickle)

이2:4-'그들의 창들을 두드려 보습(pruning-hooks)으로'

계14:14-'날카로운 낮'=악과 거짓의 흐트러짐. (=말씀의 신성한 진리)

계14:19-'천사는 그의 낮을 땅으로 보냈다, 그리고 땅의 포도나무를 수확했다'=현 기독교 교회의 끝.

* '낮을 놓는 것'=선한 자를 모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악한 자로부터 분리하는 것.

낮게하다 (heal)

* 치료하다(heal)를 보라

낮 (day)

*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낮'에 비교된다, 그 이유는 이것들은 빛에 속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어울리는 모든 것들은 '밤'에 비교된다. 그 이유는 그것들은 '어둠'이기 때문이다.

창1:16-사랑은 '낮 동안'을 다스리는 큰 광명체이다; 사랑으로부터의 신앙은 '밤 동안'을 다스리는 작은 광명체이다.

창1:18-'낮을 다스리고, 밤을 다스리고...'; '낮'은 선을 뜻한다; '밤'은 악을 뜻한다; 그러므로 선들은 낮의 일, 악들은 밤의 일이라 불리운다.

창3:8-'낮의 숨(breath, 미묘한 분위기 aura, 공기, air)'=조금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지각이 남아 있을

낮 동안

때...태고 때의 사람들은 교회의 상태들을 낮과 밤에 비교했었다; 빛 가운데 있는 동안을 낮 시간이라 불렀다... 요한복음 9:4에서 주님께서는 신앙 있음의 상태를 '낮'이라, 신앙 없음의 상태를 밤이라 부르신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만 한다; 밤이 올 때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인간 거듭남의 상태들이 창세기 1장에서 '날들'로 불리우고 있다.

* '온 그 낮, 그리고 온 그 밤'=희미하던, 희미하지 않던, 해치는 이들에게 있는 지각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졌다. '낮'= 희미하지 않은 지각의 상태; '밤'= 희미한 지각의 상태; 그 이유가 낮 시간대는...총명과 지혜 속에 있는 계발과 상응하기 때문. 고로 지각과도 상응한다.

요9:4-'나는 나를 보낸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만 한다...' '낮'=선과 진리가 있는 때와 상태; '밤'=악과 거짓이 있는 때와 상태.

창31:40-'낮에는 뜨거움이, 밤에는 추위가 나를 집어삼켰다'=시험들...' 낮'=그때 당시 그들 수준에서 있는 믿음 또는 진리의 상태; 그리고 '밤'=믿음 또는 진리가 없는 상태.

계8:12-'낮 삼분의 일이 비추지 않았고 밤도 마찬가지로 있었다'=교리와 생활을 섬길 수 있는 말씀으로부터의 어떤 영적 진리, 또는 자연적 진리도 그들에게 더 이상 없게 되었다. '낮이 비추지 않음'은 해로부터 비침이 없다는 말이고, '밤도 그러하다'란 달이나 별의 비침이 없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빛은 신성한 진리를 의미해준다...말씀의 영적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는 낮에 비추는 태양의 빛 같다; 그리고 말씀의 자연적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는 밤을 비추는 달과 별의 빛 같다....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문단에서 '낮'과 '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계14:11-'그들은 낮과 밤 쉬이 없을 것이다'=사후 불유쾌한 것들 안에 영구히 있을 그들의 상태...' 낮과 밤'은 모든 시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영적 의미에서 모든 상태, 고로 영구적으로; 그 이유가 이 의미에서 '낮과 밤'=삶의 상태들이기 때문.

계20:10-'낮과 밤 괴롭혀지는 것'=꾸준히 내면적으로 해치는 것.

계4:8-'그들은 낮과 밤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 거룩, 거룩'=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최고의 거룩.

미3:6-그들은 선도 진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해가 예언자들 위에서 저물 것이다, 그리고 낮이 그들 넘어에서 캄캄해질 것이다'; '태양'=사랑의 선; 그리고 '날'=믿음 속의 진리...

시136:8-태양이 낮을 통치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낮'=영적 인간의 빛이기 때문, 그 이유가 이 빛은 사랑의 선으로부터 계발과 지각을 지니기 때문이다.

예33:20-'낮의 언약'=사랑을 통한 결합; '밤의 언약'=신앙을 통한 결합.

계14:11-'그들은 낮과 밤 쉬지 않을 것이다'=악들과 악들로부터의 거짓들에 의한 해침이 계속된다...' 낮과 밤'='계속적으로...' '낮'은 그들의 거짓의 상태를 의미 한다; 그리고 밤은 그들의 악의 상태를 의미 한다; 그 이유가 인간은 그의 생각들에 관련하여서는 빛 안에, 고로 낮 안에 있다, 그리고 그의 애착에 관련해서는 희미함 안에, 고로 밤에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해서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성막 위에 있었다...

마12:40-'세 낮과 세 밤'=가득함.

예15:9-'아직 낮인 동안'=말씀이 아직 인정되는 동안.

계12:10-'낮과 밤으로 하느님 앞에서 그들을 참소하던 것'=말씀으로부터의 그것들을 가지고 말다툼질하고 쟁쟁거림을 계속하는 것...' 낮들과 밤들'=계속적으로 그리고 중간의 쉽도 없는 것; '낮들과 밤들'=삶의 모든 상태들; '낮'은 마음이 명료한 생각에 있을 때의 삶의 상태; 그리고 '밤'은 마음 속의 생각이 흐릿할 때의 삶의 모든 상태들.

낮 동안 (by day)

출3:21-'낮 동안은 구름 기둥 안에'=계발의 상태에 있을 때, 진리의 희미한 것에 의해 고무되었다. '낮 동안', 또는 '낮 안에'=계발의 상태...' 낮'=명료한 지각의 상태, 또는 계발의 상태.

시91:5-'낮 동안 날아 다니는 화살'=노골적으로 가르쳐진 거짓.

계21:25-'그것의 문들은 낮 동안 닫히지 않을 것이다'=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은 새 예루살렘 안으로 꾸준히 받아들여질 것이

낮은 쪽의-낯선-낯선 사람-(어머니가)낳다

다. '낮 동안'=계속적으로, 그이유는 거기에는 빛이 언제나 있기 때문.

이4:5- 너무나 많은 빛으로 상함을 당함에서 보호함이 '낮 동안 구름'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낮은 쪽의 (lower)

출19:17- '그들은 산의 낮은 쪽의 부분에 섰다'=천적 사랑의 선으로부터 먼...

출28:27- '낮은 쪽'=천국의 가장 낮은 부분.

이44:23- 외적인 것들이 '땅의 낮은 부분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낯선 (strange)

* 체류하다(sojourn))을 보라.

낯선 사람 (stranger)

* 이상한 (strange)을 보라.

(어머니가) 낳다 (bear)

출생 (birth)

산출하다 (bring forth)

창3:16- '슬픔 안에서 너는 아들들을 산출할 것이다...' 그녀가 슬픔 안에서 산출하는 아들들에 의해 교회가 생산할 진리들이 의미된다.

창4:2- '그녀는 그의 형제 아벨을 낳아 보았다'...교회의 두 번째 출생은 선행이고 이것이 '아벨', 그리고 '형제'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4:17- '가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다, 그녀는 임신했다, 그리고 에녹을 낳았다'=이 종파, 또는 이교가 그 자체로부터 또 다른 것을 낳았다.

창16: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그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했다'=합리적 인간은 아직까지는 없다.

창16:11-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진리

창18:13- '정말로 내가 아이를 낳을까?'=합리성이 신성이 될 것이다에 의아해 함. '낳는 것', 여기서의 경우는 이삭, 즉 신성이 될 합리성.

창20:17- '그들은 낳았다'=결실을 맺음. '낳는 것'=교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에 관련하여 결실을 봄.

창21:8- '낳는 것'=생겨나오는 것.

창25:12- '하갈이 낳은 (아들)'=영적 인간의 출생. '낳는 것'=생겨나는 것.

창25:24- '그녀의 날들은 낳음을 위해 가득해졌다'=결

과의 첫 상태. 영적 의미에서 '낳는 것'은 선과 진리에 관계를 가진다. 이 의미에서=생겨나오는 것.

창29:32- '레아가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다'=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까지의 영적 임신과 출생. '임신과 낳는 것'=거듭나지는 것.

창29:35- '그녀는 낳음으로부터 잠자코 있었다'=땅으로부터 여호와, 또는 주님께로 사다리를 수단으로 승강함. '낳는 것', 또는 '출생'=진리와 선, 그 이유가 진리와 선이 영적 의미에서의 출생들이기 때문. 그 이유가 인간은 진리와 선을 통하여 새로이 출생하거나 거듭나지 않기 때문. 이것은 또한 레아의 네 출생들에 의해 의미되는 것들이다.

창30:1-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지 못함을 보았다'=내면의 진리가 아직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낳는 것'=신앙에서, 또한 행동에서 인정되는 것. 그 이유는 말씀에서 '출생들'에 의해 영적 진리들이 의미되기 때문. 영적 진리들은 진리로부터 인정함과 진리로부터의 신앙이다.

창30:3- '그녀로 내 무릎에 아이를 낳게 하자'=애착과 더불어 내면의 진리를 인정함, 이로부터 결합이 있다. '낳는 것'=신앙에서, 그리고 행동에서도 역시 인정하는 것. 낳음이 진리를 인정함이기 때문에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녀가 죽은 자를 표현하지 않도록 그녀를 대신해 아이를 낳아주는 관습이 수락되어져 왔다.

창30:5- '빌하가 임신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받아들임과 인정함. '임신하는 것'=받아들임. 그리고 '낳는 것'=인정함. 그 이유가 임신들과 출생들, 영적 의미에서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받아들임들, 그러므로 인정함들.

창30:9- '레아는 자기의 아이 낳음이 잠잠해진 것을 보았다'=인정되어진 더 다른 바깥쪽 진리들은 없음. '낳는 것'=신앙과 행동에서 인정하는 것.

창30:10- '레아의 몸종 질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바깥쪽 진리를 인정함. '낳는 것'=인정하는 것.

창30:39- '양떼들은 부분적으로 색깔 있고, 얼룩지고, 그리고 반점 있는 것들을 낳았다'=이로부터 자연적인 선은 이런 것들을 가졌다는 것... '낳는 것'=인정하고 결합함.

(어머니가) 낳다

창35:16,17-‘라헬이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낳음에서 힘든 것들을 겪었다’=내면의 진리가 시험받음. ‘낳는 것’=진리로부터 있는 영적인 것들, 선으로부터 있는 천적인 것들이 명백히 나타남. 그 이유가 내적 의미에서 ‘낳음’은 영적 출생 외에 더 다른 뜻은 없기 때문.

창38:5-‘낳는 것’=행동에서 결합되는 것.

창38:27-‘(다말이) 낳음’=내향의 진리의 부분에서 인정함. ‘낳는 것’=신앙과 행동에서 인정하는 것.

창38:27-‘그녀에게 낳음의 때가 왔다’=생산. ‘낳는 것’=신앙과 행동에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신앙과 행동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은 생산되는바, ‘낳음’에 의해 또한 생산이 의미되어진다. 즉 교회로부터 있는 선과 진리의 생산이 의미되어진다.

창50:23-‘무릎들 위에 낳는 것’=선과 진리의 결합.

출1:19-‘산과가 그들에게 오기 전, 그들은 산출했다’=자연 평면은 교회의 과학적 진리들이 생명을 받을 때를 모른다. ‘낳는 것’=신앙과 선행으로부터 있는 이런 것들, 고로 영적 생명으로부터 있는 것들.

출2:2-‘그녀는 아들(모세)을 낳았다’=그것의 근원 측면에서의 신성한 법. ‘낳는 것’=명백히 나타냄, 고로 근원.

출2:22-‘(십보라가) 아들을 낳았다’=거기로부터의 진리들. ‘낳는 것’=교회로부터 있는 이런 것들, 즉 신앙과 선행이 서술되어진다. 이 출생들은 천국적인 결혼으로부터 생겨나온다. 이것은 선과 진리에 관한 것들이다.

예31:8-‘산출한 그녀’=행동에서 신앙의 생명에 있는 자.

출21:22-‘그리고 그녀의 출생들이 나갈 것이다’=자연 평면에서 조차 확증되어질 것이라면. ‘출생들’=선들이 진리들로부터 과학적으로 그리고 지각과 더불어 인정했음, 고로 확증했음. 그이유가 영적 의미에서 ‘낳음’에 의해 신앙과 행동에서 인정함이 뜻해지기 때문.

출21:22-‘자궁으로부터 나가는 것’은 내향으로부터 외향의 인간 쪽으로 뜻한다. 그리고 ‘출생’, 영적 선, 즉, 외향의 인간에서 내향으로부터 있는 선행의 선과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삼상2:5-‘일곱을 낳는 것’=충분히 거듭나지는 것.

레12:6-영적 의미에서 ‘출생’은 교회로부터의 출생을 의미한다. 이는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것이다. 그이유가 천국에서의 출생에 대한 이해는 이외에 더 없기 때문.

* ‘임신들’, ‘산출함들’, 출생들, 그리고 ‘발생시킴들’은 영적인 것들, 즉 선과 진리로부터의 것들, 사랑과 신앙으로부터의 것들을 의미한다.

계12:2-‘자궁 안에 가지고 있는 그녀는 소리질렀다, 산기가 돌았다, 낳으려 고통하였다’=발생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 미성숙한 새교회의 교리, 그리고 용으로 의미된 이들의 반대 때문에 받아들임에 어려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자궁 안에 가지고 있는’, ‘산기가 돌고 있다’, ‘산고가 심하다’는 말씀의 영적 의미에서 영적 생명에 속하는 일련의 것들을 임신하고 낳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계12:4-‘낳는 것’=말씀으로부터 교리의 선들과 진리들을 받는 것. ‘그녀가 낳는 아이’는 새교회의 교리를 의미한다.

계12:5-‘그리고 그녀는 남자다운(manly) 아들을 산출했다’=새 교회의 교리.

예30:6-‘남자가 낳음을 하는지 여부를 묻고 보기를 바란다’=자기 총명을 수단으로 사랑과 신앙을 포획하기를 원하는 이들에 관해 말해지고 있다. 자신들을 위해 그것들을 포획함이 ‘낳음’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겔31:6-‘낳음’에 의해 불어남이 의미되고 있다. 그이유가 모든 영적 출생, 번성함은 진리에 애착함 들로부터 결과하기 때문.

예15:9, 삼상2:5-‘일곱을 낳는 것’=교회에 모든 진리들이 증여되는 것.

호9:11-‘출생으로부터, 자궁으로부터, 임신으로부터’=원리 수준부터 최말단 수준에 이르기 까지에서 모든 진리가 흩어짐.

출12:2-‘그녀는 소리쳤다, 산기가 돌고 있었다, 그리고 낳으려고 고통하였다’=자연적이고 감각적인 교인들로부터서는 반대만 할 뿐 받아들임은 없다는 것.

계12:4-‘낳는 것’=교회 속에 있는 것들, 즉 교리적인 것들을 생산하는 것. 여기서는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선행에 관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낳음’에 의해

(아버지가) 낳다-내려가다

의미되는 이유는 말씀에 있는 '발생시킴들', '산출함들', 그리고 '출생들'은 영적인 것들을 뜻하기 때문, 이것은 그것들에 따른 생활과 진리를 통해 결과되어지기 때문.

이26:17,18-어떤 진리가 지각되고 획득되어 지는데에는 어려움이 동반된다는 것이 '임신한 자가 그녀의 해산이 가까움에 따라 격심한 아픔으로 소리지른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그들은 진리 대신에 진리가 결핍된 비현실적인 것들을 마신다는 것이 '우리가 산기가 돌아 낳은 것은 바람이었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54:1-주님의 강림,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분에 의한 어떤 새로운 교회의 설립이 '낳지 못하는 불임자',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가질 고독한 자'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삼상2:5-주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받을 이방인들, 이리하여 자신을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지게 하려 고생하는 이방인들이 '일곱을 낳을 불임자'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이66:7-'그녀는 산기가 돌기 전, 그녀는 산출했다.' 여기서도 역시 주제는 주님의 강림이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주님의 교회의 건설. 그들의 개혁과 거듭남이 '산기가 돛', '산출함'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예17:11-'자고새는 그러모나 낳지는 않는다.' '낳는 것'=유용함을 실행하는 것, 고로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개혁되는 것.

이37:3-그들은 말씀으로부터 진리들을 듣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을 수단으로 결과되는 개혁은 없다는 것이 '아들들이 자궁에 와있으나 산출할 힘은 없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낳는 것'=진리들을 행동에 있게 함으로 진리들이 열매 있게 만드는 것, 이때 개혁이 온다.

계12:2-자기 자궁에 가지고 있는 그녀는 소리쳤고, 산기가 돌고, 낳기 위해 고통하고 있었다'=말씀으로부터 있는 영적 진리들과 선들은 가장 큰 어려움과 곤경과 더불어서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악들과 거짓들 때문, 이것들이 길에 버티고 서서 종교에 애착심을 가지는 마음들을 갈취하기 때문이다.

예30:6-'남성이 아이를 낳는지 묻고 보라'에 의해 말씀으로부터의 진리가 생활의 선 없이 교회의 어떤 것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미되어지고 있다. '어찌 내가 아이 낳는 자가 하듯 자기 손을 허리에 둔 모든 사람을 보는가?'=선 없는 진리가 교회 속에 있는 것들을 생산한다고 왜 상상하려 드는가?

이13:8-교인은 어려움과 더불어 진리를 통하여, 진리에 따른 생활을 통하여 거듭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진리들이 이식되고 선과 결합하기 위하여 시험들을 겪는다는 것이 '고통과 격심한 아픔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 그들은 낳으려 하는 자 같이 산기가 돌고 있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계12:5-'낳는 것'=(진리와 선을) 열매 맺고 생산함.

이51:18-'그녀로부터 태어난 모든 아들들 중에서 그녀를 인도하는 자가 없고, 그녀가 양육한 모든 아들들의 손에 의해 그녀를 이끌 자가 없다.'=그녀를 거짓들로부터 물러나게 해주는 교회가 배웠던 것,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없다.

(아버지가) 낳다 (beget)

창11:11-'아들들과 딸들을 낳는 것'=교리적인 것들

* 주님께서는 ...신성 자체로부터 선의 측면에서 합리성을 낳았을 뿐아니라 이를 통하여 진리 측면의 자연적인 것까지도 낳으셨다.

내려가다 (descend)

창11:5-'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그들 위에 심판...

창11:7-'자, 우리가 내려가자'=심판이 그렇게 행해짐.

창18:21-'나는 내려갈 것이다, 바라건대, 그리고 나는 볼 것이다'=방문. '보러 내려가는 것'=심판. 고로 그것=방문.

눅17:31-'그가 그것들을 가지고 가려하여 내려오지 않게 하라'=선으로부터 진리 쪽으로 자신을 돌아서게 하지 마라.

창24:16-그러므로 여기서 첫째로 말해지는 것은 '리브가'에 의해 표현된 것, 즉 진리에 애착함이 '샘으로 내려갔다'는 것, 그리고 이내 올라왔다는 것이다. 신성한 사랑은 선에 애착함 안으로 흐르고, 그 다음 진리에 대한 애착 안으로, 그리하여 자연적 인간에 있는 것들을 생기있게 하고 계발한다. 그다음 그것들을 질서 안으로 정리정돈한다, 이것이 '내려감'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내려가다

창37:35-‘나는 슬피울며 내 아들에게로,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다’=고대 교회가 멸한다는 것.

창38:1-그러므로 시온과 예루살렘으로부터 경계선 쪽으로 향하여는 ‘내려가는 것’이라 말하고, 경계선으로부터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올라간다’라고 말해진다. 이로부터 ‘올라가는 것’은 진리와 선 쪽으로 승강함을 포함하고, ‘내려가는 것’은 거짓과 악 쪽으로 내던져짐을 포함한다. 이로부터 여기서 말해지는 바, ‘유다는 그의 형제로부터 내려갔다.’

창39:1-‘(요셉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만들어졌다’=교회로부터 있는 과학물체로.

창39:1-‘그를 거기로 내려가게 한 (자)’=이 선으로부터 이런 과학물체 쪽으로. ‘내려간다’가 말해지는 이유는 과학물체들을 취급하기 때문, 이는 외면의 것들이다. 그이유가 말씀에서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 가는 것은 ‘내려감’이라 일컫고, 외면으로부터 내면으로 가는 것은 ‘올라감’이라 불려진다.

창42:2-‘거기로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 사라’=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것 삼는 것. (그이유가) ‘내려가는 것’은 외면의 것들을 향하여 감이라 단정되기 때문이다.

창42:38-‘내 아들은 너와 더불어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그는 더 낮은 것들 쪽으로 자신을 내려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내면의 자연 평면에 있는 과학적인 진리들 쪽으로.

창43:7-선으로부터의 이 진리가 그와 더불어 결합되어 지리라는 것이 ‘그가 베냐민을 내려가게 할 줄을 (몰랐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43:15-‘그들은 일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과학물체들의 내면의 것들로부터 생명을 자신들에게 포획하려 승강함.... ‘내려가는 것’=생명을 자신들에게 포획하는 것.

창43:20-‘우리가 양식을 사려고 처음에 내려왔다’=진리들을 위해 선을 포획하려 함. ‘내려가는 것’=의향, 의도. 그 이유가 내려가는 자, 어떤 곳에 자신을 향하게 하는 자는 그것을 열심을 내어 하려 들기 때문.

창43:22-‘우리는 우리의 손에 다른 은도 가지고 내려왔다’=진리를 수단으로 그밖의 선을 포획할 의향이 있

다는 것. ‘내려가게 하는 것’=포획하려는 의향.

창44:21-‘그를 나에게로 내려오게 하라’=이 새로운 진리는 내적 선에 복종되어야 할 것이다.

창44:29-‘너는 내 회색 머리털을 무덤으로 악 안에서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영적 선은 멀해지리라는 것, 고로 교회의 내적인 것도 멀해지리라는 것. ‘선 안에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다시 일어나는 것, 거듭나지는 것. 그리고 ‘악 안에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멸망하는 것.

창45:9-‘내게로 내려오시라, 지체말라’=확실한 결합. ‘내려가는 것’, 또는 나에게 오는 것=결합.

창46:3-‘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마라’=자연적 진리, 그것에 속한 모든 것들과 더불어, 교회의 과학물체들 안으로 개시되어야만 한다는 것. ‘내려가는 것’=시작되는 것. 그이유가 이 개시함이 표현되기 위하여 야곱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내려갔다.

출11:8-‘모든 네 종들은 나에게 내려올 것이다’=하위에 두는 이들.

출15:5-‘그들은 돌 같이 깊음들 안으로 내려갔다’=그들은 자기들의 무게만큼 낮은 것들 쪽으로 떨어진다라는 것.

출19:11-‘여호와와 모든 백성들의 눈으로 내려오실 것이다’=주님의 강림, 그리고 그 당시 계발됨. ‘내려오는 것’, 여호와와 관해 말해질 때, 즉, 주님=유입을 수단으로 그분은 현존하심, 고로 그분의 강림. 여기서는 주님의 강림이 모든 백성의 눈에 여호와와의 하강이 있음에 의해 뜻해진다.

출19:14-‘모세는 산으로부터 백성에게로 내려왔다’=선 안에서 진리들을 받기 위해 신성으로부터 진리들을 수단으로 준비하고 응용함. ‘내려오는 것’, 모세에 관해 말해질 때,=응용, 또한 준비함.

출19:24-‘떠나 내려가라’=유입.

시133:2-‘그의 의복들의 입에 내려가는 것.’ ‘내려가는 것’=유입.

출32:1-‘내려움이 더뎠’, 말씀으로부터 신성한 진리의 통각에 관해 말해질 때,=안으로 흐르지 않는 것. 그이유가 인간과 더불어 흐르는 신성한 진리는 천국으로부터 내려간다고 말해지기 때문.

내보내다-내어주다-내일

출32:7-‘가라, 너는 내려가라’=그들의 외적인 것을 들여다 봄. ‘시내산으로부터 내려가는 것’=들여다 보는 것, 관조하는 것, 조사하는 것. 그이유가 ‘시내산’=천국, 이로부터 신성한 진리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것’, 영적 의미에서 신체와 더불어 내려감이 아닌 마음과 더불어. 고로 들여다봄 그리고 재검토함.

출32:15-‘그리고 모세는 뒤를 보았다 그리고 산으로부터 내려갔다’=말씀이 천국으로부터 내려오게 허락되는 것. ‘뒤를 보고 내려가는 것’, 말씀에 관련해 말해질 때 =내려가게 허락되는 것.

출33:5-‘너희 장신구를 너희 위로부터 내려오게 만들라’=신성 없는 그들 외부의 품질. ‘그것을 그들 위로부터 내려놓게 만드는 것’=그것을 중단하는 것, 고로 그것 없이 있는 것.

출34:29-‘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오게 되었다’=내적인 것이 말씀, 교회, 예배의 외적인 것 안으로 유입됨.

계3:12-‘내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나와 내려오는 것’=이는 주님의 신성한 진리로부터 있을 것인데, 이는 천국 안에서와 같다.

계10:1-‘나는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또다른 힘 센 천사를 보았다’=신성의 위엄과 권능 안에 계신 주님.

계12:12-‘악마가 큰 노염을 가지고 너에게 내려왔기 때문에’=영들의 세계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이 땅의 사람들과 결합되어 있는바, 이것 역시=땅에 있는 것과 같다.

계18:1-‘천사가 천국으로부터 내려옴’=주님이 천국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유입됨.

시133편-‘그의 의복들의 입 위에 내려옴’=거기로부터 천국의 모든 선과 즐거움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최말단에 이르기 까지 있다는 것...‘의복들의 입에 내려가는 것’에 의해 천적 선과 영적 선의 결합과 유입이 의미된다.

시133편-‘시온의 산 위에 내려오는 헤르몬의 이슬 같다’=진리와 선의 결합.

미1:3-마지막 심판이 ‘여호와...내려오심’에 의해 뜻해진다.

내보내다 (send forth)

파견하다

왕상13:4-6-‘손을 내보내는 것’=인간 고유의 힘.

창21:14-‘그는 하갈을 내보냈다’=그분은 그것을 자아 안에 놓아두셨는 것.

출4:3-‘던지는 것’, 또는 ‘내보내는 것’=진행되는 것, 고로 유입.

이32:20-‘소와 나귀의 발을 내보내는 것’=...가르쳐지는 것.

계5:6-‘하느님의 일곱 영들이 모든 땅으로 파견되었다’=모든 지혜와 총명이 소통되었다.

내어주다 (deliver)

마24:9-‘그때에 그들은 너희를 환난으로 내어주어 너를 죽게 할 것이다’=선과 진리는 멸할 것이라는 것.

이34:2-‘그는 살육자에게 그들을 내어줄 것이다’=이런 것들 안에 있는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마20:19-‘사람의 아들을 정죄하고 나라들에 내어주는 것’=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을 지옥으로 판결하고 지옥으로부터 있는 악한 자와 거짓된 자에게 그들을 내어주는 것.

예25:31-‘그분은 사악한 자를 겁에 내어줄 것이다’=비성실한 자들은 자기들의 거짓들을 통해 멸망할 것이다.

눅21:16-‘신실한 자들이 진리를 위하여 겪는 시험들이 너는 부모들, 형제들에 의해 배반당해질 것이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내일 (morrow, to-morrow)

창19:34-‘내일 이었다’=그 후에.

창30:33-‘내일의 날에’=영원으로. 말씀에서 ‘어제’, ‘오늘’, ‘내일’이 언급되는데, 최고 의미에서 영원인 것이 의미된다. 그리고 ‘내일’, 영원으로.

출8:6-‘내일까지’=영속함에서.

출9:5-‘내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토지에 행하실 것이다’=이것은 영속적으로 그들의 것이다. ‘내일’=영속함에서.

출13:14-‘내일’=그것이 행해질 때 언제나. ‘내일’, 또는 ‘내일의 날’=영원인 것, 고로 영속적인 것, 또는 항상, 여기서는 행동된 것.

마6:34-주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매일 준비해주시나.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 스스로 그것들을 획득하려해서

내장-냄새-냄새말다-냅킨-너울

걱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이유가 내일의 날이 내일에 속하는 것들을 걱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 (출16:19,20에서), 내일을 위한 걱정이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이 걱정은 금지될 뿐 아니라 정죄되었다. 아마 글자 의미 그 이상의 것 없이 이 구절을 관조하는 이들은 내일을 위한 모든 걱정은 내던져야 하는 것으로만 믿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내적 의미로부터 이 구절을 관조하는 사람은 내일을 위한 걱정이 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16:33-'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선과 진리의 결합은 영원하다.

출18:13-'내일에 (있었다)'=영원인 것. '내일'=영원인 것.

출19:10-'오늘과 내일 정결하게 하라'=그들은 지금 그리고 이후에 신앙의 거룩함에서 나타날런지 모를 내면의 것들을 베일로 덮음.

출32:5-'내일은 여호와께 축제일(이다)'=이것은 영속적으로 숭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일'=영원하고 영속인 것.

내장 (viscus)

창15:4-'네 창자들로부터 내보내는 자'=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있는 이들.

* 말씀에서 '창자들'=사랑, 또는 자비.

창25:23-'창자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진리의 근원, (그이유는 이 표현은 아버지로부터 있는 출생에 적용되어진다).

이63:15-'창자들의 그리워함'=자비.

애2:11-'창자가 고생한다(아프다)'=순진으로부터의 진리의 파멸 때문에 슬퍼함.

눅10:33-'(사마리아인의) 불쌍히여김이 움직여졌다'=내부로부터의 자비와 선행. 그이유가 자비와 선행은 하나님을 만든다.

욥20:14-'창자들에서'=내면적으로.

이49:1-'내 어머니의 창자들로부터'=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관하여. (이에 비해) '자궁으로부터'=사랑으로부터의 선에 관하여

냄새 (odour)

호14:6-'레바논의 것 같은 그녀의 냄새'=신앙 속의 진리에 애착함.

창8:21-'여호와께서는 쉼의 냄새를 맡으셨다'=거기로부터의 예배는 주님께 대한 감사였다.

* '냄새'=감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고로 유대 교회에서 냄새는 감사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었다...그 이유가 선행의 선과 선행으로부터의 신앙 속의 진리는 달콤하고 즐겁게 해주는 냄새들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창27:27-'그는 그의 옷들의 냄새를 냄새 맡았다'=그가 지각했던 선의 진리로부터 감사하는 것. '냄새'=감사하는 것. '냄새맡는 것'=감사한 것을 지각함.

출5:21-'너는 우리의 냄새를 악취가 풍기게 만들었다'=그들은 우리가 응낙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는 것. '냄새'=감사인 것을 지각함. '냄새'=이것인바, 이것=신앙과 선행을 지각함. 그이유가 이것들이 감사이기 때문. 이것들이 감사인바, 응낙함은 최고로 감사히 여김이다. 이로부터 '냄새'에 의해 응낙함이 의미된다.

출29:18-'쉼의 냄새'=평화를 지각함. '냄새'=지각.

출30:38-'냄새를 만드는 것'=기꺼워하는 것. 이것은 선과 진리에 애착함을 통하여 결과되는바, 이것은 기꺼워함에 의해 의미된다. 그이유가 '냄새'는 감사히 여기는 것을 지각하는 것, 고로 기꺼워하는 것이기 때문.

호14:6-'냄새'=지각.

냄새 말다 (smell)

* 냄새를 참조

냅킨 (napkin)

눅19:20-'땅에 그것들을 감추어두는 것', 그리고 '냅킨 안에 감추어 두는 것'=그들은 자연적 인간의 기억에 만 있었다는 것.

너울 (veil)

창24:65-'그녀는 너울을 취하여 자신을 덮었다'=진리의 외관.

창38:14-'그녀는 너울로 자신을 덮었다'=진리가 애매 모호함.

창38:19-'그녀는 자기로부터 너울을 제거했다'=애매 모호한 것이 사라졌다.

넓은 장소 (broad places)

넓은 장소-넓이-넓은-넓적다리

눅14:21-‘거리와 넓은 장소로 나가는 것’=진짜 진리를 위해 사방으로 찾아 보는 것.

예5:1-‘넓은 장소’ 특별하게, 도성의 귀퉁이들을 뜻한다. 고로 그들이 거주하는 구역들. 그리고 영계에서 모든 각각은 명료하든, 어둠침침하던 각자의 선과 진리에 의거 도성들에서 거주한다. ‘넓은 장소’=각 사람의 지각과 애착에 따른 진리들과 선들.

예9:21-‘거리들’, ‘넓은 장소들’=교리로부터의 진리들, 생활 속의 진리들, 이것들이 총명과 지혜에로 인도한다.

넓이 (breadth)

나비

넓은 (broad)

창6:15-‘(방주의) 나비’=(남아있는 것들) 속의 진리.

창26::22-‘르호봇’은 ‘넓어지다’를 뜻한다. 넓이=진리.

출3:8-‘좋고 넓은 토지로...’=선행의 선, 그리고 신앙의 진리가 있는 곳, 천국으로.

계20:9-‘땅의 나비’=교회의 진리

계21:16-‘(거룩한 성의) 나비’=교회 속의 진리.

이33:21-‘공간들의 넓어짐’=수많은 불어나고 팽창되는 중에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이30:23-‘넓은 풀밭’=말씀, 이를 통하여 신성의 유입, 영적 자양분이 있다. ‘넓다’는 진리의 불어남과 팽창으로부터 말해진다.

시31:8-‘넓이’=말씀으로부터의 교리 속의 진리. 그러므로 ‘내 발이 넓은에서 서게한다’=신성한 진리들에 따라 살게 됨.

넓적다리 (thigh)

계19:16-‘그분의 옷에 그리고 그분의 넓적 다리에 이름이 씌여있다’=진리와 선. (그분의 ‘넓적 다리’=그분의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창24:2-‘네 손을 내 넓적 다리에 놓아라’=그것을 결혼의 사랑에 서약함. ‘넓적 다리’=결혼의 사랑으로부터의 선. (그 이유가) 허리와 더불어 넓적다리는 결혼의 사랑에 상응(하기 때문). 이를 태고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결혼의 사랑으로부터의 어떤 선에 서약이 있을 때, 넓적다리 아래 손을 놓는 의식이 있다.

* ‘넓적다리’, 그리고 ‘허리’=결혼의 사랑의 것들인바, 그것들 역시=사랑과 선행으로부터의 것들.

이11:5-진리, 선으로부터 때문에, ‘넓적다리의 띠’라 불리운다. 고로 ‘넓적다리’는 진리로부터의 사랑이라 단언된다.

창32:25-‘그는 그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을 건드렸다’=결혼의 사랑이 자연적 선과 결합하는 곳. (=천적, 영적 선이 ‘야곱’에 의해 의미되는 자연적 선과 결합되는 곳. 그이유가 ‘넓적다리’=결혼의 사랑, 그로부터 모든 천적 영적 사랑이기 때문).

창32:25-‘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은 관절이 어긋났다’=야곱의 후손에서 결합은 망가지고 잘못 놓였다는 것. (=진리는 선과 결합함에서 그자체 능력이 아직은 없다는 것).

창32:31-‘그는 자기 넓적다리를 절룩거렸다’=진리들, 그 모두가 다함께 천적, 영적 선 안으로 진입할 의향이 아직은 없다는 것.

창46:26-‘야곱과 더불어 온 모든 혼...’이는 그의 넓적다리로부터 나왔다’=모든 진리들과 선들...이는 결혼으로부터였다.

창47:29-‘네 손을 내 넓적다리에 놓아라’=거룩한 서약. 그 이유가 ‘넓적다리’=결혼의 사랑으로부터인 것.

창48:12-‘요셉은 그들을 자기 넓적다리로부터 데려왔다’=영적 선의 부분에서 사랑의 애착으로부터 지적 측면의 진리와 자발적 측면의 선. ‘넓적다리’=사랑의 애착

출1:5-‘야곱의 넓적다리로부터 나온 모든 혼’=일반적 진리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 ‘넓적다리’=결혼의 사랑, (고로) 천적 그리고 영적 모두에서 모든 사랑. 그러므로 ‘넓적다리로부터 나오는 것’=천적 결혼으로부터 진리와 선, 결과적으로 교회의 진리와 선.

겔24:4-‘고기’인 선, 여기서는 ‘넓적다리와 어깨’이다.

출28:42-‘허리들로부터 넓적다리들에 까지’=결혼의 사랑의 외적인 것들의 확장. 그 이유가 ‘허리들과 넓적다리’=결혼의 사랑으로부터의 것들이기 때문. ‘넓적다리’=그것의 외면에 속하는 것들. 그이유는 그것이 (허리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 넓적다리는 허리의 낮은 쪽의 부분인바, 이는 발을 향하고 있어서 결혼 사랑의 외면의 것들, 또는 낮은 것들이 그것들에 의해 의미된다.

출32:27-‘너희 모든 이 각각은 자기 넓적다리에 검을

넘어지다-넙마-네필림-넷-넷째

놓아라'=악으로부터의 거짓에 맞서 싸우는 선으로부터의 진리. '넓적다리'=사랑으로부터의 선. '넓적다리 위에 겹'이라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진리가 거짓과 악에 대항해 전투하기 때문, 그리고 정복하는 것은 선으로부터 있어짐에 틀림없기 때문.

계19:16-주님의 '넓적다리'=신성한 선에 관련한 말씀. '넓적다리들과 허리들'=결혼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사랑들의 근본되는 사랑인바, '넓적다리들과 허리들'=사랑의 선. 그러므로 '넓적다리'가 주님께 관련하여 말해질 때, 사랑의 선에 관련한 그분 자신이 의미된다. 여기서의 똑같은 것에 관련한 말씀.

시45:3-'네 겹을 네 넓적다리에 차라'=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으로부터 전투함.

시147:10-'그분의 즐거움은 인간의 넓적다리에 있지 않다'=인간 고유의 의지로부터 있는 것들에 있지 않다. 이로부터는 악밖에 없다.

민5:27-'그녀의 배는 부어오르고, 그녀의 넓적다리는 떨어질 것이다'=결혼적 평면이 멸망할 것, 즉 결혼 자체, 영적, 자연적 모두가 멸망할 것. '자궁' 또는 '배'=영적 평면의 사랑. '넓적다리'=자연적 평면의 사랑.

창32:24,31-그들은 천적이고 영적인 사랑으로부터의 어떤 선도 결여되어질 것임이 이 구절에 의해 뜻해진다. 그이유가 '넓적다리'=선과 진리의 결합. 그리고 그것이 '관절이 어긋남'=야곱과 그의 후손과 더불어 진리가 선과 결합함을 없다는 것.

이11:5-'정의가 그분의 허리들의 띠이고, 진리는 그분의 넓적다리들의 띠일 것이다'=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선이 그분을 사랑함에 있는 천국에 있는 이들과 교회에 있는 이들과 결합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에 있는 천국에 있는 이들과 교회에 있는 이들과 결합할 것이다. '그분의 넓적다리'=이웃을 향하여 사랑에 있는 이들.

이47:2-'강들을 건너려고 넓적다리를 발가벗게 만드는 것'=추론들을 수단으로 선에 섞음질하는 것.

넘어지다 (stumble)

* 치다(strike)를 보라

넙마 (rag)

예38:11-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는데 사용한 '넙은 천조각과 넙마'=지각되거나 이해되지 않았던바, 소홀시되고 거절되어왔던 글자 의미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을 통하여 교리 속의 진리를 변론하고 회복되게 함.

네필림 (Nephilim)

* antediluvian, flood도 참조

창6:4-탐욕 안에 신앙의 교리적인 것들을 역사시킨 이들, 그 때부터 또한 다른 사람들 보다 위에 있다는 자기들의 위대함에 관하여 무서운 설득들을 자아 사랑으로부터 기획한 이들이 '네필림'이다.

민13:23- 네필림이 가나안의 토지에 있었다는 것은 아낙이 네필림 속에 있었다는 것으로부터 명백해진다.

창6:4-'네필림'=설득함으로부터 자신이 드높은 자요 특출한 자로, 거룩하고 참된 모든 것은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든 자들.

창6:4-'르바족', '수스족', '엠족'은 네필림과 비슷한 부류 속에 있었다(창14:5)...이들에 의해 거짓의 설득들, 자신의 높음과 똑똑함을 설득을 통해 만들어 거룩하고 참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 이들이 의미되고 있다. 이들은 (저 세계에서) 탐욕들 안에 거짓들을 주입한 자들이다.

넷 (four)

넷째 (fourth)

사분의 일 (fourth)

창14:9-'네 왕이 다섯과...'=이들의 연합, 그리고 그들의 분열...'4'=연합, 그 이유는 그것이 쌍으로 있기 때문이다, 이는 '2'가 결혼에 관계 될 때의 경우와 같다.

창15:16-'4대 제에서 그들은 이리로 귀환할 것이다'=회복하는 시간과 상태...'4대'='40', '400'과 똑같다, 즉 시험의 기간과 상태; 이것은 그것들로부터의 언어상의 지소사(diminutive)의 한 종류이다.

* '4'는 '2'와 똑같은 것을 포함한다.

* '4'는 결합, '2'와 똑같다.

창47:24-'4 몫은 너희들을 위해 있을 것이다'= 아직 남아 있지 않는 것들. 그 이유가 '4 몫', 이는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다섯 몫으로부터인바 아직은 다섯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4'는 '2'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넷(4)

데, 즉 선과 진리의 경우 같이 쌍으로 있는 것.

출20:5-셋째 위에 그리고 넷째 위에'=긴 시리즈에서, 그리고 결합.

출22:1-'한 마리 작은 가축을 위해 네 마리 작은 가축을'=충분함에 이르도록 그에 상응하는 벌을. '4'=결합; 그이유가 '4'='2'와 같고,, '2'=결합이기 때문. 이로부터 이 숫자들 역시=충분함에, 그이유가 결합되는 것은 충분이기 때문.

출25:12-'너는 그것을 위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 것이다'=신성한 선과 결합된 신성한 진리...거기에 고리가 넷이 있었던 이유는 이 숫자가 결합을 의미했기 때문.

출25:26-'거기서부터 4휘트(feet)에 있는...'=자연적 영역 안에서...'4' 결합을 포함한다.

출25:34-'아몬드 형태의 사발 네 개'=선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과학적 사실. '4'=결합.

출26:2-'넓이가 4큐빗'=진리가 선과 결합함...'4'=결합, 고로 결혼, 그이유가 진리와 선의 결합이 천국의 결혼이라 불리기 때문. '4'=결합, 또는 결혼인 이유는 이 숫자는 '2' 자체가 곱해진 것이기 때문, 그리고 '2'=결합.

출26:32-'너는 그것을 싯딤의 네 기둥들에 놓을 것이다'=공적의 선...이것이 결합되게 하고 지탱도 시켜준다 '4'=결합.

출27:2-'거기로부터 4 귀통이들 위에'=모든 방법에서. '4'=결합.

출27:4-'그물 위에 너는 낚시로 고리 넷을 만들 것이다'=선의 영역을 통하여 결합이 있다...'4'=결합.

출27:16-'그것의 기둥들 넷, 그것의 받침들 넷'=결합을 지탱시키는 거기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4'=결합.

출28:17-'돌들을 너 줄로'=선으로부터의 진리들..모든 것의 결합...'4'=결합.

출34:7-'셋째 위에 그리고 넷째 위에'=거짓들과 이 거짓으로부터 파생된 악들은 지옥에 떨어짐...'3'은 진리들, 또는 거짓들을 서술하고, 그리고 '4'는 선들, 또는 악들을 서술한다...숫자들, 2, 4, 그리고 8은 천적 등급에 소속된다...'4'에 의해서는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선이 의미된다.

계6:8-'그들에게 땅의 사분의 일을 죽이는 힘이 주어졌다'=교회 속의 모든 선의 파멸. '땅의 사분의 일'에 의

해 교회의 모든 선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사분의 일 부분'=모든 선, 그 이유는 말씀에서 숫자 '2'와 '4'는 선에 응용되고 그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로부터 '사분의 일 부분', 또는 단순히 '사분의 일'=모든 선...이외에도 말씀에서 '4'=선과 진리의 결합.

계7:1-'나는 땅의 네 모퉁이에 서있는 네 천사들을 보았다'=이제 영들의 세계 안에 있는 이들 위에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려 고심하는 보편적인 천국...여기서 '네 천사들'은 보편적인 천국, 그리고 '땅의 네 모퉁이'=영들의 보편적인 세계...'네 모퉁이'에 의해 네 방위가 의미되어진다.

계20:8-'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나라들, 곡과 마곡을 피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용으로 의미되는 이들이 지상에서 외적 자연적 예배 안에서 만 살았던 영들의 보편적 세계에 있는 땅들로부터 온 모든 이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 들일 것.

겔1:6-'거기 네 날개들'=천적 왕국에 있는 신성한 영적인 것.

단8:8-'숫염소의 큰 뿔이 부러졌다'는 것, 그리고 하늘들의 네 바람들을 향하여 그 대신에 넷이 올라왔다는 것 =그때부터 모든 거짓들이 악들과 결합했다. '뿔들'=악으로부터의 거짓들; '4'=그것들의 결합; 그리고 '하늘들의 네 바람들'=거짓들과 악들 모두.

계6:8-'사분의 일 부분'=모든 선 그리고 이 선에서 파생된 진리. 그 이유는 숫자 '4'=선과 진리의 결합, 그리고 그러므로 '4분의 1 부분', 또는 '4분의 1'=결합의 모든 것이기 때문...'4분의 1'=모든 선; 그리고 모든 진리는 선으로부터인바, '4분의 1 부분'은 모든 선과 파생된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 말씀에서 숫자 '3'은 진리들을 서술하고, '4'는 선들을 서술한다. 그 이유는 '2'와 '4'=결합, 그러나 '3'=충만함; 그리고 영적 결합이 사랑이고, 모든 선은 사랑 속에 있고, 영적 충만함은 진리들을 수단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17:6-'넷 다섯'=선 안에 있는 극소수; '4'는 선 안에 있는 이들, '5'는 극소수.

...년 (year)

* 연(year)을 보라.

...년-노-노-노년-노동-노동자-노랑-노래-노래하다

노 (No)

겔30:15-‘노’=거짓으로부터 있는 악.
 겔30:15-‘이집트’, ‘신’, ‘노’는 과학물과 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있는 오류들, 이것들이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통한 인간의 개혁을 방해 한다.

노 (oar)

* rower, ship도 참조.
 겔27:29-‘노를 잡은 이들’=총명한 자.
 이33:21-‘배의 노들’=자아로부터의 총명.
 겔27장-‘노들’=말하게 하는 이해성으로부터의 것들, 이것들은 감각적 인간으로부터 있다.

노년 (old age)

* 늙은 (old)을 보라.

노동 (labour)

* six도 참조.
 * ‘모든 노동’ 등등=신앙에 대한 지식들.
 창19:11-‘그들은 문을 발견하려고 수고했다’=그들은 선으로 인도하는 어떤 진리도 볼 수 없었다.
 창41:51-‘하느님은 모든 나의 애씀을 잊게 만드셨다’=시험들 이후 제거함. ‘노동’=전투들, 고로 시험들.
 창47:13-‘이집트의 토지는 고생했다’=황폐됨.
 출7:18-‘마시려 수고하는 것’=가르침 받기를 원치 않는 것.
 출20:9-‘6일을 너희는 일하라, 그리고 모든 네 일을 하라’=이 결합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전투. ‘노동하는 것과 모든 누군가의 일을 함’=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수행하는 것, 여기서는 영적 생활.
 계2:2-‘네 수고함, 그리고 참음’=그들의 공부와 인내.
 계21:4-‘더 이상 있지 않을 수고함’에 의해 시험들이 의미된다.
 시128:2-‘그가 먹을 그의 손들의 수고함’에 의해 이런 것들에 따른 생활을 공부함이 의미된다.
 이32:17-‘정의의 수고함’=선이 진리와 결합, 이 안에 평화가 있다. 그 이유가 ‘노동’, 말씀에서 진리를 말하기 때문.
 시68:9-교회에 선인 것을 행하려 연구함으로부터 ‘수고하고 있음’이라 말해진다.
 이53:11-지옥들과 더불어 그분의 전투들, 그리고 복중

시킴이 ‘그분의 혼의 노동’에 의해 의미된다.
 이55:2-‘은’에 의해 자아, 또는 고유의 총명으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된다. ‘노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31:16-‘노동’에 의해 지옥들에 맞선 주님의 전투들, 그리고 그것들의 복중,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기 위하여이다.

노동자 (workman)

마9:37-‘노동자들은 거의 없다.’ ‘노동자, laborer’에 의해 주님으로부터 가르쳐지는 모든 이가 뜻해진다.
 눅13:27-‘나로부터 떠나라, 너 불법의 노동자야’=(단지 자연적 애착으로부터, 고로 자아와 세상 사랑으로부터 쓸모 있음(use)을 수행해가는 이들).
 출28:11-‘석공’=사랑의 선, 고로 거듭나는 사람의 자발적 부분.
 출35:35-‘공예가’=신성의 천적 선, 이로부터 거듭나는 사람의 자발적 부분이 있다.
 계3:14-‘하느님의 일하심의 시작’=말씀...글자 의미로 있는 말씀. 그이유가 이 의미는 말씀의 내면의 것들의 거룩함의 복합체이기 때문. (=그분으로부터의 신앙, 이는 외관상 교회의 첫 번째 것이다)

노랑 (yellow)

시68:13-‘깃털은 금의 노랑(금빛)으로 덮힌’=영적 선, 이로부터 이런 진리들이 있다.

노래 (chanting)

창43:11-‘너희 그릇들에 토지(Land)의 노래를 가져가라’=신앙의 진리들에 있는 교회의 정선된 것들. ‘노래’=정선된 것들. ‘노래’라 불리우는데 그이유는 원어에서 이 단어는 노래함으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토지의 노래’는 노래되고 칭송되는 토지의 생산물을 뜻한다. 고로 내적 의미에서는 ‘정선된 것(choice thing).’

노래하다 (sing)

노래 (song)

* 말씀에서 ‘노래하는 것’=영적인 것.
 습2:14-‘그들의 음성이 창문에서 노래할 것이다’=몽상들로부터 추론함.
 이24:9-‘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혼유되어져서는 안된다.

노새-노아

창31:27-‘나는 노래하며 너희를 떠나보냈을 것이다’=진리들에 관련한 상태...그 이유가 ‘노래들’은 진리를 서술하기 때문.

시126:6-‘노래하며 오는 것’=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의 즐거움.

시68:25-‘가수들’은 영적 교회로부터 있는 진리들이라 단언된다.

이35:6-‘벙어리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이들이 주님을 고백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있는 것들.

출15:1-‘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여호와께 이 노래를 불렀다’=해방되게 해주심 때문에 영적 교회의 사람들에게 의해 주님이 영광되심. ‘노래를 부름’=영광을 기림.

계15장-‘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이 장에 포함된 노래이다. ‘어린 양의 노래’라 불리우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되심(신성화 하심, Glorification)이 취급되기 때문.

출15:1-‘나는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다’=영광은 주님만에 속한다는 것.

출15:2-‘내 노래는 야훼(Jah)이시다’=신앙으로부터의 모든 것 그리고 이로부터 영광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이다는 것. 그이유가 ‘노래’, 여호와에 관해 말해질 때, 여기서와 같이, 그것=신앙으로부터 있는 영광.

계5:9-‘그들은 새로운 노래를 노래했다’=주님을 인정함과 주님의 영광을 기림. 즉 그분만이 심판자, 구속자, 구원자, 고로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다는 것.

계14:3-‘그들은 말하자면 새 노래를 노래했다’=새 기독교인의 천국에서 주님을 축하하고 영광을 기림. 여기서 특히, 그분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으로서, 마치 그분이 고대의 천국들에서 인정되어지셨듯 인정되어지셨다는 것.

계14:3-‘144000 (명) 외에는 아무도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이 새 천국 안으로 영접된 이들 외에는 어느 기독교인들이라 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노래’=주님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함과 영광을 기림.

계15:3-‘그들은 하느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노래했다’=선행으로부터 고백함, 고로 계명에 따른 생활로 고백함, 그리고 주님의 인간은 신성이다는 신앙으로 고백함

겔26:13-‘선에 관련되는 지식의 황폐함이 ‘나는 네 노래들의 씨끄러움이 중단되게 만들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35:10-‘그들은 노래하며 시온에 올 것이다’=영원한 행복.

예31:12-‘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는 것’=내적 천국의 환희.

이16:10-‘포도원에 노래가 없다’=그들의 기쁨이 거두어졌다는 것. 그이유가 그들은 진리들로부터의 즐거움들을 표현하려고 포도원과 포도즙들에서 기꺼이 노래하려하지 않았기 때문.

이42:10-‘노래를 부르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기쁜 마음으로부터 예배함.

이35:6-‘노래할 것이다’=진리의 총명으로부터의 환희.

시63:5-‘가수들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마음을 즐겁게 하는 진리들을 통하여 예배하는 것.

노새 (mule)

암노새 (she-mule)

* 말쑤에서 ‘말’, ‘노새’, ‘나귀’=지성, 합리성, 과학적인 것.

창36:24-‘아나는 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했다’=과학물로부터의 진리.

겔27:14-‘말’, ‘기수’, 그리고 ‘노새’에 의해 진리와 선을 이해함에 의미된다. ‘노새’에 의해서는 합리적인 것.

이66:20-‘노새’에 의해 내적 합리성, 이는 영적이다.

속14:15-‘노새의 재앙’에 의해 교회와 교회 속의 사람의 영적 생명에 상해를 입히고 파괴하는 것들

노아 (Noah)

* 천사들은 ‘노아’라는 이름을 수단으로 태고 교회의 후손들과 더불어 남아 있는 교회,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까지 계속된 교회를 지각한다.

* 태고 교회로부터 이 교회의 잔류가 홍수까지 조차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홍수 후에 포함되었는데, 이 교회가 ‘노아’라 불리운다.

노아

* 홍수 후 세 교회들의 부모 되는 열 번째 교회가 '노아'이다; 이 교회는 고대 교회라 불리운다.

창5:29-노아가 서술되는데, 그는 새로운 교회.

창5:29-'그는 여호와께서 저주하셨던 지면으로부터 우리 손들의 고생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뒤집혀져 왔었던 것이 교리를 수단으로 회복될 것이다...'위로하는 것'=(라멕의) 아들 또는 노아와 관계되고, 그를 수단으로 새로운 거듭남, 고로 새로운 교회, 이 교회는 고대인의 교회가 의미된다; 그러므로 고대인의 교회, 또는 노아 또한 휴식, 또는 휴식함으로부터의 위로를 의미한다.

* '노아'라 불린 교회가 홍수 이전 있었던 이들 사이에서 계수되지 않는 것은 이 절로부터 분명해진다. '위로'는 살아남는 것, 견뎌내는 것이었다.

창6:8-'노아는 여호와와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다'=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인류가 구원될 것임을 미리 보셨다.

* '노아'에 의해 새로운 교회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신앙, 즉 선행으로부터의 신앙도 의미하였다.

* '노아'라 불려지는 새로운 교회는 천적 수준이 아닌 영적 수준이며, 이 교회는 여호와와 눈에서 자비가 아닌 '은총'을 발견하였다고 말해진다.

* 창6장은 '노아'라 불리웠던 교회의 상태에 관한 것을 다룬다.

창6:9-'이들은 노아로부터의 출생들이다'=새로운 교회의 개혁 또는 거듭남의 서술이다.

창6:9-'노아는 그의 세대에서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다'=그는 선행을 수여받아질 수 있었다는 것.

창6:10-'노아는 세 아들들을 낳았다'=세 종류의 교리가 거기로부터 발생했다는 것.

창6:22-'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을 실시했다'=고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

창7:6-'노아는 600년의 아들이었다'=시험의 첫 상태

창7:7-'노아는 홍수의 물 앞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그는 보호되어졌다는 것.

창7:13-시험의 끝은 교회의 사람, 또는 새로운 교회가 재 출생하는 것...이 교회...영적 교회, 이는 신앙에 관한 교리적인 것들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 양심이 그

에게 은근히 주입되고...고로 그에게 선행이 선물되어졌다...교회가 지금 취급된다는 것은 반복된 다음 절로부터 명백하다: '바로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과 함, 그리고 야벳,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의 아내가 방주로 들어갔다.' 교회가 취급되는바, 아들들이 그들의 이름에 의해 명명되는데, 이름=교회의 사람; 그러나 이름 없이 아들들이라고만 말할 경우, 그들=신앙 속의 진리들.

창7:13-'그들은 방주로 들어갔다'=그들은 구원되어졌다, 즉 교회의 사람, 곧 노아 그리고 노아로부터 갈라져 내려 오는 교회들의 나머지가 구원되었다.

창8장-이제 새로운 교회인에 관련된 것이 뒤따른다; 사실상 시험 후 그의 상태에 관련해, 그의 거듭남까지 조차,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취급된다.

창8:1-'하느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노아'에 의해 의미된 것은 앞의 경우 같이 고대 교회인을 의미한다...

창8:6-'노아는 그가 만들었던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두 번째 상태, 이 때란 신앙 속의 진리들이 그에게 나타났던 때이다.

창8:7-'그는 까마귀를 내보냈다...'=아직도 거짓들이 혼동을 만들었다는 것.

창8:8-'그는 비둘기를 내보냈다'=신앙으로부터 진리들과 선들을 받는 상태...이 뒤를 이어 시험 후 이 교회 사람의 세 상태들이 취급되는데, 이것이 세 번 비둘기를 내보냄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8:13-'노아는 방주의 덮개를 제거했다, 그리고 보았다'=거짓들이 제거되어졌을 때,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의 빛이 있었고, 이 진리들을 그는 인정했고, 그 진리 안에서 신앙을 가졌다.

창8:13-'땅은 말라 있었다'=그는 거듭나졌다는 것.

창8:15-'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하셨다'=이 교회인과 더불어 주님이 현존하심.

창8:16-'방주에서 나가라'=자유...(그 이유가)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한, 즉 홍수로 포위된 상태에 있는 한, 그는 포로 된 상태, 즉 그가 거짓들과 악들에 의해 들쭉거리지는 상태였기 때문.

창8:16-'너와 네 아내'=교회

창8:18-'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의해 고대 교회의 사람

노염

이 의미된다.

창9:1-'하느님께서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셨다'
'=고대 교회와 더불어는 주님의 현존과 은총.

창9:8-영적 교회에 관하여 뒤 따르는 이런 것들의 진리가 '노아와 그와 더불어는 그의 아들들'에 의해 의미된다.

창9:17-여기서의 '노아'=일반적 측면에서의 영적 교회, 그 이유는 노아 만이 명명되었기 때문.

창9:18-'방주로부터 나간 노아의 아들들'=고대 교회를 구성한 이들, 거듭나셨음.

창9:19-'이 셋은 노아의 아들들이었다'=교리의 이런 세 종류들, 이는 일반적 측면에서의 교회들 속의 것들이다.

창9:20-'노아는 토양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일반적으로 인간은 신앙의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훈육되었다.

창9:20-'그는 포도원을 창설했다'=거기로부터의 교회.

창9:21-'그는 포도주를 마셨다'=그는 신앙 속에 있는 것을 조사해보기를 원했다.

창9:21-'그는 술취했다'=그것을 조사함으로써 그는 오류에 빠졌다.

창9:21-'그는 천막 한가운데에서 덮혀지지 않은 채 있었다'=그럼으로 말미암아 뒤집혀졌다.

창9:24-'노아는 그의 포도주로부터 깨어났다'=그가 더 나은 훈육을 받았다.

창9:28,29-'노아는 350년을 살았다. 그리고 노아의 모든 날들은 950년이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첫 고대 교회의 기간과 그 교회의 상태.

창10:1-'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출생들이다'=고대 교회의 예배들과 교리물들의 갈래들.

창10:32-'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다'=세부적 측면에서 고대 교회의 예배들.

마24:38-'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이전 교회의 끝,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시작; 그 이유가 '노아'에 의해 일반적 측면의 고대 교회가 의미된다...그리고 '방주'에 의해 교회 자체가 의미된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 생물, antediluvian)

이37:26,27-'멀리로부터', '고대의 날들'이 노아의 홍수 이전의 때로 이해된다.

창6:11-'폭력'은 그것이 거룩한 것들을 모독함으로 행사되었는데, 이것은 홍수 이전에 있었다, 즉 그들을 온갖 종류의 탐욕들 안에 신앙 속의 교리적인 것들을 침수되게 했다.

창7:5-'내가 만들었던 모든 물질을 파괴하는...'=선과 진리...를 멀하게 했던 이들은 멀해진 홍수 이전 사람과 더불어 가라지들을 수단으로 절멸되었다.

겔26:20-'구덩이로 내려가는 이들과 더불어 옛적의 사람에게로...'=홍수 이전 직접적으로 태고 교회로부터 지옥에 있었던 이들. 그들이 '옛적의 사람들'이라 불리운다. 그들이 아주 오랜 시간 속에 있었기 때문,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끔찍한 거짓들 안에 있던 자들이다.

노염 (anger)

창4:5-'그들의 상태가 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노염이 지퍼졌다'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 '노염'=선행이 떠났다는 것.

* 노염, 성을 냄, 화를 냄은 인간의 고유한 것에 어울리는 사랑과 이 사랑의 탐욕에 반대하여 가는 모든 것과의 마찰에서 결과되는 일반적 애착이다. 이는 악한 영인들의 세계에서는 분명하게 지각된다, 그 이유는 거기에 주님께 반대하여 일어나는 일반적 노염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는 선행은 없고 미움들만 가득하기 때문이다. 자기 고유의 사랑과 세상 사랑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적대감을 불러내는데, 이것이 노염이다. 노염, 분노, 격노함 등의 표현이 여호와와 관련하여 서술되는 때가 많은데, 이것들은 인간에게 어울리는 것일 뿐 여호와의 속성과는 무관하다. 단지 인간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분도 그럴 것이다 추측하여 성서에서 표현되는 것일 뿐이다. 이로부터 노염=악들, 또는 선행으로부터 떠났음이 분명하다.

마5:22-'자기 형제에게 분별 없게 성 내는 자는 누구든지'...'화내는 것' 여기서의 경우=선행으로부터 떠남...고로 미움이 복받침.

창19:5-'그들이 롯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악으로부터의 거짓이 선에 맞서 노염을 지퍼...이 구절의 말 안에 담긴 노염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이것이 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분명해진다...이것은 선에 맞서 화를 내는 거짓의 한 종류...노염의 원인은 어떤 사

노염

랑의 기쁨을 파괴하려 골몰하는 어떤 것이다. 악이 선을 폭행할 때, '노염'이라 말하고, 선이 악을 꾸짖을 때 '열정'이라 말한다.

창19:9-'그리고 그는 말했다'=노염으로부터 응답.

창19:9-'뭐라고? '=노염으로 위협함.

창27:44,45-'네 형의 분노(wrath)가 풀릴 때까지'=상태가 바뀔 때까지. 그리고 '네 형의 노염(anger)이 너에게서 떠날 때까지'=자연적 선과 더불어 상태의 연속적인 것... '분노'와 '노염'은 반대되는 상태의 표현이다. '분노'는 진리 측면, 즉 예서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반대됨을 서술하나, '노염'은 그 참 선 자체에 반대됨을 서술하고 있다.

예21:5-'노염'이 악인 것의 처벌을, '분노,wrath'는 거짓인 것의 처벌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태우는 열기'는 악과 거짓 양쪽 모두의 처벌이다.

창30:2-'야곱은 라헬에 맞서 노염이 지퍼졌다'=자연적 선의 한 부분이 분개함...'노염이 지퍼짐'이 분개함인 이유는 내적 의미에서 모든 자연적 애착은 내면의 것들을 향해 승강할 때 더 온화해지기 때문... 그리고 결국 천국의 애착으로 바뀐다.

창37:36-'야곱은 노염으로 화를 내고, 라반에게 따지고 들었다'=자연적인 것의 열정...'노염으로 화를 내는 것' 또는 노여워하는 것, 이로부터 따지는 것이 열정인 이유는 천사들과 더불어 성냄은 없기 때문, 노염 대신 열정이 있을 뿐이다. 노염과 열정은 다르다. 노염 안에는 악이 있으나 열정 안에는 선이 있다.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악을 의도하려고 화를 내는 자와 더불어서는 노염이 있으나, 상대에게 선을 의도하려는 자의 화냄은 열정이다. 그러므로 열정 안에 있는 자는 그 순간 선일 수 있으나...노염 안에 있는 자는 그렇지 않다. 비록 바깥쪽 형태에서 열정이 노염 같게 나타날지라도, 내향적 형태에서 그것은 다르다.

창49:6-'그들은 노여워지자 사람을 죽였다'=목적의 악 안에서 그들은 교회의 진리를 꺼지게 했다...'그들의 노염은 격렬한바 저주되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격분함은 비통했기 때문에 저주되어야 할 것이다'=진리와 선으로부터 돌아섬에 대한 처벌...'노염(anger)'은 진리를 떠남, '격분, fury'은 선으로부터 떠남이다.

창39:19-'보디발의 노염이 지퍼졌다'=영적 진리로부터 뒤돌아섬...'노염'=선행의 선으로부터 떠남, 고로 돌아섬... 노염이 돌아섬인 이유는 인간이 누군가에 맞서 노염에 있는 한, 그는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돌아 서있게 하기 때문.

예25:15-'노염의 포도주의 잔'=악을 오게 하는 거짓.

이54:8-'노염이 범람함'=시험.

신31:17-'내 노염이 지퍼질 것이다'=그분을 돌아서게 하는 것... 비록 주님이 성내는 일이 결코 없으시지만 이것은 주님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악 안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는 외관으로부터 그렇게 말해지는 것이다. 그 이유가 악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때문.

창44:18-'당신의 노염이 당신의 종을 향해 지퍼지게 하지 마십시오'=그는 자신을 돌아서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노염'=돌아섬, 그 이유가 노여운 자는 자신을 돌아서게 하기 때문, 그는 타인이 하듯 생각하지 않기 때문, 오히려 노염에 있는 동안, 그는 타인에 반대하여 생각할 뿐이다.

창45:5-'당신들의 눈에 노염이 있게 하지 말자'=영의 슬픔, 또는 이해성의 슬픔.

창49:7-'그들의 노염은 맹렬했기에 저주될 것이다, 그들의 분노는 격렬했기에 저주될 것이다'=여기서 '노염'='선으로부터 돌아섬, 그리고 '분노'=진리로부터 돌아섬.

창49:6-'그들은 노여워지자, 사람들을 죽였다'=그들은 자신들을 다함께 돌아서게 했다는 것, 돌아서는 가운데 그들은 신앙을 소멸시켰다는 것...'노염'=선행으로부터 떠남 그리고 돌아섬.

창49:7-'그들의 노염은 저주될 것이다, 그이유는 그것은 맹렬했기 때문이다'=선으로부터 슬퍼지게 돌아섬, 이로부터 지옥에 떨어짐.

출4:14-'여호와와 노염이 모세를 향해 지퍼졌다'=너그로우심, 이는 '여호와와 노염'의 의미로부터 분명하다. 이는 노염이 아니라 노염에 반대되는 것, 즉 자비, 이 구절의 경우 관대함. 여호와 안에는 어떤 노염도 있지 않다는 것은 그분이 사랑 자체, 선 자체, 그리고 자비 자체이다는 것으로부터 분명하다.

노역

이30:27-‘보라 여호와와 이름이 멀리로부터 오고 있고, 그분의 노역이 타오르고 있다...’ 여기서의 노역은 그들이 악들을 통하여 멸하지 않도록 경고하심과 질책하심을 명시한다.

* '노역', '분노', '격렬함', '불'=인간이 자신을 내던지는 처벌, 징죄이다.

출10:28-‘바로가 모세에게 말했다’=진리에 대한 노역의 분노함.

출11:8-‘모세는 노역의 분노에 차있는 바로와 더불어 있음으로부터 나갔다’=정죄되어 마땅한 이들로부터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갈라져 나옴...‘노역의 분노’=반대함과 돌아섬. 분노는 거짓된 것, 노역은 악인 것을 말한다.

계6:16,17-‘우리를 어린 양의 노역으로부터 감추어다오, 그이유는 그분의 노역의 큰 날이 오기 때문...!’ 어린 양의 노역=고통. 이는 마치 신성이 노역위 고통을 주는듯 나타나 있으나 실상은 악과 거짓이 자초한 고통이다.

출16:20-‘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냈다’=그들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자신들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는 것.

이26:20-‘노역이 지나갈 때까지 아주 잠깐 동안 네 자신을 숨겨라’=‘노역’인 악들과의 교제는 없다.

출22:5(6)-‘불이 나게 될 때’=악한 것에 대한 애착으로부터의 노역...그 이유가 노역은 이런 근원으로부터이기 때문. 즉 인간이 사랑하는 것이 공격당할 때, 격렬한 느낌이 발발하고 이는 마치 불태우는 듯 한다. 이로부터 말씀에서 노역이 ‘불’에 의해서도 서술되고 있다.

출22:23(24)-‘나의 노역이 뜨겁게 증대할 것이다’=이를 행하는 이들의 상태. 이것이 여호와와 속성으로 돌릴 경우, 이는 관대하심, 자비이다.

시11:5-‘그분은 그분의 노역의 날에 왕들을 쳐죽이실 것이다’=그 당시 거짓들의 파멸. ‘노역의 날’은 그분이 악들에 맞서 싸우시고 그것들을 파괴하셨던 때였다.

시89:38-‘당신께서는 당신의 기름부는 자에게 화를 내시었다’=주님이 지옥들과 전투 가운데 있으셨을 때의 시험의 상태. 그 당시 슬픔이 ‘노역’을 수단으로 묘사되어 있다...

출32:10-‘나의 노역은 그들을 향해 활타오를 것이다’=

고로 그들은 자신들을 내향으로부터, 고로 신성한 것들로부터 돌아서게 한다는 것...‘노역이 활타오름’이 여호와와 관련하여 말해질 경우, 이는 인간 쪽이 돌아서는 것...

출32:12-‘당신의 노역의 분노로부터 다시 돌리십시오’=이 나라의 돌아섬은 피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것.

출32:19-‘모세의 노역이 지퍼졌다’=말씀과 교회와 예배의 내적 측면으로부터 이 나라가 돌아섬.

출34:6-‘노역들을 오래 참으심’=신성의 관대하심...’

계6:16-‘어린 양의 노역의 큰 날’=(영계의) 마지막 심판의 날

계6:18-‘나라들이 분노했다’=믿음만에 있는 이들, 그리고 이로부터 악한 생활 안에 있는 이들, 이들은 자기들 신앙에 맞서는 이들을 향해 노략질하고 분노를 내뿜었다는 것.

계12:12-(용이) ‘큰 노역을 가지고 있다’=새 교회(the New Church)를 미워함.

계14:8-‘매춘의 노역’=섞음질함과 모독함.

계14:10-‘하느님의 노역의 포도주가 순수한 것과 섞였다’=말씀 속의 진리가 왜곡되었다.

계14:19-‘그리고 그것을 하느님의 노역의 큰 포도즙틀에 내던졌다’=그들의 행위들을 조사함, 그 결과 그들은 악했다는 것...‘하느님의 노역’은 악인 것과 연관해 말해지고 있다.

계15:1-‘그것들 안에서 하느님의 노역이 마무리되었기 때문’=교회의 황폐함, 그다음 그것의 끝장...‘하느님의 노역’은 인간과 더불어 악을 의미한다. 이것이 하느님에 맞서 있는바 ‘하느님의 노역’이라 불린다. 그러나 하느님이 인간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악으로부터 하느님에게 분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후 지옥에서 거행되는바와 같이 그는 그의 악행 때문에 처벌되고 고통되는데, 이것이 마치 하느님이 성내심의 탓인듯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역과 분노가 말씀에서 하느님의 탓으로 돌려지고 있다.

계15:7-‘유리병이 하느님의 노역으로 가득차 있었다’라고 말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재앙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 이를 수단으로 교회 속의 악들과 거짓들이 의미된다. 그러나 그것들이 악들과 거짓들로 차있

노예 상태-노하게 하다-녹다

는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 속의 순수하고 진짜인 진리들과 선들로 차있고, 이것들을 통해 교회 속의 악들과 거짓들이 폭로되어진다...그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노염으로 가득차 있다'라고 말해진 것은 말씀의 글자 의미에 있는 문체에 따라 있어서이다...여호와와 더불어서는 노염도 분노도 없다. 그러나 그분에 맞서는 인간에게 있다.

* 그러나 '하나님의 노염'에 의해 인간과 더불어 악의 의미되어진다. 이 악은 하나님에 맞서 있는바, '하나님의 노염'으로 불리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화내시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악으로부터 하나님에게 화풀이하려 들 뿐이다.

계6:15-17-'어린 양의 노염'=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의 유입을 통하여 지옥으로 던져짐.

창49:5-7-'그들의 노염은 맹렬하기에 저주될 것이다'=선으로부터 슬프게 돌아섬, 그리고 이로부터 정죄됨.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격렬하기 때문에...'=진리로부터 돌아섬.

시2:12-'...그분이 노여워하지 않도록...'=악이 너를 침공하지 않도록. 그이유가 '노여워해짐'이 주님에 연관해 말해질 경우=그분으로부터 인간이 돌아섬, 고로 그들의 노염, 주님의 노염이 아니다, 그리고 악들이 자신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들인바, 그 뒤에 노염이 있다.

* '그분의 노염이 속히 점화될 것이다'=(영계의) 마지막 심판, 그리고 지옥 안으로 악이 내던져짐.

계11:18-'그리고 나라들은 분노했다'=악이 주님에 맞서,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것들에 맞서 경멸해대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

마5:21,22-'분별없이 형제에게 성내는 것'=선과 진리를 증오하고 미워함.

계11:18-'당신의 노염이 오고 있다...'='노염', 주님에 관련해 말해질 때=(영계에서의) 마지막 심판

마5:19-24-'분별 없게 성내는 것'=나쁜 것을 생각하는 것.

계14:8-'노염'=전체 복합체에 있는 악, 그리고 이로부터 선과 진리를 미워함, 그리고 그것들을 파괴하려는 탐욕.

계14:10-'하나님의 노염'은 하나님에게 성냄을 뜻한다.

* '노염'=악을 사랑함과 그것의 탐욕, '분노'=거짓을 사랑함과 그것의 탐욕.

계14:19-'하나님의 노염'=진리와 선을 경멸함, 인간에 의해 진리와 선이 거절됨.

계15:2-선과 진리가 더 이상 없을 때, 오직 악과 거짓만 있을 때. 이것들은 주님과 천국에 맞서는바, '하나님의 노염'이라 불린다.

계15:7-'하나님의 노염이 가득찬 일곱 유리병들'=교회 속의 사람들의 영적 생명을 파괴한 악으로부터의 모든 거짓들.

노예 상태 (slavery)

* 섬기다(serve)를 보라.

노하게 하다 (exacerbate)

창49:23-'그들은 그를 노하게 했다(비참해지게 했다)'=거짓들을 수단으로 저항함. 그이유는 전투가 있을 때, 저항함에 비례해 비참해짐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

출23:21-'너는 그분이 노하지 않도록'=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돌아섬. 이는 '노하게 됨', 또는 '노염을 지킴'이 주님에 관련해 말해질 때의 의미로부터 분명하다.

녹다 (melt)

출16:21-'태양이 뜨겁게 되자, 그것은 녹았다'=증가하는 현세에의 욕망의 정도에 따라 그것은 사라졌다는 것. '녹는 것'=사라지는 것.

나1:5-'언덕들이 녹을 것이다.'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뜻해지는바, '녹는다'고 말해진다. 그이유가 '불'=이런 사랑들. 그리고 '녹는 것', 그리고 '사르는 것'=그것에 의해서 멀해지는 것.

미1:4-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악들에 관하여, 이것이 '산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들은 불 앞의 밀납 같이 녹을 것이다'라고 말해진다. 그 이유는 '불'=이런 사랑들.

이14:31-'너는 녹았다, 오 불레셋이여, 너의 전체가'=교리의 진리에 관련하여, 이로부터 신앙에 관련하여 교회가 황폐해짐.

이19:1-'이집트의 심정이 그 한가운데에서 녹을 것이다'=영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인간(의 파멸).

출16:21-진리로부터의 선이 현세에의 욕망이 증가하는

농부-농포-높은 장소

정도에 따라 사라지리라는 것이 '태양이 뜨겁게 되자 만나는 녹았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시75:2,3-'나는 성실로 땅의 녹는 것들을 판결할 것이다'=진리들 안에 있지 않은 이들, 그러나 그것을 여전히 갈망함.

시75:3-진리가 불충분함을 통하여 선이 있을 때, 땅(=교회)은 '녹는다'고 말해진다.

녹옥수 (chrysope)

출28:18-'녹옥수, 사파이어, 그리고 다이아몬드'=진리로부터의 천적 사랑. 이 열(order)의 돌들은 적색으로부터 있는 청색으로부터 그들의 색깔이 파생되고 있다. 적색으로부터 있는 청색은 불꽃으로부터 내향적으로 번득인다.

출28:18, 겔27:16-녹옥수가 청색으로부터인지는 원어에서의 갈래로부터도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것=진리로부터의 천적 사랑이라는 것은 겔27:16으로부터 분명하다. 그이유가 거의 녹옥수는 '심홍색, crimson'과 결합되었기 때문. 그리고 '심홍색'은 선으로부터의 천적 사랑인바, '녹옥수'=진리로부터의 천적 사랑임이 뒤따른다.

녹주석 (beryl)

단10:6-신체의 나머지인듯, 허리와 머리 사이인 중간 신체로 나타난 '녹주석'에 의해 선행으로부터의 선과 신앙으로부터의 선이 의미되었다. 그이유가 '녹주석'은 변색이는 보석이기 때문이다.

출28:20-'녹주석, 그리고 얼룩마노(onyx), 그리고 벽옥(jasper)'=진리로부터의 영적 사랑, 이 안에 보다 높은 것들이 종결된다. 이 열의 돌들의 색깔은 하늘빛(azure)으로부터 빛나는 흰색에 접근하고 있다. '녹주석'=진리로부터의 영적 사랑임은 겔1:16로부터, 즉 '바퀴의 외관은 녹주석(황옥)의 외관 같았다'로부터 분명하다. 그룹들의 '바퀴'는 사람의 팔과 발의 의미와 비슷하다, 즉 행동하는 힘, 전진하는 힘, 이는 선으로부터의 진리 속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볼 때, 녹주석을 보는 것 같았다. 그이유가 '녹주석'=영적 선으로부터의 진리, 이 진리가 힘을 소유하고 있다.

단10:6-'몸'=천적 사랑의 선, 또한 영적 사랑의 선, 그리고 외적 측면=그 선으로부터의 진리. 이렇고로 그의

의 몸은 '녹주석같이' 나타났다. 고로 '녹주석'=영적 사랑으로부터의 진리.

논쟁하다 (argue)

계9:9-'그들은 철의 가슴판 같은 가슴판을 가졌다'=오류들로부터 논쟁함,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싸우고 이기려든다.

놀다 (play)

예30:19-진리에 애착함이 '고백함과 노는 그들의 음성'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19:14-'그는 ...장난치는 자 같이 있었다'=비웃음. '장난치는 것'=농을 하는 것.

출32:6-'그들은 놀기 위해 일어났다'=거기서부터 그들의 내면의 것들의 축제. 그리고 동의함. '노는 것'=내면들의 축제. 그이유가 놀다가 거기로부터 있기 때문, 즉 이는 마음의 즐거움으로부터 분출된 결과로 인한 신체의 활동이다. 모든 축제와 즐거움은 인간 안에 있는 사랑의 즐거움으로부터이다. 그리고 모든 내면의 축제는 그것 안에 동의함을 가진다. 그이유가 동의함이 없다면 축제는 망하기 때문. 내면적인 축제는 인간의 자유 안에 있다.

시104:26-'노는 것'=이런 것들로부터의 기쁨.

시104:26-앓의 즐거움으로부터 '바다의 큰 동물이 놀고 있다'라고 말해진다.

숙8:3-5-'소년소녀들이 거리들에서 놀고 있다'=선과 진리에 애착함들, 그리고 그것들의 즐거움.

놋 (Nod)

창4:16-'놋의 토지에'=진리와 선의 바깥쪽; (그 이유가) 단어 '놋'은 배회하는 자, 방랑자이기 때문; 그리고 배회하고 방랑한다는 것=진리와 선이 박탈되어 있는 것.

놋쇠 (brass)

창4:22-'놋쇠'=자연적 선.

이60:17-'놋쇠를 위해 금을'=자연적 선을 위해 천적 선을... '나무를 위해 놋쇠를'=육체적 선을 위해 자연적 선을..

신33:25-'놋쇠로 된 신발'=자연적 선.

왕상7:23,38-그러므로 세반(씻는 대야)은 놋쇠였고, 큰 세반은 놋쇠바다라 일컬었다, 그 이유는 '놋쇠'는 바

농부-농포-높은 장소

곁쪽 예배로부터의 선을 표현했기 때문, 이 선은 자연적 선과 같다.

단2:32-‘배와 넓적다리는 낫쇠로...’=교회의 세 번째 상태, 이 상태는 자연적 선의 하나이다.

미4:13-‘낫쇠’=악들에 맞서 강해 있을 자연적 선.

출25:3-‘그리고 낫쇠’=외적인 선. ‘낫쇠’=자연적 선, 또는 외적 선, 이 선은 자연적 인간 또는 외적 인간의 선이다.

출26:11-‘너는 낫쇠로 오십 개의 갈고리들을 만들라’=외적 선으로부터 결합하는 능력이 충분함.

출27:2-‘너는 낫쇠로 그것을 들썩울 것이다’=선인 것을 내세움(표현함, 대리함). ‘낫쇠’=자연적 또는 외적 선, 그리고 낫쇠로 들썩움=이 선으로 내세움.

출27:3-‘그것의 모든 집기들은 낫쇠로 만든다’=선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

출27:19-‘뜰의 모든 말뚝들은 낫쇠로 만든다’=중간 천국과 최말단 천국, 양쪽 천국들을 견고히 하고 계속되게 하는 모든 것은 선을 수단으로 한다... ‘낫쇠’=외부의 선.

마10:9-주님으로부터가 아닌 자아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이 ‘(허리)띠에 금과 은과 낫쇠를 지참하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레6:28-‘낫쇠 그릇’=선이 그 안에 있는 교리물.

출30:18-‘너는 낫쇠로 대야를 만들 것이다’=순수해짐이 거행되는 자연적 인간의 선.

계18:12-‘낫그릇’=자연적 선으로부터의 과학물.

신33:25-‘쇠와 낫쇠로 된 신발’=진리와 선으로 있는 가장 낮은 자연적 평면

* 구리 또는 낫쇠=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의 선.

예1:18-‘낫쇠 벽들’=방어하는 선.

겔1:7-‘광택나는 낫쇠’=자연적 평면에 있는 선.

숙6:1-‘낫쇠로 된 산들’=자연적 인간에 있는 사랑의 선.

겔27:13-‘낫그릇’=자연적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겔22:18-말씀의 글자 의미 속의 것들이 ‘낫쇠, 주석(양철), 쇠, 납’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자연적 인간의 선들과 진리들을 의미해 놓을 수 있기 때문, 그리고 글자 의미 안에 함유되는

말씀 속의 것들은 자연적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

계9:20-‘거짓 교리가’ 말씀의 자연적인 것들, 즉 말씀의 글자 의미로 확증될 때, 이것들은 ‘낫쇠와 돌로 만든’우상물이 된다.

단4:15-‘낫쇠’=최말단에 있는 선; 이 구절에서의 경우 악들.

여6:24-‘쇠와 낫 집기들’=자연적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겔27:13-‘낫 집기들’=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에 관한 지식.

농부 (husbandman)

을1:11-‘농부’=예배자

을1:11-‘농부’=교회 속에 있는 이들.

예14:4-‘농부’=가르치는 이들.

암5:16-‘농부’=교인. 그 이유는 들판=진리를 심는다는 측면에서 교회이기 때문.

예51:23-‘농부와 그의 밭에’=같은 것들.

을1:11-‘농부’=교회의 선 안에 있는 이들. ‘포도원지기’=교회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

마21:33-‘농부’=그 백성.

농포 (pustule)

출9:9-‘농포’=거기로부터의 모독

높은 장소 (high place)

이49:9-‘그들의 목초지의 모든 높은 장소에’=선으로부터 버터지는 것. 그 이유가 ‘높은 장소, ’산과 마찬가지로=사랑의 선.

이41:18-‘나는 높은 장소들 위에 강들을 열 것이다’ (=내면의 총명을 주는 것) (=영적 진리들로부터의 총명).

이32:14-‘언덕과 망대가 영원히 굴 위에 있을 것이다’=그들과 더불어서는 더 이상 어떤 교회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생활의 악과 교리의 거짓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41:18-‘높은 장소들에’=내면의 인간 안에.

호10:8-‘아웬의 높은 장소(산당)’=자아 사랑.

겔16:16-‘높은 장소들’=예배.

이58:14-‘땅의 높은 장소를 타는 것’=총명. (=보다 높은 이해함이 선물되는 것)

높은 성직자-높이-높은

출14:8, 이33:5-‘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드높은 손과 더불어 나갔다’=악령들이 그들을 복종시키려 고심함이 신성의 힘에 의해 해방되었음...‘드높은’=신성인 것인 이유는 그것에 의해 신성이 있는 천국이 의미되기 때문. 이로부터 여호와에 관해 말해지는바, ‘그분은 높은 곳에 거주하신다’

겔16:16-‘얼룩덜룩한 산당’=거짓인 것을 예배함.

미1:3-마지막 심판이 ‘여호와께서 땅의 높은 장소들 위에서 짓밟으신다’에 의해 뜻해진다. ‘땅의 높은 장소들 위에서’=높은 장소에 있는 이들.

시78:35-‘드높은 하느님’

이14:14-자아 사랑에 있는 이들이 ‘구름의 높이 넘어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2:15-‘드높은 탑과 견고한 성벽’=거짓으로부터 확증한 원리들.

겔16:24-고대인과 더불어 높은 장소는 천국을 의미했다. 이때로부터 높은 산에서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왔다. 그리고 그들의 장소에 있는 높은 장소를 더 높게 건축했다. 그러므로 악과 교리 속의 거짓으로부터의 예배가 ‘드높은 장소를 만들고, 모든 거리에 높은 장소를 만드는’ 것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높은 성직자 (high priest)

* 높은 성직자로서의 아론은 사랑의 선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했다.

마20:18,19, 막10:32-34-‘가장 높은 성직자와 서기관’=지옥적 사랑으로부터 선에 섞임질하고, 진리는 왜곡함.

높이 (height)

높은 (high)

창6:15-‘(노아의 방주의) 높이’=(아껴두신 것들 속의) 선.

창7:19-여기서의 ‘높은’=거룩한 것; 산이 땅 위에서 높이 위치한 것로부터=주님,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천적인 것들.

창14:18-‘지극히 높은 하느님에게’=내적 인간, 여호와 이시다.

출25:10-‘거기로부터 높이는 1.5큐빗’=등차들에 관련하여 충분함. ‘높이’=선에 관련한 등차와 진리에 관련

한 등차. ‘높이’가 이것을 의미하는 이유는 모든 선과 파생되는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진행되고,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분이라 불리시기 때문. 그이유가 그분은 천국의 태양이시기 때문. 중앙의 태양으로부터 있는 천국의 모든 높이는 선의 차이, 파생되는 진리의 차이이다.

예31:12-‘시온의 높이’=천적인 선.

출27:1-‘높이는 3큐빗’=등차에 관련해 충분함. ‘높이’=선에 관련한 등차.

출27:18-‘높이는 5큐빗’=선과 진리의 등차는 충분하다. ‘높이’=선에 관한 등차. 그리고 이것이 최말단 천국을 서술하는바, 그것 역시=진리에 관련한 등차. 그이유가 이 천국은 신앙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있기 때문.

출30:2-‘그것의 높이 2큐빗’=선과 진리의 등차, 그리고 그들의 결합...‘높이’=선의 등차와 파생되는 진리. 높이의 등차에 의해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의 등차가 뜻해진다.

계21:10-‘크고 높은 산’=세 번째 천국, 주님을 사랑함에 있는 이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은 그분으로부터의 진짜 진리의 교리 안에 있다. ‘높은’은 진리들을 말한다.

계21:12-‘크고 높은 성벽’=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말씀. 그이유가 ‘높은’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

계21:16-‘그것의 길이, 그리고 넓이, 그리고 높이는 같다’=이 교회의 모든 것은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다. ‘높이’는 선과 진리가 모든 등차에서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높이는 가장 높은 것으로부터 가장 낮은 것을 다 아우러 이르는 말이기 때문,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은 등차를 통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내려온다, 이것이 높이의 등차라 불리운다. 이 안에 가장 높은 천국으로부터 최말단 천국까지의 천국들이 있다.

겔31:3-‘높이로부터 오만한’=자아 총명으로부터 뽐냄.

이24:21-‘높음에 있는 높은 군대’=자아사랑으로부터 있는 모든 악들. 그 이유가 영계에서 자아 사랑에 있는 이들은 높은 장소를 찾고 있기 때문.

이2:12-‘웅대하고 높은 모든 이’=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 있는 이들.

예49:16-그들은 자기들의 몽상들을 수단으로 높은 곳

높이다 -놓다-(손을) 놓다-누구-누룩을 넣지 않은

으로 자신들을 운반하는 것이 '언덕의 높음을 붙잡고 있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22:16-거짓을 사랑함이 '높이 있는 무덤'에 의해 의미된다.

사5:18-'뜰판의 높음들'=교회의 내면의 것들, 이로부터 전투가 있다.

이2:17-'인간의 자만, 인간들의 높음을 파괴하는 것'=자신의 총명과 지식으로부터의 자만의 과멸.

겔31장-'뜰판의 모든 나무들 보다 높음'=내면의 합리성으로 까지 승강함.

단4:11-'거기로부터의 높이'=지각의 확장과 파생되는 지혜.

이32:15-그들 안으로 천국으로부터의 유입이 있음이 '영이 높은 위로부터 너 위에 쏟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된다.

이24:4-자기 총명을 자랑함이 '땅의 백성의 높음'에 의해 의미된다.

시91:9-'지극히 높은 곳을 자기 거처로 만드는 것'=(보호).

겔17:23-선행의 선이 '이스라엘의 높음의 산'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겔31:3-'그는 자기 꼭대기를 얽히게 함 사이에 놓고 있다'=자아 총명으로부터 뿔냄.

높이다 (exalt)

시92:10-...이로부터 '뿔을 높이는 것'이라고 자주 말해진다; 그 이유가 '높이는 것'=내면인 것으로부터의 힘.

창22:24-'그녀의 이름은 르우마였다'는 높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르우마'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출15:1-'그분은 그지없이 높여지셨기 때문'='그분은 인간 안에서 신성을 명명백백하게 하셨다...그 이유가 신성은 가장 높기 때문.

출15:2-'나는 그분을 높일 것이다'=이제 그는 신성한 예배를 가진다는 것. '높이는 것', 사람을 두고 말할 경우, 그가 여호와를 높이는 것,=예배. 그 이유가 신성한 예배는 자신에 비교해 주님을 높이는 것에 있기 때문. 이는 주님 앞에 굴종하는 정도에 따라 거행된다. 이에 반해 만일 인간이 주님의 보심에서 자신을 높인다면, 그는 주님으로부터의 선과 진리를 받아들임에 대해 자

기 마음의 내면들을 단게 된다.

욥4절-이것이 '자아를 독수리로 높이는 것'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이49:11-'작은 길들을 높이는 것'=진짜 진리들에 있는 것. 그이유가 '작은 길들'=진리들, 이것들은 선으로부터 높여진다고 말해진다. 그리고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이 진짜 진리들이다.

시91:14-'높은데 두는 것'=내면의 진리들로 인도하는 것.

시27:5-'바위 위에 높이 세우는 것'=내면의 진리들로 혼용하는 것.

놓다 (put)

출3:22-'너는 (너의 아들, 딸에게) (그것들을) 놓을 것이다=적용하는 것.

출5:14-'그것들을 놓는 것'=삽입하는 것.

출19:7-'그들 앞에 말(words)을 놓는 것'=제안하는 것.

출21:30-'만일 죄를 씻음이 그들 위에 놓여진다면'...

(손을) 놓다 (lay on)

* 부과하다(lay on)를 보라.

누구 (who)

창49:9-'누가 그를 일으키게 할 것인가?='그는 지옥들의 한가운데에서 안전하다는 것

출3:11-'나는 누구인가?='그는 아직은 이런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

출5:2-'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나?='주님에 관하여 반대의 생각.

계13:4-'누가 짐승을 닮았을까? 누가 그와 전쟁을 만들 수 있을까?='이 교리가 우세함. (=더 참된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논박되어질 수 없다는 것).

누룩을 넣지 않은 (unleavened)

창19:3-'그는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구웠다'=순수함. '빵'=모든 천적 그리고 영적 선. 그리고 이것들이 불순물들 없이 있을 것이다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의해 표현되었다. 그이유가 누룩=악하고 거짓인 것, 이것들을 수단으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불순하고 모독적인 것을 정제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음식 제물에서 누룩이나 발효한 것을 바치지 않도록 명령되었다.

누이-눈

레6:16,17-‘누룩 넣지 않은 것’=사랑의 거룩인 것, 또는 ‘거룩들 중의 거룩’. 그러므로 ‘누룩 넣지 않은 빵’=순수한 사랑. 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것을 구움’=순수해짐.

출12:8-‘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것들’=모든 거짓으로부터 순수해지는 것.

출12:15-‘너는 누룩 넣지 않은 것들을 먹을 것이다’=거짓들로부터 순수해짐.

출12:17-‘너는 누룩 넣지 않은 것들을 준수할 것이다’=거짓 없음이 있어야만 한다.

출12:18-‘너는 누룩 넣지 않은 것들을 먹을 것이다’=진리가 거짓으로부터 순수해질 때, 선을 수단으로 진리를 자기 것되게 함.

출12:20-‘모든 너의 거처에서 너희는 누룩 넣지 않은 것들을 먹을 것이다’=내면들에서, 선이 있는 곳, 진리의 자기 것 됨이 있을 것이다. ‘누룩 넣지 않은 것들을 먹는 것’=자신들에게로 진리를 자기 것되게 함.

출12:39-‘그들은 이집트로부터 가져온 가루로 누룩 넣지 않은 과자를 구웠다’=선의 진리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아무 것도 없었던 것 안에 다시 선을 생산했다는 것.

출13:6-‘칠 일 동안 너는 누룩 넣지 않은 것들을 먹을 것이다’=거짓들로부터 순수해짐. ‘누룩 넣지 않은 것을 먹는 것’=진리를 자기 것 되게 함,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순수해짐. 그이유가 ‘누룩 넣지 않은 것’=선이 거짓으로부터 순수해짐. (이것은) ‘빵’=선이기 때문. 그리고 ‘누룩’=거짓.

신16:3-‘누룩 넣지 않은 빵’, ‘만나’ 같은 바=거짓들로부터 순수한 선. 그이유가 같은 이유로 이 빵은 ‘고난의 빵’이라 불리우기 때문.

출23:15-‘누룩 넣지 않은 것들의 축제’=거짓들로부터 순수해짐.

출23:15-‘너는 누룩 넣지 않은 것들의 축제를 지킬 것이다’=거짓들로부터 순수해짐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함. 이 축제가 ‘유월절’이라 불린다.

출29:2-‘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것들로부터의 빵 (bread)’=가장 깊은 인간에 있는 천적 평면의 순수해짐.

출29:2-‘기름을 섞은 누룩 넣지 않은 것들로부터의 과

자(cake)들’=중간 천적 평면의 순수해짐.

출29:2-‘그리고 기름을 바른 누룩 넣지 않은 것들로부터의 웨이퍼(wafer)들’=외적 인간에서 천적 평면의 순수해짐.

누이 (sister)

창12:13-‘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하라’=지적인 진리.

창20:2-‘이는 내 누이이다’=합리적 진리. ‘누이’=지적 부분의 합리적 진리.

*‘누이’=합리적인 것.

*‘누이’로서의 사라=합리적 진리.

* 말씀에서, ‘남자 형제, brother’=선에 애착함. 그리고 ‘여자 형제, sister’=진리에 애착함.

창24:30-진리에 애착함이 여기서 ‘리브가 그의 누이’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창24:59-‘리브가 그의 누이’=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 ‘누이’=진리.

창24:60-‘우리의 누이 너는 천만인을 위해 있거라’=진리에 대한 열매풍성함은 무한하다.

창26:7-(이삭이) 말했다, 그녀는 내 누이이다’=합리적 진리.

창28:9-‘노비웃의 누이’=천적 진리에 애착함...

창30:8-‘나는 내 언니와 씨름했다.’

창34:27-‘누이’=진리. 여기서 신앙의 진리.

출2:4-‘그의 누이는 멀찍이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려고 서있었다’=그것으로부터 먼 교회의 진리, 그리고 용의 주도함(advertence).

마12:50-‘주님의 ‘누이들’=이 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

눈 (snow)

애4:7-‘눈보다 더 희고 젖 보다 더 곱다’=천적 진리 안에서.

시2:7-‘씻는 것, 그리고 눈보다 더 희게 만드는 것’=주님의 정의를 받고 그분의 정의를 옷입음에 의해 죄들로부터 순수해지는 것.

단7:9-‘그분의 의복은 눈 만큼 희다’=그것의 외적 진리.

계1:14-‘양털 같이, 눈 같이’라고 말해졌는데, 그이유는 ‘눈’=최말단들에 있는 진리, 그리고 눈은 물로부터이고,

물=신앙의 진리이기 때문.

예18:13-‘레바논의 눈’=거기로부터 교회의 진리들. ‘눈’, 여기서=물과 같은 의미, 즉 진리들. 그러나 ‘눈’=찬 진리들, 그이유가 그와 같은 교회가 취급되기 때문.

시148:8-‘눈과 증기들’=자연적 인간의 과학물들과 지식들. 이것들은 인간이 영적으로 되기 전에서는 ‘눈과 증기’일 뿐이다.

욥9:30-‘눈의 물들’=진자인 진리들, 또는 진짜로 나타나는 진리들.

이55:10-‘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눈’=(인간에게 잘 어울리는) 자연적 진리, 이것은 기억 안에만 있을 때 눈과 같다. 마치 눈이 열에 의해 비의 물이 되는 것과 같다.

눈 (eye)

* 보다를 참조하라.

* ‘그들의 눈이 열리었다’=그들은 자기들이 악 안에 있음을 지각했다.

창3:7-‘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내부로부터의 지령.

창13:10-‘눈을 들어 올리는 것’=보는 것; 내적 의미에서 지각하는 것; 여기서의 경우, 계몽되어짐, 그 이유는 외적 인간...을 서술하기 때문.

예14:6-‘그들의 눈들이 살라졌다’=무엇이 진리인지 납득함이 없다.

* 내적인 시야 또는 이해함이 말씀에서 ‘눈’으로 표현되고 있다.

창18:2-‘그는 눈을 들어 올렸다’=그가 자신 내부를 보았다.

창19:14-‘그들의 눈들에서’=그들의 합리성 앞에서.

창21:19-‘하느님께서서 그녀의 눈들을 여셨다’=충명... ‘눈들’=이해함.

* ‘왼쪽 눈’=지적인 것; ‘오른쪽 눈’=그것의 애착.

창22:4-‘아브라함이 자기 눈들을 들어 올렸다’=신성으로부터의 생각과 조망. ‘눈들’=충명; 그리고 ‘눈을 들어 올림’=충명을 승강시킴, 고로 생각함.

창23:11-‘내 백성의 눈 앞에서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준다’=그것들 모두를 이해함에 관하여.

마6:22-‘육체의 빛은 눈이다...’ ‘눈’=혼 속에 있는 지적인 것.

창23:18-‘헷의 아들들의 눈 앞에서’=그들의 이해함에 서.

창27:12-‘그의 눈들에 있기로...’=그의 품질이 무엇인지가 통각되기에...; 그 이유가 ‘눈’=내적 시야를 통각함.

창29:17-‘레아의 눈은 약하다’=외적 진리에 애착함은 그것의 이해성 측면 역시 약해 있었다는 것.

이6:10-‘그가 자기 눈으로 보지 않도록’=진리를 이해함을 박탈하는 것.

겔12:2-‘그들은 볼 눈을 가지고 있으나 보지 못한다’=그들은 신앙 속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행동함은 원하지 않는다.

창49:12-‘그의 눈들은 포도주 보다 더 붉다’=신성한 지혜.

창42:24-‘그들의 눈들에’=통각함에.

창44:21-‘나는 그 사람 위에 내 눈을 놓을 것이다’=그 당시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유입됨. (그 이유가) ‘누군가 위에 눈을 놓는 것’=신앙 속의 진리와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 눈은 지적 시야와 신앙 속의 진리들과 상응한다.

창45:5-‘네 눈들에 성냄이 있지 않게 하라’=영의 슬픔, 또는 이해성의 슬픔.

창46:4-‘손을 눈들에 둔다’는 것=생기 있게 되는 것; 그 이유가 눈들에 손을 둔다란 외적 감각이...닫히고 내적 감각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

창48:10-‘이스라엘의 눈은 무거워졌다’=그의 희미한 통각(작용).

창49:12-‘그의 눈은 포도주 보다 더 붉다’=지적 또는 내적 인간은 선 외에 더 다르지 않다.

출4:30-‘그는 백성들의 눈에 표적들을 실시했다’=통각함으로 확증함... ‘눈’=내적 시야 또는 이해함에 속해 있는 것.

출5:21-‘바로의 눈에서, 그리고 모든 그의 종들의 눈에서’=거짓들에 있는 모든 이들의 지각에서. (그 이유가) ‘눈’=지각.

출13:9-‘눈들 사이에서 기념물로’=이해성에서 영구적으로 있는 것.

출14:10-‘이스라엘은 그의 눈을 들어 올렸다’=마음의

눈물-눈다

지적 부분 그리고 생각... '눈을 들어 올리는 것'=정신적 관조, 지각, 그리고 생각.

출19:11-'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눈에 내려오실 것이다'=주님의 강림, 그리고 그 당시의 계발됨... 내적 의미에서, '눈'=이해성; 그리고 그로부터 눈이 봄=신앙 속에 있는 지각.

출21:8-'눈에서'=지각에서.

출21:24-'눈을 위해 눈'=만일 그들이 내면의 지적 부분에 있는 어떤 것에 상처를 입힌다면, '눈'=이해함; 여기서의 경우, 내면의 이해함, 이는 신앙의 생명 속의 생명이다.

* '눈'=이해함인 이유는 눈은 이해함과 상응하기 때문. 눈이 세상의 빛으로부터 보듯, 이해함은 천국의 빛으로부터 본다; 그 이유가 후자의 눈이 보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고, 이 눈의 관조 대상은 기억 안에 있는 과학적 측면이기 때문이다.

출21:26-'어떤 자가 그의 종의 눈을 세계 쳤을 때'=만일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에 있는 신앙의 진리에 상처를 입히면... '눈'=내면을 이해함, 그리고 이로부터 신앙 속의 진리.

출23:8-'선물은 열린 눈을 지닌 이들의 눈을 가리운다'=수익은 진리들을 나타나지 않게 한다... '열린 눈을 가진 그들'=진리를 아는 이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명확히 보는 이들.

눅8:16-'눈'=신앙, 그리고 이로부터의 총명.

신6:8-'눈들 사이에'라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눈들'=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있는 총명과 지혜이기 때문; 그리고 이 사랑으로부터의 지혜가 '눈들'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가지게 한다.'

슌11:17-'오른쪽 눈'=선에 관한 지식이 거짓된 것을 확증하려는데 응용하는 것.

* 눈은 총명에 상응하고, 총명은 교리 속에 있다.

계1:7-'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다'=애착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모든 이는 그분을 인정할 것이다.

계3:18-'네가 볼 수 있게 안약을 네 눈들에 바르라'=지혜 속의 순수 진리들이 모독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이해함이 치료될지 모른다.

계4:6-'앞과 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거기에 있는 신성한 지혜.

계4:8-'그들은 안쪽에 눈들로 가득차 있었다'=말씀의 영적, 천적 의미로부터 있는 자연적 의미에서 말씀에 있는 신성한 지혜.

계5:6-'일곱 눈들'=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성한 지혜.

슌11:17-'오른쪽 눈에 감'=진리 측면에 관련되는 지적 부분의 파괴.

민24:3,4,15,16-'열린 눈을 가지는 것', 또는 '덮여지지 않은 눈을 가지는 것'=이해함에 관련하여 계몽되는 것.

이29:10-'눈들이 닫힘'=이해함이 없음.

이5:21-'그들 자신의 눈들에서 슬기롭다'=그들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이3:8-'여호와와 영광의 눈들에'=신성한 진리.

마6:22, 눅11:34-'순수한 눈', 또는 '한결같은 눈'=선으로부터 진리를 이해함; '악한 눈'=악으로부터 거짓을 이해함.

* '눈에는 눈'=누군가가 타인으로부터 그의 진리를 이해함을 거두어 버렸을 경우 그 거둔 만큼에 비례해서 그의 진리의 이해함도 거두어진다.

* 말씀에서 '눈들'=진리를 이해함.

마5:29-'네 오른 눈이 너를 범죄케 했다'면=만일 생각이 악하다면, 그것은 생각으로부터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

슌3:9-'한 개의 돌에 일곱 눈들'=신성한 진리 속의, 고로 말씀 속의 신성한 지혜와 총명.

눈먼 (blind)

소경 (blind)

창19:11-'그들은 [소돔사람들을] 장님이 되게 했다'=그들은 거짓들로 가득채워 있었다는 것. '소경'은 말씀에서 거짓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또한 진리에 무지한 이들도 말한다. 둘 다 '소경'이라 불리우나 그 뜻은 각 구절의 문맥 연결로부터 알 수 있다.

이56:10-'눈먼 파수꾼'=추론으로부터 거짓에 있는 이들.

슌12:4-'백성들의 말(horse)이 강타 당해 눈이 멀 것이다'=거짓들로 가득해질 것이다.

요9:39-41-'심판을 위해 나는 세상에 왔다, 즉 보지

눈물-눅다

못하는 이들은 보게, 본다는 이들은 눈 멀게 하는 것이다. 바리새인 중 어떤 이가 말했다. 우리 역시 눈먼 자인가? 예수께서 말하셨다, 만일 너희가 눈먼 자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 하니 너희 죄는 남아있다.’ 여기서 ‘소경’은 양쪽 의미에서 언급되어진다. 교회 내에 있고 진리인 것을 아는 이들과 더불어 ‘소경’=거짓. 그러나 진리인 것을 모르는 이들과 더불어, 즉 교회 밖의 사람들 같은 자와 더불어 ‘소경’=진리에 무지함. 이것은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

이29:9,18-‘소경의 눈들이 볼 것이다’=진리에 무지한 이들.

요9:39-‘보고 있다는 이들’=어느 누구보다 자기는 더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이들에 대해 말해지지만, ‘그들은 눈멀 것이다’, 즉 그들은 신앙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왕하6:18-‘눈멀게 함으로 시리아 왕이 보낸 이들을 쳐부숨’=거짓들 자체.

이42:7-‘소경의 눈을 여는 것’=선과 진리에 무지한 이들을 훈육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알고 고취하기를 계속 갈망하는 것.

출4:11-‘눈먼 자’=신앙 없음, 지식 없음으로부터.

예31:8-‘소경’=진리에 무지한 이들, 그리고 훈육할 때 그것을 받는 이들.

마15:14-‘소경이 소경을 인도함’=틀린 것에 있는 이들.

계3:17-‘눈먼’, 등등=생활에 심어진 진리들이 결합되어 있다, 고로 선이 결합되어 있다.

계3:17-‘눈멀고 별거벗었다’=그들은 진리들과 선 없이 있다는 것. 말씀에서 ‘눈먼’은 진리들 없이 있는 이들,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부족함으로부터 이든, 무지로부터 이든, 그것을 이해함이 없어서이든 모두가 포함된다.

이35:5-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던 이들이 그때에 이해할 것이라는 것이 ‘소경의 눈이 열림’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요9:1-‘그의 출생으로부터 눈먼...’=교회 밖에서 태어난 이들, 그리하여 주님께 관하여 알 수 없었던 이들, 또는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이들.

이42:19-주님이 ‘눈멀고 귀가 멀었다’고 일컬어지신다. 그이유는 그분이 마치 인간의 죄들을 보지 못하고 지각

못하시는 듯 계시기 때문.

애4:14-‘소경’=진리들을 보지 못하는 이들.

신16:19-‘슬기로운자의 눈이 머는것’=그들은 진리를 봄도, 이해함도 없을 것이라는 것.

눈물 (tear)

애2:11-진리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슬퍼함이 ‘내 눈이 눈물로 소진되었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계7:17-‘하느님은 그들의 눈으로부터 눈물을 닦으실 것이다’=그들은 악들과 거짓들에 맞서는 전투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고로 슬픔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들과 선들에 있을 것이다. 그결과 주님으로부터의 천국의 기쁨에 있을 것이다.

계21:4-‘하느님은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으실 것이다’=주님께서는 마음의 모든 슬픔을 그들로부터 거두어내실 것이다. 그이유가 흘리는 눈물은 마음의 슬픔으로부터이기 때문.

눅다 (lie, lying down)

창19:4-‘그들이 눅자 마자...’=첫 방문의 때.

* ‘...와 드러눅는 것’=결합하는 것.

* ‘...와 드러눅는 것’=뒤집는 것, 또는 간음하는 것.

창28:11-‘(야곱은) 그 곳에서 드러누웠다’=상태의 평온함; 그 이유가 ‘눅는 것’=평온의 상태에 있는 것; 그 이유는 여기서의 드러눅고 잔다는 것은 더 이상의 의미는 없기 때문

창28:13-‘네가 누운 곳’=네가 있던 곳.

창29:2-‘세 무리의 양떼가 그것 근처에 누워있다’

창30:16-‘그는 그 밤에 그녀와 누웠다’=결합.

창34:2-‘그녀와 눅는 것’=불법하게 결합하는 것.

창35:22-‘...와 눅는 것’=모독하는 것.

창39:7-‘나와 함께 눅자’=결합을 바라는 것.

창39:10-‘그는 그녀가 눅자는 소리를 들은 척도 아니했다’=이것은 거꾸로의 결합인 것. ‘그녀와 눅는 것’=불법적으로 결합되는 것.

창47:30-‘나는 내 아버지들과 누울 것이다’=고대인들에게 있었던 삶. ‘눅는 것’=삶. 그이유가 여기서 ‘눅는 것’은 조상들과 더불어 매장되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 매장=부활과 거듭남.

창49:9-‘그는 사자같이 누웠다(couched)...’ ‘누운 것’=

느릅나무-느린-느바웃-느보-느브갓네살-늘리다

안전한 가운데 걱정 없이 눕는 것.

창40:14-‘짐들 사이에 었드려 있다’=일들 사이에 있는 삶. ‘었드려 있는 것’=삶, 그러나 미친한 삶.

레26:6-‘안전하게 드리눅고, 두렵게 할 자 아무도 없다’

창49:9-‘눕는 것’=그가 모든 거짓과 악으로부터 안전히 있을 것.

시68:13-‘명령들 사이에 눕는 것’=규례 안에서 사는 것.

시4:8-‘평안히 눅고 잔다.’ ‘눅고 자는 것’=사는 것.

레26:6-‘그들은 안전하게 누울 것이다’=거짓으로 부서짐에서 교회 안에 보호가 있다.

출21:8-‘드리눅는 것’=분리되는 것.

시104:22-‘그들의 주택에서 드리눅는 것’=고요와 평화의 상태.

느릅나무 (elm)

호4:13-‘상수리, 포플라, 느릅나무’=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있는 가장 낮은 선으로부터의 진리와 진리로부터의 선. 여기서는 거짓으로부터의 악들과 악로부터의 거짓들.

느린 (slow)

미루다 (delay)

창33:14-‘나는 천천히 나아갈 것이다’=준비함을 계속하는 상태.

* ‘조금씩 조금씩’=등차적으로, 고로 느리게.

창34:18-‘그는 말을 행동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다’=수용하기를 갈망함.

창43:10-‘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다면’=의심의 상태에서 지체함.

출22:29-‘첫 열매들...너는 지체하지마라’=선들과 진리들은 자아가 아닌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지체 않는 것’=애착으로부터 기인하는 것.

출32:1-‘모세는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었다’=천국으로부터 신성한 진리의 흐름이 없는 것.

느바웃 (Nebaioth)

이60:7-‘느바웃의 숫양 들’=신성의 영적인 것들.

창25:13-‘이스마엘의 첫 출생, 느바웃, 등등’=영적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특히 이방인과 더불어.

창28:9-‘느바웃의 누이...’=천적 진리에 애착함 ... ‘느바웃’=영적 교회 속에 있는 선.

이60:7-‘느바웃의 숫양 들’=거기 순진으로부터의 선과 선행으로부터의 선... ‘느바웃’=거기 그것 안에 있는 이들.

이60:7-‘섬길 느바웃의 숫양들’=영적 애착으로부터 삶을 이끄는 진리들.

느보 (Nebo)

예48장-그들에게 침투한 거짓들이 ‘느보, 등등’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느브갓네살 (Nebuchadnezzar)

겔26:7-‘바벨의 왕 느브갓네살’=황폐하게 하는 모독인 것.

예43:10-‘바벨의 느부갓네살 왕’=진리와 선을 황폐하게 하는 자.

겔30:10,11-‘자아 사랑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거짓들로부터의 탐욕들이 황폐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 ‘바벨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 그와 그의 백성...’에서 의미되고 있다.

예46:2-‘바벨의 왕 느부갓네살이 처부순...’=자아 총명의 자만에 의한 그것의 파멸.

예51장-‘바벨’, 그리고 ‘느부갓네살’, 여기서=섞음질과 진리와 선의 모독.

예43:11,12-‘느부갓네살’, 또는 ‘바벨의 왕’, 말씀에서 악들을 수단으로 교회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이들이 뜻해진다...그리고 추상적 의미에서, 파괴하는 악한 자들.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의 토지를 처부술 것이다’는 것=모든 선들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에 관련한 자연적 인간의 파멸.

늘리다 (multiply)

창6:5-‘인간의 악이 땅에서 늘어났다’=선으로부터의 의지가 없기 시작했다

창8:17-‘그것들은 번성할 것이다’는 것=진리의 증대... ‘열매풍성한 것’은 선들을 서술하고, ‘번성하는 것’은 진리들을 서술한다.

창9:17-‘땅은 풍부하게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외적 인간에서 선과 진리의 증가. ‘풍부하게 생산하는 것’=선들에 관해 서술하는 것, 그

늘이다 - 늙다 - 늙은

리고 ‘변성하는 것’은 진리들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창16:10-‘나는 네 씨를 극대하게 늘이겠다’=그가 선 쪽에 접합된 내면의 인간의 권위에 복종되게 할 때, 합리적 인간의 열매는 풍성해짐.

창17:2-‘나는 너를 최고로 극대하게 늘릴 것이다’=진리에 애착함은 무한으로 열매 맺을 것이다.

창26:4-‘나는 네 씨를 하늘들의 별들 만큼 늘어나게 할 것이다’=진리들과 신앙에 관한 지식들.

창26:24-‘나는 너를 복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씨가 불어나게 만들 것이다’=거기로부터 선과 진리의 증가. ‘불어나질 너의 씨’=진리의 증가.

창38:12-‘날들이 늘어나졌다’=상태의 변화. (그이유가) ‘불어나는 것’, 날이나 시간을 서술할 경우,=바뀌는 것. ‘늘어나진다’고 말해지는 이유는 진리들에 관련한 상태의 변화를 포함하기 때문.

출1:7-‘(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불어나서 그 수가 매우 극대했다’=그들은 대부분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관련되어 증가했다는 것.

출1:12-‘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고통을 준 만큼, 더 불어났다’=감염됨에 따라, 그 만큼 진리들이 증가했다. ‘늘어나는 것’=진리 측면에 관련해 증가하는 것.

출11:9-‘내 경이로움이 이집트의 토지에서 늘어날지 모른다’=(이것은) 확증되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

출23:29-‘뜰판의 들짐승이 너에게서 늘어날지 모른다’=거짓이 쇠도함.

호8:11-‘에브라임이 죄지를 제단들을 늘렸다’=거짓들을 수단으로 예배를 악용했다. 그이유가 말씀에서 ‘늘이는 것’은 진리 측면을 서술하는데, 반대 의미로는 거짓 측면을 서술한다.

예3:16-진리의 늘어남이 ‘너희가 늘어날 때’에 의해 의 미된다.

늘이다 (prolong)

신5:16-‘날들을 늘이는 것’=행복한 상태.

창26:8-‘날들이 거기서 그에게 늘어날 것이다’=수용함의 상태.

* ‘늘이는 것’은 선의 측면을 서술하고, 그것의 증가.

이53:10-‘그분은 그분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신성한 선. ‘길다’, 그리고 그로부터 ‘늘이다’는 선을 서술한

다.

늘다 (to grow old)

늙은 (old)

노년 (old age)

창15:15-‘너는 충분한 노년기(장수하다가)에 묻힐 것이다’=주님의 것들을 수단으로 모든 선들이 결실을 맺음.

창18:11-‘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다’=주님과 더불어 인간, 이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창18:12-‘늙는 것’=인간을 벗는 것. 고로 상태가 바뀌는 것.

창19:4-‘소년으로부터 노인에 까지’=최근의 거짓들과 악들로부터 확증된 거짓들과 악들 까지.

숙8:4-‘노인들’=확증된 진리들. ‘여자 노인들’=확증된 선들.

창19:31-‘우리의 아버지는 늙다’=선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는다.

창21:2-‘그의 노령에’=날이 다차서 인간을 벗어나야 하는 것. (그이유가) ‘노령’=인간이 벗어나고 신성이 입혀지는 때의 상태.

창24:1-‘아브라함은 나이 먹었다...’=주님의 인간이 신성으로 만들어질 때가 가까워진 상태이다는 것. (그이유가) ‘늙은’, 또는 ‘노령’=인간인 것을 벗는 것, 그리고 천국의 것을 입는 것. 그리고 주님을 서술할 경우, 신성을 입는 것(이기 때문). 그 이유는 천사들에게는 나이 먹는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니는 생명의 상태에 대한 생각만 있다. 그러므로 ‘노령’이 말씀에서 언급될 때, 인간과 더불어 있는 천사들은 그 인간이 자기들의 나이를 통과해 갈 때, 마지막까지 조차 그들이 지니는 생명에 관한 그들의 상태만을 생각한다, 즉 그들은 계속적으로 인간인 것을 벗고 천국의 것을 입는 것을 생각한다.

창25:8-‘충분한 노령(good old age)에, 늙고, 가득차고’=표현의 새로운 상태. ‘노령’=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는 것. 그이유는 천사들과 더불어서는 시간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은 상태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노령 대신 지혜의 상태에 대한 생각. 인간은 시간 속의 것들로부터 시간 없는 삶

능력-니고데모-니콜라당

의 것들로 건너갈 때, 이른바 그는 새로운 상태를 입는다. ‘노령’에 의해 새로운 것이 의미되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표현을 의미한다.

창27:1-‘이삭은 늙었다’=새로운 상태가 다가왔다. ‘늙게 되는 것’=새로운 상태의 현존. 그이유가 말씀에서 ‘노령’=이전 상태를 벗고 새 상태를 입는 것이기 때문. 이런 이유로 ‘노령’은 마지막 나이, 즉 육체적인 것들이 중단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것들과 더불어 앞서 있는 나이의 사랑들이 드러나고, 내면의 것들이 설명되기 시작하는 때. 그리고 또한 천사들은 노령이라는 시간 개념에 대한 생각은 없고, 대신 새 생명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의 경우 이 상태가 가까웠다는 생각.

창35:29-‘늙고 날들이 가득찬’=생명의 새로운 것.

창37:3-‘그가 노령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생명. (그이유가) ‘노령’, 내적 의미에서=노령을 뜻하지 않는다, 그이유는 내적 인간, 또는 영적 인간은 노령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체, 또는 외적 인간이 늙을 때, 그는 생명의 새로운 것으로 건너간다. 고로 ‘노령’은 내적의미에서 생명이 의미된다.

율2:28-‘노인들’=슬기로운 자.

이46:4-‘노령 쪽으로 그리고 회색 머리털 쪽으로’=교회가 마지막 쪽으로.

율2:16-‘노인들’=슬기로운 자.

창44:20-‘그의 노령의 아이, 가장 어린 자’=새로이 있는 파생된 진리. ‘노령’=생명의 새로운 것.

창48:10-‘노령을 통과하여’=표현의 마지막에서 때문에. (그이유가) ‘노령’=표현의 새로운 것. 고로 이전 것의 끝.

출10:9-‘노인들’=슬기로운 자.

요21:18-베드로가 ‘늙었을’ 때=마지막에 있는 교회의 신앙

이9:15-‘머리’=악, 이와 마찬가지로 ‘늙은 자와 존귀받는 자.

요21:18-그때에 악과 거짓이 인도할 것이라는 것이 ‘네가 늙게 될 때’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애5:12-‘노인들’=선으로부터 있는 지혜. ‘장로들’=선으

로부터 있는 진리들. ‘젊은 이’=총명.

겔9:6-‘노인’=선으로부터 있는 지혜.

이3:2-‘점쟁이와 노인을 제거하는 것’=모든 총명과 지혜를 제거하는 것.

이20:4-‘노인들’=지혜.

숙8:4-‘늙은 남성들과 늙은 여인들’=총명한 자와 슬기 있는 자.

창49:9-‘사자 같이, 그리고 늙은 사자 같이’=사랑의 선과 그들의 힘에서 파생되는 진리. ‘늙은 사자’=선을 통하여 능력을 가진 자. 그이유가 천적 선에 있는 이들은 결코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선을 통하여 안전하다. 이들이 ‘늙은 사자’에 의해 의미된 이들이다.

마9:17-‘늙은(목은) 포도주’=옛 것 속의 진리, 또는 유대 교회. ‘헌 병들’=유대 교회의 규례와 관례들.

예38:12-‘늙은 줄과 부패한 냇마’를 가지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끌어 올렸다=지각되지도 아니해왔고 이해되지도 아니해왔던, 그래서 소홀시되고 거절되어왔던 글자 의미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을 수단으로 변호하고 회복함. 이것들이 ‘옛 것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51:6-‘납아진 옷’=악의 거짓들을 통하여 파괴된 진리.

신8:4-‘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자연적 인간이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 상함을 입지 아니했다.

능력 (power)

* 힘(power)을 보라.

니고데모 (Nicodemus)

요3:4-6-니고데모는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으로부터 영적 세대 대신 자연적 세대를 이해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거듭남, 재탄생에 관해 그를 가르치신다. 이는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그 진리들에 따른 생활로 결과된다는 것.

니콜라당 (Nicolaitans)

계2:6-‘너는 니콜라당의 일들을 미워하고 있다, 이것을 나 역시 미워한다’=자기들의 진리들로부터 그들은 알고 있고 자기들의 일들을 공적으로 내놓기를 기꺼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공적과 정의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니콜라당의 일들’이 공적을 내세우기 위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은 계시로부터 알도록 내에

니느웨-니므롯

게 주어졌다.

계2:15-‘그렇게 너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이들을 봐주고 있다, 이것을 나는 미워한다’=자기 일들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들이 그들 사이에 있다는 것.

계2:6. 행6:5-기독교 교회가 이 교회의 유아가 때부터 짜증나게 하고 찢기웠다는 것은 니골라스로부터, 그리고 이들로부터 니골라당이 명명되어졌다는 것으로부터 명백하다.

* ‘니골라당’=진리로부터 선을, 또는 신앙으로부터 선행을 분리한 이들.

* 신앙으로부터 선행을 분리한 이들이 ‘니골라당’이라 불리운 것은 천국에서 이 단어의 소리로부터 쉽게 (알아진다). 그이유가 그것의 소리는 진리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이지, 선이나 선행으로부터가 아니기 때문.

니느웨 (Nineveh)

창10:11-‘그 토지로부터 앗수르로 나아갔고, 니느웨를 건설했다...!’...‘니느웨’=교리 속의 거짓들...‘니느웨’=추론들로부터의 거짓.

* ‘니느웨’에 의해 교리적인 것들로부터의 거짓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말씀에서 니느웨의 의미로부터 분명하다. 이런 종류의 거짓들의 근원은 세 가지, 즉 감각의 오류로부터, 예증되지 않아서 불명료한 이해함으로부터, 그리고 무지함으로부터이다.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졌다, 이 도성은 용서되었는데, 그들이 위와 같았기 때문....

이37:37,38-앗수르 왕이 니느웨에 머물렀을 때,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서 구부려 절할 때, 그의 아들들이 검은색 그를 살해했다...여기서, ‘니느웨’는 거짓들이 들어있는 외적 예배를 의미했다. 이것은 우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했다.

은4장-이방인들이 ‘니느웨’에 의해 의미된다.

슌2:13-‘그분이 황폐해진 장소 같이, 광야 같이 메마른 장소 같이 한 니느웨’에 의해 교리 속의 거짓들이 의미된다.

니므롯 (Nimrod)

창10:8-‘니므롯’에 의해 내적 예배를 외적 예배로 만든 이들이 의미되고 있다; 즉 내적 예배보다 외적 예배를 더 중시하고 필수라고 하여 있게 된 외적 예배가 ‘니므

롯’에 의해 의미된다...이런 예배는 선행으로부터 신앙을 분리한 이들의 종교에 있다...그들은 신앙이 생활 속에 있는 것 보다 지식 속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고로 후자를 필수라고 여긴다.

* 이와 같은 예배가 ‘니므롯’이라 불리운다. 그리고 이것은 ‘구스’인 지식들로부터의 출생이다. 이것들은 신앙으로부터 선행을 분리된 것들인 바, 이 신앙이 ‘함’이다. **창10:8**-‘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다’=내면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들을 가졌던 이들이 이런 예배를 조직했다는 것...내면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들이 그들이 교리들이라 부르는 것들이다...이들은 단지 지식만을 두고 신앙이라 부른다. 이들이 이런 예배를 낳고 조직했다...

창10:8-‘그는 땅에서 힘센 자였다’=이런 종교가 교회 안에서 우세하여 널리 퍼졌다는 것.

창10:9-‘그는 여호와 앞에서 사냥함에서 힘쌌다’=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설득했다는 것. (그이유가)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도 이러했기 때문.

창10:9-‘그러므로 말해졌는바,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서 사냥함에서 니므롯 같이 힘쌌다’=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설득되었기에 언어의 이런 형태는 속담 인듯 되어 버렸다. 고대 시대 때에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이름들을 주어왔는데, 그들은 이 이름을 이 예배에 주었다. 즉 니므롯-즉, 이 예배는 사냥에서 힘쌌다-즉 마음들을 포로화하는데 대단한 실력을 발휘했다.

창10:10-‘그리고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의 토지에 있는 바벨, 그리고 에렉, 그리고 악갓, 그리고 갈레이였다’=이런 예배들, 즉 외적으로는 거룩하게 나타나나 내적으로는 모독되어 있는 예배가 있었다.

* 이와 같은 예배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 관하여 추론한다는 것이 ‘니므롯은 이 토지로부터 나아가서 앗수르, 또는 앗시리아로 갔다’(에 의해 의미되었다.)

미5:6-‘니므롯의 토지’=내면이 악들과 거짓들인 예배, 니므롯에 의해 의미된 것과 같은 예배.

니씨 (Nissi)

출17:15-‘그는 거기로부터 이름을 여호와 니씨라고 불렀다’=내면의 악으로부터의 거짓에 맞서 계속되는 전쟁, 주님께 의해 보호됨...‘여호와 니씨’, 원어에서, ‘여호와 내 군기(standard)’, 또는 ‘(군) 깃발(banner)’을 뜻

니씨-다가가다-다곤-다니엘-다리-다마스쿠스-다말

한다. 그리고 굳기는 전쟁으로 소집함이 의미된다. 여호와와의 전쟁이 말해지는바, 그분에 의한 보호 또한 의미된다.

다가가다 (verge)

출14:27-‘아침에 다가가는 것’=주님의 현존.

다곤 (dagon)

삼상5장- 아스돗에서 블레셋인들의 신은 다곤이었다. 이 신은 위쪽은 사람이고 아래쪽은 물고기 였다; 이 형상이 고안된 이유는 사람=총명, 그리고 물고기=지식, 이 둘을 하나로 만든 때문이다.

* 다곤, 그들의 우상은 위는 사람, 아래는 물고기 였다. 이를 수단으로 그들의 종교가 표현되어졌다. 즉 신앙으로부터 영적이었으나 선행을 동반하지 않는바 단지 자연적일 뿐인 종교이다.

다니엘 (Daniel)

마24:15-‘예언자 다니엘에 의해 말해진...’=예언들; 그 이유가 어떤 예언자가 말씀에서 그의 이름에 의해 언급될 때, 그것은 그 예언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말씀 자체를 뜻한다... 이 구절의 ‘다니엘’은 교회의 마지막 상태, 그리고 주님의 강림에 관한 예언적 모든 것이 의미되고 있다.

다리 (leg)

시147:10-‘사람의 다리들’=선을 행하는 자신의 힘.

암3:12-‘두 다리들을 구조하는 것’=선의 의지.

출12:9-‘그의 다리들 위에 그의 머리...’=가장 깊은 데로부터 외부 까지...‘다리들’=외면들.

출26:22-‘바다 쪽을 향하는 주택의 두 다리들(shanks)을 위하여’=천국과의 결합이 선이 희미하게 있는 곳에서...‘다리들(shanks)=선이 희미함 안으로 다가가는 곳인 경계선들.

출29:17-배열이 내장과 다리들이 조각 위에와 머리 위에 놓임에 의해 묘사하고 있다. ‘내장’에 의해 가장 낮은 것들, 즉 외면의 감각적인 것들이 의미되고, ‘다리들’에 의해 내장보다는 조금 더 수준 높은 것, 즉 자연 평면의 것들이 의미되어진다.

암3:12-‘다리들’=교회의 외적인 것, 이는 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있다...느부갓네살의 (신)상이 취급되는 곳에서의 ‘다리들’은 외적 인간, 또는 자연적 인간에 있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된다. 이 인간 역시 ‘철’이다. 여기서 ‘다리들’이 ‘발들’로부터 구별되는 이유는 사람과 짐승에서 다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

암3:12-‘다리들’=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들.

레11:21,23-그들이 메뚜기들을 먹도록 허용된 이유는 메뚜기는 뛰기 위해 발위에 다리를 가졌기 때문, ‘다리들’=영적 선과 결합된 자연적 선, 그리고 ‘발들’=이 선으로부터의 자연적 진리. 그리고 선으로부터 있는 모든 진리는 인간이 자기 것 되게 해서 그와 더불어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으로부터 있지 않은 진리는 아니다. 그이유가 이 진리는 어떤 약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 그러므로 말해진다, ‘네 다리로 가지만 발 위에 다리를 가지지 않은 날개 달린 기는 것들’은 영적이다’

다마스쿠스 (Damascus)

다메섹

창14:15-‘그는 다마스쿠스 원편인 호바까지 그들을 추격했다’=그만큼 멀리 넓혀짐.

삼하8:5,6-‘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첫째가는 성읍이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시리아와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다.

암5:26,27-단(지역)을 넘어가는 가나안의 가장 먼 경계가 ‘다마스쿠스’에 의해 기술된다.

겔47:16~18, 48:1-북쪽을 향한 거룩한 토지의 경계, 또는 주님의 왕국의 경계가 ‘다마스쿠스의 경계’라 불리운다.

창15:2-‘다마스쿠스의 엘리에젤’=외적 교회.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였고, 거기에는 고대 교회의 잔존물이 있어 왔다.

겔27:18-‘다마스쿠스는 너의 거래자였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 일치하는 과학적 사실.

이사야17:3-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의 파괴가 여기서 의미되고 이 장에서 취급되고 있다

다말 (Tamar)

* 진짜 교회가 ‘다말’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 다말의 아들들=교회의 두 필수 요소들, 즉 신앙과 사랑.

창38:6-‘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교회의 품질. 이것은 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을 표현하는 교회였다는 것.

다메섹-다발-다섯-다섯째

이 교회가 유다의 후손들 사이에서 조직되었다는 것.

* 교회의 내적인 것이 여기서 '다말'이다.

창38:11-'[다말은 갔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집에 머물렀다'=격리됨.

창38:13-'그것이 다말에게 말해졌다'=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교회와 소통하는 어떤 것.

창38:14-'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었다'=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자극함.

창38:14-'베일로 자신을 가리웠다'=진리가 불명료해졌다. 그 이유는 그녀는 자신의 남편으로 셀라를 간주했으나 자기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자, 그녀는 남편의 형제 되는 의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그의 시아버지를 간주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신부 같이 베일로 자신을 덮었다. 비록 유다가 매춘녀로 간주했다 해도, 이는 매춘은 아니다. 그이유가 유대 국가는 표현 교회의 내적 진리들을 매춘녀로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다는 매춘녀로서의 그녀와 결합되어졌다. 그러나 그와 결합한 다말은 매춘이 아니다. 이 나라에서 내적 진리들은 이와달리 나타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 그러므로 애매모호한 진리가 다말이 베일로 자신을 덮음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38:16-'그의 며느리'=표현 교회의 진리. 그이유가 '다말', 여기서 며느리=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교회.

창38:24-'다말 당신의 며느리가 창녀로 놀아났다'=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결혼의 어떤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지각함. '다말'=표현 교회의 내적인 것.

창38:24-'그녀를 불태우라'=교회의 내적인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

창38:27-'그녀의 산고'=내적 진리의 부분에서 인정함. (그이유가) '다말'=표현 교회의 내적인 것. 그러므로 내적 진리.

다메섹 (Damascus)

* 다마스쿠스를 보라

다발 (bundle)

출12:21-'너는 우슬초 다발을 가져올 것이다' '다발'=진리들과 진리들의 배열이라 단정된다.

다섯 (five)

다섯째 (fifth)

* 말씀에서 숫자 5=어떤 것, 또는 (양이) 적은, (수가) 작은.

창14:9-'5'=분열, 그이유가 5=조금이기 때문.

창18:28-'만일 다섯이 부족하다면'=만일 여하튼 덜 있을 것이라면. '5'=조금.

창18:28-'부족한 다섯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인간을 부족한 조금 때문에 멸하실 것입니까?

이30:17-'다섯의 견책 앞으로부터 너희는 도망할 것이다.' '5'=적음.

출26:37-'이것을 걸어두기 위하여 다섯 기둥과 다섯 받침이 있었다.' 이 숫자를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작음의 의미되었다.

마25:2-'그들 중 다섯은 신중했고 다섯은 미련했다'=선이 있는 진리들 안에 있는 그들 중의 일부, 그리고 선이 없는 진리들 안에 있는 그들 중의 일부...'5', 내적 의미에서=얼마(간)의 (수, 양)

창41:34-'그가 토지의 5분의 1을 가져가게 하십시오'=보존되어야 하리라는 것, 그리고 그 후 저장되었다는 것. 이 구절의 '5분의 1을 가져가는 것'은 10분의 1과 똑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즉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 아껴두신 것들 (remains)...'10'= 남겨 두신 것들., 그러므로 10의 절반인 5 역시 의미에서는 같다.

* '5'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조금, 고로 얼마간, 다소, 그리고 남아 있는 것들(remains). 조금, 얼마간은 양에 말하는 숫자들, 즉 10, 100, 1000과 연계되고 있다. 남아 있는 것, 또는 아껴두신 것들은 특별히 10의 의미에 관계할 때이다.

눅19:13,18,19-'10'과 '5'=아껴두신 것들; '10'은 아껴두신 것들이 보다 많은 경우, '5'는 아껴두신 것들이 보다 적은 경우.

창43:34-'다섯 분량(배)'=많이 증가되었음...'5'는 적다, 얼마 만큼 이라는 숫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많음; 5의 많음의 의미는 5의 의미가 근원된 숫자와 관계할 경우에서 있어진다. 즉 5가 10으로부터 올 때, 5는 10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수준이 달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5는 10의 절반이기 때문이다... 형제들에게 제공한 음식 보다 다섯 배가 베나민에게 주어졌다...그

다수

이유는 10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이유가 10은 많다하기에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창45:6-‘아직 5년이 있다’=남아 있는 것들이 빛을 낼 때까지 이 상태의 기간. ‘5’=남겨진 것들.

창45:11-‘가뭄이 아직 5년 더 있다’=선이 결핍되어 있는 기간.

창45:22-‘그리고 갈아 입을 옷 다섯 벌’=자연으로부터 있는 많은 진리. ‘5’=많음.

창47:2-‘그의 형제 중에서 그는 다섯 남자들을 데려왔다’=얼마간의 교회 속의 진리들.

창47:24-‘너희는 바로에게 5분의 1을 바칠 것이다’=남아 있는 것들, 그것들은 내적인 것의 안내를 받는 일반적 원리를 위해 있다. ‘5’와 ‘5 1/2’=남아 있는 것.

출22:1-‘그는 황소 한 마리를 위해 다섯 마리를 재 지 못할 것이다’=벌에 상응하는 만큼 많게.

출26:26-‘주택의 한쪽의 들보를 위해 다섯 (통널판)’=천국의 내면의 것들을 향하여 보이는 곳, 거기에서 진리는 빛 안에 있다. ‘5’=저쪽의 모든 것들.

출26:37-‘шиттим(shittim)으로 만든 다섯 기둥들’=공적의 선에 의해 충분할 만큼 받쳐짐...‘5’=얼마 되는 부분, 또는 어떤 것, 그리고 또한 충분한 만큼의 많음.

출27:1-‘길이는 다섯 큐빗, 그리고 넓이는 다섯 큐빗’=선으로부터와 진리로부터가 동등하게...계단의 길이와 넓이가 다섯 큐빗인 이유는 ‘5’ 역시=10, 100, 1000과 같기 때문이다; 이 숫자들에 의해 많음, 모두, 충만한 것, 그리고 최고 의미, 즉 주님을 취급하는 대목에서 무한인 것이 의미 되어진다; ‘5’의 경우도 이와 같다.

출27:18-‘높이가 다섯 큐빗’=선의 등차 또한 충분할 만큼 높다.

눅19:12~19-‘10’=많음, ‘5’=얼만큼.

계9:5-‘그들을 다섯 달 동안 괴롭히는 것’=짧은 시간 무감각쪽으로 유인하는 것.

계17:10-‘다섯(왕들)이 망하였다’=말씀 속의 신성한 모든 진리가 파괴되었다....여기의 ‘5’는 숫자 다섯이 아닌 남은 모두를 의미했다.

이19:18-‘이집트의 토지에 있는 다섯 성읍이 가나안의 입술로 말한다’=교리 속의 진리가 풍부함...‘5’=많음, 또는 풍부함.

이17:6-‘5’=적음.

눅14:19-‘멍에 매는 황소 다섯’=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탐욕들, 또는 모든 애착들.

눅12:6-‘참새 다섯 마리’라고 언급된 이유, ‘5’=작은 것 그리고 인간과 비교해 가치가 적은 것이기 때문.

* (달란트의 비유에서) ‘5’ 그리고 ‘10’=얼마 만큼과 많음, 고로 첫째 종은 진리와 선의 얼마 만큼의 지식들로부터 자신을 위해 많은 지혜를 포획했다.

다수 (multitude)

수가 많음 (multiude)

창16:10-‘수가 많아 그 수를 세지 못할 것이다’=측정을 넘는 증가.

창17:4-‘너는 많은 나라의 아버지 일 것이다’=인간 본질이 신성 본질과 합일됨. ‘많은’=진리.

이60:5-‘바다의 다수’=자연적 진리의 풍부함이 방대하다 (측량 못 할 정도이다).

창30:30-‘갑자기 다수가 되었다’=후에 다산했다...즉 그것이 결합된 후.

창48:16-‘그들로 땅의 한가운데에서 다수로 자라나게 하소서’=가장 안쪽으로부터 확장해감. 그이유가 진리들, 이것이 ‘다수’에 의해 의미되는바, 이는 가장 안쪽으로부터 바깥 변두리로 자신들을 확장해감.

출15:7-‘당신의 뛰어난심의 다수에서’=그분에 자신들을 반대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제압하는 힘에 관련된 신성.

예10:13-‘하늘들에 있는 다수의 물들’에 의해 풍부한 진리들이 의미된다.

이5:13-‘거기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 ‘그것의 다수가 메말라 목마르다’에 의해 의미된다. ‘다수’, 말씀에서 진리들을 서술한다.

이32:14-‘도성의 다수’=교리의 모든 진리. ‘다수’는 진리들에 관해 말해진다.

이16:14-‘(모압의) 큰 다수’=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이13:4-‘산에서 다수의 음성’=악들로부터의 거짓들. ‘다수’=거짓들, 그리고 ‘산들’=악들.

호9:7-악의 거짓들이 ‘불법의 다수’에 의해 의미된다.

겔31:18-‘(바로의) 다수’=거기 모든 과학물.

이29:8-교회의 선들에 맞서 싸우는 악의 거짓들이 ‘시

다수의-다시 태어남-다이아몬드-다아아몬드 같은-다윗

은 산에 맞서 싸우는 모든 나라의 다수'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다수의 (numberous)

* 수(number)를 보라.

다시 태어남 (born again)

재출생 (rebirth)

재생 (rebirth)

- * 인간은 신앙 속의 진리들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진다.
- * 지옥으로부터 구해지기 위하여 인간은 주님에 의해 전체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이것이 거듭남이라 불리는 재생이다. 그러므로 이 다시 태어남을 위하여 인간은 먼저 진리들을 배워야 한다.
- * 거듭남은 영적 인간 측면에 관련한 재출생이다.

다이아몬드 (diamond)

* 금강석을 보라.

다이아몬드 같은(adamantine)

* 금강석을 보라.

다윗 (David)

* 시편에서, 왕으로서의 다윗의 특성 아래, 내적 의미에서 주님이 취급된다.

시89:3-‘다윗’=주님.

이55:3-‘다윗’=주님.

겔34:24-‘다윗’=주님.

예33:22-‘다윗’=주님.

예23:5-‘다윗’=주님.

이37:35-‘다윗’=주님, 오시기로 되었던 분, 인간에 관련하여 종이라 불리우신다.

마22:43-‘그러므로 어떻게, 영에 있는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느냐?’ 고로 육체에 관련하여서는 그분은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다.

예17:25-‘다윗’=주님.

시132:17-‘다윗’=주님.

시132:11-‘다윗’=주님.

암9:11-‘다윗의 천막’=교회와 주님을 예배함.

겔37:24-‘내 종 다윗’=신성한 인간에 관련한 주님, 그리고 이것이 신성한 진리로부터, 이는 ‘왕’, 여기서 다윗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슌12:7-진리가 ‘다윗의 집’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암9:11-‘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세우는 것’=진리의 거룩함이 사멸된 후 그것을 회복하는 것. ‘다윗’=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

눅1:32-‘다윗의 보좌’는 다윗의 왕국이 아니고 천국의 왕국이다. 그러므로 ‘다윗’에 의해 다윗이 의미되는게 아니라, 주님의 신성한 왕권. 그리고 ‘보좌’는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왕국을 구성한다.

삼하5:4-다윗이 왕권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 있었는데, (서른 살이 되기 까지) 그의 통치는 시작되지 않았다.

예17:25-‘다윗의 보좌에 앉는 것’=이런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다는 것.

삼하21:17-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왕’=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 그리고 ‘다윗’=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 이로부터 신앙, 총명, 그리고 지혜가 온다.

시89:20-‘다윗’=주님.

시132:10-이로부터 분명한바, 신성한 인간에 관련한 주님이 여기서 ‘다윗’, ‘여호와와 기쁨부은 자’에 의해 뜻해진다.

시88:4-‘다윗의 씨’는 조상으로서의 다윗의 후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밖의 곳에서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이 의미된다. 고로 그의 ‘씨’는 주님에 의해 거듭나는 이들, 추상적 의미일 경우, 거듭나는 이들과 더불어 주님으로부터 있는 것들이 뜻해진다.

계3:7, 이23:21,22-‘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열면 닫을 자 아무도 없고, 닫으면 열 자 아무도 없다’=구원 하신데 전능하심을 유일하게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는 베드로의 열쇠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엘리 아김에게 주어진 다윗의 열쇠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계5:5-‘유다의 지파로부터인 것, 다윗의 뿌리’=그분의 인간 안에서 신성한 선이 신성한 진리와 하나됨을 통하여 (주님께서 지옥들을 복종케 하셨다는 것). ‘다윗’은 신성한 지혜로부터의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을 뜻한다.

계22:16, 예23:5, 33:5-‘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후손이

다윗

다' = 그분은 세상에서 태어나신 주님이시다는 것, 그리하여 주님은 신성한 인간 안에 계신다는 것. 이로부터 그분은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다', 또한 '다윗의 가지라 불리신다.

겔37:24,25, 호3:5 - '다윗' = 영적 왕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 이는 주님의 왕권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최고 의미에서, 다윗 = 그 왕국에 관련한, 그리고 그 진리에 관련한 주님.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에 관해 말해지는바, '그가 와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통치할 것이다.'

계3:7 -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 =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힘을 가지신 분. '다윗' =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 말씀에서 '다윗'이 주님을 뜻하는 이유는 말씀에서 '왕'이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을 뜻하기 때문. 그리고 왕 다윗 특별하게 그는 교회 속의 것들에 큰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시편 역시 썼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라고 말해진 이유는 '다윗'이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했고, 천국들과 땅 위의 모든 권능을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신성한 선으로부터 주님과 더불어 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3:5 - '그들은 자기들의 하느님 여호와, 그리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그이유는 '여호와' = 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 이는 신성의 있음이다. 그리고 '왕 다윗' =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 이는 신성이 나타남이다.

슌12:7 - '다윗의 집, 예루살렘의 주민' = 영적 왕국, 이 왕국은 신성한 진리 안에 있는 천국과 땅에 있는 이들로 조직되어 있다.

시89:4,5 - '나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했었다, 네 씨를 나는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리고 세세토록 네 보좌는 건설될 것이다.' 이는 다윗의 씨와 보좌를 두고 말해지는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 추상적 의미에서일 경우,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자체를 뜻한다. 이것이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 이다는 것, 또는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이다는 것, 이것이 '다윗'에 의해 뜻해짐은 분명한데, 그이유는 말해지기를, '천국들에서 당신은 당신의 진리를 확인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국들은 거룩한 사람들의 회합에서 당신의 진리를 고백할 것이다.'

마22장 - 다윗이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했는바, 주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태어나도록 의도하셨다, 또한 '다윗의 아들, 뿌리, 후손'이라 불리시게 하셨다. 그러나 주님이 어머니로부터의 인간(human)을 벗으셨을 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의 인간(Human)을 입으셨을 때, 그분은 더 이상 '아들, Son'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그분의 말들에서 뜻해져 있다.

시89:20 - '다윗' = 신성한 진리에 관련된 주님. '다윗'이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을 뜻하는바, '다윗 나의 종'이라 말해진다. 그이유는 '종'은 진리를 서술하기 때문.

시132:17 - '다윗', 여기서도 역시 =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 '그의 뿌리 싹트게 만드는 것' = 천국들과 땅에서 신성한 진리가 붙어남. 그러므로 말해지는바, '나는 나의 기름부은 자를 위해 등불을 준비하였다.'

시132:17 - 이로부터 분명하며, 신성한 인간에 관련한 주님이 여기서 '다윗 여호와의 기름부은 자'에 의해 의미된다는 것이다.

예13:13 -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 = 신성한 진리들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있는 이들.

시132:11 - 이런 것들이 다윗에 관해 말해진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주님을 뜻한다.

시89:25 - 이런 것들이 주님, 천국, 교회에 관해 말해지고 있다. 그이유가 '다윗', 여기서는 글자 의미에서 취급되는데, 주님이 뜻해진다.

예33:17,21,22 - '이스라엘 집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으로부터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 당시에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가 교회를 영구적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때에 내 언약은 내 종 다윗에게 효력이 없을 것인바, 그는 통치할 아들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 그때에 그들은 신성한 진리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내 종 다윗의 씨를 늘이겠다' = 신성한 진리의 증가... 주님과 결합한 이들과 더불어.

슌12:12 - '다윗' = 신성한 진리.

겔34:23,24 - '목자, 내 종 다윗, 여호와께서 휘저을 사람'은 주님을 뜻한다.

시132:17 - '종'으로서의 '다윗' =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의 인간. 그리고 '기름부음' = 신성한 선에 하나됨...

다투다-뒹아 광을 내다-뒹아내다

‘시온에서 나는 다윗의 뿔이 싹틔우게 만들 것이다’=천국과 교회에서 그분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의 힘.

삼하6:14-다윗이 춤을 춤은 궤에 의해 의미된 것, 즉 신성한 진리의 유입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결과하는 즐거움을 표현했다...다윗의 춤은 영적, 천적 선에 애착함으로부터 있는 심정의 환희(joy)를 표현했다.

시89:3,28-‘다윗’에 의해 여기서 왕권에 관련한 주님, 선으로부터 ‘선택된’이라 불리는 분, 진리로부터 ‘종’이라 불리는 분이 뜻해진다. ‘언약을 만들고 그와 맹세하는 것’=그분의 인간과 그분의 신성이 하나됨...‘나는 네 씨를 영원 까지 조차 건설할 것이다’=그분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는 영원함. ‘자비를 나는 그를 위하여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그분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은 영원함. 이것들이 뜻인바, 다윗 대신 신성한 인간과 왕권에 관련한 주님으로 이해된다.

겔34:23-‘그들을 먹일 다윗, 그들 한가운데에서 군주로 있을 다윗’에 의해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이 뜻해진다. 이 진리는 그것의 섬김으로부터 ‘종’이라 불리운다.

예22:30-이 (지옥의 거짓)이 신성한 영적, 천적 진리가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지배하지 못할 것임이 ‘그의 씨 중 누구도 다윗의 보좌에 앉지 못할 것, 더 이상 유다에서 통치하지 못할 것’에 의미되어 있다.

삼상17:34-양떼에서 작은 놈을 물어가는 곰이나 사자를 처죽이는 힘이 다윗에게 주어진 이유는 ‘다윗’에 의해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이 표현되었기 때문, 이 진리를 수단으로 그분의 교회에 있는 이들이 가르쳐졌기 때문...여기서 ‘사자’=신성한 진리에 맞서는 지옥적인 거짓의 힘. 그리고 ‘곰’=자연에 있는 신성한 진리에 맞서는 거짓의 힘, ‘양떼의 작은 놈’=주님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 이렇게 표현되어진바, 사자나 곰을 처죽이는 힘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있는 악의 거짓들로부터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교회에서 그분 자신을 보호하는 주님의 힘이 의미되어 있다. 블레셋 족이었던 ‘골리앗’에 의해 선 없이 진리에 있는 이들, 그리고 ‘할레받지 않음’=육욕적인 욕적 사랑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어진다. 이로부터 골리앗을 이

긴 다윗의 승리가 표현하는 것도 알 것이다.

이16:5-주님이 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천국과 교회에서) 통치할 것임이 ‘그는 다윗의 장막에서 진리에서 그 위에 앉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다윗’에 의해 왕권에 관련한 주님이 뜻해진다, 이는 신성한 진리이다. 그리고 ‘그의 장막’은 신성한 선이 의미된다.

이9:7-주님의 영적 왕국이 ‘다윗의 보좌’에 의해 의미된다.

다투다 (quarrel)

창26:20-‘다투는 것’=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함으로 그것을 부정하는 것.

출21:22-‘사람들이 다투는 때’=진리들 사이에 있는 비통한 논쟁.

다투다 (contend)

창13:8-‘나와 너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그들 사이에 불일치는 없다.

* ‘가데스’=진리들에 관하여 논쟁함.

창26:20-‘그는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 불렀다, 그이유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다’=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함. 말씨름 또는 ‘다툼’=부정하는 것...‘에섹’, 또는 ‘다툼’은 말씀의 내적 의미를 부정함을 의미한다.

창32:28-‘너는 왕자 같이 하느님과 사람과 다투었고, 이겼기 때문’=진리들과 선들에 관련한 전투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것.. ‘왕자 같이 다투는 것’=전투들에서 정복하는 것.

창45:24-‘당신들은 길 가는 중에 다투지 말라’=그들은 고요함에 있다는 것.

뒹아 광을 내다 (polish)

애4:7-‘광택’=외적인 것.

뒹아내다 (wipe)

계7:17-‘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뒹아내실 것이다’=그들은 더 이상 전투 중에 있지 않을 것이다...(=거짓들이 시험들에 의해 제거된 후,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의 복된 상태). 그이유가 ‘눈으로부터 눈물을 뒹아내는 것’=마음의 슬픔을 거두어가는 것.

(곡식)단 (sheaf)

창37:7-‘우리는 단을 묶고 있었다’=교리로부터 가르침.

(곡식)단 - 단

'단'=교리.

시126:6-'단을 짚어지는 것'=이 진리의 교리물들.

창37:7-'내 단이 일어나 섰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통치함)에 관한 교리물.

창37:7-'당신들의 단들이 둘러섰다'=어떤 선행으로부터의 신앙에 있는 이들.

창37:7-'그리고 내 단에 자신을 굽혀 절했다'=신성한 인간을 숭배함.

레23:10-18, 신16:9-12-'단'=이런 것들을 수집함과 시리즈. 그이유가 진리들은 단들로 배치되기 때문.

레23:11-'단을 흔듬'=진리로부터의 선들을 생기있게 하는 것.

단 (Dan)

창49:17-가장 수준 낮은 추론에 속한 것들, 또는 과학적 사실들이 야곱이 단에 관하여 예언했던 것에서 의미되고 있다.

창14:14-'그는 단까지 추격했다'=깨끗해짐의 상태...'단까지'=가나안 토지의 가장 먼 경계에...단=가장 먼 경계들, 또는 가나안의 가장 바깥 경계들.

창30:6-'그러므로 그녀는 그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다'='그것의 품질...이 품질은 이름 단 안에 있다, 그이유가 그는 '판단함'으로부터 그렇게 불리웠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 이름은 라헬이 했던 말, 즉 '하느님께서 나를 판단하셨다, 그리고 또한 내 음성을 들으셨다'에 의해 의미되는 것들, 즉 생활의 선과 신앙으로부터의 거룩한 것, 또한 최고 의미인 주님의 자비와 정의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교회의 일반적 원리가 '단'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인정됨과 확인됨이라는 이 일반적 원리는 인간이 거듭나질 수 있기 전, 또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 전 첫 번째 사항이다. 인정되고 확인되지 않으면 신앙과 생활 속의 다른 모든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확인과 인정은 거듭나야 할 사람에게서 첫 번째 원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듭나야 왔었던 인간에게는 마지막 켤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단'은 거듭나지려는 이에게 첫켤이나 '요셉'은 마지막 켤이다. 그이유가 '요셉'은 영적 인간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듭나는 당사자와 더불어 요셉은 첫켤이고 단은 마지막 켤이다. 그이유가 거듭나려는 당사자는 그것이 그렇구나

하는 확인으로부터, 즉 신앙의 거룩한 것과 생활의 선으로부터 개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영적 인간, 즉 거듭난 인간은 영적 선 자체 안에 있는바 그에게 이것이 그러하구나 하는 확인은 마지막일 뿐이다.

창49장-'단' 여기서의 경우 진리를 확인함. 이 확인함에 관해 말해지는바, '그는 길 위에 있는 뺨, 작은 길 위에 있는 독사일 것이다'. 이는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진리에 관하여 추론할 때를 뜻한다.

신33:22-열 두 지파에 관한 모세의 예언에서, '단에게 그는 말했다 단은 사자의 새끼이다, 그는 바산으로부터 뛰어나온다. '사자'=교회의 진리...이로부터 '사자의 새끼'=진리의 첫 번째, 이는 인정과 확인이다. 이것이 '바산으로부터'인 이유는 이것이 자연(계)의 선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예4:15-'단으로부터'=확인되어질 진리.

예8:16-'그의 말들의 콧김소리가 단으로부터 들려진다'='비확인으로부터 진리에 관하여 추리함.

겔27:19-'단'=확인되어진 첫 번째 진리들.

암8:14-'하느님이 살아 있다. 단아, 그리고 브엘세바의 길이 살아 있다'=그는 믿음과 그 교리 속의 모든 것들에 부정적인 가운데 있다. 그것=믿음의 모든 것들에 부정적인 이유는 단이 가나안의 마지막 경계, 그리고 브엘세바는 첫 번째, 또는 토지의 가장 안쪽 이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모든 것이 한 복합체 안에 있을 때, '단'으로부터 브엘세바에 까지'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여19:40-'단'=첫 경계, 또한 마지막 경계인 이유는 진리와 선을 확인함은 믿음과 선행이 인간과 더불어 시작할 때의 경우에서는 만사 중에서 첫째에 해당되기 때문, 또한 인간이 믿음 안에, 동시에 선행 안에 있는 경우 마지막 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토지가 유업으로 할당되어졌을 때 마지막 지분이 단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사18:1, 계7:5-8-나머지 지파들의 상속분 중에서 단 지파에게 돌아간 지분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분은 그들의 경계를 넘어 있는 토지가 할당된 셈이 되었다. 그리하여 각 지파를 열거하는 계시록 7장에서 이 지파는 생략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리와 선을 확인만 할 뿐 더 진전되는 것, 생활 속에 그것이 없는 이들은

단

주님의 왕국, 봉인된 이들 사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창14:14-‘단’은 경계로서 언급되어진다....그리고 거기서 ‘단’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19:47, 사18:29-단으로 불리운 도성은 그 당시 단의 후손들에 의해 실지로 건설되지 않았다. 그러나 관계적 측면으로 볼 때, 단은 가나안으로의 입구 역할일 경우 가나안의 첫째 경계가 되고, 출구 역할일 경우 마지막 경계가 된다. 이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불리웠다.

창35:25-‘빌할의 아들들...단과 납달리’=내면의 것들에 뒤이어 있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들...최고 의미에서 ‘단’=정의와 자비; 내적 의미에서 믿음의 거룩한 것, 외적 의미에서 생활의 선.

창46:23-‘단의 아들 후심’=믿음의 거룩한 것, 그리고 생활의 선, 그리고 이것들에 속하는 교리적인 것들.

창49장-‘단’=진리 안에 있는 이들, 그러나 선 안에는 아직 있지 않은 이들. 그 이유가 ‘단’=생활의 선, 그러나 여기서는 진리로부터 생활의 어떤 선 안에 있는 이들, 그러나 선으로부터는 아직 아닌 이들: 그들과 더불어 선은 아직 깊숙이 저장된 것 같이 진리 안에 감추어 놓여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진리에 애착함을 주고, 그들로 진리에 따라 살도록 자극한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주님의 왕국 안에 있는데...그들은 사랑으로부터 행동 앓고 오직 순종으로부터 이다...그들은 주님의 왕국 중에서 첫 번째 천국 안에 있다. 주님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일반적으로 그의 열 두 아들에 의해 묘사되는 이스라엘의 예언적인 말을 하는 가운데서 위 부류의 인간들이 ‘단’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단’에 의해 의미되어진 이들이 최말단 천국에 있다는 것...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 안에는 있되 아직 선 안에는 있지 않아서 인데 이것이 마지막 지분이 단에게 돌아감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유업은 가나안 토지의 맨 끝에 있었다는 것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그러므로 ‘단’은 주님의 왕국의 경계 근처에 있는 이들을 표현했다: 그이유가 진리가 선과 합쳐지기 전일 경우 그것은 최말단에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만일 진리가 선으로부터 온전히 분리되어진다면 그것은 주님의 왕국 경계 근처가 아닌 그 밖에 있게 된다. 단의 상속분이 가나안의 토지 마지막, 또는 최말단이었다는 사실은 토

지의 전체 크기를 두고 말씀에서 말할 때 ‘브엘 세바로 부터 단까지’라고 언급되는 것으로부터 명백하다.

사18장-진리 안에 있되 아직 선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의 품질이 그들이 거주하는 토지를 탐색한 단 후손에 의해서도 표현되어져 있다: 즉 그들은 미가의 집으로부터 레위인과,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을 들고 갔다. 이런 사건들에 의해 진리 안에는 있되 선 안에는 아직 있지 않은 이들의 예배, 그리고 내적인 것들에 관심 없는 이들이 의미되고 있다.

예8:16,17-‘단’=위에 묘사된 것 같은 교회 내의 사람들, 그러므로해서 주님의 왕국 맨 가장자리에 있는 이들이듯, 또한 ‘단’에 의해 의미되는 또하나의 오류로부터 거짓들을 작당하고 퍼뜨리는 이들이다. 이런 인물들의 거짓들이 ‘말들(horses)’이다, 그들의 진리와 선에 대한 추론은 ‘뱀들’이라 불리고 있다.

겔27:19-‘단’과 ‘아완’=천적인 것들의 지식에 있는 이들.

출31:6-‘단 지파’=믿음으로부터의 진리와 선 안에 있는 이들.

계7장-‘단’이 지파를 열거함에서 에브라임과 함께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단은 지파들 중 마지막 번째이고 그 지파는 가나안의 토지 가장 먼 끝에서 거주했기 때문, 그래서 그 지파는 천적, 영적인 것들 만이 있게 될 새 천국과 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의미할 수 없었기에 누락되었다. 그러므로 단 대신 ‘므낏세’가 있다.

* 단 지파에 관한 이스라엘의 예언적 발언에서 단은 교회의 최말단을 의미했다. 즉 진리와 선의 최말단에 있는 이들, 이것은 감각적 수준이라 말해지는데...즉 그들의 생각을 글자 의미 너머로 들어올리지 않는 이들이다.

예8:16-‘단’=최말단에 있는 진리. 교회 안에서 이 진리는 글자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이 의미에만 안주하는 이들은...여러 종류의 오류들 안으로 끌려들어갈런지 모르는데 이 구절에서 ‘단’에 의해 표현되어 있다.

사5:17-단 지파가 드보라와 바락이 적들과 싸우는 가운데서 현존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해진다, ‘단, 왜 그는 배(ships)들을 두려워하는가’. 이 표현을 수단

단단한-단단하게 하다

으로 왜 그는 거짓들과 거짓된 것 속의 교리적인 것들을 몰아내지 않았는가?가 의미되고 있다.

단단한 (hard)

마13:4-‘단단한 길’=거짓.

창35:16-‘라헬은 그녀의 출산에서 참기 어려운(단단한) 것들을 겪었다’=내면의 진리에 대한 시험들.

창42:7-‘그는 그들에게 단단한 것들을 말했다=그로부터, 또한 비-상응.

창42:30-‘우리에게 단단한 것들’=비-상응 때문에 비-결합. 그이유가 만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사이에 상응이 없다면, 그러면 내적이라는 모든 것은 외적이라는 것에 단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이유는 결합이 없기 때문이다.

창49:7-‘그리고 그들의 분노, 그것은 단단했기 때문’=진리로부터 돌아서버림, 그것은 확정적이었기 때문에...‘단단한’=확정된 것. 그이유가 설득당할 정도로까지 확정해버린 거짓은 단단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단단하다는 것은 경험으로부터 알도록 나에게 주어졌었다. 그이유가 영들과 천사들에게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는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표출되어지는데 반해, 악으로부터의 거짓은 단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표출되어지기 때문. 그리고 단단해지는 정도 만큼, 악으로부터의 거짓은 더 확정되어갔다. 설득이 많은 것들을 수단으로 확증을 통하여 거행되었을 때, 그 단단함은 뼈의 단단함 같이 나타났다. 이와같은 단단함은 세상에서 단단함 같다, 거기서 빛의 광선들을 되튀기고 있다. 고로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빛이 악으로부터의 거짓으로부터 단단한 것 안으로 떨어질 때, 그것은 되튀겨진다. 그러나 선으로부터의 진리로부터 부드러운 것 안으로 떨어질 때, 그것은 받아들여진다.

출6:9-‘그리고 힘든 용역 때문에’=거짓들만으로부터 감염되게 함을 수단으로.

출7:3-‘나는 바로의 심정을 단단해지게 할 것이다’=거짓으로부터의 악으로부터 완고함. ‘단단해지게 함’=완고함.

이27:1-‘단단하고, 크고, 강한 검’=모든 진리가 사멸함.

단8:23-‘얼굴이 단단한 왕’=그들의 내면에는 진리가 없고 거짓만...‘얼굴들이 단단한’=선이 없는 내면들. 그

이유가 선이 없는 곳은 진리가 단단하기 때문...그리고 이 진리는 내면들에 있는 거짓이다.

겔2:4-‘얼굴이 단단한 아들’=선 없이 진리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추상적으로 선이 없는 진리들, 그 자체 거짓들이다.

겔2:4-자신을 납득시키는 이들, 타인들을 거짓으로 강력하게 납득시키는 이들, 그리고 어떤 진리도 용인 안하는 이들이 의미되고 있다. 이들이 ‘얼굴이 단단하고 심정이 단단해진’ 이들이라 불려진다. 그들은 오로지 최말단의 감각적인 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한다. 이 감각적인 것이 자아 사랑의 불로 점화될 때, 단단하고 굳혀져 간다.

이19:4-‘단단한 주인’=거짓의 악.

단단하게 하다 (harden)

출13:15-‘바로는 자신을 단단해지게 했다’=거짓들에 의해 감염되어 왔던 이들은 자신들을 완고하게 만들었다.

출14:4-‘나는 바로의 심정을 단단해지게 할 것이다’=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은 더욱 강하게 자신들을 완고하게 한다.

겔3:7-선행 안에 있지 않는 이들이 ‘이마가 단단해지고 심정도 단단한’ 이들이라 불린다.

출4:21-‘나는 그의 심정을 단단해지게 할 것이다’=완고함...이것은 외관으로부터 말해진다.

신2:30-진리와 선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고, 그것을 행하려는 의지도 없을 때, ‘영’, 그리고 ‘심정’,=두 생명들이 ‘단단해져간다’고 말해진다.

겔2:4-‘심정이 단단해져감’=선을 용인하지 않는 이들. 그러므로 악 안에 있는 이들. 그이유가 ‘심정’=사랑의 선. 그리고 ‘단단해지는 심정’=‘돌 같은 심정’과 같다. 즉 사랑의 선이 용인되어지지 않는 곳.

이3:9-‘얼굴의 단단해짐이 그들에 맞서 대답한다’=그들의 내면들인 생각들과 애착들 안으로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를 받지 않고 거절함.

겔3:8-‘그들의 얼굴들에 맞서 단단해진 얼굴들’=진리들을 수단으로 거짓을 거절함.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맞서 단단해진 이마’=선을 수단으로 악을 거절함.

이33:19-‘너는 단단해진 백성을 보지 않을 것이다’=악

단순한-단언하다-단봉낙타-단식하다-단장하다-단지-달다

으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추상적으로 이런 거짓들.

예23:14-‘끔찍하게 단단해져감’=말씀의 진리들과 선들에 맞서 심정이 확증함.

단순한 (simple)

* 심정에서 단순한 사람은 영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이유는 자기들은 사후 살게 된다고 주님이 말하셨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들의 합리성을 꺼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더욱 살아있게 만든다.

- * ‘너는 비둘기 같이 단순하라...’
- * ‘미디안’=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있는 이들, 고로 자신들이 쉽게 설득 당하게 허용하고 만다.
- * ‘이스마엘’=영적 교회 속의 이들, 생활에 관련해 단순한 선에 있는 이들, 그러므로 교리에 관련해서는 자연적 진리에 있다.
- * ‘금 귀걸이’=단순한 선으로부터 있는 것들.

단언하다 (asseverate)

창3:16-‘만일 누군가가 땅의 먼지를 썰 수 있다면, 네 씨 역시 세어질 수 있을 것이다’=단언하심.

단봉낙타 (dromedary)

이60:6-‘미디안과 에바의 단봉 낙타들’=교리적인 것들.
 이60:6-‘낙타 군대들과 미디안과 에바의 단봉 낙타들’=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함.

단식하다 (fast)

- 이29:8-‘단식하는 혼’=선들을 배우기를 갈망함.
- 마9:15-‘그들은 신랑을 자기들로부터 빼앗겼을 때 단식할 것이다’=선이 진리들과 더 이상 결합하지 않을 때 그들은 불행한 상태에 있다는 것.
- * ‘단식하는 것’=슬퍼하는 것. 그이유는 그들은 슬플 때 단식했기 때문.
- 마4:2-‘단식함’=고뇌함, 마치 시험들로부터 전투하는 상태에 있는 것 같다.
- * ‘단식하는 것’=진리와 선에 대한 실패 때문에 슬퍼함.

단장하다 (dress)

출30:7-‘등불을 단장하면서 그는 그것 위에 향을 태울 것이다’=진리 또한 그것 자신의 빛 안으로 올 때...‘단장하는 것’ 또는 그것들에 점화하는 것=그들이 그들 자

신의 빛 안으로 올 때.

단지 (urn)

출16:33-‘단지를 가져오라’=진리. 그이유가 여기서는 만나인 선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 모든 진리는 선을 위해 그릇으로 있다.

닫다 (close)

- * conclude, cease, open도 참조.
- 창20:18-‘여호와께서는 모든 자궁을 확실히 닫으셨다’=불모, 애를 못 낳음.
- 이24:10-‘모든 집이 닫혔다’=선이 없는 인간 마음.
- 계3:7-‘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아무도 없다’=오로지 그분만이 전능하시어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아무도 닫지 못하도록 여는 것,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닫는 것’=지옥에서 꺼내고 천국에 입문하게 해서 구원하는 것.
- 계3:8-‘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지옥은 그것에 맞서 우세하지 못한다는 것.
- 계11:6-‘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그들은 천국으로부터 교회의 어떤 진리도 받을 수 없다는 것.
- 계21:25-‘그것의 문들은 낮에는 닫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거기에 밤이 없기 때문이다’=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계속 받아들일 것이다. 그이유는 거기에 신앙의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 예13:19-‘남쪽의 도성들은 닫혀 있다’=다른 방법으로 빛 안에 있어왔던 교리의 모든 진리들이 있다는 것.
- 이45:1-‘문들이 닫히지 않을 것이다’=전지하심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 명명백백하다, 그리고 전능하심으로부터 그분은 구원하는 권능을 가지신다.
- 이24:10-‘모든 집이 닫혀 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사람들과 더불어 더 이상 어떤 선과 지혜도 없다.
- 이29:10-‘그분이 너희의 눈을 감겼다’=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음.
- 신32:30-‘닫는 것’=박탈하는 것.

달 (month)

* 영적 인간 역시 ‘일곱째’ (인간)이 되어간다. 이는 천적 인간과 같은 방법으로 되는 것, 즉 ‘일곱 째 날’이

달

아닌 '일곱째 달'이다.

창8:5-'열째 달'=아껴두신 것(remains) 속에 있는 잔리들.

창8:13-'달의 첫 번째에서, 시작에서'=첫 번째 끝냄.

창8:14-'두번째 달'=거듭나기 이전 모두 각각의 상태.

* 교회의 마지막 때가 셋째 날, '세번째 달'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29:14-'그는 그와 함께 날들의 한 달을 거주했다'=생활의 새로운 상태.

계22:2-'매 달 그것의 열매를 산출한다'=선을 받아들임에 관련하여 언제나 새로운 상태,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실천함.

민3:15,40-이전 상태의 끝, 그리고 뒤잇는 상태의 시작, 또는 새로운 상태가 '달'에 의미되어 있는 바, (레위 지파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첫 출생의) 수를 세되 '한 달, 그리고 그 이상된 아들로부터'라고 명령되어졌다.

신21:11,13-'날들의 한 달', 여기서 명백하게=이전 상태의 끝과 새로운 것, 또는 뒤잇는 것의 시작.

창38:24-'그후 약 석 달'=새로운 상태. (그이유가) '3'=완성인 것. 그리고 '한 달'=한 가지 상태.

출2:2-'그녀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나타나지 않았던 시간이 다 찼음. '달'=시간과 상태.

출12:1-'이 달이 너에게 달들의 머리로 있다'=이 상태는 모든 상태들의 근본이다. '달'=이전 상태의 끝과 새로운 것의 시작. 고로 새로운 상태.

출12:3-'이 달의 십일째에'=내면들이 개시함으로부터의 상태. '달'은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고로 유월절에 의해 의미되는 해방의 전체 상태.

출13:4-'아빡달에'=새로운 상태의 시작. '달'=이전 상태의 끝과 뒤잇는 것의 시작. 고로 또한 새로운 상태. '아빡달'=뒤잇는 모든 상태들로부터의 시작이라는 것은 진행되는 대목에서 이 달에 관한 것들로부터 명백하다. 즉 '이 달은 너에게 달들의 머리이다. 이는 햇수의 달들에서 너에게 첫째이다.'

출13:5-'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해방됨 때문에 주님에 대한 끊이지 않는 예식. '달'=이전 상태의 끝과 새로운 것의 시작. 그로부터 또한 '달'에 의해

끊어지지 않는 것도 의미된다.

출16:1-'둘째 달 15일에'=상대적인 상태. '달'은 이전 상태의 끝과 뒤잇는 것의 시작이 의미된다. 고로 새로운 상태.

출19:1-'셋째 달에'=상태의 충만함. '달'=상태.

계9:5-'다섯 달 동안 그들을 괴롭힘'=짧은 시간 동안 마비 상태를 일으키는 것. 그이유는 이것이 '다섯'에 의해 의미되고, 시간은 그것이 달이든 날이든 시간이 아닌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

계9:15-'시간, 날, 달, 그리고 해'는 계속적으로 그리고 항구적으로, 또한 언제나 까지도 의미한다.

계11:2-'42개월'에 의해 어떤 것도 남은 것이 없는 때인 마지막에 까지 조차를 의미한다.

* '매 달 그것의 열매를 산출한다'=주님은 인간 당사자와 더불어 진리의 모든 상태에 따라 그 사람과 더불어 선들을 생산하신다는 것. '달'은 진리에 관련한 인간의 생명의 상태를 의미한다.

신33:14-'달들의 생산물들'은 주님의 영적 왕국으로부터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된다. 여기서 '달, month'=달, moon과 같다. 즉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그이유가 원어에서 둘을 위해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

계13:5-'42달'=완전히 황폐함과 극점. 고로 남아 있는 진리와 선이 아무 것도 없을 때까지 파괴함.

달 (moon, lunar)

시72:5,7-'달'=신앙. '달이 있지 않을 때 까지'=신앙이 사랑이 되는 것.

* 신앙이 '밤'이라 불리는 이유는 신앙은 달이 해에서 빛을 받듯 선행으로부터 빛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달에 비교되고 '달'이라 불린다.

* 주님은 영적 천국의 천사들에게 달이다.

이13:10-'달은 그녀의 빛을 빛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그렇게 행동되지 않는) 신앙 속의 진리들.

이30:26-주님이 영적 천국의 천사들에게 달로서 나타난다는 사실이 나에게 확인 되었다. 나는 빛나는 달을 뚜렷하게 보았는데, 이 달은 많은 작은 달에 의해 휘감겨 있었고, 그것의 광도(lumen)는 거의 햇빛이었다. 마치 이 구절, '달의 빛이 태양의 빛 같이 있을 것이다'와

달

같다...‘달빛’은 앞쪽, 오른 쪽에서 나타났다.

마24:29- ‘달은 그녀의 빛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달’에 의해 신앙이 의미되어진다.

마24장-‘달’=사랑으로부터의 신앙과 선행으로부터의 신앙.

이24:23-‘달이 얼굴을 붉힐 것이다’=신앙이 얼굴을 붉힐 것이다.

계12장-‘달’=영적인 사랑.

욥2장-‘태양과 달’=사랑의 선과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

이60:20-‘너의 달이 거두어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생활 안에 그리고 총명 안에 있을 것이다, 그이유는 영적 사랑과 주님의 빛 안에 있기 때문.

시104:19-‘달’=총명; ‘태양’=주님으로부터의 지혜.

마24장-‘달이 그녀의 빛(lumen)을 주지 않을 것이다’=...이웃을 향한 선행...이것이 ‘달’인데...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달’=사랑의 영적인 것; 즉...‘달’= 신앙을 통해 있는 이웃을 향한 선행. ‘달’의 의미가 이런 의미인 이유는...저 삶에서 주님은 영적 왕국에 있는 사람들, 즉 이웃을 향한 선행에 있는 이들에게 달로서 나타나시기 때문.

창37:9-‘바라보니 태양과 달’=자연적 선과 자연적 진리...‘달’=영적 선, 또는 진리...‘달’ 최고 의미에서,=주님, 그이유는 그분이 영적 사랑 안에 있는 이들에게 달로서 나타나기 때문...그리고 천국 안에서 달로부터의 빛은 사랑의 영적인 것, 또는 진리이다. 여기서 그러므로 ‘달’=자연적 진리, 그이유는 이것이 (10절을 참조하면) 레아를 서술하기 때문...그이유가 ‘레아’는 자연적 진리를 표현했기 때문.

계6:12-‘달’=신앙 속의 진리.

예31:35-‘밤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지정하셨다’=신앙과 지식들 속의 선들로부터 어둠에 진리의 빛이 있다.

마24장-천사들은 ‘달’을 가지고 달이 아닌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각한다.

마24장-‘달은 그녀의 빛을 주지 않을 것이다’=총명과 신앙이 더 이상 없다.

이30장-‘달빛’=선행으로부터의 신앙.

계6:12-‘달이 피같이 되었다’=그들과 더불어...신앙 속의 모든 진리는 왜곡되었다.

계21:19-‘그 성은 달이 필요 없다.’ 여기서 ‘달’에 의해 영적 총명과 신앙에서 분리된 자연적 총명과 신앙, 즉 자기 고유의 것, 자아로부터의 신앙이 의미되었다.

눅21:25-‘달’=주님 안에서의 신앙. (=사랑으로부터의 신앙).

이24:23- ‘달과 태양’에 의해 그들의 우상적 예배가, 또한 신앙 속의 거짓과 사랑 속의 악이 의미되고 있다.

시121:6- ‘달’=악의 거짓.

이13:10-‘달’=신앙.

계6:12, 욥2:31-말씀에서 ‘달’에 의해 신성한 진리, 즉 신성의 영적인 것이 의미되고 있다; 그러므로 ‘달이 피로 변했다’라고 말해진다.

겔32:7-신앙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 ‘달이 비추기 위한 그녀의 빛을 만들지 않는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달’에 의해 신앙의 진리가 의미되었다.

계6:12-‘달이 피같이 되었다’=신앙 속의 모든 진리가 왜곡되어졌다. (그이유가) ‘달’=영적 진리, 이 진리는 신앙 속의 진리라 불리기 (때문이다).

시89:37-‘그분의 보좌는...달 같이 영원히 고정될 것이다’=영적 선, 즉 신성한 진리 안에 있는 천국과 교회.

이13:10-‘달’=이웃을 향한 선행의 선, 이 선은 그것의 본질에서 선으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신앙 속의 진리라 불리워진다...‘달이 비추기 위한 빛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외관에 의거 말해지고 있다.

여10:12,13-‘달은 아직 야알론 골짜기에 서있었다’=모든 진리 측면에서 교회는 완전하게 황폐되었다.

욥31:26-‘빛’, 그리고 ‘달’=영적 진리들.

계21장-‘달’=자연적 빛(lumen); 그이유가 그 자체만 참작하면, 자연적 빛(lumen)은 자연적 사랑으로부터이고, 빛(lumen)의 품질은 사랑의 품질에 따라 있기 때문이다.

이60:19-‘달’=자연적 빛(lumen). 그러나 20절의 달은 천사들의 천국의 달을 뜻하고 이 달은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시89편-‘달 같이’=신앙 속의 진리에 관련하여.

예8:12-‘달’=이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양쪽 의미에서의 신앙.

달란트 (talent)

달란트-달리다-달시스-달아나다

* cleverness도 참조.

마25:28-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은 저 세상 삶에서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진다. 그이유는 그것들을 수단으로 그들이 천국과 교통하고, 한편 악들과 거짓들을 수단으로 지옥과 교통하여 양쪽에 걸쳐있지 못하려 해서 때문. 그리고 그들이 선들과 진리들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려해서이다. 이것이 '그 자로부터 달란트를 빼앗으라'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마25:14-30-다섯 달란트를 받은 이들=주님으로부터의 선과 진리를 수용한 이들, 고로 아껴두신 것(remains)을 받은 이들. '두 달란트를 받은 이들'=신앙에 선행을 접목한 발전된 단계에 있는 이들. '한 달란트를 받은 이들'=선행 없이 신앙만을 받았던 이들.

출25:39-'순금 한 달란트로 그것을 만들 것이다'=모든 것들을 있게 하는 한 개의 선. '한 달란트'=하나.

계16:21-'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끔찍하고 흉악한 거짓들. 그이유가 달란트는 금과 은의 가장 무거운 무게 었기 때문.

달리다 (run)

창24:17-'종은 그녀를 만나러 달렸다'=신성한 선으로부터 조사함.

출24:28-'소녀는 달렸다'=이 애착의 성향, 또는 의도.

창24:29-'라반은 남자에게로 달려나갔다'=진리를 향하여 선에 애착함의 의도.

창29:12-'그녀는 달렸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내면의 진리들을 통하여 인정함. '달리고 말하는 것'=앓을 만듦에 대한 애착. 여기서 인정함.

창29:13-'그는 그를 만나러 달렸다'=동의함.

창33:4-'에서가 그를 만나러 달렸다'=신성한 자연적 선의 유입.

시50:18-'도둑과 더불어 달리는 것'=거짓을 통하여 자아로부터 진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계9:9-'전쟁으로 달려가는 것'=싸우려 열심임.

나2:4-'뛰어다니는 것'=타락하는 것.

달시스 (Tarshish)

창10:4-'야완의 아들들... 달시스'=유행했던 외적 예배가 있었던 아주 많은 나라들; 이들을 수단으로 야완과 더불어는 외적 예배로부터 파생된 의식들, 아주 많은 교리

물이 의미되고 있다.

* '달시스' 등등이 외적 예배로부터 '섬'이라 불리워진다.

시72:10-'달시스와 섬들'=내적인 것에 상응하는 외적 예배.

이60:9-'달시스의 배들'=지식들. (=교리물들과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 (=선과 진리에 대한 교리물들) (=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들) (=악과 거짓에 대한 지식들).

예10:9-'달시스로부터의 은'=말씀으로부터 때문에 외적 형체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진리.

이60:9-'달시스로부터의 은과 금'=진리와 선에 대한 기억.

시72:10-'달시스와 섬들의 왕들'=자연적 인간의 내,외면의 진리들.

이60:9, 왕상10:22-'시작에서 달시스의 배들...'=그들이 산출하고 행하는 선들. 그이유는 '달시스'=지식들에 관련한 자연적 인간. 그리고 '시작에서 달시스'=선에 관한 지식에 관련한 자연적 인간, 그이유는 달시스에 금과 은이 있었기 때문, 그리고 배들이 그것들을 거기로부터 운반했기 때문.

시48:7-'당신은 동풍으로 달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신다'=거짓 교리물들은 황폐되었다.

달아나다 (flee, shun)

창14:10-'달아나고 떨어지는 것'=정복되는 것.

창16:6-'그녀는 그녀의 얼굴로부터 달아났다'=분노.

창31:21-'그는 도망했다,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도'=분리.

출2:15-'모세는 바로 앞으로부터 달아났다'=거짓들로부터 분리함.

출4:3-'모세는 그것 앞으로부터 달아났다'=분리된 감각적인 것에서의 공포.

출14:5-'백성이 달아났다'=분리되어지는 것.

출14:25-'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그들로부터 분리.

출14:27-'바다를 만나려고 도망하는 것'=악으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자신들을 침수하게 함.

이31:8-'검 앞에서 자신을 위해 도망치는 자, 그의 젊

달콤한-담즙-담화하다-대답하다

은 이들은 공물을 위해 있을 것이다'=파괴되지 않은 진리는 거짓들에 복종할 것이다.

예4:29-'도망하는 것'=멸망하는 것.

시30:16-'말 위에서 도망하는 것'=그들 자신의 이해함으로부터의 것들을 바라는 것.

슌14:5-'피신하는 것'=구출되는 것.

시144:14-'도망함이 없다'=어떤 손실도 없다.

계12:6-'광야로 달아나는 것'=선 안에 있지 않기에 진리 안에도 있지 않은 이들과 사는 것.

달콤한 (sweet)

출15:25-'물들이 달게 만들어졌다'=그리하여 진리들이 기뻐하는 것들로 만들어졌다. '달콤한'=기뻐함. 그 이유가 '달콤한', 영적 의미에서 생명의 달콤한 것, 즐거움을 가진 것이기 때문.

계10:9-'입에서는 꿀 같이 달게 있다는 것'=받아들임의 첫 번째에서는 감사함과 기뻐함이 있다는 것.

이25:6-'달고 정제된 포도주'=이런 선들로부터의 진리들.

레3:5-'여호와께 바치는 예물로서=사랑의 선과 신앙의 선, '여호와께 달콤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진다.

시27:4-'여호와 달콤함을 보는 것'.

담즙 (gall)

암6:12-'재판'=담즙으로 변한 진리들.

예9:14,15, 23:15, 암5:7, 6:12, 신29:18, 마27:34, 마15:23, 시69:21-지독하게 쓴맛으로부터, 이를 수단으로 음식이나 마실 것이 역겨운 것으로 바뀐다. '쓴썩'=지옥의 거짓. '보라 나는 이 백성을 쓴썩으로 먹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마실 물로 담즙의 물을 줄 것이다'. 유대 교회에서 말씀의 모든 진리가 왜곡되었는바,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에게 쓴썩 같은 것, 담즙을 섞은 (식)초를 주었다. 그러나 그것을 맛보신 후, 그들은 마시지 않았다.

신32:32,33-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그들의 포도들은 담즙의 포도들이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다, 그리고 독사의 잔인한 담즙'에서 뜻해지고 있다. '담즙의 포도들, 그리고 쓴맛의 덩이들'=끔직한 거짓들로부터의 악들. 그들의 거짓들 자체는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다, 그리고 독사의 잔인한 담즙'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포도주'=말씀으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용들의 독, 그리고 독사의 담즙'=말씀의 왜곡된 진리로부터 출현하는 거대한 거짓.

시140:9-'담즙'에 의해 왜곡된 진리가 의미된다. 이는 그 자체 거짓이다.

암5:7-그들이 진리를 왜곡해왔고, 말씀의 선들에 섞음 질해왔다는 것이 '너는 재판을 담즙으로 변하게 하고 정의의 열매를 쓴썩으로 만들었을 때'에 의해 의미된다.

욥20:14-'독사의 담즙'=악과 혼합된 선.

신32:42-'적에게 복수함의 담즙으로'=지옥의 악의와 잔인함으로부터.

담화하다 (converse)

마17:3-'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담화하고 있었다.' 주님의 신성이 세상에서 나타났을 때, 말씀을 표현했던 이들 외에는 그분과 대화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이유가 주님과 더불어 대화함은 말씀을 통하여 있기 때문이다.

창49:21-'세련된 대화'=마음의 즐거움. 그 이유가 모든 대화는 마음으로부터 진행하기 때문.

눅6:47-'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자,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말들을 듣는 것'=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앙의 가르침들을 알고 배우는 것.

시19:14-'내 입의 말함과 내 심정의 묵상이 당신 앞에 있게 하소서.' '입의 말함'=진리를 이해함. 그리고 '심정의 묵상'=선을 지각함.

시105:19-'여호와와의 담화'=신성한 선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

대답하다 (answer)

창18:26-'여호와께서 말하셨다'=...확실히 대답하셨다.

창23:5-'헷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고 말했다'=새로운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상호적인 상태. '대답하는 것', 물어보았을 때, 승낙하는 대답=상호적인 것.

창23:10-'헷족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그들이 수용하는 상태. 승낙이 주어지는 '대답'=수용하는 것.

창27:37-'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고 말했다'=가르침.

창31:43-'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고 말했다'=희미하게

대머리

지각하는 상태. '대답하고 말하는 것'=지각함.

창40:18-'요셉이 대답했고 말했다'=지각으로부터의 계시(밝히 않).

창41:16-'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다'=지식, 이는 물어봄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대답하는 것은 이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것인바 지식을 의미한다.

창41:16-'하느님께서 바로에게 평화를 대답하실 것이다'=결합을 통하여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창42:22-'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했고, 말하기를'=교리와 이해성에 있는 신앙으로부터 지각함. '대답하는 것', 또는 '말하는 것'=지각함.

창45:3-'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자연적 측면에 있는 진리들은 말할 상태에 아직은 있지 않았다.

창48:9-'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내면인 것으로부터의 대답.

출4:1-'모세가 대답했고 말했다'=신성으로부터의 법으로부터의 생각.

출15:21-'미리암이 그들에게 대답했다'=상호적인 것...

출17:2-'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생각 안으로의 입류를 수단으로 대답함...입류를 통하여 결과된 신성으로부터의 모든 대답, 그리고 사실상 생각 안으로.

출19:8-'모든 백성은 대답했다'=받아들임...그이유는 이것은 입류가 상호적이기 때문.

출19:19-'모세가 이야기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신성으로부터 진리의 유입을 수단으로, 그 안에 신성 자체가 있으시다...'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것'=신성한 진리가 그 근원이라는 것. 그이유가 신성한 대답들은 신성이 들어 있는 진리들이기 때문.

출20:13-'너는 네 이웃에게 거짓말의 증거를 대답하지 말 것이다'=선인 것을 악이라 부르지 말 것, 진리를 거짓이라 부르지 말 것이다.

출23:2-'너는 다툼에 대답하지 말 것이다...'대답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거나 형을 내리거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다.

출24:3-'모든 백성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이해성 안에 받아들임.

출24:14-'되돌아오는 것'=대답하는 것.

출34:1-'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실 때, '말하시는 것'=대답하시는 것, 여기서는 결말.

계7:13-'원로들 중의 하나가 대답했고, 나에게 말하기를...'=대답과 통지함. 요한이 문의한 이유...모든 신성한 예배에서는 인간이 뜻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다음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통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일반적 순서이기 때문. 이와 달리는 신성으로부터의 어떤 것도 받아지지 않는다.

이49:8-'대답하는 것'=도움이 돌아오고 은택을 입는 것.

계7:13-'대답하고 말하는 것', 원로들로부터 일 때, 이들을 수단으로 주님이 계신 천국이 의미된다,=유입과 지각. '대답'=유입, '말함'=지각.

시20:9, 4:1, 13:3, 17:6, 34:4, 91:15, 120:1-'대답하는 것', 주님께 관련해 말해질 때,=유입, 영감, 지각, 그리고 통지. 또한 자비와 도움.

대리석 (marble)

계18:12-'각종 그릇...대리석으로 만든.' '대리석 그릇'=선과 진리의 나타남으로부터 감각적인 것.

계18장-'그리고 대리석으로...'='그리고 모독된 감각적 진리. (그이유가) '대리석'=감각적인 것, 이는 인간의 생각과 의지의 최말단이다. 이것이 '대리석'에 의해 의미되는 이유는 돌=최말단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 특별히 진리의 나타남. '대리석'이 돌 대신 말해지는 이유는 말씀으로부터 교회의 진리의 나타남이 뜻해지기 때문.

대망막 (caul)

출29:13-'간 위의 대망막'=외적, 또는 내적 인간의 내면의 선. '대망막'=이런 선인 이유는 그것은 모두 지방이고 지방에 의해 선이 의미되기 때문. 그것=내면의 선인 이유는 이 지방은 내장을 덮는 지방보다 신체에서 더 내면,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

출29:22-'간의 대망막'=순수해진 자연적 인간의 내면의 선.

대머리 (baldness, bald head)

* 나실인(nazarite), 면도하다(shave)도 참조.

이15:2, 3:24, 왕하2:23,24--'대머리'=진리가 전혀 없는 자연 평면...이사야서에서 '모든 그들의 머리들은 벗어지고, 모든 수염은 면도할 것이다,' 그리고 '잘 땅은

대머리

일 (예쁘게 꼬아 만든 머리털) 대신에'.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꺼져라, 머리가 벗어진 자야, 꺼져라, 머리가 벗어진 자야, 그러자 숲(wood)에서 나온 곰들이 그들을 찢어 조각냈다'. 이 구절은 말씀 안에 무슨 진리가 있느냐 하고 욕설을 한 이들에 관한 것들을 표현했다.

겔27:31-'자신 위에 대머리가 있게 권유하는 것'=자연적 인간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통곡함.

레21:5,6-아론의 아들들은 자기들 머리가 대머리되게 하지 말 것, 그들의 수염의 모퉁이를 밀지 말라는 것... 여기에서 무엇이 거룩한 것일까? 바깥쪽, 또는 자연적 인간은 안쪽, 또는 영적 인간에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신성에 종속되고 있는 것이 거룩히 있는 것이다.

* 말씀의 글자 의미는 말씀의 자연적 의미이다. 그 이유는 이 의미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이기 때문이다. 내향의 의미는 말씀의 영적 의미이다. 그 이유는 이 의미가 천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이기 때문이다. 이 두 의미들은 인간과 더불어 내적, 외적 인간과 비슷하다. 내적 인간은 외적 인간 없이 존재 못한다. 그이유가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이 머무르는 질서 체계의 최말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기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부른 것은 말씀을 더럽히는 것, 말씀이 치욕을 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말씀은 외적인 측면이 결핍되었다, 고로 인간의 납득에 적응되는 어떤 의미도 없더라고 말하는 것이나 같다.

이15:2-'모든 그들의 머리들은 벗어짐, 모든 수염은 깎임'. '그들의 머리들이 벗어짐'=내면들에서 선과 진리가 없음. '수염이 깎임'=외면들에서 선과 진리가 없음.

이3:24-'잘 깎아 늘어뜨리는 일(머리)'=과학적 진리, 이는 바깥쪽 진리, 또는 바깥쪽 인간의 진리이다, 그리고 '대머리'=그것을 거두어 가버림.

* '잘 깎은 일(머리)'=과학적 진리. '대머리'=진리의 총명과 사랑의 지혜가 제거됨.

미1:16-이로부터 대머리는 지나칠 정도로 보기 흉한 것으로 그들에게 여겨졌다. '대머리로 만들고 그것을 더 넓히는 것'=최말단들에 있는 진리를 거짓화 하는 것. 유대인들이 했듯, 이렇게 왜곡할 때, 말씀 전체는 파괴

되어진다.

왕하2:23,24-'엘리사'는 말씀 측면의 주님을 표현했다. 그리고 '대머리'는 글자 의미가 결여된 말씀, 고로 어떤 것(의미)도 있지 않은 말씀을 의미했다.

*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씀 측면의 주님을 표현했다. 이는 신성한 진리이다. 이 진리는 첫째되는 원리로부터 최말단들 안에서 거룩함과 강함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거됨이 '대머리'이다.

이15:2-'모든 그들의 머리들에 대머리가, 모든 수염은 깎이고'=어떤 총명도 없다.

이22:12-'그 날에 주 여호와께서 슬피 울며 통곡하고, 대머리가 되고 삼베옷을 걸치라고 요구하실 것이다.' 교회의 황폐함이 묘사되어지고 있다...선에 대한 모든 애착이 (파괴되어진 데 따른) 애통함이 '대머리'에 의해 의미되고, 진리에 대한 모든 애착은 삼베옷으로 묘사되고 있다.

겔27:31-'선장은 네 위에서 대머리를 권유받을 것이다'. '대머리를 입음'=총명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이 파멸됨 때문에 통곡함.

암8:10-'머리가 벗어짐'=진리를 이해함이 파멸됨 때문에 통곡함.

이15:2-'진리를 이해함이 그들에게 존재치 않게 되었고, 진리에 대한 지식 역시 그러했다는 것이 '모압의 모든 머리들은 대머리로, 모든 수염은 면도했다'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이3:24,25-'잘 깎아 늘어뜨린 일(머리) 대신 대머리'에 의해 지식 대신 소리 없음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미1장-교회의 진리들이 파괴됨 때문에 슬퍼함이 '대머리를 권유하고 퍼뜨림', 그리고 '수염을 깎음'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그이유가 머리털은 최말단들에 있는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 그리고 최말단들에서 진리들이 결핍된 이들은 내향의 진리들 역시 결핍되기 때문. 이로부터 영계에서,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없는 이들은 대머리로 나타난다.

대신 (prince)

* 제 1인 자(prince)를 보라.

대야 (laver)

왕상7:30-33-열(10) 대야, 또는 받침들 (솔로몬의 성

대신-대야-대저택-대접

전 근처)에 의해 진리의 저장소(용기, 그릇)가 의미된다. 이를 수단으로 인간은 순수해지고 거듭나진다.

출30장-대야와 씻는 것에 의해 모든 예배에서 첫째인 악으로부터 순수해짐이 의미된다.

출30:18-'너는 놋쇠로 대야를 만들라'=인간의 자연 평면의 선, 이 안에 순수해짐이 있다. (그이유가) '대야', 이 안에는 씻기 위한 물이 있다=인간의 자연 평면.

출30:18-대야가 '회합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놓여진 이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손과 발을 거기서 씻는 이유는 심정의 순수해짐, 그리고 거듭남, 본질적 측면에서 선과 진리의 결합이 표현되도록 하려해서 엮기 때문이다. 이 결합은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을 통하여 결과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물과 영에 의한' 인간의 거듭남에 의해서도 뜻해진다.

창30:28-'(너는 그것 가지고) 대야와 그것의 받침을 (기름바르라)=순수해짐과 거듭남의 표현. (그이유가) 씻는 것이 대야에 있는 물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순수해짐과 거듭남의 표현. 그리고 '대야'=인간의 자연 평면.

대저택 (mansion)

창6:14-방주에 있는 '대저택'=인간의 두 부분, 즉 의지와 이해성(이해함)이다.

* 천국의 사회들은 주님에 의해 '대저택들'이라고 불리운다.

대접 (vial)

계5:8-'향이 가득한 금대접들'=신앙으로부터의 선들. (=영적 선들로부터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고백함. '대접들'=그것들에 있는 향과 같다.) (=영적 선들로부터의 고백. 그이유가 '금대접들', 또한 '향로들', 그리고 향-상자들이라 불린다=선으로부터의 진리. 그이유가 모든 그릇들 같이 '대접들'=진리들. 그리고 이 그릇의 재료인 '금'=선.)

계15:7-'일곱 대접들'=일곱 재앙들과 같다. 그이유가 재앙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 대접들이 천사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취급되는 주제가 악과 거짓들이 드러내지게 하기 위하여 교회 안으로 진리와 선의 유입이 있기 때문. 그리고 발가벗은 선들과 진리들은 안으로 흐를 수 없다, 그이유는 그들이 받지 않기 때문, 그러나 옷입혀

진 진리들, 즉 글자 의미로 입혀진 선들과 진리는 받아 들여진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안쪽으로부터 최말단쪽으로 운행하신다. 이것이 천사들에게 대접이 주어진 이유이다. 이를 수단으로 진리들과 선들을 담은 그릇이 글자 의미 같은 것임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거짓들과 악들은 드러내진다.

계15:7-'대접들은 하느님의 노염으로 가득차 있다'라고 말해진다. 그이유는 그것들이 재앙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 이를 수단으로 교회의 악들과 거짓들이 의미된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악들이나 거짓들, 노염들로 가득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교회의 악들과 거짓들을 드러내 보여줄 수단인 말씀으로부터의 순수하고 진짜인 진리들과 선들로 가득차 있다. 게다가 그것들은 실제로는 그것들 안에 진리들과 선들을 담은 대접도 아니다, 그러나 이 글자를 수단으로 천국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유입됨이 의미된다.

계16:1-'가서 땅 안으로 하느님의 노염의 대접들을 쏟아라'=교리에 관련해, 생활에 관련해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이 있는 개혁(the Reformed)의 교회 안으로 유입됨, 그리하여 그들로부터 진리들과 선들을 거두어 가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지닌 악들과 거짓들을 열어보이기 위하여, 그리하여 그들을 주님을 믿는 이들, 그분으로부터 선행과 선행으로부터의 신앙에 있는 이들을 분리하기 위하여서이다. 이것이 이 장에 포함된 것의 요약들이다. '대접을 쏟는 것'=유입. '일곱 마지막 재앙들로 가득한 일곱 대접들'=그들의 황폐해짐과 극점에 도달함.

계16장-'하느님의 노염의 대접들이 땅으로 쏟아졌다'=교회에 범람하고 파괴한 거짓들.

계16:2-'땅 위에 대접을 쏟는 것'=일반적 측면에서 교회의 상태가 명명백백해짐.

계17:1-'일곱 대접들을 가졌던 일곱 천사들 중의 하나가 왔다'=교황 절대주의자와 더불어 교회의 상태.

더끼이 (scum)

찌끼 (froth)

거품 (foam)

겔24:11-'숯불에 텅빈 술을 놓아라...그로부터 더끼이가 소멸될런지 모른다.' '텅빈 술'=불결함과 더끼이인 것,

더하다-던지다-(아래로)던지다

즉 악과 거짓.

겔24:6-‘피흘리고, 술 안에 더경이가 있는 도성은 슬플 지어다. 그리고 이들의 더경이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들 이여.’ 여기서 ‘술’=선을 모독함으로부터의 악이 있는 도성, 또는 백성들. 악은 그것으로부터의 더경이다. 선을 모독함이 남아 있는 ‘더경이’이다.

호10:7-‘그녀의 왕은 물들 위에 있는 거품(foam)같다.’ ‘물 위의 거품’=진리들로부터 분리되고 텅빈 것.

을1:12-‘그는 ...내 무화과나무를 찌기가 되게 했다.’ ‘찌끼’=안에 진리가 없는 것.

* ‘무화과나무를 찌끼로 되돌리는 것’=자연적 진리들의 파멸.

더럽 안 탄 (unspot, immaculate)

계14:5-‘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더럽 안 탄 이 들이다’=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있었기 때문에. ‘더럽 안 탄’에 의해 거짓들에 있지 않은 이들이 의미된다. 그 결과 진리에 있는 이들. 그이유가 ‘더럽’=거짓들, 적절하게, 악으로부터의 거짓.

더럽히다 (defile)

창34:5-‘야곱은 그가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들었다’=합법적이지 않은 결합. 결혼을 더럽힘=합법적 이 아닌 결합.

겔9:7-‘집들을 더럽히고 죽은 자로 뜰을 채우는 것’= 선들과 진리들을 모독하는 것.

숙3:3-‘더럽힌 옷’=악으로부터 있는 거짓들을 수단으로 진리가 더럽혀짐.

시79:1-‘거룩함의 성전을 더럽힘’=예배를 모독하는 것.

더레리스 (Talaris)

* (발목 까지 내려오는 옷)

계1:13-‘더레리스로 옷입고...’=진행하는 신성, 이는 신성한 진리이다. 더레리스가 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말씀에서 의복(vestment)=진리들. 이로부터 ‘더레리스’, 이는 일반적 의복인 바, 주님을 서술할 경우,=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와)더불어 (with)

* 내적 생명은 인간 안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있다. 그이유는 주님의 생명은 선행이다, 이는 인간 안에 있지 않기 때문, 그이유는 인간은 추잡하기 때문,

따라서 인간과 더불어 있다.

요1:1-‘하느님과 더불어’=하느님 안에.

요17:5-‘너와 더불어’=네 자신 안에.

창31:3-‘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필시 신성일 것이라는 것.

창39:21-‘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신성은 주님 안에 있으셨다는 것. 글자 의미에서 요셉을 취급하는 바, 그와 ‘더불어’라고 말해진다,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주님을 취급하는 바, 그분 안에 있으시다.

창48:21-‘하느님이 너와 더불어 있을 것이다’=주님의 신성한 섭리. 그이유가 주님이 누군가와 더불어 계실 때, 그분은 그를 인도하신다.

더위 (heat)

열 (heat)

이25:4-의지 측면의 시험, 이것이 열이라 불리워진다.

창8:22-‘추위와 더위’=거듭나야지고 있는 인간의 상태; ‘추위’=신앙과 선행이 없음; 그리고 ‘더위’=선행.

계16:9-‘자아를 사랑함 그리고 그것의 탐욕들이 ‘사람 들은 불로 태워졌다, 그리고 큰 열로 뜨거워졌다’에 의해 뜻해진다.

마24:20-너무 차거나 뜨겁거나 한 상태에서 곤두박질 하게 행해지지 않는 것. ‘안식일에 도망함’=너무나 뜨거운 상태에서 그들로부터 제거함.

창31:40-‘낮에는 더위가 나를 삼켰고, 밤에는 추위가...’=시험들. ‘더위와 추위’=사랑이 너무 많은 것,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것; 고로 두 극대적 상태...‘더위’=너무 많은 사랑인 이유는 영적인 불과 열기는 사랑이기 때문.

예17:6-‘그는 매우 뜨거운 장소에서, 소금 토지에서 거주할 것이다’, 즉 교회의 선과 진리를 파괴한 더러운 사랑들과 그들의 바램 안에.

계7:16-‘태양이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을 것, 어떤 열도 있지 않을 것’=이후 그들은 악 쪽으로의 욕망을 가지지 않을 것, 악으로부터의 거짓 쪽으로 욕망도 갖지 않을 것이다.

계16:8-‘불로 사람들을 그을리도록 그에게 주어졌다’=주님을 사랑함이 그들을 괴롭혔다, 그이유는 그들이 그들 사랑의 즐거움으로부터 악들의 탐욕 안에 있었기 때

더하다-던지다-(아래로)던지다

문이었다.

계16:9-‘사람들은 큰 불로 그을려졌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재앙들을 제압하는 힘을 가진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악들의 비통한 욕망으로부터 근원하는 자아 사랑의 즐거움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인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로부터 사랑의 모든 선과 신앙의 진리가 흘러든다. ‘열’에 의해 자아 사랑과 그것의 즐거움에 있는 악들에 대한 욕망이 의미된다. 이로부터 ‘큰 열로 그을려지는 것’에 의해 비통한 욕망 안에 있는 것, 고로 그 사랑의 즐거움에 있는 것이 의미된다.

이49:10-‘열’과 ‘태양’=거짓의 원리와 악을 사랑함으로부터 온 따뜻함. 그이유가 이것들이 모든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거두어 가기 때문.

예17:8-‘그는 열이 올 때 보지 않을 것이다’=그는 거짓의 욕망에 의해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이25:4-악들과 거짓들이 일어나 자아로부터 흐를 때, ‘홍수와 열’이라 불려진다. 그리고 또한 악 안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그는 구름의 그늘을 수단으로 열을 누를 것이다’=그분은 거짓의 욕망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다. ‘열’=거짓의 욕망.

예51:39-‘그들이 뜨거웠을 때’=진리들을 왜곡하고 선들에 섞음질 함으로부터의 욕망과 따뜻함.

호7:7-‘가마 같이 뜨거워지는 것’=그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의 거짓을 위해 욕망을 느끼는 것.

눅12:55-‘열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진다=그때에 신성한 선의 유입이 있다는 것. 이 구절의 말들은 또한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악으로부터의 거짓들과 다름, 또는 전투함도 의미한다. 그이유가 ‘소나기’ 그리고 ‘열’역시=다툼과 전투이기 때문.

창18:1-‘날이 따뜻함으로 자랐을 때’=사랑으로부터. ‘열’, 내적 의미에서,=사랑. 그리고 열이 날로부터이든, 해로부터이든 사랑은 언급되어지는 것들에 따라서 날의 열을 수단으로, 해의 열을 수단으로 표현되어진다. 열=사랑이라는 것은 일상 대화에서 사랑이 영적 열이라 불리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애착은 따뜻함이라 불리는 것으로부터도 분명해진다. 더 나아가 사랑과 애착은 인간의 내면들, 또한 외면들 속의 열의 어떤 종류, 그의 육체적인 것들 속의 열 까지를 명백해지게 표현한다는

사실로부터도 더 분명해진다. 그뿐아니라 그것이 그의 내면들로부터 흘러나갈 때, 그것의 근원에 다른 원천은 없다. 사랑이 이러하듯 열도 그러하다. 천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은 순수한 열로 표현된다. 모든 다른 열, 즉 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인 것, 또한 더러운 사랑들로부터 인 것은 불결하다, 그래서 다른 삶에서는 이것들은 배설물로 여겨 밖에 내다버린다.

이34:2-‘나라들에 대한 여호와와 열’=악에 반대하심.

예21:5-‘격노함, 노염, 큰 열’=선과 진리에 반대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처벌되는 악들.

더하다 (add, additament)

창4:12-‘지면의 힘을 너에게 더하지 않을 것이다’=불모해지리라는 것, 또는 무익해지리라는 것.

계22:18-‘이러한 말들에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이러한 진리들을 파괴할 어떤 것을 더함을 수단으로...

던지다 (cast)

창43:18-‘누군가가 자신을 어떤 자 위에 던지는 것(올가마를 씌우는 것)’=권능 아래로 되돌리는 것. 여기서는 절대적 권능.

출14:27-‘여호와께서는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간 이집트인들을 혼드셨다’=고로 그들은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있는 지옥 안으로 자신들을 던진다는 것. ‘바다 안을 혼드는 것’=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안으로 던지는 것.

계20:3-‘그는 그를 바닥없는 구덩이로 던졌다’=주님께서는 신앙 만에 있는 이들을 온전하게 제거하셨다는 것.

마13:41,42-그때에 악한 자는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이 ‘천사들은 불법한 것들을 그러모으고,,그들을 불가마에 던진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던지다 (dart)

* 표창(dart)을 보라.

(아래로) 던지다 (cast down)

출14장-이 장에서는 그들을 지옥으로 내던짐이 취급된다, 그이유가 지옥으로 내던짐은 정죄됨 뒤를 잇기 때문이다.

출15장-이 장에서는 다른 삶에서 선한 자에게 침투해 감염시키는 악한 자를 지옥으로 내던진 후, 주님이 경축됨이 취급되고 있다.

뒷-뒷개-뒷다

단8:10-‘군대와 별들을 땅으로 던지는 것’=천국의 선들과 진리들, 그리고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자체를 파괴하는 것.

계18:21-‘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바다로 던지며, 말하기를, 사정봐줌 없이 바빌론은 내던져졌다’=천국으로부터 나가는 주님의 강력한 유입에 의해 섞음질된 모든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과 더불어 이 광신적 신앙은 지옥 안으로 머리부터 내뿔도록 던져질 것이다.

슌1:21-‘유다의 토지에 대하여 뿔을 들어 올렸던 이방인들의 뿔들을 던지는 것.’ ‘이방인들의 뿔들’=교회를 황폐하게 하는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도록 그것들이 사라져 버려지게 하는 것.

시37:14-‘비참한 자와 궁핍한 자를 내던지는 것’=진리와 선에 무지한 이들을 약용하는 것.

겔31:12-‘외국인들과 나라들의 광복한 자가 그를 잘라내어 내던질 것이다’=거짓들, 그리고 파생된 악이 합리성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

시141:6-‘그들은 바위들의 장소를 통하여 내던져졌다’=그들은 그들 자신의 거짓들 안에 있게 해서 그것에 의거 지옥 안에 거주한다.

이1:30-‘너는 앞들이 내던져진 상수리나무 같이 있을 것이다’=어떤 과학적 진리도 더 이상 없다는 것.

이43:14-‘그들의 가로장(bar)들을 내던지는 것’=거짓으로부터의 그들의 원리들, 그리고 진리들을 황폐하게 하는 거짓.

시55:23-‘당신, 오, 하느님은 구덩이의 우물 안으로 그들을 내던지실 것이다’=이런 종류의 파괴적인 거짓들이 있는 지옥 안으로.

계18장-‘고로 바빌론은 사정봐줌 없이 내던질 것이다’=교리가 통제로 파멸됨.

(앞으로) 던지다 (cast forth)

출4:3-‘땅에 (네 막대기를) 던져라’=감각적인 것 안으로 주님의 신성한 자연 평면의 힘이 유입됨. ‘던지는 것’, 또는 가게 하는 것=진행되는 것, 고로 유입.

계12:4-‘그들을 땅에 던지는 것’=파괴하는 것.

출7:9-‘네 막대기를 가져가라, 그리고 그것을 바로 앞에 던져라’=보여지는 능력. ‘바로 앞에 던지는 것’=보

여주는 것.

출15:1-‘말과 승마자를 그분은 바다로 던지셨다’=단지 그분이 현존만 해도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은 지옥 안으로 떨어지고 던져졌다.

출15:25-‘그는 (나무를) 물들 안으로 던졌다’=이를 가지고 그는 진리들에 영향을 주었다.

출32:19-‘그의 손으로부터 돌판들을 던졌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뜨렸다’=순수한 외적 의미를 파괴하는 것.

계8:5-‘천사는 향로를 가져와 그것들을 제단의 불로 채웠다, 그리고 그것을 땅으로 던졌다’=천적인 사랑이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랑, 그리고 더 낮은 것들 안으로 그것의 유입, 거기에는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던 이들이 있다.

계12:9-‘큰 용이 내던져졌다는 것’=용에 의해 의미된 이들, 주님으로부터 자신들에게로 돌아선 이들, 그리고 천국으로부터 세상으로 돌아선 이들.

계12:9-‘그는 땅으로 내던져졌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더불어 내던져졌다’=영들의 세계 안으로.

계12:13-‘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던져진 것을 보았을 때’=용의 추종자들, 그들이 영들의 세계로 내던져진 이후.

이34:3-‘내던져지는 것’=지옥에 떨어지는 것.

마11:23-‘너는 바다로 던질 것이다’=지옥으로 내던지는 것, 거기로부터 그것들은 온다.

이14:19-‘너는 네 무덤 쪽으로 내던져진다’=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계12장-‘그는 그들을 땅으로 던졌다’=그것들을 소멸하고 파괴함.

덤불 (ticket)

얽혀 있는 (entangled)

창22:13-‘덤불에 잡힌’=과학적 자연 평면에 얽혀있는...이 의미는 ‘덤불’=과학적인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분명해진다.

* 과학물들, 말씀에서 ‘덤불들’이라 불리는데, 그이유는 그것들이 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을, 거짓의 원리들을 발산할 때,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 천적이고 영적인 사랑은 외적 기억으로부터 있는 과학물들을 질서 안으로 배치한다. 그러나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질

덮-덮개-덮다

서를 뒤집는다, 그리고 거기 안의 모든 것들을 혼돈 안으로 내던진다. 인간은 이런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는 질서를 왜곡된 질서 안에, 즉 악 안에 선을, 거짓 안에 진리를 놓기 때문. 이로부터 이런 것들은 덤불 안에 있다. 그리고 과학물이 있는 외적 기억으로부터 있는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것이 있는 내적 기억에 있는 것들과 비교해볼 때 그것들은 '덤불' 안에, 뾰뾰한 숲 안에 있는 것이다.

* '상수리나무' 역시 엮혀진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오류적이고 거짓된 것 까지도 의미할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연 평면의 가장 낮은 것이 신체의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고로 오류로부터 그것의 과학적인 것과 쾌락을 끌어내는 한, 상대적으로 엮혀있고 오류적이기 때문. **출14:3**-'그들은 토지에서 엮혀져 있다'=그들은 교회의 것들에 관련하여 혼동에 있다는 것.

이10:34-'숲의 덤불들'=과학물들.

덮 (snare)

출10:7-'덮으로 있는 것'=자신의 악을 수단으로 취해지는 것, 고로 벌받도록 악 안으로 데려와지는 것.

출23:33-'네게 덮으로 있을 것이다'=악들의 사기와 유혹.

출34:12-'덮으로 있는 것'=자신의 악과 거짓에 의해 유혹되고 초래되는 것.

시18:5-'죽음의 덮'=시험들.

시11:6-'덮, 불, 유행'=거짓으로부터의 악,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유혹하는 악과 거짓들).

덮개 (veil)

* 휘장(veil)을 보라.

덮다 (cover)

덮개 (covering)

창9:23-'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어드렸다'=그들은 이런 것들을 너그러이 봐주었다는 것.

이29:10-'그들이 진리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할 때, 아무 것도 보지 못할 때 선견자들이 '덮혀'진다고 말해진다.

창38:15-'덮는(싸는) 것'=감추는 것.

출3:6-'모세는 자기 얼굴을 덮었(가렸)다'=내면들이 보호되는 것.

출8:6-'이집트의 토지를 덮었다.' '덮는' 것이 자연적 마음에 관련해 말해지는 바,=거짓들로 채워졌다는 것, 그로부터 추론했다는 것(개구리들).

출14:28-'병거와 마병을 덮었다'=그들 자신의 거짓들이 그들을 감추었다.

출15:10-'바다가 그들을 덮었다'=모든 거짓들이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출16:13-'진영을 덮었다'=모든 자연 평면을 매웠다.

겔1:11-'날개들이 그들의 몸을 덮었다'=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을 덮었다.

출25:20-'그들의 날개들로 자비석을 덮고 있다'=영적인 것들이 안에서 덮고 있다.

출26:13-'덮는 것'=보호하는 것.

출28:42-'벌거벗음의 살을 덮는 것'=사랑의 내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것은 더럽고 지옥적이다.

신23:13-'그들이 '이것을 덮게'된 이유는 지옥에 있는 그와같은 모든 장소들이 덮혀지고 닫혀졌기 때문.

창7:19-'모든 높은 산들이 덮혀졌다'=선행으로부터의 모든 선들이 소멸되었다.

창38:14-'그녀는 자신을 덮었다'=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이유가 '덮는 것'=감추는 것.

출26:36-'천막의 문이 되는 걸어두는 가리개(hanging)'=선과 진리의 나타남들. 이것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들, 이 안에 둘째 천국의 천사들이 있다. 이 덮개를 위해 다섯 기둥과 기초가 세워졌는데, 이 숫자를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적음(little)이 의미된다.

출27:16-'뜰의 문이 되는 걸어 두는 가리개(hanging)'=선과 진리의 나타남들. 이는 가장 낮은 합리성으로부터 있다, 이 안에 첫째 천국의 천사들이 있다. 그것의 기둥들은 금으로 덮지 않고 은으로 에워쌌다. 그리고 그것들의 기초들은 놋쇠로 되었다.

출21:10-'그녀의 덮개', 또는 의복=외면의 생활을 지지함. 그이유가 영적 의미에서 '덮개', 또는 의복=더 낮은 과학물들, 그리고 이것들은 인간의 외면의 생활을 영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출22:27-'이것은 그의 유일한 덮개이기 때문이다'=감각적인 것들이 내면의 것들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덮개', 또는 옷=감각인 것.

데겔-데라-데려오다-데마-데만-데바

이4:5-‘낮에는 구름, 밤에는 연기, 그리고 덮개’=신성한 진리로 베일을 씌움. 고로 납득하는 수준에 맞추어 (신성한 진리가) 숙박함.

출26:14-‘너는 천막을 위한 덮개를 만들 것이다’=범위, 영역(a compass). 그이유가 붉은 숫양의 가죽으로 만든 이 덮개는 천막을 주위와 위 쪽의 범위를 만들었기 때문.

출26:14-‘그 위에 오소리의 가죽들로 덮개를...’=그것의 바깥쪽. ‘덮개’=범위.

출26:36-‘너는 천막의 문이 되는 걸어 놓는 가리개(hanging)를 만들 것이다’=첫째 천국을 둘째 천국과 하나로 되게 하는 매체.

출27:16-‘뜯의 문으로 사용되는 걸어두는 가리개(hanging)=이 천국 안으로 소개함, 그리고 준비된 자 외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지킴.

겔28:13-글자 의미에서 그러하듯 선으로부터 명백해진 진리들이 이 귀한 돌들에 의해 의미되는 바, 그것들은 그의 ‘덮개’라 불리운다.

창20:16-‘이것은 너에게, 너와 더불어 있는 모든 이에게 눈들의 덮개이다’=합리적 진리들은 영적 진리들에 의복, 또는 덮개로서 있다는 것.

창49:11-‘포도의 피 안에 그의 덮개가...’=그분의 지적인 것은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이라는 것. ‘덮개’=지적인 것. 그이유가 덮는 것은 담은 그릇 같이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

출34:33-‘모세의 얼굴에 ‘덮개’를...=율법의 외부.

출34:34-‘그는 밖으로 나갈 때까지는 덮개를 제거했다’=그 당시 계발되는 상태.

이25:8-‘모든 나라들 위에 있는 덮개’

데겔 (tekel)

단5:27-‘데겔’, ‘저울에서 무게를 담은 선을 서술해주고 있다.

* ‘데겔’, 또는 ‘무게를 다는 것’=손에 관련한 그것의 품질을 아는 것.

데라 (Terah)

* ‘데라’는 그것의 조상인 데라로부터 명명된 나라였다. 이 나라를 수단으로 우상 숭배가 의미되어진다.

창11:27-‘이들은 데라의 출생들이다’=표현 교회에 내

려와진 우상 숭배의 기원과 갈래들...여기서 홍수 후 셋째 교회가 취급되고 있다, 이 교회는 둘째 교회가 데라에서 우상 숭배 나라로 되어 갔을 때 그 뒤를 따랐다. 데라, 아브람, 나훔, 하란은 우상숭배자들이다...

창11:31-‘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 하란의 아들 롯... 그리고 사래를 데리고...갈대아의 우르로부터 가나안의 토지로 가기 위해 나아갔다’=우상 예배 안에 있던 그들이 그들로부터 표현 교회가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관해 훈육되어졌다는 것.

창11:32-‘그리고 데라의 날들은 205년이였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우상 예배의 기간과 상태. 이 우상 숭배의 끝. 그리고 아브람을 통한 표현 교회의 시작.

데려오다 (bring)

* 가지고 오다를 보라.

데마 (Tema)

창25:15-‘데마’ 등등 (이스마엘의 아들)=영적 교회와 더불어 있는 모든 것들, 특히 이방인들과 더불어.

이21:14-‘데마의 토지의 거주민들’=단순한 선에 있는 이들, 마치 마음씨 고운 이방인들과 같다.

예25:23-‘데마’에 의해, ‘아라비아’에 의해서와 같이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데만 (Teman)

합3:3-‘하느님이 데만으로부터 오셨다’=천적 사랑에 관련한 주님의 신성한 인간.

예49:20,21-‘에돔의 몰락의 소리에, 그리고 데만 거주민의 소리에 땅이 전율하였다’=교회는 이런 악들과 거짓들에 의해 바뀌었고 멸망했다.

데바 (Tebah)

창22:24-‘그녀는 데바, 가합, 다하스, 마아가를 낳았다’=(우상적인 예배와 선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다양한 광신적 신앙들, 그리고 파생되는 예배들..

도갈마 (Togarmah)

창10:3-‘고멜의 아들들: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외적 예배를 가졌던 이들, 그러나 이 예배는 ‘고멜’ 나라에 존재했던 예배로부터 파생되었다.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는 외적 예배가 있었던 아주 많은 나라들이었는 바, 이 나라를 수단으로 아주 많은 교리물들, 의식들이

도갈마 - 도구-도금양-도끼-도단-도둑-도둑질-도망(자)

의미되었다. 이것은 고벨과 더불어 외적 예배로부터 파생되었다.

겔27:14-‘도갈마의 집’은 (천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영적인 것에 관한 의식(rite)들을 가졌다.

겔38:6-‘도갈마의 집’, 반대 의미에서 =악용된 교리물들.

도구 (tool)

* graving tool을 참조하라.

도금양 (myrtle)

이41:19-‘삼목, 도금양, 기름의 나무’=내면의 인간의 선들과 진리들.

이41장-‘도금양과 기름의 재목’=영적 선과 천적 선.

이41장-‘사막에 싯다(shittah)의 삼목, 도금양, 그리고 기름의 나무를 놓을 것이다’=합리적인 진리와 그것들에 대한 지각을 줄 것이다. ‘도금양’=보다 낮은 합리적 진리.

도끼 (axe)

출20:22-‘연장, 정, chisel’=예술에 의해 변형시킨 진리, 고로 자아로부터 각색된 진리...‘정’ 대신 말씀의 다른 곳에서는 ‘쇠’, ‘도끼’가 언급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연장들에 의해 인간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것들, 예술에 의해 변형된 것들이 의미되어진다.

신19:5-‘그가 그의 동료와 함께 나무를 자르러 숲에 올 때, 그리고 그의 손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려 내려침이 빗나갈 때, 그래서 죽은 그의 동료를 발견할 때’...연장(tool)=과학적인 것, ‘돌, stone’=신앙으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거짓. 도끼의 쇠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20:4-‘예수의 증거와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도끼로 처죽임을 당한 혼들’이란 한층 더 낮은 땅에 주님에 의해 숨겨져왔었던 사후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이 ‘도끼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해지는 이유는 그들은 외형상으로는 신성한 예배 안에 있지만 실상 자기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자기의 기발난 착상으로부터의 거짓들에 파묻혀 사는 이들에 의해 거절당한 이들이기 때문.

예10:3, 46:22, 시74:5-7, 신20:9-‘도끼’에 의해 인간 고유의 총명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그이유는 ‘철’이 최말단들에 있는 진리, 즉 감각적 진리라 불리는 진리

를 의미하기 때문, 그리고 이 진리가 합리적 진리와 영적 진리로부터 분리될 때, 거짓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인간 고유의 총명으로부터의 거짓인 이유는 감각적인 것은 자아 안에 있기 때문.

삼하12:31-‘쇠 도끼’에 의해 지옥에서 몽상을 통하여 사용을 만드는 것 같은 도구들이 뜻해진다.

예10장-‘도끼’=선을 파괴하고 악을 확증하는 거짓.

신19장-‘도끼’=거짓...그러므로 이 명령이 의미하는바, 만일 누군가 자연적 선 안에 있는데, 그가 거짓인 줄 모른채 거짓 가지고 누군가의 혼을 파괴할 경우, 이것은 실수로 벌어진 일로 가늠될 것이다.

도단 (Dothan)

창37:17-‘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그들은 자신들을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교리의 특별한 것들로 향하게 했다는 것. ‘도단’이 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말씀의 다른 문맥으로부터 확증적으로 말해질 수는 없다. 그이유가 오로지 왕하 6:13로부터만 언급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단’=말씀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엘리사가 있었던 도단=말씀으로부터 선과 진리에 대한 교리적인 것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미이지만, 단지 교리의 특별한 것들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경우, 반대 의미인 거짓 원리들로부터의 특별한 것들.

창37:17-‘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 쪽으로 갔다 그리고 그들을 도단에서 발견했다’=그들은 거짓 원리들의 특별한 것들에 있었다는 것.

도둑 (thief)

도둑질 (theft)

* 훔치다(steal)를 보라.

도망(자) (fugitive)

창4:12-거짓과 이로부터 파생된 악이 ‘땅에서 방황자와 도망자’이다.

*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이다’는 것=진리와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임은 ‘방랑’과 ‘도망’의 의미로부터 분명해진다.

도망함 (flight)

막13:18-‘도망’=마지막 때, 또한 인간이 죽을 때 모든

독생자 -독수리

사람의 마지막 때.

마24:20-‘너의 도망감이 겨울에 있지 않도록, 그리고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해라’=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무턱대고 재촉하여 잘못 거행되지 않도록 사랑의 선으로부터 그리고 순진의 상태에서부터 옮김. ‘도망함’=사랑의 선과 순진의 선의 상태에서부터 옮김. ‘겨울에 도망함’=너무 많은 추위의 상태에서 그들로부터 옮김. 이 추위는 사랑의 선과 순진의 선에 반감이 있을 때 발생한다. 이는 자아 사랑에 의해 도출되어진다. ‘안식일에 도망함’=너무 많은 열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로부터 옮김. ‘열’=내부에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거룩해 있을 때 발생한다.

도벳 (Tophet)

예19:11-‘그들은 도벳에 매장할 것이다, 그이유는 매장할 장소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모든 진리들과 선들이 소멸되어 버린 곳.

이30:33-‘도벳’=교회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을 파괴하는 끔찍하고 맹렬한 사랑을 지배하는 지옥, 특히 순진의 선들을 파괴하는 맹렬한 탐욕을 통치하는 곳.

도장 (signet)

* 봉인(seal)을 보라.

(...에)도착하다 (reach)

창47:9-‘...그들의 해들의 날들에 도달하지 않았다.’=...상태로 승강하지 않았다는 것. ‘도달하는 것’=승강되어지는 것.

출12:22-‘너는 상인방과 두 문설주에 도달하게 하라.’

계18:5-‘그녀의 죄들이 천국에 까지 도착했다’=그들의 악들은 천국을 단아걸게 했다. 그이유가 악들이 천국에 도달할 때, 그들은 그것을 단는다.

독 (poison)

신32:33-‘용들의 독, 그리고 독사의 담즙’=말씀의 왜곡된 진리들로부터 야기되는 거대한 거짓.

신32:24-‘땅의 기어다니는 것들의 독’=영적 생명을 죽이고 소멸하는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들.

독사 (viper)

* serpent도 참조.

이11:8-‘젓 먹는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서 놀 것이다.’ ‘독사들’=최고로 사기적인 이들.

마12:34-그들이 말하는 진리들 안에 거짓이, 그들이 행하는 선들 안에 악이 감추여 놓여 있는 바, 이것이 감추인 독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독사의 후손’이라 불린다.

이59:5-‘독사가 부화되어진다’

이11:8-‘독사의 구멍’=사기치고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 지옥, 거무스름한 구멍들 같이 나타나는 입구들.

이30:6-‘독사, 그리고 날아다니는 불-뱀’=미혹하고 교활하게 감각적으로 추론하는 것.

독사 (arrow-snake)

창49:17-‘작은 길 위의 독사’=선에 관하여 진리로부터 추론함... ‘독사’=선에 관하여 추론함...그이유가 뱀=추론함, 그러므로 ‘독사’=전방을 향하여 자체를 던지는 것. 즉 진리로부터 선으로. 그이유가 ‘단’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이들과 더불어 진리는 아래쪽이고 선은 위쪽에 있기 때문.

독사 (asp)

창49:17-‘단은 길 위에 있는 뱀, 작은 길 위에 있는 독사일 것이다...’ ‘단’, 여기서=확언적인 진리, 그러나 이 진리가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진리에 관하여 추론할 때, 이는 ‘길 위의 뱀, 작은 길 위의 독사’라고 말해진다.

시58:4, 140:3, 59:5, 욥20:16, 신32:33-말씀에서 독(poison)은 속임, 사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독 있는 뱀들, 즉 ‘독사(asp, viper)’는 사람을 속임, 사기적임을 의미한다.

창49:17-‘길 위의 뱀, 작은 길 위의 독사’에 의해 진리에 관하여, 선에 관하여 감각적 평면이 의미된다.

신32:33-‘포도주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와 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속에 악을 담은 외적인 포도주일 때,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고, 독사의 참담한 담즙이다’라고 말해진다.

욥20:14,16-그들의 선이 악에게 침투당했다는 것, 그리고 내쫓겼다는 것이 ‘그의 빵은 그의 창자에서 변하였고, 그 한가운데에서 독사의 담즙이 되었다’에서 의미되었다... ‘독사의 담즙은 선이 악과 혼합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거짓에 의해 내쫓겼다는 것도 의미된다...이 거짓이 ‘독사의 독’에 의해 뜻해진다.

시91:13-교회의 진리들을 황폐해지게 하는 내, 외면의

독생자 - 독수리

거짓들을 파괴하는 것이 '사자와 독사를 밟고 다님'에서 의미되고 있다.

신2:33-'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 그리고 독사의 무자비한 답습'이라 불린다는 것= 야곱의 후손과 더불어 교회의 진리는 지옥의 악들과 거짓들을 담고 있는 외적인 것 뿐이었다는 것. '용'과 '독사'는 감각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적 인간의 최말단이고 그것들을 확증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악들과 거짓들로 가득차 있다.

독생자 (Only-begotten)

* 신성한 인간에 관련한 주님이 '독생자'라 불리우신다.

요1:18-'독생자 아들'은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을 뜻한다.

* 시간 안에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탄생하신 아들이 하느님의 유일한 아들, 그리고 독생자 이시다.

예6:26-'독생자의 슬픔을 네게 만드는 것.'

독수리 (eagle)

신32:10,11-'그분은 그를 인도하셨고, 훈육하셨으며, 눈의 눈동자 같이 그를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등지를 휘젓고, 어린 것 위에서 퍼덕거리고, 날개를 펴고, 그를 데려온다, 그리고 그를 그것의 날개 위에 운반한다.'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을 가르침이 여기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독수리에 비교되어진다. 여기서 '독수리'=합리적인 것.

이40:31-독수리 같이 강한 날개로 올라가는 것'=진리를 이해함이 성장하는 것, 고로 합리성에 관련하여.

겔17장에서-처음 언급된 독수리=신성으로부터 계발된 합리성. 그리고 두 번째 장소에서 언급된 독수리=감각적이고 과학적인 것들로부터의 추론들을 수단으로 악용한 자아로부터의 합리성.

단7장에서-교회의 첫 상태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에 의해 묘사되어진다=자아로부터의 합리적인 것들.

겔1:10, 10:14-'독수리의 얼굴'=빈틈 없음, 이로부터 섭리.

출19:4-'나는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들 위에서 실어날랐다'=고로 진리들을 수단으로 그들은 천적인 빛 쪽으

로 승강했었다는 것. '독수리'=진리에 관련한 합리성. 그이유가 독수리들은 높이 날기 때문.

겔17장에서-주님에 의한 영적 교회의 건설이 묘사되어진다. 거기서 '독수리'=신앙. 교회의 외적인 것이 이 독수리에 의해, 교회의 내적인 것이 저 독수리에 의해 묘사되어진다.

계4:7-선 그리고 거기로부터 내적 형체에 있는 진리가 '사람의 얼굴'과 '날고 있는 독수리'에 의해 의미된다.

겔17장-영적 교회가 지각으로부터 '독수리'라 불리운다.

겔17장-'날개들을 가진 큰 독수리'=영적 교회의 내면의 진리.

계4:7-'네째 동물은 날고 있는 독수리 같았다'=지식들과 이로부터 이해함에 관련한 말씀의 신성한 진리. '독수리'에 의해 여러 가지 것이 의미된다. 그리고 '날고 있는 독수리'는 이해함을 오게 하는 지식들이 의미된다. 그이유가 그들이 나는 동안, 그들은 알고 보기 때문.

또한 그들은 확실하게 보기 위한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다. 눈=이해함. '나는 것'=지각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내다보는 것 그리고 설비하심.

계12:14-'큰 독수리의 두 날개들이 그녀에게 주어졌다'=이 교회를 위한 신성의 빈틈없음. '독수리'=지적 측면의 봄, 그로부터 생각.

마24:28-이 신앙 쪽으로,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전가함(imputation) 쪽으로 독수리들은 함께 그러모아졌었다는 것. 여기서 '독수리들'=눈이 날카로운 교회의 지도자들.

신28:49-영들이 독수리 같이 어떤 지점(spot)을 난다는 것을 우리는 나라들(nations)로 읽는다.

이40:31-'독수리'=총명. '독수리 같이 날개로 올라감'=천국의 빛 안으로, 고로 총명 안으로 올라가는 것.

시103:5-'독수리 같이 새로워지는 것'=총명에 관련하여.

신32장-진리들로 훈육됨, 거짓들로부터 지켜주심, 그리고 그들이 천국의 빛 안으로, 고로 총명인 진리와 선을 이해함 안으로 오도록 그들의 마음의 내면을 여심이 '독수리, 높은 곳에 그것의 등지가, 그것의 어린 것을 키움, 그것의 날개로 그들을 운반함'에서 묘사되어 있

독주-돈-돈주머니-돌

다.

눅17:37-‘독수리’에 의해 진리들에 있는 이들, 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고로 참된 총명에 있는 이들, 거짓된 총명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예4:13-‘독수리들’, 여기서=인간 자신의 총명, 이 총명은 거짓들로부터 추론되어진다.

애1:9-‘독수리’, 여기서=진리들에 맞서는 거짓들로부터의 추론.

욥4절-그들이 ‘독수리’에 비교되어진다, 그이유는 ‘독수리’, 그것의 드높은 비행=인간 자신의 총명을 자랑함.

독주 (strong drink)

이28:7-‘독주’.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그르친다’=거짓들과 혼합된 진리들.

이24:9-그들이 진리들에 일치하는 모든 것들을 싫어한다는 것이 ‘독주는 그것을 마시는 그들에게 쓸(bitter)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28:7-‘이들은 포도주를 통해 그르치고, 독주를 통해 그들은 엉뚱한 쪽으로 가버린다’=거짓들을 통하여, 그리고 거짓들로부터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통하여...

이29:9-‘포도주’, 특별한 측면에서=영적 평면의 진리, 이로부터 합리적 인간의 진리. 그리고 ‘독주’=자연적 인간의 파생적인 진리.

이56:12-거짓들을 사랑하는 것, 왜곡된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첨가되는 말인즉,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독주로 취할 것이다.’

이5:11-‘독주를 뒤따르는 것’=자신들로부터 교리물들을 부화하는 것.

이5:22-‘독주를 혼합하는 것’=거짓들을 확증하는 것.

이5:22-‘포도주를 마심에서 영웅들’,=말씀 속의 진리에 섞음질하는 이들. ‘독주를 혼합하는데 힘센 자들’=그것을 왜곡해버리는 이들.

돈 (money)

마25:14-31, 눅19:13-25-‘달란트’, ‘파운드’, ‘돈’=말씀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

눅22:36-‘돈주머니’, ‘보따리(scrip, 전대)’= 그것들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즉, 말씀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

돈주머니 (purse)

눅22:35-‘돈지갑’, ‘전대’=영적 지식들, 고로 진리들.

눅22:36-‘돈지갑’=돈지갑 안에 있는 돈이나 동전과 마찬가지로 의미, 즉 말씀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돌 (stone)

이60:17-‘돌을 위해 철을’=감각적 진리를 위해 자연적 진리를.

* 인간의 가장 낮은 영적인 것이 돌에 비교된다.

합2:11-‘돌이 벽으로부터 소리친다.’ ‘돌’=이해함으로부터의 가장 수준 낮은 것.

예2:27-‘돌’=감각적인 과학 평면.

겔27:22-‘귀중한 돌’=파생되는 신앙.

이9:10-‘자른 돌’=날조한 것.

창11:3-‘그들은 돌을 위해 벽돌을 가졌다’=그들은 진리 대신 거짓을 가졌다.

신27:5-7, 여8:11, 왕상6:7-(제단의) 돌들 자체는 그 예배의 거룩한 진리들을 표현했다. 그런 이유로 제단의 돌은 다듬은 돌이 아닌 통째의 돌들로 건축하라고 명령되었다. 그리고 돌을 어떤 쇠로도 다루어지는 것도 금하여졌다. 그이유가 다듬은 돌, 철이 사용된 돌=인위적인 것, 고로 예배의 가공적인 것이기 때문. 즉, 자아로부터 인 것, 또는 인간의 심정과 생각으로부터인 것이기 때문. 위와 같은 이유에서 성전의 돌에 쇠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54:11-13-귀중한 돌들=거룩한 진리들. 이로부터 거룩한 예루살렘의 벽의 기초들은 갖가지 귀중한 돌로 장식되어졌다. (그이유가) 주님의 왕국의 기초들은 거룩한 진리들이기 때문.

예3:9-‘돌과 나무로 간음을 범하는 것’=외적 예배의 진리들과 선들을 악용하는 것. ‘돌’=이와 같은 진리.

창28:11-‘(야곱은) 그 장소로부터 돌들을 가져왔다’=이 상태의 진리들. ‘돌들’=보다 낮은 진리들, 이는 자연적 인간 속의 진리들과 같은 진리.

창28:18-‘(야곱은)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들을 가져왔다’=진리가 신성과 교통되어졌다. ‘그리고 기둥으로 그것을 놓았다’=거룩한 경계.

창29:2-‘큰 돌이 우물의 입 위에 있었다’=말씀이 닫혀 있었다는 것.

창29:3-‘그들은 우물의 입으로부터 돌을 굴렀다’=그들이 그것을 열리게 했다는 것.

창31:46-‘돌들을 그러모으라. 그리고 그들은 돌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돌)더미를 만들었다’=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그이유가 ‘돌들’=진리들. 그리고 ‘더미’=신.

여24:26,27, 창49:24-‘여호수아는 큰 돌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상수리나무 아래 거기에 세웠다. 그리고 말했다. 보라, 이 돌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이 돌은 여호와와 모든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이다...’ 확증을 만들어 준 진리가 ‘돌’이었다. 최고 의미에서 ‘돌’=주님 자신, 그 이유는 모든 진리가 그분으로부터 있기 때문. 그러므로 그분은 ‘이스라엘의 돌’이라 불린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는 돌이 증인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해진다. 그 이유는 그것이 여호와와 모든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14:19-‘구덩이의 돌들로 내려가는 것.’ ‘돌들’=가장 자리들, borders. 이로부터 그들은 ‘측면들, sides’이라고도 불린다. 그이유가 구덩이 주변은 지옥들이기 때문. 숙5:4-‘돌들과 더불어 사를 것이다.’ ‘집’=자연적 마음. 그리고 ‘돌들’=진리들.

계4:3-‘이 돌들. 말씀에 있는 모든 귀중한 돌과 마찬가지로 지인데=신성한 진리. 그리고 돌들, 일반적으로,=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창49:24-‘그로부터 목자, 이스라엘의 돌이 있다’=이로부터 영적 왕국을 위한 모든 선과 진리가 있다. ‘돌’=진리.

단2:34-여기서, ‘돌’에 의해 최고 의미에서 주님이 뜻해진다. 그리고 관계적 의미에서 그분의 영적 왕국이 뜻해진다. 돌이 바위로부터 내려내어졌다는 것=그것은 신앙의 진리로부터 엮다는 것. 그리고 신앙으로부터의 진리가 ‘돌’, 그리고 ‘바위’로 의미되는바, 이는 또한 주님의 영적 왕국도 의미한다. 그이유가 이 왕국은 신앙의 진리 안에, 그리고 이 진리로부터 파생되는 선 안에 있기 때문.

여24:26,27-고대인들은 ‘돌’을 최고 의미에서 주님으로, 그리고 표현 의미에서 그분의 영적 왕국으로 이해했다

출7:19-‘나무들에 그리고 돌들에’=선행으로부터 있는

선, 그리고 신앙으로부터 있는 진리, 모두가 왜곡됨.

출8:26-‘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을까?’=고로 그들은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를 꺼버릴 것이라는 것. ‘돌로 치는 것’=거짓들을 꺼지게 하고 삭제하는 것, 그러나 반대 의미에서 악한 자가 행할 경우, 그것=신앙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을 꺼지게 하고 삭제하는 것.

예43:9-‘큰 돌들’=거짓들.

출15:5-‘그들은 돌 같이 아래로 내려갔다(가라앉았다)’=그들은 무게로부터 떨어졌다는 것. ‘돌 같이’라고 말해지는데, 그이유는 ‘돌’은 최고 의미에서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 그러나 반대 의미에서 거짓. 그이유가 악으로부터의 거짓은 돌 같이 그것이 무거운 만큼 더 낮은 부분들을 향하여 가라앉기 때문.

숙5:7,8-‘납의 돌’=악의 거짓이 그것을 단아버림. 그이유가 ‘돌’=외적 진리. 그리고 반대의미에서, 거짓.

출17:4-‘조금 더 심하면 그들은 나에게 돌질 할 것입니다’=그들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폭력을 휘두를 때가 멀지 않다는 것. ‘돌질함’=예배 속에 있는 진리를 위반함 때문에 처벌함. 여기서는 반대 의미인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폭행을 가함.

출17:12-‘그들은 돌을 가져왔다’=질서의 최말단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그이유가 ‘돌’=진리, 여기서 질서의 최말단에 있는 진리. 그이유는 그것이 모세 아래 있었기 때문, 그리고 그는 그것 위에 앉았기 때문. 보통의 돌=보다 낮은 수준의 진리, 그러나 귀중한 돌=보다 수준 높은 진리, 또는 내면의 진리.

출19:13-‘그는 돌로 때림을 당할 것이다’=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속의 진리들은 멀해질 것이다. 그 이유가 ‘돌질’을 당하는 것=진리에 위반한 것과 거짓에 대한 벌이기 때문. 이 벌이 위쪽인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자신으로부터 하려는 이들을 수단으로 가해지는 이유는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총명들이 멀해지기 때문.

합2:19-‘돌’=거짓.

출20:22-‘너는 그것들을 다듬은 돌들로 건축하지 마라’=자신의 총명으로부터는 아니다. 그이유가 ‘다듬은 돌들’=자신의 총명으로부터인 것들. ‘돌들’=진리들. 그리고 그것들을 꼭맞게 하거나 자르는 것=자아 진리들로부터 부화하는 것, 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진리들

과 흡사 마찬가지 같다.

민35:17에서-‘돌’=신앙의 진리, 반대적으로는 거짓.

출21:18-‘사람이 자기 동료로 돌로 친다면’=어떤 과학적인 것으로 교회의 진리 하나를 약해지게 한다면. 그 이유가 ‘돌’=질서의 최말단에 있는 진리, 즉 자연 안에 있는 진리. 고로 기억 지식의 문제인 것.

출21:28-‘그것은 돌로 칠 것이다’=교회의 진리와 선을 파괴한데 따른 벌.

눅20:17-‘건축자가 거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든지 부서 질 것이다. 그리고 이 돌이 떨어지는 그가 누구든지 그를 갈아서(grind) 가루로 만들 것이다. ‘돌’=신성한 진리에 관한 주님. ‘부서지는 것’, 그분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에 관해 말해지는바=흩어지는 것, 고로 파괴되어 지는 것. 그리고 이는 진리들과 더불어, 영적 생명 속에 있는 것들과 더불어, 주님을 부정하는 이들과 더불어, 참 돌(Stone)이신 주님을 비난하는 이들과 더불어 거행된다.

단2장-‘바위로부터의 돌’이 철, 놋쇠, 등등을 조각내고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받아들임에 관련하여 교회는 거짓과 악이 말씀의 글자를 수단으로 확증될 때 멸해진다는 것, 이는 교회가 그것의 마지막 상태에 있을 때 거행된다.

출24:12-‘나는 너에게 돌 판을 줄 것이다’=법의 책, 또는 복합체로 있는 말씀.

출25:7-‘채움들의 돌들’=신앙으로부터의 선들, 영적 선들. 그이유는 채움들의 돌들은 가슴판을 위한 것이기 때문. 이를 수단으로 신앙으로부터의 선, 또는 영적 선이 의미된다.

이27:9-‘제단의 돌들이 흐트러졌다’=예배의 모든 진리들.

출28:11-‘돌 세공자’=사랑의 선. 고로 거듭나는 사람의 자발적 능력.

출28:12-‘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한 기억함의 돌들’=자비로부터 영적 왕국에서 영원히. 그이유가 예뻐의 어깨 위에 있는 기억함의 돌들=자비로부터 선과 진리를 영원히 보존함.

출28:17-‘너는 돌을 채움으로 그것을 채울 것이다’=하

나의 선으로부터 그것들의 질서에 있는 진리 자체. 그 이유가 가슴판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돌들로 채워졌기 때문. 그리고 일반적 의미에서 돌은 질서의 최말단에 있는 진리들을 의미하기 때문. 그리고 가슴판에 있는 귀중한 돌(보석)은 선으로부터 빛을 발하는 진리들을 의미한다. 하나의 선이라 말해진 이유는 모든 진리들이 있는 선은 하나의 선, 즉 주님을 사랑함의 선, 고로 주님 자신이기 때문.

겔28장에서-열거되는 귀중한 돌들은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의미된다.

출28:17-‘돌은 네 줄(row, order)이다’=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에 결합이 있다는 것. ‘돌의 줄’=그것들의 질서에 있는 선으로부터 진리들. 네 줄이 있고, 각 줄에 세 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선으로부터 모든 진리들은 결합이 있고, 고로 이 결합은 완전하다는 것을 표현한다. ‘4’=결합, ‘3’=완전.

출28:21-‘돌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 위에 있을 것이다’=모두 각각의 품질에 관련하여 따로따로의 선들과 진리들.

출27:22-‘귀중한 돌’=이런 내면적 진리들 자체.

계21장-‘귀중한 돌들’=그것들의 질서에 있는 말씀 속의 진리들과 선들, 이로부터 교리가 있고, 교리를 통하여 교회가 있다.

겔28:12,13-말씀의 글자의 의미로부터의 진리들이 예덴의 동산에 있는 ‘귀중한 돌들’에 의해 뜻해진다. ‘귀중한 돌들’=선으로부터 투명한 진리들, 이와같은 진리들은 말씀의 글자 의미에 있는 진리들이다, 그리고 이 진리들이 이런 돌들에 의해 뜻해지는데, 그것들은 그의 ‘덮개’라 불리운다. 글자 의미가 말씀의 내면들을 덮고 있다.

계17:4-‘금과 귀중한 돌로 치장했다’=영적 평면에 있는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 이는 그들과 더불어 말씀으로부터 있다.

계21:19-‘성벽의 기초들은 갖가지 귀중한 돌로 장식되었다’=새 예루살렘의 교리의 모든 것들은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취해져, 받아들임에 따라 거기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다는 것. ‘갖가지 귀중한 돌’=말씀의 영적 의미로부터 투명한 글자 의미에 있는 말씀.

겔16:40-‘그들은 돌로 칠 것이다’=교회는 거짓들을 통하여 죽을 것이라는 것.

애4:1-‘거룩함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머리에서 쏟아졌다’=왜곡되어진 (교회의 선들)로부터의 진리들.

겔28장-‘귀중한 돌’=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 이것들이 ‘덧개’라 불리운다, 그이유는 그것들은 자연적 인간 안에 있기 때문. 그리고 자연적 인간이 영적 인간을 덮고 있다.

신25:15-‘완전하고 공정한 돌’, 이는 무게(추)였다...=진리와 그것의 품질.

겔23:47-‘돌로치는 것’=거짓들을 통한 진리의 파괴. 그 이유가 ‘돌질함’=신성한 진리에 폭력을 행사한 것 때문에 야기된 처벌과 죽음.

이27:9-예배의 진리들에 관련한 교회의 파괴가 ‘횃돌이 흐트러져 있듯 제단의 돌들이 놓여 있는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단의 돌들’=예배의 진리들, ‘횃돌이 흐트러져 있듯’=응집하지 않는 거짓들 같이.

마28:2-‘천사가 돌을 굴렀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았다’=주님께서는 그분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거짓들을 제거하셨다, 그리고 신성한 진리를 여셨다. 그이유가 ‘돌’=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들을 가지고 왜곡해버린 신성한 진리. 그이유가 제일 높은 성직자와 바리새인이 돌로 막고 경비병도 붙여 놓았다’라고 말해졌기 때문.

이54:12-‘나는 바람직한 돌들에 네 가장자리를 놓을 것이다’=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있는 참 과학물들이 선으로부터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단2:35-‘큰 바위가 된 돌’=주님...‘큰 바위가 된 돌, 그리고 온 땅을 채웠다’=주님,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천국과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 신성한 진리가 여기서 ‘돌’에 의해, 그리고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이 ‘바위’에 의해 뜻해진다는 것은 말씀에서 주님을 서술할 때, ‘돌’이 지닌 의미로부터 명백해진다.

이51:1-‘바위로부터 잘라낸 돌’=주님으로부터의 진리들.

여4:1-9,20-길갈에 세운 ‘열 두 돌들’, 그리고 요르단 한가운데 세운 ‘열 두 돌들’=교회로부터의 진리들을 통하여 입문이 결과되어짐.

예43:9-‘벽돌 가마에 감추인 큰 돌’=자신의 총명으로

부터 꾸며냄을 수단으로 왜곡한 말씀 속의 진리.

미1:6-교회가 교회의 모든 진리들에 관련하여 황폐해 지리라는 것이 ‘(사마리아의) 돌들이 계곡 아래로 흐를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삼상6:18-큰 돌 위에 선물과 더불어 재가 놓여졌는데, 이 근처에서 암소가 잠자코 있었다. 그이유는 ‘돌’=질서의 최말단에 있는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

욥5:23-‘들판의 돌과 더불어 언약’=교회의 진리들과 더불어 결합.

이54:11,12-주님이 오실 때, 그분은 그들에게 신성한 진리들을 밝히 알리시고, 그들을 혼욕할 것이라는 것이 ‘나는 네 돌들을 휘안광(stibium)과 더불어 놓을 것이고, 네 기초들은 사파이어(sapphire)들로 놓고, 나는 네 작은 뽕족탑을 석류석(carbuncle)으로, 네 문들은 루비(ruby)들로, 네 가장자리들은 가지기를 바라고 싶어 할 돌로 만들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귀중한 돌들=질서의 최말단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 이는 내적 진리들이 안에 있는 말씀의 글자 의미와 같다.

욥28장-최말단의 신성한 진리들이 귀중한 돌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시102:14-여호와와 종들이 바라는 ‘시온의 돌들’=신성한 진리들.

눅3:8-‘돌’=진리들인바, 말해지기를, ‘하느님은 이 돌들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로 일으키실 수 있다.’

애3:9-자신의 총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진리의 유입을 틀어버리고 거절한다는 것이 ‘그는 다듬은 돌들로 내 길들을 막았다’에 의해 의미된다.

시102:14-회복되고 회복되어질 진리들이 ‘그녀의 종들이 바라는 돌들’에 의해 의미된다.

이5:2-‘그는 울타리를 들렀다, 그리고 돌들을 밖으로 그러모았다’=그것은 거짓들과 악들로부터 보호되어졌다는 것.

계18:12-‘귀중한 돌과 진주’=모독되어져 왔었던 말씀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귀중한 돌’=말씀으로부터 진리에 관한 지식. ‘귀중한 돌들’=선들이 있게 하는 진리들.

겔26:12-‘돌들’=자연적 인간의 진리들.

동료-동물

합2:11-‘벽으로부터 돌이 외친다’=진리들이 텅빈 사람,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가르쳐지기를 원하는 사람.

돌보다 (take care, care)

* 그러므로 모든 이는 그가 여하한 방법으로도 말씀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돌보아진다(출24:15).

* 교회 내의 모든 이는 주님을 부정하지 않도록 돌보신다(출20:10-14).

출21:9-‘그는 확실히 나을(cure) 것이다’=회복, 즉 뜻을 해석함을 수단으로.

눅10:33-35-그들이 그를 잘 돌보아주도록 한 (사마리아 사람의 말)=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아직 무지한 수준인 자기보다 더 잘 치료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돌보지 않다 (desert)

이54:6,7-‘버림받은 여인, 그리고 영이 고뇌하는 여인’=진리들에 있지 않은 교회, 그러나 여전히 진리들을 갈망하고, 진리들에 대한 애착을 간직하는 교회. ‘여인’=교회, 진리들 안에 있지 않을 때, 이는 ‘버려진다’고 말해진다. 이것이 주님께 의해 건립되어진다는 것, 영적 포로됨으로부터 해방시켜주신다는 것이 ‘잠시동안 나는 너희를 버렸으나 큰 공홀로 나는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에서 뜻해져 있다.

이7:16-교회를 돌보지 않음과 황폐함이 ‘싫어하고 돌보지 않은 토지’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겔31:12-교회의 모든 진리들이 내몰린다는 것이 ‘그들이 그를 버렸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예2:17-‘내가 나를 버렸다’=주님께 의해 개혁되는 것을 몹시 싫어함.

돌리다 (turn, turn away)

* convert, change도 참조

계11:6-‘그들은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 물들을 피로 돌린다(바뀌게 한다)’=그들과 더불어 진리들이 악으로부터의 거짓들로 돌리어진다.

예5:6-‘그들의 되돌아감(backslide)이 힘이 세졌다’=선을 섞음질함들.

마7:6-‘돌아서고 찢는 것’=치욕과 무례함을 가지고 대우하는 것.

돕다 (help)

조력자 (helper)

* aid, assist도 참조

창2:18-‘그와 함께 있을 도움’=자아(proprium)...

출18:4-‘나의 아버지의 하느님이 나의 도움이었다’=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현존과 자비.

* ‘도움’, 주님께 관련해 서술될 경우,=자비; 그 이유는 그분으로부터의 도움은 그분의 자비 속에 있기 때문. 또한 자비=현존.

겔30:8-‘조력자’=진리의 확증들.

시89:19-‘나는 강한 자에게 도움을 놓았었다’=신성한 선은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동굴 (cave)

* hollow도 참조

창19:30-‘그는 동굴에 거주했다’=거짓으로부터의 선. 동굴은 어쩌면 산에 거주하는 종류에 속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거주는 어두운 상태, 그리고 집 같은 곳에 거주하는 종류는 선들을 의미한다, 이 선들이 그들 자신들이다. 여기서는 동굴인바, 어두운 곳에 거주함, 거짓으로부터의 선이 의미된다.

왕상19:9-이사벨을 피해 도망친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는 동굴로 왔고, 그는 거기서 밤을 보냈다.’ 여기서 ‘동굴’은 내향의 의미에서 희미한 선, 즉 시험들 가운데 있는 선의 종류를 의미한다.

창23:9-‘그로하여금 막벨라의 동굴을 나에게 주도록 하라’=신앙으로부터의 희미한 것. ‘동굴’=희미한 것. 동굴이 희미한 것을 의미한 이유는 그 장소가 어둡기 때문에서이다. 산에 있는 ‘동굴’일 경우 선의 희미한 것, 그러나 들판의 ‘동굴’은 진리의 희미한 것을 말해주게 된다.

창23:17-‘막벨라’, 그것에 동굴이 연합될 때, 즉 ‘막벨라의 동굴’이라 말해질 경우, 희미함 안에 있는 신앙이 의미된다, 그러나 동굴 없이 언급될 경우의 ‘막벨라’, 그리고 ‘들판과 동굴’이 거기에 있다고 말해질 경우, ‘막벨라’는 거듭남으로 이해된다. 그이유가 ‘들판과 동굴’에 의해서 신앙으로부터의 선과 진리가 의미된다, 이 선과 진리를 통하여 거듭남이 결과된다.

창49:30-‘동굴’=희미한 것.

창50:13-‘막벨라 들판의 동굴’=거듭남의 시작.

출33:22, 예49:16, 욥3절-‘바위의 구멍들에 거주하는

동료-동물

것'=신앙의 거짓들에. 이는 자기가 타인 보다 더 배웠다고 믿고 자신을 타인 위에 두어 우쭐대는 이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거짓들 안에 있고, 진리들을 보지 못하기 조차 한다. 저 세상 삶에서 그들은 바위의 구멍들에 거주한다. 게다가 바위 밖으로 나오는 것도 때로는 거절한다. 그리고 바위 아래 구멍이나 굴 안으로 더욱 기어든다.

이11:8-'독사의 구멍과 바실리스크의 굴(den)'=사기치고 현혹하는 영들이 있는 지옥.

여10:16-'막게다의 굴'=악으로부터의 끔찍한 거짓.

동료 (companion)

창11:7-'동료의 입술을 듣지 못하는 것'=그들은 완전한 불일치이다는 것, 또는 서로가 맞서있는 것. 그이유가 이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인정 않는 것이기 때문, 그리고 내적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인정 않는 것, 또는 그의 교리를 인정 않는 것.

창31:49-'우리가 그의 동료로부터 감추인 사람일 것이나...'=교회 속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과 상대적으로 분리됨. '그의 동료로부터의 사람'=교회 내에 있는 이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들.

창38:12-'그(유다)와 그의 동료 아들람 사람 히라'=그가 아직도 거짓 안에 있었다는 것. 그가 '그의 동료'라 불리울 때, 이는 그에게 인접되어져 있었다가 의미된다.

창43:33-'사람들은 모든 이 각각이 그의 동료를 향해 (보면서) 놀라워했다'=모든 이 각각의 상태의 변화가 그들 자신 사이에 있음.

출2:13-'어찌하여 너는 네 동료를 치느냐?'=꾸짖음, 그 이유는 이쪽 사람이 저쪽 사람의 신앙을 파괴하기를 원했기 때문. '동료'=신앙의 진리 안에 있는 자. 비록 그들이 모두 히브리인이다 할지라도 그는 '형제'가 아닌 '동료'라 불리운다, 그이유는 그들은 적들이기 때문.

출18:16-'그는 나에게 온다, 그리고 나는 사람과 그의 동료 사이에서 판결한다'=그들은 밝히 알려진 진리(계시)에 의해 해결(arrange)된다는 것. '사람과 그의 동료 사이에서 판결하는 것'=진리들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

출21:35-'사람의 황소가 그의 동료의 황소를 받았을 때'=애착이 다른 두 진리들, 그리고 이쪽의 것이 저쪽의 것에 상해를 입히는 것. '사람'과 '그의 동료'=두 진

리들.

출22:7-'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은이나 그릇들을 지키라고 줄 때'=선으로부터의 진리들과 그에 상응하는 기억에 있는 과학물들. 두 진리들, 마치 진리와 상응하는 과학물 같이 사람 안에서 '사람'과 '그의 동료'이다.

출32:27-'너희는 그의 형제 사람, 그리고 그의 동료 사람, 그리고 그의 이웃 사람을 죽여라'=선과 진리에 관련하여 유입이 단핍, 그리고 그것들에 관련하는 것들의 유입도 단핍. '형제'=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 그리고 '동료'=이 선으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이웃'=그것들과 결합된 것, 고로 관련인 것.

계1:9-'당신들의 형제요 동료인 나 요한...'=선행의 선에 있는 이들과 이 선으로부터의 신앙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

예9:20-'여성 동료'=교회의 선들 안에 있는 이들.

이19:2-'그들은 싸울 것인데, 사람이 그의 형제와, 사람이 그의 동료와 (싸울 것이다)'. '형제', 그리고 '동료'는 진리인 것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선으로부터의 진리. 그러나 반대 의미에서 거짓인 것으로부터의 악,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거짓.

동물 (animal)

* 선들이 '짐승들'이라 불리우고, 천국에서 주님에 아주 가까운 이들이 에스겔과 계시록 모두에서 동물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다....네 동물들...

* 동물의 살을 먹는 것, 그것 자체로만 생각할 경우, 모독의 한 종류이다...동물을 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고기를 먹는 것이 (태고 시대에 살았던) 이들에게 사악한 것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인간이 들짐승 같이 사나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먼저 동물들을 살해하고 그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인간이 이와 같은 품성 속에 있게 되자, 그것이 허락되어졌고, 오늘날에도 허락되고 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양심으로부터 행하는 한 그것은 허용할 수 있다...

* 동물들의 생명은 사후 모두 사라져버린다.

숙14:12,15-'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적하는 모든 백성을 처죽일 재앙들일 것이다...거기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모든 짐승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그 당시 예루살렘에 맞선 그들, 즉 주님의 영적 교회,

동산

그리고 그 교회의 진리에 맞서 대적하는 그들이 이런 동물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 동물들은 재앙들로 괴롭혀지는 지적인 것들에 관하여서이다.

계4:6-'왕좌 한가운데와 그 둘레의 앞 뒤가 눈으로 가득한 네 동물들'=천국들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지적인 것들.

계4:6-'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 네 생물들'=최말 단 안에 있는 첫째 원리로부터의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의 파수병...이 동물들은 에스겔서에 있는 그룹들과 같다. 에스겔 1장에서 그들은 '동물'이라 불리운다. 그러나 10장에서는 '그룹'이라 불린다. 히브리어에서 그들은 '샤욘, Chajoth'이라 불리워지는데, 이 단어는 참으로 동물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을 지닌 '샤좌, Chaja'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이로부터 아담의 아내는 '샤좌', 즉 하와, 이와, 이브라 불리워지고 있다. 단수 명사로 동물이 에스겔서에서 '샤좌'라 불리우고 있다. 그러므로 거기서 동물들은 생명있는 창조물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님 자신도 '샤자', 그리고 자주 '어린 양'이라 불리우시고, 주님으로부터 선행 안에 있는 이들은 '양'이라 불리우는바, 말씀이 동물들을 수단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해질 필요는 없다. (=주님의 지켜주심과 섭리하심)

계7:11-'동물들과 원로들'은 보다 높은 천국들에 있는 천사들로 이해되고, 이 구절 속의 '천사'는 보다 낮은 천국들에 있는 천사들로 이해된다. 고로 천국 전체를 아울러 있는 모든 천사들로 이해된다.

신4:17-'땅 위에서 걷는 동물들'=선에 애착함, 이로부터 지혜가 있다.

계5:8-'네 동물들'=특별하게 셋째, 또는 가장 깊은 천국.

* '들짐승'이 좋은 의미 측면에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동물로 번역될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혼을 뜻한다... 이로부터 번역자들은 그룹들을 '동물들'이라 불렀다.

시104:24-27-'크고 작은 동물들'=높거나 낮거나, 일반적이거나 특수적이거나 모든 유형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동산 (garden)

* eden, paradise 참조

* 에덴의 동산, 이는 낙원이라 불리워진다.

* 천적 인간이 이와 같은 동산이다.

* '동산'에 의해 총명이 의미된다.

창3:8-'동산의 나무 한가운데'=얼마 정도의 지각이 있는 자연적 선을 의미한다는 것은...천적 인간이 들어 있었던 동산으로부터 분명해진다; 그 이유가 선하고 참된 모든 것, 각 인간이 그것을 경작하는 정도나 수준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 모두는 '동산'이라 불리운다.

* '동산'=총명, 또는 진리를 이해함.

예29:5-'동산을 심는 것'은 이해 측면에 속한다.

창13:10-'여호와와 동산 같고...'=그의 합리적인 것들... '여호와와 동산'=총명, 그러므로 합리적인 것, 이것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중간에서 중매(intermediate)역할을 한다; 합리성은 외적 인간 속의 총명이다. 합리성이 천적 수준일 때, 즉 그 근원이 천적 왕국으로부터 일 때, '여호와와 동산'이라 불리우고, 이는 태고 교회와 더불어는 경우이다....그러나 '하느님의 동산'이라 언급될 경우, 이는 합리성이 영적 수준, 즉 그 근원이 영적 왕국으로부터 일 때이고, 이는 고대 교회와 더불어는 경우이다. 인간의 합리성은 '동산'에 비교되는데, 이는 천국에서 표현되는 표징으로부터이다.

겔31:8-'하느님의 동산'=영적 왕국의 교회

예31:12-'그들의 혼은 물을 댄 동산 같이 될 것이다'... '혼'=교회 속의 사람과 더불어는 신앙의 생명, 이 사람이 '동산 같이 된다'라고 말해진다, 그이유는 '동산'에 의해 신앙 속의 진리로부터 있는 총명이 의미되기 때문이다.

이51:3-'에덴'=선이 풍부함; 그리고 '여호와와 동산'=진리가 풍부함.

예31장-그러므로 그들은 총명과 지혜를 가진다는 것이 '그들의 혼은 물을 댄 동산 같이 될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 이유가 말씀에서 '동산'에 의해 총명이 의미되기 때문이다...

암9:14-'그들이 만들고, 그 속에서 열매를 먹게 될 동산들'은 지혜를 의미한다; '동산'에 의해 총명의 모든 것들이 의미되고, '열매'에 의해 생활의 선들이 의미된다.

암4:9-'동산들'에 의해 총명과 지혜를 만드는 교회 속의 모든 것들이 의미된다.

이1:30-'동산'에 의해 인간의 합리성이 의미된다.

동의하다 - 동쪽

민24:6-‘계곡’에 의해 인간의 자연적 총명이 의미된다; 그리고 ‘동산’에 의해 인간의 영적 총명이 의미된다.

창2:10-‘동산을 적심’=총명을 주는 것.

암4:9-‘동산들’에 의해 영적 총명 속에 있는 것들이 의미된다.

이51:3-‘여호와와 동산’=(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있는 지혜.

동의하다 (agree, concord)

창13:7-‘아브람의 가족의 목자와 롯의 가족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내향의 인간과 외향의 인간이 일치하지 않았다.

창50:7-‘이집트의 모든 원로들’=진리에 동의하는 것들...‘원로들’=지혜의 주요한 것들, 고로 선에 일치하는 것들, 여기서의 경우, 진리에 일치하는 것들, 그이유가 선에 일치하는 것은 진리에도 역시 일치하기 때문.

출2:21-‘모세는 이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기꺼이 동의 했다...’누군가와 거주하는 것은 함께 사는 것, 고로 동의하는 것.

출21:8-‘만일 그녀가 자기 주인의 눈에서 악하다면’=만일 자연적 기쁨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이 영적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출23:5-‘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 아래 깔려 있는 것을 볼 때’=거짓은 교회의 선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다 (consent)

창34:15-‘동의하는 것’=접근

창34:22-‘동의하는 것’=동의(agree) 하는 것.

창34:23-‘동의하는 것’=겸손히 행하는 것.

동쪽 (east, eastward)

* oriental, quarter, rise 참조

창2:8-‘여호와 하느님께서 동쪽, 에덴에 동산을 창설 하셨다...’동쪽’=주님. 고로 ‘동쪽 에덴에 동산’=천적 인간의 총명, 이 총명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통하여 흐른다.

창3:24-‘에덴의 동산의 동쪽’=천적인 것, 이로부터 총명이 있다.

창4:16-‘에덴의 동쪽을 향하여’=이전에 사랑이 지배했던 지적 마음 근처.

창10:30-‘동쪽의 산’=주님으로부터의 선행...‘동쪽’=주님, 그러므로 사랑과 선행 속에 있는 천적인 것들.

창11:2-‘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여행했을 때’=그들이 선행으로부터 퇴조했을 때.

창12:8-‘그는 거기로부터 벨엘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했다’=주님이 어린아이 시절 일 때, 즉 사랑의 천적인 것들이 발전하고 있을 때인 주님의 네 번째 상태.

창 13:11-‘롯은 동쪽으로부터 여행했다’=천적 사랑으로부터 물러난 외적 인간과 더불어 있는 것들. ‘동쪽’=주님인 바, 이 구절의 경우, ‘동쪽’=주님의 내적 인간, 이는 신성이다. 고로 외적 인간이 내적 인간으로부터 물러났다는 것이 여기서 ‘롯은 동쪽으로부터 여행했다’로 의미되고 있다.

창13:14-‘북쪽을 향하여, 그리고 남쪽을 향하여,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그리고 서쪽을 향하여’=우주에 있는 무엇이든지 모두...‘동쪽’=옛날 속에 있었던 것들, 즉 천적인 사랑

계16:12-‘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신앙 속의 진리들.

이11:14-‘동쪽의 아들들’=선에 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선행은 아직 없는 이들.

창25:6, 열상4:30, 마2:1~2, 민22:7, 창29:1-‘동쪽의 토지를 향하여 동쪽으로’=신앙 속의 선...‘동쪽의 토지’에 의해 의미되는 신앙 속의 선은 말씀에서 이웃을 향한 선행 외에 더 다른 의미를 지니거나 불리우지 않는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선행은 주님의 훈령에 따른 생활 외에 더 특이한 것은 없다. 이것이 ‘동쪽의 토지’에 의해 의미되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선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이들이 ‘동쪽의 아들들’이라 불린다. 동쪽의 아들들의 토지는 아람, 또는 시리아 이었다. 이것=선에 관한 지식...그리고 시리아인, 또는 동쪽의 아들들에 의해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지녔던 이들이 의미된다. 그들은 열왕기상에서 ‘현자’라고 불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의 모든 아들들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났다’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동쪽으로부터 현자가 예루살렘에 왔다.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 계신가? 우리는 동쪽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 라고 말했다....그 이유가 시리아 지역에는

동쪽

고대 교회의 남은 것들이 잔존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도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도 남아 있었다. 이는 발람, 그가 시리아 지역의 동쪽의 아들들 속에 있었다는 것으로부터도 분명해진다...그 이유가 그가 자신을 두고 '모압왕 발람이 나를 시리아, 동쪽의 산들로부터 데려왔다' 하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또한 아굽이 시리아로 갈 때, 그는 '동쪽의 아들들의 토지로 갔다'라는 기록도 있다.

창28:14-'너는 바다쪽(서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퍼져 갈 것이다'=선이 무한히 팽창함; '그리고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진리의 무한한 팽창; 고로 선과 진리의 모든 상태들...'동쪽'=빛나는 것, 고로 완전한 선.

이43:5-'동쪽으로부터 씨를 가져오고 서쪽으로부터 그들을 그러모은다'=선 안에 있는 이들.

마8:11-'많은 이들이 동쪽으로부터, 그리고 서쪽에서 조차 올 것이다'=선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이들, 그리고 이런 지식에 불명료하게 알거나 무지한 이들; 고로 교회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교회 없이 있는 이들.

창29:1-'(아굽은) 동쪽의 아들들의 토지로 갔다'=사랑으로부터 진리들이 승강함.

마24장-'번개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서쪽에서 조차 나타난다'...최고 의미에서 '동쪽'=주님; 내적 의미에서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의 선, 선행의 선, 그리고 신앙의 선. 그러나 '서쪽', 내적 의미에서=존재가 중지되거나 기우는 것; 고로 주님을 인정함이 없음, 사랑의 선이 없음, 선행의 선이 없음, 신앙의 선이 없음. 고로 (이 말들)=사라짐.

사7:12-'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쪽의 아들들'=악들 안에, 그로부터 거짓 안에 있는 자들.

이11:14-'동쪽의 아들들을 망치는 것'=믿음 속의 선들을 받아 소유하는 것; 그 이유가 '동쪽의 아들들'= 믿음의 선들에 있는 이들, 그리고 선에 관한 지식을 지닌 이들을 의미하기 때문.

예49:28-'아라비아와 동쪽의 아들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지닌 이들.

출27:13-'떠오름을 향하는 동쪽의 모퉁이에서 뜰의 넓이'=선들이 있는 곳, 이 천국의 진리의 상태...'동쪽'과

'떠오름'=사랑의 선.

열상7:39-'돛쇠 바다가 남쪽과 마주 보는 동쪽을 향하여 오른쪽 어깨로부터 놓여진 이유=주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 그 이유가 주님=동쪽이기 때문.

창28:14-선이 열매를 맺음이 '그는 자신을 서쪽과 동쪽을 향하여 펼칠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겔47장-'물들이 집의 문지방 아래로부터 동쪽을 향하여 간다'=천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들...'동쪽'=천적 사랑으로부터의 선.

암8:12-'동쪽'=선이 있는 곳.

숙4:4-'동쪽'=신성한 선.

이43:5-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을 데려오고 그러모은다는 것이 '나는 네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너희를 서쪽으로부터 그러모을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숙14:8-'동쪽의 바다'=영계에서 동쪽을 향하는 최말단 끝, 거기는 주님의 강림 전, 신성한 진리의 영접이 없었다.

민3:38-'모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과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했다; 이로부터 그들의 진영은 '동쪽을 향하여' 있었다.

마24:27-주님이 '동쪽'이신 바, '번개가 동쪽으로부터 나와서 서쪽에서까지 나타나듯, 사람의 아들의 오심도 그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예48:28, 욥1:3-주님이 '동쪽'이신 바, 별이 동쪽으로부터 있었던 이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동방 사람들은 이 지식 안에 있었던 바, 그들은 '동쪽의 아들들'이라 불리웠다. 그렇게 불리운 자들이 아라비아로부터 이었다는 것은 이 구절에서 분명해진다...욥도 동쪽의 아들들로부터 었다

겔8:16, 이2:6-반대 의미에서의 '동쪽'=자아를 사랑함, 그 이유가 이 사랑은 주님을 사랑함에 반대되기 때문.

눅12:54-'떠오름'=주님의 강림.

동풍 (east wind)

창41:23-'동풍으로 말리워진'=탐욕이 가득함. 순수 의미에서, '동풍', 그리고 '동쪽'=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 이로부터 반대 의미의 경우, 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 그러므로 현세에의 욕망과 탐욕들.

동풍-돼지-되돌리다

호12:1-‘동풍을 따라가는 것’=황폐해짐을 늘리는 것.
이27:8-황폐와 시험의 상태 또한 ‘동풍의 날’이라 불리워진다.
호12장-‘바람’=거짓. 그리고 ‘동풍’=거짓이 진리들을 말라지게 하고 사라지게 함.
호13:15-‘광야로부터 동풍’=외적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있는 오류들로부터 파괴됨.
호13:15-‘동풍, 여호와와 바람’=진리들을 파괴함에 있는 자만과 사랑으로부터의 탐욕의 열의.
출10:13-‘여호와께서 동풍을 가져오셨다’=파괴의 수단들. ‘동풍’이 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말림과 사나운 비바람이었기 때문. 그리고 그것이 그 토지의 생산물을 말라웠기 때문. 그리고 그것의 광폭함에 의해 나무들이 부들부들 떨고 바다에서는 배들이 부서진다. 그러므로 그것에 의해 신성한 권능이 묘사되고 있다. 더욱이, ‘동쪽’=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 이는 그것의 근원상 가장 상냥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옥들로 내려올 때, 그것은 냉혹하고 폭풍 같이 되어간다. 이로부터 동쪽으로부터의 바람, 동풍=파괴의 수단.
출10:13-‘그리고 동풍이 메뚜기를 가져왔다’=질은 거짓을 통하여 감염되고 있는 이들에게 있는 파괴의 수단인 질은 거짓.
출14:21-‘여호와께서는 강한 동풍을 수단으로 바다가 떠나가게 하셨다’=거짓들을 흠뜨리는 수단. ‘동풍’=파괴의 수단. 여기서의 경우, 거짓을 파괴하는 수단. 고로 그것의 흠뜨림의 수단.
은4:8-‘건조시키는 동풍’=거기로부터의 거짓.
시48:7-‘동풍’=황폐와 황량함.
겔27:26-‘동풍’=천국으로부터의 유입.
겔19:12-‘동풍이 그녀의 과일을 말렸다’=그것의 선이 파괴됨. ‘동풍’=파괴.
돼지 (swine, pig)
마7:6-‘네 진주들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돼지’=세상적인 재물 만을 사랑할 뿐, 영적 재산인 말씀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하찮게 여기는 이들.
마7:6-‘돼지’=육욕적인 사람들, 이는 간음자들의 지옥들에 있는 사람들과 같다. 이들이 지옥의 결혼 안에 있는바, 그들은 선들과 진리들에 관한 지식들을 지독하게

거절하고 (그것을 아는 것을)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므로 말해지는바, ‘네 진주들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자기들의 발로 짓밟고, 그리고 돌아서 너를 찢지 않도록 (하라).’
이65:4-‘돼지의 살을 먹는 것’=지옥의 악들을 자신의 자아에 어울리게 충당하는 것.
되돌리다 (bring back)
창14:16-‘그는 모든 물질을 되돌렸다’=내적 인간은 외적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적 인간과 일치하는 상태로 환원시켰다.
창20:7-‘그러므로 지금 남자 아내로 복귀시켜라’=그는 합리성을 수단으로 때묻지 않은 교리 속의 영적 진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
창24:5-‘당신이 나왔던 그 토지로 당신의 아들을 되돌려야만 합니까?’=합리성의 신성으로부터의 선과 아직도 결합되어질 수 있는지 아닌지.
창24:6-‘네가 조심해야 할 것은 너는 그를 거기로 데려가지 않는 것이다’=결코 결합되어질 수 없다.
창28:15-‘나는 너를 이 지면으로 되돌릴 것이다’=신성한 교리와 결합. ‘되돌리는 것’=다시 결합하는 것.
창29:3-‘그들은 우물의 입에 돌을 되돌렸다(replaced)’=그러는 동안 그것은 단혀졌다.
창37:14-‘다시 나에게 말(word)을 가져오라’=지식.
창37:22-‘그를 그의 아버지에게 되돌리는 것’=교회를 위해 그것을 요구(claim)하는 것.
창40:13-‘그는 당신을 당신의 직책에 되돌릴(restore) 것이다’=지적 부분에 종속된 감각 평면 속의 이런저런 것들이 질서대로 환원되어, 그것들은 마지막 장소에 있을 것이라는 것.
창43:12-‘당신들의 자루에 되돌려 놓았던 은, 다시 너희 손에 되돌려 가져가라’=외면의 자연적인 것에서 무료로 주어진 진리를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을 힘닫는 한 복종되게 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창44:32-‘만일 내가 그를 당신에게 되돌리지 못한다면...’=그것이 영적 선과 결합되지 않으면. ‘되돌리는 것’=다시 결합하는 것.
창50:15-‘우리가 그에게 양갈음했던 모든 악을 우리에게 되갚는다’=응분의 상벌에 따라 바야흐로 막 있어지

되돌아가다 - 되사다

려는 처벌.

출15:19-‘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바다의 물들을 다시 가져왔다’=그들이 선을 위해 의도했던 악들로부터의 거짓들이 선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주님의 현존 덕택에 그들 자신에게로 되돌려졌다.

출23:4-‘그것이 그에게로 꼭 되돌아 가게 하라’=가르침과 수정함. 이런 이유는 이를 통하여 되돌려지기 때문.

미2:8-전쟁으로부터 되돌린 이들=거짓들을 추방한 이들.

암9:14-‘포로됨으로부터 백성을 되돌린 이들’=새로운 교회로 회복하는 것.

되돌아가다 (return, income)

창42:24-‘(요셉은) 그들에게로 되돌아 갔다’=유입 (influx).

창43:10-‘되돌아가는 것’=그때부터 사는 것.

출32:27-‘통과하여 되돌아가는 것’=탐사와 이쪽부터 시작하여 다른 쪽으로 빙 둘러 보는 것.

민10:36-‘되돌아 가는 것’=그 당시 주님의 현존하심.

요13:3-‘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것’=그분으로부터 생겨나와서 그분에게 하나되어지는 것.

창18:10-‘내가 너에게 꼭 되돌아 올 것이다’=신성이 인성과 결합.

창22:19-‘그들에게 되돌아가는 것’=결합되는 것.

마24:18-‘자기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선 안에 있는 이들은 교리적인 것 쪽에 자신을 기대려하지 말라.

창31:13-‘토지로 되돌아가는 것’=자신을 신성한 선에 더 가까워지게 의지하는 것.

창31:55-‘그의 장소로 되돌아가는 것’=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창43:13-‘너는 (그) 사람에게 되돌아가라’=영적 진리로부터의 삶.

창50:5-‘나는 되돌아갈 것이다’=내적 마음 안에서 현존함.

창50:14-‘요셉은 이집트로 되돌아 갔다’=과학물 안에서 천적인 내적 평면의 삶. ‘되돌아가는 것’=사는 것.

출4:18-‘모세는... 되돌아갔다’=이전의 생활이 계속되는 것.

출4:18-‘나는 내 형제에게 되돌아갈 것이다’=더 내면적으로 승강함과 영적 삶.

출13:17-‘그들이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도록)’=거짓들 안으로 붕괴되는 것.

출14:2-‘그들을 되돌아가게 하라’=그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

출14:26-‘물들은 이집트인들 위에 되돌아가라’=거짓의 범람, 또는 거짓의 붕괴.

출24:14-‘우리가 되돌아 갈 때까지’=응답이 있을 때까지.

출32:31-‘모세는 여호와께로 되돌아 갔다’=결합.

되사다 (redeem)

되찾다 (redeem)

마20:28-사랑 자체이신 주님은 인류에게 그분의 것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주시고 싶어하신다. 이것이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을 위한 되찾음에 그분의 혼(soul)을 주시려 오셨음’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63:4-‘내 되찾음의 해’=새로운 교회의 때.

창48:16-‘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되찾은 천사가...’=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있다. ‘되찾는 것’=자유롭게 하는 것.

출6:6-‘나는 너를 내뺀은 팔로 되찾을 것이다’=신성한 힘을 수단으로 지옥으로부터 이끌어냄. ‘되찾는 것’=지옥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

출8:19-‘나는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되찾음을 놓아줄 것이다’=지옥 근처에 있는 이들로부터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자유함. ‘되찾음’=지옥으로부터 이끌어냄.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황폐해짐으로부터 자유해 있는 이들에 관련해 말해진다.

출13:13-‘나귀의 모든 염(opening)을 너는 작은 가축으로 되살 것이다’=자연적일 뿐인 신앙이 주님의 뜻이라 해서 안된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순진으로부터의 진리는 주님의 뜻이라 여겨라. ‘되사는 것’=그것의 장소에 또다른 것을 주는 것.

출13:13-‘만일 네가 그것을 되사지 않으면’=만일 순진으로부터의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면, ‘되사지 않는

되살아나다-되찾다-두건-두 겹-두꺼운 판자-두더지-두드리다-두려움

것'=주님의 뜻으로 돌리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의 자리에 또다른 것을 주는 것.

출13:13-'네 아들들에 있는 모두 각각의 첫 출생을 너는 되살 것이다'=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은 주님의 뜻으로 돌려져서는 안되나 그것의 선들은 주님의 뜻으로 돌려라. '되사는 것'=그것의 자리에 또다른 것을 주는 것.

이51:10-'건너갈 되찾은 자'=주님에 의해 자유해져왔던 이들.

출15:13-'당신은 되찾았다'=그분이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

출21:8-'그녀가 되찾아지게 하라'=이런 진리들로부터 멀어짐.

출21:30-'그는 자기 혼의 되찾음을 줄 것이다'=회개로부터의 비통스러운 것, 거기에 자유함이 있을지 모른다.

계5:9-'당신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하느님에게로 되사셨다'=지옥으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주님이 그분과의 결합을 통하여 구원해주심.

되살아나다 (revive)

창45:27-'...야곱의 영이 되살아났다'=자연적 선에 있는 새로운 생명.

겔37:10-'숨으로부터 그들은 되살아났다'=영적 삶, 이는 말씀의 진리들에 따른 생활이다.

되찾다 (redeem)

* 되사다(redeem)를 보라.

두건 (tiara, turban)

* mitre도 참조

출28:40-'머리띠를 너는 그들을 위해 만들 것이다'=거기 있는 총명. (그이유가) '관', 그리고 일반적으로 머리를 위한 덮개=총명과 지혜, 이로부터 머리띠 역시 같은 의미. 그이유가 아론의 아들들의 머리를 위한 덮개는 '머리띠, head-tire'라 불리웠기 때문.

출29:9-'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위에 머리 띠를 맬 것이다'=지혜로부터의 총명.

두 겹 (two-fold)

* double, two을 보라

두꺼운 판자 (plank)

* beam, table를 보라

두더지 (mole)

이2:20-'두더지들과 박쥐들'=어둠 안에 있는 이들. 즉, 거짓들 안에,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악들 안에.

이2:20-'두더지와 박쥐에게 자신을 구부려 절하는 것'=깊은 어둠 안에, 그리고 밤의 그늘 안에 있는 것들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내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2:20-그들의 예배가 거짓들과 악들로부터이라는 것이 '두더지들과 박쥐들'에 의해 의미된다, 그이유는 그것들의 봄(sight)은 어둠 안에 있기 때문, 그리고 그것들은 빛을 피하기 때문.

두드리다 (knock)

* 치다 (beat)를 보라.

두려움 (fear)

창9:2-'너를 두려워하고 너를 무서워함...'=내적 인간이 지배함. '두려움'은 악들에, '무서워함'은 거짓들에 관련된다. 내적 인간이 지배하게 될 때, 인간은 악으로부터의 두려움, 거짓들로부터의 무서움을 가진다. 그러나 내적 인간은 악들을 두려워하거나 거짓들에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적 인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해진다. '너를 두려워하고 너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 위에 있을 것이다.' 이 두려움과 무서워함이 인간의 것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실상, 악령들이 인간으로 어떤 것을 악한 쪽으로 행하게 유혹할 때, 어떤 것을 거짓되게 말하도록 유혹할 때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즉시 그들은 지옥의 두려움과 무서움 안에 있다.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양심에 거슬러 있는 이런 것들에 관련하여 인간 안에서 지각된다.

창18:15-'사라는...두려워졌다.'

창19:30-'그는 소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웠다'=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그는 더 이상 선을 기대할 수 없었다.

창20:8-'사람들은 극도로 두려워했다'=그들이 극도로 반대하는 정도 까지. 두려움은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한다. 즉 세상적인 것들 측면에서의 두려움인 생명, 명예, 이득의 손실, 그러나 천국의 것들 측면에서의 두려움은 선과 진리, 이로부터의 생명의 손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바, 또한 천국의 것들을 파괴하려 고통

두려움

하는 것들을 혐오함도 포함하고 있다.

창20:11-‘이곳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그들은 영적 진리를 중시하지 않는다.

창21:17-‘두려워 말라,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소년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이다’=원조(aid)가 있다는 희망. ‘두려워 말라’=자포자기 말라. 그 이유는 두려움이 거두어질 때 희망이 있기 때문.

창22:12-‘지금 나는 당신이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안다’=신성으로부터의 사랑으로부터 신성화하심(glorification). ‘하느님을 두려워함’=여기서의 경우, 신성으로부터의 사랑.

이11:1-3-‘지식의 영과 여호와의 두려워하는 영’=진리로부터의 신성한 사랑. ‘그의 빠른 냄새 맡음(직각력, scent)은 여호와를 두려워함에 있다’=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사랑.

시19:9-‘여호와를 두려워함은 정결하다’=사랑.

창28:17-‘그는 두려웠다’=거룩하게 교체됨(altration).

창32:7-‘야곱은 극도로 두려웠다...’=변화가 있을 때의 상태. (그이유가) 두려움과 심통(distress)은 시험에서 맨 먼저 있기 때문. 그리고 상태가 거꾸로 되는 동안 진행된다.

창42:18-‘나는 하느님을 두려워한다’=신성으로부터... ‘두려워함’, 최고 의미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의미한다. 말씀에서 ‘하느님을 두려워함’=하느님을 사랑함. 그이유가 하느님을 사랑함이 단지 외적 예배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두려움이 되어가기 때문. 그리고 영적 예배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는 거룩한 두려움이 되어간다. 그러나 천적 예배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는 거룩하게 존경함이 된다. 어쨌건 주님 안에는 두려움은 없고 사랑만이 있다. (고로) ‘나는 하느님을 두려워한다’가 주님을 서술하고 있을 경우,=신성한 사랑, 고로 신성.

창42:35-‘그들은 두려웠다’=거룩한 것. (그이유가) 뭔가가 신성한 섭리로부터 발생할 때, 안으로 흐르는 거룩함이 거룩한 존경심과 더불어 두려움의 어떤 것을 유발하기 (때문).

창43:18-‘사람들은 두려워했다’=물러섬(drawing back). 두려움은 여러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여기

서의 경우, 노예로 되지 않나 하는 걱정으로부터의 두려움이다.

창43:23-‘두려워 말라’=그들을 자포자기 않게 함. 그 이유가 두려움의 원인은 다양한바, 다양한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

창50:19-‘요셉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내적 측면을 수단으로 재 창조됨. (그이유가) ‘두려워 말라’=그들은 걱정하지 않게 될 것.

출1:17-‘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했다’=신성으로부터 있는 과학적 진리들이 보호되어졌다. (그이유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신성이 명령한 것을 보호하는 것, 또는 간직하는 것. 그이유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명령들을 준수하기 때문. 그러나 모든 거룩한 두려움, 그 결과 명령들을 지키고 순종함이 신성으로부터인바, ‘그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했다’에 의해 그들은 신성에 의해 보존되고 보호되어졌다가 의미되어진다.

출2:14-‘모세는 두려웠다’=그가 자기와 떨어진 과학물 사이에 있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

예32:40-사랑을 통한 결합이 ‘나는 그들의 심정에 내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이 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출3:6-‘그는 하느님을 뵈는 것이 두려웠다’=그들이 신성 자체의 현존에 의해 상함을 입지 않도록.

출9:20-‘바로의 종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을 두려워한 자...’=주님으로부터 있는 자연적 마음 속의 이런저런 것들.

출14:10-‘두려움’, 시험을 서술할 때=공포.

출14:31-‘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송배함.

출18:21-‘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신성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이들. 그 이유가 ‘하느님을 두려워함’=신앙의 선과 사랑의 선으로부터 예배함.

출20:17-‘그분을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들 앞에 있어 너희가 죄짓지 않도록’=신성으로부터의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그 결과 영적 생명의 보존.

출34:30-‘그들은 두려웠다’=인내하지 않음.

계1:17-‘두려워 말라’=소생(부활)함, 그리고 송배함... 거룩한 두려움, 이는 때로는 마음의 내면들의 거룩한 전율과 결합되어있다, 때로는 주님으로부터의 생명이

두로-두루마리

누군가 그의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때, 소름끼침이나 잇따라 일어남과 결합되어있기도 한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다니엘에게 있었다.

계11:11-‘큰 두려움이 이들을 보았던 자들에게 떨어졌다’=신성한 진리들에 마음이 섬뜩해지고 흔들림.

계11:18-‘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주님의 것인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 ‘두려워함’=사랑함인 이유는 사랑하는 모든 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악행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 진짜 사랑은 이 두려움 없이 존재 않는다. 결과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한다.

계14:7-‘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느님을 두려워하라’=악들을 행하지 말라는 경고, 그 이유는 이것이 주님께 반대되기 때문.

계19:5-‘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사랑의 선들에 있는 이들.

계21:8-‘두려움’=신앙 없음에 있는 이들.

계2:10-‘두려워 말라’=그들은 슬퍼하지 않을 것. 그 이유는 박해를 당할 이들에 관해 말해지기 때문.

시128:1-‘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그분의 명령들을 행하기를 사랑하는 이들. 그러므로 말해진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있다, 그는 그분의 길에서 걷는다.’

신20:8-‘심정이 유연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갔다’=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에 아직 있지 않은 자들, 그럼으로써 주님을 신뢰 않고 있는 이들. 그 이유는 이들은 악한 자를 두려워하는바, 이는 타인들 까지 두려워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

계15:4-‘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오 주여’=사랑의 선으로부터 주님을 경배함. 선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진리들은 그분을 영광되게 한다.

계18:10-‘그녀의 고통을 두려워함으로부터’=지옥의 처벌 때문에 두려움에 떨.

두로 (Tyre)

이23:17,18-‘두로의 상품’=지식들.

겔28장-‘두로의 왕자’=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의 제일 가는 것들.

겔28장-‘두로의 왕자’=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이 있는 말씀.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있는 교회의 진리

에 관한 지식들.)

슌9:3-‘두로...은을 먼지 만큼, 금은 거리의 진흙 만큼 쌓아두고 있다.’ 여기서 ‘두로’=자신들을 위해 지식들을 획득하는 이들.

울3:4-6-‘두로와 시돈’=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을 지닌 교회 안의 사람들. 그러나 이 구절의 경우 반대 의미, 즉 이 지식들을 거짓들에, 그리고 거짓으로부터의 악들에 응용한 이들.

이23:1-‘두로는 황폐한채 놓여있다’=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더 이상 없다.

이23:15,16-‘두로’=영적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에 관련한 교회. 이 구절의 경우, 이 지식들이 왜곡되어진 상태에서의 교회.

이23:5-‘두로에 관한 보고(report)’=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이 거짓들과 악들에 응용함으로 해서 황폐되었다.

예25:22-‘두로와 시돈의 왕들’=자연적 인간 안에서 말씀으로부터의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예47:4-‘남아 있는 모든 조력자를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끊어버리는 것’=그들은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시45:12-‘두로의 딸’=진리와 선의 지식들에 관한 애착.

울3:4-6-‘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들’=말씀 속의 진리들과 선들을 왜곡한 이들.

슌9:4-‘두로’=진리와 선의 지식들에 관련한 교회. 고로 ‘두로’=교회로부터 있는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이것의 황폐함이 여기서 의미되어진다.

이23:18-‘두로의 상품’=모든 종류의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이23:4,5-‘시돈’과 ‘두로’=말씀으로부터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교회가 이 지식들을 수단으로 총명과 지혜의 어떤 것도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 어떤 유용함도 일궈내지 않았다는 것.

두루마리 (roll)

겔2:9,10, 3:1-‘앞과 뒤에 씌어진 책의 두루마리’=그 당시 교회의 상태, 고로 교회 속의 이들의 생명의 품질.

예36장-‘여호야김이 태운 책의 두루마리’=말씀...

슌5:1-‘날고 있는 두루마리’.

두마 (Dumah)

두마-두발 가인-두 배의-두 번 물들인-두아디라- (강)둑-둘

창25:14-‘두마’(이스마엘 아들 중의 하나).

두발-가인 (tubal-cain)

* 유발 참조

*(이 새로운 교회의) 자연적인 것이 ‘두발-가인’에 의해 묘사되었다

창4:22-‘셀라가 두발-가인을 낳았다. 그는 놋쇠와 쇠를 다루는 모든 기술공의 선생이었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셀라’=이 새로운 교회의 자연적인 것들의 어머니; 선생인 두발-가인...자연적 선과 진리의 교리...; ‘두발-가인의 누이’=똑같은 교회, 또는 이 교회 밖 자연적 선과 진리의 교리.

* 왜 두발-가인은 ‘조상’이라 불리지 않고 선생이라 불리웠을까?

두 배의 (double)

창43:12-‘두 배의 은’=계속적으로 있는 또다른...

출16:5-‘두 배일 것’=결합되는 것.

출22:4-‘그는 두 배로 값을 것’=충분히 회복함.

출26:9-‘너는 여섯째 커튼은 천막의 얼굴들에서 덮어 겹치게 할 것이다’=천국 속의 모든 것은 거기 맨 끝의 것들과 소통함, 그리고 거기서부터 최말단의 천국 안으로의 유입이 있다는 의미한다.

출28:6-‘정사각형이 두 겹이다’=정의와 완전함. ‘정사각’=정의, 그리고 완전함인 이유는 그것이 두 겹이기 때문. 그이유가 ‘두 겹’은 선에 관한 모든 것과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오른 손에 있는 것은 진리인 것으로부터의 선을, 왼손에 있는 것은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포함한다, 고로 양쪽의 완전한 결합 또한 의미한다.

계18:6-‘그녀의 일들에 따라 그녀에게 두 배로, 그리고 그녀가 쉬는 잔 안에 두 배로 쉬어’=똑같은 응보와 처벌, 즉 그들이 타인들을 피어내고 파멸되게 하는데 이용한 악들과 거짓들이 그들이 했던 양과 질에 따라 그들에게 되돌린다는 것.

두 번 물들인 (double-dyed)

창38:28-‘그 여자는 그의 손에 두 번 물들인 것을 매었다.’...‘두번 물들인’=선, 그리고 사실상 영적 선. 이런 이유는 그것이 진홍(scarlet) 색깔로부터 이기 때문, 그리고 진홍 색이 다른 삶에서 나타날 때, 그것=영적 선,

즉, 이웃을 향한 선행의 선.

민19:6-‘심홍(crimson)색의 두 번 물들인 것.’ ‘두번 물들인’=영적 선.

예4:30-‘만일 네가 두 번 물들인 것을 네 위에 놓는다면’=천적인 근원으로부터 진리들에 관한 것, 상호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에 관련하여 가르치는 것.

예4:30-‘만일 네가 두 번 물들인 것을 네 위에 놓는다면’=천적 근원으로부터 교리의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

이1:18-‘너희 죄들이 두 번 물들인 것 만큼이다 할지라도...’ ‘눈, snow’이 ‘두 번 물들인 것들’ 만큼이었던 죄들에 관련해 말해지는 이유는 ‘두번 물들인 것’=선으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반대 의미로는 악으로부터의 거짓이기때문.

두아디라 (Thyatira)

계2:18-‘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거라’=선행으로부터의 신앙 안에, 그래서 선한 일들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 관하여. 그리고 또한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그래서 악한 일들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에 관하여.

(강)둑 (bank)

창41:3-‘강의 둑 근처에’=경계들에. ‘강’=경계(선).

출2:3-‘그녀는 그것을 강 둑에 있는 창포(flag, 사초,sledge, 갈대,reed)들 사이에 놓아두었다’=최초에는 거짓된 과학적인 것들에...‘이집트의 강’=거짓인 것.

출7:15-‘그를 만나기 위해 강둑 근처에 서있거라’=상태에 따른 유입...‘강의 둑’=해치는 이들이 지닌 거짓의 상태...‘이집트의 강’=거짓인 것. 여기서 오류로부터의 거짓. 그리고 둑, 이는 마치 강물을 담은 용기와 비슷하다. 강둑은 되돌아 구부리고 안쪽에 머물게 닫아주는바=이 거짓의 상태. 모든 이 각각은 자신만의 상태를 가진다. 이 상태 범주에서, 이 상태에 따라 그것이 있다.

둘 (two)

이1:6-‘둘 또는 셋’=소수의 (사람, 물건).

창7:11-두 달, 또는 ‘둘째 달에’=전투 자체; (그 이우가) ‘2’=‘6’과 같은 의미, 즉 거듭남에 앞서 진행되는 것인 노동과 전투를 의미하기 때문, 또한 흠뜨림.

창11:10-‘홍수 이후 2년’=노아의 홍수 이후 두 번째 교회

* '2'와 '4'는 어떤 것들의 결혼과 관계될 경우, 다 같이 결합을 뜻한다.

창24:22-'두 팔짜'=신성한 진리...'둘'=충분함.

창27:9-'염소 새끼 두 마리'=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둘'이었던 이유는 합리성 안에서와 같이 자연성 안에 도의지에 속한 것과 이해성에 속한 것이 있기 때문.

계11:3-'두 증인'=선과 진리.

계11:4-'두 감람나무'=천적 선과 영적 선.

창43:10-'두 번', 여기서는 생활에 관계되는바, 두 번=외면과 내면의 생활.

창45:6-'가뭇이 2년 있었다'=선이 결핍된 상태...'2년'=선과 진리가 결합한 상태, 그이유는 '2'=결합; 여기서는 아직 결합되지 않은 상태, 그이유는 '가뭇의 2년'이기 때문.

출25:23-'길이가 두 큐빗'=선과의 결합에 관련하여 모든 것; 그이유가 '둘'=결합; 그리고 각각 그리고 모든 것.

출26:19-'널판 한 개 아래 두 받침'=선과 더불어는 그것의 결합; 그이유가 '둘'=결합.

출26:22-'주택의 두 넓적다리'=천국과 더불어는 결합... 그이유가 '둘'=결합.

마9:10-'두 벌의 옷', '두 켤레의 신발, 두 개의 지팡이'=주님과 자아 양쪽으로부터 있는 진리들과 그 진리들의 힘.

출30:2-'높이가 두 큐빗'=선과 진리에 관한 등차들, 그리고 그것들의 결합; 그이유가 '둘'=결합.

속4장-'두 (감람나무)'=천적 왕국의 내적, 외적 측면, 그리고 결합.

출31:18-그것(계명)에 의해서 인간과 더불어는 결합이 '두 돌판'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언약의 모습 같이 합쳐짐도 의미한다; 더욱이 '둘'=결합.

마19:5,6, 창2:24-천사 또는 인간 안에서 결합된 선과 진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이로부터 결혼한 두 짝들은 둘이라 부르지 않고 한 천사라 부른다. 또한 우리가 이 구절로부터 더 읽는바...'그들 둘은 한 육체일 것이다...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한 육체이다..

마18:19,20-'만일 너희 중 둘이 내 이름 안에서 땅에

서 동의한다면, 그렇게 행해질 것이다...그이유가 둘 또는 셋이 내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 있는 곳에 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둘'은 선을, '셋'은 진리를 서술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둘, 셋'은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모든 이를 말한다.

* 단순한 숫자에서 '2'=연합, 그리고 선을 서술하는 숫자이다는 것,, 숫자 2로부터 4, 8, 16, 400, 800, 1600 등의 숫자가 발생되는데, 이 숫자들 모두는 숫자 2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 '2'와 '4'는 선들을 서술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결합이기 때문이다.

이17:6-'두 세 개의 열매들'..'두, 세'=선 안에, 그리고 이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

계9:16-'이 만 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합되고 작당하는 무수한 것들이 의미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둘'=결합, 찬성, 이의 없음.

계11:4-'두 증인들은 두 감람나무들과 두 촛대들'이라고 말해지는데, 이것은 그림에도 넷이다, 그 이유는 '둘'=결합, 고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이유가 하나를 만드는 것에는 두 가지 것들, 선과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단9:26-'두 (주)'=선(을 이식하는데 따른 충분한 시간과 상태)

계13:11-'어린 양 같이 두 뿔들'=말씀과 분리된 신앙과의 결합을 설득하는 힘...'둘'=결합...그이유가 이 짐승=말씀으로부터 확증함; 그리고 말씀 안에는 선과 진리의 결합이 있다; 그리고 이 결혼이 '둘'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7:9-'둘씩 둘씩'=상응하는 것들; 그이유가 그것들이 쌍들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마치 선들과 진리들, 또는 악들과 거짓들의 관계 같이 서로에게 상응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출25:18-'너는 두 거룩들을 만들 것이다'=사랑의 선을 통하여 단독으로 주님에게 삼입됨.

둘과 반 (2.5, two and a half)

출25:10-'두 큐빅 반'=선에 관련되는 모든 것; 그이유가 '둘과 반'=많고 가득함; 그리고 신성을 서술할 때 모든 것; 이런 이유는 이 숫자는 5, 10, 등과 비슷한

둘과 반-둘째-둥뭍-뒤-뒤꿈치-뒤돌아 보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second)

* 둘(two) 참조

창8:14-‘둘째 달’=거듭남 이전 상태의 전부.

창38:1~5-어머니가 둘째(아들)을 이르지었다, 그이유는 이 아들이 (거짓과 구별되는) 악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둥뭍 (thummin)

* 우림(urim)을 보라

뒤 (back, hinder)

계5:1-‘내가 책을 보았다...안과 뒤에 씌어진...’ ‘안’에 의해서 세부적 측면의 모든 것, ‘뒤’에 의해 일반적 측면에서의 모든 것이 뜻해진다. 또한 ‘안과 뒤에’는 말씀의 내면의 의미, 이는 영적이다, 그리고 그것의 외면의 의미, 이는 자연적이다.

계5:1-‘안과 뒤에 씌어진 책’=일반적, 세부적 측면에서 천국과 땅에 있는 모든 자의 생명의 상태...‘안과 뒤에’=심정과 혼 안에 있는 것, 또는 사랑과 신앙 안에 있는 것. 사랑은 인간이나 영인들의 생명을 구성하기 때문에 ‘안’에 있다, 그러나 신앙 만일 그것이 그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즉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으면, 뒤에 있다.

뒤꿈치 (heel)

창3:15-‘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뒤꿈치’에 의해 가장 낮은 자연적 평면의 천국이 의미되어진다, 마치 유형(물질)의 천국과 같은 천국이다...

* 야곱의 이름은 뒤꿈치로부터이다, 그 이유는 야곱에 의해 의미된 유대인의 교회가 뒤꿈치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다.

* 말씀에서, 발의 바닥, 그리고 뒤꿈치=최말단의 자연적 천국.

창25:26-‘그의 손이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았다’=가장 낮은 자연적 선에 어떤 힘이 들러붙어 있다.

예13:22-‘뒤꿈치들’=가장 바깥의 선들.

창49:17-‘말굽을 물어뜯는다’=가장 낮은 자연으로부터 있는 오류들...그 이유가 ‘뒤꿈치’=가장 낮은 자연적 평면과 유형(물질적인)의 천국.

창49:19-‘그는 뒤꿈치를 파괴할 것이다’=그때부터 자

연적 평면의 천국에 있는 무질서...‘뒤꿈치’=가장 낮은 자연적 평면의 천국.

시41:9-‘나에 맞서 뒤꿈치를 쳐들었다’=주님을 부정하고 모든 진리를 왜곡하기에 이르기까지 하여 말씀의 글자 의미를 악용하는 것...그러므로 말씀의 최말단 의미, 이는 글자 의미만으로 인데, 뒤꿈치와 상응한다.

* 주님의 ‘뒤꿈치’=최말단에 있는 신성한 진리, 이는 우리와 더불어 있는 글자 의미이다. 감각적 인간은 이 의미를 악용하는 바, ‘상처를 입힌다.’

뒤돌아 보다 (look back)

창19:17-‘네 뒤를 뒤돌아 보지 마라’=교리적인 것들을 쳐다보지 말라는 것.

창19:26-‘그의 아내는 자기 뒤를 뒤돌아 보았다’=진리가 선으로부터 그 자체 방향을 틀었고, 교리적인 것들을 쳐다보았다

레26:9-‘그들을 고려하는 것’=자비로부터 있는 것.

출5:9-‘그들이 거짓의 말들에 관심을 두게 하지 말라’=그들이 진리들에 자신들을 돌아서지 않도록...

출7:23-‘마로는 뒤를 돌아 보았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왔다’=거짓들로부터 있는 심사숙고. ‘뒤돌아 보는 것’=생각과 숙고함. 그 이유가 영적 의미에서 ‘뒤돌아 보는 것’은 어떤 것을 향하여 육체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인바, 생각하는 것 그리고 숙고해보는 것.

출10:6-‘그는 뒤돌아 보았다 그리고 바로로부터 나갔다’=통각함의 결핍과 분리됨...‘뒤돌아 보는 것’=통각함의 결여. 그이유가 인간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뒤돌아 볼때, 또는 그 자체 돌아설 때 통각함의 결핍이 있기 때문이다.

출16:10-‘그들은 광야 쪽을 뒤를 돌아 보았다’=그들이 처해 있었던 시험의 상태를 회상함. 어떤 것을 뒤돌아 보는 것=생각과 반영, 고로 회상

출32:15-‘모세는 뒤돌아 보았다 그리고 산으로부터 내려왔다’=말씀이 천국으로부터 내려가게 허락됨.

뒤를 향하다 (backward)

이44:24,25-‘여호와와 네 구속자, 지혜있는 자들을 뒤를 향하게 돌리신다’

창9:23-‘(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갔다’=그들은 오류

뒤를 향하다 -...뒤에-뒤쫓다

들과 잘못된 것들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뒷걸음으로 가는 것'=눈을 다른 데로 돌려 보지 않는 것...

창9:23-'그들의 얼굴은 뒤를 향했는 바,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았다'=이것이 그렇게 행해 지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추론들로부터의 오류들이나 실수들 같은 것에는 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창49:17-감각적 그리고 과학적인 것들로부터 신앙의 진리들에 관하여 추론하는 자는 자연의 더 낮은 것에 꼭 달라 붙는 바 믿어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된다. 이것이 '뒤를 향하여 떨어지는' 것이다.

시114:3-'요단'=선에 관한 지식, 이것이 '뒤를 향하여 돌아섰다고' 말해진다. 이는 사랑의 선이 주권을 획득할 때이다. 그이유가 이럴 때 지식들은 이 선으로부터 주목해서 보는데, 지식들로부터 선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

눅9:62, 마24:17,18-'누구도 자기 손에 쟁기를 놓았는데, 뒤를 향하는 자는 없고, 하느님의 왕국을 위해 꼭 맞지 않는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다음 구절의 이들과도 똑같다. '집 위에 있는 자, 집으로부터 어떤 것을 가져가려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들 판에 있는 자, 자기 옷을 가져가려 뒤로 되돌아 가지 마라.' 이 말의 의미는 이렇다.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앙의 교리적인 문제들로부터 있는 이런저런 것들에 자신을 의지하려 들지 마라는 것...고로 '자기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자'는 선 안에 있는 자이다. 그러나 '뒤를 향해' 보는 자는 신앙의 교리적인 문제들을 쳐다보는 자이다, 그러면 선을 뒤쪽에 남기고 간다.

창49:17-'그리고 그의 승마자는 뒤를 향해 떨어질 것이다'=거기로부터 떠남...'뒤를 향해 떨어짐'=떠나는 것, 즉 진리로부터.

이28:13-'뒤쪽들을 누르는 것'=선하고 참된 것으로부터 자아를 돌려 떠나는 것.

이1:4-'그들은 뒤를 향해 떠나갔다'=그들은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 모두로부터 떠났다는 것, 그리고 지옥의 악과 거짓 쪽으로 가버렸다는 것. 그 이유가 영계에서 악과 거짓 안에 있는 이들은 자신들을 돌려 등을 주님에게 보이기 때문.

...뒤에 (after, behind)

창16:13-내향의 의미에서 위(above), 또는 내부

(within)가 바깥쪽(outside), 또는 아래쪽(beneath)에서 나타날 때, 전자는 글자 의미에서는 뒤(after)로 표현되어 있다

창17:7-'네 뒤에'=...을 뒤따르는 것...그러므로 여기서 '네 뒤들의 후손'=신앙 안에 있고 그분을 뒤따르는 이들, 내향의 의미에서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이들.

창18:10-'그 사람 뒤에'=결합하지 않았음, 그러나 그의 등 뒤에서 있었음.

창18:17-'네 뒤를 쳐다보지 마라'=교리적인 것들을 쳐다보지 마라.

창41:6-'그들 뒤에'=가까이.

출11:5-'맷돌 뒤에'=마지막 장소에 있는 것.

출14:19-'그리고 그들 뒤에 갔다'=악으로부터의 거짓이 의지 안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방어함.

출23:2-'다수 뒤에(를 따라)'=다수와 있는 것, 고로 연합하는 것, 근원적 언어에서, '...뒤에 있는 것', '...뒤에서 가는 것', '...뒤에서 걷는 것' 등등과 같은 식으로 말해지는데, 이 의미는 더불어 있는 것, 그리고 뒤를 따르는 것, 고로 연합하는 것.

출33:8-'모세 뒤에서 쳐다보았다'=말씀, 교회, 예배의 외적인 것을 보는 것. '앞에(before) 있는 것'=안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밖에 있는 것.

계1:10-요한은 '자기 뒤에서' 오는 음성을 들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자기들 앞이 아닌 자기들 뒤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님께 접근하지 않는 이들.

계1:10-'...내 뒤에'=명백하게.

뒤쫓다 (pursue)

창14:14-'단 까지 뒤쫓았다'=순수해짐의 상태. '적들을 추격하는 것'은 여기서의 경우 선들과 진리들과 함께 있었던 악들과 거짓들을 추방하는 것, 고로 그것들을 순수해지게 하는 것이다.

창31:23-'그를 뒤쫓았다'=결합의 계속된 열의.

창35:5-'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않았다'=거짓들과 악들은 접근할 수 없었다.

창44:4-'사람들을 뒤쫓았다'=그는 지금 그들을 자신에게 인접되게 해야 한다는 것.

출14:8-'(바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뒤를 쫓았다'=복종시키려 고심함.

드단 -드라빔-드러내 있다 -드럼-드문-드보라

출15:9-‘나는 뒤쫓을 것이다’=침입하여 창궐함.
레26:36-그들이 진리에 맞서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뒤쫓는 자가 없이 그들은 없어질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드단 (Dedan)

창10:7-‘스바와 드단’은 (신앙에 관한 이런 지식들이) 있었던 나라들이다; 내적 의미에서 이와 동일한 나라들에 의해 지식 자체가 의미되어진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있다, ‘구스의 아들들’에 의해서는 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들, ‘리아마의 아들들, 즉 세바와 드단은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들이 의미되어진다.

예49:8-‘드단’, 여기서의 경우,=내적 예배가 안에 없는 의식들, 또는 심정으로부터 주님을 숭배함.

창25:3-‘욕산이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첫 계층(lot)으로부터의 갈래들.

겔38:13-‘스바와 드단’=예배의 내적인 것들, 즉, 신앙으로부터의 선들... 적당한 의미에서 스바=선에 관한 지식 안에 있는 이들, ‘드단’=선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지식에 있는 이들.

창25:3-‘드단의 아들들은 앓수르 족속, 르두시 족속, 르움미 족속이었다.’=둘째 계층(lot)으로부터의 갈래들. ‘드단’=신앙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이들, 적절하게, 선으로부터 신앙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이21:13-‘드단족의 군대들(troops)’=지식들 안에 있는 이들.

겔27:20-‘드단은 병거를 위한 자유의 의복을 가진 너의 상인이었다.’ ‘드단’=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안에 있는 이들.

드라빔 (teraphim)

창24:10, 31:19-34-라반은 형상들, 또는 드라빔을 예배했다, 이것을 라헬이 가져갔다.

창31:19-‘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진리들을 가져가버리는 것.

호3:4-‘에봇과 드라빔’=대답들을 수단으로 그들이 받았던 신성한 진리들.

숙10:2-‘드라빔’=대답들,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잘못된 대답들.

창31:34-‘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갔다’=신성으로부터

는 내면의 자연적 진리들...‘드라빔’=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창31:35-‘그는 수색했다, 그리고 드라빔을 찾지 못했다’=이 진리들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

드러내 있다 (uncover)

창9:21-‘그는 천막의 한가운데에서 드러내져 있다’=그 것에 의해서 악용된 것들...그이유가 그는 포도주로 술 취함으로부터 ‘드러내짐’, 또는 벌거벗었기 때문, 즉 그 안에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없다는 것, 더 나아가 그들은 악용되었다는 것...그가 ‘드러내져’ 누워있다 라고 표현됨에 의해 의미되는바, 그는 감각적인 것들과 파생되는 추론들을 가지고 (신앙의 신비를) 탐사하기를 원함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을 발가벗게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예배에서 진리의 부족으로부터 있는 악들).

드럼 (drum)

* 북(drum)을 보라

드문 (rare)

이13:12-‘나는 사람을 순금이 드물듯 드물게 만들 것이다.’ ‘드물게 있는 사람’=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이24:6-영적 진리에 애착함과 파생되는 지혜가 중단 될 것임이 ‘사람이 드물게 남아있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예18:21-‘그들의 사람들이 학살되어 남은 자가 드물어지게 하자...’=진리에 애착함과 파생되는 지혜가 무디게 될 것이다.

드보라 (Deborah)

사 5:7-‘나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에서 어머니로 일어날 때까지’...드보라와 바락의 예언적 노래는 교회 속의 진리가 뒤집힌 것, 그리고 그것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드보라 (Deborah) (리브가의 유모)

창35:8-‘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유전적 악이 몰아내졌다는 것...리브가의 유모로서의 ‘드보라’=유전적 악...여기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어머니로부터 받고 유아기에 자양분이 된 것: 이것은 주님께서 맞서 싸우셨던 어머니로부터의 유전적 악이었다...이 악을 그 분은 몰아내셨다.

듣다

듣다 (hear)

눅8:21-듣는 그들=신앙을 가진 이들; '행하는 그들'= 선행을 가진 그들.

예51:46-'들음'=이해함 속에 있는 일련의 것들.

창11:7-'그들이 자기 동료의 입술을 듣지 못하게...' 그들은 모두 불일치한다는 것, 또는 이쪽이 저쪽에 맞서 있다는 것.

창14:14-'아브람은 그의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들었다'=내면의 인간이 외적 인간이 처해 있었던 상태를 지각했다는 것.

창16:11-'여호와께서 네 고뇌를 들으셨다'=그녀가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마13:13-'보고 듣는 이들'=교회 내에 있는 이들, 그리고 그들이 비록 보고 듣는다 해도 아직 이해 못하는 이들.

창21:6-'듣는 모든 이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거기 모든 것들이 애착을 가질 것이다... '듣는 것', 말씀에서 애착으로부터 있는 것, '보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있는 것을 말한다.

창21:12-'사라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 그녀의 음성을 들으라,'=그분은 영적 진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것... '음성을 듣는 것'=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

창21:17-'하느님은 소년의 음성을 들으셨다'=그때 있는 도움. '하느님이 음성을 듣는 것'=도움을 가져오는 것.

마13:16-'그들이 순종적 이었다는 것'이 귀로 듣는 것(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23:6-'우리를 들으라'=받아들임. '우리를 들으라'는 동의함에 대한 전형적인 대답 형식,=수용함.

창23:8-'나를 들으라'=그들은 응낙, 또는 순종할 것이라는 것.

창23:16-'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들었다'=순종을 확증함... '듣는 것'=순종.

창24:52-'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들을 들었을 때, 그는 땅으로 자신을 구부려 여호와께 절했다'=자연적 인간 안에서 기쁨을 지각함. '말들을 듣는 것'=지각하는 것.

창27:5-'이삭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그때부터 있는

생명. 그이유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유입. 표현적 의미에서 '듣는 것'=승낙하는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최고 의미에서 '말하는 것을 듣는 것'=그때부터 있는 생명.

창28:7-'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에게서 들었다'=순종과 애착. '누군가에게서 듣는 것', 또는 '경청하는 것'=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것=애착으로부터의 순종.

창29:33-'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에'=최고 의미에서 섭리. 내적 의미에서, 신앙 속의 의지, 내면의 의미에서, 순종. 외적 의미에서, 듣는 것. 여기서의 경우, 의지에 있는 신앙, 이는 주님 만으로부터 있다.

마17:5-'그에게서 들으라'=그분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들에 순종하는 것; 고로 의지 안에 신앙을 가지는 것.

요5:25,27-'사람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뜻하는 것. 의지 안에서 신앙을 가지는 그들은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듣는 그들은 살 것이다'라고 말해진다.

요10:3,16,27-'음성을 듣는 것'=의지의 신앙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눅16:29,31-'모세와 예언자들에 귀기울이는 것'=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아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서 신앙을 가지는 것, 또한 그것들을 뜻하는 것. 그이유가 뜻함 없이 신앙을 가지는 것은 보았는데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뜻함과 더불어 신앙을 가지는 것은 신앙을 가지는 것과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둘 다, 즉,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말씀 많은 곳에서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보는 것'은 '르우벤'에 의해 의미되는 것에서 의미되고, '듣는 것'은 '시므온'에 의해 의미되는 것에서 의미된다. 그 이유가 그들은 형제 관계로서 결합되어지기 때문이다.

창30:6-'라헬이 말했다, 하느님께서 나를 판결하셨다, 그리고 또한 내 음성을 들으셨다'=최고 의미에서, 정의와 자비. 내적 의미에서 신앙의 거룩함. 외적 의미에서 생활로부터의 선... '내 음성을 듣는 것'=자비. 그이유가 주님은 자비로부터 모든 것을 들으시기 때문,,..신성한 선으로부터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비로부터 들으신다.

창30:17-'하느님께서 레아에게 귀기울이셨다'=신성한

듣다

사랑. '누군가에게 경청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관련해서 서술될 때,=신성한 사랑. 그이유가 '누군가에게 경청함'은 그가 간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 그리고 이것이 신성한 선으로부터이고, 신성한 선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인바, '누군가에게 경청하는 것'은 최고 의미에서,=신성한 사랑.

창30:22-'하느님은 라헬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녀에게 귀기울이셨다'=예견과 섭리...'누군가에게 귀기울이는 것', 하느님을 서술할 경우,=섭리.

창34:24-'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겔에게 귀기울였다'=동의함.

창35:22-'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다'=그 신앙은 거절되어졌다는 것...적당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들었다'는 것=영적 (왕국의) 교회가 이를 알았고 승낙했다는 것. 그 이유가 '듣는 것(귀기울이는 것)'=경청함을 의미하기 때문. 그리고 '이스라엘'=영적 (왕국의) 교회.

창39:10-'듣지 않는 것'=경청 않는 것, 또는 순종 않는 것. 여기서는 반대하는 것, 그 이유는 그가 도망할 정도 만큼 거절했기 때문.

창39:15-'그는 들었다'=그것이 통각되어졌을 때. '듣는 것'=순종하는 것, 또한 통각하는(apperceive) 것. 이런 이유는 귀의 기능, 그리고 들음의 본성으로부터 분명해진다. 귀의 기능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일반적 감각 기관 쪽으로 운반하여 일반적 감각 기관이 타인이 생각하는 것을 통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듣는 것'=통각하는 것. 그러므로 들음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생각 안으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말한 그것을 생각으로부터 그의 의지 안으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의지로부터 행동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듣는 것'=순종하는 것. 이 두 직능들은 들음에 적절하다. 언어에서 이 직능은 통각함과 순종함으로 구별되어진다.

창39:19-'그녀의 주인은 그녀가 자기에게 말한 것, 그의 아내의 말에 귀기울였다'=거짓이 진리 같이 나타났는바 거짓이 소통됨. '말을 듣는 것'=소통함, 그 이유는 '듣는 것'=통각하는 것, 고로 소통되는 것이기 때문.

창41:15-'나는 너에 관해 들었다'=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의 능력...'너에 관해 듣는 것'=그것이 이리이러하다

는 것을 아는 것과 통각하는 것. 그러므로 능력.

창42:21-'그가 우리에게 애원했을 때, 우리는 듣지 않았다'=그가 계속 간청하는데도 받아줌이 없음. '듣지 않는 것'=받아지지 않는 것.

창42:23-'그들은 요셉이 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모든 것들이 영적인 빛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이런 진리들이 있는 자연적인 빛으로부터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빛으로부터 자연 평면에 있는 진리들이 나타나는 것이 '요셉이 들음'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이유가 '듣는 것'=순종하는 것과 통각하는 것이기 때문.

창43:25-'그들은 자기들이 거기서 빵을 먹게 된다고 들었다'=선은 진리들에 결합되어야 할 것임을 통각하는 것. '듣는 것'=통각하는 것.

창45:2-'이집트인들이 들었다'=최말단에 까지 조차. 슬피우는 소리를 '듣는 것'=자비를 직각함 그리고 기쁨을 직각함.

창49:2-'너희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으라'=영적 선으로부터 그들에 관하여 예견함. 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예견. (그이유가) '듣는 것, 즉 날들의 끝에 발생할 것들=예견.

출2:15-'바로가 이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다'=거짓 과학물, 이를 통각하여 진리를 파괴하기를 바람. '듣는 것'=통각하는 것.

출2:24-'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애통함을 들으셨다'=원조(aid). '듣는 것'=순종하는 것. 그러나 주님께 관해 말해질 경우, 그것은 설비하시고 도움을 만드심.

출3:7-'나는 그들의 공사 감독자 앞으로부터 그들의 외침을 들었다'=섬김을 강요하는 이들에 맞서 자비의 도움이 있음. '듣는 것'=순종하는 것과 통각하는 것. 그러나 주님께 관해 말해질 때, 그것은 그것을 애원하는 그에게 자비의 도움을 만드는 것.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들으신다, 고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만드신다, 그러나 필요성에 따라서이다. 자신들 만을 위해 그분께 애원하고 외치는 이들에게서도 주님은 들으시나, 그들에게 도움을 만들지 않으신다. 이때 그들은 그분이 듣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출3:18-'그들은 네 음성을 들을 것이다'=순종. '듣는 것'=순종.

듣다

출4:1-‘그들은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제 음성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영적 (왕국의) 교회인은 믿지 않을 것, 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음성을 듣지 않는 것’=받지 않는 것.

출4:8-‘만일 그들이 이전의 표징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만일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발표되는 것에 순종치 않는다면...‘듣는 것’=순종하는 것.

출4:9-‘만일 그들이 순종의 어떤 것을 수행치 않는다면...’ ‘듣는 것’=순종.

출4:31-‘백성들은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다’=믿음과 희망. ‘듣는 것’=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한 통각하는 것. 여기서의 경우, 희망을 가지는 것.

출5:2-‘내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여호와는 누구냐?’=주님에 관한 거꾸로의 생각, 자기들에게 대한 권면 사항에 그들은 경청해야 하리라는 것. ‘듣는 것’=순종하는 것. 고로 ‘음성을 듣는 것’=권면 사항에 순종, 귀기울이는 것.

출6:9-‘그들은 모세에게 듣지 않았다’=그들은 믿음과 순종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것. ‘듣는 것’=믿음과 순종으로부터 받는 것. ‘듣는 것’=의지와 행동에 있는 신앙, 그리고 순종.

출6:12-‘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에게 귀기울이지 않았습니까’=영적 평면이 그들에게 발표한 것을 받지 않았다...‘듣지 않는 것’=믿음과 순종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

출7:4-‘바로가 너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거짓들에 있는 이들은 받지 않을 것이다.

출7:16-‘지금까지 너는 듣지 않았다’=순종 없음. ‘듣는 것’=순종.

출7:22-‘그는 그들에게 귀기울이지 않았다’=받아들임과 순종 모두 없음.

출15:26-‘만일 네가 네 하느님 여호와의 음성에 귀기울인다면’=주님의 가르침들에 대한 믿음. ‘듣는 것’=통각함과 믿음.

출16:7-‘그분이 너희의 불평들을 들으심’=그들의 불만은 중단될 것이라는 것. ‘듣는 것’, 여호와에 관해서 말해질 때,=자비를 가지시는 것과 도움을 만드시는 것. 고로 그들의 불만은 중단되리라는 것.

출16:9-‘그분이 네 불평들을 들으셨기 때문에’=시험에서의 고통 때문에, 그분은 도움을 만드시리라는 것. ‘듣는 것’, 여호와에 관해서 말해질 경우,=자비가 있는 것과 도움을 만드시는 것. 그로부터 (불평을) 중지하는 것.

출16:20-‘그들은 모세에게 귀기울이지 않았다’=믿음 없음, 그로부터 순종 없음. ‘듣는 것’=지각하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출18:1-‘듣는 것’=지각.

출18:19-‘지금 내 음성을 들어라’=하나됨으로부터 동의함. ‘음성을 듣는 것’=순종. 여기서의 경우, 동의함, 그이유가 이들에 의해 말해졌기 때문, 이드로를 수단으로 신성한 선이 모세에 의해 표현된 신성한 진리에 하나됨이 표현되어 있다.

출19:5-‘지금 만일 너희가 내 음성에 귀기울인다면’=믿음, 받아들임. ‘듣는 것’=순종. 그리고 ‘듣는 것’=순종인 바, 받아들임도 뜻한다.

출19:9-‘백성들이 나와 더불어 내 말하는 것을 들을런지 모른다는 것’=영적 (왕국의) 교회인들이 신성한 것들을 납득할런지 모른다는 것. ‘듣는 것’=통각하는 것, 고로 납득하는 것.

출19:13-‘요벨(jobel)이 꺼내졌을 때, 같은 말로, ‘나팔소리를 들을 때’=천적 선으로부터의 일반적인 지각. 그이유가 ‘들려 옴’에 의해 지각이 의미되기 때문.

출22:22-‘나는 그들의 외침을 들을 것이다’=그들은 도움을 받는다는 것.

출23:13-‘그것이 네 입에서 들리지 않게 하라’=그들은 어떤 확언과 더불어 순종해서는 안된다는 것. ‘듣는 것’=순종하는 것.

출23:21-‘그분의 음성을 들어라’=그분으로부터 있는 가르침들에 순종함. ‘듣는 것’=순종.

출23:22-‘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에 귀기울인다면’=신앙의 가르침들에 관한 훈육, 그리고 받아들임. ‘듣는 것’=훈육되는 것과 받는 것.

마13:13-17-여기서 ‘듣는 것’이 여러 의미에서 언급된다, 즉 가르쳐짐, 믿는 것, 순종하는 것. ‘그들이 듣지 않음’=가르쳐지나 믿지 않는 것, 또한 가르침이 있으나 순종은 없는 것. ‘귀들이 답답하게 듣는 것’=가르침, 믿음, 순종을 거절하는 것. 그들이 듣기 때문에 ‘복있는

들나귀

귀들=주님에 관한 신앙의 교리를 받는 것과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받는 것으로부터의 복됨.

요10:3-‘음성을 듣는 것’=신앙의 가르침들에 관하여 훈육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과 순종 안에서 받는 것. 주님께서 여러 번 사용하신 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요10:25-‘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신앙의 진리들로 훈육되는 것, 그 진리들에 순종하는 것.

막7:37-‘듣는 것’=훈육되는 것, 받는 것, 순종하는 것.

요16:13-‘그가 듣게 될 것은 무엇이든지...’=그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은 무엇이든지...

출24:7-‘여호와께서 말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귀 기울이고 행할 것입니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를 받음, 그리고 심정과 혼(soul)으로부터 순종함. ‘행하는 것’=의지로부터, 고로 심정으로부터 순종함. 그리고 ‘듣는 것’=이해성이 순종함, 고로 혼이 순종함. 심정으로부터의 순종은 의지로부터의 순종, 고로 사랑의 애착으로부터의 순종. 그리고 혼으로부터의 순종은 이해함으로부터의 순종, 고로 신앙으로부터의 순종.

출28:35-‘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다’=천국들에 있는 이들, 그리고 땅에 있는 이들에게 진리의 유입이 있다. ‘들려지는 것’=영접함과 지각함. 이로부터 또한 유입(influx). 그이유가 받아지고 지각된 것들은 안으로 흘러들어야 하기 때문.

요3:8-‘너는 그것의 음성을 듣는다’=이런 것들이 외적 인간, 또는 자연적 인간 안에서 지각으로 나타난다는 것.

출32:17-‘여호수아는 고향치는 백성의 음성을 들었다’=이 국가의 내면들의 품질에 관하여 조사하고 주목해 봄.

출33:4-‘그리고 백성은 이 악한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슬펐다’=다른 사람 위에서 우쭐땀 때문에 있는 그들의 슬픔.

계1:3-‘예언의 말들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그들, 그 안에 씌어진 것들을 준수하는 자는 복 있다’=새 예루살렘의 교리에 따라 사는 이들이 천국의 천사들과 함께 함. ‘그 안에 씌어진 것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그

교리를 알기를 원하고, 그것 안에 있는 것들을 주의해서 살피고, 그것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 요약해서 그것에 따라 사는 것.

계1:10-‘나는 내 뒤에서 오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천국으로부터 계시된 신성한 진리를 확실히 지각함.

계3:3-‘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들었고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모든 예배가 시작에서는 자연적이나, 그 후에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그리고 그것들에 따른 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예배가 된다.

계3:20-‘만일 누군가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면’=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사는 자. ‘음성을 듣는 것’=말씀을 믿는 것.

계9:16-‘나는 그들의 숫자를 들었다’=그들의 품질이 지각되었다.

계9:20-‘보지도, 듣지도, 견지도 못하는...’=그 안에는 영적 생명, 진실로 합리적 생명은 하나도 없다...‘보는 것’과 ‘듣는 것’에 의해 이해하고 지각함이 의미된다. ‘견는 것’은 사는 것을 뜻한다. 이렇고로 이 세 가지는 영적이고 진실로 합리적인 삶이다.

계22:17-‘듣는 자가 오라 라고 말하게 하라’=듣는 그 사람, 이로부터 주님의 강림에 관해, 새 천국에 관해, 그리고 새 교회에 관해, 고로 주님의 왕국에 관해 어떤 것을 아는 그 사람은 그것이 도래하기를 기도할 것이다.

계22:18-‘이 책의 예언의 말들을 듣는 것’=주님에 의해 지금 열린 이 책의 교리 속의 진리들을 듣고 아는 것.

들나귀 (wild-ass)

창16:12-‘그는 들나귀(같은) 사람일 것이다’=합리적 진리.

이32:14-‘들나귀들의 기쁨’=진리에 관련되는 지적인 것들의 황폐함.

예14:6-진짜인 진리들 대신 사악하고 텅빈 것들이 배워질 때, ‘바람들을 끄끄거리며 냄새맡는 들나귀’로 말해지고 있다.

호8:9-‘제 스스로 홀로 인 들나귀’=진리들이 결여된 합리성.

들보-들씩우다-들어가다

호13:15-‘(에브라임은) 들나귀로 그들 형제 사이에 있을 것이다.’ (영적 왕국의 교회) 합리성은 ‘들나귀’ 같은바, 취급되어진 것을 흠뜨림이다.

시104:11-‘자기들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들나귀’=이성으로부터의 진리들 (=진리들을 갈망하는 교회에 있는 이들을 가르침)

단5:21-‘그의 거주함은 들나귀와 더불어서였다’=그의 삶의 전부는 지옥적인 것들 사이에 있었다. ‘들나귀’=지옥들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끔직한 거것들에 있는 이들.

들보 (beam)

겔27:6-‘깃땀 섬으로부터 배의 가로 들보를...’=예배의 바깥쪽 것들, 즉 천적 계급에 속하는 의식들.

출26:15-‘너는 주택을 위해 들보들을 만들 것이다’=이 천국을 떠받치는 선. ‘들보, 두꺼운 널판’=떠받치는 선. ‘들보들’=떠받치고 지탱하게 해주는 선인 이유는 그것들의 재질이 나무이고, 주택과 천막의 모두에 있는 커튼들, 또한 그것들 위에 있는 두 덮개들을 떠받치기 때문. 이로부터 들보는 받쳐주는 것들을 의미하고, 그것들이 나무인바, 나무는 선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 자연에 있는 모든 표현물들은 인간 형체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관계에 따라 그것들의 의미도 지나게 되듯, 주택의 들보들은 인간의 근육, 또는 살 부분에 상응한다. 이는 둘러싸는 얇은 막, 그리고 피부들을 떠받친다. 들보들의 재료가 깃땀목이었는데, 이 나무를 수단으로 천국을 떠받치는 선이 의미된다. 또한 그것들을 금으로 덮어씌웠는데, 이 또한 선을 의미하고 있다.

출26:22-‘너는 여섯 들보들을 만들 것이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 모든 종류의 선이 있는 곳. ‘주택의 들보들’=천국을 떠받치는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의 선.

겔27:6-‘그들이 상아로 만든 너의 가로 들보!...’가로 들보’=인도해주는 수단인 이해함 속의 것, 즉 합리성인 것.

창19:8-‘내 지붕의 그림자(들보) 안으로’=선행의 선 안에. ‘집’, 여기서 ‘지붕의 그림자라 부르는데=선.

창19:8-‘지붕의 그림자’=일반적인 회미함 안에.

마7:3,4,5=‘네 눈에 있는 들보’=악으로부터의 거대한

거짓. 그 이유가 나무(wood), 내향의 의미에서=선.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악이기 때문. 다른 삶에서, 선은 들보에 의해 표현되어진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선을 고안해낸 이들은 들보를 운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을 따라 걸음을 떼고 있다.

마7:3-5-나무(wood)에 의해 선이 의미되어지는바, 이로부터 ‘들보’에 의해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반대 의미에서는 악으로부터의 거것이 의미되어진다.

창19:8, 왕하6:2,5,6, 함2:11, 아1:17-‘들보’에 의해 악으로부터의 거것이 의미되어진다.

들씩우다 (overlay)

이40:19-‘그것을 금으로 들씩우다.’

출25:11-‘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들씩울 것이다’=모든 것은 선에 기초를 두어져야 할 것. ‘들씩우는 것’, 천국에 관해 말해질 때,=기초되는 것, 이런 이유는 영계의 태양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진행하는 선은 일반적 측면에서 천국을 에워쌀 뿐 아니라, 개별적 측면인 천국의 각 사회들도, 마찬가지로 한명인 천사 역시 에워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지옥으로부터의 악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 천국에서는 에워싸는 것이 기초도 되고 있다. 그 이유가 집이 기초 위에서 누르듯, 주님으로부터의 선은 천국의 모든 것을 눌러주기 때문. (고로) ‘들씩움’에 의해 기초됨이 의미되고, ‘금으로 들씩움’은 선 위에 기초함이 의미된다.

출27:2-너는 놋쇠로 그것을 들씩울 것이다’=선을 표현함. 놋쇠로 들씩움과 도입함(induction)은 자연적 선, 또는 외적 선의 표현이다.

시68:13-‘비둘기의 날개가 은으로 덮혔다(cover)’=영적 진리들.

들어가다 (enter)

창18:11-‘날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수명이 다되어 가는 것)’=때가 가까워진 것.

신21:13-채택함(adooption)이 ‘그녀 안으로 들어감’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44:14-‘집에 들어감’=교통함(communication).

출3:18-‘들어가는 것’=교통함. 그 이유가 영적 의미에서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들어올려 바침-들어올려짐-들어올리다

서로 왕래하는 것이기 때문.

출22:25-‘태양의 들어감’, 또는 해가 저름=외적인 사랑의 즐거움으로부터 있는 그들의 상태.

출28:30-‘여호와 앞에 들어가는 것’=예배함.

출28:35-‘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취급되는 상태의 모든 것...여기서의 경우, 예배에 있는 선과 진리의 상태의 모든 것. ‘들어 감’과 ‘나감’(의 의미는) 다른 삶에서의 것을 표현함으로부터이다. 그이유가 거기서 그들은 세상에서 같이 들어가고 나간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자기들의 생각들과 애착들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실행된다. 이로부터 분명한바, 움직임에 속하는 모든 것은 생명의 상태들에 속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의 생명의 상태를 알았다는 것을 뜻할 때, 그들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요10:1,2,9-‘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사랑의 선과 신앙의 선 안으로...그러므로 ‘안에 들어감’과 ‘밖으로 나감’=생명의 모두 각각의 상태에 관련하여 주님에 의해 인도되는 것. 결과적으로 선인 것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뜻하는 것.

눅9:4-‘집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 머무르는 것’,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가는 것’=신앙과 사랑에서 주님을 받는 이들과 천국적인 연합을 즐기는 것. 그이유가, 천국에서, 한 사회에 함께 있는 그들은 한 집 안에도 있기 때문. 그리고 거기서 들고 나가고 한다. 그이유가 그들은 같은 선 안에 있기 때문. 이에 반해 같은 선 안에 있지 않은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들어간다면, 그들은 문을 통과하여서는 들어가지 못한다.

출34:34-‘여호와 앞에 들어가는 것’=주님이 안으로 흐르실 때, 거기로부터 있는 상태.

계3:20-‘나는 그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저녁을 먹을 것이다’=주님은 자신을 그들과 결합되게 하신다.

계21:27-(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받아지지 않는 것.

계11:11-‘(두 증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계발됨, 그리고 신성한 진리의 유입을 받아들임.

들어올려 바침 (heave-offering)

들어올려짐 (heaved up)

*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들이 들어올려 바침이라 불리웠다.

출29:27-‘들어올려 바침의 옆구리 살(flank)’=주님만으로부터 있는 신성의 천적 평면이 천국과 교회에서 지각되었다. ‘들어올려 바침’=드러지는 것과 받아지는 것.

출29:27-‘흔들어지고 들어올려지는 것’=인정되어지는 것과 지각되어지는 것. ‘들어올려진 것’=주님만으로부터 있는 신성의 천적 평면이 천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지각되었다.

출29:28-‘이것은 들어올려 바침이기 때문’=신성한 선, 그리고 이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함.

출29:28-‘그리고 들어올려 바침은 그들의 평화-공물로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더불어로부터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께 대한 들어올려 바침이다’=천국들과 교회에서 받아들임. 그리고 그것이 주님만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인정함.

출30:13-‘반 세겔을 여호와께 들어올릴 것이다’=선으로부터의 진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만으로부터 있다는 것. ‘여호와께 들어올려 바침’=주님 만으로부터 있는 것들.

출30:14-‘그는 여호와께 들어올려 바침을 드릴 것이다’=여호와께 돌림(ascriptio). ‘여호와께 들어올려 바침’=주님 만으로부터 있는 것.

시141:2-‘손을 들어 올림(lifting up)은 식사 공물에 의해 의미된 것과 같다

들어올리다 (lift up)

* ‘눈을 들어올려 보는 것’=계발되고 지각하는 것

창29:1-‘야곱은 자기 발을 들어올렸다’=자연적인 것의 승강.

단7:4-그 다음 신성으로부터 합리적이고 의지적인 것들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그것이 땅으로부터 들어올려짐’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40:13-‘바로는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릴 것이다’=예견되어진 것과 그로부터의 결말 난 것.

창40:19-‘바로는 당신의 머리를 떼어 들어올릴 것이다’=예견되어진 것으로부터 결말이 나진 것.

들이 받다 - 들짐승

출9:17-‘아직도 자신을 들어올리는 것’=감염시키는 것을 아직도 단념 않고 있다.

계6:4-‘땅으로부터 평화를 거두어가는 것’=선행 등등이 거두어지는 것.

들이받다 (strike)

* 치다(strike)를 보라.

들짐승 (ziim)

이13:21-‘들짐승’, 등등=(바벨) 예배의 내면들. 그이유가 이와같은 것들은 자아를 사랑함으로부터 있기 때문.

예50:39-‘들짐승(ziim, 그리고 iim), 그리고 올빼미(owl)의 딸들’=악들과 거짓들, 고로 내향적으로 죽음으로부터 있는 것들. (=지옥의 거짓들과 악들)

시74:14-‘들짐승(ziim)의 백성’=거짓들에 있는 이들, 또는 거짓들 자체. (=지옥의 거짓들에 있는 이들)

* '들짐승(ziim)', 등등=다양한 현세에의 욕망.

이34:14-‘tziim과 iim’=육체적인 현세에의 욕망.

들짐승 (wild-beast)

창1:24-‘의지 속의 것들이 여기서 그 땅의 들짐승(야생 동물)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창1:30-(영적 인간)의 자연 평면이 여기서 땅의 ‘들짐승’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이것에 풀잎의 푸른 것과 야채가 주어지고 있다.

창3:1-‘뱀은 들판의 어느 들짐승 보다 더 미모했다.’ ‘들판의 들짐승, 여기서, 전과 같이,=외적 인간의 갖가지 애착.

시68:10-‘당신의 들짐승이 그것 안에 거주할 것이다’=선에 애착함(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 (=거듭나는 인간)

창7:14-‘들짐승을 그 종류대로’=모든 영적 선. 그리고 ‘그 종류대로의 짐승’=모든 자연적 선. 고로 ‘들짐승’은 ‘짐승’ 보다 더 높은 가치와 특출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생명 있는 혼이 있는 동물’ 또한 뜻하기 때문. 여기서의 경우 ‘들짐승’이 아닌 ‘생명 있는 혼이 있는 동물’을 뜻한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에서)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

창7:21-‘(모든 육체가 기한이 만료되었다)...들짐승’=자기들이 발휘한 설득력에서 있는 쾌락들.

창8:1-‘(하느님은 기억하셨다)...모두 각각의 들짐승’=

(주님은) 모든 것에서 (자비하시다)는 것.

시74:19-‘당신의 산비둘기의 혼을 들짐승에게 넘겨주지 마시며’=신앙의 생명을 선행 없는 이들에게.

창8:17-‘너와 함께 한 모든 육으로부터 있는 들짐승 모두 각각’=이 교회의 사람 안에서 생기 있는 모든 것. 그이유가 ‘들짐승’이 노아를, 즉 지금 거듭난 이 교회의 사람을 서술하기 때문.

시50:10-‘숲의 모두 각각의 들짐승은 나의 것이다...그리고 내 들판의 들짐승들이 나와 더불어 있다’=거듭난 사람, 그 사람 안에 생기 있는 것.

호2:18-‘나는 들판의 들짐승과 그들을 위해 언약을 만들 것이다’=거듭나지는 이들과 더불어.

창8:19-‘모두 각각의 야생 동물’=내적 인간의 선들.

창9:5-‘모두 각각의 들짐승의 손에서’=인간 안에 광폭한 모든 것으로부터. 그이유가 반대 의미에서, ‘들짐승’=들짐승 같은 것, 고로 인간 안에 있는 야생으로 돌아 가버린 것은 무엇이든...그러므로 그것=광폭한 것, 즉 선행에 폭력을 휘두르는 자. 그이유가 이런 자는 들짐승 같기 때문. 사랑과 선행으로부터 인간은 인간답다. 그러나 미위함, 복수함, 잔인함으로부터 그는 들짐승 같다.

창9:10-‘땅의 모두 각각의 들짐승’=그의 파생되는 보다 낮은 지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들...이런 외면의 것들은 과학적인 것과 쾌락들이다.

창9:10-‘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야생 동물에 이르기 까지’=교인들, (그리고) 교회 밖 사람들...여기서 ‘땅의 야생 동물’이 두 번째에서 언급되는데, 이는 그밖의 어떤 것을 보여준다, 즉 교회 밖 우주에 있는 모든 이.

시104:11-‘그들은 들판들의 야생 동물 모두 각각에게 마실 것을 줄 것이다’=선들. (=교회의 선 안에 있는 이들).

레26:6-‘나는 토지로부터 악한 들짐승이 중단되게 할 것이다’=악의 탐욕들이 중단될 것이다.

레22:8-‘찢겨진 것’=찢는 숲의 들짐승인 악(령)에 의해 주입되는 거짓으로부터 있는 악. 그이유가 말씀에서 지옥의 것들이 ‘들짐승’에 비교되기 때문.

창37:20-‘악한 들짐승이 그를 삼켰다’=탐욕의 생명으

들짐승

로부터의 거짓말. '그이유가 '들짐승'=애착과 탐욕이기 때문. 순수 의미에서 '들짐승'=살아있는 것, 그러므로 '악한 들짐승'=탐욕들의 생명.

시80:13-'들판의 들짐승'=주님에 대한 믿음 측면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악.

출23:11-'그들이 남긴 것을 들판의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이것들을 통하여 외적 진리의 기쁨에 있는 이들과 (결합함)...그이유가 '짐승'=진리와 선에 애착함. 그러나 '들짐승', 가장 외적 진리로부터 있는 애착. 이 애착은 감각적인 것에 대한 애착, 즉 쾌락과 즐거움이라 불리워진다.

출23:29-'들판의 들짐승이 너에 맞서 불어나지 않도록'=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즐거움들로부터 거짓들이 유입됨. 갖가지 종류의 '짐승들'=선하고 악한 애착들. 그러므로 '들짐승'=이런저런 즐거움들로부터 근원하는 거짓인 것에 대한 애착들. 그리고 다른 삶에서 이런 애착들은 들짐승들, 즉 표범, 호랑이, 멧돼지, 늑대, 곰 같은 짐승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시68:30-가장 수준 낮은 것으로부터, 사악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갈대 속의 들짐승'이라 불린다.

레26:6-'악한 들짐승들이 토지로부터 중단될 것이다'=교회를 파괴하는 것인 악한 애착들과 현세에의 욕망은 있지 않을 것이다.

이35:9-'사자가 거기에 있지 않을 것이고, 들짐승들이 굶주려 약탈함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거기에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 선을 파괴하는 악이 없을 것이다.

계6:8-'그리고 땅의 들짐승에 의해'=생활 속의 악들, 이는 탐욕들과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 근원하는 파생되는 거짓들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과 더불어 교회의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한다.

호2:12-'들판의 들짐승'=파생되는 거짓들과 악한 탐욕들.

겔34:25-'토지에 있는 악한 들짐승'=탐욕들, 그리고 '들판의 들짐승'=거짓들.

호13:8-'들판의 들짐승이 그들을 찢을 것이다'=탐욕들과 거짓들.

슌2:14-'나라 속의 모두 각각의 들짐승'=악으로부터의 거짓. (=거짓에 대한 애착들).

겔31:13-'들판의 모두 각각의 들짐승이 그의 가지들 위에 있을 것이다'=그때 거기에...애착으로부터의 악들이 있을 것이다. (=거짓에 대한 애착).

겔39:4-'들판의 들짐승'에 의해 의미되어진 악들은 생활의 악들, 즉 자아와 세상 사랑으로부터 근원하는 탐욕들이다.

시79:2-'땅의 들짐승'=파생되는 악에 대한 애착들.

겔34:5-'들판의 들짐승'=거짓들로부터의 악들.

겔33:27-'들짐승'=거짓으로부터의 악.

겔5:17, 14:15-'악한 들짐승'=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악들을 통하여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와 사랑으로부터의 선이) 박탈됨.

시148:10-'여호와를 찬양하라...너희 야생 동물과 모든 짐승'=진리에 애착함과 선에 애착함 (이 교회 안에 거주할 것이다).

겔31:6-'들판의 야생 동물'=진리에 애착함들.

겔38:20-'들판의 들짐승'=거짓과 악에 대한 애착과 탐욕.

시104:20-'숲의 야생 동물'=과학물에 대한 애착.

시104:25-'작고 큰 들짐승들 모두 다'=다양한 애착들.

겔39:17-'들판의 모두 각각의 들짐승'=그들에게 있을런지 모를 선에 애착함은 어떤 종류이든 모두.

이56:9-'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교회 안의 모든 이들이...주 여호비의 들판들의 들짐승들에 의해 뜻해진다....그리고 교회 밖 이방인들이 '숲의 들짐승'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겔34:28-'땅의 들짐승이 그들을 삼키지 않을 것이다'=(교회의 사람은) 거짓으로부터의 탐욕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예12:9-'들판의 모든 들짐승을 모아 네게 와서 삼키게 하라'=거짓들을 수단으로 교회의 진리들을 파괴하는 탐욕들.

슌2:15-'들짐승들이 웅크린 장소'=진리들 측면에서 황폐된 교회의 상태.

겔34:25-'나는 악한 들짐승이 중단되게 할 것이다'=지옥으로부터의 악하고 거짓된 것에 감염됨으로부터 평화가 있음.

겔39:17-'들판의 모든 들짐승에게...말하라, 네 자신들

들판

을 모아 오라..’=이방인들 사이에 교회가 건설됨...’들판의 모든 들짐승’=선에 애착하고 진리를 이해하는 모든 이들.

들판 (field)

창2:5,6-’지면과 들판’=천적 인간이 되어 가는 때의 외적 인간.

눅17:31-’들판’=교회, 그 이유가 들판이 씨를 받기 때문; 고로 ’들판에’ 있는 이들=교리의 선에 있는 이들.

마24:18-’들판에 있는 그는...’=영적 왕국의 교회 안에 있는 이들.

창23:9-’들판의 끝에 있는...’=교회 속에 들어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들판’=교회; 또한 교회 속에 있는 교리.

창23:17-’들판과 들판 안에 있는 동굴’=믿음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관련하여. 천적인 것, 즉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부터의 선은 지면 또는 밭에 비교되는데...그 이유는 밭, 또는 들판은 씨를 받는바 이는 천적인 것, 또는 선이고 씨는 믿음으로부터의 진리들에 비교된다.

창24:63-’이삭은 들판에서 명상하려고 나갔다’=합리성이 선 안에 있는 상태...’들판’=교리 그리고 교리에 속하는 것들, 고로 선에 관련되는 교회 속에 있는 것들. ’들판에서 명상하려고’라는 말의 근원은 고대인들이 사용하던 말로부터서 인데, 선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25:27-’들판의 사람’=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생활의 선.

창25:29-’에서가 들판으로부터 왔다’=생활의 선을 공부함...’들판으로부터 움’=선으로부터 공부함; 그 이유가 ’들판에서 명상함’=선 안에서 생각함이기 때문.

창27:3-’들판으로 가라’=옥토인 곳. ’들판’=교회 속의 선; 또한 교리로부터의 선.

창27:27-’들판의 냄새 같이...’=진리가 와지게 하는 옥토로부터 같이. ’들판의 냄새’=선으로부터 진리를 지각함, 마치 수확하는 들판이 내뿜는 냄새를 맡음 같다. ’들판’=옥토.

마24:18-’밭에 있는 자는 겹옷을 가지러 가려고 돌아서지 마라’=진리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은 자신을 선으로부터 떠나 진리로부터의 교리에 의지하려 들지

마라. 말씀에서 ’들판’=선에 관련되는 인간의 상태.

창29:2-’들판에서’=교회를 위해. ’들판’=선에 관련된 교회.

사5:18-’악은 어떤 것도 두려워 않는 이들, 그 이유가 그들은 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들판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창30:14-’들판에서 합환채’=사랑과 선행의 선과 진리에 있는 결혼적 사랑으로부터의 것들...’들판’=교회; 고로 믿음으로부터의 진리와 선행으로부터의 선, 그 이유는 이것들이 교회를 만들기 때문.

창30:16-’야곱이 저녁에 들판으로부터 왔다’=선의 상태에 있는 진리로부터의 선, 그러나 어두컴컴한 상태의 선...’들판’=선에 관한 교회, 고로 선.

창33:19-’그는 들판의 지분을 샀다’=저 진리로부터 선을 자기 것 되게 함...’들판’=선에 따른 교회, 고로 선.

창34:5-’그의 아들들이 들판에서 그의 물질(목축)과 더불어 있었다’=그의 후손들은 그들 자신의 광신적 신앙 안에 있었다...’들판’=교회...그 이유가 이런 종류의 교회가 광신적 신앙이라 불리우기 때문.

창39:5-’들판’=교리 속에 있는 진리.

마13:44-’들판’=선.

창47:20-’이집트 사람 각각 모두는 자기의 들판을 팔았다’=교회를 쓸모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종속되고 포기됨. ’들판’=교회 속에 있는 교리; 그리고 일반적 의미로, 교회.

창47:24-’들판의 씨를 위해’=마음의 자양분을 위해...’들판’, 일반적 의미에서=교회; 그리고 특별한 의미에서, 인간과 더불어 교회, 인간 안에 있는 교회, 선과 진리를 받는 자가 교회이다: 그가 ’들판’이라 불리울 때, 이 들판은 그의 마음을 뜻해준다.

출1:14-’들판의 모든 봉사에서’=교회의 것들에 맞서 복종시키려는 의도.

출8:10-’들판’=아직 더 일반적인 것들, 고로 아직 더 외면적인 것들; 그 이유가 들판은 짐과 짐질 밖에 있기 때문.

출9:21-’들판에...뒹누었다’=따로 떼어두고 저장하지 않음.

출16:25-’오늘은 너희가 들판에서 그것을 발견 못할

들포도-등-등불

것이다' = 진리를 통하여 선을 획득함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들판' = 인간; 여기서, 진리를 통하여 선이 이식되는 인간의 마음; 그 이유가 인간이 신앙으로부터 진리들을 받고... 선을 생산한다는 사실로부터 인간은 '들판'이라 불리기 때문.

출22:4 - '그리고 다른 사람의 들판을 황폐케 할 것이다' = 밀착하는 선들이 사라짐... '다른 사람의 들판' = 밀착하는 선들; 그 이유가 '들판' = 교회; 그리고 들판에 있는 것들은 선들이다; 고로 다른 사람의 들판에 있는 것들 = 밀착하는 가까운 선들...

겔39:10 - '들판으로부터 나무들' = 교회의 내면의 선들.

출22:30 - '너는 들판에서 찢기운 살을 먹지 말 것이다' = 왜곡된 신앙으로부터의 선, 왜곡된 교회의 선은 자기 것 삼는 일이, 결합되는 일도 있어져서는 안된다.

신21:1 - '...토지에서 켜뿔린 자가 들판에 누워있다...' = 선이 있는 교회에서 진리와 선이 소멸됨.

출23:16 - '너희가 들판에서 일한 것을 거두어 들임에서' = 선 안에 이식된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향유함.

시132:6 - '나무의 들판에서' = 말씀의 글자적, 자연적 의미에서.

예32:44 - '은으로 들판을 구입함' = 진리들을 수단으로 교회의 선을 자신들을 위해 획득함.

겔 17:5 - '씨뿌리는 들판' = (진리들) 자라나게 하는 선.

마13:24 - '들판' =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가 있는 영적 세계와 교회를 뜻한다. (말씀이 있는 교회)

사5:18 - '들판의 높은 곳' = 교회의 내면적인 것들, 이로부터 전투가 있다.

미4:10 - '들판' = 진리들과 선들이 풍부히 있는 곳.

들포도 (wild grape)

이5:2 - '들포도들이 산출되었다.' (=미워함과 복수함으로부터의 악들). (=선행으로부터의 선들에 반대하는 악들). (=이 나라와 더불어서는 진리의 선들 대신 거짓의 악들이 있다). (=선 대신 사악함이 있었다).

욥31:40 - 보리 대신 야생 포도나무 = 진리 대신 거짓.

예31:29,30 - '아버지들이 야생 포도를 먹어 왔다, 그리고 아들들의 이가 무디어졌다(blunted)!...' '야생 포도를 먹는 것' = 악으로부터의 거짓을 자기 것 되게 하는 것. '야생 포도', 이는 씹쓸하고 저 등급의 포도인바, = 악을

부터의 거짓... 인간은 자신의 유전적인 악으로부터서는 별받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악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 '야생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무디어질 것이다.'

등 (back)

이30:6,7 - '낙타들의 등' = 자연 평면, '낙타' 자체는 자연 평면에 있는 일반적 과학적인 것들이다.

등불 (lamp)

계4:5 - '하느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일곱 불(torch)은 일곱 등불이다.'

마25:1 - (열 처녀들의) 등불들 = 사랑.

마25:1 - '자기들의 등불을 가지고...' = 천적인 것이 안에 있는 영적인 것, 또는 선이 안에 있는 진리들. 또는 같은 것으로 달리 표현하면, 이웃을 향한 선행이 있는 신앙.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이 안에 있는 선행. 그러나 '기름이 없는 등불' = 선이 안에 있지 않은 것.

마25장 - '등불들' = 신앙으로부터의 진리.

계8:10 - '마치 횃불(torch)처럼 타는 큰 별이 천국으로부터 떨어졌다' = 지옥의 사랑으로부터 근원되어 나오는 자만으로부터 자기 총명의 나타남. '별'과 '횃불'은 총명이 의미된다. 여기서의 경우, 자기의 총명, 그 이유는 이것이 타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 그리고 모든 자기 총명은 자만으로부터 불탄다.

계4장 - '등불들' = 신성한 진리들.

마25장 - '등불들' = 신앙으로부터 있는 것들.

마25장 - '등불' = 신앙.

마25장 - '등불들' =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시18:28 - '나의 등불을 켜는 것' =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이해성을 계발하는 것.

마25장 - '등불들' = 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들. 여기서의 경우,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교리로부터의 진리들과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출27:20 - 올리브의 기름이 등불을 위해 고용된 이유는 그것이 천적인 모든 것을 표현했기 때문.

숙4:2 - '등불들' = 천적인 것들, 이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있다. 마치 불꽃으로부터 빛이 있듯.

시132:17 - '등불' = 진리의 빛.

계18:23 - '등불의 빛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 진리의

디나

총명이 없다.

계21:23-‘등불’=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

계18:23, 예25:10-여기서 신앙의 꺼짐, 그리고 영적인 것들에 있는 파생된 총명의 꺼짐이 취급된다. 즉, ‘더 이상 있지 않을 등불, 그리고 거두어져 갈 등불의 빛.’

시119:105-‘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다.’

마6:22-‘몸의 등불은 눈이다.’

왕상11:36, 15:4, 왕하8:19, 삼하21:17-신앙, 그리고 파생되는 총명과 지혜가 ‘등불’에 의해 의미되는바,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등불들’이라 불린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불린다. 사실, 유다의 왕도, 다윗도 등불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린 이유는 왕에 의해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가 의미되기 때문에서이다. 그리고 다윗에 의해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이 의미되어진다. 이 진리로부터 신앙이, 총명이, 지혜가 있다.

출25:37-‘너는 거기로부터 등 일곱을 만들 것이다’=그 때부터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 ‘등’=신앙과 진리로부터의 총명,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진리이다. 고로 영적 평면. 신성한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있고 이 진리를 통하여 신앙, 총명, 지혜가 있기에 영적 평면인 것이다. 등의 개수가 일곱인 이유는 신성한 진리로부터 신앙, 총명, 지혜가 있는바 거룩하다 불리우기 때문.

출27:20-‘등불이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게 할 것이다’=그때부터 신앙, 그리고 신앙을 통하여 진리의 총명과 주님으로부터의 선의 지혜가 있다. ‘등’=신앙인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는 천국들에서 빛이기 때문. 거기서 천사들에 의해 받아지는 이 빛, 또는 인간에 의해 받아지는 이 빛은 등불과 같다. 이것은 마음 속의 모든 것들을 계발한다, 그리고 총명과 지혜를 준다. 받은 빛이 신앙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이 선행으로부터 있지 않으면, 신앙은 등불이 아니고, 마음을 계발해주지도 못한다.

시132:17-‘등불’=총명을 있게 하는 신성한 진리.

출27:20-‘등불’=신앙으로부터의 진리와 선.

출30:7-‘등불을 단장하면서...’=진리 역시 빛 안으로 올 때, ‘등불들’=신성한 진리, 그리고 파생되는 총명과 지혜. ‘등불을 단장, 또는 불을 붙이는 것’=이런저런 것

들이 그것들의 빛에 올 때.

계18:23-‘등불의 빛이 더 이상 네 안에서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이들과 더불어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계발도 없다, 그리고 영적 진리에 대한 파생되는 어떤 지각도 없다.

계22:5-그들은 등불이 필요 없다’=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은 자연적인 발광체로부터 하느님에 관한 지식들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시132편-‘등불’=신성한 총명을 있게 하는 신성한 진리.

시132:17-‘나는 내 기름부은 자를 위하여 등불을 배치할 것이다’=주님 안에서 신성과 인간의 합일로부터 신성한 진리가 계발됨. ‘등불’=계발에 관련한 신성한 진리.

디나 (Dinah)

창30:21-‘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고 불렀다’=폼질...선이 있는 신앙으로부터의 교회의 모든 것을 디나가 표현하고 의미한다. ‘디나’는 원어에서 판결을 뜻한다.

창34:1-‘디나는 밖으로 나갔다’=신앙 속의 모든 것에 대한 애착, 그리고 거기로부터의 교회. (그이유가) ‘디나’=모든 진리들에 대한 애착, 그리고 거기로부터의 교회이기 때문.

창34:5-‘야곱은 자기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는 것을 들었다’=합법적이지 않은 진리에 애착함과 결합, 이것이 여기서 야곱에 의해 표현된 외적 교회로부터 있다...‘디나’=신앙의 모든 것들에 대한 애착, 거기로부터의 교회.

창34:25-‘디나의 형제’=이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디나’=진리에 애착함, 고로 교회.

창34:26-‘그들은 디나를 세겔의 집으로부터 데려갔다’=그들은 태고 교회의 잔류로부터 있었던 이들로부터 진리에 애착함을 가져갔다.

디달 (Tidal)

창14:1-‘고임왕 디달’, 등등=눈에 나타나는 아주 많은 종류의 선들과 진리들.

디라스 (Tiras)

* 고멜(gomer)을 보라.

디달-디라스-디본-딤나-따뜻한-(...을)따라잡다 -따르다 -딸

디본 (Dibon)

예48:18-‘디본의 딸’=교회의 외적인 것, 그리고 이로부터 말씀의 외적 부분, 즉 말씀의 글자 의미.

딤나 (Timnath)

창38:12, 사14:1-7, 여19:43-‘딤나’=교회를 위해 조인을 구하는 상태. 삼손이 불레셋의 딸로부터 데려온 여인=선이 아닌 것으로부터의 진리, 고로 불명료한 진리. 또한 딤나는 단 지파의 상속분의 장소 사이에 있었다.

창38:14-‘딤나로 향한 길에서’=교회의 사용을 위해. 그이유가 ‘딤나’=교회를 위해 의논하는 상태이기 때문.

따뜻한 (warm)

창18:1-‘날이 따뜻하게 자랐을 때’=사랑으로부터.

이57:5-‘흥분하는 것’=악을 서술하고 있다.

창30:39-‘양떼들이 막대기에서 흥분했다’=그분 힘으로부터의 결과. 그 이유가 ‘흥분하는 것’=애정의 결과.

창30:41-‘흥분되는 것’=그들이 결합되는 것.

이57:5-‘신들과 흥분하는 것’=거짓인 것으로부터의 색욕.

출16:21-‘해가 따뜻하게 자라오르자, 그것은 녹았다’(진리로부터의 선은) 현세에의 욕망이 증가함에 따라 사라진다는 것.

이57:5-‘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신들과 더불어 자신의 자아에 불을 붙이는 것’=발생하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 ‘신들과 더불어 자신의 자아에 불을 붙이는 것’=열렬한(ardent) 예배.

예51:39-이것을 행함에서 하나로 되는 이들의 열정. 이것이 ‘그들이 뜨거워질 때, 나는 그들의 잔치들을 놓겠다’에서 의미된다.

따라잡다(overtake)

창31:25-‘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았다’=결합의 어떤 것.

출14:9-‘그들은 바다 근처에 진영을 차린 그들을 따라잡았다’=지옥의 이 영역 주위에 교통됨. ‘따라잡는 것’=교통되는(communication) 것, 그이유가 영적 의미에서, ‘따라잡는 것’은 유입이고, 이를 통하여 교통되기 때문.

출15:9-‘나는 따라잡을 것이다’=복종.

따르다 (follow)

막10:21-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따라야’한다고 그에게

말하셨다, 이는 그가 주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계14:4-‘이들은 그분이 가는 곳은 어디이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들이다’=그들은 사랑과 그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되어진다는 것, 그 이유는 그들은 그분의 명령들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이다.

계14:13-‘그들의 일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다’=그들은 사랑했고, 믿었고, 이로부터 행하고 말했다는 것. ‘그들을 뒤따르는 일들’이란 사후 인간과 더불어 남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계14:14-‘천국에 있는 군대들은 흰말 위의 그분을 따랐다...’=말씀을 내면적으로 이해함으로 주님과 결합한 새 기독교인의 천국에 있는 천사들. ‘주님을 따르는 것’=그분과 결합되어지는 것.

계6:8-‘지옥이 그를 따랐다’=영원히 지옥에 떨어짐... ‘그를 따르는 것’=거기 안에서 머무르는 것.

딸 (daughter)

* 선에 애착함으로부터 교회 자체가 (태고 교회로부터) ‘딸’, 또는 처녀, 아내 등의 어구로 불리워졌다.

* 천국적, 천사적 자아로부터, 교회는 말씀에서 ‘여인’, ‘아내’, ‘신부’, ‘처녀’, ‘딸’이라 불리우고 있다.

* ‘아들들과 딸들’=진리들과 선들.

이60:4-‘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고, 네 딸들은 네 쪽에서 양육할 것이다’; ‘아들들’=진리들; 그리고 ‘딸들’=선들.

시144:11,12-‘나를 구하시고 헛 것을 말하는 낮선 자의 아들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잡아채소서; 우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서 만든 큰 재배지 같고, 우리의 딸들은 성전의 모양에 맞추어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 ‘낮선 아들들’=가공된 허위의 진리들; ‘우리의 아들들’=진리의 교리적인 것들, ‘우리의 딸들’=선의 교리적인 것들.

이43:6-‘내가 북쪽에게 달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남쪽 바람에게 가두어 두지 마라고 할 것이다; 내 아들들을 먼 데로부터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의 가장 끝으로부터 데려 올 것이다’ ‘아들들’=진리들; ‘딸들’=선들.

예3:24-‘아들들과 딸들’=진리들과 선들.

시45:9,12,13, 이22:4, 23:10,12, 겔26:6,8-‘딸들’=선

딸

들이 있는 것은 말씀 많은 곳에서 발견된다. 시편의 경우, 네 귀중한 것들 사이에 왕의 딸들이...선물을 위해 두로의 딸, 왕의 딸은 내부에서 온갖 영화로워 있다; 거기서 '딸'에 의해 선, 그리고 사랑과 신앙으로부터의 아름다움이 묘사되고 있다; 이로부터 교회들은 '딸들'이라 불리운다, 그리고 이것은 선들로부터; '시돈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 그들은 또한 '벡성의 딸들'이라 불리운다; '다르셋의 딸'; '시돈의 딸'; '들판에 있는 딸들.'

창5:4,7,10,13,16,19,26,30-똑같은 것이 이 장에 있는 '아들들과 딸들'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그러나 교회가 이리하다, 아들들과 딸들이 이리하다, 또는 선들과 진리들이 이리하다: 여기서, 그들=그들이 뚜렷하게 지각했던 진리들과 선들, 그이유는 그들은 태고 교회를 서술했기 때문, 이 교회는 그 교회 뒤를 계승하는 교회의 부모격이자 우두머리격이었기 때문.

창6:1-'딸들'=그 인간 속의 의지에 속하는 것들, 고로 탐욕들...'딸들', 또는 선들은 의지에 속한다; 그러나 인간이 이리하고, 이해성이 이리하고, 의지가 이리하다는 것이 '아들들과 딸들'이 이리하다이다. 여기서는 부패된 교회를 취급한다, 즉, 의지가 없고 대신 단지 탐욕만 있는데, 그들은 의지가 있는듯 상상하고 상상한 그것을 의지라고 할 뿐이다...

창6:2-'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자, 그녀들이 아름다웠다, 그래서 자기들이 고른 그녀들을 아내로 삼았다'=신앙 속의 교리적인 것들이 탐욕들을 자신들에게 결합시켰다는 것.

창11:11-'(셈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교리적인 것들.

창11:13-'(아르박삭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교리적인 것들.

창11:15-'(셀라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교리적인 것들.

창11:17-'(에벨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예식들이 있는 교리적인 것들.

이49:22-'그들은 가슴에 네 아들들을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네 딸들은 어깨 위에서 운반될 것이다: '딸들'=선들; '아들들'=진리들.

창49:12-'딸들'=선과 진리에 애착함 들; 또는 이 애착

들에 있는 이들.

창19:30-'그와 더불어 (룻의) 두 딸'=똑같은 태도(불순한 태도)에 있는 그것의 애착들. '딸들'=애착들; 그러나 선이 이와같은 바, 애착도 이와 같다; 가짜 선이고 불순한 선이라 해도 그것의 애착을 가지고 있다.

*(룻의) 두 딸들=거기서부터 파생된 애착들, 이것은 이런 선이나 거짓 속에 있다: 애착을 있게 한 선이 '룻'과 '룻의 아내'이다. 이것이 '소금 조각상'이 되었을 때, 즉 진리로부터의 선이 황폐되었을 때, 존재하는 선이 동굴에 있는 룻에 의해, 그로부터 있는 애착들이 동굴에 있는 그의 '딸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호4:13-'딸들', 그리고 '며느리들'=이런 애착들.

레21:9-'매춘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딸'='애착인 바, 성직자의 딸이 매춘짓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솔2:28-'네 아들들과 네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아들들'=진리들 자체; '딸들'=선들 자체.

겔32:16,18-'장엄한 나라들의 딸들'=악에 대한 애착들.

예46:11-'이집트의 딸'=과학적인 것으로부터 신앙 속의 진리들이 과연 그러한지 여부를 추론함에 대한 애착; 고로, 그녀=거기서 근원되는 광신적 신앙.

시45:13-'왕의 딸'=주님의 영적 왕국; '그녀의 친구들, 그녀 뒤의 처녀들'=진리에 애착함들.

이3:16-'자신을 치켜세운 시온의 딸들'=교회 내 악에 대한 애착들.

창24:23-'너는 누구의 딸이냐?='순진에 관해 더 조사함.

창27:46-'나는 헷의 딸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또다른 근원으로부터의 자연적 진리가 첨가됨...'헷의 딸들'=순수하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들; 여기서 자연적 진리에 애착함, 그이유는 이것이 야곱에 관련하여 말해지기 때문.

창27:46-'만일 야곱이 헷의 딸을 여인으로 취한다면'=자연적 진리는 그것들과 연합을 이루어서는 안된다는 것.

창27:46-'토지의 딸들이나 마찬가지인...' 이 지면으로부터가 아닌, 즉 순수한 교회의 진리들로부터가 아니기 때문에. '딸들'=교회들; 그이유가 '딸들'=선과 진리에

말

애착함들이기 때문; 그리고 '토지'=교회가 있는 넓은 지면, 고로, 교회; 고로 '토지의 딸들'=교회의 선들과 진리들.

창28:1-'너는 가나안의 딸들로부터 여인을 취하지마라 '=거짓과 악에 대한 애착들과 결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딸들'=애착함들.

창28:8-'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눈에서 악이라는 것을 보았다'=자연적 선이 지금까지 결합하여왔던 이 진리에 애착함들은 결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예견과 섭리...'가나안의 딸들', 여기서, '헛의 딸들'=순수하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들.

창29:16-'라반의 두 딸들'=공통된 지주의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들. '딸들'=애착들; 여기서, 라반에 의해 표현된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들.

창29:18-'나는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칠년을 봉사할 것이다'=근면함, 동시에 내적 진리와 결합하려는 거룩한 상태.

창30:13-'나는 행복하다, 내 딸들이 나에게 행복을 만들기 때문이다'=영원한 생명의 행복에 상응하는 애착의 기쁨들... 행복을 만들 '딸들'=교회들.

창30:21-'그후 그녀는 딸을 낳았다'=모든 (일반적 진리들에 대한) 애착, 그리고 또한 선이 있는 신앙의 교회, (즉 영적 왕국의 교회)

창31:28-'너는 내가 내 아들들과 딸들에게 키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이 선의 신앙에 따른 자유로운 상태의 결과로 있는 분열...'아들들'=진리들; 그리고 '딸들'=선들.

창31:43-'딸들은 내 딸이고, 아들들은 내 아들들이고, 양떼는 내 양떼이다'=진리에 대한 모든 애착들, 그리고 모든 진리들과 선들은 그의 것이라는 것. '딸들', 여기서 라헬과 레아의 딸들,=진리에 애착함 .

창31:43-'그리고 내 딸들에게, 그녀들에게 출생한 아들에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겠느냐?'=그는 그들을 감히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 '딸들'=진리에 애착함들.

창34:1-'토지의 딸들을 보려고'=진리에 애착함들과 거기서 파생된 교회들을 아는 것.

말2:11-'낮선 하느님의 딸을 사랑하고 약혼하는 것'=

'젊은 이의 아내'인 진리 대신에 거짓에 자신의 자아를 결합시키는 것.

겔16:20-'아들들'=진리들; 그리고 '딸들'=그들의 애착들.

창34:9-'네 딸을 우리에게 주라,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네게로 데려가라'=선들과 진리들의 합일...'딸들'=애착들, 고로 선들.

창34:17-'우리는 우리의 딸을 취하여 갈 것이다'=결합은 없다는 것.

창37:35-'그리고 모든 그의 딸들'=악들에 있는 이들. '딸들'=선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악들; 또는 악들 또는 선들에 있는 이들.

창38:2-'유다는 거기서 가나안족, 사람의 딸을 보았다 '=악의 거짓으로부터의 악에 대한 애착...'딸'=선에 애착함, 그리고 반대 의미일 경우, 악에 대한 애착.

호4:13-악의 삶이 매춘짓을 하는 딸들에 의해 의미된다; 그리고 거짓의 교리로부터 악한 삶이 있다는 것이 '머느리가 간음짓을 함'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41:45-'그는 그에게 온의 성직자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여인으로 주었다'=진리가 선과, 선이 진리와 결합함에 따른 품질...'온의 성직자의 딸'=선으로부터의 진리; 그이유가 '딸'=진리에 애착함 ; 그리고 '성직자'=선이기 때문.

창46:7-'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들의 딸들'=순서적으로 있는 선들. '딸들'=선들; 그리고 또한 '아들들의 딸들'=그들의 순서에서 전자로부터 있는 선들.

마10:37-'나보다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가치가 없다.' '아버지와 어머니', 여기서의 경우, 유전으로부터 인간의 자아 속에 있는 일반적인 것들; 그리고 '아들과 딸'은 삶의 실제로부터 인간의 자아 속에 있는 여러가지 것들.

애1:16-'시온의 딸'=선에 애착함, 이는 천적 왕국의 교회 속에 있다.

창49:22-'담 위에서 행군하는 딸의...'=거짓에 맞서 싸우는 것. '딸'=(영적)교회, 여기서는 영적 왕국의 교회, 그 이유는 요셉이 취급되기 때문.

이32:9-'딸들'=애착들.

출1:16-'만일 딸이라면 살려두도록 하라'=만일 이것이

말

선이다면 (파괴되지) 않는다...그이유가 지옥의 것들의 침투할 때, 그것들이 진리들을 공격하는 것은 허용되나 선들은 아니기 때문.

출2:5-'바로의 딸이 내려갔다'=거기 광신적 신앙. '딸'='진리와 선에 애착함, 그리고 거기서부터 있는 교회; 그러나 반대 의미일 경우, 거짓과 악에 대한 애착, 그리고 그로부터의 광신적 신앙; 여기서의 경우, 거짓 과학적인 것으로부터의 광신적 신앙, 그 이유는 바로의 딸이기 때문.

예46:11-'이집트의 딸'=부정적인 것이 지배할 때, 과학적인 것들로부터 신앙 속의 진리에 관련하여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추론함에 대한 애착; 고로=거기로부터 근원하는 광신적 신앙; 그리고 이것이 이런 속성인 바, 왜곡된 것 아니면 믿어지는 것이 없다.

이60:4-'내 쪽에서 잘 보호 양육받으며 운반되는 딸들'='계속 은근히 심어지는 선들; 그이유가 '딸들'=선; 그리고 '양육함'=은근히 심어지는 것들.

애4:3-'내 백성의 딸은 잔인하다'=영적 왕국의 교회; 여기서의 경우 황폐되었다.

출2:10-'그녀는 바로의 딸에게 그를 데려갔다'=과학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 쪽으로. '바로의 딸'=광신적 신앙; 그러나 여기서의 경우, 과학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 그이유가 이것은 이 절에서 묘사된 세 번째 상태이기 때문, 그리고 이 경우, '딸'=애착; 그리고 '바로'는 일반적 측면에서의 과학적인 것; 고로, '바로의 딸'=과학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

출2:16-'미디안의 성직자는 일곱 딸들을 두었다'=그 교회의 거룩한 것들. '성직자의 딸'=교회 속의 것들; '딸'=교회; '성직자'=사랑의 선; 고로 '성직자의 딸'=선 측면에서의 교회; '미디안'=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일곱'=거룩한 것; 고로 '미디안의 성직자가 일곱 딸들을 가졌다'=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에게 속하는 교회의 거룩한 것들.

출2:20-'그는 그의 딸들에게 말했다'=교회의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생각함. '딸들'=교회의 거룩한 것들; 여기서 '딸들'에 의해 의미된 거룩한 것들은 진리들이고 이 진리들은 말씀에서 '거룩하다'고 불리운다...

출2:21-'그는 모세에게 그의 딸 십보라를 주었다'=그는 자기 고유의 교회의 선을 그에게 접합되게 했다...'딸'='선, 그리고 또한 교회; '십보라'=그 교회의 선의 품질.

출3:22-'너는 그것들로 네 아들들과 네 딸들을 입힐 것이다'=그들의 진리들과 선들을 응용함. '아들들'=진리들; 그리고 '딸들'=선들.

출10:9-'우리의 아들들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의 딸들과 더불어'=진리에 애착함과 선에 애착함에 있는 이들. '아들들'=교회의 진리들, 고로 애착들, 그 이유는 애착들 없는 진리들은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 그리고 '딸들'='선들, 고로 선에 애착함들.

미4:13-'시온의 딸'=천적인 교회.

출20:10-'너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네 아들도, 네 딸도'=천국 그리고 인간의 내적, 외적 측면에 있는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을 위한 행복...'네'=인간 자신; '아들'='그의 지적 측면; '딸'=그의 자발적 측면, 모두는 내적 인간 안에서...'아들'=지적 측면인 이유는 '아들'=진리이기 때문, 그이유가 진리가 지적 측면을 구성하기 때문; 그리고 '딸'=자발적 측면인 이유는 '딸'=선이기 때문, 그이유가 선들은 자발적 측면을 구성하기 때문.

출16:20-'딸들'=선들

출21:4-'만일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과 딸들을 낳는다면'=진리들과 그로부터 파생된 선들. '아들들'=진리들; 그리고 '딸들'=선들.

출21:7-'사람이 자기 딸을 하녀로 팔았을 때'=자연적 기쁨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 '사람의 딸'=진리에 애착함; 그이유가 '딸'=애착; 그리고 '사람'=진리.

출21:9-'딸들의 판단들에 따라서 그는 그녀에게 행동할 것이다'=진리에 대한 순수한 애착인 듯 있을 것이다...'딸'=진리에 애착함; 그이유가 '여종'=자연적 즐거움으로부터 있는 진리에 애착함; 고로 그녀가 약혼되기 전은 순수하지 않다.

출21:31-'또는 아들 또는 딸을 찢렸든지...'= 내면의 것들로부터 파생된 신앙의 선들과 진리들에 맞서 악에 대한 애착을 수단으로 욕설함...'아들'=신앙 속의 진리; 그리고 '딸'=신앙 속의 선; 그들=내면의 것들로부터 파생된 진리들과 선들인 이유는 내면의 것들이 부모 격이

딸

어서, 이로부터 선들과 진리들이 아들과 딸이 태어나듯 하기 때문.

애2:11-'내 백성의 딸'=(영적)교회

레22:12-'낮선 사람에게 결혼한 성직자의 딸은 먹지 못할 것이다'=교회의 거룩한 것들은 교회의 진리들과 결합되지 않은 선들에게 사유할 수 없다.

시55:12-'두로의 딸이 너에게 선물을 바칠 것이다'; 진리에 애착함에 관련하여 교회가 여기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왕의 딸'이라 불리운다; 그이유가 '딸'=애착 측면의 교회, 그리고 '왕'=진리 측면의 교회.

마10:35-'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고...' '딸'=선에 애착함과 진리에 애착함,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거짓과 악에 대한 애착들.

출34:16-'만일 네가 네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한다면'=악에 대한 애착이 진리와 결합함...' 딸들'=선에 애착함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악에 대한 애착들.

출34:16-'그리고 그의 딸들은 자기들의 신들에 따라 간음을 범한다, 그리고 네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간음짓을 한다'=고로 선과 진리에 대한 모독...'그의 딸들' 또는 토지의 거주민의 것들=악에 대한 애착들.

이13:21-'올빼미의 딸들'=다양한 색욕들.

예19:0-'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는 것'=사람의 자아와 더불어 선과 진리를 파괴하는 것; '아들들'=진리들; 그리고 '딸들'=선들.

예5:17-'아들들과 딸들'=진리와 선에 애착함들.

이3:17-'시온의 딸들'=천적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속의 것들; 여기서의 경우, 뒤집어졌다.

창49:22-'딸의...'=악들에 있는 이들, 그리고 거짓들을 수단으로 선들을 파괴하기를 원한다.

예6:23-'시온의 딸'=교회

예8:21-'내 백성의 딸'=교회.

삼하13:18-'처녀인 왕의 딸들'=진리에 애착함들, 그리고 그로부터 교회.

예5:17-'네 아들들과 딸들이 먹어치울 것...'=진리와 선에 관한 모든 영적 애착들.

시48:11-'무척 기뻐할 유다의 딸들'=천적인 교회에 소속된 이들에게 속하는 선과 진리에 애착함들.

눅12:53-'어머니가 딸에, 딸이 어머니에 맞서...'=진리

에 애착함에 맞서는 거짓으로부터의 탐욕; 그리고 그 반대도 역시.

이43:20-'용들과 올빼미의 딸들'=기억으로부터만 진리들과 선들을 아는 이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지각하지 못한다; 이들은 진리에 대한 어떤 생각조차 없이 진리를 말할 뿐, 진리와는 전혀 다른 것들에 의존할 뿐이다.

이47:5-'갈대아인들의 딸'=진리의 거짓화.

눅12:53-'어머니'=교회의 진리, '딸'=교회의 선.

겔23:4-'그들이 낳은 아들들과 딸들'=교회 속의 거짓들과 악들.

시106:37-'아들과 딸을 제물로 희생하는 것'=악한 탐욕들을 수단으로 교회 속의 진리들과 선들을 파괴하는 것; '아들들'=교회의 진리들; 그리고 '딸들'=교회의 선들.

레26:29-'모든 진리와 선의 소비가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아들들'=교회의 진리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교회의 거짓들; 그리고 '딸들'=진리와 선의 애착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거짓의 탐욕들과 악의 탐욕들; 그것들의 상호 소비와 소진함이 '그들을 먹음'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암7:17-'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검에 의해 망할 것이다'=교회 속의 진리들과 선들은 악의 거짓들을 수단으로 멸해질 것이다.

애2:10-'시온의 딸들, 그리고 '에루살렘의 처녀들'=선과 진리에 애착함에 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 그리고 추상적으로, 이런 애착들 자체.

겔16:50-'오만불손한 딸들'=(자아 사랑) 속에 있는 탐욕들.

겔23:25-'아들들과 딸들'=그들이 파괴할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

민25:1-'모압의 딸들과 매춘짓을 하는 것'=교회의 선들에 섞음질하는 것.

예16:3-'아들들과 딸들'=외면의 진리들과 선들; '어머니들과 아버지들'=내면의 진리들과 선들...

시144:12-'우리의 딸들'=진리에 애착함들.

겔24:21-'그것의 애착들과 더불어 모든 진리들이 거짓

땀-땅

들을 통하여 멸해질 것이다가 '네 아들과 딸들이 겁에 죽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아들들'=진리들; '딸들'=진리에 애착함.

예6:2-순수한 진리에 있는 교회가 '시온의 딸'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예48:46-'네 아들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네 딸들도 그럴 것이다'=그들의 교회 속의 진리들과 선들은 거짓들과 악들로 인해 닫혀질 것이라는 것; '아들들'=진리들; 그리고 '딸들'=선들.

애2:10-'시온의 딸'=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시45편-'왕의 딸들'=신성한 진리에 애착함 ...'두로의 딸이 선물을 보낼 것이다'=진리의 지식들에 있는 이들에 의한 예배... '왕의 딸은 내부가 모두 영광스럽다'=진리에 대한 영적 애착, 이것이 풍부하게 있는 진리로부터 영광스럽다하고 불린다, 그리고 '내부'=영적인 것.

예5:17-'추수'와 '빵'=자양분을 주는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 '아들들과 딸들'=같은 것을 생산한다.

이32:9-'주의함이 없는 딸들'=진리들 보다 더 거짓들을 사랑하는 교회에 있는 이들.

애1:15-'유다의 딸'=말씀으로부터 진리의 교리로부터 있는 교회.

땀 (sweat)

창3:19-'생김새(표정, countenance)의 땀에서 빵을 먹는 것'=천적인 것에 반대되어지는 것.

눅22:44-'그분의 땀은 핏방울 같았다'

겔44:18-그들은 '땀과 더불어 허리띠로 졸라매지 않아야' 하는 것=예배의 거룩한 것들이 인간의 자아와 혼합되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 이유는 '땀'=인간의 자아...

땅 (earth)

토지 (land)

창1:1-'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땅'=거듭나기 이전 외적 인간

창1:2-'땅은 공허하고 텅비었다'=거듭나기 이전의 인간.

창1:11,12-'땅이 그러므로해서 준비되었을 때, 즉 인간...

마13:19~24-'땅'은 인간을 의미한다는 것, 그분 자신이 말해주고 있으시다.

이62:4-이해성이 의지와, 또는 믿음이 사랑과 한쌍되었을 때, 인간은 '결혼한 땅'이라 불리운다.

창2:1-'하늘과 땅이 마무리되었다'=인간은 이제 '옛세계 날'인 영적 인간이 되었다; '하늘'=인간의 내적 인간; 그리고 '땅'=그의 외적 인간.

창2:4-'이것들은 하늘들의 태생과 땅의 태생의 사람들인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셨던 그 날에, 그분이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이다'. '하늘들 태생의 사람과 땅 태생의 사람들'=천적 인간의 형성.

창2:5,6-'땅'=그가 영적 인간인 동안에서 외적 인간; '지면(ground)' 그리고 '들판(field)'=그가 천적 인간이 될 때 외적 인간.

예4:23-'땅'=외적 인간.

겔20:41-'지면'=내적 예배; 그리고 내적 예배가 없는 경우 '토지'라 불리운다.

말3:12-'토지'=담는 것, 고로 토지=사람; '지면'이 교회 또는 교리라 불리울 경우 사람=토지이다.

창6:5-'인간의 악이 땅에서 불어났다'=선에 속한 의지가 없기 시작했다는 것...글자 의미에서 '땅'=인간이 있는 곳; 내적 의미에서 사랑이 있는 곳, 의지가 이에 해당되는데 탐욕도 있는 곳이다...'땅'은 인간의 의지 자체를 뜻하도록 채용되고 있다...'가나안의 토지', 또는 '거룩한 토지'는 사랑을 뜻하려고 채용되고 있다. 고로 천적 인간의 의지를 뜻하려 채용되고 있다. 이런 경우들은 말씀의 많은 구절들로 확증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의 토지들은 그들의 사랑들을 뜻하려고 채용된다. 일반적으로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다...이로부터 명백한 바, '땅에 있는 인간의 악'=그의 자연성의 악, 이는 의지 속에 있다.

창6:11-앞서 취급한 그 나라.

창6:12-'하느님이 땅을 보셨다'=하느님은 인간을 아셨다는 것.

창6:13-'땅은 폭력으로 가득찼다'=선의지는 더 이상 없었다.

창8:13-'물들이 땅 위로부터 말랐다'=거짓들이 나타나지 않았다...여기서의 '땅'=인간의 의지, 이 의지는 탐욕

밖에 더 아니다.

창8:17-그들은 인간의 신체를 땅, 또는 지면에 비교해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구절에서 같이 그들은 그것을 땅 또는 지면이라 불렀다. 거기서 '땅'은 외적 인간 외 더 다른 의미는 없다.

창8:22-'땅의 모든 날들'=모든 시간...땅이 있는 한, 또는 땅 위에 주민이 있는 한..

창9:1-'땅을 채우는 것'=외적 인간과 더불어

창9:7-'너희는 땅 위에서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고 번성하라'='땅'인 외적 인간 안에서 선과 진리의 증가함.

창9:13-'이것은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표시를 위해 있을 것이다'=주님은 선행 안에서 현존하신다에 대한 표시. 여기서의 '땅'=인간의 자아(proprium)...그러므로 명백해지는 바, '땅'=거듭나지 않은 것, 그리고 거듭나질 수 없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의지 부분에 있는 인간 자아이다는 것이다.

창9:14-'땅 위에서 구름으로 나 자신을 흐리게 하는'=인간의 의지 부분의 자아 때문에 선행으로부터 있는 신앙이 나타나지 않을 때...

창10:5-'그들의 토지 안에 있는 나라들의 섬들', '토지들'=그들의 일반적인 것들.

창10:8-'그는 땅에서 용사였다'=이런 종교가 교회에서 세력을 떨쳤다. '땅'=교회

창10:20-'그들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언어에 따라, 그들의 토지에서, 그들의 나라에서'=일반적으로, 특수적으로나 각각의 특질에 따라서.

창10:25-'그의 시대에서 토지가 나뉘었다'=그 때에 새로운 교회가 일어섰다.

창10:32-'이들로부터 땅에 있는 나라들이 흐트러졌다'=그때부터 선들에, 또는 악들에 관련되는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왔다.

창11:1-'전체 땅은 한 입술 속에 있었다'=모두 각각은 일반적으로 한 교리이었다.

창11:9-'여호와께서 온 땅의 입술을 혼동되게 하셨다'=고대 교회의 상태...'온 땅의 얼굴'=교회의 상태.

창12:1-'너는 네 토지로부터 떠나가라'=육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서 손을 떼어야 하리라는 것.

창12:10-'그 토지에 기근이 있었다'=주님이 아가이셨

을 때 지식의 빈궁함이 그분을 짓누르고 있었다.

창13:6-'그 토지는 함께 거주하도록 그들을 받쳐주지 못했다'=내적인 천적인 것들에 속하는 일련의 것들은 룯에 의해 의미되는 것들과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

창13:7-'그 당시 가나안족과 브리스족이 그 토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외적 인간에 있는 악들과 거짓들.

창14:19-'하늘들과 땅의 소유자'=내적 인간 또는 여호와와 내면과 외면의 인간과 결합함.

창15:7-'그것을 상속받도록 이 토지를 너에게 주는 것'=주님의 왕국, 그 속에서 주님 홀로 소유자이다...'토지를 상속받는 것'은 여기서 주님의 인간 본질을 서술하고 있다; 그 이유가 그분의 신성 본질에 관련하여 서술한다면 그분은 영원부터 우주의 소유자, 천국 왕국의 소유자 되시기 때문.

창15:13-'그들의 것들이 있지 않은 토지에서'=비록 교회가 선행과 신앙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가 있는 곳.

계10:2-'바다'=자연적 진리들, '땅'=자연적 선들

이66:1-'땅이 나의 발판이다'...'땅'=이전에 상응하는 보다 낮은 것들; 보다 낮은 합리적이고 자연적인 것들과 같다...보다 낮은 천국들에 있는 것과 같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같고, 외적 예배에 있는 것들과 같다. 또한 말씀의 글자 의미에 있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내적인 것들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외적인 것 안에 표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바, '땅'이라, 그리고 '주님의 발판'이라 불리운다.

창18:25-'은 땅의 재판관'=진리인 것으로부터 있는 선 자체.

창20:1-'남쪽의 토지'=믿음으로부터의 선과 진리.

창20:15-'아비멜렉이 말했다, 보라 내 토지가 네 앞에 있다'=사랑과 선행의 교리에 관하여 주님께서 지각하심...'토지'=사랑과 선행의 교리.

예4:7-'토지를 못쓰게 만드는 것'=교회를 황폐해지게 하는 것.

애2:9-'문들이 땅 안으로 가라앉는다'=자연적 마음이 악들과 거짓들에 의해 소유되어진다.

신28:49-'땅의 맨 끝으로부터...나라가..'=악들과 거짓들.

창24:4-‘너는 내 토지, 내 출생지로 갈 것이다’=주님께
서 자신을 위해 획득하신 신성한 천적이고 영적인 것
들. ‘토지’=사랑으로부터의 천적인 것; 그리고 ‘출생
지’=사랑으로부터의 영적인 것.

창24:7-‘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내 출생의 토지’=어머
니다운 것, 또는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것, 이로부터 주
님께서 맞서 싸우셨던 악과 거짓이 왔다...‘아버지의
집’=악에 관련하여 어머니로부터 상속된 것, ‘내 출생
의 토지’=거짓들에 관련되어 어머니로부터 상속된 것.

창26:3-‘나는 이 모든 토지들을 줄 것이다’=영적인 것
들; (그 이유가) 여기서 ‘토지들’=합리적인 것들, 이것
은 신성에 의해 계발되는 바, 진리의 나타남이다...

창26:4-‘그리고 나는 네 씨에게 모든 이 토지들을 줄
것이다’=그때부터 교회들이 파생되었다..‘토지들’=신성
에 의해 계발된 진리의 나타남인 합리적인 것들.

호9:3-‘여호와와의 토지에 거주하지 않는다’=사랑의 선
의 상태에 있지 않는 것, 고로 주님의 왕국 안에 있지
않는 것.

창26:22-‘우리는 토지에서 열매 있을 것이다’=그때부
터 선의 증가가...‘토지’=교회, 그리고 교회 속의 것은
무엇이든지.

숙8:12-‘땅은 그것의 생산물을 줄 것이다’=교회의 천
적인 것 또는 선형의 선은 진리를 줄 것이다.

창28:4-‘네가 거류하는 토지’=교훈들의 생명...‘토지’=
생명이 있는 곳.

창28:13-‘네가 누운 토지, 나는 네게 그것을 줄 것이
다’=그가 있었던 선, 그것은 자아로부터였다는 것. 여
기서의 ‘토지’=자연 속의 선.

창28:14-‘네 씨는 땅의 먼지 같이 있을 것이다’= 자연
속의 신성한 진리는 자연적 선으로서 있을 것이다...‘땅
의 먼지’=선인 이유는 ‘땅’=주님의 왕국, 그러므로 선
이기 때문. 땅의 먼지=선이기는 하나 그 선은 자연적
선이다, 그 이유는 ‘땅’= 주님의 왕국에서 보다 낮은
것, 즉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

이33:17-‘먼 거리의 토지를 보는 것’=사랑의 선.

창30:25-‘나를...내 토지로 보내라’=자연성이 합리성
속의 신성과의 결합을 갈망함...그 이유가 ‘내 토지’는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뜻하기 때

문.

창31:13-‘네 출생지의 토지로 되돌아 가는 것’= 진리
로부터의 신성한 선과 결합함.

마24:35-‘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다 등등’=이전 교회
의 내, 외적인 것은 멀해지나 주님의 말씀은 남아 있을
것이다.

창32:3-‘시날의 토지’=자연적 선 속의 천적인 것.

창34:1-‘토지의 딸들을 보려고’=진리에 애착함, 이로부터
파생된 교회들을 아는 것...‘토지’. 여기서는 가나안
의 토지,=교회가 있는 넓은 땅과 나라, 고로 교회 자체.

창34:2-‘토지의 왕자’=교회들 중에서 최초의 것.

창34:10-‘토지가 네 앞에 있을 것이니, 너희는 거주하
라’=교회, 이것은 하나이다.

창34:21-‘토지에 거주하는 것’=교회 속에 있는 일련의
것들에 따른 생활로 비슷해짐.

창34:30-‘토지의 주민’=고대 교회 속에 있었던 이들.

습1:18-이 토지가 ‘종말을 보았다, consumated’라고
말해질 때, 이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
는 나라 속의 거룩한 예배를 뜻하여 말해지는 것이다.

창35:22-‘토지’=선에 관련된 교회. 이 구절의 경우 진
리로부터의 선에 관련된 교회.

숙5:3-‘온 땅의 얼굴’=보편적 교회.

창41:54-‘기근이 모든 토지에 있었다’=자연의 모두 각
각이 황폐함.

창42:9-‘토지의 벌거벗음’=교회에 진리가 없음.

창43:1-‘토지 안에서’=교회 속에 있는 이런 것들에 관
하여.

창43:11-‘네 그릇에 토지의 노래(chanting, song)를 취
하거라’=믿음으로부터의 진리 안에서 선택한 교회 속의
것들.

창44:11-‘그들 모두 각각은 자기 자루를 땅에 내려 놓
았다’=그들은 자연 안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감각적인
것들로 내려가도록 아래쪽으로 가져왔다. ‘땅’이 이
구절 같이 ‘그들은 그쪽으로 내려가게 했다’라고 말해질
경우,=최말단인 것, 그리고 가장 낮은 것, 고로 감각적
인 것.

예47:2-‘그들은 땅을 채우고 침수시킬 것이다’=전체
교회.

시24:1, 89:11-‘땅’= 특별한 측면에서의 교회.
 창48:1-‘그분은 너를 네 아버지들의 토지로 도로 데려다 놓을 것이다’=두 고대 교회들의 상태.
 창49:15-‘그리고 기쁨이 있는 토지’=주님의 왕국에 있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 이유가 ‘가나안의 토지’는 말씀에서 ‘토지’에 의해 의미되는 것인 주님의 왕국을 표현했기 때문; 그리고 아주 고대 시대 때부터 그 토지에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출1:7-‘그리고 토지는 그들로 가득찼다’=교회 속이 가득차기까지 조차. ‘고센의 토지’, 거기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때 당시 있었던 곳=교회.
 예46:8-(이집트가 말했다) ‘나는 땅을 덮을 것이다’=교회.
 암8:8, 9:5-‘움직일’ ‘땅’=교회
 이18:1-‘날개들로 그늘지고 있는 토지’=과학물로부터 추론함에 의해 자체를 어둡게 하는 교회.
 예12:4-‘통곡할 토지’=교회.
 출2:15-‘그는 미디안의 토지에 거주하였다’=단순한 선 안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생활함. ‘토지’가 언급된 이유는 그곳의 교회를 뜻했기 때문.
 출2:22-‘그는 말했다, 나는 외국의 토지에서 거류자이다’=그는 자신의 교회가 아닌 교회의 진리들로 혼용되었다는 것.
 출3:8-‘좋고 넓은 토지로’=천국으로, 선행의 선과 믿음의 진리가 있는 곳. ‘토지’, 여기서 가나안의 토지=주님의 왕국, 고로 천국; ‘좋은 토지’=선행의 선이 있는 곳; 그리고 ‘넓은 토지’=믿음의 진리가 있는 곳.
 출4:3-‘그것을 땅에 던져라’=주님의 신성한 자연성 속의 권능이 감각적인 것 안으로 유입됨.
 출5:5-‘오, 토지의 백성이 지금은 많다’=영적 교회 속에 있는 많은 이들.
 출6:1-‘그는 그의 토지로부터 그들을 내몰 것이다’=그는 그들을 그의 근처로부터 싸우도록 놔둘 것이다...그 이유가 영적 교회 속의 이들이 거짓들을 수단으로 침입받는 토지는 그것들을 침입하는 지옥 근처에 있기 때문, 그리고 그 토지는 보다 낮은 땅이라 불린다.
 출8:16-‘토지의 먼지를 강타한다’=지옥에 떨어질 자연적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출8:22-‘나 여호와와는 토지 한가운데에 있다’=주님은 교회의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출9:15-‘너는 토지로부터 잘라내질 것이다’=교회 속에 있는 일련의 것들과는 더 이상 어떤 소통도 없다.
 출8:23-‘땅에서 걷는 것’=자연적 마음의 가장 낮은 것들까지 조차 소유하는 것.
 출10:15-‘그것은 땅의 표면을 덮을 것이다’=자연적 마음 속의 최말단의 것들.
 출12:19-‘외국인이든, 토지에서 태어난 자이든’=교회에서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교회 속에 있는 이들.
 출13:5-‘젖과 꿀이 흐르는 토지’=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
 출14:3-‘그들은 토지에서 엮혀져 있다’=그들은 교회 속에 있는 일련의 것들에서 혼동하는 가운데 있다...‘토지’=교회 속에 있는 것들
 출15:12-‘땅이 그들을 삼켰다’=지옥에 떨어짐과 지옥...악으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이 사막의 토지로 나타나는 장소, 여기는 저주된 토지라 불린다; 지옥 안으로 던져진 이들이 그 아래에 있다.
 출16:35-‘그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토지에 올 때까지’=그들이 천국에 오기 전에. ‘토지’ 여기서는 가나안의 토지=주님의 왕국, 고로 천국.
 출18:3-‘그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숨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나는 외국 토지에서 거류자가 되어왔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교회 밖에 있는 이들 속에 있는 진리로부터의 선에 관한 품질...‘외국 토지’=교회가 없는 곳... ‘외국 토지’=진짜 교회가 없는 곳인 이유는 ‘토지’=교회이기 때문. 그리고 ‘외국, strange’=진짜이지 않은 것이 있는 곳.
 출18:27-‘그는 그 자신의 토지로 갔다’=신성 자체로... ‘그의 자신의 토지로 가는 것’= 이전 상태로, 고로 신성으로. 더구나 내적 의미에서 ‘토지’=교회, 그리고 또한 천국; 그로부터 최고 의미에서 토지=신성인 것...최고 의미에서 ‘토지’=신성인 것인 이유는 ‘이드로’가 신성한 선, 고로 신성 자체를 표현했기 때문이다...‘토지’=교회가 가장 적절하다. 그 이유는 천국에 있는 이들은 말씀에서 ‘토지’를 읽을 때 자연계의 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토지에 있는 나라의 영적 상태

에 관해, 고로 거기 있는 종교적인 것에 관해 생각한다. 그러므로 토지가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읽게 될 때, 그들은 교회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왕국에 관한 생각, 고로 천국에 관한 생각도 가진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관한 생각을 가질 때, 그들은 또한 천국에 있는 신성에 관한 생각도 가진다. 그러나 표현된 어떤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것, 또는 천국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을 취급할 경우, 이런 것들이 '토지'를 수단으로 뜻해질런지 모른다. 즉 사랑, 선행, 선, 믿음 등등을 뜻할런지 모른다. 그러기에 명백한 바, 단어에 적절히 속하는 의미는 아직도 남아 있다; 마치 사랑, 또는 선, 또는 선행이 의미될 때, 그 단어에는 아직도 교회에 관련되는 보편적 의미가 남아 있는 것과 같다;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 교회의 필수 본질이기 때문이다.

출19:5-'모든 땅이 나의 것이다'=주님은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능을 가지신다는 것. (그 이유가) 내적 의미에서 '땅'=땅에 있는 주님의 왕국, 그리고 또한 천국에 있는 주님의 왕국.

출20장-'위로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영적 빛에 있는 것과 자연적 빛에 있는 것.

출20장-'여섯째 날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다'=거듭남 그리고 내적, 외적 인간에 있는 것들이 생기 있게 됨...'하늘과 땅'=교회 또는 인간 안의 주님의 왕국; '하늘'=내적인 것. '땅'=외적인 것...그런고로 이것은 거듭나는 인간이다.

출20장-'네 날들이 토지 위에서 길어질런지 모른다'=결과적으로 당연히 수반되는 천국에서의 삶...'토지', 여기서는 가나안의 토지, 그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주님의 왕국에게 말해졌기 때문이다.

이26:21-'땅'=옛 교회

* '일곱째 해에 토지를 휴식시키는 것'=두 번째 상태, 교회 속의 사람이 선 안에 있을 때.

왕하2:19-'불모의 토지'=교회의 선이 살아있지 않음.

왕하2:29-'토지가 황폐해지지 않도록'=결핍, 영적 생명이 거의 없음.

말3:12-'너희는 아주 기뻐하시는 토지일 것이다'=거듭난 인간.

출28:30-'네가 토지를 상속할 때 까지'=선 안에 있는 동안, 또는 거듭나는 동안...여기서의 토지는 가나안의 토지=주님의 왕국, 고로 천국. 그러므로 '토지를 상속 받는 것'=상속자 같이 천국을 받는 것.

출23:33-'그들은 네 토지에서 거주 못할 것이다'=악들은 교회의 선과 함께 있게 해서는 안된다...'토지'=선 에 관련되는 교회, 고로 교회의 선.

단8:9-'우아함의 토지'=신성한 진리 또는 말씀이 있는 주님의 교회.

이48:13-'그가 찾아낸 땅'=최말단의 것.

출31:17-'옛새 동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교회가 설립되어질 때 겪는 수고와 전투의 상태...'하늘과 땅'=교회...'하늘'은 교회의 내적인 것, '땅'은 교회의 외적인 것을 뜻해주고 있다.

출32:13-'내가 말했던 이 모든 토지를 나는 네 씨에게 줄 것이다'=천국과 교회에 있는 이들로부터...교회가 '토지'에 의해 의미되듯 천국도 의미해준다; 그 이유가 교회는 땅에 있는 주님의 천국이기 때문; 그리고 교회 또한 천국과 하나로서 행동한다; 그 이유가 전자는 후자로부터 발생하고 지탱되기 때문.

출33:1-'토지로 올라가는 것'=교회를 설립하는 것.

예14:4-'땅'=교회가 있는 곳; 그리고 '지면'=교회 자체.

출34:12-'너희는 너희가 들어가는 토지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악이 있는 종교에는 어떤 것이든 들리 불지 말라는 것...'토지'=교회, 또는 교회 속의 것은 무엇이든지, 고로 종교적인 것.

출34:24-'누구도 네 토지를 탐내지 못할 것이다'=그들이 선들과 선들로부터 진리들을 보고 지각할 때, 악들과 악들로부터의 거짓들에 있는 교회 속에 있는 것들에 혐오감을 느낀다는 것...'토지'=교회, 교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28:18-'그분은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으시다.'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라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천국을 통치하시는 분이 땅 역시 통치하시기 때문; 그 이유가 이것은 저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1:5-'땅의 왕들의 왕자'=교회 안에서 선으로부터 있

는 모든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있다.

계1:7-‘땅의 족속들’=교회 속의 선들과 진리들.

이13:9-‘황폐해지게 놓일 토지’=교회, 교회가 황폐해져 있음 속에서도 말씀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계3:10-‘땅에 거주하는 그들을 심리하는 것’=마지막 심판의 날 (이전에 천국 안에 있었던 이들을 방문함)

계5:3-‘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없었다’=보다 높은 천국들 안에, 보다 낮은 천국들에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요한은 영 안에 있었다, 이 상태에서 그에게 나타난 땅은 영계의 땅 밖에 더 다른 땅은 없었다; 그 이유가 자연계에 땅이 있듯 거기에도 땅들이 있기 때문이다...보다 높은 천국들은 산이나 언덕들 위에 나타난다; 보다 낮은 천국들은 땅 아래에 나타난다; 최말단의 천국은 마치 땅 아래 있는 것 같이 나타난다. 그 이유가 천국들은 광활한 공간 (expanse)이어서 이것이 저것 위에, 저기 있는 이들의 발 아래 있는 땅 같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광활한 공간은 산꼭대기와 같다; 두 번째 광활한 공간은 첫 번째 아래에 있다, 그러나 그 자체 옆으로 더 넓게 빙둘러 넓혀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광활한 공간은 두 번째 보다 더 넓게 넓혀져 있다. 그래서 후자가 전자 아래 있는 바 같이, 땅 아래 있는 그들이 거기에 있다. 세 천국들 또한 보다 높은 천국들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와 같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그들 아래 두 천국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들이 요한에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요한이 그것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영계에 관한 어떤 것 그리고 거기에 있는 땅들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이들은 ‘땅 아래’, 또는 ‘땅의 더 낮은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 구절에서 뜻하고자 하는 것이 영계의 땅들임을 누가 알지 못할까? 그 이유는 땅 아래 거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계5:6-‘모든 땅 안으로’=종교가 있는 보편적 세상 안으로 (=천국과 교회)

계5:10-‘땅을 통치하는 것’=주님의 왕국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분 자신과 하나되어 있는 것

계7:1-‘네 천사들이 땅의 네 모퉁에 서있었다’=영들의

세계 안에 있었던 이들 위에 마지막 심판을 결과되게 하려고 시도하는 보편적 천국. (주님으로부터의 신성인 것이 보편적 영계 안으로 진행함.)

계7:1-‘땅의 네 바람들을 붙잡고 있어, 그것이 땅에, 바다에,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할 것이다’=선한 것과 악한 것이 결합된 채 있는 곳인 더 낮은 것들 안으로 더 가까이 그 결과 더 센 유입이 주님에 의해 보류되고 제지되고 있다.

계8:5-‘땅으로 향로를 던지는 것’=유입이 더 낮은 부분들 안으로.

계8:7-‘그들은 땅으로 내던져졌다’=교회의 내적인 것들과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더불어...

계8:13-‘땅의 주민들에게 슬픔이 있다’=교리와 생활에서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으로 자신을 굳힌 이들의 상태는 지옥에 떨어질 상태인지라 통곡함.

계9:1-‘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진 별을 보았다’=영적 신성한 진리가 천국으로부터 그들과 더불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 탐구하고, 명백해진다...‘땅’은 여기서 교회의 내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교회를 의미한다. (=멸망함)

계9:3-‘땅의 전갈’=교회 속의 것들 안에 있는 설득력 있는 것.

계10:2-‘그는 자기의 오른 발을 바다 위에, 그의 왼발은 땅에 두었다’=주님은 교회의 내적, 외적 안에 있는 모두를 포함하는 보편적 교회를 그분의 후원과 지배 아래 가지신다.

계10:6-‘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 땅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천국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각 그리고 전부를 살아있게 하시는 분, 교회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그 안의 모두 각각의 것을 생기 있게 하시는 분...‘하늘’은 천사들이 있는 천국을 뜻하고 있다; ‘땅’은 교회의 내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 ‘바다’는 교회의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을 뜻한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란 그들과 더불어 있는 각각, 전부를 뜻한다.

계11:6-‘갓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갓가지 종류 의 악들과 거짓들을 수단으로 교회 위에 파멸을 초래케

하는 것.

계11:10-‘땅 위에 거주하는 그들’=교회 안에 있는 그들; 이 구절의 경우, 믿음 만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들. ‘땅’=이들이 있는 교회.

계11:18-‘땅을 파괴하는 그들을 파괴하는 것’=교회를 파괴한 이들을 지옥으로 내침.

계12:4-‘하늘로부터 끌어내리는 것, 그리고 땅으로 내던지는 것’=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쟁그리 파괴함.

계12:9-‘그가 땅으로 내쳐졌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이 그와 더불어 내쳐졌다’=그가 영들의 세계로 내쳐졌음... 이 세계는 지상의 사람들과 직접적 결합이 있다. 용이 내쳐진 땅이 영들의 세계인 이유는 이 세계는 천국 바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천국으로부터 내쳐졌을 때, 그가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래 이 세계의 땅으로 떨어진다...(지옥으로 정죄되기 위해).

계12:12-‘땅과 바다의 주민들에게 슬픔이 있다, 그 이유는 악마가 큰 분노를 가진채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믿음 만으로 (구원된다) 라는 교리의 내, 외적인 것 안에 있는 이들에게 통곡함이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것과 대충 닮은 것이 천국으로부터 영들의 세계 안으로 내쳐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구의 사람들과 결합하여, 새 교회를 미워함으로부터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들과 이 거짓에서 파생된 악들을 보존하려 휘젓고 있다. (=오로지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이들에게 통곡함이 있다)

계12:16-‘땅이 여인을 도왔다; 그리고 땅은 그녀의 입을 열었다, 그리고 용이 그의 입으로부터 또한 홍수를 삼켰다’=용의 추종자(dragonist)들이 풍부하게 발상해 낸 거짓들로부터의 추론들은 합리적으로 이해된 진리들 앞에서 무(nothing)로 전락한다. 이 합리적으로 이해된 진리가 미가엘이고, 새 교회와 일치되는 진리이며 새 교회가 공표하는 진리이다. ‘여인을 도운 땅’= 교리 측면에서의 새 교회; 그리고 용의 추종자들이 짜낸 거짓들로부터의 추론이 취급되는 바, 땅은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이다. 이 진리, 땅, 즉 교회가 여인을 돕는다. ‘그녀의 입을 연다는 것’=이런 진리들을 공표하는 것. (=진리들 안에 있지 않은 교회 속의 사람은 원조를 되돌

렸다, 그리고 (선행과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의 속임수의 추론을 받지 않았다)

계13:3-‘온 땅이 놀라워하며 짐승을 따랐다’=그 당시 이 신앙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온 땅의 교리가 되었다... ‘온 땅’=모든 개혁 교회.

계13:11-‘나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또다른 짐승을 보았다’=개혁 교회 속의 성직자들... ‘땅’=교회의 내부적인 것.

계13:12-‘땅과 그 안에 거주하는 그들’=개혁 교회.

계14:3-‘땅으로부터 샀다’=거듭나질 수 있는 이들, 고로 세상에서 구속될 수 있는 이들.

계14:16-‘땅은 거두어 들여졌다’=교회의 끝장.

계14:19-‘그는 땅의 포도원을 수확했다’=현 기독교 교회의 끝장.

계16:1-‘가서 땅에 하느님의 분노의 대접을 쏟으라’=개혁 교회 안으로의 유입.

계17:2-‘첫째가 나갔다, 그리고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다’=개혁 교회의 내면의 것들에 있는 이들 안으로.

계18:24-‘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거짓들을 통하여 멀해졌었던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계20:8-‘땅의 네 모퉁이’=보편적 영적 세계; 이 구절의 경우, 영들의 보편적 세계 안에 있는 이들.

계20:9-‘땅의 폭 위에 가는 것’=교회의 모든 진리를 쫓아버림.

계20:11-‘그분의 얼굴로부터 하늘과 땅이 도망했다’=모든 첫 번째 천국들 위에 있는 보편적 심판...그들의 땅과 더불어 하늘들이 완전하게 흠뜨려졌다.

요8:6-‘주님께서는 그분의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그들도 동등하게 간음 사건에서 정죄되었다...

계21:24-‘땅의 왕들’=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모든 이.

이49:8-‘땅을 회복하는 것’=교회를 회복하는 것; 그 이유가...주님께서는 유대 백성에게 땅을 회복시켜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교회를 설립하셨다.

* 반대적 의미일 경우, ‘땅’=황폐된 교회, 이것은 오로지 교회 안에 악과 거짓 만 있을 때 거행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간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바, 이럴 경

때-때가 참-떠나다-떠나가다-떠들석함

우, '땅'=지옥에 떨어짐.

시135:6-'땅'=아래 있는 이들.

이60:18-'폭력이 너희 토지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토지'=내적, 영적 인간, 그이유는 '토지'에 의해 의미된 일반적 측면의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28:24-'땅을 써레질하는 것'=기억 안에 모아두는 것.

학2:6-'하늘과 땅'=교회 속의 모든 내면의 것들; '바다, 그리고 마른 토지'=외면의 모든 것들.

시136:6-'그분이 물들 위에 펼치신 땅'=교회의 외적인 것, 한마디로 자연적 인간이라 불린다.

신33:13-'(요셉의) 토지'=영적 왕국, 마찬가지로 이 왕국에서 파생된 교회.

이13:9,13-'토지' 그리고 '땅'은 영계 안에 있는 땅을 뜻한다; 그 이유가 거기에도 우리의 지구와 같이 땅들이 있기 때문, 그리고 마지막 심판 동안, 그들은 황폐함을 만들고 있고, 그들의 장소로부터 흔들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땅'의 영적 의미는 (성경) 각처에서 교회를 뜻하고 있다; 그이유가 영적 세계에서, 땅의 얼굴은 거기 땅 위에 거주하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교회의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멸해질 때, 땅 역시 멸해진다. 그이유가 그 둘은 하나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전의 땅의 장소 안에 새로운 땅이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바뀔들은 땅들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계7:1-'땅의 바람들이 말해진 이유는 '땅'이 영계 안에 있는 모두 각각의 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땅'은 천국과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계10장-'바다' 그리고 '땅', 이 위에 그는 자기 발을 놓았다=최말단 천국과 지상의 교회

호9:3-'그들은 여호와의 토지에서 거주하지 않을 것이다'=그들은 천국 안에서의 생활과 같은 것인 선으로부터의 삶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겔26:16-'그들은 땅 위에 앉을 것이다'=그들은 왜곡된 것들, 고로 거짓들 안에 있을 것이다...그 이유는 영계에서 땅 아래는 지옥이기 때문, 여기로부터 악들과 거짓들이 계속 내뿜어지고 있다.

숙8:12-'땅'=진리에 대한 자연적 애착과 관련된 교회.

이24:1-'땅을 텅비게 만듦'이란 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

이 (교회에서) 황폐해짐.

시107:34-'소금밭으로 놓여진 열매 있는 토지'= 사랑의 선과 생활 속의 선이 거짓들을 통하여 철저히 황폐해짐.

계12:13-'땅으로 내던지는 것'=이 종교는 인정되지 아니 하였다는 것, 그리고 대단히 나쁜 것으로 간주 되었다는 것.

계13:8-'땅에 거주하는 그들'=교회 안에서 태어나는 이들.

계13:12-'땅'= 진리들 안에, 또는 거짓들 안에 있는 교회; 이 구절의 경우는 후자이다.

계14:7-'하늘과 땅'=천국과 교회.

때 (time)

* 시간(time)을 보라. 낮도 참조

때가 참(fulness)

* 가득한(full)을 보라

떠나다 (depart)

창20:13-'하느님께서 나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만드셨을 때'=그분께서 과학적인 것, 그로부터 가상인 것(appearances)을 그것으로부터의 즐거움과 더불어 모두를 뒤에 남기셨을 때. '떠나는 것'=뒤에 남겨두는 것.

눅13:27-'나로부터 떠나라, 불법의 일꾼들아.'

떠나가다 (go away)

출14:21-'떠나가게 만드는 것'=홀뜨러지는 것.

계18:14-'떠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 그것들은 달아났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가 의미되어 있다.

계12:17-'떠나가는 것'=악의 생명으로부터 열렬히 노력해냄.

떠들석함 (tumult)

예47:3-'그의 병거들의 떠들석함'=파생되는 거짓 교리.

예25:31-'떠들석함'=거짓들이 진리들에, 악들이 선들에 맞서 있는 싸움.

예31:35-'그것의 파도가 소란스럽다'=진리들에 관한 추론들.

이13:4-그들의 '떠들석함'=진리들에 대하여 탐욕이 위협하고 싸움.

이25:5-'낮선 자들의 떠들석함'=악으로부터의 거짓들

떠오르다 -떠받치다 -떡-떨다 -떨어뜨리다

이 난동을 부림.

속14:13-‘옛 교회의 마지막 상태가 ‘소람스러움이 대단함’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이를 수단으로 그다음 변화가 뜻해지고, 악을 사랑함의 전투가 뜻해진다.

시65:7-‘바다들의 떠들썩함’, ‘파도들의 소란함’=천국들 아래 있는 이들의 논쟁과 추론들, 그리고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것들.

예10:22-‘북쪽의 토지로부터 떠들썩함이 대단함’=거짓들이 진리들에, 악들이 선들에 맞서는 싸움.

떠오르다 (rise)

창32:31-‘태양이 야곱 위에서 떠올랐다’=선들의 결합.

출22:2-‘만일 태양이 그 위에서 떠올랐다면’=만일 그가 내면의 것으로부터 그것을 명백하게 볼 것이다.

단8:9-‘동쪽을 향하여(또는 떠오름을 향하여)=선들을 향하여(against).

눅1:78-‘여명이 높은 데로부터’=여호와, 또는 영원으로부터의 주님.

계7:2-‘태양의 떠오름으로부터 승강하는 천사’=주님이 설비하심...그 이유가 ‘태양의 떠오름으로부터’, 또는 ‘동쪽으로부터’=신성한 사랑으로부터.

계16:12-‘태양의 떠오름’=주님으로부터 새 교회의 시작. ‘아침’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

이60:3-‘그분의 떠오름으로부터의 밝게 빛남’=총명을 주는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이46:11-‘떠오름’, 또는 ‘동쪽’=사랑의 선. 이로부터 ‘동쪽으로부터 부른 새(bird)’=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말씀으로부터의 진리.

떠받치다 (sustain)

창45:11-‘거기서 내가 떠받들 것이다’=영적 생명의 계속적인 유입...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sustenance), 영적 의미에서,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하여 선과 진리의 유입 외 아무 것도 없다. 이로부터 천사들은 떠받쳐진다. 그리고 이로부터 인간의 혼은 버터진다. 이 떠받침이 식료품을 수단으로 하는 외적 인간의 떠받침과 상응한다.

창47:12-‘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빵을 가지고 떠받쳤다’=내면의 천적 평면으로부터 선이 계속 유입됨.

창50:21-‘내가 당신과 당신의 유아들을 떠받들 것이다’=그들은 내적 평면의 것을 통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 즉 이해함으로부터 있는 진리, 의지로부터 있는 선을 수단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이유가 ‘떠받친다는 것’=선과 진리의 유입이기 때문.

출17:12-그들은 그의 손들이 버티게(stay) 했다’=전투하는 진리의 힘의 떠받침.

떡 (cake)

* 과자, 케이크를 보라.

떨다 (tremble)

창42:28-‘그들은 서로 떨었다’=일반적인 공포.

출15:14-‘그들은 떨었다’=공포.

출19:18-‘은 산이 극도로 떨었다’=천국이 동요함(commotion).

시55:5-‘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와있다’=(시험에서) 심통(distress)(을 느꼈다).

시18:6,7-진리들이 왜곡되어 질 때, 교회가 ‘흔들리고 떨린다고’ 말해진다.

예8:16-교회가 황폐되어감이 ‘은 토지가 떨렸다’에 의해 의미된다.

나1:5-주님을 사랑함 대신 자아 사랑이 통치할 때...산들이 ‘편다’라고 말해진다.

겔26:15-그다음 모든 지식들이 어지럽혀지는 것이 ‘섬들이 떨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사5:4-‘땅이 떨었다’=교회의 상태가 온통 바뀌었다.

울3:16-신성한 진리의 열정적인 힘, 그 결과 공포가 ‘하늘들과 땅이 떨 것이다’에서 묘사되고 있다.

겔38:20-‘물고기들..새...들짐승...그리고 기는 모든 것...그리고 모두 각각의 사람이...내 앞에서 떨 것이다’=교회에 관련되는 인간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떨어뜨리다 (drop)

사5:4-신앙의 진리들이 그것의 선 안에 심기는 것, 이것이 ‘하늘들이 떨어뜨렸다, 그리고 구름들이 물들을 떨어뜨렸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사5:4-‘하늘들이 떨어뜨렸다, 구름들이 물들을 떨어뜨렸다’=가르침, 유입, 그리고 신성한 진리를 지각함. ‘떨어뜨리는 것’=가르침과 유입.

시19:10-‘별집을 떨어뜨림’=자연적 진리.

떨어지다 -때-똑바로 세우다

신32:2-총명과 지혜가 '풀 위의 물방울들, 그리고 풀잎들 위의 물방울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미5:7-'풀잎 위의 물방울'=자연적 진리.

떨어지다 (fall)

창14:10-'도망하고 거기에 떨어지고(빠지고)'=정복되어지는 것.

창50:18-'그들은 그(요셉) 앞에 엎드렸다'=복종.

출19:21-'그들의 많은 자가 떨어진다'=그리하여 그들은 멸망하리라는 것.

눅17:31-'(지붕으로부터) 내려가는 것(descend)=이전 상태로 되돌아감.

출32:28-'떨어지는 것', 또는 죽여지는 것=단혀지는 것...악들과 거짓들이 내적 인간을 단하게 한다.

계6:13-'천국으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사라지는 것.

계6:16-'그들 위에 떨어지는 것, 그리고 그들을 숨기는 것'=천국으로부터의 유입에 맞서 방어하는 것. 이 방어는 거짓을 수단으로 악을 확증하고, 악으로부터 거짓을 확증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7:11-'얼굴 위에 떨어지고, 숭배하는 것'=심정으로부터의 부끄러워함, 그리고 숭배함.

계8:10-'하늘로부터 큰 별이 떨어진다'=자신의 총명으로부터의 나타남.

계11:13-'성의 십분의 일이 떨어졌다(무너졌다)'=지옥으로 가라앉는 것. (=사라지는 것)

계11:16-'그들의 얼굴들 위에 떨어지는 것'=가장 높은 경배.

계14:8-'바빌론은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지는 것'=사라지는 것...

계16:19-'나라들의 성읍들이 떨어진다.' '떨어지는 것'=파괴되어지는 것.

계1:17-'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부끄러이 여김으로부터 있는 숭배함.

겔39:4-'떨어지는 것'=멸망하는 것.

겔6:13-'떨어지는 것'=지옥에 떨어지는 것.

계7:16-'태양이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그들은 현세에의 욕망(concupiscences)으로부터 악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계18:2-'떨어져 버렸다, 떨어져 버렸다'=파괴, 파멸, 고로 마지막 심판...그이유가 그당시 그들은 지옥에 던져졌기 때문.

때 (company)

창35:11-'나라와 나라들의 때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선, 그리고 선의 신성한 형체들...'나라들의 때'=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또는 선의 형체들.

창48:4-'나는 백성의 때를 네게 줄 것이다'=무한히 증가함. '백성의 때'=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무한한 숫자로 (증가함). '때'=풍부함.

출12:3-'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말하라'=영적 (왕국의) 교회로부터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와 함께 유입이 있음. '이스라엘의 회중'=복합체에 있는 모든 선들과 진리들. 그이유가 '이스라엘의 회중'에 의해 모든 지파가 뜻해지기 때문.

출12:6-'때의 회중'=영적 (왕국의) 교회인들과 더불어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그이유가 '회중'은 진리를, '때'는 선을 서술하기 때문.

시82:1-'하느님의 회중'=천국.

시68:27-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가 유다의 왕자들, 그들의 때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시68:10-하느님의 상속, 이를 수단으로 교회가 뜻해지느냐, '네 들짐승, 네 회중이 거기 안에 거주할 것이다'라 불리운다.

예31:8-교회가 그들로부터 건설되어지리라는 것이, '나는 그들을 데려오고, 나는 그들을 모을 것이고, 큰 때가 저쪽에 돌아올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똑바로 세우다 (erect)

레26:13-그러므로 인간이 천국의 것들을 찾을 때, 말해지는바, '나는 네가 똑바로 서서 가게 만들었다.'

겔3:13-'그들의 날개들은 서로에게 똑바로 세워져 있었다'는 신성 안에서 모든 것이 연합하는 것을 표현했다.

똥 (dung)

겔4:12-'인간 똥의 오물로 과자를...'=이런 것들을 모독함.

출29:14-'(수소의) 똥'=깨끗치 않은 것들. '똥'=깨끗치 않은 것, 그러므로 악하고 거짓된 것, 그 이유가 영적

똥-똥더미-뜰-뜨거운-띠

의미에서 이것들이 깨끗지 않은 것이기 때문. 음식의 쓸모 없는 모든 것은 똥과 오물로 건너간다. 그리고 영적 의미에서 음식은 신앙의 진리와 선, 그리고 사랑의 진리와 선이다. 똥은 지옥에 있는 악들에 상응한다. 이것이 또한 말씀에서 변소(privy)라 불리운다.

예16:4-‘그들은 땅의 얼굴 위에서 똥으로 있을 것이다’=추잡한 지옥의 것, 이것이 교회의 선과 진리를 더럽히는 악이다.

예25:33-‘그들은 땅의 얼굴에서 똥을 위하여 있을 것이다’=천국으로부터 어떤 생명도 받아들임 없이 오로지 거저되고 악한 것.

예8:2-‘그들은 땅의 얼굴 위에서 똥을 위해 있을 것이다’=내던지고 짓밟개지는 죽은 상태와 불결함.

똥더미 (dunghill)

눅14:35-‘토지를 위하여서도 적당치 않고, 똥더미를 위해서도 적당치 않다’=선이든, 악이든 무엇이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애4:5-‘그들은 똥더미들을 껴안고 있다’=거저것들을 배우고 선택하는 것.

애4:5-‘똥더미들’=악으로부터의 거저것들.

뜰 (court)

* 각 천국의 외부가 소위 최말단, 또는 첫 번째 천국이다, 그리고 ‘뜰’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그러므로 뜰에는 성전에 관련하여 두 겹, 즉 외면과 내면(이 있다). 바깥 뜰에는 영적 왕국의 외부에 있는 이들, 그리고 안쪽 뜰에는 천적 왕국의 외부에 있는 이들(이 거주한다), 참고로 왕상6:36, 왕하21:4, 겔40:17,31, 34, 42장, 그리고 40:23,28,32,44, 42:3, 43:5를 보라.

계11:2-‘성전 밖인 뜰은 내쫓으라, 그리고 그것을 측량하지 마라’=아직 있는 것과 같은 지상의 교회의 상태, 제거되어야 할 것, 알려지지 않게 해야 할 것. ‘성전 밖 뜰’=땅 위 교회.

겔10:5-‘날개들의 소리가 바깥 뜰에서 들려졌다’=최말단 천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품질.

시84:2-‘여호와와 뜰들’=보다 낮은 천국들, 거기에 입구가 있다.

시92:13-‘우리 하나님의 뜰들’=외적 교회.

계11:2-‘뜰’=말씀의 외적 측면, 이로부터 교회의 외적

측면, 예배의 외적 측면.

시65:4-‘네 뜰들에 거주하는 것’=천국에서 사는 것.

시84:10-‘당신의 뜰들에 있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천 날 보다 더 낫다.’ 여기서 ‘뜰’=첫 번째 천국, 더 높은 천국 안으로 가는 입구가 이 천국을 통하여 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 ‘나는 내 하나님의 집에서 문에 서있기를 선택했다.

울2:17-‘뜰과 제단 사이에서 우는 것’=교회에서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이 황폐해짐에 애통함. 그이유가 ‘뜰’은 ‘성전’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 즉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교회.

뜨거운 (hot)

계3:5-‘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말씀은 신성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지금 부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이들.

계3:16-‘그러므로 너는 미적지근하다, 그리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입으로부터 토할 것이다’=모독함,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분리함.

띠 (girdle)

계1:13-‘금빛나는 띠로 가슴 주위를 동여매신...!’=사라의 선

계1:13-‘금빛나는 띠로 가슴을 동여매신 분’=신성한 행동 그리고 동시에 결합함, 이는 신성한 선이다. ‘금빛나는 띠’가 이 의미를 지니는 까닭은 주님의 가슴, 특히 젖꼭지(pap)=그분의 신성한 사랑; 이로부터 그것을 동여매면 금빛나는 띠=신성한 행동(진행, proceeding), 이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이다.

계15:6-‘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모시옷을 입고, 금빛나는 띠를 가슴(breast)에 두르고’=말씀 속의 순수하고 진짜인 진리들과 선들로부터...‘가슴 주위의 금빛나는 띠’=신성한 진행(proceeding)과 동시에 결합함, 이는 신성한 선이다. ‘띠, zone, girdle’=질서와 연결에서 다 함께 붙드는 진리들과 선들.

라가 (raca)

마5:22-‘라가를 말하는 것’=오만무례함으로 이웃을 대하려는 타락한 생각으로부터. 고로 선행의 선을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그이유가 라가를 말하는 것은 텅빈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 고로 무가치한 것

라가-라마 -라메시스-라멕-라반

으로. 그리고 ‘형제’=선행의 선.

라마 (Ramah)

호5:8-‘기브아, 라마, 그리고 벤아웬’=‘베나민’인 천적인 것들로부터 있는 영적 진리에 속하는 것들. 그이유가 라마는 베나민 영토에 있기 때문(여18:25).

라메시스(Rameses)

창47:11-‘라메시스의 토지에서’=마음의 가장 안쪽, 그리고 그것의 품질. ‘고센의 토지’=자연적 마음의 가장 안쪽, ‘라메시스’는 고센 토지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었다=자연적 마음에 있는 영적 평면의 가장 안쪽.

출1:11-‘그들은 창고-성읍들을 건설했다’=왜곡된 진리들로부터의 교리들...‘비돔과 라암세스’=왜곡된 진리들로부터의 교리들의 품질.

출12:37-‘그들은 라암세스로부터 숙곳으로 여행했다’=떠남의 첫 번째 상태와 그 품질.

라멕 (Lamech)

*이 이교들의 마지막 제가 라멕이라 불리우고 있는데 이때로부터 신앙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잔존하지 않았다.

창4:19-24-...이후 선행으로부터의 모든 선이 멀해졌다는 것이 ‘라멕’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명백해진다.

* ‘라멕’에 의해 황폐함, 또는 신앙이 있지 않다는 것이 의미되었는데, 이는 23,24절, 즉 ‘그는 자기의 부상(wound)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자기의 상처(hurt)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로부터 명백하다. 거기서 ‘사람’에 의해 신앙이, ‘소년’, ‘어린 것’에 의해 선행이 의미되고 있다.

* 이런 것들로부터...명백하게 분명한 것은 ‘라멕’에 의해 황폐됨이 의미되어 있다는 것; 그이유가 그는 ‘나는 사람, 그리고 어린 것을 죽였다’, 게다가 ‘가인을 위해서는 일곱 배의 양값음이 있으나 라멕을 위해서는 칠십 칠 배일 것이다’고 말해지기 때문.

* 교회가 ‘가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멕’이라 불리운 이들에 의해 소멸되어진 후...

* 아홉 번 째 교회가 ‘라멕’이라 불리었다.

* 다른 교리들로부터의 교회가 똑같은 이름에 의해 불리었다는 것은 4장에서 ‘에녹’과 ‘라멕’이라 불린 이들과 5장의 ‘에녹’과 ‘라멕’이라 불린 이들은 다르다는 것

에서 분명하다.

* ‘라멕’에 의해 의미되는 것은 앞장과 거의 같이 이 장에서도 황폐함이다....‘라멕’은 파괴인 것이라는 뜻이다.

라반 (Laban)

창24장에서-‘라반’=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에 애착함 .

창24:29-‘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다’=(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에 애착함의) 품질(quality).

창24:29-‘라반은 문에서 나와 샘 쪽으로 이 사람에게 달려갔다’=진리를 향한 선에 애착함으로부터의 마음. ‘라반’=선에 애착함.

창24:50-‘라반이 답했다’=그것은 주님 만으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함. 형제로서의 라반은 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에 애착함을 표현하고 있다. 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에 애착함과 진리에 애착함은 형제, 자매 와 비슷하다.

창27:43-‘너는 내 형제 라반에게로, 하란으로 도망하라’=외적 또는 육체적 선 쪽으로. ‘라반’=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에 애착함. 그러나 여기서의 ‘라반’, ‘하란’에 의한 적절한 의미는 뒤를 잇는 것으로부터 분명해지는데, 그것은 공동의 지주(common stock)로부터의 방계적 선(collateral good)이라는 것.

창30:36-‘그리고 야곱은 나머지 라반의 양떼를 먹였다’=남겨져 있었던 것으로부터 그는 결합되어질런지 모를 이런저런 선들과 진리들을 가져왔다.

창30:40-‘라반의 양떼에서’=라반에 의해 의미된 선에서. ‘라반’=선, 즉, 중간 선(middle good),

창30:40-‘그리고 그는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두었다’=라반에 의해 의미된 선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분리함. 그이유가 신성의 선들과 진리들은 인간의 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파생하는 이런 저런 선들과 진리들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기 때문.

창30:42-‘그 다음(next) 교접하는 무리는 라반의 것이었다’=강제적인 것들은 남겨졌다는 것.

창31:1-‘그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반에 의해 의미된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그것들의 품질에 관련하여 보면 주님에 의해 자연 평면에서 획득한 선에 비교된다. ‘라반’=공동의 지주로부터의 방계적 선, 고로 순수한 선들과 진리들을 소개하는 일을 섬긴다.

라사 -라아마 -라오디게이아

여기서, 섬겼던 것. 그이유가 그것이 분리를 취급하기 때문.

창31:2-‘야곱은 라반의 얼굴을 보았다’=야곱에 의해 의미된 선이 주춤할 때, 이 선과 더불어 상태의 변화. ‘라반’=중간의 선.

창31:12-‘나는 라반이 당신에게 하는 모든 것을 보아 왔었기 때문에’=라반에 의해 의미된 선의 자아, 이것은 그 자체로부터 (행동하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 (그이유가) ‘라반’=중간의 선. (그리고) 이런 중간의 선에 있는 사회들은 자신스스로부터, 또는 자아로부터 행동하는 일이 많지가 않다. 그들은 타인들에 의해 이끌려지도록 자신들을 내버려둔다, 그래서 천사들에 의해서는 선 쪽으로, 악령에 의해서는 악 쪽으로 이끌리고 만다. 또한 라반에 관련한 역사물로부터, 특별하게는 이 뒤를 잇는 것들로부터 빛을 발할 뿐이다.

창31:19-‘라반은 그의 양떼의 털을 깎으러 가버렸다’=사용(use)의 상태, 그리고 선의 목적의 상태, 이것이 ‘라반의 양떼’이다.

창31:20-‘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의 심정을 흠뻑했다.’=선에 관련하여 라반에 의해 의미된 상태의 변화. ‘라반’=중간의 선, 이것이 지금 분리되고 있다. 이것이 분리되기 때문에, 지금 그가 ‘아람 사람’이라 불리워진다. 그이유는 ‘아람 사람 라반’=이전 같이 선 안에 신성한 선과 진리를 가지지 않은 선.

창31:23-‘(라반은) 그와 더불어 자기 형제들을 챙겼다’=그가 잃어버린 선들 대신 있는 선들. ‘그리고 그를 뒤쫓아 추격했다’=계속 결합해 있겠다는 열의.

창31:24-‘그리고 하느님이 밤에 꿈에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오셨다’=이 선이 그 자체로만 남아 있게 될 때 있는 희미한 지각. ‘라반’=중간의 선.

창31:24-‘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너는 야곱에게 선으로부터 악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거기에 더 이상 결합은 없을 것이라는 것.

창31:25-‘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았다’=결합의 어떤 것.

창31:25-‘그리고 라반은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길르앗 산에 (천막을) 고정했다’=이 결합의 어떤 것에 있는 선의 상태. ‘라반’=야곱에 의해 의미된 선으로부터 분리

된 선.

창31:26-‘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야곱에 의해 지금 표현되는 선과 라반에 의해 지금 표현되는 선이 교통되는 상태.

창31:55-‘라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주님의 신성의 자연 평면을 수단으로 이 선이 계발됨. ‘라반’=이방인들의 것 같은 선.

창31:55-‘그리고 라반은 갔다 그리고 자기 장소로 되돌아 갔다’=라반에 의한 표현은 끝났다.

창32:4-‘나는 라반에게 몸붙여 머물렀습니다’=그는 라반에 의해 의미된 선에 물들었다는 것. (그이유가) ‘라반’=중간의 선, 즉 진짜이지 않은 선, 그러나 이 선은 진짜의 진리들과 선들을 소개하는 일을 담당한다.

라사 (Lasha)

창10:19-‘소돔,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라사에까지’=거짓들과 악들 안에 그들은 종결되었다.

라아마 (Raamah)

* 천적인 것들을 숭배한 이들이 ‘라아마의 아들들’이다.
창10:7-‘구스의 아들들, 라아마...’ 이들은 수많은 나라들인데, 내적 예배가 없었다; 그러나 신앙에 관한 지식을 가졌다. 그들은 소유물에 종교를 두었다. 내적 의미에서 지식 자체를 의미한다. ‘라아마의 아들들’ 역시 비슷한 의미를 가지나 내적 의미에서, 그들=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겔27:22-‘스바와 라아마’=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에 관한 지식 안에 있는 이들.

라오디게아 (Laodicea)

계3:24-‘라오디게아의 천사에게’...여기서는 발가벗은 지식들 안에 교회의 모든 것을 놓아두는 교회, 그리고 이로부터 다른 것을 뛰어넘어 그것 자체를 드높이는 교회를 취급한다.

계3:14-‘라오디게아의 천사에게 쓰라’=때로는 자신들로부터, 때로는 말씀으로부터 번갈아 믿는 이들, 고로 거룩한 것들을 모독하는 이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들에게...교회 안에는 믿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즉 하느님은 계시다, 말씀은 거룩하다, 영원한 삶은 존재한다, 등등 같은 교회로부터, 교회의 교리로부터의 많은 것들을 믿는다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교인들이다. 그들

라헬

은 자기들이 감각적 자연 평면에 있을 때, 위 사항들을 믿는다, 그러나 그들이 합리적 자연 평면에 있을 때, 그들은 그것들을 믿지 않는다. 고로 그들은 외적인 것들에서는 믿는다. 즉 그들이 타인들과 더불어 사회나 대화를 할 때는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내적인 것들에서는 믿지 않는다. 즉, 자신 혼자 있을 때는 믿지 않는다. 이들에 관해서 말해지는바, '그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그들은 토해내질 것이다.'

라헬 (Rachel)

* 레아도 참조

창29:6-'보라, 라헬 그의 딸...'=내면의 진리에 애착함.

창29:9-'라헬이 양떼와 더불어 왔다'=교회 속과 교리 속에 있는 내면의 진리에 애착함.

창29:9-'그녀는 여목자였다...'=내면의 진리에 애착함은 말씀에 있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것이 말씀으로부터인 이유는 라헬이 그녀의 양떼와 더불어 우물에 왔기 때문. 더구나 이것은 가르치는 내면의 진리에 애착함이다.

창29:10-'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딸 라헬을 보았을 때'=내면의 진리가 있었던 어떤 근원으로부터 이 진리에 애착함을 인정함.

창29:11-'야곱이 라헬에게 키스했다'=내면의 진리들을 향하여 사랑함.

창29:12-'야곱이 자기는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이라고 라헬에게 말했다=(두 선들의) 친척 관계; 그리고 라헬, 그녀에게 이것이 알려졌다=내면의 진리에 애착함.

창29:12-'그녀는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내면의 진리들을 통하여 인정함...이것이 내면의 진리들을 통하여이라는 것은 라헬에 의해 내면의 진리에 애착함이 의미되기 때문.

창29:16-'동생의 이름이 라헬이었다'=내면의 진리의 품질과 더불어 이 진리에 애착함.

창29:17-'일반적 생각들이 개별적으로 예증될 경우, 그것들은 굳혀져 고정된다; 그이유가 그것들은 본질과 형식에 걸맞기 때문, 이 구절의 경우, '라헬은 아름다운 형태를 지녔고 바라보아도 아름다웠다.' 이런 그녀를 수단으로 내면의 진리에 애착함들이 표현되어져 있다.

창29:18-'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내적 진리를 향하여 선을 사랑함; (그이유가) '라헬'=내적 진리에 애착함; 여기서 자연 속의 선과 결합되어지려는 내면의 진리.

창29:18-'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칠년을 봉사하리이다'=끊임없는 노력, 그다음 내면의 진리와 결합할런지 모를 거룩한 상태.

창29:19-'라반이 말했다, 내가 그녀를 너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이 선과 더불어 내면의 진리를 통하여 있는 결합의 매체. '라헬'=내면의 진리.

창20:20-'그는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칠년이) 며칠 같았다'=사랑의 상태.

창29:21-'나에게 나의 여인을 주시오'=...이제 내면의 진리와 결합함...

창29:25-'나는 라헬을 위하여 당신에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끊임없는 노력은 내면의 진리에 애착함을 위해 있어 왔다는 것.

창29:26-'첫 출생에 앞서 동생을 주는 것은 (여기서 행해지지 않는다)'=내면의 진리에 애착함이 외면의 진리 보다 앞서는 상태는 없다는 것.

창29:28-'그는 그에게 여인으로 그의 딸 라헬을 주었다'=내면의 진리에 애착함에 선의 결합이 그 당시 있었음.

창29:30-'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외적 진리보다 내적 진리를 더 사랑함.

창29:31-'라헬은 불임이었다'=내면의 진리들이 받아지지 아니했다.

창30:1-'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내면의 진리가 아직까지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라헬'=내면의 진리에 애착함, 또는 내면의 진리.

창30:1-'라헬은 그녀의 언니를 향해 질투가 일어났다'=외면의 진리가 인정받고 있는데 내면의 진리는 인정받지 못해 분노함.

창30:1-'그녀가 야곱에게 말했다, 나에게 아들들을 주시오'=그녀는 자연적 선의 진리로부터 내면의 진리들을 가지기를 원했다는 것.

창30:2-'야곱의 성냄이 라헬을 향해 지퍼졌다'=라헬에 의해 표현된 내면의 진리는 아직 신앙과 행동에서 자연

랍바-랍비

의 선에 의해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창30:3-'그녀가 내 무릎 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헬로 표현되는 내면의 진리의 인정.

창30:6-'라헬이 말했다, 하느님이 나를 판단하셨다, 그리고 또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공정과 자비; 신앙의 거룩함; 그리고 생활의 선.

창30:8-'라헬이 말했다, 하느님의 씨름함들을 가지고 나는 내 언니와 씨름했고, 나는 이겼다'=자기 고유의 힘; 시험 안에서 사람은 극복한다; 그리고 자연적 인간에 의한 저항.

창30:14-'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내면의 진리에 애착함의 지각, 그리고 그것을 갈망함.

창30:22-'하느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셨다'=예견과 섭리.

창30:22-'그리고 그녀의 자궁을 여셨다'=받고 인정하는 자질...진리로부터의 선들, 그리고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창30:23-'하느님께서 내 불명예를 거두어들이셨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불렀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하나의 아들을 더하소서'=신성의 영적 측면에 관련한 주님; 영적 왕국, 또는 신앙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열매 맺고 변성함을 지닌 구원...그이유가 (위의 딸들)=라헬은 더 이상 불임이 아니라는 것, '죽은 상태'도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 그 이유가 라헬에 의해 내면의 진리에 애착함, 또는 진리 측면에서의 내적 인간이 표현되기 때문; 그리고 내적 인간은 만일 외면의 인간이 선들과 진리들에 관련하여 상응하지 않으면 마치 죽은 듯 하여 있다.

창30:25-'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내면의 진리를 통하여 영적인 것이 인정됨.

창31:4-'야곱은...라헬과 레아를 그의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렀다'=자연의 선에 의해 진리에 애착함들의 접합...'라헬'=내면의 진리에 애착함... '양떼'=지금 획득한 선들과 진리들 자체, 여기에 라헬과 레아로 의미된 진리에 애착함들이 응용되었다.

창31:14-'라헬과 레아가 대답했다...'=진리에 애착함들의 상호성...'라헬'=내면의 진리에 애착함 ...여기서 취급된 주제는 어떻게 자연의 선이 라헬과 레아로 의미된

진리에 애착함들을 자체에 접합하느냐인바, 진리에 대한 이 애착들이 선에 상호 응용하고 있다.

창31:31-'당신이 무력으로 당신의 딸들을 데려가지 않도록...'=이 선이 진리에 애착함들에 관련하여 상해 받게 하리라는 것...그이유가 '딸', 여기서, 레아와 라헬이고 진리에 애착함이 의미된다.

창33:2-'그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쪽에 두었다'=...아직도 훨씬 내면인 내면의 진리에 애착함.

창35:16-'라헬이 아이를 낳았는데, 산고가 심했다...'=내면의 진리의 시험들.

창35:19-'라헬은 죽었다, 그리고 에브랏으로 가는 길에서 매장되었다'=내면의 진리에 대한 이전의 애착은 종료됨...그리고 그것의 새로운 상태가 소생함.

창35:24-'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내면의 선들과 진리들; (그 이유가) '라헬'=내면의 진리에 애착함; 고로 라헬의 아들들=내면의 선들과 진리들.

창46:19-'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천적 애착으로부터 있는 것들.

창46:25-'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주었던...'=내적 선에 애착함으로부터.

예31:15-'그녀의 아들들을 위해 우는 라헬, 어떤 것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들들로 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여기서의 '라헬'은 영적 진리가 남아있지 않은 영적 (왕국의) 교회의 내적 측면을 표현했다.

랍바 (Rabbah)

신3:11-'암몬의 랍바'=진리를 거짓화함.

예49:3-랍바, 등등. 갖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들의 토지들=갖에 의해 일반적으로 의미된 것과 같은 것이 특별한 측면에서... '랍바의 딸들'=자연적 인간에 있는 진리에 애착함들.

랍비 (Rabbi)

마23:8-'랍비'에 의해, 그리고 '선생'에 의해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의미된다. 고로 추상적으로 진리에 관한 교리.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신성한 진리, 이는 '그리스도'이다. 그분만이 신성한 진리이시다는 것이 '너희는 랍비라 부르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 그리스도이다'에서 뜻해지고 있다.

레바논 (Lebanon)

레바논-레센-레아

호14:6-이 구절의 '레바논'은 삼목들을 나타내고 있는 바,=영적인 것들, 또는 믿음으로부터의 진리들.

* 레바논 숲의 나무들=내면의 지각들, 또는 합리적인 것들.

호14:7-영적 교회에 관한 기억은 '레바논의 포도주'에 비교된다.

이35:2-'레바논'=영적 교회.

겔31:3-'이스루'=예증되어진 교회 속의 사람의 합리성; 이것이 '레바논의 삼목(cedar)'이라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삼목'='이스루'; 특별하게는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그리고 '레바논'은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있는 지성(mind), 그 이유는 레바논에 삼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33:9-'레바논은 시들어서 간다'=진리 측면의 교회

겔17:3-'레바논'=주님으로부터 있는 교회 속의 교리.

이35:2-'그들에게 주어진' '레바논의 영광'=신성한 진리.

호14:6-'레바논의 냄새'=감사히 여김으로부터 있는 영적 선.

숙10:10-'레바논으로 그들을... 데려옴'=신앙 속의 선과 진리로...

이37:24-'레바논 쪽에'=교회의 선들이 진리들과 결합되어 있는 곳; '레바논'=영적 교회.

이2:13-'레바논의 삼목들'=자기 총명으로부터 있는 자부심.

예18:14-'레바논의 눈(snow)'=거기로부터 있는 교회 속의 진리들...'레바논'=(그들이 근원된) 교회.

여1:4-교회의 한 끝, 이것은 인식력과 학술적 논리인데, 이것이 '레바논'과 '바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합2:17-'레바논의 폭력'=말씀으로부터 지각된 진리들에 합리적 인간에 의해 과해진 무력; 그 이유가 '레바논'=합리적 인간으로부터 진리가 지각됨에 관련된 교회.

숙10:10-'길르앗의 토지'와 '레바논'에 의해 자연적 인간에 있는 교회 속의 선들과 진리들이 의미되고 있다.

겔31:15-그들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나는 그 위에서 레바논을 검게 할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레센 (Resen)

창10:12-'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삶의 교리물들을 형성했다는 것; 그리고 '레센'에 의해 그때부터의 거짓 교리물들이 의미되어진다... 삶의 거짓들이 여기서 '레센'에 의해 의미되나 말씀에서는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 레센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건설되었다, 즉 추론들로부터의 거짓과 삶의 거짓을 생산하는 탐욕들로부터의 거짓 사이에 건설되었다. 이것은 '큰 성'이라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의지와 이해성 모두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레아 (Leah)

* 야곱의 두 아내 중에서, 레아는 외적 교회를, 라헬은 내적 교회를 표현했다...

* 외적 (유대 교회)가 레아에 의해 표현되었다. 야곱, 또는 그의 후손들은 외적인 것들 밖에 원했던 것이 더 없었는바,...레아가 라헬에 앞서 야곱에게 주어졌다. 약한 시력을 지닌 레아에 의해 유대 교회가 표현되어졌다; 라헬에 의해서는 이방인들의 새 교회가 표현되어졌다.

창29:16-'언니의 이름은 레아였다'=외적 진리의 품질과 더불어 그 진리에 애착함.

창29:17-'레아의 눈들은 약했다'=외적 진리의 애착 측면에서 보면 그 애착이 이리한바...

창29:23-'그리고 그는 자기 딸 레아를 취해서 그녀를 야곱에게 데려갔다, 그리고 야곱은 그녀에게 갔다'=결합이 아직까지는 외적 진리에 애착함에 만 있었다는 것.

창29:30-'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다'=외적 진리보다 내적 진리를 사랑함...'레아'=외적 진리.

창29:31-'레아는 미움받았다'=외적 진리에 애착함이 예뻐함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신성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창29:21-'레아가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다'=외적 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 까지 영적 임신과 출생.

창30:9-'레아는 자기의 출산이 멈추는 것을 알았다'=다른 외적 진리들은 인정되지 않았다. '레아'=외적 진리.

창30:14-'그는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그것들(합환체)를 가져왔다'=외적 진리에 애착함에 응용함.

레위

창31:4-‘레아’=외적 진리에 애착함.

창33:1-‘그는 자기 자식들을 나누고...레아에게...라헬에게...’=외적 진리들을 각기 고유의 애착 아래 배치함. ‘레아’=외적 진리에 애착함.

창34:1-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그녀의 딸’=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믿음 속의 모든 것들, 이로부터 교회 속의 모든 것들에 대한 애착); (그이유가) ‘레아’=외적 진리에 애착함이기 때문.

창35:23-‘레아의 아들들’=각기 순서대로 있는 외적 신성한 선들과 진리들. ‘레아’=외적 진리에 애착함.

창46:15-‘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아준 그녀의 아들들이다’=이(교리들)은 영적 애착으로부터 선과 진리에 애착함을 통하여 자연 안에 있었다는 것.

레위 (Levi)

* Livite도 보라.

* ‘레위’=선행(charity). 그리고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성직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양떼의 목자’를 표현했다.

민3:40-46, 8:14-20-(이로부터) 레위 지파는 내적 의미에서 =사랑인바 모든 첫 출생 대신 받아들였다, 그리고 성직자로 만들었다

말2:4,5-‘레위’, 최고 의미에서=주님, 그리고 이로부터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므로 ‘레위인과 더불어는 생명들의 언약과 평화의 언약’=사랑과 선행에 있는 것.

말3:3-영적 사랑에 있는 이들이 ‘레위의 아들들’이라 불린다.

말2:4-9-최고 의미에서 주님은 영적 사랑에 있는 이들을 향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레위인’이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에서 성직자를 만들었다.

창29:34-‘그녀는 그의 이름을 레위라 불렀다’=그것의 품질...이 품질은 ‘레위’에 의해 의미된 품질, 그리고 또한 레위로부터 명명된 지파를 수단으로 의미된 품질이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이 세 번째의 보편적 품질이다. 또한 인간이 거듭나질 때 맞이하는 세 번째 보편적 품질(단계)이다...그리고 이것은 선행이다.

창34:25-‘시므온과 레위’=신앙과 사랑...‘레위’=영적인 사랑, 또는 선행. 진짜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도 의미된다. 그러나 반대 의미에서 거짓과 악...유대 국가에 비교하여진다...시므온과 레위가 하몰과 세겜, 성읍 주민을 죽인 구절에서 반대 의미가 표현되고 있다. 이 죽인 사건은 (유대 국가에서) 신앙의 진리와 선행의 선이 거짓과 악이 되어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창46:11-‘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영적 사랑, 그리고 일반적 측면에서의 그것들의 교리물들.

창49:5-‘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다’=의지에 있는 신앙, 그리고 선행. 여기서는 반대적인 것, 그이유는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이기 때문.

출2:1-‘레위의 집의 사람에게 (장가를) 갔다’=선으로부터의 진리의 근원...‘레위’는 선을 표현한다. 최고 의미에서 ‘레위’는 신성한 사랑을 표현한다. 그리고 내적 의미에서 영적 사랑, 그리고 그가 사랑을 표현하는바, 그는 선을 표현한다. 그이유가 모든 선은 사랑으로부터 있기 때문.

출2:1-‘그리고 레위의 딸을 데려왔다’=선과 결합함.

출6:19-‘이들은 그들의 출생들에 따른 레위의 가족들이다’=이런 것들은 선행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이다.

말3장-‘레위의 아들들’=영적 (왕국의) 교회로부터 있는 이들. 그이유가 ‘레위’는 선행, 또는 영적 선을 의미하기 때문.

출32:26-‘레위의 아들들’, 이들이 모세에게 모여들었다 =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

계7:7-‘레위 지파로부터 12000명이 날인되어졌다’=주님의 새 천국과 새 교회로부터 있는 이들과 더불어는 총명의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 ‘레위’에 의해 최고 의미에서 사랑과 자비가 의미되어진다. 영적 의미에서 행동에 있는 선행, 이는 생활의 선이다. 그리고 자연적 의미에서 연합과 결합. 그이유가 그는 ‘둘러붙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불리웠기 때문, 이를 수단으로 사랑을 통하여 결합함이 의미되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레위’에 의해 사랑 또는 진리에 애착함, 파생되는 총명이 의미된다. 그가 시므온의 뒤를 잇고 이 시리즈에서 중간 것에 해당된다. 레위가 이런 것을 표현했는바, 이 지파가 성직자를 만들었다. 레위 지파=진리로부터의 사랑(the

레위 사람-렌즈콩

love of truth), 이는 참 사랑, 이로부터 교회는 교회이고, 총명이 파생된다.

민17:1-11-‘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진리에 애착함에 있는 이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 애착은 총명으로부터 꽃피는바, 아론의 이름이 씌어진 레위의 막대기가 아문드와 더불어 꽃피었다.

신10:8, 21:5-레위의 아들들은 신성한 예배 위에 놓였고, 모든 신성한 예배는 영적 선으로부터, 그리고 이로부터의 진리들로부터 거행되기에, 말해진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그들을 뽑으셨다.

말2장-‘레위’=이웃을 향한 선행의 선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주님 자신, 그 이유는 이 선이 그분으로부터 있기 때문, 여기서는 주님 자신.

민35장, 여21장-선행의 선은 교회의 모든 것들에 있어 야만 하는바...그리고 선과 진리에 애착함 자체가 이해함을 주고, 모든 것을 혼용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성직자를 만들었고, 뿐아니라 레위 지파에 주어진 상속분이 없었다.

신21:5-‘레위의 아들들’=선과 진리에 애착함, 이것이 선행(charity)이다.

말3장-‘레위의 아들들’=선행의 선, 그리고 이로부터 신앙의 선에 있는 모든 이들.

신33:8-12-‘레위’에 의해 영적 진리에 애착함이 뜻해진다.

말2장-‘레위’, 최고 의미에서,=사랑과 자비 측면에서의 주님. 여기서 ‘레위’, 최고 의미에서 신성한 인간에 관련한 주님이 뜻해진다, 그리고 그러므로 ‘레위에 대한 언약’에 의해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함이 뜻해진다.

신33장-‘레위의 아들들’=영적 선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

속12:13-‘레위’=선행의 선.

레위 사람 (Livite)

* 레위도 보라

출4:14-‘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아론이 ‘레위 사람’이라 불린다. 그 이유는 ‘레위 사람’에 의해 교회의 선과 진리에 관한 교

리가 의미되기 때문. 이 교리가 성직 직무를 섬기고 실행한다.

민3:12-끝절, 8:16-18-레위 사람이 첫 출생을 대신하여 받아들인 이유는 레위에 의해 신앙으로부터의 선, 또는 선행을 표현했기 때문. 신앙으로부터의 선은 주님께게서 기인 된 것이다.

겔44:15-‘성직자 레위 사람’=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

민3장-자연적 선 안에 있는 이들의 구원의 일이 레위 사람의 성직 직무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그러므로 레위 사람에 관하여 그들은 ‘아론에게 주어졌다’고 말해지고 있다.

민8장 11-21-레위 사람은 선을 섬기는 진리들을 표현했다. 그리고 아론은 그들이 섬긴 선을 표현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은 ‘심하게 움직임, agitated이었다, 즉’ 생명을 줌, vivified’이었다. 그러므로 또한 그들은 ‘순수해짐’이라 말해진다.

예33:18,21,22-‘레위 사람들’=(사랑의 선으로부터와 선행의 선으로부터, 그리고 신앙의 진리로부터) 예배 안에 있는 이들...‘레위 사람들, 성직자들, 내 성직자들’=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과 여기서 파생된 예배 안에 있는 이들...고로 ‘나는 나의 성직자, 레위 사람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주님과 결합을 가진 이들과 더불어 신성의 선이 열매 맺음. 그밖의 구절에서, ‘성직자, 레위 사람’에 의해 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 추상적 의미에서 이 선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눅10:32-이 비유에서는 반대적 의미에서 ‘레위인’이 의미되고 있다...‘레위인’=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것, 즉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이들.

렌즈콩 (lentil)

창25:34-‘렌즈콩족’=교리적인 것들로부터의 선. ‘렌즈콩들’=그것들로부터의 선.

롯 (Lot)

창11:27-‘이것들은 데라의 태생들이다; 데라는 하란을...낳았다;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우상 숭배의 근원과 갈래들, 이로부터 표현 교회가 있게 되었다...롯으로부터 두 우상 숭배 국가가 있었다.

롯

창12:4-‘그리고 롯은 그와 더불어 갔다’=감각적인 것. ‘롯’에 의해 그분의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인간에 관련한 그분이 표현되어졌다; 이는 롯이 표현하는 아래 사항들로부터도 분명해질 것이다...즉 그는 아브람과 분리되었다는 것, 그는 천사의 도움으로 구조되었다는 것. 그 후 롯이 분가했을 때, 그는 또 다른 표현성을 입었다...주님의 감각적, 육체적 그 자체가 롯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또는 그분의 감각적, 육적 인간이 표현되었다. 이것은 그분의 어린 시절의 상태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신성과 하나가 되셨을 때 신성으로 만들지 않았다.

창12:5-‘그리고 그의 형제의 아들, 롯’=감각적 진리, 고로 주님이 어린아이이셨을 때 그분에게 은근히 심어졌었던 첫 번째의 것. ‘롯’=감각적인 것; 그리고 ‘아들’=진리.

창13장-이 장은 주님과 더불어 외적 인간이 그분의 내적 인간과 결합되어감을 취급한다. 외적 인간은 그분의 인간 실체이다...이것이 여기서 롯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창13:1-‘그와 더불어 롯’=감각적인 것...

창13:5-‘그리고 롯 역시 아브람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양떼와 목축, 그리고 천막들을 가졌다’=주님에게 있는 외적 인간, 그리고 외적 인간과 더불어 풍부한 것들. ‘롯’=감각적 인간; 또는 외적 인간.

창13:7-‘아브람의 목부와 롯의 목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

창13:7-‘롯의 목부’=예배에 있는 감각적인 것들, 그리고 외적 인간 속에 있는 것들.

창13:8-‘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고로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에게 말했다...‘롯’=분리되어져야 하는 외적 인간...외적 인간 안에는 일치하는 것도 있고, 불일치하는 것도 있다. 이 구절의 경우 후자가 ‘롯’이다.

창13:10-‘롯이 그의 눈을 들었다’=외적 인간이 내적인 것에 의해 계몽되어졌다...외적 인간은 내적인 것과 결합할 때 자기의 품질을 지각한다...즉 내적인 것으로 인해 눈이 떠진다는 말이다. 그 당시 신성한 시력(vision) 안에 있었다...주님이 어린 시절 동안 신성한 시각(sight) 안에서 외적 인간에 관련한 많은 경험을 지나 오셨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분 만이 외적 인간이

내적 인간과 결합했기 때문이다.

창13:11-‘롯은 자신을 위해 요르단의 평지를 선택했다’=이와 같은 것이 외적 인간이었다.

창13:11-‘그리고 롯은 동쪽으로부터 여행했다’=천적인 사랑으로부터 물러나는 외적 인간과 더불어는 것들.

창13:12-‘롯은 평야의 성읍들에 거주했다’=외적 인간은 과학적 지식 안에 있었다는 것.

창13:14-‘롯이 그로부터 분리된 후’=외적 인간의 탐욕들이 제거되었을 때, 그것들에는 방해물이 없었다.

창14:12-‘그들은 아브람 형제의 아들, 롯과 그의 소유물을 취하고 끌고 갔다’=그 자체로는 선들과 진리가 아닌 것, 즉 외관상의 선들과 진리들이 외적 인간과 그 인간에 속한 모든 것들의 소유이었다는 것...‘롯’=주님과 더불어는 감각적 또는 외적 인간...그리고 사실상 여기서는 외관상의 선들과 진리들에 관련한 외적 인간. 이것이 ‘롯의 소유물’이다.

창14:14-‘그리고 아브람은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음을 들었다’=내면의 인간이 외적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지각했다는 것...‘롯’=외적 인간; 그리고 그가 ‘포로 됨’=...외관상의 선들과 진리들이 그것의 소유를 취했다는 것.

창14:16-‘그는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소유물을 되돌려 놓았다’=(그분은) 외적 인간, 그리고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들에 적절한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다는 것).

창19장-‘롯’에 의해 영적 왕국의 교회, 즉 선행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으나 외적 예배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축소되어가는지가 묘사되는데, 다음과 같다. 교회의 첫 번째 상태, 그들이 선행의 선 안에 있고 주님을 인정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에 의해 선 안에서 확증되고 있다 (1-3절). 그리고 구원되어진다 (12절). 두 번째 상태, 그들과 더불어 악이 선들에 맞서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에 의해 악들로부터 강력하게 물러나 있고 선들 안에서 보존된다 (14-16절). 그들의 약함이 묘사된다 (17절). 세 번째 상태, 그들은 더 이상 선을 애착함으로부터 생각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이다(18-20절). 그리고 그들은 구원되어진다 (23

롯

절). 네 번째 상태, 롯의 아내인 진리에 애착함이 멀해 지는데, 소금 조각상(기둥)을 만들었다 (26절). 다섯째 상태, 불순한 선, 거짓으로부터의 선이 뒤를 잇는데, 이는 산의 동굴에 있는 롯이다 (30절). 여섯째 상태, 이 선 까지도 간음질되고 거짓화 되었다 (31-33절). 마찬가지로 진리 역시 그렇게 되었다 (34,35절). 이로부터 교회로 착각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임신되고 출생되었는데, 이것 속의 선이 '모압', 진리는 '암몬이라 불리워진다.

창19:1-'롯이 소돔의 문에 앉아 있었다'=선행의 선 안에 있기는 하나 외적 예배에 있는 이들; 그는 여기서 '롯'인데, 그는 악한 자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과는 분리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이 '소돔의 문에 앉은'으로 묘사되었다.

창19:1-'그리고 롯은 보았다'=외적 예배에 있으나 선행의 선 안에도 있는 이들의 양심.

창19:1-'그리고 그는 그들을 맞기 위하여 일어났다'=인정함, 그리고 또한 선행에 대한 애착; 이는 그들이 롯에게 왔을 때, 롯은 즉시 그들이 천사들이었음을 인정했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해질 것이다...똑같은 단어가 선행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은...롯을 수단으로 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이 표현되어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더욱이 어찌면 선행 자체의 선이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명백한 것이다.

창19:2-'그리고 그는 말했다, 보라, 간구하옵기는 내 주들이시여'=주님의 신성한 인간과 진행되고 있는 거룩함을 내면으로 인정하고 고백함

창19:5-'그들이 롯에게 외쳤다'=선에 맞서는 성나 있는 악으로부터의 거짓.

창19:6-'롯은 문에서 그들에게 밖으로 나갔다'=신중하게 그 자체 대처했다는 것.

창19:10-'그들은 롯을 자신들에게 집 안으로 이끌어 들었다'=주님은 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창19:14-'롯이 나갔다'=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 또한 선행 자체의 선 안에 있는 이들.

창19:16-'그리고 그는 지체했다'=악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강한 반감. 그 이유가 인간 안에 있는 악은 주

님으로부터 있는 선에 맞서 계속적으로 반작용하기 때문...그리고 롯이 지금 표현하는 교회인의 상태에서는 이전 상태 때보다 더욱 더 반작용한다. 이 상태란 그가 선으로부터가 아닌 진리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상태이다; 고로 선으로부터서는 어떤 거리 간격이 생긴 것이다.

창19:16-'사람은 롯의 손을, 그의 아내의 손을, 그의 두 딸의 손을 붙잡았다'=주님은 악들로부터 강력히 물러나 있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롯, 그의 아내, 그의 딸들에 의해 의미된 선들과 진리들을 강화시켜주신다는 것...'롯'=선행의 선.

창19:18-'롯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주들이시여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할 수 없다는 연약함.

창19:19-'나는 산으로 피신할 수 없습니다'=그는 선행의 선을 가질 수 있을지 의심함; 즉 이 선으로부터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의심함.

창19:23-'롯은 소알에 왔다'=진리에 애착함 안에 있는 이들은 구원된다는 것...신앙 안에 있는 이들, 그 신앙 안에 선이 있다면 구원되어진다는 것; 즉 선으로부터 애착된 선을 위하여 신앙의 진리에 애착한 이들은 구원된다는 것.

창19:26-'그리고 그의 아내는 자기 뒤를 쳐다보았다'=진리가 그 자체를 선으로부터 돌려 교리적인 것들을 쳐다보았다는 것,

창19:29-'그분은 뒤엎는 한가운데로부터 롯을 내보셨다'=주님은 선 안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선이 있는 진리에 있는 이들도, 그것에 딸린 모든 것도 구원하신다.

창19:30-'롯이 소알로부터 나갔다'=그들이 더 이상 진리에 애착함 안에 있지 않을 때, 여기서는 지금 롯에 의해 표현된 교회의 다섯 번째 교회의 상태가 묘사되었다; 이는 진리에 애착함도 더 이상 없고, 어떤 불순한 선, 또는 거짓의 선, 그 자체가 주입되고 있다.

창19:30-'그리고 그는 산에 거주했다'=그들이 그 당시 어떤 선에 자신들을 의지했다는 것.

루딴 (Ludim)

창10:13-'미스라임이 루딴을 낳았다'=수많은 나라들, 이들에 의해 수많은 종류의 의식들이 의미되어진다...이

루딤-루즈-룬-르바임-르비딤-르신-르우-르우마-르우벤-르우벤 지파

것들은 단지 과학적인 것에 불과하다.

루즈 (Luz)

창28:19-‘도성의 이름은 첫 번째에서 루즈였다’=이전 상태의 품질...원어에서 루즈는 퇴거(recession), 고로 분열(disjunction)을 뜻한다, 이는 진리, 또는 진리의 교리적인 것이 첫째 자리를 점거하고 선은 소홀시 될 때 발생된다. 그러나 진리가 질서의 최말단에서 선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퇴거 내지 분열은 없고, 접근(accession), 결합이 있다. 이것이 ‘루즈’에 의해 의미되는 상태의 품질이다.

창35:6-‘야곱은 가나안의 토지에 있는 루즈에 왔다’=이전 상태에 있는 자연 평면. ‘이것이 뻬엘이다’=신성의 자연 평면, 이는 루즈의 의미, 즉 이전 상태에 있는 자연 평면, 또는 인간이었던 자연 자체로부터 분명하다.

창48:3-‘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나안의 토지에 있는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이전 상태에 있는) 자연 평면에서 신성의 나타남...‘루즈’=이전 상태에서의 자연 평면.

룬 (Lud)

창10:22-‘셈의 아들들...룬’ 등등=지혜에 관련되는 것들...‘룬’ 등등은 수많은 나라들이었다, 이것들에 의해 지혜속의 것들이 의미된다...‘룬’에 의해서는 진리에 대한 지식.

르바임 (Rephaim)

이26:14-‘르바임’=자아 사랑으로 부풀어 오른 이들.
신3:11-‘르바임’=타인 위에서 자아 사랑에 빠져있는 이들, 이로부터 극도로 자연적인 이들, 그리고 자신은 타인 보다 월등 빼어나다는 것을 설득함으로부터 갖가지 거짓 속에 파묻힌 이들.

이14:9-‘지옥이 휘저은 르바임’=거짓으로부터 끔찍하게 설득해대는 이들.

르비딤 (Rephdim)

출17:1-‘르비딤’=시험의 상태에 있는 진리 측면의 품질.

르신 (Rezin)

이7:4-‘시리아의 왕 르신’=악에 대한 지식들 (=악용된 합리성).

르우 (Reu)

창11:18-‘그가 조상이 되어 명명된 나라들, 이것에 의해 아주 더 외적인 예배가 의미되었다.

르우마 (Rumah)

창22:24-‘그의 첩,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르우마였다’=우상 예배 안에, 그리고 선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

르우벤 (Reuben)

르우벤 지파 (Reubenites)

* ‘르우벤’은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신세를 보셨다’를 뜻한다.

* ‘르우벤’=신앙.

* ‘르우벤’, ‘보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부른 것인바,=신앙.

* ‘르우벤’, 야곱의 첫 출생인바,=신앙, 그리고 ‘힘(strength)의 시작’이라 불리워진다.

역상5:1-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오염시켰다, 그리고 그러므로...장자 권리가 요셉에게 주어졌다.

창29:32-‘그녀는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다’=그것의 품질, (이는 최고 의미에서 예견, foresight, 내적 의미에서 신앙, 내면 의미에서 이해함, 외적 의미에서 봄, sight. 여기서는 주님으로부터의 신앙.

창30:14-‘르우벤은 밀 수확의 날에 나갔다’=믿음이 사랑과 선행에 주목함. 그이유가 ‘르우벤’=거듭남에서 첫 번째인 신앙이기 때문..

창35:22-‘르우벤이 갔다, 그리고 빌하와 누웠다’=분리된 신앙을 통하여 선을 모독함...‘르우벤’=교리에서 그리고 이해함에서 있는 신앙,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이다. 여기서의 경우, 이 신앙이 선행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창35:23-‘야곱의 첫 출생, 르우벤’=신앙의 선...‘르우벤’=신앙의 품질. 그이유가 ‘르우벤’, 진짜 의미에서 =신앙의 진리이기 때문, 그러나 신앙의 진리가 선을 만든 후, 르우벤=신앙의 선,

계7:5-‘르우벤’=영적 선, 이는 신앙의 선과 같고, 두 번째 천국에 있는 선과 같다.

사5:16-‘르우벤 부류는 심정의 큰 규례이었다’...여기서 ‘르우벤’=신앙

창37:21-‘르우벤이 들었다’=일반적으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함. 그이유가 ‘르우벤’=이해함에 있는 신앙, 또는

르우엘-르호봇-리밧-리브가

교리에 있는 신앙, 이는 거듭남의 첫 번째이다. 복합체에서, 교리 속의 진리, 이를 통하여 우리는 생활의 선에 도달 할 수 있다.

창42:22-‘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말하기를’=교리와 이해함에 있는 신앙으로부터 지각함.

창42:27-‘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이해함에서 신앙으로부터 있는 것들이 진리의 선을 수단으로 통각했다.

창46:9-‘르우벤의 아들들’=일반적으로 신앙의 교리물들.

창48:5-‘르우벤과 시므온 같이 그들은 나의 것이다’=진리와 진리로부터의 선 같이. ‘르우벤’=이해함에서의 신앙, 그리고 교리 속의 진리, 이를 통하여 우리는 생활의 선에 도달할 수 있다. 고로 일반적으로 지성으로부터 있는 진리.

창49장-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이 취급된다, 이는 혹독하게 거절된다. 이것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이다.

창49:3-‘르우벤, 나의 첫 출생’=신앙, 이는 외견적으로는 첫째 자리에 있다. 그이유가 ‘르우벤’=이해함에 있는 신앙.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의 신앙으로부터의 고백.

출6장-신앙에 관련한 주님의 영적 왕국을 기술하고 있다...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신앙으로부터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

계7:5-‘르우벤 지파로부터 12000명이 날인되어졌다’=새 천국과 새 교회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천적 사랑으로부터의 지혜.

창49:3,4-이것이 르우벤에 의해 의미되었는바, 장자권이 그로부터 거두어지고, 요셉과 그의 아들에게 주어졌다.

르우엘 (Reuel)

출2장-성직자인 ‘르우엘’=단순한 선에 있는 이들이 있는 이 교회의 선.

르호봇 (Rehoboth)

* 갈라 참조

* 그 때로부터 거짓들이 '르호봇'이다

창26:22-‘그는 그것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다’=진리 측면에 관련하여 그때부터의 품질...‘르호봇’=진리들;

그이유가 '르호봇'은 원어에서 '넓이'를 뜻한다.

리밧 (Rephath)

* 아스그나스를 참조

리브가 (Rebekah)

창22:23-‘브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에 애착함.

창24:15-‘리브가가 나왔다’=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있는 진리에 애착함 ; 그 이유가 리브가는 합리성의 신성한 선과 결합되어질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표현하기 때문; 그러나 여기서는 그녀가 약혼되기 전이어서, 그녀는 교리물들로부터 있는 진리에 애착함의 표현성을 입고 있다; 이리므로 진리이다...리브가는 합리성 안에서 그녀의 남편과 더불어 아내로서 결합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바, 이것은 신성한 진리이다.

창24:59-‘그들은 그들의 누이 리브가를 떠나보냈다’=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의 분리.

창24:61-‘리브가는 일어났다’=승강됨, 그 결과 진리에 애착함과 분리됨.

창24:64-‘리브가는 자기 눈을 들었다 그리고 이삭을 보았다’=진리에 애착함의 호혜적인 의향.

창25:20-‘그가 리브가를 받아들임에서’=신성한 진리의 결합.

창25:21-‘그의 여인은 임신 못했다’=아직까지는 신성한 자연적 측면은 없다; (그이유가) ‘여인’(리브가)=합리성의 선과 결합한 신성한 진리.

창25:21-‘리브가 그의 여인이 임신했다’=어머니로서의 신성한 진리로부터 (신성한 자연성이 근원됨); 그이유가 ‘리브가’=합리성 속의 신성한 진리.

창25:28-‘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신성한 합리성 속의 신성한 진리는 진리로부터의 교리를 사랑했다.

창26:7-‘그는 내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곳의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나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신성한 진리는 그 자체 열려질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이 경우에서 신성한 선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 ‘리브가’=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의 신성한 합리성.

창26:8-‘이삭이 그의 여인 리브가와 웃고 있었다’=신성한 선이 신성한 진리 안에서 표출되었다...‘리브가’=

마감-마곡-마구간-마길-마노

주님의 합리성 속의 신성한 진리.

창26:35-‘이삭과 리브가’=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에 관련된 신성한 합리성.

창27:5-‘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진리에 애착함,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생활. ‘리브가’=거기서 신성한 선과 결합된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의 신성한 합리성; 고로 진리에 대한 참 애착.

창27:6-‘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자연적 진리에 관하여 주님께서 신성한 진리로부터 지각함.

창27:8-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리브가’인 바,=신성한 합리성 속의 신성한 진리.

창27:11-‘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자연적 진리에 관하여 주님께서 신성한 진리로부터 지각하심.

창27:14-‘어머니’, 리브가=진리 측면에서의 신성한 합리성.

창27:15-여기서 ‘그녀’인 리브가=신성한 합리성 속의 신성한 진리.

창27:42-‘그녀의 큰 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전해졌다’=그 당시 자연적 선으로부터의 마음에 관하여 주님께서 신성한 진리로부터 지각하심.

창27:42-‘(리브가는) 그녀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불렀다’=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유입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을 통각함.

창27:46-‘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신성한 진리로부터 주님이 지각하심.

마감 (closure)

출25:25-‘너는 그것을 위하여 한 손 폭의 마감(테두리)을 만들어라’=거기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결합함. ‘마감’=종결(termination)의 최말단, 그이유는 그것이 테두리 바깥쪽이었기 때문. 고로 진리와 결합함과 신성과 결합함.

출25:25-‘너는 그것을 빙둘러 마감짓기 위하여 금으로 테두리를 만들 것이다’=신성한 선의 영역이 종결됨. ‘마감’=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결합함.

출25:27-‘마감에 기대어 장대에 집들을 위해 고리들이 있을 것이다’=거기서부터 파생되는 힘. 고리들이 있도록 기대는 마감=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최말단에서 결

합함.

호13:8-거짓과 악을 통하여 선으로부터 진리가 분리됨이 ‘나는 그들 심정의 마감을 찢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마곡 (Magog)

창10:2-‘고멜, 마곡’=내적 예배에 상응하는 외적 예배와 더불어 여러 나라들. 이들을 통해 그들이 신성하게 준수했던 의식들과 똑같은 여러 다른 교리물들이 의미된다.

마구간 (stable)

* 여물통(manger)도 참조.

* 육체의 현세에의 욕망이 나귀들, 숫염소 들, 돼지들이 있는 마구간에 비교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애착들은 순수 혈통(thoroughbred)의 말들, 또한 양과 어린 양들이 있는 마구간에 비교된다.

마길 (Machir)

창50:23, 사5:14-‘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자발적(Voluntary) 측면과 그것의 갈래들(derivatives)...‘마길의 아들들’에 의해 의미되어지는 교회의 자발적 측면은 진리들과 결합한 선들이다. 고로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다. 그이유가 선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진리들은 선의 형태들이기 때문. ‘마길의 아들들’=진리들과 결합한 선이라는 것은 그 아들들이 요셉의 무릎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의미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선으로부터의 진리인 것은 사사기에서 의미되어 있다. 즉 ‘마길로부터 입법자들이 내려올 것이다.’ ‘입법자’=선으로부터의 진리.

사5:14-‘마길로부터 입법자들이 내려갈 것이다’=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은 생활의 선으로부터 흘러나간다는 것. 그이유가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고, 므낫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

마노 (agate)

출28:19-‘풍신자석(cyanus, lazure, lagure), 마노(agate), 자수정(amethyst)’=선으로부터의 영적 사랑, 이는 그것들의 색깔로부터 분명하다. 흰색으로부터의 하늘색은 영적 선을 의미한다...마노가 하늘색에 속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다. 그 이유가 근원적 언어에서 마노가 어떤 종류의 돌, 즉 마노, 터키석(turquoise, 청록색의 돌), 그 외 어떤 다른 돌인지를

마늘-마대-마라-마른

알리지 않기 때문.

* 순수함과 선함의 수준에서 루비, 사파이어, 마노는 서로 구별되어진다

* ‘마노’=자연적 선, 이 선은 최말단 천국의 선이다.

마늘 (garlic)

민11:5-‘마늘’ 등등=가장 낮은 자연 평면으로부터 있는 것들, 즉 인간의 육체의 감각적인 것들.

* 대파(leek)와 파의 코를 찌르는 냄새, 또는 마늘은 (느빌림의) (강력한) 설득력에 상응한다.

마대 (Madai)

창10:2, 이21:2-‘마대’=외적 교회, 또는 내적인 것이 있는 외적 예배. 이것은 마대가 야벳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으로부터도 분명해진다.

마라 (Marah)

* 영적 (왕국의) 교회의 두 번째 시험이 백성이 불평함에 의해 묘사되어져 있다.

출15:23-‘그들은 마라에 당도했다’=시험의 상태.

그 시험의 상태와 품질...그 이유가 ‘마라’는 ‘쓴 것’이란 뜻이기 때문.

출15:23-마라에서의 물들, 그들은 그것의 쓴맛 때문에 마실 수 없었다는 섞음질한 진리들을 표현했다. ‘쓴맛, bitterness’=섞음, 간음, adulteration.

마른 (dry, dryness, dry up, withering)

창8:13-‘물들이 땅 위로부터 말리워졌다’=그때에 거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창8:13-‘보니, 지면의 얼굴들이 말라 있었다’=거듭남... 거것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지면의 얼굴들이 ‘말라’ 있었다 라고 말해진다.

마12:43-‘마른 장소’, 또는 물들이 없는 장소,=진리들이 없는 곳.

호9:14-‘마른 (젓)가슴’=진리와 선에 애착들이 없음.

겔19:12-‘동풍이 그녀의 열매를 말리웠다’=그것의 선이 파괴됨.

창1:9-‘마른 것 (마른 토지, the dry land)이 나타나라’

* 외적 인간 자신이 ‘마른 것(토지)’이라 불리우고 있다. 이후 ‘토지’ 라 불린다.

창1:10-‘하느님께서 마른 것(토지)을 땅(earth)이라 부르셨다.’

학2:6-‘나는 하늘들과 땅, 그리고 바다와 마른 것(토지)을 흔들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교회가 취급되고 있다.

창7:22, 겔30:12, 예44:22-‘마른 것(토지) 안에 있었던 모든 것’=더 이상 생명이라 여겨질 것이 하나도 없는 이들... 물이 없는 곳이 ‘마른 것’, 즉 더 이상 어떤 영적인 것이 없는 것, 천적인 것은 더 더욱 없는 것이다. 거것의 설득은 영적, 천적인 모든 것을 질식시키고 소멸해버린다...한때 의견 정도의 수준에 그쳤었던 거것이었는데 이것이 그들 속에서 끈질기게 존재하여 이제는 진리인 듯 굳혀져 자기들 것에 반대되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는 들어보는 것 자체도 원치 않는다; 고로 자신들 눈 앞에 진리가 놓여져도 더 이상 자신들로 진리의 가르침을 받게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신성함으로부터 왜곡된 견해를 더욱 다듬질을 할 경우 더욱 거세져서 자기들이 뒤집은 것만을 인정해가서 결국 몽상적인 것만을 고취하게 된다. 이들이 물도 없고 풀도 없는 ‘마른 것(토지)’에 의해 의미되는 바, 에스겔서에서 ‘나는 강들을 마르게 만들 것이다...’ ‘강들을 마르게 만드는 것’=어떤 영적인 것도 더 이상 있지 않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너의 토지는 마르게 되어간다.’ ‘마름’=진리와 선의 어떤 것도 있지 않아서 황폐해진 토지.

출4:9-‘너는 마른 것(토지)위에 쏟을 것이다’=자연 안으로 파괴됨...‘마른 것(토지)’=자연. 여기서 ‘마른 것’은 마른 장소, 또는 토지를 표현하려고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집트의 토지=자연적 마음, 거것 안에 있는 마음, 고로 자연; 보다 더 구체적 표현은 ‘마른 것(토지)’.

출14:16-‘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마른 것에서 바다 한가운데를 지날 것이다’=영적(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거것이 유입되는 일 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것이다...‘마른 것에서’=안전하게 그리고 거것의 유입됨 없이; 그이유가 이 바다의 물들=악으로부터의 거것들이기 때문; 이로부터 ‘마름’=거것이 전혀 없음.

민11:6-상태들의 이런 바뀔 없이, 천적 사랑의 선은 마치 말라있는 듯 되어간다...이것이 메추라기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만나를 마른 양식, 변변찮은 양식으로 부른 것에 의해 의미되어 있

마른

다. 즉 '우리의 혼이 말라 있어 우리의 눈은 만나 외에는 (보이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

이35:1-여기서는 이방인들의 계몽에 관해 취급되고 있다. 선과 진리에 관한 그들의 무지가 '광야와 마른 장소'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겔26:14-모든 진리가 황량함이 '나는 너희에게 바위를 바삭 말려 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바위'=진리; 그리고 '마름'=이 진리의 황량함.

학2:6-'바다와 마른 것(토지)'=교회에 관한 외면의 모든 것들.

겔37장-'마른 뼈들'=어떤 영적 생명도 있지 않은 이들.

겔19:13-'마른 토지'=선이 없는 교회; 그리고 '목마른 토지'=진리가 없는 곳.

이44:3-'마른 것(토지) 위에 홍수들을 쏟는 것'=선으로부터,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총명을 주는 것.

겔30:12-'나는 강들을 마른 (토지)로 만들 것이다'=어떤 지식과 진리로부터의 통각함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것.

이35:7-주님에 의한 교회의 설립이 취급되고 있다; 그 다음 이전에 어떤 것도 있지 않았던 이들에게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영적 총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마른 장소가 웅덩이를 위해 있을 것'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호2:3-선이 결핍된 교회가 '광야와 '가뭄의 토지'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가뭄'은 선의 부족에 관해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태워짐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5:13-'목마름으로 마른 군중'=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이 빈궁함.

학1:11-'나는 토지 위에 가뭄을 불러왔다'; 여기서 '가뭄'=이슬과 비가 없음, 고로 진리가 어느 선으로부터라도 있지 않음; '날알 위에 가뭄'= 선의 결핍; 그리고 '새 포도주 위에 가뭄'=진리의 결핍.

호2:3=마른 토지 같이 놓이는 것'=모든 진리가 꺼지는 것.

예50:38-'그들이 말리워지게 물들 위에 가뭄'=왜곡함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생명이 없는 것.

출14:21-'그분은 바다를 마른 것으로 만드셨다'=거짓이 흠어짐.

이41:18-교회가 그들에게 설립되리라는 것이 '나는 광

야를 물 있는 웅덩이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마른 토지를 물들이 있는 샘으로 만들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아직 어떤 진리도 있지 않기에 어떤 선도 아직 있지 않을 때 '광야'라 불리운다; 이로부터 토지 역시 '말라있다'고 불리운다.

예17:8-'가뭄의 해'=진리가 손실되고, 진리가 박탈되는 상태.

이41장-'마른 토지'=진리가 없는 곳, 이로부터 선이 없는 곳.

예2:6-'쏟아지고 가뭄 있는 토지'=선을 지각함이 없는 상태.

슌2:13,14-'광야 같은 마른 장소'=교리 속의 거짓들...'문지방에 가뭄'=진리가 깡그리 황량함.

시107:33-'그분은 물들의 출구들을 말라지게 하신다'...'물들'=진리들; '말라짐'=빛도 애착도 없기에 그것들이 박탈됨.

예2:6-'가뭄과 음침한 그들의 토지'=선을 지각함과 진리를 이해함이 어슴프레해짐.

호13:5-'가뭄들의 토지'=진리들의 결핍.

이35:7-'마른 (토지)가 물들의 샘들을 위해 있을 것이다.'

마21:19-'무화과나무가 말라졌다'...'말라지는 것'=어떤 선과 진리도 더 이상 있지 않는 것.

이42:15-'나는 모든 그들의 풀잎을 말릴 것이다'=이들의 선들로부터 있는 진리들이 멀해지리라는 것. '나는 강들을 섬들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웅덩이들을 말리울 것이다'=총명과 진리에 관한 지식은 멀해질 것이다.

애4:8-그다음 모든 진리가 뼈에 들러붙은 가죽이 되어 간다; 이것이 '바삭 말리워져서 막대기 같이 되어간다.'

이19:5-'강이 마를 것이다, 그리고 바삭 말리울 것이다'=진리로부터의 교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총명도 없을 것이다.

마13:6-그들은 뿌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리워졌다...'태워지는 것과 바삭 말리워지는 것'=섞음 질되는 것, 그리고 멀해지는 것.

이27:11-'추수가 말라죽게 될 때'=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악한 사랑들을 통해 파괴되었다.

마리아-마므레

마9:18-‘그는 수척해졌다’

예12:4-‘슬퍼하는 것 그리고 말라 죽는 것’=멸망하는 것, 그리고 탐욕들을 통하여 흠어지는 것.

호13:5-‘그의 샘이 마를 것이고 그의 원천이 말리울 것이다’=이 열정과 자만으로부터 교리 속의 모든 것과 말씀 속의 모든 것은 파괴되어진다.

창8:7-‘물들이 땅 위에서 마르기 까지’=거짓들이 외관상 흐뜨러짐.

창8:14-‘땅이 말려졌다’=그는 거듭나졌다는 것.

계16:12-‘(유프라테스의) 물이 말려졌다...’물이 말려졌다’=이런 거짓들이 주님께 의해 제거되었다.

이50:2-‘바다를 마르게 하는 것’=과학적 사실 속의 선과 진리를 감추는 것.

예1:42-‘바벨론의 바다를 말리시고 그녀의 샘들을 말리시는 것’=그 교회의 진리를 제일 중요한 것부터 최말단에 까지 소멸하는 것.

욥1:12-‘들판의 모든 나무가 말라졌다’=악들과 거짓들로부터 다 소멸되어진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이42:15-‘강들을 섬들로 만드는 것, 그리고 웅덩이를 말리는 것’=진리에 대한 지각과 모든 이해함을 전멸시키는 것.

이50:2-‘바다를 말리는 것’=자연적 인간으로부터 과학적 진리들을 박탈하는 것, 그러므로 자연적 영적 생명을 박탈하는 것.

이44:27-지옥들로부터 있는 악들과 거짓들의 흐뜨러짐, 그리고 그것들로부터의 보호가 ‘깊음을 말리는 것,’ 그리고 ‘강들을 말리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슥10:11-‘강의 모든 깊음들이 마르는 것’=악으로부터의 모든 거짓들, 아주 깊은 것까지 조차 흐뜨러짐.

이19:6-‘말라지는 것’=사라지고 멸해짐

욥1:20-‘시내의 물이 마름’=교리 속의 진리들이 자연적 사랑들을 통하여 흐뜨러졌다.

마리아 (Mary)

* 그분과 더불어는 외면의 것들은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의 인간(human)이었다.

창3:15-‘여인’을 교황주의자들은 마리아로 이해하고 그녀를 숭배한다.

* 마리아에게 왔던 성령=신성한 진리. 그리고 그녀에게

드리워진 가장 높은 자의 힘=신성한 선...

마므레 (Mamre)

창13:18-‘아브람은...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에서 거주했다’=주님께서는 더 내면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에 도착하셨다는 것...이 지각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라 불리우고 있다.

창14:13-‘그는 아모리족의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에서 거주하고 있었다’=합리적 인간으로부터의 지각의 상태.

창14:13-‘마므레, 에스골, 아넬’에 의해 표현된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첫 어린 시절에 싸우셨을 때, 그분과 더불어 있었던 천사들인데, 이들은 그때 당시 주님과 더불어 있는 선들과 진리들에 잘 어울리는 천사들이었다.

* ‘마므레, 에스골, 그리고 아넬’은 주님의 외적 측면에 관련되는 합리적 인간의 상태, 그리고 그것의 선들과 진리들의 품질이 의미되었다. 고로 그것들을 수단으로 그분이 싸우셨을 때 주님과 더불어 있었던 천사도 의미되었다.

창18:1-그분의 인간 안에서 주님이 지각하시던 때의 상태가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창23:17-‘마므레 앞 막벨라’=거듭남. (‘막벨라’=거듭남; 그리고 ‘마므레’=거듭남의 질과 양)

창23:19-‘헤브론인 마므레’, 그리고 창13:18의 ‘헤브론에서’=질과 양을 말하는데, 여기서와 같이 막벨라와 접합될 경우 거듭남의 질과 양; 그리고 ‘헤브론’과 접합될 경우, 교회의 질과 양; 그리고 ‘상수리나무 숲’과 접합될 경우, 지각의 질과 양. 고로 ‘마므레’는 어떤 것의 상태에 대한 결정일 뿐이다; 그 이유가 이곳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삭이 거주했고, 이곳으로 야곱이 왔다.

창25:9-‘마므레의 얼굴에’=선에 관련하여...

창35:27-‘키랏-아르바의 마므레’=그것의 상태; (그이 유가) ‘마므레’=접합되어진 것에 관련되는 질과 양.

마법 (sorcery)

계18:23-‘네 마법에 의해 모든 나라들은 유혹되었기 때문이다’=그들의 사악한 미술과 교활함을 수단으로 그들은 마음들을 주님께 대한 거룩한 예배로부터 산 사

마법-마술-마술사-마스-마시다

람, 죽은 사람, 그리고 우상들에 대한 모독된 예배 쪽으로 이끌려지게 했다.

마술 (enchant)

마술사 (enchanter)

* 황홀케하는 것(enchantment)을 보라.

마술사 (magician, magi)

창41:8-‘그는 보내서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 그리고 현인(wise one)들을 불렀다’=내, 외면 모두에서 과학물과 상담하는 것...좋은 의미에서 ‘마술사’=내면의 과학물...‘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과학물이 의미되는 이유는 이집트는 고대 표현 교회가 있었던 왕국 중의 하나이기 때문. 이 교회의 과학물은 이집트에서 특별히 연구 발달되었는데, 이것은 상응(correspondence), 표현(representatives), 의미(significatives)에 관계되어져 있다. 이 과학물에 숙달되고 이를 가르친 이들 중 일류급에 해당하는 자들이 마술사, 그리고 현인이라 불리웠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내면의 과학물을 남용하기 시작하여 그것들을 마술적인 것들로 변질해버린 이후, 이집트는 오용된 과학물을 의미되기 시작했다. 이집트의 마술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출7:22-‘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법을 걸어 그렇게 했다’=그들의 거짓말쟁이들은 질서를 남용함으로써 똑같이 꾸며냈다. 이집트인의 마술=신성한 질서를 남용함.

마스 (Mash)

창10:23-‘마스’ (그리고 아람의 다른 아들들), = 아주 많은 종류의 이런 지식들, 그것들에 따른 다양한 행위들.

마시다 (drink)

* 먹다도 참조

창24:14-‘나로 마시게 해다오’=거기로부터 있는 진리에 관한 가르침. ‘마시는 것’=가르쳐지는 것. 신앙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이 말씀에서 취급되는 곳, ‘마시는 것’=선과 진리들이 가르쳐지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받는 것.

창24:22-‘낙타가 마시기를 끝마쳤을 때’=일반적 과학적인 것들에서 개발로부터 인정함...‘마시는 것’ 여기서 ‘물들을 길어올림’과 같다.

겔4:11-황폐된 진리의 상태가 ‘그들은 측량하여 물을

마실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창24:54-‘그들은 먹고 마셨다’=이리하여 선과 진리의 자기 것 됨이 시작되었다...‘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교제하는 것과 결합되는 것, 고로 자기 것 되는 것; 그러나 포도주에 관련해 서술할 때, 포도주=진리, 이 경우 ‘마시는 것’에서 의미되는 진리의 자기 것 됨이다.

창26:30-‘그들은 먹고 마셨다’=교통됨...‘마시는 것’=진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에 관련하여 통하는 것이 있음.

창27:25-‘그는 그에게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마셨다’=후에 진리의 결합.

창30:38-‘마시러 오는 것’=진리에 애착함. 그 이유는 마심이 같증을 내포하기 때문.

마24:38-‘먹음과 마심’=악과 거짓을 자기 것 삼은 그들의 상태...‘마시는 것’=진리를 자기 것 되게 함; 고로 반대 의미로는 거짓을 자기 것 되게 함.

마26:29-‘나는 지금으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의 이 생산물을 내가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더불어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을 것이다’=진리로부터의 선과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지적인 것은 새로 워진다, 또는 인간이 영적으로 되어간다는 것이 ‘포도나무로부터의 생산물’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그것을 자기 것 되게 함이 ‘마심’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그리고 이것은 저 세계에서가 아니면 충분하게 거행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너희와 더불어 새 것을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마실 때까지’에 의해 의미되었다.

창43:34-‘그들은 마셨다’=선 아래 진리들을 응용함. ‘마시는 것’=진리의 왕래와 자기 것 됨; 이로부터 또한 그것의 응용

창43:34-‘그리고 그들은 충분하게 마셨다’=풍부하게. ‘마시는 것’=선 아래 진리들을 응용함.

출7:18-‘이집트인들은 강물로부터 물들을 마시는데 괴로울 것이다’=그들은 그것에 관하여 알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마시는 것’=진리들이 가르쳐지는 것; 이로부터 ‘마시는데 괴롭다’=가르침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출7:24-‘모든 이집트인들은 마실 물들을 위하여 강 주위를 팻다’=그들이 거짓들에 응용해볼까 하여 진리를

마시다

수색함...'마시는 것'=거짓들에 응용하는 것. '마시는 것'=응용하는 것, 그이유가 자신이 마실 경우 이는 자신에게 응용하는 셈이기 때문.

출7:24-'그들은 강의 물들로부터는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거짓들만으로부터의 응용함은 없다...'마시는 것'=응용하는 것.

출15:23-'그들은 쓴맛 때문에 물들을 마실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쓴맛이었기(모질었기) 때문이다'=진리들이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게 나타났다는 것, 그 이유는 그들은 선에 애착함 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물들을 마시는 것'=진리들을 받는 것, 그리고 선 아래 그것들을 응용하는 것.

출15:24-'말하기를, 우리는 무엇을 마실 것인가?'=그들은 진리들의 가르침을 참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진리들에 대한 애착이 없어 역겨워했기 때문이다. '마시는 것'=진리들로 가르쳐지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받는 것, 또한 그것들에 애착을 갖는 것, 이로부터 그것들을 자기 것 되게 하는 것.

출17:1-'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진리의 결핍, 그러므로 새롭게 함의 결핍...'마시는 것'=신앙 속의 진리로 가르쳐지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받는 것; 여기서 새로워지는 것; 그 이유가 물이나 마실 것은 자연적 생명을 새롭게 해주기 때문, 이와같이 진리들이나 진리에 대한 지식들은 영적 생명을 새롭게 한다; 그런 이유가 영적 삶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의 음식과 마실 것이라 불리우는 것, 즉 선들과 신앙 속의 진리들에 의해 지탱되기를 갈망하기 때문...

요7:37-'만일 누군가가 목마르다면, 그로 나에게 오게 하라, 그리고 마시라'...'마시는 것'=가르쳐지는 것.

출17:6-'그리고 백성들이 마시리라'=그들을 새롭게 할 (신앙 속의 진리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줄 것이다. '마시는 것'=신앙 속의 진리들로 가르쳐지는 것, 그러므로해서 영적 생명을 주고 새로워지는 것.

미6:15-'포도(즙)을 밟을 것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에 관하여 가르쳐질 것이나 아직 그것들은 자기 것 되지 않을 것이다.

출24:11-'그들은 먹었고 마셨다'=예배의 선과 진리에 관한 정보...'마시는 것'=진리와 결합 그리고 자기 것

됨

출32:6-'마시는 것'=거짓을 자기 것 삼음.

출34:28-'(모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한동안 신앙의 진리를 자기 것 되게 함이 없다...'마시는 것'=진리의 영접과 자기 것 됨.

겔39:17-'피를 마시는 것'=말씀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자기 것 되게 함.

계14:10-'그는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왜곡된 말씀 속의 선들과 진리들을 생명이 되게 빨아들이는 것...'마시는 것'=그것들을 자기 것 되게 하는 것, 또는 그것들 가지고 생명을 고취시키는 것.

계16:6-'당신은 그들에게 마시라고 피를 주었다, 그이유가 그들은 그럴만하기 때문이다'=...말씀 속의 진리들이 왜곡되도록 교리와 생활에서 자신들을 믿음만으로 확증해버린 이들, 그리고 그렇게 왜곡된 것을 삶에 불어넣은 이들에게...허락되어졌다. '피를 마시는 것'=말씀 속의 진리들을 왜곡할 뿐 아니라 그렇게 왜곡된 것으로 생명되게 하는 것, 그이유가 마시는 당사자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빨아들이기 때문.

예25:27-'마시고 취하는 것'=거짓들을 마시는 것 (흡수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진리들과 뒤섞는 것, 이리므로해서 사악해지는 것.

*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진리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 것 되게 함으로 해서 주님과 결합하는 것.

이62:8,9= '마시는 것'=소비하는 것...그러므로 예배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거룩함의 뜰에서 마시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44:12-'마시지 못함'=진리를 빼앗김.

이65:13-'먹고 마시는 것'=교통되고 자기 것이 될 선들과 진리들.

시11:7-'냇가로부터 마시는 것'=그러므로 어떤 것을 배우는 것.

겔34:18-'마시는 것'=배우고 받는 것.

애5:4-'우리는 은을 주고(for silver) 우리의 물들을 마신다'=자신들로부터 가르쳐짐, 거기로부터서는 오로지 거짓들만 온다.

이29:8-'목마른 자가 꿈 속에서 마시는 것처럼...'=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잘못투성이의 견해와 신앙.

마싸-마을

을3:3-'그들은 마셨다'=거짓을 빨아들임.
막10:38-'주님이 마시는 잔으로 마시는 것'=시험들을 경험하는 것.
예25:28-'마시는 것'=그들 자신에게 착복하는 것.
시104:11-'마시게 하는 것'=가르치는 것.
창21:19-'(하갈은) 소년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영적인 것들을 가르침. '마실 것을 줌'=진리들을 가르침.
이32:6-'목말라하는 혼이 마실 것을 위해 목말라 함'=진리를 갈망함.
창24:14-'나는 낙타 또한 마실 것을 줄 것이다'=그 때부터 자연적 인간의 모든 과학적인 것이 계발됨....'마실 것을 주는 것'=계발되는 것. '물을 길어올리는 것'=가르치는 것; 고로 '마실 것을 주는 것'=계발되는 것; 그 이유가 계발됨은 가르침으로부터 오기 때문.
창24:18-'그녀는 그에게 마실 것을 만들었다'=개시함. '마실 것을 주는 것'은 '마시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여기서의 경우 같이 '마실 것을 주는 것'은 마시는 사람의 쪽에서 더 큰 활동을 포함한다...고로 '마실 것을 만드는 것'=받는 기회를 주는 것, 이는 개시의 첫 번째 행동이다.
창29:2-'이 우물로부터 그들은 가축떼에게 물을 먹였다'=지식이 말씀으로부터 있다는 것... '물을 먹이는 것', 또는 마실 것을 만드는 것=가르쳐지는 것.
창29:3-'그들은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그때부터 교리가 있다는 것. '물을 마시게 하는 것' 또는 마실 것을 만드는 것=가르치는 것...고로 그것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말씀으로부터 가르치는 것, 그러므로 교리.
창29:7-'너는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그때부터 소수를 위해 아직도 가르침이... '양떼에게 물을 마시우는 것'=말씀으로부터 가르치는 것.
출2:16-'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그때부터 그들은 선 안에서 가르쳐질런지 모른다. '물을 먹이는 것'=가르치는 것.
마10:41-'냉수를 마시도록 주는 자는 누구이든...' '냉수'=진리의 어떤 것.
계14:8-'그녀는 모든 나라들을 그녀의 음행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었기 때문'=말씀을 모독함으로,

교회의 선과 진리를 간음질함으로 그녀는 자기 지배에 복종당할 모든 이들을 미혹했기 때문에...'그 포도주의 마실 것을 만드는 것'=미혹하는 것.
이5:22-'포도주를 마시는 것'=거짓들을 끌어내는 것.
이32:6-'마실 것을 위해 목마른 자...'=진리들을 갈망하는 자.
민20장-'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주는 것'=영적으로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 이는 가르치고 훈육함으로 결과 되어진다.
시36:8-'그들에게 마실 것을 만드는 것'=가르치는 것.
이43:20-'내 백성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그것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교수하는 것.
마10:41,42-마실 것인 '찬(물)을 마시라고 주는 것'=조그만 순진으로부터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 '작은 사랑(어린 아이)에게 마시라고 물을 주는 것'=영적 순진으로부터 진리를 가르치는 것; 또한 순진이 있는 이들에게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
창19:32-'우리의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그들은 이런 거짓들이 선에 스며들게 할 것이다.
창40:21-'그는 술맡는 시종장을 음료 책임자로 복직되게 했다'=지적 부분의 감각적인 것들이 받아들여졌고 종속되게 만들었음... '마심', 그리고 마심에 속하는 것들, 즉 포도주, 포도즙, 독주, 물은 이해함으로부터 있는 이런 저런 것들을 서술한다.
마싸 (Massah)
출17:7-'그는 그곳의 이름을 마싸라고 불렀다'=시험의 상태의 품질... 원어에서 '마싸'=시험을 뜻한다.
신33:8-그들이 마싸에서, 므리바의 물에서 시험한 기록한 사람에 의해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이 뜻해진다.
마을 (village)
여21:12-'들판과 마을에 관하여 갈렙에게 주어진 (헤브론)=다시 새로운 교회.
창25:16-'그들의 마을들에서'=교회의 외적인 것들... 이 것들이 '마을들'에 의해 표현되었는데, 그이유는 그들이 성읍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42:11-'마을들'=자연적인 지식들과 과학물들.
마음 (mind, animus(라틴어))

마음-마일-마지막-마하나임-마하랄렐-마할렛-막벨라

창24:28-‘달리는 것’=경향(propensity), 또는 마음.
창43:20-‘내려가는 것’=마음(의향, disposition), 또는 의도(intention).
출10:29-‘얼굴’에 의해 마음이 의미되어진다.
마음 (mind, mens(라틴어))
마음의 (mental)
 * degree, idea, region, sense, soul, sound, think, understanding, will을 참조하라.
창39:2-‘잡’=선이 있는 마음. 여기서의 자연적 마음.
 * 모든 인간과 더불어 자연적 마음과 합리적 마음이 있다. 자연적 마음은 그의 외적 인간 안에, 합리적 마음은 그의 내적 인간 안에 있다. 과학물은 자연적 마음 속의 진리들이다.
창41:36-‘(이집트의) 토지’=자연적 마음, 그리고 인간 자체. 그이유가 인간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이유가 마음 자체가 인간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의해 인간의 지적 자질과 자발적 자질이 의미되어진다. 이것이 그의 순전한 생명이다.
창47:19-‘지면’=진리의 저장소. 저장소 자체는 마음이다. 여기서의 자연적 마음, 그이유가 이집트의 지면이기 때문이다.
출7:28-‘침실들’=마음의 내면들.
출16:25-‘들판’=인간, 인간의 마음.
계17:9-‘이것이 지혜를 가고 있는 마음(지성)이다’=영적 의미로부터 자연적 의미 안에 있는 이것 저것을 이해함.
마일 (mile)
마5:41-‘마일’에 의해 진리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의미된다. 그이유가 ‘마일’과 ‘길’은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마5:41-‘네게 1 마일을 함께 가자고 강요하는 자가 누구든지, 2 마일을 같이 가라’=만일 누군가가 진리로부터 거짓으로, 선으로부터 악으로 떠나기를 원한다면, 그는 반대되어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그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일’은 ‘길,way’과 같은 의미이다. 즉 이끌려 가버리는 것, 인도하는 것.
마지막 (last)
 * 맨 마지막(last)을 보라.

마하나임 (Mahanaim)
창32:2-‘아굽은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다’=상태의 품질...원어에서 마하나임은 두 진영을 뜻한다. 그리고 ‘두 진영’=두 천국, 또는 주님의 두 왕국...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천적 평면과 신성한 영적 평면. 주님의 자연 평면이 영적 선과 천적 선에 의해 예증될 때, 주님의 상태의 품질이 ‘마하나임’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마하랄렐 (Mahalalel)
창5:12-다섯째 교회가 ‘마하랄렐’이라 불린다.
마할렛 (Mahalath)
창28:9-‘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왔다’=이 선이 신성한 근원으로부터의 진리와 결합함.
막벨라 (Machpelah)
창23:17-‘마므레 앞인 막벨라’=거듭남.
창23:9-‘그로하여금 나에게 막벨라의 동굴을 주게 하라’=신앙으로부터의 희미한 것. ‘막벨라’=희미함에 있는 신앙...여기서 ‘막벨라의 동굴’이 말해지되, 막벨라는 들판이 있는 곳에, 그 들판의 끝에 동굴이 있었다고 말해지는바, 이는 진리의 희미한 것, 또는 같은 말로 신앙의 희미함이다. 이로부터 ‘막벨라’는 희미함에 있는 신앙임이 분명하다.
창23:17-‘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것’=거듭남의 질과 양...‘막벨라’=신앙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통하여 거듭남.
창25:10-‘막벨라의 동굴로’=진리 측면에서의 부활.
창49:30-‘막벨라의 들판에 있는 동굴 안에’=이 희미함 안에. ‘동굴’=희미한 것, 그리고 또한 ‘막벨라’. 그러나 ‘막벨라’=희미함의 품질.
창50:13-‘막벨라의 들판의 동굴에’=거듭남의 시작...‘막벨라’=거듭남. 고로 거듭남의 시작, 그이유가 거듭남의 시작에서는 신앙이 희미함에 있기 때문이다.
막게다 (Makkedah)
역10:27-‘막게다의 동굴’=악으로부터의 끔찍한 거짓.
막대 (rod)
지팡이 (staff)
겔29:6-‘갈대 지팡이’=그러한 힘(power).

막게다-막대

시105:16-‘빵의 지팡이를 부러뜨리는 것’=천국적 양식이 결핍되는 것.

호4:12-‘그들의 지팡이가 그것을 암시할 것이다’=그들 자신의 이해성 속의 상상의 힘.

이3:1-‘빵의 지팡이, 물의 지팡이’, 이것이 ‘제거될’ 것이다=선과 진리.

민21:10-‘그들의 장대들’=그들이 가진 힘.

창20:37-‘야곱은 포플러의 상성한 막대를 가져왔다’=자연적 선에 어울리는 힘.

창32:10-‘지팡이’=힘, 그리고 진리를 서술하고 있다.

창38:18-‘네 손에 있는 지팡이’=이 진리의 힘을 수단으로.

시23:4-‘당신의 막대’, 그리고 ‘당신의 지팡이’=신성의 진리와 선, 이 안에 힘이 있다.

예1:11-‘막대’=힘.

출4:2-‘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말했다, 막대입니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힘.

출4:17-‘네 손에 이 막대를 가져가라’=그것들 안에 있는 신성의 힘.

출4:20-‘모세는 자기 손에 하느님의 막대를 가져갔다’=신성의 힘으로부터 있는 이것저것들.

출7:9-‘네 막대를 가져가라, 그리고 그것을 바로 앞에 던져라’=보여지는 힘.

출7:12-‘아론의 막대가 그들의 막대들을 삼켰다’=힘이 그것들로부터 거두어졌다는 것.

출7:15-‘뱀으로 변한 막대를 네 손 안에 가져가라’=전과 같은 힘.

출9:23-‘모세는 자기의 막대를 하늘을 향하여 뻗었다’=천국과 교통됨.

출10:13-‘모세는 자기 막대를 이집트의 토지 너머로 뻗었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힘이 통치함.

출12:11-‘네 손에 있는 네 지팡이’=매개하는 것들에 관련하여.

출14:16-‘네 막대를 들어올려라’=신성한 진리의 힘.

호4:12-‘그들의 지팡이가 그들에게 대답한다’=인간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상상의 힘.

삼하3:29-‘지팡이로 자신을 떠받치는 것’, 즉 절름발이=모든 선이 파괴된 이들.

출21:20-‘지팡이로 쳐죽이는 것’=자신의 힘으로부터 나쁘게 대우하는 것.

겔39:9-‘손-지팡이’=선으로부터 진리의 힘.

이30:32-‘기초(foundations)의 지팡이’=진리의 힘.

계11:1-‘지팡이를 닮은 갈대’=주님으로부터의 힘.

민17장-‘지파들’을 위한 히브리어에 있는 두 단어들=홀(sceptre)과 막대. 홀은 통치(권) 측면에서의 신성의 진리, 그리고 막대는 힘 측면에서의 신성의 진리가 의미되어지고 있다. 백성들이 불평을 늘어 놓자 명령이 떨어졌다. 즉 모든 지파들의 제 일 인자들은 성막에 자기들의 막대를 놓아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레위의 막대가...그 막대에는 아론의 이름이 쓰여 있고, 그리고 이 막대에 아몬드가 열렸다. 막대는 지파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레위의 막대’는 레위 지파로 의미되는 선행의 선, 그리고 사랑의 선이 의미된다.

이3:1-‘빵의 모든 지팡이, 그리고 물의 모든 지주(stay)’=사랑의 모든 선과 신앙의 진리...‘지팡이’, 그리고 ‘지주’=힘들, 그러므로 영적 생명의 모든 것들.

숙10:11-‘이집트의 지팡이가 떠날 것이다’=추론들에 근무하는 과학물들은 아무 쓸데 없을 것이다.

민21:18-‘그들의 장대를 가지고’=마음의 능력과 세력, 여기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이36:6-(이집트, 상한 갈대의) 지팡이=거기로부터 지각함의 힘, 또한 추론함의 힘, 진리들...‘이 지팡이에 기대는 것’=진리들을 지각함에서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자아로부터 그것들에 관하여 추론하는 것.

겔29:6-그들의 신뢰함이 ‘갈대 지팡이’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예48:17-‘어떻게 강함의 지팡이, 아름다움의 막대가 부러졌을까’=그들은 힘의 측면에서 신성의 진리를 더 이상 갖지 못했다는 것. ‘강함의 지팡이’=자연적 의미에서의 신성한 진리의 힘, 그리고 ‘아름다움의 막대’=영적 의미에서의 신성한 진리의 힘.

시110:2-‘네 강함의 막대’=힘 측면에서의 신성의 진리.

계12:5-‘쇠 막대’=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영적) 진리.

이10:24-신앙의 진리들에 맞서 과학물들로부터 추론하는 이들의 힘이 ‘막대를 가지고 앓수르를 쳐부술 것이

만-만기가 되다

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시2:9-'쇠 막대'=자연 안에서 영적 진리의 힘.

이11:4-'그분의 입의 막대', 그리고 '그분의 입술들의 숨'=신성의 진리로부터 심판이 있다.

계2:27-'그분은 그들을 쇠 막대로 통치하실 것이다'=글자 의미로부터의 진리들을 통하여, 동시에 자연의 루멘(lumen, 빛)으로부터의 합리적인 것을 통하여 ...

계12:5-'쇠 막대로 만국을 돌보는 자'=위의 의미와 같다.

겔19:12-'그녀의 가지들로부터의 막대'=안에 악이 있는 교리 속의 거짓.

겔19:11-'강함의 막대들'=힘 측면에서의 신성의 진리.

미7:14-'네 막대로 네 백성에게 풀을 먹임'=말씀으로부터의 신성의 진리들 안에서 교인들을 가르침. '막대', 여기서는=말씀, 그이유는 말씀=신성의 진리이기 때문.

애3:1-'그분의 격노하심의 막대'=지옥의 거짓을 통치함.

만 (gulf)

구렁(덩이) (gulf)

눅16:26-'그들 사이에 만...'=선으로부터 그 자체를 제거함(removal), 이는 또한 만이 사이에 끼어드는 나타냄을 준다.

* '큰 만'=생활의 상태들의 반대됨과 불일치함.

만 (myriad)

시91:7-'만'=셀 수 없는 것, 여기서서는 주님의 적들인 모든 것.

시144:13-'10,000, ten thousand', 또는 만, myriad=셀 수 없는 것들.

* '천, a thousand'에 의해 많은 (것), 또는 무한인 것이 의미된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것이 '만'에 의해 의미된다. 이보다 더 많은 것이 '천 만, a thousand myriads'에 의해 의미된다.

계5:11-'그것들의 숫자는 만의 만(억), 그리고 천의 천(백 만)이었다'=진리들에 있는 모두, 그리고 선들에 있는 모두...여기서 그들의 품질이 '만의 만, 그리고 천의 천'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그이유가 '만'은 진리들을 서술하고, '천'은 선들을 서술하기 때문. 그 이유는 만은 더 큰 숫자...그리고 진리들은 다양하기(manifold) 때문.

계9:16-'기병 군대들의 수는 이 만 만(2억)이었다'=민음 만에 관하여를 단지 풍부한 악의 거짓으로부터 추론함...'이 만 만'에 의해 크게 풍부함이 뜻해진다. '둘'은 악을, '만'은 진리들, 반대 의미에서는 거짓들을 서술한다.

신33:2-'거룩함의 만'=신성한 진리들.

신33:17-'에브라임의 만, 그리고 므낫세의 천'=진리가 풍부함과 그로부터 지혜가 파생됨, 그리고 선이 풍부함과 그로부터 사랑이 파생됨.

시91:7-이런 악들의 파멸이 '네 옆에서 천(명)이 쓰러질 것'에 의해, 그리고 거짓들의 파멸이 '네 오른손에서 만(명)이 쓰러질 것'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단7:10-둘 다(신성한 선과 진리)가 의미되는데, '천의 천이 그분을 섬길 것이고, 만의 만이 그분 앞에 설 것이다'라고 말해진다. '천'은 신성한 선, '만'은 신성한 진리에 관해 말해진다.

민10:36-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천의 만'이라고 말해진다. 이 (숫자)를 수단으로 교회에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의미되어 있다.

만기가 되다 (expire)

창6:17-'땅에 있는 모든 것은 만기가 될 것이다'...그것들이 만료됨 또는 질식함.

창7:21-'땅을 기는 모든 육체는 만기가 될 것이다'=태고 교회의 마지막 후손 속에 있었던 이들이 소멸되었다.

창25:8-'아브라함은 만기가 되어 죽었다'=아브라함에 의한 표현성의 끝. '만기가 되는 것, 그리고 죽는 것'=중지하는 것 또는 끝을 갖는 것.

창35:29-'이삭은 만기가 되어 죽었다'=신성한 자연성에서 소생함

창49:33-'(야곱은) 만기가 되었다'=거기 새로운 생명...'만기가 됨'=새로운 생명.

시104:29-'나는 그들의 숨을 거두어들이었다, 그는 만기가 되었다'

예15:9-'일곱을 낳은 그녀는 약해져 혼(soul)을 내뿜을 것이다'=모든 진리들이 주어져왔던 교회가 멸해질 것이다.

애1:19-'만기가 되는 것'=더 이상 존재 않는 것.

만나

만나 (manna)

민21:5,6-만나가 주님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만나에 반대하는 것 말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만나를 친박한 빵이라 부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뱀들이 그들을 향하여 보내졌다.

요6:31,32,49,50,58-만나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의미했는바, 만나는 천적인 빵을 의미했다. 이는 신앙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과 더불어 사랑과 선행(charity). 천국들에서 이 식품은 매 순간 주님께 의해 주어진다. 고로 영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주어진다.

출16:31, 요6:51,58-광야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위한 빵이었던 만나가 묘사되고 있다. 만나는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하여 내려오는 진리, 즉 신성으로부터의 진리(truth Divine)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 자신, 이를 요한복음에서 그분 자신이 가르치신다. 그이유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신성으로부터의 모든 진리가 오기 때문. 그뿐 아니라 신성으로부터의 모든 진리인 것에 관하여도 그러하다. 만나는 그것의 맛, 즉 꿀을 넣어 만든 과자 같다는 것을 수단으로 즐거움과 유쾌함이 묘사되고 있다.

출16:15-‘이것이 만나이다, 그이유는 그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알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놀램. (그이유가) 그들의 언어에서 만나는 ‘무엇?’이기 때문. 고로 알려지지 않은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빵이 만나라 불리는 이것으로부터 이었던 이유는 이 빵=신앙의 진리를 통하여 낳게 되는 선행의 선이기 때문. 거듭남 이전의 인간은 이 선을 전혀 모른다.

시78:24, 계2:17, 요6:49-58-여기서 각각의 것으로부터 분명한바, ‘만나’는 영적 의미에서,=진리로부터의 선, 즉 영적 (왕국의) 교회의 선이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하늘들의 곡식’이라 불리운다. ‘곡식’=진리로부터의 선. ‘만나’ 또한 진리로부터의 선, 이것은 시험을 수행하여 정복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 즉 계시록에서, ‘극복하는 그에게 나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 최고 의미에서 ‘만나’=우리 안의 주님이시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명하다. 이런 것들로부터 더 분명한 것은 ‘만나’에 의해 최고 의미에

서 주님이 의미된다는 것. 그 이유가 ‘만나’=진리로부터의 선, 그리고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이고, 주님은 선 안에 계시고, 선 자체이시기 때문.

출16:31-‘이스라엘의 가문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다’=그들과 더불어 그것의 품질...‘만나’는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부터 그렇게 불리웠다. 그리고 그것은=진리로부터의 선, 이 선은 영적 (왕국의) 교회에 속하는 이들의 선이다.

출16:31-진리의 선이 지금 기술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만나’에 의해 양쪽 모두, 즉 진리의 품질 측면과 그 안의 선의 품질 측면이 의미되고 있다.

출16:33-‘거기에 만나 한 오멜의 가득함을 놓아라’=그것이 포함하는 만큼 그 안에 있는 선...‘만나’=영적 선, 또는 진리로부터의 선.

출16:35-‘이스라엘의 아들들은 40년 간 만나를 먹었다’=모든 시험들의 상태에서 진리로부터의 선을 자기 것 되게 함.

출16:35-‘그들은 가나안의 경계에 당도할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그들은 천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 까지 진리로부터의 선을 자기 것 삼았다.

민11:8-‘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맷돌에서 만나를 갈고, 또는 그것을 절구에서 찧기도 하여 과자로 요리했다.’ ‘만나’에 의해 천적, 영적 선이 의미되어진다.

요6장-‘식품’에 의해 말씀으로부터 교리의 모든 진리와 선이 뜻해진다...이것은 요한 복음에서 ‘만나’에 의해 뜻해진다, 그리고 ‘빵’, 이는 천국으로부터 내려온다.

민11:6-‘만나’=영적 선, 이는 지식, 총명, 지혜이다.

민11:6-‘만나’에 의해 영적 자양분이 의미되는바, 그것 역시=신앙과 이해함, 또는 인간의 총명, 이것이 영적으로 자양분을 공급한다...‘만나’ 외에는 우리의 눈에 어떤 것도 있지 않다’=유일한 영적 자양분이 있다는 것.

요6:49-‘야곱의 아들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에 의해, 그들 측면에서 그들은 자연적이었기 때문에 자연적 식품(food)이 뜻해지고,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빵’에 대해서는 영적 식품이 뜻해진다.

만나다 (meet)

출25:22-‘나는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들으심과 받아들임. ‘만나는 것’, 여호와에 의해 말해질 때=들으

만족시키다-충분히 만족시키다

심과 받아주심.

출29:42-‘거기서 나는 네게 말하기 위해 너를 만날 것이다’=그분의 현존하심과 유입...그이유가 ‘만나는 것’=현존하심.

출33:7-‘그는 그것을 만남(assembly)의 천막이라 불렀다’=내적인 것이 있는 예배의, 교회의, 말씀의 외적인 것...‘만남’에 의해 내적인 것이 있는 곳이 의미된다. 그 이유가 모든 내적인 것은 외적인 것 안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글자 의미에서 ‘만남’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만남이 뜻해진다.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의 만남이 뜻해진다...모든 천적,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안으로 흘러든다, 그리고 그것들에서 멈추어 그것들에 형체(form)와 조직(constituate)을 만든다. 이로부터 외적인 것은 ‘만남’에 의해 의미된다. 이런 경우는 말씀의 외적 의미와 더불어서도 있다...또한 교회와 예배의 외적인 것들의 경우에서도 있다.

이14:31-‘네 만남들에서 단독적인 자는 없다’=하나의 진리도 지식들 사이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14:13-‘복쪽에서 만남의 산’=천국들 안으로의 승강함이 있는 곳.

창14:17-‘만나러 나가는 것’=자신을 복종하게 하는 것.

창15:10-‘그는 각각의 그의 부분이 다른 부분을 만나도록 하였다’=천적인 것에 관하여는 유사함과 상응이 있음.

창19:1-‘그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일어났다’=인정함, 또한 (기회만 있으면) 선행을 실시하려는 마음 가짐.

창24:65-‘우리를 만나려고 들판을 걸어오는 사람은 누구냐?’...‘우리를 만나려고’=결합을 위해.

창29:13-‘그는 그를 만나려고 달렸다’=동의함...그이유가 이것은 결합을 주목해서 보기 때문. 동의함, 비슷함은 결합하고 있다.

창32:6-‘에서가 당신을 만나러 간다.’...‘만나러 오는 것’=유입되는 것.

창46:29-‘그는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올라갔다’=유입.

출4:14-‘(아론이) 너를 만나려고 나오고 있다’=받아들임. ‘만나러 나가는 것’, 여기서=신성한 진리를 받을 준

비됨을 나타내는 것...고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받고, 더 나아가 그것을 증진하게 하는 천사들이나 영들은 자기들이 주님에 의해 받을 준비됨이 나타내질 때, ‘만나러 나가고 있다’라고 말한다.

출4:27-‘모세를 만나러 가는 것’=그는 신성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진리와 결합될 것이라는 것. ‘만나러 가는 것’=결합되는 것.

출5:20-‘그들이 바로로부터 나오는 그들을 만나러 서 있다’=그 당시 명백해짐.

출21:13-‘하느님이 그것으로 그의 손을 만나게 만들었다’=우연인 듯 하게 나타남.

호13:8-‘꿈이 빼앗듯 그들을 만나는 것’=글자 의미의 왜곡.

만들다 (make)

창3:21-하느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만드심’과 ‘옷입히심’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창5:1-‘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던 날’=그가 영적으로 되었을 때; ‘그리고 하느님의 모습 안에서 그분은 그를 만드셨다’=그가 천적으로 되었을 때...인간에 관련하여 용어 ‘창조하는 것’은 인간이 거듭나고 있을 때, 그리고 ‘만드는 것’은 그가 완전해질 때의 수준에 어울린다. 그러므로 말씀에서는 세 용어, 즉 ‘창조하는 것’, ‘형성하는 것’, ‘만드는 것’을 정밀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창2:2**이 그 좋은 예이다. 여기서 영적 인간을 천적 인간으로 만드신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모든 일, 즉 하느님이 만드심에서 창조하셨던 것으로부터 쉬셨다.’ 여기서 ‘창조하는 것’은 영적 인간에 관계되고, ‘만드는 것’, 즉 완전해지는 것은 천적 인간에 관계된다.

창18:7-‘그는 소년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만드려고 급해졌다’=이 (자연적)선이 합리적 선과 결합함...‘만드는 것’=섬겨지는 것, 또는 실현되는 것.

창27:17-‘(리브가가) 만든 것’=신성으로부터 인 것

출20:23-‘너는 은으로 된 신들, 금으로 된 신들을 나와 더불어 만들지 말라’=그들은 외적 형체에서 진리들과 선들이라고 나타나고, 내적 형체에서는 악들과 거짓들인 이런저런 것들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것.

이31:7-‘네 자신의 손들이 만든 것’=인간 자신의 총명

만족시키다-충분히 만족시키다

으로부터 인 것들.

출25:9-‘그렇게 너는 그것을 만들 것이다’=확실하고 순수한 표현(representative).

출30:32-‘그것의 품질에서 너는 그것과 비슷한 것을 만들지 말 것이다’=인간의 연구로부터 어떤 모방함도 안된다.

출30:37-‘내가 만드는 향과 같은 품질의 향을 너를 위해 만들지 말 것이다’=교회의 거룩한 진리들로부터의 예배는 인간의 사랑들에 응용되어져서는 안된다.

출31:4-‘금으로, 은으로, 놋쇠로 만드는 것’=의지로부터 있는 내면과 외면의 선들과 진리들...‘만드는 것’=의지로부터 진행되는 것. 그이유가 인간이 행동하는 것은 그의 의지로부터 진행하기 때문.

출31:6-‘그들은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만들(행할)것이다’=말씀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 그리고 이것은 외적인 것들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다.

출31:17-‘그 이유가 육 일 동안 여호와께서는 천국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교회가 건설되는 동안 있는 전투와 노동의 상태...‘하늘과 땅을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들과 땅의 처음 창조를 뜻하는게 아니라, 교회의 건설과 그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의 거듭남.

이43:1-‘창조하는 것’=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것. ‘형성하는 것’=품질. 그리고 ‘만드는 것’=결과.

계14:7-‘하늘, 땅, 바다, 물들의 샘들을 만드는 것’, 자연적 의미에서 그것들을 창조하는 것,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그것=천사들의 천국과 교회,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

예10:12, 51:15-인간의 개혁과 교회의 건설로부터, 주님은 ‘땅을 만드는 자’, ‘형성자(Former)’, ‘창조자’라고 불리워진다.

만족시키다 (satisfy)

충분히 만족시키다 (satiety)

출16:3-‘우리가 물릴 정도로 빵을 먹음에서’=그들이 원했던 만큼에서 쾌락의 선을 즐김.

겔39:19,20-‘너는 충분히 만족되도록 지방(fat)을 먹을 것이다...너는 내 탁자에서 만족 될 것이다.’

계19:21-‘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가지고 채워졌다’=지옥의 악귀(genii)는 마치 그것들의 욕망을 가지고 먹

여지는듯 하다는 것.

시145:16-‘생명있는 모든 것을 선한 쾌락으로 만족시키는 것’=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모든 이를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를 가지고 풍요해지게 하는 것.

이56:11-‘개들은 포만(satiety)을 모른다’=선을 받을 수 없다. ‘포만, 즉 충분히 만족함’=선을 받아들임. 그 이유가 여기서 ‘충분히 만족함’은 음식을 서술하는바, 이를 수단으로 영적 자양분이 의미된다.

암4:8-‘만족되어지지 않는 것’=그 자체 진리인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것.

레26:26-‘먹는 것 그리고 만족되지 않는 것’=선으로부터 진리가 아주 작고 아주 드물어서 영혼을 위한 어떤 자양분도 거의 산출되지 않는다는 것.

이55:2-‘어찌하여 너는 충분히 만족시킴을 위해 있지 않는 것을 위해 네 수고를 소비하려는가?’=영혼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자아로부터 자신을 위해 포획하는 것은 헛되다는 것...‘충분히 만족 시킴’=영혼을 살찌우는 것들. 여기서는 영혼을 살찌우지 않는 것들.,

신6:11-‘충분히 만족되도록 먹는 것’=충분히 받아들임, 지각함, 자기 것 되게 함.

겔16:49-‘빵으로 충분히 만족시킴’=천국과 교회의 모든 선과 진리를 경멸함, 그리고 그것들을 혐오함.

겔16:28-‘너를 위해 충분히 만족시킴이 없다’=끝도 없이 진리들을 왜곡하고 싶어하는 탐욕.

이58:10-‘고쳐하는 혼을 만족시키는 것’=일반적으로 있는 선행의 선들.

겔16:49-그들이 선행의 선들에 반대한다는 것이 ‘빵으로 포식함’에서 의미되어 있다.

예5:7-‘내가 그들을 충분히 먹었을 때, 그들은 매춘을 범했다’=진리들이 그들에게 밝히 알려졌을 때, 그들은 그것들을 왜곡했다.

시104:28-‘당신이 당신의 손을 펴시니,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진다’=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선을 받는다는 것.

겔39:19-‘(선과 진리의) 풍부함이 ‘그들은 고기와 지방을 충분히 만족되도록 먹을 것이고 피를 취하게(ebriety) 마실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9:20-‘먹는 것, 그리고 만족되지 않는 것’=박탈되는

만찬-많은-말아들-말배-말-말씀

것.

마5:6-‘정의를 위해 굶주린 자는 복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신33:23-사랑의 선으로 충전되어지는 것이 ‘여호와와 선한 즐거움으로 만족되는 것’에서 뜻해져 있다.

시17:14-진리들에 감동되는 이들은 충분히 가르쳐진다는 것이 ‘아들들은 만족되어진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겔7:19-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영적 자양분도, 총명도, 선에 애착함도 없다는 것이 ‘그들은 자기들의 혼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창자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시65:4-‘당신 집의 선으로 만족되리라는 것’=신성한 선으로부터 지혜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 성전의 거룩함으로 만족되리라는 것’=신성한 진리로부터 총명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둘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 는 것.

호13:6-‘그다음 그들은 채워졌다’=...혼에게 자양분을 충분히.

만지다 (touch)

창3:3-‘너는 그것을 만지지 말 것이다’=그들은 신앙 속의 선과 진리가 자아로부터인 것으로, 감각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으로부터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

창26:11-‘이 남자와 그의 여인을 건드리는 자는 꼭 죽을 것이다’=신성한 진리와 선은 만일 그것들이 모독되어질 경우 영원한 정죄를 받기 때문에 신앙 측면에서 접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창32:25-‘그는 그의 허벅지의 우묵한 곳을 건드렸다.’ (=이러한 사랑들의 선을 파괴하는 것)

출4:25-‘그녀는 그것이 그의 발을 접촉하게 만들었다’=그런다음 자연 평면의 품질이 보여졌다는 것. 그이유가 ‘접촉을 만드는 것’=보여주는 것. 그이유가 접촉에 의해 뭔가가 보여지기 때문.

출19:12-‘산의 끝자락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라’=선을 사랑함에 있는 천적인 사회들로의 확장은 반드시 없다는 것.

출29:37-‘제단을 만지는 모든 각각은 신성해질 것이

다’=주님의 신성을 받는 모든 이 각각. ‘만지는 것’=교 통됨, 이동함, 그리고 받아들임.

만찬 (supper)

* 저녁 식사(supper)를 보라

많은 (many, much)

* 말씀에서 ‘많은, much’은 진리들에 관련해 말해지고, ‘많은, 큰, great’은 선들에 관련해 말해진다.

출1:9-‘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많아져서 우리와 비교하면 더 숫자가 많다’=교회의 진리들이 떨어진 과학물들 보다 우세했다는 것...‘많은, many’ 그리고 ‘수가 많은, numerous’=우세하다는 것. ‘많아짐’은 진리를 서술한다.
출23:2-‘다수를 따라 있는 것’=많은과 더불어 있는 것. 즉 연계되는 것.

계8:3-‘많은 향들’=풍부히 있는 진리들.

이8:7-‘많은 (물들)’이 거것으로부터 말해지고 있다.

계8:11-‘많은 사람들’=이와 같이 있던 모든 이.

계17:1-‘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말씀의 모든 것들을 지배함.

말아들 (primogeniture, birthright)

* 첫 출생을 보라

말배 (firstling)

* 첫 출생을 보라.

말 (word)

말씀 (Word)

창11:1-‘말들은 하나였다’=세부적 측면에서 하나의 교리가 있었다. ‘입술’=일반적 측면에서의 교리, 그리고 ‘말들’은 세부적 측면에서의 교리, 또는 교리의 세부사항들.

시119:7-16-‘당신의 말을 따라 유념함으로...당신의 말씀을 나는 내 심정에 쌓았습니다...나는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말’, 이 문맥에서=일반적 측면에서의 교리.

시45:4-‘진리의 말(word) 위에 타는 것’=진리로부터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

이9:8-‘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을 보내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서 비추었다’=내적, 외적인 예배의 교리.

마4:4, 13:9, 24:35-‘사람은 하느님의 입으로부터 진행

말-말씀

하는 모두 각각의 말로부터 (산다). '누군가가 왕국의 말을 들을 때, 그리고 그것에 경청하지 않을 때, 그러면 악한 것이 와서 그의 심정에 뿌려진 것을 잡아채 간다.' '하늘과 땅은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 구절에서, '말'=주님의 교리. 그리고 '말들'=그분의 교리 속에 있는 것들.

창15:1-'이 말들 후에, 여호와와 그의 말이 환상에서 아브람에게 왔다'=(주님의) 어린 시절 (영적) 전투 후에 계시 (밝히 알림)가 있었다...말들, words, 히브리어에서,=것들, things, 여기서의 경우, 성취된 것들...'여호와와 그의 말이 아브람에게'는 주님의 말이 그분 자신에게.. 그외 더 다른 뜻은 없다, 그러나 (주님의) 어린 시절에서이다... 이것은 계시라고 밖에 더 달리 설명해낼 수 없다.

창20:18-'사라에 관한 말 때문에'=고스란히 처리됨 (whole transaction).

창22:20-'이런 말들 이후이었다'=교회 내에 있는 이들에게 관련되어 처리된 것들. '말들'=것들. 그 이유가 히브리어에서 것들이 '말들'이라 불리지기 때문.

창24:66-'좋은 이삭에게 자기가 행했던 모든 말들을 이야기 했다,'...'말들'=것들.

창37:14-'나에게 말을 다시 가져와라'=지식.

창40:1-'이 말들 이후'=앞서 있는 것들 후에. 그이유가 '말들', 원어에서, 말들 뿐 아니라 것들이기 때문. 원어에서 '말들'=것들이기도 한 이유는 '말들', 내적 의미에서=교리 속의 진리들. 그리고 그러므로 일반적 측면에서의 모든 신성한 진리는 '말'이라 불리운다...그리고 우주에 있는 어떤 것도 그것이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신성한 선으로부터 있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닌 바, 히브리어에서 말들은 것들이기도 하다.

창41:28-'이것이 내가 바로에게 이야기 한 말이다'=자연 평면이 생각했던 것...그이유가 '말'=것...고로 '이것은 말이다'=이것은 것이다...원어에서 것이 말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신성한 계시가 '말'이라 불리운다.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주님 또한 말에 의해 불리우신다. 그리고 말이 주님을,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있는 계시를 서술할 때, 대략적 의미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오는 것, 즉 신성한 진리가 의미된다.

예1:12-'나는 내 말을 지켜보고 있다'=진리(위에).

창44:6-'그가 이 말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이것의 유입...그 이유가 '말들'=것들이기 때문. 더욱이 원어에서 것(Thing)이 이 '말-vocem'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창47:30-'나는 네 말에 따라 행할 것이다'=그렇게 그것은 행해질 것이라는 것.

출4:10-'저는 말들의 사람이 아닙니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는) 연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출4:28-'여호와와 그의 모든 말들'=교리 속의 몇 가지 것들.

출9:5-'내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행하실 것이다'=이것은 영원히 그들과 더불어 있을 것이다.

출9:6-'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말을 행하셨다'=결과.

출9:20-'여호와와 그의 말을 두려워한 자'=주님으로부터 있는 것들.

출12:24-'너는 이 말을 지킬 것이다'=모든 이것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출14:12-'...말은 이것이 아니던가? '=이와같은 것. 그이유가 '이 말'=이 것.

출16:4-'그것의 하루에 하루의 말을 그러모으라.'...'말'=말해진 것으로부터의 것, 여기서의 경우, 만나.

출16:16-'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던 말씀이다'=신성으로부터 그것에 관하여 있는 명령. 그이유가 '말씀'=취급되는 것.

이58:13-'자아로부터 행동하지 않을 것임이 '말을 이야기하지 않음'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출18:16-'그들이 말을 가질 때'=발생하는 모든 것에서. 그이유가 '말'=발생하는 것이기 때문.

출18:18-'말이 네게 너무 무겁다'=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이유가 '무거운 말'=가능하지 않은 (것).

출18:19-'너는 하느님에게 말들을 가져가라'=명상과 중재함.

출18:22-'모든 각각의 큰 말을 그들은 네게 가져올 것이다'=(그것으로부터의) 모든 것.

출19:6-'이것들은 네가 이야기할 말들이다...'=유입으로 진리들을 받는 것.

출20:1-'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들을 이야기하셨다, 말하시기를'=천국들과 땅 위에 있는 이들을 위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

출22:8-'법 위반의 모두 각각의 말 위에'=어떤 상처이

말-말씀

든, 어떤 손실이든.

출22:8-‘하느님에게 오고 있는 말’=진리를 수단으로 검사함.

출23:7-‘거짓의 말로부터’=악의 거짓으로부터.

출23:8-‘의로운 자의 말을 뒤집는다’=그들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같이 나타나도록...그이유가 ‘말들’=것들 자체, 고로 진리들...‘말들’=진리들인 이유는 원어에서 ‘말’=어떤 것인 것,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로부터 신성한 진리가 ‘말’이라 불리워진다.

눅6:47-‘말들을 듣는 것’, 또는 ‘대화하는 것’=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앙의 교훈을 배우고 아는 것.

출24:3-‘여호와와 모든 말들, 그리고 모든 심판들’=영적, 자연적 상태에서 생명 속에 있는 말씀의 이런저런 것들.

출24:3-‘여호와께서 이야기하셨던 모든 말들을 우리는 행할 것이다’=심정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임. 그이유가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셨던 말들’=생명 속에 있는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이기 때문.

출24:4-‘모세는 여호와와 모든 말들을 썼다’=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생명에 명기함.

출24:8-‘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들로 너희와 만든 (언약)’=말씀의 각각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과 더불어 결합이 있다는 것...‘모든 이런 말들’=말씀의 각각 그리고 모든 것. 그 이유가 법들은 보편적 의미에서 시내(산)으로부터 선포되었기 때문,=모든 신성한 진리, 고로 각각, 모든 것 측면에서의 말씀.

출24:14-‘말들을 가지는 모든 이 각각은 (아론과 후르)에게로 가라’=거짓들은 거기로부터 제거되어져야 한다는 것. ‘말들을 가지는 것’=진리들에 관하여 논쟁하는 것. ‘말들’=진리들.

요3:34-‘하느님의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신성한 진리들.

요6:63-‘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고 생명이다.’ ‘주님이 이야기하신 말들’=신성한 진리들.

이58:13-‘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와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

출33:4-‘백성은 이 악한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통곡했다’=타인들 보다 더 특출해있지 않다 해서 때문에 그들이 슬퍼함.

출34:1-‘나는 말들을 (돌)판 위에 쓸 것이다’=...내면의 신성한 것들, 고로 내적 의미 속에 있는 것들, 사랑과 신앙으로부터 있는 것들.

출34:27-‘너 자신을 위해 이 말들을 쓰라’=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행동되어야 하는 제일의 진리들. 그이유가 ‘말들’에 의해 것들이 일반적으로 의미된다, 고로 특별하게는 진리들...

출35:1-‘이것들은 그것들을 행하도록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던 말들이다’=교회의 제일가는 것에 관한 가르침, 이것에 모든 것이 관계된다...그이유가 이런 것들이 안식일에 관하여 말해지기 때문.

계1:3-‘예언의 말들’=새 예루살렘의 교리. (=천국의 교리로부터 있는 진리들)

마13:19-‘왕국의 말을 듣는 것’=교회의 진리들.

계3:8-‘너는 내 말을 지켰다’=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생명으로 만들었다.

시45:4-‘진리의 말씀 위에 타는 것’=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신성한 선으로부터 행동하는 것.

마6:24-‘주님의 말들을 행하는 것’=생활의 선. 그이유가 인간이 진리를 행할 때, 진리는 선이 되기 때문.

요14:23-‘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는 내 말들을 지킬 것이다.’...‘그분의 명령들이기 때문, 그리고 ‘말들’=신성한 진리들, 그리고 모든 신성한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진행되고, 그분으로부터 진행된 것은 그분 자신이기 때문.

겔3:6-‘말들’=교의(dogmas), 독단적 의견들.

단7:25-그가 ‘가장 높은 (분)을 향하여 이야기할 말들’=교회의 진리들을 파괴하는 거짓들.

예15:16-‘나는 당신의 말씀들을 먹습니다’=그분의 가르침들, 또는 신성한 진리들을 내 것 되게 함.

계12:11-‘그들의 증거의 말을 통하여’=그분의 인성에 있는 신성을 인정함과 고백함을 통하여.

마12:32-‘사람의 아들에 맞서서 (하는) 말’=외관에 따라 말씀의 자연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

계19:9-‘이것들은 하느님의 참 말들이다’=그것들은 말씀이신 분이요, 진리이신 분인 주님으로부터 있다는 것.

말

요6:63-이와같은 것이 본질 측면에서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말들은 영이고 생명이다'는 주님의 말씀로부터 분명하다.

예23:29-말씀이 '불', 그리고 '망치'로 불리운다, 그 이유는 이것들=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이기 때문.

시147:18-'그는 그분의 말씀을 내보내신다'=신성한 선이 신성한 진리에 하나됨.

이55:11-'내 입으로부터 나가는 내 말씀은 그렇게 있을 것이다.' '말씀'=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이는 우리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통하여 유입된다.

이1:10-'여호와와 말씀'=신성한 선. '우리 하나님의 법'=신성한 진리.

단9:25-'그러므로 알고 말씀의 나감으로부터 지각하라'=구약 성서의 말씀의 끝으로부터, 그 이유는 이것이 주님에게서 완성되었기 때문. 그 이유가 최고 의미에서, 구약 성서의 말씀으로부터의 모든 것은 주님, 그리고 그분의 인간의 신성화됨(glorification), 고로 주님이 천국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심을 취급하기 때문.

눅11:28-'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는 그들은 복있다'=말씀으로부터 진리들을 배우고 그것들에 따라 사는 것.

이2:3-'여호와와 말씀'=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진리.

말 (speech)

* 이야기하다(speak)를 보라.

말 (horse)

* ride도 참조.

이31:3-'말' 여기서 그리고 말씀의 여러 곳에서 (영적) 합리성(the Rational).

암6:12-'말'=추론함(ratiocination)

예12:5-추론함들, 여기서,='말들'이다 그리고 파생되는 신임(confidence).

계19장-'백마'=진리를 이해함, 그리고 '말 위에 앉으신 분'=말씀.

속12:4-'말', 여기서, 그밖의 말씀에서=지적인 것. 그런고로 '말은 놀램으로 쳐죽여질 것, 백성들의 말은 눈이 멀어 쳐죽여질 것'이라 말해진다. 즉 (영적) 거짓들들로 채워질 것이다.

계19장-'백마'=지혜 (=말씀을 내적 의미에서 이해함).

창49:17-'말'=말씀을 이해함.

합3:8,15-'말들'=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말들'은 여기서 계시록에서 같이 하느님에게서 기인되고 있다.

속14:20-'말의 방울(bell)들'=말씀의 영적인 것들을 이해함.

속12:4-'말'=이해함, 이것이 놀램으로, 그리고 눈이 멀어 쳐죽여질 것이다'

호14:3-'우리는 말을 타지 않을 것이다...' '말'=자신의 총명.

속14:15-'말, 노새, 낙타, 나귀'=인간과 더불어 지적인 것들, 이는 '재앙으로 쳐죽임을' 당할 것.

암4:10-'말들이 포로가 됨'=지성이 그것에 증여된 것을 타락케 했음.

시147:10-'말의 강함'=진리를 생각하는 자신의 힘. '말'=지적인 것.

겔17:15-'말들'=(과학물들로부터 파생된) 지적인 것.

합1:8-'(갈대아 사람들의) 말들=비슷한 품질로부터 있는 그들의 지적인 것들.

창49:17-'말의 뒤꿈치를 무는 것'=가장 낮은 지적, 또는 과학적인 것에 조회함, 그리고 거기로부터 결론들을 형성함.

예8:16-'말들의 콧김 뿜는 소리가 단으로부터 들렸다'=단언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진리에 관하여 추론함.

계14:20-'말들'=지적인 것들.

계19:14-'백마'=말씀의 내적 의미. 이로부터 '백마'=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 그 이유가 말씀의 내적 의미의 모든 것들이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이기 때문. 이렇기 때문에 그분의 군대들은 흰말 위에서 보여졌다.

암6:12-'말들이 바위에서 달리겠느냐?'=신앙의 진리가 이해되어질 것인지 아닌지.

창47:17-'말들을 위해'=지적인 것으로부터의 과학물들. '말들'=지적인 것들...그리고 그것들이 이집트를 서술하느바, 여기서의 '말들=지적인 것으로부터 과학물들.

신17:16-총명은 말씀을 통하여 획득되어진다는 것,,그리고 인간 자신의 지성으로부터의 과학물들을 통하여 획득되지 않는다는 것이 '왕들은 말들을 붙여나게 하지 말 것이다, 그리고 말들을 불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말

도로 데려다 놓지 말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계6장-여기서 '말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이들'=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있는 것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거짓을 이해함으로써 있는 것들이 세부 사항들로부터 분명하다. '흰말과 그 위에 앉은 자'=말씀으로부터 진리를 이해함...'붉은 말과 그 위에 앉은 자'=악의 탐욕들로부터 추론함, 이를 수단으로 폭력이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에 가해지고 있다. '검은 말과 그 위에 앉은 자'=진리를 이해함이 소멸되었다. '창백한 말과 그 위에 앉은 자'=당연히 지옥에 떨어짐.

계9:19-'말들의 꼬리가 뱀 같았다'=거짓들로부터의 추론들...그이유가 '말들'에 의해 지성인 것이 의미되기 때문.

출9:3-'말들에게, 나귀들에게, 낙타들에게'=신앙 속에 있는 진리로부터의 지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말'=지적인 것...이 세 동물들=지적인 부분으로부터 있는 것들이다.

출14:23-'바로의 말들'=곡해된 지성으로부터 과학적인 거짓들.

출15:1-'그분이 바다로 던진 말과 기수'=그분이 단지 현존하시기 만 해도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은 정죄되고 지옥으로 내던져졌다. '말들'=곡해된 지적인 것으로부터의 거짓들. 반대 의미인 곡해된 지적인 것은 지적인 것이 아닌바, 이 의미에서 '말'=거짓, 그리고 '바로의 말'=과학적인 거짓.

예6:23-'그들은 말을 탄다'=지적인 것으로부터 논쟁함.

이31:3-'이집트의 말들'=곡해한 지적인 것으로부터의 과학물들.

을2:4-'말들의 국면(aspect)='마치 진리로부터 인듯 거짓으로부터의 지적 추론.

속12:4-'백성들의 말'=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은 진리의 지적인 것들.

계9:17-'말들과 그것 위에 앉은 이들'=거꾸로 하고 곡해한 진리를 이해함.

합3:15-'말들을 가지고 바다를 밟는 것', 여호와의 관해 말했을 때,=과학물을 가지고 있는 자연적 인간을 가르치는 것.

이31:3-'이집트의 말들'=지적인 것으로부터 과학물들.

겔39:20-'말'=말씀의 내적 의미.

계19장-'백색이었던 말'은 말씀의 내적 의미를 이해함.

계6장-'말'=말씀을 이해함. '흰말'=교회의 첫 상태에서는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이해함, '붉은 말'=교회의 두 번째 상태에서는 선의 측면을 파괴하고 말씀을 이해함, '검은 말'=교회의 세 번째 상태에서는 진리 측면을 파괴하고 말씀을 이해함, '창백한 말'=교회의 네 번째, 또는 마지막 상태에서는 생활의 악들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거짓들로부터 무효가 된 말씀을 이해함.

계9장-'메뚜기들이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 같이'나타났다=마치 진리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듯 하여 추론함.

이31:1-'말들'=지식으로부터 이해함.

이31:3-'이집트의 말들'=자기 고유의 총명.

왕하9:33-말들에 의해 짓밟혀진 (이사벨)에 의해 그것들을 파괴함이 의미되고 있다...'말'=말씀을 이해함.

계6:2-'내가 보았더니 흰 말이 바라보였다'=이들과 더불어 말씀으로부터의 진리와 선을 이해함. '말'에 의해 말씀을 이해함, 그리고 '흰 말'에 의해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이해함이 의미된다...'말'=말씀을 이해함인 것은 말이 어린 양이 연 책으로부터 가는 것이 보여졌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하다.

계6:4-'또다른 말이 나갔는데, 붉었다'=선 측면이 파괴된 말씀의 이해. 결과적으로 그들과 더불어는 생활 측면이 파괴된 말씀의 이해.

계6:5-'내가 보았더니 검은 말이 바라보였다'=진리 측면이 파괴된 말씀의 이해, 고로 그들과 더불어는 교리 측면이 파괴된 말씀의 이해.

계9장-'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 같다'=그들이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싸우고 있는 것 처럼 자신들에게 나타났다는 것.

계9:17-'그리하여 내가 환상에서 말들을 보고 그 위에 탄 이들을 보니'=이 때 믿음 만에 관련하여 추론하는 그들의 내면들은 상상적이고 몽상에 불과할 뿐임이 드러났다는 것, 그리고 그들 자신이 그것들로부터 사악했다는 것...

계14:20-'피가 포도즙들로부터 나가서 말들의 굴레에 까지 이르렀다'=진리를 끈적하게 왜곡함을 수단으로 말씀에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결과 이해함

말

이 정지되었다는 것, 인간은 더 이상 거의 가르쳐질 수 없었다는 것, 고로 신성한 진리들을 수단으로 주님께 의해 인도되어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말들의 굴레'에 의해 이해함을 인도하는 수단인 말씀의 진리들이 의미된다.

계19:11- '나는 열린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흰 말이 바라보였다'=말씀의 영적 의미가 주님께 의해 밝히 알려짐, 이를 수단으로 말씀의 내면적 이해가 드러나짐, 이것이 주님의 강림이다... '말'에 의해 말씀을 이해함, 그리고 '흰 말'에 의해 말씀의 내면적 이해가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흰 말'에 의해 의미되는바, 영적 의미는 말씀을 내면적으로 이해함이다. 그러므로 이 의미가 여기서 '흰 말'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이것이 주님의 강림인 이유는 이를 수단으로 주님이 말씀이시다는 것, 말씀은 그분 만을 취급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 만으로부터 새 교회는 공표된다는 것도 분명히 나타난다.

예50:37- '말들'=지적인 것들.

예50:42- '그들이 탄 말들'=감각의 오류로부터 추론함.

계9장- '말들'=추론들.

계6장- '나는 보았다, 그리고 흰 말이 바라보였다'=말씀으로부터 진리를 이해함. '말'=지적인 것... 특별히 말씀에 관련하여 지적인 것. 이로부터 분명히,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이해함,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것의 품질이 여기서 '말들'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는 것.

겔39:20- '말'에 의해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이해함이 의미된다.

계19:18- '말들'=지적 진리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이들'=영적 진리들.

속9:10- '말'에 의해 이해함 자체가 의미된다.

속12:4- '말'=교회의 사람과 더불어 진리를 이해함.

속14:20- '말 방울들'=과학물과 (영적) 지식들과 그로부터 있는 설교들, 이는 진리를 이해함으로부터 있다.

창49장- '말의 뒤꿈치들'=진리와 선을 이해함의 최말단.

속6장- '말들에 의해 그들의 이해함이 뜻해진다. 즉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회색 말'은 시작에서의 그것의 품질, 그리고 그후 그것의 품질이 뜻해진다.

즉 '붉은 말'은 시작에서 선에 관련한 그들의 이해함의 품질, '검은 말'은 시작에서 진리에 관련한 그들의 이해함의 품질, '흰 말'은 그후에 진리에 관련한 그들의 이해함의 품질, '회색 말'은 마지막에서 선과 진리에 관련한 그것의 품질이 뜻해진다. '힘센 말'은 악들과 거짓들에 저항하는 능력에 관련한 그것의 품질이 뜻해진다... 그리고 이 네 말들은 '하늘들의 네 바람이 온 땅의 주 가까이 서있음으로부터 나간다'라고 일컬어진다. '바람들'=모든 신성한 진리들, 그리고 '온 땅의 주 가까이 서있음으로부터 나감'=그것들 모두 그분으로부터 진행된다는 것.

시76:6- '병거와 말이 깊은 잠에 떨어졌다'=그들의 지성은 잠잠해졌다(lulled) 것, 그 이유는 그것이 단지 자연적이 되었기 때문.

겔27:14- '말들'=진리를 이해함.

이63:13- '말'=진리를 이해함.

계19장- '흰 말'=말씀을 이해함. 그분을 따르려 그들이 앉은 흰 말 역시 같은 의미이다.

이66:20- '말들'=진리를 이해함.

예4:13- 진리들에 맞서 거짓들로부터 추론하려는 바람이 '독수리들 보다 더 민첩한 말들에 의해 의미된다.

나3:2- '말'=이해함.

속10:5- '말'=이해함.

호14:3- '말 위에 타는 것'=자아로부터의 이해함이 추론함.

겔23:6- '말들 위에 타는 것'=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거짓으로부터 추론하는 것.

이31:1- '말들'=과학적인 거짓들.

속9:10- '말'=진리의 교리를 이해함.

계6장- '또다른 말이 나갔는데, 붉은 말이다'=선의 측면이 파괴된 말씀을 이해함. '말'=지성. 여기서 '말'에 의해 말씀에 관련한 교회의 사람들의 지성이 의미된다.

왕하2:11, 6:17- (엘리아와 엘리사에 관련한) '말'=말씀을 이해함.

암6:12- '말이 달림'=진리를 이해함.

욥39:19- 이해함이 여기서 말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계9장- '메뚜기들의 모습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 같았다'=감각적 인간이 마치 진리로부터 추론하는 양 더

말다툼하다-말더듬이-말뚝-말벌

추론자가 되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추론함들. 여기서, 마치 진리로부터 이해한 것 처럼인데, 그 이유는 ‘메뚜기들이 말 같았다’라고 말해졌기 때문...‘말’에 의해 이해함이 의미된다...그리고 모든 이해함은 진리로부터 있다.

예46:4-‘말들’=이해함으로부터 있는 것들.

계9:17-‘그리하여 나는 환상 안에서 말들, 그리고 말들에 앉은 그들을 보았다’=오류로부터 추론함을 수단으로 말쑤를 거짓화함. ‘말들’=말쑤를 이해함. 여기서, 그것을 거짓화함.

신20:1-‘말’=이해함의 거짓들, 그로부터 추론함들.

합1:8-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추론함들이 ‘말들’에 의해 의미된다.

예51:21-‘말들과 기수’=진리들에 맞서 거짓들로부터 추론함들.

계14장-‘말들의 굴레에 까지로’=이해함을 지배하기 조차.

계18:13-‘말들과 수레’=모독된 합리적 근원으로부터 있는 진리들과 선들로부터 예배함. ‘말들’=지적인 것들.

말다툼하다 (dispute)

출2:13-‘두 히브리인들이 말다툼하고 있다’=교회 내에서 그들은 서로 다투었다.

창13:7-‘아브람의 가족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었다’=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은 일치하지 않았다.

출21:18-‘사람들이 서로 승강이 할(strike) 때’=진리들에 관하여 자신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는 것...이로부터 사람들의 다툼=교회 속에 있는 이들 사이에 진리들에 관하여 논쟁함. 영적 의미에서, ‘서로 승강이하는 것’=교회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두고 논쟁하는 것...말쑤에서, ‘서로 승강이함’=거짓들에 맞서 진리를 옹호하려고 일반적으로 진리들에 관하여 논쟁함.

예25:31-‘나라들에 맞서 여호와와의 다툼(controversy)’=거짓들에 맞서 진리를 옹호하고, 악들에 맞서 선을 옹호하는 주님의 다툼, 또한 방어하심.

예1:34-‘그들의 소송을 변론하는 것’=거짓에 맞서 방어함, 그리고 구해냄.

미6:1-‘산들과 변론하는 것’=오만에 맞서 다투고 방어

함.

출23:2-‘너는 송사를 뒤집는 다수를 따라 답하지 말 것이다’=선들과 진리들을 악들과 거짓들로 돌아서게 하는 이들과는 어떤 연계도 있게 말라.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송사에 답하는 것’=정의와 공평에 관하여, 그리고 선하고 참인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에 관하여.

출23:3-‘너는 그의 송사에서 가난한 자를 존경하지 말 것이다’=진리에 무지한 상태인 자들에게 있는 거짓을 옹호해서는 안된다.

출23:6-‘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비틀지 마라’=무지함에 있는 이들에게 있는 조금의 진리를 과멸되게 하지 마라. ‘송사’=다툼. 여기서, ‘송사에서’=자신이 자신에게 있는 조금의 진리에 관하여 다툼에서.

시31:20-‘혀들의 논쟁’=악의 거짓.

이34:8-‘시온의 다툼(controversy)’.

말더듬이 (stammerer)

출6:12-모세가 자신을 ‘입술이 할레받지 않았다고 부른 이유는 그가 말더듬이였기 때문...’

이32:4-‘말더듬이의 혀는 신속히 말할 것이다’=교회의 진리들을 납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이들은 자기들을 애착으로부터 고백할 것이다.

말뚝 (peg)

* ‘말뚝’, 또는 ‘뭇’=첨부(affixion), 부가(adjunction).

출27:19-‘거기로부터의 모든 말뚝(peg)들, 그리고 뜰의 모든 말뚝(pins)들은 낫쇠로 만들 것이다’=선을 통하여 양쪽 천국들, 중간 천국과 최말단 천국을 튼튼하게 하고 결합하는 모든 것들. ‘말뚝(pins)’=함께 결합되게 하여 견고해지게 하는 것들.

말벌 (hornet)

출23:28-‘나는 네 앞에 말벌을 보낼 것이다’=악으로부터의 거짓들에 있는 이들의 공포(dread). ‘말벌들’=쏘아대고 치명적인 거짓들. 고로 공포와 더불어 치는 것.

말쑤 (Word)

* 말, word을 보라

말하다 (say, saying)

창1:28-‘하느님께서 복을 주시며 말하시기를’, 즉 일하심(operating).

말씀-말하다(say)

창4:6-‘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하셨다’=양심이 받아쓰기를 시켰다. (선행에 관하여 받아쓰도록 내부적으로 지각된 어떤 것)

창4:8-‘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시간의 간격

창4:13-‘가인이 여호와께 말했다’=어떤 고백...

창6:13-‘하느님께서 말하셨다’=그렇게 있었다는 것.

창7:1-‘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하셨다’=그렇게 행해졌다는 것.

창8:21-‘여호와께서 그분의 심정에서 말하셨다’=더 이상 그렇게는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 이유가 그분이 말하시는 대상이 여호와라고 서술되는 바, 이는 그렇게 있음, 또는 있지 않음을 뜻하기 때문; 그 이유가 여호와에 관련해서는 그분이 계신 것 외에 더 달리 말해질 수 없기 때문.

창9:8-‘하느님께서 말하셨다...’=뒤를 잇는 것들 속의 하느님의 진리...

창11:3-‘그들이 동료되는 사람에게 말하였다’=그것은 시작되어졌다는 것.

창11:4-‘그들은 말했다’=그렇게 행동되어졌다는 것.

창12:1-‘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하셨다’=첫 정신적으로 유의함.

창15:2-‘아브람이 주 여호비(Jehovih)께 말했다’=주님의 지각.

창16:2-‘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했다’=(진리에 애착함)이 그렇게 지각하였다는 것.

창16:6-‘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했다’=지각. ...주님께서 지각하심은 ‘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했다’로 표현되고,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했다’는 지각으로부터 있는 생각의 표현이다.

창17:9-‘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지각.

창17:18-‘아브라함이 하느님에게 말했다’=사랑으로부터 있는 주님의 지각하심. ‘하느님에게 말하는 것’=지각하는 것.

창18:13-‘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신성으로부터 있는 주님의 지각하심.

창 19:7-‘그는 말했다’=혼계함.

창19:12-‘사람들이 롯에게 말했다’=주님은 선행의 선안에 있는 이들의 시선을 끌어 당기신다.

창20:2-‘아브라함이 말했다’=생각하셨음.

창20:3-‘하느님이 아비멜렉에게 말하셨다’=지각으로부터 있는 생각.

창20:15-‘아비멜렉이 말했다’=주님의 지각; (그 이유가) ‘말하는 것’=생각하는 것...

창20:16-‘사라에게 그는 말했다’=영적 진리로부터 지각하심.

창21:1-‘여호와께서 말하셨다’에 의해 의미되어진 지각하심은 신성한 천적인 것으로부터 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셨다(speak)’에 의해 의미되어진 생각하심은 신성한 영적인 것을 통하여 신성한 천적인 것으로부터 였다...

* 선은 사랑 속에 있다...그러므로 지각은 선으로부터 있다; 그러나 진리는 신앙 속에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진리는 생각 속에 있다; 전자는...‘말하심’에 의해, 후자는 ‘이야기하심’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그러나 ‘말하심’만이 있게 될 때, 그것은 때로는 지각, 때로는 생각함일 경우가 발생하므로 ‘말하심’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 셈이다.

창21:6-‘사라가 말했다’=신성한 영적인 것으로부터 지각하심.

창21:7-‘그리고 그녀는 말했다’=생각하셨음. ‘말하는 것’=지각하는 것, 또한 생각하는 것.

창21:10-‘아브라함이 말했다’=신성으로부터 지각하심.

창21:12-‘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 주님께서 지각하심.

창21:17-‘하느님의 천사가...그녀에게 말했다. 하갈아, 왜 괴로워하고 있느냐?’=그것의 상태에 관해 지각하심.

창22:7-‘그는 말했다’가 이 구절에서는 네 번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떤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는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창24:5-‘종이 그에게 말했다’=자연적 인간에 관하여 주님께서 지각하심.

창24:6-‘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신성으로부터 주님이 지각하심.

창24:12-‘(종이) 말했다’=소통됨. ‘말하는 것’=지각하는 것과 뜻하는 것; (그러므로 소통하는 것); 그 이유

말하다(say)

가 소통함은 지각 작용과 의지 작용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창25:30-‘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자연 속의 선으로부터 주님께서 지각하심.

창26:2-‘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 생각하셨음.

창26:9-‘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다’=교리로부터 주님께서 지각하심.

창26:24-‘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하셨다’=이 불명료함에 관하여 주님께서 지각하심.

창27:6-‘리브가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자연적 진리에 관하여 신성한 진리로부터 주님께서 지각하심.

창27:11-‘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자연적 진리에 관하여 신성한 진리로부터 주님께서 지각하심.

창27:19-‘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말했다’=자연적 진리를 통각하심. ‘말하는 것’=지각하는 것; 여기서, 통각하는 것, 그 이유는 자연으로부터이기 때문.

창27:20-‘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했다’=자연성에 관하여 합리성이 지각함.

창27:39-‘이삭, 그의 아버지가 대답하여 (에서에게) 말했다’=자연적 선에 관하여 지각함, 이 선은 신성이 되어 갈 것이다.

창27:41-‘에서는 그의 심정에 대고 말했다’=생각했음.

창27:42-‘그를 부르고, 그리고 그에게 말한다’=지각하는 상태.

창30:27-‘라반이 그에게 말했다’=이 선으로부터 지각함.

창31:3-‘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하셨다’=주님께서 신성으로부터 지각하심.

창31:11-‘하느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신성으로부터 지각하심.

창31:26-‘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이 두 선들 사이에) 소통됨이 있음.

창31:43-‘라반이 대답하여 야곱에게 말했다’=불명료한 지각의 상태.

창34:4-‘세겔이 하물에게 말했다’=고대인들 사이에 있

었던 진리로부터 생각했음. ‘말하는 것’=지각과 이로부터의 생각.

창34:11-‘말하는 것’= 여기서의 경우 상담하는 것.

창34:31-‘그들이 말했다’=대답.

창35:1-‘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 자연적 선을 지각함.

창35:11-‘하느님께서 그에게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의 지각.

창35:17-‘산파가 그녀에게 말했다’=자연성으로부터 지각하심.

창37:13-‘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신성한 영적인 것으로부터 지각하심.

창37:19-‘말하는 것’=지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창38:21-‘(그곳의 사람들이) 말했다’=진리들로부터의 지각.

창39:14-‘그녀가 말 가운데 말했다’=혼계...여기서는 격렬한 의사소통.

창40:9-‘그가 그에게 말했다’=지각으로부터의 계시; 그 이유가 계시는 내적 지각이고, 지각으로부터 있기 때문.

창40:16-‘그가 요셉에게 말했다’=자연적인 것 안에서 천적인 것을 지각함.

창41:15-‘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을 지각함.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자연적인 것을 지각함)

창41:25-‘요셉이 바로에게 말했다’=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자연적인 것을 지각함.

창41:38-‘바로가 그의 종들에게 말했다’=거기서 모든 것들과 더불어 자연적인 것을 지각함.

창41:54-‘요셉이 말했던 대로’=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에 의해 미리 보여진 그대로, ‘말함’이 주님께 관련해 서술되어질 때, =그분 자신으로부터 지각하시는 것, 고로 미리 보는 것.

창41:55-‘바로가 모든 이집트에게 말했다’=양쪽 자연성들에서...통각함.

창42:1-‘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일반적인 진리들에 관하여 지각함.

창42:14-‘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그의 형제가 이야기 했던 것에 관하여 지각함.

말하다(say)

창42:21-‘그들은 자기 형제 사람에게 말했다’=원인에 관하여 지각함.

창42:28-‘(그들 중의 하나가) 그의 형제에게 말했다’=일반적인 지각.

창42:33-‘사람, 그 토지의 주인이 우리에게 말했다’=자연성 안에서 통치하고 있는 영적인 것으로부터의 천적인 것에 관하여 통각함.

창42:36-‘야곱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다’=진리의 선으로부터 그들과 통각함. (=교회 속의 것들로부터 지각함.) (=영적 선으로부터 지각함.)

창42:37-‘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이해성에서 믿음 속에 있는 것들이 진리의 선을 수단으로 통각됨.

창43:8-‘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이런 것들에 관하여 교회 속의 선으로부터 지각함.

창43:28-‘그들은 말했다, 당신의 종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안녕하십니까’=자연은 그 근원인 선과 더불어 잘있게 된다는 것을 통각함..

창44:7-‘그들이 그에게 말했다’=통각(작용).

창44:15-‘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그 당시 그들의 지각...그것=지각인 이유는 요셉이 말하기 때문, 요셉=내적인 것, 이를 통하여 모든 지각이 와진다.

창44:16-‘유다가 말했다’=자연성에서 교회의 선에게 주어진 지각.

창44:20-‘우리가 내 주인에게 말했다’=상호 지각함.

창44:21-‘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시기를...’=지각이 주어짐.

창44:25-‘우리의 아버지가 말하셨다’=영적 선으로부터 통각됨.

창44:28-‘나는 말했다’=통각함.

창45:3-‘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말했다’=내적 측면의 천적인 것이 자연성에 있는 진리들에게 지각 능력을 주고 있다. (=새로운 자연성을 지각함)

창45:9-‘그대들이 그에게 말하라, 고로 당신의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내적 측면의 천적인 것에 관하여 (영적 선을) 지각함.

창45:17-‘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내적 측면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자연성을 지각함.

창45:24-‘그가 그들에게 말했다’=내적인 것에 의해 주어진 지각.

창45:26-‘그들이 그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유입과 통각.

창46:30-‘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천적 내적인 것으로부터 영적 선을 지각함.

창46:31-‘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말했다’=내적 측면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자연에 있는 진리들을 지각함.

창47:3-‘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했다’=자연에 있는 교회 속의 진리들에 관하여 (자연으로부터) 지각함.

창47:5-‘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말하기를’=과학물이 있는 자연에서 지각함.

창47:8-‘바로가 야곱에게 말했다’=교회의 일반적 진리에 관하여 과학물이 있는 자연에서 지각함.

창47:23-‘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다’=과학적 진리들 안으로 내적인 것이 유입됨...‘말함’이 내적인 것을 서술하는바, 그것=유입; 그 이유가 외적인 것에서 지각되는 것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유입되기 때문.

창48:1-‘(누군가가) 요셉에게 말했다’=특별한 통각(작용).

창47:3-‘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자연적 진리가 내적인 것과 소통함. 그 이유가 또 다른 것을 수단으로 지각되는 것이 소통되기 때문.

창48:11-‘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내적인 것으로 승강.

창48:18-‘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지각할 수 있는 유입.

창50:17-‘그러므로 너희가 요셉에게 말하라’=해야 할 것을 내적인 것으로부터 지각함.

출 1:15-‘이집트의 왕이 말했다...’=분리된 과학물로부터 유입...

출1:19-‘산파가 말했다...’=이 과학적 진리들에 관하여 통각됨...

출2:20-‘그가 자기 딸들에게 말했다’=교회 속의 거룩한 것들에 관한 생각.

출3:3-‘모세가 말했다’=신성으로부터 있는 법으로부터 지각함.

말하다(say)

출3:11-‘모세가 하느님에게 말했다’=신성으로부터의 지각, 면목 없음.

출3:16-‘그들에게 말하라’=가르침.

출3:18-‘너희가 그에게 말할 것이다’=유입.

출4:2-‘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셨다’=그들의 품질이 무엇일지를 예견함. (그 이유가) ‘말함’이 여호와를 서술할 경우 이는 예견이 된다.

출4:4-‘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신성을 수단으로 섭리하심; (그 이유가) ‘말함’이 여호와를 서술하므로 예견, 고로 섭리.

출4:11-‘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셨다’=신성한 유입.

출4:21-‘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의 지각.

출4:22-‘너는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타이름. 그 이유가 ‘말함’이 신성한 명령으로부터 행해질 때,=훈계.

출4:23-‘내가 너에게 말한다’=명령.

출5:2-‘바로가 말했다’=반대되는 생각.

출5:5-‘바로가 말했다’=교회 속의 진리들에 침투해오는 이들의 의지...‘말함’=뜻함, 의지인 이유는 그 뒤를 잇는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 그 이유가 누군가가 어떤 것을 뜻할 때, 그는 그것을 말한다. ‘말함’이 그 뒤를 잇는 것을 포함하는 바, 그것=여러가지 것들; 즉 명령, 훈계, 소통함, 생각 등등이다.

출6:1-‘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의 법에 관하여 가르침이 있음;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의 가르침.

출6:6-‘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신성으로부터의 법이 통각하기 위해 영적 왕국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말함’=통각하는 것; 여기서의 경우, 통각하도록 준다는 것, 그 이유는 ‘말해’질 신성으로부터의 법에 관하여 말해졌기 때문.

출6:30-‘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말했다’=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에 (존재하는 바 대로의) 신성한 법에 관한 생각...그 이유가 ‘그가 말했다’가 말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수단으로 생각이 의미될 때, 이 뒤를 잇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

출7:9-‘너는 아론에게 말하라’=신성으로부터의 법이 교리에 유입되고 교리와 소통함.

출7:14-‘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신성한 가르침; (그 이유가) ‘그는 말했다’, 어떤 것이 새로이 명령 되었을 때,=가르침, 여기서의 경우, 신성한 가르침,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말하셨기’ 때문.

출7:16-‘너는 그에게 말할 것이다’=명령; (그 이유가) ‘말함’이 신성으로부터의 법을 수단으로...거짓들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질 때,=명령.

출7:19-‘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집행, 이는 이 뒤를 잇는 사항들로부터 명백하다.

출8:1-‘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새로운 가르침, (그 이유는) 새로운 어떤 것이 명령되기 때문.

출8:5-‘아론에게 말하라’=외적 법 안으로 내적인 것이 유입됨.

출8:9-‘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대답.

출8:19-‘마술사가 바로에게 말했다’=악들에 있는 이들과의 지각과 소통.

출9:1-‘고로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여호와가 말하신다’=교회의 하느님이신 주님으로부터의 명령.

출9:27-‘(바로가) 그들에게 말했다’=면목 없음, 이는 이 뒤를 잇는 것들로부터 명백하다.

출10:3-‘(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했다’=통각됨... 그 이유는 그들=신성으로부터의 진리...그리고 (이것의) 현존으로부터 통각함이 있기 때문.

출10:7-‘바로 종들이 그에게 말했다’=두려워하고 있는 이들로부터의 타이름.

출10:8-‘(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경향... 이 뒤를 잇는 것들로부터 명백하다...이 의지, 경향이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안에 포함되어 있다.

출10:10-‘조소함, 이는 바로가 ‘말한다’로부터 명백하다.

출10:28-‘바로가 그에게 말했다’=그때 당시 진리에 맞서 성냄의 분노. 그 이유가 ‘말함’은 뒤를 잇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출11:2-‘지금 백성들의 귀들에 말하라’=통지됨과 순종함.

출11:4-‘모세가 말했다, 고로 여호와께서 말하셨다’=가르침.

출12:1-‘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통하여 통지됨. 그 이유가

말하다(say)

‘말함’, 여호와에 의해 교회에 설립되어질 것들에 관련할 때=통지됨; 그 이유가 ‘말함’은 연이어지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

출12:21-‘(모세가)(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했다’=지각함.

출12:26-‘너의 아들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양심 속에 있는 진리를 내면적으로 지각함.

출12:27-‘너희는 말할 것이다’=생각...그 이유는 이것이 대답이기 때문.

출13:3-‘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신성으로부터 법을 통하여 가르침이 있음. 그 이유가 ‘말함’. 교회에서 준수 되어질 것들에 관하여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통하여 일 때=가르침.

출13:17-‘하느님께서 말하셨다’=신성한 예견.

출14:3-‘바로가 말할 것이다’=지옥에 떨어지는 이들의 생각.

출14:5-‘그들이 말했다’=꾸짖음.

출14:11-‘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시험의 극치와 자포자기; 그 이유가 이 뒤의 내용이 ‘그들이 말했다’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

출14:13-‘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통하여 자포자기의 상태에서부터 승강됨이 있음.

출14:15-‘고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훈계, (그 이유는) 이것이 시험으로부터의 해방과 승강을 취급하기 때문.

출14:25-‘이집트인들이 말했다’=악으로부터 거짓 안에 있는 이들이 생각했음. ‘말함’, 악이 습격할 때, =생각.

출14:26-‘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유입, (그 이유는)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권능의 지배권이 발휘됨을 취급하기 때문.

출15:1-‘그들이 전해오는 말에서(in saying) 말했다’=(그 이유는) 노래를 수단으로 주님의 영광되심을 취급하기 때문.

출15:9-‘적들이 말했다’=주님의 강림 이전 악과 악으로부터 파생된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의 생각.

출15:26-‘그리고 그는 말했다’=가르침, (그 이유는) 여호와에 의해 시험들에 관한 질서 속의 진리에 관하여 이기 때문.

출16:3-‘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모세에게 말했다’=홍분으로부터의 생각.

출16:4-‘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주님으로부터의 위로.

출16:6-‘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에게 말했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통지됨.

출16:9-‘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중재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유입이 있음.

출16:19-‘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훈계.

출16:28-‘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그들에게는 희미해진 신성의 출현.

출17:2-‘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유입을 통한 대답이 생각 안으로 있음. ‘말함’,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부터 일 때...=대답. 그리고 모든 대답이 신성으로부터 유입을 통하여, 그리고 생각 안으로 결과되는 바, 위의 같은 의미가 있게 된다.

출17:5-‘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도와줌.

출17:9-‘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전투하는 진리 안으로 신성한 유입이 있음.

출18:6-‘(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했다’=유입 그리고 그 결과인 지각.

출18:15-‘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말했다’=상호 응답함.

출19:3-‘말함’과 ‘발표함’=구원하심.

출19:10-‘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준비를 위한 계기; (그 이유가) ‘말함’, 여호와에 의해 말해질 때, =신성으로부터의 계시. (=신성에 의한 훈계)

출19:23-‘모세가 여호와에게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생각함.

출20:19-‘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불평.

출20:20-‘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통지함.

출21:5-‘만일 격언 안에서 그들이 말했다면...’=이식된 진리로부터 그때 당시의 생각.

출23:13-‘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한 모두’=생활, 예배, 시민적 상태 속에 있는 모든 것.

출24:1-‘그리고 그는 모세에게 말했다’=일반적으로 말 씀에 관한 것.

출30:34-‘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말씀을 통하

말하다(tell)

여 주님에 의해 다시 예증되고 지각함이 있음.

출32:1-‘(백성이) 아론에게 말했다’=훈계.

출32:22-‘아론이 말했다’=지각되어진 것.

출33:12-‘모세가 여호와께 말했다’=신성이...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데 따른 분개함.

출34:1-‘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이스라엘 국가에 관하여 결말지은 것.

계4:11-‘말함’=고백.

계8:13-‘천국 한가운데를 날으며, 그리고 말한다’=이해하고 지각함; 그리고 주님에 관해 서술될 때, 내다보심과 설비하심; 여기서의 경우, 가르침과 설교하심.

계21:5-‘말했다’가 두 번 사용되었다,=확실히 알려지리라는 것.

계21:6-‘그가 나에게 말했다’=그것은 신성한 진리이다는 것, 그 이유는 주님께서 세 번씩 ‘그가 나에게 말했다’라고 말하셨기 때문...그리고 주님이 세 번 말하시는 것은 그것이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져야만 함.

계3:17-‘너는 말한다’=그들에 의해 믿어지는 것.

계7:10-‘말함’=고백.

계7:13-‘대답하고 말함’이 장로들에 의해 행해질 때, 이들을 수단으로 주님이 계신 천국이 의미되어진다, =유입과 지각.

계7:14-‘그가 나에게 말했다’=통보함.

계8:13-‘큰 음성으로 말하기를’=명명백백함.

계10:11-‘그가 나에게 말했다’=신성한 명령, (그 이유는) 천사에 의해, 천사를 수단으로 말씀에 관한 주님이 표현되었기 (때문); 그 이유가 주님이 말함은 명령이기 때문.

계18:7-‘말함’=자랑함.

말하다 (tell)

창3:11-‘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했느냐?’

창22:20-‘아브라함에게 말해졌다, 말하기를’=주님이 지각하심. ‘말하는 것’=생각하고 곰곰이 되씹어보는 것. 자체로만 볼 때, 되씹어봄과 지각은 내적인 말함(tell)과 말함(say)이다.

창24:49-‘나에게 말하시오, 그리고 만일 아니다면, 나에게 말하시오’=자유한 상태에서 숙고함(deliberation).

창27:42-‘리브가에게 말해졌다’=신성한 진리로부터 주님이 지각하심...‘말해지는 것’=생각하고 곰곰이 되씹는 것, 고로 지각하는 것.

창29:12-‘야곱이 라헬에게 말했다’...‘말하는 것’=알게 만드는 것.

창31:20-‘그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분리함에 의해.

창38:13-‘다말에게 말해졌다, 말하기를’=교통됨의 어떤 것...‘말해지는 것’=통각(apperception), 고로 교통(communication).

창41:25-‘그(하느님)는 바로에게 말해졌다’=통각하는 것이 자연 평면에 주어졌다...‘말하는 것’=교통하는 것, 그리고 통각하게 주는 것.

창42:29-‘그들이 그에게 말했다’=되비쳐봄(reflection). ‘말하는 것’=생각하고 반영함(reflection).

창43:6-‘너는 사람에게 말하여 악을 행했다’...‘말하는 것’=또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곰곰이 되씹어 볼 것을 주는 것. 그 결과 교통하는 것. 이로부터 결합하는 것. 그 이유가 어떤 것이 또다른 사람의 의지를 통과할 때, 교통되어짐으로부터 결합이 결과되어진다.

창43:7-‘우리가 그에게 말했다’=그가 이런 것들을 통각했다는 것.

창44:24-‘우리가 그에게 말했다...’=지식.

창45:13-‘말하는 것’=교통하는 것.

창45:26-‘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말하기를’=유입과 통각함. 그이유가 ‘말하는 것’=교통되는 것, 그리고 결합되는 것, 고로 유입. 그이유가 말해진 것은 생각 안으로 유입되기 때문.

창46:31-‘말하는 것’=교통함(communication).

창47:1-‘말하는 것’=유입(influx).

창48:2-‘말하는 것’=통각함(apperception).

창49:1-‘발생할 것을 말하는 것’=교통하는 것, 그리고 미리 말하는 것.

출4:28-‘말하는 것’=유입.

출13:8-‘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말할 것이다, 말하기를’=양심으로부터 있는 내면의 지각.

출14:5-‘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생각하는 것과 반영하는 것.

말하자면-맛보다-맛있는 것-맛좋은 것

출16:2-‘말하는 것’=반영함.

계1:1-‘보여주는 것, show’=명백하게 하는 것.

이41:23-‘표시를 선포하는 것’=믿도록 설득함으로 증명을 주는 것.

창24:66-‘좋은 이삭에게 말했다’=신성한 자연 평면으로부터 지각함...그이유가 지각은 말하자면 내적인 말함이기 때문.

창40:8-‘내가 너에게 바란다, 나에게 말하라’=그것은 알려져야 한다는 것.

창41:13-‘우리가 그에게 말했다’=그때부터 지각이 있었다.

출9:16-‘나의 이름이 선포되리라는 것’=주님이 유일한 하느님으로 인정되어진다는 것.

출10:2-‘귀들에 말하는 것’=그들은 알고 통각할지 모른다는 것.

출18:8-‘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말했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부터 지각함.

시48:13-‘너는 뒤있는 세대에 그것을 말할 것이다’=그들이 영원히 실행함.

말하자면...(as it were)

계1:15-‘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 같이, 눈 같이 희었다’

계14:3-‘그들은 말하자면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새기독교 천국 안에서 주님이 축하되고 영광 되심. 여기서의 경우, 특별하게, 고대 천국들에서 그분이 인정되었던 같이 새기독교 천국에서도 그분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으로서 인정되어졌다는 것. 이 내용이 표현 방식인 ‘말하자면’에 포함되어 있다. 그이유가 ‘말하자면 새로운 노래’란 이것이 아직은 새롭지는 않을 때, 말하자면 이것은 새롭다 이기 때문이다.

계15:2-‘나는 말하자면 불과 뒤섞인 유리의 바다를 보았다’=영계의 마지막 경계, 거기에 종교와 그로부터 파생된 예배를 가졌기는 했으나 생활의 선은 없었던 그들이 다함께 모여 있다...이들의 모여 있음이 의미되기에, ‘말하자면 유리 바다라 말해지는 것이다.’

맛보다 (taste, relish)

마27:34-‘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다.’

* ‘맛봄’=식욕, 갈망함, 그리고 애착.

* 감각적 즐거움(sensuous delight), 이는 자발적 부분(voluntary, 의지)의 최말단(ultimate)인데, 두 감각들 즉 미각과 촉각을 통하여 이끌어내진다.

맛있는 것 (delicacy)

예4:5-‘그들은 맛있는 것을 먹었다’=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리고 그로부터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진 이들.

예4:5-‘맛있는 것들’=말씀으로부터의 진짜 진리들.

맛좋은 것 (dainties)

별미

창27:4-‘내가 사랑했었던 맛좋은 것(별미)을 만들어라’=그때부터 유쾌한 것들, 그이유는 선으로부터이기 때문...원어에서, ‘맛좋은 것’은 맛있음(relish)으로부터의 즐거움들과 유쾌함들이다. 그리고 내적 의미에서,=선으로부터 있는 즐거움들(delights), 그리고 진리로부터 있는 유쾌함들(pleasantnesses). 맛있는 것은 모든 신체의 감각들과 마찬가지로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상응한다.

창27:7-‘나에게 별미를 만들어라’=갈망함 그리고 거기로부터 있는 유쾌함으로부터의 환희(delectation). ‘별미’=유쾌한 것들. 고로 갈망함, 그리고 진리로부터 있는 유쾌함으로부터의 환희.

창27:9-‘내가 그것들을 네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과 같은 별미로 만들겠다’=거기로부터 맛있는 것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맛있는 것, 별미’=선으로부터의 유쾌한 것들. 그것들이 여기서 맛있음(deliciousness)이라 불리운다, 그이유는 진리들이 진짜로부터가 아니고 사육되어 길들인 선들로부터이기 때문.

창27:31-‘(에서는)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져왔다’=신성한 합리성을 위해 바람직하고 매우 유쾌한 것들. ‘별미’=진리로부터 있는 좋고 유쾌한 것으로부터의 즐거움들. 전자는 바람직한 것, 후자는 매우 유쾌한 것.

망명 (exile)

예49:3-‘망명 안으로 가버리는 것’=파괴되는 것.

겔12:11-‘망명 안으로 떠나가버리는 것’=진리의 흠여짐.

이58:7-‘고뇌하는 망명자들’=거짓들로부터 슬픔에 있

망명-망치-망토-맞붙어 싸우다-매개-매끄러운-매달다

는 이들. 그이유가 거짓들에 있는 이들은 밖에 서있기 때문.

이24:11-이런 즐거움들이 중단 될 것임이 ‘...토지로부터의 즐거움이 추방되어질 것이다’에 의미되고 있다.

망치 (hammer)

* 도끼, axe도 참조.

예51:20-신성한 진리가 주님이시다...이로부터 ...주님은 ‘망치’라고 불리신다.

이44:12-‘날카로운 망치들로 해서 그는 그것에 모양을 만든다’=거짓으로부터의 교묘한 추론들을 수단으로 그들은 조리가 선 듯 나타나도록 한다.

예23:29-말씀이 ‘불로서’, 그리고 ‘망치로서’ 이라고 말해진다. 그이유는 ‘불’=사랑의 선, ‘망치’=신앙의 진리. ‘망치’는 ‘철’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철’=최말단에 있는 진리. 그리고 신앙으로부터의 진리.

예10:4-조리가 섬, 부합됨(coherence)이 자아로부터 확증함을 수단으로 만들어졌다가 ‘그는 그것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못과 망치를 가지고 단단히 조인다’로 묘사되어 있다.

망토 (mantle)

* ‘관복(robe)’, ‘망토(mantle)’, ‘외투(cloak)’=일반적 측면에서의 신성한 진리.

속13:4-‘예언자들은 거짓말하려고 털로 된 망토를 입지 말 것이다’=그들은 진리들이 거짓들이라고, 거짓들이 진리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 ‘망토’=일반적으로 신성한 진리, 이는 최말단들에 있는 말씀, 엘리야의 망토가 엘리사에게 왔다. 그리고 요단의 물들이 엘리야의 망토에 의해 갈라졌다.

왕하19:19, 왕하2:8-15-엘리야가 자기 망토를 엘리사 위에 던짐은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함이 엘리사로부터 엘리사에게로 이동되었음을 의미한다. 엘리야가 데려가졌을 때, 망토가 엘리야로부터 떨어짐은 이 표현함이 엘리사에게 이전되었음을 의미했다. ‘망토’는 최말단들에 있는 말씀, 이는 일반적 측면에서의 신성한 진리, 또는 전체 복합체에 있는 신성한 진리이다. 요단의 물은 엘리야의 망토에 의해 갈라졌는데, 처음에는 엘리야에 의해, 그후 엘리사에 의해서 였다는 것은 최말단들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힘을 의미했다.

삼하13:18-‘외투들’, 그리고 ‘망토들’=일반적으로 있는 신성한 진리, 그러므로 ‘쳐녀들인 왕들의 딸들은 채색옷으로 지은 망토를 입었다.’

미2:8-‘망토’=모든 진리, 그이유는 망토=일반적으로 있는 진리이기 때문.

맞붙어 싸우다 (wrestle)

* 버둥거리다(wrestle)를 보라.

매개 (medium)

* 한가운데(midst)를 보라.

매끄러운 (smooth)

창27:11-‘나는 매끄러운 사람이다’=자연적 진리의 품질.

창27:16-‘그의 목의 매끄러움 위에’=분리하는 진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매끄러움’은 진리를 서술한다.

매달다 (hang)

예5:12, 민25:4-‘군주들은 자기들의 손에 의해 매달려졌다’=진리들이 모독되어 왔다는 것. 그이유가 그들을 매달은 모독함으로부터 지옥에 떨어짐을 표현했기 때문. 그리고 매달이 이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백성이 바알브올을 따라 음행짓을 하러 갔을 때, 군주는 태양 앞에 매달리게 하라고 명령되었다.

창40:19-‘그리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이다’=거절과 지옥에 떨어짐. 그이유가 나무에 매다는 것은 저주였기 때문. 그리고 저주는 신성으로부터의 거절, 결과적으로 지옥에 떨어짐.

신21:22,23, 여8:29, 10:26-그러므로, 매달았던 이들이 저녁 이전에 내던지지 않으면, 악이 거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했었을 것이다...매달았던 이들은 저녁까지 머물렀다, 그리고 더 이상 오래동안 매달지 않았다.

마18:6-‘자기 목에 매다는 것’=선과 진리를 도중에서 가로채는 것, 가로 막는 것.

민25장-그러므로 처벌은 태양 앞에 백성의 머리들을 매다는 것이었다...그이유가 이 세상의 태양=자아를 사랑함. 그리고 태양 앞에 그들을 매다는 것=천적 선이 완전히 소멸됨.

신21:23-두 개의 일반적 처벌이 있었다. 즉 돌로 치는 것과 나무에 매다는 것. 돌로 침은 진리에 상해를 입히

매복-매장-매장하다

거나 파괴했기 때문. 나무에 매담은 선을 파괴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이다. 그러므로 나무에 매담은 저주였다.

매복 (ambush, insidious, lay in wait)

출21:13-‘숨어서 기다리지 않은 자’=의지로부터의 예견 속에 있지 않을 때. ‘숨어 기다리는 것’=미리 생각함으로부터, 고로 예견으로부터 행동하는 것. 그 이유가 숨어 웅크린 자가 막 행동하려는 악, 그는 이것을 자기 마음 안에서 미리보고 있기 때문. 그리고 그가 예견으로부터 이와같이 악을 행하기에 그는 그것을 의지로부터 역시 행한다.

매장 (burial)

매장하다 (bury)

무덤 (grave, sepulchre)

* death도 참조.

민19:16-‘죽은 자, 죽여진 자, 사람의 뼈, 무덤을 만진 자는 불결해진다.’ 이런 모든 것=인간에게 어울리는 것들, 이것들은 죽은 것, 모독인 것들이다.

창15:15-‘너는 장수하다가 묻힐 것이다’=주님에 속한 이들에 의해 모든 선들이 향유됨. 그이유가 인간은 죽고 매장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불명료한 삶(dim life)으로부터 명료한 삶(clear life)으로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

창23:4-‘당신의 매장지를 나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라’=그들은 거둬나질 수 있다는 것. 말씀의 내적 의미에서, ‘무덤, grave’=삶, 또는 천국,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죽음 또는 지옥. 천사들은 무덤에 관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이유는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아는 게 아무 것도 없다. 무덤이라는 말 대신 그들은 삶의 계속을 지각한다, 고로 부활. 인간은 영 측면에서 일어나고, 그의 몸 측면은 매장되어진다. ‘매장’=부활인바, 매장 또한=거듭남이다. 그이유가 거듭남은 인간에게 첫 번째 부활, 즉 이전의 사람의 측면에서 죽고 새로운 사람 측면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

창23:4-‘내가 내 앞의 내 죽은 자로부터 매장하는 것’=그분은 그들과 더불어 있는 밤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시고 공표하실 것.

창23:6-‘우리들 중 아무도 당신의 무덤(his sepulchre)

에 매장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을 것이다’=모두가 거둬남을 받을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

창28:11-‘당신의 죽은 자를 묻는 것’=밤으로부터 나와 소생되는 것. ‘묻히는 것’=다시 일어나는 것, 또는 소생하는 것.

창28:13-‘나는 내 죽은 자를 매장할 것이다’=그들은 밤으로부터 나와서 생기있어질 것이다. ‘매장되는 것’, 여기서=생기있어지는 것, 그이유는 그들이 신앙을 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나는 내 죽은 자를 매장할 것이다’=영적인 밤과 생기 있어짐인 이유는 이전의 교회가 죽고, 주님에 의해 새로운 교회가 그 곳에 일어날 때, 죽음 대신 생명이, 밤 대신 아침이기 때문. 또한 개혁되고 영적으로 만드는 모든 이와 더불어 그 사람에 관한 죽은 것은 매장되듯 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것, 즉 살아 있는 것이 다시 일어난다. 고로 그 사람과 더불어 밤 대신, 또는 어둠과 찬(cold) 것 대신 그것의 빛과 열을 가진 아침이 떠오른다. 이로부터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천사들과 더불어서는 인간이 죽은 자를 매장함에 관하여 가지는 생각 대신, 부활과 새로운 생명에 관한 생각을 가진다.

창23:19-‘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했다’=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선과 결합한 진리를 받았다.

창23:20-‘아브라함이 무덤의 소유자로...’=이것은 거둬남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만 있었다. ‘무덤, sepulchre’=거듭남.

창25:9-‘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매장했다’=주님을 표현함(대리인, representation)이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 계속되어졌다. 여기서 ‘매장하는 것’=소생되어지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그이유가 말씀에서 대리인이 계속되기 때문...그리고 죽음들은 어떤 중단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매장=대리인이 소생함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서 계속됨이다.

마23:27-‘뱀들’=거짓들, 그리고 ‘무덤들’=그들이 들어 있는 악들, 그리고 위선은 바깥쪽으로는 선으로 나타나나, 안쪽에는 거짓으로부터 추잡하고 모독적인 것들인바. 주님께서 말하신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 같다, 바깥쪽으로는 아름다운듯 나타나나 내부는 죽은 자의 뼈

매춘부

와 모든 불결함들로 가득해 있다.

창35:8-‘(드보라는) 벤엘 아래 상수리나무 아래 매장되었다’=영구히 거절됨. ‘매장되는 것’=거절되는 것.

창35:19-‘라헬이 죽었다, 그리고 에브라데로 가는 길에서 매장되어졌다’=내면 진리에 대한 이전 애착의 끝... ‘매장되는 것’=이전 상태의 거절, 그리고 새로운 것이 소생됨.

창35:20-‘그리고 야곱은 그녀의 무덤에 상(statue)을 세웠다’=영적 진리의 거룩함이 거기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무덤’=부활.

창35:29-‘그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매장했다’=그는 자연 평면의 선과 진리로부터의 선에서 다시 일어났다. ‘매장되는 것’=부활...이런 이유는 몸이 죽을 때, 혼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 이로부터 ‘매장’이 말씀에서 언급될 때, 천사들은 거절된 몸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혼을 생각한다.

창37:35-‘나는 슬피울며 무덤으로 내 아들에게로 내려갈 것이다’=고대 교회는 멀해지리라는 것.

창42:38-‘슬피하며 무덤으로’=소생의 희망 없이... ‘무덤’=부활과 거듭남. 고로 소생함. 즉 교회의 소생.

창44:29-‘너는 내 회색 머리카락들을 악 안에서 무덤으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영적 선은 이제 막 멀해지려 한다는 것, 고로 교회의 내적 부분이 멀해지려한다는 것...선 안에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거듭나는 것. ‘악 안에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멀해지는 것.

창50:5-‘내가 나를 위해 가나안 토지에 파놓은 내 무덤에, 거기에 너는 나를 매장할 것이다’=교회가 전에 있었던 곳에서 소생되어지리라는 것. ‘무덤’, 그리고 ‘매장되는 것’=소생함.

창50:5-‘그리고 지금 나는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매장할 것이다’=거기에 내적인 것으로부터 교회의 소생함이 있다.

창50:14-‘그의 아버지를 매장하러 그와 더불어 올라갔던 모든 이’=거듭남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 ‘매장되는 것’=거듭남과 소생함. ‘매장하는 것’=거듭남과 소생함, 또한 교회의 갱신과 소생, 이런 이유는 모든 이런 의미들이 같은 것을 포함해서이다. 즉 거듭남은 부활이

다. 그리고 교회의 소생은 거듭남을 통하여 결과되어진다.

출14:11-‘이집트에 무덤이 없었기 때문에’=지옥에 떨어짐(damnation).

예8:2-‘매장되지 않는 것’=생명으로 부활이 없는 것.

계11:9-‘무덤 안에 놓이지 않을 것’, 또는 매장되지 않을 것’=지상적이고 불결한 것으로 남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거절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

겔39:12-‘(곡)을 매장하고 토지를 깨끗이 하는 것’=그들 모두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그들로부터의 교회를 통째로 걸러내 깨끗이 하는 것.

예14:16-‘매장되지 않는 것’=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22:16-거짓을 사랑함이 ‘높은데 있는 무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사88:11-당신의 자비를 무덤에서, 당신의 진리를 파괴함에서 말해질 것입니까?’=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는 악들과 거짓들이 있는 지옥에 전파되어질 수 없다는 것... ‘무덤’=악들이 있고 출현하는 지옥, ‘파괴함’=거짓들이 있고 출몰하는 지옥. ‘무덤’=지옥인 것은 지옥에 있는 이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하다.

매춘부 (harlot)

이23:17-거짓을 자랑함, 이것이 ‘매춘 샅과 두로의 매춘’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호9:1-‘매춘 샅’=거짓을 자랑함.

계17:1-‘큰 매춘부’=모독된 예배에 있는 이들.

신23:18-그러므로...그들은 여호와의 집 안으로 매춘 샅을 가져오지 말 것이다.

이23:18-지식들,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이것은 매춘 샅을 위해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이것은 거룩한 것을 위해 있다. (이것이 ‘그녀의 상품과 그녀의 매춘 샅은 여호와께 거룩함이 될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34:31-‘그는 우리의 여동생을 매춘부로 만들었다’=그들은 어떤 애정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 (그이유가) 다나, 그녀가 더럽혀진 이후, 또는 매춘부로 만들어진 이후,=거짓들에 대한 애착, 고로 부패된 교회.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진리에 어떤 애착도 가지지

맨끝

않았기 (때문).

창38:15-‘그는 그녀가 매춘부라고 생각했다’=그들은 그것을 거짓으로 밖에는 더 달리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매춘부’=거짓...이런 이유는 결혼은 천국의 결혼, 즉 선과 진리의 결혼을 표현하는데, 간음이나 매춘짓의 경우 반대적인바, 이들=거짓이기 때문. 그들은 현실에서도 반대적이다. 그이유가 자기들의 생활을 간음이나 매춘짓으로 소비하는 이들은 선과 진리를 돌보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 그이유인즉, 진짜 결혼적 사랑은 천국의 결혼으로부터 내려오나, 간음이나 매춘짓들은 악과 거짓의 결합으로부터, 즉 지옥으로부터 있기 때문.

계17:16-‘매춘부’=신성한 진리들을 왜곡하는 이들. ‘그녀를 발가벗게 만드는 것’=그것들을 빼앗는 것.

계17:1-‘나는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 큰 매춘부의 심판을 네게 보여주겠다’=말씀 속의 진리들을 모독하고 섞음질한 광신적 신앙(religiosity)에 관한 계시...‘큰 매춘부’=말씀의 거룩한 것들과 교회의 거룩한 것들을 모독함, 그리고 선과 진리에 섞음질함...‘매춘부로 놀아나는 것’, 등등=말씀을 모독하고 섞음질해대는 것.

계19:2-‘그분은 매춘짓으로 땅을 썩게 한 큰 매춘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모독한 바빌로니아식 광신적 신앙은 말씀에 악취나는 섞음질을 해서 주님의 교회를 파괴했는데, 이것이 정죄되어졌다는 것.

미1:7-‘매춘 샀’=그들이 거짓들과 악들에 적용하여 그것들을 남용해버린 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들.

이23:17-‘그녀의 매춘 샀으로 되돌아오고, 세상의 얼굴들 위의 모든 왕국과 더불어 매춘짓을 범하는 것’=온 교회의 모든 참 진리들을 거짓되게 하는 것.

미1:7-‘매춘 샀은 불로 태워질 것이다’=자아와 세상의 사랑들을 좋아하는 쪽에서 응용해감으로 진리를 거짓화함.

호9:1-‘매춘 샀을 사랑하는 것’=거짓화에 즐거워함, 거짓을 좋아함, 지옥의 사랑으로부터 우상 숭배를 좋아함.

겔16:31-‘너는 샀을 받고 기뻐하는 매춘부 같지는 아니하였다’=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애착의 즐거움으로부터라고 까지는 아니하다는 것...‘그들은 모든 매춘부들에게 샀을 준다, 그러나 너는 네 애인 모두에게 샀을 준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답했다’=그들은 종교의 거짓들

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타 국가들의 예배의 거짓들을 사랑했다는 것. ‘매춘부에게 샀, 또는 선물’=타인들의 거짓들을 수단으로 왜곡하는 것을 사랑함. 다른 종교들의 거짓들을 향한 애착과 사랑의 즐거움이 여기서 ‘매춘부의 샀, 또는 선물’에 의해 뜻해진다.

레21:14-‘부패한 매춘부’=거짓들에 의해 간음질된 선, 이 선은 더 이상 선이 아니고 악이다.

창38:21-‘저 매춘부는 어디 있느냐?’=거짓이었는지 아닌지.

창38:21-‘여기에는 매춘부가 없다’=거짓이 아니었다.

솔3:3-‘매춘부를 위해 소년을 주는 것’=말씀의 진리들을 왜곡하는 것.

맨끝 (extreme)

신28:49-‘땅의 맨끝으로부터의 국가’=악들과 거짓들.

마24:31-‘하늘들의 맨끝으로부터 그것들의 맨끝 까지’=교회의 내적, 외적인 것들.

이7:18-‘이집트 강들의 맨끝에서 파리...’=자연적 마음의 맨끝에 있는 거짓들.

출19:12-‘그것의 맨끝을 만지는 것’=중재하는 것들 까지도 안된다.

출25:18-‘자비석의 두 맨끝으로부터’=천적 선과 영적 선.

출26:4-‘접합하는 맨끝으로부터 한 커튼의 끝머리 위에’=이쪽 영역이 다른 쪽 영역과 결합함.

출26:28-‘맨끝으로부터 맨끝 까지 지나는 것’, 힘이 의미되는 가로장에 관해 말해지는바,=거기서부터 힘이 파생되어 각 곳으로 계속되었다.

출27:4-‘그것의 네(4) 맨끝들 위에’=모든 곳.

출28:7-‘두 맨끝들’, 또는 오른쪽, 왼쪽=모든 측면들에.

출28:23-‘너는 가슴판의 두 맨끝들 위에 두 고리들을 놓을 것이다’=맨끝들에서...고로 천국의 맨끝들에서 신성한 선의 영역의 결합.

출28:25-‘두 사슬들의 두 맨끝들을 너는 박아끼는 두 구멍(socket)들에 놓을 것이다’=맨끝들에서 떠받쳐주는 것들을 가지고 결합하는 방법.

이26:15-‘그분이 제거한 땅의 맨끝들’=교회를 감염시킨 거짓들과 악들, 이로부터 그분은 그것들을 순수하게 하셨다.

맨 마지막-맹세하다

예31:17-‘맨끝에서 희망’=이전 교회의 끝, 그리고 새 교회의 시작.

맨 마지막 (last)

마지막 (last)

최후 (last)

최말단 (ultimate)

궁극 (ultimate)

* boundary, extreme, first, hair, nazirite도 참조.

창2:14-‘유브라테’=지식, 이는 최말단, 종점(terminus)이다.

창14:22-‘신바닥(발바닥)’, ‘뒤꿈치’=궁극의 자연 평면.

암5:18,20, 습1:14,15-‘여호와와 날’=교회의 마지막 때와 상태.

창19:2-‘저녁’=맨 마지막 앞의 교회의 상태, 교회에서 신앙 없음이 시작하는 때.

창19:5-‘밤에’=(신성과 거룩한 진행(proceeding)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때, 마지막 때.

창23:2-‘죽는 것’, ‘죽은’, ‘죽음’, 교회를 서술할 경우,=그것의 마지막 때, 모든 신앙, 즉 선행이 만료될 때, 이때가 말씀에서 ‘밤’이라 불리운다.

창25:25-‘털’=자연 평면, 그이유는 털은 인간의 최말단들에서 바깥쪽으로 자라나기 때문.

창28:17-‘이곳은 정녕 하느님의 집이다’=질서의 최말단에 있는 주님의 왕국.

이19:13-‘이집트’에 의해 교회의 과학물, 고로 질서의 마지막인 자연적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창40:16-19-‘3일이다’=최후로.

창40:16-19-‘3일 내에’=최후에서 있는 것.

눅17:34-‘한밤중’=옛교회의 마지막 때, 이는 선행이 전혀 없는바 신앙도 전혀 없는 때이다. 또한 새로운 교회의 첫 때이기도 하다.

마26:31,34-‘밤’=옛 교회의 마지막 때, 그리고 새로운 것의 처음.

출3:16-‘방문하심’=주님의 강림, 이는 교회의 마지막 때에 앞서 있다, 이 때는 말씀에서 ‘최후 심판’이라 불린다.

출4:4-‘그것을 꼬리를 수단으로 잡아라’=감각 평면의 궁극으로부터 승강하는 힘. 그이유가 ‘뱀’=감각 평면.

고로 뱀의 꼬리=그 평면에서 가장 낮은 것, 최말단. (고로)‘뱀의 꼬리’에 의해 거짓 자체가 의미되어진다. 그이유가 이것이 최후, 또는 최고 낮은 것이기 때문.

출17:12-‘그들을 돌을 가져왔다’=질서의 최후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그이유는 이 돌이 (모세) 아래 놓여졌기 때문.

마11:7-‘갈대’=최말단에 있는 진리, 마치 글자로 있는 말씀과 같다.

마3:1,4-‘메뚜기’=궁극, 또는 가장 일반적인 진리들.

창49:1-‘나는 날들의 맨 마지막에서 발생할 것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상태의 최말단에서 교회의 상태의 품질. 즉 일반적인 진리들과 선들이 그것들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함께 있는 것에서 교회 상태의 품질.

시37:37-‘그이유가 인간에게 궁극은 평화이기 때문.’ ‘궁극’=평화가 있는 끝말(end).

맹세하다 (swear, oath)

창22:16-‘나 스스로 맹세하며, 여호와께서 말하신다’=신성으로부터의 취소할 수 없는 확증...이 구절, 그리고 여타 구절에서도 있는 마치 맹세를 수단으로 그분이 그것을 확증함은 그것이 더 참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확증하지 않으면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받지 않는 듯 말해지기 때문에서이다. 주님이 맹세에 의해 어떤 것을 확증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러나 신성한 진리, 그리고 그것의 확증이 인간 본성으로 내려가질 때, 그것은 맹세 비슷한 것으로 바뀌어 표현된다.

마5:33-37-이런 이유들을 위해, 그리고 맹세들이 취소되기로 작성된 표현물들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맹세는 도대체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다. 이 말들에 의해 사람은 여호와를 수단으로, 여호와, 또는 주님께 속하는 어떤 것을 수단으로 해서도 도대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뜻해지고 있다.

창24:7-‘나에게 이야기하셨던 분, 그리고 나에게 맹세 해주셨던 분, 말하시기를’=그분의 뜻하심과 이해하심이 있었던 것으로부터...‘맹세하는 것’=신성으로부터 확증함. (이것은) 진리들을 서술하고, 이것은 이해함 속에 있다. 여호와에 관해서 말해지되, ‘그분이 이야기하신다’고 말해질 때, 이는 그분이 뜻하신다가 뜻해지고, ‘그분

맹세하다

이 맹세하신다'고 말해질 때, 이는 그분이 그것이 참(true)이라고 이해하신다가 뜻해진다. 고로 '맹세하는 것'이 여호와에 관해 말해질 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25:33-'오늘 나에게 맹세하라,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맹세했다'=확증...시간에 관련해서.

창26:3-'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를 설립할 것이다'=확증.

창26:31-'그들은 그의 형제 사람에게 맹세했다'=진리로부터의 선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확증. 그이유가 '맹세하는 것', 또는 '맹세'=확증이기 때문.

창31:53-'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을 두고 맹세했다'=신성한 인간으로부터 확증함...

창47:31-'그는 말했다, 나에게 맹세하라'=그것은 돌이켜질 수 없으리라는 것.

창50:2-그러므로 '그들에게 토지를 준다고 맹세하는 것'=그들의 고대인들이 지녀왔었던 교회의 상태에 오게 되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

출13:5-'그분께서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선과 진리에 있는 이들에게 신성에 의해 약속되어 왔었던 것. '맹세하는 것', 여호와에 의해서 일 때,=신성에 의한 취소할 수 없는 확증. 이로부터 '주기로 맹세함'=약속.

출22:10-'여호와의 맹세가 그들 둘 사이에 있을 것이다'=이 모든 것들의 각각 그리고 모두에 관하여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찾아냄. 그이유가 '맹세'=진리들을 수단으로 확증함. 이로부터 '여호와의 맹세'=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그이유가 말씀 안에 여호와의 진리들,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말3:5-'거짓인 것에 맹세하는 이들'=거짓들을 확증하는 이들.

시110:4-'여호와께서 맹세하셨고 후회하시지 않을 것이다'=확고하고 틀림 없는 것.

출32:13-'이들에게 당신께서는 당신 자신 안에서 맹세하셨었다'=신성으로부터의 확증. 그이유가 '맹세하는 것', 주님을 서술할 경우,=신성으로부터 있는 취소할 수 없는 확증.

출33:1-'네 씨에게 나는 그것을 줄 것이다 라고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했던 것'=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약속된 것. 그이유가 '맹세하는 것', 여호와를 두고 말할 때,=내적 인간 안에서 신성으로부터의 확증, 고로 신성으로부터 있는 약속. 그이유가 신성에 의해 약속되어진 것은 또한 확증된 것이기 때문.

계10:5-'천사는 하늘로 자기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을 두고 맹세했다'=주님께서 단독으로 증언하시고 입증하심.

이19:18-'군대들의 여호와에게 맹세하는 것'=주님을 고백하는 것.

이65:16-'땅에서 맹세하는 그는 진리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맹세하는 것'=신성한 선들 안에서 자기의 자아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 '맹세하는 것'이 이렇게 의미되는 이유는 '맹세, oath', 내적 의미에서=자기의 자아 안에서 확증함,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고 확신함. 그리고 이것은 진리들을 수단으로 선으로부터 결과되어진다.

이45:23-'모든 혀가 맹세할 것이다'=종교로부터 선 안에 있는 모든 이는 주님을 고백할 것이다. '맹세하는 것'=고백하는 것, 그리고 '혀'=자기가 사는 것에 따른 종교.

시89:3-'나는 나의 선택한 자와 언약을 만들었다, 나는 내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인간과 하나됨. '언약을 만드는 것'=하나되는 것. 그리고 '맹세하는 것'=합일을 확증하는 것.

시89:35-'내가 내 거룩함을 두고 맹세했던바, 나는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영원한 확증, 그이유는 신성으로부터, 주님께 관하여, 그리고 그분의 인간 속의 신성이 신성 자체와 합일됨에 관하여 있기 때문이다.

시132:2-'여호와에게 맹세한 자, 그리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에게 서약(vow)한자'=주님 앞에서 취소할 수 없는 서원.

신10:20-'그분의 이름 안에서 맹세하는 것'은 예배의 선을 포함한다...그이유가 이를 수단으로 그것이 행해질 것이기 때문(=생활에 의해 확증하는 것).

예51:14, 암6:8-여호와께서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수

머리

단으로 확증하실 때, '그분의 혼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말해진다. 그이유가 '맹세하는 것'=확증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와의 혼, soul'=신성한 진리.

(열매를)맺다 (bear)

* 낳다(bear)를 보라.

머리 (head)

* 고대 시대에서는 머리에 의해 가장 높은 것이 의미되어졌다.

창3:15-'그는 너의 머리를 짓부술 것이다'...'뱀의 머리'에 의해 일반적 측면에서의 악의 통치권(dominion)이 뜻해진다, 그리고 특별한 측면에서는 자아를 사랑함이 뜻해진다.

창9:4-'그리고 그것의 머리가 하늘에'=천국 안에 있는 것들 넘어 통치하기 조차. 그이유가 '하늘에 머리를 가지는 것'=자아 찬양을 천국에 까지 확장하는 것.

계10:1-내적 의미에서의 말씀='머리 주위에 무지개',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태양 같이'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애1:5-'적들이 머리가 되었다'=악들이 지배함.

합3:13-'불경한 자의 집으로부터 머리를 쳐부수는 것'=거짓의 원리들을 파괴하는 것.

창28:12-'(사다리의) 머리가 하늘에 까지 닿고 있다'=거기 신성과의 교통이 있었다는 것. '사다리의 머리', 또는 그것의 꼭대기=가장 높은 것.

창28:18-'그는 그것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거룩한 선...'머리'=보다 더 높은 것, 또는 내면인 것...즉 머리가 신체에서 가지는 위치 같이 선이 지배해야 함이 의미되고 있다.

창40:13-'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릴 것이다'=설비된 것, 그로부터 결말인 것...'머리를 들어올리는 것'은 묶인 자를 살리든가, 죽이든가 할 때, 고대인들과 더불어 심판에서의 관용어이다.

창40:16-'내 머리 위에 구멍이 난 (세 바구니)...'중간의 어떤 곳에서 종결됨이 없이...'머리'=내면들, 특별히 자발적인 것들. 모든 실체와 형체는 그것의 시작을 머리에서 가진다. 그러므로 모든 감각들은 머리 쪽을 돌본다, 그리고 자신들을 머리에 표출한다. 그리고 모든 행동은 머리로부터 내려와 부활한다. 이해함과 의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머리에 의해 내면들이 의미되어진다. '바구니'들이 머리에 있는 것들을 표현했다.

창47:31-'이스라엘은 침대의 머리에서 자신을 굽혀 절했다'=그는 내면적 자연 평면으로부터 있는 이런 것들 쪽으로 자신을 돌아서게 했다는 것...고로 '침대의 머리'=자연 평면에서 보다 더 높은 것, 즉 더 내면인 것. 그이유가 신체가 외면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는 내면인 것이 의미되기 때문.

창48:18-'당신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 위에 놓으소서'=고로 그가 첫째 자리에 있다는 것...그들이 복을 빌 때 머리에 손을 놓는 것은 고대인들에 의해 받아진 의식이 었다. 그이유가 머리에 인간의 지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이 있기 때문. 이에 반해 신체에는 그것들에 따른 행동들이 있다...고로 머리에 손을 놓는 것은 복됨이 지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에 교통되는 것, 즉 인간 자신에게 교통되는 것을 표현했다...이와 같은 의식은 오늘날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취임식 같은 곳에서, 또는 복을 선포함에서 사용되고 있다.

창49:26-'그것들은 요셉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그 것들이 내면들 측면에서 있을 것이다. '머리'=내면들. 그이유는 인간과 더불어 모든 것들의 시작들이 머리에 있기 때문. 내면들이 '머리'에 의해 의미되는 것, 또한 상응이다...이 상응은 천국이 웅대한 사람(Grand Man)에 관계된다는 사실로부터 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천국은 큰 사람 안에서 머리와 관계된다.

출6:14-'이들은 자기들 아버지의 집의 머리들이다'=교회의 주요한 것들.

출12:1-'달(months)들의 머리'=모든 상태들의 원리,, '머리', 일 년의 달들을 서술할 때, 그리고 내적 의미에서, 생활의 상태들에 관해서,=제일의 것.

출12:9-'그것의 다리들 위, 그리고 그것의 중간 위의 그것의 머리'=가장 안쪽으로부터 바깥쪽 까지. '머리', 그것이 '그것의 다리들과 중간 것 위'라고 말해질 때,=가장 깊은 것. 그이유가 머리는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 그리고 영적 의미에서, 가장 높은 것은 가장 안쪽이기 때문.

출16:16-'한 머리에 한 오멜'=각각의 사람에게 충분한

머리

만큼의 양.

출18:25-‘그는 그들을 백성의 머리들로 주었다’=이런 저런 진리들 안으로 유입됨...‘머리를 위해 그들에게 주는 것’=유입하는 것, 그리고 고로 자격을 주는 것.

출19:20-‘산의 머리에’=가장 깊은 천국 안에...그이유가 산의 머리는 거기서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

마5:36-‘누군가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인간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진리, 자기 신앙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두고, 그이유가 이 진리가 인간의 머리를 만들기 때문.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곳에서) ‘머리’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출26:24-‘머리, 아래로부터 머리 까지’라고 말해질 때=내면으로부터. 이것이 ‘머리’에 의해 의미되는 이유는 머리는 신체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 그리고 보다 높은 것에 의해 내면의 것들이 의미된다...더우기, 인간의 내면의 것들은 그의 머리에 있다. 그이유가 거기에 감각들과 움직임의 시작이 있기 때문. 그리고 시작들은 가장 깊은 것들인데, 그이유는 시작들로부터 나머지 모든 것이 파생되기 때문.

시133:2-‘아론의 머리’=가장 깊은 선.

시110:6-‘그분은 많은 토지 넘어 머리를 쳐죽이셨었다’=자아의 지옥의 사랑으로부터 있는 지옥들로 내던짐, 그리고 그것의 지옥에 떨어짐.

출28:32-‘거기로부터 한가운데 도포의 머리의 입’=더 높이 있는 것으로부터 유입이 있는 곳, 똑같은 것으로 내면인 것으로부터. 고로 천적 왕국으로부터 영적 왕국 안으로...그이유가 인간과 더불어 머리는 주님의 천적 왕국에 상응하고, 몸은 그분의 영적 왕국에 상응한다.

이7:20-‘머리를 미는 것’=교회의 내적 진리들을 박탈하는 것.

출29:7-‘너는 그의 머리 위에 부어서 그에게 기름부를 것이다’=(주님의) 인간 전체에 관련하여 주님에 있는 신성한 선의 표현...‘머리’=(주님의) 인간 전체, 또는 인간 전체인 이유는 머리로부터 인간의 모든 것이 내려오기 때문. 그이유가 몸은 거기로부터 파생이기 때문.

출29:15-‘숯양의 머리 위에’=전체와 더불어. ‘머리’=인간 전체, 고로 전부. 그 이유는 이것이 가장 높은데 위치해있기 때문. 가장 높은 것에 인간의 가장 깊은 것이

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것으로부터 그 아래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 가장 안쪽으로부터 밖인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 그이유가 후자와 전자의 것들은 거기서부터 파생되기 때문. 인간과 더불어 가장 안쪽의 것은 의지와 이해함이다. 시작함들에 있는 이 기능은 머리에 있다.

출29:17-‘너는 그것들을 조각들 위에, 그리고 머리 위에 놓을 것이다’=내면과 가장 안쪽 것들 아래 외면의 것들의 (교회의) 의식(ordinance)이 있다.

이9:14-‘머리와 꼬리를 자르는 것’=선과 진리(를 자르는 것)...‘머리’=선.

이19:15-‘머리와 꼬리를 만드는 일은 없다’=그들은 선도, 진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레21:10-천국들에서 신성한 선의 흠어짐이 ‘머리를 미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겔5:1-‘(예언자 에스겔의) 머리’=말씀으로부터의 지혜.

계1:14-‘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양털 같다’=첫 순위와 최말단 순위에 있는 신성한 지혜로부터의 신성한 사랑. 사람의 ‘머리’에 의해 그의 생명의 모든 것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의 모든 것은 사랑과 지혜에 관계된다. 그러므로 ‘머리’에 의해 지혜가 의미되는 동시에 사랑도 의미된다.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랑이 없듯, 사랑 없는 지혜도 없다. 그러므로 ‘머리’에 의해 지혜로부터의 사랑이 뜻해진다. 주님을 서술할 경우, 이는 신성한 지혜로부터의 신성한 사랑이다.

계9:17-‘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았다’=마치 권능을 쥐고 있는 듯 여겨지는 믿음 만(faith alone)에 관한 몽상들.

계19:19-‘그것들의 꼬리들은 뱀같고, 머리를 가지고 있다’=그들은 감각적이고 거꾸로 있는바, 입으로 진리들을 말하는데, 자기들 종교의 교리의 머리를 만드는 원리로부터 그것들을 왜곡하고 있다.

계12:3-‘일곱 머리들을 가지고 있는’=왜곡되고 모독된 말씀 속의 진리로부터의 미친 것. ‘머리’에 의해 지혜와 총명이 의미되나, 반대 의미에서 정신 이상(미친 것).

계13:1-‘일곱 머리들을 가진’=단지 거짓들 만으로부터의 광기(insanity).

계13:3-‘나는 그의 머리들 중의 하나를 보았는데, 마치 상처를 받아 죽은 것 같았다’=교리의 이 요점, 이는 나

머리

머지의 머리인데, 즉 인간은 법을 실행함 없이 믿음 만으로 의로운 자 되고 구원받기도 한다는 것이 일들이 아주 많이 명령된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머리들 중의 하나'에 의해 개혁의 교회의 전체 교리의 주요하고 근본되는 교리를 의미되고 있다. 그이유가 짐승의 일곱 머리들이 있었고, 이것들에 의해 단지 거짓들만으로부터의 미친 짓이 의미되기 때문. 고로 복합체에 있는 모든 거짓들 또한 의미한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그들 교리의 모든 거짓들은 이것 하나, 즉 인간은 법의 일들 없이 믿음 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도 받는다는 의존하는바, 여기서 이것이 짐승의 '머리 하나'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계17:3- '일곱 머리들을 가지고, 열 뿔들'=처음에는 거룩한 총명이고, 후에는 총명이 아닌 말씀으로부터의 총명. 그리고 결국 미친 짓...'머리'=주님과 말씀을 서술할 경우, 지혜와 총명, 그러나 반대 의미에서 미친 짓과 우론(folly).

계17:9- '일곱 머리들은 일곱 산들, 거기서 여인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일곱 왕들이다'=로마 카톨릭의 광신적인 신앙이 기초된 말씀으로부터의 신성한 선들과 신성한 진리들. 적시에 파괴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모독되었다...(주홍색 짐승의) '머리들'에 의해 (말씀에 있는) 지혜로부터의 진리들과 사랑으로부터의 선들이 의미되고 있다.

계19:12-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diadem)들이'=그분으로부터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들. '그분의 머리 위에'=주님으로부터. 그이유가 '머리'에 의해 사랑으로부터의 지혜가 의미되기 때문. 그리고 머리로부터 인간은 사랑으로부터의 지혜를 통하여 규율되어진다.

이29:10- 예언자들은 '머리들'이라고도 불리워진다, 그 이유는 '머리'=총명.

시66:12- '사람으로 우리 머리 위에서 타게 하였다'=총명 없음.

신1:13- '머리들로'라고 말해지는데, 그이유는 거기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가 뜻해지기 때문.

계9장- '머리들을 가지는 것'=이런저런 과학물들을 수단으로 추론하는 것. 그이유가 '머리'에 의해 총명이 의미되기 때문, 그러므로 '머리를 가지는 것'에 의해 총명

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이런저런 과학물들을 수단으로 추론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유는 감각적 인간을 서술할 경우, '머리'에 의해 지식, 이로부터 얼빠진 생각, 그러므로 감각적 과학물들을 수단으로 추론함 또한 의미된다.

계10:10- '무지개가 그의 머리 너머에 있었다'=말씀의 내면들...'머리 넘어'=내면인 것. 그이유가 위쪽과 보다 높은 것=안쪽과 내면인 것.

계12장- '일곱 머리들을 가진'=말씀의 거룩한 것들에 관한 지식, 이것에 그들은 섞음질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미친 짓, 여전히 교활하다. '머리'=총명과 지혜, 반대 의미에서는 미친 짓과 우둔함, 또한 교활함.

계13장- '일곱 머리들을 가진'=왜곡되고 섞음질한 말씀의 거룩한 것들에 관한 지식. '머리'=총명과 지혜, 반대 의미로는 미친 짓과 우둔함. 총명과 지혜가 자연적 인간으로의 추론들을 수단으로 신앙과 생활의 분리를 확증하는 이들을 서술할 수 없는바, (짐승의) '머리'는 지식이 의미되어진다. 이것이 말씀의 거룩한 것들에 관한 지식인 이유는 '일곱 머리들'이었기 때문. '일곱'은 거룩한 것들을 서술한다.

계14:14- '금빛의 왕관을 그의 머리 위에 가진'=신성한 선이 심판을 위한 준비를 만들었다.

계17장- '일곱 머리들을 가진'=그리고 모독했다...그이유는 이 '머리들'은 주홍색 짐승의 머리들이었기 때문, 이를 수단으로 거룩한 것들 측면의 말씀이 의미되어진다...짐승의 '머리'에 의해 대략적 의미에서, 그것을 이해함 측면의 말씀이 의미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그것 안에, 그것으로부터 총명과 지혜 측면에서의 말씀도 의미된다. 그러나 그것의 선들과 진리들이 왜곡되고 섞음질 될 때, 그때 그것의 '머리'에 의해, 일곱이 보여질 때, 모독된 말씀의 거룩한 것들이 의미되어진다.

머리카락 (hair)

* 털(hair)을 보라.

머리털 (hair)

* 털(hair)을 보라

머리털로 짠 삼베옷 (sackcloth of hair)

계6:12- '태양은 머리털로 짠 삼베옷 같이 검게 되었다'=사랑으로부터의 모든 선이 사라졌다는 것...'머리털

먹다

로 잔 삼베옷 같이 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인간의 감각 측면이 뜻해지기 때문, 이 측면은 자연 평면에서도 가장 낮다, 그리고 내면의 것들 주위에 있다, 그리고 그것들에서 짙은 어둠을 도출하기 때문에서이다.

머므르다 (stay)

* 지체하다(delay)를 보라.

먹다 (eat)

창2:16-‘모든 나무를 먹는 것’=선인 것과 참인 것을 지각으로부터 아는 것

창 3:6-‘먹기에 좋다’=탐욕

창 3:17-‘큰 슬픔 안에서 지면(의 것)을 먹는 것’=생활의 비천한 상태. ‘먹는 것’= 사는 것.

창3:18-‘들판의 풀잎을 먹는 것’=들짐승 같이 사는 것.

창3:19-‘생김새의 땀 안에서 빵을 먹는 것’=천적인 것을 반대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

창3:22-‘생명들의 나무를 취해서 먹는 것’=사랑과 신앙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인정하기 위해서 조차 아는 것. 여기서의 경우 ‘먹는 것’=아는 것.

눅13:26-‘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로부터 신앙 속의 선과 진리를 가르치고 설교 하는 것.

눅22:30-‘주님의 왕국에서 그분의 식탁 위에서 먹고 마시는 것’=선과 진리에 대한 지각을 향유하는 것.

창24:33-‘먹는 것’=소통되어지고 자기 것 삼는 것.

창24:54-‘그들은 먹고 마셨다’=선과 진리의 자기 것 삼음이 시작되었다. ‘먹는 것’=소통되어지고 결합이 있는 것, 고로 자기 것 삼는 것; 그리고 빵에 관하여 서술 될 경우, ‘빵’=선, 선을 자기 것 삼음이 ‘먹는 것’에 의해 의미된다.

창 27:33- 맛좋은 음식을 만들고 먹은 후에 그것을 가져온 그에게 축복이 뒤따랐다. 이에 대한 이유는 고대 교회의 관습에 대한 내적인 이해로부터 알 수 있다; 그들과 더불어 먹는 것은 자기 것 삼음과 결합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먹은 바, 그들이 먹은 빵의 주인과 결합함...유대 교회에서 성별된 것들을 먹는 것은 위 같은 내용을 표현했다.

창28:20-‘만일 그분이 나에게 먹을 빵을 준다면’=신성한 선과의 결합에 까지...‘먹는 것’=소통하는 것, 자기

것 되게 하는 것, 결합하는 것.

창32:32-‘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통겨나온 것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거짓들이 들어 있는 이런 것들은 자기 것 삼지 마라는 것. ‘먹는 것’=결합되는 것과 자기 것 되는 것.

마24:38-‘먹는 것과 마시는 것’=악과 거짓을 자기 것 삼음에 관하여 있는 그들의 상태.

창40:17-‘새가 바구니로부터 그것들을 먹었다...’=악으로부터의 거짓이 그것을 소진했다...‘먹는 것’=다써버리는 것; ‘먹다’를 위해 여기서 사용된 원어는 소진함을 명시한다.

출2:20-‘그가 빵을 먹게 할 것이다’=선 안에 있음을 확증함...그이유는 여기서 ‘먹는 것’은 잔치를 베푸는 것을 뜻하기 때문...그리고 고대인들 사이에서 벌인 잔치들은 대체로 결합과 선 안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개 최했었다.

출16:3-‘우리가 배부르게 빵을 먹었을 때’=그들이 원했던 만큼 이상으로 쾌락의 선을 향유했을 때. ‘먹는 것’=자기 것 삼는 것, 그리고 또한 향유함.

출 16:8-‘여호와와 주심에서 너는 저녁에 고기를 먹는다’=상태의 끝에서 선은 기쁨을 통하여 자기 것 삼아질 것이다.

출16:15-‘이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먹도록 주신 빵이다’=이것은 자기 것 삼아서 자기들 생명을 만들 선이다; 최고 의미에서 이것은 네 안에 있는 주님이시다는 것.

출16:17-‘너희는 각자의 먹을 만큼을 그러모으라’=각자의 용량에 따라 받아 자기 것 삼음.

마6:25-‘먹고 마시는 것’=신앙 속의 선과 진리를 훈육 받는 것.

암6:4-‘양떼 속의 어린 양들을 먹는 것’=그들 자신들에게 내적 인간 속에 있는 순진의 선들을 배워 자기 것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기름진 송아지들 가운데로부터 가져온 것을 먹는 것’=그들 자신들에게 외적 인간 속에 있는 순진의 선을 배워 자기 것 삼는 것.

출32:6-‘백성들은 먹고 마시려고 앉았다’=그것들을 자기 것 삼음.

출34:28-‘그는 빵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물을 마

먹다

시지 않았다' = 다른 한편 사랑의 선들과 신앙 속의 진리를 자기 것 삼음이 없다... '먹는 것' = 결합과 선을 자기 것 삼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 진리의 수용과 자기 것 삼는 것.

계2:7 - '나는 생명의 나무(의 것을) 먹으라고 줄 것이다' =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을 자기 것 되게 함... '먹다' = 자기 것 되게 함인 이유, 자연적인 음식이 먹여졌을 때,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 되듯, 영적인 음식이 받아졌을 때, 이것은 그의 혼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계2:17 - '나는 그에게 감추어둔 만나를 먹도록 줄 것이다' = 지혜,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일들 안에 있는 천적인 사랑의 선을 자기 것 삼음, 고로 주님께서 일하는 이들과 결합하심.

계2:20 -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 것' = 그렇기에 예배가 더러워지는 것. (= 악들을 침투시키고, 그렇기에 자동적으로 거짓까지 침투시키는 것)

눅17:28 - '먹고 마시는 것' = 자신과 세상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그들 자신들에게 악들과 거짓들을 자기 것 되게 하는 것.

* '생명의 나무를 먹는 것' = 주님을 먹는 것, 따라서 사랑과 선행을 수여받는 것.

* '먹음' = 자기 것 삼음과 결합.

* 성만찬은 영적인 먹음이다.

창9:4 - '먹지 않는 것' = 뒤섞이지 않는 것.

창18:8 - '그들은 먹었다' = 소통함. '먹는 것' = 소통되는 것, 또한 결합되어지는 것.

레24:9 - 성스러워진 것들이 제물로부터 있었다, 이 제물은 제단 위에서 태우지 않았다, 그리고 성직자들, 또는 그것들을 바친 백성에 의해 먹어졌다. 불결한 것은 그들에게 먹여지지 않았다. 이와 비슷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에서 얼굴들의 빵들을 먹게 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졌다.

겔4:16 - 황폐된 선의 상태가 '그들은 무개를 달아 빵을 먹을 것이다'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눅22:30 - 주님의 왕국에서 '먹고 마시는 것' = 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를 자기 것 삼음.

합1:8 - 먹어치우기에 성급한 독수리 = 진리들 측면에서

인간을 황폐하게 함.

창31:15 - '그는 우리의 은을 게걸스럽게 다 먹어치웠다' = 그들이 분리되어지지 않으면, 그가 소진시키고야마는 이런 애착들의 진리. '먹어치움' = 소진시킴.

창31:38 - '당신의 양떼의 숫양을 나는 먹지 않았다' = 선의 진리는 이것에 관해 취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먹는 것' = 자신의 것 되게 함, 고로 취하는 것.

창31:46 - '그들은 거기 (돌)무더기 위에서 먹었다' = 선으로부터 신성을 자기 것 되게 함. '먹는 것' = 소통, 결합, 그리고 자기 것 됨.

창31:54 - '(아굽이) 빵을 먹으라고 그의 형제들을 불렀다' = 주님의 신성한 자연을 수단으로 선을 자기 것 되게 함... 고대인들 사이에서, 먹는 것이나 잔치를 베푸는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자기 것 삼음과 결합을 의미했다.

신32:38 - '제물의 지방을 먹은 자' = 그들은 예배의 선을 파괴했다; '그리고 그들의 제주의 포도주를 마셨다' = 그들은 예배의 진리를 파괴했다.

겔39장 -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를 자신들 것으로 삼는 것, 고로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거룩한 것을 자기 것 되게 함.

창37:25 - '그들은 빵을 먹기 위해 앓았다' = 거짓으로부터의 악을 자기 것 되게 함.

창37:33 -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다' = 악의 탐욕들이 꺼지게 했다... '삼키는 것' = 꺼지는 것, 그 이유는 교회의 진리들을 서술하기 때문.

마23:14 - '과부들의 집들을 삼키는 것' = 진리들을 갈망하는 이들에게서 진리를 박탈하고 거짓들을 가르치는 것.

창41:4 - '보기 흉한 소가 ... 삼켰다' = 믿음 속에 있지 않은 거짓들... 근절될 것이다. '삼키는 것' = 소진하는 것, 여기서는 근절되는 것, 그이유는 그들이 거둬나기 전 자연에 있는 진리들은 마치 거짓들을 통하여 근절되어진 듯 있기 때문이다.

창43:2 - '그들이 양식 먹어치우기를 마무리했을 때' = 진리들이 부족했을 때.

창43:16 -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 그들은 중매자와 함께 있을 때 결합이 있을 것이다. '먹는 것' = 소통되는 것, 결합, 자기 것 되는 것.

먹다

창43:25-‘그들은 자기들이 거기서 빵을 먹는다는 것을 들었다’=선이 진리들에게 결합되어지게 있었다는 것을 통각함.

창43:32-‘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과 빵을 먹을 수 없다’=그들이 교회 속의 선과 진리와 결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없다.

창45:18-‘너는 토지의 지방을 먹을 것이다’=거기서 선을 자기 것 삼음.

창47:22-‘그들은 바로가 그들에게 준 지정된 몫을 먹었다’=선들은 정해진 그 이상은 자신의 것으로 삼아지지 않았다.

창49:27-‘그는 먹이를 삼킬 것이다’=그분이 붙잡아 견져낸 이들을 그분 자신의 것 되게 하는 것.

출12:15-‘누룩 있는 것을 먹는 자’=거짓인 것을 자신의 것 되게 하는 자.

출12:43-‘외국인의 아들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진리와 선에 있지 않은 이들은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질 것이다...‘그것을 먹지 못할 것’=그들과 소통하지도 못하고 결합도 못한다는 것; 고로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

출12:44-‘그다음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그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로부터 ‘먹는 것’=그들과 함께 있는 것, 또는 연합되는 것; 그리고 ‘먹지 않는 것’=그들과 더불어 있지 않는 것, 또는 분리되는 것.

출 12:46-‘한 집 안에서 먹을 것이다’=그들이 하나의 선을 만들도록 일치를 이루는 선들과 제휴하는 것. 그 이유가 유월절 만찬은 천국에서 천사들의 연합을 표현했기 때문.

출15:7-‘그것들을 지푸라기 같이 삼켰다(떨망시켰다)’=그때부터 자신들을 저주하고 황폐되게 함. ‘삼키는 것’=소진하는 것; 그리고 영적 의미에서 저주되고 황폐해지는 것; 그이유가 악 안에 있는 이들의 소진이 황폐와 저주이기 때문...

출16:35-‘이스라엘의 아들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시험의 모든 상태에서 진리의 선을 자기 것 삼음.

출21:28-‘그것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다’=이 악을 자기 것 삼는 일은 결코 있어져서는 안되고 내던져야 할 것.

출22:31-‘들판에서 찢긴 고기를 너는 먹지 않을 것이다’=믿음 속의 거짓된 선과는 결합하지 말 것.

출24:11-‘그들은 먹고 마셨다’=예배 속의 진리와 선에 관하여 정보를 받음.

출24:17-‘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눈에서 삼키려드는 듯한 불...’=내적인 것에서 분리된 외적인 것 안에 있었던 이들과 더불어서는 그것은 해를 입게 하고 황폐해지게 하는 것일 뿐...‘삼키는 것’=소진하는 것, 고로 해를 입고 황폐해짐.

이61:6-‘이방인들의 재물을 먹는 것’=선들을 자신들에게 자기 것 되게 하는 것.

출29:32-‘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숫양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주님으로부터 내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영적 선을 자기 것 삼음.

출29:33-‘외국인은 먹지 못한다’=주님을 인정 않는 이들과 더불어서는 선을 자기 것 삼음은 없다.

계17:16-‘삼키는 것’=소진하는 것, 고로 파괴하는 것 (=거절하는 것)

계19:18-‘너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외 등등=모든 의미와 수준과 종류에서 말씀 속의 진리와 그로부터의 교리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선들을 자기 것 삼음.

겔16:13-‘고운 밀가루, 꿀, 기름을 먹는 것’=진리와 선을 자기 것 삼는 것.

이55:1-‘먹는 것’=자신의 것 되게 함, 이는 자신에 관련하여 응용함으로 이루어진다.

이9:20-‘이러한 것들에 빠지고 먹고...’=문의하는 것, 찾아대는 것.

레26:26-‘먹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이유는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너무나 작고 희귀해서 혼을 위한 자양분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

단7:7-‘삼켜지고 조각으로 부서졌다’=뒤집히고 파괴되었다.

예15:16-‘먹어치움’=영적인 먹어치움이 분명하다, 이는 아는 것, 지각하는 것, 그리고 자아의 것으로 삼는 것; 그이유가 ‘나는 네 말들을 먹는다’라고 말하기 때문.

이62:9-‘그들은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자기 것 삼고 주님을 예배함.

먼지

이37:30-‘그들의 열매를 먹는 것’=거듭나는 인간에 속해 있는 선을 즐김,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환희가 있음.

겔19:14-‘그녀의 열매를 삼켰다’=선을 소진함.

호8:8-‘사나운 사자 같이 그것들을 삼키는 것’=말씀 속의 모든 진리, 이로부터 교회 속의 모든 진리가 파괴되고 황폐됨.

이55:2-‘너는 선인 것을 먹으라’=자신에게 선을 자기 것 되게 하라.

먼지 (dust)

창2:7-‘지면의 먼지로 인간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전에는 인간이지 않았던 그의 외적 인간을 만들어내시는 것.

창3:14-‘살아있는 동안 먼지를 먹는 것’=감각적 인간은 육적이고 지상적인 것을 제외하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고로 그것은 지옥적인 것이 되었는데, 이는 말씀에 있는 ‘먼지’의 의미로부터 분명해진다.

창3:19-‘먼지가 너이다, 그리고 먼지로 너는 되돌아 갈 것이다’=그는 저주되고 지옥적이다.

창 13:16-‘나는 네 씨를 땅의 먼지 만큼 만들 것이다’=광대하게 번창함.

창18:27-‘저는 먼지이고 재입니다’=인간 측면의 부끄러움

창 26:15-‘그들은 (쌈들을) 먼지로 채웠다’=지상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즉 자아를 사랑함과 자기 이득만을 수단으로...그 이유가 지상적인 사랑들에 있는 이들은 먼지로 아브라함의 쌈들을 채울 수밖에 없다, 즉 그들은 말씀의 진리들을 지상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말살해 버린다.

창 28:14-‘네 씨는 땅의 먼지 같이 있을 것이다’=자연 속의 신성한 진리는 자연적 선 같이 있으리라는 것... ‘땅의 먼지’=선...‘땅의 먼지’가 선인 이유는 ‘땅’=주님의 왕국, 그러므로 선이기 때문. 이 땅의 먼지가 선이기는 하나 그 선은 자연적 선인데, 그 이유는 땅=주님의 왕국 안에서 보다 낮은 쪽, 고로 자연적인 것에 해당하기 때문...그러므로 말씀에서 선의 열매맺음과 진리의 번창함이 씨가 ‘하늘들의 별들 같이’ 그리고 ‘땅의 먼지 같이’이기에 의해 표현되었다. ‘하늘들의 별들’=합리적

인 것들, 그리고 ‘땅의 먼지’=자연적인 것들. 이것들은 성장한다.

삼상4:12-‘그의 머리 위에 먼지를 쓰고’=신성한 선을 잃어버려 통곡함.

겔27:30-‘그들은 먼지가 자기들의 머리 위로 오르게 하였다’=악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 ‘자신들을 재로 돌돌마는 것’=거짓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

출8:16-‘땅의 먼지를 강타하라’=그는 자연 안에 저주된 것들을 제거하리라는 것...‘먼지’=저주된 것...먼지가 저주된 것이다 하는 이유는 악령이 있는 장소는 발바닥 쪽에서 마치 땅 같이 나타나고, 이 땅은 사실 경각하지 않는 불모의 땅으로 나타나고, 이 땅 아래 지옥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은 소위 저주된 땅이라 불린다, 그리고 거기의 먼지=저주된 것. 때때로 거기서 악령들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을 때, 자기들의 발에서 먼지를 터는데, 나(스웨덴북)로 하여금 보도록 주어지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 먼지=저주된 것, 그리고 먼지를 터는 것=저주함.

출 9:9-‘그것은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서 먼지가 될 것이다’=자연적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거짓들은 지옥에 떨어짐. ‘먼지’=저주된 것.

계18:19-‘자기들의 머리 위에 먼지를 놓는 것’=과멸과 저주 때문에 있는 내면의 슬픔과 애통함.

겔26:10-‘먼지’=거짓으로부터의 악.

이41:2-‘악들과 거짓들이 마치 아무 것도 아닌듯 흩어진다’는 것이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겹에 먼지 같게 주었다’로 의미되고 있다. 악들과 거짓들이 이렇게 흩뜨려진다고 말해진 것은 다른 삶에서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이40:12-‘땅의 먼지’=천국과 교회 모두에 있는 외면의 진리들, 또는 자연적인 진리들.

시72:9-‘적들’=악들, 이에 관해 말해지는 바, ‘그들은 먼지를 핏을 것이다’.

이2:19-‘먼지’=저주된 것.

겔24:7, 26:4-‘먼지’는 흙을 뜻하고, 이를 수단으로 교회의 선이 의미되고 있다.

이2:10-‘먼지 안에 자신을 감추는 것’=악 안에.

미7:17-‘뱀 같이 먼지를 핏는 것’=저주된 것.

멀리-멀리하다

시44:25-‘먼지 쪽으로 머리를 굽히고 땅에 밀착하는 것’=그들에게 거짓들이 침투하는 것; 그 이유가 ‘먼지’, 그리고 ‘땅’=저주된 것이기 때문. 또한 지옥적인 것과 저주된 것이 뱀에 관해 말해진 것, ‘배로 걷고 먼지를 먹는다’에서도 의미되고 있다...‘먼지’, 그리고 ‘땅에 배를 밀착하는 것’=지옥적이고 저주된 것, 즉 거짓이기는 이유는 지옥들은 영계에서 땅들 아래 있고, 거기서 지옥들로부터 땅들을 통하여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내뿜어 나오기 때문.

이40:12-‘땅의 먼지가 얼마 만큼인지를 파악하는 것’=낮은 것들을 임명하는 것.

이47:1-‘먼지에 내려와 앉는 것’, 그리고 ‘땅 위에’=악들 안에 있는 것, 결과적으로 저주됨 안에 있는 것.

출9:9-‘이집트의 모든 토지에서 먼지 일 것이다’=저주됨.

겔26:12-‘먼지’=자연적 인간 속의 가장 낮은 것, 이는 감각적 인간 속에 있다.

계18:19-‘그들의 머리에 먼지를 놓는 것’=그들이 저주받음에 슬퍼함.

창3:14-모든 인간, 처음 출생할 때...‘땅으로부터의 먼지’로 외면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 안에는 뱀 같이 먼지를 핥으려는 경향성이 있다.

멀리 (afar, remoteness)

창22:4-‘멀리로부터 보는 것’=예견하는 것.

신28:49,52,53-‘멀리로부터, 땅의 맨 끝으로부터의 나라’=악들과 거짓들, 또는 그것들 안에 빠져 있는 이들.

이49:12-‘멀리로부터 오는 것’=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빛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

창37:12-‘그들은 저 멀리 있는 그(요셉)를 보았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대한 지각이 멀리 있음.

이60:4-‘멀리로부터 아들들’=이방인들과 더불어 진리들.

출20:15-‘그들은 (시내 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섰다’=내향의 것들로부터 아주 멀.

눅16:23-‘멀리’=신성으로부터, 즉 내향의 것들로부터 있는 선과 진리로부터 멀.

출24:1,2-‘떨찍이에서 네 자신을 구부려라’=심정으로부터 경배하고 부끄러이 여김, 그 때 주님의 유입이 있

음.

이43:6-‘멀리로부터 아들들’=진리들 측면이 희미함에 있는 아들.

계18:10-‘멀리’=상태의 멈.

예5:15-17-‘멀리로부터’=선들과 진리들로부터 옮겨져 멀리 있음.

이49:1-‘멀리로부터’=이는 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들에 관해 말하는 것; ‘가까이’는 영적 인간에 있는 선들을 말하는 것.

예31:10-‘멀리’=영적인 교회의 진리로부터 멀어있음.

이43:5,6-‘멀리’ 그리고 ‘땅의 끝’=진리의 빛으로부터 옮겨졌음, 그 이유는 무지로부터의 거짓들 안에 있기 때문, 무지한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 또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 못하기 때문.

계18:10, 이33:13, 49:1,12-‘멀리’, 반대 의미에서=악인 것.

멀리하다 (alienate)

창31:15-‘그가 우리를 팔아먹었던 바, 우리는 그에게서 외국인으로 세어지지 아니했던가?’=그들이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다 하여 그는 그들을 멀리했다는 것.

창38:11-‘네 아버지의 집에서 과부로 남아 있거라’=자신으로부터 멀리있게 함.

창40:15-‘내가 도적에게 취한바 되었기에...’=악을 통하여 멀리해져 버린 친적인 것들...‘흠치는 것’=멀리해지는 것. 그리고 ‘도적’=멀리해지게 하는 악...‘도적’=악이 점령했기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멀어짐. 이로부터 그만큼 악은 선과 진리를 내치고 그 자리에 악과 거짓을 앉힌 셈이다.

창42:21-‘우리는 우리의 형제에게 죄지었다’=그들은 선을 비수용함을 통하여 내적인 것을 멀리했기 때문에 과오 안에 있었다는 것...‘요셉’은 그들이 거절했거나 멀리했던 내적인 것을 표현한다.

창42:21-‘우리가 혼의 괴로움을 보았을 때’=내적인 것이 소외된 동안 내적인 것의 상태.

창45:4-‘당신들이 이집트로 팔았던 자’=그들이 멀리했던 내적인 것...‘파는 것’=멀리하는 것.

창50:15-‘요셉의 형제들’=진리와 선으로부터 멀리 있던 것들.

멍에-멍이 든-메네-메대

창50:20-‘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생각했었다’=멀리했던 것들은 악 밖에 의도한 것이 없다는 것.

출1:8-‘요셉을 모르는 (왕)’=내적인 것으로부터 모두 멀리해진 분리된 과학적인 것들.

출21:8-‘그녀가 되찾아지게 하라’=이런 진리들로부터 멀리함.

출21:11-‘그녀는 은 없이 자유로이 나갈 것이다’=그밖에 다시 결합된 진리 없이 그때부터 멀어짐.

출21:16-‘사람을 훔쳐서 그를 판 자’=신앙으로부터의 진리를 악에 적용하여 진리를 멀리있게 함.

출21:35-‘그는 살아있는 황소를 팔 것이다’=다른 자의 애착에 피해를 입힌 당사자의 애착은 멀리 있어질 것이다.

출22:2-‘그는 자기의 도둑질 때문에 팔려질 것이다’=멀어짐, 여기서는 선과 진리가 제거됨.

출32:30-‘너희는 큰 죄를 범했다’=몽땅 멀어짐 그리고 제거됨.

멍에 (yoke)

마11:30-주님께서 인간을 (악령들의) 멍에와 지배함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실 때, 전투가 발생한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되어가고 있을 때, 그는 멍에와 지배함 외는 어떤 것으로든지 아주 온화하게 인도되어지는바, ‘내 멍에는 쉽다’라고 가르치신다.

예27:8-‘바빌론의 왕의 멍에 아래 그들의 목을 놓지 않을 것’. (=진리 측면은 황폐해지지 않고 선의 측면이 황폐해진다는 것).

창27:40-‘너는 그의 멍에를 네 목으로부터 부러트릴 것이다’=결합이 선을 수단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고로 거기에) 해방이 있다는 것...그이유가 ‘목의 멍에’=(유입의) 억제와 방해. 그리고 억제나 방해가 없을 때, 선은 유입된다.

* (천국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더 어렵지 않다는 것이 ‘내 멍에는 쉽다’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그런 이유는 인간이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악들에 저항함에 똑같이 비례해 그는 주님께 의해 인도되기 때문, 자신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님께서 인간 안에서 그것들에 저항하신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하신다.

* 인간이 (거듭남의) 시작을 만들었을 때,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선들을 작동하신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악을 보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들을 뜻하지 않게, 결국은 그것들로부터 혐오를 느끼게 하신다. 이것이 ‘내 멍에는 쉽다’에서 뜻해진다, 그러나 곤경은 인간이 의지로부터 악을 행함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겔34:27-‘멍에의 묶는 것’=그것들이 계속 속박되게 하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의 악의 즐거움.

이9:4-‘너는 그의 짐의 멍에를 부러트렸다’=그들이 압제 당하고 있게 한 악을 파괴하는 것.

눅14:19-‘멍에 매는 황소 다섯’=천국으로부터 딴 길로 접어들게 하는 이런저런 애착들, 탐욕들.

삼상6:7-‘멍에 맨 적이 없는 젖을 내는 암소’=아직 거짓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자연적 선. 그이유가 ‘멍에를 지는 것’=섬기는 것. 여기서의 경우, 선을 더럽히는 거짓들을 섬기는 것.

멍이 든 (livid, bruise)

창4:23-‘부상, wound’, 그리고 ‘상처, bruise’=더 이상 전체적으로 어떤 것도 있지 않았음. ‘부상’은 신앙이 황폐되었음, ‘상처’는 선행이 황폐되었음.

메네 (mene)

단5:26-‘메네’, 또는 ‘그는 세어졌다’는 진리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 ‘메네’, 또는 ‘세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의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메대 (Mede)

예25:25-‘메대의 모든 왕들’...영적 (왕국의) 교회의 황폐함이 취급된다. 이 교회들로부터의 다른 점들이 순서대로 언급된다, 그리고 ‘메대’에 의해 의미된다.

이13:17-‘메대’에 의해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에 맞서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그러므로 말해진다, ‘은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자, 금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자’.

메뚜기 (locust)

마3:4-‘그의 식품은 메뚜기들과 들꿀이었다’=선 측면에서 글자 의미로 있는 말씀.

출10:4-‘나는 네 경계 안으로 메뚜기들을 가져온다’=거짓이 그들의 가장 바깥 것들을 점유할 것이다. ‘메뚜기’=가장 바깥쪽 것들에 있는 거짓.

메뚜기-메사-메섹-메시아 -메추라기

출10:13-‘동풍이 메뚜기들을 가져왔다’=노략질 당하는 이들에게 있는 조밀한 거짓.

출10:14-‘이와 같은 메뚜기는 이전에 없었다, 그리고 이후 이와같은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이와 같은 거짓은 교회의 처음 때로부터 있지 않았다, 그리고 있지 않을 것이다. ‘메뚜기’=가장 바깥쪽 것들에 있는 거짓.

계9장-‘메뚜기들’=외적 거짓에 있는 이들.

마3장-‘메뚜기’=가장 바깥 것에서 자양분을 주는 진리.

계9장-‘구덩이의 연기로부터 나온 메뚜기들’=감각적으로 되어버린 이들과 더불어 가장 바깥쪽 것들에 있는 거짓들, 그리고 오류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이들.

나3:15,17-가장 바깥쪽 것들에 있는 거짓들이 ‘메뚜기들’에 의해 의미된다, 이런 인물들이 ‘메뚜기들’이라 불린다, 그리고 또한 ‘왕관이 씌우져 있다’ 라고, 그리고 ‘명령을 실행한다’라고 말해진다.

계9:7-‘메뚜기들의 모습’=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을 자신들과 더불어 확증한 이들의 형상들과 외관들. ‘메뚜기들’에 의해 가장 바깥쪽 것들에 있는 거짓들이 의미된다. 그리고 거짓들이 거짓들에 있는 이들과 하나를 만들 때, 그들 자신 또한 메뚜기에 의해 의미된다.

이40:22, 민13:3-인간의 감각적 측면은 인간의 생각과 애착에 속하는 생명의 가장 낮고 최말단인바, 그리고 가장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기도한 바 그것이 ‘메뚜기들’에 비교된다.

계9:7-‘메뚜기들의 모습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 같았다’=감각적 인간은 마치 진리를 이해하고 있더라도 한낱 추론자가 되었다는 것. ‘메뚜기들’=교회의 사람들이 악으로부터 있는 거짓들을 통하여 감각적이 되었다는 것.

마3장-‘메뚜기’=자연적 인간의 진리.

이40:22-‘그것의 주민들은 메뚜기들 같다’=가장 바깥쪽 것들에 있는 사람들. 그이유가 ‘메뚜기들’=최말단에서 살아있는 것. 특별하게는 진리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는 거기의 거짓.

메사 (Mesha)

창10:30-‘메사’에 의해 진리가 의미된다.

메섹 (Meshech)

* 고멜 참조

겔32:26-‘메섹과 두발’=의식들인 교리물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 없을 때 ‘할례받지 않은’이라 불리운다; 이로부터 ‘검으로 찢어진’, 그리고 ‘살아있는 것의 토지에서 공포’라 불리운다.

메시아 (Messiah)

* ‘그리스도’가 ‘메시아’, ‘기름부은 자’, ‘왕’ (=신성한 진리).

단9:25-‘메시아 군주’=신성한 인간 측면의 주님.

* 신성한 인간 측면의 주님을 기름부음은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 자체를 통하여 결과되었다...이로부터 주님은 ‘메시아’라 불리우셨다...이는 히브리어에서 ‘기름부어진 자’를 뜻한다.

메추라기 (quail)

* 시험 후에 위로됨(consolation)이 메추라기와 만나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출16장-자연적 사랑의 즐거움이 그들이 저녁에 받은 ‘메추라기’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 ‘메추라기’=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의 선, 이것이 즐거움이라 불린다.

출16:13-‘메추라기가 왔다’=자연적 즐거움을 통하여 선이 있다. ‘메추라기’=자연적 즐거움인 이유는 그것이 바다로부터의 새이었기 때문. 그리고 바다로부터의 새는 자연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고기에 의해, 마라고 있던 것, 즐거움이 의미된다.

출16장-저녁에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추라기’에 의해 의미된 자연적 즐거움은 현세에의 욕망(concupiscence)으로부터의 즐거움은 아니다. 이 즐거움은 내적 인간의 선에 상응하는 외적 인간의 즐거움이다. 이 즐거움은 그것 안에 영적 선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현세에의 욕망은 그 안에 지옥의 악을 가지고 있다.

멜기세덱 (Melchizedak)

창14:18-‘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에게 성직자였다.’ ‘멜기세덱’=주님과 더불어 내적 인간의 천적인 것들. ‘살렘의 왕’=내면, 또는 합리적인 것들 측면에서의 평화의 상태. ‘빵을 가져왔다’=천적인 것들, 그리고 거기로부터의 원기 회복 (재 창조, the recreation). ‘포도주’=영적인 것들,

멜기세덱-멤피스-며느리-면도칼-면도하다-면제하다

거기로부터 원기 회복. ‘그리고 그는 성직자’=사랑의 거룩함(the Holy). ‘지극히 높은 하느님에게’=내적 인간, 여호와이시다.

시110:1-5-시험들에서의 주님의 전투들이 다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천적인 것들에 관련된 측면에서 그분의 내면의 인간이 멜기세덱이라 불리워진다.

시110:4-‘내 말에 따라 멜기세덱’=그분의 신성한 인간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과] 같다.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다, 고로 여호와께서는 전투들과 승리하심들을 통하여 정의를 만드셨다.

창14장-‘멜기세덱’에 의해 신성한 선 측면에서의 주님과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이 표현되어졌다. 성직자로서의 멜기세덱은 신성한 선, 왕으로서의 멜기세덱은 신성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그는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이유는 빵에 의해 신성한 선, 포도주에 의해 신성한 진리가 의미되기 때문.,

멤피스 (Memphis)

호9:6-‘이집트’, 그리고 ‘멤피스’=자신과 과학물들로부터 신성한 것들에 관련해 즐기워지기를 원하는 이들.

호9:6-‘멤피스가 그들을 문을 것이다’=악의 거짓들에 말씀의 글자 의미로 부터의 참 진리들을 적용함으로 야기되는 영적 죽음.

며느리 (daughter-in-law)

자부 (daughter-in-law)

레20:12-며느리와 눕는 것은 중대한 반칙(죄, offence)이었다, 그리고 유다가 역연혼(levirate) 법으로 그의 며느리의 행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런 것을 포함한다. 즉 다말에 의한 그의 아들들은 가나안족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그의 장자 엘(Er)의 아들로서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창38:11-‘(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다)’=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교회, 이 교회가 진리로부터 ‘며느리’라 불리우고 있다...‘며느리’=교회의 영적 평면, 또는 진리. ‘며느리’가 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결혼의 모든 것들, 그리고 결혼으로부터 있는 모든 이들은 천국의 결혼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을 표현했다. 천국의 결혼은 선과 진리 속에 있는 것...이로부터 새로운 남편으로서의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선과

결합한 교회의 진리.

창38:16-‘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그는 그것이 표현 교회의 진리라고 지각하지 못했다는 것. ‘며느리’=교회의 선에 인접한 교회의 진리. 이것=표현 교회의 진리인 이유는 여기서 ‘며느리’인 다말에 의해 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교회가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창38:24-‘말하기를, 너의 며느리 다말이 매춘을 범했다’=결혼적인 어떤 것이 이 경우에서 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각함...‘며느리’=교회의 진리.

호4:13-‘간음을 범한 며느리’=거짓들과 결합한 악..

면도칼 (razor)

이7:20-영적 지혜와 총명이 박탈됨이 ‘샴을 내고 빌린 면도칼로... 깎음’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겔5:1-‘면도칼이 머리를 지나가게 하는 것’=진리에 관한 모든 총명이 박탈되는 것.

면도하다 (shave)

* bald, shear도 참조.

사16:19-‘면도했을 때, 그의 힘은 떠났다.’

레21:10, 겔40:20-‘높은 성직자...그의 머리를 면도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렇게 ‘레위인들도 자기들의 머리를 면도하지 말 것이다.’

겔5장-자기의 머리의 머리털과 자기 수염을 면도하는 예언자는 말씀에 관련하여 유대 교회의 상태를 표현했다.

민6장-‘나지르인은 자기 털을 면도해서는 안된다.’

* ‘턱수염을 면도하지 않는 것’=그것의 최말단을 거둬서 해서 합리적인 것을 자신으로부터 박탈하지 않는 것.

면제하다 (absolve)

출34:7-‘면제하심에서 그분은 면제하지 않으실 것이다’=막장에 이르기조차 까지 관용을 베푸심. 그이유가 ‘면제하는 것’=죄를 용서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분은 면제 않으실 것’이란 말이 더하여질 경우, 이는 아량을 베푸심이기 때문.

면제하다 (exempt)

창20:5-‘내 손들의 면제함 안에서 나는 이것을 행했습니다’=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고로 모두 각각의 능력

면제하다 -면죄-멸망하다 -명령-명령하다

으로부터...원어에서 '면제'는 깨끗함과 순수함을 뜻하는 단어를 수단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면제, 또는 깨끗한, 또는 순수한 손들, 이는 진리를 서술하는데, 이는 진리들 안에 선이 없으면, 즉 진리에 애착함이 있지 않으면 존재 못한다.

면죄 (remit)

창50:17-'당신의 형제들의 죄과를 용서하소서'=탄원과 회개.

출5:8-'그들이 태만하기(remiss) 때문이다'=가해진 노력질이 충분치 않다.

출10:17-'이번 한번만 내 죄를 용서해라'=그들은 자기들의 불순종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

마12:32-'모든 죄가 사람들에게 용서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영(the Spirit)의 모독은 용서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에 맞서는 말은 용서될 것이나, 성령에 맞서는 자는 용서되지 않을 것이다...'=진리를 모독함...(이는) 치료되어질 수 없다, 고로 용서가 없다.

출32:32-'만일 지금 당신께서 그들의 죄들을 면죄하신다면'=그들이 신성으로부터 돌아섬이 방해가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

눅24:47, 3:3, 마18:21,22-면죄되었을(remitted) 때 죄는 제거되어졌다함은 시대의 잘못이다. 즉 그들은 성찬을 통하여, 그리고 신앙 만을 통하여 등등으로 죄들이 자기들에게서 면죄되어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반대가 진실이다. 즉 죄가 제거되었을 때 그들은 면죄되어진다. 그이유가 회개가 면죄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다. 회개 없이 면죄는 없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죄의 면죄를 바라다면 회개를 먼저 해야한다고 설교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죄의 면죄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설교했다. 주님은 모든 이에게서 그들의 죄들을 면죄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섭리의 법들에 따르지 않고 그것들을 거두어가실 수 없다. 이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 형제를 일흔번씩 일곱 번 용서하라고 하신 대목의 의미 중 일부이기도 하다.

눅7:37,38-타인을 용서하고 베푸는 이들의 가슴 안으로 주어진 선의 분량이 뜻해진다. 즉 선행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자.

멸망하다 (perish)

출10:7-'멸해지는 것'=지옥으로 던져지는 것.

이27:13-'앗수르의 손에서 멸망하는 그들'=거짓 추론들에 의해 현혹되어 왔던 이들.

시2:12-'그분이 성내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길에서 멸하지 않도록'=악들이 너를 침공하지 않도록, 그래서 네가 정죄되지 않도록.

명령 (commandment)

명령하다 (commandment)

계12:7-'하느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녀의 씨의 남은 자들'=주님으로부터의 교리와 십계명의 교리를 받는 초심자들.

계14:12-'명령들을 지키는 것'=십계명의 요약된 것 안에 포함된 가르침들에 따라 사는 것.

창7:16-'하느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받아들임으로 그가 준비되는 것...'명령하는 것', 주님과 더불어서 일 경우=준비함, 만듦.

시119:7-16-'명령들', '판단들', '증거들', '교훈들', '규례들' 사이에 구분이 만들어지고 있다...말씀으로부터, 또는 교리로부터 있는 모든 것.

창12:20-'바로가 그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명령했다'=과학물이 주님을 떠났다.

창21:4-'하느님께서 명령하셨던 바 같이'=신성한 질서에 의거...하느님의 명령들, 또는 하느님이 명령하셨던 이런저런 사항들은 신성한 질서의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이다. 즉 신성한 질서는 하느님의 영구적인 명령들 밖에 더 아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명령들에 따라 사는 것, 또는 하느님의 명령 안에서 사는 것은 신성한 질서에 따라, 또는 신성한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다.

창26:5-'(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그분 자신으로부터의 계속적인 계시들을 통하여...'내 말들'=일반적으로 말씀 속의 모든 것들; '명령들'=말씀의 내적인 것들, '율례들'=말씀의 외적인 것들, '법도들'=특별한 측면들에서의 모든 것들.

창42:25-'요셉이 명령했다'=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유입. '명령하는 것'이 외적인 것에 관련하여 내적인 것을 서술할 때,=유입. 내적인 것은 유입의 방법

명령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명령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함에 배치함.

창47:11-‘바로가 명령한바 같이’=과학물이 있는 자연 평면의 동의함과 더불어. ‘명령하는 것’=유입, 그러나 여기서의 동의함. 그이유는 자연 평면, 이것이 바로에 의해 표현되었는바 내적인 것으로부터 유입을 통하여 자연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 그러므로 자연 평면이 명령하는 것은 참으로 자연 평면에 의해 명령되는 듯 나타나지만 그것은 내적인 것에 의해 명령되는 것이다, 고로 동의함이다. 비록 이것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 또는 명령들을 주어 나타나는 것이다 해도 그것은 생각으로부터 이다.

창49:29-‘(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은근히 주입함...‘명령하는 것’=유입, 고로 은근히 주입함.

창50:2-‘요셉은 그의 종들인 의원들에게 명령했다’=결함을 방해한 악들로부터 보존함에 관하여 내적인 것으로부터 유입이 있다. ‘명령하는 것’=안으로 흘러들.

창50:16-‘당신의 아버지께서 그가 죽기 전 명령하시어, 말하기를’=그것은 교회의 명령으로부터였다는 것...‘명령하는 것’=유입, 여기서 명령하다, 교회이기 때문, 고로 신성으로부터.

출1:22-‘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다’=교회의 진리들에 반대하는 과학물 안으로 일반적 유입이 있다. ‘명령하는 것’=유입, 여기서의 일반적 유입, 바로로부터이기 때문.

출5:6-‘바로가 그 날 명령했다’=이 상태에서 동안 교회의 진리들에 침입하고 싶은 욕심. ‘명령하는 것’=명령, 그리고 악의 명령에서 악을 행하는 욕심이 있다, 명령이 그것들로부터 오는 이유는 ‘그가 명령했다’에 의해 탐욕 또한 의미되기 때문.

출7:2-‘너는 내가 네게 명령할 모든 것을 이야기 할 것이다’=신성한 유입을 받아들임, 그리고 교통함. ‘명령하는 것’=유입, 여기서 유입을 받아들임...‘명령하는 것’=신성한 법 안으로 신성이 직접 유입됨.

출15:26-‘만일 네가 그분의 명령들에 귀기울일 것이라면’=신성으로부터의 선에 의거 순종과 삶, 이것은 교회의 내면들이다...‘명령들’=말씀의 내적 진리들, 고로 교

회의 내면들인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이것들이 신앙으로부터의 선이라 불린다, 그이유는 그들이 뜻하기 때문.

출16:16-‘여호와께서 명령했던 이 말씀’=신성으로부터 그것에 관하여 명령함...‘명령하는 것’, 여호와에 의해서 일 때,=명령.

출16:24-‘모세가 명령했던 대로’=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의한 가르침에 따라. ‘명령하는 것’=가르침.

출16:28-‘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내 명령들과 법들을 지키기를 거절할 것이나?’=그들은 신성한 질서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

출18:23-‘네가 이 말을 행하라고 하느님이 명령했다면’=고로 그것이 신성으로부터 이다는 것.

출20:6-‘그리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것’=신성으로부터 진리들을 받는 자.

출23:15-‘내가 네게 명령했던 대로’=질서의 법들에 따라. ‘명령하는 것’, 주님에 의해서 일 때=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그이유가 이 진리가 예배에 관한 교훈과 생활에 관한 지침들을 포함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

출24:12-‘법과 명령’=일반적, 세부적 측면에서의 진리... ‘명령’=세부적 측면의 진리... 법의 몇가지 세부적인 것들은 ‘명령들’이라 불리운다.

출31:6-‘그들은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을 만들 것이다’=말씀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들은 외적인 것들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그이유가 신성한 진리들은 ‘주님의 명령들’이라 불리우기 때문.

출34:4-‘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그들이 긴급해졌기 때문에 행해졌다는 것...이 말은 이스라엘 국가에 연결하여 종종 말해졌는데, 이는 흡족하시어 있는 명령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긴급해져서 행하라고 하신 허용일 뿐이다.

출34:11-‘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것을 지켜라’=만일 그들이 신성한 진리의 이 제일가는 사항들을 행한다면...그이유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은 신성한 진리들이기 때문.

요14:15-24, 15:9-14-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것임을 요한

명예

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치신다. 즉 '만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켜라. 내 명령들을 가진 이,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는 이, 그는 나를 사랑하는 이이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내 말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가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거처를 만들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만일 네가 내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면,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지 행한다면 너는 나의 친구들이다.' 선행(charity)과 신앙에 관한 교리는 명령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 교리는 지켜져야 하는 명령들이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교리들이다.

출34:32-'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 하였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했다'=표현되어져야 하는 제일의 진리들에 관하여 천국으로부터 계시된 명령. '명령하는 것', 여호와에 의해 모세에게 일 때,=명령.

출34:34-'명령되는 것'=통보되는 것.

막10:17-21-그가 명령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예수께서 말하신다, 그러나 세 가지 것들이 결핍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14:21-'명령들을 가지는 것'=아는 것. '명령들을 행하는 것'=사랑하는 것.

계22:14-'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그들은 복있다. 그들의 힘(Power)은 생명의 나무에서 있을 런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문을 수단으로 도성 안으로 들어갈런지 모른다'=그들이 사랑을 통하여 주님 안에, 주님이 그들 안에,, 그리고 그분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그분의 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님의 명령들에 따라 사는 이들은 영원한 행복을 즐긴다.

레26:3-선행의 생활이 '규례 안에서 걷고, 명령들을 준수하며 행하는 것'에 의해 뜻해져 있다.

시112:1-'그분의 명령들에서 크게 즐거워지는 것'=그분을 사랑하는 것, 고로 명령들을 뜻하고 행하는 것.

명예 (honour)

존경하다 (honour)

요5:23-'그들이 아버지께를 존경하듯 모든 사람이 아들

을 존경할런지 모른다는 것.

창34:19-'(세겔은) 그의 아버지의 모든 집 (식구들) 보다 존경되고 있었다'=고대인들과 더불어 교회의 진리들로부터 첫째인 것. '모든 것 위에서 존경되는 것'=첫째인 것...태고 교회에서 '존경됨'이라 불리운 자가 고대 교회에서는 '제 1 인자'라 불리웠다.

이35:2-영적 선, 또는 선행이 뜻해질 때, 갈멜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명예'로 서술되고 있다.

출8:5-'나를 존경한다'=신성으로부터의 법은 신뢰되어야 한다는 것. '존경하는 것'=신뢰하는 것.

레23:40-'명예의 나무의 열매'=천적 선.

출20:12-'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존경하라'=선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 최고 의미에서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사랑하는 것. '존경하는 것'=사랑하는 것. 그이유는 영적 의미에서 존경은 사랑이기 때문. 천국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는 또한 존경한다. 그이유가 존경함 안에 사랑함이 있기 때문. 거기서는 사랑함이 없는 존경함은 거절되어진다. 그이유는 선으로부터의 생명 없이 있기 때문.

이60장-그분의 신성의 인간으로부터 신성의 진리가 '빛', '명예', '영광'이라 불리운다.

시104:1-주님이 입으신 '영광과 명예'=신성의 진리.

이9:15-악(이) '노인과 존경된 자'(에 의해 의미된다).

시104:1-'영광과 명예를 입는 것', 여호와에 관련해 말해질 때=신성의 진리와 신성의 선으로 그분 자신을 떠두르는 것.

시111:3-이 모든 것이 신성의 진리에, 그리고 신성의 선에 연관되는바, '그분의 일은 영광과 명예이다'라고 말해진다.

시145:5,12-'당신의 영광의 장엄함의 명예'=신성의 선이 신성의 진리에 결합함. '명예의 영광'=신성의 진리가 신성의 선에 결합함.

시21:5-'그분에게 영광과 명예'=모든 신성의 진리와 신성의 선.

시45:3,4-신성의 진리로부터 그분은 지옥들을 복종케 하시고, 천국들을 질서 있게 배열하셨기에, '영광과 명예 안에서 강력하심'이라 말해진다; 그리고 '명예 안에서 신성의 말씀 위에 올라 타신다'=신성의 진리를 통하

(신성을)모독하다

여 신성의 선으로부터 행하시는 것.

계21:24,26-‘그들은 그것 안으로 자기들의 명예와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주님을 사랑함의 선으로부터, 그리고 선행의 선으로부터 있는 신앙의 진리들로부터 예배함.

신33:17-‘수소의 첫 출생, 그는 명예를 가지고 있다’=영적 사랑의 선.

호14:6-‘올리브의 명예’=천적 선.

계7:12-‘감사함과 명예’=이는 세 천국들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진행하는 신성의 선으로부터 있다...‘감사와 명예’는 신성의 선을 받음에 관해 말해지고 있다.

이9:15-‘존경되는 자’=선으로부터의 지혜.

호11:10-‘명예와 더불어 바다의 아들이 가까이 끌어당긴다’=자연적 선 안에 있는 이들이 교회로 가까이 끌어당겨질 것이다.

나3:10-‘존경받는 자’=사랑의 선들.

말1:6-‘존경’이 선으로부터의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경외함’은 진리들을 통하여 예배함에 관해서 말해지고 있다.

이25:3-여기서 선으로부터의 예배가 ‘존경함’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그이유가 ‘존경’은 사랑의 선을 서술하기 때문.

(신성을) 모독하다 (blaspheme)

왕하2장-곰들에 의해 찢겨 죽은 아이들은 말씀에 욕설을 해대는 이들을 표현했다.

레24:16-‘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악의가 가득한 거짓들을 수단으로 예배로부터 있는 진리들과 선들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

출9:9-‘상처가 고름을 가지고 생겨날 것이다’=거기로부터 신성을 모독하는 불결한 것들.

출21:15-‘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쳐죽이는 자’=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모독함. ‘쳐죽이는 것’=거짓을 수단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 그리고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서술할 때=신성을 모독함.

출22:28-‘너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 것이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은 모독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

마12:31-‘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주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모독하는 것’=잘못된 해석

을 함으로 해서 말씀을 향한 어떤 것.

계2:9-‘유대인이라 말하는 그들의 모독하는 말’=자기들과 더불어 사랑의 선이 있다고 하는 거짓된 주장.

계13:1-‘신성 모독의 이름들이 그들의 머리들에’=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부정함, 그리고 교회의 교리가 말씀으로부터 부화(hatch)되지 않고 자기들의 총명으로부터 임.

마12:31-‘모독함’=마치 소시니안(Socinian)들이 하듯 주님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부정하는 것.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이유가 주님의 신성은 천국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기 때문. 그리고 말씀을 부정하는 자는 종교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

계13:5-‘그에게 큰 것들과 모독들을 말하는 입이 주어졌다’=그들은 악들과 거짓들을 가르친다는 것...‘모독들’=왜곡된 말씀의 진리들, 고로 거짓들...

계13:6-‘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였다’=그들의 말들, 이는 주님의 신성 자체와 신성한 인간에 장애물이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예배되어지는 수단인 말씀으로부터의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장애물이다...‘모독들’=말씀, 그리고 여타 많은 것들을 왜곡함. 여기서의 경우, 장애물들, 그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이 뒤따르기 때문.

계16:9-‘그들은 이런 재앙들 넘어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그들은 주님의 인간의 신성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부정하는 것, 또는 주님의 인간의 신성을 인정 않는 것, 또는 말씀의 거룩함을 인정 않는 것. ‘모독하는 것’=부정하는 것, 또는 인정 않는 것.

계16:11-‘천국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천국과 땅의 하나님이 주님 뿐임을 인정 않는 것, 또는 부정하는 것.

계17:3-‘모독의 이름들로 가득함’=그들에 의해 모독된 말씀...‘모독’=주님의 인간에 있는 그분의 신성을 부정함, 그리고 말씀에 섞임질함, 고로 모독함(profanation). 이렇게 모독하되 어떤 의도를 놓지 않는 모독의 경우는 경미한 모독이라 말할 수 있으나, 의도가 깔린 모독, 즉 교회와 천국의 거룩한 것 위에서 지배력을 휘두르고자 하는 따위들은 심각한 모독이다.

모독하다 -모든-모래

마12:31-천적 의미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은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하신 것을 뜻한다. 즉 '모든 죄와 모독은 인간에게 용서되어질 수 있으나, 영(the Spirit)을 모독함은 용서되지 않을 것이다.' '영의 모독'은 주님의 인간이 신성함을 모독함, 그리고 말씀의 거룩함을 모독함을 뜻한다.

계17장-'모독의 이름들'=선애 섞음질함과 말씀의 진리를 왜곡함, 이것은 주님에 대한 모독들이다.

계16:21-'하느님을 모독하는 것'=말씀을 왜곡하는 것.

모독하다 (profane)

말2:11-그들은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라고 한 것은 이런 영적인 것들을 중시한 것이다. 즉,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은 결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이유가 이로부터 모독이 오기 때문. 즉, '유다는 여호와와의 거룩함을 모독했다, 그는 이상한 신의 딸을 사랑했고 결혼했다.'

마24:19-22에서-(교회에 있는 선과 진리를 곡해함(perversion)의) 네 번째 상태, 이는 선과 진리를 모독함이다.

마24:23-28에서-이런 교회의 상태를 취급한다, 즉 외적 예배는 거룩해 있는 이들, 그러나 내적 예배는 모독된 상태이다. 즉 그들은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나, 심정에서는 자신과 세상으로 차있어, 주님에 대한 예배는 명예와 부를 얻는 자기들의 수단일 뿐이다. 이들이 주님과 천국의 삶, 그리고 신앙을 인정하는 만큼에 비례해서 모독도 그만큼 더해진다.

겔28:7-'그들은 네 아름다움을 모독할 것이다.'

창49:4-'르우벤이 빌하와 누웠다...'=분리된 신앙을 통하여 선을 모독함...'그다음 너는 그것을 모독했다.'

이43:28-'나는 성소의 왕자들이 모독이 되게 할 것이다.'

출20:25-'모독하는 것'=어떤 예배도 있지 않게 하는 것.

레19:7-신성한 것과 인간의 자아가 결합하는 것...모독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말해지는 바, '아침까지 남은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와의 거룩한 것을 모독한다.'

출31:14-'(안식일을) 모독하는 자'=주님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들과 자신의 사랑들로 인도되는 것.

겔13:19-진리를 왜곡함이 '너는 내 백성과 더불어 나를 모독했었다'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창49:3,4-'그다음 너는 그것을 모독한다'=자아와 세상을 사랑함과 결합.

이24:5-선으로부터 있는 참 진리들(the Truths)을 모독함이 '토지는 그곳의 거주민들 아래 모독될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모든 (all)

창19:4-'외곽 지역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그것들의 각각과 모두.

창20:7-'모든 것'=내향의 의미에서 모든 것.

창33:9-'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그의 영적인 재물.

창42:32-'우리는 열 두 형제인데...'=한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

창47:24-'네 집에 있는 이들'=진리로부터 선애 있는 각각의 것과 모든 것. 고로 '네 집에 있는 이들의 양식을 위해'=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에 있는 진리로부터의 선.

출25:36-'속이 비지 않은 순금 하나'=전체의 양, 고로 선으로부터의 모두...선으로부터 있는 전부애 의해 선은 모든 것에서 모두...이는 진리들에서 뿐 아니라 과학물에서 까지 모두를 뜻한다...선은 생산물 그리고 파생적인 것에서도 모두이다.

출26:17-'모두'가 천국에 관련해 말해질 때=모든 곳.

출29:46-'그들의 한가운데에 나 자신 거주하는 것'=주님의 신성, 이것은 천국과 교회의 모든 것 안에 전부이다는 것.

모래 (sand)

이48:19-'자손이 모래 같이'=선.

창22:7-'해안가에 있는 모래 같이'=상응하는 과학물들의 많음...'모래'=특수적 그리고 세부적 측면에서의 과학물들. 과학물들이 모래에 비교되어지는 이유는 아주 작은 돌로 존재하는 모래는 내적 의미에서 과학물들이다.

창41:49-'요셉은 바다의 모래 만큼 같이 곡식을 쌓았다'=선으로부터의 진리가 불어남...(의지와 행동에 있는

모레-모르는 사람

진리의) 증가함이 '바다의 모레'에 비교할 때, 이것은 선으로부터 임을 의미한다.

출2:12-'그는 모레 안에 그를 숨겼다'=그는 그것을 과학물들이 있는 곳에 좌천했다(relegate)는 것...'모레'=과학적 진리. 여기서의 경우, 과학적 거짓. 모레의 근원인 돌은 위와 같이 양 측면의 의미를 가진다.

신33:19-'모레로 감추인 것을 덮은 것'=과학적 진리들의 신비.(=말씀의 글자 의미 안에 감추여 누운 영적인 것들)

계13:1-'나는 바다의 모레 위에 섰다'=첫 번째 천국에 있는 이들과 같이 지금 그의 영적 자연적 상태.

계20:8-'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레 같다'=이와 같은 불어남...'모레'는 바다에서 바닥을 만드는 것 외에는 쓸모 없는바 무용지물을 섬기는 것이 의미된다.

마7:26-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에 있는 이들이...'모레 위에 자기들의 집을 지은' 이들에 의해 뜻해진다..'모레'=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예33:22-'바다의 모레'=자연적 인간에 있는 이런저런 지식들.

마7:26-'모레'=기억 안으로 대부분 받았을 뿐 생각 안에는 아주 조금 받은 신성한 진리, 고로 흐트러져 있고, 비연결되어 있다, 그이유는 거짓에 의해 썩고, 사상들에 의해 왜곡되었기 때문.

합1:9-모든 진리들이 거짓들을 통하여 파괴되어지라는 것이 '그는 포로들을 모레 만큼 그러모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모레 (Moreh)

창12:6-'모레의 상수리나무 숲'=(주님의) 세 번째 상태이다.

창12:6-'모레의 상수리나무에 조차'=세 번째 상태; 즉, 첫 번째 지각, 이는 '모레의 상수리나무'이다.

창12:6, 신11:29-30-상수리나무 숲의 나무들에 의해 외면의 지각들, 과학적인 것들...이로부터 '모레의 상수리나무'=주님의 첫 지각; 그이유는 그분이 아직 어린아이이셨기 때문...더우기, 모레의 상수리나무숲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요르단 강을 건널 때 처음 왔던 곳, 그리고 가나안의 토지를 보았던 곳, 이 지역에 의해 지각의 첫 번째가 의미된다.

* '마르레의 상수리나무'에 의해 의미되는 지각이...'모레의 상수리나무'에 의미되는 것보다 더 내면적이다.

모르는 사람 (foreigner)

창17:12-'네 씨가 아닌 모르는 사람인 모든 아들...'교회 밖에 있는 이들...신앙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 안에 있지 않은 이들, 그 이유는 그들이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서. '모르는 사람인 아들'=외적 예배 안에 있는 이들. 그이유가 거기서 교회 내에 있는 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 그러나 여기서서는 보편적 측면에서 주님의 교회가 취급되는 바, '모르는 사람인 아들'=이방인의 경우 같이 교회 내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들...이들이 모르는 사람인 아들들, 씨가 아닌 아들, 할례 받아져야 하는 이들, 즉 깨끗해져야 하는 이들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겔44:7,9-(선행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비록 교회 내에서 태어나졌다 해도 '모르는 사람인 아들들, 심정이 할례받지 않은 이들, 육이 할례받지 않은 이들'이라 불리우고, 성소, 즉 주님의 왕국에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창17:27-'모르는 사람의 아들로부터...'=교회 밖 합리적인 모든 사람.

창35:2-'너희 가운데 있는 모르는 사람의 신들을 내버려라'=거짓들은 거절되어야 하리라는 것...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모르는 사람, 즉 거짓들과 악들에 있는 사람이라 불려진다.

이56:3-'모르는 사람의 아들'=진리 측면에서 자연적 인간. 그 이유가 주님의 교회는 외적, 내적 측면이 있는 바, 외적 교회 속에 있는 그들은 자연적이다...자연적인 그들...그러나 아직 진리 안에 있는 그들이...'모르는 사람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진실로 영적 또는 내적 인간들은 교회 내에만 존재할 수 있기에, '모르는 사람의 아들들'에 의해서는 교회 밖에 있는 이들, 또는 이방인들, 그리고 계속 자기들의 종교에 따라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어진다.

출12:43-'모르는 사람의 모든 아들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진리와 선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진다는 것. '모르는 사람'=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신앙 속에 있는 진리와 선에 관한 어떤 것을 인

모리아-모반하다-모세

정하지 않는다...고로 진리와 선 안에 있지 않다.

출21:8-'그는 모르는 사람의 백성에게 그녀를 팔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교회의 신앙 속에 있지 않은 이들 에게는 아니다. '모르는 사람'=교회 밖의 사람, 고로 교회의 신앙 속에 있지 않은 자.

신23:20-모르는 사람에게 고리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된 이유, '모르는 사람'에 의해 선과 진리에 관한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이들, 고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만 선을 행하는 이들이 의미되기 때문에 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하인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슌1:8-'모르는 사람의 의복으로 차려입은 이들'=거짓들에 있는 이들.

시144:7-'모르는 사람의 아들들'=거짓들에 있는 이들, 고로 거짓들인 것은 매우 확실하다; 그 이유가 말해지는 바, '이들의 입은 무익한 것을 말하고 그들의 오른 손은 거짓말의 오른 손이다.'

예8:19-'모르는 사람의 덧없는 것들'=종교의 거짓들.

신17:15-'네 형제가 아닌 모르는 사람'=깊은 신앙이 일치 않는다; 그리고 또한 선이 없고 거짓들이다.

애5:2-'우리의 상속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돌아갔다'=교회 속의 진리들이 거짓으로 변화되었다. '우리의 집이 외국인에게'=교회의 선이 악으로 변화되었다.

욥11절-'그의 강함을 포로로 잡아 끌고간 모르는 사람'에 의해 교회 속의 진리들을 파괴하는 교회 속의 거짓들이 의미되어진다....'그의 문으로 들어간 외국인들'에 의해 내면의 진리로 진입할 수도 있는 진리를 파괴하는 고리 속의 거짓들이 의미되어 있다.

욥3:17-'악의 거짓들이 거기에 있지 않을 것임이 '더 이상 그녀를 통과하여 가는 모르는 사람은 있지 않을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모리아 (Moriah)

창22:2-'모리아의 토지로 가라'=시험의 장소와 상태...'모리아의 토지'=시험의 상태인 것은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가도록 명령받았다는 사실, 그의 아들들 거기서 번제로 바쳤다는 것, 고로 시험의 마지막 번제를 수행했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해진다. 예루살렘, 거기서 주님 자신께서 마지막 시험을 이겨내셨는데, 모리아와 같은

장소이다. 모리아산은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 후에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지어졌다. 대하3:1, 대상21:16-28, 삼하24:16-25도 비교참조.

모반하다 (rebel)

겔12:2-'그들은 모반의 집이다'=이해할 수 있는 이들, 그러나 뜻하지 않는다.

창14:4-'3년째에 그들은 모반했다'=(그분의) 어린 시절에 시험이들의 시작.

겔12:2-'악들 때문에 이것은 '모반의 집이다.'

시5:10-'당신에 맞서 모반하는 이들.' 변절과 범법이 있을 때, '모반이다'고 말해진다.

이3:8-(신성한 진리에) 맞서 있는 것이 '그분의 영광의 눈에 모반하는 것'에 의해 의미된다.

모세 (Moses)

눅9:31-'주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에 의해 구약 성서의 말씀이 표현되어지고 있다, 구약 성서는 또한 '모세와 예언자들'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모세는 그의 책들, 또한 역사 부분의 책들을 말한다.

눅16:31-'모세와 예언자에게 듣는 것'=말씀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 안에서 신앙을 가지는 것, 고로 또한 그것들을 뜻하는 것...

시106:23-'모세'=말씀.

출2장에서-최고 의미에서 '모세'는 신성으로부터의 법 (the Law Divine), 즉 말씀(the Word)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 그리고 관계적 의미에서, 교인과 더불어 신성으로부터의 진리(truth Divine).

출2:2-'그녀가 아들들 낳았다'=근원적 측면에서의 신성으로부터의 법...그 이유는 '그녀의 아들'은 모세를 말하고, 모세는 신성으로부터의 법, 또는 말씀 측면의 주님을 표현했기 때문.

출2:9-'나를 위하여 그에게 젖을 물리게 하라'=광신적 신앙에 일치하여 선이 그것 안으로 은근히 심어지러는 것.

출2:11-'모세는 자랐다'=...과학적 진리들에서 증가함.

출2:12-'그는 이집트인을 처죽였다'=떨어진 과학물을 파괴했다는 것.

출2:13-'그는 두 번째 날 밖에 나갔다'=교회와 다시

모세

결합함.

출2:14-‘누가 너를 사람을 위한 왕자로 앉히고 우리를 재판하는가?’=교회내의 불일치를 조정할 만큼 신앙의 진리들 안으로 아직은 전진하지 못했다는 것...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인간 안에서 신성으로부터의 법의 시작에 관한 것을 취급한다. 지금의 경우, 이 법의 전진(progress)에 관한 것을 취급한다. 그리고 내적 의미에서 거듭나고 있는 인간과 더불어 신성한 진리의 발전에 관한 것을 취급한다. 이 발전에서, 첫 단계는 인간이 거짓과 진리 사이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진리로부터 거짓인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첫 단계에서 그는 교회 내에 있는 신앙의 진리 사이에 불일치를 중재할 수 없다. 이를 행하기 위하여서, 그는 반드시 더 발전하여야 한다. 그이유가 인간은 계속적으로 예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2:14-‘그리고 모세는 두려웠다, 그리고 말했다, 정녕 이 말은 알려졌다’=그는 멀어진 과학물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안전해지기 위해서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것.

출2:15-‘그리고 바로는 이 말을 들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거짓 과학물이 이를 지각했을 때, 그것은 신성으로부터 법 속에 있는 진리를 파괴하길 원했다는 것...‘모세’=신성으로부터의 법, 그리고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고로 신성한 법으로부터 있는 진리. 여기서 법이 아니고 진리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주님의 인간 안에서 신성으로부터의 법의 발전에 관하여 아직도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2:17-‘모세는 일어나서 그들을 도왔다’=신성으로부터의 법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 원조함이 있음.

출2:19-‘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었다’=교회에 인접된 과학적 진리가 악으로부터의 거짓의 교리의 힘을 압도했기 때문에...모세가 여기서 ‘이집트 사람’이라 불린 이유는 여기서 ‘모세’에 의해 단순한 선의 진리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진리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출2:20-‘그리고 그는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이 사람을 남겨놓았느냐?’=어떻게, 이 진리 없이, 그들이

교회의 선들과 결합할 수 있는가.

출2:21-‘모세는 이 사람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다’=그들은 함께 동의했다는 것. ‘모세’, 여기서=과학적 진리.

출2:21-‘그가 나는 낯선 토지의 체류자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그것 자신 아닌 교회에서의 진리들로 훈육되어졌다는 것.

출3:1-‘모세는 미디안의 성직자,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었다’=신성으로부터의 법이 단순한 선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훈육하고 있다는 것...‘모세’=신성으로부터의 법 측면에서의 주님. 그러나 시작에서, 신성으로부터 법 속에 있는 진리 측면, 그러나 여기서의 경우, 신성으로부터의 법 측면, 고로 인간 측면에서 그분이 만들었기 이전, 주님 안에서 발전함의 등차가 신성 자체로부터의 법으로 명명될 수 있을런지 모른다.

출3:3-‘모세가 말했다’=신성으로부터 법으로부터 지각함.

출3:4-‘그리고 그분은 말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바라보고 있나이다’=내적 권면과 들음.

출3:5-‘네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감각적인 것들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

출3:6-‘그리고 모세는 그의 얼굴을 덮었다’=내면들은 보호되었다는 것.

출3:10-‘그리고 지금 가라,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주님의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거룩함, 이를 수단으로 감염시키는 거짓들이 사라질 것이다. 가기로 된 ‘모세’=신성으로부터의 법 측면에서의 주님. 고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 그이유가 주님이 세상에 있으셨을 때, 그분은 먼저 그분의 인간을 신성한 진리로 만드셨기 때문, 이는 신성으로부터의 법과 같다.

출3:11-‘그리고 모세는 하느님에게 말했다’=신성으로부터 지각함, 그리고 굴종(humiliation)...‘모세’=신성으로부터의 법 측면의 주님.

출3:12-‘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신성이 (주님의) 인간 안에 있으리라는 것. ‘모세’=신성으로부터의 법 측면에서의 주님. 고로

모세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

출3:13-‘그리고 모세가 하느님에게 말했다’=신성으로부터 지각함(perception).

출3:14-‘그리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첫 가르침. ‘모세’에 의해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그리고 모세에 의해 백성에게 말함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에 의해 영적(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게.

출3:18-‘그리고 너는 들어가서...이집트의 왕에게 (갈 것이다)’=거짓 안에 있는 이들과 교통함...‘모세’=신성으로부터의 법.

출4장에서-신성으로부터의 법에 관한 것을 취급한다. 진리가 그것의 선에 인접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고로 이 선은 구원할 힘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희망과 신앙을 은근히 심어주었다는 것. 모세는 선 측면에서의 신성으로부터의 법, 아론은 진리 측면에서의 신성으로부터의 법을 표현한다.

출4:1-‘모세가 대답하여 말했다’=신성의 법으로부터 생각함...모세는 신성의 법 측면에 관한 주님을 표현한다. 신성의 법으로부터의 생각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부터 [생각함]이다.

출4:3-‘모세는 그것 앞으로부터 달아났다’=분리된 감각적 평면에서 소름끼침.

출4:4-‘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의 섭리...모세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 고로 신성으로부터의 섭리는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인간 측면의 주님을 서술한다.

출4:5-‘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한다’=그들이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한 신앙을 가질런지 모른다는 것.

출4:9-‘(만일 그들이) 너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라면’=만일 그들이 순종의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는다면...그들이 들어야 할 모세의 음성은 신성한 법 측면의 주님을 표현한다. 즉 신성한 진리 측면, 고로 말씀 측면, 그이유가 신성한 진리가 말씀에 있기 때문.

출4:10-‘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다’=신성으로부터의 지각...모세는 그분이 세상 계셨을 때 인간 안에 있는 신성한 법 측면의 주님을 표현한다.

출4:12-‘나는 네 입과 더불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야기 할 것을 내게 가르칠 것이다’=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에 있는 신성... 이런 사항들이 모세에게 말해지는바, 모세에 의해 신성한 인간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법 측면의 주님이 표현된다.

출4:13-‘부디 보내도 될 성 싶은 자를 보내소서’=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는 간접적으로 발음되어야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모세는 말씀 측면의 주님, 즉 신성한 진리 측면의 주님을 표현한다.

출4:14-‘그리고 여호와와 노염이 모세에게 지퍼졌다’=관대하심...그이유는 이것이 모세에게 말해졌기 때문, 모세에 의해 그분이 세상에 계셨을 때, 신성한 진리 측면의 주님이 표현되어진다.

출4:15-‘너는 그에게 말할 것이다’=유입.

출4:18-‘그리고 모세는 갔고 되돌아 갔다’=이전 생활이 계속되는 것. 모세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또는 법 측면의 주님을 표현한다.

출4:19-‘그리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했다’=그 상태에서 신성에 의한 예증과 확증.

출4:20-‘그리고 모세는 그의 아내를 데려갔다’=선이 인접되었다. ‘모세’는 신성으로부터의 법, 또는 진리 측면의 주님을 표현한다.

출4:21-‘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 지각함...(여기서) 새로운 지각.

출4:24-‘그리고 그는 길을 가는 중에 여관에 있었다’=야곱으로부터의 후손, 그들은 내적인 것 없는 외적인 것들에 있었다...이 3절에서 영적(왕국의) 교회를 취급한다. 이 교회는 야곱의 자손들과 더불어 설립되어져 왔으나 그것은 그들과 설립될 수가 없었다, 그이유는 그들이 내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 이런 이유로 모세는 여기서 법 또는 말씀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 국가, 또는 그가 이끌게 될 야곱의 후손을 표현한다, 고로 그는 이 국가의 예배 또한 표현한다...이로부터 이 구절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명명되지 않고 그(he)라고 말해지고 있다. 즉 ‘그는 길을 가면서 여관에 있었다 그리고...여호와께서 그를 만났다. 그리

모세

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가 가서 이집트로 되돌아 가야한다고 아주 명백히 말하셨던 이전의 그 때를 아직도 그분은 가지고 있으셨다.

출4:25-‘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피들의 신랑이다’=그것은 진리와 선을 향하여 모든 증오와 적개심으로 꽂차 있었다는 것. 이 3절(24,25,26)에서 모세는 이 국가를 표현하고, 이 국가와 더불어는 교회도 표현한다. 그리고 십보라는 표현 교회를 표현한다. 십보라가 이 교회를, 모세는 그것의 외적인 것을 표현하는바, 그녀는 그를 자기의 남편, 또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자기의 신랑’이라 부른다. 그이유가 신부는 여러 가지 것을 표현할 수 있으나 아내는 그렇지 않다.

출4:26-‘그리고 그분은 그(모세)로부터 단념했다’=그들이 표현하는 것이 허락되어졌다는 것.

출4:27-(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하셨다) ‘모세를 만나러 가라’=(교리의 진리는) 신성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진리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출4:28-‘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들을 이야기했다’=직접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가 간접적으로 진행되는 진리 안으로 유입됨, 그리고 교리의 각각의 것에 가르침이 있음.

출4:29-‘그리고 모세는 갔다, 그리고 아론’=양쪽이 결합된 삶. 즉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것과 간접으로 진행되는 것이 결합된 삶.

출5:1-‘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왔다’=신성한 법과 파생된 교리...모세가 표현하는 신성한 법에 의해, 내적 의미로 있는 말씀, 또는 천국에 있는 말씀이 표현되어 진다.

출5:4-‘어찌하여 너희,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자기들의 일로부터 몰아내려드느냐?’=그들의 신성한 법과 교리가 그들을 슬퍼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면제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모세는 신성한 법 측면의 주님을 표현한다.

출5:20-‘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났다’=신성한 법과 파생된 교리에 관한 생각.

출5:22-‘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에게 되돌아 와서 말했다’=신성으로부터의 법으로부터 불평함.

출6장에서-‘모세’는 신성으로부터의 법 속에 있는 것들

을 표현한다.

출6:1-‘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의 법에 관한 가르침.

출6:2-‘그리고 하느님이 모세에게 이야기 하셨다’=새로운 것, 그러나 이전에 진행하던 것의 계속이기도 한 것.

출6:9-‘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주님의 영적 왕국 속에 있는 이들에게 신성으로부터의 법으로부터 권면함(exhortation)

출6:10-‘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어, 말하기를’=계속됨.

출6:12-‘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이야기하여 말하기를’=신성으로부터 법, 그리고 파생되는 생각.

출6:13-‘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이야기하셨다’=신성으로부터의 법으로부터, 동시에 교리로부터 새로이 가르침(instruction).

출6:20-‘그녀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그때부터 그들은 교회의 교리와 신성으로부터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출6:26-‘이것은 아론과 모세이다’=(선행과 신앙)으로부터 그들과 더불어는 교리와 신성으로부터의 법이 있었다는 것...이것들, 즉 신성으로부터의 법과 교리는 영적(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말씀으로부터 주로 출현했다는 것, 그러나 설립자들과 더불어 존재했던 신앙과 선행은 적용하는 수준에 아직도 있다는 것.

출6:28-‘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토지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아직도 지옥들에 있는 이들과 친근해 있는 동안인데, 명령이 주님의 영적 왕국 속에 있는 이들에게 신성으로부터 법을 통하여 주어졌을 때 교회의 상태.

출6:30-‘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말했다’=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신성으로부터의 법에 관해 하는 생각.

출7:1-‘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가르침. 여기서 어떻게 거짓들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진행되는지, 그리고 감염시키는지(에 관하여 가르침).

출7:2-‘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이야기 할 것이다’=신성한 유입을 받아들임...이야기해야 하는 모

모세

세=신성한 진리...‘이야기하는 것’=교리 안으로 신성한 진리의 간접적 유입...

출7:7-‘그리고 모세는 80년의 아들(80세)이었다’=신성으로부터 법의 품질과 상태.

출7:8-‘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말하셨다’=가르침.

출7:9-‘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말할 것이다’=유입과 교통. 즉 모세가 표현하는 신성으로부터의 법이 아론이 표현하는 교리와 교통하고 유입이 있는 것. 이렇게 되는 이유는 신성으로부터의 법은 내적 진리이고, 교리는 외적 진리이기 때문.

출7:19-‘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집행.

출7:26(8:1)-‘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새로운 가르침.

출8:1(8:5)-‘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가르침...모세는 신성으로부터의 법을 표현한다, 이를 수단으로 여호와로부터의 가르침이 결과된다.

출8:5(8:8)-‘그리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신성으로부터의 법이 현존함(presence)...모세는 내적인 법, 아론은 외적인 법을 표현한다.

출8:5(8:9)-‘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대답.

출8:8(8:12)-‘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으로부터 나갔다’=거짓들로만 추론하는 이들로부터 분리함...모세와 아론은 신성으로부터의 법, 모세는 내적인 법, 아론은 외적인 법을 표현한다.

출8:9(8:13)-‘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에 따라 행하셨다’=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행동되었다는 것. 모세가 탄원한 것은 참으로 모세의 입으로부터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는 주님으로부터였다.

출8:16(8:20)-‘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다시 가르침.

출8:25(8:29)-‘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보라 나는 당신으로부터 나간다’=그들과 더불어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나타남을 제거함. 모세는 신성으로부터의 법, 고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역시 표현한다.

출9:1-‘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새로운 가르침.

출9:8-‘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그것들을 뿌려라’=이런

거짓들이 천국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졌다는 것.

출9:13-‘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행동 되어야만 하는 것에 관하여 다시 가르침.

출9:22-‘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명령.

출9:23-‘그리고 모세가 하늘로 자기 막대기를 뻗었다’=천국과 교통함.

출9:35-‘모세의 손에 의해’=신성으로부터의 법을 수단으로.

출10:1-‘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명령, 즉 바로에게 가져다주어야만 하는 것들.

출10:3-‘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왔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현존함...모세와 아론=신성으로부터의 진리. 모세는 내적인 것, 아론은 외적인 것.

출10:6-‘그리고 그는 뒤를 보았다, 그리고 바로로부터 나갔다’=통각(apperception)을 상실함, 그리고 분리함...이를 말한 모세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표현한다.

출10:11-‘쫓겨내진 모세와 아론’=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표현한다.

출10:12-‘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가르침.

출10:13-‘그리고 모세는 그의 막대기를 이집트의 토지 넘어 뻗었다’=감염시키는 이들의 자연 평면 넘어에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힘이 지배함.

출10:16-‘그리고 바로는 성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두려워함...모세는 내적인 것, 아론은 외적인 것.

출10:22-‘그리고 모세는 그의 손을 하늘로 뻗었다’=천국에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지배함.

출10:24-‘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불렀다’=신성으로부터의 법의 현존함...감염시키는 이들과 더불어 신성으로부터의 법의 현존에 의해 그들은 재앙들이 오고 있음을 지각했다가 뜻해진다.

출11:3-‘더 나아가 인간 모세는 이집트의 토지에서 극도로 위대해졌다’=이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감염시키는 이들의 마음에서 존경받고 있다는 것.

출11:8-‘이후 나는 나갈 것이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는 떠날 것이다...(이를 말하는) 모세=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이런 사항들은 곧바른 자들을 감염시킨 이들이

모세

정죄되었음을 의미한다. 모든 진리가 그들로부터 떠나고 있다...

출11:9-‘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통지함.

출11:10-‘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이런 모든 경이로운 일을 행했다’=결과적으로 그들이 악 안에 있었다는 확증을 그들에게 주게 된 이런 황폐해짐들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결과되어졌다. (그 이유가) 모세는 직접 신성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를 표현하고, 아론은 간접으로 흐르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 이 경이로운 일들은 모세와 아론에 의해 행해진게 아니라 신성으로부터이다.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이 한 것 같이 말해지는 이유는 그들에 의해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이로운 일들은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를 수단으로 신성에 의해 행해졌다. 그 이유가 신성 자체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를 수단으로 행해지기 때문.

출12:1-‘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통보함...모세=직접 진행되는 진리.

출12:21-‘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현존과 유입에 의해 영적(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이해성에 예증함...모세는 신성으로부터의 법, 고로 말씀, 그리고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표현한다.

출12:31-‘(바로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이 상태 안에 신성으로부터 진리가 흘러둬...신성으로부터의 진리(truth Divine)라고 말하지 않고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truth from Divine)라 말해진 이유는 지옥에 떨어질 이들에 관해 서술하기 때문.

출13:1-‘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 하셨다, 말하시기를’=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신성으로부터 통보함.

출13:3-‘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가르침.

이63:11-‘모세’는 주님을 뜻하고 있다.

출14:13-‘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신성으로부터

의 진리를 수단으로 자포자기 상태에서부터 승강함...그 이유가 시험 상태에서의 모든 승강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결과되어진다, 이것이 ‘모세’에 의해 뜻해진다.

출14:15-‘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권면하심.

출14:21-‘그리고 모세는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뻗었다’=지옥 위에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힘이 지배함.

출14:26-‘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유입.

출14:31-‘(그들은) 여호와를,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다)’=신성한 선 측면의 주님,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와 섬김 측면에서의 주님.

출15:1-‘그다음 모세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노래했다’=해방됨 때문에 영적(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영광을 기림. 백성들과 더불어 모세는 이 교회를 표현한다. 이 백성의 머리가 모세인데, 그 이유는 그는 또한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기 때문.

출15:22-‘그리고 모세는 수프 바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행하게 했다’=그들이 지옥의 영역을 통하여 간 이후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명령에 따라 계속되는 것.

출15:24-‘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했다’=시험의 쓰라림으로부터의 고통...‘모세를 향하여’라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신성을 향해서 었기 때문. 그 이유가 모세에 의해 신성한 진리가 표현되었기 때문.

출16:9-‘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간접적으로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통하여 직접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유입됨.

출16:11-‘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 말하시기를’=주님의 신성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 이 안에 주님의 현존(임재하심, presence)이 있다.

출16:15-‘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신성으로부터 진리를 수단으로 통보함...모세는 신성으로부터 법 속에 있는 진리를 표현한다.

출16:20-‘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성을 냈다’=그들은 자신들로부터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막았다.

출16:28-‘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신성이 희미하게 나타남.

출16:33-‘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유입...그

모세

이유가 신성의 유입은 간접으로 진행되는 진리 안으로 직접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를 통하여 거행되기 때문.

출17:4-‘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외쳤다’=내면의 탄식, 그리고 모세에 의해 표현된 신성한 진리에 의한 중재(intercession)...

출17:9-‘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다’=전투하는 진리 안으로 신성의 유입...그 이유는 모세에 의해 신성한 진리가 표현되기 때문. 즉 직접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 순수하게 신성인 이 진리는 신앙의 모든 진리 안으로 흘러 그것들로 진리가 되게 해준다.

출17:10-‘그리고 모세, 아론, 그리고 후르’=계속적인 순서로 있는 신성한 진리들. 모세는 직접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

출17:11-‘모세가 자기 손을 들고 있을 때’=영적(왕국의) 교회인들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모세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표현한다.

출18장에서-제일로부터 최말단 까지 계속적 순서에 있는 진리들, 그것들은 신성한 선에 의해 임명되었다. 첫 등차에 있는 진리가 모세에 의해 표현되어진다.

출18:1-‘모세의 장인’=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결합된 선인 것으로부터.

출18:2-‘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려왔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결합한 신성으로부터 선...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모세에 의해, 신성으로부터의 선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출18:5-‘광야로 모세에게로’=거듭나기 전, 시험들이 있는 상태에서 결합함. (그이유가) ‘모세에게 오는 것’=모세에 의해 표현된 신성한 진리와 이드로에 의해 표현된 신성한 선의 결합이기 때문.

출18:7-‘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갔다’=신성한 선 쪽으로 신성한 진리의 적용(application)이 있음.

출18:8-‘모세는 장인에게 말했다’=그때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부터 지각함.

출8:13-‘모세는 백성들을 판결하려고 앉았다’=선으로부터 있기 이전 상태에 있는 영적(왕국의) 교회 사람

을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결말을 냄. 모세는 직접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표현한다.

출8:14-‘어찌하여 너 홀로 앉아 있는가?’=여느 다른 근원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의 유입 없이 있었다는 것. (그이유는) 직접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해 말해지기 (때문), 이것이 모세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출18:15-‘그리고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말했다’=응답하는 상호적인 것...그 이유는 모세에 의해 신성한 선에 하나되었거나 결합한 신성한 진리가 표현되기 때문.

출18:16-‘그들은 나에게 온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 그의 동료 사이에서 판결한다’=그들은 밝히 알려진 진리로부터 결말되어진다.

출18:17-‘네가 하는 이 말은 좋지 않다’=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출18:18-‘너와 너와 더불어 백성 둘 다 닳아 없어질 것이다’=이식되어진 진리는 멀해질 것이라는 것...모세에 의해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가, 백성에 의해 그것을 받는 이들이 뜻해진다.

출18:19-‘나는 너를 위해 조언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그것은 신성으로부터 이다는 것.

출18:20-‘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규례와 법을 가르칠 것이다’=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진리가 교회의 내적, 외적 선들과 진리들이다는 것.

출18:21-‘그리고 너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찾으라’=복종하는 진리를 선택함...여기서는 모세에 의해 표현된 신성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복종하는 진리들이다.

출18:22-‘그들은 중대한 말을 네게로 가져올 것이다’=모든 것은 신성으로부터 직접적인 진리로부터 이다는 것.

출18:24-‘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의 음성에 귀기울였다’=결과...모세에 의해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가 표현되어졌다. 이 진리는 그자체로는 어떤 것도 행동 안되고 신성한 선으로부터서만 가능하다.

출18:27-‘모세는 그의 장인을 떠나보냈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잘 조절됨.

모세

출19:3-‘그리고 모세는 하느님께로 올라갔다’=천국 아래 있는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가 천국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와 그 자체를 결합함. 모세, 여기서, 천국 아래 있는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표현한다. 그 이유가 지금 그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를 표현하기 때문. 고로 영적(왕국의) 교회의 사람들, 즉 이들은 아직 천국 안에 있지 않다, 그이유는 진리들에 의해 형태를 갖춘 선 안에 아직 있지 않기 때문.

출19:8-‘모세’는 천국 안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결합한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표현한다, 이것이 중재한다(mediate).

출19:9-‘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게시 에 관하여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수단으로 신성이 유입됨.

출19:14-‘그리고 모세는 산으로부터 백성에게로 내려왔다’=선 안에 있는 진리를 받기 위해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수단으로 준비되고 적용함.

출19:17-‘그리고 모세는 백성들로 하느님을 만나러 나가게 했다’=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힘이 그들이 신성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해줌.

출19:19-‘모세는 이야기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신성으로부터 있는 유입을 수단으로, 이 안에 신성 자체가 있었다.

출19:20-‘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산의 머리로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모세는 올라갔다’=거기서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가 결합함.

출19:23-‘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에게 말했다’=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생각...그이유는 이것은 생각하는 인간과 더불어는 진리이기 때문.

출19:24-‘그리고 올라오라, 너와 아론’=내적, 외적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와 결합.

출19:25-‘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갔다’=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통하여 신성이 유입됨.

출20:19-‘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오’=적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진리를 받음, 이 진리에 그들은 순종할 것이다는 것...이야기를 하는 모세는 천국 안에 계신 신성과 결합한 천국 아래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표현한다. 고로 주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한다. 이로부터 여기

서의 모세=적용(accomodated) 가능한 형태에 있는 진리.

출20:21-‘그리고 모세는 하느님이 계셨던 길은 구름으로 가까이 왔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영적 선의 진리가 여전히 결합함. 모세는 천국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결합한 천국 아래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표현한다. 결과적으로 중재한다. 고로 영적 선의 진리이다. 그이유가 이것이 천국 아래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이기 때문, 이 안에 영적(왕국의)) 교회가 있다...이 진리를 모세가 이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표현하고 있다.

출24:1-‘그리고 그는 모세에게 말했다’=일반적 측면의 말씀에 관한 것. 모세는 말씀을 표현한다.

출24:2-‘그리고 모세, 그 사람 만이 여호와께로 가까이 올 것이다’=일반적 측면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현존하시고 결합하심...모세는 일반적 측면의 말씀을 표현한다.

출24:3-‘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 와서 발표했다’=그분 자신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주님께 의한 예증과 통보.

출24:4-‘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들을 적었다’=그 당시 생명에 강한 인상(impression)을 남김. 모세는 말씀 측면의 주님을 표현한다.

출24:9-‘거기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올라갔다’=내적, 외적으로 있는 말씀, 그리고 내,외 측면 모두로부터 있는 교리.

출24:12-‘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외적 의미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한 주님의 가르침...모세는 주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것. 고로 외적 거룩함 측면의 말씀. 그 이유가 이것이 중재하는 것이기 때문. 이것을 지금 모세가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뒤를 잇는 시리크로부터 분명하다...이 백성들은 중재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과 어떤 소통도 가능할 수 없다.

출24:13-‘그리고 모세는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심복 여호수아’=말씀과 표현. 모세는 내적 의미로부터 분리된 말씀의 외적 의미에 있는 백성과 주님 사이를 중재하는 것을 표현한다. 고로 말씀 또한 표현한다

출24:18-‘그리고 모세는 구름 한가운데로 들어갔다’=외적 의미에서의 말씀. 모세는 말씀을 표현한다. 여기서

모세

는 외적 의미에 있는 말씀, 그 이유는 그가 구름 한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모세는 6일을 산의 가장 바깥쪽에 머물렀다, 그리고 7일째에 불리어져 구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산으로 승강했다. 이는 그가 백성과 주님 사이의 중재자 임이 표현되게 하려는 때문에 거행되었다.

출28:1-‘너는 내 형제 아론을 너에게로 접근하게 하라’=주님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의 결합. 모세는 신성한 진리 측면의 주님을 표현한다.

출30:11-‘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 말하기를’=주님에 의해 말씀을 통하여 예증함...모세에 의해 말씀이 표현되어진다.

출31:18-‘그리고 그분은 모세와 이야기하심을 끝내면서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다’=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인간과 결합함. 모세는 말씀을 표현한다.

출32:1-‘그리고 백성은 모세가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았다’=이스라엘 국가가 천국으로부터 어떤 것을 말씀으로부터 통각하지 못했을 때의 그들의 상태...모세는 말씀을 표현한다.

출32:1-‘이 모세, 이 사람이 우리를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올라오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인간을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 승강하게 하는 신성한 진리 외 다른 진리가 말씀에 있다는 것은 통체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

출32:10-‘그리고 나는 너를 큰 국가로 만들 것이다’=말씀은 그밖의 곳에서도 선이고 특출하다는 것. 모세는 말씀을 표현한다.

출32:11-‘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와 얼굴에 애원하였다’=주님은 자비로부터 기억하셨다는 것. 모세는 말씀을 표현한다.

출32:15-‘그리고 모세는 뒤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산으로부터 내려왔다’=말씀이 천국으로부터 아래쪽으로 하락됨.

출32:19-‘그리고 모세의 노염이 지퍼졌다’=이 국가가 말씀의 내적인 것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돌아섬...그 이유는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 또는 말씀을 표현했기 때문. 또는 똑같은 것으로 신

성한 진리 측면의 주님을 표현했기 때문.

출32:21-‘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이와같은 외적인 것에 관하여 내적인 것으로부터 지각함...모세는 말씀을 표현한다. 여기서의 말씀의 내적 측면...이런 이유는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기 때문.

출32:26-‘그리고 모세는 진영의 문에 섰다’=지옥쪽으로 열린 곳. 모세는 내적인 것을 표현한다...이것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 없다.

출32:32-‘그리고 만일 아니라면, 당신이 쓰신 당신의 책으로부터 부디 저를 삭제하십시오’=말씀, 교회, 예배의 내적인 것은 멀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출33:8-‘모세가 진영으로 나갔을 때...’ 여기서 모세는 말씀을 표현한다.

출33:12-‘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다’=신성이 그들과 더불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함.

출33:14-‘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내 얼굴은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로 쉬게 할 것이다’=교회, 예배, 말씀의 신성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와 더불어서는 신성 없이 외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모세를 쉬게 만드는 것’=교회와 예배와 말씀의 외적인 것 안에 신성한 내적인 것들은 중단된다는 것.

출33:17-‘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을 나는 행할 것이다’=신성이 교회의 외적인 것, 예배의 외적인 것, 말씀의 외적인 것 안에 있을 것이고, 이것이 그들과 더불어 있을 것이다. 이 국가의 머리로서의 모세는 내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외적인 것을 표현하는데, 이는 국가 자체와 더불어 그들의 외적인 것이었다.

출33:18-‘그리고 그는 말했다, 바라기는 부디 저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외적인 것 안에 있는 내적 신성한 진리를 통각함(apperception). 모세는 여기서 그렇게 분리되지 않은 외적인 것을 표현한다.

출33:20-‘그리고 그는 말했다,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교회의 신성한 내면의 것들, 등등은 이스라엘 국가에게 나타날 수 없다...이것이 모세에게 말해졌기 때문,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국가의 머리를 표현한다.

모습-모압-모압족

출33:22-(고로) '모세를 바위의 틈에 놓아두는 것'=신앙이 희미하고 왜곡되어 있는 것, 이는 내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에 있는 이들과 같다. 여기서 '모세'에 의해 이 백성이 뜻해진다.

출34장에서-모세에 의해 신성한 진리를 받는 교회, 예배, 말씀의 외적인 것이 표현되어진다...이는 이 장의 세부사항들로부터 분명하다. 즉 모세가 시내 산에 오르는 것...백성은 그 산으로부터 옮겨있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이 아닌 모세와 이야기 하신 것 등이다.

출34:4-'그리고 모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시내 산으로 올라갔다'=신성한 진리의 계시가 새로이 일어남(rise).

출34:8-'그리고 모세는 급해졌다, 그리고 땅으로 자신을 구부려 경배했다'=외적인 것 안으로 유입으로부터 받아들임, 그리고 굴종함으로부터 예배함...모세는 내적인 것을 받는 교회의 외적인 것을 표현한다.

출34:9-모세는 말씀을 표현한다. 이로부터 '백성들 사이에 그가 있음'에 의해 말씀이 있는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출34:29-'시내 산으로부터 모세가 내려감에서'=말씀, 교회, 예배의 외적인 것 안으로 내적인 것이 유입됨. 모세에 의해 내적인 것이 안에 있는 외적인 것을 표현한다.

출34:29-'그리고 모세는 자기 피부가 빛났다는 것을 몰랐다'=말씀의 외적 측면이 빛나는 것을 지각함 없이 말씀의 내적 측면이 말씀의 외적 측면에서 빛을 냄.

출34:33-'그리고 그는 자기 얼굴에 베일을 놓았다'=교회와 예배와 말씀의 내적 측면은 이스라엘 국가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만 나타날 것이다.

출34:34-'그리고 모세가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안으로 들어감에서'=주님이 안으로 흘러들 때 외적인 것의 상태, 그리고 그것이 통보를 받는 상태. 모세는 내적인 것 안에 있는 외적인 것을 표현한다.

출34:34-'그는 베일을 제거했다'=그때 예증의 상태.

계15:3-'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노래했다'=선행(charity)으로부터 고백함. 고로 십계명인 법의 가르침에 따른 생활...'모세'에 의해 폭넓은 의미에

서 그의 다섯 책 안에 쓰인 모든 법이 뜻해진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십계명이라 불리는 법이 뜻해진다. 그리고 이 법이 삶에서 인간을 도우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말해진다. 그이유가 말씀에서 '종, servant'는 돕는 것이 뜻해지기 때문, 여기서는 생활, 삶, life이 뜻해진다.

모습 (likeness)

* dissimilitude, effigy도 참조

* 천적 인간은 그분의 '모습'이다.

* 신앙이 사랑과 결합되어 갔었을 때, '참으로 선, very good'이라 불린다, 그이유는 그때서야 주님께서 그를 그분의 모습대로 움직일 수 있으시기 때문.

창5:1-천적 수준이었던 태고 교회 자체는 소위..'하나님의 모습'이라 불린다.

*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분께서는 그를 만드셨다'=그가 천적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것.

창1:26-'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신성한 지혜가 뜻해지고, '하나님의 모습'에 의해서는 신성한 사랑이 뜻해지고 있다; 그이유가 지혜는 사랑의 형상 밖에 더 아니기 때문이다.

계9:7-'메뚜기들의 모습'=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을 자신들과 더불어 확증해온 이들의 형상과 나타남.

모압 (Moab)

모압족 (Moabite)

창19:37-'그녀는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다'=선 측면에서의 이 교회의 광신적인 신앙(신앙이 깊은 체함, religiosity)의 품질. '그는 이 날까지 모압의 아버지이다'=그때부터 이러했다는 것.

시60, 108편-'모압, 나의 썩은 향아리'=거짓들로 더럽힌 선.

출15:15-'모압의 힘센 자들'=자아의 이런 사랑으로부터 거짓의 생활에 있는 이들...'모압은 자연적 선에 있는 이들, 그리고 자신이 쉽게 꼬임을 당해지도록 하는 이들을 표현한다. 고로 거짓으로부터 파생되는 생활 안에 있는 이들. 그이유가 자연적 선에 있는 이들, 그리고 신앙의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지 않는 이들, 고로 영적 선에 있지 않는 이들은 어떤 거짓이든 자신들이 믿어지도록 해버린다. 게다가 그것들에 따라 산다. 특히 그들

모퉁이돌-목

은 자기들의 사랑들을 부추켜주는 식의 수단에 의해 쉽게 진리들로부터 거짓들 쪽으로 유도당해지고 만다. 이들이 '모압'에 의해 뜻해진 자들이다.

이16:6-‘모압’=자아 사랑의 악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그러므로 진리들을 왜곡하는 이들.

민24:17-‘모압, 그들의 힘은 파괴되어질 것이다’=교회의 선들에 섞음질을 한 이들.

민25장-이 모독이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함(scortation)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민24:17, 예48:45-‘모압’에 의해 말씀, 교회, 예배의 최말단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반대적 의미에서, 이것을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간음질(섞음질)하는 이들, 그리고 그러므로 ‘모압의 모퉁이돌(corners)’=말씀에 섞음질함들, 그리고 파생적으로, 교회와 예배에 섞음질함.

예48:37,38-‘모압’에 의해 자연적 선에 있는 이들, 그리고 교회의 선들에 섞음질하는 이들이 의미되고 있다. 그들과 더불어 진리를 이해함은 무효하다. 또한 진리에 대한 지식은 ‘모압의 모든 머리들은 대머리로, 모든 수염은 면도질 된다’에서 의미되어지고 있다..

예48:18-‘모압의 낭비자(waster)’=(교회의 외적인 것과 말씀의 외적인 것, 즉 말씀의 글자 의미에) 섞음질.

예48:47-‘나는 날들의 맨끝에서 모압의 포로들을 되돌려 데려올 것이다’=‘모압’에 의해 뜻해진 이들과 더불어 진리들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강림에서 그들 안에 가르침이 있어질 것이라는 것.

모양짓다 (fashion)

이44:12-‘부짚가락(불집계)을 가지고 철을 모양짓는 것’=거짓들을 부화하는(hatch) 것.

합2:18-‘거짓으로 모양을 만드는 자’=거짓을 부화하는 자.

모의를 꾀하다 (machinate, plot)

창37:18-‘그들은 그를 죽이기로 모의를 꾀했다.’ ‘모의를 꾸미는 것’=타락한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것

모이다 (gather together)

* 회합(congregation)을 보라.

모퉁이 (corner)

모퉁이돌 (cornerstone)

이19:13-‘그들은 지파들의 모퉁이돌 이집트를 유혹했다.’ 신앙 속에 있는 것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바 ‘모퉁이돌’이라 불려지고 있다.

암3:12-‘침대의 모퉁이에서’=자연 평면의 가장 낮은 것에서.

출25:12, 시118:22, 마21:42, 스후10:4, 이28:16-‘너는 (케의) 네 모퉁이에 놓을 것이다’=견고함. ‘모퉁이돌’=강함과 견고함...그 이유는 전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초이고 가장 큰 저항이 요구되기 때문. ‘모퉁이’=강함과 견고함, 이는 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의 것과 같은바, 주님은 다윗의 시에서 ‘모퉁이돌’이라 불리우신다. 즉 ‘건축자들이 거절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 ‘유다로부터 모퉁이돌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에서, ‘여호와와는 시온에 증거의 돌을 세울 것이다, 이는 기초가 되는 귀중한 모퉁이이다.’

출26:18-‘남쪽을 향하는 남쪽의 모퉁이를 위한 널판’=진리가 빛에 있는 내면과 가장 안쪽 것들에 까지..‘모퉁이’, 이것이 세상의 방위를 말할 때,=방위에 의해 의미되고 가리키는 상태가 있는 곳.

* 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에 관한 모든 상태들이 ‘땅의 4모퉁이’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사랑의 선의 상태는 ‘동쪽의 모퉁이’와 ‘서쪽의 모퉁이’에 의해, 신앙의 진리의 상태는 ‘남쪽의 모퉁이’와 ‘북쪽의 모퉁이’에 의해 의미된다. 계7:1, 20:8, 마24:31, 겔37:9 참조

출27:12-‘바다쪽(서쪽)의 모퉁이를 향하여 뜰의 넓이’=과학적 진리들 측면에서의 이 천국의 상태...

암3:12-‘침대의 모퉁이 그리고 침상의 맨끝’=가장 낮은 자연 평면, 이는 외적 감각 평면이다, 그리고 그것의 진리와 선.

계7:1-‘나는 땅의 4모퉁이 위에 서있는 4천사들을 보았다.’ ‘땅의 4모퉁이들’=보편적인 영들의 세계.

계7:1-‘땅의 4모퉁이들과 하늘의 4바람들’=복합체 안에 있는 교회로부터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

슌3:6-‘황폐해지게 될 모퉁이들’=전체 복합체에 있는 교회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

모퉁이돌 (cornerstone)

* 모퉁이, corner를 보라.

목걸아-목(구멍)-목수-목소리

목 (neck, cervical, decollate)

창28:11-‘목의 것들’(또는 베개들, pillows)=외적인 것들과 교통함. 그이유가 목=내면들이 외면들과 교통함. 똑같은 것으로, 더 높은 것들이 더 낮은 것들과 교통함, 그리고 파생되는 결합. 이로부터 목 아래 있는 것들, 즉 베개들, 여기서=가장 안쪽의 것, 신성한 것들과 가장 바깥쪽 것들과 교통함, 이 교통함(communication)은 가장 일반적이다.

창49:8-‘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에 있을 것이다’=지옥적이고 악마적인 놈들이 그의 현존에서 도망할 것이다...그이유가 적이 도망할 때, 정복자의 손이 그의 목에 있기 때문.

출23:27-‘나는 너에게 너의 모든 적들의 목을 줄 것이다’=거짓들이 도망하고 지옥에 떨어짐...‘목을 주는 것’=도망함.

출32:9-‘목이 굳어있는 백성’=주님으로부터 있는 유입을 받지 않는 것. ‘목이 굳어 있는 것’=유입을 받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목’에 의해 더 높은 것과 더 낮은 것들의 결합과 교통함이 의미되기 때문. 고로 유입.

예27:8-‘바벨의 왕을 섬기고 그의 멩에를 목에 놓는 것’=신앙 속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과 인정함이 완전하게 박탈되는 것. 고로 내적인 예배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

창27:16-‘그의 목들의 매끈함에’=진리를 분리함은 나타나지 않을 것. ‘목들’=결합하는 것.

이52:2-‘목의 묶임들을 여는 것’=선과 진리를 인정(admit)하고 받는 것.

창27:40-‘너는 그의 멩에를 너의 목으로부터 부술 것이다’=그때 결합은 선을 수단으로 있을 것, 진리는 선으로부터 있을 것. ‘목으로부터 멩에를 부수어 떨어내는 것’=해방됨(자유함). ‘목’에 의해 유입과 교통이 의미된다, 그리고 파생적으로는 결합도 의미된다. 그리고 ‘목 위의 멩에’=차단(interception)...그리고 더 이상 차단이 없을 때, 선은 안으로 흐르고 진리와 그 자체 결합한다.

창33:4-‘그는 그의 목에 떨어졌다(목을 끌어안았다)’=이 보편적 측면에서 모든 것들의 두 번째 결합. ‘목 위에 떨어지는 것(목을 끌어안는 것)’=더 가까운 결합, 그 이유가 목을 끌어안음은 더 근접된 포용이기 때문.

또한, 내적 의미에서 ‘목’에 의해 내면들과 외면들 사이에 유입과 왕래함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동시에 결합도 의미된다.

창41:42-‘그는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놓았다’=내면들과 외면들의 결합이 선에 의해 결과되어 나타남.

창45:14-‘그는 베냐민의 목 위에 떨어졌다’=매체와의 가장 깊은 결합. (그이유가) ‘목’=유입, 교통, 그리고 결합. 그리고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결합. 고로 ‘요셉’인 내적 측면의 천적 평면과 ‘베냐민’인 천적 평면으로부터 있는 영적인 것의 결합. 이로부터 ‘목 위에 떨어짐’=자아를 더 가깝게 결합하게 하는 것. 결과적으로 그것=가장 깊은 결합.

창46:29-‘그는 그의 목들 위에 떨어졌다’=결합. (그이유가) ‘목들 위에 떨어지는 것’=가까운 그리고 가장 깊게 결합함. 이런 이유는 이로부터 파생되기 때문, 즉 목은 머리와 몸을 결합시킨다. 그리고 머리는 내면들을, 몸은 외면들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목=내면들과 외면들의 결합. 그리고 내면이 외면과 교통함. 또한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의 교통.

출13:13-‘너는 그것을 목을 자를 것이다’=그것은 분리되어 내던져져야 할 것이다...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목’=내면의 것과 외면의 것들이 결합함. 고로 ‘목을 자름’=분리함과 내던짐.

마18:6-‘목’=내면들과 외면들의 결합. 거기에 ‘매다는 것’=선과 진리를 도중에서 빼앗음(interception).

이8:8-‘그는 목에까지 조차 닿을 것이다’=고로 선과 진리의 교통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이52:2-‘네 목의 묶음들을 열지라, 오 포로된 시온의 딸아’=천국으로부터의 유입을 받아들임을 방해한 거것들에 의해 진리들로부터의 억류에서 자유함.

이30:28-‘그는 목 까지 조차 2등분할 것이다’=이해되지 않았던 것 조차도 거것들에 의해 그것이 황폐해짐. 그이유가 ‘목’에 의해 결합이 의미되는데, 이 결합은 목 아래 있는 것이 사라질 경우 멸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

마18:6-‘목에 매다는 것’=그가 선과 진리를 알지 않도록 차단함.

목걸이 (chain)

목걸이-목(구멍)-목수-목소리

창41:42-‘그는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내면과 외면의 결합, 이는 선을 수단으로 야기된다. ‘금목걸이’=선을 수단으로 결합함.

겔16:11-‘목걸이’=유입에 관련한 선으로부터의 진리, 그러므로 내면들이 외면들과 결합함.

* 사슬(chain)을 보라

목(구멍) (throat)

겔16:11-내면의 진리와 외면의 진리의 결합의 표시가 ‘네 목 위의 사슬’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 목구멍 등등 같은 입에 속하는 모든 것들=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이해함에 속하는 것들.

시5:9-‘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내부에 지옥이 있다는 것.

목수 (carpenter)

* 주님이 목수의 아들이시었던 이유, ‘목수’=진리의 교리로부터 있는 생활의 선이기 때문.

목소리 (voice)

음성 (voice)

창3:8-‘여호와 하느님의 음성’=구술하다(받아쓰다)... (그이유가) 말씀에서 ‘여호와와 음성’은 말씀 자체, 신앙의 교리, 양심, 내적 유의함, 또한 그 결과인 재 보증을 명시한다. 그러므로 천둥 번개 조차 ‘여호와와 목소리들’이라 불린다

이40:3-‘외치는 자의 음성’=주님의 강림이 예고됨. 일반적으로는 구술받은 거듭나는 자와 더불어 있는 모든 예고.

창4:10-‘네 형제의 피들의 음성’=선행에 타격을 가한 폭력. 말씀에서 ‘목소리’는 고발하는 모든 것을 명시한다.

이65:19-‘슬피 움의 목소리가 그녀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 외침의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악도, 거짓도 없을 것이다.

창21:16-‘그녀는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더 높은 수준의 슬픔.

창21:17-‘하느님께서 소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그때 원조함(aid).

창27:22-‘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이다’=이 경우에서

진리로부터의 지적 측면이 안에 있었다...고로 거꾸로된 질서. 그이유가 ‘목소리’는 진리를 서술하기 때문.

마24:31-‘그분은 큰 목소리와 더불어 그분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뽑음(election). 이는 큰 음성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닌 거룩한 진리의 유입에 의해 있다. ‘나팔과 큰 음성’=복음 전도.

계4장-‘음성’ 등등. 이것이 왕좌로부터 진행되었다’=선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 신성한 진리에 의해 야기된 공포들.

창45:16-‘목소리가 바로의 집에서 들려졌다’=이것이 보편적인 자연 평면을 메웠다.

시29:7-‘여호와와 음성’=신성한 진리.

출4:8-‘만일 그들이 이전의 표시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만일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발표되어지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음성’=말씀으로부터 발표되는 것.

출5:2-‘내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하는 여호와와 누구냐?’=주님의 권면에 귀기울인다는 점을 두고 주님께 관하여 반대하는 생각. 그이유가 ‘음성’, 여기서=권면...고로 ‘음성을 듣는 것’=순종하는 것, 또는 권면에 귀기울이는 것.

출9:23-‘여호와께서 음성들을 주셨다’=선과 진리에 있는 이들과의 교통이 분리되고 철회함. 그이유가 천둥으로부터 있는 ‘음성들’=천국에 있는 이들을 계발하고 완전해지게 하는 신성한 진리, 그러나 지옥에 있는 이들을 황폐해지게 하고 공포를 주는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

예6:23-‘그들의 음성이 바다 같이 울려 퍼진다’=파생되는 추론함.

출15:26-‘만일 내가 네 하느님, 여호와와 음성을 들을 것이라면’=주님의 교훈들 안에서의 신앙... ‘여호와와 음성’=말씀으로부터 언명되는 것, 고로 주님의 교훈.

겔1:24-‘그것의 음성은 바퀴들의 음성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다’=(천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품질). 그이유가 ‘음성’은 신성한 진리의 속성으로부터 이기 때문. 그리고 ‘큰 물들의 소리’라고 말해진다, 그이유는 ‘물들’=진리들이기 때문. 그리고 ‘바퀴들의 음성’, 그이유는 ‘바퀴들’=교리적인 것들로부터의 진리들이기 때문. 그리고 또한 ‘하느님 전능자’=시험에서는 꾸짖는 진리, 시험

목소리

후에 위로하는 진리.

출19:5-‘만일 네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면’=진리를 받아들임. 그이유가 ‘여호와와의 음성’=말씀, 고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출19:16-‘음성들과 번개들이 있었다’=계시가 있었던 신성의 상태. 그이유가 ‘천둥들의 소리들’인 ‘음성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

출19:19-‘나팔의 음성’=신성과 결합한 천사들의 진리, 또는 천국의 진리, 고로 계시의 일반적인 것.

출19:19-‘하느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신성한 진리.

출23:21-‘그분의 음성을 들어라’=주님으로부터 있는 교훈들에 순종함. ‘음성’, 주님을 서술할 때,=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고로 주님으로부터 있는 교훈들...그리고 그러므로 또한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부터의 교리, ‘여호와와의 음성’이다.

출24:3-‘모든 백성은 하나의 음성으로 대답했다’=진실로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 의해 이해성 안에 받아들임. 그이유가 ‘음성’=이해함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 입에 속하는 것은 지적 부분에 상응한다.

겔10장-‘날개들의 음성’=선으로부터 있는 신앙의 진리.

출28:35-‘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다’=천국들과 땅 위에 있는 이들에게 진리의 유입이 있다. ‘음성’, 아론을 서술할 경우, 그에 의하여 주님이 표현되는바=신성한 진리. 그이유가 ‘음성’=그것을 고지함(annunciation). 그리고 이 고지함은 천국들과 땅 위 사람들에게 있다. 그이유가 신성한 진리는 천국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만들기 때문. 이런 고지함이 ‘금방울의 음성’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요10:5-‘낮선 자의 음성’=거짓.

요3:8-‘너는 거기로부터 음성을 듣는다’=이런 것들이 외적 인간, 또는 자연적 인간에서 지각 안으로 온다. ‘음성’=말씀으로부터 고지되는 것.

출32:17-‘여호수아는 고태지르는 백성의 음성을 들었다’=이 국가의 내면의 품질을 조사하고 통각함. 그이유가 ‘음성’, 말씀에서, 생각인 내면의 음성이 의미되어지기 때문, 고로 진리 또는 거짓에 관련하여 내면의 품질이 의미되기 때문, 그이유가 생각은 이런 것들의 하나로부터 오기 때문.

출32:17-‘진영에 있는 전쟁의 음성이다’=거짓과 악을 수단으로 진리와 선을 공격함...‘음성’=생각과 애착, 이는 음성의 내면적인 것들, 고로 내면들의 품질.

출32:18-‘승리로 인한 외침의 음성이 아니다, 이것은 잃어진 것들 때문에 있는 고태의 음성도 아니다’=천국은 이쪽에서 행동하고, 지옥은 다른 쪽에서 행동한다. 고로 거짓은 진리에 맞서고, 진리는 거짓에 맞선다. ‘외침의 음성’=이 국가의 내면의 품질.

출32:18-‘비참한 음성을 나는 듣고 있다’=그들의 내면들 때문에 탄식하는 상태. 그이유가 탄식되는 것이 원어에서 ‘음성’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 이것은 외침, 애착, 그리고 비참함. 고로 ‘비참한 외침’, 그리고 ‘음성’=내면의 품질인바, ‘비참한 외침의 음성’=탄식하는 내면의 상태.

시29:3-9-‘여호와와의 음성, 이는 이 경우에서 천둥=힘을 발휘하는 신성한 진리, 또는 말씀.

계1:10-‘나는 내 뒤에 있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천국으로부터 계시된 신성한 진리를 명백하게 지각함. ‘큰 음성’, 천국으로부터 들을 때=신성한 진리.

계1:15-‘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음성 같았다’=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최말단에 있는 신성한 진리)

계3:20-‘만일 누군가가 내 음성을 듣는다면’=말씀을 믿는 자...‘음성을 듣는 것’=말씀을 믿는 것. 그이유가 말씀의 신성한 진리가 ‘여호와와의 음성’이기 때문.

계4:1-‘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에게 이야기하는 나팔로부터의 것 같이 있었다’=신성한 유입...그리고 그 결과 명백한 지각.

계4:5-‘(왕좌로부터의) 음성들’=주님으로부터의 가르침.

계5:1-‘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한다’=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가 천사들과 사람들의 생각 안으로 흐르고 있다...‘큰 음성’=힘을 발휘하는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계7:10-‘큰 음성으로 외침’=심정으로부터 인정함.

계8:5-‘목소리들’=신앙 만에 관하여 추론함.

계8:13-‘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슬프다, 슬프다’=가장 깊은 탄식...‘나머지 세 천사들의 나팔의 음성들...’=교회

목소리

와 삶의 상태를 조사하고 명명백백해지게 함.

계9:9-‘그들의 날개들의 음성’=추론함들.

계9:14-‘나는 목소리를 들었다’=주님으로부터 명령 (=주님으로부터 계시).

계10:3-‘그는 사자가 으르렁 거릴 때 같이 큰 음성으로 외쳤다’=교회가 그분으로부터 거두어 가버림을 당한 것에 따른 슬픈 탄식.

계11:15-‘천국에 큰 음성들이 있었다’=천사들에 의해 경축함. (=더 높은 천국에 있는 기쁨과 계발됨)

계12:10-‘나는 천국에서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다’=천국의 천사들의 환희(joy).

계14:2-‘나는 많은 물들의 음성 같은 천국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었다’=주님께서 신성한 진리들로부터 새 천국을 통하여 이야기하심...

계14:7-‘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느님을 두려워하라’=악들은 주님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들은 악들을 행치 않아야 한다고 권면함.

계14:13-‘나는 나에게 말하는 천국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었다’=주님으로부터의 예견.

계14:15-‘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주님에게 천국의 천사들이 애원함.

계16:1-‘나는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을 들었다’=가장 깊은 천국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의 유입.

계16:17-‘큰 음성이 왕좌로부터 천국의 성전에서 나왔다’=가장 깊은 천국으로부터 주님께 의한 명명백백함.

계16:18-‘음성들, 번개들, 그리고 천둥들’=추론함들, 진리를 거짓화함들, 신앙만므로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교회에서 악의 거짓들로부터 논쟁함들.

계18:4-‘나는 천국으로부터 또다른 음성을 들었다’=광신적 신앙에 있든지, 아니든지 모두에게 주님의 권면함이 있음. 듣게되는 ‘천국으로부터의 음성’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를 뜻한다. 인간이 말씀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부터의 음성’이다.

계18:22-‘하프 연주자들의 음성, 등등은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영적 애착 없음...‘음성’은 소리를 뜻한다, 그리고 모든 소리는 애착에 상응한다.

계18:22-‘뱀들의 음성’도 없다=영적 진리를 탐구함, 확증함도 없다.

계18:23-‘신부와 신랑의 음성’도 없다=선과 진리의 결합이 없다...‘여기서 ’음성‘=환희, 이것이 신부와 신랑으로부터의 음성이기 때문.

계19:5-‘음성이 왕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우리의 하느님을 찬양하라...’=주님으로부터의 천국 안으로 유입이 있음, 고로 주님을 예배해야 할 것이라고 천사들이 만장일치함.

계19:6-‘나는 마치 큰 군중의 음성 같이, 많은 물들의 음성 같이, 그리고 힘있는 천둥들의 음성 같이 들었다, 말하기를, 할렐루야...’=(3천국들의) 천사들의 환희...‘음성’=예배로부터, 고백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을 경축함으로부터 오는 환희(joy).

계19:17-‘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주님께서 신성으로부터 함께 부름. ‘음성’, 또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유입됨이 신성한 열정이다.

계21:3-‘나는 천국으로부터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주님께서는 사랑으로부터 이야기하시고 복음을 전하신다. ‘큰 음성’은 사랑으로부터의 대화를 뜻한다. ‘큰, great’은 사랑을 서술한다.

예4:29-‘기병과 활쏘는 자의 음성’=추론함.

계7:2-‘그는 큰 음성으로 외쳤다’=신성한 명령.

계10:4-‘나는...에게 말하는 천국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었다’=주님으로부터의 명령.

계10:8-‘내가 천국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 다시 나에게 이야기하여 말했다’=남아있는 말씀을 이해함에 관하여 교회의 사람들을 조사함. ‘천국으로부터의 음성’이 이런 것들을 내포한다.

습2:14-‘창문에서 음성’=거짓을 전도함.

계11:2-‘그들은 천국으로부터 자기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다’=주님의 신성한 섭리...‘천국으로부터의 음성’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이 의미된다. 일반적으로 이는 신성한 진리라 불려진다. 그리고 우리들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는 말씀이다. 고로 특별하게는 말씀에 있는 모든 교훈과 명령이다. 이것이 ‘천국으로부터의 음성’이라 불려지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하여 내려왔기 때문이다...여기서 ‘천국으로부터의 음성’에 의해 주님의 신성한 섭리가 의미되는 이유는 천국의 상태와 끝에 와있는 교회의 상태를 취급하

목을 베다-목이 마르다

기 때문.

계11:19-‘음성들’=추론들.

요10:4,27-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것.

계14:9-‘큰 음성’=권면..

요5:25-‘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들’=그분의 명령들에 따라 사는 이들.

계18:2-‘큰 음성’=심정의 환희.

목을 베다 (behead)

출13:13-‘목을 부리트리리는 것’=분리해서 내던지는 것. 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목=내면과 외면의 결합이기 때문.

신21:4,6-‘저 계곡에서 목을 뺨’에 의해 의미되는데, 그것이 무지로부터였기 때문에 비난됨이 없는 연유로 속죄됨(expiation).

목이 마르다 (thirst)

이5:13-‘군중은 목이 탈 것이다’=영적 지식들에 빈궁해 있다.

계7:16-‘목이 마르지 않는 것’에서 주님의 왕국이 취급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모든 지식들과 영적 진리들의 풍부함에 있을 것이다.

요7:37-‘만일 누군가가 목마르다면, 나에게 오게 해서 마시라 하라.’ ...‘목마름’은 사랑과 진리에 애착함 안에 있는 이들을 서술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목마를 수 없다.

이32:6-‘마시려 목이 마른 혼’=진리를 갈망함.

이29:8-‘목마른 자가 꿈을 꾸듯, 그리고 보라 그가 마신다.’ ‘목마른 자’=가르침 받기를 바라는 자.

이21:14-천적인 것들, 즉 신앙으로부터의 선들, 똑같은 것으로 선행으로부터의 일들, 이 안에 그들이 있다는 것이 ‘목마른 자를 만나러 물들을 가져오고, 방황하는 자를 빵을 가지고 만남’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요4:10,14-주님의 말씀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 즉 생명을 바라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가르친다.

호2:3-‘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는 것’=모든 진리를 소멸하는 것.

암8:13-‘목말라 기절하는 것’=진리가 박탈되어지는 것.

출17:3-‘백성들은 거기서 물들로 해서 목이 말랐다’=진리를 갈망함이 증가함. ‘목마르는 것’=진지하게 바라는 것, 갈망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서술한다.

암8:11-‘물들 때문에 목마름이 아니고 여호와와 말을 듣지 못해 목마름이다.’ 진리를 알기를 갈망함이 여기서 ‘목마름’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55:1-‘오, 목마른 모든 자, 너는 물 쪽으로 오라’=신앙의 진리들을 갈망하는 자.

계21:6-‘목마름 그에게 나는 생명의 물의 샘으로부터 끊임없이 줄 것이다’=애착으로부터 갈망하는 이는 신앙의 진리와 선을 (받을 것이다).

요4:13, 6:35-‘이 물을 마시는 모든 이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이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목마르지 않는 것’=여기서의 경우, 진리에 더 이상 결핍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계7:16-‘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이후로 그들은 선들과 진리들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목마름’이 포도주와 물을 두고 말해지는데=진리.

계22:17-‘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주님의 왕국을 갈망하는 자, 그리고 진리들을 갈망하는 자, 주님께서 빛과 더불어 오시기를 기도할 것이다.

요19:28-‘나는 목마르다’하고 예수께서 말하신 것은 그분을 인정할 새 교회를 갈망하셨기 때문이다.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뜻하시고 갈망하셨다는 것) (=신성의 영적 목마름, 이는 교회 안에 신성한 선과 진리를 위함이고, 이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이 있다.)

시107:5-‘배고프고 목마름’=선과 진리를 알기를 갈망하는 이들.

이50:2-‘목마름으로 죽는 것’=진리가 꺼짐.

시104:11-‘들나귀가 자기들의 목마름을 풀 것이다’=진리들을 갈망하는 교회에 있는 이들을 가르침.

겔19:13-‘목마름의 토지’=진리가 없는 교회.

이44:3-‘나는 목마른 그에게 물들을 부을 것이다’=진리의 애착들에 있는 이들을 진리들로 가르치는 것.

이32:6-‘목마른 자가 마시는 것’=진리를 이해함.

목자

목자 (shepherd)

* 풀을 뜯김(to pasture), 먹이를 줌(to feed)도 참조

* 이로부터 주님은 '양의 목자'라 불리워진다.

창4:2-'(아벨은) 양떼의 목자였다'=선행의 선을 실시하는 사람.

겔34:23-'그분이 그들에게 음식물을 줄 것이다'=그분은 거둬나는 자와 더불어 현존하신다.

창13:7-'목자들이 끼리 다툼...'...;가축의 목자'=가르치는 사람; 고로 예배 속의 것들.

창13:7-'아브람의 가축의 목자들'=(예배에 있는) 천적인 것들...룻의 가축의 목자=(예배에 있는) 감각적인 것들.

호4:16-'넓은 (들)에서 먹이는 것'=진리를 가르치는 것.

창26:20-'목자들이 다투었다'=가르치는 이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

창29:7-'목초지'로=교리

창29:9-'그녀는 여목자였다' 또는 '풀을 뜯기는 사람'=내면적 진리에 애착함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가르친다. '목자'=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

창30:31-'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관리하는 것'=선용을 위해 채용하는 것.

창37:2-'(요셉)은 자기 형제와 함께 양떼를 먹이고 있었다'=가르치는 것, 특히 교리적인 것으로부터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

창37:12-'양떼를 먹이는 것'=가르치는 것.

창41:2-'사초에서 먹이는 것'=교훈함.

창46:32-'사람들은 양떼의 목자들이다'=선 쪽으로 인도하는 것; 그 이유가 '목자'=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선 쪽으로 인도하는 진리들이 의미되어진다.

이30:23-'먹이는 것'=진리들 안에서 선들에 관하여 가르쳐지는 것

창46:34-'모든 목자...이집트인들에게는 역겨움이다'=악용된 과학물들은 교회 속의 과학물에 반대되어있다는 것... '양떼의 목자'=선 쪽으로 인도하는 사람

창48:15-'나를 먹이는 하느님'=신성이 생기 있게 함. '먹이는 것'=훈육하는 것.

창49:24-'이제부터 목자이다, 이스라엘의 돌'=이제부터 영적 왕국을 위한 모든 선과 진리가 있다. '목자'=신앙 속의 진리를 통하여 선행의 선 쪽으로 인도하는 사람; 여기서 최고 의미에서 선과 진리 그 자체.

출2:17-'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냈다'=가르치는 이들, 악 가운데 있는 바, 이는 반대적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목자'=가르치는 이들, 그러나 악에 있는 바, 선행의 선 쪽으로 인도 않는 이들.

출3:1-'모세가 이드로의 양떼에게 풀을 뜯게 하고 있었다'=신성으로부터의 법이 순박한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있는 이들을 훈육했다.

호12:1-'바람을 먹고 사는 것'=거짓말을 불어나게 하는 것 (='거짓을 불어넣는 것)

숙11:17-'양떼를 사막으로 몰아낸 무가치한 목자'=악을 가르치고 악 쪽으로 인도하는 자.

숙11:9-'내가 너를 먹이지 않을 것이다'=가르침도 없고 개혁됨도 없다.

출34:3-'양떼와 목축이 이 산 앞에서 먹여지지 않을 것이다'=그들에게 가르쳐짐이 있어질 수 없다.

계7:17-'어린 양...그들을 먹일 것이다'=주님만이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계12:5-'쇠막대를 가지고 풀을 뜯김'=글자의 의미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 (여기서는 확신시키는 것)

요21:15-'내 어린 양들에게 먹이를 주어라'=선으로부터의 진리가 가르치는 것.

시23편-'나의 목자'=주님.

이56:11-'목자들'=자기들이 타인들을 훈육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

겔34:5,8-'목자들', 추상적으로=선이 있게 하는 진리 자체; 고로 '목자 없이'=선이 있게 하는 진리가 없음; 고로 거짓.

예22:22-'목자들'=생활의 선을 가르치고 그 쪽으로 인도하는 이들, 이것은 진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목자들'=생활의 선을 가르치지 않는 이들, 더욱이 그 쪽으로 인도 않는 이들, 그 이유는 자기들이 거짓들 안에 있기 때문; 이것이 '모든 목자들이 바람에게 먹이를 주고 있음'에 의해 뜻해지기 때문.

목재

사80:1-주님이 훈육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로부터 주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라 불리워진다.

미7:14-'네 막대로 네 백성을 먹이는 것'=신성한 진리들 안에서 훈육함.

예22:22-'목자들'=교회의 선들; '사랑하는 자', 그것의 진리들.

예51:23-'목자와 그의 양떼'=가르치는 이들과 배우는 이들.

목재 (wood)

나무 (wood)

이60:17-'목재를 위해 놋쇠를'=육체적 선을 위해 자연적 선을.

창6:14-'고페르(gopher) 목재들'=현세에의 욕망들(concupiscences).

겔26:12-'너의 목재들'=의지로부터의 것들.

합2:11-'목재로부터 있는 들보가 대답한다.'...'목재'=의지로부터의 가장 수준 낮은 것, 이것이 감각적인 과학물로부터 어떤 것이 산출될 때 응답한다.

합2:19-'깨어나라 하고 목재에게 말하는 자는 슬퍼할 지어다.' 여기서, '목재'=탐욕.

애5:4-'우리의 목재(장작)들은 값을 내고 온다'...'목재들'=의지로부터의 것들. (=단지 악들의 근원인 자신들로부터서만 가르침이 있다) (=선에 관한 지식들이 결핍되고 있다).

예2:27-'나무 조각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버지이다.' 여기서 '목재'=탐욕, 이는 의지로부터, 의지 속에 임신된다.

레14장-'목재', 일반적으로,=의지로부터 있는 가장 수준 낮은 것들. 귀중한 목재들, 예를 들면, 삼목들, 성전에 있는 삼목(cedar),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된 삼목 그리고 나무가 마라에서 쓴 물들 안으로 던져졌다...=선이 있는 의지로부터의 가장 수준 낮은 것들.

여9:23,27-정의와 공적을 선한 일들 안에 놓았던 이들은 (저 세상에서) 자신들이 나무를 자르는 것처럼 보인다...그들이 나무를 자르고 있을 때, 나무 아래 주님의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고로 마치 나무가 공적(merit)이었던 것처럼 이다... 이런 이들이 유대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고 '빨나무를 패는 자'에 의해 표현되

어져 있다.

예3:9-'돌과 나무로 간음을 범하는 것'=외적 예배의 진리들과 선들을 뒤집는 것.

호4:12-'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조각에 문의한다'=어떤 탐욕의 즐거움의 선으로부터. (=악들과 상담하는 것)=그들이 자신의 사랑과 상담하는 것

창27:3-'그는 번제를 위해 나무를 쪼갰다'=정의의 공적...'나무'=일들로부터 있는 선들, 그리고 정의로부터 있는 것들. 그리고 '나무'를 쪼개는 것=일들로부터 있는 선 안에 공적을 놓는 것.

겔37:16-'목재'=선,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부터의 선, 모두, 그리고 그러므로 '유다'와 '요셉'은 '목재 조각' 위에 적어져야 할 것, 그리고 이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령되었다.

슌5:4-'목재들'=(자연적 마음에 있는) 선들.

창40:19-'(바로가) 나무에 당신을 매달 것이다'=거절과 정죄됨.

출7:19-'나무로 된 것, 돌로 된 것 모두'=선행으로부터 있는 선, 신앙으로부터 있는 진리가 모두 왜곡됨.

출15:25-'여호와께서 나무 조각을 보여주셨다'=주님이 선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

출15:25-'그리고 그는 물들 안으로 그것을 던졌다'=그분이 진리들을 감동시킴과 더불어. '물들 안으로 나무 조각을 던지는 것'...=진리들을 선을 가지고 감동되게 하는 것.

신19:5-'숲에서 목재를 자르는 것'=종교적인 것으로부터 선에 관하여 논쟁함. '목재'=선...그리고 '숲'=종교적인 것.

겔39:10-'그들은 들판으로부터 목재들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교회로부터의 내면의 선이 없다. (그 반면) '숲으로부터 목재들'=그것의 외면의 선들.

출25:5-'그리고 싯딤 목재들'=주님으로부터 있는 공적(merit)의 선, 고로 주님 만으로부터 있는 것. '목재들'=공적의 선.

이41:19-'기름의 목재'=천적인 선.

출25:10-'싯딤 목재들로 (궤를 만들어라)=정의... 이는 공적의 선이다.

출30:1-'싯딤 목재들로부터 너는 (향 제단을) 만들 것

목초지-목축

이다'=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짓밟 목재들'=공적의 선과 정의. 이는 주님 만으로부터 있다.

계9:20-'나무로 만든 우상들'=선한 일들에 관련한 거짓들. (=단지 글자 의미만으로 확증한 거짓된 교리적인 것들.)

계18:12-'모든 향나무(thyine wood)'=자연적 선들 (=자연적 인간 안에서 진리와 결합한 모든 선).

계18:12-'귀중한 목재로 만든 모든 그릇'=합리적 선과 진리로부터 있는 과학물.

예10:3-5-'숲으로부터 자른 목재, 인부의 손이 도끼를 가지고 (작업한 것)...' 이 말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선을 묘사하고 있다, 이 선은 자아로부터이다...'목재'=선, 여기서는 이런 선. (=예배 속의 악).

예7:17-'아들이 나무를 그러모은다, 그리고 아버지가 불을 지핀다...'=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악들로부터 거짓들을 획득한다. '나무를 그러모은 것'=악들로부터 거짓들을 획득하는 것.

신21:22-'만일 사람이 범죄를 하여 죽음의 판결이 있다면, 너는 나무에 그를 매달 것이다'=만일 사람이 말씀의 선에 맞서고, 교회의 선에 맞서 악을 행하였다면, 그는 나무 위에 매달려졌다...그 이유는 '나무', 말씀에서=선. 그리고 반대 의미로는 악이기 때문.

예5:13-'소년들이 나무 아래에서 헛딤어 곱드려진다'=초기의 선들은 악들을 통하여 멸해지고 있다 (=선을 뜻할 수 있는 이들이 선들을 간음하도록 강요당한다).

겔26:12-'목재들'=자연적 인간의 선들.

이40:20-'목재'=선 같이 숭배되는 악.

예46:22-'나무 패는 자 같이'=마치 그들이 악을 근절하기를 원하는 듯 보이게 하고 실지는 선을 근절하고 있다.

합2:11-'목재'=거짓을 확증하는 악, 그리고 그것에 동의한다.

목초지 (pasture)

* 목자도 참조

이48:9-'목초지'=가르침 자체.

창47:4-'당신의 종들이 양떼를 위한 풀밭이 없기 때문에입니다'=안쪽에 진리로부터의 선들이 있는 과학물이 결핍되고 있다는 것. '양떼를 위해 있는 목초지'=진리로

부터의 선들이 안에 있는 과학물들...내적 의미에서, '목초지'=영적 생명을 받쳐주는 것, 그리고 특별하게는 과학적 진리이다. 육체가 음식을 갈망하듯, 혼은 이것을 갈망한다. 그러므로 '(풀을) 먹이는 것'=가르침이 있는 것.

예1:6-'수사슴이 목초지를 찾지 못했다'=진리들 없는 자연적 애착들과 그것의 선들. '목초지'=진리와 진리로부터의 선, 이것이 인간의 영적 생명을 받쳐준다.

시23:2-'풀잎의 목초지'=영적인 자양분, 이는 혼의 자양분이다. 그러므로 말해진다, '내 혼을 그분은 소생하게 해준다.'

율1:18-그들이 '가지지 않은 목초지'에 의해 가르쳐지게 될 진리가 없다가 의미되어 있다.

요10:9-'목초지를 발견하는 것'=가르쳐지고, 예증되어지고, 신성한 진리들로 자양분이 공급되는 것.

나2:12-그들의 '목초지'=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겔34:31-'내 목초지의 양떼'=영적인 선과 진리. '목초지'=주님을 수단으로 그들이 받아들임.

예23:10-'광야의 목초지가 말라졌다'=이런 교회 안에 영적 자양분은 없다.

율1장-'목초지 없다'=가르침 없다.

목축 (herd)

* 양떼(flock)도 참조.

창18:7-'아브라함이 목축에게로 달려갔다'=목축에 속하는 가축이 황소, 거세한 어린 소 등등인 바, 자연적 선

신32:14-'목축의 버터(butter)=자연 평면의 천적인 것 (Celestial Natural).

창32:7-'그는 목축을 두 진영으로 나누었다'=에서에 의해 표현된 선을 받기 위해 자연 평면에 있는 선들이 배열되고 준비함...'목축'=외면의 선들, 그리고 또한 비-선들(non-goods)

창50:8-'그의 목축들'=선행의 실시...'목축들'=선행의 외면의 선들, 고로 그것의 실시.

몫 (portion)

창14:24-'그들에게 그들의 몫은 가져가게 하라'=그것들이 그들의 힘(Power) 안으로 주어졌었다는 것.

창31:14-'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어떤 몫

뭇-물룩-몰아내다-몰약

과 유업이 있는가?’=라반에 의해 의미된 선으로부터 분리함에 따른 그들의 첫 상태. ‘거기에 어떤 뭇이 있는가?’=거기에 어떤 결합이 있느냐?.

창33:19-‘그는 들판의 뭇을 샀다’=이 진리로부터 선을 자기 것 되게 함.

창43:34-‘그는 자기 얼굴로부터 그들에게 뭇을 들어올렸다’=선들이 자비로부터 모든 이에게 적용되었다. ‘식품의 뭇’=선들.

창43:34-‘그는 그들 모두의 뭇들을 뛰어난게 배나민의 뭇을 불렀다’=자연 평면에서 진리들을 위한 선을 초월하는 매체를 위한 선. ‘뭇들’=선들.

창48:22-‘나는 네 형제들을 뛰어난게 한 뭇을 너에게 주겠다’=지적 측면으로부터의 진리와 자발적 측면의 선을 교회가 더 가질 것이다.

출29:26-‘너에게 뭇을 위해 있을 것이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교통함...‘뭇을 위해 있는 것’=교통함(communication).

속2:12-‘여호와께서 유다를 만들 것이다...그분의 뭇은 거룩함의 토지 위에’

시16:5-‘여호와는 당신의 부분의 뭇이다.’

물룩 (Molech)

레20:2,3, 18:21, 왕상11:7, 왕하23:10-‘자기 후손을 물룩에게 주는 것’=육체의 더러운 사랑들, 즉 살인, 미움, 복수, 간음을 실행함으로 교리와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신성한 것들 대신, 지옥의 거짓들이 받아들여진다. 이런 거짓들이 ‘물룩에게 주어진 후손(자식, seed)’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물룩은 암몬의 아들들의 신이었다. 그리고 힌놈 계곡에 놓여졌다, 이곳을 도벳(Tophet)이라 불렀는데, 거기서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태웠다. 이 태운 불이 위에 언급된 사랑들을 의미하고 있다. ‘자식을 물룩에게 주는 것’이 지옥의 거짓을 의미한다. 그리고 돌로 침은 말씀의 진리와 교리의 진리에 상처를 입히고 파괴한데 대한 죽음의 벌이었지만, 말해지기를, ‘제 자식을 물룩에게 주는 사람은 정녕 죽을 것이다, 그리고 토지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다.’

몰아내다 (drive away)

창15:11-‘아브람은 그것들을 몰아냈다(쫓아냈다)’=주

님께서는 파생된 악들과 거짓들이 싸우도록 놓아두셨다는 것.

출2:17-‘목자들이 왔다, 그리고 그들을 몰아냈다’=악들에 있는 선생들은 자신들을 대립 관계에 놓는다는 것.

몰약 (myrrh)

* spice도 참조

출30:23-‘최상의 몰약’=감각적 진리를 지각함. 냄새 좋은 몰약=감각적 진리를 지각함. 그것의 냄새=지각하는 것. 그리고 ‘몰약’=감각적 진리...기름부음의 기름의 품질이 냄새가 좋은 것들에 의해 기술된다. 즉 최상의 몰약, 향기 높은 육계, 향기 높은 창포, 계피, 그리고 올리브의 기름이다. 이것들에 의해 천적인 진리들과 선들이 그것들의 순서대로, 최말단으로부터 제일에 까지, 가장 바깥 것들로부터 가장 안쪽 것 까지 의미되어진다. 최말단, 또는 가장 바깥 것이 몰약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천적 선, 또는 가장 깊은 천국의 선은 몰약에 의해 의미된 진리들을 수단으로 존재하고 출현한다.

시45:8-주님의 옷들에 의해 자연 평면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가 의미되는데, 이 옷이 몰약, 침향과 계피로 기름부어졌다고 말해진다. 고로 ‘몰약’에 의해 감각 평면에 있는 신성한 진리가 의미된다. 그이유는 이것이 첫 장소에서 언급되기 때문이다.

마2:11-‘금’=선, ‘유향’=내적 진리, ‘몰약’=외적 진리. 이 두 진리는 모두 선으로부터 있다...‘몰약’은 셋째, 또는 마지막에서 언급되는데, 그이유는 그것=선으로부터의 외적 진리이기 때문.

시45편-이로부터, ‘몰약, 침향, 계피’에 의해 주님 안에 있는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그것들의 순서에 있는 신성한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마2:11-‘금’=천적 선, ‘유향’=영적 선, ‘몰약’=자연적 선. 그리고 모든 예배는 이 세 선들로부터 결과되어진다.

마2:11-‘금’=천적 선, ‘유향’=영적 선, ‘몰약’=파생되는 자연적 선. 고로 세 선들이 천국들의 선이다.

시45편-‘몰약’=최말단 등급의 선. ‘침향’=두 번째 등급의 선, 그리고 ‘계피’=세 번째 등급의 선.

몸 (body)

* mind, soul, spirit도 참조.

몸-몸종-못-(연)못-무거운

마6:22,23-천적, 영적 선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선은 혼을 통하여 몸 안으로 흐른다. 고로 '몸'은 '빛'이 되어 있다. 그러나 육체적 사랑과 세상적 사랑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사랑은 혼을 통하여 몸 안으로 흐를 수 없다. 고로 그들의 내면들은 '어둠'이 되어 있다.

* (성만찬에서) '몸'=신성한 선.

눅17:37-'몸'은 시체를 뜻한다, 그이유가 죽은 몸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행과 신앙으로부터의 생활이 결핍한) 교회.

창47:18-'몸'=선을 담은 그릇(receptacle).

요2:21-신성한 사랑이 주님의 몸에 의해 말해진다. 즉 '그분은 그분의 몸의 성전에 관해 말하셨다.' '몸의 성전'=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

겔1:11-'날개들이 그들의 몸들을 덮었다'=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에 덮개이었다는 것.

출21:3-'만일 그가 자기 몸으로 왔다면'=즐거움 없는 진리. '몸'=진리 만으로...그 이유가 '몸'은 여인 없는 중 그 자신 만을 뜻하기 때문.

단10:6-'몸'=천적 사랑의 선, 그리고 또한 영적 사랑의 선, 그리고 그것의 외적 측면=이 선으로부터의 진리. 이로부터 '그분의 몸은 녹주석(beryl) 같이 나타났다'

계11:8-'두 증인의 몸들'=새 교회의 두 본질들.

계18:3-'사람들의 몸들과 혼들'=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 이것들=성만찬에서의 '몸과 피'와 같다. 즉 '몸'=주님의 신성한 선, 그리고 '피'=그분의 신성한 진리. 그리고 그들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바, 그것들은 또한 말씀의 신성한 선과 진리도 의미한다.

마6:22-'온 몸'=온 영(spirit). 또한 인간 전체.

눅17:37-'몸'=영들의 세계(the Spiritual World), 모든 사람들이 선하든 악하든 함께 머무는 곳.

요5:29-'무덤으로부터 나오는 것'=물질적 몸으로부터, 이는 사후 즉시 거행된다,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심판이 거행되고, 그다음 외적인 것들은 제거된다.

몸종 (handmaid)

* 여종(maid-servant)을 보라.

못 (nail)

* '나무못(peg)' 또는 '못'=첨부(affixion), 부가

(adjunction).

이54:2-'긴 줄', 그리고 '못'=(영적) 진리들의 충분한 연결과 확증.

이33:20-'못', '끈'=확증하고 결합하는 것들.

이41:7, 예10:4-'못'=고정함, 그리고 결합함.

이22:23,24, 겔15:3-어떤 것이 매달려지게 하는 '못'에 의해 첨부함(affixion)이 의미된다.

이33:20-'못', '끈'=천국의 진리들과 선들을 결합하게 하는 것들.

신23:13-냄새나는 추잡한 사랑에 관한 상응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들은 '자기 똥을 덮는 넓적한 도구(작은 삽, paddle)를 운반하도록 명령되어졌다.

속10:4-'유다로부터 있는 못'=강화시켜주는 진리.

예10:4-자아로부터의 확증들을 수단으로 결과되어지는 시종일관함이 '그는 그것을 못으로, 망치를 가지고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이54:2-'못으로 단단해지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확증함이 의미된다.

이54:2-'못'에 의해 (선과 진리의) 형성이 의미된다.

못 (pool)

* 물웅덩이(pool)를 보라.

무거운 (heavy)

창13:2-'아브람은 가축과 더불어 극도로 무거웠다(불어났다).'

창48:10-'이스라엘의 눈들은 무거웠다'=그의 통각함이 희미함.

출4:10-'저는 입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혀가 무겁습니다'=신성으로부터의 음성과 연설이 들려지지 않고 지각되지도 않았다.

출14:25-'그리고 그것을 무거워진 상태에서 끌어당겼다'=저항과 무기력함.

출17:12-'모세의 손들이 무거웠다'=위쪽으로 주님을 보는 힘이 결핍되었다.

출18:18-'말이 너를 위하여 너무 무겁다'=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이유는 질서로부터가 아니기 때문.

출19:16-'무거운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막 받으려는 이들에게 있는 신성의 상태.

출19:16-'무거운 나팔 소리'=주위에 있었던 천적인 상

무거운 짐-무게-무게를 달다

태.

출7:14-‘바로의 심정은 무거웠다’=그들은 자신들을 완고하게 만들었다.

무거운 짐 (burden)

짐을 지우다 (burden)

적재하다 (lade)

창49:14-15-‘무거운 짐들 사이에 드러누워 있다’=일들에 둘러싸인 생활. ‘무거운 짐들’=일들. ‘무거운 짐들’=이런 일들인 이유는 그들이 이웃을 향한 사랑에 애착함으로부터 선한 것들을 행하지 않고 자신들을 향한 사랑에 애착함으로부터 행동하기 때문. 이 사랑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흐르는 일들은 빼만 양상한 나귀가 운반하는 무거운 짐 같다.

사5:16-‘어찌하여 너는 양떼로부터의 쇳쇠하고 꾸짖는 소리를 듣기 위해 무거운 짐들 사이에 앉아 있느냐?’ ‘양떼로부터의 쇳쇠하고 꾸짖는 소리를 듣는 것’=선행의 선에 있는 이들로부터 있는 경멸. ‘무거운 짐들 사이에 앉는 것’=공적 있는 일들 사이에.

사5:16-‘무거운 짐들’에 의해 (자연적 인간에 있는) 지식들과 과학물들.

출2:11-‘(모세는) 그들의 짐들을 보았다’=그들이 거짓들에 의해 판쳐짐을 당함을 통각함. ‘짐들’=거짓들에 의한 판쳐짐. 그이유가 이것들은 진리들에 있는 이들에게 짐박에 더 아니기 때문.

출5:4-‘너희는 네 짐들에게로 가라’=그들은 전투 안에서 생활해야한다는 것. ‘짐들’=거짓들에 의해 판쳐짐. 고로 그것들에 맞서 있는 전투들.

출5:5-‘너는 그들이 자기들의 짐들을 지는 것을 중단하게 만들었다’=그들은 판쳐짐을 당한 것이 충분치 않다. ‘짐들’=거짓들에 의해 판쳐짐, 고로 그로인해 야기되는 전투들.

마11:30-‘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인 이유=인간이 자아 사랑함과 세상 사랑함으로부터 내뿜어져 나오는 악들에 저항함에 비례하여 그는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주님에 의해 인도되어지기 때문, 그리고 그후에 주님은 인간과 더불어 그 악들에 저항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시기 때문.

계2:24-‘나는 어떤 다른 짐도 네 위에 놓지 않을 것이

다’=그들이 그것들을 조심할 때만이.

계2:24-‘나는 네 위에 어떤 다른 짐을 놓지 않을 것이다’=그들은 이것만에 귀기울여야한다는 것. 내적 인간이 외적인간과 결합할 수 있는 이들 위에 ‘짐을 놓는’ 것=그들은 열심히 경청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짐’이라 말해진 이유는 인간의 자아가 저항하기 때문에 지워진 ‘짐’이라 말해지기 때문.

예17:24-‘이 성의 문들을 통하여 짐을 들여오지 않는 것’=인간의 자아로부터 있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인 것을 용인하는 것.

무게 (weight)

창24:22-‘반 세겔 무게’=개시(initiation)를 위해 충분함.

창24:22-‘금의 무게가 열’=개시를 위해 가득한 것.

창43:21-‘우리의 은이 충분한 무게에서(은이 그 무게 그대로)’=각자의 상태에 따른 진리들..!무게=선 측면에서 어떤 것의 상태. 각자의 상태에 따른 진리들은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선에 따라 있다.

레26:26-‘빵을 무게로 달아 넘겨주는 것’=영적 식품이 드물어지는 것.

무게를 달다 (weigh)

* balance, hang도 참조.

창23:16-‘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은을 무게를 달아(주었다)’=되찾음(redemption). ‘은의 무게를 다는 것’=사는 것. 그리고 영적 의미에서, 되찾는 것(되사는 것, redeem).

이40:12-‘저울(명칭, scale)로 산의 무게를 달고, 저울(간칭, balance)로 언덕의 무게를 다는 것’=사랑과 선행으로부터의 친적인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다는 것, 그리고 그분 만이 그것들의 상태들에 결말을 짓는다는 것. (=모든 것들을 하위에 두고 그것들을 평형 상태에서 보존하시는 것).

단5:27-‘테겔’, 또는 ‘저울에서 무게를 담’=선을 서술하고 있다 (=선 측면에 관하여 그것의 품질을 아는 것). (=그들의 품질에 일치하게 평가함 그리고 심판함.

무기 (weapons)

* bow, shield, spear, sword도 참조.

창27:3-‘지금 네 무기들, 화살통과 활을 가져가라’=자

무서워하다-무엇-무저갱-무죄-무지개-무화과-무화과 나무

연 평면(‘에서’)에 의해 소유되어져 있는 선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

겔39:9-‘그들은 무기들을 태울 것이다, 큰 방패, shield와 작은(둥근) 방패, buckler 모두, 활과 화살도, 몽둥이, handstaff와 창, spear도’=선과 진리의 소모됨과 황폐됨. 이런 무기들=악의 거짓을 방어할 여유가 있는 말씀으로부터 교리의 진리들.

무늬있는 새 (zabuah)

예12:9-‘무늬있는 새’=거짓들로부터의 추론들.

무당 (python)

레20:6-‘나는 무당을 찾는 혼을 자를 것이다.’

무덤 (grave, sepulchre)

* 매장(bury)을 보라.

무딘 (dull)

예32:29-‘아버지들이 들포도를 먹어왔다, 그리고 아들들의 이가 무디진다.’ ‘무디어지는 이’=거기로부터 악의 거짓 안에 있는 것... ‘무디어지는 것’=악으로부터 거짓을 자기 것 만드는 것.

무료로 (freely)

출21:2, 계21:6, 22:17-‘칠 년째에 그는 무료로 나갈 것이다’=자기의 일함 없이 진리를 확증한 상태.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무료로’가 ‘나는 무료로 생명의 물의 원천을 줄 것이다’에 의미되어 있고, ‘무료로 생명의 물을 가져가게 하라’에 의해서도 의미되어 있다.

출21:11-‘그녀는 돈 없이 무료로 나갈 것이다’=그것과 결합된 진리 없이 거기로부터 멀어짐.

이52:3-“무료로(for nought) 팔리는 것’=자아를 떨하는 것, 그리고 자아로부터의 거짓들을 단념하는 것.

무릎 (knee)

창24:11-‘그는 낙타들을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일반적 과학물들을 적소에 거룩히 충당함.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하는 것’=거룩한 것에 자신의 자아를 충당하는(dispose) 것.

창30:3-‘그녀로 내 무릎에 (아이를) 낳게 하자’=내면의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인정함, 이로부터 결합이 있다. ‘무릎’ 또는 ‘넓적다리’=결혼적 사랑으로부터 있는 것들, 이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와 사랑으로부터의 선

이 결합함으로부터 이다.

창50:23-‘요셉의 무릎에서 출생했다’=내적 평면으로부터의 진리와 결합한 선으로부터. ‘무릎에 낳는 것’=선과 진리의 결합.

이66:12-이로부터 천적 사랑이 있다는 것, 이를 수단으로 주님과 결합이 결과되어진다는 것이 ‘너희는 무릎에서 즐거워질 것이다’에서 의미되어있다. ‘무릎’=천적 사랑.

이45:23-‘나에게 모든 무릎이 절할 것이다’=모든 이가 영적 평면으로부터 자연적 선에 있는 그분을 숭배할 것이다. ‘무릎’=자연적 선이 영적 평면과 결합함. 이로부터 명백한바, 무릎을 꾸부림=인정함, 감사함, 그리고 영적 선과 자연 평면에 있는 즐거움으로부터 숭배함.

겔47:4-‘물들이 무릎에 까지’=자연적 인간의 영적 측면에 의해 소유되어진 것과 같은 총명. 그이유가 ‘무릎’=자연 평면으로부터 있는 영적 평면(the Spiritual Natural).

겔7:17-‘모든 무릎이 물들 안으로 가버릴 것이다’=사랑의 선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슬픔. ‘무릎’=선으로부터의 사랑.

무서운 (horrible, horrid)

공포 (horror)

예29:17-그들은 ‘매우 불쾌한(horrid) 무화과’ 같이 있어질 것이다

창27:33-‘이삭은 극도로 큰 공포로 두려워 떨었다’=상태가 뒤바뀌는 큰 교체. ‘공포’=교체함(alteration).

겔27:35-‘그들의 왕들은 공포로 덜덜 떨었다.’ ‘떨는 것’=상태가 완전하게 바뀌는 것.

시55:5-보다 낮은 마음에는 다양한 동요(commotion)들이 있다, 특별히 ‘심장의 떨림’, ‘죽음의 공포들’, ‘두려움’, ‘떨림’ 그리고 ‘공포’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것들이 여기에서 차례로 언급되고 있다.

무서워하다 (dread)

출15:16-‘그들 위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떨어졌다’=그들은 지배하려는 기대(hope)가 결여되었다는 것.

신8:15-‘크고 무서운 광야’=비통한 시험.

창31:42-‘이삭의 무서워 함’=신성한 인간. ‘무서워함’이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그것에서 신성한 진리가 뜻해

무서워하다-무엇-무저갱-무죄-무지개-무화과-무화과 나무

지기 때문. 그이유가 신성한 진리는 선 안에 있지 않는 이들과 더불어서는 두려움, 무서움, 공포 같은 것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창31:53-‘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무서워하는 분을 두고 맹세했다=신성한 인간을 통하여 확증함.

시91:5-‘너는 밤의 무서움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밤의 무서움’=지옥으로부터 있는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욥31:23-하느님의 파멸로부터의 무서움=모든 진리에 대한 이해가 손실됨.

이8:13-‘그분이 너의 두려움이 되게 하라, 그분이 너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여기서 ‘두려움’은 영적 인간, ‘무서움’은 자연적 인간을 위해 말해진다.

무엇 (what)

출13:14-‘이것이 무엇이냐?’=그렇게 있는 이유를 문의함.

무저갱 (bottomless pit)

* 깊은(deep)을 보라.

무죄 (guiltless)

창44:10-‘그리고 너는 무죄일 것이다’=나머지는 너희 마음대로 일 것이다, 그 이유는 과오에 있어서 똑같지 않기 때문.

출21:19-‘그를 강타한 자는 무죄일 것이다’=그는 악으로부터의 죄는 아니라는 것.

출21:28-‘황소의 주인은 무죄일 것이다’=이 악은 내적 인간으로부터 있지는 않다, 그이유가 그것이 의지로부터 있고 이해함으로부터 있지 않기 때문. ‘무죄’=과오 없음.

무지개 (rainbow)

* 활, bow도 참조

계10:1-‘천사들의 머리 주위에 무지개’=내적 의미에서 있는 말씀.

겔1:28-‘빛남’과 ‘무지개’=사랑으로부터의 지혜와 총명.

계4:3-‘왕좌 주위에 무지개’=선으로부터 투명한 진리들. 거기의 색깔들은 천국의 빛으로부터 있기 때문.

계4:3-‘왕좌 주위에 무지개, 그 광경이 에메랄드 같다’=주님 주위에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나타남.

계10:1, 겔1장, 창9장-‘그의 머리 넘어 무지개’=신성의

영적 평면. 이는 자연 평면 넘어 있는바, 무지개가 그의 머리 넘어 있다...주님의 신성한 영적 평면이 에스겔 1장에서 ‘무지개’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무지개’=신성한 영적 진리.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거듭나지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자연 평면에 있는 신성한 영적 진리.

창6장-‘무지개’=거듭남, 이는 신성한 진리에 따른 삶을 통하여 결과되어진다. 그러므로 이 ‘활’이 언약의 표시로 취해졌다.

무화과(fig)

무화과 나무(fig-tree)

창3:7-‘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꿰매었다’... ‘무화과 나무’=자연적 선...이 후손은 순진 대신 자연적 선을 소유했다....

암4:9-‘무화과 나무들’=자연적인 것들.

예29:17-그들은 ‘무서운 무화과들’ 같이 되어 있을 것이다.

신8:8-신앙 속의 선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이다.

마24:32-‘무화과 나무로부터의 비유를 배워라’= 새 교회의 첫(번)째되는 것; ‘무화과 나무’=자연적 평면의 선; ‘그것의 잎들’=진리들. 주님의 오심이 무화과 나무와 그것의 가지들과 잎들로 비교하여 무엇을 포함하는지는 알 수 없다....말씀의 어느 곳에서 언급되든 무화과 나무=자연적 평면에서의 선...(그러므로) 이 비유는 새교회가 주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질 때, 무엇 보다 먼저 자연적 평면에서 선이 나타난다는 것, 즉 새교회에 대한 애착과 진리들과 더불어 선이 외적 형태에서 나타난다는 것. 자연적 평면의 선(the good of the Natural, 첫째 천국의 선)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 지닌 선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선의 근원이 영적인 곳에 두고 있는 선을 뜻한다. 누구도 이 선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오로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주님에 의해 그 선으로 인도되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선 안에 있기 전, 즉 영적인 선 안에 있기 전일 경우, 그는 주님의 교회의 사람이 아니다. 설사 그와 더불어 태어난 선이 제아무리 많아도 그가 교회인처럼 보일 뿐이다.

예8:13-‘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내면의 선, 또는 합리적인 선이 없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외

문(door)

면의 선, 또는 자연적 선이 없다.

호9:10-‘무화과 나무에 있는 원시적인 것(아직 익지 않은 것)’=영적으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자연적 선.

눅6:44-선행의 내적인 선들은 ‘포도’이고 자연적 선들은 ‘무화과’이다.

시78:47, 105:33-‘무화과(sycamore)’ 그리고 ‘무화과 나무’=외적인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

을1:7-‘무화과 나무’=자연적 선.

합3:17-‘무화과 나무’=자연적 선.

사9:10,11-‘무화과 나무’=천적 교회의 외적인 선.

을1:12-‘무화과 나무’=외면의 선.

계6:13-‘큰 바람에 의해 흔들린 무화과 나무가 그것의 덜 익은 무화과를 내던지듯...’=자연적 인간의 추론을 통하여 영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됨...무화과 나무, 그것의 상응으로부터=그의 영적 선과 결합된 인간의 자연적 선; 그러나 여기서의 경우, 반대적 의미인 바, 그의 영적 선과 분리된 인간의 자연적 선, 이것은 선이 아니다. 그리고 자연적 인간이 그의 영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될 경우, ‘별들’로 의미된 선과 진리에 관한 주님으로부터의 지식을 추론을 통해 악용하는 바, 이 결과가 ‘큰 바람에 의해 흔들린 무화과 나무’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신8:8-‘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영적 근원으로부터 있는 선과 진리.

호2:12-‘무화과 나무’=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외적인 교회.

학2:19-‘무화과 나무’=자연적 선과 진리.

눅6:44-‘가시나무로부터 인간들은 무화과를 수집할 수 없다’...‘무화과’= 여기서의 경우 외적 인간의 선, 또는 자연적 인간의 선.

예24장-내면에 선이 있는 그들로부터 새 천국이 형성되어진다. 이것이 ‘좋은 무화과를 담은 바구니’로 의미된다. 그리고 내면이 악한 이들은 지옥에 내던져지는데, 이것이 ‘나쁜 무화과를 담은 바구니’로 의미되어진다... 그 이유가 과일로서의 ‘무화과’=내적, 외적 형태로 동시에 있는 생활의 선;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그것=외적 형태로만 있는 생활의 선, 이것은 생활의 악이다.

을1:12-‘포도나무’=교회의 영적 선과 진리; ‘무화과 나

무’, 자연적 선과 이 선에서 파생된 진리; 그리고 ‘석류’, 감각적 진리와 선, 이것은 자연적인 것의 최말단이다.

시105:33-‘그들의 포도나무’=영적인 진리; 그리고 ‘그들의 무화과 나무’=자연적 진리, 둘 다 교회 속에 있다.

암4:9-‘무화과 나무들’=외면의 선들과 진리들, 이것들은 도덕적인 것들이라고도 불린다.

사9:7-15-그들은 외적인 천적, 영적 선인 것,, 여기서의 경우, ‘무화과 나무’인 도덕적인 선이 자기들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속3:10-‘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그들은 올 것이다’=교회와 내적 진리들로부터의 교리와 외적 진리들로부터의 교리...

예5:17-‘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이스라엘족들로부터의 영적 평면의 내적, 외적인 것. (내적 측면인 영적 교회, 외적 측면인 자연적 교회).

묵다 (tarry)

* 지체하다(delay)를 보라.

묶는 것 (bind)

묵다 (bond)

속박(bond)

창22:9-‘그는 자기 아들 이삭을 묶었다’=시험의 마지막 등급을 막 수행하려 하는 진리 측면에서의 신성한 합리성의 상태...‘묶는 것’=시험의 마지막 등차를 수행하는 상태를 옷입는 것.

삼하22:12-‘물들의 묶음들,, 그리고 하늘들의 구름들’=글자로 있는 말씀.

창38:28-‘그녀는 그의 손에 두 번 물들인 (끈을) 묶었다’=그녀는 힘을 표시해두었다는 것...‘그의 손을 묶는 것’=힘을 표시해두는 것.

창42:35-‘보라 그의 돈의 꾸러미가 각자에게’=무료로 수여된 진리들을 질서대로 놓음. ‘꾸러미’, 또는 묶음=질서적으로 배열함.

출12:34-‘그들의 옷들로 묶은 반죽통’=진리들에 인접하고 있는 애착들로부터의 즐거움들...‘묶는 것’=인접하는 것.

출28:28-‘그들은 가슴받이를 에봇의 고리들에 고리들을 수단으로 묶을 것이다’=천국의 모든 것들이 결합하

문(gate)

고 보존됨.

마16:18-19-‘천국들의 열쇠들’에 의해, 주님이신 이 돌(Stone)이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천국들에서 묶여질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천국들에서 풀려질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천국과 땅에서 권능을 가지신다는 것.

계20:2-‘그리고 그를 천년 동안 묶었다’=용에 의해 의미된 그들은 영들의 세계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떼어내져 한동안 그들과 교통하지 않도록 퇴출되어졌다.

마13장, 요15:6-선들과 진리들을 한데 묶는 것 같이 ‘가라지들은 그러모아 태우기 위해 한데 묶는다’고 주님께서 말하신다, 그리고 불법인 모든 것들 또한 그러하다.

마22:13-‘손과 발을 묶는 것’=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을 거두어 가버리는 것, 이를 통하여 그는 영적 인간을 위조한다(counterfeit).

시118:27-‘끈들로 묶는 것’=결합하는 것.

마13:30-‘다발들로 묶는 것’=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의 각각의 종류를 함께 결합하는 것.

문 (door)

문지기 (doorkeeper)

* 이 문은 통상 작은 문에 해당됨(방의 문 등등)

마24:33-‘문들에서’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자연적 평면의 선 그리고 그 평면의 진리들이 인간이 거듭나지고 교회를 만들 때 첫 번째로 서서히 주입시켜지기 때문이다.

왕상6:32-‘문들에 그룹들이 있었다’=천국과 교회로의 접근.

창4:7-‘죄가 문에 누워 있다’...‘죄가 문에 누워있다’=바로 가까이에 악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문에 있는 악마와 그의 패거리들과 싸움을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은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 (노아의 방주의) 문=들음(hearing)

창18:1-‘천막의 문에 앉아 있다’=...거룩한 것으로의 입구에서...

창19:6-‘뿔은 문으로 그들에게로 밖으로 나갔다’= 그

는 자신을 신중하게 대치했다...‘문’, 말씀에서=진리이든, 선이든, 또는 주님이시든 들어가게 하는 것, 또는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문’=진리 자체, 또는 선 자체, 그리고 주님 자신; 그 이유가 진리는 선 쪽으로 인도하고, 선은 주님 쪽으로 인도하기 때문. 성막의 문들과 휘장들은 이와 같은 것을 표현했는데, 성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요10장-‘문으로 양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이다. 나는 양의 목자이다. 나를 수단으로 누군가가 들어갈 것이라면 그는 구원될 것이다.’ 여기서 ‘문’=진리와 선, 고로 주님, 이분은 진리 자체이고 선 자체이다. 이로부터 문을 수단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감에 의해 의미되는 것이 명백해진다.

창19:11-‘집의 문에 있던 남자들’=합리성 그리고 이로부터의 교리적인 것을 통하여 폭력이 선행의 선에 가해진다...‘문’=소개, 접근, 이것이 진리 쪽이든, 선 쪽이든 어느 쪽으로 인도한다; 고로 그것=교리적인 것.

마25:10-‘그리고 문이 닫혔다’=다른 사람들은 천국으로 입장할 수 없었다는 것.

출21:6-‘그는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데려갈 것이다’=진리가 확증되고 이식되어 영적 선과 더불어 상태. ‘문’=진리를 선에 소개함, 여기서는 진리가 확증되고 이식되었음을 소개함...그리고 ‘문’=소개함, 입문함인바, 그것 또한=소통함, 그 이유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

이26:20-‘분노가 통과되기 까지 네 뒤에서 네 문을 닫으라’=악과의 소통은 없음.

슌11:1-‘문을 열라, 오 레바논아’=접근 또는 소통함을 주는 것.

시84:10-‘나는 내 하느님의 집에 있는 문에 서있기를 선택했다’=선과 더불어 것 없이 소통하는 것.

계3:20-‘보라, 나는 문에 서있다, 그리고 두드린다’=주님은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과 현존하신다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라고 재촉하시고, 어떻게를 가르치신다...‘문’=승인과 입장.

이45:1-‘그에게 문들이 열리고, 성문은 닫혀지지 않을

문(gate)

것이다=전지하심으로부터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명백해져 있다는 것, 전능하심으로부터 그분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

창19:6-‘그는 그 사람 뒤에서 문을 잠궜다’=그들의 선행의 선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그리고 신성한 인간과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거룩함을 부정하지 않도록.

창19:9-‘그들은 문을 부수려고 접근했다’=그들은 둘 모두를 깨부수려고 왔다. (그 이유가) ‘문’=선애, 주님에 소개하는 것; 또한 선 자체, 그리고 주님 자체.

겔8:3-‘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안쪽 (성)문으로부터의 문’=내면의 거짓들이 있는 장소; ‘북향의 여호와와 그의 큰 문으로부터의 문’=내면의 악들이 있는 곳.

창38:14-‘(다말은) 담나로 가는 길에 있는 샘들의 문에 앉았다’=교회의 진리들에 그리고 교회의 거짓들에 매개물... ‘그들의 문’=그들에게 입장함에서; 그리고 말씀의 글자 의미 속에 있는 외적 진리들에는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이 있는 바, 이 진리들은 ‘문’이다.

창43:19-‘그들은 집의 문에서 그에게 말했다’=소개함에 관하여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상담함... ‘그것들의 문에서’=소개함; 여기서는 외적 인간으로부터 내적 인간까지 ...이런 의미가 있기에 원어의 경우, ‘집의 문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집의 문’이라 말해지고 있다.

출12:22-‘집의 문으로부터 나가는 것’=선으로부터 진리 쪽으로 나가는 것; 그 이유가 선은 안쪽에 있고, 진리는 바깥쪽에 있기 때문.

시 24:7-‘네 머리들을 들어 올려라, 오 너희 큰 문들이여; 너희는 들어올려진다, 세상의 너희 문들이’ ‘세상의 문들을 들어 올리는 것’=주님에게 심정을 열고 그분에게로 끌어 올리는 것...그리고 소통하는 것, 즉 그분이 선행의 선과 믿음 속의 진리와 더불어 안으로 흘러드시도록 하는 것.

출26:36-‘너는 성막의 문을 위하여 늘어뜨릴 것을 만 들어라’=두 번째 천국이 첫 천국과 연합되게 하는 매체...여기로부터 저기로 가는 입구에 늘어뜨린 것이 있는 문에 의해 의미되어졌다.

출29:4-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합의 성막의 문으로 데려오라=천국 안에서 둘의 결합... ‘문’=소개

함...그 이유가 회합의 성막의 문이 있는 장소는 신성한 선이 신성한 진리와 결혼함을 표현했기 때문.

출29:32-‘회합의 성막의 문에서’=천국 안으로 입장하기 위하여. ‘문’=입장, 그리고 소개함.

출33:8-‘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그리고 성막의 문에 섰다’=이 나라는 말씀, 교회 그리고 예배의 외부에도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의 밖에 있었다...그 이유가 ‘문’=입구, 소개함, 그리고 소통함; 이로부터 문 앞에서는 것=들어가지 않은 것, 소개되어지는 것, 그리고 소통되는 것.

마25장-‘문’=천국 안으로 입장.

계3:8-‘잘 보라, 나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장치한다’=천국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에게는 열려있다는 것. ‘열린 문’=입장 허가.

계4:1-‘보라 천국에 열린 문...’=주님에 의한 마지막 심판을 위한 천국들의 서품식에 관하여 명명백백해짐.

겔10:19-‘집의 큰 문으로부터의 동쪽 문’=(천국과 교회에) 접근.

문 (gate)

* 이 문은 주로 큰 문 (성의 문, 등등)

이54:12-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들.

창28:17-사람이 ‘벧엘’이다...그리고 또한 그가 지식들로부터의 천적인 것들 안에 있을 때가 ‘하늘의 문’이다.

창19:1-‘룻은 소돔의 문에 앉아 있었다’=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 그러나 외적 예배에 있는 이들...이들은 악 사이에 있으나 악한 자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것이 ‘소돔의 문에 앉아 있는 것’이다.

창22:17-‘네 씨가 네 원수들의 문을 상속할 것이다’=선행과 믿음이 악과 거짓이었던 자리를 계승할 것이다.

이14:31-‘문’=내면들, 또는 합리적 마음에 접근함; ‘도성’=그 마음...

이24:12-‘문’이 ‘황폐한채 방치되어 있다’라고 말해질 때, 이는 악과 거짓만이 지배하고 있을 때이다.

애1:4-‘(시온의) 모든 문들이 황폐하다’=모든 입구가 거짓에 소유당해 있다.

애2:9-‘그녀의 문들이 땅으로 가라앉았다’=자연적 마음이 악과 거짓에 소유당했다.

신28:52-‘모든 (성)문들이 제한(포위)되었다’=선과 진

문(gate)

리로의 입구가 차단되었다.

나3:13-‘토지의 문들이 적에게 열리어 있다’=선들이 있어야 할 장소를 악들이 소유했다.

사5:8-‘문들을 습격하는 것’=선과 진리를 습격하는 것.

시69:12-‘문의 주민들’=악들과 거짓들; 또한 지옥들

겔8:3-‘북향을 보고 있는 안쪽 (성)문으로부터의 문’=내면의 거짓들이 있는 장소.

겔8:14-‘북을 향한 여호와의 집의 큰 문의 문’=내면의 악들이 있는 장소.

시127:5-‘문에서 적들과 이야기하는 것’=악들과 거짓들, 고로 지옥의 어느 것도 겁내지 않는 것.

미1:9, 읍13절-이로부터 예루살렘이 ‘백성의 문’이라 불리워진다.

창23:10-‘그의 성문으로 들어오는 모두에게 말하기를’=교리적인 것들에 관하여, 이를 통하여 신앙이 있다. 그 이유가 ‘문’=입구, 고로 소개하는 것...‘문’과 같은 의미이다.

창24:60-‘네 씨가 네 미워하는 자의 문을 상속하게 하라’=신성한 인간 안에서 선과 진리의 결혼으로부터 있는 주님의 영적 왕국, 이 왕국은 악과 거짓이 있는 거기 앞에서 선행과 신앙을 가진다.

창34:20-‘성의 문’=진리의 교리.

창34:24-‘그의 성문을 나가는 모든 자’=그들은 고대인들 사이에 교회의 교리로부터 퇴조했다는 것...성의 문=교리...

출27:16-‘바깥뜰의 문을 위한 덮개’=이 천국을 소개함,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이들 외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않도록 감시함. (그 이유가) ‘문’=소통함과 소개함.

출27:26-‘모세가 진영의 문에 섰다’=지옥으로 열림이 있는 곳...‘문에서’=열림이 있는 곳...모세가 진영의 문에 선 이유는 ... 내적인 것이 지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표현되기 위하여서였다.

마16:18-‘지옥의 문들이 득세하지 못할 것이다’=지옥들은 감히 밖으로 나가 신앙 속의 진리들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창22:17, 24:60-‘원수의 문을 상속받는 것’=지옥으로부터 있는 악들과 거짓들을 파괴하는 것.

시14:7,9-‘문들’ 좋은 의미에서라면,=천국으로 열림.

출32:27-‘너희를 건너 진영에서 문으로부터 문 까지 돌아오라’=내적인 것으로부터 외적인 것으로 열린 어떤 것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그 이유가) ‘문’=열림; 고로 ‘문으로부터 문 까지’=열린 어떤 것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계21:12-‘열 두 문들을 가지고 있는...’=거기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들, 이를 통하여 인간은 교회 안으로 소개받는다. ‘문들’에 의해 말씀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의미된다, 그 이유는 이를 수단으로 인간은 교회에 소개 되기 때문; 그 이유가 문들이 있는 성벽=말씀이기 때문.

계21:13-‘동쪽에 세 문들이, 북쪽에 세 문들이, 남쪽에 세 문들이, 그리고 서쪽에 세 문들이’=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이 지식 안에 주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영적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수단으로 새 교회가 소개된다. 이 교회는 다소 차이는 있다 해도 대체로 사랑에 있는 이들, 또는 선에 애착함을 지닌 이들을 위한 교회이다. 그리고 다소 차이는 있어도 대체로 진리에 애착함, 또는 지혜에 있는 이들을 위한 교회이기도 하다.

계21:15-‘나와 대화했던 그 사람은 도성과 그 문들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지고 있었다’=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새 교회의 교리와 이 교회를 소개하는 진리들에 관하여 알고 이해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계21:19-‘그리고 열 두 문들은 열 두 진주들이었다, 그리고 문들의 각각은 한 개의 진주 였다’=주님을 인정함과 주님에 관한 지식은 말씀으로부터 있는 모든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하나로 결합한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소개한다.

계21:25-‘그리고 그것의 문들은 낮에 닫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거기에는 밤이 있지 않기 때문’=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은 새 예루살렘 안으로 받아들임은 꾸준할 것, 그 이유는 거기에 믿음으로부터의 어떤 거짓도 있지 않기 때문. 낮에 닫혀 있지 않은 문들이란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들이 승인되었음을 의미한다...

계22:14-‘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복있다, 그들의

문지기-문지방-문턱-묻다-묻다-물

힘은 생명의 나무에 있을 것, 그들은 성 안으로 문들을 통해 입장한다는 것'=주님의 교훈에 따라 사는 이들은 영원한 행복을 가진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닌 목적은 그들이 주님 안에 있고, 사랑을 통하여 주님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 그리고 그분에 관한 지식들을 통하여 그분의 새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

이26:2-'문들'=허락.

이45:1-'(성)문이 닫히지 않게 문들을 여는 것'=영구히 허락함.

예1:15-'예루살렘의 (성)문들의 문에 와서 보좌를 놓는 것'=교회를 소개하는 진리들을 거짓을 통하여 파괴하는 것.

애5:14-'원로들이 문으로부터 중지되었다'=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 또는 추상적으로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통하여 교회로의 입장 허가가 더 이상 없다.

시127:5-'그들이 적들과 문에서 이야기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그들은 지옥으로부터의 악들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문'=지옥.

예14:2-'문들'에 의해 이런 것들에 접근함이 의미된다.

이54:12-'네 문들'=입장 허가를 받는 진리들; 특별히 선으로부터 있는 교리적인 것들; 그 이유가 순수한 교리 속의 모든 진리들은 선으로부터 진행되고, 그리고 선 속에 있기 때문.

겔43:1,4-'문'에 의해 소개됨과 입장함이 의미된다.

겔44:1,2-'동쪽을 쳐다보는 문'에 의해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사랑의 선을 통하여 주님께 의해 천국 안으로 그리고 교회 안으로 소개됨이 의미된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이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셨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소개됨은 이 선으로부터 주님께 대한 예배를 통하여 결과된다는 것이 '문은 안식일에 열려질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이 선으로부터 예배가 있지 않을 경우 소개함은 거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하는 육일 동안 이 문은 닫힌다'에 의해 의미된다.

겔47:1-여기서는 '집'에 의해 교회가 의미되고, '문'은 입장과 소개함이 의미된다.

겔48:34-'문들'에 의해 소개하는 진리들이 의미된다.

이 진리들은 교리적인 것들이다.

이14:31-'문'에 의해 교회로 소개하는 진리가 의미된다...이로부터 '울부짖어라 성문아'...진리에 관련한 교회의 황폐함이 의미된다.

이28:6-'성문에서 전쟁을 물리치는 이들에게 여호와와 힘이 되신다'=주님께서는 말씀과 말씀으로부터의 교리를 방어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에서 방패가 되신다. '도성'=교리; 그리고 '성문'=자연적 진리들. 그러므로 원로들이 판결하기 위해 도성의 문에 앉아 있다.

옵11절-'문들로 입장한 외국인들'이란 내면의 진리들 안으로 입장함을 통하여 진리들을 파괴하는 교리 속의 거짓들을 의미한다.

마16:18-'지옥의 문들이 득세 못 할 것이다'=지옥으로부터 있는 악들로부터의 거짓들은 주님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교회인들에 맞서 감히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문들'이란 지옥의 모든 것들, 이것들에 있는 문들을 통하여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봉기한다.

애1:4-'그녀의 모든 문들이 황폐되었다'=진리들로의 입장은 없다는 것.

문기둥 (post)

문설주

출12:7-'그것을 두 문기둥과 인방에 놓으라'=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 문의 '기둥들'=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진리들.

출21:6-'그는 문으로 이든, 문기둥으로 이든 어느 쪽으로 그를 데려올 것이다'=영적 선으로 해서 심어지고 확증된 진리의 상태. 그이유가 문기둥은 두 방들 사이에 있고 그것들을 결합하게 하기 때문.

문지기 (doorkeeper)

* 문을 보라.

문지방(threshold)

문턱

습2:14-'문지방에 가뭄'=진리의 완전 파멸.

묻다 (bury)

* 매장하다를 보라

묻다 (ask)

요15:16, 16:23,24, 14:14-'네가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묻는 것은 무엇이든'...여기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물어야 할 것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 이유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통하여 제외하고는 신성한 선예로의 접근이 열려 있는 길은 없기 때문...그러므로 주님 자신에게 묻는 것은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에 따르는 것(묻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묻는 것은 무엇이든 수여되어진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신다, '만일 내가 내 이름 안에서 어떤 것을 묻는다면, 나는 그것을 행할 것이다.'

출22:13-'사람이 그의 동료로부터 빌려달라고 물을 때 '또다른 지주로부터의 진리...'빌립이 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영계에서 타인으로부터 그의 선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어지는 것은 총명과 지혜 속의 것들이다... 이로부터 분명한 바, '빌리는 것'=또 다른 사람에 의해 가르쳐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 외에 또 다른 근원으로부터 진리들을 받는 것, 또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받는 것이다.

출22:13, 마5:42-말씀에서 '빌립' 또는 '빌려줌'이 말해지는 곳에서 이는 선행의 애착으로부터 가르쳐줌, 가르침을 받음이 의미된다. 마태복음에서와 같이, '네게 묻는 모든 이에게 주어라, 그리고 빌리려는 그 사람으로부터 너는 돌아서지 마라.' 여기서 '묻는 것'은 묻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 이유는 '네게 묻는 모든 이에게 주어라'하고 말해지기 때문...그이유가 만일 사람이 묻는 모든 이에게 줄 것이라면...그는 필시 모든 그의 재산(goods)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그러나 '묻는 것'에 의해...그리고 '주는 것'에 의해 ...천국적인 재산, 즉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의 전달이 뜻해지고 있다.

마7:7,8, 요15:7-'물어보라, 그리고 그것은 네게 주어질 것이다'...교리 없이 읽힌다면, 물어보는 모든 이는 받는다는 것이다 하고 믿어진다. 교리를 사용해 읽게 된다면, 사람이 무엇을 물어보면 그것이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주님으로부터이다면 주어진다 믿어진다. 그이유가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기 때문, '만일 내가 내 안에

머무르고, 그리고 내 말이 네 안에 머무른다면, 너는 내가 뜻하는 것을 물어라, 그리고 그것은 너에게 행해질 것이다.'

막11:24-'네가 물을 모든 것, 기도하면서, 네가 그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라, 그다음 그것은 너에게 행해질 것이다...'여기서 역시, '기도함' 그리고 '물어봄'은 영적 의미에서 사랑과 선행을 뜻하고 있다. 그이유가 사랑과 선행의 생활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묻는 것은 주님께 의해 주어지기 때문. 그러므로 그들은 선이 아니면 어떤 것도 묻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이루어진다.

막11:24, 마7:8, 눅11:9-만일 그들이 선행으로부터의 신앙으로부터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들로부터 묻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묻는다.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묻는 것은 무엇이든 받는다.

출17:6-'너는 바위를 세게 칠 것이다'=그들이 주님께 긴급하게 간절히 묻는 것.

물 (water)

* 깊음(deep), 샘(fountain), 호수(lake), 구덩이(pit), 강(river), 우물(well) 도 참조

창1:6-'물들 한가운데에 광활한 공간이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물들과 물들이 구별되게 하라'...내적 인간에 있는 지식들은 '광활한 공간 위쪽에 있는 물들'이라 불린다; 그리고 외적 인간의 과학물(scintics)들은 '광활한 공간 아래쪽에 있는 물들'이라 불린다. (=합리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에 있는 영적인 것들), (=기억 속의 진리들, 그리고 신앙 속의 내면적 진리들)

창1:9,10-(외적 기억 안에 있는) 이러한 지식들이 '한 장소로 함께 모아진 물들'이다, 그리고 '바다들'이라 불린다.

겔47:12-'성소로부터 나가는 물들'=생명과 주님의 자비. (=총명에게 수여되는 진리들)

암4:8-'물들을 마시려 배회함'=참된 것을 추구함.

겔12:19-'그들은 서글픔 속에서 그들의 물들을 마실 것이다'=그들이 폭력을 행사한 영적인 것들.

요4장-'물'=신앙 속의 영적인 것들.

창7장-'물들의 홍수'=지적인 것들에 관련하여 있는 시험의 시작...그이유가 '물들'=인간의 영적인 것, 또는 신

양의 지적인 것, 또한 반대 의미에서 거짓들.

창7:19-‘물들이 땅 위에 아주 극도로 거세졌다’=그러므로 해서 거짓인 것의 설득이 증가되었다.

창8:3-‘물들은 가고 되돌아오고 하면서 땅 위에서 물러나갔다’=진리와 거짓 사이에 있는 변동.

창8:5-‘물들은 나가고 줄어들고 있었다’=이 거짓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창18:4-‘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주십시오’=...신성은 그분의 지적인 것들에 더 가까이 그 자체 내려가야 하리라는 것.

예14:3-‘그들은 물들을 찾지 못했다’=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음.

창21:14-‘(아브라함)은 빵을 가져왔다, 그리고 물 한 병’=선과 진리.

* ‘물이 병으로부터 다 소비되었다’=진리의 쓸쓸함.

이41:17-‘괴롭힘 당하는 자와 가난한 자가 물들을 구하나 구하지 못한다’=진리가 황폐함.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갈망하는 이들)

요4:10-‘생명 있는 물’=진리 자체.

요7:38, 계7:17-‘생명 있는 물의 강’, ‘물들의 생명 있는 샘들’=주님으로부터, 즉 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이35장-‘물들’, ‘시냇물’, ‘호수’, ‘물들의 샘’=황폐함에 있는 이들에게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 있는 진리들.

창21:19-‘(하갈)은 그녀의 병을 물로 채웠다’=그런다음 있는 진리들.

이32:20-‘모든 물들 곁에 씨를 뿌리는 것’=영적인 것들이 혼용받아야도록 자신들을 허용하는 이들.

겔12:19-‘빵과 물’=선행과 신앙, 또는 선과 진리.

민24:7-‘물이 그의 양동이로부터 흐를 것이다’= 진리들이 지식들로부터 흐를 것이다.

창24:17-‘당신의 물동이로부터 물 한모금 마시게 해주시오’=이 근원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어떤 것이 결합되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겔4:16-황폐되어진 진리의 상태가 ‘물을 되어 마심’으로 의미되고 있다.

예51:13-‘많은 물들 위에 거주하는 너희’=진리에 관한 지식들에서.

창26:19-‘그들은 생명 있는 물들의 우물을 찾았다’=내적 의미가 있는 글자 의미에 관련되는 말씀...그러므로 그것의 물들은 ‘생명 있음’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48:1-‘유다의 물들’=주님을 사랑함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삼하22:12-‘물들이 모임, 창공들의 구름들=글자로 있는 말씀

겔36:25-‘나는 네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다’=심정의 깨끗해짐.

창37:24-‘그 안에 물이 없었다’=그 당시 진리가 없었다.

이3:1-‘물의 지팡이’=신앙 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지탱하고 힘을 가짐 (=진리로부터 있는 힘)

이22:9-‘더 낮은 물고기-웅덩이의 물들’=말씀 속의 진리들 안에 (법) 위반들을 첨가하는 식으로 해서 그들이 고안해낸 전통(관습)들.

막9:41-‘내 이름으로 물 한잔을 마시라고 주는 것’=조그마한 선행으로부터 신앙 속의 진리들이 가르쳐지는 것.

창43:24-‘그는 그들에게 물들을 주었다’=내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일반적 유입.

겔32:2-‘너는 네 발로 물들을 어지럽히거라’=자연 속에 있는 과학물(사실)들을 수단으로 신앙 속의 진리들을 뒤집거나 더럽히는 것.

창49:4-‘물처럼 가볍다’=믿음 만으로는 영광됨도, 권능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 그 이유가 ‘물 만큼 가벼워진다는 것은 무게 또는 값어치가 없음 이기 때문이다.

시42:1-‘숫고라니가 물 시냇가를 따라 헐떡거림 같이’=진리를 향한 애착으로부터 진리들을 갈망함.

이30:25-‘물들의 수로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이것이 ‘모든 높은 산 위에 있다’...그 이유는 이런 지식들은 천적, 영적 사랑의 선들로부터 흐르기 때문이다.

요나2:6-시험의 상태가 여기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혼 조차까지 나를 둘러싼 물들’=거짓들.

출2:10-‘그 이유는 내가 그를 물들로부터 이끌어냈기 때문이다’=거짓들로부터의 해방; 그 이유가 ‘물들이’여기서는 이집트의 강의 물이기 때문.

출4:9-‘강의 물들을 취하라’=거짓 과학물들.

이35:6-‘광야에서 물들이 솟는다’=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출7:19-‘네 손을 이집트의 물들에 뻗쳐라’=침투하고 있는 거짓들 위에 영적 권능이 발휘됨.

출8:20-‘그는 물들에 나간다’=이런 악들로부터 그는 다시 거짓들을 생각한다.

출12:9-‘물로 끓이지 말라(삶지 마라)’=신앙 속의 진리로부터는...아니다.

이44:3-거듭남이 진리와 선을 수단으로 결과될 때, ‘나는 물을 목마른 그 사람 위에, 영을 그의 씨 위에 부을 것이다’라고 말해진다.

이51:10-‘큰 깊은 속의 물들’, 그리고 ‘바다의 깊은들’=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 있는 지옥...바다에 관련된 물들, 이 아래 그들이 있는데, 이 물들은 거짓들이다.

출14:22-‘물들이 그들의 좌우편에서 벽으로 있었다’=그들은 모든 측면에서 거짓들로부터 보류되어졌다.

출14:26-‘물들이 이집트인들 위에 되돌아 왔다’=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도리어 그들 위로 쏟아질 것이다

출15:8-‘당신의 쿡구명의 바람에 의해 물들이 거두어 들여졌다’=거짓들은 천국의 현존을 수단으로 하나로 수집되어졌다.

* ‘거대한 물들에서’=거대한 숫자의 거짓들에 의해 압도됨.

출15:22-‘그들은 광야에서 삼 일 동안 갔다, 그리고 물들을 발견하지 못했다’=진리들이 결핍되었는데 아주 혹독했다..

출15:23-‘그들은 쓴맛 때문에 물들을 마실 수 없었다’=진리들이 그들에게 기뻐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것, 그 이유는 선에 애착함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물들을 마시는 것’=진리들을 받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선 아래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

출15:25-‘나무를 물들 안으로 던졌다’=진리들을 선으로 감동시키는 것.

출15:25-‘물들이 달게 만들어졌다’ =이런 방법에서 진리들은 기뻐하는 것이 되었다.

출15:27-‘물 열 두 샘이 있었다’=진리들이 풍부함.

출15:27-‘그들은 물들 옆에 진영을 차렸다’=시험 후에 믿음 속의 진리들은 사랑의 선을 수단으로 질서로이 놓여진다.

출 17장-네 번째 시험이 취급되어지고 있다. 진리의 결핍이 있다는 것, 이것이 물이 없다 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불평함으로 의미되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의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호렙의 바위로부터 물’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출17:3-‘백성들은 거기서 물들에 목이 말라 있었다’=진리를 갈망함이 증가함.

계21:6-‘생명의 물의 샘’=믿음으로부터의 진리와 선.

요4:14-‘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물의 샘일 것이다’=말씀으로부터, 고로 주님으로부터 있는 믿음 속의 진리.

요7:38-‘(그의 배로부터) 살아 있는 물의 강들’= 주님 만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truths Divine)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가 풍부함)

출17:6-‘물들이 (바위)로부터 솟을 것이다’=믿음 속의 진리들은 그분으로부터 있다는 것.

겔1:24-‘(날개들의) 소리는 큰 물들의 소리 같았다’=천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품질.

예1:38-‘가뭄이 그녀의 물들 위에 있었다’=생명이 없는 진리들.

출20:4-‘땅 아래 물들에’=육의 감각에...외적 감각들로부터 발생하는 과학물들이 대체로 속해 있다.

계17:1-‘그 여자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다’=거짓들 위에.

이55:1-‘너희는 물들 쪽으로 오라’=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

시69:1. 온2:6-‘물들이 내 혼 안으로 들어 오고 있다’=거짓들, 그리고 또한 거짓들을 주입함으로 야기된 시험들.

요19:34-‘물’이 주님 쪽으로부터 온 이유는 ‘물’=신성으로부터의 외적 진리, 글자로 있는 말씀 같은 것.

이32:20-‘모든 물들 옆에 씨뿌리는 것’=가려져진 진리가 무엇이든 사용되고 있다.

출23:25-‘그분은 네 빵과 네 물들에 복 주실 것이다’=

사랑의 선과 믿음 속의 진리가 증가함.

왕하2:19-‘물들이 악이다’=선이 없는 진리. ‘물들의 출구’=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을 받는 인간의 자연성.

계16:12-‘(유프라테스의) 물이 말라졌다’=이런 거짓들이 주님에 의해 제거됨.

예2:18-‘시홀의 물들을 마시는 것’=과학물들이 잘못 응용됨으로 야기되었던 거짓들.

민19:6-‘분리와 속죄의 물들’=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을 수단으로 악들과 거짓들로부터 물러나고 깨끗해짐.

숙14:8-‘살아 있는 물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다’=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믿음 속의 진리들. (=주님으로부터 있는 교회 속의 신성한 진리들)

요3:5-‘사람이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서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 올 수 없다.’ ‘물로 태어나짐’=진리를 수단으로 함...(‘물’ 여기서=자연적 인간에 있는 지각을 명시하게 하는 믿음 속의 진리), (=말씀으로부터 있는 믿음 속의 진리), (=외적 인간에 있는 진리)

예13:1-‘(네 베퍼를) 물을 통과하여 끌어 당기지 마라’=...그 당시 교회의 선은 무가치했다...그러므로 진리들은 사라졌다... 그 이유가 ‘물’=깨끗하게 하고 회복되게 해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

예10:13, 51:16-‘그분이 주시는 목소리에서, 천국들 안에 많은 물들이 있다’=신성한 진리; ‘물들’= 천국들로부터 그리고 천국들 안에 있는 진리들. (=진행된 신성으로부터 엄청나게 풍부한 영적 진리들이 있다.)

출30:18-‘너는 (대야에) 물을 놓을 것이다’=자연 안에서 깨끗해짐이 결과되게 함을 수단으로 있는 믿음 속의 진리.

출30:20-‘천막으로 들어 갈 때...그들은 물들로 씻을 것이다’=예배 (안에 있을 때) 믿음 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반드시 깨끗함이 있어야 한다.

출32:20-‘그는 물들의 얼굴에 (송아지 가루)를 흩뿌렸다’=지옥의 거짓과 진리들을 뒤섞음.

출34:28-‘(모세는 산에 있는 동안) ‘빵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이력저력하는 동안에 사랑의 선과 믿음 속의 진리를 내 것 삼음이 없었다.

시29:3-‘여호와와 음성이 물들 위에 계신다... 여호와께

서 큰 물들 위에 있다... ‘여호와가 앉으신 큰 물들’= 말씀 속의 진리들.

예47:2-‘보라, 물들이 북쪽으로부터 오르고 있다’=지옥으로부터의 거짓들.

요19:14-‘피와 물’=영적, 자연적 신성한 진리, 고로 영적, 자연적 의미에 있는 말씀.

계7:17-‘그분은 그들을 물들이 살아 있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그분은 그들을 말씀 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그분 자신과 결합함 쪽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신성한 진리들 안에서)

계8:10-‘(별이) 강들의 삼분의 일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물들의 샘들 위에’=그것에 의해 말씀 속의 모든 진리들이 왜곡되었다.

계8:11-‘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어 되었다’=말씀 속의 모든 진리들이 자아 총명으로 인해 왜곡 되었다.

계11:6-‘그들은 물들을 피로 변화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자신들을 새 교회의 두 본질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말씀 속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 (=이와같이 하여 진리들은 악으로부터의 거짓들로 변화여진다)

계12:15-‘뱀이 내뿜었다... 물이 홍수 같이’=거짓들로부터의 추론이 풍부함.

계16:5-‘물들의 천사’=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 (=주님의 영적 왕국)

계16:12-‘그 속의 물이 말랐다’=이러한 내면의 추론들 속의 거짓들이 제거되어졌다.

계17:1-‘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광신적 신앙이 ...말씀 속의 진리 안에 살면서 섞음질했다 (=광신적 신앙이 말씀 속의 모든 것들을 지배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한 것들도 좌지우지했다)

계19:6-‘나는 들었는데... 마치 많은 물들의 음성 같았다’=중간 천국의 천사들의 기쁨. (=진리들로부터 주님이 영광되심)

계21:6-‘나는 목이 타고 있는 그에게 값을 치름 없이 생명의 물의 샘을 줄 것이다’=영적 어떤 사용을 위해 진리들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서는 그분 자신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떤 영적 사용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계22:1-‘수정 같이 맑은 생명의 물의 순수한 강’= 영

적 의미로부터 있는 투명한 엄청나게 많은 신성한 진리, 즉 천국의 빛 안에 있는 진리.

계22:17-‘원하는 자는 생명의 물을 값은 치름 없이 가져가게 할 것이다’=사랑으로부터 진리들을 배우겠다는 사람, 그 진리들을 자신에게 제 것 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애씀 없이 주님으로부터 그것들을 받을 것이다...‘생명의 물’=말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들.

겔47:1-‘동쪽을 향하여 집의 문지방으로부터 흐르는 물들’=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그리고 이 진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이들에게 유입되고 있다.

이57:20-‘그것의 물들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밀어낸다’=거짓들로부터 생활 속의 악들과 교리 속의 거짓들이 나와진다.

이28:2-‘힘센 물들’=악으로부터의 거짓들.

겔31:15-‘큰 물들’=선에 맞을 내주는 진리들과 그들의 본질은 이 진리로부터 파생된다.

신8:7-‘물의 강들(의 토지)’=진리의 교리적인 것들에 관하여...

겔16:9-‘나는 너를 물로 씻었다’=진리들을 수단으로 깨끗하게 하고 재구성하는 것.

시23:2-‘그분은 나를 섬의 물들에 인도하실 것이다’=천국의 진리들.

이55:1-‘너는 물들에 오라’=진리들이 있는 말씀. (=진리들을 바라는 이들을 위한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

요2장-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음’=그분은 외적 교회 속의 진리들을 내적 교회 속의 진리들로 만드셨다.

시107:35-‘그분은 사막을 물들의 호수로 바꾸신다’=진리의 무지함이 있는 곳, 거기에 진리의 풍부함이 있을 것이다.

민20장-‘바위로부터 물들’=신성한 진리.

예18:14-‘낮선 차거운 물들이 아래로 흐르고 있다’=거짓들 안에는 선이 없다.

눅16:24-‘그가 물 안에 그의 손가락의 끝을 담게...’=말씀으로부터 진리들 안에...그러하여 ‘물로 그의 혀를 차게 함’=진리들을 뒤집고, 뒤집은 진리들을 수단

으로 거짓들을 확증하는 탐욕과 목마름을 누구러뜨리는 것.

이35:6-‘광야에서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그들이 전에는 있지 않았던 곳에 진리들이 열릴 것이다

예17:7-‘물들 옆에 심어진 나무’=주님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이 들어 있는 사람.

요4:14-‘내가 줄 물’=신성한 진리...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43:2-‘네가 물들을 통과할 때, 내가 너와 있을 것이다’=거짓들이 입장하지 못한다는 것.

이50:2-‘그들의 고기는 썩을 것이다, 물이 없기 때문이다’=살아 있는 어떤 과학물도 더 이상 없다, 그이유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시107:23-‘많은 물들에서 사업하는 것’=말씀 속의 진리들을 공부하는 이들.

이44:3-‘나는 목마른 그에게 물을 쏟을 것이다’=진리에 애착하는 이들을 진리로 혼용함.

시93:4-‘장려한 많은 물들의 음성’=신성한 진리들.

시78:15,16,20, 105:41-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 이를 받으면 총명이 수여된다가 ‘호렙의 바위로부터 물들이...’에 의해 의미된다. ‘바위’=주님; 그리고 흘러나온 물들’=그분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예47:2-‘북쪽으로부터 물들이...’=자아 총명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거짓들.

시124:4,5-‘그 때에 물들이 우리를 덮쳤다...그때에 거만한 자의 물들이 우리의 혼을 삼켰다’ ‘거만한 자의 물들’=자아 사랑을 총애하고 두둔하는 거짓들, 또한 자아 총명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거짓들...‘그들을 덮친 물들’=거짓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이 진리를 수단으로, 진리에 의거한 삶으로 가지는 영적 생명이 파멸됨. (=인간이 시험을 치를 때 그를 침수시키는 거짓들...)

예46:7,8-‘물들이 출렁거려졌다’=거짓들 자체.

암4:8-‘물들을 마시는 것’=진리들을 배우는 것.

겔36:25-‘나는 깨끗한 물들을 너 위에 뿌릴 것이다’=진짜 진리들을 수단으로...순수해지는 것.

시104:3-‘그분은 물들에 그분의 방의 들보를 누이신다’=주님은 신성한 진리로부터 천국들과 교회를 만드신다.

물고기

겔47:3~5-어떻게 총명이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받음으로 증가하는지가 예언자가 통과한 '물들'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밭목 까지 찬 물들'=감각적이고 자연적 인간이 점유한 총명; '무릅까지 찬 물들'=영적 자연적 인간이 점유한 총명; '허리까지 찬 물들'=영적 인간이 점유한 총명; '통과할 수 없는 물들'=천적 총명. 이 총명은 지혜라 불리우는데, 천적 인간, 즉 셋째 천국의 천사가 점유한다; 이는 말로는 할 수 없지만 '통과되어질 수 없었던 강'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적 인간 훨씬 넘어에 있는바, 물들이 '헤엄쳐야 하는 강'이라 불리우고 있다.

겔31:5-'그의 가지들은 많은 물들 때문에 번성되었다'=말씀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지식들로부터 있는 영적 진리들을 통하여 풍부해짐.

이19:5-'물들은 바다에서 실패할 것이다'=자연적 인간 안에는 진리가 없을 것이다.

겔7:17-'물들로 가는 것'=슬피 우는 것.

마10:42-'냉(수) 한 잔을 주는 것'=순종으로부터 (행동)하는 것; 그 이유가 '물'=애착에 있는 진리; 그리고 '냉(수)'=순종에 있는 진리.

출23:25-'그들은 그들의 빵을, 그들의 물들을 축복하실 것이다'=선이 열매있음, 그리고 진리가 번창함...'물들'=이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

이41:18-'나는 광야를 물의 못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마른 토지를 물들의 샘들로 만들 것이다'=진리들이 없던 영적 인간과 자연적 인간을 진리들로 채우는 것'.

신8:15-'아주 단단한 바위로부터의 물들'=주님으로부터 있는 이 선 속의 진리들.

시18:15-'물의 수로가 나타났다'=교회 속의 진리들이 뒤집혔다.

예51:13-'오 많은 물들 위에 거주하는 당신'=말씀 속의 진리들, 고로 교회 속의 거룩한 것들.

계17:15-'네가 보는 물들, 거기에 음녀가 앉아 있다'=추기경 회의로부터 있는 일반적으로 교리적인 것들 (=교황 지배 아래 있는 이들, 그들이 섞음질되고 모독된 말씀 안에 있다)

애5:4-'우리는 은을 주고 우리의 물들을 마신다'=진리에 관한 지식들의 결핍.

물고기 (fish)

어부 (fisher, fisherman)

창1:21-그가 다섯째 상태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생기가 있는바,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라 불린다.

겔47:10-'어부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물들을 펼 것이다'=믿음 속의 진리들에 관하여 자연적 인간을 가르치는 이들.

창1:21-'물고기들'= 과학적 사실들, (다섯째 날 수준에 이르면) 주님으로부터의 믿음을 수단으로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들어짐.

창9:2-'바다의 모든 물고기들'=과학적 사실들. 말씀에서 '물고기들'=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유래되는 과학적 사실들. 과학적 사실에는 세 종류가 있다. 즉 지적, 합리적, 감각적인 것이다...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있는 과학적 사실들은 인간이 육체 안에서 사는 동안일 경우 그의 지각, 또는 감각(느낌)이 되어 있다. 그이유가 인간은 그것들로부터 생각하기 때문이다.

슌1:3-'바다의 물고기들'=보다 수준 낮은 합리적인 것들, 또는 감각적인 과학적 사실들로부터 있는 인간의 생각.

합1:14-'사람을 바다의 물고기들 같게 만드는 것'=감각적인 것 모두 다.

이19:8-'물고기들'=감각적인 것들 만을 신뢰하는 이들.

겔47:9-'많은 물고기'=응용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들이 풍부함.

예16:16-'어부들'=감각적인 진리들로부터 가르치는 이들; '사냥꾼들(포수들)'=과학적 진리들로부터 가르치는 이들.

눅24:42-부활하신 후 주님이 잡수셨던 '벌집과 구운 생선'=말씀의 외적 의미; '물고기'는 말씀의 진리에 관련하여 있는 외적 의미.

마17:24~27-베드로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것의 입을 열고, 돈 한 조각(세켈)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전세로) 주었다

출7:18-'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을 것이다'=진리에 관한 과학적 사실인 것이 소멸할 것이다.

이1:2-'그들의 물고기는 썩을 것이다'=자연적 인간 속

물고기

에 있는 과학적 사실.

예16:16-‘그들을 (물고기를 잡듯) 끌어내는 것’=교회의 외적인 것들 안에서 가르치는 것.

마13:47-이 비유에서 그들은 물고기들에 비교되었다, 그 이유는 말씀에서 ‘물고기들’은 자연적 인간과 외적 인간, 그것이 선 쪽이든 악 쪽이든 모두를 의미했다.

겔29:4-‘이집트의 강들의 물고기들’=교리적인 것들에 있는 이들, 이것들로부터 오로지 지식일 뿐인 분리된 믿음 안에 이들; 그래서 이 분리됨 때문에 ...그들의 물들은 피로 변했고, 그 결과 물고기들이 죽었다.

합1:14,15-‘물고기들’, 여기서의 경우=일반적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겔47장, 마13장, 예16:16-(위 합1:14,15와는 달리 이 구절들에서는) ‘물고기들’=선행과 결합된 믿음 안에 있는 이들.

요21:13-이와같은 백성과 사물들이 물고기들에 의해 의미되어진 것을 아는 이는 왜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를 어부에서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왜 ‘나는 너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셨는지도...왜 제자들은 주님의 축복하심에 의해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는지도...왜 주님은 (성전세를 물고기로부터 지불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물고기와 빵을 주셨는지도...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그들이 전환시킨 나라들은 일반적 진리들 안에 있었고, 영적 진리 보다는 자연적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1:2-‘바다의 물고기들’=진리의 최말단에 있는 이들, 이들 안에는 영적 근원으로부터의 생명은 없다.

겔38:20, 호4:3, 습1:3-‘하늘들의 새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막 멀해지려는 영적, 자연적 생각들과 진리에 애착함 들.

합1:14-‘인간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이 만드는 것’= 그의 과학적 사실에 영적 진리가 결합하도록 아주 자연적 수준의 인간을 만드는 것.

눅5:6-그물이 찢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재구성(reformation)의 수단이 되어주는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또한 재구성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요21장-위 눅 5:6과 비슷한 사항들이 주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대목에서도 의미되고 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명명 백백해지게 하신 이유는 ‘물고기를 잡는 것, to fish’=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 그러므로 해서 재구성되는 것,...‘숯불(hearth) 위에 있는 조금의 생선’은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했기 때문: ‘조금의 생선’=진리에 관한 지식 그리고 ‘숯불’ 또는 불=선이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영적인 사람들은 없었다. 그이유가 그 당시 교회는 캄그리 황폐했기 때문이다. 오로지 모든 이들은 자연적 인간일 뿐이었다. 이 사람들의 재 구성이 물고기를 잡는 것, 그리고 숯불 위의 생선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마13:47~49-악한 자로부터 선한 자를 분리함이 ‘그물이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을 함께 가져옴’에 비교되고 있다. 그런 이유가 ‘물고기들’=과학적 사실에 관련하여 있는 자연적 인간들과 지식들이기 때문;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 심판에서 서로로부터 분리된다. 그 이유가 선한 자연적 인간과 악한 자연적 인간이 있기 때문. 영계에서 이들이 분리됨은 그물을 바다에 놓여지게 하고 물고기들을 그것 안으로 끌어 들이고 해안가에 가져다 놓는 것 같이 나타난다.

암4:2-‘물고기 잡는 갈고리(낚시)를 가지고’=감각 속의 오류들을 통하여.

이19:8-‘어부들은 탄식할 것이다’=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자연적 인간을 재 구성하겠다고 가르치는 이들은 헛되이 수고할 것이다: ‘어부들’, 그리고 ‘그물을 펼치는 그들’=말씀으로부터, 특히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자연적 인간을 가르치는 이들; ‘물고기들’=글자 의미로부터 파생된 지식들.

겔29:4 -‘나는 네 강들의 물고기를 네 비늘들에 들러붙게 만들 것이다’=감각 속의 오류들로부터 있는 최고로 낮은 종류 속의 왜곡된 과학적 사실들.

물동이 (basin)

이22:24-‘작은 그릇(종지, 사발)으로부터 큰 그릇(항아리)에 까지 조차’

출24:6-‘그리고 그것을 물동이들에 놓는다’=인간과 더불어, 그의 기억 속의 것들 안에. ‘물동이들’=기억 속의

물동이-물다-(깨)물다-물방울-물뱀-물어보다-물웅덩이-물을 대줌

것들...‘물동이들’, 여기서=그것들 내부에 신성한 진리들을 함유하는 기억 속의 것들, 일반적으로 ‘괴’에 의해 신성한 진리들이 의미된다.

* 과학적인 것들이 그릇들이다, 그리고 말씀에서 갖가지 종류의 그릇, 즉 ‘물동이’, ‘잔’, ‘물항아리’ 등으로 의미되고 있다.

이22:24-천적 지주로부터의 과학적 진리들이 ‘사발 그릇들’이다. 그리고 영적 지주로부터의 과학적 진리들은 ‘항아리 그릇들’이다.

속14:20-‘말 방울’=계발된 지적인 것으로부터의 과학적 진리들. 그리고 ‘제단 앞의 사발들’=과학적인 선들.

출27:3, 38:3-비슷한 것들이 제단의 물동이들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시60:8, 108:9-‘모압은 나의 씻는 물동이 이다’

* ‘씻는 물동이’=선한 것이 거짓들로 더럽혀졌다.

출12:22-‘큰 물동이에 있는 것’=자연의 선에 있는 것. ‘큰 물동이’=자연의 선. 일반적으로 그릇에 의해 자연 속에 있는 과학적인 것들이 의미되어진다...그러므로 그들 역시 자연을 의미한다...그이유가 자연은 일반적으로 그릇 역할을 하기 때문. 특별히 나무와 놋쇠 그릇은 자연 속의 선들이 의미된다...그러므로 ‘큰 물동이’=자연 속의 선 (자연적인 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요13:5-‘물동이(대야)에 있는 물’에 의해 자연에 있는 신앙 속의 진리가 뜻해진다.

물다 (bite)

창49:17-‘말의 뒤꿈치를 무는 것’=가장 낮은 지적 평면, 또는 과학적인 것들과 상담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결말을 만드는 것.

(깨)물다 (gnaw)

계16:10-‘그들은 고생 때문에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다’=그들은 진리들을 견뎌낼 수 없었다는 것...‘혀를 깨무는 것’=진리들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혀를 깨무는 것’은 진리들을 들음으로부터 생각을 보류시켜두는 것이 의미된다.

물방울 (drop)

미5:7-‘풀잎 위의 물방울’=자연적 진리.

물뱀 (water-serpent)

출7:10-‘아론의 막대기가 물뱀이 되었다’=단지 오류이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거짓들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것.

물어보다 (ask)

* 질문하다(interrogate)를 보라.

물웅덩이 (pool)

못 (pool)

* lake도 참조.

이22:9-‘더 낮은 물웅덩이의 물들’=전통들,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말씀에서 위반 행위들을 만들었다.

요9:7-‘실로암의 못’=글자 측면에서의 말씀.

물을 대줌 (watered)

창2:10-‘동산에 물을 댐’=총명을 주는 것.

창13:10-‘물이 잘 공급됨’=선과 진리가 거기서 자랄 수 있다.

시104:13-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 있는 이들을 복 있게 함.

예31:12,25-‘그들의 혼은 물을 공급받은 동산 같을 것이다...나는 지친 혼에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슬픔에 찬 모든 혼 그 각각에 물을 줄 것이다’...‘물이 공급되는 것’=가르쳐지는 것. (=이 근원으로부터 총명과 지혜를 가진다는 것.

시104:13-‘그분은 그분의 방들로부터 산에 물을 대신다’=모든 선들은 천국으로부터 진리들을 통하여 (온다)

욥3:18-‘샘이 여호와와 그의 집으로부터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시냇물의 시내에 물을 공급할 것이다’=주님으로부터 천국에서 지식들 안에 있는 이들을 계발할 교리 속의 진리가 있을 것이다.

이5:10-‘땅에 물을 대고, 대준 물은 썩고 열매를 맺는다’=교회를 생기 있게 하는 것은 교리 속의 진리와 믿음 속의 진리,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부터의 선 등등이 열매 맺을 때이다는 것.

시65:10-‘그것의 고랑들에 물을 댐’=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채우는 것.

호6:3-‘땅에 물을 대는 것’=교회를 비옥하게 하는 것, 진리들이 번성할 때, 이는 총명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선들이 열매 맺을 때, 천국적 사랑의 증가의 원인이 되는 바, 이것을 두고 비옥해진다 라고 말해지고 있다.

물의 흐름 (watercourse)

이30:25-‘강들과 물들의 개울들’=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겔31:4-‘그녀는 들판의 나무들이로 그녀의 물의 흐름을 보냈다’=진리에 관한 지식이 붙어남.

물주전자 (cruse)

왕하2:20-‘새 물주전자’, 또는 새 그릇=과학물과 선과 진리에 관한 (영적) 지식들.

물질 (substance)

창7:4-‘내가 만들었던 모든 물질을 파괴하는’ 것=인간의 자아, 이것이 활동할 때 그것은 마치 파괴된 것 처럼 있다.

창7:23-‘그분은 모든 물질을 파괴하셨다’=자아의 사랑 속에 있는 탐욕들. ‘물질’은 의지적인 것들을 서술한다. 그 이유가 인간과 더불어 모든 것은 의지로부터 발생하고 생겨나기 때문. 의지는 인간의 참 실체이다.

물통 (cistern)

* pit도 참조

신6:11-‘파진(dug) 물통(우물)’=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한 자연적 마음의 내면들.

신6:11-‘오려낸(cut out) 물통’=자연적 인간에 있는 총명의 모든 것들, 이는 영적 지식과 자연적 지식이다.

물항아리 (water-pot)

요2:6-‘유대인의 씻는 (관습)에 따라 거기에 돌로 만든 여섯 물 항아리가 있었다’=말씀에 있는 모든 이런 진리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유대 교회와 예배.

므깃도 (Megiado)

슥12:11, 왕하23:29,30, 대하35:20-24-고고함(오만함, loftiness)으로부터의 사랑이 옛 히브리 언어에서 ‘므깃도’에 의해 뜻해진다. 이는 아랍어의 뜻으로부터도 분명하다. ‘므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 역시 같은 의미이다.

왕하23:29,30, 슥12:11-‘아마겟돈’에 의해 므깃도가 뜻해진다고 여겨져왔다. 즉 거기서 유다의 왕 요시아가 바로와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했다. ‘아마겟돈’에 의해 영예, 명령, 특출함을 사랑함이 의미되어진다. 이 사랑이 옛 히브리어에서 ‘므깃도’에 의해서도 뜻해진다. 이는 아랍어에 있는 이 단어의 뜻으로부터 분명해진다.

므나 (mina)

* 파운드(pound)를 보라.

므낫세 (Manasseh)

창41:51-‘요셉은 첫 출생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다’=자연 평면에 있는 새 자발성(Voluntary), 그리고 그것의 품질. ‘므낫세’는 말씀에서 자연 평면에 있는 영적 선을 표현한다. 고로 새로운 자발적인 품성. 이 이름은 이 선의 참 품질을 포함하고 있다, 또는 이 새로운 자발적 품성의 참 특질을 내포한다. 이는 요셉의 말, ‘하느님께서 나로 내 모든 수고함, 그리고 모든 내 아버지의 집을 잊게 만드셨기 때문...’에서 분명하다. 여기로부터 ‘므낫세’에 의해 의미된 품질이 묘사되어 있다.

* 므낫세라 이름된 첫 출생=자연 평면에 있는 영적 선, 또는 거기 있는 새로운 자발성인 이유는 선은 교회가 되어가는 인간과 더불어, 또는 교회에서 첫 출생이기 때문.

* ‘므낫세’=자연 평면에 있는 새로운 자발성, 똑같은 말로 자연 평면에 있는 영적 선이라는 것은 이외의 말 씀으로부터 쉽게 확인되지 않으나, 에브라임으로부터 있는 므낫세에 관한 것을 미루어 결론낼 수 있다.

* ‘므낫세’는 잊게 함(forgetfulness)을 뜻한다. 고로 내적 의미에서 제거함, 즉 악들을 제거함, 실제적인 악과 유전적인 악 모두를 제거함. 그이유가 이것들이 제거되어갔을 때, 비로소 새로운 (주님으로부터 수여되는) 자발성이 일어나기 때문.

창48:5-‘에브라임은 르우벤 대신에, 므낫세는 시므온 대신에 받아들여졌다.

* ‘므낫세’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교회의 선은 선행(charity)이다, 이 선은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교회의 사람 안으로 주님에 의해 은근히 심어진다.

창48:14-‘그의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그는 두 번째 자리에 선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므낫세’=자발성. 고로 선행으로부터의 선.

창48:14-‘므낫세가 첫 출생이었기 때문’=선이 제일의 위치에 있으므로. ‘므낫세’=자발성으로부터 있는 선. *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서 ‘요셉’이다=내적인 것으로부터 출생한 자연 평면의 지적 부분의 진리와 자발적

므두사엘-므두셀라-므리바-므후야엘-미가엘-미디안-미디안족

부분의 선.

* '므낫세'=자발성으로부터의 선, 그러므로 므낫세에 의해 천적 인간이 표현되어진다. 그러나 그 인간은 외적인 천적 인간, 또는 외적인 천적 교회의 사람이다. '므낫세'=자연 평면에서 있는 자발성으로부터의 선, 고로 외적 인간에 있는 자발성으로부터의 선.

계7:6-'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이 날인되어졌다'=섬김과 행동하는 의지가 주님의 새 천국과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과 더불어 있을 것이다...행동과 더불어는 섬김의 의지는 결과이다, 고로 최말단, 이 안에 (상호 사랑함, 이해함) 있고 공존한다. '므낫세'가 이를 의미하는 이유는 요셉=교회의 영적 평면, 그리고 교회의 영적 평면은 의지로부터의 선, 동시에 이해함으로부터의 진리이기 때문. 그러므로 '므낫세'=교회의 자발성, 이런 이유는 '에브라임'=교회의 지적 부분, 므낫세=교회의 자발적 부분이기 때문, 또한 므낫세=행동. 그 이유는 의지는 모든 행동의 시도함(endavor)이기 때문. 그리고 시도함이 있는 곳, 기회가 주어질 때 행동도 자동으로 있기 마련이다.

이9:21-'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삼킬 것이다)'=악으로부터의 의지가 진리를 이해함을 살라버릴 것이고, 거짓으로부터의 이해함은 선으로부터의 의지를 사를 것이다.

므두사엘 (Methusael)

창4:18-'므후야엘이 므두사엘을 낳았다, 그리고 므두사엘은 라벡을 낳았다.' 이 모든 이름들은 '가인'이라 불린 첫째 이교로부터 파생된 이교이다.

므두셀라 (Methuselah)

창5:21-여덟째 교회가 '므두셀라'로 불리운다.

므리바 (Meribah)

겔47:19, 48:28-'므리바의 물에서'

출17:7-'그리고 므리바'=불평의 품질. '므리바', 원어에서는 '다툼, contention', 또는 '꾸짖음, chiding'을 뜻한다. 그리고 꾸짖음=시험에서 불평의 품질...

므후야엘 (Mehujael)

창4:18-'이랏이 므후야엘을 낳았다, 그리고 므후야엘은 므두사엘을 낳았다.' 이 모든 이름들은 '가인'이라 불린 첫째 이교로부터 파생된 이교이다.

미가엘 (Michael)

계12:7-'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용과 싸웠다, 그리고 용은 싸웠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이전 교회로부터의 거짓들이 새 교회의 진리에 맞서 싸우는 것.

* '미가엘', '라파엘', '가브리엘'은 어떤 대천사 (Archangel)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천국에서 섬김들이다. '미가엘'이라는 섬김(ministry)은 주님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다는 것, 영혼과 몸이 하나이듯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은 하나이시다는 것을 말씀으로부터 확증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의 교훈들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선행과 신앙을 동시에 가진다. 단10:13,21에서도 미가엘이 언급되는데, 위와 같은 뜻의 섬김이다. 이는 단9-11장, 그리고 12장의 마지막 절로부터 명백하다. 이런 섬김에 있는 이들이 천국에서 미가엘과 가브리엘이라 불린다.

* 다니엘서에서 미가엘은 '왕자(제 일 인자)'라 불린다. 그리고 말씀에서 '왕자'는 제일의 진리를 뜻한다.

미디안 (Midian)

미디안족 (Midianite)

창25:2-'그두라가 ...아브라함에게... 미디안을 낳았다'=주님의 영적 왕국의 일반적 몫(lot)들.

창25:4-'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 에벨, 하눅, 아비다, 엘다이었다'=세번째 몫으로부터의 갈래들. '미디안'=신앙으로부터의 진리에 있는 이들. '그의 아들들'=거기로부터 갈래들.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에 있는 이들, 즉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들에게 가르쳐진 신앙이 필수적 신앙이라 부르면서, 생활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영적 왕국 안에 있다.

이60:6-'미디안과 에바의 단봉 낙타'=교리적인 것들.

민22:4,7-미디안에 의해 거짓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그들이 생활의 선에 있지 않기 때문. 좋은 의미에서 '미디안'=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있는 이들, 따라서 자신들을 설득당하도록 쉽게 내어주는 이들. 여기서의 경우, 반대 의미인바 진리들을 왜곡하는 이들.

민25장-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미디안족의 딸과 음행함도 같은 의미이다.

합3:7-'미디안의 휘장'=거짓으로부터의 광신적 신앙.

사6:3-'미디안'=거짓에 있는 이들, 생활의 선 안에 있

미루다-미리암-미망인이 된

지 않기 때문이다.

창36:35-‘모압의 들판에서 미디안을 쳐부순...’=거짓으로부터 순수해짐.

창37:28-‘거기를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갔다’=단순한 선에 있는 이들, (그리고)진리의 지식들을 (가진 이들).

창37:36-‘미디안족들이 그를 이집트로 팔았다’=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어떤 진리에 있는 이들이 과학물과 상담했다.

사7장-‘미디안’은 생활의 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진리를 표현했다.

출2:15-‘(모세는) 미디안의 토지에 거주했다’=단순한 선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생활함. ‘미디안’=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있는 이들.

출2:16-‘그리고 미디안의 성직자는 일곱 딸을 두었다’=이 교회의 거룩한 것들...‘미디안’=단순한 선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교회의 외적 측면에 있는 이들, 그리고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이들, 즉 글자대로 자기의 납득력에 의거 쉽게 믿는 이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이런저런 것들에 따라 사는 이들이 단순한 선에 있는 이들이라고 말해진다...교회의 내적인 것은 선을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든다, 그러나 그들이 내면적 진리들에 있지 않을 때, 그들에게 흘러든 선은 일반적인 것이 된다. 고로 불명확하다...미디안의 적절한 의미는 교회 밖에 있는 이들, 그러나 자기들의 광신적 신앙에 따라 선 안에서 사는 이들일 것이다.

출3:1-‘그리고 모세는 미디안의 성직자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었다’=신성으로부터의 법이 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있는 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미디안의 성직자’=이들이 있는 교회의 선.

출4:19-‘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하셨다’=그 상태에서 신성으로부터의 예증과 확증...‘미디안’=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

사7:13-‘미디안’에 의해 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생활의 선에 있지 않은 이들...그 당시 미디안족들이 표현했던 상태가 여기서 묘사되어 있다.

출18:1-‘이드로, 미디안의 성직자’=단순한 선으로부터

의 진리에 있는 교회의 선.

사7장-‘미디안, 아말렉, 동쪽의 아들들’, (이들 진영 주위에서 기드온의 300명이 자기들의 나팔을 불었다)=악들과 이 악들로부터 파생한 거짓들에 있는 이들.

민1장-‘미디안’에 의해 진리의 지식들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들에 따른 생활은 없다.

사7장-여기서 ‘미디안’은 진리를 돌보지 않는 이들이 뜻해진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단지 자연적이고 외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개 같이 손에서 물을 뺏겨 먹은 혀를 가진 이들에 의해 쳐죽여졌다. 이같이 물을 먹은 이들은 진리 탐구에 열심인 이들을 뜻한다.

사7장-‘미디안족’에 의해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민31장,25장-‘미디안족은 선으로부터가 아니기에 진리가 아닌 진리, 고로 거짓을 표현했고 의미했다. 이로부터 남자를 알아버린 여자는 죽여졌고, 알지 않은 여인은 생명을 부지했다. 미디안족 여인=거짓들을 통하여 선을 더럽힘, 그리고 이로부터 선을 간음질하고 모독함,

미루다 (delay)

* 느린(slow)를 보라.

미리암 (Miriam)

출15:20-‘그리고 여예언자,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그녀의 손에 소구(timbrel)를 집어 들었다’=신앙의 선으로부터 주님을 찬미함. ‘미리암’=신앙으로부터의 선...이 선은 주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진행된다...미리암,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 외적인 선을 표현했다, 그래서 미리암에 추가되어 말해진 것은 모세의 누이가 아닌 ‘아론의 누이’였다.

미망인이 된 (widowed)

* 과부 생활을 보라.

미스갭 (Misgab)

예48:1-그들에게 불어 넣어진 거짓들이 ‘미스갭’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미스라임 (Mizraim)

창10:6-‘함의 아들들...미스라임’=...여러 나라들, 이를 수단으로, 내적 의미에서 (영적) 지식들, (자연적) 지식들, 그리고 선행에서 분리된 신앙으로부터의 예배들이

미스갈-미스라임-미스바-미워하다

의미되어 진다.

창10:13-‘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힘과 르하빔과 납두힘. 그리고 바드루심과 가슬루힘, 이들로부터 블레셋과 갑도림이 나왔다’=여러 많은 국가들, 이를 수단으로 아주 많은 종류의 의식들이 의미된다.

미스바 (Mizpah)

창31:49-‘(그는 그것을) 미스바라 불렀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쳐다보셨기 때문’=주님의 신성의 자연 평면의 현존.

미워하다 (hate)

증오함 (hatred)

창4:10, 마5:21,22-‘피’가 모든 죄를 위해, 특히 증오함에 따른 죄를 위해 가져가진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심정에서 그를 살해한다. 마5:21,22에서 증오함의 등차가 뜻해지고 있다. 증오함은 선행에 반대된다. 그래서 죽인다, 만일 손을 죽이지 않고 있다면 마음에서 죽인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죽인다. 증오함이 손을 사용하려 드는 것을 예방하는 길은 외적인 묶음(bond)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증오함은 ‘피’이다.

마24:9-‘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국가들로부터 미워함을 받을 것이다’=선과 진리로부터 있는 모든 것 때문에 경멸하고 혐오함. ‘미워하는 것’=경멸과 혐오를 느끼는 것. 그 이유가 이것들이 증오함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창27:4-‘에서는 축복 때문에 야곱을 미워했다...’=자연적 선은 진리와의 거꾸로된 결합을 싫어한다는 것. ‘미워하는 것’, 내적 의미에서, 여기서=싫어하는 것.

마5:43-45-사랑과 선행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는 미워함의 품질이 이 구절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명하다. 즉 ‘네 형제를 사랑하고, 네 적은 미워하라고 말해온 것을 너희는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미워하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고 상처를 입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천국들 안에 계신 네 아버지의 아들일 것이다.’

창29:31-‘레이는 미움을 받았다’=외적 진리에 애착함은 상대적으로 귀여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 이유는

신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멀기 때문.

창29:33-‘내가 미움 받은 것’=의지가 따라주지 않을 때의 신앙의 상태. ‘미움 받은 것’=사랑되지 않는 것.

창37:4-‘그들은 그를 미워했다, 그래서 그에게는 좋게 말할 수 없었다’=경멸함과 돌아서 버림...‘미워하는 것’=경멸하는 것. 내적 의미에서의 ‘증오함’은 증오함에 있는 사람들에 있는 것과 같은 증오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단어의 의미는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더 온건해지기 때문. 또한 천국에서는 증오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

창37:5-‘그들은 그를 여전히 더 미워했다’=여전히 더 크게 경멸하고 돌아서버림.

출18:21-‘이득을 미워하는 진리의 사람 (Men of Truth)’=그 이유는 진리들은 세상적인 목적 없이 순수하기 때문...‘이득을 미워함’=거짓과 악으로부터 설득 당하기를 싫어함. ‘미워하는 것’=싫어함.

출20:5-‘나의 미워하는 자들에게’=주님이 신성하심을 완전하게 거절하는 이들. ‘하느님을 미워하는 자’=악과 악으로부터의 거짓에 있는 이들. 이들은 주님의 신성을 거절한다. 이들이 거짓과 악에 있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것을 거절하고 또한 미워한다.

마5장-‘적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신앙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에 관하여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이들.

출21:5-‘당신이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 아래 깔려있는 것을 볼 때’=교회의 선에 불일치하는 거짓, 이로부터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미워하는 자’, 거짓에 관련해 말해질 경우,=교회의 선에 반대하여 있는 것, 고로 그것에 불일치한 것. 증오함, 영적 의미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 또는 선과 악 사이에 있는 불일치, 상반됨.

눅16:13-천적이고 신성인 것이 세상적이고 지상적인 것들에 우선하여 더 사랑될 때, 그것들은 혐오함에서 간직되어진다. 그이유가 이쪽이 사랑받음에 비례하여 저쪽은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를 주님께서 말하신다. 즉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주인을 미워하는 자는 다른 주인을 사랑한다...’ ‘미워하는 것’=혐오하는 것. 혐오는 증오함 속에 있다. 증오함은 사랑에 반대된다.

미적지근한-믹돌-민닛-민중-민다

계2:6-‘너는 니골라당의 일들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진리로부터 선을 분리하는 이들을 향한 신성으로부터 주어진 혐오(aversion)..‘너는 미워한다’=혐오, 이런 이유는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해졌기 때문.

시7:15-‘미워하는 자들 위에 여호와께서는 (질병을) 놓으실 것이다’=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에 맞서는 이들.

시69:14-‘내가 미워하는 자’=거기서부터 있는 악들.

호9:7-거짓의 악들이 ‘큰 증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민10:35-‘적들’에 의해 거짓들이 의미된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에 의해 악들이 의미된다. 고로 이런 것들에 관한 지옥들이 의미된다.

시109:5-주님은 그분의 시험에서 그분을 지독히 적대시했던 지옥들에 맞서 싸우셨기 때문에, 말해지는바, ‘그들은 내 위에 선을 위해 악을, 내 사랑을 위해 증오를 놓았다.’

마5:19-24-이웃을 미워하는 자, 고로 선행의 선을 혐오하는 자는 정죄되어진다는 것이 ‘너는 바보다’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 지옥(Gehenna of fire)에 들어가 쉬울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불의 지옥’=이 선과 그로부터의 이웃을 미워하는 이들이 있는 지옥. 증오의 세 등급들이 이 구절에서 서술되고 있다. 첫째는 생각이 타락함으로부터, 이는 ‘노여워함’이다. 둘째 등급은 의도(intention)의 타락함으로부터, 이는 ‘라가라 말하는 것’이다. 셋째 등급은 의지(will)가 타락함으로부터, 이는 ‘너는 바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이 등급들은 선행의 선에 맞서는 증오의 등차들이다. 그리고 처벌의 세 등급들은 ‘심판’ ‘공회’, 그리고 ‘지옥 불’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계17:16-‘이들은 매춘부를 미워할 것이다’=교조(dogmas)를 깬거절함.

계18:2-‘불결하고 역겨운 모든 새’=말씀을 왜곡해 있는 진리로부터의 거짓들...‘역겨운’=거짓 원리로부터 튀어나오는 것.

미적지근한 (lukewarm)

계3:16-‘그러므로 네가 미적지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기에, 나는 너를 내 입으로부터 토해낼 것이다’=모독,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분리함.

계3:16-‘그러므로 네가 미적지근하기 때문에’=믿음 만 가지고도 의로워진다 하는 교리로부터 사는 이들. ‘미적지근함’=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이들, 이로부터 두 주인들을 섬기는 이들. 믿음 만에 관해 생각하고 믿고 사는 이들...그리고 그것은 명명백백해질 것이다.

믹돌 (Migdol)

출14:2-‘그들은 므딕돌과 바다 사이에 진영을 쳤다’=시험들을 수행하는 상태의 시작.

민닛 (Minnith)

겔27:17-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이 ‘민닛 밀과 기장(조, 수수 등등, millet, pannag)’이다. (=일반적 측면에서의 선들과 진리들) (=갯가지 종류의 교회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

민중 (people)

* 백성(people)을 보라.

민다 (believe)

* faith, faith alone도 참조.

요1:12,13-‘그분을 영접한 자, 그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힘을 주셨다, 이들은 그분의 이름을 믿되, 피들로부터가 아니고, 육체의 의지로부터도 아니고, 사람(viri)의 뜻으로부터도 아니었다.’ 이 말들로부터 신앙, 또는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즉 그분을 영접하는 이들과 더불어, 육체의 의지로부터가 아닌, 사람의 의지로부터가 아닌 신앙,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할 것이다. 즉 ‘육체의 의지’=사랑과 선행에 반대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의지’=사랑 또는 선행으로부터의 신앙에 반대하는 것...

창15:6-‘그는 여호와를 믿었다’=그 당시 주님의 신앙... 주님은 가장 깊은 신뢰와 꾸준한 신앙으로부터 행동하셨다, 그분은 인류의 보편적 구원을 위해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싸우셨을 때, 그분은 정복할 수 밖에 없으셨다는 것. 이것이 여기서 ‘여호와를 믿는 것’이다. 누구든 그는 사랑으로부터 싸우는바 이 사랑으로부터 그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진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왕국을 사랑함 외 다른 사랑으로부터 전투하는 자는 신앙으로부터 전투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 사랑 자체를 위해 그는 전투한다, 그 사랑 자체

믿다

가 그의 신앙이다.

마7:1,2-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되어질 수 없다는 것은 타인을 심판하려 신앙으로부터의 어떤 진리에 관해 견해를 채택하는 이들에게 아주 흔하다. 이것을 주님은 금하셨다.

마24:26-‘만일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보라, 그분은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마라. 그리고 그분이 은밀한 방에 있다, 믿지 말라’=우리는 그들이 진리인 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 선인 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 그리고 많은 다른 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도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

창31:27-‘나는 즐거움과 노래함에서 너희들을 보냈을 것이다’=진리들 측면의 상태, 그는 자아로부터 자신은 이리이러한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것. ‘자아로부터 믿는 것’은 진리 아닌 것으로부터 믿는 것이다.

창45:26-‘그의 심정은 실패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자연적 (수준의) 생명과 이 생명으로부터의 이해함의 결핍...‘믿지 않는 것’=이해함의 결핍.

겔 17:15-‘이집트로부터의 말들(horses)’=약용한 지적 측면으로부터의 과학물들, 이것이 신앙 속의 것들을 두고 의논한다, 그리고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다, 즉 그들로부터가 아닐바에야 주님을 믿지 않는다. 결코 믿지 않는다, 그이유가 부정적인 것이 약용된 지적인 것을 지배하기 때문.

출4:1-‘믿지 않는 것’=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

출4:5-‘믿는 것’=신앙을 가지는 것.

출4:9-‘믿는 것’, 이는 신앙이 의미되고, 신앙으로부터 있는 진리에 관해 말해진다, 고로 지적 평면에 관계가 있다. 이에 비해 ‘듣는 것’은 자발적 평면에 관계가 있다.

출4:31-‘백성들은 믿었고 들었다’=신앙과 희망. ‘믿는 것’=영적 의미에서 믿는 것, 또는 신앙.

출14:31-‘그들은 믿었다’=신앙과 신뢰.

눅16:31-거짓들에 있는 이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이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설사 죽은 자가 일어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에서 뜻해진다.

요1:12-‘하느님의 아들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

의해 주님을 믿는 이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이들이 뜻해진다.

요1:12-‘하느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

요6:29-‘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들을 행하는 것.

계3:4-‘라오디게아의 천사에게 쓰라’=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자신들로부터 번갈아 믿는 교인에 관하여, 고로 거룩한 것들을 모독하는 이들에게...교회에서 하느님은 존재하신다는 것, 말씀은 거룩하다는 것,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등등을 믿는 이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이들. 그들은 자기들의 감각적 자연 평면에 있을 때 믿는다. 그러나 자기들의 합리적 자연 평면에 있을 때 믿지 않는다. 고로 그들은 자기들이 타인과의 대화나 무리들 사이에 있는 식의 외적 상황에서는 믿으나, 홀로 있다가 하는 내적 상황일 경우 믿지 않는다.

계2:7-이것은 슬기있는 사람에게 의해 행해지는 것, 그 이유는 그는 자기 얼굴을 하느님께로 돌리기 때문, 즉 그는 그분을 믿는다, 그리고 자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는 사악한 인간에 의해 행해진다, 그 이유는 그는 자기 얼굴을 하느님으로부터 돌린다, 즉 그는 자신을 믿는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자신을 믿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가 아닌 자신으로부터 슬기롭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는 것’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의 슬기로우미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하느님으로부터 이다고 믿는 것, 이것이 ‘생명 나무로부터 먹는 것’이다.

요9:41-그러나 주님을 전혀 모르는 이들, 마치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이들 같은 경우, 만일 그들이 한분 하느님을 믿고 그들 고유의 종교의 명령에 따라 산다면 그들 고유의 신앙과 생명을 수단으로 구원되어진다. 그이유가 주님께서서, ‘만일 네가 소경이라면, 너는 죄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시기 때문.

요1:12-‘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신성한 인간을 인정하는 것.

요8:31,32-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무턱대고) 믿는 것은 노예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 스스로 말씀으로부터

믿음-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거 자유하다, 즉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면, 너희는 내 제자이다, 그리고 너는 진리를 (영적으로) 알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요1:12-'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그분의 교리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요9:25-'주님을 믿는 것'에 의해 사랑과 신앙에서 그분과 결합되는 것이 의미된다.

이32:4-'성급한 자'란 말해진 것, 고로 거짓들을 붙잡고 믿는 이들을 뜻한다.

막16:17-이것들이 만일 악인에게 적용될 경우 기적이라 불리워졌을 것이다...그렇다해도 그 기적들은 신조들(belief)을 납득되게 하지 못하기는 여전하다. 그러나 선한 자들의 경우에는 같은 기적들이 자기들의 신조를 납득되게 하는 증거들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이 기적들은 표시들(signs)이라 불린다. 즉 '이런 표시들이 믿는 그들을 뒤따를 것이다.'

요1:12-'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신앙과 삶에서 주님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요12:44-'주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치신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요11:25-'나를 믿는 자'=그분의 신성을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유일한 하느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은 선행의 삶을 사는 이들 밖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 이것 또한 '그분을 믿는다'에 의해 뜻해진다.

믿음 (faith)

* 신앙(faith)을 보라.

밀 (wheat)

창30:14-'르우벤은 밀 수확의 날에 나갔다'=사랑과 선행 측면에서의 신앙의 상태...'밀'=사랑과 선행.

율1:11-'밀'=천적 사랑. '보리'=영적 사랑. (=내면의 선과 외면의 선).

계6:6-'밀 한 분량에 한 톨'=사랑이 매우 희귀하다는 것 (=선을 평가하건대...거의 없다).

마13:30-'밀을 내 곳간으로 그러모우라'=선들 (=내면적인 선)

출9:32-'밀과 호밀(rye)=내면의 자연 평면의 선, 그리

고 그것의 진리.

출29:2-'밀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너는 그것들을 만들 것이다'=신성한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이로부터 이것들이 있다...'밀'=사랑의 선. 고로 최고 의미에서 신성한 선.

계18:13-'밀(은 아니다)'=천적 선으로부터의 예배는 없다.

예12:13-'그들은 밀을 뿌렸었다, 그리고 가시들을 베어 들였다'=말씀으로부터 선의 진리들을 취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악의 거짓들로 바꿔게 하는 것.

신32:14-'밀의 콩팥들의 지방'=진짜의 선. (=일반적 측면에서의 모든 선)

시147:14-'그는 밀의 지방(fat)을 가지고 너를 만족하게 한다'=사랑의 모든 선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지방'=사랑의 선. '밀'=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천국의 진리들과 파생되는 지혜.

예31:12-'밀'=자연적 인간의 선.

시81:16-'나는 그들을 밀의 지방을 가지고 먹일 것이다'=천적 선으로부터 있는 모든 종류의 선을 가지고...'지방'=천적인 선. 그리고 '밀'=모든 종류의 선.

마3:12-'그는 밀을 곡창에 그러모을 것이다'=그분이 영원히 보존하시는 천국의 근원으로부터 있는 모든 종류의 선.

겔27:17-'민넛 밀과 기장'=갖가지 종류의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

눅22:31-'거짓으로부터의 신앙은 바람 앞에 겨 같은바, 말해진다, '(사탄이) 그것들을 밀로서 체질할런지 모른다'. '밀'=겨로부터 분리된 선행의 선.

마13:29-'너는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들과 더불어 밀까지 뽑히지 않도록'=선으로부터의 진리와 이 진리의 증가 또한 멸해질 것이다. 교인들과 더불어, 진리들은 거짓들과 혼합될런지 모른다, 그리고 인간이 개혁될 때까지 진리들은 분리되고 거짓들은 내던져질 수 없다. '둘다 추수 때 까지 함께 자라도록 하거라. 그리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해서,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겠다'=(교회의 마지막 상태에서)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은 선으로부터의 진리들과 분리되어진다. 그리고 이것들은 천국과 결합되어진다. 이것은 영계에서 거행된

밀가-밀봉하다-밀어내고 대신하다-밀어젖히고 나아가다-밀착하다-밀초

다.

욥1:11-‘밀 때문에, 보리 때문에 부끄러워하라, 울부짖어라’=선과 진리의 황폐함 때문에 탄식함.

밀가 (Milcah)

창11:29-‘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다’=우상 예배에서 악이 거짓과 결혼함. 아내들=거짓들.

창22:20-‘보라, 밀가, 그 여자 역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았다’=선으로부터 형제 관계에 있는 교회 밖 사람들. 데라는 세 아들들, 아브람, 나홀, 하란을 가졌는데, 이들은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그리고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다. 이 여자가 나홀의 아내였다. 이로부터 나홀과 밀가에 의해 의미되는 것이 분명해질런지 모른다. 즉 ‘밀가’는 이 국가들의 진리, ‘나홀’은 선.

밀봉하다 (seal up)

단9:24-‘환상과 예언을 밀봉하는 것’=주님에 관하여 말씀에서 말해진 것들을 결말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완성하는 것.

계10:4-‘일곱 우레(thunders)들이 말했었던 것을 밀봉하고 적지 마라’=용이 영들의 세계로부터 내던져진 후까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 심정에 넣어져서는 안된다는 것.

계20:3-‘그리고 그 사람 위에서 봉인을 해두었다’=나머지와 더불어 교통함이 완전하게 제거되었다는 것.

계22:10-‘이 예언의 말들을 봉하지 마라’=묵시록은 단 한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밀어내고 대신하다 (supplant)

창27:36-‘그가 야곱이라 명명한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는 나를 두 번이나 밀어내고 대신했기 때문입니다’=뒤빠편 질서에서 있는 그의 품질.

호12:3-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이러했고, 그들이 이와 같은 모든 선을 거절했는바, 야곱은 그의 처음 출생때부터 그러했는바, 말해지기를 ‘그는 자궁에서 그의 형제를 밀어내고 대신 했다.’

밀어젖히고 나아가다 (thrust through)

이66:16-‘여호와를 밀어젖히고 나아감’=황폐해지는 이들.

창34:27-‘야곱의 아들들은 밀어젖히며 나아갔다.’

나3:3-‘수많은 밀어젖히며 나아감’=거기로부터 있는

무수한 거짓들, 그리고 거짓들에 있는 이들.

겔11:7-‘밀어젖히며 나아감’=이들과 더불어 선과 진리가 소멸되어갔음.

이13:15-‘밀어젖히며 나아감’=거짓의 악으로부터 멀해짐.

예25:33-‘여호와를 밀어젖히며 나아감’=이들과 더불어 있는 교회의 모든 진리들이 거짓들을 통하여 파괴되었음.

에2:12-‘부상자’=진리를 빼앗김으로 영적으로 멀해진 이들.

이14:19-‘검으로 밀어젖히어 나아감으로 죽은 자’=악의 거짓들에 의해 멸망해버린 이들.

밀착하다 (cohere)

단2:43-‘그들은 서로에게 밀착하지 않을 것이다’...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과 밀착 않는 거짓들의 파괴가 여기서 의미되었다.

시122:3-‘예루살렘’=교리 측면에서의 교회, 이 교리는 ‘잘 짜인 도성 같이 건축됨’이라고 말해진다... 거기로부터의 모든 교리들은 서로에게 일치하고 만장일치한다. 그들은 주님과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상호적으로 주목한다.

밀초 (wax)

창37:25-‘낙타들이 밀초, 수지(resin), 소합향(stacte)을 운반하고 있다’=이런저런 종류의 내면의 선들.

창43:11-‘밀초, 소합향’=내면적 자연 평면의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밀초’, 여기서의 경우, 방향성 있는 밀초=선으로부터의 진리. 여기서의 밀초는 혼한 밀초가 아니고 방향성 있는 품미 좋은 밀초, 즉 소합향(storax) 같은 종류이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위 같은 뜻에서 사용되었는데, 양념도 뜻하기도 한다. 이로부터 방향성 있는 밀초=선으로부터의 진리임이 분명하다. 모든 양념들, 달콤한 향기=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미1:4-이들 악들로부터...‘그들은 불 앞에 밀초 같이 녹았다’라고 말해진다.

밀으로 내리다 (let down)

창24:18-‘밀으로 내리다’=복종.

출17:11-‘그가 자기 손을 밀으로 내렸을 때’=그들과 더불어 신앙이 아래쪽들을 향하고 있을 때.

밑으로 내리다-바구니-바꾸다

바구니 (basket)

신26:2,4-‘바구니’=지적 부분에 있는 새로운 자발적 속성

창40:16-‘보라 세 바구니’=연속으로 있는 자발적인 것들...‘바구니들’=자발적인 것들. ‘바구니=자발적인 것들인 이유는 그것들이 음식을 붙잡기 위한 그릇들이기 때문이다.

창40:16, 출29:3,32-‘바구니’, 히브리어의 경우 두 성경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자발적 속성, 이 안에는 ‘빵’, ‘과자’, ‘기름’ 등등에 의해 의미되는 선인 것들이 있다. 자발적 속성에 의해 담은 그릇이 의미된다.

창40:16, 민6:15,17,19-‘바구니’=담는 용기로서의 자발적 속성.

창40:16, 사6:19-이 때 비슷한 것들, 이는 예배를 위해 있던 것, 바구니로 운반되어졌다...그 이유는 바구니가 담은 용기를 표현했기 때문,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것들, 뭔가를 함유한 것을 표현했기 때문.

창40:16-‘내 머리 위에 구멍이 가득한 바구니들’에 의해 내면의 것들이 중간에서 어떤 종결됨도 없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창40:17-‘맨 위쪽 바구니 안에’=자발적 속성의 가장 안쪽. ‘바구니’=자발적 속성.

창40:17-‘새가 내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로부터 먹고 있다’=악으로부터의 거짓이 소비해버렸다...‘바구니’=자발적 속성, 여기서, 자발적 속성으로부터의 악인 것, 그 이유는 바구니가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

마14:20-‘먹고 남은 부스러기의 열 두 바구니’=진리와 선에 관한 (주님으로부터의) 지식들이 아주 풍부하고 가득하게 있음.

마14:20-‘그들은 먹고 남은 부스러기의 열 두 바구니를 거두었다’=충만한 것, 고로 충분한 가르침 그리고 충분한 복주심.

예24:1,2-‘바구니들’=좋은 것들이 거기에 있는 한도에서 자발적인 것들...여기서 ‘바구니’는 원어의 또다른 단어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는데, 자연에 있는 자발적 속성이 의미되고 있다. 바구니 중의 하나에 있는 ‘좋은 무화과들’은 자연적 선들, 또 다른 바구니의 ‘불량한 무화

과들’은 자연적 악들이다.

출29:3-‘너는 한 바구니에 그것들을 놓아라’=이런 것들이 있는 감각 평면. ‘바구니’=감각 평면인 이유는 감각 평면은 인간 삶의 최말단, 그리고 내면의 것들이 최말단에서 질서적으로 저장되고 있기 때문.

출29:3-감각적 즐거움, 이는 자발적 속성의 최말단인데, 말씀에서 ‘바구니’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최말단이 모든 내면적인 것들의 그릇이기에, 내면의 것들 역시 이 그릇에 의해 뜻해지기도 한다...‘바구니’에 의해 자발적인 선들, 반대 의미에서 악들...‘바구니들’은 복합체에 있는 자발적인 선들이다. 자발적인 선과 천적인 선은 같은 말이다....따라서 바구니 안에 놓여진 것들이 천적인 선들도 의미한다.

출29:23-‘누룩 넣지 않은 것들의 바구니로부터’=감각 평면에서 함께 있는 것. ‘바구니’=바깥쪽 감각 평면, 이 안에 이런 (선들이) 함께 있다.

출29:32-‘그리고 바구니에 있는 빵’=주님으로부터 있는 천적인 선을 자기 것되게 함...‘바구니’=바깥쪽 감각 평면.

바꾸다 (change)

창31:7-‘그는 내 품삯을 열 번 바꾸었다.’...‘열 번’=아주 많은 바꿈.

창35:2-‘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갈아 입어라’=입혀지게되는 거룩함...‘옷을 바꿔 입는 것’=여기서는 거룩한 진리들을 입는 것.

숙3:4-‘옷들을 제거하고 바꿀 수 있는 옷들을 입는 것’=거짓들로부터 깨끗해짐을 표현했다...

마25:6-‘큰 소리’=바뀜.

창41:14-‘바꾸는 것’=제거하고 거절하는 것.

창45:22-‘바꿀수 있는 옷들’=새로이 있는 진리들, 그리고 진리는 선 쪽으로 개시될 때 새로워진다. 그 이유가 그때 진리는 생명을 받기 때문이다.

출18:17-‘네가 하는 것은 좋지 않다’=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창8:22-‘여름과 겨울’=그의 새로운 자발적인 것들 측면에서 있는 거듭나는 인간의 상태, 거듭나는 인간의 상태의 바뀜은 흡사 여름과 겨울의 상태와 같다. 거듭나아지는 인간의 상태 바뀜은 마치 추위와 더위에 비교

바다

할만 하다.

창43:10-‘이렇게 두 번’=내면과 외면의 영적 생명.

출23:4-‘일 년에 세 번’=마지막까지 조차 충분함.

출23:17-‘일 년에 세 번’=완성인 것 그리고 계속적인 것.

단11장-교회가 멸망하려는 즈음, 교회가 수행하는 변화가 이 전쟁의 다양한 성공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왕하5:10-‘일곱 번’=충분인 것, 거룩한 것들을 서술한다.

바늘 (needle)

마19:24-‘바늘의 눈’은 영적 진리를 의미한다.

바다 (sea)

창1:27-이러한 지식들은 ‘한 장소에 모아진 물들’ 그리고 ‘바다라 불렀다’

시104:25-‘바다들’=영적인 것들

창12:8-‘바다 쪽(서쪽)의 베델’=그분의 희미한 상태.

창14:3-‘이것은 소금의 바다이다’=거기로부터 있는 거 것들 속의 더러운 것들.

눅21:25-‘바다와 큰 파도가 포효할 것이다’=이교와 말 다툼이 소란스럽게 있을 것이다.

계10:1-‘바다’=자연적 진리들; ‘땅’=자연적 선들.

겔47:8-‘바다 쪽을 향해 가는 것’=과학적 사실들을 향하여; ‘바다’=그것들의 집합.

이21:1-‘바다의 사막’=과학적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함을 통하여 황폐된 진리. (=사용되지 않은 지식의 무가치함)

합3:15-‘당신께서는 당신의 말들이 바다를 짓밟도록 만드셨다’ ‘바다’=지식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이해함 속에 있는바 위 구절 같이 말해진다.

시89:25-‘나는 그의 손을 바다에 놓을 것이다’=진리의 지식들에 있는 강함.

이60:5-‘바다가 많음 (풍부함)’=자연적 진리가 엄청나게 풍부함

여1:4-‘큰 바다,’ 그리고 ‘태양이 내려가는...’=(주님의 왕국의) 다른 쪽 경계, 이를 수단으로 최말단(의 천국)이 표현되었고, 이 천국은 관계적으로 볼 때 희미하다.

창38:14-‘너는 바다 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선의 무한한 확장...‘바다’ 또는 서쪽=개시 되

고 있기에 아직은 미미한 선,

암8:12-‘바다로부터 바다까지 배회하는 것’=지식들이 있다는 곳을 찾아 나섬; ‘바다들’=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지식들.

시114:3-‘바다가 그것을 보았고 도망했다’...‘바다’=진리의 지식들.

계4장-‘보좌 앞의 유리의 바다’=자연에 있는 모든 진리; 고로 지식들과 과학적 사실들.

시24:2-‘여호와께서는 바다들 위에 세상의 기초를 두셨다’=지식 속에 있는 것들.

창49:13-‘...바다들의 항구에서 거주할 것이다’= 과학적 사실들로부터 진리의 종결이 있는 삶... ‘바다들’=복합체 안에 있는 과학적 사실들.

계8:9-‘혼들을 가진 바다의 창조물들’=선들과 더불어 과학적 진리들.

이18:2-‘바다로 대사들을 보내는 것’=과학적 사실을 참작하는 것.

신33:19-‘바다의 풍부한 것을 흡수함’=그들은 과학적 진리를 풍부히 받아들인다는 것, 또는 그것이 은근히 심어지리라는 것.

이63:11-‘그분은 백성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만드셨다’=이들은 지옥에 떨어짐으로부터 구조되었다.

숙10:11-‘해협을 바다를 통과하는 것’=시험들.

출15:8-‘바다의 심장’=자아를 사랑함, 그로부터의 거 것들...(=탐욕들로부터의 거 것들이 있는 지옥들)

예6:23-‘그들의 음성은 바다 같이 요동친다’=그로부터 추론함.

출20:11-‘옛세 동안 그분께서는 하늘을, 땅을,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다’=내적, 외적 인간에 있는 것들의 거듭남...‘바다’=인간의 육체에 붙어있는 감각적인 것.

출23:31-‘블레셋의 바다’=신앙 속의 내면의 진리.

출26:22-‘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는 주택의 두 넓적 다리’=선이 불명료한 상태로 있는 천국과의 결합...‘서쪽’ 또는 ‘바다’=불명료한 선의 상태.

겔26:16-‘바다의 왕자들’=제일 가는 과학적 사실들, 이것은 교의(독단적 주장)라 불린다...‘바다’=일반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실인 것.

출27:12-‘바다 쪽의 모퉁이에서 바깥뜰의 넓이’=과학

바다

적 진리들에 관련하여 있는 천국의 상태... '바다'=과학적 사실이 집합된 곳, 이곳으로부터 진리들에 관한 추론이 있다. 이곳은 진리들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하는 자연성과 감각적인 것도 있다.

속14:8- '동쪽 바다', 그리고 '뒤쪽의 바다'=자연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여기에 과학적 사실들이 있고, 여기에 진리들도 집합되어 있다.

계4:6- '보좌가 보이는 곳에 수정 같은 유리의 바다가...'=글자의 의미로부터 있는 일반적 진리들 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로부터의 새 천국.

계7:1- '땅과 바다'=보다 수준 낮은 모든 것들 (=거기서 땅의 최말단 것들)

계8:8- '불로 태워지고 있는 산이 바다에 내던져졌다'=교회의 외적인 것들 안에, 그리고 믿음 만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지옥적 사랑이 나타남.

계13:1- '바다 안으로부터 짐승'=개혁 교회 속의 평신도...(=자연적 인간 속의 것들)

계15:2- '나는 불이 혼합된 유리의 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영적 세계의 마지막 경계선, 이곳은 종교를 가졌고 그 종교로부터 파생된 예배를 드렸던 했는데 생활 속의 선은 없었던 이들이 집합되는 곳이다.... 이것은 21장에서 의미하는 바다이다.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영적 진리들로부터 명료해지는 말씀의 일반적 진리들)

계18:17- '바다에서 일하는 많은 자들'=광신적 신앙...을 사랑하는...모든 이...그이유는 '바다'에 의해 광신적 신앙이 의미되었기 때문; 그이유가 '바다'에 의해 교회의 외적인 것들이 의미되었기 때문; 그리고 이런 광신적 신앙은 오직 외적일 뿐이다.

계20:13-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포기했다'=교회 속의 외적이고 자연적인 사람들 모두가 심판을 받도록 부름받았다. '바다'=교회의 외적인 것, 즉 자연적인 것.

계21:1-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않았다'=주님의 생명의 책에 찍어진 이들이 끄집어내어 구원된 이후, 교회가 복구된 그 처음 때부터 있었던 기독교인들로부터 모은 외적인 것이 같은 방법으로 사라졌다는 것. '바다'=천국과 교회 속의 외적인 것, 단순한 자들은 이 안에 있다.

시89:9- '바다가 파도를 들어 올릴 때, 당신께서는 바다의 들어올림을 규율하신다'=자연적 인간, 그이유는 일반적 진리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 바다의 파도=거짓들.

시33:7- '그분은 퇴적 더미 쌓듯 바다의 물들을 함께 모으신다'=진리에 관한 지식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있는 진리들, 이것들은 다함께 자연적 인간 안에 있다.

시77:9- '당신의 길이 바다 안에 있고 당신의 작은 길이 많은 물들에 있다'=주님이 안에 계시는 곳, 이는 말씀으로부터 있는 일반적인 진리들에 관한 지식들, 그리고 거기 있는 진리들; '바다'=이러한 지식들; 그리고 '물들'=진리들; 지식들은 자연적 인간 속에 있고, 진리들은 영적 인간 속에 있다.

예51:36- '바벨의 바다'=그들의 전통들,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있는 선에 섞음질함이다.

단7장- 짐승이 '바다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보여졌다, 그 이유는 '바다'에 의해 영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인간이 의미되었기 때문이다...

속4:8- '서쪽의 바다'= 악 안에 있는 이들과; 그이유가 영계에서 서쪽 방위에 있는 바다는 분리되고 있기 때문.

단7:2- '큰 바다'=이들이 오는 지옥.

시104:25- '크고 넓은 바다'=외적 자연적 인간, 이들은 선들과 진리들을 과학적 논리에 입각해 받는다; 거기서 '크다'는 선에 관해, '넓다'는 진리에 관해 말해진다.. '바다에서 노는 것'=앓이 주는 기쁨 그리고 그로부터 슬기로움에 따른 기쁨.

마14장- '주님께서 바다 위에서 걸으심'=그분의 현존과 (천국과 교회) 안으로 그분이 유입되심; 그리고 천국의 최말단에 있는 이들을 위해 신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생명...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희미하고 동요되는 믿음임이 바다 위를 걸다가 빠지고 만 베드로의 모습에 의해 표현되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셨고 구조되었다. '걷는 것'=사는 것...바다가 바람으로 요동쳤고 주님께서 잠잠케 하셨는바, 이는 앞서 있는 삶의 자연적 상태, 이 상태는 비평화롭고 마치 시험받고 있는 것 같다.

호11:10- '경의함으로 바다 쪽으로부터의 아들이 가까이 당겨질 것이다'=자연적 선에 있는 이들이 교회에 동의할 것이다.

계10:6- '천국', '땅', '바다'=여기서는 특별한 측면에서

바닷가-바두루심-바둑판 무늬-바드로스-바라다

인데, 보다 높은 천국들과 보다 낮은 천국들.
시65:7-‘바다들의 떠들썩함, 그리고 파도들의 요란함’
 (이것을 그분은 중단되게 만드신다)=천국들 아래 있는
 이들, 그리고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이들의 추론과 논쟁
 들.

계12:12-‘땅의 주민들과 바다의 주민들에게 화있을 것
 이다’=단지 자연적이고 감각적이지만 한 이들에게 닥치
 는 애통함.

눅17:6-‘너(뽕나무, sycamore)는 바다에 심어져라’=
 악으로부터의 거짓 속의 이런 신앙은 지옥에 내던져진
 다.

계16:3-‘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자
 연적 인간 안에 있는 진리에 관한 지식들에 관련된 교
 회의 상태가 명명백백해짐.

계18:21-‘바다에 던지는 것’=지옥으로

바닷가 (shore)

출14:30-‘바다의 바닷가에서’=지옥의 맨끝들 가까이.

겔25:16-‘바다 해안에 남은 자’=진리로부터의 모든 것.

바두루심 (Pathrusim)

창10:14-‘바두루심과 가슬루심’은 소위 나라들이다. 이
 를 수단으로 오로지 과학적일 뿐인 같은 근원으로부터
 있는 의식들의 교리적인 것이 의미된다.

바둑판 무늬 (chequer)

출28:4-‘바둑판 무늬로 작업된 의복(vest)’=신성의 천
 적 평면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신성의 진리. 이것이
 짜여져졌기 때문에 바둑판 무늬라 불려진다.

출28:39-‘너는 아마포옷을 바둑판 무늬로 짤 것이다’=
 천적 사랑의 진리들로부터 진행되는 영적 왕국의 가장
 안쪽의 것들. 이 옷에 관해서 바둑판 무늬로 짜진다고
 말해진다. 그리고 바둑판 무늬로 짜는 것은 짜는 사람
 의 일을 뜻한다. 그리고 짜는 사람의 일에 의해 천적인
 것으로부터 인 것이 의미되어진다. 원어에서 바둑판 무
 늬를 표현하는 단어가 짜다 또한 뜻한다.

* 술기 없이 위로부터 통으로 짜진 주님의 속옷(vest)
 은 아론의 의복(vest)을 짜집기함, 또는 바둑판 무늬로
 짤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바드로스 (Pathros)

겔29:14-진리의 지식들을 수단으로 한 그들의 예증이

‘나는 그들을 바드로스의 토지에 다시 데려다 놓을 것
 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이 토지는 그들이 자신
 들을 위해 포획한 지식들로부터 ‘장사하는 토지’라 불리
 운다.

바라다 (desire)

바람직한 (desirable)

창3:6-‘눈에 대하여 바람직한...’=망상

* ‘눈에 대하여 바람직함-총명을 줄 것 같은’=이와같
 은 것들이 그들의 본성에 적용할 수 있을 듯한...특히
 그것은 의지 측면이다.

계9:6-‘그들은 죽기를 바라다’=그들은 선을 지각하는
 능력이 파괴되기를 원했다.

이58:13-‘너는 내 거룩함의 날에 네 바라는 것을 하지
 않도록...네 바람을 찾지 않도록!...천적 인간은 자신의
 바람으로부터 행동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부터 행한다. 이것이 그의 바람이다.

창2:9-‘생김새에서 바람직한 나무’=진리에 대한 지각.

창3:6-‘총명을 주기에 바람직한’=쾌락(pleasure).

이32:12-‘바람의 들판들’

창4:7-‘너에게 그의 바람이 있다, 그리고 너는 그를 지
 배할 것이다’=선행은 신앙과 함께 있기를 바라다.

울3:5-‘너는 나의 바람직한 것들을 너의 성전들로 운반
 했다’=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지식들.

말3:1-‘너희가 바래왔었던 언약의 천사...’

호13:15-‘그는 탐낼만한 모든 그릇들의 보물이 망쳐질
 것이다.’

창27:15-‘바라는 옷들’=진짜 진리들. ‘바라는’=진짜.

창31:30-‘너는 네 아버지의 집을 심히 바래왔기 때문
 에’=직접적으로 흐르는 신성한 선과 결합을 바람.

창34:8-‘그의 혼이 당신의 딸을 갈망한다’=이 새로운
 교회와 결합하기를 열망함.

창49:26-‘시대의 언덕들의 바람에까지’=상호적인 천적
 (왕국의) 사랑.

이44:9-이것에 관해서 말해지는바, ‘그들의 가장 바람
 직하다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58:13-‘자기가 바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자기들의
 사랑에 따라 사는 것.

계18:14-‘혼이 바라던 열매들’=천국의 행복과 복됨.

바락-바란-바람

이는 죽어갈 때 인간의 바람들, 그리고 영계에 새로이 도착할 때 거기서 그들의 바람들.

눅17:22-‘너는 사람의 아들의 날의 하나를 보기를 바랄 것이다.’

골3:5-‘상품의 바람직한 것들’=과생된 진리들과 선들, 이는 글자 의미로부터의 (영적) 지식들이다.

애2:4-‘눈들에게 바람직한 것들’=총명과 지혜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

시84:2-‘내 혼이...여호와의 뜻을 향하여...갈망한다.’

시68:30-‘그분은 백성들을 흐트셨다, 그들은 전쟁들을 갈망한다’=지옥들을 복종케함.

이64:11-‘바람직한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되었다.’ 말씀에서 ‘바람직한 것들’=교회와 진리들.

시19:10-‘금보다 더 바람직한 그들이다.’...‘바람직한 것’=애착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있는 것.

마13:17-‘의로운 많은 이들과 예언자들이 너희가 보았던 것을 보기를 바랬다.’

시103:14-‘당신의 종들은 그녀의 들들을 바랬다.’

창2:9-‘모양에서 바람직한’=이해함이 바랬던 것.

요8:44-‘네 아버지의 바람들을 너는 행할 것이다’=그들은 자기들의 탐욕들로부터의 악들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

암5:18-‘여호와와 날을 바라는 이들에게 슬픔이 있다.’ 그분이 자기들의 지상의 적들로부터 그들을 구해내리라고 믿었을 때, 그리고 자기들을 영광 안으로 운반해줄 거라고 믿었을 때, 그들은 그분을 바랬다.

시132:13-‘그분은 이것을 바라셨다...여기 나는 거주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바랬기 때문이다.’

미7:1-‘내 혼이 가장 이른 것을 바랬다.’

이58:2-‘그들은 하느님의 접근을 바랬다.’

시63:1-‘내 육체가 당신을 갈망합니다’=의지의 선 측면에서의 인간.

바락 (barak)

사4,5장-‘드보라와 바락’=선으로부터의 진리.

바란 (Paran)

* ‘세일 산’, 그리고 ‘바란’은 그분의 인간 실체로부터 있는 것들을 표현했다. 즉 사랑의 천적인 것들.

창14:6-‘광야에 있는 엘-바란 까지’=확장됨.

창21:21-‘그는 바란의 광야에 거주했다’=선 측면에서의 영적 인간의 삶.

합3:3-그분이 천적 사랑 측면에서는 ‘데만으로부터 오신다’고 말해진다. 그리고 영적 사랑 측면에서는 ‘바란 산으로부터’ 오신다고 말해진다.

신33:2-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그분은 세일 산으로부터 떠오르시고, 바란 산으로부터 빛을 발한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세일로부터’는 천적 사랑 측면에서, ‘바란 산으로부터’는 영적 사랑 측면에서.

창14:6-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세일 산’과 ‘엘-바란’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민12,13장-가나안의 토지를 탐사하는 작업이 ‘바란의 광야로부터’ 착수함에 의해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통하여 영적 인간은 천국의 왕국을 가진다가 의미되어 있다.

바람 (wind)

요3:8-이로부터 그들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영 또는 생명을 바람에 비기고 있다.

예14:6-‘바람을 코로 들이쉬는 것’=진짜인 것인 진리들 대신 텅빈 것을 취하는 것.

마24:31-‘네 바람들로부터 뿜힌 자가 거두워질 것이다’=선과 진리의 모든 상태들.

호12:1-‘바람을 먹이는 것’=거짓말을 늘려가는 것. (=즉 진리들을 왜곡하는 것)

출10:19-‘여호와께서는 바다의 힘센 바람을 돌리셨다’=천국을 통한 신성한 유입이 중지됨...그 이유가 바다의 바람, 즉 서풍은 동풍에 반대되기 때문,=유입의 중지.

출15:8-‘당신의 콧바람’=천국...그 이유는 이 바람은 생명의 숨을 뜻하기 때문...그런 이유로 해서 원어의 경우 단어 하나가 ‘바람’과 ‘영’ 모두를 뜻한다.

출15:10-‘당신은 당신의 바람으로 숨쉬셨다’=주님께서 천사들과 현존하심.

호8:7-‘그들이 씨뿌린 바람’=텅빈 것들.

마11:7-말씀을 자기가 원하고 싶은 쪽으로 설명할 경우 이 말씀은 ‘바람으로 흔든 갈대’에 비교되고 있다.

계6:13-큰 바람에 의해 흔들렸을 때’=자연적 인간의 추론들...

바람직한-바로

계7:1-‘바람이 불지 않도록 땅의 네 바람들을 붙잡고 있다’=더 낮은 것들 안으로 더 가까이, 고로 더 강한 유입이...이 유입은 주님에 의해 억제되었다. (=유입을 누그러뜨림, 선한 자가 상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자는 그날 전에 내던질 것이다.

시18:10, 104:3-‘바람의 날개들’=유입하는 신성한 진리들 (=영적인 것으로부터 자연적인 것들이 있다)

막4:39-‘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지옥으로부터 있는 유입.

요3:8-영이 ‘바람’에 비겨지고 있다...그리고 영인들은 내 얼굴을 때리듯 하는 바람, 촛불과 내 필기장을 움직일 정도의 바람을 가지고 종종 자주 나에게 왔었다. 바람은 차거웠다, 그리고 내가 오른팔을 들어 올렸을 때 더 자주 (왔다.)

시104:4-말씀에서 ‘여호와와 바람’=신성한 진리; ‘여호와께서는 바람들을 그분의 천사들로 만드신다’에서도 같은 의미이다.

다8:8-‘하늘들의 네 바람들’=모든 거짓들과 악들.

숙6:5-‘하늘들의 네 바람들’=모든 신성한 진리들. (=모든 신성한 것, 진행하고 있음)

렘37:9-‘네 바람들로부터 오는구나, 오, 영’=천국에 있는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그 이유가 ‘네 바람들’은 네 방위(동서남북)이기 때문이다.

예49:36-‘하늘들의 네 끝으로부터 온 네 바람들’=악과 결합된 거짓들.

다7:2-‘네 바람들’=거짓들이 악들과 결합되었다.

요3:8-이 구절은 인간이 거듭남에 의해 가지는 그의 영의 생명을 기술하고 있다; ‘바람’=신성한 진리, 이 진리를 통하여 그는 그 생명을 가진다.

시135:17-‘그들의 입 안에는 어떤 숨도 있지 않다’=그들의 생각 안에 어떤 진리도 없었다.

시148:8-‘폭풍의 바람’=신성한 진리를 받을 때 있게 되는 신성한 진리(의 모습).

시107:25-‘폭풍의 바람’=시험.

시11:6-‘폭풍들의 바람’=모든 진리의 파멸.

시135:7-‘그분은 그분의 보물 창고들로부터 바람을 가져오신다’=천국으로부터 말씀에 있는 영적인 것들.

마7:27-집을 강타한 ‘바람’=이런저런 시험에서 불거지

는 생각들.

이26:18-‘바람을 가져오는 것’=진리들이 없는 공허를 흡수하는 것.

예22:22-‘목자들에게 음식물을 줄’ ‘바람’=교리의 텅빈과 공허함.

바람직한 (desirable)

* 바라다(desire)를 보라.

바로 (pharaoh)

창12:15-‘바로’의 대신들이 그녀를 보았다’=제일의 교훈들.

창12:17-‘여호와께서 큰 재앙으로 바로를 치셨다’=과학물이 파괴되었다는 것. ‘바로’=일반적 측면에서의 지식, 그리고 그러므로 지식으로부터 있는 과학물.

창12:18-‘바로가 아브람을 불렀다’=주님이 기억하셨다는 것. ‘바로’=지식. 지식 자체, 또는 과학물 자체를 주님께서는 소년 시절 흡수하셨는데, 여기서 ‘바로’라 불리워진다. 고로 이것은 주님, 즉 지식을 통하여 여호와에게 보내지는 지식 자체이다.

창12:20-‘바로’는 그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명령했다’=과학물이 주님에게 남았다. ‘바로’=지식.

창40:2-‘바로’는 화를 냈다’=새로운 자연적 인간이 그 자체 돌아섰다. ‘바로’ 또는 ‘이집트의 왕’=새로운 자연적 인간, 또는 자연적 인간의 새로운 상태.

창40장에서-바로, 또는 ‘이집트의 왕’=자연 평면의 새로운 상태. 그 결과 내면의 자연 평면. 그이유가 이것이 새로이 만들어졌기 때문.

창40:11-‘내 손에 바로의 잔이...’=내면의 자연 평면이 외면의 자연 평면 안으로 유입, 그리고 받아들임의 시작.

창40:11-‘나는 바로의 손바닥에 잔을 주었다’=내면의 자연 평면에 의해 자기 것 삼음.

창40:14-‘나로 바로에게 기억되게 해주오’=내면의 자연 평면과 교통함.

창40:17-‘바로’의 모든 식품의’=자연 평면에 자양분을 주는 천적 선이 가득한.

창40:20-‘바로’의 생일에’=자연 평면이 거듭나지고 있을 때.

창41장에서-‘바로’=일반적 측면에서의 자연 평면, 이

바로

것이 지금 쉬고 있다, 그리고 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에 모든 것을 남겼다(맡겼다).

창41:1-‘바로가 꿈을 꾸었다’=자연 평면에 관하여 예견된 것.

창41:4-‘바로는 깎다’=자연 평면에서 예증의 상태.

창41:14-‘바로를 보냈다’=새로운 자연 평면은 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을 받겠다는 의향.

창41:14-‘(요셉은) 바로에게 왔다’=새로운 자연 평면과 교통함.

창41:15-‘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자연 평면으로부터 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을 지각함...(그이유가) 주님은 요셉과 바로 둘 다에 의해 표현되어지기 때문...바로에 의해서는 자연 평면에 관한 것.

창41:25=‘하느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그분께서는 바로에게 말하셨습니다’=설비되어진 것을 통각하도록 자연 평면에 주어졌다.

창41:28-‘이것은 내가 바로에게 이야기했었던 말이다’=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자연 평면이 생각한 것.

창41:28-‘그분은 바로가 보게 만들었다’=자연 평면이 통각함.

창41:32-‘꿈이 바로에게 두 번 반복된 것’=그것은 자연 평면 양쪽 모두에서 예견되었기 때문에.

창41:33-‘지금 바로가 보게 하자’=자연 평면의 앞을 내다봄.

창41:35-‘바로 손 아래’=자연 평면에서 필요성, 그 결과 처리함.

창41:37-‘말이 바로의 눈에서 선이었다’=자연 평면의 자기 만족.

창41:38-‘바로가 그의 종들에게 말했다’=거기 모든 것들과 더불어 자연 평면의 지각.

창41:39-‘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자연 평면이 지각함.

창41:42-‘바로 손으로 자기 반지를 제거했다(뺐다)’=자연 평면이 이전에 가졌던 힘을 포기함.

창41:44-‘나는 바로이다’=자연 평면은 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이다는 것.

창41:46-‘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있는...’=그분의 현

존하심이 자연 평면에서 있으셨을 때...‘이집트의 왕 바로’=자연 평면의 새로운 상태, 또는 새로운 자연적 인간. 고로 지금 자연 평면 안에는 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은 그것 자신의 것을 만들었다.

창41:46-‘요셉은 바로 앞으로부터 나갔다’=일반 측면에서의 자연 평면이 그의 것이었을 때.

창41:55-‘백성들은 바로에게 빵을 위해 외쳤다’=자연 평면에서 진리를 위해 선이 필요하다.

창41:55-‘바로가 모든 이집트에 말했다’=일반적, 특수적으로나 자연 평면 둘 다에서 통각함.

창42:15-‘바로가 살리게 하라’=확실한 것. (이 표현은) 단언하는 형체이다.

창44:19-‘당신은 바로와 동등하다’=내적 평면이 자연 평면을 지배한다는 것.

창45:2-‘바로 집이 들었다’=보편적 자연 평면을 통하여. (그 이유가) ‘바로’=일반적 측면에서의 자연 평면 (이기 때문).

창45:8-‘그분은 아버지를 위해 나를 바로에게 보냈다’=지금 자연 평면은 내적 선으로부터 있다는 것. 이는 유입을 수단으로 자연 평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고 분류한다. 마지막에서 자연 평면이 그 자체로부터 있게 해준다.

창45:16-‘그것은 바로의 눈에서 선이었다’=일반적 자연 평면 모든 곳에 환희가 있다.

창46:31-‘나는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교회의 과학물이 있는 자연 평면과 교통함.

창46:33-‘아마 바로가 당신을 부를 것이다’=만일 교회의 과학물이 있는 자연 평면이 가까이 결합되려 한다면.

창47장에서-이런 진리들이 은근히 심어진 과학물이 ‘바로’이다.

창47:1-‘요셉이 왔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했다’=자연 평면에서 내부의 천적인 것의 현존, 거기에 과학물이 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유입이 있다...‘바로’=자연, 그리고 일반적 측면에서의 과학물.

창47:2-‘그들을 바로 앞에 세웠다’=과학물들 안으로 은근히 심어짐. ‘바로’=일반적 측면에서의 바로.

바로

창47:3-‘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했다’=자연 평면에 있는 교회의 진리들에 관하여 지각함. ‘바로’=일반적 측면에서 자연 평면과 과학물.

창47:5-‘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과학물이 있는 자연 평면에서 지각함.

창47:8-‘바로가 야곱에게 말했다’=과학물이 교회의 일반적 진리에 관하여 있는 자연 평면에서 지각함.

창47:10-‘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결합을 성실히 소원함, 그리고 그 결과 열매풍성해짐. ‘그리고 바로 앞으로부터 나갔다’=시간 측면에서 과학물이 있는 자연 평면으로부터 분리됨.

창47:14-‘요셉은 바로의 집으로 은을 가져왔다’=모든 것이 자연 평면에서 일반적인 것에 속하여졌다는 것.

창47:19-‘우리와 우리의 지면은 바로에게 종될 것입니다’=전체가 내부의 천적인 것의 후원 아래 있는 일반적 측면의 자연 평면에 복종함.

창47:20-‘요셉은 바로를 위해 이집트의 모든 지면을 가져왔다’=그는 과학물이 있는 자연적 마음 전체를 자신으로 되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연 평면에서 일반적 후원 아래 배치했다는 것.

창47:20-‘토지는 바로의 것이었다’=모든 것들은 내적인 것의 후원 아래 있는 자연 평면에 종속되었다는 것.

창47:22-‘한 몫이 바로에 의해 성직자에게 분배되어졌다’=그러므로 내적인 것의 후원 아래 있는 자연 평면에 의해 정돈 분류되었다.

창47:22-‘바로가 그들에게 준 것’=정돈 분류됨에 따라,...내적인 것의 후원 아래 (있었던) 자연 평면에서.

창47:23-‘나는 바로를 위해 너희와 너희 지면을 샀다’=그는 이런 것들을 자신을 위해 포획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적인 것의 후원 아래 있는 자연 평면에 있는 일반적인 것에 종속했다.

창47:24-‘너희는 바로에게 오분의 일을 줄 것이다’=남아 있는 것, 이것들은 내적인 것의 후원 아래 있는 일반적인 것을 위해 있다.

창47:25-‘우리는 바로에게 종일 것이다’=그들은 자기들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 그리고 내적인 것의 후원 아래 있는 자연 평면에 복종한다는 것.

창50:4-‘요셉이 바로의 집에 이야기했다’=자연적 마음

안으로 내적인 것의 유입.

창50:7-‘바로 모든 종들이 그와 더불어 올라갔다’=그는 자연의 과학물에 자신이 인접되게 했다는 것. ‘바로’=일반적 측면에서의 자연 평면.

출1:11-‘그들은 바로를 위해 창고용 도시들을 건축했다’=떨어진 과학물이 있는 자연 평면에 있는 왜곡된 진리들로부터의 교리들.

출1:19-‘산파가 바로에게 말했다’=자연 평면에 있는 이런 과학적 진리들에 관하여 통각함. ‘바로’=일반적 측면에서의 왜곡된 과학물들.

출1:22-‘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다’=교회의 진리들에 반대하는 과학물들 안으로 일반적 유입이 있다. 일반적 유입인 이유는 바로로부터이기 때문, 바로에 의해 일반적 측면의 과학물이 표현되어졌다.

겔29장-‘바로’=과학물이 있는 자연 평면.

출2:5-‘바로 딸이 내려갔다’=거기 종교적인 것...여기서, 거짓 과학물들로부터 종교적인 것, 그 이유는 그녀가 바로의 딸이었기 때문, 여기서의 경우 그녀에 의해 거짓된 과학물이 표현되었다.

출2:15-‘바로가 이 말을 들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거짓된 과학물, 이를 통각함에서 (영적) 진리를 파괴하기를 원했다.

출3:10-‘가라,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거룩한 진행...이로 말미암아 출몰하는 거짓들은 사라질 것이다...‘바로’=거짓.

출4:21-‘바로 앞에서...행하라’=출몰하는 거짓들에 맞서.

출4:22-‘바로에게 말하라’=교회의 진리들에 출몰하는 거짓에게 권면함.

출5:2-‘바로가 말했다’=출몰하는(infest) 이들에 의한 반대의 생각...

출5:5-‘바로가 말했다’=교회의 진리에 출몰하는 이들의 의지.

출5:15-‘그들은 바로에게 외쳤다’=분함이 출몰하는 이들 앞에 나열되었다.

출7:1-‘나는 너를 바로에게 하느님(a god)으로 주었다’=거짓들에 있는 이들 너머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법의 힘.

바르게-바리새인

출7:3-‘나는 바로의 심정이 굳어지게 할 것이다’=거짓의 악으로부터 있는 완고함.

출7:4-‘바로는 너에게서 들으려하지 않을 것이다’=거짓들에 있는 이들은 받지 않을 것이다.

출8:12-‘바로’=거짓들만으로부터 추론함을 수단으로 출몰하는 이들.

출8:19-‘바로’=악들에 있는 이들, 그 이유는 추론하는 거짓들이 거두어가버린 지금 그들은 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

출10:7-‘바로’=종들=보다 수준 낮은 종류에 속하는 출몰하는 이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있다.

출11:1-‘바로’=창궐(infest)했었던 이들, 여기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

출11:5-‘바로’=교회의 진리들을 악용하는 일반적 측면의 과학물. 고로 ‘바로’의 첫 출생’=이와 같은 것로부터의 신앙. 결과적으로 신앙의 왜곡된 진리들로부터 출현한 신앙.

출12:30-‘바로’는 그 밤에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그의 종들, 그리고 모든 이집트인들’=그들이 악으로부터 거짓만에 있을 때, 영적 (왕국의) 교회인들을 두려워함과 혐오가 통각되는바, 지옥에 떨어지는 각각 그리고 모두.

출13:17-‘바로’가 백성들을 떠나 보냄에서’=창궐했었던 이들이 영적 (왕국의) 교회인을 뒤에 남기고 떠날 때.

출14:3-‘바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관하여 말할 것이다’=영적 (왕국의) 교회인의 상태에 관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이들이 생각함.

출14:4-‘바로’에서, 모든 그의 군대에서’=악으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지옥에 침수됨.

출14:10-‘바로’가 가까이 이끌려졌다’=악으로부터 거짓의 비통한 유입.

출14:17-‘나는 바로로 해서 영광되어질 것이다’=주님의 인간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거짓은 사라지는 결과만 있다.

출14:23-‘바로’의 말들’=악용된 지적 평면으로부터 있는 과학물.

출15:4-‘바로’의 병거, 그리고 그의 군대를 그분은 바다 안으로 내던졌다’=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특별한 측면, 일반적 측면에서의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이것 가지고

악한 생활을 하는 이들. 그분의 현존하심에서 그들은 지옥으로 자신들을 내던졌다.

출18:4-‘그분은 나를 바로의 검으로부터 구하셨다’=창궐했었던 이들의 거짓으로부터 해방됨.

출18:8-‘여호와께서 바로와 이집트인들에게 하셨던 모두’=거짓들에 있어온 이들과 창궐했었던 이들에 대한 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힘.

겔30장-‘이집트의 왕 바로’=신앙의 진리들과 선들을 파괴하고 악용하는 과학물들.

겔31장-‘바로, 이집트의 왕’=자연적 인간.

출15장-‘바로와 그의 군대’=악으로부터의 거짓들에 있는 이들.

예43:9-‘바로’의 집’=거기 과학물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

이36:6-‘이집트 왕 바로에게 신뢰를 두는 모든 이는 이와 같다’=자기의 과학물과 파생되는 총명, 이로부터 추론함에 관하여 영적인 것에서 분리된 자연적인 것은 이와 같다는 것.

겔31장-‘이집트 왕 바로’=자연적 인간의 지적 부분, 이것은 합리적으로 보여진 과학적 진리들로부터 형성되고 태어나진다, 여기서 그는 ‘이수르’라 불린다.

겔29장-‘이집트 왕 바로’=자연적 인간의 지식과 파생되는 총명.

출9장-‘바로’와 이집트인들’=갯가지의 악들과 거짓들을 수단으로 들러붙은 자연적 인간. 그리고 자연적 인간이 영적 인간을 지배하는 체함.

바르게 (justly)

* 정의(justice)를 보라.

바리새인 (pharisee)

눅18:14-‘바리새인’, 역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내려갔다’. 그이유는 그가 명령에 의해 일들을 행했기 때문.

마5:20-‘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정의)을 넘어 있어야 하는 것’=내적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

바벨 (Babel)

바빌론 (Babylon,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빌로니아 (Babylonia, 제국 이름)

바빌로니아 사람 (Babylonian)

* 벨사살, 루시퍼, 느부갓네살도 참조

바벨-바빌론-바빌로니아-바빌로니아 사람

예51:30-'바벨의 용사'=자아 사랑에 폭빠진 이들.
예51:27-바벨의 파멸이 여기서 취급된다. '아스그나스'=우상 예배, 또는 바벨을 파괴한 내향과 분리된 외향만의 예배, 특히 거짓된 교리적인 것들.
창10:10-'바벨, 에렉, 악갓, 갈레, 시날의 토지에서'=이들 장소 안에 어떤 종류의 예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장소를 수단으로 예배의 어떤 종류들 자체가 의미되어있다는 것, 그것은 외형으로는 거룩하게 보이나 내면은 모독뿐인 '바벨'의 의미로부터, 그리고 '시날의 토지'의 의미로부터 분명해진다. '바벨'은 말씀의 많은 것에서 취급되는데, 이를 수단으로 성서 어디에서이든 이런 예배, 즉 외적으로 거룩하고 내적으로 모독된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
겔23:7-'바벨의 아들들'=탐욕으로부터의 거짓들.
창11:9-'그러므로 그는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다'=이런 예배, 즉 '바벨'에 의해 의미된 예배의 품질... 즉 내면에 자아 사랑이 있는 예배, 고로 육욕적이고 모독된 모든 것... 이것은 바벨이라 불리는 예배, 내향의 예배가 없는 예배, 내향적으로는 죽어 있어 시체나 다를 바 없는 예배의 어떤 것이다.
예27:8-'바벨의 왕을 섬기고, 목을 그의 멍에에 주는 것'=내향의 예배에 속하는 것인 신앙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과 인정함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
예29:16,17-'도성에 남고 바벨의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 것'=내향의 것들에 관한 지식 안에 있어왔었던 이들...이 지식들을 모독했다.
예20:4-'바벨'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진리를 인정함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들을 박탈한 이들이 의미된다는 것이 이 구절의 말씀, '나는 바벨의 왕의 손에 모든 유다를 줄 것이고, 그는 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고, 칼로 그들을 처죽일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표현되고 있다...
예25:9, 51:25-'북쪽의 종족들과 더불어 나는 이 토지에 바벨의 왕을 데려 올 것이다.' 여기서 내향의 예배 속의 내면의 것들, 또는 신앙 속의 내면적인 것들의 황폐됨이 '바벨'에 의해 묘사되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자아를 예배함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가 없기 때문, 그리고 이들은 참된 모든 것을 파괴하

고 황폐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다; 그러므로 '바벨'은 또한 '씩게 하는 산'이라 불리우고 있다
겔23:17-여기서 갈대아인들이 '바벨의 아들들'이라 불리운다. 그 이유는 예배에서 진리가 모독되었기 때문
예50,51장-이 두 장에 걸쳐 바벨과 갈대아인들이 서술되는바, 이로부터 '바벨'은 예배에 있는 천적인 것들을 모독함, 갈대아인들은 예배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모독함이 분명하다.
예50:14,15-한층 더 나쁜 것은 내면의 어둠인데, 외면은 빛으로 충만된 듯 나타나는 것; 즉 이들은 외향적으로는 빛의 천사 같으나 실상 악마들이다; 이들이 '바벨'이라 불린다. '에워싼 것'들이 파괴될 때 그들은 지옥으로 곧두박질쳐 끌려간다. 이들이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해진다. '바벨을 둘러 진영을 갖추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그 주위에서 고향지르다가 행복하였고 그것의 기초는 무너졌고 그녀의 성벽은 허물어졌다.'
이13:20-'바벨은 영원히 거주되지 않을 것이다'='바벨'인 이들이 정죄됨.
예27:2,3,8-'바벨의 멍에에 목을 주고 그를 섬기는 것'=진리 측면이 황폐해지는 것, 그리고 선의 측면이 황폐해지는 것. '바벨'=황폐시키는 것.
이14장-바벨의 왕이 여기서 취급되는데, 그를 수단으로 진리의 모독이 표현되고 있다; 그 이유가 '왕'=진리, 그리고 '바벨'=모독.
예51:34-'바벨'=황폐시키는 이들, 즉 타인으로부터 진리들을 빼앗는 자들.
계18:11-'바벨'에 의해 주님을 예배함을 자아를 예배함으로 변질시켜 버린 이들, 고로 내적으로는 모독되었으나 외적으로는 거룩한 듯 있는 이들; 그러므로 '그들의 상품'에 의해 그들이 자아 승배를 위하여 자신 고유의 연구와 예술에 의해 발견한 것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과 교리적인 것들, 그들은 이것들을 자신을 좋아하도록 뒤집어 놓은 것이 의미되고 있다.
계18장-선하고 참된 것의 모독이 여기서 취급된다. 이것이 '바빌로니아 사람'이다. 구약 성서의 예언서들과 더불어 '바벨'=선한 것의 모독, '갈대아'=참된 것의 모독.

바벨-바빌론-바빌로니아-바빌로니아 사람

예50:35-'갈대아인들에 맞선 검, 그리고 바벨 주민들에 맞선 검'; '갈대아인들'=진리들을 모독하는 이들; 그리고 '바벨의 주민들'=선을 모독하는 이들.

계17장-'바빌론'=자신의 이득과 지배력을 위해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을 뒤집는 이들, 그리고 모독조차 서슴지 않는 이들이다...이로부터 '바빌론'은 '음녀', 그리고 '음녀들의 어머니'라 불린다.

겔19:9-'바벨의 왕으로 인도하는 것'=진리의 모독.

계17장-여기서 '바빌론'에 의해 말씀의 거룩한 것을 지니고 있는 교회가 자아와 세상의 지옥적 사랑으로부터 천국에서나 지상에서 지배권을 획득하려 선용(use)을 모독하여 응용해버림이 의미된다.

이47:2-'바벨의 딸'=외면상으로는 거룩함, 내면에는 모독성이 있는 교회, 또는 교회의 형상. 내면에 있는 모독성은 이런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과 세상을 목적으로 하여, 고로 지배함과 재물의 풍부함을 찾고, 거룩한 것들은 그들의 이런 목적에 수단으로 간주한다.

예51:13-'많은 물들 위에, 많은 보물 위에 거주하는 자, 바벨.' '바벨'=말씀을 소유한 이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을 소유한 이들, 그러나 그것들을 자아 사랑에 응용하여 모독한 이들...이것이 바벨의 왕이 금과 은으로 된 성전의 집기들을 강취함으로, 이 집기 가지고 마시고, 금과 은으로 만든 신들을 청송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14:4,9,12-15-내적인 것 없는 외적인 것 안에 있는 그들은 신으로 예배되어지기를 원하는바, 이렇게 심중으로는 결론맺었는지 모른다. 즉, 그들은 신성을 부정하고, 그들 자신들은 꾸준히 더 높은 장소를 열망하고, 장애물이 없다면, 가장 높은 곳에 까지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옥좌에 까지도 탐낸다는 것이 말씀에서 '바벨'에 의해 의미된다. 바벨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권능을 천국들과 땅에서 강취하여 자신의 것인양 사취했다; 그 이유가 그들은 제마음대로 천국을 열고 닫기 때문이다. 이런 품성 속에 그들이 있다는 것이 이 구절들에서 보여진다. '너는 바벨 왕에 관하여 이 비유를 발음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지옥이 너 때문에 심하게 움직였다; 어떻게 너는 천국으로부터 추락했는가! 루시퍼야, 너는 땅에서 잘라내졌다, 너는 나라들 아래로 약해지게 만들

어졌다! 그리고 너는 내 심중에서 말해왔다, 나는 천국들로 올라갈 것이다, 나는 내 보좌를 별들 너머로 드높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회중의 산에 앉을 것이다, 나는 구름의 높이들 너머로 승강할 것이다, 나는 가장 높은 자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지껄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옥 아래로 보내지리라'

계14:8-'바빌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 큰 도성이여 '=교외와 교리적 측면에서의 로마 카토릭의 광신적 신앙이 지금 사라졌다.

계16:19-'그리고 위대한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 안으로 왔고, 그분의 분노의 진노하심의 포도주의 잔을 주기 위해서이다'=로마 카토릭의 광신적 신앙의 교의가 이때에 파멸되었다.

계17:5-'그녀의 이마에는 씌여 있기를, 위대한 바빌론, 땅의 매춘과 가증함의 어머니'=로마카토릭의 내면의 품질에 있는 광신적 신앙, 이는 감추여 있다; 자아 사랑의 지배욕이 교회의 거룩한 것 위에서, 천국 위에서, 고로 주님의 모든 것, 그분의 말씀의 모든 것 위에 군림하려는 이런 근원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있는 것, 고로 교회로부터 있는 것들을 더럽히고 모독하였다는 것... '위대한 바빌론'에 의해 로마 카토릭의 광신적 신앙, 그리고 그 신앙 품질 모두가 의미되고 있다.

계18:2-'그리고 그는 큰 음성으로 힘차게 외쳤다, 큰 바빌론은 무너졌다, 무너졌다'=그분은 이렇게 알려지게 만드셨다, 즉 주님의 신성한 힘에 의해 이 광신적 신앙에 있어 왔던 모든 것, 동시에 거기로부터 근원된 지배욕은 영계에서 파괴되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지옥들로 내던져졌다는 것.

계18:10-'그녀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떨찍이 서서, 말하기를,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이 큰 도성 바빌론, 이 막강한 도성, 그이유가 한 시간에 네 심판은 이르기 때문이다'=처벌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이런 슬픈 탄식, 즉 이 광신적 신앙, 아주 강하게 요새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완전하게 전복되었다니...그리고 그들 자신 멸해질 수 있다니...

겔23:17-'바벨의 아들들과 더불은 사랑들의 성교(coition)='선을 모독함.

이47:1-'바벨과 갈대아의 딸'에 의해 교회의 선들과 진

바벨-바빌론-바빌로니아-바빌로니아 사람

리들을 모독한 이들이 의미된다.

예51장-'바벨'은 선들을 모독한 이들이 의미된다. '바벨의 바다'=그들의 전통들, 이것은 말씀으로부터의 선을 섞음질함이다.

겔26:7-'바벨의 왕'에 의해 거짓들을 통하여 진리를 파멸함, 그리고 모독도 의미한다.

예49:32-'바벨의 왕'=황폐하게 하는 악과 거짓

이43:14-'바벨'에 의해 교회를 황폐하게 하는 이들이 뜻해진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법으로 선과 진리를 무력화하는 이들도 의미한다. 이들은 자기들은 선과 진리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 말하면서 진리에 관해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고로 자신들의 침침한 무지에 타인까지 파문한다...'바벨'에 의해 악들을 수단으로 선들을 파괴하는 이들을, '갈대아인'에 의해 거짓들을 수단으로 진리들을 파괴하는 이들이 의미된다.

시137편-'바벨의 강들'에 의해 같은 것들이 의미된다.

예43:10-'바벨 왕'에 의해 진리를 모독함이 의미된다.

예46:4-'유프라테스 근처 바벨 왕'에 의해 영적 합리적 인간이 의미된다.

예51장-'바벨'=권력자가 되기 위해 거룩한 것들을 남용하는 이들.

예50:37,40-'갈대아인들'을 수단으로 말씀으로부터의 교리 속의 진리를 모독하고 섞음질 함이 의미되고, '바벨'을 수단으로 사랑의 선을 모독하고 섞음질 함이 의미되는바, 그들이 전복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해짐에 비교되고 있다.

겔23:17-'바벨의 아들들이 그녀에게 와서, 매춘으로 그녀를 더럽혔다'=자아 사랑으로부터 악으로부터의 거짓들과 결합함.

이47:1-'바벨의 딸'에 의해 선을 모독함이 의미 된다; 그리고 '갈대아의 딸'에 의해 진리를 모독함이 의미 된다; 이 둘 모두는 말씀으로부터 있고,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선들과 진리들을 자신들의 명령을 실시하는 수단 방편으로 사용했다.

이14장-'바벨'에 의해 말씀을 간음질함, 그리고 모독함이 의미된다. 여기서 취급되는 주제는 '바벨'에 의해 의미된 이들과 더불어 있는 진리가 완전히 황폐됨이다.

이14장-말씀에 섞음질 함, 그로 인해 교리와 교회가 파괴됨이 여기서 '바벨'에 의해 의미된다.

예51장-'바벨'에 의해 교회의 거룩한 것들을 통하여 천국 위에, 그리고 사람들의 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의미된다. 이 지배욕으로부터 거짓들이 떼지어 몰려나온다.

계16:19-'그리고 위대한 바빌론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 안으로 왔다'=...교황 절대주의자와 더불어 교회 그리고 그것의 황폐됨이 다음 장에서 다루어진다. '바빌론'=교황 절대주의자들과 더불어 교회, 그이유는 '바빌론'에 의해 교회의 거룩한 것들을 수단으로 천국과 땅 위에서 명령하기를 사랑함이 의미되기 때문, 게다가 이 사랑함은 교황주의자들의 제일가는 원리이다.

단7장-마지막으로 바빌로니안이 되어가는 교회의 연속적인 상태가 '네 짐승들이 바다로부터 오고 있음'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단7:13,14,27-바빌로니아가 되어갔던 교회는 파괴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교회가 건설됨이 이 구절에서 의미되고 있다...

단5:23-바벨이 (벨사살의 잔치)에 의해서도 묘사되었다. 이 잔치를 수단으로 바빌로니아 속에 있는 이들에 의해 교회의 거룩한 것들의 모독이 의미되었고, 그들의 지배력이 천국 안으로 조차 확장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13장-이 장이 취급하는 주제는 바빌로니아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교회의 진리에 관한 모든 것, 선에 관한 모든 것의 완전한 황폐이다. '그렇게 바벨이다'가 글자 의미에서는 바벨이라 불리는 큰 도성이 의미되지만, 영적 의미에서는 이 큰 도성은 바빌로니아가 되어 버린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바벨은 '왕국들로 된 장식품, 갈대아인들의 훌륭한 것으로 된 장식품'이라 불리는 것은 교회의 시작에서 교회 속의 지혜로부터였다. 어찌됐든 일반적 측면에서의 '바벨', 또는 '바빌로니아'는 사랑으로부터의 모든 선이 파괴된 교회를 뜻한다. 그래서 결국 모독했다.

계18:2-'큰 성 바빌론은 무너졌다, 무너졌다'=마지막 심판이 천국과 교회의 거룩한 것들을 모독한 이들 위에 집행되었다는 것...

바보-바산-바서리스크

계18:4-여기서 이렇게 권면한다. 즉 진리에 애착함과 선의 생활을 추구하는 바벨로니아 내에 있는 이들은 그녀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것, 그녀의 마술과 술책으로부터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것; 그리고 바벨로니아 바깥에 있는 이들도 그녀의 설득에 이끌려 고통받지 말라는 것이다.

바보 (fool)

* 어리석은(foolish)을 보라.

바산 (Bashan)

신32:14-‘바산의 아들들, 숫양들’=영적 평면 속에 있는 천적인 것들.

신33:22-‘바산으로부터’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자연의 선으로부터이기 때문.

예50:19-‘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기는 것’=신앙의 선들과 선행의 선들로 훈육하는 것.

신3:11-‘바산’에 의해 교회의 외적 측면, 고로 자연 평면이 의미되어진다. 그이유가 바산은 가나안 경계 밖에 위치하기 때문.

신32:14-‘어린 양들의 지방(기름기), 바산의 숫양 들의 지방, 그리고 숫염소의 지방’=순진의 선의 세 등급들.

시68:15, 여13:29-32-‘바산의 산’=자발적인 선, 이는 교회의 바깥쪽 것들에 있는 이들의 선과 같다. 그이유가 바산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진 요단 건너 지역이기 때문. 그리고 므낫세에 의해 바깥쪽 또는 자연적 인간의 자발적 선이 의미되기 때문. 이 자발적 선은 바깥쪽 인간에 있는 사랑의 선과 동일하다. 그 이유는 사랑의 모든 선은 의지 속에 있기 때문...‘바산의 산’이 이 선을 의미하기에 이 산의 ‘언덕들’에 의해 행동에 있는 선이 의미된다.

이2:13-‘레바논의 삼목들’,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에 의해 인간 고유의 총명으로부터의 자부심이 의미된다. 내면의 자부심은 ‘레바논의 삼목들’, 외면의 자부심은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에 의해 각기 의미된다.

암4:1-말씀과 예언의 글들을 가졌기에 (영적인) 지식들을 풍부히 지닌 이들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로 뜻해지고 있다.

이2장-‘바산의 상수리나무’에 의해 자기들 지식(을 자랑해대는 이들이) 의미된다.

겔39:18-‘바산의 살진 것들’=영적 근원으로부터 있는 자연적 인간의 선.

미7:14-‘바산과 길르앗에서 풀을 뜯게하자’=말씀의 자연적 의미로부터 교회의 선들을 가르침, 그리고 교회의 진리들을 가르침.

이33:9-‘레바논’은 선과 진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교회들, ‘사론’, ‘바산’, ‘갈멜’은 말씀의 자연적 의미로부터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지닌 교회가 의미된다.

바서리스크 (Basilisk)

이14:29-‘뱀의 뿌리로부터 바서리스크(전설적인 독사)가 생길 것이다’=인간 고유의 총명으로부터의 자부심으로부터 그것과 더불어 모든 진리의 파멸이 있다.

이14:29-‘뱀의 뿌리로부터 생겨나는 바서리스크’에 의해 세 하느님들(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신앙에 관한 교리를 한사람씩 차례로, 그리하여 모든 이에게 적용하고 있음이 뜻해져 있다.

이14:29-믿음으로만, 또는 선행에서 분리된 신앙이라는 거짓 원리가 교회의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이 ‘뱀의 뿌리로부터 바서리스크가 생겨날 것이다’에 의해 뜻해져 있다. ‘뱀의 뿌리’가 이 거짓 원리이고, ‘바서리스크’는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선과 진리가 파멸됨이다...교리와 생활에서 믿음으로만이라는 원리를 굳힌 그들은 영계에서는 바서리스크로서 보여진다.

이11:8-순진에 사기적으로 행동한 이들의 지옥들에 있는 그들은 독사들 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사랑의 선에 사기적으로 행동한 그들은 바서리스크같이 나타난다. ‘젓을 떼 아이’=사랑의 선인바, ‘젓 떼 아이가 제 손을 바서리스크의 굴에 찢어넣을 것이다’고 말해진다.

이11:8-‘악의와 사기로 꺾찬 의도심도 주님이 보호하는 이들을 전혀 다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젓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위에서 놀고, 젓 떼 아이가 바서리스크의 굴에 손을 집어넣을 것이다’로 의미되고 있다...’독사의 구멍’과 ‘바서리스크의 굴’에 의해 사기적이고 악의적인 영들이 있는 지옥들이 뜻해진다.

이14:29-궤변을 수단으로 사람을 엉뚱하게 인도해 이 거짓 신앙을 확증하게 하는 것이 ‘뱀의 뿌리로부터 바서리스크가 나오고, 그것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일

바알-바알세불-바위-바위같은

것이다'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이14:29-'뱀의 뿌리로부터 바서리스크가 나올 것이다'=감각적 인간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파괴하는 교의가 부상할 것이라는 것. 그이유가 '뱀의 뿌리'는 감각적 평면이다...그리고 '바서리스크'는 모든 진리를 파괴함이다...'바서리스크', 그러므로 '뱀'이라고도 불리는 '용'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알 (Baal)

* 바알과 여타 다른 신들을 예배한 가나안 토지의 나라들은 (유대인들 같이) 외향의 예배를 가졌다.

예2:23-'나는 바알을 따라 걷지 않았다...'

예32:29-'집의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향을 바치는 것'=악인 것을 예배함.

민25:2,3-'바알-브올을 따라 매춘을 범하고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예배를 모독하는 것.

출14:2-'그들은 ...바알-스본 앞에 진을 쳤다'=시험들을 수행하는 시작의 상태.

왕상16:31-33-'바알을 섬기는 것'=모든 종류의 탐욕들을 섬기는 것.

왕상16:31-33-'바알'=자아 사랑들의 악과 세상 사랑들의 악으로부터 예배함.

예11:13-'제단들을 세우는 것, 바알에게 향을 바치려는 제단'=자아의 사랑으로부터, 세상의 사랑으로부터 예배함.

민25:2,3-'바알-브올'=선에 섞음질함.

삼하6:1-17-'바알-유다'=교회의 최말단, 즉 교회의 자연적 평면.

호2:13-'바알들과 연애자들'=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있는 것들, 즉 자연적 인간으로부터 파생된 탐욕들과 거짓들.

호2:16-자연적 인간으로부터의 탐욕들이 거절되어질 때, 진리에 애착함들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함이 '그날에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더 이상 너는 나를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에 의미되어 있다.

바알세불 (Beelzebub)

마12:24,26-'바알세불'이 '악마'라 불리지 않고 '사탄'이라 불리는 이유는 에크론의 신이었던 '바알세불'이 모든 거짓들의 신을 뜻했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이 단어

'브엘세불'을 번역한다면, 그것은 '파리들의 주', 또는 '파리들'=감각적 인간의 거짓들, 고로 갖가지의 거짓들이 된다. 이로부터 바알세불은 '사탄'이라 불리워진다.

바위 (rock)

바위 같은 (rocky)

이30:29-'이스라엘의 바위'=선행의 선들로 단언되는 주님.

민20장-물들이 터져나온 '바위'=주님.

여5:3-'바위들의 검(sword)들'=그들에게 불어넣어진 진리, 그리하여 그들은 더러운 사랑들을 매질하고 추방할 수 있었다. 그 이유가 진리에 대한 지식 없이 순수해짐도 없기 때문이다. '돌', '바위'=진리들.

마13:5-'돌이 많은 장소들'=선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진리.

이51:1-'너희가 떠내어진 바위를 보라.' 주님을 취급하는데,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이 '바위'라 불리고 있다.

계6:16-'우리들 위에 떨어지라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라.' 지옥의 것들로부터의 악들과 거짓들이 내뿜는 침침하고 캄캄한 영역은 마치 산이나 바위 같이 나타나고, 그 아래 그들이 숨겨진 듯 나타나보인다.

마16:18-교회가 건축될 '바위'=선행으로부터의 신앙 (faith of charity).

예21:13-'평지의 바위'=선행이 없는 신앙.

신32:30-'그들의 바위가 그들을 팔았다.' 최고 의미에서 '바위'=진리 측면의 주님. 표현 의미에서 신앙.

암6:12-'말들이 바위에서 달릴까?'=신앙의 진리가 이해될까?

단2장-'바위로부터 잘려져 나간 돌'=신앙의 진리로부터 나가는.

출4:25-'십보라가 바위를 가져왔다'=진리를 통하여 보여준 품질.

* 바위로부터의 칼(knife)로 할례를 실시함=신앙의 진리들을 통하여 깨끗해짐

시78:15-'그분은 바위로부터의 큰 수원(abysses)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다'=결점 없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바위'=주님으로부터의 신앙, 고로 신앙 측면에서의 주님.

바위-바위같은

출17:6-‘나는 호렙의 바위 위에 서있다’=신앙의 진리들 측면에서의 주님. 그이유가 ‘바위’=신앙, 여기서 주님으로부터의 신앙, 또는 신앙 측면에서의 주님. 그이유가 주님께서 말하신다, ‘나는 바위 위에 서있다.’

출33:20-23-‘바위의 구멍’=신앙의 불명료한 것.

출17:6-‘너는 바위를 칠 것이다’=그들은 주님에게 간절히 긴급하게 애원한다는 것, 그러나 심정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것.

마27:51-‘바위들이 찢어졌다’=신앙의 모든 것들이 흩어짐. 그이유가 ‘바위’=신앙 측면에서의 주님, 그리고 이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앙.

예13장-‘유브라테(강) 근처 바위 구멍에 감추어라’=신앙이 불명료함에 있고, 추론들로부터의 거짓들을 통하여 무가치하게 되어가는 곳. (‘바위의 구멍’=왜곡된 진리)

출33:21-‘너는 바위 위에 설 것이다’=하느님 안에 있는 신앙의 상태.

이7:19-‘바위들의 깨진 것들’=신앙 속의 파생된 거짓들.

예49:16-‘바위들의 구멍들 안에’ 있는 이들=신앙 안에 있는 이들, 그러나 아직 예증 못한 이들. 고로 신앙이 불명료함에 있는 이들.

예49:16, 욕3절-‘바위의 구멍들에 거주하는 것’=신앙의 거짓들 안에 있는 것. 이는 자신이 남 보다 더 수준 있다고 떠벌리는 이들, 그런데 거짓들에 있고 진리들을 볼 수 없는 이들. 이들은 바위의 구멍에 거주한다. 그들은 때로 바위위로 올라서는 시도도 해보지만 다시 구멍 안으로 내던져진다. 게다가 바위 아래인 동굴 안으로 더 내던져진다.

계6:15-‘산들의 바위들에 자신을 숨기는 것’=그들은 지금 악의 거짓들에 있었다는 것.

계6:16-‘그리고 바위에게 말했다, 우리 위에 떨어져라...’=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확증함. ‘바위들’=신앙의 거짓들. ‘바위들’=신앙의 거짓들.

마7:25-‘바위 위에 기초하였다’=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위에.

눅6:48-‘바위 위에 기초를 놓았다.’ ‘바위’=말씀의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이42:11-‘바위의 거주자들’=그들에게 신앙의 선이 있다.

예4:29-‘바위들’=그들의 신앙.

신32:13-‘아주 단단한 바위로부터 기름을 빼는(suck) 것’=신앙의 진리들을 통하여 선이 붙어넣어지는 것.

나1:6-‘뒤엎어진 바위들’=신앙의 진리들, 그이유는 신앙에 있는 이들은 비록 선행으로부터는 아니다 해도 순종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이들이기 때문.

시114:8-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을 통하여 거듭남이 ‘그분은 바위를 물의 못(pool)으로, 단단한 것을 물의 수원으로 바꾸셨다’에 의해 의미된다. ‘바위’=거듭나기 전 진리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 그리고 ‘단단한 것’=선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

이51:1-‘너희를 잘라낸 바위를 보아라’=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바위로부터 잘라내는 것’=신성한 진리들로부터 거듭나지는 것...그이유가 바위로부터 잘라져 나온 돌들=주님으로부터의 진리들.

요1:42-베드로(Peter)는 교회에 있는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를 표현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는 ‘바위, Petra’라 불리워졌다, 그리고 말해지기를, ‘너는 바위이다, 이 바위 위에 나는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즉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위에, 같은 의미로,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베드로가 교회에서 이것을 표현할 것인바, 그는 ‘바위, Petra’, 또는 ‘바위, a Rock’이라 불리웠다, ‘너는 게바, Kepas라 불리 것이다, 이는 번역하면 바위(a Rock)’인바 이로부터서도 분명히 알게 된다.

예51:25-거짓들을 통하여 지옥에 떨어짐이 ‘나는 너희를 바위로부터 아래로 굴릴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예48:28-‘바위에 거주함’=거짓들 안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교리.

나1:6-‘바위들이 그분 앞에서 뒤엎어질 것이다’=(마지막 심판에서 악들로부터의 거짓들이 멸해짐)

이57:5-‘바위들의 꼭대기 아래’=루멘(lumen)이 최말단 자연인 감각인 것으로부터 있는 거짓들. 그이유가 이 루멘에만 있는 이들은 가파른 바위들 아래 서있다, 그래서 어떤 진리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치다-바트-밧-박살내다-박쥐

시137:9-‘바위에 너의 유아(infant)들을 흘뿌리는 자들은 복있을 것이다’=발생하고 있는(초기의, nascent) 거것들이 통치하는 악으로부터의 거것에 의해 파괴되었다.

예18:14-‘바위로부터 레바논의 눈(snow)’=말씀으로부터 교회 속의 진리들.

예31:13-‘평지의 바위’=(말씀의 최말단들로부터) 교리의 거것.

이2:10-‘바위로 들어가는 것’=거짓 안으로.

시141:6-‘그들을 바위의 장소들을 통과하여 내던지자.’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거것들에 있게 내버려 두고, 자기들 거것들에 걸맞는 지옥에 거주하게 내버려 두는 것.

신33장-이 시험이 거행된 ‘바위’=주님, 그리고 그로부터의 ‘물들’=신성한 진리들.

시40:2-‘그분은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셨다’=말씀으로부터 교리의 진리 의에.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시27:5-‘그분은 바위 위에서 나를 의기양양하게 하셨다’=내면적 진리들로 가르쳐지는 것.

이42:11-‘바위의 거주자들’=선행(charity)에 있는 이들.

시18:2-‘여호와 나의 바위...내 바위를 나는 신뢰한다’=진리로부터의 힘의 의미함.

신32:13-‘바위로부터 꿀을 빨 것’=과학적 진리들로부터의 즐거움. (=주님으로부터 신앙의 진리)

이2:21-‘바위들의 갈라진 틈 안으로, 삐죽삐죽한 바위들의 틈 안으로 들어가는 것’=신앙의 불명료함과 캄캄한 것 안으로, 고로 거것들 안으로.

신32:13-‘바위의 균열된 틈으로부터 기름을 빼는 것’=신앙 속의 진리들을 통하여 선이 붙어넣어지는 것.

바치다 (offer)

창22:2-‘그를 번제물로 바쳐라’=그분은 자신을 신성으로 신성화하실 것.

마5:23-‘제단 위에 선물을 바치는 것’=모든 신성한 예배, 그이유는 신성한 예배는 태워 바침과 희생 제물로 원칙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

바트 (밧, bath)

이5:10-‘포도원 10에이커에서 1바트가 생산될 것이다’=남아있는 영적인 것들은 거의 없다는 것.

겔45:10-14-‘바트’는 진리 측면을 서술하는데, 그이유는 이 치수는 포도주의 양을 계량할 때 사용하기 때문. 또한 기름의 양을 잴 때도 사용하는데 이를 수단으로 사랑의 선이 의미된다. ‘바트는 에바로서 호렐 속에 있을 것이다’(11절)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는 영적 의미에서 거기서 모든 것들은 선에 관계된다는 것, 또한 거기서 진리는 선일 것이라는 것...

이5:10-‘바트’는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이다.

박살내다 (dash)

이13:16-‘어린 것들이 조각들로 박살내질 것이다’=그들의 순진은 깡그리 소멸될 것이라는 것.

나3:10-‘모든 거리들의 머리에서 조각으로 박살내질 것’=사라지고 멀해지는 것.

이13:18-‘그들의 활들이 짧은 이들을 조각나게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복부(belly, 자궁)의 열매에 어떤 동정도 하지 않을 것’=교리의 거것들이 진리에 대한 모든 이해함과 사랑으로부터의 모든 선을 파괴할 것이다.

박쥐 (bat)

이2:20-‘두더지들과 박쥐들’=어둠에 있는 이들, 즉 거것들 안에, 고로 악들에 있는 이들.

이2:20-‘두더지와 박쥐에게 자신을 굶혀 절하는 것’=어둠에 있는 것들, 그리고 어둠의 그늘에 있는 것들에 예배하는 것, 이는 내향의 어떤 것 없이 외향의 것들을 예배하는 것.

이2장-교리 속의 악들과 거것으로부터 그들의 예배가 있는 것이 ‘두더지와 박쥐’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의 시야는 어둠에 있고, 빛을 금하기 때문이다.

밖에 (without)

창24:31-‘왜 당신은 밖에 서있느냐?’=거기로부터 여하튼.

계22:15-‘밖에 개들이 있다...!...그것들이 천국 또는 교회 밖에(outside) 있을 때 ‘밖에’ 라고 말해진다.

신32:25-‘밖으로는 칼이...빼앗을 것이다’=내면의 의지

밖에-반-반씩 나누다-반란-반란하다-반바지-반 시간-반점-반점이 있는

로부터의 거짓과 악은 자연적 인간과 합리적 인간 모두를 황폐해지게 할 것이다.

반 (half)

반씩 나누다 (halve)

창24:22-‘반 세겔’=양을 결정함.

창32:7-‘반씩 나누는 것’=둘로 나누는 것, 그리고 고로 받아들임을 위해 자신을 배치하는(dispose) 것.

출24:6-‘모세는 피의 절반을 가져갔다’=신성한 진리가 생명을 만들고 예배를 만든다는 것.

출30:13-‘거룩함의 세겔에서 반 세겔’=선으로부터의 진리의 모든 것들. ‘반’=모든 것들, 그이유는 반 세겔이 10 게라, 10은 모든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

출30:23-‘그것의 반, 오십과 이 백(250)’=상응되는 만큼. 앞의 것의 반=여하간 얼마 만큼, 그리고 충분한(full) 만큼...‘열’=모두일 때, 그것의 반, 또는 ‘5’=얼마 정도. ‘10’=충분한 것일 때, 그다음 ‘5’=충분하다는 것 만큼. 그러나 ‘10’=많은(much), ‘5’=얼마간(somewhat). 여러 다른 숫자의 경우도 그것들이 반씩 나눌 때 마찬가지로 응용된다. 그러므로 앞의 것의 반인 이 숫자는 내면의 진리의 직각함의 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응이 있는 만큼이 의미된다.

계11:9-‘셋 그리고 반’=끝으로 그리고 시작...‘3’=끝으로 마무리되는 것. 그리고 ‘반’=시작.

계8:1-‘마치 반 시간 가량인 듯’=모든 것들이 다음 번의 변화들을 수행하려 준비되기 전 지연되는 시간, 또는 상응되는 시간. ‘반 시간’이 말해지는데, 그이유는 ‘반’=상응되는 만큼, 그리고 충분한 만큼. 그리고 ‘한 시간’=지연됨.

단7:25, 12:7, 계12:14-‘한 때(a time), 때들(times), 그리고 반 때(a half)=황폐함이 충만한 상태.

계12:3-‘1260일’은 3년 그리고 반년을 만든다...그리고 ‘3’과 ‘1/2’은 이전 상태의 끝과 새로운 것의 시작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이전 교회의 끝과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의미한다.

계12:14-‘때’=선에 관한 상태, ‘때들’=진리에 관한 상태. 선과 진리가 심어짐에 관련하여 있는 상태. 그리고 ‘반 때’=교회의 거룩한 것...‘반’=거룩을 함유하는 이유는 ‘3’=충만한 것이기 때문. ‘3’과 ‘1/2’, 그리고 ‘7’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7’은 그것이 거룩한 것들을 취급할 때,=충만한 것, 그리고 ‘1/2’은 이것이 ‘3’이후 나열되어 ‘3’을 채우고 숫자 7을 만든다, 그 이유는 3과 1/2의 두배가 7이기 때문.

반란 (insurrection)

반란하다(rise up against)

출15:7-‘당신의 수많은 특출하심에서 당신께 반란하는 자들을 파괴했다’=반대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신성으로부터 거절되었다.

출32:25-‘그들에 맞서 반란한 이들을 절멸하는 것’=지옥으로부터 있는 악들에 저항하는 모든 힘이 결핍되는 것.

반바지 (breeches)

출28:42-‘너는 고운 아마포로 반바지를 만들 것이다’=[결혼] 사랑의 외적인 것...그 이유는 반바지가 허리를 덮기 때문...반바지가 고운 아마포로 만든 이유는 ‘고운 아마포, linen’=외적 진리 또는 자연적 진리이기 때문. 그리고 진짜 외적 자체가 진리이다.

반 시간 (half-an-hour)

계8:1-‘천국에는 반시간 가량 침묵이 있었다’=천사들은 그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자 극도로 놀라워했다는 것. ‘반 시간’은 극도로, exceedingly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한 시간이 충분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서이다.

반점 (spot)

반점이 있는 (spotted)

예13:23-‘표범이 자기 반점들을 바꿀 수 있는냐?’ (=왜곡된 진리들).

창30:32-‘반점이 있는’=거짓과 혼합됨.

레21:17-23, 22:19-35-‘반점들’=거짓들 인바, 흠이 있는 아론의 자손 누구도 제단에 접근하는 것이 금하여졌다. 그리고 또한 흠이 있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금하였다.

반점 있는(speckled)

창30:32-‘반점 있는’=악과 혼합되었다.

창30:32-‘반점 있고 얼룩진’은 검다와 희다로부터이다. 검다=악,...특별한 측면에서는 인간 고유의 것,, 희다=

반점 있는-반죽 덩어리-반죽통-반죽하다-반지-받침

진리,...반대 의미에서는 인간 자신의 정의 또는 공적...
고로 '반점 있다'=선에 악이 혼합되어짐.

반죽 덩어리 (dough)

출12:34-'백성들은 누룩이 첨가되기 전의 반죽덩어리를 운반했다'=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첫 상태, 이 안에는 거짓이 전혀 없었다. '밀가루'=선으로부터의 진리, 그이유가 '밀가루'=진리. '반죽 덩어리'=거기로부터, 진리의 선. 그리고 반죽 덩어리로부터 있는 '빵'=사랑으로부터의 선. 그 외의 것, 즉 반죽 덩어리와 밀가루=그 것들이 순서대로에서 선들과 진리들

왕하20:7-'무화과 덩어리, a lump of figs'

호7:4-'부풀리는 자(raiser)는 (반죽 덩어리가) 발효되어질 때까지 반죽덩어리를 반죽하는 것을 중단한다'=그들은 자기를 사랑들을 옹호하는 거짓들을 마치 한통속인듯 한 덩어리로 만든다.

예7:18-그들이 '자기들의 반죽 덩어리를 반죽한다'고 말해진다=그들이 이런저런 탐욕들로부터, 그것에 따라 교리를 꾸며냈을 때.

반죽통 (kneading-trough)

출8:3-'반죽통'=자연 평면에 있는 탐욕들로부터의 즐거움들, 그러나 아직 더 외면적인 것들, 그 이유는 반죽통들은 빵을 위해 반죽을 준비하는 그릇이기 때문.

출12:34-'그들의 반죽통들을 그들의 의복으로 묶었다'=애착들로부터의 즐거움, 이 즐거움은 진리들에 인접하고 있다. '반죽통'=애착으로부터의 즐거움

반죽하다 (knead)

창18:6-'반죽하라, 그리고 과자를 만들라'=이 상태에서 있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의 천적 평면.

반지 (ring)

* 고리, ring 를 보라.

받침(base)

* 기초, ultimate도 참조

출27:16,17, 38:18,19-'놋쇠 받침들'=자연적 선들.

출26:19-'은으로된 받침 40개'=말씀을 수단으로 충분히 지탱함...'받침'=지탱함, 그이유가 받침이 지탱하기 때문...받침이 은으로 되고, 널판자를 금으로 덮은 이유는 널판자들에 의해 선이 의미되고, 받침에 의해서는

진리가 의미되기 때문, 선은 진리를 수단으로 지탱하고 힘을 갖는다.

* 받침은 인간의 발과 발바닥과도 상응한다. 그리고 일 반적일 경우, 뼈에 상응한다. 뼈는 신체의 살이 있는 모든 부분을 지탱시켜준다.

출26:19-'널판 아래에 받침을...', '받침'에 의해 의미되는 진리는 이 선으로부터 진행한다다는 것이 의미되어 있다.

출26:19-'한 널판 아래 두 받침'=선과 더불어는 그것의 결합...'받침들'=지탱함의 수단이 되는 진리.

출26:19-'그것의 손들을 위해 한 널판 아래 두 받침들'=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출26:25-'여덟 널판 그리고 그것들의 받침은 은으로'=선을 수단으로 갖가지 방법들로 지탱하는 것, 그리고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통하여 지탱함...'은으로 받침을'=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을 수단으로 지탱함.

출26:25-'열 여섯 받침들'=완전한 지탱...'받침들'=지탱함.

출26:32-'넋 은받침 위에'=진리를 수단으로 하는 결합의 힘...'받침들'=힘.

출26:37-'너는 그것들을 위해 놋쇠 받침 다섯을 주조할 것이다'=바깥쪽 선으로부터의 힘. '받침들'=지탱을 주는 힘.

출27:10-'놋쇠로 그것들의 받침 스물'=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은 충분한 지탱 또한 주고 있다...'받침들'=지탱 또한 주고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

출27:12-'이것들의 기둥들과 이것들의 받침들 열'=선들과 이 선들로부터의 진리들 또한 사용을 위해 충분한 지탱을 주고 있다...'받침들'=지탱을 주고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

출27:17-'그것들의 놋쇠 받침들'=선을 수단으로하여 지탱하고 있음.

출30:18-'(대야의) 놋쇠 받침'=최말단 자연, 즉 감각적인 것으로부터의 선...'받침'=자연 평면의 최말단, 즉 바깥쪽 감각 평면이라 불리는 것인 이유는 놋쇠 받침 위에 있는 대야에 의해 깨끗해짐이 거행되는 자연 평면이 의미되기 때문. 이런고로 아래 있는 것에 의해 가장 낮은 장소에 있는 것이 의미된다. 즉 최말단, 고로 인간

발

의 바깥쪽 감각 평면이 의미된다.

창30:28-‘물대야와 그것의 받침’=악들과 거짓들로부터 깨끗해짐에 속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주님에 의해 거듭남에 속하는 모든 것들...‘그것의 받침’=지탱하게 해 주고 받들어 섬기는 감각 측면.

발 (foot)

* 사람의 발은 자연적인 것을 표현한다.

* 지옥들은 발들 아래 있다.

창18:4-‘당신의 발들을 씻으십시오’=신성은 자연으로부터의 어떤 것을 입으셔야 할 것이라는 것.

신33:3-영적인 것이 ...!그분의 발들에 결합된 이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발’=주님의 왕국에서 보다 낮은 것, 고로 더 희미한 것.

창34:32-‘그의 발들을 씻을 물’=거기서 순수해짐...‘발들’=자연적인 것들, 또는 자연적 인간 안에 있는 것들. 표현적 교회에서 물로 발을 씻는 것은 관습적이었는데, 이것에 의해 자연적 인간의 더러움이 씻어지는 것,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요13:10-‘목욕한 자는 자기 발들을 제외하고는 (씻을) 필요가 없다’=개혁되어진 자는 자연적인 것들에 관련된 것만을 깨끗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즉 악들과 거짓들이 자연적인 것들로부터 제거되는 것만이 필요하다는 것...더우기 발을 씻는 것은 선행의 행동이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또 다른 종류의 악들이 초래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 그리고 또한 발을 씻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행동이었다, 즉 사람은 악들로부터 오는 또 다른 것도 깨끗케 하여야 하리라는 것, 즉 먼지 같은 악, 즉 비열한 행동, 뒷공론, 음담패설 등등 같은 악에서도 깨끗해야 하리라는 것을 뜻한다.

창29:1-‘야곱은 자기 발들을 들었다’=자연적 인간의 승강.

창30:30-‘여호와께서는 나의 발에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셨다’=자연이 가졌던 신성으로부터.

마18:8-‘그것이 범죄할 경우, 잘라 버려야 하리라는 발’에 의해 영적인 것에 항상 반대되게 그 자체를 놓는 자연이 뜻해진다; 그리고 만일 자연이 진리들을 약화시키려 시도한다면 자연은 파괴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뜻해

주고 있다.

창33:14-‘내 앞에 있는 일의 발에 (맞추어)...’=일반적인 것들에 따라서...앞에서는 ‘일의 발’이라 말해졌지만 뒤에서는 ‘어린 아이의 발’이라 말해졌는데, 그이유는 ‘발’=자연이기 때문.

창41:44-‘그리고 그의 발’=자연에 있는 모든 힘...‘발을 들어 올리는 것’...=힘; 그러나 ...자연에 있는 힘...최말단 천국은 발과 관련이 있다. 그이유는...그것이...자연이기 때문.

창43:24-‘그들은 자기들의 발들을 씻었다’=그 결과로 있는 자연의 순수해짐.

창49:10-‘그의 발들 사이로부터 입법자...’=보다 더 낮은 것들에서 (천적 왕국)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되도록 ‘그의 발 사이로부터’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이유가 발의 내면의 부분은 허리와 교통함으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

합3:19-‘암사슴의 것 같이 발들을 만드는 것’=자연이 애착들의 자유함에 있음.

창49:33-‘그는 자기 발들을 침상으로 모아 올렸다’=내면의 것들이 있는 그의 더 낮은 것들에 관련하여, 더 낮은 자연 속의 선과 진리로. ‘발을 모아 올리는 것’=자신을 더 낮은 것들로 향하게 하는 것...‘발’=자연 속에 있는 것들, 고로 이는 더 낮은 것들이다.

예38:22-‘네 발들이 진흙에 빠졌다’=자연이 악 안에 있다는 것.

출3:5-‘네 발들에서 네 신을 벗으라’=자연의 외적인 것들인 감각적인 것들은 제거되어야 하리라는 것...‘발들’=자연.

출4:25-‘그것이 그의 발들에 닿게 했다’=그때 당시 자연의 품질이 보여졌다는 것.

출11:8-‘네 발들에서 있는 백성들’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모세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표현하기 때문; 그리고...‘네 발에서’=아래쪽인 것들, 고로 종속된 것들; 그이유가 ‘발’=더 낮은 것들, 그들=자연적인 것이기 때문.

출21:24-‘발은 발로’=(만일) 자연적 진리의 힘의 어떤 것에 (피해를 입힌다면).

출24:10-‘그분의 발들 아래’=최말단 의미, 이는 글자

발가락-발견하다

의미이다. '발'=자연적인 것들; 고로 '발 아래'인 발바닥 =자연의 최말단들.

출25:26-'그것의 네 발들을 위하여 있는...'=자연 영역에서...'발'=자연인 것.

겔43:7-'내 발들의 발바닥의 장소'=최말단 천국.

출30:19-'그의 손들과 그의 발들'=인간의 내면들과 외면들...손과 발 모두가 언급될 경우,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는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가 의미되어진다. 이로부터 '손을 들어올리는 것'=영적 차원에서의 힘; 그리고 '발을 들어올리는 것'=자연적 차원에서의 힘. 이 외에도, 인간의 맨 끝들에 의해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이 의미되어진다, 이 맨 끝들은 손들과 발들이다. 이로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합의 천막에 들어갈 때, 또는 섬기기 위해 제단에 접근할 때,, 왜 그들의 손들과 발들을 씻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분명해질 것이다.

이58:13-'안식일로부터 발을 돌리는 것'=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이런 것들.

계1:15-'그분의 발들은 마치 용광로에서 이글거리는 듯한 훌륭한 주석 같다'=신성한 자연적 선. '주님의 발들'=그분의 신성한 자연 (자연에 있는 그분의 신성)

계3:9, 시99:5-진리들을 인정하고 받는 것이 '와서 네 발들에서 예배하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발들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발들에서이고, 그분으로부터 그들은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가진다. (시편 99:5에서도 같은 의미가 있다)

계10:1-'불기둥들 같은 그분의 발들'=신성한 사랑 측면에서의 주님의 신성한 자연성, 이것이 모든 것들을 떠받쳐준다.

계10:2-'그는 오른 발을 바다에, 왼발을 땅에 두었다'=주님은 그분의 후원과 지배 아래 보편적인 교회를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그의 발들을 그것들 위에 놓는 것'='모든 것들을 그분 자신에 복종하도록 가지고 있으신다는 것.

계11:11-'그들은 자기들의 발들로 섰다'=자연적 삶이 영적 삶과 일치함, 고로 주님께 의해 생기있게 됨...'발들로 섬'에 의해 인간의 외적인 것이 의미되어진다...모든 인간은 그의 내적 인간에 관련하여 먼저 개혁되어진

다...(그리고 그다음) 그의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이 뜻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말하고 행함으로 개혁되어진다...인간은 앞서 거듭나지지 않는다. 그이유는 거듭남이 먼저 있다면, 그의 내적 인간은 발들도 없이 서서 걷는 사람 같기 때문이다...이것이 두 증인이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온 후 자기들의 발들로 서있음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계12:1-'그녀의 발들 아래 달이'=땅에 이제 막 존재되려 하는 교회, 이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20:2-'발들의 발바닥에 신을 신지 않는 것'=자연의 더러운 것을 들추어 놓는 것.

신33:24-글자 의미에 있는 말씀 속의 진리들이 있는 사랑의 선이 '그에게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게 하라'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속14:12-'자기들의 발들로 서는 것'은 살 없는 뼈들 위에를 뜻하는 바, 이것에 의해 그들은 지독하리만치 육체적인 자연적 인간이 되어 갈 것이 의미되고 있다. '발들'=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것들; 여기서의 경우, 자연적 인간의 가장 낮은 것들.

눅24:39-'내 손들과 내 발들을 보라'...손들과 발들에 의해 인간의 최말단의 것들이 의미되어 있다.

단7:7-'그는 자기 발들로 나머지를 짓밟았다'=그들이 뒤엎고 파괴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들은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사랑들로부터의 악들을 수단으로 더럽혔고 말살해버렸다.

속14:12-'발들'=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것들; 그러므로 '그들 위에 서는 것'=이런 것들 만으로부터 살아가는 것.

시8:6-천국과 교회의 모든 것들 위에 있는 주님의 통치하심이 '당신께서는 그분의 발들 아래 모든 것들을 놓으신다'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겔34:18-'네 풀밭의 남은 풀을 네 발들로 몽개는 것'=존재 못하게 파괴하는 것, 이것은 육체의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추론함들로 해서 있어진다. 그리고 영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있어진다. 이것이 '발들로 몽개는 것'이다.

겔34:18-'네 발들로 물들의 남은 것을 휘저어 놓는 것'='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추론함을 수단으로 진리들이 거

발가락-발견하다-발광체

것들을 더럽히지 않아야한다고 혼동하는 것.

출24:10-'그분의 발들 아래가 청옥으로 작업되어 있다'
'=최말단들에 있는 신성한 진리, 이는 글자 안에 있는 말씀과 같다; 그 이유가 발들의 발바닥=최말단, 이것만이 유대 국가에 보여질 수 있었다.

신8:4-'그들의 발은 부어오르지 않았다'=자연적 인간은 이런 고뇌들로해서 피해입지 않는다.

계13:2-'발들'=자연적인 것들인 바, '꿈의 발들'=오류들로부터 추론함을 수단으로 그들은 글자의 의미를 거짓화한다.

발가락 (toe)

* finger, thumb을 보라.

발견하다 (find)

창19:15-'발견했다'=분리되었다.

창31:35-'찾고 발견 못하는 것'=그것들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

창38:22-'발견 못하는 것'=노출되지 않는 것.

창44:8-'우리는 발견했다'=무료로 주어진 것.

출22:3-'찾음으로 발견되는 것'=너머 그리고 위에 남아 있는 것.

계18:21-'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더이상 천사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계9:6-'죽음을 발견하지 않는 것'=파괴되어질 수 없다는 것.

계18:14-'그들을 찾지 못하는 것'=그들은 영원히 파괴되어졌다는 것.

발광체 (luminary)

창1:16-(사랑과 신앙이) 이제 내적 인간 안에서 불붙는다, 그리고 '두 발광체'라 불리워진다.

창1:14~17-'하느님께서 말하셨다, 하늘들의 광활한 공간에 발광체들이 있어, 낮과 밤이 구별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있게 하라. 그리고 발광체들은 하늘들의 광활한 공간에서 땅 위에 빛을 주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두 큰 발광체들을 만드셨다; 큰 발광체는 낮을 주관하고, 보다 작은 발광체는 밤을 주관하고 별도 (만드셨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그것들을 하늘들의 광활한 공간에 두시고, 땅 위에 빛을 주도록 하셨다.' '큰 발광

체'가 무엇인지는, 먼저 신앙의 본질인 것, 또한 그것의 발전이 새로이 창조되는 이들과 더불어 어떠한지를 알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다. 과학적이고 지적인 신앙은 생명 없는 것들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사랑에 의해 생기가 있는 신앙은 생명 있는 것들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먼저 취급하는 것은 사랑이고, 파생된 신앙이 취급된다. 이것이 '발광체들'이라 불린다. 사랑은 '낮을 주관하는 큰 발광체'이다; 사랑으로부터의 신앙은 '밤을 주관하는 보다 작은 발광체'이다. 이것들이 하나를 이루어야 하기에 '발광체들이... 거기 있으라, Let there be - (sit)...luminaries'라고 하여 단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사랑과 신앙은 내적 인간 안에 놓여있다, 마치 열과 빛이 외적 육체적 인간에 놓인 형국과 같다....그러므로 발광체들은 '하늘들의 광활한 공간에', 또는 내적 인간 안에 놓였다고 말해진다; 큰 발광체는 그의 의지 안에, 보다 작은 것은 그의 이해성 안에 놓여져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직 의지와 이해성에서만 나타날 뿐이다. 마치 태양의 빛이 대상물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사랑을 가지고 의지에, 진리 또는 신앙을 가지고 이해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자비 뿐이다.

계21:11-'그녀의 발광체는 지극히 귀한 돌의 것 같다.'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믿음 속의 진리, 이로부터 파생된 총명)

* '발광체를 위한 기름'=상호적인 사랑 안에, 선행 안에 있는 내적 선...'발광체'=상호 사랑과 선행. '발광체'= 상호 사랑인 이유는 불꽃으로부터 빛이 있기 때문, 이를 수단으로 사랑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선행인 이유는 거기 있는 열과 빛으로부터이기 때문.

출27장에서-선행의 선이 취급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영적 왕국의 천국은 신앙의 진리 안에서 주님에 의해 빛을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올리브 기름'에 의해, 그리고 '발광체'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출27:20-'발광체를 위해'=영적 왕국의 천국.

겔32:8-'하늘들에 있는 빛의 발광체들'에 의해 태양, 달, 별들이 뜻해진다; 그리고 태양에 의해 사랑이, 달에 의해 파생된 신앙, 그리고 별들에 의해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의미되어진다.

발굽-발락-발람-발림말하다-발목

발굽 (hoof)

겔32:13-신앙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이 자연적인 광휘(lumen)를 수단으로 악용될 때가 짐승의 발들과 발굽들을 수단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발들과 발굽들을 수단으로 물들이 어지럽혀지고, 이것들로해서 식품들이 짓밟혔다. ‘발들’과 ‘발굽들’, 이를 수단으로 시내들이 어지럽혀졌다=감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로부터의 과학물들, 이로부터 그들은 신앙의 신비에 관하여 추론한다.

겔26:11-‘말들의 발굽들’=진리를 악용하는 과학들 (=가장 낮은 지적인 것들, 즉 오로지 감각적인 것들로부터의 과학물들).

이5:28-‘말들의 발굽들’=자연적 진리들. (=최말단 수준에서의 거짓)

예47:3-‘말들의 타닥거리는 발굽 소리’=가장 낮은 과학물들, 이것은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직접 있다.

출10:26-‘발굽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선으로부터의 진리는 결핍될 것이 하나도 있지 않을 것이다. ‘발굽’=선으로부터의 진리...대략적 내적 의미에서, ‘발굽이 남지 않을 것’에 의한 의미는 결핍될 것은 무엇이든 없다는 것, 그이유는 발굽은 모든 짐승에게 있는 공통적인 신체 부위이기 때문.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발굽’은 최말단 수준의 진리를 의미한다. 고로 감각적 진리, 이는 가장 수준 낮다. 그리고 반대적 의미에서, 거짓이다. 이것이 ‘발굽’에 의해 의미되는 이유는 ‘발’이 자연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서 이다. 그리고 발의 발바닥은 자연 평면의 최말단이다. ‘발굽’도 발바닥과 같은 의미인데, 그이유는 이것이 짐승의 발바닥이기 때문. 그리고 자연 평면의 최말단이 ‘발굽’에 의해 의미되는바, 또한 자연 평면의 최말단인 진리도 의미한다.

겔32:13-‘짐승의 발굽’=자연 평면의 최말단에 있는 거짓, 이것이 과학적 진리를 어지럽힌다.

미4:13-‘발굽’=최말단에서의 선으로부터의 진리.

발락 (Balak)

* 발람을 보라

발람 (Balaam)

민31:8-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을 가는 발람 앞에 서있음이란 발람이 지냈던 거짓에 잘 견뎌내었던 진리가 의미된다. 그러므로 발람은 칼에 맞아 죽었다.

민24:2,9-발람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 질서에 따라 거주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말했다, ‘그는 구부러 누움이 마치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다, 누가 그를 일으킬 것인가?’ 여기서 묘사된 것은 천적인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천적인 질서이기 때문, 이 질서가 지파 별로 자기 진영을 꾸린 것에 의해 표현되었는데, 이것을 발람이 그 모습을 볼 때, 영 안에서 본 것이다.

계2:17, 민22:7, 24:1 여13:22-‘거기 발람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앞에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매춘을 범하도록 발락을 가르쳤던 자다’=그들 사이에 위선적인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이로 인해 교회에서 하느님을 예배함은 더럽혀졌고 섞음질했다는 것...그이유가 발람은 위선자요 마법사이기 때문, 그이유가 그는 여호와로부터 이스라엘에 관하여는 좋게 말했으나 그의 심정은 그들을 파괴하려는데 불타고 있었는바, 그가 발락에게 준 귀땀을 통하여 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로부터도 그가 위선자임은 분명하다.

계2:17-‘너는 발람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이들을 거기에 가지고 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앞에 울무를 놓도록 발락을 가르친 자이다’=이해함에서 계발된 이들, 그래서 진리들을 가르치는 이들, 그런데 교활함을 수단으로 교회 속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기를 사랑하는 이들...메소포타미아의 브올로부터의 발람은 마법사였다...

발림말하다 (flatter)

시5:9-‘그들은 자기들 혀로 발림말한다’=외면적으로 위선적인 것이 있다.

발목 (ankle)

겔47:3-‘발목에 이른 물들’=감각적이고 자연적 인간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총명. 그이유가 ‘발목’=감각적이고 자연적 인간.

발바닥 (sole)

신바닥 (sole)

* ‘발바닥’ 그리고 ‘뒤꿈치, heel’, 말씀에서=최말단의 자연 평면 (=가장 낮은 자연적인 것들). 창14:23 참조.

발언하다 (utter)

신8:3, 마4:4-‘여호와의 입으로부터의 모든 발언을 수

발바닥-발언하다-발자국-발톱-발판-발표하다-발효

단으로 인간은 산다' = 일반적 측면에서,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고로 지체로부터의 모든 진리. 특별한 측면에서는 말씀, 말씀 안에, 말씀으로부터 지체의 모든 것들이 있다.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선과 진리)

민21:27- '그러므로 선언자가 말한다...' 번역자들은 이것을 '속담의 작곡자'라 번역하나 그들은 '선언자, 또는 예언적 선언자'라 불리워진다.

암4:13- '발언하는 것' = 유입하는 것.

발자국 (footprint)

시77:19- '당신의 발자국은 알려지지 않았다.'

발톱 (claw, nail)

단4:33- '새의 것 같은 발톱을 가지는 것' = 감각적으로 되어가는 것.

발판 (footstool)

시110:1- '그분의 적들을 그분의 발판으로 만드시는 것' = 시험에서의 전투들, 그리고 승리들.

마5:35, 시99:5, 132:7, 이60:13, 애2:1- '발판' = 천국 아래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이는 글자 의미 안에 있는 말씀과 같다. 그이유가 내적 의미인 천국 아래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는 마치 이 말씀 안에 안주하고 이 말씀 위에 서있는 것 같기 때문.

시132:7- '그분의 발판' = 말씀의 자연적 의미 속에 있는 것들. 고로 또한 교회. 그이유가 교회에서 신성한 진리들이 그것들의 최말단들에 있는 것이기 때문, 이 최말단이 말씀의 영적인 것들, 그리고 천국들의 영적인 것들에게, 고로 거기 안에 거주하시는 주님 자신에게 발판이 되어 섬긴다.

시110:1, 막12:36- '내가 너의 적들을 너의 발의 발판으로 놓을 때까지...' '발의 발판' = 천국들 아래 가장 낮은 영역, 이 영역 아래 지옥들이 있다.

발표하다 (announce)

이40:3- '외치는 목소리' = 주님의 강림을 발표함. 일반적으로 외치는 목소리 = 그분의 강림에 대하여 모두 각각에게 고지함, 이는 거듭나는 이들과 더불어 발표일 경우 받아 쓰게 함이 있다 (명령하심이 있다).

출4:8- '그들이 첫 표적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발표된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목

소리' = 말씀으로부터 발표되는 것.

출28:35- '목소리' = 신성한 진리, 그이유가 '목소리'는 신성한 진리의 발표이기 때문. 그리고 목소리가 발표된 이래 그 발표는 천국들과 지상에 있는 이들과 함께 있다... 이런 발표가 아론이 거룩한 장소로 들어갈 때 금으로 된 작은 방울로부터의 (목)소리를 수단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이60:6- '여호와와의 찬양들을 전시하는 것' =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이42:12- '찬양을 선포하는 것' = 외적인 것들로부터의 예배, 그이유가 외적인 것들이 선포하기 때문.

발효 (ferment)

효소 (ferment, enzyme)

* unleavened도 참조

출23:18, 34:25- 천적인 것은 모독인 것, 즉 인간에 어울리는 것과 섞여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너는 '발효된 것 위에서 내 제물의 피와 더불어 바치지 마라'에 의해 표현되어 있다. '발효된 것' = 부패인 것, 더러운 것.

출12:15- '첫째 날 조차도 너희는 너희 집으로부터 누룩이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 선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거짓이 없어야 한다.

출12:15- '누룩 있는 것을 먹는 모든 이는...' = 거짓을 자신에게 제 것 되게 하는 자는...

마16:6,12- '누룩' = 거짓 교리.

마13:33, 호7:4, 레23:16,17- 영적 전투들, 또는 시험들은 영적 의미에서 발효들이다. 그이유가 거짓들은 진리들과 결합하기를 원하나 진리들은 그것들을 거절하기 때문, 결국 그것들을 내던져 마치 아래쪽으로 가라앉거나 정화하는 것처럼 된다. 주님의 비유, 즉 '천국들의 왕국은 여인이 가져와 숨겨 곡식 가루 세 분량을 온통 발효시킨 누룩 같다'가 위 의미에서 이해되어진다. '곡식 가루, meal' = 선이 와지게 하는 진리. 또한 호세아에서, '그들은 모두 간음자들이다, 마치 빵굽는 자에 의해 가열된 화덕 같아서 그는 발효될 때 까지 반죽 덩어리를 반죽하는 것으로부터 부풀리는 자이기를 중단한다.' 이와 같은 전투들은 생명의 새로워짐에 선행하는 인간의 발효 작용을 의미하기에 이렇게 지정되었다. 즉 첫 열매들의 잔치에서 새로운 식사 제물, 흔드는 빵을

밝게 하다-밝히 빛나다

가져올 때, 누룩 넣어 구웠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에게 첫 열매들이었다.

출12:19-‘누룩있는 것을 먹는 모든 이’=자기 선에 거짓을 인접하게 하는 자.

출12:20-‘너는 누룩 있는 것은 먹지 말 것이다’=거짓이 제 거트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것. 거짓을 제 거트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거짓을 인접되게 하는 것이 있다. 거짓을 인접한 경우, 그들이 선 안에 있으면 진리들이 나타날 때 거짓을 거절한다. 거짓을 제 거트되게 한 경우, 그들은 거짓을 보유하고 있어 진리들이 나타날 때 진리 자체에 저항한다. 이리므로 누룩 있는 것은 먹지 마라고 자주 말해지고 있다.

출12:39-‘누룩이 없었기 때문에’=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출13:3-‘누룩 있는 것은 먹지 말 것이다’=거짓인 것은 자기 거트되게 말 것이다...‘누룩’=거짓, 이로부터 ‘누룩 있는 것’=거짓된 것.

출13:7-‘누룩 있는 것이 너희에 의해 보여져서는 안된다’=거짓화 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레23:17-그 당시 바쳐진 ‘누룩 있는 빵’=아직까지는 충분히 순수해지지 않은 선.

출23:18-‘너는 누룩 있는 것 위에 내 제물의 피를 제물로 바치지 마라’=교회의 진리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은 악으로부터의 거짓들과 혼합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누룩 있는 것’=왜곡된 것,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거짓.

호7:4-‘발효’=분리함. 여기서, 분리함이 없다는 것, 그 이유는 ‘그는 발효되도록 반죽 덩어리를 반죽하는 것으로부터 중지한다’라고 말해지기 때문. 이와 같은 것이 에브라임이 ‘과자를 뒤집지 않음’에 의해 의미된다.

레2:11-‘누룩’=자연적 인간의 거짓. 그리고 ‘꿀’=반대적 의미에서 자연적 인간의 악으로부터의 즐거움. 이는 거룩한 내면의 것들과 악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발효와 같다, 그 이유는 자연적 즐거움이 소유하는 모든 것은 자아와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이다.

밝게 하다 (illuminate)

계발하다

* (거듭남의) 넷째 상태는 신앙으로 밝아지는 것이다.

삼상14:29-요나단은 ‘내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했다.

출13:21-‘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밝게 했다’=희미한 상태에 있을 때, 선에 의한 예증을 수단으로 달래진다(temper).

요1:9-‘(거기) 빛은 시각 뿐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밝게 한다...이것이 ‘참 빛, 세상에 오시어 모든 사람을 밝게 한다’에서 뜻해진다.

출25:37-‘그것의 얼굴들을 향하게 하여 밝게 할 것이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밝게 하는 것’=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그이유가 이것이 천국을 밝게 하는 것, 그리고 거기 천사들 자신들을 계발한다. 또한 선으로부터 신앙에 있는 거기 교회와 사람들도 계발한다. 이로부터 신앙의 진리들과 선들 안에서 총명과 지혜가 온다. 마음은 말씀의 수단으로 계발되어진다.

시18:28-‘등을 밝게 하는 것’=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이해함을 계발하는 것.

시118:27-‘우리를 계발하시는 여호와 하느님.’ ‘얼굴을 계발하는 것’=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로 예증(illustrate)하는 것.

시31:16-‘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얼굴을 비추는 것’=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로 예증하는 것.

밝히 빛나다 (bright)

희게 반짝거리다 (glitter white)

애4:7-‘눈 보다 더 희다, 우유 보다 더 희다’=천적인 진리에서...‘순백, whiteness’은 진리를 서술한다.

계1:14-‘그분의 머리와 털은 희었다’=첫째 원리들과 최말단 원리에 신성이 있다...‘희다’=순수하다.

계1:14-‘눈, snow 같이 양털, wool 같이 희다’=거기 선과 진리에 관하여...‘눈’=근원이 물로부터, 그리고 그것의 순백과 밝히 빛남으로부터 최말단에서의 진리...순백과 밝히 빛남은 빛의 투명성으로부터이다.

애4:7-‘흰, white’은 진리를 서술하고 있다. ‘눈’도 마찬가지. 그리고 ‘밝히 빛남’은 진리의 선을 서술하고 우유도 마찬가지이다.

밟다 (tread)

밧다 - 밤

나3:14-‘진흙을 밧는 것’=거짓들 (=악으로부터 거짓을 생각하는 것).

하3:15-‘말을 가지고 바다를 밧는 것’=자연적 인간을 가르치는 것.

눅10:19-‘뱀들과 진달들을 밧고 걷는 것’=악들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악의 거짓들을 파괴하는 것.

계14:20-‘포도즙들은 도성 밖에서 밧아 응개어졌다’=탐사가 말씀의 신성한 진리들로부터 결과되었다. (=지옥의 악으로부터 거짓을 산출함).

계19:15-‘그분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노염과 격노하심의 포도즙들을 밧으신다’=주님 홀로 교회의 모든 악들을, 말씀에 가해진 모든 폭력들을 참아내신다. ‘이 포도주의 틀을 밧는 것’=그것을 참아내시는 것, 그것들과 싸우시는 것, 그것들을 정죄하시는 것, 그리하여 그것들이 때지어 엄습함으로부터 천사들과 인간들을 구해내신다는 것.

밧 (night)

* 인간에게 어울리는 모든 것들은 ‘밧’에 비교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짙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다.

* 사랑으로부터의 신앙이 ‘보다 작은 발광체’이다, 이것이 밧을 지배한다.

창1:18-‘밧을 지배하는 것’...‘밧’에 의해 악이 의미되고 있다. ..악들은 밧의 일이라 불리고 있다.

요9:4-주님 역시...믿음 없음의 상태를 ‘밧’이라 부르시고 있다... 즉 ‘밧이 온다, 그때 인간은 일할 수 없다.’

창7:4-‘40일 낮과 밧’=시험의 기간, 이 안에서 ‘밧’은 근심 걱정들이다.

눅17:34-‘그 밧에 한 침대에 둘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마지막 때가 ‘밧’이라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신앙이 없기 때문, 즉 선행이 없기 때문.

창14:15-‘밧’=그들의 상태, 즉 외관적 선과 진리인지 또는 순수하게 선과 진리인지 알지 못할 때를 말한다.

창19:5-‘밧에’=마지막 때, 즉 (주님의 신성한 인간과 거룩한 조치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때; (그이유가) ‘밧’=어둠의 때, 즉 빛에 속한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천사들은 ‘밧에’ 오지 않았다, 그들은 ‘저녁에’ 왔다. 그러나 룯과 이야기한 소돔 사람은 ‘밧에’ 왔다. 말씀에서 ‘밧’=진리의 빛이 더 이상 있지 않고 거

짓과 악 만이 있을 때와 상태; 고로 마지막 때와 상태, 즉 심판이 있는 때.

요11:10-‘만일 누군가가 밧에 걷는다면, 그는 걸려 넘어진다’ ‘밧’=악으로부터의 거짓...그이유가 진리의 모든 빛이 선으로부터 있듯, 거짓의 모든 밧은 악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출11:4-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집트를 빠져나갈 때, 그들은 ‘한밤에’ 나가도록 명령받았는데, 그이유는 그 시각이 선과 진리가 황폐된 교회, 악과 거짓밖에 지배하는 것이 없는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

출12:12,29,30,42-‘한밤에 이집트의 첫 출생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거짓들과 악들 사이에서 방위되었는바 말해지기를, 이 밧은 이집트인들과는 달리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밧’이라 불려졌다.

창19:33-‘그 밧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큰 희미함 안에 있을 때.

창26:24-‘여호와께서 그 밧에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 희미함에 관한 주님의 지각...‘밧’=그들의 상태, 또는 희미한 것. 이 희미함에 의해 말씀의 글자 의미가 의미되었다.

시104:20-‘당신은 어둠을 배치하시고 그것이 밧이 되고 있다’=희미함의 상태가 완화되는 것; 그이유가 천사들은 상태의 변화들을 가지기 때문...

창31:24-‘하느님께서 밧에...꿈에서 라반에게 오셨다’= 자체로만 남겨져 있을 경우 이 선이 지나는 희미한 지각...‘밧에 꿈에서’=희미한 것.

창31:40-‘추위가 밧에 (나를 엄습했다)’=시험들...‘밧’= 믿음 또는 진리가 없는 상태.

마25:6-‘한밤에 소리가 만들어졌다’=옛 교회의 마지막과 새로운 교회의 처음의 때. 말씀에서 교회의 상태를 취급할 때, 이 때를 ‘밧’이라 부르고 있다.

창40:5-‘각자 밧에 꿈을 꾸었다’=희미함 안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밧’=희미한 것. 영적 의미에서 ‘밧’=악으로부터의 거짓이 야기시킨 그들의 상태; 고로 마음의 희미한 것 역시 의미한다. 세상에서의 밧에 있는 희미함은 자연적인 희미함이나, 다른 삶에서 밧 속에 있는 희미함은 영적인 희미함이고 이는 천국의

밤

태양이 없는 탓에 생긴다.

창46:2-‘하느님께서 밤의 환상들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셨다’=희미한 계시...그이유가 ‘밤’=희미한 것; 그리고 영적 의미에서의 희미함은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말씀에서 ‘밤’=악으로부터의 거짓; 그 이유가 악으로부터 거짓 안에 있는 이들은 밤의 희미함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지옥에 있는 모든 이들은 밤에 있다 라고 말해진다.

이21:11,12-‘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찌되었느냐?...아침이 온다, 밤 또한 온다’ ‘아침’=주님의 강림, 이는 땅 위에 어떤 영적 진리도 남아 있지 않았을 때, 즉 밤이었을 때였다.

속14:7-‘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시각이 주님이 태어나신 때이다; 그이유가 그때 당시 저녁이었기 때문이다. 즉 교회 표현의 마지막 때였다.

이15:1-황폐됨이 ‘밤에’ 거행된다 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진리가 희미함 안에 있어 거짓이 들어 가기 때문이다.

애1:2-여기서는 진리의 황폐를 다루고 있다; ‘밤’=거짓

시101:5-‘밤의 공포’=지옥으로부터 있는 악의 거짓들.

계21:25, 22:5-‘거기에 밤이 없다’=거짓이 없다.

단7:2,7, 속1:9-‘밤의 환상들’=희미한 계시.

출10:13-‘은 이 밤’=희미한 시각의 상태.

출11:4-‘밤의 중간쯤에서’=완전 황폐함이었을 때. ‘밤의 중간’=가장 짙은 어둠이 있을 때, 즉 단지 거짓만이 있을 때; 그이유가 ‘밤’=거짓의 상태; 그리고 그것의 ‘중간’=그것의 높이.

출12:8-‘그 밤에’=악한 자가 지옥에 떨어짐이 있을 때; (그이유가) ‘밤’=선과 진리가 황폐해짐의 상태; 고로 지옥에 떨어짐...

출12:12-‘그 밤에’=그들의 악한 상태; (그이유가) ‘밤’=악과 거짓밖에 더 다른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로부터 ‘밤’은 교회의 마지막 때 역시 의미한다... 또한 ‘밤’은 완전 황폐함, 마찬가지로 지옥에 떨어짐도 의미한다. 이런 것들로부터 명백한바, 지옥에 있는 이들의 상태는 ‘밤’이라 불려진다는 것이다. 이들의 어둠은 짙은 어둠은 아니다, 그이유가 그들은 서로를 보기 때 문이다. 이에 비해 천국들 안에 있는 진리와 선의 상태

가 ‘낮’이라 불리는데 반해 악과 거짓의 상태가 ‘밤’이라 불리울 때, 그로부터 천국으로부터의 어떤 빛도 스며들지 않을 때 거기는 짙은 어둠이 있다.

출12:29-‘밤의 중간이 되었다’=악으로부터의 거짓만 있는 상태; (그이유가) ‘밤의 중간’=완전 황폐; 즉 모든 선과 진리의 상실, 그러므로 악으로부터의 거짓만 있는 상태.

출12:30-‘바로 그 밤에 일어났다’=그들이 악으로부터의 거짓 안으로 놓여졌을 때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영적 교회의 것들에 혐오와 반감을 통각할 것이라는 것; (그이유가) ‘밤’=악으로부터의 거짓만 있는 상태, 고로 저주된 상태.

출12:42-‘이 밤은 여호와에게 경계의 밤’=진리와 선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주님의 현존, 그리고 악 안에, 이로부터 거짓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주님의 현존... 이 뒤를 이어 있는 주님의 현존이...‘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 기둥’에서 묘사되고 있다.

출13:21-‘그리고 밤에는 그들을 비추기 위해 불기둥’=희미함의 상태 일 때, 선으로부터의 예증에 의해 격려함이 있다.

출14:20-‘밤을 비추었다’=저 세계에서 선으로부터 진리의 예증.

이21장-‘밤’=단지 악으로부터의 거짓에 있는 그 당시 인간과 교회의 상태.

예6:5-여기서 ‘저녁’과 ‘밤’=교회의 마지막 때들, 즉 사랑과 믿음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졌을 때.

계7:15-‘그들은 낮과 밤으로 그분을 섬긴다’=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으로부터 받는...진리들에 따라 꾸준히, 성심있게 산다는 것.

계8:12-‘낮은 그것의 삼분의 일을 비추지 않을 것, 밤도 이와 마찬가지로’=그들과 더불어 말씀으로부터 교리와 생활을 위해 소용될 수 있는 진리는 영적 진리이든 자연적 진리이든 더 이상 없다는 것...‘밤이 비추지 않는다’란 달이나 별로부터 빛이 없다는 말인바...말씀의 자연적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는 밤에 있는 달이나 별과 같다...

계20:10-‘낮과 밤으로 괴로워함’이란 줄곧 내면적으로 침해당함을 의미한다.

밤을 보냄-밧단 아람

계21:25-‘거기에 밤이 없을 것이다’=믿음 속에 거짓이 없음; 그이유가 ‘밤’은 빛에 반대인 것을 뜻하는바...이로부터 ‘밤’은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고로 이것이 믿음의 거짓이다.

시16:7-‘밤에는 내 고삐들이 나를 징계한다’. ‘밤’=거짓이 솟구쳐 오를 때의 인간의 상태.

마25장-‘한밤, 소리가 일어났을 때’=마지막 심판; 그리고 일반적 측면에서 인간 삶의 마지막, 즉 그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느 쪽으로 가게 판결될 때.

계4:8-‘낮과 밤 쉬지 않고 있다’ 신성한 섭리와 주님의 안내에 관해서 말해질 때,...=보편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요21:3-‘그들은 온 밤을 노동했다, 그리고 얻은 것은 없었다’=자아로부터 결과되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오로지 주님으로부터서만.

시139:12-자연적 빛이 ‘어둠’과 ‘밤’에 의해 의미된다.

미3:6-‘너에게 환상을 위해서는 밤이다...’=진리를 이해함 대신 거짓을 이해함만이 있을 것이다.

시104:20-‘어둠’과 ‘밤’이 자연적 인간의 루멘(광도, lumen)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영적 인간의 빛에 관계적으로 볼 때 밤 같다....이는 ‘당신이 밤을 배치하고 그것은 밤일런지 모른다’의 의미에서 명백하다.

예6:5-비밀리에 진리들을 파괴하려 애쓰미 ‘일어나라, 밤에 올라가자’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26:9-‘내 혼을 가지고 나는 밤에 당신을 원했다’=진리의 빛 안에 아직 있지 않은 생활.

밤을 보냄 (to pass night)

창19:2-‘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보낼 것’=말하자면 그분은 진리로부터 기꺼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여기서의 ‘밤을 보냄’=심판하는 것.

창24:23-‘우리가 밤을 보낼 ...방이 있는가?’=남아 있음의 상태.

창24:54-‘그들은 밤을 보냈다’=거기서의 평화; (그이유가 ‘밤을 보내는 것’은 쉽기 때문; 그리고 내적 의미에서 평화를 가지는 것.

이21:13-‘숲에서 밤을 보내는 것’=선에 관련하여 황폐되는 것.

창28:11-‘그들은 거기서 밤을 보냈다, 그이유는 태양이

저물었기 때문’=희미한 것 안에서의 생활; (그이유가 ‘밤’=그들의 상태; 고로 ‘밤을 보내는 것’=그 상태에서 사는 것.

창31:54-‘그들은 산에서 밤을 보냈다’=고요함...계약을 맺은 이들이 한 장소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의식적이었다, 그이유는 한 장소에서 밤을 보냄은 서로에게 더 이상 적대감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 내적 의미에서, 고요와 평화.

창32:13-‘그는 그 밤에 거기서 밤을 보냈다’=그 희미한 상태에서...

신21:23-‘그가 ‘나무 위에서 밤을 보내게 하지 말라’는 것=영구적인 거절; 그이유가 저녁에 날이 새로이 시작되기 때문.

출23:18-‘내 축제 속의 지방(fat)은 아침에 이르도록 밤을 보내게 하지 말 것’=예배의 선은 자아로부터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새로이 있다는 것; (그이유가) ‘밤을 보내게 하는 것’=자아로부터 있는 것; 그이유가 말씀에서 ‘밤’에 의해 악과 거짓의 미되기 때문; 고로 자아 역시 의미한다.

출34:25-‘유월절 축제의 희생 제물은 아침에 이르도록 밤을 보내게 하지 말 것’=예배의 선은 자아로부터가 아니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새로이 있다는 것.

이1:21-‘심판이 충만하고, 정의가 밤을 지나갔다’=교리 속의 진리와 사랑의 선이 풍부한 곳.

밧단 아람 (Padden Aram)

창28:2-‘밧단 아람으로 가라’=그러한 진리에 대한 지식들. ‘아람’, 또는 ‘시리아’=지식들. ‘밧단 아람’=진리에 대한 지식인 이유는 그것이 강들의 시리아에, 나훔, 브두엘, 라반이 있었던 곳에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파생되기 때문.

창28:6-‘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냈다’=이 선의 지식들을 수단으로 명명백백해짐...‘밧단 아람’=진리에 대한 지식들. 선에 대한 지식들이라 말했는데, 그이유는 모든 진리들은 선에 대한 지식들이기 때문, 그러나 그것들이 교리를 중시하는 한 그것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라 불리운다.

창28:7-‘그리고 (아굽은) 밧단 아람으로 갔다’=이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붙어넣어지는 것...이것이 밧

밧모-방

단 아람에 의해 의미된다.

창31:18-‘그가 밧단 아람에서 획득한 것’=자연 평면에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밧단 아람’=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창33:18-‘그는 밧단 아람으로부터 이쪽으로 옴에서’=이전 상태 후에...‘밧단 아람’=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 그러나 외면의 지식들, 이것은 순수한 선들과 진리들을 소개하는 것을 돕는다. 그이유가 라반이 거기 있었기 때문, 라반에 의해 이런 선에 애착함 이 표현되어졌다.

창35:9-‘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오는 중에 하느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다’=내면의 자연적 수준의 지각..‘그가 밧단 아람으로부터 오는 중에 다시’=그에게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불어넣어진 후에.

창35:26-이들은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이다’=이 때에서 그들의 근원과 상태..

창48:7-‘내가 밧단 아람으로부터 오는데’=지식들의 상태로부터. ‘밧단 아람’=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들.

밧모 (Patmos)

계1:9-‘나는 밧모라 불리우는 섬에 있었다’=그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와 장소. 요한에게 만들어진 계시가 밧모에서 있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의 섬, 가나안의 토지로부터 과히 멀지 않은 곳,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 그리고 섬들은 하느님을 예배함과는 한층 더 먼 상태에 있는 국가들, 그럼에도 하느님을 예배해야한다는 것에 동조할 국가들을 의미한다. 그이유는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그리스에 의해, 그리고 교회 자체는 가나안의 토지에 의해, 그리고 아시아는 교회에 속한 이들, 이들은 말씀으로부터의 진리의 빛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그리고 유럽은 말씀이 가게 될 이들. 이로부터 ‘밧모의 섬’은 그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와 장소를 의미한다..

* ‘나는 밧모라 부르는 섬에 있었다’=이방인들에게 계시함. (그이유가) ‘밧모’=묵시록에 있는 계시(이기 때문)...‘밧모’=계시인 이유는 거기서 요한에게 만들어진 계시의 기억할만한 [사건]으로부터이기 때문.

* 말씀을 쓰는데 사용된 모든 인물들은 의미를 가졌던

장소로 인도되어졌다. 이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로부터의 의미를 지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중의 한명이 요한이고 그는 교회의 마지막에 있게 될 것들을 계시받도록 하기 위하여 밧모의 섬으로 향하도록 설비되어졌다. 그 이유는 ‘섬, island’=교리의 진리들을 받을 국가들. 더욱이 이 섬은 여러 섬이 있는 것 중 하나이다. ‘그리스’ 역시 말씀에서 이런 국가들을 의미한다.

방 (chamber)

* 침실, bedchamber도 보라

마24:26-황폐된 진리가 ‘광야, desert’에 의해 의미된다. 그리고 황폐된 선은 ‘은밀한 방(골방)’에 의해 의미된다.

겔8:12-‘자기 형상의 방들에 있는 모든 사람’=자신 안에, 자기 생각들에 내향적으로 있는 것. 그들의 생각과 애착의 내면들이 ‘방들’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이 구절에서 ‘형상의 방들’이라 불리우고 있다.

신32:25-‘방으로부터는 공포’=인간의 내면의 것들.

시104:13-‘그분의 방들로부터’=천국의 내면적인 것들로부터.

시105:30-‘왕들의 방들’=내면의 진리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내면의 거짓들.

출8:3-‘침실’=마음의 내면들...그이유는 침실은 집의 안쪽 부분이기 때문. ‘방들’=내면의 것들, 그리고 ‘침실’=한층 더 내면의 것들.

시104:13-‘그분은 그분의 방들로부터 산들에 물을 주신다’=모든 선들은 천국으로부터 진리들을 통하여 온다...‘방들’=이런 것들이 와지는 천국들.

신32:25-‘문들로부터는 검이 빼앗고, 방들로부터는 공포가’=지옥으로부터 있는 거짓과 악이 자연적 인간과 합리적 인간 모두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시105:30-‘방들’=내면의 것들.

시104:3-‘그는 물들에 들보들을 가지고 그분의 방들을 함께 연결하신다.’...그분이 물들에서 들보들과 함께 연결하는 ‘방들’=천국의 사회들.

시104:3-‘방들’=교리적인 것들.

시104:3-‘물들에서 들보를 가지고 그분의 방들을 연결하는 것’=최말단 천국에 있는 이들과 교회에 있는 이들을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채우는 것.

방랑자-방문하다-방법

시104:3-‘그분은 물에서 들보들을 가지고 그분의 방들을 함께 연결하신다’=주님께서는 신성한 진리들을 수단으로 천국들과 교회를 만드신다...‘여호의 방들’=천국들과 교회.

방랑자 (wanderer)

창4:12-과생된 거짓과 악이 땅에서 방랑자와 도망자이다.

* ‘땅에서 방랑하고 도망친다’=진리와 선을 모르는 것

암4:8-‘물을 마시려 헤매는 것’=진리인 것을 추구하는 것.

* ‘돛’은 방랑자와 도망자이다를 뜻하는 단어이다.

이21:15-황폐함이 ‘검 앞에서 방황하는 것’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이21:14-천적인 것들이 ‘빵을 가지고 방황자를 만나는 것’에서 의미되고 있다.

암8:12-‘바다로부터 바다까지 방황하는 것’=지식들이 있는 곳을 구하는 것.

창34:10-‘토지를 통하여 이리저리 다니고, 장사하라’=선과 지식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

호7:13-‘그들에게 슬픔이 있을 지라, 그 이유는 그들이 나로부터 방황했기 때문이다’=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 돌아섬.

방문하다 (visit)

창19장-이 장에서는 방문 자체의 행동이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때 심판.

창21:1-‘여호와께서 사라를 방문하셨다’=신성한 영적 평면에 신성한 천적인 것이 현존함...‘방문하는 것’=현존이 있는 것.

창50:24-‘방문하시는 하느님이 너희를 방문하실 것이다’=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즉 옛 교회의 마지막 때,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처음이 올 것이라는 것. 이 마지막 때가 말씀에서 ‘방문하심’이라 불리운다...이는 태어나는 새로운 교회를, 기한이 만료되는 옛 교회를 서술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구원되어지는 교인, 정죄되는 교인을 서술한다.

눅19:44-‘방문의 날’=주님의 강림, 그리고 그다음 밝게 하심(계발하심), 그러나 유대 국가에 관련하여서...그들과 더불어 교회의 표현성에 관련하여서이다.

출3:16-‘방문하는 내가 너를 방문했었다’=그분의 강림이 영적(왕국의) 교회의 이들에게. 그이유가 ‘방문하는 것’=주님의 강림이기 때문, 이는 교회의 마지막 때에 앞서 있는데, 이 때가 말씀에서 마지막 심판이라 불리운다.

출4:31-‘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방문하셨다’ 영적(왕국의) 교회인들이 주님의 강림에 의해 해방되고 구원되었다. ‘방문하는 것’=세상으로 주님의 강림에 의해 해방됨. 고로 구원함.

출20:5-‘아버지들의 불법을 방문하는 것’=악들이 다산함(prolication).

출32:34-‘내 방문의 날에 나는 그들 위에 있는 그들의 죄를 방문할 것이다’=심판이 있을 때, 일반적, 특수적 측면에서의 그들의 마지막 상태. ‘방문의 날’=일반적, 특수적 측면에서 교회의 마지막 상태. 그리고 ‘죄를 방문하는 것’=심판되고 정죄되는 것. 일반적, 특수적 측면에서라 말해진 이유는 방문의 날은 저세상에 올 때 모든 이 각각에게 발생하기 때문...그리고 또한 교회가 존재함이 중지될 때의 방문은 일반적 측면에서의 방문이다.

출34:7-‘아버지들의 불법을 방문함...’=악을 거절하고 정죄함.

암3:14-‘판결함’ 대신 ‘방문함’이라 말해진 이유는 방문은 심판에 앞서 언제나 진행되기 때문.

이24:21-‘방문하는 것’=과괴하는 것, 그 이유는 방문은 심판에 선행하기 때문.

호9:7-‘방문의 날들’, 그리고 ‘응보의 날들’=마지막 심판의 날들, ‘응보’인 악한 자가 처벌을 당하는 때, 이 때는 ‘방문’이 언제나 선행되어진다.

방법 (method)

창31:7-‘그는 열 가지 방법으로 내 품삯을 바꾸었다’=매우 큰 바꿈...‘방법’=바꿈(change)

출26:30-‘네가 산에서 보기 위해 만들었던 방법(manner)에 따라’=선의 상태들 그리고 과생된 진리에 따라 천국에서 여러 방면(quarter)에.

방부처리하다 (embalm)

창50:2-‘자기 아버지를 방부 처리하는 것’=어떤 전염병균에 침입을 받지 않도록. ‘방부처리하는 것’=전염병

방부처리하다-방울-방위-방주-방치하다-(작은)방패

으로부터 보존하는 수단... 방부 처리는 부패됨으로부터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거행되었다.

창50:26-‘그들은 그를 방부처리했다’=계속 보존됨.

방울 (bell)

속14:20-‘말들의 방울들’=거룩함인 말씀의 영적인 것들을 이해함.

출28:33-‘금 방울들’=계발된 지적 평면으로부터 있는 과학적인 진리들.

출28:33-‘금 방울들’=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게 건너가는 선으로부터의 교리와 예배의 모든 것들.

출28:34-‘한개의 금 방울과 석류, 한 개의 금 방울과 석류, 빙둘러 도포의 자락에=모든 곳, 그리고 전체적으로.

출28:35-방울들의 소리, 또는 울림이 여기서 ‘목소리’라 불리우고 있다. 이밖의 말씀에서도 역시 천둥이나 나팔의 소리, 울림이 ‘목소리’라 불리운다. 이것에 의해서 신성의 진리들이 의미되어진다.

속14:20-‘그 날에 말들의 방울들 위에 여호와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강림, 그리고 모든 이를 교회에 초대함이 취급되고 있다. ‘말들의 방울들’에 의해 과학물들, 그리고 지식들과 진리를 이해함으로부터 있는 설교들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모든 이해는 주님으로부터 있고, 그 이해는 지식들과 설교들 자체이기도 한 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여호와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진다. ‘방울들’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바, 아론의 도포 자락을 빙둘러 금 방울이 있었다.

방위 (quarter)

겔7:2-‘마지막이 토지의 네 방위들에 와진다’=교회의 마지막 때와 상태... ‘네 방위들’=모든 그것의 진리들과 선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모든 그것의 거짓들과 악들. 고로 교회의 모든 것들.

방주 (ark)

노아의 방주(궤) (ark of Noah)

- * 노아라 불리는 교회인은 '방주'에 의해 풀이된다.
- * (노아라 불리는 새 교회의) 형성이 '방주'에 의해 서술되는데, 이 방주 안으로 모든 생명있는 창조물이 받

아졌다.

* '홍수', '방주', 그리고 이것들에 관련되어 묘사되는 것들은 거듭남, 그리고 거듭남에 앞서 진행되는 시험들을 의미한다.

* '방주(ark)'에 의해 ...신비가 의미되는데... 마찬가지로 모세가 감추어졌던(아기 모세를 담았던) 작은 상자(ark)도 신비를 지니고...어쩌면 이 두 가지보다 더 높게 신비를 내포한 것은 광야에서의 언약을 담은 궤(ark)일 것이다.

* '그가 방주로 들어갔다'=그는 구원되어졌다.

창7:1-‘너와 모든 네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의지 속에 있는 것들

* '방주로 들어가는 것'=준비되어지는 것.

창7:7-‘노아는 홍수의 물들에 앞서 방주로 들어갔다’=그는 안전해졌다.

창9:10-‘방주로부터 나온 모든 것’=교회인...또는 거듭나는 자.

마24:38-‘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 까지’=이전 교회의 끝,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시작.

방치하다 (neglect)

시88:5-‘죽은 자 사이에 방치되었다’=진리와 선이 하나도 없는 이들과 더불어 사이에, 그리고 그러므로 거절되어진 이들 사이에.

(작은) 방패 (bucker)

시91:4-‘방패와 과녁(target)’=거짓들에 맞서 보호함.

시18:2-‘방패’ 등등은 진리의 힘을 의미한다.

* ‘작은 방패’, ‘큰 방패’, ‘화살’=말씀으로부터 있는 교리의 진리, 이를 수단으로 악의 거짓들로부터의 보호가 있다.

시18:2-‘나의 방패, 내 구원의 뿔’=거기서부터의 구원. ‘방패’는 신성한 선을 서술한다.

겔39:9-‘방패’=선을 파괴하는 거짓. ‘큰 방패’=진리를 파괴하는 거짓.

시35:2-‘작은 방패’, 그것이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에=진리에 대한 이해를 파괴하는 거짓들에 맞선 보호.. ‘큰 방패’, 그것이 가슴을 방어하기 때문에 선을 뜻하는 (will)것인 선행을 파괴하는 거짓에 맞서 보호함.

(큰) 방패 (shield)

(큰)방패-밭-배-배

창15:1-‘나는 네 방패이다’=악들과 거짓들에 맞서 보호하심.

시91:4-‘그분의 진리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이다’=진리를 수단으로 안내하심.

시5:12-‘그분은 방패가 하듯 그들을 에워싸신다’=사랑으로부터 있는 그분의 보호..

겔39:9-‘방패’=진리를 파괴하는 거짓.

밭 (field)

* 들판을 보라

배 (ship, vessel)

이43:14-‘배들’=부패된 진리에 관한 지식들.

이60:9-‘다르섯의 배들’=지식들 (=말씀으로부터의 진들과 교리물들).

창49:13-‘배들의 피난처에서’=말씀으로부터의 교리물이 있는 곳.

시107:23-‘배들’=지식들과 교리물들. 말해지기를, ‘배들을 가지고 바다로 내려 간 그들, 이들은 여호와의 일들을 보았었다...’

계8:9-‘배들의 삼분의 일이 부서졌다’=교리물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이 왜곡되었다.

시104:26-‘배들’=지식들과 말씀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

요21:6-‘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것’=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으로부터 [행해지는] 모든 것들.

이33:21-‘노질하는 배’=자아로부터의 총명, 그이유는 인간 동력으로 배가 움직이기 때문. ‘웅대한 배’=자아로부터의 지혜. 바다를 가로질러 재물을 운반할 때의 배=총명과 지혜.

민24:24-‘깃땀 해안으로부터의 배’=고대 교회에 의해 소유된 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들.

사5:17-‘왜 단은 배들을 두려워하는가?’=왜 그는 거짓들과 거짓으로부터의 교리들을 쫓아버리지 못할까?

계18:17-‘배들에 고용된 이들’=총명에 있는 이들.

계18:19-‘바다에서 배들을 가지는 것’=자연적 인간으로부터의 추론들을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확증하는 것.

배 (belly)

창3:14-‘뱀은 자기 배로 걸을 것이다’=감각적인 것(인간)은 전과 같이 천국적인 것들 쪽인 위쪽을 더 이상

쳐다볼 수 없고, 지상적이고 육체적인 것들 쪽인 아래 쪽을 쳐다볼 것이다. ‘배’에 의해 땅에 가장 가까운 것들이 의미되어진다.

욘2:2-‘큰 물고기의 배’, 이 안으로 요나는 던져졌다=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 이는 다음 말로부터 분명하다; ‘지옥의 배로부터 나는 소리쳤다.’

단2:32-‘신상의 배와 넓적다리, 이는 늦쇠로 되어 있다’란 셋째 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선 중의 하나였다.

시58:3-‘자궁으로부터(에 있을 때부터) 멀어지고’=교회 속에 있는 선으로부터...‘배로부터(에 있을 때부터) 배반함 쪽으로 가는 것’=진리로부터.

호9:11-‘새 같이 그들의 영광은 출생으로부터, 배로부터, 수태함으로부터 날아가버렸다’=교회의 진리가 함께 멸해질 것이다. ‘출생으로부터’=태어나는 것. ‘배로부터’=임신 기간에 있는 것. ‘수태함으로부터’=일어난 것.

계12:2-‘배에서 낳는 것’=교회의 진리를 마음에 품는 것.

마15:17-‘배’는 지옥을 향하여 있는 길에 상응한다.

계10:9-‘배를 쓰리게 만드는 것’=(주님의 교리)는 왜곡함들로부터는 불유쾌하고 진력나질 것.

요7:38-‘그의 배로부터 흐를 것이다’=기억으로부터의 생각.

마15:17-‘배’=영들의 세계, 이로부터 생각들이 인간 안으로 흐른다.

계10:9-‘네 배를 쓰리게 만들 것이다’=내향적으로 불유쾌 할 것이다, 그이유는 바깥쪽으로 쉬움질되었기 때문...‘배’=안쪽으로.

계10:10-‘내가 그것을 삼켰을 때, 내 배는 쓰러졌다’=말씀의 글자 의미의 쉬움질된 진리로부터 말씀은 내향적으로 불유쾌했다는 것이 탐사되고 지각되어졌다는 것...여기서 ‘배’는 말씀의 내면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적이라 불린다. 작은 책을 먹음(삼킴)에 의해 탐사가 표현되어졌다. 그것에 대한 지각은 그것이 배로 들어갈 때 그것의 맛에 의해 의미된다.

시17:14-‘배’는 내면적 이해함을 의미한다. ‘그들의 배를 보물로 채우는 것’은 말씀의 진리들을 가지고 내면의 이해성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배고픔-배반하다-배상하다-배설물-배우다-백-백 번째-백 배

요7:38-‘배로부터 강들이’=내면적인 이해 또는 총명.
 예51:14-‘그들과 더불어 배를 채우는 것’=그것들을 마시고 그것들을 모독하는 것.
 시31:9-‘내 눈이 무가치한 것으로 소진되었습니다, 내 혼 그리고 내 배도..’ 여기서 ‘눈, 혼, 배’=이해함 그리고 진리에 대한 생각, 내, 외면적으로. 고로 ‘배’=이해함의 내적인 것들, 이것이 ‘무가함으로 소진되었다’라고 말해지는데, 그들이 그것들을 통하여 멸해질 때이다.
 시44:25-‘우리의 혼은 먼지 아래로 구부러 절하고, 우리의 배는 땅 쪽에 집착한다.’ ‘혼’, 그리고 ‘배’ 여기서도 역시=이해성으로부터의 생각.
 창3:14-‘배로 너는 걸을 것이다’=지옥인 것.
 레11:42-‘배로 걷는 것은 어떤 것이든 먹지 말라’고 금하여졌다, 그 이유는 그것이 역겹기 때문이다. 배가 땅에 집착하는 것=내적인 거짓인 이유는 지옥들은 영계에서 땅 아래 있기때문,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거짓은 지옥들로부터 거기 땅을 통하여 발산하기 때문. 그리고 ‘배’=생각과 이해함의 내면들, 만일 그들이 이런 땅들에 집착한다면 생각과 이해함은 악의 거짓들에 의해 감염되고 붙여넣어진다. 그러므로 영계에서는 땅에 자기 배를 대고 눕는 자가 없다.
 예4:14-‘얼마나 오랫동안 불법의 생각들이 네 배에서 머무를 것이냐?’ 여기서 생각들을 배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시5:9-‘그들의 배는 멸망(perdition)들이다.’ 여기서 역시 멸망을 배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즉 악한 생각들.
 시64:6-‘사람의 배, 그리고 심정이 깊다.’ ‘사람의 배’=거짓 생각들. 그리고 ‘심정’=악한 애착들.
 합3:16-‘내 배는 몹시 뒤흔들렸다’=생각의 슬픔.
 호9:16-‘배의 바람들’=진리들이 획득했다. 임신기간 동안 배가 불러짐으로부터 ‘배’가 ‘자궁’ 대신 언급된 것이다. ‘배’는 진리들이 취급될 때. ‘자궁’은 선이 취급될 때 각기 언급된다.
 시31:9, 44:25-‘배’=신앙, 그리고 선으로부터 이해함. 이렇게 의미된 이유는 배는 음식을 받고, ‘음식’, 그리고 ‘빵’은 자양분을 주는 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해성과 신앙.
배고픔 (hunger)

* 기근 참조.
 계7:16-모든 (영적) 지식들과 천적 선들이 풍부함, 이것이 ‘배고프지 않다’이다.
 눅4:2-주님의 가장 참 생명이었던 사랑이 ‘그분은 배고프셨다’로 의미되어 있다.
 이32:6-‘배고픈 자’=선을 갈망하는 자.
 이49:10-‘그들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그들은 선을 결핍되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
 눅1:53-‘배고픈 자’, 여기서의 경우, 그밖의 여러 구절에서 가난한 자라 불리는 이들, 고로 빵과 물을 가지지 않은 이들...즉 선과 진리를 모르는 이들, 그러나 그것들을 갈망하는 이들.
 이9:20-‘배고프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신앙으로부터의 선과 진리를 받지 못하는 것.
 계7:16-‘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이후 그들은 선들과 진리들이 결핍하지 않을 것이다.
 이32:6-‘배고파하는 혼을 비우는 것’=선에 관한 지식들을 갈망하는 이들로부터 그것들을 빼앗는 것.
 시34:10-‘궁핍한 가운데 있고 배고파하는 젊은 사자들’=그들 자신들로부터 알고 슬기롭다 하는 이들. ‘궁핍함에 있는 것과 배고픈 것’=그들은 진리이든, 선이든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요6:35-‘배고픈 것’, 여기서=주님에게 오는 것...그분에게 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
 예42:14-‘빵을 위해 배고프지 않는 것’=선을 갈망하지 않음, 이런 (상태)는 거짓들과 악들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존재한다.
배반하다 (betray)
 * 주님이 가롯 유다에게 배반 당하심을 그분이 유다 국가에 의해 배반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배상하다 (indemnify)
 창31:39-‘나는 그것을 배상했다’=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있었다는 것. ‘배상하는 것’=선인 것을 갚는 것.
배설물 (excrement)
 이4:4-‘배설물’=자아 사랑으로부터의 악.
 겔4장-에스겔이 황소의 배설물로 만든 보리 과자를 먹은 이유는 교회의 진리와 선이 악들에 의해 더럽혀졌음

배상하다-배설물-배우다-백-백 번째-백 배- 백색-백성-백향목-뱀

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신23:13,14-배설물들, 이를 수단으로 지옥의 것들이 의미되어졌는바, 진영 밖으로 운반되어졌다.

배우다 (learn)

계14:3-‘144000외에는 아무도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기독교인들로부터의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고로 사랑과 신앙으로부터 인정한다는 것... ‘배운다’는 것은 이것이 그렇다하고 자아 안에서 내면적으로 지각하는 것, 고로 인정하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방법으로 배우는 자는 배우기는 하나 배우지 못하는데, 그이유는 그가 기억하지(retain) 못하기 때문.

백 (hundred)

백 번째 (hundredth)

백 배 (hundredfold)

창11:10-‘일백 년’=일반적 측면에서 이 교회의 상태.

창21:5-‘아브라함은 일백 년의 아들이었다’=합일이 충만된 상태.

* ‘아껴두신 것들’이 숫자 ‘열’에 의해 의미되는데, ‘백’ 역시 이를 의미하나, ‘백’은 거듭남이 충만된 상태일 때에서이다.

마19:29-‘일백 배’=충만한 것.

창26:12-‘그는 이 해에 백배 분량을 발견했다’=풍부함...‘100’=많고 충만함.

창33:19-‘일 백 크시타(kesithae)’=충분인 것. ‘백’=충만된 상태, 결과적으로 충분한 것, 그러나 이 구절의 경우, 많다가 더 적절한 의미이다, 그이유가 내면의 진리들로부터 선을 자기 것 삼음을 취급하기 때문.

막4:8-30, 60, 100, 이런 모든 숫자들, 이것들은 10을 곱해서 나오는 숫자=남아있는 것들의 충만함.

사7:16-‘백’, 이는 각 부대의 숫자였다=많고 충분함.

출18:21-‘백명의 왕자(백부장)’=두번째 등급에 있는 제일의 진리들, 그이유는 ‘천부장’이 첫 등급에 있는 제일의 진리들이기 때문.

출27:9-‘길이는 일백 큐빗’=주님으로부터 선을 가지고 충만함. ‘백’=모두, 많은, 그리고 충분함.

출27:11-‘벽결이 천은 길이가 일 백’=또한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충만함...‘백’=충만인 것.

출27:18-‘뜰의 길이는 일 백 큐빗’=이 천국의 선은 충

만하는 쪽에 있다...‘일 백’=충만함 쪽으로.

마18:12-‘일 백’=많은(much).

백색 (white)

* 흰(white)을 보라.

백성 (people)

* 사람들(people)을 보라

백향목 (cedar)

* 삼목(cedar)을 보라

뱀(snake)

암5:19-‘그가 자기 손을 벽에 기댔다, 그리고 뱀이 그를 물었다’=선을 찾고자 하면서 글자 의미에서 말씀과 상담할 때, 그는 악들이 자기를 악용한다는 것을 모른다.

뱀 (serpent)

* arrow-snake, asp, cockatrice, dragon, fire-serpent, viper 등도 참조

* The Sensuous,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또는 측면), 감각적 인간이 ‘뱀’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창3:1-태고인들은...인간의 감각적인 것을 뱀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뱀이 땅에 가장 가까웁듯, 감각적인 것이 육체에 가장 가까웁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믿음의 신비들을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추론함을 그들은 뱀의 독이라 불렀다; 그리고 추론자 자신은 뱀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추론은 육체의 눈 같은 감각으로부터 추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뱀은 들판의 어느 짐승 보다 더 미묘(교활)했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 이로부터 속담, 뱀이 귀를 막는다가 나오기도 했다.

* 계시된 것들 보다 감각적인 것을 더 신뢰하는 이들은 뱀이라 불리워진다. 이는 오늘날 더 심각하다...

* 귀머거리 뱀 뿐만 아니라 날고 있는 뱀도 있다.

마10:16, 창3:1-천적 인간들인 태고인들은 조심성 많게 일을 처리해야 할 때, 감각적인 부분을 통하여 실시했는바, 주님께서도 ‘뱀 같이 신중하고 비둘기 같이 티없으라’ 분부하셨다.

* ‘뱀’=주님의 감각적인 부분...그분 만이 만인을 위해 빈틈 없게 설비해주신다. 그러므로 뱀뱀을 쳐다 본 사람들은 구원되었다. (=주님, 그리고 보호)

창3:14-‘여호와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하셨다’=그들이

(침을)뱀다-버가모-버둥거리다 -버드나무-버리다-버터

자기들의 감각적 부분에 원인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 뱀은 '모든 짐승을 초월하여 저주되어졌다...감각적 부분 그 자체가 천적인 것으로부터 돌아서 육체적인 것으로 향했는바, 그 자체를 스스로 저주한 것이다. 뱀은 '배로 걸어야 한다'는 것=감각적인 부분은 천적인 것이 있는 위쪽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것, 오직 아래쪽인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것들만을 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네 사는 날 동안 먼지를 먹어야 한다=감각적 부분은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것 외에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창3:15-'나는 너와 여인 사이에 증오를 놓을 것이다...'...'뱀' 여기서의 경우=일반적으로는 모든 악; 특별하게는 자아 사랑...뱀의 '머리'=일반적으로는 악의 통치권, 그리고 특별하게는 자아 사랑의 통치권...

* '뱀'='주님의 감각적이고 자연적 선. (=주님의 외적 측면의 감각적 부분, 또는 자연적 측면)

이14:29-'뱀의 뿌리'=과학물들.

민21:9-주님의 신성한 감각적 부분 측면에서 주님과 이 결합이 뱀에게 물렸을지라도 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아났는데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창49:17-'단은 길에 있는 뱀일 것이다'=진리에 관해 그들이 추론함, 그 이유는 선이 아직은 그들을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뱀'=감각적 측면으로부터 추론함.

예8:17-진리와 선에 관한 그들의 추론이 '뱀들'이라 불린다.

출4:3-'(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감각적이고 육적인 인간은 내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 이유가 '뱀'=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추론하는 사람; 고로 인간의 감각적 부분; 그리고, '뱀'=감각적 부분인 바, 그것=육체적; 그 이유가 감각적 부분은 육체의 감각으로부터 그것에 속하는 것(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감각적 부분은 그 자체만 참작한다면, (여기서) 묘사되는 것과 같다. 즉 그것=일반적으로 모든 악.

출7장-오류들만이 그들을 지배할 것임이 아론의 막대기가 뱀으로 바뀔때 묘사되었다.

출7:9-'물뱀이 될 것이다'=오류만....,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거짓들이 그들을 통치할 것이다.

출7:12-'(마술사의 막대기가) 물뱀이 되었다'=진리에

관하여 통각됨에 무디어 있다; (그 이유가) '물뱀'=오류들로부터의 거짓들.

눅10:19-'뱀들과 전갈들'=악들과 악들로부터의 거짓들. '그것들을 짓밟는다'=그것들을 파괴한다.

이14:29-'뱀의 뿌리로부터 바실리스크(basilisk, 괴상한 뱀)가...'='자기 고유의 총명의 교만으로부터 그들 속의 모든 진리가 파멸됨.

* 고대인들이 감각적 인간을 뱀이라 불렀던 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미묘하고, 교묘하고, 타인 보다 더 재치 있기에 '뱀은 들판의 모든 짐승 보다 더 미묘하도록 만들어 졌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뱀 같이 신중하라'...

* (에덴에서) '뱀'=감각적 인간 그리고 인간의 자아, 인간의 자아 자체는 자아 사랑과 자신의 총명의 교만함, 고로 악마와 사탄이다.

계9:19-'그것들의 꼬리는 뱀 같다...'='그들은 감각적이고 거꾸로 되었다.

계20:2-그들이 신앙 속의 것들을 감각적으로 생각할 뿐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늪의 뱀'이라 불리운다.

창3:15-'뱀'=인간의 감각적 부분, 거기에 그의 자아가 있고, 그 자체만 생각한다면 악밖에 더 아니다.

예46:22-'뱀의 목소리'=교활함과 사기.

뱃사람(sailor)

선원

계18:17-'선장과 선원들'=기여하는(contribute) 이들, 즉 평신도라 불리는 이들.

계18:17-'모든 선장, ship-master'=그들 중의 가장 높은 자, 즉 황제, 왕 등등. '배들에 고용된 모든 이'=보다 높고 낮은 계급에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이들. '선원들'=가장 낮은 자, 보통 사람이라 불리운다.

겔27:26,27-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배하는 이들이 '선원들'에 의해 뜻해진다.

겔27:26,27-'선원들'=성직자들. '선장'=가르치고 이끄는 자.

계18장-'선원들'=지식에 있는 이들.

뱀다 (spit)

요9:6-'그분은 지면에 침을 뱉으셨다, 그리고 침을 가

(침을)빨다-버가모-버둥거리다 -버드나무-버리다-버터

지고 진흙을 만드셨다'...주님께서 지면에서 침으로부터 만드신 '진흙, clay'=글자 의미로부터 있는 진리들을 통하여 개혁함.

요9:6-'침으로부터 진흙'에 의해 감각적 진리, 이와같이 말씀에 있는 진리가 의미된다.

버가모 (Pergamos)

계2:12-'버가모에 있는 교회'=선한 일들에 교회의 모든 것을 두는 이들, 그리고 교리로부터의 진리들에 있는 어떤 것도 중시 않는 이들. (=시험들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

버둥거리다 (struggle)

고투하다 (struggle)

맞붙(어 싸우)다 (wrestle)

씨름하다 (wrestle)

창30:8-'하느님의 고투하심들(struggles)을 가지고 나는 내 언니와 버둥거렸다(struggled), 그리고 나는 이겼다'=최고 의미에서 신성한 힘, 내적 의미에서 그가 극복하는 시험, 외적 의미에서 자연적 인간을 수단으로 저항함. '하느님의 고투하심들', 그리고 '버둥거리는 것'=시험들, 그이유가 시험이란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과 더불어 버둥대는 것 외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

창32:24-'사람이 그와 맞붙었다'=진리 측면에서의 시험들. 시험 자체는 맞붙는 것 외 더 다른 것은 없다.

버드나무 (willow)

레23:40-감각적 진리, 이는 가장 외적인 진리인데, '개울가의 버드나무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버리다 (forsake)

* desert, leave도 참조.

창24:27-'그분의 자비를 버리지 않으신 (분)..'=사랑의 유입을 지각함.

겔29:5-'나는 너를 광야에서 버릴 것이다'=진리들과 선들이 결여됨.

이32:14-그들이 있지 않을 때, 많은 사람이 '버려진다'라고 말해지는데, 많은 사람은 진리들을 서술하고 있다.

마24:40,41-'남자들'에 의해 거짓들에 있는 이들, '여인들'에 의해 거짓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악들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그이유는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

는 버려진다'라고 말해지기 때문. 즉 애착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은 구원되어질 것이고, 애착으로부터 악들에 있는 이들은 정죄되어질 것이다.

슌2:9-이로부터, 모든 선과 진리의 황폐됨이 오고있다고 말해지는바, '췌기풀이 자라게 버려진 장소'.

이1:4-'그들은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성나게 했다'=그들이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를 거절했다는 것.

버터 (butter)

욥20:17-'꿀과 버터의 강들'=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 이것들을 추론자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7:15-'꿀과 버터를 먹는 것'=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

창18:8-'버터'=합리성 속의 천적인 것. '버터', 말씀에서=그것의 지방으로부터 천적인 것.

이7:22-'우유'=영적 선, '버터'=그분의 천적인 것. 그리고 '꿀', 거기로부터 파생된 행복.

신32:14-'버터와 목축'=자연적 평면에 있는 천적인 것.

이7:14-16,21,22-'그분이 먹을 버터와 꿀'=사랑으로부터의 선들. '버터'=천적 평면으로부터의 선과 영적 선. '꿀'=자연적 사랑으로부터의 선.

신32:13,14-'목축의 버터, 그리고 양떼의 우유'=외적, 내적 측면에서의 진리로부터의 선.

시55:21-'버터들'=외적 애착으로부터의 선. '기름'=내적 애착으로부터의 선.

이7:22-'버터와 꿀을 그 토지에 남은 자 모든 이가 먹을 것이다'...'버터와 꿀'=영적 선과 자연적 선.

이7:14,15-'버터와 꿀을 그는 먹을 것이다'...'버터'=영적 선으로부터의 즐거움. 그리고 '꿀'=자연적 선으로부터의 즐거움. 고로 신성의 영적 평면과 신성의 자연적 평면. 고로 내적 측면에서, 외적 측면에서 그분의 인간.

버티다 (persevere)

마24:13-'끝까지 버티는 자는 구원될 것이다'=선행 안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심. '끝까지 버티는 자'=자신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고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한 자.

변갈음 (alteration)

창27:33-'이삭은 극도로 심한 공포로 떨었다'=상태가 반대로 됨에 따른 큰 변갈음(교차됨)...'공포'=변갈음.

버티다-번갈음-번개-번영하다-번제-번제물-번쩍이다-벌-벌거벗음

창28:17-‘그는 두려웠다’=거룩한 번갈음.

번개 (lighting)

번쩍이다 (flash)

* thunder도 참조.

마24:27-‘번개가 동쪽에서 나가서 서쪽에서 나타남 같이 사람의 아들의 강림도 그러할 것이다’=주님을 내적으로 예배함과 더불어 있었던 것들은 마치 번개의 나타남(번쩍거림) 같다는 것, 즉 그 안에서 이 예배로부터 있는 것들은 즉시 사라진다는 것 ‘번개’에 의해 천국의 빛으로부터 있는 것이 의미된다. 고로 사랑과 신앙으로 단언되는 것들. ‘동쪽’=주님...그리고 ‘서쪽’=저무는 것, 또는 중단되는 것...고로 ‘번개가...동쪽으로부터...서쪽으로’=사라짐.

단10:6-‘그분의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다’...=사랑의 선.

신32:41-‘번개’=지적 평면에서 번득이는 신성한 진리의 눈부심,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진리를 보는 능력을 빼앗는다.

출20:18-‘헛불들’ 또는 번개들=진리가 사랑의 선으로부터 가지는 눈부심.

계4:5-‘왕좌로부터...번개들...’=예증. 눈들을 눈부시게 하는 불꽃으로부터 ‘번개들’=예증.

계11:19-‘번개들, 음성들, 그리고 천둥들’=추론함들..

계16:18-‘음성들, 번개들, 그리고 천둥들’=추론들, 진리를 왜곡함, 그리고 거짓들로부터 논쟁함들.

삼하22:15-‘번개’=신성한 진리들로부터의 빛. 이 빛은 선의 경우 이를 예증하고 생기를 주나, 악의 경우 눈멀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한다.

숙9:14-‘그분의 활이 번개 같이 나갈 것이다’=진리가 실례를 들어 설명함, 고로 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진리.

예10:13, 51:16-‘그분은 비를 위해 번개들을 만드신다’=그들과 더불어 신성한 진리의 유입으로부터 실례를 들어 설명함.

번영하다 (prosper)

창24:56-‘여호와께서 내 길을 번영되게 하셨다’=모든 것들이 지금 예견되어졌다는 것.

창39:2-‘그는 번영하는 사람이었다’=모든 것들이 예견되어졌다는 것.(미리 준비되어졌다는 것)

창39:23-‘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여호와께서는 번영되게 하셨다’=신성한 섭리가 그분으로부터 있었다는 것.

이53:11-‘여호와 의지가 그분의 손을 수단으로 번영되어질 것이다’=천국들과 땅 위 모든 것이 신성한 질서에서 간직될 것이라는 것.

번제 (burnt offering)

번제물 (burnt-offering)

* 태워 바침(burnt offering), 태워지는 공물(burnt-offering)을 보라

번쩍이다 (flash)

* 번개(lightning)를 보라.

벌 (bee)

이7:18-‘아시아 토지에 있는 벌’=마음의 추론들을 타락시키는 거짓.

사14:8-민음만의 교리가 사라진후 선행의 선이 그것을 계승했다는 것..

벌거벗음 (nakedness)

창2:25-그들이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얼굴을 붉히지 않았다’=그들은 순진이었다는 것;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자아에 순진을 은근히 심으셨다는 것.

창3:7-‘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음을 알았다’=그들은 자기들이 이전 같이 순진 안에 있지 않고 악 안에 있음을 알았고 인정했다....인간이 순진 없음 안에 있을 때, 벌거벗음은 수치요 불명예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악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자각했기 때문. 이리므로 ‘벌거벗음’이 말씀에서는 책망과 악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뒤집힌 교회를 서술할 때도 이 단어를 취한다.

창9:21-‘(노아)는 천막 한가운데에서 덮지 않고 있었다’=곡해한 것들, 이는 ‘덮지 않았음’과 ‘벌거벗었음’의 의미로부터 분명하다. 그이유가 그는 포도주로 취했음으로부터 ‘덮지 않았음’, 또는 ‘벌거벗었음’이라 불리우고 있기 때문, 술취한 자 안에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은 없다; 더 나아가 그와 더불어는 진리들은 뒤집혀 있다.

창9:22-‘그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다’=그는 오류들과 뒤집힌 것들에 주목했다는 것; (그이유가) ‘벌

별거벗음

거벗음'=악인 것과 악용한 것.

창9:23-‘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별거벗음을 덮었다’=그들은 악용한 것들을 너그러이 봐주었다.

마25:36-그들은 ‘별거벗음’을 수단으로 자신들 안에 선과 진리의 어떤 것도 있지 않음을 인정했던 이들을 지각한다.

창42:9-‘토지의 별거벗음을 보려고 너희는 온다’= 자신들을 위해 그들이 진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는 것...‘별거벗음’=진리가 결핍되어 있는 것; 고로 그들은 진리들이 아니라는 것...이 구절의 경우, ‘토지의 별거벗음’=교회 안에 진리들이 없음.

계3:17-‘별거벗었다’=진리가 빈궁한 채로 있다는 것.

계3:18-‘별거벗음의 수치’=선들과 진리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

계16:15-‘그가 벗은 채로 걷지 않도록’=그가 진리들에 결핍되지 않도록.

겔18:7-‘옷으로 별거벗음을 가리는 것’=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을 진리들 안에서 가르치는 것.

호2:3-‘그녀를 벗겨서 별거벗게 함’=그녀는 진리들이 결핍될런지 모른다.

나3:5-‘나는 나라들에게 네 별거벗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추함; 모든 추함은 진리가 빠져있음으로부터이다. (=내면들을 더럽히는 지옥적인 사랑)

출20:23(26)-‘네 별거벗음이 그것 위에서 들추어내지지 않는다’=이런 것들에 관한 생각으로부터의 사상은 거짓으로 차있다...‘별거벗음’=진리들이 결여된 것; 고로 생각으로부터의 사상은 거짓들로 차있다.

출28:42-‘별거벗음의 살을 덮도록’=육욕과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의 내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생식기와 허리가 여기서 ‘별거벗음의 살’로 의미되는 바=결혼적 사랑에 관한 내면의 것들...그리고 반대적 의미에서, 그들=악, 추잡함, 그리고 이 사랑의 지옥적인 것들.

이47:3-‘별거벗음을 들추어내는 것’=목적들로 삼은 추잡하고 지옥적인 것들은 들어야 한다.

애1:8-‘별거벗음을 보는 것’=추잡하고 지옥적인 사랑들을 보는 것.

애4:21-‘별거벗게 만드는 것’=진리들이 완전히 결여되

게 만드는 것.

겔22:10-‘별거벗음을 들추어내는 것’=지옥인 세상 사랑과 자아 사랑의 악들을 들추어내는 것; ‘아버지의 별거벗음을 들추어내는 것’=유전적 악들과 자발성(의지)로부터 있는 악들을 들추어내는 것.

신23:14-그러므로 말해지는바, ‘여호와께서 진영의 한 가운데에서 걸으신다.....그분이 어떤 것의 별거벗음을 보지 않도록...’ ‘별거벗음’=악들과 거짓들로부터 깨끗하지 않은 것.

계3:17-‘그리고 눈 멀고 별거벗었다’=그들은 진리를 이해함과 선으로부터 뜻함이 결핍되고 있다...‘별거벗었다’에 의해 말씀에서 선들이 결여된 이들이 의미된다; 그 이유는 모든 영적 선은 진리들을 수단으로 획득되기 때문이다.

계3:18-‘네 별거벗음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천적 사랑으로부터의 선이 모독되고 섞음질 않도록. 양쪽 섹스에 있는 세대의 멤버들이...천적 사랑에 상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별거벗음의 수치’가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없다...인간은 천적 사랑에 반대된 사랑들에서 태어나므로 그는 자신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선과 지혜의 진리를 획득하지 않으면...그는 주님 사랑에 반대된 사랑 안에서 나타나야만 한다. 이 사랑은 그 자체 모독이다. 이것이 ‘별거벗음을 덮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의 수치를 명백히 하는 것’에 의해 의미된다.

계16:15-‘그가 벗지 않고 걷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의 수치를 보는 것’=그들이 진리 없음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지 않도록, 그래서 지옥적 사랑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별거벗고 걷는 것’=진리들 없이 사는 것. ‘별거벗음의 수치’에 의해 추잡한 사랑들이 의미되어진다. 이 사랑들은 지옥의 사랑들이다...‘별거벗음’에 의해 진리의 무지가 의미된다; 그리고 ‘별거벗음의 수치’에 의해 지옥의 사랑이 의미된다.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에게 말해지고 있는데, 그들이 진리들을 배우고 진리 안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 이유는 진리들이 없으면 없음과 동시에 악들은 새 교회인들에 들러붙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악들은 지옥의 사랑들이어서, 이 사랑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로 인간은 진리 없이 기독인 행세를 하며 살 수 있

벌금-벌레-벌레먹은-벌집-범람시키다

다. 그러나 오직 인간들 앞에서 일 뿐 천사들 앞에서는 가능치 않다. 새 교회인들이 배워야 하는 진리들은 주님에 관한 것,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교훈에 관한 것이다.
계17:16-‘그녀를 황폐케 하고 벌거벗게 할 것이다’=그들은 자신들로부터 그녀의 거짓들과 악들을 벗을 것이라는 것.

합2:15-‘그들이 구경하는 벌거벗음’=진리, 그리고 이 진리에서 파생하는 총명의 빼앗김.

이20:2-‘알몸과 맨발’=그들은 모든 진리와 모든 선을 빼앗긴다는 것.

겔16:8-‘벌거벗음을 덮는 것’=의지 속의 악, 이해성 속의 거짓들을 제거함.

겔16:36-‘네 벌거벗음이 네 행음을 통하여 들추어내졌다’=거짓들과 왜곡함을 통하여 교회는 진리에 대한 모든 이해함을 박탈당했다.

합2:15-‘알몸을 구경하는 것’=이해성 속에 있는 거짓들, 의지 속에 있는 악들이 나타나도록.

출20:26, 28:42-‘벌거벗음’이 진리에 대한 이해와 선을 뜻함이 박탈됨을 의미하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계단 위에서 그들의 벌거벗음이 들추어내지지 않도록 계단을 사용해 계단에 오르지 말라’고 명령되었다. 또한 ‘그들이 벌거벗음의 살을 덮도록 반바지를 만들라’고도 명령되었다.

겔16:8-‘나는 네 벌거벗음을 덮었었다’=(영적 진리)를 통하여 악을 숨김.

이58:7-‘벌거벗었음을 가리는 것’=가르침받기를 갈망하는 그를 진리들 안에서 가르치는 것.

아2:16-‘벌거벗음’=진리에 대한 모든 이해함이 결여된 자.

겔23:10-‘그들은 그녀의 벌거숭이를 들추어냈다’=모든 진리와 선의 박탈... ‘벌거벗음’=박탈.

미1:8-진리와 선에 관련되어 황폐됨이 ‘망가지고 벗겨짐’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호2:3-개혁이 거행되기 전 같이 모든 진리의 박탈이 ‘그녀는 벌거벗겨져 발가숭이로 있어 그녀가 태어난 날 같을 것이다’에서 의미되어 있다.

계16:15-‘그가 벌거벗은 채로 견지 않는 것’=그가 진리 없이 있지 않도록, 그 결과 선 없이 있지 않도록.

벌금 (fine)

출21:22-‘만드시 그는 벌금을 내야 한다’=교정, 그 이유 벌금은 교정, 변경이 목적이기 때문

벌레 (worm)

벌레먹은 (vermiculate)

출16:20-‘벌레들이 생겼다’=추악한 것을 생산했다는 것...그 이유가 벌레들은 불결하고 악취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 자아로부터 선 안에 있는 악의 거짓은 ‘벌레’에 비교되는데, 그이유는 그것들은 갉아먹고, 그리하여 골칫거리이기 때문. 지옥을 만드는 두 가지 것이 있다...악과 거짓이다 이것들이 지옥에서 골칫거리, 고통을 만든다.

신28:39-거짓의 추잡함이 ‘벌레’에 비교되고 있다

이14:11-‘벌레’=고통, 이는 내적인 아픔이다.

욘4:7-‘조롱박 넝쿨을 쏘아먹은 벌레’=악과 이 악에서 파생된 거짓의 파괴.

벌집 (honeycomb)

눅24:42-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잡수신 ‘구운 생선과 벌집’=말씀의 외적 의미...‘벌집’, 외적 의미로부터의 즐거움.

눅24:42-‘벌집’, 또는 꿀=자연적 선

범람시키다 (inundate)

침수시키다 (inundate)

눅6:48-주님 자신이 시험들을 범람함(홍수)라 부르신다.

예47:2-‘범람하는 시내물’=거짓

이30:28-‘범람하는 강’=넘쳐흐르는 거짓

이54:8-‘노염이 범람함’=시험

이28:2-‘우박이 범람함’=거짓들을 통하여 진리를 파괴함.

범칙 (transgression)

* 법을 어기다(transgression)를 보라

법 (law)

마22:40-‘법과 예언자들’=신앙의 보편적인 교리. 그리고 말씀 전체.

말2:6-‘진리의 법’=(선)으로부터의 진리.

창26:5-‘그는 내가 지위준 책임, 내 명령, 내 규례, 그

법칙-법-법령

리고 내 법을 지켰다'=그분 자신으로부터 계속적인 계시들을 통하여...'법들'=특별하게 (말씀의) 모든 것들.

예31:33-'심정에 씌어진 법'=선과 진리에 관한 파생된 지각. 그리고 또한 양심.

요10:34-'법에 씌어진'=말씀에서. 그이유는 이 구절이 다윗이 관련되어 쓰여졌기 때문.

출12:49-'하나의 법이 있을 것이다'=같은 권리(right)가 있다는 것.

출13:9-'여호와와 법이 네 입에 있도록'=신성한 진리가 이해성과 의지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에 있도록.

출16:4-'그가 내 법 안에서 걷는지 아닌지'=그들이 진리와 선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닌지. '법'=말씀. 그리고 그것=말씀, 그것은 신성한 진리인바, 고로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 또한, 이로부터 '여호와와 법 안에서 걷는 것'=교리에 의거한 진리와 선의 삶을 사는 것이 의미되어진다.

출16:28-'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는 내 교훈과 법을 거절할 것이나?'=신성한 질서에 따라 행동 않는 것.

출18:16-'나는 하느님의 심판들, 그분의 법들을 알게 만든다'=그때부터 그들에게 진리인 것과 선인 것이 가르쳐졌다는 것. '심판들'=진리들, '법들'=선으로부터의 진리들. '법들'=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인 이유는 '법'은 넓은 의미에서=말씀 전체, 덜 넓은 의미에서 역사적인 말씀, 제한된 의미에서 모세에 의해 씌어진 말씀. 그리고 가장 제한된 의미에서 십계명의 열 교훈들

출18:20-'너는 규례와 법들을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다'=교회의 내적, 외적 선들과 진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있는 진리로부터 있다는 것. '규례'=교회의 외적 선들과 진리들. '법들'=교회의 내적 선들과 진리들.

이42:4-'법 안에서 바라는(hope) 것'=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주는 것.

신33:10-'그들은 야곱에게 심판들을,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법을 가르칠 것이다'=영적 진리에 애착함 안에 있는 이들은 말씀을 행할 것이고,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을 가르칠 것이다. '심판들'=말씀으로부터 교리의 진리들. '법'=진리로부터의 선.

말2:7-'법'=교리로부터의 선들.

마22:40-'법과 예언자들에 의해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있는 말씀이 뜻해진다. 결과적으로 이 말들에 의해 말씀의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부터의 선에 달려있다는 것이 뜻해진다.

겔7:26-'법이 성직자로부터 멀해졌다'에서 생활의 교훈들이 의미된다.

이1:10-'여호와와 말씀'에 의해 신성한 선이 뜻해진다. 그리고 '하느님의 법'에 의해 신성한 진리가 뜻해진다.

말2:6-'진리의 법'에 의해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말2:8-'길을 벗어나는 것, 법에서 헛딤어 곱드러지는 것'=신성한 진리에 반대하여 사는 것이 의미된다.

이2:3-'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법'=사랑의 선으로부터의 교리, 그리고 '말씀'=이 선으로부터의 진리.

예31장-'법'에 의해 말씀의 모든 것들이 뜻해진다. 고로 천국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이 의미되어진다. '그들의 한가운데'=그들의 생활에서. 그리고 '법이 심정 위에 씌여질 것이다'=사랑.

법령 (statute, ordinance)

창26:5-'내...법령을 지켰다'=그분 자신으로부터의 계속적인 계시들...그분은 신성 본질을 인성에 하나되게 하셨다...'법령들'=말씀의 외적인 것들.

창47:26-'요셉은 그것을 법령으로 지정하였다'=동의함으로부터 결말된 것.

출12:14-'영원한 법령'=천국의 질서...이스라엘 후손에게 명령되었던 모든 법령들은 천국의 질서로부터 흘러나온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 그들 또한 천국 속에 있는 것을 표현했다.

출12:17-'영원한 법령'=신성한 질서에 따라.

출12:43-'이것이 유월절의 법령이다'=해방된 이들을 위한 질서의 법들...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법령은 외적 형체로 있는 질서의 법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표현한 것들은 내적 형체로 있는 질서의 법들이었다. 질서의 법들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이다.

출13:10-'너는 이 법령을 매 년 지정된 때에 지킬 것이다'=질서의 이 법은 정해진 대로 변동없이 존재할 것

법률가 -법을 어기다

이다.

출15:25-‘거기서 그분은 그를 위하여 법령과 판결을 세우셨다’=그 당시 밝히 알려진 질서로부터의 진리. ‘법령’=교회의 외적 진리. ‘법령’=질서의 외적 진리인 이유는 교회의 모든 외적 [진리]가 ‘법령’이라 불리웠기 때문. 그리고 질서의 모든 내적 진리는 판결(judgment)이라 불린다.

출15:26-‘만일 네가 모든 나의 법령을 지키다면’=믿음으로부터의 진리들에 따른 생활, 이는 교회의 외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법령’=말씀의 외적 진리들. 고로 교회의 외면적인 것들인 믿음으로부터의 진리들.

출18:20-‘너는 그들에게 법령과 법을 가르쳐라’=주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진리로부터 교회의 외적이고 내적인 선들과 진리들이 온다는 것.... ‘법령’=교회의 외적인 선들과 진리들.

출27:21-‘시대의 법령’=신성한 질서...이는 영원하다.

출28:43-‘그(아론)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시대의 법령’=표현 교회에 있는 질서의 법들. ‘시대의 법령’=천국들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성한 질서로부터의 법.

출29:9-‘시대의 법령을 위해’=질서의 영원한 법들에 따라. ‘법령’=질서의 법.

* 레위기19장은 그들이 준수할 법령들, 판결들, 교훈들을 취급한다. 그리고 이것들=신성한 진리들인 바, ‘너희는 거룩하게 있으라 하고 말해진다.

예31:35-‘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ordinance) 하였다’=영적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그리고 지식들로부터의 진리들(질서의 법들에 의거 자연적 인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레26:3-선행의 삶이 ‘법령에서 걷고, 교훈들을 준수하고, 그것들을 행함’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그이유가 이것 모두가 선행이기 때문.

시147:19-‘법령과 판단들’=선으로부터 있는 외적, 내적 진리들.

사5:15,16-‘심정의 법령’, 그리고 ‘심정을 수색함’=영적 인간으로부터 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으로부터 진리들... ‘심정의 법령과 수색함’=영적 인간에 있는 선으로부터 자연적 인간에서 계율되고 결정되어지는 모든 것들.

예31:35, 33:25-‘태양, 달, 별들의 법령...그리고’하늘

과 땅의 법령=‘때, 계절’에 의해 의미되는 것들과 같다. 그이유가 때나 계절은 이런 법령들로부터 생겨나기 때문.

예31:36-‘법령들’, 여기서의 경우=이스라엘 후손에게 명령한 교회의 모든 것들. 고로 예배의 모든 것들.

시2:7-‘나는 법령을 발표할 것이다’=신성한 섭리와 의지의 신비.

예44:10-‘법령들’=외적 예배의 법들.

예33:25-‘낮과 밤의 언약’, 그리고 ‘하늘과 땅의 규례(ordinances)’=천국들과 지상에서 신성한 진리들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주님의 결합. ‘언약’=결합. 그리고 ‘규례’, 결합의 법들, 이는 질서의 법들. 그리고 질서의 법들은 신성한 진리들이다.

시102:13-‘지정한 때’=그분의 강림.

예10:3-‘나라들의 법령들은 덧없다(vainity)’=악 안에 있는 이들이 가지는 예배의 모든 것들.

법률가 (lawyer)

율법가 (lawyer)

눅11:52-성경을 수색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해 되는지를 가르치는 이들이 법률가라 부른다. 그리고 이를 수단으로 천국과 더불어 소통함이 있을 때 진리는 왜곡되어 있어 분열을 일으키느바, 그들이 ‘천국의 열쇠들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법을 어기다 (transgress)

범칙 (transgression)

애1:14-‘범칙들’=거짓들.

창31:36-‘내 범칙이 무엇인가? 내 죄가 무엇인가?’=악으로부터 있지 않았다는 것.

창50:17-‘당신의 형제의 범칙과 죄를...용서하라’=간청함과 회개함.

출22:9-‘범칙의 모두 각각의 말에’=상해를 입은 것은 무엇이든, 그리고 손실을 입은 것은 무엇이든. 그이유가 ‘범칙’=신앙의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것.

출23:21-‘그는 너의 범칙에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반대하기 때문.

출34:7-‘불법, 범칙, 죄를 가져가시는 분’=악과 악으로부터의 거짓을 제거함, 하여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벗기다 -벗다 -벗어나게하다-(머리가)벗어진-병어리

함.

이53:12-‘그는 범칙자들로 세어졌다...그리고 범칙자들을 위해 중재를 했다(기도했다).’

이53:5-‘그는 우리의 범칙 때문에 찢려졌다’...이런 말들은 주님께서 지옥을 정복하시고 모든 것들을 질서로 환원하시기 위해 세상에서 수행하신 시험들을 묘사하고 있다.

단8:23-‘범칙자들이 가득해질 때’=진리와 선이 더 이상 없고 오직 거짓과 악만 있을 때.

단9:24-‘범칙이 극점에 달하고 죄들을 밀폐하는 것’=교회에 있는 모든 것이 교리의 거짓들 안에 있고 생활은 악 안에 있을 때.

호7:13-‘그들은 나에게 범칙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황폐됨이 있다’=그들의 타락함 때문에 모든 진리가 박탈된다.

이48:8-‘범칙자의 이름이 자궁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다’=개혁되어질 수 있던 처음 때부터 진리로부터 되돌아섬.

이57:4-‘범칙의 자녀들, 거짓말의 씨’=이전의 이런저런 거짓들로부터 튀어나오는 거짓들.

예5:6-‘불어나고 있는 범칙들’=진리를 왜곡함들.

벗기다 (denude)

창30:37-‘...흰색이 드러나게 나무를 벌거벗게 만들’=내면적 진리의 능력이 배설됨.

이32:11-‘벌거벗게 만들(to be made bare)’=진리가 결핍되어지는 것.

겔 16:7-‘너는 벌거벗은 나체였다’

합3:9-‘당신의 활이 정녕 벗겨지게 할 것입니다’=진리의 교리가 열려질 것이라는 것.

욥1:7-‘그가 그것을 발가벗겼다, 그리고 그것을 내던졌다’=과괴되지 않은 어떤 선과 진리도 더 이상 없다는 것. ‘과일이나 잎을 벗기는 것’=선들과 진리들이 더 이상 없는 것. 그리고 ‘내던지는 것’=깡그리 과괴하는 것.

슥2:14-‘그분이 그것의 삼목을 벗어지게 만드실 것이다’=합리성이 과괴했다.

이47:2-‘자신을 벗어지게 만드는 것’=말씀의 선들에 섞음질하는 것.

벗다 (put off)

역5:15-‘네 신을 벗어라’. ‘신’=자연적 최말단, 이는 벗어져야 하는 것.

창37:23-‘그들은 요셉으로부터 그의 외투를 벗겼다(stripped)’=(진리의)외관을 쫓아버리고 절멸시켰다....

눅10:30-‘그들은 그를 벗겼다(stripped)’. ‘벗기는 것’=진리들을 빼앗는 것.

벗어나게 하다 (pervert)

악용하다

곡해하다

출23:2-‘벗어나게 하는 것’=진리를 거짓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리고 선을 악으로 변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반대도 포함된다.

출23:8-‘의로운 자의 말들을 곡해한다’=그들이 선의 진리 같이 나타난다는 것.

(머리가) 벗어진 (bald)

* 대머리(baldness)를 보라.

* nazirite, shave도 참조.

병어리 (dumb)

출4:11-‘누가 병어리를 만들었느냐?’=말하는 능력.

이35:6-‘그런 다음 병어리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그들은 주님과 그분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있는 것을 고백할 것이다.

막9:25-영이 주님에 의해 ‘병어리와 귀머거리’라고 불리우는데, 그이유는 그가 진리를 지각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

합2:18-거기에, 또는 거기로부터서는 총명도, 생명도 없다는 것이 ‘그는 병어리 신들을 만든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베개 (pillow)

창28:11-‘그는 그의 베개로 그것을 놓았다’=신성과의 가장 일반적인 왕래(communication).

베냐민 (Benjamin)

창35:18-‘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천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영적인 것의 품질..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인 것은 영적 왕국과 천적 왕국 사이에 중간(intermediate)이다. 원어에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을 뜻한다, 이를 수단으로 천적 선으로부터 있는

베개-베냐민

영적 진리, 그로부터의 능력이 의미되어진다. 그이유가 선의 능력은 진리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아들’=진리, 그리고 ‘손’=능력(power). 그러므로 ‘오른손’=완전한 능력.

신33:12-말씀의 다른 장소, 특히 예언서에서 ‘베냐민’에 의해 주님의 교회 속에 있는 영적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관한 모세의 예언적 말함에서, ‘그가 베냐민을 두고 말하기를, 여호와와 사랑받는 자, 그에게 여호와께서는 확실히 거주하시며, 모든 날 동안 베냐민을 덮어 주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어깨들 사이에 거주하실 것이다.’ ‘여호와와 사랑받는 자’=천적 선으로부터 있는 영적 진리. 이 선은 ‘모든 날 동안 이 진리를 덮기 위해’ 이 진리와 ‘대담하게 거주한다’, 그리고 그것의 어깨들 사이에 거주한다. 그이유가 ‘어깨들’=모든 힘, 그리고 선은 진리를 통하여 그 선의 모든 힘을 가진다.

예6:1-‘베냐민의 아들들, 너희는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부터 도망하라, 그리고 나팔을 크게 소리내거라, 그리고 포도원의 집 위에서 예언적 말함을 크게 소리내어라, 그이유는 악이 북쪽으로부터 내다보는 바, 큰 파멸이 있기 때문이다.’ ‘베냐민의 아들들’=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 진리. ‘예루살렘’=영적 교회, 그리고 ‘포도원의 집’, 또는 ‘벧학게렘’도 영적 교회. ‘북으로부터 악’=감각적인 것, 하여 인간의 과학물.

예33:13-‘베냐민의 토지’=주님의 교회 속에 있는 영적 진리. 그이유가 주님의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첫 수준으로부터 마지막 수준까지가 ‘유다의 성읍들’, ‘예루살렘의 주변’, ‘베냐민의 토지’, ‘평야’, ‘산’, 그리고 ‘남쪽’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호5:8,9-‘기브아에서 너는 나팔을 가지고 소리를 내라, 라마에서 나팔을 가져라, 벧아웬에서 크게 소리질러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하여)에브라임은 견책의 날에 황무해질 것이다.’ ‘기브아’, ‘라마’, ‘벧아웬’=베냐민인 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 진리 속에 있는 일련의 것들. ‘나팔을 가지고 소리내는 것’, ‘나팔을 가지는 것’, 그리고 ‘크게 소리지르는 것’=에브라임으로 표현되는 것인 교회의 지적 측면이 황량해짐을 선포하는 것.

읍19절-‘베냐민’=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인 것.

계7장-여기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네 계층으로 분류되어진다. 이 중에서 마지막 계층이 ‘스블론’, ‘요셉’, ‘베냐민’으로부터 각 12000씩 날인되어졌다. 그이유는 ‘스블론 지파’에 의해 천국적인 결혼이 의미되어지고, 이 결혼에 천국이 있다, 고로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 거기서 ‘요셉’=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 또는 진리로부터의 선. 그리고 ‘베냐민’=이 선으로부터의 진리, 또는 천적인 것 속의 영적인 것. 이것이 천국에서 결혼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마지막에서 명명되어지고 있다.

역18:28, 사1:21-베냐민에 의해 교회의 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인 것을 표현했는 바, 예루살렘은 베냐민의 후손에게 상속분이 되었다. 그이유는 시온이 거기에 건설되기 이전, 일반적 측면에서의 교회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창35:24-‘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내면의 선들과 진리들...‘베냐민’에 의해 천적인 것 속의 신성한 영적인 것이 표현되어졌다. 이런 것들이 내면의 선들과 진리들 안에 있다.

창42:4-‘요셉의 형제, 베냐민’=매체인 천적인 것 속의 영적인 것...‘요셉’인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는 ‘베냐민’인 매체 없이 ‘야곱의 아들들’인 자연에 있는 일반적 측면에서의 진리들과 교류할 수 없다.

창42:36-‘그리고 너희는 베냐민을 데려가려 한다’=중매자 또한 거둬가버린다면...

창42:38-‘그리고 그 애 만이 남겨 있다’=그는 지금 내적인 것의 자리에 있다는 것...‘요셉과 베냐민’ 각각은 내적인 것을 표현한다.

창43:14-‘그리고 베냐민’=내면의 진리.

창43:16-‘요셉은 그들과 더불어 있는 베냐민을 보았다’=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을 수단으로 영적 매체가 진리들과 있음을 지각함...이것이 영적 매체라 불리워지는 이유는 야곱의 열 아들들에 의해 표현되는 진리들이 지금 ‘요셉’인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결합되려하고 있는데, 이 결합은 영적인 매체를 통하지 않고는 결과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창43:16-그들이 ‘베냐민’인 영적 매체와 더불어 있을 때, ‘정오에, mid-day’라고 말해지고 있다.

베냐민

창43:34-‘그는 베냐민의 몫을 다른 사람의 몫 보다 (다섯배) 더 많게 했다’=매체를 위한 선은 자연에 있는 선들 넘어 있다...이런 이유는 매체는 더 내면적이기 때문에서이다...

창44:20-‘그의 어머니에게는 그 애 만이 남았습니다’=이것은 교회 속의 유일한 진리이다는 것. ‘베냐민’=새 진리...‘베냐민’에 의해 여기서 표현되는 이 진리가 교회의 유일한 진리이다는 환경 여건을 주목해보면, 이 진리는 이스라엘이 표현한 영적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이다, 그리고 ‘베냐민’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보다 그가 요셉과 더불어 있을 때 한층 더 내면적 진리이다. ‘베냐민’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표현하는 진리는 새 진리라 불리운다. 이 진리가 사람을 교회로 만들기 때문에, 이 진리에서 선으로부터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즉 선으로부터 신앙의 진리들에 있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창44:23-‘베냐민’, 여기서 ‘가장 작은 형제’이다=결합하게 해주는 매체. 이를 주목해서 보자. 즉, ‘베냐민’은 요셉이 표현하는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 또는 영적 선과 야곱의 열 아들들이 자연에 있는 진리들 사이에서 매체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는 또한 새 진리도 표현한다. 매체가 어떤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매체는 양쪽 즉 내적, 외적 측면에 참가해야 한다. ‘베냐민’이 표현하는 매체가 외적 측면 또는 자연에 참가할 경우 그 매체 안에 새 진리를 담게 된다. 그이유가 그가 표현하는 새 진리가 자연 안에서의 경우 ‘이스라엘’로서의 그의 아버지가 표현하는 영적 선으로부터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매체는 요셉으로 표현되는 내적 측면에도 유입을 통하여 참가한다. 고로 양쪽에 참가하고 있다. 이것이 ‘베냐민’이 결합시켜주는 매체를 표현하고, 동시에 새 진리도 표현하는 이유이다. 즉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서는 새 진리를, 형인 요셉과 더불어서는 결합하게 하는 매체이다.

창45:12-‘그리고 내 형제 베냐민의 눈’=특별히 매체의 지각을 수단으로... ‘베냐민’이 매체를 표현하는 바, 그리고 이 매체는 요셉인 내적 선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내적 진리인 바, 이 매체는 아래 여느 진리 보다 더 명백하고 예리한 지각을 가졌다...

창45:14-‘그는 베냐민의 목을 끌어 안았다’=매체와의 가장 깊은 결합...고로 ‘베냐민’인 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인 것과 요셉인 천적인 내적인 것의 결합이다.

창45:22-‘그는 은 삼백 (조각)을 베냐민에게 주었다’=매체가 충만해지도록 선으로부터 진리가 옴...그이유가 ‘베냐민’인 매체는 천적인 적인 것으로부터 유입을 통하여 있는 내면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창46:19-‘요셉과 베냐민’=교회의 내적인 것. ‘요셉’은 교회의 내적 선. ‘베냐민’은 이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

창46:21-‘베냐민의 아들들’...=영적인 것의 내적인 것과 그것의 교리적인 것.

창49:27-‘베냐민’=‘요셉’인 영적 교회의 선으로부터의 진리. ‘베냐민’=천적인 것 속의 영적인 것, 이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이다. 여기서의 경우, ‘요셉’에 의해 표현된 영적 교회로부터 있는 이 선의 진리.

슌19절-‘베냐민’=교회의 영적 천적 진리.

계7:8-‘베냐민 지파로부터 일 만 이 천이 날인되어졌다’=주님의 새 천국과 새 교회에 있을 이들과 더불어는 교리에 따라 선으로부터의 진리로 사는 것. ‘스블론’은 선과 진리의 결혼적 사랑, ‘요셉’은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 이 시리즈의 세 번째인 ‘베냐민’은 선으로부터의 진리로 살아감이 의미되고 있다. ‘베냐민’이 이런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그가 마지막 출생자였기 때문,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 의해 ‘오른손의 아들’이라 명명하였기 때문이다...이를 수단으로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그러므로 또한 그의 지파는 유다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 주위에 거주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은 교리 측면에서의 교회를 의미했다, 그리고 교리를 둘러싸는 여러 가지 것들까지 의미했다.

시68:27-주님의 순진, 이로부터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하셨는데, 이 순진이 ‘작은 베냐민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시80:2-진리의 빛은 자연적 진리와 선에 있는 이들 조차 관통해가고, 교회에서 아주 멀리 있는 이들 조차 꿰뚫는다는 것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당신의 힘을 휘저어주소서’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베냐민’에 의해 진리와 선의 결합, 또는 자연에서 합쳐지게 만드는 매체가 뜻해지고 있다.

베노니-베다-베데스다-베델리엄-베드로

여18:11-28-‘베냐민’과 그의 지파=자연적 인간에서 선과 합쳐진 진리, 그러므로 가나안 토지에서 그들의 토지 구획은 유다 후손과 요셉 후손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여부스족이 거주했던 예루살렘이었다. 하여 베냐민 후손은 거기서 유대인들과 거주했고, 후에 유대인이 이 성의 소유자가 되었다. 유다와 요셉 사이에 있는 이 토지 구획이 이 지파에게 돌아간 이유는 이 구획 부지가 선과 진리의 결합을 표현했기 때문. 즉 ‘유다’=교회의 선, ‘요셉’=교회의 진리이다. 예루살렘이 이 지파의 몫이 된 이유는 ‘예루살렘’=교리 측면에서의 교회와 예배 측면에서의 교회이기 때문,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교리는 선과 합쳐지는 진리의 교리이기 때문, 그리고 교리에 따른 모든 예배는 자연적 인간을 통하여 거행되기 때문...

예17:26-‘베냐민의 토지’=자연적 인간에서 (선과 진리의) 결합 측면에서의 교회.

예32:8,44, 33:13-‘베냐민’=자연적 인간에서 진리와 선의 결합, 고로 최말단 천국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진리와 선의 결합.

예6:1-‘베냐민의 후손들’=선과 진리의 결합.

시80:2-‘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자연적 진리와 선에 있는 이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그것들의 결합이 있다.

시68:27-‘작은 베냐민’=자연적 인간의 순진...이는 거기서 선과 진리의 결합이다.

신3:2-‘베냐민’=자연 수준인 최말단 의미에 있는 말씀...그리고 최말단 의미에서...선과 진리의 결혼이 있는 바...여호와와의 사랑받는 자라 말해지고 있다.

창49:27-자기 아들들에 관한 이스라엘의 예언에서, ‘베냐민’은 마지막에서 취급되어진다, 그이유는 교회와 천국의 마지막 것이 베냐민에 의해 의미되어지기 때문. 마지막 것, 또는 최말단 것은 자연 평면에서 진리가 선과 합쳐지는 것이다.

민2:18-24-이런 것들이 ‘베냐민’에 의해 의미되는 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광야에서 서쪽에 진영을 배치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세 지파들에 의해 자연적 진리와 선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결합하여 있는 것들이 의미되어진다. 그들이 서쪽에 진을

친 이유는 천국의 서쪽과 북쪽에 선과 진리의 불명료함에 있는 이들, 고로 자연적 선과 진리에 있는 이들이 거주하기 때문.

예6장-‘베냐민의 후손’=가장 낮은 천국에서 주님과 결합을 가진 이들.

베노니 (Benoni)

창35:18-‘그녀는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다’=이 상태의 품질...원어에서 ‘베노니’는 ‘내 고통으로부터의 아들’, 또는 ‘내 슬픔으로부터의 아들’을 뜻한다.

베다 (cut)

* 끊다 (cut)를 보라

베데스다 (Bethesda)

요5:2-이 절에 베데스다의 뜻이 언급되어 있다.

베델리엄 (bdellium)

창 2:12-‘베델리엄’=사랑으로부터의 진리

베드로 (Peter)

* 요한 시몬도 참조

* ‘베드로, 야고보, 요한’=신앙, 선행, 그리고 선행으로부터의 선.

요21장-‘베드로’=신앙, 그리고 신앙은 선행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있지 아니하면 신앙이 아닌 바, 주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물으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였다. 즉 신앙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신 것이다...

마16:15-19-‘교회가 세워지게 될 바위’=선행으로부터의 신앙. 이 신앙에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들이 주어졌다.

마26:31,34-‘베드로가 이 밤에 주님을 세 번씩 부정한 것은 교회의 마지막 때를 표현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가 참으로 가르쳐지나 믿어지지 않는다.

요21:18-베드로, 아이일 때=교회의 시작에서 있는 것과 같은 교회의 신앙. 그리고 늙었을 때=교회의 마지막에 있는 것과 같은 교회의 신앙.

막3:16-주님께서 시몬에 이름 ‘베드로’를 더하셨다...그이유는 ‘바위’같이 ‘베드로’=선으로부터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또는 선행으로부터의 신앙.

요21:15-17-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

베도갈마-베들레헴

느냐?’라고 세 번 물으신 것,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다음 예수께서 말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는 것 =사랑으로부터 신앙에 있는 이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선에 있는 이들과 이웃을 향한 선행에 있는 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마16장-‘베드로’, ‘다윗’과 마찬가지로=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그리고 내적 의미에서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주님의 열두 제자는 복합체에 있는 교회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을 표현했다. 베드로=진리, 또는 신앙.

마16장-‘베드로’=주님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 고로 선행으로부터의 신앙.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열쇠들’은 악들과 거짓들을 압도하는 힘. 이런 것들은 그가 주님의 인간 안에 그분의 신성이 있음을 인정했을 때 베드로에게 말해졌다. 이를 수단으로 이들은 주님의 인간에 계신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뜻해진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선행의 선 안에, 그러므로 신앙의 진리들 안에 있음도 뜻해진다.

* 베드로는 르우벤과 같은 것을 표현했는 바, 그는 사도들 중의 첫 번째 였다...‘베드로’=빛에 있는 진리, 그리고 신앙.

* 순종하는 신앙이 베드로가 시몬이라 불릴때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진리에 애착하는 신앙은 그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불릴 때 의미되어진다.

* 베드로가 ‘시몬’이라 불릴 때, 그는 ‘시몬’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즉 순종, 선행의 신앙, 진리에 애착함,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으로부터의 진리.

* ‘베드로’=이해성에 있는 진리, ‘야고보’=의지에 있는 진리, ‘요한’=행동에 있는 진리.

마16:23-‘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셨다,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악평(자)이다. 너의 관심사는 하느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이다.’ 이런 것들이 베드로에게 말해졌는데, 그이유는 ‘베드로’, 표현적 의미에서 =신앙. 그리고 신앙이 진리로부터 인 바, 그리고 또한 거짓으로부터이기도 한 바, 위 구절 같이 베드로는 ‘사탄’이라 불리어진다...베드로는 양쪽 의미에서 신앙을 표현했다. 즉 선행으로부터의 신앙, 그리고 선행 없는

신앙. 그리고 선행 없는 신앙은 거짓으로부터의 신앙이다.

요21:15-17-이 대목으로부터 명백해지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함의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표현했음이다. 그러므로 그는 여기서 ‘요나의 시몬’이라 불리는데, 이는 선행으로부터의 신앙이다...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진리의 교리에 있는 이들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에 의해 뜻해지는 이들, 즉 주님의 교회 속에 있을 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요21:18-23-이런 것들이 뜻하는 것을 베드로에 의해 선행으로부터의 신앙, 또한 선행 없는 신앙이 의미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 교회의 시작에서 교회에는 선행으로부터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 교회가 중단되는 때에는 선행 없는 신앙이 있게 된다.

* ‘베드로’, 표현적 의미에서=주님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 또한 선행으로부터의 신앙. 그리고 반대적 의미에서, 선에서 분리된 진리, 이는 그자체 거짓이다. 그리고 또한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이는 그자체 신앙이 아니다.

요21장-‘베드로’=믿음으로 만(faith alone)이라는 교리에 있는 이들...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로부터 믿음 만으로 리는 교리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진다.

베도갈마 (Bethogarma)

겔27:14-‘베도갈마로부터의 이들’=내향의 예배에 있는 이들.

베들레헴 (Bethlehem)

* ‘베들레헴’=새로운 상태에서 천적인 것 속의 영적인 것.

창35:19-‘여기는 베들레헴이다’=천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새로운 영적인 것의 부활. ‘베들레헴’=새로운 상태에서 천적인 것 속의 영적인 것, 그이유가 ‘유브라테’=이전 상태에서 천적인 것 속의 영적인 것이기 때문.

*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그분 만이 영적 천적 인간으로 탄생되었기 때문.

* ‘베들레헴’=자연적 인간에서 선과 결합된 진리인 바, 다윗이 거기서 출생되었고, 또한 기름부는 왕으로 거기

베레스-베레스-베렛-베렛-베어들이다-베일-벤엘

서 되었다...

* 주님이 왕으로 태어나셨고, 그분 만이 출생으로부터 진리가 선과 더불어 결합되어 있었기에 그분은 베들레헬에서 탄생하셨다...주님과 더불어서만이 자연 평면이 선을 간절히 바라고, 진리를 갈망함으로 자연을 채웠다.

* ‘유브라데’=자연적 의미 측면에서의 말씀, 그리고 ‘베들레헬’=영적 의미 측면에서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서 태어나도록 뜻하셨다.

베레스 (peres)

단5:28-‘베레스’, 또는 ‘나누는 것’=흫뜨리는 것.

베레스 (Perez)

창38:29-‘그녀는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품질, 즉 외관적으로 선으로부터 진리의 분리...그이유가 원어에서 ‘베레스’는 ‘깨뜨림, breach’이기 때문.

창46:12-‘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셸라와 베레스와 세라...’=천적인 사랑, 그리고 그것의 교리적인 것들...‘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물’=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이는 선행으로부터의 선들이다.

베렛 (Bered)

창16:14-‘가데스와 베렛 사이에’=품질, 즉 그는 이 진리의 품질을 보았다는 것, 고로 합리성의 품질...‘가데스’=진리...‘베렛’, 아래쪽인 것, 고로 과학적 진리, 이로부터 또한 합리성이다.

베어들이다 (reap)

추숫군 (reaper)

*추수(harvest)도 참조

예12:13-‘가시들을 베어들임’

암9:13-영적 선이 그 선의 진리와 결합함이 ‘밭갈이한 자가 추숫군에 이를 것이다’에서 의미되어 있다.

미6:15-‘씨를 뿌리나 베어들이지 못한다’=신앙의 지리들로 가르치기는 하나 발전이 없다.

마13:39-‘추숫군들’은 ‘천사들’이다=주님으로부터의 진리들.

계14:15-‘낮’=말씀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그러므로 ‘베어들이는 것’, 즉 낮으로 실행되는 것=교회의 상태에 종지부를 찍는 것, 그리고 (영적) 심판을 집행하는 것.

계14:16-‘땅은 베어들여졌다’=교회 안에 더 이상 어떤

신성한 진리도 없기에 교회는 끝났다.

이37:30-‘씨뿌리고 베어들이는 것’=선이 심어지고 그것이 받아지는 것.

계14:15-‘당신의 낮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베어들이십시오, 그이유는 당신의 추수하는 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선을 수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악으로부터 분리하는 때이다는 것, 그이유는 교회의 마지막이기 때문.

요4:36-38-‘베어들이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를 그러모는다. 이 사람이 심고 저 사람이 베어들인다는 말은 참된 말이다. 나는 너희가 노동하지 않았던 것을 베어들이라고 너희를 보낸다...’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베어들이는 것’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가르치는 자, 고로 수집하고 집합시키는 자는 그들 자신이 아니고 주님이시다는 것이 ‘이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베어들인다’에서 뜻해지고 있다.

베일 (veil)

* 휘장(veil)을 보라.

벤엘 (Bethel)

창12:8-‘바다 쪽으로는 벤엘을, 동쪽으로는 아이를 가진 산’=주님의 네 번째 상태.

창12:8-‘벤엘’=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그리고 주님께서 ‘벤엘’로 의미되는 것, 즉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들 쪽으로 이제 막 발전해가셨을 때, 이것이 여기서 ‘그는 벤엘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겼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창12:8-‘서쪽으로는 벤엘,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이...’=아직까지는 그분의 상태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는 희미한 수준이었다는 것...이것이 ‘바다 쪽으로는 벤엘,’ 즉 ‘서쪽으로는 벤엘’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이’로 묘사되어 있다. 그이유가 ‘벤엘’이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들이, ‘아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이 의미되기 때문.

창28:17,19-야곱이 사다리를 보았을 때, 그는 말했다, ‘이것이 과연 하느님의 집이요, 천국의 문이로구나.’ 그리고 그는 이 장소의 이름을 ‘벤엘’이라 불렀다. 거기서 ‘벤엘’에 의해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이 의미된다; 그이유가 인간이 천적인 것에 관한 지식 안에 있을 때,

벨렉

그는 '벤엘', 즉 '하느님의 집', 또는 '천국의 문'이기 때문. 인간이 거듭나는 동안, 그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들을 수단으로 천국을 소개받으나,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미 그는 지식들 속의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안에 있다.

창35:1,6,7- 후에 하느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일어나라, 벤엘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거라, 그리고 거기에 네게 나타났던 하느님에게 제단을 만들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벤엘'에 의해 지식들이 의미된다.

사20:18,26,27, 삼상7:16, 10:23- 여호와와 그가 벤엘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리로 와서 여호와께 묻곤 했다.

왕하17:27,28- 앗시리아의 왕이 사마리아에서 끌려온 사제들 중의 한 명을 보내, 그는 '벤엘에서 그들과 더불어 앉았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왕상12:32- 그러나 여로보암이 벤엘을 모독한 후, 이것은 반대적 (의미를) 표현했다

창13:3- '남쪽으로부터 벤엘 쪽으로 조차'=총명의 빛으로부터 지혜의 빛 안으로... '벤엘'=지식들로부터 근원하는 천적인 빛.

창13:3- '벤엘과 아이 사이'=지식들 속의 천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 '벤엘'=지식들을 통하여 있는 지혜의 빛.

암3:14, 7:13- '나는 벤엘의 제단들을 방문할 것이다'... '벤엘'=신성한 선, 그러므로 '왕의 성소', '왕국의 집'이라 불린다.

창28:19- '그는 이 장소를 벤엘이라 불렀다'=상태의 품질... 언어의 뿌리로부터 보면, '벤엘'은 '하느님의 집'을 뜻한다, 이 하느님의 집=질서의 최말단에 있는 선.

창31:13- '나는 벤엘의 하느님이다'=자연에 있는 신성. '벤엘'=질서의 최말단, 고로 자연에 있는 선, 그이유가 자연은 질서의 최말단인 바, 거기에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종결되기 때문... '벤엘'=자연에 있는 선이므로 벤엘=거기 있는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그이유가 이 지식들은 선 속에 있기 때문.

창35:1- '일어나라, 벤엘로 올라가라'=신성한 자연성을 지각함... '벤엘'=자연에 있는 신성, 또는 질서의 최말단

에 있는 신성; 그이유가 언어의 근원에서, '벤엘'은 '하느님의 집'을 뜻하기 때문, 그리고 하느님의 집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략적 의미로 이런 지식들이 의미된다. 그러나 내면적인 것들은 질서의 최말단이 종착지이고 그 안에서 함께 묶인 상태, 즉 한 집 안에서 있고 함께 거주하는 셈이다, 그리고 인간과 더불어 자연은 내면의 것들이 있는 최말단이다, 고로 '벤엘' 또는 '하느님의 집'이 자연, 정확히 말하면, 자연에 있는 선을 의미한다.

창35:3- '일어나 벤엘로 가자'=신성한 자연.

창35:7- '그는 그 장소를 엘벤엘이라 불렀다'=거룩한 자연.

창35:15- '야곱은 하느님이 자기와 이야기한 장소의 이름을 벤엘이라 불렀다'=신성한 자연과 그것의 상태.

창35:16- '그들은 벤엘로부터 여행했다'=신성한 자연으로부터 신성의 발전이 계속됨.

암3:14- '벤엘의 제단들'=악으로부터의 예배.

* '벤엘'은 '하느님의 집'을 뜻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집'='선 측면에서의 교회, 그리고 가장 높은 의미에서 신성한 인간 측면의 주님.

왕상12:29- 여로보암이 두 제단, 즉 '하나는 벤엘에, 또 하나는 단에 세웠다.' '벤엘과 '단'에 의해 교회에서 최말단인 것이 의미되고, 교인 속의 최말단인 것들은 자연의 감각적인 것들, 또는 자연의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라 불린다. 이런 것들이 '벤엘과 '단'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즉 '벤엘'에 의해서는 선의 최말단이다, '단'에 의해서는 진리의 최말단이 의미된다. 이로부터 이것들의 '제단'은 최말단에 있는 예배를 의미한다...

벨렉 (Peleg)

창10:25- (둘째 고대 교회의) 내적 예배가 '벨렉'이다.

창11:16- '그리고 벨렉을 낳았다'=(교회 에벨로부터)의 갈래. 벨렉은 그의 조상 처럼 자기로부터 이름지어진 나라이다. 이를 수단으로 외적 예배가 의미된다. '벨렉'이 여기서 외적 예배인 이유는 시리스로부터...고로 그의 갈래로부터 생겨나기 때문. 앞장에서 이 이름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형제 욥단과 더불어 그 교회를 표현했기 때문.

벨사살 (Belshazzar)

벨사살-벽

단5장-성전과 제단의 집기들이 이 의미를 가졌고 그러므로 거룩했다...그러므로 벨사살이 그것들로 마시고...금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을 때...글씨가 그의 궁전의 벽에 나타났다. '금과 은으로 만든 집기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이것이 모독되었다, 그 이유는 갈대아인들=영적 지식들을 지닌 이들, 그러나 이것이 그것에 있는 거것들을 통하여 모독되었다. 그들은 이 지식들로 금과 은으로 된 신들을 예배하는데 사용했던 것이다. 벨사살은 갈대아 왕이라 불리우고 있다.(30절)

벽 (wall)

창49:22-'그녀가 벽 위에서 행진한다'=거짓에 맞서 싸우는 것.

출14:22-'물들이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다'=그들은 사방으로부터 있는 거짓들로부터의 간섭이 억제되었다.

여6장-'여리고의 성벽들'=악들을 방어한 거것들.

욘2:9-'그들이 벽에서 달린다'=본질적 거것.

계21:12-'크고 높은 성벽을 가졌다'=새 교회의 교리가 있는 글자 의미에 있는 말씀. '거룩한 성 예루살렘'=교리 측면에서의 주님의 새 교회, 그것의 '성벽'=교리가 있는 글자 의미에서의 말씀. 그 이유가 이 의미는 영적 의미를 보호한다...성벽이 성과 성의 주민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

계21:13-'성의 벽은 열 두 기초들을 가졌다'=글자 의미에 있는 말씀은 새 교회의 교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예1:15-'사방 모든 벽들에 대하여'=방어하는 모든 진리들을 파괴하는 것.

예1:18-'놋 성벽'=선이 보호함.

이26:1-'성벽들과 성채들'=보호하는 진리들.

계21:18-거룩한 예루살렘의 성벽은 '벽옥'으로 되었다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성벽'=신성한 진리가 보호함이기 때문.

겔26:10-'흔들려지는 성벽...'=보호해주는 진리들, 이 진리들은 일반적으로 하느님은 계시다, 말씀은 신성하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 등등이다.

애2:7-'그녀의 궁전의 벽들'=모든 보호하는 진리들. '궁전'=교리 속의 것들.

이2:15-'탑', '성벽'=교리 속의 거것들이 확증했다.

이22:10-'벽'=방어하는 교리 속의 진리, 여기서는 왜곡된 진리, 그 이유는 선이 없기 때문.

속2:5-'불 성벽'=신성한 사랑에 의해 보호됨. 그 이유가 여기에 지옥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

이2:15-'드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거것으로 확증한 원리들.

겔26:12-그들이 '파괴'할 '벽들'=교리적인 것들.

겔13:14-누그러지지 않은 것 가지고 회칠한 담벽=진리 같이 나타나는 허구적인 것.

출30:3-'그것의 벽들'=내면들. 그이유가 '벽들', 또는 '측면들'=내면의 것들이기 때문. '지붕'=가장 깊은 것일 때, '벽들', 지붕 아래 인 바=내면(중간)의 것들.

왕상6:29-'벽들' 위에 거름이 조각되었다=천국과 교회의 최말단들.

겔8:10-'벽 방들' 그 위에 그들이 그린 것이 보였다=자연적 인간 어디에나 있는 내면들. 그이유가 ...'벽들'=내면의 것들 (이는 가장 깊은 것과 최말단 것과는 구분된다)

암5:19-'벽에 자기 손을 기댔다가 뱀이 그를 무는 자'=...이런 사람은 글자 의미의 말씀과 상담한다...그는 악들이 그 의미들을 뒤집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겔12:5,6-'어둠에서...웁길 집기들을 벽을 통하여 가져가거라...'=말씀으로부터의 교리의 모든 진리들이 내던져졌다는 것...'벽'=진리들을 에워싸고 보호하는 최말단. 그리고 교리의 최말단은 글자 의미이다...이것이 '벽'이라 불려진다. 그 이유는 글자 의미는 영적 의미를 함유하고 에워싸고 있기 때문.

겔23:14-'사람들이 벽에 그렸다'=(내향적으로는 모독하고 있는데 외향적으로 진리들인듯 나타나는 교리물들)=외적인 것들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의 나타남.

합2:11-'담벽으로부터 돌들이 소리친다'=진리들이 결여된 사람, 그 결과 왜곡된 것으로부터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

벽걸이 천 (hangings)

출27:9-'뜰을 위한 벽걸이 천'=최말단 천국의 진리. '커튼, curtains'=진리들. 고로 또한 벽걸이 천.

벽돌 (brick)

벽거리천-벽돌-벽옥

창11:3-‘우리가 벽돌을 만들자’=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모양지은 거짓들. ‘돌’=진리. 그러므로 ‘벽돌’,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거짓, 그이유가 벽돌은 돌 같이 가공했기 때문.

창11:3-‘그들은 돌을 위해 벽돌을 가졌다’=그들은 진리 대신 거짓을 가졌다.

출1:14-‘진흙과 벽돌’=그들이 찾아낸 악들과 그들이 모양지은 거짓들 때문에.

출5:7-‘벽돌들을 만드는 것’=주입될 꾸며지고 왜곡된 사항들.

출5:14-‘벽돌들을 만드는 것’=허구적이고 거짓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65:3-‘동산에서 희생제를 지내고 벽돌 위에서 향을 태운다’=그들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교리의 거짓들로부터 예배함.

벽옥 (jasper)

계21장-‘벽옥’에 의해, 그리고 ‘귀중한 돌들’에 의해 신앙으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되고 있다.

계21장-‘벽옥’에 의해 이 교회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진리가 의미된다.

출28:20-‘녹주석, 호마노, 벽옥’=진리로부터의 영적 사랑, 이 안에서 더 높은 것들이 끝맺고(종결되고) 있다. 이것은 이 돌들의 의미로부터 명백하다. 이 의미는 이 돌들의 색깔로부터 갈라져 나온다; 그 이유가 이 열(row)의 색깔 모두는 청색으로부터 빛나는 흰색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21:11,18,19 출28:20-‘벽옥’, 이 보석은 이 열의 마지막이고 세 번째에 위치 한다=신앙으로부터의 진리이다는 것은...계21:11로부터...(거룩한 예루살렘의) ‘빛’=신앙 속의 진리, 그리고 이 진리에서 파생되는 총명... 그리고 그러므로 이 보석은 ‘마치 수정 같이 빛난다’. 도성의 벽이 ‘벽옥’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성벽’에 의해 교회를 보호하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벽’의 의미가 이러한 바, 성벽의 첫 기초석이 ‘벽옥’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계4:3-‘그리고 앉으신 그분은 외모에서 벽옥과 홍옥을 닮았다’=최말단들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신성한 지혜와 신성한 사랑...영계에서 여타 다른 색깔에 기본이 되는

두 색깔이 있다, 흰색과 빨강색이다....이로부터...벽옥, 빛나는 흰색이기 때문에=지혜의 진리 속에 있는 것들... 이 돌들=최말단에 있는 신성한 지혜와 신성한 사랑의 나타남인 이유는 천국에 있는 모든 귀중한 돌들의 근원은 말씀의 최말단들에서 파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 최말단들의 영적 의미로부터 그것들의 투명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 (지혜의 성전의) 지붕은 우아하게 활모양으로 굽고 투명한 벽옥이었다.

계21:11-‘아주 귀중한 돌 같이, 마치 수정같이 빛나는 벽옥인 듯’=그것의 영적 의미로부터 동일한 빛남과 반투명함.

계21:11, 출28:20, 겔28:13-말씀이 ‘가장 귀한 돌, 마치 찬연한 수정 같은 벽옥’에 비교되는 이유는 ‘귀중한 돌’=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 그리고 ‘벽옥’=영적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로부터 반투명하는 글자 의미에 있는 말씀의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글자 의미에 있는 말씀이 그 글자의 영적 의미로부터 반투명하기에, ‘찬연한 수정 같은 벽옥’이라 말해진다.

계21:18-‘성벽은 벽옥이었다’=이 교회의 사람들과 더불어 글자 의미에 있는 말씀의 모든 신성한 진리는 영적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로부터 반투명한다...‘벽옥’도 다른 집합적으로 있는 귀중한 돌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귀중한 돌’, 말씀에서 거론될 때, 영적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로부터 반투명하는 글자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가 의미된다.

계21:19-‘첫 기초석은 벽옥이었다...’=그것들의 순서에서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의 그 교리 속의 모든 것들.

계4:3-‘벽옥’=진리로부터의 영적 사랑...고로 ‘벽옥과 홍옥’에 의해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투명한 신성한 진리가 의미되고 있다.

변모하다 (transfigure)

마17:2-주님이 변모하셨을 때...신성한 선은 태양 같이 나타났고, 그리고 신성한 진리는 빛 같이 나타난 의복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 이 변모하심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이 말씀 같이 보여 지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음성이 구름으로부터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변모하다-변통-별

고 들려졌다. 구름으로부터의 음성은 말씀으로부터의 음성이다.

눅9:32-사도들이 그분의 부활 이전에는 자기들의 육체의 눈으로 신성화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영 안에서만 보았음이 명백하다. 그이유가 '그들은 잠에 푹 빠져 있었다'라고 말해지기 때문.

변통 (stool, seat)

출1:16-'변통'=내적 측면에서 흘러드는 선과 진리를 받는 자연 평면 안에 있는 것들. 고로 그것들=과학적 진리들.

별 (star)

민24:17-그분의 인간 본질이 '아굽에게서 나온 별'이라 불리고 있다.

창15:5-'별들을 셈'=별자리들의 정신적 관점에 있는 선들과 진리들의 표현. (그이유가) '별들'=선들과 진리들. 말씀의 어디에서이든 '별'이 언급되면=선들과 진리들; 반대 의미에서 악들과 거짓들.

눅21:25-'별들'=선들과 진리들, 또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이 지식들은 시대의 종말에서...검게 되었다.

마24:29-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이것이 '별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늘들의 권능들'로 불리운 것은 떨어져 사라졌다. (=믿음에 관한 지식들).

창22:17-'하늘들의 별들 같이'=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 배가됨.

계12:1-'열 두 별'=신앙 속의 모든 것들; 그 이유가 '별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이것이 믿음 속에 있기 때문.

율2:10-'별들의 빛남이 철회되었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창26:4-'나는 하늘들의 별들 같이 네 씨를 불리겠다'=진리들, 그리고 믿음 속의 지식들.

마24:29-'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것이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은 멸해질 것이다.

창37:9-'열 한 별'=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겔32:7,8-그 당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 멸해진다는 것이 '나는 하늘들의 별들을, 그리고 빛을 내는 모든 발광체들을 검게 할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계12:4-'하늘의 별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그것

들을 땅으로 내던지는 것'=그것들을 파괴하는 것.

단12:3-천사들의 처소가 별들 같이 빛나는 것이 이 구절에서 서술되어지고 있다.

율2:10-'별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이것이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고로 천국으로부터 더 이상 빛을 가지지 않을 것이 '별들의 반짝임이 철회됨'에서 의미되고 있다.

단12:3-'별들 같이 빛남'=진리의 총명과 선의 지혜에 있는 것, 그리고 이로부터 영원한 행복이 있다; 그이유가 '별들'=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 이로부터 총명과 지혜가 있다.

민24:17-박사들은 ...별 하나가 그들에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았다, 발람 역시 이것에 관하여 예언했다. 더욱이 '별 하나'=주님으로부터 있는 내적인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단8:10-'그 군대와 별들 중의 얼마를 내던지는 것'=천국의 선들과 진리들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선과 진리에 관한 참 지식들.

욥38:7-'아침 별들'=선과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것들이 떠오를 때 '노래한다'라고 말해진다.

출32:13-'나는 네 씨를 하늘들의 별들 같이 많이 하게 하겠다'=선과 진리, 그리고 그것들에 관한 지식들.

계9:1-'별이 천국으로부터 떨어졌다'=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파괴되었다.

마2장-'그들 앞에 갔던 별'=천국으로부터의 지식.

마24장-'별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에 관련된 주님.

계1:16-'그분의 오른 손에 일곱 별'=말씀 안에서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들, 이 지식들은 말씀으로부터 천국의 천사들과 교회 속의 사람들과 더불어 있다.

계1:20-'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신비'=새 천국에 관한 환상들에 있는 신비(arcana). '일곱 별'=천국들에 있는 교회. (=그분으로부터 있는 선들과 진리들에 관한 계시).

계2:1-'그분의 오른 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그분이 이런 것들을 말하신다'=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진리들은 있다...'오른손의 일곱 별'=말씀 안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별미-별자리-병거

터 천국의 천사들과 교회의 사람들과 있다.

계2:28-‘나는 그에게 아침 별을 줄 것이다’=총명, 그다음 지혜.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의 총명과 지혜).

계3:1-‘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것을 말하신다’=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이 있다.

계8:10-‘마치 횃불 처럼 타는 큰 별이 천국으로부터 떨어졌다’=지옥적 사랑으로부터 발생하는 교만으로부터 있는 그자신의 총명. (=인간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왜곡된 말씀 속의 진리).

계8:11-‘이 별의 이름은 썩이라 불리웠다’=지옥의 거짓으로부터 그들 자신의 총명이 있다. (=악의 거짓과 혼합된 진리).

계8:12-‘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 받았다’=거짓들로부터의 악, 악들로부터의 거짓 때문에 그들은 어떤 진리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별들’=말씀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들이 멸해졌다).

계9:1-‘나는 천국으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다’=영적 천국의 신성한 진리가 그들과 더불어 있는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 조사하고 명명백백하게 함. 여기서의 ‘별 하나’=영적 천국의 신성한 진리, 그 이유는 그것이 영적 천국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이다. (=왜곡되어 왔었던 진리에 관한 지식, 이리하여 거짓으로 되어버린 지식).

계2:28, 22:16-계9:1에서와 같은 의미가 여기서도 단수 표현인 ‘별 하나’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 이유가 복수인 ‘별들’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의미하기 때문,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 총명이 있다.

계12:1-‘그녀의 머리 위에 열 두 별의 왕관이...’=말씀으로부터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에 관한 지식들로부터 있는 새 교회의 지혜와 총명. (=말씀으로부터 선과 진리 속의 모든 것들에 관한 지식들과 교리적인 것들을 통하여 이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총명과 지혜).

계12:4-‘그것의 꼬리가 천국의 별들의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다’=말씀 속의 진리들을 왜곡함을 통하여 그들은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영적 지식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리고 이 지식들을 거짓에

응용함으로 파괴했다. (=말씀 속의 모든 진리들을 섞음 질하고 왜곡함)

예31:35-‘달과 별들을 지정하심으로부터 밤의 빛이 있다’=영적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그리고 지식들로부터 총명이 있다.

사5:20-‘그들의 진로(course)로부터 별들이 시스라와 맞서 싸웠다’=진리에 관한 지식, 그리고 악의 거짓에 맞서 이 지식으로부터 전투함.

욥4절-‘별들 사이에 그것을 두는 것’=진리에 관한 지식에 있는 이들이 거주하는 고지에서.

별미 (dainties)

* 맛좋은 음식(dainties)을 보라

별자리 (constellation)

* ‘별들’과 ‘별자리’=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

이13:10-‘하늘의 별들과 별자리가 그것들의 빛을 주지 않을 것이다’=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

이13:10-‘별들’=선에 관한 지식. ‘별자리’=진리에 관한 지식.

병거 (chariot)

* ride도 참조

겔27:20-‘병거를 위한 자유의 의복’=외면의 선들, 또는 예식들 속의 것들.

예22:4-‘병거와 말을 타고’=지적인 것이 풍부함.

나2:4-‘병거들’=진리의 교리. 진리 대신 거짓이 있을 때 ‘병거들이 거리에서 사납게 날뛸 것이다’라고 말해진다.

삼상8:11-‘(왕이) 자신을 위해, 병거를 위해, 마병을 위해 임명할 아들들’=거짓의 원리들을 섬길 교리 속의 진리들. 이것이 ‘병거들과 마병들’이다.

합3:8-‘당신은 당신의 말, 구원의 병거를 타신다.’ 여기서 ‘말들’=말씀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 ‘병거들’=거기로부터 파생된 교리.

왕하2:12, 13:14-‘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씀 측면의 주님을 표현했다. 사랑과 선행으로부터의 교리가 ‘불길에 휩싸인 병거’에 의해 표현되어 졌다.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신앙의 교리가 ‘불말’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이21:7-‘나귀 병거’=세부적인 과학물이 많음, ‘낙타 병

병의

거’=일반적 과학물이 많음. 이 둘 모두 자연적 인간에 있다. 이것은 이 대목에서 기술되는 바벨에 의해 의미되는 이들에게 유행한 텅빈 추론들이다.

시68:17-‘하느님의 병거들’=말씀 속에 있는 것들, 이로부터 파생된 교리 속에 있는 것들. ‘천천이요 만만이다’=그 안에 있는 무한한 것들.

숙6:1-‘(4)병거들이 두 낫쇠 산 사이에서 나갔다’=선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 ‘병거들’=교리적인 것들.

왕하6:14-시리아왕이 (엘리사를 데려가려고) 보낸 ‘병거들과 마병과 큰 군대’는 교리 속의 거짓들이 의미되고 있다. ‘엘리사 주위에 불병거와 불말들로 가득한 산’, 이것이 엘리사의 사환에 의해 보여졌는데, 이는 말씀으로부터의 교리 속의 선들과 진리들을 의미하고 있다.

예17:25-‘병거를 타고 말을 타는 것’=교회의 영적인 지적 측면.

예50:37-‘검이 (갈대아인들과 바벨의 주민들의) 말들에 맞서, 병거들에 맞서 있다...’말들’=교회의 지적 측면, ‘병거들’, 그것의 교리물, 이것의 황폐됨이 ‘말들과 병거들에 맞선 검’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41:43-‘그는 (요셉을) 들췌가는 병거에 타도록 했다’=그분으로부터 선과 진리의 모든 교리가 있음을 표시한다. ‘병거’=선과 진리의 교리. 그러므로 ‘그를 병거에 타게 한다’란 교리가 그분으로부터 있음을 표시한다.

겔39:20, 계19:18-‘너희는 내 식탁에서 말과 병거로 배를 채울 것이다.’ 이는 그들이 말과 병거로 의미되는 것, 즉 선과 진리의 지적인 것과 교리적인 것으로 채워질 것을 뜻한다.

예17:25-‘병거와 말을 타는 것’=지적인 것들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교리적인 것들.

출14:6,7,9,17,23,25,26, 그리고 15:4,19-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후손을 추격하여 홍해 안으로까지 진입하고 그 안에서 바위가 뒤엎어져 버리고 만 말과 병거에 의해, 그리고 이 대목의 가장 큰 부분을 구성하는 말들과 병거들에 관한 많은 것들에 의해 거짓으로부터의 지성적, 교리적, 그리고 과학적인 것들, 그리고 이것에서 파생된 추론들이 의미되어진다. 이것들은 교회의 진리들을 뒤집고 소멸시킨다. 이와 같은 것의 파멸과 죽음이 거기서 기술되어 있다.

숙9:10-‘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는 것’=교회의 지적인 모든 것... ‘병거’=교리적인 것.

예47:3-‘병거들의 떠들썩함’=거기서 파생된 교리적인 거짓, ‘바퀴 소리’=감각적인 것과 이것을 발전시키는 오류들.

창46:20-‘요셉은 그의 병거에 견인줄을 채웠다’=내적인 것으로부터의 교리... ‘병거’=교리.

창50:9-‘그와 함께 병거들이 올라갔다’=교리적인 것들.

나3:2-‘올어대는 말, 점프하는 병거들’=같은 속성으로부터 뒤집힌 지적인 것과 교리적인 것을 수단으로 (왜곡된 것을 방어함).

미5:10-‘나는 너희 한가운데로부터 네 말들을 끊고 네 병거들을 파괴할 것이다.’ ‘끊어질 말들’에 의해 지적인 것들이 의미되어진다. ‘파괴되어질 병거들’은 진리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이다.

예47:3-‘병거’=거짓으로부터의 교리. ‘병거’=진리로부터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양쪽으로부터의 교리.

출14:6-(바로)는 그의 병거에 견인줄을 채웠다’=일반적으로 분리된 신앙에 속하는 거짓으로부터의 교리. ‘병거’=교리, 이 구절의 경우, 거짓으로부터의 교리, 그 이유는 분리된 신앙으로부터의 것이기 때문, 그 이유가 이 병거는 바로의 병거이기 때문, 그리고 ‘바로’에 의해 분리된 신앙으로부터 있는 거짓들이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

출14:7-‘그리고 그는 육백 병거들을 선발해 데려갔다’=그것들의 질서에서 분리된 신앙에 속하는 거짓으로부터의 각각 그리고 모두의 교리적인 것들.

출14:9-‘바로’의 병거의 모든 말들, 그의 마병, 그리고 그의 군대’=뒤집힌 지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거짓 속의 모든 것들... ‘병거’=교리적인 것들.

출14:17-‘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마병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그들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을 수단으로 거짓된 것과 추론이 사라지는 결과를 볼 것이다... ‘그의 병거들’=거짓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

출14:23-‘바로’의 모든 말들, 그의 병거들, 그리고 그의 마병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추격해왔다’=왜곡된 지적인 것으로부터의 과학물들, 거짓된 교리적인 것들, 그리고

병의

지옥을 채우는 추론들...‘바로의 병거들’=거짓의 교리적인 것들.

출14:25-‘그분은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벗겼다’=앞으로 나아가는 거짓들의 힘을 제거하는 권능...‘바로의 병거들’=거짓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병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상품을 운반하는 병거이고, 또 하나는 전쟁에서 사용되는 병거이다. 상품을 운반하는 병거는 진리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 반대 의미로는 거짓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 전투에서 사용하는 병거 역시 양쪽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투하는 것들인 진리 자체, 거짓 자체는 싸우기 위해 준비되어진다. 이로부터 분명한 바, ‘병거의 바퀴’에 의해 뜻해진 것, 즉 전진하는 힘, 여기서의 경우, 거짓들을 앞쪽으로 가져다 놓는 힘, 하여 진리에 맞서 싸우는 힘이다. 이 힘은 인간의 지적 부분에 속한다, ‘바퀴’ 역시 교리로부터 있는 이런 것들 측면에서의 지적인 것이 의미되어진다.

출15:4-‘바로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그분은 바다 안으로 내던지셨다’=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속한 일반적 특수적인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그리고 악한 생활에 있다...‘병거들’=거짓들, 여기서, 특수적인 거짓들, 그 이유는 ‘군대’ 또한 언급되고 있기 때문, 이를 수단으로 일반적 측면에서의 거짓들이 의미되어진다.

출15:19-‘바로의 말이 그의 병거와 그의 마병과 함께 왔기 때문에’=악한 생활 안에 그리고 분리된 신앙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뒤집힌 지적인 것으로부터의 모든 거짓들. 이 의미 파악은 ‘바로의 말’, 또한 ‘병거’, 그리고 그의 ‘마병’의 의미로부터 분명해진다. 이것들은 모두 뒤집힌 지적인 것으로부터의 거짓들이다.

출2:5-‘병거들’=거짓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

겔39:20-그들은 ‘말, 병거, 용사’로 배불러질 것이다... ‘말’=진리의 지적인 것, ‘병거’=교리, 그리고 ‘용사’=거짓에 대항하는 진리.

숙9:10-‘나는 에브라임으로부터 병거를 끊을 것이다’... ‘병거’=교회의 교리...(이 구절에서) 이해함 측면에서 교회 속의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황폐해짐이 의미되어진다.

시68:17-‘하느님의 병거가 천천이요 만만이다. 주님이 그것들 안에 있으시다’... ‘병거’=교리, 그러므로 ‘하느님

의 병거’들=신성한 교리적인 것들, 또는 천국들에 있는 것과 같은 진리들.

시104:3-‘그분은 그분의 병거로 구름을 배치하신다.’... 그분이 병거로 배치한 구름들은 교리를 오게하는 진리들이다.

예50:37-‘그의 말에 맞선, 그리고 그의 병거에 맞선 검’... ‘검’은 진리들과 싸우고 파괴하는 거짓이다. ‘말들’은 계발되어진 지적인 것이다. ‘병거들’은 교리적인 것들이다.

계9:9-‘(매뚜기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으로 돌진하는 병거들의 소리 같았다.’=마치 말씀으로부터의 교리로부터의 진리들로부터인 것 처럼 추론함, 그이유가 그것들이 전투에 임하기 때문.

이30:1-‘도움을 구하려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에게 슬픔이 있다, 그리고 말들에 머물고 병거를 신뢰한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많기 때문...’ 이렇게 인간 교유의 총명이 묘사되어있다... ‘병거’=거기로부터 파생된 교리.

삼상6:7-그들이 궤를 되돌려 보낸 ‘새 마차, new cart’는 새 교리를 의미했다, 그러나 자연적 교리이다, 그이유가 ‘병거’는 말씀에서=거기로부터 파생되는 교리이기 때문.

시104:3-‘여호와께서는 물들에 그분의 침실의 들보들을 내려 놓으신다, 그분은 그분의 병거로 구름을 배치하신다.’ ‘물들’=진리들, ‘침실’=교리적인 것들, ‘병거’=교리, 이것 모두는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있는바, 이는 ‘구름들’이라 불려진다.

왕하3:12, 13:14, 6:17-‘병거’=말씀으로부터의 교리.

병의 (sick)

창48:1-‘당신의 아버지가 아프다’=거듭남의 연속인 것. ‘아퍼지는 것’, 이는 죽음에 선행하는 것,=거듭남을 향하여 발전하는 것.

요5:8-12,14-‘병자’=법을 어기고 죄지는 이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병자에게 ‘더이상 죄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

보고하다 (report)

출19:3-‘말하는 것’ 그리고 ‘발표하는 것’=구원. 그이유가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에 의해 발표되는 것들에는 구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보고하다 -보금자리-보내다

출19:9-‘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보고했다’=상응과 결합.

보금자리 (nest)

시104:17-‘새들이 어디에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만드는가?’...‘새들’=그의 합리성 또는 자연적 진리들, 이는 마치 보금자리 같다.

신32:11-진리로 그들을 가르침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휘젓는’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욥4절-이것이 ‘별들 사이에 보금자리를 배치하는 것’에 의해 뜻해져 있다.

겔31:6-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의 가지들에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만듦’에 의해 의미된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예49:16-자아사랑과 자신의 총명으로 교만함이 뜻해지는 것이 이 말씀, ‘만일 내가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를 드높인다면 나는 너를 아래로 내던질 것이다’라고 말해진 것으로부터 분명해진다.

예48:28-‘꿀짜기 어귀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비둘기 같이 하거라’=내부로부터가 아닌 외부로부터 있는 진리에 대한 정신적 관찰...‘보금자리를 만드는 것’=‘거주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즉 생활을 이끄는 것. 그러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은 새를, ‘거주하는 것’은 사람을 서술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보내다 (send)

창19:3-주님은 아버지께 의해 보내졌다고 그분에 관해 말해지는데, 이 구절 경우 같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보냄’에 의해 ‘밖으로 나감’이 의미되어진다.

* 성령에 관해서도 그것이 ‘보내짐’이라고 말해지는데,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나가기 때문.

창24:59-‘그들은 리브가를 보냈다’=신성한 진리에 애착함 으로부터 분리됨. ‘보내는 것’=분리되는 것.

창31:27-‘나는 기뻐하며 너를 보냈을 것이다...’=...그것은 자유한 가운데 그 자체 분리되었다는 것.

창32:26-‘나로 가게 하라’=시험이 중지됨.

창37:13-‘나는 너를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그는 신성한 영적 선들을 가르쳐야한다는 것...‘보내는 것’=나가는 것 그리고 진행하는 것, 그리고 또한 동시에 가르치

는 것.

창43:14-‘너에게 너의 다른 형제를 보내기를...’=그가 신앙의 선을 주시리라는 것.

창45:23-‘그의 아버지에게... 그는 보냈다’=영적 선에 무료로 주어짐.

창46:28-‘그는 자기에 앞서 유다를 보냈다’=교회의 선과 소통함.

출3:10-‘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주님의 인간으로부터 진행하는 거룩함.

출3:20-‘그는 너를 가게 할 것이다’=거짓에 있는 이들을 몰아냄, 그리고 진리에 있는 이들을 해방시킴.

출4:13-‘보내도 될성 싶은 자를 보내소서’=신성한 진리는 간접적으로 말해질 것이라는 것...‘보내는 것’, 주님께 관해서 말해질 경우,=진행하는 것.

출6:1-‘강한 손 때문에 그는 그들을 가게 할 것이다’=그들은 그들로부터 도망할 것이라는 것.

출6:11-‘그는 이스라엘의 후손을 가게 할 것이라는 것’=그들이 나가고 떠나도록...

출9:14-‘나는 내 재앙을 보낼 것이다’=오고있는 모든 악들이 그들 위에 돌진할 것이라는 것. ‘보내는 것’=돌진하는 것.

출23:20-‘나는 네 앞에 천사를 보낸다’=신성한 인간 측면에 관련되는 주님. ‘보내는 것’, 주님께 관해서 일 경우, =진행하는 것.

출33:12-‘그들과 함께 보내는 것’, 여호와께 의해서 일 때,=신성한 이끄심, 그리고 또한 신성한 진행. 그러므로 ‘천사들’은 ‘보내짐’이라고 자주 말해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자주 말하신 것은 그분이 아버지께 의해 ‘보내졌다’이다, 이를 수단으로 신성한 진행이 의미되어진다.

계1:1-‘그분의 천사에 의해 보냄’=천국을 통하여 주님께 의해 계시됨.

계11:10-그들은 서로에게 선물을 보냈다=사랑으로부터 있는 그들의 연합.

보다 (behold)

창19:2-‘보라, 내 주들이여 제가 간구합니다’=주님의 신성한 인간과 거룩한 진행을 내면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함.

보다-(밖을) 보다 -보다

창22:1-(아브라함이) 말했다, 제가 보고 있나이다=생각과 숙고함.

창27:1-(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답인 즉=현존함.

창28:15-'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신성.

창37:13-(요셉이) 말했다, 나를 보고 있습니다=확증.

창46:2-(야곱이) 말했다, 나를 보고있다=지각함.

출2:13-'보라, 두 남자들, 히브리인들, 말다툼 한다'=교회내에서 그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통각함.

출3:4-(모세가) 말했다, 나를 보고 있습니다=들음.

요19:5-'보라, 사람'=신성한 진리를 보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와 같다.

요19:2,3,5-그가 조용한 뒤... 그는 말했다, '보라 사람'...그이유는 '사람'에 의해 교회가 의미되어졌기 때문.

보다 (look)

(밖을)보다 (look out)

창18:16-'그들은 소돔의 얼굴을 보았다'=인간 종족의 상태.

창18:22-'사람들은 거기로부터 밖을 보았다'=신성으로부터 주님의 생각...'밖을 보는 것'=생각하는 것.

창26:8-'아비멜렉은...창문을 통하여 밖을 보았다'=신앙의 교리가 합리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

출2:12-'그는 이리저리 둘러 보았다, 그리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았다'=그는 안전한지 여부를 두고 신중했음.

출14:24-'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인들의 진영을 보셨다'=신성한 유입이 거기로부터 확장됨.

단4:11-'그것의 바라보임은 땅의 끝에서도 가능했다'=교회의 최말단 까지조차 그것이 확장됨.

보다 (see, sight, visible, clearly, visual)

계1:4-'그분의 보좌가 보이는 곳에서'=현존하심과 섭리하심.

계4:6-'보좌가 보이는 곳에서'=나타나심

창8:13-'노아는...보았다'=신앙 속의 진리들의 빛.

* 말씀에서 '보는 것'=이해하는 것, 또는 신앙을 가지는 것.

창9:16-'나는 (무지개를) 본다'...주님에 관련해 서술될 때, 누군가를 '보는 것'=그가 어떤 품질 속에 있는지를

아는 것...그가 거둬나질 수 없을 경우, 주님이 그를 '보신다'라고 말해지지 않는다.

창12:7-'여호와께서 보여지심...'=그분이 주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창16:13-'당신은 나를 보시는 하느님'=유입, 더 높은 것으로부터 낮은 것을 들여다 봄...유입이라 불리운다, 그 이유가 이것이 유입을 수단으로 결과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간과 더불어 내면의 시야와 같다: 이 시야가 그의 외적 시야 안으로, 즉 눈으로 계속 흐르지 않으면 후자는 대상을 납득할 수 없고 식별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내면적 시야를 통하여 눈은 눈이 보는 것들을 납득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의 시각은 눈을 통하여 본다. 나와 더불어 영들은 나의 눈을 통하여 내가 하는 것, 뿐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본다; 그런데 감각들의 오류 안에 아직 있었던 일부 영들은 자기들이 그들 고유의 눈을 통하여 보는 줄 착각하고 있다.

창18:2-'그는 보았다'=그가 이것을 통각했을 때. '보는 것'=이해하는 것과 통각하는 것, 뿐아니라 계몽되는 것.

창18:21-'나는 볼 것이다'=방문함...'그러한지 어떤지를 본다는 것'은 주님에 관해서는 서술될 수 없다.

창19:1-'룻은 보았다'=양심...말씀에서 '보는 것'=이해하는 것;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보는 것=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들이 양심을 가진다...

마13:13-'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한다' '보고 듣는 이들'=보고 듣고 할지라도 이해 못하는 교회 내의 사람들.

이29: 10-'보는 사람'=진리를 보는 이들, 그리고 진리가 없다고 볼 경우, 그들은 '떨어졌다'고 말하는 이들...예언자들은 '보는 사람'이라 불리웠다, 그 이유는 '보는 것'=이해하는 것이기 때문.

창21:9-'사라가 보았다'=주님께서 신성한 영적인 것으로부터 바라보심. '보는 것'=이해하는 것, 이는 마음의 시각으로부터 바라보는 것과 같다.

마13:16-'보고 있는 네 눈은 복 있다'=충명과 믿음. 그 이유가 이해함은 시각의 영적인 것이기 때문; 그리고 믿음은 이해함의 영적인 것이기 때문. 눈의 시각은 세상의 빛으로부터이다; 이해함의 시각은 세상 속에 있

보다

는 것 안으로 흐르는 천국의 빛으로부터이다. 그러나 믿음의 빛은 천국의 빛으로부터이다.

창22:4-‘아브라함은...보았다’=...신성으로부터의 정신적인 바라봄.

창22:8-‘스스로 하느님이 보시는 것’=설비하고 예견하심. 그 이유가 ‘보는 것’, 대략적으로 내적 의미에서=이해하는 것; 그러나 더 내면적 의미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예견하고 설비하시는 것.

창22:14-‘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주님의 섭리.

창28:30-‘보는 것’=통각하는 것.

창26:28-‘우리가 보여줬던 것을 보는 것 (확실히 보는 것)’=통각하는 것, 고로 확실히 아는 것.

창28:6-‘에서가 보았다’=생각했다...그이유가 생각하는 것은 내향적으로 보는 것 그 외는 없기 때문.

창29:2-‘(야곱은) 보았다’=지각함.

창29:10-‘야곱은 보았다’=인정함.

창29:31-‘여호와께서 보셨다’=주님의 예견하심과 섭리.

창31:43-‘보는 것’=지각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

창33:1-‘야곱은 자기 눈을 들어올려 보았다’=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지각함과 의도함.

창34:1-‘토지의 딸들을 보는 것’=진리의 애착들을 아는 것.

창35:9-‘하느님이 보여짐’=내면적 지각.

창37:4-‘그의 형제들이...보았다’=신앙 속의 것들; (그이유가) ‘보는 것’=통각하고 이해하는 것.

창37:18-‘그들은 멀리서부터 그를 보았다’=아득하게 신성한 인간을 지각함.

창38:14-‘그녀는...보았다’=명료하게 바라봄.

창38:15-‘유다가 그녀를 보았다’=어떻게 이 광신적 신앙이...내적인 것들을 곰곰이 생각했는지를...

창39:3-‘그의 주인이...보았다’=자연적 선 안에서 지각했다...‘보는 것’=이해하는 것과 통각하는 것.

창39:13-‘그녀는 보았다’=이것에 관하여 지각함.

창40:6-‘그가 그들을 보았다’=지각함. ‘보는 것’=이해하고 통각하는 것.

창40:16-‘뺨굽는 자들의 관원장이 보았다’=자발성에 종속된 감각성이 통각함.

창41:28-‘바로가 보게 하셨다’=자연성이 통각함.

창41:33-‘바로로 보게 하시어...’=자연성에게 기대하는 것; 그이유가 ‘보는 것’이 여기서의 경우 적극적인 상태, 그것이 꼭 행동되도록 함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적극성이 없을 경우라면 이해하고 통각하는 것.

창43:1-‘그는 보았다’=신앙 속에 있는 것들; 그이유가 시각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라는 것을 빼내면, 즉 영적 시각만을 생각하면 진리에 대한 지각, 즉 신앙 속에 있는 것들을 지각함 외 더 다른 뜻은 없다.

창42:7-‘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보았다’=지각.

요20:29-이 날에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않은 것들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있다’로부터 분명해진다

창43:16-‘요셉은 보았다’=통각함

창45:12-‘너의 눈이 보고 있다’=지각으로부터 증언함.

창45:13-‘네가 보는 모든 것’=거기서 통각되고 지각된 것은 무엇이든.

창45:28-‘나는 죽기 전 내려가서 그를 볼 것이다’=결합을 갈망함...‘가서 보는 것’=결합되는 것, 영계에서는 내면의 시각이 결합하는 것이다. 내면의 시각은 생각이다...그리고 생각이 결합한다.

창46:29-‘그에게 보여질 수 있게 되었다’=지각. ‘보는 것’=이해하는 것, 통각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

* 영적 의미에서 ‘보는 것’은 이해함 뿐만 아니라 이해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 모두; 생각, 곱씹어 봄, 정신적인 용의주도함, 신중함, 그 외 많은 것들. 그리고 믿음 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것들 모두를 의미한다.

창46:30-‘내가 네 얼굴을 보았는바...’=자비를 통각함 이후.

창43:3-‘전능하신 하느님이 나에 의해 보여졌다’=신성이 나타났다...

창43:8-‘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았다’=지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에 관하여 통각함.

창48:10-‘그는 볼 수 없었다’=정신적 용의주도함이 없다.

창48:17-‘요셉이...보았다’=...것을 지각함.

창50:11-‘토지의 주민이 보았다’=교회의 선을 수단으로 통각함.

보다

창50:23-‘요셉은 보았다’=내적인 것에 의해 교회가 회복됨.

출1:26-‘너희들이 변기 위에서 그들을 볼 때’=유입하고 있는 진리와 선을 통각함.

출2:2-‘그녀는 그가 잘 생겼다는 것을 보았다’=그것이 천국을 통하여 있었다는 것을 통각함.

출2:11-‘그는 그들의 짐들을 보았다’=그들은 침투당해졌음을 통각함.

출2:25-‘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보셨다’=그분은 신앙과 더불어 교회를 선물하셨다는 것.

출3:2-‘(모세는) 보았다’=통각.

출3:3-‘나는 곁쪽으로 돌아가서 이 큰 광경을 볼 것이다’=이 계시가 반사됨.

출3:7-‘나는 내 백성의 고뇌를 확실히 보아왔다’=그들을 향한 자비...그이유가 주님이 비참함에 있는 누군가를 보실 경우, 그분은 그에게 자비를 가지시기 때문.

출3:16-‘나에게 보여졌다’=현존...그이유가 ‘보여지게 됨’이 내적 의미 일 경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생각 자체가 현존을 만듦기 때문; 이것은 다른 삶에서는 실제로 거행된다.

출4:11-‘보거나 보지 못하거나’=지식들을 통하여 있는 신앙, 그리고 지식 없음을 통하여 신앙이 없음...원어에서 ‘보는 것’은 여는 것, 즉 눈을 여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다; 고로 지식들로부터 보는 자; 그이유가 지식들이 열기 때문이다.

출4:14-‘그가 너를 볼 것이다’=지각.

출4:18-‘나는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여부를 볼 것이다’=그 생활로부터의 지각.

출5:21-‘여호와께서 너를 살피고 판결하시기를’=신성이 알아서 처리함...그이유가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그분이 알아서 처리하기기 때문; 그이유가 ‘보는 것’=신성한 지각, 예견.

출6:1-‘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것을 볼 것이다’=발생될 것에 대한 명백한 지각.

출9:34-‘바로가 보았다’=통각.

출10:5-‘토지를 볼 수 없다’=자연적 마음은 통틀어 희미함뿐이다; 즉 진리의 지각이 없다.

출10:23-‘그들은 자기 형제 사람을 보지 못했다’=그들

은 어떤 선으로부터의 진리도 지각 못했다. ‘보는 것’=이해하는 것과 지각하는 것.

출12:13-‘나는 피를 볼 것이다’=진리를 통각함.

출14:13-‘조용히 서서 ...보라’=믿음을 가지는 것.

출14:30-‘이스라엘은 이집트인들이 죽은 것을 보았다’=지옥에 떨어진 자의 모습.

출16:15-‘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보았다’=통각함.

출16:29-‘너희들을 보라’=그들은 유익해서 잘 숙고해야 할 것이라는 것. ‘보는 것’=이해하는 것, 이로부터 지각하는 것, 또한 잘 생각하는 것.

출18:14-‘그가 했던 것을 본다’, 신성한 선에 관해 말해질 경우,=전지하심. ‘보는 것’, 내적 의미에서 =이해하는 것과 지각하는 것; 최고 의미에서 예견과 섭리.

출18:21-‘...를 알아 보는 것’=선발하는 것.

출19:4-‘너는 보았었다’=기억함.

출19:21-‘여호와를 보는 것’=신성을 지각하는 것.

출20:18-‘모든 백성이 뭉’=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들을 지각함.

삼상9:9-‘보는 사람’ 그리고 ‘예언자’=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거기로부터의 교리.

출22:10-‘아무도 보지 못함’=마음이 알아채지 못함...이해성이 마음의 시각이듯...‘보는 것’=마음이 의식하는 것.

출23:17-‘보여지는 것’=나타남과 현존함.

출24:10-‘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보았다’=말씀 안에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현존하심.

출24:11-‘그들은 하느님을 보았다’=믿음; 그 이유가 ‘보는 것’, 내적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보는 것은 믿음 안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

출25:40-‘네가 만들도록 산에서 네게 보인 것’=영의 눈을 가지고 천국에서 보여져 왔던 것...

출32:5-‘아론은 보았다’=허가함

출32:25-‘모세는 보았다’=내적인 것으로부터 지각되어졌다.

출33:18-‘나로 당신의 영광을 보게 만드소서’=내적 신성한 진리를 통각함.

출33:20-‘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신성한 내면의 것들은...(이) 국가에는 나타낼 수 없다.

보다

출34:30-‘아론이 보았다’=그들이 통각함.
출34:35-‘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보았다’=이 국가가 인정했다는 것...
계1:2-‘그가 보았던 모든 것들’=이 계시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한 예증. (=예증으로부터 이해하는 것)
계1:7-‘보는 것’=인정하는 것.
계9:17-‘보는 것’=그들의 품질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
계9:20-‘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걸을 수 없다’=그 안에는 영적 생명, 진실로 합리적 생명의 어떤 것도 없다.
계11:9-‘그들은 볼 것이다’=그들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들에 관해 들을 것이다.
계22:8-‘나 요한은 이런 것들을 보았고 들었다’...그이 유가 요한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든, 그는 그의 영의 눈으로 보았다...그리고 천사들이 대단히 가까이 접근됨을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이런 상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계1:7-‘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다’=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이는 인정할 것이다. ‘보는 것’=이해하는 것, 지각하는 것, 인정하는 것.
계1:12-‘나는 음성을 보려고 돌아섰다’=이해성이 예증했다...신성한 유입이 의지 안으로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해성 안으로 있다; (즉) 소뇌 안으로, 그런 다음 이해성이 있는 대뇌에서 앞의 것들을 향하여 있다; 그리고 이런 경로로 이해성 안으로 올 때, 또한 시각 안으로도 와진다; 그이유가 인간은 이해성으로부터 보기 때문이다...이로부터 요한은 ‘자기 뒤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섰다’라고 말해지는 것이다...이는 유입이 이해성 만의 길에 의해 온다고 가정해보는 것과 다르다. ‘음성을 보는 것’이라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보는 것’=예증으로부터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1:17-‘나는 그분을 보았다’=신성한 위엄의 현존.
요14:19-‘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 ‘주님을 보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다
계1:19-‘네가 본 것을 쓰라’
계3:19-‘네가 볼 수 있게 안약을 네 눈에 바르라’=여하튼 이해성이 열릴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

계4:1-‘이런 것들 후에 나는 보았다’=이해성이 예증했다. ‘보는 것’=이해하는 것.
이42:20-‘그들이 보고, 알고, 유의하고, 모두 이해할런지 모른다는 것’=지식들, 이해성, 지각, 그리고 애착...
계6:1-‘나는 보았다’=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상태들이 명명백백해짐.
이8:7-‘그들은 보는 사람 사이에서 잘못하고 있다’=그들은 진리들을 보지 못한다.
이29:10-‘보는 자들’=총명한 자; 추상적으로는 총명.
계6:9-‘보는 것’=분명하게 하는 것.
계7:1-‘이후에 나는 보았다’=천국의 상태에 관한 새로운 지각.
계8:13-‘보는 것과 듣는 것’=지각하도록 이해성이 열리는 것.
계9:20-‘보는 것’=진리를 이해하는 것.
마13:17-‘많은 자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 싶어했으나 보지 못했다. 그리고 듣기를...’ ‘보는 것’과 ‘듣는 것’=이해하는 것과 지각하는 것; 여기서의 경우,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내면의 진리들;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것은 그가 그것들을 행할 경우 그를 재구성해주기 때문.
계11:11-‘그것들을 본 이들에게’=그것들의 현존을 견뎌낼 수 없었던 이들.
계11:12-‘그들의 적들이 그것들을 보았다’=지식 그리고 말씀 속의 선과 진리에 맞선 이들이 인정함. ‘본다는 것’=이해하는 것; 결과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
이61:9-그것들을 ‘본’ 모두=예증.
계14:14-‘나는 보았다’=...관하여 예언함. ‘보는 것’은 그가 보았던 것을 포함하고 있다.
요6:40-‘아들을 보는 것’=영 안에서 그분을 보는 것.
보답하다 (recompense)
* hire, reward도 참조.
눅14:12-14-‘네게 되갚지 않도록...이들은 네게 그것을 가지고 보답하지 못한다. 너는 의로운 자의 부활에서 보답받을 것이다.’...이 구절에서 묘사한바, 보답은 선 자체 안에 있다는 것, 그 이유는 주님이 그것 안에 계시기 때문.
창50:15-‘그는 우리가 그에게 보답했던 악을 되갚을지

보답하다-보디발-보루-보리

도 모른다'=공과에 의거한 처벌.

창50:17-‘그들이 내게 악을 보답했기에...’=그들이 유입되는 선과 진리를 싫어했었다는 것.

이34:8-‘보답의 해’=마지막 심판. 그러나 이것은 거짓들에 관하여 말해지고 있다.

보디발 (Potiphar)

창37:36-‘보디발, 바로의 경호 대장’=과학물의 내면의 것들.

* 보디발의 아내'=영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진리.

보루 (bulwark)

이26:1-‘성벽들’과 ‘보루’=방어하는 진리들.

시122:7-‘네 성벽 안쪽에 평화가 있고, 네 궁전에 숨이 있다’=외면의 인간에서 그리고 내면의 인간에서. 그 이유가 외면의 인간은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더불어 내면의 인간을 위한 보루, 또는 요새 같기 때문....그러므로 인간의 외면들은 ‘보루’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그의 내면들은 ‘궁전’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시48:13-‘보루에 심정을 두는 것’=거짓들에 맞서 이 교회를 방어하는 외면의 진리들을 사랑하는 것.

보리 (barley)

겔4:9-더 고상한 선의 종류가 ‘밀’과 ‘보리’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율1:10-13-‘밀’=천적인 사랑, ‘보리’=영적인 사랑.

계6:5,6-‘밀 한 분량에 한 톨’=사랑이 아주 드물다는 것, ‘보리 세 분량에 한 톨’=선행(charity)이 드물다는 것.

신8:8-‘밀과 보리의 토지,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토지...’사랑으로부터의 선들과 선행으로부터의 선들이 여기서 ‘밀과 보리’이다. 신앙으로부터의 선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이다.

출9:31,32, 율1:11, 사7:13-‘보리(는 내려침을 당하였다)’=외면의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선(이 파괴되었다는 것). ‘보리’가 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들판의 생산물이고, 식품에 쓰여지는 곡식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곡식은 진리로부터의 선을 의미한다. ...‘밀로 인해 그리고 보리로 인해, 농부들은 부끄럽게 여길지라, 포도원의 일꾼은 크게 울부짖어라, 들판의 수확이 멸해

졌기 때문이다.’ 아래는 요엘서에 있는 ‘보리’의 의미이다. 보리는 외면의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선, 밀은 내면의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선. 선과 진리의 황폐해짐이 다음 구절에서 취급된다, ‘기드온이 진영에 다가 왔을 때, 한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말했다, 그리고 말했다, 보라, 내가 꿈을 꾸었다, 그리고, 오, 보리 과자가 미디안의 진영으로 그 자체 굴러왔다, 그리고 천막에 까지 왔고, 그것을 짓부었다, 그리고 그것을 아래로부터 뒤집었다, 그렇게 해서 천막은 무너졌다.’ ‘미디안’은 단순한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 의미에서는 선으로부터의 생활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이 의미된다. 이 선은 외면의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선이다, 이것이 ‘보리 빵’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이 선 대신 쾌락의 기쁨을 목적으로 간주하면 이것이 ‘보리 빵의 과자’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출9:31-‘보리는 익어가는 이삭이었고, 아미는 즐기었기 때문’=이 선과 진리는 현저하게 밖으로 돌출되어 서 있고 아래쪽 것을 보고 있었다. ‘보리와 아미’=외면의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선과 진리.

호3:2-‘은 열 다섯 조각’은 진리를 서술하고, ‘보리 한 오멜’은 선을 서술한다.

이28:25-‘밀’=내향의 인간으로부터의 사랑의 선, ‘보리’=외향의 인간으로부터의 사랑의 선.

계6:6-‘밀 한 분량에 한 톨, 그리고 보리 세 분량에 한 톨’=선과 진리에 매겨진 값어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바, 가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밀’과 ‘보리’에 의해 선과 진리가 의미되어진다....여기서의 경우, 말씀으로부터의 교회의 선과 진리. 그 이유는 들판의 모든 것들, 포도원의 모든 것들은 교회에 속하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

마3:11,12-‘밀’과 ‘보리’는 교회의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는 것.

호3:2, 겔4:12-‘보리’=진리들, 그리고 톨과 섞은 보리 ‘=진리가 왜곡되고 모독됨.

계6:6-‘밀 한 분량에 한 톨, 보리 세 분량에 한 톨’=교회로부터의 순수한 선이 그들에게 조금도 없다, 또한 교회로부터의 순수한 진리도 그들에게 조금도 있지 않다는 것...‘밀’=일반적 측면에서 교회로부터의 선. ‘보리

보물-보상-보석-보스라-보이다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

예41:8-'밀과 보리'에 의해 바깥쪽 인간의 선들과 진리들. '기름'에 의해 안쪽 인간의 선.

신8장-'밀과 보리'는 천적 근원으로부터의 선과 진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영적 근원으로부터의 선과 진리.

이28:25-'밀'=선, '보리'=진리, '귀리, spelt'=지식들.

호3장-'보리 한 오멜' 그리고 '보리 반 오멜'=거의 없 다시피 적은 선과 진리.

계6:6-'밀'과 '보리'에 의해 선과 진리, '기름'과 '포도주'도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밀'과 '보리'는 일반적 측면에서 교회의 선과 진리를, 고로 말씀의 글자 의미 안에 있는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계6:6-'밀'과 '보리'가 외면의 선들과 진리들, 또는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이 의미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들판의 생산물이고 이것은 빵이나 과자로 만들기 전까지는 먹기에 적당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빵과자'에 의해 말씀에서 내면의 선들이 의미되고, 고로 밀과 보리는 내면의 선들의 출처가 의미되는 바, 그 출처는 말씀의 글자 의미의 선들과 진리들이다.

겔4장-'똥으로 만든 보리 과자'=(신성한 진리에) 섞음 질함. '보리 과자'=자연적 선과 진리, 즉 글자 의미로 있는 말씀.

* 보리로부터의 '고운 가루'에 의해서는 자연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 그 이유가 보리=자연적 선, 밀=영적 선.

보물 (treasure)

예17:3-'보물들'=신앙의 영적 재물들, 또는 신앙의 교리 속에 있는 것들. (=교회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

눅18:22-'너는 천국에 보물을 가져라'=그때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선들과 진리들.

이10:13-'나는 그들의 보물들을 약탈할 것이다'=총명의 진리들을 파괴하는 것.

이45:3-'어둠 속의 보물들'=천국적 총명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예48:7-'보물들'=교회의 교리물과 영적 지식들.

예50:37-진리와 선에 관한 영적 지식들.

마6:19,20-'네자신을 위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그

러나 천국에...' '보물들'=진리와 선에 관한 영적 지식. '그것들을 천국에 쌓는 것'=영적 인간 안에.

겔28:4,5-'네 보물들에 있는 금과 은'=선에 관한 영적 지식들, 진리에 관한 영적 지식들.

시33:7-'그분은 보고(storehouse)를 위해 바다들(the deeps)을 주신다'=과학물들로부터의 감각적인 것, 이는 자연적 인간의 가장 일반적이고 최말단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 안에 동시에 더 내면적인 진리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보고'라 불린다.

시135:7-그분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있는 개혁이 '그분은 그분의 보고로부터 바람을 내어오신다'에 의미되어 있다. (=천국으로부터 말씀에 있는 영적인 것들)

시17:14-'당신의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운다'=말씀 속의 진리를 가지고.

마13:44-'보물이 들판에 감추여 있다'=교회에서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

보상 (reward)

* 고용하다(hire)를 보라.

보석 (gem)

애4:7-'보석들'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보스라 (Bozrah)

이63:1-글자 의미 측면의 말씀은 유대 백성에 의해 찢기워졌고, 그렇기에 신성한 진리는 섞음질되었기 때문에, '보즈라로부터 튀기어 더럽혀진 옷을 입은...'이라고 말해지고 있다....'보즈라로부터의 옷'=말씀의 최말단, 이는 말씀의 글자 의미이다.

보이다 (show)

출15:25-'보이는 것', 주님에 의해서 일 경우, =지각을 주는 것.

계4:1-'나는 네게 보여 주겠다'=계시(=가르침)

계21:10-'그분은 나에게 보여주었다'=그 당시 그의 시야가 열리고 명명백백해짐.

보존하다 (keep)

* 간직하다(keep)를 보라.

복 (bless, blessedness, bliss, blessing)

보존하다 -복

* asher, happiness, delight 등도 참조

창30:13-‘레아가 말했다, 나는 복이 많다, 그 이유는 딸들이 나에게 복을 빌었기 때문이다’ 최고 의미에서=영원; 내향의 의미에서, 영원한 삶으로부터의 행복; 그리고 외향의 의미에서 애착들로부터 있는 기쁨.

열상10:8-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내왕하였을 때, 그녀는 말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다’ 이 구절에서 자신을 복되다고 일컬어지는 자는 누구인가?...

출20장-‘너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이다’...=그 당시 내향과 외향의 인간의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 안에 천국과 복됨이 있다는 것...어떤 인간이 천국 안에 있을 때, 그는 조용하지 않음, 쉬지 않음, 근심 등등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리고 그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때, 그는 행복 안에 있다.

마9:15-‘결혼식에 참석한 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한, 슬퍼하지 않음’ 이유는 그들이 복된 상태, 행복의 상태, 즉 진리들 안에서 선과 더불어 결합한 것, 곧 주님과 더불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

계1:3-‘예언의 말들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안에 쓰인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새 예루살렘의 교리에 따라 사는 이들이 천국의 천사와 교체함. 여기서 ‘복되다’란 그의 영이 천국 안에 있는 자를 뜻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한편으로는 천국의 천사들과 교체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의 영에 관련해서는 천국 안에 있기 때문이다.

계14:13-‘지금 이후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은 자는 복이 있다’=주님의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의 사후의 상태, 즉 주님을 향한 신앙과 그분의 훈령에 따른 삶을 위해 시험들을 견디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다...‘복된 자’=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가진 이들, 그 이유는 이것들이 복된 것이기 때문.

계16:15-‘보라, 나는 도둑 같이 오는 바, 지켜보고 자기 옷들을 간수한 자는 복이 있다’=주님의 강림, 그 다음 그분을 의지하는 이들 그리고 그분의 훈령, 즉 말씀 속의 진리들에 따른 삶을 일궈낸 이들을 위한 천국...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를 ‘복이 있음’이라 일컬으

시고 있다.

계19:9-‘어린 양의 결혼 만찬에 불리운 그들은 복이 있다’=새 교회 속의 것들을 받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계20:6-‘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거룩하고 복이 있다’=천국 안으로 오는 이들에게는 주님과와의 결합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계발됨의 행복이 있다는 것.

계22:7-‘보라, 내가 속히 오는 바, 이 예언의 말들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주님은 확실히 오신다, 그리고 이제 주님에 의해 열린 이 책의 교리 속에 있는 훈령, 또는 진리들을 간수하고 실천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계20:14-‘생명의 나무에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하여,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분의 계명들을 실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사랑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분에 관련된 지식들을 통하여 그분의 새 교회 안에 있기 위하여 주님의 훈령들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

계1:3-‘복이 있음’=자기 안에 천국이 있는 이들. ‘복이 있음’=영원히 행복한 그 사람, 고로 자기 안에 천국이 있는 그 사람. (지상에서의 경우) 영원하지 않은 행복 (bliss)이 실로 행복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관찰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은 바, 그 이유는 이 행복은 스러지기 때문이다.

계2:24-‘나는 네 일들에 따라 너희 각각에게 줄 것이다’=외적인 일들 안에 있는 내적 상태에 따라 영원한 행복됨(blessedness)이 있다.

계7:17-‘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으실 것이다’=거짓들이 시험들을 수단으로 제거된 후,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있는 행복한 상태...그 이유가 모든 천사들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을 통하여, 또는 진리에 대한 영적인 애착을 통하여 자기들의 모든 행복을 가지기 때문이다.

시2:12-‘그분을 신뢰하는 그들 모두는 복이 있다’=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통하여 있는 구원.

창1:22-‘하느님께서서는 그것들에 복을 내리셨다’...말씀 안에서 주님의 ‘복주심’=열매 풍성함과 번성함, 그 이

유가 이것들은 주님의 복주심에서 근원하기 때문이다.

민6:26-축복에 관련되고 있다.

창9:1-‘하느님은 복을 주셨다’=주님의 현존과 은총. 말씀의 외향적 의미에서 ‘복 주신다’=지상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에서 좋은 것을 풍요해지게 하는 것...그러므로 외향적 의미 안에 남아 있는 이들은 신성의 복 주심이 재물에, 그리고 지상 모든 것의 풍요로움에, 자아가 영광됨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복 주신다’=영적이거나 천적인 모든 선으로 풍요해지는 것, 그리고 이 복은 주님 만에게 의해 주어질 수 있는 바, ‘복 주심’=주님의 현존과 은총.

창9:26-‘복은 썸의 하느님 여호와에게 있다’=모든 선은 내적인 것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위해 있다...‘복’은 천적 선과 영적 선 뿐 아니라 내향의 의미에서 ‘복’에 의해 의미된 자연적인 것 까지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외향의 의미에서 ‘복’=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상적으로 좋다는 모든 것. 여하튼 이것들이 복되기 위해, 그것들은 내향의 복된 것으로부터 존재해야만 한다, 그 이유가 이럴 때만이 영원하고 모든 행복과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복됨의 참 실체이기 때문.

창12:2-‘나는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천적인 것이 열매 맺음과 영적인 것이 번성함.

창12:3-‘나는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모든 행복은 심정으로부터 주님을 인정하는 이들을 위해 있다. ‘복’은 선하고 참된 양쪽 모두, 즉 주님으로부터 있는 각각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한다; 고로 천적, 영적, 자연적, 세상적, 육체적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보편적 의미에서 ‘복’은 이런 모든 것들을 껴안고 있기에, 이것은 (성서의) 각 장소에서 복과 연결되는 사항들로부터도 명백해질런지 모른다, 그 이유는 복은 그것이 상술되는 것들에 그 자체 적응하기 때문이다.

창14:19-‘그는 그(아브람)를 축복했다’=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향유함. ‘축복하는 것’=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창17:6-‘나는 그를 축복할 것이다’=진리가 번창함. ‘축복되는 것’=선한 모든 것들이 수여되는 것.

창18:18-‘그(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나라들은 복

받아 질 것이다’=선행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분에게 의해 구원될 것이다. ‘복 받아 지는 것’= 천국적 근원으로부터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증여받는 것.

창22:17-‘나는 너를 크게 축복할 것이다’=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열매가 많이 열림. ‘축복되는 것’=천적, 영적 선으로 풍요로워짐; 이 구절의 경우, 신앙의 선, 똑같은 표현인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열매가 많이 열리게 만듦, 그 이유가 영적인 것들이 취급되기 때문.

창22:18-‘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나라들은 복되어질 것이다’=선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구원된다. ‘복되는 것들’이 구원되는 이들 안에 있는 바, 여기서의 ‘복 받아 짐’=구원되어짐. ‘복 받음’은 사실 폭넓은 의미의 표현이라는 것은 대체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사항일 것이다.

창24:1-‘여호와께서는 만사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 신성한 질서로 정돈되었을 때...이 의미는 이 구절이 주님의 인간에 관련해 말해질 경우에서 이다.

창24:31-‘여호와로부터의 복 된 것’=신성인 것.

창24:60-헤어짐에서 ‘축복하는 것’은 번영을 기원하는 경건한 소원이었다.

창25:11-‘하느님께서서는 이삭을 축복했다’=이삭을 수단으로 표징성이 시작함. 어떤 일이 시작되었을 때 ‘하느님이 축복하시기를...’라고 말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관습적 표현이었다. 이 표현은 즐겁고 행복하기를..라는 기원의 표현과 똑같다. 이로부터 이와 조금 더 먼 의미 이긴 하지만 ‘하느님이 축복하시기를’는 시작을 의미한다

창26:3-‘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증가함. ‘축복하는 것’=선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진리들 안에서 번성하는 것, 고로 증가하는 것.

창26:4-‘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나라들은 복될 것이다’= 교회 안과 밖에서 선 안에 있는 모든 이들. ‘복된 것’=선 안에서 결실을 맺는 것 그리고 진리들 안에서 번창하는 것.

창27:4-‘내 혼이 너를 축복하도록...’=자기 고유의 생명에 첨부됨, 고로 합리성과 상응하는 삶. ‘복되는 것’= 천적, 영적 선을 증여받는 것.

창27:7-‘나는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런고로 결합함.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자기 고유의 생명에 첨가함; 이 구절의 경우, '나는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복을 빌 것이다'라고 말해지는 바, 이것=결합.

창27:29-'너를 축복하는 그들은 복되다'=자신을 합치는 이들은 합쳐질 것이다.

시100:4-'고백함'=선을 사랑함으로부터; 그러나 '찬양함'과 '복있음'=진리를 사랑함으로부터.

창31:55-'(라반)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거기로부터 파생된 환희. '복을 비는 것'=번영을 소원하는 것, 고로 그가 떠나갈 때, (적이 안되어) 기뻐함을 증명하는 것.

창32:26-'축복되어지는 것'=내향의 역사적 의미에서 일 경우 어떤 교회를 표징하게 되는 것.

창33:11-이 구절의 '복된 것'은 신성한 선들과 진리들을 의미하는 창32:14,15에서 언급되어진 것들.

창35:9-'(하느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다'=자연성의 내면의 것들 쪽으로 전진함, 그리고 자연성에서 선과 진리의 결합이 있음; 그 이유가 이 구절의 '축복'은 신성에 의해 누군가에게 증여된 모든 선을 서술하기 때문, 특히 선과 진리의 결합에 관련하여 서술하기 때문.

창39:5-'여호와께서 축복하심'=증가함...순수한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선행, 그 이유가 증여받은 이들이 '여호와께서 축복함'이라 불리고 있기 때문, 그런 다음 그들은 천국과 영원한 구원을 증여받기 때문.

시104:13-'산들에 물을 뿌림'=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심.

창47:7-'야곱은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었다'=결합 그리고 이 결합으로부터 열매 풍성하길 경건하게 소원함... '복을 비는 것'은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영적 의미에서 선 안에 있고 번성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창48:3-'(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셨다'=생명 있어짐에 관한 예견.

창48:16-'복을 내리심'=진리와 선을 수여함.

창48:20-'복을 내림'=예견; 최고 의미에서,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심, 섭리.

창49:25-'(전능자가) 위로 천국의 축복들을 가지고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내부로부터 선과 진리와 더불어. '축복들'=진리의 번성과 선의 열매 풍성함, 그 이유가 최고 의미에서, '축복'은 이외 더는 없기 때문.

창49:28-'그가 그들을 축복하되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각자의 상태에 걸맞게 있게 되는 영적 생명에 관한 예견들.

출1:20-'...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말해질 경우=축복되는 것.

출12:32-'복을 비는 것'=중재하는 것.

출18:10-'복이 여호와이다'=주님으로부터 모든 선이 있다는 것...그 이유가 인간과 더불어는 경우에서의 '복'은 영원한 생명의 모든 선, 즉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부터의 선이 포함되기 때문.

출20:24-'나는 너희에게 올 것이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주님의 현존과 유입... '축복함'이 여호와에 의해 말해질 경우=신앙과 선행이 증여되는 것, 고로 또한 안으로 흘러드는 것, 그 이유가 신앙과 선행은 인간과 더불어 주님으로부터 흘러들기 때문.

출23:25-'(여호와께서) 너희의 빵과 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가 증가함. '여호와에 의해 복이 빌어짐'=선들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리고 진리들 안에서 번성하는 것, 고로 사랑과 신앙 속에 있는 것들이 증가함.

출32:29-'복을 내리시는 것'=사랑으로부터의 선과 신앙으로부터의 선을 증여받는 것, 고로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을 받는 것.

출32:29-'오늘 네 위에 복을 주신다'=말씀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영접하고 이를 통하여 주님과 결합함. 일반적으로 '복 주심'은 주님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주시는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선과 믿음의 진리와 관련되는 바, 이런 것들과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이 '복 주심'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계5:12-'그리고 축복'=주님을 인정함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주님의 영광되심, 그리고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받게 될 이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천국이 있기에 감사함. '축복', 주님에 관해 말해질 경우= 인정함...

복수하다-복종시키다-복원하다-복음-복음을 전하다-봄

신10:8, 21:5-‘축복함’=영적 진리들로부터 예배함.
 이65:16-‘자신에게 축복하는 것’=신성한 진리들 안에서 자신을 훈육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생활에 응용하는 것.
 계7:12-‘축복’=신성한 진리를 영접함 그리고 그로부터 열매가 풍성해짐, 이리하여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움.
 이44:3-‘축복’=신성한 진리가 변성하고 열매 많이 맺음.
 이19:25-‘여호와께서 복주시는...’=주님으로부터의 유입이 있음.
복수하다 (revenge)
 창4:15-‘일곱 배로 복수할 것이다’=그것은 모독일 것이다. (이럴 경우 정죄된다)
 창20:16- ‘그녀는 정당함이 증명되었다(vindicated)’=과오 없음
 출21:20-‘복수함에 의해 그는 복수할 것이다’=죽음의 형벌; 여기서, 영적인 죽음의 처벌.
 계19:2-‘그분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셨다’=그들의 폭력에 대한 응보.
 이59:17-‘복수의 옷들’=그분이 지옥들과 싸우실 때 사용된 진리들.
 이34:8-‘옹보들의 해’는 거짓들에 관해서, ‘복수의 날’은 악들에 관해서 말해지고 있다. 또한 이런 자들이 지옥 떨어짐.
복종시키다 (submit, subjugate)
 합3:6-‘시대의 언덕들이 자신들을 복종시킨다’=영적 교회(‘노아’)가 멸해졌다.
복원하다 (restore)
 이49:8-‘땅을 복원하는 것’=교회를 복원하는 것
 왕하5:14-‘그의 살이 복원되어졌다’=거듭나지는 이 들에서와 같은 영적 생명
복음 (gospel)
복음을 전하다 (evangelize)
 이40:9-‘높은 산에 오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사랑과 선행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52:7-‘산들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사랑과 선행의 교리로부터 주님을 전도하고 이것들로부터 예배하는 것.

시96:2-‘그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마24:14-‘왕국의 이 복음은 모든 나라들에 증거를 위해 온 땅의 거주민에 전파될 것이다’=이것은 첫째로 기독교 세계에서 알려지게 할 것이다...‘왕국의 이 복음’=고로 그것이 있다는 이 진리, ‘복음’=통고함, ‘왕국’=진리.
 이52:7-‘복음을 전함과 평화를 듣게 만듦’=주님의 왕국.
 계10:7-‘그분이 그분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교회를 황폐되게 했던 이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는 이후, 주님의 왕국은 올 것이다...‘복음을 전하는 것’=주님의 강림을 발표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발표하는 것, 그 이유가 복음은 즐거운 소식이기 때문.
 계14:6-‘나는 천국 한가운데에서 날고 있는 또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땅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주님의 강림과 그분으로부터 천국을 통하여 새 교회가 내려움을 통고함.
 막1:15-‘복음’=그들은 거듭나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될 수 있다는 것.
 이40:9-‘시온, the evangelizatress-Zion’에 의해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교회가 뜻해진다. 그리고 ‘예루살렘, the evangelizatress-Jerusalem’에 의해서는 말씀으로부터 교리의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뜻해진다.
 예20:15-‘자기 아버지에게 복음(기쁜 소식)을 전한 이가 저주받았다면...’=거짓을 인정하는 자.
봄 (spring)
 * 사랑으로부터의 신앙은 봄 철 태양의 빛과 같다.
봉사 (service)
 * 섬기다(serve)를 보라
봉사함 (minister)
 * 성직자(minister)를 보라.
봉인 (seal)
인장(seal)
도장(signet)

봉사-봉사함-봉인-봉헌-부과하다-부끄러이 여김-부드러움-부드럽게 하다

* 날인하다(seal)도 참조

창38:18-‘당신의 인장’=동의함의 표시...그 이유는 고대 시대 때에 칙령들은 인장에 의해 확증되었다, 그러므로 ‘인장’=확증 자체, 또는 그러하다는 것의 증거.

계9장-‘그들의 이마에 날인한 이들’=거듭나야겠었던 이들.

출28:11-‘도장을 새김’=거듭나는 사람의 지적 측면 같은 모든 진리들의 천국적 형태. 그 이유가 그 안에 신앙의 진리들이 천국적 형태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

출28:36-‘도장을 새김’=천국의 영역.

계5:1-‘일곱 날인들로 봉인되었다’=말씀이 천사와 인간들로부터 완전하게 감추여졌다.

계5:2-‘책을 여는 것, 그리고 그것의 봉인을 푸는 것’=천국들과 땅에서 모든 것의 생명의 상태를 아는 것, 그리고 또한 각자의 상태에 따라 모든 각각을 판결하는 것.

계7:2-‘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모두 그리고 각각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 그리고 서로로부터 그들을 구별하시고 분리하실 수 있으신 분.

계9:4-‘자기들의 이마에 하느님의 날인을 가지지 않은 이들’=선행 안에, 그리고 선행으로부터 파생된 신앙 안에 있지 않은 이들...‘날인을 가지는 것’=그들을 아는 것, 그리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로 부터 구별하는 것.

봉헌 (oblation)

* offer도 참조.

겔20:40-‘마찬가지로 거룩한 것들에 있는 선물들의 첫 열매와 봉헌들이란 주님으로부터의 선행을 수단으로 성별된 일들이다.

시20:3-‘봉헌들’과 ‘태워바침’에 의해 예배가 의미되어 진다.

부과하다 (impose)

안수하다 (impose)

(손을) 놓다 (lay on)

출29:10-‘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수소의 머리에 그들의 손을 놓아라’=자연적 인간에서 선과 진리를 받음을 표징함. ‘손들을 놓는 것’=자신의 것이 또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출29:15-‘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손들을 놓을

것이다’=능력의 전달.

계1:17-‘그분은 내 위에 그분의 오른 손을 놓으셨다’=그 당시 그분에 의해 고무된 삶. 주님이 그분의 오른손을 그 위에 놓으신 이유는 상호 왕래가 손이 접촉함에 의해 결과되기 때문.

막16:18-‘그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놓은 즉, 그들은 좋아질 것이다. 손을 놓음으로 병자가 좋아지는 것은 천국과 교통과 결합 때문이다. 그들은 영적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었다. 제자들이 손을 놓음은 주님과 교통하고 결합함에 상응한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힘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것들을 제거함에도 상응한다.

부끄러이 여김 (ashamed, shame)

* 벌거벗음도 참조

* ‘자신들에게 벨트를 만드는’ 것=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났다...자연적 선에 있는 동안 그들은 부끄럼의 마음 안에 들어왔다.

시127:5-‘그들은 성문에서 적들과 말할 때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지옥들로부터의 악들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있지 않을것이다

부드러움 (tenderness)

창18:7-‘부드럽고 좋은 품질의 황소의 아들’=...이것은 영적인 것으로부터의 천적인 것, 또는 선의 진리로부터 부드럽다 라고 불리워진다.

창33:13-‘어린 아이들은 유약하니...’=신성한 생명을 아직은 획득하지 못한 진리들...‘유약함’=최근인 것, 그리고 고로 어떤 생명을 획득했으나 아직 순수하지 않은 것.

부드럽게하다 (soften)

시55:21-‘그분의 말들은 기름 보다 더 부드럽다’

마11:8-글자로 있는 말씀은 거칠고 불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는 부드럽고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이 이 구절, 즉, ‘그들은 부드러운 의복을 입은 사람을 보지 못한다, 정녕 그럴 수 밖에, 부드러운 것들을 입는 그들은 왕의 집에 있기 때문이다’에서 의미되어 있다.

이1:6-‘기름으로 부드러워지지 않은’=선에 의해 고무되지 않은.

부르다 (call)

부르다-부르짖는 짐승 -부분

* 천사가 하갈을 부름

창16:11-'너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를 것이다'
'= 삶의 상태.

* '이름'을 수단으로 말해짐 없이 '부르는 것'=이와 같이 있는 것.

창27:1-'(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말했다, 내 아들이=예견과 설비하심으로부터의 현존...

창27:42-'그를 불러서 말하는 것'=지각의 상태.

* 누군가를 '부르는 것'=품질을 지각함.

창41:14-'(바로가) 요셉을 불렀다'=천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영적인 것을 받는 것...그것을 받는 것이 '그가 불렀다'에 의해 의미되었다.

창46:33-'그 자신을 부르는 것'=결합되기를 원하는 것.

창47:29-'그는 자기 아들 요셉을 불렀다'=내적인 것의 현존. '자신에게 부르는 것'=자신의 자아를 표출하는 것, 고로 현존.

창49:1-'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렀다'=자연 평면에 있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와 사랑으로부터의 선들을 질서적으로 배열함. '부르는 것'=질서 안에 배열함.

출1:18-'부르는 것'=음모를 꾸미는 것.

출2:8-'부르는 것'=인접하는 것.

출2:20-'부르는 것'=결합되어지는 것.

창3:4-'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셨다'=신성으로부터의 유입. '부르는 것'=유입(influx). 그 이유가 내적 의미에서의 부름은 언어를 수단으로 하지 않고 유입을 수단으로 의지를 부른다. 이 부름이 내적이다.

출12:21-'부르는 것'=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해 말해질 경우,=유입과 현존.

출12:31-'(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밤에 불렀다'=이 상태에서 신성으로부터 진리의 유입(afflux). '그가 불렀다'=현존과 유입(influx). 이 구절의 경우, 유입(afflux). 그 이유는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이들에 관해서 말해지기 때문.

출19:3-'그를 부르는 것', 또는 '누군가를 그분 자신에게 부르는 것', 신성에 관해 말해질 때,=결합, 여기서의 경우, 합일(union).

출19:7-'자신을 부르는 것'=선택.

출24:16-'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선과 결합된

진리와 더불어 있는 주님의 강림.

출34:15-'부르는 것'=유인과 수용함.

출34:31-'그들을 부르는 것'=이 나라가 가까워짐.

계17:14-'불리운 자'는 실로 모두를 뜻한다, 그 이유는 모든 이가 부름을 받기 때문,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있는 '불리운 자'는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마치 신앙과 더불어 결혼식에 있는 모든 이는 부른 이들이다, 주님과 더불어 교회의 외적 측면에 있는 이들은 '불리운 자'라 말해지고, 주님과 더불어 교회의 내적 측면에 있는 자는 '뿔뿔한 자'라 말해지고, 주님과 더불어 교회의 가장 깊은 측면에 있는 자는 '신실한 자'라 말해진다.

* '어린 양의 결혼 만찬에 불리운 그들은 복있다'=주님의 새 교회 속에 있는 것들을 받는 이들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마23:8,9-'너희는 선생이라 불리워지지 말라...그리고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네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말씀에서 '부르는 것', 그리고 '이름으로 부르는 것'=누군가의 품질을 인정하는 것.

계17장-'불리운 자', 주님께 의해서 일 때=주님을 사랑함에 있는 이들...셋째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부른' 자들이라 말해진다.

부르짖는 짐승 (ochim)

이13:21-'부르짖는 짐승' 등등=그들 예배의 내면의 것들.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은 자아로부터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

부분 (part)

* portion도 참조

창15:10-'그는 그것의 각 부분을 마주 보게 차려놓았다'=천적인 것들에 관련되는 평행과 상응. (그 이유가) 이쪽 부분=교회, 저쪽 부분은 주님이시기 때문.

* 부분들 사이에 중간 공간은 지각, 내적 지령, 양심이 라 불리는 인간과 더불어는 것들이다.

마24:51-'위선자들과 더불어는 부분이 그의 부분임을 그에게 약속한다'=그의 몫(lot), 이는 교리에서는 진리인 듯, 생활에서는 선인 듯 외향적으로 나타나나, 내향적으로는 진리나 선의 어떤 것도 아닌 이들과 더불어 부분이다.

부상-(빵)부스러기-부수리기-부스-부싯돌-부유하게 만들다-부유한

창47:22-‘이 부분은 바로에 의해 성직자에게 할당되었기 때문이다’=이것은 자연 평면에 의해 계율되어졌다는 것...‘할당된 부분’=계율된 것.

예34:18-‘송아지는 두 부분으로 자른다’=한쪽 부분은 주님으로부터 진행하는 선, 다른쪽 부분은 인간에 의해 받은 선.

계16:19-거짓들로부터의 그것의 교리가 ‘세 부분으로 부서진 도성’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숙13:8-‘보편적 땅에서 두 부분은 끊어져 만료되나 세 번째 부분은 거기에 남겨질 것이다.’ ‘땅의 세 번째 부분’=교회에 있는 어떤 것.

숙13:8-‘땅의 두 부분’=교회에 있는 모든 선. 그리고 진리의 어떤 것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진리는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세 번째 부분은 그것에 남을 것이나, 나는 불을 통하여 세 번째 부분을 가져와서 그것을 입증할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계16:19-‘큰 도성은 세 부분이 되었다’=진리로부터의 교리의 모든 것들은 흩어졌다는 것...‘세 부분으로 되는 것’=흩어지는 것.

부상 (wound)

창4:23-‘나는 내 부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그는 신앙을 소멸했다는 것...‘부상’...=더 이상 온전함이 없음...‘부상’, 특별하게는=신앙이 황폐해지는 것.

출21:25-‘부상에는 부상을 =만일 의지에서 외면적으로 있는 사랑의 애착으로부터의 어떤 것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30:26-‘어루만지는 부상’=생활 속으로 파생된 악.

(빵)부스러기 (crumb)

눅16:21-‘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수리기로 먹여 지기를 바랍’=교회내 풍부함에 있는 이들로부터 몇 진리라도 배우고 싶은 바랍.

부수리기 (fragment)

* 조각(piece)을 보라.

부스 (Buz)

창22:21-‘부스’ 등등=다양한 종교들과 거기서 파생된 예배들.

부싯돌 (flint)

신32:13-‘바위의 부싯돌로부터 기름’

시114:8-‘부싯돌이 물들의 샘으로’

시104:8-‘바위’=거듭나기 전 진리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 ‘부싯돌’=거듭나기 전 선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

부유하게 만들다 (enrich)

호12:8-‘나는 부유해졌다, 나는 나자신을 위해 부를 발견했다’란 그가 세상의 부유함과 재물로 부유해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천국적인 것으로 이다

계3:18-‘그리하여 부유해지는 것’=이해하는 것과 슬기로워지는 것.

계18:19-‘그녀의 사치함으로부터 부유해지는 것’=그 광신적 신앙의 거룩한 의례들을 수단으로 하느님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그것에 의해서 이익을 만드는 것)

계3:18-‘너는 부유해질런지 모른다는 것’=그가 신앙의 진리들을 받을런지 모른다는 것.

계3:17-‘부자’와 ‘부자가 되는 것’=교회와 천국에 관한 것을 알고 이해함이 충분하다는 것.

계3:17-‘부유해져 필요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모든 것들을 아는 것, 하여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

부유한 (rich)

예49:28-‘아라비아와 동쪽의 아들들’=천적인 재산을 소유한 자, 즉 사랑 속에 있는 이들...‘하솔의 주민들’=영적 재산을 소유한 이들., 즉 신앙 속에 있는 이들.

시112:3-‘부유함과 재산’=지혜와 총명의 부유함과 재산. 고로 영계의 지식들.

창14:23-‘부유해지는 것’=힘과 강함을 획득하는 것.

눅1:53-‘부자를 그분은 텅비게 하여 보냈다.’ ‘부자’=많은 것을 아는 이들. 그 이유는 ‘재물들’, 영적 의미에서 과학물, 교리물,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기 때문. 이들은 이런 것들을 아는 ‘텅빈 부자’라 불리운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치 않는다. 그 이유가 그들과 더불어 진리들은 진리들이 아니기 때문, 그 이유는 선이 결핍되었기 때문.

눅16장-‘부자’에 의해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이 뜻해진다. 즉 영적 재물이 많이 있는 것, 이 재물은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이다.

계3:17-‘나는 부자이다’=진리와 선의 지식들에 있다.

부젓가락-부채-부추키다-부패하다 -부활-복

출30:15-‘부자는 더 내놓지 말라...’=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고, 그것들에 관한 지식들이 풍부한 자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공적으로 돌려야만 한다는 것.

눅14장-부자가 만찬에 사람들을 불렀다, 이들은 (참석 못한다는) 핑계를 대었다. 이들은 유대 나라이다...

마19:24-‘부자’, 이 사람에 대해 주님께서 말하신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여기서 부자는 양쪽 의미에서, 즉 자연적, 영적 의미에 있는 부자를 뜻한다.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자는 재물이 풍부한 이들, 그리고 그 재물에 심정을 고착한 이들이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의 부자는 영적 지식과 지식이 풍부한 이들이다. 이것들은 영적인 재물들이다. 그리고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이것을 수단으로 천국과 교회의 것들에 자신들이 입문되어지기를 원한다.

막10:17-22-‘어떤 부자가 예수께 왔다...’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다’...그 이유는 그가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세 가지 것들이 부족했을 때, 그중 첫 번째 것인 그의 재물로부터 자기 심정을 옮기지 못했다...주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고 말하셨다...

계5:12-‘당신은 재물과 지혜를 ...받는 것이 지당합니다’=그분 안에...신성한 지성과 지혜가 있다는 것, 이는 전능하심이다...

계6:15-‘부자들’=진리에 관한 지식 안에 있는 이들 (=내적 진리들).

계13:16-‘부자와 가난한 자’=영적 지식과 지식이 많고 적고 한 자들. 고로 갖가지 종류의 학식으로부터.

계2:9-‘그러나 너는 부유하다’=진리에 대한 영적 애착.

계3:17-‘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다’=자기들은 타인들 보다 더 진리들 안에 있다고 믿음.

계3:18-‘나에게서 금을 사라...네가 부유해지도록’=순수한 선을 획득하여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을 받으라.

예17:11-‘공정함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재물’=유용함 (use)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획득한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계18:3-‘땅의 상인들이 부유해졌다...’=가르침...

계18:15-‘그녀로해서...부유해진 상인들’=이 광신적 신앙에 의해 큰 재물과 영예를 얻은 모든 이들, 그리고 고로 부유함과 탁월함으로부터의 선들.

계18:17-‘한 시간에 그렇게 큰 재물이 황폐되었다’=그들이 벌어들인 모든 것들의 손실...(즉) 영예와 재물, 그리고 또한 교리 속의 악들과 거짓들, 이것 가지고 그들은 벌어들이기를 희망했다.

부정하다 (deny)

눅14:33-그들은 자신들로부터서, 그리고 자신의 것 가지고는 전혀 극복할 수 없고 오로지 주님으로부터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자기의 모든 능력들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로 의미되어 있다.

마16:24, 막8:34-‘자신을 부정하는 것’=자아로부터 있는 악을 거절하는 것.

창18:15-‘사라는 부인했다...’=인간의 합리적 진리는 자신을 변명하기를 원했다는 것.

부정한 (unjust, injustice)

계18:5-‘하느님께서서는 그녀의 부정함을 기억하셨다’=주님께서서는 거기로부터의 폭력으로부터 천국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계22:11-‘부정한 자, 부정한 채로 있게 하라’=선들은 악들에 있는 이들로부터 거두어질 것이다...‘부정한 자’=악들에 있는 자...고로 ‘부정한 채로 있게 하라’=악들에 있는 자는 더욱 악들에 있을 것이다(선들은 그로부터 거두어질 것임이 함축되어 있다)

마5:45-‘그분은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부정한 자에게 보내신다’=주님은 신성한 진리를 유대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이 교회 밖의 사람에게 공히 흐르게 해주신다.

부젓가락 (tongs)

불집게

출25:38-‘그것의 부젓가락과 불집기 담는 접시’=자연 평면에서 정화 장치와 빼내는 장치.

이44:12-‘그는 부젓가락을 가지고 철을 제조한다’=그가 진리라 부르는 거짓.

부채 (fan)

마3:12-‘부채’=분리함

부추키다 (seduce)

부젓가락-부채-부추키다-부패하다 -부활-북

마24:11-‘그리고 많은 이를 부추킬 것이다’=(거짓 교리)로 끌어내기들이 있을 것이다.

창27:12-‘나는 그의 눈에서 부추키는 자(숙이는 자)로 있을 것입니다’=외관적으로 질서에 반대되기 때문에 거절함.

계12:9-‘온 세상을 부추키는 것’=그들은 교회의 모든 것들을 곡해할 것이다.

계13:14-‘부추키는 것’=오류쪽으로 이끄는 것.

계18:23-‘네 마법을 수단으로 모든 나라들이 유혹되었다’=그들의 사악한 예술...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이의 마음이 유인당해졌다.

계19:20-‘이것 가지고 그는 짐승의 표를 받았던 그들을 부추켰다...’=믿음 만으로라는 교리 가지고 이 신앙을 받도록 다른 이들을 꼬드겼다.

계20:8-‘부추키는 것’=제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부패하다 (corrupt)

창6:11-땅이 끔직한 설득들로부터 ‘부패되었다’라고 말해진다...‘부패하는’ 것은 이해성 측면을 서술하고 있다.

창6:12-‘부패함’=거짓 외에 남은 것이 없다.

창6:12-‘모든 육이 땅 위에서 그것의 진로를 부패하게 했기 때문이다’=인간의 육체적인 것이 진리에 대한 모든 이해성을 파괴했다.

출21:26-‘부패하는 것’, 신앙의 진리에 관해 말해질 때, 여기서 ‘눈’에 의해 의미되는데=소멸하는 것.

출33:7-‘자신을 부패시키는 것’, 예배에 관해 말해질 때,=자신을 신성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

예13:7-‘썩은 허리띠’.

말2:8-‘너희는 레위의 언약을 썩게 했다’=이스라엘족과 더불어 교회는 말씀의 진리들을 곡해해버렸다는 것, 이로부터 생활의 선들도 없고, 고로 주님과 결합이 파괴되었다.

이1:4-‘부패자들인 아들들’=이 악으로부터 거짓 안에 있는 이들의 거짓들.

부활 (resurrection)

다시 일어남 (rise again)

* bury, resuscitate도 참조

*그분의 부활 이후 그들은 그분을 주님이라 불렀다.

*주님이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이유. 주님의 부활

자체는 모든 거룩함, 그리고 모든 이의 부활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숫자는 표현적 숫자가 되었다...천국에 서는 ‘3’과 ‘7’ 대신 그들은 주님의 부활과 강림에 관한 일반적 생각을 가진다.

* 요나...셋째 날에 있는 주님의 부활을 표현했다.

호6:2-‘셋째 날’=주님의 강림과 부활.

눅14:14-‘의로운 자의 부활에서 보답이 있다’=보상받음 없이 잘 행동함으로부터 있는 내적 행복.

계20:5-‘이것은 첫 번째 부활이다’=구원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우선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

계20:6-‘첫 번째 부활에서 부분(몫)을 가진 자는 복되고 거룩하다’=천국으로 오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가진다, 그리고 주님과 결합을 통하여 예증 받는다...‘첫 번째 부활’은 주님에 의해 천국으로 승강됨이 의미된다, 고로 구원이다.

눅20:36-‘이들이 ‘부활의 아들들’...이라 불리운다.

겔37장-거듭남, 이는 또한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다, 하여 뼈들에 생명이 불어넣어짐에 의해 표현되어 있다.

북 (drum)

작은 북 (timbrel)

소고 (timbrel)

시149:3-찬양하는 ‘소고’=선, 그리고 ‘하프’=진리.

예31:4-‘너는 다시 소고로 장식할 것이다’

* 선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이 여기 그리고 그밖의 구절에서 ‘소고와 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시68편-‘처녀가 소고를 연주하고 있다’=진리에 애착함.

창31:27-‘소고와 하프’(를 연주하며)=영적 선에 관련하여...소고와 하프는 선을 서술한다, 그러나 영적 선이다. 영적 선은 신앙으로부터의 선이라 불리고, 선행이다.

출15:20-‘미리암, 여예언자...자기 손에 소고를 들었다’=신앙의 선으로부터 주님의 신성화하심...‘그녀의 손에 소고를 가지는 것’=신앙의 선으로부터 영광되시는 것. 그 이유가 ‘소고’는 영적 선을 서술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신앙의 선이다.

출15:20-‘소고와 춤’=환희와 즐거움으로부터 경축함.

북쪽-북쪽에 있는

‘소고’는 영적 선에 애착함, 또는 진리로부터의 선에 애착함을 서술하고 있다.

* (성전에서 사용된) 악기들은 주로 트럼펫과 드럼, 현악기와 하프이다. 트럼펫과 드럼은 천적 선들과 진리들에 상응하고, 현악기와 하프는 영적 선들과 진리들에 상응한다.

이24:7,8-‘새 포도주’=영적 선. 그것의 환희는 ‘소고’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이30:32-‘소고와 하프’=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의 즐거움.

시68:25-‘가수 뒤를 따라 소고를 두드리는 자와 연주자’=그분의 영적 왕국과 그분의 천적 왕국 속에 있는 모두...‘소고를 두드리는 자와 연주자’=그분의 천적 왕국에 있는 이들...‘노래하는 것’, ‘두드리는 것’, 그리고 ‘소고를 연주하는 것’그들의 심정 속의 즐거움과 환희로부터 라고 말해진다...

북쪽 (north)

북쪽에 있는 (northern)

예46:24-그때로부터 어두워짐이 ‘북쪽의 백성’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예15:12-‘북으로부터 오는’ 것=감각적이고 자연적인 것; 그 이유가 자연적인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짙은 어둠, 마치 빛의 측면에서 북향과 남향 비슷하다.

겔39:2-‘북’=거짓들.

예50:3-‘북’=짙은 어둠, 또는 진리 없음.

이43:6-‘북’=무지에 있는 이들.

창13:14-‘북을 향하여!’ ‘북’=교회 밖에 있는 이들, 즉 신앙의 (영적) 진리 측면에서 어둠에 있는 이들.

창17:5-‘북으로부터’ 있는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 그리고 여호와와 이름에 관하여 무지함에 있는 이들, 그럼에도 그들이 서로의 선행 안에 살고 있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신성, 우주의 창조자를 숭배한다.

단11:40-‘북의 왕’=악들과 거짓들에 있는 이들.

예31:8-‘북의 토지’=진리에 무지함 또는 진리가 황무함.

이14:31-‘북으로부터의 연기’=지옥으로부터 거짓이 있

다는 것.

겔8:3-‘북을 향하여 바라보는 안쪽 출입구의 문’=내면의 거짓들이 있는 장소. ‘북을 향한 여호와와 집의 출입구의 문’=내면의 악들이 있는 곳.

창28:14-‘너는 북으로, 남으로...홀트려질 것이다’=진리의 무한한 확장, 고로 선과 진리의 모든 상태들...‘북’=아직은 불명료함에 있는 진리.

시107:3-‘북으로부터 그리고 바다(서쪽)로부터’=진리에 무지한 가운데 있는 이들.

이49:12-‘북’=진리 측면이 희미한 가운데 있는 이들.

암8:12-‘북으로부터 동쪽에까지 조차 이리저리 달린다’=희미한 상태의 지식들로부터 빛에 있는 지식에 까지.

예3:12,18-‘북’=진리의 무지함에 있는 이들, 그런데 생활은 선 안에 있는 이들.

예16:15-‘북’=진리에 무지함.

예31:8-‘북의 토지’=선에 무지함, 그 이유는 진리에 무지함 때문...시온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가나안의 부분들은 선과 진리에 관련하여 불명료한 것을 표현했다. 이런 불명료함에 있는 모든 이것이 ‘북의 토지’라 불린다, 또는 ‘땅의 가장자리’.

시89:12-‘북’=선과 진리의 빛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이들.

숙6:6-‘북의 토지’=선과 진리에 무지함에 있는 이들, 허나 생활의 선에 있는 이들, 이 안에 곧바른 이방인들이 있다.

예23:8-‘토지로부터 북으로’=선과 진리의 무지함의 희미함으로부터.

예15:12-이들이 ‘북으로부터’라고 말해진다, 그 이유는 관계적으로 종결지요 희미함이 있는 자연으로부터 이기 때문.

단8,11장-‘북’=거짓의 짙은 어둠이라는 것은 8장으로부터 분명하다...‘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에 관련하여. 거기서 ‘남쪽의 왕’에 의해 진리의 지식들에 있는 이들, 그리고 ‘북쪽의 왕’은 거짓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어지고 있다...‘북의 왕’=처음에는 그늘 아래 있는 이들, 후에는 거짓의 짙은 어둠에 있는 이들.

예6:1-‘북으로부터 악’=인간의 감각 측면 그리고 이

북쪽

측면에서 파생된 과학물로부터.

예6:22-‘북의 토지로부터의 백성’=악으로부터 거짓 안에 있는 이들.

예1:13-‘북’=인간의 감각적 부분과 육체적 측면, 이로부터 ‘악’이 튀어나온다.

예31:8-‘그들을 북의 토지로부터 데려오는 것’=신앙의 희미함으로부터.

이43:6-‘북에 말하는 것’=진리들에 관하여 어둠에, 또는 무지함에 있는 이들에게, 이들은 교회 밖 이방인들이다.

출26:20-‘주택의 다른 측면을 위해 북쪽의 모퉁이에’=진리들이 희미함에 있는 이 천국의 외면들을 향하여... ‘북’=진리가 희미함에 있는 외면들.

출26:35-‘너는 북쪽 측면에 식탁을 놓아라’=희미함에 있는 선... ‘북’=신앙의 진리들에 관련하여 희미한 것, 그리고 진리가 희미함에 있을 때, 선 역시 그것과 더불어 희미함에 있다. 그이유가 주님의 영적 왕국에서 선은 진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식탁이 왜 북을 향한 측면에 놓였는지 명백해질 것이다.

출27:11-‘그리고 길이에서 그와같이 북쪽의 모퉁이에서’=진리의 선이 희미함에 있는 곳. ‘북쪽의 모퉁이’=진리가 희미함에 있는 곳...

겔46장-‘북’=외적 인간에서 신앙의 진리의 상태.

시89편-‘북’=진리에 관하여서 희미한 상태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

예1:13,14-‘북’=신앙의 진리에 관련하여 희미한 상태, 또한 거짓으로부터 짙은 어둠.

슌14:4-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북에서’라고 말해진다.

예47:2-‘북으로부터 나와 올라가는 물들’=지옥으로부터의 거짓들.

계21:13-‘북쪽에 문이 셋’=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이를 수단으로 새 교회 안으로의 입문이 있다는 것, 이는 지혜가 덜한 이들, 또는 진리에 애착함 이 덜한 이들을 위해서이다.

예6장-‘북’=악으로부터의 거짓.

예1장-‘북’=거짓, 여기서, 거짓, 이로부터 악이 있다.

이43장-‘북과 남’=신앙의 진리가 희미함에 있는 곳, 그리고 명료함에 있는 곳.

예31장-‘북의 토지’=무지로부터의 거짓이 있는 곳.

예50장-‘북으로부터 오는 백성’=악으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이들.

단8:4-숫양이 돌진한 ‘서, 북, 남’은 선행과 선행에서 파생된 신앙에 있는 이들이 받는 선들과 진리들, 그리고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악들과 거짓들을 흠뜨린다.

창28:14-진리가 많이 붙어남이 ‘북과 남을 향하여 그 자체 흠뻑려짐’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슌6장-‘북’에 의해 그들과 더불어 진리의 희미함이 뜻해진다.

겔26:7-‘북으로부터 그가 온다’에 의해 모든 거짓이 오는 근원이 의미된다. 특히 지옥으로부터 그것이 발생한다.

예6장-‘북의 토지’=거기서부터 거짓들이 있다...그이유가 ‘북’은 진리들로부터 먼 것이 의미되기 때문.

겔38:15-‘북쪽 측면’=선들과 진리들로부터 먼 것. 고로 이로부터 악의 거짓이 온다.

예50장-‘북의 토지’=거짓 만 있는 지옥.

암8:12-‘북쪽으로부터 동쪽으로’=진리와 선이 있는 모든 측면. ‘북’=진리가 희미함에 있는 곳.

슌2:13-‘북’에 의해 자연적, 감각적 인간이 의미된다, 그리거 거기에 과학물이 있다.

이41:25-‘북’=진리의 희미한 것. 고로 교회 밖에 있는 이들...

슌14:4-‘북’=악의 거짓에 있는 이들, 그 이유는 어둠에 있기 때문.

시48:2-‘북의 측면들’=천적 선으로부터의 진리들...그 이유는 천국에서, 주님의 천적 왕국에 있는 이들이 동쪽에 거주하기 때문. 그리고 이 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은 거기서 북쪽을 향하여 있다.

이14:13-‘북의 측면들’=주님의 천적 왕국에 있는 진리들.

예3:12-‘너희는 북에 소리질러라’에 의해 거짓들에, 이 거짓에서 파생된 악들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어진다...그 이유는 이들은 영계에서 북쪽 방위에 위치하기 때문.

겔20:47-‘북’=교회의 외면 또는 최말단 것들...그이유는 영계에서 북쪽 방위에는 주님으로부터의 진리에 희미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 위치하기 때문. 그리고 그들

분노-분담자-분량-분배하다-분별하다-불

아래 지옥들에서 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있다, 거기는 어떤 자연적 발광체도 없어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자기의 거짓들을 확증한다.

예3:18-‘북의 토지’=무지의 상태, 또한 종교 속의 거짓.

예6:1-‘북’으로부터 ‘악이 내다보고 있다’=악의 거짓.

예47:2-‘북으로부터 물들’=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교리의 거짓들.

예46:6-‘북쪽에서 그들이 걸려넘어지고 추락한다’=이런 거짓들의 근원.

시89:12-‘북과 오른손을 당신께서는 창조하셨다’..이런 것들, 또는 그것들 안에 있는 이들이 북쪽과 남쪽에 있다...‘북쪽과 오른손’이라 말해진다.

습2:13-‘북 위에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손을 뻗치실 것이다’=거짓에 있는 교회.

예10:22-‘북의 토지’=악의 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있는 곳.

예31:8-‘북’=거짓들.

예6:22-‘북으로부터 오고 있는 백성’=악의 거짓들에 있는 이들. 그리고 추상적으로, 그 당시 황폐된 교회에서 있는 악의 거짓들.

이43:5-‘북’=희미함에 있는 교리 속의 진리, 이는 진리에 무지함으로부터 있는 거짓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여전히 진리들을 갈망한다.

이14:31-‘북’=지옥.

분노 (wrath)

* anger, fury도 참조.

창49:7-‘그들의 분노, 그것이 격렬했기 때문...’=진리로부터 떠나는 것.

출15:7-‘당신은 당신의 분노를 내보내신다’=탐욕들의 격렬함, 그리고 악한 자와 더불어 폭력을 입히기를 노력하는 것. 그이유가 ‘분노’, 주님 탓으로 할 때,=신성에 자신을 반대되게 하는 이들의 노력을 파괴함과 처벌함. 이것은 마치 분노와 노염이 신성으로부터 였던 것처럼 나타난다, 그럼에도 그것은 그들 자신들 안에 있다.

계14:10-‘그분의 분노의 잔’=진리를 통하여 선이 있다.

이45:24-‘여호와에 맞서 격노해지는 것’=악으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는 것.

계16:19-‘그분의 노염의 분노의 잔’=악의 끔직한 거짓들을 통하여 있는 그것의 황폐함.

분담자 (partaker)

계18:4-‘너는 그녀의 죄들의 분담자로 있지 말라’는 것=그들의 혼들이 이 종교가 내뿜는 역겨운 것과 결합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

분량 (measure)

* 재다(measure)도 참조

계6:6-‘밀 한 분량에 한 폰’=사랑이 아주 드물게 있다는 것. ‘보리 세 분량에 한 폰’=선행이 아주 드물다는 것.

계6:6-‘밀 한 분량에 한 폰, 보리 세 분량에 한 폰’=교회의 순수한 선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교회의 진리 역시 마찬가지로이다는 것. 이는 ‘분량의 의미로부터 명백하다, 이는 그립인들과 더불어 밀과 보리를 위한 측정치이다, 그래서 분량=평가액, 추정치의 품질. 그 이유가 말씀에서 분량에 의해 선과 진리에 관한 품질이 의미되어지기 때문.

분배하다 (distribution)

창14:15-‘그는 밤에 자신을 그들에게 분배했다’=외견상의 선과 진리였던 그늘(shade).

분별하다 (discern)

출11:7-‘여호와께서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족을 분별하신다는 것을 너희로 알도록...’=악 안에 있는 이들과 선 안에 있는 이들의 차이의 본성.

불 (fire)

겔10:2-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한 탐욕들에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 이 구절에서 ‘도성에 흩뿌린 불’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66:16-‘불’=탐욕의 형벌.

이43:2-‘불과 불꽃’=악들과 탐욕들.

겔1:13-‘불’=사랑

시104:4-‘타오르는 불’=영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천적인 것 (the Celestial Spiritual).

레6:12,13, 16:12-14, 9:24-‘불’=사랑인 바, 불은 주님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 번제단의 불로부터서도 분명해진다. 결코 꺼지는 일이 없는 이 불은 주님의 자

불

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론이 자비적으로 들어가기 전, 그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해야 했다. 이는 예배가 주님에 의해 열납되고 불이 천국으로부터 내려와져 번제물을 사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서였다.

레10:1,2-또한 '불'=자아 사랑과 이 사랑의 탐욕, 천적 사랑이 동의 할 수 없는 사랑; 그러므로 아론의 두 아들들은 불에 의해 살라져 죽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상한 불(낮선 불, 주님이 모르시는 불)로 향을 태웠기 때문. '이상한 불'=자아와 세상 사랑의 모든 것, 그리고 이 사랑들로부터의 모든 탐욕.

겔1:27-'그분의 허리 위쪽의 불의 외관은 불꽃이 튀는 석탄'=사랑으로부터의 천적인 것; '그분의 허리 아래쪽 주변의 불의 빛남은 구름에 있는 활 같다'=영적 왕국으로부터의 천적인 것.

나3:15-'불'=탐욕의 형벌.

창15:17-'불의 홑불'=가장 더러운 악, 이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소유할 것이다.

계16:8,9-자아 사랑과 그것의 탐욕들이 '사람들이 불로 태워졌고, 큰 열로 그을려졌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창19:24-'유황'=자아 사랑으로부터의 악들의 지옥; 그리고 '불'=거기서부터 초래된 거짓들.

창22:6-'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취했다'=사랑의 선과 신앙 속의 진리.

창22:7-'보라, 불과 장작...'=사랑과 정의가 현존하는 것.

겔5:2-'불로 태워짐'=색욕으로 파멸함.

마25:41-그들이 떠나 들어가야 하는 '영원한 불'은 초보 수준의 불이 아니고, 양심이 고뇌하는 수준의 것도 아니다; 이것은 악으로부터의 현세에의 강한 욕망이다; 인간과 더불은 현세에의 욕망(concupiscense)은 육체의 생명에서 그를 살라버리는 영적인 불이고, 저 세계 삶에서 그를 고문한다; 이 지옥의 불에 의해 그들은 서로를 끔찍한 방법들로 고문한다.

단7:9,10-'불의 불꽃' 그리고 '불이 흐름'은 신성한 사랑의 선을 표현한다.

단7:9-주님의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이 여기서 '불의 불꽃'으로 보여졌다.

계19:12-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

겔20:47-'불'과 '불꽃'=악과 거짓의 탐욕, 이것은 교회의 모든 선과 진리를 소멸하여 황폐되게 한다

계19:20, 20:10,14,15, 21:8-'불과 유황'=자아 사랑,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탐욕; 그 이유가 자아 사랑과 그것의 탐욕은 초보적인 불이 아닌 영적인 불, 즉 인간에게 그의 생명을 주는 불 밖에 더 아니다. 사랑들이 생명의 원천을 이루는 불임은 꿈꿈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사실이다. 천국들에서는 거룩한 불로 의미되는 불이 있고, 지옥에서도 그들의 불이 있다. 초보적인 불은 두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계8:7-'피와 뒤범벅된 불'=거짓화된 진리들과 더불은 탐욕들의 불.

출9:23-'불이 땅에서 걸었다'=탐욕들의 악들이...자연적 마음의 가장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 그 마음들을 소유하고 있다.

출12:8-'불로 굶다'=사랑의 선...그 이유가 '불'=사랑.

출12:10-'나머지를...너희는 불로 태울 것이다'=...시험들을 경험하는 것. 시험이 '불로 태움'에 의해 의미된 이유는 순수해짐이 불을 수단으로 결과되어지기 때문; 그리고 또한 인간이 시험 안에 있을 때, 그는 불인 그의 탐욕들 안으로 놓이기도 하기 때문.

말3:2-'제련자의 불'=시험, 이를 수단으로 순수해짐이 있다.

단7:9-'타고 있는 불'=사랑과 선행으로부터의 것들.

출35:3-'안식일에 불을 지피는 것'은 금하여졌는데, 그 이유는 '불'에 의해 생명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의미되기 때문; 그리고 '불을 지피는 것'은 자아로부터 생명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출19:18-'여호와께서 불 안에서 그것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에'=거기 천적 사랑 안에 신성. (그이유가) 불 안에 여호와가 있으신 바=신성한 천적 사랑. '불'=사랑.

울2:3-'그것 앞에서 삼키는 불'=악의 욕망; '그것 뒤를 따라 타오르는 불꽃'=거기서 파생된 거짓의 욕망.

출22:5(또는 6)-'불이 번져 버릴 때'=악의 애착으로부터 성남; (그이유가) '불'=사랑; 여기서 악의 사랑과 그것의 애착; (그리고) 인간이 사랑한 것이 공격당할 때,

불

불길 같은 것이 폭발되듯 튀어나간다, 그리고 다 태워 버린다. 이로부터 성남이 불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타는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시118:12-'가시들(thorns)의 불'=악으로부터 있는 현세에의 욕망(concupiscense).

이47:14-'불'과 '불꽃'=자아의 사랑.

신13:16-'전리품과 도성을 불로 태울 것이다'=자아를 사랑함으로부터의 악.

막9:49-'불로 소금치는 것'=진리를 위하여 선을 갈망함.

겔39:9-'칠년 동안 그것들을 가지고 불을 지피는 것'=자아와 세상 사랑들을 수단으로 완전하게 파멸됨.

사9:15-'가시나무(bramble)로부터 불'=현세에의 강한 욕망으로부터의 악

시11:6-'불과 유향'=자아와 세상의 사랑으로부터의 악들.

레10장-'향로에 있는 이상한 불'=말씀보다는 어떤 다른 근원으로부터 있는 교리. '불'=사랑의 선..

신9:21-'금송아지를 태운 불'=자아와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악.

출24:17-'여호와와 영광의 모습은 삼길듯한 불 같았다..'=사랑의 선으로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천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 그러나 내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외적 인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상처와 황폐함만 있다..'불'=양 측면의 의미에서의 사랑, 신성한 사랑 자체.

계9:17-'불'=악의 지옥의 사랑.

계8:8-'불에 타는 큰 산'=자아 사랑.

이33:11-'불'=현세에의 강한 욕망, 악으로부터 있고 파괴한다.

시104:4-'그것들을 불꽃이는 불로 만드는 것'=신성한 선, 또는 신성한 사랑의 영접

마3:11-'불로 세례하는 것'=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거둬내는 것.

출29:14-'너는 진영 밖에서 불로 태울 것이다'=이런 것들은 지옥에 보내기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아 사랑의 불로 살라야 한다는 것.

출29:34-'너는 나머지를 불로 태울 것이다'=그것들의

흠뜨림...인간에게 어울리는 사랑을 수단으로, 고로 이런 사랑들의 악들을 수단으로.

이9:19-'불을 위한 식품'=자아와 세상의 사랑으로부터의 악들 또는 탐욕들을 자기 것 만듦.

출32:20-'그는 불로 (송아지를) 태웠다'=온전히 자아와 세상의 사랑으로부터, 이것은 지옥으로 정죄되어져 있다. '불'=천적인 사랑, 이는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지옥의 사랑, 이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다. 이로부터 '불로 태워지는 것'=자아와 세상의 사랑들로 온전히 채워지는 것, 고로 지옥에 정죄되어 있는 것..

출32:24-'나는 그것을 불에 던졌다'=자아와 세상의 사랑들 안으로.

계3:18-'불에서 단련된 금'=천적 사랑의 선. (=순수한 선)

계8:5-'천사는 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로를 채웠다'=천적인 사랑이 들어 있는 영적인 사랑.

계8:7-'우박과 불'=지옥의 사랑으로부터의 거짓.

계9:17-'불길 같은 가슴받이'=지옥의 사랑으로부터의 상상적이고 환상적인 그들의 변론.

계9:17-'그들의 입으로부터 불이 나왔다..'=그들의 생각들과 대화들, 내면을 들여다보건대, 자아와 세상 사랑 외에 더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겔1:27-'그분의 허리들 주위의 불'=천적인 사랑. (=그분의 신성한 사랑)

계10:1-'그분의 발들은 불의 기둥들 같다'=신성한 사랑 측면에서의 주님의 신성한 자연, 이것이 모든 것들을 받쳐준다.

계11:5-'불이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갈 것이다'=지옥의 사랑(이는 실지로 두 증인으로부터가 아니고 지옥의 사랑 안에 있는 이들로 부터 이다.)

계13:13-'그는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만든다'=그들의 거짓들이 천국의 진리들이라는 증거들.

계14:10-'불과 유향으로 고통당할 것이다'=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탐욕들.

계14:18-'불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천사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을 보호한다.

계15:2-'불과 뒤섞인' 종교와 예배, 그러나 생활의 선

불결한

은 없다...'불' 여기서=악으로부터의 사랑,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활의 악.

계18:8-'그녀는 불로 쟁그리 태워질 것이다'=그들은 주님, 그리고 그분의 천국과 교회를 미워할 것이다.

계19:20-'유황으로 타고 있는 불못'=이런 거짓의 사랑들, 그리고 동시에 악의 탐욕들 안에 있는 자들이 있는 지옥.

계20:9-'불이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와서 그들을 살렸다'=그들은 지옥의 사랑의 현세에의 욕망에 의해 멸망하였다.

단7:10-'불의 시내가 나갔다'=사랑의 신성한 선.

시66:12-'불 안으로'=자아 사랑으로부터 있는 악들 안으로.

창15:17-'불의 쬐불'=자아로부터의 섬뜩한 사랑.

예23:29-말씀이 '불 같이' 있다고 말해진다. 그 이유는 '불'=사랑의 선.

시148:8-'불과 우박'=자연적 인간의 사랑들로부터의 기쁨.

이43:2-'불을 통과하여 가되 타지 않는다'=악들이 상처받지 않는다.

계8:8-'불로 타는 큰 산'=자아의 사랑과 거기로부터의 자신 교유의 총명.

속13:9-'불로 입증하는 것'=사랑의 애착을 수단으로; 그이유가 만일 진리가 이것과 일치 않는다면, 그것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

율3:3-'불'=말씀의 선이 간음질화 되었다.

겔28:14-'불의 돌들'=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계16:8-'불로 그을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함'=갖가지 종류의 악들로부터의 거짓들을 위한 색욕 또는 탐욕, 결과적으로 악을 위하여, 타인에게 상처주기 위하여.

계18:8-'그녀는 불로 태워질 것이다'=이것이 악마의 사랑인고로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불결한 (unclean)

레22:6-불결한 것을 만진 혼은 저녁 때까지 불결하다.

호9:3-'그들은 아시리아에서 불결한 것을 먹을 것이다'=추론함으로부터 있는 모독적이고 불순한 것들.

겔24:11-'불결함'과 '더경이'=악과 거짓.

마12:43-'불결한 영'=인간과 더불어는 생명의 불결함,

또한 그 사람과 더불어 있는 불결한 영들. 그이유가 불결한 영들은 인간의 생명의 불결함에 거주하기 때문.

마15:17-19-고로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를 불결해지게 하지 않는다...의지 안으로 들어간 것들이 그를 불결해지게 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그가 자기 것되게 했기 때문.

애1:9-(옷의) 술에 불결함이...=행위들과 말함들에, 고로 극단(extremes)에.

레7:18-21-...그이유가 모든 이런 외적인 불결함은 인간과 더불어는 악들인 내적 불결함을 표현했기 때문, 즉 이런 악들은 그의 의지 속에 있고, 이는 실제의 생활에 의해 자기 것 되고 만다.

레11:37,38-이런 불결한 것들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악들과 이 악에서 파생되는 거짓들이 의미되어진다. 이것은 지옥으로부터 있다. 불결한 것들의 각각 특수한 어떤 악. 그이유가 악들은 인간을 불결해지게 하기 때문, 그것들이 그의 혼으로 주입되기 때문. 그리고 더욱이 그들 심정들로부터의 악들은 악령들과 악귀로부터 쏟아져나온다. 그리고 악의 설득에 응하는 이들에게 주입된다. 이런 접촉 전염이 불결한 것들을 만짐에 의해 의미된 것이다.

계17:4-'그녀의 매춘의 불결함'=말씀의 선과 진리를 더럽힘

계21:27-'불결한 어떤 것도 그것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불결한 것'에 의해 영적 매춘이 의미되어진다. 이는 선에 섞임질함, 말씀 속의 진리를 왜곡함이다.

이52:1-'할례받지 않은 자와 불결한 자는 더 이상 네 게로 오지 않을 것이다'=악들과 거짓들에 있는 이들.

마12:45-'일곱 불결한 영들'=악으로부터의 모든 거짓들. 고로 선과 진리의 완전한 파괴.

속13:2-'불결한 영'=교리의 거짓들로부터 튀어나오는 악들.

겔36:25-'나는 네 위에 깨끗한 물들을 뿌릴 것이다, 하여 너는 모든 너의 불결함으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깨끗한 물들'=순수한 진리들. 거짓들은 불결함이라 불린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악으로부터 있기 때문, 그리고 악을 생산하기 때문.

계16:13-'개구리 같은 세 불결한 영들'=신성한 진리에

불꽃-불명료한-불명예-불모-불뱀-불법

맞서는 단지 거짓들로부터의 추론들. ‘불결한 영들’=지옥으로부터 있는 악의 거짓들. 그 이유가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은 악의 거짓으로부터 불결하기 때문. 불결한 모든 것들은 악으로부터 있는 거짓들로부터 생겨나기 때문. 깨끗한 모든 것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 있기 때문.

계18:2-‘불결한 모든 영이 소유하고 있다’=거기에는 말씀의 왜곡된 진리들로부터의 거짓들 밖에 더 없다는 것... ‘불결한’=추악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특히 지배욕으로부터. 그 이유가 이것이 지옥에서 불결함을 만들기 때문.

불꽃 (flame)

창3:24-‘그 자체 회전하는 검의 불꽃’=사악한 탐욕들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설득들을 지닌 인간 고유의 사랑.

* 불꽃은... 열과 빛의 본질이다, 그 이유가 그것들이 불꽃으로 나오기 때문.

이13:8-‘불꽃들의 얼굴들’=탐욕들.

출3:2-‘덤불 한가운데로부터 불의 불꽃’=과학적 진리에 있는 신성한 사랑. ‘불의 불꽃’=신성한 사랑.

단7:9-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이 불의 불꽃 같이 여기서 보여졌다.

계19:12-고로 ‘불의 불꽃’은 말씀에 있는 신성한 진리이다, 이는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이다.

계1:14-‘불의 불꽃’같은 눈=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시29:7-‘불의 불꽃’=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을2:3-‘그들(him) 뒤를 태우는 불꽃’=거짓의 바램.

이47:14-‘불’, 그리고 ‘불꽃’=자아의 사랑.

시29:7-‘불의 불꽃’에 의해 거짓에 대한 애착이 의미되어진다.

계1:14-‘그분의 눈은 불의 불꽃 같았다’=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불의 불꽃’에 의해 영적 사랑, 즉 선행이 의미되어진다. 그러므로 주님을 서술할 경우, 그것은 신성한 사랑이다.

시104:4-‘불꽃이는 불’=사랑으로부터의 선.

시105:32-‘불꽃들의 불’=세상의 사랑.

겔20:47-악으로부터의 거짓을 사랑함에 의해 교회의 황폐와 파멸이 ‘비통한 불의 불꽃’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단11:33-‘그들은 검과 불꽃에 의해 망할 것이다’=거짓들과 거기서 파생된 악들로부터 멸망함.

불명료한 (obscure)

* 어두운(obscure)을 보라.

불명예 (ignominy)

* 치욕(reproach)을 보라.

불모 (barren, 열매를 못맺음)

* 아이를 못 낳음도 참조

* ‘불모’=진리들과 선들이 결핍인 것.

왕하2:19-‘불모의 토지’=교회의 선이 살아있지 않음.

불뱀 (fire-serpent)

이14:29-‘날으는 불뱀’=자아 사랑 속에 있는 탐욕.

이14:29-‘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다’=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에 맞서는 악의 거짓들로부터의 추론들.

신8:15-‘불뱀들’=감각 측면으로부터의 거짓들.

불법 (iniquity)

* 모든 불법은 ‘피’이다. 그 이유가 모든 불법들의 원천이 미움이기 때문이다.

창4:13-‘가인이 말했다,...나의 불법은 가지고 다닐 수 있기에는 너무나 크다’=동시에 자포자기함.

창19:15-‘너는 이 도성의 불법 안에서 태워지지 않도록...’=그들은 거짓으로부터의 악들 안에서 멀해지지 않도록.

마24:12-‘불법이 번창하기 때문에’=신앙으로부터의 거짓에 따라서.

창44:16-‘하느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다’=그들은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했었음을 고백.

출28:38-‘아론은 성인들의 불법을 짊어질 것이다’=주님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거짓들과 악들의 제거.

출34:7-‘불법, 위법, 죄를 참아내신다’=악들과 거짓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거함.

출34:7-‘조상들의 불법을 아들들 위에, 아들들의 불법을 손자들 위에’=긴 시리즈로 있는 악들과 거짓들을 거

불성실하게-불성실한-불쌍히 여김-불어나다-불이 붙다

절하고 지옥에 떨어짐.

출34:9-‘당신께서 우리의 불법, 죄에 호의를 베푸시기를...’=악들과 거짓들에 풍부한 그들의 내면들이 제거되기를.

이32:6-악들이 ‘그의 심정이 행하는 불법’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호7:1-‘에브라임의 불법’=이해함 속의 거짓들, ‘사마리아의 악들’=의지 속의 악들.

시51:2-‘불법으로부터 씻는 것’=거짓들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악들로부터.

이41:29-교리, 종교, 그리고 예배의 악들이 ‘모든 것이 불법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호9:7-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수많은 불법’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호13:12-곡해된 이해함으로부터의 거짓이 ‘에브라임의 불법’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그리고 거짓으로부터의 악은 ‘그의 죄’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1:4-‘불법으로 무거워진 백성’=파생되는 거짓들.

마13:41-‘불법을 행하는 이들’=악하게 사는 이들.

출28:43-‘그들이 불법을 저질러 죽지 않도록’=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부터의 거짓들이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이40:2-‘그녀의 불법은 종료되었다’=고로 악이 주님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것.

불성실하게 (perfidously)

출21:8-‘불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반대되는 것, 또는 신성한 질서의 법칙에 반대되는 것...‘불성실하게 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말씀에서 판에 박힌 문어체인데, 이는 내적 의미에서 천국에 있는 진리와 선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것이다.

예9:2-‘불성실한 무리들’=선에 관한 지식들을 왜곡하는 이들.

이48:8-‘불성실하게 행동하는 것’=계시된 진리들에 반대되는 것.

불성실한 (unfaithful)

계21:8-‘불성실한 자’=이웃을 향해 선행이 없는 이들.

불쌍히 여김 (compassion, pity)

* 자비(mercy) 참조.

호2:19-‘자비함과 불쌍히 여김에서’

창43:30-‘그의 불쌍히 여김이 움직여졌다’=사랑으로부터의 자비...원어에서, ‘불쌍히 여김’은 가장 깊고 가장 부드러운 뜻을 뜻하는 단어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출2:6-‘그녀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신성으로부터의 권고. ‘불쌍히 여김을 가지는 것’=주님으로부터 선행이 유입됨. 그이유가 사람은 선행으로부터 비참한 신세에 있는 누군가를 볼 때, 불쌍히 여김이 일어나기 때문, 그리고 본문의 경우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인 바, 이것은 권고이다. 지각에 있는 이들은 자기들이 불쌍히 여김을 느낄 때, 도움을 주도록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63:15-‘내부의 동요’는 선을 서술하고, ‘불쌍히 여김’은 진리를 서술하고 있다.

민6:25-거짓들로부터의 보호가 ‘네게 불쌍히 여김을 가지는 것’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호1:7-‘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 그들의 하느님이 구해주심’=주님에 의한 구원.

불어나다 (increase)

* 성장하다(grow)를 참조

불이 붙다 (kindle)

창30:2-‘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하여 불 붙었다’=자연적 선의 부분이 분개함.

창39:19-‘그의 분노가 지퍼졌다’=영적 진리로부터 돌아서버렸다.

출35:3-‘불을 붙이는 것’=자아로부터 생명인 것.

출22:6-‘불을 지핀 자가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악의 애착으로부터 노역을 통하여 가져가버린 것을 회복함... ‘피겨나간 불’=악의 애착으로부터 노역. 그러므로 ‘불을 지피는 것’=가져가 버리는 것, 또는 그것 때문에 살라져버리는 것. 그리고 ‘지퍼지는 것’=가져가 버려진 것, 또는 살라지고만 것.

겔39:9-‘칠 년 동안 그들과 불을 지피는 것’=자아와 세상 사랑의 탐욕들을 통하여 완전히 파괴됨.

겔39:9-‘불을 지피는 것’=악에 의해 살라짐.

예6:1-‘불을 지피는 것’=악한 사랑들에 의해 교회가 파괴됨.

눅12:49-‘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할까’

불집게-불타다

불집게 (tong)

* 부젓가락(tong)을 보라.

불타다 (burn)

이34:9-‘불타는 역칭’은 끔찍한 탐욕들을 나타내고 있다.

신29:24-‘노염, anger’은 관계적으로 악에 관련하여, ‘분노, wrath’는 거짓에 관계하여 말해진다. 그리고 ‘노염의 불타는 열기’는 악과 거짓 모두에 관련하여 말해진다.

출3:2-‘오! 떨기나무가 불로 타고 있었다’=과학적인 진리가 신성한 사랑의 선으로 가득차 있다.

호7:4-7-‘불타는 것’, ‘따뜻해져가는 것’, ‘불꽃으로부터의 불’은 탐욕들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

말3:19-‘화덕 같이 불이 탐’은 악으로부터의 탐욕을 나타낸다.

계8:8-‘불로 태우는 산인 듯’=지옥의 사랑으로부터의 나타냄.

계8:10-‘등불 같이 타는 큰 별이 천국으로부터 떨어졌다’=지옥의 사랑으로부터 올라오는 자만으로부터 자아의 총명이 나타남,...‘별’, 그리고 ‘등불’도 총명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자기 고유의 총명을 의미한다. 불타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 그리고 모든 자아의 총명은 자만으로부터이다, 그리고 이 자만은 지옥의 사랑에서 올라온다. 이것이 ‘불타는 산이다.’

계8:10-‘등불처럼 타는 것’=자아의 사랑으로부터 왜곡하는 것.

출29:13-‘너는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다’=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태우는 것’=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점화하는 것...그이유는 제단 위의 불=신성한 사랑이기 때문.

출29:18-‘태우는 것’=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에 결합하는 것.

* ‘숫양’을 통째로 제단에서 태움’=그분의 인간의 내적인 것과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이 하나됨인 이유는 제단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표현물이고, 번제물이 태워지는 제단의 불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을, 그리고 태워진 숫양 =인간과 더불어 내적인 것, 고로 주님의 인간의 내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

출30:20-‘태우는 것’, 또는 제물=예배.

창11:3-‘그것들을 구워만들기 위해 불태우자’=자아 사랑으로부터의 악들. ‘불태움’, ‘불’ 등등은 탐욕들을 서술한다, 특히 자아 사랑으로부터 있는 이들이다.

출21:25-‘불태움에는 불태움’=만일 의지 측면에서 내면적으로 사랑으로부터인 애착의 어떤 것이다면...‘불태움’=사랑의 선이 꺼짐, 또는 피해를 입음.

출21:25-‘태움’=사랑으로부터의 선이 상처를 입음인 이유는 ‘불’에 의해 사랑이 의미되기 때문, 그리고 사랑의 선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자아 사랑으로부터의 강렬한 욕망이기 때문, 이 욕망이 여기서 ‘태움’이라 불리워진다. 강한 욕망이 이사야3:24에서 ‘태움’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아름다움 대신 태워짐’...‘태움’ 여기서=자아 사랑으로부터 강렬한 욕망의 악.

이3:24-‘태워짐’=자아 사랑의 악을 통하여 그것을 살라없앴.

이3:24-‘아름다움’ 대신 ‘태워짐’=총명 대신 아둔함. ‘태워짐’=인간 고유의 총명의 자만으로부터의 미친 것, 이는 통째로 아둔함.

예51:25-‘불태워지는 산’=자아 사랑.

예32:29-‘성읍을 태우는 것’=거짓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 안에 있는 이들이 파괴되고 황폐해짐.

계8:7-‘나무들의 삼분의 일이 불태워졌다’=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탐욕들로부터의 악에 의해 파괴되었다.

겔39:9,12-‘불을 붙이는 것’, 그리고 ‘태우는 것’=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의 탐욕들을 통하여 쓸모없게 되는 것.

계17:16-‘불로 그녀를 태우는 것’=이 광적인 신앙이 모독적인 바 몹시 싫어함,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 안에서 파괴함...이러므로 거룩한 것의 모독에 대한 처벌이 ‘태워짐’이었다.

계18:9-‘그들이 그녀를 태우는 연기를 볼 때’=그들이 모독적인 것으로 바뀐 것들을 볼 때.

계18:9-‘태워짐’=모독한 것.

예51:25-‘태움’=자아 사랑을 말한다.

예36:29-‘태워진 두루마리’=말씀. 말씀이 왜곡되고 섞임질될 때 태워진다고 말해진다. 이 태워짐은 악으로부터의 거짓의 강력한 욕망을 통하여 결과되어진다.

불행-붉은-붓-붓다-붙들다-붙잡다

신29:23-‘온 땅의 태워짐’=자아 사랑을 통한 교회의 황폐.

나1:5-‘땅, 세상, 그 안의 거주민, 이것이 태워질 것이다’에 의해 교회는 지옥의 사랑을 통하여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 모두에 관련해 멸해질 것이다가 의미되고 있다.

계18:9-‘태워짐’=이런 사랑들로부터 분출하는 악들의 처벌과 정죄.

예17:6-‘바싹 말라진 장소’=선들을 황폐되게 하다.

창41:23-‘동풍에 바싹 말라짐’=탐욕들로 꺾침.

출29:18-‘여호와께 불로 만든 제물’=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모든 것들.

계1:15-‘마치 불가마에서 달아오른 것처럼’=신성한 선...‘불’, 또는 ‘달아오름, 달아 빛을 냄’=선.

시51:19-‘태워바치는 공물’=사랑.

불행 (misery)

비참한 (misery)

겔16:49-‘자비 없음이 ‘그들은 비참한 신세이고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해주지 않는다’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창31:42-‘나의 비참함’=시험들.

계3:17-‘불행함’=생활 안에 심어진 진리 없음. 고로 선이 없음.

출32:18-‘불행한 외침의 소리를 나는 듣는다’=탄식하는 그들의 내면의 상태.

계3:17-‘그리고 불행하고 가난한’ 그들이 진리들과 선들 없이 있는 것. ‘불행하고 가난한’은 말씀의 영적 의미에서는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 없이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그이유가 이들이 영적으로 불행하고 가난하기 때문.

시37:11-‘불행한 자’가 이 구절에서는 세상에서 시험들에 있는 이들을 뜻한다.

시74:19-‘불행한 자’란 거짓들이 창궐하는 이들, 이를 걱정하고 이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시74:19-‘불행한 자의 생명’은 악들과 거짓들에 짓눌린 영적 생명이 뜻해진다.

이14:32-‘그녀 안에서 백성의 불행한 자가 희망이 있

을 것이다’=자신들로부터는 지혜가 없다는 이들, 그리고 이런 거짓들에 맞서 시험을 극복하는 이들과 더불어 총명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붉은 (red)

* 빨강(redness)을 보라.

붓 (Put)

창10:6-‘붓’ 등등=많은 나라들, 이를 수단으로 영적 지식들, 지식들, 그리고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속에 있는 예배들.

예46:8-‘붓’=감각의 외관에 의거 있는 글자 의미로부터의 영적 지식들.

겔27:10-‘붓과 붓’=추론의 도움과 더불어 진리들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적 지식들. ‘붓’=말씀의 외면의 영적 지식들.

붓다 (pour)

* 음료 공물(헌주, 제주, drink-offering)을 보라

붙들다 (hold)

계2:1-‘일곱 별들을 붙들고 계신 분...’=그분으로부터 있는 모든 영적 지식들.

계2:13-‘너는 내 이름을 붙들고 있다’=주님의 인간 안에 신성이 있음을 인정함

붙잡다 (catch)

겔29:7-‘손바닥으로 붙잡는 것’=그 안에서 신뢰하는 것.

창25:26-‘그의 손이 예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있다’=가장 낮은 자연적 선, 이것에 어떤 힘이 부착하고 있다... ‘붙잡는 것’=부착되는 것.

창39:12-‘그녀는 그를 그의 옷에서 붙잡았다’=영적이지 않은 진리가 영적 진리의 최말단에 그 자체를 적용하였다는 것...‘붙잡는 것’=여기서는 그 자체 적용한 것.

출4:4-‘네 손을 내밀어 꼬리를 붙잡아라’=감각 평면의 최말단으로부터 승강하는 힘...승강함이 ‘내밀고 붙잡음’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출22:7-‘그리고 도둑이 붙잡혔다’=회상함. ‘붙잡는 것’, 진리들과 과학물들에 관해 말해질 경우, 기억 한쪽에 놓아둠=회상함.

브누엘 (Penuel)

창32:31-‘그리하여 그는 브누엘을 지나갔다’=진리가

블레셋 사람

선 안에 있는 상태.

브니엘 (Peniel)

창32:30-‘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시험들의 상태...‘브니엘’, 원어에서의 경우,=‘하느님의 얼굴들’을 뜻한다. ‘하느님의 얼굴들을 보는 것’=가장 비통한 시험들을 견뎌내는 것.

창32:30-역사적 측면의 내적 의미에서,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에 의해 그것들이 표현들을 옷입고 있는 상태가 의미되어진다...‘브니엘’, 이 의미에서=표현들을 옷입는 것...‘브니엘’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이 말들, ‘내가 하느님을 대면하였고, 그리고 내 혼이 구원되어 있기 때문에’에 의해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를 수단으로 주님이 표현적으로 현존하시었음이 의미되어진다.

브드엘 (Bethuel)

창22:22-‘브드엘’, 등등=다양한 광신적 신앙과 예배들.

창22:23-‘브드엘이 리브가를 낳았다’=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에 대한 그들의 애착.

창24:23-이 구절의 ‘아버지’, 즉 브드엘=곧바른 이방인들에게 있는 것과 같은 선행으로부터의 선. 그이유가 리브가가 표현하는 진리에 애착함 의 참 근원이 이런 선이기 때문.

창28:5-브드엘이 이 구절의 경우 ‘아람 사람’ 이라 별명이 추가된 이유는 ‘아람’, 또는 ‘시리아’에 의해 선과 진리에 관한 영적 지식이 의미되기 때문.

브라테 (phrath)

* 유브라테를 보라

브리스족 (Perizzite)

창13:7-‘가나안족과 브리스족이 그 당시 그 토지에 거주하고 있었다’=외적 인간에 있는 악들과 거짓들...‘브리스족’=(어머니의 유전적 악으로부터의) 거짓.

창15:20-‘헷족과 브리스족, 르바족’(주님의 왕국으로부터 정녕 축출되어야만 하는) 거짓으로부터의 설득들.

브살렐 (Bezaleel)

출31:2-‘보라 나는 유다 지파, 훌의 아들(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사랑의 선 안에 있는 이들, 이들과 함께 교회가 설립되었다...‘브살렐’=사

랑의 선에 있는 이들. 이들이 여기서 ‘브살렐’로 표현된 이유는 그가 유다 지파에 속했기 때문이다.

출31장-이 장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일들을 하도록 여호와에 의해 두 사람이 부름 받고 있다. 즉 유다 지파로부터는 ‘브살렐’, 단 지파로부터는 ‘오홀리압’이다. ‘브살렐’에 의해 천적 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 ‘오홀리압’에 의해서는 신앙으로부터 선과 진리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고 있다. 천적 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은 가장 깊은 천국과 교회 안에 있다. 이에 비해 신앙으로부터 선과 진리에 있는 이들은 거기로부터 최말단의 천국과 교회 안에 있다. 고로 이 두 사람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어질 수 있는 복합체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브엘 (Beer)

민21:16-여기에서 이름 ‘브엘’, 그리고 이름 ‘브엘세바’, 그리고 그것의 의미, 이는 교리 자체이다.

민21:16-18-‘브엘’, 원어에서, ‘우물’을 뜻한다, 그리고 ‘우물’=말씀, 그리고 말씀으로부터의 교리.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이다

브엘-라해-로이 (Beer-lahai-roi)

창24:62-‘이삭이 브엘-라해-로이로부터 왔다’=합리성으로부터의 신성한 선(Divine Good rational), 이는 신성한 진리 자체로부터 태어난다...‘브엘-라해-로이’, 원어에서, ‘살아계신 그분이 샘이다. 그리고 나를 보신다’를 뜻한다.

창25:11-‘이삭은 브엘-라해-로이에서 거주하였다’=신성한 빛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합리성.

브엘세바 (Beershaba)

창21:14-‘(하갈은) 가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배회했다’=신앙 속의 교리적인 문제들이 방랑하는 상태...‘브엘세바’=신앙의 교리.

창21:31-‘그는 그곳을 브엘세바라 불렀다’=교리의 상태와 품질. ‘그들 둘 다 거기서 맹세했기 때문에’=결함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다’=인간 합리성의 것들이 신앙의 교리에 인접하였다는 것.

창21:33-‘(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작은 숲(grove)을 심었다’=거기서부터 파생된 교리가 그것의 영적 지식과

더불어, 그리고 그것의 품질.

창21:22-33, 26:32,33-‘브엘세바’=교리의 상태와 품질, 즉 그것은 신성인 것, 여기에 인간 합리성의 것들이 인접되어져 있다는 것이 22절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시리즈로부터 분명해진다. 또한 원어에 있는 이름 자체의 의미로부터, 이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다. 그리고 ‘일곱’, 그리고 ‘우물’=신앙 속의 교리, ‘맹세’=결합...그리고 ‘일곱’=거룩인 것, 고로 이는 신성이다...이것이 이름 브엘세바의 근원이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말들로부터 분명하다. 즉 ‘너는 내 손으로부터 일곱 양양 새끼를 가져가서 그것으로 내가 이 우물을 팎다는 증거로 삼으라. 그러므로 그는 그 장소를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그들이 둘 다 거기서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다.’ 위와 마찬가지로 이삭의 말들로부터도 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팎던 우물에 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세바(맹세, 그리고 일곱)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은 오늘까지 브엘세바이다.’ 이 대목에서 또한 아비멜렉과 다투었던 우물이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와 언약도 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의해 인간의 것들이 다시 신앙의 교리에 인접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인접하였기 때문에, 하여 인간의 납득에 잘 순응된 교리로 만들어졌다. 고로 그것은 ‘성’이라 불린다. 이것=복합체에서 교리적인 품성 속에 있는 것.

창22:19-‘그들은 함께 브엘세바로 갔다’=신앙으로부터의 교리와 선행으로부터의 교리로 발전함, 이는 신성한 교리인 것이 인간의 합리적인 것들에 인접해 있는 것.

창22:19-‘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했다’=주님이 그 교리 자체이시다는 것...‘브엘세바에 거주하는 것’=교리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서술할 경우,=교리가 되는 것.

창26:23-‘(이삭은)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그때부터 신앙으로부터의 교리는 신성이었다는 것. ‘브엘세바’=신성으로부터 있는 신앙에 관한 교리. 여기서 ‘브엘세바’에 의해 의미되는 신앙의 교리는 말씀의 글자 의미이다, 그이유가 말씀은 교리 자체이기 때문이다.

창26:33-‘그러므로 성의 이름은 브엘세바이다’=거기서

부터 교리의 품질이 파생되었다...‘브엘세바’, 이는 원어에서,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다. 고로 확증된 진리로부터의 교리이다. ‘브엘세바’=교리.

창26:33, 21:30,31-창21장 30,31절의 ‘브엘세바’에 의해 신성으로부터 있는 교리의 상태와 품질, 그것에 의해서 결합이 있다. 그리고 이 장의 주제는 교회의 내적인 것들인 바, 그 장소는 ‘브엘세바’라 불리웠다. 그러나 26장 33절의 경우, 주제가 교회의 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성이 ‘브엘세바’라 불리워지고 있다.

창28:10-‘야곱은 브엘세바로부터 나아갔다’=신성한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더 떨어진 생활...‘브엘세바’=신성한 교리.

암8:14-‘하느님은 살아 있다, 오 단. 그리고 브엘세바의 길이 살아있다’=그들은 신앙으로부터의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의 교리로부터의 모든 것들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

창46:1-‘(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 왔다’=선행과 신앙. ‘브엘세바’=선행과 신앙의 교리. 여기서, 선행과 신앙, 그리고 그것들로부터의 교리는 아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인 영적 선을 서술하기 때문.

창46:5-‘(야곱은) 브엘세바로부터 (어어났다)’=선행의 교리로부터와 신앙의 교리로부터.

사20:1,2-‘단으로부터 브엘세바에 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 의해 최말단 원리로부터 첫째 원리까지 아울러 있는 것들이 의미되어진다.

블레셋 사람(Philistine)

* 아비멜렉도 참조.

* ‘블레셋 사람’에 의해 표현되는 것은 거짓 원리들을 채택하여 영적인 것들을 추론하는 이들이다. 이것은 과거 대홍수 시절 인간이 그러했듯, 인간을 ‘침수’하게 만드나.

창10:14-‘이들로부터 블레셋족이 생겨났다’=그 때부터 있는 나라, 이를 수단으로 신앙과 선행의 지식들에 관한 기억적 지식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예47장-‘블레셋 사람들’=신앙과 선행의 지식으로부터의 기억적 지식들.

이11:14-‘블레셋 사람’=선행 없이 진리에 관한 지식이 기억에만 머물고 있는 이들.

비난하다-비골

창21:34-‘아브라함은 많은 날 동안 불레셋 사람의 토지에서 채류했다’=주님은 인간의 지식으로부터의 기억적 지식들로부터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을 신앙의 교리에 인접되게 하셨다는 것.

이14:31-‘불레셋 사람’=신앙의 지식들에 관한 기억 속의 지식. 또는 같은 것으로, 같은 것의 기억 속의 지식에 있는 이들, 그러나 신앙의 선들에는 있지 않은 이들.

창26:1-‘불레셋 사람의 왕’=교리적인 것들...(그이유가) ‘불레셋’=지식들에 관한 기억 속의 지식, 이는 또한 교리적인 것들로부터의 것들이다.

창26:14-‘불레셋 사람은 그를 시기했다’=지식들에 관하여 기억 속의 지식으로만 있는 이들은 납득 못했다.

창26:15-‘모든 우물들을 불레셋 사람은 막아버렸다’=지식들을 기억에만 머물게 하는 이들은 신성으로부터 있는 내면의 진리들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고로 그것들을 말살한다는 것.

출13:17-‘하느님께서서 그들이 불레셋 사람의 토지를 경유하도록 인도하시지 않았다’=그들이 선으로부터 있지 않은 신앙의 진리로 건너가지 않도록 신성에 의해 설비되어졌다는 것.

출15:14-‘고통이 불레셋의 거주민들을 붙잡았다’=선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확장되려는 지배욕이 포기됨.

출23:31-‘불레셋 사람의 바다 쪽으로’=신앙의 내면의 진리들 쪽으로 확장.....,그이유가 불레셋의 토지는 신앙의 내면의 것들에 관한 지식을 의미했기 때문, 그 이유는 고대 교회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

이14:29-‘불레셋’=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겔25:16-‘불레셋 사람’=믿음 만으로의 교리에 있는 이들.

이11:14-‘바다 쪽을 향하여 있는 불레셋 사람’=선행으로부터 신앙이 분리된 이들, 또는 선한 생활과 신앙이 분리된 이들.

욥3:4-‘불레셋 사람’=말씀의 진리들과 선들을 왜곡한 이들.

비 (b)

* (영적 필기에서) 'B'는 영광(glory)과 위엄(majesty), 주권을 의미한다.

비 (rain, pluvial)

* hail shower 참조

창2:5-‘여호와 하느님이 (아직) 비를 만들지 않으셨다’...‘비’, 다음 절에서는 안개라 불리는데=평화의 고요함, 전투가 중단될 때이다.

창7:4-‘비가 내림’=시험.

창19:24-‘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불과 유황으로 비가 내리게 만드셨다’...‘비가 내림’=지옥에 떨어짐.

* ‘비’, 순수한 의미에서,=축복, 그리고 구원, 그러나 반대 의미일 경우, 저주, 그리고 지옥에 떨어짐.

출9:18-‘나는 아주 비통한 우박을 비로 내리게 하겠다’=교회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거짓들. ‘우박 비’=파괴하는 악으로부터의 거짓.

출16:4-‘나는 하늘로부터 빵을 비가 내리듯 하겠다’=천적 선이 유입될 것이라는 것. ‘비가 옴’=축복; 그이유는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기 때문, 그리고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기 때문, 마치 신성한 선과 진리가 천국으로부터 인간과 더불어 있어 축복이 있는 것과 같다. (고로) ‘비가 내림’의 아주 가까운 의미라면,=유입; 그 이유가 모든 선은 신성으로부터 유입되기 때문이다.

시135:7-‘비를 위한 번개’=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찬연함.

예14:4-‘비가 토지 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진리의 결핍(defect)이 취급된다...‘비’=천국으로부터의 유입.

마5:45-‘그분은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보 내신다’...‘비’=신성한 지혜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이것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어진다; 그이유가 (이와 달리해서)는 그들이 생각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

계11:6-‘그들이 예언하는 날에 비가 오지 않게...’=천국으로부터 어떤 진리도 받을 수 없다. ‘비’=천국으로부터 있는 교회 속의 진리.

예10:13-‘그분께서는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신다’...‘하늘들에서 물들이...’=영적 진리들; ‘비’=영적 진리들이 내려와서 자연적 진리가 됨.

겔34:26-‘내가 때맞추어 비를 보낼 것이다; 거기에 축복의 비가 있을 것이다’...영적 축복이 의미되어진다...그이유가 ‘비’에 의해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안으로부터

비누-비느하스-비늘-비단-비돔-비둘기-비밀-비손-비스듬한-비슷함

인간에게 흐르는 신성의 모든 것이 의미되기 때문이다.

욥2:23-‘그분은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신성한 진리가 선 안으로 흐른다, 이로부터 그것들의 결합, 열매맺음, 번성함이 있다.

신11:14-‘나는 적기에 너희 토지에 비를 줄 것이다; 이른 비, 늦은 비’...천국의 축복이...‘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그 이유가 특별히 ‘비’에 의해 천국 안으로부터 흐르는 신성한 진리가 의미되기 때문, 이로부터 교회의 모든 것, 인간과 더불어 천국의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산출되어진다.

시68:9-‘당신께서는 자비심의 비가 떨어지게 만드신다’=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삼하23:4-신성한 진리는 순수하고,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진행되기에, ‘비 온 뒤 맑게 빛나는 구름들 없는 아침’이 첨가되고 있다...‘비 온 후’=소통과 영접함 후에.

시147:8-‘그분은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는 교인 안으로 진리의 유입이 있다.

이5:6-‘나는 구름들에게 내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할 것이다’=천국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선과 진리의 영접함도 있지 않다는 것. (=말씀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에 이해가 없다)

이4:6-‘홍수와 비’=거짓들 속에 뛰어들.

신32:2-‘내 교리는 비 같이 아래로 흐를 것이다’. 여기서의 경우 교리가 ‘비’에 비교되고 있다, 그 이유는 ‘비’는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 이로부터 교리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

신11:11,14-신성한 진리의 유입을 받음이 ‘하늘의 비에서 물들을 마신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신성한 진리가 영적 상태와 자연적 상태 모두에서 교인에게 흐른다는 것이 ‘이르든, 늦든, 제때에 주어지는 비’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 이유가 ...영적 상태 안에서의 신성한 진리의 유입과 영접이 ‘이른 비, 또는 아침 비’에 의해 의미되고; 자연적 상태 안에서의 경우, ‘나중의 비, 또는 저녁 비’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

레26:3,4-‘그들이 규례 안에서 걸을’ 때...‘그들은 적기에 비를 받았다’...‘비’=신성이 흘러들.

왕상17장-그러나 비가 아합 (통치)아래에서...보류되었는데, 이는 악으로부터의 거짓 때문에 천국으로부터 흐르는 신성한 진리 어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표현되었다.

예14:4-‘비가 없다’=신성한 진리의 유입이 없다.

이30:23-‘비’=신성의 유입.

이55:10-‘비’=인간에게 어울리는 영적 진리; 그리고 ‘눈’=자연적 진리.

겔34:26-‘제 때에 있는 비’=받고 싶어하는 애착심의 정도에 따라 신성한 진리가 유입됨.

숙10:1-‘비’=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가 유입됨, 이로부터 인간은 영적 총명을 가진다. ‘소나기 비’=신성한 진리가 풍부히 흘러들.

호6:3-천사와 인간들을 위한 생명과 구원이 있게 하는 모든 신성한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바, ‘그분은 비 같이 늦은 비가 땅을 적심 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30:23-‘너희 씨를 위한 비’=진리가 불어남.

비난하다 (chide)

창31:36-‘야곱은 화를 벌컥 내고 라반을 비난했다’=자연 평면의 열정.

출17:2-‘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했다’=신성한 진리에 맞서 있는 비통하게 불평함.

* 원어에서, ‘므리바(Meribah)’는 경쟁, 비난함을 뜻한다. 그리고 ‘비난함’=불평함.

출17:7-‘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한 비난할 때문에’=그들이 거의 노출될 때까지 시험의 비통함으로부터 불평함.

비골 (Picol)

* 아비멜렉을 참조.

비누 (soap)

말3:2-‘빨랫집의 비누 같이’

욥9:30-‘만일 내가 내 손을 비누로 씻는다면’, ‘비누’=선, 이로부터 (그는 깨끗해진다).

예2:22-‘네가 많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비느하스 (Phinehas)

민25:12,13-‘비느하스’는 표현성을 지닌 성직 직분이 뜻해진다, 이것은 사랑과 사랑으로부터의 것들.

출6:25-‘그녀는 그에게 비느하스를 낳았다’=거기로부터

비어있음

터의 갈래.

비늘 (scale)

* skin도 참조

겔29:4-‘비늘’=완전히 외적인 것들에 속한 것들. 고로 감각적인 것들, 이것에 거짓인 과학물이 부착되어 있다.

겔29:4-감각적 인간 안에 오류들과 이 오류에서 파생된 거짓들이 있다, 이것이 ‘고기가 고래의 비늘에 붙어 있을 것이다’에서 의미되어 있다.

겔29:4-‘비늘’=감각 속의 오류들, 이는 가장 낮은 부류의 과학물들이다.

비단 (silk)

겔16:10-‘고운 아마포와 비단’=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이19:9-‘비단의 심지를 만드는 것’=진리들인채 하는 것.

계18:12-‘비단, 등등=천적 선들과 진리들.

비돔 (Pithom)

출1:11-‘비돔과 라암셋’=왜곡된 진리들로부터 있는 교리들의 품질.

비둘기 (dove)

* Jona, Turtle-dove도 참조

창8:8-‘비둘기’=거듭나야지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 신앙 속의 진리들과 선들.

마3:16-예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그분 위에 온 ‘비둘기’=신앙으로부터의 그분의 거룩함; 그리고 세례 자체는 거듭남; 이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교회와 더불어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와 선, 그들은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거듭남에 의해 받는다.

창8:8-‘그는 보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비둘기를 내보냈다’=신앙으로부터 진리들과 선들을 받는 상태.

창8:9-‘비둘기는 자기 발의 바닥을 위한 쉼을 발견하지 못했다’=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신앙으로부터의 선과 진리는 아무 것도 없었다. ‘비둘기’=신앙 속의 진리.

호9:11-‘앗수르의 토지로부터 비둘기 같이’...‘비둘기’=합리적 선.

창15:9-‘호도애(산비둘기)와 어린 비둘기(집비둘기)’=교회의 영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 호도애는 외면에 속한 것들, ‘어린 비둘기’는 내면에 속하는 것들.

시68:13-‘비둘기의 날개가 은으로 덮였다.’ ‘비둘기의

날개들’=신앙으로부터의 진리. ‘비둘기’=신앙.

레12:6-‘비둘기의 아들’, 그리고 ‘호도애’=순진.

이60:8-‘창문으로 비둘기 같이’...‘비둘기’=진리에 대한 영적 애착.

시55:6-‘누가 나에게 비둘기의 날개 같은 것을 줄 것인가? 나는 내가 거주하는 곳으로 날아갈 것이다.’ ‘비둘기의 날개’=진리에 대한 영적 애착.

예48:28-‘갱의 입구 측면에 등지를 만드는 비둘기 같이 너는 하여라’=내부로부터가 아닌 외부로부터 진리를 관조함.

호6:11-‘에브라임은 심정 없는 우둔한 비둘기 같다’=지금 지적 측면이 없다, 그 이유는 진리가 없기 때문, 진리와 선에 애착함이 없기 때문.

마21:12-‘비둘기를 파는 이들의 자리들’=거룩한 선들 으로부터 (이득을 챙기는 이들).

비밀 (secret)

창49:6-‘그들의 비밀 안으로 내 혼이 가게 말라’=영적 선은 그들의 의지 속에 있는 악들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비밀 안으로 가지 않는 것’=알기를 원치 않는 것.

비손 (Pison)

* 강도 참조

창2:11-첫째 강, 또는 ‘비손’=사랑으로부터 있는 믿음 속의 총명.

비스듬한 (obliquity)

눅3:5-‘꼬부라진 것이 곧아지는’=무지로부터의 악이 선으로.

비슷함 (likeness)

* 모습(likeness)를 보라

비어 있음(emptiness)

* 먼저 진행되어 있는 첫 상태, 이는 유아로부터인 것, 또한 직접적으로는 거듭나기 이전의 것 모두가 해당된다; 그리고 이 첫 상태가 공허(vacuity), 텅빔(emptiness), 짙은 어둠(thick darkness)이라 일컬어진다.

창1:2 예4:23-‘땅은 공허(void, vacuity)하며 비어있었다(emptiness)’...거듭남 이전의 인간이 ‘땅은 공허하고

비어있음

텅비었다'라고 불리워진다, 그리고 또한 그는 선과 진리에 관한 어떤 것도 뿌려지지 않은 지면이라 불리워진다; '공허'는 선에 관한 것, '텅빔'은 진리에 관한 것이다...예레미야서에서 인간이...'나는 땅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공허이었고 텅빔이었다'라고 묘사되고 있다.

이24:10-'부서지게 될 텅빈 도성'=진리가 결여된 인간의 마음.

이34:11-진리의 황량함과 황폐함이 '텅빔의 줄과 황폐의 추'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예4장-'공허하고 빈'=선과 진리가 없는 교회 안에.

이45:18-'그분은 그것을 텅비게 창조하시지 않았다'=재구성되어가는 이들에게 선과 진리가 결핍되는 일이 없게 하신다. 이것들의 결핍이 '텅빔'이다.

눅1:53-후자가 박탈될 것임이 '하느님께서서는 부자를 빈채로 내보냈다'에서 의미된다.

이41:29-'바람과 비어 있음'=악으로부터의 거짓들과 거짓으로부터의 악들; '바람'=악으로부터의 거짓들; 그리고 '비어 있음'=거짓으로부터의 악들; 그 이유가 텅빔과 공허한 것이 있는 곳=선과 진리가 결여된 것, 악과 거짓이 있는 것.

이30:7-'공허(vanity)와 텅빔이 있는 이집트'=감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모두, 이것은 그 자체로만 고려한다면 선이 결여되어 있고 진리들이 결핍되어 있다.

예22:22-'목자들을 먹일 바람'=교리의 공허와 비어 있음.

창1장- 땅이 공허(waste)하다, 비어 있다 라고 불린다

창42:35-'그들은 자기들의 자루를 비웠다'=자연에서 진리들이 사용됨. '비우는 것', 즉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가져온 양식=진리들로부터 선용을 수행하는 것.

출15:9, 레 6:33-'나는 검을(으로) 모조리 비울 것이다 (털어 낼 것이다)='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의 계속된 전투; 의미가 이러함은 '모조리 비움', 또는 '알몸으로 만듦'의 의미가 적이 드러누워질 때 까지 계속되는 전투이다 에서 알 수 있다. 계속적인 전투가 '검을 뽑아 들, 또는 검으로 모조리 비워버림'에서도 의미된다.

이24:3-'토지를 모조리 비우고 못쓰게 만듦'=교리 속의 진리와 신앙 속의 진리에 관련하여 교회가 황폐함.

예14:3-'빈 그릇들'=진리가 없는 지식들; 또한 선이 없

는 진리들.

창31:42-'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떠나보냈을 것이다'=그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리라는 것. '빈 채로 떠나보냄'=그로부터 모든 것을 가져감, 고로 자신을 위해 모든 것들을 요구함.

창37:24-'구덩이는 비었고, 그 안에 물은 없었다'=그 당시 참된 것은 없었다는 것...'비어 있음'=선이 없기에 진리도 없는 것.

예14:3-'빈 그릇'=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아닌 진리들.

예51:34-'빈 그릇'=진리가 있지 않은 것.

이34:11-'그들은 그것 위에 공허의 수평 줄과 텅 빔의 수직 추를 뺄 것이다.'

이24:10-'공허의 성읍은 부서진다...' 여기서 비어있음이 원어에서 공허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의미는 같다. '빔'= 선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것, 여기서 내적 의미에 있는 몇 사항들로부터 명백하다.

겔24:11-'텅빈 가마를 숯불 위에 놓는 것'...텅빈 가마는 그 안에 불결한 것과 찌꺼기가 있는, 즉 거짓과 악이 있는 가마이다.

마12:44-'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준비되었다'...그들은 이것들을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부자'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진리는 진리들이 아니다, 그 이유는 선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눅1:53-'그분이 빈 채로 내보낸 부자'...그들은 이런 것들을 아는데 행하지 않는 '텅빈 부자'라 불린다; 그이유는 이런 사람들과 있는 진리들은 선이 결핍되어 있어 진리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12:44-신앙과 선행이 결여되어 있고 악들과 거짓들로 차있는 내적인 것이 주님께서 '텅빔'이라고 부르신다...이로부터 이것은 내적인 것 없는 외적인 것이라 불린다.

암4:6-'이(teeth)를 비움=진리가 빈공함.

출23:15-'너는 공허하게 내 얼굴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Ye shall not see My faces emptily'=자비와 감사로부터 선을 받는 것... '헛되이 보지 말라' 또는 선물 없이는 안된다=선을 받음 때문에 있는 증명, 그리고 감사함...

비열한 (vile)

빌하 - 빛

창16:4-‘그녀의 여주인은 그녀의 눈에 비열했다’=이 합리성, 그것의 임신에서 선에 인접한 진리 자체를 멸시했다는 것.

비유 (parable)

겔24:3-‘반역의 집에 비유로 말하라’

마24:32-‘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워라.’ 비유로부터 그들이 배워야 할터인데, 비유는 이런 것들이 의미되는 것이다.

* 주님께서 비유에서 말하셨던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분의 왕국 속의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표현하거나 의미하고 있다. 최고 의미에서일 경우, 그분 자신과 더불어 신성한 것들을 의미하거나 표현한다.

비참한 (misery)

* 불행(misery)을 보라.

비참함 (calamity, wretched)

계3:17-‘비참한(wretched)’=교회의 것들에 관하여 시종일관성 없이 생각하는 자.

계3:17-‘그리고 내가 비참하다(wretched)는 것을 모르고 있다’=그들은 자기들의 거짓들이 진리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 ‘비참함(calamity)’=거짓들을 수단으로 진리들이 부서짐, 또한 일치함이 없다...

이47:11-‘해악이 네 위에 떨어질 것이다’란 진리에 대한 모든 이해함의 손실이 있다를 뜻한다.

겔7:26-‘비참함 위에 비참함이...’=거짓으로부터 거짓이...

시5:9-‘그들의 내향의 부분은 비참하다.’ 여기서 ‘비참함’=어떤 진리와도 부합하지 않는 거짓들.

비틀거리다 (stagger)

이24:20-‘교회에 관해서, 그것이 황폐해질 때, ‘술취한 자 같이 비틀거릴 것이다’로 서술하고 있다.

이29:9-‘그들은 비틀거리다, 그러나 독주를 마셔서가 아니다.’

예25:16-‘그들은 비틀거릴 것이다.’

이28:7-‘판결함에서 비틀거리는 것’=분별 없음(=그들은 총명에 속하는 진리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

비-하히롯 (Pi-hahiroth)

출14:2-‘그들은 비-하히롯 앞에 진을 쳤다’=겪어야하

는 시험들의 상태가 시작함.

빌라도 (Pilate)

* 빌라도의 질문, ‘진리가 무엇인가?’

빌려주다 (lend)

출12:36-‘그들은 그들에게서 빌려주었다’=그것들이 옮겨졌다는 것.

출22:14-‘대부를 묻는 것’=또다른 지주로부터의 진리.

* ‘빌려주는 것’=가르치는 것.

* ‘빌려주는 것’=선행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가르치는 것.

눅6:34-‘빌려주는 것’=선행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 고로 천국의 선들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또한 세상의 선들을 전달하는 것. 그러나 후자는 그 목적이 전자를 위해서이다.

출22:25-‘빌려주는 것’=선행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천국의 선들을 전달하는 것. 고로 가르치는 것.

신24:10-‘빌려주는 것’=진리를 전달하는 것.

신28:44-‘그는 네게 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빌려주지 말 것이다’=그가 이런 진리들을 가르칠 것이나, 너는 그를 가르치지 말 것이다.

눅6:35-‘빌려주는 것’=말씀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선들과 진리들을 전달하는 것.

빌리다 (borrow)

* lend, ask도 참조

마5:42-‘너에게서 빌리고자 하는 그를 너는 외면하지 말라’=만일 그가 가르쳐지기를 갈망한다면, 그를 가르쳐라. 그 이유가 악한 자가 이를 갈망하는 이유는 그것을 빼앗고 곡해하려해서이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빌하 (Bilhah)

창29:29-‘라반은 라헬에게 그의 하녀 빌하를 그녀의 하녀로 주었다’=더 외면적인 애착들, 이것은 묶는 것들이고 수단들을 돕는다... 하녀 ‘빌하’=더 외면적인 애착들, 그리고 ‘질바’, 레아의 하녀=외적 애착들이 되는 이유는 ‘라헬’=내적 진리에 애착함, ‘레아’=외적 진리에 애착함 이기 때문. 더 외적인 애착들은 내적 애착들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 애착들이다.

창30:3-‘보라, 나의 하녀 빌하’=자연적 진리와 내면의

빛남-빛나게 하다-빠른-빠르게-빨강

진리 사이에 있는 확언하는 매개체... '빌하' = 이 매개체의 품질.

창30:5- '빌하가 임신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 = 받아들임과 인정함.

창46:25- '이들은 빌하의 아들들이다' = 이들은 내향의 교회 속에 있다는 것.

빛 (light)

창1:3-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 인간이 새로이 임신되었을 때, 그는 첫째로 그의 선들이 선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가 빛 쪽으로 더 오게 될 때, (그는) 주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선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심을 (알기 시작한다)

창1:4,5- '하느님께서 빛을 보셨다, 그것은 선이었다; 그리고 하느님은 빛과 어둠 사이를 구별하셨다. 그리고 하느님은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빛이 선이다 말해진 이유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주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낮'에 비교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빛 속에 있기 때문이다.

창1:18-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 '빛'에 의해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요12:36- 영적 인간... '빛의 아들'이라 불리운다.

이58:10- '너의 빛이 어둠에서 일어날 것이다' = 그들은 진리의 총명을 가질 것이라는 것.

이5:20- '빛을 위하여 어둠을 놓고, 어둠을 위하여 빛을 놓는 이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어둠' = 거짓, 그리고 '빛' = 진리들.

요3:19- '이것이 심판이다, 즉 빛이 세상 안으로 왔다, 그러나 인간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 이유가 그들의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빛' = 진리들, 그리고 '어둠' = 거짓들; 그리고 '빛' = 주님, 그 이유는 모든 진리가 그분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둠' = 지옥들, 그 이유는 모든 거짓들이 거기서부터 있기 때문이다.

요11:10- '빛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빛' = 참되고 선인 것.

합3:4- '빛남과 밝음' = 계발

이60:19,20- '태양은 낮에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 자연적 빛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닌 영적인 빛 속

에 있는 것들, 이것이 '여호와께서 영원의 빛을 위해 있으심'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9:2- '큰 빛을 보는 것' = 믿음 속에 있는 진리들을 받고 믿는 것. 천국의 빛은 믿음 안에 있는 이들 위에서 빛을 발한다 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 이유가 천국 안에 있는 빛은 신성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계18:23- '등의 빛이 네 안에서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 진리의 총명이 없다.

사4:6- '얼굴의 빛을 위로 향함' = 자비로부터 선을 주는 것.

이59:9- '빛을 기다리는 것' = 진리를 기다리는 것.

출10:23-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은 자기들 처소에 빛을 가졌다' = 영적 교회 속의 이들은 그들 마음 어느 곳에서나 예증을 가졌다... '빛' = 예증; 그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있는 빛이 이해성을 계몽하기 때문, 이 빛 안에서 총명과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요3:21- '빛으로 오는 것' = 주님 안에서의 믿음 쪽으로, 고로 주님으로부터 있는 믿음 쪽으로.

이51:4- '백성들의 빛을 위하여' = 예증을 위하여.

이30:26- '달의 빛' = 선행으로부터 있는 믿음; '태양의 빛' = 사랑으로부터, 고로 주님으로부터 있는 총명과 지혜.

마5:14-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에게 말해졌던바, 이들에 의해 복합체로 있는 모든 진리들과 선들이 의미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졌다; 그이유가 '빛'은 신성한 진리와 그로부터 파생된 총명을 의미한다...

이30:26- '달의 빛이 태양의 빛 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의 빛은 일곱 날들의 빛 같이 일곱 겹 일 것이다'... = 천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 거짓이 전혀 없다, 고로 완전하게 충분하게 순수하다.

마5:14- '세상의 빛' = 교회 속의 진리.

이60:3- '나라들이 네 빛으로 걸을 것이다' = 신성한 진리에 의거한 생활

사36:9- '네 빛에서 우리는 빛을 볼 것이다.' = ... 신성한 진리 안에서.

눅11:34- 이해성 안에서 지각되고 의지에서 받아진 진

빛남-빛나게 하다-빠른-빠르게-빨강

리가 악으로부터 행해지는 것인 거짓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는가를 보라'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2:5-'여호와와 빛 안에서 가자'=그들은 지혜의 삶을 이끌 것. '여호와와 빛'=신성한 진리; 그리고 '그것 안에서 가는 것'=그것에 따라 사는 것, 고로 지혜의 삶 안에 있는 것.

빛남 (splendour)

빛나게 하다 (shine)

겔1:27-'불로부터의 빛남(brightness)이 구름에 있는 할 같이, 허리 아래쪽을 빙둘러 있다...'=영적인 것에 있는 천적인 것. ('빛남', 그리고 '무지개'=지혜와 총명)
합3:4-계몽과 힘이 '빛남(brightness)'과 '빛'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59:9-'빛남을 기다리는 것'=진리로부터의 선. 그 이유가 빛의 반짝임은 선으로부터이기 때문.

을2:10-신앙과 사랑으로부터 빛을 더 이상 가지지 않는 것이 '그것들의 빛남(shining)이 움추러 드는 것'이다.

단12:3-'별 같이 빛나는 것'=진리로부터 총명에, 선으로부터 지혜에 있는 것, 그리고 거기로부터 영원히 행복해 있는 것.

시18:12-주님의 현존에서 내적 의미가 나타나는 것. 마치 천국에서, 그곳의 영광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분 앞에 빛남에서 그분의 구름들은 사라졌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66:11-'그녀의 영광의 빛남'=주님으로부터의 진리를 사랑함.

단12:3-이 사랑에 있는 이들은 천국적 총명에 있다, 그리고 천국에서 '궁창의 빛남' 같이 빛이 난다.

눅16:19-'그는 날마다 화려하게(빛나게) 살았다'=그 이유는 그는 말씀을 가졌고 읽었기 때문.

계18:14-'지방과 빛나는 것들'=선과 진리에 대한 천적이고 영적인 애착들...진리에 애착함이 '빛난다'라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천국의 빛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

계19:8-'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모시옷'=선으로부터 광

채있는, 그리고 진리로부터 순수한.

계1장-'빙둘러 빛남이 있다'=파생되는 신성한 지혜.

계22:1-'수정 같이 빛나는'=이 진리들은 영적 의미로부터 반투명하는 이런 진리들

빠른 (quick)

빠르게 (quickly)

* '빠르게'는 내적 의미에서는 확실한 것을 말한다.

계1:1-'속히 행해져야만...'=속히가 아니라, 확실히.

계2:5-'나는 너에게 속히 갈 것이다.' '속히'=확실히.

계3:11-'잘 보아라, 나는 빠르게 올 것이다'=주님의 강림, 그리고 그 다음 이들로부터 새 교회.

계11:14-'세 번째 슬픔이 빠르게 온다...'='빠르게 오는 것'=이후에.

계22:6-'빠르게 행해져야만 하는 것들을 그분의 종들에게 보여주려고...'=주님께서는 꼭 있어야만 하는 것들을 그분으로부터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것.

계22:7-'잘 보라, 나는 빠르게 온다'=주님은 확실히 오신다는 것.

빨강 (redness)

붉은 (red)

창25:25-'첫째로 붉은 것이 나왔다'=생활의 선.

창49:12-'그의 눈은 포도주로 해서 붉다.' (=신성한 선)

이63:2-'어찌하여 네 옷이 붉은가?'=진리의 선.

애4:7-'루비보다 더 붉다'=(신성한 인간 안에서) 선.

이1:18-'비록 내가 진홍 같이 붉을 지라도'...

나2:3-'용사의 방패는 붉게 만들어진다.'

계12:3-'보라 큰 붉은 용.'

계6:4-'또다른 말이 나왔는데, 붉었다.'

창25:30-'나로 붉은 죽을 먹게 하라'=교리물들을 갈망함...외견상의 선...그이유가 예서라는 이름의 근원은 붉다로부터이기 때문이다.

애4:7-'붉음'은 진리들에 있는 사랑의 선을 서술하고 있다.

이63장-'붉은 옷'은 말씀(의 신성한 선)을 뜻하는데, 여기에 폭력이 휘둘러졌다.

계6:4-'붉다'에 의해 파괴된 선이 의미된다...그이유는

빵

‘붉다’는 지옥적 붉은 것, 즉 악으로부터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숙6:2-‘붉은 말’은 선에 관한 이 이해함의 품질이 뜻해진다.

(젓을) 빨다 (suck)

이60:16-‘이방인들의 젓과 왕들의 가슴을 빠는 것’=선들이 수여되고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 (=천적인 선과 천적인 진리가 은근히 심어짐)

율2:16-‘유아들, 그리고 가슴들을 빠는 이들’=순진.

신32:13-‘바위로부터 꿀을 빠는 것’=기억에 있는 진리들로 해서 즐거워함.

신33:19-‘바다의 풍부함을 빠는 것’=그들은 기억 속에 진리들을 풍부히 흡수하리라는 것.

신32:13-‘바위 틈새로부터 기름을 빠는 것’=신앙의 진리들을 통하여 선이 스며들게 하는 것.

이66:11-‘빠는 것’=주님으로부터 유입이 있는 것.

이11:8-‘빠는 자’, 또는 ‘빨고 있는 유아’=순진의 선.

빨랫집 (fuller)

말3:2-‘빨랫집의 비누’.

빵 (bread)

* 성 만찬, 만나, 식품도 참조

창3:19-‘생김새(얼굴)의 땀에서 빵을 먹는 것’=천적인 것에 혐오를 느낌, ‘빵’=천사들의 식품인 천적, 영적인 모든 것...천국에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은 지상에 있는 빵에 상응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빵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이30:23-‘지면의 생산물로부터의 빵’=선행 (=천적인 것)

겔12:19-‘그들이 불안해 하며 먹을 빵’=천적인 것들...이것에 그들은 폭력을 휘둘렀다, 또는 그들은 이것을 모독했다.

시105:16-‘빵의 막대기를 부러트리는 것’=천적 생존유지를 박탈하는 것.

창14:18-‘(멜기세덱이) 빵을 가져왔다’=천적인 것들, 그리고 이로부터 새롭게 함.

* (성만찬에서의) 빵과 포도주=보편적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왕하25:3-‘성에는 기근이, 그리고 토지의 백성을 위한

빵은 없다’=신앙이 없고, 남은 선행도 없다.

창18:5-‘제가 빵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천적인 어떤 것이 인접하여 있다...일반적일 경우 빵은 모든 식품을 뜻한다. 따라서 내향의 의미에서 빵=천적인 모든 식품.

겔16:49-‘그들이 선행의 선들을 혐오했다는 것이 ‘빵의 풍요함’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창21:14-‘(아브라함은) 빵과 물병을 가져왔다’=선과 진리.

창25:34-‘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렌즈콩 죽을 주었다’=생활의 선이 진리의 선과 교리적인 것들의 선에게 부여됨...‘빵’=천적, 영적 모두에서 일반적인 사랑의 선, 고로 또한 진리의 선, 그 이유는 이것이 영적 선이기 때문이다.

창27:17-‘빵’=선.

창28:20-‘만일 그분이 나에게 먹을 빵을 주신다면’=신성한 선과 결합하기 조차. ‘빵’=주님으로부터 있는 천적, 영적 모든 선, 그리고 가장 높은 의미에서, 신성한 선에 관한 주님 자신.

눅24:30,31-‘(빵을 떼어주심에서 알게 된 주님)=주님께서는 선을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것, 그러나 선이 없는 진리를 통하여서는 아니다.

창31:54-‘(야곱이) 빵을 먹기 위해 형제를 불렀다’=주님의 신성한 자연적 측면의 선으로부터의 선을 자기 것 만들...‘빵’=사랑의 선, 그리고 가장 높은 의미에서, 주님. ‘빵’이 가장 높은 의미에서,=주님인 바, 그러므로=그분으로부터 있는 거룩한 모든 것, 즉 선행하고 참된 모든 것, 그리고 사랑과 선행 속에 있는 것 외에는 선인 선은 없기 때문에, ‘빵’=사랑과 선행; 고대 시대에서는 희생 제물은 다른 의미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단어, ‘빵’이라 불렀다.

창37:25-‘그들은 빵을 먹기 위해 앉았다’=거짓으로부터 악을 자기 것 삼음.

창39:6-‘그는 자기가 먹었던 빵 외에는 그와 더불어 어떤 것도 알지 못했다’=그 때부터 선이 자기 것이 되었음.

창41:54-‘이집트의 모든 토지에 빵이 있었다’=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배가되어 남아 있다.

창41:55-‘백성들은 빵을 위해 바로에게 외쳤다’=진리

를 위해 선이 필요하다.

창43:25-'그들은 자기들이 거기서 빵을 먹는다고 들었다'=선은 진리들에 인접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각함.'
'빵'=사랑으로부터의 선.

창43:31-'그는 말했다, 빵을 놓아라'=자연의 수준에 있는 진리들을 가진 매체를 통하여 결합됨을 지각함.

창43:32-'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빵을 먹을 수 없다'=그들은 교회의 선과 진리와 (결합) 할 수 없었다...'빵'을 먹는 것=결합되는 것...이 구절에서는 '빵을 먹는다' 라고 말하지 않고, '빵을 놓아라' 하고 말해 지는데, 그 이유는 빵이 일반적으로 모든 식품을 의미했기 때문에서 이다, 고로 먹는 것도 의미되고 있다; '빵'이 모든 식품 그리고 또한 먹음 자체 까지도 뜻하는 이유는 영적 의미에서 '빵'=천적인 사랑, 그리고 천적인 사랑은 선과 진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자체 안에 포함하고, 고로 영적 식품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

창47:12-'빵으로 지탱함'=선의 유입.

창47:13-'모든 토지에 빵이 없다'=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창47:15-'우리에게 빵을 주시오'=영적 생명이 유지되기를 간청함...특히, '빵'=사랑과 선행의 선, 그러나 일반적일 경우, 그것은 영적 생명, 그 이유는 이 경우에서 '빵'을 수단으로 모든 식품이 의미되기 때문.

창47:17-'그는 그들의 가족을 위해 빵을 그들에게 제공했다'=내적 인간으로부터 선의 유입을 통하여 지탱함.

창47:19-'우리와 우리의 지면을 빵을 위해 사시오'=그들이 선을 가지고 지탱하도록 둘 다를 자기 것 삼음...'빵'=사랑과 신앙 모두의 선인 이유는 빵은 일반적인 경우 모든 식품을 대표해서 말하여질 때가 많기 때문.

창49:20-'그의 빵은 기름지다'=선으로부터의 즐거움.

출2:20-'그가 빵을 먹게 하라'=선에서 확증함.

사7:13-이 선은 외면의 자연적 천국의 선이고 이것이 '보리 빵'에 의해 의미된다.

출16:3-'우리가 배터지게 빵을 먹고 있었을 때였다'=고로 그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만큼 많은 (육체적, 물질적) 즐거움들로부터 선을 향유했다는 것...'빵'=천적 생

명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반대적 의미에서, 천적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생명의 선, 고로 (육체적 수준의) 즐거움의 선이다; 그 이유가 '빵'은 영적 의미에서 혼에게 자양분을 공급하여 그것의 영적 생명을 보존되게 하는 제일의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선이라는 것은 천국의 생명은 이 선만으로 존재한다는 것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대적 의미에서, 지옥을 먹여 살려 그것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의미되는데, 이것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악인 바, 이는 지옥의 생명이 이런 사랑만으로 되어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이 악이 그들에게 선인 셈이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서 (육체적) 즐거움의 선에 의해 뜻해진다.

출16:4-'잘 보라, 나는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이 비내리듯 할 것이다'=천적인 선이 흘러든다는 것.

출16:8-'아침에 빵을 배부르게...'=새로운 상태의 시작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만큼에서 많은 선을 가질 것이다...'빵'=여기서의 경우 진리의 선, 이 선이 영적 교회의 선이다, 그 이유는 '빵'에 의해 만나가 의미되기 때문이다.

출16:15-'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먹으라고 주신 빵이다'=이것은 자기 것 삼아질 선이고 그들의 생명을 구성할 것이다; 최고의 의미에서 이것은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 '빵'=천적, 영적 선,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영적 교회인의 선, 이 선은 진리로부터의 선이다.

출16:29-'여섯째 날에 이튿날의 빵이...'=이전 상태의 끝에서 이 결합이 성사될 만큼의 많은 진리를 통한 선을...

출18:12-'하느님 앞에서 모세가 장인과 빵을 먹는 것'=신성한 선으로부터 자기 것 삼음이 있음...'빵'은 여기서 모든 경우에 사용되는 모든 식품을 뜻한다, 특히 희생 제물의 고기...이 '빵'=일반적으로 모든 예배.

레23:17-그 당시 바쳐진 '누룩 있는 빵'=아직은 충분히 순수해지지 않은 선.

눅24:30-영적 왕국의 세계에서 '빵을 떼시어 그들에게 주신다'=신앙으로부터의 선과 진리를 혼용함, 이를 통하여 주님은 나타나신다.

호2:5-'빵과 물들'=내적으로 있는 사랑의 선들과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양모와 아마 천'=외적으로 있는

빵-배다-배앗다-뺨다-뺨치다-뺨

사랑의 선들과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출25:30-'너희는 탁자 위에 얼굴들의 빵을 놓을 것이다'=거기에 천적 선에 관련되는 주님...

출29:23-'빵 한 덩어리'=주님으로부터 있는 가장 깊은 천적 선.

출29:32-'바구니에 있는 (먹을) 빵'=주님으로부터 있는 천적 선을 자기 것 되게 함.

출34:28-'그는 빵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한동안 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를 자기 것 삼음이 없음.

겔18:6-'끓주린 자에게 빵을 주는 것'=선행의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갈망하는 이들을 훈육하는 것.

이58:7-'끓주린 자를 위해 빵을 쪼개는 것'=사랑으로부터 선을 갈망하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시146:7-'끓주린 자에게 빵을 주는 것'=자양분을 주는 것, 그리고 영적인 자양분은 지식, 총명, 그리고 지혜이다.

예5:17-'네 수확물과 네 빵을 먹어치울 것이다'=영적 자양분이 있는 선들과 진리들 모두를 파괴할 것이다.

요21:13-'빵'=주님, 그리고 그분으로부터의 사랑의 선.

이30:20-'굽힘의 빵'=사랑의 선에 관련된 시험들.

시41:9-'뺨'=말씀, 이로부터 영적 자양분이 있다.

이55:10-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이 '먹는 자에게 빵'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시104:15-'빵'=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 이것은 진리들을 수단으로 먹여진다.

레26:26-'빵 덩어리를 부순다'=영적 식품이 결핍되는 것, 그러므로 영적 자양분이 결핍되는 것; 그 이유가 '빵'=혼에 자양분을 대는 모든 것, 특히 사랑의 선.

에5:9-'혼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빵을 얻는 것'=말씀으로부터 생명의 진리들을 자신들을 위해 획득함에 있는 곤경과 위험.

이30:23-'생산물의 빵'=선의 결실이 풍부함.

빵 굽는 사람 (baker)

삼상8:13-'그는 딸들을 데려다가 향을 만들고, 요리하게 하며 빵을 굽게 할 것이다'에 의해 교리로부터의 선한 것들이 의미된다, 이를 수단으로 그는 이런 (거짓의 원리)에 기뻐할 것이고, 그것들을 좋아하게 만들 것이

다.

창40:1-4-'빵 굽는 사람'=자발적 부분에 종속되는 신체에 있는 것들. '빵 굽는 사람'=바깥쪽의 감각적 평면, 또는 신체의 감각적 부분, 이는 내향의 인간의 자발적 부분에 종속되어져 있다. '빵 굽는 사람'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먹는 것에 충당되는 모든 것, 빵, 일반적으로 식품, 먹는 것을 만드는 것 등은 선을 서술하는바, 고로 자발적 부분에 관계되기 때문.

창40:5-'술 맡은 사람과 빵 굽는 사람은 바깥쪽 자연 평면 속에 있는 것들에 관련하여 (주님을 표현한다.)

창40:16-'빵 굽는 사람의 시종장은 보았다'=감각 평면의 지각이 자발적 부분에 종속되었다

창40:17-'빵 굽는 사람의 일'=감각 평면의 전체 용도에 따라...'빵 굽는 사람'=자발적 부분에 종속한 감각 평면.

호7:4-'그들 모두 간음자들이다, 마치 빵 굽는 자에 의해 달궈진 가마'...'가마'=탐욕들의 기쁨, 이는 악 속에 있다.

호7:3-8-그들이 자신들의 사랑들을 수단으로 선들과 진리들을 오용했다는 것이 그들 모두 간음자들이다, 마치 빵 굽는 자에 의해 달궈진 가마 같다는 것에 의해 의미되었다. '간음을 범하는 것'=선을 악용하고 이로부터 진리도 악용하는 것. 이것이 '빵굽는 자에 의해 달궈진 가마'에 비유되고 있다, 그이유는 그들은 자기들 사랑들을 좋아하는 덩어리로 거짓들을 함께 놓기 때문이다...이로부터 거짓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들 사랑으로부터의 악밖에 없다는 것이 '빵 굽는 자는 온 밤을 자고, 아침에 불속의 불꽃 같이 불살라, 그들은 가마 같이 뜨겁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그들이 '빵 굽는 자'와 '가마'에 비교되는데, 그이유는 그들은 교리를 거짓들로부터 함께 두기 때문, 마치 빵 굽는 자가 한 가마 안에서 반죽을 만들고 빵을 굽는 것과 같다.

창40:19, 41:13-'빵 굽는 자'에 의해 사랑으로부터의 선이 의미되기에, '빵'도 같은 의미를, 그리고 '술 맡은 자'에 의해서는 교리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하기에, '포도주'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왕 바로에 대한 범죄로 '빵 굽는 자'는 목매달리었다.

뺨 (cheek)

뺨-뼈다-뼈앗다-뺨다-뺨치다-뼈

* 턱뼈(jawbone)를 참조.

계7장-지파들의 첫 부류(class)를 구성하는 이들은 귀들과 뺨들에 상응하는 이들이다.

뼈다 (draw away)

창31:18-‘그는 그의 모든 습득물, 그리고 그가 획득한 그의 모든 물질을 뺨다’=라반으로부터 있는 진리와 선을 분리함.

뼈앗다 (bereave)

* 사별(bereavement)을 보라.

뺨다 (extend, stretch out)

출7:5-‘나의 손을 이집트인들 위에 뺨음에서...’=그들이 신성한 힘 그 자체를 관찰할 때.

출8:16-‘네 막대기를 뺨어라’=그가 신성한 힘을 보도록. ‘뺨는 것’=실시하고 보이는 것.

출9:22-‘손을 뺨는 것’=유의하는 것.

출10:12-‘네 손을 뺨는 것’=권능의 지배.

뺨치다 (stretch)

출33:7-‘천막을 뺨치는 것’=설비하는 것, 배치하는 것,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것들과 예배 속에 있는 것들을 정돈 배열하는 것.

뼈 (bone, bony, ossify)

* 살도 참조

* 인간의 자아(proprium)...뼈만 앙상하게 나타난다.

* ‘뼈들’=아주 낮은 수준의 것들, 그 이유는 생명이 아주 조금 있기 때문.

* 말씀에서 ‘뼈들’=자아, 사실 자아는 주님에 의해 생기기 있어진다.

* 주님의 자아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가지고 있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창2:23-‘뼈들 중의 뼈’=바깥쪽 인간의 자아; ‘뼈’=그다지 살아있지 않은 자아...

예8:22-‘뼈들을 흠뻑리는 것’=이와 같은 것과 더불어 지옥의 것들.

겔37장-‘생기 얻은 뼈들’

창29:14-‘내 뼈와 내 살’=(진리들에 관하여 그리고 선들에 관하여) 결합. ‘뼈’=지적 측면의 자아...고로 진리에 관련되는 자아.

창49:14-‘뼈만 앙상한 나귀’=가장 수준 낮은 봉사.

‘뼈’= 그것 안에 영적 생명이 거의 없는 것.

창50:25-‘너희는 여기로부터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갈 것이다’=교회의 표현이 있을 것...‘요셉의 뼈들’=가장 외적인 것, 또는 교회의 최말단, 고로 교회의 표현.

출12:46-‘너는 그것 안에 있는 뼈를 부수지 말 것이다’=과학적 진리가 전부일 것이다. ‘뼈’=최말단, 이 안에서 내면의 것들이 자기들의 기초로서 종결된다. 그것들은 뺨쳐나감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지탱해진다. 영적인 것들에서 이런 최말단이 과학물이다...과학물은 인간안의 뼈 같다; 만일 뼈들 전부가 하나 같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는 질서 있지 않으면, 즉 서로의 결합을 부순다면, 육체의 모양도, 그 행동도 깨트려진다.

출12:46-‘뼈들을 부수는 것’=순서상 마지막인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을 파괴하는 것, 질서의 마지막 번째에서 내면의 진리들과 선들은 안주하고 받침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마지막의 진리가 파괴되거나 해체되면 전체 구조는 허물어진다. 최말단의 진리는 말씀의 글자속의 것들이다...이 위에 내면의 진리들이 안주한다...뼈들=진리들.

시35:10-‘뼈들’=과학적 진리들.

애4:7-‘붙었던 뼈들’=최말단인 과학물의 진리들, 나머지 진리들을 섬긴다.

예8:1-‘왕들과 왕자들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진리들이 모독되었다; ‘성직자들과 예언자들의 뼈들’=계속적인 질서에 있는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들.

시139:15-‘내 뼈는 내가 음밀한 가운데 만들어졌을 때 당신으로부터 숨겨지지 않았다’=만들어진 거짓은 숨겨지지 않았다...‘뼈’=질서의 최말단에 있는 진리,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거짓.

예23:9-‘뼈들’=최말단들.

애4:7-‘뼈들’=그들 자신의 최말단에 있는 진리들, 고로 전체 복합체에서의 진리들.

겔37장-‘마른 뼈들’=영적 생명이 거의 없는 것들.

눅24:39-‘살과 뼈들’=인간의 최말단들.

창2:23-‘뼈’=살아 있기 전의 진리, 즉 선과 결합 이전의 진리, 즉 기억 속에 머물고 있는 진리.

눅24장-그분의 ‘뼈들’=최말단의 진리.

민19:16-‘인간의 뼈’=지옥적인 거짓.

겉37장-‘뼈들’=영적 진리의 기초되는 질서의 최말단에 있는 진리들; 그러나 ‘마른 뼈들’=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예8:1-‘뼈들’=거짓들과 악들.

뼈골 (marrow)

시66:15-‘골수가 많은 것들을 태워바침’=사랑 속에 있는 천적인 것들.

이25:6-‘기름진 것들, 골수가 많은 기름진 것들로부터의 잔치’=심정의 환희와 더불어 자연적 영적 모두에 있는 선.

뿌리 (root)

호9:16-‘뿌리가 말리워졌다’=선행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막4:17-‘그들은 그들 자체에 뿌리가 없다’=선행이 없다, 그이유가 선행 안에 신앙은 뿌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 그리고 이 뿌리를 향유하지 않는 이들은 시험들에 노출된다.

말4:1-‘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아있지 않는다’=선행이 없고, (영적) 진리도 없다.

이14:30-‘가름으로 뿌리를 죽이는 것’=주님에 의해 내면에 저축되었던 선들과 진리들을 거두어가버리는 것.

이11:10-‘이새의 뿌리’=주님으로부터 이 선이 있다.

계5:5-‘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로부터’=그분의 인간 안에서 신성한 선이 신성한 진리와 하나됨을 통하여.

계22:16-‘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다’=그분은 주님 자신, 즉 세상에서 태어나셨던 그분, 고로 주님의 신성한 인간 안에 계신 주님. 이로부터 그분은 ‘다윗의 후손과 뿌리라 불리운다.’

겉17:6-‘뿌리들’=지식들.

이14:29-‘뱀의 뿌리’=거짓이 시작됨 또는 거짓 원리.

예17:8-‘강가에 그것의 뿌리를 내보낸다’=영적 인간으로부터 자연적 인간 안으로 총명이 확장됨.

호14:5-‘그는 자기 뿌리들을 박을 것이다’란 거듭남의 둘째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이 상태는 자연 평면에서 거듭남이 결실을 보는 것이다. 그이유가 거기에서 뿌리들이 고정되기 때문.

시80:9-‘당신은 그것의 뿌리들이 뿌리를 가지도록 하셨다’=질서에 의거한 가르침, 즉 그들은 교회 안으로 소개 받았다는 것.

(씨를) 뿌리다 (sow)

* seed도 참조

예12:13-‘밀을 뿌리는 것’=사랑과 선행으로부터 있는 선들.

예2:2-‘뿌러지지 않은 토지’=진리들의 결점.

신21:4-‘쟁기질도 말고 뿌리지도 말라’=무지 때문에 신앙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로 연마되지 않은 것.

출23:10-‘육 년 동안 너는 토지에 뿌릴 것이다’=첫 번째 상태, 즉 교인이 신앙의 선들과 진리들로 가르쳐질 때이다.

출23:11-‘(칠 번째에) 토지에 뿌리지 마라’=이전 같이 진리들로 이끌어가지 말라.

시107:37-‘들판들에 뿌리는 것’=가르쳐지는 것, 그리고 진리들을 받는 것.

신29:23-‘뿌러지지 않는 것’=교회의 진리에 대한 수용력이 없음.

(기름, 액체 등을) 뿌리다 (sprinkle)

출29:16-‘제단 빙둘러 피를 뿌리는 것’=주님 안에서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과 하나되는 것.

출29:21-‘그것들 위에 뿌리는 것’=하나되는 것.

레16장-교회의 외적 측면의 순수해짐이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것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암6:11-‘흩뿌러짐(scatterings)’=거짓들을 통하여 파괴된 진리들.

뿔 (horn)

이5:1-‘내 사랑하는 자는 기름의 아들의 뿔에 포도원을 가졌다’

겉34:21-‘뿔로 치는 것’=모든 힘(force)으로.

겉27:15-‘상아의 뿔과 흑단’=외면의 선들, 이는 예배나 예식들에 있는 선들이다.

합3:4-‘뿔들’=힘.

창22:13-‘그의 뿔들로 해서’=신앙의 진리들 측면에서 모든 힘으로.

시89:17,24-‘우리의 뿔’, 그리고 ‘그의 뿔’=진리의 힘.

시18:2, 삼하22:3-‘구원의 뿔’=힘 측면에서 진리.

시132:17-‘(다윗의) 뿔’=진리의 힘.

삼상2:1,10-한나의 예언에서, ‘(그의 기름부은 자의) 뿔’=진리의 권능.

별

신33:17-‘외뿔의 들소의 뿔’=진리의 큰 힘.
 시92:10, 22:21-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이 그것들의 높이로부터 ‘외뿔의 들소들의 뿔’이라 불리운다
 애2:3-‘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잘라내는 것’=힘을 가진 진리를 박탈하는 것.
 겔29:21-‘이스라엘 가문을 위해 뿔이 자라게 만드는 것’=영적 교회의 진리들이 불어나게 하는 것.
 함3:4-주님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그분의 손으로부터 뿔을 가졌다. 그리고 그분의 강함이 감추여 있었다’=진리의 힘.
 계5:6-주님의 인간의 신성한 진리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나는...일곱 뿔을 가진 어린 양을...보았다, 그것은 온 땅으로 파견하는 일곱 영들이다.’ ‘일곱 뿔들’=거룩 또는 신성한 진리들.
 계9:13-‘나는 금제단의 4 뿔들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제단의 뿔들=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암3:14-‘제단의 뿔들이 잘라질 것이다’=더이상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표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암6:13-‘뿔들’=거짓의 힘.
 슥1:18-21-‘뿔들’=거짓의 힘.
 겔34:21-‘뿔들’=거짓의 힘.
 애2:17, 예48:25-‘뿔’=강한 거짓.
 시75:4,5,10-‘불경한 뿔들’=악으로부터의 거짓의 힘. ‘의로운 자의 뿔들’=선으로부터 진리의 힘.
 단7:7,8,11,20,21,224-26-강하고 세력을 떨치는 거짓.
 단8장-‘숫양의 뿔들’=영적 교회의 내적, 외적 진리들. ‘숫염소의 뿔들’=거짓들 쪽으로 계속 퇴보하는 진리들.
 계12:3, 13:1, 17:3,7,12-거짓의 힘들.
 단8:9-‘남쪽을 향하여 자란 뿔’=악으로부터 거짓의 힘.
 민24:8-‘외각수의 뿔과 강함’=선으로부터의 진리의 힘.
 단8:5-‘숫염소가 가졌던 뿔들’=거짓으로부터의 힘들. ‘그의 눈 사이에서 돌출한 뿔’=신앙의 진리들에 관하여 추론함으로부터의 힘...‘남쪽을 향하여 자란 뿔 하나’=천국의 빛의 상태 속에 있는 것들, 선과 진리의 상태 속에 있는 것들에서조차 분리된 신앙으로부터의 힘.
 출21:28-‘뿔을 가지고 남자나 여인을 치는 것’=진리와 선을 파괴하는 전투하는 거짓.
 미4:13-‘뿔’=선으로부터 진리의 힘.

출21:29-‘뿔로 받는 것’=상해를 입히는 것.
 출21:31-‘뿔로 치는 것’=파괴하는 것.
 신33:17-‘외각수의 뿔들’=신앙의 선과 진리로부터 있는 것들.
 시44:5-‘적을 뿔로 치는 것’=신앙의 진리와 선의 힘으로 거짓들을 파괴하는 것.
 이5:1,2-‘기름의 아들의 뿔’=사랑의 선으로부터 이 교회의 신앙의 선...이 말들에 의해 주님의 영적 왕국이 주님의 천적 왕국과 충분히 결합함이 묘사되어 있다.
 마5:18-말씀의 글자 안에 있는 극히 조금, 한 점, 또는 작은 뿔이라해도 그 안에 거룩한 신성을 포함하지 않은 글자는 없다는 것...‘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까지 한 점, 한 개의 작은 뿔도 법으로부터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출27:2-‘너는 뿔들을 만들 것이다’=힘. ‘뿔들’=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힘.
 출29:12-‘너는 제단의 뿔들 위에 네 손가락을 줄 것이다’=자아로부터 있는 주님의 신성한 힘. ‘제단의 뿔들’=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힘.
 출30:2-‘그것으로부터 그것의 뿔들’=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힘들.
 계9:13, 단7:8, 시22:21-‘뿔’에 의해 권능을 발휘하는 진리, 반대 의미로는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
 시132:17-‘뿔’이 ‘발아된다(bud)’라고 말해진다, 그이유는 모든 영적 싹들은 선으로부터의 진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출30:3-‘거기로부터 뿔들’=외면의 것들. ‘뿔들’=선으로부터의 진리의 힘들.
 출30:10-‘아론은 그것의 뿔들 위에 속죄할 것이다’=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신앙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악들로부터 깨끗해짐...‘뿔들’=힘들. 또한 외면의 것들.
 단8:4-9-(숫양이) 서, 북, 남쪽을 향하여 (뿔로)받았다’=악과 거짓의 흠여짐...‘(숫염소는) 그의 눈 사이에 뿔을 가졌다’=자기 고유의 총명...‘그것이 (숫양 의) 두 뿔을 부러트렸다...’=그것은 선행과 신앙 모두를 완전하게 사라지게 했다는 것...‘숫염소가 부러트린 큰 뿔’=자기 고유의 총명의 불참(non-appearance). ‘그것 대신에 네 뿔이 올라왔다’=확증하려고 말씀의 글자 의미를 적

별

용함. ‘그것들 중의 하나로부터 작은 별이 나왔다’=법을 충족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 자신으로부터 선인 것을 행할 자는 아무도 없다 라고 논쟁함. ‘이 별이 남쪽을 향하여 자랐다’=교회의 모든 것들에 맞서 반란을 일으킴.

계12:3-‘열 별들’에 의해 오류들을 수단으로 설득해대는 힘.

계5:6-‘일곱 별들을 가진...’=그분의 전능하심.

계9:14-‘황금 제단의 네(4) 별들’=영적 천국의 힘. 여기서 네 천사를 풀어주는 힘.

계12:3-‘열 별들’=많은 힘.

계13:1-‘짐승의) 열 별들’=많은 힘.

계13:11-‘(다른 짐승은) 어린 양 같은 두 별을 가졌다’=그들은 말씀으로부터 말하고, 가르치고, 쓰는데, 마치 주님의 신성한 진리인 것 처럼이다.

계17:4-‘(주홍색 짐승은) 열 별들을 가졌다’=계속적으로 말씀으로부터 많은 힘.

계17:12-‘열 별들은 열 왕들, 그들은 아직 왕국을 받지 못했다’=프랑스 왕국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신성한 진리로부터 있는 권한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그들은 로마 교황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은 것은 아닌 이들이다. 이들과 더불어 거기서도 로마 카톨릭 종교로부터 충분히 분리된 교회를 설립한 것은 아직 아니었다를 의미한다.

계17:16-‘네가 짐승 위에서 본 열 별들, 이것들은 매춘부를 미워했었다’=프로테스탄트들과 더불어 있는 신성한 진리들로부터의 권한에 관한 말씀을 의미하는데, 프로테스탄트들은 로마 교황의 지배라는 멍에를 깬 부수었다.

미4:13-‘나는 너의 별을 철로 만들 것이다.’...‘별’=자연적 인간에 있는 힘.

시132:17-‘(다윗의) 별’=주님의 힘.

계5장-‘일곱 별들을 가지고 있는’=전능함을 가지신 분.

삼상2:1,10-‘내 별은 여호와 안에서 그자체 드높여졌다’=신성한 진리가 그녀를 채웠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들에 맞서게 강력함을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왕에게 강함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부는 자의 별을 드높여지게 하실 것이다’=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신성한

선으로부터 주님의 전능하심.

시148:14-‘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별을 드높이셨다’=그분은 신성한 진리들로 그들을 채우셨다는 것.

시89:17-‘별을 드높이는 것’=신성한 진리로 채우는 것, 그리하여 거짓들에 맞서는 힘을 만드는 것.

시112:9-‘별’=신성한 진리이라는 것은 이 구절에서 말해지는바로 명백해진다. 즉 ‘그분의 정의는 영원히 서있다, 그리고 그분의 별은 영광으로 드높여질 것이다.’

합3:4-‘별들’=힘을 가진 신성한 진리...‘그분의 별들에 그분의 강함이 숨겨있다’=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신성한 선의 전능함.

시89:24-‘(내 이름에서) 그의 별은 드높여질 것이다.’=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그분이 가지시는 그분의 신성한 힘.

시132:17-‘(다윗의) 별이 싹튼게 만드는 것’=주님으로부터 지상에서, 천국들에서 신성한 진리가 붙어남.

시18:2-‘바위’, 그리고 ‘별’은 신성한 진리를 서술한다.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수단으로 전능하심, 보호하심, 신성한 진리로부터 신성한 선에 있는 구원하심이 의미되고 있다.

눅1:69-‘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별이’=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구원하는 전능하심.

미4:13-‘나는 네 별을 철로 만들겠다’=신성한 진리는 힘이고 강력하다.

슌1:19,21-‘그들을 흠뜨린 별들’=교회를 황폐되게 하는 악의 거짓들...그러므로 그들에 관해 말해지기를, ‘그들은 유다의 토지에 맞서 별을 들어올린 나라들의 별들을 내던지려고 왔다.’ ‘나라들의 별들’=교회를 황폐되게 하는 악의 거짓들. 이것은 교회가 회복되기 위하여 사라져야만 한다.

애2:3-‘그분은 이스라엘의 모든 별들을 자르셨다’=그는 악의 거짓들에 저항하는 교회의 진리의 모든 힘을 (자르셨다는 것).

단7장-‘별들’, 여기서의 경우 교회의 진리들을 파괴하는 거짓이 뜻해진다.

단8장-‘(숫양 과 숫염소 의) 별들’=선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싸우는 것.

예48:25-이런 거짓들의 파괴가 ‘모압의 별이 잘라진다’

뽕나무-뽕족한 끝-사가랴-사과나무

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에2:17-‘적들의 뽕을 드높이는 것’=거짓들이 진리들을 압도하는 것, 그리고 파괴하는 것.

겔34:21-‘너희는 유약한 양들이 멀리 흩어질 때까지 그것을 뽕로 받는다’=거짓들을 수단으로 아직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갈망하는 곧바른 이들을 파괴하는 것.

암3:14-‘(벤엘의) 제단의 뽕들’=이 악의 거짓들. 그리고 이것들이 파괴되는 것이 ‘뽕들이 잘라질 것이다, 그리고 지면에 떨어질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암6:13-‘우리의 힘으로 뽕들을 가지는 것’=자기 총명의 힘에 의해 진리들이 파괴되어질 수단이 거짓들인체 하는 것.

시75:5,10-‘높은 데로 뽕을 들어올리는 것’=진리에 맞서 거짓들을 강하게 방어하는 것. ‘그들의 뽕들을 자르는 것’=그들의 거짓들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정의로운 자의 뽕들을 드높이는 것’=선의 진리들을 힘세고 강하게 하는 것.

신33:17-‘외각수의 뽕들이 그의 뽕들인 바’=진리가 충만함에 있는 것, 그리하여 힘있는 것.

시22:21-‘외각수의 뽕들’=거짓을 압도하는 진리들.

시92:10-‘외각수의 뽕 같이’=충만되고 힘있는 진리.

계9:13-‘제단의 뽕들’=사랑의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들.

시118:27-‘잔치가 제단의 뽕에서’=예배의 모든 것들. ‘뽕들’, 최말단 측면일 경우=모든 것들.

단8장-‘뽕들’에 의해 진리들이 의미된다. 반대 의미로는 거짓들.

계9:13-‘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뽕들로부터 음성을 들었다’=영적 천국으로부터 있는 주님으로부터의 계시.

단8:9-광대하게 자란 작은 뽕=믿음만으로 의로워짐이라는 교리.

뽕나무 (sycomore)

시78:47-‘뽕나무’=외적 교회의 진리들 (=교회의 자연적 진리)

눅17:6-‘만일 네가 믿음을 가졌다면, 너는 이 뽕나무에게, 너는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어져라고 말할 것이다.’

‘뽕나무’=(악)의 사랑으로부터의 믿음, 이는 악으로부터의 거짓의 신앙이다. 그리고 ‘바다’=지옥...영계에서 이와같은 일은 실제로 거행되고 있다. 악으로부터 거짓의 신앙이 때때로 뽕나무 같이 나타난다. 이것을 천사는 주님으로부터의 신앙을 통하여 뿌리채 뽑아 지옥에 내던질 수 있다. ‘무화과-나무’, 또는 ‘뽕나무’=거기서 선들과 진리들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 반대 의미일 경우 악들과 거짓들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

뽕족한 끝 (point)

침 (sting)

계9:10-‘그들은 꼬리에 침을 가지고 있다’=설득을 수단으로 현혹하는 교활함.

암4:2-‘뽕족한 것 가지고 뽑아내는 것’=말씀과 세상으로부터 과학물을 수단으로 왜곡되게 응용하여 진리들로부터 탄길로 피어내는 것.

민33:55-‘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들’=악의 있는 거짓들이 교회의 선들에 상해를 입힐 것이다.

사가랴 (Zachariah)

마23:35-‘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 ‘사가랴’=교리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 추상적 측면에서, 교리 자체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피’=그것의 사멸.

눅11:51-‘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모든 선이 섞임됨.

사과나무 (apple-tree)

율1:12-‘종려나무’=영적 선으로부터 있는 심정의 기쁨. 그리고 ‘사과나무’=자연적 선으로부터 있는 심정의 기쁨.

사기 (fraud)

창27:35-‘네 아우가 사기 행각을 했다’=질서가 반대로 되었다.

창34:3-‘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물에게 사기로... 대답했다’=고대인들과 더불어 교회의 선과 진리에 관하여 악한 의견과 의도심...‘사기’=악한 의견과 의도심.

말1:14-사기성 짙은 이 예배는 지옥적이라는 것이 ‘사기 행각을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라’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사냥하다 (hunt)

사기-사냥하다-사냥고기-사냥꾼-사는 사람-사다

사냥 고기 (vension)

사냥꾼 (hunter)

창10:9-'그는 여호와 앞에서 사냥함에서 용사였다'=그는 많은 것을 설득했다는 것; 그 이유가 이와 같은 것이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의 속성이기 때문.

*'사냥함', 말씀에서, 일반적 측면에서=설득하는 것; 특별한 측면에서 관능적인 것들을 치켜세움을 수단으로 마음들을 포로화 하는 것.

겔13:8-21-'사냥하는 것'=설득을 수단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뒤집어 놓은 지식들을 수단으로 사기치는 것.

미7:2-'사냥하는 것'=자기를 위해, 거짓을 진리라고 부르기 위해 숨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외교집과 비틀어 말하여 설득해낸다.

창25:27-'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감각적이고 과학적인 진리들로부터 있는 생활의 선...'사냥'=진리들 자체, 그러나 선으로부터 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진리들이다...이 진리들이 과학물들이라 불린다. 그리고 이 과학물에는 두 종류가 있다. 즉 감각적인 진리와 과학적 진리이다. 전자는 어린이들에 있고 후자는 어린이가 성장했을 때 지닌다.

창25:28-'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사냥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신성의 합리성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은 진리로부터의 선을 사랑한다는 것...'사냥고기'=자연적 진리들로부터 있는 생활의 선.

창27:3-'나를 위해 사냥 고기를 사냥하거라'=선으로부터의 진리. '사냥하는 것', 그리고 '사냥고기'=자연 평면의 진리로부터 생활의 선이 있음. 여기서의 경우,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그 이유는 이것이 에서에게 말해졌기 때문.

창27:5-'에서는 사냥 고기를 가져오기 위해 사냥하러 들판으로 갔다'=선에 애착함 이 신성의 합리성과 결합될 진리를 포획하려 노력함...'사냥고기'=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창27:7-'나에게 사냥 고기를 가져오너라'=선으로부터의 진리.

창27:19-'앉아서서 제 사냥 고기를 잡수십시오'=이런 선에 애착함으로부터의 진리...'사냥고기'=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창27:25-'나는 내 아들의 사냥 고기를 먹을 것이다'=선을 수단으로 합리성 자체에 자연적 진리가 결합하기를 갈망함...'내 아들의 사냥고기'=선으로부터의 진리.

창27:30-'그의 형 에서가 사냥함으로부터 왔다'=선으로부터의 진리와 그것의 강림...'사냥함'=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창27:3-'당신의 아들의 사냥 고기를 잡수십시오'=자연적 선으로부터의 진리는 합리성 자체에 자기 것 되어질 것이다...'사냥고기'=자연적 선으로부터의 진리.

창27:33-'사냥 고기를 사냥해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온 그는 누구냐?'=그 진리에 관하여 문의함...'사냥고기'=선으로부터의 진리. 여기서의 경우, 그 진리가 선으로부터인지 아닌지 이 진리에 관하여 조회함.

예16:16-'그들을 사냥하는 것'=교회의 내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

예6장-교회가 자연적 선에, 영적 선에 있는 이들로부터 건설되리라는 것이 '나는 그들을 낚는 어부들, 그들을 사냥하는 사냥꾼들로 보낼 것이다'에서 뜻해지고 있다...영적 선에 있는 이들을 그러모으는 것이 '그들을 사냥할 사냥꾼'에 의해 뜻해져 있다.

애4:8-'그들은 우리의 걸음들을 사냥했다'=거짓들을 수단으로 부추키는 것.

사는 사람 (buyer)

* 사다(buy)를 보라.

사다 (buy)

구매 (purchase)

사는 사람 (buyer)

창7:2-'돈으로 구매한 것'=영적인 것.

* '사는 것', 영적 의미에서=되찾는 것, 영적인 것이 '은으로 샀음'이라고 말해진다, 즉 진리로 되찾음.

이55장-'돈없이 사는 것'..'사는 것'=자신을 위해 포획하는 것.

창31:18-'구매'=또다른 근원으로부터 획득되어져 왔었던 이런저런 것들.

창33:19-'사는 것'=자신의 것 되게 하는 것.

창34:23-'획득물', 그리고 '구매물'=진리들...'구매', 이것은 그밖의 구절에서 '은으로 구매함'이라 말해지는 데,=진리

사닥다리-사데

* '보디발이 그를 샀다'...'사는 것'=그가 자신에게로 돌려놓은 것.

창41:57-'사는 것'=자신을 위해 포획하는 것, 고로 자기것 되게 하는 것. 영적 포획과 자기 것 삼음은 선과 진리를 수단으로 결과되어진다. 이는 세상에서 금과 은을 수단으로 포획하고 자기 소유물로 만드는 것과 상응한다.

창42:5-'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온 자들 사이에 끼여 양식을 사러 왔다'=그는 과학물을 수단으로 영적 진리들이 포획되기를 뜻했다는 것...'사는 것'=포획하는 것.

계3:18-'금을 사는 것'=선을 포획해서 자신의 것 되게 하는 것.

창42:10-'당신의 종들이 식품을 사기 위해 왔었다'=이런 진리들은 선을 수단으로 자연 평면에 잘 어울려지리라 하는 것...'사는 것'=어울리게 되어지는 것.

창43:2-'너는 돌아가서, 식품을 우리에게 사오라'=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은 영적 진리의 선을 자신들을 위해 획득해야한다는 것...'사는 것'=포획하여 자기 것되게 함.

창47:14-'그들이 산 식량 때문에'=그들은 (교회의 진리)를 수단으로 받쳐져야하리라는 것. '사는 것'=자기 것 삼는 것, 그런고로 받쳐주는 것, 그이유는 영적 식량이 취급되기 때문...이것이 자기 것 될 때, 영적 생명이 지탱된다.

창47:19-'빵을 위해 우리와 우리의 밭을 사시오'=그들이 선으로 자탱되도록 모두 자기 것 되게 함. '사는 것'=자기 것이 됨.

창47:20-'요셉은 바로를 위해 이집트의 온 토지를 샀다'=그는 과학물이 있는 자연적 마음을 자신의 것이 되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 평면에서 일반적 후원 아래 두었다.

창47:22-'그는 성직자의 밭은 사지 않았다'=자연으로부터의 내적인 것은 선을 받는 능력을 자체를 위해 포획했다는 것...'사지 않음'=이 능력들을 자신의 것 되게 하지 않음.

창49:30-'아브라함이 샀던 것'=구속함. '사는 것'=자기 것 삼는 것, 고로 되찾는 것.

출12:44-'은으로 구매'=어떤 영적 진리를 가진 것. '구매'=획득과 자기 소유화함.

* '값을 치름 없이 포도주와 우유를 사는 것'=주님으로부터 신앙의 진리와 선을 자신들을 위해 포획하는 것. 고로 무료로.

출21:2-'당신이 히브리 종을 살 때'...'사는 것'=자신을 위해 포획하여 자기 것 삼는 것.

마25장-'사는 것'=그들 자신들을 위해 포획하는 것.

계13:17-'사고 파는 것'=자신들을 위해 지식들을 포획하는 것.

계14:3-'땅으로부터 샀음'=주님을 수단으로 거둬나질 수 있는 이들, 그리고 고로 세상에서 되찾아질 수 있는 이들.

신28:68-'사는 자가 없다'=그들은 지독하게 비열하다는 것.

계18:11-'더이상 사지 않는 것'=더이상 받지 않는 것.

사닥다리 (ladder)

창28:12-'보라 사닥다리가 땅에 놓여졌다'=가장 낮은 진리와 그로부터 파생된 선이 교통함. '사닥다리'=서로 왕래함, 교통함...

* '그것의 머리는 하늘에 닿고 있었다'=신성과 교통함이 있었다는 것.

사데 (Sardis)

계3:1-'사데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거라'=죽은 예배 안에 있는 이들, 또는 선행의 선들과 신앙의 진리들이 결핍된 예배 안에 있는 이들과 그것들에 관하여. (=도덕적 생활은 하는데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 그이유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 이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없는 이들.)

계3:4-'너는 사데에서 조차 몇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 옷들을 더럽히지 않았다'=자기들 생활에 시용하려고 말씀으로부터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을 응용함을 수단으로 영적 근원으로부터 도덕적 생활을 이끄는 이들.

사도 (apostle)

마24:9-'너희', 또는 사도들은 한 복합체에 있는 신앙으로부터의 모든 것들, 고로 복합체의 선과 진리들의 미한다.

사도

눅11:49-‘나는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얼마를 그들은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영적 의미에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을 나타내고 있다.

계18:20-‘사도들’에 의해 복합체 안에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앙 속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이 의미되어진다.

계18:20-‘사도들’은 복합체에서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앙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을 의미한다.

계21:14-‘열 두 기초들, 그리고 그 기초들에 어린 양의 열 두 사도들의 이름들이 있다!’ ‘열 두 사도들’은 복합체에 있는 신앙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과 사랑으로부터의 모든 선들을 뜻한다.

계21장-‘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들’은 일반적, 그리고 특수적으로 있는 교회 속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계18:20-‘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교리속의 진리들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살아간 이들을 뜻한다.

계2:2, 18:20, 눅9:1,2,10, 막6:7,30-‘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이다 말하는 그들을 검증해보았다는 것, 그리고 야닌바,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발견했다’=그들은 교회에서 선들과 진리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하니 아직도 그것들은 악들과 거짓들이라는 것... ‘사도들’이란 인간 사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을 가르치는 모든 이를 말한다. 추상적 의미에서 교회의 교리 속의 선들과 진리들 자체이다. 사도들이 사도들을 의미한 것이 아님은 이런 구절, 즉 ‘너희는 열 두 왕좌에 앉을 것이다’ 같은 구절로부터서도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도들은 누구도 판결하지 못한다는 것, 더욱이 열 두 지파 역시 누구도 심판하지 못하리라는 것, 오직 주님 만이 말씀으로부터 교회 속의 진리들과 선들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어느 누가 모를까? 그리고 이는 계18:20의 ‘오 기뻐하라 천국이여, 그리고 네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로부터도 또한 알 수 있다.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교리 속의 선들과 진리들 안에서 있는 교회의 모든 이들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뻐함은 무엇일까? 주님의 제자들은 교리의 선들과 진리들 안에서 주님에 의해 가르쳐진 이들을 말하고, 주님의 사도들은 가르쳐진 이후 그것들을 가르치는 이들을 말한다. 그렇

기에 ‘주님께서 열 두 제자들을 하느님의 왕국을 전도하도록 내보내셨다. 그리고 되돌아온 사도들은 그분에게 자기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든 말씀드렸다.’

계18:20-그들이 ‘거룩’이라 불리운 이유는 ‘천사들’ 추상적 의미에서=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들. ‘예언자들’=교리 속의 진리들. ‘사도들’=교회 속의 진리들.

계18:20-‘그녀로 인해서 기뻐하라, 오 천국이여, 그리고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하느님께서 그녀에 관하여 너희의 심판을 판결하셨기 때문이다’=천국의 천사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선들과 진리들 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은 지금 심정적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이유는 이런 광신적 신앙으로부터의 악들과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이 제거되었고 거절되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에 의해 말씀으로부터 교회 속의 선들과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추상적으로 말씀으로부터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이 의미된다.

계21:14-‘그것들에 어린 양의 열 두 사도들의 이름들이...’=주님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른 생활에 관하여 말씀으로부터의 교리의 모든 것들... 열 두 사도들에 의해 주님의 교회 속의 모든 것들, 여기서는 교회의 교리의 모든 것들, 그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열 두 기초들에 찍어졌기 때문, 이를 수단으로 새 예루살렘의 교리의 모든 것들이 의미된다.

마19:28, 눅22:30-사도들은 열 두 왕좌에 앉을 것이다... 여기서 사도들에 의해 사도들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을 의미한다.

계2:2-‘사도들’이 교회의 진리들을 가르치는 이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에 관하여,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왕국의 접근에 관하여 가르치고 복음 전하도록, 고로 교회의 진리들을 가르치도록 보내어 졌다는 여건으로부터 이다. 이러므로 사도들은 영적 의미에서 교회의 진리들 안에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추상적으로 진리 자체로 이해된다.

눅11:49-‘나는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언급되는데, ‘예언자들’, 그리고 공히 사도들에 의해서는 진리들을 가르치는 이들이 의미된다. 그러나 ‘예언자’는 구약 성서에서 가르

사두개인-사라

치는 이들, '사도'는 신약 성서에서 가르치는 이들이다.

계21:14-'열 두 사도들'=교회의 진리들 자체인바,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의 벽은 열 두 기초를 가졌다 그리고 그것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해진다.

계18:20-'그녀를 타도했기에 기뻐하라, 오 천국이여, 그리고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말씀으로부터 총명과 지혜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와 천국 안에서의 심정의 기쁨...'사도들'=말씀으로부터 가르치는 이들. 이로부터 지혜 안에 있는 이들.

사두개인 (Sadducees)

마22:23-사두개인은 부활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오늘날 보다 더 잘 부인했는데, 이들은 부활을 부인 않는다고 말하나 심정으로 부인한다.

사라 (sarah)

사래 (Sarai)

* 아브라함 참조

창11:30-'사래는 임신이 안되었기에 그녀에게는 자손이 없었다'=약과 거짓이 더 이상은 그자체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

* '아내'로서의 '사래'=천적 왕국에 인접해 있는 진리; '누이'로서의 '사래'=지적인 진리.

창12:5-'사래'=진리.

* '아내 사래'=주님과 더불어 있는 천적인 것들에 인접한 진리.

창16:1-'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그에게 (아이를) 낳아 주지 못했다'=아직까지는 합리적 인간은 없었다는 것.

* '사래'=선에 인접한 진리.

창16:3-'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데려왔다'=진리에 애착함, 이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아내 사래'이다; 그이유가 '사래'=선에 인접된 진리; 그리고 '아내'=애착.

창17:15-'네 아내 사래'=선과 결합된 진리. '사래'=지적인 진리; 그리고 '아내'가 여기서 추가될 때, 그 여자=선과 결합된 지적 진리.

창17:15-'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래라 부르지 말라, 그이유가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기 때문이다'=그분은 인간성을 벗고 신성을 입으실 것이라는 것...그이유가 이름 사라에 추가된 철자 'H'는 이름 '여호와'에서 가져온 것

으로, 이는 그녀도 아브라함 같이 주님의 신성을 표현해야 했기 때문이다; 즉 주님 안에서 선과 진리의 신성한 결혼을 표현해주기 위하여서이다; 아브라함, 신성한 선, 그리고 사라=신성한 진리, 이로부터 신성한 합리성이 태어난다.

창17:17-'90세 된 딸인 사라가 아이를 낳을까?='선과 결합한 진리는 이를 실행한다는 것; 그이유가 '사라'=선과 결합한 진리, 또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창18:9-'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그 당시 나타나지 않았던 합리적 진리, 그런 이유는 그것이 합리적 선 안에 있었기 때문.

창18:10-'네 아내 사라를 위한 아들...'사라'=합리적 진리.

창18:10-'사라는 천막의 문에서 들었다'=합리적 진리가 그 당시 거룩한 것 근처에 있었다.

창18:11-'사라와 더불어서는 여인의 길(생리)이 중단되어 있었다'=고로 이것은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었다.

창18:12-'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그렇게 행동되어진다는 점에서 이 합리적 진리에 애착함.

창20:2-'사라 그의 아내'=천적인 것과 결합한 영적 진리; 그이유가 '아내 사라'=신성한 선과 결합한 지적인 진리; 또는 천적인 것과 결합한 영적 진리.

창21:1-'여호와께서 사라를 방문하셨다'=신성한 영적인 것 안에 신성한 천적인 것이 현존함.

창21:3-'사라가 그에게 낳은...'=신성한 천적인 것에 하나된 신성한 영적인 것으로부터의 실재와 실체.

창21:12-'사라가 네게 말한 모든 것, 그녀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그분은 영적 진리에 따라 행동하실 것이라는 것.

창23장-여기서의 '사라'=기한이 만료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창23:1-'사라의 삶들은...이었다'=앞서 진행되었던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에 관련한 교회의 때들과 상태들.

창23:1-'사라의 삶의 햇수들'=신성으로부터의 어떤 진리가 잔존했었던 동안...'사라의 삶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에 관련한 상태들.

사람

창23:2-‘사라는 죽었다’=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에 관련된 밤...‘사라’=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창23:19-‘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했다’=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선과 결합한 진리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아내로서의 사라=선과 결합한 진리.

* (이삭의 어머니로서의) 사라=신성한 진리.

창24:67-‘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 안으로 그녀를 들였다’=신성한 인간 안에 있는 진리의 성소...‘사라, 어머니’=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이로부터 신성한 인간이 출생되고, 이 인간 속의 합리성이 그녀의 아들 이삭에 의해 표현되었다.

사람 (man, homo)

* 남자, 여자, 남성, 여성도 참조.

창1:26-‘우리의 모습에 따른 우리의 형상이 되도록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통치하게 하자’...태고 교회에서...주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그러므로 그들은 그분, 그리고 그분 속에 있는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로부터가 아닌 것들, 즉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가졌다고 지각한 것들; 즉 사랑의 모든 선과 신앙 속의 모든 진리를 그들은 사람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주님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고로 예언서에서 언급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최고 의미에서 주님을 뜻하고, 내적 의미에서 지혜와 총명, 고로 거듭나는 모든 이 각각을 뜻하고 있다.

창2:7-‘지면의 먼지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는 것’=그의 외적 사람을 만드시는 것, 전에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 그이유가 5절에서 ‘지면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사람은 생 혼이 되었다’=그의 외적 사람 역시 살아 있게 만들어졌다.

창3:20-‘사람’=태고 교회 속의 남자, 또는 천적 인간; 그리고 주님만이 사람이라는 사실에서...거기서부터 그는 교회 속에 있던 사람이라 불리웠다...그리고 결국 신체에 관련하여 짐승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 인간으로 나타나는 모든 이를 사람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6:11-그는 슬기 있는 ‘사람’, 또는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 불리운다.

창3:24-‘사람을 쫓아냄’=사람은 선한 의지와 진리를

이해함에서 멀어지는 만큼에서 사람이 아닌데, 이것들 모두가 박탈되는 것.

창4:1-‘사람은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다.’ ‘사람과 그의 아내 이브’에 의해 태고 교회가 의미되었다.

창4:25-‘사람과 그의 아내’는 새로운 교회를 뜻하고 있다.

창6:1-여기서의 ‘사람’은 그 시기의 인류를 의미했다.

창6:7-‘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의지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사람은 그가 짐승과 구별되게 하는 것인 의지와 이해함을 제외하면 사람이 아니다. 여타 다른 것은 짐승들과 매우 비슷하다.

창9:5-‘사람의 손으로부터’=그의 모든 자발적 속성으로부터...그이유가 인간의 본질과 생명은 그의 의지이기 때문.

창9:6-‘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선행을 소멸하는 것. ‘사람 안에’=사람과 더불어 인 이유는 사람은 그자신만 떼어낸다면 더럽고 불경할 뿐이기 때문이다.

겔1:26-여기서 말해진 ‘사람’은 주님이시다.

창32:28-하느님과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진리들과 선들에 관련하여.

겔1장-‘보좌 위에 사람의 모습’=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주님.

출8:17-‘사람과 짐승 위에 이가 들러붙다’=탐욕들로부터의 내면과 외면의 악들...‘사람’=선, 반대 의미에서 악...그러나 ‘사람과 짐승’이 같이 언급될 경우, 사람에게 의해서는 내면의 선, 또는 내면의 악이 의미된다...이런 이유는 사람은 외적 인간으로부터가 아닌 내적 인간과 이 인간의 품질로부터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일 외적 인간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내적 인간에 완전하게 종속되어야 한다...

겔14:21-‘사람과 짐승을 자르는 것’=내면과 외면의 선이 황폐해짐

출9:9-‘사람 위에 그리고 짐승 위에 있을 것이다’=내면과 외면의 악으로부터 인 것. ‘사람’=선에 애착함, 그리고 반대적 의미에서는 악을 탐함; ‘짐승’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사람과 짐승’라고 말해질 경우, ‘사람’은 내면적 애착을, ‘짐승’은 외면적 애착을 의미한다. 내

사람

면적 선, 또는 내면적 악, 이것이 '사람'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의도나 목적 속에 있다; 그이유가 의도와 목적은 사람의 가장 깊은 속이기 때문이다.

계9장- '사람들'=선에 애착함들.

출12:12-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조차'=그들의 내면과 외면의 악...그이유가 '사람'에 의해 내면의 선에 애착함이 의미되기 때문.

계21장- '사람'과 '천사'에 의해 신앙 속의 모든 진리와 선이 의미되고 있다.

출13:2- '사람 안에 그리고 짐승 안에'=내, 외면의 믿음 속의 선.

계21장- '사람'=교회; 그리고 '천사'=천국.

창3장- '사람과 그의 아내'에 의해 천적 교회가 의미되고 있다; 남편으로서의 사람 자신에 의해 선에 관련된 천적 교회, 아내에 의해 진리에 관련된 천적 교회가 의미되고 있다.

계13:18- '사람의 수'=이 교회의 상태와 상황.

계21장- '사람'=이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나 부분적에서나 공히 있는 것, 고로 그 안에는 천국이 존재한다; 그리고 천사 역시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이기에 '사람의 자, 곧 이것은 천사의 자이기도 하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계21장- '사람'=총명.

이31:3- 이런 것들이 자야로부터 있다는 것, 고로 그것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이집트는 사람이지 하느님이 아니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13:12- '남자 (a man- vir homo (enosh))'=총명; 그리고 '사람 (a man- homo (adam))'=지혜.

계9:7-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그들은 자신들에게 슬기로운듯 나타났다는 것.

계13:18- '사람의 수'=말씀의 품질, 그로부터 교회의 품질. '사람'에 의해 지혜와 총명이 의미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로부터의 지혜와 총명; 고로 또한 교회 속의 사람과 더불어 지혜와 총명에 관련된 말씀; 그이유가 교회 자체가 주님 앞에서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 속의 사람은 자기와 더불어 말씀으로부터 있는 교회의 품질에 따라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그의 영에 관련되어 나타난다. 이것이 '사람의 수'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계21:17- '사람의 측정, 이것은 천사 속에 있는 (것)'=그 교회의 품질, 이것이 천국과 하나를 만든다...이 구절의 '사람'은 사람들로부터의 교회를 의미했다.

이51:12- '사람'=지혜에 관련된 인간, '사람의 아들'=총명에 관련된 인간.

시124:2- '사람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아니하였다면'=사람이 자신으로부터, 그의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자신의 총명으로부터...교회 속의 진리들을 파괴하려 골몰할 때...

계9:4- '사람'=진리에 애착함, 그리고 파생된 총명과 지혜; 이 구절의 경우 진리를 이해함과 선을 지각함.

이3:25- '너의 사람들이 겹에 의해 떨어질 것이다'=진리를 이해함은 거짓들을 통하여 파괴될 것이다.

창2장-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도 교회를 뜻하고 있다.

계9:10-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그들이 그 상태에 있는 한 진리를 이해함과 선을 지각함에 무감각해지도록 권유하는 것.

계9:15-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는 것'=진리에 대한 모든 이해와 이로부터 파생된 영적 생명을 그들로부터 박탈하는 것.

호13:2- '사람을 희생하는 것'=영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

겔19:3- '그는 사람들을 삼켰다'=진리에 대한 모든 이해함을 파괴함.

시104:14- '사람'=파생된 총명.

겔38:20- '사람'=첫 순위로부터 마지막 순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 (즉 생각들, 애착들 등등).

계11:13-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들은 칠 천이다'=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이 멀해졌다...

계13:13- '사람들 앞에'=특별히 자신의 총명 속의 자만에 빠져 있는 이들 앞에...

계16:21- '천국으로부터 사람들 위에 내려오는 것'=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진리를 이해함을 파괴하는 지옥으로부터...; 그이유가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함에 관련된 교회 속의 사람, 또는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진리를 이해함을 의미했기 때문.

사람들

사람들 (people)

백성, 민중 (popular)

* '나라, nation'=선, 또는 악, 그리고 '사람들'=진리, 또는 거짓.

창9:6-'사람들은 하나이다'=그들 모두는 신앙의 진리를 함께 가졌다는 것.

창14:16-'여인들과 사람들'=선들과 진리들 둘 다.

창17:14-'백성'=진리들, 고로 '백성'=진리들 안에서 사는 이들, 즉 천사들...

창17:16-'백성의 왕들...'=결합한 진리들과 선들로부터의 진리들... '백성'=진리들, 일반적 측면에서 모든 영적인 것들.

창19:4-'외곽 지역으로부터의 모든 사람들'=거짓들의 모두 그리고 각각 하나.

이24:2-'사람들', 그리고 '성직자'=내면의 진리들과 선들.

신33:3-영적인 것이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23:11-'사람들의 아들들'=진리들 쪽으로 처음 개시한 이들.

창23:13-'토지의 사람들'=영적 교회 속의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 속의 진리들.

창25:16-'그들의 백성의 열 두 우두머리'=영적 교회의 모든 제일가는 것들... '백성'=진리들에 있는 이들.

창25:23-'두 백성이 네 배(viscera)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그것에서부터 있는 진리... '두 백성'이라 말해진 이유는 진리는 내면과 외면이 있기 때문.

창25:23-'(이) 백성이 (저) 백성 보다 우세할 것이다'=우선으로 진리가 진리의 선에 우세해 있을 것이다.

창26:11-'백성'=영적 교회의 이들.

창27:29-'백성이 너를 섬길 것이다'=교회의 진리들. '그리고 백성이 네게 절할 것이다'=선의 진리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앞의 '백성'=교회의 진리들, 이는 영적 진리들이라 불린다. 그리고 뒤의 '백성'=선으로부터의 진리, 이는 영적 선들이다...(그러므로 히브리어에서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한다).

창28:3-'너는 여러 백성을 위해 있을 것이다'=풍부함.

렘26:11-'검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거짓을 수단으

로 진리들을 파괴하는 것.

창32:7-'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반으로 나누었다'=에서에 의해 표현된 선을 받기 위해 자연 평면에 서 진리들을 준비하고 배치함.

창33:15-'나와 더불어 사람들'=선의 진리 속의 어떤 것들.

창34:16-'우리는 하나의 사람들일 것이다'=교리 측면에서의 결합.

창35:6-'그와 그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자연 평면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백성'=진리들. 고로 '그와 더불어 사람들'=이 선으로부터의 진리.

창35:29-'그의 사람들에게로 그러모아졌다'=이제는 신성한 자연 평면의 것들 사이에 있다는 것.

창41:40-'네 입에 모든 나의 사람들이 키스할 것이다'=자연 평면에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 순종함 아래 있을 것이다.

창41:55-'사람들은 빵을 위해 바로에게 소리쳤다'=진리를 위해 선이 필요함.

창42:6-'그는 토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팔았다'=모든 자기 것 됨은 요셉으로부터 있다는 것.

창47:21-'그는 도성들에 이 사람들을 이동시켰다'=과학적 진리들이 교리적인 것들에 적용되었다는 것

창47:23-'요셉이 사람들에게 말했다'=내적인 것이 과학적 진리들 안으로 유입됨.

창48:4-'나는 너에게 여러 백성을 줄 것이다'=증가함. '여러 백성'=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창48:19-'이 하나 또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선으로부터의 이 진리 또한 증가할 것이다.

창49:10-'그에게 백성의 순종이 있을 것이다'=그분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들이 진행되는 것... '백성'=진리들에 있는 이들, 여기서 진리들, 고로 영적 교회의 사람들.

창49:16-'그는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 그의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이것은 일반적 측면에서 있는 진리들 중의 하나이다는 것... '백성'=진리들에 있는 이들. 여기서 진리들에 있기는 하나 선 안에는 아직 있지 않은 이들. 그이유가 그들은 단의 사람들이기 때문.

창49:29-'나는 내 사람들에게로 그러모아졌다'=그는

사람들

자기로부터 있는 자연 평면의 선들과 진리들에 있음에 틀림없다는 것. (그이유는 '그의 사람들', 여기서의 경우,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그들로부터의 지파들이기 때문).

시107:32-'백성의 회중'=총명 속에 있는 진리들에 있는 이들.

창50:20-'많은(great) 사람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지금부터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이 생명이 있다.

출1:9-'바로가 그의 사람들에게 말했다'=종속된 과학물에게. '사람들'=진리들. 그리고 반대 의미로는 거짓들. 여기서의 경우, 진리로부터 분리된 과학물, 그이유는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사람들이기 때문.

출1:20-'사람들이 불어났다, 그 수가 극도로 증가했다'=자연 평면에 있는 진리들이 계속적으로 생산되었고 고로 증가했다는 것.

출1:22-'바로가 모든 그의 사람들에게 명령했다'=교회의 진리들에 반대하는 과학물 안으로 일반적 유입이 있다.

신33:19-'산으로 백성들을 부르는 것'=진리들이 선이 되게 하는 것, 또는 신앙이 선행이 되게 하는 것. 그이유가 '백성'=신앙의 진리들이기 때문.

출3:7-'나는 내 백성의 고뇌를 보아왔다'=거짓들의 침입을 받은 이후 영적 교회의 이들을 향한 자비.

출5:5-'오, 토지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영적 교회로부터 있는 이들이 불어남.

출6:7-'나는 너를 백성으로 나에게로 받을 것이다'=그들은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추가되어질 것이다. 그이유가 천국에서 '주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들은 지상에서도 역시 그렇게 불리웠었기 때문.

출7:4-'나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끌고 나아갈 것이다'=선들과 진리들에 있는 이들은 해방되어지리라는 것...'백성'은 영적 진리와 선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고로 영적 교회인이다.

출7:26-'내 백성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가게 하라'=자유로움에서 자기들의 하느님을 예배하도록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놔두려는 것.

출7:28-'백성의 집 안으로'=자연 평면의 모든 것들.

출8:19-'나는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되찾음을 놓을 것이다'=지옥들 근처에 있는 이들로부터 영적 교회인을 해방시킴.

출9:17-'아직도 너는 내 백성에 맞서 네 자신을 우쭐하게 하고 있다'=진리와 선에 있는 이들에 침입하는 것을 아직도 단념 않고 있다.

출11:8-'나가거라, 너, 그리고 네 발에 있는 모든 백성'=가장 높은 신성으로부터 가장 낮은 신성까지 신성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로부터 떠나가게 해달라는 탄원.

출13:17-'바로가 백성을 떠나 보냄에서'=침입했었던 이들이 영적 교회인들을 놓아주었을 때.

출14:6-(바로는) 자기와 더불어 자기 백성을 거느렸다'=모두 각각에서의 거짓들과 더불어. '백성'=진리, 반대 의미에서는 거짓, 여기서의 경우,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이것은 바로와 이집트인들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출15:14-'백성들이 들었다'=모든 곳의 악으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모든 것들. '백성'=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 반대로는 악으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이들.

출15:16-'네 사람들이 건널 때까지'=침입당하는 위험 없이 선의 진리와 진리의 선을 받는 능력 안에 있는 모든 이는 구원될 것이다.

출17:5-'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그분은 영적 교회의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출18:10-'그분의 백성을 이집트의 손 아래로부터 구출하신 분'=진리의 선과 선의 진리에 있는 이들을 향한 자비.

출18:14-'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앞에 서있는 모든 사람들'=그당시 영적 교회인은 모든 상태에서 의지로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출18:18-'너는 많아 없어질 것이다. 너, 그리고 너와 더불어 사람들 모두 다'=이식되었던 진리가 멀해질 것이다...'모세'=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사람들'=그것을 받는 이들.

출18:21-'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찾으라'=근무하는 진리들을 선택함.

출18:23-'이 모든 사람들은 평화로이 각자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영적 교회인은 선 안에 있을 것이고, 선

사람들

으로부터 인도 될 것이다.

출18:25-‘그는 백성들 위에 그들을 머리로서 세웠다’= 이런 진리들 안으로 유입이 있다.

출19:10-‘백성에게로 가라’=결합...‘백성’=영적 교회인.

출19:14-‘모세는 산으로부터 백성에게로 내려갔다’=선 안에 있는 진리를 받기 위해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통하여 준비하고 적용함.

출19:21-‘백성들이 여호와를 보려하다가 낙하하지 않도록 그들이 기원하게 하라’=영적 교회인은 천적인 것이 있는 천국 안으로 가기를 바라지 않도록 하라.

출19:23-‘백성들은 시내산으로 오를 수 없다’=(영적 왕국의 이들은) 천적 왕국으로 자신들을 승강되게 할 수 없다.

신33:17-‘그의 뿔로 사람들을 치는 것’=진리들을 수단으로 거짓들을 파괴하는 것.

출22:25-‘만일 내가 내 백성에게 은을 빌려준다면...’=진리의 무지함에 있는 이들을 가르침...‘백성’=진리들에 있는 이들. 여기서의 경우, 진리에 무지함, 그이유는 그것이 ‘필요한 백성’이라 말해지기 때문.

출22:28-‘백성’=교리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

출23:11-‘네 백성의 궁핍한 자가 먹을 것이다’=진리들을 거의 가지고 있으나 진리로 가르쳐지기를 갈망하는 자들과 선행의 선을 통하여 결합함.

출23:27-‘나는 모든 백성을 혼란해지게 할 것이다’=모든 거짓들이 당황해함.

출24:3-‘모든 백성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교회 속에 진실로 있는 이들에 의해 이해성에서 받음.

출30:33-‘그는 그이 백성들로부터 잘라낼 것이다’=분리와 영적 죽음...‘백성’=신앙의 진리들과 선들에 있는 교회인.

출34:10-‘나는 모든 네 백성 앞에서 경이로운 것들을 행할 것이다’=말씀은 교회를 위해 각각 그리고 모든 것에서 신성이라는 것. ‘모세의 백성’=교회가 있는 곳.

출34:10-‘백성 한가운데 모세가 있는 백성’=말씀이 있는 교회, 고로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

계5:9-‘모든 백성으로부터’...‘백성’에 의해 교리로부터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그리고 추상적으로는 교리의 진리들. (=영적 선에 있는 이들)

계7:9-‘사람들과 혀들(언어들)’=교리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 ‘사람들’=진리들에 있는 이들.

계21:3-‘그들은 그분의 백성일 것이다’=그들은 주님의 것이다.

이11:10-‘백성을 위한 표시’=그분은 진리들에 있는 이들에 의해 보여진다는 것.

이18:2-‘혼란케하고 약탈하는 백성’=진리들을 제거하고, 바꾸고, 뒤집은 이들.

눅1:68-‘그분의 백성’=선들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

눅2:31-‘이들은 그분의 ‘백성’이라 불리운다.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 고로 그것을 통하여 그분을 받는 이들.

신7:16-‘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에 맞서는 악들과 거짓들이 ‘모든 백성’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겔38:16-‘내 백성 이스라엘에 맞서 올라가는 것’=교회의 진리들을 공격하는 것.

시85:8-‘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평화를 말하실 것이다’=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에게.

미6:2-‘주님은 그분의 백성과 논쟁을 하신다’라고 말해지고 있다...그이유는 ‘백성’에 의해 진리들에 있는 이들과 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뜻해지기 때문.

이49:1-‘먼데로부터 백성’=선들에 있는 이들. 추상적으로는 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들...여기서는 ‘백성’=선들, 그이유는 원어에서 다른 단어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나라들’ 또한 이 단어로부터 이름되었다.

창49:10-‘그에게 백성의 순종’=그분으로부터의 진리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결합.

이33:19-‘굳어진 백성’=악의 거짓들에 있는 이들. 그리고 ‘입술이 타락한 백성’=진리의 외관조차도 교리의 거짓들로 확증해버린 것.

이40:7-‘백성은 풀이다’=진리 안에 있었으나 지금은 거짓 안에 있는 이들.

이14:20-‘백성을 죽이는 것’=교회의 진리들을 소멸하게 하는 것.

속12:6-‘훔뜨려질 거짓들이 ‘그들은 빙들러 있는 모든 백성을 삼킬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었다.

시74:18-‘어리석은 백성’=거짓들.

겔31:12-‘땅의 모든 백성이 그를 떠났다’=교회의 모든

사람의 아들

진리들.

시65:7-‘백성의 시끄러움’=거짓을 수단으로 반론함.

신20:1-‘너보다 많은 사람들’=일반적 측면에서 거짓들.

시96:13, 98:9-‘백성’=진리들에 있는 이들, 그러므로 그분은 진리에서 사람들을 판결하실 것이라고 말해진다.

계18:4-‘내 백성’=진리들에 있는 이들, 그리고 진리들을 통하여 생활의 선에 있는 이들.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신32:8-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어 온 이들은 ‘사람의 아들들’이라 불린다. (=신앙 속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창11:5-‘사람의 아들들이 짓고 있는 것’=교회의 아들들이 창안하고 있는 것.

마24:30-‘그런다음 천국에서 사람의 아들의 표시가 나타날 것이다’=그런다음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나타남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마24:39-‘사람의 아들의 옴이 그러할 것이다’=그들은 신성한 진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의 오심’은 그당시 계시되어질 신성한 진리이다.

마25:31-‘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영광 안에서 올 때’=신성한 진리가 그것의 빛 안에서 나타날 때, 이것은 인간이 죽을 때 모든 사람에게 발생한다. 그이유가 그때에 그는 천국의 빛 안으로 오는 바, 그 안에서 그는 진리와 선이 무엇인지 지각하기 때문, 그리고 자기 자신의 품질을 지각하기 때문. ‘사람의 아들’, 내적 의미에서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이시다. 고로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이다.

계1장-‘사람의 아들’=신성한 진리.

계13:9-‘사람의 아들’=선으로부터의 진리. 최고 의미에서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마13:37-‘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교회의 진리들 측면에서의 주님.

마17:12-‘그들이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자체에도 마찬가지로 행할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그들로부터 고통 받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사람의 아들’=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눅17:22-‘사람의 아들의 날 중의 하나라도 보기를 바

라는 것’=진짜인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상태들 중의 하나.

눅18:8-‘사람의 아들이 올 때, 그가 땅에서 믿음을 발견할까?’=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천국으로부터 계시될 때, 그것은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또는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마26:64-‘이후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사람의 아들’=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요3:13-‘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즉 하늘들에 계신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는 없다.’ 이로부터 ‘사람의 아들’은 천국들에 있는 신성한 진리임이 분명하다. 그이유가 자기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가 천국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 진리이신바, 그분은 자신을 ‘하늘들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신다.

마8:20-‘사람의 아들은 자기 머리를 놓을 곳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의 아들’=신성한 진리, 이는 그 당시 어느 장소에도 놓일 곳이 없었다, 또는 어느 사람에게도 없었다.

마12:32-‘사람의 아들에 맞서 말을 하는 것’=아직 믿어지지 않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맞서. ‘사람의 아들’=신성한 진리.

마24:30-‘하늘에서 사람의 아들의 표시’=신성한 진리의 나타남.

계1:13-일곱 촛대 사이에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이분으로부터 새 교회가 있다.

계14:14-‘구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있다’=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요1:52-‘사람의 아들 위에서 하느님의 천사가 오르고 내려가고 있다’=신성한 진리들이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있었다는 것.

이51:12-‘사람’=지혜 측면에서의 인간. ‘사람의 아들’=총명 측면에서의 인간.

시49:2-‘사람의 아들들’=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있는 영적 진리들. ‘사람의 아들들’=이해함으로부터 있는 합리적이고 자연적인 진리들. 고로 말씀을 이해함.

사랑-사랑하는-사래-사렘다

마12:32-‘사람의 아들’=땅에 있는 신성한 진리. 고로 자연적 의미에서 있는 말씀. ‘사람의 아들에 맞서 말을 말하는 것’=말씀의 자연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 이는 외관에 의거한 말씀의 글자의 의미이다.

사랑 (love)

창29:20-‘그 세월은 그가 그녀를 사랑함 안에서 며칠 정도로서 그의 눈 안에 있었다’=사랑의 상태; 즉 지루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

창29:32-‘이제 내 남자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거기서부터 진리의 선이 있다. ‘사랑할 것’=과생되는 선; 그이 유가 모든 선은 사랑 속에 있기 때문.

마6:24-‘사랑하는 것’=사랑의 천적 평면; 그리고 ‘충실히 대하는 것(cleave)’=사랑의 영적 평면.

창34:3-‘그는 소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심정에 이야기했다’=사랑.

창37:3-‘이스라엘은 그의 모든 아들들 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합리성의 신성한 영적인 것이 자연의 신성한 영적인 것과 결합함. ‘사랑하는 것’=결합되는 것; 그이 유가 사랑은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

창44:20-‘그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한다’=자연 평면으로부터 영적인 선과 결합함을 가진다는 것. ‘사랑하는 것’=결합.

출20:6-‘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사랑의 선을 받는 이들.

계1:5-‘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에게...’=사랑과 자비로부터 이신 그분.

계3:19-‘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는 질책하고 야단친다’=그들은 주님에 의해 사랑되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놓여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사랑하는 (beloved)

신33:12-‘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천적인 선으로부터 있는 영적 진리.

호9:1-‘매춘것을 하고 매춘 샅을 사랑하는 것’=진리들을 왜곡하고 왜곡된 것들을 사랑하는 것.

출21:5-‘나는 내 주인, (내) 여인을 사랑한다’=영적 선들을 회상함으로부터의 즐거움. ‘사랑하는 것’=회상함으로부터의 즐거움.

렘23:5-‘아시리아인들을 사랑하는 것’=추론함을 사랑

하는 것.

계3:9-‘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그들은 주님에 의해 사랑되고 천국 안으로 받아졌다는 것.

계12:11-‘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혼을 사랑하지 않았다’=주님 보다 더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계20:9-‘사랑하는 성’=새 교회의 교리.

요14:21,23-‘사랑하는 것’, 주님에 관련해 말해질 때,=그분이 현재 계신 것...그이유는 사랑은 결합, 또는 현존을 결합하기 때문.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로 들어간다...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자, 즉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자에게 들어가신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내 가르침을 간직하여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하리라...’에서도 가르치신다.

눅20:13-‘사랑하는 아들’에 의해 신성의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이 뜻해진다.

이5:1-‘내 사랑하는 자’=주님, 그이유는 그분이 교회들을 복구하시기 때문.

요15:9,10-‘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만일 내가 내 명령들을 지킨다면,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호4:8-‘그들이 사랑했다’=거짓을 사랑함.

사래 (Sarai)

* 사랴를 보라

사렘다 (Sarepta)

눅4:26-‘시돈의 사렘다’=진리를 갈망하는 교회 밖 사 람들.

눅4:26-‘시돈의 사렘다, 과부 여인 외에는’=선 안에 있고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 외에는. 시돈의 사렘다가 말해지는데, 그이유는 ‘시돈’=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

사론 (Sharon)

이35:2-‘갈멜과 사론’=천적 교회.

* ‘사론’=천적 교회의 내적 측면.

이33:9-‘사론, 바산, 그리고 갈멜’=말씀의 자연적 의미로부터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측면에서의 교회.

사마리아 (Samaria)

사마리아 사람 (Samaritan)

사론-사마리아-사마리아 사람-사막-사무엘-사별-사분의 일-사수-사슬

겔16장-‘사마리아’, 고모라의 장소에서 언급되는바,=거짓들 측면에서의 [교회].

겔23장-‘사마리아’=진리에 애착함 안에 있는 교회 (=영적 교회).

마10:5-‘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읍들’=거짓들에 있는 이들.

왕하6:9,20-그들은 엘리사에 의해 사마리아로 데려와 졌고, 거기서 그들의 눈들이 열렸다=말씀을 통하여 가르침.

눅10장-‘사마리아 사람’=진리에 애착함 안에 있는 자...그이유는 ‘사마리아’, 말씀에서,=이 애착.

미1:5-‘사마리아’=변질된 신앙으로부터의 교회.

암3:12-‘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외적 예배 안에 있는 그들.

호7:1-‘사마리아의 악들’=의지 속의 악들.

마10:5-‘사마리아의 성으로 너희는 들어가지 마라’=주님을 거절하는 이들로부터의 거짓 교리...그이유가 사마리아 사람이 그분을 시인하지 않았던 때문에.(눅 12:52-56)

호10:7-‘사마리아’=영적 교회, 또는 선행과 신앙이 하나님을 만드는 교회 그러나 그것이 상도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사마리아’=선행이 신앙으로부터 분리되어간 교회, 더욱이 그것이 본질이라고 발표한다. 그러므로 또한 ‘사마리아’=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가 없는 것, 선 대신 악한 생활이 있다, 그리거 진리 대신 교리의 거짓이 있다. 이것이 ‘사마리아는 잘라진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미1장-‘사마리아’=교리의 진리들 측면에서의 영적 교회. 여기서의 경우, 교리의 거짓들.

사막 (desert)

* 광야(wilderness)를 보라.

사무엘 (Samuel)

예15:1-‘모세와 사무엘’=말씀

사별 (bereavement)

빼앗다 (bereave)

창42:36-‘나로부터 너희는 빼앗았다’=고로 교회는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빼앗는 것’=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을 교회로부터 박탈하는 것, 여기서의 경우,

‘요셉, 베냐민, 시므온’에 의해 표현되는 것들.

창43:14-‘그리고 나, 내가 빼앗겨야만 한다면 나는 빼앗기리라’=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기 앞서 교회의 진리들을 박탈될 것이다. ‘빼앗겨지는 것’=교회 속에 있는 진리들을 박탈당하는 것.

이47:9-‘사별과 과부됨’

이47:9-‘사별’=진리와 선의 박탈.

겔36:14-‘더이상 빼앗지 못할 겹’=거짓은 더 이상 진리를 파괴하지 않을 것.

사분의 일 (fourth)

* 넷(four)을 보라

사수 (archer)

창49:23-‘사수가 그를 미워하고 있다’...여기서의 ‘사수’는 영적(왕국의) 교회에 있는 이들에 반대되는 이들이다. 그이유가 활을 가지고 쏘는 자, 또는 사수란 활이 영적 교회 속의 교리적인 것들을 의미한다는 취지로부터 볼 때 영적 인간을 의미하기 때문...

예4:29-사수, 또는 활을 잡고 있는 이들이란 교리 속의 거짓들 가지고 진리들을 공격하는 이들.

예4:29-‘사수의 음성’=거짓된 교리적인 것들.

사슬 (chain)

이40:19-‘금속 장인이 그것을 금으로 덧씌우고 은으로 사슬을 주조한다’=추론을 수단으로 그는 교리의 거짓들이 진실로 나타내게 한다는 것.

이40:19-‘은으로 사슬을 주조한다’=그것들이 진리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조리가 서게 만드는 것.

출28:14-‘순금의 두 사슬들’=전체 왕국의 선은 서로 일치함. ‘사슬들’=일치함. 사슬이 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사슬은 서로를 함께 결합하는 수단이기 때문.

출28:14-‘너는 박아끼운 것 위에 꼬아만든 사슬을 놓을 것이다’=진리들이 오게하는 선을 가지고 결합함, 하여 영적 왕국은 모든 일과 힘을 수단으로 보존된다는 것.

출28:22-‘너는 가슴판 위 끝에서 사슬을 만들어라’=가장 바깥의 것에서 전체 천국이 결합함...‘사슬’=밀착함, 고로 결합.

계20:1-‘그의 손에 큰 사슬을 가지고’=노력함 그리고 묶고 푸는 행동.

사십(40)

나3:10-‘사슬을 가지고 묶는 것’=진리들이 생겨날 수 없게 거짓들을 수단으로 묶는 것.

사십 (40, forty)

창7:4-‘사십 낮과 밤’=시험의 지속 (기간)...‘40’=시험의 지속인 이유는 이것, 즉 주님은 40일 동안 자신을 시험받이지게 하시어 고통당하셨다로부터 근원하기 때문이다...표현적 교회들이 각각 그리고 전체적인 것에서 주님께 대한 예징이었듯이, 사십 역시 그러한바, 사십 낮과 밤은 일반적 측면에서 모든 시험을, 특히 시험의 존속을 의미하고 표현했다. 그리고 인간은 시험 안에 있는 동안 그는 자아에 속한 모든 것과 육에 속하는 모든 것이 황폐됨 안에 있다....그러므로 또한 ‘사십 낮과 밤’=황폐함의 지속이기도 하다.

* (계 13:5에서)-이 구절에서 ‘42’가말해지고 있다, 이는 ‘40’과 똑같다. 이것의 근원은 7일=황폐함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리고 ‘6’=노동, 땀흘림, 또는 전투의 육일로부터이다. 그러므로 7과 6을 곱함으로써 결과되는 숫자 42는 황폐함의 지속과 시험의 지속 또는 거듭나야지기 위한 인간의 땀흘림과 전투를 의미하는바 그 42 안에는 거룩한 것이 있다.

창7:17-‘사십 일’=‘노아’라 불리는 교회의 지속(기간)...여기서는 ‘사십 일’이라 말해진다. 4절의 경우, ‘사십 낮과 밤’이라 말하는데, 그이유는 4절의 사십 안에는 근심 불안이 잠복하는바 이를 ‘밤’이 표현하기 때문이다.

창8:6-‘사십 일의 끝에 왔다’=이전 상태의 지속기간, 그리고 새로운 것의 시작.

* ‘80’은 ‘40’과 똑같은 의미, 즉 시험들을 내포하고 있다.

창18:29-‘거기서 사십이 발견되어질 것이라면’=시험들 안에 있어 왔던 이들. (그이유가) ‘40’=시험들.

창25:20-‘이삭은 사십 세의 아들이었다’=(그분)자신 고유의 힘으로부터 시험들을 통하여...‘40’=시험들.

창26:34-‘에서는 사십 세의 아들이었다’=진리로부터 있는 자연적 선에 관련되는 시험의 상태...‘사십세’=시험의 상태. ‘사십’=시험들.

창50:3-‘사십 일이 그를 위해 충족되었다’=시험들을 수단으로 준비되는 상태. ‘40’=시험들.

출16:35-‘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사십년 동안 만나를 먹

었다’=모든 시험들의 상태에서 진리로부터의 선을 자기 것 되게 함...‘사십 년’=시험들의 상태.

출24:18-‘모세는 사십 낮과 사십 밤을 산에서 있었다’=알려주심과 유입됨이 완전 충분한 것...‘사십’=완전 충분한 것인 이유는 ‘4’=충분한 것, 그리고 ‘10’ 역시 비슷한 의미인데, 숫자 40은 4에 10을 곱함으로써 결과하기 때문이다.

출34:28, 신9:18,25, 10:30, 민14:33,34, 신25:3-‘40’=완전 충분함 인 바, 모세는 시내산에서 사십 낮과 사십 밤을 남아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졌던 바는 ‘그 모든 세대가 사라질 때까지’였다. 그러므로 땅 위에 비는...사십 일 낮과 밤 내렸다. 이로부터 명백한바, 왜 사악한 자를 사십번 매질을 하도록 명령되었는지는이다; 그 이유가 ‘사십 번 매질’=완전 충분한 처벌. 그러므로 ‘40’은 표현에 관하여서는 완전 충분한 것을 의미한다.

출26:19-‘은으로 된 받침 40개’=진리를 수단으로 완전 충분하게 버팀.

계11장-‘마흔 두 달’은 6주(weeks)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그 이유가 6에 7을 곱하여 42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출34:28-‘그는 여호와와 더불어 사십 낮과 사십 밤을 있었다’=내적인 것이 교회 속에, 예배 속에, 그리고 말씀 속에 존재하기 앞서 있는 시험들. ‘사십 낮과 밤’이 인간과 더불어 있는 교회를 서술할 경우=시험의 상태.

계11:2-‘마흔 두 달’=남아 있는 것이 확실히 없을 때 인 참으로 끝남.

* 교회 속에 어떤 진리도 선도 남아 있지 않을 때가 ‘마흔 두 달’에 의해 의미되는 이유는 ‘42’가 6주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6에 7을 곱한 것이 42이다. 그리고 ‘6주’는 참으로 끝까지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숫자 ‘6’이 이 의미를 지니고 있고, ‘주’=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7주’=거룩한 상태, 즉 교회의 새로운 상태, 즉 주님이 그분의 왕국을 시작하실 때이다.

* 더욱이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3과 절반(1/2)이다. 그 이유는 42개월이 3.5년을 만

사십 이-사십 오-사악함-사울-사웨-사위

들기 때문이다.

계13:5-‘마흔 두 달’=새 것의 시작이 있는 한편 이전 교회의 끝; 이와 같은 의미가 3과 1/2, 그리고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또한 ‘일천 이백 육십’에도 있다. 그 이유가 42월이 3년 반을 만들기 때문이다.

계11:2-‘마흔 두달’=구 교회의 끝, 그리고 새 교회의 시작.

* 숫자 ‘40’과 ‘42’가 말씀에서 교회의 완전 충분한 황폐, 또는 완전 충분한 시험 중의 하나를 의미하고 있다.

* (노아와 홍수에서) 비는 사십일 내렸다=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통하여 (태고 교회)의 파멸; 그러나 새로운 교회의 시작은 이 40일 후 땅이 마름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 그 이유가 ‘40’은 악의 끝, 그리고 선의 시작을 의미했다..

* 교회의 황폐, 또한 완전 충분한 시험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체재함에 의해 의미되었다....이런 문단들로부터 명백한바, ‘40년’은 이스라엘 아들들과 더불어 교회의 황폐됨, 뿐 아니라 완전 충분한 시험을 의미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햇수의 끝은 새 교회의 시작이다.

왕하2:24-‘42’=불경함(모독).

계13:5-‘그에게 이 일을 행할 권능이 마흔 두달 주어졌다’=남아 있는 선과 진리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의 파괴...‘마흔 두 달’=완전 충분한 황폐와 소진됨, 고로 남아 있는 어떤 선도 진리도 없는 때까지 파멸됨. 이와 같은 의미가 왕하 2:24에서 42명의 아이가 찢어 죽임을 당하는 것에서도 의미되고 있다.

사십 이(42, forty-two)

* 사십을 보라

사십 오 (45. forty-five)

창18:28-‘만일 내가 거기서 사십 오(명)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것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만일 그들이 결합되어 질 수 있다면 그는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45는 5에 9를 곱해 결과된다. 그러므로 45는 5와 9가 지닌 의미와 같다. 즉 5= 아주 조금... 9=결합, 또는 결합인 것; 고로 여기서의 경우 ‘45’=만일 선들이 진리들과 아주 조금 결합되어 있다 (해도 구원은 가능함).

* 45=얼마 정도의 결합

사악함 (wickedness)

* 악의(malice)도 보라.

출2:13-‘그는 사악한 것을 한 그에게 말했다’=...신앙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지 않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 이에게..

출9:27-‘여호와가 올바르게이다. 나와 내 백성이 사악했다’=신성한 선은 침입자의 악의를 참아줄 수 없었다는 것...‘그들의 사악함’=악의.

시109:6-지옥의 악과 거짓이 그들에게 널리 퍼졌는바, ‘당신은 제 위에 사악한 자를 놓으시고, 사탄이 제 오른쪽에 서있게 하소서’라고 말해진다.

사울 (Shaul)

출6:15-‘사울’=교회 밖에서 행동하는 진리로부터의 것들.

사울 (Saul)

삼하1:23-왕으로서의 사울은 교회를 보호하는 진리를 뜻한다. (=교회의 진리) (=선으로부터의 진리) (=교회의 신성한 진리)

* 사울 (악령이 그를 덮치고 있을 때)=영적 진리들에 반대하는 거짓들. 이것은 하프 소리에 의해 흐트러졌다, 그 이유는 ‘하프’=영적 진리에 애착함 이기 때문.

삼하1:22-‘사울의 검’=선으로부터의 진리.

사웨 (Shaveh)

창14:17-‘사웨의 골짜기’=외적 인간의 선들.

사위 (son-in-law)

창19:14-‘룻이 자기 딸과 결혼하기로 되어있는 사위에게 말했다’=선에 애착함에 결합되어질 수 있는 진리들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사위’=진리에 관한 지식들, 그 결과 진리들. 여기서는 교회내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취급한다. 즉 진리들을 알고 있으나 그에 따라 살지 않는 자. 이들이 ‘사위’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특별하게는 가르치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설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진리 안에서의 신념이 없다. 이 구절에서 사위들은 소돔이 멸망함을 전혀 믿지 않았고 비웃었다.

사자 (lion)

이11:6-‘어린 사자’=(송아지에 의해 의미되는 순진과

사자

사랑)에 반대되는 것.

겔38:13-스바와 도단으로 일컬어진 이들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위해 싸우고 방어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린 사자들'이라 불린다.

단7:4-교회의 첫 상태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묘사되어 있다.

신33:22-'단은 사자의 새끼이다'. 내적 의미에서 '사자'=사자의 힘셈으로부터 교회의 진리이다. 그이유가 진리는 싸우고 정복하기 때문. 이로부터 '사자의 새끼'=진리의 첫 번째, 이는 확언함과 인정함이다.

왕상10:19,20-'손들 옆에 두 사자가 서있다'...'사자들'=싸우고 정복하는 신성한 진리들. '열 두 사자들'=한 복합체에 있는 모든 진리들.

시17:12, 22:13, 7:2-거짓들과 악들에 의해 선이 같기 같기 찢기움이 '불경한 자의 모습은 은밀한 곳에 움크리고, 찢기를 갈망하는 사자 같다', 또는 '그들은 사자가 으르렁대고 찢으려 입을 벌리듯, 자기들의 입을 나를 향해 벌렸다.' 또는 '건져줄 자 없어 그들이 사자 같이 내 혼을 붙잡아 찢지 않도록...'등등에서 뜻해지고 있다.

창49:9-'유다는 사자의 새끼이다'=천부적으로 힘을 가진 순진.. '사자'=사랑의 선, 그리고 그것의 힘 측면에서 파생되는 진리.

* 계5장에서, 주님은 그분의 신성한 사랑과 파생되는 신성한 진리에 속하는 전능하심으로부터 (유다 지파의) 사자라 불리워진다.

창49:9-'그는 자신을 구부렸다. 그는 사자 같이, 늙은 사자 같이 웅크렸다'=사랑의 선과 그것의 힘 측면에서 파생되는 진리...

시57:4-'사자들의 이빨들'=진리들을 파괴하는 거짓들. '사자들'=힘 측면에서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계4장-외적 형체에 있는 진리와 파생되는 선이 '사자'와 '송아지'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사자'=힘 측면에서 선으로부터의 진리.

암3:12-'사자'=교회를 황폐케하는 이들.

왕상7장-'사자들'에 의해 진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을 의미한다. '사자들'=그것의 힘 측면에서 진리들.

계9:8-'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것 같았다'=감각적인 것들은 마치 그것들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있는듯 그

들에게 나타났다는 것.

계4:7-'첫째 동물은 사자 같았다'=힘 측면에서 말씀의 신성한 진리.

계5:5-'잘 보아라...사자'=주님, 즉 그분이 세상에 계셨을 때, 모든 것을 질서대로 환원하시고 지옥들을 복종하게 하신 그분의 권능 측면에서의 주님. '사자'=권능 측면에서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 그리고 주님이 신성한 진리 자체, 또는 말씀이실 때, 그분은 '사자'라 불리우신다.

계10:3-'그는 사자가 표호하듯 큰 음성으로 소리쳤다'=교회가 그분으로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있는 큰 탄식.

계3:2-'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진리들로부터 추론하는냥 거짓으로부터 추론함.

단7장-'사자'에 의해 그것의 첫 상태에서 있는 말씀의 신성한 진리, 그리고 그것에 의해 교회가 복구됨.

암3:2-'사자'=교회. 여기서의 경우, 선들과 진리들을 파괴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

호3:8-'거대한 사자'=악으로부터의 거짓의 힘.

이35:9-'사자는 거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진리를 파괴하는 거짓은 없다.

신33:20-그는 거짓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그는 사자 같이 거주한다'에 의해 의미된다.

시57:4-'사자들'=교회의 진리들을 파괴하는 이들.

나2:11-'젊은 사자들'=교회의 제일 되고 방어하는 진리들.

계9:17-'말들의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다'=지식과 이 지식에서 파생하는 진리를 파괴하는 생각.

겔9:3,5,6-'젊은 사자'=교회의 진리를 파괴하고 열의를 보이는 악으로부터의 거짓.

예12:8-'하느님에 맞서 말하는 숲으로부터의 사자'=전체 복합체에 있는 악으로부터의 거짓.

이30:6-'젊은 사자', 그리고 그들을 압도하는 '늙은 사자'=교회의 선과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의 힘.

시91:13-교회의 진리들을 황폐하게 하는 내면과 외면의 거짓들을 파괴하는 것이 '사자와 독사를 밟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예5:6-'실력자를 쳐부순 숲으로부터의 사자'=지옥의

사흘째마다 일어나는-삿-삿꾼-산

거짓이 지배함.

호13:7-‘나는 그들에게 사자가 되어있다’=교회의 모든 진리가 파괴되고 황폐해짐.

애3:10-‘은밀한 장소에 사자’=자기 안의 악들로부터 있는 내면의 자연적 인간은 말씀의 진리의 모든 의미, 그리고 교회 속 모든 진리를 곡해해버린다.

사자 (messenger)

창32:3-‘아굽은 사자들을 보냈다...’=교통하는 것.

사절 (ambassador)

이18:2-‘바다로 사절을 보내는 것’=과학적인 것과 상 담하는 것

사정거리 (shot)

창9:23-‘활 사정거리’=진리와 소원해진 때의 상태...‘사 정거리’=가능한 한 먼 것.

사초 (sedge)

창41:2-‘그들은 사초에서 먹고 있었다’=가르침...사초, 또는 강가에 있는 큰 풀밭=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과학물들.

이19:6-더이상 자연적 진리들과 감각적 진리들이 있지 않을 것임이 ‘갈대와 사초가 시들 것이다’에 의해 의미 되고 있다.

사탄 (Satan)

계2:9-‘그러나 사탄의 무리들이다’=그들은 교리 측면 에서 거짓들에 있기 때문에...‘사탄’=거짓들에 있는 이 들로부터 있는 지옥.

계2:13-‘너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거주한다’=그 들의 삶은 진한 어둠에 있다.

계2:13-‘사탄이 거주하는 곳, 너희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자’=교회에 있는 거짓들을 통하여 모든 진리가 소 멸되었을 때.

계2:24-‘네가 말한 대로 사탄의 깊이를 모르는 자’=단지 거짓들만 있는 자기를 내면들을 이해 못하는 자.

계3:9-‘사탄의 회당’=교리 측면에서 거짓들에 있는 이 들.

계20:7-‘천 년이 끝날 때, 사탄은 그의 감옥으로부터 풀려날 것이다’=주님께서 보다 낮은 땅에 숨겨 보호했 던 이들이 천국 안으로 들어와 새 천국이 불어난 후 거 짓들로 믿음을 확증했던 이들이 풀려난다는 것.

사티로스 (Satyr)

이13:21-‘사타로스’=현세에의 욕망.

이13장-‘사타로스’=섞음질된 선들.

사파이어 (sapphire)

청옥 (sapphire)

* stone도 참조

출24:10-‘사파이어로 작업된’=거기서 내적 진리들로부터 반투명한 것. 그리고 주님으로부터의 모든 것들. (그 이유가) ‘사파이어로 된 일’=내적 의미가 글자 의미 안에서 통각될 때 말씀의 글자 의미의 품질.

겔1:26-‘사파이어 돌’=내적 진리들로부터 반투명한 진 리. ‘돌’=진리, ‘사파이어’=반투명.

이54:11-‘사파이어’들=내면의 진리들.

출28:18-‘녹옥수, 청옥, 금강석’=진리로부터의 천적인 사랑. 이 열의 돌들은 붉은 색으로부터 있는 푸른 색에 관여되고 있다. 즉 불꽃인 것으로부터 내향적으로 번득 인다.

겔1:26, 10:1-왕좌가 사파이어 돌의 양상 같이 나타난 이유, ‘사파이어’=그분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그리고 천적 선으로부터 투명한(명료한) 영적 진리.

출24:10-‘그분의 발 아래는 사파이어로 작업되었다’= 최말단들에 있는 신성한 진리, 또는 글자에 있는 신성한 진리. ‘사파이어’=내적 진리들로부터 반투명하는 것.

사할 (Zachar)

겔27:18-‘사할의 양털’=자연적 선.

사흘째마다 일어나는 (tertian)

* 셋(three)을 보라.

삿 (hire)

삿꾼 (hireling)

* 고용하다(hire)를 보라.

산 (mountain)

시72:3-‘산들’과 ‘언덕들’=태고 교회.

창7:19-‘높은 모든 산들이 덮여졌다...’=선행의 모든 선들이 소멸되었다...태고인들과 더불어 산은 주님을 의 미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산 위에서 그분을 예배했기 때문이다; 그이유는 산은 땅이 가장 높이 치솟아 있는

산

것이기 때문. 이로부터 산들은 천적인 것들을 의미했다. 이것 역시 가장 높은 것들, 즉 사랑과 선행이라 불리웠다. 고로 사랑과 선행으로부터의 선을 의미했다...반대적 의미에서, 마음 안에서 의기양양해져 있는 것들, 즉 자아 사랑도 산이라 불리운다. 말씀에서 태고 교회는 산이 땅 위 높게 승강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마치 천국에 더 가까운듯, 어떤 것의 시작에 가까운듯 하여 산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시73:3-‘산들’=주님을 사랑함

겔20:40-‘거룩함의 산’=주님을 사랑함.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웃을 사랑함.

이2:2-‘여호와와의 집의 산은 산들의 머리에 건설되었다’=주님, 그리고 천적인 모든 것.

이25:6-‘이 산’=주님, 그리고 천적인 모든 것.

이30:25-‘모든 드높은 산 위에’. 산들’=사랑으로부터의 선들.

이30:29-‘여호와와의 산’=사랑으로부터의 선들 측면에서의 주님.

이40:9-‘높은 산으로 오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사랑과 선행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는 가장 깊은 것들, 고로 가장 높은 것이라 불리운다.

이42:11-‘산들의 머리로부터 외치는 것’=사랑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52:7-‘산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사랑의 교리와 선행의 교리로부터 주님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이 교리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55:12-‘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사랑과 선행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49:11-‘산’=사랑과 선행.

이65:9-‘산’=주님의 왕국, 그리고 천적인 선들.

마24:16-‘유대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도망하라’에서 ‘산’에 의해 사랑과 선행이 주님께 의해 뜻해지고 있다.

창8:4-‘아라랏의 산들’=발광(체, lumen). (그이유가) ‘산’=사랑과 선행. (이것들로부터) 새로운 빛이 조명된다.

창8:5-‘산들의 머리가 나타났다’=신앙으로부터의 진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산들’=사랑과 선행.

겔38:8-선행(charity)이 ‘이스라엘의 산들’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창10:30-‘동쪽의 산’=선행. 사실상 주님으로부터의 선행. 말씀에서 ‘산’=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선행.

예51:25-‘태워진 산’=자아 사랑.

창12:8-‘벤엘의 동쪽의 산으로 옮겨가는 것’=사랑의 천적인 것들이 발전해 감. ‘산’=천적인 것.

이2:14-‘높은 산들’=자아 사랑, ‘드높은 언덕들’=세상 사랑.

이40:4-‘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게 만들 것이다’=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이42:15-‘나는 산들과 언덕들을 황무해지게 할 것이다.’ ‘산들’=자아 사랑, ‘언덕들’=세상 사랑.

신32:15-‘산들의 기초’=지옥들.

창19:17-‘산으로 도망하라’=사랑과 선행의 선 쪽으로.

창19:19-‘저는 산으로 도망할 수 없습니다’=자신의 존재가 선행의 선을 소유할 수 있는지 의심함.

마24:16-‘산으로 (너희들은) 도망하라’=주님을 사랑함과 이 사랑에서 파생되는 이웃을 향한 선행.

창19:30-‘그는 산에서 거주했다’=어떤 종류의 선 쪽으로 자신이 향하도록 해보는 것.

호4:13-‘산들과 언덕들’=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시104:10-‘산들’=선과 진리를 사랑함.

창22:2-‘산들 중의 하나 위에’=신성으로부터의 사랑. ‘산’=사랑, 여기서는 신성으로부터의 사랑.

시114:4-(영적 선으로부터의)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숫양들 같이 경충경충 뛰는 산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22:14-‘산에서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선행, 이를 통하여 영적 평면이 구원되도록 설비하셨다.

예16:16-‘...모든 산 위에, 모든 언덕 위에 사냥꾼들...’ 선에 애착함, 진리에 애착함을 가진 이들을 가르치는 것.

겔35:12-영적 선들과 진리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산들’이다.

여11:17, 12:7-‘세일 산’, 거기서 예서가 거주했는데, 털많은 것 역시 비슷한 뜻을 지닌다. 이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세일로 올라간 산, 이는 ‘매끈한 산’

산

이라 불려졌다. 그리고 이것은 선으로 올라가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55:9-‘유다로부터 내 산들의 상속자...’=주님. 표징적 의미에서 그분을 사랑함에 있는 이들. 고로 양쪽 사랑들로부터 선에 있는 이들. ‘산들’=이런 선들.

슌6:1-‘두 산들 사이에’=두 사랑들, 즉 천적 사랑, 주님을 사랑함, 영적 사랑, 이웃을 사랑함.

창31:21-‘그는 자기 얼굴을 길르앗 산에 놓았다’=거기에 선. ‘산’=사랑의 천적인 것. 즉 선, 이와 더불어 결합이 있었다.

창31:25-‘야곱은 산에서 자기 천막을 고정시켰다’=선이 있었던 사랑의 상태. ‘산’=선.

창31:54-‘야곱은 산에서 제물을 바쳤다’=사랑의 선으로부터 예배함. ‘산’=사랑의 선.

창31:54-‘그들은 산에서 밤을 보냈다’=고요함.

시95:4-‘교회의 진리들이 선으로부터 그 진리의 힘을 가지는 바, ‘산들의 힘’이라 불리운다.

겔6:13-고대인들이 언덕과 산에서 예배했었는데, 기이유는 언덕과 산이 천적 사랑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절 경우 같이 그들의 예배가 우상 숭배로 전락했을 때, 산과 언덕=자아와 세상 사랑.

은2:6-‘산들의 적출(excision)’=가장 세계 정죄되어진 이들이 있는 곳. 그들 주위에 나타나는 짙은 안개(mist)가 ‘산들’이다.

호4:13-악을 예배함이 ‘산들의 머리 위에서 제물을 바침’에서 의미되고 있다.

암9:13-사랑과 선행으로부터의 선이 ‘산들이 포도액을 떨어트리고 언덕들은 녹아질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시104:13-‘산들에 물을 주는 것’=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있는 이들에게 복주시는 것. ‘산’=사랑의 천적인 것.

계8:9-‘불로 타는 큰 산’=자아 사랑.

이2:2, 미4:1-‘여호와의 산이 산들의 머리를 위해 있을 것, 그리고 언덕들 위로 들어올려질 것.’ ‘여호와의 산’, 이는 시온이다=주님의 천적 왕국, 고로 이 왕국의 선, 이는 주님을 사랑함이다. 고로 최고 의미에서 주님 자신. 기이유가 천적 왕국의 모든 선과 모든 사랑은 주님

으로부터 있기 때문.

이30:25-‘물의 시내들’이 ‘모든 높은 산과 들어올린 언덕 위에’ 있다고 말해진다., 기이유는 이런 지식들은 천적 사랑의 선과 영적 사랑의 선으로부터 흐르기 때문.

합3:6-‘영원으로부터의 산들’=태고 교회의 것이었던 사랑으로부터의 선. ‘시대의 언덕들’=상호 사랑의 선, 이것이 이 교회 속에 있었다.

신33:19-‘산으로 백성을 부르는 것’=진리들이 선들이 되게 하는 것. ‘산’=선행으로부터의 선.

출3:1-‘그리고 하느님의 산에 왔다’=그당시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선이 나타났다.

출3:12-‘너는 이 산 근처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사랑으로부터 신성을 지각하고 인정함...‘산’=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선.

출4:27-‘그는 하느님의 산에서 그를 만났다’=거기에서 사랑의 선 안에서 결합함...‘하느님의 산’=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선.

계6장-‘산들과 바위’에 의해 악들과 거짓들이 의미되어진다.

출15:17-‘당신의 상속의 산에서’=선행의 선이 있는 천국.

출18:5-‘그는 하느님의 산에서 진영을 차렸다’=진리의 선 가까이...‘하느님의 산’=사랑의 선, 여기서는 진리의 선, 기이유는 영적 교회를 취급하기 때문.

호4:13-‘산들’, 그리고 ‘언덕들’=자아사랑, 그리고 세상 사랑.

시18:7-‘산들’=사랑의 선.

이11:9-‘내 거룩함의 산’=순진의 선이 있는 천국과 교회.

예17:3-‘뜰판에 있는 내 산’=천적 교회의 사랑.

시90:2-‘산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교회의 회복을 뜻한다. 기이유가 ‘산’, 말씀에서=천적 사랑, 고로 이 사랑이 있는 교회.

출32:12-‘산에서 그들을 죽이는 것’=선에 있는 이들이 멸해지리라는 것.

계17장-그들이 있었던 산들은 ‘일곱 산들’에 의해 계시록에서 뜻해진 이들이다...‘일곱 산들’에 의해 명령함의

산

모독된 사랑이 뜻해진다.

계6:13-‘모든 산과 섬이 그것들의 장소로부터 옮기워졌다’=사랑의 모든 선과 신앙의 모든 진리가 물러나졌다는 것.

계6:15-‘산들의 바위들’=악으로부터의 거짓들.

계6:16-‘그들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라 하고 말했다...’=거짓을 수단으로 악을 확증함, 그리고 악으로부터 거짓을 확증함.

계17:9-‘일곱 머리들은 일곱 산들이다, 거기에 여인이 앉아 있다...’=말씀의 신성한 선들, 이 위에 로마카토릭의 광신적 신앙이 기초되어 왔고, 시간 안에서 파괴했고, 결국 모독했다.

계21:10-‘그는 나를 크고 높은 산 위에 영 안에서 운반했다...’=요한이 셋째 천국으로 이동되어졌다는 것.

신1장-‘아모리족의 산들에 의해 악령의 세계가 의미되어졌다.’

예3:6-‘모든 높은 산에 가는 것’=말씀으로부터서 조차 선에 관한 모든 지식들을 얻으려 애쓰는 것.

마5:14-‘산에 놓인 성읍’=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진리.

예4:24-‘산들’과 ‘언덕들’=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선행.

이7:25-‘팽이로 파질 산들’=선을 사랑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이들.

시46:2-‘산들’=사랑의 선들, 진리의 필수적 지식들이 남용될 때, 이 산들이 ‘바다의 심장에서 동요된다’라고 말해진다.

이14:25-‘내 산들 위에서’=거기는 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이 통치한다.

이49:13-‘산들’=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선에 있는 이들.

겔36:6-‘산들과 언덕들에게 말하라...’ ‘산들’=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

이42:12-‘산들의 머리’=그들과 더불어 사랑의 선.

숙6장-‘눅쇠 산’=자연적 인간에 있는 사랑의 선.

이66:20-예루살렘이 진리를 사랑함으로부터 ‘거룩함의 산’이라 불리운다.

시72:3-‘백성에게 평화를 가져 올 산들’=주님을 사랑

함.

이52:7-‘(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있는) 산들’=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

율3:18-‘산들이 포도액(또는 포도주)을 떨어뜨린다’=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으로부터 모든 진짜 진리가 있다.

겔39:4-‘이스라엘의 산들’=선행의 선들.

시43:7-‘산들의 기초들’=교회가 기초를 둔 진리들.

나1:5-‘(여호와 앞에서 떠는) 산들’=주님을 사랑함이 있는 교회.

겔38:20-‘(전복되어질) 산들’=사랑의 선.

이30:25-‘모든 높은 산 위에 있는’ 그들=주님을 사랑함의 선에 있는 이들.

합3:10-‘산들이 동요되었다’=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 있는 이들은 거절되어졌다.

미4:1-주님의 왕국이 ‘산들의 머리에서 설립될 여호와 의 산’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시65:6-‘산들’=사랑의 선.

시121:1-‘나는 산 쪽으로 내 눈을 들어올렸다, 거기로부터 도움이 온다.’ 여기서의 ‘산’은 천국을 뜻한다.

이30:25-‘(마지막 심판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선행에 있던 이들은 천국으로 들러지고 총명과 지혜를 빨아들일 것임이 ‘모든 높은 산 위에, 들어올린 언덕위에 시내가 있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49:11,13-‘나는 길을 위해 모든 나의 산들을 놓을 것이다...’=사랑의 선들과 선행의 선들에 있는 이들은 진짜 진리들에 있을 것이다...사랑의 선으로부터 근원하는 환희로부터 고백함이 ‘너희 산들이 노래한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44:23-‘네 산들아 노래하여라’=사랑의 선으로부터 근원하는 환희로부터 고백함. 여기서 ‘산들’은 선행의 선을 의미한다.

이55:12, 시148:9-‘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기 시작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산들과 언덕들아...’ 이 구절에는 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으로부터 있는 심정의 환희를 묘사하고 있다.

이42:11-‘그들은 산들의 머리로부터 소리칠 것이다...’ ‘산들의 머리’=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

산

시68:15-‘하느님의 산은 바산의 산이다.’ ‘바산의 산’은 자발적인 선을 의미한다. 이는 교회의 외적인 측면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선이다.

시114:4-‘산들이 솟양 같이 뛰고, 언덕들이 양떼의 새끼들 같이 뿔다’=천적인 선, 이는 사랑의 선. 그리고 영적인 선, 이는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 기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

시80:10-‘산들이 그것의 그림자에 의해 가리워졌다’= 모든 교회는 영적 선으로부터 있다... ‘산들’=영적 선들.

이64:9-‘내 산들’, 이의 ‘상속자가 유다로부터 있을 것이다’=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 이로부터 그것 안에 있는 이들.

예16:16-‘그들은 그들을 모든 산들 위에서, 그리고 모든 언덕들 위에서 사냥할 것이다’=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 ‘언덕 위의 이들’=선행의 선에 있는 이들.

겔36:8-‘이스라엘의 산들’=선행의 선들.

시36:6-‘하느님의 산들’=선행의 선.

시104:6,8,10,13-‘물들이 산 위에서 서있다’=거짓들이 자연적 사랑들의 즐거움 넘어 있다, 이 즐거움들은 그 자체 악들이다. ‘산들’=이런 사랑들로부터의 악들... ‘산들이...당신이 그들을 위해 기초한 장소로...’=그들로부터의 악들과 자연적 사랑들이 있던 장소에 그들로부터 선들과 천적 사랑들이 삽입되어진다는 것... ‘그들은 산들 사이에서 갈 것이다’=그들은 천적 사랑의 선들로부터 있을 것이라는 것... ‘그분의 침실로부터 산에 물을 대시는 분’=모든 선들은 천국으로부터 진리들을 수단으로 있다는 것... ‘산들’=사랑의 선들.

속6장-‘병거들이 산들 사이로부터 나가고 있다’=진리들을 수단으로 선으로부터 형성되어질 교리.

속14:5-‘그다음 너희는 내 산들의 골짜기를 통하여 도망할 것이다’=그다음 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이 구조될 것이다.

겔40:2-에스겔에 의해 보여진 새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지어졌음이 틀림없다.’

시48:1-영적 선으로부터 있는 영적 진리가 ‘우리 하느님의 도성에, 그분의 거룩함의 산 위에’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14장-(루시퍼가) 회합의 산에 앉을 것이다’=주님의

천적 왕국을 구성하는 천국들 위에.

이37:24-‘레바논의 측면, 높은 산들로 올라감’=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을 파괴하려 골몰함.

시147:8-‘그분이 자라게 만드는 풀이 있는 산들’=사랑의 선, 이로부터 이 선에 있는 이들.

신33:15-‘동쪽 산들의 첫 열매, 그리고 시대의 언덕들의 귀중한 것들’=진짜 선들,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선행 둘 모두.

마28:12-‘산들 위에 양들...’=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에 있는 이들. 그러나 ‘길을 잃은 하나’는 이 선에 있지 않은 하나, 그 이유는 무지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기 때문.

막13:14-‘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게 하라’=주님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사랑의 선에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이2:14-‘만군의 여호와와 날이 모든 높은 산들과 솟아오른 모든 언덕들 위에 닥칠 것이다’=마지막 심판,, 이때 악한 자들은 그들이 영계에서 접거했던 산들과 언덕들로부터 내던져질 것이다.

이40:4-‘모든 골짜기가 드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게 만들어질 것이다’=심정에서 겸손한 모든 이들, 즉 선들과 진리들에 있는 이들은 영접되어질 것, 그리고 마음이 득의 양양해있는 모든 이,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 있는 이들은 풀이 죽게 될 것이다.

겔33:28-더이상 선행의 선과 신앙의 선이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해진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겔6:2,3-‘네 얼굴을 이스라엘의 산들 쪽에 놓고, 그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이스라엘의 너희 산들아, 주 여호비의 말씀을 들어라. 하여 주 여호비께서 산들과 언덕들에 말하신다...’ ‘이스라엘의 산들’=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게 더 이상 생활의 선이 없을 때,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자아와 세상 사랑으로부터 진행되는 악들.

겔38:20-‘이스라엘의 산들’=영적 사랑으로부터의 선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런 선들에 반대되는 사랑으로부터의 악들.

미6:2-‘너는 산들과 논쟁하라, 하여 언덕들이 네 음성을 듣도록...들어라, 오, 너희 산들아, 여호와와 논쟁...’ ‘산들’에 의해 선행의 선, ‘언덕들’은 신앙의 선, 그러나 여기서는 반대 의미인바, 선에 반대되는 악들과 거짓들.

산

예51:25-‘나는 네게 맞서 있다, 오, 온 땅을 파괴하는 산. 그리고 나는 네게 내 손을 뻗을 것이다, 그리고 바위들로부터 너를 굴러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게 불타진 산을 줄 것이다.’...자아 사랑과 이 사랑으로부터 파생되는 거짓들로부터 (바빌론이) 파괴하는 산이라 불리운다. ‘땅’=교회, ‘불타짐’=자아사랑. 이런 사항으로부터 명백한바, ‘산들’에 의해 자아와 세상사랑으로부터의 악이 의미된다는 것.

미1:4-‘마지막 심판에서) 산들과 골짜기에 있는 이들의 파멸, 자아 사랑과 이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거짓들로부터 악들 안에 있는 이들의 파멸이 ‘산들이 그분 아래에서 녹아질 것이고, 골짜기들은 쪼개질 것’에서 의미되고 있다.

예4:24-‘산들이 동요함’에 의해 자아 사랑의 악들에 있는 이들의 파멸이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언덕이 전복됨’은 세상 사랑의 악에 있는 이들의 파멸이 의미되고 있다.

시144:5-‘그들이 연기를 내도록 산들에 접촉함’=그분의 현존하심에 의해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이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파괴됨.

신32:22-‘불이 산들의 기초에 불붙게 놓일 것이다.’ ‘산들의 기초들’=사랑의 산들이 기초한 진리들. 이것이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 의해 ‘불에 놓인다’라고 말하여 여진다.

이34:3-‘산들이 그것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다’=그들과 더불어 사랑의 악들은 거짓들을 가지고 억지로 채워질 것이다.

이42:15-‘나는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으로부터의 모든 선이 파괴되는 것.

이41:15-‘너는 산들을 타작질 하여 두드려 작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겨 같이 언덕들을 만들 것이다’=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 근원하는 악들의 파멸.

이54:10-‘산들이 물러날 것이다, 그리고 언덕들이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내 자비는 너로부터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악한 사랑에 있는 이들은 그렇게 행할 것이다...‘산들’과 ‘언덕들’에 의해 여기서는 특별히 이전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예9:10-‘산들 때문에 나는 슬피울고 곡해야 한다’=자아와 세상 사랑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갖가지 종류의 악들.

예50:6, 겔34:6-‘양들이 산으로부터 언덕 위에 가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산들에서 모든 높은 언덕에서 배회한다’=그들은 선들과 진리들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발견 못한다. 그것들 대신에 그들은 악들과 거짓들을 붙잡는다. ‘산이 돌아서버렸다’는 것=선들 대신 악들이 있다는 것.

예13:16-‘해질녘의 산에서 네 발이 걸려넘어지기 전에’=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악들이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11:22, 마17:20-이 신앙을 수단으로 주님은 자아와 세상 사랑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모든 악들을 옮겨 그것들이 있는 지옥으로 내던지시는 바, 그분께서 말하신다, 즉 ‘만일 내가 산에게 너는 옮겨져 그자체를 바다에 던지거라 하고 말한다해도 그렇게 행해질 것이다.’

계6:15-‘산들의 바위들’=여기서의 경, 악들로부터의 거짓들.

이2:14-‘산들과 언덕들’=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이것들로부터 튀어나오는 악들과 거짓들.

계6:16-‘그리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우리에게 떨어져라’=악들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거짓을 가지고 덮음.

예51:25-악들에 의해 지옥에 떨어짐이 ‘나는 불타진 산을 네게 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2장-‘산들의 머리에서 건설되어질 여호와와의 산’에 의해 시온이 뜻해진다, 그리고 천적 교회가 의미된다. 그리고 이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소유한 주님을 사랑함이 뜻해진다.

이65:9-‘산들’=사랑의 선.

신33:15-‘산으로 백성을 부름’=그들은 사랑의 선이 있는 천국 안에 있기 때문.

신33:15-‘동쪽의 산들’=태고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함에 있었다.

예17:26-‘산으로부터’=천적 선에 있는 이들.

시104:10-‘그들은 산들 사이에서 간다’=사랑의 선으로부터 있을 (진리들).

산고

이27:13-‘거룩함의 산’=사랑의 선 측면에서의 교회.
시98:8-‘산들이 함께 환호성을 지르게 하자’...‘산들’=사랑의 선들.
시46:2-‘산들’=사랑의 선들.
이42:15-‘나는 산들과 언덕들이 황폐된채 있게 하겠다’=사랑의 선들과 선행의 선들이 멸해질 것이라는 것.
욘2:6-‘그가 내려간 산들의 적출’=악들이 있는 지옥들.
미7:12-선의 확장이 ‘산으로부터 산까지’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13:4-‘산들’=악들.
시147:8-‘풀이 자라는 산을 만드신 분’=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을 위한 자양분.
이40:9-‘높은 산’=천적인 사랑.
겔39:17-‘이스라엘의 산들’, 이 위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다’=영적 교회, 이 안에서 선행의 선은 필수적인 것이다.
합3:6-‘영원으로부터의 산들이 흩어졌다’=태고인들과 더불어서 있던 것과 같은 천적 교회, 즉 주님을 사랑함에 있는 교회인이 멸해졌다.
이40:12-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천국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열됨이 ‘그분은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언덕들의 무개를 달으셨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신11:11-‘산들과 골짜기들의 토지’=교회의 더 높고 더 낮은, 또는 내적, 외적인 것.
예51:25-바벨이 ‘파괴하는 산’이라 불리운다.
시65:6-‘그분의 힘으로 흔들리지 않게 놓은 산들’에 의해 더 높은 천국들이 뜻해진다.
말1:3-자연적 인간의 사랑의 선들이 파괴되리라는 것이 ‘나는 황폐됨을 위해 (에서의) 산들을 놓아두겠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겔28:14-‘너는 하느님의 거룩함의 산에 있어왔다’...‘거룩함의 산’=사랑과 선행의 교리 측면에서의 교회.
말1:3-‘(에서의) 산들’에 의해 자연적 인간의 사랑으로부터의 악이 의미된다.
이2:3, 미4:2-‘여호와와의 산’, 그리고 ‘야곱의 집’에 의해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 교회, 이 사랑으로부터 예배하는 교회가 의미된다.

시90:2-‘산들’에 의해 천국들에서 산들 위에 거주하는 이들, 천적 선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시15:1-‘거룩함의 산’에 의해, 이것에 의해 예루살렘이 뜻해지는데, 사랑의 선으로부터의 교리 속의 진리 측면에서의 교회가 의미된다.
이14장-‘북쪽 측면에서 회합의 산’은 천국들로 승강함이 있는 곳이다.
시24:3-‘여호와와의 산으로 오르는 자는 누구인가’...‘여호와와의 산’에 의해 시온이 뜻해진다, 이를 수단으로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 의미된다.
겔17:23-‘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새 싹을 심는 것’=선행의 선이 있는 영적 선 안에. 이선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의해 의미된다.
시104:10-‘산들’=사랑의 선.
예4:24-‘산들’과 ‘언덕들’=천적 사랑들과 영적 사랑들.
이66:20-‘예루살렘, 거룩함의 산’에 의해 선행이 지배하는 교회가 의미된다.
이25:6-‘이 산에서 살진 것들로 잔치...’=이 ‘산’에 의해 (주님을 숭배하고 인정하는) 이들로부터 있는 새로운 교회가 의미된다.

산고 (labour)

계12:2-‘산고에 있는 것, 그리고 출산하기 위해 괴로움을 당하는 것’=그것은 곤경과 함께 받아졌다.는 것.
예6:24-‘산고를 겪는 자 같은 슬픔’=선이 상해를 받는 바 자포자기함.
시114:7-‘너는 괴로워하라, 오, 땅아’=교회의 설립, 또는 교회 속에 있을 이들의 개혁. ‘산고를 겪는 것’=진리를 받고 개혁되는 것.
겔30:16-진리가 알려진다, 그러나 아직 생활에 받지 않는다, 하여 그들은 개혁되어 질 수 없다는 것이 ‘신(Sin)은 산고를 겪을 것이다, 그리고 해산함은 없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산물 (product)

마26:29-‘포도나무의 산물’은 포도액, 또는 포도주를 뜻하는게 아니라, 주님의 왕국 속에 있는 천적인 어떤 것을 뜻한다.
* 주님이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것을 마실 ‘포도나무의 산물’, 또는 포도주란 주님의 왕국이 올 때, 천국과 교

산물-산비둘기-산파-산헤립-살

회에는 그분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모든 신성한 진리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분은 그것을 새로운 것이라 부르신다.

산비둘기 (turtle-dove)

호도에 (turtle-dove)

* dove도 참조

창15:9-‘산비둘기’, 그리고 ‘잡비둘기’는 교회의 (천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들의 표현물이다.

* ‘산비둘기’=외면의 영적인 것, ‘잡비둘기’=내면의 영적인 것.

레12:6-해산하는 여인은 잡비둘기, 또는 산비둘기를 바치도록 한 이유는 결혼 사랑의 결과가 의미되어지기 때문. 그이유가 이 비둘기는 순진이다.

시74:19-‘호도에’=영적 선, 또한 이 선에 있는 이들.

산파 (midwife)

창35:17-‘산파가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마라’=자연 평면으로부터 지각함...‘산파’=자연 평면...그이유는 내면이 시험을 수행할 때, 즉 내면의 인간이 시험을 수행하고 있을 때, 자연 평면은 산파와 비슷하기 때문. 그이유가 시험을 겪을 때 자연 평면이 보조해주지 않으면 내적 진리의 출생은 결과 될 수 없기 때문. 다시 말해 내적 진리가 출생할 때 이 진리를 받는 것이 자연 평면이기 때문.

출1장-‘산파’에 의해 선들과 진리들을 받는 자연 평면을 표현하고 있다.

창38:28-‘산파가 붙잡았다’=자연 평면.

출1:15-‘이집트의 왕이 히브리 여인의 산파들에게 말했다’=분리된 과학물이 교회 속에 있는 과학적 진리들이 있는 자연 평면 안으로 유입됨...‘산파’=자연 평면... 그 이유는 자연 평면이 내적인 것으로부터 흐르는 것을 받기 때문, 마치 산파가 아이를 받아내는 것과 같다.

* ‘산파’=자연 평면에 있는 과학적 진리.

산헤립 (Sennacherib)

* ‘앗시리아 왕 산헤립’=모든 지식과 진리를 통각함을 파괴하는 타락한 합리성.

살 (flesh, fleshy, carnal)

창2:21-‘갈빗대 대신에 살...’= 생명력 있는 자아.

창2:24-그들은 ‘하나의 살(one flesh)’를 위하여 있을

것이다=그들은 함께 있었다는 것...그이유는 지금 그들은 살이 되었기 때문.

창6:3-‘(인간이) 살이기 때문’=그 이유는 그가 육체의 것으로 되었기 때문.

창6:12-‘모든 살은 땅 위에서 자기 방법을 썩게 했다’=인간의 육적인 것(corporeal)은 진리에 대한 모든 이해를 상실했다. ‘살’=일반적인 경우, 모든 사람; 특히 육체적 인간, 또는 육체 쪽의 모든 것.

창6:13-‘모든 살의 끝이 내 앞에 왔다’=인류는 멸해질 수 밖에 없다.

창6:17-‘하늘들 아래, 생명들의 숨이 있는 모든 살을 멸하는 것’=태고 교회의 후손 전체가 그 자체 멸망하였다.

창6:19-‘모든 살’=의지 속의 것들

창7:15-‘생명들의 숨이 있는 모든 살’=새로운 창조물, 또는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것. (그 이유가 마찬가지로) ‘살’=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 특별하게는 육체 쪽의 인간...‘생명들의 숨이 있는 살’=거듭나는 인간; 그 이유는 그의 자아 안에 주님의 생명인 신앙과 선행의 생명이 있기 때문. 모든 인간 그 각각은 살 밖에 더 아니지만 주님으로부터 신앙과 선행의 생명이 당사자 안으로 불러 넣어질 때 살은 활기를 띠고, 그리고 영적이고 천적으로 되어간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불려진다.

창7:21-‘지면 위에서 기는 모든 살은 끝났다 (expire)’=태고 교회의 마지막 후손들이 꺼지게 되었다...이 후손들이 ‘지면 위를 기는 살’이라 불리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완전하게 감각적이고 육체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창9:4, 민11:4-‘살’=인간의 자발적(voluntary) 측면이 다는 것은 ‘살’의 상대적으로 적합한 의미가 썩은 인간 이다는 것으로부터 명백하다...‘살’=모든 인간, 특별하게는 육체인 것인 바, 이 구절의 ‘살’=인간 측면에 적절한 것, 즉 그의 의지이다. 인간의 의지는 악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에 관련해 서술되는 ‘살’은 모든 탐욕, 또는 모든 욕망(concupiscence)...그리고 ‘살’이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미를 담도록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망했던 고기도 ‘살’에 의해 표현되어있다...:

살

그들이 살을 갈망했다고 재앙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이유는 살을 오랫동안 절제하다보니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추인 영적 의미일 경우, 백성들은 만나로 표현되는 것을 완전하게 싫어하는 특성을 지녔다는 것...그리고 오로지 살로 표현되는 것, 즉 자기들 고유의 것들, 탐욕들 속의 것들 만을 바랬다는 것이다...만나는 천적인 것을 표현했고, 백성들이 갈망했던 살은 의지 속의 더러운 것을 표현했다.

창9:15-‘모든 살에서 생명 있는 모든 창조물=보편적 측면에서의 인류.

요1:13-‘살의 의지’=사랑과 선행에 반대되는 것.

창17:11-‘너는 네 포피의 살을 할례 할 것이다’=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을 제거함...‘살’=인간의 자아, 이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밖에 없다, 이 사랑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은 모든 탐욕이고, 이는 더러운 것이다.

창17:13-‘내 언약이 네 살에 있을 것이다’=주님께서 불순한 상태인 인간과 결합함...‘살’=인간의 자아, 불순한 것.

욥19:26=‘내 살로부터 나는 하느님을 뵈 것이다’=생기 있는 자아.

창29:14-‘너는 내 뼈이고 내 살이다’=(진리들에 관련되고 선들에 관련된) 결합. 이 말투는 고대인들이 자기와 누군가와와의 혈연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였다...‘살’=자발적 측면의 자아...고로 선에 관련되는 자아.

겔37:6-‘주님께서 뼈 위에 올라가게 한 살’=자발적 측면의 자아, 이 자아는 천적인 자이라 불리운다; 고로 ‘살’=선.

겔11:19-‘나는 그들에게 살의 심장(heart)을 줄 것이다’=자발성과 생기 있는 자아.

겔39장, 계19장-‘너는 왕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거짓들로부터 있는 악들, 이것들은 인간의 자발적 측면의 자아로부터 있다.

마16:17-고대인들과 더불어, 살과 피=인간 자아, 그 이유는 인간이 살과 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하셨다, ‘너는 복이 있다, 그이유는 살과 피가 그것을 너에게 밝히 알려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만찬에서 빵과 피에 의해 의미된 살과 피=주님의 인간 자아...(주님의) 인

간에 있는 신성한 자아가 그분의 살과 피에 의해 의미된 것이다; 그분의 ‘살’=그분의 신성한 선. 그분의 ‘피’=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

창37:27-‘그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살이다’=그들로부터 있는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살’=양쪽 감각들에 있는 자아; 고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

창41:2-‘살에 있는 지방’=선행 속에 있는 것...‘살’=주님으로부터의 선을 수단으로 생기 있어진 자발적 측면, 고로 또한 사랑 속과 선행 속에 있는 선.

창41:3-‘살이 앓음’=선행 속에 있지 앓음.

레13:14-‘생기 있는 살’이 나병 환자에게 나타남=인정함과 신앙 (=그 결과 내향적으로 모독함).

출4:7-‘(모세의 손은) 그의 살 같이 다시 바뀌었다’=이 경우에 진리의 선이 있다는 것. ‘살’=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자아에 의해 생기 있게 된 인간의 자발적 측면의 자아...그러므로 ‘살’=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부터의 선; 그러나 영적 왕국의 교인들과 더불어서는 ‘살’=진리로부터의 선.

출12:9-‘그들은 살을 먹을 것이다’=선을 즐김...‘살’=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의해 생기 있어진 인간의 자아, 고로 인간과 더불어 모든 천적인 선과 영적인 선...

출12:46-‘너희는 집으로부터 밖으로 살 한 점도 운반하지 말 것이다’=이 선은 또 다른 것의 선과 혼합되어 저서는 안된다는 것.

출16:3-‘그들이 살-가마솥 옆에 앉았을 때’=자신 고유의 쾌락에 따른 생활, 또는 그들이 바랬던 대로에 따른 삶...‘살’=천적인 자아, 고로 선; 그리고 반대 의미일 경우, 인간의 자아, 즉 악.

이31:3, 겔16:26-‘이집트의 말은 살이지 영이 아니다’; ‘살’=죽은 것; ‘영’=살아 있는 것. 이로부터 이집트의 아들들은 ‘살에서 큰 자’라고 불리운다. 죽은 것은 악으로부터 그렇게 불리운다...

출16:8-‘여호와께서는 저녁에 먹을 고기(flesh)를 너희에게 주신다’=상태의 끝에서 선은 기쁨을 통하여 자기 것이 될 것이다...‘살’=생기 있는 자아, 또는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가지는 천적인 자아, 즉 사랑으로부터의 선; 그러나 여기서는 신앙의 선, 그 이유는 이 살은 새의 고기였기 때문...여기서 자연적 인간의 선, 또는 기쁨.

살

요6:55-‘내 살은 진실된 양식이고 내 피는 진실된 음료이다’ 말씀에서 ‘살’=사랑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피’=신앙으로부터의 선.

출21:28-‘(돌로 친 황소의) 살은 먹지 않을 것이다’=악은 결단코 자기 것 되게 해서 안되고 내던져야 할 것이다...‘살’=천적 사랑으로부터의 선; 반대 의미일 경우, 자아 사랑으로부터의 악.

* 말씀에서 영적 생명은..살과 피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이 생명은 선행으로부터의 선과 신앙 속의 진리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는데, 선행으로부터의 선은 ‘살’에서, 신앙 속의 진리는 ‘피’에서 의미되고 있다...그리고 한층 더 내면적 의미에서일 경우,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이 ‘살’에 의해,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부터의 선은 ‘피’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최고 높은 의미일 경우...‘살’=주님의 신성한 선, 고로 신성한 선에 관련된 주님 자신; 그리고 ‘피’=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고로 신성한 진리에 관련한 주님. 인간이 말씀을 읽을 때, 위와 같이 천국에서는 ‘살’과 ‘피’에 의해 이해되어진다

요6:55-58-주님의 ‘살’=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그리고 그분의 ‘피’=그분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이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영적 생명에 자양분을 공급한다는 사실로부터 명백할런지 모른다. 그런고로 말해지는 바, ‘내 살은 진실로 양식이고 내 피는 진실로 음료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그리고 인간은 사랑과 신앙을 수단으로 주님과 결합하는바, 이를 두고 말해지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출29:14-‘거세한 소의 살’=이전의 사랑들로부터의 악이 거기에 있다. ‘살’=사랑의 선,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사랑의 악...여기서 ‘거세한 소의 살’=외적 인간에 있는 이전의 사랑들로부터의 악인 이유는, ‘살’에 의해 인간의 자발적 측면, 고로 그의 자아가 의미되었기 때문...그러므로 ‘살’에 의해 사랑의 선, 또는 사랑의 악이 의미되어 있다.

신12:23-그들은 제물의 살을 먹도록 허용되어졌다, 그 이유는 이 살에 의해 인간의 자아가 의미되었기 때문;

그리고 이 국가의 자아는 외적인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였고 내적인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다...더 나아가, 살의 피가 신성한 진리를, 살의 지방은 신성한 선을 표현할 때 표징적일 뿐이어서 그들에게는 이런 의미와는 무관하였다; 그 이유가 그 당시 살은 생명과 혼이 결합된 어떤 것을 표현했는바...이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것 없는 외적인 것을 표현했는바, 이것이 다음 구절에 담겨 있다. ‘너희는 피를 먹지 마라, 그 이유가 피는 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과 함께 혼을 먹지 마라.’

출29:31-‘너는 거룩한 장소에서 살을 삶은 것이다’=주님으로부터 계발되는 가운데 교리 속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생활에서의 사용을 위해 선을 준비함...‘살’=선...그리고 살은 몸의 사용을 위해 준비되어진다.

출29:32-‘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숫양의 살을 먹을 것이다’=주님으로부터 내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 영적 선이 그들의 것이 됨...‘숫양의 살’=내적 인간의 선, 또는 내적인 것들에 있는 선; ‘살’=선.

출29:34-‘만일 가득 채움(위임식)들의 살, 빵의 어떤 것이 아침까지 남아 있다면’=새로운 상태와 결합되지 않은 영적, 천적 선들...‘가득 채움들의 살’=진리 안에서 선을 받음, 고로 그것들의 결합; 여기서의 경우 받지 않음, 또는 결합 없음....그 이유가 제물의 살에 의해 영적 선이 의미되고, 이 영적 선은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부터의 선이고, 제물의 빵은 천적 선을 의미하기 때문...

출30:32-‘사람의 살 위에 (거룩한 기름은) 부어져서는 안된다’=(신성한 선은) 인간의 자아와는 소통됨이 없다는 것.

예17:5-‘살을 자기 무기로 만드는...자는 저주가 있다’=자기 고유의 자아를...신뢰하는 것.

민11장-‘살’=인간의 자아, 혹은 같은 것으로 인간의 의지 측면의 악이다는 것은 (민 11장에서) ‘살’=이 국가의 자아이다로부터 명백해진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악이 살을 바라면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출 16:12) 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였던 것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의지 측면의 악은 탐욕과 똑같다.

요1:14-‘살’이 만들어지는 것=최말단에서 말씀이 만들

살다-살렘-살아있는 물-살아있는 창조물-살인-살인자

어지는 것.

단7:5-‘많은 살’=말씀의 글자 의미 전체.

계17:16-‘그리고 그녀의 살을 계절스럽게 먹을 것이다’=미워함으로부터 정죄하는 것 그리고 그 자체 악과 거짓인 그 광신적 신앙에 어울리는 것들을 그들 자신 안에서 파괴하는 것.

* ‘살’=교회의 선, 그리고 ‘피’=교회의 진리이라는 것은 성만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선과 진리, 이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빵과 포도주’도 지니고 있다.

계19:21-‘모든 새들은 그것들의 살로 배불러졌다’=지옥의 악귀는 악으로부터의 탐욕에서 자양분을 섭취한다는 것.

겔39장-그들이 먹어야 하는 ‘살’=사랑으로부터의 선.

시84:2-‘내 심정과 내 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소리친다’=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즐거움으로부터 예배함.

숙14:12-‘그들의 살은 다 소멸된다’=사랑의 모든 선과 생명 속의 모든 선이 이제 막 멸해지고 있다.

레 16:4,24-‘살을 찢는 것’=영적 인간을 순수해지게 하는 것.

왕하5:10-‘살이 (나아만에게) 회복되었다’=신성한 진리들을 수단으로 거듭나야지고 있는 이들에게 존재하는 생명과 똑같은 영적 생명.

이22:13-‘살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악과 거짓을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

신 32:42-‘내 검이 살을 먹어 치울 것이다’=거짓들이 선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파괴할 것이다.

요1:14-‘살’=신성한 인간.

살다 (live)

* 생명을 보라.

살렘 (Salem)

창14:18, 시76:2-‘살렘의 왕’=내적, 또는 합리적인 것에 관련하여 평화의 상태. 원어에서 ‘살렘’은 ‘평화’를 뜻한다. 또한 완전(perfection)도 뜻한다. 고로 평화의 상태, 그리고 완전한 상태. 평화의 상태가 주님의 왕국의 상태이다. 이것이 ‘그분의 성막은 살렘에 있다’에서 ‘살렘’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창33:18-‘야곱이 세겔의 성읍, 살렘에 왔다’=고요함이 있는 신앙 속의 내면의 진리들. ‘살렘’=평화의 고요함.

요4:5,6-살렘의 성읍은 후에 ‘세겔’이라 불리웠다...또한 ‘수가’...이 성읍은 내면의 진리를 의미한다.

시76:2-‘살렘에 여호와와 성막이 있다, 그리고 시온에 그분의 거처가 있다’=그분의 영적 왕국과 그분의 천적 왕국. ‘살렘’=진짜 진리가 있는 영적 왕국.

시76에서-예루살렘이 ‘살렘’이라 불려진다, 그이유는 ‘살렘’에 의해 평화가 뜻해지기 때문, 이로부터 예루살렘이 명명되었다. 이렇게 명명된 이유는 ‘평화’=위쪽에서 이름지어지는 모든 것들. 거기에 있었던 ‘하느님의 성막’=그들로부터의 교회.

살아있는 물 (living water)

* 물(water)을 보라

살아있는 창조물 (living creature)

* 동물(animal)을 보라

살인 (murder)

살인자 (murderer)

계9:21-‘그들은 자기들의 살인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살인자’=선들을 파괴하는 악들

계21:8-‘살인자’ 등등=계명의 가르침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이들, 그리고 계명에서 거론되는 어떤 악들을 죄로 여겨 금하지 않는 이들, 하여 그것들에 따라 사는 이들.

요8:44-시작으로부터 그들은 진리들에 맞서왔고, 악으로부터 거짓 안에 있어왔다는 것이 ‘그들의 조상은 시작으로부터 살인자 였다; 그리고 진리 없고, 그러나 거짓말이 그 안에 있었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살인자’=교회의 진리를 파괴하는 자.

계9:21-‘그들은 자기들의 살인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았다’=이해성 속의 진리, 의지 속의 선, 이 둘로부터의 영적 생명이 소멸되는 것을 실제로 막아보려 하지 않은 이들....그이유가 ‘사람(hominem)’에 의해 진리에 대한 총명, 그리고 지혜가 의미되기 때문, 그리고 죽이는 (occidere) 것은 악의 거짓을 수단으로 영적 생명이 꺼지는 것이 의미되기 때문. 살인(homicide), 또는 사람을 죽임=영적 생명의 소멸.

삼분의 일-삼손-삼십

이1:21-‘그러나 지금 살인자들’=위조, 또는 왜곡 (falsification)이 진리를 이해함, 선을 지각함을 꺼지게 했다는 것.

살찌운 (fatted)

암6:4, 말4:2-‘살찐 것들로부터의 송아지들’=외면의 순진으로부터의 선들...‘살찌운’, 그리고 ‘지방’=내면적 사랑으로부터의 선.

눅3:20-‘살찐 송아지’=일반적 선들.

* ‘살찌운’, ‘지방, fat’=선.

겔39:18-‘바산의 살찐 것’=영적 근원으로부터 자연적 인간의 선들.

이11:6-‘비옥 가축’, 또는 황소=자연적 인간의 애착.

살해하다 (slay)

학살 (slaughter)

* 죽이다, kill도 참조

창22:10-‘그의 아들을 살해하는 것’=인간적일 뿐인 것은 무엇이든 죽어질 때까지.

창43:16-‘정녕 살해한다면, 그리고 각오하겠다’=외면의 자연 평면의 선들을 수단으로. 그이유가 ‘살해하는 것’은 죽임을 당한 것을 포함하기 때문.

출22:1-‘그리고 그것을 죽일 것이다’=그것을 소멸되게 할 것이다.

이66:3-‘죽이는 것’, 또는 희생제물, ‘황소’=외적인 것들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

이57:5-‘어린이를 살해하는 것’=진리들을 소멸하는 것.

계13:8-‘세상이 창설한 때로부터 살해된’=주님의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은 이 교회가 창설한 때로부터 인정되지 않았다.

삶 (life)

* 생명을 보라.

삼목 (cedar)

백향목 (cedar)

송백 (cedar)

겔31장-합리성이 ‘레바논의 삼목’이라 불리운다.

시148:9-‘과일 나무’=천적 인간, ‘삼목’=영적 인간.

호14:6-‘레바논’은 삼목들을 명시한다. 이것=영적인 것들, 또는 신앙의 진리들.

슌2:14-‘삼목들이 벗겨지게 할 것이다’=지적인 진리.

이2:13-자아 사랑이 드높아 있는 ‘삼목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이60:13-교회, 교회가 소유한 천적, 영적인 것들이 ‘레바논의 영광’, 또는 ‘삼목들’이다.

겔31장-‘아시아 사람’, 그리고 ‘삼목들’=합리성.

예22:14-‘창문을 도려내고 삼목으로 판자를 입히고 주홍으로 칠하는 것’=지적 진리들과 영적 진리들을 왜곡하는 것.

겔31장-‘삼목들’=합리적인 것들.

암2:9-자아 사랑의 악이 ‘삼목의 높이, 그리고 상수리 나무의 강함’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민19:6-‘삼목 목재’=내적 영적인 진리. ‘우슬초’=외적 진리. 고로 ‘삼목’에 의해 순수하게 함의 내적 수단, ‘우슬초’는 순수하게 함의 외적 수단이 의미된다.

시92:12-‘종려나무’=선, ‘삼목’=진리.

사9:15-‘(가시 나무) 태워버리겠다는 레바논의 삼목들’=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이60장-‘레바논의 영광’, 또는 삼목=영적인 선과 진리.

* 쇧뎀 목재는 가장 우수한 삼목의 목재였다. 그리고 ‘삼목’에 의해 교회의 영적 평면이 의미되어진다.

겔31:5-‘아시아 사람’=계몽된 합리성. ‘레바논의 삼목’=영적 교회. ‘삼목의 높이’=선의 수준.

겔17:3-‘레바논’=영적 교회. 여기서의 ‘삼목’=영적 교회의 진리.

이41:19-‘삼목’ 그리고 ‘기름 나무’가 언급되고 있다. 그이유는 ‘삼목’=영적 선, 그리고 ‘기름 나무’=천적 선. 영적 선은 이웃을 향한 선행이다.

시29:5-‘삼목들과 레바논, 이것을 그분은 꺾으실 것이다’에 의해 합리적 인간으로부터의 거짓들이 뜻해진다.

시29편-‘레바논의 삼목들’=진리에 대한 지식들. 그러므로 ‘여호와와 음성이 그것들로 송아지 같이 뛰게 만드신다’라고 말해진다.

겔31장-아시아 사람이 여기서의 경우 ‘레바논에 있는 삼목’이라 불리운다, 그이유는 ‘송백’이 ‘아시아 사람’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 특히 선으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레바논’=그것이 있는 마음, 그이유가 삼목들이 있는 곳이 레바논이기 때문.

삼분의 일-삼손-삼십

겔17:22-‘걸출한 삼목’=영적 진리.

이41:19-‘삿다의 삼목’=진짜 진리.

겔31:15-‘삼목’=영적 교회의 진리.

이41장-영적 인간, 또는 내적 인간 안에 있는 교회의 이런 것들이 ‘삿다의 삼목’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겔31:3-9-과학적 진리와 지식들을 통하여 합리성이 성장함이 ‘레바논에 있는 삼목’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이를 수단으로 합리성 또한 의미된다.

겔31장-‘아시리아 사람’=합리성, 그리고 ‘삼목’=지적 평면.

시80:10-‘하느님의 삼목들’=영적 진리들.

이37:24-‘레바논’=영적 교회. 그리고 ‘삼목들’=선으로부터 있는 내적 진리들.

이2:13-‘레바논의 삼목들,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나무’에 의해 인간 자신의 총명으로부터의 자만심이 의미된다. 내적 자만은 ‘레바논의 삼목’, 외적 자만은 ‘바산의 상수리나무’에 의해 각각 의미된다.

시92편-‘종려나무’=영적 선, ‘삼목’=이 선으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레바논’=영적 교회.

민24:6-‘침향목’=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삼목들’=합리적 인간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사9장-‘레바논의 삼목들’=진리들로부터 있는 합리적인 것들.

겔31장-‘삼목’=영적 근원으로부터 있는 교회속의 사람의 합리성.

이14:8-‘상수리나무, 그리고 레바논의 삼목들’=외적 의미에서, 그리고 내적 의미에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겔17장-‘삼목’ 여기서의 경우, 그밖의 말씀에서=영적 합리적 교회, 이는 홍수후 고대인들과 더불어 교회와 같다.

삼분의 일 (third)

* 셋을 보라

삼손 (Samson)

* 삼손은 성별된 나지르인은 아니었다. 즉 진리 대신 선을 입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머리털로 인한 그의 힘은 주로 그가 주님, 즉 진리 측면의 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지옥과 싸우시고 그것들을 복종하게 하신 주님을

표현한 것으로부터 였다

* 자기의 자발적 부분으로부터의 인간의 생각이 신체의 모든 강함을 만든다. 만일 이것이 주님의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그분에 의해 영감되어진다면, 인간은 삼손의 힘을 가질 것이다.

* 최말단의 진리로부터 있는 주님의 힘이 나지르인에 의해 표현되어졌다...그리고 삼손에 의해서도 표현되어졌다. 삼손의 경우, 그는 모태로부터 나지르인이었고, 그의 힘은 그의 머리털에 있었다고 말해진다.

* 최말단에 있는 이 힘이 삼손과 더불어 그의 머리털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그이유가 머리털은 신성한 진리의 최말단에 상응하기 때문.

삼십 (thirty)

창11:14-‘셀라는 삼십 년을 살았을 (때)’=셋째 상태의 시작.

창11:16-‘에벨이 삼십 사 세 되었을 (때)’=이 교회의 네 번째 상태의 시작.

창11:18-‘벨렉이 삼십 세 되었을 (때)’=다섯째 상태의 시작.

창11:20-‘르우는 삼십 이 세 되었을 (때)’=여섯째 상태의 시작.

창11:22-‘스룩이 삼십 세 되었을 (때)’=이 교회의 일곱째 상태의 시작.

창18:30-‘삼십’=악들에 맞서 어떤 전투들에 있는 이들.

창18:30-‘거기서 삼십 명을 발견한다면...’=전투의 어떤 것. 30=전투의 어떤 것, 고로 작은 규모의 전투인 이유는 이 숫자가 5, 즉 작음에 6, 즉 노동, 또는 전투를 곱해 나온 수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말씀에서 30=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어떤 것.

민4장-레위인들의 성직 임무가 삼십 세로부터 오십 세까지의 아들들에게 부과되었던 이유는 ‘30’이 지닌 의미가 (영적) 전투를 담당하기에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런대로 개시는 가능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30’=작은 성과, 그리고 그가 땀흘렸지만 그 성과는 작은 편인 것. (=남아 있음의 충만)

마27:9-‘그들은 은 삼십을 취해서 토기장이의 들판을 위해 그들에게 주었다’ ‘30’=거의 어떤 것도 있지 않아

삼키다 - 삼다 - 삼드가 - 상

차라리 없다고 하는 편이 낫다는 것.

창41:46-‘요셉은 삼십 세의 아들이었다’=남아 있음이 충만된 상태.

* 말씀에서 숫자 30=전투의 어떤 것, 또한 남아있는 것이 충분해진 상태. 이렇게 두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30=5x6, 또한 3x10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3’=충분한 것, 그리고 ‘10’=남아 있는 것.

눅3:23-주님께서는 삼십 세가 되실 때까지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셨다. 그이유는 그분도 삼십 세에 이르러서야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충만되었기 때문이다.

* (주피터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는 우리들의 땅의 햇수로 치자면 대부분 삼십 세이다; 이 나이를 초과한 이들은 가르칠 수 없다 라고 말해진다.

출21:32-‘그는 그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줄 것이다’=내적 인간은 그것을 충만해짐 쪽으로 회복할 것이다...‘30’=충분한 것.

출26:8-‘한 커튼의 길이는 삼십 큐빗이다’=선으로부터 있는 진리가 충분한 것...‘30’=충분한 것.

삼키다 (swallow)

출7:12-‘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들을 삼켰다’=능력이 그들로부터 거두어졌다는 것.

호8:7-‘삼키는 낮은 자들’=없어지게 하는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계12:6-‘땅은 용이 자기 입으로부터 토해 놓은 홍수를 삼켰다.’ ‘삼키는 것’=아무것도 아니도록 만드는 것.

예51:34-모든 진리가 흠어짐, 그 결과 모든 선이 파괴됨이 ‘그는 나를 텅빈 그릇으로 만들었고, 그는 나를 고래 같이 삼켰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삼다 (Sabbah)

* 스바를 참조

삼드가 (Sabteca)

* 스바를 참조.

상 (table)

* 탁자(table)를 보라.

상 (statue)

단2장, 3장-느브갓네살에 의해 보여진 ‘상’=진정한 예배로부터 결국은 ‘바벨’이라 불리는 예배로 타락하는

것...느브갓네살이 세운 금 신상 역시 같은 부류이다.

이19:19-‘기둥’. (=자연 평면에서 질서의 최말단인 진리)

단2장-‘상’=교회의 연속적인 시대(단계), 즉 금-은-동-철 시대.

단2장-‘상의 머리’=천적인 것들. ‘가슴’=영적, 또는 합리적인 것들, 등등.

예43:13-‘태양의 집의 상들’=자아를 예배함.

창19:26-이 구절에서 ‘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히브리 단어는 잠자코 있음, a standing still을 뜻하는 단어인바, 이는 예배를 위해 세워둔 상을 뜻하지 않고, 어떤 표시를 위해 세운 상도 아니고, 증거로 삼으려 세운 상도 아니다. 하여 ‘소금 상’은 여기서 롯의 아내에 의해 의미된 진리가 황폐되어 서있다가 의미된다.

창28:18-‘그는 기둥을 위해 그것을 놓았다’=거룩한 경계(영역). 고로 질서의 최말단.

출24:4-‘열 두 기둥들’=예배에서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신16:22-진리의 표징이 제단의 돌들에 의해 설립되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둥들을 수단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금하여졌다, 진리가 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창31:13-‘네가 기둥에 기름부었던 곳’=진리의 선이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의 경계. ‘기둥’=거룩한 경계, 고로 질서의 최말단. 결과적으로 진리.

창31:45-‘야곱은 돌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기둥으로 세웠다’=이와같은 진리, 그리고 파생되는 예배...‘기둥’=진리로부터 예배함.

창31:52-‘기둥’=진리. 증거로서, 표시로서 (돌)더미, 기둥 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한계(limit)를 표시함.

창33:15-‘너와 더불어 있게(set) 하는 것’=결합하는 것.

창35:14-‘야곱은 그분이 자기와 이야기했던 장소에 기둥, 돌 기둥을 세웠다’=이 신성한 상태에서 진리가 거룩한 것.

창35:20-‘야곱은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다’=거기서 일어나질 영적 진리가 거룩한 것. ‘기둥’=진리의 거룩한 것.

상수리나무-상수리나무숲

창47:2-‘전에 놓은 것’=은근히 심어짐.

출23:24-‘너는 그들의 상들을 조각낼 것이다’=예배 속의 거것들은 따로 제쳐두어져야 한다는 것.

출24:4-‘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들을 위한 열 두 기둥들’=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전체 복합체에서 그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그분의 신성한 인간을 표현함. ‘기둥’=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표현함, ‘제단’은 선 측면에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표현함. ‘기둥’, 표현적 의미에서, =주님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거룩함.

단2장-‘상의 머리’=교회의 처음 상태, ‘가슴과 팔’, 두 번째 상태.

출34:13-‘너는 그들의 상들을 부술 것이다’=악으로부터의 거것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 ‘상들’=진리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을 표현하나 여기서는 반대 의미인 바, 거것들로부터의 우상 숭배.

이19:19-‘변경에 여호와께 기둥이...’=신앙의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함. ‘기둥’=신앙의 진리들로부터 예배함.

이27:9-‘태양-상들’=자연적 진리들로부터 예배함.

겔6:6-‘태양-상들’=교리의 거것들로부터 있는 우상 예배.

단2장-‘상의 머리’=태고 교회.

출24:4-‘제단과 열 두 기둥들’=교회가 존재하는 수단인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

겔26:11-‘그는 강건한 기둥을 땅으로 끌어내릴 것이다’=진리들로부터의 모든 예배는 파괴되어질 것이다. 그이유가 ‘기둥들’=진리들로부터 있는 거룩한 예배. 그리고 모든 힘은 선으로부터의 진리 속에 있는 바, 그들은 강건한 기둥들’이라 불린다.

단2장-‘상’은 바빌론으로 되어가는 교회의 상태를 그것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까지를 묘사하고 있다...그것의 머리=지혜, 그리고 금=주님을 사랑함. 그것의 발의 발가락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었다는 것=이 교회의 마지막 상태는 사랑으로부터의 모든 선과 지혜로부터의 모든 선이 결여될 것...그런다음 새로운 교회가 건설될 것임이 44절에서 묘사되고 있다.

단2장-교회의 창설로부터 그것의 마지막까지 교회의

종말이 ‘상’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첫 교회, 홍수 전에 있었는데, ‘금’에 의해 표현되고, 두 번째 교회는 홍수 후에 있었고 ‘은’에 의해 표현된다. 세 번째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였는데 ‘동’에 의해 표현된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기독교인데, 진흙과 섞인 철로 묘사되고 있다.

상금 (reward)

* 고용하다(hire)를 보라.

상속인 (heir)

상속하다 (inherit)

유산 (inheritance)

창15:3-‘내 집의 아들이 나의 상속자이다’=주님의 왕국에는 외적인 것만 있을 것이라는 것...‘상속인이 되는 것’, 또는 ‘상속하는 것’=주님의 왕국에 있는 외적인 생명. 주님의 왕국에 있는 모든 이는 상속인들이다. 그이유가 그들은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살기 때문... 주님의 아들들, 또는 상속인들은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모두이다...누군가로부터 태어난 그들이 상속인들이다, 고로 주님께 의해 거듭나지는 모든 이가 상속인들이다.

창15:4-‘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다’=외적인 것은 그분의 왕국에서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주님의 왕국의 상속인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이다. 물론 외적인 것도 상속자이다, 그러나 내적인 것을 통하여서이다. 그이유가 그래야 하나로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창15:4-‘그가 네 상속자일 것이다’=이것들이 네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

창15:7-‘이 토지를 상속하도록 내게 이것을 주는 것’=주님만이 소유자이신 주님의 왕국...‘토지를 상속하는 것’, 이를 수단으로 천국의 왕국을 소유함이 의미되는데, 여기서는 그분의 인간 본질이라 단언된다.

창21:10-‘이 하녀의 아들은 내 아들과 더불어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인간적일 뿐인 합리성은 신성한 합리성과 공통되는 생명, 그 생명이 진리 측면이든, 선 측면이든 가질 수 없다는 것.

창22:17-‘네 씨가 네 적들의 문을 상속받을 것이다’=선행과 신앙이 이전에 악과 거짓이 있었던 장소를 계승할 것이다. ‘상속받는 것’=주님의 생명을 받는 것. 여기서 계승하는 것,

상수리나무-상수리나무숲

창28:4-‘네가 채류하는 토지를 네게 상속되게 하실 것이다’=가르침으로부터의 생명. ‘상속하는 것’=또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는 것, 즉 신성으로부터의 생명.

창31:14-‘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몫이나 유업이 없지 않은가?’=라반에 의해 의미된 선과 분리되는 첫 상태.

예49:1-‘갓을 상속받는 것’=비-진리들로부터 일들 안에서 사는 것.

창6:8-‘나는 네게 이 유산을 줄 것이다’=거기서 주님의 생명은 영원하다. ‘유산’, 천국을 서술할 경우, =주님의 생명.

창15:17-‘네 유산의 산에서’=선행의 선이 있는 천국... 그이유가 천국은 사랑의 선으로부터 천국이기 때문, 그리고 주님의 것인 이들이 유산이기 때문.

창23:30-‘너는 토지를 상속 받을 것이다’=선 안에 있을 때, 고로 거듭날 때. ‘상속하는 것’=상속인으로서 받는 것... ‘토지를 물려받는 것’=상속인으로 천국을 받는 것.

창32:13-‘그들은 영원히 물려받을 것이다’=영원한 생명. ‘상속받는 것’, 천국에 관해 말해질 때=주님의 생명, 고로 천국의 생명을 가지는 것.

창34:9-‘우리를 당신의 유산으로 만드십시오’=아직 교회가 거기에 있을런지 모른다는 것. (그이유는) ‘여호와 의 유산’=주님으로부터의 선을 수단으로 천국의 생명을 받음, 고로 교회가 되는 것.

계21:7-‘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것’=천국 안으로 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아들과 상속자로서 주님으로부터 거기에 있는 모든 선들을 소유하는 것, 즉 주님의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들을 소유하는 것.

마5:5-‘땅의 유산’=천국을 소유함, 그리고 거기서 복됨을 누림.

시79:1-‘하느님의 유산’=교회, 이 안에서 주님은 모든 선과 진리이시다, 그이유는 그것들이 그분으로 있기 때문.

이68:14-‘야곱의 상속 재산’은 가나안의 토지를 뜻한다, 이 토지=교회, 그리고 천국.

이19:25-‘이스라엘, 나의 유산’=영적 인간, 이 인간이 ‘유산’이라 불리는데, 그이유는 영적으로 있는 모든 것

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

애5:2-‘우리의 유산이 닳선 자에게 돌아가버렸다’=교회의 진리들이 거짓들로 변화였다.

이49:8-‘황폐된 상속 재산들을 상속받는 것’=파괴되어진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을 복구하는 것.

말1:3-‘상속 재산’=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이 악들로부터의 거짓들).

상수리나무 (oak)

상수리나무숲 (oak-grove)

* 모래, 마르레도 참조

이2:14-여기서 자아 사랑이... ‘바산의 상수리나무’에 의해 묘사되어져 있다.

창12:6- (천적 인간의) 과학적인 것들이 ‘상수리나무숲’에 비교되고 있다, 그리고 이 의미는 그것들의 뒤엎킨 나뭇가지들로부터이고... 상수리나무 숲의 나무들에 의해 외면의 지각들, 외적 인간 속에 있는 과학적인 것들이 의미된다.

호4:13-‘상수리나무, 포플러나무, 테레빈나무(terebinth, robur)’=그들이 신뢰한 많은 조잡한 지각들.

창35:4-‘야곱은 그것들을 세계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감추었다’=영원한 거절... ‘상수리나무 아래’=영원으로; 그이유가 상수리나무는 아주 오랜 세월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 그리고 또한 뒤엎킨 것도 의미하는데, 즉 오류와 거짓인 것도 의미한다; 그이유는 자연의 가장 수준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더 뒤엎켜있고 오류투성이기 때문, 이것이 육체 속에 있는 감각적인 것으로부터의 쾌락과 그것의 과학적인 것들, 고로 오류로부터 끌어내는 만큼 상대적으로 더욱 뒤엎켜 있다; 그이유가 특별한 측면에서 상수리나무는 자연 속의 가장 수준 낮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 그결과 좋은 의미에서 거기 있는 진리들과 선들; 그리고 나쁜 의미에서 거기 있는 악들과 거짓들.

창35:8-‘(드보라가) 베엘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매장했다’=항구적으로 거절했다... ‘상수리나무 아래’=항구적으로.

창35:8-‘알론바곳’은 ‘울고 있는 상수리나무’를 뜻한다. 이 장소가 알론바곳이라 불린 이유는 ‘상수리나무’=자연의 가장 낮은 것이기 때문. 이 낮은 것 안으로, 이 낮

상아-상인-상인방-상자-상처내다-상처를 입히다

은 것으로부터 유전적 악은 내던져진다.

암2:9-자아 사랑의 악이 '상수리나무의 강함'...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삼목(cedar), 포플러나무, 그리고 상수리나무에 의해 각 수준, 즉 천적, 영적, 합리적, 자연적, 감각적인 교회의 선과 진리가 뜻해진다.

호4:13-'상수리나무, 포플러나무, 테레빈나무'=자연적 인간의 가장 낮은 선으로부터의 진리와 진리로부터의 선.

이2:14-'레바논의 삼목들'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자신 교유의 총명으로부터의 자만...(후자)=외면의 자만.

이1:30-'상수리나무'=자연적 인간.

이2장-'바산의 상수리나무'=지식으로부터 자랑하는 이들; 그이유가 '상수리나무'는 자연적 인간을 서술하는바, 이 인간에 속하는 지식.

이14:8-'상수리나무, 그리고 '레바논의 삼목'=외적, 내적 의미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상아 (ivory)

겔27:15-'상아 뿔과 오목(흑단)'=예배나 예식 속에 있는 외면의 선들.

계18:12-'향나무와 모든 상아 그릇'에 의해 자연적 선들과 진리들이 뜻해진다.

암6:4-'상아 침대'=교리가 기초를 둔 감각으로부터의 오류들.

왕상10:18-'솔로몬은 큰 상아 왕좌를 만들었다...' '상아로 만든'은 최말단들에 있는 신성한 진리가 의미된다.

왕상10:22-'상아들, 원숭이들, 공작새들'에 의해 외적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이 의미된다.

계18장-'상아로 된 모든 그릇, 귀한 목재로 된 모든 그릇'=모독된 합리적 진리들과 선들. '상아'=합리적 진리.

암3:15-'상아로 된 집', 그리고 '큰 집'=합리성이라 불리우는 자연적 인간의 것들. 진리 측면에 관련되는 이것들이 '상아로 된 집'에 의해 의미된다.

왕상22:39-인간 마음 속의 것들이 '집'에 의해 의미되는바, 마치 우리가 아합에 관해 읽을 때 같이 그들은 이전에 상아로 집을 지었다, 이를 수단으로 합리성 측면에서의 인간이 의미된다.

시45:8-'상아 궁'=합리적 인간으로부터의 진리들, 고로 합리적 진리들.

상인 (merchant)

* 상품(merchandise)을 보라

상인방 (lintel)

출12:7-'그들은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피를 바를 것이다'=자연 평면의 진리들과 선들...'상인방'=자연 평면의 선들.

상자 (box)

이60:13-'상자' 등등=자연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들 (=상응하는 자연적 선들과 진리들)

이41:9-'상자' 등등=자연 평면으로부터 있는 선과 진리.

이41:9-'상자'=자연 평면에 있는 선과 진리를 이해함.

상자 (coffer)

출2:3-'그녀는 골풀(rush)로 만든 상자를 가져왔다'= 주변을 (에워싼) 하찮은 것...'상자, 또는 작은 껍'=어떤 것을 에워싼 것.

* '골풀 상자'=하찮기는 하나 그럼에도 진리로부터 파생된 것.

상처내다 (hurt)

출8:20-'상처내는 날아다니는 것들 (악취내는 파리)'=이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상처를 입히다 (injure)

출21장-자신, 또는 타인에게 있는 선행으로부터의 선,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에 상처를 입히고 파괴하는 이들을 취급하고 있다.

계9:10-'다섯 달 동안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권능을 가지는 것'=그들이 무감각하게 하는 어떤 것으로 피는 것.

계6:6-'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입게 말라...'= 거룩한 선들과 진리들을 더럽히고 모독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

계9:4-'땅의 풀이 상처받게 말라...'=신앙 속의 어떤 선과 진리도 가져가질 수 없다는 것.

계9:19-'이것들에서 그들은 상처를 입힌다'=고로 그들은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을 뒤집는다.

상처 입은 (bruised)

시113:7-‘상처입은 자와 궁핍한 자’=무지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이들, 하여 선 안에 있지 않은 이들.

상처 자국 (bruise)

* 찢다(bruise)를 보라.

상품 (merchandise)

상인(merchant)

이45:14-‘구스의 상품과 스바의 상품’=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이 지식은 주님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23:18-‘두로의 상품’=지식들.

창23:16-‘상인이 통용하는 방식으로’=그들의 상태에 적응되는바 대로. ‘상인’, 말씀에서=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진 이들. ‘상품’=지식 자체.

겔28:4,5-그들이 거대한 상품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그이유는 이것이 지혜와 총명의 유일한 근원이기 때문.

마13:45,46-‘상인’=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자, 그리고 그 지식으로부터 총명과 지혜를 획득하는 자.

계18장-‘바빌로니아 사람의 상품들’=그들이 자신들의 예배를 위해 연구와 예술을 수단으로 창안해낸 것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뒤집은 말씀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과 교리적인 것들.

겔26:12-‘재물’과 ‘상품’=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계18:3-‘바빌론의 상인들’=그들의 성직자 계급에서 서열이 높든지, 낮든지.

계18:11-‘상인들’=거룩한 것들을 수단으로 이득을 만들고 섬기는 성직자 계급 중 하위급인 자들. 여기서는 그들의 슬픔들.

계18:12-‘금으로 된 상품, 보석, 그리고 진주들’=그들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 그이유는 그들이 이것들에 상응하는 영적 선들과 진리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그들의 상품=여기서 언급된 이것들의 다른 것은 없다...마지막 심판 이전에는 바빌로니아 인들은 이런 것을 가졌다...마지막 심판 이후 그들의 모든 것들은 먼지와 재로 환원되었다.

계18:15-‘...이런 것들의 상인들...’=천국의 환희를 약속

하고 다양한 하늘의 배려를 수단으로 부자가 된 이들. 이 상인들은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이득을 챙긴 교회 내에서 성직 계급의 높고 낮은 모두이다.

계18:23-‘네 큰 자들은 땅의 상인들이었다’=교회 서열에서 높은 자도 이와 같다. 즉 성직자 서열의 규례상 고위층에게는 다각도로 임의적인 권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소득과 이득을 만든다.

이23:18-‘그녀의 상품’=이런 것들을 자랑해댐.

겔27장-두로와 그녀의 상품들이 취급되고 있다. ‘두로’=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 그리고 ‘상품’, 그리고 ‘거래함’=이런 지식들을 획득하고 교통하는 것.

이23:2-‘시돈의 상인’=이런 지식들을 획득하고 교통하는 자.

나3:16-‘상인들’=거짓화하는 이들, 그다음 이것을 전달하고 자랑해대는 이들.

이23:18-‘두로의 상품’=갓가지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계18:11-‘그들의 상품들’=이 교리와 광신적 신앙으로부터의 악들과 거짓들,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이득을 챙긴다, 즉 영예와 재물을 챙긴다...이런 상품들, 바빌론으로부터 인 바,, ‘저속한 상품’에 의해 뜻해진 것들이다. 이 상품은 왜곡하고 섞음질한 선과 진리이다.

계18:12-‘금과 은 상품’=그들이 모독한 일반적으로 교회와 교리 속의 말씀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 고로 일반적으로 악들과 거짓들,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이윤을 챙겼다.

겔26:12-‘그들이 먹잇감으로 만들 상품’=선에 관한 지식.

새 (bird)

창1:22,26-다섯 번째 상태는 인간이 신앙으로부터 말하는 상태, 고로 선하고 참된 것 안에서 자신을 확증하는 상태이다. 이때 그가 생산하는 것들은 살아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바다의 고기들’, 그리고 ‘하늘들의 새들’이라 일컬어진다.

마13:32-‘(겨자나무에 있는) 하늘들의 새들’=진리들, 또는 지적인 것들.

창2:19-‘하늘들의 새들’=영적인 애착들, 또는 이해함으로부터 있는 것들.

새기다 -새긴-새끼

예4:25-‘하늘들의 새’=진리를 이해함.
창7:8-일반작 측면에서의 ‘새’=생각에 관련되는 것들.
 깨끗한 새들=참된 생각들, 불결한 새들=거짓된 생각들.
창7:14-‘종류별로 있는 새’=모든 영적인 진리. ‘날으는 것’=자연적 진리, ‘날개있는 것’=감각적 진리.
창8:19-‘새’=내향의 인간으로부터의 진리들.
창8:20-‘깨끗한 새들’=신앙의 진리들.
습1:3-‘하늘들의 새’=합리적인 것들.
호11:11-‘이집트의 새’=지적인 것으로부터의 과학적인 측면.
창40:17-‘새가 내 머리 위 바구니로부터 먹었다’=소비해버리는 악으로부터의 거짓.
겔17:23-‘모든 날개로부터의 새’=갖가지 종류의 진리들.
겔31:6-‘하늘들의 새들’=진리들.
겔31:13-‘하늘들의 새’=거짓들.
단4:12-‘하늘들의 새들’=거짓들.
예4:25-‘날아가버린 하늘의 새들’=사라져버린 진리들.
 *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늘의 새들’=추론들, 또한 거짓들.
창40:19-‘새가 당신의 살을 뜯어 먹을 것이다’=악으로부터의 거짓이 소비해버릴 것이다. ‘새’=거짓.
시78:27-‘날개의 새’=거기서부터의 몽상들.
출16:8-‘신앙으로부터의 선이 새의 살, 또는 ‘메추라기’라 불리는 나는 것들의 살(에 의해 의미된다).
계18:2-‘불결한 모든 여이 소유권을 쥐고 있다, 그리고 불결하고 지겨운 새가 소유권을 쥐고 있다’=의지 속의 악들. 이로부터 행동 속의 악들, 그리고 생각들 속의 거짓들과 이로부터 의도 속의 거짓들, 이들의 지옥들 속의 악들은 극악무도하다 | 그이유가 그들은 자신들을 주님에게 등지게 했기 때문이다.
계19:17-‘그리고 나는 태양에 서있는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큰 음성으로 소리쳤다. 천국의 한가운데에서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라, 그리고 네 자신들을 큰 하느님의 만찬으로 모으라’=주님께서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신성한 열정으로부터 진리에 영적인 애착을 지니고 있고, 천국에 관해 깊이 생각

하는 모두를 새 교회로, 그분 자신과 결합하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부르시고 모으신다. ‘하늘 한가운데에서 날고 있는 새들’=영적 진리에 애착하고, 이 애착으로부터 천국에 관하여 생각하는 모든 이들.
계19:21-‘모든 새들은 그들의 살을 물릴 정도로 먹었다’=이들의 자기 자신인 악의 욕망으로부터 지옥의 악귀는 자양분을 섭취했다.
겔31:6-‘그것의 가지들에 (둥지들) 지은 하늘들의 새들’=합리적이고 지적인 것.
예4:25-‘날아가버린 하늘의 새들’=합리적이고 지적인 것.
호9:11-비교가 ‘새’를 가지고 만들어진다. 그이유는 ‘새’=합리적이고 지적인 것이기 때문.
신4:17-‘새들’=총명이 있게하는 진리에 대한 애착들. 그것들의 형체를 만들지 말라|그것들은 인간으로부터 포획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 ‘하늘을 향하여 나는 날개달린 새’, ‘날개달린 새’=영적 진리를 이해함.
습1:3-‘하늘들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영적, 자연적으로 있는 진리와 생각들에 애착함.
호2:18-‘하늘들의 새’=진리에 애착함.
겔31:13-‘새들’=참된 생각들과 거짓된 생각들.
시79:2-‘하늘들의 새’=거짓 생각들.
겔31:6-‘하늘들의 새들’=갖가지 종류의 합리적이고 영적인 생각들.
시84:3-‘새가 집을 발견하고, 참새가 제 둥지를 발견한다’라고 말해지는 이유, ‘새’=영적 진리, 그리고 ‘참새’=자연적 진리, 이 두 진리를 통하여 예배가 있다는 것.
겔38:20-‘하늘들의 새들’=일반적으로 있는 지적인 것들. 특수적으로는 진리들로부터 있는 생각들, 그러나 여기서는 거짓들로부터 있는 생각들.
시104:12-‘하늘들의 새’=이해함으로부터의 생각들.
호11:11-‘그들은 이집트로부터의 새 같이 명예와 더불어 올 것이다’=과학적 진리들로부터 있는 그들의 자연적인 생각들. ‘새’=생각.
시8:7-‘뜰판들의 짐승들’=자연적 인간의 애착들. ‘하늘들의 새들’=거기서부터 있는 생각들. 그리고 ‘바다의 고기들’=자연적 감각적 인간의 과학물들.

새기다 -새긴-새끼

겔31:6-‘그것의 가지들에 자기들의 등지를 지은 하늘들의 새들’=합리적인 것들에 있는 영적인 생각들. 그이유가 합리성은 내향인 영적 인간과 외향인 자연적 인간 사이에 있기 때문.

겔31:13-‘하늘들의 새들, 들판의 들짐승이 그것의 가지들에서 그것이 폐허됨 안에서 거주할 것이다’=그가 자신의 총명을 사랑함을 으시냈기 때문에 자신에 있는 탐욕들로부터의 악과 생각들로부터의 거짓들.

단4:12-‘그것의 가지들에 거주하는 하늘들의 새들’=선에 애착함, 그리고 그로부터 있는 진리에 대한 생각들과 지각함들.

호2:18-‘하늘들의 새’=영적 측면으로부터 있는 합리적인 생각.

겔39:17-‘모두 각각의 날개 있는 새’=진리에 대한 지각에 있는 자, 어떤 품질이든 모두.

단9:27-‘지긋지긋함의 새들’=신앙 만으로, 고로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호2:18-‘하늘들의 새’=영적인 생각.

계18:2-‘불결하고 지겨운 모든 새가 소유권을 쥐고 있다’=거기에 말씀의 왜곡된 진리들로부터는 거짓들 밖에 없다는 것.

레11:13, 신14:11-20-많은 종류의 거짓들, 그리고 그것들의 각각이 갖가지 종류의 새로 열거되고 있다.

창15:10-‘그는 새를 나누지 않았다’=영적인 것들에는 유사함과 상응이 없다는 것. 여기서의 ‘새들’=영적인 것이란 천적인 것인 사랑과 선행에 하나되어 있지 않은 믿음, 즉 가르침이나 교리에만 머물고 있는 믿음.

새기다 (grave)

새긴 (graven)

* ‘새긴 것’=거짓, ‘주조한 것’=악, 이것은 자아 속에 있다.

합2:18-‘새긴 것’=자아에 의해 부화되고 임신된 원리들로부터 있는 거짓된 설득들.

* ‘나무에 새긴 것’=탐욕들.

왕상6:29,32-이 새긴 것들을 수단으로 천국의 상태가 표현되어졌다.

출20:4-‘너는 네 자신에게 새긴 것을 만들지 말라’=자신의 총명으로부터는 아니다. ‘새긴 것’=주님으로부터

있지 않고 인간의 자아로부터인 것, 인간의 지적 측면의 자아가 ‘새긴 것’에 의해, 인간의 자발적 측면의 자아가 ‘주조한 것’에 의해 각각 의미되고 있다.

출28:9-‘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이름을 그것들 위에 새겨라’=그 위에 영적 왕국의 선들과 진리들을 각기 모든 품질 측면에서 인상지우는 것. ‘돌에 새기는 것’=기억에 인상지우는 것.

출28:11-‘너는 도장에 새기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에 의거, 두 돌들에 새겨라’=모든 진리들이 그것들의 질서에서, 기억에서 있는 그 진리들의 천국의 형체. ‘돌에 새기는 것’=기억에 인상지우는 것.

이40:19-‘새긴 것’=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거짓된 교리, 고로 신성으로부터의 생명이 결여되었다.

* 도장을 새김=천국적인 형체.

출28:36-‘너는 그것 위에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새길 것이다’=천국적 영역(sphere)에 따라 심정들에 인상지워 영구적인 것. ‘새기는 것’=기억에 인상지우는 것, 또한 명심하는 것.

출31:5-‘채움을 위해 돌을 조각함에서’=사랑의 선에 봉사하는 신앙 속의 모든 것들. ‘돌을 조각함(engrave)’=사랑으로부터 신앙 속의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

출31:5-‘모든 작업을 함 중에서 나무를 새김’=어떤 선이든 모든 선을 표현하는 것.

이40:20-‘새긴 것’=예배 속의 악

새끼 (whelp)

신33:22-‘단은 사자의 새끼이다’=진리의 첫 번째, 이는 확증과 인정함이다.

창49:9-‘유다는 사자의 새끼이다’=타고난 힘과 더불은 순진. 그이유가 ‘사자’=사랑의 선, 그리고 그것의 힘 측면에서 파생되는 진리. 하여 ‘사자의 새끼’=힘을 지닌 순진. 그 이유는 ‘사자’=천적 사랑의 선, 그리고 그것의 ‘새끼’, 이는 유아와 비슷한 바=순진.

겔19:1,2,5,6-‘이스라엘 군주들의 어머니’는 ‘암사자’이다. ‘그녀의 새끼 중의 하나가 먹이 잡는 법을 배웠다’란 악들의 거짓들로부터 핏을 통하여 진리를 계속적으로 모독함을 취급한다. ‘암사자’=교회의 진리를 뒤집는 악으로부터의 거짓. ‘사자의 새끼’=그것의 힘 측면에서

새끼 염소-새 교회-새 땅-새로운-새로(이)-새로운 교회

의 악.

새끼 염소 (kid)

* '새끼 염소'=선에 애착함들.

창27:9-'암염소의 좋은 새끼 염소 두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암염소의 새끼 염소들'=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이11:6-'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워있다...' '새끼 염소'=순진에 있는 이들.

출12:5-이집트의 모든 첫 출생이 처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은 온전하고 숫컷인 어린 양이나 새끼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명령받았다...' 어린 양과 새끼 염소'=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그들 안에 있어야 하는 순진의 상태들.

출23:19, 34:26-'너는 제 어미의 젖 안에서 새끼 염소를 삼지 말 것이다'-그들은 유아의 순진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창27:16-'그녀는 암염소의 새끼 염소 가죽을 그에게 입혔다'=가정의(domestic) 선으로부터의 외적인 진리들. '암염소의 새끼 염소', 이는 집에서 양떼들로부터인 바, =가정의 선.

창38:17-'나는 양떼로부터 암염소들의 새끼 염소를 보낼 것이다'=결합을 서약함. '암염소의 새끼 염소'=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의 선. 그리고 그것=순진인 바, 그것=결혼적 사랑의 서약, 또는 결합을 서약함. 그이유가 진짜 결혼적 사랑은 순진이기 때문.

새 교회

* 새로운 교회를 보라

새 땅 (new earth)

* 새 하늘도 참조

* 에스겔서에서 '새 땅'에 의해 메시아의 왕국이 의미된다.

* '새로운 땅', 또는 '거룩한 땅'=주님의 왕국, 또한 새로운 교회, 이는 땅에 있는 주님의 왕국이다.

* 이66:22-'새로운 땅'=외적 교회.

새로운 (new)

새로(이) (anew)

이62:2-'새 이름으로 부름'=새로이 창조됨, 또는 거듭

남.

마26:29-'내가 너희와 그것을 새로이 마시는 그 날 까지...'

겔18:31,36:26-'새 심정'=새 의지. 그리고 '새 영'=새로이 이해함.

계21장-'나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한다'=지금 주님께 의해 복구되어질 교회 안에는 새로운 교리가 있을 것이다.

계3:12-'그리고 내 새로운 이름'=이전 교회 안에 있어 오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과 더불어 주님 만을 예배함.

계5:9-'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주님을 인정함과 영광을 기림. 그리고 그분만이 심판자, 구속자요 구세주, 고로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다는 것.

계14:3-'그들은 말하자면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새 기독교인의 천국에서 주님을 경축하고 영광을 기림. 이 천국에서, 그분은 고대의 천국들에서 인정되어진 바 같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으로 인정되어지고 있다. 이 구절에 삽입된 표현 '말하자면, as if'가 이 노래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이유가 이 노래는 고대 천국들에서도 불렀었기 때문이다.

계21:5-'잘보라 나는 모든 것을 새로이 만든다'=주님은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셨다는 것, 그 다음 새 천국과 새 땅, 그리고 새 교회를 그것들 안의 각각 그리고 모든 것과 함께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

막16:17-'새 혀들'=새 교회를 위한 교리적인 것들.

새로운 교회 (a new church)

새 교회 (the New Church)

* 새 예루살렘, 일곱 교회들, 새 천국, 천국의 교리 등도 참조.

창4:19-새로운 교회가 일어섬이 '아다와 실라'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 노아=새로운 교회

* (노아의) 아들들=새로운 교회의 근원.

이61:1,2-'여호와께서 흡족해 하시는 해'=새로운 교회의 때.

이63:4-'내가 되찾을 해'=새로운 교회의 때.

창23:19-'이것은 헤브론이다'=이것이 새로운 교회이다는 것.

새벽

창23:20-‘헛의 아들로부터’=이것은 이방인들로부터 이었다는 것.

마24:32-‘무화과-나무로부터의 비유를 배워라. 그것의 가지가 연해지고, 그것의 잎이 돌아날 때, 너는 여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안다’=새로운 교회의 처음...

마24:32-(고로) 이 비유는 새로운 교회가 주님에 의해 창조될 때, 맨처음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선이 나타난다는 것, 즉 새로운 교회에 대한 애착과 진리들과 더불어 외적 형체에서 선이 나타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겔47:18-‘새 땅’, 또는 ‘거룩한 땅’=주님의 왕국, 또한 새 교회, 이는 땅에 있는 주님의 왕국이다.

마24:38-‘노아가 방주로 들어갔던 날까지’=이전 교회의 끝,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시작.

창37:2-새로운 교회를 서술할 때, ‘소년’ (요셉)=이 새로운 교회의 첫 상태...그이유가 교회도 여느 인간의 일생 같이 교회의 시대들을 통과하여 가기 때문이다.

마25:5,6, 눅17:34-‘밤’=옛 교회의 마지막 때,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처음.

창50:24-‘하느님께서는 너희를 꼭 방문하실 것이다’=옛 교회의 마지막 때,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처음. 마지막 때가 ‘방문하심’이라 불린다, 그리고 옛 교회는 기한이 차서 종료되고 새로운 교회가 태어나진다고 단언하고 있다.

눅1:68,78-‘방문하심’, 여기서의 경우, 새로운 교회가 일어남, 그리고 신앙 속의 진리와 선에 관하여 무지해 있는 이들을 계발해주시어 구원하심. 그러므로 말해진다, ‘그분은 방문하시어 그분의 백성이 구원되게 만드셨다.’ ‘그분은 어둠에 앉은 이들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시려고 방문하셨다.’

* ‘당신이 오시는 표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주님의 오심=새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 의해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인정됨, 그리고 옛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 의해 부인됨.

* ‘아담과 이브’=새로운 교회...

* ‘새로운 의복 조각을 흰 옷에 더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의 진리와 옛 교회의 진리를 서술하시려고 이 비유(similitude)를 사용하셨다... 이것을 저것에 대고 집는 것은 둘 모두를 파괴하는 것

이다. 그이유가 새로운 교회의 진리는 내면의 진리, 즉 내적 인간을 위한 진리이다. 이에 비해 옛 교회의 진리는 외면의 진리, 고로 외적 인간을 위한 진리이다. 후자는 유대 교회였고, 오늘날의 교회는 전자에 속한다.

삼상2:5-이방인들로부터의 새로운 교회가 ‘많은 아들들을 가질 잉태치 못하던 자와 쓸쓸한 자’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에 의해 이방인들과 더불어 새로운 교회가 뜻해진다.

* ‘새 땅’에 의해 땅에 있는 새로운 교회가 뜻해진다. 그이유가 이전 교회가 중단되어질 때, 새로운 교회가 주님에 의해 복구되기 때문이다.

계21장에서-마지막 심판 이후 천국과 교회의 상태를 취급한다. 심판 이후 새 천국(the New Heaven)을 통하여 새 교회(the New Church)가 출현할 것이다. 이 교회는 주님 만을 예배한다. (1-8절) 이 교회는 주님과의 결합이 있다 (9,10절) 말씀으로부터 총명에 관련하여 그 교회를 상술함 (11절).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품질에 관하여. (22-26절)

새벽 (dawn)

* (태고인들은) 아침을 지각할 때, 그들은 하루 중의 실제의 아침이 아닌 아침의 형상인 천국적 원리, 그리고 마음들에 있는 새벽을 지각했다. 이로부터 주님은 ‘아침’, ‘동쪽’, 그리고 ‘동틀녘’이라 불리우신다.

창19:15, 호6:3-‘새벽이 올라왔을 때’=주님의 왕국이 가까이 끌어당길 때...새벽녘이 이 구절에서 ‘아침이 올라왔을 때’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아침이 올라왔을 때’=곧바른 사람이 악한 자와 분리되어지는 시각(time)...이 시각 또는 상태가 ‘새벽’이라 불리우는데, 그이유는 그다음 주님이 오시기 때문, 또는 그분의 왕국이 가까이 끌어당기기 때문. 선한 자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이유는 그다음 그들과 더불어 아침의 나타남은 동틀녘, 새벽의 빛을 발함(햇살)이기 때문....주님의 강림이 말씀(호세아서)에서 ‘아침’에 비교되고 있다. 즉 ‘새벽이 그분의 나가심이다’...이 구절에서 그분의 강림, 또는 가까이 당기심이 ‘새벽’에 비교되고 있다.

욥2:1,2-‘여호와와 날이 온다...마치 새벽이 산들 위에 펼쳐지는 것 같다’. 여기서 역시 주님의 강림, 그리고

새벽녘-새 예루살렘-새 포도주-새 하늘

그분의 왕국을 취급한다.

시110:3-‘새벽으로부터의 자궁으로부터’=주님 자신, 고로 신성한 사랑, 이로부터 그분은 싸우셨다.

레6:9,12-마찬가지로, 제단 위의 불은 ‘매 새벽’에 지펴졌다.

창32:24-‘새벽이 올라올 때까지’=야곱에 의해 의미된 자연적 선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천적인 것, 또는 진리로부터의 신성한 선과 결합함이 있기 전에. 최고 의미에서, ‘새벽’=주님, 표현적 의미에서, 그분의 왕국, 그리고 보편적 의미에서 사랑으로부터의 천적인 것, 이 구절의 경우, 영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천적인 것(the Celestial Spiritual), 또는 진리로부터의 신성한 선. 그 이유가 새벽이 올라왔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명명되어졌기 때문, 이를 수단으로 영적 인간으로부터 있는 천적인 것(the celestial spiritual man)이 의미되어진다.

창32:26-‘그는 말했다, 나를 가게 하라, 그이유는 새벽이 올라오기 때문이다’=결합이 가까웠을 때, 시험이 중지되었다...‘새벽’=야곱에 의해 의미된 자연적 선이 영적인 것으로부터의 천적인 것, 또는 진리로부터의 신성한 선과 결합함. 새벽이 올라오기 전, 씨름이 개시되었고, 새벽이 올라온 후 씨름이 중지된 이유는 하루의 시각들은 상태들을 의미했기 때문. 여기서는 시험을 통하여 있는 결합의 상태, 그이유가 시험에서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의 결합이 거행될 때, 그다음 당사자에게 새벽이 있다, 그이유는 그가 영적, 또는 천적 상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 그다음, 역시 만일 그가 이런 상태 안에 있다면, 그는 새벽의 것 같은 빛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지각할 수 있다. 다시말해 그의 지적 평면은 마치 새벽이 하루의 시작과 첫 비침이 있으면서 그가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같이 계발되어 그에게 와진다.

창32:26-‘나로 가게 하라, 새벽이 올라왔기 때문이다’=(야곱의 후손들의) 표현함(the representative)은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토지의 표현함 안으로 진입하기 앞서, 그들로부터 떠나야할 것이라는 것...‘새벽’=그들이 가나안의 토지 안으로 진입할 때, 고로 거기서 교회를 표현함으로 진입할 때.

이14:12-‘너 새벽의 아들, 루시퍼(셋별)야, 너는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추락했는가’...루시퍼가 ‘아침의 아들’

이라 불리우는데 이것은 (기독교회의 처음 전도자들의) 초기 상태로부터이다.

창44:3-‘아침이 빛을 자라게 했다’=계발의 상태

새벽녘 (daybreak)

* 교회의 마지막 상태는 ‘저녁’, 그리고 ‘밤’이라 불리운다. 그리고 교회의 첫 상태는 ‘새벽녘’ 그리고 ‘아침’이라 불리운다.

* ‘새벽에 수탉이 우는 것’, 마찬가지로 ‘새벽녘’=교회의 마지막 상태.

* 아침 앞의 ‘새벽녘’, 또는 새벽의 수탉 울음 소리=신앙과 선행이 개시하는 상태.

새 예루살렘 (new jerusalem)

* 요한과 에스겔에서 ‘새 예루살렘’=천국들과 땅에서 주님의 왕국.

* ‘거룩한 성’, 또는 ‘새 예루살렘’은 선행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과 신앙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이 의미된다.

계3:12-‘내 하느님의 도성의 이름, 새 예루살렘’=새 교회의 교리가 그들의 심정들에 새겨질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의해 새 교회가 의미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도성’이라 불릴 때, 교리 측면에서의 새 교회가 의미된다.

새 포도주 (new wine)

* 포도액(must)을 보라.

새 하늘 (new heaven)

* 예언서와 계시록에서 ‘새 하늘들과 새 땅’=주님의 왕국, 그리고 주님의 왕국에 있는 모든 이 각각, 또는 각 사람에게 있는 주님의 왕국.

이65:17, 66:22, 계21:1-이전 것을 계승할 ‘새 하늘과 새 땅’=내적, 외적인 새로운 교회.

계21장-‘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이 사라질 때, 계승할 새로운 교회를 뜻한다. ‘하늘’=이 교회의 내적 측면,, ‘땅’=이 교회의 외적 측면.

* (말씀에서) ‘새 땅’에 의해 새로운 외적 교회, 그리고 ‘새 하늘’에 의해 새로운 내적 교회가 뜻해진다.

계21장-‘새 하늘과 새 땅’을 사람과 더불어 있는 천사들은 새로운 교회라고 이해한다..

계21장-내적, 또는 영적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샘

그 안에 천사들이 있는바, 천국들과 땅, 모두에서 새로운 교회를 뜻한다.

계21장-‘새 하늘’은 기독인들로부터의 새 천국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 새 천국과 하나되어 행동할 땅에 있는 새 교회이다.

계11:19-‘하느님의 성전이 천국에서 열려졌다, 그리고 그분의 성전 안에서 그분의 언약의 궤가 보여졌다’=새 천국 (the New Heaven), 이 천국에서 주님은 그분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 예비되어진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십계명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다. 십계명에 새 교회 (the New Church)의 두 본질되는 요소가 있고, 십계명을 통하여 결합이 있다.

계14:1-7, 19:1-9, 20:4,5-천국이 ‘영 (the Spirit)’에 의해 뜻해진 이유는 천사와 같은 영들, 이들로부터 새 천국 (the New Heaven)이 뜻해지기 때문.

샘 (fountain)

창7:11-‘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졌다’=자발적인 측면에서 있는 시험의 극단.

창16:7-‘광야에 있는 물들의 샘에서’=생명을 아직 획득하지 않은 자연적 진리. ‘물들의 샘’=진리.

창16:7-‘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에서’=이 진리는 과학 물로부터 진행되는 것들로부터 였다는 것. ‘샘’=진리.

시104:10-‘샘들’=지식들.

창16:14-‘그러므로 그녀는 샘(spring)이라 불렀다’=거기서부터 있는 진리의 상태...이 진리는 합리성에서 보여지지 않고 합리성 아래 수준에서 보여졌기에, 여기서의 샘에 대한 원어의 표현은 fountain이 아닌 spring에 가까운 어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단어 모두 샘이라는 의미에 공히 사용되고 있다.

창16:14-‘나를 살펴보신 하느님에게 샘’=진리 고로 명료함.

* ‘물의 샘(well)’, 그리고 ‘샘(fountain)’=말씀, 또한 말씀으로부터의 교리, 결과적으로 진리 자체.

신33:28-‘야곱의 샘’=말씀,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파생된 진리로부터의 교리...(이런 의미 때문에) 주님께서 야곱의 샘에 오셨을 때, 그분은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이야기하셨고, ‘샘’, 그리고 ‘물’에 의해 의미되는 것을 가르치셨다...‘야곱의 샘’이 말씀을 의미하는바, ‘물’은

진리를, ‘사마리아’는 영적 교회를 의미한다...주님께서 사마리아 출신 여인에게 신앙 속의 교리는 그분으로부터 있다는 것, 그것이 그분으로부터 일 때,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물의 샘이다’고 가르치셨다.

창24:13-‘보십시오, 저는 물들의 샘에서 위쪽에 서있습니다’=주님의 인간 안에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결합하는 상태. ‘샘’=진리, 여기서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그이유는 주님이 취급되기 때문. 결합 자체의 상태가 ‘샘에서 위쪽에 서있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24:16-‘그녀가 샘으로 내려왔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창24:29-‘라반이 사람에게, 샘으로 달려갔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 시작하여 있었던 진리를 향한 선에 애착함의 왕성한 정신(강한 바램). ‘샘’=진리, 여기서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창29:30-‘샘에서’=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부터 그들이 계발됨...말씀이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인 바, 그것은 샘(fountain)이라 불린다...‘샘에서 서있는 것’, 여기서는 자연적 인간에 있는 이러저런 것들의 계발을 포함한다...그이유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있는 곳에 계발도 있기 때문.

* ‘브엘-라해-로이’, 원어에서 ‘살아계시고 나를 보시는 그분에게 샘’을 뜻한다.

창29:2-말씀이 이 구절에서는 샘(well)이라 불리는데, 그이유는 말씀이 자연적인 것을 다르기 때문...그러나 말씀이 합리적인 것을 다를 경우, ‘샘(fountain)’이라 불린다.

계8:10-‘강들과 물들의 샘들’=총명, 그리고 말씀으로부터의 지혜.

창38:14-‘그녀는 담나로 가는 길에 있는 샘들의 문에 앉았다’=교회의 진리, 그리고 거것들 그 사이에 중간의 것. ‘샘들’=말씀으로부터 있는 교회의 진리들. 그이유가 보편적 의미에서 ‘샘’=말씀.

창38:21-‘길에 있는 샘들에서’=그것이 진리인듯 나타나는 것. ‘샘들’=교회의 진리들.

창49:22-‘샘 위에 열매있는 자의 아들’=말씀으로부터의 진리로부터 결실이 풍부함. ‘샘’=말씀.

샘-생각하다-생 것-생동하게하다 -생생한-생득권-생명

민21:7-‘샘’=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부터의 교리.
 출15:27-‘물들의 열 두 샘들이 있는 곳’=거기서 그들은 진리를 아주 풍성하게 가졌다는 것. ‘샘들’=신앙으로부터의 진리.
 계21:6-‘생명의 물의 샘’=신앙으로부터의 진리와 선.
 계7:17-‘그리고 그들을 물들의 살아있는 샘들로 인도할 것이다’=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그분 자신과 결합하도록 인도하심. ‘물들의 살아있는 샘’=주님, 또한 말씀.
 계8:10-‘강들의 삼분의 일이 떨어졌다, 그리고 물들의 샘들 위에 떨어졌다’=이것으로부터 말씀 속의 모든 진리들이 지독하게 왜곡되었다. ‘물들의 샘들’=말씀.
 계14:7-‘물들의 샘들을...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라’=주님 만이 예배되어야 할 것이다, 그이유는 그분 만으로부터 교회와 천국에 속하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물들의 샘들’=교리와 생활을 위해 교회에서 Tm임을 받고 있는 말씀 속의 모든 진리들.
 계16:4-‘세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들에, 그리고 물들의 샘들에 쏟았다’=그들과 더불어 말씀을 이해함 안으로 유입이 있다. ‘물들의 샘들’=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고로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물들의 샘들’=말씀으로부터 파생된 신성한 진리들.
 계21:7-‘나는 목말라 있는 그에게 생명의 물의 샘으로부터 무료로 줄 것이다’=어떤 영적 사용으로부터 진리들을 바라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 사용에 도움이 될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그분 자신으로부터 주신다는 것...‘생명의 물의 샘’=주님과 말씀.
 욕3:18-‘이것들이 말씀으로부터 있다는 것이 ‘샘이 여호와와 그의 집으로부터 나가고 있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예31:9-‘그들이 진리들로 인도된다는 것이 ‘나는 그들을 올바른 길에서 물들의 샘들에 인도할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시68:26-‘구원의 샘’=영적 선, 그이유는 이를 통하여 구원이 있기 때문.
 신8:7-‘샘들과 깊은 곳들이 골짜기로부터 그리고 산으로부터 나간다’=말씀으로부터의 내면과 외면의 진리들.
 신33:28-‘야곱의 샘’=신성한 진리, 그리고 말씀.
 이49:10-‘샘, spring, 또는 fountain’=말씀, 또는 말씀

으로부터의 진리.
 시114:8-‘물들의 샘’=(진리에 대한 지식) 오는 말씀.
 시104:10-‘샘들’=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 ‘샘들이 강들에 보냈다’=거기로부터 파생된 총명.
 욕3:18-‘샘이 여호와 집으로부터 나갈 것이다, 그리고 식탐의 강에 물을 낼 것이다’=지식에 있는 이들을 계발하려고 주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교리 속의 진리에 온다는 것.
 이41:18-‘샘들을 놓는 것’=진리에서 가르치는 것.
 창49:22, 요4:5,6-‘(요셉이 근처에 있다 라고 말해지는) 샘’은 야곱의 샘을 뜻한다. 그이유가 그 샘이 있었던 들판이 그의 아버지에 의해 요셉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민21장-브엘에 있는 ‘샘’에 의해 말씀으로부터의 교리가 의미되어진다. 그이유가 원어에서 ‘브엘’은 샘을 뜻하기 때문.
 호13:15-‘샘(spring)’=교리. ‘샘(fountain)’=말씀.
 이41:18-‘계곡들의 한가운데 샘들이...’=자연적 진리로부터의 총명.
샘 (spring)
 시36:9-‘생명의 샘(fountain)’=사랑으로부터 있는 천적인 것.
 이49:10-‘물들의 샘들’=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에 관한 지식.
 예51:36-‘바빌론의 샘(fountain)을 마르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로부터 시작하여 이 교회 속의 모든 진리를 소멸시키는 것.
 이41:18-‘물들의 샘들 위에는 그분은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모든 진리 측면에서 계발됨. ‘샘, spring, 또는 fountain 모두’=말씀, 또는 말씀으로부터의 교리.
 호13:15-‘그분의 샘(fountain)’=왜곡된 것으로부터의 교리. ‘그의 샘’=그것의 거짓.
 이35:7-‘목마른 장소가 물들의 샘들이 될 것이다’=그들이 가지게 될 진리들.
샘 (well)
 * 우물을 보라
생각 (thought)
생각하기 (thought)

생-생각하다-생 것-생동하게하다 -생생한-생득권-생명

생각하다 (think)

생각에 잠기는 (cogitative)

* idea, affection, bird, contrive, reflect도 참조.

창3:16-‘나는 네 임신을 크게 불리겠다’=모든 생각하기.

창6:5-‘그의 심정으로부터의 생각하기들의 모든 조각’=선과 진리를 지각함이 없다.

창7:8-‘새’, 일반적으로=생각하기들.

창11:6-‘그들이 하려고 생각한 것 중 어느 한가지도 그들로부터 보류된 것이 없다’=그들의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하려고 생각하기’는 의도, 즉 목적(end) 밖에 더 아니다. 그리고 상태가 바뀔 때, 목적도 그렇게 있는다. 그리고 목적과 더불어 생각하기도 그렇게 있다.

창16:7-주님이 자신을 여호와에 하나가 되게 함에 비례하여 그분의 생각하기는 더 내면적이 되었다. 이것이 주님의 내적 측면으로 있는 내면의 생각하기에 의해 뜻해지고, 이것이 ‘여호와와 천사’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창18:22-‘앞을 바라보았다’=생각하는 것.

창18:33-‘이야기하는 것’=생각하는 것.

창28:6-‘보는 것’=생각하는 것. 그이유가 ‘생각하는 것’은 내향적으로는 보는 것, 또는 내적 시야 밖에 더 아니기 때문.

창37:25-‘그들은 눈을 들어 보았다’=한단계 더한 생각.

창39:10-‘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이야기했다’=그 어떤 것에 관하여 생각하기.

창41:8-‘영’, 여기서=내면의 애착과 생각하기. 그러나 이 구절의 경우 생각하는 기능 뿐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것은 육체와 다른 주제 없이 이다.

창43:7-‘묻는 것’=또다른 사람의 생각하기를 지각하는 것. 그이유가 천국에서는 생각하기들에는 모두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상대방에게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

창48:11-‘나는 네 얼굴을 보리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다’=그는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생 것 (raw)

출12:9-‘생 것’=사랑의 선이 결핍됨

생동하게하다 (vivify)

생생한 (vivid)

창2:23-‘뻐’=생동함이 그리 많지 않은 자아. ‘살’=생동함이 있는 자아.

창7:3-‘씨를 살아 있게 만드는 것’=신앙 속의 진리들.

창12:12-‘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다’=그들은 천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식들만에 관심이 있다는 것.

창14:5-‘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있게 만들기 앞서 나를 보냈다’=섭리에 의해 그들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

창47:25-‘당신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었다’=영적 생명, 그의 달리는 없다...

창50:20-‘많은 사람들을 살아 있게 만드셨다’=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을 위한 생명이 이것으로부터 있다.

출1:17-‘그들은 소년들을 살아있게 간수했다’=진리들, 선으로부터인바, 보존되어졌다.

요6:63-‘활기 띠게 하는 것이 영이다’

출22:18-‘너는 마법사가 살아 있게 내버려두지마라’=영적 생명의 박탈.

겔13:19-‘살아있지 않아야 할 혼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영원한 생명이 거짓들로부터 있다고 그들을 설득해대는 것.

시33:19-‘기근에서 그들이 살아있도록 간수하는 것’=바람에 따라 영적 생명을 주는 것.

생득권 (birthright)

* 맏아들(primogeniture)을 보라.

생명 (life, live, living, alive)

창2:7-‘그의 콧구멍 안으로 생명들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그에게 신앙의 생명과 사랑의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고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외적 인간 또한 살아있게 되었다.

창2:9-‘생명들의 나무’=사랑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신앙.

창3:20-그녀는 생명 자체 이신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살아있는 모든 자의 어머니’라 불리웠다. 거기에 하나의 생명 외 더 다른 것은 가능치 않다, 이 생명으로부터 모든 자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생명인 주님에 대한 신앙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되는 것은 가능치 않다

생명들의 나무-생명의 책-생쥐-생선-서기관-서다

다. 그분이 계시고, 그분으로부터가 아닌 생명있는 신앙은 없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에서 '유일한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여호와', '영원히 사시는 그분'. '생명의 샘', '살아있는 물들의 원천'이라 불리우시고 있다. 천국, 이는 그분으로부터 살아있는 바, '살아있는 토지'라 불리운다. 이들은 주님에 대한 신앙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라 불리워진다. 그리고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이 '생명들의 책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해진다. 그리고 '생명의 책 안에서'. 그러므로 또한 그분에 대한 신앙을 받아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 말해진다. 반대로 신앙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죽은 자'라 불리운다.

생명들의 나무 (tree of lives)

* 나무를 보라

생명의 책 (book of life)

* '생명의 책에 씌어진 이들' = 진리와 선으로부터 생활한 이들, 고로 사랑과 신앙으로부터 신성한 명령들을 행한 이들.

* 인간의 '생명의 책'이란 행동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인간 전체에 새겨진다는 것, 그래서 마치 기억으로부터 불리나올 때 책을 읽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리고 영이 천국의 빛에서 관조할 때 초상같이 보여진다.

계13:8-'생명의 책' =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에 관한 모든 교리.

계17:8-'이들의 이름들은 세상의 창설로부터 생명의 책에 씌어있지 않았다' =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교리 안에 있지 않은 이들.

계20:15-'만일 누군가가 생명의 책에 씌여짐을 찾지 못했다면' = 말씀에 있는 주님의 훈령들에 따라 살지 않았던 이들.

계21:27-'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씌어진 이들' = 새 교회(the New Church) 안으로 받아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말씀에 있는 그분의 훈령에 따라 사는 이들.

계22:19-'생명의 책으로부터 그들의 몫을 제할 것이다' = 그들은 말씀으로부터 어떤 지혜도 획득할 수 없다,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도 자기 것 삼아질 수 없다. '생명의 책' = 말씀, 그리고 또한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그이 유는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

생쥐 (mouse)

삼상6장-블레셋 사람들이 황행함과 더불어 '쥐들'에 의해 진리의 거짓화함을 통하여 교회가 황폐함이 의미되었다.

삼상6장-'금 쥐'는 교회의 황폐해짐이 선을 수단으로 거두어졌음이 의미되고 있다.

* '쥐' = 교회의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고 소비시켜버리는 감각적 인간으로부터의 거짓들.

생선 (fish)

* 물고기를 보라

서기관 (scribe)

사5:14-'서기관의 홀(sceptre)' = 총명.

이33:18-'서기관은 어디 있느냐?' = 총명이 없을 때.

마23:34-'나는 너희에게... 서기관들을 보낸다' = 말씀, 이로부터 교리가 있다.

마20:18-대 성직자들과 서기관들 = 선에 섞음질함과 진리를 변조함, 둘 다 지옥의 사랑으로부터이다.

마5:20-'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정의로움을) 넘어 그들 함' = 내적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적인 것 없는 외적인 것은 안된다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오로지 외적인 표현 안에만 있었다.

서다 (stand)

창18:22-'아브라함, 그는 아직 여호와 앞에서 서있었다' = 주님의 인간으로부터의 생각.

창24:13-'저는 물들의 샘 가에 서있습니다' = (주님의) 인간 안에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결합하는 상태.

창24:30-'그는 낙타들 옆에 섰다' = 일반적 과학물들에 서 현존함.

창24:31-'왜 당신은 밖에 서있는가?' = 거기로부터 얼마 쯤.

겔22:30-'위반에서 서있는 것' = 거짓들이 깨뜨리지 않도록 방어하고 돌보는 것.

창41:2-'보니 그는 강가에 서있었다' = 경계선으로부터 경계선까지.

창41:46-'그가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 그의 현존(존재)이 자연 평면에서 있었다. 누군가 앞에 '서는' 것 = 현존(presence)

창43:15-'그들은 요셉 앞에 섰다' = 거기에 영적인 것

서두르다

로부터의 천적인 것이 현존함.

창45:1-‘자기와 더불어 서있는 모두’=결합을 주저하게 하는 이런저런 것들.

출5:20-‘길에서 서는 것’=명백해짐.

출9:11-누군가 앞에 ‘서있을 수 없다’=현존될 수 없다.

출9:16-‘이것을 위해 나는 네게 서있게 만들었다’=아직까지는 교통됨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들은 질서에 따라 상태들을 통과한다.

출9:28-‘너는 더 이상 서있지마라’=더이상 붙들어두지 않게 하라.

출18:13-‘사람들이 모세 옆에 섰다’=그당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부터 순종함.

출20:18-‘그들은 떨찍이 서있었다’=내적인 것으로부터 옮겨짐.

출33:8-‘그들은 천막의 문에 섰다’=...그들은 예배의 거룩한 것 밖에 있었다는 것.

계7:9-‘왕좌 앞에 서있음’=주님께 들고 그분이 명령하는 것을 행함. ‘하느님 앞에 섬’=들고 그분이 명령하는 것을 행함.

계11:11-‘자기들의 발로 서는 것’=영적 삶에 일치하는 자연적 삶. 고로 주님에 의해 생동되어지는 것.

계20:12-‘하느님 앞에 서는 것’=심판에 모두 함께 그러모아 현존해 있는 것.

계6:17-‘누가 설 수 있느냐?’=누가 참아내고 사느냐?

계7:11-‘왕좌 앞에 섰다’=결합...

계10:5-‘그들 위에 서는 것’=그들이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

계11:1-‘천사가 가까이 섰다’=주님의 의지, 그리고 명령하신다.

속4:14-‘그분 가까이 서는 것’=그분으로부터 있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

계11:4-‘땅의 하느님 앞에 서는...’=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것들인 것, 그리고 천국과 교회에서 그분의 것이라는 것...‘그분 앞에 서는 것’=그분으로부터 있는 것, 고로 천국과 교회에서 그분의 것인 것.

시1:1-‘서는 것’=의지로부터인 의도 속의 생명에 속하는 것.

계13:1-‘나는 바다의 모래 위에 섰다’=상태의 계속...

계14:1-‘오, 시온 산 위에 서있는 어린 양’=천국과 교회에서 주님의 현존...‘서는 것’=출석하고 결합되는 것.

계18:17-‘그들은 떨찍이 섰다’=두려움을 통하여, 이런 것들에서 그 정도는 아니되는.

서두르다 (haste)

창19:15-‘천사들은 롯에게 서두르라고 종용했다’=주님은 그들을 악에게 주지 않고 선 안에 간직하셨다.

창27:20-‘너는 이다지도 빨리 발견하였느냐? 내 아들아’=꽤 빠른 산물.

합1:8-‘독수리가 삼키려 서두르고 있다’=진리들 측면에서 인간이 삭막해지는 것.

창41:32-‘하느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려고 서두르신다’=모두 각각의 사건에서...‘서두름’, 또는 ‘급함’은 내적 의미에서 빠르게가 아니라 확실한 것, 또는 충분한 것을 뜻한다. 고로 모두 각각의 사건과 더불어. 그이유가 급함은 시간을 내포하기 때문. 그리고 영계에서는 시간이 없고, 시간 대신 상태가 있다. 고로 시간 측면의 급함은 상태 측면의 품질과 상응한다. 그리고 상응하는 상태의 품질에는 다함께 효과를 보는 다수의 것들이 있다, 이로부터 확실하고 충분한 사건이 결과 된다.

창43:30-‘요셉은 서둘렀다’=가장 깊은 것으로부터. 여기서의 ‘서두르는 것’=가장 깊은 것으로부터 일시에 쏟아져나오는 것.

창44:11-‘그들은 서둘렀다’=성마름(impatience).

출2:18-‘어찌하여 너는 오늘 성급히 오느냐?’=지금 결합이 확실하다고 지각함. ‘오는 것이 성급함’=확실한 결합. ‘성급한 것’=확실한 것.

출10:16-‘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데 성급했다’=그당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때문에 있는 두려움. ‘성급한 것’=두려움으로부터. 그이유가 모든 성급함은 흥분된 어떤 애착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

출12:11-‘그리고 너는 그것을 서둘러 먹을 것이다’=분리에 대한 애착. ‘서두름’=애착, 그이유는 그것이 애착 속에 있기 때문.

출12:33-‘이집트는 토지로부터 그들을 보내는데 성급하여져 사람들을 재촉했다’=그들은 혐오와 두려움으로부터 빨리 떠나도록 종용했다는 것.

출34:8-‘모세는 서둘러 땅으로 자신을 구부렸다, 그리

서른 번째-서리-서약-서쪽-석류-석류석-석탄

고 경배했다'=그당시 외적인 것 안으로 유입으로부터 받음, 그리고 지극히 면목 없음으로부터 예배함. '서두르는 것'=애착, 여기서는 유입을 수단으로 받음. 그이유는 신성으로부터의 모든 유입은 인간의 애착 안에서 거행되기 때문. 그리고 또한 인간이 받음 역시 애착 안에서이다.

서른 번째 (thirtieth)

* 삼십을 보라

서리 (hoar-frost)

출16:14-'땅 위에 서리 만큼이나 작은 것'=시종일관되고, 흐르는 (상태)에서 선의 형태로 있는 진리. '서리'=선의 형태에서. 진리로부터의 선이 서리가 눈으로 계속된다는 관계 측면으로부터 '서리'에 비교되어진다. '눈'은 작고 흰색 인 바, 진리라고 단정되고, '서리'는 계속되고 있는 바, 선을 만든 진리라 단언된다, 이것은 진리로부터의 선이다.

서약 (vow)

창28:20-'야곱은 서약했다'=주님이 설비하시도록 뜻하는 것.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섭리의 상태.

창31:13-'내가 나에게 서원을 했던 곳'=거룩인 것.

나1:15-'너의 축제들을 준행하라, 그리고 너의 서약을 수행하라'=그분의 강림 때문에 기뻐날뛰는 것, 그리고 그당시 그분을 경배하는 것.

시132:2-'그는 여호와께 맹세했다, 그리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에게 서약했다'=주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단호한 주장.

말1:14-'서약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예배하는 것...

서쪽 (west, western)

창12:8-'바다 쪽(서쪽)으로 벤엘'=(영적 지식들에 관련하여 희미한 상태)...그 이유가, 말씀에서 '서'=희미한 것.

창13:14-'서'=와야 하는 이들; 그리고 또한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이들.

창28:14-'너는 바다쪽(서쪽)으로 나아갈 것이다'=아직은 희미한 수준인 선, 고로 시작 단계에 있는 선.

단8:4-'서쪽'=자연적 인간의 악.

계21:13-'서쪽에 문이 셋'=사랑 또는 선에 애착함이 덜한 이들을 위한 새 교회(the New Church) 안으로의

입문.

신33:23-'오 납달리...너는 서쪽과 남쪽을 점유한다'=파생된 진리에 애착함과 계발.

민2:18-24-'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들은 서쪽에 위치를 정했다.' 그이유가 천국에서 이들은 서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 거주하기 때문, 이들은 선이 희미함에 있는 이들, 그리고 진리가 희미한 이들, 고로 자연적 선과 진리에 있는 이들이다.

석류 (pomegranate)

출25:31-'그것의 석류들'=선으로부터의 과학물들.

학2:19-'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석류(나무)'=각기 제 질서에서 영적인 것, 자연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 중에서 과학적인 것이 마지막에 해당된다.

신8:8-'석류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습2:14-'석류들'=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

솔1:12-석류나무=감각적인 진리와 선, 이것은 자연 평면에서 최말단이다.

석류석 (carbuncle)

출28:17-'홍옥(루비), 황옥(토파즈), 석류석'=선으로부터의 천적인 사랑. 그이유는 이 돌들은 붉고, 이글거리는 색깔을 지녔기 때문.

* '석류석', 원어에서는 불로부터인 것같이 확 불붙음 (flashing)을 뜻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이54:12-'석류석'=선으로부터 뻗적뻗적 빛남.

석탄 (coal)

겔1:27-'살아있는 석탄'=사랑의 천적 평면.

시18:12-'우박과 불타는 석탄'=탐욕의 악들과 거짓들을 통하여 진리와 선이 황폐해짐.

시140:10-'불타는 석탄들'=인간 자신의 총명 속의 자만.

시78:48-'석탄' 또는 불=교회의 선을 파괴하는 악으로부터의 사랑과 그것의 열성.

이6:6-'제단으로부터의 숯불'=신성한 사랑, 이로부터 모든 순수해짐이 온다.

석회 (lime)

이27:9-예배의 진리 측면에 관련하여 교회의 파멸이 '제단의 돌들을 흐트러진 흰돌 가루 같이 놓는 것'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흐트러진 흰돌 가루(chalk stone)='

석회-섞다-섞음질하다-섞지 않은 포도주-선

밀착하지 않는 거짓들.

섞다 (mix)

혼합 (mixture)

출12:38-‘많은 혼합된 군중’=순수하지 않은 선들과 (진리들).

출29:2-그러므로 떡(cake), 그것들=두번째 서열의 천적 평면인 바 ‘기름을 섞으라’고 말해진다. 그리고 웨이퍼, 그것들=세번째 서열의 천적 평면인 바, ‘기름을 부으라’고 말해진다.

계8:7-‘피와 혼합된 우박과 불’=파괴하는 지옥의 악과 거짓이 말씀 속의 진리들과 선들과 뒤섞여 있다...고로 신성한 진리가 왜곡되었다.

계14:10-‘섞이지 않은 포도주(merum)와 더불어 혼합된’=왜곡된 진리들과 결합되는 것.

계18:6-‘그녀가 섞은 잔 안에 두배로 섞으라’=그들이 진리를 모독한 만큼에 비례해 응보함...‘섞는 것’=모독하는 것.

섞음질하다 (adulterate)

* 간음을 보라.

섞지 않은 포도주 (merum)

이27:2-‘섞지 않은 포도주의 포도원=영적 교회.

계14:10-‘섞이지 않은 것을 부어 마셨다(pour out)’에 의해 완전히 왜곡되었음이 의미된다.

신32:14-‘포도의 피’, 그리고 ‘섞지 않은 포도주’=거기로부터의 모든 진리.

계14:10-‘섞지 않은 포도주와 섞여지는 것’=왜곡된 진리들과 결합해지는 것.

이50:22-‘네 섞지 않은 포도주는 물들과 섞였다’=진리의 왜곡함을 통하여 진리가 천박해지고 파괴되었다.

선 (good, goodness)

* 셋째 상태에서 그는 선들을 생산한다...이 선은 생명 없다.

* 넷째 상태에서...그는 선들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 선은 시험의 상태로부터 일 뿐, 신앙과 선행으로부터는 아니다.

* 여섯째 상태에서 신앙과 사랑으로부터 그는 진리들을 말하고 선들을 행한다.

창1:2-‘공허’=선 없이 존재하는 곳; 그리고 ‘텅빔’=진리 없이 존재하는 곳.

* 지독하게 외적 인간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 이유가 그 인간은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선들이라고 믿고, 이 사랑들을 옹호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빛이 ‘선’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 이유는 주님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창1:5-‘낮’=선; 그리고 ‘밤’=악.

* 인간은 자기 안에 신앙에 관한 지식들을 잉태시키지 않으면 그는 선을 생산할 수 없다.

* ‘겨자-씨 한 알’=인간 당사자가 영적 인간이기 이전 그의 선, 이 씨는 모든 씨들 중에서도 가장 작다, 그 이유는 그가 선을 자신 스스로로부터 행하고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창1:31-여기서 ‘참 선’이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앞 절들에서는 오직 ‘선’이라고만 말했을 뿐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진 이유는 신앙 속의 것들이 사랑 속의 것들과 하나를 만들기 때문이다.

* 사랑으로부터, 곧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어떤 선도 존재 않는다.

* 태고 교회 사람은 선으로부터 진리를 가졌다; 그러나 홍수 이후 사람은 진리로부터 선을 가졌다.

* 선은 그것의 가장 깊은 것이 천적인 것이 아니면 선이 아니다.

* ‘사람의 아들’=진리 자체, ‘하느님의 아들’=선 자체.

창18:7-‘부드럽고 좋은’...천적 자체로부터의 ‘선’. 또는 선 자체.

창20:13-‘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행하게 될 너의 선택이다’=이로부터 그는 이런 위로를 가질 것이라는 것.

창 24:10-‘자기 손에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그와 더불어 그들의 선들과 진리들...(그것)= 선과 진리 양쪽 모두; 그 이유가 진리도 그 자체로만 본다면 선이다, 그 이유는 선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진리는 선의 형체이다; 즉 선이 지적으로 지각되기 위해서 형체를 가질 때 이 형체가 진리라 불리우는 것이다.

* 기쁨(gladness)은 진리를 서술하고 있다; 환희(joy)는 선을 서술한다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선견-선물

* 남자(man-vir)=진리; 사람(man-homo)=선
창31:24-‘선으로부터 악까지 대등하게 말하는 것’=악을 생각하고 선을 말하는 것.

창45:20-‘이집트 모든 토지 속의 좋은 것, 이것은 너희를 위해 있다’=그들이 자연적 마음에서 제일가는 것을 가지는 것.

창49:15-‘종개’ (여김)=그들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시21:3-‘선의 복된 것들’=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시86:17-‘선을 위해 표시를 만드는 것’=여호와께서 그를 돕고 위로 하실 것을 증명함.

예2:7-‘좋은 것(good)’=선행의 선과 생활의 선.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 나무를 보라

선견 (foresight)

예견하다 (foresee)

창30:22-‘하느님은 라헬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녀에게 귀기울이셨다’=선견과 섭리...그이유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은 그를 지켜보는(look) 것이다. 그리고 보는(see) 것은 최고 의미에서 선견이다.

예1:5-‘내가 너를 자궁에서 만들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자궁으로부터 나가기 전에 나는 너를 성별하였다.’...=그는 거듭남을 통하여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어질 수 있다는 선견. 고로 그는 말씀을 받고 가르칠 수 있다는 선견.

선물 (gift)

창25:6-‘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준 선물’=주님의 영적 왕국에서의 몫(lot).

마23:19-‘그러므로 거룩해지게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닌 제단이라고 말해진다...여기서의 선물은 제물이다.

창43:23-‘감추인 선물’=주님에 의해 주어진 진리와 선은 인간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

시72:10-‘선물(present)을 가져오고 선물(gift)을 바치는 것’=사랑으로부터의 선과 신앙으로부터의 선.

선물 (present)

* 공물(offering)도 참조

시72:10-‘선물(gift) 그리고 선물(present)’=예배

창4:3-‘공물(offering)’ 또는 ‘선물(present)’=예배. (그이유가) 모든 제물이 ‘공물’이라 불리웠기 때문.

말3:4-‘유다의 공물’=천적 사랑으로부터 있는 예배. 그리고 ‘예루살렘의 공물’=영적 사랑으로부터 있는 예배.

이66:20-‘깨끗한 그릇 안에 공물’=내적 인간에 비교되는 외적 인간의 표징. 선물을 가져오는 것은 내적 인간이다는 것.

창32:13-‘그의 형 에서를 위한 선물’=신성한 것들이 자연적 선의 천적인 것(celestial natural good)으로 시작되었다. ‘선물’=시작. 그이유는 이것이 친절(goodwill)과 호의(favor)를 확실히 붙들게 했기 때문.

* 고대 시대에서 선물은 여러 가지 것을 의미했다...왕이나 성직자에게 가까이 감에서 그들에게 준 선물은 시작(initiation)을 의미했다. 그리고 선물들이 제단 위에, 예배에서 바쳐졌다. 그이유가 모든 제물(sacrifices)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종류이든, ‘선물(또는 공물)’이라 불려졌기 때문. 그러나 특별하게도 불려졌는데, 예를 들면, 식사 공물(meat-offering) 등등이다. 원어에서 ‘식사-공물’은 ‘선물, present’을 뜻한다.

창43:11-‘선물을 만들어 그 사람에게 내려가라’=은총을 획득하는 것.

창43:25-‘그들은 선물을 준비했다’=은근히 내비춤. 그이유가 ‘선물’=은총을 획득하는 것.

마23:19-‘어느 것이 더 위대하냐, 선물(gift)이냐, 또는 선물을 거룩해지게 하는 제단이냐?...’선물, 또는 제물(sacrifice)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앙과 선행 속의 것들이 의미되었다.

출23:8-‘너희는 선물을 받지 말라’=이득을 위한 것이 라면 무엇이든 혐오하라. (그이유가) ‘선물’=사랑 받아지는 세상적인 모든 것. 즉 부유함, 위엄, 명성, 또는 자연적 인간에 발림말하는 것까지도 혐오하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득(gain)이라 불려진다. 그리고 내적 의미에서 ‘소경되게 하고 남용되게 하는 선물’에 의해 뜻해진다.

출23:8, 신16:19-‘그 이유는 선물은 열려있는 눈을 눈멀게 하기 때문이다’=이득은 진리들이 나타나지 않게 한다는 것. ‘선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멀게 한다.’

출23:15-‘내 얼굴들이 텅빈 것을 보게 하지 말라.’ 즉

선생-선원-선장-선택

선물 없이=(주님으로부터) 선을 받기 위한 증거가 되는 것, 그리고 감사함.

시72:10-‘선물(present)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선물(gift)을 가져오는 것’=사랑의 선과 신앙의 선.

이66:20-‘여호와께 공물’은 주님 안에서 사랑의 선들과 신앙의 선들을 뜻한다.

말3:3-여호와께 바친 선물이 사랑의 선들과 신앙의 선들인 바, ‘그들은 정의 안에서 공물을 여호와에게 가져온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57:9-‘왕에게 기름 안에서 선물을 바치는 것’=악들로부터 사탄을 예배하는 것. ‘기름 안에서 선물’은 식사 공물이다.

계11:10-‘그들은 서로에게 선물을 보낼 것이다’=사랑과 우정을 통하여 제휴함.

마5:23,24-‘제단에 선물(gift)을 바치는 것’=모든 신성한 예배, 그이유는 이 나라와 더불어서의 신성한 예배는 태워 바침과 제물을 바침에 우선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시45:12-이 (지식)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선물을 가져오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있다.

이45:13-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해주신다는 것이 ‘가격도 없고, 선물도 없이’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시45:12-‘두로의 딸이 선물(gift)을 보낼 것이다’=진리에 관한 지식을 지닌 이들에 의한 예배.

선생 (teacher)

* 가르치다(teach)를 보라.

선원 (sailor)

* 뱃사람(sailor)을 보라.

선장 (captain, ship-master)

겔27:8-‘두로’=내면의 지식들, 그러므로 그곳의 박사는 ‘선장’이라 불리운다.

겔27장-가르치고, 이끌고, 통치하는 이들이 ‘키잡이, 선장, 노잡이, 선원’에 의해 뜻해진다.

겔27:28,29-‘선장’=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을 통하여 슬기 있는 이들.

겔27장-‘선장’=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가져오고 전달하는 이들.

선택 (choice, elect)

시106:5-‘제가 당신께서 선택하신 자의 선을 보게 해주시며...’

이42:1-‘내 종...내가 뽑은 자를 보라’...이는 주님께 관련해 언급됨이 분명하다. 이는 그분이 인간 안에 계셨던 동안에서를 서술하고 있다.

창23:6-‘우리의 무덤들 중에서 선택...’=거듭남에 관련된 아주 즐거운 것. ‘선택함’, ‘선발함’, ‘선택한 것’=자유로운 선택 속에 있는 것, 또는 아주 즐거운 것.

마24:22-‘뽑은 자를 위하여 이 날들은 짧아질 것이다’=선과 진리의 삶 안에 있는 이들이 아직 구원되기 위하여 교회 속에 있는 것들은 내면의 선과 진리로부터 외면의 선과 진리 까지 제거함. ‘뽑은 자’=선과 진리로 살고 있는 이들.

마24:24-‘가능만하다면, 뽑은 자까지도 피는 것’=선과 진리의 생명 안에 있는 이들, 이로부터 주님과 더불어 있는 이들. 이들이 말씀에서 ‘뽑힌 자’라 불리우는 이들이다.

마24:31-‘그들은 하늘들의 끝으로부터 그것들의 끝까지, 네 방위로부터 뽑은 자를 다함께 그러모을 것이다’=새 교회 (the New Church)의 건립. ‘뽑힌 자’=사랑과 신앙으로부터 선에 있는 이들, 그들을 다함께 그러모을 ‘네 방위’=선과 진리의 모든 상태들. ‘하늘들의 끝으로부터 그것들의 끝까지’=교회의 내적, 외적인 것들.

출15:4-‘뽑은 세 번째 지휘자들’=각각 하나와 더불어는 모두...‘뽑은’이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상급의 중요한 거 것들, 이 거 것들 아래 그 나머지들이 있기 때문이다.

출17:9-‘우리에게 남자들을 뽑아라’=전투를 위하여 진리들을 준비함.

출18:21-‘너는 모든 사람들로 부터 찾을(see) 것이다’=섬김을 위해 진리들을 선택함. ‘찾는 것’, 여기서=선택하는 것.

출18:25-‘그리고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로부터 진솔한 사람들을 선발했다’=진리의 총명에 우선적으로 있는 이들을 선택함. ‘자신에게로 부르는 것’=선택.

계17:4-‘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있는 그들은 불려졌고, 선택되었고, 그리고 신실하다’=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주님 만을 예배하는 이들은 천국에 온 이들, 즉 교회의

선행

외적인 것들에, 그리고 내적인 것들에, 가장 깊은 것들에 있는 이들이다.

이65:9-‘산을 소유할 뽑은 자’란 선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종들’은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42:1, 시89:3-‘내가 기대는 나의 종’, 그리고 ‘나의 혼이 반기는 내가 뽑은 자’란 신성한 인간이다. 이것은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종’이라 불리운다...그리고 신성한 선으로부터 ‘뽑은 자’라 불리운다.

이65:9-선행 안에 있는 이들이 ‘뽑은 자’라 불리우고, 사랑의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이 ‘종들’이라 불린다.

이7:15-신성한 영적, 자연적 선이 자기 것 될 때 어떻게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하는지가 알려지는 바, ‘그는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해진다.

마24장-‘뽑은 자’란 영적 선 안에 있는 이들, 즉 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시65:4-‘뽑은 자’, 또는 ‘내가 선택하는 그 사람’이란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43:20-‘사람들’은 신앙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뽑은 자’는 선행으로부터의 선에 있는 이들이다.

계17:14-‘뽑힌 자’=이웃을 향한 사랑에 있는 이들...둘째 천국에 있는 천사들, 이웃을 향한 사랑에 있는 이들인데, ‘뽑힌 자’라 불리운다.

이40:20-‘선택하는 것’=말씀으로부터 있는 것이 설득시키기 때문.

선행 (charity)

창4:2-교회로부터의 두 번째 출생이 선행인데, 이것이 ‘아벨’, 그리고 ‘형제’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양떼의 목자’는 선행으로부터의 선을 실시하는 이들이다. ‘지면을 경작하는 자’란 선행이 결여된 자이다.

창4:5-‘노염’은 선행이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창4:7-‘네가 잘하고 있다면, (너는 얼굴을) 들어 올리고 있을 것이다’=만일 네가 잘하기를 바라다면, 선행이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만일 네게 잘하지 않고 있다면, 죄가 문에 누워있다’=만일 네가 잘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선행은 없고, 악이 있다. ‘너에게 그의 바람이 있다, 그리고 너는 그를 지배한다’=선행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리되지 않는 이유는 네가 그를 지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19:2, 예13:14, 암1:9-선행이 신앙의 형제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 본성으로부터 모든 이에게 분명해질 것이다. 이 둘의 형제 관계는 예서와 야곱에 의해서도 표현되어졌다. 또한 이 두 사람 역시 장자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또한 베레스와 제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의해서도 표현되어있다. 그이유가 각각, 즉 신앙과 선행은 교회의 자녀이기 때문. 이19:2, 예13:14의 경우, 신앙이 ‘남자’, 선행이 ‘형제’라 불리진다. 신앙과 선행의 합일이 ‘형제의 언약’이라 불려지고 있다.

창4:8-‘가인은 자기 형제 아벨을 향하여 일어나 그를 죽였다.’ 신앙과 선행 둘 다 신앙의 교리로부터 있었을 때,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은 선행을 쓸모없는 것으로, 하여 그것을 소멸시키고야 만다는 것.

창4:9-‘나는 모릅니다, 제가 내 형제의 과수꾼입니까?’=신앙은 선행이 별것 아닌 것, 그것에 도움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 나아가 선행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거절했다는 것. 이렇게 그것의 교리는 되어갔다.

창4:10-‘네 형제의 피의 음성’=선행에 가해진 폭력.

창4:11-‘네 손으로부터 네 형제의 피를 받는 것’=폭력이 선행에 가해졌다, 선행은 소멸되었다.

창4:11-‘저주된’=돌아섬. 그이유가 불법, 혐오, 미워함은 돌아서 아래쪽만을, 육체적, 지상적인 것만을, 고로 지옥 속에 있는 것만을 찾는다. 이것은 선행을 추방하고 소멸시킬 때 발생된다. 그이유가 주님과 인간 사이의 묶음이 산산히 끊어지기 때문. 선행, 또는 사랑과 자비만이 결합되게 한다. 선행 없는 신앙은 아니다. 뜻함은 인간 자신이다...만일 그가 선을 생각한다면, 신앙의 본질, 즉 선행은 생각 안에 있다, 그이유가 선을 뜻함이 생각 안에 있기 때문.

창4:14-‘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모두 나를 죽일 것입니다’=모든 악과 거짓이 그것을 파괴하리라는 것. (그이유가)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선행을 박탈할 때, 그는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분리한다. 선행, 또는 이웃을 사랑함이 인간으로 주님과 결합되게 해준다. 선행 없으면

선행

분리가 있다, 그리고 분리가 있을 때, 그는 자신 만에, 또는 자아에 만 남아있다,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짓이고, 그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악이다. 이것들이 인간을 죽이는 것들이다.

창4:25-‘그녀의 아들, 그의 이름을 그녀는 셋이라 불렀다’에 의해 새로운 신앙의 의미되어 지고 있다. 이 신앙을 통하여 선행이 있다.

창4:26-‘이름이 에노스’인 그의 아들에 의해 신앙의 제 1순위로 선행을 가졌던 교회가 의미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선행으로부터 이 교회는 예배함.

신26:12-내향의 인간 안에 있는 아껴두신 것(remains)들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선행이 온다는 것이 유대 교회에서, 그들은 십분의 일을 떼어 레위인, 체류자, 고아, 과부에게 주는 것 안에서 표현되어져 있다.

창6:9-‘노아는 그의 세대에서 올바르고 곧바른 사람’=그는 선행을 수여받을 수 있는 품성을 지녔다는 것, 이는 ‘올바르고 곧바른’의 의미로부터 분명하다. 그이유가 ‘올바른(just)’은 선행의 선에 관련을 가지고, ‘직바른, (upright)’은 선행의 진리에 관련되고 있기 때문.

창7:20-‘물은 15쿠빗 위쪽에서 압도하여, 산들을 덮었다’=남아있는 어떤 선행도 없었다.

창9:4-‘피’=선행. 고로 거둬나는 영적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새로운 자발성. 이 새로운 자발성은 선행과 똑같다. 그이유가 새로운 의지는 선행으로부터 형성되기 때문. 그리고 선행, 또는 사랑은 의지의 본질, 또는 생명이기 때문.

창9:5-‘네 생명들에게 네 피를 요구하는 것’=선행에 가해진 폭력은 그것이 그것에 스스로 벌을 준다.

창9:6-‘사람에게 있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선행을 소멸하는 것...주님의 생명은 선행이다, 이 선행은 인간 안에 있지 않다, 그이유는 인간은 불결하고 모독적이기 때문, 그러나 인간과 더불어 있다.

창10:30-‘동쪽의 산’=선행, 그리고 사실상 주님으로부터의 선행.

창10:31-‘그들 가문에 따라’=선행 측면에서 차이에 따라.

창11:2-‘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여행했을 때’=그들이 선

행을 떠났을 때.

창15:13-‘네 후손은 체류자(객)일 것이다’=선행과 신앙이 드물게 있을 것이라는 것.

막4:17-‘자신 안에 뿌리가 없다’=선행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이유가 선행 안에 신앙이 뿌리내리기 때문. 이 뿌리를 소유하지 않는 이들은 시험들을 산출한다.

창15:17-‘질은 어둠이 있었다’=선행 대신에 미워함이 있었을 때, 질은 어둠은 아주 대단해져 인간은 악이 무엇인지 전적으로 눈치채지 못한다.

욥2:31-‘태양’=선행, ‘달’=신앙.

말4:1-‘뿌리’=선행, ‘가지’=진리, 이것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마3:10-‘좋은 열매’=선행. 선행을 자신으로부터 박탈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을 잘라내고, 자신을 이런 ‘불’에 내던진다.

이41:25-‘북쪽으로부터 있는 이들’=교회 밖에 있는 이들,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이름에 무지한 이들, 그럼에도 서로간의 선행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그리고 우주의 창조자로서 신(Deity)을 숭배한다.

*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복음서들 어디서 언급이 있던, 신앙, 선행, 선행으로부터의 선을 표현한다.

레6:15-‘고운 곡식가루’, 기름과 더불어, 그리고 ‘유향’=선행으로부터의 모든 것을 표현했다. ‘고운 곡식가루’=선행의 영적 평면인 것, ‘기름’=그것의 천적 평면인 것, ‘유향’=감사하는 것.

창21:13-‘또한 하녀의 아들로부터도 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신앙으로부터의 선, 즉 선행을 받을 영적 (왕국의) 교회(the Spiritual Church).

창22:14-‘산에서 여호와가 보실 것이다’=주님은 영적 인간이 구원되어질 수단으로 선행을 설비해두셨다... ‘산’=사랑과 선행...이 구절의 경우, 사랑이 아닌 선행이 언급된다. 그 이유는 선행과 사랑 사이의 차이 때문이다.

겔12:19-‘빵’과 ‘물들’=선행과 신앙, 또는 선과 진리.

마13:45,46-‘아름다운 진주’=선행, 또는 신앙으로부터의 선.

창26:4-‘네 후손 안에서 땅의 모든 나라들은 복있을

선행

것이다' =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과 진리를 수단으로 서로 간의 선행 안에서 사는 모든 이, 그들이 교회 안이든, 밖이든 모든 이는 구원될 것이다.

마24:12- '불법이 왕성해짐 때문에 많은 이들의 선행이 차가워질 것이다' = 신앙과 함께 있는 선행이 종료됨... 그 이유는 각각은 다른 것과 보조를 맞추기 때문. 즉 신앙이 없으면 선행도 없다, 선행이 없으면 신앙도 없다. 선행이 신앙을 받는다. 고로 선행이 결여될 때, 신앙을 거절한다. 이것이 모든 거짓, 그리고 모든 악의 근원이다.

* 영적 왕국은 이웃을 향한 선행 안에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24:15- '황폐의 지겨움' = 교회의 황폐함... 이웃을 향한 어떤 선행도 더 이상 있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결과 선과 진리에 대한 어떤 신앙도 더 이상 있지 않을 때.

창29:4- '내 형제여, 너는 어디로부터 인가?' = 거기 있는 선행, 어떤 근원으로부터 그것이 있는가?... 바깥쪽 형체에서 선행으로 나타나는 선행은 내적 형체에서 있는 선행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선행의 목적으로부터 선행의 근원과 품질이 판명되어진다. 목적으로 자아와 세상을 가진 선행은 내적 형체에서 선행이 아니다. 정녕, 그것은 선행이라 불려져서도 안된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이 이웃에 있는 선행은 공동의 선, 천국, 고로 주님인바, 선행 자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선행은 심정으로부터 선을 행함에 대한 애착과 생명의 즐거움을 가진다. 이것이 저 세상에서 복됨이 되어간다.

창29:34- '굳게 결합하는 것', 최고 의미에서 = 사랑과 자비. 내적 의미에서 선행... 이는 선행, 같은 것인 서로 간의 사랑은 영적 결합이라는 사실로부터 분명하다. 그 이유가 의지 속에 있는 애착과 이해성 속에 있는 생각이 동의하고 결합함, 고로 두 마음들이 결합함이기 때문이다.

창30:14- '르우벤이 밀 수확의 날에 나갔다' = 사랑과 선행의 상태에 관련되는 신앙.

계6:6- '밀 세 분량에 한 톨' = 사랑이 아주 드물다. '보리 세 분량에 한 톨' = 선행이 아주 드물다.

마24:29- '역경의 이런 날들 이후 즉각적으로' = 신앙이 더 이상 있지 않을 이후 선행도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그이유는 신앙이 선행을 인도하기 때문, 신앙이

선행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때문, 그리고 선행은 신앙 속에 있는 진리로부터 선행의 품질을 받는다. 그릭 신앙 속의 진리의 본질은 선행이고 생명이다. '태양이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그것의 빛을 주지 않을 것이다' = 주님을 사랑함, 이것이 태양이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선행, 이것이 달이다.

창34:29- '그들의 여인들' = 선행... 영적 선에 애착함은 선행과 같다.

창41:2- '살 썬' = 선행 속에 있는 것.

창41:3- '살이 여윈' = 선행 속에 없는 것.

창50:8- '양떼' = 선행.

창50:8- '목축때' = 선행의 실시.

출2:6- '그녀는 그에게 측은한 마음이 일었다' = 신성으로부터의 권면. '측은함' = 주님으로부터 선행이 유입됨.

출2:16- '그들은 구유를 채웠다' = 그들은 선행의 교리를 넉넉히 가지고 있었다. '구유' = 선행의 교리.

출2:25- '그리고 하느님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알고 계셨다(knew)' = 그분은 교회에 선행을 수여하셨다.

출13:2- '모든 자궁을 염' = 선행으로부터 있는 것들. (그이유가) '자궁을 염' = 거듭나는 인간으로부터 직접 태어나는 것, 고로 선행으로부터.

계2:4- '너는 너의 처음의 선행을 그만두었다' = 그들은 교회의 모든 각각의 시작에서 첫째 순위에 선행을 가졌었는데, 그들은 첫째 자리에 생활의 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계2:19- '그리고 선행과 섬김' = 선행이라 불리는 영적 애착, 그리고 그것의 작동. 선행 = 영적 애착인 이유는 선행은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애착이기 때문. '섬김' = 그것이 작동된인 이유는 선행 속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작동하는 사람이 말씀에서 '섬기는 자'라 불리기 때문.

계2:19- '그리고 나중이 처음 보다 더 잘되어 있다' = 선행 속에 있는 영적 애착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증가함.

계2:23- '나는 그의 일에 따라 모든 이 각각에게 줄 것이다' = 주님께서는 일 안에 있는 선행과 신앙에 따라 줄 것이다.

계5:8- '성인들의 기도' = 영적 선들과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과 더불어 선행 속에 있는 애착으로

부터 신앙 속에 있는 이들의 생각.

계6:4-‘(불은 말 위에) 앉은 그에게 땅의 평화를 가져가는 것이 주어졌다’=선행, 영적 안전, 그리고 내적 쉼이 거두어졌다.

계7:7-‘시므온 지파로부터 일 만 이천명이 낚인되어졌다’=영적 사랑, 이는 주님의 새 천국과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과 더불어 선행, 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시므온’은 최고 의미에서 섭리, 영적 의미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 자연적 의미에서 순종, 들음을 의미한다. (지파들이 열거되는) 이 시리즈에서의 경우, 주님의 영적 왕국 안에 있는 이들이 취급되는 바, 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선행이라 불리운다.

계15:3-‘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선행으로부터의 고백, 고로 십계명의 가르침에 따른 생활로부터의 고백, 그리고 주님의 인간은 신성하심에 관한 신앙으로부터의 고백.

계21:8-‘두려워하는 자’=신앙 안에 있지 않은 자. ‘신앙 없음’=이웃을 향한 선행에 있지 않은 이들.

마10:42-‘찬 물 한 컵을 주는 것’=순종으로부터 선행을 실시하는 것.

계3:9-‘그리고 그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주님은 선행 안에 현존하신다는 지식, 선행 없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

창3:15-‘너는 뜨겁던지, 차든지 하라’=차라리 신앙이 없는 것, 또는 선행 만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더 나은 것이다.

단8:7-‘숫염소가 숫양을 내던지고 짓밟았다’=믿음 만 (의 교리)가 선행을 깡그리 파괴했다.

계7:6-‘아셀 지파로부터 일만 이천명이 낚인되어졌다’=이웃을 향한 선행, 이 선행 안에 모든 이들은 천국 안에 있고 천국 안으로 온다...‘아셀’=영적 애착, 이는 선행이다...천국과 교회를 만드는 세 가지 보편적 필수 요소가 있다. 즉 주님을 사랑함, 이웃을 향한 선행, 순종으로부터의 신앙이다...이웃을 향한 선행은 이 세 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에 의해 의미된다...‘아셀 지파’에 의해 이웃을 향한 선행이 의미되고, ‘납달리 지파’에 의해 그들의 거듭남이, ‘므낫세 지파’에 의해 선행 안에 있는 이들의 생활의 선...

계7:7-‘레위 지파로부터 일만 이천 명이 낚인되어졌다’=선한 일들. (그이유가) 레위와 그의 지파=영적 사랑, 이는 이웃을 향한 선행이다. 여기서 ‘레위’=선한 일들인 이유는 영적 사랑, 또는 선행은 선한 일들이 있는 선들을 수행함에 존재하기 때문. 선행 자체로만 국한해 생각하면, 그것은 진리와 선에 애착함 이다, 그리고 이 애착이 있는 곳에는 진리들과 선들에 따른 생활이 있다.

계12:17-‘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신앙 속의 생명을 살아내는 이들과 더불어, 이 생명은 선행이다...신앙 속의 생명이 이웃을 향한 선행인 이유는 신앙에 의해 말씀 속의 신앙, 고로 말씀 안에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로부터의 신앙이 뜻해지기 때문, 그리고 선행에 의해 선과 진리를 영적, 도덕적, 시민적으로 사랑함이 뜻해지기 때문.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가 뜻하는 것을 행동하는 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의해 선행인 신앙 속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에 의미되고 있다.

섬 (island, isle)

창10:5-‘(내적인 것으로부터) 한층 더 멀리 있는 이들이 '나라들의 섬들'이다.

창10:5-‘이들로부터 그들의 토지들에 있는 나라들의 섬들로 흩어졌다. '섬들’=특이한 지역들; 고로 한층 더 멀리 떨어진 특이한 예배들.

이41:1,5-‘섬들’=교회 밖 곧바른 이방인들, 이들은 자기들의 외적 예배를 종교적으로 준수해왔다.

이42:4,10,12-‘섬들’=교회 밖 이방인들, 이들은 무지하나 순박하고 성실(probity) 안에서 사는 이들이다.

슌2:11-‘나라들의 섬들’=신앙의 지식들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나라들.

시72:10-‘다르셋과 섬들에 의해 내적 예배와 상응하는 외적 예배가 뜻해진다.

이24:15-‘바다의 섬들에...’=신앙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겔27:15-‘많은 섬들’=예배에서 더 멀리 있는 이들.

이23:2-‘섬들의 주민들은 조용하다’=더 먼 선들.

예47:4-‘갑들의 섬의 남은 자들’=외면의 진리들.

계6:13-‘그리고 모든 산과 섬은 그것들의 자리로부터 옮겨졌다’=사랑의 모든 선과 신앙의 모든 진리가 퇴조

섬기다

되었다는 것.

이60:9-‘섬들이 나를 신뢰할 것이다’=신성한 예배에 있는 나라들, 그러나 교회의 진리들로부터서는 더 멀리 있는 나라들.

겔26:18-‘바다에 있는 섬들’=진리들로부터 더 멀리 있어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나라들.

이42:15-‘나는 강들을 섬으로 만들겠다’=진리에 대한 모든 이해를 절멸시키는 것. ‘강들’=진리로부터 있는 총명. ‘섬들’=총명이 없는 것.

겔26:15,16,18-인간이 그의 유아 시기를 포함하여 말씀으로부터 끌어내왔던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확증하는 수단이었던 과학적 진리들에 속한 모든 지식들이 혼란스러워지고, 그것들 각각의 자리로부터 옮겨지고, 퇴조한다는 것이 ‘섬들이 흔들리고, 바다의 모든 군주들이 자기들의 왕좌로부터 내려올 것이다’와 ‘섬들이 그것의 함락의 날에 두려워 떨고, 바다에 있는 섬들이 괴롭혀 질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섬들’=이런 지식들과 자연적 인간에 있는 과학적 진리들. ‘바다의 군주들’=거기 제일 가는 것들. ‘바다’=자연적 인간, 그리고 이 인간에 일반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

겔27:35-자연적 인간의 진리로부터의 모든 선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황폐해져감으로부터 그 선들의 상태도 변해졌다는 것이, ‘섬들의 모든 거주민들이 너를 보고 놀라워할 것이다, 그리고 섬들의 왕들이 너로 인해 오싹해질 것이다, 괴로워함이 그들의 얼굴에 역력할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섬들의 거주민들’=자연적 인간의 진리로부터의 선들...‘거주민들’=생활의 선들.

예25:22-‘바다 건너에 있는 섬의 왕들’=자연적 인간의 최말단에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들.

계16:20-‘그리고 모든 섬이 달아났다’=신앙으로부터의 어떤 진리도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섬’=자연적 인간의 진리들 측면에서의 교회. 이는 과학적 진리라 불린다, 그리고 또한 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이라 불린다.

섬기다 (serve)

종 (servant)

봉사 (service)

노예 상태 (slavery)

* 성직자(minister)도 참조.

창9:25-‘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일 것이다’=교회에서 가장 비열한 것.

창8:27-‘가나안은 그이 종이 되거라’=외적인 것들에만 예배를 놓는 이들은 비열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이런 인물은 땅에서의 교회에서는 종이 아니나 저세상에서는 종들이다. 그이유가 그들은 불행한 자 사이에 있기 때문...그들이 거기서 수행하는 봉사는 비열하다.

창12:16-‘노새와 남자 종들’=그 자체로만 간주하면 과학물들.

창15:13-‘그들은 그들을 섬길 것이다’=압제.

창18:3-‘네 종’=신성으로 만드시기 이전, (주님의) 인간.

창20:8-‘그는 모든 그의 종들을 불렀다’=합리적인 것들과 과학적인 것들.

창24:2-‘아브라함은 집안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에게 말했다’=질서대로 배열함과 주님의 자연 평면 안으로 그분의 유입이 있음.

창24:5-‘종이 그에게 말했다’=자연적 인간에 관한 주님의 지각. ‘종’=자연적 인간.

창24:61-‘종이 리브가를 데려갔다’=신성한 자연적 선이 시작되었다.

창24:65-‘그녀가 종에게 말했다’=신성의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탐사. ‘종’=신성한 자연 평면.

창26:14-‘많은 종(much service)’=거기로부터의 진리. ‘종’=아래 있고 종속되고 순종하는 모든 것. 고로 진리, 그 이유는 진리가 선을 섬기기 때문.

창26:24-‘아브라함 나의 종’=주님의 신성한 인간...‘종’, 주님을 서술할 때=신성한 인간. 엄밀히 말해 신성한 인간은 종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성한 인간을 통하여 인간에게 소용이 되시기 때문.

창26:32-‘이삭의 종들’=합리적인 것들. ‘종들’=합리적, 또한 과학적인 것들.

창27:29-‘사람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교회의 진리들...‘섬기는 것’은 진리들이라 단언된다.

창27:40-‘너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외견상으로는) 선이 더 낮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창29:18-‘나는 칠 년 동안 당신을 섬길 것이다’=연구와 거룩한 상태...‘섬기는 것’=연구(study).

섬기다

창30:26-‘나는 그들을 위해 당신을 섬겼다’=그분 자신의 힘으로부터. 그이유가 ‘섬기는 것’=노동과 연구, 이것이 주님을 서술할 경우,=그분 자신의 힘.

창30:26-‘당신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안다’=그분 자신의 힘으로부터 노동과 연구.

창30:29-‘어떻게 내가 섬겼는가...’=그분의 힘을 아는 것. 그 이유가 여기서 ‘섬기는 것’=그분 자신의 힘이기 때문.

창32:16-‘종들’=자연적 인간 속의 것들.

창32:18-‘당신의 종 야곱’=복종. 그이유가 결합 이진일 경우, 진리는 종에 비교되기 때문.

율2:29-‘종들’=아는 이들.

창40:20-‘그의 모든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외면의 자연 평면과 결합함...‘종들’=외면의 자연 평면 속의 것들.

창41:12-‘종은 진리라고 단언된다.

창43:18-‘우리를 종으로 데려간다’=별것 아닌 것들.

창44:9-‘우리는 종으로 있을 것이다’=자아로부터 자유 없이.

창45:16-‘종들’, 여기서의 경우,=가장 낮은 것들.

창49:15-‘공물에는 종이다’=종속되어지고 섬기는 것.

창50:7-‘바로 모든 종들’=자연 평면의 과학물들.

창50:16-‘너희 아버지의 하느님의 종들’=교회의 신성한 것들을 인정함.

출1:13-‘이집트인들은 그들로 섬기게 만들었다’=종속 시키려는 의도.

출4:10-‘당신의 종’=아직 신성으로 만드지지 않은 인간.

출4:23-‘그들이 나를 섬기도록’=그때부터 유용함을 수행하기 위해 천국으로 승강됨.

출5:9-‘섬김이 더 무거워지게 만들자’=폭행이 증가했다.

출5:11-‘섬김’=거짓들에 의한 습격. 고로 떼지어 엄습함.

출7:16-‘여호와를 섬기는 것’=주님을 예배하는 것.

출12:25-‘너희는 이 섬김을 준수할 것이다’=해방됨 때문에 예배함.

출12:44-‘모든 사람의 종’=아직은 자연적 수준인 인간.

출13:3-‘종들의 집’=영적 포로됨...그이유는 ‘섬김’=거짓에 의해 떼지어 엄습함이기 때문.

출14:12-‘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떼지어 엄습한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

출14:31-‘모세 그의 종’=신성한 진리가 섬기고 있음.

출20:5-‘너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그것들을 위한 신성한 예배는 없다. ‘섬기는 것’=복종...‘섬기는 것’(‘...에 굽혀 절하는 것’)=신앙의 진리로부터 예배함.

출20:10-‘네 남종’=진리 측면에 관련된 자연 평면.

출21:2-‘너희가 히브리 종을 살 때’=교리 속의 진리들에 있는 교인들, 그런데 그것들에 따른 선 안에는 있지 않은 이들.

출21:2-‘육 년을 그는 섬길 것이다’=노동의 상태, 얼마간의 전투하는 상태, 그결과 진리의 확증이 있는 상태.

출21:2-‘칠 년째에 그는 자유로이 나갈 것이다’=확증된 진리의 상태.

출21:3-‘만일 그가 그의 몸에서 왔다면(즉 여인 없이 남종만으로 왔다면) =즐거움 없는 진리.

출21:3-‘만일 그가 여인의 주인이라면’=즐거움과 더불어 결합한 진리.

출21:4-‘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여인을 준다면’=전투하는 동안(시험에서), 영적 평면을 수단으로 선이 진리에 결합했다.

출21:6-‘그는 영원히 섬길 것이다’=영원히 순종하는 것...그들은 선으로부터 행동하는 상태로 가져다 놓여질 수 없다는 것...그들은 순종 수준에서는 완전해질 것이나 어떤 선행의 수준도 도달 못 한다.

출21:26-‘어떤 사람이 남종의 눈을 세계했을 경우’=만일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에 있는 신앙의 진리에 상해를 입힌다면...‘남종’=외적 인간에 있는 과학적 진리, 고로 또한 외적 인간.

계1:1-‘그의 종들’=선행으로부터 신앙 안에 있는 이들, 또는 사랑의 선으로부터 지혜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

계7:15-‘그들은 낮과 밤 그분을 섬긴다’=그들이 그분으로부터 받은 진리들에 따라 꾸준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

계19:2-‘그분의 종들’=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계22:3-‘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minister) 것이다

섬뜩 놀람-설득하다 -성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은 그분과 더 붙어 있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 그이유는 그들이 결합되었기 때문.

계22:6-'그분의 종들'=주님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

눅20장-'종들'=모세와 예언자들에 의해 주어진 말씀.

애5:8-'종들이 우리 위에서 통치한다'=악들과 거짓들...

이65:9-'나의 종들'=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

계6:15-'모두 각각의 노예(bondman)'=자연적 인간.

예2:4-'종'=진리들에 있는 이들.

마13:27-'주님의 종들'=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

계19:2-'그분의 종들의 피'=그분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에게 가해진 폭력.

계19:5-'하느님 모든 그분의 종들을 찬양하라'=진리들에 있는 이들에 의한 예배.

섬뜩 놀람 (consternation)

창45:3-'그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나 당황했다(terrify)'=그들 사이에 있는 동요(흔들림).

출15:15-'애들의 족장들은 깜짝 놀랐다(affright)'=자아 사랑으로부터 악한 생활을 하는 이들과 비슷함.

레26:16-'나는 그들의 심정에 섬뜩 놀람을 놓을 것이다.'

설득하다 (persuade)

창3:24-(태고 교회의) 일곱째 후손은 자기들의 육육적인 사랑과 설득함에 남겨졌다.

* 인간은 그가 자신을 설득하는 모든 것을, 즉 그가 인정하고 믿는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생명을 획득한다.

창10:5-'혀(언어)' 내적 의미에서=의견, 고로 원리들과 설득들.

창10:9-'사냥하는 것'=일반적으로 설득하는 것...고로 자신을 위해 설득하는 것.

창13:10-'고모라'=거짓으로부터의 설득들.

민13:21,22-'아나킴'=거짓으로부터의 끔찍한 설득들.

창25:4-'미디안'=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 고로 이들은 십사리 자신이 설득당해지게 허용한다.

창25:27-'사냥하는 것'=가르치는 것, 그리고 또한 설

득하는 것. 이는 두 상반된 의미를 가진다, 즉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와 거짓에 대한 애착으로부터이다.

성 (city)

* '거룩한 성', 이는 또한 '거룩한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데=보편적 측면에서의 주님의 왕국, 또는 각 개인 측면에서의 주님의 왕국. 마찬가지로 '성', 또는 '시온의 산'; 후자=신앙의 천적인 것, 전자=신앙의 영적인 것. 천적이고 영적인 것 자체는 '성들'로 묘사되기도 있다.

예17:25-'영원히 거주해질 성'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의미된 주님의 교회이다.

* 천국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도성 예루살렘=주님에 의해 밝혀주신 천국의 교리.

* '거룩한 성'=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의 교리

창4:17-'가인에 의해 건설된 성'=그 때로부터의 교리적이고 이교도적인 모든 것. 어느 성의 이름이 말씀 어느 곳에서 거론되든, 그것은 성이 아닌 교리적 어떤 것, 이교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이유가 천사들은 성이 무엇인지, 성의 이름도 결코 모르기 때문; 오직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만을 지각한다.

창10:12-'이 성은 큰 성이다'=교리적인 것들, 그것들이 우세해졌다는 것...'큰 성'이라 불리는 이유는 교리의 모든 거짓, 예배의 모든 거짓이 생활의 거짓 안으로 파생되기 때문.

창11:4-'우리에게 성과 탑을 짓기로 하자'=그들이 교리와 예배를 창안했다는 것.

창11:8-'그들은 성 짓기를 중단했다'=이런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성'=교리.

창13:12-'룻은 평야의 성들에 거주했다'=외적 인간은 과학물들 안에 있었다. '성' 또는 '성들'=교리적인 것들, 이것은 내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외적 인간이라 단언할 경우, 그자체로서는 과학물들밖에 더 아니다. '성들, cities'=교리적인 것들, 참이든 거짓이든 양쪽 모두에서.

예49:25-'찬양과 환희의 성'=교회 속에 있는 것들.

창18:24-'성 한가운데 의인 오십 명이 있다면...'=진리들이 선들로 가득차 있다면...'성'=진리.

창19:4-'성의 사람들'=거짓들에 있는 이들...'성'=진리들, 또는 거짓들, 또는 진리에 반대하는 것들.

창19:12-'성 안에 있는 모든 이 각각'=진리로부터 파

성

생되는 것은 무엇이든. '성'=교리인 것, 고로 복합체에 있는 진리.

창19:15-'너는 성의 불법 안에서 살라지지 않도록'=그들이 거짓의 악들 안에서 멸하지 않도록. '성'=교리인 것, 그것이 참된 것 뿐아니라 거짓된 것까지.

창19:16-'그들은 그를 성 밖에 내놓았다'=거짓으로부터 떨어짐.

창19:17-'네 뒤를 쳐다보지 마라'=그는 교리적인 것들을 쳐다보아서는 안된다는 것.

예33:13-선행의 교리적인 것들이 '산의 성들', 그리고 신앙의 교리적인 것들이 '평야의 성들'이라 불리운다.

창19:20-'이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다'=신앙의 진리로부터라면은 허용할 수 있음. '성'=교리인 것, 고로 신앙의 진리.

창19:25-'그들은 이 성들을 뒤엎으셨다'=그들로부터 분리된 모든 진리들, 하여 그들은 오로지 거짓들만을 가졌다. '성들'=교리적인 것들, 고로 진리들, 거기에 진리들 대신 거짓들이 있을 때, '뒤엎어져 있다'라고 말해진다.

창19:29-'하느님께서 평야의 성들을 파괴하셨을 때'=그들이 악의 거짓들을 통하여 멸망했을 때.

예48:9,28-그들이 거짓에 물들어지도록 자신들을 내버려둘 때, 이렇게 말해진다, 즉 '모압의 성들은 황무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성들을 떠나 바위들에서 거주할 것이다.'

이19:2-'성이 성에 맞서는 것.' '성'=교리인 것, 여기서는 이교(heretical)인 것.

이24:10-'텅빔의 성이 깨질 것이다'=진리가 박탈된 인간 마음.

이23:10-'그의 성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에게'=신앙이 있도록 한 교리적인 것에 관련하여...'성'=신앙 속에 있는 진리.

창24:10-'나홀의 성에'=같은 기원의 교리적인 것들. '성'=교리인 것.

창24:11-'성 밖'=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옮겨짐.

창24:13-'성의 사람들'=진리들.

창24:15-'리브가가 나왔다'=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있는 진리에 애착함 ...

창26:33-'성의 이름은 브엘세바'=거기로부터 있는 교리의 품질...'성'=교리.

시107:4-선과 진리 모두에서 무지해 있는 이들에 관해 말해지는 바, '그들은 거주할 성을 발견 못했다.'

마10:5-'사마리아 사람들의 성들'=거짓들에 있는 이들.

창33:18-'그는 성의 얼굴에서 진을 쳤다'=이 진리의 선들에 적용함. '성'=진리.

창34:20-'성의 남자들'=교리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

창34:25-'그들은 대담하게 성으로 왔다, 그리고 모든 남성을 죽였다'=그들은 고대인들과 더불어 교회의 교리 속의 진리들을 절멸시켰다는 것. '성'=교회 속에 있는 교리.

창34:28-'그들은 성 안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 들판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갔다'=교회의 모든 진리와 선. '성'=교리인 것, 고로 교회의 진리.

창35:5-'하느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었던 성들 위에 있었다'=거짓들과 악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는 것... '그들 주위의 성들'=거짓들과 악들. 그이유가 순수한 의미에서, '성들'=교리의 진리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교리의 거짓들. '성'이 여기서 악들을 의미하는 이유는 성 안의 거주민들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

예32:29-'성을 태우는 것'=교리의 거짓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을 황폐케하고 파괴하는 것.

이22:9-'다윗성의 터진 곳들'=교리의 거짓들.

암9:14-'황폐된 성들을 세우는 것'=왜곡된 진리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을 고치는 것.

솔2:9-'그들은 성을 이리저리로 달려다녔다고 말한다'=진리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

창41:35-'성들에 있는 식품'=자연적 마음의 내면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 보편적 의미에서, '성들'=교회의 교리적인 것들, 그러나 단수적인 의미에서, 그들=인간의 내면들, 거기에 교리들이 있다, 또는 오히려 거기는 진리가 선과 결합되는 곳이다. 인간과 더불어는 진리들과 선들은 말하자면 성을 형성한다.

창41:48-'그는 성들에 식품을 쌓았다'=내면들 안에, 즉 진리들이 선에 인접했다. '성들'=자연적 마음의 내면들.

창44:13-'그들은 각 사람(의 것)을 그의 나귀에 싣고

성

성으로 되돌아왔다' =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진리들이 과학물들에게로 되가져와졌다.

예47:2- '성,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자들' = 성의 진리, 그리고 거기로부터의 선.

창47:21- '그는 이 백성들을 성들에 옮겼다' = 과학적 진리들이 교리적인 것들에 참고가 되어졌다는 것... '성들' = 교리적인 것들.

출1:11- '그는 바로를 위해 창고형 성들을 지었다' = 과학물에서 소외되어져 있는 자연의 왜곡된 진리들로부터의 교리들. '성들' = 양쪽 감각들에 있는 교리들.

예46:8- '성을 파괴하는 것' = 교회의 교리를 파괴하는 것.

나3:1- '피들의 성' = 거짓으로부터의 교리.

미5:11- '잘라내져야 할 토지의 성들' = 교회의 진리들.

출9:29- '내가 성으로부터 나가자 마자' = 분리됨... '성', 여기서는 바로가 있는 성 = 침입하는 이들이 있는 거짓. 그이유가 '성' = 교리적인 것, 그리고 그것 = 교리적인 바, 그것은 진리,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거짓.

미5:11- '토지의 성들' = 그들의 교회 속의 왜곡된 교리적인 것들.

신13:15,16- '저주받아져야 하는' 성들 = 왜곡된 교리들.

신21:2- 죽은 사람에서 가장 가까운 '성' = 선이 소멸되어진 교회의 교리 속의 진리.

시87:3- '하느님의 성' = 말씀으로부터 신앙의 진리로부터의 교리.

호11:6- '성들' = 교리적인 것들.

예30:18- 그것 자신의 더미 위에 세워지기로 되었던 성 = 진리로부터의 교리.

겔24:6- '피들의 성' = 교리의 진리 그 자체에 비교해볼 경우의 유대 국가. 고로 추상적으로 선을 파괴하는 교리.

겔17:4- '항품 판매자들의 성' = 내면의 진리로부터의 교리가 있는 곳.

계3:12- '내 하느님의 성의 이름, 새 예루살렘' = 새 교회 (the New Church)의 교리는 심정들에 썩여질 것이다.

눅19:17- '열 성들 위에 네 권위가 있다'. 여기서 '성들'은 교리적인 것들, 또는 교리 속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 위에 있음'은 총명하고 슬기롭게 있음을

의미한다. 고로 '그것들 위에 권위를 가지는 것' = 총명 과 지혜를 주는 것.

계11:8- '큰 성의 거리' = 신앙 만으로도 정의로워진다는 교리의 허위. '성' = 교리. 이것이 '큰 성'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 교리가 개혁 기독교 세계에서 성직자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

계11:13-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다' = 그들이 천국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으로 하강함.

계20:9- '그다음 그들이 말했다... 이 성을 에워싸자... 이는 계시록에서 이 구절에 의해 뜻해진 것이다. 즉 '그들은 성인들의 진영과 사랑되어진 성을 둘러쌌다.'

계16:19- '큰 성이 세 부분들로 나뉘었다, 그리고 나라들의 성들이 무너졌다' = 이 교회는 그것의 교리 측면에서 깡그리 파괴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퍼져간 모든 이교들도 마찬가지로이다. '성' = 교회의 교리, 또는 같은 것으로 교리 측면에서의 교회. 그러므로 '나라들의 성들' = 이교적인 교리들, 또는 이교들, 이는 그것들로부터 퍼져나왔다, 그리고 이것들이 많은 바, 이 큰 성은 11:8에서 말해진 큰 성을 뜻한다. 이것이 거기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운다.

계17:18- '내가 본 이 여인은 땅의 왕들을 지배하는 왕국을 가진 이 큰 성이다' = 교리 측면에서의 로마 카톨릭 종교가 기독교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개혁 교회와 더불어 지배할 것이다.

계18:10- '화있다, 화있다, 이 큰 성 바빌론아, 네 힘 있는 성이여, 한 시간 안에 네 심판이 오기 때문이다' = 이 광신적 신앙은 아주 튼튼하게 요새화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깡그리 전복됨에 비통해하는 탄식. '이 큰 성 바빌론' = 이 광신적 신앙. '이 힘 있는 성' = 아주 잘 요새화한 이 광신적 신앙.

계18:16- '이 큰 성' = 로마 카톨릭의 광신적 신앙.

계18:18- '어느 성이 이 큰 성에 비길 수 있을까?' = 그들은 자기들의 광신적 신앙이 세상 어느 종교 보다 탁월하다고 믿었다는 것.

계20:9- '그들은 성인들의 진영 주위를, 그리고 사랑된 성을 에워쌌다' = 그들은 새 교회 (the New Church)의 모든 것들, 그리고 주님께 관한 그 교회의 참 교리, 그리고 삶에 관한 그 교회의 참 교리를 파괴하려 무진 에

성

를 썼다.

계21:2-‘나, 요한은 천국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이전 교회의 끝남에서 주님께 의해 건립되어질 새 교회. 이 교회는 교리와 생활 측면 모두에서 신성한 진리들 안에 있는 새 천국과 연계된다. 이것이 ‘성’이라 불리우고, ‘성’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그것이 교리로부터, 그리고 교리에 의거한 생활로부터이기 때문.

계21:10-‘그분은 나에게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내려가는 이 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다’=성의 형태로 있는 교리 측면의 주님의 새 교회를 요한에게 명명백백하게 해주었다.

계21:14-‘성의 벽’=글자 의미에 있는 말씀.

계21:16-‘성은 정4각으로 놓여있다’=그것 안에 있는 정의.

계21:18-‘성’ 또는 예루살렘,=내면적으로 생각되는, 벽 안쪽 그것에 속해 있는 모든 것에 관련되는 주님의 새 교회.

계21:21-‘성의 거리’=교회의 교리 속의 진리.

계21:23-‘성은 태양이 필요 없다’=이 교회의 사람들은 자아 사랑 안에 있지 않다.

계22:14-‘문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그분에 관한 지식들을 통하여 주님의 새 교회 안에 있는 것... ‘성’ 또는 예루살렘은 새 교회의 교리와 더불어 새 교회(the New Church)를 의미한다.

계22:19-‘거룩한 성으로부터 그의 몫을 거두는 것’=새 교회의 안에서 밖으로, 이 성은 거룩한 예루살렘이다.

예14:18-‘성 안에 기근이...’=교리 안에 모든 진리가 결핍.

예1:18-‘견고한 성’=진리로부터의 교리.

이66:6-‘성’=진리로부터의 교리.

예1:18-‘나는 너에게 견고한 성을 주었다’=거짓들로부터 보호하는 진리로부터의 교리.

예13:19-‘남쪽의 성들은 닫혀졌다’=교리의 모든 진리들이 탄 방법으로 빛 안에 있을 것이다.

이25:2,3-교회가가 교리 측면에서 황폐함이 ‘너는 성을(돌)더미로, 견고한 성을 폐허(된 성)로, 낮은 자의 궁전을 성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새 교회가 교리 측면

에서 건설됨이 ‘강한 백성이 너를 존경하고 힘있는 나라들의 성이 너를 경외할 것이다’에 의해 뜻해진다.

이26:1-‘강한 성’=순수한 진리로부터의 교리, 이것은 거짓들이 파괴할 수 없다.

이14:17-‘루시퍼...세상을 광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 속의 성들을 파괴했다’=그는 교회와 교회 속의 교리적인 것들을 파괴했다.

계16:19-‘바빌론’의 거짓들로부터의 교리가 ‘세 조각으로 깨진 성’에서 뜻해진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악들로부터의 교리가 ‘함락한 나라들의 성들’에서 뜻해진다.

시107:4-‘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는 것’=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지표되는 진리들이 없다.

이6:11-‘성들’=교리 속의 진리들.

이24:10,12-‘성’=교리 속의 진리.

습3:6-‘성들을 황폐하게 하는 것’=교리들을 황폐하게 하는 것.

예4:7-‘성들’=교리 속의 진리.

예17:24,25-‘성’, 이는 여기서 예루살렘이다=교리 측면에서의 교회.

숙8:3-‘예루살렘’=진리로부터의 교리 측면에서의 천적 교회. 그러므로 ‘진리의 성’이라 불려진다.

예7:17-‘유다의 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리들’=교리 속의 진리들.

이19:2-‘성에는 성으로, 그리고 왕국에는 왕국으로’=교리는 교리에 맞서, 교회는 교회에 맞서 싸울 것이다.

예19:18-‘가나안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이집트 토지의 다섯 성들’=교회의 순수한 진리들인 교리 속의 진리들이 풍부함.

이33:8-‘성들을 몹시 싫어하는 것’=교리의 진리들을 몹시 싫어하는 것.

이54:3-‘거주할 성들’=선들로부터 파생된 교리들.

예32:44, 33:4-‘유다의 성들’, 그리고 ‘산의 성들’=주님의 천적 왕국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교리 속의 진리. ‘평지의 성들’, 그리고 ‘남쪽의 성들’=주님의 영적 왕국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교리 속의 진리.

마5:14-‘산에 놓인 성’=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진리.

마12:25-‘그 자체에 맞서 나뉜 모든 왕국은 황무해짐

성

에 놓여진다, 그리고 그 자체에 맞서 나뉜 모든 성과 집은 서있지 못할 것이다.' '왕국'=교회, '성'과 '집'=교리로부터의 교회의 진리, 만일 그들이 만장일치로 동의 하지 않으면 서있지 못하고 조각나질 것이다.

마10:5-'그들이 들어가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의 성'=주님을 거절한 이들의 왜곡된 교리.

마10:23-'그들이 이 성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으로 도망하라.' 여기서의 '성' 또한 악으로부터의 거짓 속의 교리. 이것이 있는 곳에서 진리의 교리가 승인되지 않는 것이 위 구절에 뜻해있다.

눅14:21-'성의 거리들과 좁은 길로 가는 것'=그들은 교리의 진리들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를 문의하라는 것.

나3:1-'피들의 성'=선행의 선에 폭력을 행사하는 거짓으로부터의 교리.

이6:11-'성들이 황폐해져 놓일 때까지'=교리 속의 진리들.

이32:14-'성의 군중들이 떠날 것이다'=진리들이 있는 곳. 그 이유가 '성'=진리로부터의 교리이기 때문.

겔19:7-'그가 황폐해지게 하는 성들'=그것의 진리들과 더불어 교리.

예11:13-'성들'=거짓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

이25:3-이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힘있는 나라들의 성'에 의해 뜻해진다. 그 이유가 '성'=진리로부터의 교리, 또는 교리 속의 진리.

시69:35-'그가 지을 유다의 성들', 천적 교회와 이 교회의 교리를 뜻한다.

예4:27,29-교회의 모든 것, 그리고 교회의 교리 속의 모든 것이 멸해진다는 것이 '말 탄 자와 활쏘는 자의 음성 때문에 온 토지가 황폐해 있고, 온 성은 도망할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24:10-거짓으로부터의 교리는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 '팅빔의 성은 깨질 것이다'에서 의미되어 있다.

시107:36-'그들은 주거할수 있는 성을 건립한다는 것'=자신들을 위해 생활의 교리를 만드는 것. '성'=교리. 그리고 '거주함'=생활.

슌2:15-'이 성은 거주함에 아무 염려 없다, 하여 심중에 말하기를, 나 외에 아무도 없다'=이런 총명은 스스로 신뢰한다, 그리고 자아로부터 수행한다. '성'=이런

총명으로부터의 교리.

시122:3-'서로 밀착한 성 같이'=모든 것이 질서대로 있는 교리.

이32:14-'성의 군중'=교리 속의 모든 진리.

슌1:16-'건고한 성들'=그들이 확증한 거짓된 교리적인 것들.

예17:26-'유다의 성들'=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시46:4-'하느님의 성'=교리 측면에서의 교회.

이44:26-'유다의 성들'=교리 속의 선들과 진리들. 교회와 교리의 회복이 그들이 거주하고 세움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암4:6-'성들 안에 이(teeth)가 텅빔'=교리들 안에 있는 진리의 가난.

이54:3-'나라들이 거주하게 하려는 황폐된 성들'=생활의 선들로부터 있는 진리들. '황폐한 성들'=진리들이 없기 이전의 교리 속의 진리.

예2:15-'그의 성들은 거주하지 못하게 태워졌다'=교회 선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악들에 의해 교회의 교리적인 것들이 파괴됨.

이40:9-'유다의 성들에 말해지기를, 너의 하느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함 안에서 오신다'=말씀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 '성들'=교리적인 것들. 그리고 '유다'=말씀.

신6:10-그들에게 주어질 '크고 좋은 성들'=순수한 선들과 진리들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

합2:17-'토지에, 성에, 성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폭력'=교회 속의 진리들과 선들에,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있는 교회의 교리에 거짓에 의해 무력이 행사되었다.

계11:8-'그들의 몸들이 큰 성의 거리에 놓일 것이다'=교리 속의 악들과 거짓들에 의해 소멸됨...'성'=교리.

이24:10-'팅빔의 성'=진리는 없고 거짓만 있는 교리.

예49:25-'영광의 성'=신성한 진리로부터의 교리. '환희의 성'=선과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의 기쁨.

겔11:6-'성'=진리로부터의 교리.

슌3:6-황폐되어져 사람도 없고, 거주하지도 못할 성들=교리적인 것들.

예11:13-'성들의 숫자에 따라 너희 신들이 있었다, 오

성경-성냄-성구함-성령

유다어'=교리적인 것들 만큼 많은 거짓들.

단9:24-‘성’=진리로부터의 교리. 그리고 ‘거룩함의 성’=말씀인 신성한 진리.

이45:13-‘그가 내 성을 지을 것이다’=그는 진리로부터의 교리를 회복되게 할 것이다.

예30:18-‘성이 더미 위에 세워질 것이다’=거짓들을 통하여 붕괴되었던 진리들로부터의 교리.

시107편-‘그들이 찾지 못한 거주할 성’=생활에 관한 교리, 이 교리가 사람과 더불어 교회를 만든다. 그리고 교리에 따른 생활을 통해 교회가 인간과 더불어 형성될 때, 시험을 통과했었을 때인 바, 말해지기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올바른 길에서 인도하시어 거주할 성으로 그들을 이끄신다.’

계14:20-‘성 밖’=지옥으로부터. 그이유가 ‘성’=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로부터의 교리. 그러나 ‘성 밖’=왜곡된 말씀으로부터 있는 거짓의 교리.

성경 (holy scripture)

- * 말씀=말씀 자체, 또는 성경
- * 성경, 또는 말씀은 신성한 진리 자체이다.
- * 성경이 (자신의 논리나 생각 등등을) 확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때, 성경은 완전히 왜곡되고, 하여 교회는 멀해진다.

성냄 (anger)

- * 노염을 보라

성구함 (phylactery)

마23:5-‘그들이 넓게 만드는 성구함’=외적 형체에 있는 선들.

성령 (Holy Spirit)

- * 성령으로부터 있는 거룩한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진행된다.

요16:13,14-주님 또한 가르치셨다...성령이 말하는 거룩한 것은 그의 것이 아니다...그러나 주님의 것...‘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그는 내 것을 받을 것이다’.

마12:32-영적 사기, 즉 위선을 가지고 내면적으로 오염되게 해왔던 이들이 ‘성령에 반대되게 말하는 이들과 더불어서는 용서가 없다’에서 뜻해진다.

이63:10-‘거룩함의 영’=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고로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

눅11:13-‘성령을 주는 것’=신성한 진리로 예증하는 것, 그리고 거기로부터 생명을 부여하는 것, 이것은 총명과 지혜의 생명이다.

마28:19-‘성령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주라.’ ‘성령’=진행하는 신성.

요14:18,20, 마28:20-주님의 편재하심으로부터 있는 그분의 신성한 역사(operation)하심이 성령을 수단으로 뜻해지는 바, 그러므로 그분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보낸 성령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하셨을 때, 그분은 또한 이렇게도 말하셨다, 즉 ‘나는 너희를 고아들로 남겨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떠나가되, 너희에게 온다’...그리고 ‘나는 시대의 종말 까지 모든 날들을 너희와 함께 있다.’

눅1:35, 마1:20-‘성령이 네 위에 올 것이다...그녀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이다.’ 여기서의 ‘성령’은 여호와 아버지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이다.

요15:26-진리의 영이 아버지로부터 나간다고 주님께서 말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가 아들 안으로,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안에서 밖으로이기 때문이다. (고로) 기독교계가 말하는 것,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성령을 보낸다는 것은 오류이다. 그리고 그립 교회의 경우,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도 오류임이 분명하다.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그분 자신의 안에서 밖으로 보내실 뿐 그 반대 순서로는 아니다. 이것은 천국으로부터 이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것을 신비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이것이 아직까지 세상에서 밝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눅1:41, 2:25-구약 성서에서는 성령의 언급이 없고, ‘거룩함의 영’이 말해지는데, 이것도 단 세 곳 뿐이다. 그 이유는 성령은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처음 있었기 때문이다. 그이유가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안에서 밖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 만이 거룩하시기 때문...그런데 ‘성령은 아직 있지 않았다’라고 말해지고, 그리고 그럼에도 ‘성령이 엘리자베스와 시므온을 채웠다’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여호와와 영이 그들을 채웠기 때문, 이것이 이미 세상에 계신 주님 때문에

성막-성만찬-성소

‘성령’이라 불려진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성령이 말해지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성령으로부터 말했는데, 이는 ‘여호와’로부터서이다.

성막 (tabernacle)

* 장막 (tabernacle)을 보라

성만찬 (holy supper)

창14:18-‘빵’=천적인 것들, 그리고 ‘포도주’=영적인 것들, 이것들은 성만찬에서 상징물로 만들어졌다.

* 성만찬에서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선을 자기 것 되어서게 하는 것.

* 천국에서의 모든 거룩함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교회에 있는 모든 거룩함도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범위반을 예방하시기 위하여 성만찬이 주님께 의해 제정되어졌다. 성만찬에서 빵은 그분의 살이고 포도주는 그분의 피이다고 말해지고 있다. 고로 이것은 그분의 신성한 인간이다, 이로부터 거룩함이 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로 의미되는 살과 피는 주님의 인간 자아이다...(주님의) 인간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자아가 ‘살과 피’라 불리운다. ‘살’은 그분의 신성한 사랑이다. 그리고 ‘피’는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이다.

마26:27,28, 막14:23,24, 눅22:20-‘잔을 가져다가...그분은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며, 말하시기를...이것은 나의 피이다...여기서 포도주가 잔이라 말해지는데 그이유는 피는 영적 교회라고 단언되고, 잔은 천적 교회라 단언되기 때문...영적 교회가 천적 교회와 다른 점은, 전자는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 있고, 후자는 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다. 그리고 성만찬은 보편적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을 향한 인간의 상호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표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성소(sanctuary)

겔47:12-‘성소로부터 물’=주님으로부터의 생명과 자비, 주님이 ‘성소’이시다.

겔37:26-사랑이 그들 한가운데 있는 그분의 ‘성소’에 의해 뜻해진다.

겔47장-‘성소’=천적인 사랑. 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 이로부터 천적인 사랑이 있다.

겔37장-‘그분의 성소’=안에 신성한 선이 있는 신성한

진리가 있는 곳(=주님의 신성한 인간)

출15:17-‘오 주여 당신의 손이 성소를 준비하셨다’=주님으로부터 신앙의 진리에 있는 이들이 있는 천국. ‘성소’=신앙으로부터의 진리가 있는 천국.

이60:13-‘내 성소의 장소’=천국과 교회, 그리고 또한 말씀.

출25:8-‘그들은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 것이다’=주님에 대한 표징, 고로 천국에 대한 표징...이것은 장막이었기 때문에, 표징함을 통하지 않고는 성소일 수 없었다. 그이유가 성소는 거룩 자체, 그리고 신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룩한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천국이 성소인 이유는 천국은 거기 신성으로부터 천국이기에 때문이다.

겔21:2-‘성소들’=교회 속에 있는 것들.

애2:7-‘성소’=진리 측면에서의 교회의 모든 것.

겔9:6-그들이 ‘시작’해야 할 성소=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 측면에서의 교회.

시96:6-‘강함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 안에 있다’=교회(안에 있는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

단8:11-‘그의 성소의 주거지가 앞으로 내던져졌다’=교회의 황폐함.

시68:17-‘성소에서’=신성한 진리가 있는 천국과 교회.

시114:2-‘그분의 성소’=천국과 교회 속의 거룩 자체.

시74:3-‘성소’=교회.

이63:18-‘성소를 짓밟는 것’=말씀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진리들을 파괴하는 것.

단9:26-‘성소’=교회.

겔37:26-천국과 교회는 사랑의 선으로부터 ‘성소’라 불려진다. 그리고 ‘주거지’는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들로부터 ‘성소’라 불려진다.

시74:3-‘적이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했다’=악이 교회의 거룩한 것들을 파괴했다.

겔24:21-그분이 ‘모독할’ ‘성소’=교회를 있게 하는 말씀. 그이유가 말씀은 성소 자체이기 때문, 말씀은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

레20:3-‘나의 성소’=천국과 교회 속의 진리.

시68:24-그분의 강림이 ‘성소에서 그분의 보행’에 의해 뜻해져 있다.

성실-성장하다-성전

성실 (완전무결 integrity)

완전 (perfection)

* (태고 교회로부터) 남아있는 것들은 지각 속에 있지 않고 성실 속에 있다.

창6:9-‘노아는 그의 세대에서 올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다’...‘올바름’은 선행의 선에 관련되고, ‘성실’은 선행의 진리에 관계가 있다.

시15:2, 18:25, 84:11-‘완전한’=선행으로부터 있는 진리. 그 이유가 진리는 많은 다른 근원들로부터 존재한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선행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는 ‘완전’이라 불리운다. 그리고 사람일 경우, 완전한 사람이라 불리운다, 마치 ‘완전하게 걷는 사람’...여기서 완전인 자라고 묘사되고 있다...완전한 사람에게 당신께서는 완전한 당신 자신을 보이신다. ‘완전한 사람’을 취급하는 곳에서 완전한 사람은 거룩으로부터 또는 선행의 선으로부터 있는 사람이다...‘여호와께서는 성실 안에서 걷는 그들에게 선을 금하지 않으신다’.

시101:2, 119:1, 37:37-‘완전한 자’=선으로부터 진리인 자, 또는 선행으로부터 참인 것을 이야기하고 행하는 자이다는 것은 수많은 언급으로부터, 특히, 단어, ‘완전한’, ‘성실’, ‘걷는다’, ‘길’, ‘올바른’, ‘청렴’ 같은 말이 등장할 때 살핀 것들로부터도 분명해진다. 이상의 단어들은 진리에 속해 있다. 즉 ‘나는 길에서 완전을 (나에게) 붙어넣을 것이다...나는 내 심정의 성실에서 걸을 것이다’...‘길에서 완전한 자는 복되다, 그는 여호와와 의 법에서 걷는다’... ‘완전한 자에게 표를 해두라, 그리고 올바른 자를 불지어다...’ 이런 구절들로부터서도 명백해지는 것은 ‘올바른’ 자라 불리는 사람은 선인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완전한’ 자라 불리운다. 이 사람은 또한 정의와 공정을 행한다. 거룩함과 정의는 신앙의 천적 수준이다. 성실과 공정은 천적 수준으로부터 파생된 영적 수준이다.

여24:14-‘성실과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창17:1-‘너는 완전해지라’=선행의 선. ‘완전’=진리로부터 선인 것을 행하는 것. 즉 진리의 양심으로부터, 고로 선행으로부터, 그 이유가 이것이 양심을 만들기 때문... 그러나 주님이 취급될 경우, ‘완전’에 의해 선행의 선이

의미된다. 그 이유가 선은 선행으로부터 진행되기 때문, 다시 말해 거기로부터 있는 진리 자체가 선이다.

여24장-‘성실’은 신앙의 선이라 단언된다. 그리고 ‘진리’는 신앙의 진리라 단언된다.

창25:27-‘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다’=진리...‘완전한’은 진리 안에, 진리로부터 있는 이들이라 단언된다.

출12:5-‘흠없는 어린 양’=오점이 없는 순진...‘흠 없이’=과오 없이, 고로 오점 없이.

시64:4-‘은밀한 장소에서 완전한 자를 쓰는 것’=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사람들 속이는 것.

시37:18-‘주님께서는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신다.’ ‘완전한 자의 날들’=선과 파생되는 진리들에 있는 이들의 상태들, 또는 선행 안에, 그리고 파생된 신앙에 있는 이들의 상태들.

이1:6-‘발바닥으로부터 머리까지 온전함이 없다’=자연적 그리고 영적인 것들 모두 파괴되었다.

성장하다 (grow)

창21:8-‘아이가 성장했다’=주님의 합리성이 더 완전해짐. ‘성장하는 것’=완전해지는 것.

창26:13-‘사람은 성장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계속하여 증가했다’=그것들의 질서에서 선과 진리의...증가.

창48:16-‘그 토지 한가운데에서 많은 무리가 되게 성장하는 것’=가장 안쪽으로부터의 확장. ‘많은 무리로 성장’=확장.

성전 (temple)

겔-‘새 성전’=일반적으로, 새로운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람, 또는 거듭나는 자, 그이유가 거듭나는 모든 이 각각이 주님의 성전이기에 때문.

요2:21-‘주님의 몸의 성전’=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 그 이유가 ‘성전’=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그리고 ‘몸’=신성한 선...

왕상6:7-예루살렘에서 성전은 완전한(whole) 돌들로 건축되어졌다. 그 이유가 ‘주님의 성전’에 의해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이 표현되었기 때문. 주님이 ‘성전’에 의해 표현되었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요2장에서 가르치신다. 그리고 그것이 신성한 진리이었다는 것은 거기서 가르치셨기 때문. 돌로 지은 것=신성한 진리.

마23:17-‘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성전은 주님 자

성지

신을 표현했다, 그리고 ‘금’은 그분으로부터 있는 선.

말3:1—‘주님은 그분의 성전에 갑자기 오신다.’ ‘주님의 성전에’=그분의 인간에.

계11:1—‘하느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천국과 교회. ‘성전’=영적 (왕국의) 교회. 그리고 ‘제단’=천적 (왕국의) 교회.

시29:9—‘그분의 성전에서 모든 이가 영광이라 말한다’=말씀의 모든 세부적인 것 안에 신성한 진리들이 있다는 것. 그 이유가 ‘성전’=주님, 그리고 거기서부터 말씀, 또한 천국과 교회, 그리고 ‘영광’=신성한 진리.

계3:12—‘나는 그를 내 하느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으로 만들 것이다’=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천국에서 주님의 교회를 받친다. ‘성전’=교회, 그리고 ‘내 하느님의 성전’=천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

마24장—‘성전’=현재의 교회. 그리고 ‘돌 위에 어떤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붕괴됨’=이 교회의 마지막에서 거기에는 어떤 진리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

계7:15—‘그들은 그분의 성전에서 낮과 밤 그분을 섬긴다’=그들은 그분의 교회에서 진리들에 따라 산다는 것.

계11:1—‘일어나라, 그리고 하느님의 성전을 측량하라’=새 천국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보고 아는 것... ‘성전’=교회의 진리 측면에서의 교회.

계11:19—‘하느님의 성전이 천국에서 열려졌다’=새 천국에서 신성한 인간으로 계신 주님이 예배되어진다... ‘하느님의 성전’, 여기서=천국에서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

계14:17—‘또다른 천사가 천국 안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갔다’=주님의 영적 왕국의 천사들.

계15:6—‘성전’=말씀과 십계명이 있는 천국의 가장 깊은 곳.

계15:8—‘성전은 하느님의 영광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연기로 채워졌다’=천국의 가장 깊은 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영적, 천적인 신성한 진리로 채워져 있다.

계16:1—‘나는 성전의 안에서 밖으로 있는 큰 음성을 들었다’=천국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의 유입.

계16:17—‘큰 음성이 천국의 성전의 안에서 밖으로 왔

다’=천국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 의해 명명백백해짐.

계21:19—‘나는 그것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전능이신 주 하느님이 그것의 성전이요 어린 양이 시기 때문’=이 교회에서는 내적인 것에서 분리된 외적인 것은 없다. 그 이유는 주님 자신이 그분의 신성한 인간 안에 계시고, 이 분으로부터 교회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 이 분 만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하고, 경배드린다. ‘나는 그것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새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장소가 없을 것이다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울3:5—‘그들의 성전들 안으로 운반하는 것’=모독된 예배로 돌아서는 것.

시79:1—‘거룩함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예배를 모독하는 것.

함2:20—‘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함의 성전 안에 계신다’=천국, 여기에 신성한 진리가 있고, 여기로부터 신성한 진리가 나온다.

시65:4—‘우리는 당신의 성전의 거룩함으로 만족해 할 것입니다’=신성한 진리로부터 총명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천국의 환희를 즐기는 것.

이13:22—‘용이 있는 성전들’=말씀의 선들과 진리들, 그리고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 이것들이 섞음질되었고, 모독되었다.

성지 (holy land)

* 표현 교회(the Representative Church)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지라 불려졌다.

* 가나안의 토지—주님의 왕국과 교회, 그리고 사실 상,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그러므로 그것은 성지라 불려졌다.

* ‘새 땅’, 또는 성지=주님의 왕국, 그리고 또한 새 교회 (the New Church).

성직 (priesthood)

성직자 (priest)

제사장 (priest)

애4:13—‘예언자들’=가르치는 이들, ‘성직자들’=(명령받은) 것들에 따라 사는 이들.

창14:18—‘멜게세택은 성직자 였다’=사랑의 거룩인 것.

성직-성직자

이24:2-‘백성 같이 성직자 역시’=내면의 진리들과 선들이 없다.

창41:45-‘온의 성직자의 딸’=선으로부터의 진리...‘성직자’=선.

창47:22-‘성직자의 토지를 그는 사지 않았다’...‘성직자들’=선

계1:6, 5:10-‘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들과 성직자들로 만드셨다’...그들은 선행 속에 있는 선으로부터 성직자로 만들어졌다고 말해진다.

출2:16-‘미디안의 성직자는 일곱 딸을 가졌다’=이 교회의 거룩한 것들...‘성직자’=사랑의 선.

출19:6-‘너희는 나에게 성직자들의 왕국일 것이다’=그 당시 진리의 선이 있을 것이라는 것...즉 영적 교회의 사람들이 진리를 통하여 소개 받는 선인 것...‘성직자들’=선. 그이유가 주님의 성직, 이것이 성직자들에 의해 표현되는바=신성한 선.

출19:22-‘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성직자들 또한 자신들을 신성하게 할 것이다’=영적 선 안에 있는 이들...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수단으로,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표현되어 졌기 때문.

출28:1-‘나에게 성직 직무를 수행하는 것’=주님에 대한 표징. (그이유가) ‘성직’=최고 의미에서 주님이 구세주로서 수행하시는 모두 각각의 직무...(즉) 신성한 사랑으로부터...그러므로 ‘성직’에 의해 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이 의미되어진다.

출28:41-‘그들은 성직에서 나에게 직무를 수행한다’=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있는 구원의 일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징한다.

출29:1-‘성직에서 나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그분에 의한 구원의 모든 일. ‘성직’=구원의 일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징한다.

출29:44-‘(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신성하게 해서 나에게 대한 성직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다’=구원의 일 측면에서 (낮은 천국들과 높은 천국들) 양쪽 모두에서 주님을 표징한다.

요10:7-16-성직자들은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야만 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교회의 교리들에 따라서 그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

다. 그리고 그 교리에 따라 그들이 살도록 해야 한다. 진리들을 가르치는 성직자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생활의 선으로 인도하는 그들, 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은 양떼의 선한 목자이다. 그러나 가르치고 생활의 선으로, 주님께로 인도 않는 그들은 악한 목자이다. 후자는 주님께 의해 ‘도둑이요 강도들’라고 불리운다.

계20:6-‘하느님과 그리스도에게 성직자일 것이다’=그들이 사랑의 선 안에, 이로부터 지혜의 진리들 안에 보존되어졌기 때문. 말씀에서 ‘성직자들’에 의해 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이61:6-‘너희는 여호와와 성직자들, 우리 하느님의 성직자(minister)들이라 불릴 것이다.’ 성직자(priest)가 성직자(minister)이라 부른 이유는 그들이 사랑의 선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했기 때문. 그러므로 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은 ‘성직자(priest)’라 불리운다.

예1:18-‘성직자들’=섬음질된 선들.

이28:7-‘성직자와 예언자’=선들과 진리들을 가르치는 이들. 그리고 추상적 의미에서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

겔7:26-‘성직자’=가르치는 이들.

애4:13-‘성직자들’=진리를 통하여 선으로 인도하는 이들. 여기서는 그 반대 의미이다.

이28:7-‘성직자와 예언자는 독한 술로 해서 가르친다...’ ‘성직자와 예언자’=선과 진리의 교리.

예13:13-‘성직자들’=신성한 선들에 있는 이들, ‘예언자들’=교리에 있는 이들.

시132:9-‘너희 성직자들은 정의로 옷입었다’=천적 선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사랑으로부터 예배함. ‘성직자’=천적 왕국에 있는 이들.

성직자 (minister)

섬기다 (minister)

봉사함 (ministry)

이61:6-천적 사람들은 ‘여호와와 성직자(priest)’라 불리우고 영적 사람들은 ‘하느님의 성직자(minister)’라 불리운다.

마20:27,28-‘너희 사이에서 큰 자는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자이어야 한다...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창39:4-‘(요셉은) 그를 섬겼다’=과확물이 그것 자신의

성직자

선을 자기 것이 되게 했다는 것. (그이유가) ‘섬기는 것’=또다른 것이 필요로하는 것을 공급하려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 여기서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 그이유는 과학물이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자연적 선이기 때문. 더욱이 ‘섬기는 것’은 과학물을 서술하고 있다. 그이유가 ‘섬기는 것’, 또는 ‘종’이 말씀에서 과학물, 또는 자연적 진리이기 때문. 이 진리는 그것의 주인에 해당되는 선 아래 종속되고 있기 때문.

창40:2-‘섬기는 두 집사들에게’=두 종류의 몸의 감각적인 것들로부터...몸의 감각적인 것들은 내면의 인간에 비교해 생각하면 마치 집사(steward) 같이 섬긴다. 그이유가 감각적인 것들이 내면의 인간을 섬기기 때문.

창40:4-‘(요셉은) 그들을 섬겼다’=그는 가르쳤다는 것. ‘섬기는 것’=가르치는 것. 여기서의 경우, ‘섬기는 것’은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이유가 사실 상 요셉의 지위는 두 집사들 위에 있었기 때문. 그러므로 여기서 ‘섬기는 것’=두 사람의 불편함을 돌보아주는 정도인 절반쯤 되는 섬김이다.

마20장-‘종들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에 관련해 말해지고, ‘섬기는 자들’은 그분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에 관련해 말해진다.

출24:13-‘그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표현적인 것...그이유는 표현적인 것은 봉사함, 섬김들 속에 있기 때문.

출28:35-‘섬기는 것’=예배할 때와 복음을 전할 때. (그이유가) ‘섬기는 것’, 아론을 두고 말할 때, 그에 의해 주님이 표현되는 바=예배함과 복음을 전함.

출30:20-‘섬기기 위해 제단에 가까이 감에서’=사랑의 선으로부터 예배함.

출33:11-‘그리고 그의 섬기는 자, 여호수아’=모세의 위치에서 ...섬기는 신성한 진리.

마20:27,28, 눅22:26-지배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통치자들. 그이유가 선을 사랑함으로부터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 그리고 제공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커지게 하지 않는다...그럼에도 그들은 영예와 영광을 가진다...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그들 자아를 위해서가 아닌 순종하기 위해서일 뿐이다...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들에서 뜻해진다.

마20장-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것은 ‘종’이나 ‘섬기는 자’가 신성한 진리를 가르침을 수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을 뜻하기 때문이다. 신성한 진리는 그분 자신이다.

계2:19-‘그리고 선행과 봉사함’=선행이라 불리는 영적 애착, 그리고 그것의 실행...‘봉사함’=그것의 실행인 이유, 말씀에서 ‘성직자’라 불리는 이들은 선행 속에 있는 것들을 실행하기 때문. 하느님의 예배자가 ‘종’이라 불리는데, 여기서 ‘성직자(minister)’라 불린다. ‘하느님의 종’이라 불리는 이들은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다. 그이유가 진리는 선에 봉사함(service) 가운데 있기 때문. 그리고 선은 진리를 섬긴다(minister). 선 안에 있는 이들이 ‘성직자’라 불린다.

계22:3-‘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다’...주님의 ‘종들’은 그분으로부터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직자’는 그분으로부터의 선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그분을 섬기는 종들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선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명령들을 행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계2:19-‘그리고 봉사함과 신앙’=거기에 있는 선과 진리.

시104:4-‘그분은 불꽃 있는 불을 그분의 성직자로 만드실 것이다’=그들은 신성한 선을 담은 그릇들이라는 것. 고로 ‘성직자들’은 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을 뜻함이 분명하다.

시103:21-‘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것을 섬기는 자’...‘섬기는 자’=선들 안에 있는 이들.

이61:6-‘너희는 여호와와 성직자(priest), 하느님의 성직자(minister)라 불리울 것이다.’ 여기서 priest가 minister라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랑의 선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했기 때문. 그러므로 말씀에서 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은 성직자(priest)라 불리우고, 또한 이로부터 ‘하느님의 성직자(minister)’라고도 불린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직능이 ‘성직(ministry)’이라 불린다. 그리고 집회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 또한 제단에 가까이 접근해서, 거기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 모두 ‘성직’이라 불린다.

성폭행하다-세계 때리다-세겔-세겜

이60:7-‘느바웃의 숫양 들이 너에게 봉사할 것이다’=영적 애착으로부터 삶을 인도하는 진리들.

시104편-‘성직자들(minister)’은 주님의 천적 왕국에 있는 이들을 뜻한다. 그리고 그들이 신성한 선을 받는 그릇들인바, ‘그분은 불꽃 있는 불로 그들을 만드신다’라고 말해진다.

예33:21-‘레위인들과 더불어 (언약), 즉 성직자(priests), 나의 성직자(minister)’=신성한 선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함.

성폭행하다 (ravish)

이13:16-‘그들의 아내들은 성폭행 당할 것이다’=진리의 선들이 거짓의 악들에 의해 남용될 것이다.

겔19:7-‘과부들을 성폭행하는 것’=진리를 바라는 선들을 더럽히는 것.

예3:2-말씀을 왜곡하고 섞음질 함이 ‘퇴폐되게 함’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세계 때리다 (smite)

창12:17-‘여호와께서 바로를 큰 재앙으로 세계 때리셨다’=과학적인 것들이 파괴되어졌다는 것.

창14:15-‘그는 그들을 강타했다’=되갚는 것.

* ‘세계 치는 것’=파괴하는 것.

* ‘처부숨’=소멸하는 것.

출2:11-‘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강타하고 있었다’=소외된 과학적인 것이 교회 속의 진리를 파괴하려 애쓰고 있다.

출2:12-‘그는 이집트인을 세계 쳤다’=그는 소원해진 과학물을 파괴했다.

출5:14-‘얻어맞는 것’=거짓들에 의해 상함을 받는 것.

출17:6-‘너는 바위를 세계 칠 것이다’=그들은 긴급하게 주님께 물을 것이다. ‘세계 치는 것’=묻는 것이 긴급한 것, 그러나 겸손한 심정에서. (그러나) 그는 굳은(hard) 심정에서 바위를 세계 쳤다.

출32:35-‘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세계 치셨다’=그들과 더불어 진리와 선이 황폐해짐.

계11:6-‘땅을 세계 치는 것’=교회 위에 황폐함을 가져오는 것.

계20:4-‘도끼로 세계 치는 것’=거짓들에 있는 이들에 의해 거절되었다.

세겔 (shekel)

출21:32-‘은 삼십 세겔’=피해입은 것을 진리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함.

출30:13-‘거룩함의 세겔(the shekel)로 반 세겔(a shekel)’=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속의 모든 것. ‘반, half’=모든 것, 그리고 ‘세겔’=선으로부터의 진리. 그이유는 세겔(a shekel)은 은 또는 금의 무게 었기 때문. 그리고 세겔(the shekel)을 무게로서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 양(quantity)을 명시한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함의 세겔’이라 말해질 때, 이것은 진리와 선의 양을 명시한다. 그이유가 이것들은 거룩이기 때문.

출30:13-‘한 세겔은 이십 게라(gerah, 또는 oboli)’=선으로부터의 모든 것들. 그이유가 ‘이십’=모든 것들, 선으로부터 남은 것들, 그리고 거룩인 것...이로부터 왜 세겔이 게라 속에 있었는지, 왜 그것이 ‘거룩함의 세겔’이라 불렸는지 명백해질 것이다.

출30:24-‘거룩함의 세겔에서’=진리와 선의 양과 질 측면에서의 평가.

세겜 (Shechem)

* 하물도 참조

창12:6-‘아브람은...지나.....세겜에’=주님의 두 번째 상태, 이 때 사랑의 천적인 것들이 그분에게 나타나셨다.

창33장-야곱이 첫 번째로 세겜에 왔다. ‘세겜’=빛의 첫 번째.

여20:7, 21:21, 24:1,25-세겜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성읍, 거기서 언약이 만들어졌다.

창33:18-‘야곱은 세겜의 성, 살렘에 왔다’=평온에 있는 신앙 속의 내면의 진리들...‘세겜의 성’=신앙 속의 내면의 진리들.

창34:2-‘세겜이 그녀를 보았다’=진리; 그이유가 ‘세겜’=진리, 여기서는 고대 (시대)로부터의 교회 속의 진리; 그 이유는 세겜이 있었던 나라는 고대 교회의 나머지들이었기 때문이다...더구나 세겜의 성은 아브람의 처음 도착지이었기도 하다. 이로부터 ‘세겜의 성’=처음의 빛; 그 결과 내면의 진리.

창34:8-‘세겜 나의 아들’=그 선으로부터의 진리; 그이유가 ‘세겜’=내면의 진리, 이 진리는 내면의 본질 측면

세 겹-세다 -세대

에서는 선행의 선 밖에 더 없다; (그이유가) 태고 교회의 나머지가 히위족 하물, 그의 아들 세겹과 더불어 이었기 (때문).

창34:11-'세겹이 그녀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했다 '=신성한 고대 지주로부터의 진리가 이 깊은 신앙심 속의 선과 진리와 상담함.

창34:18-'세겹', 여기서의 경우=교리.

창37:12-'세겹에서'=첫째 기본(초보)인 것. '세겹'=고대 신성한 지주로부터의 진리; 교리; 여기서의 신앙에 관한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교리. 첫 기본적인 것은 교리물의 일반적인 것; 이것들이 제일 먼저 받아진다.

창37:14-'(요셉이 세겹에 왔다'=교리물의 일반적인 것에 관한 지식.

예41:5-'세겹으로부터의 사람들'=모든하는 이들.

세 겹 (ternary)

* 셋(three)을 보라.

세다 (number)

* 수(number)를 보라.

세대 (generation)

시72:5-'대대로'=홍수 후의 교회가 의미된다.

신32:7-고대 교회가 '대대로'에 의해 뜻해진다.

창6:9-'노아는 그의 세대에서 올바르게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58:12-'많은 세대의 기초들'=고대 때로부터 붕괴되어 왔었던 신앙 속의 영적인 것들.

이65:23-여기서 '낳는 것(generate)'은 신앙 속의 것들, 그리고 '수고하는 것(labour)'은 사랑 속에 있는 것들이라 단언된다.

창7:1-'나는 이 세대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아왔었다'=그가 거듭나질 수 있는 선을 가지는 것.

창9:12-'시대의 세대들 안으로'=새로이 창조되고 있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영구적으로... '세대들'=부모로부터 있는 앞의 것으로부터 있는 이후의 것들. 여기서의 거듭나는 이들을 취급한다, 그러므로 '시대의 세대들'에 의해 이로부터 영구적으로 거듭나는 이들, 고로 새로이 창조되는 이들이 뜻해진다.

창15:16-'네 번째 세대가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회복됨의 때와 상태... '네 번째 세대'=사십 번째, '사백 번

째'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즉 시험의 기간과 상태... '네 번째 세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있는 어떤 세대를 뜻하는 것이 아님은 말씀의 역사적인 것들로부터 분명하다. 그이유가 이스라엘 후손이 돌아왔을 때 가나안 토지에는 많은 세대들이 있어왔고 자기들 조상으로부터 가지각색의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 '네 번째 세대'는 다른 장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이것은 세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의 경우, 회복의 시간과 상태를 의미한다.

창17:7-'그들의 세대들에서'=신앙 속에 있는 것들. (그이유가) '세대들'=선행으로부터 낳고 출생한 것들. 즉 신앙 속의 모든 것들, 다시 말해, 주님께 의해 거듭나고 있었던 모든 이들, 이들 안에 선행으로부터의 신앙이 있다.

신23:2-그들은 천국 안으로 올 수 없다, 그이유는 그들은 남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남은 것(remains)들은 '열 번째 세대'에 의해 의미되는 내면의 선들과 내면의 진리들로부터서만 있다는.

마24:34-'이 모든 것들이 행해질 때까지 이 세대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유대 국가, 이 국가는 다른 국가들 같이 근절시켜지지 않을 것이다.

창48:6-'그리고 그들 이후 네가 낳는 너의 세대'=이후에 오게 될 내면의 진리들과 선들. (그이유가) '세대'=신앙과 선행 속에 있는 것들. 고로 진리들과 선들...이후에 내적 인간에 의해 낳아지는 것들은 더 내면적이다. 그이유가 전에 낳아왔던 것들이 후에 더 내면적으로 낳는 것들을 위해 수단이 되어주기 때문. 이것은 인간에 있는 지적 평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세대로부터 분명하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신앙과 선행을 통하여 결과되어진다.

시14:5-'의로운 자의 세대'=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이51:9-'영원들의 세대들'=거기로부터 선들.

신32:7-'대대로의 햇수들'=홍수 후에 있었던 고대 교회의 상태와 시간, 그리고 영적 교회였다.

이51:8-'영원'은 사랑의 선, '세대'는 신앙의 진리 라고 단언된다.

시145:13-'영원'이 천적인 것, 그리고 '세대'가 영적인

세라

것을 서술하지 않으면, 두 단어 중 한 단어 만 언급되었을 것이다.

출1:6-‘모든 그의 형제, 그리고 그 세대’=세부적, 그리고 일반적 측면에서 외적인 것과 더불어...‘세대’=일반적 측면에서 교회의 외적인 것.

출3:15-‘이것은 대대로 나의 기념물이다’=그분은 영구히 예배되어야 한다는 것...말씀에서 ‘영원으로’, 그리고 ‘대대로’라고 말해진다. 때로는 한 구절에서 같이 사용된다. ‘영원’은 신성한 선, 그리고 ‘대대로’는 신성한 진리가 이 단어들의 근원이다.

출12:14-‘너의 세대들에게’=신앙과 선행 속에 있는 이러저런 것들에서.

출12:17-‘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너의 대대로 지킬 것이다’=신성한 질서에 따라 선행과 신앙으로부터 예배함.

출12:42-‘이스라엘 후손 그들 대대로를 위하여’=진리로부터의 선,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지닌 영적 왕국의 교회인들...‘세대들’=신앙과 선행으로부터 있는 것들, 고로 진리로부터의 선, 선으로부터의 진리와 더불어 이들을.

출16:32-‘너의 대대로 준수하기 위하여’=영적 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속하는 것들. ‘세대들’=신앙과 선행 속에 있는 것들...결정적 의미에서 영적 왕국의 교회인들.

출17:16-‘대대로로부터 아말렉에 맞선 여호와의 전쟁’=그들은 멩에 아래로 되돌려 지옥으로 던졌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로부터 결코 일어날 수 없다...‘대대로로부터’=영구적으로.

요3:5-‘물과 영으로 낳아지는 것’=신앙의 진리들과 사랑의 선을 통하여...

출27:21-‘이스라엘 후손과 더불어 세대들을 위하여’=영적 왕국을 위하여 영원한 것...‘세대들’=영원한 것...그 이유는 그들에 의해, 내적 의미에서 신앙과 선행의 세대들이 뜻해지기 때문. 그러므로 천국과 교회 속에 있는 것들, 이것은 영원하다.

출28:10-‘그들의 세대들에 따라’=...이쪽에서 낳아지고 (begotten), 다른 쪽에서 진행되는 질서에서...(그이유가) ‘세대들’=영계에서 신앙과 선행, 또는 진리와 선 속에 있는 것들.

출29:42-‘너의 세대들 안으로’=교회에서 영구적인 것. (그이유가) ‘세대들’, 이스라엘 후손을 서술할 때=교회에서 계속되는 것...‘세대들’에 의해 신앙과 사랑 속에 있는 영적 세대들 또한 의미된다, 고로 교회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세대들 안으로’에 의해 영구적인 것, 고로 계속적인 것 또한 의미된다.

출30:8-‘너의 세대들 안으로’=사랑으로부터 신앙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영원으로. ‘세대들’=신앙과 사랑 속에 있는 것들.

출30:10-‘너의 세대들 안으로’=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는 교회인들.

출30:21-‘그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그리고 그들의 세대들에게’=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것들을 받는 모두, 고로 그분에 의해 거듭나지는 모든 이들.

출30:31-‘너의 세대들 안으로’=교회의 모든 것들 안에서. (그이유가) ‘세대들’, 이스라엘 후손을 서술할 때,=교회 속에 있는 이들, 고로 인물들로부터 추상적일 경우,=교회 속에 있는 것들.

창31:13-‘너의 세대들을 위하여’=교회의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세라 (Zarah)

창38:30-‘세라’=사랑.

창38:30-‘그의 형제가(그의 형이) 그 후에 나왔다’=실제로 앞서는 것은(실지로 보다 중요한 것은) 선이다. 그이유가 여기서 ‘형제’라 불리는 ‘세라’=선이기 때문. 또한 자궁을 먼저 열었던 자는 세라인 바, 그가 첫 출생이기 때문이다.

* ‘세라’, 원어에서, ‘일어남, the rising’을 뜻하고, 태양의 속성, 즉 (이른 아침) 햇빛의 처음 나타남이 이 단어의 근원이다. 이것이 그가 세라라고 이름붙여진 이유인데, 거듭나아가는 사람 안의 선과 더불어 경우도 이와 같다. 즉 이 선이 처음 일어난다. 그리고 빛을 준다, 이를 수단으로 자연적 인간에 있는 것들이 계발되어져서, 그들은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다.

세례 (baptism, baptize)

* 씻다(wash)도 참조

막3:16, 요1:32, 막1:10-11, 눅3:21-22-‘세례받으신

세례-세례 요한

예수께서는 물로부터 곧장 올라오셨다...세례 자체=거듭남. 그러므로 올라오는 새 교회와 더불어 세례=신앙으로부터의 선과 진리, 이것을 새 교회인들은 거듭남을 수단으로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요3:5-이로부터 알게 되는 것은,...세례에서 사용된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다. 이에 관해 주님께서 요한 복음에서 말하신다. '물과 영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물'=신앙의 영적 차원인 것, '영'=신앙의 천적 차원인 것. 고로 세례는 신앙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을 통하여 주님에 의한 인간 거듭남을 상징한다는 것. 거듭남은 세례를 통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에서 의미되는 생명을 통하여 말씀을 가졌기에 신앙의 진리들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일궈내 성취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

왕하5:1-14-요단에서 일곱 번 씻음에 의해 나아만의 문둥병이 치료됨...세례를 표현했다. 그 이유가 세례는 교회 안으로 입문함,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안으로 입문함, 고로 거듭남, 그리고 거듭남 속에 있는 것들. 세례라는 요식행위를 가진다고 해서 누군가가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이 형식은 거듭나야 함을 기억하는 표시이기 때문. 그리고 교회 속의 이런 것들이 세례를 수단으로 의미되기에, 요단에 의해서도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닌다...그러므로 그들은 요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주님 또한 거기서 요한에게 기꺼이 세례 받으신 것이다.

막10:38,39, 마20:22,23-'...내가 받아진 세례를 가지고 너희가 세례받아 질 수 있느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셨다, 실로 너희는 내가 마신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은 세례를 가지고 너희는 세례받을 것이다.' 이로부터 분명한바, '잔'=시험, 그이유는 시험은 선하고 참된 것들에 맞서는 거짓들을 수단으로 싸우는 악들을 통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례'=거듭남, 이는 영적 전투들을 수단으로 결과되어진다, 그러므로 시험은 이것에 의해서도 의미되어진다.

* 누구도 세례 받는 요식 행위 만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세례는 거듭남을 의미한다. 이 거듭남은 교회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하고 받

드시 성취해야 하는 삶이다.

요1:33, 눅3:16-'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사랑의 선을 수단으로 거듭나는 것.

마3:11-'세례베푸는 것'=거듭나는 것. '성령으로'=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그리고 '불로'=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막7:4, 마3:13-16, 막1:10, 왕하5:2,10,14, 마20:22-'완전한 씻음'이 세례로 불리워진다는 것은 여러 구절로부터 분명하다. 그리고 씻음은 몸 전체에 관해서이다. 세례받는 씻음이 거행된 요단...자연적인 것을 의미했다. 세례의 씻음에 의해 시험 역시 의미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모든 거듭남은 시험을 수단으로 결과되기 때문이다.

막16:16-'믿는 자'=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신성한 진리들을 받는 자. '세례받는 자'=주님에 의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아지는 자.

눅3:16, 요1:33-(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반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베푸실 것이다'란 주님께서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을 수단으로 인간을 씻고 순수해지게 하실 것을 뜻한다. 그리고 요한, 그의 세례를 통하여 이런 사항들을 표현했다. 그 이유가 '성령'=신성한 진리. '불'=신성한 선, '물'=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물. 그 이유가 '물'=말씀 속의 진리, 이 진리는 이 진리에 따른 삶을 통하여 선이 되어가기 때문.

마3:11,12-'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을 통하여 교회를 재구성하고 교인을 거듭나게 하는 것.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

* 마지막 예언자인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

마3:4-예언자들은 가르치는 이들, 말씀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를 표현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말씀 자체, 요한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는 '장차 올 엘리야'라고 불리웠다. 그들이 글자로 있는 말씀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끈을 매었다.'

마11:9,11-말씀은 세상의 여느 교리 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 세상의 어떤 진리보다 더 위대하는 것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네게

세바 - 세 배-세 번-세 번째-세상-세속적인

말한다, 그리고 예언자 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고, 그리고 '여인들로부터서 태어난 이들 중에서 세례 요한 보다 더 위대한 자는 일어나지 않았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말3:1, 눅7:27-'나는 네 앞서 천사를 보낼 것이다'=주님의 신성, 이로부터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다...이로부터 세례 요한은 '천사'라 불리운다...'그에 관해 씌어있는 바, 보라 내가 내 천사를 네 얼굴 이전에 보낼 것이다, 그는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천사'는 세례 요한과 더불어 주님의 신성이다. 이런 이유는 세례 요한이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했기 때문, 그리고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눅3:16, 요1:33-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다. 이를 수단으로 요한은 주님에 관련한 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이 그들에게 시작되었을 뿐임을, 고로 그들이 그분을 받도록 준비한 것뿐임을 뜻한다. 이에 비해 주님 자신은 그분으로부터 진행하는 신성한 진리와 선에 의해 인간을 거듭나게 한다. 그이유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말씀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요한에게 세례주는 수단이 된 물은 소개하는 진리들, 이는 말씀으로부터 주님에 관한 지식들이다.

세바 (Shibah)

창26:33-'그는 그것을 세바라 불렀다'=그것으로 확증된 진리가 결합함.

세 배 (thrice)

* 셋(three)을 보라.

세 번 (thrice)

* 셋(three)을 보라.

세 번째 (tertian)

창50:23-'세 번째의 후손'=과생된 것들.

출14:7-'세 번째의 지휘관들'=세부적인 것들을 아래에 두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

민14:18-'세 번째와 네 번째 후손에게 (아비의) 불법을 벌하신다.

세상 (world)

세속적인 (worldly)

마13:38-'들판은 세상이다...' '세상'=사람들 (=온 인류) (=교회), (=모든 곳에 있는 교회),.

마18:6-'바다의 깊음에 가라앉는 것'=오로지 세상적, 육체적인 것 안으로, 고로 지옥 안으로.

계13:8-'세상의 기초로부터'=유대 교회, 기독교 모두의 교회의 건립으로부터.

요16:33-'내가 세상을 정복했다'=주님은 모든 지옥들을 정복하셨다'

마5:14-'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교회의 진리.

신33:27-'세상의 팔들'=인간과 더불어 신성한 진리들, (즉)=글자의 의미로부터의 진리들.

계11:15-'세상의 왕국들은 우리 주님의 것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간다'=천국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 종속된다는 것.

시77:18-'번개가 세상을 비추었다...' '세상'=교회.

시90:2-'당신이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 이는 세상의 창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립이다.

계12:9-'온 세상을 미혹하는 것'=그들은 교회의 모든 것들을 뒤집는다는 것...'세상'은 토지들 속의 세상을 뜻하지 않는다.

계16:14-'땅의 왕들, 온 세상의 왕들'=전체 교회에서 악의 거짓들에 있는 모든 이들.

계3:10-'온 세상에 오는 시험의 시간...'=마지막 심판의 때.

시77:18-'우리의 소리가 세상 안으로'=교회에서 지각함과 이해함 측면에서의 신성한 진리.

시98:7-'세상'=진리들 측면에서의 보편적 천국.

시24:2-'세상'=전체 복합체에 있는 천국과 교회.

시89:11-'세상, 그리고 그것의 충만함'=선 측면, 진리 측면에서의 일반적인 교회와 천국.

시96:13-'땅'=교회. '세상'=선행의 선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사람들'=과생되는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예10:12-'세상'=보편적 세계에 있는 교회.

이14:17-'세상'=일반적 교회.

이14:17-'땅'=교회. '왕국들'=교회의 진리들, 그리고 '세상'=교회의 선들.

세상을 사랑함 (love of the world)

세상을 사랑함-세일-셀라 -셈

눅4:5-8, 마4:8-10-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함에 맞서 싸우셨다는 것, 또는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에 맞서 싸우셨다는 것이 이 구절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2:14-‘들어 올린 언덕들’=세상을 사랑함.

* 세상을 사랑함은 자아를 사랑함이 파괴하는 만큼까지는 파괴하지 않는다. 그이유는 자아 사랑은 사랑의 천적인 것들에 직반대되나 세상을 사랑함은 신앙의 (영적인) 것들에 직반대되기 때문.

이47:5,6-‘음료 공물’은 신앙과 선행에 반대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즉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악들과 거짓들.

겔2:5,6-‘가시’=세상을 사랑함의 현세에의 욕망으로부터의 거짓.

계9:20-‘악마들’에 의해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 근원하는 악으로부터의 현세에의 강력한 욕망이 의미된다.

예10:9-‘적등색(hyacinthine)’=세상을 사랑함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함이 거짓을 사랑함과 상응되기 때문. ‘불’에 의해 의미되는 자아를 사랑함은 악을 사랑함에 상응된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함-이 근원으로부터 인 것-모든 거짓이다. 그이유가 세상을 사랑함에 의해 의미되는 영적인 악은 그것의 본질 측면에서 거짓이기 때문. 본질 측면에서 영적인 선은 진리이다.

세일 (Seir)

창14:6-‘세일산에서 호리족...’=자아 사랑으로부터 있는 거짓된 설득들.

민24:18=‘에돔’, ‘세일’, ‘상속 재산(inheritance)’=주님의 신성한 자연 측면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여11:17, 12:7-세일 산, 거기서 에서가 거주한 곳, 세일은 에서의 모습과 비슷하게 ‘털복숭이인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산을 수단으로 세일로 올라감이 있었고, 세일 산은 ‘매끄러운 산’이라 불리웠다. 하여 세일은 선으로 승강하는 진리를 표현하였다.

창32:3-‘세일 토지’=천적 수준에서의 자연적 선. ‘세일 토지’. 최고 의미에서,=주님의 천적인 자연적 선. 그이유는 세일 산은 가나안 토지의 한쪽 경계에 해당하였기 때문...그리고 모든 경계선들은 최말단의 것들을 표현하였다.

창33:14-‘제가 세일에 있는 내 주에게 갈 때까지’...‘세일’=자연 평면에서 영적인 것들이 천적인 것들과 결합함. 즉 신앙 속의 진리가 선행 속의 선과 결합함. 진리는 자연 평면에서 선에게 결합되어진다. 최고 의미에서, 자연 평면에서 진리가 선에 결합한 측면에서의 주님의 신성한 자연 평면..

창33:16-‘에서는 자기 길로해서 세일로 돌아갔다’=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인접해 있는 신성한 자연적 선의 상태...‘세일’=진리가 선에게 결합함.

창36:8-‘에서는 세일 산에서 거주하였다’=자연적 선으로부터의 진리.

창36:10-‘세일 산에서’=선으로부터의 진리.

이21:11-‘세일’, 거기로부터 경비원이 ‘부른다’=어둠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밝게 비추심(illumination).

사5:4-‘세일로 나가는 것...’. 여호와에 관해서 말해질 때,=여호와께서 인간을 입으셨을 때 주님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밝게 비춤(계몽해줌).

셀라 (Shelah)

창10:24-‘아르박샷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 ‘셀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나라였다, 이를 수단으로 그때부터 있는 지식을 의미했다.

셀라 (Shelah, 유다의 아들)

창38:5-‘그녀는 그의 이름을 셀라라고 불렀다’=우상적인 것의 품질.

* (유다의) 아들, 셀라=우상적인 것, 고로 유대 종교,

셈 (Shem)

창6:10-‘노아는 세 아들들, 셈, 함, 야벳을 낳았다’-세 종류의 교리들.

* ‘셈, 함, 야벳’. 이름이 명명될 때=교회 속의 사람; 그러나 ‘아들들’이 거론될 때=신앙 속의 진리들, (또는 교리물들).

* (고대 교회에서) ‘셈’=내적 예배.

셋 (Seth)

창4:25-‘셋’=선행이 이식됨을 통하여 주님에 의해 주어진 새 신앙.

창5:2,3-태고 교회 만큼 천적 수준은 못되는 두 번째 교회가 ‘셋’이라 불리우고 있다.

셋-셋째

창5:3-여기서의 교회 '셋'은 창4:25의 '셋'에 의해 묘사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셋 (three)

셋째 (third)

세 번 (thrice)

세 배 (thrice)

세 겹 (ternary)

사흘째마다 일어나는 (tertian)

- * 거듭남의 셋째 상태는 회개의 상태이다.
- * 이 상태는 셋째 날에 달성된다는 것='일곱째'와 같다.
- * 3의 숫자=거룩한 어떤 것 또는 상태에 관련하여 범할 수 없는 어떤 것.
- * 말씀에서 '셋째 날'은 일곱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이유가 주님의 부활이 셋째 날에 거행되었기 때문이다.
- * '3', '7'=거룩한 것들...또한 그것들=범할 수 없는 것, 그 이유는 그것들이 마지막 심판을 서술하기 때문, 이 심판은 셋째 또는 일곱째 날에 오게 되었다...

창15:9-'세 살 된'=시간과 상태에 관련하여 교회의 모든 것들; 그이유가 말씀에서 '3'=교회의 시간이 그것의 근원으로부터 그것의 종말까지 가득 찼음, 고로 그것의 모든 상태; 그러므로 교회의 마지막 때가 '셋째 날', '셋째 주', '셋째 달', '셋째 해', 그리고 '셋째 시대'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18:2-'세 사람들'=신성 자체, 신성한 인간, 그리고 거룩한 진행; 고로 주님.

창18:6-'고운 밀가루 세 분량'=그분의 사랑으로부터의 친적인 것...'3'=거룩한 것들.

호6:2-'셋째 날'=심판 또는 주님의 강림; 고로 그분의 왕국이 접근함.

창22:4-'셋째 날에'=완성인 것, 그리고 정화됨의 시작...'셋째'가 추가될 때, 그것=그 상태의 마지막,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 뒤를 잇는 상태의 시작. 여기서 이 구절은 주님의 정화하심을 취급하기 때문에, '셋째 날'=완성인 것, 그리고 동시에 정화하심의 시작; (그이유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을 때, 그분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 그이유가 주님에 의해 행해

졌던 것들, 행해지기로 되었던 것들...마치 행해진 것처럼 교회 속의 표현물 안에 있었다...이로부터 숫자 3은 고대 교회와 유대 교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표현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호6:2-'셋째 날'=주님의 강림과 부활.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삼일 낮과 밤 동안 있었다.

이16:14-'삼 년에'=이전 교회의 끝. '3'=완성인 것, 그리고 시작.

창29:2-'양 세 떼'=교회 속의 거룩한 것들과 교리 속의 거룩한 것들. '3'=거룩인 것.

창30:36-'그들 사이에 삼일 여행 길이 뜨게 하였다'=그들의 상태는 완전하게 분리되었다...'3'=최말단인 것, 그리고 완성, 또는 끝인 것.

창31:22-'셋째 날 라반에게 말해졌다'=끝; 그이유가 '셋째 날'=최말단인 것, 그리고 완성, 고로 끝, 그리고 또한 시작...

창34:25-'셋째 날에'=마지막까지 계속적인 것; 그이유가 '셋째 날'=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완성인 것, 고로 계속적인 것.

창38:24-'약 석 달에'=새로운 상태; 그 이유가 '3'=완성인 것, 그리고 이로부터 마지막인 것, 동시에 처음인 것...

창40:10-'세 어린가지'=마지막까지에서 조차 파생되는 것. '3'= 완성인 것과 마지막까지 계속됨...처음으로부터 마지막 까지.

창40:13-'사흘 날에'=그 당시 새로운 상태; 그 이유가 '3'=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조차 계속적인 것; 고로 '사흘 날'=완성된 상태; 결과적으로 '사흘 후에'=새로운 상태.

창40:16-'보라, 세 바구니들'=연속적인 의지 부분의 것들; 그 이유가 '3'=마지막 까지 완성되고 계속되는 것, 고로 연속적인 것.

창40:20-'셋째 날이 되었다'=마지막인 것 안에; 그이유가 '셋째 날'=완성인 것, 고로 마지막인 것. 마지막 상태에 의해 이전 상태가 중단되고 새로운 상태가 시작되는 때가 의미되어진다.

창42:17-'사흘 날'=가득한 것; 그 이유가 '사흘'=시작으로부터 끝까지; 고로 가득한 것; 그 이유가 이것이 여기서 묘사하는 새로운 상태이기 때문. 이전의 모든

셋-셋째

상태가 '사흘 날들'에 의해 의미되고,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 고로 새로운 것이 '사흘째 날'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더 이상 어떤 선행도 있지 않은 교회의 마지막 상태) 그 당시 완성되었다는 것.

계8:9-'삼분의 일 부분'=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떤 것.

출2:2-'그녀는 그를 석달 동안 숨겼다'=나타나지 않았던 때가 가득해진 것...'3'=가득한 것, 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기간...이로부터 '석 달로부터'=새로운 상태.

출3:18-'삼일 동안 길을 가게 하라'=거짓들로부터 아주 옮겨진 상태; 그 이유가 '삼 일'=가득한 상태.

출10:22-'(질은 어둠이) 삼일 동안'=가득한 상태; (이를 수단으로)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상태.

출14:7-'제 3의 지휘관들'=일반적인 것들 아래 있는 세부적인 것들; 그 이유가 '3'으로부터 '제 3'이 유래하는바,=완성인 것과 그 전체.

출15:22-'그들은 삼일 동안 평야를 갔는데 물은 발견하지 못했다.'=진리들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통 결함이 있었다는 것.

출19:1-'석 달 쯤에'=상태가 충만되었음...'3', 그리고 '세 쯤'=완성인 것.

출19:11-'셋째 날을 위해'=충분한 준비...그이유가 '셋째 날'=충만한 상태.

출19:16-'셋째 날'에=깨끗해짐의 마지막에서.

출20:5-'셋째 위에 그리고 넷째 위에'=긴 시리즈와 결합에서; 그이유가 '3'=시작부터 끝까지 충만한 것; 고로 긴 시리즈에 있는 것.

눅4:25-'삼 년 그리고 여섯 달'=가득한 것으로.

출23:14-'한 해에 세 번'=마지막 까지 충만한 상태; 그 이유가 '3'=시작부터 끝까지 충만한 것.

출23:17-'한 해에 세 번'=완성과 계속인 것.

출25:32-(חות의 각 측면에서) חות의 세 갈대들=선과 진리에 관련하여 가득한 것.

출25:33-'아몬드 형태의 세 사발'=선으로부터의 과학적 사실에 관련하여 충만한 것.

출27:1-'높이 세 큐빗'=등차에 관련하여 충만한 것.

출27:14-'그것들의 기둥들 셋, 그것들의 받침들 셋'=

선들과 충분하게 받쳐주는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들; 그이유가 '3'=충분한 것.

출34:7-'셋째 위에 그리고 넷째 위에'=거짓들과 이 거짓으로부터 파생된 악들이 지옥에 떨어짐...'3'은 진리들, 또는 거짓들을 서술한다...숫자들 중 '3', '6', 그리고 '12'는 영적 등급에 속해 있다...또한 '3'에 의해서는 복합체에 있는 모든 진리가 의미된다.

계8:7-'삼분의 일 부분'=진리에 관련한 모두; 그이유가 '3'=모두, 충만, 그리고 함께; 여기서 '삼분의 일', 이는 '삼분의 일 부분'과 같다.

계8:8-'삼분의 일 부분'=모두.

계8:9-'삼분의 일 부분'=모든 이것들.

계8:10-'삼분의 일 부분'=모든 것들.

계8:12-'삼분의 일 부분'=모두.

계9:15-'삼분의 일 부분'=모두

계9:18-'삼분의 일 부분'=이런 거짓들에 있는 모두.

* '1260'='31/2'와 똑같다.

계11:9-'사흘 반'=마지막으로 그리고 시작으로, 즉 아직 존재하는 교회가 끝장으로,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으로; (그이유가) '3'=마지막까지 조차 완성되는 것; 그리고 '반'=시작 (이기 때문).

계11:14-'세 번째 큰 슬픔'=마지막 큰 슬픔.

계12:4-'삼분의 일'=모두

계16:13-'세 불결한 영들'...'3'=모두; 여기서 그러므로 단지(merely).

계16:19-'세 부분들로 만듭'=완전하게 파괴됨 (=사라지는 것).

계21:13-'동쪽에 문 셋'...'3'=모두.

숙13:8-'삼분의 일 부분'=교회 안에 있는 얼마 만큼.

단7:8,24-'3'=충분한 것; 고로 진리들이 깡그리 파괴되어 버린 것.

계6:6-'3'은 진리들을 서술한다...그리고 '3'=충만한 것, 고로 또한 진짜인 것. 이로부터 '보리 세 분량'=교회 속의 진짜 진리.

눅13:7-'삼 년'=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시기,

마18:20-'두 세 명이 함께 모인 곳...' '2'는 선을, '3'은 진리를 서술한다; 그 결과 '두, 셋'은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모든 이.

소고-소경-소나기-소나무-소녀-소녀다운-소년-소금

속13:8,9-‘삼분의 일이 그 안에 남을 것이다; 아직 나는 불을 통하여 삼분의 일을 이끌 것이다...그리고 그것들을 증명할 것이다’=진리의 어떤 것이 남아 있으리라는 것, 그러나 진짜 진리는 거의 남아 있지 않으리라는 것. ‘삼분의 일’=남아 있는 진리들.

민14:18, 신5:9-‘셋째와 넷째 세대’ 또는 ‘세번째, 네번째 아들들’=악으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는 모든 이; ‘셋째 세대’=악으로부터의 거짓들에 있는 이들...그이유가 ‘3’=반대 의미에서 거짓들.

마20:19-‘셋째 날 그분은 다시 일어나실 것이다’= 주님의 인간 측면이 완전히 신성화하심

눅10:30-‘삼 일 낮과 삼 일 밤’=충만으로.

출23:17-‘한 해에 세 번’=꾸준히.

요21장-‘베드로가 세 번 물음을 받은 것=교회의 시작으로부터 그것의 끝까지 인 가득한 시간...

소고 (timbrel)

* 북(drum)을 보라

소경 (blind)

* 눈 먼(blind)을 보라.

소나기 (shower)

겔13:11-‘범람시키는 소나기’=거짓에 의해 황무해짐.

창7:12-‘비’=시험.

소나무 (송진 채취용, pitch-pine)

이60:13-‘전나무(fir), 소나무(pitch-pine), 회양목(box)=천적 수준의 자연적인 것들. 고로 예배의 외적인 것들. (=상응하는 자연적 선과 진리들)

이41:19-‘광야에 전나무, 소나무, 회양목을 놓을 것이다...’=자연적 진리들, 이는 과학물과 지식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함...‘소나무’=보다 수준 낮은 자연적 진리.

소녀 (girl)

소녀 (처녀, damsel)

소녀다운 (girlish)

속8:5-‘소녀들이 거리들에서 놀고있다’=갓만들어진 선들과 그들의 애착들,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선함들.

창24:14-‘소녀에게 나는 말한다’=순진이 있는 애착...말씀에서 선과 진리에 애착함들이 상태 측면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유아’, ‘소녀’ 등등으로 불리운다. ‘소녀’가

언급될 때, 순진이 있는 애착이 의미되는 이유는 소녀다운 연령은 인생 연령에서 유아 쪽에 더 가깝기 때문.

창24:16-‘소녀는 용모가 매우 좋았다’=진리에 애착함의 아름다움. (그이유가) ‘소녀’=순진이 있는 애착.

창24:28-‘소녀는 달려갔다’=이 애착의 생명의 원동력...‘소녀’=순진이 있는 애착.

창24:57-‘소녀를 부르자, 그리고 그녀의 입에 물어보자’=진리에 애착함의 찬성함 만들... ‘소녀’=순진이 있는 애착. 여기서의 소녀가 리브가인 바, 진리에 애착함. 그녀가 찬성하기 전에는 소녀이나 찬성할 경우, (신부되는) 리브가이기 때문.

창24:61-‘그녀의 소녀들’=중속되는 애착들.

출2:5-‘그녀의 소녀들이 강 이쪽에서 가고 있었다’=거짓으로부터 있는 이 광신적 신앙의 성직 임무들을 수행함... ‘소녀들’=성직 임무들. 그이유가 ‘바로의 딸’=광신적 신앙일 때, 그녀의 ‘소녀들’=이 광신적 신앙의 성직 임무들.

출2:8-‘소녀가 갔다’=교회 속의 선으로부터의 진리.

* 말씀에서 ‘처녀, a virgin’=천적 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선. 그러나 ‘소녀’=영적 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

율3:3-‘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파는 것’=왜곡된 진리를 수단으로 교회의 선을 뒤집는 것.

소년 (boy)

* 아이(child)를 보라.

소금 (salt)

창14:3-‘이것은 소금 바다이다’=거짓들로부터의 불결한 것들...‘소금 바다’=탐욕들로부터 발생하는 거짓들.

사9:45-‘소금’이 황폐됨을 의미했기에, 그들이 파괴하고 재건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소금을 뿌리는 것이 관습이었다.

창19:26-(이 교회의) 네 번째 상태, 즉 진리에 애착함이 멀해짐이 롯의 아내가 ‘소금 상’이 된 것이다.

창19:26-‘그녀는 소금 상(Statue of salt)’이 되었다’=진리로부터의 모든 선이 황폐되었다.

예17:6-‘소금 토지’=황폐된 진리들.

겔47:11-‘소금 (땅)이 되는 것’=황폐되는 것.

사9:45-내면의 진리가 소멸함이 아비멜렉이 성을 파괴

소다-소돔

하고 거기에 소금을 뿌림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마5:13-‘너희는 땅의 소금이다’=선을 갈망하는 교회의 진리. ‘맛을 잃은 소금’=선을 갈망함이 없는 진리.

막9:49-‘불을 가지고 소금을 뿌려짐이 있는 것’=진리를 위해 선을 갈망함.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선을 위해 진리를 갈망하는 것. ‘짠맛을 잃은 소금’=선을 갈망함이 결여된 진리. ‘자신들 안에 소금을 가지는 것’=이것을 갈망함.

눅14:34-‘소금은 좋은 것이다’=선을 갈망하는 진리. ‘맛을 잃은 소금’=선을 갈망함이 없는 진리. 이런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 ‘미지근한’ 자이다.

레2:13-‘모든 식사 공물에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다. 너희는 너의 음식 공물 위에 네 하느님의 언약의 소금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선물 위에 소금을 바칠 것이다’=선을 위해 진리를 갈망함, 그리고 진리를 위해 선을 갈망함은 모든 예배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로부터 이 소금은 하느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불리운다. 그이유가 ‘언약’=결합. 그리고 ‘소금’=결합을 갈망함이기 때문.

왕하2:19-21-‘소금’=진리가 선을 갈망함. (고로 엘리사에게 의해 소금을 가지고 물이 치료되었다)=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에서 파생된 진리가 선을 갈망함을 통하여 교회가 수정되고 생활이 개선됨.

출30:35-‘소금을 뿌리는 것’=진리가 선을 갈망하는 것. (그이유가) ‘소금’=진리를 사랑함이 선을 갈망하기 때문. 그러므로 ‘소금을 뿌리는 것’=이런 갈망함이 안에 있는 것. 진리가 선을 갈망하는 이유는 이 갈망함은 선과 진리 양쪽에 결합하려 함이 있기 때문....선과 진리의 결합이 소위 천국적 결혼이라 불우는데, 이는 인간과 더불어 천국 자체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예배에서, 그리고 이 예배의 각각 그리고 모든 것에서 이 결합을 갈망함이 있을 때, 거기에 잇는 각각 그리고 모든 것에서 천국이 있고, 고로 주님이 계신다. 이것이 향에 소금을 치라는 것에서 의미되고 있다.

눅14:34,35-‘맛을 잃은 소금’=자아로부터 갈망함, 고로 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 갈망함. 이런 갈망함이 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것은 어떤 것에도 적합하지 않다.

예17:6-‘그는 바삭 마른 장소와 소금 토지에서 거주할 것이다’=불결한 사랑들과 그것들의 갈망함에서, 이것들이 교회의 선과 진리를 파괴했다.

슌2:9-‘소금 구덩이’=거짓을 갈망함. 이것이 선과 진리를 파괴하는 바, 이것은 ‘영원한 폐물’이라 불리운다.

막9:49,50-‘소금’=진리를 갈망함.

레2장-소금은 맛을 있게 한다. 소금 없으면 싱겁고 맛없다. 그러므로 소금에는 감각을 흥분하는 예민함과 참힘이 있다. 그러므로 감각, 생각, 지각과 더불어 행해지는 것이 ‘소금’이다.

겔47:11-‘소금 안으로 가버리는 것’=영적 생명을 받지 않고, 자연적 생명에만 남아 있는 것.

신29:22-‘소금’=이런 현세에의 강한 욕망으로부터 거짓들을 통하여 모든 진리가 황폐해짐..

시107:34-‘소금을 침’=거짓들을 통하여 진리가 황폐됨.

소다 (soda)

젓물 (lye)

예2:22-‘네가 소다로 너를 씻긴다면...’=순수해짐.

소돔 (Sodom)

창10:19-‘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에 오기 까지’=거짓과 악들 안에서 그것들이 종결되었다...거짓들에 두근원이 있다...진리들 위에서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짓이 (이런 성읍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13:10-‘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외적 인간은 악의 탐욕들과 거짓된 설득에 의해 파멸되어진다.

창13:12-‘(롯은) 자기 천막을 소돔 아주 가까이에서 고정시켰다’=탐욕들로 넓혀감; (그이유가) ‘소돔’=탐욕.

창13:13-‘소돔의 사람들은 악했고, 여호와께 극도로 죄인들이었다’=과학자들이 탐욕쪽으로 자신들을 확장시켰다.

창14:2-‘그들은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전쟁을 만들었다...’=주님께서 맞서 싸우셨던 아주 많은 거짓의 설득들과 악의 탐욕들.

창14:10-‘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도망했다, 그리고 거기에 추락했다’=이런 악들과 거짓들이 정복되었다. ‘소돔과 고모라’=탐욕들의 악들, 설득들의 거짓들.

소떼

창14:11-‘소돔과 고모라의 재물’=악과 거짓.
창14:17-‘소돔왕이 그를 만나러 나갔다’=악과 거짓이 그자체 복종되게 했다.
창18장-‘소돔’=자아 사랑과 악으로부터 파생된 탐욕이 명령을 실행함.
창18:16-‘그들은 소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인류의 상태.
창18:20-‘소돔과 고모라의 합성이 크다’=자아 사랑으로부터의 악과 거짓이 극점에 까지 이르도록 증가했다.
신32:32-‘소돔의 포도나무’=악으로부터의 거짓.
창18:22-‘그들은 소돔을 향하여 갔다’=인류가 이런 큰 악 안에 있었다. ‘소돔’=자아 사랑으로부터 악... ‘소돔’=이런 큰 악에 있는 인류의 상태인 이유는 소돔에 의해 소돔이 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 사랑에 있는 보편적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뜻하기 때문, 그리고 소돔에 대한 묘사는 이 악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상태를 뜻해 준다.
창19장에서-‘소돔의 주민들’에 의해 선행의 선에 반대하는 (영적 왕국의) 교회 내에 있는 이들의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악과 거짓이 증가하여 결국 악과 거짓만 있는데 까지 이르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창19:1-‘두 천사들이 저녁에 소돔에 왔다’=심판을 진행하는 방문.
창19:1-‘롯이 소돔의 (성)문에서 앉아 있었다’=선행의 선에 있는 이들, 그러나 악들 사이에서 외적 예배에 있는 이들,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이들.
창19:4-‘소돔의 사람들’=악들에 있는 이들.
창19:24-‘여호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향과 불이 비오듯 하게 하셨다’=자아 사랑의 악들과 그로부터 파생된 거짓들에 있는 이들의 지옥.
마10:15-‘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더 참을 수’ 있을 것이 다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해 생활의 악에 있는 이들, 그러나 주님과 말씀에 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이들, 그리고 그것들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이 뜻해진다.
계11:8-‘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우는 것’=두 지옥의 사랑들, 즉 자아 사랑으로부터 지배함을 사랑함

과 자신의 총명으로부터의 자만으로부터 통치를 사랑함, 이것들이 하느님이 한분이 있지 않은 교회, 주님이 예배되지 않는 교회, 십계명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는 이들이 있는 교회 안에 있다. ‘소돔’은 영적 의미에서 자아 사랑으로부터 지배를 사랑함을 의미한다.

겔16:46,47-이로부터 예루살렘은 소돔이라 불리울 뿐 아니라 소돔 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해진다...자아 사랑의 악이 소돔의 악이었다는 것...

소떼 (cattle)

가축떼 (cattle)

창4:20-‘천막에 거주하는 자의 조상이고 육축하는 자의 조상...’=천적인 것들, 그 이유는 그들=사랑의 거룩한 것들, 그리고 거기로부터 파생된 선들.

* ‘취득물’=진리인 이유,,,근원적 언어에서 ‘취득물’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소떼를 뜻하기 때문, 소떼가 양떼와 함께 언급되어 양떼가 선들을 의미할 때, 소떼는 진리를 의미한다

이30:23-‘소떼’=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창46:6-‘그들은 자기들의 소떼를 가져왔다’=진리로부터의 선들. ‘소떼’=진리로부터의 선. 그이유가 ‘소떼’에 의해서는 양떼들과 목축들 둘 다가 뜻해지기 때문, 그리고 또한 말, 낙타, 노새, 나귀 등도 뜻해진다. 내향의 의미에서 ‘양떼’=내면의 선들, 그리고 ‘목축들, herds’은 외면의 선들, 그러나 ‘말’, ‘낙타’, ‘노새’, ‘나귀’는 지적 부분에 속하는바, 이것들은 진리들과 연관이 있다. ‘소떼’=진리로부터의 선.

창46:32-‘그들은 소떼의 사람들(목부들)이기 때문에’=그들은 진리들로부터 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소떼’=진리의 선, 또는 진리들로부터의 선.

창46:34-‘당신은 말하십시오, 당신의 종들은 어린 시절로부터 지금까지도 소떼의 사람들이어 왔습니다’=그들은 시작으로부터도 선이 오는 진리들을 가졌고, 여전히 그 진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소떼의 사람’=선이 오는 진리들.

창47:6-‘너는 나에게 있는 소떼의 책임자로 그들을 세워라’=그들은 과학물의 제일 가는 것들이라는 것... ‘소떼’=선이 오는 진리들. 여기서는 이런 진리들이 있는 과학물들, 그이유는 ‘나에게 있는 소떼 위에...’라고 말

소리내어 울다-소리를 내다

해지기 때문. 즉 바로에게, 그를 수단으로 선이 있는 진리들은 표현되지 않는바, 이런 진리들이 있는 과학물들이다.

창47:16-‘너의 소떼를 주거라. 그리고 나는 네 소떼를 받고 너희에게 (곡식)을 줄 것이다’=그들은 진리의 선들을 제공하고 원조 받아 질 것이다. ‘소떼’=진리의 선들.

창47:17-‘양의 가축떼(cattle)’, ‘목축의 가축떼(cattle)’=진리의 내면, 외면의 선들.

출9:3-‘보라, 여호와와 손이 들판에 있는 너희 소떼 위에 있을 것이다’=그들이 교회로부터 가졌던 신앙의 진리들과 선들이 황폐해짐.

출9:4-‘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소떼와 이집트인의 소떼를 구분하실 것이다’=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로부터의 신앙 속의 진리들과 선들, 그리고 때지어 몰려드는 이들로부터의 신앙 속의 진리들과 선들 사이의 차이...‘소떼’=신앙의 진리들과 선들.

출9:19-‘그리고 지금 보내라, 그리고 너희 소떼를 그러 모으라’=선의 진리가 그러모아지는 것...‘소떼’=진리의 선, 그리고 또한 선의 진리.

창10:26-‘우리의 가축떼 또한 우리와 함께 갈 것이다’=진리의 선으로부터 예배할 것이다. ‘소떼’=진리의 선.

출17:3-‘나와 내 아들들, 그리고 가축떼가 목말라 죽게 하는 것’=진리의 결손으로부터 영적 생명 속의 모든 것은 종료될 것이다...‘아들들’=신앙 속 내면의 진리들, ‘소떼’=선이 와지는 외면의 진리들.

겔27:21-‘소떼’=사랑의 선들. ‘숫양 들’=선행의 선들. ‘수염소들’=신앙의 선들. 말씀에서 ‘양떼(flock)’, ‘소떼(cattle)’, ‘가축떼(cattle)’들이 언급되는 경우, 이는 원어에서 각각 고유의 이름에 의해 구별된다. 하여 ‘양떼’는 일반적으로 내면의 것들. ‘소떼’는 특수적으로 내적인 것들, ‘가축떼’는 특수적으로 가장 깊은 내면의 것들을 의한다. 그러나 목축(herd)떼는 외적인 것들이다.

이60:7-‘아라비아의 양떼’=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예49:32-‘소떼’=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시78:48-‘짐승들과 소떼’=악한 애착들, 또는 악한 사랑으로부터 근원되는 탐욕들.

이30:23-‘소떼’=인간과 더불어 선들과 진리들.

소리내어 울다 (wail)

마24:30-‘그다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소리내어 울 것이다’=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 깊은 슬픔에 있을 것이다.

마25:30-‘소리내어 울고 이를 깊이 있을 것이다’=다른 삶에서 그들의 상태. ‘소리내어 울’=악들에 관련되는 그들의 상태.

창50:10-‘그들은 거기서 극도로 크게 소리내어 울고 슬프게 소리내어 울었다’=슬픔...여기서는 슬픔의 시작...그이유가 선과 진리의 지식들이 선 안에 심어질 수 있기 전, 슬픔이 있다.

계1:7-‘땅의 모든 지파들이 소리내어 울 것이다’=이것은 교회 안에 어떤 선들과 진리들이 더 이상 있지 않을 때 있어진다.

계18:9-‘그들은 슬피울고 소리내어 울 것이다’=그들의 내면의 슬픔.

겔32:18-‘이집트의 군중 위에서 소리내어 운다’=그들의 지옥에 떨어짐 때문에 슬퍼함.

예25:33-‘그들은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회복은 없다...‘통곡함’=인간의 이와같은 상태 때문에 슬퍼함. 그리고 ‘통곡함이 없다’=인간이 회복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통곡함이 없다.

미1:8-‘이것 위에 나는 소리내어 울고 애곡할 것이다’=천사들과 교회의 사람들이 슬퍼함...

소리를 내다 (sound)

시47:5-‘하느님께서서는 쟁그렁 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셨다’=영적 선의 진리. ‘나팔 소리’=천적 선의 진리.

계8:7-‘천사가 소리를 냈다’=교회의 품질을 검사하고 밝히심. ‘소리를 냄’=탐사하고 명백히 함.

계11:15-‘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냈다’=주님으로부터 천국들을 통하여 신성한 진리가 유입됨, 그리고 그 결과 변화들이 이어진다.

겔1:24-‘큰 물들의 소리 같이 소리를 냈다’=천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품질.

소리치다 (cry)

창4:10-‘목소리가 소리침’, 또는 ‘소리치는 음성’은 말씀에서 공통적인 양식이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씨

소리치다

끄러움, 혼란함, 성가심, 심지어는 환호하는 즐거움에게조차 응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고발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42:11-‘산들의 머리로부터 외치는 것’=사랑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42:13-전쟁과 연결되는 많은 것들이 주님이 하신 것으로 말한다, 마치 이 구절의 ‘크게 외침’, ‘소리침’ 등의 경우이다.

창18:21-악으로부터 거짓, 악을 생산하는 거짓이 있을 때, 단어 ‘소리침’이 여기서 사용된다.

창19:5-‘그들이 롯에게 소리쳤다’=선을 향해 격노하는 악으로부터의 거짓...‘소리치는 것’은 거짓이라 단정된다.

마25:6-‘소리침’=변화.

골27:30-‘함성이 나가는 것’, 그리고 ‘호되게 소리치는 것’=거짓에 관해서, 또는 진리가 파괴된 것에 관해서 통곡함.

창39:14-‘그녀는 집안의 사람들에게 소리쳤다’=거짓들.

창39:14-‘나는 큰 소리로 소리쳤다’=협오함.

창41:43-‘그들은 그 사람 앞에서 소리쳤다, 무릎을 꿇어라’...‘소리치는 것’=신앙을 통하여 인정함.

창41:55-‘백성들이 바로에게 빵을 위해 소리쳤다’=진리를 위해 선이 필요하다.

예48:31,32-‘소리내어 우는 것’, ‘소리치는 것’, ‘우는 것’=자비를 가지는 것, 그리고 ‘슬프게 하는 것’

창45:1-‘(요셉)은 소리쳤다’=결과가 가까웠다는 것.

출2:23-‘(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소리쳤다’=조사함.

출2:23-‘그들의 소리침이 하나님에게까지 갔다’=자비의 원조. ‘소리침’=그들로부터 들려졌다..

출3:7-‘나는 그들의 소리침을 들었다’=자비의 원조. ‘소리침’=조사함.

출5:8-‘그러므로 그들은 소리친다’=그들의 큰 생각... ‘말함(saying)’ 그리고 ‘이야기함(speaking)’=생각, 그러므로 그런 ‘소리침’이 있다. 그러나 ‘소리침’=진지하게 생각함.

출5:15-‘그들은 바로에게 소리쳤다’=분노가 나열되었다.

출11:6-‘이집트의 온 땅에 큰 소리침이 있을 것이다’=내면의 통곡.

출14:15-‘왜 너는 나에게 외치느냐?’=중재할 필요가

없다.

출15:25-‘그는 여호와께 소리쳤다’=슬픔으로부터 주님께 애원함.

출17:4-‘모세가 여호와께 소리쳤다’=내면의 탄식, 그리고 중재함.

출22:22-‘만일 그가 나에게 소리치면’=도움을 받으려 주님께 애원함.

출22:22-‘나는 그들의 소리침을 들을 것이다’=그들은 도움을 받으리라는 것.

출32:18-‘소리치는 음성은 승리가 아니다, 그리고 소리침의 음성은 잃어진 것도 아니다’=천국은 이쪽에서 행동하고, 그리고 지옥은 다른 쪽에서 행동한다는 것, 고로 거짓이 진리에, 진리가 거짓에 맞선다는 것. ‘소리침의 음성’, 또는 ‘함성을 지름’이 국가의 내면들의 품질.

예47:2-‘사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리고 토지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을 것이다’=교회 안에 모든 진리와 선이 결핍됨.

계6:10-‘그들은 큰 음성으로 소리쳤다’=심정이 슬퍼함.

계10:3-‘사자가 으르렁거리듯 큰 음성으로 소리쳤다’

계14:15-‘구름에 앉으신 그분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치기를’=천국의 천사들이 주님에게 탄원함.

계18:18-‘그들은 소리쳤다’=그들의 슬퍼함.

계19:17-‘큰 음성으로 소리쳤다’=신성한 열정으로부터.

계21:4-‘소리침’=지옥으로부터의 거짓들 때문에 두려워함.

예49:21-‘소리침’은 악의 정죄, ‘음성’은 거짓의 정죄에 관해 말해지고 있다.

계7:2-‘그는 큰 음성으로 소리쳤다’=신성한 명령...‘소리침’은 사랑의 선이라고 단정된다.

계7:10-‘큰 목소리로 소리침’=진리의 선으로부터 숭배함, 그리고 그 결과로 심정의 환희가 있음.

이43:14-‘배들 안에서 갈대아인들의 소리침’=그들의 교리적인 것들의 파괴.

시144:14-‘우리쪽 구역에는 소리침이 없다’=그들의 부족에 관련해 어떤 애석해함이 어느 곳에도 없다.

소문 (rumour)

마24:6-‘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 (=진리들에 관하여 토론하고 논쟁함, 그리고 그 결과 왜곡함)

소문-소비하다 -소안-소알-소유하다

소비하다 (consume)

창19:17-‘네가 소비되어짐(멸해짐)을 당하지 않도록’=그렇지 않을 경우 멸해질 수 밖에 없다.

창47:15-‘은이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다 소비되었다’=진정한 과학물이 교회에서와 자연 평면에서 더 이상 보여질 수 없었다.

출3:2-‘덤불은 전혀 불살라지지 않았다’=신성한 사랑의 선에 의해 흠어지지 않는 것.

계20:9-‘불이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소비했다’=그들은 지옥의 사랑으로부터의 현세에의 강한 욕망에 의해 멸해졌다.

신7:16-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에 맞서는 악들과 거짓들의 사라짐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긴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할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었다.

시37:20-‘그들은 소진될 것이다, 연기 안으로 그들은 소진 될 것이다’=그들은 악의 거짓들을 통하여 멸해질 것이다.

이32:10-‘포도 수확은 사라질 것이다’=교회의 진리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겔23:25-‘네 후손은 불로 다 소진될 것이다’=나머지가 지상적 사랑을 통해 멸해질 것이다.

슌1:3-‘하늘들의 새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소진하는 것’=영적, 그리고 자연적 애착을 파괴하는 것.

소안 (Zoan)

이19:13-‘소안의 군주들, 이집트의 슬기있는 조안자들’=제일 가는 과학물들.

이30:4-‘그의 군주들이 소안에서 있었을 때’=왜곡된 진리들, 고로 거짓들.

소알 (Zoar)

창13:10-‘소알에 이르는 이집트의 토지 같이’=선에 애착함들로부터의 과학물들...‘소알’=선에 애착함.

창13:10-소알은 소돔으로부터 멀지 않은 성이었다...그리고 그 외에도 ‘소알’은 창14:2,8, 신34:3, 이15:5, 예48:34에서도 언급되는데...소알=애착. 그리고 소알=선에 애착함 인 바, 반대 의미에서 소알=악에 대한 애착.

창14:2-‘벨라, 즉, 소알 왕’=악의 탐욕과 설득.

창19:20-‘(이 성은) 아주 작다’=진리가 조금 있다.

창19:21-‘나는 이 성(소알)을 전복하지 않으리라’=인간 안에 진리가 있고 이 진리 안에 선을 가지고 있다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창19:22-‘그러므로 그는 이 성을 소알이라 불렀다’=진리에 애착함 ...진리에 애착함에 있는 이들은 진리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이유는 그들은 선에 애착함에 비교하면 선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창19:23-‘룻은 소알로 왔다’=진리에 애착함에 있는 이들은 구원되어진다. 그이유가 ‘소알’=진리에 애착함.

창19:30-‘룻은 소알로부터 올라갔다’=그들이 진리에 애착함에 더 이상 있지 않았을 때,...그이유는 진리로부터의 모든 선이 황폐되었기 때문.

창19:30-‘그들은 소알에 거주하기가 두려웠기 때문’=그는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선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었기 때문. ‘소알’=진리에 애착함, 그리고 이것이 황폐되었을 때, 선을 찾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소유하다 (possess)

창14:19-‘하늘들과 땅의 소유자’=내적 인간, 또는 여호와께서 내면, 또는 외면의 인간과 결합함.

창17:8-‘영원한 소유를 위해’=영원인 것. 그들이 ‘소유자’, 또는 ‘상속자’라 불리우는데, 이는 그들의 공적 때문이 아니라 자비 때문이다.

이54:3-‘소유하는 것’은 천적 선이라 단정된다.

창23:4-‘나에게 무덤을 소유하게 해주시오’=그들은 거둬나질 수 있다는 것.

창34:10-‘토지에서 너희는 소유하라’=하나를 만드는 것, 고로 함께 동의하는 것.

겔38:12-‘소유’=선.

창47:11-‘그는 그들에게 이집트 토지에서 소유권을 주었다’=자연적 마음 안에 영적 생명이 고정된 상태.

창48:4-‘영원한 소유’=주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

출15:16-‘당신이 소유하셨다’=고로 주님의 것이 된 누구.

마10:9-주님으로부터 선들과 진리들에 있는 이들은 자신들로부터의 선과 진리는 하나도 소유하지 않는다. 자아로부터 선들과 진리들이 ‘금, 은, 등을 소유하는 것’에서 의미된다.

소합향-소회향-속박-속옷-속이 비지 않은-속이 빈-속임-속죄-속죄소

계21:7-‘극복하는 자는 모든 것들을 상속적으로 소유 할 것이다’=천국 안으로 올 것이라는 것, 그다음 주님 으로부터 거기 있는 선들을 소유한다는 것.

시139:13-‘신장을 소유하는 것’=인간과 더불어는 거짓들 과 진리들을 아는 것.

소합향 (stacte)

창37:25-‘낙타들이 소합향을 운반한다’=내면의 선들.

창43:11-‘밀납과 소합향=자연 평면의 내면으로부터의 선의 진리들...’소합향=선으로부터의 진리. 소합향=자연 평면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인 이유는 이 향신료는 ‘수지(resin)’나 ‘꿀’보다 더 순수하기 때문.

출30:34-‘소합향’=감각적 진리에 애착함. ‘소합향’=감각적 진리. 소합향=이 진리에 애착함 인 이유는 그 향신료의 향기 때문.

창37장, 43장-‘소합향’=감각적 진리에 애착함이라는 것은 말씀의 다른 구절로부터 확증되어질 수 없다, 그 이유는 이것이 그밖의 구절에서 언급되지 않기 때문. 그러나 또다른 종류의 소합향, 이는 다른 히브리 단어 에 의해 표현되어졌는데, 이것이 창37, 43에 있다.

소회향(fitches, black cummin)

이28:25-‘소회향과 대회향’=과학물들. 그 이유는 이것 들은 인간이 총명을 받기 위하여 배워지는 첫 번째 것 이기 때문.

이28:25-땅의 얼굴을 평평히 하는 것, 그리고 소회향 을 흠뿌리는 것’=말씀을 수단으로 준비하는 것.

속박 (bond)

* 묶다(bind)를 보라.

속옷 (vestment)

* 의복(garment)을 보라.

속이 비지 않은 (solid)

출25:31-‘속이 비지 않은’=전부(wholly).

속이 빈 (hollow)

출27:8-‘너는 그것을 판자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적 용(application)

속임 (deceit)

이53:9-‘그의 입에는 속임...’은 이해성 속의 것들에 관 해 말해진다.

계14:5-‘그들의 입에서는 어떤 속임도 발견되지 않았 다’=그들은 교묘하게 연구한 것들로부터, 그리고 거짓 과 악으로부터 말하여 설득하지 않는다.

시72:14-‘주님께서는 그들의 혼을 속임과 폭력으로부터 되찾을 것이다’=사랑의 선들과 신앙의 진리들을 과 괴하는 악들과 거짓들로부터 건져내심.

시5:6-‘피들과 속임의 사람’=악으로부터 거짓들에 있 는 이들.

습3:13-‘속임’=진리에 무지함으로부터가 아닌 속이려 하여 계획적으로 의도한 거짓, 이는 사악한 자의 경우 와 같다.

욥13:7-‘불법’=악에 관련하여, ‘속임’=거짓에 관련하 여.

예14:14-의도로부터 행해진 이것이 ‘심정의 속임’에 의 해 뜻해진다.

호11:12-‘속임’에 의해 의도로부터, 그리고 또한 선동 하는 탐욕으로부터 말씀 속의 진리들을 왜곡함이 뜻해 진다는 것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가문은 속 임으로 나를 에워쌌다...’ 그러므로 ‘거짓말’과 ‘속임’=의 도와 탐욕으로부터 거짓들을 설득해냄.

시120:2-‘거짓의 입술, 그리고 속임의 혀’=악으로부터 의 거짓들.

속죄 (propitiation)

속죄소 (propitiatory)

출25:17-‘너는 순금으로 속죄소(자비석)를 만들어라’= 사랑의 선들로부터 예배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받으 심. ‘속죄소’=악들로부터 깨끗해짐, 또는 죄의 면제, 결 과적으로 예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음과 받음이다 는 것은 속죄(propitiation, expiation)가 언급되는 말씀 의 여러 군데로부터 분명해진다. 그리고 속죄=예배의 모든 것들을 받으심인 이유는 속죄되어진 이들, 즉 악 들로부터 깨끗해진 이들만에게서 들으시기 때문....그러 므로 아론은 그가 자신과 백성들을 깨끗하게 할 때 까 지 속죄소에 접근함이 허용되지 않았다.

출29:36-‘죄의 수소를 너는 속죄들 위에 바치라’...‘=악 과 그로부터의 거짓들이 제거된 후, 주님으로부터 사랑 의 선과 신앙의 선을 받음.

출29:36-‘그것 위에서 너 자신을 속죄하면서’=주님으

속죄 염소-속죄하다

로부터 선을 받는 능력. (그이유가) '제단 위에서 속죄하는 것'=악들과 악들로부터의 거짓들을 제거함 이후, 주님께 의해 선이 심어짐, 그리고 인간과 천사는 그것을 받음.

출29:37-'칠일 동안 너는 제단 위에서 속죄하라'=천국과 교회 안으로 유입됨이 충분한 것... '속죄하는 것'=악들과 이로부터 파생하는 거짓들로부터 순수해짐.

출34:9-'우리의 불법에 호의(propitius)를 베푸시고...'=그들의 내면들이 제거될런지 모른다는 것.

속죄 염소 (scape goat)

* 염소(goat)를 보라

레16:5-34-('속죄 염소')=순수해지지 않은 자연적 인간. 그리고 갖가지의 불결한 것들과 탐욕들로 꽉 차있는 자연적 인간(속죄 염소)은 진영으로부터 고립된 토지와 황야로 내보내는 바, 이 염소는 이 교회의 모든 자의 죄들과 불법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고립된 토지와 황야'=지옥. 아론이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놓고 죄들을 고백함은 전달과 이동을 표현하고 있다. 그이유가 인간이 순수해지거나 죄들로부터 속죄되거나 할 때, 이와같이 행동되기 때문. 그다음 죄들은 지옥으로 보내진다, 그리고 선과 진리에 애착함이 죄들이 있었던 장소에 심어진다.

속죄하다 (expiate)

출21:30-'만일 속죄함이 그에게 놓여진다면'=그가 저주됨을 피하게 되는 것... 그이유가 속죄함은 의도심이나 교활함으로부터 악을 행한 것이 아닌 이들 위에 놓여졌기 때문. 그리고 속죄함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그 당시 그의 혼을 되찾음이라 불리웠다. 그이유가 생명이 속죄함에 의해 되찾아졌기 때문... 속죄함은 지옥에 떨어짐으로부터 건져짐을 의미했는 바, 속죄함은 죄들을 용서함, 이로부터 깨끗해짐 역시 의미했다.

민19:9-'분리함의 물 그리고 속죄함의 물'=말씀으로부터 진리들과 선들을 수단으로 악들과 거짓들로부터 물러나고 깨끗해짐.

레16장-여호와이신 신성한 선으로부터 주님의 인간을 신성화하심이 아론이 베일 안쪽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속죄하는 과정에서 묘사되고 있다.

출29:33-'그들은 속죄된 것이 있는 것에서 이런 것들

을 먹을 것이다'=악들과 거짓들로부터 순수해진 이들이 선을 자기것 되게 함... '속죄된 것'=악들과 거짓들로부터 순수해진 것.

출30장-'은으로 모든 이 각각을 속죄함은 예배의 모든 것은 자아로 돌릴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께로 돌림, 하여 누구도 공적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의미된다.

출30:10-'아론은 향제단의 뿔을 속죄한다'=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신앙의 진리들을 통하여 악들로부터 순수해짐. '속죄하는 것'=악들로부터 깨끗해짐.

출30:10-'죄의 속죄함들의 피로'=순신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죄의 속죄함들', 또는 죄의 재물을 통하여 속죄함이 있는 것=악들과 거짓들로부터 순수해짐.

출30:12-'그들은 모든 이 각각에게 그들을 계수함에서 자기 혼의 속죄를 줄 것이다'=그들의 정돈함과 배열함과 함께 신앙과 사랑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은 인간으로부터서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주님으로부터서 있다는 것을 인정한 신앙을 통하여 악으로부터 건져짐, 또는 순수해짐. '그의 혼의 속죄를 주는 것'=순수해지는 것, 또는 신앙의 진리를 통하여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여기서의 경우, 이는 모든 진리들과 선들은 주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인정함.

출30:15-'너희의 혼들을 속죄하는 것'=악들이 제거되기 위하여. (그이유가) '그들의 혼들이 속죄되는 것'=순수해지는 것, 또는 신앙의 진리를 통하여 악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출30:16-'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the Sons of Israel)과 더불어 있는 속죄들의 은을 가져가라'=선으로부터 교회 속에 있는 진리들이 순수해짐...고로 '속죄들의 은'=순수해지는 (교회 속의) 진리.

출32:30-'아마도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 속죄를 만들런지 모른다'=아주 완전히 돌아서버린 이들에게 주님의 신성한 권능의 가능성. (그이유가) '속죄하는 것'=그것이 더 이상 곰곰이 생각되지 않는 것, 고로 그들의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졌고 들으셨다는 것. 속죄, 또한=예배의 모든 것들을 들음과 받음.

창32:20-'(에서의) 얼굴을 속죄하는 것'=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손

레17:11-악들과 거짓들로부터의 모든 해방이 속죄인데, 이는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이 진리에 따른 생활을 수단으로 결과되기에, '너희의 혼들을 속죄하려고, 그이유가 혼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40:2-'불법이 속죄되었다'=악이 주님에 의해 제거되었다.

손 (hand)

암5:19-'벽에 손을 (댐)'=자신의 힘, 그리고 감각적인 것들을 신뢰함, 그리고 그 결과 눈 멀음, 이것이 묘사되어지고 있다.

창8:9-'그가...자기 손을 내밀었다'=자기로부터의 힘... '손'=힘; 고로 여기서의 경우, 자신의 힘으로부터 그가 (행동했다).

* '손'에 의해 권능이 의미되는바, 또한 (주님의) 힘,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신뢰함.

* '손'=자기의 힘

이37:27-'손이 짧다'=힘이 없다

이45:9-'그는 손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그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창9:2-'이것들이 내 손 안으로 주어질 것이다'=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을 점유함.

시6:8-'손'=의지, 그 이유는 손=힘이기 때문. 힘은 의지 속에 있다.

이31:7-'너의 손들이 그것들을 만들었다'=그들이 자아로부터 있다는 것.

창14:22-'나는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올렸다'=주님에게 있었던 마음의 상태...여호와께 손을 들어올림은 마음 속의 애착에 상응하는 몸짓이다...그러므로 여기서, 손을 들어올림=마음, 또는 마음 속의 애착.

창16:6-'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 안에 있다'=이 합리성은 선에 인접된 진리에 애착함의 힘 아래 임신되어 졌다는 것. '손'=힘.

창16:9-'그녀의 손 아래에서 네자신을 겸허하게 하라'=그것의 힘 아래 그자체 있도록 강요되어야 한다는 것.

창16:12-'그의 손은 모든 이와 맞서 있을 것이다'=합리적 인간은 진리이지 않은 것과 싸울 것이다. '모든 이

의 손이 그에게 맞설 것이다'=거짓들이 되돌아 싸울 것이다.

레21:19-'발과 손이 부러진'=외적 예배를 남용하는 이들.

창19:10-'사람들이 그의 손을 내밀었다'=주님의 강력한 원조... '손'=힘.

창19:16-'사람들은 그의 손을, 그의 아내의 손을, 그의 두 딸의 손을 붙잡았다'=주님께서는 악들을 강력하게 보류되게 하셨고, 선과 진리들은 강해지게 하셨다... '손'=힘.

창20:5-'제 손의 흠없음에서 나는 이를 행했습니다'=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고로 모두 각각의 능력으로부터... '손'은 진리라고 단정된다, 그리고 손=힘, 고로 능력(faculty).

창21:18-'네 손이 그를 강해지게 하라'=거기로부터 받쳐줌... '손'=힘, 이는 받쳐줌 속에 있다.

창22:10-'아브라함은 자기 손을 내보냈다'=마지막 힘에 까지 조차 있는 시험... '손'=힘, 여기서의 경우, 마지막 힘, 그이유는 행동 밖에 더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

시89:25-'바다에 손을 두는 것, 그리고 강들에 오른손을 두는 것'=강해짐은 지식들 안에,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들 안에 있다는 것. '손', 그리고 '오른손'=강해짐.

창24:2-'네 손을 내 넓적 다리 아래에 놓아라'=결혼 사랑의 선으로부터의 힘에 관련하여 그 원인으로 묶음. '손'=힘...또는 할 수 있는 만큼.

창24:10-'그의 손에 그의 주인의 모든 선'=그와 더불어 그들의 선들과 진리들... '손'=힘, 고로 그와 더불어 것들.

창24:18-'그녀는 자기 손 위에 그녀의 물동이를 내려 놓았다'=권능으로부터 받아들임에 복종함.

창24:22-'그녀의 손 위에'=진리에 애착함의 힘. '손'=힘.

창24:30-'그가 자기 여동생의 손들에 있는 팔찌와 펜던트(pendant, 목걸이, 귀고리)를 보았을 때'=그가 진리에 애착함의 힘에 있는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를 통각했을 때... '손'=힘.

창25:26-'그의 손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있었

손

다'='자연적 선의 가장 낮은 것에 어떤 힘이 들러붙어 있다. '손'=힘.

창27:16-'그의 손 위에'=받는 능력에 따라서. '손'=힘, 고로 받는 능력.

창27:22-'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이고, 손은 에서의 손이다'=지적 평면은 진리 속에 있는데, 이것이 안쪽에 있고, 자발적 평면은 선 속에 있는데, 이것이 바깥쪽에 있다는 것 (사실 상 거꾸로 된 질서)...'목소리'=진리를, '손'=선을 서술한다...'손'이 선이라 단언되는 이유는 '손'에 의해 힘과 능력이 의미되기 때문. 이것은 선외에 다른 근원은 없다. 진리에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은 선으로부터 있다.

창30:35-'그는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주었다'=이런 것들이 진리들에 주어졌다는 것...'그들의 손에 주는 것'=그들의 재판권과 처분 권한 아래로. 그이유가 '손'은 힘을 의미하기 때문.

출31:29-'너에게 악을 행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그가 힘을 가졌다면 분함의 상태. '손'=힘.

창31:39-'당신은 그것을 내 손으로부터 요구했다'=그것은 그분 자신으로부터 엮다는 것. '손'=힘, 고로 그것은 그분 자신으로부터 엮다는 것. 그이유가 그분의 힘으로부터인 것은 그분자신으로부터 이기 때문.

창32:16-'손에 주는 것'=힘과 더불어 가르치는 것. '손'=힘.

창35:4-'그들의 손에 있었던 (것)'=가능한한 많게. 그이유가 '손'=힘. 이로부터 '손에 있는 것'=힘 안에 있는 것, 또는 가능한한 많이.

창37:27-'그에게 우리의 손이 있게 하지 말자'=그들은 책임지지 않고 있을 런지 모른다는 것.

창38:18-'당신의 손에 있는 당신의 지팡이'=이 진리로부터의 힘...'손'=힘.

이36:6-'그것이 들어가 찌르는 손'=말씀으로부터의 힘.

창38:28-'그는 그의 손을 주었다'=힘.

창38:29-'그가 그의 손을 뒤로 당겼을 때'=그가 그의 힘을 숨겼다는 것.

창39:4-'그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그는 그의 손에 주었다'=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마치 자신의 힘인 듯 있었다는 것. '손'=힘. 고로 '그의 손에 주는 것'=그의 힘

에. 그러나 이것이 외관상으로 행해질 때, 이는 마치 그의 힘인 듯이라 말해진다.

창40:11-'바로의 컵이 그의 손에 있었다'=자연 평면의 내면이 자연 평면의 외면으로 유입됨, 그리고 받아들임이 시작됨...'내 손에'=그(him)와 더불어.

창41:35-'바로의 손 아래'=자연 평면에서 필요함과 처분함을 위해. '손'=힘, 그러므로 '손 아래'=모든 필요함에서 처분을 위해. 그이유가 누군가의 힘에 있는 것은 그의 처분 권한에 있기 때문.

창41:42-'바로는 그의 반지를 자기 손에서 제거했다 (뺐다)'=그것이 전에 가졌던 힘에 관하여 확증함...'손'=힘.

창41:42-'그는 그것을 요셉의 손에 주었다'=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에 모든 것을 양도했다는 것.

창42:37-'내 손에 그를 주소서'=그의 힘이 닿는 만큼. '손'=힘.

창43:9-'나의 손으로부터 당신은 그를 요구하십시오'=그것이 힘 안에 있는 한 억지로 떼어내지지 않을 것이 다는 것. '손'=힘.

창43:12-'너희 손에 은을 두 배로 가져가라'=진리가 힘들 안에서 받아들였다...'손'=힘...힘에 있는 진리는 받는 능력에 있는 진리이다. 고로 능력들에 따라서. 그러나 진리를 받는 힘 또는 능력은 모두 선에 따라서 있다.

창43:26-'그들은 자기들의 손에 있는 선물을 집으로 그에게 가져왔다'=가능한 만큼 은근히 심어줌.

창47:29-'네 손을 내 넓적다리에 놓아라'=거룩한 묶음...'손'=힘.

창48:17-'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그의 불명료한 통각함의 힘 안으로 유입됨...'손'=힘.

창49:24-'그의 손의 무기는 강력해졌다'=싸우기 위한 기세의 힘. '무기', 또는 '손'=힘...여기서는 싸움에 관련된다.

창49:24-'강력한 야곱의 손에 의해'=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전능하심. '손'=힘,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주님이 취급되는바, 전능하심.

출2:19-'목자의 손으로부터 구해주는 것'=그는 악으로부터의 거짓을 압도했다는 것...'손'=힘.

출3:8-'나는 이집트인들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하려

손

고 내려왔다' = 왜곡된 과학물로부터 그들을 데려가려고 그들에게로 그분 자신을 내려오게 하셨다... '손' = 힘.

출3:19 - '그리고 강력한 손으로가 아니면' = 영적 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힘이 그들에 맞서 우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손' = 힘.

출3:20 - '나는 내 손을 보낼 것이다' = 신성으로부터의 힘. '손' = 힘.

출4:2 -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지팡이입니다' = 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힘. '손' = 힘.

출4:4 - '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것의 꼬리를 잡아라' = 감각 평면의 최말단으로부터 승강하는 힘. '손' = 힘.

출4:6 - '네 손을 내 가슴에 놓아라' = 진리를 자기 것 삼음. '손' = 힘.

출4:6 - '그의 손은 눈 같이 나병이 있었다' = 진리의 모독. '손' = 힘. 그리고 진리, 그이유가 영적 힘은 진리에 있기 때문.

창4:17 - '너는 내 손 안에서 이 지팡이를 가져가라' = 그들에 있는 신성한 힘... '손'에 의해 영적인 힘이, '지팡이'에 의해 자연적인 힘이 각기 의미된다. 영적 평면으로부터가 아니면 자연 평면에는 어떤 힘도 있지 못하듯, 지팡이가 손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힘도 지팡이에 있지 않다. 그런 이유로 '내 손에서 지팡이를 가져가라' 하고 말해진다... '손', 이것이 주님께 관련해 서술될 때 = 그분의 신성한 합리성으로부터 진행되는 힘. 그리고 '지팡이' = 그분의 신성한 자연성으로부터 진행되는 힘.

출4:21 - '내가 네 손에 놓는 모든 징조들을 본다' = 영적 평면으로부터 힘의 수단들... '손' = 영적인 힘.

출6:1 - '강한 손 때문에 그는 가라고 할 것이다' = 모든 힘과 능력으로 그들은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강한 손' = 모든 능력과 힘. '손' = 힘.

출6:8 - '내가 내 손을 들어올렸던 토지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 신성한 힘으로부터 천국으로 승강함... '손을 들어올리는 것', 여호와에 관해 말해질 경우, = 신성한 힘으로부터. '손' = 힘.

출7:4 - '나는 이집트인들 위에 내 손을 보낼 것이다' = 그러므로 그들은 신성한 힘에 의해 강요당할 것이다. '손' = 힘. 그리고 여호와가 자신에 관해 말하실 때, 그리고 '그분의 손'이라고 말하실 때, 그것 = 신성한 힘.

출7:5 - '이집트인들 위에 내 손을 뻗음에서' = 그들이 스스로 신성한 힘에 주목할 때. '손' = 신성한 힘.

출7:15 - '손' = 힘, 그러나 영적인 힘, 이로부터 '지팡이'인 자연적 힘이 있다.

출7:19 - '지팡이를 가져가고 손을 뻗는 것' = 자연 평면을 통하여 영적 힘을 실행하는 것.

출8:5 - '네 지팡이를 가지고 네 손을 뻗는 것' = 외적 진리를 통하여 있는 내적 진리의 힘. '손' = 영적인 힘. 이는 내적 진리 속에 있다. 그리고 '지팡이' = 자연적 힘, 이는 외적 진리이다.

요13:9 -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손'에 의해 자연 평면 속의 내면이 의미된다.

출9:15 - '내가 내 손을 내밀 것이다' = 모든 소통함이 거두어질 것이다. '손' = 힘, '여호와와 손' = 전능, '손을 내미는 것' = 힘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전능하심으로부터 그것을 행하시는 것.

출9:22 -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뻗어라' = 주의함과 천국에 접근함.

출9:35 - '모세의 손에 의해' = 신성으로부터의 법을 매개 수단으로 하여.

출10:12 - '네 손을 뻗는 것' = 힘의 지배.

출10:25 - '그의 손에 주는 것' = 남겨두는 것.

출12:11 - '네 손에 네 지팡이' = 수단들에 관련하여.

출13:9 - '네 손 위에서 표시를 위해 네게 있을 것이다' = 그것은 의지 안에 영구히 있을 것이라는 것... '손' = 힘, 여기서는 의지, 그 이유는 손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행동과 힘은 의지로부터 진행하기 때문.

출13:9 - '여호와와 강한 손' = 주님의 신성한 힘.

출14:8 - '이스라엘 후손들은 높은 손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갔다' = 그들은 자기들을 복종시키려 하는 그들의 노력으로부터 신성한 힘에 의해 자유로워졌을 때... '높은 손' = 신성한 힘. '손' = 힘, '높은' = 신성인 것.

출14:16 - '네 손을 바다 위로 뻗어라' = 악으로부터 거짓의 지옥이 있는 곳을 권능이 다스림. '손을 뻗는 것' = 권능의 지배.

출14:30 -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해내는 것' = 악으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이들의 폭력으로부터 방어해주는 것.

출14:31 -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하셨

손가락-손바닥

던 위대한 손을 보았다'=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함...

출15:9-‘내 손이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힘으로부터 천국이 파괴될 것이다.

출15:17-‘오, 주여, 당신의 손이 성소를 준비하셨습니다’=천국, 거기는 주님으로부터 신앙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이 있는 곳이다...‘당신의 손이 준비하셨다’=천국은 주님으로부터 있다는 것.

출17:9-‘네 손에 있는 하느님의 지팡이’=거기로부터 힘이 있다는 것...‘지팡이’는 외면의 힘, ‘손’은 내면의 힘, 또는 ‘지팡이’는 자연적 힘, ‘손’은 영적인 힘을 의미한다.

출17:12-‘모세의 손이 무거워졌다’=주님쪽으로 위쪽을 향하여 쳐다보는 힘이 실패했다. ‘손’=신앙 속에 있는 힘.

출17:12-‘그의 손은 고정되었다’=그다음 힘이 강해짐.

출17:16-‘손이 야훼(Jah)의 왕좌에 맞서 있기 때문’=그들은 주님의 영적 왕국에 폭력을 휘두르기를 원했기 때문.

겔1:8-‘그것들의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을 닮은 것’=전능함이 신성한 진리에 의해 소유되었다.

출19:13-‘손이 그것을 만지지 말 것이다’=어떤 자기 확증을 수단으로 자신들을 끼워넣어지게 하려는 이들.

마5:30-거짓의 현세에의 강한 욕망이 ‘오른손이 말뚝을 부림’에 의해 뚝뚝하고 있다. ‘손’은 진리 속에 있는 힘, ‘오른손’은 선으로부터의 진리 속에 있는 힘. 반대 의미에서, 악으로부터 거짓 속의 힘.

출21:16-‘그의 손에서 발견했다’=여전히 신앙의 진리를 인정함. ‘손에서 발견되는 것’, 신앙의 진리에 관해 말해질 때,=인정함. 그이유가 그것이 어떤 신앙과 더불어 인정되어질 때, 그것은 그와 더불어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 ‘그의 손에서’=그(him)와 더불어.

출21:20-‘그가 그의 손 아래 죽는다면’=그가 보는데에서 소멸되어지는 것...‘그의 손 아래’=봄(view)에서. 그이유가 ‘손’=영적 진리 속에 있는 힘, 고로 이 힘은 봄 속에 있다. 그이유가 봄은 이 진리로부터 결과되기 때문, 통각함(apperception)이다...

출21:24-‘손에는 손’=만일 영적 진리의 힘의 어떤 것이 (그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면). ‘손’=진리로부터

있는 힘.

출22:4(또는 22:3)-‘만일 그의 손에서 장물이 발견된다면’=만일 선과 진리의 남아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를 통하여 복구됨이 만들어질지 모른다는 것.

출22:8-‘그가 자기 동료의 일에 자기 손을 놓았는지 여부’=그가 그것 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 ‘그가 자기 손을 놓았는지 여부’=그가 자신의 판단과 힘으로 선을 만들었는지 여부.

출23:1-‘너는 네 손을 사악한자와 더불어 놓지 마라’=악의에 찬 행위에 순종 말 것.

출23:31-‘나는 토지의 주민들을 네 손 안으로 줄 것이다’=악들을 극복하라는 명령.

손가락 (finger)

출8:19-‘이것은 하느님의 손가락이다’=힘이 신성으로부터이었다는 것...‘손가락’=힘.

출29:12-‘너는 그것을 네 손가락을 가지고 제단의 뿔들에 놓아라’=자아로부터 주님의 신성한 힘...‘손가락’=힘.

출31:18-‘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돌판들’=거기에 주님 자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

손바닥 (palm)

창8:9-‘비둘기는 자기 발바닥이 쉴 곳을 찾지 못했다’=신앙 속의 선과 진리가 아직 뿌리를 갖지 못했다.

겔29:7-‘손바닥으로 가져가는 것’=신뢰하는 것.

창31:42-‘하느님께서서는 내 손바닥의 수고함들을 보셨다’=모든 것들은 그분 자신의 힘에 의해 그분 자신으로부터 었다는 것...‘손바닥들의 수고함들’=시험들...‘손바닥’, 또는 ‘손’=힘.

창32:25-‘그는 그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을 건드렸다’=영적 선의 천적 측면이 야곱에 의해 의미되는 자연적 선과 결합하는 곳...‘속이 빈’, 또는 넓적다리의 관골구(acetabulum), 우묵한 곳=결합이 있는 곳.

출4:4-‘그것은 그의 손바닥에서 막대기가 되었다’=그 당시 힘이 신성으로부터 전달되어졌다는 것...‘손바닥’=내면의 힘.

겔1:7=외적 또는 자연적 선이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았다’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그이유가 ‘발바닥’=자연적 인간에서 최말단인 것들.

손자 - 손톱 - 솔로몬 - 송곳 - 송백 - 송아지

출29:24-‘너는 아론의 손바닥 위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모든 것을 놓을 것이다’=이런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이다는 것을 천국들이 인정함.

출33:22-‘나는 내가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덮을 것이다’=교회의, 예배의, 말씀의 내적 측면을 단으심...그이유가 ‘손바닥으로 덮는 것’은 여호와와 얼굴과 영광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

출33:23-‘그리고 나는 내 손바닥을 제거할 것이고, 너는 내 뒤 부분을 볼 것이다...’=그들은 말씀의, 교회의, 예배의 외적 부분들을 볼 것이다.

왕하19:24-‘앗수르왕의 보행(steps)의 발바닥’=감각적인 것과 이로부터 파생하는 추론, 이것은 오류들 만으로부터 이다.

이1:6-‘발바닥으로부터 머리까지, 온전하지 않다’=자연적, 영적인 것 모두가 파괴되어졌다.

손자 (grandson)

창21:23-‘내 아들과 더불어, 내 손자와 더불어’=신앙 속에 있는 것들에 관련하여.

손톱 (nail)

* 발톱(nail, claw)을 보라

신21:12-‘그녀는 자기 손톱을 만들 것이다.’ 거것들로부터 순수해짐이 ‘발톱을 만듦(손질함)’에 의해 의미된다.

솔로몬 (solomon)

왕상10:1,2-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다...여기서 솔로몬은 주님이다.

* 다윗은 세상 안으로 오시려하는 주님을, 솔로몬은 그분의 오심 이후 주님을 표현하였다.

왕상4:20-솔로몬에 의해 천적 왕국과 영적 왕국에 관련된다는 주님이 표현되어졌다.

송곳 (awl)

출21:6, 신15:17-‘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내는 것’=영구히 삼키는 것, 또는 순종하는 것. 영적 의미에서=참된 것을 이해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 것, 그러나 순종으로부터 참된 것을 뜻하는 것, 이는 상대적 으로 자유하지 못하다.

출21:6-‘귀’=순종, 그리고 ‘그것을 송곳으로 뚫는 것’은

그가 남아있어야 하는 상태의 표현.

출21:6-‘문, 또는 문설주에서 송곳으로 뚫는 것’=참부 하는 것, 여기서, 순종이 다루어진다, 이것은 붙이는 것이다.

송백 (cedar)

* 삼목 (cedar)을 보라.

송아지 (calf)

암송아지 (cow-calf)

* ‘암송아지, 암염소, 숫양’은 교회의 천적인 것들에 대한 표현물이다.

창15:9-‘삼 년 된 암송아지, 그리고 삼 년 된 암염소, 그리고 삼 년 된 숫양을 가져와라’=교회 속의 천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 즉 ‘송아지’=천적인 것의 외적 측면, ‘암염소’=천적인 것의 내적 측면, ‘숫양’=영적인 것의 천적 측면

미6:6-태워 바침의 일 년된 송아지들...

호13:2-이런 종류의 사람들...마술을 일찌안고 그것을 자신을 붙여두려는 것, ‘송아지들에 입마추는 것’이라고 말해진다.

신21:3-‘노동음이 하지 않은 암송아지’=외적 인간의 순진, 이것은 무지 안에 존재한다.

신21:3,6-‘아직 멩에를 메지 않은 암송아지’=아직 확증이 있지 않은 진리. ‘빠른 시내물에서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는 것’=진리가 무엇인지에 무식한 이들에 의해 극단적 열정으로부터 행해진 이런 악으로부터 순수해짐.

예46:20,21-‘이집트는 매우 아름다운 암송아지이다.’ ‘암송아지’=과학적 진리, 이는 자연적 인간 속에 있다. ‘그녀의 고용인, 이들은 송아지들이다’=이득을 얻고자 선인 것을 행하는 자들. 고로 ‘송아지들’=그자체 선이 아닌 선, 그러나 영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인간의 즐거움이다. 이것이 야곱의 후손들에 있는 즐거움, 그리고 그자체 우상적인 것인바, 그들은 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이런 즐거움이 우상숭배임을 알고 그것의 증거를 낳기 위해 허용되어졌다.

호8:5,6-‘인부가 만든 사마리아의 송아지’=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 동시에 영적 인간에는 있지 않은 선, 고로 선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악에 응용되었기 때문.

송이-솔-쇠다이

이11:6-순진으로부터의 가장 깊은 수준의 선이 '어린 양'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순진으로부터의 내면의 선은 '새끼 염소'에 의해, 순진의 외면의 선은 '송아지'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출32장-'그는 그것으로 부어만든 송아지를 만들었다'=이 국가의 사랑들의 즐거움에 따라서. '송아지'=외적 또는 자연적 선...우상으로서의 '송아지'에 의해 이 즐거움이 의미된다.

출32:24-'나는 그것을 불에 던졌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나왔다'=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 이로부터, 이것에 따라서 이 예배가 있다...'송아지'=이런 사랑들로부터, 그것에 따라서의 예배, 이것은 지옥이다.

출32:35-'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지옥의 사랑으로부터의 예배 때문에. '송아지'=자아 사랑의 즐거움.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사랑의 즐거움으로부터의 예배. 마찬가지로 이 사랑으로부터 예배함...

시29:6-'송아지와 외뿔의 들소의 송아지'=자연적이고 감각적인 인간의 것들.

계4:7-'둘째 동물은 송아지 같았다'=애착 측면에 관련하여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송아지'=앞에 대한 애착. 영계에서 이 애착은 송아지를 수단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러므로 말씀에서도 역시 '송아지'로 표현하고 있다.

호14:2-'입술의 송아지들'=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고백함들.

말4:2-비교가 '살진 송아지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이유는 선과 진리를 알리는 애착으로부터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로 채워진 이들이 살진 송아지들로 의미되기 때문.

시29:6-'레바논의 삼목들'=진리에 대한 지식들. 이로부터 '여호와의 음성은 그들로 송아지 같이 깡충깡충 뛰게 만든다'라고 말해진다. '여호와의 음성'=신성한 진리, 여기서는 애착함.

눅15장-'살진 송아지'=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

이11장-'송아지'=최말단 수준의 순진, 이것의 반대는 '어린 사자'이다.

시68:30-'백성들의 송아지들'=자연적 인간에 있는 교회의 선들.

창17장-가르침, 판결, 규례를 통하여 언약이 있는데,

이것들이 '암송아지, 암염소, 그리고 숫양'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11장-'송아지'=자연적 인간의 순진.

송이 (cluster)

* 포도(grape)를 보라,

솔 (oven)

* 오븐(oven)을 보라

쇠다이 (shaddai)

창17:1-'나는 하느님 쇠다이 이다.' 글자 의미에서 이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의 이름이다. 이 이름을 수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 처음 표현되어졌다.

출6:3-'그들은 이름 '여호와', 그리고 쇠다이를 예배하는 것을 잃었다...'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쇠다이 신으로서 나타났다.'

창28:3-'하느님 쇠다이께서 너에게 복주실 것이다'=이 진리와 선의 시험들을 통하여 결합이 있다. '하느님 쇠다이'=시험들.

창35:11-'나는 하느님 쇠다이 이다'=지나간 시험의 상태, 지금은 신성의 위로하심.

이13:6-'쇠다이로부터 황폐됨'=시험 안에서 황폐해짐.

창43:14-'그리고 하느님 쇠다이'=고된 것들 이후 위로받음.

창49:25-'그리고 쇠다이와 더불어'=시험들 이후 주님 은택을 주시는 분.

출6:3-'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느님 쇠다이라 나타났다'=인간 측면에서 주님의 시험들, 그리고 신실한 자의 시험들, 그후 위로받음.

겔1:24-천국에서 신성한 진리의 품질이 '그의 음성은 쇠다이의 음성 같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그이유는 '하느님 쇠다이'=시험에서 진리가 꾸짖음, 그후 위로하심.

시68:14-'쇠다이'=시험의 상태.

욥5:17-시험들이 '쇠다이로부터의 훈련'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쇠 (iron)

* 철을 참조

쇄신하다 (innovate)

수(number)

이40:31-‘힘과 더불어 새로워지는 것’=선을 뜻함이 성장하는 것.

시51:12-‘내 한가운데 있는 굳은 영을 새로워지게 하는 것’=신앙의 진리에 관련하여 개혁하는 것.

수 (number)

세다 (number)

수의 (numeral)

계수 (numeration)

다수의 (numerous)

* 하나, 둘, 셋, 등등, 이십, 삼십, 사십 등등, 백, 천, 만 등등도 참조하라.

창5:3-‘130년’=새로운 교회가 일어나기 전 시간의 경과(세월).

창5:23-‘에녹의 모든 날들(수명)은 365년이였다’=그들은 조금 밖에 없었다.

창6:3-‘인간의 날들은 120년일 것이다’=그는 신앙 속의 아껴두신 것(remains)을 가지기로 되어 있다는 것.

창7:6-‘노아는 600년의 아들(600세)이였다’=시험의 첫 번째 그의 상태.

창7:24-‘150’=마지막 그리고 첫 번째 종점(terminus)...(그이유가) ‘15’=거의 없을 정도로 조금인 것. 고로 수 150은 더욱 더 조금인 것, 이 수는 15에 남아있는 것(remains)을 의미하는 수, 10을 곱해서 만들어진다. 조금 밖에 없는 것에 곱셈을 하는 것, 마치 1/2, 1/4, 1/10에 곱하는 것 같다. 이는 더욱 더 조금 밖에 없게되어 결국 조금도 있지 않은 상태, 즉 종점, 또는 끝이 되어간다. 같은 수가 다음 장에서도 등장한다, 거기서 말해지기를, ‘물들이 150일의 끝에서 물러갔다’, 여기서도 같은 의미이다.

창7:24-말씀에서 숫자들은 글자의 의미로부터 추상적 의미로서만 온전히 이해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들은 역사적 시리즈들을 함께 연결하기 위해서 삽입되어 있다...말씀의 내적 의미를 지각하는 천사들은 시간의 경과나 측량 같은 것을 전혀 모른다, 더구나 숫자가 가리키는 것은 더더욱 모른다. 그럼에도 그들은 인간에 의해 말씀의 숫자가 읽힐 때, 그 의미를 확실히 이해한다. 그들은 어떤 숫자가 어떤 구절에서 발생하면, 그들은 그것이 숫자라는 관념이 없고 숫자가 의미하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 이 구절의 경우, 이 숫자에 의해 그들은 태고 교회의 마지막 종점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8:3에서는 고대 교회의 첫 종점(출발점),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출발점으로 이해한다.

창8:13-‘601년이 되었다’=마지막 종점(terminus). (그이유가) 숫자 600...=시작이기 때문. 그리고 실로 거기서 시험의 시작. 시험의 끝이 같은 숫자로 지나간 시험의 전체 햇수에 의해 나타내주고 있다...그러므로 말해지는 바, ‘첫 달, 첫째 날에...’, 이를 수단으로 첫 종점(출발점)이 의미되고 있다.

창14:14-‘318명(의 남자들)’=그것들의 품질, 즉 그것들은 전투의 거룩한 것들이라는 것. ‘숫자 18’이 이를 포함하고 있는데, 300 또한 같다. 그이유가 이 숫자는 3과 6으로 조립되어 있기 때문. ‘3’=거룩인 것, 그리고 ‘6’=전투.

창15:5-‘별들을 세는 것’=별자리를 봄을 수단으로 선들과 진리들을 표현함.

창15:13-‘400년’=기간과 상태. 즉 시험들의 기간과 상태. (그이유가) ‘400’=40과 동일하게 시험의 기간과 상태...글자 의미에서 이 400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머문 기간과 관련되고 있다. 이 기간이 430년이었던 것은 출12:40으로부터 분명해진다. 비록 이 기간은 야곱이 이집트로 왔던 해로부터의 기간이 아니라 아브람이 이집트에 체류했던 때로부터의 기간이기는 하다. 숫자 430이 말해지는데, 그이유는 이 숫자가 시험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시험들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신세가 된 것, 그 후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한 것에 의해 표현되었다.

창16:10-‘번성함은 세어지지 못할 것이다’=측정을 넘어서는 번영.

창17:1-‘아브람은 99세가 되었다’=주님께서 내적 인간을 합리성에 충분히 결합되게 하시기 전 시간의 간격. 이는 숫자 ‘10’에 앞서는 ‘9’의 의미로부터, 이와 마찬가지로 숫자 ‘100’에 앞서는 ‘99’의 의미로부터 분명해진다.. 그 이유가 이삭이 아브람에게 태어날 때, 그의 나이는 100세였기 때문...말씀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어떤 것을 말해준다.

창17:17-‘사라는 90세의 딸인데 아이를 낳을까?’=선과

수(number)

결합된 진리가 이것을 행할 것이라는 것.

창18:18-‘정녕 아브라함은 큰 나라, 여러 나라가 될 것이다’=주님으로부터 모든 선이, 이 선에서 파생되는 모든 진리이라는 것...‘여러, numerous’는 진리를 서술한다.

창23:1-‘100년과 20년과 7년’=그것들이 가득함

창23:15-‘은 40세겔 되는 토지’=진리를 수단으로 되찾음의 값...그이유는 ‘400’=황폐하게 함.

창25:7-‘100년과 70년과 5년’=그것의 상태 속에 있는 것들.

창25:17-‘100년과 30년과 7년’=그 상태 속에 있는 것들.

계14:1-‘144’, 또는 12×12 =선행의 신앙에 있는 이들.

시22:17-‘나는 모든 나의 뼈들을 셀 수 있다’=추론함과 거짓들을 수단으로 신성한 진리들을 흐트거릴 원하는 것.

창32:6-‘그리고 그와 더불어 400명’=지금 선의 상태, 이것이 첫 자리를 취할 것이다. (그이유가) ‘400’,=시험들과 그것의 기간.

창34:30-‘나는 숫자로부터 죽을 수 밖에 없다’=쉽게. (그이유가 이 말들)=거의 없다. 그러나 품질이 양 대신 뜻해질 때, 쉽게(easily)가 의미된다.

창35:28-‘100년과 80년’=상태의 품질. (그이유가) 말쑥에 있는 모든 숫자들=어떤 것들. 고로 ‘100년과 80년’=어떤 것의 품질, 또는 상태의 품질. ‘100’=충분한 상태, ‘80’=시험들, 여기서는 시험들을 통하여. 이외에도 알려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 이유가 숫자들의 의미는 더 간단한 숫자로부터 의미를 가지기 때문. 180의 경우 12×15 로부터도 그 의미를 가진다.

창41:49-‘그는 그것을 세기를 중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너무 많아) 썸의 끝이 없었기 때문’=신성으로부터 천적인 것의 품질로부터. (그이유가) 신성으로부터 천적인 진리는 무한하기 때문, 고로 썸을 넘어 있다. 주님만이 세상에 계셨을 때 이런 진리를 가지셨다.

창45:22-‘베냐민에게 그는 은 300을 주었다’=매체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가득히 가졌다는 것. ‘300’=가득한 것인 이유는 300은 3×100 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 ‘3’=가득한 것, 그리고 ‘100’=많은 것.

창47:9-‘30 그리고 100년’=상태와 품질. 특별하게는 아굽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왔던 생명의 상태와 품질.

창47:28-‘야곱의 날들, 그의 삶의 햇수들은 7년과 40년 그리고 100년 이었다’=일반적 상태와 그것의 품질.

창50:22-‘요셉은 110년을 살았다’=어떤 것의 상태와 품질. 즉 내적 평면으로부터 과학물의 생명 속의 상태와 품질.

출1:7-‘그들은 번성했다, 그리고 극도로 다수가 되었다’=그들은 선의 진리 측면에서 최고로 증가했다는 것...‘그들은 다수가 되었다’=더욱 파생되었다. 고로 진리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있었다.

출1:9-‘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많이 불어나서 우리들을 넘어 다수가 되어 있다’=교회의 진리들이 떨어진 과학물 보다 우세해져 있다는 것...‘다수’는 진리를 서술한다.

출7:7-‘아론은 83세였다’=교리의 상태와 품질...그러나 이 의미는 이 숫자를 간단한 숫자로 환원하고, 교리와 더불어 있는 이들에게 응용해보지 않고는 알려질 수 없다.

출12:4-‘혼들을 썸에서, 모든 이 각각이 자기 먹을 분량에 따라 너희는 작은 가축을 계산하라’=순진을 자기 것되게 함에 따라 선으로부터의 많은 진리들로부터 순진을 위해 선을 채움. (그이유가) ‘혼을 썸’=선으로부터의 많은 진리들.

출12:37-‘남자들 만 해도 600,000이었다’=한 복합체 안에 있는 신앙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대한 모든 것들. (그이유가) 수 600,000=한 복합체 안에서의 신앙의 모든 것들. 그이유가 이 수는 6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12로부터 발생하기 때문. 그리고 ‘12’=신앙과 선행의 모든 것들. 수가 크든, 적든 수는 그 수가 있게 하는 간단한 수(1부터 12 등등 까지)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는 수 12 로부터도 분명해진다. 이 수 12는 6으로 나누거나 6×12 하여 72로, 또는 12×12 하여 144로, 또는 12,000, 또는 144,000 등등으로 되어간다.

출12:40-‘30년 그리고 400년’=그것들의 품질과 상태. (그이유가) ‘30’=남아 있는 것이 충만해진 상태, 그이유는 이 수는 3과 10이 곱해짐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 ‘3’은 충만한 상태, ‘10’은 남아있는 것이 의미된다. 그리고 ‘400’=황폐하게 함의 기간, 그리고 선과 진리의

수(number)

과생적인 결합.

출14:7-‘그는 600대의 병거들을 선발해 데려왔다’=그 것들의 질서에서 분리된 신앙 속의 거짓된 교리의 각각 모두.

출16:16-‘네 혼들의 수’=사회에서 모두를 위한 (충분한) 양.

출16:17-‘많거나 적거나’=능력의 차이.

이10:19-‘어린이라도 셀 수 있는 수’=거의 없다.

눅4:25, 계21:3,12:6, 11:9,10, 12:14, 단12:7-‘3년과 6개월’=철저하게, 마음껏, 충분하게. 이는 3년 6개월을 만드는 1260일의 의미로부터도 분명해진다. 1260=가득함으로, 또는 끝머리에 까지. 마찬가지로 ‘3일과 절반’, ‘한 때, 두 때, 반 때’의 의미도 충분함, 끝을 보는데 이르기까지.

출23:26-‘너희 날들의 수를 가득하게 한다’=충분한 상태로 까지...‘수를 채우는 것’=충분함으로.

계21장-‘12,000’=복합체에 있는 모든 진리들과 선들. ‘144’도 마찬가지로 의미.

출30:12-‘계수된 그들에 관하여’=질서대로 놓고 배열함.

시90:12-‘날들을 세는 것’=삶의 상태들을 정돈하고 배열하는 것.

단5:25-‘세는 것’=마무리되는 것.

계13:18-‘짐승의 수를 세는 것’=교회 속의 왜곡된 것을 조사하여 아는 것. ‘사람의 수’=이 교회의 상태와 것들. ‘666’=악으로부터 왜곡된 모든 진리의 품질, 또한 거룩인 것을 모독함, 종말...그이유가 수 ‘6’은 12의 절반이기 때문에 12의 의미와 같다. 그리고 ‘12’=복합체에서 교회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 반대 의미에서 복합체에 있는 모든 거짓들과 악들. 6이 세 번 반복된 것은 끝, 종말, 최후 등등 입을 내포한다. 이 최후란 진리들이 깡그리 모독되어갔을 때이다.

출30:12-‘그들은 각각 모든 이에게 그들을 계수함에서 자기 혼의 속죄를 줄 것이다’=신앙과 사랑 속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은, 그리고 그것들의 배열과 배치함은 주님으로부터일 뿐, 인간 자신들로부터는 아무 것도 없음을 인정함을 통하여 악으로부터 해방, 또는 순수해짐.

레27:2-7-인간의 생명의 연속적 상태들이 ‘5세’, ‘20

세’, ‘60세’라는 나이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출30:23-‘500’=충분한 것. 그이유는 이 수는 5와 10x10, 또는 5x100으로 구성되기 때문. 그리고 ‘5’는 많음(much)을 의미한다, ‘10’, ‘100’ 또한 많음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500’은 충분한 것이 의미된다.

출30:23-‘그것(500)의 절반, 즉 50과 200(250)’=상응하는 만큼 많이.

출30:24-‘500’=충분한 것.

출32:28-‘3,000명의 사람들이 그 날에 그 백성에서 떨 구어졌다’=내적인 것을 단음이 충분히 완전하였음.

민25:9-‘24,000’=복합체에서 모든 진리들과 진리로부터의 모든 선들, ‘12,000’의 의미도 같다.

* ‘그의 수는 666이다’=말씀의 모든 진리가 왜곡되었음.

계5:11-‘그들의 수는 만의 만, 그리고 천의 천이었다’=진리들 측면 모두, 그리고 선들 측면 모두. 수가 자연적 의미에서는 측량이나 무게와 관련되지만, 영적 의미에서는 품질에 관련된다. ‘만’은 진리들을 서술하고, ‘천’은 선을 서술한다. 그이유가 만은 천 보다 더 큰 수이기 때문, 진리는 여러 겹, 또는 복잡하나 선은 간단, 단순하기 때문.

계7:4-‘내가 들었더니 날인된 수가 144,000이었다’=천국과 땅의 하느님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선으로부터 교리 속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

계7:9-‘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7:5-8절의 사람들 속에 있지 않은 나머지 모두. 이들의 품질은 주님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계9:16-‘나는 그들의 수를 들었다’=그것들의 품질이 지각되었다...‘수’에 의해 어떤 것과 상태의 품질이 의미된다.

계11:3-‘1260’에 의해 끝과 시작이 의미된다. 즉 이전 교회의 끝,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시작...그이유가 이 수 1260은 3에 의해 의미되는 것과 비슷하고, 1260을 헛수로 바꾸면 31/2년 인 바. 이는 끝과 시작이기 때문이다.

계13:18-‘총명을 가진 그는 짐승의 수를 계수해보라’=주님으로부터 예증 받은 자는 이 교리의 확증들의 품질

수(number)

을 알 수 있다는 것... '수를 계수하는 것'=품질을 아는 것. '수'에 의해 품질이 의미된다... 그리고 '수'에 의해 의미된 품질은 진리에 관한 품질이다.

계13:18-'그이유가 이것은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다'=말씀의 품질, 그로부터 교회의 품질.

계13:18-'그의 수는 666이다'=이런 품질- 말씀의 모든 진리가 그들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것... '666'에 의해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가 의미된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에 관련하여 말해지는바, 여기서의 경우 왜곡된 말씀에 있는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가 의미된다. 그이유가 이것이 짐승의 수이기 때문. '6'은 3x2와 같은바, '3'=충분함, 모두, 그리고 진리들을 서술한다. 그리고 '2'는 선과 진리의 결혼.

계14:1-'그분과 더불어 144,000'=주님만을 천국과 땅의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사랑의 선으로부터 교리 속의 진리들에 있는 모든 이들.

계14:3-'144,000외에는 그 노래를 아무도 배울 수 없었다'=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천국 안으로 주님에 의해 받아들인 이들은 주님만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144,000'에 의해 천국과 땅의 하느님으로 주님 만을 인정한 이들이 뜻해진다.

계14:20-'1600펠롱'=오로지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1600'에 의해 전체 복합체에 있는 악이 의미된다. 그이유가 '1600'은 '16'과 같은 의미이고, '16'은 4x4로부터 발생되고, 4는 선에 관련하여 말해지는 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의 반대 의미는 여기서 같이 악에, 악과 거짓의 결합에 관련된다. 그리고 곱해지는 100은 위 의미를 거두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의미를 강조한다. 이로부터 수 1600은 오로지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의미한다.

계15:2-(짐승의) 이름의 수'=말씀을 왜곡되게 함.

계20:2-'그를 1000년 동안 결박했다'=한동안 그들과 교통함은 없을 것.

계20:8-'이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다'=이와같은 군중.

계21:16-'그가 성을 갈대로 측량했더니 12,000펠롱이

었다'=교리로부터 이 교회의 품질.

계21:17-'그가 그것의 벽을 측량했더니 144큐빗이었다'=그 교회에 있는 말씀의 품질...

마14:21-'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이. '남자들'=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여인들과 아이들'=선들 안에 있는 이들.

신33:6-'수'=적은(a little, a few).

겔48:34-'500 그리고 4,000'=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 그리고 '18,000'=에워싸고 안내하는 교리 속의 모든 진리들.

계7:9-'아무도 셀 수 없는...'=주님 만이 아시는 그들과 더불어 선과 진리의 양과 질. '수'=어떤 것의 품질. 이로부터 '세는 것'=어떤 것의 품질을 아는 것.

출30:12-'세는 것'=그들의 품질을 아는 것, 또는 그들과 더불어 교회의 품질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품질에 따라 배열하고 배치하는 것.

이38:10-'세었다'=조사했다 그리고 결론내렸다.

시48:12-'(시온의) 망대들을 세는 것'=이 교회 속에 있는 더 높고 더 내면의 진리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

솔1:6-'세지 못한다(무수하다)'=거짓의 힘을 서술하고 있다.

계9:16-'나는 그들의 수를 들었다'=그들의 품질이 지각되었다... '수'=취급되어진 어떤 것의 품질.

계11:13-'지진에서 중요한 사람들 7,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거기 상태의 이 변화에서 그들과 더불어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 고로 천국과 교회의 모든 것들이 멀해졌다.

이13:4-'전쟁의 군대를 세는 것'=악으로부터의 거짓들에 맞서도록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임명하는 것.

시22:30-'세어지는 것'=임무가 부여되고 배치되는 것.

계13:17-'수'=신앙 속의 진리의 품질 그리고 이 진리로부터 파생되는 총명의 품질. '이름의 수'는 신앙의 진리의 품질과 거기서 파생되는 총명, 사랑의 선과 거기서 파생되는 생명의 품질로부터. 여기서의 반대 의미이다.

수가 (sychar)

* 세겜(shechem)을 보라.

수르-수를 놓다-수리하다 -수사슴-(거세한)수소

수가 많은 (multitude)

* 다수(multitude)를 보라.

수난 (passion)

* 태워 바침과 제물이 주님의 수난을 의미한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다.

* 교회는 '어란 양의 피'=주님의 수난이라는 것 외 더 다르게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은 주님이 고통받으신 것만에 의해 구원되어진다고 알기 때문...그러나 주님의 수난은 그분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이 시험을 수단으로 그분은 그분의 인간을 충분히 영광되게 하셨다.

* 질병은 탐욕과 보다 더 낮은 마음 평면의 수난과 상응한다. 이것이 질병의 근원이다.

* (말씀에서) 주님의 수난이 취급될 때,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신다.

* 천사들은 주님의 수난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부활을 생각한다... 인간이 주님의 수난에 관한 것을 생각할 때, 천사들은 그분이 신성화하신 것(glorification)을 생각한다, 그리고 오로지 그분의 부활만을 생각한다.

* 주님 만이 공적과 정의를 가지셨는데...특히 십자가의 수난에 의해 그것을 가지셨다고 오늘날 기독교 교회들은 믿고 있다. 즉 십자가의 수난은 구속 자체의 행동이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구속함의 행동이 아니라, 그분의 인간 측면을 신성화 하시는(glorification) 행동이었다.

* 이 두 가지 것들, 즉 구속, 그리고 십자가의 수난은 반드시 따로 구분해 지각됨에 틀림없다.

이53장-'이 장은 주님의 수난을 다룬다.

* 그러므로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수난을 '잔(cup)'이라 부르시고 있다.

* 갯세마네와 십자가에서 그분의 수난은 마지막 시험이요, 완전한 승리이었다.

* 주님께서는 지옥을 복종케하셨다는 것을 십자가의 수난이 매우 가까웠을 때, 그분 자신이 가르치셨다.

수단 (means)

* 한가운데(midst)를 보라.

수태지 (boar)

시80:13-'숲에 있는 수태지'=거짓, 그리고 '들판의 들

짐승'=악, 이것이 교회의 주님에 대한 신앙 측면을 파괴한다.

시80:13-'숲(wood)으로부터의 수태지'=자연적 인간의 악한 탐욕들.

수로 (channel)

겔6:3-'수로와 골짜기'=외면, 또는 자연적인 것들.

시18:15-교회의 모든 것들, 즉 교회의 진리 측면, 선 측면 모두가 기초로부터 뒤엎어졌다는 것이 '물들의 수로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세상의 기초들이 밝히 드러내졌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물들의 수로'=진리들.

수레 (cart)

삼상6:7-그들이 썰을 되돌려보내는데 사용한 새 수레='새 교리, 또는 자연적 교리. 그이유가 '병거(chariot)'는 영적 진리들로부터의 교리이기 때문. 수레와 더불어 암소들이 태워 바침을 위해 제공되었다=주님이 화해시켜지는 것.

삼상6장-'수레'=자연적 진리로부터의 교리, 그리고 '새 수레'=손상되지 않은 교리,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그들의 거짓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교리.

수레바퀴 (wheel)

회전하다 (rotate)

이5:28-회오리 바람 같은 그분의 수레바퀴들=(자연적 진리들)로부터의 교리. (=뒤집고 파괴하는 진리들의 힘들), (=글자 의미에 있는 것과 같은 최말단 진리, 그리고 이 진리에 의한 확증들).

예47:3-'그의 수레바퀴의 시끄러움에...'(=거짓 교리들) 촉진시키는 감각적인 것들과 오류들.

나3:2-'수레바퀴 소리의 음성'=오류들을 수단으로 거짓을 방어함. (=악과 거짓들로부터 추론함).

출14:25-'그분은 그들의 병거들의 수레바퀴들을 벗겼다'=거짓들을 주입하려는 힘이 제거되어졌다... '수레바퀴'=전진하게 하는 힘. 이 힘은 인간의 지적 부분에 속하는바, (병거의) 수레바퀴=교리에 속하는 것들 측면에 관련된 지적인 것.

겔1, 10장-'수레바퀴들'=신성한 총명, 즉 예견. 그리고 그러므로 '수레바퀴들은 살아있는 생물과 함께 갔다'라고 말해지고, 그리고 '그것들의 날개들은 눈들로 가득했다'라고 말해지고, 또한 '살아있는 생물의 영이 그것들

수르-수를 놓다-수리하다 -수사슴-(거세한)수소

안에 있었다'라고도 말해진다. 즉 지혜로부터의 진리.
단7:9-‘타고있는 불 같은 그분의 수레바퀴들’...‘그분의 수레바퀴’=지혜와 총명 속에 있는 것들, 고로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들(truths Divine). ‘타고 있는 불’=사랑과 선행 속에 있는 것. (=천적 사랑으로부터의 교리).
왕상7:33-‘수레바퀴들’=지적인 힘들, 이를 수단으로 발전이 있다.
겔1:16, 10:9-‘거룩들의 수레바퀴들’=인간의 경우 팔이나 다리 같은 것, 즉 전진과 발전을 하게 하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속하는 것들. 이로부터 ‘그들의 양상은 녹주석(beryl stone)의 것 같았다. ‘녹주석’=영적 선으로부터의 진리, 이 진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
수르 (shur)
술 (shur)
창16:7-‘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과학물로부터 진행한 것들로부터 있는 진리.
창20:1-주님께서 선행과 신앙의 교리들에서 자신을 처음 가르치셨을 때, 주님의 상태가 ‘가데스와 수르’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25:18-‘하일라로부터 앓수르로 가는 이집트의 얼굴 위쪽인 수르까지 조차’=총명의 확장.
출15:22-‘그들은 수르 광야로 나갔다’=그 당시 그들이 가져다 놓은 시험의 상태...‘수르’=아직 생명을 획득하지 못한 교회의 과학물. 과학물 같은 것은 시험을 통하여 생명을 획득한다.
수를 놓다 (embroider)
겔27:7-‘이집트로부터 온 자수 공예품’=과학물들, 그리고 고로 영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의식들(rituals).
겔27:16-‘자수 공예품’=선에 대한 지식들.
겔27:7-‘수를 놓은 고운 베’=지식들 속의 진리, 이는 용역(service) 속에 있다.
출27:16-‘수놓는 사람의 일’.
겔16:10-고대 교회의 진리들이 ‘수 놓아 지은 의복들’로 묘사되고 있다. ‘수 놓는 일’에 의해 과학적 진리들이 의미된다.
겔16:13-‘고운 베, 명주, 그리고 수놓는 작업으로 된 예루살렘의 옷들=합리성에 있는 진리들, 그리고 각각 자연 평면에 있는 진리들.

겔16:13-‘자수 공예품’=과학물. 과학물이 순수할 때, 저세상에서 자수 공예품 같이 나타난다. 마치 옷 등등에서 가장자리의 장식(lace) 같다.
겔27:7-두로를 취급하는데, 두로를 수단으로 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들이 표현되어져 있다. 이 지식들이 순수할 때, 이것들은 ‘수를 놓아 만든 고운 베’이다.
시45:14-‘그녀는 수 놓은 것들을 입고 왕에게로 데려와질 것이다.’...‘수 놓은 것’=가장 낮은 진리들.
겔17:3-‘큰 독수리...수를 놓은 것을 가졌다.’ ‘수 놓은 것’=과학물인 것.
출26:36-‘수를 놓는 자의 일’=과학물 속에 있는 것들
겔26:16-‘수를 놓아 지은 의복’=과학적 진리들, 이것은 외적인 것들이다.
출28:39-‘띠(belt)를 너는 수를 놓는 자의 일로 만들라’=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겔16:10-‘수를 놓는 일로 지은 입는 것, 그리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는 것’=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수리하다 (repair)
이58:12-‘어김(breach)을 수리하는 것’=진리로부터 선을 분리함을 통하여 안으로 기어들어간 거짓들을 수정하는 것.
수사슴 (stag)
이35:6-‘그는 수컷 고라니(hart) 같이 떨 것이다’=그는 진리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환희를 가질 것이다.
(거세한)수소 (bullock)
창32:15-‘새끼를 아직 낳지 않은 암소(heifer)와 거세한 수소(bullock)=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것.
출24:5-‘수소들’=순진의 선 또는 외적 인간, 또는 자연적 인간에서의 선행.
출29:1-‘목축의 새끼(중에서), 수소 한 마리를 가져오라’=자연적 또는 외적 인간의 순수함.
출29:10-‘너는 수소를 가까이 오게 하라’=자연적, 또는 외적 인간의 응용하는 상태, 마치 유아 시절의 상태 같다. ‘수소’=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행의 선과 순진의 선.
출29:12-‘너는 수소의 피를 가져오라’=자연적, 또는 외적 인간에 숙박된 신성한 진리...‘수소’=순수해지게

수소(ox)

되는 자연적 인간, 이 안에 선과 진리가 심어지게 된다.

출29:11-‘너는 여호와 앞에서 수소를 죽일 것이다’=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에서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의 순수해짐을 준비함...‘수소’=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의 순수해짐.

출29:14-‘수소의 고기(flesh)’=거기 이전 사랑들의 악...‘수소’=외적 또는 자연 평면. 좋은 의미에서 ‘수소’, 그리고 ‘송아지(calf)’=순진의 선과 선행의 선에 관한 인간의 외적 측면, 또는 자연 평면. 그러나 반대 의미에서는 순진의 선과 선행의 선에 반대되는 악에 관한 인간의 외적 측면, 또는 자연 평면.

민28:11,19-‘수소’=외적 인간에 있는 순진의 선.

출29:36-‘죄의 수소를 너는 매일 속죄(물)로 바칠 것이다’=주님으로부터의 순진의 선을 통하여 자연적 인간에 있는 악들과 거짓들을 계속적으로 제거함. ‘수소’=자연적 인간에 있는 순진의 선.

호14:2-‘입술로 수소를 대신하는 것’=교리의 선들로부터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시51:19-‘수소들’=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영적 선(spiritual natural good), 이는 선행(charity)의 선.

수소 (ox)

이32:20-‘수소와 나귀의 발(foot)을 보내는 것’=(가르침을 위해) 일하는 자연적인 것들. ‘수소’=선 측면에서의 자연 평면.

창32:5-‘나는 수소와 나귀를 가졌다’=거기 그것들의 질서 안에서의 습득물들. ‘수소와 나귀’=섬김 속에 있는 외면의 선들과 진리들. ‘수소’=외면의 자연적 선. ‘노새’=외면의 자연적 진리.

창49:6-‘그들의 기분이 유쾌하면 그들은 수소를 느슨해지게 한다’=악한 의도에서 그들은 교회 속의 선을 꺼지게 했다.

시144:13,14-‘양떼들’, ‘수소들’=내적 선들과 외적 선들.

신22:10-그러므로 ‘수소와 나귀를 함께 부려 받을 가는 것’이 금하여졌다. 그이유는 ‘수소로 받을 가는 것’=자연 평면에 있는 선이기 때문(나귀에 대해서는 나귀편을 보라).

출21:28-‘수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았을 때’=만일

자연 평면에 있는 악한 애착이 진리 또는 신앙의 선에 상해를 입힐 때. ‘수소’=자연 평면에서 선에 애착함. 그러므로 반대 의미에서는 악에 애착함.

출21:29-‘만일 수소가 어제 그제로부터 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어왔다면’=만일 악에 애착함이 오랫동안 거기에 있어왔다면.

출21:29-‘수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다’=파괴된 진리에 대한 벌.

출21:32-‘만일 수소가 남종, 또는 여종을 뿔로 들이받았다면’=자연 평면에서 악에 애착함이 선과 진리를 파괴한다면.

출21:32-‘수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다’=파괴된 진리에 대한 벌.

출21:33-‘그리고 수소 또는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다면’=자연 평면에서 선과 진리를 약용하는 (거짓). ‘수소’=자연 평면에서 악에 애착함, 고로 거기 있는 악.

출21:35-‘사람의 수소가 동료의 수소를 세계 강타했을 때’=두 진리들로부터의 잡다한 애착들, 그리고 이쪽 진리의 애착이 저쪽 진리의 애착에 상처를 입힐 때. ‘수소’=자연 평면에서 선에 애착함, 반대 의미에서는 악에 애착함. ‘사람’=진리.

출21:35-‘그들은 살아있는 수소를 팔 것이다’=상처를 입혔던 쪽의 애착은 다른 쪽의 애착에서 멀어질 것이다.

출21:35-‘죽은 것 역시 그들은 나눌 것이다’=상처입힌 애착 역시. ‘죽은 수소’에 의해 자연 평면에서 악과 거짓에 애착함이 의미되어진다. 고로 상처입힌 애착. 그이유가 악은 거짓을 통하여 상처를 입힌다.

출21:36-‘만일 수소가 어제 그제로부터 뿔로 받는 버릇이 있었음이 알려져 있었다면’=이와 같음이 그것의 애착였다는 것이 이전에 알고 있어 왔다면.

출21:36-‘그는 수소를 위해 확실히 값을 것이다’=모두 그대로 있게 회복함.

출21:36-‘죽은 것은 그의 것이다’=상처입힌 애착을 위해. ‘수소’=악에 애착함.

출21:37(22:1)-‘사람이 수소, 또는 작은 가축을 훔쳤을 때’=누군가로부터 그의 외면, 또는 내면의 선을 가져가는 자. ‘수소’=자연 평면에서 선에 애착함, 고로 외면의

수수께끼-수소-수아-수에네

선.

출21:37-‘그는 수소를 위해 다섯 마리 수소들로 값을 것이다’=그만큼에 상응하는 벌.

출22:3(22:4)-‘수소로부터 나귀에 이르기 까지’=외면의 선 또는 진리로부터. ‘수소’=자연 평면에서의 선.

출22:9(22:10)-‘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나귀 또는 수소를 돌보라고 주었을 때’=외면과 내면의 진리와 선.

출22:29(22:30)-‘이와같이 너는 너의 것인 수소, 그리고 너희의 양떼와 더불어서도 실시할 것이다’=외면의 선, 내면의 선 조차도 위와 마찬가지로이다는 것.

출23:4-‘너는 길을 잃은 네 적의 수소, 또는 나귀를 만날 때=교회 밖에 있는 진짜이지 않은 선, 진짜이지 않은 진리. ‘수소’=외적 인간의 선.

출23:12-‘네 수소, 네 나귀도 쉴런지 모른다’=평화의 고요함이 외적 선들과 진리들에 의해 동시에 향유됨.

시106:20-‘수소’=자연 평면에 있는 선, 고로 외적 형체에 있는 선.

왕상7:25-‘열 두 수소들’=복합체에 있는 자연적, 감각적 인간으로부터의 모든 선들. 그이유가 그것들이 받침의 장소에 있었기 때문.

왕상7:29-‘수소들’=선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함. ‘수소’=그것의 힘 측면에서의 선들.

신22장-‘수소로 쟁기질 하는 것’=선을 수단으로 준비하는 것.

신33:17-‘수소의 첫 출생, 영예는 그의 것이다’=영적 사랑으로부터의 선.

이66:3-‘수소를 제물로 하는 것’=자연적 선을 표현한 것들로부터 예배함.

암6:12-‘수소로 밭을 가느냐?’=거기 선을 지각함의 어떤 것이 있느냐?

눅14:5-‘나귀와 수소’=자연적 인간의 진리와 선.

눅14:19-‘수소들’, 말씀에서=자연적 애착들. 그리고 ‘수소 다섯 겨리’=모든 이런 애착들, 또는 천국으로부터 떨트려진 탐욕들.

출22:1-‘수소’=자연적 인간의 선. ‘다섯 마리 수소로 값으라’=남용했고 소멸했었던 것들을 충분히 수정하라는 것.

겔1:10-‘수소의 얼굴’이 ‘왼쪽에서’ 보여졌다=희미함에

서 있는 진리의 선. ‘수소’에 의해 천국 북쪽에 거주하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자연적 인간의 선.

이22:13-‘수소를 죽이고 작은 가축을 죽이는 것’=자연적 선과 영적 선을 소멸하는 것.

욥1:18-‘수소 목축떼’=전체 복합체에서 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있는 것들.

시144:14-‘무겁게 실은 수소’=자연적 선들과 그것들의 애착들.

삼하6장-‘제가 수소들이 끄는 새 수레위에서 모셔옴’은 사랑의 선으로부터 진리의 교리를 표현했다. ‘수소들’=자연적 인간에 있는 사랑의 선.

이11:7-‘사자가 수소 같이 짚을 먹을 것이다’=교회의 진리들을 파괴하려 불타는 지옥의 거짓도 자연적 인간의 선에 애착함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수수께끼 (enigma)

왕상10:1-‘스바의 여왕이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심리해보려 왔다.

수스 (zuzim)

창14:5-‘수스’ 등등=거짓으로부터 설득하는 것들.

* 수스는 네필림과 유사하다.

수아 (shuah)

창38:2-‘그녀의 이름 수아’=악의 거짓으로부터의 악의 품질.

창38:12-‘수아의 딸이 죽었다’=거짓으로부터의 악이 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것 같이 있기를 중지했다.

수에네 (seveneh)

겔30:6-거짓들이 진리에 대한 이해성을 파괴한다는 것이 ‘수에네의 탑(tower)로부터 그들은 칼로 그것 안에서 엎드려질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겔29:10-‘이집트의 토지는 수에네의 탑으로부터 구스의 경계에까지 황폐될 것이다’=자연적 인간에 있는 교회 속의 최고의 것으로부터 최말단의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파멸된다는 것.

수여하다 (bestow)

창33:5-‘하느님께서 은혜스럽게 수여하신 것’=신성한 섭리 속에서, 그이유가 하느님이 수여하시는 것은 무엇 이든 그분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

수염 (beard)

수여하다-수염-수정-수정하다

* bald, hair, shave도 참조하라.

이7:20, 겔5:1-‘그 날에 여호와께서는 머리와 발의 털을 깎으실 것이고 수염 역시 태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너희에게 날 선 검을 가져오고, 이발사의 면도칼을 가져와서 이것이 네 머리 위를, 네 수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다.’ 하여 ‘머리털과 수염’인 내면의 자연적 진리, 외면의 자연적 진리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임이 묘사되어 있다.

창41:14-‘그는 자신을 깎았다’=외면의 자연 평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에 관련하여 변화 거절. ‘깎는 것’, 즉 머리털과 수염=외면의 자연 평면 속에 있는 것을 거절하는 것...머리털과 턱수염은 웅대한 사람(the Grand Man)에서 외면의 자연 평면에 상응한다...그러므로 저 세상에서 감각적 인간들은 천국의 빛에서 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여 그들의 얼굴은 턱의 수염으로 온통 가리어져 있을 정도이다.

시133:2-‘(아론의) 수염’=가장 높은 등차에서 (선의) 외적인 것.

이7장-‘머리, 발의 털, 그리고 수염을 깎는 것’=최말단 것을 제거하는 것. 그이유가 이런 것들이 제거될 때, 내면의 것들이 용해되고 멀해지기 때문.

겔5:1-‘예언자의 머리털과 수염’에 의해 진리의 최말단이 의미되었다.

시133편-‘머리의 기름이 수염 위에도, 아론의 수염위로 내려간다, 이어서 그의 의복의 입(웃기)으로 내려간다’에 의해 천국의 모든 선과 즐거움, 그것들의 가장 깊은 측면으로부터 가장 바깥 측면 까지가 의미된다. 그 이유가 ‘머리’는 가장 깊은 측면, ‘수염’은 가장 바깥 측면이 의미되기 때문.

레19:27-‘귀퉁이들(corners)’이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 그이유는 그것들이 가장 바깥쪽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는 이런 규정, 즉 ‘그들은 자기들의 수염의 귀퉁이를 밀지 마라(구레나룻을 만들지 마라)’로부터 분명해진다...‘머리털과 수염’은 인간 생명의 최말단 수준의 것, 즉 육체적 감각 측면이라 불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7:20-‘머리의 털들’에 의해 지혜의 최말단 것들이 의미된다. ‘수염’에 의해 총명의 최말단 것들이 의미된다.

레10:5, 21:6-‘수염’에 의해 합리적 인간의 최말단이 의미되고, 그들은 수염을 밀지 말라에 의해, 그들은 합리적인 것의 최말단을 없앴으로 합리적인 것을 자신들로부터 박탈하지 말라가 의미되어 있다.

삼상17:35-‘나는 그 놈의 수염을 잡고, 쳐서 그 놈을 죽였습니다’...‘수염’=최말단들에 있는 신성한 진리, 이것 안에 신성의 참 힘이 존재한다. 이 진리를 악한 자, 거짓들에 있는 자들의 입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파멸 쪽으로 결과가 나오게 남용한다, 이럴 경우 그것은 제거되어 더 이상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한다.

수정 (crystal)

계21:11-‘빛나는 수정 같은 벽옥’...‘수정’=선으로부터 신앙 속의 진리.

계4:6-‘왕좌 앞은 수정을 닮은 유리 바다 였다’=글자의 의미로부터 일반적 진리들에 있어왔던 기독교인들로부터의 새 천국

계22:1-‘그분은 나에게 수정 같이 뽀짝뽀짝 빛나는 생명의 물의 순수한 강을 보여주셨다’=계시록의 영적 의미가 지금 열려졌고 설명되었다, 거기서 신성한 진리들이 주님에 의해 풍부히 계시되어져 있다...‘수정 같이 뽀짝뽀짝 빛나는, 생명의 물의 순수한 강’=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는 풍부히 있다, 이 진리는 그것의 영적 의미에서 반투명하고, 천국의 빛 안에 있다...‘수정 같이 뽀짝뽀짝 빛나는’=이런 진리들은 영적 의미로부터 반투명하고 천국의 빛 안에 있다.

수정하다 (amend)

출21:22-‘그는 벌금을 내야할 것이다’..‘벌금을 내는 것’=수정함, 그 이유가 벌금을 물리는 것은 수정을 위해서이기 때문.

출21:22-‘그가 그 사람에게 부과한대로’, 이것이 벌금에 관련해 말해지므로,=만족하기 까지 수정함.

출21:34-‘구덩이의 주인이 갚아야 할 것이다’=그와 더불어 있는 거짓은 수정해야 할 것...‘갚는 것’=수정하는 것, 그 이유는 ‘벌금’=수정이기 때문, 그리고 그가 지불했던 은=진리, 이를 통하여 수정함이 있다.

출22:6-‘그는 그의 동료에게 두 배로 갚을 것이다’=충분해지게 수정함. ‘지불하는 것’=수정.

출23:4-‘너는 그에게 확실히 돌아가게 하라’=가르침과

수지-수집하다-수컷-수탉-수탉이 울다

수정함... '돌아가게 하는 것', 순수하지 않은 선과 진리에 있는 교회 밖 사람에게 관해 말해질 때=가르치고 수정하는 것, 그 이유는 이렇게 하여 돌아갔기 때문.

출23:5- '너는 그와 함께 그것을 옮길 것이다'=권면과 수정하려 노력함. '옮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선에 일치 않는 거짓에 관해 말해질 때=수정, 여기서는 수정하려 애쓰, 그 이유가 이런 거짓은 수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왕하2:19-21- '물들의 출구'=선에 관한 지식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는 인간의 자연적 측면. 그리고 이것은 선을 위해 진리를 바라는 것을 통하여 수정되어진다. 이로부터 (물들을 치료하는) 이 기적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수정됨과 생활이 수정됨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선을 위하여 진리를 바라는 것을 통하여 끌어내진다. 그리고 이와같은 바람으로부터 인간의 자연적 측면이 말씀으로부터 진리들을 받을 때 이 수정함은 거행된다.

수지 (resin)

유향 (resin)

향유 (resin)

창37:25- '양념(spices), 수지(gum), 소합향(stacte)'= 거기 선과 결합된 내면의 자연적 진리들.

겔27:17- '수지'=선으로부터의 진리.

창43:11- '수지 조금, 그리고 꿀 조금'=외면의 자연적 선의 진리들, 그리고 그것의 즐거움. '수지'=선으로부터의 진리, 또는 선의 진리. 수지가 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것이 연고, 그리고 또한 향신료에 속하는 물질이기 때문. 이 수지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창27:25을 보라. 이런 이유 때문에 원어에서는 이 수지라는 단어로 향유(balsam)도 뜻한다. 이 수지가 연고, 내지 진한 기름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로부터 '수지'=자연 평면에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이다. 이 구절의 경우, 외면의 자연 평면,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처음 자리에 있기 때문.

수집하다 (gather, collect)

창1:10- '바다들'=(지식들과 과학적인 것들이) 모여있음.

창6:21- '그는 자기에게 그것들을 모을 것이다'=진리들;

그이유가 '모으는 것'이란 인간의 기억 안에 있는 일련의 것들을 서술하고 있다. 기억에 그것들이 모아져 있다. 더 나아가 거듭나기 전, 선들과 진리들은 그 인간과 더불어 모아져야 할 것임도 포함하고 있다. 그이유가 모아진 선들과 진리들 없이 인간은 결코 거듭나질 수 없기 때문이다.

창25:8-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거두어들여졌다'=이것들은 아브라함에 관련한 것; (그이유가) '그의 백성에게 거두어들여짐'=그는 더 이상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 그이유가 '그의 백성에게 거두어들여짐'은 그가 전에 있어 왔던 이들 사이로부터 떠나 자기 고유의 것 쪽으로 건너갔다는 것; 고로 여기서는 더 이상 (주님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가 죽을 때, 그가 그의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 또는 그의 조상(아버지)에게 거두어졌다 하고 말하는 것은 고대인들의 관습이었다. 그들은 이런 표현을 수단으로 그가 그의 부모에게로 갔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삶에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뜻했다... 죽은 자가 지녔던 선과 동질의 선 안으로 거두어질 때, 그는 자기의 아버지들에게로 거두어들여졌다 하고, 동질의 진리 측면에서 일 경우, 그는 그의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고 말했다.

수컷 (male)

* 남성을 참조

수탉 (cock)

수탉이 울다 (cockcrowing)

* '수탉이 울기 이전'=새로운 교회가 존재 안으로 오기 이전.

* 수탉이 우는 때=교회의 마지막 상태, 이 때가 수탉이 운다 라고 불리운다.

마26:34- 수탉이 울기 전, 그는 그분을 세 번 부인할 것이다=교회의 마지막 상태에서 선행이 없기 때문에 신앙은 없을 것이다, 그이유가 새벽과 더불어 수탉의 울음=교회의 마지막 때.

막13:35- '수탉이 울음', 또는 새벽=신앙과 선행을 시작하는 상태, 이것은 인간이 진리들을 사랑하고, 이 진리들을 통하여 개혁이 진행할 때 존재한다.

수탉지 (boar)

시80:13- '숲에 있는 수탉지'=거짓, 그리고 '들판의 들

수태지-수프바다-순교자-순수한-순수해지게 하다-순종-술

짐승'=악, 이것이 교회의 주님에 대한 신앙을 파괴한다.
시80:13-'숲으로부터의 수태지'=자연적 인간의 악한 탐욕들.

수프 바다 (Sea Suph)

* 홍해(red sea)를 보라.

순교자 (martyr)

계2:13-'내 신실한 순교자 안디바가 너희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날에...'=모든 (영적) 진리가 소멸되어지는 때...'순교자'에 의해 (영적) 진리를 고백함이 의미되는데, 이 의미는 '증인, witness'과도 공유된다. 그이유가 그리스어에서 '순교자'와 '증인'은 한 단어이기 때문.

순수한 (pure)

순수해지게 하다 (purify)

창35:2-'너희 자신을 순수해지게 하라, 그리고 너의 옷을 갈아입어라'=거룩함이 입어지게 하는 것. (그이유가) '순수해지게 하는 것', 또는 '깨끗하게 하는 것'=신성해지게 하는 것.

민19:2-11-'물'은 순수하게 하는 매체를 표현하였다.

출12:7-11-'누룩 넣지 않은 것'=모든 거짓으로부터 순수해지게 하는 것.

출12:21-24-'우슬초 한 다발을 가져오라'=순수해지게 함이 있게 하는 외적 매체.

말3:3-'레위의 아들들을 순수해지게 하는 것'=선과 진리를 순수해지게 함.

출28:14-'순수한 금'=신성으로부터의 선.

출29:2-'누룩 없는 빵'=가장 깊은 인간 안에서 천적 평면이 순수해짐.

출29:2-'누룩 없는 과자'=중간 천적 평면의 순수해짐.

출29:36-'속죄하는 것'=악들과 악에서 파생하는 거짓들로부터 순수해지게 함. 또는 제거함.

* '비둘기'=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순수해짐.

순종 (obey, obedience)

* 귀, 귀고리, 듣다 참조

마13:16-'...너희는 듣는 귀가 있어 복있다'=그들은 순종했다는 것.

* '듣는 것'=순종하는 것, 또는 승낙하는 것.

* '시므온'!...외적 의미에서,=순종.

출49:10-'그에게 모든 백성이 순종할 것이다'=그분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들이 진행될 것. '순종'=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들을 받아들임.

술 (Shur)

* 수르(Shur)를 보라

술 (fringe)

옷자락 (shirt)

테두리 (border)

예13:22-'네 불법이 심히 많아서 네 옷자락(shirt)은 벗기워져 있다...여기서 옷자락=외적 진리들.

마23:5-'그들의 도포의 테두리(border)를 크게 하는 것'=단지 인간 차원에서만 중시되고 듣기 좋게 진리들을 화려한 스타일로 말하는 것.

출28:33-'너는 그것의 테두리에 만들 것이다'=자연 평면이 있는 맨끝에서...그이유가 '도포'는 영적 왕국의 내적 형태에서 있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하고, 아래 빙 둘러 있는 모든 것인 가장 자리(테두리)에 의해 영적 왕국의 맨끝이 의미되기 때문. 그리고 영적 왕국의 맨끝은 자연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진리와 선으로부터의 과학물은 외적 인간 안에 있는 바, 석류들이 테두리에 놓여지고 있다.

이6:1-'그분의 옷자락들이 성전을 채웠다...' 여기서 '옷자락(skirts)'은 맨끝, 또는 최말단에서 있는 신성한 진리, 예를 들면 글자 의미에서 있는 말씀의 신성한 진리가 의미된다. 이 진리들이 교회를 채울 때, '성전을 채우는' 라고 말해진다. 때때로 말씀에서 언급되는 성막, 또한 성전을 채운 연기와 구름도 옷자락과 같은 의미이다.

마9:20,22, 마14:36, 막6:56-피의 유출로 고통 받고 있는 여인이 주님의 옷의 가두리를 만졌을 때, 치료됨,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분의 옷을 만진 자는 모두 치료됨이 의미하는 바, 구원은 맨끝 또는 최말단에 있는 신성으로부터 진행된다는 것이 의미된다...그이유가 강함과 능력은 신성으로부터 있는 선과 진리의 최말단에 있기 때문.

마태복음에서-예수께서 서기관과 율법학자에게 말하셨다, 즉 그들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모든 일을 진행한다는 것, 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성구함을 크게 만든다는 것, 자기들의 도포 자락을 확장한다는 것... '도포

술고래

의 자락'=시아에 진열된 외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크게 하는 것'=그것들이 나타나도록, 또는 보여지게 외적 측면에서 일한다는 것.

에1:9-'그녀의 더러움이 그녀의 옷자락에 있다.' '옷자락에 있는 더러움'=행위들과 말들에, 고로 맨 끝에. 그 이유가 맨끝은 그것의 본질이 내면들로부터 파생하기 때문. 그러므로 내면들이 불결할 때, 맨끝 또한 불결하다.

나3:5-'나는 네 옷자락을 네 얼굴 쪽으로 벗길 것이다'=내적인 것들이 나타나도록 외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

예13:22,26-'네 불법들이 불어났기에 네 옷자락은 벗기워 있다... 나는 네 얼굴 위로 네 옷자락을 들어 네 수치가 보이도록 발가벗겨 있게 할 것이다...' '옷자락이 벗기워지는 것', '그것들이 벗겨져 놓이는 것'=감추여지게 하는 외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 하여 내적인 것들이 보여지는 것. 그 이유가 인간은 명성이나 영예, 이득을 위해 선인 것을 행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기 때문...

출28:33-'빙둘러 그것의 테두리에'=맨끝에서, 자연 평면이 있는 곳에서, 모든 방향에서.

술고래 (drunkard)

술취함 (drunkenness)

창9:21-'그가 술취해졌다'=그는 오류들 안으로 빠져들었다.

이19:14-'술취함'=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과학물로부터 조사해보기를 원하는 이들.

레10:9-술취함이 신앙의 진리들에 관하여 미친짓하는 것을 의미했는바, 이것이 표현이 만들어져 있게 술취함의 금지가 아론에게 만들어졌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천막 안으로 들어갈 때, 포도주나 술취하게 만드는 음료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되었다.

이29:9-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들, 신앙의 진리들에 관심이 없는 이들, 고로 신앙에 관하여 어떤 것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들, 하여 원리들을 부정하는 이들이 '포도주 없는 술고래'라 불리워진다...이런 술고래들은 자기들이 여는 누구보다 더 폭넓게 깨어 있는 자들이라 상상한다, 그러나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있다.

계17:2-'포도주로 그들은 술취해 있다'=거짓. '포도주'

와 '술취함'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바,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말해진다.

이63:6-'나는 내 분노에서 그들이 술취하게 만들었다...' '분노에서 술취하고 파괴하는 것'=거짓들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것...'술취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이라 단 언된다.

에4:21-'컵으로부터 술취해지는 것'=거짓들로부터 미쳐버리는 것.

예51:7-'온 땅으로 술취하게 만드는...'='그들은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오류와 미친짓 쪽으로 인도한다는 것.

계17:2-'땅의 주민들을 매춘짓의 포도주로 술취하게 만든다...'='교회 내에 있는 이들이 악으로부터의 거짓을 수단으로 헛소리하고 오류들 속으로 추락되어 왔다는 것. 그 이유가 '술취하게 만들'='왜곡된 추론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의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 오류 안으로 인도 되어짐.

이28:1-'술고래들'=거짓들로부터 추론하는 이들.

에4장, 하2장-'술취해지는 것'=거기로부터 미쳐버리는 것.

이49:26-'자신들의 피로 술취해지는 것'=악과 악의 거짓으로 채워지는 것, 고로 자아로 채워지는 것.

계17:6-'나는 성인들의 피로, 그리고 예수의 목격자의 피로 술취한 여인을 보았다'=섞음질하고 모독한 주님의 신성한 선들과 진리들로부터 미친 짓하는 광신적 신앙...'술취하게 만들어지는 것'=영적인 것들에서 미쳐버리는 것.

이19장-'술고래'=영적인 것들에서 미친짓하는 이들.

하2:15-'동료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술취하게 하는 자'=그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거짓들을 붙여 넣는 것...'술취해 있음'=거짓들로부터 미친짓하는 것, 고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

이28장-영적인 것들, 또는 진리들에 관해 미친짓하는 이들이 '술고래'들에 의해 뜻해진다.

이28장-'자만의 왕관, 에브라임의 술고래들은 발 아래 짓밟혀질 것이다'=이 총명은 깡그리 멀해질 것이다.

이29:9-'...이런 것들이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읽거나 들을 때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 이들을 두고 말해진다.

숨긴 장소-숨곳-숨양

이런 이들을 두고 이 구절에서, ‘포도주로 술취하되 포도주로 아니고, 그리고 비틀거리되 독주로로 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해진다.

예13:13-‘술취함으로 그들은 채워질 것이다’=영적인 것에서 미친것함.

예23:9-‘술고래 같이 되는 것, 그리고 포도주가 꿩은 사람 같이 되는 것’=마음이 혼란해짐, 그리고 악들과 거짓들로부터 추론함으로부터 미친것하는 것.

이51:21-‘너는 술취해 있다, 그러나 포도주로가 아니다’=진리의 무지함으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이들.

예51:39-‘나는 그들을 술취하게 만들 것이다, 하여 그들은 즐거워할런지 모른다’=가장 높은 수준에서 미쳐버림. (=그들은 악의 거짓들로부터 미친것 할 것이다.)

계23:33-‘너는 술취함과 슬픔으로 채워질 것이다’=영적인 것들을 두고 미친것 함, 그리고 혐오함.

신32:42-‘나는 나의 화살을 피로 술취하게 만들 것이다’=말씀을 왜곡함으로부터 마음이 헛소리함.

술맡은 자 (butler)

창40장-‘이집트 왕의 술맡은 자’=지적 부분에 종속되어지는 신체의 이것저것들. ‘술맡은 자’=감각 평면의 외적 측면, 또는 내적 인간의 지적 부분에 종속되어지는 신체의 감각 평면,

* ‘술맡은 자’=교리로부터의 진리.

술취함 (drunkenness)

* 술고래를 보라

숨기다 (hide)

숨기다 (conceal)

창31:49-‘우리는 그의 동료로부터 감추인 사람으로 놓일 것이다’=교회의 것에 상대적으로 분리가 있음. ‘감추여 놓임’, 여기서의 경우=분리함...이들이 ‘감추여 놓여진다’라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선과 진리에 관련해 분리되기 때문.

창35:4-‘숨기는 것’=거절하고 죽은 것으로 여겨 매장하는 것.

창43:23-‘감추인 선물’=인간이 알아채리지 못하는 주님께 의해 수여된 선과 진리.

출2:2-‘그녀는 그를 석달 동안 숨겼다’=나타나지 않았던 시간이 다 참.

출2:12-‘그는 그를 모래 안에 숨겼다’=그는 그를 거짓들이 있는 곳에 버렸다.

계2:17-‘나는 숨겨진 만나를 먹도록 그에게 줄 것이다’=...저장되어 있는 지혜, 이 지혜는 셋째 천국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지혜와 같다; (그 이유가) 이 지혜는 나머지 천사들, 즉 첫째, 둘째 천국의 천사들 넘어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 따라서 감추여 있는 지혜이다. 그 이유가 이 지혜는 그들의 삶들 안에 새겨져 있고 그들의 기억 안에는 그다지 많이 있지 않기 때문.

계6:15-‘그들은 자신들을 동굴에, 산들의 바위들에 숨겼다’=그들은 악들과 악의 거짓들에 있었다는 것.

계6:16-‘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숨겨다오’=천국의 유입으로부터 보호되어지는 것.

창3:8-‘여호와와 얼굴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것’=내적 지령을 두려워하는 것, 악을 의식한 이들이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창31:27-‘자기의 도망감을 감추는 것’=다른 이의 의지에 반대하여 자신을 분리하는 것.

신33:19-‘모래로 숨겨진 것들을 덮혀 있는 것들’=과학물의 신비한 것들. (=글자 의미 안에 감추여 놓인 영적인 것들.

시17:8-‘하느님의 날개들의 그늘 아래 감추여지는 것’

합3:4-‘그분의 강하심이 뿔들 안에 감추여 있다’=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신성한 선의 전능함.

시31:20-‘그분의 얼굴의 비밀 안에 그들을 숨기는 것’=신성한 선 안에, 이것은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마6:4,6-‘자아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닌, 선 자체와 진리 자체를 위해 선을 행하고 진리를 말하는 이들이 ‘은밀히 자선을 베풀고, 은밀히 기도하는’ 이들에 의해 뜻해진다.

창18:17-‘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숨겨야 할까?’=주님 앞에서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창47:18-‘우리는 주인으로부터 그것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내적 측면에 알려져 있다는 것...자연 평면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그것에 속하는 모두를 가지고 있다, 하여 그것으로부터 숨기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

숨긴 장소-숫곳-숫양

도 없다.

이26:21-모든 자의 불법들이 드러나지는 때, 즉 방문의 날, 또는 심판의 날에 관해 말해진다. 이것이 '땅은 그녀의 피들을 밝히 알리고 그녀의 죽은 자를 더 이상 숨겨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진다.

숨긴 장소 (hiding place)

시18:11-천국들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신성한 진리가 (글자 의미 안에) 있다는 것이 '그분은 그분의 숨기는 장소로 어둠을 두셨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45:3-어둠의 보물, 그리고 숨긴 장소 속의 감추어둔 재물=천국으로부터 있는 내면의 총명. 그이유가 천국으로부터 들어가는 것들은 은밀히 와서, 인간과 더불어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

시64:4-은밀한 장소에서 곧바른 자를 쏘는 것=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을 현혹하는 것.

이4:6-너무나 많은 빛으로부터,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늘로부터 거짓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함이 '그것은 폭풍과 비로부터 피난처와 숨긴 장소를 위해 있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애3:10-'은밀한 장소에 사자'=내면의 자연적 인간은 그 인간에 있는 악들로부터 말씀의 진리의 모든 의미를 뒤집는바, 이로부터 거짓들이 온다.

시61:4-'그분의 날개의 숨는 장소를 신뢰하는 것'=신성한 진리들에서...

숫곳 (succoth)

창33:17-'야곱은 숫곳으로 여행했다'=그당시 진리로부터 선의 삶의 상태...'숫곳'=이 상태의 품질.

창33:17-'그러므로 그는 이 장소의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이 상태의 품질...즉 그당시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함의 상태의 품질. 그이유가 '숫곳'은 천막을 뜻하고 '천막'=진리로부터의 거룩함이기 때문.

출12:37-'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으로부터 숫곳으로 여행했다'=떠남의 첫 상태와 그것의 품질.

출13:20-'그들은 숫곳으로부터 여행했다'=그들이 해방된 이후 두 번째 상태.

숫양 (ram)

창15:9-'숫양' 등등=교회의 천적인 것들

창22:13-'숫양이 그들에게 보여졌는데, 뿔이 덩불에 붙

잡혀 있었다.' 이것이 '제물로 바쳐졌다'=주님의 영적 (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인류로부터의 것들.

단8장에서-'숫양'=영적 (왕국의) 교회.

시114:4-이 시편은 거듭남 이후 영적 선을 다룬다. 그리고 그것의 영적 평면으로부터의 천적인 것(its Celestial Spritual)이 '산이 숫양 같이 뛰다'로 묘사되고 있다.

신32:14-'바산의 아들 숫양'=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들(celestial spritual things).

시66:15-'숫양의 향(냄새 incense)='신앙 속에 있는 영적인 것들.

이60:7-'느바웃의 숫양들'=신성한 영적인 것들. (=영적 진리) (=내적 인간에 있는 선행의 선과 순진의 선들).

창22:13-'아브라함은 숫양을 가져왔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의해 영적 왕국이 해방됨.

창31:38-'당신의 양떼로부터의 숫양을 나는 먹지 않았다'=선의 진리로부터 그분은 아무 것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양'=선들 인바, '숫양' =선의 진리들.

창32:14-'숫양 20마리'=신성한 진리들.

출25:5-'붉은 숫양 가죽'=선으로부터 있는 외적인 진리들...'숫양들'=진리 속에 있는 영적인 것들. 그리고 '붉은(red)='선.

레16장-'태워 바침을 위한 숫양'=내적 인간 안에서 악들로부터 선을 순수해지게 함.

출29:1-'온전한 숫양 두 마리'=영적 인간 또는 내적 인간의 순수해짐. '숫양'=인간의 내적 부분, 고로 그의 영적 부분.

레8:22-'손을 채움'이 두 번째 숫양을 통하여 결과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채움들의 숫양'이라 불린다.

출29:15-'너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오라'=내적 인간에 있는 순진의 선.

겔26:21-'숫양들'=선행의 선들.

겔34:17-'숫양들', 여기서='양과 비슷하다.

레5장-숫양으로부터의 제물들=내적 인간의 순수해짐., 그리고 거기에 순진의 선을 심음.

출29:16-'너는 숫양을 죽일 것이다'=내적 인간의 순수해짐을 위한 준비.

숭배하다-숯-숲

출29:17-‘너는 솟양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다’=따로 구분되게 배열되는 내면의 것들.

출29:18-‘너는 솟양 전부를 제단에서 태울 것이다’=주님의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에 하나된 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내적 측면...‘솟양’=인간과 더불어 (주님의) 내적 측면, 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내적 측면.

출29:19-‘너는 두 번째 솟양을 가져와라’=이어지는 다음 상태, 이는 천국들에서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속에 있다.

출29:22-‘이것은 채움들의 솟양 이다’=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천국들에 있는 신성한 힘...‘솟양’, 양의 수컷인바,=내적 인간에 있는 선행의 선과 순진의 선. 최고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주님의 인간의 내적 부분.

단8장에서-‘솟양’=선행의 선과 이 선에서 파생하는 신앙.

미7:1-‘솟양들’=영적 선들.

단8장-‘솟양을 짓밟는 것’=선행을 완전하게 파괴하는 것.

숭배하다 (adore)

계4:10-‘그들은 엎드렸다. 그리고 세세토록 사시는 그분을 경배했다’=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함. 그리고 부끄러워함으로부터 경배함=부끄러이 여김, 이로부터 심정으로 인정함.

계9:20-‘악마들을 숭배함’= 현세에의 강한 욕망으로부터의 악 안에 있는 것.

계11:1-‘숭배하는 그들’=예배에 관련한 교회. ‘숭배하는 그들’, 여기서의 경우=예배 속에 있는 숭배함.

계13:5-‘그들은 용을 숭배했다.’ ‘숭배하는 것’=교회의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계13:5-‘그들은 짐승을 숭배했다.’ ‘숭배하는 것’=뭔가를 놓고 그것을 신성으로 인정하는 것.

계13:8-‘그리고 땅 위 모든 거주자들이 그것을 숭배했다.’ ‘숭배함’=그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교리와 예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계13:12-‘그리고 그것은 땅과 그 안의 거주자들이 이전 짐승을 숭배하게 했다.’ ‘숭배하는 것’=뭔가를 인정

하는 것, 심정에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믿어버리는 것.

계14:7-‘...는 그분을 경배하라.’ ‘경배함’=심정에서 인정함, 고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

계14:9-‘짐승과 그의 형상을 숭배하는 것’=그 신앙을 인정하고 그것의 교리를 받는 것.

계15:4-‘그분 앞에 경배드리는 것’=주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것. ‘경배하는 것’=심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

계19:4-‘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느님을 경배했다’=주님을 천국과 땅의 하느님으로, 우주의 심판자로서 경배함. ‘숭배함’=심정의 부끄러이여김으로부터 경배함.

계7:11-‘그들은 하느님을 경배했다’=아주 많은 이들이 구원되었음에 감사함.

숯 (charcoal)

이44:12-‘숯불’=인간 고유의 사랑으로부터 있는 악.

이44:12-‘부젓가락으로 가지고 철을 불리고 숯에서 일한다’=인간 고유의 사랑을 좋아하는 거짓들을 부화하는 것.

숲 (forest)

* (천적 인간의) 합리적인 것들이 삼목들의 숲과 이와 유사한 나무들, 레바논에 존재했던 것과 같은 나무들에 비교되어진다.

겔20:46-‘남쪽의 숲’=진리들의 빛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그것을 절멸시키는 것. 고로 교회 내에 이런 품성 속에 있는 이들.

이21:13-‘숲에서 밤을 보내는 것’=선 측면이 황무해지는 것. 그이유가 ‘아라비아’=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 즉 신앙의 선들 안에 있는 이들. ‘거기서 숲에서 밤을 보내는 것’=선들 안에 더 이상 있지 않는 것, 이로부터 황무함이 온다.

시80:13-‘숲(wood)에 꿈’=거짓.

신19:5-‘나무를 자르는 것’=일에 공적을 놓는 것. 그러나 ‘숲에서 나무를 자르는 것’=이것들과 이것과 비슷한 것들을 토의하는 것, 또한 그것들을 토론에 가져다 놓는 것. ‘숲’=종교적인 것.

예46:23-‘숲에서 나무를 베어쓰러트리는 것’=거짓 종교로부터 행동하는 것,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 그이유가 교회가 ‘숲’, ‘동산’, 그리고

쉬다 - 쉬

‘낙원’이라 불리우기 때문. 지식으로부터 ‘숲’, 총명으로 부터 ‘동산’, 지혜로부터 ‘낙원’. 나무들(trees)=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그리고 또한 그것들에 관한 지식. ‘숲’=지식 측면에서의 교회, 고로 외적인 것들 측면에서의 교회, 고로 종교적인 것.

시96:12, 132:6-‘그때에 숲의 나무들이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무의 들판에서 그분을 발견했다’에서 숲에 의해 지식 측면, 또는 외적인 것 측면에서의 교회가 의미된다. 이10:18에서 ‘그의 숲’=진리의 지식 측면에서의 교회. ‘갈멜(Carmel)=선에 대한 지식 측면에서의 교회.

겔39:10-‘들판으로부터 나무(wood)’=교회의 내면의 선들. 그리고 ‘숲으로부터 나무’=외면의 선들.

시29:9-‘그가 완전히 벗긴 숲들’=말씀이 그들에게 여는 (영적)지식들과 지식들.

이44:23-‘숲’=자연적 진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무들’=진리에 대한 지식들.

겔34:25-‘숲에서 그들이 잠들 것이다’=그들을 해치지 않는 거기로부터 파생된 거짓들.

호2:12-‘숲’=단지 오류들, 그로부터 파생된 거짓들에 있는 감각적 인간.

이44:23-‘숲’에 의해 그에게 속하는 모든 것들에 관계하는 자연적, 또는 외적 인간이 뜻해진다. 그리고 ‘모든 나무’에 의해 그 속에 있는 지식에 관한 문제(matter)인 것이 뜻해진다.

겔20:47-‘남쪽의 숲’에 의해 교회 내의 거짓,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 거짓들에 있는 이들...악으로부터의 거짓이 ‘숲’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예10:3-‘숲’=자연적인 것. 여기서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인 것.

시104:20-‘숲의 들짐승’=과학물에 대한 애착.

겔31:3-‘아름다운 가지와 그늘있는 숲’=과학물들을 수단으로 합리적 진리들을 통한 총명.

이56:9-교회 밖에 있는 나라들이 ‘숲’에 있는 들짐승’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들짐승’=자연적 그리고 감각적 인간. 그리고 ‘숲’=그의 지식과 파생되는 희미한 총명.

왕하19:23-‘그의 열매 풍성한 들판의 숲’=과학물.

이32:15-이로부터 그는 선과 진리에 관한 (영적) 지식

에 관한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이 ‘열매 풍성한 들판이 숲으로 간주할 것이다’에 의미되어 있다. ‘숲’은 자연적 인간, ‘동산’은 영적 인간으로부터 있는 것을 서술한다. 그러므로 ‘숲’에 의해 지식이 의미되어지고, ‘동산’에 의해서는 총명이 의미되어진다.

쉬다 (rest)

쉬 (rest, quiescence)

* 주님께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간이) 인정하여 행동할 때 까지 쉬시지 않는다.

*...그런 다음 전투가 중지되는바,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일로부터 쉬신다’라고 말해진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쉬으로부터 그렇게 불려졌다.

* 천적 인간의 쉬이 안식일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창8:4-‘방주가 휴식했다’=거듭남.

* 영적 인간, 그가 시험들을 수행한 후, 마찬가지로 ‘주님의 쉬’이 된다.

* 천적 인간의 쉬이 ‘안식일’을 뜻하는 단어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단어로 명명되되 마찬가지로 쉬를 뜻하는 ‘노아’에 의해 영적 인간의 쉬이 표현되어져 있다.

* 영적 인간은 선행 속에 있는 새로운 지적 발광체로부터의 거룩한 쉬이다.

창8:9-‘비둘기는 자기 발바닥을 위한 쉬를 찾지 못했다’=신앙으로부터의 선과 진리는 아직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아무 것도 아닌 상태에 있다.

레17:6, 민18:17-‘쉬의 냄새’=사랑의 선으로부터 감사히 여기는 것.

창49:15-‘그는 쉬를 보았고, 그것은 선이었다’=보상없는 선으로부터의 일들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쉬’=천국 속에 있는 것들, 고로 선행의 선 안에 있는 것, 또는 보상 없는 선 안에 있는 것...그이유가 ‘쉬’, 또는 ‘평화’, 최고 의미에서,=주님; 관계적 의미에서 천국, 고로 그분으로부터 있는 선...

출10:14-‘(메뚜기가) 모든 경계선에서 쉬었다’=거짓이 맨 끝들에 있는 것들로부터 침투했다는 것.

출16:23-‘쉬’=평화의 상태, 시험이 없을 때이다; 그이유가 안식의 날에 있는 것과 같은 쉬이 평화의 상태에 관한 표현이었기 때문, 이 안에 선과 진리의 결합이 있

스랍-스룩-스룹바벨-스말족-스무번째-스물
-스물 넷-스물 여덟-스물 일곱 번째-스미르나

다.

출16:29-‘너희 각각 모두는 자기 장소에서 쉬라’=평화의 상태.

출20:11-‘일곱째 날에 쉬었다’=그다음 평화, 그리고 사랑의 선.

레25:3~5-이 상태가 ...토지가 쉼에 의해 뜻해진다.

출23:12-‘중단하는 것’, 또는 일들로부터 쉼=그런다음 평화의 고요함.

출29:18-‘쉼의 냄새’=평화로부터의 지각력

출31:17-‘일곱째 날에 그분은 쉬셨고 숨쉬셨다’=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또는 인간이 거듭났을 때 선의 상태...최고 의미에서, ‘여호와와 휴식과 쉼을 쉼’에 의해서는 신성 자체와 신성한 인간의 합일이 의미되었다...

출33:14-‘나는 너(모세)를 쉬게 하겠다’=교회 등등의 외적인 것, 이 안에서 신성한 내면적인 것들은 중지된다...‘쉬는 것’=(그분이) 쉬심, 중단함...

출34:21-‘일곱째 날에 너는 쉴 것이다’=거듭남의 둘째 상태, 즉 인간이 선 안에 있을 때, 그다음 평화 안에 있을 때.

계6:11-‘그들은 아직 잠시동안 쉬어야 한다는 것’=마지막 심판이 잠시 미뤄진다는 것.

계6:13-‘그들은 자기들의 노동으로부터 쉴 것이다’=시험받아왔었던 이들이 주님 안에서 평화를 가질 것이라는 것.

시122:6,7-이 평화 안에 있는 이들이 ‘평온한 자, the quiet’라 불리는바, ‘너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온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지고 있다...‘네 궁 안에는 고요가’=내면의 인간 안에.

이32:17,18-17절의 ‘평온함’은 거기 안에 있는 평화를 서술하고 있다...18절의 ‘고요한 평온함’=선으로부터의 기쁨들과 진리로부터의 즐거운 것들.

시23:2-‘평온함의 물들, waters of quietnesses’=천국의 진리들.

시132:8-‘여호와여 일어나시어 당신의 쉼으로...’=신성 자체가 신성한 인간과 하나가 됨, 그리고 그러므로 평화.

민10:36-‘내가 쉼’=약들과 거짓들이 제거되었을 때인 시험 후의 상태.

예50:34-‘땅에 쉼을 주는 것’=거짓들로부터의 보호.

스랍 (seraph)

이6:2-‘네 동물들’이 스랍, 또는 그룹이다는 것...

이6:2-‘스랍’=말씀, 좁혀 말하면 말씀으로부터의 진리.

이6:2-‘스랍’=그룹들, cherubim과 같다, 즉 보호하심 측면에서의 신성한 섭리.

스룩 (Serug)

창11:20-‘스룩은 그의 조상 같이 자기 이름으로 명명된 나라였다. 이를 수단으로 외적인 것들에서의 예배가 의미되고 있다.

스룹바벨 (Zerubbabel)

슌4:2,3-여기서 스룹바벨이 취급된다. 그는 하느님의 집을 기초하고 완성하였다. 이에 의해 오시어 영적 천국과 교회를 회복하시는 주님이 표현되어졌다.

스말족 (Zemarie)

창10:18-‘스말족’ 등등=여러 많은 나라들, 이를 수단으로 여러 많은 우상숭배들이 의미된다.

스물 (twenty)

* 이십을 보라.

스무번째(twentieth)

* 이십번째를 보라

스물 넷 (twenty four)

* 이십 사를 보라

스물 여덟 (twenty eight)

* 이십 팔을 보라

스물 일곱 번째 (twenty seventh)

* 이십 칠번째를 보라

스미르나 (smyrna)

계2:8-‘스미르나에 있는 교회’=생활 측면에서는 선 안에 있으나, 교리 측면에서는 거짓들에 있는 이들.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이들, 그럼에도 아직 말씀을 이해 못하는 이들, 그들의 심정은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열망하지만 아직은 조금만 지녔음)

* 영적 진리에 애착함 이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보내는 말에서 취급되고 있다. 이 애착은 교회의 첫째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스마 (Sheba)

스바 -스발-스보임-스블론-스승

* '에디오피아'=스바와 비슷한 것들.

이60:6-'스바'=거기로부터 있는 천적, 영적인 것들, 이것은 '금과 유행이다.

이60-'스바로부터'=사랑과 신앙의 천적인 것들로부터.

시72:10-'스바와 시바의 왕들'=자연적 인간의 내, 외면의 선들 '스바'=내면의 선들; '시바'=외면의 선들.

스발 (Sephar)

창10:30-'스발'=선.

스보임 (Zeboim)

창14:2-'스보임왕 세메벨', 등등=악의 아주 많은 종류, 탐욕들, 그리고 거짓의 설득들, 이것들에 맞서 주님은 싸우셨다...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악들과 거짓들이 여기서 의미되고 있다.

스블론 (Zebulon)

* '잇사갈과 스블론'은 결혼 사랑, 고로 천국의 결혼을 의미하고 표현하였다.

창30:20-'레아가 말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신부 지참금을 기부하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이유는 내가 여섯 아들을 그에게 낳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스블론이라 불렀다'=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 자체,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인간, 내적 의미에서 천국의 결혼, 외적 의미에서 결혼 사랑.

창46:14-'스블론의 아들'=천국의 결혼, 그리고 그것의 교리적인 것들.

창49:13-'스블론은 바다들의 정박소에서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배들의 정박소를 위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측면은 시돈 쪽에 있을 것이다.' '스블론'=선과 진리가 함께 거주함. '그는 바다들의 정박소에서 거주할 것이다'=과학물로부터 진리의 결말을 내는 삶. '그는 배들의 정박소를 위해 있을 것이다'=말씀으로부터 교리적인 것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의 측면은 시돈 쪽에 있을 것이다'=한쪽 측면에서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쪽으로 확장됨이 있음.

계7:8-'스블론 지파로부터 12,000명이 날인되었다'=주님의 새 천국과 새 교회 속에 있게 될 이들과 더불어 선과 진리의 결혼적 사랑...스블론은 '함께 거주함'으로부터 명명되어졌고, 이는 마음들이 하나로 결합하는 것

에 관해 말해졌다...'스블론'에 의해 여기서 의미되는 선과 진리의 결혼 사랑은 주님과 교회의 결혼 사랑이다. 그이유가 주님은 사랑 자체의 선이고, 그분은 이 선으로부터 진리가 있도록 교회에 주시기 때문...(=세째 천국에 있는 이들의 주님과 결합)

민2:7-(동쪽에 진을 친) '스블론 지파'는 선과 진리의 결혼, 즉 천국의 결혼을 의미했다.

사5:18-'스블론, 자기들의 목숨을 죽음에 바치기까지 각오한 백성, 그리고 납달리...' 이 두 지파는 시스라와 맞서 싸운 지파들이었다...그러므로 이들에 의해 교회에 침투하는 악들에 맞서는 영적 전투가 표현되어졌다...이 두 지파만이 전투에 가담한 이유, '스블론'에 의해 교회를 구성하는 선과 진리의 결합이 의미되었기 때문. 그리고 '납달리'는 전투를 의미하고...'스블론과 납달리' 다함께 시험을 통하여 개혁과 거듭남이 의미되었다.

신33:18-'스블론에 대하여 그는 말했다, 스블론아, 네 나감에 기뻐하라.' 이런 것들이 선과 진리의 결혼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 말해지고 있다. 즉 이해함과 생각 측면에 관련해서는 진리들 안에 있고, 의지와 애착 측면에 관련해서는 선 안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 말해진다. '스블론'=이 결혼.

마4:13,15, 이9:1,2-'스블론과 납달리'에 의해 악과 거짓에 맞서 싸운 전투를 통하여 있는 선과 진리의 결합, 그 결과 개혁됨이 의미되고 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 오셔서 거기 거주하셨다...이 곳은 스블론과 납달리의 경계 지역이다'...이는 스블론의 땅...하신 말씀이 완성되도록 하려하심...

스승 (master)

주인 (master)

창27:29-'네 형제에게 주인일 것이다'=지배함...

요13:13-'너희는 나를 스승과 주라 부른다; 그리고 너희는 올바르게 말하고 있다. 그이유는 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그분은 여호와 하느님이시다는 것. 이 구절에서 그분은 선 측면에서 '주', 진리 측면에서 '스승'이라 불리우신다.

슬기로운 (wise)

슬기롭게 (wisely)

* 지혜(wisdom)를 보라.

슬기로운-슬기롭게-슬퍼하다-슬프다

슬퍼하다 (mourn)

예1:4-‘시온의 길들이 슬퍼하고 있다’=선으로부터 어떤 진리들도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

창23:2-‘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슬퍼하고 그녀 때문에 울었다’=교회에서 신앙의 진리들에 관련하여 있는 밤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심...‘슬퍼함’은 선들 측면, ‘우는 것’은 진리들 측면에서 있는 밤에 관련된다.

이24:7-‘포도즙이 슬퍼하고...’=진리가 중단할 것이라는 것.

창27:41-‘내 아버지 때문에 슬퍼하는 날이 가까워진다’=상태가 역으로 되는 것.

창37:34-‘그는 자기 아들 때문에 여러 날을 슬퍼했다’=선과 진리가 파괴된 것 때문에 슬퍼하는 상태...여기서, 크게 슬퍼하는 상태, 그이유는 여기서 ‘여러 날’이라 말해지기 때문.

창37:35-‘나는 내 아들에게로 무덤으로 슬퍼하며 내려갈 것이다’=고대 교회가 멸해지리라는 것.

창50:10-‘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 칠 일을 슬퍼했다’=탄식함의 끝.

창50:11-‘그리고 토지의 주민들, 가나안 사람은 아닷의 타작 마당에서 깊이 슬퍼하는 것을 보았다’=교회의 선을 수단으로 탄식을 통각함.

예12:4-‘슬퍼할 토지’=교회.

예48:38-‘모든 지붕들 위에서 슬퍼함’은 ‘모압’에 의해 뜻해진 이들과 더불어 모든 선들이 황폐해짐을 의미하였다...그리고 ‘거리들의 슬퍼함’에 의해 모든 진리들의 황폐됨이 의미되었다.

출33:4-‘백성은...슬펐다’=타인들 위에서 특출해 있지 못하는 것을 두고 있는 그들의 탄식.

계18:7-‘고통과 슬픔을 그녀에게 주거라’=(똑같이 비례해서) 그들은 죽은 후 내던져짐으로부터의 내적 탄식과 조롱함, 그리고 궁핍함과 비참함으로부터...사후 그들의 슬퍼함은 거기로부터 있다.

계18:7-‘나는 슬퍼함을 보지 않을 것이다’=그들은 이런 것들을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것...

계18:19-‘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울며 슬퍼한다...’=그들의 내면과 외면의 탄식과 슬퍼함, 이는 애도함이다...‘우는 것’=혼이 슬퍼함, 그리고 ‘슬퍼하는

것’=심정이 슬퍼하는 것.

계21:4-‘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슬퍼함도, 외쳐댐도 있지 않을 것이다’=주님께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모든 두려움을 그들로부터 거두어가실 것이다.

예9:20-‘슬퍼함’, 탄식함=진리들에 관련해, 선들에 관련해 황폐된 교회 때문에.

예12:4-‘슬퍼하는 것’, ‘시들어지는 것’=탐욕들을 통하여 사라지는 것, 멸해지는 것.

이33:9-(이러한 지식들이) 황폐됨이 ‘슬퍼하는 것’ 등등에 의해 의미된다.

이24:4-(교회가) 황폐됨이 ‘슬퍼하는 것’ 등에 의해 묘사되어지고 있다.

계18:8-‘슬퍼하고 있다’=더이상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을 때. 고로 교회가 황막해졌을 때.

예6:26-여기서 ‘슬퍼함’은 진리가 파괴됨 때문에. 그리고 ‘울부짖음’은 선이 파괴됨 때문에.

계18:11-‘땅의 상인들은 그녀를 두고 울고 슬퍼할 것이다’=부와 영예를 가져다주는 이 광신적인 신앙심에 속하는 것들을 자신들을 위해 포획하는 이들의 슬퍼함과 애통함.

계18:15-‘(그들은) 슬퍼하며 통곡하며 (서있을 것이다)’=혼의 슬픔과 심정의 슬픔.

슬프다 (woe)

화 있다 (woe)

마24:19-‘...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 슬픔이 있다...’ ‘슬프다’는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의 형체=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위험.

계8:13-‘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슬프다, 슬프다, 땅위에 거주하는 그들에게 슬픔이 있다’=교회에서 정죄된 상태로 부터 있는 가장 깊은 탄식..

계9:12-‘슬픔 하나가 지나갔다. 보라 이후 슬픔 두 개가 오고 있다’=교회의 황폐함에 있는 더 많은 탄식.

계11:4-‘두 번째 슬프다가 지나가고, 보라, 세 번째 슬프다가 빠르게 오고 있다’=교회의 타락한 상태 위에 있는 탄식, 그리고 마지막 탄식.

계12:12-‘땅의 거주민과 바다의 거주민에게 슬픔이 있다’=믿음 만으로의 교리에 내적, 외적으로 있는 이들에게 탄식함이 있다.

슬픈-슬프지고-슬픔-습득물-습지-승리하다-승마자-시간

계18:10-‘아아, 슬프지고(alas)’=이 광신적 신앙 위에 있는 아주 깊은 탄식.

이30:1-‘말을 안 듣는 아들들에게 슬픔이 있다’=자신들을 돌려세우는 이들에게 탄식함이 있다.

미7:1-‘슬프다가 나이다, 나는 여름철에 수확함 같이, 포도 수확 후에 줍는 것 같이 되어 있다’=교회에서 선이 황폐하고, 파생된 진리가 황폐하기 때문에 있는 비통함.

슬픈 (sad)

창50:1-슬픔이 여기서 ‘울다’에 의해 의미되나 이는 외적 의미의 죽음 같이 내적 의미에서의 죽음 때문임을 뜻하지 않고, 영적 교회의 선 때문에, 즉 이 선이 자연적인 것 이상으로 승강될 수 없기에 있는 슬픔이다.

이19:8-‘슬퍼하는 것’=애쓰는 것.

겔23:33-‘너는 술취함과 슬픔으로 채워질 것이다’=영적인 것들에서 미친짓하고 혐오하는 것.

애1:4-‘그녀의 처녀들은 슬프다’=진리에 애착함 들이 파괴되어왔다.

슬프지고! (alas)

암5:16-‘슬프지고! 슬프지고!’=깊은 슬픔.

겔30:1-‘슬프지고!’=탄식.

슬픔 (sorrow)

창42:38-‘슬픔 안에서 무덤으로’=소생의 희망 없이. 그 이유가 희망이 더 이상 없을 때, 슬픔이 있다.

슬픔 (grief)

* 아픔(pain)을 보라

습득물 (acquisition)

창12:5-‘그들이 획득한 모든 물질’=감각적 진리들인 모든 것들. 과학적인 모든 것로부터 인간은 생각하는데, 이를 물질이라 불리운다. 획득한 과학적인 것 없이 인간은 인간으로서 사고의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없다.

창13:6-‘그들의 물질은 너무나 많아서 그들은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내향의 인간에 의해서 획득되어온 것들은 외향의 인간에 의해 획득된 것과 일치할 수 없었다.

창31:18-‘그는 그가 획득한 모든 물질과 습득물을 챙겨서 떠났다.’ ‘습득물’=진리, ‘물질’=선. 히브리어에서 ‘

습득물’의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가축떼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출12:38-‘양떼와 목축, 그리고 대단히 많은 습득물’=진리를 통하여 획득한 선. 획득해왔던 것이 ‘습득물’에 의해 의미되었는데, 그이유는 영적 교회인의 선은 진리를 통하여 획득되기 때문.

습지 (marsh)

* 호수(lake)도 참조

겔47:11-‘진흙투성이와 습지’=하찮고 불순한 것들.

겔47:11-그들이 악의 거짓들에 있기 때문에 개혁되어질 수 없는 이들이 ‘치료되지 않는 진흙과 습지, 그래서 소금 (땅)으로 되어가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승리하다 (victory)

* 정복하다(conquer)도 보라.

출32:18-‘승리가 아니다, 뭔가가 상실된 것도 아니다’=거짓과 진리 사이의 전투가 중지됨, (고로) 이쪽에서는 천국이 행동하고 저쪽에서는 지옥이 행동하는 것.

이63:3-‘내 옷들 위에 그들의 승리...’=자신들의 사랑들을 좋아하는 쪽으로 글자 의미와 씨름하는 이들에 의한 잘못된 (말씀의) 해석과 응용.

애3:18-‘내 승리는 멀해졌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던 것 같은 승리에 관련한 자포자기를 포함하고 있다.

계15:2-‘짐승에게 승리하는 것’=선행의 삶을 사는 것, 또한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것.

승마자 (horseman)

* 타다(ride)를 보라.

시간 (time)

때 (time)

창17:21-‘다음 해 정해진 시간에’=그 당시 합일(union)의 상태.

창18:14-‘정해진 시간에 나는 네게 돌아올 것이다’=와지는 상태...‘정한 시간’=삶의 이 시간에 의해 의미된 이 상태의 일반적인 것. 그리고 이 일반적인 것이 와지는 것,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있을 것인지가 ‘삶의 이 시간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24:11-‘저녁 때 쯤에’=그당시 더 희미한 상태.

창24:11-‘물길으려는 이들이 나오는 때쯤에’=가르침의

시간

상태.

창29:7-‘양떼들을 모아들일 때가 아니다’=선들과 진리들이 아직은 하나 안으로 수집되어질 수 없었다는 것. ‘시간’=일반적으로 상태.

창38:1-‘이 때가 되었다’=뒤이어 오는 것들의 상태.

창38:27-‘때가 되었다’=뒤잇는 상태.

출13:10-‘너는 매년 정해진 때에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다’=질서 속의 이 법은 이 상태에서 꾸준히 있어야 한다는 것.

출18:22-‘모든 때에’=항구적으로.

계10:6-‘더이상 때가 있지 않을 것이다’=어떤 상태의 교회도 있지 않을 것이다, 즉 한분 하느님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한분 하느님이 주님이심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회는 없다는 것. ‘때’=말씀을 이해하는 측면에서의 인간의 상태, 그로부터 파생하는 교회.

단12:9-‘종말의 때 조차에서도’=이 때 까지 조차.

계12:12-‘그는 짧은 시간 밖에 가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그는 새 천국이 형성되어 왔었다는 것, 그러므로 땅 위 새 교회의 존재가 임박했음을,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자들과 더불어 지옥으로 내던져 질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12:14-‘한 때, 그리고 두 때, 그리고 반 때’=종말과 시작에. 고로 한편으로는 아주 적은 사람으로부터 새 교회는 그것의 지정된 상태에까지 조차 더 성장한다.

계1:3-‘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와같은 내면의 상태.

겔16:8-‘사랑들의 때’=개혁되어질 수 있는 때의 상태.

시69:13-‘여호와와 기꺼워하시는 때’=사랑으로부터 열납하심. ‘때, time’, 인간을 두고 말할 경우,=존재하는 상태, 그로 여호와를 두고 말할 경우,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고로 그분의 사랑, 그 이유는 이것이 항구적이기 때문.

시37:19-‘악의 때’=시험들의 상태.

계6:11-‘그들은 아직 약간의 시간을 휴식해야 한다’=이 상태에서 얼마 더 한 기간. ‘시간’=상태.

단11:40-‘종말의 상태’=교회의 마지막 때, 즉 선이 없기에 진리도 없는 때.

단7:25-‘한 때, 두 때, 그리고 반 때’=상태가 충만해짐.

시39:5-‘제 시간은 당신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니다’=인

간 생명의 상태는 쓸모가 없다.

눅21:24-‘나라들의 때가 찰 때까지’=악이 극점에 달할 때까지.

겔30:3-‘나라들의 때’=악들로부터 교회의 상태.

시102:13-주님의 강림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때’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애1:15-‘그분은 나를 향하여 지정한 때를 선포하셨다’=교회의 마지막 상태.

시간 (hour)

* 반 시간(half an hour), 시간(time)도 참조.

마24:36-‘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그 당시 선들과 진리들에 관련한 교회의 상태, 그것은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시간’=특별한 측면에서의 상태.

요11:9-‘낮에 열 두 시간이 있지 않느냐?’...‘열 두 시간’=진리의 모든 상태들. (=생명의 상태들).

계9:15-‘한 시간, 하루, 한 달, 일 년’=계속적으로, 그리고 영구히...

계11:13-‘그 시간에’=그 당시에...

계17:12-‘한 시간’=언젠가를 위해, 또한 얼마쯤을 위해.

계18:10-‘한 시간에’=그렇게 갑자기.

계18:16-‘한 시간’=갑자기 그리고 분명하게.

계18:19-‘한 시간에 그들은 황폐되었다’=이 광신적인 신앙 때문에, 이후 그들의 거룩한 것들을 아무도 살 수 없다.

계3:3-‘내가 네게 올 어떤 시간을 너는 알지 못한다’=그 당시 그 때와 상태에 무지함.

마20:1-17-이 ‘시간들(hours)’, 세상에서, 시간들(times)을 뜻한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생명의 상태들을 뜻한다. 그 이유는 거기에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

마27:45-‘세 시간’=충분함과 모두 함께.

계14:15-‘베어들이는 시간이 왔다’=이것을 행할 때(time).

시날 (shinar)

창10:10-‘바벨, 등등, 시날의 토지에서’=외형상 거룩하게 나타나나, 내면은 모독된 예배들.

* ‘시날의 토지’=모독이 있는 외적 예배.

시날-시내-시내산-시대

창11:2-'그들은 시날의 토지에서 계곡을 발견했다'=그들의 예배는 더 불순해지고 모독적이 되어갔다.

창14:1-'시날의 왕 아브라멜', 등등=여러 종류의 외관적인 선과 진리.

여7:21-'시날의 외투'=거짓의 한 종류.

숙5:11-'시날'=모독인 것이 들어 있는 외적예배.

시내 (brook)

이30:25-신앙 속의 진리들, 이것이 '시내와 물의 흐름'이다.

신9:21-'시내산으로부터 시내'=신성으로부터의 진리 (truth Divine), 고로 글자 안에 있는 말씀.

겔36:6-'산, 언덕, 시내, 계곡'=교회의 첫째가는 원리로부터 마지막 짚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것들. '시내와 계곡'=교회의 최말단에 있는 진리들과 선들.

욘3:18-'유다의 시내들'=주님의 천적 왕국의 한 개 한 개의 세부적인 것들. 또한 말씀의 한 개 한 개의 개별적인 사항들.

이30:25-'시내'=지혜, '물의 흐름'=총명.

시65:9-'물로 가득찬 강'=진리들로 가득한 교리.

욘1:20-'물들의 강들이 말라졌다'=교리 속의 진리들이 자연적 사랑을 통하여 사라졌다.

시내 (Sinai)

시내산 (Mount Sinai)

* 산=주님, 그리고 그분의 천국의 것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시내산으로부터 법을 선포하셨다.

출16:1-'시내', 거기서 선포한 법으로부터,=선 그리고 이 선에서 파생하는 진리.

출19:1-'그들은 시내 광야에 왔다'=신앙의 진리들이 심어지게 되는 선의 상태...'시내'=진리들 자체.

출19:1-시내산, 최고 의미에서,=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산'=신성한 선. '시내'=신성한 진리. 내적 의미에서 시내산=선으로부터의 신앙 속의 진리. 여기서 는 선 안에 심어지게 되는 신앙 속의 진리, 그이유는 법이 시내산으로부터 아직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

신33:2-'시내산'=복합체에 있는 신앙 속의 진리들.

출19:11-'시내산 위에'=선 안으로 진리가 심어지게 되는 것.

출19:18-'시내산 전체가 연기로 덮혔다'=가장 큰 희미

함에서 천국의 선이 나타남.

출19:20-'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다'=천국에서 주님의 현존.

출19:23-'사람들은 시내산으로 오를 수 없다'=영적 왕국의 사람들은 천적 왕국으로 자신들을 승강되게 할 수 없다. '시내산'=천적 왕국.

출20:22-여기서 시내산이 '하늘'이라 불리우고 있다.

출24:13-시내산을 여기서 '하느님의 산'이라 불렀다=법, 또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 고로 천국에서 있는 말씀 같은 말씀.

출24:16-'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천국에서 주님의 말씀의 내면들.

출34:2-'아침까지 준비해서, 너는 시내산으로 오르거라'=신성한 진리의 계시가 새로이 일어남. '시내산'=신성한 진리가 있게 한 천국으로부터. 고로 거기로부터 계시가 있다.

출34:2-'너는 산의 머리 위 거기서 나에게 서있거라'=신성한 사랑이 있는 가장 깊은 천국으로부터. '시내산'=계시를 있게 하는 천국.

출34:29-'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왔을 때'=말씀, 교회, 그리고 예배의 외적인 것 안으로 내적인 것이 유입됨.

시68:17-'시내'=신성한 진리가 있고, 있게 하는 천국. 그러므로 말해지는바, '성소에서 시내산'이라 말해진다.

시대 (age)

창4:24-'시대'는 십 년이다.

창9:12-'시대'=영구적인 것.

창15:9-교회의 마지막 때가 '세째 날', '세째 주', '세째 달', '세째 해', 그리고 '세째 시대'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말3:1,2,4-'시대의 날들'=태고 교회.

창49:26-'시대의 언덕들의 바램과 동등하다'=천적 상호적인 사랑, '시대의 언덕들'=상호간의 사랑 속에 있는 것.

합3:6-'영원의 산들'=태고 교회의 사랑으로부터의 선, '시대의 언덕들'=이 교회의 상호 사랑으로부터의 선. 전자는 그것의 내적 측면, 후자는 그것의 외적 측면.

출14:13-'너는 그들을 다시는 더 이상 영원히 보지 않

시돈-시들게 함-시땀-시리아-시므온

을 것이다'=한번 내버린 거짓들은 영원히 내버릴 것이다.

출27:21-'시대의 (규례)'=영원인 것.

출30:21-시대에 의해 영원인 것이 의미되어진다.

시돈 (Sidon)

이33:4-'시돈'=신앙의 지식 안에 있어왔던 이들.

창10:15-'가나안이 시돈을 낳았다'=단지 외적이기만 한 예배가 영적인 것들의 외면의 지식을 (낳았다). 이 지식은 외적 예배의 첫 번째 것들이다, 하여 시돈은 가나안의 첫 번째 출생으로 말해지고 있다.

겔32:30-'시돈 사람'=내적인 것이 없는 외면의 지식들, 고로 과학물외 더 없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와 더불어 언급되어진다.

눅4:26-사렘다가 '시돈' 출신이라 불러진다. '시돈'=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

왕상17:9-'시돈에 있는 여인'=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 안에 있는 교회.

골3:4-'두로와 시돈'=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안에 있는 교회 내의 사람들, 그러나 이 구절의 경우, 그 지식들을 남용하여 거짓과 거짓으로부터의 악에 응용한 이들.

이24:2-'시돈 상인'=말씀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시들게 함 (blasting)

암4:9-'말뚝'과 '백분병균(깜부기), mildew'=가장 바깥쪽 것들에 있는 악과 거짓.

시땀 (Siddim)

창14:3-'시땀 골짜기'=탐욕들로부터의 불결한 것들.

창14:8-'시땀 골짜기'=불결한 것.

창14:10-'시땀 골짜기는 역청 수렁으로 팍차있었다'=거짓들과 탐욕들로부터 불결한 것.

시리아 (Syria)

창29:1-야곱이 시리아로 갔을 때, 그는 '동쪽의 아들들의 토지'로 갔다고 말해지고 있다.

창29:1-'시리아'에 의해 일반적으로 선에 관한 지식들이 의미된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이 '아람, 또는 시리아'로 갔다고 말해지지 않고, '동쪽의 아들들의 토지'로 갔다고 말해지는데, 이는 사랑의 진리들로 승강함을 의미

하기 위해서이다.

왕하6:13-'(엘리사를 붙잡으려 큰 군대와 마병과 병거들을 보낸) 시리아의 왕에 의해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지닌 이들이 표현되나 여기서는 반대 의미인바, 진리로 부터가 아닌 지식들을 지닌 이들이 표현되었다.

이7:1,4-'시리아 왕 르신'=악에 관한 지식들. '시리아'=선에 관한 지식들, 여기서는 반대 의미.

암9:7-'길(kir)로부터 온 시리아인'=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지닌 이들, 그들은 이 지식을 악용했다.

겔27:16-'시리아는 너의 무역업자이다...'=...천적 사상으로 부터의 진리들인 선에 관한 지식들.

왕하5:10-'시리아의 나병 환자 나아만'=말씀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왜곡하는 이들. '시리아'=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이7:4-'르신, 그리고 시리아'=악용한 합리성.

이7장-(아하즈와 전쟁을 만든) '시리아 왕'=교회의 자연 평면, 또는 외적 측면.

시므온 (Simeon)

* '시므온'은 (그의 어머니가) 덜 귀여움을 받았음을 뜻한다.

* '시므온'=행동에 있는 신앙.

* 시므온은 '그분이 들으셨다'로부터 명명되었다.

* '시므온'=주님으로부터 있는 의지의 신앙.

창49:3,4-선행에 반대되는 의지와 애착이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창29:33-'그녀는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다'=(순종, 또는 의지에 있는 신앙의) 품질. 이 품질이 '시므온'에 의해, 또한 그로부터 명명된 지파에 의해 의미된다. 그리고 이 품질은 교회의 두 번째 보편적인 것, 또는 인간이 거듭나아갈 때 있는 두 번째 보편적인 것, 즉 순종, 또는 진리를 행동하게 하는 의지, 이 안으로 선행(레위)이 심어진다.

창34:30-'시므온'=신앙. 반대 의미에서, 거짓...여기서 영적인 것들의 표현인 것.

창42:19-'너희 형제 중 하나(시므온)을 가두어 두게 하라'=의지에 있는 신앙은 분리되어지리라는 것. (그이 유가) 의지에 있는 신앙, 또는 신앙의 진리를 행동하는 의지는 교회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로 부터 분리될 때,

시몬-시바-시스라-시아버지-시어머니-시온

신성과의 연결은 (극도로) 경시된다.

창43:13,14-‘시므온’=의지에 있는 신앙, 고로 선행으로부터의 선. 그이유가 신앙의 진리가 의지 안으로 건너갈 때, 그 진리는 선행의 선이 되어진다. 그 이유가 진리가 인간의 삶 안으로 건너갈 때,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있을 때, 그것은 알고만 있는 진리가 아니라 행동되는 진리로서 간주되기 때문, 이로부터 그것은 본질이 바뀌어 더 이상 진리라 부르지 않고 선이라 불려진다.

창43:23-‘그는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왔다’=그가 진리들을 향하고 있는 의지(뜻함)에 인접했다. 그이유가 ‘시므온’=의지에 있는 신앙, 또는 신앙 속에 있는 진리를 행하려는 의지이기 때문.

창48:5-‘르우벤과 시므온 같이 그들은 나의 것이다’=그들은 진리이고 진리로부터의 선이라는 것.. ‘시므온’=의지에 있는 신앙, 고로 행동에 있는 진리, 이는 신앙으로부터의 선, 또는 진리로부터의 선이다. 고로 일반적으로, 새 자발성(Voluntary) 속에 있는 선.

창49:5-‘시므온’=의지에 있는 거짓.

출6장-‘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신성 속의 것들을 표현한다.

계7:7-‘시므온 지파로부터 12,000명이 날인되어졌다’=주님의 새 천국과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과 더불어 영적인 사랑, 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charity)이다. (=순종, 그리고 순종 안에 있는 모든 이는 천국 안에 있다는 것)

숙12:13-‘시므온’=지각과 순종에 관련하여 있는 진리와 선.

시몬 (Simon)

* ‘요나의 아들 시몬’=선으로부터의 진리, 또는 선행으로부터의 신앙.

* ‘시몬’, 히브리어에서, 들음, 경청함을 뜻하는바, 이로부터 순종을 뜻한다.

눅5장-‘시몬의 배’=신앙의 교리적인 것들.

요21:15-17-‘요나의 아들 시몬’=선행으로부터의 신앙. ‘시몬’=경청함과 순종, 그리고 ‘요나’=비둘기, 고로 선행.

시바 (Seba)

창10:7-‘스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여러 많

은 나라들, 이들과 더불어 신앙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수단으로 그 지식들 자체가 의미되었다.

시72:10-‘스바와 시바’=예배의 내적인 것들; ‘스바’=예배의 천적인 것들; 그리고 ‘시바’=영적인 것들.

이43:3-‘구스와 시바’=신앙의 영적인 것들..

시스라 (Sisera)

사5:20-‘별들이 그들의 진로들(ways)에 관련하여 시스라와 싸웠다’=진리에 관한 지식들, 그리고 악의 거짓들에 맞서 그것들로부터 전투함.

* ‘시스라’=교회를 파괴하는 악으로부터의 거짓.

시아버지 (father-in-law)

장인 (father-in-law)

미7:6-‘며느리가 시아버지에 맞선다’=선에 맞서는 거짓에 대한 애착.

창38:13-‘당신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떼의 털을 깎으러 담나로 올라간다더라’=유대 교회는 혼자 힘으로 상담받기를 원했다는 것, 그이유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표현한 교회와 교통함의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 여기서의 경우, 며느리.

출3:1-‘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었다.’... ‘장인’=진리와 결합되는 선을 나오게 하는 아버지 격인 선.

출18:1-‘모세의 장인’=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결합되어지는 선을 오게 하는 (신성한 선).

시어머니 (mother-in-law)

* 장모(mother-in-law)를 보라.

시온 (Zion)

* ‘시온산’에 의해 신앙의 천적인 것, ‘시온성’에 의해 신앙의 영적인 것이 뜻해진다.

예6:2-‘시온의 딸’=천적 교회.

이31:4-‘시온산’=주님. 그리고, 파생적으로, 모든 천적인 것, 이는 사랑이다.

애2:6-‘시온’=멀해지고 있는 교회

이52:1-‘네 강함을 입어라 오 시온아.’ ‘시온’=천적 교회. ‘예루살렘’=영적 교회.

이33:5-‘시온’=교회.

애1:4-‘시온의 길이 슬퍼한다’=선으로부터 진리들이

시온

더 이상 없다. ‘길, way’=진리.

삼하2:1-11, 왕상2:11-다윗은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을 통치한 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리고 시온의 소유권을 취했다. 그당시 처음에는 주님의 영적 교회가 예루살렘에 의해, 그분의 천적 교회가 시온에 의해 표현되기 시작했다.

이37:22-‘시온의 처녀 딸’=천적 교회.

이3:16-‘시온의 딸들이 자신을 높여 으쓱댄다’=교회 내부의 악에 대한 애착들.

이51:3-‘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실 것이다’=천적 교회.

미4:7-‘여호와께서 그들을 시온산에서 지금 이후 영원 까지 통치하실 것이다...’. 여기서 주님의 천적 왕국이 묘사되고 있다. 이 왕국의 가장 깊은 측면, 주님을 사랑함이 시온에 의해, 그것의 파생인 것인 상호 사랑이 ‘시온의 딸의 언덕’에 의해, 이 사랑, 영적 의미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예2:1,2-‘시온의 딸’, 그리고 ‘유다의 딸’=천적 교회, 이 구절의 경우, 이 교회가 파괴되었다.

예14:21-시온이 ‘여호와의 영광의 왕좌’라 불리워진다. ‘시온’에 의해 주님의 천적 왕국이 뜻해진다. (이 왕국의 제일 가는 것은 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이다.)

이49:18-21-‘시온’, 또는 천적 교회, 그리고 황폐됨 이후 이 교회의 열매 풍성해짐이 취급되고 있다.

이31:4-‘이와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 위에서, 이 산의 언덕 위에서 싸우시기 위해 내려오실 것이다...’시온산’=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그것의 언덕’=파생되는 신성한 진리. (=천적 교회, 그리고 영적 교회).

애1:6-‘시온의 딸’=선에 애착함, 이 애착은 천적 교회 속에 있다.

이2:2-‘여호와와 산’, ‘시온’=주님의 천적 왕국, 고로 이 왕국의 선, 주님을 사랑함. 고로 최고 의미에서 주님 자신...

욥2:23-‘기뻐하라, 너 시온의 아들들아’. ‘시온의 아들들’=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이60:15,16-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취급된다. 시온

은 천적 교회의 내적 측면, 예루살렘은 천적 교회의 외적 측면.

이31:9-‘시온’=천적 교회, 고로 사랑의 선, 이 선은 이 교회 속에 있다.

예6:23-‘시온의 딸’=선이 있는 교회.

시20:2-‘시온’=사랑의 선이 있는 천국.

예4:31-‘시온의 딸’=천적 교회.

이3:24-‘시온의 딸’=천적 교회, 즉 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는 교회.

이4:5-‘시온의 산의 주택’=천국과 교회. (=천적 교회의 선)

시110:2-‘여호와께서는 시온으로부터 강한 힘을 보내실 것이다’=천적 선으로부터 힘, ‘시온’=선.

이33:5-‘여호와께서는 공정과 정의로 시온을 채우셨다.’ ‘시온’=천적 교회는 신성한 진리로부터 총명음, 신성한 선으로부터 지혜로 (채워졌다).

이62:1-‘시온을 위하여 나는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의해 교회가 뜻해진다. ‘시온’은 천적 교회, ‘예루살렘’은 파생되는 영적 교회.

시2:6-‘시온, 내 거룩함의 산’=사랑의 선이 있는 천적 왕국. 이 왕국은 천국의 가장 깊은 곳, 교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이4:3,4-‘시온에 남겨진 자...’.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에 의해 교회가 의미된다. ‘시온’은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교회를, ‘예루살렘’은 이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교회가 의미된다. ‘시온의 딸들의 배설물을 씻어내는 것’=사랑의 선 안에 있는 교회 안의 이들을 악들로부터 순수하게 함.

이49:17,18-이런 것들이 시온에 관해서 말해진다, 이를 수단으로 천적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계14:1-‘시온산 위에 서있는 어린 양’=새 천국에 계신 주님... ‘시온산’에 의해 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는 천국이 의미되어진다.

미4:13-‘시온의 딸’=천적 교회.

슥8:3-‘나는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한가운데에 거주할 것이다.’ 여기서 ‘시온’에 의해 천적 교회가 뜻해진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의해 진리의 교리 측면에 관련된 교회가 뜻해진다.

시온

이3:17-‘시온의 딸들’=천적 교회, 그 교회 속의 것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반대 의미이다.

이4:5-‘시온’=말씀에 관련한 교회.

이12:6-‘시온의 거주민’=시온의 딸과 같은 의미, 즉 천적 교회, 즉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교회.

미4:13-‘일어나서 도리깨질하라, 오, 시온의 딸아’=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악을 흘뜨림...‘시온의 딸’=선을 애착함에 있는 교회.

이62:11-‘시온의 딸’=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는 교회.

이18:7-‘시온의 산’=교회, 여기로 그들은 초대되어진다.

시128:5-‘시온’=천국.

시133:3-‘시온의 산들’=천적 사랑으로부터의 선이 있는 곳.

시69:35-‘하느님께서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실 것이다’=천적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교리.

이52:7-‘시온’=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이 있는 교회.

시147:12-‘예루살렘’=교리 속의 진리 측면에서의 교회. ‘시온’=사랑의 선들 측면에서의 교회.

시128:5-‘여호와께서 너희를 시온으로부터 축복하실 것이다’=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축복. ‘시온’=사랑의 선 측면에서의 교회.

예31:12-‘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는 것’=내적 측면에서의 천적인 환희. 즉, 주님의 천적 왕국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시147:12-‘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예루살렘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라, 오, 시온아’...‘예루살렘’=교리 속의 진리들에 관련한 교회. 그리고 ‘시온’=사랑의 선들에 관련한 교회.

시2:6-‘나는 내 왕을 내 거룩함의 산, 시온 위에서 기쁨부웠다’=사랑의 선 안에 있는 천적 왕국. 이 왕국은 천국의 가장 깊은 곳, 교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시133편-‘시온의 산들’=신성한 선. 그러므로 ‘시온의 산들 위에 내려오는 헤르몬의 이슬 같이’=진리와 선의 결합.

시51:18-‘당신의 흠족해하시는 기쁨 안에서 시온에 선

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워주소서’=교회를 사랑의 선 안으로 인도함으로, 그리고 교회를 교리의 진리들 안에서 가르침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것.

이40:9-‘오, 시온아,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주님을 사랑함으로 선 안에 있는 교회.

시48:2-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이 가능한한 천국의 형체에 따라 지어졌던바, ‘북쪽에 위치한 시온의 산, 위대한 왕의 성’에 의해서도 분명해진다.

숙9:9-‘드높여라, 시온의 딸이여, 외쳐라, 예루살렘의 딸이여’=주님의 강림, 그리고 그분에 의해 사랑의 선 안에, 이로부터 파생되는 교리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심.

욥17절-‘시온의 산 안에 피신될 것이다’=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구원이 있다.

시48:12-‘시온의 산이 즐거워한다’=천적 교회, 이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는 이들이 있다.

애2:10-‘시온의 딸의 원로들’=교회에 있는 슬기롭고 총명한 자들, 추상적으로 지혜와 총명. ‘시온의 딸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처녀들’=선과 진리의 애착 안에 있는 교회 사람들.

욥2:23-‘시온의 아들들’=진짜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이를 통하여 그들은 사랑의 선을 가진다. ‘시온’=진짜 진리들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함의 선 안에 있는 천적 교회.

애5:11-‘시온’=천적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선 안에 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유대 교회가 표현했다.

시132:17-‘시온에서 나는 다윗의 뿔이 싹트게 만들 것이다’=천국과 교회 안에 그분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의 힘.

미4:8-‘시온의 딸’=천적 교회, 이 교회의 본질은 사랑의 선이다.

삼하6장-‘시온으로 궤를 가져옴’=세째 천국으로 승강함.

시102:14-‘시온의 돌들’=신성한 진리들. ‘시온, 이 위에서 여호와께서는 자비를 가지신다’에 의해 천적 사랑 안에 있는 교회가 뜻해진다.

이51:3-‘시온’=새로운 교회.

시작

예4:31-‘시온의 딸’= 사랑의 선으로부터 교리 속의 진리들 안에 있는 교회.

시110:2-‘시온’=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천적 교회라 불리워진다.

이10:24-‘두려워 말라, 시온의 거주민아’=진리들은 천적 사랑과 이 사랑에서 파생된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는 악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29:8-‘시온의 산에 맞서 싸우는 모든 나라들의 군중’=교회의 선들에 맞서 싸우는 악의 거짓들...‘시온의 산’=사랑의 선 측면에서의 교회.

이33:20-‘시온을 쳐다보라, 정해진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성, 네 눈이 예루살렘, 조용한 주택을 보게 하라.’ ‘시온’과 ‘예루살렘’=사랑의 선, 교리 속의 진리 측면에 관련한 천국과 교회.

애2:4-‘시온의 딸’=사랑의 선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 안에 있는 교회.

이49장-여기서 취급된 시온의 아들들=주님을 사랑함과 이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

시14:7, 53:6-‘시온’=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이들.

이52:1-‘네 강함을 입어라, 오, 시온아. 네 아름다움의 옷을 입어라, 오 예루살렘, 거룩함의 성이여.’ ‘시온’에 의해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강함’에 의해 의미된다.

이52:2-‘시온의 딸’=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선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 안에 있는 이들.

시작(beginning)

처음 (beginning)

시작하다 (begin)

창11:6-‘이것은 하려는 것의 시작이다’=지금 그들은 다른 품질로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 ‘하려는 것의 시작’=생각, 또는 의도, 고로 목적.

겔36:11-고대 교회가 ‘시작’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창1:1-최고대 시간이 ‘시작’이라 불린다...‘시작’에는 인간이 거듭날 때의 처음 시간을 포함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때에 그는 새로이 태어나 생명을 받기 때문이다.

겔36:11-‘시작’에 의해 홍수 이후 고대 교회가 의미되

어지고 있다.

창8:5-‘그 달의 초하룻날 시작에서’=첫 경계(선)

창49:3-르우벤, 야곱의 첫 출생, 그리고 ‘강함의 시작’이라 불리고 있다.

창10:10-‘그의 왕국의 시작’=이와 같은 예배가 시작되었다.

창37:17-‘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갔다 그리고 도단에서 그들을 발견했다’=그들은 거짓 원리들의 세부사항들 속에 있었다는 것...‘도단’=거짓 원리들의 세부사항들.

창49:3-‘내 힘들의 시작’=그것을 통하여 진리는 힘을 가진다는 것. ‘힘들의 시작’=첫 힘(능력).

창50:13-‘막벨라 들판의 동굴 안에’=거듭남의 시작.

출12:2-‘이것은 너희에게 그 해의 달들의 처음일 것이다’=뒤를 이어 영원까지 가는 상태의 시작...‘한 해’=시작부터 끝까지의 인생 기간; 여기서 저세상에 있는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삶의 시기가 가지는 시작, 그러나 끝은 아닌바, ‘한 해’에 의해서는 시작부터 영원까지의 삶의 기간이 의미되고 있다.

이60:9-‘처음에 다르셋의 배들이’=그들이 가져오고 행하는 선한 것들.

시111:10-경외함이 예배 안에 있는 거룩함의 근원, 또한 지혜의 근원, 그리고 총명의 근원인 신성한 진리와 관련 있기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창11:6-‘이것은...행동의 시작이다’=지금 그들은 다른 품질로 되려는 시작에 있었다는 것. ‘하려는 시작’=생각, 의도, 고로 목적.

겔36:11-고대 교회가 ‘처음’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마24:6,8-교회가 뒤집히는 첫 상태, 이는 그들이 더 이상 무엇이 선이며 진리인지 알려하지 않을 때이다. 대신 그들은 그것들에 관해 말다툼한다. 이로 인해 거짓들이 발생하는바, ‘끝은 아직 아니다’와 ‘이것들은 슬픔들의 시작이다’에서 의미되어져 있다.

시절 (age)

* 날 (낮)을 보라

시종장 (courtier)

창40:2-‘그의 두 신하, 시종장’=두 종류의 신체 속의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시절-시종장-시체-시험-시험하다-시홀-식량

시체 (corpse, carcase)

마24:28-‘시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독수리들이 모여 든다’=추론을 통하여 거짓들을 확증함이 황폐된 교회 안에서 불어날 것이다. 교회에 선이 결핍되고, 이로부터 신앙의 진리도 결핍될 때,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 말해 지고...이것이 ‘시체’에 비교되어진다.

나3:3-‘시체 더미, 무수한 몸들’=셀 수 없는 악들, 그리고 악들 안에 있는 이들.

시110:6-‘그분은 죽은 몸들로 가득되게 하셨다’=고로 영적인 죽음, 이것에는 진리와 선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다.

레17:15-‘시체를 먹는 것, 그리고 찢기운 것을 먹는 것’=악과 거짓을 자기 것 삼음.

예36:30-‘죽은 몸’=영적 생명 없는 교인.

사14:8-‘사자의 시체에서 그는 벌레와 꿀을 발견했다’ 신앙이 사라진 이후, 그 자리를 선행의 선이 계승한다.

이14:19-‘발 아래 짓밟힌 시체’=선이 깡그리 파괴된 결과, 모든 것이 영적으로 죽은 지옥적인 영.

시험 (temptation)

* combat, conquer, cross, despair, forty, labour, victory, wilderness, yield도 참조.

* 시험은 말씀에서 ‘홍수’, 범람과 비교되어진다.

* ‘비오는 것’=시험.

* ‘40일 낮과 밤’=시험의 기간.

* ‘노아, 600세의 아들’=시험의 그의 첫 상태.

이28:2-여기서 시험의 등차들이 기술되어진다.

창22장-주님의 가장 비통하고 가장 깊은 수준의 시험들을 취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그분은 인간 본질을 신성에 하나되게 하셨다.

마26:37-39, 42, 44, 27:46, 막14:33-36, 15:34, 눅 22:42-44-주님께서 겪은 시험 중 매우 깊은 시험들이 취급되고 있다.

눅22:43-‘여호와의 천사가 천국으로부터 그분을 방문했다’=신성 자체로부터의 위로...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가장 슬픈 시험을 견뎌가실 때, 천사가 그분을 힘내시록 그분에 의해 보여졌다.

창33:1-‘400’=시험의 상태와 기간.

창49장-‘납달리’=시험들 이후의 상태.

요2:5-‘물들이 내 혼 까지 나를 에워쌌다...’ 이 예언서에서 시험들의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이 ‘물들’=거짓들. ‘깊음’=거짓으로부터의 악. ‘잡초들이 머리를 감쌌다’=거짓 과학물들이 진리와 선을 봉쇄하는 것. 이런 시험의 경우는 황무해짐의 상태이다.

출16:4-‘내가 그를 시험할런지(prove) 모른다는 것’=그것은 조사하기 위해 있을 것이다

시26:2-시험들에 의해 진리들이 거짓들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선들이 악들로부터 분리되어질 때, ‘나를 시험(try)하시고...’라고 말해진다.

이53장-이 장은 주님의 시험들을 다룬다.

시험하다 (try)

* effort, explore, temptation도 보라.

창30:27-‘나는 시험했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그것이 신성으로부터 이었다는 확실함이 알려졌다.

시홀 (Sihor)

이23:3-그들 안에 내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지식들은) ‘시홀의 씨(seed)’라 불리운다.

예2:18-‘시홀의 물들’=거꾸로 뒤집는 과학물들. (=거짓 과학물, 또는 거짓들을 확증하는 과학물들).

예2:18-‘네가 시홀의 물들을 마시겠다 하여 이집트의 길과 더불어 무엇을 하려 하느냐?’=거짓들과 더불어 과학물을 거꾸로 되게 응용하여 피어내는 것. (=자연적 인간의 과학물을 도구로 영적인 것을 탐사하는 것).

식량 (provision)

창42:1-‘이집트에 식량이...’=과학물들을 통하여 있는 교회 속의 진리들.

창42:1-‘식량’이 이 구절에서는 ‘조깅(breaking)’을 뜻하는 원어에 의해 표현되어졌다...그 이유는 빵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때 쪼개서 나누었기 때문.

창42:19-‘너는 네 집의 기근을 위하여 식량을 가져오라...’식량=진리.

창42:26-‘그들은 자기들의 나귀 위에 식량을 들어올렸다’=과학물 안으로 그러모은 진리들.

창42:25, 시78:24, 25-‘길(여행)을 위한 식량을 그들에게 주는 것’=그는 그들이 가졌던 진리를 떠받쳤다...‘식량’ 또한=진리와 선을 수단으로 떠받치는 것.

식물-식사 공물

식물 (plant)

* 심대를 보라

식물 (food)

* 식품을 보라

식사 공물 (meat-offering)

* 식사 공물은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과자로 만들었다.

레2장, 6:14-17, 민15장-이 장에서는 식사 공물에 관하여, 그것의 구성 요소가 기술되고, 어떻게 과자로 만들어 준비되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식사 공물의 법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식사 공물의 법이다. 아론의 아들들이 주님 앞 제단에 그것을 바쳐라. 그리고 그는 거기로부터 식사 공물의 고운 곡식 가루 한 움큼, 그것으로부터 기름, 식사 공물에 있는 모든 유향을 가져가라,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달콤한 향기를 위해, 그것으로부터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다. 이것은 거룩한 장소에서 누룩 없이 먹어라. 만민의 천막의 뜰에서 그들은 그것을 먹어라. 누룩과 더불어 구워져서는 안된다. 나는 불로 만든 내 제물로부터 그들의 몫으로 그것을 주었다. 이것은 가장 거룩하다.' '그들이 한 움큼 가져오는 것은 그들이 전력을 다해 사랑하는 것...' '고운 곡식 가루', '기름과 더불어', 그리고 '유향'은 선행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표현했다. '고운 곡식 가루'는 그것으로부터의 영적 평면, '기름'은 그것의 천적 평면, '유향'은 깊이 감사하는 것...' '누룩 넣지 않은 것, 또는 발효되지 않은 것'=신실해야 할 것, 고로 신실한 심정으로부터 있을 것, 불결한 것이 전혀 없는 것.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남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영적) 상호성(Reciprocal), 그리고 자기 것 되게 함, 고로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결합함을 표현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한다고 명령되어졌다, 이로부터 그것은 가장 거룩하다고 불리운다. 이상의 내용들이 식사 공물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출29:39-41, 레5:11-13, 6:14-21, 10:12,13, 23:10-13,16,17, 민5:15, 6:15-17,19,20, 7,28,29장-이 구절들에서 식사 공물이 더 취급되는데, 제물의 각 종류와 관련하여, 어떤 방법으로 과자로 구워지는가 등

등에 관련하여... 과자로 만들어진 고운 곡식 가루는 일반적으로 빵과 동일한 것, 즉 사랑의 친적인 것을 표현했다. 그리고 식사는 그것의 영적인 것.

말3:4-'달콤함, sweet'은 사랑으로부터의 예배, 이는 '유다의 식사 공물'이다. 그리고 파생되는 신앙으로부터의 예배는 '예루살렘의 식사 공물'이다.

* 일반적으로 모든 제물, 어떤 종류의 제물이든, '선물, gift'로 불리웠다. 그러나 특별한 것으로 빵과 포도주, 또는 헌주(술을 따라 바침, libation)와 더불어 과자는 식사 공물로 불렸다. 원어에서 '식사 공물'은 '선물'을 뜻한다.

* 제물에 식사 공물 과 헌주(음료 제물)가 추가되어지고 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로 된 식사 공물은 천적 선, 다른 말로는 사랑으로부터의 선이 의미된다. '기름'=주님을 사랑함, '고운 곡식 가루'=이웃을 향한 선행. 그러나 포도주로 구성되는 헌주(또는 음료 제물)은 영적 선, 같은 뜻으로 신앙으로부터의 선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식사 공물 과 음료 제물 둘 모두 성만찬에 있는 빵과 포도주와 같은 의미를 지녔다.

출29:38-41, 레23:12,13,18, 민6:13-15,17, 15:3-5,11, 28:6,7-이런 것들이 태워 바침과 제물에 추가되었다.

민28:7-끝절, 29:1-끝절-다양한 종류의 제물에서 식사 공물 과 음료 공물에 관하여...

레2:4,5,7-'오븐(oven)'의 의미가 거기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공물을 위해 제조된 빵...'식사 공물'로 불리웠다. 그리고 오븐 안에서 제조된 것은 납작한 냄비에서 제조된 식사 공물과는 구별했다. 이런 것들에 의해 다양한 사랑의 선이 의미되었다.

말3:4-'그들이 여호와께 가져올 식사 공물'은 신앙과 선행이다.

말1:11-애착 속에 있는 것들, 거기로부터 심정 속에 있는 것들이 '식사 공물'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신33:10-'식사 공물과 태워바치는 공물'=애착 속에, 그리고 심정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랑의 선에 관련되고 있다.

출29:41-'아침 식사 공물에 의거, 그리고 거기로부터 헌주에 따라서, 너는 그것을 만들 것이다'=천적인 것

식욕-식품

로부터의 영적 선, 그리고 그것의 진리는 결합을 위해 충분하다. '아침 식사 공물', 또는 둘째 '어린 양을 위한 식사 공물'=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 선...

예17:26-'식사 공물'에 의해 사랑의 선이 의미되어진다.

출30:9-'태워마치는 공물 과 식사 공물(을 향제단에서 바치지) 말라'=천적 사랑의 선들과 진리들을 통하여 있는 거듭남에 대한 표현은 거기에는 없다는 것...'식사 공물'=천적인 선, 인간은 거듭남을 통하여 이 선에 소개되어진다. 또한 거듭남의 표현.

말3:3-'정의 안에서 식사 공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는 것'=선행의 선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것.

말1:11-천적 선으로부터의 예배가 '식사 공물'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시141:2-'저녁의 식사 공물 같이 내 손의 들어올림이 (있게) 하소서.' 손을 들어올림이 '식사 공물'이라 불리 워진다, 그이유는 손을 들어올림과 식사 공물의 의미가 모두 천적 선으로 같기 때문...이 선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부터의 선이다.

율2:14-'식사 공물', 이것은 빵이었다.=선.

말3:4-'달콤함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식사 공물(로부터) 여호와께 있을 것이다'=그당시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으로부터의 예배가 열납되어질 것이라는 것.

예33:18-'식사 공물'에 의해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부터의 선으로부터 예배함이 의미되어진다.

예17:26-'식사 공물과 유향'=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과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

이43:23-'식사 공물', 이는 고운 곡식 가루인바, 빵, 고로 천적 선이 의미된다.

레5:9,19-'뜰에서 신성하게 한 이것들을 먹는 것'에 의해 '식사 공물'과 이런 '제물들'에 의해 의미되어졌던 교회의 선들을 자신들에게 자기 것 되게 하는 것이 의미되고 있다.

율1:13-'식사 공물'에 의해 교회의 선이 의미된다.

단9:27-'제물'=진리들로부터 예배함. 그리고 '식사 공물'=선들로부터 예배함.

식욕 (appetite)

창30:38-'목마름'=식욕 그리고 갈망함, 고로 앓에 대한

애착과 진리를 흡수함...'배고픔'=식욕, 갈망함, 고로 불어 넣는 선에 애착함.

이29:8-'단식하는 혼', 그리고 '식욕을 가지고 있는 혼'='신앙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을 배우기를 그리워함.

출22:4-'짐을 나르는 짐승'=쾌락 또는 육체의 식욕.

식품 (food, meat, feed)

창1:29. 겔 47:12, 시23:2-'열매'는 주님께서 천적 인간에게 주시는 것; 그러나 '열매를 생산하는 씨'는 영적 인간에게 주시는 것, 그러므로 말해지는바, '씨를 생산하는 나무가 너에게 식품을 위해 있을 것이다.' 천적 식품이 '나무로부터의 열매'라 불리우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명백하다...그리고 **겔47:12**로부터도,,그러나 영적 식품이 '풀잎'이라 불리는데 **시23:2**에서 선포되고 있다.

창1:30, 시104:14-위와 똑같은 자연적 식품이 여기서 서술된다. **시104:14**에서는 자연적, 영적 식품을 다룬다.

마4:4-'빵'=천사들의 식품인 영적, 천적인 모든 것. 천사들은 이것이 결여되면 살아 있지 못하는데, 그 중요함이 지상의 경우 자연적 식품과 같다.

창43:2-'너희는 되돌아가서, 우리에게 양식을 조금 사라'=살아 있기 위하여 그들은 영적 진리로부터의 선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식품'=진리로부터의 선; 여기서, 영적 진리의 선, 그 이유향이 이 선이 곧이어 취급되기 때문.

창44:1-'사람들의 자루를 양식으로 채우라'=진리로부터의 선을 가지고 자연 안으로 (자신으로부터 유입).

창44:25-'너희는 되돌아가서 양식을 조금 사라'=진리로부터의 선이 자기 것 됨이 있다는 것...영적 양식은 일반적으로 모든 선이다; 특별하게, 어쨌든, 이 선은 진리를 수단으로 획득되는 선이다. 즉 의지와 행동 안에 있는 진리, 그 이유향이 이 진리는 선이 되어가기 때문...그리하여 진리의 선이라 불리운다.

신8:3, 마4:4-인간의 혼은...영적 식료품에 의해 떠받쳐진다...'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여호와와의 입으로부터의 모든 말에 의해 인간은 살아 있다.' '여호와와의 입으로부터의 모든 말'=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선과 진리. 그리고 역시, '없어질 식품을 위해 노동하지 마라'...로부터.

창47:24-'너희 양식을 위해, 그리고 너희 집의 식술을

신

위해' = 그러므로 진리로부터의 선은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 안에 있을 것이다.

요6:27 - '식품' = 말씀으로부터, 고로 주님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모든 진리와 선.

신32:13 - '그분은 들판의 생산물을 먹이셨다' = 그들은 모든 진리와 선으로 훈육되어졌다는 것.

시144:13 - '곳간' 그리고 '식품' = 교회 속의 선들과 진리들; 그 이유가 영적 식품들은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이기 때문, 이를 통하여 총명도 온다.

예16:4 - '땅의 짐승을 위한 식품(밥)이 되는 것' = 악들을 통하여 지옥에 떨어짐.

겔34:5 - '식품(밥)이 되는 것' = 사그러 없어지는 것.

시104:27 - '식품' = 지식과 총명.

이58:14 - '야곱의 유산으로 기른다' = 천국과 교회의 모든 것을 기금으로 기부하는 것.

단4:12 - '그 안에는 모든 이를 위한 식품' = 선과 과생적인 진리들로부터 있는 천국적인 자양분.

율1:16 - '하느님의 집으로부터 끊어진 식품' =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의 영적 자양분.

창2:9 - '식품으로 좋은...' = 마음의 자양분에 도움을 주는 것.

출21:10 - '그녀의 식품, 그녀의 의복, 그녀와 동침할 의무, 그는 줄이지 못한다' = '식품'인 내면적 생명, '의복'인 외면적 생명을 빼앗김이 없다... '식품' = 내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 그 이유가 식품, 즉 식료품은 영적 의미에서 =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식품 = 선에 관한 지식, 음료 = 진리에 관한 지식; 그러므로 '식품' = 인간의 영적 생명에 자양분을 주는 것들.

신 (sin)

출16:1 - '신 광야' = 시험의 또 다른 상태... '신' = 이 상태의 품질. 이 백성들이 빵과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댐에 의해 의미된 시험의 상태로부터,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의미된 위로받음의 상태로부터, '신' = 진리로부터 있는 선임이 분명하다. '신'이 이집트의 성읍이었다는 것으로부터 신 광야라는 이름도 얻어졌다, 반대 의미에서 = 거짓으로부터 있는 악.

출17:1 - '신의 광야로부터' = 선에 관련된 시험의 상태... '신' = 선의 측면에서의 시험의 상태와 품질.

겔30:15,16 - '이집트', '신', 그리고 '노' = 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과학물(과학적 지식)과 오류들, 이것들은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통하여 개혁되고 거듭나는데에 장애물이다. 진리들이 알려졌는데, 이것을 생명 안에서 받지 않고, 고로 개혁되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 '신은 진통으로 괴로워할 것이다, 그리고 (자궁을) 뚫고 나갈 (힘은) 있지 않을 것이다.

신 (shoe)

창14:22 - '신의 가죽 끈' = 불결한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것들.

* 신은 발바닥과 뒤꿈치를 옷입힌다. 그러므로 신 = 한층 더 자연적인 것, 고로 육체적인 것 자체.

* '신의 실가닥' = 거짓, '신의 가죽 끈' = 악.

출3:5 - '네 신을 벗으라' = 최말단의 자연 평면과 육체적 평면.

* 신 = 가장 낮은 자연 평면. 이는 육체의 감각 평면이다.

마10:10 - '외투(coat)'와 '신' = 그들을 옷입히는 진리들.

출12:11 - '네 발에 네 신을...' = 외면들에 관련하여. '신' = 자연의 최말단적인 것들, 일반적으로 내면의 것들을 덮는 것들.

마10:10 - '신' = 외면의 진리, 또는 자연 평면 안에 있는 진리... '신 두 켤레' = 주님과 자아 양쪽으로부터.

이20:2 - '발에서 신이 벗겨있게 하는 것', 즉, 발의 바닥에 신을 신지 않는 것 = 자연의 불결한 것들을 폭로하는 것... '발가벗은 (몸)과 맨발' = 모든 진리와 모든 선이 박탈됨.

눅15:22 - '그의 발에 신을 신는 것' = 외적 인간에서도 동일한 것.

겔16:10 - '나는 오소리 가죽으로 너를 신겼다' = 글자 의 미로부터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을 가르치는 것.

신33:25 - '말씀의 최말단이 자연적 진리와 선이라는 것이 '네 신은 철과 놋쇠'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신경 (nerve)

힘줄 (sinew, nerve)

창32:32 - '힘줄(sinew)' = 진리. 그 이유가 선 안에 있는 진리는 살 안에 있는 힘줄 같은 국면이기 때문.

* 신경들 = 진리들.

신경-신랑-신뢰-신뢰할 수 있는

시11:2-‘그들은 활시위에 화살을 장진한다’=그들은 진리들 같이 나타나는 거짓들을 그것에 응용한다는 것.

시76:3-‘활의 시위(string)들’=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

신랑 (bridegroom)

* 신부(bride)도 참조.

마25:1-‘그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그들이 영접함...‘보라 신랑이 온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가라’=심판인 것, 즉 받아들임과 거절함.

출4:25-‘(십보라는)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피들의 신랑이다’=그것은 진리와 선에게 모든 폭력과 적개심으로 packed 있었다는 것. ‘신랑’, 여기서=교회의 표현, 또는 그것의 외적 측면...십보라가 이 교회를 표현하고 모세는 그것의 외적 측면을 표현하는바, 그녀는 그를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신랑이라 부른다, 그이유는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아내는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서이다.

마25장-‘신랑’=주님.

계18:23-‘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더 이상 내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광신적 신앙으로부터의 교리와 그에 따른 생활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는 교회를 만드는 요소인 선과 진리의 결합이 없다는 것. 최고 의미에서 ‘신랑’은 신성한 선의 측면에서의 주님, ‘신부’는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을 뜻한다. 그이유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들 안에서 주님의 신성한 선을 받음으로부터 교회이기 때문.

마25장-‘신랑’은 사랑과 신앙을 통하여 천국과 교회와 결합하는 측면에서의 주님을 뜻한다.

신뢰 (confidence)

시115:9-11-‘이스라엘아,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아론의 가문이며, 여호와를 신뢰하라...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이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시91:2,4-‘나의 하느님,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그분의 날개 아래 너는 신뢰(의지)하라.

시17:8-‘그분의 날개 아래 신뢰하는 것’=신앙으로부터 있는 신뢰.

예17:5-‘인간을 신뢰하고 욱을 그의 무기로 만드는

것’=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자아를 신뢰하는 것.

암6:1-‘사마리아의 산들을 신뢰하는 그들’=자신을 신뢰하는 이들, 그리고 그들 총명으로부터 교리를 부화해 내는 이들.

시91:4-‘깊음 아래 신뢰하는 것’=과학적 진리, 이는 자연 평면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영적인 것.

시18:2-‘그가 신뢰하는 요새요 바위’=보호함.

이51:5-‘섬들이 내 안에서 희망이 있을 것, 그리고 내 팔 위에서 그들은 신뢰할 것이다’=교회의 진리들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 있는 이들이 접근함, 그리고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신뢰함.

이32:9-‘너희 걱정없는 아들들’=자신의 총명을 신뢰하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거짓들.

겔34:25-‘광야에서 안전하게(confidently) 거주하는 것, 그리고 수풀에서 자는 것’=비록 그들이 그것들 안에, 그것들 사이에 있다 해도, 그들은 이런 것들에 의해 감염됨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것.

시2:12-‘그분에게 자기들의 신뢰를 두는 자는 복있다’=주님을 사랑함과 신앙을 통하여 구원됨.

시61:4-‘내가 당신의 날개의 숨을 곳을 신뢰합니다’=신성한 진리 안에서.

신뢰 (trust)

신뢰할 수 있는 (trustworthy)

계21:5-‘이 말들은 참되고 신뢰할 수 있다’=그들은 믿어져야 한다는 것.

욥31:24-‘당신이 나의 신뢰이다’=그는 선한 어떤 것이 자신으로부터 있다고 믿음으로 자신을 신용하지 않았다는 것.

시22:9-‘당신은 내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나에게 신뢰를 주신다’=그는 그후에 인도되어 왔고, 영적으로 교육되었다는 것.

신바닥 (sole)

* 발바닥(sole)을 보라.

신발을 신지 않은 (unshoe)

이20:2-‘발에서 신을 벗는 것’, 즉 발의 바닥에 신발을 신기지 않는 것=자연의 불결한 것들을 폭로하는 것.

신부 (bride)

* 아내(wife)도 참조.

신바닥-신발을 신지 않은-신부-신비-신성하게 하다

* 주님의 의해 생기 있게 된 자아(proprium)가 주님의 '신부', 그리고 '아내'라 불리워진다.

계21:2-‘자기 남편을 위해 신부 같이 준비한’=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한 교회...‘예루살렘’에 의해 교회가 뜻해지고 있다, 그리고 요한은 예루살렘을 처음에는 도성으로서, 후에는 처녀 신부로서 보았다. 즉 표현적으로는 도성으로, 영적으로는 처녀 신부로서 본 것이다, 고로 예루살렘은 두 겹의 생각 안에 있는데, 하나는 내부쪽에, 다른 하나는 위쪽에.

계21:9-‘신부, 어린 양의 아내’=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될 새 교회. 이 교회는 새로워지고 있는 동안에서는 ‘신부’라 불리우고, 새로워졌을 때 이후는 ‘아내’라 불리운다. 이 구절에서는 ‘신부, 아내’인데, 그이유는 이 교회가 확실하게 새로워졌기 때문.

신비 (mystery)

계1:20-‘일곱 별의 신비...’=새 천국에 관하여 환상들에 있는 비밀.

계10:7-‘하느님의 신비는 끝날 것이다’=말씀에서 미리 말해왔던 것, 지금까지 감추어 왔었던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

계17:5-‘그녀의 이마에는...신비 라는 이름이 쓰여져...’=로마 카톨릭 종교에 내면적으로 감추어 있는 것에 관하여...‘신비’에 의해 내면적으로 감추어 있는 것이 의미되고 있다.

신성하게하다 (sanctify)

신에게 바치다 (sanctify)

출13:2-‘모든 첫 출생을 나에게 바쳐라’=신앙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것. ‘주님에게 바치는 것’=그분의 뜻으로 돌리는 것. 즉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출19:10-‘그들을 오늘과 내일 신성하게 하라’=그들이 신앙의 거룩함에서 나타나도록 내면들을 베일로 가림.

출20:8-‘(안식일을) 신성하게 하는 것’=여하튼 위반함은 없다.

출20:11-‘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함(hallowed)’=(거듭나는 사람과의 천국의 결혼은) 위반되어질 수 없다는 것.

요17:19-‘나는 나자신을 신성하게 합니다, 하여 그들

또한 진리 안에서 신성하게 되어질지 모릅니다’=그분은 그분 자신의 힘에 의해 자신을 신성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신앙과 생활 안에서 받는 이들이 ‘진리 안에서 신성해진다’라고 말해진다.

레10:3-‘나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그들 안에서 신성하여 질 것이다’=사랑의 선과 말씀으로부터의 신앙의 진리를 통하여 주님과 결합하여 왔던 이들과 더불어.

출28:3-‘그를 신성하게 하는 것’=(영적) 왕국에서 주님을 표현함. ‘신성하여 지는 것’=신성한 진리가 붙어 넣어지는 것.

출28:41-‘너는 그들을 신성하게 할 것이다’=고로 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함. ‘거룩하게 하는 것’=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이신 거룩 자체를 표현하는 것.

출29:36-‘그것을 신성하게 하는 것’=고로 거기에 주님이...

출29:37-‘너는 그것을 신성하게 하라’=주님을 받는 것.

출29:43-‘내 영광 안에서 신성해질 것이다’=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받는 것.

출29:44-‘나는 회중의 천막을 신성하게 할 것이다’=보다 낮은 천국들 안에서 주님을 받는 것.

출30:29-‘너는 그것들을 신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거룩들 중의 거룩일 것이다’=표현 교회의 예배 안에서 주님의 현존하심과 유입(influx). ‘신성하여 지는 것’=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선과 진리를 받는 것.

출31:13-‘나 여호와가 너희를 신성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것’=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이 교회의 모든 것들, 천국의 모든 것들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것.

신성화 하심 (glorification)

요13:31,32, 17:1,5, 12:28-이 구절들은 ‘신성화 하심’을 취급하고 있다.

요12:28,30,32-‘신성화 하심’에 의해 합일(union)이 뜻해진다.

요12:28-주님께서서는 그분의 합리성을 신성으로 계속적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순수하

**신성화 하심-신앙-신앙 만으로-신앙이 (선행에서)분리되었다
신에게 바치다-신음하다**

게 하셨다는 것이 '나는 그것을 신성화하게 했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신성화하게 할 것이다'로부터 분명해진다.

요12:28-'신성화 하시는 것'=신성으로 만드는 것.
창22:2,11,12,16-여기서 인간 본질이 신성 본질과 하나됨, 또는 시험들을 통하여 신성화 하심이 취급되고 있다.

시80편-주님의 신성화 하심이 '포도나무와 그것의 싹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요7:39-...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시험을 견뎌내셨을 때 이루어진 것, 즉 그분 자신을 충분히 신성화하신 후에, 그분은 그분의 인간을 신성한 선으로 만드셨는데,, 이것이 '성령이 아직은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아직 신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구절의 뜻이다.

출29장-이 장은 주님의 인간 측면의 신성화 하심이 취급된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직에 취임함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요13:31-'사람의 아들들 신성화하시는 것'=그분의 인간 (측면)을 신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수난으로부터 확실하게 말해진다.

요12장-'신성화하시는 것'=신성을 만드는 것.

요16:14-(신성한 진리)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명백해지게 할 것임이 '그분은 나를 신성화 하실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신성화하는 것'=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알려지게 만드는 것.

신앙 (faith)

믿음 (faith)

- * 거듭남의 넷째 상태(창조 제4일째)는 그가 사랑으로 감동되어지고, 신앙으로 계발될 때이다.
- * 거듭남의 여섯째 상태는 신앙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그가 진리들을 말하고 선들을 행할 때이다.

- 창1:16**-'큰 발광체'=사랑과 신앙.
- * 낙원에 있는 아담=태고 교회의 주님에 대한 신앙.
- * '아브라함'=구원하는 신앙.
- * 신앙이 '지식들의 나무'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 호2:19**-'나는 너를 나에게 신앙 안에서 약혼시킬 것이

다.'...둘 모두('정의'와 '공정')가 여기서 '신앙', 또는 충실함이라 불려진다.

요1:12,13-그가 선행 안에 있지 않으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은 이 구절로부터도 분명하다.

계2:13-'너는 나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다'=그들은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 말씀은 신성한 진리이다는 것.

계2:19-'(나는) 네 믿음을 알고 있다'=참 진리.

계13:10-'여기에 성인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주님의 새 교회인은 자기들의 생활과 믿음에 관계하여 그것들로부터의 시험들을 수단으로 조사받는다는 것.

계14:12-'예수로부터의 신앙'=주님에 대한 믿음. 그 이유가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신앙을 가지기 때문, 이 신앙이 '예수로부터의 신앙'이다.

신앙만으로 (faith alone)

신앙이 (선행에서) 분리되었다 (faith separated)

- *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 * 선행 없는 신앙은 결코 결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 그것은 단지 지식이다.
- * '가인'에 의해 뜻해진 분리된 신앙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모독일 것이다.

출11장-이 장에서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이 지옥에 떨어짐이 취급되는데, 이것이 한밤중에 죽음에 놓여지는 이집트의 첫 출생에 의해 의미된다.

신에게 바치다 (sanctify)

- * 신성하게 하다(sanctify)를 보라.

신음하다 (groan)

출2:24-'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원조함...'신음함'=복종케하는 거짓들의 노력 때문에 있는 슬픔.

출6:5-'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전투로부터의 그들의 슬픔.

이24:7-'천국의 즐거움과 복됨이 더 이상 없을 것임이 '심정에 있는 모든 즐거움이 신음소리를 낸다'에 의해 의미된다.

겔9:4-'그들 위에 신음과 탄식...'=그들 때문에 있는 혐오와 슬픔.

애1:11-'결핍됨이 '신음하는 이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

신장-신중한-실-실밥을 풀다-실로-실로암-실족하게 하다-실패하다

다.

이59:11-‘비둘기 같이 우리가 신음한다...’=영적 인간의 슬픔.

애1:4-‘그녀의 성직자들이 신음한다’=선애 애착함이 파괴되었다는 것.

신장 (kidneys, renal, reins)

* 콩팥을 보라.

신중한 (prudent)

마10:16-‘너희는 뱀 같이 신중하라.’

마25:2-‘다섯 신중한 처녀들’=선이 있는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마7:24-선 안에 있는 자, 즉 가르침들에 따라 행하는 이들이 ‘나는 그를 신중한 사람과 같다’에서 ‘신중한 (자)’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출1:10-‘우리는 그들을 두고 신중히 대처하자’=교활함. (그이유가) ‘신중함’이 악한 자에 의해 말해질 경우, 교활함을 뜻하기 때문. 악이 교활함이나 사기침을 행동할 때, 그들은 이것을 신중하다 부르기 때문.

* ‘지식의 나무’ (창2:9)=자신으로부터의 신중함 측면에서의 인간.

* ‘뱀 같이 너희는 신중하라.’ 선애 있는 이들이 ‘신중한’ 이들이라 불려진다. 그리고 악에 있는 이들은 교활하다 불린다.

눅16:8-‘이 시대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 보다 더 신중하다.’

실 (thread)

출28:28-‘적등색(hyacinthine)의 실을 가지고’=진리의 천적 사랑을 통하여 (=천적 사랑으로부터의 진리).

민15:38-‘적등색의 실’=진리로부터 천적 사랑에 있는 이들에 의해 여호와와 가르침들이 재수집됨.

겔40:3-‘아마(flax) 실’=진리.

이19:9-‘비단(silk) 실’=영적 진리.

실밥을 풀다 (unsew)

레10:6-‘실밥이 풀린 옷’=신성한 진리를 박탈함.

레21:10-신성한 진리가 사라짐이 ‘옷의 실밥을 푸는 것’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실로 (Shiloh)

* ‘실로’=주님.

* 주님은 그분이 진정시키고 모든 것을 조용해지게 만드신다는 사실로부터 ‘실로’라 불려우신다. ‘실로’는 원어에서 조용한 것을 뜻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었다.

예41:5-‘실로로부터 사람들’=모독하는 이들, 그리고 모독들.

창49:10-‘실로가 올 때 까지’=주님의 강림, 그당시 평화의 소요함.

시78:60-‘실로의 주택(habitation)’=사랑의 선 안에 있는 교회.

실로암 (Siloam)

요9장-‘실로암 못’=글자로 있는 말씀.

* 실로암 못의 물들=말씀 속의 진리들.

실족하게 하다 (offend)

겔21:15-‘장애물을 불리는 것’=인간이 선과 진리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단지 거짓과 선과 진리에 반대되는 것들만 본다는 것.

마13:41-‘실족하게 하는 것들’=거짓들.

마24:10-‘그때에 많은 자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자신 안에 증오가...

이59:10-‘황혼에서 같이 정오에 걸려 넘어지는 것’=비록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빛 안에 있어질 수 있다 해도 거짓들 안에서 배회하는 것.

예13:16-‘어둠 새벽의 산에서 네 발이 걸려넘어지기 전에.’

실패하다 (fail)

이19:5-지식들과 과학물들의 실패가 여기서 취급된다. ‘물들이 바다로부터 실패할 것이다, 강이 메말라질 것이다.’

창8:5-‘물들이 가고 실패하고 있다’=거짓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창45:26-‘그의 심정은 실패했다(낙담했다), 그이유는 그가 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자연적 생명의 실패함, 그로부터 이해함의 실패.

창47:15-‘은이 실패함(떨어짐)’=진리의 실패(떨어짐). 진리가 실패할 때, 즉 진리가 떨어질 때, 영적인 죽음이 있다.

암4:6-‘빵의 부족’=선이 희소함.

계2:3-‘내 이름을 위하여 힘들여 일했고, 기운을 잃지

심다-심연-심장-심정-심하게 움직여대다

않았다'=종교에 관한 것들, 그것의 교리를 포획하고 가르치기 위한 연구와 노력.

삼상2:5-'많은 어린이를 가진 그녀가 실패했다(쇠약해졌다)=많은 진리들을 가진 이들로부터 그것들이 거두어질 것이다.

시34:9-'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부족함은 없다'=주님의 명령들을 사랑하는 이들.

이51:14-'영적 자양분과 가르침은 실패 않을 것임이 '그의 빵은 실패하지 않는다(떨어지지 않는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에2:11-'그들의 완전한 결핍이 '그들은 도성의 거리들에서 실패했다(쇠약해졌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19:5-'그다음 물들은 바다에서 실패할 것이다'=자연적 인간 안에 진리들이 없다.

이51:20-'네 아들들은 기운을 잃었다'=진리들이 흐트러졌다.

시107:5-'진리의 부족, 하여 자포자기하기 조차,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갈망함이 '배고픔과 목마름, 그들의 혼은 그들 안에서 기운을 잃었다'에 의미되어 있다.

이32:6-'악의 거짓들 안에 있는 인간이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그를 빼앗으려 발버둥친다는 것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말하여 혼을 텅비게 만들려하고, 그것이 실패하게 하려 한다'에 의미되어 있다.

암8:13-'진리에 애착함과 진리를 이해함이 실패를 이유로하여 중단될 것임이 '그날에 아름다운 아가씨들과 청년들이 목마름으로 기운을 잃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심다 (plant)

창9:20-'포도원을 심는' 것=영적 왕국의 교회를 창설함.

출15:17-'당신께서는 그들을 심으실 것이다'=계속적으로 거듭남. '심는 것'=거듭나는 것; 그이유가 거듭남은 심어 키우는 것과 그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

이17:10-'기쁨의 식물들을 심는' 것=애착들을 총애하는 것들.

시128:3-'식물들'=진리들.

심연 (abyss)

* 깊음을 참조.

심장 (heart, cardiac)

* 가슴...선행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심장과 폐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심정 (heart)

* 의지, 말씀에서 '심정'이라 불리운다.

창17:17-'그는 자기 심정에서 말했다'=고로 그는 깊이 숙고했다는 것.

창18:5-'당신의 심정을 지탱시키십시오'=적합한 한도에서.

창20:5-'내 심정의 올바름에서'=순진과 단순한 선으로부터 그와같이 생각했다...'심정'=사랑과 선행, 이것들은 선 속에 있다.

예31:33-'심정에 썩어진 법들'=선을 지각함과 이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또한 양심.

시22:14-'신성한 선에 관련하여...주님의 시험들을 취급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것은 '내 심정'이라 불리운다. '심정'=선.

심하게 움직여대다 (agitate)

창41:8-'영혼이 번민해지는 것'=어지럽혀지는 것.

출29:24-'너는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흔들여 바침을 할 것이다=그때로부터 신성한 생명(이 있음)...' 흔들여 바칠 공물을 흔드는 것'=생기있게 하는 것, 고로 생명 있음.

레23:11-'성직자에 의해 흔들어짐'=복을 받도록 생기가 주어지는 것. 그이유가 모든 복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 안에 반드시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

민8:11-'흔들어바칠 공물을 흔드는 것'=인정함을 통하여 생기가 주어지는 것. 이는 생명이 신성으로부터 첫 번째 옴이다.

출35:22-'여호와께 흔들여 바치는 공물을 흔드는 것'=그것이...주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함을 통하여 생기가 주어지는 것.

* 흔들여 바치는 공물을 흔들이 위와 같은 이유는 상응으로부터인 바 모든 움직임은 생각의 상태에 상응하기 때문에서 이다.

출29:26-'너는 여호와 앞에서 흔들여바치는 공물을 흔들 것이다'=생기가 주어짐...'여호와 앞에서 흔들여바치

십마-십-십분의 일-십일조-심판-심판하다

는 공물을 흔드는 것'=주님, 그리고 그분이 천국에서 지상에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함을 통하여 생기가 주어짐.

십마 (sibmah)

* 그들이 흠뻑 젖어든 거짓들이 '십마'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이16:9-'십마의 포도나무'=외적 교회 속의 사람들.

십 (ten, 10)

* 열을 보라

십분의 일 (tenth)

*열을 보라

십일조 (tithe)

* 열 번째(tenth)를 보라.

심판하다 (judge)

심판 (judgment)

공정 (judgment)

예5:1-공정을 행하는 자=슬기로운 자.

이58:2-'공정(judgment)'=진리로부터 있는 것들. 그리고 '정의'(justice)=선으로부터 있는 것들.

시25:21-'거룩함(holiness)과 정의(justice)'=신앙으로부터의 천적인 것. '정직(integrity)과 공정(judgment)'=신앙으로부터의 영적인 것.

암6:12-'너희는 공정을 쓸개즙으로 변하게 했다.' '공정'=진리들.

창15:14-'나는 심판할 것이다'=방문과 심판.

예21:12-'공정을 재판하는 것'=진리를 말하는 것.

창16:5-'여호와께서 나 사이에서와 당신 사이에서 판결하게 하자'=주님의 분개하심.

창18:19-'정의와 공정을 행하는 것'...선에 관한 이 교리가 '정의'에 의해, 진리에 관한 교리는 '공정'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18:25-'은 땅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시하지 않겠습니까?'=신성한 선은 선으로부터 분리된 진리에 따라서 이것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

창19장-방문 자체의 행동, 그리고 그후 심판이 묘사되어 있다.

창19장-두 천사들=주님의 신성한 인간과 거룩한 진행.

여기에 심판이 속해있다.

창19장, 요5:22, 16:7,8-이 장에서 심판이 취급된다, 즉 신실한 자의 구원, 불신실한 자는 지옥에 떨어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이 주님의 신성한 인간과 거룩한 진행에 속해있다는 말씀으로부터 분명해진다, 즉 '아버지는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심판은 아들에게 주어졌다'...'만일 내가 떠나면, 나는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올 때, 그는 죄에 대하여, 정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을 것이다.'

창19장, 요3:17,19, 12:47-그러나 심판은 이 방법 안에 있다. 주님은 선으로부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자비 자체와 선 자체는 누구도 지옥에 보내는 일이 없다. 지옥에 보내는 일은 인간 자체의 일이다. 그이유는 그가 선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육체의 삶에서 선을 금하듯, 다른 삶에서도 그와같이 금한다...주님은 누구도 지옥에 떨어트리거나 그를 지옥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분 자신 이렇게 말하신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되게 하시려 해서였다. 이것이 심판이다',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 그러나 인간은 빛 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 그이유는 그들의 일은 악이었다는 것...마찬가지로 '만일 누군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 않는다. 그이유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닌 구원함이기 때문이다.'

창19:9-'그가 참으로 재판하는가?'=그들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나? '재판하는 것'=가르치는 것. '정의'는 선을 실시함, '공정'은 진리를 가르침이라는 것이 보여져 있다. 이로부터 '재판하는 것'은 내적 의미에서 가르치는 것, 또는 훈육하는 것이다.

마5:32-분리가 심판에 앞서 진행된다는 것.

슥3:5-'아침에 그분은 심판을 빛 안으로 주실 것이다.' '아침'=심판의 때와 상태, 이는 주님의 강림의 때, 그리고 그분의 왕국의 접근됨의 때와 같다.

시19:9-'여호와와 심판들은 진리이다'=믿음.

예22:13-'공정 없이 자기 방들을...짓는 것'=비진리로부터...광신적 신앙을 짓는 것.

심판

이28:7-‘그들은 재판에서 비틀거리다’=신앙으로부터의 진리.

창30:6-‘라헬이 말했다, 하느님께서 나를 판결하셨다, 그리고 또한 내 음성을 들으셨다’=최고 의미에서 정의와 자비, 내적 의미에서 신앙의 거룩함, 외적 의미에서 생활로부터의 선...‘하느님이 나를 판결하심’=주님의 정의...주님은 정의로부터 심판하신다, 그이유가 신성한 진리로부터이기 때문, 그리고 자비로부터 들으신다, 그이유는 신성한 선으로부터이기 때문.

창31:37-‘그것들이 우리 모두 사이에서 판결하게 하자’=심판은 올바르고 공평한 것으로부터 있다는 것.

마25:31-**끝절**-말씀의 내적 의미를 모르는 이들은 이 구절의 심판의 과정이 글자와 똑같은 것이라고 상상한다....그러나 내적 의미를 아는 사람, 말씀의 다른 구절로부터 배운 사람은 주님께서 누군가를 영원한 불 안으로 던져지게 결코 심판 않으신다는 것, 그러나 모든 이 각각이 자신을 심판한다는 것을 안다. 모든 이 각각의 마지막 심판을 배웠던 이들은 그가 죽을 때 위의 일반적 사항들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어느정도나마 알리지 못한다.

시68:5-‘그분은 과부의 재판관’이시라고 불리우신다, 그이유는 그분은 그들을 선을 통하여 진리쪽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재판관’에 의해 지도자가 의미된다.

신27:19-‘낯선 자나 고아나 과부의 재판을 흐르치는 것’=가르침과 생활을 수단으로 거짓과 악으로 인도하는 것.

시19:11-‘여호와의 심판들’=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이33:22-‘여호와와 우리의 재판관, 여호와와 우리의 입법자, 여호와와 우리의 왕이시다.’ ‘재판관’=그분은 선으로부터 행동하신다는 것, ‘입법자’=그분은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로부터 행동하신다는 것. ‘왕’=그분은 진리로부터 행동하신다는 것.

창49:16-‘(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판결할 것이다’=그는 이스라엘 지파가 표현하는 일반적인 진리들 중의 하나이다는 것.

출2:14-‘누가 너를 왕자-사람으로서 우리 위의 재판관으로 앉혔는가?’=그가 교회 내의 불일치한 것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진리가 아직까지는 발전되지 않

았음을 지각함...‘재판관’=분쟁, 또는 불일치를 조정하는 자.

출5:21-‘여호와께서 너를 들여다 보시고 판결하신다’=신성이 결말을 지음. ‘판결하시는 것’=신성의 배열, 즉 섭리.

출6:6-‘큰 심판을 가지고’=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질서의 법에 따라. ‘심판들’=진리들, 최고 의미에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이 진리는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있는 질서의 법이다.

출12:12-‘이집트의 모든 신들 위에 나는 심판을 실시할 것이다’=지옥에 떨어져야하는 그들의 거짓들...‘심판을 실시하는 것’=지옥에 떨어지는 것.

출15:25-‘거기서 그분은 그를 위해 규례와 공정을 정하셨다’=그당시 질서 속의 진리가 밝혀졌다. ‘규례’=교회의 외적인 진리. 그리고 ‘공정’=교회의 내적인 진리.

출18:13-‘모세는 백성들을 판결하기 위해 앉았다’=영적 교회가 선으로부터 있기 전에서는 그 교회인들에게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배치됨(dispose)...‘판결하는 것’=배치됨...그이유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는 누군가를 판결하지 않기 때문, 그러나 그 진리는 흘러들어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지게 하기 때문. 이 받음으로부터 이후 심판이 질서의 법에 따라 결과되어진다. 이것이 ‘주님의 심판’에 의해 뜻해진다. (마 25:31-**끝절**, 요5:22,26,27,30, 9:39 참조).

출18:16-‘그들은 나에게 온다, 그리고 나는 사람과 그의 동료 사이에서 판결한다’=처분(disposition)이 그당시 밝히 알려준 진리로부터 만들어졌다...‘판결하는 것’=처리하는 것.

출18:16-‘나는 하느님의 심판들, 그분의 법들을 알게 만든다’=거기로부터 그들에게 참되고 선인 것이 가르쳐진다...‘심판들’=진리들, ‘법들’=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출18:22-‘그들로 언제나 백성들을 판결하게 하라’=고로 영원까지로 처분하는 것. ‘판결하는 것’=진리들로 처리하는 것.

예5:1-‘공정을 행하는 사람’=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출21:1-‘이것들은 네가 그들 앞에 세워둘 판단들이다’=표현 교회의 시민적 상태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외

심판

면적 진리들, 이 진리들은 천국들에 있는 질서로부터 있는 내면의 진리로부터 흐른다.

출21:9-‘판단에 따라서’=같은 권리에 의하여. 그이유가 판단에 의해 외적인 진리가 의미된다. 이 진리는 표현 교회의 시민적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진리이다.

출21:22-‘그는 재판자에 따라서 줄 것이다’=공평한 것에 따라서.

호2:19-‘정의와 공정 안에서 약혼하는 것’=선과 진리 안에서 주님과 결합되는 것...‘공정’은 진리라고 단정된다.

출23:6-‘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공정을 비틀지 말라’=무지함에 있는 이들에게 있는 진리가 아무리 적어도 파멸은 없다...‘공정’=올바르고 참인 것.

이56:1-‘공정’에 의해 신앙 속에 있는 진리가 의미된다.

출24:3-‘여호와와 모든 말들, 모든 판단들’=영적 상태에서와 자연적 상태에서 말씀 안에 생명으로부터 있는 것들...‘판단들’=자연적 상태에서 생명으로부터 있는 말씀 안의 것들.

이28:6-‘판결의 영’=신성한 진리. 그이유가 ‘판결’은 진리를 서술하기 때문.

출28:30-‘판단’=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출28:15-‘판단의 가슴판’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이유는 그것이 응답들을 주기 때문, 그럼으로써 신성한 진리가 밝히 알려지기 때문. 또한 ‘판단, 심판, judgment’은 말씀에서 신성한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그결과 그것에 의거한 생활과 교리도 의미한다.

이16:5-‘공정을 판단하는 것’=신성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공정을 추구하는 것’=인간이 신성한 진리를 받음.

이28:6-‘판결의 영’=신성한 진리로부터의 지혜. ‘판결(석)에 앉은 자에게’=신성한 진리에 관하여 가르치는 자.

이33:5-‘공정을 충만케하시는 것’=신성한 진리로부터의 총명.

예8:7-‘여호와의 판결을 알지 못한다’=신성한 진리를 알지 않는 것.

암6:12-‘간결’=신성한 진리로부터의 총명, 그리고 파생되는 생활.

슥3:5-‘빛 안으로 판결을 주는 것’=신성한 진리를 밝히 알리는 것.

눅11:42-‘공정을 모른체 하는 것’=신성한 진리를 모른체 하는 것.

이16:3-‘공정을 행하는 것’=신성한 진리에 따라서.

슥2:3-‘하느님의 공정을 행하는 것’=신성한 진리를 행하는 것, 또는 그것에 따라서.

이42:1,4-‘이방인들에게 공정을 베푸는 것’, 그리고 ‘땅에서 공정을 세우는 것’=신성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건립하는 것.

이51:4-‘공정’=신성한 진리.

요9:39-‘심판하려 세상에 오는 것’=신성한 진리를 밝히 알려주는 것.

겔5:6-‘판결을 바꾸는 것’=시민적 상태 속에 있는 진리들.

겔5:8-‘심판을 실시하는 것’=생명쪽으로 이든 죽음쪽으로 이든 판결하는 것.

출28:30-‘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판결을 운반할 것이다’=천국과 교회의 신성한 진리. ‘판결’=교리와 생활에 있는 신성한 진리.

이28:26-‘판결을 위한 가르치는 것’=그에게 총명을 주는 것. 여기서의 ‘판결’은 진리로부터의 총명이다.

마7:1,2, 요7:24-‘너희가 판단받아지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그이유가 네가 판단한 것 가지고 너는 판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리 없이도 입증되도록 예증될 수 있다, 즉 그것이 악이라고 악으로부터 말하지 말라는 것, 고로 악한 자가 악(자체)이라고 판단하지 마라는 것이다. 그러나 판단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가르친 교리로부터, 그러나 공정하게 이다. 그이유가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말하시기 때문.

마19:28, 요3:17,18, 12:47,48-마19:28을 근거로 아직 아무도 심판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심판할 것이라고 결론내려 버릴지 모른다. 그러므로 교리가 다음 설명으로 이 비밀을 밝히 알게 할 것이다. 즉 주님만이, 모든 이의 심정을 아시는 그분만이, 전지하신 그분

심판

만이 심판할 것이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열 두 제자들은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으로부터 가지는 모든 진리들과 선들 측면에서의 교회가 뜻해지고 있다는 것, 이 교리로부터의 결말은 이것들이 요 3:17,18, 12:47,48의 주님의 말씀들에 따라서 모든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다.

계4장-이 장은 심판을 위해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돈되고 준비함이 취급되는데,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말씀에 따라서 있을 것이다, 또한 주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심을 인정함으로써 이다.

요5:22,27, 12:47,48-주님께서 말씀이 모든 이 각각을 심판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정의에 따라서 이루어져가도록 조정하신다. 주님께서 참으로 말하시는데, '아버지께서는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분은 심판을 행할 권능을 그에게 주신 바였는데, 그이유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밖의 구절에서 주님께서 말하신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내가 이야기한 말씀(the Word)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 두 구절은 사람의 아들이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이심이 알려졌을 때 일치한다. 그러므로 말씀이 심판하고, 주님은 조정하신다.

계14:7-'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말씀의 모든 진리로부터 교회는 교회이고, 주님으로부터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람은 심판될 것이다.

계15:4-'당신의 심판들이 명백함을 만들었기 때문에'=말씀의 열린 진리들이 이를 증거한다는 것. '심판들'은 신성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이 진리들에 따라서 인간은 사는 것이고, 이 진리에 따라서 그의 품질이 (영계에서) 알려지고, 이 진리들에 따라서 그는 심판될 것이다.

계17:1-'나는 큰 매춘부가 심판되는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이 광신적 믿음에 관한 계시...'심판'에 의해 그것의 끝말에 있는 그것의 상태가 의미되고 있다.

계18:10-'한 시간 안에 네 심판은 이르른다'=그렇게 갑자기 전복되어질 수 있고 멸해질 수 있다는데 따른 (통곡)...'심판'에 의해 그것이 전복됨, 매춘녀와 향락을 즐겼던 이들과 매춘을 범했던 이들의 파멸이 의미된다.

계18:20-'그이유가 하느님께서 그녀에 관한 너의 심판

을 판결하셨기 때문이다'=그이유는 이 광신적 신앙으로부터의 악들과 거짓들에 있는 그들이 제거되고 거절되었기 때문에.

계19:2-'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올바르기 때문에, 그분이 큰 매춘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에...'=정의로부터 모독된 바빌로니아의 광신적 신앙이 정죄되었기 때문에...'당신의 심판들은 참되고 올바르게 의해 말씀의 신성한 진리들과 선들이 의미되어진다, 이것에 따라서 주님에 의해 심판이 집행되어진다.

계19:11-'정의로 그분은 심판을 실시하시고 싸우신다'=...이것은 신성한 선 자체와 신성한 진리 자체이고, 이 둘로부터 그분은 심판을 집행하시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리하신다.

계20:4-'그리고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말씀 속의 진리들, 이것들에 따라서 모든 이들은 심판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열려졌다.

계20:12-'죽은 자는 그들의 일들에 따라서 책들에 씌어진 것들로부터 심판되어졌다'=모든 이들은 외적 삶 안에 있는 내적 삶에 따라서 심판되어졌다다는 것.

마7:1-주님께서 말하신다, '네가 정죄되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이 구절의 판단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도덕적인 생활과 시민적 생활에 관련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없다. 그러나 영적이고 천적인 생활에 관련된 판단이라는 단어이다. 세상에서 자기와 더불어 사는 누군가의 도덕적 생활에 관련하여 판단이 허용될 수 없다면, 인간 사회는 멸해지고 만다는 것을 누군들 알지 못할까? 만일 정의로부터의 공적 재판들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어떻게 되어갈까? 그리고 만일 모든 이 각각이 상대방에 관해 심판해보지 않는다면...? 그러나 내면의 마음, 또는 혼, 그리고 이로부터 사후 그의 몫에 관해서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이유는 인간의 혼, 내지 내적 상태의 품질은 주님 만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겔7:23-'피들로부터의 심판으로 가득하다'=선들을 파괴하는 거짓들 안에 있다는 것.

이28:7-'판결에서 비틀거리다'=미쳐버린 것.

이32:7-'공정을 말하는 것'=올바른 것.

계4장-이 장은 심판에 앞서 천국들에서 주로 모든 것

심판

들의 정돈됨을 다룬다.

계5:1-7, 요5:22,27-신성한 선은 아무도 판결하지 않고 신성한 진리가 판결하는 바, '어린 양이 책을 가져갔다...'라고 말해진다. 또한 '아버지는 아무도 판결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이유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에서도 위 사항이 뜻해져 있다...

이40:23-'땅의 재판관들을 그분은 헛되게 만드신다'에 의해 인간 고유의 심판으로부터 있는 이런저런 것들이 의미되고 있다.

이4:4-'심판의 영'에 의해 신성한 진리가 의미된다.

이28:26-'판결'=총명.

이28:7-'그들은 심판에서 비틀거린다'=그들은 총명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계6:10-'심판하고 우리의 피를 되갚는 것'=심판하여 박해하고 감염시키려했던 이들을 제거하는 것.

이42:4-'공정을 세우는 것'=총명을 주는 것.

이41:4-'법'=말씀의 신성한 선. 그리고 '공정'=말씀의 신성한 진리...'나의 팔이 백성을 심판 할 것이다'=거짓 안에 있는 교인들을 심판함.

이42:1-'이방인들에게 공정을 발표하는 것'=가르치는 것.

신32:31-'판단 못한다'=진리들과 선들이 아니다.

시141:6-'재판관들'에 의해 거짓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추상적 의미에서, 생각 속의 거짓들과 교리 속의 거짓들.

시147:19-'규례들과 판결들'=선으로부터 있는 외적인 진리들과 내적인 진리들.

이3:2-'재판관과 예언자를 제거하는 것'=교리 속의 모든 선과 진리.

신33:10-'판결들'=말씀으로부터 교리 속의 진리들.

시48:11-'당신의 판결들 때문에'=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가지는 신성한 진리들 때문에.

이4:4-'심판의 영'=그 때부터 진리를 이해함.

호7:7-'재판관들'=총명 있는 이들. 추상적 의미에서 총명으로부터 있는 것들.

암5:7-'판결'=말씀 속의 진리.

이59:9-'공정이 우리로부터 멀다'=진리를 이해함이 없

다.

시119:102, 19:9-'판결들'에 의해 예배 속의 진리들과 선들이 의미된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판결들은 진리이고, 모두 올바르다'라고 말해진다.

이42:3-'그분은 판결로 진리를 산출하실 것이다'=그분은 그들과 더불어 총명을 생산하실 것이다. '판결'=총명.

마7:1-우리는 선하고 참된 것을 두고 악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말라'에서 뜻해지고 있다.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두고 악하게 생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선하고 참된 것을 두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5:1-'공정'이 진리들이라고 단언되어진다, 그이유는 모든 공정은 진리들인 법과 가르침들로부터 결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에 의해 교리속의 진리와 신앙 속의 진리가 의미되는바, '만일 너희가 공정을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이라고 말해진다.

이59:14-'공정과 정의'에 의해 말씀에서 진리와 선이 의미된다. 이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은 뒤쪽으로 돌아서고 정의는 멀찍이 서있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예25:31-'그분은 모든 육체와 더불어 심판 안으로 들어가실 것이다'=교회의 끝말에 공표되는 보편적 심판.

마5:21-'그는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이유가 의도나 의지 속에 있는 것은 마치 행동된 것처럼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61:8-'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공정'에 의해 신앙에 있는 진리, 애착에 있는 진리, 행동에 있는 진리가 의미된다.

예17:11-'공정과 더불어 만들지 않은 재물'에 의해 사용할 의도도 없이 포획한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이 의미된다.

이3:2-'재판관과 예언자'에 의해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가 의미된다.

이28:6-자기 총명을 자랑해대지 않는 자는 주님으로부터의 총명 안에 있을 것임이 '여호와께서는 재판(석)에 앉은 그에게 판결의 영을 위해 계실 것이다'에 의해 의

십계명-십보라-십자가-십자가에 못박다-십팔-십담-십다

미되고 있다. ‘판결’=진리를 이해함, 고로 총명.
이59:11-‘우리가 공정을 기다리나 없고, 구원은 우리로 부터 멀다’=이해성이 계발됨을 희망함, 그 결과 구원됨, 그러나 헛되다.
이16:5-‘공정’에 의해 교리 속의 진리가 의미된다. 그 이유는 거기로부터 모든 진리가 있기 때문.
요5:24-‘심판 안으로 오지 않는다’=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출21,22,23장-많은 문단들에서 ‘판결들(judgments), 가르침들(precepts), 규례들(statutes)’이 언급되고 있다. ‘판결들’에 의해 시민 법들이, ‘가르침들’에 의해 영적 생활이, ‘규례들’에 의해 예배의 법들이 의미된다.
계16:5-‘당신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그분에 의해 이런 것들이 거행되리라고 예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에 의해 신성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곳인 천국들에서는 아무도 피해받지 않게 설비되어졌다는 것.
계16:7-‘진실과 정의가 당신의 심판들입니다’=거행되는 것들...이 심판들은 신성한 진리로부터 ‘진실’이라고, 신성한 선으로부터 ‘정의’라고 불리운다.
계17:1-‘나는 큰 매춘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그들의 광신적 신앙, 이 신앙에서 교회의 모든 선과 진리는 쉬임질되고 모독되었다.
계18:10-한 시간 안에 당신의 심판이 오기 때문’=마지막 심판에 의해 그들의 완전한 파멸.
계18:20-‘하느님께서 그녀에 관한 너의 심판을 집행하셨기 때문이다’=그들의 거절 때문에.
계19:2-‘진실과 정의가 그분의 심판들이다’=신성한 섭리의 법칙, 주님의 모든 일들은 신성한 지혜로부터, 그리고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이다는 것.
계19:2-‘그분은 큰 매춘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교회 위에, 천국 위에 있는 지배권을 자신들에게 이동시킨 이들에 대한 심판. ‘심판하는 것’=마지막 심판.
심홍색 (crimson)
겔27:7-‘엘리사 섬으로부터의 푸른색(hyacinthine)과 심홍색’=내적 예배에 상응하는 예식들. 고로=천적인 것들의 표현물. (=진리로부터의 선) (=진리와 선으로부터의 총명).
겔27:16-‘심홍색’ 등등=선으로부터의 지식들.

출26:31-이 베일은 합리적 선과 진리의 가장 깊은 나타남을 표현했다, 이 안에 셋째 천국의 천사들이 있다. 이 나타남이 ‘푸른색, 심홍색, 두 번 물들인 진홍색,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이 안에서 빨간 색은 사랑의 선들을, 흰색은 사랑의 진리들을 표현했다.
이1:18-‘만일 죄들이 심홍색 같이 붉다면’...
민19:6-‘두번 물들인 심홍색’.
눅16:19-‘보라색과 고운 아마포’=말씀으로부터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출25:4-‘심홍색’=선의 천적인 사랑...‘심홍색’이 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빨강색에 의해 천적 사랑의 선이 의미되기 때문.
겔27:7-천적 근원으로부터의 선 또한 ‘심홍색’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푸른색과 심홍색이 그것의 덮개였다’=천적 근원으로부터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
출26:36-‘심홍색’ 등등=이 천국들을 통치하는 선들.
출28:5,6-(에봇에서) ‘심홍색’ 등등=선행으로부터의 선과 신앙으로부터의 선.
출28:15-(가슴판에서) ‘심홍색’ 등등=선행으로부터의 선과 신앙으로부터의 선.
애4:5-‘이들은 심홍색을 입고 양육되었다’=선에 관한 지식들에 있는 이들.
계17:4-‘여인은 심홍색과 진홍색으로 차려입었다’=그들과 더불어는 말씀으로부터의 신성한 천적 선과 진리.
겔27:7-‘심홍색과 푸른색’=선과 진리의 천적인 사랑.
애4:5-‘심홍색’=말씀의 진짜 선, 특별하게는 진리의 천적인 사랑.
십계명 (decatalogue)
 * command, law, table을 보라.
신10:4-(모세의) 십계명은 열 개의 명령들, 또는 열 개의 말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돌판에 쓰신 것으로 구성되고 있다
십보라 (Zipporah)
출2:21-‘그는 모세에게 자기 딸 십보라를 주었다’=그는 자기 교회의 선이 그에게 인접되게 했다는 것...‘십보라’=이 교회 속의 선의 품질.
출4:25-‘십보라는 바위 조각을 가져왔다’=진리를 통하

십계명-십보라-십자가-십자가에 못박다-십팔-십둠-십다

여 표현 교회에 보여진 품질. '십보라'=표현 교회.

출18:2-'이드로는...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려왔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결합한 신성으로부터의 선...모세의 아내 십보라'=신성으로부터의 선. (=신성한 선(이드로)으로부터 파생된 선, 그리고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모세)와 결합된 선).

십자가 (cross)

십자가에 못박다 (crucify)

십자가에 못박힘 (crucifixion)

* passion, torment도 보라.

* 십자가의 수난은 주님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이를 통하여 그분께서는 그분의 인간을 신성에, 신성이 그분의 인간에 완전히 하나되게 하셨다.

눅14:27-이런 시험들이 그들이 운반하는 '십자가'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 십자가는 마지막 그분의 시험이었다...그리고 그것 이후 그분은 신성한 선을 입으셨다, 그리고 고로 그분의 신성한 인간은 그분 안에 있었던 신성 자체에 하나되었다.

요12:23,27,28,31,32,33-십자가의 수난이었던 이 마지막 전투에 의해 그분은 지옥들을 충분히 복종시켰는바 이를 이 구절에서 가르치신다.

* 십자가의 수난은 마지막 전투, 또는 시험이었고, 이를 통하여 그분은 지옥들을 완전히 정복하셨고, 그분의 인간을 완전히 신성화 하셨다.

* 십자가의 수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죄들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운반하셨다.

마10:21-'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그는 현세에의 육적 욕망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계11:8-'거기서 역시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셨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인정함이 없다, 고로 거절의 상태.

마10:21-'십자가를 운반하는 것'=거짓들에 의한 시험들과 공격을 경험하는 것.

마23:34-'십자가에 못박는 것'=교리의 선에 관련되고, 파괴하는 것.

십 팔 (18, eighteen)

창14:14-'삼백 십팔'=그들의 품질, 즉 그들은 전투 속

의 거룩한 것들; 그 이유가 숫자 '18'이 이것을 내포하고, 숫자 '300' 역시 같은 것을 내포하기 때문; 그이유가 이 숫자들은 3과 6으로 구성되기 때문. '3'=거룩인 것; 그리고 '6'=전투.

십둠 (Shittim)

십다 (Shittah)

출25:5-'십둠 목재들'=주님으로부터 있는 공적의 선들, 고로 주님 만으로부터 있는 선들.

출25:5, 이41:19-십둠 목재는 가장 우수한 삼목(cedar)으로부터의 목재였다는 것은 이41:19, 즉 '나는 십다의 삼목을 광야에 놓을 것이다'로부터 분명해진다. 거기서 '십다의 삼목'=영적 선.

출25:10-'십둠 목재들로부터'=정의.

출25:23-'십둠 목재들로부터'=자비로부터...그이유가 공적의 선이 자비이기 때문.

출26:15-'십둠 목재를 가지고'=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있는 공적의 선...이 선은 천국을 규율하고 천국을 떠받쳐주는 유일한 선이다.

출27:6-'십둠 목재로 장대들'=정의의 선, 그리고 파생되는 힘...'십둠 목재들'=공적의 선, 또는 정의의 선. 이 선은 그분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의 사랑의 선이다.

출30:1-'십둠 목재로 너는 그것을 만들 것이다'=신성으로부터의 사랑으로부터. '십둠 목재'=공적의 선, 그리고 주님만으로부터 있는 정의의 선. '십둠 목재'=사랑인 이유는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모든 지옥들과 싸우셨고, 하여 인류를 구원하셨고, 이로부터 그분만이 공적을 가지시게 됐고, 정의가 되셨기 때문, 그러므로 주님의 공적의 선은 그분의 신성한 사랑이다.

출30:5-'십둠 목재로 장대들'=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의 힘.

* '십둠'이라 부른 나무(wood), 이것은 시내산 위에, 또는 시내산 기슭에 있었는데, 가장 고상한 삼목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것의 향기 높은 기름으로부터, 고로 그것의 냄새로부터, 그리고 순수성으로부터 다른 나무(tree)들에 앞서 가장 우수한 산의 나무였다.

* '십다의 삼목'=진짜 진리. (=합리적 진리).

출3:18-'십둠의 시내(stream)에 물을 공급할 것이

싱거운-씩-씩트다 -쌍-쌍생아-쌓아올리다-쌓인 것-써레

다=(영적) 지식들과 지식들 안에서 이것들을 예증할 것이다. (=이해성으로부터 예증함).

싱거운 (insipid)

마9:50-‘소금이 짜지 않다’=선을 갈망함이 없는 진리.

싸우다 (fight)

* 전투하다(combat), 군인(soldier)을 보라.

씩 (bud)

* 싹트다(germinate)를 보라

씩트다 (germinate)

창40:10-‘싹이 돋았다’=유입을 수단으로 재출생이 움. ‘씩트는(bud) 것’, 또는 잎을 생산하는 것, 그 후에 꽃이 피는 것=재출생의 첫 순서.

창41:6-‘그것 뒤를 이어 싹이 돋았다’=가까이에서 나타남. 여기서의 ‘씩트는 것’=나타남.

출10:5-‘들판으로부터 너에게 싹을 티우는 모든 나무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울 것이다’=그들이 교회로부터 가져온 모든 지식들이 소모됨.

시132:17-‘이로부터 뿌이 ‘씩트다’고 말해진다. 그이유는 모든 영적 싹트(영적 성장)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속에 있기 때문. 그러므로 옛날에는 그들은 뿌들을 싹트게 만들었다.

시147:8-‘누가 산에서 풀이 자라게 만드느냐?’=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을 위한 자양분.

창8장-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땅이 새로이 싹터온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45:10-‘땅에 물을 대는 것, 하여 땅이 싹을 내고 열매를 산출하는 것’=교회가 생기있는 것. 하여 교회는 교리와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와 사랑과 선행으로부터 선을 생산하는 것이다.

시147편-‘그것의 싹터움에 복을 주시는 것’=새로운 생산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진리들이 튀어오르게 하는 것.

시104:14-‘여호와께서는 짐승을 위하여 풀이 싹터우게 하신다’=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자연적 인간에게 자양분을 주고 가르침이 있다.

시147편-‘풀이 자라게 하는 것’=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을 수단으로 자연적 인간을 가르침.

마13:26-‘풀이 싹터웠을 때’=진리가 자랐을 때...‘풀잎

이 싹들 때’=처음 받아질 때 같은 진리.

쌍 (pair)

창6:19-‘너는...모든 것의 쌍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생명이 보존되게 만들어라’=그들의 거듭남...알도록...진리들 측면에서...선들의 측면에서...양쪽 모두에서...

쌍생아 (twins)

창25:24-‘그녀의 자궁 안에 쌍생아가 있었다’=(자연 평면의 선과 진리 둘 다가) 함께 임신되어졌다는 것.

창38:27-‘쌍생아가 그녀의 자궁 안에 있었다’=교회 속의 두 가지 것들. 즉 선과 진리.

예17:18-‘곱절로 깨부숨’=완전하게 파괴함.

출26:24-‘그것들은 아래로부터 쌍으로, 동시에 그것의 머리로부터도 쌍으로 있을 것이다’=외면으로부터와 내면으로부터 결합이 있다.

쌓아올리다 (heap)

창41:35-‘그들이 곡식을 쌓아올리게 하십시오’=진리로부터의 모든 선 각각을 다함께. ‘쌓아올리는 것’=다함께 그러모으는 것, 그리고 보존하는 것.

창41:49-‘요셉은 바다의 모래 만큼 같이 곡식을 쌓아올렸다’=선으로부터의 진리가 불어남. ‘쌓아올리는 것’, 여기서=불어나는 것.

쌓인 것 (pile)

이30:33-‘그것의 쌓인 것’=(교회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을 파괴하는 끔찍하고 맹렬한 사랑으로부터의) 악들.

써레 (harrow)

이41:15-이런 것들이 ‘긴 못을 지닌 새 써레’에 비교한 이유는 써레가 밀이나 보리를 흔들어 털어 이삭으로부터 수확의 여분을 갈라내기 때문,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이 의미되는데, 그이유는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이 악들과 거짓들을 분쇄하여 부수기 때문. 그러므로 ‘긴 못을 지닌 써레, 하여 너는 산들을 타작질하여, 그것들을 부수려트리고, 너는 언덕들을 거 같이 만들 것이다’라고 말해진다. 이 구절은 자아와 세상 사랑으로부터 근원된 악들과 그로부터의 거짓들을 파멸함이 의미된다.

써레질하다 (harrow)

호10:11-‘야곱은 그에게 써레질할 것이다.

써레질하다-쏘다-쏟다 -쓰다 -쓴-쓴맛

이28:24-‘그가 자기 지면을 개간하고 써레질 할까?’
 이28장-‘땅을 써레질하는 것’=기억 안에 사용함도 없이 놓아두는 것.
쏘다 (shot)
 * 던지다(dart)를 보라.
쏟다 (pour out)
유출 (effusion)
 창9:6-‘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피를 쏟는 것(흘리는 것)=선행을 소멸하는 것.
 창9:6-‘그의 피도 쏟아질 것이다’=그는 죄있음.
 창9:7-‘너는 땅에서 쏟아낼지어다’=외적 인간에서 선이 증가함. ‘쏟아내는 것’은 선을 서술한다.
 율2:29-그들이 동의하고 확증할 때, 영이 보다 낮은 진리들과 선들 위에 ‘부어진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출4:9-‘그것을 마른 (땅)에 쏟아라’=자연 평면 안으로 끼워넣음.
 출29:7-‘너는 그의 머리 위에 부을 것이다.’
 출30:32-‘붓는 것’=교통하는 것.
 계16:6-‘피를 쏟는 것’=말씀 속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 고로 그것들을 뒤집는 것.
 이32:15-개혁되는 이들 안으로 천국이 유입됨이 ‘영이 높은 곳 위로부터 네 위에 부어질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쓰다 (write)
 계19:16-‘...쓰인 이름’=내적 의미에서 말씀의 품질.
 출17:14-‘책 안에 이 기념물을 쓰거라’=영구히 기억되게 함...‘책 안에 쓰는 것’=영구히 기억되게 하는 것.
 출24:4-‘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썼다’=생명에 각인함.
 출24:12-‘이것들을 나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쓸 것이다’=기억함과 가르침을 위해. ‘쓰는 것’=기억해두기 위해, 그리고 ‘가르치려고 쓰는 것’=가르치기 위해.
 예31:33-‘심정에 법을 쓰는 것’=의지에 신성한 진리를 나누어주는 것.
 출32:16-‘필체는 돌판 위에서 올려내는 하느님의 필체였다’=신성으로부터 있는 말씀의 내적 의미, 그리고 신성한 진리.
 출32:32-‘당신이 적으신 것’=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있는 것. ‘적은 것’이 주님께 관련해 말해질 때, =주님으로부터 거기에 있는 것.
 출34:27-‘너를 위해 이 말들을 적어라’=기억하고 행동되어야 하는 제일 가는 진리들에 관한 가르침.
 계1:19-‘내가 본 것들을 적어라’=지금 밝히 알려지는 모든 것들은 후손을 위하여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계3:12-‘나는 그 사람 위에 내 하느님의 이름을 적을 것이다’=신성한 진리들이 그들의 심정에 찍어질 것이라는 것.
 계10:4-‘나는 막 적으려고 하였다...나는 음성을 들었다...그것들을 쓰지 말라’=이런 것들은...(아직까지는) 받아지지 않는다는 것. ‘쓰는 것’, 자연적 의미에서,=후손에게 기억되게 하기 위해 종이에 적어두는 것,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받음을 위해 심정에 적는 것.
 계14:1-‘그들의 이마에 쓴 것’=사랑과 신앙으로부터 인정함.
 계20:15-‘생명의 책 안에 쓰인 것을 발견하지 못함’=주님의 명령들에 따라 살지 않았던 이들.
 예31:33-‘나는 그들의 심정에 그것을 쓸 것이다’=사랑에 자국을 남기는 것.
 예17:13, 요8:7-‘땅에 찍여져 있는 것’=생명의 상태 때문에 정죄되어지는 것. ‘지면 위에 주님이 쓰심’의 의미도 이와 비슷하다.
 계14:13-‘적어라’=확실함...
쓴 (bitter)
쓴맛 (bitterness)
 창26:35-‘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영의 쓴맛이었다’=거기로부터 먼저 있는 것은 슬픔이었다.
 계10:10-‘내 배가 쓰게 만들어졌다.’ 말씀 측면에서의 신성한 진리는 글자 의미의 바깥쪽 형체에서는 즐겁게 한다, 그이유는 모든 이 각각의 취향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 그러나 ‘쓴맛’에 의해 의미된 것, 즉 내적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이유는 내적 의미는 내면의 인간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
 출1:14-‘이집트인들은 비참한 노예 신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후손들의 삶을 쓰게 만들었다’=복종시키려는 의도가 적개심에 불타고 고통을 유발하게 했다.

쓴썩 - 쓸모있는-쓸쓸한 곳 - 씨

출12:8-‘쓴맛 위에’=시험들 속의 불유쾌한 것을 수단으로.

출15:23-‘그들이 쓴맛 때문에 물들을 마실 수 없었다, 그이유는 그것들이 쓴맛이었기 때문’=그들이 선에 애착함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진리들이 그들에게는 불유쾌하게 나타났다...‘쓴’=불유쾌함.

* ‘마라’는 ‘쓰다’를 뜻한다.

계8:11-‘많은 사람들이 물들 때문에 죽었다, 그이유는 그들이 쓰게 만들었기 때문’=말씀의 왜곡된 진리들 때문에 많은 사람의 영적 생명이 소멸되었다. ‘쓴’=왜곡된 이 이유는 썩의 쓴맛이 이해되기 때문. 그리고 ‘썩’=지옥의 거짓.

애3:15-주님께서는 (유대) 교회에서 거짓과 왜곡된 진리 외에는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은 그를 쓴 것 가지고 배불리게 하고, 썩으로 취하게 했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계8:11-‘그들이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말씀 속의 진리들이 왜곡되었기 때문에...‘쓴’ 그리고 ‘쓴맛’=진리들에 악의 거짓들을 혼합함으로 왜곡된 것.

이5:20-‘선인 것을 악이라고, 악인 것을 선이라 말하고, 빛을 위해 어둠을, 어둠을 위해 빛을 놓고, 단것을 위해 쓴 것을, 쓴 것을 위해 단 것을 놓는 이들에게 슬픔이 있을 것이다.’ 섞음질된 선과 진리가 여기서 ‘쓴 것’에 의해 의미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24:9-‘독주를 마시는 자에게 독주는 쓸 것이다’=진리의 왜곡되게 함과 섞음질함으로부터 불유쾌한 선으로부터의 진리.

신32:32-‘그 송이는 쓴맛’=섞음질된 신앙 속의 선들.

민5:27-‘간음’=거짓과 악의 결합. 만일 그녀가 죄지었다면, ‘물들은 쓴맛이 되었을 것이다.’ 이를 수단으로 섞음질된 신앙의 선들.

호12:14-‘쓴맛’=불유쾌함이 있게 하는 곡해함과 그로부터의 거짓들.

* ‘(마라의) 쓴 물들’=외관적으로 진리로 나타나, 그것의 존재가 거짓들로부터 파생된 것.

쓴썩 (wormwood)

암6:2-‘너희는 정의의 열매들을 쓴썩으로 변하게 했다’=선들이 쓴썩으로 변하였다. (=선이 악으로 변하였다

다).

계8:11-‘별의 이름은 쓴썩이라 부리우고, 땅의 삼분의 일이 쓴썩이 되었다’=지옥의 거짓으로부터 그들의 총명이 있고, 이 거짓을 통하여 말씀 속의 모든 진리들이 왜곡되었다.

쓸모있는 (useful)

* use를 보라

쓸쓸한 곳(solitude)

시107:4-진리에 무지한 이들을 놓고 ‘그들은 길의 쓸쓸한 곳에서 방황한다’라고 말해진다.

예12:10-‘쓸쓸한 곳의 광야’=교회의 황폐함.

이51:3-‘사막’, 그리고 ‘쓸쓸한 곳’=진리 측면에 결함이 있고 무지함.

이51:3-‘사막을 에덴 같이, 쓸쓸한 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이’=그들은 선과 진리를 풍부히 가질 것이라는 것. ‘쓸쓸한 곳’=진리가 없는 곳.

예2:6-‘쓸쓸하고 메마른 토지’=선을 비지각하는 상태.

겔29:12-‘쓸쓸하고 황폐함’=모든 진리와 모든 선이 결핍됨.

이1:7-‘너의 토지는 쓸쓸한 곳’=교회가 모든 진리 측면에서 황폐하였다.

씨 (seed, sow, semination, seminal)

창1:11-‘씨를 생산하는 풀잎(herb)’. 인간이 천국적인 씨들을 받을 만큼 준비가 되었을 때...주님은 ...더 쓸모있는 어떤 것이 있게 하신다. 즉 다시 씨들이 있게 하시는 것, 이는 선한 어떤 것, 이것이 ‘그 안에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 불리운다

창1:29-‘씨를 생산하는 풀잎’=선용에 관계하는 모든 진리.

창3:15-‘뱀의 씨’=불행한 모든 것; ‘여자의 씨’=주님에 대한 신앙.

창4:25-‘하느님께서 나에게 아벨 대신 또 다른 씨를 점지해주셨다’=그분은 또 다른 신앙을 주셨다는 것.

창7:3-‘온 땅의 얼굴 위에서 씨를 생기 있게 하는 것’=신앙 속의 진리들; (그이유가) 이 교회를 수단으로 씨가 생기있어졌기 때문; ‘씨’=신앙.

창8:22-‘씨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거듭나지게 되는 인간, 그리고 이로부터 있는 교회...말씀에서 인간은 ‘들

씨

판'에, 고로 '씨뿌리는 때'에 비교된다...여기서의 경우 모두 각각의 인간을 취급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 그리고 각각에게 씨를 뿌리심의 일이 부족되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 이는 그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모두를 향해서이다...주님께 의한 씨뿌림 없이 인간은 그 어떤 작은 선도 행할 수 없다. 선행으로부터의 모든 선,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주님으로부터의 씨이다...

창9:9-'네 뒤의 네 씨들과 더불어'=새로이 창조되어지는 이들...'씨', 글자 의미에서=후손;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신앙; 그리고 선행이 있지 않은 곳에는 신앙도 있지 않은바, 선행 자체가 '씨'에 의해 뜻해진다...선행이 있는 곳에...씨가 있다; 그 이유가 천적인 씨가 선행이기 때문.

예2:21-'진리의 씨'=선행, 또는 (영적 왕국의 교회 속의) 선행으로부터의 신앙.

이6:13-'거룩함의 씨...'=아껴두신 거룩한 것.

이65:23-사랑으로부터 거듭나지는 그분의 왕국에 있는 이들이 '여호와의 축복된 씨'라 불린다.

창12:7-'네 씨에게 나는 이 토지를 줄 것이다'=천적인 것들이 신앙을 가지는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 '씨'=주님을 향한 신앙.

창13:16-'먼지 만큼 씨'=셀 수 없이 불어남.

창15:3-'당신은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교회 안에 내적인 것이 없다. '씨'=사랑과 신앙.

이48:19-'모래 만큼 씨'=선.

창15:5-'그렇게 네 씨는 있을 것이다'=주님의 왕국의 상속자들. '씨'=사랑과 사랑에서 파생된 신앙; 또는 사랑과 신앙 안에 있는 천사들과 인간들.

창15:13-'네 씨는 방랑자 일 것이다'=선행과 신앙이 찾아보기 힘들다.

창16:10-'나는 네 씨를 불릴 것이다'=합리적 인간의 열매 풍성함...'씨'=사랑과 신앙; 여기서의 경우, '씨를 불리는 것'=합리적 인간에 있는 사랑의 천적인 것들이 열매 풍성함.

창17:7-'네 이후의 네 씨'=그분 안에서의 신앙을 가진 이들.

창17:12-'네 씨가 아닌 외국인'=교회 밖의 사람.

창21:12-'이삭 안에서 씨로 너에게 불리워질 것이다'=선 안에 있는 이들의 모든 구원은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있다.

창22:17-'네 씨'=신앙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영적 인간은 신성한 인간에 의해 구원받아진다.

창22:17-'네 씨는 네 적들의 문을 상속받을 것이다'=선행과 신앙이 이전에 악과 거짓이었던 장소를 계승할 것이라는 것.

창22:18-'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나라들은 복될 것이다'=선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구원.

창24:7-'네 씨에게 나는 이 토지를 줄 것이다'=주님의 인간에 속하여 있는 신성한 진리. '씨'=선행으로부터의 신앙,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신앙으로부터의 모든 선과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듯, 최고 의미에서 '씨'로 뜻해지는 신성한 진리 자체.

마8장-'씨'=주님의 말씀, 고로 신앙 속의 진리.

창26:3-'네 씨에게'=진리...고로 주님의 신성으로부터인 진리, 이것이 '네 씨'이다.

* 내적 의미에서 '씨'는 이삭으로부터의 어떤 후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의 아들들인 모두, 고로 그분의 왕국 속의 아들들, 또는 주님으로부터인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다; 이들이 '씨'이듯, 주님으로부터의 선과 진리 자체도 '씨'이다; 그이유가 이것들이 아들들이기 때문;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자체가 마태복음에서 '왕국의 아들들'이라 불리운다. 즉 '좋은 씨를 뿌리는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다; 들판은 세상이다; 씨는 왕국의 아들들이다.

창26:4-'나는 네 씨를 불릴 것이다'=진리들이 증가함.

창26:12-'이삭은 그 토지에 씨를 뿌렸다'=합리성에 나타나는 내면의 진리들...'씨뿌리는 것' 최고 의미에서=파종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 이로부터 내적으로 인간과 더불어 선과 진리.

신10:15-'하느님이 선발한 씨'라 불리는 교회에 있는 그들의 선들과 진리들.

창32:12-'네 씨는 바다의 모래 만큼'=열매 풍성함과 번창함...'씨'=선행으로부터의 신앙, 또한 선행 자체.

창35:12-'네 이후의 네 씨에게 나는 이 토지를 줄 것이다'=신성한 진리에게 신성한 선이 음미될 것이다.

씨름하다-씨뿌리는 때

‘씨’=신앙으로부터의 진리; 최고 의미에서 신성한 진리...(고로) ‘네 이후 네 씨에게’=신성한 진리가 그분의 것이 되어짐.

시126:6-‘씨 던짐을 수행하는 것’=진리들을 가르침.

창38:8-‘네 형의 씨를 일으키라’=교회가 멸하지 않도록...‘씨’=선으로부터의 진리, 또는 선행으로부터의 신앙.

마8장-‘씨들’=신성한 진리들.

겔17:5-‘토지 속의 씨’=교회 속의 진리.

속8:12-‘평화의 씨’=내적 인간 안에 있는 선. (=아껴 두신 것들: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창46:6-‘야곱과 그와 더불어 모든 씨’=자연적 진리와 거기에 속해 있는 신앙 속의 모든 것들...‘씨’=선행으로부터의 신앙.

창47:19-‘씨를 주는 것’=선행의 선과 믿음의 진리가 유입됨.

창47:23-‘보라 너를 위한 씨가 있다 그리고 너희는 지면에 씨를 뿌릴 것이다’=심어지게 되는 선행의 선과 신앙 속의 진리. ‘씨’=선으로부터의 진리. 고로 양쪽 모두를 의미한다.

창47:24-‘들판의 씨를 위하여’=마음의 자양분을 위하여. ‘씨’=진리와 선, 고로 신앙과 선행.

창48:4-‘나는 이 토지를 네 씨에게 줄 것이다’=주님의 왕국은 이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에게. ‘씨’=믿음 속의 진리와 선행으로부터의 선.

창48:11-‘하느님께서 나로 네 씨를 보게 해주셨다’ = 선과 진리.

창48:19-‘그의 씨가 국가들에 가득할 것이다’=신앙 속에 있는 진리가 지배할 것이다. ‘씨’=신앙과 선행; 여기서의 경우 신앙, 그 이유는 이것이 에브라임을 서술하기 때문.

출16:31-‘고수 씨 같이 희다’=그 안에 있는 순수한 진리. ‘씨’=신앙 속의 진리.

마13:37-‘좋은 씨’=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앙 속의 진리. (=신성한 진리)

이23:3-‘시효의 씨’=과학적 진리.

단2:43-‘인간의 씨’=자아로부터 있는 신앙 속의 진리; 고로 자아와 세상을 찾음으로부터 악들을 응용함에 의

해 섞음질되고 왜곡된 진리.

출30:21-‘그에게 그리고 그의 씨에게, 그들의 자손 대대로’=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것들을 받는 모든 이, 고로 그분에 의해 거듭나지는 이들 모두. ‘씨’=주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이들.

출32:13-‘나는 네 씨를 별들 만큼 불리겠다’=선들과 진리들, 그것들의 지식들.

출33:1-나는 그것을 네 씨에게 줄 것이다’=주님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의 선과 신앙 속의 진리에 있는 이들에게.

마13장-(파종자의 비유에서), 진리가 들판에 있는 ‘씨’에 의해 뜻해진다. ‘파종자’=주님; ‘씨’=그분의 말씀, 고로 주님의 진리: ‘길 위에 있는 씨’=주님의 진리를 돌보지 않는 이들과 더불어; ‘돌이 많은 곳에 있는 씨’=주님의 진리를 돌보는 이들, 그러나 진리 그 자체를 위함이 아닌 것, 즉 내면적으로가 아닌 것; ‘가시덤불 한가운데의 씨’=악의 욕망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좋은 지면에 있는 씨’=주님으로부터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을 사랑하는 이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진리들을 행하여 열매 맺는 이들과 더불어.

계12:17-‘그녀의 남은 씨’=...받는 초심자들.

예22:30-‘그의 씨’=지옥적인 거짓.

이14:20-‘악행자들의 씨’=악으로부터의 무시무시한 거짓.

이30:23-‘네 씨의 비’=진리가 배가됨.

씨름하다 (wrestle)

* 버둥거리다(struggle)를 보라.

씨뿌리는 때 (seedtime)

* ‘씨뿌리는 때’는 교회의 회복을 묘사하고 의미하고 있다.

* ‘씨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진리와 선이 심어짐, 그리고 이로부터 있는 결실에 관련한 교회의 상태.

씨라 (Zillah)

* Adah를 참조

씻는 통 (wash-pot)

시108:9-‘모압은 나의 씻는 통’=선이 거짓들로 더럽혀졌다.

씻다 (wash)

씻라 -씻는 통-씻다

창18:4-‘당신의 발을 씻으십시오’=주님이 더 낳게 지각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분이 그당시 계셨던 상태에서 (신성은) 자연의 어떤 것을 입어야 하리라는 것.

창19:2-‘당신의 발을 씻으십시오’=그것의 자연 평면에 적용함.

창24:32-‘그의 발을 씻을 물’=거기 순수해짐.

시51:7-‘당신께서 나를 씻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눈보다 더 희어질 것이다’=주님의 정의를 받고 입음으로 죄들로부터 순수해지는 것.

*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씻음은 세례를 표현했다.

창43:31-‘그는 자기 얼굴을 씻었다’=그는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했다.

창49:11-‘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에 씻는다’=그분의 자연 평면은 그분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이다. ‘씻는 것’=순수해지는 것.

출2:5-‘강에서 씻는 것’=거짓인 것으로부터 예배함.

출19:10-‘그들로 자기들의 의복을 씻게 하자’=진리들을 순수하게 함. ‘씻는 것’=영적 불결함으로부터 순수해짐.

신21:6-‘굽류의 강에서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는 것’=이 악으로부터 순수해짐, 그이유는 이것이 진리에 무지한 이들의 절도 없는 열정으로부터 행해졌기 때문.

레16:4-‘(아론이) 자기 몸을 씻음’에 의해 (신의) 순수해짐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을 수단으로 결과되어진다는 것이 의미되어 있다.

출29:4-‘너는 물로 그것들을 씻을 것이다’=신앙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순수해짐.

출29:17-‘너는 내장들을 씻을 것이다’=가장 낮은 것들이 순수해짐...

출29:17-‘넓적 다리를 씻음’=자연적 인간의 순수해짐.

출30:19-‘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으로부터 씻을 것이다’=주님에 의해 순수해짐과 인간의 거듭남이 표현됨.

* (제자들의 발을) ‘씻김’에 의해 악으로부터 순수해짐인 영적 씻음이 의미된다. ‘머리와 손들을 씻는 것’=내적 인간을 순수하게 하는 것. 그리고 ‘발을 씻는 것’=외적 인간을 순수하게 하는 것. 내적 인간이 순수해졌을 때, 외적 인간은 순수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

이 ‘씻은 자는 발 외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에 의해 뜻해진다. 악으로부터의 모든 순수해짐은 주님 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에 의미되어 있다.

계1:5-‘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는 분’=사랑과 자비로부터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들을 수단으로 하여 인간을 개혁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는다’=악들로부터 순수해지는 것, 고로 개혁되고 거듭나는 것. 거듭남은 영적인 씻음이다.

계2:14-‘그리고 그들의 도포를 빨았다’=거짓의 악으로부터 자기들의 종교 속의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요9:7-‘실로암의 못에서 네 자신을 씻어라...그는 가서 자신을 씻고 보이려고 왔다.’ ‘실로암의 못’=글자로 있는 말씀. ‘거기서 씻는 것’=거짓들과 악들로부터 순수해지는 것.

겔16:9-‘나는 너를 씻었다’=악들로부터 순수해지는 것.

시26:6-‘나는 순진 안에서 내 손을 씻는다’=악들과 거짓들로부터 순수해지는 것.

출30:19, 레16:4-‘손과 발을 씻는 것’=자연적 인간을 순수하게 하는 것. ‘몸을 씻는 것’=영적 인간을 순수하게 하는 것.

요13:10-‘씻은 자’=내면적으로 깨끗한 자. ‘그의 발 만을 씻으면 된다’=그다음 그는 외면적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

이1:16, 예4:14, 시51:2,7-‘씻는 것’=거짓들과 악들로부터 순수해지는 것임은 이 구절, 즉 ‘너를 씻어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라, 내 눈 앞에서 네 행동 속의 악을 중단하라, 악을 행하기를 중단하라’...‘사악함으로부터 너희의 심정을 씻어라, 오 예루살렘아, 하여 네가 구원될 것이다’...‘저를 나의 불법으로부터 씻으소서, 저를 나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소서’ 등등으로부터 분명해진다.

시73:13-‘손을 결백함에서 씻는 것’=누군가 결백하다고 입증을 하는 것, 악들과 거짓들을 순수하게 하는 것. 손을 씻는 것은 결백의 증거이다.

왕하5:10-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음=왜곡된 진리들로부터 완전히 순수해짐.

아골-아껴두시는 것-아나민-아나킴-아내

겔16:9-‘나는 네 위로부터 너희의 피들을 씻겨냈다’=악의 거짓들을 제거하는 것.

아골 (Achor)

이65:10-‘아골 골짜기’=천적 교회의 외적인 것.

호2:15-‘아골 골짜기’=자연적 진리들.

아껴두시는 것 (remains)

남아 있는 것 (remains)

* ten을 보라.

* (거듭남에서의) 두 번째 상태는 주님의 것들과 인간에게 어울리는 것들 사이에 구분이 있는 때이다. 전자는 ‘아껴두신 것들’이라 부르는데, 이는 여기서 특별히 신앙에 관한 (영적) 지식들이다. 이는 유아시기로부터 배워왔던 것들이다. 이것들은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외적 인간이 내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태가 올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상태는 오늘 날의 경우 시험 없이는 거의 인간에게 공포되지 않는다. 아껴두신 것들은 내적 인간 안에 저장되어 있다.

* 주님의 자비는 그분이 인간에게 저장해두신 것들을 품으신다. 이것들이 ‘아껴두신 것들’이라 불린다. 그것들은 진리와 선에 관한 (영적) 지식들인데, 이것들은 외적인 것들이 황폐될 때까지 결코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 ‘뱀’은 주님이 저장해두신 이런 것들, 즉 아껴두신 것들에 상처를 입힐 수 없다

이14:30-‘남은 자들을 죽이는 것’=주님에 의해 내면적으로 저장되어왔던 선들과 진리들이 제거되는 것.

암9:12-‘에돔의 남은 자들’=교회 내에 선 안에 있는 이들.

슌8:11-‘백성의 남은 자들’=내면의 인간 안에 주님에 의해 저장된 진리들.

창45:7-‘당신이 토지에 남아있는 것을 놓으려고...’=교회의 중간과 가장 깊은 것. (그이유가) ‘남아있는 것들’=주님에 의해 인간 안에서 내향적으로 저장된 진리들에 인접한 선들. 여기서의 경우, 교회의 중간과 가장 깊은 것들.

미5:7-천적 선과 천적 진리, 이것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다.

예15:9-‘나는 그들의 남은 자들을 검에 줄 것이다...’=선과 진리의 모든 나머지가 멸해질 것이다.

겔5:10-‘모든 너희의 남은 자들을 나는 흠을 것이다’... ‘남은 자들’=유아와 어린 시절로부터 주님에 의해 인간에게 저장된 진리들과 선들.

계12:17-‘그녀의 씨의 남은 자들’=(새 교회로부터) 이런 진리들에 있는 이들.

슌3:13-‘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선행의 선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 신앙 안에 있는 이들.

계9:20-‘나머지(rest) 사람들’=이렇지 않게 있는 이들.

계11:13-‘그 나머지는 무서워 떨었다’=선행으로부터의 얼마 정도의 선을 신앙에 인접하게 했던 이들.

계12:17-‘그녀의 씨의 남은 자들’=초심자들 (novitiates).

계19:21-‘남은 자는 죽여졌다’=악들을 죄로 여겨 금하지 않는 개혁 교회 사이에 있는 다양한 교회 집단들 (heresies)로부터의 모든 것.

아나민(Anamim)

창10:13-‘미스라임은 루딤, 그리고 아나뎀을 낳았다’, 등등=여러 나라들, 이를 수단으로 여러 의식들이 의미 된다.

아나킴 (Anakim)

신2:11,20-‘에뎀, 르바뎀, 아나킴, 삼숨뎀’=악과 거짓의 설득으로 악과 거짓에 물든 이들.

아내 (wife)

* 여성, 여자도 참조.

* 자아, 주님에 의해 생기를 갖게 될 때, ‘신부’, 또는 ‘아내’라 불리워진다.

창2:23-‘지금 이는 내 뼈의 뼈요 내 살의 살이다; 이러 한즉 그녀는 아내라 불리울 것이다, 그이유는 그녀는 남자의 뼈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이다’=.....외적 인간의 자아...생기를 얻었다...(그리고) 내적 인간이 이런 방법에서 외적 인간과 짝지었을 때...전에 ‘여자’라 불리운 자아는 ‘아내’라 불리운다. [비록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이다 할지라도.]

창2:24-‘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굳게 결합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몸일 것이다’=...내적인간을 떠나...내적 인간은 외적 인간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함께 있을 것이다...

아내

* 그 결과 한 남자와 한 아내이다가 결혼의 법칙이다; 이럴 때 그들은 천국의 결혼을 표현한다...태고 교회(안에서), 이 법칙은 내적 인간 안에 새겨져 왔다, 그러므로 그 당시 남자는 한 여자 만을 가졌다...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이 내적 인간으로 있기가 중지되었을 때... 그들은 한 명 이상과 결혼했다.

창7:2-‘남자(man-vir), 그리고 아내’=악과 결합한 거 것들...그 이유는 그것들이 여기서 불결한 짐승들로 서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는 깨끗한 짐승들을 서술하고 있다; 거기서 그것들=선들과 결합한 진리들.

* 교회가 말씀에서 묘사되어질 때, 그것은 ‘남자와 아내’, 또는 ‘사람과 아내’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남자’=지적 측면, 또는 진리; 그리고 아내=자발적 측면, 또는 선; (그러나 후자의 경우) ‘사람’=사랑으로부터의 선, 또는 사랑; 그리고 ‘아내’=신앙으로부터의 진리, 또는 신앙; 고로 ‘사람-homo’=교회의 본질(필수)적인 것, 그리고 ‘아내’=교회 자체.

* (창11:29에서) ‘아브람과 다른 남편들=악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거짓들.

창12:5-‘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선에 진리가 결합했다. ‘사래, 아내’=진리.

창12:11-‘그는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했다’=그는 천적인 것에 진리가 인접함에 관해 그렇게 생각했다...그이유가 ‘아내’...=선과 결합한 진리이기 때문.

창12:12-‘그들은 말하기를, 이는 그의 아내이다’=그들은 (지식들을) 천적인 것이라 부를 것이라는 것. 그이유가 ‘아내’=천적인 것에 인접한 진리; 그리고 그러므로 ‘이는 그의 아내이다’=천적인 것.

창12:17-‘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말 때문에’=천적인 것에 인접되어졌던 진리 때문에.

창12:19-‘보라 네 아내; 그녀를 데려가라, 그리고 가라’=진리가 천적인 것 자체에 결합되리라는 것.

창12:20-‘그들은...그의 아내를 보냈다’=과학물들이 천적인 것들과 결합되어진 진리를 떠났다.

창13:1-‘그와 그의 아내’=그 당시 주님과 더불어 천적 진리들.

창16:3-‘사래, 아브람의 아내가 ... 데려왔다’=진리에 애착함 ...그 이유가 ‘아내’=애정, 애착.

창19:15-‘일어나라,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신앙으로부터의 진리.

창19:26-‘그의 아내는 그의 뒤를 돌아 보았다’=진리가 그 자체 선으로부터 돌아서, 그리고 교리적인 것들을 쳐다보았다.

창20:2-‘사라, 그의 아내’=영적 진리가 천적 자체에 결합되었음.

창20:17-‘(아비멜렉의)의 아내’=진리.

창21:21-‘이집트의 토지로부터의 아내’=지식들에 관한 애착. 그 이유가 ‘아내’=애착, 또는 선.

말2:14-‘네 젊은이의 아내’=진리.

창38:12-‘유다의 아내’=아굽으로부터 (타락쪽으로) 강한 나라들과 더불어 광신적인 신앙심, 그리고 특별하게는 유다로부터 내려간 나라들의 광신적 신앙. ‘아내’=교회; 여기서의 경우, 광신적인 신앙, 그 이유는 이것이 유다 국가를 취급하기 때문, 이 국가와 더불어 교회는 없었고, 오로지 교회의 껍질 뿐이었다..

창39:7-‘그의 주인의 아내는 자기 눈을 요셉에게 들어 올렸다’=영적이 아닌 자연적 평면으로부터의 진리...그리고 그것의 지각.

창39:19-‘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진리로 나타난 거짓과 소통함... 여기서 ‘아내’=거짓.

출4:20-‘모세는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갔다’=인접한 선... 그의 ‘아내’가 진리에 인접한 선을 표현한 이유는 (양 세계에서) 모든 것에는 결혼의 형상이 있기 때문; (즉) 수동과 능동.

겔 24:18-‘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아내’=교회.

이13:16-‘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할 것이다’=진리로부터의 선들이 거짓으로부터의 악들로 해서 뒤집힐 것이다.

계19:7-‘그분의 아내는 자신을 준비했다’=이 교회, 즉 새 예루살렘에 있을 이들이 모아지고, 취임식을 올리고, 가르쳐진다는 것.

마19:4,5, 창2:24-‘그의 아내와 굳게 결합하는 것’=자기 아내 사랑에 전심전력하는 것. (=지적인 것들은 반드시 천적인 것들과 제휴되어야만 한다)

겔18:6-‘자기 동료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았다’=교회

아넬-(...이) 아니다 -아다-아담

속의 선, 그리고 말씀 속의 선에 섞음질 않았다.

신17:17-‘아내들’=선과 진리에 애착함들, 그런데 한 남자가 여러 아내들을 가질 때, 이 애착들은 악과 거짓에 대한 애착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네 심정이 돌아서지 않으려거든 자신을 위해 아내를 여럿 두지마라’라고 말해지고 있다.

마19:3,8-모세는 완악한 그들의 심정 때문에 어떤 동기를 위해 아내를 버리는 것을 그들에게 허용한 것이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족은 ...(단지) 자연적 평면에 있었고, 심정 역시 완악한바, 어떤 결혼적 사랑도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음탕한 사랑만 존재했기 때문, 간음적인 것만 있었기 때문.

마19:9-‘음행’때문을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음을 범한다’는 이유는 ‘음행’=거짓인 것, 그리고 여자와 더불어, 악과 거짓인 것에 대한 애착, 고로 선하고 참된 것을 이해함과 일치할 수 없는 애착이기 때문; 그리고 이 불일치로부터 선과 진리 속에 존재하는 결혼적 사랑은...깡그리 멀해지고 만다. 그이유가 마음들 속에 있는 것인 내면의 결합이 무효화될 때, 결혼은 녹아지고 말기 때문.

신20:7-선과 진리의 결합이 ‘아내와 약혼하는 것’, 그리고 ‘그녀를 데려가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또 다른 자가 그녀를 데려가지 않도록’=다른 종류의 진리가 선에 애착함에 그 자체 결합하지 않도록.

아넬 (Aner)

창14:13-‘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주님이 그분의 첫 어린 시절에서 (악과) 싸우셨을 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천사들을 의미하고 표현한다...

창14:24-이름 ‘에스골, 아넬, 그리고 마므레.’ 이 이름들은 전투를 수행한 선들과 진리들을 의미한다.

창14:24-‘아넬, 에스골, 그리고 마므레’는 천사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러므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것도 의미한다.

(...이) 아니다 (not, nay)

창19:2-‘그들은 말했다, 아니다’=시험 속에 있지 않은 것이라는 의심.

창23:11-‘아닙니다, 나의 주여, 나에게서 들으소서’=그들이 신앙의 희미함에 있었다는 것...

창30:31-‘어떤 것도 주지 않는 것’=가져와 지지 않는 것.

창41:16-‘말하기를, 제가 아닙니다’=그것은 인간 만으로부터가 아니었다.

창42:10-‘그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의 주여’=그들은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했다는 것.

창42:10-‘한 명은 있지 않다’=신성한 영적 평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5:36,37-...이들이 이 구절, 즉 ‘너희는 대화할 때, 예, 예, 아니오, 아니오라고 해라, 이외의 것은 악으로부터이다’에서 뜻해진 이들도이다. 그이유가 그것이 그렇다 여부에 관련하여 진리들로부터 추론하는 것은 선으로부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이유는 이때의 진리는 지각된 것이 아니기 때문, 따라서 권위로부터, 그 결과 자아에 의한 확증으로부터 만 믿어지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그래도 목사의 설교인데, 신학 박사의 강연인데... 설마 거짓이 섞여 있겠는가 하여 믿는 따위 말이다.

아다 (Adah)

* ‘아다’와 ‘썰라’=그 당시 일어난 새로운 교회

* ‘아다’=이 새로운 교회의 천적, 영적인 것들의 어머니; ‘썰라’=이 새로운 교회의 자연적인 것들의 어머니.

아담 (Adam)

* man-homo도 보라.

창5:2-히브리 단어 아담은 사람(man-homo)를 뜻한다, 그리고 이 교회가 아담이라 부르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사람이라 불러야 정확할 것이다.

창5:2-‘아담’=‘지면(ground)’이다.

창9:6- ‘아담’, 또는 ‘사람’=태고 교회.

출5:9- 사람을 뜻하는 두 히브리 단어들이다. 아담과 에노스(Enosh)이다. ‘아담’이라 불리는 사람에 의해서 천적 교회의 사람, ‘에노스’에 의해서는 영적 교회의 사람으로 이해되어진다. 이 구절에서는 후자이다.

계6:4-아담과 에돔 모두 빨강(색)으로부터 파생되어졌다.

아닷 (Adad)

창50:10-‘그들은 아닷의 타작 마당에 왔다’=첫 상태...‘아닷’=이 상태의 품질.

아드마 (Admah)

아닷-아드마 -아들

*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끝에 다다른 거짓들과 악들.

아들 (son)

* 아들=진리

창5:22-'(에녹)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이와 같은 교회의 출생들과 임신들.

시144:7-'모르는 사람의 아들들'=거짓들.

창10:1-'그들에게 아들들이 출생했다'=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온 교리물들.

창16:11-'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진리, 즉 합리성의 진리.

창17:16-'나는 너에게 그녀로부터 아들을 줄 것이다'=합리성; (그 이유가) '아들'=진리; 그리고 모든 합리성이 진리로부터 시작하는바, 여기서 '아들'에 의해 합리성이 의미되어진다.

요5:22-'그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주었다.' '아들'은 신성한 인간을 뜻한다.

창21:2-'아들'=신성한 합리성. '아들'=진리; 그리고 진리가 합리성에서 주요한 것인바, '아들'=합리성...

창21:10-'아들'=단지 인간 합리성의 진리.

창22:6-'이삭은 '그의 아들'이라 불린다. 그 이유는 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여호와로부터 임신하였을 뿐 아니라 태어나기 때문.

창22:12-'너는 네 유일한 것을 나로부터 보류하지 않았다'=시험의 마지막을 통하여 인성이 신성과 합일함. '아들' 즉 이삭=신성한 합리성, 또는 신성한 인간, 그 이유가 이것은 합리성 안에서 시작하기 때문.

창23:11-'백성의 아들들'=진리들 안으로 개시된 처음 것들.

마17:5-'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신성한 인간.

창25:4-'이 모든 자는 그두라의 아들들이다'=거기로부터 교리물들과 예배들에 관하여. '아들들'=진리들과 교리물들.

창25:12-'아브라함의 아들들'=주님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아들들.

창25:13-'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영적인 것의 교리물들의 품질.

시2:12-'아들에게 키쓰하는 것'=사랑의 신앙을 수단으

로 신성한 인간과 결합함.

창29:1-'동쪽의 아들들의 토지로'=사랑의 진리들 쪽으로 승강함.

창30:1-'나에게 아들을 주시오'=내면의 진리들을 가지기를 바람; 내면인 이유는 라헬로부터이기 때문.

창30:6-'나에게 아들을 주셨다'=이 진리가 인정되었다는 것.

창30:7-'야곱에게 둘째 아들을'=두 번째 일반적 진리.

창30:10-'질바...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외적 진리를 인정함.

창30:19-'레아...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았다'=진리를 받음과 인정함.

창30:35-'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주었다'=이런 것들이 진리들에 주어졌다는 것.

창31:1-'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들'=(그)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창31:17-'그는 그의 아들들을...들어올렸다'=진리들의 승강.

창31:55-'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에게 키쓰했다'=이런 진리들을 인정함, 그리고 이런 진리들에 대한 애착을 인정함.

마8:22-'왕국의 아들들'=황폐된 교회에 있는 것들.

창34:5-'그의 아들들'=그의 후손들(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속했던 신앙 속의 진리들)

창35:17-'당신은 아들 역시 가질 것이다'=영적 진리, (그 이유는 베냐민이었기 때문)

삼하13:28-31-'왕의 아들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

창37:35-'그의 모든 아들들'=거짓들에 있는 것들.

창38:3-'그녀는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다'=교회 속의 거짓.

창38:4-'그녀는 다시 임신했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거짓으로부터 있는 악.

창38:5-'다시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우상인 것.

시45:6-'아들들'=영적 왕국의 진리들.

창41:50-'요셉에게 두 아들들이 태어났다'=갈라져 나온 선과 진리.

창42:1-'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일반적 측면에서 진리에 관한 지각.

아들

창42:5-'이스라엘의 아들들'=영적 진리들.
창42:11-'한 남자의 아들들'=한 근원으로부터의 진리들.
창42:37-'르우벤의 두 아들들'=교회의 두 교리들, 하나는 진리에 관한 것, 하나는 선에 관한 것.
창45:10-'너, 그리고 네 아들들, 그리고 네 아들들의 아들들'=영적 선...자연에 있는 진리들,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파생된 진리들.
마10:37-'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누구이든 나에게 합당치 않다'=현실적으로 인간에게 잘 어울리는 것들.
창49:8-'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진리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에게 복종케 할 것이다.
이60:9-'네 아들들을 멀리서 데려오는 것'=진리들에 있는 아들. (=이방인들과 더불어 진리들), (=진리들을 받는 이방인들)
창49:22-'열매 있는 자의 아들'=진리로부터 열매 풍성함.
출1:22-'모든 아들...너는 강에 던질 것이다'=거짓들에 모든 진리들이 침수됨.
출2:10-'그는 그녀에게 아들로써 있었다'=그러므로 그것의 첫 진리들이 왔다.
출4:22-'나의 아들, 나의 첫 출생, 이스라엘이다'=영적 진리와 선에 있는 이들이 채용되어졌다.
계12장-여인이 출산한 '아들'=신성한 진리가 오늘에서야 드러내졌다.
출20:10-'네 아들도 안된다...'=내적 인간에 있는...인간의 지적인 것.
이5:1-'기쁨의 아들'=천적 왕국의 사랑의 외적 선.
마15:26-'아들들'=교회 내에 있는 이들.
출23:12-'하녀의 아들'=외적 진리의 애착에 있는 이들.
마13:38-'좋은 씨'인 '왕국의 아들들'=교회의 신앙 속의 진리들.
마28:19-'아들'=인간 형체에 있는 신성 자체. (=신성한 인간)
미1:16-'기쁨들의 아들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 (=주님으로부터 교회 속의 순수한 진리들)
요17:1-'아들들'=신성한 인간.

마11:27-'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자는 없다, 그이 유는 '아들'에 의해 신성한 진리가 의미되기 때문,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선이 의미되기 때문, 둘 모두 주님 안에서이다, 그리고 전자는 후자에 의하지 않고는 알려질 수 없다.
출34:7-'아버지들의 불법을 아들에게, 아들의 아들에게 물어 벌한다'=악들과 긴 시리즈로 있는 거짓들을 거절하고 지옥에 던짐.
계2:23-'나는 그녀의 아들들을 죽임과 더불어 죽일 것이다'=그들과 더불어 말씀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은 거짓들로 바뀔 것이다...또한 그들의 거짓들을 정죄하는 것도 의미한다. (=고로 거짓들은 소멸되어진다는 것)
계12:5-'남성 아들'=새 교회의 교리...또는 영적 인간 안에 임신된 진리, 그리고 자연에서 태어남.
계21:7-'그는 나에게 아들일 것이다'=천국에서 그들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은 그들 안에 있을 것이다.
마17:5-'이것이 내 사랑받는 아들이다'=그분의 신성한 인간; 그리고 신성한 진리가 그분으로부터인 바, 구름으로부터 말해지기를, '나는 아들 안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너희는 그에게 (그의 말을) 들어라' (=그는 신성한 진리이다, 또는 말씀이다는 것)
시128:3-그들 탁자 주위에 아들들'=거기서부터 선으로부터의 진리.
시127:3-'여호와의 상속 재산인 아들'=진리를 통하여 총명이 있다.
시128:6-'너는 네 아들들의 아들들을 볼 것이다'=교리 속의 진리들, 그리고 그것들이 영원히 번창함.
요8:36-'만일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면, 너는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아들'에 의해 주님이 의미되고, 또한 참 진리가 의미된다.
겔2:4-'얼굴이 굳은 아들들'=선 없이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추상적으로 선 없는 진리.
시106:37-'아들들과 딸들을 희생하는 것'=악한 탐욕들을 통하여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을 파괴하는 것.
레26:29, 겔5:10-'그들은 아들들과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아버지들은 아들들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들은 아버지들을 먹을 것이다'...'아들들'=교회의 진리들; 그리고 반대적으로 그것의 거짓들.

아라랏 -아라비아

암7:17-‘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맞아 떨어질 것이다’=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은 악의 거짓들을 통하여 멸해질 것이다.

시128:3-‘올리브 식물 같은 네 아들들’=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태어난 진리들, (이를 통하여) 사랑과 선행으로부터의 선들이 생산되어진다.

시147:9-‘까마귀의 아들들’=자연적 인간들, 이들은 신성한 진리들에 관련해서는 오프로부터 어스레한 발광체 안에 있다.

예31:17-‘네 아들들은 그들 자신의 지역으로 다시 올 것이다’=영적 진리들은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과 더불어 나올 것이다.

막3:17-‘천둥의 아들들’=천적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시2:7-‘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신성한 인간, 이는 또한 하느님의 아들이다.

욥2:23-‘시온의 아들들’=신성한 진리로부터 지혜에 있는 이들.

요6:40-‘아들을 보는 자,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아들을 보는 것’=주님을 영 안에서 뵈는 것.

아라랏 (Ararat)

* ‘아라랏 산’=발광(빛을 냄)..‘아라랏’=발광, 사실상 거듭나는 자의 발광. 이 발광은 시험 후 첫 발광이다. 이 첫 발광은 대체로 어둡하다.

아라비아 (Arabia)

예49:28-‘아라비아와 동쪽의 아들들’=천적인 재물들을 소유함, 또는 사랑으로부터 있는 이들의 소유물.

겔27:21-‘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왕자들, 이들은 무역상이었다.’ 거기서 두로가 취급되고 있다, 두로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아라비아’는 그들의 지혜를 표시한다. ‘게달의 왕자들’은 그들의 총명을 표시한다.

예49:28-‘아라비아와 하술의 왕국들’=반대 의미에서인바, 이들은 천적, 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을 지녔으며 이 지식을 사용하는 목적이 자신과 세상에 의해 총명해지고 명성이 드높혀졌다는 것을 뒷받침하려는 것.

이21:13-‘아라비아’=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 즉 신앙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이들.

이60:6,7 겔27:21-‘게달’이 아라비아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장소로부터 분명하다. 그리고 아라비아는 이스마엘의 아들로부터 게달이라 이름지어졌다는 것...

겔27:21-‘아라비아’는 영적 선을 표시한다. ‘게달의 왕자들’은 영적 진리들을 표시한다.

이13:19,20, 42:11, 예3:2, 시120:5-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이 ‘아라비아 사람’에 의해, 사막에 있는 ‘게달족’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이21:13-‘아라비아의 숲에서 밤을 보내는 것’=진리 측면이 황폐해지는 것.

예49:28,29-‘아라비아와 동쪽의 아들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지닌 이들.

이60:7-‘아라비아의 양떼들’=내향의 인간으로부터의 모든 선들...‘아라비아’=선이 있는 곳.

겔27:21-‘아라비아와 게달의 왕자들’=지식으로부터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이42:11-‘아라비아’=자연적 인간, 그이유가 사막에 있는 아랍은 자연적 인간이기 때문.

예2:10,11-‘아라비아’=선들 안에 있되 자연적 수준에서 사는 이들, 즉 자기들만의 좁 광신적인 신앙에 따라 선 안에 사는 이들.

예49:32-‘아라비아와 하술’=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

예49:28-동방 사람들이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쪽의 아들들’이라 불리웠다. 그리고 아라비아로부터 있었던 그들이 그렇게 불리웠다는 것...

예3:2-‘사막에 있는 아랍’=사막에서 타인을 죽이고 강탈하는 강도 같은 자.

이13:19-20-‘아라비아인’=사막에 사는 이들.

예49장-‘아라비아’=선에 대한 지식을 오용하는 이들.

왕상10:1-13, 마2:1-12-지혜가 아라비아에서 무성했다는 것은 시바 여왕의 솔로몬 방문, 세 ‘현자들’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아람 (Aram)

* 시리아도 참조

창10:22-‘셈의 아들들...아람’. ‘셈’=내향의 교회; ‘셈의 아들들’=지혜 속에 있는 일련의 것들. ‘아람’ 등은 많은 나라들이었다, 이들을 수단으로 지혜 속에 있는 일련의

아람-...아래에-아래쪽으로-아론

것들이 의미되었는데...'아람'에 의해 선에 관한 지식들이 의미된다.

* '아람' 또는 시리아는 반대 의미에서 오통된 선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창10:23-'아람'=선에 대한 지식. '아람의 아들들'=선에 대한 지식으로부터의 지식, 그리고 지식으로부터 있는 것...그러므로 이 지식은 자연적 진리들이다. 그리고 지식으로부터 있는 것들은 그것들에 따라 행동된 것들이다.

창22:21-'아람의 아버지 그므엘'=다양한 좀 광신적인 신앙 그리고 이로부터의 예배.

창24:10-'그는 아람 나하라임에 갔다'=거기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지식...'아람', 또는 시리아=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아람 나하라임', 또는 강들의 시리아=나하라임, 또는 강들로부터 진리에 대한 지식.

창25:6-'동쪽 방향인 동쪽의 토지'는 아람, 또는 시리아였다...이는 선에 대한 지식.

창28:5-'아람 사람 브드엘의 아들 라반'=방계의 선...브드엘이 여기서 '아람 사람'이라 불리운다. 그 이유는 '아람', 또는 시리아에 의해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의미되기 때문.

창31:20-'아곱은 아람 사람 라반의 심정을 훔쳤다'=상태의 변화가 선의 측면에 관련하여 라반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라반'은 증간의(중재하는) 선을 표현한다. 이것이 지금 분리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분리되기 때문에 라반은 지금 '아람 사람'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 이유가 '아람 사람 라반'이 이와 같은 선이기 때문, 이 안에는 이전에 있던 신성한 선과 진리는 없다. 이런 의미가 있기에 아람, 또는 시리아는 강, 즉 유브라데에 의해 가나안의 토지와 분리되어 있다. 고로 이것은 가나안의 토지 밖이다.

* '아람', 또는 시리아에 의해 진리에 대한 지식과 선에 대한 지식이 특별히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교회가 거기 있었기 때문, 그리고 이 교회가 오랫동안 존존했었기 때문, 이는 발람의 기록으로부터 분명하다...이후 우상숭배가 번창했는데, 그때로부터 아브람이 부름받았다, 그리하여 표현 뿐인 교회가 가나안의 토지에 설립되어졌다. 그다음 아람, 또는 시리아는 교회 밖 지

역, 또는 교회와 분리된 지역, 즉 주님의 왕국 속에 있는 이들에서 더 멀리 있는 이들, 그럼에도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의 의미를 보유한 이들을 표현하였다.

...아래에 (under)

창35:8-'그녀는 벤엘 아래 상수리나무 아래에 매장되어졌다'=영원히 거절했다. 그 이유가 '상수리나무 아래에'=영원히; 그리고 '벤엘 아래'=자연의 바깥.

창41:35-'손 아래'=필요할 시 언제나 처분할 권한을 위해.

아래쪽으로 (downwards)

출27:5-'너는 그것을 제단의 아래쪽으로 한바퀴돌아놓을 것이다'=이것은 최말단에...'아래쪽으로'=밖을 향하여(outward).

아론 (Aaron)

시115:12,13-'아론의 집'=사랑의 선.

출4:14-'레위인 아론 네 형이 있지 않느냐?='선과 진리인 것에 관한 교리. 그 이유가 아론은 신성한 선 또는 성직 직분에 관련하여 주님을 표현한다. 이 구절의 경우는 그가 성직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하는 바, 그는 선과 진리인 것에 관한 교리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세에게 '입을 위하여' 있었다, 그리고 모세는 그에게 '하느님이 되어' 있었다. 모세는 그분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표현했다. 이에 비해 아론은 주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했다. 이 진리가 선과 진리인 것에 관한 교리이다. 다시 말해 여기서 모세가 표현하는 진리는 인간에 의해 들려지고 지각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니고, 아론에 의해 표현된 진리만이 인간이 듣고 지각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아론은 '입'이라 불리고, 모세는 그의 '하느님'이라 불린다. 또한 아론이 '레위족'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 이유는 '레위'=선과 진리인 것에 관한 교리이기 때문, 이것이 성직 직분을 섬기고 그 임무를 위해 일해준다.

출4:27-'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하셨다'=교리로부터의 진리, 이 진리를 신성으로부터 지각함.

출4:28-'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 했다'=간접적으로 진행되는 진리 안으로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진리가 유입됨.

아론

출4:30-'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던 모든 말들을 이야기했다'=그 때부터 신성으로부터의 교리.

출5:1-'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갔다'=그 때부터 신성한 법과 교리...모세가 표현하는 신성한 법은 내향의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 마찬가지로 천국들에 있는 것과 같은 신성한 법으로 이해되고, 교리에 의한 신성한 법은 지상에 있는 신성한 법, 즉 글자 의미에 있는 신성한 법으로 이해된다.

출5:4-'모세와 아론,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들을 그들의 일로부터 몰아내려하느냐?'=그들의 신성한 법과 교리가 그들을 곤경으로부터 헤어나게 못할 것이다. '모세'=신성한 법 측면에서의 주님, '아론'=그 때부터 교리 측면에서의 주님.

출6:13-'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셨다=신성으로부터의 법으로부터, 그리고 그로부터 있는 교리로부터 새로이 가르치심.

출6:23-'아론은 여인으로 엘레세바를 자신에게 데려왔다'=교회의 교리, 그리고 그 안에서 선과 진리가 결합하는 방법.

출6:25-'아론'=영적 교회의 바깥쪽인 것, 그리고 '모세'는 안쪽인 것.

출6:26-'...이들은 모세와 아론이다'=이는 법으로부터, 즉 신성으로부터, 그로부터인 교리로부터 였다는 것.

출7:1-'네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 일 것이다'=신성으로부터의 법으로부터의) 교리.

출7:7-'아론은 83년의 아들이었다'=교리와 상태의 품질.

출8:1-'아론에게 말하거라'=내향의 법이 외향의 법 안으로 유입됨. 아론이 표현한 선과 진리인 것에 관한 교리는 내향의 법으로부터, 즉 신성으로부터 내향의 법을 통해 존재하는 바깥쪽 법일 뿐이다.

* 모세가 표현하는 내향의 법은 천사들이 수용하는 법이고, 아론이 표현하는 법은 인간이 수용하는 법이다.

출8:4-'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신성으로부터의 법의 현존...모세는 내향의 법, 아론은 외향의 법.

출9:8-'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말하셨다'=새로운 가르침...여호와로부터 진행되는 진리

가 모세와 아론에 의해 표현되어진다. 모세에 의해 내향의 진리가, 아론에 의해 외향의 진리가.

출10:8-'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데려와졌다'=그때부터 있는 신성의 현존.

출12:1-'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통하여 있는 알림...모세는 신성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진리, 아론은 간접적으로.

출16:2-(그들은)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불평했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맞서). 모세는 직접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아론은 간접적으로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고로 바깥쪽으로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출16:9-'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다'=간접적으로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유입.

출16:10-'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이야기했다'=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가 신성의 유입을 통하여 간접적인 가르침으로 있다.

출17:10-'모세, 아론, 후르'=계속적인 질서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 '모세'=직접적으로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아론'=간접으로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후르'=다시 이 진리들을 통하여 간접으로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출18:12-'그리고 아론이 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제일 가는 교회 속의 것들. 아론은 교회 속의 교리를 표현한다.

출19:24-'너와 아론은 올라오라'=내향과 외향의 신성으로부터의 법.

출24:1-'너와 아론'=내향과 외향의 의미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의 형인 아론이 그에게 연합했을 때, 그 때 모세는 내향의 의미에서의 말씀, 아론은 외향의 의미에서의 말씀.

출24:9-'그리고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올라갔다'=내향과 외향의 의미에서의 말씀, 그리고 이 두 의미 모두로부터의 교리.

출24:14-'보라 너희(장로들)와 더불어 아론과 후르'=이와 같은 말씀으로부터 진리에 관한 교리. 여기서 아론은 말씀의 바깥쪽 의미 만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교리, 그 이유는 장로에 의해, 장로의 우두머리로 산 아래

아론

있기 때문, 이것은 말씀의 바깥쪽 의미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출27:21-'아론과 그의 아들들은...배열할 것이다'=주님으로부터 항구적으로 유입이 있다...아론에 의해 신성한 선의 측면에서의 주님, 그의 아들들은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하고 있다.

출28:1-'그리고 너, 네 형 아론을 가까이 이끌어내라'=주님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의 결합. 모세는 신성한 진리, 아론은 신성한 선을 표현한다.

출28:1-'아론'=신성한 천적 왕국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 이는 가장 깊은 천국에 계신 주님의 신성이다.

출28:1-'아론의 아들들'=신성한 천적 왕국으로부터 진행되는 것들.

출28:30-'아론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운반할 것이다'=선과 진리는 품질 여하에 관계없이 모두 주님에 의해 보존된다...아론은 신성한 선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한다.

출28:35-'그리고 그것은 아론 위에 있을 것이다'=주님을 표현함. 여기서 아론은 복음 전도와 예배에 관계되는 이런저런 것들을 표현한다.

출28:38-'그것은 아론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아론은 신성한 사랑의 선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한다.

출28:38-'그리고 아론은 거룩한 것들에 관련되는 불법을 짚어질 것이다'=주님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거짓들과 악들이 신성한 사랑에 의해 제거됨. 아론은 사랑의 선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한다.

출28:38-'그것은 계속적으로 아론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표현함. 아론은 주님을 표현한다.

출28:40-'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천국들에서 신성한 진리들은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된다. 천국들 안에서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직 직분에 의해 표현된 것이 천국들에 있는 주님의 신성이기 때문. 아론의 성직 직분은 천국들에 있는 신성한 선, 그의 아들들의 성직 직분은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가 각각 표현된다.

출28:41-'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네 형 아론의 위에 놓을 것이다'=영적 왕국에 있는 신성한 선의 상태. 아론에 의해 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 또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선이 표현된다. 그리고 그의 의복은 주님의 영적 왕국이 그분의 천적 왕국과 결합되었음이다.

출29:21-'그리고 너는 아론 위에, 그리고 아론의 의복에 뿌릴 것이다'=보다 더 높은 천국들에서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가 상호 합일됨. 아론은 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한다. 이 선은 천적 왕국 (보다 더 높은 왕국)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선이다. 그리고 아론의 의복은 그분의 천적 왕국에 합병한 주님의 영적 왕국을 표현한다.

출29:24-'그리고 너는 아론의 손바닥 위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모든 것들을 놓을 것이다'=이런 것들이 주님 속에 있고 주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이 천국들에서 인정됨.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신성한 선과 이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

출29:35-'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할 것이다'=주님의 신성화하심의 표현, 그리고 천국들과 교회 안으로 그분의 유입이 있음. 아론은 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 그의 아들들은 영적인 것 속의 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한다.

출30:7-'그리고 아론은 그것 위에서 향신료를 태울 것이다'=사랑과 선행으로부터 있는 예배로부터 주님에 의해 승강됨. 대 성직자로서의 아론은 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 그리고 구원의 일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한다.

출30:19-'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에서 씻을 것이다'=주님에 의해 인간이 순수해지고 거듭나짐을 표현. 아론은 천적 등급에서의 신성한 선, 그의 아들들은 영적 등급에서의 신성한 선을 표현한다.

출30:30-'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부를 것이다'=즉위식은 주님의 두 왕국을 표현.

출32:1-'그리고 백성들은 아론에게 함께 모여들었다'=안쪽의 것들과 분리된채로 말씀의 바깥쪽, 교회의 바깥쪽 것들로 그 자체 향하게 하는 것. 여기서 이것이 아론에 의해 표현된 이유는 그는 모세가 부채할 시에는 그가 백성의 우두머리였기 때문.

출32:21-'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다'=이런 외적

아르-아르박삿-아르왓족-아름다운-아름다움

인 것에 관하여 내적인 것으로부터 지각함.

출32:25-‘아론이 백성들을 방종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이것은 그들이 사랑할 바깥쪽 것들에 의해 행해질 것이라는 것. 아론은 바깥쪽 것을 표현한다.

출34:30-‘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은 모세를 보았다’=내향의 것들 없이 말씀의, 예배의, 교회의 바깥쪽에 있는 이들로부터의 지각.

출34:31-‘그리고 아론과 회중의 모든 제1인자들이 그에게 되돌아왔다’=바깥쪽 것들에 있는 제일되는 것들, 그럼에도 아직 내향의 것들을 표현할지 모르는 것들.

아르 (Ar)

신2:9,19-‘아르’=이와같은 (일반적) 선, ‘모압과 암몬의 아들들’=이와 같은 선 안에 있는 이들.

이15:1-모압의 토지에 있는 ‘아르’ 성읍=자연적 평면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의 교리.

아르박삿 (Arphaxad)

* ‘셉의 아들들, 엘람, 앓수르, 아르박삿’ 등등...(이들은) 여러 많은 나라들이었다. 이를 수단으로 지혜 속에 있는 일련의 것들이 의미된다. ‘엘람’은 선행으로부터의 신앙, ‘앓수르’는 그로부터의 추론, ‘아르박삿’은 그로부터의 과학.

아르왓족 (Arvadite)

* 여부스족을 참조

아름다운 (beautiful)

아름다움 (beauty)

창12:11-‘나는 당신이 쳐다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안다’=천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는 즐거움다는 것.

창12:14-‘이집트인들은 그녀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영적 지식에 관한 지식은 그 자체 매우 즐거워하고 있다.

겔28:12,13-‘지혜로 가득함, 아름다움에서 완전함으로, 너는 하느님의 동산, 에덴에서 있어왔다...’ 합리성으로부터 낙원을 바라보는 것이 선물되어졌다. 이것은 장엄함과 아름다움에서 인간 상상으로부터의 모든 생각을 능가한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천적, 영적 빛의 유입의 결과이다. [천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낙원적인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천사들 안에서 살고 있는

천적, 영적인 것들이다.

창13:10-이것은 바깥쪽 사람이 주님에게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내향의 인간과 결합했을 때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다. 이 아름다움은 주님 만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과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묘사해볼 수 없다. 세 천국들은 주님의 바깥쪽 인간의 형상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아름다움은 서술되어질 수 없다.

창24:16-‘소녀는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다(good)’=진리에 애착함의 아름다움. 모든 아름다움은 순진이 있는 선으로부터 있다. 선이 내향으로부터 바깥쪽 인간 안으로 흐를 때 이것이 아름다움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아름다움의 근원이다.

창29:17-‘라헬은 모습이 아름다웠고, 바라보기에도 아름다웠다’=영적인 것에 관련하여 내면의 진리에 애착함... ‘모습(form)’에 의해 본질이 의미되고, ‘바라보는 것(look)’에 의해서는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아름다움이 의미된다.

이33:17-‘그의 아름다움에서 왕을 보는 것’=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선으로부터 ‘아름답다’라 불리우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아름다움은 선이라 단언된다.

창39:6-‘요셉은 모습에서 아름다웠다’=거기로부터 파생된 생활의 선. 그리고 ‘바라보기에 아름다운 것’=거기로부터 파생된 신앙의 진리.

창41:2-‘바라보기에 아름답다’=신앙으로부터 인 것
겔28:12-그러므로 두로의 왕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지혜가 가득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하다.’ ‘지혜’는 선을, 그리고 ‘아름다움’은 진리라고 단언된다. 그이유가 천국들에서 모든 지혜는 선으로부터 있고, 모든 아름다움은 거기로부터 파생된 진리들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겔16:13-‘아름다움’=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형체.

이3:24-‘아름다움’=교회에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의 형체, 고로 교회의 완전함.

겔16:15-‘너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있다’=매료되게 하는 자아로부터의 총명.

이33:17-‘그의 아름다움에서 왕을 보는 것’=주님만으로부터 있는 진짜 진리를 보는 것.

겔16:13-‘너는 극도로 아름답게 되었다’=총명.

아마-아마겟돈-아마부수러기-아마사

시48:2-거기로부터 혼이 기뻐함이 '장소가 아름답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33:17-'그는 그의 아름다움에서 왕을 볼 것이다'=그들은 지혜를 획득할 것이라는 것. 그이유가 '왕'=선으로부터의 진리. '아름다움'=그것으로부터의 지혜, 그이유가 이것 안에 그것 고유의 형체에서 있는 신성한 진리가 있기 때문.

이44:13-'인간의 아름다움'에 의해 거기서부터 파생된 총명의 나타남이 의미된다.

겔16:13-'아름다움'=총명.

이3:24-'아름다움 대신 태움'에 의해 총명 대신 어리석음이 의미되어진다.

겔31:3-'가지는 아름답고, 그늘을 주는 나무'=과학물들을 수단으로 합리적인 진리들을 통하여 있는 총명.

겔31:7-'...꿈에서 아름다운...'=총명.

단4:12-'거기로부터의 잃은 아름답고, 꽃은 많다'에 의해 지식들과 진리와 선에 애착함들, 거기로부터 파생된 총명이 의미되어진다.

겔16:25-'아름다움'에 의해 진리, 그리고 거기로부터 파생된 총명이 뜻해진다. 그 이유가 영계에서 모든 이는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그로부터 파생되는 총명에 따라서 아름답기 때문.

겔31:3-'아름다움'에 의해 진리에 애착함, 그리고 거기로부터 파생된 총명이 의미되어진다.

이5:9-'아름다움'은 진리, 그리고 그것의 총명이라고 단언된다.

시45:2-그분이 신성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이 '당신은 인간의 아들들을 초월해 아름답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아름다운'=슬기로운.

겔28:12-이것이 지혜와 총명의 사람의 근원인 바, 말해진다. '두로의 왕, 너는 지혜로 가득하고, 아름다움에서 완전하다.' '아름다움'=총명, 그이유는 천국들에서는 총명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

암8:13-진리에 애착함, 진리를 이해함이 결핍 때문에 중지되리라는 것이 '그날에 아름다운 아가씨와 젊은 이들이 목말라 기운을 잃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아마 (flax)

아마포 (linen)

이42:3-'그분은 연기나는 아마를 꼬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랑의 아주 작은 선으로부터 살기 시작한 단순한 자나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 신성한 진리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

예13:1-'아마포 띠'=진리.

신22:11-'너는 양털과 아마포를... 함께 입지 마라.' '양털'=선, 그리고 '아마포'=진리

출9:31-'그리고 아마'=자연 평면의 외면으로부터의 진리. '아마'=진리, 그러나 외면적 자연으로부터의 진리.

단10:5-'아마포를 입은 사람'은 천사였다. '아마포'=선에게 수여하는(invest) 진리.

출28:42-'그들을 위해 아마포로 반바지를 만들어라'=결혼 사랑의 외적 측면...'아마포'=외적 진리, 또는 자연적 진리.

호2:5-'양털'=영적 왕국의 교회의 외면의 선. 그리고 '아마'=그것의 외면의 진리.

겔40:3-교회의 모든 품질은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알려지는데, 아마의 실이 그의 손에 있었다.

아마겟돈 (Armageddon)

계16:16-'아마겟돈'=거짓들이 진리들에 맞서 전투하는 상태, 그리고 새교회를 파괴하겠다는 의향이 지배욕과 결출하다는 평을 듣기를 사랑함으로부터 돌출하고 있다.

아마 부수러기 (tow)

이1:31-'강한 자가 아마 부수러기로 있을 것이다.'

아마샤 (Amaziah)

암7:14-'아마샤'=약용된 교회.

아마포 (linen)

* 아마 (flax)를 보라.

아말렉족 (Amalekite)

창14:7-'그들은 아말렉족의 모든 들판을 짓부셨다'=여러 종류의 거짓들.

사6:3-'이스라엘이 파종했을 때, 미디안족과 아말렉과 동쪽의 아들들이 그를 치러 올라왔다.' '미디안'=생활의 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 안에 있는 이들. '아말렉'=진리들을 공격하는 거짓들에 있는 이들.

아마포-아말렉족-아멘

* '아말렉', 말씀에서=진리들을 공격하는 거짓들.

출17:8, 민14:43,45- '그리고 아말렉이 왔다'=내면의 악으로부터의 거짓. 악귀라 불리는 악 안에 있는 이들... 이 악귀는 인간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일은 결코 없다. 그러나 인간이 시험 등으로 허덕거리는듯 하면 갑자기 달려들어 그를 충동질해 타락 쪽으로 빠지게 한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등을 돌려대고, 가나안의 토지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두려워 떨었을 그 때, 아말렉족이 가나안족과 더불어 산으로부터 내려와 호르마까지 이들을 쫓으면서 쳐부수었다.

출17:10-13- '아말렉이 우세했다'=그 때에 거짓이 정복했다...'아말렉'=내면의 악으로부터의 거짓.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했다, 그리고 지금 아말렉이 우세했다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주님을 중시하는 신앙 안에만 꾸준히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자아와 세상을 중시하는 신앙 안에도 번갈아 있다는 것...그런고로 아말렉은 여호수아에 의해서도, 또는 후에 사사들이나 왕들에 의해서도 절멸시켜지지 않았다.

출17:14- '나는 천국들 아래로부터 아말렉의 기억을 파괴할 것이다'=이 거짓은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모두 다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아말렉'=내면의 악으로부터 거짓에 있는 이들.

사7장-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아들들' 주위에서 기드온의 삼백 명의 군사가 나팔을 불었다. 위의 세 족속들은 악들,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거짓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 '아말렉'=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에 계속해서 침입하는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아멘 (amen)

* 신앙과 진리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고대인들은...신앙 대신 진리를 말했다. 이로부터 히브리어에서도 역시 진리와 신앙은 한 단어, 즉 '아무나, amuna' 또는 아멘이다.

계1:6- '아멘'=진리로부터의 신성한 확인, 고로 주님 자신으로부터의 확인. '아멘'=진리, 그리고 주님이 진리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다' 하고 자주 말하셨던 것이다.

계1:7- '정확히 그러하다, 아멘'=그렇게 있어질 것임을 신성하게 확인함.

계1:18- '아멘'=그것이 진리이라는 신성한 확인.

계3:14- '이런 것들을 아멘, 신실하시고 참되신 목격자...말하신다'=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이는 그분 자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이다. '아멘'은 주님이신 진리 자체로부터, 고로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확인이다.

계5:14- '네 동물들이 아멘을 말했다'=말씀으로부터의 신성한 확인. '아멘'=진리 자체로부터, 고로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확인.

계7:12- '말하기를 아멘'=신성한 진리, 그리고 이로부터 확인함.

계7:12- '아멘'=모두가 동의함. 이 절에서 '아멘'이 시작에서 말해지고 지금 뒤에서도 말해지고 있다. 시작에서의 '아멘'=진리, 그리고 그로부터의 확인, 그리고 뒤에서의 아멘=확인,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라고 모두가 동의함.

계19:4- '아멘'=확인, 그리고 진리로부터 동의함.

요3:3- '참으로, 참으로'=그것이 진리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진리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자주 말하셨다. 그분 자신 역시 '아멘'이라 불리시기도 한다.

계1:7,8- '아멘'=신성한 확인. '아멘'=진리, 그 이유는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아멘'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 진리인 모든 진리는 신성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멘'=신성의 확인. 그이유가 진리는 모든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 그리고 주님이 진리 자체 이셨기에 그분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은 '참으로', 또는 '진실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다.

계5:14- '네 동물은 아멘하고 말했다'=가장 깊은 천국으로부터의 주님으로부터의 확인...'아멘'=신성으로부터의 확인, 또는 진리.

계7:12- '말하기를 아멘'=신성한 선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아멘'=진리. 그리고 주님이 진리 자체이시기에, 가장 높은 의미에서 '아멘'에 의해 신성한 진리 측면의 주님이 의미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것이 '아멘'에 의해 의미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 말은 세 천국들로부터의 천사로부터 주님에게 하는 말이

아모리족-아몬드-아므람-아바돈

기 때문. 이 절의 앞 부분에서 말한 아멘, 뿐만 아니라 끝에서 말한 아멘은 다함께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측면의 주님이 첫째 원리이자 최말단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7:12-‘아멘’=신성으로부터 확인함...‘아멘’=진리, 그리고 이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이다는 것, 그 이유는 여기서 신성으로부터의 확인인데, 그 이유는 천사들의 경배함을 마무리하기 때문...누군가가 심정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말할 때,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신다. 이 외에 확인의 근원은 없다. 이것이 기도의 끝에서 말하는 ‘아멘’의 의미이다.

아모리족 (Amorite)

겔16:45-‘네 어머니는 헷족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족이다.’ ‘헷족’=거짓된 것, 그리고 ‘아모리족’=악한 것.

창10:6-‘여부스족, 아모리족, 기르가스족’, 등등은 여러 많은 나라들이다, 이를 수단으로 여러 다른 우상들이 의미된다.

창14:7-...그 후 주님께서는 거짓들과 악들 자체와 싸우시고 정복하셨는데, 이 악들과 거짓들이 여기서 ‘아말렉족’과 ‘아모리족’으로 취급되고 있다.

창14:7-‘그들라오멜은...하사손다말에 거주한 아모리족을...쳐부셨다’=거짓으로부터 파생된 종류의 악들.

창14:13-‘아브람은 ‘아모리족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에서 거주하고 있었다’=합리적 인간으로부터 지각하는 상태.

창15:16-‘아모리족의 불법이 아직은 극에 달하지 않았다’=마지막 때, 즉 더 이상 선이 있지 않은 때...말씀에서 ‘아모리’=일반적 측면에서의 악, 그 이유는 가나안의 토지가 ‘아모리의 토지’라 불리웠기 때문; 그러므로 여기서 ‘아모리족’은 가나안의 토지의 모든 나라들이 의미되고, 이를 수단으로 악들과 거짓들이 특별하게 의미된다. 이로부터 ‘아모리족’은 일반적 측면에서 모든 악들이 의미된다.

창15:21-‘아모리족과 가나안족’=악들.

창48:22-‘내가 아모리족의 손으로부터 취한 것’=악을 누른 승리를 수단으로.

* ‘아모리족’=일반적 측면에서의 악인 이유는 가나안의 토지 전체가 ‘아모리족의 토지’라 불리웠기 때문.

출3:8-(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모리족과 브리스족(의 장소를 샀다)=악들과 그로부터 파생된 거짓들...’ ‘아모리족’=악인 것...악에는 두 근원이 있다. 하나는 교리의 거짓, 다른 하나는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의 탐욕이다...이 악들이 ‘가나안족과 아모리족’으로 의미되어져 있다.

출13:5-‘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토지로 데려갈 때가 있을 것이다’=천국의 영역은 악들과 거짓에 의해 점령되었다...악과 이 악으로부터의 거짓이 ‘아모리족’에 의해 의미되었다.

역10장-‘아모리족의 왕들’=교회의 선이 악들을 통하여 황폐되었다.

역10:12,13-‘아모리족의 다섯 왕들’=악으로부터의 거짓에 있는 이들, 그리고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이들.

역10:26,27-‘아모리족의 다섯 왕들’=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을 파괴하는 악들과 이 악으로부터 파생된 거짓들.

아몬드 (almond)

* 감복송아를 보라.

아므람 (Amram)

출6:18-‘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등등=선과 진리의 둘째 계급의 갈래들.

아바돈 (Abaddon)

* ‘아바돈’은 멸망(지옥에 떨어짐)이다

계9:11-‘그들은 자기들을 지배하는 왕을 가졌는데, 무저갱의 천사, 그의 이름은 아바돈 또는 아블루온이다’=그들의 거짓들은 지옥으로부터였고, 거기서 그들은 오로지 자연적이고 자아 총명 안에 있다.

계9:11-히브리어에서 ‘아바돈’은 파괴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그립어의 경우 ‘아블루온’이다.

* 아바돈과 아블루온=거짓들을 수단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자.

아버지 (father)

창2:24-‘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내적 인간을 떠나; 그 이유가 외적 인간을 임신하여 낳는 것이 내적 인간이기 때문.

창12:1-‘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애착들과 과학물들) 같은 내면의 것들.

아버지

창15:15-“너는 평화로이 네 아버지의 집에 올 것이다”= 선들과 진리들에 관하여 어떤 것도 상해 받지 아니할 것이다...여기서 ‘아버지’=딸들과 아들들과 같은 의미; 즉 선들과 진리들.

창19:31-‘우리의 아버지는 늙다’=선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알려지지 않는다.

창20:12-‘그녀는 내 아버지의 딸이고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합리성은 천적인 선이 아버지 역할을 하여 임신된다는 것, 그러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영적 진리로부터는 아니라는 것.

창24:7-‘내 아버지의 집’=약에 관하여 어머니 쪽의 유전성.

창24:38-‘너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다’=신성으로부터 있는 선.

창27:12-‘어쩌면 내 아버지가 나를 느낄 것이다’=지각의 가장 깊은 수준...‘아버지’=선; 여기서는 신성.

마8:21-비슷한 (내용)이 ‘나로 가게 하여 내 아버지를 매장하게 허락해주소서’라고 간청한 그에게 주님이 말하신 것에 의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가 땅 위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비교되는데, 전자는 죽은 아버지이고 후자는 생명 있는 아버지 이기 때문이다.

시27:10-‘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인간은 자신으로부터의 것을 준수할 때, 그는 어떤 선, 어떤 진리도 행할 수 없다.

시45:16-‘네 아버지들 대신 네 아들일 것이다’=신성한 진리들이 신성한 선들 같이 있을 것이다.

신10:15-‘아버지들’ 이 구절의 경우=고대와 태고 교회들, 이 교회들은 선과 진리를 사랑함으로부터 그렇게 불리운 교회이다.

창28:21-‘나는 평화로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완전한 합일로 까지. ‘아버지의 집,’ 주님을 서술할 때,=신성 자체, 이 안에서 주님은 그분의 참 개념으로부터 있으셨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감’=‘아버지’라 불리는 신성 자체로.

창29:9-‘그녀의 아버지의 것’=근원에 관련하여 선으로부터.

요6:46-‘아버지와 더불어 있는 그분 외에는 아버지를 보았던 자가 없다’=신성한 선은 신성한 진리에 의해서

만이 인정될 수 있다...그러므로 내적 의미 인 즉,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적인 선을 가질 수 없다.

창31:3-‘네 아버지의 토지로 돌아가라’=지금 그분은 그분 자신을 신성으로부터의 선에 더 가까이 가게하시고 있다.

창31:5-‘내 아버지의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어왔다’=그분이 가지셨던 모든 것들은 신성으로부터 였다.

창31:53-‘그들의 아버지의 하느님’=최고의 신성으로부터...그 이유가 ‘아버지’=선; 그리고 주님의 아버지, 또는 주님께 의해 ‘아버지’가 언급될 때,=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선. 신성한 선은 최고의 신성이다...

마24:36-‘그러나 내 아버지 만이’=선과 진리에 관련하여 특별하게 교회의 상태를 아는 것은 주님뿐이다...

요4:34-‘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행동에 있는 신성한 선.

창41:51-‘내 아버지의 모든 집’=유전적 약들의 제거.

창42:29-‘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자연적 진리로부터의 선.

창43:11-‘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했다’=영적 선으로부터의 지각...그가 ‘그들의 아버지’라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들들이 표현하는 진리들이 아버지인 이 선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창43:28-‘당신의 중 우리의 아버지는 평화를 가지고 있다’=선과 더불어 잘있다.

창45:8-‘그분은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노릇하게 세우셨다’=...그분으로부터, 즉 선으로부터 자연적 평면이 존재한다.

창45:9-‘내 아버지에게 올라가라’=영적 선으로...

창46:31-‘(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말했다)=거기서 선들에 대한 지각.

창46:34-‘우리,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또한 모두’=첫 번째 선들로부터 그렇게 있었다는 것.

출12:3-‘아버지들의 집’=다른 가족으로부터 구분되는 한 가족의 선.

출13:11-‘아버지들’=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출21:15-‘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쳐죽인 그는...’=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모독하는 것...관계적 의미에서, 이것=교회의 선과 진리를 모독하는 것.

아벨-아블루은-아브라함

출21:17-‘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 의해 주님과 그분의 왕국이 완전히 부인됨; 고로 교회의 선과 진리를 모독함.

출22:16-‘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에게 그녀를 주기를 거절한다면’=만일 내면의 선이 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아버지’=내면의 선, 그 이유는 아버지인 내면의 선으로부터 그리고 어머니인 내면의 진리로부터 외면의 진리들과 선들이 임신하고 출생되기 때문에 ‘아들들과 딸들’이라 부른다.

겔22:10-‘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지 않는 것’=유전적인 것으로부터 그리고 자발적인 것으로부터 이것들의 악들을 밝히는 것.

출34:7-‘아들들 위에서, 아들의 아들 위에서 아버지의 불법을 방문함’=그러므로 긴 시리즈로 있는 악들과 거짓들을 거절하고 저주함.

요14:23-‘아버지’ 그리고 ‘주님’=천국.

마23:9-모든 사람은 주님에 의해 자궁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하느님의 형상 안에서 형성되기에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천국적 아버지이신 것이다...그러므로 그분은 말하신다, ‘사람은 땅에서 너희 아버지를 부르지 마라, 그 이유는 천국들에 계신 한 분이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분만이 생명에 관하여 아버지이신다는 것, 땅의 아버지는 생명의 덮개 즉 육체 차원에서만이 아버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주님 외 하느님은 없다.

계1:6-‘하느님과 그분의 아버지에게’=그러하여 그분의 신성한 지혜의 형상들,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사랑의 형상들. (=신성한 진리, 그리고 신성한 선)

계2:27-‘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았을 때’=그들은 주님, 즉 세상에 계셨던 동안 그분 자신 안에 있었던 신성으로부터 지옥들을 제압하는 모든 힘들을 획득하셨던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

계3:5-‘나는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고백할 것이다’=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선 안에 그리고 신성한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고로 자기들 안에 천국의 생명을 가진 이들은 받아질 것이다.

창3:21-‘내가 그분의 옥좌에 아버지와 더불어 앉은 것 같이’=그분과 아버지는 하나이듯, 그리고 천국이듯...그

이유가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 됨, 즉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그분 자신의 신성과 하나 됨이 그것의 목적을 위해 사람은 주님 안에서 아버지라 불리는 신성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아버지의 신성과는 직접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매개체를 통하는 방법, 즉 그분의 신성한 인간을 통하여서는 가능하다.

계14:1-‘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마를 가짐’=자기들과 더불어 있는 사랑과 신앙으로부터 신성과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인정함. ‘아버지의 이름’=‘아버지’라 불리는 신성 측면에서의 주님, 동시에 ‘아들’이라 불리는 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 그이유가 그들은 하나의 인물(person), 영과 몸이기 때문. 그러므로 천국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의해 주님 외 다른 사람은 뜻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 천국에서, 주님은 아버지라 불린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말해진 까닭은 주님의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이 ‘아버지’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

마16:18-‘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주님 안에 있는 신성.

예3:18-‘내가 너희 아버지들에게 유업이 되게 한 토지’=참 지식들 안에 그리고 진리의 빛 안에 있는 교회.

요8:44-‘아버지’=이주 이른 시대로부터 살았왔었던 그 세대로부터의 사람들,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있는 이들.

눅12:53-‘아들에 맞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 맞선 아들’=진리에 맞선 악, 그리고 악에 맞선 진리.

겔5:10-‘아버지들이 아들들을 먹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먹을 것이다’=악들이 진리들을, 거짓들이 선들을 파괴할 것이다.

요20:17-‘그의 아버지에게로 승강하는 것’=어머니로부터의 인성이 완전히 거절될 때,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과 합일됨.

아벨 (Abel)

창4:2-‘아벨’=선행(charity), 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창4:4-‘아벨의 공물’=선행으로부터의 예배.

창4:8-‘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임’=선행보다 신앙을 앞세우고 신앙을 선행에서 분리하는 이들과 더불어서는 선행이 소멸함.

창4:4-‘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공물에는 관심을 가지

아브라함

섰다' = 선행으로부터의 모든 것들, 선행으로부터의 예배 속의 모든 것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창4:11 - '아벨의 피' = 선행의 소멸.

마23:35 - '의인 아벨' = 선행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이들.

* '아벨' = 천적인 사랑, 같은 것으로 선이 진리와 결합함.

아폴루온 (Apollyon)

계9:11 - '아폴루온'은 진리로부터인 듯 나타나는 거짓들로부터 추론하는 것

아브라함 (Abraham)

아브람 (Abram)

* '노아'에 의해 의미된 교회가 아브람의 시대로 계속되었다.

* '아브라함'은 구원하는 신앙을 표현했다.

* 말씀의 첫 번째 표현법(style)이 아브람의 시대 앞에서 사용되었다....역사적 표현법이 아브람의 때로부터 사용되었다.

* '아브라함'은 천적인 사랑, 이삭은 영적인 사랑을 표현했다. 이 둘은 내향의 인간이다; '야곱'은 이 둘을 바깥쪽 인간에서 표현했다.

* '아브람'은 사랑 또는 구원하는 신앙을 표현했기에, '그의 씨'는 사랑으로 있는 우주의 모든 것을 뜻한다.

* 천적 사랑은 '아브라함'에 의해 표현되었고, 영적 사랑의 아버지는 이삭에 의해 표현되었다. 그 이유가 영적인 것은 천적인 것으로부터 태어나지기 때문이다.

*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사랑으로 있는 모든 것을 뜻한다.

* '아브라함'이 신앙의 천적인 것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는 불레셋의 토지에서 체류했고, 그들과 계약을 만들기도 했다.

창11:26 - '아브람', '나홀', 그리고 '하란'은 (실존) 인물들이었다, 이들로부터 우상숭배를 했던 나라들의 이름이 명명되었다.

창11:26 - '아브람'은 우상숭배자였고, 여호와를 몰랐다.

창11:27 - 나라들로서의 '아브람, 나홀 그리고 하란' = 우상숭배적인 예배들.

창11:28 - 데라나 아브람은 우상숭배자요, 여호와를 모

른 자들, 즉 신앙으로부터의 선하고 참된 것을 몰랐던 까닭에, 그들은 신앙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시리아의 다른 사람들 보다 오히려 진리의 씨를 받기에 더 적합했다...

창11:29 -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를 데리고 갔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였다' = 우상 숭배에 있는 악이 거짓과 결혼함.

창11:31 - '데라는 자기 아들 아브람, 그리고 롯...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갈대아의 우르로부터 가나안의 토지로 가려고 나섰다; 그리고 그들은 하란에 까지 왔다, 그리고 거기 남았다' = 우상 숭배에 있던 이들에게 신앙으로부터의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관해 가르침이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로부터 표현 교회가 있도록 하시려 해서였다.

창11:32 - 우상 숭배의 끝 그리고 아브람을 수단으로 표현 교회가 시작함.

창12장 - 이 장부터 아브람에 관하여 말해지는 것은 주님의 아주 어린 시절로부터 청년기(14-25세)까지의 그분의 상태를 표현한다.

* 아브람이 이집트에 머물렀던 것에 관한 사항 = 주님께서 받은 첫 번째 가르침.

* '아브람'은 일반적으로는 주님을 표현하고, 특별하게는 천적 인간을 표현한다.

창12:1 - '아브람'은 주님을 표현한다.

창12:1 - 표현 교회가 아브람과 더불어 시작했다.

창12:1 - '아브람'은 주님을 표현한다, 또한 천적 인간; 이삭도 주님을 표현하되 영적 인간을, 그리고 야곱도 주님을 표현하되 영적인 것에 상응하는 자연적 인간을 표현한다.

창12:1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하셨다' = 주목하는 참 첫 행동.

* 아브람이 출생한 토지는 우상 숭배의 토지였다.

* 아브람에 의해 그분의 인간 본질 측면의 주님이 표현되어졌다; 후에는 인간과 신성한 본질 측면이 표현되었다, 이 때의 경우 그는 아브라함이라 불렸다.

창12:5 -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갔다' = 선에 진리가 결합했음.

창12:5 - 이 구절의 아브람은 주님을 표현하되 그분이

아브라함

어린 아이이셨을 때의 주님을 뜻한다.

창12:6-‘아브람은 그 토지를 통과하여 세겔에 갔다’= 주님의 두 번째 상태.

창12:7-‘여호와가 아브람에 의해 보여졌다’=그분이 아직 어린아이 이셨을 때 여호와께서 주님에게 나타나셨다.

창12:10-‘아브람은 이집트에 머무르려고 내려 갔다’= 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로 훈육됨.

창12:16-‘바로가 그녀 때문에 아브람을 잘 대우했다’= 과학물(과학적 지식)이 주님에게 많이 배가되었다.

창12:18-‘바로가 아브람을 불렀다’=주님이 기억하셨다는 것.

* 제 13장에서 주님의 바깥쪽 인간, 또는 인간 본질이 ‘롯’에 의해, 그분의 안쪽 인간, 또는 신성 본질은 아브라함에게 의해 표현되었다.

창13:1-‘아브람은 이집트로부터 올라갔다’=과학물로부터 주님은 떠나셨다.

창13:1-‘아브람’=주님 안에 있는 천적인 것, 고로 ‘그와 그의 아내’=그 당시 주님 안에 있는 천적인 진리들.

창13:1-‘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과 더불어 매우 무거웠다’=선들, 진리들, 진리들로부터의 선들이 그 당시 주님에게 매우 풍부했었다.

창13:5-‘롯이 아브람과 함께 가고 있다’=주님과 더불어 있었던 바깥쪽 인간.

창13:7-‘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었다’=내향의 인간과 외향의 인간이 일치하지 않았다.

창13:8-‘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고로 내향의 인간이 외향의 인간에게 말했다...아브람은 내향의 인간, 이에 상대적으로 롯은 외향의 인간, 이것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창13:8-외향의 인간 안에서 조차 일치하는 것들은 ‘아브람’이다. 그 이유가 외향의 인간은 내향의 인간과 더불어 하나의 것을 구성하고 내향의 인간에 속해 있기 때문.

창13:12-‘아브람은 가나안의 토지에 거주했다’=내향의 인간은 사랑의 천적인 것들 안에 있었다는 것.

창13:14-‘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하셨다’=여호와께서

서 주님에게 이야기 하셨다는 것.

창13:18-‘아브람은 그의 천막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리고 갔고 헤브론인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에 거주했다’= 주님은 아직 더 내향의 지각으로 가셨다는 것.

창14:13-‘히브리사람 아브람’=합리적 인간.

창14:13-‘히브리사람 아브람’=내면의 인간, 여기에 내향의 인간 또는 신성한 인간이 인접되어 있다.

창14:19-‘아브람은 가장 높으신 하느님에게 복있다’=주님의 내면 또는 합리적 인간은 그분의 내향의 인간으로부터 선들에 관한 즐거움을 가지셨다.

창14:21-‘아브람에게’=주님의 합리성.

* 12,13장에서 ‘아브람’은 주님 그리고 그분의 어린 시절 상태를 표현했다; 14장에서 그는 주님의 합리성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 당시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 불리운다. 14장에서는 ‘히브리사람 아브람’의 다른 아브람으로는 이해되지 않게 되어 있다. 내향의 인간에 인접되어 있는 주님의 영적 평면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다. 그러나 천적 평면은 멜기세덱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창14:23-‘나로 인해 아브람이 부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이로부터 주님의 어떤 강함도 파생되지 않았다.

창15:1-‘이 말들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으로 아브람에게 왔다’=어린 시절 전투 후에 계시가 있었다는 것.

창15:2-‘아브람이 말했다, 오 주 여호와여’=주님의 지각; ‘아브람’은 내면의 인간, ‘주 여호와’는 내면의 인간에 비례하는 내향의 것.

창15:3-‘아브람이 말했다, 보시다시피 당신께서는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까’=교회 속에 내향적인 것은 없었다.

창15:11-‘아브람이 그것들을 쫓았다’=주님은 그것들을 싸우도록 놓아두셨다.

창15:12-‘잠이 아브람 위에 떨어졌다’=그 당시 교회는 거짓들 안에 있었다는 것.

창15:18-‘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만드셨다’=주님의 내면의 인간이 그분의 외향의 인간과 결합함.

창15:18-‘아브람의 씨’=사랑 그리고 사랑으로부터의

아브라함

신앙, 고로 주님 안에 있는 선행과 신앙으로 있는 모든 것.

* 16장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내향의 인간, 여호와이시다.

*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내향의 인간, 합리적 인간, 자연적 인간을 표현한다.

창16:6-‘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했다’=지각. 주님의 지각이 ‘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했다’에 의해 의미되나, 주님의 생각은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했다’에 의해 의미된다.

창16:16-‘아브람은 86세 였다’=시험들과의 전투들을 통해 획득한 천적 선들 측면에서의 주님의 상태.

창16:16-이로부터 ‘아브람’은 천적 교회, 천적 인간, 뿐 아니라 천적 그 자체도 표현한다.

창17:1-‘아브람은 99세 였다’=내향의 인간과 합리적 인간이 충분히 결합하기 이전의 주님의 때.

* 사래가 아들을 임신하는데 아브람이 이렇게 오래 기다렸던 이유는 주님의 신성과 인간 본질의 합일, 사실상 그분의 내향의 인간과 그분의 합리적 인간의 합일을 표현하여야 했기 때문.

* 아브람이 그 나이, 그 상태에 계신 주님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브람에 관하여 이미 말했던 것으로부터 명백하다. 내향의 의미에서 아브람은 주님을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천국에서는 말씀에서 아브람이 읽혀질 때 주님의 다른 사람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태어났었던 이들, 말씀으로부터 아브람에 대해 알고 있었던 이들은 저세상에 들어가서 실로 아브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브람이 여느 다른 개개인 같이 있고, 더 이상 자신들과의 관계는 없다. 그리고 이들에게 아브람은 말씀에서 주님 외 다른 사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실로 천사들은 말씀에서 아브람이라는 단어가 읽혀질 때 아브람을 모른다. 그리고 아브람이 언급될 때 그들은 주님 외 타인을 지각하지 않는다. 대신 이 단어에서 그들은 그 시대, 그 상태에서 계신 주님을 지각한다. 그 이유는 이 구절에서 여호와가 아브람과, 즉 주님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창17:1-‘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이는 글자 의미에서 아브람의 하느님의 이름을 말한다.

창17:1-이로부터 명백한 바, 젊은 시절의 아브람은 여느 이방인 같았다는 것, 즉 우상숭배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가나안 지역에 있었을 때조차도 우상숭배자였다는 것, 그는 그의 마음으로부터 전능한 하느님을 거절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처음에는 주님은 이 이름을 수단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표현하셨다는 것.

창17:2-‘아브람’ 여기서는 내면의 인간을 표현한다.

창17:5-‘네 이름은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그분은 인간을 벗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네 이름이다’=그는 신성을 입으실 것이라는 것.

* 아브람은 다른 하느님들을 섬겼고 특히 전능한 하느님을 예배했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실지로 주님의 내적 인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인 천적 평면을 표현하게 되었는바, 이전의 그의 품질은 파괴되어져야 했다. 즉 이름 아브람은 또 다른 품질로 변화되어야 했다. 바뀐 품질을 수단으로 그는 주님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신성을 내포하는 유일한 철자요 있음(I am, 또는 to be)을 뜻하는 철자인 h가 여호와와 이름으로부터 취해져 아브람의 이름에 삽입되어졌다. 사래의 경우도 이와 같다....이로부터 말씀의 내향의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또는 주님을 표현한다.

창17:15-주님의 새로운 지각이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다’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이는 다른 장소에서도 등장한다.

* 신성한 선, 이는 사랑이다, 그리고 보편적 인류 차원일 경우 자비인데, 이 선은 주님의 내적 평면, 즉 여호와, 선 자체이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그리고 신성한 선에 결합한 진리가 사래에 의해 표현되었다.

창17:22-‘하느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올라가셨다’=이전 상태로 주님께서 진입하심.

창17:24-‘아브라함은 99세였다’=주님의 신성한 본질이 그분의 인간 본질과 합일되기 이전의 상태와 때.

창17:26-‘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받았다’=주님이 신성한 본질에 그분의 인간 본질을 결합하게 했을 때, 동시에 그분은 진리를 수단으로 합리성이 되는 나머지도 결합시키시어 그것들을 구원하셨다.

아브라함

* 소돔과 고모라가 전복됨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이야기함=인류를 위한 주님의 중재.

창18:1-여기서 취급되는 내향의 의미에서의 주님과 그분께서 지각하심이다. 이것이 '(마르레 상수리나무 숲에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표현되어 있다.

창18:2-'아브라함은 그들을 만나러 달려갔다'=주님께서서는 지각되었던 것들에 더 근접되게 접근하셨다는 것.

창18:6-'아브라함은 천막 쪽의 사라에게로 서둘렀다'=주님의 합리적 선이 그분의 진리에 결합했다는 것.

창18:6-아브라함이 여호와와 이야기하실 때, 그는 인간으로 있는 주님을 표현한다...그외의 경우 아브라함은 주님의 신성한 선을 표현한다...이로부터 여기서는 합리적 선을 표현한다.

* 제물은 히브리 교회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방사되었다.

마8:11-'...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기댈 것이다'=그들은 이들의 이름들이 의미하는 천적 선들을 향유할 것이다.

창18:10-'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심'=신성한 지각,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준비하셨다, 고로 결합.

창18:11-'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다'=주님과 더불어 인간은 중단되어지기로 되어 있었다.

창18:14-'삶의 이 때'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는 때를 명시한다, 이 해를 수단으로 주님의 인간과 신성이 합일됨, 그리고 신성이 인간과 합일함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창18:16-'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가면서...'=주님께서서는 이런 것들, 또는 인류에 관한 것들에 대한 지각 안에 아직 머물고 있으셨다는 것.

창18:17-'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주님 앞에 감추여지는 것은 없다. 아브라함은 그 상태에 있는 주님을 표현한다.

창18:18-'아브라함은 크고 번성하는 나라일 것이다'=모든 선과 모든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창18:19-'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야기 한 것을 그에게 가져오시리라는 것'=그러므로 인간 본질은 신성한 본질에 인접해 있을 것이라는 것.

창18:22-'아브라함, 그는 아직도 여호와 앞에 서있었다'=인간으로부터의 주님의 생각, 이것은 말해졌던 방법으로 인접되었다. 18장에서의 '아브라함'=인간 측면에서의 주님.

창18:23-'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말했다'=신성에서 더 가깝게 그 자체 인접한 인간으로부터의 주님의 생각.

창18:27-'아브라함이 답하여 말했다'=주님의 인간으로부터의 생각.

창18:33-'아브라함은 자기 장소로 돌아갔다'=주님은 이런 것들을 지각하시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가셨다.

* '아브라함'은 내향의 의미에서는 사랑 자체, 고로 주님 밖에 더아니다.

창19:27-'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났다'=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생각.

창19:29-'하느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주님의 신성 본질이 그분의 인간 본질과 합일됨을 통하여 구원하심.

창20:1-그랄에 아브라함이 체류함=선행과 신앙에 대한 교리가 주님에게 가르쳐짐.

창20:1-'아브라함은 거기로부터 남쪽을 향하여 여행했다'=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에서 주님의 진보하심이 있다.

창20:7-아브라함, 사람(남자)라 불리울 때,=천적 진리, 이는 천적 근원으로부터의 교리와 똑같다.

창20:13-첫 과학물(과학적 지식), 그리고 이로부터의 합리적인 것들은 어머니로부터의 유전적인 것들과 더불어, 그러므로 순수하게 신성하지 않은 채 주님과 더불어 있었기에, 그것들은 (우상숭배자 였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상태로 표현되었다.

창20:18-'아브라함'=영적 진리(사라)와 결합한 천적 선.

창21:2-아브라함은 신성한 천적 평면, 신성한 선을 표현한다.

창21:3-아브라함은 최고의 신성을, 이삭은 신성한 합리성을, 야곱은 신성한 자연적 평면을 표현한다.

창21:12-'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 주님이 지각하심.

아브라함

창21:14-'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났다'=신성으로부터 있는 주님의 명백한 지각.

창21:25-'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주님의 분개.

창21:34-'아브라함은 여러 날을 블레셋의 토지에서 머물렀다'=주님께서 인간 지식의 과학으로부터 신앙의 교리까지 많은 것들을 인접되게 하셨다.

창22:1-'그리고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주님이 겪으신 가장 비통하고 깊은 시험.

창22:5-여기서 '아브라함'=주님의 신성, 그리고 '이삭'은 그분의 신성한 인간.

창22:7-'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를 보라 내 아들아'=신성한 진리의 사랑으로부터 신성한 선과 더불어는 주님의 대화.

창22:10-'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힘의 마지막까지 조차 있는 시험.

창22:10-아브라함은 어린 아이를 제물로 하는 시체에 기울어 있었다.

창22:11-'아브라함' 여기서의 경우=주님의 합리성 또는 인간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창22:13-'아브라함은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신성으로부터의 주님의 생각과 직관.

창22:13-'아브라함은 가서 숫양을 붙잡았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수단으로 그들이 구출됨...여호와 또는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과 이야기 할 때, 여호와 또는 여호와의 천사는 신성 자체이고, 아브라함은 신성한 인간이다.

창22:15-'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소리쳐 불렀다'=아직도 더 크게 주님이 위로 받음.

* 여호와께서 이 토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것은 내향의 의미에서 그분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천국 왕국을 주겠노라는 확증을 의미한다. 이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과 후손에 의해 내향의 의미에서 이해된다.

창22:19-'아브라함이 그의 소년들에게 되돌아 갔다'=이전의 합리성과 다시 결합함.

창22:19-'아브라함은 브엘세마에 거주했다'=주님은 선행과 신앙 자체의 교리이다는 것.

창23:2-'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슬퍼했고 그녀를 위해 애통했다'=교회에서 신앙의 진리들에 관련한 밤 때문에 슬퍼하시는 주님의 상태.

창23:7-'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자신을 굽혀 절했다'=친절한 영접 때문에 있는 주님의 기쁨.

창23:11-(아브라함으로부터 은을 받지 않는 것)=주님에 의해 구원되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하기를 원함.

창23:12-'아브라함은 토지의 사람 앞에서 자신을 굽혀 절했다'=새로운 영적 교회 속에 있었던 이들의 선한 의지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심.

창23:18-'취득물이 아브라함에게'=그들은 신앙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관련하여 거듭남의 모든 양과 질, 그리고 내 외면의 모든 지식들이 주님만에게 있음을 수용했다는 것.

창23:19-'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했다'=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선과 결합한 진리를 받았다.

창24:1-'나아 많아진 아브라함은 날들에 왔다'=상태가 가까웠을 때 주님의 인간은 신성이 될 것이다.

창24:1-'여호와께서는 만사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신성한 질서로 배열되었을 때... '여호와'는 신성 자체 측면에서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만사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라고 말해지는 바, 이것은 내향의 의미에서, 주님은 신성 자체로부터 그분의 인간 안에서 신성한 질서로 모든 것을 배열하셨다는 의미한다.

창24:2-'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늙은 종에게 말했다'=주님의 자연적 평면 안으로 그분의 질서적인 배열과 유입.

창24:6-'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말했다'=신성으로부터의 주님의 지각...아브라함=신성한 인간 측면의 주님을 표현한다, 이 인간으로부터 이 지각이 온다.

창24:12-'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여호와여'=아버지이신 신성 자체와 아들인 신성한 인간이 소통함...아브라함은 그분의 신성한 인간을 표현한다.

미7:20-'여호와 하느님은 진리를 야곱에게, 자비를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야곱'은 주님의 바깥

아브라함

쪽 인간을, 아브라함은 인간 측면에서 내향의 인간을 표시하고 있다.

창25:1-‘아브라함은 더했다 그리고 여인을 데려왔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표현하는 주님의 두 번째 상태. ‘아브라함과 사라’=신성한 천적 평면에서의 주님, ‘아브라함과 그두라’=신성한 영적 평면에서의 주님.

창25:1-여기서 ‘아브라함’은 신성한 영적 선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한다.

창25:2-4-‘아브라함’=신성한 영적 선에 관련된 주님, ‘그두라’는 이 선에 결합한 신성한 영적 진리; 고로 그들의 아들들=주님의 영적 왕국의 공통의 지분들.

창25:5-‘아브라함은 자가가 가졌던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신성한 합리성 안에 있는 모든 신성한 것들, 그리고 관계적 의미에서, 주님의 천적 왕국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의 천적인 것들, 그 이유가 ‘아브라함’은 신성 자체에 관련된 주님이기 때문이다.

창25:6-‘아브라함이 가졌던 첩의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은 선물들을 주었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의해 양자 삼은 영적 [사람들과 천사들].

창25:7-‘이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햇수이다’=아브라함에 의한 신성 자체에 관련한 주님의 표현 상태의 끝.

* ‘아브라함’은 아버지라 부르는 신성 자체, 그리고 아들이라 부르는 신성한 인간, 또한 이 둘 모두인 주님을 표현했다. 그러나 신성한 인간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했고, 이 인간에로 주님은 시간 안에서 태어난 인간을 환원시키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의한 주님의 표현이다.

창25:8-‘아브라함은 기한이 만료되어 죽었다’=아브라함에 의한 주님의 표현이 끝남.

창25:9-‘아브라함의 아들들’=주님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 그 이유가 ‘아브라함’은 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창25:19-‘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신성 자체로부터의 신성한 합리성.

마8:11-‘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기대는 것’=주님과 더불어 있는 것;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주님 안에 있는 것.

요8:33,39,44-‘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셨다, 만일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아브라함의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여기서 ‘아브라함’은 주님으로 이해된다. 말씀 여러 곳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창26:5-‘아브라함은 내 음성에 귀기울였다’=시험들을 통하여 주님의 신성한 본질이 인간 본질과 합일됨,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신성한 인간에 관련한 주님도 되기 때문이다.

창26:15-여기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신성 자체를 표현한다.

창26:18-‘날들’은 상태들을 명시하는 곳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주님이 자신에게 인간을 인접하기 이전 주님의 신성 자체를 표현한다; 그들이 시간들을 명시할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분이 그분의 인간에게 인접하기 전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있었던 선들과 진리들, 고로 고대인들이 가졌던 선들과 진리들을 표현한다.

창26:24-‘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신성 역시 거기에 있었다는 것; 그 이유가 ‘아브라함’은 주님의 신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창26:24-‘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그 이유가 ‘아브라함’=주님의 신성, 또한 신성한 인간.

창28:4-‘그분은 너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신성 자체가 자연적 평면으로부터 있는 선과 진리와 결합함.

* 태고 교회가 가나안의 토지에 있었다...그리고 고대 교회 역시 있었다...그러므로 해서 거기의 모든 장소들은 표현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거기로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이다...

창28:13-‘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여호와이다’=주님,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이 선이 있다는 것...여호와는 주님의 신성한 있음 자체이다, 그리고 신성한 하느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느님으로 불린다...아브라함은 신성한 선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한다. 그리고 신성한 선이 모든 영적, 천적 선들의 근원, 고로 모든 진리들의 근원도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상 이삭의

아셀

아버지이고 야곱에게는 할아버지인데,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 네 아버지', 즉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불린다.

* '아브라함'=말씀의 가장 높은 의미.

창31:42-'아브라함의 하느님'=신성한 본질이라 불리우는 신성 자체.

창31:53-'아브라함의 하느님'=교회 내에 있는 이들을 고려한 주님의 신성...그 이유가 '아브라함'은 주님의 신성,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것을 표현한다; 이로부터 교회 내에 있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로 이해된다.

창31:53-여기에서 관계적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순수한 교회를, 그리고 '나홀'은 이방인의 교회를 표현한다.

창35:12-'아브라함과 이삭'은 주님의 신성을 표현한다; '아브라함'은 신성 자체를, '이삭'은 신성한 인간을 표현한다; 특히 주님의 신성한 합리성을 표현한다.

창35:27-'아브라함과 이삭이 체류하던 곳...'=신성한 생명; 그 이유가 '아브라함'=주님의 신성 자체, 그리고 '이삭'은 주님의 신성한 합리성.

아브람 (Abram)

* 아브라함을 보라.

아비멜렉 (Abimelech)

창20:2-'그랄 왕 아비멜렉'=신앙에 관한 교리.

창20:2-'아비멜렉'=합리적인 것을 찾는 신앙에 관한 교리.

창20:7-'아비멜렉'=합리적인 것을 찾는 교리, 또는 교리 속의 합리적인 것들.

창20:18-'아비멜렉의 가문'=신앙의 교리로부터의 선.

창21:22-'아비멜렉과 비골'=과학적인 것들로부터의 인간의 합리적인 것들.

창21:27-'아브라함은 양떼와 목축을 아비멜렉에게 주었다'=신성한 선들이 교리 속의 합리적인 것들 안에 이식되었다.

창26:26-'아비멜렉, 아훗삿, 비골'=말씀의 글자 의미 안에 있는 것들, 이로부터 신앙의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그들은 신앙의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선행을 그 필수적인 것 범주에 두기를 거절한다. 아예 포기해버려 삶 앞에 교리를 먼저 장악

한다.

창21:22,25,32-'불레셋 왕, 또는 그랄 왕 아비멜렉'=생활의 선 없이 단지 진리들 안에 구원을 놓는 이들.

아비후 (Abihu)

* 나답을 보라

아빱 (abib)

출13:4-'아빱 달'=모든 상태들이 뒤잇는 시작.

출23:15-'아빱 달'=새로운 상태의 시작.

출34:18-'아빱', 매 해의 첫 달=새로운 상태의 시작.

아사셀 (Azazel)

* 염소도 참조.

레16:21,22-선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죄의 제거, 또는 회개를 수행한 이들과 더불어 죄의 제거가 유대 교회에서 '아사셀'로 부른 숫염소 (또는 속죄 염소, scape-goat)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레16:22-'그다음 아론은 자기 손을 살아있는 염소 아사셀의 머리에 놓을 것이다

레16:5-34-(자연적 인간에 있는 지옥이 제거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아사셀'이라 불린 숫염소와 그것이 광야로 내쫓김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아셀 (Asher)

창30:13-'아셀', 원어에서, 복됨을 의미하나, 그의 어머니 레아의 말, '내 복됨 안에서, 딸들이 나를 복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서 의미된 모든 것들도 포함한다. 즉 애착들로부터의 기쁨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행복에 상응함. 이것은 바깥쪽 인간이 안쪽 인간과 결합하는 네 번째 원리이다.

창30:13-'아셀'은 말씀의 여러 장소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각 장소에서 아셀에 의해 의미되는 것들은 여타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품질이 취급되어진다. 즉 각 장소의 주제와 관계되는 상태에서의 품질이다. 그리고 (이 의미) 또한 그들이 명명된 순서에 따라서이다.

창35:26-'레아의 하녀, 질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다 '=외면의 것들에 쓸모 있는 것들...'아셀'은 최고 의미에서 영원을, 내향의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행복을. 바깥쪽 의미에서 애착으로부터의 기쁨을 표현한다.

창46:17-'아셀의 아들들; 임나, 그리고 이스와, 그리고

아셀

이스위, 그리고 브리아, 그리고 그들의 누이 세라; 그리고 브리아의 아들들; 헤벨, 그리고 말기엘=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행복, 그리고 애착들로부터의 기쁨, 그리고 그것들의 교리적인 것들. '이들은 질바의 아들들이다'='이것들은 바깥쪽 교회 속에 있다는 것.

창49:20-'아셀로부터'=애착들로부터의 기쁨, 즉 천적인 것인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부터의 기쁨. 이는 '아셀'에 의해 표현된 것이 영원한 생명의 행복, 그리고 애착들로부터의 복됨으로부터 분명해진다. 그 이유가 '아셀'은 복됨으로부터 그렇게 불리워졌기 때문이다.

계7:6-'아셀 지파로부터 12000명이 봉인되어졌다'=상호적인 사랑, 이는 주님의 새 천국과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에게 널리 퍼진 사랑인데, 사회나 공동체에서 자신을 쓸모있게 하여 선이 생산되기를 사랑함이다. '아셀'은 최고 의미에서 영원을, 영적 의미에서 영원한 복됨을, 자연적 의미에서 선과 진리에 애착함을 의미하나, 여기서의 경우, 쓸모있게 행함을 사랑함이다. 이는 주님의 천적 왕국에 있는 이들에게 널리 우세한 사랑이고 거기서 상호적인 사랑이라 불리운다...그는 복됨으로부터 명명된 이름이다. 공동체에, 사회에 쓸모 있으려 함을 사랑하는 이들은 여타 다른 사람 보다 더 복된 가운데 있다.

신33:23-지파들 중의 하나로서의 '아셀'은 생명의 행복, 그리고 애착들의 기쁨을 의미한다.

계7:6-'아셀의 지파에서 일만 이 천이 날인되어졌다'=이웃을 향한 선행, 그리고 그것 안에 있는 이들은 천국 안에 있고, 천국 안으로 올 것이다. '아셀 지파'=영적인 애착, 이는 선행이다...이웃을 향한 선행은 다음 세 지파, 즉, 아셀, 납달리, 므낫세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계7:6-'아셀 지파'에 의해 이웃을 향한 선행이, '납달리 지파'에 의해 그들의 거듭남이, '므낫세 지파'에 의해 이 선행 안에 있는 이들의 생활의 선이 뜻해지고 있다.

계7:6, 창30:12,13-그러나 '아셀'이 주님의 왕국에서, 또는 교회에서 의미하는 것이 첫째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아셀'=영적 애착들로부터의 복됨, 그리고 거기로부터 영적 애착 자체, 그리고 영적 애착이 소위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이라 불리우는바, 이로부터 '아셀'

에 의해 여기서는 선행이 의미되어진다. 그 결과 이 지파로부터의 '일 만 이 천'=선행 안에 있는 모든 이, 그리고 고로 둘째, 또는 중간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의미되어진다.

계7:6, 창49:20-'아셀'이 사랑과 선행으로부터 있는 복됨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에게 내린 축복으로부터도 명백해진다. '아셀로부터 그의 빵은 기름지다, 그리고 그는 왕의 맛있음을 줄 것이다.' '아셀로부터'=천적 그리고 영적 애착들로부터, 이는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부터 있다.

계7:6, 신33:24,25-(모세가 그에게 내린 축복에서 마지막 장소에서 언급되는데) '아셀'에 의해 말씀으로부터의 진리에 대한 영적 애착이 의미되는데, 이 애착은 이웃을 향한 선행과 하나를 만든다.

계7:6, 민2:25-31-'아셀'=애착들로부터의 기쁨, 이는 글자의 의미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그러므로 이 지파는 북쪽에서 단과 납달리 지파와 더불어 진영을 이루었다.

계7:6, 겔48:2,3,34,35-'아셀'=영적 복됨, 이는 사랑과 선행으로부터 있는 복됨임은 에스겔서로부터 명백하다...거기서 역시 '아셀'에 의해 영적 진리에 애착함 이 의미된다는 것, 이는 이웃을 향한 선행과 하나를 만든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계7:6-'아셀'에 의해 최고 의미에서 영원이 의미되고, 내향의 의미에서 사랑으로부터 있는 애착, 그리고 선행으로부터 있는 애착의 복됨으로부터 있는 생활의 행복, 그리고 바깥쪽 의미에서 자연적 즐거움.

계7:6-'아셀' 지파에 의해 이웃을 향한 선행이 의미되어진다, 이는 둘째, 또는 중간 천국 안에 있는 이들의 참 영적 내면 자체이다.

계7:6-'아셀'에 의해 내면이, '므낫세'에 의해 이 내면에 상응하는 외면이 의미되어진다.

아셀 (Azal)

숙14:5-'아셀'=분리와 구출

아수르 (Asshur)

*아시리아를 보라

아스그나스 (Ashkenaz)

아셀-아수르-아스그나스-아시리아-아시리아 사람

창10:3-'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는 아주 많은 나라들, 이 나라들과 더불어 (외향적) 예배가 있었다. 이들에 의해 의식이 있는 수많은 교리적인 것들이 의미되고, '고멜'과 더불어 외향적 예배로부터 파생되었다.

예51:27-바벨의 파멸이 여기서 취급되었다, '아스그나스'='그것의 우상적 예배, 또는 내향의 예배와 분리된 바깥쪽 예배... 특히 거짓 교리적인 것들.

아시리아 (Assyria)

아시리아 사람 (Assyrian)

창2:14-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이것은 아시리아를 향하여 동쪽으로 가고 있다.' '아시리아'=합리적인 마음. '아시리아를 향하여 동쪽으로 가는' 강=추론의 명료함은 주님으로부터 내향의 인간을 통하여 외향의 인간 속에 있는 합리적인 마음 안으로부터 근원된다.

겔31:3,4-'아시리아'=합리적인 마음, 또는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예언서들로부터 아주 확실하다. 에스겔의 경우, '보라 아시리아는 가지는 아름답고, 그늘지는 숲, 높이는 드높은 레바논에 있는 삼목이다. 그리고 그녀의 어린 가지는 뾰뾰한 (잎들) 사이에 있었다; 물들이 그녀를 자라게 만들었고, 물들의 깊음들이 그녀를 드높혔고, 강은 식물 주위를 빙돌아 흐른다.' 합리성이 '레바논에 있는 삼목'이라 불린다.

이19:23-25-'이집트'에 의해 과학이, '아시리아'에 의해 추론이, '이스라엘'에 의해 총명이 의미되어진다.

예2:18-'네가 그 강(유브라데)의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된 일이나?' '아시리아'= 과학적인 것들로부터의 추론들.

슌2:14-'아시리아'=이해성, 여기서의 경우 쓸모 없는 이해성.

이8:7,8-'아시리아의 왕'=몽상, 거짓 원리들, 이로부터 파생된 추론들, 이것은 인간을 피폐하게 한다. 이것이 홍수 이전의 사람이 몰살한 원인이다.

겔31:6-'아시리아'=영적 왕국의 교회, 그리고 '삼목'이라 불리워진다.

호7:11, 11:11-'아시리아'=합리성

호9:2-4-'아시리아'=추론함.

이20:4-'아시리아'=추론함, 이것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

창10:11-'그 토지로부터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건설하였다...' '아수르'=추론함.

창10:11-'그 토지로부터 아수르로 나아갔다'=이런 바깥쪽 예배에 있는 이들이 예배의 안쪽의 것들에 관하여 추론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는 말씀에 있는 '아수르'로부터 분명해진다. 이는 추론, 추론함이다. 두 가지 의미가 여기서 나타난다, 즉 아수르는 그 토지로부터 나갔다, 또한 니므롯은 그 토지로부터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해진 것은 둘 다 의미하기 때문이다...

창10:11-'아수르'=추론함인 것은 말씀에서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의 의미로부터 분명해진다. 거기서 '아시리아'는 추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꾸준히 취해지는데, 이는 추론함, 합리적인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서이다. 추론과 합리적인 것들에 의해 진리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반대인 거짓인 것들을 의미할 때도 있다. '아시리아'가 추론과 합리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이집트와 인접해 언급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이유는 추론과 합리적인 것은 과학적인 것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겔23:2,3,5,6-'두 여인, 한 어머니의 딸들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어렸을 시절 매춘을 범하였었는데, 하나는 매춘짓을 했고, 그리고 그녀의 이웃들인 아수르 사람을 그녀의 애인으로 사랑했다. 그들은 깊은 푸른색으로 차려입고, 지도자요 통치자요, 그들 모두는 욕구의 젊은이요 말을 타는 자라; 바벨의 아들들이 그녀에게 왔다, 그리고 그들의 매춘을 수단으로 그녀를 더럽혔다'; 거기서 '이집트'=과학적인 것들; '아수르'=추론함; '바벨의 아들들'=탐욕들로부터의 거짓.

겔16:26,28,29-'예루살렘, 너는 이집트의 아들들과 매춘을 범했다, 너는 아시리아의 아들들과 매춘을 범했다, 너는 갈대아로 가나안의 토지에 까지 매춘이 번성하게 했다'. '이집트'=과학적인 것들; '아시리아'=추론함.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 관하여 과학적 사실로부터 추론함이 '매춘'이라 불리운다. 이집트인들과 아시리아인들과 더불어 매춘은 있지 않았다는 것,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 ('아시리아의 아들들'=추론들)

예50:17-'이스라엘은 흠어진 양이다, 사자들이 그를 몰

아시리아

아부켰다, 그리고 처음에 아시리아의 왕이 그를 삼켰다, 그리고 여기 드디어 바벨의 왕이 그의 뼈들을 가져가버렸다.' '아시리아'=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추론함.

미5:5,6-'이런 평화가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인이 우리의 토지로 올 때, 그리고 그가 우리의 궁전을 짓밟을 때, 우리는 그 자 위에 일곱 목자들을, 그리고 사람들의 여덟 왕자들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검은색 아시리아의 토지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문들 안에서 니므롯의 토지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시리아가 우리의 토지로 올 때,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짓밟을 때, 우리를 구할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또는 영적 교회가 취급되는바, 이에 관해서 말하는바, '아시리아는 들어가지 못할 것', 즉 추론함은 없을 것.

호11:11-말씀에서 '아시리아'는 교인들과 더불어 있는 추론함이라는 것, 이를 수단으로 그는 참인 것과 선인 것을 분명하게 식별한다는 것은 '그들은 이집트로부터의 새 같이, 아시리아의 토지로부터의 비둘기 같이 떨 것이다'는 구절로부터 분명해진다; 거기서 '이집트'=교인들의 과학; 그리고 '아시리아'= 똑같은 것의 추론.

창10:11,12-'니느웨'에 의해 교리적인 것들로부터의 거 것이 의미되어지고 있다...이 거짓은 세 근원으로부터 있다. 첫째 근원은 감각의 오류, 계발되지 않은 이해함의 어둠, 그리고 무지이다. 이것이 '니느웨'라 불리워진다. 둘째 근원은 첫째와 같은 근원이나, 지배 욕구와 더불어는 경우이다. 이 욕구는 개혁을 위한 지배 욕구이든 결출함에 따른 지배 욕구이든 어느 한가지일 것이다. 그로부터 파생된 거 것이 '르호봇'이다. 세 번째 근원은 의지로부터, 고로 탐욕으로부터 이다. 그들은 자기의 탐욕에 박수를 치지 않는 어떤 것도 진리로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로부터 파생된 거 것이 '갈라'라 불리운다. 이상 세 가지 거짓 모두는 '아수르'를 수단으로, 또는 신앙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에 관하여 추론함을 수단으로 발생한다.

왕하17:6, 18:11-'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로 끌고 가버렸다'...'이스라엘' 여기서의 경우=뒤집힌 영적 교회; '아시리아'=추론함.

창10:22-'셈의 아들들, 엘람과 아수르와...' '셈'에 의해 내향의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셈의 아들들'에 의해 지

혜 속에 있는 것들이 의미된다. '엘람, 아수르' 등등은 많은 나라들이었다, 이를 수단으로 지혜 속에 있는 것들이 의미된다. '엘람'=선행으로부터의 신앙; '아수르'= 거기로부터 파생된 추론.

이23:13-'갈대아인들의 토지를 바라보라, 이 백성은 있지 않다, 아시리아인은 그것을 황무지에서 거주하는 그들을 위해 기초했다, 그들은 그들의 땅대를 세울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궁전을 들어세울 것이다, 그는 황폐해짐을 위해 그것을 놓을 것이다.' '백성이 없는 갈대아인들의 토지'=거짓들; '아시리아인이 그것을 기초했었다'=그 추론함이 그렇게 행동했었다.

이52:4-'고로 주 여호와(Jehovih)께서 말하신다, 내 백성은 처음부터 거기서 체류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시리아인이 쓸데 없이 그를 압제했다; 거기서 '아시리아인'=추론들.

이10:24,26- '고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의 거주자, 내 백성이 아시리아인이 막대기로 너희를 쳐죽일 것이고, 이집트로 가는 길에서 지팡이를 쳐들 것이라고 해서 두려워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자 위에 호렘의 바위 위에서 미디안의 재앙에 따라 천벌을 휘저을 것이다'...'아시리아인'에 의해 추론함이 의미되어진다, 이것은 여기서 취급되는 주제이다...

호8:9-'그들은 단독으로 들나귀, 홀로 아시리아로 가버렸다'...'아시리아로 가는 것'=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진리에 관하여 추론하는 것.

창25:18-'그들은 하월라로부터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가는 수단(통로)인 이집트의 얼굴들을 향해 있는 수르까지 이르러 거주했다'...'아시리아'=추론 속에 있는 것.

겔16:28-'아시리아의 아들들과 매춘을 범하는 것'=추론을 수단으로 뒤집는 것. '아시리아'=추론함.

시83:8-'아시리아' 역시 그들과 연합하였다, '그들은 롯의 아들들에게 팔이다'...롯의 아들들에게 팔인 '아시리아'=추론을 수단으로 그들은 외향의 것들을 위해 싸우고 내향의 것들을 공격한다.

이36,37장-람사세가 아시리아 왕에 의해 보내져, 예루살렘과 히즈키야왕에 맞서 말했을 때, 여호와와 천사가 185000명을 아시리아 진영에서 쳐죽였다. 이는 인간의 합리적인 것이 똑똑하다 하여 신성으로부터의 것들에

아시리아

맞서 추론을 실행하는 동안 그것이 어떻게 전복되는지가 의미되어 있다.

이19:23, 27:13, 미7:7,11,12-신앙 속의 교리로부터 합리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들 안으로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이들은 이들에 관련하여... '그날에 이집트로부터 아시리아로 길이 있을 것이다' 등등.. 거기서 영적 왕국의 교회가 취급되는데, 즉 '이스라엘'은 영적 왕국 속의 것; 합리성은 '아시리아'; 과학적 사실은 '이집트'; 이 세 가지 것이 이 교회의 지적인 것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것은 서로 서로 계승한다... 이와 같은 것이 다음 구절에도 의미고 있다. '이 날이 올 것이다, 즉 큰 나팔이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토지에서 멀해지는 자, 이집트의 토지에서 추방된 자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함의 산에서 여호와께 자신을 구부려 절할 것이다.' 미가서에서, '나는 여호와를 뒤돌아 본다, 나는 내 구원의 하느님을 기다린다, 내 하느님은 나에게 귀기울여 주실 것이다, 네 벽들을 건축하는 날, 이것이 그 날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부터, 아시리아로부터, 그리고 이집트의 성읍(으로부터) 너에게까지 올 것이다.'...

호14:2,3-'모든 불법을 거두어라, 그리고 선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는 어린 수소를 입술로 되갚을 것이다, 아수르는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말을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손들의 작품에 우리의 하느님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추론함.

이31:8-'아시리아인은 검으로 망할 것이나, 사람의 검이 아니다, 검이 그를 삼킬 것이나 사람의 검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검 앞에서 자신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젊은 이들은 공물을 위해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인'=신성한 것들을 추론함.

창25:3-'도단의 아들들은 아수르족속과 르두시족속과 르움미족속이었다'=(영적 왕국의 교회)의 두 번째 몫 (lot)으로부터의 갈래들.

슌2:13,14-'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손을 북쪽에 뻗치실 것이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파괴하실 것이다, 가축떼가 그녀의 한가운데 드러누울 것이다, 그 나라의 모든 들 짐승, 가마우지(cormorant)와 알락헤오라기(bittern)가

거기의 석류에서 밤을 보낼 것이다, 목소리가 창문에서 노래할 것이다, 문지방에서는 가뭄이, 그 이유는 그가 삼목을 발가벗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취급된 주제는 '아시리아'=추론함을 수단으로 신앙 속의 진리들을 파괴함이다.

이11:16-'아시리아로부터 떠나는 남아있는 그의 백성을 위한 길이 있을 것이다.'... 내향의 의미에서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교회가, 특수적으로는 거듭나아지는 모든 이 각자가 취급되고 있다... '아시리아'=그들이 뒤집었던 (과학적인 것들로부터) 추론함.

이37:36-'아시리아인의 진영 안에서 여호와와 천사는 185000을 쳐죽였다'에 의해 (지옥)이 의미되어져 있다.

호9:3-'아시리아에서 그들은 불결한 것을 먹을 것이다'=추론으로부터의 불순하고 모독적인 것들.

이10:7,8-'아시리아'=거짓들이 오게 하는 신성한 진리들에 관한 추론; 고로 뒤집힌 추론.

이27:13-'아시리아의 토지에서 멀해지는 그들'=내면의 진리들.

슌10:8-12-'나는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되찾기 위해서이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도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아시리아로부터 나는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길르앗과 레바논의 토지로 데려올 것이다; 그는 곤경의 바다를 통과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바다에서 파도들을 쳐부술 것이다, 그리고 강의 모든 깊음을 말릴 것이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내쳐질 것이고, 이집트의 지팡이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여호와 안에서 강해지게 만들 것이다.' 여기서는 자신과 자신의 지혜를 특별한 것들에서 신뢰하는 이들, 그리고 시험을 수단으로 거짓들이 흩어짐에 관한 것을 취급하고 있다; '이집트의 토지'=과학적인 것들; '아시리아'=그로부터 갈라져 나온 추론들... '아시리아의 교만이 내동댕이쳐지고, 이집트의 막대기가 떠날 것'=그들은 그들 자신의 지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의 지혜에 신뢰를 둘 것이라는 것이 '나는 그들을 여호와 안에서 능력 있게 만들 것'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7:18-'아시리아에 있는 별'=거짓이 마음 속의 추론들을 뒤집음; '아시리아'=추론.

아시리아

겔31:5-‘아시리아인’=계발된 합리성; ‘레바논의 삼목’=영적 왕국의 교회.

예2:36-‘네가 아시리아 때문에 수치를 당했듯이 이집트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아시리아’=(과학적인 것들)로부터 추론함.

호12:1-‘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이고, 그들은 아시리아와 계약을 만든다, 그리고 기름이 이집트로 운반되었다’... 여기서 교인의 지성 측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과학적인 것들로부터의 추론들에 의해 뒤집어진다...‘아시리아인’=이성.

이7:20-‘그날에 주님은 아시리아 왕을 수단으로 머리와 발털을 면도할 것이다, 그리고 수염을 소멸할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을 수단으로’=거짓들로부터 추론함을 수단으로...‘아시리아 왕’=추론.

이10:12,13-‘나는 아시리아 왕의 교만의 열매를 방문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말했는 바, 내 손의 강함 안에서 나는 그것을 했었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시리아 왕’=추론함, 여기서는 인간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추론함.

호9:3-‘그들은 여호와와 토지에서 거주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되돌아 갈 것이다, 그리고 아시리아에 있는 불결한 것을 먹을 것이다...’ ‘이집트’=자연적 인간의 과학적인 것; ‘아시리아’=거기로부터 파생된 추론, 이 추론으로부터 말씀은 이해함 측면에서 왜곡되어 진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되돌아 갈 것, 아시리아에 있는 불결한 것을 먹을 것’이라 말해지고 있다.

겔31장-‘아시리아’에 의해 총명에 관련된 교회가 의미되고 있다.

이10:13-‘아시리아’에 의해 합리성이 의미되고 있다, 여기서의 경우, 교회의 선과 진리를 뒤집는 합리성이다.

겔31장-‘아시리아인은 레바논에 있는 삼목이었다, 이 삼목은 하느님의 동산에서 그에게 감추여 있지 않았다. 하느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아름다움에서 그에게 동등하지 않았다, 하느님의 동산에서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그를 부러워했다...’ 이 구절은 아시리아인에 관해 말했다, 그 이유는 말씀에서 그에 의해 합리성이 의미되고, 그로부터 파생된 총명이 의미되기 때문이다.

겔27:23-‘아수르와 길맛은 너의 상인들이었다’...‘시리아’에 의해 진리와 선에 관련된 교회가 의미되고 있다; ‘아수르’에 의해서는 이 교회의 합리성.

이14:25-‘나는 내 토지에서 아시리아인을 부술 것이다, 그리고 내 산들 위에서 나는 그를 짓밟을 것이다’...‘아시리아인’에 의해 진리들에 맞서는 거짓들로부터의 추론이 의미되어진다; ‘부쉬지는 것’=사라지는 것...

이37:24-‘아시리아의 왕’=뒤집힌 합리성.

이31:8, 37:38-‘아시리아인’=뒤집힌 합리성, 고로 그들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 ‘검에 의해 떨어지고 삼켜짐’=멸해지는 것. 또한 이것은 아시리아 왕이 자기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살해됨에 의해서도 표현되고 있다.

숙10:11-‘아시리아의 교만’=인간 자신의 총명, 이것은 뒤집힌 합리성의 것이다.

이8:7-말씀에서 ‘아시리아, 그리고 그 왕’에 의해 합리성이 의미되는데, 여기서의 경우, 뒤집힌 합리성.

숙10:11-‘아시리아의 교만이 내쳐질 것이다’...‘아시리아’에 의해 진리들에 맞서는 거짓으로부터 추론함이 의미된다...‘내던져질 아시리아의 교만’=인간 고유의 총명, 이로부터 추론이 온다.

이11:16=‘아시리아로부터 남겨진 그들’=거짓들로부터 추론함을 수단으로 멸해지지 않을 이들.

이37:18,19-‘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들의 신들을 불(fire)에게 주셨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신들이 아니고, 인간의 손들의 작품, 돌과 나무이기 때문.’ ‘아시리아 왕들의 신들’에 의해 거짓들과 악들로부터의 추론들이 의미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자아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인간의 손들의 작품’이라 불리운다.

왕하19:1-‘그러므로 히즈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의 사령관 타르탄의 말들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 옷을 찢었다...’ 이것이 행해졌던 이유는 이 사건에서 ‘아시리아 왕’에 의해 뒤집힌 합리성, 또는 교회 속의 선과 진리를 뒤집는 합리성이 의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합리성은 거짓들을 수단으로 그것들을 파괴한다.

호7장-‘그들은 이집트를 불렀었다, 그리고 아시리아로 가버렸다’=그들은 자연적 인간의 과학적인 것들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추론에 신뢰를 두었다는 것, 이것은 사

아시리아

기 행각일 뿐이다.

호11:5-‘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되돌아 오지 않을 것이다, 아시리아인이 여기서 그들의 왕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되돌아오지 않음’=영적 인간이 된 교인은 자연적 인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시리아인이 그들의 왕’=그다음 거짓으로부터의 추론들이 판을 칠 것이라는 것...인간이 자연적일 때 그는 이집트에 있다; 인간이 합리적일 때, 그는 아시리아에 있다; 인간이 영적일 때, 그는 가나안의 토지에, 고로 교회 안에 있다.

애5:2,4,6,8-‘우리의 유업이 외국인에게, 우리의 집이 외국인에게 넘어갔다; 우리는 은을 주고 우리의 물들을 마셨다; 우리의 장작들이 값을 치루어야 온다; 우리는 우리를 빵으로 만족시킬까 해서 이집트에게, 아시리아에게 손을 주었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들의 손으로부터 해방될 어떤 것은 없다.’ 자기 고유의 자아를 수단으로 혼욕되는 것이 자연적 인간에 의해, 그의 과학적인 것들에 의해,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파생된 결론들에 의해 혼욕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빵으로 만족될 것 같아서 아시리아에게, 이집트에게 손을 주었었다’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이집트’에 의해 자연적 인간이 의미되는데, 이것이 거짓의 근원이다; ‘아시리아’에 의해 자연적 인간이 거짓들로부터 추론함이 의미되는데, 이것이 악들의 근원이다.

겔32:18,20,22,23-‘이집트의 군중에게 애도하라, 그리고 그녀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그들과 함께 내려가게 만들라, 그들은 검으로 살해된 그들 한가운데에서 떨어질 것이다, 거기에 아수르와 모든 그의 회중이 있다, 그의 무덤들이 그들 주위에 있다, 검에 맞아 살해된 그들의 모두, 그들의 무덤들이 구덩이의 한쪽에 있다, 그리고 그의 회중은 그의 무덤 주위를 빙 둘러 있다.’ ‘이집트의 군중’에 의해 자연적 인간의 과학적인 것들이 의미되고 있다, 이것은 죽은 것이다...‘아수르’에 의해 이런 과학적인 것들로부터의 추론이 의미되고 있다...‘검으로 살해된 자’에 의해 거짓들 때문에 지옥으로 (가도록) 단죄된 이들이 의미되어 있다; ‘아수르와 모든 그의 회중이 있다’에 의해 이런 거짓들로부터의 추론들이 의미되어 있다; ‘아수르 주변과 구덩이의 측면들에 있는 무덤들...’에 의해 이런 거짓들, 즉 이런 거짓 안에 있는 이

들이 있는 지옥들이 의미되고 있다.

이20장-‘아시리아왕’에 의해 자연적 인간의 과학적인 것들로부터 추론함이 의미되어 있다; 그리고 ‘이집트’에 의해 자연적 인간이 의미되어 있다; 이로부터 ‘아시리아왕이 이집트를 포로로 끌고 감’에 의해서는 거짓들로부터 추론함은 자연적 인간에 있는 모든 진리들, 즉 말씀의 글자에 있는 진리들을 파괴함이 의미되어 있다.

겔 23장-‘아수르’에 의해 합리적 진리들이 의미되나 반대 의미에서는 거짓들이 의미된다. 이로부터 ‘그들과 더불어 매춘을 범함’에 의해 의미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이집트’, ‘아시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에브라임’에 의해 말씀을 이해함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는 말씀의 자연적 측면으로부터의 이해를, ‘아시리아’는 합리적 측면으로부터의 이해를, ‘이스라엘’은 영적 측면으로부터의 이해를, ‘에브라임’은 교회에서 말씀의 자체를 이해함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수준의 이해함, 즉 자연적, 합리적, 영적 이해함은 인간으로 말씀의 진짜 진리들을 보고, 지각하게 해주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셋이 하나 되어 있어야 한다.

이37:29-‘나는 네 코에 내 갈고리를, 네 입술에 내 굴레를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가 왔던 길로 해서 너를 도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아시리아왕에 관하여 말해지는데, 그를 수단으로 거짓들로부터의 추론이 의미되어 있다; 그이유가 좋은 의미일 경우, ‘아시리아’에 의해서 합리성이 의미되기 때문이다.

* ‘나는 내 토지로부터 아시리아를 부술 것이다, 그리고 내 산들 위에서 나는 그를 짓밟을 것이다’=새 교회에서는 진리들과 선들에 맞서 거짓들로부터 추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호9:11-‘아시리아로부터의 비둘기’에 의해 합리성이 의미되고 있다...그이유가 ‘아시리아’에 의해 합리성이 의미되기 때문에서이다.

아시아 (Asia)

계1:4-‘아시아에 있는...’=말씀으로부터 진리의 빛에 있는 이들에게...이런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태고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이후 고대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 이후 이스라엘 교회가 아시아에 있었기 때문, 또한 그들

아시아 -아싸 -아웬-아이

은 오랜 후에 이스라엘 교회가 지닌 말씀이기도 한 고대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계1:11-'그것을 교회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이들에 보내라'=말씀으로부터 진리의 빛에 있는 기독교회의 사람들을 위하여.

계1:4-'아시아에...'=총명의 빛에 있는 이들. 천사들은 아시아가 언급될 때 남쪽을 지각한다...그리고 '남쪽'에 의해 총명으로부터의 밝은 빛이 의미되기에, 이 빛이 '아시아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이것은 내(스웨덴불)가 영적 생각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아시아에 관해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나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각하도록 나에게도 허락되어지곤 했다. 아시아에 관하여 이와같은 생각이 있는 깨닫은 교회가 고대 시대 때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그리고 그러므로 고대 시대 때로부터 천국에 있는 이들은 총명의 빛에 있다. 아시아가 생각되어질 때, 빛은 천국의 남쪽 지역에서 흘러든다...이 구절에서의 아시아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총명의 영적 빛, 또는 같은 말로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다 가리켜하는 말이다....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다.

아싸 (Azzah)

창10:19-'아싸(가자)'에 의해 선행에 관련하여 계시되어왔었던 것들.

아웬 (Awen)

호10:8-'아웬의 높은 장소(산당)'=자아 사랑.

호10:8-'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질 것이다'=거짓의 원리들, 그리고 거기로부터 파생된 추론들, 이것들이 이 예배에 있는 이들 안에 있다, 그자체로만 보면 이는 내면의 우상인바, 파괴될 것이다. 그이유가 생활의 악과 교리의 거짓들에 있는 그들은 자신과 세상을 예배하기 때문.

아이 (Ai)

창12:8-'바다 쪽으로 벨엘, 동쪽으로 아이를 가진 산'=주님의 네 번째 상태.

창12:8-'바다 쪽에 벨엘과 동쪽에 아이'=그럼에도 그분의 상태는 천적, 영적인 것들에 관련하여 희미하셨다는 것.

창12:8-'아이'=세상적인 것에 관한 지식.

창13:3-'벨엘과 아이 사이'=천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부터의 지식.

예49:1-3-'아이'=진리로부터의 교리.

여8:26-29-'아이'=선에 관한 지식, 반대 의미에서 악을 확증함.

아이 (Ai)

여7,8장-'아이성'=자연적 지식들

아이 (child)

소년 (boy)

어린 아이 (little child)

어린 시절 (childhood)

* children, infant, offspring도 참조.

창4:23-'어린 것', 또는 '어린 아이'=선행.

눅18:15,16-유아와 어린 아이=순진과 선행이라는 것은 눅18:15,16의 주님의 말씀, 즉 '그들이 예수께 유아를 데려왔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만지시며, 말하셨다, 어린 것들이 나에게 오도록 내버려 두어라...어린 아이 같이 하느님의 왕국을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로부터 분명해진다.

이9:6-주님 자신을 두고 '어린 것, 또는 어린 아이'라 부르신다, 그이유는 그분이 순진 자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창12장-이 장에서 아브람과 관련한 대화 속의 역사적 세부사항들은 주님의 첫 어린 시절로부터 청년 시기까지의 주님의 상태를 표현한다....

창12:5-'롯 그의 형제의 아들'=감각적 진리, 고로 주님이 어린 아이 이셨을 때 그분 안으로 은근히 심어진 첫 번째 것.

창12:8-'그는 거기로부터 벨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겼다'=어린 시절 주님의 네 번째 상태.

창12:8-유아와 어린아이들은 성인들 보다 더 천적인 것들 안에 있다, 그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부모를 사랑함 안에, 그리고 상호간의 사랑 안에, 또한 순진 안에 있기 때문. 그러나 성인들은 유아나 어린아이들 보다 더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안에 있다...인간이 사랑과 신앙 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 가르침 받기 전, 그

아이(child)

는 영적 지식 측면에 관련하여 어둡한 상태에 있는바, 이런 상태가 이 구절에서 ‘벤엘, 바다 쪽에, 즉 서쪽에 있고, 아이는 동쪽에 있다’라고 묘사되고 있다.

창12:10-‘토지에 기근이 심했다’=주님의 어린 시절 그분과 더불어서도 지식의 빈궁함이 있었다는 것...어린 시절 동안 인간과 더불어 (영적) 지식들은 내부로부터 결코 오지 않는다, 그러나 감각의 객체(object)로부터, 특히 들음으로부터...이와 같은 상황은 주님의 어린 시절 마찬가지로 였다...그러나 그분과 더불어 내면들은 천적인 것이었다...그분과 더불어 내면들은 그분의 아버지 여호와로부터 신성이었다.

창12:10, 눅1:80, 2:40-‘아브라함은 체류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다’=말씀으로부터의 (영적) 지식들로 가르침을 받음. 그분의 어린 시절 동안 주님은 여느 사람 같이 가르침을 받았음은 눅1:80 이나 2:40으로부터 분명해진다. 이로부터 더 명백한바, 그분의 어린 시절 동안 주님은 여느 다른 지식들을 불러 넣으려 하시지 않고, 그분의 아버지 여호와로부터 그분 앞에 열린 말씀으로부터의 것들을 불러 넣으셨다는 것이다.

호11:1-이로부터 ‘아이 이스라엘’에 의해 주님이 뜻해 진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이집트로부터 나는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에 의해 뜻해질 때, 그분이 받은 가르침이 뜻해진다는 것.

창12:15-‘이집트’와 ‘바로’가 여기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어린 시절 처음으로 획득하셨던 (영적) 지식에 관한 지식이라 단언되기 때문이다.

창13장-여기서는 주님의 어린 시절, 과학물들과 (영적) 지식들을 흠취 하셨던 때의 외적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것은 내적 인간과의 결합함으로 발전되었다.

창13장-이 장 속의 사항들은 주님을 표현하는데, 어린 시절로부터 그분의 삶의 계속이다.

창13:1-‘아브라함은 이집트로부터 올라갔다’=주님이 아직 아이이셨을 때 그분은 과학물들로부터 떠나셨다.

창13:1-‘그리고 그와 더불어 룯도’=감각적 측면. ‘룯’=감각적인 것들, 이를 수단으로 외적 인간과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있는 쾌락이 뜻해진다. 고로 이것들은 가장

바깥쪽에 있고 인간을 그의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고 있고 그를 선들로부터 물러나 있게 한다.

창14:4-주님이 싸우신 이런저런 악들과 거짓들이 어린 시절에는 빠르던 늦게 이든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이 그들라오멜을 섬기던 왕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창14:4-‘그리고 십삼년째 해에 그들은 반역했다’=어린 시절에 시험들의 시작.

창14:13-‘마므레, 에스골, 아벨’에 의해 주님께서 그분의 어린 시절 처음 싸우셨을 때 그분과 함께 있었던 천사들이 의미되어졌다.

창14:24-‘소년들이 먹은 것을 제외하고는’=선한 영들.

창15장-주님에 관한 것의 계속, 즉 그분이 어린 시절 시험으로부터의 가장 비통한 전투를 참아내신 이후, 그리고 그분이 보편적 인간 종족을 향해, 특별히 교회를 향해 그분이 흠모하셨던 사랑에 맞선 것들과의 가장 비통한 전투를 참아내신 이후.

창15:1-‘이 말들 후에 여호와와 말이 환상 중에서 아브람에게 왔다’=어린 시절 전투들 후에 계시가 있었다는 것...‘여호와와 말이 아브람에게’는 주님의 말이 그분 자신에게 밖에 더 아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그리고 시험들로부터의 전투들에서, 본질은 하나로 결합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계시로 밖에 더 달리는 나타날 수 없었다.

창18:7-‘그는 그것을 소년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는 황급히 그것을 만들었다’=합리적 선과 이 선이 결합함. ‘소년’=자연적 인간.

창19:4-‘소년으로부터 노인 까지’=최근 그리고 확증된 악들과 거짓들.

숙8:5-‘거리들에서 놀고 있는 소년들’=최근의 진리들, 그리고 ‘소녀들’=최근의 선들, 그리고 그들의 애착들, 그로부터의 즐거움들.

창21:14-‘소년(이스마엘)’=영적인 것...여기서 이스마엘은 영적 왕국의 교회인을 표현한다, 그리고 시작 지점에 있는 교회인을 표현하는바, ‘소년’이라 말해진다.

창21:15-‘그녀는 수풀 중의 하나에 소년을 내던졌다’=진리와 선의 어떤 것도 지각되지 않고 자포자기함. ‘소년’=영적 진리.

아이(child)

창21:16-‘내가 소년이 죽는 것을 보지 않도록 라고 그녀가 말했기 때문에’=그것이 멀해질 것이라는 슬픔... ‘소년’=영적 진리.

창21:17-‘하느님께서서는 소년의 음성을 들으셨다’=그당시 도움... ‘소년’=영적 진리. 하갈의 음성이 아니고 소년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해진 이유는 여기서 영적 인간의 상태를 취급하기 때문. ‘소년’, 또는 ‘이스마엘’에 의해 영적 교회가 표현되고 있다.

창21:18-‘아이를 일으키거라’=진리에 관련하여 영적 측면.

창21:20-‘하느님께서 소년과 함께 하셨다’=영적인 것과 더불어 주님께서 현존하심... ‘소년’=진리에 관련한 영적 측면, 여기서는, 영적인 것, 그 이유는 그가 영적 교회의 사람을 표현하기 때문, 또한 영적 교회 자체, 그리고 보편적 의미에서, 주님의 영적 왕국을 표현하기 때문.

창22:3-‘(아브라함은) 두 소년들을 데려왔다’=그분이 인접했던 이전의 합리성. 말씀에서 ‘소년’은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집의 아들들, 낯선 자의 아들들, 이 구절의 경우 하인의 아들들을 서술하기 때문.

창22:5-‘아브라함이 그의 소년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고 있거라’=그 당시 이전의 합리성이 자연 평면과 분리함... ‘소년들’=이전의 합리성.

창22:5-‘나와 소년은 저쪽으로 갈 것이다’=시험들 중 가장 비통하고 가장 깊은 수준의 전투를 위해 진리로 따를 두른 상태의 신성한 합리성. ‘소년’=이런 상태에 있는 신성한 합리성, (그이유가) ‘이삭’=신성한 합리성. 그러나 여기서 ‘이삭’이라 말해지지 않고 ‘소년’이라 말해진다.

창22:19-‘아브라함이 그의 소년에게로 되돌아 왔다’=이전의 합리성과 다시 결합함. ‘소년들’=신성한 합리성에 봉사해야 하는 이전의 합리성, 또는 단지 인간적인 합리성.

창25:27-‘소년들이 성장했다’=선과 진리의 결합의 첫 상태. ‘소년들’=선과 진리. ‘에서’=선, ‘아굽’=진리.

창37:2-‘소년(요셉)=첫째인 것, ‘소년’ (또는 아이), 새로운 교회를 서술할 때,=처음인 것, 또는 교회의 첫

상태, 그이유가 교회도 유아, 아이, 성인, 노인 같이 때문...교회도 그것의 나이로부터 ‘아이’라 불리워지고 빠르게 길을 잘못들어서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주님은 처음에 이런 속성에 현존하셨으나, 후에 그런 속성들을 멀리하셨는데 여기서 표현되어진바 같다.

창41:12-‘히브리 소년이 우리들과 함께 있었다’=시험 때문에 죄없는 교회의 원리가 저쪽으로 거절되어 있었다는 것... ‘소년’=죄없는 것...그이유가 ‘유아’=순진한 것이기 때문.

창43:8-‘나와 함께 소년을 보내십시오’=(여기서 ‘소년’으로 말해지는 베냐민에 의해 의미되는 내면의 진리가) 유다에 의해 표현되는 교회의 선과 결합될런지 모른다는 것.

창44:22-‘소년은 그의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진리가 영적 선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 진리가 마지막에 태어나지기 때문에 ‘소년’이라 불리운다.

창46:34-‘당신의 종들은 어린 시절로부터 목부였습시다’=시작으로부터 그들은 선을 있게 한 진리들을 가졌다는 것.

출1:17-‘그들은 소년을 살아있게 보존했다’=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이 보존되었다.

출10:9-‘우리의 아이들과 노인들과 더불어’=단순한 자와 슬기로운 자.

요21:18-베드로가 ‘소년’이었을 때=교회가 시작 당시 가졌던 신앙.

출24:5-‘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년들을 보냈다’=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순진과 선행으로부터 있는 이런저런 것들.

숙8:3-5-‘거리들에서 놀고 있는 소년소녀들’에 의해 진리와 선에 애착함, 그리고 그것들의 즐거움들.

이9:6-‘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난다’...이런 것들은 주님의 강림에 관련해 말해진다, 그이유가 말씀에서 ‘아이’에 의해 선이 의미되기 때문, 여기서는 신성한 선. 그리고 ‘아들’에 의해서는 여기서 신성한 진리.

율3:3-‘매춘을 위해 소년을 주었다...’=진리를 왜곡하는 것. ‘소년’=교회의 진리.

마18:10-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 한가운데에 아이를 놓으시고 아이에 관해 말하셨다, ‘너희는 이런 작은 것

아이가 없는-아이들-아이를 못 낳음

들의 어떤 것도 경멸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천국들 안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은 천국들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언제나 보고 있다.' 그들의 천사들이 보고 있다 라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품질에 따라 영들과 천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매우 어린 어린이들과 더불어서는 가장 깊은 천국으로부터의 천사들이 함께 한다. 이 천사들은 주님을 태양으로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영적 의미에서 이런 말들은 주님의 신성한 선 측면에서의 그분은 순진의 선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순진의 선이 영적 의미에서의 아주 어린 아이들에 해당된다.

마14:21-'남자들'=진리들에 있는 이들. '여인과 아이들'=선들에 있는 이들.

이20:4-모든 순진과 모든 지혜가 멸해진다는 것이 아수르왕에게 끌려가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애5:13-'장작과 함께 자빠지는 어린이들'에 의해 악들에 의해 멸해지는 미성숙한 선들이 의미된다.

아이가 없는 (childless)

창15:2-'나는 아이가 없이 걷고 있습니다'=내적 교회가 없었다는 것.

아이들 (children)

출21:5-'저는 내 주인, 내 여인, 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영적 선들을 재수집함으로 해서 있는 즐거움...'아이들'=선들과 선들에서 파생된 진리들.

막13:12-'아버지가 아이들이 죽는 쪽으로 배반할 것이다'=교회의 선이 악의 거짓들에 의해 멸해질 것이다. '아버지'=교회의 선, '아이들'=악의 거짓들. '아이들이 자기들 부모에 대적해 일어나 살해함'=악의 거짓들이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을 공격해서 파괴할 것이다.

애4:10-'아이들을 요리하는 것'=거짓들을 수단으로 말씀으로부터의 교리 속의 진리들과 선들을 파괴하는 것. '그들을 자기들의 음식으로 만드는 것'=거짓들을 자기 것 삼는 것.

욥5:25-이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과 그것이 증가함이 '땅의 풀잎 같이 있을 아이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아들들'과 '아이들'=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이와 마찬가지로

지가 '땅의 풀잎'이다.

마19:29-'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이들을 미워하는 것'=인간 자신 속에 있는 것들, 자기 자신이라 불리우는 것들...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이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탐욕들이 근원된다. 그리고 그것들의 악들과 거짓들이 '아이들'이다.

아이를 못 낳음 (barren)

* 불모도 참조

창11:30-'사래는 임신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손이 없었다'=악과 거짓인 것은 더 이상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

창11:30-아들과 딸이 진리와 선을 의미하는데, 그 반대 의미일 경우, 악과 거짓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불모'=우상적 예배로부터의 악과 거짓은 더 이상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

창25:21-(리브가가) '임태하지 못함'=자연으로부터의 신성은 아직 없었다는 것.

창29:31-'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내면의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했다는 것...'불모'=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없었다, 고로 교회 역시 없었다는 것.

신7:14-'열매를 못맺거나 임신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진리와 선으로부터의 생활이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 고로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을 것이다. '불모, 임신 못함'이 이런 의미를 가지기에 고대 교회에서 여인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자신을 살아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이런 실례로 창30:1에서 라헬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아들들을 주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죽어있다'라는 구절을 들 수 있다.

이54:1-진리들 안에 있지 않기에 선 안에도 있지 않은 이들 또한 '불모'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그러나 선 안에 있기 위하여 진리들을 진지하게 바라는 이들, 마치 직 바른 이방인들 같은바, 즉 이사야서에서 '노래하라, 출생하지 않은 아이 못 낳는 자, 산고가 없었던 여자여, 기쁨을 위해 노래를 시작하고 외쳐라, 그 이유가 홀로된 자의 아들들이 짝으로 있는 이들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 곳에서 '아이 못 낳는 자들'은 교회에 소환되어지는 나라들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옛것이 중단될 때, 교회는 이들에게 전송되어진다.

아침

이54:1-3-여기서 취급되는 주제는 이방인들 사이에 교회가 건설된다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 없이 있음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잉태 못한 자'라 불리우고 있다.

이54:1,2-'아이 못 낳는 자'=이전에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지 않았던 자.

삼상2:5-'아이 못 낳는 자가 일곱을 낳기 까지'...'아이 못 낳는 자'=말씀을 가지지 않았던 이방인들로부터의 교회.

삼상2:5-'아이 못 낳는 여자가 일곱을 낳고 있다'=말씀을 가지지 않았기에 진리들을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이들, 고로 이방인들, 이들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질 것이다.

눅23:29-'아이를 못 낳는 자', 그리고 '출생을 가지지 않은 자궁들'이란 진짜 진리들, 즉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의미한다.

시113:9-'아이를 못 낳는 집'=진리와 선의 결혼이 없는 곳.

이54:1-(이방인들이) '아이 못 낳는 자'라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주님을 몰랐고, 진리들이 있는 말씀을 가지지도 않았기에 거듭나질 수도 없었기 때문.

아주머니 (aunt)

창6:20-'아브람은 그의 아버지쪽의 아주머니를 여인으로 데려왔다'=파생된 선이 관련된 진리와 결합.

아침 (morning)

창1:5-'저녁이었다, 그리고 아침이었다, 첫째 날'...'아침'은 모두 각각의 다음 상태이다, 그이유는 그것은 빛의 하나, 또는 진리와 믿음에 관한 지식들의 하나이기 때문이다...'아침' 일반적으로=주님께 어울리는 모든 것들.

창 19:2-'아침에 너는 일어나 네 길을 갈 것이다'=이렇게 하여 선과 진리를 확인함.

슥3:5-'아침에 그분은 빛을 위해 심판을 주실 것이다'; '아침'=심판의 때와 상태, 이는 주님의 강림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왕국에 다가감과 같다.

출27:21-'아침'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듯, 이와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하시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된바 여호와 앞에 저녁부터 아침 까지 등을 켜도록

했다. '저녁' 여기서는 아침 앞의 황혼이다.

레6:5-위 구절과 같은 식으로 제단 위의 불은 모든 새벽에 점화되어졌다.

출12:10, 23:18, 34:25, 레22:29,30, 민9:12-유월절 어린 양, 또는 제물의 성별 된 것은 아침 까지 남겨두어서는 안되도록 명령되어 있다. 이를 수단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제물은 중단될 것을 의미했다.

창20:8-'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명백한 지각, 그리고 천적 선으로부터 확인함의 빛...'아침', 여기서=명백한 지각.

창22:3-'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평화와 순진의 상태; 이는 주님이 서술될 때 (여기서는 아브라함인데,) '아침' 그리고 아침에 '일어남'의 의미로부터 명백하다.

창24:54-'그들은 아침에 일어났다'=승강의 상태. '아침'=주님, 그분의 왕국, 그리고 평화의 상태가 파생됨.

창26:31-'아침에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예증의 상태...그 이유가 '아침' 그리고 '새벽', 최고 의미에서=주님, 내적 의미에서 그분의 사랑의 천적 인 것; 이로부터 역시 평화의 상태.

창28:18-'아침에 야곱은 일찍 일어났다'=예증의 상태...'아침'=천국적 빛의 출현; 여기서의 경우 희미함으로부터 빛 안으로의 승강...

창29:25-'아침(이 되었다)'=그 상태에서 있는 예증. '아침'=예증.

창31:5-'아침에 라반은 일찍 일어났다'=주님의 신성한 자연성에 의한 이 선의 예증(illustration).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예증.

이21:12-'아침이 온다'=주님의 강림, 그리고 그 결과로 '밤'에 있는 이들, 즉 무지함 안에 있는 이들에게 예증이 되심, 그러나 주님의 신성한 자연성을 수단으로 한 예증이다.

창49:27-'그는 아침에 붙잡을 것이다'...=주님이 현존하실 때 (선한 자는 구출됨)...'아침', 최고 의미에서=주님.

출10:13-'아침이 왔다'=질서 정연한 천국의 상태. '아침'=주님의 왕국;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주님 자신; 또한 예증된 상태; 그러나 여기서의 경우, '아침'은 질서

아침

있는 천국을 의미한다.

단8:14-‘아침’에 의해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빛과 주님으로부터의 새로운 교회의 일어남이 뜻해진다.

출12:10-‘너는 아침 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 것이다’=천국 안에서 예증의 상태가 있기 전 이 상태의 기간. ‘아침’=천국과 거기서 예증되는 상태.

출12:22-‘아침 까지 조차’=예증되는 상태.

출14:27-‘아침이 됴에서’=주님의 현존.

출16:7-‘아침에 너는 여호와와 영광을 볼 것이다’=새로운 상태의 시작에서 주님의 강림이 있다.

출16:21-‘아침 마다’=꾸준하게

출16:23-‘아침까지’=오고 있는 즐거움

출18:13-‘아침으로부터 저녁 까지 조차’=내면과 외면, 모든 상태에서...그이유가 저 세상 삶에서 아침 상태 안에 있을 때, 즉 이른 아침에 상응하는 상태 안에서 그들은 선과 진리 안에 내면적으로 있다....그들이 아침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영적 기쁨 안에 있다.

출19:16-‘아침이었을 때’=선 안에 있을 때. (그이유가) ‘아침’=사랑의 선의 상태.

출23:18-‘내 축제의 지방(기름기)은 밤을 지나 아침 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다’=예배의 선은 자아로부터가 아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언제나 새로이 있다...‘아침’=주님과 그분의 강림...이로부터, 여기서의 경우, 자아로부터가 아닌 예배의 선이 취급되는 곳인바, ‘아침’에 의해 주님으로부터 언제나 새로운 선이 의미되고 있다.

출24:4-‘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주님으로부터의 기쁨; ‘아침’, 그리고 ‘일찍’=주님,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 즉 평화, 순진, 사랑, 기쁨. 이런 것들 =‘아침’, ‘일찍’인 이유는 하루 안에서 교차되는 것들은 천국에 있는 아주 많은 상태들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아침은 주님의 강림과 현존에 상응한다. 그리고 아침은 천사들이 평화와 순진, 천국적 사랑, 그리하여 있는 기쁨의 상태에 있을 때와도 상응한다.

출27:21-‘여호와 앞에 저녁으로부터 아침 까지’=모든 상태에서 꾸준하게...‘아침’=또 다른 상태의 시작...그리고 ‘아침’은 다음 날에 의해 의미되는 빛의 모든 상태를 포함한다. 그이유가 주님과 더불어 다음과 미래는 현재

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출29:34-‘아침 까지...남아 있는 것’=새로운 상태와 결합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영적, 천적 선들.

출29:39-‘너는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칠 것이다’=내적 인간 안에서 사랑의 상태와 파생된 빛의 상태에서...순진의 선을 수단으로 악들을 제거함.. ‘아침’=내적 인간 안에 있는 사랑의 상태와 이로부터 파생된 빛.

단8:14-‘아침’=주님의 강림 이후 교회의 첫 상태;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그것=주님 자신...그 이유는 그분은 결코 저물지 않고 언제나 떠있는 천국의 태양이시기 때문이다.

이21:12-‘아침이 온다 그리고 또한 밤이 온다’=비록 새로운 교회의 이들에게 비추임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옛 교회와 더불어 있는 이들에게 밤이 있다는 것.

요18:28-‘닭이 울었을 때’의 때에 의해 교회의 마지막 상태가 의미되었다...이때 베드로는 ‘세 번 부인’ 할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것이 있었던 시각은 어둠새벽, 즉 아침이 곧 도래하는 시각이었다.

출30:7-‘아침에 아침에’=사랑의 상태가 명료함에 있을 때; (그이유가) ‘아침’=사랑의 상태가 명료함에 있을 때. 이로부터 ‘아침에 아침에’ 즉 매일 아침에=이 상태 일 때.

출32:6-‘아침에 일어나는 것’=자기들의 사랑들에 의해 흥분됨; 그이유가 ‘아침’은 사랑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어남’은 사랑의 상태로 승강됨...그러나 ‘아침에 일어남’이 내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에 있는 이들, 고로 악한 자에 관련해 말해질 때, ‘일어남’은 승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흥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침’은 천국적 사랑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육적 사랑의 상태를 의미한다.

출34:2-‘아침에 준비하라, 그리고 아침 일찍 사나산으로 올라오라’=신성한 진리의 계시가 새로이 일어남. ‘아침’=일어나는 상태, 또는 일어남.

계2:28-‘아침 별’이라 불리운 이유는 새로운 교회가 있을 때인 주님의 강림을 의미했기 때문.

겔7:7-‘아침’=새로운 교회의 시작; 그러므로 ‘때가 온다’라고 말해진다.

시130:6-사랑의 선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한 주님의 영

아픈-아홉-아홉째-악-악갓-악마

집이 '파숫꾼이 아침을 기다림, 파숫꾼이 아침을 기다림 보다 더욱'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여기서, '아침', 최고 높은 의미에서=주님; 그리고 내적 의미에서 그분의 왕국과 교회; 그리고 '파숫꾼이 아침을 기다림'=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들, 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 그 이유는 이들에게 주님은 '아침'이기 때문.

겔7:7-'아침이 너희에게 오고 있다, 오 토지의 주민 아'=새로운 교회로 부흥됨. '아침'=새로운 또는 개시하는 교회의 상태...

이26:9-'아침'에 의해 빛이 있을 때의 상태가 의미되고 있다; 이 상태는 사랑으로부터이다...

이17:11-교회의 마지막 상태가 여기서 '아침'에 의해 의미되었다. 그 이유가 교회의 마지막 상태가 가까웠을 때, 새로운 교회 속에 있을 이들에게는 아침이고 옛 교회 속의 사람들에게는 저녁이기 때문이다.

출16:8-'아침에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새로운 상태의 시작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선을 가질 것이라는 것...'아침'=새로운 상태의 시작.

아픈 (pain)

슬픔 (grief)

* grieve도 보라

창3:16-'나는 네 슬픔을 크게 불리겠다...슬픔 안에서 너는 아들들을 낳을 것이다'=전투, 그리고 전투로부터 있는 불안...그리고 교회가 생산하는 진리들.

창5:29-'여호와께서 저주하신 지면으로부터 우리 손의 아픔(ache)'=그들은 선에 관한 것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인간이 자신으로부터 (이것을 행해야만) 할 때 '우리 손의 수고함'이 있다.

창34:7-'사람들은 슬펐다, 그리고 대단히 분노했다'=그들은 고대인들과 더불어 있는 교회의 진리에 맞서 악 안에 있었다.

창34:25-'그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탐욕들.

창45:5-'그것이 너에게 슬픔으로 있지 않게 하라'=심정 또는 의지의 근심.

출3:7-'나는 그들의 슬픔들을 안다'=얼마나 많이 그들이 거짓들 안에 침수되었었는지에 관하여 예견하심.

출15:14-'아픔이 불레셋 주민들을 붙잡았다'=확장하는 지배욕을 자포자기 함.

호13:13-개혁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이 '산고하는 여인의 아픔이 그 사람 위에 있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애1:18-교회에 있는 모든 진리의 황폐해짐으로부터 애도함이 '들어라, 모든 네 백성들아, 그리고 나의 슬픔을 보라'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아홉 (nine)

창17:1-'아브람은 구십 구세의 아들이었다'=주님께서 내적 인간과 합리성을 충분히 결합하시기 이전의 시간; 이는 '9'가 '10' 앞에 있다는 것으로도 의미 파악은 분명해진다.

* 숫자 아홉=결합...

아홉째 (ninth)

마20:5-'제3시', '제6시', 그리고 '제 9시'는 삶의 비속한 상태를 의미한다...'3'=충만한 상태, 또는 끝에까지 조차 완전한 것. 이와 같은 것이 '6'과 '9'에 의해서도 의미된다.

눅23:45-'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단지 거짓이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이든 진리는 없었다는 것; 그이유가...'6'과 '9'=복합체 안의 모든 것; 여기서의 경우, 거짓들과 악들.

악 (evil)

창6:5-'인간의 악이 땅에서 번창하고 있었다'=선으로부터의 의지는 없기 시작했다는 것.

악갓 (Acad)

* 바벨을 보라

악마 (devil)

계12:9, 20:2-이 구절, 그리고 그밖의 구절에서도 '악마'는 어떤 다른 자들의 수령으로서 어떤 악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인 악령의 패거리, 그리고 악 자체를 뜻한다.

마13:39-원수이고 가라지를 뿌린 '악마'는 지옥이다.

계2:10-'악마가 너희 중 얼마를 감옥에 내던질 것이다'=그들의 생활 속의 선은 지옥인 악에 의해 해침을 당할 것이다. '악마'에 의해 악들 안에 있는 이들이 있는 지옥이 뜻해진다, 고로 추상적으로는 거기 그리고 거기로부터 있는 악들이다.

계12:9-'악마와 사탄으로 불리진...'=현세에의 욕망으

악쓰다-악어-악용하다-악의-안개-안드레-안디바 -안수하다-안식일

로부터 악들 안에, 그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을 수 밖에 없던 이들,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와의 분리됨을 통하여 악마들과 사탄들이 되었다.

계12:12-‘큰 분노를 가진 악마가 너희에게 내려갔다’... 용이 여기서 ‘악마’라 불리는데, 그이유는 이 이교로부터 생활의 악 안에 있는 이들을 뜻하기 때문.

계20:2-‘그는 악마와 사탄인 이 고대의 용인 뱀을 붙잡았다’...그들이 생활 측면에서 악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악마’라 불리운다, 그리고 그들이 교리 측면에서 거짓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사탄’이라 불리운다.

계20:10-‘그들을 피었던 악마는 불과 유향의 못으로 내던져졌다’=생활은 악 안에, 교리는 거짓 안에 있는 이들...‘그들을 피었던 그들’에 의해 용이 뜻해진다.

악쓰다 (howl)

* 짓다(howl)를 보라.

악어 (crocodile)

* 악으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은 바실리스크나 악어 같이 나타난다.

* 말씀에서, 사기침이 ‘악어’나 ‘독사’에 의해 의미되고, 사기는 그것들의 독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악용하다 (pervert)

* 벗어나게 하다(pervert)를 보라.

악의 (malice)

사악함 (wickedness)

예12:4-‘그것 안에 거주하는 이들의 사악함 때문에’

호7:3-‘그들이 자기들의 사악함을 통하여 기쁘게 한 왕’=악으로부터의 모든 거짓.

예4:14-‘사악함으로부터 네 심정을 씻어라’...사악함은 심정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이다, 그이유는 심정이 의지에 상응하기 때문, 심정 안에 사악함이 주재한다.

예23:14-교리로부터의 악과 거짓을 고집하는 것이 ‘인간이 자기의 사악함으로부터 되돌아서지 않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14:20-‘사악한 자의 씨’=공포스런 악으로부터의 거짓.

안개 (mist)

* 증기를 참조

안드레 (Andrew)

막5:37, 1:29, 요1:40-‘안드레’=신앙으로부터의 순종.

안디바 (Antipas)

계2:13-‘순교자 안디바’, 천사의 언어로부터 그렇게 명명되었다,=진리의 고백자, 그리고 추상적으로 진리 자체.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인정함 때문에 미움당한 이들)

안수하다 (impose)

* 부과하다(impose)를 보라.

안식일 (Sabbath)

*그 다음 전투가 중단되는데, 주님은 ‘그분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라고 말해진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은 성별 되어졌고, ‘쉬’으로부터 ‘안식일’이라 불리웠다.

막2:28-천적 인간이...안식일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 안식일이시다는 사실로부터 명백한바, 그분이 말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주님이 ...안식일 자체이시다는 내포하고 있다. 그분의 왕국은...그분으로부터 안식일, 또는 영원한 평화와 쉼이라 불리운다

이58:13,14-천적 인간의 ‘쉬’가 ‘안식일’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레23:15-‘오십’=충분한 것...그리고 그러므로 일곱 안식일의 축제가 오십 번 쯤 날까지 있었다.

마24:20-‘너희의 도망감이...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에 도망감’=너무나 많은 열(heat)이 있는 상태에서 (사랑의 선과 순진의 선)으로부터 옮겨짐: 이 열은 내부가 자아와 세상 사랑일 때 거룩한 외적인 것.

출16:23-‘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선과 진리의 결합이 영원함.

출31:14, 민15:32~37-안식일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것은 최고 의미에서 주님 안에서 신성과 신성한 인간의 합일을 표현했기 때문; 그리고 관계적 의미에서 신성한 인간과 인류의 결합을 표현했기 때문. 이로부터 안식일은 가장 거룩했다. 그리고 안식일이 이런 것들을 표현했는 바, 선과 진리의 결합에 관련한 천국 또한 표현했다...그리고 이 결합은 주님 만에게 의해 결과되기에...그리고 이것은 평화의 상태에서 결과되기에...안식일에 사람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된다고 강도

안식일

높게 금하여졌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세 번째... 즉 여호와에 대한 거룩한 예배인 첫, 두 번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이라 불린다.

이56:2~7-‘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이들=주님과 결합한 가운데 있는 이들.

이58:13,14로부터-안식일 날에 어떤 일을 하지 말라에 의해 표현된 것은 그들이 자아로부터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행해야 함이다.

예17:24-‘안식일에 일함’에 의해 자아로부터 있는 모든 것이 의미되어진다.

겔20:12, 출31:13-안식일은 인류와 주님의 결합을 표현했다.

출25:3-그러므로 ‘안식일에 불을 지피는’ 것이 금해진 이유는... ‘불을 지킴’=자아로부터의 생명 속에 있는 것.

출20:8-‘기억하라’=영원히 생각하고 있어야 함; ‘안식일’=최고 의미에서 신성과 주님의 신성한 인간과의 합일; 내적 의미에서 천국들 안에서 신성한 인간의 결합, 고로 그곳에서 선과 진리의 결혼. 이런 것들이 표현 교회에서 안식일에 의해 의미되었기에 그것은 가장 거룩했고, 생각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 즉 보편적으로 (우리 위에) 군림해야 하는 것이다.

출20:10-‘일곱째 날은 여호와 너희 하느님에게 안식일이다’=선이 뿌리박혔다, 고로 결혼; 그 이유가 ‘안식일’=천국적 결혼; 고로 선이 진리들을 통하여 이식되었다, 그리고 이후 이것들을 수단으로 만들어진다; 그 이유가 인간과 더불어 선은 그 선이 진리들에 의해 만들어질 때까지 영적 선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천국적 결혼이 있다; 그 이유가 이것이 선과 진리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과 더불어 천국 자체가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역시 ‘일곱째 날’= 거룩한 상태.

레23:11-‘안식일 이틀날’=선과 진리의 결합으로부터의 거룩한 것.

레23:39-‘첫째 날에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 안식하라’=진리가 선과, 선이 진리와 상호 결합함... 여덟째 날이 안식일이라 불리는 이유는 ‘8’이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

출31장-그다음 표현을 통하여 이 교회와 주님의 결합을 취급하고 있다; 이것이 ‘거룩하게 준수되어야 하는 안식일’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출31:13-‘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신성 자체와 주님의 인간의 합일에 관한 거룩한 생각은 변함없어야 할 것. ‘안식일’ 최고 의미에서=주님 안에서 신성 자체와 신성한 인간의 합일; 그리고 관계적 의미에서, 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주님이 천국과 결합함; 또한 천국과 교회의 결합; 그리고 일반적 측면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선과 진리의 결합... 이로부터 ‘여호와와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의해 위에 열거한 결합에 관하여 거룩하고 변함없는 생각을 지녀야 함이 의미되고 있다. 이것들이 교회의 참 본질이기엔 안식일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거듭 언급되고 있다.

출31:14-‘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예배되어야 한다는 것... ‘안식일’ 최고 의미에서=‘아버지’라 불리는 신성과 ‘아들’이라 불리는 신성한 인간의 합일, 고로 신성한 인간 안에 이 합일이 있다. 이런 연유에서 이 합일이 ‘안식일’에 의해 의미된다.

이58장-‘안식일’=인간이 주님과 결합하는 상태; 고로 인간이 자아에 의해서가 아닌 주님에 의해 인도될 때의 상태, 이 상태는 그가 선 안에 있는 상태이다. 그 이유가 자신이 아닌 주님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안식일로부터 받을 돌리는 것; 자기 자신의 의지들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것; 자기 자신의 길들을 가는 것이 아닌 것; 자기 자신의 바램을 찾지 않는 것; (사사로운)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 안에 합일이 있는 신성한 인간이라는 것이 ‘거룩함의 날’ 그리고 ‘여호와와의 거룩으로 유쾌함’이라 불리는 안식일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레24:8-안식일에 의해 합일이 들어 있는 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주님이 의미되는바, ‘얼굴들의 빵들이 매 안식일에 탁자 위에 배열해야 한다’라고 명령되어진 것이다; (그 이유가) 신성한 인간에 관련한 주님이 ‘빵’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또한 주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부르신다.

출31:14-‘안식일을 모독하는 것’, 또는 안식일 날에 일

안에 들어가다 -안으로 들이다 -안장-안전

을 하는 것=주님이 아닌 자아에 의해 인도되는 것; 고로 자신의 사랑들에 의해 인도되어지는 것.

출31:15-‘일곱째 날은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다’=선의 상태, 이것이 목적이다; 고로 인간이 교회가 될 때와 천국에 입장할 때이다.

출31:16-‘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손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교회 속의 본질 자체는 주님의 인간 안에서 신성 자체의 합일을 인정함 이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예배의 각각 그리고 모든 것 들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출35:2-‘일곱째 날에 너에게 거룩함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에게는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다’=인간 거듭남의 두 번째 상태, 이때 그는 주님과 결합을 가진다;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안식일 중의 안식일=주님의 인간이 신성 자체와 합일됨.

출35:3-‘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처소에서 불을 지피지 마라’=자아의 사랑, 즉 자아와 세상 속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인간 속에 있는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에는 나타나서는 안된다.

예17:24-‘안식일’=주님의 인간이 천국과 교회와 결합함.

이56:6-‘안식일’에 의해 주님이 천국과 교회, 고로 거기 있는 이들과 결합이 의미된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는 주님과 결합함 안에 있는 것이 의미된다.

겔46:1-(천국과 교회 안으로의) 입문은 사랑의 선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결과된다는 것이 ‘안식일 날에 (이 문이) 열릴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눅14:5-‘안식일에 구덩이로부터 나귀나 황소를 끌어내는 것’=만일 누군가가 거짓과 악 안으로 빠진다면 그는 안식일에 주님께 의해 가르쳐진 진리를 통하여 그것으로부터 꺼내져야만 한다...‘안식일에 끌어내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받은 가르침대로 자신을 가져다 놓는 것; 그이유가 여기서 ‘안식일’=교리와 가르침에 관련한 주님;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부르신다.

안에 들어가다 (go in)

들어감 (entrance)

창16:12-‘내 몸중 안으로 들어가라’=외면인 것과 결합함.

눅11:52-‘너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이들을 너희는 방해했다.’

마15:17-‘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글자 의미에서는 갖가지 종류의 식품이 의미된다...그러나 영적 의미에서는 기억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뜻해진다...그리고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 동시에 의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인간을 불결하게 만들지 않는다...

계15:8-‘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안으로 들이다 (introduce)

창19:10-‘그들은 집 안으로 자기들 쪽으로 롯을 안으로 들였다’=주님은 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선 안에 있는 그들은 천국 안으로 들어진다.

출13:11-‘여호와께서 가나안의 토지 안으로 너희를 데려올 때’=천국의 영역이 악과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해 점령되었다.

출15:17-‘너는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승강.

이58:7-‘괴로워하는 망명자들을 집 안으로 데려오는 것’=거짓들 안에 있어 슬퍼하는 이들을 고쳐주고 회복시키는 것.

이56:7-‘나는 그들을 내 거룩함의 산 위에 데려 올 것이다’=그분은 그들에게 사랑의 선을 수여하실 것이다.

안장 (saddle)

창22:3-‘그는 나귀에 안장을 엮었다’=그가 준비한 자연적 인간.

안전 (security)

겔16:49-그들이 그것들에서 습득한 것이 ‘안락의 안전함’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시4:8-‘안전하게 거주하게 만드는 것’=평화의 상태.

미2:8-‘안전하게 통과하는 이들로부터 코트를 벗기는 것’=단순한 선 안에서 사는 이들에게서 영적 진리들을 박탈하는 것.

레26:6-‘안전하게 드러누울 것이다, 아무도 너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고요함이 삶 속에 차있는 것, 악과 거짓이 소동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이32:17,18-‘영원한 안전’=악들과 거짓들로부터의 해

...안쪽에-앉다 -알가 -알다

침과 걱정이 없음...‘안전한 천막들’=거기로부터의 사랑의 선들 그리고 악들과 거짓들로부터 해침이 없는 예배.

이32:10-‘너희 걱정 없는 여인들’=교회가 황폐해진 것을 돌보지 않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탐욕들.

슌2:15-‘걱정 없이 거주하는 기쁨 넘치는 도성’=그들이 즐거워하고 쉼을 얻는 거짓인 것으로부터의 교리.

이47:8-‘안전하게 앉는 것’=그들의 제국은 견뎌내고, 그들은 멀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여 있는 것.

호3:18-‘나는 그들을 안전하게 드러롭게 만들 것이다’=(지옥으로부터 있는 악들과 거짓들로부터의 해침(의 중지).

...안쪽에 (within)

출25:11-‘안쪽으로부터 그리고 바깥쪽으로부터 너는 그것을 들썩워야 한다’=모든 곳에서.

계4:8-‘그것들은 안쪽에 눈이 가득했다’=...영적 의미와 천적 의미로부터의 말씀의 신성한 지혜.

계5:1-‘안쪽에 그리고 뒤쪽에 씌어진 책’=...모든 세부적 측면, 모든 일반적 측면에 있는 말씀; ‘안쪽’=세부적 측면...

앉다 (sit)

창21:16-‘하갈은 스스로 앉았다’=생각하는 상태.

창27:19-‘앉는 것’은 고요함의 어떤 것을 내포한다.

창31:34-‘그녀가 그것들 위에 앉았다’=그들은 내면적이다는 것.

창48:2-‘그는 침대 위에 앉았다’=자연 평면 쪽으로 돌아가지는 것.

창49:24-‘그는 자기 활의 힘 안에 앉을 것이다’=교리 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싸움으로 안전함. ‘앉는 것’=안전함

출16:3-‘고기 가마 옆에 우리가 앉았는데’=그들의 쾌락에 따른 생활.

출24:14-‘이 안에 우리가 앉자’=외적 의미에 남아 있는 것.

계3:21-‘그분의 왕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것’=천국 안에서 그분과 결합하는 것.

계4:8-‘왕좌 위에 앉으신 그분’=심판 측면에서의 주님.

계6:2-‘그 위에 앉은 그 사람’=사람 천사.

계14:14-‘구름 위에 앉은 그분’=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계17:1-‘많은 물들 위에 앉은 매춘녀’...‘그것들 위에 앉는 것’=그것들에서 존재하고 사는 것.

계19:4-‘왕좌 위에 앉은 (분)’=천국의 하느님과 우주의 심판관으로서의 주님.

계19:11-‘흰 말 위에 앉은 그분’=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시1:1-‘앉는 것’은 의지로부터의 생명, 고로 생명의 있음(esse of life)에 대한 표현이다.

예3:2-‘길에 앉는 것’=잠복하여 기다리는 것.

알가 (Arkite)

* 여부스족을 참조..

알다 (know)

인식 (knowledge)

인식력이 있는 (cognitive)

창3:7-‘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다’=그들은 자기들이 이전 같이 순진 안에 있지 않고 악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인정했다.

창4:1-‘사람이 이브 그의 아내를 알았다.’

창4:17-‘가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다.’

창19:5-‘우리로 그들(천사들)을 알게 하라’=그들은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

창19:8-‘그들은 남자를 알지 않았다’=거짓이 그들을 오염시키지 않았다.

창24:6-‘남자가 그녀를 알지 않았다’=모든 거짓으로부터 순수한.

호4:1-‘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신앙의 진리의 유입을 받음이 없다.

민31:17-‘남자를 알았던 여인들’=거짓에 대한 애착들.

출2:4-‘그에게 무엇이 있으려나지를 아는 것’=관찰.

출2:25-‘하느님께서는 지식을 받아들이셨다’=그분께서는 선행을 수여하셨다는 것.

출6:7-‘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주님이 유일한 하느님을 통각함. ‘아는 것’=통각.

출7:5-‘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그들은 신성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것이다.

출16:6-‘저녁에 너희는 알 것이다...’...‘아는 것’=밝히

알락해오라기-알을 품다

이는 것.

출16:12-‘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그들은 주님이 유일한 하느님임을 알 것이다.

출29:46-‘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느님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모든 선과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있음을 지각하는 것.

신8:5, 예22:16-‘이는 것’, 적당한 의미에서,=선으로부터 지각하는 것, 하여, ‘그것은 심정으로부터 알아진다’라고 말해지고, 선인 것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 불리운다.

이41:20-‘그들이 보고, 그리고 아는 것’=지식들, 그리고 이해함...

애4:8-‘거리들에서 알려지지 않는 것’=진짜 진리들을 수단으로 인식되어지지 않는 것.

창18:19-‘내가 그를 알았기 때문에’=그것이 참이다는 것.

출1:8-‘요셉을 알지 못했던’=내적 측면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것.

출3:7-‘나는 그들의 슬픔들을 알았다’=그들이 거짓들에 얼마나 침수되어있는지를 미리 아심.

출3:18-‘그리고 나는 안다’=예견.

출5:2-‘나는 여호와를 모른다’=그들이 주님께 관심이 없다.

출6:3-‘내 이름 여호와로는 내가 알려지지 않았다’=시험의 상태에서 그들은 교회의 신성한 것들을 생각지 않았다.

출33:13-‘저로 하여금 당신의 길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저로 당신을 알게 하소서’=그들의 품질에 관련하여 신성에 관한 가르침.

계7:14-‘주여, 당신은 아신다’=주님 만이 이것을 아셨다는 것.

신1:13,15, 출31:3, 35:31-...고로 이성을 통하여 기억 속에 있는 것, 즉 과학물들이 생기있어 진다. 이것의 생명의 질서이고, 이와같은 것이 천적 인간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원로들은 천적 인간들을 표현했는바, 그들은 ‘슬기롭고, 총명하고 아는 게 많다’고 불리운다. 브살렐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해진다. ‘그는 지혜에서, 총명에서, 지식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영으로 채

워졌다.’

창3:5-‘그들은 선과 악을 앞에서 하느님 같이 있을 것이다’=만일 그들이 자신들로부터 이것을 행했다면 그들이 하느님 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

예51:17-‘모든 사람은 지식을 수단으로 어리석게 만들어진다...’

창3:22-‘사람은 선과 악을 알았다’=그는 천적 수준이 되었다, 고로 슬기롭고 총명해졌다.

알락해오라기 (bittern)

습2:14-이 거짓, 그것이 예배되어지기 때문에, 불리우기를.. ‘가마우지와 알락해오라기가 석류(나무)에서...’

이34:11-‘가마우지’, ‘알락해오라기’, ‘부엉이(night owl)’, ‘까마귀’=말씀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이 어떤 효력도 내지 않을 때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거짓들.

이14:23-‘나는 그것을 알락해오라기를 위한 상속분으로 놓아둘 것이다.’

습2장-‘석류나무에 있는 가마우지와 알락 해오라기’=선의 과학물에 있는 악의 거짓들.

습2장-‘가마우지와 알락해오라기’=생각과 지각 속의 거짓.

습2장-‘양떼들’, ‘나라의 들짐승’, ‘가마우지와 알락해오라기’=거짓에 대한 애착들, 그리고 내, 외면의 거짓 자체.

알을 품다 (brood)

창1:1-‘하느님의 영’은 주님의 자비를 뜻한다, 이 자비는 ‘알을 품는 것’이라 단언된다, 마치 암탉이 자기 알들을 품는 것 같이, 주님의 자비는 그분께서 인간 안에 저장해두신 것들, 즉 ‘아껴두신 것들(remains)’을 마치 암탉이 자기 알들을 품는 것 같이 품으신다.

레23:10-18, 신16:9-12-‘흔들어 움직임(waving)’=생기 있게 함. 그이유가 인간과 더불어 있는 진리들은 그것들이 선 안에 있을 때 까지 살아있지 않기 때문. 곡식단을 흔들어 움직이게 한 성직자, 곧 진리로부터의 선들을 생기 있게 한 성직자는 주님을 표현하였다, 그이유가 모든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있기 때문.

신32:11-진리들을 가르침, 거짓들로부터 보호함,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내면들을 염, 하여 그들은 천국의 빛

알파-암몬

안으로 오고, 고로 총명인 선과 진리를 이해함 안으로
옴이 '독수리가 높은 곳에 있는 자기 둥지에서 알을 품어 새끼를 만들고, 자기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나른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이8:8-'드넓게 파닥거림'=진리들에 맞서 거짓들로 추론함.

알파 (alpha)

이41:4, 44:6, 48:12, 계1:8,11,17, 2:8, 21:6, 22:13-
끝(end)은 모든 것들에서 전부이다, 따라서 창조된 것들의 질서는 이리하다. 끝은 첫째로부터 중간 매체를 통하여 최말단에 관계를 가지듯, 최말단 안에 있는 끝은 첫째 안에 있는 끝과 관계하고 있다. 이 사실에서 사물들의 연결이 있다. 첫 근원 안에 있는 끝 자체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밖에 더 아니다. 고로 주님 자신이다, 이로부터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불리신다.

계1:8-'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첫 원리로부터 최말단 까지에서 스스로 자아(Self)이시고 유일한(Sole) 분, 이 분으로부터 만물은 존재한다. 이 분은 스스로 유일한 사랑, 스스로 유일한 지혜, 스스로 유일한 생명 자체, 스스로 유일한 창조자, 구세주, 자신으로부터의 예증자, 천국과 교회의 모든 것에서 전부이다.

* '알파와 오메가'는 그분의 신성한 사랑에, '시작과 끝'은 그분의 신성한 지혜와 관계되고 있다.

*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불리시는 이유는 알파는 그립 알파벳에서 첫 음절(syllable), 오메가는 마지막 음절이기 때문. 이로부터 이 음절은 복합체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계21:6-'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그들은 주님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다는 것, 천국들과 땅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그분의 신성한 섭리를 통하여 규율되어 진다는 것을 알 것이다.

계1:8-'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그분은 첫 원리로부터 최말단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천국의 모든 것도 영원히 규율하신다.

암몬 (Ammonite)

신23:3-'암몬족과 모압족은 여호와의 집회에 오지 않

을 것이다. 그들의 열 번째 세대조차도 여호와의 집회에 오지 못할 것이다.' '암몬과 모압'=신앙으로부터의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독함.

창19:38-교회 비슷한 어떤 것이 임신되고 출생되어졌는데, 이때 이 교회 속의 선 같은 것이 '모압', 진리 같은 것이 '암몬의 아들들'이라 불린다.

창19:38-'동생인 그녀도 아들을 낳았다'=이 교회 속의 왜곡된 진리. '그리고 그의 이름을 벤암미라 불렀다'=그것의 품질. '그는 오늘날까지 암몬의 아들들의 아버지이다'=이 때로부터 이와같은 것이 오고 있다는 것.

단11:41-'그의 손으로부터 잡아채지는(구해지는)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의 아들들의 첫 열매들'=거짓들 가지고 더럽혀지는 것이 아직까지는 아닌 선 안에 있는 이들, 그러므로 그들은 '암몬의 아들들의 첫 열매들'이라 불린다.

신2:21-'이로부터 이리한바...'암몬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삼숨뱀이라 불렀던 르바임을 몰아냈다.' 여기서 '모압', 그리고 '암몬의 아들들'이란 악과 거짓의 설득에서 아직까지는 악과 거짓이 침투하지 않은 이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악과 거짓에 먹히었을 때, 즉 그들의 선이 거짓들로 더럽혀졌을 때, 몰아내졌다.

이11:14-그들이 쉽게 길을 잃었기 때문에, 모압은 '불레셋이 손을 내밀음', 그리고 '암몬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순종함'이라 불리고 있다.

시83:6,7-'에돔의 천막들, 이스마엘족,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외향의 예배와 외향의 교리 속에 있는 이들.

단11:40,41-'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의 아들들의 첫 열매들...'에돔=단순한 선 안에 있는 이들, 이 선은 주님의 교회의 바깥쪽을 형성하는 선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압, 그리고 암몬의 아들들'이다.

예49:1-'암몬의 아들들'=진리들을 왜곡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이들.

* (말씀에서 일반적으로) '암몬의 아들들'=진리에 섞음 질함.

예49:3-이 구절은 암몬의 아들들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교회의 진리들을 왜곡하는 이들.

암사슴-암사자-암소-암송아지-압박하다 -압살롬-(,..)에 앞서다 -애착

암사슴 (hind)

* 수사슴 (stag)도 참조.

창49:21-‘풀어 놓은 암사슴’=시험 후에 존재하는 자유한 상태에서 진리에 애착함 ...

합3:19-‘암사슴들의 발 같게 발을 놓는 것’=애착들의 자유함에서 있는 자연 평면.

예14:5-‘암사슴’=자연적 선에 애착함 ...

시29:9-‘여호와와 음성 때문에 출산하는 암사슴들’=자연적 선 안에 있는 이방인들.

암사자 (lioness)

겔19:2-‘암사자’=교회의 진리들을 뒤집는 악으로부터의 거짓.

암소 (cow)

민19:2-‘붉은 암소들’

창41:2-‘올라온 일곱 암소’=자연 평면의 진리들.

창41:3-‘강으로부터 그것들 뒤를 따라 올라온 일곱 다른 암소들(kine)’=자연 평면으로부터 있는 거짓들.

삼상6:10-‘암소(kine)’=선한 자연적 애착들...‘길에서 암소의 울음소리’=자연적 인간의 악으로부터의 현세에 의 욕망이 선한 애착들로의 전환에 힘들어하는 것. 태워 바침을 위해 마차와 더불어 암소를 제물로 바침=고로 주님이 화해되어지심.

암4:2-말씀과 예언들을 가졌기에 지식이 풍부한 이들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암송아지 (cow-calf)

* 송아지(calf)를 보라.

압박하다 (oppress)

예21:12-‘압제자의 손으로부터 약탈된 것을 구해내는 것’=선행의 선을 행하는 것.

시146:7-(주님에 의해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선으로 인도되는) 이들로부터의 열마가 ‘압제된 자’라 불리운다.

출3:9-‘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압박하는 꺾박을 보았었다’=복종하도록 끈질기게 애쓰기 때문에.

출22:21-‘체류자를 너는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 압박하지 마라’=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은 해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괴롭히는 것’=거짓들을 가지고 피해

를 입히는 것. ‘압박하는 것’=악을 가지고 피해를 입히는 것.

시119:134-‘사람의 압제로부터 구속하는 것’=악의 거짓들로부터 구해내는 것. ‘사람의 압제’=거짓들을 통하여 진리를 파괴함.

이52:4-‘쓸데없이 압박하는 것’=왜곡시킴.

시66:11-‘허리를 압박함’에 의해 사랑의 선에 대한 지각이 없다가 의미되어진다.

시146:7-‘압박당한 자를 위해 누가 판결을 하는가?’ ‘압박당한 자’가 여기서는 무지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그들의 압박은 거짓들에 있는 영에 의해서 이다.

이30:20-‘압박의 물들’에 의해 신앙의 진리들에 관계되는 시험들이 의미되어진다.

이19:20-‘그들은 압박들 때문에 여호와께 외칠 것이다’=진리의 결핍, 이로부터 영적 선의 결핍 때문에 그들이 슬퍼함.

예1:33-‘압제당한 자’라 불리우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는 나라들이다...

압살롬 (Absalom)

* 압살롬= 말씀의 글자 의미, 이는 반역적이다.

(...에)앞서다 (percede)

* ‘판결’이 앞설 때=신앙을 통하여 있는 사랑. 그러나 ‘정의’가 앞설 때=사랑으로부터 있는 신앙

애착 (affection)

창16:1-‘이집트인 몸종’=과학적인 것에 대한 애착.

마5:29, 18:9-‘왼쪽 눈’=지적인 것, ‘오른쪽 눈’=어떤 것에 대한 애착. ‘오른쪽 눈을 빼냄’=애착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다면 그 애착은 반드시 정복되어야 할 것.

창21:21-‘(이스마엘을 위해)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아내를...’=영적 교회인이 가지는 과학적인 것에 대한 애착.

창24:61-‘리브가의 소녀들’=섬기는 애착들. 그이유가 ‘소녀들’=순진이 있는 애착이기 때문.

창27:19-‘일어나시고, 앉으시고, 잡수십시오’=이와 같은 선에 애착함으로부터의 진리.

창29:24-‘질바 몸종’=바깥쪽 애착들, 또는 바깥쪽 묶

(선애) 애착함-(진리에) 애착함

임들, 이것은 도움이 되는 수단들이다.

창29:29-'빌하 몸중'=외면의 애착들, 이것은 묶음들, 도움이 되는 수단들이다.

창30:2-'화를 냄'=분개함인 이유는 모든 자연적 애착은 그것이 내면의 것을 향하여 승강할 때, 또는 그것이 천국적 애착으로 바뀔 때 온화해지기 때문.

창30:4-'여중', 또는 '몸중'=외면의 인간에 속하는 지식들에 대한 애착. 이 애착은 자연적, 또는 바깥쪽 진리들과 내면의 진리들이 결합하는 수단이다.

* 레아=바깥쪽 인간의 애착, 라헬=안쪽 인간의 애착.

창30:13-'아셀'=영원한 생명의 행복에 상응하는 애착의 기쁨...인간이 이 기쁨, 또는 애착을 지각하기 시작할 때, 그는 교회가 되기 시작한다.

예12:12-'평화가 없다'=선한 애착함이 없다.

창30:38-'그것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올 때 흥분하였다'=그것들이 결합하려 애착이 열심임. '마시기 위해 오는 것'=진리에 애착함 이다.

창30:41-'홍분이 일어나는 것'=애착의 열의와 결과.

창31:23-'형제들'=비슷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즉 선과 진리에 대한 비슷한 애착 안에 있는 이들.

창32:30-'얼굴들'=생각들과 애착들

창33:4-'껴안는 것'=애착.

창33:10-'아닙니다, 바라옵건대'=애착의 근원, 그이유가 선물을 받기를 거절함이 애착을 은근히 심어주고 있기 때문.

창40:7-'오늘은 당신들의 얼굴이 좋지 않은데 어찌된 일입니까? '=애착으로부터 슬픔이 있다.

창46:19-'라헬의 아들들'=천적 애착으로부터 있는 것.

창46:26-'야곱의 아들들의 여인들'=이 결혼으로부터가 아니었던 애착들.

창49:20-'아셀'=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선행 속에 있는 천국적인 애착들의 기쁨.

창49:21-'풀어놓은 암사슴'=자연적 애착이 자유함.

출4:14-'그리고 그는 내심 기뻐할 것이다'=사랑의 애착, 그이유가 모든 즐거움은 사랑의 애착으로부터 진행하기 때문.

출15:27-'그들은 엘림에 왔다'=예증의 상태와 애착의 상태, 고로 시험 후 위로의 상태.

삼상15:33-'네 칼이 여인들을 빼앗았다'=그들의 거짓이 선한 애착에 폭력을 휘둘렀다. '네 어머니는 다른 여인들 보다 더 빼앗길 것이다'=악한 애착이 지성으로부터가 아닌 자발적 측면으로부터 더 득세 할 것이라는 것.

출21:25-'대움을 위하여서는 대움을'=만일 (그들이) 의지 측면에서 내향적으로 사랑 속에 있는 애착의 어떤 것에 (상처를 줄 것이다면).

출21:25-'상처에는 상처를'=만일 (그들이) 의지 측면에서 외향적으로 사랑 속에 있는 애착의 어떤 것에 (상처를 입힌다면).

출21:25-'강타함을 위하여는 강타함'=만일 지적 측면에서 애착의 어떤 것이 상처받아진다면.

출22:5-'불이 나게 될 때'=악인 것의 애착으로부터의 분노.

이17:10-'기쁨들의 식물들을 심는 것'=애착들을 좋아하는 어떤 것들.

출34:8-'성급해지는 것'=애착, 여기서는 유입을 통하여 받음, 그이유는 신성으로부터의 모든 유입은 인간의 애착에 놓여지기 때문.

계4:7-'두 번째 동물은 송아지 같다'=애착에 관련하여 말씀의 신성한 진리...'송아지'=앞에 대한 애착.

계5:8-'성인들의 기도'=영적인 선들과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과 더불어 선행 속에 있는 애착들로부터 신앙 속에 있는 생각들. 향기로운 냄새는 선하고 참인 것에 대한 애착과 상응한다.

계11:18-'보상'=사랑, 그리고 선과 진리에 애착함의 즐거움과 기쁨으로부터 일어나는 영원한 생명의 행복.

계18:22-'하프 연주자들, 음악가들, 그리고 피리부는 사람들의 음성이 더 이상 너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진리와 선에 대한 어떤 영적 애착도 그들과 더불어 있지 않을 것, 또는 그들로부터 천적인 어떤 애착도 있지 않을 것.

(선애) 애착함 (affection of good)

(진리에) 애착함 (affection of truth)

창17:17-'그는 웃었다'=진리에 애착함.

창19:19-'은총'=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부끄러이여김. '자비'=선애 애착함으로부터 부끄러이여김.

창19:22-'소알'=선애 애착함, 즉 과학의 선애 애착함,

(선) 애착함-(진리에) 애착함

즉 진리에 애착함. '소알'은 '작다'를 뜻한다, 진리에 애착함에 있는 이들은 선에 애착함에 있는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리를 적게 가지고 있다. 그이유는 그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

창19:26-'소금'=진리에 애착함. 반대 의미에서 진리에 애착함이 황폐함, 즉 진리에 있는 선이 황폐함.

창19:31-'롯의 큰 딸' 첫 출생=이런 선에 애착함. '작은 딸'=이런 거짓에 애착함.

겔23:4-'사마리아'는 진리에 애착함에서 있는 교회. '예루살렘'은 선에 애착함에서 있는 교회이다.

창20:1-'가데스'는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진행되는 내면의 진리에 애착함, 그리고 '수르'는 과학적인 것들로부터 진행되는 외면의 진리에 애착함이다.

창20:5-'깨끗한 손', 이는 진리들에 관련해 서술되는바, 이 손은 진리들 안에 선이 있지 않으면, 즉 진리에 애착함이 있지 않으면 깨끗해 있을 수 없다.

창21:21-'(이스마엘의) 어머니'=진리에 애착함, 그 이유는 '어머니'=교회, 그리고 여기서 표현된 교회는 영적 왕국의 교회, 즉 진리에 애착함에 있는 교회, 그리고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의 교회, 그러므로 여기서 '어머니'에 의해 이 애착이 의미되고 있다.

창49:11-'암나귀'=자연적 진리에 애착함.

마21:1,2,4,5,7-'암나귀'=자연적 선과 진리에 애착함. '암노새'=합리적 진리에 애착함.

창22:23-'브드엘이 리브가를 낳았다'=선으로부터 있는 그들의 진리에 애착함.

삼상2:35-'혼'=진리에 애착함. '영'=선에 애착함.

이32:6-'혼'=선에 애착함 과 진리에 애착함 의 생명.

예31:12,25-'혼'=심정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 그 이유는 심정으로부터 있지 않은 진리에 애착함도 있기 때문이다.

* '라반'은 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에 애착함이다.

* '딸들', '시온의 딸' 같이 선과 진리에 애착함들이다.

창24:7-'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거기로부터 여인을 데려올 것이다'=진리에 애착함이 참으로 거기로부터 있는데 그러나 새로운 근원으로부터 이다는 것.

창24:8-'만일 여인이 저를 따라 오지 않겠다면'=만일 진리에 애착함이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합리적

인 것과 결합하지 않겠다 하면.

창24:9-'낙타들'=자연적 인간에 있는 일반적 과학적인 것들, 이로부터 합리성에 있는 선에 애착함 안으로 가입되어지는 진리에 애착함이 있다.

창24:13-'성읍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으러 나왔다'=진리에 애착함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한 가르침. 진리들을 통하여 혼유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진리에 애착함들을 통하여 혼유된다.

* 선에 애착함, 그리고 진리에 애착함이 '유아들', '소년들', '처녀들', '딸들'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상태에 관해서 차이는 모든 곳에서 있다. 즉 '딸'이 언급될 경우, 일반적인 애착이, '처녀'일 경우, 선행이 있는 애착이, '소년'이 언급될 경우, 순진이 있는 애착이 의미된다.

창24:15-'오, 리브가가 왔다'=교리적인 것들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

창24:20-'그리고 그녀는 샘으로 다시 달려갔다'=진리에 대한 보다 수준 낮은 애착.

창24:22-'(리브가의) 손'=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의 힘.

창24:24-'브드엘'=직바른 이방인과 더불어 있는 선행의 선. 리브가가 표현하는 진리에 애착함의 참 근원은 이런 선으로부터 었다.

창24:29-'리브가의 형제'=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에 애착함. '형제'=선애 애착함, '자매'=진리에 애착함.

창24:30-'라반은 샘으로 이 사람에게 달려갔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안으로 개시된 진리를 향한 선애 애착함의 성향.

창24:53-'은그릇, 금그릇'이 여기서 언급되는데, 그이유는 그것들이 리브가인 진리에 애착함에 관련되기 때문.

창24:53-'그리고 그는 리브가에게 주었다'=그때 당시 진리에 애착함에 속해 있었다는 것, 그이유가 '은그릇'을 수단으로 진리에 애착함이 신부로서 묘사되기 때문.

창24:56-'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로 지체하지 않게 하소서'=선애 애착함의 의지.

창24:57-'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에 물어봅시다'=진리에 애착함 만으로 동의함.

창24:59-'그들은 그들의 누이 리브가를 보냈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분리함.

창24:60-'너 우리의 누이는 천만인을 위해 있을 것이

(선) 애착함-(진리에) 애착함

다=진리에 애착함의 결실이 풍부함.

창24:61-'리브가는 일어났다'=합리성으로 진리에 애착함이 승강함,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분리함.

창24:64-'리브가는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삭을 보았다'=진리에 애착함의 상호적인 의도.

창24:64-'그녀는 낙타에서 내렸다'=자연적 인간에 있는 과학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함. 진리에 애착함은 그것이 과학 속이 아닌 생명 속에 있을 때 자연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진다.

창25:27-'사냥에서 숙련된 사람'=진리의 애착 안에 있는 이들.

* '사냥하는 것'은 진리, 또는 거짓 양쪽 의미로부터, 그 의미에서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

창27:1-'그는 그의 큰 아들 에서를 불렀다'=자연적 선 또는 생활의 선에 애착함. 자연 평면에서 선에 애착함, 고로 생활의 선은 '큰 아들'이라 불리고, 진리로부터의 교리는 '작은 아들'이라 불리고 있다.

창27:5-'에서는 사냥하러 들판으로 갔다'=진리를 포획하려 선에 애착함이 노력함. '에서'는 자연에 있는 선, 이로부터 그는 자연에서 합리적 선에 애착함이다.

창27:6-'나는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신성한 합리성의 신성한 선이 선에 애착함에게 말했다.

창27:15-'그녀는 그것을 그녀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진리에 애착함, 또는 진리로부터 있는 선의 삶.

창27:17-'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이와같은 것이 자연적 진리에 애착함이었다.

창27:37-'나는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의 종으로 주었다'=그 당시 선에 애착함은 진리에 애착함에 외관상 종속되어 있게 되었다.

창27:42-'그녀는 그녀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말했다'=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유입됨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이 지각함.

창27:43-'내 오라비 라반에게 하란으로 도망하여라'=바깥쪽 또는 육체적 선에 애착함으로.

창27:46-'헛의 딸들'=순수하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 또는 같은 것으로서 진리. 그 이유가 애착 없이 진리는 결합되지 않기 때문.

창28:6-'거기에서 여인을 데려오는 것'=진리에 애착함을 통하여 결합.

창28:8-'에서는 가나안의 딸이 자기 아버지의 눈에서 악이었음을 보았다'=자연적 선이 지금까지 결합해왔던 진리에 애착함은 결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예견하시고 섭리하심.

창29:10-'야곱이 라헬을 보았을 때...'=근원적 측면에서 진리에 애착함을 인정함.

창29:17-'레아의 눈은 약했다'=이해함에 관련하여 바깥쪽 진리에 애착함은 허약하다.

창29:21-'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나에게 나의 여인을 주시오'=공통의 선으로부터 내면의 진리에 애착함과 더불어 결합.

창29:23-'그는 그의 딸 레아를 데려왔다, 그리고 그에게 그녀를 데려다 주었고, 그는 그녀에게 왔다'=아직까지는 바깥쪽 진리에 애착함과 더불어서만 결합이 있다는 것.

창29:26-'큰 딸에 앞서 동생을 주지 않는다'=외적 진리에 애착함은 내면의 진리에 애착함에 선행되어야 한다.

창29:28-'그리고 그는 그에게 여인으로 그의 딸 라헬을 주었다'=내면의 진리에 애착함과 선이 그당시 결합함.

창29:31-'레아는 미움받았다'=바깥쪽 진리에 애착함은 친애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성으로부터 더 멀기 때문.

창30:3-'그녀로 내 무릎에 아이를 낳게 하자'=내면의 진리에 애착함을 수단으로 인정함, 이로부터 결합이 있다.

창30:38-'마시러 오는 것'=진리에 애착함.

창31:4-'야곱은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렀다'=선을 수단으로 진리에 애착함들이 인접함.

창31:14-'라헬과 레아는 대답했다'=진리에 애착함들의 상호성.

창31:17-'그는 그의 아들들과 그의 여인들을 낙타 위에 들어올렸다'=진리들의 승강 그리고 진리에 애착함의 승강 그리고 일반적 원리들에서 배열함.

창31:26-'너는 내 딸들을 끌고 가버렸다'=전과 같은

(선) 애착함-(진리에) 애착함

진리에 애착함이 없다.

창31:41-'십사 년은 두 딸들 때문에'=첫 시기, 그가 자신을 위해 진리에 애착함들을 획득하는 기간.

창31:50-'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해하고 내 딸들을 제치고 여인을 데려온다면'=진리에 애착함들은 교회 내에 남아 있을 것..'여인'=순수하지 않은 진리에 애착함, 고로 교회 속에 있지 않는 것, 그이유가 진리에 애착함이 교회를 설립해주기 때문.

창31:55-'그는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키스했다'=이런 진리들을 인정함, 같은 진리에 애착함을 인정함.

마24:32-'무화과 나무'는 자연적 선이다, '가지'는 그것에 대한 애착이다.

창32:22-'그는 그 밤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두 여인, 그리고 그의 두 몸종, 그리고 그의 열한 명의 아들들을 데려왔고, 압복 나무를 건넜다'=획득된 진리들과 더불어 진리에 애착함이 처음 은근히 심어짐.

마24:41-'갈고 있는 그들'=선에 애착함으로부터(또는 악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교회 내의 사람들

출11:5-'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첫 출생'=이런 진리에 애착함, 이로부터 거짓들이 온다.

창33:1-'그는 레아에게 ,,아들들을 나누었다'=그들 자신의 애착 아래 바깥쪽 진리들을 배치함.

창33:1-'그리고 라헬에게...'=그들 자신의 애착 아래 내향의 진리들을 배열함.

창33:1-'하녀들에게...'=과학과 지식들에 대한 애착. '레아'는 보다 더 바깥쪽 진리에 애착함, 그리고 '라헬'은 보다 더 내향의 진리에 애착함.

창33:7-'레아와 그의 아들들이 가까이 나아왔다 그리고 자신을 구부러 절했다'=보다 더 바깥쪽 것에 관하여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 그리고 그것들의 복종적인 소개.

창33:7-'그 뒤에 라헬과 요셉이 나아와서 자신을 구부러 절했다'=보다 더 내향의 것들에 관하여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과 복종적인 소개.

창33:9-'에서가 말했다,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 내 형제여, 네 것은 네게 있게 하라'=무언의 받아들임, 고로 그가 진리로부터 선에 애착함을 은근히 심어지게 하려

고.

창33:10-'만일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내 손으로부터 내 선물을 받으십시오'=그것이 은근히 심어지도록 하는 상호적인 애착.

창33:11-'그는 그에게 강권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져갔다'=이 애착이 신성한 선으로부터 영감된 애착을 통하여 진리의 선으로부터 은근히 심어졌다는 것.

창34:1-'디나'=모든 진리에 애착함,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교회.

창34:26-'(시므온과 레위는) 세겔의 집으로부터 디나를 데리고 떠났다'=그들은 태고 교회의 잔류에 해당하는 이들로부터 진리에 애착함을 거두어가기 때문에.

* '여성', '여인', 그리고 '아내'=그들의 결혼한 파트너가 언급될 경우, 또는 그가 남편이라 불리울 경우, 진리에 애착함.

창34:27-'그는 우리의 누이를 창녀로 만들었다'=그들은 애착이 없었기 때문에. '디나', 더럽혀지고 창녀로 만들었을 때=거짓들에 대한 애착, 고로 부패한 교회, 고로 그들은 더 이상 진리에 대한 어떤 애착도 가지지 못했다.

창35:19-'라헬이 죽었다'=내면의 진리에 대한 이전 애착의 끝.

창36:2-'에서는 그의 여인을 가나안의 딸들로부터 데려왔다'=자연적 선이 외관의 진리에 애착함과 첫 결합.

창36:3-'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비웃의 누이 바스맛'=자연적 선이 신성한 지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과 두 번째 결합.

시126:5,6-'노래하며 오는 것'=진리에 애착함의 즐거움.

레21:13,14-'성직자가 결혼하는 '처녀'는 진리에 애착함을 표현했다.

겔44:22- '성직자의 과부'=선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

계4:5-'불로 타고 있는 일곱 등불'=선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들, 이것은 선 안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 피해를 준다.

창45:19-'여인들'=진리에 애착함.

시45:13,14-'왕의 딸'=진리에 애착함 .

창48:7-'베들레헴인 것'=이전 것 대신에 선에 대한 새

(선) 애착함-(진리에) 애착함

로운 애착과 진리에 대한 새로운 애착의 상태.

창48:10-'그는 그들에게 키스했다'=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결합.

창49:15-'짐을 떼기 위해'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선에 애착함으로부터 선한 것을 행치 않기 때문, 고로 자유로부터가 아닌바, 노예인 자아에 대한 애착으로부터이기 때문.

창9:16-'단'은 진리로부터 생활의 선 안에 있는 이들, 그러나 아직 선으로부터는 아니다. 그들과 더불어 선은 마치 깊숙이 저장되듯 감추여 놓여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에 애착함을 주고 있다.

시42:1-'수사슴(hart)'=진리에 애착함.

예1:6-'시온의 딸'=천적 교회 속에 있는 선에 애착함.

예14:4,5-'암사슴(hind)'=자연적 선에 애착함.

창49:25-'가슴들'=선과 진리에 애착함들.

눅11:27,28-진리에 애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과 더불어 있고, 선에 애착함은 '간직하고' '그것을 행하는' 이들과 더불어 있다.

창50:1-'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얼굴 위에 엎드려졌다'=(영적) 선에 애착함 안으로 내적인 것이 유입됨.

출3:22-'여인들은 그의 이웃에게 물을 것이다...'여인'=선행의 선에 애착함...'이웃'=과학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이 가지는 진리에 애착함.

출15:20-'소구'는 영적 선에 애착함, 또는 진리의 선에 애착함을 서술하고 있다...'춤은 영적 진리에 애착함을 서술하고 있다.

출15:23-'그들은 물을 마실 수 없었다, 물이 쓴맛이었기 때문이다...'=진리들이 그들에게 유쾌하게 보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선에 애착함이 없었기 때문...진리에 애착함이 선으로부터 그것의 근원이 파생되는 이유는 선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는 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출20:14-'남종'=영적 진리에 애착함. '여종'=영적 선에 애착함. '황소'=자연적 선에 애착함. 그리고 '나귀'=자연적 진리에 애착함.

출21:7-'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 때'=자연적 기쁨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

출21:7-'남종'=애착 없이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출21:7-'만일 그녀가 그의 주인의 눈에서 악하다면'=

만일 자연적 기쁨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이 영적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출21:9-'그는 딸들의 판단에 따라 그녀에게 행할 것이다'=그것은 진리에 대한 순수한 애착으로 있을 것이다.

출21:10-'만일 그가 자신에게 또 다른 (여자)를 취한다면'=또 다른 지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과 결합함.

마5:39-'불(뺨)'=내면의 진리에 애착함, '오른쪽 뺨'=선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

출21:25-'상처'=지적 측면에 있는 애착, 즉 진리에 애착함에 피해를 줌, 또는 소멸시킴.

눅10:30-35-'사마리아인'에 의해 진리에 애착함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고 있다.

출21:26-'남종의 눈'=진리에 애착함.

출21:27-'만일 그가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두들겨 부러뜨렸다면'=만일 그가 감각적 인간에 있는 진리, 또는 진리에 애착함을 파괴할 것이라면.

출23:11-'양떼 속에 있는 짐승'=내향의 선과 진리에 애착함, '목축 속에 있는 짐승'=외향의 선과 진리에 애착함, 그러나 '야생 동물'은 가장 외향의 진리 속에 있는 애착.

호9:13-15-'마른 젓가슴'=선과 진리에 애착함이 없음, 그 대신 그것들을 악용하는 탐욕이 있음.

출30:23-'향기 높은 옥계'=자연적 진리에 애착함과 지각함.

출30:34-'너에게 향신료를 가져오라'=신성한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

출30:38-'그것을 가지고 향기를 만들기 위해 그것 같이 만든 사람'=자신의 것으로부터 진리와 선에 애착함을 통하여 신성한 예배를 흥내냄.

계2:19-'처음 보다 나중이 더 위대하다'=선행 속에 있는 것, 즉 진리에 대한 영적 애착으로부터 그것들이 증가함.

계3:19-'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이것은 거짓을 싫어하고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행해져야 할 것.

계7:7-'레위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되어졌다'=선으로 진리에 애착함, 이로부터 주님의 새로운 천국과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에게 총명이 온다.

계9:8-'그들은 여인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다'=

야곱

그들은 진리의 애착 안에 있는 듯 하게 자신들을 나타내 보였다.

계19:17-‘나는 태양에 서있는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큰 음성으로 소리쳐, 천국의 한가운데에서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라, 그리고 네 자신들을 큰 하느님의 만찬으로 오라’=신성한 사랑으로부터, 그리하여 신성한 열정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영적 애착 안에 있고 그리고 천국에 관하여 잘 생각해보는 모든 이들을 새 교회에, 그리고 그분 자신과 결합하도록, 고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부르시고 소집하신다.

야 (Jah)

출15:2-‘(나의) 노래는 야 이다’=신앙으로부터의 모든 것, 파생되는 영광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로부터 이다.

시68:4, 시118:5-19-‘야’=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인 이유는 ‘야가 여호와’로부터 있기 때문, 그리고 그것이 ‘야라 불리운 이유는 그것이 실재(있음, Esse)이 아닌 실재로부터의 실체(나타남, Existere)이기 때문. 신성한 진리가 실체인바, 그러므로 ‘내 노래는 야이다’라고 말해지는데, 그이유는 ‘노래’에 의해 신성한 진리로부터 있는 신앙이 의미되기 때문. ‘그분의 이름 야를 수단으로 구름들 위에 타시는 그분을 격찬하라’, 이 구절 역시 ‘야에 의해 신성한 진리가 의미된다. ‘그분의 이름 야를 수단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격찬하라’=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 중에 나는 야를 불렀다, 야께서는 나에게 드넓게 응답해주셨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내 강함과 노래는 야이다. 나는 죽지 않고 산다, 그리고 나는 야의 일들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정의의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야를 고백할 것이다.’ 여기서 ‘야’=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할렐루야, Hallelu-Jah’에 있는 ‘Jah’도 마찬가지.

출17:16-‘손이 야의 왕좌에 맞서 있기 때문에’=그들은 주님의 영적 왕국에 폭력을 휘두르고 싶어 했다는 것.

시102:18-‘창조되고 야를 찬양할 백성’에 의해 개혁되고 있는 모든 이가 의미되어진다.

이12:2-‘노래 야’=축하함과 주님의 영광을 기림.

시122:4-‘야의 지파들’에 의해 주님으로부터 인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의미되고 있다.

야고보 (James)

* 요한도 참조.

* ‘야고보’=선행

* 사도 야고보에 의해 교회의 선행이 뜻해진다.

* ‘야고보’는 교회의 선행으로부터의 선을 표현했다.

야곱 (Jacob)

* 아브라함, 에서, 이스라엘도 참조

* 이름 ‘야곱’은 ‘뒤꿈치’로부터이다, 그이유는 야곱에 의해 의미된 유대 교회는 뒤꿈치를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호12:2,3-같은 방법에서 야곱이 에서를 밀어내기를 원했다는 것은 이 구절, 즉 ‘야곱을 그의 길에서 방문하시어 그의 일들에 따라 그분은 그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자궁 안에서 야곱은 그의 형을 밀쳐냈다’로부터도 명백해진다.

이29:23-‘야곱의 거룩한 분’, ‘이스라엘의 하느님’=주님.

신33:28-‘야곱의 샘’=말씀, 그러므로 진리로부터의 교리. 이러한즉 주님이 야곱의 샘에 오셨을 때, 그분은 사마리아로부터 온 여인과 이야기하셨고, ‘샘’이 의미한 것을 가르치셨다...

창25:26-‘그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다’=자연적 진리로부터의 교리...‘야곱’에 의해 표현된 품질은 자연적 진리로부터의 교리이다 (에서를 참조)

눅1:33-여기서 ‘야곱의 집’은 유대 국가, 또는 유대 백성을 뜻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주님의 왕국이 이 백성 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씀에서 ‘야곱의 씨’,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자’, ‘야곱의 토지’ ‘야곱의 상속분’, ‘야곱의 왕’, ‘야곱의 하느님’ 등등도 마찬가지이다.

이44:1-5-여기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명백하게=주님; 그리고 야곱의 ‘씨’, 야곱으로부터의 ‘출생자’=그분을 믿는 이들.

창25:27-‘야곱 온전한 사람’=자연적 진리로부터의 교리.

창25:28-‘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신성한 합리성으로

야곱

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가 진리로부터의 교리를 사랑했다... ‘야곱’=자연적 진리로부터의 교리;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의 신성한 자연적 평면. 합리성으로부터의 진리는 후자의 선 보다 자연적 평면의 진리들과 더불어 더 밀접한 결합이 있는바, 이것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로 의미되고 있다.

창25:29–‘야곱은 죽을 곁였다’=교리적인 것들의 더미(heap). ‘야곱’=자연적인 진리로부터의 교리, 고로 자연적 인간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

창25:31–‘야곱이 말했다’=진리로부터의 교리. ‘야곱’=자연적 진리로부터의 교리; 또는 진리로부터의 교리 안에 있는 이들.

창25:33–‘그는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한동안 먼저임이 진리로부터의 교리에 양보되었다.

창27장에서–‘야곱’=합리성의 선으로부터 이 선에 있는 진리를 통하여 자연적 평면의 진리가 공포됨.

창27:11–‘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자연적 진리에 관하여 신성한 진리로부터 주님이 지각하십시오... ‘야곱’=자연적 진리.

창27:15–‘그녀는 그녀의 더 어린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진리에 애착함, 또는 진리로부터 있는 선의 생명(을 살아냄)... ‘야곱’=신성한 자연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창27:17–‘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 안으로’=자연적 진리에 애착함은 이리했다는 것... ‘야곱’=자연적 진리.

창27:18–‘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갔다, 그리고 말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를 보십시오! 너는 누구냐, 내 아들이?’=야곱에 의해 표현되는 진리의 현존으로부터 지각하는 상태. 지금 야곱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이 진리의 품질은 선행된 것들과 이 뒤를 잇는 것들의 내적 의미로부터 분명해진다, 즉 외적 형체 안에서 이 진리는 선과 선으로부터의 진리 같이 나타나나... 내적 형체에서는 그렇지 않다. 거듭나지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 진리 측면에서의 자연적 평면은 참으로 그렇지 않으나 인간 앞에서는 그런듯 나타나는데, 그이유는 그가 거듭나질 때, 자기와 더불어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들의 눈에서, 천국의 빛으로는 이런 것이 보여진다.

창27:19–‘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자연적 진리의 통각.

창27:20–‘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했다’=‘야곱’에 의해 표현된 자연적 평면에 관하여 ‘이삭’으로 표현된 합리성이 지각함.

창27:22–‘그리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갔다’=현존의 상태.

창27:30–‘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끝냈을 때’=고로 ‘야곱’에 의해 표현된 진리와... 첫 결합이 만들어졌을 때.

창27:36–‘그가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 불리운 것’=그것의 품질. ‘그리고 그는 두 번 나에게서 탈취했다’=그는 질서를 거꾸로 했다.

창27:41–‘내 아버지의 곡할 날이 다가올 것인 바, 나는 내 형제 야곱을 죽일 것이다’=자아로부터 진리의 생명이 단절되고 상실됨.

창27:42–‘(리브가가) 그녀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불렀다’=진리에 애착함이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있는 유입으로부터 통각하는 상태.

창27:46–‘만일 야곱이 여인을 헷의 딸로부터 데려온다면’=자연적 진리가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있는 진리에 애착함과 연계됨이 있지 말아야 하리라는 것.

창28:1–‘이삭이 야곱을 불렀다’=주님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선에 관련된 품질을 지각함.

창28:3–‘전능하신 하느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이 진리와 선의 시험들, 이 시험을 통해 (진리와 선의) 결합이 있다... 지금 ‘야곱’에 의해 진리로부터의 선이 표현되는바, 이 선과 진리가 ‘너에게’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창28:4–‘너에게 그리고 너와 더불어 네 씨들에게’=거기로부터 있는 선과 진리와 더불어. (그이유가) ‘야곱’, 여기서 ‘너’,=진리의 선, 또는 진리로부터 있는 선.

창28:5–‘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공표(출시)가 시작됨. (그이유가) 지금부터 야곱은 진리의 선, 고로 주님의 신성한 자연적 평면의 공포됨이 시작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이유가 이런 것들은 라반과 더불어 야곱에 관하여 뒤따르는 것들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

야곱

창28:10-‘야곱은 브엘세바로부터 나왔다’=신성한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더 멀어진 생명(삶).

창28:18-‘아침에 야곱은 일찍 일어났다’=예증의 상태.

창28:20-‘야곱은 서약을 서원했다’=섭리의 상태.

창19장에서- ‘야곱’에 의해 주님의 자연적 평면이 취급된다. 즉 진리로부터의 선이 ‘라반’인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선과 어떻게 혈연 관계로 결합되었는가 이다; 첫째로 ‘레아’인 외적 진리에 애착함을 통하여; 후에 ‘라헬’인 내적인 진리에 애착함을 통하여.

창29:1-‘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자연적 평면의 승강.

창29:4-‘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선으로부터의 진리. ‘야곱’은 주님의 신성한 자연적 평면을 표현한다. 자연적 평면에 있는 선과 진리는 인간이 거듭나질 때, 시작과 끝은 다른 상태에 있다. 여기서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관련되는 상태를 표현한다.

창29:10-‘야곱이 라헬을 보았다’=이 진리에 애착함을 인정함.

창29:10-‘야곱은 가까이 와서 우물 아구로부터 돌을 굴렀다’=주님은 자연적 선으로부터 말씀의 내면들에 관하여 말씀을 벗기셨다. ‘야곱’=주님의 신성한 자연적 평면; 여기서는 거기 선에 관련하여.

창29:11-‘야곱이 라헬에게 키스했다’=내면의 진리들을 향한 사랑.

창29:12-‘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 였다는 것을 말했다’=‘야곱’인 선과 ‘라반’인 선의 인척 관계...

창29:15-야곱이 실지로는 자신이 라반의 여동생의 아들이라 말해야(12절) 마땅한데도 그가 자신을 ‘라반의 형제’라 부른 까닭은 모두는 선으로부터 형제 이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도 12절과 마찬가지로 라반은 야곱을 자기 형제라 부르고 있다.

창29:13-‘라반이 그의 여동생의 아들 야곱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관련된 선임을 인정함.

창29:15-‘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네가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그들은 피-관계들이었기 때문에...‘야곱’=자연적 평면의 선.

창29:20-‘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했다’=그 결

과, 즉 그가 내적 진리와 결합하기 위하여 꾸준히 응모했음과 거룩한 상태의 결과.

창29:21-‘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내 여인을 주시오’=내면의 진리에 애착함과 결합이 일반적 선으로부터 지금 있었다는 것. ‘야곱’=자연적 평면의 선; 여기서는 일반적 선, 그 이유는 자연적 평면 속에 있는 것들은 관계적으로 볼 때, 일반적이기 때문...고로 ‘야곱’에 의해 표현되는 선이 지금은 일반적 선이라 불리워지는 것이다.

창29:28-‘야곱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한 주(week)를 채웠다’=이런 것들의 결과.

이14:1-‘야곱의 집에 자신을 인접되게 하는 것’=선행의 선 안에 있는 것, 이 안에 있는 이들이 ‘야곱의 집’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창30장-레아로부터의 네 아들들은 신앙 속에 있는 진리로부터 사랑 속에 있는 선으로 승강함에 관련하여 있는 교회의 상태가 취급되고 있다. 30장에서, 라헬과 레아의 몸중으로부터 출생한 아들들에 의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로부터의 아들들에 의해 영적 선을 매체로 자연적 진리의 결합이 취급된다; 그리고 이 출생 순서로 거듭나지는 사람에게서 결과된다.

창30:1-‘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음을 보았다’=아직 인정되지 않는 내면의 진리...‘야곱’=자연적 진리의 선.

창30:2-‘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내었다’=자연적 선의 쪽에서 분개함...‘야곱’=자연적 평면의 선.

창30:4-‘야곱이 (빌하)에게 왔다’=결합이 있었다.

창30:5-‘그리고 빌하가 임신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수용과 인정.

창30:7-‘야곱에게 둘째 아들’=두 번째 일반적 진리...야곱의 열 두 아들들, 그리고 열 두 지파는 그들로부터 명명되어졌다...=교회의 일반적인 것들; 결과적으로 신앙과 사랑의 일반적인 것들, 또는 진리와 선의 일반적인 것들...반대적 의미에서, 그들=신앙과 사랑의 비일반적인 것들, 또는 거짓과 악의 모든 것들.

창30:9-‘그녀는 (질바를) 야곱에게 여인으로 주었다’=그녀는 그것에 결합되었다는 것.

창30:10-‘질바, 레아의 몸중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

야곱

다'=외적 진리의 인정.

창30:12-‘질바...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았다’=두번째로 일반적 진리의 인정. ..이것은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의 결합을 위해 매체 역할을 한다.

창30:16-‘야곱이 저녁에 들판으로부터 왔다’=선의 상태에 있는 진리의 선, 그러나 희미한 수준, 마치 자연적 평면에 속한 것과 같다. ‘야곱’=자연적 평면 속의 진리로부터의 선.

창30:25-‘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자연적 진리의 선이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있는 방계의 선으로, 이를 통하여 내면들의 결합이 있다. ‘야곱’=자연적 진리의 선.

창30:36-‘그는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삼일 걸리는 길을 두었다’=그들의 상태는 완전하게 분리되었다.

창30:36-‘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먹이고 있었다’=떠났던 것들로부터 그는 결합되어야 하는 이런 선들과 진리들을 취했다.

창30:37-‘야곱은 포플러의 싱싱한 가지를 자신에게 가져왔다’=자연적 선에 관한 그분 고유의 힘.

창30:40-‘야곱은 어린 양들을 분리했다’=순진에 관련하여...그 이유는 이 뒤를 바로 잇는 대목에서 부적당한 순진, 그리고 받기 위해 자연적 평면의 선과 진리를 처분하는 것을 취급하기 때문.

창30:41-‘야곱은 구유통 안에 양떼의 눈에 가지를 놓아두었다...’=어떤 것들을 불러냄 그리고 (그분) 고유의 힘으로 결합함.

창31장에서-야곱과 그의 여인에 의해 표현된 선과 진리가 ‘라반’에 의해 의미된 선과 분리됨이 다루어지는데, 그 목적은 그들이 직접 신성한 지주로부터 신성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분리에 관하여 각각의 상태도 다룬다.

창31:1-‘야곱이 우리의 아버지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버렸다’=‘야곱’에 의해 의미된 선의 모든 것들이 이때로부터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 즉 이 중간 선으로부터.

창31:2-‘야곱은 라반의 얼굴을 보았다’=‘야곱’에 의해 의미된 선이 물러났을 때 이 (중간) 선과 더불어 있는 상태의 변화. ‘야곱’=자연적 평면의 선.

창31:3-‘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하셨다’=신성으로부터

의 주님의 지각.

창31:4-‘야곱이 보냈다,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불렀다, 그의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지금 야곱에 의해 의미된 선을 수단으로 진리에 애착함들이 첨가됨, 그리고 그가 떠날 때 신청함. ‘야곱’=자연적 평면의 선.

창31:4-‘야곱은 일어났다’=‘야곱’에 의해 의미된 선의 승강...‘야곱’=자연적 평면의 선...여기서는 신성에 더 가까이 접근한 선, 그 이유는 중간 선으로부터 분리될 것이기때문.

창31:20-‘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의 심정을 흠뻑했다’=선에 관련하여 ‘라반’에 의해 의미된 상태의 변화.

창31:22-‘야곱은 도망쳤다’=분리됨.

창31:24-‘너는 선이든 악이든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더 이상 어떤 소통함도 있지 않을 것.

창31:25-‘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았다’=결합의 어떤 것.

창31:25-‘야곱은 그의 천막을 산에 고정시켰다’=사랑의 상태, 이 안에 ‘야곱’에 의해 지금 의미된 선이 있었다.

창31:26-‘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라반’에 의해 표현된 선과 ‘야곱’에 의해 표현된 선이 소통하는 상태.

창31:36-‘야곱은 성을 냈다. 그리고 라반에게 따지고 들었다’=자연적 평면의 열정...‘야곱’=자연적 평면의 선.

창32:1-‘야곱은 자기 길을 갔다’=진리가 연속적인 것, 이는 영적, 천적 선과 더불어 결합되려 함이다. ‘야곱’=자연적 평면의 진리.

창32:7-‘야곱은 극도로 두려웠다, 그리고 혼란스러웠다’=변화가 있어질 때의 상태.

창32:24-‘야곱은 홀로 남았다’=진리의 선이 노력하여 얻었다. 그 당시 이것은 최말단이었다. 여기서 ‘야곱’=진리로부터의 선.

창32:25-‘야곱의 허벅지의 우묵한 곳이 그와의 씨름 중에 관절이 어긋났다’=아직까지는 진리가 그 자체를 선에게 완전히 결합할 힘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창32:27-‘네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말했다, 야곱입니다’=진리로부터의 선의 품질...‘야곱’=진리로부터의 선.

창32:28-‘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다’=이제는 신성한 천적, 영적

야곱

수준의 평면이다.

창33:1-‘야곱은 자기 눈을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진리의 선의 지각과 의지.

창33:17-‘야곱은 숙곳으로 여행했다’=그 당시 진리로부터 있는 선의 상태. ‘야곱’=진리의 선; 여기서 ‘에서’인 선으로부터 그것에 인접했었던 이런 것들로부터 그 당시의 진리의 선.

창34장-이 장은 야곱의 후손을 취급한다. 그들은 고대 교회 속에 있었던 교리 속의 모든 진리를 소멸했다는 것이다...그 이유가 야곱의 후손들과 더불어 교회의 표현은 내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창34:5-‘야곱은 그가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들었다’=여기서의 경우 ‘야곱’에 의해 표현된 외적 교회 속에 있었던 진리에 애착함과 합법적이 아닌 결합...여기서 ‘야곱’=외적 고대 교회. 야곱에 의해 외적 고대 교회가 의미된 이유는 이 교회가 야곱의 후손들과 더불어 조직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 만일 그의 후손들이 고대인들이 가졌던 내면의 진리들을 받았다면 실지로 조직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외적 고대 교회가 야곱에 의해 표현된 것은 이 장의 시리즈로부터 명백하다; 그 이유가 야곱은 그의 아들이 성읍을 짓부수고 하물과 세겜을 죽인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

창34:5-‘그리고 야곱은 그들이 올 때 까지 침묵했다’=그와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 있었던 신앙의 진리들로부터 상담함.

창34:6-‘그리고 하물과 세겜의 아버지는 야곱과 이야기 하려고 그에게 갔다’...‘야곱’=외적 고대 교회...이 말들에 의해...고대인들과 더불어 교회의 진리가 야곱의 후손들과 더불어 설립되어질 고대 교회에 따라 있었던 진리와 상담함에 의미되어졌다.

창34:7-‘야곱의 아들들이 들판으로부터 왔다’=그들은 자기들의 광신적 신앙에 문의했다. ‘야곱의 아들들’=그들로부터 있었던 나라, 이 나라와 더불어 표현 교회가 설립되었다.

창34:11-‘세겜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녀의 형제들에게 말했다’=고대의 신성한 지주로부터의 진리가 이 광신적 신앙의 선과 진리와 상담함...‘아버지’. 여기

서 그는 야곱=진리로부터의 선.

창34:13-‘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사기쳐서 말했다’=고대인들과 더불어 교회의 선과 진리에 관한 악한 의견과 의도.

창34:19-‘그가 야곱의 딸에 흠뻑 만족했기 때문에’=이 교회의 광신적 신앙...여기서 ‘야곱의 딸’인 디나=고대 교회의 진리에 애착함 ; 그 이유가 이 후자는 ‘야곱’에 의해 표현되어졌기 때문. 그러나 여기서 그의 아들들로 말해진 야곱의 후손들과 더불어 이 교회, 그들이 야곱 대신 이야기 했는데, 이 교회는 오로지 외적인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하물과 세겜이 이런 것들에 동의했는 바, 그러므로 ‘야곱의 딸’에 의해 이 교회의 광신적 신앙이 의미되었다.

창34:25-‘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져왔다’=신앙과 사랑...그러나 반대 의미에서 거짓과 악.

창49장-‘시므온과 레위’에 의해 신앙으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되는데, 이것이 야곱의 후손들과 더불어 거짓으로, 선행으로부터의 선은 악으로 변했다.

창34:27-‘야곱의 아들들은 찢려죽은 이들에게 왔다, 그리고 성읍을 약탈했다’=모든 이 후손은 교리를 파괴했다는 것. ‘야곱의 아들들’=야곱으로부터의 후손.

창34:30-‘야곱이 말했다’=외적 고대 교회. ‘야곱’=고대 교회; 그리고 고대 교회, 여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외적, 내적 측면이 있는바, ‘야곱’에 의해 말씀에서 외적 교회를, ‘이스라엘’은 내적 (고대 교회)가 표현되고 있다.

창35장-합리성이 있는 곳, 내면을 향하여 더 진보함이 베냐민의 출생에 의해, 그리고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삭에게 움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창35:1-‘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하셨다’=자연적 선이 지각함. 이는 야곱이 지금 신성으로부터 있는 것과 같다...‘야곱’, 여기서, 최고 의미에서,=자연적 선에 관련한 측면에서의 주님.

창35:2-‘야곱이 그의 집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있는 모두에게 말했다’=자연적 선을 수단으로 처리함, 이것은 그때 당시 있었던 것과 같다...‘야곱’ 여기서 =자연적 선.

창35:4-‘그들은 자기들의 손에 가졌던 외국인의 모든 신들을 야곱에게 주었다’=(그 선은) 가능한 많은 거

야곱

것을 거절했다는 것. 이 장에서 ‘야곱’은 자연적 평면의 선을 표현했다.

창3:6-‘야곱은 루즈에 왔다, 여기는 가나안의 토지 안에 있다’=이전 상태에 있는 자연적 평면.

창35:9-자연적 평면이 (신성으로부터) 이 지각을 가졌다는 것이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 이유가 ‘야곱’은 주님의 자연적 평면을 표현하기 때문.

창35:10-‘하느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은 야곱이다’=주님의 외적인 신성한 자연적 평면의 품질...‘야곱’=주님의 신성한 자연적 평면...이것이 외적이라 불리고...‘이스라엘’은 주님의 내적 자연적 평면.

창35:10-‘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그것은 더 이상 외적일 뿐이지 않을 것이다.

창35:14-‘야곱은 상을 세웠다’=이 신성한 상태에 있는 진리의 거룩함.

창35:15-‘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이야기한 장소의 이름을 베엘이라 불렀다’=신성한 자연적 평면과 그것의 상태.

창35:20-‘야곱은 그녀의 무덤에 상을 세웠다’=영적 진리의 거룩함이 거기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창35:22-‘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었다’=지금 신성한 자연적 평면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상태. ‘야곱’=신성한 자연적 평면.

창35:23-‘야곱의 첫 출생, 르우벤’=신앙으로부터의 선...‘야곱’=자연적 진리로부터의 선.

창35:26-‘이들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이다’=지금 그들의 근원과 상태...‘야곱의 아들들’에 의해 주님의 신성한 자연적 평면에 있는 일반적 모든 것들, 이것들이 한데 모여져 지금 ‘야곱’이 되어 있다.

창35:27-‘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왔다’=신성한 합리성에 결합되었다. ‘야곱’=위에서 말해진 상태에 있는 신성한 자연적 평면...(자연적 평면의) 품질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에 의해 의미되고...그들의 각각은 일반성의 일부를 표현한다.

창37:1-‘야곱은 가나안의 토지에서, 자기 아버지의 체류지에서 거주했다’=주님의 신성한 자연적 평면, 이것

은 신성한 합리적 선에 부합되고 있다...‘야곱’, 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자연적 평면.

창35:2-‘이들은 야곱의 출생들이다’=뒤를 잇는 것들.

창39장에서-주님이 취급되는데, 즉 어떻게 그분이 그분의 내적 인간을 신성으로 만드셨는지이다. ‘야곱’은 외적 인간 이었다. 이 인간 안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가 취급된다.

창42:1-‘야곱’=교회 속에 있는 진리 측면에서의 자연적 평면.

창42:30-야곱의 아들들, 여기서 ‘우리’라 말해지는데=자연적 평면에 있는 교회의 진리들.

창42:36-‘야곱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다’=진리의 선으로부터 그들이 지각함.

창42:36-‘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그리하여 교회 속에 있는 것은 파괴되리라는 것. 혼자 중얼거리는 야곱은 교회를 표현한다.

창43:7-‘야곱의 열 아들들’, 여기서 ‘우리들’인데...=자연적 평면에 있는 교회의 이 모든 것들.

창43:16-‘그들과 더불어’ 야곱의 열 아들들...=자연적 평면에 있는 진리들.

창44장에서-표현적 역사 의미에서, 야곱의 후손이 취급되는데, 그들은 거절되어질 것, 그러나 그들은 표현적 이기만을 완고하게 주장하리라는 것.

창44:3-여기서 ‘사람들’인 야곱의 아들들은 자연적 평면에 있는 교회의 진리들을 표현한다...그 결과 그들은 외적 자연적 인간을 표현한다.

창45:16-야곱의 아들들, 또는 ‘요셉의 형제들’은 자연적 평면에 있는 교회의 진리들을 표현한다.

창45:25-‘그들은 야곱,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가나안의 토지로 갔다’=영적이지 않은 자연적 선이 있는 거처.

창45:27-‘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은 되살아났다...’=자연적 선에 있는 새로운 생명.

창46:2-‘(하느님께서) 말하셨다, 야곱아, 야곱아’=자연적 진리에. ‘야곱’은 자연적 진리를 표현한다....‘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라 말해진 이유는 자연적 진리는 그것 속의 모든 것과 더불어 교회의 과학물 안에서 시작되어진다. 이것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내려감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야곱

창46:5-‘그리고 요셉은 일어났다’=자연적 진리의 계발.

창46:5-‘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을 운반했다’=영적인 진리들이 자연적 진리 앞쪽에 놓여지고 있다.

창46:8-‘야곱과 그의 아들들’=일반적으로 자연적 평면의 진리, 그리고 세부적으로 자연적 평면의 진리들.

창47장에서-자연적 평면에 있는 교회의 진리들이 야곱의 아들들이고 이 장에서 취급된다. 일반적 진리 자체가 ‘야곱’이다.

창47:7-‘요셉은 야곱 그의 아버지가 오게 만들었다’=내적인 것으로부터 일반적 진리가 현존함...‘야곱’은 자연적 진리의 교리, 또는 자연적 진리도 표현; 여기서 일반적으로 진리, 그 이유는 그의 아들들이 세부적으로 있는 진리들을 표현하기 때문.

창47:7-‘야곱은 바로를 축복했다’=결합을 위한 경건한 소원 그리고 그 결과 열매 풍성함.

창47:8-‘그리고 바로가 야곱에게 말했다’=과학물이 있는 자연적 평면에서 교회의 일반적 진리에 관하여 지각함...‘야곱’은 교회의 일반적 진리를 표현한다.

창47:9-야곱의 ‘일생’=자연적 평면에 있는 영적 삶.

창47:28-‘야곱은 이집트의 토지에서 살았다’=자연적 평면 속의 진리, 이것은 과학물 안에 있었다.

창47:28-야곱이 이집트에서 산 17년은 영적 삶의 끝까지 과학물 사이에서 자연적 평면에 있는 영적 삶의 상태의 시작이 의미되고 있다.

창47:28-‘그리고 야곱의 날들, 그의 생애의 햇수들은 7년 그리고 40년 그리고 100년이었다’=일반적 상태와 그 상태의 품질...이 숫자들은 ‘야곱’에 의해 표현된 사건의 전체 상태를 일반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품질.

창48:2-‘누구가 야곱에게 말했다’=자연적 평면의 진리로부터 통각함...‘야곱’은 자연적 평면의 진리를 표현한다.

창48:3-‘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자연적 평면의 진리가 내적인 것과 소통함.

창49:1-‘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렀다’=자연적 평면에 있는 신앙 속의 진리들과 사랑 속의 선들로부터의 서품식이 있다...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자연적 평면에 있는

신앙 속의 진리들과 사랑 속의 선들을 표현한다. ‘야곱’=일반적으로의 모든 것...그리고 그의 아들들, 또는 그들 이름으로 불리는 지파들=세부 항목에서 있는 것들.

창49:2-‘너희는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이’=자연적 평면에 있는 진리들과 선들.

창49:7-‘나는 야곱 안에서 그들을 나눌 것이다’=그들은 자연적 인간으로부터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야곱’은 자연적, 외적 인간을 표현한다.

창49:24-‘강한 야곱의 손들을 수단으로’=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전능하심을 수단으로...‘강한 야곱’=주님의 신성한 자연적 평면, 고로 그분의 신성한 인간.

창49:25-‘야곱’, 여기서는 ‘네 아버지’=고대 교회.

창50:15-야곱의 아들들, 여기서는 ‘요셉의 아들들’=진리와 선으로부터 양도된 것들.

출1:1-‘야곱과 더불어 이집트에 온 이들의...’=이 진리들이 과학물 안에서 개시된 후...‘야곱’은 자연적 평면에 있는 진리, 그리고 선 또한 표현한다; 또는 진리와 선에 관련된 자연적 평면.

출1:5-‘야곱의 허벅지로부터 나온 모든 혼들’=일반적 진리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야곱’은 자연적 평면에 있는 진리, 또한 선을 표현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서 이다; 그 이유는 그의 아들들은 이 일반적 차원 안에서 서로 구분되는 선들과 진리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65:10-‘야곱’, 그리고 ‘유다’...=외적, 내적인 천적 교회...

창49:33-말씀에서 ‘야곱’=외적 교회인바, 이 교회는 자연적 발광체에 있는 이들, 그리고 비록 내적 애착으로부터는 아니다 해도 신앙의 순종으로부터 도덕적 생활을 꾸리는 이들과 더불어 있다. 그러므로 영계에서 야곱에 관하여 대화를 할 때, 마치 사람이 침대에 누운 듯하여 오른쪽 위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숨을 거두는 그의 모습에 관해 말해지기를,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떠날 때, 그는 자기 발을 자기 침대에 모았다, 그리고 만기를 채웠다.’ 이렇게 묘사된 이유는 ‘발’이 자연적 평면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29:22-‘야곱’에 의해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어진다.

야살-야생-야셀-야엘-야완-야원-야위게 만드다 -야채-약

이44:23-‘야곱’과 ‘이스라엘’에 의해 외적, 내적 교회가 의미된다; 고로 자기 안에 교회가 있는 이들의 외적 내적 측면을 뜻한다.

창30장-‘야곱’은 선에 관련된 교회를 표현한다; ‘레아’와 ‘라헬’은 진리에 관련된 교회.

시57:15-‘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아들들’에 의해 그들의 광신적인 신앙에 따른 생활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말씀에서 ‘야곱’에 의해 외적인 교회가 의미되는데, 이 교회가 생활의 선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다.

욥18절-‘야곱의 집’에 의해, ‘요셉의 집’에 의해 교리로부터의 진리들에 따른 생활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야곱의 집’에 의해 생활의 선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요셉의 집’에 의해 교리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시105:23-그때 당시 교회의 모든 것들이 과멸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 ‘야곱은 함의 토지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야곱’에 의해 생활의 선에 있는 모든 이와 더불어 교회가 의미된다.

호12:3-‘야곱은 자궁 안에서 그의 형을 대신하려 했다, 그리고 그의 힘으로 그는 하느님과 강력하게 싸웠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 그들의 아버지들로부터도 단지 자연적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천국과 교회의 선에 맞섰다...그리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이와 같았는바...야곱은 ‘태 안에서 그의 형을 대신하려 했다’라고 말해지고, 더 나아가 야곱이 천사와 다똘에 의해 그들의 완고함이 묘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그들은 자기들이 가나안의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즉 교회는 자기들로부터 설립되어야 하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천적, 영적 사랑으로부터의 어떤 선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우묵한 곳을 건드림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긋남=야곱과 그의 후손들 안에서는 진리가 선과 결합함이 없음.

이43:5-‘야곱’과 ‘그의 씨’에 의해 (이방인들로부터) 이 교회 속에 있을 이들이 의미되고 있다.

민24:5-‘당신의 성막은 얼마나 좋은지, 야곱아; 네 천막들, 이스라엘아’...‘야곱’에 의해 교리의 선 안에, 생활의 선 안에 있는 교회가 의미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의해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교회가 의미된다.

야랩 (Jareb)

호5:13-‘아시리아’, 그리고 ‘야랩 왕’에 의해 선에 관련 하여서와 진리에 관련하여 악용된 합리성이 의미되어진다.

야렛 (Jared)

창5:15-‘여섯째 교회가 ‘야렛’이라 불린다.

야발 (Jabal)

* 그 당시 새로운 교회가 발생했다, 이것이 그들의 아들, 야발, 유발, 두발가인에 의해 묘사되었다; 이 교회의 천적인 것들이 ‘야발’에 의해...

창4:20-‘야발은 천막에 거주하고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었다’=사랑의 거룩한 것들, 이로부터 있는 선들에 관한 교리, 즉 천적인 것들에 관한 교리.

*...이후 신앙을 통하여 사랑의 거룩한 것, 이 거룩함으로부터의 선들이 주님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다가 낳은 ‘야발’에 의해 의미된다;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것도 주어졌는데, 이것은 그의 형제 ‘유발’에 의해, 그리고 자연적 선과 진리는 썰라가 낳은 두발-가인에 의해 의미되었다.

야벳 (Japheth)

* 마지막으로 (창 9장에서) 고대 교회가 일반적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셈’에 의해 내적 예배가, ‘야벳’에 의해 이 내적 예배에 상응하는 외적 예배가 의미된다.

창9:23-‘야벳’=(내적 교회)에 상응하는 외적 교회.

창9:27-‘하느님은 야벳을 확장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셈의 천막들에서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에게 종으로 있을 것이다.’ ‘야벳’에 의해 (내적 교회와) 상응하는 외적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하느님은 야벳을 확장하실 것’=그의 예증(his illustration). ‘그는 셈의 천막들에서 거주함’=예배의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 안에 있을런지 모른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에게 종으로 있음’=외적인 것에만 예배를 놓는 이들은 낮은 섬김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창10:2-내적 예배와 상응하는 외적 예배를 가진 이들이 ‘야벳의 아들들’이다.

창10:21-‘야벳의 형’==그것의 예배는 외적이었던 것. ‘야벳’=외적 교회.

약탈품-약탈하다-약하다-약혼하다

창9:23-‘셈과 야벳’=선행, 즉 선 안에서 신앙의 진리들을 받은 영적 (왕국의) 교회인.

야살 (Jasher)

삼상1:17,18, 여10:12,13-이것들 외에도 고대 말씀의 예언적 책, ‘야살의 책’, 또는 ‘의로운 자(Right)의 책’ 역시 언급된다. -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애곡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아들들에게 활(the Bow)을 가르치려고 썼다; 썩어진 그것이 야살의 책 위에서 보여진다...’ 여호수아는 말했다, 태양아, 기브온에 멈추어 있어라, 그리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것이 야살의 책에 썩어있지 않느냐?’

야생 (wild)

마3:4-‘들(야생) 꿀’=선 측면에서 글자적 의미로부터의 즐거움.

야셀 (Jazer)

예48:32-그들에게 붙여넣어진 거짓들이 ‘야셀’, 등등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16:9-‘야셀’ 등등에 의해 외적인 교회의 사람들이 의미되고 있다. 이들은 세상을 사랑함을 옹호하도록 말씀을 설명한다. 그이유가 이 장소는 요르단 건너 쪽이고 르우벤과 갓 지파가 거주하도록 유업으로 할당되었기 때문. 요르단 건너쪽은 외적 교회를 표현했다.

야엘 (Jael)

사4:17-22-‘야엘’=이스라엘을 돕는 자, 또는 천적 천국을 돕는 자 (helper for Israel or helper for Celestial heaven).

야완 (Javan)

욥3:6-‘야완’에 관련하여; 너희는 유다의 아들들과 예루살렘의 아들들을 야완족에게 팔아 너희 경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야완족의 아들들’=내적인 것로부터 분리된 외적인 것들에서의 예배.

창10:4-‘야완의 아들들’에 의해 ‘야완’ 나라와 더불어 있었던 예베로부터 파생된 외적 예배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이들.

야윈 (thin)

얇은 (thin)

창41:3-‘야윈’=선행으로부터 있지 않는 것.

창41:6-‘야윈 일곱 이삭’=유용함이 없는 과학물.

이40:22-‘그분은 하늘들을 얇은 어떤 것 같이 펼치셨다’=마음내키는대로 천국들을 확장하는 전능하심.

야윈 (lean)

창41:19-‘살이 야윈’=선행(charity) 없음으로부터의.

야위게 만들다 (to make lean)

슌2:11-‘야위게 만들’에 의해 거짓들로부터의 악들을 제거함이 의미되어져 있다.

야채 (vegetable)

마13:32-‘그것이 성장하자, 그것은 모든 야채들 (pot-herbs) 보다 더 크다...신앙이 사랑과 결합되어짐에 따라 신앙은 더 큰 야채가 된다.

창9:3-‘야채’=더 낮은 수준의 즐거움들...그것들이 ‘폴잎의 야채’라 불리우는데, 그이유는 그것들은 오직 세상이적이고 육체적일 뿐이기 때문. 또는 외적일 뿐이라는 것.

이37:27-‘폴의 야채’=매우 수준 낮은 것.

신11:10-‘야채들의 동산’=낮은 수준인 것.

약 (medicine)

의술 (medicament)

의사 (physician)

약 (drugs)

겔47:12-‘잎’=총명, 이 총명은 유용함을 목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 이 유용함이 ‘약’이라 불리우고 있다.

겔47:12, 계22:2-‘잎’=거기로부터 있는 진리들, 이 진리는 인류를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인류의 거듭남을 위해 봉사한다.. 그러므로 잎이 ‘약’이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창50:2-‘요셉은 그의 종, 의사들에게 명령했다’=결합을 방해한 약들로부터 보존함...‘의사들’=약들로부터 보존함, 이런 이유는 영계에서 질병들이 약과 거짓들이기 때문. 그이유가 약과 거짓들이 내적 인간으로부터의 건강을 거두어가기 때문...

출15:26-‘나는 너의 의사 여호와이시다’=약들로부터의 보존자. 그이유가 이것들이 ‘이집트인 위에 있는 질병들’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

눅5:31-같은 의미에서 주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부르신

압복-양-양 날-양념-양동이-양떼

다. '온전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예8:22-'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는가? 거기에 의사가 있지 않던가?' '의사'=교회에서 거짓들로부터 보존함...

계22:2-'나무의 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거기로부터의 합리적 진리들, 이 진리를 수단으로 악안에 있고 그로부터 파생된 거짓 안에 있는 이들은 건전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데려와지고, 그에 걸맞게 살게 된다.

예46:11-'내가 의술을 늘렸지만 헛되다'=이와같은 것들, 제이무리 풍부해도 도울 여유가 없다, 그 이유는 진리 자체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약탈품 (prey)

약탈하다 (despoil)

* spoil도 참조.

말3:10-'나의 집에 약탈품'=내적 인간 안에 아껴두신 것들(remains), 이것이 약탈품에 비교되어진 이유는 그것들은 마치 몰래 숨겨 심어지듯 하여 수많은 악들과 거짓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

창34:27-'약탈하는 것'=과괴하는 것.

창34:29-'그들은 약탈했다'=그들은 그것들을 악용했다.

창49:9-'약탈품(먹잇감)으로부터, 내 아들, 너는 올라갔다'=주님으로부터, 천적 왕국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지옥으로부터 해방됨이 있다.

창49:27-'저녁에 그는 약탈품을 나눌 것이다'=그들이 아직 희미한 상태에 있는 동안이지만 주님의 왕국에서 그들의 지분(possession)이 있다.

이11:14-'동쪽의 아들들을 약탈하는 것'=신앙으로부터의 내면의 선들을 받아 소유하는 것.

시104:21-'약탈품', 그리고 '식품'=사랑으로부터 있는 선, 그리고 지혜로부터 있는 진리.

시76:5-'그들은 약탈품이 되어갔다'=그들은 악들에 의해 타락되었다.

이5:29-'약탈품을 붙잡는 것'=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을 해방되게 함.

단11:33-'포로 신세, 약탈품이 되는 것'=모든 진리와 선이 박탈됨.

약하다 (weak)

창29:17-'레아의 눈은 약했다'=외적 교회에 애착함은 이해함 측면에서 약하다는 것. 세부적인 사항에 의해 예증되지 않은 일반적 사상들은 허약하고 비틀거린다.

출17:13-'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약해지게 했다'=그것들의 힘이 축소됨.

약혼하다 (betroth)

창24장-이 장에서 개시(initiation), 또는 약혼이 취급되고 있다.

창34:2-'그녀와 눕고 그녀를 짓누르는 것'=결합되는 것, 그러나 약혼을 통해 결과되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것.

말2:11-'이상한 신의 딸과 약혼하고 사랑하는 것'=자신을 거짓과 결합하는 것.

눅15:22-'반지'=집에서 권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 이는 고대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예식들로부터, 즉 약혼, 연결되었음(coupling), 그리고 취임식 같은 예식들에서 반지가 손에 놓여짐으로부터 분명하다.

출21:8-'그가 그녀와 약혼하지 않는 것'=결합되어질 수 없는 것...'약혼되는 것'=결합되는 것. 그이유가 약혼한 그들은 결합하기 때문.

출21:9-'만일 그가 그녀를 그의 아들과 약혼시킨다면'=만일 파생된 진리와 일치되게 해서 그것과 결합되어 질 수 있다면.

출22:15-'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설득할 때'=진리와 결합하지 않은 선...'약혼되는 것'=결합.

* 말씀에서 '약혼'=내향의 인간 안에서 선과 진리가 결합함.

예2:2-'약혼자들의 사랑'=신앙의 진리와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영적 생명에 애착함.

호2:19-'자비와 불쌍히 여김 안에서 약혼하는 것'=선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한 사랑 안에서.

말2:11-'이상한 신의 딸과 약혼하는 것'=거짓으로부터의 악과 결합되는 것.

호2:19-'공정 안에서 약혼하는 것'=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결합하는 것, 고로 신앙과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 결합하는 것.

계21:2-'준비된'에 의해 약혼자를 위해 단장함이 의미

양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약혼을 위해, 그 후에 결합, 또는 결혼을 위해 공급되는데, 이는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더 달리 방법이 없다.

* 약혼의 상태는 마치 여름 이전 봄의 상태와 비슷하다, 열매를 만들기 이전 나무가 꽃피우는 상태, 즉 내향의 기쁨.

압복 (Jabbok)

창32:22-‘그는 압복 나루를 건넜다’=처음 은근히 심어짐(insinuation). 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압복이 가나안 토지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 압복 나루는 가나안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르단 넘어에 위치하기 때문, 그리고 압복은 르우벤과 갓 지파의 상속분의 경계선이었기도 했기 때문. ‘르우벤’은 이해함, 또는 교리 측면에서의 신앙, 그리고 ‘갓’은 신앙의 일을 표현했다. 이것은 거듭남의 단계 중 첫 번째에 해당된다. 즉 이를 통하여 거듭나고 있는 이들에게 선이 은근히 주입되어진다. 이로부터 ‘압복 나루’는 처음 있는 은근히 심어짐(주입됨)을 의미한다.

* 야곱이 가나안의 토지로 들어갈 때 처음 건넌 곳이 압복이었는데, 이는 진리에 애착함이 처음 은근히 주입됨이 의미된다.

양 (sheep)

* 가축떼, 양떼도 참조

요10:3,4,16-천적 수준의 (인간)이 ‘그분은 그분 자신의 양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들 앞에서 가신다’에 의해 뜻해지고, 영적 수준의 (인간)은 ‘다른 양’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 ‘내 양을 먹이라’=선행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선행으로부터 신앙 안에 있는 이들)

창31:38-‘당신의 양’=의지 속의 선.

창32:14-‘양’=신성한 선들.

마25장-‘양’=선행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그로부터 신앙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숙11:4-‘도살할 양’=단순한 선 안에 있는 이들, 이들과 더불어 있는 신앙 속의 진리들이 그들 자신의 과오 때문이 아닌 그들을 가르친 자들의 과오로 인해 소멸되어진다는 것.

요10:3,8-‘양’=선행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이로부터

신앙 안에 있는 이들.

눅15:5-‘잃은 양, 그리고 (그 양을) 찾았다’=회개하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선.

* ‘내 양을 먹이라’ (두 번 말하셨다)=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신앙의 선 안에 있는 이들.

계18:13-새끼 염소들, 숫양들, 암염소들, 어린 양들이 여기서 양을 수단으로 뜻해진다.

마10:6-‘이스라엘의 집의 잃은 양’=선행의 선 안에, 이로부터 신앙 안에 있는 이들.

이7:25-‘양’=영적 선.

마18:12-‘산들에 있는 양’=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 ‘하나가 길을 잃었다’=이 선 안에 있지 않은 자, 그 이유는 거짓들 안에서 무지하기 때문.

요10:16-‘나는 이 양우리 속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을 가지고 있다’=그분의 강림 이전에 천국 안에 있지 않은 이들, 그러나 그분이 그분의 인성을 신성화 하신 이후 그분을 수단으로 입문되어진다.

양 날(two-edged)

계1:16-‘날선 양 날의 검’=주님에 의해 거짓들이 사라짐.

양념 (spice)

* 향신료(spice)를 보라.

양동이 (bucket)

민24:7-‘물들이 양동이로부터 부어질 것이다’=지식들로부터의 진리들.

이40:15-‘양동이의 한 방울’.

양떼 (flock)

* 가축(cattle)도 참조.

창4:4-‘양떼의 만배’=주님 만으로부터 인 것.

창12:16-‘(아브람은) 양떼와 목축을 가졌다...’=과학물에 속하는 모든 것들.

* ‘가축떼와 양떼’=선.

창13:5-‘(롯)은 양떼와 가축떼와 천막을 가졌다’=외적 인간의 많은 것들; (고로) 외적 인간의 소유물들...‘양떼’. ‘가축떼’, ‘천막들’. 여기서의 경우=서로 일치할 수 없는 것들.

신32:14-‘양떼의 젖’=합리적 인간의 영적 평면에 있는 천적인 것 (the Celestial Spiritual of the Rational)

양떼

창20:14-‘(아비멜렉이) 양떼와 가축떼를 (가져왔다)= (믿음 속의 교리가) 합리적 선들과 자연적 선들로 해서 풍요로워졌다. 진실로 합리적인 교회 내의 사람들, 즉 내적 인간들이 양떼라 불리운다; 이로부터 ‘양떼’에 의해 추상적 측면에서 합리적 또는 내적 선들 자체가 의미되어진다. 그러나 자연적 수준인 가축떼라 불리는 교회 내의 사람들, 즉 외적 인간들이 있다; 이로부터 ‘가축떼’에 의해서는 추상적 측면에서 자연적 또는 외적 선들 자체가 의미되어진다.

삼상8:17-그가 양떼의 십분의 일을 가져갈 것이다’=그는 아껴두어야 할 선에 폭력을 행사할 것이다.

창21:27-‘아브라함은 양떼와 가축떼를 가져왔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주었다’=신성한 선들이 교리 속의 합리적인 것들 안에 이식되었다.

이60:7-‘게달의 양떼’=신성한 친적인 것들.

창24:35-‘(여호와께서) 그에게 양떼와 가축떼를 주셨다’=일반적으로 선들.

* ‘게달의 양떼’=영적 선. ‘양떼’=영적인 선.

예49:29-‘천막들과 양떼’=영적 왕국 교회의 선들...예배의 거룩한 것들이 ‘천막들과 양떼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26:14-‘(이삭은) 양떼와 가축떼의 소유물을 (많이) 지녔다’=내면의 선과 외면의 선에 관하여, 즉 합리적 선과 자연적 선에 관하여.

창27:9-‘양떼로 가거라’=신성한 합리성에 결합되지 않은 집안의 자연적 선. ‘양떼’=선, 여기서는 자연적 선, 그 이유가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기 때문, 사실상 집안의 선, 그 이유는 이것이 집에서 있는 사건이기 때문.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서 ‘양떼’는 합리성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가축떼’는 자연성으로부터의 선을 서술한다.

창29:2-‘그것 근처에 세 무리의 양떼가 누워있다’=교회의 거룩한 것들과 교리적인 것들 속의 거룩한 것들... 특히, ‘양떼’=교회 내에 있는 이들, 그리고 선행의 선들과 믿음 속의 진리들을 배우고 고취하는 이들...그러나 일반적으로 ‘양떼’=선 안에 있는 모든 이, 고로 온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 이들; 그리고 모든 이런 것들이 교리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선과 진리 안으로 소

개되어지는 바, ‘양떼’ 또한=교리적인 것들.

창29:3-‘그들은 양떼에 물을 먹였다’=교리. 그 이유는 ‘양떼’=믿음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창29:6-‘(라헬이) 양떼에게 오고 있다’=내면의 교리적인 것들; ‘양떼’=교회, 그리고 또한 교리적인 것들; 여기서는 내면의 교리적인 것들, 그 이유는 라헬을 서술하기 때문...

창30:31-‘나는 돌아가서, 당신의 양떼에게 먹이를 주고 돌볼 것이다’=라반에 의해 표현된 선이 선용에 응용되어진다는 것, 즉 진짜 선들과 진리들을 소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 이유가 여기서 양떼는 라반의 것=라반에 의해 표현된 선.

창30:36-‘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먹였다’=남겨진 것들로부터 그는 결합되어지는 선들과 진리들을 취했다. ‘양떼들’=선들과 진리들.

창30:38-‘양떼 맞은편 넘어’=진리들과 선들은 자연성과 결합될런지도 모른다는 것.

창30:39-‘그리고 양떼들은 막대 앞에서 흥분했다’=그것들 자신의 힘으로부터의 애착의 결과.

창30:43-‘(야곱은) 많은 양떼들을 소유했다’=거기로부터 내면의 선들과 진리들이 과생되었다.

창31:4-‘레아와 라헬에게 (사람을) 보내어 들판, 그의 양떼 쪽으로 불러냈다’=자신에게 인접하는 것; ‘들판’=...선이 있는 곳; 그리고 ‘양떼’, 지금 획득한 선들과 진리들 자체, 이것에 라헬과 레아에 의해 의미된 진리에 애착함들이 적용되어졌다...

창31:19-‘라반은 자기 양떼의 털을 깎으러 나갔다’=라반의 양떼에 의해 의미된 선의 목적과 선용의 상태.

창31:41-‘당신의 양떼와 육 년을...’=그 후에 그는 선을 획득할지 모른다는 것.

창31:43-‘양떼는 나의 양떼이다’=모든 선들은 그의 것이라는 것.

창32:5-‘양떼’=내면의 자연적 선.

창32:7-‘양떼’=내면의 선들, 그리고 또한 선이 아닌 것들.

창33:13-‘나에게는 것을 물리고 있는 양떼와 가축떼도 있다’=아직까지는 신성한 생명을 획득하지 못한 내면의 선들과 자연적인 선들.

양상-양식-양우리-양장-양쪽의-양털

창34:28-‘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가축떼’=그들이 합리적 선과 자연적 선을 파괴했다는 것.

창37:14-‘그리고 양떼의 평화’=어떻게 이 경우가 배워가고 있는 이들, 즉 교회 였는지...

창38:12-‘그는 자기 양떼의 털을 깎으러 올라갔다’=교회를 위해 상담하려고 얼마 정도의 승강이 있음.

시144:13,14-‘양떼들’ 그리고 ‘황소들’=내적, 외적 측면에 있는 선들.

예23:1,2-‘양떼’=교훈받는 이들.

창45:10-‘그리고 당신의 양떼들, 그리고 당신의 가축떼들’=내, 외면의 자연적 선...‘가축’=외면의 선, ‘양떼’=내면의 선인 이유는 희생 제물을 구성하는 가축, 즉 황소, 거세한 수소 같은 짐승은 선행으로부터의 외적인 선들을 의미했기 때문, 그리고 또한 외적 인간의 선들을 의미했기 때문; 이에 비해 양떼를 구성하는 짐승, 즉 어린 양, 양, 염소들은 선행으로부터의 내면의 선, 또는 내적 인간의 선들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러므로 후자의 선들에 있는 이들은 말씀에서 ‘양떼’라 불리우고, 그들을 인도하는 자를 ‘목자’라 부르고 있다.

창47:1-‘그들의 양떼들과 가축떼들’=진리로부터의 내, 외면의 선들.

창47:17-‘양떼를 위해, 가축떼를 위해’=진리로부터의 내, 외면의 선들.

사5:16-‘양떼의 쉬이 소리를 듣는 것’=선행으로부터의 선에 있는 이들로부터의 경멸.

창50:8-‘그리고 그들의 양떼들’=선행; (그 이유가) ‘양떼들’=선행의 내면의 선.

출2:17-‘(모세가)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선에 있는 이들이 가르침을 받았다...‘양떼’=선행의 선으로 배우고 인도하는 이들; 고로 선에 있는 이들.

출2:19-‘그가 양떼에 물을 먹였다’=거기 교회 속에 있는 이들. ‘양떼’=선에 있는 이들 그리고 가르침을 얻으려 자신들을 고생시키는 이들; 여기서 거기 교회 속에 있는 이들...‘양떼’=선과 교회 둘 다, 즉, 선 안에 있는 이들과 교회 속에 있는 이들,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은 함께 잘 붙어있어 서로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출3:1-‘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고 있었다...’=신성으로부터의 법이 순박한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있는 이

들을 혼육하였다.

출9:3-‘가축떼 위에, 양떼 위에’=자발적 측면의 것들; ‘가축떼’=외면의 자연적 평면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양떼’=내면의 자연적 평면으로부터의 선; 고로 그것들=자발적인 것.

출10:9-‘우리의 양떼와 우리의 가축떼와 함께 우리는 갈 것이다’=내면의 선에 있는 이들과 외면의 선에 있는 이들.

출10:24-‘너희 양떼와 가축떼만 여기에 머무를 것이다’=그들은 선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양떼’=내면의 선, 그리고 ‘가축떼’=외면의 선.

출12:32-‘또한 너희 양떼들과 가축떼들도 가져가라’=선행으로부터의 내면과 외면의 선들.

출12:38-‘양떼와 가축떼, 아주 많은 획득물’=진리를 수단으로 획득된 내, 외면의 선이 아주 풍부함.

출20:24-‘너희 양떼들과 가축떼들’=내적인 선들과 외적인 선들.

출60:7-‘아라비아의 양떼들’=외적 인간의 모든 선들...‘양떼들’=내적 인간의 선들; 그리고 ‘아라비아’=선이 있는 곳.

출34:3-‘또한 양떼와 가축떼를 이 산 맞은편 넘어서도 먹이지 말 것이다’=그들은 교회와 예배와 말씀 속의 내, 외면의 선에 관하여 가르쳐질 수 없다.

출36:38-‘황폐된 성읍이 인간의 양떼로 채워질 것이다’=영적 진리들을 가지고 교회의 교리가 채워질 것이다.

이40:11-‘그분이 목자 같이 먹일 양떼’=선행의 선에 있는 이들.

예5:17-‘너희 양떼와 너희 가축떼를 먹어치울 것’=내적, 외적인 진리들과 선들.

미7:14-‘너희의 상속 재산 속의 양떼’=말씀의 내적 의미 속의 진리들인 말씀 속의 영적인 것들에 있는 교회 속의 사람들.

시65:13-‘양떼’-영적 교회.

예51:23-‘목자와 그의 양떼’=가르치는 이들과 배우는 이들.

양상 (aspect, look)

창12:11-‘당신은 바라보면 아름다운 여자이다’=천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는 매우 기쁘다.

양상-양식-양우리-양장-양쪽의-양털

창24:16-'소녀는 바라보면 극도로 좋았다'=진리에 애착함의 아름다움. '바라보면 극도로 좋다'=아름다움.

창26:7-'그녀는 바라보면 좋았기 때문에...'=그것이 신성이라 불리워진 사실로부터, 쉽게 받아지리라는 것. '바라보면 좋다'=그것의 형체로부터, 즐거워지는 것, 고로 쉽게 받아지는 것.

창29:17-'라헬은 모양이 아름다웠고, 바라보기에도 아름다웠다'=영적인 것에 관한 내면의 진리에 애착함 ... '모양, form'에 의해 본질(실체, essence)이 의미된다. 그리고 '바라보다, look'에 의해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아름다움.

창39:6-'요셉은 모양에서 아름다웠다'=거기로부터 파생된 생활로부터의 선. '바라봄에서 아름다웠다'=거기로부터 파생된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모양'=어떤 것의 본질, '바라보다'=본질로부터 파생되어 드러냄(명백함, manifestation).

창41:2-'보기에 아름다운 (일곱 암소)'=신앙으로부터 있는 것... 영적인 아름다움은 내면의 진리에 애착함 이다, 그리고 영적 바라봄이 신앙이다. 이로부터 '바라보기에 아름답다'란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을 의미한다.

창41:2-영적 바라보다가 신앙인 이유는 바라보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은 내향의 의미에서 이해하는 것, 한층 더 내면적 의미에서 신앙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

창41:3-'바라보기에 나뻐'=신앙으로부터 있지 않은 것.

창42:1-'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바라보느냐?'=왜 그들은 주저하느냐?

출14:30-'이스라엘은 해안가에 이집트인이 죽은 것을 보았다'=다방면으로부터 흩어져 지옥에 떨어지는 양상.

겔1:13-'살아있는 생물의 양상.

출24:17-'여호와와 영광의 양상'=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의 나타남. '양상'은 눈 앞에 나타남이다.

계6:1-'와서 보라'=명백함...

* '생명의 나무'는 오시려 계셨던 주님을 향한 (이 땅 위 첫 교회의) 양상,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는 주님이 아닌 그것 자체를 향한 그것의 양상.

계1:4-'그분의 왕좌를 바라보는 (일곱 영들)'=현존하심과 섭리하심...'바라봄'=현존인 이유는 '바라봄, view,

sight'이 이해함, 그리고 이해함으로부터 파생된 생각을 의미하기 때문, 그리고 생각된 모든 것을 이해함에서 현재로서 눈에 보여지게 표출되어진다.

계6:1-'와서 보라'=유의함과 지각함...'바라보는 것'=지각, 그이유가 '보는 것, seeing'은 이해함을 의미하기 때문. 여기서는 지각함, 그이유는 이것이 가장 깊은 천국으로부터이기 때문.

창2:9-'바라보기에 바람직한'=이해함이 갈망하는 것.

양식 (food)

* 식품을 보라.

양우리 (sheepfold)

* 주님의 교회가 '양우리'라 불리운다

요10:1-'양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주님의 교회 안으로, 그리고 또한 천국 안으로

양장 (curtain)

* 커튼(curtain)을 보라.

양쪽의 (both)

출22:11-'양쪽'=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그이유가 내향의 의미에서 '양쪽 사이에'는 둘 사이를 뜻하지 않고,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의미되기 때문. 그이유가 '둘, two'=하나로 결합.

양털 (wool)

단7:9-'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이 희다'=진리 측면에서의 신성의 자연 평면...말씀에서 진리 자체는 흰색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 진리가 선으로부터 있을 경우 '깨끗한 양털'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분의 외적인 선).

출25:4-'암염소의 털(wool)'에 의해 순진의 최말단, 또는 가장 바깥쪽, 이는 무지에 있는 순진, 이 순진은 이 방인들과 더불어 있다. (=상호간의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선).

신22:11-'너는 양털과 아마포를 함께 입지 말라.' '양털'=선, 그리고 '아마포'=진리.

이51:8-'별레가 양털 같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양털'=감각적 인간으로부터 있는 더 낮고 더 외면적인 선들,

호2:5-'나의 양털', 그리고 '나의 아마 천'=사랑으로부

어둠

터의 외적인 선들과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겔44:15-18에서-‘양털’=천적인 진리, 이는 관계적으로 선이다. 그러므로 말해지는 바, ‘성직자들은...아마 천을 입고 양털은 자기에게 다가오게 말라.’

계1:14-‘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 같이, 눈 같이 희었다’=제일 등급에, 그리고 최말단에 있는 신성한 지혜로부터의 신성한 사랑.

이1:18-‘양털 같이, 눈 같이’라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양털’=최말단에 있는 선, 그리고 ‘눈’=최말단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 그 이유가 양털은 양으로부터인바, 이를 수단으로 선행의 선이 의미되기 때문.

겔27:18-‘사할(zachar)의 양털’=자연적 선.

이1:18-‘죄들이 ...양털 같이 될 것이다.’

양파 (onion)

민11:5-‘양파’, 등등=가장 낮은 자연 평면들, 즉 감각적인 육체적 평면.

어깨 (shoulder)

창9:23-‘어깨 위에 그것을 놓고...’그들의 모든 힘을 가지고...

* ‘손’=힘(power), ‘팔’=더 센 힘(greater power), ‘어깨’=전력(모든 힘, all power).

창21:14-‘그것을 그녀의 어깨 위에 놓아라’=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창24:15-‘그녀의 물동이가 그녀의 어깨 위에...’=진리를 받음, 그리고 노력함.

신33:12-‘그의 어깨들 사이에 거주하는 것’=...힘의 모든 것. (이것을) 선은 진리를 통하여 가진다.

겔12:12-‘어둠 아래 어깨 위에 짊어지는 것’=전력을 다해 거짓들 사이 아래로 운반했다.

창49:15-‘짐을 메기 위해 어깨를 구부리는 것’=전력으로 노동함. ‘어깨’=전력으로.

출12:34-‘그들의 어깨 위에’=모든 힘에 의거해서.

겔24:4-거기에 고기(flesh)인 선, ‘넓적 다리와 어깨’이다.

겔34:21-‘옆구리와 어깨를 가지고’=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출28:7-‘두 어깨들이 함께 인접함...’=모든 노력과 힘을 가지고 선과 진리를 보존함. ‘어깨들’=모든 힘과 능

력.

출28:25-‘그것들을 에봇의 어깨 위에 놓아라’=고로 모든 노력과 힘을 가지고 천국을 받치고 선과 진리를 보존함.

왕상7:39-짐의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쪽 어깨’

겔29:7-‘모든 어깨’=진리의 모든 힘.

어두운 (obscure)

불명료한 (obscure)

마24:29-‘태양이 어두워질(darken) 것이다’=주님을 사랑함이 사라질 것이다.

이9:19-‘토지가 어두워질 것이다’=교회의 것들이 짙은 어둠에, 또는 거짓들에 있을 것이다.

이9:19-거짓에 의해 교회가 악용됨이 ‘토지가 여호와 체바온의 분노하심에 어두워질(darken) 것이다.’

어둠 (darkness)

창1:2-첫 상태란 유아로부터,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거듭남 이전, 둘 다에 선행되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텅 빈’, ‘공허함’, 그리고 ‘어둠’이라 불리고 있다.

시97:2-그들의 무지함이 여기서 ‘구름과 어둠’에 의해 표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함과 직바름에 있기에, ‘그분 둘레에’라고 말해지고 있다.

창15:17-‘짙은 어둠이 깔렸다’=선행의 장소에 미움이 있을 때. ‘어둠’=거짓들, 그러나 ‘짙은 어둠’=악들. 진리 대신에 거짓이 있을 때 ‘어둠’이 있다, 그리고 ‘짙은 어둠’은 선 대신에 악이 있을 때, 이와 똑같은 표현으로 선행 대신에 미움이 있을 때 이다. 선행 대신에 미움이 있을 때 그 어둠은 아주 커서 인간은 그것이 악인지 아예 알아채지도 못한다. 하물며 저 세상 삶에서 그가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알아채는바 악은 그를 지옥으로 내던진다.

시18:9-똑같은 것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 ‘짙은 어둠이 그분의 발 아래 있었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솔2:1-주님의 강림이 ‘어둠의 날과 짙은 어둠의 날’이라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선한 자가 악한 자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시18:9-‘짙은 어둠’=구름들.

창27:1-‘(이삭의) 눈들은 어두워져서 그는 볼 수 없었다’=합리성이 신성이었던 것을 가지고 자연성을 계발하

어둠

기를 원했을 때... 눈들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해질 때, 그것=더 이상 통각 작용이 없음; 여기서 자연성에 있는 것들의 통각 작용이 없음; 그리고 이것이 이런 말들의 의미인바, 그것=합리성이 신성이었던 것을 가지고 자연성을 계발하기를 원했다.

시91:6- '질은 어둠을 기어다니는 악성 유행병'=숨겨 있는 악.

출10:21- '이집트의 토지 위에 질은 어둠이 있을 것이다'=선과 진리의 완전한 결핍. (한 구절 안에서) '어둠' 그리고 이어서 '질은 어둠'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경우, '어둠'은 거짓을 서술하고, 그리고 '질은 어둠'은 거짓과 함께한 악을 서술한다. 이 절에서 사용된 단어 '질은 어둠'은 모든 어둠 중에서도 최고로 질은 어둠을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을 수단으로 악으로부터 시냇물같이 흐르는 거짓이 의미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거짓들은 교회에 속해 오고 있었던 이들과 함께 나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믿음의 개념들과 반대되는 악한 생활을 영위했다. 이런 거짓들이 솟아나게 하는 악은 교회에, 천국에, 주님께 정반대이다; 고로 선과 진리에 완전 반대이다; 이 상태가 여기서 '질은 구름'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 '어둠'=진리에 무지함, 이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그러하였다. 그리고 '질은 어둠'=선에 무지함.

출10:22, 이8:22, '사람들이 질은 어둠에서 더듬을 것이다'=악으로부터 있는 거짓의 밀도. '질은 어둠 안에서 더듬는 것'=악으로부터의 거짓은 매우 짙어서 선과 진리에 대한 어떤 것도 알려질 수 없다. 그럼에도 만일 알려한다면 이는 마치 질은 어둠에서 더듬는 것과 같다. 따라서 걸려 넘어지거나 모든 것을 두드려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 질은 어둠이 '좌초하게 하는 질은 어둠'이라 부르고 있다. 이와 똑같은 묘사가 이사야서의 다른 곳에서도 있다. 즉 '우리는 질은 어둠에서 걷는다, 우리는 맹인 같이 답을 더듬는다. 그리고 눈 없음 같이 우리는 더듬는다; 우리는 대낮에 황혼에 있을 때 같이 걸려 넘어진다. 살아 있는 자 사이에서 우리는 죽은 자 같이 있다.'

출20:21- '모세는 하느님이 계신 질은 어둠쪽으로 가까이 접근했다'=영적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신성으로부터

의 진리와 아직 더 결합함.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영적 교회)에 질은 어둠인 이유는 그들이 신성한 진리들에 관련된 어떤 빛 안에도 있지 않기 때문. 영적 교회에 속한 그들은 자기들이 빛 안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희미함 안에, 그 뿐만 아니라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관련해서는 질은 어둠 안에 있다. 이는 그들이 교회가 말하는 것을 내적 지각으로부터 알지 못하느라 그들은 교회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다고 믿어야지 하는 사실로부터 명백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참된지 거짓인지 를 확증한다. 그리고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하여 내적 지각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질은 어둠 안에 있다. 바꿔 말하면 그에게 신성한 진리는 질은 어둠이다. 이로부터 더 알 수 있는바 희미함 안에, 질은 어둠 안에 영적 교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60:2- '어둠, 그리고 땅과 백성들을 덮는 질은 어둠'= 믿음의 희미한 것들과 사랑의 희미한 것들; 그이유가 이것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있는 교회의 건설에 관련하여 말해지기 때문이다.

이59:9,10- '어둠'=거짓들.

이8:22- '보라 곤란과 질은 어둠'=(선들과 진리들)이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오로지 거짓들 뿐이라는 것; '질은 어둠'=밀도 높은 거짓.

이58:10- '그다음 네 빛이 어둠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네 질은 어둠은 정오 같이 있을 것이다'.

시18:9- '그분의 발 아래 질은 어둠'=더 낮은 것들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의 거짓.

이59장- '질은 어둠'=악으로부터의 거짓

이58:10- '어둠과 질은 어둠'=진리에 무지함, 그리고 선에 무지함.

창1:4,5-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구별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어둠'은 인간이 새로이 임신되어 태어나기 전 빛으로서 나타나 있었다; 그 이유는 악이 선 같이 나타났고, 거짓이 진리인 듯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둠이고, 인간에게 남아 있고 인간에게 어울리는 것들이다.

겔32:8- '나는 네 토지 위에 어둠을 놓을 것이다'=그들은 감각적인 것과 과학적 사실들을 통하여 사랑과 신앙

어둠

을 구분했다.

이13:10-‘올라오는 태양이 어두워졌다’

욥2:2-‘어둠의 날, 그리고 짙은 어둠의 날’

이60:2-이 구절은 세부적 측면을 다루는바 어둠 안에 있는 개개인들에 관한 것, 그리고 빛을 받는 이들, 그리고 거듭나지는 이들에 관한 것을 취급하고 있다.

창1:18-‘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는 것’. ‘어둠’=거짓.

창15:12-‘오! 큰 어둠의 공포가 그를 덮치고 있다’=어둠은 무서운 것, 그리고 어둠은 거짓들이라는 것은 ‘어둠’이 거짓들이라는 의미로부터 명백하다. 마감 직전의 교회의 상태, 그러나 태양이 이제 막 지려는 때가 ‘큰 어둠의 공포’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이 이미 저버린 때의 상태는 ‘짙은 어둠’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이5:30-‘보라 어둠, 곤경, 그리고 빛이 어두워짐’. ‘어둠’=거짓들, ‘빛이 어두워짐’=진리가 나타나지 않음.

슌1:15-‘어둠’, 그리고 ‘짙은 어둠’=거짓들과 악들.

마6:23-‘만일 네 눈이 악하다면, 네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네 안에 있는 빛(lumen)이 어둡다면 그 어둠은 얼마나 크겠느냐?’ ‘어둠’=거짓들, 이것은 지식들에 있는 이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어둠이 얼마나 크지가 지식들이 없는 이방인의 것과 비교되어 뜻해지고 있다.

마8:12, 22:13-‘바깥쪽 어둠’=교회 안에 있는 이들의 더 끔직한 거짓들. 그 이유가 이 인물들은 빛을 어둡게 하고, 진리들에 맞서 거짓들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이런 짓은 이방인들의 경우 가능치 않다.

요1:5-‘빛이 어둠에 나타나나 어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둠’=교회 내에 있는 거짓들.

마4:16-교회 밖의 거짓 역시 어둠이라 불린다, 그러나 계발될 수 있는 거짓이다. 마치 본 구절, 즉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와 같은 경우이다. ‘어둠’=이방인들과 더불어 존재한 것 같은 어둠, 즉 무지의 어둠.

요3:19-‘이것이 심판이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인간들은 빛 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이유가 그들의 일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빛’=진리들, 그리고 ‘어둠’=거짓들. ‘빛’=주님, 그이유는 모든 진리가 그분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둠’=지옥들, 그 이유는 모든

거짓이 거기서 오기 때문이다.

요12:35,46-‘어둠이 너를 붙잡아 두지 않도록 네가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 걸으라; 그이유가 어둠에서 걷는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바, 나를 믿는 모든 이는 어둠에 거주하지 않으리라’...‘어둠’=거짓들, 이는 주님 만에 의해 흔들려 떨 구어진다.

마27:45, 막15:33, 눅23:44-이 구절에서 ‘어둠’이라 불리고, 그것이 ‘큰 어둠의 공포’라 서술되는 마지막 때의 거짓들이 ‘제 육시로부터 제 구시까지 온 땅을 덮은 어둠’에 의해 표현되고 의미되었다. 또한 ‘태양이 어두워짐’에 의해서도 표현되고 의미되었다. 이를 수단으로 표현되고 의미된 것은 그 당시 사랑이 없었고, 더 이상 어떤 믿음도 없다는 것이다.

시104:20-‘어둠을 배치하는 것은 밤일런지 모른다.’=희미함의 상태를 온건해지게 함.

삼하22:10-‘그분의 발 아래 밀도 높은 어둠’=인간에게 존재하기위해(보여지도록) 나타나는 것들. ‘어둠’= 예를 들면 말씀의 글자 의미 같은 것.

이42:7-‘소경의 눈을 여는 것, 갇힌 자를 감옥으로부터 데려오는 것, 어둠에 앉은 그들을 감금된 상태로부터 데려오는 것’=선과 진리에 무지한 이들, 그럼에도 그것들을 알고 싶어 하고 그것들을 자기들 속에 불어넣기를 갈망하는 이들.

겔12:12-‘왕자들이 어둠에서 어깨 위에 멜 것이다’=진력을 다해 거짓들 사이에 가져다 내려 놓을 것이다.

겔32:8-‘그러므로 거짓들 만이 자연적 마음을 점유할 것임이 나는 너희 토지 위에 어둠을 놓을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어둠’=거짓들.

암8:9-‘나는 빛의 낮에 어둡게 할 것이다’=거짓들이 교회를 소유할 것이다.

출10:15, 마8:12-‘토지가 어두워졌다’=거짓이 진리가 있어 왔던 곳에 가져다 놓였다는 것. ‘어둠’=거짓들; 고로 ‘어둡게 되는 것’=거짓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 있어온 이들, 진리들을 알고 있었던 이들, 그러나 악하게 살았던 이들의 황폐됨을 다루고 있는바, ‘토지가 어두워졌다’=진리가 있었던 곳에 거짓이 있다. 진리가 ‘빛’에 의해 의미되듯, 거짓은 ‘어둠’에 의해 의

어둠

미되어진다.; 그이유가 진리와 거짓은 빛과 어둠 같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빛은 진리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어둠은 거짓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다. 저세상 삶에서 거짓 안에 있는 그들에게 있는 루멘(lumen)은 천국의 빛의 현존에서 짙은 어둠이 되어 간다, 그리고 더욱이 교회 속에 있어왔던 이들과 더불어 어서는 한층 더 짙은 어둠이 되어 간다. 그이유는 그들과 더불어 거짓은 믿음의 진리와 반대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안에 빛이 어둠다면, 그 어둠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다시, '왕국의 아들들이 바깥 어둠으로 내던질 것이다.'... '바깥 어둠' = 더 비통한 거짓들; '바깥쪽'이라 불리는 이유는 가장 바깥 것들에 있는 거짓이 가장 비통하기 때문이다.

출14:20- '구름과 어둠' = 악으로부터의 거짓이 응축됨... '어둠' = 거짓.

이45:3- '어둠 속의 보물, 감추여 있는 장소 속의 감추여 있는 재산' = 천국의 총명과 지혜 같은 것들, 이것은 자연적 인간으로부터는 감추여 있다.

계8:12-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다' = 그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진리도 알지 못했다는 것... '어두워지는 것' = 거짓들로부터의 악 때문에, 악들로부터의 거짓 때문에 보여지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 '어둠' = 이런 것들인 이유는 '빛' = 진리이기 때문; 그리고 빛이 소진될 때 어둠이 그 뒤를 계속 잇는다.

마8:12, 22:13, 25:30- '어둠' = 진리에 무지함으로부터, 종교의 거짓 원리로부터, 또는 악한 생활로부터 야기되는 거짓. 종교의 거짓들에 있는 이들, 그로부터 악한 생활을 즐긴 이들에 관해 주님께서 말하신다. '그들은 바깥 어둠에 내던져질 것이다.'

계16:10- '그의 왕국은 어둡게 되었다' = 나타난 것이라고는 거짓 밖에 없다. 거짓들이 '어둠'에 의해 의미되는 이유는 진리가 '빛'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시야에서 그들의 믿음 속의 거짓들은 어둡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거짓이 아니게 나타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열어 제쳐 주는 천국의 빛으로부터 관조 할 경우 그들은 어둡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천국의 빛이 지옥에 있는 이들의 깊숙한 방으로

흘러들 때 이 빛은 어둡게 되어 그들은 서로를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지옥은 닫힌다... 그이유는 어둠에 있다는 것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거짓 안에 있다 해도 루멘(lumen) 안에서일 경우, 그들의 거짓들은 그들이 거짓들을 확증한 후라면 그들에게는 진리로서 나타난다. 그 결과 이것이 그들의 루멘, 얼빠진 루멘이다. 이 루멘은 올빼미나 박쥐에 상응한다. 이 동물에게 어둠이 루멘이고 루멘이 어둠이다. 이것들에게 태양은 한낱 짙은 어둠일 뿐이다.

겔32:8- '토지 위에 어둠' = 교회에 있는 거짓들.

시139:12- '어둠조차 너를 위해 어둠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밤은 맑은 날 만큼하다; 어둠이 있는 만큼이나 빛도 있다'... '어둠' = 거짓들.

마22:13- '그를 바깥 어둠에 던지는 것' =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에 있는 이들 사이에. '바깥 어둠' =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이42:16- 무지의 거짓이 사라짐, 그리고 계발이 있음이 '나는 어둠에 빛을 놓을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시18:28- '어둠을 눈부시게 밝게 만드는 것' = 진리의 빛을 수단으로 무지로부터의 거짓들이 사라지는 것.

창1장- 그들이 이전에 심한 무지 안에 그리고 거짓들 안에 있어 왔음이 '어둠이 심연의 얼굴 위에 있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시11:2- '어둠' = 나타남, 외관. 그들은 세상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오류들로부터, 또한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추론한다.

미3:6- 그들이 거짓을 점치리라는 것이... '어둠이 너를 위하여 점치는 것 대신 일어날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예13:16- '그분이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 거짓들이 점유하지 않도록.

이49:9- '어둠' = 무지의 거짓들.

요1:4,5, 8:12, 12:35,46- '어둠' = 지옥의 거짓; 그이유는 어둠에 반대되는 '빛' = 진리이기 때문... 그리고 신성한 진리가 천국들 안에서 빛이듯, 지옥들 안에 있는 거짓인 악으로부터의 거짓은 '어둠'이다.

시143:3- '그것이 나로 어둠에 앉게 만들었다' = 거짓들 안에

어린 시절-어린 아이-어린 암소-어린 양

이59:9-‘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둠을 바라본다’=진리를 예상하나 거짓을 바라본다; ‘광휘를 바라나 우리는 짙은 어둠에서 걷는다’=진리들을 통하여 선들을 예상하나 악들로부터의 거짓으로 살고 있다.

눅22:53-이 죄를 범하는 힘을 주님께서는 어둠의 권세라 부르고 있다. 그이유는 그들이 악의 거짓들 안에, 주님께 관련된 거짓들 안에, 그분에 맞선 악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둠’=지옥인 이유는 거기에 이런 악의 거짓들이 있기 때문이다.

눅11:35-우리가 한때 진리를 이해성 안에서 지각했는지 안에 받았으나 거짓으로 변했다는 것, 이것이 악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할 것임이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가를 보라’에서 의미되고 있다; 그이유가 이렇고로해서 거짓들이 더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47:5-‘침묵하여 앉아 있으라, 그리고 어둠으로 들어가라, 오 갈대아인들의 딸이여’=진리의 왜곡; 고로 ‘어둠’=악의 거짓, 그이유는 악이 진리를 거짓화하기 때문이다.

창1장-‘어둠’=또한 자연적 루멘(lumen), 그이유가 이 루멘을 영적 빛과 연계해보면 상대적으로 어둠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인간의 자연적 지식에서 우세를 떨치는 것과 같은 것인 인간의 자연적 루멘을 내려다 볼 경우, 그들은 그것을 어둠으로 본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이 어둠 안에 이들도다 라고... 이 루멘이 창세기 1장에서 ‘어둠’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5:30-‘잘 보라 어둠, 근심, 그리고 빛이 거기서의 폐허에서 어두워지고 있다.’ 이는 교회의 황폐됨을 묘사한 것이다. ‘어둠’=거짓들; ‘근심’=악, ‘빛이 어두워짐’=신성한 진리가 소멸되어 사라짐.

요8:12-‘나를 따르는 그는 어둠에서 걷지 않을 것이다’=그는 거짓들 안에 있지 않을 것.

어디 (where)

창37:16-‘그들은 자기들의 양떼를 어디서 먹이는가?’=그들이 무슨 상태에서 있는지...‘어디’=상태, 모든 장소들=상태들이기 때문.

어디서 (whence)

창16:8-‘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상태에 관한 가르침.

나?’=상태에 관한 가르침.

계7:13-‘이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그들의 품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품질은 어떠한왔었는지.

눅13:27-말씀을 읽어 가르침을 받는다 해도 가르침에 따른 생활이 없으면 쓸모없다는 것이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서인지 알지 못한다, 나로부터 떠나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어리석은 (foolish)

바보 (fool)

어리석음 (folly)

마7:24,26, 25:2-신중한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사랑으로부터 신앙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사랑 없이 신앙 안에 있는 이들. 신중하고 어리석은 건축자 역시 이와 같다.

창34:7-‘그는 이스라엘에게 어리석음을 저질렀다’=그들의 눈에서 불법적인 것.

마23:19-‘너희는 바보요 소경이다...’

이32:6-‘바보는 어리석음을 말한다...’ 자아 사랑으로부터, 고로 자기의 총명으로부터 거짓들과 악들에 있는 자가 ‘바보’라 불리운다.

시74:18-‘그분의 이름을 모욕한 어리석은 백성’=교리의 진리들에 반대되는 거짓들. 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어리석은 백성’이다.

예17:11-결국 그들은 거짓된 것 외에는 진리에 대한 지식은 가진 것이 없을 것임이 ‘필경 그는 어리석은 자일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어린 나귀 (young ass)

* 나귀(ass)를 보라.

어린 시절 (childhood)

* 아이(child)를 보라

어린 아이 (little child)

* child를 보라

어린 암소 (heifer)

* calf, bullock도 참조.

이11:7-‘어린 암소와 곰이 먹을 것이다’=말씀 속의 진리들을 왜곡하는 자연적 인간의 힘이 자연적 인간의 선에 상처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어린 암소’=자연적 인

어린 자-어머니

간의 선과 진리에 애착함.

어린 양 (lamb)

이11:6-‘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순진과 사랑의 세 등급.

창21:28-‘아브라함은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순진의 거룩함.

민6:14-그러므로 나지르인은 어린 숫양과 어린 암양을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수단으로 천적 평면이 의미되어진다.

겔27:21-‘어린 양’=천적인 것들.

레12:6-태워바침과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들은 ‘자기들의 해(year)의 어린 양들’이었다=주님의 왕국에 있는 순진의 천적인 것들, 이는 영원하다.

겔27:21-‘어린 양들, 숫양들, 그리고 숫염소들’=영적인 선들과 진리들.

창30:32-‘어린 양들에 있는 모든 검은 것들’=라반에 의해 의미된 선에 속하는 순진의 자아(proprium)... ‘어린 양’=순진.

이11:6-‘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이다’... ‘어린 양’=순진 안에 있는 이들.

이65:25-‘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을 것이다’... ‘어린 양’=순진에 있는 이들.

눅10:3-이리와 어린 양은 정반대되는 동물인바, 주님께서 칠십 인들에게 말하시기를, ‘보라 나는 너희를 이리들 한가운데에 있는 어린 양 같이 보낸다.’

신32:14-‘어린 양들의 지방(fat)’=순진으로부터의 선행.

이40:11-‘그분의 팔 안으로 어린 양들을 모으는 것’=순진으로부터 선행에 있는 이들.

요21:15-순진을 제외하고는 선행과 사랑이 없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물으신다. 즉, 신앙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물으신 것, 그다음 말하신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즉 순진에 있는 이들.

레12:6-아이를 낳는 여인이 그의 정결해지는 날들이 지나간 후, 태워 바침을 위해 어린 양, 또는 어린 짐비들거나 산비둘기를 바치는 이유는 순진인 결혼 사랑의 결과가 의미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유아들=

순진이기도 하기 때문.

창30:40-‘야곱은 어린 양들을 분리했다’=순진에 관하여. (그이유가) ‘어린 양들’=순진이기 때문.

겔46:13-‘어린 양으로부터 태워바침’에 의해 순진의 선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이 뜻해진다.

출12:5-‘너는 어린 양으로부터 그리고 암염소로부터 가져올 것이다’=내면과 외면의 순진의 선.

암6:4-‘양떼로부터 어린 양들을 먹는 것’=내적 또는 영적 인간 속에 있는 순진의 선들을 배워 자신에게 어울리게 하는 것.

출29:38-‘매일 일 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모든 신성한 예배에서) 모든 상태에 있는 순진의 선. ‘어린 양’=순진의 선.

계6:6-‘죽여진 어린 양’=교회에서 신성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분의 인간 측면.

계6:1-‘어린 양이 첫 봉인을 떼셨을 때’=주님에 의해 탐사됨.

계7:17-‘왕좌의 한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일 것이다’=주님 만이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라는 것. ‘왕좌 한가운데 있는 어린 양’에 의해 가장 안쪽에서 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주님, 그리고 고로 천국의 모든 것 안에서 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주님이 의미된다.

계13:8-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씌어지지 않은 이름들=주님을 믿는 이들을 제외하고.

계13:11-‘그는 어린 양 같이 두 뿔을 가졌다’=그들은 자기들의 것이 말씀으로부터이기 때문에 마치 주님의 신성한 진리들이기라도 한 듯 떠벌린다. 그이유가 ‘어린 양’은 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 그리고 또한 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인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이 뜻해지기 때문. 이로부터 이 짐승 위에, 즉 거짓 예언자인 짐승 위에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나타난 것이다.

계14:1-‘시온 산 위에 서있는 어린 양을 보라’...=지금 새 천국에 계신 주님... ‘어린 양’에 의해 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이 뜻해진다.

계14:10-‘(그가)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고 말해진다. 그 이유는 이런 사랑들이 신성한 진리에, 말씀이신 주님에 반대되기 때문. 그이유가 ‘어린 양’에 의해 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 동시에

어린 자-어머니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이 의미되기 때문.

계17:14-‘이들이 어린 양과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분은 주들 중의 주이시고 왕들 중의 왕이시기 때문’=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인정함에 관하여 그들과 주님의 싸움, 그 이유는 그것 안에서 주님은 천국과 땅의 하느님, 또한 말씀이시기 때문.

계19:7-‘어린 양의 결혼이 가까우기 때문’=그 이유는 지금부터서는 주님과 교회의 완전한 결혼이 있기 때문.

출12:1-29-이 표현 때문에, 또한 어린 양, 또는 어린 염소의 유월절 만찬이 제정되어졌다. 그 이유가 유월절기를 수단으로 주님의 인간 측면이 영광을 입으심이 표현되었기 때문.

계14:10-‘어린 양’=주님의 신성한 인간, 여기서의 경우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 이 신성은 천국들에 있는 신성한 진리에 결합된 신성한 선이다.

어린 자 (little one)

창4:23-‘어린 자’=선행.

예6:11-최근의(새로운) 거짓들이 ‘어린 자’라 불리운다.

예9:21-‘어린 자’=진리들, 이것이 처음 출생된다.

어머니 (mother)

* 아버지도 참조.

창3:20-‘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교회. 이것이 처음의 교회였다는 사실로부터 ‘어머니’라 불리워진다.

예22:26-‘어머니’=교회.

막3:32-35, 마7:46-49, 눅8:20,21-주님의 인간 측면은 어머니로부터였다. 그러므로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허약한 것을 주님은 시험들의 전투들을 통해 정복하셨다. 동시에 그것들을 깡그리 추방하시어 그분 안에는 하나도 있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어머니 쪽의 것을 완전히 벗어냄으로 그분은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분에게 말했다...보라 어머니...그리고 그분은 답하셨다...누가 나의 어머니이냐...그리고 그분 주위에 앉아있는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분은 말하셨다, 보라 나의 어머니...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모두...똑같은 나의 어머니...’

창20:12-‘나의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합리성이 어머

니되는 영적 진리를 임신하지 않았다.

창21:21-‘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데려 왔다’=진리에 애착함 ; 그이유가 ‘어머니’=교회; 그리고 영적 왕국의 교회는 진리에 애착함 안에 있다...

창24:28-‘그녀는 자기 어머니의 집에게 말했다...’=모든 자연적 선에게...‘어머니의 집’=외적 인간의 선; 즉, 자연적 선...(그이유가) 인간의 외적인 것, 자연적인 것은 어머니로부터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모든 선과 진리는 아버지인 내적 선이 어머니인 외적 선 안으로 유입됨으로 출생되어진다.

창28:5-‘어머니 리브가의...’=어머니로부터의...

창32:11-고대인들 사이에 관습적인 행위였던 ‘아들에 어머니까지 쳐죽이는 것’은 교회의 파괴 그리고 작은 교회인 교인과 더불어는 것, 일반적인 것이든 특수한 것이든 모두를 파괴함을 의미한다; 그이유가 ‘어머니’는 교회들, ‘아들들’은 교회 속의 진리들을 의미하기 때문.

미7:6-‘딸이 어머니에 맞서 일어난다’=진리에 맞서는 악에 애착함.

막10:29-‘어머니’, 등등=인간과 더불어 있는 것들, 인간에 잘 어울리는 것들, 인간이 ‘버려야 하는 것들’.

창43:29-‘그의 어머니의 아들’=자연적 평면으로부터의 내적인 것, 마치 어머니로부터 (몸을)받는 것과 같다. (그이유가) 매개물은 어머니되는 자연으로부터 출시되기 (때문).

창44:20-‘그 아이 만이 그의 어머니에게 남겨졌다’=이 진리는 교회의 유일한 진리이다. ‘어머니’=교회.

이50:1-‘어머니’=교회

호2:2-‘어머니’=교회.

출2:8-‘그녀는 아이의 어머니를 불렀다’=교회 속의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교회 속에 있는 이런 것들에 인접해 있다].

삼상15:33-‘너희 어미는 다른 여인 보다 더 빼앗길 것이다’=악한 애착은 지적 측면이 아닌 의지 측면으로부터 그들과 더불어 지배하리라는 것.

출20:12-‘너의...어머니를...공경하라’=진리를 사랑하라; 최고 의미에서,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고로 그분의 왕국; 그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가 천국을 만들기 때문.

언덕-언약

출21:15-‘자기 어머니를 처죽인 자는’=주님의 왕국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관계적 의미에서 교회의 진리를 모독하는 것.

출21:17-‘자기 어머니를 저주한 그는...’=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 의해 주님의 왕국이...완전히 부인됨; 그리고 교회 속의 진리를 모독함. ‘어머니’=주님의 왕국; 그리고 관계적 의미에서 주님으로부터 있는 진리.

출22:30-‘칠일 동안 그것의 어미와 함께 있을 것이다’=진리들과 더불어 첫 상태...‘어머니’=진리 측면에서의 교회; 고로 또한 교회 속의 진리.

겔19:1-‘어머니’=교회

호2:5-‘어머니’=뒤집힌 교회

호2:1-13-‘어머니’를 수단으로 열거된 사항들은 어머니가 아닌 이 국가와 더불어 있는 교회 모습이다.

마10:35-‘어머니’=악에 애착함과 거짓에 애착함.

눅8:21-‘어머니’=교회.

계17:5-‘딸의 매춘과 가증함의 어머니’=이런 것들의 근원 (광신적 신앙으로부터 섞음질과 모독함이 있다)

요19:26,27-‘어머니’와 ‘여인’=교회.

예15:8-‘젊은 이들의 어머니’=교회.

겔19:2-‘네 어미는 암사자였다’=교회가 뒤집혔다.

애2:12-‘어머니들’=교회의 모든 것들. (=교회의 진리들).

겔19:10-‘네 어미는 포도나무 같았다’=고대 교회, 이 교회는 생활 속의 선, 고로 진리들 안에 있었다.

겔18:2-‘어머니’=교회.

예16:3-‘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들’=내면의 진리들과 선들, 이것들이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이라 불리는데, 그이유는 그것들이 외면의 것들을 낳고 생산하기 때문.

시22:10-‘내 어머니의 가슴들’=교회 속에 있는 영적 자양분; ‘어머니’=교회.

시113:9-‘아들들의 반가운 어머니’=선으로부터의 진리가 태어나지는 교회.

겔19장-‘어머니’=일반적 측면에서의 교회.

어버이 (parent)

막13:12-‘어린이들이 자기들의 양친(parents)에 맞서 일어나 그들을 죽일 것이다’=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을 습격하여 파괴할 것이다.

눅21:16-‘양친’, 등등에 의해 동일한 교회로부터 있되 악들과 거짓들에 있는 이들.

어부 (fisher, fisherman)

* 물고기를 보라.

어제 (yesterday)

* ‘어제’ 최고 의미에서 일 경우 =영원으로부터.

창31:2-‘어제 그리고 그 이전 날 같지 않다’=아주 바뀐 상태.

출4:10-‘어제로부터 조차, 어제 그 전날로부터 조차’=영원으로부터가 아니다.

출5:7-‘어제 그리고 어제 이전의 날 같이’=이전의 상태에서 같지 않다.

출5:14-‘어제 그리고 오늘 모두 다’=파생되는 미래 상태. 그이유가 ‘어제’=이전의 상태. 그리고 ‘오늘’=영속적인 것.

출21:29-‘어제 그제로부터’=선행하는 상태와 시간.

시90:4-‘당신의 시야에서는 천년이 어제 같다’

언급하다 (mention)

이26:13-‘여호와와 그의 이름에 관해 언급을 만드는 것’=신앙의 진리들과 사랑의 선들로부터 예배하는 것.

이49:1-‘그분의 이름에 관해서 언급을 만드는 것’=그분의 품질이 무엇인지에 관련하여 가르치는 것.

출23:13-‘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우리가 거짓의 교리로부터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 ‘언급하는 것’=생각하는 것.

예3:16-‘더이상 외적 예배에 있지 않고 내적 예배에 있을 것임이 ‘심정 위에도 승강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에 관해 언급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언덕 (hill)

* mountain도 참조.

* ‘언덕들’=이웃을 향한 사랑.

이2:14-‘들려진 언덕들’=세상 사랑.

시114:4-‘(거듭난 후 영적 선으로부터의) 천적인 자연 평면이 ‘양떼의 자식 같이 뛰는 언덕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예16:16-‘모든 언덕에 ...사냥꾼이...’=진리에 애착함 안에 있는 이들을 가르치는 것.

언약

호4:13-거짓인 것을 예배함이 '언덕에서 향을 바치는 것'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31:4-'시온 산'=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언덕'=거기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창49:26-'시대의 언덕들의 바램에'=천적 수준의 상호 사랑에. '시대의 언덕들'=상호 사랑으로부터 있는 것들.

출17:9-'내일 나는 언덕의 머리에 서있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선행으로부터의 선과 결합함, 그리고 유입됨이 파생됨. 그리고 영적 의미에서는 선행(chatity).

예13:27-'뜰판에 있는 언덕들'=교회에 있는 진리의 선들, 이것이 악용되었다.

예4:24-'뒤집어 엎어진 언덕들'=이웃을 향한 사랑. 이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천국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 있는 이들은 언덕 위에 거주하기 때문.

예12:12-'낭비자(wasters)들이 당도한 광야에 있는 언덕들'=선행으로부터 있는 것들.

겔36:6-'언덕들'=이웃을 향한 선행으로부터의 선들.

시72:3-'정의에 있는 언덕들'=이웃을 향한 사랑.

을3:18-'언덕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이웃을 향한 선행의 선으로부터 영적 생명이 있다.

예17:2-'높은 언덕들 위에'=선에 섞임결합과 진리를 왜곡함.

나1:5-'언덕들'=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 교회. '언덕들'에 의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의미된다. 그이유가 이웃을 향한 사랑에 있는 천사들이 언덕 위에 거주하기 때문. 이웃을 향한 사랑 대신에 세상을 사랑함이 지배할 때, '언덕들이 녹아졌다'고 말해진다. 그이유가 언덕 위에서 천국의 모습을 자신들로 만드는 영인들과 더불어 영계에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

이30:25-'모두 각각의 드높아진 언덕 위에 있는 이들'=이웃을 향한 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

시68:15-'이 산(바산)의 언덕들'=행동 중인 사랑.

신33:15-'시대의 언덕들'=이웃을 향한 선행으로부터의 선들.

신33:15-'시대의 언덕들로부터의 귀중한 것'=이웃을 향한 선행의 선 안에 있었던 고대 교회 안에 있었던 진짜(순수한) 진리들.

이40:12-천국들에서 모든 것들을 정돈 배열함이 '그는

저울로 언덕들의 무게를 달았다'에 의해 의미된다...'산들', '언덕들'=보다 높은 천국들...'언덕들'=이웃을 향한 선행 안에 있는 이런저런 천국들.

겔34:26-'여호와와 언덕을 빙들러'=교리의 진리에 있어, 이로부터 선행의 선에도 있는 모든 이들.

언약 (covenant)

창6:18-'나는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그는 거듭나질 것이라는 것; 그 이유는 사랑과 신앙을 통하여 있는 결합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언약도 가당치 않기 때문. 고로 '언약=결합; 그이유가 이것이 천국의 결혼이기 때문, 즉 이것은 지극히 참다운 언약이다. 그리고 이것은 거듭나지지 않은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거듭남 자체는 '언약'에 의해 의미된다. 주님이 인간을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분은 그 인간과 더불어 언약 안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므로 고대인들과 더불어 '언약'은 이외 다른 의미는 없었다.

창9:9-'나는 내 언약을 세우겠다'=선행 안에 주님이 현존하심.

창17:7-'언약을 세우는 것'=주님께서 우주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인간과 결합하심.

창9:12-'이것은 내 언약의 표시이다'=선행 안에 주님이 현존하심에 대한 표(mark)...이것은 언약의 본성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이유가 모든 언약을 결합을 위하여 있기 때문, 하여 그들은 우정 안에서 또는 사랑 안에서 살아 갈런지 모른다. 이로부터 결혼은 언약이라 불리우기도 한다.....결혼은 언약의 최고로 대단한 실체이다.

창9:15-'나는 나 사이와 너 사이에 있는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주님의 자비하심, 특히 거듭나는 자와 거듭나질 수 있는 자를 향한 주님의 자비하심.

창9:16-'영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주님께서는 선행 안에 있는 그에게 나타나실런지 모른다는 것...주님을 사랑함,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외에 영원히 존재하는 언약은 없다.

창15:18-'그 날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만드셨다'=주님의 내면의 인간이 그분의 내적인 것과 결합함. '언약=결합.

언약

창17:4-‘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신성한 실체가 주님의 인간의 실체와 합일됨. ‘언약’=결합.

창17:7-‘나는 내 언약을 나 사이와 네 사이에 세울 것이다’=합일(union). ‘언약’=합일.

창17:9-‘너는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한층 더 가까운 합일. ‘언약’=합일과 결합. 단어 언약이 반복됨=더 긴밀한 결합.

창17:10-‘이것은 내 언약이다, 이것을 너는 나 사이와 너 사이에서 지킬 것이다’=모든 것들이 주님과 결합함에 대한 표(mark). ‘언약’=결합함. 여기서는 결합에 대한 표. 이는 뒤이어 있는 구절로부터, 즉 ‘언약의 표시(sign)’라 불리우는 것으로부터 분명하다. 언약의 표시들은 교회의 모든 바깥쪽 의식들이다.

창17:13-‘내 언약이 네 살 안에 있을 것이다’=불순한 상태에 있는 인간과 주님이 결합함.

창17:14-‘그는 내 언약을 공허하게 만들었다’=그것은 합쳐질 수 없다는 것.

창17:19-‘나는 그와 더불어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울 것이다’=영원한 합일. ‘언약’=결합. 그리고 주님을 서술할 때, 그분의 신성한 실체와 그분의 인간의 실체의 합일, 그리고 그분의 인간의 실체와 그분의 신성의 실체의 합일.

창17:21-‘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신성의 합리성과의 합일.

시89:3-‘언약을 만드는 것’은 신성한 선에 관한 것이고 ‘맹세하는 것’은 신성한 진리에 관해서이다.

예31:31-‘새로운 언약’=선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함.

창31:44-‘언약을 만들자, 나와 너’=신성의 자연 평면이 일(work)로부터 있는 선들과 결합함.

출2:24-‘하느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기억 하셨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통하여 교회와 결합함.

출19:5-‘내가 내 언약을 지키다면’=선 안에 있는 생활, 그리고 그로부터 결합함. ‘언약을 지키는 것’=명령에 따라 사는 것, 고로 선 안에서 사는 것. 하여 주님과 결합되는 것.

호2:18-‘들판의 들짐승들, 새와, 그리고 땅의 파충류와 언약을 만드는 것’=주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내적, 외적 선을 통하여 결합함.

레2:13-그로부터 소금은 ‘너희 하느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불리운다. 그이유가 ‘언약’=결합, 그리고 ‘소금’=결합을 바램.

출23:32-‘너는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만들지 말라’=악과 거짓과 교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출24:7-‘그는 언약의 책을 가져왔다’=글자 안에 있는 말씀, 이것과 더불어 천국에 있는 말씀이 결합한다.

출24:8-‘보라, 언약의 피’=그것에 의해서 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이 천국과 인간과 더불어 결합함.

출31:16-‘시대의 언약’=주님과 영원히 결합함.

출34:10-‘보라, 나는 언약을 만든다’=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류와 결합함이 첫째가는 사항이다.

출34:12-‘너는 내가 다가오는 토지의 거주민과 언약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라’=악이 들어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이든 들리블지 말라.

출34:27-이 말들(words)의 입 위에 나는 너와 더불어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만든다’=그것에 의해서 내적 그리고 외적 예배에 있는 이들과 결합이 있다.

이42:6-‘백성을 위한 언약, 그리고 나라들의 빛’=인간 측면에서의 주님.

출24:8, 속9:11, 이42:6-언약의 경우와 같이 성만찬의 경우도 같다. 이 조항이 놓여진 이후 이 조항은 날인되어 봉인되었다. 주님의 피가 언약이라는 것을 주님 자신 ‘새로운 계약(the new testament)’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가르치시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 이전 예언자들을 통하여 씌어진 말씀은 옛 계약 또는 언약이라 불리우는 한편, 그분이 오신 이후 씌어진 말씀은 복음주의자와 사도들에 의해 새로운 계약 또는 언약이라 불리운다. 말씀은 주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그리고 인간이 주님과 더불어 만든 언약 자체이다. 그이유가 주님은 신성한 진리로서 내려오셨기 때문.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교회(처방)에서 그분의 피인바, 피는 ‘언약의 피’라 불리운다. 그리고 주님이 ‘백성에 대한 언약’이라 불리우신다.

시89:3-‘나는 나의 뽑은 자와 언약을 만들었다’=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인간과 합일하심.

말2:5-‘생명과 평화의 언약’=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인

얼굴

간과 합일됨.

언어 (language)

* 혀(tongue)를 보라

얻다 (gain)

이익 (gain)

* hire, 또는 honour도 참조.

창37:26-‘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죽이고 그의 피를 덮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을까?’=만일 이것이 완전히 소멸된다해도 이익도, 유명해지는 것도 아무 것도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출18:21-‘이익을 미워하는 진리의 사람’=진리들은 세상적인 목적 없이 순수하기 때문....

얻으려고 하다 (seek)

* inquire, question도 참조.

창9:5-‘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모독함을 되갚는 것.

이41:17-‘물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진리들로 가르침 받기를 갈망하는 이들.

창33:10-‘아닙니다, 바라옵건대’=애착의 기원(origin).

창37:15-‘너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예견.

창43:9-‘내 손으로부터 당신은 그를 요구하십시오’=그 것은 분리되어지지 않으리라는 것.

창50:4-‘말하기를, 바라옵건대’=간청함.

창50:17-‘바라건대 용서하라’=탄원함.

출4:19-‘네 혼을 얻으려 하던 이들’=생명을 파괴하려 골몰하는 이들.

출4:24-‘죽이려하는 것’=받지 않는 것.

계9:6-‘사람들이 죽음을 얻으려 할 것이다’=그들은 신앙 속의 것들을 단아결기 위해 이해함을 원한다...‘얻으려하는 것’은 이해함 측면을, ‘바라는 것’은 의지 측면을 서술하고 있다.

시34:10-‘여호와를 얻으려고 하는 이들’=그러므로 주님에 의해 사랑되는 이들.

얼굴 (face)

창1:2-‘깊음의 얼굴들’=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탐욕들. ‘물들의 얼굴들’=선에 관한 지식과 참된 것에 관한 지식들.

* 가장 안쪽의 것들이 얼굴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창3:8-‘여호와와 얼굴’=자비, 평화, 그리고 모든 선.

창4:5-‘그의 얼굴들은 떨어졌다’=내면들이 바뀌어졌다.

* 고대인들과 더불어, 얼굴=내부의 것들, 그이유는 내부의 것들이 얼굴을 통하여 빛을 내기 때문. 고대 시대에 그들의 얼굴은 자기들의 내부의 것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창4:14-‘당신의 얼굴들로부터 숨겨졌다’=사랑으로부터의 신앙 속의 모든 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13:8-‘불꽃의 얼굴들’=탐욕들.

이63:9-‘그분의 얼굴들의 천사’=전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

창18:16-‘그들은 소돔의 얼굴들을 쳐다보았다’=인류의 상태... ‘얼굴들’=인간의 모든 내면들, 선과 악 모두에서; 그이유는 이런 것들이 얼굴로부터 빛을 내기 때문. 그러므로 여기서 ‘얼굴’이 소돔을 서술할 경우,=자아 사랑 속에 있는 악한 내면들.

창27:30-‘얼굴들로부터 나가는 것’=이런 것들이 중단 되었을 때; 고로 상태가 바뀌었을 때.

창33:10-‘그의 얼굴들을 하느님의 얼굴 같이 보는 것’=지각을 가진 애착; 그 이유가 ‘얼굴들’=내면들; 그리고 ‘하느님의 얼굴들’, 모든 선, 이것이 흐를 때, 지각을 가진 애착을 준다.

창33:18-‘성읍의 얼굴들에’=이 진리의 선들에; 그이유가 ‘얼굴들’=내면들, 고로 얼굴로부터 빛이 나가는 선과 진리에 관한 애착.

창43:3-‘너는 내 얼굴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어떤 동정함도 없다.

민6:25-‘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것’=자비를 가지는 것; 그리고 ‘얼굴들을 들어 올리는 것’=평화를 주는 것.

시17:15-‘하느님의 얼굴들을 보는 것’=자비로부터 평화와 선을 즐기는 것.

신31:17,18-‘그분의 얼굴들을 감추는 것’=자비를 가지지 않는 것.

창43:34-‘그는 그들을 위해 그의 얼굴들로부터 몫들을 들어올렸다’=자비로부터의 선들이 모든 이 각각에게 꼭 들어 맞았다.

창48:11-‘나는 네 얼굴들을 보리라’는 생각지 못했다’=그는 그의 사랑이 유입되리라는 희망을 지니지 않

얼빠지게 만들다-엷혀있는-엷히다-엷지발가락-엷지손가락

있었다는 것.

창50:1-‘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얼굴들 위에 떨어졌다’=선을 애착함 안으로 내적인 것이 유입됨. ‘누군가의 얼굴들에 떨어짐’=유입됨...그리고 ‘얼굴’=애착.

출3:6-‘모세는 그의 얼굴들을 덮었다’=내면들이 보호되어졌다.

출10:10-‘악이 네 얼굴들과 함께 있다’=바람 안에 선이 없다는 것. ‘얼굴들’=애착들과 그 결과인 생각들에 관련한 내면들; 그리고 ‘얼굴들’=애착들이나, 또한 그들=바람들.

출10:11-‘그는 바로의 얼굴들로부터 그들을 쫓아냈다’=(악과 거짓이) 만연한 이들의 의지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완전하게 반대되었다....‘얼굴들’=애착들에 관련된 내면들, 고로 의지.

출10:27-‘더이상 그의 얼굴들을 보지 못하는 것’=더이상 의도(animus)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얼굴’=의도.

단10:6-‘번개치는 모습 같은 그분의 얼굴’=진리로부터의 사랑...

출20:3-‘너희는 내 얼굴들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진리들은 주님 외 다른 근원으로부터 생각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얼굴들’, 하느님을 서술할 경우,=사랑, 자비, 평화, 선; 고로 주님 자신...

출23:17-‘얼굴들’, 여호와를 서술할 때,=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또는 자비. 그리고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이 여호와 자신, 또는 주님이신바, ‘주 여호와의 얼굴들에서 보여진다는 것’은 주님에 의해 보여진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출23:21-‘그분의 얼굴을 주시하라’=거룩한 두려움...‘그분의 얼굴을 주시하라’ 라고 말해졌는데, 그이유는 얼굴에 의해 생명 속에 있는 내면들, 고로 생각과 애착 속에 있는 내면들, 특별히 신앙과 사랑 속에 있는 내면들이 의미되기 때문이다. 얼굴은 인간의 내면들을 나타내는바, 얼굴은 내적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이 외적 인간에서 나타나는 것, 또는 영계 속에 있는 것들이 자연계의 시야에 펼쳐지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원어에서의 ‘얼굴’은 애착들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된 일반적 단어이다...

이63:9-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주님이 ‘여호와와 얼굴들의 천사’라 불리워진다.

출25:20-‘그들(거룩)의 얼굴들’, (이는)그의 형제에 대한 인간에 관한 (것이다)=진리와 선의 결합. ‘얼굴’=내면들; 여기서 정신적으로 보는 것과 결합을 의미한다.

출25:30-‘얼굴들의 빵’=천적 선에 관련된 주님...‘얼굴들’, 주님을 서술할 경우,=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 즉 순진, 평화, 환희; 고로 인간과 천사와 더불어 천국 자체.

출28:25-‘그것의 얼굴들을 마주보게’=영원으로.

시44:3-‘얼굴들의 빛’=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

출33:11-‘얼굴이 얼굴에 이야기하는 것’=결합되어지는 것; 그이유가 ‘얼굴들’=내면들, 그리고 내면들이 상호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서로가 비슷한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들은 스스로 결합한다.

출33:14-‘내 얼굴들이 갈 것이다’=교회의 신성인 것, 예배의 신성인 것, 말씀의 신성인 것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출33:19-‘그의 얼굴들 위에서 통과하는 것’=모세와 그 나라가 있었던 것인 내적인 것에서 분리된 외적인 것에서 그는 끝났다는 것.

출34:6-‘여호와께서 그의 얼굴들을 통과해 갔다’=외적인 것들에 있는 신성한 내적인 것들.

출34:29-‘모세의 얼굴의 피부가 뻘뻘 거리고 있다’=말씀 속의 내적인 것이 말씀의 외적인 것에 빛을 내보내고 있다.

계1:16-‘그분의 얼굴은 힘있게 빛을 내는 태양 같았다’=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지혜, 이것이 그분 자신이다...‘여호와, 또는 주님의 얼굴’=본질 측면에서 신성 자체, 이는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지혜, 고로 그분 자신.

계9:7-‘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았다’=그들은 슬기롭다고 자신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사람의 ‘얼굴’=지혜와 총명 (=진리에 애착함 들)

계22:4-‘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그들은 주님께로 자신들을 돌아서게 할 것이다...‘주님의...얼굴을 보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이유는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 안에 계시나,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그리고 그분

얼빠지게 만들다-얽혀있는-얽히다-엄지발가락-엄지손가락

을 본다는 것은 그분 자체를 보는 것인바 마치 누가 태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생존할 수 있을 자 아무도 없기 때문과 같다....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그분의 태양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자신을 표출하시어 보여질 수 있게 하신다....그러나 이 구절에서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은 위 같은 방법에서 보여지는 것을 뜻한 것이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그분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계4:7-‘사람의 얼굴’=진리에 애착함.

민6장-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주님께서 흘러드시는 것이 ‘여호와와 얼굴들’에 의해 의미되어 있고, 신성한 진리로부터 주님께서 흘러드심이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얼굴들을 너희 위에 비추신다’에서 의미되어 있다. 그리고 신성한 선과 더불어 그분께서 흘러드심은 ‘여호와께서는 너희 위에서 그분의 얼굴들을 들어올리셨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겔12:12-‘그가 땅을 보지 않도록 얼굴을 덮는 것’=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얼빠지게 만들다 (infatuate)

마5:13-‘얼빠지게 만드는 소금’=선을 갈망함이 없는 진리.

마5:13,14-‘얼빠지게 만드는 소금’=자아로부터, 고로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 갈망함. 이런 갈망함은 ‘얼빠지게 만드는 소금’인바, 어떤 것에도 적당치 않다.

예10:8-거기로부터 있는 거것들이 ‘그들은 모두 얼빠지게 만들고 어리석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얽혀있는 (entangled)

* 티켓(ticket)을 보라.

얽히다 (entwine)

* thicket도 참조.

겔31:3-‘굵은 큰 가지들 사이에’=과학물들 사이에.

겔31:10-‘굵은 큰 가지들 사이에 가지를 주는 것’=과학물들 사이에 고착시키는 것, 그리고 거기로부터 영적인 것, 천적인 것, 신성한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

겔31:14-과학물들로부터 추론하는 것이 ‘굵은 큰 가지들 사이에 가지를 주는 것’이다.

겔20:28-‘뒤엉킨(tangled) 나무’=말씀을 수단으로 받아쓰지 않고 과학물 자체를 수단으로 받아쓴 이런저런 것들.

이9:18-‘숲의 뒤얽힘들(thickets)’=과학물들.

애1:14-‘뒤엉킨 얼버무려 넘김’=거짓들.

시45:13-‘그녀의 의복은 금으로 엮은 것들부터이다’=선으로부터의 이 진리의 품질. ‘엮힌 것’은 과학적 자연 평면을 서술한다. 여기서의 경우, 자연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를 서술한다.

겔6:13-‘얽혀진 상수리나무 아래’=거짓들로부터, 이것은 자연 평면에서의 가장 수준 낮은 것들이다. 그이유가 이것들은 엉킨 것 안에 있기 때문.

겔19:11-감각적인 것들로부터의 과학물들이 ‘영겨진 가지들’이다.

레23:40-‘뺨뺨한 가지들 또는 뒤엉킨 나무’=선으로부터의 외적 진리들, 또는 과학물들.

이3:24-‘엮는 작업’=과학적 진리, 이는 외면의 진리, 또는 외적 인간의 진리.

이3:24-‘엮는 작업 대신 벗어짐(baldness)’=지식 대신에 어리석음.

엄지발가락 (great toe)

엄지손가락 (thumb)

출8:15-‘엄지손가락’, ‘손가락’=진리를 통한 선의 힘.

출29:20-‘그들 오른손의 엄지 손가락에’=중간 천국에서 갈라져 나온 지적 평면. 그이유가 ‘엄지손가락’=진리를 통한 선의 힘, 또는 선으로부터 힘을 지니는 진리, 그리고 파생되는 지적인 것. 그이유 이것=중간 천국 (the Middle heaven).

출29:20-‘그리고 그들의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에’=최말단 천국에 있는 지적인 것.

출29:20-‘엄지손가락’=충분한 것.

출29:20-‘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의지에 있는 선. ‘오른발의 엄지발가락’=행동에 있는 선.

영경귀 (thistle)

창3:18-‘가시와 영경귀’=저주와 황폐함

호9:6-‘영경귀가 그것들을 소유할 것이다’=악이 그것들을 뒤집을 것이다.

호10:8-‘영경귀와 가시’=악과 거것이 예배 속의 선들

영경귀-에네글라임-에노스-에녹-에담-에덴

과 진리들을 황폐시킴. (=악들과 거짓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만들 것이다)

창 3장-‘가시와 영경귀’=거짓과 악 뿐인 것.

호10:8-‘가시와 영경귀가 그들의 제단들에서 자라날 것이다’=진리가 왜곡되고 이로부터 파생된 악들이 그들의 모든 예배 안에 있다.

에네글라임 (En-eglaim)-엔게다(Engēya)를 보라.

에노스 (enosh)

창4:26-이후에 일으켜지는 ‘에노스’라 불리는 교회.

* 신앙을 통하여 심어진 선행이 ‘에노스’라 불리워진다, 이는 이 교회의 이름이다.

* ‘셋’=선행을 통하여 있는 신앙;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신앙의 중요한 것으로 선행을 붙잡은 교회; 이는...이것이 ‘에노스’라 불리는 것으로부터 명백하다, 즉 이 이름은 ‘사람’, 그러나 천적 인간은 아니나 인간의 영적 인간, 여기서 ‘에노스’다.

창5:6-세번째 교회가 ‘에노스’라 불리고 있다.

에녹 (enoch)

* 이 이교(가인)가 확대되었을 때, ‘에녹’이라 불리워진다.

창4:17-‘가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했다, 그리고 에녹을 낳았다’=이 종파, 또는 이교는 그 자체로부터 또다른 이교를 생산했다, 이것이 ‘에녹’으로 불리운다...이 종파, 이교가 에녹이라 불리우기에, 도성의 이름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불렸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창4:18-‘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벡을 낳았다.’ 이 이름들은 ‘가인’이라 불린 이교로부터 파생된 이교들이다...

창5:24-‘에녹’이라 불린 교회가 묘사되었다. 이 교회는 태고 교회에 의해 지각되고 계시된 교리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리고 비록 이 교리는 그 당시에 소용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교리는 후손을 위해 보존되어졌다; 이 보존됨이 ‘에녹은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기 때문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창5:18-‘야렛이...에녹을 낳았다.’ ‘야렛’=여섯 째 교회; 그리고 ‘에녹’=일곱째 교회.

창5:23-‘에녹의 모든 날들은 365년이였다’=[에녹에 의해 의미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앞(절)과 같이, 신앙에 관한 교리.

창5:21-24-‘에녹’, 그와 관련 있는 자들과 더불어 그들은 태고 교회의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상응(에 관한 지식)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그것들에 관한 지식을 후손들에게 보급했다; 이로부터 상응들에 관한 지식은 알려졌을 뿐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왕국들에서 교화되었다...그리고 그로부터 그리스 나라 안으로도 운반되었다...

에담 (Etham)

출13:20-‘그들은 에담에 진영을 차렸다’=그들이 해방된 이후 두 번째 상태...이 두 번째 상태가 숙곳으로부터 에담으로의 여행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에덴 (Eden)

창2:8-‘에덴’=사랑...고로 ‘동쪽의 에덴에 동산’=주님으로부터 사랑을 통하여 흐르는 천적 인간의 총명.

* ‘동산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동쪽의 에덴에 창설되었다’ 최고 의미에서,=주님 자신; 가장 깊은 의미에서, 또는 보편적 의미에서,=주님의 왕국, 그리고 인간이 천적 인간으로 만들어 질 때 놓여지는 천국.

창2:10-‘강이 에덴에서 밖으로 나왔다’=사랑으로부터의 지혜, 이 사랑은 에덴이다.

창2:15-‘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 두셨다.’ ‘에덴의 동산’에 의해 천적 인간에 부속되는 모든 것들이 의미되고 있다

겔31:16-‘지옥에 있는 에덴의 나무들’ 이곳의 ‘에덴의 나무들’=그들이 추론함을 수단으로 모독해버린 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과 과학적 사실들.

창3:23-‘에덴의 동산 밖으로 내쫓는 것’=모든 총명과 지혜를 박탈하는 것.

창4:16-이전의 자리로부터 신앙을 옮기는 것이 ‘가인은 동쪽을 향하여 거주했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51:3-거듭나는 인간이 선에 관련하여질 경우, 그는 ‘에덴’에 비교된다.

창3:24-‘에덴의 동쪽’=천적 사랑 안에서 주님의 현존이 있는 곳.

이51:3-‘광야를 에덴 같이 놓을 것’= (선이 없는 곳이

에돔-에돔족

선이 풍부해질 것) ‘에덴’=선이 풍부함.

겔31장-‘하느님의 동산 에덴’=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있는 총명; 그 이유가 ‘에덴’, 동쪽과 마찬가지로=주님.

욘2:3-‘에덴의 동산’=선으로부터 진리를 이해함, 그리고 그로부터 지혜.

에돔 (Edom)

에돔족 (Edomite)

* ‘에서’ 또는 ‘에돔’, 순수한 의미에서,=인간 실체 측면에서의 주님.

이63장-‘에돔으로부터 오는 이가 누구인가?’ ‘에돔’=주님의 인간 실체.

시83:6-‘에돔의 천막들’=교리와 예배의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

이63장-‘에돔’=주님의 신성의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 ‘에서’와 ‘에돔’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차이는 있다. 즉 ‘에돔’=진리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에 인접한 선 측면에서의 신성의 자연 평면.

창25:30-‘그러므로 그는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불렀다’=진리의 교리적인 것들에 인접한 선 측면에 관련하여 거기로부터 파생한 그의 품질...‘에서’=진리의 교리적인 것들이 자연 평면의 선과 충분히 결합되기 이전, 자연 평면에서의 선, 그리고 또한 합리적 평면으로부터의 유입됨으로부터 있는 생활의 선. 그리고 ‘에돔’=진리의 교리적인 것들이 인접되는 합리적인 평면의 선. 그러나 반대 의미에서, ‘에서’=거짓이 악과 충분히 결합되기 이전, 자아 사랑의 악. 그리고 ‘에돔’=이런 거짓들이 인접될 때, 이 사랑의 악.

이63장-‘에돔’=주님. 그리고 신성의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측면에서의 주님. 이 장은 주님의 인간 안에서 선과 진리의 결합, 그리고 시험들과의 전투들을 통하여 그분이 이런 것들을 결합하셨음을 다루고 있다.

사5:4-‘에돔의 들판으로부터 행군하는 것’은 이사야 63장의 ‘에돔으로부터 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다.

민24:18-‘상속될 에돔과 세일’=주님의 신성한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암9:12-‘에돔의 남은 자들’=교회 내에 선 안에 있는 이들.

시60:8-‘에돔 넘어로 나는 내 신(shoe)을 던질 것이다’=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선...이는 ‘신’이 자연 평면의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함으로부터 분명해진다.

단11:41-‘이들이 그의 손으로부터 와락 붙잡을 것이다, 즉 ‘에돔, 모압...’ ‘에돔’=단순한 선에 있는 이들, 이 선은 주님의 외적 교회를 구성하는 이들에게 있는 선과 같다...그리고 에돔과 모압 둘 모두=선 안에 있는 이들, 이는 이 둘이 함께 언급되는 여러 구절들에서도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있다. 즉 ‘에돔’=진리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에 인접된 자연 평면의 선, 그러나 ‘모압’=그것들이 결합하지 않은 이들에게 있는 자연적 선. 외적 형체에서일 경우, 전자와 후자는 거의 같게 나타날지 모르나 내적 형체에서는 아니다.

신23:7-이로부터 왜 ‘너희는 에돔족을 혐오하지 마라, 그이유는 그가 네 형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진 이유가 명백해지는데, 그 이유는 ‘에돔족’에 의해 자연 평면의 선이 의미되기 때문.

민20:20,21-그러나 반대 의미에서, ‘에서’와 ‘에돔’에 의해 진리를 지독하게 경멸함으로 선으로부터 돌아선 이들, 그리고 자아 사랑 때문에 신앙의 진리 어떤 것도 인접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표현되어진다...그리고 이것이 ‘에돔왕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구역을 통과하여 가는 것을 허락치 않고, 강한 손을 가지고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아왔다’에서 표현되어 있다.

욘-‘에돔’ 그리고 ‘에서’, 여기서=자아 사랑에서 근원되는 자연적 인간에 있는 악, 이 악은 모든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한다, 이로부터 그것의 황폐함이 있다.

겔35장에서-‘에돔’, 반대 의미에서=‘이스라엘의 산들’인 영적 선들과 진리들을 비방하고 경멸하고 거절하는 이들이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창32:3-‘에돔의 들판’=선으로부터의 진리. (그이유가) ‘에돔의 들판’=진리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에 결합되는 선 측면에서의 주님의 신성한 자연 평면, 또는 진리들.

창36:1-‘그 자신이 에돔이다’=자연 평면과 육체적 평면에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

창36:8-‘에서 자신이 에돔이다’=주님의 신성한 인간.

...에 돌리다

창36:9-‘에돔의 아버지’=다른 것들이 파생되는 신성한 선.

창36:21-‘에돔의 토지에서’=주님의 신성한 인간에서.

창36:31-‘이들은 에돔의 토지에서 통치한 왕들이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있는 주요한 진리들.

예49:7-22에서-이 대목은 에돔에 관해서, 그리고 에돔이 지옥에 떨어짐에 관한 것을 다룬다. 여기서 에돔에 의해 자아 사랑의 악으로부터 있는 이들이 교리 속의 진리들을 거절하고 거짓들을 끌어안는 것이 의미되어 있다.

출15:15-‘그다음 에돔의 군주들은 깜짝 놀랐다’=자아 사랑으로부터 악의 생활에 있는 이들과 같다...‘에돔’=자아 사랑의 악으로부터 거짓들을 붙잡고 진리들을 거절하는 이들

이63장-‘에돔’은 ‘붉음’을 뜻한다, 여기서는 피로부터의 붉음.

이63장-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이 ‘에돔’에 의해 뜻해진다.

예49:21-‘에돔과 데만의 거주민들’=천적 왕국의 선들과 진리들에 반대하는 악들과 거짓들.

예49장-‘에돔’=인간 자신의 총명의 혼자 생각, 그리고 거기로부터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

욥4:19-‘이집트는 황폐됨을 위해 있을 것, 에돔은 황폐됨의 광야를 위해 있을 것이다’=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있는 자아 사랑의 악들과 거짓 원리들, 모두 파괴될 것이다.

왕상9:26-‘홍해와 에시온게벨이 있는 에돔의 토지’는 가나안 토지의 마지막 경계였다, 그리고 이 경계를 수단으로 교회의 최말단들이 의미되었다, 이는 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들을 납득하게 하는 지식들이다.

사5:4-‘세일로부터 나가고, 에돔의 들판으로부터 행군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에 관해 말해질 경우,=주님께서서 인간을 입으셨을 때, 주님에 의해 이방인들이 계발됨.

예49:17-‘에돔’=자아 사랑으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자연적 인간, 그리고 거기로부터 교회의 선들에 섞음질하는 자연적 인간. 그것의 황폐해짐이 소돔과 고모라의 절멸에 비교되고 있다.

...에 돌리다 (ascribe)

출13:1-‘모든 첫 출생을 신성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앙. ‘여호와께 신성하게 구별하여 바침’=주님에게 돌려드림. 즉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이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

출13:13-‘나귀를 연 모두 각각은 작은 가축(양떼)으로 되살 것이다’=자연적 수준일 뿐인 신앙은 주님의 뜻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순진으로부터의 진리(는 그분께 돌릴 수 있다.)

출13:13-‘그리고 네 아들들 사이에 첫 출생 모두 각각을 너희는 되살 것이다’=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주님에게로 돌려서는 안되고 신앙으로부터의 선들을 주님에게로 돌려야 한다.

출13:15-‘나는 여호와께 자궁을 연 숫컷들 모두 각각을 제물로 바친다’=선행으로부터의 신앙, 이는 새 출생인바, 주님에게로 돌려야 한다.

* ‘.에게로 돌림’이란 자기 때문이라고 (공적)을 치대지 않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출22:28-‘네 낱알의 첫 열매들, 네 포도주의 첫 열매들을 너희는 지체할 것이다’=모든 선들과 진리들은 주님으로부터인 바, 그것들은 그분께로 돌려져야 한다. 자신에게로가 아니다.

* 첫 출생들은 주님께로 돌려져야한다는 것은 교회의 첫 번째 되는 것은 신앙으로부터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을 주님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것, 자신으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에게 돌리는 것은 그것들이 주님으로부터임을, 자신으로부터서는 아무 것도 있지 않음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출22:28-‘네 아들들의 첫 출생을 나에게 줄 것이다’=그들에 의해 오는 신앙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로 돌려져야 한다. 자아가 아니다.

* 선들과 진리들은 그것을 주님에게로 돌릴 때,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가진다.

* ‘은에 의한 모든 이의 속죄’는 예배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이고, 자아로부터가 아닌바, 아무도 공적(자신에게) 치대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30:13-‘이것을 그들은 줄 것이다, 계수되어진 그들

에렉-에르-에메랄드-에바 -에베소-에벨

위를 건너가는 모든 이=신앙과 사랑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로 돌려야 한다.

출30:15-'부자는 더 드리지 말 것, 가난한 자는 덜 내지 말 것, 한 세겔의 절반으로부터,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할 수 있음이 무엇이든 그것으로부터의 모든 것은 선으로부터의 진리 속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돌리는 것과 똑 같다는 것.

출34:19-'자궁을 여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있다'=순진으로부터의 모든 선, 선행으로부터의 모든 선, 신앙으로부터의 모든 선은 주님에게 돌려져야 할 것이다.

계21:24-'땅의 왕들이 그것 안으로 영광과 영예를 가져 올 것이다'=영적 선으로부터 지혜의 진리들에 있는 모든 이들은 주님을 고백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선인 모든 것, 진리인 모든 것을 그분에게 돌려질 것이다.

에렉(Erech)

* 바벨을 보라.

에르 (Er)

창38:3-'에르'=교회의 거짓.

창38:7-'유다의 첫 출생인 에르는 여호와와 눈에서 악이었다'=그가 악으로부터의 거짓 안에 있었다는 것.

창46:12-'에르와 오난은 가나안의 토지에서 죽었다'=거짓과 악이 추방되어졌다는 것.

에메랄드 (emerald)

취옥 (emerald)

계4:3-'외모가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왕좌를 빙 둘러...'=그것들의 나타남은 주님의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것...주님을 감싸고 있는 신성의 기운이 천국 안에서 표현될 때, 자연적 왕국 안에서 일 경우 에메랄드 같이 녹색으로 나타난다.

계4:3-'외모가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왕좌를 빙 둘러'=주님 주위에서 천국들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나타남. '외모가 에메랄드 무지개'=왕좌 빙 둘러 있는 신성한 진리의 나타남(appearance). 나타남이 에메랄드 같은 이유는 그것이 마지막 심판을 암시했기 때문. 그 이유가 이 둘의 색깔은 녹색, 그리고 녹색=진리가 분명치 않은 것이기 때문. 신성한 진리가 분명치 않을 때, 그

진리는 에메랄드 색깔 같이 나타난다. 분명치 않아져 있었던 (이전의) 천국에 심판이 닥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무지개가 언급되고 왕좌의 주위는 에메랄드 같았다.

에바 (ephah)

* 호멜(homer), omer도 보라

이5:10-'한 호멜의 씨가 한 에바를 산출할 것이다'=천적인 것들로부터의 남은 것이 아주 적다는 것.

숙5:7-'에바의 한가운데에 여인이...'=선 안에 악이...

출29:40-에바와 힌은 도량 단위 였다, 그리고 도량 단위에 의해 취급되는 것의 양이 의미되었다. 에바는 고운 곡식 가루, 밀, 보리를 계량하는 도량 단위였는데, 선의 양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힌은 포도주나 기름을 계량하는 도량 단위 였는데, 이는 진리의 양이 의미된다. 이 구절에서의 경우, 에바의 '십분의 일'.

에바 (Ephah)

* 미디안(midian)을 보라

에베소 (Ephesus)

계1:11-'에베소' 등등에게=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받는 모든 상태들.

계2:1-'에베소의 천사에게 쓰거라'=생활의 선들이 아닌 교리의 진리들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에 관하여.

에벨 (Eber)

창11:14-'셀라가...에벨을 낳았다'=(지식 속의 것들로부터의) 갈래들. 에벨은 그것의 조상으로서의 에벨로부터 히브리 나라라고 불리운 나라였다. 이를 수단으로 일반적 측면에서의 둘째 고대 교회의 예배가 의미되고 있다.

민24:24-'그들이 에벨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괴롭힐 '에벨'=에베의 외적인 것들, 이는 야곱의 후손들 사이에 있었던 것과 같다.

에봇 (ephod)

호3:4, 삼상23:9-'에봇과 드라빔'=그들이 대답으로서 받았던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그 이유가 그들이 하느님에게 문의할 때, 그들은 에봇을 입었다.

삼상22:18, 2:18, 삼하6:14-아마실(flax)=외면의 자연 평면 속의 진리...이 진리가 아마포 옷에 의해 표현된 것...그러므로 성직자들은 아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리

에봇-에브라데

고 아이 사무엘은 아마포 에봇에 띠를 두르고 여호와 앞에서 봉사하였다. 그리고 다윗, 역시 레가 그의 도성 안으로 운반될 때, 아마포 에봇을 입고 띠를 둘렀다.

출25:7-‘에봇과 가슴판에’=천적인 것들의 내, 외부의 것들을 위한 덮개로 있는 것들. ‘에봇’=천적 선을 덮는 것. 그이유가 대 성직자로서의 아론은 사랑의 선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했기 때문. 그리고 그의 옷, 특히 에봇은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신앙 속의 진리를 표현했다. 사랑의 선은 천적인 것, 그리고 신앙 속의 진리는 이 선의 덮개이다.

출28:4-‘그리고 에봇’=내면의 것들이 그치는 외적 형체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이것이 에봇에 의해 의미되는 이유는 거룩함의 아론의 옷이 영적 왕국의 질서 안에서 그 왕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을 표현했기 때문. 그리고 에봇은 아론이 입은 세 가지 옷 중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다.

출39:2, 삼상2:28, 14:3-에봇이 주님의 영적 왕국에서 최말단인 것을 표현하는바, 이것은 성직 수행의 다른 옷들 보다 더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어졌다. 그러므로 에봇은 가장 중요한 성직자의 옷이었는바, 에봇은 금실로, 푸른색 실로, 심홍색 실로, 두 번 물들인 진홍색 실로, 정교하게 꼰 아마실로 만들었다. 이에 비해 나머지 성직자들은 아마포로 지은 에봇을 지녔다...그러므로 에봇은 성직자의 모든 옷을 위해 취해졌는바, 사무엘에게 ‘에봇을 몸에 지니도록(bear)’ 말해졌다, 이를 수단으로 그가 성직자임을 (백성들이) 알게 했다. 이런 연유로 가슴판은 에봇에 묶었다, 그리고 대답들이 거기서 우림과 돌림을 수단으로 주어졌다, 그이유는 이 의복이 주님의 영적 왕국에서 최말단인 것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성한 답변들이 최말단 안에서 선물되어졌다, 그이유는 신성한 것들은 연속성을 지녀 (가장 깊은 데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내면의 것들을 통과하여 (가장 바깥쪽인) 최말단에서 멈추므로 거기서 받아쓰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출29:5, 레8:7-원어에서 ‘에봇’은 모든 내면의 것들을 에워싸므로부터이다,

출28:6-‘너는 에봇을 금으로, 푸른색과 심홍색으로, 두 번 물들인 진홍색과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로 만들 것

이다’=(선행의 선과 신앙의 선)으로부터 있는 영적 왕국의 외부. ‘에봇’=영적 왕국의 외부.

출28:15-‘에봇을 만드는 것같이 너는 그것을 만들 것이다’=영적 왕국과 더불어 연속인 것. ‘에봇’은 내적인 것이 (통과하여 가기를) 멈추는 영적 왕국의 외적 형체에서 있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했다. 그러므로 이 왕국의 외적인 것.

출28:26-‘에봇 안쪽의 이 측면에 있는 가슴판의 가장 자리’=천국의 중간 부분과 더불어 결합함, 그리고 고로 보존함. 그 이유가 에봇에 의해 영적 천국의 외적 형체에 있는 신성한 진리가 의미되기 때문. 고로 천국의 외부 측면.

출28:27-‘너는 에봇의 두 어깨 아래쪽에 놓을 것이다’=천국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선과 진리의 보존.

출28:27-‘에봇의 허리띠 위 그것이 접합하는 반대쪽’=외적 결합 내에 대략 모든 것들의 결합이 있는 곳, 이를 수단으로 모든 것들은 형체와 연결됨에서 다함께 보존되어진다.

출28:28-‘그들은 가슴판을 거기로부터의 고리들을 가지고 에봇의 고리에 맬 것이다’=영적 왕국의 외적인 것에 있는 신성한 선의 기운을 수단으로 천국의 모든 것이 보존되고 결합해 있다.

출28:28-‘가슴받이가 에봇에서 철회되지 않게 하라’=천국의 모든 것들은 영적 왕국의 외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없다.

출29:5-‘에봇과 함께’=영적 왕국의 최말단.

에브라데 (Ephrath)

* bethlehem도 참조.

창35:16-‘에브라데에 당도하기전 아직 그 토지에 있을 때였다’=지금은 천적 평면 속의 영적인 것이었다...‘에브라데’=이전 상태에서 있는 천적 평면 속의 영적인 것.

창35:19-‘라헬이 죽었다, 그리고 에브라데의 길에서 매장되었다’=내면의 진리에 대한 이전의 애착이 끝남... ‘에브라데’=이전 상태에서 있는 천적 평면 속의 영적인 것. 이로부터 명백한바, (이런 말들은)=내면의 진리에 대한 이전의 애착의 상태가 끝남, 그리고 ‘베들레헴’인 새로운 상태가 소생함. 순수한 의미에서, (이 말들은)

에브라임

유전적인 악(the hereditary)이 의미된다, 이것이 시험을 수단으로 영원히 축출되어진다.

시132:6-태고 시간대로부터 '에브라데'는 천적 평면 속의 영적인 것이 의미되고 있다. 이로부터 후에, '베들레헬'이 에브라데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로부터 말해지는바,) '오, 우리는 에브라데에서 그분에 관해 들었다.'

창48:7-'에브라데에 오는 것'=이전 상태에서 천적 평면 속의 영적인 것.

창48:7-'그리고 나는 그녀를 에브라데의 길에서 매장했다'=이 상태를 거절함.

창35:19-'에브라데 베들레헬'=영적 평면의 교회(the Spiritual Church), 이 교회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즉 선행으로부터 있는 신앙 안에 있다.

에브라임 (Ephraim)

호9:11-'에브라임'=총명 있는 이들, 즉 진리로부터의 총명.

호9:16-'에브라임'=진리로부터의 총명, 즉 신앙 안에 있는 총명, 그이유는 그가 요셉의 첫 출생이었기 때문.

호7:11, 11:9-'에브라임'=총명 있는 자.

호9:3-'에브라임'=추론하는 자.

호세아서에서-'에브라임'=지성 측면, 여기서의 경우 악용된 지성.

호12:14-'에브라임'=악용된 총명.

이9:9-'에브라임'=총명 있는 자, 그러나 악용된 것으로 타락한 자, 하여 진리들을 거짓들이라 부르는 자.

여17:15-'에브라임 산'=총명.

호8:9-'에브라임'=영적 (평면의) 교회의 지적 측면.

이11:13-'에브라임'=영적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숙9:10-'에브라임'=교회 속의 진리를 이해함.

시78:9-'에브라임'=교회의 지적 측면.

예31:9, 창48:5,20, 역상5:1, 출4:22-'에브라임'=영적 진리, 이 진리가 '첫 출생'이라 불리는데, 그이유는 심겨지는 교회가 취급되기 때문,,에브라임은 르우벤의 위치를 계승해서 첫 출생이 되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지닌 요셉에 의해 신성한 영적 사랑 측면에서의 주님이 표현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첫 출생, 즉 영적 선이라는 것은 출4:22로

부터 분명하다.

호13:1-'에브라임'=총명, 여기서의 경우, 인간 자신, 즉 자신들을 신뢰할 뿐 슬기로워지는 것은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라고 하는 이들.

이11:13-'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할 것이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새 교회인의 지적 측면, 이것은 더 이상 저항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예4:15-'에브라임 산으로부터'=(진리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창41:50-'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이 자연 평면 안으로 유입됨으로부터 있는 선과 진리...'아들들', 여기서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선과 진리. 므낫세=새로운 자연 평면 속의 자발적 측면. 그리고 에브라임=새로운 자연 평면 속의 지적인 측면. 다른 말로 바꾸면 므낫세=새로운 자연 평면 속의 선, 에브라임=새로운 자연 평면 속의 진리.

창41:52-'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는 에브라임이라 불렀다'=자연 평면에서 있는 새로운 지적인 것, 그리고 그것의 품질.

이9:20,21-'그들 모든 이 각각은 자기 자신의 살을 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다.'=교인들의 의지가 자기 이해성에 반대하여 있고, 그의 이해성은 그의 의지에 반대하여 있을 것이다.

창46:20-'므낫세와 에브라임'=새로운 자발 측면과 지적인 측면.

창48장-이 장에서는 진리로부터 있는 교회의 지적인 측면, 그리고 선으로부터 있는 교회의 자발적 측면을 취급하고 있다. 교회의 지적 측면이 '에브라임'이고, 교회의 자발적 측면이 '므낫세'이다.

창48:1-'그는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교회의 자발적 측면과 교회의 지적인 측면이 내적인 것으로부터 태어났다.

창48:12-'요셉은 그들을 자기 넓적다리로부터 가져갔다'=자발적 측면의 선과 지적인 측면의 진리가 영적 선의 부분에서 사랑에 대한 애착에서 제거되었다(떨어져 나갔다, taken away). 그이유가 여기서 요셉이 데리고

에브라임

간 이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고, 그들=자발적 측면의 선과 지적인 측면의 진리이기 때문.

창48:13-‘그리고 요셉은 그들 둘 모두, 이스라엘의 왼손 쪽인 자기 오른손 쪽에 에브라임을 데려다 놓았다’=지적인 것으로부터의 진리는 두 번째 위치에 있어야 하기에, 그리고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오른손 쪽 자기 왼편에’=자발적인 것으로부터의 선은 첫 번째 위치에 있어야 하리라는 것.

창48:14-‘이스라엘은 그의 오른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았다’=그는 진리가 첫째 위치에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했다는 것...그이유가 이스라엘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영적 인간은 그가 거듭 나야 가려면 이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창48:17-‘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그의 오른손을 놓으신 것을 보았다’=진리가 첫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통감함.

창48:17-‘그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로부터 므낫세의 머리로 옮겼다’=그의 잘못됨을 제거하는 것.

창48:19-‘동생이 형 보다 더 커질 것이다’=영적 인간이 획득하는 진리로부터의 선은 더 불어날 것이다.

창48:20-‘네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느님께서는 너를 에브라임 같게, 므낫세 같게 평가해 주신다’=그들의 영적 평면은 지적인 측면의 진리 안에, 자발적 측면의 선 안에 있을런지 모른다...이스라엘에 의해 표현되는 영적 선은 내적 교회의 영적 평면이다. 이에 비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의해 표현되는 진리와 선은 외적 교회 속에, 그리고 거기로부터 있다.

창50:23-‘요셉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삼대 째를 보았다’=지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설립됨, 그리고 그것의 갈래들.

이9:21-‘므낫세’=의지 속의 악, ‘에브라임’=이해성 속의 거짓.

예31:20,9, 시60:7, 108:8, 스후10:7, 9:13, 시73:9, 신33:13-17-말씀을 이해함, 그 이해함이 참되던 거짓되었든, 예언서들, 특히 호세아에서 ‘에브라임’에 의해 묘사되어지고 있다. 말씀에서 ‘에브라임’은 교회에서 말

씀을 이해함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그이유가 말씀을 이해함이 그 교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이 ‘나의 귀한 아들’, 그리고 ‘기쁨의 아이’, ‘나의 첫 출생’, ‘여호와와의 머리의 힘’, ‘강한 자’, ‘활로 채움’, 그리고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무장함, armed’, 그리고 ‘활쏘는 자’라 불린다. 그러므로 역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오른손 쪽으로 이동되고, 축복되었다. 그리고 르우벤의 위치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그의 형제 므낫세와 함께-자기들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 아래-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을 축복함에서 여타 아들들 보다 월등하게 드높여졌다.

호5:3, 6:10-‘이스라엘’=교회 자체, 그리고 ‘에브라임’=말씀을 이해함, 이해함에 따라, 이해함으로부터 교회가 존재한다.

호12:8,10-‘에브라임’=말씀을 읽는 동안 개발되는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지적인 평면.

호11:9-‘에브라임’=진리를 이해함 측면에서의 교회.

호4:17-‘에브라임’=말씀을 읽는 가운데 개발되는 교회 내의 이들과 더불어 있는 지적인 것...‘에브라임이 우상들과 결합함’=거짓들에 사로잡힌 악용된 지적 평면.

신33:17-‘에브라임의 만 명, 므낫세의 천 명’=진리의 풍부함 그리고 거기로부터 지혜의 풍부함, 그리고 선이 풍부함, 거기로부터 사랑이 풍부함.

스후9:10-‘에브라임’=진리를 이해함 측면에서 있게 되는 교회.

겔37:16-‘요셉’과 ‘에브라임’...=천적 왕국과 영적 왕국 아래 있는 이들, 그이유는 그들이 천적 등차이지 않고 영적 등차이지도 않고, 자연적 등차이기 때문,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의 광신적 신앙에 따라 생활의 선 안에 있기 때문.

창48:5-‘에브라임’은 르우벤과 비슷한 의미, 즉 진리를 이해함, 그리고 빛 안에 있는 진리를 지닌다. 이로부터 말해지는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말해진다.

시80:2-‘에브라임과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 앞에서 당신의 강함을 발휘해주소서.’ 에브라임에 의해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자연적 진리는 글자 의미에 있는 말씀의 진리와 같다. ‘므낫세’에 의해서는 자

에브론-에서

연적 선 안에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이는 선인 것을 행함에서, 참된 것을 배움에서 오는 즐거움이다.

겔37:16-‘요셉과 ’에브라임‘=영적 왕국의 교회. 이 교회는 선행의 선과 신앙의 진리들 안에 있다.

호7:8-‘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과자...’ ‘에브라임’=진리를 이해함.

이7:4-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에 의해, 그는 또한 ‘에브라임’이라 불리는데, 악용된 지적인 것이 의미된다.

호9장에서-‘에브라임’=말씀을 이해함이 파괴되었음.

이9:11-‘에브라임’=진리와 선을 이해함 측면에서의 교회. 교회에서 신성한 진리를 이해함이 더 이상 없지 않을 것임이 ‘에브라임, 그의 영광은 새 같이 날아가버릴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에브론 (Ephron)

창23장-‘에브론 그리고 헷의 아들들’=교회의 선과 진리가 받아지는 이들.

창25:9-‘마르레 앞 헷족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들판’=선 측면에서의 부활. 그리고 이것 또한=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리와 선을 받는 영적 인간. 그리고 구원되어진다.

에서 (Esau)

* (선행과 신앙의) 형제 관계가 에서와 야곱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장자권과 그로부터 지배권에 관하여 말다툼이 있었다.

창27:40-에서, 즉 에서에 의해 표현된 선행이 마지막에 가서는 지배권을 가진다는 것이 이삭에 의해 예언된 말, 즉 ‘너는 네 칼 위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배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때 너는 네 목으로부터 그의 멍에를 떨쳐버릴 것이다’에서 분명해진다. 또는 같은 것으로, 이방인들의 교회, 즉 새 교회가 ‘에서’에 의해 의미되고; ‘야곱’에 의해서는 유대인의 교회가 의미된다; 그러므로 자주 말해지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을 형제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25장에서-세째로, 신성한 자연성의 임신과 출생이 취급되는데, 선의 측면은 ‘에서’이고, 진리 측면은 ‘야곱’이다.

창25:24-‘쌍둥이가 그녀의 자궁 안에 있었다’=둘 다 함께 임신되어졌다...즉 ‘에서’에 의해 표현된 선, 그리고 ‘야곱’에 의해 표현된 진리.

창25:25-‘그들은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다’=그것에 관련된 품질, 즉 선의 측면에서의 자연성의 품질...‘에서’=처음 임신했을 때 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의 신성한 자연성.

창25:26-‘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다’=자연적 선의 가장 낮은 부분에 어떤 힘을 가지고 들러붙어 있다...‘에서’=자연 속의 선.

창25:27-‘에서는 사냥을 아는 사람이었다’=감각적이고 과학적 진리들로부터 있는 생활의 선. ‘에서’=생활의 선.

창25:28-‘이삭은 사냥(감)이 그의 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였다’=신성한 합리성 속의 신성한 선은 진리로부터의 선을 사랑했다...‘에서’=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신성한 자연성...진리의 선, 여기서 ‘에서’로 표현되는데, 그리고 ‘사냥’에 의해 의미되는데, 진리로부터 진행되는 자연적 애착에 있는 외면에 속한 것들이기에, 그것이 ‘이삭의 입 안에’ 있었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창25:29-‘에서가 들로부터 왔다’=생활의 선이 공부함(study). ‘에서’=자연적 진리로부터의 생활의 선.

창25:29-‘에서는 심히 지쳐있었다’=전투의 상태.

창25:30-‘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자연적 수준의 선으로부터 주님이 지각하심...‘에서’=자연의 선에 관련된 주님.

창25:30-‘나로 붉은 죽을 먹게 하시오’=교리적인 것들을 갈망함.

창25:30-‘내가 몹시 지쳤기 때문이다’=전투의 상태.

말1:2,3-‘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리고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에서를 미워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산을 황폐한 채로 놓아두었다.’ 여기서 ‘에서’=‘자연으로부터의 선, 이 선은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진리를 승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진리의 교리적인 것들을 환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워함’, 즉 황폐해지고 있다.

창25:32-‘에서가 말했다, 보아라, 나는 죽으려 한다’=그는 이후 다시 일어나리라는 것, ‘에서’=자연의 선.

에서

창25:32-‘그리고 이 생득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
뇨?’=이 경우에서 그는 우선권의 필요성을 가지지 못했
다는 것.

창25:33-‘에서는 그의 생득권을 야곱에게 팔았다’=한
동안 우선권은 진리로부터의 교리에 양보되었다.

창25:34-‘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렌즈콩 죽을
주었다’=생활의 선은 진리의 선과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의 선을 증여받았다. ‘에서’=생활의 선.

창25:34-‘그리고 그는 먹었고 마셨다’=자기 것 됨.

창25:34-‘그리고 그는 일어났다’=거기서부터 승강함.

창25:34-‘그리고 그는 나갔다’=생활함.

창25:34-‘그리고 에서는 자기의 생득권을 알보았다’=
한동안 생활의 선은 우선권의 중요성을 만들지 않았다.

창26:34-‘에서는 40년의 아들이었다’=진리로부터의 자
연적 선에 관련한 시험의 상태. ‘에서’=진리로부터의 자
연적 선.

창27장-이 장은 주님의 자연성을 취급한다. 즉 주님께
서는 그분의 자연적인 것들을 어떻게 자신 안에서 신성
으로 만드셨는지를 다루고 있다. ‘에서’=자연적 수준의
선, ‘야곱’=자연적 수준의 진리.

창27:1-‘이삭은 그의 큰 아들 에서를 불렀다’=자연적
선, 즉 생활의 선에 애착함. ‘에서’=주님의 자연적 측면
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그리고 이 선 역시 생활과 애착
안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여기서 ‘에서’로 표현되는
자연적 선에 애착함, 또는 생활의 선인 것이다. 자연 안
에 있는 선, 그리고 생활의 선은 ‘큰 아들’이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진리에 애착함, 이점에서 진리로부터의 교
리는 소위 ‘작은 아들’이라 불리운다.

창27:1-‘그는 그에게 말했다, 나의 아들이; 그리고 그
가 그에게 말했다, 저를 보십시오’=예견되고 설비된 덕
택으로 현존함.

창27:3-‘바라건대, 네 무기들, 네 화살통과 활을 지참
하라’=그가 가졌던 선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즉 주
님의 자연의 선이 가졌던 것, 이것이 ‘에서’에 의해 표
현되어진다.

창27:3-‘너는 들로 나가거라’=지면이 선인 것.

창27:3-‘그리고 나에게 사냥(감)을 찾아 사냥해오너라
’=선으로부터의 진리...그 이유는 에서에게 말해지고,

에서에 의해 주님의 자연성의 선이 표현되기 때문.

창27:4-‘내가 즐겼었던 별미를 만들어라’=선으로부터
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유쾌한 것들...그것들이 선으로
부터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에서로부터 있었기 때문,
에서를 수단으로 주님의 자연성의 선이 표현되었기 때
문.

창27:4-‘내 혼이 너를 축복하도록’=자기 고유의 생명
을 첨가함.

창27:4-‘내가 죽기 전에’=주님의 자연성에 있는 소생
함의 첫 상태...(그 이유가) 유아의 선과 생활의 선은
거듭남에서 첫 번째(첫출생) 있어야 하는 상태이다. 이
것이 에서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창27:5-‘에서는 사냥 (고기)를 사냥하여 그것을 가져
오려고 들판으로 갔다’=선에 애착함이 신성한 합리성과
결합될런지 모를 진리를 포획하려 노력함. ‘에서’=자연
속의 선; 그러므로 에서=자연에 있는 합리성으로부터
의 선; 그 이유가 자연 안에 있는 선은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합리성 속에 있기 때문.

창27:6-‘나는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
을 들었는데, 말하기를’=신성한 합리성으로부터의 신성
한 선은 선에 애착함 에게 의도했다는 것...‘에서’=자연
안에 있는 선에 애착함.

창27:11-‘나의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관계적
측면에서 자연으로부터의 선의 품질.

창25:25-그러므로 에서가 표현하는 것이 자연 속의 선
임은 분명하다; 그 이유가 그는 ‘털이 많음’으로부터 에
서라 불리웠기 때문, 그리고 ‘에돔’이 붉으스럼함이다는
것으로부터도... 그가 거주한 세일 산 역시 비슷한 의미
인 털이 털수룩하다는 것으로부터도 더 확연해진다.

창27:15-‘리브가는 그녀의 큰 아들 에서의 바람직한
(좋은) 의복을 가져왔다’=선으로부터의 순수한 진리
들...‘바람직한’=순수한 것, 그 이유는 그것들은 ‘그녀의
큰아들 에서’에 의해 표현된 것, 즉 자연 속의 순수한
선 속에 있기 때문.

창27:19-‘저는 당신의 첫 출생 에서입니다’=그것이 진
짜 자연적 선이라고 그가 믿는 것. ‘에서’, 그리고 ‘첫
출생’=선; 사실상, ‘에서’에 의해 표현된 자연적 선. (그
이유가) 인간이 거듭나기 전일 경우 그는 자기에게 속

에서

한 진리가 실지로 선이라고 믿기 (때문).

창27:21-‘네게 나의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그것은 자연적 선이 아니었다는 것.

창27:22-‘그리고 그는 말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이다, 그리고 손들은 에서의 손들이다’=거기서 진리 측면인 지적인 것이 안쪽에 있다; 그리고 선 측면인 자발적인 것은 바깥쪽에 있다. 따라서 이것들은 뒤바뀐 질서에 있다.

창27:23-‘그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이유는 그의 손들이 에서의 것 같이 털이 많았기 때문이다’=바깥쪽에 있는 자발적 부분으로부터 그는 그것이 자연적 선이었다고 지각했다; (그이유가) 그는 야곱을 야곱으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 즉 야곱이 표현하는 진리를 진리라고 인지하지 못한 것; 그러나 그는 에서라고 인식했는데, 즉 바깥쪽에 있는 것이 자연적 선이라고 인지했다.

창27:24-‘그는 말했다, 너는 참으로 나의 아들 에서이냐?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렇습니다’=자연적 진리의 상태, 그리고 그 당시 외적 형태로부터 그것은 자연적 선이라고 자체를 믿어버렸다는 것.

창27:30-‘그의 형 에서가 그의 사냥함으로부터 왔다’=선으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그것의 출현. ‘에서’=자연 속의 선.

창27:32-‘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는 말했다, 저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첫 출생인 에서입니다’=자연적 선과 이 선에서 파생된 진리에 관하여 지각하는 상태.

창27:34-‘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들을 들었다’=신성으로부터의 선으로부터 자연적 선이 통각함.

창27:38-‘에서는 목청을 돋구어 흐느꼈다’=더 나아가 교차의 상태.

창27:39-‘이삭 그의 아버지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다’=자연적 선에 관하여 지각함. 즉 이 선은 신성을 만들어야 하리라는 것...‘에서’=자연적 선...에서는 신성한 선에 관한 측면에서 주님의 신성한 자연성을 표현한다고 앞에서 말했다...그러나 여기서의 경우에서는 신성으로 만들어 질 자연적 선을 표현한다. 이러한즉, 에서가 첫 번째 표현한 것은 주님의 유아에 관련한 자연

성, 이것은 아버지로부터의 신성이었다...그러나 어머니로부터의 인성...(그러나) 주님께서...어머니로부터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추방하신 후, 에서는 선에 관한 주님의 신성한 자연성을 표현한다; 그리고 야곱은 진리에 관련한 주님의 신성한 자연성을 표현한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 관계 같이 서로 결합한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 자체에서만 보면, 이 둘은 실제적인 선과 진리를 형성하고 수용하는데 있어 거의 하나의 동시적인 힘 밖에 더 아니다.

창27:41-‘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 때문에 그를 미워했다’=자연적 선은 진리의 거꾸로 된 결합을 싫어한다는 것...‘미워하는 것’=싫어하는 것인 이유는 여기서 에서에 의해 표현된 선을 서술하기 때문.

창27:42-‘리브가의 큰 아들 에서가 한 말이 그녀에게 전해졌다’=주님께서 그 당시 자연적 선의 마음에 관하여 신성한 진리로부터 지각하심.

창27:42-‘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너에 관련하여 자신을 위로하려 한다’=마음이 상태를 거꾸로 되게 함 그리고 자아에서 도출된 생명 속의 진리를 박탈함.

창27:44-‘네 형의 분노가 너로부터 풀릴 때까지’=자연적 선과 더불어 상태의 연속...격노(wrath)는 진리를 서술하는데, 여기서의 경우 에서에 의해 표현된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서술하는데, 분노(anger)는 선 자체를 서술하고 있다.

창33:4-이 끝, 즉 야곱이 라반에게 머물렀던 시기가 마무리된 후, 이것이 에서에 의해 이 구절에서 ‘그는 야곱을 만나러 달려갔고, 그를 포옹했고, 그의 목을 끌어안았고, 그에게 키스했고, 울었다’ 로 표현되고 있다...

창28:6-8에서-(주님을) 표현함이 한 사람에게서 있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야곱은 에서로부터 그의 생득권을, 그 후 축복 까지 넘겨받는 것이 허용되어졌다. 그러므로 야곱은 지금 자연 속의 선을 표현하게 된다...에서 역시 이 구절들에서 아직은 더 취급되는데, 주님의 자연성 속의 선으로부터의 내면적 진리, 진리로부터의 선이 표현되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야곱에 의해 표현되어질 수 없었다.

창28:5-‘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에서

‘에서’인 선으로부터의 진리와 더불어 ‘야곱’인 진리로부터의 선과 더불어 어머니로부터 있는 친인척 관계.

창28:6-‘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다’=‘야곱’인 진리로부터의 선을 수단으로 결합함에 관하여 자연적 선이 생각함...‘에서’=자연 속의 선.

창28:8-‘에서가 본즉, 가나안의 딸들은 이삭의 눈에서 악이었다’=지금까지 자연적 선과 결합해왔던 이 진리에 애착함 등은 결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예견하시고 섭리하심...‘에서’=자연성 속의 신성한 선에 관련되는 주님...

창28:9-‘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데려왔다’=신성한 근원으로부터의 진리와 이 선의 결합. ‘에서’=자연 속의 선.

창32:3-‘야곱은 자기 앞서 그의 형 에서에게 특사를 보냈다’=천적인 선과의 첫 교류...‘에서’=자연 속의 천적인 선.

창32:4-‘이러이러하게 너는 나의 주인 에서에게 말하라’=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첫 인정함...‘에서’=선...이것은 또한 이삭의 예언적 말들, 즉 ‘내가 지배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이다’에 의해서도 의미되고 있다.

창32:4-‘나는 내 주인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려고 내 주인에게 말하라고 보냅니다’=...선 앞에서 진리가 짐짓 겸손을 떨고 부끄러워함.

창32:6-‘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갔는데, 그분 역시 당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진리들 자체를 자기 것 되게 하기 위하여 선이 계속적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것.

창32:6-‘그와 더불어 사백명의 남자들’=선두 위치를 가지는 선의 현재 상태.

창32:11-‘나를 구해내소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 형의 손으로부터, 에서의 손으로부터, 그이유는 내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관계적 차원에서의 상태...(그 이유가) 질서가 거꾸로일 때, 그리고 선이 선두 자리에 있을 때...자연적 인간은 답답해하고 두려워해 한다는 것, 결국 시험들 안으로 진입하고 만다.

창32:13-‘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자기 손에 가져왔다’=천적인 자연적 선에 전수하려는 신성한

것들...‘에서’=선에 관한 신성한 자연성; 여기서의 경우, 천적인 선에 관하여, 그 이유는 자연성이 아직은 신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

창32:17,18-‘나의 형 에서가 너희를 만날 때...너희는 당신의 종 야곱의 종이라고 말하라: 이것은 나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다(라고 말하라)’=복종.

창33장에서-여기서는 ‘에서’인 자연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선에 ‘야곱’인 진리로부터의 선의 결합이 취급되고 있다; 고로 후자의 복종에 관하여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안으로 은근히 심어짐도 취급하고 있다.

창33:1-‘에서가 왔다’=자연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창33:4-‘에서는 그를 만나러 달려갔다’=자연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의 입류.

창33:9-‘에서가 말했다, 동생아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네 것은 네 것으로 있게 하라’=그는 진리로부터 선에 애착함을 은근히 심어도 좋다는 무언의 승낙.

창33:15-‘에서가 말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너와 더불어 있게 하자’=선으로부터의 진리에 관련되는 어떤 것들이 결합될런지 모른다는 것.

창33:16-‘에서는 그 날 세일로 그의 길로 되돌아갔다’=자연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에 진리로부터의 선들이 접합되는 때에서의 상태.

창35:1-‘네가 네 형, 에서 앞에서 도망했을 때’=진리가 선 앞에 장착되었을 때. ‘에서’=주님의 신성한 자연성 속의 신성한 선.

창35:29-‘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매장했다’=그는 선 안에서 그리고 자연 속의 진리로부터의 선 안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에서’=선에 관련한 주님의 신성한 자연성.

창36장-이 장은 자연으로부터의 주님의 신성한 선(에서)을 취급한다; 그리고 이 선의 전체 질서가 에서의 출생들의 이름들을 수단으로 묘사되고 있다.

창36:1-‘이들은 에서의 출생들이다’=자연으로부터의 주님의 신성한 선에 있는 갈래들. 이 선은 인간과 천사의 이해 범주를 넘는 속성을 지녔는바, 이 선은 이름들만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이유가 에서로 표현된 자연으로부터의 주님의 신성한 선은 그분의 출생으로부터 그

에섹-에스겔-에스골

분 안에 있는 신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 반면 야곱은 그분 자신의 힘 덕택에 획득한 선을 표현했다...이 선을 그분은 신성한 선에 결합되게 하셨다...에서가 표현한 선은 내적인 경로를 통해 흐르고, 합리적 선을 통하여 자연 안으로 직접 흘러든다; 이에 비해 야곱과 이스라엘이 표현한 선은 외적 경로를 통하여 흐른다.

창36:2-‘에서는 그의 여인을 가나안의 딸들로부터 데려왔다’=자연적 선이 외관의 진리와 첫 결합함.

창36:6-‘에서는 그의 여인들,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집안의 모든 혼들, 그의 재물, 모든 그의 짐승, 그가 사들인 모든 것, 그가 가나안의 토지에서 얻은 것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 앞으로부터 (다른) 토지로 갔다’=신성한 선으로부터의 모든 것들 그리고 이로부터 진리로부터의 모든 것들, 이것들과 천국은 상응하고 그러므로 천국의 표현성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물러나 가고 있다.

창36:9-‘이들은 에돔의 아버지 에서의 출생들이다’=자연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에 있는 갈래들.

창36:15-‘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의 군주들이다’=선으로부터의 중요한 진리들.

창36:40-‘이들은 에서로부터의 군주들, 그들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장소에 따라, 그들의 이름에 따라서이다’=그것들로부터의 선에 관한 교리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들의 일어남, 상태, 그리고 품질.

창36:43-‘에서 자신이 에돔의 조상이다’=주님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 자연으로부터의 주님의 신성한 선.

예49:8-‘에서’=거짓이 접합된 자아 사랑으로부터의 악.

욥19절-‘에서의 산’=사랑의 선.

예49장-여기서 ‘에서’는 자아 사랑 그리고 이로부터 교회를 파괴하는 악이 의미되어진다.

욥18절-‘에서와 그의 집’에 의해 주님으로부터가 아니고 자신들로부터 자기들은 총명하고 슬기롭다고 믿는 이들이 의미되고 있다. 그이유가 8절에서 ‘나는 에돔으로부터 있는 슬기롭다는 자들, 그리고 에서의 산으로부터 있는 총명하다는 자들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해지고 있기 때문. 이들은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자신들의 사랑을 떠받치는 것들로 자신을 굳힌 이들이다.

욥17,18절-‘야곱의 집이 에서의 산과 집을 유업으로

받으리라는 것’, 그리고 ‘야곱의 집은 불일 것이고 요셉의 집은 그 속의 불꽃이라’는 것’=‘에서’에 의해 의미되어지는 장소에서 교리속의 진리들에 따른 생활의 선 안에 있는 이들로 승계된다는 것.

말1:3-‘에서’에 의해 자연적 인간에 관련하여 선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여기서의 경우, 자연적 인간에 관련된 악 안에 있는 이들. 그러므로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다.

말1:3-‘에서’는 인간의 자연적 사랑을 뜻하고 있다; ‘그의 산들’에 의해 이 사랑으로부터의 악한 자들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그의 유업’은 이런 악들로부터의 거짓들.

에섹 (Esek)

창26:20-‘그는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 불렀는데, 그의 유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다’=이것들 때문에 부인함...그리고 다른 것들, 그들이 그것들에 맞서 있었기 때문에...‘말다툼하는 것’, 또는 ‘다투는 것’=부인하는 것. 원어에서 에섹은 다툼을 뜻한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학대함(oppression)과 상해를 입힘(injury)을 뜻하는 관련 단어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그리고 ‘우물’ 여기서는 =내적 의미가 있는 글자 의미 측면에서의 말씀, ‘에섹’, 또는 ‘다툼(contention)’=말씀 속의 내적 의미를 부인함.

에스겔 (Ezekiel)

* 예언자 에스겔과 요한에 의해 진리로부터의 교리, 또는 말씀이 표현되어졌다, 그러므로 탐사(exploration)가 그들과 더불어 만들어졌다.

에스골 (Eshcol, 시내 또는 골짜기)

신1:24-‘에스골 강’, 거기에는 열매들과 포도덩굴이 있었다=내면적인 천국.

에이 (A)

* 아버지를 발음할 때의 아. (히브리 단어에서 천적 등급의 단어들은 모음 우(U, oo)와 오(O) 그리고 같은 수준으로 아(A)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 모음, 아, 오, 그리고 우는 셋째 천국에서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은 가득한 소리를 주기 때문이다.

에이취 (H)

* 아브라함의 이름에 있는 글자 H는 여호와와 이름으

에이-에이취-에워싸다-에테르-에티오피아

로부터 가져온 것인데, 이는 그가 여호와 또는 주님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사라의 이름에 삽입된 글자 H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인데, 이는 아브라함 같이 사라도 주님의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에워싸다 (encompass, compass)

창2:11-'비손 강이 하윌라의 토지 전체를 에워싸고 있다'=그들은 안으로 흐르는 것을 지각한다...

출28:11-'금을 박아 에워싸게 하는 것'=사랑의 선은 신앙 속의 진리 안으로 흘러야 할 것이다.

출27:5-'너는 제단 아래를 에워싼 아래에 그것을 놓을 것이다'=최말단에 있는 이것...'에워싸다, 감각적인 것을 서술할 때=최말단인 것.

에테르 (ether)

시77:17-'창공(sky, 더 높은 구름들)이 음성을 주었다'=말씀의 영적 의미로부터 있는 진리들.

시36:5, 77:18, 78:23-신성한 진리가 천국의 빛인바, 이렇게 말해진다, '당신의 진리는 에테르들에 까지 (그 힘이)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복수로 된 '에테르들'에 의해 최고 높은 천국 까지 비추는 신성한 빛이 의미된다...

에티오피아 (Ethiopia)

구스 (Cush)

에티오피아 사람 (Ethiopian),

창2:13-'구스의 토지'=마음, 또는 능력. 이 강의 것들은 이해성에 관련되는데,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도 이것에 속한다.

* 구스, 또는 에티오피아의 토지는 금, 보석들, 향신료들이 풍부한데, 이것은 선과 진리, 감사히 여겨지는 것들, 즉 사랑과 신앙 속의 것들을 의미한다.

단11:43-'에티오피아 사람'=지식.

습3:10-'에티오피아'=천적인 것들, 즉 사랑, 선행, 그리고 선행으로부터의 일함을 소유하는 이들.

창10:7-영적인 것들을 계발한 이들이 '구스의 아들들'이다.

창10:6-'함의 아들들'=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창10:7-'구스의 아들들'=내적 예배를 가지지 못했던 이들. 그러나 신앙에 관한 지식은 가졌다. 이 지식이 그

들로 종교를 만들어 주었다.

이43:3-'구스와 세바'=신앙 속의 영적인 것들.

이45:14-'구스와 스바(Sabeans)의 상품'=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들.

창10:8-'구스'=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들에 관한 내면의 지식들.

예46:9-'구스와 붓'=지식들.

합3:7-'구산의 천막들'=악으로부터의 광신적 신앙.

예13:23-이런 외적 진리들이 악으로부터 인바, 그것들은 '에티오피아사람', '그의 피부'에 비유해 말해진다.

이18:1-'구스의 강들 넘어'=그들이 거짓 원리들을 확증할 수 있게 하는 지식들쪽으로.

암9:7-'에티오피아사람의 아들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안에 있는 이들, 이들은 이 지식들을 자신들의 악들과 거짓들을 확증하는데 응용한다.

이20:4-'구스'=자연적 인간에 의해 더 촉진되어지는 즐거움.

습2:11,12-'나라들의 섬들'에 의해, 그리고 '구스족들'에 의해 실로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 그러나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안에는 있지 않는 이들, 추상적으로 거짓들, 그러나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은 아니다.

이20:3-'이집트'=과학물 측면에 관련하여 외적, 또는 자연 평면. '구스'=예배 측면에서 외적, 또는 자연 평면. 이것들이 내적 영적 평면이 결여될 때, 그것들은 진리와 선 또한 결여된다.

시68:31-'이집트로부터의 기름진 것(자)들'=진리를 알려는 것에 애착하는 이방인들. '구스'=자연적 인간의 즐거움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을 끌어당기는 이들.

엔게디 (Engedi)

겔47:10-'어부들이 에네글라임으로부터 엔게디에 까지 그물들을 펼칠 것이다'=신앙의 진리들에 관하여 자연적 인간들을 가르치는 이들.

엔미스밧 (En-Misphat)

창14:7-'엔미스밧'은 '관결의 샘', 또는 '가데스인 미스밧의 샘'인바=진리들에 관하여 다툼,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툼.

엘 (El)

* 엘로힘을 참조.

엔게디-엔머스밧-엘-엘로힘-엘람-엘르아살-엘르알레-엘리사

창33:20-‘그는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신성한 영적 평면으로부터 있는 내면의 예배.

창35:7-‘그는 그곳을 엘-벤엘이라 불렀다’=거룩한 자연 평면. ‘벤엘’=신성의 자연 평면, 그러나 ‘엘-벤엘’이라 불려질 경우, 그것은 신성이 아닌 거룩한 자연 평면이다.

창46:3-‘나는 하느님, 네 아버지의 하느님이다’...원어에는 이 구절에서 ‘하느님’이 단수 엘로 먼저 언급되고, 두 번째에서는 복수 엘로힘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이유인즉, ‘하느님(엘)’에 의해 하느님은 한 분, 단하나이신 분이다가 의미되기 때문, 그리고 ‘하느님(엘로힘)’은 그분은 여러 속성을 가지신다가 의미되고 있다.

엘로힘 (Elohim)

* ‘엘로힘’, 복수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이유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모든 진리들을 뜻하기 때문. 그러므로 천사들은 때로는 ‘엘로힘’을 불렀다.

* 원어에서, ‘하느님’이 복수인 ‘엘로힘’으로 더 자주 불리워진다, 이는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가 천사들 사이에서 다종다양하게 나뉘어지는 사실로부터 그렇게 자주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원어에서 ‘하느님’이 복수인 ‘엘로힘’이라 불리는데, 그이유는 진리는 많으나 선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엘람 (Elam)

창10:22-‘셈의 아들들, 엘람, 앗수르’ 등등...‘엘람, 앗수르’ 등등은 여러 나라들이었다. 이를 수단으로 지혜 속에 있는 일련의 것들이 의미된다. ‘엘람’에 의해 선행으로부터의 신앙.

예49:34-39, 이21:1-‘엘람’=선행으로부터의 신앙, 또는 내적 교회를 구성하는 이 신앙 자체. 이 구절에서 엘람의 이름 아래 신앙이 취급되고 있는데, 내적 교회가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이다. 그런다음 회복되는 것.

창14:1-‘엘람왕 그돌라오멜’=아주 다양한 걸보기만의 선들과 진리들.

예25:17-26-영적 교회의 황무함이 여기서 취급되고 있다. 다양한 이 교회들이 순서대로 언급되고 있는데, 엘람에 의해서도 의미되고 있다.

예49:35-‘보라, 내가 엘람의 활, 그의 능력의 시작을

부러뜨릴 것이다.’ ‘엘람’에 의해 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으로부터 파생된 신뢰가 뜻해진다, 예49:36-‘엘람 위네 나는 하늘들의 네 끝으로부터 네 바람들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이 모든 바람들 안으로 흠트릴 것이다, 하여 엘람으로부터의 내쫓긴 자가 가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엘람에 의해 신앙 속에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선행 속에 있지 않는 지식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겔32:24-‘엘람’,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모든 자가 검으로 죽임을 당했다’=이런 거짓들이 있는 지옥들, 즉 이와 같은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

예49장-‘엘람’=교리 속의 왜곡된 것들.

엘르아살 (Eleazar)

출6:25-‘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선행의 교리 자체로부터 파생된 교리적인 것들.

엘르알레 (Elealeh)

이16:9-‘야셀’, ‘심마의 포도나무’, ‘헤스본’, 그리고 ‘엘르알레’에 의해 세상 사랑을 옹호하는 쪽으로 말씀을 설명하는 외적 교회의 사람이 의미되고 있다. ‘심마의 포도나무’=그들의 교회.

엘리사 (Elisha)

왕하13:20,21-엘리사에 의해 주님이 표현되어졌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뼈에 접촉된 사람이 되살아났다.)

* (엘리사를 조롱하여 꿈에 의해 찢겨 죽은 아이들은) 말씀을 모독한 이들을 표현했다. 그이유가 엘리사는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했기 때문.

왕하4:41-엘리사가 술 안으로 곡식가루를 넣었다, 그 다음 그것 안에 악이 없었다=이 무리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있는 영적 진리를 수단으로 수정되어졌다. 그이유가 엘리사는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했기 때문.

* 말씀, 이는 신성한 진리 자체인바, 죽은 자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되살아나 자기 발로 섬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엘리사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truth Divine), 또는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했다.

왕하6:17,20-‘엘리사’=주님의 말씀...‘엘리사 주변 불발과 불병거가 가득한 산’=말씀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선들과 진리들...그들이 엘리사에 의해 사마리아로 데려와졌다, 거기서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말씀을 수단으로

엘리사아-엘리아스-엘리야

가르침...그리고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에 의해 말씀으로부터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적인 것들이 의미되고 있다.

왕하2:12-(엘리야가 올라갔을 때) 엘리사가 자기 옷을 두 조각으로 찢은 이유는 말씀, 즉 신성한 진리가 잃어졌기에 있는 슬픔 때문에서였다. 그이유가 엘리야에 의해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이 표현되었기 때문. 코트(coat)가 엘리야로부터 떨어짐, 그리고 엘리사에 의해 집어올려짐은 엘리사가 엘리야가 표현했던 것을 계속함이 표현된 것이다.

* 엘리사가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했다...그러므로 (물을 치료하는) 기적이 포함된 것이다. 즉 교회와 생활을 수정(amend)함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말씀을 수단으로 있다는 것.

엘리사아 (Elishah)

창10:3-'야완의 아들들...엘리사아', 등등=야완 국가와 더불어 존재했던 예베로부터 파생된 외적 예배를 가졌던 이들...'엘리사아', 등등은 여러 많은 나라들인데, 이들과 더불어 위와 같은 예배가 있었다; 이를 수단으로 아주 많은 교리적인 것들, 의식들이 의미되었다. 이는 야완과 더불어 외적 예베로부터 파생되었다.

겔27:7-'엘리사아 섬으로부터의 청색과 자색 (천)=내적 예배에 상응하는 의식들.

* '엘리사아 섬으로부터의 청색, 자색'=진리와 선에 대한 총명.

엘리아스 (Elias)

* 엘리야를 보라.

엘리야 (Elijah)

* (주님의 변모하시는 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에 의해 구약 성서의 말씀이 표현되어졌다...예언자 엘리야스에 의해 모든 예언서들이 표현되어졌다.

* 엘리야에 의해 그리고 엘리사에 의해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이 표현되어졌다.

* 엘리야가 말씀 자체를 표현되었던바, (세례) 요한, 그러므로 그는 '오기로 되었던 엘리야스'라 불렸다. 그들은 외적 형체, 즉 글자로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여 엘리야는 '자기 허리에 가죽 띠를 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눅4장-엘리아스는 말씀을 표현한다...이것이 '엘리아스의 시절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그럼에도 시돈의 사 램다 과부 외에 누구에게도 엘리야는 보내지지 않았다'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황폐된 교회 내에 있었던 과부들, 이들에게 엘리야스는 보내지지 않음=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이들.

* 엘리야에 의해 주님이 표현되어졌다.

* 엘리야에 의해 그리고 엘리사에 의해 말씀에 관련된 주님이 표현되어졌다, 고로 그들에 의해 말씀이, 특히 예언적 말씀이 표현되어졌다.

* 특히 말씀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한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이다. 모세는 역사적 책들에 관련된 주님, 엘리야는 예언적 책들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했다. 엘리사 외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있다, 그러므로 후자는 '장차 올 엘리야스'로 지칭된다.

* '그들 중의 누구에게도 엘리야는 보내지지 않았다'=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고로 주님의 말씀은 다른 이들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그이유는 그밖의 곳에서는 받아 지지 않았기 때문.

* 말씀 안에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또는 말씀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중요한 이들은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이다.

마17:12-엘리야가 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제멋대로 대우했다는 것=말씀은 주님이 오시라는 것을 참으로 가르쳤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납득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 오히려 가르침을 자아 지배욕을 옹호하도록 해석했다는 것, 고로 가르침 안에 있는 신성을 소멸시켰다는 것.

* 세례 요한이 말씀 자체이신 주님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 그는 말씀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했기에, 그는 자기가 엘리야스가 아니더라고 말했다.

* 엘리야와 엘리사가 '불병거와 승마자'라 불리워진 이유는 그들 각자는 말씀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했기 때문에서이다. 그리고 '병거'에 의해 말씀으로부터의 교리, 그리고 '승마자'는 총명이 의미되고 있다.

* '모세와 엘리야스'에 의해 역사적 말씀과 예언적 말씀이 표현되어졌다.

* 천국 안에 있는 말씀에서의 경우, '엘리야' 대신 '예언

엘리에셀-엘리-엘림-엠-여관

적 말씀'이 있다.

*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를 원함'에 의해 그들이 말씀을 파괴하기를 원함이 의미되어졌다.

* 엘리야와 엘리스가 말씀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했기에 그로부터 그들은 모든 예언서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부터의 교리를 의미했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승마차'라 불리웠다.

* 엘리야가 말씀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했는바, 이는 진리 자체로부터의 교리도 표현했다, 그리고 '망토(mantle)'=일반적 측면에서의 신성한 진리, 이 진리는 최말단에 있는 말씀이다. 엘리야의 망토가 엘리스에게 왔다.

* 엘리야와 엘리스에 의해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이 표현되어졌고, 말씀 안에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이 있고, 이 표현됨이 엘리야로부터 엘리스에게 이동되어졌는데, 이것이 엘리야의 망토가 엘리스 위에 던져짐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때 엘리스는 열 두 겨리로 받을 같고 엘리스 자신 열 두 번째 사이에 있었다. 이 모습을 수단으로 말씀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교회가 형성됨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은 신성한 진리로부터의 교리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들 중 중요한 사람은 신성한 진리로부터의 교리가 있어지는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세레 요한 이다.

* 엘리야가 말씀에 관련하여 주님을 표현했음은 엘리야에 의해 수행된 기적들로부터 알 수 있다. 이 기적들 모두는 신성한 진리, 또는 말씀 속에 있는 것과 같다.

* 세레 요한이 엘리야였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야가 표현한 것과 같다, 즉 말씀.

말4:5-'예언자 엘리야에 의해 세레 요한이 뜻해진다. 그이유가 세레 요한에 의해 엘리야와 똑같이 말씀을 표현했기 때문.

엘리에셀 (Eliezer)

창15:2-'다메섹의 엘리에셀'=외적 교회.

엘리에셀 (Eliezer, 모세의 둘째 아들)

출18:4-'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다'=교회 내에 있는 이들 속의 진리의 선에 대한 품질

엘리 (Eli)

*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가 하나의 인물 안에서 결합적으로 해서 표현되어졌다. 그러나 전쟁들과 이 백성의 우상숭배 때문에 이 둘은 먼저 분리되었다. 백성을 통치한 이들이 지도자라 불리웠는데, 후에 사사라 불리웠다. 그리고 거룩한 일을 집전해야하는 이들은 성직자라 불리웠다, 후에 이 두 가지 것들이 단 하나의 인물 안에서 결합되어졌다. 그 인물이 엘리와 사무엘이다.

엘림 (Elim)

* (두번째 시험 후에 영적 교회인을) 위로함이 취급된다, 이것이 백성들이 열 두 샘이 있고 칠십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진을 차렸다는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출15:27-'그들은 엘림에 왔다'=계발되는 상태와 애착하는 상태, 고로 시험 후 위로받는 상태. 이는 '엘림'의 의미로부터 분명하다.

출16:1-'엘림과 시내(Sinai) 사이에'=계속인 것, 그리고 품질...거기 있는 샘과 종려나무로부터, '엘림'=시험 후 위로됨에 속해 있는 진리와 선.

엠 (Emin)

* 주님께서는 '엠'인 거짓인 것으로부터의 모든 종류의 설득(persuasion)들을 정복하셨다.

창14:5-'그들은 사웨기라다임에서 엠족을 쳐부셨다'=거짓인 것으로부터 설득함, 또는 이런 것들이 있는 지옥들, 이것을 주님께서는 정복하셨다... '엠' 등등은 '네페림(Nephilim)과 유사하다.

여관 (inn)

창42:27-'여관에서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것'=그들이 자연 평면의 외면에 있는 과학물들을 곰곰이 생각하여 볼 때...'여관'=자연 평면의 외면.

창43:21-'우리가 여관에 당도해서, 우리의 자루들을 열었을 때'=자연 평면의 외면 안으로 자기 반성이 있음.

출4:24-'길에 있는 여관에서 이었다'=야곱의 후손은 내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들 안에 있었다는 것.

눅10:34-'그가 그를 여관 안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간호해달라고 말했다'=그는 그를 말씀으로부터 있는 교회의 교리에서 가르침 받는 이들에게 데려왔다는 것.

여덟-여덟 번째-여름

눅2:7, 10:34, 22:11, 막14:14-이것이 행해진 이유는 '여관 안에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졌다. 그 이유가 '여관'은 가르침이 있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에 섞음질함으로 인해 오로지 거짓들에만 있었기에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장소가 없었다. 하여 거기에 참 진리가 목을 장소가 없었다.

여덟 (eight)

여덟 번째(eighth)

창17:12-'팔일 된 아들'=순수해짐의 모두 각각의 시작. '한 주'=전체 기간...그리고 여덟 번째 날은 이어지는 주간의 첫 날, 따라서 이 구절의 경우=모두 각각의 시작. 이로부터 더 알 수 있는 것은 할례 자체가 깨끗해짐의 표징이었듯이, 할례를 실시한 날자도 그것을 상징하는 날, 즉 팔 일에 실시했다는 것이다.

창21:4-'팔 일 된 아들'=시작과 계속

창22:23-'이 여덟은 밀가가 낳았다'=구원되어진 이들의 두 번째 부류...여덟째 날이 이어지는 주의 첫 날인 바, '여덟'=이전에 있었던 것과 구분되는 그 밖의 어떤 것.

출22:30-'(소와 양의 첫 출생의 아들이) 팔일째 날에 여호와께 바쳐진' 이유는 '여덟째 날'은 새로운 시작으로부터 계속인 것, 즉 사랑의 계속인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 일 주=전체 기간, 또는 충만한 상태; 팔 일째 날에 선행되는 일곱째와 여섯째 날=이 상태의 끝; 그리고 이어지는 날, 또는 여덟째 날=같은 상태의 시작.

출22:30-'제 팔 일에 너는 나에게 그것을 바칠 것이다'=인간이 선으로부터 살 때, 이어지는 상태의 시작: 그러면 그는 주님과 함께 있다.

레23:39-'여덟째 날 역시 안식일이라 불리는 이유는 여덟째에 의해 새로운 상태의 시작이 의미되었기 때문이다.

출26:25-'여덟 개의 널판과 은으로 된 널판들의 받침이 있을 것이다'=선을 수단으로, 그리고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모두 각각의 방법에서 후원함이 있을 것이다. '8'=모두 각각의 방법...이 숫자는 '2'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가 8은 2와 4를 곱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와 '4'는 결합되어 충만됨, 그러

로 모두 각각의 방법을 의미한다...'8' 역시 충만한 것, 그리고 모두 각각의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간'이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한다는 사실로부터이다; 이로부터 '팔일째 날'은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로부터 후에 새로운 시작이 결과되어진다. 그런 고로 남성들은 팔일째 날에 할례받게 되어져 있었다.

미5:5-'그런 다음 우리는 (앗수르) 위에 일곱 목자와 사람들의 여덟 왕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충만한 것, 그리고 모두 각각의 방법에서 '일곱' 이후 '여덟'에 의해 의미되어진다...거짓으로부터 모두 각각의 방법에서 구원함, 또는 완전하게 구원함이 '과괴할 사람들의 여덟 왕자들'에서 의미되고 있다.

겔40:9,31,41-위와 같이 이 구절에서도 의미되고 있다; 집의 문의 현관은 '여덟 엘(ell)'이었다. 그리고 집으로 '여덟 계단'이 있었다.

계17:11-'(있었고 있지 않은 짐승) 그 자신 여덟째, 즉 여덟째 산이란 그것이 신성한 선 자체이다를 의미했다; 그 이유가 '일곱 산들'에 의해 말씀의 신성한 선들이 의미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짐승 자신이 여덟째 산'에 의해 그것이 신성한 선 자체이다를 의미했다. 선 또한 '여덟째'에서 의미되고 있다..

* '(짐승)자체가 여덟째이고, 일곱 속에 있다'=그들과 더불어 말씀 속의 선과 진리는 신성이다가 모독된 것... 짐승이 여덟째 왕이라 불리는 이유는 '왕'이 진리를, 숫자 '여덟'은 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름 (summer)

창8:22-'그리고 여름과 겨울'=거듭나는 사람의 의지 측면의 상태, 이 의지는 마치 여름과 겨울이 교대하듯 한다.

암3:15-'여름의 집'과 '겨울의 집'에 의해 감각적이라 불리는 자연적 인간 속의 일련의 것들이 의미되어진다.

여리고 (Jericho)

* '여리고의 성벽들'=악들을 방어하는 거짓들.

왕하2:19-21=이것이 여리고에서 행해진 이유는 이 성이 요르단(강)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이다. 그리고 요르단에 의해 처음 진리들을 받는 교회 사람들과 더불어는 것, 즉 자연 평면에서의 진리가 의

여리고-여물통-여부스족

미되어지고 있다.

왕하2:19-21-‘여리고의 물들’에 의해 글자 의미 안에 있는 진리들이 의미되고 있다.

* 여리고는 요르단 (강) 근처에 있는 성이었다. 그리고 요르단 강에 의해 교회에서 처음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의 글자 의미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가 의미되기에, 그 성은 ‘종려나무의 성’이라 불리웠다.

눅10장-‘여리고’=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있는 교회...‘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교회의 지식들과 진리들 안에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이들.

여5:13-15, 6:24-...그리고 ‘여리고’=이 선인 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있었을 때, 그는 서있는 사람을 보았다...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네 신발을 내가 서있는 곳으로부터 네 발로부터 벗어라,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에서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를 공략한 후에’...그들은 거기서 발견한 은과 금, 그리고 놋쇠와 철 그릇들은 여호와와 그의 집의 보물 안으로 주었다. 이런 사항들로부터 여리고가 ‘종려나무의 성’이라 불리운 이유가 분명해진다.

여6장-여리고 성에 의해 왜곡된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의미된다.

여6장-여리고 성에 의해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안에서 가르침이 의미된다. 이 지식들을 수단으로 인간은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그이유가 여리고는 요르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성이었기 때문...그리고 ‘여리고’=가르침. 또한 여리고=생활 속의 선인 이유는 교리 속의 진리들은 생활의 선 안에 있지 않은 이들 외에는 가르쳐질 수 없었기 때문. 그러나 가나안의 토지가 우상 숭배 나라들에 의해 소유되었을 때, 그 토지에 있는 장소나 성들의 의미는 반대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여리고’는 선과 진리를 모독함을 의미하였다. 이런 것들로해서 이 성 자체는 거짓과 악에 관한 교리를 의미하였다. 이 교리는 교회 속의 선들과 진리들을 악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독한 것이다. ‘여리고의 성벽’=이 교리를 보호하는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그리고 ‘여리고의 거주민’=모독자. 그리고 이 모독자는 선과 진리를 인정한 후에 지옥의 사랑으로부터 있

는 바, 이 성은 불로 태워졌고, 그곳의 거주민은 저주받아졌고, 그것의 성벽은 허물어졌다.

왕상16:34-여리고를 재건하는 자는 저주받으리라는 것...=신성한 진리를 모독함...이 모독함이 아합왕 아래 거행되었다.

여물통 (manger)

눅2:12=말씀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교리. 이는 말 (horse)이 말씀을 이해함을 의미한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그러므로 ‘여물통’, 말 목장이 있는 곳은 말씀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교리가 의미된다.

여부스 족 (Jebusite)

창10:16-18-‘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왓 족속, 스말 족속, 하마 족속’은 여러 많은 나라들이었다. 이를 수단으로 여러 다른 우상들이 의미되어지고 있다...그이유가 이들은 가나안의 토지의 거주민들이었고,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거절당해졌고, 부분적으로는 박멸되었다.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이들은 어떤 나라들을 의미하지 않고 우상 자체가 의미되었다.

창15:21-‘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악들로부터의 거짓들.

출3:8-‘그리고 히위족, 여부스족’=선과 진리에 관한 어떤 것이 들어있는 우상숭배자...‘여부스족’은 진리에 관한 어떤 것이 들어있는 우상숭배자가 의미된다.

출13:5-‘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부스족의 땅에 데려다 놓으실 때가 있을 것이다’=천국의 영역이 악과 거짓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해 점령되었다...진리의 어떤 것이 안에 있는 우상숭배자가 여부스족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출23:23-‘그가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그리고 브리스 사람, 그리고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 안으로 데려올 것이다’=주님께서 교회에 떼지어 몰려든 악과 거짓들을 방어하셨을 때.

출34:11-‘보라 나는 네 얼굴 앞으로부터 아모리 사람, 그리고 가나안 사람, 그리고 헷 사람, 그리고 브리스 사람, 그리고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을 몰아낼 것이다’=그 당시 악들과 이 악들로부터 파생된 거짓들을 제거함.

여분의-여섯-여섯 째-여섯째의

여분의 (superfluous)

출16:18-‘여분의 것을 위하여는 아무 것도 아니다’

출16:23-‘여분의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직하여라’=마치 자아로부터인 것처럼 모든 선과 진리를 향유함.

출26:12-‘천막 커튼의 남아도는 여분의 것’=진행하는 것...

여섯 (6, six)

여섯째 (sixth)

여섯째의 (senary)

* 여섯 ‘날들’, 또는 시기들, 이것은 거듭남의 아주 많이 계속되는 상태들이다.

* 여섯째 상태는 인간이 진리를 말하고 신앙으로부터, 고로 사랑으로부터 선을 행할 때, 그리하여 비록 전투 중에 있긴 하나 영적 인간이 되는 상태.

* 여섯 째 상태에 이르는 자는 아주 드물다.

* 여섯 째 날의 끝에서 악한 영들은 퇴각하고 선한 영이 계승한다, 그리고 그는 천국 안으로 입장되어진다.

* 인간은 그가 여섯 째 날에 있는 만큼에서 영적 인간이 되어간다.

* ‘6’=노동, 이는 노동, 또는 전투의 6일로부터이다

* ‘6’=노동, 전투, 거짓된 것이 사라짐이 아닌 믿음 속의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때의 경우 ‘6’이 12나 3과 관계될 때이다. 이 숫자가 숫자 6의 진짜 갈래이다. 그이유가 믿음 속의 거룩한 것은 시험과의 전투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과 전투의 6일은 거룩한 일곱째 날과 관계가 깊다.

* 6은 7에 선행하는바,=거룩치 못한 것, 상대적으로 모독적인 것.

출16:5-‘여섯째 날에’=모든 상태의 끝에서.

출16:26-‘6일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다’=진리가 선과 결합하기 앞서 진리를 영접함; 그이유가 ‘6일’=노동과 전투의 상태; 여기서의 경우, 진리를 영접함, 또는 선이 진리를 통하여 획득되어질 때의 상태; 그이유는 이 상태 안에 노동과 전투가 있기 때문.

출16:29-‘그분은 너희에게 여섯째 날에 이튿날의 빵을 줄 것이다’=이전 상태의 끝에 이르도록 까지 그분은 진리를 통하여 많은 선을 주시어, 이후 결합이 결과 되게

하신다. ‘여섯 째 날’=이전 상태의 끝.

출20:9-‘옛새 동안 너희는 노동할 것이다’=이 결혼에 앞서 선행되는 전투와 준비.

출20:11-‘옛새 동안 여호와께서 만드셨다’=거듭남과 생기 있게 함...‘6일’이 주님께 관련해 서술될 때,=인간이 거듭나기 이전 그 인간과 더불어 수고하심.

출23:10-‘6년 동안 너희는 토지에 씨를 뿌릴 것이다’=교회 속의 인간이 가르침 받는 첫 상태.

출23:12-‘6일 동안 너는 네 일을 할 것이다’=외적 기쁨들 안에서 내적인 것과 결합되기 위해 있는 전투와 노동의 상태.

출24:16-‘6일 동안’=진리의 상태에 있는 동안.

출25:32-‘(춧대의) 여섯 갈대들’=복합체에 있는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모든 것들. ‘6’=복합체의 모든 것들.

출26:22-‘여섯 널판들’=모든 방법에 있는 신성한 인간으로부터의 선.

출28:10-‘둘 하나에 이름 여섯’=선으로부터의 진리의 전체 품질. ‘6’=모든 것들.

출31:15-‘6일 동안 일이 행해질 것이다’=천적 결혼을 위해 선행되고 준비하는 상태.

출31:17-‘옛새 동안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교회가 복구되는 동안 있는 전투와 노동의 상태. 인간의 거듭남과 교회 회복이 취급될 때의 ‘6일’=악들과 거짓들에 맞선 전투의 상태, 고로 선과 진리의 결합을 위한 준비로 선행되는 상태.

출34:21-‘6일간 너희는 일할 것이다’=인간 거듭남의 첫 상태, 이는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그런 다음 악들과 거짓들에 맞서는 전투 안에 있다.

계4:8-‘여섯 날개들’=(모든) 힘과 경계함. ..‘6’=진리와 선에 관련한 모든 것; 그이유가 6은 3에 2를 곱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3=진리에 관련한 모두, 그리고 2=선에 관련한 모두.

* ‘3’과 ‘6’은 진리를 서술하고, 그것들을 의미한다.

* ‘6’=3에 2를 곱한 것과 같다, 그리고 3=충분, 그리고 모두, 그리고 진리들을 서술한다; 그리고 6은 이런 숫자가 곱해서 산출되는바, 6=말씀에서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 여기서의 경우 반대 의미인 왜곡된 모든 진리.

여성-여예언자-여왕-여자

여성 (female)

* 남성=진리. 여성=선.

창5:2-‘남성과 여성’=신앙과 사랑의 결혼.

창5:2-‘여성’=의지, 또는 의지 속의 것들; 고로 사랑 속에 있는 것...그러므로 ‘여성’=교회.

창12:11-‘너는 외모에서 아름다운 여자이다’=천적인 근원으로부터 있는 진리는 매우 유쾌하다.

창12:15-‘여인’=진리, 여기서의 경우 지식 안에 있는 진리인데, 주님께서 그분의 어린 시절 그분을 황홀하게 한 진리이다.

창31:35-‘여자의 길(생리)’=불결함.

창34:29-‘그들의 여인들’=선행. (그이유가) ‘여자들’과 ‘아내들’=진리에 애착함과 선에 애착함들; 그들의 짝이 언급되고 그 짝이 ‘남편’이라 부를 경우 진리에 애착함이 의미되고, 그녀의 짝이 언급되지 않거나 남자라 부를 경우 선에 애착함을 뜻하게 된다.

예31:22-‘여자가 남자를 손에 넣을 것이다’=새로운 교회는 진리 자체에 대해 애착하는 이들 안에서 건설될 것이다...‘여인’=진리의 애착에 관련된 교회.

마24:41-‘여인’=진리에 애착함으로써 선 안에 있는 이들...여기서 ‘여인’=거짓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악들에 있는 이들; 그 이유가 ‘한명은 데려갈 것이고 다른 한명은 남겨질 것이다’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민31:18-‘남자와 결합하지 않은 여자’=진리들을 향한 애착 측면에서의 교회, 또는 진리와 결합함의 측면에서의 교회.

여예언자 (prophetess)

* 예언하다(prophet)를 보라.

여왕 (queen)

예7:18, 44:19-‘하늘들의 여왕을 위해 과자를 만드는 것’=천적 사랑의 선으로부터 악마에게 예배하는 것... ‘하늘들의 여왕’=악귀들이 있는 지옥에 있는 이들.

예44:17-‘하늘들의 여왕’=전체 복합체에 있는 거짓들.

예7:18-‘하늘들의 여왕’=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악들.

시45:9-‘여왕’=주님의 아내 측면에서의 교회.

계18:7-‘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다’=그들은 영구히 지배할 것이다. (=천국과 교회가 그들의 지배 아래 있다.)

시45:9-‘오빌의 최상의 금을 몸에 걸치고 왕의 오른편

에 서있는 여왕’=사랑의 선 속에 있는 주님의 천적 왕국.

여자 (woman)

창2:22-‘갈빗대...그분은 여자로 건축하셨다’...‘여자’=주님에 의해 생기를 띠는 인간 고유의 것(man's Own, proprium). ‘그분은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왔다’=그의 고유의 것이 그에게 증여되었다. 그이유가 이 교회의 후손은...천적 인간(주님에 의해 이끌려짐)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을 자신 스스로 이끌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그들 고유의 것이 그들에게 증여되었는데 이것이 주님에 의해 생기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여자’라 불리고 후에는 ‘아내’라 불린다.

예31:22-‘여호와께서는 땅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다-여자가 남자를 에워쌀 것이다.’ 이것은 천국의 결혼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자’를 수단으로 주님에 의해 생기를 띠는 인간 고유의 것이 의미되어졌다...‘에워쌌’의 의미가 이런 속성인바, 빠져나간 갈빗대의 가슴 부분이 살로 만들어졌다.

창3:1-‘뱀이...여자에게 말했다’=인간 고유의 것에 (말했다).

창3:12,13-‘당신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나에게 준 여자가 나무의 것을 주었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말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이것을 했느냐? 여자가 말했다. 뱀이 나를 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먹었습니다’=남자의 합리성이 그의 고유의 것, 그가 아끼는 것, 즉 자아를 사랑함에 찬성함; 여기서 ‘여인’=자기가 보고 느껴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믿지 아니하게 되었다.

창3:15-‘나는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증오를 놓을 것이다...여기서의 ‘뱀’=일반적 측면에서의 악; 특별하게는 자아를 사랑함; ‘여자’=교회...그리고 ‘여자의 씨’=주님에 대한 신앙.

창3:16-‘그리고 여자에게 그분은 말하셨다. 나는 네 슬픔을 크게 늘릴 것이다. 그리고 임신을; 고통 안에서 너는 아들들을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네 손중이 네 남자에게 있을 것이고, 그는 너를 지배할 것이다.’ 지금의 ‘여자’=사랑했던 자아로부터 있는 교회 ...‘슬픔’=전투

여자

그리고 근심... '임신'=모든 생각. '아들이 슬픔 안에서 산출될 것이다'=진리들... '남자'=합리성, 이것이...교회를 다스릴 것이다.

창12:19-'나는 그녀를 여자로 나에게 취했을지도 모른다'=그같이 진리가 그것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가져와졌을지도 모른다는 것.

창14:16-(그는) 여자와 백성을 (되돌렸다)=선들과 진리들 둘 다.

창26:3-'그 여자는 아브람에게 여인으로 그녀를 주었다'=진리에 애착함을 자극함을 통해 결합함...하같은 아내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여인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한 남자와 한 아내 이지 않은 상태는 결혼이 아니기 때문이다...

창18:11-'사라는 여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중단되어 있었다'=(주님의 인간성은) 그렇게는 더 이상 남을 수 없었다.

창20:3-'너는 여자 때문에 죽을 것이다'=신앙에 관한 교리는 만일 합리성과 상충한다면 무가치되어 질 것이다...여기서 여인이라 불리운 '누이'=합리성.

계12장-'광야로 도망한 여인'=교회가 시험받음.

창24:3-'너는 가나안 족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여자를 취하지 말라'=신성한 합리성은 진리에 불일치하고 있는 어떤 애착과도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 '여인을 취하는 것'=결혼의 계약에 의해 결합되는 것...결혼 계약에 의해 연합되어지는 '여인'에 의해 신성한 진리 자체가 의미되었다. 이것은 공통된 방법을 수단으로 하는 자연적 인간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키지게 하였다.

창24:5-'어쩌면 여자가 나를 따라 이 토지로 기꺼이 가지 않으려 한다면'=이 애착이 분리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련하여 자연적 인간이 이 애착을 의심하는 것. 그 이유가 여기서 '여자'=자연성으로부터의 진리, 이 진리는 합리성 속의 신성한 선과 결합되어지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결합은 애착을 수단으로 하는바, '여인'에 의해 이 진리에 애착함이 의미되고 있다.

창24:67-'그는 리브가를 데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여인으로 있었다'=선과 진리의 결합...그녀가 '아내로서'가 아니고 '여인으로'라고 말해진 이유인즉, 합리적 선과 자연성으로부터 불러 일으켜져 신성으로 만들어진

진리 사이에는 결혼이 있지 않고 결혼 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있기 때문이다.

민31:17-'남자를 알았던 여자'=거짓된 것에 대한 애착.

계12장-'태양을 휘감은 여자'=교회...

창26:10-'백성 중 하나가 네 여인과 쉽게 누웠을지도 모른다'=(신성한 진리가) 섞음질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여기서 '여자(리브가)'=신성한 진리.

창26:11-'이 남자와 그의 여인을 건드리는 자는 꼭 죽어야 할 것이다'=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은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만일 그들이 모독할 경우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여기서 진리가 먼저 언급되고, 선이 그다음 언급되었는데, 그 이유는 영적 교회가 취급되기 때문이다.

창26:34-'그는 여인으로 유딧을 취했다'=또다른 근원으로부터 있는 자연적 진리의 접합...그이유가 '여인'=선에 접해진 진리; 여기서의 경우 자연적 선에 접해진 자연적 진리.

창28:1-'너는 가나안의 딸들 속에서 여자를 데려오지 마라'=그것은 거짓과 악에 대한 애착, 결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창28:6-'거기로부터 여인을 데려오는 것'=진리에 애착함을 통하여 결합함; 그이유가 '여자'=진리에 애착함이기 때문.

창30:4-'그녀는 그에게 빌하를...여인으로 주었다'=긍정적인 매개체가...를 위해 인접하는 것. '여인으로 주는 것'=인접하는 것.

창34:8-'그녀를 그에게 여인으로 준다'=이 새로운 교회와 결합함을 갈망함.

창45:19-'너희 유아들과 여인을 위한 (수레들)'=교회의 내면의 것들을 알기에는 아직 때가 이른 이들을 위하여...그이유가 '여인'=진리에 애착함이기 때문; 그이유가 남자들=진리들일 경우, 그들의 '여인들'=진리에 애착함 ; 그리고 거꾸로 '남자들'=선들일 경우, 그들의 '여인들'=진리들; 그러나 이런 경우 흔히 남자들은 '남편들'이라 불린다. 진리에 애착함은... '남자들'이라 불리는 진리들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의 내면의 것들을 모른다. 이런 것들 없이 애착들은 지적인 것 없는 의지와 같다.

여자

창46:5-‘(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들의 여인들을 (운반했다)’=선행 속의 것들; 그이유가 ‘여인’=그들의 남자들이 진리들일 때 선들.

겔23:2-‘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인 ‘두 여인들’=교회.

출1:19-‘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 같지 않았다’=교회의 과학적 사실들은 그것들에 반대되어 있는 과학적 사실 같지는 않다는 것...그이유가 ‘여인들’=교회 속의 것들.

출2:2-‘여인이 임신했다’=첫 번째 신성한 법의 출생... 여기서 ‘여인’은 ‘레위 가문의 남자’가 장가 든 ‘레위 가문의 딸’, 즉 선과 결합된 진리와 똑같다.

출2:7-‘여자가 히브리 여인으로부터 유모를’=교회 자체로부터 선이 은근히 심어짐.

출2:9-‘여인이 아이를 데려갔다,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교회로부터의 선이 그것 안으로 은근히 심어짐. ‘여인’=교회.

출3:22-‘모든 여인은 그녀의 이웃에 요청할 것이다’=모든 이들의 선이 풍요해질 것이다...그 이유가 ‘여자’=선행의 선에 애착함 ...여인이 요청한 이유인즉, ‘여인’에 의해 선행의 선이 의미되기 때문, 그리고 이것이 풍요해지리라는 것; 그이유가 선이 선이기 위하여 선은 반드시 그 선의 품질에 합당한 진리를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출15:20-‘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왔다’=진리로부터의 모든 선들; 그이유가 ‘여인들’=남자가 진리에 애착함 일 때 선에 애착함 .

호3:1-이스라엘의 집을 의미하는 ‘여자 간음녀’=거기 있는 교회.

숙5:7,8-‘이것이 여자이다...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것은 악이다; ‘여자’=악, 마치 노골적으로 정해진 듯한 악.

숙5:9-‘여인들이 땅과 하늘 사이에 에바를 들어 올리고 있다’=교회들을 수단으로 모독된 것이 추방된다.

삼상15:33-‘네 검이 여인들을 빼앗았다’=그들의 거짓들이 선한 애착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출19:15-‘여인 근처에 오지 마라’=신앙으로부터의 선이 깨끗해짐; 그 이유가 이스라엘 국가 사이에 있던 결혼들은 불순했기 때문이다....이로부터 ‘여인 근처에 오지 마라’=불순한 것을 금함.

출21:22-‘임신한 여인을 칠 경우’=진리로부터 있는 선에 피해를 입힐 경우...(고로) ‘임신한 여인’=진리들로부터 선이 형성되는 상태.

출21:28-‘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을 경우’=만일 자연성에 있는 악에 대한 애착이 진리 또는 신앙으로부터의 선을 다치게 할 경우.

출22:6-‘그는 자기에게 여인이 되는 그녀에게 기부금을 수여할 것이다’=합법적 결합에 동의함을 서약함.

출22:24-‘너희 여인들은 과부들이 될 것이다’=그들과 더불어 선들이 멀해질 것이다...‘여인들’=선들인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의해 진리와 선의 결합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왕상17:10-‘시돈의 여자’=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안에 있는 교회.

계17:1-‘태양을 휘감고, 발 아래 달을 밟은 여인’=천국들에 있는 주님의 새 교회, 이것은 새 천국이다; 그리고 땅 위에 있을 주님의 새 교회, 이는 새 예루살렘이다. (=주님을 사랑함, 그로부터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교회, 또한 자연에 있는 이들에 있는 신앙, 그리고 선행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교회) 그 이유가 ‘여인’=진리에 대한 영적 애정이기 때문. (=새 교회의 신앙)

계12:2-‘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배고 있었는데 출산으로 고통하며 소리쳤다.’ 새 교회 교리의 초기 시절, 용으로 의미된 이들이 꾸미는 방해 공작 때문에 (사람들이) 교리를 받아들임에서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

계12:4-‘그리고 용은 해산하려 준비된 여인 앞에 섰고, 그녀가 해산하자, 그녀의 아이를 삼키려했다’=‘용’으로 의미된 이들은 새 교회의 처음 부상함부터 그것을 소진시키려 바쁘다. (=‘용’으로 의미된 이들이 주님을 사랑함과 선행으로부터 교리와 삶에 있는 이들을 미워함)

계12:6-‘용은 아들을 해산한 여인을...뺨박했다’=용이 내던져진 이후 영들의 세계에서 용의 추종자들은 새 교회의 교리 때문에 새 교회에 해를 입히기를 시작했다.

계12:14-‘여인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져서 그녀는 자기 장소인 광야로 날아가게 되었다’=이 교회를 위한 하느님의 빈틈 없으심, 그리고 이 교회가 미약한 상태인 동안 보호하심. ‘여인’에 의해 새 교회가 의미되

여주인-여행하다

어진다.

계12:15-‘그리고 뱀은 여인의 뒤에서 그녀가 휩쓸려 삼켜지도록 홍수 같은 물을 토했다’=이런 추론들은 합리적으로 이해된 진리들로부터 보면 아무 것도 아님으로 추락된다. 합리적으로 이해된 진리를 지닌 이들이 미가엘들이고, 그들 속에 새 교회는 있으면서 발전도 한다.

계12:17-‘그리고 용은 여인 때문에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가진 그녀의 씨의 잔존자들과 전쟁을 하러 갔다’=미움에 불이 붙었다, 즉 주님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신비적 합일과 신앙 만으로 정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들의 확증들로부터 자신들이 슬기롭다고 믿는 용으로 의미되는 이들이 천국과 땅의 하나님은 주님뿐 이심을 인정하고, 십계명이 삶의 법임도 인정하는 이들을 향해 불붙은 미움이 그들을 피일 의도를 지닌 초심자들의 과감한 공격적 연사에 의해 (드러내진다).

계14:4-‘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게 하지 아니한 그들이다, 그이유가 그들은 처녀들이기 때문이다’=그들은 교회 속의 진리들에 섞음질하지 않았고, 교회 속의 진리들에 신앙 속의 거짓들로 더럽게 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그것들이 진리들이기 때문에 진리들을 사랑했었다. ‘여인’=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있는 교회; 반대 의미에서일 경우 거짓인 것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있는 교회.

요19:26-‘예수께서...그의 어머니에게 말하셨다, 여인이여, 보라 당신의 아들.’ 여기서 ‘어머니’, 그리고 ‘여인’=교회

호3:1-여인은 그녀의 동료들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간음녀’=이런 교회.

마14:21-‘여자와 아이들 외에’=선들 안에 있는 이들.

요4:7-‘사마리아 여인’=교회는 이와같은 속에서 분장을 했다.

예6:11-‘남자와 여자’=선과 결합된 진리, 이로부터 파생된 총명.

눅15:8-여인이 ‘은 조각을 잃었다’고 말해진 이유는 ‘여인’=진리에 애착함에 관련된 교회, 그러므로 교회 속에 있는 진리에 애착함 역시 의미하기 때문이다.

레26:26-‘열명의 여자가 화덕 하나에서 빵을 구울 것이다’=인간과 더불어는 교회 속의 모든 것 안에는 선과 진리에 관련된 것은 어떠한 거의 없다는 것; ‘열 여자’=교회 속의 모든 것들.

신20:14-‘나라 속의 ‘여인’ 외 기타 등등은 처죽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악이고, 악은 진리들을 수단으로 하면 복종되고 수정되고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창3:15에서-교황 추종자들은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이해한다.

호1:2-‘(호세아에게 명령되어 데려간) 매춘 사회 속의 여인’=말씀 속의 진리들을 왜곡하고 있었던 교회.

겔9:6-‘여인’=진리들과 결합한 선들.

계17:3-‘나는 주홍색 짐승 위에 앉은 여자를 보았다’=말씀의 거룩한 것들 위에 군림한 교황의 광신적 신앙에 따른 지배.

여자 형제 (sister)

* 누이를 보라.

여행 (journey)

* 여행하다(journey)를 보라.

여종 (maid-servant)

몸종 (handmaid)

* Bilah, Hagar, Zilpah도 보라

창12:16-‘(아브람은)...여종들을 가졌다, 그리고 암나귀들도’=...과학적인 것들로부터의 즐거움.

창16:1-‘(사라는) 이집트 출신 여종을 데리고 있었다’=지식에 애착함...외면의 인간 속에 있는 이 애착은 지적인 진리를 섬겨야 한다...마치 여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애착이 몸종 하갈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16:2-‘내 몸종에게로 들어가라’=외면인 것과 결합.

창20:14-‘(아바멜렉은) 남종과 여종(을 데려왔다)’=합리적 진리들과 자연적 진리들, 또한 이 진리들에 애착함으로 (부유해짐).

창16:17-‘그리고 그의 여종들’=교리적인 것들에 애착함 측면에서.

창21:10-‘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아라’=인간적 수준 만에 속한 것은 추방되어져야 한다는 것.... ‘여종’=합리

여호비-여호사밧-여호수아

적 과학적인 것에 애착함, 고로 그것들로부터의 선.

창30:43-‘(아굽은) 여종들과 남종들을 가졌다’=중매적인 선들과 진리들. 즉 자연적인 것 자체들. (그이유가) ‘남종들’=자연 평면에 애착함. 고로 거기로부터의 선들.

창32:22-‘두 몸종들(빌하와 질바)’=매개(media)들로서 섬기는 진리에 외면적으로 애착함.

출11:5-‘여종’=외면의 진리에 애착함, 또는 지식에 애착함. 그러나 ‘맷돌 뒤에 있는 여종’=가장 높은 수준의 외적인 것인 지식들에 애착함.

출20:10-‘네 여종’=선 측면에서의 자연 평면.

출21:7-‘누가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 때’=자연의 즐거움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여종’=외적, 또는 자연적 애착.

출21:20-‘누가 자기의 남종, 또는 여종을 막대로 쳐죽였을 때’=만일 교회 내의 누가 과학적 진리 또는 그에 대한 애착을 자신의 힘으로부터 잘못 취급한다면...‘여종’=자연적 애착, 고로 과학물에 애착함.

출21:26-‘또는 그의 남종의 눈’=(만일 그가) 외적 평면에서 진리에 애착함(을 상하게 한다면)...‘여종’=자연적 진리에 애착함.

출21:27-‘만일 그가 자기 남종의 이, 또는 자기 여종의 이를 세계 쳤다면’=만일 그가 감각 평면에서 진리, 또는 진리에 애착함을 파괴한다면.

출21:32-‘만일 수소가 뿔로 남종 또는 여종을 받았다면’=만일 악에 애착함이 자연 평면에서서 진리 또는 선을 파괴했다면...‘여종’=자연 평면에서 진리에 애착함.

출23:12-‘여종의 아들’=외적 진리에 애착하는 이들...‘여종’=외적인 애착...‘여종의 아들’에 의해 여기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의미되어진다.

여주인 (mistress)

창16:4-‘하갈의 여주인은 하갈의 눈에서 하찮게 여겨졌다’=이 (첫번째) 합리성은 선에 인접한 진리 자체를 싸구려로 취급하여 붙잡고 있었다. ‘여주인’, 또는 사례=선에 인접한 진리.

창16:9-‘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선들, 이것들로부터 그들은 벗어날 것이다. (=지혜.) (=선이 은근히 숨어짐, 이는 지혜로부터 있다.)

여행하다 (journey)

창13:3-‘아브람은 그의 여정들에 의거 갔다’=(질서에 의거) 진보함.

창11:2-‘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여행했을 때’=그들이 선행으로부터 물러났을 때. ‘여행하는 것’, 여기서는 물러나는 것(recede), 그이유는 ‘동쪽’이 선행을 서술하기 때문.

창11:9-‘아브람은 여행해서 가고 여행했다(더 여행했다)’=더욱 진보함.

창33:12-‘여행해서 가는 것’=계속되는 것. 즉 선이 진리와 결합이 계속되는 것. ‘여행해서 가는 것’은 더욱더 진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창3:17-‘아굽은 숲곳으로 여행했다’=진리로부터 선의 삶의 상태. ‘여행하는 것’=삶의 질서와 실행, 고로 삶의 상태.

창35:5-‘그들은 여행했다’=계속인 것, 즉 내면의 것들을 향해 계속 발전하는 것.

창35:16-‘그들은 벳엘로부터 여행했다’=신성의 자연 평면으로부터 신성의 진보가 계속적인 것.

창35:21-‘이스라엘은 여행했다.’ ‘여행하는 것’=계속 이어지는 것. 여기서는 더 내면의 것들 쪽으로 향해 계속인 것.

계37:17-‘그들은 여기로부터 여행했다, 그이유는 그들에게서 도단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그들은 자신들을 일반성으로부터 특수적인 것으로 향하게 했다는 것. ‘여행하는 것’=자신들을 향하게 하는 것.

창46:1-‘이스라엘은 여행했다’=결합의 시작. ‘여행하는 것’=여기서는 주님의 신성화하심의 계속인 것, 그리고 인간의 거듭남의 계속인 것.

출12:37-‘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라암셋으로부터 숲곳으로 여행했다’=떠남의 첫 상태, 그리고 그것의 품질. ‘여행하는 것’=삶의 질서와 실행들. 이로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여정들=삶의 상태들과 이 상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변화들.

출13:20-‘그리고 그들은 숲곳으로부터 여행했다, 그리고 애담에 진을 쳤다’=그들이 해방된 이후 두 번째 상태.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여정들과 진영을 침들=주님에 의해 해방되어진 이들의 영적 상태들. 상태의 변화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하는 여행과

여호비-여호사밧-여호수아

거기서 머뭇들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 말씀의 내적 의미에서 '여정들'에 의해 삶의 상태들과 실행들이 의미되어진다.

출14:10-'보라, 이집트인이 그들 뒤를 따라 여행하고 있다'=거짓이 무겁게 자라남이 계속 증가함. '그들 뒤를 따라 여행하는 것'=더 밀접한 유입과 교통함.

출14:15-'그들이 여행하게 하라'=그들이 준비되어 질 때 까지 조차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것. '여행하는 것'=연속적이고 계속적인 것.

출14:19-'하느님의 천사가 여행했다'=신성의 진리에 의해 배열됨. 그이유는 구름 기둥이 이집트인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로 향하고 있기 때문.

출15:22-'모세는 이스라엘을 수프 바다로부터 여행하게 했다'=그들이 지옥의 영역을 통과한 이후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질서에 따라 계속인 것.

출16:1-'그들은 엘림으로부터 여행했다'=시험들의 상태에 관련하여 삶의 계속인 것. 그이유가 영적(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시험들을 수행할 때, 이 시험으로부터 저 시험으로 가져다 놓여진다. 이것이 여기서 여행에 의해 의미되는 계속적이라는 단어에 해당된다.

* '여행하는 것', '발전하는 것', '체류하는 것'=사는 것인 이유는 영계에서는 공간이 없고 그대신 삶의 상태들이 있기 때문.

출17:1-'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든 집단이 여행했다'=영적 생활이 발전하는 것.

출17:1-'그들의 여정들에 따라서'=천국의 생명을 받기 위하여 삶의 질서에 따라서.

출19:2-'그들은 르비딴으로부터 여행했다'=삶이 이전의 상태로부터 계속적인 것.

* 걷는 것들과 여행하는 것들은 인간의 운동들(motions)이다, 그리고 이로부터=삶의 진보, 또는 의지의 의도로부터의 생각의 발전.

여호비 (Jehovih)

창15:2-'아브람이 말했다, 오 주 여호비'=주님이 지각하심.

이65:13-'주 여호비의 종들'에 의해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는 이들이 의미되어 있다.

여호사밧 (Jehoshaphat)

울3:12-'여호사밧의 골짜기', 심판이 있는 곳=말씀을 왜곡함.

여호수아 (Joshua)

출17:9-'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신성이 전투하는 진리 안으로 유입됨...전투하는 진리가 '여호수아'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여호수아'=전투하는 진리이다는 것은 그가 아말렉, 즉 내면의 악으로부터 있는 거짓들에 맞서 싸우도록 명령받아진 사실로부터 분명하다.

출17:10-'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대로 실시했다'=결과, 즉 전투하는 진리가 신성한 진리에 의해 훈육되어왔던 그대로.

출17:14-'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들 안에 놓아라'=진리가 이 거짓에 맞서 싸우려 순종하는 것...'여호수아'는 내면의 악으로부터 있는 거짓에 맞서 싸우는 진리를 표현한다.

출24:13-'그리고 모세는 일어났다, 그리고 모세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말씀, 그리고 표현함. '여호수아'가 여기서 표현함인 이유는 그가 (모세를) 섬기기 때문.

출32:17-'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음성을 들었다...' '여호수아'는 조사하고 통각하는 말씀 속의 진리를 표현한다. 그이유가 그는 모세를 섬기는 자였고, 모세에 의해 말씀이 표현되었기 때문...그러므로 '섬기는 자(the minster)'에 의해 진리가 표현되어진다.

출33:11-'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소년, 여호수아는 천막 한가운데로부터 자신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다'=한편 모세의 자리에서 신성한 진리가 교회와 예배 속의 거룩한 것들을 섬기고 있음. '모세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 그가 진리로부터서는 '눈의 아들'. 선으로부터서는 '소년'이라 불리우고 있다.

여호수아 (대 성직자, Joshua)

숙3:1-'대 성직자 여호수아'는 이 구절에서는 법, 또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

여호와 (Jehovah)

창2:4-'여호와 하느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그날에'...'여기서는 천적 인간의 형성이 취급되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느님'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처음 사용되었

여호수아 - 여호와

다는 사실로부터 한층 더 명백히 알 수 있다. 앞장에서는 영적 인간의 형성이 취급되었는바 단지 '하느님'이라고만 말해졌다.

창3:22-여호와 하느님이 단수로 말해지고 후에 복수로 말해진 이유는 '여호와 하느님'에 의해 주님이 의미되면서 동시에 천사들의 천국도 의미되기 때문이다.

창4:26-'그당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이 교회가 선행으로부터 예배함.

창7:1-'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했다'=그와같이 되어졌다는 것; 이는 여호와와 더불어서는 그 의미가 있음 자체(Esse) 밖에 더 다른 의미는 없다는 사실로부터 명백하다.

창9:26-'복되신 썸의 하느님 여호와'=내적인 것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위한 모든 선.

창10:9-'니므롯 같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해진 이유는 니므롯같은 예배 안에 있는 이들은 신앙을 여호와, 또는 사람 여호와와 분리했다.

창12:7-'여호와가 아브람에 의해 보여졌다'=주님이 아직 어린아이이셨을 때 여호와가 주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창13:10-'여호와의 동산'이 말해지는바, 이는 합리성이 천적 수준이었을 때, 즉 천적 근원으로부터이었을 때...

창15:7-'나는 여호와이다'=주님의 내적 인간, 이 인간이 여호와이시다...주님의 내적인 것, 즉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이든 그것은 그분 안에 계신 여호와이셨다, 그이유가 그분은 여호와로부터 임신되었기 때문이다.

창16:5-'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판결하신다'=주님이 분개하심.

창16:13-'그녀는 자기에게 이야기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그분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셨을 때 주님의 내면의 인간의 상태.

창19:24-'여호와께서 천국 안으로부터 여호와와 더불어 비를 만드셨다'라고 말해지는바, 이는 마치 여호와가 둘인 듯, 즉 한분은 땅에서, 그리고 한분은 천국으로부터 나타나는 듯 여겨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가르치는 바,...첫 번째 명명된 여호와는 주님의

신성한 인간과 거룩한 진행, 이 장에서 '두 사람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명된 여호와는 '아버지'라 불리는 신성 자체가 의미되고 있다...

창21:1-'여호와께서 사라를 방문하셨다'=신성한 영적인 것 안에 신성한 천적인 것이 현존함. '여호와'=신성한 천적인 것; 즉 신성한 선, 존재 자체...

창24:1-'여호와께서는 모든 것들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모든 것들이 신성한 질서 안으로 주님께 의해 정돈 배열되어져 갔었을 때...'여호와'=신성 자체에 관련된 주님;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하고 있다.

창24:3-'나는 천국의 하느님 그리고 땅의 하느님 여호와를 두고 네게 엄명을 내린다'=최고의 것들 안에 있는 신성, 이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에 가장 거룩하게 결속됨...위에 있는 신성, 그리고 아래 있는 신성...'천국의 하느님 여호와', 주님께 관련해 말해지고 있는바=아버지라 불리는 여호와 자신, 이분으로부터 주님은 임신되시었다, 고로 그분의 신성한 본질...'땅의 하느님 여호와'=아들이라 불리는 여호와, 고로 그분의 인간 본질...어쨌든 주님은 천국들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천국의 하느님 여호와'라 불리고, 땅 위에 있는 신성으로부터 '땅의 하느님 여호와'라 불린다.

창25:21-'이삭이 여호와께 기도했다'=아들인 신성이 아버지인 신성과 소통함...이 소통은 주님 안에서 있었다.

창26:2-'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했다'=신성으로부터 생각하심.

창26:12-'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그들에 있는 사랑의 선...그 이유가 '여호와'는 사랑 또는 선의 참 존재이기 때문.

창26:24-'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주님께서 지각하심...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분 안에 계셨기 때문; 고로 인성이 영화되지 않는한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신성한 지각, 또는 신성으로부터의 지각.

창26:28-'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신성이 거기 안에 있으셨다.

출6:3-'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느님 쇠다이(Shaddai)로 나타났었다, 그리고 내 이름 여호와에 의

여호와

해서는 나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창28:13—‘여호와께서 그것 위에 서있으시다’=지극히 높음에 있는 주님.

창28:16—‘확실하게 여호와와는 이 장소에 있으시다’=이 상태 안에 있는 신성.

창28 21—‘여호와께서 하느님으로 나에게 있을 것이다’=신성한 자연성 역시 여호와 일 것이다.

창39:2—‘여호와께서 요셉과 더불어 계셨다’=신성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 안에 있었다.

숙14:9—‘여호와께서 모든 땅 위에서 왕으로 계실 것이다; 그날에 한분 여호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일 것이다’=신성 자체와 하나되실 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주님.

출4:1—‘여호와가 보어짐’=주님의 인간 안에서 그분의 신성이 나타나심; (그이유가) ‘여호와’=신성 자체에 관련된 주님과 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주님이기 때문.

출4:10—신성이 ‘여호와’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로부터 명백한바,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다’란 주님께서 그분의 인간 안에서 신성으로부터 지각을 가지셨다는 것.

출4:31—‘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방문하셨다’=영적 왕국의 교회인들은 주님의 강림에 의해 해방되고 구원되었다는 것... 말씀에 있는 ‘여호와’=주님.

출5:1—‘고로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말하신다’=주님 속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있는 권면).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에 의해 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주님이 의미되어진다.

출5:3—‘내 이름 여호와 안에서 나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시험의 상태에 있는 영적 왕국의 교회인들은 교회 속에 있는 신성한 것들에 관하여 꼼꼼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여호와와 이름’=하느님이 예배되어지는 한 복합체 안의 모든 것; 고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 속의 신성. ‘여호와와 이름’에 의해 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의미된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듯 싶다.

출5:7—‘너는 내가 네 하느님 여호와 임을 알것이다’=그때 당시 주님이 유일한 하느님이심이 통각되었다는 것.

출7:16—‘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여호와’=교회 속의 신성... ‘여호와 하느님’=주님; 신성한 선에 관련하여서는

‘여호와’; 그리고 신성한 진리에 관련하여서는 ‘하느님’.

출8:10—‘여호와 우리의 하느님 같은 자는 없다’= 한 분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 외 아무도 없다는 것.

출8:22—‘너는 나 여호와가 토지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런지 모른다’=주님 만이 교회의 유일한 하느님이시다는 통각함.

출9:27—‘여호와는 의로우시다’=신성한 선은 그것을 참아낼 수 없었다는 것... ‘여호와’에 의해 신성의 있음 자체, 즉 신성한 선이 의미되어진다.

출24:7—‘여호와께서 이야기하셨던 모든 것들’=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들.

출24:17—‘여호와의 영광의 국면’=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의 나타남.

출28:36—‘여호와께 거룩함’=주님의 신성한 인간, 그리고 이 인간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천적 선과 영적 선... ‘여호와께 거룩함’이라고 말해진 이유는 말씀에서 ‘여호와’=주님.

출29:23—‘여호와 앞에 있는 것...’=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그 이유가 말씀에서 ‘여호와’=신성한 선으로부터 ‘여호와’라고, 신성한 진리로부터 ‘여호와’라고 불리는 주님.

출29:46—‘나는 그들의 하느님 여호와이다’=그분으로부터 사랑의 모든 선, 신앙의 모든 진리가 있다. (그이유가) 여호와는 신성한 있음 자체, 그리고 신성한 있음 자체는 신성한 사랑, 고로 신성한 사랑(이기 때문).

출32:26—‘여호와를 위하여 있는 이들’=내적인 것들로부터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

출34:6—‘그는 간청했다, 여호와, 여호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느님’=신성 자체, 신성한 인간, 그리고 진행되는 신성, 이로부터 모든 선이 존재한다... 신성 자체... 그리고 신성한 인간인 이유는 ... ‘여호와, 여호와’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 그리고 진행되는 신성은 하느님이라 불리기 때문.

출34:14—‘여호와 그분의 이름은 질투이기 때문’=여느 다른 것이 예배되어 진다면 신성한 선은 물러난다는 것...

출3:13~15—여호와가 나는 있다를 뜻한다는 것, 그리고 있음이 알려진 것; 그리고 하느님이 태고 시절 때

여호와 니씨-여호와의 천사-여호와 체바온

그렇게 불리웠다는 것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즉 첫장에서 그분은 '하느님'이라 불리우고, 다음 장에서는 '여호와 하느님'이라 불렸는데, 그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잊었는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묻고, 하느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나이다 라고 말하시어 그분의 이름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고로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스스로 있으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느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영원으로 있는 내 이름이다...' 하느님 만이 나는 있다 그리고 있음 자체, 또는 여호와이신바, 그러므로 창조된 어떤 것도 그분으로부터 그것의 존재 자체가 도출되지 않은 것은 없다.

이2:17-모든 총명과 지식들이 주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이 '여호와 만이 그날에 드높여지실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33:21-'여호와는 홀륭하시다'라고 말해진다. 이는 교회 속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를 받을 때와 같다.

여호와 니씨 (Jehovah Nissi)

출17:15-'그는 그것에 관한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불렀다'=계속적인 전쟁과 내면의 악으로부터의 거짓 안에 있는 이들에 맞서 주님께서 보호하심.

* '여호와 닛시'는 원어에서 '여호와 내 기(깃발, banner)' 또는 내 표시(sign); 그리고 말씀에서 '내 표시, 내 깃발'은 전쟁(에 부름받음)을 의미하고 있다.

여호와의 천사 (Angel of Jehovah)

창16:7-'여호와의 천사가 그녀를 발견했다'=주님의 내향의 인간으로부터의 내면적 생각, 또는 주님과 더불어 내면의 인간의 생각.

창21:17-'하느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갈에게 소리쳤다'=위로함...'하느님의 천사'=주님.

창22:11-'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소리쳤다'=신성 자체로부터 있는 위로함.

창32:1-'하느님의 천사가 그를 만나러 달려왔다'=선을 수단으로 예증함. '하느님의 천사'=주님의 어떤 것, 여기서의 경우, 주님 안에 있는 신성...'하느님의 천사가 그를 만나러 달려왔다'=대략의 의미에서 자연 안으로

신성의 유입, 이로부터 예증됨.

출3:9-'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여호와의 천사'=주님의 신성한 인간인 이유는 주님의 강림 이전에 여호와께서 천국을 통과하실 때, 그분은 인간 형체 안에서 천사로 나타나셨기 때문.

출14:19-'하느님의 천사가 전진했다'=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질서적으로 배열함.

출23:20-30-'내 천사가 너 앞서 갔을 때'=주님의 가르침에 따른 생활...여기서 주님이 '여호와의 천사'이다...'여호와의 천사'=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

여호와 체바온 (Jehovah Zebaoth)

이9:7,8, 19:4, 말3:1 이6:1,3,5,8, 40:9~11-신성한 선의 힘, 또는 전능하심이 취급될 때, '여호와 체바온' 또는 '군대들의 여호와', 그리고 '주님'이라고 말해진다; 이는 '여호와 체바온'과 '주님'이 같은 의미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 구약 성서의 말씀에서 '여호와 체바온'과 '주님'은 똑같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 '주 전능한 하느님'이 '여호와 체바온' 대신 말해지고 있다.

이19:18-'여호와 체바온에게 맹세하는 것'=주님을 고백하는 것. '여호와 체바온'라고 여기서 말해지고 여타 많은 구절에서도 말해지고 있다. 이는 모든 선과 진리에 관련한 주님이 의미되고 있다; 그이유가 원어에서 '체바온'은 '군대들'을 뜻하고, '군대들'은 천국과 교회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을 뜻하기 때문.

여호위 (Jehovih)

창15:2-'아브람이 말했다, 오 주 여호위여'=주님의 시험.

* '주 여호위'=내면의 인간(interior man)에 비례되는 내적 인간(internal man).

* '주 여호위'는 말씀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그렇긴하나 여호와께서 '주'라 불리울 때는 언제든지 그분은 '주 여호와'라 불리우시지 않고 '주 여호위'라 불리신다, 특히 이것은 시험이 취급될 경우 그러하다.

이65:13-'주 여호위의 종들'에 의해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는 이들이 의미되어진다.

여호위-역병-역연혼-역청-연

역병 (pestilence)

예29:17-‘검, 기근, 그리고 역병’은 모독으로부터의 형벌들이다.

예24:10-‘역병’=불살라짐에 이를 정도로 황폐케됨.

마24:7-‘기근과 역병’=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 없음.

출5:3-‘그가 우리 위로 검을 가지고, 그리고 역병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악으로부터,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결과되는 지옥에 떨어짐을 피하는 것...‘역병’=악으로부터 결과되는 지옥에 떨어짐.

시91:6-‘어둠에서 기어다니는 역병’=은밀히 작동하는 악.

출9장에서-그들에게 있는 황폐해지는 여섯째 수준이 ‘역병’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출9:3-‘아주 비통한 역병’=일반적으로 소진됨. ‘역병’=진리의 황폐해짐. 그리고 ‘극도로 비통한 역병’이라 불리울 경우, 이는 진리가 소진됨이 의미된다.

출9:15-‘너와 네 백성을 역병으로 세계 칠 것이다’=완전한 황폐. ‘역병’=선과 진리의 황폐해짐.

역연혼 (levirate)

창38:8-‘그녀에게 역연혼을 수행하라’=그는 교회를 표현함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역연혼을 수행하는 것’=교회 속에 있는 것을 보존하고 이어가는 것.

신25:5-10-역연혼의 법이 인용되고 있다.

역청 (bitumen)

창6:14-‘그것을 역청을 가지고 안팎으로 역청으로 처리하라’=탐욕들이 침수시키려들로부터 보존함...원문에서는 그것이 역청을 가지고 역청으로 처리되어져야 한다고 읽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를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보상, 속죄 (expiate), 또는 달램, 속죄(propitiate)로부터 파생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같은 것을 포함한다. 그이 유가 주님의 보상, 또는 달램은 악이 침수하려들으므로부터 보호함이기 때문.

창11:3-‘그들은 진흙을 위하여 역청을 가졌다’=선을 위하여 탐욕으로부터의 악

창14:10-‘깃땀의 골짜기는 역청의 샘들, 역청이 가득한 샘들이었다.’ 이를 수단으로 탐욕들로부터의 불결하고 깨끗치 않은 것들이 의미된다.

출2:3-‘그녀는 그것을 역청과 송진으로 발랐다’=선인 것이 악들과 거짓들과 혼합되었음. ‘역청’=악들과 혼합된 선, 그리고 ‘송진(pitch)’=거짓들과 혼합된 선. 역청과 송진은 불이 잘붙는 성분인 유황을 함유하고, 또한 색깔도 검정쪽인바, 이는 반대적 의미에서는 악과 거짓이 의미된다.

나3:14-‘역청’=결합하는 악으로부터의 거짓.

역청 (송진, pitch)

창6:14-‘역청’=끔찍한 몽상들.

* ‘역청과 유황’=탐욕들로부터의 거짓들과 악들.

이34:9-‘불타는 역청’=끔찍한 탐욕들.

연 (year)

연대기 (annals)

...년 (year)

해 (year)

창1:14-‘발광체들이 ...날들과 햇수들을 위해 있을 것이다’...보편적, 단수적으로 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들의 교차됨이 있다는 것이...날들과 햇수들의 교차됨에 비유되고 있다...햇수 속의 이런 것들은 봄으로부터 여름, 가을로, 겨울을 통하여 봄으로...

합3:2-‘연수들의 한가운데’=주님의 강림...

창5:4-‘연들’=특수한 측면에서의 때들과 상태들.

* ‘날’=일반적 측면에서의 상태. ‘연’=특수한 측면에서의 상태.

창11:10-‘일백 년’=시작에서 있는 이 교회의 상태.

창11:10-‘홍수 이후 이 년’=노아의 홍수 이후 두 번째 교회.

창17:24-‘구십 구 년’=주님께서 합리성과 더불어 내적 인간과 충분하게 결합하시기 이전의 시간(기간).

창23:1-‘사라의 삶의 햇수들’=신성으로부터의 어떤 진리가 남아있었던 동안. ‘해, a year’=시작부터 끝까지에 해당되는 교회의 전체 기간.

이61:2, 63:4, 예11:23-‘여호와께서 듬뿍 기뻐하시는 해’, ‘내가 되찾는 해’, 그리고 ‘방문하시는 해’=새로운 교회의 때, (그리고 주님의 강림).

겔38:8-‘햇수들의 후세(말년)’=교회의 마지막 때, 즉 교회가 없게 되는 때.

겔22:4-‘너는 네 햇수들 쪽으로 와지고 있다’=끝장 쪽

연(year)

으로, 주님께서 교회로부터 철수하시는 때.

이16:14-‘삼 년 내에’=이전 교회의 끝.

이23:15-‘칠십 년’=전체 기간, 즉 교회가 시작하는 때로부터 기한이 다 차는 때까지.

말3:4-‘고대의 햇수들(년도)에서 같이’=고대 교회

창25:7-‘아브라함의 생명의 햇수들의 날들’=신성 자체에 관하여 주님을 표현한 상태.

창26:12-‘그 해에’=여기서 취급된 상태의 전부.

창29:18-‘나는 당신에게 칠 년을 봉사할 것이다’=공부함, 그리고 그다음 거룩한 상태...‘햇수들’=상태들.

창31:38-‘이 이십 년을 나는 당신과 더불어 있어왔다’=...자아(proprium)의 상태.

창37:2-‘십칠 세의 아들’=(주님의 신성한 영적 인간의) 상태.

창41:1-‘날들의 2년의 끝에서’=결합의 상태 후에.

창41:26-‘이 우량한 일곱 암소는 칠 년이다’=자연 평면의 내면에서 진리가 불어난 상태들.

창41:29-‘칠 년이 있다’=섭리의 상태들.

창41:30-‘가뭄의 칠 년’=진리가 결핍하는 때에 뒤이어지는 상태들.

창41:34-‘풍족한 칠 년에’=선들과 더불어 있어 진리들이 불어나는 때들.

창41:46-‘요셉은 30세 이었다’=아껴두심이 충만해진 상태.

창47:8-‘당신 생명의 햇수들의 날들은 얼마인가(네 나이가 얼마뇨)?’=영적인 것으로부터 자연적 생명의 관하여(지각함). ‘날들’ 그리고 ‘햇수들’=상태들.

창47:18-‘이 해에’=이 상태의 기간. 그이유가 ‘한 해’=시작으로부터 끝까지의 전체 기간이기 때문.

창47:28-‘17년’=거기서의 상태...고로 상태의 시작으로부터 그 상태의 끝까지.

출12:5-‘일 년’=충만한 상태. 그이유가 ‘일 년’=시작으로부터 끝까지인 상태의 전체 기간이기 때문.

출16:35-‘40년’=모든 시험들의 상태.

출21:2-‘그는 6년을 봉사할 것이다’=노동하는 상태, 그리고 얼마 정도의 전투하는 상태, 그 결과 진리를 확증하는 상태...‘햇수들’=상태들.

출21:2-‘7년에’=선과 진리가 결합하는 상태. 여기서의

경우 진리를 확증한 상태.

눅4:25-‘3년 그리고 6개월’=충만해짐 쪽으로.

출23:10-‘너는 6년간 토지에 씨를 뿌릴 것이다’=첫 상태, 즉 인간이 가르쳐지는 때.

출23:11-‘7년째에 너는 그것을 일시 멈출 것이다’=두 번째 상태, 즉 인간이 선 안에 있는 상태.

출23:14-‘일 년에 세 번’=항구적으로 예배함...‘일 년’=전체 기간, 여기서는 충분하고 완전하게 해방됨(구원됨).

출23:16-‘이 년도로부터 나감에서(한 해를 마무리함에서)’=일들의 끝.

출23:29-‘나는 그를 한 해 안에 몰아내지는 않을 것이다’=그것들이 성급하게 제거된다는 것은 아니다.

출29:38-‘일 년된 아들(한 살 먹은 것)’=유아의 품질, 어렸든 유아 시기에서도 진리의 이식이 있어진다는 것.

출30:10-‘한 해에 한번’=영구적으로.

출30:14-‘20세 그 이상으로부터’=진리와 선에 관하여 충명한 상태. 그이유가 인간은 20세에 도달하는 때, 그는 자신으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한다.

계9:15-‘...한 해를...준비한’=영구적으로 부단히 애씀.

계20:2-‘그를 천 년 결박하라’=얼마 동안.

신32:7-‘세대와 세대의 햇수들(역대의 햇수들)’=고대 교회.

예17:8-‘그는 가뭄의 해에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진리와 선이 없는 상태 안에서 그 진리와 선의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16:14-‘삼 년 내에’=완성인 것, 극점에 도달하는 것.

시102:27-‘네 햇수들은 끝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신성한 진리의 상태.

이32:10-‘한 해가 지난 다음의 해에 너는 고생을 할 것이다’=진리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모두 각각의 상태에서.

연기 (smoke)

창15:7-‘연기 뿜는 용광로...’=가장 지독한 거짓.

창19:28-‘토지로부터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로부터의 연기 같이’=교회 내에 악의 상태로부터 있는 거짓의 상태.

이14:31-‘북으로부터 연기’=지옥으로부터의 거짓. ‘연

연기-연대기-연하쪽의-연합시키다 -열

기'=악으로부터의 거짓.

이7:4-'연기나는 관솔(firebrand)'=분노.

출19:18-'시내산이 연기가 자욱했다'=가장 큰 희미함 안에서 나타나는 천국적인 선.

출19:18-'그것의 연기는 용광로의 연기 같이 올라갔다'=탐욕들로부터의 희미함 같은 불명료함.

출20:18-'연기 자욱한 산'=외적인 형태에서 외에는 지각되지 않는 진리로부터의 선.

이4:5-'연기' 등등=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 덮으심, 즉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숙박함(accommodation).

계9:2-'구덩이로부터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의 연기 같이'=그들의 악한 사 램들로부터 내뿜어지는 현세에의 욕망으로부터의 거짓.

계9:17-'그들의 입들로부터 연기, 등등이 분출되었다'=그들의 생각들과 대화 안에는 자아 총명으로부터의 자만 밖에 더 있는 것이 없었다.

계14:11-'괴롭힘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올 것이다'=자아 총명으로부터의 자만, 이것으로부터 지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함.

계15:8-'성전은 하느님의 영광으로부터 있는 연기로 채워졌다...'=천국의 가장 깊은 곳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영적 진리와 천적 진리로 가득하다.

계18:9-'그녀를 태우는 연기'=이런 거짓들. (=말씀에 섞음질하고 모독함 때문에 지옥에 떨어짐).

계19:3-'그녀의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간다'=이 모독하는 광신적 신앙은 영원히 지옥에 계속 떨어질 것이다.

연대기 (annuals)

* 연(year)을 보라.

연하쪽의 (younger)

요21:18-'네가 연하쪽에 있었을 때, 네쓰스로 허리띠를 매고 가고 싶은 어디든지 걷는다'=교회의 처음 때에서 인간들은 선행의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받아들였고, 자유로이 행동하였다.

창25:23-'연상자(형)가 연하자(아우)를 섬길 것이다'=진리의 선이 한동안 진리보다 더 하위에 있을 것이다.

창29:26-'첫출생(언니)에 앞서 연하자(동생)를 주지 않는 것'=내면의 진리에 애착함은 외면의 진리에 애착함에 앞서 있지 못하다.

창32:10-'저는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하신 모든 자비들에 훨씬 못미칩니다'=이 상태에서 있는 뿌끄러움(굴종).

창48:14-'그는 연하쪽이었다'=두 번째 위치에 있는 (진리, 에브라임).

출12:4-'만일 양떼의 한 마리에 비해 집이 너무 작다면'=만일 특별한 선이 순진을 위해 충분치 않다면.

연합시키다 (associate)

시78:49,50-여호와께서...악한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것들에게 자신을 연합시킨다.

창44:16-'우리 다같이'=연합시켜진 이들 다같이

열 (heat)

* 더위(heat) 참조

열 (fever)

* 병(disease)을 참조.

열 (ten)

열 번째 (tenth)

십일조 (tithe)

* '십일조' 또는 '십분의 일'=보존되어야 하는 것들 (remains), 그러므로 해서 십일조는 거룩했다.

* 그러므로 '열'은 보존되어야 하는 것들을 서술한다.

* '열'은 '십분의 일'과 같이=보존되어야 하는 것들.

창8:5-'열 번째 달'=아껴두신 것들 속에 있는 진리들.

신26:12-'십일조를 바침'=아껴두신 것들, 이것은 주님 만에 속하는바 거룩하다.

창14:20-'4분의 1'=아끼시는 것들, 또는 전투들로부터 있는 선과 진리의 상태들.

창16:3-'십년의 끝으로부터'=주님께 남아 있는 선과 진리.

* '열'=아껴두신 것들, 이를 통하여 (주님과의) 결합이 있다.

* 진리에 애착하는 상태에 있는 이들이 (소돔에서) 열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18:32-'만일 거기서 열 명이 발견된다면, 그 성을 유보하겠다'=만일 거기서 보존되어야 할 어떤 것, 즉 선과 진리에 대한 것이 아직 있다면.

삼상8:17-그가 취할 십분의 일의 양떼=그가 폭력을

열 넷-열 넷째-열 다

행사할 선에 관련되는 아껴두신 것들.

창24:10-‘열 마리 낙타들’=일반적인 과학의 사실들. ‘열’=남은 것들...이것이 주님에 관련되어 서술되는바, 그분이 자신을 위해 획득하셨던 신성한 것들이다...그리고 일반적인 과학적 사실들이 주님에 의해 획득되었는 바, 신성이고, 그래서 그것들은 ‘열’이라고 말해진다.

창24:22-‘무게가 열 (세겔) 되는 금’=개시를 위해 충분함; 그 이유가 ‘10’=충만한 상태, ‘100’과 같다.

창24:55-‘적어도 열흘’=그들에게 나타나는 떠남을 위한 상태는 충분하다....‘열’=충분한 것.

창28:22-‘당신이 주시는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나는 당신에게 십일조로 바칠 것입니다’=주님께서는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분 자신의 힘으로 신성으로 만드셨다...‘십일조를 바침’ 그리고 ‘십일조들’= 인간의 내면들 안에 주님에 의해 저장된 선들과 진리들...그리고 이것이 주님에 관련해 서술될 경우, 그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해 획득하신 신성한 선들과 신성한 진리들이다.

창31:7-‘그는 내 급료를 열 가지 방법으로 바꾸었다’=...아주 큰 변화 (그들 안에서)

마25:1-‘열 처녀’=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즉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악과 거짓 안에 있는 이들 모두. ‘10’=남아 있는 것들, 또한 충만한 것, 즉 모든 것.

* ‘십일조를 바치는 것’=보존되어야 할 것들을 만드는 것, 즉 진리들과 선들을 모아서 저장하는 것.

창45:23-‘열 나귀’=섬김의 많은 것들. ‘10’=많음.

출18:21-‘십 부장’=세 번째 장소에 있는 제일의 진리들...‘10’=많은 것들, 그러나 수준이 보다 낮은 것들.

계11:13-‘십 분의 일’=거기 모든 것.

계12:3-‘열 뿔’=많은 힘

계13:1-‘열 왕관’=왜곡된 말씀의 많은 진리들.

단12:7-‘열 뿔’=갖가지 종류의 거짓들.

예41:1-‘열 사람’=그와 같이 있는 모든 것. ‘열’=모든 백성과 모든 것들.

* ‘10’, ‘100’, ‘1000’=많음, 그리고 모두.

속5:2-‘열’은 여기서 진리를 서술한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것도 뜻하고 있다.

이38:8-‘십(도를 뒤쪽으로)’=많음.

열 넷 (14, fourteen)

열 넷째 (fourteenth)

창14:5-‘제 14년에’=첫 번째 시험. 14 또는 2주의 끝...=시험의 시작...여기서는 14라는 숫자가 14 앞에 있는 12라는 숫자와 관련지어 말해지고 있는바, 이에 따라 어린 시절의 시간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창31:41-‘두 딸들을 (언기) 위해 14년을’=그가 진리에 애착함들을 획득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의 첫 기간. ‘14’ 또는 ‘2주’=첫 시기; 그이유가 ‘1주’=크든 작든 전체 시기; 이와 마찬가지로 2주인데, 1주에 1주를 더한 것 역시 기초 의미는 같다.

창46:22-‘라헬의 아들들...14명’=그들의 상태와 품질.

출12:6-‘달의 제14일 썰에’=거룩한 상태 쪽으로. ‘제 14일 썰’=거룩한 상태...‘14’=7과 똑같다. 즉 거룩한 것.

* ‘제 15의’=새로운 것 그 이유는 ‘14’ 또는 2주= 전체 기간, 또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상태.

열 다 (open)

창3:7-‘그들의 눈이 열렸다’=내부로부터의 지령.

창41:56-‘요셉은 모두를 열었다’=남아있는 것으로부터의 교통. ‘여는 것’, 여기서의 경우=교통하는 것.

창42:27-‘사람이 그의 자루를 열었다’=관찰.

창43:21-‘...우리가 우리의 자루(wallet)들을 열었을 때...’=자연 평면의 외면 쪽을 내관함(자기 반성함, introspection).

출2:6-‘그녀가 그것을 열었다, 그리고 아이를 보았다’=그것의 본성 쪽을 탐사함.

출13:2-‘자궁 모두 각각을 연 것’=선행으로부터 있는 것.

출21:33-‘사람이 구덩이를 열었을 때’=만일 누군가가 또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짓인 것을 받았다면.

출23:2-‘선물은 눈이 열린 것을 멀게 한다’=이익(gain) 들은 진리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원인이다는 것..

왕하6:17-‘그의 눈이 보도록 그의 눈을 여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소년의 눈을 여셨다.’

계3:20-인간 그 자신이 문들을 열어야만 한다는 것이 ‘만일 누군가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다’로부터 분명해진다.

열 다섯-열 다섯째-열 두째의-열 둘

계3:7-'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그분에게만 구원하시는 전능함이 있다는 것.

계3:8-'나는 네 앞에 열린 문을 놓아두었다'=천국은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열려 있어왔다는 것.

계3:20-'문이 열리는 것'=신성한 진리에 따라 사는 것.

계10:2-'열린 작은 책'=거기에 뒤이어 있는 교리 측면에서의 말씀.

계11:19-'하느님의 성전이 천국에서 열려졌다...'=열렸는데 의해 신성한 인간과 십계명이 지금 보여졌다가 의미되어지고 있다.

계19:11-'나는 천국이 열린 것을 보았다'=주님으로부터의 계시 (주님으로부터 밝히 알려짐), 하여 명명백백 해졌음.

계3:20-'문을 여는 것'=심정 안으로 받는 것, 또는 생활에서 받는 것.

계4:1-'문이 천국에서 열렸다'=천국의 신비가 밝히 알려졌다.

계5:3-'책을 열고 그것의 봉인들을 푸는 것'=모든 것의 생명의 상태들을 알고 지각하는 것.

계6:1-'봉인을 여는 것'=감추인 것들을 밝히 보이는 것.

계9:2-'그는 무저갱을 열었다'=지옥들과 교통하고 결합함.

열 다섯 (15, fifteen)

창7:20-'열 다섯 큐빗 그리고 그 위쪽으로 물들이 우세했다'=남아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 '15'= 거의 없다고 해야 할 정도의 아주 적음; (그이유가) '5'=적음; 그리고 15는 5와 10으로 구성되는데, 10=남아 있는 것, 남은 것에 주목하면,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창35:29-숫자 180의 의미는 12와 15로부터 가진다.

출16:1-'둘째 달의 열 다섯 째 날에...'15 번째=새로운 것; 그 이유는 '14' 또는 2주=전체 기간...'15'는 '8'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레23:39-'일곱째 달의 열 다섯 째 날'=이전 상태의 끝과 새로운 상태의 시작.

출27:14-'날개의 벽결이, 열 다섯 큐빗'=충분한 만큼의

빛에 있는 진리들.

호3:2-'15'=조금

열 다섯째 (fifteenth)

* 열다섯 참조

열 두째의 (twelveth)

* 열 둘을 보라

열 둘 (12, twelve)

* '12'=신앙(faith), 또는 하나의 복합체에서 신앙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

* '열 둘'=신앙, 또는 하나의 복합체에서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이에 따라 파생하는 신앙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

계(21:12-17에서)-숫자 '12'가 모든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가장 거룩하다, 그이유는 12=신앙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그리고 그러므로 이 숫자에 '이 척량은 사람의 척량, 즉 천사의 척량이다'가 더하여져 있다.

창14:4-'그들은 12년을 섬겼다'=언제나 거기에 이와 같은 선과 진리가 있다는 것. 그이유가 '12'=선행의 신앙 속에 있는 모든 것, 또는 선행으로부터 있는 신앙 속의 모든 것이기 때문.

계21장-'열 두 천사들'=열 두 지파들과 같은 것, 즉 신앙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고로 주님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 그이유가 신앙 속의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있기 때문.

창17:20-'그는 열 두 왕자들을 낳을 것이다'=신앙 속의 제일가는 교훈들, 이는 선행으로부터 있는 것들이다.

창25:16-이들은 (이스마엘의) 열 두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열 둘'=신앙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그리하여 이들은 '자기들 백성들의 열 두 군주들이다'라고 말해지는데, 이는 영적 왕국의 교회의 제일 가는 모든 것. 그이유가 '열 둘'=신앙 속의 모든 것들, 또는 교회 속의 모든 것들이기 때문.

계7장-'열 둘', 같은 것으로 '일만 이천'=사랑으로부터의 모든 것들과 신앙으로부터의 모든 것들, 또는 선과 진리의 모든 것들.

창35:22-'야곱의 아들들은 열 둘이었다'=신성한 자연 평면에서 있는 모든 것들의 지금 상태.

열매-열매를 맺게하다-열매를 맺다

왕상10:20-‘열 두 사자들’=한 복합체에서 있는 이런저런 모든 진리들.

창42:13-‘우리는 ...열 두 형제들입니다’=그러하여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함께 결합되었다는 것.

요11:9-‘열 두 시간’=진리의 모든 상태.

* ‘12’는 나누어진 숫자 6이든, 곱하여진 72, 144, 144000이든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출15:27-‘물들의 열 두 샘들’=대단히 풍부한 진리들.

출24:4-‘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들을 위한 열 두 기둥들’=전체 복합체에서,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표현함.

왕상 7:25-‘열 두 수소들’=복합체에 있는 자연적 인간과 감각적 인간으로부터의 모든 선들. ‘열 둘’=복합체에 있는 모두.

* 숫자 12=모든 것들, 그리고 선으로부터의 진리라고 단언된다. 그 이유는 12는 3과 4가 서로 곱해져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3=진리 측면에서의 모두, 4=선 측면에서의 모두. 그러므로 이 구절(계7:4)에서의 12=사랑의 선으로부터 진리 측면의 모두.

계12:1-‘열 두 별의 왕관’=말씀으로부터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들...‘12’=교회의 선과 진리에 관련되는 교회의 모든 것들.

계21:12-‘열 두 문을 가진’=그 안에 있는 진리와 선에 관한 모든 (영적) 지식들...‘12’=모두(all).

계21:12-‘열 두 천사’=천국의 모든 진이들과 선들...‘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열 두 지파들’=교회(the Church) 속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

계21:13-‘열 두 기초들’=교회(the Church)의 교리 속의 모든 것들.

계21:19-‘열 두 문들은 열 두 진주들이었다’=진리와 선에 관한 (영적) 지식의 총계(sum), 이를 수단으로 인간은 교회(the Church)에 입문되어진다.

계22:2-‘열 두 열매들’...‘열 둘’=모두. 그리고 교회(the Church) 속의 선들과 진리들이라 단언된다.

마20장-모든 사람이 노동한 ‘제 12시’=각기 그들의 가득해지는 수준에서 있는 진리들과 선들.

* ‘3’=가득함, 그리고 가득함은 모두를 함축하고, 숫자 12는 3으로부터 파생되는바, 12는 모든 것들, 모든 사

람 각각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12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라 단언된다, 그 이유는 3에 4가 곱해져 발생하기 때문, 그리고 3은 진리, 4는 선이라 단언된다.

마14:20-‘(빵) 부스러기 열 두 바구니’=진리와 선에 관한 (영적) 지식들이 모두 가득함과 풍부함으로 있음. (=가르침과 축복이 가득함)

눅2:42,46-‘열 두’=모든 것들, 그리고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라 단언되는바, 이 열 둘이 주님의 교회(the Church)를 구성하기에 주님께서는 열 두 살이셨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성전에서 머무르셨다...이를 수단으로 천국과 주님의 교회가 소개되고 개시됨이 뜻해지고 있다.

마26:53-‘천사들의 열 두 군단’=보편적인 천국. 그리고 ‘이 군단 보다 더 많은’=신성의 전능하심.

열매 (berry)

속4:12-‘올리브나무들의 열매들’=거기 있는 거룩한 선들

속4장-두 ‘올리브나무들’과 ‘올리브 열매들’=천적인 선들, 즉 주님을 사랑함과 형제와 동료를 사랑함으로부터 있는 선들.

이17:6-(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이 주울 것이 남아 있는 것이 마치 올리브나무를 흔들때 꼭대기에 두세개 남음 같고 열매 풍성한 나무의 꼭대기에 너댓 개 남음 같자로 묘사되어 있다.

열매 (fruit)

열매를 맺게 하다 (fructify)

열매를 맺다 (fruitbearing)

창1:22-‘열매가 많이 열리고 번성하라’...주님으로부터 그것 안에 생명을 가지는 모든 것은 그 자체 거대하게 열매를 많이 맺고 번성한다; 이는 인간이 육체와 더불어 사는 동안 보다는 다른 삶에서가 더욱 놀랄만하다. 말씀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랑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서술하고, ‘번성하는 것’은 신앙 속에 있는 것을 서술한다; 사랑으로부터 있는 열매는 씨를 가지고 있다. 이 씨를 수단으로 사랑은 아주 크게 그 자체를 늘린다. 주님의 복주심 역시 말씀에서 열매 많이 맺음과 번성함을 의미한다, 그이유는 이것들이 그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열매-열매를 맺게하다-열매를 맺다

창1:28-‘열매가 많이 열리고 번성하라’...태고인들은 이 해성과 의지의 결합을...결혼이라 불렀다; 이 결혼으로부터 생산되어진 선 속의 것은 무엇이든 그들은 열매가 많이 열림이라고, 그리고 진리 속의 것은 무엇이든 번성함이라 불렀다.

창1:29-‘열매 있는 나무’=신앙으로부터의 선. ‘열매’는 주님께서 천적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열매 있게 하는 씨’는 주님께서 영적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다...천적인 양식이 ‘나무로부터의 열매’이라는 것은 다음 장, 즉 천적 인간이 취급되는 곳으로부터 명백해진다.

겔47:12-‘거기로부터 열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의 열매는 양식(meat)을 위해 있을 것이다’...‘열매’=지혜, 이것은 그들을 위한 양식일 것이다.

창3:2-‘동산의 나무의 열매’=태고 교회를 수단으로 그들에게 밝히 알려진 선과 진리. ‘그들이 먹지 않았어야 했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믿음으로부터의 선과 진리, 이는 그들이 자신들로부터 습득해서는 안되는 것.

* ‘그들이 먹어도 되는 나무의 열매’=태고 교회를 수단으로 그들에게 밝히 알려진 믿음으로부터의 선과 진리, 또는 믿음에 관한 지식들이라는 것은 이런 사실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즉 앞서 천적 인간이 취급된 곳에서는 ‘동산의 나무’라 불렀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먹어도 되는 동산의 나무의 열매’라 불려 열매가 추가되고 있다. ‘동산의 나무’=선과 진리 속에 있는 지각; 이 선과 진리를 근원으로부터의 ‘열매’라 불리고 이는 말씀의 여타 많은 곳에서도 예증된다.

창4:3-‘가인은 여호와께 드리는 공물로서 지면의 열매를 가져왔다’...‘지면의 열매’=선행 없는 믿음의 일들.

이37:31, 4:2, 45:8-선행의 일들은 살아있는 바, 말해지기를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위쪽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선행으로부터이다. 이와같은 열매는 ‘빠어난 열매’라 불린다. 또는 ‘구원의 열매’라고도 불린다.

예32:19-‘그의 일들의 열매’=선행으로부터의 삶.

겔 47:12, 계22:2-‘열매’=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

창 8:17-‘그것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라’=선의 증가; ‘그것들이 번성하게 하라’=진리의 증가.... 말씀에서 ‘열매 맺는 것’은 선들에 관계되어 서술되고 ‘번성하는 것’은 진리에 관계되어 서술된다...이 구절이 취급하는 것은 외적 인간이 순종 쪽으로 돌아설 때,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을 운전하는 것이다...그러면 먼저 선이 열매 맺고, 그다음 진리가 배가된다. 즉 외적 인간 안에서 선이 열매맺고 진리의 번성이 거행된다; 선의 결실은 외적 인간의 애착 안에서, 진리의 번성은 외적 인간의 기억 안에서이다. 여기서 외적 인간은 ‘땅’이라 불린다...이 땅 위에서 선과 진리는 열매맺고 번성한다.

창9:1-‘열매를 많이 맺으라’=선행으로부터의 선들, 그리고 ‘번성함’=믿음의 진리들, 이것이 지금 증가될 것이다.

창9:7-‘열매가 많이 열리고 번성하라’는 내면의 인간 안의 선들과 진리들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열매가 많이 열림과 번성함이 내면의 인간, 또는 합리성에 관련되어 서술되는 이유는 내적 인간의 작용은 아주 일반적인 것 말고는 내면의 인간 안에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암6:12-‘공의의 열매’=선들, 이것이 쓴 썩(식물)로 변화했다.

창 15:5-‘네가 (별들의) 수를 셀 수 있다면...’=사랑으로부터 있는 결실, 그리고 신앙의 증가, 즉 선으로부터 열매의 열림과 진리가 배가됨...그 이유는 이것들은 셀 수 없기 때문...

마3:10, 눅3:9-‘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리워 불에 던져진다’. ‘좋은 열매’에 의해 선행이 뜻해지고 있다; 자신에게서 스스로 이 선행을 박탈하는 자는 자신을 스스로 잘라 이런 불구덩이에 던진다.

창1:10-‘나는 네 씨를 크게 불리겠다’=인간이 자신을 선에 인접한 내면의 인간에 복종되게 할 때 있어지는 합리적 인간의 열매는 풍성하다는 것...이 구절에서 ‘씨를 불림’은 합리성이 그 자체 내면 또는 신성한 진리에 종속되게 할 때 합리성 안에서는 사랑으로부터의 천적인 것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 ‘불어남’은 진리들을, ‘열매 맺음’은 선들을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구절의 경우 주님 자신이

열매-열매를 맺게하다-열매를 맺다

취급되기 때문에 '불림'에 의해 '열매 풍성함'이 의미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합리성 안에 있는 모든 진리 그 각각은 선, 즉 신성을 만들기 때문에서이다.

창17:2-'나는 너를 아주 크게 불릴 것이다'=진리에 애착함의 열매 맺음은 무한하다는 것. '불어남'이 진리를 서술하나, 이 구절은 그것이 주님에 관련하여 서술되므로=선으로부터의 진리의 열매는 무한하다는 것.

창17:6-'나는 너를 아주 극도로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 것이다'= 선의 열매는 무한하다는 것. '열매 맺는 것'은 선에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

창17:20-'나는 그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아주 극대하게 불어나게 만들 것이다'=그들에게 믿음의 선들과 그로부터의 진리들이 불어 넣어지되 거대하게 선물받을 것이라는 것; (그 이유가) '축복되어 짐'=모든 선들을 선물로 받음... '열매 맺음'= 그들이 선물로 받은 믿음의 선들; 그리고 '불어남'=파생되어지는 진리들.

계22:2-'열두 열매들'=믿음의 열매들이라 불리워지는 것들; 그 이유가 '12'=믿음의 모든 것들이기 때문. (=선행의 모든 것들)

시107:34-'열매의 토지가 소금 (의 토지)로'=진리 안에 있는 선이 황폐해짐.

창 22:17-'나는 너를 크게 축복할 것이다'=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열매가 많이 열림... 열매 맺음이 여기서 말해지는 이유는 애착에 관련하여 서술되기 때문, 그러나 번성함은 이 애착에서 파생된 진리들을 서술한다.

창24:60-'너 누이여 친 만 인의 어머니를 위해 존재할 지어다'=진리에 애착함의 열매 맺음은 무한하다는 것... 이것이 인간과 더불어서 일 경우는 이렇다: 인간이 거듭날 때까지, 즉 선과 진리의 결합이 그의 합리성 안에서 결과될 때까지 그 인간과 더불어 선들은 열매 맺지 않고 진리들은 번성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가 이런 다음의 열매 또는 후손이어야 합법적 결혼 또는 선과 진리의 결혼인 천국적 결혼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

창26:22-'우리는 토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거기로부터 선의 증가됨. '열매 맺음'=선의 증가.

'열매 맺음'=선의 증가, 그리고 '번성함'=진리의 증가에 관련해 각각 서술하고 있다..

창27:27-'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 것'=신성으로부터 열매 맺고 번성하는 것.

숙8:12-'포도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다'=교회의 영적인 것 또는 믿음 속의 진리는 선을 줄 것이라는 것.

창28:3-'그리고 너희는 열매 많이 열려지게 하고 너희를 불어나게 하라'=선들과 이 선들로부터의 진리들. '열매 맺는 것'은 선에 관하여, '번성하는 것'은 진리에 관련하여 각기 서술된다.

계22:2-'그것의 열매를 매달마다 산출하고...'=선을 수용하고 동시에 선을 실시하는 것들이 그때 그때 마다 언제나 새로운 상태임.

창30:2-'너로부터 자궁의 열매를 보류하시는 분'=이것은 내부의 것으로부터 있어야만 한다는 것...그 이유가, '자궁의 열매'는 출생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 즉 신앙 안의 진리와 선을 인정함 그리고 행동에 있는 선과 진리, 더욱이 신앙과 행동으로부터 진리와 선의 결합은 결국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창35:11-'열매 많이 열리고 번성하라'=선 그리고 이 선으로부터 파생되는 진리, 곧 신성. '열매 열림'은 선에 관련하여, '번성함'은 진리에 관련하여 서술되고 있다.

암9:14-'(포도)송이들을 만들고 그것 속의 열매를 먹는 것'=거기로부터 파생된 선들을 자기 것 삼는 것.

신26:2-'땅의 열매의 첫 열매들'=거기로부터 파생된 선들.

창41:52-'하느님께서 나로 열매 많이 열리게 하셨다'=그런 결과 선으로부터 진리가 번성함. '열매 맺게 하심'=번성함, 즉 선으로부터의 진리의 번성; 그 이유가 '열매 맺음'은 선에 관련되는 서술, 그리고 '번성함'은 진리에 관련된 서술...그러므로 에브라임은 '열매 맺음'으로부터 명명되어졌다.

겔36:8-(이 구절에서) 거듭남이 '가지를 주는 것, 그리고 열매를 낳는 것'에 (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47:27-'그들은 자신들을 열매 많이 열리게, 극도로 번성하게 만들었다'= 선행의 선들과 믿음의 진리들이 파생됨.

열매-열매를 맺게하다-열매를 맺다

창48:4-‘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말하였다, 보라 나는 너를 열매 많이 열리게 만든다’=선행의 선과 믿음의 진리를 통하여 생기 있게 됨.

창49:2-‘요셉은 열매 많이 열리는 것의 아들이다’=영적 왕국의 교회. (그 이유가) ‘요셉’...외적 의미에서=결실과 번성; 그리고 ‘요셉’=선이 열매 맺음과 진리가 번성함 인 바, 그는 ‘열매 많은 것의 아들’이라 불리워진다.

창1:7-‘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열매를 많이 열고 생산적이었다’=교회 속의 진리들이 선에 관련하여 증가되었다...‘열매 있는 것’=선에 관련된 것이 증가하는 것.

레26:9-‘너희들을 열매 많이 열게 하고 너희들을 번성하게 한다’=선행과 신앙이 선물된다는 것.

레23:40-‘영예의 나무의 열매’ 등등=인간의 가장 깊은 것으로부터 그의 외적인 것에 이르러 있는 선과 진리로부터의 환희; 가장 깊은 것인 사랑의 선이 ‘영예의 나무의 열매’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출10:15-‘(메뚜기가)나무의 열매(를 먹었다)=선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 (그 이유가) ‘열매’=믿음의 일들 또는 선행의 일들, 고로 선들; 이로부터 ‘열매 맺는 것’은 선에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열매들’=선행의 일들, 고로 선들이니 이유는 나무의 첫째는 씨를 함유하는 열매이고, 나무의 마지막도 씨를 함유하는 열매, 나무의 가지나 잎은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중간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 이런 경우는 사랑의 선과 믿음의 진리의 경우와 똑 같다...‘열매들’=선들.

레23:39-그때 당시 그러모았던 ‘땅의 열매’에 의해 선행의 선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레23:40-그들이 첫째 날에 취하기로 되어 있는 ‘영예의 나무의 열매’=이식된 선 때문에 있는 환희와 축제.

출23:30-‘네가 열매 많이 맺어지기 까지’=선이 증가함에 따라서... 말씀에서 인간은 나무에 견주어지는 때가 많다. 이때 그의 신앙 속의 진리들은 나뭇잎들, 사랑의 선은 열매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로부터 명백해지는 바, 열매 맺는 것이 인간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선일 뿐 아니라 선이 증가하는 것이다. 마치 열매가 나무의 중요한 것(목적)인 것과 같다. 참으로 나뭇잎은 먼저 튀어나와 진다, 그러나 나뭇잎의 목적은 열매이다.

요15:5-‘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주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있다는 것; ‘열매’=선.

계18:14-‘네 혼의 바람의 열매들’=천국의 축복받음과 행복함;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교리와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의 열매들이기 때문...그리고 이것들은 인간들이 죽을 때, 그 인간의 바람들이기 때문...(=그들이 바빌로니아 국가의 전통에 따른 생활과 예배로부터 기대했던 즐거움과 환희들.)

계22:2-‘열 두(가지) 열매들을 맺는 생명의 나무’=그분의 신성한 사랑에 계신 주님, 이 분으로부터 인간이 자신으로부터인 듯 외관상 보여지는 모든 선들이 흘러 나온다...‘열매들’에 의해 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 즉 선한 일들이라 불리우는 것이 의미되고 있다.

마21:43-‘열매’=선.

레19:23~25-열매들이 인간 삶의 선들을 의미하기에, 이스라엘 교회에서...나무의 열매들은...할례되어야...한다 라고 명령되었다.

레23:40-나무의 열매들이 생활의 선들을 의미하기에, 성막의 축제에서 그들은 영예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라고,,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명령되었기도 하다.

레25:3, 신20:19,20-열매들이 생활의 선, 곧 사랑의 선을 의미하기에, 들판의 나무가 열매를 산출하는 것은 축복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열매를 산출하지 않는 것은 저주의 하나였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어떤 성읍을 포위하게 되었을 때, 좋은 열매를 지닌 나무는 어떤 나무이든 도끼로 찍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겔17:8-선으로부터의 진리가 번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음, 고로 총명의 증가가 ‘좋은 땅에 심어지고...열매를 산출함’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열매를 산출함’=사용함에서 선들을 생산하는 것.

이4:2-‘땅의 열매는 장엄함과 꾸미기 위해 있을 것이다’=교회의 선.

말3:11,12-‘땅의 열매와 들판에 있는 포도나무’에 의해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이 의미되고 있다; ‘열매’는 교회의 선들, 그리고 ‘포도나무’는 진리들, 그들은 ‘매우 기뻐함의 토지’라 불리워진다.

열매-열매를 맺게하다-열매를 맺다

시72:16-그러므로 말하여지는 바, '산들의 머리 위에서 그것으로부터 있는 열매는 흔들릴 것이다'. '산들의 머리'=천국, 이곳으로부터...그들은 '열매' 즉 사랑의 선을 가진다.

겔34:27-진리들이 선을 생산하고, 이 선이 진리들을 생산한다는 것이 '나무가 열매를 산출하고, 땅이 그녀의 생산물을 낼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신7:13-'배(belly)의 열매'와 '토지의 열매,' 등등은 진리가 배가됨과 선이 열매 맺음을 뜻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축복들.

시127:3-'보상인 배의 열매'는 선들을 통하여 행복이 있다를 의미한다.

이13:18-'그들은 배의 열매들을 가없게 여겨주지 않을 것이다'=파생되는 모든 선을 파괴할 교리적인 것들... '배의 열매들'=선들.

시107:37-'열매가 풍성하게 소출을 내는 것'=이런 것들을 행하고 선들을 받는 것; 그 이유가 '열매들'=행위들, 그리고 선행의 선들.

합3:17-'들판들은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다'=영적인 자양분은 없을 것.

눅6:44, 마7:16-'열매'는 생활의 선을 의미하고, 생활의 선은 내적인 선으로부터 있는 외적인 선, 또는 영적 선으로부터 있는 자연적 선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선으로부터 알게 되는(구별되어지는)바, 주님께서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부터 알게 된다' 라고 말하시고 있다.

마21:18,19, 막11:12,13-'그분이 찾지 못하셨던 열매'=자연적 선.

시104:13-'땅이 당신의 일들의 열매로 만족해 한다'=신성의 운전하심으로부터 인간과 더불어 교회는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 의미되고 있다. '일들의 열매', 주님에 관해 말해질 경우=신성의 역사하심(operation).

시22:2-'열매들'에 의해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이 의미되어 있다.

레23:39-'영예의 나무의 열매'에 의해 천적 선이 의미되어 있다.

암6:12-그들이 말쑥 속의 선들에 섞음질했다는 것이 '너희는 공의의 열매를 쓴 쪽으로 바꾸었다'에서 의미되

고 있다.

출10:15-그들이 거기로부터 자연적 인간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발할 때, (감각적 인간의) 거짓과 악은 그 안의 모든 진리와 선을 파괴함으로 자연적 인간을 궤멸해버린다. 이것이 '메뚜기가...들판의 모든 풀잎, 그리고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어치웠다'로 말해지고 있다... '나무의 열매'=거기 있는 선.

이65:21-'포도원을 일구는 것 그리고 그것들의 열매를 먹는 것'에 의해 영적 진리들로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고 파생되는 선들을 자신들을 위해 충당함이 의미되고 있다.

시128:3-'아내'가 (진리에 대한) 애착을 의미하기에, 그녀는 열매 많은 포도나무에 비교되고 있다; 그 이유는 '포도나무'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매 많은 포도나무'는 진리에 애착함에 관련하여 있는 교회가 의미되기 때문.

레26:3,4-그러므로 '그들이 규례에 따라 걷고 교훈들을 준수할 때'...들판의 나무는 '자기들의 열매를 산출했다...' '나무의 열매'=사랑의 선과 선을 뜻함.

겔34:26-이(유입)로부터 선의 열매 맺음과 진리의 번성함이 있기에, 그것들은 '축복의 비'라 불리워진다; 그리고 '들판의 나무가 그것의 열매를 산출하고 땅은 그것의 생산물을 낼 것이다' 라고도 말해지고 있다; 그리고 '들판의 나무'는...교회와 교인을 의미한다; '들판의 나무의 열매'는 선을 열매 맺음, 그리고 '땅의 생산물'은 그것으로부터의 진리의 번창이 의미되고 있다.

솔2:22-'나무가 그것의 열매를 낼 것이다'=이런 지식들에 의한 생활의 선의 생산; 그 이유가 '나무'= 교인; 특히 이런 지식들이 붙어 넣어진 마음; 그리고 '열매'=생활의 선.

출23:30-'네가 열매 많이 맺기 까지'=선의 증가에 따라.

숙8:12-'포도나무는 열매를 줄 것이고 땅은 생산물을 줄 것이다'=진리에 대한 영적 애착은 선행의 선을 생산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선과 진리에 대한 자연적 애착은 선행의 일들을 생산할 것이다... '열매'=선행의 선; 그리고 '생산물'은 그 선의 일들.

예3:1-진리의 번창과 선의 열매 맺음이 ..'너희가 이

열매를 맺지 않는-열 세째-열 셋-열 일곱-열 일곱째

날에 토지에서 번창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37:30-'(포도원의) 열매를 먹는 것'=선들을 향유함과 그것들로부터 있는 행복을 누리, 이것들은 거듭난 인간에 속한 것들이다.

호9:16-'그들은 열매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어떤 선도 없다; 그 이유가 진리가 없으면 선 역시 없기 때문이다.

시127편-'배(자궁)의 열매'란 진리들을 통하여 선 안에 있는 이들을 뜻하고 있다; 천국을 가진 자, 즉 이들의 '보상'이 천국이다.

신28:4-'배의 열매'에 의해 사랑의 선과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되고 있다; '땅의 열매'에 의해 교회의 모든 것이 의미되고 있다.

겔19:12-'동풍이 그녀의 열매를 말렸다'=거기로부터 선이 파괴됨...'열매'=선; 이 선은 악의 거짓들에 있는 이들에게 그나마 말씀으로부터 잔존했던 것을 뜻하는데, 이 선마저 파괴됨이 '동풍에 의해 열매가 말려졌음'에서 의미되고 있다...'불이...그녀의 열매를 삼켰다'=선이 소진됨.

마13장-'씨가 자랐고 열매가 산출되었을 때, 가라지도 역시 나타났다'=진리가 증가해서 선을 생산했을 때, 악으로부터의 거짓들도 혼합되어 있었다.

예48:32-'가을의 열매들'에 의해 교회의 선들이 의미된다...그 이유가 여기서 '가을의 열매'인 빵=교회의 선이기 때문이다.

요15:4,5-'열매들'=선용, 또는 선행으로부터의 선들; 그리고 선행의 선들은 도덕적인 선 외에 더 다르지는 않다.

창49:22-'열매 맺는 것(가지)'=진리로부터 열매를 낚; 그 이유가 '열매를 낚'은 영적 의미에서 '출생'과 마찬가지로 역시 진리와 선의 출생.

열하19:23-'열매 풍성한 들판의 숲'에 의해 과학적 사실들이 의미되어 있다.

이32:15-'열매 풍성한 들판' 또는 수확나는 토지=자연적 인간이 진리들로 해서 열매 맺었다.

열매를 맺지 않는 (unfruitful)

신7:14-'열매를 맺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진리와 선으로부터의 생명의 결핍은 없다는 것, 고로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

마4:7,18,19-세상의 염려, 등등이 (진리들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예4:3,4에서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진다...즉 신앙 속의 진리와 선으로 하여금 결실 없게 하는 것들로부터 순수해져야 한다는 것.

눅13:7-교회가 자연적 선 안에 있지 않도록 짜여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바, 말해지기를 '왜 그것이 토지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느냐?'

열 세째 (thirteenth)

* 열 셋을 보라

열 셋 (thirteen)

창14:4-'열 세째 해에 그들은 반역하였다'=어린 시절에서 시험이 시작됨...제 13년은 제 12와 제 14의 중간, 즉 시험이 없음과 시험 사이의 중간.

창17:25-'열 세 살 된 아들'=남아있는 거룩한 것들; 그이유가 '10'=남아 있음; 그리고 '3'=거룩한 것. 이로부터 숫자 '13'은 10과 3으로 구성된다.

열 일곱 (17, seventeen)

* 열 일곱째를 보라

열 일곱째 (seventeenth)

창7:11-'열 이렛 날'

* 숫자 '17'=시험의 시작과 끝 모두, 그이유는 17이 7과 10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창8:4-'열 이렛 날'=새로운 것.

창37:2-'17 세 된 아들'=그것의 상태.

창37:2에서-'17'=시작, 즉 요셉에 의한 표현의 시작. 그것=시작과 새로운 것;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요셉에 의해 표현되는 모든 것; 그이유가 '7'=거룩한 것; 그리고 '10'=아껴두신 것들.

창47:28-'십 칠 년'=거기서의 상태; 그이유가 '17'=시작부터 끝까지, 또는 시작부터 새로운 것 까지. 그러므로 야곱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17년=자연계의 최 말단에서 조차 영적 삶의 상태가 시작됨.

열쇠 (key)

염소

마16:19-“나는 천국들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줄 것이다...여기서 ‘바위’는 선행으로부터의 신앙을 의미한다. 고로 열고 닫는 열쇠들은 이 신앙에 주어져 있다.

계1:18-“나는 지옥의 열쇠들과 죽음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지옥과 죽음의 열쇠들을 가진다’는 것이 누군가를 지옥에 던진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권능을 가지시고 있다는 말이다.

계3:7-“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고 누구도 열면 닫지 못하고, 닫으면 열지 못한다”=그분만이 구원하는 전능하심을 가지시고 있다는 것. ‘다윗’에 의해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이 뜻해진다. ‘열쇠’에 의해 천국과 지옥 넘어 군림하는 주님의 전능하심이 의미된다.

이22:22-엘리아김에게 준 ‘다윗의 열쇠’에 의해서도 계3:7의 다윗의 열쇠와 같은 뜻이다.

계9:1-“무저갱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다”=그들의 지옥이 열린다. ‘열쇠’에 의해 ‘여는 권능, 또한 여는 행동’이 의미된다.

계20:1-“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가지는 것”=지옥을 열고 닫는 신성한 권능.

눅11:52-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의 열쇠들을 운반한다’라고 말해진다. 즉 진리들을 수단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칠 이들을 위해 천국과의 교통을 열 수 있다는 것.

열의 (zeal)

열정적인 (zealous)

창30:1-“라헬은 자기 언니에 맞서 열정적이었다”=분노함.

출20:5-“열정적인 하느님”=거짓과 악이 거기서부터 있다는 것. 그이유가 ‘열정적인 하느님’, 순수 의미에서=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이때 ‘하느님’은 진리를, ‘열정적인’은 선을 서술한다. 그러나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를 받지 않는 이들에 관련될 경우, ‘열정적인 하느님’=거짓과 악이기 때문. 모든 이는 각자의 품질로부터 본다. 이는 그자체 사랑과 열정 (passion)이신 주님이 분노하신듯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이9:7-만군의 여호와의 열의가 이를 수행하신다”=인류를 구하시려는 열렬한 사랑으로부터 일 것이다.

출34:14-“그이유가 여호와 그분의 이름은 열정적이심이기 때문, 그리고 열정적인 하느님이 그분이시기 때문”=만일 어떤 다른 것이 예배되어진다면,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는 물러날 것이다. 그이유 ‘열정적임’은 사랑받고 예배받으려 누구도 고통당함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

계3:19-“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이것은 거짓을 혐오하고 진리에 애착함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

열 (번)째 (tenth)

* 열 (ten)을 보라.

열 하나 (eleven)

출26:7-“너는 그것들에게 열 한 커튼을 만들어라”=이로부터의 모든 진리들. ‘11’=모든 것들. 그 이유는 열 커튼들이 성막 자체를 구성했다. 그리고 열한 번째 코튼은 접어서 겹쳤다. 마치 주택의 뒤쪽 넘어 있는 것, 여분의 것 같기 때문.

얇은 (thin)

* 아원(thin)을 보라.

염소 (goat)

창30:35-“그는 ...부분적으로 색깔 있고 반점 있는 숫염소를 옮겼다”=호트러져 있었고 라반의 선에 어울렸던 악들과 거짓들과 혼합되어 있었던 선으로부터의 일련의 진리들이 분리되었다...‘숫염소’=선으로부터의 진리.

창15:9-“삼 년된 암염소를...가져오라” 등등=주님의 교회 속의 천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

창30:32-암염소에서 얼룩지고 반점 있는 것 이후에 악과 거짓이 혼합된 것 안에 있는 진리로부터의 모두 각각의 선은 그분의 것일 것이다...‘암염소’=진리로부터의 선, 또는 신앙으로부터의 선행.

창30:35-“그리고 얼룩지고 반점있는 모든 암염소들”=악들과 거짓들 안에 혼합되어 있는 선들. ‘암염소’=진리로부터의 선들. 여기서는 진리에 인접한 선들.

창31:38-“당신의 양들과 당신의 암염소들은 유산하지 않았다”=선에 관련한 그의 상태와 진리로부터의 선...진리로부터의 선에 의해 이해함으로부터의 선이 뜻해진다...

창32:14-“암염소 이백 마리와 숫염소 이십 마리...”=그로부터 파생된 신성한 선들과 진리. ‘암염소들’=선들,

염소

그리고 ‘숫염소 들’=진리들, 여기서는 신성한 선들과 진리들.

출12:5-‘너는 그것을 어린 양들과 암염소들로부터 가져올 것이다’=외면과 내면의 순진으로부터의 선...‘암염소’, 또는 새끼 염소=순진이 있는 진리로부터의 선. ‘새끼 염소’, 또는 ‘암염소’=순진으로부터의 외면의 선.

출25:4-‘암염소의 털’=상호간의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선...(그이유가) ‘암염소’=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에 있는 순진의 선...(‘털’에 의해)의미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선인 이유는 원어에서 ‘암염소의 털’이 아닌 ‘암염소의’라고만 말해지고 있기 때문.

출26:7-‘너는 주택의 위쪽 천막을 위하여 암염소들을 가지고 커튼들을 만들어라’=외적 천적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 있는 천국의 외부... ‘암염소들의 털’=외적 천적인 선.

단8장-‘암염소들로부터의 숫염소’=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 또는 선으로부터 분리된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이들이 선에 맞서 자신들을 일으켜 세우고, 결국 주님에 맞서 세우기에 이른다라는 것이 묘사되어 있다.

겔27:21-‘어린 양들, 숫양들, 그리고 숫염소들’=...천적, 영적,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

겔34:17-‘나는 ...양의 숫양들과 숫염소들 사이를 판결한다.’ ‘숫염소 들’, 특별한 측면에서=선행 없는 신앙 안에 있는 이들. (그이유가) ‘숫염소들’, 좋은 의미일 경우=신앙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이로부터 얼마간의 선행 안에도 있는 이들. 그러나 반대적 의미일 경우, 구원에 관련하여 선행 없는 신앙 안에 있는 이들...

창37:31-‘그들은 암염소들로부터의 숫염소를 도살했다’=즐거움들로부터 오는 외적 진리들. (그이유가) 말씀에서 ‘암염소로부터의 숫염소’=자연적 진리들, 즉 생활의 즐거움을 오게하는 외적 인간의 진리들. 그리고 또한 즐거움들로부터 있는 외적인 진리들...즐거움들이 오게하는 외적 인간의 진리들은 글자 의미에서 있는 신성한 진리들이다...이 의미로부터 진짜 교회의 교리적인 것들이 와진다. 이것들이 ‘숫염소’에 의해 적절히 의미되어진다. 고로 ‘암염소들로부터의 숫염소’에 의해 진짜 의미에서 이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과 그로부터 파생

되는 즐거움이 의미되어진다.

* 그러나 반대적 의미에서 ‘암염소로부터의 숫염소’에 의해 외적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즉 자신들의 생활로부터의 즐거움들과 일치하는 듯한 글자 의미로부터 진리의 외관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어진다...이런 의미에 있는 ‘암염소로부터의 숫염소’라는 말씀은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그이유가 이들은 자기들의 삶과 일치하는 진리와의 말씀은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 즉 세상 사랑과 자아 사랑을 옹호하는데 적절할 것 같은 단어들만 주석 같은 형식을 빌어 가져다 놓는다.

단8장-‘암염소로부터의 숫염소’가 유대 교회에 관련하여 여서일 경우=내적 진리들을 무익하게 만든 이들, 더 나아가 외적 진리들 역시 자기들 사랑을 떠받쳐주는 것만을 받아들인 이들.

단8장-‘암염소로부터의 숫염소’가 기독교 교회에 관련하여 일 경우=즐거움들로부터 외적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즉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 이들 역시 내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설사 그들이 내적인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명성을 얻기 위한 것 뿐이다...

겔34:17-‘숫염소’에 의해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즉 생활 앞에 교리를 놓는 이들, 결국 교리가 생활을 위해 있는게 아닌, 생활과는 무관해지게 하는 이들.

마25:32,33-‘숫염소들’=비록 신앙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선행 없음 안에 있는 이들. 즉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

레16:21,22-선 안에 있는 이들, 또는 회개를 수행한 이들에게 있는 죄들을 제거함이 ‘아사셀’이라 부른 숫염소에 의해 표현되어졌다...‘숫염소’=신앙. ‘광야’와 ‘분리함의 토지’=지옥.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불법을 그쪽으로 운반함’=그것들을 운반하여 지옥으로 내던짐.

겔34:17-‘숫양들과 숫염소들 사이에’=선행과 선행으로부터 파생된 신앙 안에 이들, 그리고 선행 없이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민28장-(제물이 되는 동물 중에서) 숫염소가 마지막 제에 있는 이유는 숫염소가 외적 인간에 있는 신앙의 진리를 의미했기 때문. 그리고 신앙의 진리는 마지막,

또는 최말단에 있다.

* 마25장에서 만일 모든 악이 ‘숫염소’에 의해 뜻해져 왔었다면, 그들이 하지 않은 선행의 일들은 일일이 열거되지 않으나 그들이 저지른 악들은 열거된다는 것.

* 다니엘과 마태복음에 있는 ‘숫염소’는 생활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 외 더다른 의미는 없다.

* 법으로부터의 일들을 하지 않고 신앙만에 의해서도 의롭다는 위선에 있는 그들이 마25장에 있는 ‘숫염소’이다.

겔27:21-‘어란 양들, 숫양들, 그리고 숫염소들’=순진으로부터 있는 세 수준의 선.

단8장-‘숫염소’=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또는 신앙만으로 구원됨.

단8장-‘암염소들로부터의 숫염소’=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그결과 말씀 속의 교리적인 것들과 참된 것들을 앞에 의해서만으로도 구원되어진다고 상상하고 말씀에 따른 어떤 생활도 생각해보지도 않는 이들

영 (spirit)

창1:2-‘하느님의 영’=주님의 자비 (=신성한 진리)

창6:3-‘내 영은 인간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내적 지령...또한 진리와 선의 유입

합2:19-‘그것 한가운데에는 숨이 없다’=천적이든 영적이든 아무 것도 없다.

겔13:11-‘폭풍들 속의 바람’=거짓의 황량함.

욥2:28-‘나는 그들 위에 내 영을 쏟을 것이다’=진리들에 관하여 훈육함.

마12:43-‘불결한 (지옥으로부터의) 영’=인간과 더불어 삶의 불결함; 그리고 또한 그 인간과 함께 있는 불결한 (지옥으로부터의) 영들; 그이유가 불결함 (지옥으로부터의) 영은 불결한 인간의 생활 안에 거주하기 때문.

창41:38-‘하느님의 영’=내면으로부터의 선, 고로 신성으로부터의 선; 그이유가 ‘하느님의 영’은 신성으로부터, 즉 선 자체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그리고 선이 들어 있는 진리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 그리고 이것이 말씀에서 ‘하느님의 영’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영 자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있는 진리가 진행되는 것이다...영은 도구인바 이를 통하여 (선) 생산되어진다.

창45:27-‘야곱의 영이 부활되었다’=새로운 생명.

이11:4-‘그의 입술들의 숨’=신성한 진리, 이로부터 심판이 있다.

* ‘영의 죽음’=자포자기에 가까운 상태.

이44:3-‘나는 내 영을 쏟을 것이다’=선행으로부터의 선.

이31:3-‘영’=살아 있는 것.

예10:14-이런 것 안에 영적 생명인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들 안에 숨이 없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출28:3-‘지혜의 영으로 채웠다’= 신성한 진리로.

이11:2-신성한 진리, 결과적으로 신성한 지혜와 총명이 ‘여호와와 영’이라 불린다, ‘여기서의 경우, 지혜와 총명의 영, 상담과 힘의 영,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시104:4-‘천사들을 영들로 만드는 것’=신성한 진리를 받아들임.

시33:6-‘그의 입의 숨’=신성한 진리로부터의 생명.

요3:8-‘바람은 그것이 원하는 곳으로 분다, 그리고 너는 거기로부터 있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으로 태어나는 이들 모두는 이와 같다: ‘영’= 신앙을 통한 선행의 생명 (=인간의 내적인 것을 통하여 그의 외적인 것 안으로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신성한 진리, 이로부터 거듭나는 인간은 신앙 속에 생명을 가진다.

요16:13-‘진리의 영’=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출31:3-‘나는 그를 하느님의 영으로 채웠다’=주님의 선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로부터의 예증과 유입

계1:4-‘일곱 영들’=신성한 진리에 있는 모두; 추상적 의미에서 신성한 진리 자체. (=신성한 천국)

계1:10-‘나는 영 안에 있었다’=영적 상태. (=계시와 더불어 영적 상태)

계2:7-‘영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가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시104:4-‘영들로 된 천사들’=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성직자로 된 천사들’=선들 안에 있는 이들.

계11:11-‘하느님으로부터의 생명의 영’=영적 생명. (=신성한 진리가 진행되는)

영광

계13:15-‘짐승의 모양(image)에 영을 주는 것’=그것을 말씀으로부터 확인하는 것. (=주님과 결합에 의한 영적 생명의 어떤 것)

계14:13-‘그렇다, 영에게 말한다’=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가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리이다 라고 단언하는 것. 그이유가 ‘영’도 ‘천사’ 같이 주님으로부터의 진리이기 때문.)

계16:13-‘개구리 같은 세 깨끗지 않은 영들’=단지 추론 뿐이고 왜곡하는 진리들로부터 있는 탐욕들. 여기서의 ‘영’은 ‘악마들’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지옥으로부터 있는 악 속의 거짓들)

계18:2-‘불결한 모든 영을 놓지 않음’=의지 속의 악, 그로부터 행동 속의 악... ‘영’은 애착 또는 의지 속에 있는 모든 것, 그로부터 행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했다.

계19:10-‘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언의 영’=말씀의 전체, 그로부터 교리의 전체이다는 것

계21:10-‘그는 나를 영 안에서 운반했다’=그는 고쳐져 만들어졌다는 것.

계22:17-‘영과 신부가 말한다, 오소서’=천국과 교회는 주님의 강림을 갈망하고 있다. ‘영’=천국...그 이유는 천사적 영들은 새 천국으로부터 입을 뜻하기 때문.

요3:15-‘물’=외적 인간에 있는 진리; ‘영’=내적 인간에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

이4:4-‘영’=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심판의 영’=그로부터 진리를 이해함; ‘삭제함의 영’=영적 진리에 애착함.

이25:4-‘그것들의 돌풍’=파괴하는 탐욕.

숙8:2-‘불결한 영’=교리 속의 악들로부터 튀어 오르는 악들.

예10:14-‘그것들 안에 숨이 없다’=영적 생명이 없다.

을2:28-‘나는 내 영을 쏟을 것이다’=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요3:34-‘그분은 치수를 채듯하여 영을 주시지 않는다’= 신성한 진리, 파생된 지혜와 총명.

이31:3-‘영이 아니다’=주님으로부터의 생명이 없다.

애4:20-‘우리의 콧구멍들의 숨’=선과 진리를 지각함의 생명.

호4:12-‘매춘의 영’=왜곡함의 탐욕.

이32:15-‘영이 높은 위로로부터 우리 위에 쏟으셨다’=그들 안으로 천국으로부터의 유입이 있음.

이26:9-‘내 한가운데 있는 내 영과 더불어 나는 아침에 너를 기다렸다’=진리의 빛 안에 있는 생명.

이42:5-여호와께서 땅 위를 걷는 그들에게 줄 ‘영’=신성한 진리에 따른 생활.

숙12:1-그 인간 한가운데에서 인간의 영을 형성함=그가 재구성되고 거듭남.

영광 (glory)

마24:30-‘권능과 영광’=말씀의 내적 의미.

마25:31-‘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영광 안에서 오실 때’=신성한 진리가 그것 자체의 빛 안에서 나타날 때, 이 나타남은 모든 이 각자가 죽을 때 당사자에게 나타난다... ‘영광’=총명과 지혜가 거기로부터 파생되어 빛으로 나타나는 것...

창45:13-‘이집트에서의 나의 모든 영광’=자연 평면에서의 영적 천국.

* 영광이 무엇인가? ‘영광’은 최고 의미에서=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고로 영광=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표현적 의미에서 ‘영광’=이웃을 향한 사랑의 선, 또는 선행, 이는 천적 왕국의 외부의 선, 그리고 영적 왕국의 내부의 선. 그 이유가 이 선은 순수한 의미에서 천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그러므로 창45장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요셉의 영광’은 영적 (평면의) 천국이 뜻해진다. 영적 천국이 ‘영광’이라 말해지는 이유는 거기서 신성한 진리는 빛 안에서, 광선 안에서, 광휘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

요1:14, 눅9:31-‘영광’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라고 단언되어진다. 그리고 영광은 왕으로서의 주님의 속성에 결맞는바...이는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아버지로부터의 독생자에 관련되는 영광을 보았다...모세와 엘리야스가 영광 안에서 보여졌다’라는 구절로부터서도 분명해진다.

마25장-왕좌가 ‘영광의 왕좌’라 불리는 이유는 심판들이 진리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

출16:7-‘아침에 너희는 여호와와 영광을 볼 것이다’=새로운 상태의 시작에서 주님의 강림이 있을 것이다...

영광

‘여호와와의 영광’=현존하심과 강림하심. ‘영광’=주님의 강림과 현존인 이유는 ‘영광’, 최고 의미에서=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그리고 신성한 진리는 태양으로부터의 빛과 광휘로서 나타나기 때문...그러므로 ‘영광’=말씀의 내적 의미. 그이유가 이것이 영광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

출16:10-‘여호와와의 영광이 구름 안에서 보여졌다’=진리 안에서의 주님의 현존하심이 (인간의) 통각(apperception) 작용에 적절히 조화되는 것.

시24:7-주님이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로부터 ‘영광의 왕’이라 불리운다.

시106:20-‘그들은 영광을 ...수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다’=그들은 말씀의 내적인 것들, 그리고 교회의 내적인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멀리 떼어냈다는 것...그이유가 ‘영광’=말씀과 교회의 내적인 것.

이60:13-‘레바논의 영광’, 즉 삼나무(cedar)=영적인 선과 진리.

출24:16-‘여호와와의 영광이 시나이산에 머물렀다’=천국에서 주님의 말씀 속 내면의 것들.

요12:43-‘사람들의 영광’=거짓.

출24:17-‘여호와와의 영광의 양상(aspect)’=사랑의 선으로부터 광휘있는 천국 자체에 있는 신성한 진리...=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의 나타남.

계21:23-‘하느님의 영광’=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마24:30-‘권능과 영광’=내적 의미, 이 의미에서만 가장 깊이 있게 주님이 설명되어진다.

이61:6-‘그들의 영광 안에서 너희도 영광될 것이다’=진리들을 즐기는 것, 고로 양쪽으로부터 환희와 행복을 즐기는 것.

출28:2-‘영광을 위해 그리고 꾸밈을 위해=영적(평면의) 교회의 진리.

요1:14-‘여호와와의 영광’=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이를 주님께서 ‘말씀이 육(flesh)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에서 가르치신다.

눅24:26-‘그분의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것’=주님 안에

있었던 선에 하나되어지는 것.

출29:43-‘그것은 나의 영광 안에서 신성해질 것이다’=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받는 것...‘여호와와의 영광’=말씀의 내적인 것.

속2:5-‘그 한가운데서 영광’=신앙과 사랑 속에 있는 진리와 선의 모든 것들 측면에서의 주님 자신.

계21:23-‘영광’에 의해 빛으로부터 있는 것들인 듯 해 지는바, ‘하느님의 영광이 그것을 밝게 할 것이다’라고 말해진다.

눅2:32-‘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주님 자신에 관하여 주님에 의해 밝히 알리는 모든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받는 이들에게 밝히 알리는 모든 것.

요1:14-‘영광’=그 빛 안에서 주님에 관련하여 나타나는 모든 것.

마24:30-‘영광’=천국의 빛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신성한 진리, 즉 천사들과 더불어 있는 신성한 진리. 그리고 신성한 진리가 ‘구름’과 ‘영광’에 의해 뜻해지는데, 이는 외적 의미와 내적 의미 측면에서의 말씀이 뜻해진다.

이42:8-‘영광을 주는 것’=신성화하시는 것, 또는 그분 자신에게 하나되는 것.

시29:9-‘그분의 성전에서 모든 이 각각이 그분의 영광에 관해 이야기 한다’=말씀의 모든 것 각각 안에는 신성한 진리들이 있다는 것.

계1:6-‘그분에게 영광과 힘이...있다’=그분에게만이 신성한 위엄과 전능하심이 있다...

마24:30-‘영광 안에서 그들이 그분을 뵈는 것이다’에 의해 영적 의미 안에 있는 말씀이 뜻해진다.

계4:9-‘동물들이 그분에게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렸다...’=말씀은 모든 진리, 선을 주님에게 돌리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이유는 그분의 ‘영광’은 신성한 진리로부터이기 때문, 그리고 그분의 ‘영예’는 신성한 선으로부터이기 때문.

계11:13-‘그들은 천국의 하느님에게 영광을 주었다’=그들은 주님을 인정했다는 것, 그리고 분리되어졌다는 것.

계14:7-‘그분에게 영광을 주는 것’=말씀의 모든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

영구의-영원

계15:8-‘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권능으로부터의 연기로 채워졌다’=천국의 가장 깊은 속은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영적 진리와 신성한 천적 진리로 채워져 있다는 것.

계16:9-‘그분에게 영광을 주지 않는 것’=주님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라는 신앙을 받지 않는 것.

계21:11-‘하나님의 영광을 가짐’=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이해되어질 것임...‘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신성한 빛 안에서 있는 말씀이 의미되어진다.

계21:19-‘그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밝히 비출 것이기 때문이다’=이 교회의 사람들은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로부터 영적인 빛 안에 있을 것이다...‘하나님의 영광’=말씀의 신성한 진리.

계21:21-‘그것 안으로 영광과 영예를 가져오는 것’=주님을 고백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진리와 선을 그분의 탓으로 돌리는 것.

학2:7-‘나는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신성한 진리와 더불어 주님의 교회.

계4:11-‘당신은 영광과 영예, 그리고 권능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에게 속하는 공적과 정의, 이로부터 모든 신성한 진리와 선, 그리고 구원이 있다는 것.

이66:12-‘이방인들로부터의 영광’=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진짜 진리, 고로 그것들의 결합.

이28:1-‘영광의 꽃’=진리가 출생에서 파괴됨.

이44:23-그들의 개혁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분 자신을 영광되게 전시하셨다’에 의미되어 있다.

이66:18-‘주님의 영광을 와서 보는 것’=신성한 진리로 계발하는 것, 그리고 이로부터 천국의 환희를 즐기는 것.

이3:8-‘여호와와 영광의 눈들’=신성한 진리.

계7:12-‘축복, 영광, 그리고 지혜’=세 천국들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로부터의 것들...‘영광’=내면의 것들 안에 신성한 진리를 받음.

숙2:5-‘그녀의 한가운데에 영광’=모든 측면에서 빛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

이16:14-‘모압의 영광’=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예49:25-‘영광의 성읍’=신성한 진리로부터의 교리.

이10:18-‘숲과 갈멜(Carmel)의 영광’=교회에 속하는 진리와 진리로부터의 선.

시45:13-‘왕의 딸이 안에서 모든 영광이다’=진리에 대한 영적 애착, 이것이 진리의 풍부함으로부터 ‘영광스럽다’라 불리운다.

계14:7-‘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신성한 진리에 따라 사는 것, 즉 말씀에 있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

계18:1-‘땅은 그의 영광으로부터 계몽되어졌다’=주님의 교회는 지금 신성한 진리의 유입됨과 받음으로부터 빛 안에 있다는 것.

계14:7-‘영광을 드리는 것’=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영구의 (perpeture)

창22:14-‘오늘, to-day’=영구한 것.

창32:32-‘오늘에 이르기까지’=영원히.

창43:9-‘모든 날들’=영원히(for ever)

출8:6-‘내일, to-morrow’=영원히(for ever).

출21:6-‘그는 그를 영원히(for ever) 섬길 것이다’=영원하게(to eternity)

영원 (eternity)

* infinite, never, to-day도 참조.

창3:22-고로 그가 영원히 결코 구원되어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 ‘영원히 사는 것’은 죽은 후 지옥에 떨어뜨려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

말3:4, 신32:7-‘영원의 시대’=태고 교회(the Most Ancient Church).

창17:8-‘영원히 소유하기 위해’=영원인 것.

요17:5-빛의 근원은 영원으로부터, 주님 만으로부터였다...신성한 인간, 이 분은 영원으로부터 계셨는데, 빛 자체였다.

* 최고 의미에서, ‘어제’=영원으로부터, ‘오늘’=영원, ‘내일’=영원까지. 말씀에서 언급하는 시간들=상태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상태라는 것은 없고 그분에 관련한 모든 것은 영원하고 무한할 뿐이다,

율4:20-‘영원’이 유다라고 단정된다. 그이유는 유다에 의해 천적 (등급의) 교회가 표현 되기 때문.

예물-예배

이51:8-‘영원’이 사랑으로부터의 선이라고 단정된다. 그이유가 ‘정의’가 그것에 관련해 말해지기 때문.

시145:13-‘영원’이 천적인 것, ‘세대’가 영적인 것이라 단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쓸데 없는 반복일 것이다.

합3:6-‘영원의 산들’=태고 교회 속에 있었던 사랑으로부터의 선.

출12:24-‘이 말들을 영원까지 간직하는 것’=이 모든 것은 이후 준수되어야함에 틀림없다는 것.

출15:18-‘여호와께서 영원까지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주님만이 천국들과 땅의 하느님이시다는 것.

출19:9-‘그리고 또한 영원까지 너를 믿게 하는 것’=아마 진리로부터의 신앙은 내구성(permanent)이 있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

이14:20-‘악의 있는 자의 씨는 영원까지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영원히 헤어 분리함.

시139:29-‘영원까지에 이르기조차 나는 네 씨를 굳건히 만들 것이다’=그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의 영원함.

이13:20-영원까지 거주되지 않을 것이다’=그것의 파멸은 영원함.

옆구리 (flank)

출29:22-‘오른쪽 옆구리’=가장 깊은 선...그이유가 동물들의 옆구리는 인간의 허리와 넓적다리와 같은 의미=결혼 사랑을 지니기 때문. 그리고 이 의미로부터 천적 사랑으로부터의 선도 의미하는데, 이 선은 가장 깊은 천국의 선이다. 그리고 오른쪽 허리와 넓적다리는 가장 깊은 선..

레7:32,34,35-오른쪽 옆구리=가장 깊은 선, 또는 천적인 선, 이것이 제물로부터 들어올려지고 아론에게 주었을 때, 이것은 그의 ‘기쁨부음’이라 불리었다.

출29:26-옆구리=천적 왕국에 있는 신성한 선.

출29:27-‘들어올림의 옆구리’=주님만에 속하는 신성한 천적인 것이 천국과 주님의 교회에서 지각되었다. ‘옆구리’=천국과 주님의 교회에 있는 신성한 천적인 것.

예견하다 (foresee)

* 선견(foresight)을 보라.

예루살렘 (Jerusalem)

* 새 예루살렘, 시온도 참조하라

* ‘예루살렘’=천국

* ‘거룩한 예루살렘’=보편적 측면에서의 주님의 왕국, 또는 각 인물일 경우, 각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왕국.

출3:6-‘예루살렘의 아들들’=신앙의 영적인 것들.

계21장-‘거룩한 예루살렘’=천국들과 지상에 있는 주님의 왕국.

겔16장-‘예루살렘’=고대 교회.

예6:6,11-‘예루살렘의 거리’=교회 안에서 통치하는 거 것들.

숙14:12-‘그들이 예루살렘에 맞서 싸울 것이다’=주님의 영적 왕국의 교회에 맞서,... 그리고 그 교회의 진리들에 맞서...

말3:4-‘예루살렘의 선물’=영적 사랑으로부터 예배함.

삼하2:1-11, 5:5, 왕상2:11-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통치한 이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시온을 점령했다. 그리고 그때서야 처음 주님의 영적 왕국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의해, 주님의 천적 왕국의 교회가 시온에 의해 표현되기 시작했다.

눅21:20-‘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 에워싸인 것을 볼 때’=주님의 교회.

말3:4-신앙으로부터 있는 예배가 ‘예루살렘의 식사 공물’이다.

미4:8-‘예루살렘의 딸의 왕국’=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 왕국.

예17:25-‘도성’, 또는 예루살렘=주님의 영적 왕국.

예3:17-‘예루살렘’=주님의 영적 왕국. 이 왕국은 에스겔서에서 ‘새 예루살렘’에 의해, 계시록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에 의해 뜻해진다. 주님의 영적 왕국은 안에 선이 있는 신성한 진리를 제일의 것으로 삼는 곳이다...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왕좌’라는 불리는 이유도 분명해진다.

계21:11-‘거룩한 성 예루살렘’=천국들에 있는 주님의 영적 왕국, 그리고 땅에서는 그분의 영적 교회, 이에 관해 ‘영광’이라 단언되고 있다.

단9:25-‘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짓는 것’...여기서의 ‘예루살렘’=새로운 교회.

마5:35-‘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 것’=말씀 속의 진리로부터의 교리. 그이유가 ‘예루살렘’ 폭넓은 의미에서

예물-예배

=주님의 교회. 그러나 '땅'이 언급되어질 때, 땅=교회, 그다음 '예루살렘'=교회 속의 교리, 고로 말씀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로부터의 교리. 그러므로 '큰 하느님의 도성'이라 불리운다.

예3:17-'예루살렘', 여기에 나라들이 모일 것이다=이 새로운 교회.

애1:8-'예루살렘'=악으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는 교회.

계21장-'예루살렘'=주님의 교회, 더 걸출한 의미에서 천국.

겔16장-'예루살렘'=이스라엘 교회와 유대 교회.

* 마24장, 막13장, 눅21장은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괴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 교회 상태의 계속적인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눅18:31-'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여기서의 '예루살렘'=유대 교회.

겔3장-'예루살렘'=안에 선들이 없고 악들이 있는 교회.

시76:2-여기서 예루살렘이 '살렘'이라 불리운다, 그 이유는 '살렘'이 평화를 의미하기 때문. 이로부터 예루살렘 또한 이름되어졌다.

여10:1-'예루살렘의 왕'=거짓들로서 완전하게 황폐된 교회 속의 진리.

이40:9-'예루살렘, 복음을 전하는 자'=교리의 진리들 안에서 말씀으로부터 있는 교회.

시122:3-'예루살렘은 그자체 함께 응집하는 도성으로서 건설되어져 있다'=교리 측면에서의 교회...교리속의 모든 것들이 동의함 안에서 만장 일치 할 때, 그리고 그것들이 시작과 끝에서 주님을 중시하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사랑하는 상호 관계에 있을 때.

숙12:6-이 교회는 악들과 거짓들의 침투로부터 안전해 있을 것임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그자체 아래 거주할 것이다'에서 의미되어 있다.

여18:11-28-베냐민...=자연적 인간 안에서 선과 결합된 진리인바, 그러므로 가나안 토지에서 그에게 할당된 토지는 유대와 요셉의 아들들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또한 이 지파에게 그 당시 여부스족이 거주했던 곳인 예루살렘이 상속분으로 할양되었다. 하여 베냐민의 아들들은 후에 이 성을 점령한 유대인들과 함께 거기서 거주했다...예루살렘이 이 지파에게 할양된 이유는 '예

루살렘'이 교리에 관련하여, 예배에 관련하여 교회를 의미했기 때문.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교리는 선과 결합된 진리로부터의 교리이기 때문. 그리고 교리에 의거한 모든 예배가 자연적 인간을 수단으로 결과 되어진다.

이22:10-'예루살렘의 집들을 세는 것'=진리로부터의 선들을 왜곡하는 것.

단9:25-'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설하는 것'=주님에 의해 건립될 교회.

이51:17-악의 거짓들 안으로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린 교회의 회복이 '깨어라, 깨어라, 오 예루살렘아...'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예루살렘'=교리 측면에서의 교회.

미4:2-'예루살렘'에 의해 천국과 이 신성한 진리로부터 있는 교리 측면에서의 교회가 뜻해진다. 그러므로 '여호와와의 강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다'고 말해진다.

이66:20-'내 거룩함, 예루살렘의 산에게'=선행이 통치하는 교회.

예물 (offering)

* 태움(burnt), 태워바치는 공물(burnt-offering), 들어 올려 바치는 공물(heave-offering), 식사 공물(meat-offering), 선물(gift), 헌물(oblacion) 등도 참조.

창4:3,4-'아벨의 예물'=선행으로부터의 예배, '기뻐하셨다.' 그러나 '가인의 예물'=선행과 분리된 신앙으로부터의 예배, '받기지 아니하셨다.'

예배 (worship)

* adore, altar, babel, burnt-offering, drink-offering, idol, incense, meat-offering, praise, pray, preach, present, sacrifice, tent등을 보라.

창2:15-'(에덴의 동산을)경작(cultivate)하고 그것을 돌보도록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향유하도록 그에게 증여 되어졌다는 것, 그러나 자기 자신의 것으로 그것들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 그 이유는 그것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

창4:2-'지면의 경작자(a tiller of the ground)'=선행이 결핍된 자.

창4:12-'지면을 경작하는 것'=종파나 이교를 탐닉하는 것.

예복-예수-예술

출3:12-‘너는 이 산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사랑으로부터 신성한 것을 지각하고 인정함.

* 출27장에서는 사랑의 선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을 취급한다. 이 예배가 ‘제단’에 의해 의미되고, 제단의 모든 것들에 의해 예배의 일반적인 사항이 묘사되어 있다.

예복 (robe)

눅15:22-‘제일가는 예복’=일반적인 진리들.

계6:10-‘흰 예복이 모든 이 각각에게 주어졌다’=신성한 진리들에 있는 천사들과 교통하고 결합함.

계7:9-‘흰 예복을 입고’=더 높은 천국들과 교통하고 결합함.

계7:14-‘그리고 자기들의 예복을 빨았다’=거짓의 악들로부터 자기들의 종교적인 것들을 깨끗이 했었다...‘예복들’=일반적인 진리들, 이는 글자 의미로부터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이것들에 따라 그들은 살았었다. 고로 종교적인 것들.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것은 선과 진리에 관련있는바, ‘예복’이 두 번 언급된다...‘예복’, 또는 종교적인 것들은 악에 맞서 싸우는 이들과 더불어서만 깨끗해진다, 그리고 거짓들을 거절하는데 시험을 통하여서이다.

계7:14-‘그리고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그들의 예복들을 희게 만들었다’=그리고 그것들을 진리들을 수단으로 악의 거짓들로부터 순수하게 했다, 그리고 고로 주님에 의해 개혁되어 왔다...‘예복들’, 여기서도 역시=말씀으로부터 일반적 진리들, 이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것들을 만든다.

예복 (raiment)

* 의복(garment)을 보라.

예수 (Jesus)

계1:1-‘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그분 자신과 그분의 교회에 관한 주님에 의한 예언들.

계1:2-‘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주님의 인성이 신성이라고 인정하는 이들.

계1:5-‘예수 그리스도로부터’=신성한 인간.

계1:9-‘예수 그리스도를 강한 인내심으로 예상함에’=주님의 강림.

계14:12-‘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주님 안에서의

신앙.

계20:4-‘나는 예수를 증거했기에 도끼로 쳐죽임을 당한 이들의 혼들을 보았다’=거절되었던 이들...그들이 주님을 예배했기 때문에...‘예수를 증거함’=주님의 인간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을 인정함.

계22:16-‘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냈었다’=주님에 의한 증거...주님이 여기서 그분 자신을 ‘예수’라 이름부르는 이유는 기독교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은 세상에 계셨던 주님 자신이 지금 열렸었던 것 같이 이 책 안에 기술된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런지 모르기 때문에서이다.

계22:20-‘그렇다 온다 주 예수’=그분이 세상에서 그분 자신을 입혔고, 신성화한 그분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 그분은 신랑과 남편으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신부와 아내로서 그분을 바라고 있다는 것.

계12:17-‘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주님의 인간 안에 신성이 있음을 인정함.

계17:6-‘예수를 증거함의 피를 가지고’=주님만이 숭배되어야한다고 가르치는 말씀 속의 이런저런 진리들에 가해진 폭력...‘예수를 증거함’=심정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이들, 그리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숭배함.

예술 (art)

출7:11-‘마법’=질서를 오용하는 예술 자체. 말씀에서 ‘마술사’, ‘마법사’는 어디에서 언급되든 진리들로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거짓들을, 또는 그 반대의 것을 표현하는 예술, 이는 특히 오류를 수단으로 실시되어진다.

출30:38-‘그것과 같은 고약을 만드는 사람’=예술로부터 신성한 것들을 모방함...이렇게 의미되는 이유는 인간으로부터 신성한 것들의 모방은 예수로부터 행해지기 때문.

예언 (prophecy)

예언자 (prophet)

예언하다 (prophesy)

여예언자(prophetess)

창20:7-‘그는 예언자이기 때문’=고로 그것이 가르쳐지리라는 것.

마11:9-‘너희는 예언자를 보려 나갔느냐? 나는 말한 다...예언자 보다 더...’ ‘예언자’=교리와 예배의 외적인

예언-예언자 -예언하다 -오

것들.

마24:24-‘거짓 예언자들’=신성으로부터 있지 않은 진리들, 또는 거짓들을 가르치는 이들.

미3:6-‘태양이 예언자들 위에서 내려갈 것이다’=그들은 진리, 그리고 진리로부터의 교리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할 것이다. ‘예언자들’=교리 속의 진리들을 가르치는 이들.

겔13:9-‘헛된 것을 보며 거짓말로 짐을 치는 예언자들’=악들과 거짓들을 가르치는 이들.

눅11:49-‘예언자들과 사도들’=교회의 진리들과 선들.

눅4:25-‘자신의 고향에서 받아진 예언자는 없다’=주님과 그분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는 교회 바깥쪽에서 보다 안쪽에서 심정에서 덜 사랑되고 덜 받아진다는 것... ‘예언자’, 이 의미에서,=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고로 교회의 교리 측면에서의 주님.

계1:3-‘이 예언의 말씀들’=새 예루살렘의 교리. 그이유가 추상적 의미에서 ‘예언자’에 의해 말씀으로부터 교회의 교리가 의미되어지기 때문, 고로 이 구절에서 새 교회의 교리.

왕상18:4,13-‘예언자들을 죽이는 것’=말씀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진리들을 파괴하는 것.

계2:20-‘자칭 여예언자라 부르는’=그것을 교회의 교리 자체로 만들고 그것 위에서 그들의 모든 신학을 발견하는 자들...

계10:7-‘하느님의 신비가 예언자들에게 선포되었다’에 의해 말씀 안에서 주님께 의해 미리 말해져 왔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감추여 있어왔던 것이 의미되고 있다.

계10:11-‘너는 다시 예언해야 한다...’=그들은 더 가르쳐야만 함에 틀림없다.

계11:10-‘이 두 예언자들이 그들을 괴롭혔다...’=이 두 본질들은...반대되고 있다는 것...

계11:18-‘그분의 종들 예언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말씀으로부터 교리 속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누림이 있다)는 것.

계16:6-‘거룩한 사람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그들은 쏟았다’=(믿음만으로)가 받아졌을 때, 그 교리는 말씀으로부터의 모든 진정한 교리물들을 뒤집는다.

계18:20-‘네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말씀으로부터

선들과 진리들 안에 있는 교인들... ‘예언자들’=말씀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계18:24-‘그녀 안에서 예언자들과 거룩한 사람들의 피가 발견되었다’=말씀 속의 모든 진리, 교회 속의 모든 진리가 섞음질되고 모독되었다. ‘예언자들’=말씀으로부터 신성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 추상적으로는 말씀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진리들.

계19:10-‘예수에 관한 증거가 예언의 영이다’=그것이 말씀의 모두이고 거기로부터 나온 교리의 모두이다.

계22:6-‘거룩한 예언자들의 주 하느님’=주님으로부터 두 언약들의 말씀이 있다.

계22:7-‘이 예언의 말들을 지키는 자는 복있다’=주님께서는 그분에 의해 지금 열려진 이 책의 가르침들, 또는 진리들을 간수하고 행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계22:9-‘나는 네 형제 예언자들 속에...있다’=새 예루살렘의 교리 안에 있는 이들.

계22:10-‘이 예언의 말들을 봉하지 마라’=묵시록은 닫혀져 있지 않다는 것.

계22:18-‘이 책의 예언의 말들을 듣는 모든 이’=지금 주님께 의해 열린 이 책의 교리 속의 진리들을 알고 읽는 이들.

암3:7-‘그분의 종들 예언자들’=교리 속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받는다.

계10:7-‘그분의 종들 예언자들’=교리 속의 진리들, 여기서 말씀.

오 (O)

* 모음 아(a), 오(o), 우(u)는 셋째 천국에서 사용된다, 그 이유는 이것은 가득한 소리, 결여됨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오난 (Onan)

창38:4-‘그녀는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불렀다’=이 악의 품질.

창38:9-‘오난은 이 씨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중오와 미워함.

* ‘오난’, 유다로부터의 두 번째 출생=악의 거짓으로부터 있는 악, 이 안에 이 나라는 후에 있었다...악의 거짓으로부터 있는 악이 오난이 했던 것, 즉 그는 그의

오난-오늘-오다

형제에게 씨를 주기를 원치 않았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 것은 결혼 사랑에 반대된다.

창46:12-‘엘과 오난은 가나안 토지에서 죽었다’=거짓과 악이 근절되었다는 것.

오늘 (today)

창24:12-‘오늘’=영원으로부터.

창25:31-‘오늘 현재, as to day’=시간 상으로(시간 안에서, as to time))

* ‘어제’=영원으로부터, ‘오늘’=영원, ‘내일’=영원쪽으로. 그이유가 말씀에서 시간들=상태들이기 때문...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는 상태들이 없고 모든 것은 영원과 무한 만 있다.

창31:48-‘이 날’=영원인 것.

창35:20-‘이 날에’=영구함 안에서

출5:14-‘오늘’=영구한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끊이지 않는 것(perennial).

출13:4-‘오늘 너는 나갈 것이다’=영원히 해방됨.

출14:13-‘그분이 오늘 하시는 것’=영원히 있게 될 것.

출16:25-‘오늘 이것을 먹어라’=영원히 자기 것 삼음.

출19:10-‘오늘과 내일’=지금과 그 이후.

출34:11-‘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영원한 진리 속에 있는 제일가는 것들.

시2:7-‘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서의 오늘은 영원으로부터가 아니라 시간 안에 있는 오늘이다. 그이유가 여호와와 더불어 미래는 현재에 있기 때문.

오다 (come)

* advent도 참조

창12:5-‘그들은 가나안의 토지 안으로 왔다’=그분은 사랑의 천적인 것들에 도착하셨다.

창15:15-‘그의 조상에게 가는 것’=육체의 삶으로부터 영체의 삶으로 건너가는 것.

창20:3-‘하느님이 오셨다’=지각. 그 이유가 지각은 지적 능력 안으로 신성이 오심, 또는 유입이기 때문.

창24:1-‘날들에 오는 것(수명이 다되는 것)’=상태가 가까이 있었다는 것.

창29:30-‘그는 라헬에게 왔다’=내적 진리에 애착함과 결합함.

창34:7-‘들판으로부터 오는 것’=그들의 종교로부터 상

담하는 것.

창35:27-‘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갔다’=신성한 합리성과 결합되는 것.

창37:23-‘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왔을 때’=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하여 그들에게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에게) 설교되었을 때.

창39:14-‘오는 것’, 여기서=뜻하는 것. 그이유가 목적을 가지고 오는 자는 뜻하는 자이기 때문.

창41:14-‘그는 바로에게 왔다’=새로운 자연 평면과 교통함. ‘오는 것’, 여기서는 유입을 통하여 교통함.

창41:29-‘오, 칠년이 온다’=섭리의 상태. ‘오는 것’=섭리 속에 있는 것.

창42:9-‘보려고 오는 것’=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것.

창42:29-‘그들이 왔다’=개혁이 계속되는 것.

창43:26-‘요셉이 집에 왔다’=내적인 것의 현존.

창45:16-‘요셉의 형제들이 왔다’=자연 평면에서 교회의 진리들이 현존함. ‘오는 것’=현존.

창45:19-‘오는 것’=접근하는 것.

창46:32-‘그들이 가지고 온 것’=현재 있는 것.

창47:4-‘체류하러 오는 것’=삶을 추구하는 것.

창47:14-‘가져오는 것’=조회하는 것. 그리고 소개하는 것.

창47:15-‘모든 이집트인들이 요셉에게 왔다’=내적인 것에 적용함.

출1:1-‘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옴’=진리들이 과학물에 전수함.

출2:18-‘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왔다’=교회의 선 자체와 결합됨..

출5:23-‘말하러 오는 것’=명령을 가져오는 것.

출9:1-‘바로에게 가라’=폐지어 물려드는 이들에게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나타남.

출14:16-‘오는 것’, 또는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가로질러 지나가는 것.

출14:17-‘그들은 그들 뒤를 따라 올 것이다’=악으로부터의 거짓의 유입을 통하여 폭력을 행사하려 노력함.

출16:1-‘오는 것’=연속되는 무대(stage).

출16:15-‘백성들이 하느님께 묻고져 모세에게 옴’=무엇

오두막-오르간-오른쪽

이 신성한 지령인지에 관하여 상담함.

요14:18-‘그들에게 오는 것’=선으로 인도하는 것.

요3:8-‘오는 것, 그리고 가버리는 것’=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어떤 것의 상태.

계1:4-‘계시고, 계셨고, 오실 분’=주님, 즉 무한이고 영원하신 분, 그리고 여호와.

계1:7-‘그분은 하늘의 구름들을 사용하여 오신다’=주님은 자신을 말씀의 글자 의미 안에서 밝히 알리실 것이다.

계11:14-‘빠르게 오는 것’=이것 이후에.

계19:17-‘오다’=부름.

계2:26-‘내가 오기 까지’=방문.

요6:35-‘주님에게 오는 것’=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것.

오두막 (hut)

이24:20-‘땅이 오두막 같이 이리저리로 움직일 것이다’

창33:17-‘그는 그의 습득물들을 위해 우릿간(booth)을 만들었다...’오두막(booth), 또는 텐트들을 만드는 것’=집을 짓는 것과 같다. 즉 진리로부터 선의 증가를 받는 것. 그러나 차이는 있다. 집을 짓는 것은 덜 일반적, 고로 더 내면적이고, 오두막, 텐트는 더 일반적, 고로 더 외면적이다. 전자는 사람 자신들을 위해, 후자는 양떼나 가축떼를 위해서이다.

* ‘오두막’, 또는 텐트, 말씀에서=진리로부터의 거룩함. 그리고 성막과 구별된다. 성막=선으로부터의 거룩함. 원어에서 전자는 ‘숙곳(Succoth)’이라 불리운다...진리로부터의 거룩함은 진리로부터 있는 선이다.

이4:6-‘오두막(hut)’=내면의 것들이 숨겨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최말단.

오르간 (organ)

창4:21-‘하프와 오르간을 연주하는 모든 자의 아버지’=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

*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두 악기들, 즉 하프와 오르간에 의해 의미된다....오르간은 줄로 된 악기와 입으로 부는 악기 그 중간에 해당하는 악기이다; 그러므로 오르간은 영적 선을 의미한다.

오른쪽 (right)

* 주님의 오른쪽에 천사들이 있고, 악령들은 그분의 왼

쪽에 있다.

창13:9-‘만일 왼쪽으로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만일 오른쪽으로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분리.

계10장-‘그분은 오른발을 바다에, 왼발을 땅에 두셨다’
마5:29-‘왼쪽 눈’=지적 측면, ‘오른쪽 눈’=거기로부터의 애착.

창24:49-‘나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바라볼 것이다’=상호적인 자유.

시89:12-‘북쪽과 오른 손을 당신은 창조하셨다...’오른손’=선과 진리의 빛에 더 가까이. 이것들은 주님의 오른 손에 있다.

*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를 수단으로 천적 선으로부터 있는 영적 진리, 그리고 이로부터의 힘이 의미된다. 그이유가 선은 진리를 통하여 힘을 발휘하기 때문...‘오른손’=가장 높은 힘. 이로부터 ‘하느님의 우편에 앉으심’=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로부터의 힘. 주님을 서술할 경우=전능하심, 그리고 또한 그분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창48:13-‘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여 그의 오른편에,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향하여 그의 왼쪽에’=지성 속의 진리는 둘째 자리에, 자발성 속의 선은 첫째 자리에.

출14:22-‘물들이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모든 측면들로부터 거짓이 억제됨.

출15:6-‘당신의 오른손, 여호와여, 강함에서 확대되어 졌습니다’=주님의 전능하심.

출15:12-‘당신은 당신의 오른손을 뻗으셨다’=모든 것들 위에서 권능이 통제함.

마5:39-‘오른뺨’=선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

* ‘오른눈’=주님에 관한 신앙 속의 거짓.

겔1:7-외적 또는 자연적 선이 ‘오른발’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막10:40-인간의 오른편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적인 선, 왼편의 것들은 영적인 선과 상응한다...이런 선들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것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출29:20-‘오른쪽 귀’=선으로부터 진리를 지각함.

오멜-오목-오븐

요21:6-‘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것’=선으로부터 행하고 가르치는 것.

시80:17-‘당신의 오른쪽의 사람’=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이렇게 주님이 불리시는 이유는 주님은 신성한 진리로부터 권능을 가지시기 때문.

계1:16-그분의 오른손에 별들을 가지시고‘=모든 영적인 지식들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으로부터 있다는 것.

계5:1-‘나는 그분의 오른손을 보았다...’=전지, 전능 측면에서의 그분자신.

계13:16-‘그들의 오른손에 표...’ ‘오른손’=지적인 힘, 고로 신앙 측면에서 인간의 전부.

마6:3-‘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라’=선은 선으로부터서만 반드시 행동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선을 위해서, 그리고 선이 나타나도록 자아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시45:9-‘당신의 오른편에 여왕이 서있다’=선을 받음으로부터 있는 교회...오른쪽에 속하는 인간의 모든 것들은 진리가 있게 하는 선에 관련되고 있다. 더욱이 여인은 사랑 속에 있는 애착이도록, 고로 선이도록 태어나 진다. 그러므로 아내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신성한 질서로부터 이다.

오멜 (omer)

* homer을 참조.

출16:16-‘머리 하나에 한 오멜’=모든 이 각각을 위해 충분하게. 그 이유는 오멜은 에바의 십분의 일이었기 때문. 그리고 ‘10’=충만한 것. 이로부터 십분의 일=충분하다 싶은 만큼. ‘오멜’은 이 장에서만 언급되고 다른 장소에서는 ‘호멜’이 언급되는데, 호멜은 10에바에 해당되는 측량도구인바, 충분한 것을 뜻한다.

출16:18-‘그들은 오멜로 측량했다’=선을 받음으로부터의 힘. ‘오멜’=충분하다 싶은 만큼, 고로 또한 힘(power).

출16:22-‘하나(한 사람)를 위해 두 오멜’=그다음 있게 되는 힘.

출16:32-‘그것을 가지고 오멜을 채우는 것’=능력의 가장 높은 수준.

출16:36-‘오멜은 에바의 십분의 일이다’=그런다음 있

는 선의 양(quantity)

오목 (ebony)

* 흑단을 보라.

오븐 (oven)

출8:3-‘너희 오븐들 안으로’=탐욕들의 즐거움. ‘오븐들’, 빵이 그 안에서 준비되어지기 때문에,=외면의 선들. (고로) 즐거움들...이것들이 좋은 의미에서 ‘오븐들’에 의해 의미되어지나, 나쁜 의미에서 탐욕들로부터의 즐거움이 의미된다. 즉 지옥의 사랑들로부터의 즐거움들, 이런 사랑들은 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들이다.

애5:10-‘오븐 같이 검어지는 것’=거짓들로부터 자기들의 악 안에 있는 것.

호7:7-‘오븐 같이 뜨거워지는 것’=그것을 사랑함으로부터 왜곡된 것을 바라는 것.

이31:9-‘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오븐’이라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의해 교리로부터의 진리가 있는 교회가 의미되기 때문...그리고 교리의 진리는 빵이 준비되어지는 오븐(불가마, fire-hearth) 같기 때문.

말4:1-‘오븐’에 의해 거짓들 안에서 자신들을 확증하고, 지상적이고 육체적인 사랑들로부터 악들 안에서 생활한 이들이 있는 지옥이 뜻해진다.

호7:4,6,7-그들의 사랑들로부터 그들은 선들과 진리들을 타락되게 했다는 것이 ‘그들은 제빵자에 의해 달구워진 오븐 같이 모두 간음자들이다’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이렇게 뜻해진 이유는 그들은 자기들 사랑들을 옹호해주는 거짓들로 마치 빵반죽 덩어리 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고로 거짓들이 호의를 보이는 이런 사랑들의 악들 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제빵자가 온 밤을 자고, 아침에 불의 불꽃 같이 지핀다. 그들 모두 오븐 같이 뜨겁다. 그들이 오븐이나 제빵자에 비교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거짓들로부터의 교리로 굳어져 있기 때문, 마치 제빵자가 오븐에서 빵과 과자를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

예5:10-‘우리의 피부들이 오븐 같이 검어진다’=자연적 인간은 진리의 빛 바깥쪽에 있다는 것, 고로 거짓의 어둠에 있다는 것. ‘오븐’=진리들이 아닌 거짓들로부터 교리를 만드는 것.

오빌-오소리-오십-오십째

이31:9-‘오븐’에 의해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된다. 고로 교리 속의 진리.

오빌 (Ophir)

창10:29-‘오빌’, 육단의 아들=의식(예식).

* ‘오빌로부터의 금’=영적인 선.

시45:9-‘오빌의 최상의 금에서’=사랑의 선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 (=신성한 선.)

오소리 (badger)

민4:6,8,10,11,12-‘오소리 가죽’=영적인 선과 자연적인 선. (순진으로부터 있는 천적인 선은 포함 안됨)

출25:5-‘붉은 숫양 들의 가죽, 그리고 오소리들의 가죽’=그들이 보전되어지는 수단인 바깥쪽의 진리들과 선들. ‘가죽들’=바깥쪽의 것들...‘오소리들’=선들. ‘오소리’가 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런 사실로부터 분명하다, 즉 말씀에서 진리가 말해지는 곳은 어디에서이든 선 역시 말해진다는 것...이로부터 ‘숫양들의 가죽’=선으로부터 있는 바깥쪽의 진리들, ‘오소리들의 가죽’=선들 자체.

출26:14-‘그리고 위쪽을 오소리들의 가죽으로 덮을 것이다’=바깥쪽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 순회(에워쌌, circuit).

민4:8-‘두 번 물들인 주홍색’=천적 선으로부터의 진리 이기에, 두 번 물들인 주홍색 천이 얼굴들의 빵이 있었던 테이블을 덮었다. 그리고 그다음 오소리의 가죽의 덮개로 덮어졌었던 것이다, 그이유가 천적 선의 가장 깊은 것들이 테이블 위에 있었던 것들에 의해 의미되었기 때문...그리고 그것들을 덮은 수단인 외면의 것들, 이것들은 선으로부터의 진리와 연관된다.

겔16:10-‘수놓은 옷을 입는 것, 오소리(의 가죽 신을) 신는 것’=글자 의미, 또는 말씀의 최말단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에서 가르쳐지는 것.

오십 (fifty)

오십째 (fiftieth)

창18:23-26-진리들을 지니고 있고, 선들이 가득한 이들이 ‘50’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만일 성 한가운데에 의인 오십이 있다면’=진리들이 선들로 가득차 있을 것이다. ‘50’=가득한 것.

레23:15, 25:8,10, 민4:23,35,39,43,47, 8:24,25, 신

22:28,29, 삼하24:24, 15:1, 왕상1:5, 눅16:5,6, 학 2:16-‘50’=가득 찬 것인 이유, 이것은 7에 7을 곱하여 나오는 49 뒤를 이어 49를 완성하기 때문...그리고 일곱 안식일의 축제는 50일 제에 있었다, 그리고 희년(안식년)이 50년제에 있었다, 이로부터 분명한바, 안식일에 관련되는 ‘50’=충분한 것. 더구나 숫자 ‘50’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곳은 어디이든 가득 찬 것, 충분한 것을 의미한다. 오십 세까지 계수된 레위인들=성막 섬김의 직무로부터 해제되는 충분한 나이, 또는 상태...‘은 오십’=충분한 벌금, 충분한 배상...‘은 오십 세겔’=충분한 가격, 충분한 매입...‘자기에 앞서 달리는 오십 명의 남자’=충분히 빼어남, 그리고 위대함...‘오십을 적으라’=충분한 차용증서...‘그가 포도즙틀로부터 오십을 끌어내려...왔는데, 이십이었다’=충분한 것 대신 많지 않았다.

출18:21-‘오십 부장’=제일가는 중간물, 중개자. ‘50’=중간의 것들, 즉 둘째 수준에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세째 수준에 있는 것들 사이에 ...오십=중간의 것들인 이유는 ‘50’은 많은 것과 얼마만큼 양쪽을 의미하기 때문...숫자 ‘50’이 100과 10 사이에서 언급될 경우 중간의 것을 의미하게 된다.

신22:29-신부를 위한 남자의 지참금은 소녀의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은 오십이었다, 고로 진리들이 충분한 결합을 개시함.

레23:15,16, 신16:9-‘일곱 안식일이 축제로 계수되었다. 그 결과 50번째 날에 거행되었다’=첫 새로운 상태까지 조차에서도 선 안에 진리의 이식은 충분했다

출26:5-오십 고리들을 너는 한 커튼에 만들 것이다’=영역의 최말단에서의 충분한 결합. ‘50’=충분한 것.

출26:6-‘너는 금으로 오십 개의 작은 손잡이들을 만들 것이다’=선으로부터 결합하는 용량이 충분함. ‘50’=충분한 것.

출27:12-‘오십 큐빗의 벽결이’=사용을 위해 충분히 많은 진리...‘50’=한쪽 부분의 모든 것들, 또한 충족시킬 만큼 많은 것. 50은 5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출27:18-‘넙이는 오십에 오십’=충족시킬 만큼의 진리.

눅7:41-47-‘500’=많음; 그리고 500의 십분의 일, 즉 50=상대적으로 얼마 만큼

오이 (cucumber)

올라가다

민11:5-'오이' 등등=가장 낮은 자연 평면 속의 것들, 즉 감각적 육체적인 것들.

오홀라 (Ahola)

겔23:5-'오홀라'=악용된 영적 교회. 이것이 사마리아이다.

겔23:5-'오홀라' 또는 사마리아=진리가 거짓화되어 버린 교회.

겔23:2-4-'오홀라와 오홀리바', 또는 '천막과 하나님의 거주지'=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이 있는 천국과 교회.

겔 23:2-33-사마리아이라는 '오홀라'=영적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이다는 '오홀리바'=천적 교회.

오홀리바(Aholibah)

겔 23:2-'악용된 천적 교회

오홀리압(Aholiab)

출31:6-'오홀리압'=신앙으로부터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올라가다 (go up, ascend)

창13:1-'아브람은 이집트로부터 올라갔다'=과학적인 것들로부터...'올라감'은 과학적인 것, 즉 보다 낮은 것으로부터 천국의 것, 즉 보다 높은 것으로 나아감을 서술한다.

창17:22-'하느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올라가셨다'=주님께서 (신성화하심의) 이전 상태 안으로 들어가심.

창24:16-'(리브가는) 올라갔다'=승강.

욥2:9-'집으로 올라가는 것'=의지 속에 있는 선들을 파괴하는 것.

창26:23-'이삭은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신성으로부터의 교리는 그때로부터 신성이었다.

창28:12-'보라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고 내려가고 있었다'=무한하고 영원한 친밀한 교제 그리고 거기로부터 결합이 파생됨. 가장 낮은 것으로부터 말하자면 승강이 있고, 그리고 후에 질서가 역으로 있을 때, 하강이 있다는 것이 '천사들'의 의미가 주님의 신성으로부터의 어떤 것임이다로부터 분명해진다.

창29:35-'(레아는) 아이를 낳는 것으로부터 잠자코 있었다(현상을 유지했다)'=땅으로부터 여호와, 또는 주님에게까지 조차 사다리를 수단으로 오름

이40:31-'그들은 독수리들 같이 힘센 날개로 오를 것

이다'=진리를 이해함 측면에서, 고로 합리성 측면에서 성장하는 것.

창32:26-(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나로 가게 하라, 새벽이 올라오기 때문이다'=결합이 아주 가까웠을 때, 시험은 중지되었다는 것.

창35:1-'일어나라, 벤엘로 올라가라'=신성한 자연적 평면에 관하여 지각하심. '일어나라'는 승강을 포함한다...'올라가는 것'=더욱 내면의 것들을 향하여..

창35:1-'올라감'=내면의 것들을 향하여인 이유는 내면의 것들은 더 높다라고 부르기 때문. 그러므로 내면의 것들을 향한 승진함이 내향의 의미에서 취급되어질 때, '올라감'이 말해진다. 마치 이집트로부터 가나안의 토지로 올라감 같다. 그리고 가나안 토지 자체에서 올라감이 말해질 경우 이는 한층 더 내면의 부분들에 관련된 다.

창35:13-'하느님께서 야곱과 이야기하셨던 장소에서 (야곱) 위로부터 올라가셨다'=이 상태 안에 있는 신성...그이유가 '올라감'은 내면의 것들 쪽으로 상승함을 포함하기 때문,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 관련해 서술 되어질 때...신성 쪽으로 승강하심.

창38:1-'내려감'은 악 쪽으로 내던짐, '올라감'은 선 쪽으로 승강함을 포함하고 있다.

창38:12-'(유다는) 그의 양떼의 털을 깎으려고 올라갔다'=승강의 어떤 것, 교회를 위해 상담하기 위해서, '올라감'=승강되어지는 것. 즉 외면의 것으로부터 내면의 것으로.

창41:3-'보라 일곱 야윈 암소가 그들 뒤를 따라 강으로부터 올라왔다'=자연 속에, 또는 경계선에 있는 것들...그들이 경계선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강으로부터 올라왔다라고 말해짐에서 명백하다. 그이유가 '올라옴'은 내면의 것을 향하여 외면의 것들로부터 전진을 내포하기 때문.

창42:2-말씀의 다양한 장소에서 '올라감'과 '내려감'이 언급되어진다. 마치 이 장소로부터 저 장소로 와 같다. 그러나 이 장소가 저 장소 보다 위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올라감'은 더 내면, 또는 더 높은 것 쪽으로 감을 함축하고, '내려감'은 더 외면, 또는 더 낮은 것 쪽으로 감을 함축하고 있다. 즉 '올라감'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

올라가다

들을 향하여 감, 그 이유가 이것들이 내면이고, 더 높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 그리고 '내려감'은 자연적, 지상의 것들을 향하여 감을 함축하는데, 그이유는 이것들이 외면이고 외견상 역시 더 낮기 때문.

창44:24-'우리가 당신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올라갔을 때'=영적 선 쪽으로 승강함.

창45:25-'(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로부터 올라갔다'=교회 속의 과학적인 것들로부터 떠남. '거기로부터 올라감'=떠나는 것...여기서는 '올라감'에 의해 가벼움이 의 미되어진다.

창46:4-'나는 네가 꼭 올라오게 만들 것이다'=나중에 승강함. '올라감'=승강함.

창49:4-'너는 네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갔기 때문이다'='선행의 선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운 결합을 가진다.

창50:7-'그와 더불어 바로의 모든 종들도 올라갔다'=그것은 자연 속의 과학적인 것 자체에 결합되었다는 것. '그와 더불어 올라가는 것'=그 자신에게 인접되게 하는 것...

출1:10-'그들이 토지로 올라가지 (양도록)'=그렇게 교회는 건설될 것이라는 것. '올라감'=승강되어짐. 즉 교회 속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향하여.

출3:8-'그들을 그 토지로부터 올라가게 만드는 것'=그들은 승강되어지리라는 것. 즉 그들이 거짓들의 침투를 당한 상태와 장소로부터. '올라가게 만드는 것'=승강되어지는 것.

출3:17-'그리고 나는 말한다, 나는 이집트의 고쳐로부터 너를 올라가게 만들 것이다'=거짓된 과학적인 것의 침입으로부터 해방되고 승강함.

출10:12-'그것은 이집트의 토지 위에 올라올 것이다'=거기 모든 것들 안으로 유출함. '올라오는 것'=유출되어지는 것. 그이유가 '메뚜기'=극단에 있는 거짓된 것, 그리고 그것이 극단으로부터 내면들을 향하여 감이 '올라감'이다.

출12:38-'(혼합된 다수(군중)이)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인접되어졌다는 것. '그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 이것이 선들과 진리들에 관련해 말해질 때,=그들은 인접되어졌다는 것.

출16:13-'축적된 이슬이 올라갔다'=진리가 은근히 심어짐. '올라가는 것', 여기서의 경우=사라지는 것, 고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출19:3-'모세는 하느님에게로 올라갔다'=천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와 그 자체 결합하는 천국 아래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올라가는 것'=그 자체 결합하는 것, 그이유는 신성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그것에 자신을 결합하기 때문. 마치 '천국으로 올라감'이라 언급될 경우, 주님과 결합됨을 뜻하는 것과 같다...

출19:12-'산으로 올라오는 네 자신을 경계하라'=선을 사랑함에 있는 천국의 사회들 쪽으로의 확장은 전연 없다. '올라가는 것'=더 높은 천국에 있는 신성 쪽으로.

출19:23-'백성은 시내산에 올라올 수 없다'=그들은 천적 왕국 쪽으로 자신들을 승강되게 할 수 없다...'올라가는 것'=승강하는 것.

출19:24-'너와 아론은 올라오라'=내향, 외향에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결합함. '올라오는 것', 즉 여호와께로=결합.

출20:23-'너는 나의 제단에 계단을 수단으로 해서 올라오지 말 것이다'=내면의 것들, 이는 천적인 것들인바, 내면의 것들 쪽으로의 승강은 없다.

출24:18-'그는 산으로 올라갔다'=천국으로 승강함. '올라가는 것'=내면의 것들을 향하여 승강함.

출30:8-'저녁들 사이에 등불이 올라가도록 만듦에서, 아론은 그것을 향피울 것이다'=사랑의 희미한 상태에서조차, 진리 역시 그것의 그늘에 있을 때조차 승강함. '등불을 올라가게 만듦', 또는 등에 불을 붙임=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계발되는 것. 그리고 거기로부터 총명과 지혜가 파생되는 것.

출30:8-'올라가는 것을 만드는 것'=가능한한 많이 불어나게, 승강하게 하는 것.

출32:1-'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이집트로부터 올라오게 만드는 것'=교회를 만들기 위해 자연적, 또는 바깥쪽 인간으로부터 영적, 또는 안쪽 인간으로 승강함.

출32:30-'그리고 지금 나는 여호와께로 올라갈 것이다'='내면의 것들이 주님께로 승강함. '올라가는 것'=내면의 것들을 향하여 승강.

출33:1-'가라, 너 그리고 네가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올

올리브

라오게 만든 백성은 토지로 올라가라'=**이 국가는 교회를 표현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들과 더불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것은 바깥쪽 것들로부터 승강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로 올라가는 것'=교회를 조직하는 것...그러나 여기서, 오직 교회를 표현할 뿐이다...그러므로 말해지는바, '가라, 여기로부터 올라가라..네가 올라오게 만든 백성', 고로 이 백성을 올라오게 만든 것은 모세이지 여호와와는 아니다. 그리고 이 뒤를 잇는 구절에서 '나는 네 한가운데에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이를 수단으로 신성은 그들과 더불어 있지 않는다는 의미해놓고 있다.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올라오게 만드는 것'=바깥쪽 것들로부터 내향의 것들 쪽으로 승강되어지는 것. 그러나 여기서의 경우, 승강되어짐이 아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그들을 올라오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져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

출34:24-'한 해에 세 번 네 하나님의 얼굴을 뵈기 위해 올라감에서'=신앙으로부터의 진리에 주님의 현존이 있을 때.

요6:62, 3:13-주님이 신성과 인간이 하나로 결합됨과 함께 천국으로 승강하셨는바...이에 뒤따르는 사상은 그분의 신성한 실체, 또는 본체는 그분의 신성한 하나로 서이디는 것...아버지가 아들과 더불어 이 결합이 '만일 그러므로 네가 사람의 아들이 그분이 전에 계셨던 곳으로 승강하는 것을 본다면'에서 의미되어져 있다. '천국으로부터 내려오신 그분 외에는 천국으로 승강된 자 없다'에서도 의미되고 있다. 구원되는 모든 자는 천국 안으로 승강된다. 이는 자신으로부터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이다. 주님 만이 스스로 승강하실 수 있다.

계4:1-'이리로 올라오라'=마음의 승강. 그 이유가 영계에서, 누군가가 더 높게 승강한다는 것은 그가 더 순수한 빛 안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 이를 수단으로 이해함은 등차적으로 열려진다. 즉 마음이 승강되어지는 것.

계11:12-'그들은 구름에서 천국으로 승강했다'=천국 안으로 들어올림.

계20:9-'그들은 땅의 폭에서 올라갔다..'=용의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휘저어짐. 그들이 교회의 모든 진리를 퇴짜놓았다...그 이유가 '...에서 올라감'=기어올라 통과하는 것, 고로 퇴짜놓는 것.

계7:2-'나는 태양의 떠오름으로부터 승강하는 또다른 천사를 보았다'=신성한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감...'거기로부터 승강하는 것'=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진행되는 것.

계11:12-'여기로 올라오라'=분리함, 그리고 거기로부터 보호함.

계14:11-'괴롭힘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온다'=밀도 깊은 거짓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다...그리고 그들의 사랑들로부터 계속 흘러나간다...'올라온다'=에워싸고 앞으로 흐른다.

올리브 (olive)

창8:11-'올리브 잎'=조금 있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올리브'=선행으로부터의 선.

속4장-'두 올리브들'=천적 왕국과 영적 왕국; 고로 천적 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사랑, 그리고 영적 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선행. 이것들은 주님의 오른 손과 왼손에 있다.

* '올리브 기름'=영적 선.

미6:15-'올리브를 밟으나 기름을 바르지 못한다'=생활의 선에 관해 가르침을 받지만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는 것.

출30:24-'올리브'=천적인 사랑.

속4:12-'올리브 열매들'=천적 왕국에 있는 거룩한 선들. 그들의 진리들이 '올리브의 아들들'에 의해 의미된다.

계11:4-'이들은 두 올리브들이고, 두 등잔대들이다...'=사랑과 총명, 또는 선행과 신앙...

* '올리브'=사랑과 선행인 이유는 '올리브-나무'=천적 교회. 그러므로 이 교회의 열매인 '올리브'=천적 사랑, 이는 주님을 사랑함이다.

* 말씀에서 진리로부터의 열매들이 포도에 의해, 선으로부터의 열매들이 '올리브'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호14:6-'올리브의 영예'=천적 선.

* '올리브', 이로부터 기름이 나오느바, 행동 안에 있는 사랑의 선과 상응된다.

합3:17-'올리브에 대한 노동이 거짓말하다(소출이 없다)'=천적 선이 없는 것.

시128:3-이런 영적 애착들로부터 태어나는 것들이 '올

올리브 나무

리브 묘목(plant)들에 비교되어지고 있다. 그이유는 진리들을 통하여 '올리브들'인 사랑과 선행으로부터의 선들이 생산되어지기 때문.

창8장-'잎'에 의해 진리가, '올리브'에 의해 진리로부터 태어난 선이 의미된다.

올리브 나무 (olive-tree)

* 올리브나무들의 숲은 예배 속의 천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 (고대 교회에서는) 올리브나무,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기름은 천적인 사랑 속에 있는 것들을 의미했다.

* 천적 왕국, 이는 주님의 가장 깊은 천국인데, '올리브-나무', 또는 '올리브-숲'이라 불리운다. 그이유는 '기름, oil'=천적 사랑의 선이기 때문.

속4장-'등잔대 근처 두 올리브-나무'=천적 선과 영적 선, 이것은 주님의 오른손과 왼손에 있다.

사9장-(왕을 세우는 나무들의 비유에서) '올리브-나무'=천적 교회로부터의 내적 선.

왕상6:23-33-'올리브-나무'=주님으로부터 있는 사랑의 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선인바, 거룩들은 올리브 목재로 만들어졌고, 밀실의 문 또한 이 나무로 만들었다.

계11:4-'두 올리브-나무들과 두 등잔대들'=주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의 선과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부터의 선...

* '올리브-나무'=천적 사랑으로부터의 지각과 애착.

속4장-'올리브-나무'=사랑의 선 측면에서의 교회.

* '올리브-나무=교회의 천적 평면인바, 거룩들, 문들, 문설주들이 이 목재로 만들어졌다.

이24:13-'올리브-나무'=교회의 선.

시128:3-'올리브 묘목 같다'고 말해진다. '묘목들, plants'=진리들, 그리고 '올리브들'=선들.

* 일반적 측면에서, (천국들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올리브-나무=사랑의 선 속에 있는 천적인 것. 포도나무=이 선으로부터 진리 속에 있는 영적인 것. 그리고 무화과-나무=영적인 것, 또는 천적인 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자연적인 것...그러므로 이런 나무들=이런 것들을 지닌 천사 또는 인간. 그러나 일반적 의미에서, 이 나무들=교회. '올리브-나무'=천적 교회. '포도나무'=영

적 교회. 그리고 '무화과-나무'=자연적 교회, 이 자연적 교회는 내적인 것과 상응하는 외적 교회이다.

암4:9-'올리브-나무들'=천적인 선들과 진리들.

학2:19-'올리브-나무'에 의해 천적인 선과 진리를 지각함이 의미되어진다.

이17:6-비교함이 '올리브-나무를 혼듬'으로 만들어진 다. 그이유는 '올리브-나무'가 사랑의 선 측면에서의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열매있는 올리브-나무'=생활 측면에서 선 안에 있는 교인들.

계11장-'이들은 두 올리브-나무들이고, 두 등잔대이다'=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과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교리 속의 진리와 신앙 속의 진리, 이로부터 천국과 교회가 있다. (그이유가) '올리브-숲', '올리브-나무', 그리고 폭넓은 의미에서 '올리브'=주님의 천적 왕국, 그리고 거기로부터 있는 천적 교회. 이 교회는 이 안에 있는 여타 교회와 구별되어진다. 이 교회로부터 있는 이들은 주님을 사랑함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 있다.

속4장-'두 올리브-나무들', 그리고 '올리브 열매들 (berries)'에 의해 천적 선들이 의미되어진다. 이 선은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들과 형제나 동료들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들이다. 후자의 선은 대접의 왼손 근처에서 보여지는 올리브-나무에 의해, 전자의 선은 그것의 오른손에 보여지는 올리브-나무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은 땅의 주님 근처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의 아들들'에 의해 뜻해진다.

시52:8-'하느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이'라고 말해지는데, 그이유는 '푸른 올리브-나무에 의해 말씀 속의 진리를 통하여 태어나는 사랑의 선이 의미되기 때문.

예11:16-'상태 좋은 열매를 가진 아름다운 푸른 올리브-나무'로서 이 구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집(가문)이 불리운다. 그이유는 '올리브-나무'와 '그것의 열매'에 의해 사랑의 선이 의미되고, '푸른'과 '아름다운'에 의해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된다. 이 진리로부터 총명이 있다.

이24:13-'올리브-나무를 벗김'=천적 선 측면에서의 교회의 황폐함.

올리브 숲-올리브 목재-올바른-올빼미-옴기다

신28:40-‘너는 너희 모든 경계선 안에서 올리브-나무들을 가질 것이다’=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있는 설교들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의 선들이 교회에 보편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기름을 바르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아직 어떤 선의 결실도, 파생되는 환희도 없다. ‘그이유는 올리브-나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 선은 멀해질 것이다.

암4:9-‘올리브-나무들’=교회로부터의 선들.

사9장-요담의 이런 말들은 세겜의 시민들은 ‘올리브-나무’인 천적 선이 자기들을 지배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의미하고 있다.

속4장-‘두 올리브-나무들’=두 교회들, 즉 천적 교회와 영적 교회.

올리브 산 (Mount of olive)

눅21:37, 22:39, 속14:4-주님께서 자주 올리브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름과 올리브, 그리고 산 또한 사랑의 선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은 천국의 표현물이었다. 이런 표현물을 수단으로 보편적인 천국은 그분에게 인접되어졌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분이 하신 것은 무엇이든 신성이고 천국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최말단의 것들이 이를 표현했다. 올리브산은 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 측면에서의 천국을 표현했다. 이는 스가랴 14:4로부터서도 분명해진다. 즉 ‘여호와께서 나가시어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그분의 발은 예루살렘의 얼굴 앞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올리브산은 쪼개져서, 큰 골짜기가 있어지고 그것의 한쪽은 동쪽을 향하여, 바다(서쪽)를 향하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의 일부가 북쪽을 향하여, 그것의 일부는 남쪽을 향하여 물러날 것이다.’ 이것은 주님과 그분의 갈림을 취급하고 있다. ‘올리브산’에 의해 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이 의미되어진다. 고로 교회...교회가 유대나라로부터 물러나리라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회복되리라는 것이 산이 쪼개져 동쪽과 서쪽을 향하여,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있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보편적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나가시어 나라들과 싸우심,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의 얼굴 앞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서 계심에 의해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옥에

맞서 싸우실 것이 뜻해진다. 그이유가 그분의 발이 서 있는 ‘올리브산’이 신성한 사랑이기 때문.

속14:4-올리브산이 신성한 천적 선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 구절로부터 분명해진다. 그분의 발이 서있는 ‘올리브산’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이다. 그이유가 이로부터 그분은 싸우시고 정복하셨다. 산이 쪼개지고 동과 서로 나뉘고 큰 골짜기를 가짐=천국과 지옥이 분리됨. 그리고 북과 남으로 물러남도 마찬가지이다.

눅21:37, 22:39, 요8:1, 마24:3, 막13:3, 마21:1, 26:30, 막11:1,14:26, 눅19:29,37 등등-예루살렘 가까이 올리브산이 있었다. 이를 수단으로 신성한 사랑이 의미되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낮동안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밖으로 나가시어 올리브산에 머무르셨다. 그리고 이 산 위에서 예수께서는 시대의 종말에 관하여, 그 종말의 때에 그분이 강림하심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셨다. 그리고 또한 이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가셨고 고통받으셨다. 이는 속14장에서 예언된 것에 따라서이다.

속14장-이 장에서는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이 집행하셨던 마지막 심판에 관하여 말해지고 있다. ‘그분의 발이 동쪽 예루살렘의 얼굴 앞 올리브산 위에 서 있을 것이다’에 의해 마지막 심판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그분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들을 수단으로 집행되어진다. 그이유가 ‘올리브산’, 주님께 관해 서술할 때,=신성한 사랑이기 때문. ‘예루살렘’=진리들 측면에서의 교회...‘산이 쪼개질 것이다’에 의해 악안에 있는 이들로부터 선 안에 있는 이들을 분리하심이 의미된다.

겔11:23-‘성의 동쪽에 있는 산’은 올리브산이었다. 이는 주님의 신성한 사랑.

올리브 숲 (olivegrove)

* 올리브-나무도 참조.

암4:9-‘올리브숲들’=(영적 교회 속의) 천적인 것들.

* ‘올리브숲’, 그리고 ‘올리브-나무’=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는 천적인 것...

신6:11-‘포도원들과 올리브숲들’에 의해 진리들과 선들 측면에서의 교회 속의 모든 것들.

올리브-목재 (olive-wood)

올리브 숲-올리브 목재-올바른-올빼미-옮기다

왕상6:31,33-‘올리브-목재(기름의 나무)’=진리로부터의 선, 또는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선.

이41:19-‘나는 사막 안에 기름의 나무를 줄 것이다’=천적 선.

왕상6장-거룩들을 만든 ‘올리브-목재’에 의해 사랑의 선이 의미되어진다.

올바른 (just)

* 정의(justice)를 보라.

올빼미 (owl)

이34:11-심각하고 극단적인 거짓들이 말씀에서 ‘올빼미와 까마귀’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 안에 살 것이다.’ 영적으로 볼 때 거짓들 밖에 더 있는 것은 없는 유대 교회를 취급하고 있다. 이것이 ‘올빼미와 까마귀’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이34장-‘가마우지’, ‘알락해오라기’, ‘올빼미’, 그리고 ‘까마귀’=말씀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이 아무 소용도 닿지 못하게 만들어질 때 출시되는 갖가지 부류의 거짓들.

예50:39-‘들짐승(zim, ijim)과 올빼미의 딸들이 거기 거주할 것이다’=악들과 거짓들, 고로 내부는 죽음 속에 있는 것들.

이43:20-‘올빼미의 딸들’에 의해 기억 만으로부터 진리들과 선들을 알뿐, 그것들을 이해하고 지각하지 않는 이들.

이34장-육체적이고 자연적일 뿐인 욕망으로 갖가지 종류의 악들과 거짓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올빼미’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13장-‘올빼미의 딸들’에 의해 (영적) 거짓들이 의미되어진다.

이43장-‘올빼미의 딸들’에 의해 감각적 애착들이 의미되어진다. 그이유가 감각들은 진리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인데, 그것들이 어둠에서 진리들을 보는데 마치 올빼미가 밤에 보는 것 같다.

이34:13-모든 선과 진리의 황폐함이 ‘용들의 거처’, 그리고 ‘올빼미의 딸들의 뜰’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올빼미들’=진리들을 위해 거짓들을 보는 이들. 그리고 ‘그것들의 딸들’=거짓화한 진리들로부터의 욕망.

미1:8-폐쇄된 진리에 애곡함이 ‘올빼미의 딸들 같이 슬

픘를 만드는 것’에서 의미되고 있다.미1장-‘슬픔’이 거짓에 연관되고 있는바, 말해진다. ‘나는 올빼미의 딸들처럼 슬픔을 만들 것이다.’ ‘올빼미의 딸들’=거짓들과 이 거짓으로부터 즐거워 하는 이들. ‘올빼미들’=거짓들. 그이유는 이것들은 빛이 아니 어둠에서 보기 때문.

옮기다 (remove)

제거하다(remove)

시104:5-‘땅은 영원히 옮기우지 아니할 것이다’=교회. ‘땅이 세워진 기초’는 최말단들에 있는 진리들이다. 이로부터 그것은 ‘영원히 옮기우지 않을 것이다’고 말해진다.

출33:11-‘여호수아는 천막 한가운데로부터 자신을 옮기지 아니하였다’=(교회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그동안 중단하지 않음.

미1:16-‘그들이 너로부터 떠났다.’ 그들이 떠남=박탈함.

겔12:3-‘장소로부터 이동하는 것’은 (교리 속의 진리들을) 거절하는 것을 표현했다. ‘이동을 위한 용기들’=교리 속의 진리들.

창30:32-‘옮기는 것’=분리하는 것.

창35:2-‘제거하는 것’=거절하는 것

창48:17-‘옮기는 것’=외면하는 것.

창49:10-‘홀이 유다로부터 옮기우지 않을 것이다’=주권(Power)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출8:8-‘(개구리들을) 제거하는 것’=강제되어지지 않는 것.

출23:5-‘(이웃의 나귀로부터 짐을) 옮김을 중지하는 것’=수정함으로 거짓을 제거 않는 것. 고로 진리를 받아 수정되지 않는 것.

출23:25-‘나는 너희 한가운데로부터 질병을 제거할 것이다’=거짓화됨으로부터 보호함.

출25:15-‘장대는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바깥 없이 영원히 존재함.

옷을 입히다 (clothe, clothing)

삼하1:24-‘진홍색으로 옷을 입는 것’=상호적인 사랑의 선 속에 있는 진리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 고로 천적인 근원으로부터 진리들에 관하여.

이30:22-‘덧개’, 그리고 ‘의복’=피어내지게 하는 외적

옷을 입히다-옷을 주다-옷자락-완전무결-완전한-완화되지 않은-왕-왕권

나타남, 또는 그들이 입은 외적 나타남.

계19:8-‘차려입는 것’=진리들로 가르침을 받는 것.

계18:16-이런 것들로 ‘옷입혀지는 것’=외용물 안에서 나타남.

옷을 주다 (clothe)

* 입다(put on)를 보라.

옷자락 (shirt)

* 술 fringe)을 보라.

완전 무결 (integrity)

* 성실(integrity)을 보라.

완전한 (perfect)

요17:23, 마5:48-고로 주님이 그들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완전하다.’ 이들은 천국들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듯 ‘완전한’ 자라 불리는 그들이다.

완화되지 않는 (untempered)

겔13:14-‘완화되지 않은 것 가지고 회칠한 (담)벽’=진리 처럼 나타나게 가공한 것.

겔13:10-‘그들은 완화되지 않은 것 가지고 그것을 회칠했다’=그들은 거짓들을 고안해내고, 그것들을 진리 인양 만든다.

겔13:10,11-‘그들이 담벽을 지을 때, 그들은 완화되지 않은 것 가지고 회칠한다. 그들에게 말하라.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그것을 회칠한 담벽을 허물 것이다.’=말씀을 글자 의미 측면에서 적용하여 원리인양 진리로서 둔 갑한 거짓. ‘완화되지 않은 것’=왜곡되어진 것.

왕 (king)

왕의 (royal)

국왕의 (regal)

왕권 (royalty)

시72:1-주님이 ‘왕’이라 불리우신다. 그리고 천적 인간 =‘왕의 아들’

창17:16-‘백성들의 왕들’=신앙 속의 천적인 것들에서 파생된 영적인 것, 이것은 주님만에 속한 것이다.

출19:6-주님의 ‘왕국’은 그분의 왕권으로부터 사랑의 영적인 것이라 단언되어진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운다.

창35:11-‘허리들로부터 있는 왕들’=영적인 것들.

창14:1,2-외견상 선들과 진리들이 1절에서 명명된 왕들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맞서 싸우는 악들과 거짓들이 2절에서 명명된 왕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14:17-‘왕의 계곡’=외적 인간의 진리들.

창17:6-‘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모든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있다는 것. ‘왕’=진리.

이9:16-‘왕들의 가슴을 빼는 것’=진리들로 훈육되는 것.

삼상8:11-18, 신17:14-18-왕들이 진리들을 표현하기에, 왕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왕(진리)들은 정죄하기 때문, 그러므로 백성들이 왕을 가지고 싶어함은 그 바램에 대한 책임은 백성에게 있는바 아주 불유쾌한 요구이다, 그리고 진리 그 자체만으로는 속성이 삼하 8:11-18에서 왕의 권리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왕에 대한 것은 이미 모세에 의해 하달된 사항이 있다. 그들은 가짜가 아닌 진리, 즉 선으로부터 있는 진짜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그 진짜 진리를 추론이나 과학물에 의해 더럽혀지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들이 왕에 관한 법규 (prescription)에 포함되어져 있다.

창17:16-‘백성들의 왕들이 그녀로부터 있을 것이다’=결합한 진리들과 선들로부터의 진리들. 일반적으로 왕들=모든 진리들.

계17장-‘땅의 왕들’=교회의 진리들.

단11:40-‘남쪽의 왕’=선들과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북쪽의 왕’=악들과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

창20장-‘그랄의 왕’=신앙 속의 진리 자체.

삼상8장-‘왕들의 권리’=진리 위에, 그리고 선 위에서 지배를 시작할 때, 진리의 권리, 또는 거짓의 권리

시89:18-‘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신성한 진리는 주님에게로.

단7장-‘왕국들’, 그리고 ‘왕들’=거짓의 교리물들.

애2:9-‘그녀의 왕과 왕자들이 나라들 사이에 있다’=진리들이 악들 안에 침수되었다.

이49:23-‘왕들 네 보모들’=충명.

민31:8-‘그들이 살해한 왕들’=거짓들.

이24:21-‘지면의 왕들’=거짓들.

겔37:24-‘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일 것이다’...‘왕’= 신성한 진리.

시45:13-‘왕의 딸’=진리를 사랑함.

창35:11-‘왕들이 네 허리로부터 나올 것이다’=신성한 결혼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창36:31-‘이들은 에돔의 토지에서 통치한 왕들이다’= 주님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 제일의 진리들.

창39:20-‘왕의 죄수들을 가둔 곳’=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이 있는 상태.

이19:11-진리들 자체가 ‘왕들’에 의해, 그리고 고대 교회의 진리들이 ‘고대의 왕들’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이10:8-추론을 수단으로 최고의 진리인듯 하게 나타나는 거짓들이 ‘그는 말하기를, 나의 왕자들이 왕이 아니냐?’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마25:31,34-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왕’이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왕권이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 이 진리로부터, 이 진리에 의거 심판이 결과되어진다...

예17:25-‘이 성의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왕들’은 왕들이 아닌 교회의 진리들이다.

이33:2-‘여호와와 우리의 왕이시다’...‘왕’=그분은 진리로부터 행하신다는 것.

창49:20-‘그는 왕의 기쁨을 줄 것이다’=진리로부터 유쾌한 것.

이23:15-‘한 왕의 수명에 따라서’=교회 내의 진리의 상태.

출1:8-‘이집트를 통치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교회의 진리에 맞서 있는 분리된 과학물들.

출6:11-단지 거짓들만이 (뜻해지기에), ‘이집트의 왕 바로’라 말해진다.

계16:14-‘땅의 왕들’=교회 속의 진리들.

시105:30-‘그들의 왕들의 침실들’=내면의 진리들, 반대 의미에서는 내면의 거짓들.

신28:36-거짓들이 의미되는바, 즉각 뒤따르는 말은 ‘그들이 내세운 왕이 끌려가질 것’이라 말해진다. ‘왕’에 의해 진리가, 반대 의미로는 거짓이 의미된다.

여10장-‘기브온에 맞서 싸운 다섯 왕들, 그리고 그들의 백성에 의해 악들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이 표현

되어졌다.

계9:11-‘무저갱의 왕’=지옥의 거짓.

요19:3-‘환영한다, 유대인의 왕이여’=신성으로부터의 진리.

마11:8-‘왕들의 집’=천사들이 있는 거주지. 보편적 의미에서 천국. 그이유가 ‘집, house’은 선으로 언급되어지고, ‘왕들’은 진리로부터 언급되어지기 때문. 그러므로 천사들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음으로부터 ‘왕국의 아들들’, ‘왕의 아들들’, 또는 ‘왕들’이라 부리운다.

이60:11-‘왕들’=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계21:24-‘영광을 가져올 땅의 왕들’=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요18:37-‘왕’에 의해 내적 의미에서 신성한 진리가 의미된다...그러므로 그분은 말하셨다, ‘나는 왕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에 증거를 주기 위하여 나는 왕으로 태어나셨다’. 즉 그분 자신이 신성한 진리이다.

시105:5-‘그분은 그분의 노염의 날에 왕들을 쳐부셨다’=그 당시 거짓들의 파멸.

시2:2-‘땅의 왕들’=거짓들. 거짓들은 주님에 맞서 싸우려고 지옥으로부터 있다.

시110편-‘왕들’=악의 거짓들 안에 있는 지옥들에 있는 이들.

계19:19-‘땅의 왕들’은 교리로부터의 거짓들 안에 있는 개혁교(the Reformed)를 뜻한다.

계1:5-‘그분은 땅의 왕들의 제 일 인 자이시다’=그분으로부터 교회 안에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가 있다.

계6:15-‘땅의 왕들...’(천국으로부터) 분리함에 앞서 진리를 이해하였으나 그에 따른 생활은 없어왔던 이들.

계9:11-‘그들은 자기들 위에 왕, 무저갱의 천사를 가졌다’=거기를 통치하는 악으로부터의 거짓.

계10:11-‘너는... 많은 왕들... 위에 다시 예언해야 한다’...‘예언하는 것’=가르치는 것...‘왕들’=이런 것들 안에 내면적으로 있는 이들. 내면적인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이 특별히 취급될 경우, ‘그리고 많은 왕들’이라 말해진다. 이를 수단으로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풍부히 있음이 의미되어진다.

계15:3-‘정의와 진실이 당신의 방법들입니다, 거룩한

왕국-왕관

사람들의 왕이시여' =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정의와 진실이다. 그 이유는 그분은 천국과 교회에서 신성한 선 자체, 신성한 진리 자체 이시기 때문. '왕'이 주님께 관련해 말해질 때, 이는 신성한 진리가 의미된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의 왕'에 의해 천국과 교회에 있는 그분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계16:12- '태양의 떠오름으로부터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새 교회 안으로 입문되어지는 이들.

계16:14-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 = 악으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 여기서는 온 교회에서 똑같은 거짓들 안에 있는 온 교회 속의 사람들.

계17:2- '그들과 더불어 땅의 왕들은 매춘짓을 범하였다' = 말씀으로부터 있는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에 섞음질했다는 것.

계17:9- '일곱 머리들은 일곱 산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일곱 왕들이다' = 말씀 속의 신성한 선들과 신성한 진리들.

계17:12- '열 뿔들은 열 왕들이는데, 이들은 아직 왕국을 받지 못했다' = 프랑스 왕국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신성한 진리들로부터의 권능(power) 측면에서의 말씀...

계17:14- '그분은 주들의 주이시고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 = 그분은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기 때문.

계17:18-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왕국을 가지는 것...' = 교리 측면에서 로마카토릭의 광신적 신앙이 기독교에서 지배하는 것. 그리고 아직 어느 부분에서는 개혁교 역시...

계18:9- '그녀와 매춘짓을 범하고 그녀와 더불어 사치 행각을 벌였던 땅의 왕들은 그녀를 태움으로부터 있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해 통곡할 것이다' = 말씀에 섞음질하고 왜곡함을 수단으로 더 높은 지위와 즐거움을 향유해왔던 이들, 자기들이 이렇게 하여 교회의 거룩한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모독됨으로 변한 것을 볼 때 그들이 갖는 내면의 슬픔들.

계19:16- '왕들의 왕' = 신성한 지혜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계19:18- '왕들의 살을 먹는 것' = 말씀 속의 진리들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들을 자기 것 되게 함.

계19:19- '땅의 왕들' = 나머지 위에서 이 광신적 신앙으로부터 거짓 안에 있는 이들. 고로 지도자들.

계21:19-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영예를 그것 안으로 가져올 것이다' = 영적 선으로부터 지혜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이는 거기서 주님을 고백하고,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진리와 모든 선은 주님 덕분인 바, 그 공적을 그분께 돌릴 것이다.

이7:27- '통곡할 왕' = 교회의 진리.

이45:1- '그분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놓으실 것이다' = 거짓들 측면에서의 지옥들.

이7:16- '왕들' = 천국과 교회의 진리들. '두 왕들' = 내적 의미에서의 말씀 속의 진리, 그리고 외적 의미에서의 말씀 속의 진리.

계5:10- '당신은 우리를 우리의 하느님에게 왕과 성직자로 만드셨다' =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다는 것.

이52:7- '네 하느님이 통치하신다' 에서 주님이 뜻해진 다.

시2:2- '땅의 왕들' = 주님과 싸웠던 지옥들로부터의 거짓들.

시84:3- '나의 왕과 나의 하느님'. 주님이 신성한 진리로부터 그렇게 불리신다.

이24:21- '땅의 왕들' = 갖가지 종류의 거짓들.

시72:10- '스바와 시바의 왕들' = 자연적 인간으로부터의 내면과 외면의 선들.

예25:22- '바다의 통로에 있는 섬의 왕들' = 자연적 인간의 최말단에 있는 진리에 관한 지식들.

단8:23- '얼굴들이 험악한 왕' = 그들의 내면들에 진리가 없고, 거짓이 있음.

슌9:9- '보라 네게로 너희 왕이 오나니, 그분은 정의와 신실하심이다' = 주님, 이 분으로부터 사랑의 선과 교리의 진리가 있다.

예25:14- '큰 왕들' = 악들로부터 있는 거짓들.

이7장- '두 왕들,' 이는 이집트의 왕과 아시리아의 왕이다 = 악독한 쪽으로 응용된 과학물들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추론들.

계10:11- '많은 왕들' = 선으로부터 있는 다양한 진리들, 그러나 각 인물의 종교에 따라서이다.

왕관

시2편-‘땅의 왕들’=교회의 거짓들.

애4:12-‘땅의 왕들’=진리들 안에 있는 교인들.

계18:9-‘땅의 왕들’=이 (바빌로니아의) 권능을 행사한 이들.

왕국 (kingdom)

* 말씀에서 ‘왕국들’=진리들, 그리고 (신성한) 진리들 속에 있는 것들.

마24:7-‘왕국이 왕국에 맞서...’=거짓들이 거짓들에 맞서...

창 20:9-‘너는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다’=교리적인 모든 것들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왕국’=교리로부터의 진리, 또는 교리물인 것.

단7장-‘왕국들’-거짓으로부터의 교리물.

이13:4-‘나라들의 왕국들’=악들로부터의 거짓들.

마8:12-‘왕국의 아들들’=황폐된 교회 안에 있는 이들 (=교회 속에 있는 이들)

삼상 15장-사울이 사무엘의 외투 자락을 찢음...그의 왕국이 끊길 것이리라는 것...내적 의미에서 ‘왕국’=신성한 진리

막3:24-‘만일 왕국이 나뉜다면, 그 왕국은 존립할 수 없다...’왕국’에 의해 진리가 의미된다.

애2:2-‘왕국’=거기 있는 교리로부터의 진리들.

출19:6-‘너는 나에게 성직자들의 왕국일 것이다’=그때 당시 진리로부터의 선...‘성직자들의 왕국’=영적인 선, 이는 진리로부터의 선...‘왕국’=진리.

마13:38-‘왕국의 아들들’, 이는 ‘씨’이다=교회 속의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악한 왕국의 아들들’, 이는 ‘가라 지’이다=교회 속의 신앙으로부터의 거짓들.

마13장-‘왕국의 아들들’=천국과 교회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왕국’=천국, 또한 교회.

마13:19-‘왕국의 말씀’=천국과 교회의 진리; ‘왕국’=천국과 교회.

이23:17-‘땅의 모든 왕국들과 매춘질을 범하는 것’=교회의 모든 진리들과 더불어 그렇게 행하는 것.

계1:9-‘왕국’=교회

계11:15-‘세상의 왕국들은 우리의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간다’=천국과 교회는 시작으로부터 있어왔던 것 같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

분의 신성한 인간의 것이 되고 있다

계11:117-당신은 왕국 안으로 들어가셨다=천국과 교회는 이전 같이 지금 그분의 것이되는 것. ‘그분의 왕국’은 여기서 새 천국과 새 교회를 뜻한다.

계17:17-‘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시는 것’=말씀을 인정하고, 이것 위에 교회를 기초해야 한다.

계1:9-‘왕국 안에’=진리가 있는 교회 안에. 말씀에서 ‘왕국’=천국과 교회. 그것=진리 측면에 관한 교회, 또는 진리가 있는 교회인 이유는 주님의 왕권에 의해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했기 때문.

이14:16-‘그가 덜덜 떨게 만들었던 왕국’=일반적 교회와 차별되는 교회들.

이19:2-교회들 끼리 다툼이 있을 것임이...‘왕국이 왕국에 맞서’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도성’=교리, ‘왕국’=거기서부터 있는 교회.

마24장-‘왕국에 맞서 왕국이’=거짓이 거짓과 싸울 것이다...‘왕국’=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 이들 속에 교회가 있다.

이14:16-‘왕국들’=진리들에 따라 구별되는 교회들.

계16:10-‘그것의 왕국은 어두워졌다’=명색뿐이고 짙은 거짓에 있는 교회. ‘왕국’=진리들에 관련한 교회.

계17:18-‘왕국을 가지는 것’=지배력을 쥐는 것; 그리고 이것은 진리들 또는 거짓들에 관해 말해지고 있다. ‘왕국’=진리들 또는 거짓들에 관련한 교회.

왕관 (crown)

* top도 참조.

나3:17-‘잘꾸며진 왕관’=선 속에 있는 지혜.

시132:18-‘왕관’=신성한 선, 이로부터 지혜가 있다. 또한 이로부터 그분의 통치하심(government)이 있다. 이 왕관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고 말해진다. 이는 그분께서는 세상에서 전투와 승리함을 통하여 자신을 위해 지혜를 획득하셨음을 뜻해준다.

이62:1-장식된(잘꾸며진) 왕관=선으로부터 있는 지혜.

겔16:12-‘머리 위에 있는 왕관’=거기로부터의 지혜.

계14:14-‘금빛의 왕관’=신성한 선, 이로부터 신성한 진리가 있다.

계2:10, 3:11-진리들로부터의 선, 고로 지혜. 그이유가 지혜는 신앙의 진리들로부터 사랑의 선 속에 있기 때

왕의-왕자-왕관

문.

겔16:12-‘잘꾸며진 왕관’=영적인 선, 이 선은 진리로부터의 선이다. ‘왕관’=선. 그리고 ‘아름다움’=영적인 것.

계6:2-‘왕관’=영원한 생명, 승리로부터의 보상.

계9:7-‘왕관’을 가진 메뚜기들=그들은 정복자들인냥 자신들을 나타나게 했다.

계2:10-‘나는 생명의 왕관을 네게 줄 것이다’=그들은 승리의 보상,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계3:11-‘아무도 네 면류관을 가져가지 못한다’=지혜가 멸하지 않도록, 이로부터 영원한 행복이 온다는 것.

겔16:12-‘잘꾸며진 왕관’=신성한 진리로부터, 또는 말씀으로부터의 지혜.

계4:4-‘그들은 자기들의 머리에 금빛의 왕관을 가졌다’=사랑으로부터 지혜 속에 있는 것들.

계4:10-‘그들은 왕좌 앞에 자기들의 왕관을 던졌다’=그들의 지혜가 그분만으로부터 있음을 인정함.

계6:2-‘왕관이 그에게 주어졌다’=그의 전투 속의 표장(깃발, ensign).

계12:1-‘그녀의 머리에는 열 두 별이 있는 왕관이...’=말씀으로부터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에 관한 지식들로부터 있는 지혜와 총명.

계14:14-‘금빛의 왕관’=사랑으로부터의 지혜. 이는 사람의 아들의 머리 위에서 보여졌는바, ‘금빛의 왕관’은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지혜를 의미한다.

애5:16-‘우리의 머리에서 왕관이 떨어졌다’=지혜(가 그렇게 행해졌다).

시132:18-‘자신 위에 자기의 왕관을 화려하게 꾸밀 것이다’=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지혜가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그분의 정부(통치하심)가 있다.

이28:5-‘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잘꾸며진 왕관을 위해 계실 것이다’=신성으로부터 선 속에 있는 지혜.

이62:1-‘예루살렘’=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교회. 그리하여 ‘여호와와 손에 있는 잘꾸며진 왕관’이라 불리운다...‘잘꾸며진 왕관’=선 속에 있는 지혜. 이 의미 때문에 ‘여호와와 손에 있다’라고 말해진다.

예13:18-‘네 머리의 잘 꾸며진 왕관이 내려올 것이다.’

‘잘꾸며진 왕관’=선 속에 있는 지혜. ‘잘 꾸며짐(장식구, ornament)’=교회 속의 신성한 진리.

계6:2-‘(백마 위 기수의 머리에 있는) ‘왕관’, 이는 주님이라 단언하는바=신성한 선, 그분은 인간 측면에서 관련해서 조차 승리의 보상으로서 그렇게 입으셨다.

계14:14-‘(사람의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금빛의 왕관’=신성한 진리를 있게 하는 신성한 선.

출28:36,37, 29:6, 39:30, 레8:9-‘왕관’=신성한 진리가 있게 하는 신성한 선이 아론에게 씌여진 관의 얼굴에 있는 금판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또한 이 금판은 ‘왕관’, 그리고 작은 관(화관, coronet)이라 불리운다.

시21:3-‘최상의 금으로 만든 왕관’=이런 것(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있게 하는 선. 왕들의 ‘왕관’=신성한 선.

이28:1-총명, 또는 학식의 영화로움이 ‘교만의 왕관’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계12:1-‘(여인의 머리에 있는) ‘왕관’=그들의 선.

계14:14-‘그분의 머리에는 금빛의 왕관이...’=심판을 위해 두르신 신성한 선.

왕관 (diadem)

* miter도 참조.

계19:12-‘그분의 머리 위에 많은 왕관들’=신앙으로부터의 모든 것들.

계12:3-‘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왕관들’=왜곡되고 모독된 말씀 속의 모든 진리들.

계13:1-‘그의 뺨 위에 열 왕관들’=말씀 속의 많은 진리들을 왜곡해버리는 힘.

계19:12-‘그분의 머리 위에 많은 왕관들’=그분으로부터 있는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들.

왕의 (royal)

* 왕을 보라

왕자 (prince)

* 제 1 인 자를 보라

왕좌 (throne)

* seat도 참조

겔1장-‘왕좌’=천국

이66:1-‘하늘들이 내 왕좌이다.’ ‘하늘들’=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고로 내적 예배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외관-외뿔의 들소

그리고 내적 의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주님의 왕좌'라 불리운다.

마25:31-'그런다음 그분은 그분의 영광의 왕좌에 앉으실 것이다'=심판. 그이유가 '왕좌'는 주님의 왕권이라 단언되기 때문, 이 왕권은 신성한 진리, 이로부터, 이에 따라 심판이 있다.

예17:25-'다윗의 왕좌'=주님으로부터의 천국.

계4:4-'왕좌들'=지혜의 선으로부터 있는 총명의 진리들.

출11:5-'바로의 왕좌에 앉는 그의 장자'=중요 순위에서 첫째에 있는 신앙 속의 왜곡된 진리들.

단7:9-'왕좌들이 내던져졌다'=거짓들. '그분의 왕좌'=천국과 교회.

출17:16-'그의 손이 야훼의 왕좌에 맞서고 있다'=그들은 주님의 영적 왕국에 폭력을 휘두르고 싶어한다는 것.

마5:34-하늘이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이신바, 말해진다, '너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그이유는 하늘은 하느님의 왕좌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왕좌'=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렘1:26, 10:1-'왕좌 위에 사람의 외관이 있었다'=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 ('왕좌'=천국. 그리고 그것 위의 '사람'=주님 자신)

마25장-'영광의 왕좌에 앉는 것'=그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로부터 심판함.

렘43:7-'이것은 나의 왕좌가 있는 곳...' 여기서 딸과 더불어 성전이 여호와와 왕좌가 있는 곳이라 불리운다. 그이유는 딸을 지닌 성전이 천국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왕좌'=영적 천국 (the Spiritual Heaven).

이16:5-'그분은 진리 안에서 왕좌에 앉으실 것이다'=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이로부터 영적 왕국 (the Spiritual Kingdom)이 있다.

이6:1-'나는 주님께서 높고 드높이 들린 왕좌 위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천국, 특별하게(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 천국 (the Spiritual Heaven).

계1:4-'그분의 왕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주님이 그분의 신성한 진리 안에서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천국으로부터. '주님의 왕좌'=천국.

계3:21-'나는 내 왕좌에 나와 더불어 앉게 하겠다'=천국 안에. 특별히 그분의 신성한 진리가 통치하는 천국 안에.

계2:13-'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질은 어둠에서의 그들의 삶.

계3:21-'내가 내 아버지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 같이'=그분과 아버지는 하나이다는 것, 그리고 천국이다는 것.

계4:2-'오 왕좌가 놓여있다'=표징적 형체에서의 심판. '그리고 왕좌 위에 어떤 분이 앉아있는데'=주님.

계4:6-'왕좌의 한가운데에, 그리고 왕좌를 빙둘러, 네 동물들이'=최말단에서 있는 제일가는 위치에 있어 최말단을 지휘 안내하는 주님의 말씀.

계5:6-'왕좌의 한가운데에'=천국의 가장 깊은데로부터, 그리하여 천국의 모든 것들 안에.

계5:11-'왕좌를 빙둘러 있는 천사들의 음성'=보다 낮은 천국들의 천사들에 의해 주님이 고백되고 주님의 영광을 기림.

계7:15-'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의 왕좌 앞에 있다'=그들은 주님의 현존하심 안에서 있다는 것.

계7:17-'왕좌의 한가운데에 어린 양'=가장 깊은 천국 안에서, 고로 천국의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

계12:5-'그는 하느님과 그분의 왕좌에로 붙들려 올려졌다'=주님에 의한 신성의 보호하심...그리고 천국의 천사들에 의해 지켜 보호됨. '왕좌'=천사들의 천국.

계13:2-'용이 그에게 그의 왕좌를 주었다'=이런 이설 (heresy)을 평신도가 받은 이상 그 이설은 세력을 떨치고 그들 위에 군림한다는 것.

계14:3-'그들은 왕좌 앞에서 말하자면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주님 앞에서 그분을 경축함.

계14:5-'그들은 하느님의 왕좌 앞에서 흠 없이 있다'=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다는 것. '하느님의 왕좌'=주님과 천국.

계16:10-'짐승의 왕좌 위에 그의 대접을 쏟았다'=그들의 신앙 안으로 유입이 있음...'왕좌'=왕국...여기서의 '왕좌'는 악과 거짓의 정부가 말해진다.

계20:4-'나는 왕좌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 위에

외치다-외투-원쪽-요나

앉았다, 그리고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말씀 속의 진리들에 따라서 모든 자가 심판되는데, 이 말씀이 열려졌다는 것.

계20:11-‘나는 희고 큰 왕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그분을 보았다’=주님에 의해 신성한 진리들과 신성한 선으로부터 결과된 만인을 위한(보편적) 심판.

계22:1-‘하느님의 왕좌와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나감’=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그이유가 ‘왕좌’=심판, 통치함, 천국의 측면에서의 주님이기 때문.

계22:3-‘하느님의 왕좌와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을 것이다’=주님 자신이 새 교회(the New Church)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이유가 여기서의 ‘왕좌’=왕국. 그리고 주님의 왕국은 그분만이 예배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계1:4-‘그분의 왕좌 앞에’=현존과 섭리...‘하느님의 왕좌’=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고로 이 진리를 받는 천국.

예1:15-‘모든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문들의 문에서 자기 왕좌를 놓을 것이다’=교회 안으로 도입된 진리가 거기에 의해 파괴되는 것.

계4장-천국의 한가운데 있는 ‘왕좌’=심판.

시89:36-‘그의 왕좌는 태양같이 내 앞에’=천적 선 안에 있는 주님의 천국과 교회. ‘왕좌는 달 같이 영원히 확고부동할 것이다’=신성한 진리인 영적 선 안에 있는 천국과 교회.

왕상10:18-20-솔로몬은 여섯 계단과 그 계단에 열 두 사자들을 가진 왕좌를 상아로 만들었다. 솔로몬의 ‘왕좌’=심판, 이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의해 결과되어 진다, 그리고 이것은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를 표현했다. ‘열 두 사자들’=힘 측면에서 천국과 교회의 모든 진리들.

예33:17-‘이스라엘의 집(가문)의 왕좌’=신성한 진리가 통치하는 교회.

계7:11-‘왕좌 주위에 서있는 것’=주님과 결합함.

계8:3-‘왕좌 앞에’=천국과 결합함.

시89:4-‘왕좌’=천국과 교회.

계11:16-‘왕좌들 위에 앉는 것’=심판하는 작업 안에 있는 것. 그 이유가 ‘왕좌들’=천국들. 그리고 ‘왕좌들

위에 앉는 것’=심판하는 것. 그리고 천사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주님만이 하시는데, 이 말씀=보다 높은 천국들은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분리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힘과 빛 안에 있다는 것.

겔26:16-‘바다의 모든 제 일 인 자(prince)가 자기들의 왕좌로부터 내려 올 것이다’=진리에 관한 지식들은 이 교회를 더 이상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이유가 모든 왕국은 신성한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 ‘왕좌로부터 내려감’=통치함(government)으로부터. ‘왕좌’ 위에 앉는 것=천국의 진리 안에 있는 것.

시132:11-‘그가 가질 왕좌’=천국.

시93:2-‘왕좌’=신성한 진리를 받음 측면에서 천국과 교회.

계16:17-‘왕좌’=주님이 심판 측면에 관련하여 계신 곳.

계19:4-‘그들은 왕좌 위에 앉으신 하느님을 숭배했다’=주님을 숭배함, 이분이 천국들과 땅에서 모든 권능을 가지신다. ‘왕좌’, 주님을 서술하는 경우=만인에 대한(보편적) 천국, 그리고 거기서 있는 모든 권능. 그리고 땅위에서 있는 권능은 분리되어질 수 없다.

계19:5-‘음성이 왕좌로부터 나왔다’=보편적 천국으로부터 있는 만장 일치. 그이유가 ‘왕좌’=주님이 왕좌 위에 있으신 사실로부터 전체 천국. 그리고 주님이 천국 자체이시다는 것.

외관 (appearance)

* 나타나다(appear)를 보라.

외뿔의 들소 (unicorn)

민23:22, 24:8-‘외뿔의 들소 같은 힘’=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힘.

외치다 (shout)

시84:2-‘(환희 때문에) 외치는 것’=선으로부터의 즐거움으로부터 예배함.

시42:1-‘시냇가에서 외치는 것’=진리들을 갈망함.

출32:17-‘외쳐대는 백성들의 음성’=이 나라의 품질이 내면적으로 있는 것.

이29:9-그들에게 있는 애곡이 ‘너희는 외치거라’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외투 (cloak)

마5:40-‘상의(coat)’, 그리고 ‘외투’=외적 형체 안에 있

요나단-요나답-요단

는 진리.

출28:4-‘예복(robe)’=거기서 내적 형체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 ‘예복’=영적 왕국의 중간. 고로 거기 있는 진리 자체.

삼상15:27-사무엘의 망토(mantle) 자락이 찢어짐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사울로부터 찢어짐을 의미했다. 이스라엘의 왕국=주님의 영적 왕국.

출28:31-‘예복’=영적 왕국에서 내적 형체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 일반적으로 ‘예복’=영적 왕국. 특별한 측면일 경우, 거기에서 내적 형체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

출29:5-‘에봇의 예복과 더불어’=이 왕국의 중간. ‘예복’=신성의 천적 평면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을 중개하는 신성의 영적 평면. 고로 영적 왕국의 중간. ‘에봇의 예복’이라 불리는 이유는 예복이 에봇에 속해있기 때문. 그리고 또한 띠를 수단으로 상의(coat)로부터 구별되었다.

* 예복, 망토, 외투=일반적으로는 모두 진리들, 그이유는 그것들이 일반적인 덮개이기 때문.

이61:10-‘그는 나를 정의의 예복으로 덮었다’=선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진리로 채워지는 것. ‘도포’=모든 진리.

마5:40-‘만일 누군가가...네 상의를 가져갈 것이라면, 그에게 네 외투 역시 가져가게 하라’=만일 누군가가 네게 있는 내적 진리를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외적 진리 또한 가져가게 하라는 것.

왼쪽 (left, left hand)

* 영인과 천사들의 지적인 것들은 머리, 또는 뇌의 왼쪽 측면 안으로 흐른다...

* ‘왼쪽 눈’=지적 측면.

* 뇌의 왼쪽은 합리적, 또는 지적인 것과 상응한다.

* 왼쪽 눈으로 보는 것은 진리들에 상응하고, 이것은 이해성 속에 있다...그 결과 왼쪽 눈은 신앙의 진리들에 상응한다...

창48:13-‘에브라임...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여’=지적 측면의 진리는 둘째 서열(자리)...‘왼손’=두 번째 장소에 있는 것...

창48:14-‘그는 자기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놓았다’=그는 선이 두 번째 서열이라고 간주했다는 것.

요나 (Jona)

요1:42-주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라고 말하신 이유는 ‘요나의 아들 시몬’=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또는 선행으로부터 있는 신앙.

* ‘비둘기’. 이것이 ‘요나’에 의해 뜻해지는데,=영적 선...이로부터 ‘요나의 아들 시몬’은 선으로부터의 진리(truth of good), 또는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truth from good)를 의미한다..

* 진리에 애착하는 신앙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불릴 때 베드로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 ‘요나’, 히브리어에서, ‘비둘기’를 뜻한다. 이는 영적 의미에서=선행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요나의 아들’=선으로부터의 진리, 또는 선행으로부터의 신앙.

* ‘요나의 시몬’=선행으로부터 있는 신앙...‘요나’는 비둘기를 뜻하는바, 이를 수단으로 선행이 의미된다.

요나 (Jonah)

* 요나가 삼일 동안 물고기 뱃 속에 있었다는 것은 주님이 매장됨과 삼일 만에 부활하심을 명백하게 표현했다.

* 지옥에 맞서신 주님의 시험들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 속에 있었을 때 그에 의하여 예언적으로 묘사되었다.

마12:39,40, 16:4, 눅11:29,30-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주야로 삼일 간 있음에 의해 주님 자신이 땅의 심장 안에서 그렇게 있을 것임이 주님께 의해 가르쳐진다. 요2:2-6에서의 요나의 말들은 주님의 끔직한 시험들을 묘사하고 있다.

* 요나가 삼일 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표시로서 취해진 것은 이것이 주님의 매장과 부활, 고로 그분의 인간 완전하게 신성화되심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요나단(Jonathan)

삼하1:23-‘사울과 요나단은 사랑스러웠다. 그들은 도수리 보다 더 민첩하고, 사자 보다 더 강했다.’ 여기서 ‘사울’은 왕, ‘요나단’은 왕의 아들에 의해 교회를 방어하는 진리가 뜻해진다. 그이유가 여기서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가 취급되기 때문.

삼하1:17,18-여기서 왕으로서의 사울은 선으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왕의 아들로서의 ‘요나단’은 교리의 진리

요나단-요나답-요단

가 의미되어진다. 그러므로 다윗은 유다의 아들들에게 활을 가르치기 위해 애가를 썼다. 이를 수단으로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의미된다.

삼하1:22-‘요나단의 활’=교리.

삼상18:4-요나단이 자기 상의와 의복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이런 말들에 의해 왕국의 상속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권리를 이전했음이 의미되었다. 그 이유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모든 것들이 왕국의 표징물이었기 때문, 즉 사울이 표현한 교회의 신성한 진리의 표현물이었기 때문.

삼상14:27-요나단이 꿀을 맞봄으로 그의 눈이 빛나진(enlighten) 이유는 꿀이 자연적 선과 그 선으로부터의 즐거움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선이 총명을 주고 계발되게(enlighten) 한다. 그리하여 그는 악을 행했음을 알았다.

요나답 (Jonadab)

예35장-주님의 찬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요나답의 아들’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짐을 짓지 않았으며,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아니했다=영적 교회에 속하는 것, 즉 진리들을 배우고 배운 진리를 기억 안에 유지존속하는 것. 그들이 천막에서 거주하는 것=생활 안에 받는 것과 순종하는 것.

요단 (Jordan)

여1:11, 3:2-그래서 여호수아는 '삼일 제' 날에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요단을 건넌 거둬나는 자를 주님의 왕국에 받아들임을 표현했다; 그리고 삼일 제 날에 그들을 받아들인 여호수아는 주님 자신을 표현했다.

창13:10-‘그는 요단의 모든 평야를 보았다’=외적 인간에 있는 일련의 선들과 진리들...‘요단 가까이 있는 평야’, 내적 의미에서,=외적 인간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에 관련한 외적 인간. 요단 평야=이것들이 이유는 요단은 가나안의 경계였다는 사실로부터 파생된다.

시42:6-‘나는 너를 요단의 토지로부터 기억할 것이다.’ ‘요단의 토지’=낮은 데 있는 것; 그리고 천국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마치 인간의 외적인 것들이 그의 내적인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예12:5-...그리고 외적 인간이 내적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바, 이것은 예언적 말씀에서 공식화 되었는데, 예를 들면 요단의 '교만', 또는 '의기양양' 같은 것이 있다. '요단의 의기양양'=외적 인간 속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봉기해 일어나 내적 인간 위에서 지배하려든다.

예49:19-‘요단의 교만’=내적 인간의 선들과 진리들에 맞서는 외적 인간의 득의만만.

민34:12, 여15:5-요단이 가나안 토지의 경계였다는 것은 이 구절로부터도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동쪽을 향하여는 유다의 경계였다.

창13:11-‘롯은 요단의 모든 평야를 선택했다’=외적 인간, 그는 이와 같았다는 것. '요단 평야'=외적 인간.

창32:10-‘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 나는 두 진영들 안에 있다’=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단히 많아졌다...‘요단’=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 안으로 시작함.

시114:5-‘요단은 뒤쪽을 향하여 그 자체 돌아섰다’...‘요단’=선에 관한 지식들, 이 지식들은 사랑의 선이 지배권을 쥔 때 ‘그 자체 뒤쪽으로 돌아 선다’라고 말해진다; 그이유가 이때 지식들은 이 선으로부터 관심되어지기 때문.

사5:17-‘길르앗은 요단 건너에 거주한다’...‘요르단 건너에 거주하는 것’=시작에서 있는 것들, 고로 주님의 교회와 왕국의 처음과 마지막 것들.

왕하2:8,14-이러한 것들이 또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가나안의 토지로 진입할 때 표현되어졌다;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땅을 밟고 건넌에 의해 악들과 거짓들의 제거, 그리고 선들과 진리들에 있는 이들의 입장이 허가됨이 의미되어졌다.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요단의 물을 가른 것에 의해서도, 엘리야의 예언 직분을 승계한 엘리사에 의해서도 요단의 물은 갈라졌다.

겔47:18-‘요단’=주님의 왕국과 교회 속의 처음과 마지막 것들, 이와같은 것들은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다; 그이유가 인간은 이것들을 수단으로 소개되어진다; 그러므로 또한 요단은 새로운 토지, 또는 거룩한 토지의 경계로서 언급되어진다.

창50:10-‘요단 건너에 있는...’=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쪽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 ‘요단’=선과 진리에 관한 지

요리-요벨-요새-요새화하다

식들 쪽에서 시작, 고로 처음은 입구 측면에 관련한 주님의 왕국과 교회, 마지막은 출구 측면에서의 주님의 왕국과 교회.

마4:15, 이9:1-교회의 설립과 이방인들의 개혁이 이런 말들에 의해 뜻해진다는 것은 '요단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말해진 사실로부터도 분명하다.

사5:17-므낏세 지파가 적들에 맞서 싸우지 아니했는 바...'길르앗 왜 너는 요단 건너에 거주하는가?'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를 수단으로 왜 너는 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외적인 것들 안에서만 오로지 살고 있는가?가 의미되고 있다. 교회의 외적인 것이 요단 건너 지역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교회의 내적인 것은 요단 안쪽 지역에 의해 의미된다. 교회의 외적인 것은 영적 측면 보다 자연적 측면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다.

슌11:3-'버려진채 놓여 있는 요단의 의기양양'=받아들이는 신성한 진리 측면에 관련한 교회.

요리 (cook)

창19:3-'그는 누룩 넣지 않고 구웠다'=순수해짐.

삼상8:13-'그는 딸들에게 요리를 시키려고 데려갈 것이다' 등등에 의해 교리 속의 선들이 의미되고, 이를 수단으로 그는 그 선들을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 것이다.

창25:29-'야곱은 죽을 요리했다'=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쌓아올린 것. 그것을 '요리하는 것'=쌓는 것, 또는 함께 가져다 놓는 것.

겔24:5-'그들이 그것의 한가운데에서 뼈들을 요리하게 하라'=그것들에 가해진 폭력.

출12:9-'물에서 끓이지 마라'=신앙 속에 있는 진리로부터 (일 등이) 진행되지 말라.

출12:39-'그들은 자기들이 이집트로부터 가지고 나온 곡식 가루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다'=진리의 선으로부터 선이 다시 산출되었다는 것. '굽는 것', 선의 진리를 말할 때,=산출(produce)하는 것.

출16:23-'너희가 구워야하는 것을 굽거라'=선으로부터 결합하기 위해 준비함. '너희가 삶어야 하는 것은 삶어라'=진리로부터의 결합을 위해 준비함. 불을 사용하는 '굽는 것'=선으로부터 결합함을 준비함...

출23:19-'너희는 새끼염소를 그 어미의 젖 안에서 삶지 마라'=나중 상태에 있는 순진의 선은 앞서 있던 상

태에 있는 순진의 진리와 결합되어져서는 안된다. '삶는 것'=결합하는 것.

출29:31-'너는 그것의 고기를 거룩한 장소에서 삶지 말 것이다'=주님으로부터 계발된 교리 속의 진리들을 통하여 선을 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함. '삶는 것'=교리 속의 진리들을 통하여 생활에서의 사용을 위해 준비하는 것.

애4:10-'아이들을 요리하는 것'=거짓들을 통하여 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들과 선들을 파괴하는 것.

레26:26-'열 여자가 네 빵을 한 오븐(oven)에서 구울 것이다'=모든 교회들 안에 인간과 더불어 선과 진리가 거의 없다시피 되어 거의 없다는 것.

요벨 (jobel)

출19:13-'요벨을 꺼냄에서'=천적인 선으로부터 일반적인 지각을 가지는 이들. 그이유가 '요벨을 꺼냄', 같은 것으로 '나팔 소리를 들음'=천적 선으로부터의 일반적인 지각...'요벨', 또는 '나팔 소리'에 의해 천적 선이 의미된다...그러므로 이로부터 '희년(Jubilee, 요벨의 해, 또는 안식의 해)가 명명되어졌다.

요새 (fortification)

요새화하다 (fortify)

겔33:27-'요새와 동굴 안에 있는 이들은 유행병으로 죽을 것이다'=거짓을 수단으로 자체를 요새화한 악은 지옥에 떨어뜨려진다.

나3:14-'포위공격을 대비해 물을 길어오는 것, 요새를 튼튼히 하는 것'=진리들에 맞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거짓들을 요새화하는 것.

예1:18-이런 사항들이 예언자를 수단으로 의미되었는 바, 그 중 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해진다. '나는 너를 요새화된 도성으로 주었다'. 이 구절은 거짓들에 맞서 보호하는 진리의 교리가 의미한다.

애2:2-교회가 완전히 황폐됨이 '그분은 유다의 딸의 견고한 성을 파괴하셨다'에서 묘사되어 있다.

겔33:27-'요새들'=말씀으로부터의 확증들. '동굴들'=과 학물로부터 확증들.

슌1:10-'울타리쳐진 성읍들'=그들이 확증한 거짓 교리 물들.

이23:14-'너의 요새'에 의해 방어하는 말씀으로부터의

요셉

교리가 의미된다.

이2:15-‘높은 탑, 단단히 두른 (성)벽’은 거짓으로부터 확증한 원리들, 고로 그것들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이34:13-(거짓들과 악들을) 방어하는 퀘번이 ‘궁전들’과 ‘요새들’로 의미되어 있다.

단11:38,39-‘위치(station) 위의 요새’, 그리고 ‘요새들 중의 요새’에 의해 말씀의 글자 의미를 수단으로 확증한 자아 총명으로부터 있는 것들이 의미되고 있다.

예48:18-‘그분은 요새(strong hold)들을 파괴하셨다’=방어를 거두어 가심. ‘요새’=거짓들과 악들로부터 보호함. 그리고 말씀의 글자 의미가 이 보호이다.

이23:4-‘바다’, 그리고 ‘바다의 요새’에 의해 이런 지식들이 있는 곳인 자연 평면이 뜻해지고 있다.

예5:17-‘내가 신뢰하는 요새화된 성읍들’에 의해 자아 총명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이 의미되어 있다.

요셉 (Joseph)

창48:5, 대상5:1-장자 상속권이 요셉에게 주어졌다.

창30:23,24-‘그녀는 말했다, 하느님께서 내 불명예를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불렀다,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다른 임신을 더하소서’=최고 의미에서, 신성의 영적 평면에 관련된 주님(the Lord as to Divine Spiritual); 내적 의미에서 영적 왕국, 또는 신앙으로부터의 선; 외적 의미에서, 구원, 그리고 열매 풍성함과 번성함.

* 요셉은 ‘거두어들임’ 그리고 ‘추가함’으로부터 명명되어졌다.

*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추가하소서’라는 말로부터 요셉이란 이름이 지어졌는바, 여기에는 또 다른 신비함을 의미하는 것이 있다. 즉 요셉에 의해 주님의 영적 왕국이 표현되었다, 고로 영적 인간도 표현한다. 그이유가 영적 인간 안에 이 왕국이 존재하기 때문. 영적 인간을 구성하는 두 가지가 있다; 즉 선행과 신앙이다; 또는 선과 진리이다. 신앙 있음으로부터 선행이 존재할 경우, 또는 진리 있음으로부터 선이 존재할 경우, 이것이 요셉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선행 안에 신앙이 존재할 경우, 또는 선 안에 진리가 존재할 경우, ‘또 다른 아들’에 의해 의미되고 이것이 ‘베냐민’에 의해 표현되

고 있다. 간단히 줄여 말하면, ‘요셉’=천적 영적 인간(영적인 것로부터의 천적인 것), 그리고 ‘베냐민’=영적 천적 인간(천적인 것로부터의 영적인 것)...

겔37:15-20-‘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가 합병됨’은 천적 왕국과 영적 왕국은 둘이 아닌 하나일 것;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세상으로 강림하심에 의해 하나로 만들어 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숙10:6-‘요셉’=영적 왕국.

암5:6-여기서도 역시 영적 차원이 ‘요셉’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이스라엘의 집’=영적 교회; ‘요셉’=이 교회로부터의 선...

시80:1-‘요셉’=영적 인간.

시81:5-‘요셉’, 여기서의 경우,=영적 왕국의 교회 또는 영적 인간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말들로부터 분명하다.

겔47:13-여기서 주님의 영적 왕국이 취급된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줄(lines, cords)이 요셉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진다.

창30:25-‘라헬이 요셉을 낳고 한참 지난 후였다’=(주님의 영적(차원)을 인정함이 ‘요셉’을 수단으로 표현되었다...‘요셉’은 영적 왕국을 표현한다. 고로 영적 인간, 그 결과(주님의) 영적인 것도 표현한다; 그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있는 영적인 것이 영적 인간을 만들고, 또한 영적 왕국도 만들기 때문이다. 요셉에 선행하는 것들에서, 레아와 그녀의 몸종으로부터의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 일반적 진리들을 인정함과 받아들임이 취급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인간과 더불어 그들이 결합함이 취급된다. 고로 그가 영적 인간이 되기까지의 인간의 거듭남이 취급된다. ‘요셉’이 이런 영적 인간이다.

창33:7-‘그 후에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나와, 자신들을 굽혀 절했다’=내면의 것들에 관련한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들, 그리고 그들의 복종하는 소개. ‘요셉’은 영적인 것으로부터의 천적인 것을 표현한다.

계7:8-‘요셉 지파 중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되어졌다’...마지막 집단은 스블론 지파에서, 요셉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각기 12000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 이유는 스블론 지파에 의해 천국이 있고 천국의 모든 것들이 있는 천국적 결혼이 의미되기 때문; ‘요셉’에 의

요셉

해, 거기서, 영적인 것으로부터의 천적인 것, 또는 진리로부터의 선; 그리고 '베냐민'에 의해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 또는 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인 것이 의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지막 집단에서 언급된다.

창35:24-'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내면의 선들과 진리들... 필수적 본질이 '요셉'과 '베냐민'에 의해 표현된다; '요셉'에 의해 최고 의미에서 신성한 영적인 것; 내적 의미에서 영적 왕국; 외적 의미에서 이 왕국의 선.

창37:2-'요셉'=주님의 영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인간. (그 이유가) '요셉'은 최고 의미에서 신성한 영적(평면)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 주님이 '요셉'에 의해 표현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알려져 있다; 그 이유가 '천국적 요셉'이 언급되어질 때, 더 다르게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의 무엇이 요셉에 의해 표현되는지에 관한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가 그것은 천국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신성한 영적인 것, 또는 신성한 진리, 이 또한 주님의 왕권이라 불린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러한바 요셉은 이집트에서 마치 왕 같은 행세를 하게 만들어졌다.

창37:2-'요셉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에 관해 악한 보고를 했다'=그로부터 그들이 무슨 품질 속에 있었는지 드러났다는 것. '요셉'은 신성한 영적인 것, 또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

창37:3-'이스라엘은 그의 모든 아들들 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합리성으로부터의 신성한 영적인 것이 자연으로부터의 신성한 영적인 것과 결합함... 영적인 것이 합리성과 자연 양쪽에서 서술되고 있다; 그 이유가 이것이 합리성 또는 내적 인간 안에서 빛을 낼 때, 합리성으로부터의 영적인 것, 자연적 평면 또는 외적 인간 안에서 빛을 낼 때, 이는 자연으로부터의 영적인 것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창37:4-'그들은 그를 미워했다, 그리고 그에게 평화로이 말할 수 없었다'=...요셉에 의해 표현된 신성한 진리를 멸시함, 그리고 이 진리로부터 돌아섬.

창37:5-'요셉은 꿈을 꾸었다'=주님 자신에 관하여 설

교함... 그리고 꿈이 요셉을 취급할 때, 그 꿈=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하여 설교하는 것... 그 이유가 요셉의 두 꿈은 요셉에 관련된 것을 예견하고 설비되는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또는 내적 의미에서 요셉의 형제에 의해 표현된 것과 같은 교회 내에 있는 신성한 진리에 관련된 것, 즉 신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교회에 관련하여 예견되고 설비됨에 관한 것이기 때문.

창37:7-'내 곡식단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한 똑바로 섰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한 교리적인 것... 통치할 최고의 것, 그리고 그들이 숭배할 최고의 것... 이 최고의 것은 주님 자신이다; 그리고 교리적인 것 중에 최고의 것은 그분의 인성은 신성하다 이다.

창37:8-'그들은 요셉의 꿈, 그리고 그가 한 말 때문에 미워함을 더 추가했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한 진리를 설교함 때문에 더 크게 경멸하고 돌아섬.

창37:13-'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신성한 영적인 것으로부터 지각함... '요셉'은 신성한 영적인 것을 표현한다.

창37:13-'가라, 그리고 나는 너를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그는 신성한 영적 선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 이유는) '요셉'은 주님의 신성한 영적 평면을 표현하기 때문. 이것이 '보내어짐'이라 말해질 때=신성한 영적 선들을 가르치는 것... 여기서는 주님의 신성한 영적 평면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영적 선들.

창37:14-'가라, 내가 네게 바란다, 네 형제의 평화를 보라'=주님의 모두 각각의 강림, 그리고 어떻게 이 경우가 가르쳐지고 있었던 이들과 더불어 있었는지를 지각함.

* 주님의 모두 각각의 강림이 의미된 이유는, 요셉에 의해 신성한 영적인 것에 관련된 주님이 표현되었기 때문... 모두 각각의 강림이란 말씀으로부터의 진리가 생각안으로 흘러들 때를 말한다.

창37:17-'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갔다...''... '요셉'은 신성한 진리에 관한 주님을 표현한다.

창37:18-'그들은 멀리서부터 그를 보았다'=원격적으로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지각함... '요셉'은 신성한 진리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한다. 여기서 요셉에 의해 의미된 것이 주님의 신성한 인간이라는 이유는 이것이 신성한

요셉

진리 중에서 최고에 해당되는 진리이기 때문. 교회를 구성하는 두 필수 본질이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교리 속에 있어야 할 첫 순위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것이 있다; 하나는, 주님의 인간 측면이 신성하다는 것, 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선행이 교회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신앙은 이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 사항이 신성한 진리의 첫 순위에 해당하는바, 그것들이 '요셉'에 의해 표현되어진다. 이에 대해서 요셉은 일반적, 총괄적 측면에서 신성한 진리를 표현할 뿐 아니라 특별한 측면에서도 표현한다.

창37:18-‘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 그들은 그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그들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영적인 것들을 소멸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요셉’은 신성한 영적 평면, 또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신성한 진리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할 때, 그분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인 신성한 영적인 것이라 말해진다.

창37:20-‘그리고 너희는 가라, 그리고 그를 죽이자’=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한 교리를 소멸함...‘요셉’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표현한다; 그리고 특별하게는 그분의 신성한 인간에 관한 교리인 것을 표현한다. 이것은 필수적인 교리이다.

창37:21-‘(르우벤이) 말했다, 그를, 혼을 쳐죽이지는 말자’=(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인정하고 숭배함은) 소멸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 그 이유는 그것이 종교의 생명이기 때문.

창37:22-‘그를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졌다’=한편 그들은 그 필수 교리를 자기들의 거짓들 안에 감추어 둘 것이다; 즉, 그들은 그 교리를 거짓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 그들은 그 교리를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 교리가 교회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창37:22-‘그가 그들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출할 수 있도록...’=그가 교회를 위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가 교회를 위해 주장한다는 것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한 신성한 진리이다; 그 이유가 이 진리가 특별한 의미에서 ‘요셉’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이다.

창37:23-‘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왔을 때’=그분에 관해 설교되었을 때, ‘요셉’은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 특

히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한 진리를 표현한다.

창37:27-‘그를 이스마엘족들에게 팔자’=단순한 선 안에 있는 이들은...신성한 진리, 특히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한 진리를 인정한다.

창37:28-‘그들은 끌어내서 요셉으로 구덩이 밖으로 나오게 했다’=그가 거짓들 사이에 놓이지 않도록 그들로부터 원조받음.

창37:28-‘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족들에게 팔았다’=단순한 선 안에 있는 이들이 받음, 그리고 여기서의 경우, 요셉의 형제들인...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과는 멀어짐, 그 이유는 이들이 그를 팔았기 때문.

창37:28-‘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다’=...과학적 지식들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상당함. 그 이유가 ‘요셉’에 의해 신성한 진리가 표현되기 때문.

창37:29-‘보라 구덩이 안에 요셉이 없다’=더 이상 어떤 신앙도 있지 않았다는 것. ‘요셉’은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

창37:30-‘그는 말했다, 아이가 더 이상 없다’=그분에 대한 신앙은 있지 않았다는 것...‘아이’, 여기서, 요셉인데, 그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

창37:31-‘그들은 요셉의 외투를 가져왔다’=나타남들.

창37:33-‘조각나게 찢겨짐으로 요셉은 조각나게 찢겨졌다’=...그는 거짓들에 의해 흩어져지고 말았다는 것.

창37:34-‘그는 그의 아들을 위해 많은 날 동안 슬퍼했다’=파괴된 선과 진리를 위해 슬퍼하는 상태. ‘요셉’, 여기서 아들인바,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 특별하게는 위에 언급한 것들.

창37:36-‘미디안족들이 그를 이집트에게 팔았다’=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어떤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 과학적 지식과 상당했다...‘요셉’은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

창39장에서-이 장은 주님을 취급하는데, 특별히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내적 인간을 신성으로 만드셨는가에 관해서이다.

창39:1-‘그리고 요셉’=합리성으로부터 (주님의)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 ‘요셉’은 (주님의) 합리성으로부터 있는 천적 영적 인간(영적 인간 안에 놓인 천적 인간)을 표현한다; 여기서의 경우, 주님을 취급하는바, 주님의 내적 인간이 요셉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요셉

* 주님 역시 그분의 인간 측면에서는 (우리 처럼) 내적, 외적 인간을 가지셨다...그분의 외적 인간은 야곱에 의해, 그리고 후에는 이스라엘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이 내적 인간이 소위 합리성으로부터의 천적 영적 인간이다; 또는 합리성으로부터 영적 (평면) 속의 천적 (평면)이라 불린다. 이것에 관해 그리고 이것의 신성화됨이 이 장과 다음 장의 요셉을 수단으로 취급된다.

창39:1-‘보디발, 이집트의 경호대장이 그를 샀다’=그는 과학물의 내적인 것들과 더불어 있었다는 것.

창39:2-‘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신성이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 안에 있었다는 것. ‘요셉’은 합리성으로부터의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을 표현한다.

창39:2-‘그리고 여호와와는 그와 함께 계셨다’=신성이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 안에 있었다.

창39:2-‘그리고 그는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 안에 있었다’=이것은 자연적 선에서 시작할런지 모른다는 것.

시105:17,19-‘요셉은 종으로 팔리웠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여기서 요셉은 주님을 뜻한다.

창39:4-‘그리고 요셉은 그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자연적 선에 의해 받아들임이 있었다.

창39:5-‘여호와께서는 요셉 때문에 이집트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그 당시 신성으로부터 거기에 자연으로부터 천적인 것이 파생되었다는 것... 자연으로부터의 천적인 것(the Celestial Natural)은 합리성의 선에, 즉 합리성으로부터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에 상응하는 자연에 있는 선이다

창39:6-‘그는 요셉의 손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다’=마치 모든 것들이 그것의 권능 안에 있는 듯 나타났다는 것.

창39:6-‘요셉은 외모가 아름다웠다’=생활의 파생적인 선; ‘쳐다보면 아름다웠다’=신앙의 파생적인 진리.

창39:7-‘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녀의 눈을 들었다’=영적이지 않은 자연적 평면으로부터의 진리가 자연적 선에 인접하였다, 그리고 그것의 지각.

창39:11-‘그가 자기 일을 하려고 집에 왔다’=그가 자연적 평면에서 영적 선과 더불어 결합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이유가) 이 결합이 ‘요셉’에 의해 이 장에서 취급되기 (때문).

창39:20-‘그리고 요셉의 주인은 그를 데려갔다’=자연적 평면에 의한 시험. 그 이유가 이 뒤를 이어 요셉이 감옥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자연적 평면에서 영적 선의 시험이 묘사되기 때문.

창39:21-‘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다’=신성이 주님 안에 있었다, 주님이 최고 의미에서 ‘요셉’에 의해 표현되어진다.

창39:22-‘감옥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억류된 자를 요셉의 손 안으로’=그분 자신으로부터 모든 거짓들을 누르심; 즉 진리가 시험들의 상태에서 규율함...‘요셉’에 의해 내적 의미에서 주님이 의미되어진다.

창40:3-‘요셉이 억류된 장소’=이런 것들에 관하여 지금 자연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요셉’은 합리성으로부터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을 표현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지금은 자연적 평면 안에 있기 때문, 이 자연적 평면으로부터 시험들이 있다...앞장에서 내면의 자연적 평면 속에 있었던 사항들에 관하여 자연적 평면에서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시험받는 상태가 취급되었다. 여기서 지금 외면의 자연적 평면 속에 있는 것들에 관하여서 이다.

창40:4-‘수비대장은 그들 위에 요셉을 앉혔다’=자연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이 해석을 위한 체일의 것들로부터 그들을 가르쳤다...‘요셉’은 자연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을 표현한다.

창40:6-‘요셉은 아침에 그들에게 왔다’=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에 명백하고 들어나지는 것.

창40:8-‘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자연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 ‘요셉’은 자연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을 표현한다.

창40:9-‘술말은 시종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말했다’=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이 지금까지 거절되어 왔었던 지적인 부분에 복종해야 하는 감각 평면 속에 있었던 것들에 관한 사건을 통각했다. ‘요셉’은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을 표현한다.

창40:12-‘그리고 요셉이 그에게 말했다, 이것은 그것에 관한 해석입니다’=자연적 평면에 있는 천적인 것을 수

요셉

단으로 지각으로부터 밝히 알게 됨... '요셉'은 자연적 평면 안에서 천적인 것을 표현한다.

창40:14- '당신과 함께 나를 기억해주시오' = 신앙으로부터의 받아들임.

창40:15- '나는 도적에게 유괴되었기에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 천적인 것들이 악에 의해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

창40:16- '그가 요셉에게 말했다' = 자연적 평면에서 천적인 것이 지각함... '요셉'은 자연적 평면에 있는 천적인 것을 표현한다.

창40:18- '요셉이 대답하여 말했다' = 자연적 평면에 있는 천적인 것에 의한 지각으로부터 밝히 앎. '요셉'은 자연적 평면에 있는 천적인 것을 표현한다. 여기서 '요셉' = 자연적 평면에 있는 천적인 것인 이유는 자연적 평면의 것을 취급하기 때문.

창40:22-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했던 그대로' = 자연적 평면에 있는 천적인 것을 수단으로 예견함... '요셉'은 자연적 평면에 있는 천적인 것을 표현한다.

창40:23- '술파르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 자연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과의 결합은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없었다는 것... '요셉'은 자연 속의 천적인 것을 표현한다.

창41장에서- 이 장은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의 두 번째 상태의 내적 의미가 취급된다. 즉 이 상태란 요셉, 즉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이 과학적 지식 위에, 또는 외적 인간 또는 자연적 인간 위로 드높여지는 상태이다.

창41:14- '그리고 요셉을 불렀다' =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을 받는 것.

창41:15-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을 지각함... 그 이유가 주님은 '요셉'과 '바로' 둘 다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기 때문; 즉 '요셉'에 의해서는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이, '바로'에 의해서는 자연적인 것이...

창41:17-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했다' =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을 생각함.

창41:25-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다' =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자연적인 것이 지각함.

창41:39-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자연적인 것이 지각함.

창41:44-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 더 전진한 지각.

창41:45-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불렀다' = 그 당시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의 품질... (이 이름) = 주님 안에서의 신성... 이는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의 품질이다; 그 이유가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은 신성이 들어 있는 진리로부터의 선, 또는 신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있는 진리로부터 선이기 때문. 이것은...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만이 가지셨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 자체가 있을 수 있었던 인간이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주님이 자신에 있는 모든 인성을 신성으로 만드셨을 때 벗으셨다.

창41:45-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토지를 지배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 양쪽 자연적 평면들이 그분의 것이었을 때.

창41:46- '요셉은 삼십 세의 아들이었다' = 남아 있음이 충만되었음.

창41:46- '그리고 요셉은 바로 앞으로부터 밖으로 나갔다' = 자연적 평면이 총괄하여 그의 것이었을 때... '요셉'은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을 표현한다.

창41:49- '그리고 요셉은 바다의 모래 만큼 많이 곡식을 쌓아 놓았다' = 진리가 유입을 수단으로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선... 으로부터 증가됨.

창41:50- '요셉에게 두 아들이 출생했다' =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이 자연 평면으로 유입함으로써의... 선과 진리.

창41:54- '요셉이 말했던 그대로' =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에 의해 예견되었던 그대로.

창41:55- '너희는 요셉에게 가라' = 그것은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이다는 것.

창41:57- '요셉에게' =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이 있는 진리의 선이다.

창42장에서- 교회 속의 과학적 지식을 수단으로 교회 속에 있는 신앙 속의 진리들을 자기 것 삼으려 노력함을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매체 없이...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 가려 노력함이 취급된다.

창42:3- '요셉의 열 형제' = 상응된 교회 속의 진리들. 이

요셉

들이 '요셉의 형제'라 불리고 있다. '요셉의 형제됨'은 신성으로부터, 즉 상응으로부터이다; 그이유가 상응들이 그것들을 형제와 형제로 결합하게 하는 원인 역할을 하기 때문.

창42:6-'요셉, 그는 토지 위에 군림한 통치자였다'=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 또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과학적 지식이 있는 자연적 평면을 지배했다는 것...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이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인 이유는 주님의 내적 인간, 그 인간이 충분히 신성화되기 이전, 신성 자체의 그릇 역할을 했던바,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라는 틀 안에서 가능하지 않아서이다. 신성을 위한 그릇, 용기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똑같다. '요셉'=이 진리이다는 것.

창42:7-'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인식했다'=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에 의한 지각함과 인정함

창42:9-'요셉은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을 회상했다'=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은 자연 평면에 있는 교회 속의 일반적 진리들에 관하여 무엇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견했다.

창42:18-'그리고 요셉은 삼일째 날에 그들에게 말했다'=그것이 충만되었을 때, 그 자체 분리한 이런 진리들에 관하여 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이 지각함.

창42:18-'나는 하느님을 두려워 한다'=신성으로부터 생명...그 이유가 요셉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 이 진리는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과 같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에 의해 최고 의미에서 여기서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에 의해서는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 안에 있는 신성 자체, 또는 진리 안에 있는 신성이 의미되고 있다.

창42:23-'그들은 요셉이 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이런 진리들이 있는 자연적인 빛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영적 빛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 (그 이유가) 요셉은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영적 빛 안에 있기 때문...

창42:25-'그리고 요셉은 명령했다'=영적 평면 속의 천

적인 것으로부터 유입이 있다.

창42:36-'요셉은 있지 않다'=내적인 것이 있지 않다는 것; (그 이유가) 요셉은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을 표현하는 바, 그는 교회의 내적인 것을 표현하기 때문.

창43장에서- 이 장은 아굽의 열 아들들인 자연 평면에 있는 교회가 요셉인 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들과 '베냐민'이라는 중매자를 통해 결합함을 다룬다. 그러나 이 장은 결합에 선행하는 일반적 유입만을 취급한다.

창43:15-'그리고 그들은 요셉 앞에 섰다'=거기서 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의 현존...

창43:17-'사람이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데려왔다'=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선 안으로 첫 입문함.

창43:18-'그들이 요셉의 집 안으로 데려와졌기 때문에'=자연 평면 속에 있는 진리들이 내적 평면에 복종하고 인접되었다는 것...그 이유는 '요셉'에 의해 내적 평면이 표현되었기 때문, 그리고 요셉에 의해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또는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이 표현되었기 때문.

창43:24-'그리고 사람은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데려왔다'=내적 평면과 결합이 시작됨...요셉은 그 당시 그들에게 자신을 명백히 드러내지 않았다, 이럼으로 이것은 일반적 유입이 의미되고...또한 시작함이다.

창43:25-'정오에 요셉이 올 때 까지'=내면의 것이 빛과 더불어 현존하는 동안.

창43:26-'그리고 요셉은 집에 왔다'=내적인 것의 현존.

창43:32-'그들은 그(요셉) 만을 위해, 그리고 그들만을 위해 따로 (식탁을)차렸다'=내적인 것은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듯 외부적으로 나타남...'요셉'에 의해 내적인 것이 표현되고, 이스라엘의 열 아들들에 의해 외적인 것이 표현된다.

창44장에서-이 장은 내적 천적 인간과 외적, 자연적 인간 사이에 있는 매체가 취급된다; 첫 번째, 내적 천적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영적 진리로 매체를 채웠다...(이것이) '요셉의 은잔'이다. 내적 천적 인간은 '요셉'이다.

창44:14-'요셉의 집 안으로'=내적인 것과 소통함.

창44:15-'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그 당시 그들의 지각...그 이유는 요셉이 말했다기 때문; 그리고 '요셉'에 의

요셉

해 내적인 것이 표현되어졌다, 그리고 내적인 것으로부터- 즉 주님으로부터 내적인 것을 통하여 모든 지각은 와진다.

창41:40,41-‘요셉’은 내적인 것을 표현한다. 내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 위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요셉이 이집트의 토지의 위에, 바로의 모든 집 위에 앉혀졌다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창44:20-‘요셉’이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 고로 내적인 선을 표현한다, 그 이유는 이 선은 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내적 선인 ‘요셉’의 표현과 영적 선인 ‘이스라엘’의 표현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다; ‘요셉’은 합리성으로부터의 내적 선이고, ‘이스라엘’은 자연적 평면으로부터의 내적 선이다; 이는 천적인 선, 또는 천적 교회 속에 있는 선, 그리고 영적 선, 또는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선 사이에 있는 차이와도 같다...이 내적인 것에 관하여, 즉 천적 선에 관하여 거기에 있지 않다 라고 말해진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형제는 죽었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44:28-‘하나가 나로부터 나갔다’=외견이 내적 선을 떠났다...(그 이유가) ‘요셉’은 내적 선을 표현하기 때문. 가버림이 나타났다는 것이 명백한데, 그 이유는 요셉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이 경우는 이리하다. 요셉에 관련된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주님의 인성의 신성화됨을 순서대로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낮은 의미에서 인간의 거듭남도 표현하고 있다. 첫 상태에서, 인간이 진리를 수단으로 선 안으로 소개되어질 때, 진리는 명백하게 나타난다...그러나 선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가 그것이...인간의 영 안에 있기 때문...그러나 이 상태를 통과할 때, 선은 자체를 명백히 한다; 그 이유가 이것은...인간의 영 내에 있기 때문...그러나 이 상태가 지나가버릴 때 선은 자체를 드러낸다. 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 그리고 삶을 위하여 진리에 애착함을 수단으로 있어진다. 이것들 또한 요셉에 의해 표현되는 사항들이다. 그는 어디론가 데려가졌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나타남이 없었다. 그러나 후에 자신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창45장에서-이전 장에서 내적 인간이 취급되고 있다-이것이 요셉이다-그는 매체를 수단으로 외적 자연적

인간과 자신과의 결합을 시작했다. 이 장에서 내적 인간을 다루는데, 즉 그는 자신을 외적 자연적 인간과 결합했다. 그러나 이 결합은 ‘이스라엘’-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영적 선이 아니고서는 가능치 않은바, 그는 먼저 자신에게 이 선이 인접되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창45:1-‘요셉은 자기와 함께 서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감출 수 없었다’=모든 것들이 내적인 천적인 것을 수단으로 결합할 준비가 지금 다 되었다. ‘요셉’은 내적인 선을 표현한다, 고로 내적인 천적인 것; 그이유는 천적인 것을 수단으로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선이 의미되기 때문.

창45:3-‘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말했다’=내적인 천적인 것이 자연 평면에 있는 진리들에 지각의 자질을 주고 있다.

창45:4-‘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말했다’=새로운 자연 평면의 지각...그 이유가 자연 평면에 있는 진리들을 표현하는 이들은 자연 평면 자체 역시 표현하기 때문이다.

창45:9-‘고로 당신의 아들 요셉을 말하시오’=내적인 천적인 것에 관한 그것의 지각...‘요셉’, 내적 의미에서, 내적인 천적인 것으로부터 영적 선 안으로 지각할 수 있는 유입이다.

창45:17-‘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내적인 천적인 것으로부터 자연적인 것이 지각함...‘요셉’은 내적인 천적인 것을 표현한다, 그이유는 ‘요셉’이 표현하는 천적인 것은 내적이기 때문.

창45:26-‘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내적인 것은 거절되지 않고 있었다. ‘요셉’은 내적인 선을 표현한다.

창45:27-‘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요셉의 모든 말들을 이야기 했다’...=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유입이 있다.

창45:28-‘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내적인 것이 멀해지지 않음에 따른 환희. ‘요셉’은 내적인 천적인 것을 표현한다.

창46장에서-‘요셉’인 내적인 천적인 것이 ‘이스라엘’인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영적 선과 결합함이 다루어진다.

창46:4-‘요셉이 네 눈에 그의 손을 놓을 것이다’=내적인 천적인 것은 생기 있을 것이다.

요셉

창46:28-‘그는 유다를 자기에 앞서 요셉에게 보냈다’=교회의 선이 내적인 천적인 것과 소통함...(이것은) 유다가 표현하는 외적 선과 요셉이 표현하는 내적 선이 소통함을 의미한다.

창46:29-‘그리고 요셉은 그의 병거에 견인줄을 채웠다’=내적인 것으로부터의 교리.

창46:29-‘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올라갔다’=내적인 천적인 것으로부터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영적 선 안으로 유입됨.

창46:30-‘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내적인 천적인 것으로부터 영적 선을 지각함.

창47장에서-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영적 선이...내적인 천적인 것과 결합 이후...이 장은 자연 평면 안에 있는 교회 속의 진리들이 과학적 지식 안으로 은근히 심어짐을 취급하고 있다.

창47:1-‘그리고 요셉은 가서, 바로에게 말했다...’=과학적 지식이 있는 자연 평면 안에 내적인 천적인 것이 현존함,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유입과 지각이 있다.

창47:5-‘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과학물이 있는 자연 평면에서 지각함이 있다...‘요셉’은 내적인 것을 표현한다, 거기서 자연 평면에 지각이 있다.

창47:11-‘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를 거주하게 만들었다’=내적인 천적인 것으로부터 교회의 진리들과 영적 선의 삶.

창47:12-‘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 그리고 모든 자기 아버지의 집을 빵을 가지고 떠받쳤다’=내적인 천적인 것으로부터 거기 그들의 삶이 있는 자연 평면에 있는 교회의 진리들과 영적 선 안으로 선의 계속적인 유입이 있다는 것.

창47:14-‘그리고 요셉은 모든 은을 모아들었다’=...내적인 천적인 것은 모든 각각의 진리와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하나로 가져다 놓았다.

창47:14-그리고 모든 이집트는 요셉에게 왔다’=내적인 것에 출원함.

창47:16-‘그리고 요셉이 말했다’=내적인 것으로부터 답이 있었다.

창47:20-‘그리고 요셉은 바로를 위해 이집트의 모든 지면을 샀다’=(내적인 것은) 과학적 지식이 있는 자연

적 마음 전체를 그 자체에 어울리게 했다.

창47:22-‘성직자들의 지면을 그는 사들이지 않았다’=내적인 것은 자체를 위해 선을 받는 자질을 자연 평면으로부터 획득했다, 그 이유는 이것들이 그 자체로부터 있기 때문.

창47:23-‘그리고 요셉은 백성들에게 말했다’=과학적 진리들 안으로 내적인 것의 유입이 있다.

창47:29-‘(이스라엘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다’=내적인 것의 현존.

암6:6-‘요셉의 환난에 근심치 않는다’=내적인 것으로부터의 선이 사라져버린 것에 아무런 돌봄도 없다.

창48:2-‘보라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오고 있다’=내적인 것의 현존.

창48:3-‘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자연 평면 속의 진리가 내적인 것과 소통함.

창48:9-‘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내면으로부터의 답; (그이유가) ‘요셉’에 의해 내적인 것이 의미되기 때문.

창48:15-‘그리고 그는 요셉에게 복을 빌었다’=내적인 것으로부터 생명을 가지는 지적 부분의 진리와 자발적 부분의 선...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서는 ‘요셉’에 관해 예언함= 내적인 것으로부터 출생하는 자연 평면에 있는 의지 측면의 선과 지적 측면의 진리. ‘요셉’에 의해 그의 아들들이 의미된다는 것은 축복 그 자체로부터 명백하다.

창48:21-‘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보라 나는 죽는다’=새로운 삶에 관해 내적인 천적인 것으로부터 영적 선이 지각함

창49장에서-마지막으로 ‘요셉’인 영적 평면 속의 천적 교회가 취급된다;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취급된다.

창49:22-‘요셉은 열매 있는 것의 아들이다’=영적 왕국의 교회; 최고 의미에서 신성한 영적 측면에 관련한 주님; 내적 의미에서 영적 왕국과 신앙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외적 의미에서, 열매 풍성함과 번창함; 그리고 ‘요셉’=선의 열매 풍성함과 진리의 번창함인바, 그는 ‘열매 있는 것의 아들’이라 불리워진다. ‘요셉’에 의해 여기서 주님의 영적 왕국을 취급한다; 그리고 ‘유다’에 의해

요셉

그분의 천적 왕국이 취급된다.

창50:1-‘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렸다’=내적인 것이 선에 애착함 안으로 유입됨...‘요셉’은 내적인 것을 표현한다.

창50:2-‘요셉은 그의 종 의원에게 명했다’=결합을 방해했던 악들로부터 보존함에 관하여 내적인 것으로부터 유입이 있음.

창50:4-‘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집에 이야기했다’=내적인 것이 자연적 마음 안으로 유입함.

창50:7-‘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매장하러 올라갔다’=내적인 것이 교회의 설립을 위하여.

창50:8-‘그리고 요셉의 전체 집’=영적 평면의 천적인 것들. ‘요셉’은 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을 표현한다.

창50:14-‘그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돌아왔다, 그와 그의 형제도’=과학물 안에서 내적인 천적인 것과 교회 속의 진리들의 삶...

창50:15-‘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어찌하면 요셉이 우리들을 미워할 것이다’=그들이 내적인 것을 거절했었다는 것...이것은 외관에 따라서 ‘요셉’인 내적인 것에 그 탓을..., 외적인 것 속의 것은 그의 ‘형제’이다.

창50:16-‘그리고 그들은 요셉에게 의무를 지워 말하기를,’=내적 인간으로부터의 유입이 있음, 그 결과 지각함.

창50:17-‘이렇게 너희는 요셉에게 말할 것이다’=행해져야 할 것을 내적 인간으로부터 지각함.

창50:17-‘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말한 것 때문에 울었다’=사랑으로부터 받아들임...그 이유가 이 유입은 ‘요셉’인 내적 천적 왕국으로부터 이기 때문; 그리고 이 유입을 받는 것은 ‘형제’들인 자연에 있는 진리들을 수단으로 있기 때문.

창50:18-‘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갔다, 그리고 요셉 아래 엎드렸다’=자연에 있는 것들이 내적인 것 아래 복종함.

창50:19-‘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마시오’=내적인 것으로부터의 재 창조.

창50:21-‘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유아들을 받들 것이오’=그들은 의지 속의 선과 이해성 속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신성으로부터 내적인 것을 통하여 살아야 할 것이

다는 것...여기서 ‘제가’인 요셉은 내적인 것을 표현한다.

창50:22-‘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거주했다’=내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교회의 과학적인 것들의 생활.

창50:22-‘요셉은 110년을 살았다’=...내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과학물의 상태와 품질.

창50:23-‘그리고 요셉은 에브라임의 아들 3대를 보았다’=내적인 것으로부터, 즉 주님으로부터 내적인 것을 통하여...지적 측면에 관련되는 교회의 설립, 그리고 그것의 갈래들.

창50:23-‘또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지 측면에 관련되는 교회의 설립과 그 갈래들...이는 진리와 결합한 선들이다; ‘요셉의 무릎에서 그들이 태어남’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창50:23-‘요셉의 무릎에서 태어난...’=이들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진리와 결합된 선으로부터 이었다는 것...(이 말들은) 요셉이 자기 소유로 그들을 인정했음이 포함되어 있다.

창50:24-‘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죽는다’=교회의 내적인 것은 중단될 것임을 예언함...여기서 ‘요셉’=교회의 내적인 것, 그 이유는 진행되는 것 안에서 취급되는 것은 내적인 것에 의해 건설되는 교회를 다루기 때문; 즉 주님에 의해 내적인 것을 통하여...

창50:26-‘요셉은 죽었다’=내적인 것의 존재가 중단되었다.

출1:5-‘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다’=천적 왕국의 내적인 것이 자연 안에 있었다는 것...천적 왕국의 내적인 것이 과학물이 있는 자연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연 안에서 모든 것들은 배열되었다는 것이 요셉이 전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고 바로의 집안의 통치자로 삼았다에 의해 표현되었다. 이것이 표현된 이유는, 내적 의미에서 영적 교회의 건설이 취급되기 때문; 그리고 자연은 그 안에 천적 왕국의 내적인 것이 없으면, 이 내적인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

출1:6-‘요셉은 죽었다’=이제 교회의 내적인 것과는 경우가 아주 판관이라는 것.

출1:8-‘요셉을 몰랐던...’=내적인 것과 완전 소원해짐.

요압-요한

계7:8-‘요셉 지파로부터 12000명이 봉인되었다’=주님의 새 교회와 새 천국 속에 있을 이들과 더불어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 ‘요셉’에 의해 영적 왕국으로부터 있는 신성에 관련된 주님; 영적 의미에서, 영적 왕국; 그리고 자연적 의미에서 열매 풍성함과 번창함. 그러나 여기서 ‘요셉’에 의해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가 의미되고 있다. 이 교리는 주님의 영적 왕국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다. 여기서 위와 같이 요셉에 의해 의미되는 이유는 그의 이름이 스블론 지파 뒤에서, 베냐민 지파 앞에서 명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분류에서 중간 지파)=이해성 속에 있는 지혜로부터의 어떤 것. ‘요셉’이 주님의 영적 왕국을 의미하기에 그는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창49장-‘요셉’=주님의 영적 교회.

신33:13-‘요셉’에 의해 주님의 영적 왕국이 의미되는 바, 그리고 주님의 천적 왕국에 가깝게 교통하는 천국, ‘요셉의 토지’에 의해 위 천국이 의미되고, 또한 이 천국 안에 있을 이들로부터 있는 교회도 의미되고 있다.

겔37:16-‘요셉’과 ‘에브라임’...이 왕국들 아래 있는 이들이 의미되어진다, 그 이유는 그들은 천적 수준도 아니고 영적 수준도 아니고 자연적 수준이기 때문, 그리고 아직도 자기들의 광신적 신앙(신앙심 깊은 체험)에 의거한 생활의 선에 있기 때문.

시80:1-‘요셉을 양떼 같이 이끄시는 당신’...‘요셉’에 의해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는 교인들이 의미된다.

속10장-‘요셉’에 의해 선행의 선 안에, 그리고 신앙의 진리들 안에 있는 교회, 즉 영적 교회가 의미되고 있다.

겔37장-‘요셉’과 ‘에브라임’에 의해 영적 교회, 이 교회는 선행의 선과 신앙 속의 진리들에 있다.

시77:15-‘요셉의 아들들과 요셉’에 의해 자기들의 광신적 신앙에 따라 생활의 선에 있는 이들...여기서 ‘요셉’에 의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의미된다.

욥18절-‘야곱의 집과 요셉의 집’에 의해 교리로부터의 진리들에 따라 생활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요셉의 집’에 의해 교리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이들이 의미된다.

시80편-‘요셉’에 의해 영적 왕국의 교회, 이 교회는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교회; 즉 생

활에 관련한 교리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음.

암5:6-‘이스라엘 가문’에 의해 영적 교회; ‘요셉 가문’에 의해서는 교리의 진리들에 관련한 교회.

겔47:13-‘요셉’=영적 교회.

요압 (Joab)

삼하3:29-(위선들은) 지옥에 떨어짐이 요압이 사기쳐서 아브넬을 살해했을 때, 다윗이 요압에 관련하여 있는 예언적인 말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하여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 요압은 자기가 도망친 제단에서 죽임을 당했다 (왕상2:28-32).

왕상2:5-진리들과 선들이 악한 행위들에 의해 분해되고 사라지는 바, 아브넬을 속임수를 써서 살해한 요압을 두고 이렇게 말해진다. ‘그는 자기 허리에 있는 띠에 전쟁의 피들을 주었다.’

요한 (John)

* 복음서 어디에서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명명될 경우, 그들 셋은 신앙, 선행, 선행으로부터의 일을 표현한다.

계1:1-‘그분은 그분의 종 요한에게 그분의 천사를 보내 시어 알리셨다’=선행과 선행으로부터의 신앙으로부터 생활의 선 안에 있는 이들에 천국을 통하여 주님께 의해 밝히 알려주어 왔던 것들.

계1:9-‘당신들의 형제요 동료인 나 요한’=선행으로부터의 선 안에, 이로부터 신앙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

계21:2-‘나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교리 측면과 생활 측면에서 신성한 진리 안에...있는 새 교회. 여기서 요한이 자신을 두고 ‘나 요한’이라 명명한 이유는 사도로서의 요한에 의해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 이로부터 생활의 선이 의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여타 사도들 보다 더 사랑되어졌다. 그리고 만찬에서 주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다. 이 교회, 여기서 취급되는데, 마찬가지로이다.

계21:10-‘그는 나를 영 안에서 크고 높은 산 위에도 운반했다, 그리고 나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내려오는 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요한은 세째 천국 안으로 이동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의 시야가 거기서 열렸고, 그의 앞에 성의 형체로 교리 측면에 관련한 주님의 새 교회가 명명백백해졌다

는 것.

계22:8-‘나 요한은 이런 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들었고 보았을 때, 나는 이런 것들을 나에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숭배하려 엎드렸다’=요한은 자기를 영 안에서 있게 하려고 주님께 의해 보내진 천사가 이런 것들을 밝히 알게 한 하느님이셨다고 상상했다.

욕단 (Joktan)

- * '욕단'=두 번째 고대 교회의 외적 예배.
- * 에벨의 두 아들에 의해 두 예배, 내적, 외적 예배가 의미된다. 이것이 '욕단과 벨렉'이다. '벨렉'에 의해 내적 예배가, '욕단'에 의해 교회의 외적 예배가 의미된다.

욕산 (Jokshan)

창25:2-‘(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 욱산, 므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천국들과 땅위에서 주님의 영적 왕국의 일반적인 계층들.

창25:3-‘그리고 욱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첫 계층으로부터의 파생들.

욥 (Job)

- * 욥기서가 고대 교회의 책인 것은 그 책 안에 있는 표징적이고 의미 있는 스타일로부터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과 예언서라 불리는 책들 속에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주님과 그분의 왕국만을 오로지 취급하는 내적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이 의미 만이 순수한 말씀의 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

용 (Dragon)

이13:22-‘꽤락 있는 그들의 건축물 안에 용들이...’ ‘용’ 등등=그들 예배의 내면의 것들.

계12장-‘용의 꼬리’=거짓들로부터의 추론들...‘용’이 뱀이다, 이것이 이브를 유혹했다. 이는 ‘큰 용이 내던져졌는데, 옛 뱀...’이라는 구절로부터서도 분명해진다.

- * 불레셋을 수단으로 뜻해진 광신적 신앙이 계시록 12,13장에서 용과 그의 두 짐승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계12:3-‘보라, 큰 붉은 용’=하느님을 셋으로, 주님을 둘로 만들고, 선행을 신앙으로부터 분리하고, 신앙이 구원함을 만들지, 선행이 아니라고 하는 개혁 교회 안에 있는 이들.

계12:9-‘악마와 사탄이라 부른 옛 뱀인 큰 용이 내던져졌다’=용에 의해 뜻해진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자신들에게로, 천국으로부터 세상으로 돌아서버렸고, 하여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감각적인 것이 되어 자기들의 현세에의 욕망으로부터의 악들 안에 있는 것 외 달리는 할 게 없고, 하여 주님과 천국으로부터 분리함에 의해 악마들과 사탄들이 되어갔다는 것.

계12:12-용이 여기서 ‘악마’라 불리운다, 그이유는 이것들이 이교로부터 생활의 악 안에 있는 이들이 뜻해지기 때문.

계12:13-‘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던져졌음을 보았을 때, 용은 아들을 낳은 여인을 핍박했다’=내던져진 이후, 영들의 세계에 있는 용을 추종하는 자들은 새교회가 지닌 교리 때문에 새 교회로 떼지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던져졌음을 보았을 때’=용의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천국으로부터 분리되었음과 땅에 있는 인간들과 결합하여 있음을 보았을 때.

계12:16-‘땅이 그녀의 입을 열었다, 그리고 용이 그의 입으로부터 내뿜은 홍수를 삼켰다’=용의 추종자들이 외쳐댄 거짓들로부터의 추론들은 풍부했지만 미가엘로 의미된 진리들이 합리적으로 이해됨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님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 이 미가엘로부터 새 교회(the New Church)는 구성되고 공표된다는 것.

계12:17-‘그리고 용은 여인에게 화가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씨의 남은 자들, 즉 하느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들과 전쟁을 만들려고 떠나갔다’=주님 안에서 신성과 인간의 합일은 신비적이라고, 그리고 믿음 만(faith alone)에 의해 의롭다 여김을 받음(정당하다고 규정함)을 옹호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즐거워하고 믿는 이들이 주님 만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다는 것, 십계명이 생활의 법임을 인정하는 이들에 맞서 미워함이 지퍼졌다는 것. 전자가 후자들을 피어내는 도안을 가지고 수습기간 중인 후자에게 바짝 다가서고 있다.

계20:8,9-...그런다음 그들이 말했다, 이 도성을 포위공격하자...그리고 이 선행(charities)들을 내던지자. 그들이 이것을 시도했을 때, 거기에는 마치 그들을 불사르려는 천국으로부터 불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이 불

은 타인들에 맞서 지피워진 그들 분노의 외관이었다... 그들이 불로 살라지려는 듯 나타난 이유는 그들의 발 아래 있는 지옥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것들은 마지막 심판의 시기에서 많은 장소들에서 발생했다... '용은 땅의 네 모퉁이에서 있는 나라들을 피어내 모아서 그들과 함께 전쟁하려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평원(plain) 위에서 올라갔다, 그리고 성인들의 진영, 그리고 사랑된 도성을 에워쌌다. 그러나 불이 천국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을 불살랐다.'

계20:2- '그는 악마와 사탄인 고대의 뱀, 용을 붙잡았다' = 용에 의해 뜻해지는 이들이 보류되어졌다는 것. 그들이 고대의 뱀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신앙에 관한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생각할 뿐이기 때문에서이다. 그들이 '악마'라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악한 생활 안에 있기 때문. 그들이 '사탄'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교리 측면에서 거짓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계20:2- '그리고 그를 천년 동안 결박했다' = 용에 의해 뜻해진 이들은 영들의 세계에서 퇴출되어졌고 영들의 세계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되어, 얼마 동안 그들과 교통되는 일이 있지 않게 되어졌다.

계20:3- '그리고 그는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졌다, 그리고 그를 감금했고, 그를 인봉해서 더 이상 나라들을 유혹하는 일이 없게 했다' = 주님께서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셨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과의 모든 교통함을 거두어가셨다, 하여 그들이 천국 안으로 올려지는 이들에게 자기들의 이교의 어떤 것도 붙여넣어지는 일이 없게 하셨다.

계20:3- '천년이 끝나질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잠깐 동안 풀려나져야만 한다' = 이는 얼마 동안이라는 것, 즉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이 천국 안으로 들려올려질 때까지이다... 이후 용에 의해 뜻해지는 이들이 잠깐 동안 풀려나지고 나머지 사람들과의 교통함이 있어진다는 것.

계20:8- '그리고 그는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나라들, 곡과 마곡을 피려 나아갈 것이다. 하여 그들을 함께 그러모아 전쟁을 만들려 해서이다' = 용에 의해 뜻해진 이

들은 영들의 세계 전체로부터 땅에서 오로지 외적인 자연적 예배 안에서 살았던 이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모으고, 그들을 선동해서 주님 만을 예배하고,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가르침들에 따라 살았던 이들에 맞서게 하려 해서였다.

신32:33-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의 잔인한 담즙이다...' '용들의 독, 그리고 독사의 담즙' = 말씀의 왜곡된 진리들로부터 출시되는 거대한 거짓.

이43:20- '용들' = 자연적 사상들.

이13:22- '시랑(Ijim)이 그녀의 궁전들에서, 그리고 용들이 성전에서 대답할 것이다.' 시랑=섞음질되고 모독된 진리들. 그리고 '용들' = 섞음질되고 모독된 선들.

미1:8- 황폐된 선들에 탄식함이 '용같이 소리내어 울다'에서 의미되어 있다.

사44:19- '용들의 장소' = 용들인 자들, 즉 자신들 안에 있는 모든 선을 파괴해왔던 이들이 있는 지옥 안에 있는 장소.

시91:13- '사자와 용이 짓밟는 것' = 교회의 선들을 파괴하는 내면과 외면의 거짓들을 파괴하는 것.

겔29:3, 32:2- '(바로) 큰 용'. 또는 '고래' = 거짓인 과학물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 또는 인간 교유의 총명으로부터의 자만으로부터 왜곡된 과학물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

* (창세기에서) '뱀' = '용'과 비슷한 의미를 지녔다. 그러므로 후자는 온 세상을 유혹해대는 고대의 뱀이라 불리운다.

말1:3- '광야의 용들' = 단지 왜곡함뿐인 것.

계13:11- '그는 용같이 이야기했다' = 비슷한 애착, 생각, 교리 안에서, 그리고 신앙으로부터의 생활을 신앙에서 분리한 이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미1:8- '용들' = 악으로부터의 탐욕 안에 있는 이들.

용광로 (furance)

* 가마, 아궁이

나3:14- '벽돌 가마를 수리하는 것' = 거기로부터 예배함.

창19:28- '용광로의 연기 같이 토지의 연기가...' '연기' = 거짓의 상태, '용광로' = 악의 상태로부터, '토지' = 교회 내에서.

출9:8- '아궁이의 재' = 감염시키고 있는 이들의 탐욕들

용광로-용사 -용서하다 -용의주도함-용해-우두머리

로부터의 거짓들이 흥분하는 것...!아궁이의 재'=탐욕들로부터의 거짓들.

말4:1-'용광로 같이 타는 것'=악으로부터의 탐욕들.

창19:28-'용광로의 연기'=탐욕들의 악들로부터의 거짓들.

계9:2-'용광로의 연기'=탐욕들의 악들로부터의 거짓들.

나3:14-'벽돌 가마'=그들이 장안한 거짓들, 그리고 이것은 악에 의해 주입되었다.

예43:9-'벽돌 가마'=악으로부터의 거짓의 탐욕.

출19:18-'그것의 연기는 용광로의 연기 같이 올라갔다'=탐욕들로부터 있는 희미함 같은 희미함...!용광로'=탐욕.

계9:2-'그는 무저갱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 무저갱의 연기가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이 올라왔다'=자연적 인간의 악한 사랑들로부터 튀어나오는 현세에의 욕망으로부터의 거짓들.

나3장-지옥의 사랑은 거짓화한 것들을 수단으로 견고해진다는 사실로부터 거기로부터의 교리는 '벽돌 가마'라 불리워진다.

예43:9-'벽돌 가마 안에 숨겨진 큰 돌들'에 의해 자기 총명으로부터 꾸며낸 이야기들을 수단으로 말씀 속의 진리들을 거짓되게 만든...!벽돌 가마'=허구적인 것들 가지고 치밀하게 짜여진 교리.

속12:6-이 교회에 의해 흩어질 악들이 '장작들 사이에 있는 가마, 곡식단에 있는 햇불 같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창15:17-'보라, 연기 나는 용광로'=아주 치밀한 거짓...!연기나는 용광로 라고 말해진 이유는 인간, 특히 교인, 즉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인정 않고, 심정에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진리에 반대되는 생활을 꾸릴 때 이런 사람은 용광로의 연기로 밖에 달리 말할 방법이 없다; 당사자=용광로, 연기=미워함으로부터의 거짓. 거짓을 오게 하는 탐욕들은 이와 같은 용광로로부터의 불꽃이다.

레26:26-'열 명의 여인이 한 가마에서 빵을 굴 것이다'=인간과 더불어 교회의 모든 것 안에 선과 진리가 너무나 조금 있어 얼핏보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듯 나타나 보인다...!가마'에 의해 영적 음식이 준비되는 곳, 고

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의미되어진다.

용사 (might one)

창10:9-'니므롯, 여호와 앞에서 사냥에서 용사였다'=그 이유는 많은 것이 설득당해졌기 때문에...!사냥에서 용사'=더 낮은 마음들을 포로화함.

계6:15-'힘센 자'란 해박한 자를 의미한다. (=외적 진리들)

용서하다 (forgive, pardon)

* 면죄(remitt)를 보라.

* 죄들의 용서, 속죄, 화해, 그리고 구속(되찾음)은 악들과 거짓들로부터 순수해짐, 선과 진리의 이식, 그리고 그것들의 결합, 고로 거듭남, 그 외에 더는 아니다.

용의주도함 (circumspection)

* '뱀'은 태고인들과 더불어서는 용의주도함을 의미했다.

* '구리 뱀'=주님의 감각 평면(Lords' Sensual)...주님만이 모든 이를 위해 그분의 감각 평면을 용의주도하게 집행하실 수 있다.

* 독수리의 얼굴=용의주도함, 하여 섭리(Providence)

* 외적인 것들 안에서 나오는 매우 명민함과 용의주도함이 '뱀'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겔17:5-'그는 그것을 용의주도하게 놓았다'=변성함. '그것을 용의주도하게 놓는 것'=거짓들로부터 분리하는 것.

용해 (dissolution)

욥14:18-'산이 용해되어 무너진다.' (=악의 사랑이 멀해지는 것).

출32:25-'용해되어지는 것'=돌보지 않아지는 것...원어에서 이 말에 의해 돌보지 않아지는 것, 그리고 되돌아가버리는 것, 또한 별거벗어짐을 만드는 것이 뜻해진다.

우두머리 (chief)

민21:18-'백성의 우두머리'=글자 의미에 있는 진리들처럼 보다 수준 낮은 진리들.

마24:28-'독수리들'에 의해 교회의 지도자들이 뜻해진다.

우르 (Ur)

창11:28-'갈대야의 우르'=거짓들이 안에 있는 외적 예

우두머리-우르-우물

배.

창15:7-‘나는 너를 갈대아의 우르로부터 데려왔다’=외적 인간의 첫 상태. 주님께서 탄생 때에 어머니쪽으로부터 받은 것이 여기서 ‘갈대아의 우르’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우물 (well)

* beer, beersheba, esek, fountain, pit 등도 참조.

창14:10-‘싯딤 계곡은 역청 수렁(pit)이 가득했다’=거짓들의 불결한 것, 그리고 탐욕들.

창21:19-‘(하갈은) 물 있는 우물을 보았다’=진리들이 있게 하는 주님의 말씀. ‘물 있는 우물’, 또는 ‘수원(fountain)’=말씀,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부터의 교리, 결과적으로 진리 자체.

민21:16-18-‘그들은 브엘 쪽으로 여행했다. 이곳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라고 말하신 곳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 러 노래를 불렀다. 오 우물아, 솟아나라, 그것으로부터 네게 대답한다. 율법자 안에서, 그들의 장대를 가지고, 제 일 인 자가 팎고, 백성의 의지가 그것을 관 우물...’ 이 구절에서 ‘우물’=말씀, 또는 교리. (=고대 교회의 말씀.)

창21:25-‘아비멜렉의 종들이 강취한 물 있는 우물 때문에’=과학물들은 신앙 속의 교리가 자신들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를 원했던 (것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심).

창21:30-‘내가 이 우물을 팎다는 것’=교리는 신성으로부터 이다는 것.

창24:11-‘물들이 있는 우물 근처’=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을 받기 위하여.

창24:20-‘그녀는 물을 길으려고 우물로 다시 달려갔다’=진리에 대한 보다 낮은 수준의 애착. ‘우물’=진리, 그러나 보다 하위에 속하는 진리...보다 더 순수하고 보다 높은 진리가 취급될 경우, ‘수원(fountain)’이란 단어가 언급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덜 순수할 때, 그리고 보다 낮은 수준일 경우, 우물이란 단어가 언급된다. 창 24장의 경우, 때로는 수원, 때로는 우물이 언급되고 있다. 자연적 진리가 보다 낮은 수준의 진리이다.

창26:15-‘자기 아버지의 종들이 파놓은 모든 우물들... 블레셋인들이 그것들을 막았다’=영적 지식들을 단지 지

식 수준으로만 간주한 이들은 신성으로부터 있는 내면의 진리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하여 그것들을 말살했다. 여기서 ‘우물’=신성으로부터 있는 내면의 진리, 그이유가 그 우물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절에’ 팎았던 것이라고 말해지기 때문. 그리고 ‘아브라함’=주님의 신성 자체.

창26:15-‘그리고 그것들을 먼지(dust)로 채웠다’=지상적인 것들, 즉 자아 사랑과 이득을 수단으로.

창26:18-‘이삭의 종들이 계곡에서 팎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있는 물들의 우물을 발견했다’=내적 의미를 안에 지닌 글자 의미 측면에서의 말씀.

창26:21-‘그들은 또다른 우물을 팎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다투었다’=말씀의 내적 의미-이와 같은 것이 있는지 아닌지.

창26:22-‘그는 또다른 우물을 팎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았다’=말씀의 글자적 의미.

창26:25-‘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팎다’=거기로부터 교리.

창26:32-‘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팎았던 우물의 원인들(the causes)에 관하여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물들을 발견했습니다’=그에 관한 내면의 진리들. 그이유가 ‘우물’=말씀. 그리고 ‘물들’=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끌어낸 모든 교리적인 것들 안에는 내면의 진리들이 있다. 그이유는 (이는) 물이 있는 우물의 경우와 같기 때문, 말씀의 모든 것 안에는 내적 의미가 있다.

창29:2-‘보라, 우물’=말씀... 여기서 말씀이 ‘우물’이라 불리우는데, 그이유는 자연 평면이 취급되기 때문. 자연 평면은 그 자체에 국한해 보면 그것은 말씀을 글자의 미에서만 파악하는 것이다.

창29:2-‘이 우물로부터 그들은 가축떼에 물을 마시우게 했다’=지식이 말씀으로부터 있는 것.

창29:2-‘우물의 입(mouth)에는 큰 돌이 있었다’=말씀이 닫혀져 있었다는 것.

창29:3-‘그들은 우물의 입으로부터 돌을 굴렀다’=그들은 말씀을 닫히지 않았다라는 것.

창29:10-‘야곱은 우물의 입으로부터 돌을 굴렀다’=주님은 자연적 선으로부터 말씀의 내면들이 노출되어 있

우바스-우박-우레

게 하신다.

출2:15-‘(모세는) 우물 근처에서 거주했다’=말씀 안에서 주의깊게 응용함.

눅14:5-‘우물에 빠진 나귀나 수소’...여기서는 ‘우물’=구덩이(pit)와 같이 거짓이 의미된다.

계9:1-‘끝이 없는 구덩이의 열쇠’=그들의 지옥이 열렸다.

계9:2-‘구덩이의 안에서 밖으로 연기가 올라왔다’=말씀을 왜곡했었던 이들이 있는 지옥으로부터의 지독한 거짓들.

우바스 (Uphaz)

단10:5-‘우바스의 금’=사랑으로부터 있는 지혜의 선.

예10:9-‘우바스로부터 금’=외적 형체에서 나타나는 선, 그 이유는 말씀으로부터이기 때문. (=글자 의미에서 있는 말씀으로부터의 선)

우박 (hail)

출9:18-‘나는 그것을 매우 비통한 우박으로 비내리게 만들 것이다’=그들과 더불어 교회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짓.

겔38:22-‘우박 돌들’=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출9:19-‘우박이 그들 위에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거짓에 의해 교회 속의 것들이 지독하게 파괴되어지리라는 것. ‘우박’=악으로부터의 거짓.

출9:22-‘이집트의 모든 토지에 우박이 있을 것이다’=자연적 마음 안에서 파괴하는 거짓.

출9:23-‘그리고 우박’=이런 파괴하는 거짓들.

출19:23-‘그분은 우박이 이집트의 토지 위에 비내리게 만드셨다’=악의 거짓들에 의해 소유당한 자연적 마음.

출9:24-‘우박이 있었다. 그와 동시에 우박 한가운데에서 불이 걷고 있었다. 매우 비통했다’=악의 탐욕들과 더불어 거짓의 설득이 있다.

출9:25-‘그리고 우박은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강타했다’=거짓이 자연적 마음에 있는 것들을 파괴했다는 것.

출9:25-‘그리고 우박은 들판의 모든 풀잎을 강타했다’=이런 거짓들은 교회의 모든 진리를 파괴했다는 것.

출9:26-‘고센의 토지 만이 거기에 우박이 없었다’=영적 교회인이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

출9:28-‘우박의 충분함이...있었다’=만일 이런 거짓들

이 중단된다면.

출10:5-‘우박으로부터 남겨진 것, 피신된 잔여물’=‘우박’에 의해 의미된 이전의 거짓에 의해 소진되지 않은 진리.

계8:7-‘거기서 피와 뒤범벅된 우박과 불이 되었다’=선과 진리를 파괴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지옥의 사랑으로부터의 거짓.

계11:19-‘큰 우박’=진리와 선을 거짓화함.

계16:20-‘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천국으로부터 사람들 위에 내려왔다’=끔찍하고 흉악한 거짓들, 이를 통하여 말씀 속의 모든 진리들, 고로 교회 속의 모든 진리들이 파괴되었다.

시147:17-개역되기 이전 인간과 더불어 있는 과학물과 지식들이 ‘(뺑)부수러기 같이 있는 우박, 누가 그분의 추위 앞에 서있겠는가?’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겔13:11-악의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이 ‘우박의 돌’이라 불리워진다.

우레 (thunder)

시29:3-‘물들 위에 여호와의 음성, 영광의 하느님이 우레친다’... ‘여호와의 음성’, 여기서 이는 ‘우레’이다. ‘우레’=신성한 진리, 또는 권능에서의 말씀.

계4:5-‘왕좌로부터...우레들’=주님으로부터 지각.

막3:17-야고보와 요한은 선행과 선행으로부터의 일을 표현했고, 이로부터 진리와 선에 대한 모든 지각이 오느냐, 그들은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들’이라 불리었다.

계6:1-‘우레의 음성으로’=신성한 진리를 지각함.

계8:5-‘우레들’=지각들.

계10:3-‘일곱 우레들이 자기들의 음성을 발음했다’=주님께서 만인의(보편적인) 천국을 통하여 작은 책 안에 있었던 것을 드러내셨다.

계14:2-‘큰 우레의 음성으로’=주님께서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새 천국을 통하여 이야기하심.

계19:6-‘대단한 우레들의 음성’=가장 높은 천국의 천사들의 환희(joy). 그들의 음성, 또는 대화가 우레로서 들려졌다. (=사랑의 선으로부터 영광을 기림)

시104:7-‘당신의 우레의 음성에 그들은 허겁지겁 갔다’=악들이 천국으로부터의 선들을 통하여 흩어졌다는

우리-우리아 -우림-우상

것.

계16:18-‘음성들과 번개들과 우레들이 있었다’=추론들, 어두워져가는 이해성들, 그리고 악들의 거짓들로부터의 결말들.

우리 (Uri)

출31:2-‘브살렐의 아버지 우리’,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후르에 의하여 표현되어지는 것은 천적 선의 발생 (generation)로부터 분명해진다. 이 선은 천적 진리와 선에 관한 교리로부터 발생되어진다. 그러므로 이 교리들이 우리와 후르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후르는 진리로부터의 교리를 표현한다.

우리아 (Uriah)

삼하11:3,6,17,21-아직도 헷족이 명예로운 자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아, 그는 헷족이었다로부터 분명해질지 모른다.

우림 (Urim)

이24:15-‘우림 안에서 네 여호와를 경외하라’=사랑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이24:15-‘우림’=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로부터 있는 빛.

출28:30-‘너는 판단의 가슴판에 우림과 둠뭇을 놓을 것이다’=궤말단에서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가 빛을 발함. ‘우림과 둠뭇’=빛(light), 그리고 빛이 발함 (shining forth). 이런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가슴판의 돌들을 통하여 천국의 빛은 그것들을 통하여 주어져 온 응답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빛을 발했기 때문. 이런 이유로 그것들은 다양한 색깔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24:15-교회가 자연적 선 안에 있던 나라들로부터 말해지는 바, ‘우림 안에서 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이유가 ‘우림’은 ‘불’과 ‘난로(hearth)’을 뜻하고, 이를 수단으로 자연적 인간의 사랑의 선이 의미되어지기 때문.

신33:8-‘우림과 둠뭇’=신성한 선으로부터 빛을 발하는 신성한 진리, 고로 말씀.

우상 (idol)

예10:8,9-거짓들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허구를 날조하는 이들, 이런 인물들이 우상들, 또는 거짓들을 만들어내는 기술공에 의해 오래전부터 표현되어졌다. 그들은 금을 가지고, 즉 표면상의 선으

로 꾸몄다. 그리고 은을 가지고, 즉 표면상의 진리로 꾸몄다. 또한 보라색과 의복으로 꾸몄다, 즉 (표면상의 선과 진리에) 일치하는 자연적인 것들 가지고 꾸몄다.

겔8:10-‘기는 것들’, 즉 쾌락의 즐거움...이것들이 그들의 우상들이다, 그이유는 그들은 그것들을 생각하면 즐거웠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하여 그것들을 신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106:38-자기들의 아들과 딸을 가나안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신앙과 선행 속에 있는 것들을 내적인 것에서 분리된 외적 예배를 수단으로 모독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이다.

이31:7-은으로 만든 우상, 그리고 금으로 만든 우상=비슷한 것들.

시115:4-‘우상들이 은과 금’=거짓들과 악들.

호8:4-‘우상들’=거짓들과 악들로부터의 예배.

호8:4-‘그들의 은과 금을 우상들로 만드는 것’=자신들의 탐욕을 지지하는 쪽으로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있는 진리와 선에 대한 과학물을 남용하는 것, 더 나아가 그것들이 거룩한 것인양 예배하는 것. 비록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다지만 그것들에는 생명이 없다. ‘은’=진리, ‘금’=선, 이는 신성으로부터이다. 그리고 ‘우상’=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교리적인 것들, 이것들이 거룩한 것으로서 예배되어진다. 그럼에도 그것들 안에는 생명이 없다.

겔8:10-‘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말씀의 외적 의미만으로부터의 교리, 주님으로부터 예증되지 않고 자신의 총명에 의해서이다. 고로 거짓들.

이2:20, 31:7-‘은 우상’=교리 속의 거짓들. ‘금우상’=교리 속의 악들.

이48:5-‘우상’, ‘새긴 것’, 그리고 ‘부어만든 것’=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교리적인 것들.

계2:4-‘우상-제물을 먹고, 매춘짓을 하는 것’=교회에서 하느님에 대한 예배가 더럽혀지고 섞음질되는 것.

계2:20-‘우상-제물을 먹는 것’=그결과로 예배가 더럽혀짐, 그리고 모독됨.

계9:20-‘그리고 금, 은, 놋쇠, 돌, 나무로된 우상들’=고로 그들은 오로지 거짓들만으로부터 예배하고 있다.

계21:8-‘우상숭배자들’=말씀으로부터가 아니고, 주님으

우세하다-우수함-우즈-운반하다-(소가)울다-(말이)울다 -울다

로부터도 아니며,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예배를 조직하고 예배를 보는 이들.

이31:7-그날에 그들이 거절할 은우상들과 금우상들=그들이 진리들과 선들이라 부르는 예배와 종교 속의 거짓들과 악들.

숙13:2-그들이 더 이상 기억해내지 않도록 나는 토지로부터 우상들의 이름들을 잘라낼 것이다=우상숭배하는 예배의 폐지. 즉 내적인 것 없이 단지 외적인 것만 있는 것의 폐지.

겔6:4-‘부수어진 우상들’=이 선의 진리들로부터의 예배가 모두 멸해질 것이다.

겔16:19-‘편안함의 냄새를 위해 이런 것들을 우상들에게 주는 것’=우상 숭배하는 예배, 후에는 이것 쪽으로 교회의 진정한 예배가 돌아선다.

우세하다 (prevail)

창25:23-‘(이)백성이 (저)백성보다 우세할 것이다.’ ‘우세함’=더 높이 있는 것.

창26:16-‘너는 우리들보다 더 우세해졌다’=그들에 있는 신성 때문에.

창30:8-‘나는 이겨냈다’=극복하는 것.

창32:25-‘그는 그를 이기지 못했다’=그는 시험들에서 극복해냈다.

출17:11-‘이스라엘이 우세했다’=전투하는 진리가 이겼다.

출17:11-‘아말렉이 우세했다’=그다음 거짓이 이겼다.

계12:8-‘그리고 이기지 못했다’=그들은 거짓들과 악들에 있음을 알아채렸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들 안에 남아 있었다.

우수함 (excellence)

창49:4-‘너는 우수하지 않을 것이다’=그것은 영광과 능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출15:7-‘수많은 우수함’=신성에 반대되는 쪽에 그것 자체를 놓는 이런 것들을 제압하는 권능 측면에서의 신성.

우즈 (Uz)

창10:23-‘(아람의 아들들은) 우즈, 훌, 게델, 마스이다’=많은 종류의 선에 관한 지식들.

창22:21-‘(밀가와 나홀의) 첫 출생 우즈, 그리고 그의

형제 부스’ 등등=파생되어 나온 광신적 신앙들, 그리고 예배 형태들.

운반하다 (carry)

* 나르다(bear)를 보라.

(소가) 울다 (bellow)

삼상5:12-‘길에서 암소들이 우는 것’=자연적 인간 속의 악의 현세적 욕망이 선한 애착으로의 전환은 어렵다는 것.

(말이) 울다 (neigh)

나3:2-‘말이 울고, 병거가 뿔다’=남용한 지적 평면으로부터, 그리고 똑같은 교리물.

예13:27-‘(말 같은) 너의 울음 소리’=진리의 모독들. 그 이유는 ‘말(horse)’=지적 평면,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

나3:1-4-‘말이 울고, 병거가 뛰고’=진리들을 파괴하기를 바램.

예8:16-진리를 왜곡함들이 ‘튼튼한 말의 울음 소리’에 의해 뜻해진다.

울다 (weep)

이65:19-‘우는 소리가 그녀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거기에 악은 있지 않을 것이다.

창21:16-‘(하갈은) 목소리를 둔구어 울었다’=더 강도 높은 슬픔.

예31:9-‘그들은 울면서 울 것이다’=(무지, 또는 진리의 황무해짐 때문에) 있는 슬픈 상태.

창27:38-‘에서는 목소리를 드높혀 울었다’=(장자권이) 변경된 것이 더 진진된 상태.

신21:13-거짓들로부터 순수해짐이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를 위해 움’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창29:1-‘(야곱은) 목소리를 드높혀 울었다’=사랑이 작열함(ardor).

창33:4-‘(에서와 야곱은) 울었다’=사랑을 통하여 진리들과 선이 결합함 때문에 결과되는 환희(joy).

창35:8-‘알론-바곳’은 ‘울음의 상수리나무(상수리나무가 움, the oak of weeping)를 뜻한다. ‘상수리나무’=가장 낮은 자연 평면. ‘울음’=마지막 이별. 이로부터 죽은 자를 위해 우는 것이 관습화 되었다.

울러퍼지다-울타리-움직이다

창37:35-‘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울었다’=내면적 슬픔(mourn).

창42:24-‘(요셉은) 울었다’=자비. ‘우는 것’이 주님을 서술할 경우, =자비를 가지는 것, 그 이유는 자비는 몹시 슬퍼하는 사랑이기 때문.

눅19:41-‘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두고 우셨다.’ 즉 그분은 예루살렘에 자비를 가지셨다는 것, 그리고 몹시 슬퍼하셨다는 것=마지막 날의 교회에는 선행이 깡그리 말라지고 그결과 신앙도 멀해짐이 뜻해진다. 이것 때문에 그분의 자비와 애통해하심으로부터 그분은 우셨다.

창43:30-‘(요셉은) 울 곳을 찾았다’=사랑으로부터 자비의 결과.

창45:2-‘(요셉은) 울음섞인 목소리로 말씀했다’=자비와 환희.

창45:14-‘(요셉은) 울었다’=자비의 결과.

창45:14-‘그리고 베냐민이 그의 목 위에서 울었다’=반응 그리고 이로부터 상호적인 것.

창46:29-‘그리고 (요셉은) 그의 목에서 오래 울었다’=자비.

창50:1-‘(요셉은) 이를 놓고 울었다’=슬픔(sorrow).

창50:3-‘이집트인들은 그를 위해 울었다’=교회 속의 과학물들이 슬퍼함(sadness).

창50:17-‘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때 요셉은 울었다’=사랑으로부터 수용함.

출2:6-‘오, 어린아이가 울었다’=슬픔(sadness).

계5:4-‘나는 많이 울었다’=심정이 애통함(grief).

계5:5-‘울지 마라’=위로함.

계18:9-‘땅의 왕들이 그녀를 위해 울 것이다’=더 높은 지배력을 지닌 이들의 더 내면적인 슬픔들.

울러퍼지다 (resound)

예6:23-‘그들의 음성은 바다 같이 울러퍼졌다’=논리를 더듬어 추리함.

예6:23-‘바다 같이 울러퍼지는 것’=감각들의 오류로부터 설득함.

눅21:25-‘바다와 최대한의 울러퍼짐’=오류들과 그로부터 과생되는 추론들.

울타리 (fence, hedge)

이5:5-‘울타리를 제거하는 것’=왜곡하여 교회를 방어

하는 진리들을 파괴하는 것. 포도원을 빙두른 울타리와 예루살렘을 빙두른 성벽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겔13:5-그것의 ‘울타리’=거짓의 부숨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고로 개정함.

마21:33-‘울타리’=지옥으로부터 있는 악의 거짓들로부터 보호함.

움직이다 (move, commove)

동요시키다 (commove)

이24:18-‘땅의 기초가 흔들린다(shake)’

이13:13-‘나는 하늘을 동요시킬 것이다, 그리고 땅은 제 자리에서 동요시켜질 것이다’...땅이 ‘그 자리에서 동요시켜질 것이라 말해지는데, 이는 교회의 상태가 바뀔 때이다.

이14:16-‘이 사람이 땅을 동요시키고, 왕국들을 동요시키는가?’...‘땅’=교회, 그가 교회 속의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요구할 때, 그가 ‘동요시킨다’고 말해진다.

마24:29-‘천국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교회의 기초들이 멀해질 때, 그것들이 ‘흔들려진다고’ 말해진다.

그이유가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천국의 기초이기 때문. 그러므로 교인들이 지독하게 뒤집힌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선과 진리의 유입을 허용하지 않을 때, 천국들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창43:30-‘(요셉의) 연민이 동요되어졌다’=사랑으로부터의 자비.

출20:18-‘백성들이 보고 동요되었다’=신성한 진리가 받아들일 때 있는 전율.

요5:3-‘물이 움직이는’ 것에 의해 인정함과 신앙을 통하여 살아있어짐이 의미되었다. 또한 진리들을 통하여 순수해짐. ‘움직임, motion’=생활의 상태.

이40:21-‘그것은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그것은 약해질 수 없고 파괴되어질 수 없다.

시18:7-‘땅’=교회, 이것이 ‘동요되어진다’, 그리고 ‘떨린다’라고 말해지는데, 이는 진리가 악용되어 거짓화될 때이다. 그리고 산들의 기초가 ‘떨린다’, 그리고 그 자체 ‘동요된다’고 말해진다. 그이유가 사랑으로부터의 선들, 이것은 신앙 속의 진리들 위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

울2:10-교회의 변화와 뒤집힘이 ‘땅은 흔들려지고 천

움켜쥐다-웃다-웃사-웃음-원-원기를 돋우다-원로

국들이 떨었다'에 의해 의미되었다.

눅10:33-'창자가 동요시켜지는 것'=자비와 내면으로부터의 선행.

시46:2,3,5-'바뀌어지는 것', '동요시켜지는 것', '떠들석함 안으로 내던져지는 것', '방해되는 것', 그리고 '떨리는 것'에 의해 진리의 상태들, 즉 진리들이 멸해지고, 진리가 있던 자리에 악들과 거짓들이 들어 앉을 때의 상태가 의미되어지고 있다. 그 결과 선과 진리 측면에서 황무해지는 교회의 상태.

이14:16-'땅이 동요시켜지는 것', '왕국들이 떠는 것'=교회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

움켜쥐다 (seize)

창49:27-'그는 아침에 움켜쥘다'=주님이 현존하실 때, 선한 자를 외락 붙잡으시고 해방되게 하신다.

계12:5-'하느님과 그분의 왕좌로 외락 붙잡혀 올려졌다'=주님에 의한 보호.

웃다 (laugh)

웃음 (laughter)

창17:17-'(아브라함이) 웃었다'=진리에 애착함. 이는 웃음의 본질과 근원으로부터 분명해질 것이다. 그것의 근원은 진리, 또는 거짓에 애착함 외 더다른 근원은 없다.

창18:12-'사라가 속으로 웃었다'=이 합리성으로부터 그러하리라는 진리에 애착함.

창18:13-'어찌하여 사라는 이에 대해 웃는가?'=합리적 진리의 애착으로부터 그 진리에 관한 생각.

창18:15-'사라가 부인했다. 말하기를,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이유가 그녀는 두려웠기 때문'=인간의 합리적 진리는 그자체 변명을 원했다는 것.

창18:15-'그는 말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아직 이와 같다는 것.

창21:6-'(사라가 말했다). 하느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천적 진리에 애착함.

창21:6-'듣는 모든 이가 나와 웃을 것이다'=거기서 모든 것들은 애착을 가진다.

창25:8-'보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웃고 있다'=신성한 선이 신성한 진리 안에 현존하였다는 것, 또는 신성한 선이 신성한 진리에 인접했다는 것.

웃사 (Uzzah)

삼하6:8-'웃사'에 의해 섬기는 것, 고로 진리가 표현되었다. 그이유는 진리가 선을 섬기기 때문. 이 진리와 선이 분리됨이 '웃사의 명령을 어김'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삼하6:8-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자기 손으로 케를 붙잡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이유는 '손으로 접촉하는 것'=교통함, 그리고 주님과 교통함은 사랑의 선을 통하여 결과되어진다. 아직 웃사는 기름부워지지 아니했었다.

웃음 (laughter)

* 웃다를 보라.

원 (circle)

이40:22-'땅의 원에서(땅의 전체 위에서) 거주하시는 여호와'=총명 측면에서의 주님은 가장 높은 것들 안에 계신다.

원기를 돋우다 (exhilarate)

이56:7-'나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원기를 돋우게 할 것이다'=그분은 그들에게 영적 진리들을 수여하실 것이다.

원로 (elder)

창24:2-'아브라함의 집의 원로 중'=자연 평면(the Natural), 또는 자연적 인간. '집의 원로'=자연적 인간.

창50:7-'바로의 집의 원로들'=선과 일치하는 것. '원로들'=지혜에서 제1 순위인 것, 고로 선과 일치하는 것.

시107:32-'원로들의 회합'=선 안에 있는 이들, 이들은 지혜에 속해 있다.

계4장에서-'원로들'=지혜로부터 있는 이런 저런 것들, 고로 선 가운데에 있는 이런 저런 것들.

민11:17-원로들이 지혜 가운데 있는 이것 저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세의 영을 가져다가 그들에 주어, 이로부터 그들은 예언했다.

겔8:11,12-반대 의미에서, '원로들'=지혜에 반대되는 이것 저것들.

창50:7-'그리고 이집트 토지의 모든 원로들'=진리와 일치하는 것.

출3:16-'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함께 모으라'=영적 (왕국의) 교회에 있는 총명한 자.

원시의

출4:29-‘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든 원로들을 모았다’=영적 (왕국의) 교회에 속해 있는 지혜로부터의 제 1 순위에 속하는 것들.

출12:21-‘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을 불렀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현존과 유입됨을 수단으로 영적 (왕국의) 교회인들의 이해성이 개발됨.

출17:5-‘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네게로 데려와라’=제 1의 진리들로부터.

출18:12-‘아론이 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교회의 제 1인 것들.

출19:7-‘모세는 가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렀다’=진리의 총명 안에 있는 제 1 순위의 것을 선택함.

신21:3-‘도성의 원로들’=선과 일치하는 진리들.

이3:14-원로들과 더불어 여호와께서는 심판에 임하실 것이다’=교회의 선들.

출24:1-‘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로 칠십 (명)’=진리들로부터 선 안에 있는 모든 것.

출24:14-‘그는 원로들에게 말했다’=외적 의미 안에서만 있는 이들.

계4:4-‘나는 왕좌들 위에 24 원로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마지막 심판을 위해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정돈됨.

계4:10-‘24 원로들이 왕좌 위에 앉으신 그분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을 예배했다’=주님 앞에서는 천국의 모든 것도 창피함 뿐임.

계5:6-‘원로들의 한가운데에’=가장 깊은 것들로부터,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회의 모든 것들 안에.

계5:8-‘4 동물들과 24 원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창피함 뿐임, 그리고 이 창피함 뿐임으로부터 더 높은 천국들로부터 계신 주님을 숭배함.

계11:16-‘하느님 앞 자기들 왕좌 위에 앉은 24 원로들은 자기들 얼굴을 땅 위에 대고 하느님을 예배했다’=주님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심이 천국의 천사들에 의해 인정됨.

계14:3-‘그들은...4 동물들과 원로들 앞에서 말하자면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더 높은 천국들의 천사들 앞에서 주님을 경축하고 영광을 기림...앞의 천국들은 고대인들과 태고인들로부터 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 천국들

안에서 천국과 땅의 하느님으로 인정되어 졌다.

계7:26-‘원로들’=총명한 자.

계5:5-‘원로들 중의 하나’=지혜 안에 있는 여타 사회를 능가하는 천국의 사회(society).

계5:6-‘원로들’=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 고로 둘째 천국에 있는 이들.

애5:14-‘원로들이 (성)문으로부터 중단되었다’=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추상적으로는 교회 안으로의 입장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이것이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시105:22-‘원로들’=총명과 지혜 안에 있는 이들.

계7:11-‘천사들’=첫째 천국 안에 있는 이들. ‘원로들’=둘째 천국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4 동물들’=셋째 천국 안에 있는 이들.

계7:13-‘원로 중의 한 사람이 답했다, 나에게 말하기를’=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유입이 있음, 그 결과 지각함...‘원로들’에 의해 주님이 계신 천국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애2:10-‘시온의 딸의 원로들’=교회 안에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 추상적으로는 지혜와 총명.

애2:19-‘성직자들’=선을 가르치는 이들. ‘원로들’=진리를 가르치는 이들.

이3:14-‘백성의 원로들, 그리고 거기의 제 1인 자들’은 12 제자들에 의해 의미되는 것과 같다. 즉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는 교회의 모든 것. 추상적 의미에서, 전체 복합체에 있는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

원시의 (primitive)

미7:1, 호9:10-‘무화과 나무에 있는 원시인 것(무화과)’. ...‘내 혼이 원시의 (열매)를 바라고 있다’...‘원시인 것’=신앙, 또는 옳은 것.

호9:10-무화과 나무의 원시인 것(처음 익은 과일)=유아 안에 있는 영적 선으로부터의 자연적 선.

원리 (principle)

* beginning을 보라

원수 (enemy)

* 적(enemy)을 보라.

원조하다 (aid)

예20:4,5-‘모든 재물, 모든 수고함’=신앙에 관한 지식

원리-원수-원조하다 -월경이 있는-위대한-위로

들.

시112:1,3-'재산과 재물'=지혜와 총명에 관한 재산과 재물, 고로 지식들.

창14:11-'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모든 식품'=악과 거짓. 여기서 '재산'에 의해 악이, '식품'에 의해 거짓이 의미되고 있다. 영적 재산과 재물이 선에 관련될 경우, 주님으로부터 증여받고 풍부해진 선들과 진리들, 악에 관련될 경우 자신들 스스로 획득한 악들과 거짓들이다.

창19:10-'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을 내밀었다'=주님의 강력한 원조.

이30:6,7-'젊은 나귀 위에서 자기들의 재산을 운반하는 것'=그들의 합리성에 속해 있는 지식들.

이60:5,6-'나라들의 재산'=대단히 풍부한 자연적 선.

* '오 여호와여 나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주님이 원조를 제공하지 않으면...

출2:17-'모세는 일어나서 그들을 도왔다'=신성으로부터의 법에 속하는 진리들로부터의 원조.

출2:24-'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원조하심...'듣는 것'=순종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주님에 관련해 말할 경우, 들으심=원조를 제공하심.

출16:9-'그분은 너희의 불평함을 들으셨기 때문'=시험 가운데서 고통받기에 그분이 원조를 제공하시려...

출17:2-'왜 너희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그들이 신성에 맞서, 그들은 신성의 도움을 단념했다.

출17:5-'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원조하심.

출17:7,8-'여호와와 우리 가운데 계시나?'=그들은 주님이 그분 자신 단독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거의 믿었다.

출22:22-'만일 그가 나에게 외치면'=원조해달라고 주님께 탄원함.

출22:26-'나는 자비이기 때문이다'=그분으로부터 자비로부터 모든 원조는 존재한다.

이10:12-14, 출30:15-'재산과 재물'=총명과 지혜 속에 있는 것들, 고로 진리에 관한 지식과 선에 관한 지식, 이것이 영적 재산과 재물이라 부른다.

숙14:14-'모든 나라들의 재산'=그들이 어디에 있든, 악

한 자와 더불어 있을 경우 까지 포함하여 지식들.

습1:13-'재산'=영적인 재산, 이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다.

겔27:18-'일'=선에 관한 지식, '재물'=진리에 관한 지식.

숙9:4-'재물'=거짓들.

겔26:11,12-'재산과 재물'=진리에 관한 지식.

이30:6,7-'재물과 보물'=말씀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지식과 선에 관한 지식, 그러나 여기서는 거짓 과학적인 것, 그 이유는 자기들 고유의 총명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월경이 있는 (menstruous)

겔18:6-'월경이 있는 여인'=거짓으로부터의 탐욕.

위대한 (great)

* 큰 (great)을 보라.

위로 (comfort)

창5:29-'우리의 일에 관련하여 우리를 위로하는' 것.

창25:67-'이삭은 자기 어머니의 죽음 이후 위로되어졌다'=새로운 상태, 그리고 그 자체로부터 생명 속의 진리를 박탈하는 것; 그 이유는 누군가 때문에 자아가 '위로를 받는 것'=새로운 상태, 그 이유는 위로의 상태가 새롭기 때문...

창27:42-'네 형 에서는 너를 죽임으로 위로받으려고 있다'=상태를 뒤바꾸려 함, 그리고 그 자체로부터 생명 속의 진리를 박탈하는 것. '누군가 때문에 자아를 위로하는 것'=희망을 가지고 마음의 불안을 달래는 것.

창37:35-'위로하는 것'=글자 의미로부터 만들어진 해석들.

창50:21-'요셉은 그들을 위로했다'=희망.

이51:3-'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66:11-'그녀의 위로들의 가슴'=신성한 선.

이49:13-이것이 개혁과 거듭남을 위하여 이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예31:15-어떤 영적 진리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 우는 라헬, 그녀의 아들들 위에 위로 받기를 거절한다, 그이유는 어떤 아들들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위로자-위로 향함-위선-위증케하다-위치-유다

이51장-‘위로하는 것’=교회를 회복하는 것.

시23:4-‘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 할 것이다’=신성한 영적 진리가 신성한 자연적 진리와 함께 보호하실 것이다. 그이유는 그 진리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로’=보호.

이51장-교회가 시온에 의해 뜻해지고 교회의 설립과 그들의 개혁이 ‘위로하는 것’에 의해 뜻해진다.

예1:16-신앙과 이해함으로부터 어떤 자양분도 있지 않다, 그이유는 생활 속의 악의 결과로 어떤 영적 진리들도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를 위로하고 내 혼을 복구할 그분이 나로부터 멀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위로자 (comforter)

요14:16,17-이 신성한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성령 자체이고, ‘위로자’라 불리우고, ‘진리의 영’이라 불리운다.

위로 향함 (upwards)

이8:21-‘위쪽을 보는 것, 그리고 땅을 보는 것’=선들과 진리들을 위해 모든 곳을 보는 것.

신28:13-‘위쪽에 있는 것’=그가 천국을 쳐다보도록 주님에 의해 승강되는 것. 그리고 ‘아래쪽을 보는 것’=주님에 의해 승강되지 않는 것.

위선 (hypocrisy)

마23장-사기(deceit)가 입에서는 경건을 입고 있고, 심정에서는 불경건을 입고 있을 때, 이 사기는 ‘위선’이라 불리운다. 또는 그들이 입에서는 선행을 입고, 심정에서는 미움을 입고 있을 때, 또는 그들이 얼굴과 손짓 발짓에서는 순진을 입고, 영혼과 가슴에서는 잔인함을 입고 있을 때 위선이다. 결과적으로 순진과 선행과 경건함을 수단으로 사기치는 이들이다. 이런 자들이 내적 의미에서 ‘뱀’, ‘독사’이다. 그이유는 천국의 빛에서 그들은 뱀 같이 독사 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삼하3:29-영적인 것들에서 있는 사기, 즉 위선은 면죄될 수 없다, 그이유는 사기는 내면의 것들에까지 파고드는 독 같아 신앙과 선행으로부터의 모든 것을 살해하고,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 아껴두신 것들 까지 살해하기 때문이다. 위선자들은 사기를 수단으로 자기들 내면의 악들을 포화 상태로까지 만든다. 그들은 회개를

수행할 수 없는바, 그들을 위한 용서함도 없다. 이것이 사기로 이웃을 살해한 자를 죽이기 위해 제단으로부터 취해진 이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그들에 대한 저주가 요압이 사기쳐서 아브넬을 죽였을 때, 요압에 관련하여 있는 다윗의 예언적 말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요압은 제단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32:6-‘위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거짓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으로부터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이32:6-그가 선들에 맞서 이야기하는 악들이 ‘그가 행하는 위선’에 의해 뜻해진다.

예23:15-‘예루살렘의 예언자들로부터 나온 위선’=거짓과 진리가 함께 뒤섞임, 그이유는 그들이 진리들을 말해왔고, 거짓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씀으로부터 말했을 때, 진리들을 말했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로부터, 자신 고유의 교리를 가르쳤을 때, 그들은 거짓들을 가르쳤던 것이다.

위증케하다 (perjure)

숙5:4-진리로부터 아껴두신 것을 가져가버리는 거짓이 ‘거짓되게 맹세하는 자’, 그리고 ‘거짓되게 맹세하는 자의 집’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위치 (station)

창40:13-‘당신의 위치로 당신을 회복되게 하는 것’=(이런 것들이) 질서 안으로 환원되어 질 것, 하여 그것들이 마지막 장소에 있을 런지 모른다.

유다 (Judah)

* ‘유다’는 ‘이번에 나는 여호와께 고백할 것이다’ (를 뜻한다).

* ‘유다’가 예언서들에서 언급될 때, 통상적으로 천적 교회, 또는 이 교회로부터 있는 것은 무엇이든 뜻해진다.

이65:9-‘유다’=천적 교회.

솔3:6-‘유다의 아들들’=신앙으로부터의 천적인 것들.

이11:12-‘유다’=교회 속의 천적인 것들.

사1:2,4-‘유다’는 천적인 것들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

마2:6-‘유다’에 의해 천적 평면이 뜻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천국과 땅에서 영적 평면이 뜻해진다.

유다

창49장-‘유다’에 의해 주님이 묘사되어지고 있다.
이11:12-‘유다’=천적 선 안에 있는 이들.
이65:9-‘유다’=내적 측면에서의 천적 교회.
예17:25-‘유다의 사람, 예루살렘의 주민들’=사랑의 선, 선행의 선, 신앙의 선 안에 있는 이들.
말3:4-‘유다의 선물’=천적 사랑으로부터의 예배.
이11:12-‘유다로부터의 뿔뿔이 흩어진 자’=그들의 선들.
이48:1-‘유다의 물들’=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창49장-‘유다’에 의해 주님이 뜻해진다. 표현적 의미에서 그분을 사랑함의 선 안에 있는 이들.
시114:2-‘유다’=천적인 선, 이 선은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있다.
예23:6-‘유다’=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이들.
창29:35-‘그러므로 그녀는 그의 이름을 유다 라고 불렀다’=그 원인으로부터의 품질...이는 레아의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 즉 ‘이번에 나는 여호와를 고백할 것이다.’= 최고 의미에서 주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의 신성. 내적 의미에서 말씀, 또한 주님의 천적 왕국. 그리고 외면적 의미에서, 천적 교회 속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있는 교리.
겔27:17-‘유다’=천적 교회.
겔37:16-천적 왕국이 ‘유다’이다.
창49장-‘유다’는 주님의 신성한 사랑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 그리고 내적 의미에서 천적 왕국, 고로 천적 인간.
시114:2-‘유다’=천적 사랑으로부터의 선.
계7장-‘유다’=셋째 천국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천적 선.
창35:23-‘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레위, 그리고 유다, 그리고 잇사갈, 그리고 스불론’=외적 신성한 선들과 진리들의 필수적인 것들. ‘유다’, 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사랑을 표현한다. 내적 의미에서 주님의 천적 왕국, 외적 의미에서 천적 교회 속에 있는 말씀으로부터의 교리를 표현한다.
창37:26-‘그리고 유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모든 선에 맞서 있는 교회 안의 타락한 자.

창38장-유대 교회가 ‘유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창38:1-‘그리고 유다는 그의 형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야곱의 후손. 특별히 유다 지파, 이 지파는 나머지 지파로부터 분리되어졌다. (그이유가) ‘유다’, 보편적 의미에서 야곱의 후손을 표현한다. 그리고 특별하게는 유다 지파라 불리는 지파를 표현하기 때문.
창38:2-‘그리고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의 사람의 딸을 보았다’=악의 거것으로부터 있는 악에 애착함.
창38:2-‘그는 (수아를) 데려왔다, 그리고 그녀에게 왔다’=유다 지파가 그 자체 악의 거것들로부터 있는 악들과 결합했다는 것.
창38:6-‘그리고 유다는 여인을 데려왔다’=그의 후손을 위하여 있었던 교회.
창38:11-‘유다가 말했다’=일반적으로 야곱의 후손, 특별하게는 유다로부터 있는 것.
창38:12-‘유다의 아내’=야곱으로부터, 특별하게는 유다로부터 나라와 더불어 있는 광신적 신앙.
창38:15-‘그리고 유다는 그녀를 보았다’=유대 국가 속의 광신적 신앙.
창38:24-‘유다가 말했다’=유대 국가 안에 있었던 광신적 신앙으로부터의 판결.
창43:3-‘유다가 그에게 말했다’=교회의 선.
창43:8-‘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이런 것들에 관하여 교회의 선으로부터 지각함.
창44:14-‘유다가 들어갔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교회의 선, 그것의 진리들과 함께.
창44:16-‘그리고 유다가 말했다’=자연 평면에 있는 교회의 선에게 주어진 지각.
창38:18-‘그리고 유다는 그에게 가까이 왔다’=선을 수단으로 외적 인간이 내적 인간과 교통함.
호10:11-‘밭을 가는 것이 유다를 서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다’=교회의 선이기 때문.
예44:12,14,28-유다로부터 있는 그들이 이집트의 토지에서 체류하거나 거기에 거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유다의 지파가 주님의 천적 교회를 표현 했기 때문. 그리고 천적 인간은 이집트에 의해 의미되는 과학물들에 관하여 알려하는데 지독하게 기꺼워하지 않기 때문.
창46:12-창46:12-‘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 셀라와 베

유다

레스와 세라'=천적 사랑, 그리고 그것의 교리적인 것들.

창46:28-'그는 요셉에게 그에 앞서 유다를 보냈다'=천적 평면의 내적인 것과 교회의 선이 교통함.

창49장에서-천적 교회가 취급된다. 이 교회가 '유다 지파'이다.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이다.

창49:8-'유다, 너'=천적 교회. 최고 의미에서 신성한 천적 평면에서의 주님. (그이유가) '유다', 최고 의미에서 사랑의 신성 측면에서의 주님, 또는 신성한 천적 평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 그러나 관계적 의미에서 주님의 천적 왕국, 또는 천적 교회.

창49:8-'네 형제들이 너를 경축할 것이다'=교회는 나머지들 위에서 더 저명할 것이다.

창49:8-'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에 있을 것이다'=지옥적이고 악마적인 패거리들이 그의 현존으로 달아날 것이다.

창49:8-'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진리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복종케 할 것이다.

창49:9-'유다는 사자 새끼이다'=선천적으로 힘을 지닌 순진이다.

창49:9-'떡이감이 됨으로부터 내 아들이, 너는 올라갔다'=주님으로부터 천적 평면을 수단으로 지옥으로부터 많은 자들을 해방함이 있다... 여기서는 '나의 아들'인 유다는 신성한 천적 평면을 표현한다..

창49:9-'그는 자신을 구부렸다, 그는 사자같이 웅크렸다, 그리고 늙은 사자 같이'=사랑의 선, 그리고 파생되는 진리, 그들의 힘에서.

창49:9-'누가 그를 성나게 할까? '=그는 지옥 안에 있는 모든 것에서 안전하다는 것.

창49:10-'홀이 유다로부터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주권(Power)이 천적 왕국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시60:7, 108:8-'유다는 나의 입법자이다'=천적인 선, 그리고 그것의 천적인 진리.

말3:4-'유다'=천적 사랑의 선, 고로 이 사랑 안에 있는 그들.

이11장-'유다'=사랑의 선 안에 있는 이들.

예31장-'유다의 집'=천적 교회.

삼하1:18-'유다의 아들들에게 활(the bow)을 가르치는

것'=사랑과 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에게 교리의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

예17:3-유다가 '뜰판에 있는 산'이라 불리운다. 그이유는 유다와 더불어 천적 교회의 표현물이 있었기 때문.

울3:20-여기서 '유다'에 의해 천적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이65:10-'야곱', 그리고 '유다'에 의해 야곱과 유다의 백성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에서의 천적 교회를 뜻한다.

계5:5-'유다 지파 속에 계시고, 다윗의 뿌리인 것'=그분의 인간 안에서 신성한 선이 신성한 진리에 하나됨을 수단으로.

계7:5-'유다 지파로부터 12000명이 봉인되어졌다'=천적인 사랑, 즉 주님을 사랑함이다. 이 사랑은 새 천국과 주님의 새 교회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다.

울3:6,20-'치유다의 아들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들들을 헬라(Greek)의 아들들에게 파는 것'=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을 왜곡하는 것... '유다는 영원히 앓을 것이다'=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을 통하여 선 안에 있는 모든 이들.

삼하1:18-'유다의 아들들'에 의해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어진다.

이22:8-삼입한 진리들이 '유다의 덮개들'이라 불리운다. 그이유는 '유다'에 의해 천적인 사랑이 의미되고, 이 진리들이 그것을 덮고 보호하기 때문.

예32:44-'유다의 성읍들, 산의 성읍들'=주님의 천적 왕국 속에 있는 이들에 의해 소유되어진 교리 속의 진리들.

창49장-'유다'에 의해 주님의 천적 왕국이 의미되어진다. 거기서 모든 이들은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주님으로부터 있는 능력 안에 있다.

예31:27-'이스라엘의 집, 그리고 유다의 집'에 의해 진리 측면에서의 교회와 선 측면에서의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이8:8-'그는 유다를 관통할 것이다, 그는 침수시키며 통과할 것이다'=그는 교회 속의 선들을 파괴할 것이다.

숙12:4-'유다의 집'에 의해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교회, 그러므로 말씀으로

유다

부터의 진리로부터의 교리 안에 있는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속10:3-‘유다의 집’에 의해 주님의 천적 왕국, 또는 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는 천국과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속9:13-‘유다’에 의해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어진다.

예14:2-‘유다’에 의해 선에 애착함 측면에서의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겔27:17-‘유다’에 의해 선 측면에서의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홀3:18-‘유다의 모든 강들은 물들을 가지고 흐를 것이다’=말씀의 각각의 것들로부터 있는 진리들.

속10:6-‘유다의 집’에 의해 주님의 천적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시114:2-‘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었다’=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있는 선은 천국과 교회의 거룩 자체이다.

이65:9-‘유다’에 의해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있는 선 안에 있는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창49장에서-‘유다’에 의해 영적 의미에서 주님의 천적 왕국이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천적 사랑 측면에서의 주님이 서술되고 있다. 천적 사랑은 천적 왕국 안에서 받은 주님의 사랑이다.

겔37장-‘유다’에 의해 영적 의미에서 주님의 천적 왕국이 의미되어진다.

이11:12,13-‘유다의 뿔뿔이 흩어진 자’에 의해 생활이 선 안에 있는고로 해서 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속9:13-‘나는 유다를 나에게 잡아당길 것이다, 나는 에브라임을 가지고 활을 채울 것이다’=교회는 주님을 사랑함, 이로부터 교리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설립될 것이다.

속10:3,6-‘유다의 집’에 의해 주님의 천적 왕국이 뜻해진다. 이 왕국은 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는 이들로 구성된다.

속2:12-‘유다’에 의해 주님을 사랑함 안에 이들이 뜻해진다.

말3:4-‘유다의 식사-공물’=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있는 예배.

홀3:19-‘유다의 아들들에게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말씀 속의 왜곡된 진리들과 섞음질한 선들 때문에.

홀3:6-‘유다의 아들들’=말씀 속의 선들.

예23:6, 33:16-‘그분의 시절에 유다는 구원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그분을 사랑함 안에 있는, 그리고 이웃을 향해 선행 안에 있는 이들은 구원될 것이다.

속12:4-‘유다의 집’에 의해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있는 선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이44:26-‘유다의 성읍들’=천적 교리로부터의 진리들.

이45:9-‘유다’에 의해 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는 교회가 뜻해진다.

겔27:17-‘유다’에 의해 사랑의 선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의해서는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겔48:8-22-‘유다’에 의해 유대 국가가 뜻해지는 것이 아님이 이 구절로부터 분명해진다...‘유다’에 의해 천적 교회, 또는 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는 교회가 뜻해지고, 이 안에 ‘성소(the Sanctuary)’가 있다.

속10:6-‘유다의 집’에 의해 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는 교회가 뜻해진다. 이 교회가 천적 교회라 불려진다.

겔37:16-‘유다’에 의해 천적 교회가 의미된다. 이 교회는 사랑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다.

시48:11-‘기뻐날뿔 유다의 딸들’에 의해 천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선과 진리에 애착함들이 의미된다.

이8:8-‘유다’에 의해 교리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이 의미된다.

이44:26-‘유다의 성읍들’에 의해 교리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이 의미되어져 있다.

예7:17-‘유다의 성읍들’에 의해 교회의 교리적인 것들이 의미되어져 있다.

이8:8-‘유다를 이것이 침수시키며 통과할 것이다’에 의해 말씀이 있는 교회, 고로 말씀이 의미되어져 있다.

이40:9-‘유다’에 의해 말씀이 의미되어진다.

예11:17-‘유다의 집’에 의해 사랑의 선 측면에서의 교회가 의미된다.

속14:13,14-옛 교회의 마지막 상태가 ‘큰 소동, 유다가

유대-유리

예루살렘에 맞서 싸울 때'에 의해 묘사되어져 있다.

예4:9-‘유다의 토지’에 의해 선 측면에서의 교회, 여기서는 악 측면에서의 교회가 의미되어져 있다.

율3:19-‘유다의 아들들에 폭력을, 이들의 순진한 피를 그들은 흘렸다’=그들이 남용해버림으로 말씀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에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애5:11-‘유다의 성읍들에 있는 처녀들’에 의해 사랑의 선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들이 의미되어져 있다.

예9:11, 10:22-‘유다의 성읍들’에 의해 교리적인 것들이 뜻해진다, 이것은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이다.

호1:7-‘유다의 집’에 의해 천적 교회가 의미되어져 있다.

예31:27-‘유다의 집’에 의해 천적 교회가 의미되어져 있다.

속12:7-‘유다의 장막들’=말씀으로부터의 선들, 그리고 교회로부터의 선들.

예50:33-‘억압당해지고’ 있다고 말해지는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유다의 아들들’에 의해 주님으로부터 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는 나라들이 뜻해진다.

호6:11-‘유다’에 의해 말씀이 의미되어져 있다.

이40:9-‘유다의 성읍들’에 의해 모든 복합체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있는 교리가 의미되어져 있다.

창49장-‘유다’에 의해 최고 의미에서 천적 교회 측면에서의 주님, 그리고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이 뜻해진다.

애1:15-‘유다의 딸’=말씀으로부터 진리의 교리로부터 있는 교회.

호5:13-선으로부터의 의지, 이 구절의 경우, 악으로부터의 의지.

겔37:16-‘유다에 의해 그리고 그의 동료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의해 주님의 천적 왕국이 의미되어져 있다. ‘유다’에 의해서는 선 측면에서의 이 왕국이 의미되고 있다.

유대 (Judea)

마24:16-‘유대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교회. 참으로 천적 교회.

마24:16-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는 이들인 첫째가는 교회 사람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들로 특별하게 의미되

어진다.

마24:16-말씀의 내적 의미에서 ‘유대’가 유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의 많은 대목들로부터 분명해질 것이다. 유대는 말씀에서 ‘유다의 토지’, 그리고 ‘가나안의 토지’가 언급되는 횟수에 비해 그렇게 자주 언급된 편은 아니나 모두 주님의 왕국, 결과적으로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그런 이유는 ‘유다’, 또는 유대 나라에 의해 주님의 천적 왕국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눅21:21-‘유대’에 의해 교회가 뜻해진다.

*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주님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사랑의 선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 ‘유대’에 의해 주님의 교회가 표현되어 있다.

유리 (glass)

계15:2-과학적인 것이 천국으로 예상하는 것, 이는 자연적 인간 안에 있는 영적 평면인데, ‘유리 바다’라 불리우고 있다.

계4:6-‘왕좌가 보임에서 수정 같은 유리 바다’=기독교인들로부터의 새로운 천국. 이 교인들은 글자 의미로부터의 일반적 진리들 안에 있었다.

계15:2-‘나는 말하자면 불과 뒤섞인 유리 바다를 보았다’=영계의 마지막 경계선, 거기에는 종교를 가졌고 그 종교로부터 예배도 드렸으나 생활로부터의 선이 없던 이들이 모여 있었다.

계4장-‘유리 바다’에 의하여 기독교인들로부터의 새로운 천국이 의미되어진다. 이들은 글자 의미로부터 일반적 진리들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 진리들 안에 있던 그들은 천국의 마지막 경계선에 또한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유리 바다’에 의해서는 영계의 마지막 경계선이 의미되어진다. 거기에 모여져 있었다. 그리고 이런 모여짐이 의미되기에, 이 구절에서는 ‘말하자면 유리바다’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불과 뒤섞인...’=악을 사랑함, 그러므로 생활이 악함...

계15:2-‘유리 바다 가까이 서있고, 하느님의 하프를 가지고’=경계선에 있는 기독교인의 천국, 그리고 거기 있는 이들의 선행으로부터의 신앙.

계21:18-‘도성은 순수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다’=이 교회의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빛과 함께 흐르는 사랑으로부터의 선이다.

유모-유발-유브라데

계21:19-‘그리고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다’=이 교회의 모든 진리, 그리고 이 교회의 교리 속의 모든 진리는 주님으로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빛과 더불어 흐르는 사랑으로부터의 선의 형체이다.

계21장-이 교리 속의 진리는, 진짜인바, 영적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의 빛과 그것들의 투명함을 끌어낸다. 이 투명함이 ‘유리’에 의해, 그리고 ‘수정’에 의해 의미되는 것이다.

유모 (nurse)

창24:59-‘그리고 그녀의 유모’=거기에 딸린 순진으로부터. ‘유모, 젖을 주는 자’=순진.

이49:23-‘왕들 네 양부들(nursing-fathers)=총명.

창35:8-‘드보라 리브가의 유모’=유전적 악.

출2:7-‘히브리인들로부터 유모 여인’=교회 자체로부터의 선이 그 안에 은근히 심어지기로 되어 있다.

이60:4-‘네 딸들은 유모 편에서 운반되어질 것이다’=계속적으로 은근히 심어지게 되는 선들.

유발 (Jubal)

* (이 새로운 교회의) 영적인 것들이 ‘유발’로 의미된다.

창4:21-‘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다; 그는 하프와(파이프)오르간을 켜는 조상이었다.’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다’에 의해 똑같은 교회의 영적인 것들로부터의 교리가 의미되었다.

* 신앙으로부터의 영적인 것이 주어졌다는 것, ‘그의 형제 유발’에 의해 의미되었다.

유브라데 (Euphrates)

창2:14-‘브라데’ 또는 ‘유브라데’=지식, 이는 최말단 또는 경계(선)이다.

창15:18-유브라데는 아시리아 방향의 경계선이고,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지배했듯이, 기억 속의 과학적 사실들은 천적, 영적 인간의 총명과 지혜의 경계선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네 씨에게 나는 이 토지, 이집트의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토지를) 줄 것이다’에도 담겨 있다. 이 두 경계선들은 비슷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

창15:18-‘이집트의 강으로부터 큰 강 브라데까지’=영

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의 확장; ‘이집트의 강’=영적인 것들의 확장; ‘브라데 강’=천적인 것들의 확장.

창31:21-‘그는 강을 건넜다’=결합이 있는 (곳의) 상태; (그이유가) ‘강’ 여기서의 경우=결합, 즉 신성과 결합. 여기서 이 강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것은 저쪽에서의 경우 가나안 토지의 경계였기 때문;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경계들은 마지막, 또는 최말단의 것, 그리고 처음의 것을 표현했다... 야곱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바, 이 강은 첫 경계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최고의 의미에서 신성과의 결합.

창15:18-(태고 교회의 시기에서) 가나안은 이집트의 강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모든 토지였다.

출23:31-‘광야로부터 강에 이르기까지’=감각적인 것의 즐거움으로부터 합리성의 선과 진리에 이르기까지...유브라데, 여기서 말하는 ‘강’=합리성의 선과 진리. 유브라데가 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아시리아가 거기 있었기 때문, 아시리아=합리성. ‘유브라데’가 가지는 의미는 ‘광야로부터 유브라데까지’ 또는 ‘이집트 강으로부터 유브라데까지’에서도 동일하게 지니고 있다.

계9:14-‘큰 강 유브라데에서 묶여 있는 네 천사들을 풀어라’=외적인 속박들이 그들로부터 제거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마음 속의 내면들이 나타나게 하려 해서이다...‘유브라데’, 말씀에서=인간의 마음 속의 내면적인 것들, 이는 합리적인 것들이라 불리워는데, 이것은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는 지혜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악으로부터 거것들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는 사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들이 말씀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의해 의미되는데, 그이유는 이 강이 아시리아로부터 가나안의 토지를 나눠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나안의 토지=교회; 그리고 아시리아=교회의 합리성; 그러므로 경계를 지어주는 강=가나안 쪽이든 아시리아 쪽에서 이든 공히 합리적인 것이라 불리는 마음 속의 내면의 것들.

계16:12-‘여섯 천사가 그의 유리병을 큰 강 유브라데 위에 쏟았다’=그들이 믿음 만으로 의로워짐에서 자신들을 확장하는 수단이 된 그들의 내면적인 것들 안으로 주님의 유입이 있다는 의미이다. ‘큰 강 유브라데’=내적 추론들; 여기서, 이 교회의 내적 추론들, 이를 수단

유산-유산하다-유아 -유입

으로 그들은 믿음 만으로 의로워짐을 확증한다.

예51:63-‘유브라테 한가운데’=바다와 유사한 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이유는 유브라테는 바벨이 있었던 곳,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의 토지로부터 분리되게 했던 아시리아의 경계였기 때문.

예13장-‘유브라테’=선에 관련한 교회의 모든 것; 여기서의 경우 악에 관련한 교회의 모든 것.

숙10:11-‘강(즉 유브라테)의 모든 깊음들이 마를 것이다’=자아 총명으로부터의 날카로운 추론들이 멀해질 것이다.

이8:7-‘앗수르’=합리성; 여기서, 뒤집혀진 합리성. 이로부터 유브라테 이었던 그것의 ‘강’은 추론함을 뜻한다.

예46:6-‘유브라테 강’=거짓 추론들.

계16:12-유브라테 강이 마름.

유산 (inheritance)

* 상속하다(inherit)를 보라.

유산하다 (abort)

출23:26-‘토지에서 유산하거나 불임되는 자가 없을 것이다’=선들과 진리들은 계속되는 발전의 질서 안에서 진행되리라는 것.

유아 (infant)

눅18:15-‘유아’, 그리고 ‘어린 아이’=순진과 선행임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명하다. ‘그들은 예수에게 유아들을 데려왔다, 하여 그분이 그들을 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었다. 그분은 말하셨다. 작은 것들이 나에게 오게 하라...’

예9:21-‘거리에 있는 유아들’=미성숙한 진리.

시8:2-‘아기들’=천적 사랑. ‘젖을 뺨’=순진.

예44:7-‘유아’ 그리고 젖을 뺨’=천적 사랑과 그것의 순진.

애4:4-‘젖을 뺨’=순진, ‘작은 어린이들’=선에 애착함.

창34:29-‘그들의 모든 유아’=모든 순진.

눅10:21-‘당신께서는 이런 것들을 아기들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단순한 자에게.

창43:8-‘또한 우리의 유아들’=아직 더 내면적인 것들.

창45:19-‘당신의 유아와 당신의 여인을 위하여’=아직까지는 교회의 내면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창46:5-‘그리고 그들의 유아들’=순진 속에 있는 이런 것들과 함께.

창47:12-‘유아의 입으로’=순진의 선의 품질에 따라서 각각.

창50:8-‘그들의 유아들만이’=순진.

출10:24-‘유아, 또한 너와 함께 갈 것이다’=진리로부터 있는 것.

출12:37-‘유아들 외에도’=순진의 선.

이13:16-‘그들의 유아들은 조각으로 내던져질 것이다’=그들은 순진을 완벽하게 소멸할 것이다.

시137:9-‘네 유아들을 붙잡아 바위에 흘뿌리는 자는 복 있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 ‘유아들’에 의해 유아들이 뜻해지는게 아니라 미성숙한 거짓들을 뜻한다. 그이유가 이것이 바벨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를 수단으로 교회의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을 파괴하는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의미되어져 있다. 그것들을 파괴함이 ‘그들을 바위에 흘뿌리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예9:21-‘거리에 있는 유아들’=미성숙한 진리.

이3:12-‘유아들’=진리들에 무지한 이들.

나3:10-‘그녀의 유아들은 모든 거리의 머리에서 내던져졌다.’ 여기서 ‘유아들’=처음 태어나 생기있어진 진리들.

유입 (afflux, flow to)

출12:31-‘그리고 (바로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그 상태에서 신성으로부터 진리의 유입. ‘그가 불렀다’=현존과 유입(influx), 여기서는 유입(afflux), 그 이유는 지옥에 떨어질 상태에 있는 이들에 관련해 말해지기 때문...이들은 진리와 선의 어떤 내면의 유입(influx)도 받을 수 없다. 오로지 외면의 유입(afflux)만 받을 수 있다

출23:29-‘그리고 들의 짐승들이 네 위에서 번성할 것이다’=자아와 세상의 사랑들의 기쁨들로부터 거짓들의 유입. ‘번성되는 것’=악과 거짓의 성급한 제거가 서술될 경우인바=유입(afflux).

유월절 (passover)

과월절 (passover)

출12:11-‘이것이 여호와에게 유월절’=주님의 현존, 그리고 그분에 의한 해방.

유지하다-유출-유향

민9:10,11-유월절은 축제일 중 가장 거룩했는바, 명령 되기를, 달의 14일에 시작해서 일주일간 계속하여 21일 제에 끝내도록 되어 있었다.

출12:21-'너희는 유월절에 죽여라'=주님의 현존을 위한 준비, 그리고 그 결과 해방됨. '유월절'=주님의 현존 하심, 그리고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해방.

출12:27-'이것은 여호와께 유월절의 제물이다'=해방됨 때문에 주님을 예배함.

출12:43-'이것이 유월절의 규례이다'=악의 침투와 지옥에 떨어짐으로부터 구해진 이들을 위한 질서의 법들.

출12:43-'낮선 자의 아들들은 그것을 먹지 마라'=진리와 선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유월절은 천국에서 선한 자의 연합을 표현한 만찬이었다. 그리고 규례에서, 연합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지시되었다.

출12:47-'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유월절을 행하라'고 명령된 이유는 그것들이 주님의 강림까지 조차 (영계의) 더 낮은 땅에서 붙들려 기다리고 있어 왔던 영적 (왕국의) 교회인들의 해방이 표현되도록 하시기 위함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집안에서 함께 그것을 먹음에 의해서는 천국 안에서 천사들이 연합함을 표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고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그것을 행함에 의해서는 전체 천국을 표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유죄 (guilt)

창42:21-'우리는 우리의 형제에 관련해 죄가 있다'=그들은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 '유죄하다'=과오 안에 있다는 것, 또는 선과 진리를 거절함 때문에 오명 (imputation) 안에 있다는 것.

이53:10-'그의 혼을 유죄함으로 만드는 것'=그분이 지옥들을 완벽히 종속시킨 수단인 마지막 시험들.

유지하다 (retain, holding back)

계3:11-'네가 가진 것을 유지하라'=그들은 한동안 그들의 진리들과 선 안에서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하리 라는 것.

계7:1-'땅의 네 바람들을 붙들어 두심'=더 강한 유입...이것은 주님에 의해 간지된다.

유출 (effusion)

* 쏟아(pour out)를 보라.

유향 (frankincense)

마2:11, 이60:6-'그들은 그분에게 금, 유향, 몰약을 선물했다; '금'=선; '유향과 몰약'=감사하고 있는 것들, 그 이유는 사랑과 신앙으로부터 때문; 그리고 이는 '여호의 찬양들'이라 불린다.

이60:6-천적으로부터인 것들과 파생된 영적인 것들이 '금과 유향에 의해 뜻해진다.

예6:20-'시바'=지식들과 존경함들, 이것이 '유향과 향품들'이다.

레6:15-'기름과 유향과 더불어 고운 가루'=선행의 모든 것들을 표현했다; '고운 가루'=영적인 것; '기름'=천적인 것; '유향'=감사하는 것.

이60장-'금과 유향'=선들과 진리들, 이것은 '여호와와 찬양들'이다.

마2장-'금'=천적 사랑; '유향'=영적 사랑; '몰약'=자연에 있는 천적 사랑과 영적 사랑.

계18:13-'계피와 향신료, 그리고 향유와 유향은 금으로부터 있는 영적 진리들이 의미된다; 그러나 그들과 더불어 뒤집어진 진리들, 악들로부터의 거짓들.

레24:7-'케익들 위에 놓여지는 '순수한 유향'=천적 선으로부터의 진리, 이는 천적 왕국의 최말단, 또는 가장 외곽.

마2장-'금'=선; '유향'=내적 진리; 그리고 '몰약'=천적, 영적 선으로부터의 외적 진리...'유향'은 두 번째 장소에서 언급된다. 그 이유는 유향=선으로부터 있는 내적 진리.

출30:34-'순수한 유향'=가장 깊은 진리, 이는 영적 선이다; (그이유가) '유향'=악의 거짓으로부터 순수해진 것...영적 왕국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선은 진리 밖에 없다. 인간이 양심과 애착으로부터 그것을 뜻하고 행동할 때, 이 진리는 선이라 불리운다.

계18:13-'그리고 계피, 그리고 향신료, 그리고 향유, 그리고 유향'=그들은 더 이상 영적 선들과 진리들로부터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예배에서 여기에서 상응으로 명명되는 것이 내적으로 전무하기 때문.

이60:6-'그들이 운반하는 금과 유향은 선들과 선들로

유향-유황-육-육계-육백 육십 육

부터의 진리들, 이것들은 감사하고 있는 것들로부터임이 뜻해진다.

이66:3-'유향을 바치고 덧없음을 복주는 것'=영적 선을 표현하는 것들로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데 아직도 악과 거짓을 사랑하고 있다.

예17:26-'태워 바침, 희생 제물, 음식 바침, 그리고 유향을 가져오는 것'=자연적 인간에 있는 천적 선과 영적 선으로부터 예배함; '태워 바침'=천적 선으로부터의 예배; '희생 제물'=영적 선으로부터의 예배; '음식 바침'과 '유향'=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과 진리.

이43:22-'나는 음식 바침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고 너를 만들지 않았고 유향으로 너희를 피곤하게 하지 않았다.' '음식 바침'과 '유향'이 언급되었는데, 그 이유는 '음식 바침'은 고운 가루로부터, 고로 빵이었는데, 천적 선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유향'은 영적 선을 의미했다.

유향 (resin)

* 수지(resin)를 보라.

유황 (sulphur, brimstone)

창6:14-'고페르 목재(gopher wood)'는 전나무(fir)나 여타 많은 종류의 경우 같이 유황이 많이 있는 목재이다. 이 목재는 현세에의 욕망(색욕, 육욕 등등)을 의미한다. 그이유는 이것은 불이 쉽게 붙기 때문이다.

이30:33-'불', '유황', 그리고 '나무들'=추악한 탐욕들.

이34:9-'역청과 유황'=탐욕들로부터의 거짓들과 악들.

신29:23-'온 땅은 유황과 소금, 불탄다'=선들과 진리들이 황폐됨. '유황'=선이 황폐됨.

창19:24-('유황이 소돔에 비내렸다')=자아 사랑의 악들에 있는 이들이 있는 지옥...

계19:20, 20:10, 21:8-'불과 유황'=자아 사랑과 이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탐욕들.

이30:33-'유황의 강'=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의 악들로부터 있는 거짓.

시11:6-'불과 유황'=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의 악들.

계9:17-'불 같고, 풍신자석 같고, 유황을 함유한 가슴판을 가지고 있다'=그들의 논쟁들은 지옥의 사랑과 자기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한 현세에의 욕망으로부터 상상적이고 망상적인 논쟁들이라는

것.

계9:17-'그것들의 입으로부터 불, 그리고 연기, 그리고 유황이 분출되었다'=그들의 생각들과 대화는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무 것도 아니고, 결국 자아와 세상을 사랑함 외 더 없다. 이것은 의지 속의 자아(proprium), 자신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자만, 이것은 이해성 속의 자아이다. 그리고 악과 거짓으로부터의 현세에의 욕망, 이것은 앞의 두 가지 것들로부터 흐르는 일반적 자아이다.

계14:10-'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괴롭혀질 것이다'=자아 사랑과 세상의 사랑, 그리고 이에서 파생된 탐욕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지옥 안에 고통이 있다.

계19:20-'유황으로 불타는 호수'=거짓의 사랑들이 있는 지옥, 동시에 악의 탐욕들이 있는 지옥.

겔38:22-거짓의 악들과 악의 거짓들이 '불과 유황'에서 의미되어 있다.

시11:6-'올가미, 불, 그리고 유황'=유혹하는 거짓들과 악들.

육 (flesh)

* 살을 보라.

육계 (cinnamon)

* 계피(cinnamon)를 보라.

육백 육십 육 (666, six hundred sixty-six)

계13:18-'그의 숫자는 육백, 육십 그리고 육'=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품질은 복합체 안에서 모든 거짓들로부터, 그리고 이 거짓으로부터의 모든 악들이라는 것.

육십 (sixty)

창25:26-'이삭은 육십 세의 아들이었다'=신성한 합리성의 상태. 숫자 60이 포함하는 것은 60을 만들어주는 단순한 숫자인 5와 12, 6과 10, 2와 30들의 각 의미로부터 알 수 있을 것이다.

마4:8,20-또 다른 '60'=남아 있음이 충만되었음, 그이유는 이 숫자가 10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

단9:25-'60'=진리를 이식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상태; 고로 '62'=진리가 매우 적은 선과 결혼함.

육십째 (sixtieth)

* 육십을 보라.

육체 (body)

* 몸 (body)을 보라

육축 (cattle)

* 소떼를 보라

율법 (law)

* 법(law)을 보라.

율법가 (lawyer)

* 법률가(lawyer)를 보라.

으르렁거리다 (roar)

겔19:7-‘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거짓.

계10:3rf-‘사자가 으르렁거리듯 외치는 것’=교회가 그분으로부터 옮겨져 버린 것, 하여 교회에 관하여 있는 비통한 탄식.

이31:4-여호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에 비교되고 있다. 그 이유는 ‘으르렁거림’=악들과 거짓들에 맞서 방어하려는 열정 때문.

겔19:7-‘사자의 으르렁거림’=파괴하여 황폐해지게 하려는 바람.

을3:16-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주님께서 신실한 자를 방어해주심이 ‘여호와가 시온의 안에서 밖으로 으르렁거리실 것이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호11:10-‘그분은 사자 같이 으르렁거리실 것인데, 그 이유는 그분이 고통치실 것이기 때문’=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그들을 방어함.

암3:8-‘사자가 으르렁거렸다.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까?’=강력한 계시와 신성한 진리의 명명백백함.

슥11:3-‘젊은 사자의 으르렁대는 소리’=신성한 진리의 향무해짐 때문에 있는 탄식.

예51:38-악의 거짓들을 수단으로 신성한 진리를 파괴하고 싶은 그들의 불타는 바람이 ‘그들은 사자들 같이 함께 으르렁댈 것이다, 그들은 사자의 새끼들 같이 으르렁대며 나아갈 것이다’에서 의미되어 있다.

예2:15-‘젊은 사자가 그에게 맞서 으르렁댄다, 그들은 자기들의 음성을 발할 것이다’=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수단으로 교회에 있는 신성한 진리가 황무해짐.

겔19:7-‘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파괴하는 악으로부터의 거짓.

예25:30-‘여호와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으르렁 거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주택으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발하실 것이다’=신성한 진리의 황폐해짐 때문에 천국 안에서 슬픔을 증명함.

암1:2-‘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으르렁하실 것이다’=비통한 탄식.

이5:29-‘(여호와와) 으르렁거리심은 사자의 것 같고, 그분은 젊은 사자들 같이 으르렁 거리신다’=악의 거짓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황폐해짐 위에 있는 슬픔과 애통함.

시74:4-‘적들이 그들 잔치 가운데서 으르렁대었다’=거짓들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파괴했다는 것.

은 (silver)

* ‘은’=진리.

* ‘은’=영적 진리

이60:17-‘철을 위해 은을...’=자연적 진리를 위해 영적 진리를..

을3:5-‘은과 금’=신앙으로부터의 영적, 천적인 것들.

창13:2-‘(아브람은) 은에서 (부자이다)=주님과 더불어 풍부해진 진리들.

* 말씀 어느 곳에서이든 ‘은’=진리, 반대 의미로는 거짓.

이55:1-‘은을 가지지 않은 자’=진리에 무지한 자, 그럼에도 선행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 밖에 많이 있다.

시12:6-‘일곱 번 순수하게 한 은 같이’=신성한 진리.

창17:12-‘은으로 산 그 사람’=영적인 것...그이유가 ‘은’=진리, 고로 신앙으로부터의 영적인 것.

창20:16-‘은 천’(을 주었다)=합리적 진리가 무한히 풍부함.

창23:10-‘은을 충분하게’=진리를 통하여 되찾음 (redemption 구속).

단2장-‘가슴과 팔은 은으로’=교회의 두 번째 상태, 이 상태는 영적이었다, 그이유는 선행으로부터이기 때문. (=영적 선, 또는 진리로부터의 선).

애5:4-‘은을 주고 물을 마시는 것’=진리를 자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

호13:2-‘자기들의 은을 부어만든 상’=왜곡된 선.

창31:15-‘우리의 은을 먹어치웠다’=진리에 애착함들로부터의 진리가 소진되었다.

마25:18-‘은을 땅에 감추어두었다’=(선행 없는 신앙에 있는 자들에 의해 사용된 바와 같은) 신앙으로부터 있는 진리.

창42:35-‘그들의 은을 도로 갖다 넣는 것’=그들의 것으로부터서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 그이유가 ‘은으로 사는 것’=자기 고유의 것으로부터 자아를 위해 포획하는 것이기 때문.

창42:35-‘각자의 꾸러미에 자기의 은을’=무료로 수여된 진리를 질서대로 놓음.

창43:12-‘은을 두 배로 가져가라’=(또다시) 받은 진리.

창43:21-‘우리의 은이 그 무게 그대로’=각각의 상태에 따른 진리들.

창43:22-‘다른 은’=다른 진리.

창43:23-‘당신의 은이 나에게 왔다’=진리가 그들에 의해 포획된듯 여겨진다.

창44:1-‘각자의 자루 아구에 그들의 은을 놓아라’=자연 평면의 외면에서 새로워진 진리.

창44:2-‘내 은잔’=내면적 진리.

창44:2-‘그리고 은을 그의 곡식에’=선으로부터의 진리.

창45:22-‘베냐민에게 그는 은 300을 주었다’=선으로부터의 진리가 흥분한 것.

창47:14-‘요셉은 모든 은을 모아들었다’=참되고 개작 가능한 모든 과학물.

출3:22-‘은 그릇’=진리로부터의 과학물.

출12:44-‘은으로 구매함’=영적 진리 열마를 가진 자.

출21:11-‘은 없이 자유함’=그것과 결합한 진리 없이.

출21:21-‘그는 그의 은이다’=자아로부터 획득한 진리.

출21:32-‘은 30세겔’=진리를 통하여 충분히 회복됨.

출21:34-‘그는 은으로 갚을 것이다’=진리를 통하여 (수정함).

출21:35-‘그들은 은을 나눌 것이다’=그것의 진리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출22:17-‘그는 은을 지불할 것이다’=그것의 위치에 동의하는 다른 진리.

출22:24-‘만일 네가 은을 빌려준다면’=훈육함.

출26:19-‘은으로 받침 40개를’=진리를 통하여 충분히

받침.

출27:10-‘갈고리들...그리고 가는 띠들은 은으로’=진리를 통하여 결합하는 방식.

이60:9-‘다르심으로부터 은과 금’=진리와 선으로부터의 과학물(scientific).

출30:16-‘속죄들의 은’=순수해지게 하는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계9:20-‘은 우상들’=영적인 것들에 관련하여 있는 거 것들.

예32:44-‘은으로 들판들을 사는 것’=진리들을 통하여 교회의 선을 자아를 위해 포획하는 것.

말3:3-‘은’=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욥3:5-‘은’=진리.

이13:17-‘은’=교회 속의 진리.

사68:13-‘은으로 덮은 비둘기의 날개들’=영적 진리들.

이52:3-‘은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되찾아지는 것’=그들은 진리를 통하여 악의 거 것들로부터 이탈되어질 수 없다는 것.

이60:17-‘은’=(영적) 선으로부터의 진리.

사68:30-‘은접시들’=교회의 진리들.

사5:19-‘은’=선으로부터의 진리.

예10:4-‘은’=(말씀으로부터의) 진리.

호13:2-‘그들의 은’=자기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인 것.

겔22:18-‘글자 의미로부터의 것들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사랑에 만 응용된 글자 의미로부터의 것들이 ‘은 찌꺼기’라 불린다. 그이유가 ‘은’=말씀 속의 진리이기 때문.

예10:9-‘다르심으로부터 가져온 두들겨편 은’=글자 의미 안에 있는 말씀의 진리들.

이40:19-‘그가 은 사슬을 주조한다’=거 것들이 진리들로 나타나고 밀착할런지 모른다는 것.

이55:1-‘은을 가지지 않는 자’=선으로부터의 진리를 가지지 않은 것.

호9:6-‘탐낼만한 은으로 된 것’=진리에 대한 지식들.

겔7:18-‘은을 거리에 내던졌다’=거 것들이 거절되었다.

은총 (grace)

창6:8-‘그는 여호와와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주님께서는 인류가 구원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미리 보셨다는 것. 주님의 자비는 온 인류의 구원을 포함하고 그

음료 공물-음성-음식을 주다-음악(가)-음행-응결되다-응징하다

것에 관해서이다. 그분의 '은총' 역시 마찬가지이다.

* '자비'와 '은총'은 말씀에서 구별되어진다. 이 둘은 그것들을 받는 자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다. '자비'는 천적 수준인 이들에게 적용되어진다. '은총'은 영적 수준인 이들에게 적용되어진다. 그이유가 천적인 이들은 자비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영적 수준인 이들은 은총 외에는 거의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천적인 이들은 은총이 무엇인지 모른다. 영적인 이들은 자비가 무엇인지 거의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같이 만들어 자비와 은총이 같은 것인줄 안다. 심정이 창피함(humiliation)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자비를 애원한다. 그러나 생각에서 창피함에 있는 이들은 그분에게 은총을 달라고 부탁한다. 만일 이들이 그분의 자비를 애원한다면, 이것은 시험의 상태 안에서 행하여진다. 또는 심정에서가 아닌 입술만으로 일 뿐이다.

창18:3-'만일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주님의 상태의 각각의 것.

창19:19-'오, 당신의 종이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습니다'=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있는 면목 없음(humiliation).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큰 자비를 행하셨습니다'=선에 애착함으로부터 있는 면목 없음.

창32:5-'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는 것'=선 앞에서 진리가 겸손하게 굴고 면목 없어 함.

창33:5-'하느님이 은총스럽게 수여하셨다'=신성한 섭리로부터.

창33:8-'내 주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는 것'=만족스런 개시(Initiation). '은총을 발견하는 것'=그들이 받을런지 모른다는 것.

창34:11-'나로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는 경향성(inclination)을 포함하는 연설의 형체, 여기서의 경우, 그의 쪽에서 마음(관심)이 있었다는 것.

창39:4-'요셉은 그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다'=그것이 받아졌다는 것...'그의 눈에서' 라고 말해진 이유는 은총이 지성 평면을 서술하기 때문이다.

창39:21-'그리고 감옥의 제 일 인 자의 눈에 그의 은총을 주었다'=그때부터 안심(relief)이 파생되었다. 그이유가 시험들 안에서 '은총을 주는 것'=위로하는 것과

희망으로 안심하는 것.

창43:29-'하느님께서 내게 은총을 내리기를, 내 아들 아'=신성이 천적 평면으로부터의 영적 평면과 더불어 있었다는 것.

창47:29-'만일 제가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갈망함.

창50:4-'만일 제가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그는 잘 받을런지 모른다는 것. 그이유가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는 것'은 은근히 심어줌(Insinuation)에 대한 언어 표현의 한가지 형체이기 때문이다.

출3:21-'나는 이집트인들의 눈에서 이 백성에게 성의를 보이게 할 것이다'=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이 영적(왕국의) 교회인들을 두려워함.

출33:12-'너는 내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다'=그는 이 국가 너머에서 관찰할 수 있었기에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

출33:19-'나는 내가 은총을 행하는 자에게 은총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자비를 행한 자에게 자비를 행할 것이다'=신성한 진리와 선은 받는 이들에게 밝히 알려질 것이다.

출34:6-'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모든 선은 그분으로부터 있다.

계1:4-'당신에게 은총이 있기를, 그리고 평화'=신성한 인사.

음료 공물 (drink offering)

창35:14-'기둥 위에 음료 공물을 붓는 것'=신앙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창35:14-'(야곱은) 그것 위에 음료 공물을 부었다'=진리로부터의 신성한 선.

이57:6-'그것들에 음료 공물을 붓는 것'=그것들을 예배함.

예44:17-'음료 공물을 붓는 것'=예배하는 것.

시16:4에서-'피의 음료 공물'이 언급되어져 있다... 이는 진리를 모독함을 의미한다.

호9:2,4-신앙으로부터의 선이 '포도주들', '포도액(즙)', 포도주의 음료 공물'이다.

출29:40-'포도주 4분의 1 힌의 음료 공물'=결합을 위한 만큼의 영적 지리.

음성-음식을 주다-음악-음악가-음행-응결되다-응징하다-
의롭다고 인정됨-의류-의미하다-의복

출30:9-‘너는 그것 위에 음료 공물을 붓지 마라’=거기에는 영적 사랑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을 수단으로 하는 거듭남의 표현물은 있지 않았다는 것.

율2:14-‘빵인 식사 공물=선, 포도주인 음료 공물=진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그이유가 ‘우리의 하느님으로부터’라고 말해졌기 때문.

율7:18-‘다른 신들에게 음료 공물을 붓는 것’=거짓들로부터 예배하는 것.

율1:9,13-‘식사 공물’=교회의 선, ‘음료 공물’=교회의 진리.

음성 (voice)

* 목소리(voice)를 보라

음식을 주다 (feed)

계12:6-‘음식을 주는 것’=그것이 자라도록 제공하는 것.

음악 (music)

음악가(musician)

계18:22-‘음성’, 또는 ‘하프 연주자와 음악가의 소리’는 영적 애착들에 관련되고 있다.

음행 (fornication)

* 간통(fornication)을 보라.

응결되다 (frost, congeal)

출15:8-‘깊음들이 바다의 심장 안에서 응결되어졌다 (굳어졌다)’=자아 사랑의 탐욕들의 악으로부터서만 있는 (영계의) 거짓들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조차 가능할 수 없었다. (그이유가) ‘응결되어짐’이 지옥들에 있는 이들을 서술할 경우,=모습이 들어내질 수 없기 때문.

응징하다 (chastise)

계3:19-‘내가 사랑한 만큼 나는 꾸짖고 응징(매질)도 했다’=주님은 그렇게 행하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때 그들은 자신들에 맞서 싸울 수 있기 위하여 시험들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꾸짖는 것’=거짓들 측면에서의 시험, 그리고 ‘응징하는 것’=악들 측면에서의 시험들.

이43:5-‘우리의 평화로부터의 응징이 그분 위에 있었다’=시험들을 수단으로 주님께서는 지옥들을 복종시키셨다.

율5:17-시험들이 ‘하느님이 그를 응징했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예6:8-‘응징을 승인하는 것’=훈련을 받는 것.

의롭다고 인정됨 (justification)

* 자아 사랑들과 세상 사랑들로부터 순수해져 왔던 이들은 교인이든, 비교인이든 주님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된다.

시19:9-‘함께 의롭다고 인정됨’=진리가 선이 되어 갈 때.

창44:16-‘어떻게 우리는 의롭다 인정되어질 까?’=우리는 죄있다는 것.

단12:3-의롭다고 인정되는 자들’=선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선 쪽으로 인도하는 이들.

출23:7, 마12:37, 눅16:15-‘내가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인정 않을 것이기 때문에’=이런 악의는 신성한 정의에 반대된다는 것. ‘의롭다 인정하는 것’=죄없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무죄로 하는 것...이는 재판상의 의미로부터 분명해지는데, 마12:37에서 ‘이 말에 의해 너는 의롭다 인정될 것이다’, 눅16:15에서는 ‘너는 사람들 앞에서 네자신을 의롭다 하는 자이다’로부터 알 것이다.

의류 (clothing)

* 의복(garment)을 보라.

의미하다 (signify)

계1:1-‘그분은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을 알리셨다’=천국을 통하여 밝히 알려진 것들.

의복 (garment)

속옷 (vestment)

예복 (raiment)

의류 (clothing)

마17:2-가장 깊은 것들로부터 진행되는 것들이 ‘의복들’로 의미되고 있다.

창3:21-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신다는 것이 ‘만드시오 옷을 입히심’에서 표현되어져 있다.

이59:6- 이 구절에서 ‘짚 것’, ‘의복’은 이해성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서술하고 있다.

창9:23-(셈과 야벳은) ‘의복을 가져왔다’=그들은 좋은 쪽(선 쪽)으로 해석했다는 것.

의복

겔27:20-‘병거를 위한 자유의 의복들’=외면의 선들, 또는 의식들.

겔16:13-고대 교회가 의복들과 많은 장식품에 의해 묘사되어지고 있다.

겔16:16-‘의복들’, 여기서=남용되어져 있는 진리들.

겔26:16-‘외투들과 수를 놓은 의복들’=지식들과 과학물들, 고로 보다 낮은 수준의 진리들.

겔16:10-18-‘예루살렘’=영적 (왕국의) 교회...이 교회의 보다 낮은 수준의 것들, 그리고 교리적인 것들이 ‘수를 놓은 의복’, ‘고운 아마포로 만든 의복’, ‘비단으로 만든 의복’이다.

이3:6-제 일 인 자가 가졌던 ‘의복’=교리로부터 있는 진리들.

이52:1-‘장식품을 단 의복들’=신앙으로부터의 거룩한 것들.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이59:6-‘그들의 피복은 의복을 위해서가 아니다.’ ‘피복들’=의복을 위해 있지 않은 고안해낸 진리들. ‘의복’=교리와 예배 속의 외면의 진리들.

이61:10-‘구원의 의복들’=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정의의 외투’=선행으로부터의 선.

마11:8-‘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화려한 속옷을 입은 사람이냐?’=그것은 교리나 예배의 외적인 것들 안에 있지 않고 내적인 것들 안에 있다는 것.

출3:22, 12:35,36, 레19:19, 신22:11, 민15:38-40-‘의복들’=갓가지 종류의 진리들, 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명령된바,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금과 은, 의복들을 차용하라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입히라고 하였다. 또한 여러 종류의 직물을 뒤섞은 의복을 걸치지 말 것.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의복 가장자리에 보라색(hyacinthine) 실로 술을 만들어 달 것, 하여 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가르침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라는 것 등등이다.

창49:11-‘그가 포도주에서 빨 의복, 그가 포도들의 피에서 빨 덩개들’에 의해 그분이 신성으로 만들 그분의 합리적 평면과 자연적 평면이 의미되어 있다.

이63:1-3-‘보스라로부터 물들인 의복을 가지고; 이는 그분의 훌륭한 의상...어찌하여 너의 의복이 붉으며, 포도즙들에서 밟는 자의 의복 같은가?...그들의 승리가 내

의복에 흠뻑러졌다, 하여 나는 모든 나의 의류를 더럽혔다.’ 이런 구절에서도 역시 ‘의복’=주님의 인간 측면, 이것을 시험들과의 전투와 승리를 수단으로 그분은 그분 자신의 힘으로부터 신성으로 만드셨다. 이삭이 에서의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한 대목 역시 위와 비슷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마17:2, 눅9:29, 막9:3, 레16:2,4, 출28:2-끝절, 29:1-끝절-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의 거룩 자체는 그분이 변모하셨을 때, 변득거리는 흰 의복으로, 빛으로 나타났던 ‘예복(the raiment)’이다. 아론이 베일 안쪽에 들어갔을 때 그가 옷입은 거룩함의 의복들, 그리고 이 의복은 아마로부터 였다. 이것도 위와 같은 표현물이다. 영화롭고 잘 장식된 거룩함의 의복, 성직 임무 수행을 위해서 입은 거룩함의 의복 도 마찬가지로 표현물이다.

계19:13,16-‘피에 담긴 옷(vesture)으로 입혀져’=글자에 있는 말씀...’그분의 옷 위에, 그리고 그분의 허벅지에 이름이 쓰여있다’=진리와 선.

이3:22-‘같이입은 예복’, 그리고 ‘외투’=진리와 진리의 표장들(ensigns).

창24:53-‘그리고 좋은 은그릇, 금그릇, 그리고 의복을 가져왔다’=진리와 선, 그리고 그것들의 꾸밈(장식품).

이63:2-‘의복이 붉다’=진리로부터의 선. ‘포도즙들을 밟는 자의 옷 같은 의복’=선으로부터의 진리.

이63:1-5-여기서의 ‘의복들’=자연적 인간의 선, 또는 상대적으로 보다 수준 낮은 진리들.

창27:15-‘리브가는 자기 아들 에서의 의복 중 바람직한 것을 가져왔다’=선으로부터의 진짜 진리들. ‘바람직한 의복 들’=진짜의 진리들. ‘의복들’=상대적으로 보다 수준 낮은 진리. 그리고 ‘바람직함’=진짜임, 그이유는 진짜의 자연적 선이기 때문.

출22:26,27-그들은 해 지기 전에 저당잡은 의복을 되돌려주어야 한다...그리고 그의 의복은 그의 피부를 위해 있어 그 안에서 그는 잠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진다. 동료들은 외적 진리들을 편취하지 말라, 이 진리는 교리적인 것들이어서 그들이 그것에 살기 때문, 그리고 교리와 함께 있는 예식도 편취 말라.

창27:27-‘그는 그의 의복들의 냄새를 맡았다’=그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로부터 깊은 은택을 지각했다.

의복

마14:8-‘들판에 있는 자는 자기 의복을 가지려 되돌아가지 마라’=진리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은 이것의 선으로부터 자신들을 진리의 교리적인 것 쪽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시45:13-‘금(실)을 섞어 짠 그녀의 의복’=선으로부터 있는 이 진리의 품질.

이3:7-‘의복’=진리. ‘내 집에는 빵도 의복도 없다’=선도, 진리도 없다.

신21:13-거짓들로부터 순수하게 함이 ‘포로의 의복을 제거하는 것’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28:20-‘그리고 입을 의복’=신성한 진리와 결합함. ‘의복’=진리, 이 구절의 경우 신성한 진리, 그이유는 주님을 취급하기 때문.

시22:14-18-여기서는 신성한 진리들 측면에서 있는 주님의 시험을 취급한다...그리고 ‘뺨’=이런 진리들이기 때문에...즉각 뒤잇는 말쑥은, ‘그들은 그분의 의복을 나누었고, 그분의 속옷은 제비뽑았다’ 이다. 그이유가 ‘의복’=진리들, 그러나 외면의 진리들.

계3:4,5,18-‘흰 속옷들’=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창35:2-‘너희는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의복들을 바꿔입어라’=거룩함이 입혀지는 것...‘의복을 바꿔입는 것’=이 구절의 경우 거룩한 진리들을 입는 것. 그이유가 ‘의복’이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 의복을 바꿔입는 것은 교회에서 받는 표본적인 것, 즉 거짓들을 거절함, 동시에 선을 수단으로 자연 평면에서 진리들을 배치함을 의미하는바 야곱은 각자의 의복들을 바꿔입으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52:1-그러므로 ‘강함’은 시온을, ‘의복’은 예루살렘을 서술하고 있다. 고로 그것들은 깨끗해 있을 것이다.

이14:19-‘죽임당한 자의 의복’=모독된 진리.

창27:29-‘그는 자기 의복을 찢었다’=애곡함.

창38:14-‘그리고 그녀는 자기 위로부터 과부의 의복을 제거했다’=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흉내냄.

창38:19-‘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과부 옷을 입었다’=충명.

계19:16-‘옷’ 위에 이것이 쓰여 있었다=신앙으로부터의 진리.

창39:12-이런 것들의 결합은 내적인 것들에서는 없고

단지 외적인 것들에서 있는데, 그 안에서 오로지 결합된 듯 나타나는 것, 유사함의 수준일 뿐이다. 이런 것이 본 구절에서, 그녀가 그의 옷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는 옷을 그녀의 손에 남겼다고 말해진다. 그이유가 내적 의미에서의 ‘옷’에 의해 외적인 것이 의미되기 때문, 이를 통하여 결합이 있는 듯, 또는 유사성이 나타내지고 있다.

창39:15-‘그가 나에게 자기 옷을 남겼다’=그가 접근했다는 증거.

창39:16-‘그녀는 그의 의복을 자기 옆에 놔두었다’=그녀는 최말단 진리를 보류했다는 것...‘의복’=최말단 진리.

시45:13-주님의 신성한 진리로부터 그분의 영적 왕국이라 불리운데, 이것이 ‘금(실)을 섞어 짜고 수를 놓은 의복’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겔44:19-‘다른 의복들을 입는 것’=거룩한 진리들.

창41:14-‘(요셉은) 자기 의복을 바꿔입었다’=자연 평면의 내면 측면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에 관하여, 그것이 결맞는 것들을 입는 것을 수단으로.

창41:42-‘(바로는) (요셉에게) 고운 아마포 의복을 입혔다’=영적 왕국으로부터의 천적인 것을 외적으로 표시됨. ‘의복’=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

계3:18-‘흰 속옷’=영적 진리들.

겔16:13-‘네 의복들은 고운 아마포, 그리고 비단, 그리고 수를 놓은 것이었다’=합리적 평면에 있는 진리들, 그리고 자연 평면 각각 안에 있는 진리들.

창44:13-‘그들은 자기들 의복을 찢었다’=슬퍼함. ‘의복을 찢는 것’=진리를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함. 여기서는 자아로부터의 진리들.

창45:22-‘그들 모두를 위해 바꿔입을 의복을 주었다’=선 안에서 개시된 진리들.

숙3:3-‘더럽힌 의복들’=악으로부터 있는 거짓들을 수단으로 더럽힌 진리들.

창45:22-‘그리고 다섯 번 같이입을 의복’=자연 평면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변창함.

창49:11-‘그는 포도주에 자기 의복을 빨다’=그분의 자연 평면은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이다는 것.

출3:22-‘그리고 의복들’=그것에 상응하는 보다 수준

의복

낮은 과학물들.

출12:34-‘자기들의 의복들로 묶은 반죽통들’=진리들에 부착되고 있는 애착들로부터의 즐거움들.

단7:9-‘그분의 의복’=외적 형체 안에서의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겔16:16-‘의복들’=남용되어진 진리들.

마17장, 27:35, 시22:18-주님의 ‘의복들’은 외적 형태 안에서의 진리들. 그리고 그분의 속옷(coat)은 내적 형태에서의 진리(마27:35). ‘옷을 나눔(division)’은 유대인들에 의해 진리들이 흩어져 없어짐.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눔은 완전히 흩어져 사라짐을 의미한다.

출22:8-‘의복 위에’=감각적 진리로부터의.

출22:25-‘만일 저당하기로 함에서 네가 네 동료의 의복을 저당물로 받기로 했다면’=만일 과학적 진리가 감각적인 것들로부터의 오류들을 통하여 사라진다면.

* ‘의복’은 일반적인 경우 어떤 것을 싸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고로 비교 측면에서 외면의 것. 이로부터 외적 인간이 내적 인간에 비교해 질 경우 ‘의복’으로 불리운다. 진리가 선에 비교해 질 경우 ‘의복’으로 불리운다. 과학적 진리가 내적 인간으로부터인 신앙 속의 진리에 비교해질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생활의 최말단인 감각적인 것은 과학적 진리에 비교해 질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마21:7,8-제자들이 나귀와 나귀새끼 위에 자기들의 속옷(vestment)을 놓았다는 것은 모든 복합체 안에 있는 진리들은 가장 높은 재판관과 왕으로서의 주님 아래 펼쳐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이유가 제자들은 여기서 진리들과 선들 측면에 관련하여 주님의 교회를 표현했기 때문...그리고 그들의 의복들은 진리들 자체이다. 군중이 자기들의 속옷과 나뭇가지들을 길에 흩뿌려다도 위와 마찬가지이다.

눅5:26-‘새 속옷으로부터의 조각을 옛 속옷에 보태는 자는 아무도 없다.’ 주님께서는 새 교회의 진리와 옛 교회의 진리를 묘사하기 위해 이 비교를 사용하신 것이다. ‘속옷’=진리, 이것에 저것을 연결하거나 깎는 것=둘 다를 파괴하는 것. 그이유가 새 교회의 진리는 내면의 진리이고 옛 교회의 진리는 외면의 진리이기 때문.

신24:17-‘저당잡기 위해 과부의 의복을 가져가는 것’=

갖가지 수단에 의해 선을 갈망하는 진리를 빼앗는 것.

출22:27-‘그의 의복은 그의 피부를 위해 있다’=그것들 역시 외면의 것들을 싸고 있다는 것. (그 이유가) ‘의복’=일반적으로 감각 평면, 또는 감각적인 것들.

이51:8-‘옷좀나방(moth)이 먹을 의복’=보다 낮은 진리, 또는 외면의 진리들, 이것은 감각적 인간으로부터 있다.

눅16:19-‘심홍색 고운 아마포의 의복’=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시104:2-‘빛을 의복으로 같이 그분 자신을 덮는 것’=신성한 진리들.

겔16:13,18-‘수를 놓은 의복들’=과학적 진리들.

출28장-이 장은 거룩함의 의복을 취급한다. 이 옷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직 임무를 수행할 때 입기로 되어 있었다. 아론의 의복에 의해 신성한 영적 평면이 표현되어졌다. 이는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이다.

시133:2-‘의복’=진리들.

출28:2-‘너는 네 형제 아론을 위해 거룩함의 의복을 만들어라’=천적 왕국에 인접된 영적 왕국을 표현함.

계3:4,5-‘속옷’=영적 진리들, 이는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이다.

출28:4-‘그리고 이것들은 그들이 만들 의복들이다’=그 것들의 질서에서 영적 왕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

미2:8-‘그의 의복 때문에 누군가를 적으로 간주하는 것’=누군가가 선 안에 있는 상황이고 그가 진리라고 믿는 것 때문에 아무도 피해입지 않고 있는데도 그가 생각하는 진리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

계3:18-‘흰 속옷’=선으로부터 있는 신앙 속의 진짜 진리들.

출29:5-‘그리고 너는 의복을 가져가 입혀라’=주님의 영적 왕국을 표현함.

출29:21-‘너는 아론과 그의 의복 위에 뿌려라’=더 높은 천국들에서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의 상호적 하나 됨.

출29:29-‘그리고 아론을 위해 있는 거룩함의 의복들’=신성한 천적 평면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신성한 영적인 것.

의사

시45:8-‘의복’에 의해 그분의 신성한 인간이 의미되어진다.

출31:10-‘그리고 성직 수행의 의복들, 그리고 성직자 아론을 위한 거룩함의 의복들’=주님의 천적 왕국에 인접한 그분의 영적 왕국을 표현함.

출31:10-‘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보다 수준 낮은 영적인 것들을 표현함.

시104:2-변모하심에서 주님의 ‘속옷’이 그렇게 나타난 이유는 그것이 천국들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했기 때문. 또한 ‘의복들’, 말씀에서=진리들. 그러므로해서 ‘여호와, 당신은 빛을 의복 같이 입고 있으십니다’라고 말해진다.

계19장-‘피에 담긴 속옷을 입고’=글자 측면에서의 말씀에 폭력이 가해졌다.

이63장-홀륭하다고 했던 의복, 붙어진 의복에 의해 말씀이 뜻해지는데, 이 말씀에 유다 백성이 폭력을 가했다.

계3:4-‘자기들의 의복을 더럽히지 않은 자’=진리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약한 생활, 이로부터의 거짓들을 통하여 예배를 더럽히지 않은 자.

계3:5-‘극복하는 자는 흰 속옷을 입을 것이다’=개혁된 자는 영적 수준으로 되어간다.

계3:18-‘그리고 흰 속옷, 그들은 입혀질지 모른다’=그들은 지혜로부터의 진짜 진리들을 획득한다는 것.

계4:4-‘흰 의복들을 입는 것’=말씀의 신성한 진리들로부터.

계16:15-‘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온다. 깨어 있고 자기 속옷들을 간직하는 자는 복 있다’=주님의 강림, 그리고 그다음 주님을 찾고, 말씀의 진리들인 그분의 가르침에 따른 생활 안에 남아 있는 자를 위한 천국.

계19:13-‘그분은 피에 담긴 속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불리운다’=최말단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 또는 글자 측면에서의 말씀, 여기에 폭력이 가해졌다.

계19:16-‘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속옷 위에, 그리고 그분의 허벅지에, 왕들 중의 왕, 주들 중의 주라 쓰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주님께서는 그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가르치신다는 것, 그분은 신성한 지혜로부

터의 신성한 진리, 그리고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고로 그분은 우주의 하느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눅22:36-‘속옷’에 의해 인간 고유의 것들이 의미되어져 있다.

계4장-‘흰 의복을 입고’=보다 낮은 천국들에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시133:2-‘의복의 입’=천적, 영적 선의 결합과 유입, 고로 선과 진리의 결합과 유입.

겔16:10-‘수를 놓아 입는 것, 오소리(가죽)을 신는 것’=글자 의미로부터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을 가르치는 것.

이59:17-이 구절은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에 관해서, 그리고 그분이 지옥들을 정복하신 것에 대해서이다. 하여 천국과 지옥을 질서대로 환원시키셨다. 이때 사용된 진리가 ‘복수의 의복’에서 의미되어져 있다.

시104:6-‘당신께서는 그것을 심연(abyss)을 가지고 의복을 두르듯 덮으신다’=그들은 자연적 인간 안에서 과학물을 가지고 에워싸신다는 것.

창49장-‘속옷’, 그리고 ‘덜개’=그분의 인간.

겔16장-‘그의 의복들은 고운 아마포, 비단, 그리고 수를 놓았다’=천적, 영적, 자연적 진리에 관한 지식들.

숙3:3-말씀이 왜곡됨이 ‘더러운 의복을 입은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있다’에 의미되어져 있다.

시102:26-‘의복들’=이전의 천국과 땅에 있는 이들에게 속해 있는 외적인 진리들.

의사 (physician)

* medicine 참조

마9:12-‘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 ‘의사’=약들로부터 보존함.

의술 (medicament)

* 약(medicine)을 보라.

이 (tooth)

* grind, harsh도 참조.

창49:12-‘이들이 우유 보다 희다’=그분의 자연 평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천적인 것. (=정의)

마8:12-‘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거짓들에 관련한 그들의 상태. 그이유가 ‘이’, 말씀에서=가장 낮은 자연적

의술-이-이끌다

인 것들. 순수 의미에서, 가장 낮은 자연적인 것들 속의 진리. 반대 의미에서 거짓들.

창49:12-‘그는 우유로부터 이가 될 것이다’=신성한 자연 평면은 진리로부터의 선 밖에 더 없다는 것. ‘이’, 순수 의미에서=자연 평면.

계9:8-‘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 같았다’=자연 평면의 외적인 것들, 즉 감각적인 것들, 또는 자연 평면에 있는 오류들, 이것이 선인 것의 외관을 갖게 한다.

출21:42-‘이에는 이’=만일 (그들이) 외면의 지적인 것에 있는 어떤 것에 (피해를 입혔다면). 그이유가 ‘이’=외면의 지적인 것, 이로부터 자연적 진리.

출21:27-‘만일 그가 그의 남종의 이, 또는 여종의 이를 두들겨 떨어트린다면’=만일 그가 감각적 평면에 있는 진리, 또는 진리에 애착함을 파괴한다면.

출21:27-‘그는 그를 이 때문에 자유로이 가게 놔둘 것이다’=그는 내적 인간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다.

민11:33-그들은 고기가 이 사이에 아직 있는 동안 죽임을 당했다고 말해진다. 그이유가 ‘이’=육체의 자아, 이는 인간의 가장 낮은 것이다.

율1:6-‘사자의 이’=이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그리고 이것들이 교회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을 파괴하는바, 그들은 ‘대단히 갈아대는 사자의 이’라 불리운다.

시57:4-‘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다’=외부의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추론함. 고로 오류들로부터와 종교의 거짓들로부터 추론하여 진리들을 파괴한다.

단7:7-‘대단한 철 이를 가졌다’=감각적 인간으로부터의 거짓들이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에 맹렬하다.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누구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리를 이해함과 진리에 대한 감각을 제거한다면, 그에 비례하여 그것들은 제거한 사람으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욥19:20-‘나는 내 이의 피부를 가지고 피신되었다’=비록 그가 가장 외적인 것들 안에서 생각하는데 몰입했다 해도, 여전히 그는 거짓들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들만을 생각한다.

신32:24-‘짐승들의 이’=악의 탐욕들에 관련된 감각적인 것.

이 (louse)

출8:16-‘그리고 그것은 이가 될 것이다’=거기에서 악들이 올라올 것이다.

출8:13-‘그리고 사람 안에, 짐승 안에 이가 있었다’=탐욕들로부터 파생적인 내면과 외면의 악들.

이끌다 (lead)

인도하다 (lead)

* being forth, draw away, guidance, introduce, lead into도 참조.

출2:1-‘그는 레위 가문의 딸을 데려왔다’=선과 결합. ‘데려오는 것’, 즉 ‘아내가 되게 이끌음’=결합.

출13:17-‘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불레셋의 길 쪽으로 이끌지 않으셨다’=그들은 선으로부터 있지 않은 신앙의 진리를 통과못하도록 신성에 의해 설비되어졌다...‘이끄는 것’이 하느님에 의해서 일 경우,=섭리.

출13:18-‘하느님께서서는 광야의 길로 해서 백성을 이끌셨다’=신성의 후원으로부터 그들은 시험들을 통하여 신앙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을 확증하도록 데려와졌다. ‘하느님이 이끌셨다’=섭리, 같은 의미로 신성의 후원.

출13:21-‘그들을 길에서 인도하는 것’=신성의 후원. ‘길에서 인도하는 것’, 여호와에 관련해 말해질 때,=섭리.

출14:25-‘그는 무거워져버림에서 (그의 병거를) 끌어당겼다’=저항과 무기력함.

출15:13-‘당신의 자비 안에서 당신은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악들의 침입을 금하였었던 이들에게 신성의 유입이 있다. 하여 선을 받았다. ‘자비 안에서 이끄는 것’=신성을 받는 것.

출15:13-‘당신의 강함에서 당신은 당신의 거룩함의 주 거지 쪽으로 지휘하셨다’=주님의 신성한 권능이 그들을 천국으로, 거기 신성 안으로 승강되게 했다. ‘강함에서 이끄는 것’=...신성한 권능으로부터 승강되는 것.

예2:17-‘길 쪽으로 인도하는 것’=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49:10-‘인도하는 것’, 주님에 관련되어 말해질 경우=예증하는 것.

이3:12-‘당신의 지도자들’=가르치는 이들.

이 년 (two years)

출41:1-‘날들의 이 년의 끝에서’=결합의 상태 이후... 그이유가 ‘날들의 이 년’, 즉 2년의 시간=결합의 상태.

이 년-이다말-이드로-이랏-이름

이다말 (Ithamar)

* 그러나 아론의 두 어린 아들들, 즉 엘르아셀과 이다말은 첫 출생, 나답과 아비후가 살아있는 한 최말단 천국을 표현하였다. 이 천국은 대략 앞쪽의, 또는 중간 천국에 잇따라 있는 천국인데, 이는 신성의 자연 평면이다.

출28:1-‘엘르아셀과 이다말’=신성한 자연 평면에 관련하여.

이드로 (Jethro)

출3:1-‘모세는 미디안의 성직자,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고 있었다’=신성으로부터의 법이 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출4:18-‘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단순한 선 안에. ‘이드로’, 미디안의 성직자인바=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는 교회의 선. 이 선이 단순한 선에 의해 뜻해진다.

출18장에서-신성으로부터의 선으로부터 성직 임무 수행이 있는데, 이것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의해 표현되어 있다.

출18:1-‘미디안의 성직자 이드로가 들었다’=신성한 선. ‘미디안의 성직자 이드로’는 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는 교회의 선을 표현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신성한, 그이유가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였고 모세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성한 선이 ‘이드로’에 의해 표현된 이유는 이 18장은 영적 (왕국의) 교인과 더불어 진리로부터의 성직 임무 수행을 취급하기 때문. 이 성직 수행은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신성한 선을 수단으로 결과되기 때문. 그이유가 모든 성직 수행은 진리를 통하여 선을 수단으로 있기 때문.

출18:9-‘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선에 무척 기뻐했다’=모든 것들이 잇따라 질 때 신성한 선의 상태.

이랏 (Irad)

창4:18-‘에녹에게 이랏이 출생되었다, 그리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았다’...이 이름들 모두는 ‘가인’이라 불린 이교로부터 파생된 이교들이다...

* ‘이랏’은 ‘도성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고로 ‘에녹’이라는 이교로부터.

이름 (name)

창2:19-‘사람이 이름을 수단으로 그것들을 부르는 것을 보기 위하여 사람에게 그것들을 가져오셨다’=그들이 어떤 품질인지 아는 것을 그에게 주는 것; 그리고 ‘그가 그것을 이름들로 부르는 것’=그들이 어떤 품질이었는지 그가 알았다는 것.

이45:3,4-‘이름으로 부르는 것’, 그리고 ‘별명을 부르는 것’=품질을 미리 아는 것.

이62:2-‘너희를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그는 다르게 되어 갈 것이다.

창5장-‘이름들에 의해 이교들이나 교리들이 의미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5장의 이름들 또한 그러한 바, 이름들은 어떤 개인이 아닌 어떤 것들, 여기서는 교리, 또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것이 태고 교회로부터 노아로까지 내려오며 보존되었다.

창10장-이 장에서 이름들은 에벨(heber)과 그의 후손을 제외하고는 아주 많은 나라들을 의미한다...이 나라들이 고대 교회를 구성했다.

창11:4-‘우리에게 이름을 만들자’=그들은 힘의 명성을 가지는 것.

창12:2-‘나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영광... 외적 의미에서, ‘이름을 만드는 것’에 의해 세상적으로 의 어떤 것이 의미된다;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는 천국적으로의 어떤 것.

창12:8-‘그는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이 상태에서부터 그분의 아버지를 내적으로 예배함.

출23:21-‘내 이름이 그분 한가운데 있다.’ ‘이름’=본질.

숙14:9-‘그의 이름 하나’...‘이름’=본질.

창16:11-‘너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부를 것이다’=생명의 상태. 고대 세상에서 아들과 딸에게 이름이 수여되었는데, 이 이름은 부모가 지녔던 상태를 의미했다. 특히 그들은 임신하고 있었을 때의 어머니의 상태, 또는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있었을 때의 상태, 혹은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의 상태, 또는 유아가 출생할 때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이름에 반영되었다. 그러므로 이름은 의미심장했다.

창16:13-‘그녀는 자기에게 말했던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의 주님의 내면

이름

의 인간의 상태. ‘이름’=품질을 아는 것.

창16:15-‘아브람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이스마엘이라 불렀다’=(합리적 진리)로부터의 품질.

창17:5-‘네 이름은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그분은 인간을 벗을 것이라는 것. ‘네 이름은 아브라함일 것이다’=그분은 신성을 입을 것이라는 것.

이12:4-‘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드높여 져야 함을 말하게 하라’=여호와를 그분의 이름을 수단으로 불리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질을 앎을 수단으로, 즉 그분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 각각의 것들을 수단으로 여호와를 부르는 것을 뜻한다.

이26:13, 41:25-‘...에 관해 진술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것’=사랑으로부터의 선들과 신앙 속의 진리들로부터 예배하는 것.

미4:5-‘자기 하느님의 이름 안에서 걷는 것’=모독된 예배; 그리고 ‘여호와와 이름 안에서 걷는 것’=진정한 예배.

신12:5,11, 16:2,6,11-‘그분의 이름을 놓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기에 거주하게 만드는 것’=이름이 아닌 예배; 고로 그분이 예배되어져야 하는 주님의 품질을 뜻한다. 이 품질은 사랑으로부터의 선과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이다; 이 품질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여호와와 이름은 거주한다.

신10:8-‘여호와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름을 수단으로 해서가 아니고 여호와와 이름에 속하는 것들을 수단으로써 이다...

예23:6-‘이것이 그분이 불리워져야 할 그분의 이름인즉,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다.’ 여기서 ‘이름’은 ‘공의’를 뜻하고, 이것이 주님의 품질이다...

이49:1-‘그분의 이름에 관해서 말하는 것’=그분의 품질에 관하여 가르침이 있는 것.

계19:12,13-‘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불리울 것이다.’ 여기서 ‘이름’이 하느님의 말씀, 고로 흰말 위에 타신 그분의 품질.

요17:25,26-‘여호와와 이름’=그분의 품질을 아는 것; 즉 그분은 사랑으로부터의 모든 선과 신앙으로부터의 모든 진리이시다는 것이 주님의 이런 말씀으로부터 확실하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알게 만들려는 그것인즉, 당신께서 나를 사랑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들 안에 있을 것이니 이다.’

마18:20-여기서, ‘주님의 이름에서 함께 모인’ 이들=사랑과 선행에 관한 신앙의 교리 안에 있는 이들; 고로 사랑과 선행 안에 있는 이들.

마7:22,23-이름 그 자체는 어떤 것도 아니나 이름이 포함하는 것, 즉 선행과 신앙의 모든 것임은 이런 말씀으로부터서도 명백하다. ‘당신의 이름을 수단으로 예언했고 당신의 이름을 수단으로 악마들을 내쫓고, 당신의 이름에서 많은 권능 있는 것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너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나로부터 떠나라, 불법을 일한 자들이여.’ 이로부터 명백한 바, 이름에 예배를 놓는 이들, 마치 유대인들이 여호와와 이름에,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에 예배를 둘 경우, 예배가 이름 때문에 더 가치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단어 이름에서 결과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되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명령하셨던 것들이다. 이것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 외 다른 이름에서는 구원은 없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다른 교리에서는 어떤 구원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교리란 상호간의 사랑이다. 이것이 신앙의 참 교리이다; 구원이 주님 외 다른 것에서는 없는 이유는 사랑과 이 사랑으로부터 파생되는 신앙은 오로지 주님만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창19:22-‘이름을 부르는 것’=품질을 아는 것.

창21:3-‘이름을 부르는 것’=품질.

창31:33-‘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예배. 고대 교회의 사람들은 이름을 수단으로 안다. 그러나 그 이름 자체가 아닌 모든 품질을 아는 것으로 이해했다; 고로 ‘하느님의 이름’에 의해, 하느님이 예배되어지는 한 복합체 안의 모든 것, 즉 사랑과 신앙의 모든 것. 그러나 내적 예배가 멀해졌을 때, 그때에는 ‘하느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그들은 이름 외 다른 것은 없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고로 그들은 이름 자체를 예배했고 사랑과 신앙 따위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라들은 하느님들의 이름들에 의해 서로를 구별했다. 유대와 이스라엘

이름

죽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나머지에 자신들을 두고 이름 짓고 이름을 부르는 것에 예배의 본질을 두었다. 이름만의 예배가 예배가 아닐진대, 그들은 더 나빠지고 더 모독하기에 이르고 말았다.

마6:9-‘하느님의 이름’이 예배의 모든 것, 즉 그분이 예배되어지는 근원인 사랑과 신앙의 모든 것을 뜻하는 바, 주님의 기도에 있는 말씀, ‘당신의 이름에 신성화되심이(거룩해지심이) 있기를, hallowed be Thy name’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백해진다.

마7:22,23-그러나 사랑과 신앙 없이 이름만을 예배하는 이들이 이 구절에서 말해지고 있다.

계19장-‘씩어진 이름을 가진 것은 그분 자신 외 아는 자 없다’=내적 의미에서의 말씀의 품질은 그분 자신,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밝히 알린 자 외에는 누구도 보지 못한다.

창22:14-‘이름을 부르는 것’=품질을 아는 것, 또는 품질.

창25:1-‘이름’을 수단으로 본질이 의미된다.

창25:13-‘그들의 출생에 의거 그들의 이름들에서’=신앙의 갈래에 따른 내면의 품질들. ‘이름’=품질; 여기서 내면의 품질들, 이렇게 말해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들의 이름들 안에 있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여기서 앞 장소의 ‘이름들’은 일반적 품질들; 그러나 뒤에서는 그들 안에 있는 품질들.

마24:5-‘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이다’=여기서 ‘이름’은 이름이 의미되는 것이 아니다...그러나 이름을 수단으로 주님이 예배되어지는 것이 의미된다.

창26:18-‘그리고 그것들을 이름지어 불렀다’=그것들의 품질.

창26:25-‘그는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파생되는 예배...‘여호와와 이름’=주님이 예배되는 수단인 한 복합체에 있는 모든 것.

창28:19-‘그는 그 장소를 벰엘이라 불렀다’=그 상태의 품질.

창32:27-‘네 이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말했다, 야곱입니다’=진리로부터 있는 선의 품질

창32:29-‘야곱이...말했다, 말해주시오...당신의 이름

을’=천사들의 천국과 그 천국의 품질.

창32:30-‘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시험들의 상태...그이유가 고대 시대 때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한 장소에 이름들을 수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름들은 거기서 발생한 어떤 것, 그리고 그것의 상태를 의미했다. ‘브니엘’은 ‘하느님의 얼굴’, (그리고)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는 뜻=가장 비통한 시험들을 견뎌내심.

창33:17-‘그는 그곳의 이름을 숙곳이라 불렀다’=그의 상태의 품질.

창35:8-‘그는 그것으로부터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다’=추방되어졌던 (주님의) 자연적 평면의 품질.

창35:10-‘하느님께서 말하셨다...네 이름은 야곱이다’=신성한 자연적 평면으로부터 있는 주님의 외적 부분의 품질.

창35:10-‘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더 이상 외적인 것 만으로 있지 않으리라는 것.

창35:10-‘그러나 이스라엘이 네 이름일 것이다’=자연적 평면의 내적인 품질, 또는 그분의 영적 왕국의 품질.

창35:15-‘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벰엘이라 불렀다’=신성한 (주님의) 자연적 평면과 그것의 상태. ‘이름을 부르는 것’=품질.

창35:18-‘그녀는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다’=그 상태의 품질.

창36장-이 선이 단지 이름들에 의해 묘사되어져 있다.

창38:1-‘그의 이름은 허라였다’=(거짓의) 품질.

창38:2-‘그녀의 이름은 수아였다’=(악의 거짓으로부터의 악의) 품질.

창38:3-‘그는 그의 이름을 엘(er, 에르)라 불렀다’=(교회의 거짓의) 품질.

창38:4-‘그녀는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불렀다’=(악의) 품질.

창38:5-‘그녀는 그의 이름을 셀라라고 불렀다’=(우상 숭배의) 품질.

창38:6-‘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표현) 교회의 품질.

창38:29-‘그녀는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선으로부터의 진리의 분리에 관한 외관상 품질.

이름

창38:30-‘그녀는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다’=(선이 실지로는 첫 출생이나 외관상으로는 진리가 첫 출생이다는) 품질.

계19장-‘씩어진 이름’=그분의 품질.

창41:45-‘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이라고 불렀다’=영적 왕국으로부터의 천적인 것에 관한 품질.

창41:51-‘요셉은 첫 출생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다’=(주님의) 자연적 평면에서의 새 자발적 부분(의지 부분) 그리고 그것의 품질.

창41:52-두 번째 출생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다=(주님의) 자연적 평면에서의 새 지적 부분 그리고 그것의 품질.

출23:21-‘내 이름은 그의 한가운데 있다’, 즉 여호와 자신. ‘내 이름’은 여호와와 품질, 이는 신성한 인간이 의미되어진다. 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주님이 ‘여호와와 이름’이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품질, 그리고 또한 하느님이 예배되어지는 한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것.

창48:16-‘그들 안에서 내 이름이 불리지게 하자’=그들 안에서 (주님의) 자연적 평면으로부터 오는 영적 진리의 선의 품질이 있어야 한다.

출1:1-‘이것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교회의 품질.

출1:15-‘한 사람의 이름은 십브라였고 또 한 사람은 브아였다’=과학물이 있는 (주님의) 자연적 평면의 상태와 품질...그 이유가 말씀에 있는 모든 이름들=어떤 것들; 그리고 요컨대, 취급되어지는 어떤 것에 속하는 이런 것들을 납득하는 것; 고로 그것의 품질과 상태.

마18:20-‘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이름이 여기서 의미되는 게 아니라, 신앙과 선행으로부터 예배함.

요14:13,14, 15:16,17, 16:23,24-여기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물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들은 주님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이다...그분 자신이 말하시는 바, ‘만일 내가 내 이름으로 어떤 것을 묻는다면, 나는 그것을 행할 것이다’. 이는 주님이 여호와와 ‘이름’이다는 사실로부터 더 명백해질런지 모른다.

눅10:20, 계3:4,5-‘천국에 씌어진 이름들’이란 당사자

의 이름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과 선행의 품질이다. ‘생명의 책 안에 씌어진 이름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6:23-27-‘여호와와 이름’=그분이 예배되어지는 수단의 모든 것.

출2:10-‘그녀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불렀다’=그 당시 상태의 품질.

출2:22-‘그는 그의 이름을 게르숨이라 불렀다’=(진리들의) 품질.

출3:13-‘그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나?’=그분의 품질.

출3:15-‘이것은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신성한 인간이 신성 자체의 품질이다는 것; (그이유가) ‘하느님의 이름’=주님이 예배되는 수단인 한 복합체 안의 모든 것; 고로 [그분의] 품질. 그리고 신성 자체는 예배되어질 수 없는 바,...그러므로 그것은 신성한 인간이다-이것은 신성 자체의 품질로 접근될 수 있고 예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12:28-여기서 신성한 인간에 관련한 주님이 그분 자신을 ‘아버지의 이름’이라 부른다.

출5:23-‘여호와와 이름’=신앙과 선행의 모든 것, 이것 가지고 주님은 예배된다; 고로 신성으로부터 있는 법 속에 있는 모든 것; 그 이유가 신성으로부터 있는 법이란 선행과 신앙 속에 있는 것들 외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레24:16-‘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함’=악의 있는 거짓들을 수단으로 예배 속에 있는 진리들과 선들에 폭력을 가하는 것.

출9:16-‘내 이름이 온 땅에 말해질런지 모른다’=그러하여 주님은 교회가 있는 곳에서 유일한 하느님으로 인정될런지 모른다는 것; (그 이유가) ‘이름’=주님이 경배되어지는 한 복합체 안의 모든 것; 그리고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란 주님이 유일한 하느님이신 것, 그리고 그분의 인간 측면은 신성이시다는 것, 이 인간으로부터 신앙과 사랑의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호와와 이름을 말함’에 의해 주님이 유일한 하느님으로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출15:3-‘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다’=그분만으로부터서

이름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여호와와 이름'=신앙과 사랑의 모든 것들, 또는 복합체 안의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 이것들을 수단으로 주님은 예배되어진다; 그리고 최상의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 이로부터 위의 모든 것들이 있다.

출16:31-'그들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다'=그들과 더불어 그것의 품질.

출17:7-'그는 그 장소의 이름을 맞사라고 불렀다'=시험의 상태의 품질.

출17:15-'그는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불렀다'=내면적 악의 거처 안에 있는 이들에 맞서 주님께서 계속 전쟁하고 방어하심; (그 이유가) 교회에서 고대인들에 의해 수여된 이름들은 그 당시 다루어진 (주님의) 어떤 것의 상태와 품질을 의미했기 (때문); 그리고 또한 그것들은 이름 자체와 동일한 것들을 포함했다.

출18:3-'이들 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숨 이었다, 그 이유는 그가, 나는 낮선 토지의 나그네되었다 라고 말했기 때문'=교회 밖에 있는 이들 속의 진리로부터의 선에 관한 품질.

출20:7-'너는 네 하느님의 이름을 헛된 것 쪽으로 가져가지 말라'=신앙으로부터 있는 진리와 선을 불경하게 취급하고 모독함; (그 이유가) 하느님의 '이름'=복합체에 있는 모든 것, 이를 가지고 주님은 예배된다; 고로 신앙으로부터의 참되고 선한 모든 것...'하느님의 이름을 헛된 것 쪽으로 가져감'의 적절한 의미는 진리를 악 쪽으로 돌려 세움이다; 즉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 그런데도 계속 악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선을 거짓 쪽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 즉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런데 계속 믿지는 않는 것. 둘 다 모독이다.

출20:24-'...나는 내 이름의 기억을 놓게 될 모든 장소에서...'='누군가와 더불어 신앙의 상태...그이유는 '여호와와 이름'=한 복합체에 있는 모든 것, 이를 수단으로 주님이 예배되어진다; 고로 신앙과 선행의 모든 것.

출23:21-'내 이름이 그의 한가운데 안에 있기 때문에...'='그분으로부터 사랑의 모든 선과 신앙의 모든 진리가 있다는 것.

요10:3-'(그분 자신의 양을) 이름을 수단으로 부르심,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심'=사랑으로부터의 선과 신앙

으로부터의 선에 따라 천국을 주심; 그 이유가 '이름', 사람들에 관해 말해질 때,=사랑과 신앙에 관련되는 그들의 상태.

이59:19-'여호와와 이름'=신앙으로부터의 모든 진리와 사랑으로부터의 모든 선, 이것들로부터 예배는 존재한다.

출28:9-'너는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새길 것이다'=그들의 품질에 관련하여 영적 왕국의 선들과 진리들에 인상을 주어왔다는 것...'이름들'=품질.

출31:2-'나는 브살렐을 이름으로 불렀다'=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 이들과 더불어 교회는 회복되어진다는 것. '이름을 수단으로 부르는 것'=이와같이 선택하는 것; 즉 잘 어울리는 이들.

출33:12-'당신은 말하셨다,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그의 품질.

출34:5-'그는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신앙과 사랑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함; 그리고 고로 영접을 준비함.

마10:40-42-'누군가(선지자, 제자 등등)의 이름으로 (받는 것)'=그의 품질 때문에.

이10:24-34-이 구절들에도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이름들이 지닌 의미는 영적 의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의미도 이끌어 낼 수 없다. 말씀에 있는 모든 이름들=천국과 교회 속의 (주님의) 것들.

마10-예언자의 '이름'에 의해, 그리고 '보상'에 의해 신성한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의 행복과 상태를 의미해놓고 있다; 곧바른 자의 '이름'에 의해 그리고 '보상'은 신성한 선들 안에 있는 상태와 행복이 의미된다.

계2:3-'내 이름을 위하여 애써 왔다...'='종교와 종교의 교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획득하기 위해... 공부함. 말씀에서 '여호와, 또는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예배되는 수단인 모든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에서는 교리에 따라 예배되는 바,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 의미되는 것은 교리 속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 의미에서 종교의 모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호와와 '이름'에 의해 의미되는 이유는 천국에서 누군가의 품질을 포함하는

이름

것 외 다른 의미는 없기 때문; 그리고 하나님의 품질은 그분이 예배되는 수단의 모든 것이다.

계2:13-‘너는 내 이름을 붙잡고 있다’=그럼에도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 예배하고 있다.

계2:17-‘돌에 새 이름이 씌었다...’=그들은 자기들이 전에 가지지 않았던 선에 대한 품질을 가질 것이라는 것. ‘돌’=(주님의) 어떤 것에 대한 품질; 여기서 그러므로 선에 대한 품질. 선에 대한 모든 품질은 그것에 연합된 진리들로부터 이다...

계3:1-‘너는 내가 살아 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자신들에게 그리고 남에게도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비쳐지고 있다...‘이름을 가지는 것’이란 이와같다고 믿어지고 그런 듯 보이는 것이다.

계3:4-‘너는 사데에서 조차 몇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그들 사이에 자기들 예배에 생명을 가진 이들도 있다. ‘몇 이름들’이란 이와 같이 있는 몇 사람을 말한다. 그 이유가 ‘이름’=누군가의 품질. 그 이유인 즉, 영계에서 모든 사람은 그의 품질에 따라 명명되기 때문.

계3:8-‘너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그들은 주님을 예배함 안에 있었다는 것.

계3:12-‘나는 그(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쓸 것이다’=신성한 진리가 그들의 심정에 새겨질 것이다... ‘내 하나님의 이름’=신성한 진리.

계3:12-‘그리고 내 새로운 이름’=이전 교회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것 가지고 주님만을 예배함.

계8:11-‘(별의)이름’이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계9:11-‘이름’에 의해 상태의 품질이 의미된다.

계11:13-‘사람들의 이름들 칠 천’이란 믿음만을 고백한 모두를 의미한다...‘이름들’이란 이와같이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름’=사람의 품질.

계11:18-‘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주님의 것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이들...주님의 이름이란 그분이 예배되는 수단으로 있는 모든 것.

계13:6-‘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에 맞서 불경하게 그의 입을 열었다’=그들의 발음(말).

계14:1-‘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씌어 있다’=그들과 더불어 사랑과 신앙으로부터 주님의 신성한 인간과 신성을 인정함.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 신성

에 관련한 주님...그리고 동시에 신성한 인간에 관련한 주님이 의미되는데...그 이유는 그 둘은 하나이기 때문...

계15:2-‘그의 이름의 숫자’=말씀을 왜곡함.

계16:9-‘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주님의 신성한 인간 그리고 동시에 말씀.

계19:12-‘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씌어 있다’=영적, 천적 의미에서의 말씀의 품질은 주님,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들추어내 보인 사람 외에는 보지 못한다.

계19:16-‘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옷에, 그분의 허벅지에 왕들 중의 왕, 주들 중의 주라고 쓰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주님은 말씀에서 그분의 품질이 무엇인지 가르치신다. 즉 그것은 신성한 지혜로부터의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이다; 고로 그분은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 ‘신성화되심이 당신의 이름에 있어지시고’=주님에게 가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계21:12-‘(문들)에 이름들이 씌어 있다’란 그들의 모든 품질을 의미한다; 고로 그들 안에 있는 품질; 그 이유가 모든 품질은 외적인 것들에 있는 내적인 것들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계21:14-‘그것들에 어린 양의 열 두 사도들의 이름들이...’=주님에 관한, 그리고 그분의 교훈들에 따른 삶에 관한 말씀으로부터의 교리 속의 모든 것...‘열 두 사도들’이란 그것의 모든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품질은 (위 두 가지 것에) 관련되어 있다.

계22:4-‘그분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주님은 그들에게 그분 자신을 돌아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그들의 이마에 있는 주님의 이름’이란 주님 자신을 뜻한다. 그 이유는 모든 그분의 품질이 의미되기 때문, 이 품질을 수단으로 그분은 알려지고, 이 품질에 따라 그분은 예배되어진다.

신12,16장-‘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놓을 곳’=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들로부터 예배되어질 곳.

이48:19-‘이름이 여호와 앞에서 잘라지고 파괴됨’=상태의 품질, 이를 수단으로 결합이 결과되어진다.

말1:11-‘내 이름은 나라들 사이에서 위대해 있을 것이

이름

다=선 안에 있는 이들 사이에 주님을 인정함과 예배함이 있을 것.

요1:12-‘주님의 이름’이란 그분이 예배되어져야 할 수단인 모든 진리들과 선들을 뜻한다.

시96:2-‘이름’은 진리들을, ‘구원’은 선에 관한 것을 말했다.

눅19:38-‘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는 자는 복있다’=그분은 신성화되었다는 것, 그 이유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신성한 진리와 모든 신성한 선이 있기 때문. ‘주님의 이름’=그분이 예배되어지는 수단인 모든 것; 이에 대한 모든 것은 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에 관계되는 바, 그러므로 이들은 ‘주님의 이름’에 의해 의미된다.

민6:27-받는 이들과의 소통과 결합이 ‘고로 그들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의 아들들 위에 놓을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여호와와 이름’은 진행하는 신성, 이는 일반적으로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이라 불린다.

계6:8-‘그의 이름은 죽음이었다’...‘이름’=(영계의) 어떤 것에 관한 품질; 여기서, 악들과 이 악에서 파생된 것들 안에 이들과 더불어 있는 말씀의 품질.

예7:11-‘이 집 위에서 내 이름이 명명되고 있다’=교리 속의 진리들을 통하여 생활의 선으로부터 예배하는 교회...‘여호와와 이름’=그분이 예배되어야 하는 모든 것; 고로 선과 진리; 후자는 교리에 관하여, 전자는 생활에 관하여.

마13:19-‘만일 너희 중 둘이 내가 물어야 할 어떤 것에 관해 내 이름 안에서 땅 위에서 함께 동의한다면, 그것은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의해 그들을 위해 행해질 것이다.’ 주님의 ‘이름’이란 그분이 예배되어지는 모든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예배되어지는 바, 그러므로 이것이 그분의 ‘이름’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이40:26-‘그분은 이름으로 그들 모두를 부르신다’=그분은 모든 이들의 품질을 아신다는 것, 이에 더하여 그 품질에 따라 그분은 배려하신다는 것; 그 이유가 ‘이름’에 의해 말씀에서 (천국의) 어떤 것과 상태의 품질이 의미되기 때문이다.

이4:1-응용되어야 하는 유일한 진리, 그리고 응용함을 통해 결합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당신의 이름만을

우리 위에서 명명되게 하자’에서 의미되고 있다.

마7:22-말씀 그리고 말씀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예언하지 아니했습니까?’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름’에 의해 말씀으로부터의 교리에 따라서가 의미되고 있다.

이14:20-‘악한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명명되지 않을 것이다’=영원히 분리함.

막16:17-그들은 ‘주의 이름 안에서 악마들을 내쫓았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부터 그것의 결과가 파생된다. 즉 이를 영적으로 이해해보면, ‘주님의 이름’은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으로부터의 교리에 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악마들’은 갖가지 종류의 거짓들이다. 이것들은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으로부터의 교리를 수단으로 제거된다.

요1:12-‘그분의 이름의 존재를 믿는 것’=신앙과 삶으로 주님을 받는 것; 그 이유가 주님의 ‘이름’에 의해 그분이 예배되어지는 수단의 모든 것이 의미되기 때문.

계13:6-‘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신성한 진리 또는 말씀의 모든 품질을 거짓화해버리는 것.

계13:17-‘또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의 이름의 숫자’=또는 그것으로부터 똑같은 것이 생활에, 또는 신앙에; (그이유가) ‘이름’=사랑의 선과 이 선에서 파생된 생활의 품질.

계15:4-‘그리고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더하실 것이다...’=이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함.

계17:5-‘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씌여있다...’=사랑에 관한 그녀의 품질; 그 이유가 ‘이름’은 (천국의) 어떤 것 또는 상태의 품질; 그리고 ‘이마’에 의해 사랑이 의미된다.

이리 (wolf)

이11:6-‘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주할 것이다.’ ‘어린 양’=순진과 사랑의 가장 깊은 수준. ‘이리’=정반대.

이65:25-‘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을 것이다.’ ‘이리’=순진에 반대되어 있는 이들.

눅10:3-‘이리’와 ‘어린 양’이 반대되는 바, 주님께서 70인에게 ‘나는 이리들 한가운데에 있는 어린 양 같이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하셨다.

이리-이마-이브-이사벨-이삭

창49:27-‘(베냐민은) 이리이다’=선한 자를 낚아채서 구해내려는 강한 욕망. 그이유가 ‘이리’=붙잡고 흐트르는 것. 그리고 말씀에서 짐승=욕망들, ‘이리’=꼭 움켜쥐려는 욕망. ‘이리’=꼭 움켜쥐려는 것, 그러나 이 구절의 경우, 꼭움켜짐을 당하고 있었던 이들을 지옥으로부터 낚아채는 것을 의미한다.

이마 (forehead)

출28:38-‘아론의 이마 위에 있을 것이다’=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이마’, 주님을 서술할 때,=그분의 신성한 사랑.

계13:6-‘이마’=거짓의 근원지인 악의 사랑.

계7:3-‘그들의 이마에 날인하는 것’=사랑의 선 속에 있는 이들을 구별하여 분리하는 것.

이브 (Eve)

* 주님께 대한 신앙의 생명(태고 교회)으로부터 ‘이브’라 불리웠다, 그리고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

* 처음에, 교회가 그것의 젊은이의 꽃 안에 있었을 때...‘이브’라 불리웠다, 생명으로부터.

* ‘여성’=의지...그러므로 그녀는 생명으로부터, ‘이브’라 불리웠다, 이 생명은 사랑 만에 속한다.

* ‘야생 동물’(히브리어에서)이 chajah라 불리워진다, 그리고 chajah는 생명을 뜻한다; 그리고 인간의 참 영적 생명은 진리와 선에 애착함 안에 있다...‘야생 동물, 또는 chajah는 반대적 의미에서=악으로부터의 거짓에 대한 애착, 아담의 아내 이브가 이 단어로부터 ‘chavah’라 불리워진다...

이사벨 (Jezebel)

계2:20-‘너는 여인 이사벨을 허용했다’=그들과 더불어 교회 안에 신앙이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이들, 이 신앙 만으로도 구원된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이 여인 이사벨에 의해 뜻해짐은 이어지는 말로부터 분명하다. 그이유가 이런 것들이 아합의 아내 이사벨의 행위들이기 때문이다.

* ‘너는 여인 이사벨을 허용한다는 것’=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즐거움. (그이유가) ‘여인 이사벨’=교회가 완전하게 남용되었음. 그이유가 ‘여인’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 여기서는 남용된(타락한)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가 깡그리 뒤집힘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 초래하는바, ‘이사벨’이 이런 사랑들을 의미한다. 이런 두가지 사랑들이 지배하는 교회가 ‘여인 이사벨’로 불리우는데, 이는 아합의 아내 이사벨이 이런 두가지 사랑들로부터의 즐거움,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뒤집힘을 표현했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해진다.

* 그녀는 ‘자신을 여예언자라 부른다’고 말해지고 있다. 아합의 아내 이사벨이 자신을 여예언자라 부른 것은 아고, 그녀에 의해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을 의미했고, 이것이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을 가르치고 유혹해대기 때문이다. 그이유가 모든 이 각자가 자신으로부터 생각할 때, 각자는 그의 사랑으로부터 생각하는바, 이 때 그는 거짓들을 빨아들인다. 이것이 가르치는 것, 유혹해대는 것이다.

이삭 (ear)

창41:5-‘일곱 이삭이 한 줄기에서 올라온다’=결합된 자연 평면의 과학물들.

창41:6-‘일곱 야윈 이삭’=유용함이 없는 과학물들.

창41:7-‘일곱 야윈 이삭들이 기름지고 알찬 일곱 이삭을 먹어치웠다’=쓸모 없는 과학물들이 좋은 과학물들을 몰살시켰다.

창41:26-‘일곱 우량한 이삭들 칠 년들이다’=외면의 자연 평면에서 진리가 변창하는 상태들. ‘이삭들’, 좋은 의미에서,=과학물들. 그러므로 외면의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진리들. 그이유는 이것들이 과학물이라 불리기 때문.

창41:27-‘일곱 텅빈 이삭들, 동풍으로 폭파되었다’=외면의 자연 평면에 침입한 거짓인 변창하는 상태들. ‘이삭들’, 반대 의미에서,=외면의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거짓들.

이27:12-‘내면과 외면의 과학물들이 ‘유브라테 강, 이집트 강에 이르기 까지 예서의 이삭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막4:28-‘씩, 이삭, 그리고 낱알’을 가지고 비교함은 과학물들,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그리고 선행으로부터의 선들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재탄생을 포함하고 있다. ‘씩’=첫 과학물, ‘이삭’=그 썩어서 파생된 진리로부터의 (영적) 과학물, ‘낱알’=이삭으로부터 파생된 선.

출9:31-‘익어가는 이삭’=그들이 앞으로 나와 섰다.

레23:14-‘볶은 이삭’=선행으로부터의 선. ‘푸른 이삭’=

이삭

진리로부터의 선.

마12:1-‘이삭을 그러모으고 그것을 먹는 것’=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

이삭 (Isaac)

창17:19-‘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 것이다’=신성한 합리성. ‘이삭’은 주님의 합리적 인간을 표현한다.

* 이삭은 ‘웃음’으로부터 명명되어졌다; ‘웃음’...=진리에 애착함, 이 애착은 합리성 속에 있고, 이 구절의 경우 신성한 합리성.

마8:11-‘보다 낮은, 또는 중간 천국(사랑의 천적인 것들), 이것은 합리성의 것들인데, ‘이삭’이다.

창21:3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다’=신성한 합리성.

창21:4-‘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다’=합리성이 순수해짐.

창21:5-‘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주님의 합리성이 신성으로 만들어졌을 때.

창21:8-‘그가 이삭에게서 젖을 떼던 그 날에’=(인간적 일 뿐인 합리성이) 분리되는 상태.

창21:10-‘이 하녀의 아들은 내 아들과 더불어, 이삭과 더불어 상속받지 않을 것이다’=인간적 수준일 뿐인 합리성은 진리 측면이든 선의 측면에서이든 신성한 합리성 자체와 공동의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것.

* ‘내 아들, 이삭’=진리 측면에서의 신성한 합리성이 ‘내 아들’, 선의 측면에서의 신성한 합리성은 ‘이삭’. ‘이삭’=선의 측면에서의 신성한 합리성이라는 것은 그가 명명되어진 ‘웃음’의 의미로부터 명백해진다. ‘웃음’은 진리에 애착함, 또는 진리로부터의 선이다.

창21:12-‘그 이유는 이삭 안에서 네 씨라 불리울 것이기 때문이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한 모든 구원이 있다는 것. ‘이삭’=신성한 합리성, 고로 신성한 인간; 그 이유가 인간은 합리성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창22:2-‘이삭’=(신성한 합리성의) 품질; 즉 그것은 진리로부터의 선과 선으로부터의 진리이다는 것; 즉 주님의 인간성에 관련되는 신성한 결혼. 이것은 이름 ‘이삭’으로부터 확실하다.

창22:3-‘그리고 이삭 그의 아들’=그분 자신에 의해 태어난(begotten) 신성한 합리성.

창22:6-‘그는 (번제에 쓸 나무들을) 이삭 위에 놓았다’=정의의 공적이 신성한 합리성에 인접되어졌다.

창22:7-‘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를 보라(behold), 내 아들’=주님께서 신성한 진리의 사랑으로부터 신성한 선과 대화하심(colloquy). ‘이삭 아들’= 신성한 진리...그러므로해서 (이 구절이) 주님께서 그분의 아버지와 더불어 대화하심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창22:9-‘그는 이삭 그의 아들을 묶었다’=시험의 최종 수준을 막 수행하려는 진리에 관련된 신성한 합리성... ‘이삭 그의 아들’=주님의 신성한 합리성.

창22:12-‘네 손을 소년에게로 내보내지 마라’=그는 합리성에 소속되어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시험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소년’, 또는 이삭=이 구절의 경우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관련된 합리성, 이 안으로 시험은 받아들여진다.

창24장에서-‘이삭’=합리성으로부터의 선.

창24:3-‘너는 내 아들을 위한 여인을 가나안족의 딸들로부터 데려오지 마라’=신성한 합리성은 진리와 불일치되는 어떤 애착과도 결합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내 아들’, 즉 이삭=주님의 신성한 합리성.

창24:62-‘이삭은 브엘라헤로이로부터 왔다’=신성한 합리적 선은 신성한 진리 자체로부터 태어남. ‘이삭’=여기서는 주님의 신성한 합리성이 신성한 선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리브가’로 표현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아직은 자연성으로부터 나오도록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24:63-‘그리고 이삭은 명상하기 위하여 들판으로 나갔다’=선 안에 있는 합리성의 상태. ‘이삭’=신성한 합리성.

창24:67-‘그리고 이삭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위로가 되었다’=새로운 상태...이 새로운 상태는 합리성의 영광되심의 상태이다. 전에는 선에 관련된 영광되심이나 지금은 진리에 관련된 영광되심이다.

창25:5-‘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

이삭

었다'='최고의 의미에서 신성한 합리성 안에 있는 신성한 모든 것들; 그리고 관계적 의미에서 주님의 천적 왕국에 있는 사랑의 천적인 것들.

창25:6-'그는 그의 아들과 더불어 것으로부터 그들을 내보냈다'='천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구분하고 분리함.

창25:9-'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그의 아들들은 그를 매장했다'='주님을 표현함이 이제는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넘겨졌다.

창25:11-'하느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주님을 표현함이 이삭에 의해 시작됨.

창25:19-'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신성 자체로부터 신성한 합리성이...

창25:20-'그리고 이삭은 사십 년의 아들이었다'='...주님은 그분 자신의 능력에서 시험들과의 전투를 수단으로 진리에 관련하여서까지도 그분의 합리성을 그분의 신성으로 만드셨다.

창25:21-'이삭은 여호와께 기도했다'='아들인 신성이 아버지인 신성과 소통함...'이삭'='신성한 합리성. 아들인 신성이 '이삭', 또는 진리가 신성과 결합되었을 때 합리성.

창25:28-'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에서의 사슴고기가 이삭의 입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신성한 합리성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은 진리로부터의 선을 사랑했다. '이삭'='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의 신성한 합리성.

창26:1-'이삭은 그랄로 불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믿음의 교리적인 것들. '이삭'='신성한 합리성에 관련된 주님.

창26:6-'이삭은 그랄에 거주했다'='인접되어질 합리적인 것에 비교되는 믿음에 속한 것들에 관한 주님의 상태...'이삭'='신성한 합리성에 관련된 주님...

창26:8-'보라 이삭은 그의 여인 리브가와 웃고 있었다'='신성한 선이 신성한 진리에서 표현되었다는 것, 또는 신성한 선이 신성한 진리에 인접되어졌음. '이삭'='주님의 합리성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창26:12-'이삭은 그 토지에서 씨를 뿌렸다'='내면의 진리들, 이는 주님으로부터 있고, 합리성에 나타난다.

창26:16-'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말했다'='그 교리에 관해 주님께서 지각하심...'이삭'='신성한 합리성에 관련되는 주님.

창26:17-'그리고 이삭은 거기를 떠났다'='주님은 내면의 진리들을 두고 가셨다는 것..'이삭'='신성한 합리성에 관련되는 주님.

창26:18-'이삭은 되돌아와서 그들이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시절에 팠었던 물들의 우물을 다시 팠다'='주님께서 고대인들과 더불어 있어왔던 일련의 진리들을 여셨다. '이삭'='신성한 합리성에 관련된 주님.

창26:31-'그리고 이삭은 그들을 떠나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과 더불어 평화로이 있다가 떠나갔다'='그들이 동의했다는 것.

창26:32-'이삭의 종들이 왔다'='합리적인 것들. '이삭'='신성한 합리성에 관련된 주님.

창26:35-'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영의 쓰라림이었다'='이러므로해서 첫 번째로 슬픔이었다...'이삭과 리브가'='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에 관련된 주님의 신성한 합리성.

창27:39-'이삭 그의 아버지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다'='자연적 선에 관하여, 이것이 신성으로 만들어질 것임을 지각함. '이삭'='신성한 선에 관련되는 주님의 신성한 합리성.

창27:46-'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주님께서 신성한 진리로부터 지각함.

창28:1-'이삭이 야곱을 불렀다'='주님으로부터의 진리로부터 있는 선에 관한 품질을 지각함...'이삭'='신성한 합리성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

창28:8-'그의 아버지 이삭의 눈에서 악(이다)'='이삭'인 합리성의 선과 더불어...결합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창28:13-'이삭의 하느님'='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주님.

창31:18-'가나안의 토지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오는 것'='인성이 신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합리성의 신성한 선과 결합하는 것. '이삭'='신성한 합리성; 그리고 특별하게는 합리성으로부터의 신성한 선.

창31:42-'이삭의 두려워하는 분'='신성한 인간

창35:27-합리성이 있는 곳인 내면의 것들로 더 한층

이상한 -이새

다가 섬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삭에게로 오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창35:12-‘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토지...’아브라함과 이삭=주님의 신성; ‘아브라함은 신성 자체, 그리고 ‘이삭’은 신성한 인간; 특히 주님의 신성한 합리성.

창35:27-‘아브라함과 이삭이 체류했던 곳’=신성한 생명이 다함께...‘이삭’=그분의 신성한 합리성.

창35:28-‘이삭의 날들이었다’=지금 신성한 합리성의 상태.

창35:29-‘그리고 이삭은 기한이 만료되어 죽었다’=신성한 자연성이 분발하게 함.

창27장에서-이삭에 의해 주님이 표현되고 있다.

암7:16-‘이삭의 집에 (네 말을) 떨어트리지마라’=악의 거짓들에 있는 교회의 사람에게 (책임) 부과하는 것...‘이삭의 집’=교회...

이상한 (strange)

낯선 사람 (stranger)

* foreigner, sojourn도 참조.

이61:5-예배를 오로지 외적인 측면에만 놓았던 이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표현되었다. 이방인들을 그들은 ‘외국인’이라 불렀고, 외국인들은 그들의 종이였다. 그리고 교회의 허드렛 일을 맡아 했다. ‘낯선 사람들이 너희 양떼를 서서 먹일 것이고,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의 쟁기질과 포도원 가꾸기를 할 것이다.’ 예배를 오로지 외적인 것들에 두는 이들이 ‘외국인의 아들’이라 불리워진다.

겔28:7-‘나는 너에게 낯선 사람들을 데려올 것이다.’ 즉 거짓들.

창31:15-‘우리는 그에게 낯선 사람으로 세어지지 아니했던가?, 그이유는 그가 우리를 팔았기 때문이다’=그들이 그의 것에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그는 그들을 떨어져 있게 했다는 것.

창42:7-‘그리고 그는 자신을 그들에게 낯설게 만들었다’=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결합이 없다.

출2:22-‘낯선 토지’=그의 자신의 것이 아닌 교회.

출18:3-‘낯선 토지’=교회가 있지 않은 곳. ‘낯선 토지’=진짜 교회가 있지 않은 곳인 이유는 ‘낯선’=진짜인

것이 있지 않는 곳이기 때문.1

호8:7-‘낯선 사람들이 그것을 삼켰다’=그것을 소진시켜지게 한 거짓들.

요10:5-‘그들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이유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의 음성’=거짓인 것.

레22:10-‘낯선 사람은 거룩한 것을 먹지 마라’=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내의 이들은 아니다. 고로 교회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아니다.

출29:33-‘낯선 사람은 먹지 마라’=주님을 인정 않는 이들이 선을 자기 것 되게 함.

출30:9-‘너는 그것 위에서 올라가도록 이상한 향을 만들지 마라’=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외의 다른 사랑으로부터의 예배는 아니다. ‘이상한, 낯선, 모르는’=교회 내에 있는데 주님을 인정 않는 자.

출30:33-‘낯선 사람에게 (고약)을 주는 자’=주님을 인정 않는 자, 고로 악들과 악들로부터의 거짓들에 있는 자들과 결합함.

이1:7-‘너의 지면, 낯선 자가 네 앞에서 그것을 먹어치울 것이다’=악들과 악들로부터의 거짓들이 교회를 살라 버릴 것이다.

마17:25,26-‘낯선 자들’=자연(the natural).

민16:40-‘사람 낯선 자’=교리로부터의 거짓.

이33:19-‘...혀(언어)에서... 이상한 백성’=(난해한 종교 안에 있는 이들).

이새 (Jesse)

이11:10-‘이새의 뿌리’=주님.

* ‘이새의 뿌리’=(순진)의 이 선은 주님으로부터 있다.

*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불리운다, 이는 모든 것들이 뿌리로부터 생겨나고 지탱하는바 같이 모든 신성한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이다는 사실로부터 그렇게 불리우신다. 그런고로 또한 그분은 ‘이새의 뿌리’라고도 불리신다...‘이새’가 ‘다윗’ 대신 놓였는데, 그가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

이스라엘 (Israel)

이스라엘 자손 (Israelite)

이스라엘의 (Israelitish)

* Jacob, Jew, Judah, Moses, tribe 등도 참조,

이스라엘-이스라엘 자손-이스라엘의

이19장-‘이스라엘’에 의해 총명이 의미된다.

호9:10-‘이스라엘’=고대 교회.

이19장-‘이스라엘’=영적인 것들.

민26, 24장-이스라엘 백성은 천국들 안에서 주님의 왕국, 고로 거기서 천국의 질서를 표현했는바, 그들은 지파별로, 가문별로, 자기들 아버지들의 집에 따라 구별하라고, 또한 그들은 이 질서에 따라 진영을 차리도록 명령되어졌다...그리고 그들은 같은 질서(민2장)에 따라 행군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러므로 발람이 ‘자기들 지파에 따라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있던 그의 예언 속의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천국들에 있는 주님의 왕국, 그리고 땅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뜻했다. 이것이 이 질서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창32:28-‘네 이름은 야곱이라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른다’=지금 신성한 천적 평면에서의 영적인 것(the Divine Celestial Spiritual). ‘이스라엘’=자연 안에 있는 천적 수준으로부터의 영적 인간, 고로 자연 평면.

창32:32-‘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허벅지의 우묵한 곳 위에 있는 어긋나진 힘줄(sinew)을 먹지 않는다’=안에 거것들이 있는 것들은 자기 것 되게 해서 안된다는 것.

창33:20-‘그리고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신성한 영적 평면으로부터 있는 내면의 예배. ‘이스라엘’=영적 평면.

창34:7-‘그는 이스라엘 안에 어리석음이 생기게 했다’...‘이스라엘 안에’라고 말해지는데, 그이유는 이스라엘에 의해 교회의 내적 측면이 의미되었기 때문.

창35장-이 장은 자연 평면 속의 내면들을 취급한다. 즉 그들이 신성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이스라엘’이다.

창35:10-‘그러나 이스라엘이 네 이름일 것이다’=자연 평면의 내적 측면의 품질, 또는 ‘이스라엘’인 자연 평면의 영적 측면의 품질.

창35:21-‘이스라엘은 여행했다’=지금 자연으로부터 있는 천적 평면으로부터의 영적인 것, 이는 진리로부터의 선, 또는 신앙 속의 진리를 통하여 획득된 선행으로부터의 선.

창35:22-‘이 토지에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다’=진리로부터 선의 이 상태 안에 있을 때.

창35:22-‘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다’=이 신앙은 거절되어졌다는 것. 적당한 의미에서라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다’=영적 교회가 알았고 이것에 따르는 것...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이것=이 신앙은 거절되어졌다는 것.

창37:3-‘이스라엘은 모든 그의 아들들 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자연 평면의 신성한 영적인 것과 합리성 평면의 신성한 영적인 것이 결합함.

창42:5-‘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이들 사이에 끼여 사려고 왔다’=그는 과학물들을 통하여 영적 진리들이 포획되어지기를 원했다.

창43:6-‘그리고 이스라엘이 말했다’=영적 선으로부터 지각함...‘이스라엘’=영적 선인바, 그는 또한 =영적 교회의 내적 측면. 그이유가 이 교회는 영적 선으로부터 있는 교회이기 때문.

창45장- 내적 인간을 취급한다, 그는 자신을 자연 평면의 외적 측면과 결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인 자연으로부터의 영적 선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서는 결합이 없는바, 그는 그러므로 먼저 자신에 이것을 인접되게 준비한다.

창46:1-‘이스라엘은 여행했다,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결합의 시작...여기서의 경우 주님의 신성화 되심 안에서 계속되고 연속되는 것. 최고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요셉’은 주님이시다.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인간의 거듭남 안에서 계속되는 것, 연속적인 것.

창46:5-‘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마차로) 모셨다’=영적인 진리들이 자연적인 진리 앞에서 나아간다는 것 (자연적 진리가 진흥되게 한다는 것).

창46:29-‘(요셉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올라갔다’=자연 평면으로부터 있는 영적 선 안으로 천적 평면의 내적 측면으로부터 유입이 있다는 것.

창46:30-‘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천적 평면의 내적 측면으로부터 영적 선을 지각함.

이19장-‘이스라엘’에 의해 주님의 왕국에 있는 영적 평면, ‘앗수르’에 의해 합리적 평면, ‘이집트’에 의해 과학

이스라엘-이스라엘 자손-이스라엘의

적 평면이 묘사되어져 있다.

창47장-‘이스라엘’인 자연 평면으로부터 있는 영적 선의 거듭남이 마지막으로 취급된다.

창47:27-‘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토지에서 거주했다’=영적 선이 교회의 과학물 사이에 살고 있었다.

창47:29-‘죽음을 위한 이스라엘의 날들이 접근하고 있었다’=거듭나기 직전 상태. ‘이스라엘’=영적 선.

창48:2-‘이스라엘은 기운을 냈다’=영적 선을 통하여 새로운 힘(force)... ‘이스라엘’은 또한 교회의 내적 부분이기도 하다...교회의 내적 부분에서 선행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이 있다. 이는 신앙으로부터의 선이고, 또한 진리로부터의 선, 또한 영적 선, 이는 ‘이스라엘’이다.

창48:14-‘이스라엘은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았다’...이것에 의해 의미되나, 그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가 첫째 자리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그이유는 ‘이스라엘’에 의해 표현된 영적 인간은 거듭나 버리기 전의 상태에서는 이와 달리 간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창48:21-‘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오, 나는 죽는다’=새 삶에 관하여 천적 평면의 내적 부분으로부터 영적 선이 지각함.

창49:2-‘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여라’=영적 선에 의해 이런저런 것들에 관해 예언함. 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예견하심.

창49:7-‘나는 그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흠트릴 것이다’=그들은 영적 인간으로부터 근절되어질 것이다.

창49:24-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의해 영적 교회가 의미된다. 그리고 더 높은 의미에서, 주님의 영적 왕국이 의미되고 있다. (고로) ‘거기로부터 목자, 이스라엘의 돌’에 의해 거기로부터 주님의 영적 왕국을 위한 모든 선과 진리가 있다가 의미되고 있다.

출1:1-‘이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교회의 품질.

출1:7-‘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열매 풍성한 생산적이었다’=교회의 진리들이 선 측면에서 성장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영적 진리들, 그리고 교회.

출1:9-‘보라, 이스라엘 아들들로부터의 백성이 많아져

우리보다 많다’=교회의 진리들이 소외된 과학물을 넘어서 우세해져 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교회의 진리들과 선들.

출1:13-‘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섬기게 만들었다’=복종시키려 노력함. ‘이스라엘의 아들들’=교회

출2:23-‘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섬김으로부터 탄식했다’=교회의 진리를 복종되게 하려 부단히 고통함 때문에 있는 슬픔. ‘이스라엘의 아들들’=교회의 진리들.

출3:9-‘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외침이 나에게 당도했다’=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한 연민.

출3:10-‘내 백성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집트의 안에서 밖으로 이끌어라’=침투해 감염시키는 거짓들로부터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해방함.

출5:1-‘고로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에게 말하라’=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의해 주님의 영적 왕국이 의미되기 때문, 그리고 세상에 강림하심을 수단으로 주님은 이 왕국, 또는 이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구하셨기 때문이다.

출6:6-‘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신성한 법은 주님의 영적 왕국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주시해야 하는 것(통각하는 것)을 줄 것이다.

출6:9-‘고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했다’=주님의 영적 왕국 속에 있는 이들에 신성한 법을 수단으로 권면함.

출6:12-‘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나에게 귀기울이지 않았다’=영적 왕국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공포되어 왔었던 것들을 받지 않았다.

출6:13-‘그분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임무를 주셨다’=주님의 영적 왕국 속에 있는 이들에게 대한 명령에 관련하여.

출6:26-‘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인도해내라’=주님의 영적 왕국의 사람들은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과 붙어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리라는 것.

출9:4-‘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소떼와 이집트인의 소떼를 구별하실 것이다’=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진리들과 선들, 그리고 영적 교회에 침입해 창궐하는 이

이스라엘-이스라엘 자손-이스라엘의

들의 진리들과 선들의 차이.

출9:26-‘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있는 고센의 토지 만이 우박이 없었다=영적 교회 속의 이들이 있는 곳에는 (악들로부터의 거짓이) 없었다.

출9:35-‘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가게 하지 않았다’=그들은 그들을 떠나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스라엘의 아들들’=영적 교회인들. 이들은 그들로부터 침입당하고 있었다.

출10:23-‘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은 자기들의 거주지에 빛을 가졌다’=영적 교회인들은 자기들 마음의 어느 곳에서도 계발됨이 있었다.

출11:7-‘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에게 개는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영적 교회인들과 더불어서는 최소한의 저주도 탄식함도 없을 것이다.

출11:7-‘너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인 사이를 구별하신다는 것을 알리지 모른다’=악들 안에 이들과 선들 안에 있는 이들의 특성을 알게 되었을 런지 모른다.

출12:3-‘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집회에 이야기하여 말하라’=영적 교회 속에 있는 모두에게 통지함과 더불어 유입이 있음.

출12:6-‘그들은 그것을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합의 모든 회중’=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일반적인 모두에 의한 즐거움을 위한 준비.

출12:15-‘그 혼은 이스라엘로부터 잘라질 것이다’=영적 교회인들로부터 분리될 것이고, 정죄될 것이다.

출12:21-‘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을 불렀다’=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현존하심과 유입됨을 통하여 영적 교회인의 이해성이 계발됨. ‘이스라엘’=영적 교회.

출12:27-‘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집을 지나쳐 갔다’=이 저주는 주님이 붙잡고 있는 영적 교회인들로부터는 도망쳤다.

출12:28-‘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대로 행했다’=영적 교회인들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순종할 것이다.

출12:31-‘또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선으로부터의 진리와 더불어...

출12:37-‘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라암셋으로부터 숙곳으

로 여행했다’=떠남으로부터 있는 첫 상태.

출12:42-‘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영적 교회인과 더불어 진리로부터의 선, 그리고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있다.

출12:47-‘이스라엘의 모든 집회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이것은 진리로부터의 선, 선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는 모두를 위한 질서의 법이다.

출12:51-‘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데려내 오셨다’=주님께서는 진리로부터의 선과 선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지옥에 떨어 짐으로부터 구조하셨다.

출13:2-‘이스라엘의 아들들 안에’=영적 교회 안에.

출13:18-‘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허리를 졸라매고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올라갔다’=그들은 (거짓들에) 물드는 상태에서부터 데려가졌다, 그리고 고로 시험들에 견디도록 준비되었다.

출14장-영적 교회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출14:2-‘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라’=영적 교회인들에게 신성으로부터의 법의 유입이 있다.

출14:3-‘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관하여 말할 것이다’=영적 교회인들에 관하여 지옥 안에 있을 이들이 생각함.

출14:8-‘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뒤따라 추격했다’=선행과 결합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을 복종케하려 골몰함.

출14:8-‘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선을 드높혀 앞으로 나갔다’=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을 복종케하려는 그들의 골몰함으로부터 신성한 힘에 의해 데려가지고 있을 때.

출14:16-‘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에 오게 하라’=영적 교회인들은 거짓의 유입 없이 지옥을 통과해 갈런지 모른다.

출14:19-‘이스라엘의 진영 앞에서 행군함’=교회의 진리들과 선들 가까이 있는 것.

출14:20-‘그리고 그것은 이집트인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있었다’=이쪽은 악으로부터의 거짓, 저쪽은 진리로부터의 선들 사이에.

출14:25-‘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진리

이스라엘-이스라엘 자손-이스라엘의

의 선, 선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로부터 분리됨.

출14:30-‘오늘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인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셨다’=이 상태에서 주님은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수단으로 하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영적 교회인을 방어하셨다.

출15:1-‘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했다’=해방됨 때문에 영적 교회인들이 주님께 영광을 기림.

출15:22-‘모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수프 바다로부터 여행하게 했다’=그들이 지옥의 영역을 통과한 후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질서에 따라 계속되는 것...‘이스라엘’은 주님의 강림 때 까지 더 낮은 땅에 붙들어두었다가 구원된 영적 교회인들을 표현한다.

출16:9-‘이스라엘의 모든 집회에 말하라’=(영적 교회인들을) 가르침.

출17:1-‘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은 여행했다’=영적 생명이 진보하는 것.

출17:11-‘이스라엘이 우세했다’=그다음 싸우는 진리가 정복했다..‘이스라엘’=영적 교회인들, 여기서는 내면의 악으로부터 있는 거짓에 맞서 진리들로부터 전투하는 이들.

출18:1-‘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데려내 오셨다’=(영적 왕국에 있는 이들이) 그들에게 침입해 거짓들을 만연시키려듬으로부터 주님께 의해 해방되었다.

출18:8-‘이스라엘을 위하여’=영적 교회인을 위하여.

출18:12-‘아론이 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이것은 교회의 제일가는 것들이었다.

출18:25-‘모세는 모든 이스라엘로부터 진솔한 사람을 뽑았다’=선이 영적 교회인들에게 인접되어질 수 있게 하는 진리들을 선택함.

출19:2-‘이스라엘은 산 근처에 진영을 차렸다’=신성한 천적 선을 수단으로 영적 교회인을 배치함.

출19:3-‘고로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라’=영적 교회의 외적 부분과 내적 부분에 있는 이들을 구원함.

출19:6-‘이것들은 내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말이다’=선 안에서 진리들을 받도록 유입이 있음.

출20:22-‘고로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영적 교회인들.

레23:42-‘이스라엘의 본토박이’에 의해 선행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이들, 추상적으로는 이 선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된다.

암9:7-‘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나온 이스라엘의 아들들’=과학적 진리들을 수단으로 영적 진리들과 선들을 개시해왔었던 이들.

출24:5-‘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소년들을 보냈다’=영적 교회인과 더불어 있는 순진과 선행 속에 있는 것들.

출24:9-‘이스라엘의 칠십 원로들’=진리들로부터 선 안에 있는 모두.

출24:11-‘따로 분리해놓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향하여’=외적 의미 만에 있는 이들.

출24:17-‘여호와와 양상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눈에서는 삼켜버리려는 불 같이 있었다’=신성한 진리의 내적 부분이 다치거나 황폐해짐으로부터 분리된 외적 부분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신성한 진리...‘이스라엘의 아들들’=내적인 것들 없이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

출25:2-‘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라’=표현 교회.

출25:22-‘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표현 교회의 예배. ‘이스라엘의 아들들’=영적 교회, 여기서는 표현되어진 영적 교회.

출27:20-‘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명령하라’=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있는 교회.

출27:21-‘이스라엘의 아들들로부터 대대로를 위하여’=영적 왕국을 위해 영원인 것.

출28:1-‘이스라엘의 아들들의 한가운데로부터’=천국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이스라엘’=교회인들, 추상적으로는 교회 자체. 그리고 ‘이스라엘’=교회인바, ‘이스라엘’=천국, 그이유는 천국과 교회는 하나를 만들기 때문.

출28:9-‘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 위에 새겨라’=그 위에 영적 왕국의 진리들과 선들을 그것들의 품질 측면에서 인상지우는 것.

출28:12-‘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한 기념의 돌들’=영

이스라엘-이스라엘 자손-이스라엘의

적 왕국을 위한 영구적인 자비를 위해.

출30:12-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총계를 취할 때=교회의 모든 것들.

출31:13-'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라, 말하기를,'=말씀을 통하여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게 통보하는 것.

출31:17-'나와 이스라엘의 아들들 사이에 이것은 시대를 위한 표시이다'=이것에 의해 교회 속에 있는 사람과 교회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어진다.

출32장-이 장은 내적 의미에서 교회가 이스라엘의 백성 사이에서는 설립되어질 수 없었음을 묘사해놓고 있다. 그이유는 그들은 어떤 내적인 것 없이 한결 같이 외적이었기 때문. 그러나 이런 그들의 상태는 천국과 교회의 거룩한 것들을 모독함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는데, 하여 그들과 더불어는 내면의 것들은 완전하게 닫혀 있었다...

출32:4-이것들이 너희 하느님이다, 오 이스라엘아=모든 것들 위에서 예배되어지는 것.

출32:13-'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 고로 천국에서, 교회에서 그분의 신성에 관련된 측면에서의 주님...

출32:20-'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마시게 했다'=(진리들과 혼합된 지옥의 거짓이) (이스라엘) 국가에 결합되고 그들 것으로 삼아졌다.

출33장-이 장도 이스라엘 국가를 계속해서 취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예배의 품질, 고로 교회 속에 있는 것들에 관련한 품질이다.

출33:5-'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이 국가는 신성으로부터의 유입을 받지 않을 것이다.

출34:27-'나는 너와 더불어,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만들 것이다'=외적, 내적 예배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결합함. '이스라엘'=교회와 예배의 내적 부분.

출34:30-'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이 모세를 보았다'=교회와 예배와 말씀에서 내적 부분 없이 외적 부분에 있는 이들이 통각함.

출34:32-'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이 접근

했다'=내적 부분 없이 외적 부분에만 있는 이들이 아직도 내적인 것을 표현했다.

출34:35-'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았다.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났다'=이스라엘의 국가는 말씀 안에 내적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내적 부분의 품질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출35:1-'모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든 무리들을 함께 그러모았다'=복합체에서 있는 교회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

이19장-(영적 교회의 사람의) 영적 부분이 '이스라엘'이다.

계2:14-'이스라엘의 아들들'에 의해 교회가 의미된다.

마10:6-'이스라엘의 집의 잃은 양'=선행의 선과 그부터 파생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

겔38:16-'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는 것'=교회의 진리들을 공격하는 것.

계7:4-'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부터 일백 사십 사 천 명'=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모든 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이11:12-'이스라엘의 쫓아낸 자'=진리들 안에 있지 않은 이들, 그러나 아직 그것들을 배우기를 갈망하고 있는 이들.

예10:16, 51:19-'이스라엘은 그분의 유산의 지팡이다'=신성한 진리가 있고, 거짓들에 맞선 신성한 진리의 힘이 있는 교회.

예50:33-'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유다의 아들들'=주님으로부터 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는 나라들.

시14:7, 53:6-외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야곱'에 의해 뜻해진다. 그리고 내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뜻해진다.

요1:48-'이스라엘 사람(나타나엘)'=선행의 선 안에, 이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자, 고로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자.

겔37:16-'유다와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의 동료들'=주님의 천적 왕국. '유다'는 선 측면에서의 천적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진리 측면에서의 천적 왕국. 그러나 '요셉과 이스라엘의 지파들 그의 동료들'=주님의 영적 왕국. '요셉'=선 측면에서의 영적 왕국. 그

이스라엘-이스마엘

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들 그의 동료들'='진리 측면에서의 영적 왕국.

이스르엘 (Jezreel)

호2:22-'이들은 이스르엘을 들을 것이다' '이스르엘'=새로운 교회.

이스마엘 (Ishmael)

* 이름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그녀의 고뇌를 들으셨다'라는 뜻이다.

* '이스마엘'=주님과 더불어 첫 번째 합리성.

창16:11-'너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부를 것이다'=생명의 상태.

창 16:12-'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일 것이다'=합리적 진리...합리성은 선과 진리로 구성된다...합리적 진리가 '들나귀'에 의해 의미되어진 것이다. 그 당시 이것이 '이스마엘'에 의해 표현되어진 것이다...

창16:12-'그의 손은 모든 자에 맞선다'=그는 진리들이 아닌 것들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자의 손은 그에 맞선다'=거짓들이 되돌려 싸울 것이다. (그이유가) '이스마엘'=선으로부터 분리된 합리적 진리...여기서는 이 진리가 내적인 것과 하나되지 않으면 있게 될 그 진리의 품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창16:12-'그는 그의 모든 형제의 얼굴들에 맞서 거주할 것이다'=신앙 속에 있는 것들 안에서 계속적인 경쟁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는 정복자일 것이라는 것...이것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취급하는 곳에서 더 충분히 묘사되고 있다...(창15:18)...

창16:15-'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았다'=합리적 인간이 이 결합과 임신으로부터 출생되었다. '그리고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다'=그것의 품질, 즉 합리적 진리.

창16:16-'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지식들에 대한 애착의 생명이 합리성을 산출하였을 때...'이스마엘'=처음 임신된 합리성...유용함의 생명 없이 단지 과학적 지식과 지식들로부터 여기서 서술되는 합리성이 출생되는바, 이는 들나귀 같은, 침울한, 싸움하기 좋아하는, 자아 사랑으로 더럽혀진 진리의 어떤 사랑으로부터 바삭 말라버린 생명을 가진 합리성.

창17:18-'이스마엘이 당신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로부터 합리적인 다른 이들은 멸하지 않는다는 것. '이스마엘'=합리성.

창17:20-'이스마엘에 관련하여 나는 네 말을 들었다'=진리로부터 합리적인 이들은 구원되리라는 것. 여기서의 '이스마엘'=진리로부터 합리적인 아들, 또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합리적인 아들.

창17:23-'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데려갔다'=진실로 합리적인 아들. 그 이유가 '이스마엘'=진리로부터 합리적인 아들, 즉 영적인 아들.

창17:25-'그의 아들 이스마엘'=신앙의 진리들로부터 합리적이 되는 아들; 즉 영적으로 되는 아들. ('13세의 아들이었다'=거룩한 남음들, holy remains. '그의 포피의 살을 할례함=순수해짐...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

창17:26-'아브라함이 할례받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받았다'=주님께서는 그분의 인간 실체와 그분의 신성한 실체를 결합하셨을 때, 그분은 또한 그분 자신과 결합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외 진리로부터 합리적이 된 이들도 구원하셨다...'이스마엘' 여기서의 경우=진리로부터 합리적이 되는 아들.

창21:9-'이집트 출신 하갈의 아들'=오로지 인간 수준일 뿐인 합리성...'그녀의 아들', 즉 이스마엘=주님이 가지셨던 첫 번째 합리성...(이것은) 아버지되는 신성한 천적인 것으로부터 임신되어졌다, 그리고 지식들에 대한 애착을 어머니로 삼아 출생되어졌다.

창21:13-'여종의 아들 역시 나는 그로 하여금 한 국가를 이루게 할 것이다'=영적 왕국의 교회, 이 교회는 신앙으로부터의 선을 받을 것이다...'여종의 아들', 또는 '이스마엘'. 그가 아브라함의 집 안에 머무를 때, 또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인 경우=주님의 첫 번째 합리성을 표현했고,...지금 같은 경우, 즉 그가 아브라함과 분리되었을 경우, 그는 또다른 표현성을 입는다, 즉 영적 왕국의 교회이다....

창21:14-'그리고 소년'=영적인 것...그 이유가 '이스마엘'...여기서는 영적 왕국의 교회인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는 시작 단계의 교회인을 표현하기에 '소년'이라 불리우고 있다.

창21:18-'그 이유는 내가 그를 위대한 나라로 놓을 것

이스마엘(느다냐의 아들)-이스마엘 사람들

이다='영적 왕국의 교회...'위대한 나라'라고 말해지는데...그 이유는 영적 왕국은 주님의 두 번째 왕국이기 때문이다...'이스마엘'에 의해 영적 왕국 교회의 사람이 표현되었기에, 영적 왕국 교회 자체도, 또한 천국들에 있는 주님의 영적 왕국도 표현되고 있다; 그 이유가 이쪽의 형상과 모습은 저쪽에도 있기 때문이다.

창25:9-'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그의 아들들은 그를 매장했다'=주님의 표현성이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창25:12-'이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출생들이다'='이스마엘'에 의해 표현된 영적 왕국의 교회의 갈래들...'이스마엘'=합리성, 그리고 주님의 영적 왕국 교회인들.

창25:13-'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영적인 것 속의 교리적인 것들의 품질들...'이스마엘'=영적인 것.

창25:14,15-'이스마엘의 첫 출생의 아들은 느바웃, 그리고 게달과 앓브엘과 밍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하닷과 테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특별히 이방인들과 더불어 영적 왕국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여기서 명명된 이름 중 어떤 것은 예언적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다; 즉 '느바웃', '게달', '두마' 그리고 '테마' 그리고 거기=영적 왕국 교회 속에 있는 이런 저런 것들, 특별하게는 이방인들과 더불어는 것들...

창25:16-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이름들이다=교리적인 것들과 그것들의 품질.

창25:17-'이것들은 이스마엘의 생명들의 햇수들이다'='이스마엘'에 의한 주님의 영적 왕국의 표현성으로부터의 상태.

창28:9-'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데려왔다'=신성한 근원으로부터의 진리가 선과 더불어 결합함...'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신성한 근원으로부터의 진리. '이스마엘'은 주님의 영적 왕국 교회를 표현한다는 것, 그러므로 진리를 표현한다.

창25:16-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지도자라 불리지 않고 왕자들이라 불리운 까닭은 '이스마엘'에 의해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창17:20, 25:16-'그는 복받고 성장해서 열두 왕자들이 그로부터 태어난다'고 이스마엘에 관해 말해지는 까닭은 이스마엘에 의해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과 더불어는 주님의 외적 교회가 의미되었기 때문이다.

이스마엘 (Ishmael, 느다냐의 아들)

예41장-'이스마엘'에 의해 교회의 순수한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이 표현되어진다, 이것이 '왕국의 씨'에 의해 의미되고, 이로부터 그가 있었다.

이스마엘 사람들 (Ishmaelite)

시83:6-'이스마엘 사람들' 등등=교리와 예배의 외적 측면에서 있는 이들.

창37:25, 39:1, 그리고 사8:24-(고로) '이스마엘 사람들' 표현적 의미에서=주님의 영적 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 생활 측면에서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이들, 그러므로 교리 측면에서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창37:25-'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으로부터 왔다'=단순한 선 안에 있는 이들, 이는 이방인들이 지닌 선 같은 것이다. '이스마엘 사람들'=생활에 관련하여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이로부터 교리에 관련하여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창37:27-'가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단순한 선 안에 있는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는 것...단순한 선에 있는 이들이 신성한 진리, 특히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련되는 신성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

창37:28-'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단순한 선에 있는 이들은 영접하고 분리되어 신앙 만에 있는 이들에게서는 멀어짐.

창39:1-'이스마엘 사람의 손으로부터'=단순한 선으로부터.

창37:36, 39:1에서-'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이집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그러나 39:1의 경우 '보디발은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요셉을 샀다'라고 말해지고 있다...(그 이유가) 여기서는 자연적 진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또는 자연적 진리를 포획함에 관한 것을 다루기 때문, 이것은 단순한 선으로부터 이다는 것; 그러므로 말해지는 바, '이스마엘 사람들로 부터'라고 말해진다; 그 이유가 이들에 의해 단순한 선 안에 있는 그들이 표현되기 때문. 이로부터 분명한 것

이슬 -이십-이십 번째

은, 이 구절들이 내적 의미를 위하여 그렇게 말해진다 는 것이다. 역사물 측면의 경우도 서로 모순된 것은 없 다; 그 이유가 요셉을 구덩이에 서 끌어낸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고 그 결과 요셉은 그들에 의해 이스마엘에게 넘겨졌고, 이스마엘사람에 의해 이집트로 데려가졌기 때문.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사람에게 요셉을 넘긴 자 는 미디안 사람들인바, 결국 미디안사람이 요셉을 이집 트에 팔아버린 것이 되었기 때문.

창39:1-‘그를 그쪽으로 내려가게 한 자’=이 선로부터 이런 과학물 쪽으로 (그들은 그를 내려가게 만들었 다).

이슬 (dew)

창27:28-‘하느님께서 너에게...하늘의 이슬을 주신다’= 신성한 진리로부터...‘하늘의 이슬’=진리.

시110:3-‘출생의 이슬’=사랑의 천적 평면.

신32:2-‘이슬’, 여기서,=선으로부터 진리가 변창함, 그 리고 진리를 통하여 선을 열매 맺음.

출16:13-‘진영 주위에 이슬이 쌓여 있었다’=그자체 인 접하고 있는 평화의 진리.

출16:14-‘쌓였던 이슬이 가버렸다’=진리가 은근히 심 어짐.

미5:7-‘여호와로부터의 이슬’=영적 진리.

시133편-선과 진리의 결혼, 그리고 그것들의 열매 맺 음과 번성함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려오는 헤르몬의 이슬’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 ‘헤르몬의 이슬’=신성한 진리.

신33:28-‘그분의 하늘들이 이슬을 떨어뜨릴 것이다’= 천국으로부터의 유입.

신33:13-‘이슬’=영적인 것들이 왕래함.

이18:4-‘이슬의 구름’=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열매맺고 있음.

호14:5-‘이슬 같이 그에게 있는 것’=그의 영적 차원이 나오고 재탄생함.

신32:2-‘이슬’=선, 이것이 말(word)에 의해 의미되어 져 있는 바, ‘내 말은 이슬 같이 방울져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진다.

숙8:12-‘하늘들이 이슬을 줄 것이다’=이런 것들은 주 님으로부터의 유입 덕택이다.

이십 (twenty)

이십 번째 (twentieth)

창18:31-‘이십’에 의해 의미되는 이들, 즉 여느 다른 근원으로부터 선에 애착함의 상태에 있는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 중재하셨다는 것.

창18:31-‘이십이 거기서 발견된다면’=만일 (거듭남을 위한) 전투의 어떤 것이 있지 않다면, 그러나 선이 아 직 있다면.

창18:31, 민1장, 26:4, 32:10,11-‘이십’, 열이 두 번,= 남겨진 것, 즉 열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선...무지의 선은 인간의 십 세로부터 이십 세까지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십 세로부터 인간은 합리적이기 시작한다...고 로 무지의 선이 이십에 의해 의미된다. 그이유가 이십 세 이하의 인간들은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선 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여기서 취급되고 있다. ‘이십’에 의해 이 선을 가진 이들이 의미되는바, 이집트를 나온 모든 이들은 ‘이십 세로부터 그 이상’까지가 계수되었 다. 그리고 ‘이십 세 이상’이었던 모든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그이유는 악이 그들에게 전가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시험에 굴복된 이들을 표현했 다.

창31:38-‘나는 이십 년을 당신과 함께 있어왔다’=그분 자신이었던 것. 그이유가 ‘이십’=아껴두신 것으로부터 의 선. 그리고 주님을 서술할 때, 아껴두신 것은 그분의 자신인 것이다. ‘이십 년’=이것의 상태.

창37:28-‘은 이십 조각에...’=추정치. ‘이십’=주님께서 내적 인간 안에 저장해두신 선과 진리, 이것이 아껴두 신 것(remains)이라 불린다. 고로 거룩한 선 또는 진리. 여기서는 거룩한 진리, 그이유가 은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 때로 같은 숫자 이십이 거룩하지 않은 것도 의미 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요셉을 판 자는 관계적으로 거룩하지 않고, 반면 요셉을 산 자는 관계적으로 거룩 하다.

출26:18-‘주택을 위한 널판 이십 (개)’=갖가지 방법에서 완전하게 받쳐주는 선...‘이십’=충분인 것, 고로 모든 방법에서 그리고 완전하게...‘20’은 ‘10’과 ‘2’와 같고 이 를 곱함으로 발생한다. ‘10’ 충분인 것, 그리고 모든 것, ‘2’ 또한 같다.

이십 사-이십 일 (번)째-이십 칠 (번)째-이십 팔-이야기하다

출27:10-‘기둥 이십 개’=충분히 받쳐주는 진리로부터의 선들...‘이십’=충분하게.

출27:10-‘돛쇠 받침 이십 개’=충분히 받쳐주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출27:16-‘이십 큐빗’=충분한 쪽으로.

출30:13-‘한 세겔은 이십 게라(gerahs, oboli)’=선으로부터의 모든 것들. ‘이십’=모든 것들, 또한 선으로부터의 아껴두신 것, 또한 거룩한 것. 주님을 서술할 경우, ‘이십’=그분 자신인 것, 이는 거룩 자체인 것. 이로부터 왜 한 세겔이 이십 게라 였는지가 분명해진다.

출30:14-‘이십 세 그 이상의 아들로부터’=진리 안에서 그리고 선 안에서 총명의 상태. 그이유가 이것은 인간의 연령을 두고 한 이십이기 때문. 인간은 이십 세가 넘으면서 자신으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한다.

민1:3-‘이십 세 그 이상의 아들’=총명의 상태에 있는 이들. 그이유가 이십 세 이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과 사랑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은 주님에 의해 임명되고 배치되어질 수 있기 때문.

숙5:2-‘날고 있는 두루마리는 길이가 이십 큐빅, 폭이 십 큐빗이었다.’ ‘20’, 그리고 ‘10’=모두, 여기서는 모든 선이 악으로 바뀌었음, 그리고 모든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었음.

이십 사 (twenty-four)

* 24는 12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계4:4-‘왕자를 빙둘러 이십 사 왕좌들이...’=한 복합체에 있는 진리의 모든 것들. 열 둘과 같다.

민25:9-‘24,000’=복합체에 있는 모든 진리들과 진리의 선들. ‘12,000’과 같다.

이십 일 번째 (twenty-first)

출12:18-‘이십 일 번째 날’=거룩한 것, 그이유가 이 숫자는 3x7로부터 얻어지기 때문.

출12:18-‘달의 이십 일 번째 날 까지’=이 거룩한 (상태)의 끝. 그 이유가 ‘이십일 번째 날’=거룩한 상태, 또한 그 상태의 끝.

이십 칠 번째 (twenty-seventh)

창8:14-‘이십 칠 번째 날’=거룩한 것, 그이유는 3을 곱하고 거기에 3을 곱하여 얻는 숫자인바, 3은 27을 지배하는 숫자이기 때문.

이십 팔 (twenty-eight)

출26:2-‘28’=결함으로부터의 거룩한 것, 그이유는 이 수는 7x4로 얻어지기 때문. 그리고 ‘7’=거룩한 것, 그리고 ‘4’=결함.

이야기하다 (speak)

담화 (speaking)

말 (speech)

창8:15-‘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하셨다’=교회 속의 이 사람과 더불어 주님의 현존하심.

창18:29-‘그는 그분에게 이야기하기를 추가했다’=생각. 그이유가 이야기하는 것, 또는 담화는 생각으로부터 흐르는 것 외 더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고로 생각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에 의미되어져 있다.

창21:2-‘하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때’=그분이 뜻하셨을 때. ‘이야기하는 것’=생각하는 것. 신성의 경우, 생각하는 것이 뜻하시는 것이다.

창24:33-‘말들을 이야기하는 것’=가르치는 것.

창31:24-‘선으로 악에 이르기조차까지 이야기하는 것’=선을 이야기하고 악을 생각하는 것.

창34:6-‘그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상담하는 것.

창34:20-‘이야기하는 것’=뜻하는 것, 또한 흐르는 것, 여기서는 설득하는 것.

창42:24-‘돌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라’=유입.

창43:19-‘그에게 이야기하는 것’=교리물로부터 상담함.

창50:4-‘간구하여 이야기 합니다’=탄원.

창50:21-‘심정 위에 이야기하는 것’=...의지 안으로 유입됨, 고로 신뢰함.

출4:14-‘나는 그가 이야기할 그 담화를 알고 있다’=설교. 교리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 여기서 아론에 의해 표현되는 담화=설교. 그이유가 이것이 교리에 속하기 때문.

출4:30-‘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말들을 이야기 했다’=과생된 신성으로부터의 교리.

출6:9-‘고로 모세가 이야기했다’=신성으로부터의 법을 수단으로 권면함.

출6:11-‘바로에게 말하라...’=판치려 침입하는(infest) 이들에게 훈계함.

출6:12-‘모세는 여호와와 더불어 이야기했다’=신성으

이웃-이웃을 사랑함

로부터 있는 법과 그로부터 파생된 생각.

출6:13-‘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이야기 하셨다’=신성으로부터의 법으로부터 새로이 가르침이 있음, 동시에 교리로부터도.

출6:28-‘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명령.

출6:29-‘내가 네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신성으로부터 유입되는 것들.

출7:2-‘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모두를 이야기하라, 그리고 아론은 바로에게 이야기하라’=신성한 유입을 받음, 그리고 교통함.

출9:35-‘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수단으로 이야기하셨던 대로’=신성으로부터 법을 매체로 예견함에 따라서.

출10:29-‘당신은 올바르게 이야기했다’=그것은 (진리로부터서도) 그러하다는 것.

출12:3-‘모든 회중에게 이야기하라’=유입, 통보와 더불어.

출12:25-‘여호와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말씀 안에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출12:31-‘내가 말했던 대로’=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출16:10-‘이야기하는 것’=유입을 통하여 가르침.

출24:7-‘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듣고 행할 것이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를 받음, 그리고 순종함.

이58:13-‘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런 (악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

출33:9-‘모세와 이야기하는 것’=내부로부터 명백하게 지각하는 것, (그 이유는) 모세가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

출33:11-‘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다’=말씀 안에서 결합된 신성한 것들.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결합되어지는 것...그이유가 ‘이야기하는 것’=지각, 그리고 ‘대면하는 것’=상호적인 것.

예10:5-‘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가는 것’=영적으로 사는 것.

계13:5-‘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말씀으로부터의 선들을 파괴하는 악들을 가르치는 것. ‘모독을 말하는 것’=말씀의 진리들을 왜곡하는 것.

계13:11-‘그는 용 처럼 이야기했다’=애착, 생각, 교리,

등과 비슷한 것 가지고, 그리고 신앙을 선행으로부터 분리한 이들에게 설교함. ‘이야기하는 것’=애착, 생각, 교리, 그리고 설교함.

이웃 (neighbor)

출20:16-‘네 이웃’=모든 사람, 특별히, 선 안에 있는 모든 이 각각. 추상적 의미에서는 선 자체.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로 대답하지 않는 것’=내적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즉 선이 악이다, 진리가 거짓이다, 또한 그 반대로도 말하지 않는 것.

출33:11-‘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이야기하듯’=진리와 선의 결합.

마25:34-40-이 구절을 영적 의미로 이해하면 이 안에 여섯 선들이 있다. 이는 이웃에 관한 모든 종류들이라고 납득되어진다.

눅10:36,37-모든 이 각각은 선의 품질에 따라서 이웃이다.

예49:10-‘이웃들’=인접되고 관련된 그의 진리들과 선들.

출3:22-‘이웃’=과학물들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진리에 애착함.

이웃을 사랑함 (love of neighbor)

이웃을 향한 사랑 (love towards neighbor)

이웃을 사랑하는 것 (to love neighbor)

눅10:30-37-...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웃이다, 그리고 사람은 각양각색이다, 그리고 모든 이 각각은 그의 선에 따라 이웃으로서 사랑되어야 하는바, 이웃을 향한 사랑에도 종류와 등차가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먼저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 사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등차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의거 결정된다. 그러나 이런 등차는 내적 인간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등차는 세상에서는 거의 명백히 그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웃을 향한 사랑에 등차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비유로부터, 즉 강도당해 부상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보여준 자, 쓰러져 누운 그를 보고도 지나쳐 가버린 성직자와 레위인으로부터 분명하다. 주님께서 이 세 사람 중 누가 이웃이었던 것 같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대답은, ‘자비를 베푼 자’ 였다.

눅10:27-우리는 읽는다, ‘너는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

이집트

랑하라.' 자신의 자아 처럼 여겨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에 비교해 남을 경멸하지 않는 것, 그에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 그리고 그에 관해 악한 심판을 가져다 놓지 않는 것이다.

마7:12, 눅6:31,32-주님 자신에 의해 규정된 선행(charity)의 법은 이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렇게 너도 그들에게 해라, 그이유가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서)이기 때문이다.' 천국의 사랑 안에 있는 이들은 이웃을 위와같이 사랑한다. 이에 반해 세상을 사랑함 안에 있는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한다. 자아를 사랑함 안에 있는 이들은 자아로부터, 자아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한다.

이익 (gain)

* 얻다(gain)를 보라.

이전에는 (formerly, aforeside)

예30:20-'이전에 같이'=고대인들과 더불어 있던 것 같이.

이집트 (Egypt)

겔32:7,8에서-바와와 이집트인이 취급되는데, 말씀에서는 이것들을 수단으로 감각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뜻한다; 여기서의 경우, 감각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을 통하여 그들은 사랑과 신앙을 소멸했다.

예46장-'이집트'=감각적이고 과학적인 것들로부터 신성한 것들에 관하여 추론함.

호9:6-'이집트'와 '헴피스'=그들 자신과 그들 고유의 과학적인 것들로부터 신성한 것들에 관하여 슬기로워지기를 원하는 이들.

호7:11, 11:11-'이집트'=지식을 가진 이들.

예46:8-'이집트'=과학적인 것으로부터 납득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믿지 않는 이들; 이로부터 의심스럽고, 부정적이고, 거짓된 모든 것들.

이45:14-'이집트의 노동'=지식.

호11:11-'이집트'=교회 속의 사람의 지식.

이19:23-25-영적 교회에 관한 지식이 '이집트'이다.

호12:13-'이집트'=지식이 뒤집고 있다.

겔16:26-'이집트의 아들들'=과학적인 것.

창12:9,10-'남쪽을 향하여 이집트 안으로'는 주님의 다

섯 번째 상태를 다룬다.

창12:10-'아브람은 채류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 안에서 훈육되심...'이집트'=지식들 속의 지식.

이19:18-22-'이집트'=영적 진리들을 위한 그릇인 자연적 진리들 안에, 또는 과학적인 것 안에 있는 이들.

이19:23-25-'이집트'=자연적 진리들에 관한 지식.

단11:43-지식, 또는 인간의 지혜가 '이집트'에 의해 의미되어진다는 것은 이 구절에서 명백하다. 거기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들이 이집트의 바람직한 것들이라 불리운다.

마2:15, 호11:1-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이주함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 안에서 주님이 받으신 첫 훈육이 표현되었다. 어린 아이 시절에서 그분의 훈육받음이 이런 말씀, 즉 '나는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이라 불렸다'에 의해서도 뜻해지고 있다. **시80:8**-주님은 '이집트로부터의 포도나무'라 불리우신다, 이는 그분이 훈육받으셨던 지식들에 관련하여서이다.

창12:11-'그가 이집트 근처에 이르렀을 때'=그분이 배우기를 시작하셨을 때, '이집트'=지식들 속의 지식.

창12:12-'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볼 때'=지식들 속의 지식, 이에 관한 품질은 그들이 천적인 지식들을 볼 때 묘사되어진다.

창12:14-'시간이 지나 아브람이 이집트 안으로 왔다'=주님이 훈육되기 시작할 때...'이집트'=지식들 속의 지식. 이로부터 '이집트 안으로 오는 것'=훈육되는 것.

창12:14-'이집트인들은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고 보았다'=지식들 속의 지식은 자체만으로도 매우 즐거운 것이다는 것.

창13:1-'아브람은 이집트로부터 올라갔다'=과학적인 것으로부터, 주님은 떠나셨다.

창13:10-'소알에 이르는 이집트의 토지 같이'=선에 애착함들로부터의 과학적인 것. '이집트' 좋은 의미에서=지식.

창15:18-'이집트의 강으로부터...유브라테 강까지'=영적, 천적인 것들의 확장. '이집트의 강'=영적인 것들의 확장..'이집트의 강'=영적인 것들의 확장인 이유는 '이

이집트

집트=과학적인 것들. 이것들은 인간의 합리적인 것들과 지적인 것들과 더불어서는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

창21:21-‘그의 어머니는 이스마엘을 위하여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아내를 데려왔다’

계11:8-‘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것’...‘소돔’=자아사랑으로부터의 모든 악; 그리고 ‘이집트’, 고모라 대신=이 악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거짓.

겔16장-‘이집트의 아들들과 매춘을 범하는 것’=과학적인 것들 가지고 진리들과 선들을 뒤집는 것.

이19:2-‘나는 이집트인들을 헛갈리게 하여 자기들에게 맞서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집트’=신앙 속의 진리들에 관한 것을 과학적인 것들 가지고 추론함.

이19:23-25에서-영적 왕국 교회가 취급되어진다; 영적 왕국은 ‘이스라엘’, 합리성은 ‘앗수르’; 그리고 과학적인 것은 ‘이집트’; 이 셋이 영적 왕국 교회의 지적인 것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런 질서로 계속되는바, 이렇게 말해진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앗수르와 더불어 세 번째일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집트는 복있을 것이다.’

창21:21-‘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이스마엘을 위한) 아내...’=영적 왕국 교회 사람이 소유한 지식들에 대한 애착.

이30:7-‘이집트인들’=지식들, 이에 관해 말해지는바, ‘그들은 공허하고 무익하게 도울 것이다’

암4:10-‘이집트의 길에서’=신성한 것들을 과학적인 것들로 추론할 때 과학적인 것들은 폐물로 전락한다.

출12:40에서-‘400년’=황폐해짐의 기간과 상태...그러나 이스라엘족의 이집트에서의 체류는 400년의 절반 정도, 즉 야곱의 이집트 진입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간 때까지는 215년이였다...그러나 430년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진입한 때로부터 계산된 햇수인데, 이 구절에서는 마치 야곱의 후손이 머문 햇수가 430년이다 말하고 있는바, 그런 이유는 내적 의미 때문에서이다. 즉 야곱의 아들들의 이집트 체류는 교회의 황폐해짐을 표현하고, 의미하고, 황폐함의 기간과 상태가 숫자 430년에 묘사되어 있다.

시80편-‘이집트로부터의 포도나무’=과학적인 것들로부터의 진리.

예25:17-26-영적 왕국 교회의 황량함이 취급된다; 이 교회의 차이점이 순서대로 언급되고 ‘이집트’로 의미되고 있다.

신23:7-‘너희는 이집트인을 혐오하지마라. 그 이유는 너희가 그들의 토지에서 객으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진 이유는 ‘이집트인’이 과학적인 것인 자연 속의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 고로 이는 좋은 의미에서 언급되는 경우이다.

창26:2-‘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과학적인 것 쪽으로는 아니다.

이11:12-16에서-일반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교회를 취급하고, 거둬나지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는 것도 다루고 있다...‘이집트’=과학적인 것들...이것이 악용되었다.

이19:18-20-‘이집트’=과학적인 것들, 이것은 자연적 인간에 속해 있다...‘이집트의 토지의 한가운데’=예배의 제일 인 것과 가장 깊은 것.

왕상4:30-‘이집트인들의 지혜’=더 낮은 수준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속의) 지식; (그이유가) ‘이집트인들’=일반적 측면의 과학적인 것들.

호9:3-‘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교회 속의 지적인 것이 과학적이고 감각적이 되어갈 것이다.

출1장-‘이집트의 왕’=진리들을 소멸하게 하는 일반적 측면에서의 과학적인 것들; 이런 소멸은 거꾸로의 방법, 즉 감각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수단으로 구술되지 않고는 전혀 믿지 않는 가운데 과학적인 것이 신앙 속에 진입할 때 발생된다.

창37:25-‘길르앗’=외면의 선...이는 쾌락이라 불린다; 그리고 ‘이집트’, 좋은 의미에서=자연적 인간의 외적인 진리들인 과학적인 것, 이것이 이 선과 일치하고 있거나 상응한다는 것, 낙타 위에 향품을 싣고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이스마엘인들=그들은 그들의 과학적인 것들로부터 파생된 자기들의 내면의 진리들을 ‘이집트’에 의해 의미된 과학적인 것 쪽으로 운반했다.

창37:29-‘그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다’=과학적인 것들로부터 상담함; (그이유가) 신성한 진리들이 이런 과학적인 것들에 가져와질 때, 이것은 그것들의 의견을 구한 것이다.

창37:36-‘미디안 사람이 그를 이집트에 팔았다’=단순

이집트

한 선 속의 어떤 진리에 있는 이들이 과학적인 것의 의견을 구했다.

창39:1-'(요셉)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만들어졌다'=교회 속에 있는 과학적인 것 쪽으로; (그이유가) '이집트'=지식, 또는 일반적 측면에서 과학적인 것...고대 교회에서...과학적 지식은 영계와 자연계와의 상응을 취급했다, 그리고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자연적이고 지상적인 것들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다루었다...이런 지식을 취급한 지역 또는 왕국의 범주에 이집트도 속해 있었다; 이런 곳에서 과학적 지식은 특별히 가르쳐졌는바, '이집트'=일반적 측면에서 과학적 지식인 것; 그러므로 '이집트'는 예언적 말씀에서 자주 언급되고 이 말씀 부분에서 위 같은 과학적인 것을 뜻하고 있다. 이집트인의 마술 역시 이런 지식으로부터 근원되었다; 그이유가 그들은 자연계와 영계의 상응 관계를 알았지만, 후에 그들은 이것을 마술로 남용해버렸기 때문. 애당초 이런 과학적인 것은 상응이나 의미함, 표현함 등과 같은 것을 알려고 하다보니 그들 사이에 존재했고, 이런 것이 교회의 교리적인 것들, 특히 자기들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유익하게 사용되었다. 이러므로...이것이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게 만들어졌다'=교회 속에 있는 과학적인 것들 쪽으로를 뜻하였다. 주님 (이런 말씀에서) '요셉'에 의해 표현되었을 때=주님께서 그분의 내적 인간을 신성화하실(glorified) 때...그분은 우선 교회의 과학적인 것을 붙여 넣으시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그리고 이것을 수단으로 내면의 것을 더욱 더 발전시키시어 결국 신성한 것들로 까지 만드셨다...이런 사항이 호세아서(11:1)에서 이렇게 말해진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였을 때,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창39:1-'이집트 사람'=자연적 진리; 그이유가 '사람'=진리; 그리고 '이집트'=과학적인 것, 또는 자연적인 것; 그이유가 사람과 더불어 있는 과학적인 모든 것은 자연이기 때문; 따라서 이것이 그의 자연적 인간 안에 있기 때문, 영적, 천적인 것들에 관련된 과학적인 것 까지 도 자연적 인간 안에 있기 때문...그런고로 순수한 과학적인 것은 자연적 진리임이 분명하다; 그이유가 과학적인 것 전체가 '이집트'에 의해 의미될 때 좋은 의미에서

이는 자연적 진리이기 때문.

창39:2-'그리고 그는 이집트인인 그의 주인의 집에 있었다'=이것이 자연적 선 안에서 개시되기 위하여; (그이유가) '주인'=선; 그리고 '이집트인'=일반적 측면에서 과학적인 것, 그리고 그로부터 자연적인 것.

창39:5-'여호와께서는 요셉 때문에 이집트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그때 당시 신성으로부터 이것은 자연으로부터의 천적인 것을 가졌다; (그이유가) '이집트인의 집'=자연적 마음 속의 선.

이19:11,13-'나는 슬기로운 자의 아들이요, 나는 고대 왕들의 아들이다 하고 너는 바로에게 어떻게 말하겠느냐? 소안의 왕자들은 어리석음들이 되어버렸고, 놉의 왕자들은 사기 당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지파들의 모퉁이들을 유혹했다'; 이집트를 말하면서, 이를 수단으로 교회의 과학적인 것이 의미되었다, 고로 질서의 최말단인 자연적 진리가 의미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집트는 '지파들의 모퉁이들'이라 불린다; 그이유가 지파들=한 복합체에 있는 모든 진리들. 여기서, '이집트'=교회 속의 진리들을 거꾸로 놓는 과학적인 것, 고로 왜곡된 질서에 있는 진리들, 이것들이 '소안의 왕자들' 그리고 '놉의 왕자들'이다. 그가 자신을 '고대 왕들의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고대 교회 속의 진리들로부터 고대 왕국에 (진리들이) 있었기 때문...

창40:1-'이집트의 왕'=자연적 인간.

창40:1-'그들의 주인 이집트의 왕에 맞서'=그것들은 자연적 인간의 새로운 상태에 반대되었다는 것; 이 새로운 상태는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에 의해 표현되었는데, 이는 외적인 감각적인 것, 또는 신체의 외적인 감각적인 것. '이집트의 왕'=일반적 측면에서의 과학적인 것; 그이유가 '이집트의 왕'은 '이집트'와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 왕은 한 나라의 우두머리인바...일반적 측면의 과학적인 것이 '이집트의 왕'으로 표현되어져 있기에 이는 또한 자연적 인간이다; 그이유가 전체로서의 과학적인 것이 자연적 인간 속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 새로운 상태가 의미되어진다.

예2:18-'네가 시홀의 물들을 마시려하여 이집트로 가는 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집트'와 '시홀의 물들'=약용된 과학적인 것들.

이집트

이27:13- '이집트의 토지에서 내쫓긴 자들'=외적 진리들, 또는 과학적인 것들.

창41:8- '그는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현인들을 불러왔다'=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모두에서 과학적인 것의 의견을 수렴함...

창41:29-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는 양식이 엄청나게 풍부함'=자연의 양 측면에서 진리가 번성함... '이집트의 토지'=양 측면의 자연; 그이유가 '이집트'=지식; 그리고 이것=지식인바, 이것 또한=자연, 그 이유는 이것이 자연에 있는 과학적인 것이라 부르기 때문; 그러므로 '이집트의 토지'=과학적인 지식이 들어있는 자연적 마음; 그러므로해서 '이집트의 모든 토지'=양 측면의 자연, 즉 내, 외면의 자연.

창41:30-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 양식이 엄청나게 풍부함은 잊혀질 것이다'=양 측면에서 진리가 제거됨 그리하여 결핍됨이 눈에 보여짐.

창41:41- '보라 나는 너를 이집트의 토지 위에 둘 것이다'=자연 양 측면을 지배함

창41:55- '바로가 모든 이집트에게 말했다'=자연의 양 측면, 일반적, 특수적 측면에서 통각함.

창41:57- '모든 토지가 이집트로 왔다'=선들과 진리들이 교회 속에 있는 과학적인 것과 대조하여졌다.

창42장에서- 이 장에서는 매체도 없이 '이집트'라는 것, 즉 교회 속의 과학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신앙 속의 진리들을 자기 것 되게 하려 노력함이 취급된다.

창42:1-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었다는 것을...'=과학적인 것을 수단으로 자신을 위해 진리들을 포획하려 의도함.

창43:2-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과학적인 것들로부터인 (진리)... 좋은 의미에서 '이집트'=교회 속에 있는 과학적인 것들; 즉 교회의 형체를 위해 쓰여지는 과학적인 것들. 이와같은 것을 수단으로 인간은 교회 속의 진리 안으로 입문되어진다.

창43:15- '그들은 일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과학적인 것들의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위해 생명을 획득하려 승강함.... 과학적인 것들의 내면적인 것은 자연에서 영적인 것들이다.

창43:32- '(그들은) 요셉과 더불어 먹는 이집트인들을 위해 (상을 차렸다)= 뒤집어진 질서에 있는 과학적 지

식들의 분리... '이집트', 또는 '이집트인', 좋은 의미에서 =교회의 과학적인 것들; 그러나 반대 의미에서, 그들= 거꾸로된 질서에 있는 과학적인 것들, 고로 이는 교회의 진리에 반대된다... '이집트'=이런 과학적인 것들이 이유는 고대 교회 속의 과학적인 것들은 영적, 천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 이것이 여느 다른 나라에서 보다 이집트에서 더욱 발전되었는데 급기야 그들은 이것을 마술로 뒤바꾸고 말았다. 이러므로 해서 표현적 교회 속의 과학적인 것들은 약용되었다.

창43:32-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과 더불어 빵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그들은 교회 속의 선과 진리와는 전혀 결합될 수 없었다. '이집트인들'=거꾸로된 질서에 있는 이들, 고로 약과 거짓에 있는 이들.

창43:32- '(같이 먹는 것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역겨운 것이었기 때문에'=그들은 반대적인 것 안에 있었다는 것. '이집트인'=거꾸로된 질서에 있는 이들...

창45:2-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들었다'=최말단들 조차도... '이집트인들'=과학적인 것들, 고로 최말단의 것들; 그이유가 인간과 더불어 과학적인 것은 그 사람의 최말단에 속한 것이기 때문.

창45:4- '당신들이 이집트로 판 자'=그들이 떼어냈었던 내적인 것... '이집트'에 의해 여기서는 가장 수준 낮은 것들이 의미된다; 그이유가 인정함 없이 과학적인 것에 있는 어떤 것을 헤아리는 것은 그것을 측면 쪽으로, 고로 마지막 서열인 것, 또는 가장 수준 낮은 것 쪽으로 밀쳐 거절하는 것이다.

창45:8- '나는 이집트 모든 토지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그는 자신이 거기서 과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 내키는대로) 처리한다는 것. '이집트의 토지'=자연적 마음, 고로 모든 과학적인 것들; 그 이유는 이들이 그 마음에 속하기 때문; 과학적인 것들이 이 마음의 지적 부분을 구성한다.

창45:13- '당신들은 내 아버지에게 이집트에서의 나의 모든 영광을 말하시오'=자연에 있는 영적 왕국의 천국이 영적 선과 교통함... '이집트'=자연에 있는 과학적인 것들, 고로 자연.

창45:18- '나는 당신에게 이집트 토지의 좋은 것을 줄 것이다'=과학적인 것들을 소유함.

이집트

창45:19-‘너희는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수레를 가져가라’=과학적인 것들 속의 교리적인 것.

창45:20-‘이집트 온 땅의 좋은 것은 너희들의 것이다’=그들은 자연적 마음에 있는 제일 가는 것을 가진다는 것.

창45:23-‘열 마리의 나귀가 이집트의 좋은 것을 나뉠’=과학적인 것들, 용역을 위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나귀들’=과학적인 것들; 여기서 가장 수준 낮은 과학적인 것들, 이것들이 내면의 것을 운반할 경우, 이는 섬김을 위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좋은 것’=과학적인 것들, 그러나 교회 속의 과학적인 것들; 그 이유는 이것들이 ‘이집트’에 의해 적절히 의미되기 때문. 이것들이 ‘이집트의 좋은 것’인 이유는 그것들이 요셉에 의해 이스라엘에게 보내지기 때문.

창45:25-‘그들은 이집트로부터 올라갔다’=교회 속의 과학적인 것들로부터 퇴거함.

창45:26-‘그는 이집트 모든 토지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자연적 마음은 그의 힘 아래 있다는 것.

창46:3-‘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놓고 두려워말라’=자연적 진리는 자기에게 속하는 모든 것과 더불어 교회 속의 과학적인 것들에서 시작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

창46:34-‘이집트인들은 양치는 목자를 역겨워한다’=그런고로 남용한 과학적인 것들로부터 분리.

창47:6-‘이집트의 토지가 네 앞에 있다’=자연적 마음의 과학적인 것들은 천적 내적인 것의 후원 아래 있다.

창47:11-‘그는 이집트의 좋은 곳에서, 이집트 토지의 소유권을 그들에게 주었다’=과학적인 것이 있는 자연적 마음의 가장 깊은 것.

창47:13-‘이집트의 토지와 가나안의 토지는 기근으로부터 시달렸다’=이 황폐함이 자연 안에 있었다는 것,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

창47:14-‘요셉은 이집트의 토지와 가나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은을 거두었다’=자연과 교회 안에 있는 참되고 개작 가능한 모든 과학적인 것.

창47:15-‘은이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가나안의 토지로부터 소진되었을 때’=황폐함 때문에 참되고 융통성 있는 과학적인 것들이 자연과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을 때.

창47:21-‘이집트의 이 끝으로부터 저 끝 까지’=과학적인 것들이 있는 전체 자연을 통하여 넓혀짐...그 이유가 자연은 포함하는 것, 과학적인 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 이로부터 이집트는 포함하는 것과 포함된 것 양쪽을 의미한다, 즉 자연과 과학적인 것이 있는 것.

창47:27-‘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토지에서 거주하였다’=영적 선은 교회 속에 있는 과학적인 것 사이에 살았다.

창47:28-‘그리고 야곱은 이집트의 토지에서 살았다’=자연적 진리가 과학적인 것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집트의 토지’=교회 속의 과학적인 것들.

창47:29-‘바라건대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거듭남은 과학물 안에서는 아니다.

창47:30-‘너희는 나를 이집트로부터 운반하라’=과학적인 것들로부터 승강함이 있을지 모른다.

창48:5-‘이집트의 토지에서 네게 태어난 두 아들’=내적인 것으로부터 자연 안에 있는 선과 진리.

창48:5-‘내가 이집트로 너에게 오기 전’=자연 속의 진리가 과학적인 것 안에 있기 전.

겔23:3-‘그들은 젊은 시절에 이집트에서 행음하였다’=그들은 과학적인 것들을 통하여 교회 속의 진리들을 왜곡되게 했다는 것.

창50:3-‘이집트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었다’=교회 속의 과학적인 것이 슬퍼함...그 이유는 ‘이스라엘’로 표현된 교회 속의 선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

창50:7-‘이집트 토지의 모든 원로들’=진리에 일치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집트의 토지’=과학적인 것들이 있는 자연적 마음; 고로 또한 진리들이 있는 곳; 그 이유는 과학적인 것들이 자연적 마음 속의 진리들이기 때문, 그리고 그것들이 진리일 때, 그것들은 과학적 진리들이라 불린다.

창50:14-‘그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되돌아왔다, 그와 그의 형제도’=천적 내적인 것의 삶 그리고 과학적인 것 안에 있는 신앙 속의 진리들의 삶.

창50:22-‘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거주했다’=내적인 것으로부터 교회 속의 과학적 진리가 삶.

창50:24-‘이집트의 토지’=황폐해진 교회; 이집트인들이 이를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압제했기 때문; 그리고 그것의 파멸은 홍해에서 익사함으

이집트

로 표현되어졌다.

창50:26-'(요셉)은 이집트에서 궤 안에 놓였다'=교회의 과학적인 것들 안에 감추임.

출1:1-'야곱과 더불어 이집트 안으로 온 이들 중...'=진리들이 과학적인 것들 안에서 개시되어진 이후.

출1:5-'요셉은 이집트에서 있었다'=천적인 내적인 것이 자연 안에 있었다.

출1:8-'이집트를 다스리는 새 왕이 일어났다'=교회의 진리들에 반대하는 (진리에서) 분리된 과학적인 것들.

출1:13-'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후손으로 (자기들을) 섬기게 만들었다'=교회 속의 진리들에 반대하는 진리에서 분리된 과학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 쪽에 복종하게 하려 싸움.

출1:15-'이집트의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했다'=진리에서 분리된 과학적인 것들로부터 교회 속의 진정한 과학적인 것들 안으로 유입이 있었다.

출1:17-'그들은 이집트의 왕이 자기들에게 명한대로 하지 않았다'=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다투고 있을 때 같이 행해지지 않았다.

출1:19-'히브리 여인은 이집트 여인 같지 않다'=교회 속의 과학적인 것은 이것에 반대하는 과학적인 것 같지 않다.

출2:11-'그는 이집트 남자가 히브리 남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진리에서 소원해진 과학적 진리가 교회 속의 진리를 파괴하려 인간 힘을 쏟는다. '이집트 남자'=진리로부터 떨어진 과학적인 것.

창2:19-'이집트 남자가 목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했다'=교회에 결합된 과학적 진리는 악으로부터의 거짓 교리의 힘을 압도한다...여기서 모세가 '이집트 남자'라 불린 이유는 여기서 모세에 의해 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진리를 표현하기 때문.

창2:23-'이집트의 왕이 죽었다'=이전의 거짓의 끝...바로, 또는 '이집트의 왕'=거짓된 과학적인 것.

출3:8-'나는 이집트의 손에서 그를 구하려 내려갔다'=그분께서는 교회 속의 진리들을 파괴하려 진력하는 왜곡된 과학적인 것들의 힘으로부터 그것들을 석방해주려 자신이 내려가게 하셨다.

창3:8-'토지', 여기서는 이집트의 토지=그들이 거짓들

의 침입을 받은 장소와 상태.

창3:10-'너는 이집트로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데려와라'=동시에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거짓의 침입함으로부터 건져내심.

창3:18-'너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이집트의 왕에게 들어갈 것이다'=침입한 자, 거짓 안에 있는 이들과 교통함.

창3:19-'이집트의 왕은 너희를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거짓은 자체를 반대 하게 할 것이다.

창3:20-'나는 내 경이로운 것들 가지고 이집트를 칠 것이다'=거짓들에 맞서는 신성한 힘의 매체들.

창3:21-'나는 이집트인들의 눈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줄 것이다'=두려움, 재앙들 때문에,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거짓 안에 있게 한 이들...이집트인들에 의해 의미된 거짓 안에 있는 이들이 취급되고 있다. 이들로부터 선과 진리들이 거두어지고 이것들이 영적 교회인에게로 이동하고 있다.

창3:22-'너희는 이집트인들을 망쳐놓을 것이다'=그들이 지녔던 선들과 진리들이 거짓 안에, 거짓으로부터의 악 안에 있는 이들로부터 거두어진다는 것.

창4:18-'바라건대 나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자연에서 내면적이고 더 영적인 삶으로 승강함.

창4:19-'네 혼을 노리던 모든 자들이 죽었기 때문이다'=선과 진리의 생명을 파괴하려 진력하는 거짓들이 제거됨.

창5:4-'이집트의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거짓들에 있는 이들의 응답...'이집트의 왕'=거짓된 과학적인 것들.

창5:12-'백성들은 이집트 온 토지로 나가 흩어졌다'=그것들은 자연적 마음에서 온 방향으로 그득쳤다.

창6:6-'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짐 아래로부터 데려갈 것이다'=주님께서는 거짓들에 있는 이들의 옥조임으로부터 그들을 방면하실 것이다.

창6:11-'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말하라'=단지 거짓만을 수단으로 (악을) 감염시키려 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

창6:26-'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데려가라'=주님의 영적 왕국 속에 있는 이들은 거짓들에 있는 이들 가까운 곳으로부터 인도되어질 것.

이집트

창6:28- '이집트의 토지'=거짓들의 침입을 당한 주님의 영적 왕국 속에 있는 이들의 장소. 이곳은 보다 낮은 땅, 지옥 근처이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있는 곳, '고센'이라 불리는 이집트의 토지=보다 더 낮은 땅;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있는 곳=지옥 주변, 이로부터 거짓들에 의해 감염되어졌다.

출7:3- '이집트 토지에서'=(악을) 감염시키는 자들이 있는 곳.

출7:4- '나는 내 손을 이집트인들 위에 줄 것이다'... 거짓들에 있는 이들은 신성한 힘을 통하여 끌어내질 것이다.

출7:4- '이집트의 토지로부터'=(악에) 감염됨으로부터.

출7:5-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내가 여호와이다는 것을 알 것이다'=그들은 신성을 두려워 할 것이다...'이집트인들'=거짓들 안에, 그리고 감염시키는 이들 안에 있는 이들.

이19:11- 이집트인들이 이와 같은 것들에 자신들을 적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두고 '현자의 아들, 그리고 고대 왕들의 아들'이라 불렀다.

출7:18- '이집트인들은 나일 강의 물을 마시는데 괴로워 할 것이다'=그들은 진리들에 관하여 거의 어떤 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인들'=진리들을 왜곡하는 이들.

출7:22- '이집트의 미술사들은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같이 행했다'=왜곡자들 또한 똑같이 모양지었다.

출8:6- '아론은 그의 손을 이집트의 물들 위에 내뻗었다'=거짓들에 맞서 외적 진리를 통하여 내적 진리의 힘의 결과...'이집트의 물들'=거짓들.

출8:6- '(개구리들이) 이집트의 토지를 덮었다'=자연적 마음은 거짓들로, 그 결과 추론함들로 채워졌다.

출8:10- '토지는 악취가 났다'=그 결과 유독함, 역겨움.

출8:17-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악들이) 모든 자연적 마음을 통하여.

이7:18- '이집트의 강들 맨 끝에서 파리...'=자연적 마음의 가장 끝에 있는 거짓들, 고로 신체에 가장 가까운 감각적인 것 안에 있는 거짓들.

출8:20- '이집트의 짐들은 해로움을 주는 날아다니는 것으로 채워질 것이고, 또한 그들이 있는 토지도 채워

질 것이다'=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자연적 마음 속의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다...'이집트인의 집'=자연적 마음의 내면...그리고 '이집트의 토지'=일반적 측면에서의 자연적 마음.

출8:22-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 여호와께 이집트인들의 혐오감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지옥의 유독한 것과 더러움이 흐르리라는 것.

암4:10- '이집트의 길에서 악역(염병)'=거짓들을 통한 선과 진리의 황폐함, 이것이 '이집트의 길'이다.

출9:4- '이집트의 소떼'=감염시킨 이들에 의해 소유된 선들과 진리들. '이집트인들'=교회 속에 있어왔던 이들, 그래서 신앙의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 안에 있어왔던 이들, 그러나 악한 생활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저 세상 삶에서 감염시키는 이들.

출9:6- '이집트인들의 소떼는 죽었다'=감염시킨 이들과 더불어 진리와 선은 소진됨.

예43:11- 그가 쳐죽일 이집트의 토지=자연적 마음.

출9:9- '먼지가 이집트 온 땅에 있을 것이다'=자연적 마음에 있는 이런 거짓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출9:11- '(종기가) 모든 이집트인들에게'=(추잡함이) 감염시키는 이들에게 (발생했다.)

출9:18- '이와같은 것은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있지 않았었다'=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는 이와 같은 파멸은 자연적 마음에서 있지 않는다는 것.

출9:22-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 우박이 있을 것이다'=자연적 마음에 있는 파괴하는 거짓.

출9:23- '그는 이집트의 토지 위에 비를 내려 우박을 만들었다'=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수단으로 소유권을 취득당한 자연적 마음.

출10:2- '직바른 자들을 감염시킨 이들이 저쪽 세상 삶에서 일어났었던 것.

출10:7- '당신은 이집트가 망해가는 것을 모르십니까'=거행되었던 것으로부터 이런 단순한 이들을 습격한 모든 자들은 지옥에 내던져진다는 것, 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지 모른다. '이집트'=폐지어 엄습함, 또한 폐지어 몰려드는 이들.

출10:12- '메뚜기를 위하여 이집트 위에'=거짓이 감염시키는 이들의 자연적인 것 전체를 점유할지 모른다.

이집트

출10:19-'한 마리의 메뚜기도 이집트의 경계 안에 있지 않았다'=이런 거짓들은 극단적인 것들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이집트'=자연.

출11:1-'나는 바로에게, 이집트에 재앙 하나를 더 가져다 줄 것이다'=지옥에 떨어지는 것, 황폐함의 끝.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연속적으로 황폐해지는 상태. 마지막 재앙은 선행에서 분리된 신앙은 지옥에 떨어짐이다; 그이유가 이집트에 있는 첫 출생이 죽었기 때문...'이집트'=자연적 마음.

출11:3-'인간 모세는 이집트의 토지에서 아주 위대해졌다'=지금 신성한 진리가...감염시킨 이들의 마음 안에서도 존경되고 있다.

출11:7-'너희가 여호와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을 구분지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도록'=악 안에 있는 자와 선 안에 있는 자의 차이의 본성은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집트인들', 전에는 거짓 안에 있는 이들; 그러나 지금. 즉 그들이 알았던 교회 속의 진리들에 관련하여 황폐해진 후, 그들은 악 안에 있는 이들; 그이유가 첫 출생의 죽음이 지옥에 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 이는 악의 상태이다.

출12:1-'이집트의 토지에서'=영적 교회인이 감염시킨 이들과 이웃관계에 아직 있을 때...이 이웃관계는 이집트의 한가운데, 또는 고센 토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출12:12-'내가 이집트의 토지를 통과해 갈 것이다'=감염시킨 이들과 더불어 현존.

출12:17-'이 동일한 날에 나는 너의 군대들을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데려왔다'=그때 당시 선행과 신앙의 상태였다는 것, 어떻게 분리가 악들과 거짓들에 있는 이들로 부터 결과되었는지.

출12:23-'이집트에 재앙을 내리는 것'=지옥에 떨어짐이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어 온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

출12:33-'이집트는 이집트의 토지에서 그들을 내보내는데 성급해져 백성을 다그쳤다'=협오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은 그들이 떠나가라고 압박했다.

출12:39-'그들은 이집트로부터 내몰아쳐져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그이유가 그들은 악으로부터 거짓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해 이동되었기 때문에.

출12:40-'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거주함=(악과 거짓에) 감염된 기간.

출12:41-'여호와와 모든 군대들은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나갔다'=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던 이들, 아직 거기에 억류되었던 이들, 꺼내졌다...그리고 감염됨으로부터 구해졌다.

출12:42-'그들을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데려오는 것'=영적 포로됨으로부터 해방됨.

출12:51-'여호와께서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데려왔다'=주님께서 진리로부터 선 안에,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지옥 떨어짐으로부터 구해주셨다...'이집트의 토지'=지옥에 떨어짐인 이유는 지금 이집트인들의 상태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

출13:8-'여호와께서는 이집트에서 나가는 나를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그들은 영적 포로됨과 지옥에 떨어짐으로부터 주님께 의해 구해졌다.

출13:17-'후회하고 이집트로 되돌아 감'=선으로부터 떠남, 고로 진리로부터 아래로 향함...그리고 거짓들에 빠짐.

출14장에서-선행에서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그들이 '이집트인들'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지옥이 '홍해'에 의해 의미되고...이 안에 이집트인들이 침수되었다.

출14:9-'이집트인들이 그들 뒤를 추격했다'=악으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에게 복종시키려 시도함의 결과.

출14:11-'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만일 지옥에 떨어짐이 있다면, 감염자의 거짓들을 통하여서이든, 자기들이 산출한 시험의 상태를 통하여서이든 같다는 것.

출14:13-'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 너희는 영원히 더 이상 보지 못한다'=한번 제거된 거짓들은 영원히 제거될 것이다.

숙10:10-'이집트의 토지'=과학적인 것들...

숙10:11-'앗수르의 자만은 내팽겨질 것이고 이집트의 지팡이는 썩들어갈 것이다'=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의 지혜를 신뢰할 것이다.

이집트

출14:17-'보아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심정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의 완고함.

출14:20-'이집트인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왔다'=이쪽은 악의 거짓이, 저쪽은 진리로부터의 선들이, 그 둘 사이에.

출14:24-'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인들의 진영을 내다보셨다'=거짓들을 수단으로 폭력을 휘두르려는 이들을 향해 신성한 유입이 확장됨.

출14:24-'그리고 이집트인들의 진영은 교란되었다'=악으로부터의 거짓의 확장이 자기들 위로 되돌아갔다.

출14:25-'이집트인이 말했다'=악으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이들의 생각.

출14:25-'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집트인들에 맞서 싸우셨기 때문'=주님 만이 거짓들과 악들에 맞서 전투를 수행하신다.

출14:26-'물들이 이집트인들 위에 되돌아 오게 하라'=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은 자기들에게 거꾸로 흐를 것이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거짓에 있는 이들을 에워쌀 것이다.

출14:27-'그리고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만나 도망쳤다'=그들 자신이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에 침수되었다.

출14:27-'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이집트인들을 뒤쫓으셨다'=그리하여 그들 자신이 지옥으로 자신들을 내던졌다, 거기에는 악으로부터의 거짓이 있는 곳이다.

출14:30-'여호와께서는 이 날에 이집트인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셨다'=이 상태에서 주님은 악으로부터의 거짓으로부터의 모든 폭력으로부터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셨다.

출14:30-'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인들이 해안가에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지옥에 떨어지는 자의 모습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다.

출14:31-'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인들에 맞서 하셨던 큰 손을 보았다'=주님의 전능을 인정함...'이집트인들'=지옥에 떨어지는 이들; 지금, 지옥 안에 있는 이들.

출16:1-'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빠져 나온...'=감염됨으로부터 처음 구제되었을 때 그들의 상태로...'이집트의 토

지'=악 안에, 그리고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해 감염됨.

출16:3-'우리가 이집트의 토지에서 여호와께 손을 죽었더라면'=그들이 감염된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 의해 내버려두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이31장-'이집트의 말들'=뒤집어진 지적인 것으로부터의 과학적인 것들.

출20장-'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종들의 집으로부터 너희를 데려온 자'=지옥으로부터 그분께 의해 구제됨. '이집트의 토지'=지옥적인 자들에 의해 감염됨.

출22:20-'네가 이집트의 토지에서 채류자들이었기 때문'=그들이 지옥에 있는 자들에 의해 감염되어졌을 때 거짓들과 악들로부터 그들은 보호되어졌다는 것.

출23:15-'너는 이집트로부터 나갔다'=거짓에 의해 감염됨으로부터 구제됨.

암9:7-'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양육되었다'=과학적 진리들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들과 선들 쪽에서 시작한 이들.

겔19:4-'그는 이집트의 토지 안으로 갈고리에 꿰어 데려와졌다'=과학적인 것을 통하여 거짓이 온다.

이31장-'이집트'=일반적 측면에서의 지식.

겔29장-'이집트'=뒤집힌 과학적인 것.

이19:15-'이집트'=과학적인 것으로부터 추론을 수단으로 신앙 속의 진리들과 선들 안으로 입장하기를 원하는 이들, 즉 계시적인 것들로부터가 아닌, 고로 이 후자에서 신앙으로부터가 아닌.

겔16장-'육에서 대단한 이집트의 아들들과 매춘짓을 하는 것'=자연적 인간만으로부터의 과학적인 것, 고로 감각적인 과학적인 것을 수단으로 교회 속의 진리들을 거짓화하는 것.

출32:1-'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올라오도록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만듦'=교회가 되기 위하여 자연적, 외적 인간으로부터 내적, 영적 인간으로 승강함; 그이유가 '이집트의 토지'에 의해 자연, 또는 교회의 외적인 것이 의미되기 때문.

출32:4-'네가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올라오게 만드는 것', 내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들에 있는 이들에 관해 말할 때,=자신을 인도하는 것... 이는 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이집트

터 영적 인간으로, 세상으로부터 천국으로 승강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을 지옥으로 내던진다, 고로 자유로부터 노예로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출32:7-'네가 이집트의 토지에서 올라오게 만든 자들'='네가 신성 쪽으로 인도했다고 믿어진 자들...그이유가 '이집트'=자연적, 또는 외적 인간, 이로부터 승강이 있다.

출32:12-'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말하는가?'='내적인 것들 안으로 승강되어지는 이들에 관련하여 단지 외적인 것들에 있는 이들.

출34:18-'네가 아뵘월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그때 당시 지옥으로부터의 구제됨이 있었다.

이19장-'이집트인'=(영적 왕국 교회인의) 자연성.

호9:3-'이집트'=자연적 인간 속의 과학적인 것.

신17:16-'이집트'=우리 고유의 총명으로부터의 지식과 추론함, 이때 말씀 속의 진리를 왜곡되게 한다, 이것이 여기서 '말'이다.

겔29장-이런 것들이 이집트의 왕으로 말해진다, 그이유는 '이집트'에 의해 영적인 것에서 분리된 자연이 의미되기 때문.

이36:6, 겔29:6-'이집트'=자신의 강함을 신뢰하는 자연적 인간, 그러므로 '상한 갈대의 지팡이'라 불린다.

계11:8-'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것'='지옥의 두 가지 사랑들, 이는 자아사랑으로부터의 지배욕, 그리고 자기 고유의 총명의 자만으로부터 통치함을 사랑함.

겔16장-'그녀가 간음짓을 한 이집트의 아들들'='거짓들을 확증하는데에 잘못 응용된 갖가지의 과학적인 것들과 지식들.

이52:4-'내 백성은 거기서 체류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과학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그리고 진리의 지식들을 수단으로 자연적 인간을 혼욕함.

신7:15-'이집트의 악한 무기력함들'='자연적 인간 안에서 악들로부터 근원하는 거짓들.

예42장-'이집트'=자연; 그리고 '이집트로 가는 것', 그리고 '거기 체류하는 것'='자연적 수준이 되는 것.

호12:1-'이집트로 기름을 운반하는 것'='과학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교회의 선을 파괴하는 것.

을4:19-'이집트는 황무지를 위해 있을 것, 그리고 에돔

은 황무지의 광야를 위해 있을 것'='거짓의 원리, 그리고 자아사랑의 악들, 모두 자연적 인간으로부터인데, 파괴될 것이다.

시68:31-'자연적 인간, 그가 종속될 때, 일치되는 과학적인 것들을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와 선의 지식들은 '기름진 것이 이집트에서 올 것'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이집트'=과학적인 것에 관련한 자연적 인간.

시81:5-'그분이 이집트에 맞서려 나가셨을 때,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입술들을 들었다'='옛 교회가 파괴되었을 때, 그 안에는 그 당시 교리의 거짓들이 있었다.

시105:23-'그때에 지상에 교회가 그분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것, '그다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왔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27:13-'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버림받음'='과학적인 것을 수단으로 미혹되어왔던 이들; 고로 진리에 무지함으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어왔던 이방인들.

신28:68-'이집트인들'='단지 자연적일 뿐인 인간; '여호와께서는 배로 그들을 이집트로 도로 가져다 주실 것이다'='그들은 거짓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을 통하여 단지 자연적일 뿐에 있을 것이다.

이37:25-'이집트의 강들'='지식들과 진리를 통각함, 그 이유는 '이집트'=과학적인 것들에 관련한 자연적 인간; 그리고 지식과 통각 작용은 자연적 인간에 속한다.

숙10:11-'이집트의 지팡이는 물러날 것이다'='추론들에 쓰여졌던 과학적인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예46:8-'이집트는 홍수같이 일어난다...'='이집트'에 의해 확증하는 과학적인 것들이 의미된다.

이20:3-'이집트'=과학적인 것에 관련한 외적 또는 자연적 측면.

예43:11,12-'그는 이집트를 칠 것이고 이집트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이다'='자연적 인간의 과학적인 것을 수단으로 그는 교리 속의 모든 진리들을 뒤집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독할 것이다.

이19:15-'이집트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이집트에 의해 자연적, 영적인 것 양쪽에서 지식을 의미한다. '머리나 꼬리가 이집트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영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을 확증하는 자연적인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

이집트

예2:18-자연적 인간의 과학적인 것을 수단으로 영적인 것을 조사하는 것이 '네가 시홀의 물들을 마시려하여 이집트의 길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이집트와 그것의 강 =자연적 인간의 과학적인 것들.

예46:2-'이집트 바로 왕의 군대에 맞서...'=과학적인 것들로부터 거짓 추론함을 수단으로 교회와 교회의 진리들은 파멸됨...'이집트와 그 군대'는 확증하는 과학적인 것들이 의미된다.

겔27:7-'이집트로부터 (자)수놓는 작업'=교회 속의 것들에 관한 지식.

이19:1-'보아라, 여호와께서...이집트에 오실 것이다, 이 때 이집트의 우상들은 그분 앞에서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심장은 그 한가운데에서 녹아질 것이다.' '이집트'는 여기서 영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인간이 의미된다, 이 인간은 그 당시 거짓들과 악들에 있었고, 그럼으로 해서 교회 속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을 뒤집었다.

호12:13-'예언자를 수단으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올라오게 만들었다...'이집트에 의해 자연적 인간이 의미되고, 이 인간은 영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될 때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므로=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주님은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을 지옥 떨어짐으로부터 인도해내신다.

이19:6-'이집트의 강물은 줄어 말라질 것이다'=자연적 총명 속의 모든 것들은 멸해질 것이다...'이집트'=자연적인 것.

이36:6-'너는 이집트를, 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신뢰하였다; 거기에 만일 사람이 기대다면 그것은 그의 손으로 가서 그 손을 찌를 것이다; 이집트왕 바로를 신뢰한 모든 자에게 그는 이와 같다.' '이집트'에 의해 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인간이 의미되었고, 그의 과학적인 것은 영적 인간의 총명으로부터 분리될 경우, 어리석어지고 갖가지 종류의 악들을 확증하는데 응용되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짓화된 과학적인 것이다.

겔29:7-'이집트', 여기서도 역시=영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인간, 그리고 악에 응용된 그것의 과학적

인 것은 단지 거짓일 뿐이다. 이런 것들은 자기들 교유의 총명에 신뢰를 둔 교인들에 관해 말해지고 있다.

시68:31-'이집트로부터의 기름진 것'=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안에 있는 이들...주님의 왕국에 동의하는 자,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 인간으로부터 빛 안에 있기 때문이다.

겔29:12-'이집트는 40년 동안 거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집트를 척박한 토지들 한가운데에 황폐됨을 위해 줄 것이다...' '이집트'에 의해 과학적인 진리들 위에 교리를 기초한 교회가 의미된다. 그때 당시 과학적인 진리들은 상응과 표현성에 관한 지식들이었다, 이 지식 위에 자기들 교회의 교리가 기초되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이 지식을 마술로 변하게 했을 때, 교회를 뒤엎었던 바, 그것의 황폐됨이 묘사되고 있다. 즉 '이집트는 나라들 사이에 흩어질 것이고, 토지들 안으로 흐트러질 것이다'=악들과 거짓들이 그 교회를 완전히 접수할 것이고, 그것 속의 과학적인 것을 뒤엎을 것이다. 이로부터 명백한 바, 40년은 완전히 황폐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40년의 끝에서'가 의미하는 새 교회의 시작이 이 말들에 의해 뜻해진다. 즉 '40년의 끝에서 나는 흩어져 간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의 포로를 도로 데려올 것이다...' (13,14절)

겔31장-'이집트의 왕, 그리고 그의 군중'=거기서 과학적인 것과 더불어 자연적 인간.

계11:8-'이집트'=영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인간, 거기로부터 거짓들은 자아 사랑의 악들로부터, 그러므로 인간 교유의 총명 속의 자만으로부터 흘러든다.

이19:18-25에서-'이집트'=영적 인간과 결합한 자연적 인간, 고로 교회 밖에 있어왔던 나라들과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진리들 안에 있지 아니했었기에 그들은 자연적 인간이 되어왔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인정했다, 그때부터 교리 속의 진리들로 훈육되면서 그들은 신앙을 받았다...' 가나안의 언어로 말하는 이집트의 토지에 있는 다섯 성읍'=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교회 속에 진리에 따른 많은 교리적인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이집트의 토지'=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교회...'그날에 이집트 토지의 한가운데에서 여

이집트

호와께 대한 제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두리에는 여호와께 대한 기둥이 있을 것이다'=그때 선행의 선들로부터 그리고 자연적 인간에 속하는 모든 것 안에 신앙의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이 있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는 이집트인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이집트인들은 그 날에 여호와를 알 것이다'=주님을 인정함, 그리고 그분의 신성을 인정함...' 고로 여호와께서는 이집트를 치실 것이나 치시고 치료하신다'=시험들, 고로 전환, 그리고 진리들을 수단으로 거짓들로부터 치료함. '그날에 이집트로부터 앗수르로 가는 길이 있어, 앗수르는 이집트로 오고, 이집트는 앗수르로 갈 것이다'=그때 그들은 참된 자연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열린 합리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연적 인간에 속해 있는 과학적인 것들을 합리적으로, 고로 총명하게 관조할 것이다; '이집트'=자연적 인간의 과학적인 것. '그 날에 이스라엘은 그 토지의 한가운데에서 복받는 이집트와 앗수르와 더불어 삼분의 일일 것이다'=영적 빛으로부터 양쪽으로 유입됨...'이집트'=세상으로부터 빛을 가지는 자연적 인간...'내 백성 이집트에게 복있다'=자연적 인간이 계발되었다.

호11장-'이집트로부터 새' 같이 라고 말해진다, 그 이유는 새=참된 자연적인 것들로부터의 생각들.

이27:12-'강의 귀로부터 이집트의 강까지 여호와께서는 흔드실 것이다'=영적 인간을 위해 쓰여지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모든 진리...이것들이 거짓들을 확증하는데 응용한 과학적인 것들로부터 추론함을 통하여 멸해질 수 밖에 없는 교회에 응하리라는 것이 '앗수르의 토지에서 멸망하는 그들, 그리고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내 쫓긴 그들이 올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속10:11-'앗수르의 자만은 내던져 질 것이고, 이집트의 지팡이는 물러설 것이다'=자연적 인간 속의 악들과 거짓들을 확증하는 과학적인 것들로부터의 추론은 사라질 것이다...'이집트의 지팡이'=확증하는 과학적인 것들.

겔29장-'사십 년의 끝에서 나는 ...백성들로부터 이집트를 모을 것이다.' 여기서 '이집트'에 의해 자연적 발광체로부터 도덕적 생활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는 교회가 의미된다...그들이 거짓들을 확증한 과학적인 것들이 여호와께서 흠어졌던 백성으로부터 모을 '이집트'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속14:18-과학적인 것만으로부터의 자연적 발광체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 선은 진리들을 통하여 이식될 수 없는 바, 그들은 갖가지 종류의 악들과 거짓들 안에 있을 것임이 '만일 이집트의 가족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치실 재앙이 거기도 있을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단11:43-이집트인들의 지식들이 '금과 은의 저장된 것들' 그리고 '탐나는 것들'이라 말해진다.

겔27:7-'이집트'에 의해 인간으로 총명을 가지게 하는 지식이 의미되는 바, 두로에 관해 말해지기를, '이집트로부터의 수놓은 고운 모시가 그들의 넓게 편 것(뚝, expansion)이었고, 이것은 그녀를 위한 기장이었다...' 이집트로부터의 수놓아 만든 모시'란 영적 진리로부터의 과학적인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

왕상3:1, 7:8-솔로몬이 천적 왕국과 영적 왕국, 모두를 표현했기에, 그리고 이 왕국들 속의 모든 이들은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을 수단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확증해주는 과학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총명과 지혜 안에 있기에,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하여 다윗의 성 안으로 그녀를 데려왔다.' 그리고 후에 '바로의 딸을 위해 입구 근처에 집을 지었다.' 여기서 좋은 의미에서 '이집트'가 표현한 것은 모든 총명과 지혜가 기초를 둔 지식이다...

겔30:4,6,8,11,13,16,23-거짓이 악들에 응용됨을 통하여 자연적 인간과 그 인간에 있는 모든 것이 파멸되리라는 것이 '칼이 이집트 위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의 무리들을 데려갈 것이고 그녀의 기반들을 전복하게 할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자연적 인간의 과학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진리를 확증함이나 보강함 따위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 '이집트를 지지하던 그들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강함을 자랑해댐도 주저할 것이다'에서 의미되어 있다....자연적 인간으로부터의 탐욕들이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놓아 두실 불'에서 의미되고 있다. 고로 교회는 신앙 속의 진리들과 선행의 선들에 폭력을 행사하는 악의 거짓을 통하여 황폐해지리라는 것이 '나라들 속의 광폭한 자가 그 토지를 파괴하려 데려와질 것이고, 그가 이집트에 맞서 칼을 휘

이집트

둘러 그 토지는 죽은 자로 가득해지리라'에서 의미되고 있다. 머리인 어떤 진리, 주님으로부터의 생명의 어떤 진리도 있지 않다는 것이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더 이상 왕자는 없을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자아 사랑으로부터의 악만이 자연적 인간을 점유할 것이라는 것이 '나는 이집트 안으로 불을 놓고, 나는 나라들 사이에 이집트를 흠트릴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30:7-'텅빔과 공허함이라는 이집트'에 의해 감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둘 다가 의미되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만 생각한다면 선이 결핍되고 진리들이 결여되어 있다.

이사야 31장-이 장의 구절들은 천국과 교회 속에 있는 것들 안에서...자신들로부터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 이들의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이들은 단지 자연적일 뿐인 바, 그들은 감각들의 오류로부터, 그리고 과학적인 것들로부터 모든 것을 취해서 그것을 악하게 응용하기에 그들은 교회 속의 선들과 진리들을 뒤집고 왜곡되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에 관해서 말하기를, '도움을 청하려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찾지 않는 그들, 그리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들에게 화있을 것이다' (1절). 감각들의 오류로부터 있는 가상적인 것들이 '이집트의 말들, 이 위에 그들은 머문다'에서 의미되고,...'자연적 인간은 자신으로부터 신성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가 '이집트는 사람이자 하느님이 아니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3절) 총명이 자아로부터일 경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가 '그의 말들은 육이지 영이 아니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집트의 말=자신 안에서 죽어 있는 가상적인 것들, 그 이유는 그것들은 오류들이기 때문이다.

예46장에서-여기서 '이집트'에 의해 영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그의 과학적인 것과 더불은 자연적 인간, 이 분리된 인간 고유의 총명의 자만을 통하여 거행된다. 이 총명은 과학적인 것들로부터 추론함을 통하여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을 파괴한다. '유브라데 강가에 있던 이집트 왕의 군대'란 왜곡되게 응용된 과학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추론함...'이집트는 홍수 같이 올라온다, 그리고 물들이 홍수 같게 움직여졌다'=교회의 진리들에 맞서...자신으로부터 추론하는 자연적 인간...'길르

앗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향유를 취하라, 이집트의 딸이여'=말씀의 글자 의미 속의 진리, 거기로부터 추론하고 지지함...'이집트의 딸은 이와같은 교회에 속하는 거짓에 대한 애착을 의미하고 있다.

신17:16-진리가 선 위에서 통치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는 말을 불릴 목적으로 백성들을 이집트로 도로 가게 이끌어서는 안된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19:1-17에서-'이집트'에 의해 그의 영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인간이 의미되어진다는 것은 1-17절의 영적 의미로부터 확실해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삶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자신과 세상만을 추구할 때 그는 오로지 자연적 인간이 되어간다. 이때 그는 자신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자만을 가지게 되는데, 확실있는 자들의 경우 더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합리성은 뒤집어진다, 그리고 영적 마음은 단한다. 자연적 인간이 '이집트'에 의해 의미된다는 것을 순서적으로 다음 설명들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 고유의 총명은 그것의 '강'에 의해; 그리고 거짓들은 '이집트 강'의 물'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재)빠른 구름을 타신다, 그리고 이집트로 오신다'=신성한 진리로부터 영적 자연적으로 자연적 인간을 방문하심...'이집트의 우상들은 그분 앞에서 옮겨질 것이고, 이집트의 심정은 그것의 한가운데에서 녹아질 것이다'=거짓들이 자연적 인간 안에 대량으로 뻘뻘이 들어 차 있다. 이로부터 예배가 있다; 그리고 방문 때문에 그것에 공포가 있다. '나는 험악한 군주의 손에 이집트를 가둘 것이다, 그리고 맹렬한 왕이 그들을 통치할 것이다'=거짓의 악과 악의 거짓이 거기서 지배할 것이다...'소안'과 '놉'이 이집트의 토지 안에 있었다, 그리고 영적 빛으로부터 자연적 인간의 계발을 의미했다. '그들은 지파들의 모퉁이 둘 이집트를 미혹했다'=자연적 인간이 뒤집어졌다는 것, 그럼에도 아직도 교회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은 그 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 '머리나 꼬리, 가지와 곁풀이 이집트를 위해 하는 어떤 일도 있지 않을 것이다'=그들은 더 이상 총명이나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진리이든 자연적 진리이든 더 이상 가지지 못 할 것이다.

겔29:6,9,10-'이집트의 모든 거주민은 내가 여호와임을

이집트

알런지 모른다'=그들은 자연적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진리와 선까지도 주님으로부터 이다는 것을 알고 믿을런지 모른다...'이집트의 토지는 쓸쓸한 곳과 버려진 곳이 될 것이다'=결과적으로 자연적 인간은 모든 진리에 결핍되고 모든 선에 결핍될 것이다...'나는 시에네의 꼭대기로부터 에티오피아의 경계선에 까지 버려진 것을 위해 이집트를 줄 것이다'=자연적 인간 안에서 제일가는 것으로부터 최말단 것까지 이르러 교회의 과멸.

호7:11,16-'그들은 이집트에게 부르짖었고 앗시리아로(끌려)가버렸다'=그들은 사기적일 뿐인 자연적 인간에 있는 과학적인 것에 신뢰를 두고 추론도 했다...'이것은 이집트 토지에서 그들의 조롱거리이다'=자연적 인간으로부터의 교리에 욕을 함, 그리고 그것을 경멸함.

호9:3,6-'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진리를 이해함이 파괴되었다, 이로부터 그들은 자연적 인간이 되었다...'이집트는 그들을 모을 것이다'=그들은 오로지 자연적 수준이 되었다는 것.

호11:5-'이스라엘은 이집트 안으로 되돌아 오지 않을 것이다'=영적 교회로 되어간 사람은 자연적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그이유가 사람은 처음에 자연적이고, 후에 합리적이 되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되기 때문. 인간이 자연적 수준일 때, 그는 이집트에 있다.

호12:1-'기름이 이집트로 운반되었다'=사랑의 선이 자연적 인간의 과학적인 것들을 통해 뒤집어졌다는 것.

이30:2,3-'이집트로 내려가려 떠난 자, 그리고 내 입에 묻지도 않았다'=자연적 인간의 자아로부터, 그리고 말 씀으로부터는 아니다.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했다'=천국의 빛 안에 있지 않은 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것들에서 신앙을 가지며 신뢰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바로의 강함은 수치를 위해 있을 것이고, 이집트의 그늘에 신뢰를 담은 치욕을 위해 있을 것이다'=인간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자연적 인간의 지식으로부터도 악들에 저항하는 능력은 없다.

예2:18,36-'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의 길과 더불어 무엇을 하느냐?'=자연적 인간 단독으로 교훈함, 이때 거짓들만 온다...'너는 앗시리아로부터 수치를 당함 같이 이집트로부터 수치를 당할 것이다'=자연적 인간에 의해, 이로부터 추론함에 의해 이끌리는 것은 뒤집어

진 상태, 비열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자아로부터 있는 거짓들과 악들에 의해 이끌리기 때문.

예5:6-'자신에 의해 가르쳐지는 것이 자연적 인간과 이 인간의 과학적인 것과 그것으로부터의 결말들에 의해 가르쳐지는 것과 같은 바, 이렇게 말해진다. '우리는 빵을 배불리 먹지 않을 까 해서 이집트에게, 앗시리아에게 손을 주었다.' '이집트'에 의해 거짓들이 오는 자연적 인간이 의미되고 있다.

예42:13,14,15-'만일 너희가 우리는 이 토지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아니오 라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집트의 토지로 갈 것이다'=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영적 상태를 아주 싫어함, 그리고 자연적 상태, 그리고 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갈망함...'만일 너희가 너의 얼굴을 이집트에 오는 쪽으로 두고 거기서 거주하려고 간다면'=만일 사랑으로부터 그들이 자연적 삶을 갈망한다면; '너희가 두려워했던 칼이 이집트의 토지에서 너를 붙잡을 것이다'=진리들을 파괴하는 거짓들; '그리고 너희가 걱정했던 기근이 이집트에서 네 뒤에 꼭 붙어있을 것이다'=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이 결핍됨...'그래서 이집트로 오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두고 거기 체류하려 한 사람들은 칼에, 기근에, 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앞 절과 같다. '염병'=모든 진리와 선이 황폐함.

겔23장에서-'이집트'에 의해 영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인간이 의미되어진다...한 어머니의 딸인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매춘짓을 했다'=진리와 선의 거짓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단지 자연적 인간들이었을 때, 그들은 이집트인들의 우상적인 것들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교회 속의 모든 진리들을 거짓화했다.

욥4:19-'이집트는 황폐된 곳으로 있을 것이다'=자연적 인간은 진리들에 결핍되어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단지 거짓들만 있을 것이다.

왕상14:25,26-'이집트왕이 여호와와 그의 집과 왕의 집으로부터 보물들을 거두어 감'에 의해 자연적 인간에 있는 과학적인 것들이 잘못 응용됨으로 인해 선과 진리에 관련하여 교회의 황폐해짐이 표현되어졌다.

예44:28-'자연적인 것으로 되어간 교회 속의 것들이 '

이틀-이튿날-이혼-이혼한 여인-익은-익지 않은 무화과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 체류한 이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겔 30:15-‘이집트’, ‘신’, 그리고 ‘노’=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개혁되는데 걸림돌인 자연적 인간의 오류와 과학적인 것들.

욘4장-‘이집트’와 ‘에돔’=말씀 속의 진리들과 선들을 뒤집은 자연적 인간.

겔20:36-‘이집트 토지의 광야’=거듭나기 전 자연적 인간의 상태.

호2:15-‘그녀가 이집트 토지로부터 올라왔던 날’=자연적 인간으로부터 그들이 영적 인간이 되었을 때.

호9:6-자연적 인간과 이 인간의 탐욕은 그들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 ‘이집트는 그들을 모을 것이고, 높은 그들을 매장할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예43:11,12-‘노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를 쳐부술 것이다’=모든 선들과 말씀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에 관련된 자연적 인간의 파멸... ‘이집트의 집들에 불을 놓는 것’=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자연적 인간 속의 모든 것들을 파괴할 것이다.

이틀 (two days)

호6:2-‘이틀 후에 그분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실 것이다’ (이틀=선행되는 시간과 상태)

이튿날 (day after)

출32:30-‘이튿날이 되었다’=주님의 교회의 끝장일까지 조차 존속하는 이와 같은 예배

이혼 (divorce)

* 이혼은 간통들로부터 있다. 그이유는 간통은 결혼에 완전하게 반대되기 때문이다.

마19:9, 5:32-간통(adultery)이 이혼의 원인이라는 것. (그이유는) 결혼은 거룩하고, 간통은 모독이기 때문. 그러므로 결혼과 간통은 서로 직반대되어 있다. 따라서 반대되는 이 쪽이 저쪽에서 행동할 때, 상대방의 불씨 조차 남지 않게 파괴한다... 결혼은 천국 안에, 천국으로부터 있고, 간통은 지옥 안에, 지옥으로부터 있다.. 하여 이 둘은 결합되어질 수 없다... 이로부터 간통은 이혼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매춘(whoredom)을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이혼하고, put away) 또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

통죄를 짓는 것이다.’ 매춘 때문에 버림은 마음들의 충분한 분리들, 이것이 이혼이라 불리운다. 이에 비해 여타 다른 원인들 때문에 버림은 분리들이다. 이에 따라 만일 또다른 아내와 결혼되어진다면 간음이 범해진다. 이는 (정상적)이혼 뒤에 있지 않기 때문.

이혼한 여인 (divorced woman)

레21:14=진리에 의해 거절된 선, 고로 일치하지 않는.

익은 (mature)

창40:10-‘송이들에 포도들이 여물었다(ripened)’=영적 진리가 천적 선에 결합함. ‘여무는 것’=진리가 선과 결합하는 수준까지 거듭남이 진보하는 것. 고로 결합.

출9:31-‘그이유가 보리는 익어가는 이삭이었기 때문에’=이 선이 앞을 향해 서서 아래쪽을 쳐다보았다는 것... ‘익어가는 이삭’=그들이 앞을 향해 서있는 것.

계14:18,15-‘그녀의 포도들이 익었기 때문에’=기독교 교회의 마지막 상태. 마찬가지로 ‘무르익은 포도원의 포도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바삭 마른 수확물’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수확물(harvest)’은 넓은 측면에서의 교회, ‘포도원, vineyard’은 좁은 측면에서의 교회가 의미되어 있다.

익지 않은 무화과 (unripe figs)

계6:13-‘무화과-나무가 익지 않은 무화과들을 내던지듯’=인간의 영적 선으로부터 분리된 그의 자연적 선. (‘익지 않은 무화과’=자연적 인간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특별히 유아로부터 자연적 인간에 심어져왔던 (영적) 지식들, 그런데 아직도 잘 발달되고 있지 않은 지식들, 그이유가 그들이 단지 듣고 수락만 했을 뿐이기 때문.

인간 (human)

* 사람(man)을 보라

인내 (patience)

계1:9-‘예수 그리스도를 강한 인내력으로 예상함’=주님의 강림.

계3:10-영적 전투, 이는 시험인데, 주님의 ‘인내함의 단어’라 불리운다. 그이유는 시험 안에서 주님은 인간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

계13:10-‘여기에 거룩한 사람들의 인내와 신앙이 있

다'=주님의 새 교회 사람은 그의 삶과 신앙의 품질 측면을 시험에 의해 조사되어진다는 것. 여기서 '인내'에 의해 시험들에서 있는 인내,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는 생활, 그리고 주님을 믿는 신앙에 관련하여 인간의 품질이 조사받음이 의미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말해지는바, '여기에 인내와 신앙이 있다'

눅21:16-19-교회의 마지막 때가 취급된다. 그때에 신실한 자가 진리들 때문에 겪을 시험들. '네 인내함 안에서 너는 네 혼들을 소유한다'에는 진리의 생명은 거짓들 사이에서도 보존된다가 의미되어져 있다.

눅8:15-'인내함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비록 거짓들과 악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해도 진리들과 선들을 행하는 것. 즉 자신들 안에 거짓들과 악들이 있어 그것들 사이에 사는 셈이지만 그렇다해도 주저않지 않고 인내하며 진리들과 선들을 행하는 것.

이53:7-시험들 안에서 주님이 인내하심이 '그분의 입을 열지 않으심'에서 묘사되어 있다.

계14:12-'여기에 거룩한 사람들의 인내가 있다'=이 신앙 안에 있지 않고 선행 안에 있는 이들의 박해와 시험들. '인내'=시험들, 또한 박해.

인도하다 (lead)

* 이끌다(lead)를 보라.

인사 (salutation)

계1:4, 눅24:36,37, 요20:19-21, 마10:11-15-'네게 은총이 있기를, 그리고 평화'=신성한 인사.

인식 (knowledge)

인식력이 있는 (cognitive)

* 알다(know)를 보라.

인장 (seal)

* 봉인(seal)을 보라.

인척 관계 (affinity)

결혼에 의한 관계 (relation by marriage)

창29:12,13-'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의 어머니는 당신의 아버지와 형제 관계라고 말했다'=야곱이라는 선과 '라반'이라는 선의 인척 관계.

창34:9-'우리들과 친척 관계를 맺자.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라'=선들과 진

리들의 합일.

출32:27-'이웃'=그들에 결합된 것, 고로 관련된 것, 그 이유가 관계된 것들이 이웃들이기 때문...선, 진리, 그리고 그것들에 관련된 것들.

일 (work)

창2:2-'일곱째 날에 그분은 그분의 일을 끝내셨다'=천적 인간...

창5:29-'그분은 우리의 일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교리, 이를 수단으로 뒤집혀 왔던 것이 회복되어 지리라는 것...'일'이 의미하는바, 그들은 노동과 심통 없이 어떤 진리도 지각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인간이 자신으로부터, 또는 자기 고유의 것으로부터 진리인 것을 추구하고, 선인 것을 행해야만 할 때 우리의 손에는 일과 노동이 있다.

마10:41,42, 25:34-36- 이 구절들의 글자 의미에 따라서 선한 일은 우리가 천국에서 보상을 받기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누군가는 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주님의 왕국 안에 있는 이들은 선한 일을 행함에서 공적과 연계되어 생각되는 적이 없다. 더 나아가 그들은 공적이 들어가 있는 선한 일은 선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에게 가르쳐지도록 애쓰고 있다.

마25:32-46-내적 인간의 생명은 외적 인간의 일들 안에서 공표되는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심판은 일들이 하나하나 열거되는 것밖에 더 아니라는 것, 선한 일들을 행한 이들은 영생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창33:14-'일의 발에 따라서(작업 속도에 맞추어서)'=제한 사항에 따라서.

요3:16-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 일 없는 믿음 만으로도 영생을 주신다고 결론맺어둔다...그다음 그들은 주님이 선행과 일에 관해 말하시는 대목에 관해서는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

창39:11-'그는 자기 일을 하려고 집 안으로 갔다'=그분께서 자연 평면에서 영적 선과 결합한 일 안에 계셨을 때.

창40:17-'뺨굽는 자의 일'=감각 평면의 모든 사용에 따라서.

창46:33-'네 일들(직업)은 무엇이나?'=너의 선들을 아

는 것. 그이유가 '일들'=선들, 그이유는 그것들이 의지로부터 있기 때문.

창47:3-‘네 일들(직업)이 무엇이나?’=임무(offices)와 사용(uses)에 관하여. 그이유가 '일들'=선들. 선행의 선들이라 불리는 모든 선들은 사용함들 밖에 더 아니다. 그리고 사용함들은 이웃, 나라, 교회, 그리고 주님의 왕국을 위해 일이 행해진 것 밖에 더 아니다. 선행(charity) 자체는 그것이 행동 안으로 와져 일로 매듭될 때 까지 그자체가 저절로 선행이 되지 않는다. 행위, 또는 일 자체 내에 (이웃을 향한) 선행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이유가 일들은 인간 안에 있는 선행과 신앙으로부터의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마16:27-천사들은 사용을 실행하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사용에 따라서 축복과 행복을 향유한다. '사람의 아들은 각자의 일들에 따라 모든 이에게 갚을 것이다.' 여기서의 '일'은 외적 형체에서 나타나는 일이 아닌 내적 형체에서의 일, 즉 자기들 안에 지닌 선행의 품질에 따라서 이다. 천사들은 이와 달리는 일을 보지 않는다.

출5:4-‘왜 너는 백성이 그들의 일로부터 물러나게 하나?’=(그들은) 비통한 것들로부터 그들이 면제되지 않을 것. 그이유가 일은 노동들, 또한 짐들, 고로 전투들로부터의 비통한 것들.

출5:13-‘너희 일들을 마무리지어라’=그들은 소위 거짓인 것들을 섬겨야 할 것.

이17:8-‘그의 손의 일’=자아로부터 있는 많은 것들.

출12:16-‘일은 그들 안에세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그런다음 지상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꾸준히 물러나 있음.

출18:20-‘그들이 행할 일’=행동에 있는 신앙.

출20:9-‘6일을 너희는 노동하라, 그리고 네 모든 일들을 행하라’=이 결혼에 선행하여 있는 전투와 이 결혼을 준비함.

출20:10-‘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그다음 천국과 천국의 기쁨은 인간의 내적, 외적에 있는 각각, 그리고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다. ‘어떤 일도 하지 마라’=쉽과 평화, 고로 천국. 그이유가 인간이 천국 안에 있을 때, 그는 불안, 근심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때문.

출23:12-‘육일 동안 너는 네 일들을 할 것이다’=외적인 즐거움에 있는 동안 내적인 것들과 결합되기 위하여 있는 노동과 전투의 상태.

출23:16-‘네가 들판으로부터 네 일들을 그러모을 때’=선 안에 심어져 왔었던 모든 것들을 향유하고 사용함. 그이유가 '일들'은 들판 뿐 아니라 포도원과 올리브원도 뜻하기 때문.

출23:24-‘너는 그것들의 일들에 따라 행하지 마라’=생활의 악은 모방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

출26:1-‘디자이너(designer)의 일’=지적 평면.

출28:32-‘(베)짜는 사람의 일’=천적 평면으로부터...

출30:16-‘만남의 천막의 일’=천국을 만들고 움직이는 것.

출30:25-‘향수제조인의 일’=신성 자체의 유입과 운영 하심.

출31:3-‘지혜 안에서, 그리고 총명 안에서, 그리고 지식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서’=내적, 외적 인간의 의지와 이해함으로부터 있는 것들에 관련하여.

출31:14-‘그 날에 일을 하는 모든 이’=자신을 천국적인 사랑들로부터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사랑들로 돌려버리는 자.

출31:15-‘육일 동안 일이 행해질 것이다’=천국적 결혼에 앞서 진행되고 이 결혼을 준비하는 상태.

예10:3-‘손들의 일’=인간의 자아로부터 있는 것, 고로 그의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해함으로부터 있는 것.

출32:16-‘들판은 하느님의 일이었다’=신성으로부터 (인 것).

출34:10-‘여호와와 그의 일을 보는 것’=그것 안에 있는 신성을 인정하는 것.

출35:2-‘육일 동안 일이 행해질 것이다’=주님에 의해 인간 거듭남의 첫 상태.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인간 측면이 신성화하심.

출35:2-‘일을 하는 모든 이는 죽을 것이다’=주님에 의해 해서가 아닌 자신과 자신의 사랑들에 의해 이끌린 이들의 영적인 죽음.

계2:2-‘나는 네 일들을 알고 있다’=그분은 모든 인간의 내면들과 외면들을 함께 보신다는 것.

계2:5-‘회개하라, 그리고 첫째의 일들을 행하라’=그들

일곱

은 자기들의 생활의 상태를 거꾸로하여야 한다는 것... 진리에 감화된 이후 거듭나야가고 있는 이들은 생활로부터 있는 선을 첫째 자리, 즉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계2:6-‘네가 나 역시 미워하는 니콜라당의 일을 미워하고 있다’=그들은 공적을 앞세우려 있어지는 일들을 원치 않는다, 그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공적과 정의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계2:23-‘나는 그의 일들에 따라 모든 이에게 줄 것이다’=그분은 각자의 일들 안에 있는 선행과 선행으로부터의 신앙에 따라서 각각에게 주신다는 것.

계2:26-‘끝까지 내 일들을 준행하는 자’=실제로 선행과 신앙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삶의 마지막 까지 그 안에 머무르는 이들.

계3:2-‘나는 하느님 앞에서 네 일들이 가득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그들 예배의 내면의 것들은 주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계9:20-‘그럼에도 자기들의 손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그들은 갖가지 종류의 악들인 자기들 자신의 것들을 죄로 여겨 금하지 않았다.

계14:13-‘그들의 일들이 그들 뒤를 따르고 있다’=그들이 사랑했고 믿었고, 하여 행했었고 말했었던 것.

계15:3-‘당신의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세상의 모든 것, 천국의 모든 것, 교회의 모든 것은 주님께 의해 그분의 신성의 사랑으로부터, 그분의 신성의 지혜를 수단으로 창조되었고 만들어졌다라는 것.

계16:11-‘그들은 자기들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비록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훈육되었다 해도 그들은 신앙의 거짓들, 그결과 생활의 악으로부터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

계20:12-‘죽은 자들은 그들의 일들에 따라 책 안에 씌어진 것들로부터 판결되어졌다’=모든 이들은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내적 생명에 따라 심판되어졌다라는 것.

계22:12-‘나는 빠르게 온다, 그리고 내 보상은 각자의 일이 있는 바대로 모든 이 각각에게 갚으려고 나와 더불어 있다’=주님은 확실히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주님께 대한 신앙과 그분의 명령에 따른 생활에 따라서 모든 이 각각에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행복

이 되신다는 것.

예17:10-‘그의 일들의 열매’=사랑으로부터 있는 선들.

시111:2-‘여호와와 그의 일들’=그분으로부터 진행되고 행해지는 모든 것들.

시33:4-‘모든 그분의 일은 진리 안에서 행해진다’=진리로부터의 선.

예1:16-‘그들 자신의 손의 일’=인간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것들.

호14:3-‘손의 일’=자아 자체.

이5:12-‘여호와와 그의 일’=생활의 선, ‘그분의 손의 행위’=교리의 진리들, 둘 모두 말씀으로부터.

시104:13-‘당신의 일의 열매’=신성의 역사하심.

이3:8-‘일들’=애착, 그이유는 인간은 자기의 애착으로부터 있는 것을 행동에 옮기기 때문.

예10:3-‘도끼를 가진 인부의 손의 일’=자아와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것.

시107:23-‘많은 물들 안에서 일하는 것’=말씀으로부터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는 자.

이1:12-18-악을 죄로 간주하여 금한 이들과 더불어 자기들의 일들이 자아로부터 행해진 듯 여겨지는 지각 비슷한 것이 있다 해도, 그것들 모두는 선이다, 그리고 천국의 빛으로부터 흰눈과 양털 같이 나타난다. 이것들이 신앙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들’에 의해 말씀에서 뜻해지는 일들이다.

일곱 (seven)

* 천적 인간이 ‘일곱째 날’이다.

* 그러므로 일곱째 날은 성별되었다.

창4:15-‘가인... 일곱 배를 되갚는다’=그것은 모독일 것이라는 것; 그이유가 ‘7’=신성인 것.

* 7의 숫자는 신성함을 쥐고 있다. 그이유는 ‘칠일 쟈’ 날 때문이다. 그리고 이 칠일 쟈 날이 천적 인간이다. 이로부터 7의 숫자는 아주 흔히 등장한다...그 예로, 시간의 간격이 7들로 구별되는 것, 우리는 이를 주 (week)라 부른다.

창7:2-‘모든 깨끗한 짐승 일곱, ‘일곱’=거룩한 것들; 그이유가 주님이 ‘일곱째 날’이시기 때문,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천적 교회, 천적 인간, 천적 그 자체가 있기 때문...고로 말씀에서 ‘7’=거룩한 것.

일곱 교회들-일곱 번-일곱 배

창7:4-‘칠 일들에’=시험의 시작...그리고 또한 황폐함의 끝.
 겔3:16-‘칠 일들’=방문의 시작.
 겔39:12,14-‘일곱 달들’=황폐됨의 마지막 한계, 첫째 방문.
 단4:32-‘그는 일곱 때를 건너갈 것이다’=황폐됨의 끝, 새 사람의 시작.
 창8:12-‘그는 아직 다른 칠 일을 기다렸다’=셋째 상태의 시작.
 창21:29-아브라함의 ‘일곱 암컷 어린 양’=순진의 거룩함.
 창29:18-‘나는 칠 년을 봉사할 것이다’=공부(연구)함, 그리고 그다음 거룩한 상태.
 창31:23-‘칠 일의 길’=진리로부터의 거룩한 것.
 창33:3-‘일곱 번’=가장 높은 수준의...
 * ‘7’=거룩한 것; 그리고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전체 시기를 포함한다.
 창41:47-‘칠 년’=첫 상태들.
 출2:16-‘일곱 딸들’=그 교회의 거룩한 것들.
 출8:25-‘칠 일’=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시기; 고로 충만된 상태.
 출12:15-‘칠 일’=거룩한 것.
 출12:15-‘일곱째 날 까지’=충만된 거룩한 상태.
 출12:16-‘일곱째 날에’=상태의 끝.
 출12:19-‘칠 일’=이 상태의 전체 시기.
 출16:27-‘칠일 째 날에’=선과 진리가 결합된 상태.
 출20:10-‘이로부터 ’일곱째 날’=거룩한 상태.
 출20:11-‘일곱째 날에 쉬셨다’=그다음인 평화와 사랑의 선. ‘일곱째 날’=천적 사랑의 상태; 그리고 거룩한 것.
 출21:2-‘일곱째 해’=선과 진리가 결합한 상태; (여기서의 경우) 확증된 진리의 상태.
 겔39:9-‘칠 년’=충분한 상태, 고로 가득한 것.
 출22:30-‘일곱 날들’=거듭나지는 이들의 첫 상태; 그 이유가 ‘7’=시작부터 끝까지, 고로 충만한 것.
 이30:26-‘일곱 날들의 빛 같이 태양의 빛은 일곱 배’=사랑과 신앙으로부터 총명과 지혜가 충만된 상태.
 출23:11-‘일곱째 해에 너는 토지를 쉬게 하라’=인간이

선 안에 있을 때인 두 번째 상태.
 * (거듭남의 두 번째 상태)가 ‘일곱째 날’, ‘일곱째 해’, ‘50년 축제’에서도 의미된다.
 * ‘일곱째 날’=인간이 내적인 것들 안에 있을 때, 즉 주님과 더불어 천국 안에 있을 때, 노동과 전투가 중단 될 때, 그리고 결합의 결과인 평화의 고요 안에 있을 때...
 출23:12-‘일곱째 날 너는 (일을) 중단할 것이다’=내적인 것 안에 있을 때인 선의 상태, 그다음은 평화의 고요함.
 삼상2:5-‘일곱을 낳는 것’=거듭남이 충분함.
 출24:16-‘일곱째 날에’=진리가 선과 결합되어오고 있을 때.
 출25:37-‘그것의 일곱 등들’=거기서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
 출29:30-‘칠 일’=충만된 상태, 고로 완전한 것.
 출31:15-‘일곱째 날에’=끝(목적)인 선의 상태.
 출31:17-‘일곱째 날에 그분은 정지(rest)하시고 휴식(breathe) 하셨다’=교회가 복구되었을 때, 또는 인간이 거듭나졌을 때의 선의 상태; 그이유가 ‘일곱째 날’=거룩한 상태...최고 의미에서 ‘일곱째 날’= 신성 자체와 신성한 인간의 결합...이로부터 ‘7’=거룩한 것.
 출34:18-‘칠 일’=신성한 진리를 내 것 되게 함으로부터 있는 거룩한 상태...그이유가 ‘7일’=시작부터 끝까지의 상태의 거룩함.
 출35:2-‘일곱째 날에’=거듭남의 두 번째 상태, 이는 인간이 주님과 결합했을 때;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인간이 신성 자체와 결합함
 계1:4-‘일곱 교회들’=기독교 세계에 있는 모두...그이유가 ‘7’=모든 것들과 모든 인물들; 이로부터 충만한 것과 완전한 것; 그리고 ‘7’은 말씀에서 거룩 또는 모독인 것들이 취급되는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숫자는 거룩한 것 또는 모독인 것.
 계1:4-‘일곱 영들’=신성한 진리에 있는 모두; 추상적 의미일 경우, 신성한 진리 자체.
 계1:12-‘일곱 촛대들’=새 교회.
 계1:16-‘일곱 별들’=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들.
 계4:5-‘일곱 등불들은...하느님의 일곱 영들이다’=새 교

일곱의-일곱 째-일어나다-일어서다-일으키게하다-일찍이-일흔

회...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계5:1-‘일곱 (봉)인들’=완전하게 감추임. ‘7’=모두, 고로 완전하게.

계5:6-‘일곱 뿔들’=전능하심. ‘7’=모두.

계5:6-‘일곱 눈들’=전능하심. ‘7’=모두, 그리고 (주님에 관련된) 거룩한 것에 관해 말해지고 있다.

계8:2-‘일곱 천사들’=보편적인 천국. ‘7’=모두, 또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로부터 전체와 보편적인 것.

계10:3-‘일곱 천둥들’=(충분히 열여 제치시어 명명백백해지게 하심); 그이유가 ‘7’=모두, 모든 것, 그리고 전체.

계10:7-‘일곱째 천사의 음성’=마지막 조사함과 명백해짐.

계11:15-‘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냈다’=극에 달한 후, 주님의 강림과 왕국이 있는 때의 교회의 상태에 관한 조사와 명백해짐.

계12:3-‘일곱 머리들’=왜곡되고 모독된 진리로부터 있는 광기.

계3:1-‘하느님의 일곱 영들’=천국과 교회 속의 모든 진리들.

단9:25-‘칠 주들’=충분한 시간과 상대들.

여6장-성직자들 일곱이 여리고 성을 칠 일 동안 들고 칠 일째에는 일곱 번=거룩한 것, 그리고 신성한 진리의 거룩한 설교; 그 이유가 ‘7’(여기서의 경우)=이쪽 측면에서는 거룩한 것, 저쪽 측면에서는 모독된 것이기 때문.

계15:1-‘마지막 일곱 재앙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주님으로부터의 모든 신성한 진리는 전체 복합체에 있는 악들과 거짓들을 명백하게 밝히심.

계17:9-‘일곱 머리들은 일곱 산들이다’=(모독된 말씀의 거룩한 것들은 섞음질해버리고 모독된 말씀으로부터의 선들이다)

계17:10-‘그리고 일곱 왕들이다’=왜곡되고 모독된 말씀 속의 진리들.

일곱 교회들 (seven churches)

계1:4-‘요한이...일곱 교회들에게’=기독교인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즉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알려진 곳, 그리고 교회에 가입한 모든 이들에

게...만일 이들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에 의거해 살고 있다면, 그들이 교회 자체를 만든다.

계1:11-‘이것을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이들에게 보내라’=말씀으로부터 진리의 빛 안에 있는 기독교인의 세계 안에 있는 이들에게.

계1:20-‘내가 본 일곱 촛대들은 일곱 교회들이다’=땅 위에 있는 새 교회, 이 교회는 새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일곱’=모두인 바, ‘일곱 촛대들’은 일곱 개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복합적 측면에서의 교회, 즉 그 자체 하나인 교회, 단지 받는 양상에 따라서 다양할 뿐인 하나의 교회를 뜻한다. 이는 왕관의 여러 가지 보석, 또는 몸 속의 기관이나 세포들 같이 하나를 이루는 것에 비교해볼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완전함은 다양한 것들이 각각의 놓여져야 할 위치에 있을 때 공표된다. 이런 다양함들과 더불어 넓은 측면에서의 새 교회가 뒤이어지는 ‘일곱 교회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계2:7-‘신성의 영이 교회들에게 말하시는 것...’=말씀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가 새 예루살렘인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에게 가르치시는 것들...넓은 측면에서의 교회가 뜻해지는 바, ‘신성의 영이 교회들에게 말하시는 것’이 아닌, ‘신성의 영이 교회들에게 말하시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일곱-번 (seven-times)

* 일곱을 보라.

일곱 배 (sevenfold)

* 일곱을 보라.

일곱의 (septenary)

* 일곱을 보라.

일곱 째 (seventh)

* 일곱을 보라

일어나다 (happen)

창24:12-‘오늘 제 앞에 일어나게 하십시오’=영원으로부터 있는 섭리.

창42:29-‘그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났었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말했다’=지금까지 설비되어 있었던 것들을 이 진리의 선으로부터 곱씹어 봄.

일어나다 (arise)

일곱의-일곱 째-일어나다-일어서다-일으키게하다-일찍이-일흔

* 일어서다도 참조

창13:17-‘일어나라, 토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걸으라’=그분은 천국의 왕국을 조사할 것이다.

창18:16-‘사람들이 일어섰다’=이 지각이 끝났다는 것.

창19:1-‘(롯은) 그들을 만나려고 일어났다’=인정함 그리고 선행으로부터 애착됨.

창19:2-‘아침에 일어나 길을 떠나십시오’=고로 선과 진리 안에서 확증함.

창19:14-‘일어나라, 너는 이 곳을 나가라’=그들은 악의 상태 안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일어남’이 말씀에서 자주 임혀지는데, 이는 내향의 의미에서 승강함을 내포하고 있다.

창21:14-‘일찍 일어남’=명백하게 지각함.

창21:18-‘일어나라’=마음의 승강.

창29:1-여기서는 자연적 평면이 취급되는데, 이것이 야곱에 의해 표현되는바, 그는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그는 그의 발을 들었다로 기록되고 있다.

창31:35-‘나는 당신 앞에서 일어날 수 없다’=그것들은 밝히 알려질 수 없다.

창37:7-‘내 곡식단이 일어섰고 바로 섰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한 교리물...‘일어나 서는 것’=통치할 최고인 것, 그리고 승배할 최고의 것.

창43:8-‘일어남’=더 높게 승강함, 또는 더 내면으로 승강함. 고로 영적 생명으로부터인 것으로 승강함.

창46:5-‘야곱은 일어났다’=자연적 진리가 명료해짐.

출32:6-‘일어남’, =내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들만 지닌 이들에 관련되는바, 이는 승강이 아닌 흥분함을 의미한다.

출33:10-‘일어나서 자신을 굽혀 절했다’=거룩하게 승배하는 것.

계11:1-‘일어나라 그리고 하느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보고 아는 것.

시139:1,2-‘당신은 나의 앗음과 나의 일어남을 아신다.’ ‘그의 앗음을 아는 것’은 그의 생명의 실재에 관련하는 것, 즉 그의 의지에 관련되고, ‘일어남’은 그로부터서 의도함에 관하여서이다.

일어서다 (rise)

창32:31-‘해가 그 위에 떠올랐다’=선들의 결합.

출22:3-‘만일 태양이 그 위에 떠올라 버렸다면’=만일 그가 내면의 것으로부터 그것을 명백하게 볼 것이라면.

일으키게 하다 (provoke)

이65:3-‘여호와를 성나게 하는 것’=말씀의 진리들과 선들에 맞서 죄짓는 것.

일찍이 (early)

창20:8-‘일찍’=천적인 선으로부터 있는 확증의 빛.

창21:14-‘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명백하게 지각하는 것.

창40:6-‘요셉은 이른 아침에 그들에게 왔다’=영적 평면으로부터의 천적인 것에 명백하고 계시된 것.

창41:8-‘이른 아침이 왔다’=이 새로운 상태에서...‘이른 아침’, 또는 ‘아침’=계발되는 상태.

출7:14-‘아침 일찍 바로에게 가라’=더 확증될 것 쪽으로 승강함. ‘아침’ ‘이른 아침’=계발의 상태와 계시의 상태. 여기서는 승강의 상태, 그이유가 여기서는 계발되어질 수 없고 오로지 그들의 시선 집중이 승강되는 것만 가능한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을 서술하기 때문.

계2:28-‘나는 그에게 아침 별(셋별)을 주겠다’=그런다음 총명과 지혜.

계22:16-‘나는 빛나는 셋별이다’=그때 그분은 (영적) 빛이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새로운 빛과 더불어 오실 것, 이 빛은 거룩한 예루살렘인 그분의 새 교회 앞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

일흔 (70, seventy)

일흔 번 (seventy-times)

창4:24, 마18:22-‘칠십 배’=아주 더 많이 모독함.

* 숫자 ‘70’, 이는 7 시대(ages)로 납득된다 (이는 7로부터 파생된다), 그리고 어떤 것이 최고로 거룩할 때, 또는 최고로 신성할 때를 표현하기 위한 것, 고로 ‘일흔 번씩 일곱’...이는 그가 죄지은 만큼 용서하는 것을 뜻하는바, 용서는 끝이 있지 않으리라는 것, 또는 영원하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을 뜻한다.

* 고로 라벡에 관련한 ‘칠십 칠’=지옥에 떨어짐.

창12:4-‘아브라함은 75세의 아들이었다’=신성이 아직은 그다지 많지 않음; ‘5’=매우 적음, 그리고 ‘70’=거룩인 것; 여기서의 경우, 주님께 관련해 서술하는바,

'70'=거룩한 신성.

이23:15,17-'70년'=전체 기간, 즉 교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종료되는 때 까지. 포로됨의 '칠십 년'은 이와 비슷한 의미를 포함한다.

창47:27-'칠십'=질서에서 충만한 것.

창50:3-'칠십 일'=충만한 상태; 그이유가 '70'은 7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즉 '7'=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기간, 고로 충만한 상태; 그이유가 곱해져 불어난 숫자는 가장 간단한 숫자와 같은 의미에 있기 때문.

예25:11,12, 29:10-'칠십 년'=철저하게 황폐함; 이것이 포로 신세의 '70년'에 의해 의미되었다.

단9:24-'칠십 주'가 충만한 상태, 고로 주님이 오시기 앞의 전체 시간을 표시함은 분명하다. 이로부터 그분은 시간이 다 차서 (때가 무르익음) 오셨다고 말해진다.

출1:5-'칠십 혼들'=가득인 것.

출15:27-'칠십 종려나무들'=아주 풍부한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70'=복합체 안의 모든 것, 마치 숫자 12의 의미와 같다.

출24:1-'칠십 이스라엘 장로'=선에 일치하는 교회의 중요한 진리들. '칠십'=충분한 것, 고로 모든 것들 (진리들로부터 선 안에 있는 모두).

읽다 (read)

출24:7-'그는 백성의 귀들에 읽었다'=경청함을 위해, 그리고 순종.

임마누엘 (Immanuel)

이7:14-'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취급되고 있다.

임신 (conceive, conception)

창3:16-'임신'=모든 생각.

* 말씀에서 '임신'=생각과 심정의 생산함.

창16:4-'그녀는 임신했다'=합리성의 첫 생명. '임신'=첫 생명.

임신한 (pregnant)

창16:11-'너는 임신하고 있다'=합리적 인간의 생명.

창38:24-'그녀는 간통으로 임신해 있다'=거기로부터 어떤 것이 생산되어질 수 있다는 것.

출21:22-'임신한 여인을 치는 것'=진리로부터 있는 선을 다치게 하는 것.

예31:8-'임신한 자'=진리를 받는 자.

입 (mouth)

예12:2-'당신은 그들의 입에서는 가까이 계시나 그들의 신장(reins)으로부터서는 멀리 계신다'=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

창8:11-'그녀의 입에 올리브잎이 잡아뜯겨져 있었다' '그녀의 입에'=그것이 보여졌다는 것.

창25:28-'사냥함이 그의 입에 있었기 때문에...'=그것은 그의 자연적 애착에 있었다는 것; 그이유가 말씀에서 내면인 것, 그리고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은 '심정에' 있다 라고 말해지고, 외면인 것, 그리고 진리로부터 진행되는 것은 '입에' 있다 라고, 즉 진리로부터 진행되는 자연적 애착에 있다 라고 말해지기 때문에, 사냥(또는 사슴고기)가 '이삭의 입에' 있었다고 말해진다.

창42:27-'자루의 아구'=자연 평면의 외면의 문지방.

신8:3, 마4:4-'여호와와 입으로부터의 말'=일반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 고로 지혜로부터의 모든 진리. 특별하게는 말씀.

창43:7-'그의 말들의 입에 따라서'=일치하여(동의하여).

창47:12-'유아의 입에'=순진의 품질에 따라서 각각에게.

출4:10-'저는 입이 무겁고 혀가 무겁기 때문에'=신성으로부터의 음성과 말이 들려지지 않고 지각도 안된다. '입'=음성, 그이유는 소리의 기관이기 때문.

출4:11-'인간의 입을 놓는(만든) 분...'=발언(utterance), 그이유는 '입'=음성이기 때문.

출4:12-'나는 네 입과 더불어 있겠다, 그리고 네가 발언 할 것을 가르치겠다'=신성의 인간으로부터 진행되어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신성.

출4:15-'너는 그의 입에 단어(word)들을 놓을 것'=그것이 발음하는 것들은 신성의 인간으로부터 진행하고 있다.

출16:16-'모든 이 각각은 자기가 먹는 것의 입을 위하여'=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 것 삼음.

출17:1-'여호와와 입에 따라'=주님의 섭리로부터. (그이유가) '여호와와 입'=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이 진리에 따라 그들은 인도된다.

마15:11-‘입’이 생각(thought)에 상응하기 때문에 입에 소속되는 모든 것들, 즉 입술, 혀, 목구멍과도 비슷한 상응이 있다. 그러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생각 안으로...

출23:13-‘네 입 위에서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그들은 어떤 확증과 더불어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출28:32-‘거기서부터의 한가운데에 도포의 머리의 입...’=더 높은 것으로부터 유입이 있는 곳.

계1:16-‘그분의 입으로부터 날카로운 양날의 검’=말씀과 파생되는 교리를 수단으로 주님에 의해 거짓들이 분산됨.

시103:5-‘좋은 것 가지고 만족하게 하는 것’=지식을 수단으로 이해함을 주는 것.

계9:17-‘그들의 입들로부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갔다’=그들의 생각들과 담화들 안에, 내면적으로 간주해 보면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자신의 총명, 악과 거짓의 현세에의 욕망 외 아무 것도 없다.

계9:19-‘그것들의 능력은 그것들의 입에 있었다’=그들은 신앙의 확증을 (삶으로가 아닌) 단지 대화 속에서만 강하다.

계10:9-‘네 입에서 그것은 꿀 같이 달 것이다’=주님이 구세주이시고 구속자이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의 첫 반응은 깊이 감사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

계12:15-‘뱀은 자기 입으로부터 물을 홍수 같이 내뿔었다’=풍부한 거짓들로부터의 추론들.

계12:16-‘땅이 그녀의 입을 열었다, 그리고 용이 자기 입으로 내뿔은 홍수를 삼켰다’=풍부한 거짓들로부터의 추론들은 영적 진리들이 합리적으로 이해되기 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할 것이다...‘그녀의 입을 여는 것’=이런 진리들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

계13:2-‘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다’=진리들로부터인듯 거짓들로 추론함. ‘입’에 의해 교리, 설교, 강연이 의미되는데, 여기서는 교리의 거짓들로부터 추론함이 의미된다. 그이유는 입이 있는 머리가 단지 거짓들로부터의 사악함이 의미되기 때문에서이다.

계13:5-‘그에게 큰 것들과 모독들을 이야기하는 입이 주어졌다’=그것이 악들과 거짓들을 가르치는 것. ‘이야기하는 입’에 의해 교리, 설교, 그리고 대화가 의미된다.

계14:5-‘그들의 입에서 어떤 속임도 발견되지 않았다’=그들은 교활함과 의도로부터 악과 거짓을 말하고 권유하지 않는다. ‘입’에 의해 교리, 설교, 대화가 의미된다.

계16:13-‘용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짐승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거짓 예언자의 입으로부터’=(세) 인물들에 관한 교리, 그리고 믿음 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교리 위에 기초한 신학으로부터. ‘입’에 의해 교리, 그리고 교리에서 파생되는 설교와 대화가 의미되고 있다.

계19:21-‘나머지는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검에 죽임을 당했다’=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았던 개혁 교회인들 사이에 다양한 이교 신앙으로부터 있는 모든 이는 말씀으로부터 심판이 있고 멸해진다.

예12:2,3-‘그들의 입에는 가까우나 신장으로부터는 멀다’=기억 안에만 있는 진리, 이로부터 말할 때 생각 속에만 있는 진리, 그러나 의지 안에 있지 않은 진리.

계3:16-‘나는 내 입으로부터 너를 토해내겠다’=말씀으로부터 있는 지식들로부터 분리됨. ‘입으로부터’가 주님을 서술할 경우,=말씀으로부터...그이유는 말씀=신성의 진리,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진행하기 때문. 그리고 인간에게 유입된다.

시33:6-‘그분의 입의 숨을 수단으로 천국들의 모든 군대’=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의 진리.

겔29:21-‘이것은진리가 풍부함...그러므로 말해진다, ‘나는 그들의 한가운데에서 입의 열림을 네게 주겠다.’=이를 수단으로 진리를 설교함이 뜻해진다.

삼상2:1-‘이것=신성의 진리가 한나를 채웠다는 것, 이것의 의미되는 바, 말해진다, ‘내 입은 내 적들을 맞서 팽창시켜졌다. ‘입이 팽창됨’=힘을 가지고 진리를 설교함.

단7:8-‘작은 뿔’=말씀의 글자 의미 측면을 뒤집음. 뒤집힌 이 의미는 마치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도 못할 것 처럼 나타난다. 하여 말해지는바, 그것 안에는 ‘큰 것을 말하는 입이 있었다.’ ‘입’=파생되는 생각과 용변(speech).

시133:2-‘그의 의복의 입 위에 내려오는 것’=천적 선과 영적 선의 각각의 유입과 결합. ‘의복의 입’=천적 평면과 영적 평면으로부터의 선의 유입과 결합, 고로

(옷 등등을) 입다

선과 진리의 유입과 결합.

이6:7-예언자의 '입', 그리고 '입술'=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

나3:12-'그것들은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질 것이다'=선들이 받아진다해도 오로지 기억 속으로만 받을 것이다. '먹는 자의 입'=받음이 없음, 기억에조차도 받음이 없음.

시135:17-'그들의 입 안에 바람이 없다'=그들의 생각 안에 진리가 없다.

단7:5-'입 안의 이 사이에 세 갈빗대들'=그들이 꺼내 이용하는 말씀 속의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은 글자에 따라서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입 안에'=그들이 가르침을 수단으로 (말씀 글자를 꺼내) 이용하는 것.

시37:30-'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묵상한다.' 여기서 '입'에 의해 애착으로부터의 생각이 의미되어져 있다. 그이유가 인간은 입이나 입이 내놓는 웅변이 아닌 그의 애착으로부터 지혜를 묵상하기 때문.

눅21:15-'나는 네게 입과 지혜를 줄 것이다...' '입', 여기서=이해성으로부터의 웅변, 고로 인간으로 이야기하게 하는 생각.

마15:11,17,18-'인간을 불결하게 하는 것은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글자 대로라면 갖가지 종류의 식품이 뜻해진다. 영적 의미에서는 기억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다. 생각 안으로 들어가고, 동시에 의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인간을 불결해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불결한 것이 생각 안에서 까지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서 보여지고, 불결함이 인정되고, 구별되어지고, 결국 거절되지 않으면 악들과 거것들로부터 순수해질 수 없다. (고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억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입으로부터 나가는 것'에 의해서는 의지로부터, 또는 사랑으로부터의 생각이 의미되어진다. 그이유가 심정을 수단으로 생각 속의 것이 입에 당도하기 때문, 하여 '입으로부터'에 의해서는 인간의 의지와 사랑이 의미되어진다. 고로 입에서 나가는

것은 당사자의 의지와 사랑으로부터이기에 그를 불결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시115:5, 135:16-'그들은 입을 가지고 있으나 말하지 못한다'=이런 것들로부터는 어떤 생각도 있지 않다는 것.

시119:103-'당신의 말들은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달다.' '입'=외적인 것.

이30:2-'그들은 내 입에 질문하지 않았다'=말씀으로부터가 아니고 자연적 인간의 자아로부터.

시5:9-'입 안에'=외면적으로.

이57:4-'입을 넓히는 것'=파생되는 생각으로부터의 생각.

이49:2-'여호와께서는 내 입을 날카로운 검 같이 해두신다.' 예언자의 '입'에 의해 신성의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하여 '날카로운 검'에 비교되고 있다.

입다 (put on)

옷을 주다 (clothe)

* 진리는 선에게 옷을 준다. 그러므로 진리들은 옷, 의복이라 불리운다.

이63:3-'의복(raiment)'=주님의 인간.

창27:15-'그녀는 그것들을 야곱에게 입혔다'=교통하는 것, 그리고 물드는 것(imbue).

창28:20-'입을 의복'=자기 것 되어지는 것, 그리고 결합하는 것.

예4:30-'자신의 자아를 입히는 것'=교리 속의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

출28:41-'너는 그것들을 아론에 입혀라'=의복을 수단으로 표현되어지는 상태를 야기하는(induce) 것.

계3:18-'네가 옷입혀지도록 흰 의복'=지혜로부터의 진짜 진리들을 획득하는 것.

계3:18-'입는 것(또는 옷입혀지는 것)'=총명을 획득하는 것.

마6:25-'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하지마라...의복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더냐?' '몸을 옷입히는 것, 그리고 의복'=사랑의 선을 입고(invest) 있는 진리. '의복'=그 진리. '몸'=의지 속의 선.

입다 (Jephtah)

사11장-스웨덴붉은 '입다'에 관하여 직접적인 해석을 주지

입다-입법자-입술

는 않았다. 다만 스웨덴북의 상응의 원리로 추측해 보면, '입다'는 아마도 세상적인 표준이나 거짓에 접촉된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얼마간의 단순한 진리들을 표현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적인 추론이라는 그물에 뒤엉킨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수 있고, 세상적인 추론을 구원의 도구로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입법자 (lawgiver)

창49:10-‘그리고 그의 발 사이로부터 입법자’=더 낮은 것들 안에서 (천적 왕국)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입법자’=진리들.

사5:9-‘이스라엘의 입법자’=교회의 진리들.

창49:10-‘그의 발 사이로부터 입법자’=말씀 속의 진리는 말씀의 최말단 의미로부터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신33:21-‘감추인 입법자의 뿔이 있기 때문’=그 안에 감추여 놓아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

사5:14-‘입법자들’=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추상적으로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민21:18-‘입법자’=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있는 교리 측면에서의 주님.

입술 (lip)

시63:5-‘노래들의 입술들’=영적인 것.

창11:1-‘온 땅은 입술 하나 속에 있었다’=모든 각 곳에 일반적 측면에서 한 개의 교리가 있었다.

이6:5-‘입술들’=인간의 내면들, 고로 내적 예배, 이로부터 숭배함이 있다.

창11:7-‘그들의 입술을 혼동되게 하자’=교리로부터의 진리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 ‘입술’=교리.

창11:7-‘그들이 자기 동료의 입술을 듣지 못하게’=모두가 서로 불일치함. ‘동료의 입술을 듣지 못하는 것’=타인이 말하는 것을 인정 않는 것, 그리고 내적 의미에서 타인의 교리를 인정 않는 것.

출6:12-‘입술에서 할례받지 않았음’=교리 속의 것들 측면에서 불순해 있는 것.

호14:2-‘입술들의 수소들’=교리로부터의 선들. ‘입술’=교리 속에 있는 것들.

호14:2-‘입술들의 송아지들’=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있는 고백.

말2:7-‘입술들’=진리의 교리.

이19:18-‘가나안의 입술’=교회의 진짜 진리들.

이6장-예언자의 ‘입과 입술들’=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 (=생각과 애착, 또는 이해함과 의지).

이19장-‘가나안의 입술’=교회 속의 진짜 교리적인 것들.

시81:5-‘나는 내가 몰랐던 입술들을 들었다’=교리로부터의 거짓들.

이33:19-‘입술이 타락한 백성’=진리의 외관으로 확증까지 한 교리로부터의 거짓들. ‘입술’=교리로부터의 진리. 여기서는 거짓, 그이유는 백성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

* ‘입술’, ‘입’, 그리고 ‘혀’는 자주 언급되는 편이다. ‘입술’에 의해 교리가, ‘입’에 의해 생각이, ‘혀’에 의해 고백이 의미되어진다.

겔3:5,6-‘입술이 깊은 백성’=충명하지 않은 교리 안에 있는 이들.

시140:9-‘그들의 입술들의 비행(mischief)’=교리로부터의 거짓.

이11:4-‘그분의 입술들의 넓음’=신성의 진리, 또는 영적 의미에서의 말씀.

이30:27-‘입술’, ‘혀’, 그리고 ‘여호와의 넓음’=신성의 진리, 이는 최말단으로부터 가장 깊은 측면까지에 이르러 있는 말씀.

입천장 (palate)

욥20:13-그의 내향의 품질이 ‘그는 악을 그의 혀 아래 감추고, 그것을 그의 입천장 내에 보관한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잇사갈 (Issachar)

창30:18-‘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 불렀다’=품질....그 이유가 잇사갈은 ‘보수, hire’로부터 명명되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 관하여 위에서 말한 것들, 동시에 레아의 나머지 말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잇사갈’이 ‘보수’를 뜻하는바, 외적 의미에서 ‘보수’=상호간의 사랑(mutual love). 그리고 내적 의미에서 선과 진리의 결합.

있다

창35:23-‘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레위, 그리고 유다, 그리고 잇사갈, 그리고 스불론’=신성한 외적 선들과 진리들의 필수적인 것.

창46:13-‘잇사갈의 아들들, 돌라, 부와, 읍, 시므론’=천국의 결혼 사랑과 그것의 교리적인 것들.

창49:14-‘잇사갈’=일들로부터의 보수. ‘잇사갈’=상호적인 사랑, 이것이 ‘보수, hire’, 또는 보수, recompence’이다.

사5:15-‘잇사갈’=일에 대해 보답받기를 원하는 이들.

계7:7, 신33:18,19-‘잇사갈 지파로부터 일만 이천 명이 날인되어졌다’=주님의 새 천국과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과 더불어 생활의 선. ‘잇사갈’에 의해 최고 의미에서, 진리로부터의 신성한 선과 선으로부터의 진리. 영적 의미에서 천국의 결혼 사랑, 이는 선과 진리의 결혼이다. 자연적 의미에서 보수. 그러나 여기서는 생활의 선, 그 이유는 그가 이 서열에서 셋째 순서에 있기 때문. 그리고 각 서열의 셋째는 앞의 첫째와 둘째로부터 생산된 최말단, 즉 원인으로부터 있는 결과에 해당되기 때문. 영적 사랑의 결과, 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인데, ‘시므온’에 의해 의미되고, 진리에 애착함을 통하여, 이는 ‘레위’에 의해 의미되고, 생활의 선을 생산함, 이는 ‘잇사갈’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신명기의 모세의 축복 대목에 등장하는 잇사갈의 경우도 위의 의미 자체 안에 보수를 가진 생활의 선이 의미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대목의 경우, 공적 있는 생활의 선이 의미되고 있다.

민2:3-9-‘동쪽에 유다, 잇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진영을 차렸다.’...‘잇사갈 지파에 의해 (주님을 사랑함의)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되어져 있다.

신33:18,19-그러나 자기들이 수행한 선들에 공적을 두지 않는 이들,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뜻하고 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 그들은 선과 진리에 영적으로 애착함 안에 있는 이들이다. 영적 애착은 천국의 결혼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데, 이것이 이 구절들에서 뜻해져 있다. ‘잇사갈’=진리와 선에 애착함.

있다 (be, being)

창6:13-‘하느님께서 말하셨다’=이것이 그렇게 있었다

는 것. 이는 거기서 여호와와 더불어서는 있음 밖에 더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로 분명하다.

* 있음은 있다가 중단되는 것들을 놓고서는 서술될 수 없고, 오로지 결코 있다가 중지 않는 것들로만 서술할 수 있다. 고로 생명 있음과 현재 있음은 주님 속에 있는 것들 뿐이다. 그 이유는 영원한 모든 있음과 생명 있음은 그분 속에 있기 때문.

* 다른 삶에서, 선행(charity)이 참 있음이요 인간의 생명이다. 참 있음과 생명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있고 살아 있기 전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 사랑과 더불어서는 사용되지 않고 하느님이 사용된다.

* 사랑 자체가 여호와이시다. 나는 있다, 또는 있다는 사랑 외 다른 것으로는 단언되어질 수 없다. 모든 생명의 있음, 즉 생명 자체는 이 사랑으로부터이다, 그 이유는 생명은 사랑 안에, 사랑 자체 속에 있기 때문. 그리고 여호와만이 생명의 있음, 또는 생명 자체이기, 그분으로부터 각각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들의 있음과 자기들의 생명을 가진다...천사들은 자신들 스스로부터서는 살지 못한다는 것, 오로지 주님으로부터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지각한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주님의 생명의 있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창17:3-사랑, 또는 선이 취급되는 곳에서는 ‘여호와’가 언급되고, 진리, 또는 신앙이 취급되는 대목에서는 ‘하느님’이 언급되는데, 이런 이유는 주님의 있음 자체는 사랑 속에 있고, 이로부터 파생된 있음은 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서 이다.

* 이름 여호와에 있는 철자 H는 신성한 것을 포함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있다, 또는 있음을 뜻한다.

* 있음 자체, 또는 여호와와 자비 외 더 다른 것은 없다...

창20:15-‘거주하는 것’=사는 것, 여기서의 경우 있는 것, 그 이유가 이 대목이 주님에 관련된 것을 내포하기 때문.

* 주님은 선 자체, 그리고 사랑 자체, 고로 선의 있음 자체, 그리고 천사들에 있는 사랑의 있음 자체, 그리고 그들의 지혜와 총명의 있음 자체이시다.

창21:1-‘여호와’=신성의 천적 평면, 즉 신성한 선, 또

있다

는 사랑과 자비의 있음, 선 자체이다.

창21:2-‘(사라는) 임신하여 낳았다’=(신성한 합리성이)있었고 명백히 나타나졌다는 것.

* 있음과 명백히 나타냄(Being and Manifesting)은 주님을 설명하는데 있어 주요한 단어이다. 그 이유가 그분만이 있으시고 명백히 나타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서이다. 있음과 명백히 나타냄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같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각각 그리고 모든 인물은 자기 있음을 임신으로부터 가진다, 그리고 그의 명백히 나타냄은 출생으로부터이다. 그러므로 임신이 출생에 앞서 있듯, 있음은 명백히 나타냄에 앞서 있다. 혼은 인간의 참 있음이다, 그리고 감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그의 명백히 나타남이다, 그 이유가 전자는 후자 안에서 명백히 나타나기 때문. 천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은 거듭나지고 있는 사람의 참 존재이다, 그리고 합리성과 감각적인 것에 천적, 영적 사랑이 붙어넣어질 때, 이것은 거듭나는 자의 명백히 나타남이다. 우주에 있는 각각 그리고 모든 것은 이와 같은바, 있기 위하여 임신을, 명백히 나타냄을 위하여 출생을 거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다...모든 결과는 그것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원인은 그것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적은 원인의 있음이다, 그리고 원인은 목적의 명백히 나타남이다. 원인이 결과의 있음이고, 결과는 원인의 명백히 나타남이다.

창21:3-‘(아이를) 낳는 것’=명백히 나타내는 것, 그리고 출생이 임신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출생, 또는 명백히 나타냄은 신성의 영적 평면이다, 그리고 임신, 또는 있음은 신성의 천적 평면이다, 이 구절에서 합일인 것, ‘낳는 것’=있음과 명백히 나타남 둘 모두이다.

창24:22-‘그들이 마시기를 다했을 때 (마시기를 그만두었을 때)가 되자’, 이 구절에서의 두 표현 방법, 다했을 때(had done) 또는 그만두었을 때(they left off), 그리고 ...가 되자(it came to pass)는 연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앞서 있는 행동의 목적을 포함하고, 뒤를 잇는 행동의 시작을 포함한다. 고로 여기서는 인정함이다.

창24:31-주님의 참 있음 자체는 여호와이셨다, 또는

신성한 선 자체이셨다.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주님의 참있음 자체는 여호와로부터이었다, 또는 신성한 진리 자체이었다.

창28:13-‘여호와’=주님의 신성한 있음 자체.

요1:1-4,14-‘말씀’=신성한 진리, 이는 본질에서 무한한 있음으로부터 있는 무한히 명백하게 나타냄이다.

창39:10-누군가와 더불어 ‘있는 것’=더 가까우게 결합하는 것, 또는 하나되는 것. ‘있는 것’=하나되는 것인 이유는 사물의 참 있음은 선이기 때문, 그리고 모든 선은 사랑으로부터 있기 때문, 이것은 영적 결합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가장 높은 의미에서 주님은 있음, 또는 여호와라 불리우시는데, 그 이유는 사랑으로부터 있는 모든 선은 그분으로부터 있기 때문. 만일 사랑과 선행이 교회나 천국의 있음이었다면 이는 천국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가 결합이 없다면, 합일이 없다면, 있음도 없기 때문.

창42:15-‘하나는 있지 않다’=신성의 영적 평면은 나타나지 않는다...‘있지 않다’=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가 그가 그들과 함께 있었으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43:8, 행17:28-‘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있음을 가진다’ ‘움직인다’에 의해 삶의 바깥쪽이, ‘산다’에 의해 삶의 안쪽인 것이. ‘우리의 있음을 가진다’에 의해 가장 깊은 것이 뜻해진다.

출3:14-‘나는 있는 나이다’=우주에 있는 만물에 관한 있음과 명백히 나타냄. ‘나는 있다’=있음, 그분만이 있음인바, 특정 이름을 갖도록 하고 있다. ‘나는 있다’가 두 번 언급된 이유는 한번의 언급은 있음을, 두 번의 언급은 명백히 나타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로 두 언급 중 하나는 신성 자체, ‘아버지’라 불리는 신성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아들’이라 불리는 신성한 인간을 의미한다. 그이유가 신성한 인간은 신성 자체로부터 명백히 나타냄이 있기 때문. 주님이 인간 측면 까지 신성한 있음, 여호와가 되셨을 때,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는 신성한 있음으로부터 있는 명백히 나타난 신성이다. 이로부터 분명한바, 신성한 있음은 명백히 나타냄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와도 그 자체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있다

출3:14-‘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신성의 명백히 나타남은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있는 나’=신성 자체, 그리고 신성한 인간.

출8:18-‘나 여호와’에 의해 나 만이 있는 나, 나 만이 하느님이다를 의미하고 있다.

출15:2-‘야’는 여호와로부터이다, 그리고 ‘야라 불리우는 이유는 있음이 아닌 있음으로부터의 명백히 나타남이기 때문. 그이유가 신성한 진리는 명백히 나타남, 그리고 신성한 선은 있음이기 때문.

출20:2-주님은 신성한 있음인 신성한 선으로부터 ‘여호와’라 불리우신다, 그리고 신성의 명백히 나타남인 신성한 진리로부터 ‘하느님’이라 불리우신다.

출20:21-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있다는, 그 이유가 이것은 끝이 없기 때문, 이것은 신성으로부터 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일시적인 것은 있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유한한 있음이기 때문, 그것은 더 이상은 아니다. 이로부터 분명히, 영적 의미에서 ‘복있음’은 신성으로부터 있음을 자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인간의 생명의 있음은 그의 의지이다.

출23:17-‘여호와’에 의해 신성한 있음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주’에 의해 있음으로부터의 신성의 명백한 나타남이 의미되어진다. 그 결과 인간과 더불어 있음은 선이고, 그 선으로부터의 명백히 나타남은 진리이다.

* 인간의 생명의 참 있음은 뜻하는 것, 이 뜻함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이다.

* 선은 진리의 있음이고, 진리는 선의 명백한 나타남이다. 그러므로 진리 없는 선은 명백한 나타남이 없고, 선 없는 진리는 있음이 없는 것이다.

계1:4-‘있으시고, 그리고 있으셨고, 그리고 오시는 그분으로부터’=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그리고 여호와이신 주님으로부터.

계1:4-이름 ‘여호와’는 있음, 그리고 있으신 그분, 또는 있음 자체이신 그분을 뜻한다. 이것은 또한 있으셨고 오시는 그분이시다. 그이유가 과거와 미래의 것들이 그분의 현존 안에 있기 때문.

계16:5-‘계시고, 계셨던’=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그분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었다는 것은 요1:1,2,14을 보라.

계17:8-‘네가 본 짐승은 있었고, 그리고 있지 않다’=그들과 더불어 말씀은 거룩하다고 인정되었으나 그럼에도 실지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계17:9-‘있었고 있지 않은, 그럼에도 있는 짐승’에 의해 말씀은 거절되었으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계1:4-‘있으시고, 그리고 있으셨고, 그리고 오시는 그분으로부터’=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천국과 교회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그분으로부터.

계16장-‘있으시고, 있으셨고, 그리고 오시는 그분으로부터’=무한하신 분과 영원하신 분, 그 이유가 ‘있으심’과 ‘있으셨음’은 동일하게 여호와이다. 있음, 주님을 서술할 경우, 자체 안에 있는 자체로부터의 있음이다. 그리고 명백히 나타남, 그분을 서술할 경우, 이 또한 자체 안에서 자체로부터의 명백히 나타남이다. 그리고 관계적 의미에서 명백히 나타남은 천국과 교회의 모든 것들에 있는 있음, 이는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결과되어진다.. 이 있음이 영원하신 분에 의해 뜻해진다. 있음 측면에서의 무한하신 분은 여호와에서의 있으심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명백히 나타남 측면에서의 무한하신 분은 여호와에서의 있으셨음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영원히 있음인 무한하게 명백히 나타남은 진행되는 신성, 이로부터 천국과 천국의 모든 것이 있다는. 신성의 명백한 나타남은 신성한 있음이기도 하다. 이것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천국에 관련되는 명백히 나타남이라 불리워진다.

계17:9-‘있었고, 있지 않은...짐승’=시작에서 말씀이 교회에서 받아졌고 읽혀졌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로부터 제거되고 읽혀지지 아니했다...

계17:8-‘그럼에도 있는’=여전히 존재한다, 그 이유는 그것은 신성이기 때문, 단지 모독자에 의해 거절되었을 뿐이기 때문.

* 있으신 그분, 그리고 명백히 나타내신 그분으로부터 외에 명백히 나타내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분이 하느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있음과 명백히 나타남이라 불리신다. ‘야, Jah’는 있음으로부터, 그리고 ‘여호와’는 있음과 명백히 나타남 그 자체로부터이다.

* 분리되어질 수 없는 두 가지 것은 있음과 명백히 나

잉태못함-잇다-잎-자 -자궁

타남이다. 있음은 명백히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있음은 명백히 나타남을 수단으로 어떤 것이 되어간다.

* 주님 안에서 사랑은 있음이다. 그리고 지혜는 명백히 나타남이다.

잉태 못 함 (barren)

* 불모를 보라.

잇다 (forget)

창27:45-‘네가 그에게 했던 것을 그가 잊을 때(까지)’=지연됨으로써 획득된 습관. 여기서 ‘잊는 것’=비위에 거슬리는 것이 성공적으로 철폐됨.

창40:23-‘그러나 그를 잊었다’=제거함(removal). ‘기억하지 않음’=결합 없음 일 때, ‘잊는 것’=제거함. 그이유는 결합이 없음에 비례해 제거함이 있기 때문. 망각에 주어지는 것이 역시 제거됨이라는 것.

창41:30-‘모든 풍부함이 이집트 토지에서 망각함에 주어질 것이다’=진리가 제거됨, 그리고 각 자연 평면에서 진리가 눈에 보이게 결핍됨.

창41:51-‘하느님께서는 내 모든 고뇌를 잊게 만드셨다’=시험들 이후 (악들이) 제거됨.

예18:15-악들로부터 예배가 있다는 것이 ‘내 백성이 나를 잊었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그이유가 하느님을 잊는 자는 악들 안에 있기 때문.

호13:6-‘그러므로 그들은 나를 잊었다’=교만이 이런 것들을 말살시켰다. 그리고 고로 그들의 열망, 그리고 열망과 더불어 그들의 심정은 주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

잎 (leaf)

겔47:12-‘잎’=그들이 사용하기 위해 가지는 총명. 이것이 ‘치료약’이라 불리운다. (=인류의 가르침과 거듭남을 위해 섬기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신앙으로부터의 진리.)

창3:7-‘그들은 무화과 잎을 함께 엮었다.’ ‘함께 잎을 엮는 것’=변명하는 것.

창8:11-‘보라, 그녀의 입에 뜯겨진 올리브 잎’=신앙으로부터의 진리 조금. ‘잎’=진리.

예17:8-‘푸른 잎’=신앙으로부터의 진리. 고로 이것은 선행으로부터 있는 신앙 자체.

마24:32-‘그것의 잎들이 돌아났을 때, 너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잎들’=진리들.

레26:36-‘떨어지는 잎의 소리가 그들을 추격한다.’ 이렇게 말해지는 이유는 ‘잎’=진리이기때문.

단4:12,14-‘잎’=일반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진리.

계22:2-‘나라들을 치료하기 위한 나무의 잎들’= 합리적 진리들, 이 진리를 수단으로 악과 악에서 파생된 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철저하게 생각하도록, 그리고 생각한 결론에 걸맞게 사는 쪽으로 데려와진다.

예17장-‘잎’=과학적인 것.

이1:30-‘잎들’=과학물들과 자연적 인간에 있는 진리에 관한 지식들.

단4:20-‘그것의 잎은 아름답고, 그것의 꽃은 많다’=지식들과 진리와 선에 애착함들, 그리고 파생되는 총명.

자 (rule)

이44:13-‘그는 그것에 자를 가지고 표를 한다’=어떻게 교리가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형성되어지는가.

자궁 (womb)

시11:3-‘아침의 자궁으로부터’=그분 자신, 고로 신성한 사랑, 이로부터 그분은 싸우셨다.

창20:18-‘여호와께서는...모든 자궁을 닫으셨다’= (영적으로) 임신 못함.

창25:23-‘두 나라가 네 자궁 안에 있다’=내면의 선과 외면의 선에 관련된 임신.

마24:19-‘자궁 안에 임신하고 있는 이들에게 화가 있다’=주님을 사랑함의 선으로 양육되어 왔었던 이들... ‘자궁 안에 임신하고 있는 것’=천적 사랑의 선을 임신하는 것.

창29:31-‘그분께서는 (레아의) 자궁을 여셨다’=그때부터 교회들의 교리가 왔다; 그이유가 ‘태를 여는 것’-즉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교회가 되어감, 그리고 이것은 교리적인 것들을 통하여 결과된다.

창30:22-‘하느님께서는 (라헬의) 자궁을 여셨다’=진리로부터의 선들과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인정하고 받는 자질(능력).

창38:27-‘오, 쌍둥이가 그녀의 자궁 안에 있다’=교회 속의 양쪽 것들...그이유가 ‘자궁’=선과 진리가 임신된 상태로 놓여 있는 장소, 고로 교회 속에 있는 것이 있

자고새-자디 잔-자루-자르다 -자리

는 곳이기 때문. 순수한 의미에서 '자궁'=가장 깊은 결혼적 사랑, 그 안에 순진이 있다. 그이유가 웅대한 사람 (the Grand Man) 안에서 자궁은 이 사랑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적 사랑이 선과 진리의 결혼으로부터 근원하는바...그리고 이 결혼이...주님의 왕국, 땅에서는 교회인바, 자궁에 의해 교회가 의미되어진다..그러므로 '자궁을 여는 것'=교회들 속의 파생적 교리들,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진리들과 선들을 받는 능력; 그리고 '자궁에서 나가는 것'=재출생하는 것 또는 거듭나는 것.

시58:3-'자궁으로부터 멀어짐'=교회 속에 있는 선으로부터.

창49:26-'자궁의 (축복)'= 선과 진리의 결합; 그 이유는 '자궁'=가장 깊은 결혼적 사랑; 그리고 결혼적 사랑은 선과 진리의 결합인 천국적 결혼에서 근원하기 때문, 이 결합은 '자궁'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이다. (=천국적인 선들)

출13:2-(첫 출생) 모두 각각의 자궁을 염'=선행으로부터 있는 것들; 그이유가 '자궁을 여는 것'=거듭나고 있는 이들로부터 즉각 진행되는 것, 고로 선행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

출34:19-'자궁을 여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이다'=순진의 선, 선행의 선, 믿음의 선, 모든 선은 주님 덕분에 결과된다는 것; 그이유가 '자궁을 여는 것'=주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계12:2-'자궁 안에 가지는 것'=발생되는 초기의 교리.

이46:3-'배로부터 태어남, 그리고 자궁으로부터 운반되었다.' (=교회의 시작으로부터), (=거듭나지는 이들, 그리고 거듭나야져 왔었던 이들)

호9:14-'그들에게 임신 못 하는 자궁을 주시는 것'=선과 진리의 뒤집힘. (그들은 선으로부터의 진리 대신에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자궁'=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자고새 (partridge)

예17:11-사용하려는 어떤 목적도 없이 지식들을 획득하는 이들이 취급되고 있다. 이것이 '자고새 같이 그러모으나 낚지는 않는다'에서 뜻해지고 있다.

자디 잔 (minute)

출16:14-'자디 잔 동그란 것'=처음 형성됨에 있는 진리로부터의 선. '자디 잔'은 진리를 서술하고 있다.

자루 (sack)

창42:25-'(각 사람의 은이 되돌려지도록) 각 자루 안으로...'='자연 평면 안에 저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자루'=저장소, 그릇 (receptacle)...여기서의 '자루', 특별하게=과학적인 것. 그이유가 자루는 곡식의 저장소인데, 마찬가지로 선을 저장소가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

자르다 (hew)

* 끊다(cut)를 보라.

자리 (seat)

시89:36-'그분의 자리'=그분의 왕국.

창41:40-'자리', 또는 왕좌=자연 평면. 그이유가 자리에 앉은 자가 영적 평면으로부터의 천적인 것을 뜻할 때 '자리'는 자연 평면을 뜻하게 되기 때문.

자만 (pride)

거만한 (proud)

이2:11,12-'인간의 교만한 눈들이 겸손해질 것...그이유가 만군의 여호와와 날이 거만과 으스대는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은 자아를 사랑함을 취급하고 있다.

슌2:10-'자만'=자아 사랑.

겔16:49-'자만'=자아를 사랑함.

슌10:11-'앗수르의 자만이 내던져질 것이다'=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출18:11-'그들은 그들 위에서 거만해 있어왔다'=교인들 위에 군림하려 애쓰는 힘.

이28:1-총명을 자랑으로 여김, 또는 학식 많음을 자랑함(glory)이 '교만의 왕관'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겔33:28-그들이 진리들이라고 부르는 거짓들로부터 마음이 의기양양하게 떠벌림이 '강한 교만'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2:17-자신의 총명과 지식으로부터 있는 교만의 파멸이 '인간의 자만은 파괴될 것이다'에 의해 뜻해진다

시124:5-'자만의 물들'=자아 사랑을 지지하는 거짓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거짓들,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교리로부터의 거짓들.

자비 (mercy)

자비

불쌍히 여김 (compassion)

창19:19-‘당신께서는 큰 당신의 자비를 만드셨다’=선 에 애착함으로부터의 창피해 함과 비슷한 것.

시147:11-‘그분의 자비를 기다리는 이들’=선을 사랑함 으로부터 예배하는 이들.

창24:12-‘그리고 자비를 행하시기를’=사랑의 유입.

창24:14-‘이 안에서 나는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자비 를 베푸셨음을 압니다’=신성으로부터의 사랑으로부터 결혼이 있다. ‘자비’=신성으로부터의 사랑.

창24:27-‘당신의 자비를 단념 앓으시는 분’=사랑의 유 입을 지각함. ‘자비’=사랑.

창24:49-‘지금 만일 당신께서 내 주에게 자비와 진리 를 행하고 있으시다면’=두 자질, 즉 의지와 이해함으로 부터 그들의 동의함을 조사함. ‘자비’=선, 또는 사랑 속 에 있는 것, ‘진리’=진리, 또는 신앙 속에 있는 것.

창32:10-‘저는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베푼 모든 진리 와 모든 자비들에 훨씬 못미칩니다’=선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이 상태에 있는 부끄러이 여김.

창39:21-‘그분께서는 자비를 그에게 기울어지게 하셨 다’=각각의 것 안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사랑. ‘자비’, 최고 의미에서=신성의 사랑.

창40:14-‘청컨대 나에게 자비를 행하시기를’=선행을 받음. ‘자비’=사랑, 여기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

창43:14-‘(전능하신 하느님이) 사람 앞에서 네게 자비 를 주시어...’=영적 진리가 너를 자비로우게 받을 런지 모른다는 것.

창47:29-‘그리고 나에게 자비와 진리를 행하라’=부끄 러이 여김. ‘자비를 행하는 것’=사랑의 선.

출15:13-‘당신의 자비 안에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 을 이끄셨다’=악들을 끊은 이들에게 신성의 유입이 있 다, 하여 선을 받았다. ‘자비에서 이끄는 것’=신성을 받 는 것.

출20:6-‘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심’=그들 과 더불어 선과 진리는 영원함. ‘자비’=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가 유입됨, 그리고 거듭남을 통하여 선물되어 지는 파생되는 영적 생명. 그이유가 이와 같은 것들은 자비로부터 주님에 의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행복 속

에 있기 때문.

시112:5-‘자비와 빌려줌을 가지는 것’=진짜 선행 안에 있는 이들의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호2:19-‘자비와 불쌍히 여김 안에서 약혼시키는 것’= 선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진리 들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자비’ 는 결합이 있는 이들, 그럼에도 선을 갈망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은 무지함에 있는 이들, 그럼에도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을 향해 서술되고 있다.

출28:27-‘내가 자비하기 때문에’=그분으로부터 자비로 부터의 모든 원조받음이 있다는 것.

출33:19-‘나는 내가 은총을 행한 자에게 은총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자비를 행한 자에게 자비를 행할 것이다’=신성의 진리와 선은 받는 이들에게 밝히 알려질 것이다. ‘자비를 행하는 것’=천적인 선과 진리 를 선물 받는 것. 여기서는 그것을 밝히 알려주시는 것.

출34:6-‘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그분으로부터 모든 선이 있다는 것.

시69:13-‘들으심과 사랑으로부터 도우심이 ‘당신의 자 비의 위대함을 위하여’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민6:24,25-‘악들과 거짓들로부터 보호하심, 그렇지 않 으면 유입을 제거하실 것임이 ‘여호와와 너를 지켜주고, 네 위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에 뜻하여 있다.

민6:25-‘얼굴들을 비추기를, 그리고 자비를 가지기를’= 신성의 진리로 예증하는 것, 그리고 총명과 지혜를 선 물하는 것. ‘자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얼굴들을 비추는 것에 관하여 말해지는바, 진리를 서술하게 된다.

애4:10-‘자비한 여인들’에 의해 마치 진리에 애착하는 듯 거짓에 애착함이 의미되어져 있다.

시89:28-‘나의 자비를 나는 그를 위하여 영원히 떼어 남겨둘 것이다’=그분으로부터의 신성의 선은 영원함.

자비석 (mercy-seat)

* 속죄, 속죄소(propitiatory)를 보라

자선 (alms)

마6:3,4-‘자선들’=선한 모든 일.

마6:3,4-‘자선’ 보편적 의미에서=인간이 뜻하고 행하 는 모든 선.

자비석-자선-자세히 얘기하다-자수정-자유-자유로이

눅11:39-41-‘자선을 주는 것’=사랑과 선행.

자세히 얘기하다 (recount)

출24:3-‘모세는 백성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신성의 진리를 수단으로 통보함.

자수정 (amethyst)

출28:19-‘청금석, 마노, 자수정’=선으로부터의 영적 사랑...그 이유가 흰색으로부터 맑은 하늘색=영적 선, 또는 선으로부터의 영적 사랑이기 때문. 청금석이 하늘색에 속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수정 역시 이 색깔 그룹에 속한다.

자유 (free)

자유로이 (freely)

요8:32,36-인간이 거듭나질 때, 그는 주님에 의해 선 물된 자유로부터 자신을 밀어부친다...그리하여 천국적인 자이를 받는다. 이 자이는 이후 주님에 의해 점차적으로 완전해진다. 그리고 더욱더 자유해진다. 그러므로 해서 이 자유는 선에 애착함이 되어가고, 이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에 애착함이 되어가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가진다. 이 기쁨과 애착 안에서 그는 천사들의 행복을 누린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주님 자신이 말하는 자유함이다.

요8:34-이 자유가 무엇인지는 양심이 없는 이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가 그들은 자유가 거저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악한 것을 뜻하고 행동하는 면허장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이다. 즉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종이다.’ 그들은 이 노예적 자유를 자기들과 더불어 있는 지옥의 영들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영들의 삶에 있고, 또한 그들의 사랑들과 탐욕들 안에 빠져 있는 동안, 불순하고 배설물 같은 기쁨에 의해 부추켜지면서 이를 수단으로 연발적으로 그들을 끌고 가버리는데, 이들은 이것이 자유이라고 상상한다; 이것은 지옥의 자유이다. 이 자유와 천국의 자유 사이의 차이는 전자는 죽음 속에 있고 그들을 지옥 아래로 질질 끌고 간다; 이에 반해 후자는 생명 속에 있고 그것들을 천국으로 승강되게 한다.

출21:2-‘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함 없이 그는 자유로이 나갈 것이다’=그의 일들 없이 확증한 진리의 상

태.

출21:5-‘나는 자유로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순종의 기쁨; (그 이유가) ‘자유로이 나감’=전투 후의 상태, 이는 진리가 확증되고 이식되었을 뿐의 상태이다.

출21:26-‘그는 그의 눈을 위하여 자유로이 가게 해야 할 것이다’=그는 더 이상 내적 측면을 섬길 수 없다. ‘가게 내버려두는 것’=섬김을 면제받는 것.

요8:31-36-속박됨은 그 반대 측면이 상대적으로 있지 않으면 속박되어 있다 말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선을 사랑함 속에 있는 애착으로부터 어떤 것을 행하는 자는 자유로부터 행동한다; 그러나 악을 사랑함 속에 있는 애착으로부터 어떤 것을 행하는 자는 자유로부터 행동하는 듯 자신에게 나타나나 실상 자유로부터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옥으로부터 있는 탐욕으로부터 행동하기 때문이다. 선에 애착함에 있는 자만이 자유하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이다. 이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다. ‘만일 너희가 내 말씀 안에 머문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참 진리를 알 것이고, 참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죄를 범하는 모든 이는 죄의 종이다. 만일 아들이 너를 자유하게 만든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해 있을 것이다.

요21:18-‘네가 원하는 데로 걷는 것’=자유한 가운데 사는 것. 그 이유가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부터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 안에서 살고 자유함으로부터 행동하기 때문, 그들은 주님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이다.

출25:2-‘자기 심정이 기꺼이 움직여진 모든 이 각각의...’=모든 것들은 사랑으로부터 이다는 것, 고로 자유함으로부터 이다는 것...이것이 사랑으로부터임을 명시하는 이유는 모든 자유함은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서이다; 그이유가 인간이 사랑으로부터 행하는 것은 그가 자유로부터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막4:26-28-어떤 외적 방해 요소가 없을 경우, 주님께서서는 생각함에서, 행동함에서 인간을 자유함에 있게 관리해준다. 그러면서 자유함을 통하여 그분은 인간으로 악에서 멀어지게, 선 쪽으로는 가까워지게 구부려주신다. 이 구부려주심은 너무나 부드럽고 침묵적이어서

자식-자주색-작은-작은 길

당사자인 인간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듯 여겨질뿐 주님이 자기를 위해 하시는 것인줄은 미처 눈치채지도 못한 다. 이리하여 주님은 인간의 참 생명 안으로 선을 써뿌 리시고 뿌리내리게 하신다.

출21:6, 신15:17-‘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종들’에 의해 진리 안에 있고 선 안에는 있지 않은 이들. 그리고 ‘자유한 자’에 의해 선 안에 있고, 이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자가 의미되고 있다.

자식 (offspring)

출13:12-‘짐승의 새끼’=선에 애착함. 고로 선행의 선.

계12:4-‘그녀가 낳을 아이’=새 교회의 교리.

계12:5-‘그녀의 아이는 하느님에게 붙들려져 그분의 왕좌로 올려졌다’=주님께 의해 교리가 보호됨, 그이유는 이 교리는 새 교회를 위한 것이고 천사들에 의해 지켜 보호되기 때문.

신7:13, 28:4-‘네 수소들의 자식’=그들의 외면의 애착들.

이11:7-‘어린 암소와 곰이 먹을 것이고, 그것들의 젊은 것들이 함께 누워 있을 것이다’=말씀 속의 진리들을 왜곡하려는 자연적 인간의 힘과 바램, 그리고 이것들은 자연적 인간의 선과 그것에 애착함을 다치게 하지 않을 것.

이34:1-‘세상과 거기로부터의 모든 자식’=모든 선들 측면에서의 교회.

이61:9-‘백성들의 한가운데 있는 그들의 자식’=그것에 따른 생활.

창11:30-‘사라...자식이 없었다’=약과 거짓은 더 이상 그 자체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

자주색 (purple)

* 심홍색(crimson)을 참조하라

작은 (little)

단8:9-‘작은 빨’...‘작다’고 불리는 이유는 이 (교리)는 거짓이라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

창19:11-‘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특수적 측면에서와 일반적 측면에서.

창19:20-‘(성읍은) 작다’=그가 가졌던 (진리의) 작음 으로부터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계3:8-‘너는 작은 힘을 가지고 있다’=그들은 자신들로

부터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알고 있다.

계11:18-‘작은 자, 큰 자’=보다 작고 보다 더 큰 수준 안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경외한다.

계6:11-‘그들은 아직 작은 시간 동안 휴식해야 한다’=이 상태에서 아직은 얼마 기간 동안.

시68:27-그의 순진이 ‘작은 베냐민’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마10:42-‘작은 자 하나에게 마시도록 주는 것’=순진으로 부터 순진을 가르치는 것.

출17:4-‘조금’=멀지 않은.

출23:30-‘조금씩, 조금씩 나는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질서에 따라 등차별로 제거함.

작은 길 (path)

이11:16-‘남은 백성을 위한 큰길’=질서 안으로 배열함.

창49:17-‘길’, 그리고 ‘작은 길’=진리.

* 단어 ‘사다리’, 원어에서 ‘작은 길’, 또는 길을 뜻하는 단어로 부터 파생되었다. 이는 진리를 서술한다.

이33:8-‘큰 길들이 황폐되어 있다’=진리가 더 이상 어느 곳에도 없다.

이58:12-‘거주하도록 작은 길들을 원상복귀하는 자’=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작은 길들’, 또는 ‘길들’=진리들. ‘거주하는 것’은 선을 서술한다.

창49:17-‘작은 길 위의 독사’=선에 관하여 진리로부터 추론하는 것. ‘작은 길’=진리.

호2:6-‘길들’, ‘작은 길들’=진리들.

예31:21-‘네 심정을 네가 가는 길, 큰 길에 놓는다’=삶을 인도하는 진리에 애착함.

호2:6-‘그녀는 네 작은 길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어느 진리도 더 이상 보여질 수 없다.

이33:8-‘큰 길이 황폐되어, 그 길을 따라 지나가는 자가 끊겼다’=천국으로 인도하는 선들과 진리들이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 (큰 길이 황폐됨은 더 이상 생활의 선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 자가 끊겼다’는 신앙의 진리가 더 이상 없다는 것.)

이49:11-‘길을 위해 놓이는 것’=진리들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높혀질 큰 길’=진짜 진리들 안에 있는 것. 그 이유가 ‘길들’, 그리고 ‘큰 길들’=진리들, 이는 선으로부터

작은 북-작은 뿔족탑-작은 숲-작은 책-잔

터 '높혀짐, exalted'이라고 말해진다. 그리고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은 진짜(genuine) 진리들이다.

이30:11-'길'과 '작은 길'=교회의 진리와 선.

이3:12-'작은 길의 길을 파괴하는 것'=인도하는 진리가 알려지지 않음.

사5:6-황무함이 묘사되어 있다. 즉 '길들이 끊겼다. 작은 길로 가던 이들의 구부러진 길로 갔다.' '길들', 그리고 '작은 길들'에 의해 인도하는 교리 속의 진리들이 의미되어져 있다. 그리고 '구부러진 길로 가는 것'=진리들로부터 탈선함.

이2:3-그들은 진리들 안에서 가르쳐질 것, 이를 수단으로 그들이 인도될 것이라는 것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에 관하여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길들에서 갈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길들'=진리들. 그리고 '작은 길들'=생활 속의 가르침들.

애3:9-자신의 총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진리의 유입을 돌려 거절한다는 것이 '그는 다듬은 돌 가지고 나의 길들에 올라타려 했다. 그는 내 길들을 뒤집어 엎었다'에서 의미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길', 그리고 '작은 길'은 선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의미한다.

작은 북 (timbrel)

* 북(drum)을 보라.

작은 뿔족탑 (pinnacle)

* 주님께서는 악마에 의해 높은 산 위에도, 그리고 성전의 작은 뿔족탑 위에도 이끌리셨다'=가장 극심한 시험과의 전투 안으로.

작은 숲 (grove)

* tree도 참조.

창21:33-'그는 브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었다'=그것의 지식과 품질을 지닌 거기로부터의 교리.

출34:13-'너는 그들의 숲들을 베어뜨릴 것이다'=그들의 교리적인 것들은 깡그리 거절되어 질 것이다.

* 영적 인간 등차에서는 '낙원(paradises)', 자연적 인간 등차에서는 '작은 숲(grove)', 감각적 인간 등차에서는 '그늘진 숲들(shady forests)'

예17:2-'푸른 나무를 가진 작은 숲'=거짓으로부터의 예배.

작은 책 (little book)

계10:2-'그는 자기 손에 열린 작은 책을 가졌다'=거기서 교리의 이런 문제 측면에서의 말씀, 즉 주님은 천국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인간은 신성이시다는 교리에 관련한 말씀.

* '작은 책을 받는 것'=주님에 관한 교리를 받는 것. '그것을 삼키는 것'=이 교리를 인정하는 것. '배를 쓰게 만드는 것'=왜곡함으로부터 이 교리는 불쾌해지고 귀찮아지는 것. '입에서는 꿀같이 달게 있는 것'=받음의 처음에는 깊은 감사와 즐거움이 있다는 것.

* '열린 작은 책'=명명백백해진 말씀.

잔 (cup)

이51:17-황무함의 이 상태가 여기서 '여호와와 성냄과 분노의 잔', 그리고 '전율하는 잔'이라 불리운다.

왕상7:26-가장자리(테두리)가 잔의 가장자리를 작업하는 방식으로 하여 만든 이유는 '잔'에 의해 인간의 자연적, 또는 감각적 평면으로부터 있는 과학적인 것이 의미되었기 때문.

겔26장:33-'황폐와 황무의 잔을 가지고'=교회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을 지독하게 황폐시키고 황무해지게 하는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막9:41-'내 이름 안에서 물잔을 주는 것'=조금의 선행으로부터 신앙의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

계14:10-'그분의 분노의 잔'=선이 있게 하는 진리가 왜곡되었다.

계17:4-'그녀의 손에 그녀의 매춘짓의 가증함과 불결함으로 가득한 금잔을 가지고 있다'=모독된 말씀 속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있는 광신적 신앙, 그리고 끔찍한 거짓들에 의해 더럽힌 선들과 진리들로부터 있는 광신적 신앙.

시23:5-'내 잔이 그득합니다'=진리들로부터 있는 총명. 그이유가 '잔'은 포도주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18:6-'그녀가 혼합한 잔 안에서 그녀에게 두 배로 혼합하라'=그들이 진리를 모독한 것에 비례한 응보.

창40:11-'바로의 잔이 내 손에 있었다'=내면적 자연의 유입이 외면의 자연 안으로 있다, 그리고 받음이 시작된다...'잔'=담고 있는 것, 동시에 담아지는 것.

창40:13-'당신은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바칠 것이

잔인한-잔치-잘-잘못-잠자다

다'=그것들은 내면의 자연 평면을 섬길 것이다. '마시는 잔을 주는 것'=자기 것으로 삼는 것, 또한 섬기는 것.

창44:2-'내 잔, 은잔을 너는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아구에 놓아라'=매체에게 주어진 내면의 진리. '은잔'=선행의 선으로부터 있는 신앙의 진리. 이 잔이 요셉의 잔인 바=내면의 진리.

출25:31-'(등잔 촛대 등등의) 받침대(사발,bowl)'=자연인 것 안에 있는 영적인 것...그이유는 그것들이 촛대로부터의 생산물, 마치 손바닥이 몸체로부터 있는 것과 유사하다.

출25:33-'세 사발들을 아몬드 같이 만들었다'=선으로부터 과학물 측면에서 가득한 것...'사발들'=선행의 선으로부터 있는 과학적 진리들.

암6:6-'그들은 포도주의 사발로부터 마신다'=외적인 진리들로부터 예배가 있다

잔인한 (cruel)

이13:9-'여호와와 잔인한 날'=마지막 심판.

신32:33-'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 독사의 잔인한 담즙(gall)이라 불리운다'=야곱의 후손들 사이에 있는 교회로부터의 진리는 내부에 악들과 거짓들을 포함하는 외적인 것 뿐이었다.

예6:23-그들에게는 진리를 사랑함은 조금도 없었고 거짓을 사랑함만이 있었다는 것 '이 백성은 잔인하다, 그리고 자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잔치 (feast)

* 축제(feast)를 보라

잘 (well)

창40:14-'그것이 당신과 잘 있을 때=상응이 있을 때.

잘못 (error)

헤매다 (wander)

창21:4-'그녀는 나갔고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다'=신앙의 교리적인 것들에 있는 불규칙한 상태...이 구절에서 개혁되고 있는 이들이 맞는 처음의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즉, 그들은 여러 가지 잘못들 안으로 데려가진다는 것,,어쨌든 그때에 들어간 것이 잘못투성이 일지라도 여전히 (신앙의) 성장을 증진하는데 한몫 한

다는 것.

시107:4-선에 관해 무지함 안에 있는 이들에 관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다'로 서술되어 있다.

창37:15-'오, 그는 들판에서 헤매고 있었다'=그는 교회의 일반적 진리로부터 변절되었다는 것.

창43:12-'아마도 이것은 잘못(실수)이었을 것이다'=그에게 반대가 되지 않도록. '잘못'=반대인 것.

이32:6-'위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잘못을 말하는 것'=거짓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으로부터 거짓을 말하는 것.

이28:7-'그들은 포도주를 통하여 잘못하고, 독주를 통하여 비틀거리 헤매다'=거짓들을 통하여, 그리고 거짓들로부터 있는 이것저것들을 통하여...'그들은 보는 그것들 사이에서 잘못하고 있다'=그들은 총명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

마18:12-'헤매는(길잃은) 양'=사랑의 선, 그리고 선행의 선 안에 있지 않은 자, 그이유는 무지함으로부터 그는 거짓들 안에 있기 때문. 그이유가 선은 진리로부터 있기에 거짓들이 있는 곳에는 선이 없기 때문.

잠자다 (sleep)

졸림 (somnia)

잠오는 (soporiferous)

창2:21-'깊은 잠'=자신이 자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이 놓여지는 상태, 이런 상태는 최면에 걸린 듯 비몽사몽하는 것과 같다. 이 안에서 인간은 자기가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자신으로부터라고만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그는 잠으로부터 일어나고 깨어 있는다.

창15:12-'깊은 잠이 아브람에게 떨어졌다'=그당시 교회는 어둠에 있었다는 것.

시3:5-'드러누워 잠자는 것'=고요와 안전의 상태.

마25:5-'잠드는 것'=의심을 품는 것.

창41:5-'그는 잤다'=희미한 상태; 그이유가 '잠자는 것'=희미한 상태; 더구나 잠은 영적 의미에서 이외 다른 뜻은 없다. 그이유가 진리 측면이 희미한 상태일 경우 이는 영적인 잠이기 때문이다.

출22:27-'그 안에서 그는 잠잔다'=그것들 위에 있는

(붙)잡다-잡아떼다-잡초-장-장대-장대함

조용함. '잡자는 것'=정지, 무활동, 여기서는 외적 감각 평면의 무활동.

마8:24-이 상태에서 주님은 안계신듯 나타나 있는바, (이것이) '그분은 주무시고 있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겔34:25-'숲에서 잡자는 것'=악의 현세에의 욕망 사이에 있을 지라도 그것의 침투로부터 안전해 있는 것.

마27:52-구덩이들 안에 있는 이들이 '잡자던 자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창28:16-'아굽은 잠에서 깨어났다'=예증. 그이유가 '잡자다'=상대적으로 희미한 상태이기 때문.

창31:40-'내 잠은 내 눈으로부터 쫓겨났다'=시험들.

창2장-인간의 '잡자다', 그리고 '잠에 빠지다'에 의해 그의 완전한 무지가 의미되어져 있다.

(붙)잡다 (apprehend)

창19:16-'사람들은 (롯의) 손을 잡았다'=주님께서 악들을 강력하게 억누르셨다.

창48:17-'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힘 안으로 유입이 있음.

출22:5-'(불이) 가시나무들을 잡을 것이다'=그 자체를 거짓들 안으로 운반하는 (성냄). '잡는 것', 악의 애착으로부터 있는 성냄에 관해 말해질 때=그 자체를 운반하는 것, 고로 불을 붙이는 것.

잡아떼다 (pluck off)

출32:2-'금귀고리를 잡아떼는 것'=여러가지 것들을 떼어냄.

출33:6-'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들의 장신구를 잡아떼다'=외적인 것들 안에서 신성의 진리를 박탈함.

잡초 (weeds)

* flag(은2:5)를 보라.

장 (curtain)

* 커튼(curtain)을 보라.

장대 (stave)

은2:6-'땅의 장대들'

출25:13-'너는 싯딤 목재로 장대를 만들어라'=거기로부터 있는 힘(power). '장대'=선으로부터의 진리 속에 있는 힘.

출25:15-'장대는 궤의 고리들 안에 있을 것이다'=힘은

선과 진리의 신성한 기운으로부터 꾸준히 남아있을 것이다.

출27:6-'너는 제단을 위해 장대를 만들어라'=선의 상태 안에서 함께 붙잡는 힘.

출30:4-'장대를 위한 용기'=거기 선으로부터의 진리의 힘. '장대'=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힘.

출30:5-'너는 싯딤 목재로 장대를 만들어라'=주님을 사랑함의 선으로부터 있는 힘.

이43:14-'그들의 막대기(bar)를 아래로 내던지는 것'=거짓으로부터의 그들의 원리들.

* 궤는 장대를 가지고 운반되어졌다'=신성한 힘, '팔'도 같다.

장대함 (magnificence)

삼상4:8-'누가 이런 장대한 신들로부터 우리를 구할 것인가?'

겔17:8-'장대한 포도나무'=내적 교회.

겔17:23-'장대한 삼목'=영적 교회.

시145:5-네 영광의 장대한 영예'=신성의 선이 신성의 진리에 하나되었다.

이24:14-'여호와의 장대함 때문에...'

이2:12-장대하고 높은 모든 이='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안에 있는 이들.

이33:21-'장대한 배(ship)='자아로부터의 지혜, 그이유는 이로부터 인간이 영화로워지고 자랑해대기 때문.

시93:4-'많은 장려한 물들의 음성들'=신성의 진리들.

슥11:3-'잘려함'=교회의 선.

겔24:25-거짓들과 악들에 맞선 신성한 진리의 힘으로부터...'여호와의 강함의 장대함'이라 불리운다.

장막 (tabernacle)

* dwell, tent도 참조.

레23:39-44, 신16:13, 호12:9-태고 교회가 주님께 의해 더 사랑되었기에...그리고 또한 그들은 자신들에 의해 홀로 살았기 때문에,,,그리고 자기들의 천막 안에서 아주 거룩한 예배를 거행했었다, 그러므로 천막은 모독되어져 왔었던 성전 보다 더 거룩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고자 장막의 절기가 제정되었다. 그들이 토지의 소출을 그러모을 때, 태고인들 같이 그들은 천막에서 거주했다.

장막-장모-장사하다

시27:5-‘그분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그분은 나를 숨길 것이다’=신성한 선 안에서 간직되는 것, 그리고 악들로부터 보호되는 것.

시15:1-‘누가 당신의 장막에 거할 것입니까?’ ‘장막’에 의해 사랑의 선 측면에서의 교회가 의미된다. 고로 사랑의 선도 의미된다.

시61:4-‘나는 당신의 장막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사랑의 신성한 선 안에 있는 것.

이33:20-사랑의 선 그리고 교리 속의 진리 측면에서의 천국과 교회가 ‘조용한 주거지, 그리고 무너져 내리지 않을 장막’이다. ‘결코 제거되지 않을 말뚝’=신성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강화됨.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끈’=신성의 선을 통하여 결합.

예10:20-‘내 장막은 황폐되어 있다’=더 이상 어떤 선도 있지 않은 교회.

예6:3-‘그들이 그녀에 맞서 장막을 칠 것이다’=교회를 황폐하게 하는 악들과 거짓들.

호9:6-거짓으로부터의 악들이 모든 그들의 선을 파괴할 것임이 ‘가사가 그들의 장막 안에 있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호12:9-‘그럼에도 나는 네가 장막 안에 거주하게 만들 것이다’=그럼에도 그들은 선이 있는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호12:7-‘유다의 장막들’=말씀으로부터의 선들, 그리고 교회로부터의 선들.

시19:4-‘하늘들에 그분은 태양을 위해 장막을 세우신다’=사랑의 선으로부터 주님의 천국 안에.

시91:9,10-‘주택’에 의해 진리들 측면에서의 천국과 교회, 그리고 ‘장막’에 의해 선들 측면에서의 천국과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시52:5-그는 교회의 모든 선으로부터 추방되어짐에 틀림 없다는 것이 ‘그는 너를 장막으로부터 잡아 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마17:4-‘나는 여기에 세 장막들을 짓겠습니다’...‘장막들’에 의해 사랑의 선으로부터, 그리고 이 선에서 파생되는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이 의미되고 있다.

장모 (mother-in-law)

시어머니 (mother-in-law)

마10:35-‘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맞서’=선에 맞서 거짓에 애착함. ‘시어머니’=악에 인접한 거짓.

장사하다 (trade)

상인 (trader)

상거래 (trading)

겔27:19-‘장(fair)’, 그리고 ‘상거래(trading)’=진리와 선을 획득함.

창34:10-‘너희는 이 토지에서 상거래를 하러 가라’=일반적인 것으로부터의 교의들(dogmas). 그이유가 ‘장사하는 것’=자아를 위해 지식들을 포획하는 것, 또한 그들과 교통하는 것.

창37:28-‘상인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진 이들. 그이유는 이것들이 영적 의미에서 재물과 상품이기에 때문. 이로부터 ‘장사하는 것’=이런 지식들을 전달하고 획득하는 것.

창42:34-‘너희는 장사하면서 토지를 통과하여 갈 것이다’=고로 진리들은 선으로부터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실 모두는 사용과 이익을 위해 되돌려져야 할 것이다. 그이유가 ‘장사하는 것’=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고로 교회의 진리들을 자신을 위해 포획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진 이들이 ‘상인들’이라 불리운다. 그러므로 ‘장사하면서 토지를 통과하여 가는 것’=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부지런하게 추구하는 것.

겔27:21-‘상인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진 이들, 그리고 그것들을 전달하는 이들.

마25:16,17-‘장사하는 것’, 그리고 ‘얻는 것’=진리들과 선들을 획득하는 것.

겔17:4-‘그는 그것을 장사하는(traffic) 토지로 운반했다’=그는 파생된 (영적) 지식들에 (자연적) 지식들을 응용했다. ‘장사하는 토지’=지식들을 가진 자연적 인간.

겔27장-‘상거래’, ‘상품’=거짓들을 획득하고 전달함.

눅19장-그들의 ‘장사’=천국의 총명을 획득하고 포획함.

겔29:14-바드로스가 ‘장사하는 토지’라 불리운다=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포획할 (영적) 지식들로부터. ‘장사하는 것’=(영적) 지식들을 획득하고 전달하는 것.

겔16:29-‘상거래의 토지’=거기로부터 모든 거짓들이 포획되어졌다.

장소-장식품-장애물

마13:45-‘아름다운 진주들을 얻으려고 하는 상인’=선들과 진리들을 자신들을 위해 획득하는 이들, 이것들을 통하여 천국과 교회가 있다.

장소 (place)

* situation, space도 참조.

창24:25-‘방(room)=상태

마24:15-‘거룩한 장소에 서있다’=선과 진리의 모든 것에서 황폐됨. ‘거룩한 장소’=사랑과 신앙의 상태.

창28:16-‘여호와께서 이 장소에 계신다’=신성이 이 상태 안에 있다.

출3:5-‘네가 서있는 장소’=여전히 그가 있는 상태.

출3:8-‘가나안족과 헷족의 장소로’=거짓들로부터의 악들에 의해 점령된 영역.

출15:7-‘당신이 거주하실 장소에’=신성으로부터 있는 선의 상태. 그 이유는 천국이 뜻해지기 때문.

출23:20-‘내가 준비한 장소로 너를 데려오는 것’=사랑으로부터의 선과 신앙으로부터의 선에 따라 천국 안으로 받아들임.

계6:14-‘그들의 장소로부터 이동되어지는 것’=물러나는 것.

계12:6-‘하느님이 예비한 장소’=그당시 이 교회의 상태.

계12:8-‘그들의 장소는 천국 안에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그들은 천국과 결합됨으로부터 떼어내 내던져졌다.

나3:17-‘그들의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다’=(진리와 선이) 남아있지 않다.

이60:13-‘주님의 발이 있는 장소’=천국과 교회의 모든 것들. 그리고 세부적 의미에서는 교회.

예42:18-‘너는 이 장소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교회의 어떤 것도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

장식품 (ornament)

겔16:17-‘금, 은으로 장식한 집기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이3장-다양한 옷들과 시온의 딸들의 장식품이 여기서 열거되고 있다=일반적, 특수적 측면의 모든 선과 진리.

이3장-천적 교회의 영적, 천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장식품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예4:30-‘심홍색으로 자신을 옷입히고, 금장신구로 자신을 꾸미는 것’=천적 근원으로부터 교리의 진리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생활의 선들, 결과적으로 말씀으로부터 진리들과 선들을 가르치는 것.

출33:4-‘어떤 사람도 자기 위에 장신구를 놓지 않았다’=신성이 결핍된 것에서 있는 그들의 외적 측면의 품질. ‘장신구’=외적 측면에 있는 신성.

이3장-그들의 장식품들에 의해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이 의미되고 있다.

삼하1:24-‘의복에 장신구를 다는 것’=진리들이 선으로부터 아름다워지게 하는 것.

겔16:11-‘그를 꾸며준 장식품’=일반적으로,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 그리고 파생되는 총명.

장애물 (stumbling-block)

예6:21-‘나는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놓아두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선과 진리를 악용함. ‘아버지’=선들, ‘아들’=진리들.

시119:165-악들과 거짓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마13:41-악한 자가 선한 자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 ‘천사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그러 모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겔14:4-거짓들에 애착되어지고 그것들에 사는 것이 ‘그의 얼굴 앞에 불법의 장애물을 놓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장인 (father-in-law)

* 시아버지(father-in-law)을 보라.

장자 (primogeniture)

* 첫 출생 (first-born)을 보라.

재 (ash)

창18:26-‘저는 먼지요 재입니다’=인간의 굴욕(면목 없음, 창피함).

겔27:30-‘먼지에서 자신을 굴리는 것’=거짓인 것 때문에 정죄되어지는 것.

출27:3-‘너는 재를 받아 가져가기(sift)위해 냄비를 만들 것이다’=사용 후 제거하는 동인(agent)들. 그 이유가 ‘재’=사용 후 남아있는 인간의 바깥쪽 기억, 자연적 수준의 기억 같은 것이기 때문, 그리고 이것이 제거되어

장인-장자 -재-재다

져야 한다. 이는 그것들이 옮겨지지 않으면 그 뒤를 이어 있는 다른 것들의 지위에 서있는 셈인바, 다시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는바 그러지 않도록 제거되어야 한다.

출27:3-이런 사용에 충당된 과학적인 것들이 제거되어야 하는 '재'로 의미되어 있다. 그리고 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들의 사용을 통하여 인간은 영적 삶을 달성한다. 즉 생명을 빨아들이는 것, 이것이 '재단의 재'에 의해 의미되는데, 이것 역시 제거되어야 한다...

출27:3-'재' 반대 의미에서=자아사랑의 불에 의해 작업되어져 살라짐 이후 남은 것, 정죄된 것.

왕상13:3-'재단이 찢기우고 그 위의 재가 쏟아질 것이다'=어떤 예배이든 있지 않았다는 것.

예6:26-'자신을 삼베로 띠로 두르고, 그리고 재에서 자신을 뒹굴고...'=교회의 선과 진리가 파멸됨 때문에 고통함.

마11:21-삼베옷과 재에서 회개를 수행하는 것=신성한 진리를 받지 않음 때문에, 그리고 길가에 버티고 있는 거것들과 악들 때문에 슬프고 애통함.

겔27:30-'재에서 자신을 궁글리는 것'=(자신의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쓰는 것 보다) 더 심도 있는 슬픔. 그 이유가 '재'=정죄되는 것, 그이유는 재를 생산하는 불이 지옥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

출9:8-'불가마의 재'=탐욕들로부터의 거것들

출9:8-'재'=거것.

재다 (measure)

치수 (measure)

겔45:10-14-이 구절들에서는 여호와의 거룩한 것들의 치수들(ephah, bath, homer, cor)을 수단으로 여러 가지 거룩한 것들이 의미되고 있다.

창6:15-그와 더불어 리메인스(remains)가 치수(cubit)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창26:12-'그는 그 해에 수백의 치수(분량)을 발견하였다'=풍부함...'치수'=진리 측면에 관련한 것들의 상태.

창43:34-'다섯 치수 '=많이 증가되었다...'치수들'=선으로부터의 진리의 상태.

눅6:38-모든 이 각각의 치수는 메워져야(infilled) 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신다: '주라, 그리고 그것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좋은 치수, 눌러 담고, 흔

들고, 넘치게 되어 네 품 안으로 줄 것이다.' 이런 구절로부터 충만된 상태가 뜻하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출16:18-'그들은 오멜로 잦다'=선을 받음으로부터의 힘.

출26:2-'모든 커튼들을 위해 하나의 치수'=사물의 같은 상태. '치수'=진리 측면에서의 어떤 것의 상태.

속2:1,2, 겔40-42-치수에 의한 두 성경 구절의 의미는 거의 같다. 치수가 진리 측면의 것과 선 측면의 것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면, 이런 치수들의 언급은 있지 않았을 런지 모른다.

욥38:5-땅의 치수들=선과 진리의 상태들.

계11:1-'재는 것'=선과 진리의 양과 질을 아는 것. 그러므로 '성전과 재단을 재라', 뿐만아니라 '그것에서 숭배하는 이들'도 재라고 말해진다...'재는 것'=진리와 선 측면의 것의 상태를 아는 것.

출16:36, 겔45:11,13,24-이외에도 다른 치수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한 치수는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마른 것을 재는 치수, 또 하나는 액체를 재는 치수이다. 마른 것에 대한 치수는 '호멜', 그리고 '오멜'이다. 그리고 액체를 위한 치수로는 '고르'와 '밧'이 있다; 호멜은 열 에바, 에바는 열 오멜 분량이다; 그리고 고르는 열 밧인데, 밧은 더 적은 열 분량이다.

겔45:13,14,24, 46:5,7,11,14-새 성전이 취급되는 에스겔서의 이 문맥에서는 에바와 밧의 치수가 열로 나뉘지 않고 여섯으로 나뉘고 있다; 힌은 에바에 상응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여기서는 천적 선과 그것의 결합에 관한 것이 취급되지 않고 영적 선과 (그것의) 결합이 취급되기 때문. 영적 왕국에서 숫자,12,6,3은 상응하고 있는데, 그이유는 그 숫자들에 의해 모든 것들이 의미되기 때문; 그리고 진리들과 선들을 서술할 때, 복합체에서 있는 진리와 선의 모든 것들을 서술할 때 (이 숫자가 사용된다).

마13:12, 25:29, 눅6:38-적은 애착과 갈망함을 가졌다면 받는 것도 적다. 가진 수준 내에서 받는 것이다. 많은 애착과 갈망함을 지니면 그만큼 많이 받는다. 애착과 갈망함의 수준 자체는 충만해짐 쪽으로 증가하는 치수와 같다. 치수(분량)가 큰 자에게 증가함이 더하다. 작은 것을 가진 자에게는 덜하다. 이러한 이유는 애착

재생-재앙-재촉하다

과 갈망함이 속해 있는 사랑은 그 자체에 일치함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음에 비례하여 받는 분량도 있다. 이것의 주님의 말씀, 즉 '가진 자에게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풍부하게 할 것이다; '넉넉한 치수,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하여 품 안으로 줄 것이다'에 의해 뜻해져 있다.

계11:1-'일어나라, 그리고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숭배하는 이들을 재라'=그는 새 천국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보고 알아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

계21:15-'도성, 그리고 그것의 문들, 그리고 그것의 벽을 재는 금빛의 갈대'=사랑의 선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 즉 주님의 새 교회의 교리 측면, 그리고 입문을 가능하게 하는 진리들, 그리고 그들을 있게 하는 말씀 측면에 관련하여 그 교회의 품질을 알고 이해하는 능력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계21:16-'그리고 그가 도성을 잿더니 12000필롱이었다...'=교리로부터 이 교회의 품질이 보여지는 것...'갈대로 재는 것'은 어떤 것의 품질을 아는 것이 의미된다. 그리고 천사가 그것을 요한 앞에서 잿을 때, 이는 그가 알도록 하려는 것이 의미되어져 있다.

계21:16-'사람의 치수, 이 치수는 천사로부터 있다'=이 교회의 품질, 이 품질은 천국과 하나를 만든다. '치수'에 의해 어떤 것의 품질이 의미되어진다.

이40:12-여기서 재는 도구들에 의해 천국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과 진리의 품질에 따라서 정확히 배열하고 평가함이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의 재는 도구들은 '한웅큼(handful)', '한 뺨(span)', '세 손가락들로부터의 치수, a measure [of three fingers], triental', '접시 저울(scale)', '막대 저울(balance)'이다.

이28:25-'쟁 밀, 지정한 보리, 지정한 귀리'=생활의 사용에 선과 진리를 응용하는 것.

속2:2-'예루살렘을 재는 것'=새 교회를 탐사하는 것, 그로부터 새 교회의 양과 질이 무엇일지를 아는 것.

합3:6-'그는 서서 땅을 잿다'=교회의 품질을 조사하는 것.

이40:12-신성의 진리를 수단으로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부터 천국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열함이 '누가 그분의 손 웅큼으로 물들을 잿냈느냐'에 의미되어져 있다.

요3:34-'치수로 재어 주시지 아니함(한량 없이 주심)'=인간들의 양과 질을 넘어서, 고로 무한하게.

시39:4-'나로 하여금 나의 끝, 내 날들의 치수가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그는 자기 생명의 상태와 그것의 품질을 알리지 모른다는 것, 고로 생명의 어떤 품질이 자기와 더불어 남아 있는지를 알리지 모른다는 것.

예22:14, 예13:25, 이45:14-'치수들'=어떤 것의 품질.

겔4:16-'그들은 무게를 재어 빵을 먹을 것이다...그리고 재어서 물들을 마실 것이다'=선과 진리의 결점, 이로부터 악들과 거짓들에 저항함에 결점이 있다.

재다 (mete out)

이40:12-'뺨으로 하늘들을 재는 것'=거기로부터 천국들을 배열하는(ordinate) 것.

재물 (mammon)

눅16:9-'부정한 재물'이란 악한 자에 의해 소유된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이 뜻해진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위엄함과 재산을 포획하는 것에만 사용한다.

눅16:9-'부정한 재물'에 의해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올바르게 소유하지 않는 이들, 그 지식들을 생활에 응용하지 않는 이들이 뜻해진다.

눅16:9-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설사 악들에 응용되었다 해도 그것들은 여전히 지식들인바, 이는 선들에 응용함으로 선한 자와 더불어 사용됨도 섬긴다. 이것이 '부정한 재물'에 의해 뜻해져 있다.

재생 (rebirth)

* 다시 태어남(born again)을 보라.

재앙 (plague)

* 재앙=황폐함

창12:17-'재앙으로 치는 것'=파괴되는 것.

속14:15-'말, 노새, 낙타, 나귀에 대한 재앙'=재앙으로 영향받는 지적인 것들.

출9:14-'나는 모든 재앙을 보낼 것이다'=와지는 악들 전부가 다함께 그들에게 돌진할 것이다.

출11:1-'그럼에도 재앙 하나가 (더)'=마지막 황폐해짐.

출12:13-'너 위에 파괴함의 재앙은 없다'=지옥으로부터의 저주는 흘러들지 않을 것이다.

출12:23-'이집트 위에 재앙을 내리는 것'=선행으로부터

재생-재앙-재촉하다

분리된 신앙 안에 있어 왔던 이들이 지옥에 떨어짐.

출21:22-‘아이를 가진 여인을 다치게 하는 것’=진리로 부터 있는 선에 상해를 입히는 것.

출21:25, 눅10:30-‘매질에는 매질로’=소멸되어지는, 또는 상해받는 지적 평면에 있는 애착의 어떤 것. ‘매질, stripe’, 원어에서는 ‘(상처로부터의) 핏덩이(gore)’를 뜻하는 단어로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이로부터 ‘매질’=상처 당한 진리, 또는 소멸되는 진리. 이것이 계시록 등등에 있는 재앙들에 의해 의미된다. 그리고 눅10장에서 강도가 가한 ‘상처’에 의해서도 의미되고 있다... 사마리아인이 그의 상처를 짜냄=상처받은 애착의 치료.

이30:26-‘그들의 상처로부터의 타격’=거기로부터 있는 생활로부터의 악.

신25:3-‘매질 40대’=형벌이 충분함.

출30:12-‘재앙’=악의 형벌.

계9:20-‘이 재앙들에 의해 죽지 않은 자’=환상의 추론들로부터, 자아 사랑, 자기 총명의 교만으로부터, 그리고 현세에의 욕망으로부터 영적으로 죽지 않은 이들.

계11:6-‘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부수는 것’=갖가지 종류의 거짓들과 악들을 수단으로 교회에 파멸을 가져오게 하는 것.

계13:3-‘죽게 할 정도 였던 그의 상처가 치료되어졌다’=교리의 이 머리가 치료됨.

계15:1-‘일곱 마지막 재앙들’=교회 안에 있는 악들과 거짓들, 이는 교회의 마지막 상태 같다. ‘재앙들’=사랑 속의 악들, 그리고 신앙 속의 거짓들.

계15:6-‘일곱 재앙들’=넓은 측면에서(보편적으로) 이해한 모든 악들과 거짓들.

계15:8-‘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들’=교회를 황폐케하고 교회의 끝장을 맞게 하는 악들과 거짓들.

계16:9-‘이 재앙들 위에서 권능을 가지는 것’=그분으로부터 사랑의 모든 선과 신앙의 모든 진리를 수단으로 악들과 거짓들이 제거됨.

계16:21-‘그것의 재앙들은 극도로 크다’=믿음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궤변을 확증함으로부터 있는 이런 끔찍하고 흉악한 거짓들 때문에.

계18:4-‘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마라’=그들이 멸하지 않도록. 그이유가 ‘재앙들’에 의해 악들과 거짓

들이 의미되기 때문. 동시에 그것들을 수단으로 파멸됨을 의미하기 때문.

계18:8-‘하루 동안에 그녀의 재앙들은 온다’=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들이 행한 악들의 형벌이 그들 위에 되돌아 올 것이다.

계22:18-‘하느님께서서는 이 책 안에 씌어진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이 책 안에서 묘사된 재앙들에 의해 의미된 악들과 거짓들로부터 멸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눅10:30-‘때리는 것’=마음과 영적 생명을 거짓들을 가지고 상해를 입히는 것.

신25:3-개혁이 형벌로 이어질 때, ‘그는 많은 매질로 쳐죽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진다.

이1:6-‘부상과 상처자국, 그리고 새로운 상처’=의지 속의 악, 그리고 파생되는 생각 속의 거짓들, 계속적으로 더...

재촉하다 (urge)

창19:3-‘그는 그들을 심하게 재촉했다’=[인간이] 정복할 때 시험의 상태.

창19:9-‘그들은 사람에게 졸랐다(pressed)’=그들은 진리에 폭력을 제공하기를 원했다.

창33:11-‘그는 그에게 재촉했다’=...애정 자체가 그것 안에 영감 되었다.

출5:13-‘강제 징수자가 재촉했다’=가장 가깝게 밀착되어 감염되게하는 이들이 재촉했다.

재출생 (rebirth)

* 다시 태어남(born again)을 보라.

잿물 (lye)

* 소다(soda)를 보라.

쟁기 (plough)

쟁기로 갈다 (plough)

창45:6-‘쟁기로 감도, 수확도 없을 것이다’=선의 나타남, 파생된 진리의 나타남도 없다. ‘쟁기로 감’=진리들을 받기 위해 선으로부터 준비함.

신22:10-‘쟁기질함’이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받기 위해 준비함인바, 수소와 나귀를 함께 해서 쟁기질을 하는 것이 급해졌다...‘소로 쟁기질 하는 것’=자연 평면에 있

저녁

는 선, '나귀로 쟁기질하는 것'=자연 평면에 있는 진리...(그리고) 천사들은 선과 진리에 관하여 분리된 생각을 가질 수 없다....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쟁기질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눅9:62-'자기 손을 쟁기에 놓고 뒤를 향해 보는 자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배설되지 못한다'=선 안에 있는 자는 (선을 돌보지 않고) 신앙의 교리물 속에 있는 것들에 의지하려 해서 안된다.

왕상19:19-21-쟁기를 잡고 있는데 뒤를 쳐다보지 않아야 하기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가 먼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키스를 하게 해달라고 하자, 가라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했는가를 위하여 되돌아 오라고 말하여 불유쾌해했다

예26:18-'반대적 의미에서' 쟁기로 감'=선을 파괴하는 악, 고로 황폐됨.

출34:21-'쟁기로 가는 것과 수확을 모으는 것에서 너는 쉴 것이다'=진리를 선 안에 이식함에 관하여, 그리하여 받음. '쟁기로 감'=선 안에 진리를 이식함.

이28:23-'농부(plougher)가 씨를 뿌리기 위해 온종일 쟁기질만 할 것이냐?...'=...교인의 개혁과 거듭남이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뿌려지는 씨는 신앙 속의 진리를 의미한다.

신22:9-11-'쟁기질하는 것', 비교함으로부터가 아니라 상응으로부터,=일반적 측면에서 교회의 첫 순위되는 것, 세부적 측면에서 거듭나는 모든 이 각자에게 첫 순위되는 것. '소로 쟁기질하는 것'=선을 수단으로 준비하는 것, '나귀로 쟁기질 하는 것'=진리를 수단으로 준비하는 것. 천적 왕국에 있는 모든 이들은 선의 상태 안에 있다. 그러나 영적 왕국에 있는 모든 이들은 진리의 상태 안에 있다. 이 두 상태에 있는 이들은 피차 서로 두 왕국을 오가며 살지 못한다. 이 의미가 이 구절들에 담겨 있다.

암6:12-'그는 수소들을 가지고 쟁기질을 할 것이냐?='선에 관한 어떤 지각이 있느냐?

이28:23-'뿌리기 위해 쟁기질 함'=배우는 것.

암9:13-15-'쟁기질하는 자가 수확자까지 이르르는 것'=선을 받는 자가 선용(use) 또한 수행하는 것. 고로 그것들은 교인들과 더불어 있다는 것.

왕상19:19-엘리사가 열 두 겨리로 쟁기질을 함...=말씀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통하여 교회는 형성되어야 한다.

암6장-'수소들이 쟁기질을 함'=선으로부터의 의지.

쟁기날 (ploughshare)

이2:4-모든 이의 동의하에 전부가 중지됨이 '그들은 자기들의 검을 두드려 쟁기날로 만들 것이다...'. '쟁기날'=진리들을 수단으로 일구어진 교회의 선들. 쟁기날에 의해 일구어진 들판=생활의 선 측면에서의 교회.

저녁 (evening)

창1:5-'저녁이었다, 그리고 아침이었다, 첫째 날...' '저녁'은 앞서 있는 모든 상태, 그 이유는 그것은 그들의 하나, 또는 거짓과 믿음 없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저녁'=인간에게 어울리는 모든 것.

단8:26-믿음 없는 때가 '저녁'이듯, 주님이 오시는 때도 '저녁'이라 불리운다.

숙14:7-인간의 거듭나아짐에 관련하여; '하느님에게 알려진 하루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낮도, 밤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빛이 있을 저녁의 때에서 일 것이다.'

창8:2,3-(그러므로) 모든 거듭남은 저녁으로부터 아침으로 진행된다...저녁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다.

창8:11-'비둘기가 저녁에 그에게 되돌아 왔다'=믿음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이 아주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녁의 때는 아침 앞의 어둠새벽과 같다...저녁은 거듭남에 관련된 용어이다. 즉 인간이 아직은 그늘에 머무는 상태, 또는 아직도 매우 적은 빛이 그와 더불어 나타나는 때이다.

출27:21-저녁이 아침 이전의 어둠새벽이듯, 저녁에 관한 언급이 유대 국가에서도 자주 있어왔다; 이런 똑같은 이유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안식일들과 축제들을 저녁으로부터 개시하였다; 그리고 아론은 저녁에 거룩한 등불을 켜도록 명령되었다.

창19:1-'저녁에 두 천사들이 소돔에 왔다'=심판에 앞서 있는 방문... '저녁'=방문의 때.

슌2:7-방문이 '저녁'이라 불리운다.

출27:21-'저녁' 여기서는=아침 앞의 어둠새벽.

창24:11-'저녁 무렵에서'=그시간 더 희미한 상태.. '저녁'=희미한 것. 그 이유가 말씀에서 '저녁'=중단되어져

저녁 식사-저녁을 먹다

만 하는 '밤'이라 불리는 교회의 마지막 상태에 선행되는 상태; 또한 '아침'이라 불리는 일어나는 교회의 첫 상태. 이 양쪽 상태의 의미는 모두 '저녁'에 의해 의미되는 희미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경우 아침에 선행되는 희미함이다.

창24:63-'저녁을 향하여'=상대적으로 아래쪽인 이런 것들로. '저녁'=희미한 것' (그이유가) 인간과 더불어 아래쪽인 것들, 즉 자연적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은 위쪽에 있는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미하다...

레22:6, 신23:11-착하고 천사적인 영인들이 자아 사랑의 상태로, 그리하여 거짓의 상태로 빠지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의 자연적 또는 보다 낮은 상태 안으로 잠간(a little) 환송된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것에 관련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로 양육되어진다, 이것이 '저녁'에 자신들을 물로 씻음'에서 의미되고 있다.

창29:23-'저녁이 되었다'=아직까지 희미한 상태...고대인들에게는 저녁에 벌리는 잔치, 즉 만찬은 고대인들 사이에서 지녔던 의미는 결합에 앞서 있는 개시하는 상태인 바, 이 상태는 결합의 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미한 상태를 의미했다.

창30:16-'아침이 저녁에 들관으로부터 왔다'=선의 상태에 있는 진리로부터의 선, 그러나 자연성의 특성인 희미함 안에 있다.

여8:29, 10:26-저녁에 하루가 새로이 개시되었다; 그러므로 매달아 놓았던 이들을 저녁 이전에 내던지지 않으면 이 구절 사건은 악이 내던져지지 않았음을 표현했을런지도 모른다...매달려 있던 자들은 저녁 까지 남아 있었으나 더 이상은 아니었다.

창49:27-'저녁에 그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그들이 아직 희미함 안에 있는 동안 주님의 왕국에서 그들의 소유...이것이 저녁에 실시되었다고 말해진 이유는 천국으로 승강된 이들이 처음에는 희미함에 있기 때문이다...

출12:6-'저녁들 사이에'=마지막 그리고 첫 상태. '저녁'=거짓의 상태, 또한 진리에 무지한 상태...(선과 진리에 관련되는 상태 중에서) 끝과 시작이 저녁이다; 그러므로 '저녁들 사이에'라고 말해질 경우 그것에는 모든 상태들이 포함되어진다. 이 구절에서의 경우 '저녁들 사

이에'=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의 구원되는 상태, 그리고 악으로부터 거짓 안에 있는 이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상태; 이 상태들이 첫 출생이 확실되도록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집트를 빠져나감에 의해 의미되어졌다.

신16:6-이것이 '저녁'이라 불리는 것은 '네가 이집트를 빠져나오던 그 시각, 즉 해가 질 때, 저녁에 너는 유월 절 희생제를 바칠 것이다'로부터 명백하다.

습2:7-'저녁'=일어나는 교회의 첫 상태.

출12:18-'저녁에'-이전 상태의 끝과 새로운 것의 시작.

출16:6-'저녁에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데려오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 것이다'=이전 상태의 끝에서 그들이 구원되었다는 계시가 있다...'저녁'=이전 상태의 끝인 이유는...모든 상태의 끝은 저녁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에서 '저녁'이라 불리운다....저녁일 때 그들은 진리들 측면에서 희미함에 있고, 그 대신 자연적 사랑의 즐거움 안에 있다; 이 즐거움이 그들이 저녁에 받은 '메추라기'에서 의미되고 있다.

출16:8-'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신다'=상태의 끝에서 선은 기쁨의 수단으로서 자기 것 삼아질 것이다.

출16:12-'저녁들 사이에 너희는 고기를 먹을 것이다'=상태의 끝에서 선이 기쁨의 수단으로 음미될 것이다.

출18:13-'아침으로부터 저녁 까지 조차'=내, 외면의 모든 상태에서...(그이유가) 다른 삶에서 그들은...선과 진리 안에서 외면적으로, 즉 거기서 저녁의 상태에 있다; 그이유가 그들이 저녁의 상태에 있어야 그들은 자연적 기쁨 안에 있기 때문이다.

출27:21-'여호와 앞에서 저녁으로부터 아침까지 조차'=모든 상태에서 꾸준함; '저녁'=이 상태의 끝; 그리고 '아침'=또 다른 상태의 시작; (그리고) '저녁'은 뒤따르는 밤에 의해 의미되는 그들의 모든 상태를 포함한다.

출29:39-'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다'=외적 인간 안에서 빛의 상태와 사랑의 상태는 비슷하다... 그이유가 '저녁'이 말씀에서=믿음으로부터의 진리들이 희미함 안에, 그리고 사랑으로부터의 선이 차거움 안에

저물다-저울-저주하다

있을 때의 내면들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이유가 천사들이...희미한 빛 안에 있을 때, 이것은 그들과 더불어 저녁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희미함에 있는 사랑의 상태, 즉 어느 정도 차가운 사랑의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은 그들과 더불어 밤, 또는 아침 이전인 어둑새벽이다...그들이 외적인 것 안에 있을 때가 바로 그들이 희미한 수준인 사랑의 상태, 그로부터 희미한 빛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민9:5,11, 출12:6-‘저녁들 사이에’가 이 날의 저녁과 전 날의 저녁이라는 다른 시간대를 뜻하는게 아니라 저녁으로부터 아침까지의 시간대, 따라서 밤과 어둑새벽을 포함하는 시간대를 뜻한다는 것은 어린 양으로 드리는 계속적인 태워바침이 저녁에 있고 또한 아침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명백해진다.

속14:7-교회의 끝이 ‘저녁 때’이다.

출30:8-‘저녁들 사이에’=희미한 사랑의 상태, 이로부터 그들에 있는 진리의 상태.

단8:26-이 환상은 교회의 미래 상태들을 예견하고 있다...그이유가 이것이 저녁 아침으로 있어졌다고 말해졌기 때문이다. 이때 거룩한 것이 정당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이유가 ‘저녁’은 새로운 교회가 있을 때인 교회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16:2,3-주님께서 ‘저녁’과 ‘아침’에 관하여 이야기하신 까닭은 ‘저녁’과 ‘아침’에 의해 주님의 강림이 의미되었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의 경우 유대인들과 더불어 교회는 황폐되었는바, 그당시 그들과 더불어 날씨는 청명이었다. 그이유는 그들이 그분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들은 악으로부터의 거짓 안에 확실히 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녁’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틀고 앉았던 악들로부터 거짓들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부정했다, 그리고 공격했는바, ‘사나운 비바람이 있는 아침’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러한 즉, 주님께서서는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의 얼굴은 어떻게 판단할지 알면서 ‘시대의 표시’, 즉 그분의 강림에 관한 표시는 너희가 판단 할 수 없다’라고 말하셨다.

저녁 식사 (supper)

만찬 (supper)

저녁을 먹다 (sup)

* 정찬(dinner)도 참조.

계19장-말씀의 영적 의미가 교회의 마지막에서 열린다는 것 또한 ‘큰 저녁 식사’에 의해서도 의미되어 있다.

계3:20-‘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저녁을 먹을 것이다’=주님께서서는 그분 자신을 그들과 결합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결합한다는 것.

* ‘저녁을 먹다’, 그리고 ‘주님의 저녁 식사’라고 말해지고 있는 이유는 저녁 식사가 저녁(evening) 때에 있기 때문, 그리고 저녁 때에 의해 교회의 마지막 때가 의미되어 있기 때문.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상의 안에서 밖으로 떠나실 때, 그것은 그때 당시 교회의 마지막 때였는바,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고, 저녁 식사의 성례전(the Sacrament of Supper, 성찬식)을 제정하셨다.

계19:9-‘어린 양의 결혼 저녁 식사에 불리운 자는 복 있다’=...주님의 새 교회로부터 있는 것들을 받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 ‘어린 양의 결혼 저녁 식사’라고 불리운 이유는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 이 마지막 상태가 저녁(evening)이라 불리운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저녁에 실시되기 때문. 저녁에 인간은 교회에 불려진다, 그리고 불려왔던 이들이 출석할 때, 이 때는 아침에 해당된다.

계19:17-‘오너라, 그리고 네 자신을 큰 하느님의 저녁 식사에 함께 그러모으라’=주님께서서는 새 교회로, 그리고 그분 자신과 결합하라고, 하여 영생으로 소집하신다.

눅14장-영적 자양분, 즉 가르침 측면에서의 천국과 교회가 그들이 초대된 ‘큰 저녁 식사’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저물다 (set)

창15:2-‘태양이 저물고 있었다’=끝에 이르기 전의 상태.

창15:17-‘태양이 저물었다’=끝에 다다른 때, 마지막 때.

창28:11-‘태양이 저물었다’=불명료한 것 안에서의 생활.

출17:12-‘태양이 저물 때까지’=이 상태가 중단되었을 때.

저울다 -저울-저주하다

눅12:54-‘서쪽(west)’, 또는 ‘저물(setting)’=교회의 마지막.

예15:9-‘그녀의 태양은 아직 낮 동안인데도 저물었다’=사랑의 모든 선들 측면에서 멀해짐.

저울 (balance)

겔45:10-‘공정한 저울’

이40:12-‘천칭(작은 저울, scale)에서 산들을 달아보는 것, 저울(balance)에서 언덕들을 달아보는 것’=사랑으로부터의 천적인 것들, 그리고 선행으로부터의 천적인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다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그것들의 상태를 결정하신다는 것.

* 영적 균형(equilibrium), 즉 자유-의지는 양쪽 무게가 동등한 것을 원리로 하는 천평칭(저울)에서의 균형에 비교된다. 만일 어떤 작은 무게도 어느 한쪽 접시에 놓인다면 축은 흔들린다.

단5:25-28-‘저울’에 의해 값은 매김, 평가가 의미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질서에서 올바른 배열, 조정도 의미된다. 이는 진리들에 의해 결과되어진다...

레19:35,36-공평은 각 사람을 그가 지닌 선과 진리의 품질에 따라 검사하고 값을 매김을 뜻하기에, 이것이 말씀의 다양한 장소에서 ‘천평칭, scale’, ‘저울, balance’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이40:12-‘그분은 천평칭에서 산들을 달았고, 저울에서 언덕들을 달으셨다’=모든 것들을 하위에 종속시키고 균형을 잡으셨다는 것. ‘천평칭’, ‘저울’에 의해 공정한 균형을 취함이 의미된다.

계6장-‘저울’에 의해 진리에 매겨진 가치는 거의 없을 정도만큼 작았다가 의미되어지고 있다.

계6:5,6-‘그리고 그것 위에 앉은 그는 자기 손에 저울을 가졌다’=그들과 더불어 있는 선과 진리의 평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계6:5,6-‘자기 손에 저울을 가지고 그것 위에 앉은 그(사람)...’=교회의 이 상태에서 말씀으로부터의 진리에 매겨진 가치.

저주하다 (curse)

창3:1-뱀에게 그분이 말하시기를 ‘너는 모든 짐승, 그리고 들판의 모든 야생 짐승을 초월해 저주되었다’=감각적 인간은 천적 인간으로부터 돌아서 육체 쪽으로 갔

다... 고로 정죄되었다, 또는 그 자체 저주되었다...주님은 어떤 것도 저주하지 않으신다...극악한 악마가 이를 행한다.

* ‘가시와 엉킴’=저주와 황폐.

창4:11-‘너는 지면으로부터 저주되었다’=그는 (종파의) 분열을 수단으로 돌아서 가버렸다.

창5:29-‘우리의 일로부터, 그리고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지면으로부터의 우리의 손의 슬픔으로부터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것’=뒤집혀 남용되었던 것이 회복되어지게 할 교리.

창8:21-‘나는 인간 때문에 더 이상 지면에 저주함을 보태지 않을 것이다’=태고 교회인의 후손이 돌아서버리는 식의 타락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창9:25-‘가나안은 저주되어진다’=내적 예배로부터 분리된 외적 예배는 인간을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한다는 것. ‘저주되는 것’=자신을 돌아서게 하는 것, 그이유가 주님은 누군가를 돌아서버리게 하는 일은 결코 없으시기 때문. 천국이 땅에서 멀듯 주님은 누구에게 화를 내시거나 저주함으로부터서 멀다. 이 신비가 함은 저주되지 않고 순서상 네 번째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된 것으로부터 알런지 모른다.

창12:3-‘나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인정 않는 자의 불행. 이는 ‘저주됨’의 의미로부터 분명해진다. ‘저주됨’, 이는 주님으로부터 자아를 돌아서게 하는 것, 고로 인정하지 않는 것. 고로 ‘저주하는 것’은 ‘복된 것’이 포함하는 것들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창27:12-‘저는 복은 커녕 내 위에 저주를 가져올 것입니다’=분열. ‘저주’=분열, 또는 선으로부터 돌아섬.

창27:13-‘네 저주는 내 위에 있게 하마, 내 아들아’=거기에 분열은 없을 것이다.

창27:29-‘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아진다’=자신을 분리하는 자는 분리될 것이다.

창49:7-‘그들의 노염은 격렬했기 때문에 저주된다. 그리고 그들의 격노함은 비통했기 때문에 저주된다’=진리와 선으로부터 돌아섬에 따른 처벌받는 것.

마25:41-왼쪽에 있는 이들이 ‘저주된 자’라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을 진리와 선으로부터 돌아서버리게

적

하고 대신 악과 거짓 쪽으로 가게 했기 때문.

신21:23-‘나무에 매다는 것’=거절과 지옥에 떨어짐 (damnation). 그이유가 나무에 매다는 것은 저주였다, 그리고 저주는 신성에 의한 거절인바, 결과적으로 지옥에 떨어짐이다.

창21:17-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교회에 속해 있는 이들이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갖가지 수단으로 부인함, 고로 교회의 선과 진리를 모독함.

창22:28-‘너는 하느님을 저주 마라’=신성의 진리들은 모독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

숙8:13-황폐된 교회가 ‘저주’라 불리우는 이유는 악과 거짓이 거기에 있기 때문.

이24:6-저주가 삼킬 땅=교회. ‘저주’=그것이 전복됨.

이8:21-‘저주하는 것’=혐오하는 것.

예23:10-‘저주— 이것 때문에 토지가 슬피운다’=생활 속의 모든 악, 그리고 교리 속의 모든 거짓.

저주 받은 (accursed)

이43:28-‘나는 야곱을 저주자에게 줄 것이다’=바깥쪽에 치중한 교회의 진리를 박멸함.

삼상15:1-3,9,23,26-‘저주자에게 주어진 (아말렉과 더불어) 거기 있는 모든 것’=모든 악귀는 영적 교회인들과는 여하한 일이라 해도 서로 교통해서는 안된다는 것.

출22:19-교회로부터 내던져짐, 고로 이와같은 거짓들의 박멸이 저주받음에 의해 의미된다.

계22:3-‘저주받은 것은 더이상 없다’=주님으로부터 분리하는 악, 이 악으로부터의 거짓은 없다는 것. 말씀에서 ‘저주받은 것’이란 분리된 악과 거짓, 그리고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이유는 이럴 경우 그 인간은 악마나 사탄이 되기 때문.

적 (enemy)

원수 (enemy)

* hostile도 참조.

시72:9-‘야만인들과 적들’=지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을 쳐다보는 이들.

창14:14-‘적들을 뒤쫓는 것’=선들과 진리들과 더불어 있던 악들과 거짓들을 몰아내는 것.

창14:20-‘당신의 적들을 당신의 손에 넘겼다’=승리.

창22:17-‘네 씨가 네 적들의 문을 상속받을 것이다’=선행과 신앙이 악과 거짓들이 있기 전 그 장소에서 계속될 것이다...‘적들’=악들과 거짓들, 또는 악과 거짓 안에 있는 이들. 이것들이 말씀의 내적 의미에서 ‘적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애4:5-‘머리가 되어가는 적들’=악들이 통치함.

시127:5-‘문에서 적들과 이야기하는 것’=악들과 거짓들을 전혀 두려워 않는 것, 고로 지옥을 두려워 않는 것.

창49:8-‘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에’=지옥적이고 악마적인 패거리의 그의 현존에서 혼비백산할 것이다. ‘원수들’=지옥적이고 악마적인 패거리.

출15:6-‘당신의 오른손을 가지고 여호와 당신께서는 원수들을 조각나게 부수십니다’=전능하심이 악들과 거짓들 위에 있는 결과, 그것들의 권세가 멸절되었다. ‘원수들’=악들과 거짓들.

출15:9-‘적들이 말했다’=주님의 강림 전, 악들과 거짓들 안에 있었던 이들의 생각.

시44:5-‘빨로 적들을 내치는 것’=거기서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와 선의 힘에 의해 거짓들을 파괴하는 것.

출23:22-‘나는 네 적들에게 (내) 적으로 여겨 행동할 것이다’=그분은 거짓들을 있게 하는 모든 악들로부터 피하게 하신다는 것.

시110:1,2-‘내가 네 적들을 네 발의 발판으로 놓을 때까지’=지옥 안에 있는 악들, 지옥들로부터 있는 악들이 굴복할 때,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힘의 영향 아래 놓여 질 때...‘네 적들 한가운데에서 지배하는 것’=선이 악을 넘어 지배하는 것.

미2:8-‘의복 때문에 적으로 간주하는 것’=그들이 생각하는 진리 때문에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

눅10:19-지옥들이 ‘그들이 힘을 발휘할 적’에 의해 뜻해진다.

삼하24:13-‘적들 앞에서 도망함’에 의해 악들과 거짓들에 의한 박해가 뜻해진다.

예46:5,10-‘용사들’, 그리고 ‘적들’=지옥들. 그이유가 지옥의 모든 자들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

호8:3-‘적’=악으로부터의 거짓, 그리고 거짓으로부터의 악.

적용하다 -적재하다 -전가하다 -전갈

시132:18-‘수치로 옷입은 적들’이 악들과 거짓들이다.
 미5:9-‘적들’=악들.
 애2:17-‘적’=악
 시127:5-‘적들’=악들.
 애2:4-‘적’=악.
 이62:8-‘적들’=악들.
 애2:7-‘적’=악과 거짓.
 예15:9-‘적들’=악들.
 시71:9-‘적들’=악들.
 신32:31-‘우리의 적들’=악들.
 애2:22-‘그들을 살라버린 적’=악과 거짓.
 창49:8-‘적들’=지옥으로부터 있는 이들.
 시37:20-‘적들’=악들 안에 있는 이들.
 시44:10-‘적’=지옥으로부터 있는 악.
 시74:3,4-‘적’=지옥으로부터의 악.
 이63:18-‘적들’에 의해 생활 속의 악들이 의미되어져 있다.
 시7:5-‘적’=악, 일반적으로 악마, 즉 지옥으로부터 있는 악.
 시74:18-‘여호와를 비난한 적’=지옥과 거기로부터 있는 악.
 시45:5-‘왕의 적들’=진리들에 맞서 있는 이들, 고로 지옥들.
 시132:18-‘그의 적들을 나는 수치로 옷입힐 것이다’=지옥들을 복종케 함, 그리고 거기로부터의 악들이 사라짐.
 스후8:10-‘적’=악들과 거짓들이 있는 지옥.
 예31:16-‘적의 토지로부터 되돌아가는 것’=지옥으로부터 이끌려 밖으로 내지는 것.
 시74:3,4-‘성소에서 모든 것들을 파괴한 적’=악들이 교회의 거룩한 것들을 파괴했다는 것...‘적들이 네 잔치의 한가운데에서 으르렁댔다’=거짓들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파괴했다.
 예44:30-그들이 악들과 거짓들을 수단으로 파괴되어졌다는 것이 ‘나는 이집트의 왕을 그의 적들의 손에 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예6:25-‘적’=지옥.
 시127:5-‘문에 있는 적’=지옥으로부터 있는 악의 거짓

들.
 애1:16-‘적’=악의 거짓, 그리고 그것의 근원인 지옥.
 암9:4-‘비록 그들이 적들 앞에서 포로가 되어 간다해도’=만일 그들이 자기들을 소유하도록 악들을 내버려둔다면.
 신32:42-‘적의 보복의 담즙으로부터’=지옥들의 사악함과 광포한 행동.
 시110:1-‘내가 네 적들을 네 발의 발판으로 놓을 때까지.’ ‘발을 위한 발판’=자연적인 것들, 감각적, 과학적 모두, 그리고 그로부터 인간의 합리적인 것들, 이것이 예배를 뒤집을 때 ‘적들’이라 불리운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이다...
 출1:10-‘그가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서 우리에게 맞서지 않도록’=악을 야기시키는 그들의 동료들이 더 힘써어질 것이라는 것.
 눅6:35-‘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선애 애착함. 그러나 원수들이 사랑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가르침받을 때, 그리고 적절한 수단애 의해 그들이 수정될 때.
 출23:4-‘네 적의 수소를 만날 때, 또는 길잃은 그의 나귀를 만날 때’=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진짜이지 않은 선과 진리.
 출23:22-‘나는 네 적들에게 (내) 적으로서 행동할 것이다’=주님께서는 악으로부터의 모든 거짓들을 비켜지게 하실 것이다.
 출23:27-‘나는 너에게 네 적들의 목을 줄 것이다’=거짓들의 도망함과 지옥 떨어짐.
 시110:1,2-지옥들과 악들과 거짓들이 ‘그의 발판으로 놓여질 적들. 그분이 그들 한가운데에서 통치할 적들’.
 계11:12-‘그들의 적들이 그들을 보았다’=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이 그것을 들었다, 그럼에도 자기들 고유의 거짓들 안에 남아 있다...‘그들의 적들’에 의해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큰 성 안에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눅1:71-‘...그분은 적들로부터 구해내실 것이다...’ ‘적’=거짓들.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을 그분은 거짓들로부터 구해내신다.
 시69:18-‘적들’=거짓들.
 * (가라지를 뿌린) 원수=지옥.

전나무-전능-전리품-전멸시키다

눅10:19-‘적’=지옥의 패거리.

눅6:35-‘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대략적인 의미에서일 경우,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침을 수단으로, 그리하여 그들을 선쪽으로 인도함을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그이유가 유대국가는 이방인들을 적이라 불렀기 때문.

민10:35-‘원수들’, ‘미워하는 자들’=지옥으로부터 있는 거짓들과 악들.

적용하다 (apply)

창33:18-‘(야곱은) 성의 얼굴 쪽에서 진을 쳤다’=이 진리의 선들에 곧 적용함.

창39:12-‘그녀는 그의 옷을 잡아 그를 붙들었다’=영적이지 않은 진리가 영적 진리의 최말단에 그 자체를 적용했다.

창40:15-‘도적’=다른 사람의 것을 요구하는 것... 이는 (선과 진리를) 악과 거짓에 적용할 때 이다.

창43:44-‘(요셉은) 자기의 얼굴로부터 그들에게 뿜을 들어 올렸다’=선들이 자비로부터 서로 각각에게 적용되었다.

창43:44-‘그리고 그들은 마셨다’=선 아래 진리들을 적용함.

창47:15-‘모든 이집트가 요셉에게 왔다’=내적 측면에 맞추어 적용함.

출7:24-‘모든 이집트인들은 마실 물(을 얻으려고) 강 주위를 팠다’=그들은 거짓들에 적용해볼까 하여 진리를 조사함. ‘마시는 것’=거짓들에 적용하는 것...그이유가 마신다란 당사자 스스로 자신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용함은 적용하는 그 사람의 상태와 품질에 따라 다르게 실행된다. 즉 진리에 애착을 가진 이는 이 애착의 품질과 상태에 따라 진리들을 자신에게 적용하나, 거짓에 애착하는 이는 진리를 적용할 때, 진리들을 왜곡하여 거짓으로 만든다.

출7:24-‘그들은 강의 물들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거짓들 만으로의 적용함은 없다...진리들은 거짓들 만에는 적용되어질 수 없다....그 이유는 그들이 정반대되기 때문. 그리고 정반대되는 것은 그 사이에 매체가 있지 않으면 적용되어질 수 없다.

출15:23-‘마시는 것’=진리들을 받는 것, 그리고 선 아래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

출16:9-‘너희는 여호와 앞에 가까이 오라’=지각의 상태, 그리고 그것에 적용함...이것이 적용함인 이유는 믿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

출18:7-‘모세는 자기 장인을 만나려고 나갔다’=신성한 선에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적용함.

출21:16-‘사람을 훔쳐 그를 팔’=악에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를 적용함, 그리고 격리함.

출27:8-‘네가 (제단을) 만들 판자를 속이 비게 할 것이다’=적용함.

출29:10-‘너는 어린 수소를 가까이 접근하게 만들 것이다’=자연적 평면에 적용하는 상태...마치 아주 어린 시절의 인간에 적용하는 상태 같다.

출30:37-‘(향은) 여호와께, 너희에게 거룩일 것이다’=예배는 신성을 사랑함에 적용되어야 한다.

적재하다 (lade)

* 무거운 짐(burden)을 보라

전가하다 (impute)

창15:6-‘그분은 그것을 정의를 위해 그에게 전가하셨다’=이 시점에서 주님은 처음 정의를 만드셨다(정의가 되었다)

전갈 (scorpion)

눅10:19-‘뱀들과 전갈들’=악들과 악들로부터의 거짓들. ‘그것들을 밟는 것’=그것들을 파괴하는 것.

계9:10-‘전갈 같은 꼬리들, 그리고 그것들의 꼬리들에 쏘는 것들’=거짓들로부터의 교묘한 추론들을 통하여 그들은 설득한다, 고로 상해를 가한다.

계9:10-‘전갈’에 의해 그들의 설득력이 의미되어진다... ‘전갈들 같은 그들의 꼬리들’=설득들(persuasions).

계9:3-‘힘이 (메뚜기들에게) 주어졌는데, 마치 땅의 전갈이 지닌 힘 같았다’=자기들의 거짓들이 진리들이라고 설득하는 힘. ‘전갈’에 의해 치명적인 설득력이 의미된다. ‘땅의 전갈’에 의해서는 교회의 것들 안에 있는 설득력이 의미되어진다.

계9:5-‘그것들의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쏘 때 같은 괴롭힘이었다’=이 (혼미해짐은) 설득력으로부터 이다...‘전갈’=이런 설득력.

전병-전설상의 뱀-전쟁

계9:10-‘그들은 전갈 같은 꼬리를 가졌다’=말씀으로부터 왜곡한 진리들을 수단으로 그들은 혼미해짐을 도출해낸다...‘전갈’=이해성에서 혼미함을 도출하는 설득력.

눅10장-‘뱀들과 전갈들’=사탄의 일당들. 이것들이 현혹해왔고, 끔직한 거짓으로부터의 설득력을 수단으로 사후 인간들을 영적으로 살해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들로부터 보호하신다. 대홍수 이전인 태고 때에는 이런 설득력이 굉장히 우세했다...주님께서는 이런 자들로부터 영계를 구해내셨다. 이와 비슷한 광경이 사탄이 ‘천국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그분이 보심에 의해 뜻해진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힘’을 그분은 주신다.

겔2:4,6-‘전갈들’=끔직한 설득력. ‘전갈들 사이에 거주하는 것’=자신들을 설득해왔던 이들 사이에, 그리고 거짓들로부터 타인들을 강력하게 설득해왔던 이들 사이에, 그리고 어떤 진리도 용인 않는 이들 사이에.

신8:15-신실한 자의 시험들은 악령들에 의해 거짓의 주입과 설득을 통하여 결과되는데, 말해지기를, 그들은 ‘뱀들, 불-뱀들, 그리고 전갈의 매우 위험한 사막을 통하여’ 인도되어진다고 말해진다. (여기서 ‘전갈들’=설득력들).

전나무 (fir)

이41:19-‘전나무’=외적 인간의 진리들과 선들.

겔31:8-‘전나무’, 그리고 ‘플라타너스(plane)’=자연적인 것들. ‘전나무’=선 측면에서의 자연적인 것들. ‘플라타너스’=진리 측면에서의 자연적인 것들.

이60:13-‘전나무, 소나무(pine), 회양목(box)’=상응하는 자연적 선들과 진리들.

이37:24-‘전나무’=영적 교회의 외적 진리들, 또한 선으로부터의 외적 진리들.

겔31:8-‘전나무’=자연적 인간의 지각력.

왕하19:23-‘드높은 삼목과 선발된 전나무’=지각 측면에 관련하여 있는 합리적이고 자연적인 진리들.

전능 (Shaddai)

* 쇠다이 (Shaddai)를 보라

전리품 (spoil)

나3:1-‘약탈이 가득함’=거짓으로부터의 악 (=거짓을 수단으로 가해진 폭력).

민23:24-거짓들과 악들의 흠여짐이 ‘움킨 먹이를 먹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31:4-‘움킨 먹이 위에서 사자가 표효하고 있다’=지옥으로부터의 악들로부터 구해냄.

겔19:3-‘먹이를 잡는 것’=교회의 진리와 선을 파괴함.

예21:12-‘압제자의 손으로부터 망쳐진 그를 잡아채는 것’=선행의 선을 행하는 것.

창49:27-‘약탈품을 게걸스럽게 먹는 것’=그분이 구해낸 이들을 그분 자신에게 충당하는 것(appropriate).

출15:9-‘나는 약탈품을 나눌 것이다’=노예. ‘약탈품을 나누는 것’=노예로 환원된 이들을 자신들에게 배분하는 것.

전멸시키다 (annihilation)

* 심정으로부터의 신앙과 인정함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진짜 부끄러이 여기는 상태 안에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래야만 그는 자아가 전멸된 상태, 즉 자아를 혐오함 안에, 고로 자아가 빠져있는 상태에 있어지기 때문, 이때서야 그는 주님의 신성을 받는 상태 안에 있다.

창37:23-‘그들은 요셉에게서 그의 의복을 벗겼다’=그들은 진리의 외관을 흘트리고 전멸시켰다는 것...진리의 외관을 흠여지게하고 전멸시키는 것은 진리 자체가 거절되어진 이후 거행된다. 그이유가 진리는 마음을 저절로 빛나게 하기 때문. 설사 이 외관이 빛을 잃는다해도 여전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선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 그러하다. 이는 자신과 더불어 진리를 전멸시킨 이들에 의해 명백히 보여진다. 즉 그들은 이 외관을 흠여지게 하고 전멸시키려 무진 애를 먹기 때문.

출15:6-‘당신의 오른손으로 여호와 당신께서는 적들을 조각으로 부수어버리신다’=그러므로 악들과 거짓들 위에 있는 전능하심의 결과, 그분의 힘이 전멸시키셨다. ‘조각으로 부수’=전멸시키는 것.

출28:23, 레10:1,2-‘그들이 불법을 초래해 죽지 않도록’=모든 예배의 전멸...‘이상한 불’=지옥으로부터의 사랑. 예배의 전멸이 이상한 불로부터 향을 바침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출32:25-‘그들에 맞서 봉기한 이들에게 전멸되었기에...’=지옥으로부터 있는 악들에 저항하려는 어떤 힘도

전투-전투하다

없다. '전멸'=악들과 거짓들에 저항하는 어떤 힘도 없는 것, 그이유가 영계에서 힘을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

전병 (cake)

* 케이크(cake)를 보라.

전설상의 뱀 (cockatrice)

이14:29-'뱀의 뿌리로부터 전설상의 뱀이 나올 것이다.' '전설상의 뱀'=거짓으로부터의 악.

예8:17-'뱀들, 전설상의 뱀들'=추론들.

전쟁 (war)

* army, battle, victory, weapon도 보라.

마24:6-'전쟁과 전쟁 소문'=진리들에 관한 토론과 논쟁.

눅14:31-'전쟁을 만드는 것'=진리들로부터 싸우는 것.

출1:10-'전쟁들'=진리들과 거짓들 사이에 있는 전투들, 영적 전투들.

출13:17-'그들이 전쟁을 보고 후회하는 것'=그들이 맹렬한 공격을 받으면 진리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것.

출15:3-'여호와와 전쟁의 사람이시다'=주님께서는 지옥들로부터 있는 모든 악들과 거짓들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다.

예6:23-'전쟁을 위한 사람으로 준비하는 것'=진리를 맹습하려는 욕망.

시68:30-'그분은 전쟁을 갈망하는 백성들을 흠으셨다'...교회의 진리들과 더불어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바람이 '전쟁을 갈망함'에서 뜻해져 있다.

겔39:20-'전쟁의 사람'=거짓에 맞서 싸우는 진리.

출32:17-'진영에서 전쟁의 소리가 있다'=지옥으로부터 있는 악들과 거짓들을 수단으로 교회 속에 있는 진리와 선을 공격하는 것.

이3:25-'전쟁에서 강함이 없다'=악과 거짓에 맞서 어떤 저항도 없다.

이42:15-주님 만이 여느 천사의 조력 없이 지옥들을 정복하셨는바, 그분이 '영웅', 그리고 '전쟁의 사람'이라 불리운다...'전쟁의 영웅'.

계9:7-'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 같이'=그들이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이해함으로부터 싸우는 듯 자신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전쟁'=영적인 전쟁, 이

는 추론함과 논쟁들을 수단으로 수행되어진다.

계9:9-'전쟁으로 달려가는 것'=(영적 전투에서) 싸우겠다는 열의.

계11:7-'짐승은 그들과 전쟁을 만들 것이다'=(이것들은) 새 교회의 두 본질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쪽에 자신들을 놓았다는 것.

계12:7-'천국 안에서 전쟁이 있었다...'=새 교회의 진리들에 맞서는 이전 교회의 거짓들.

계13:7-'거룩한 사람들과 전쟁을 만드는 것이 그에게 수여되었다'=그들은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들을 맹습했다는 것.

계19:19-'짐승과 땅의 왕들이 말 위에 앉으신 그분과 전쟁을 만들려고 함께 모였다...'=모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신성한 진리들을 공격할 것이다...

계20:8-'곡과 마곡, 전쟁에 그들을 함께 모은다'=단지 외적일 뿐인 예배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예배한 이들에 맞서 흥분했다.

예18:21-'그들의 젊은 이들은 전쟁에서 검에 죽임을 당했다'=거짓들의 기습으로 파괴된 진리들.

겔39:20-'너는 전쟁의 모든 사람을 배불릴 것이다'=거짓을 파괴하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와 더불어.

숙10:3-'전쟁에서 영광의 말 같이'=신성한 진리의 이해함이 악들과 거짓들에 맞서 싸움, 그것은 파괴될 것이다.

시18:34-'하느님은 내 손에 전쟁을 가르치신다.' 여기서의 '전쟁'은 영적 의미에서의 전쟁이 의미되어진다. 이는 악들과 거짓들에 맞서는 전쟁이다. 이것이 하느님이 가르치시는 전쟁이다.

이21:15-'전쟁의 슬픔'=강습(assault).

시46:9-'여호와께서는 땅끝까지 조차 전쟁이 중지되게 만드신다'=[그분은] 교회의 제일가는 진리와 최말단에 속하는 진리에 까지에서 모든 의견 차이와 전투를 [중지되게 하신다는 것.]

호2:18-'나는 활, 검, 전쟁을 땅으로부터 부술 것이다'=주님과의 결합 때문에 진리에 맞서는 거짓의 전투가 존재 않을 것이라는 것.

욥5:20-'전쟁에서 검의 손들'=진리를 이해함 측면에서의 시험들. '전쟁'=시험, 또는 거짓들에 맞선 전투.

절뚝거리다-절음발이

미2:8-‘전쟁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사람들’=거짓들을 뒤 흔든 이들.

미4:3-‘나라가 나라에 맞서 검을 치켜세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천적) 왕국 안에서 진리들에 관한 토론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3:2-‘강한 자와 전쟁의 사람을 거두어 가는 것’=악들과 거짓들에 맞선 모든 저항을 거두어버리는 것.

겔27:27-‘전쟁의 사람’=방어하는 이들.

예49:26, 50:30-‘전쟁의 사람’=거짓들에 맞서 싸우는 진리들. 그리고 거짓에 맞서 진리를 방어함이 없다는 것이 ‘전쟁의 모든 사람들이 끊길 것이다’에 의미되어 있다.

예42:14-‘우리가 전쟁을 보지 않는 곳’=거짓들과 악들의 침투가 있지 않을 것, 그리고 시험들도 없을 것.

단9:26-‘전쟁의 끝에 까지 조차 황무함은 작정되어 있다’=진리와 거짓 사이에 전투가 없을 때까지 조차.

계12:17-‘그는 그녀의 씨의 남은 자와 전쟁을 만들려고 나아갔다’=생활의 악으로부터 새 교회의 교리 속의 진리들을 강습하려 몸부림침.

전투 (warfare)

* 군인(soldier)도 참조.

민26:2-‘전투를 위해 나아가는 것’=지옥으로부터 있는 악들과 거짓들에 맞서려고 싸우러 나가는 것.

이40:2-‘그녀의 전투는 충족되었다’=악들에 맞선 싸움

전투 (battle)

창14:8-‘대열을 갖추어 전투에 임하는 것’=강력하게 공격함.

계16:14-‘전투’=진리들과 선들에 관한 불일치, 그리고 영적 전투.

전투하다 (combat)

싸우다 (fight)

* sword, tempt도 참조.

* 여섯째 상태에서...인간의 자연적 삶은 몸과 감각들에 의해 떠받혀지고 즐거움도 얻는다. 그러나 이로부터 전투가 있게 되는데, 이 전투는 사랑이 통치할 때까지, 하여 인간이 천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창1:28-인간이 영적인 동안, 그가 영적으로 되어가는

동안, 그는 전투 안에 있다. 그러므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지배하라’ 하고 말해지는 것이다.

창1:30-인간이 거듭나지는 동안, 그리고 영적으로 되어가는 동안, 그는 전투 안에 계속적으로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싸우는 가운데 있음(milant)이라 일컬어진다. 전투의 시기에서 악령들은 ‘푸른 풀잎’에 비교되는 것 외에는 어떤 음식도 인간에게 남겨두지 않는다.

창2:5,6-이 구절에서 ‘안개(mist)’라 불리는 ‘비’=전투의 중지로 있는 평화의 고요함.

창3:6-‘슬픔을 많이 불리는 것’=전투함, 그리고 전투함으로부터 있는 걱정.

예49:26-‘전쟁의 사람들’=싸우는 이들.

창14:14-3백 18명은 숫자 3과 3x6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 중 숫자 ‘6’=전투.

창16:12-‘그의 손은 모든 이에 맞선다’=참되지 않은 것들에 맞서 싸우는 것. ‘모든 이의 손이 그에게 맞선다’=거짓들이 다시 되돌아 싸울 것이라는 것.

창18:30-‘30’=얼마정도의 전투, 고로 약간의 전투.

호2:18-‘활과 검, 그리고 전쟁을 부수는 것’=교리와 진리에 관하여 거기에서는 전투가 없을 것이라는 것.

창25:22-‘아들이 그녀를 한가운데에서 서로 다투고 있다’=전투하고 있다.

창25:29-‘그는 지쳐있었다’=전투의 상태. ‘지쳐있음’=전투 후의 상태. 여기서는 전투의 상태.

창30:7-지배함에 관심의 중심에 있을 때, 전투는 거행된다. 여기서 이것이 ‘다투고 있음’이다.

출2:13-‘두 히브리 사람들이 다투고 있었다’=그들은 교회 안에서 싸웠다.

출6:5-‘신음함’=전투로부터 있는 슬픔과 고통. ‘이스라엘의 아들들’=영적 (왕국의) 교회 속의 이들, 이들이 거짓들에 의해 판처짐을 당하고 있다. 이로부터 전투 안에 있다.

출14:14-‘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전쟁을 수행하실 것이다’=주님 만이 시험들의 전투들을 지원하신다는 것.

출15:3-‘전쟁의 사람’=거짓들과 악들에, 즉 지옥들에 맞서 싸우시는 그분,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신다. 주님만이 인간을 위해 싸우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특히 시

절뚝거리다-절음발이

힘들 안에서 싸우시는데, 이것이 영적 전투들이다.

출15:9-‘나는 검을 빼들 것이다’=악으로부터의 거짓의 계속적인 전투.

출16:26-‘6일’=전투와 노동의 상태, 여기서는 진리를 받음의 상태, 또는 선이 진리를 통하여 획득되어지는 때의 상태, 그이유가 이 상태에서 노동과 전투가 있기 때문. 이 상태에서 인간은 시험들 안으로 놓여진다. 이것은 인간과 더불어 있는 악들과 거짓들과의 전투들이다. 이때 주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그와 함께 싸우신다. 이 상태 이후 선과 진리가 결합하는 상태가 있다. 이 상태가 안식일에 쉼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이때 인간은 주님 안에 있다. 그리고 노동과 전투 없이 그분에 의해 인도되어진다.

출17:8-‘그리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이스라엘들이 비통한 시험을 건디는 동안 그들이 습격하는 것. ‘싸우는 것’=내면의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통하여 습격하는 것.

이63장-지옥들과의 그분의 전투들이 ‘그분의 의복에 튀어 묻었다’에 의해, ‘그분의 의복이 붉다’에 의해, ‘그분의 의복은 포도즙들을 밟는 그분의 의복 같다’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숙14:3,4-보편적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출동하시어 나라들과 싸우심, 그리고 그분의 발은 예루살렘의 얼굴들 앞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계심에 의해 주님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지옥들과 싸우실 것임이 뜻해지고 있다.

시110:1-7-이 구절들은 주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 있는 그분의 전투들에 관한 신비를 포함하고 있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신성의 진리를 통하여있는 신성의 선의 전능하심. 이는 그당시 주님이 있으셨던 것, 즉 이로부터 그분은 싸우시고 정복하셨다. ‘네가 용감하던 날에 네 백성은 민첩함의 하나이다’=그때 신성한 진리가 싸우고 있다. ‘멜기세덱’은 ‘정의를 왕’을 뜻한다. 고로=여호와께서는 전투함과 승리함을 통하여 정의를 만드셨다. ‘노염의 날’은 주님이 악들에 맞서 싸우시고 그것들을 파괴하셨던 때였다.

민26:2-‘전투하러 나가는 것’=지옥으로부터 있는 거짓들과 악들에 맞서 전투에 임하는 것.

계12:7-‘천국에서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웠다. 그리고 용과 그의 천사는 싸웠다’=이전 교회 속의 거짓들이 새 교회(the New Church) 속의 진리들과 싸우는 것.

계13:4-‘누가 짐승과 같을까? 누가 그와 싸울 수 있을까?’=모든 다른 것들을 넘어 특출하다. 그이유는 누구에 의해서도 이 교리는 반박되지 않기 때문.

계17:4-‘이들은 어린 양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련하여 그들과 그분 사이에 전투가 있다.

계19:11-‘정의 안에서 그분은 판결하신다, 그리고 싸우신다’=주님은 선을 악으로부터 분리하신다.

절음발이 (lame)

절뚝거리다 (halt)

창32:31-‘그는 자기 허벅지 위에서 절뚝거렸다’=선과 더불어 모든 것이 천적, 영적 선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 질서 안으로 진리들이 아직은 배열되지 않고 있다. ‘절뚝거리는 것’=아직 진짜 진리들 아닌 선 안에 있는 것, 즉 진짜 진리가 심어질 수 있는 일반적 진리들에 있는 것, 또는 진짜 진리에 불일치해 있지는 않는 것.

막9:45, 마18:8-‘절단되어지는 발’에 의해 자연 평면이 뜻해진다...자연적 인간의 불일치함, 단념케 함 때문에 비록 진리를 부인함에 있다해도 단순한 선 안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

이35:6-‘절음발이가 수사슴 같이 떨 것이다.’...‘절음발이’에 의해 선 안에 있기는 하나 아직 진짜 선 안에는 있지 않는 자가 의미 된다.

삼하3:29-‘지팡이로 자신을 지탱하는 자, 또는 절름발이인 자’=모든 선이 파괴된 이들.

예31:8-‘저는 자’=선 안에 있기는 하나 진리에 무지해서 진짜 선 안에 있지 못하는 자.

눅14:21-‘절음발이’ 등등=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지 않으나 계속 그것들을 갈망하는 자.

젊은 (young)

젊은이 (young man)

* adolescence, youth도 보라.

예6:11-‘젊은이’=노련해져가는 거짓들.

암8:13-‘젊은이’=진리들, 또는 진리의 애착 안에 있는

젊은-젊은이-젊은 성인-점을 치다-점치다

이들.

에5:13-'젊은이들은 뱀들을 갈도록 끌려가졌다'=진리들을 응용함으로 거짓들을 부화한다, 그리고 피어내고 있다.

율2:28-'너의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젊은 사람들'=총명 있는 이들.

이42:22-'모든 젊은이들이 감옥에 숨겨져 있다'=거짓으로부터의 진리들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암4:10-'너의 젊은이들을 나는 검으로 살해했다'=진리가 황폐됨. '젊은이들'=진리들.

출10:11-'지금 가라, 너 젊은이들아,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라'=진리를 확인함에 있는 이들은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떠날 것이다. '젊은이들'=확인된 진리들.

이13:18-'젊은이들'=진리들로부터 총명한 이들.

예51:22-'젊은이와 처녀'=진리로부터의 총명과 선에 대한 애착.

예51:3-'젊은이들'=확인된 거짓들.

예9:21-'젊은이들'=획득한 진리들, 이로부터 총명이 있다.

숙9:17-'곡식이 젊은이들을 자라게 만든다'=진리를 이해함은 주님으로부터 선을 통하여 형성되어진다.

젊은 성인 (adolescence, grow up)

창24:14-선과 진리에 애착함 이 '아기들', '소녀들', '젊은 여인들, 그리고 '딸들'이라 불리우는데, 각 구절의 상태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차이는 있다. '젊은 여인'=선행이 있는 애착.

시68:25-'소고치는 젊은 여인들'=진리에 애착함들. 젊은 여인은 순진을 수단으로 하는 처녀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 처녀는 결혼적 사랑으로부터 그렇게 불린다, 고로 순진 안에 있는 이들, 그 이유가 결혼 사랑은 순진 자체이기 때문.

창25:27-'소년들(에서와 야곱)은 젊은 성인이 되었다'=첫 상태, 즉 선과 진리의 결합의 첫 상태. 선과 진리를 서술할 경우에서 '성인이 되는 것'=발전의 첫 상태. 선과 진리가 임신되어 자궁 안에 있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마지막 나이에 이르기까지 발전해간다. 이것들의 수태, 임신, 출생은 일어남의 상태이다. 그것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고 노령으로 이어지는 것

은 발전의 상태이다. 발전의 상태는 출생 뒤를 잇는 상태이고 선과 진리의 결합의 상태이다. 이 상태의 첫 번째가 여기서 '젊은 성인이 됨'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 첫 상태는 출생 후에 개시되고 생의 마지막까지 계속된다.

창38:11-'내 아들 셀라가 젊은 성인이 될 때까지'=때가 왔을 때, '젊은 성인이 되는 것'=그 연령에 있는 것, 즉 때가 찬 것.

점을 치다 (divine)

창44:5-'그는 이것으로 점을 친다'=천적 평면은 그것 자신의 신성으로부터 감추인 것을 안다는 것.

창44:15-'너희는 내가 점을 치는 자인 줄을 몰랐느냐?'=이것은 미래와 감추인 것을 보시는 그분으로부터 감추여 있을 수 없다는 것.

이3:2-'점쟁이와 노인을 제거하는 것'=모든 총명과 지혜.

겔13:9-'헛것을 보는 예언자, 거짓을 점치는 자'=주님에 의해 인도되고 가르쳐지는 것 대신 자아에 의해 인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은 총명 대신 사악함을, 지혜 대신 우둔함을 가질 것이다.

미3:6-'점치는 대신 어둠'=밝혀진 진리들 대신 거짓들.

점치다 (augur)

신18:10,11-'점쟁이, 복술가, 마술쟁이'란 내적 의미에서 과학적인 것을 나쁜 길 쪽에 응용함으로, 자기 총명으로부터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을 파괴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악들로부터의 거짓들을 수단으로, 잇속과 영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그리고 신앙의 진리와 생활의 선에 애착함으로부터가 아닌,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

접근하다 (approach)

창18:23-'아브라함은 접근해서 말했다'=인간으로부터의 주님의 생각, 이는 신성에 그 자체 더 가깝게 인접되었다는 것.

창19:9-'그들은 문을 부수려 접근했다'=그들이 양쪽 모두를 파괴하려 노력하는 때 조차에서...'접근함'=노력하는 것.

창44:18-'유다가 그에게 접근했다'=바깥쪽 인간이 선을 통하여 내향의 인간과 교제함.

접근하다

창48:10-'그는 그들을 그에게 접근하게 만들었다'=인접함.

출19:15-'여인에게 접근 말라'=불순한 것을 삼가는 것.

출19:22-'여호와께 접근하는...'=안에 신성이 있다.

출20:18-'모세는 하느님이 있으신 두꺼운 어둠 쪽으로 접근했다!...'접근하는 것'=결합. 그이유가 신성에 접근하는 것은 그분과 결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

출34:30-'그들은 그에게 접근하는 것이 두려웠다'=교회의 바깥쪽 측면이 견뎌내지 못함.

출34:31-'모세는 그들을 불렀다'=바깥쪽 측면 쪽으로 이 나라는 접근하고 있다.

출25:18-'너는 두 그룹들을 만들 것이다'=사랑의 선을 통하지 않고서 주님께 접근과 입장 허가는 없다.

요10:2,3,9-누구가가 구원되기 위해 접근해야 할 분이 주님 자신임이 명백하다. 그래서 그분께 접근하는 자는 '양의 목자'이다. 그리고 그분께 접근하지 않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요6:40, 3:15,16,36-'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감이다

창12:11-'그가 이집트로 오는 것이 가까워졌을 때'=그분이 배우기를 시작하셨을 때.

창19:15-'아침이 올라왔을 때'=하느님의 왕국이 다가올 때.

창20:4-'아비멜렉은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누이로서의 사라에게)=접촉하는 것,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이든 합리적 진리와 상담하는 것.

창32:30-'하느님을 뵈는 것'=내면의 것을 통하여 그분에게 다가감...고로 현존하심.

창33:3-(아굽은) 자기 형에게 가까이 접근 할 때까지...'=아굽'인 진리를 수단으로 선의 부분과 결합함...'자신을 접근시키는 것'=자신을 결합시키는 것.

창47:29-'이스라엘의 날들은 죽는 쪽으로 가까이 당겨지고 있었다'=거듭남 바로 직전의 상태...'접근하는 것'=가까이 있는 것, 고로 직전.

출3:5-'너는 이쪽으로 접근 말라'=그는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신성에 관하여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

출14:10-'바로가 접근했다'=유입...

출14:20-'가까이 오지 못했다'=서로 왕래함이 없다.

출16:9-'여호와 앞에 가까이 오라'=받아들임과 적용함의 상태...신성한 유입을 받는 만큼에서 그는 그분 앞에 가까이 있다고 말해진다. 여호와께 접근함은 영적 의미에서 이외의 의미는 없다. 그이유는 그분께의 접근은 사랑과 신앙을 통하여 결과되기 때문. 그리고 신앙과 사랑 모두 여호와로부터 있는 바...그분께의 접근 역시 그분으로부터 흐르는 선과 진리를 받아들임이다.

출24:2-'모세 만이 여호와께로 가까이 올 것이다'=일반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함과 현존하심.

* '접근함'이 결합과 현존인 이유는 저세상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떨어진) 거리는 각자의 내면의 것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출24:2-'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결합과 현존에는 분리됨이 없음.

출28:1-'접근하게 함'=결합과 현존.

이25:3,7-'가까이 움'=사랑을 수단으로 결합되어지는 것.

시55:18-'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그분은 내 혼을 구원하시어 평화롭게 하셨다'=...악들과 거짓들을 제거함.

시65:4-'당신께서 선택하고 가까이 오게 하신 이는 복되다'=영적인 애착, 또는 사랑. 그이유가 그가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한 그는 주님과 더불어 있기 때문. 그이유가 모든 사람은 이 사랑에 의거 접근되기 때문.

접시 (dish, platter)

*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해라'...'접시'에 의해 음식이 뜻해진다. 음식에 의해 말씀으로부터의 선이 뜻해진다. 잔과 접시의 안쪽을 깨끗이 함에 의해 의지와 생각, 고로 사랑과 신앙 속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말씀을 수단으로 순수해지게 함이 뜻해진다.

접합 (joining)

출26:4-'접합하는 끝으로부터 한 커튼의 끝머리에'=이쪽 영역이 다른 쪽 영역과 결합함.

출28:27-'그것의 접합하는 반대 쪽 예봇의 띠 위에'=모든 것들의 결합이 있는 곳.

정복하다 (conquer)

* 극복하다 (overcome)를 보라

정사각 (foursquare)

정의

* (새 예루살렘)의 외적 선, 이것은 올바른 것인데, 이것이 '정사각'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 '정사각' 또는 '사각'은 완전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

* (지혜의 성전) 정사각이었다.

계21:6-'그 성은 정사각형으로 놓여 있다'=그것 안에 있는 정의. 도성이 정사각으로 보여진 이유, '정사각' 또는 '사각'=올바른(just) 것; '3각'=곧은(right) 것; 이 모든 것은 자연적 수준인 최말단 등차에 있다. '정4각', 또는 '4각'=올바른 것, 그이유는 그것이 4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 4측면들이 4방위를 응시하기 때문이다. 4방위를 균등하게 응시하는 것은 올바름으로부터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도성이 그것의 길이와 넓이가 균등하도록 정4각으로 놓였다; 그리고 '길'에 의해 그 교회의 선이 의미되어지고, '넓이'에 의해서는 그 교회의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선과 진리가 동등할 때, 비로소 올바른 것이 존재한다. '4각'이 지닌 위와 같은 의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를 두고 공명정대한 사람, square man 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사람은 때로 올바르다가 때로 올바르지 아니했다 하지 않는다. '4각'=올바른 것, 태위바침의 제단...그리고 향 제단은 4각이었다...그리고 심판의 가슴받이 판은 이중으로 된 4각이었다.

정사각형 (square)

* fousesquare도 보라.

출27:1='제단은 정사각일 것이다'=정의인 것.

출27:1-다른 삶에서, 외적 인간의 선들은 정의라 불리고 정사각형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이로부터 '정사각인 것'은 의로운 것을 의미한다.

출28:16-'그것은 정사각으로 두겹일 것이다'=완전한 것. 그이유가 '정사각'=의로운 것, 또한 완전인 것이기 때문이다.

출30:2-'그것은 정사각일 것이다'=완전한 것. 그이유가 '정사각'=의로운 것, 또한 완전인 것.

정의 (justice)

올바른 (just)

바르게 (justly)

* judgment, 그리고 justification도 참조.

창6:9-'노아는 ...올바르고 완전한...'...'올바름'은 선행의

선에 관련된다.

마13:43-'올바른 자는 해같이 빛날 것이다'=선행을 증여받은 이들.

마13:49-'올바른 자 한가운데에서 악한 자를 분리해낼 것이다'=선행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이들.

창7:1-'나는 너에게서 올바름을 보았었다...'=선을 가지는 것.

암5:24-'심판'=진리; 그리고 '정의'=선.

암6:12-'정의의 열매'='쓴쪽으로 변한' 선들.

창15:6-'그분은 정의를 위해 그것을 그에게 전가하셨다'=이 시점에서 주님은 처음 정의를 만드셨다.

창18:19-선에 관한 교리가 '정의'에 의해, 진리에 관한 교리는 '심판'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이5:7-'공정을 위해 비열함이'=진리 대신 악, '정의를 위해 올바름이'=선 대신 거짓.

창18:23-'당신께서는 사악한 자와 함께 올바른 자를 떨하시겠습니까?'=비록 악이 있더라도 아직 선이 인접되었다면 하고 중재함...'의로운 자'=선인 것.

창18:24-'아마 올바른 자 오십 명이 성 한가운데 있다면'=진리들이 선들로 가득차 있을 런지 모른다...'올바른 자'=선.

창18:25-올바른 자가 사악한 자와 더불어 죽게 되어 올바른 자도 사악한 자 같이 되는 것=선은 죽을 수 없다, 그이유는 악은 선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기 때문...'올바른 자'=선.

마9:13-'나는 올바른 자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주님께서는 천적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

예22:13-'정의 없이 집을 짓는 것, 심판 없이 침실을 짓는 것'=비-선과 비-진리로부터 신앙을 광신적으로 세우는 것.

시85:10-'정의와 평화가 키쓰하자'=그것들을 자신에게 결합하게 하자.

창30:33-'내 정의가 나에게 대답할 것이다'=그분이 가지셨던 신성의 거룩함. '정의'는 선을 서술하는데, 주님에 관해서 일 경우, '정의'=신성의 거룩함. 그이유가 영적, 천적 모든 선은 주님의 신성의 거룩함으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이다.

시14:5-'올바른 자의 세대'=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그이

정의

유가 '정의'가 선을 서술하기 때문.

이51:8-'내 정의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거기서 '정의'는 사랑의 선을 서술한다.

출9:27-'여호와와는 올바르시다...'=신성한 선은 떼지어 물려드는 자들의 사악함에 참을 수 없었다.

호2:19-'정의 안에서와 심판 안에서 약혼하는 것'=선과 진리 안에서 주님과 결합하는 것.

출23:7-'너는 순진한 자와 올바른 자를 죽이지 마라'=내면의 선과 외면의 선을 파괴하는 것을 혐오함...'올바른 자'=외면의 선 안에 있는 자, 추상적 의미에서 외면의 선. 그이유가 '정의'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선을 서술하기 때문.

마25장-이웃을 향해 선행의 선을 실행한 자가 올바른 자라 불리우고 있다...이들이 '양'이라 불리는데, 그이유는 '양'에 의해 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하기 때문.

이56:1-'심판(공정)'에 의해 신앙으로부터 있는 진리가 의미된다, 그리고 '정의'에 의해 선행으로부터 있는 선이 의미된다. 그러므로 말해지는바, '정의를 행하라.' '정의'가 주님으로부터 선행의 선임이 '나의 정의가 밝히 알려지는 것이 가까이 있다'에 의해 뜻해져 있다.

출23:8-'(선물은) 올바른 자의 말들을 뒤집는다'=그들은 선으로부터의 진리들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올바른 자'=선 안에 있는 이들.

이11:5-'정의는 그분의 허리의 띠'=그분의 사랑의 선, 이 선이 천국과 교회를 보호한다.

이33:5-'심판(judgment)으로 채워지는 것'=신성한 진리로부터의 총명. 그리고 '정의로 채워지는 것'=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지혜.

시89:14-'정의와 심판이 당신 왕좌의 받침 기둥이다.' '정의'=자비로부터 있는 선. 그리고 '심판'=신앙으로부터 있는 진리. 하여 '자비와 진리'가 더하여지고 있다.

마3:15-'하느님의 모든 정의를 성취하는 것'=지옥들을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그분 자신의 힘으로부터 지옥들과 천국들을 질서 안으로 환원케하는 것, 동시에 그분의 인간을 신성화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그분 자신 안으로 시험들이 들어오게 용인하심에 의해, 하여 십자가의 마지막 시험에 이르러서 조차 지옥들과의 계속적인

전투에 의해 성취하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취하신 정의이다.

마6:33-'(하느님의 왕국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하느님의 왕국의 선을 추구하는 것.

마5:20-인간이 내면적으로 신실하고, 올바르고, 성실하고, 곧바르지 않다면, 그는 아직 비신실함, 올바르지 못함, 비성실함, 곧바르지 않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다; '너의 정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정의를 넘어 있지 않다면, 너희는 천국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정의를 넘어 선 정의에 의해 내면의 정의가 뜻해지고 있다. 이 정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

마10:41-'올바른 자의 이름과 보상'에 의해 신성의 선들 안에 있는 이들의 상태와 행복이 뜻해진다.

계15:3-'정의와 진실이 당신의 방법들입니다, 오 거룩한 사람들의 왕이시여'=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정의와 진실이라는 것.

계16:5-'당신은 올바르시다, 오 주여...그이유는 당신이 이런 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이것은 주님의 신성한 섭리로부터 있다는 것.

계19:2-'진실과 정의가 당신의 심판들입니다'에 의해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들과 선들에 따라 주님께 의해 심판이 집행됨이 의미되고 있다. 이것 모두가 '정의'라 불리우고 있다.

계19:8-'그이유가 고운 아마포는 거룩한 사람들의 정의이기 때문이다'=주님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말씀으로부터 진리들을 통하여 생활의 선을 가진다는 것.

계19:11-'정의로 그분은 심판하시고 싸우신다'=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 모두로부터 주님은 심판을 결과되게 하신다는 것. '정의'에 의해 선과 진리 모두가 의미되어지고 있다.

계22:11-'올바른 자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하라'=선들 안에 있는 자는 선들 안에 더 있으라는 것.

마3:15-되찾음(redemption)의 행동들을 수단으로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정의로 만드셨다...그이유가 정의는 신성의 질서에 따라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질서 밖으로 타락한 것을 질서 안으로 환원하는 행동이기 때문.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이 말씀, '하느님의 모든 정

정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 나에게 합당하다'에서 뜻해진다.

이26:2-‘올바른 나라’=선 안에 있는 이들.

말3:3-‘정의 안에서 식사 공물을 여호와에게 가져오는 것’=선행의 선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함.

말4:2-‘정의의 태양’=사랑의 선.

시89:14-‘정의와 심판이 당신 왕좌의 버팀 기둥이다.’...‘정의와 심판’에 의해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시112:9-‘선한 자는 자비를 보이고 꾸어준다...그의 정의는 영원히 서있다.’ ‘정의’는 선을 말하고 있다.

이63:1-그분에게 맞서 봉기한 이들을 지옥에 내던짐, 그리고 천국 안으로 선한 자는 승강함이 ‘정의’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고로 말해진다, ‘나는 구원을 위해 크고, 정의 안에서 말한다; 그이유가 복수의 날이 내 심정 안에 있고, 나의 되찾음의 해가 오고 있기 때문.’

시24:5-‘정의를 낳는 것’=신성의 선을 받음.

이48:18-바다의 파도들 같이 있는 정의=진리들을 수단으로 선이 열매 맺음.

시85:10-‘정의와 평화가 서로 키스할 것이다’=(인간들이 주님과,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선과 진리의 결합 모두).

이32:17-‘정의의 노동’=진리와 결합된 선, 이 선 안에 평화가 있다. 그이유가 말씀 안에서 ‘노동’은 진리에 관련해 말해지고, ‘정의’는 선에 관련해 말해지기 때문이다.

마5:6-‘정의 때문에 배고픈 것’=선을 갈망하는 것. 그이유가 말씀에서 ‘정의’는 선을 서술하기 때문.

시51:19-‘정의’가 천적 선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61:10-‘정의’가 선에 관해 말해진다.

마13:43-‘올바른 자는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태양 같이 빛을 낼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에서 ‘올바른 자’라 불리운다. 즉 그분의 가르침들을 사랑으로부터 실천하는 자들.

마5:45-‘악한 자’, ‘부정한 자’=유대 교회 속에 있는 이들, 그이유는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 그리고 ‘선한 자’, ‘올바른 자’=이 교회 밖에 있는 이들, 그리고 받았 다.

이51:5-‘내 정의가 가까이 있다, 내 구원함이 나갔다’=

심판, 사랑의 선과 그로부터 파생된 진리들 안에 이들이 구원되었을 때의 심판.

이41:2-‘정의 안에서 부르는 것’=천국과 교회를 회복하는 것.

신33:19-‘정의의 제물을 바치는 것’=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 예배하는 것.

이33:15-‘정의’는 선을 서술한다.

시35:28-‘정의’는 교회의 선을, ‘찬양은 교회의 진리를 서술하고 있다.

시92:12-‘올바른 자’=선 안에 있는 자.

암5:7, 6:12-‘심판’=말씀 속의 진리; 그리고 ‘정의의 열매들’=그것의 선들.

이59:9-‘심판은 우리로부터 멀다’=진리를 이해함이 없다는 것; ‘정의는 우리를 압도하지 못한다’=생활로부터의 선이 없다.

시19:9-‘심판들’=예배 속의 진리들과 선들, 그러므로 말해진다, ‘여호와와 심판은 진리이다, 그것들 모두는 올바르다.’ 올바름=생활의 선, 파생된 예배.

마13:17-‘예언자들과 올바른 자들’에 의해 교리로부터 진리들 안에, 이 진리에 따라 생활의 선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뜻해진다.

단9:24-‘시대(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것’=각자의 행위들에 따라 모든 이 각각에게 보상되는 때, 즉 마지막 심판.

마6:33-‘너희는 천국들의 왕국과 이 왕국의 정의를 먼저 추구하라.’ ‘천국들의 왕국’에 의해 신성의 진리, ‘정의’에 의해 신성의 선이 뜻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들의 왕국과 그곳의 정의를 먼저 추구하라’하고 말해진다. 최고 의미에서, ‘천국들의 왕국’에 의해 주님, ‘정의’에 의해 주님의 공적이 뜻해진다.

마10:41-‘올바른 자’=사랑의 선.

이42:6-‘정의 안에서 그분을 부르는 것’=그분은 악한 자를 선한 자로부터 분리하고, 선한 자는 구원하고, 악한 자는 정죄하심으로 정의를 행하실런지 모른다

시125:3-‘올바른 자의 부지(lot) 위에’=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진리들 위에...말씀 안에서 이것들이 ‘올바른 자’라 불리운다.

마5:20-생명이 내적 측면에 있고, 이로부터 외적 측면

정제된 금-정제된 놋쇠-정찬-젖

에도 생명이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는 천국 안으로 받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의 정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것을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에 의미되어 있다. '정의'에 의해 선행의 선으로부터의 생활의 선이 의미되어진다.

이11:5-'정의가 그분의 허리의 띠이고, 진리가 그분의 허벅지의 띠이다.'...'정의'에 의해 주님에 관해 말해질 경우 신성의 선이 뜻해진다.

시15:2-'정의를 행하는 것'=생활 측면에서 선 안에 있는 것.

이16:5-'심판'에 의해 교리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되는데, 그이유는 모든 심판이 그것으로부터 있기 때문. 그리고 '정의'에 의해 사랑의 선이 의미되어진다. 둘 모두 주님으로부터 천국과 교회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다.

이45:13-정의 안에서 그분은 그를 휘저으셨다에 의해 사랑의 선이 의미되어진다.

이63:1-그분의 신성으로부터 선한 자와 악한 자 위에 있는 심판, 그리고 그결과 구원함이 '나는 구원하기에 크고, 정의 안에서 말한다'에 뜻해져 있다.

계15:3-'올바르고 진실하심이 당신의 방법들입니다'='천국과 교회의 모든 진리들은 그분으로부터 있다는 것...방법들이 '올바르고 진실하다'라 불리우는 이유는 주님의 진리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은 선으로부터 있기 때문, 고로 선이기 때문. 그이유가 '올바름, 정의'는 말씀에서 선을 말하기 때문.

계16:5-'정의가 당신이시다, 오 주여, 계시고 계셨던 분'=영원으로부터 있는 신성의 선 측면에서의 주님.

마6:33-'정의'=영적, 도덕적, 그리고 시민적 선.

계19:2-'진리와 정의', 주님에 관해 말해질 때,=그분의 신성한 지혜로부터 있는 것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있는 것들.

계19:8-'그이유가 고운 아마포는 거룩한 사람들의 정의들이다'=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주님을 믿는 이들과 더불어 생활의 선들이 있다는 것. '정의'=사랑의 선들, 이로부터 생활의 선들.

정제된 금 (fine gold)

애4:1-'정제된 금이 변했다'=교회의 선들.

시19:10-'금'=천적인 선, '정제된 금'=영적 선.

정제된 놋쇠 (fine brass)

계1:15-'정제된 놋쇠'=진리로부터의 자연적 선.

정찬 (dinner)

눅14:12-'정찬, 또는 만찬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는(bid) 것'=이웃에 선을 행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 하여 사랑 측면에서 연합되는 것.

젖 (milk)

젖을 먹이다 (suckle)

유모 (nurse)

이55:1-'포도주와 젖'=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

이60:16-'이방인들의 젖을 먹는 것'=선을 선물로 받는 것.

창18:8-'(아브람은) 버터와 젖을 가져왔다'=모든 이러한 [선들이] 결합되었다.

이7:22-'젖'=영적 선.

신32:14-'양떼의 젖'=합리성의 천적 평면으로부터의 영적인 것(the Celestial Spiritual of the Rational).

이55:1-'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신앙 속의 영적인 것. '젖'=사랑 속에 있는 영적인 것. ('포도주'=영적 진리, '젖'=영적 선). ('젖'=진리로부터의 선).

창49:12-'그의 이는 젖 보다 더 희다'=그분의 자연 평면 속에 있는 영적인 것으로부터의 천적인 것.

울3:18-'언덕들은 젖과 함께 갈 것이다.'...'젖' 여기서=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인 것.

창21:7-'사라가 아들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다'=그분은 신성 안에 인간을 심으셨다는 것...'젖'=천적 근원으로부터의 영적인 것, 또는 선으로부터의 진리. '젖을 먹이는 것'=이것을 심는 것...그리고 신성의 진리는 신성의 인간과 같다.

이49:23-'그들의 여왕들은 네 유모'=지혜, 이는 순진이다.

출23:19, 34:26-'제 어미의 젖 안에서 새끼를 삶지마라'=그들은 유아의 순진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 (=순진의 후기 상태의 선은 순진의 전기 상태의 진리와 결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마24:19-'이 날에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있을 것이'

젖꼭지-젖을 떼다

다'=순진의 선에 고취된 이들...'젖을 먹이는 것'=순진의 상태.

애4:7-'눈보다 더 희고(whiter), 젖 보다 더 살이 희다(fairer)'=그들은 천적 진리 안에 있었다는 것.

창33:13-'양떼와 가축떼가 젖을 먹고 있다'=내면의 선들과 자연적 선들, 이것은 아직까지는 신성의 생명에도달되지 않았다...'이것들이 젖을 먹고 있다'=최근의 것들; 여기서 자연 평면에서 발생하려고 하는 영적인 것들.

이7:22-'젖'=영적 선.

창49:12-'그의 이는 젖과 더불어 희다'=신성의 자연 평면은 진리의 선 밖에 더 아니라는 것...'젖'=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인 것, 또는 진리의 선.

출2:9-'나를 위하여 그에게 젖을 먹여다오'=좀 광신적인 신앙에 일치되게 하여 그것 안으로 선을 서서히 주입시키는 것. '젖을 먹이는 것'=선을 주입시키는 것.

출3:8-'젖과 꿀이 흐른다'=파생되는 유쾌함과 즐거움. '젖'=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인 것, 또는 선으로부터의 진리.

출13:5-'젖과 꿀이 흐르는 토지'=즐거움과 환희가 있는 곳...즐거움(gladness)은 진리를, '젖'은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서술하고 있다.

출33:3-'젖과 꿀이 흐르는 토지로'=신앙의 선과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유쾌함과 기쁨...'젖'=영적인 선, 이는 신앙의 선이다.

이60장-'젖'=사랑의 선으로부터의 기쁨.

이7장-'젖'=진리를 통하여 선이 있음.

이55장-'젖'=이 진리의 선. (=자연적 평면의 영적인 것 속의 신성의 진리, Divine truth from Divine good.)

이55장-'포도주와 젖'=영적 진리, 그리고 파생되는 자연적 진리; 둘 다 선으로부터.

젖꼭지 (pap)

* breast, mamillary도 보라.

계1:13-'금빛의 띠를 젖꼭지들에서 매신'=신성의 진행, 동시에 결합하고 있음, 이것은 신성의 사랑이다...주님의 가슴(breast)에 의해, 특히 '젖꼭지'에 의해 그분의 신성의 사랑이 의미되어진다.

* '젖꼭지들', '가슴들'에 의해 신성의 사랑이 의미되어

짐은 이 단어가 언급되는 말씀으로부터 분명해진다.

* '띠로 젖꼭지 주위가 동여매어지는 것'은 가슴에 관련하여 입혀지는 것을 뜻한다. 젖꼭지들과 띠가 언급된 이유는 젖꼭지는 가슴으로부터 돌출해 있기 때문...주님으로부터 신성의 선이 뜻해지는 이유는 일반적 의미에서는 가슴, 특별한 의미에서는 젖꼭지들이 신성의 선을 의미하기 때문.

* 가슴 대신 '젖꼭지들'이 언급된 이유는 젖꼭지들=영적인 사랑이기 때문; 그리고 가슴은 영적인 사랑으로부터의 선; 하여 '너는 왕들의 젖꼭지를 빨 것이다'라고 **이60:16**에서 말해지는데, '왕들'=주님으로부터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젖꼭지', 그리고 '가슴'=그 선, 이 선은 영적 사랑으로부터의 선이다.

겔23:21-'네가 이집트로부터 네 젖꼭지들을 장식할 때'=왜곡된 것을 사랑함, 그리고 이 사랑으로부터의 쾌락.

젖을 떼다 (wean)

창21:8-'(이삭은) 젖을 떼었다'=인간의 합리성일 뿐으로부터 분리함.

* '젖을 떼는 것'=분리되는 것.

* '아이', '젖을 먹음', 그리고 '젖을 떼 아이'=(순진의 선의 세 등차들).

이11:8-'젖 떼 아이가 자기 손을 독사의 굴에 놓을 것이다'=주님을 사랑함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은 지옥으로부터 있는 악들과 거짓들로부터 아주 경미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 그이유는 그들은 주님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

젖을 먹이다 (suckle)

* 젖(milk)을 보라

제거하다 (take away)

* faculty도 참조.

창4:13-'저의 불법은 제거되어질 수 있는 것 보다 더 큼니다'=자포자기.

마13:12, 25:29-'그가 가진 것 조차 그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제거하다 (remove)

* 옮기다(remove)를 보라.

제단 (altar)

제단

호10:8-'제단에 가시와 엉킴'='모독'

창8:20-'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주님의 표현...고대 교회의 모든 의식들은 주님을 표현했는데,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제단, 그리고 번제였다.

신33:10-'제단'=주님을 표징, 그리고 그때부터 번제로 주님을 예배함.

창12:7-아브람은 '거기서 자기에게 보여졌던 분, 여호와께 제단을 세웠다'=주님께서 사랑의 친적인 것으로부터 그분의 아버지께 처음 예배드림.

창12:8-아브람은 '여호와께 제단을 건립했다'=이 상태로부터 그분의 아버지께 대한 바깥쪽 예배.

창13:18-아브람은 '거기에 여호와께 제단을 세웠다'=이 상태로부터 예배함...'제단'=일반적인 모든 예배에 대한 표징.

창22:9-'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세웠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대한 준비. 제단들은 모든 예배를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제단은 예배를 표현하는데 있어 제일가는 표현물들이고, 예배를 일반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제단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의미했다. 그이유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은 모든 예배와 모든 교리, 마찬가지로 그것은 예배 자체와 교리 자체도 의미한다. 이는 제단, 번제, 제물을 계승한 성만찬으로부터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창22:9-'제단'=주님의 신성한 인간.

창26:25-이삭은 '거기에 여호와께 제단을 세웠다'=주님을 표시하고 의미함. '제단'=주님을 표현하는 제일의 표현물.

이19:19-'그 날에 이집트의 한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대한 제단이 있을 것이다...'제단'=일반적 측면에서 신성한 예배. 제단은 에벨로부터 시작을 가졌던 두 번째 고대 교회의 예배를 표현하는 제일 가는 표현물이 되어왔다.

출24:4-'모세는...시내산 근처에 제단을 건립했다.' 여기서도 제단은 모든 예배를 표현하고 있다. 참으로 예배안의 선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출34:13, 신7:15, 12:3-이방인들 역시 전통을 통하여 예배의 거룩한 것이 제단과 기둥 같은 것에 의해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간직했지만, 그들은 악과

거짓 안에 있었던 바, 이방인들과 더불어 '제단'은 예배의 악, 기둥은 예배의 거짓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파괴되어야 한다고 명령되었다.

출31:45,46-'쌓아올린 것, heap'=선, 그 이유는 그들이 제단을 세우기 앞서 그들은 돌더미를 만들고 자기들이 사랑 안에서 결합했다는 증거로 돌더미 위에서 먹었기 때문. 그러나 후에, 그들이 고대인들의 표현물을 신성시하게 되었을 때, 돌더미 대신 그들은 돌로도 제단을 세웠는데, 이 때의 경우는 보다 정교한 건축 기술을 발휘해서 돌을 쌓았다. 이로부터 '쌓아올린 것'은 제단과 비슷한 의미, 즉 사랑의 선, 그것의 재료인 돌은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하고 있다.

여22:28,34-'제단'=사랑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최고 높은 의미에서는 주님 자신.

창33:20-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세웠다'=내면의 예배. '제단을 세우는 것'=예배. 그이유가 제단은 주님께 대한 제일가는 표현물, 이로 인해 예배에 대한 제일의 표현물이기도 했다.

창35:1-'너에게 보여졌던 하느님에게 제단을 만들라'=거기는 거룩한 것. '제단'=주님께 대한 제1의 표현물, 이 구절의 경우, 예배의 거룩한 것이 '하느님에게 제단을 만드는 것'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35:7-'그는 거기에 제단을 건립했다'=신성화함 (sanctification)을 통하여. '제단'=주님께 대한 제1의 표시, 그리고 이 경우 예배의 거룩한 것, 그리고 주님께 관해 서술할 경우, 그분의 신성한 인간 그리고 그로부터 진행되는 거룩함.

출17:15-'모세는 제단을 건립했다'=예배 속의 거룩한 것과 기억 속의 거룩한 것을 위하여. '제단'=주님의 제1의 표현물, 이로부터 예배의 거룩한 것. 또한 기억을 위한 것이기도 한 이유는 고대 시대 때 그들은 증거로 삼고 뭔가를 기억해두려 할 때 쌓아놓은 것(돌더미 등)을 똑바로 세웠다...후에 제단.

출20:21-'흙의 제단을 너는 나에게 만들 것이다'=선으로부터 일반적인 예배를 표현함.

출20:22-'그리고 만일 너희가 나에게 돌의 제단을 만든다면'=진리들로부터 일반적인 예배를 표현함.

출21:14-'너는 그가 죽도록 나의 제단으로부터 그를

제단

데려갈 것이다'=비록 그가 주님에게로 도망하고, 용서를 받고, 회개를 약속한다 해도 정죄됨. 여호와와의 제단=주님에 대한 예배의 제1의 표현. 이렇게 예배의 표현이기 때문에 '제단으로 도망함'은 주님에게로 도망함, 용서를 간청함, 회개를 약속함이다.

마23:17,19-'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나? 아니면 예물을 성화하는 제단이나?' '제단'에 의해 주님 자신이 표현되어졌다, 그리고 '예물', '제물'에 의해 주님으로부터의 신앙과 선행인 것이 표현되어져 있다.

출24:4-'모세는 '산 아래 제단을 세웠다'='그분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에 관련하여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표징. 제단=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표현, 그리고 그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의 제1의 표현.

출24:6-'그는 피의 절반을 제단 위에 뿌렸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출27:1-'너는...제단을 만들 것이다'='주님을 표현, 그리고 주님에 대한 예배를 표현. 번제와 제물을 위해 있었던 제단=주님을 표현. 그리고 번제와 제물에 의해 주님에 대한 예배의 모든 것이 의미되기에 제단은 그분에 대한 예배를 표현했다.

애2:7-'주님은 그분의 제단을 버리셨다'='사랑의 선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의 표징을 폐지함.

겔6:4,5,6-'너의 제단들은 파괴될 것이다. 나는 너의 뼈들을 네 제단들 주위에 뿌릴 것이다. 네 제단들은 황폐되고 삭막해지고 부셔질 것이다'='표현적 예배가 파멸, 황폐, 삭막해짐.

이17:7,8-'그 날에...사람들은 제단을, 자기 손의 작품을, 자기들의 손가락이 만들었던 것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그들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예배하는 것.

호8:11-'에브라임은 죄를 범하려 제단들을 불렀다(많이 건축했다)'='예배를 헛되고 텅빈 것으로 꾸미는 것.

이19:19-'그 날에 이집트 한가운데에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있을 것이다'='주님을 예배함.

출28:43-'그들이 거룩함(거룩한 장소)에서 섬기기 위해 제단으로 접근할 때'='주님 자신을 표현하는 예배에서. 제단은 신성한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현하는 제1의 표현물이었다...주님이 표현된 예배의 제일 가는 것은 제단에 바쳐진 번제와 제물이었다....신성한 측면의

주님이 표현된 예배의 표현물은 제단이, 신성한 진리 측면의 주님이 표현된 예배의 표현물은 회중의 찬막이다.

출29:12-'너는 제단의 기초에 모든 피를 쏟을 것이다'='신성한 진리의 진부는 인간 생명의 최말단인 감각 부분에 있다...제단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표현물이었다. 그러므로 제단의 기초=인간에 있는 생명의 최말단인 것...이것은 외적 감각이라 불리운다.

출29:13-'너는 제단(에서) 태울 것이다'='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제단은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의 표현물이다.

출29:16-'너는 제단을 빙둘러 뿌릴 것이다'='신성한 선과 결합함...제단은 신성한 선에 관련되는 주님의 표현물이다.

출29:18-'너는 숫양 전부를 제단에서 태울 것이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내적 부분이 그분 자신이었던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에 결합되었다...제단은 주님의 신성한 선에 관련하여 그분의 신성한 인간을 표현하는 제일가는 것이었다.

출29:20-'너는 빙둘러 제단에 피를 뿌릴 것이다'='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에 결합함...'제단'='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의 표현물.

출29:36-'너는 제단에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것이다'='천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악들로부터 깨끗해짐...'제단'='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의 표현물, 그분을 예배함에 대한 표현물. 여기서의 경우, 천국과 교회에서 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의 표현물. 주님의 현존, 영접, 유입이라는 주제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동안, '제단'은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선을 받음에 관련한 천국과 교회 또한 의미했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인간의 자아 안에서가 아닌 그분 자신의 것 안에 거주하신 이래, 주님의 신성이 천국과 교회를 만들기 때문. 이로부터 또한 '제단'은 천국이 존재하는 인간 자신, 교회가 존재하는 인간 자신, 고로 주님이 존재하시는 인간 자신이 의미되었다. 그리고 추상적으로 인물로부터, '제단'은 교회의 사람과 천국의 천사와 더불어 있는 주님으로부터의 선 자체이다.

계11:1-'그리고 나에게 지팡이를 닮은 갈대가 주어졌

제단

다. 그리고 천사가 가까이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숭배하는 그들을 측량해보라.' 여기서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은 천국과 교회이다, '성전'은 영적 교회를, '제단'은 천적 교회이다.

계16:7-'다시 나는 제단으로부터 또다른 천사가, 오 주 하느님 전능하신 분, 진실과 정의가 당신의 심판을 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제단으로부터'란 천적인 선으로 지배되는 곳, 가장 깊은 천국으로부터 이다.

애2:7-'주님은 그분의 제단을 버리셨고, 그분은 그분의 성소를 몹시 싫어하셨다.' '제단과 성소를 버리심'이란 교회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제단'은 선의 측면에서 교회의 모든 것을, '성소'는 진리 측면에서 교회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출29:37-'제단은 거룩들 중의 거룩일 것이다'=천적 왕국, 거기서 주님은 사랑의 선 안에서 현존하신다...'제단'='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하는 표현물, 여기서는 천국과 교회에 있는 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을 표현하는 표현물.

출29:38-'이것은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천국과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함에 일반적으로 관심되는 것들...'제단'에 의해 천국들에 있는 주님의 신성이 의미되고, 또한 그분을 영접함도 의미한다.

출29:44-'나는...제단을 신성하게 할 것이다'=보다 높은 천국들에서 주님으로부터 신성인 것을 받음...'제단'='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의 표현물. 여기서는 천국들에서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의 표현물. 신성한 선이 받아지는 곳은 보다 높은 천국들에서이다.

출30:1-'너는 향을 태우는 제단을 만들 것이다'=예배의 모든 것을 사랑과 선행으로부터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수단으로 감사히 받고 청중함을 표현함....'분향단'='주님께로 승강하는 예배 속의 것들에 대한 표현물...제단은 제단 위에 놓이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가 제단은 그릇 역할을 하고 그것 위의 것은 내용물이기 때문, 따라서 그릇과 내용물은 하나를 만든다.

암3:14-'벤엘의 제단들'과 제단의 '뿔'에 의해 '그들이 잘라내야 할 것'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인 교회의 선과 진리를 파괴하는 악들과 거짓들이 의미되고 있다.

출30:9-'분향단 위에서 승강하도록 태워 바침과 식사 바침을 만들지 않는 것'에 의해 신앙으로부터,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선들과 진리들을 통하여 있는 거듭남의 표현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거기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의 표현은 있다는 것...그러므로 분향단을 수단으로 예배가 표현되는바 마지막에서 서술되고 있다.

출30:20-'섬기기 위해 제단 가까이 오는 것'=사랑의 선에 관련하여 주님이 표현되는 것.

출30:27-'향의 제단'=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선행으로부터 있는 예배의 모든 것의 표현물.

출30:28-'태워 바침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표현하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표현물이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분을 예배함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물이었다.

출31:9-'태워 바침의 제단과 그것에 딸리는 집기들'= 사랑과 사랑으로부터의 진리들로부터 있는 예배의 표현물...'태워 바침의 제단'=주님을 표현하는 표현물, 그리고 사랑의 선으로부터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표현물.

출32:5-'아론은 그것(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지었다'=예배...'제단'='신성한 예배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물. 그러나 여기서는 악마적인 예배.

출34:13-'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야 할 것이다'=이 광신적 신앙의 악과 그로부터의 예배는 파괴되어야 할 것이다...'제단'=주님 그리고 선으로부터 그분을 예배함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물. 그러나 그 반대 의미는 악으로부터의 이상적 예배의 표현물.

출34:13-이 절에는 '제단들', '기둥들', '숲'이 언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이상적 예배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 '제단'은 악으로부터의 예배, '기둥'은 악의 거짓으로부터의 예배, '숲'은 그것들의 교리적인 것들이 의미된다.

계6:9-'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증거를 위해 죽임을 당한

제단

이들의 혼을 보았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인정하고 말씀 속의 진리들에 의거한 삶 때문에 악한 자들에 의해 거절되고 학대당하고 미움을 받았던 이들, 그리고 잘못된 쪽으로 가지 않게 주님에 의해 보호 안내를 받은 이들. '제단 아래'=(영계의) 보다 더 낮은 땅, 거기 는 그들이 주님에 의해 보호 안내되어진 곳. '제단'=사랑의 선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함.

계8:3-'금향로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 서 있었다.'=영적 예배, 이 예배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을 통하여 선행의 선으로부터 거행된다. 천사가 서있던 제단, 그가 그의 손에 들고 있었던 금향로는 영적 사랑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을 의미한다. 이 예배는 신앙 속의 진리들을 통하여 선행의 선으로부터 이다.

계8:5-'천사는 향로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채웠다, 그리고 그것을 땅으로 내던졌다'=천적 사랑이 있는 영적 사랑, 그리고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이 있는 더 낮은 영역들 안으로 그것이 유입됨...태워 바침의 제단의 불에 의해 신성한 천적 사랑이 의미되었다...그리고 가장 높은 의미에서 '불'은 신성한 사랑이 의미된다.

계9:13-'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금빛의 제단의 네 뿔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트럼펫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고 있었다'=점검하고 명명백백하게 만드는 이들에게 영적 천국(둘째 천국)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주님에 의한 명령...'금빛의 제단', 또는 그들이 향을 바치는 제단은 영적 천국을 의미한다. 제단의 '네 뿔'은 제단의 힘을 의미한다...

계11:1-'천사가 가까이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숭배하는 그들을 측량하라'=주님의 현존, 그리고 그는 새 천국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알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그분의 명령...'성전, 제단, 그 안에서 숭배하는 이들에 의해 새 천국에 있는 교회의 상태가 의미된다. '성전'은 교리 속의 진리에 관련된 교회, '제단'은 사랑의 선에 관련된 교회를, '그 안에서 숭배하는 이들에 의해 새 천국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알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그분의 명령...'성전, 제단, 그 안에서 숭배하는 이들에 의해 새 천국에 있는 교회의 상태가 의미된다. '성전'은 교리 속의 진리에 관련된 교회, '제단'은 사랑의 선에 관련된 교회를, '그 안에서 숭배하는 이들에 의해 새 천국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알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그분의 명령...

계14:18-'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는데, 불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왕국, 즉 주님의 천적 왕국 속의 천국들. 여기서 '또 다른 천사'에 의해 주님의 천적 왕국의 천국들이 의미된다. 그 이유는 그가 제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제단'에 의해 사랑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이 의미된다...그리고 '제단 위 불'에 의해 신성한 사랑이 의미된다.

이19:2,18,19-'이집트 한가운데에서 여호와를 향한 제단.' '여호와를 향한 제단'=사랑의 선으로부터 예배함.

계9:13-'향의 제단', 역시 '금빛의 제단'이라 불리고 있는데, 이는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선행으로부터 있는 예배의 모든 것을 듣고 받음에 대한 표현물, 고로 주님에 의해 승강되는 예배 속의 것들을 받음에 대한 표현물.

마23:30,34,35, 눅11:50,51-'그들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었다'=갓가지 방법에서 주님을 거절함. '성전'=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제단'은 신성한 선 측면에서의 주님,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서'=둘 모두에서를 각기 의미한다.

계6:9-'나는 제단 아래를 보았다'=천국 아래에 보존되어 왔던 이들...'제단', 개략적 의미에서=주님 사랑으로부터의 선으로 예배함. 보다 더 내면적 의미에서 이 사랑에 있는 천국과 교회. 그리고 가장 깊은 의미에서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에 관련한 주님의 신성한 인간.

계6:9-'제단 아래'=천국 아래 인 이유는 '제단', 가장 높은 의미에서=주님이기 때문, 관계적 의미에서, 천국과 교회, 그 이유는 주님이 천국과 교회이기 때문...일반적 의미에서 '제단'=주님에 대한 모든 예배. 특별하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예배에 관련해서는 표현적 예배, '제단'=모든 예배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예배는 번제와 제물을 바침이었기 때문...

시43:3,4-'제단', 가장 높은 의미에서=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 측면에서의 주님의 신성한 인간, 관계적 의미에서 천국과 교회, 일반적으로 모든 예배, 그리고 특별한 측면에서 표현적 예배.

시43:3,4-'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소서...제가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리이다.' 여기서 '하느님의 제단'에 의해 신성한 인간에 관련한 주님으로 이해된다...'하느님의 제단'은 주님이 사랑의 선 안에 계신 곳으로 이해된

제물-제물로 바치다

다.

마23:16-22-'성전은 그 안에 있는 금을 신성해지게 한다, 그리고 제단은 그 위에 있는 공물을 신성해지게 한다' 고 말해진다. 고로 성전과 제단으로부터 모든 신성해짐이 있는바 이는 가장 거룩한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성전'과 '제단'에 의해 신성한 인간 측면의 주님이 의미된다. 그 이유가 이로부터 천국과 교회의 거룩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

출29:37-이것이 제단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에 접촉한 모든 것은 신성해지었다....주님 자신이 제단에 의해 의미된다. 그 이유는 거룩해지는 근원은 주님 외 없기 때문...'제단'에 의해 신성 자체가 의미되고, 이 신성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이다.

이60:7-'그것들은 내 제단 위에 올라와서 열납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내 영광의 집을 영광되게 할 것이다'='그들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 있어야 할 것이다. '제단'=신성한 선 측면에서의 그분의 신성한 인간, 그리고 '영광의 집'=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그분의 신성한 인간.

이60:7-'제단', 최고의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단'에 의해 천국과 교회가 의미된다, 그 이유가 그 자체로 간주하면, 천사들의 천국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로부터 또한 '제단'은 사랑의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예배를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시84:3-'새가 집을 발견했고 제비는 자신을 위한 둥지를 틀었습니다, 당신의 제단들(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서 '제단들'은 천국들로 이해되어진다.

시26:6-'여호와 당신의 제단을 일주하는 것'=사랑의 선으로부터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함.

이19:18,19-'그 날에 이집트의 한가운데에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있을 것이다'=그 때에 자연적 인간에 있는 과학적인 진리들을 통하여 사랑의 선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이 있을 것이다.

이27:9-'예배의 진리 측면에서의 교회의 파멸이 '제단의 돌이 분필 가루 같이 되어 흩어짐 같이 놓일 것'에 의해 의미되었다.

애2:7-모든 선들 측면에서 교회의 황폐해짐이 '주님께

서 그분의 제단을 버리셨다'로 의미되었다.

이56:7-'그들의 번제와 그들의 제물은 내 제단에서 매우 기뻐하는 것으로 있을 것이다'=영적인 진리들을 통하여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어 응낙할 수 있는 예배...'제단 위에'=천국과 교회에서.

시51:19-선행의 선으로부터의 예배가 '그 때에 그들은 당신의 제단에 올라가 수소를 바칠 것'에 의해 의미되었다.

마5:23,24-'만일 네가 제단에 네 예물을 가져온다면'=하느님을 예배하는 것...=모든 예배에서.

이17:8-'반대적 의미에서 '제단'=우상적, 또는 지옥의 예배,

이17:8-'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들'=자기 고유의 사랑에 걸맞는 예배, 이로부터 생활의 악이 온다.

출24:4-'모세는 시내산 아래 제단을 건립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위해 열 두 기둥을 세웠다.' '제단'=교회의 선, 그리고 '기둥들'=교회의 진리들, 이로부터 '제단'과 '열 두 기둥' 다함께=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 이를 통하여 교회는 존재한다.

왕상18:31-'엘리야는 열 두 돌을 가져왔다, 그리고 제단을 세웠다.' '제단'=교회의 선, 그리고 '돌'=교회의 진리들.

여22:9-'끝절'-외적 교회와 내적 교회의 결합, 이는 자연적 인간과 영적 인간의 결합과 비슷한데, 이것이 르우벤, 갓, 므낫세와 아들들이 요단 근처에 세운 '제단'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이 제단을 두고 세 지파와 그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요단 건너 거주한다 해도 자기들은 여전히 그 나머지 지파와 더불어 계속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는 증거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제단을 '우리 사이에서 여호와가 하느님이시다'의 증거라고 불렀다...제단=양쪽 교회의 공통되는 예배, 고로 결합.

계8:3-'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 섰다'=천적인 선을 통하여 주님과 더불어 천국이 결합됨...'제단'=주님 사랑으로부터의 선.

* **계9:13**-'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제단의 네 뿔로부터 음성을 들었다'=영적 천국(둘째 천국)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주님으로부터의 계시...'하느님 앞에 있는

제물-제물로 바치다

금빛의 제단'=영적 왕국으로부터 있는 신성(the Divine Spiritual).

예11:13-'창피하게도 너희는 예루살렘 도로의 숫자에 따라 제단들을 놓았다'=교리의 거짓들 만큼 많은 예배들...여기서 이것이 거짓들로부터의 예배라고 이해되는 이유는 '제단들'이 분향단들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19:18-'여호와를 향한 제단'=선행의 선으로부터 예배함.

계14:18-'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갔다'=사랑과 선행의 선 측면에서 교회의 황폐해짐에 관하여 주님께서 분명히 하심...'제단', 가장 높은 의미에서=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 그리고 관계적 의미에서 주님 사랑의 선과 이웃을 향한 선행의 선.

계16:7-'나는 제단으로부터 또 다른 (소리)를 들었는데, 말하기를'=주님의 천적 왕국으로부터 주님의 정의가 설교됨...'제단으로부터의 천사'=주님의 천적 왕국, 그 이유가 '제단'에 의해 신성한 선 측면의 주님이 의미되기 때문, 고로 또한 신성한 선 안에 있는 천국도 의미. 이 천국, 또는 이런 천국들이 주님의 천적 왕국을 구성한다.

제물 (sacrifice)

제물을 바치다 (sacrifice)

* 태워마치는 공물(burnt-offering) 음료 공물(drink-offering) 식사 공물(meat-offering)도 참조.

출24:4-6-모세는 제물 바침에 관한 규례가 제정되기 전 제물을 바쳤다...고로 제단과 제물을 수단으로 하는 신성한 예배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이 제정된 것은 아니었다.

시106:38-'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아들과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 =내적 예배로부터 분리된 외적 예배를 수단으로 선행과 신앙 속의 것들을 모독하는 것.

창31:54-'야곱은 산에서 제물을 바쳤다' =사랑의 선으로부터 예배함. '제물' =예배...그이유는 제물과 태워마치는 공물은 히브리 교회에서 모든 예배 중에서 제일의 사항이었기 때문. 그들은 산에서 제물을 바쳤다, 그이유는 산=높이 있는 곳들이기 때문...

호4:13-악을 예배함이 '산의 머리에서 제물을 바침'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창46:1-'그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에게 제물을 바쳤다'=그때부터 예배함, 그리고 신성의 지적 평면으로부터 유입이 있음.

신23:19-'정의의 제물을 바치는 것'=선행으로부터 예배함.

출3:18-'우리는 우리의 하느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친다'=고로 주님을 예배함. '제물을 바침'=일반적으로 예배함.

출8:8-'나는 백성들을 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칠 것이다'=(판치는 자, infester가) 영적 교회인들로부터 떠나 이 교인들은 자기들의 하느님을 예배할런지 모른다.

출8:26-'우리는 우리의 하느님 여호와에게 이집트인이 역겨워하는 것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그들은 지옥인 것으로부터의 거짓들에 있는 이들에게는 역겨워 할 예배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출10:25-'당신은 우리의 손에 제물과 태워마치는 공물을 줄 것이다'=그들은 모든 것들을 놓아두어 이를 통하여 예배가 수행되게 해야 할 것이다.

출12:27-'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의 제물 바침이다'=해방 때문에 주님을 예배함.

출13:15-'나는 자궁을 연 모든 수컷을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칠 것이다'=선행으로부터의 신앙은 주님께 속한 것인마, 그분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 구절의 '제물을 바침'은 2절의 신성하게 함과 같다.

출22:20-'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악으로부터 있는 거짓들로부터 예배함.

마23:19-'선물', 또는 제물=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앙과 선행 속의 것들.

출23:18-'너는 발효된 것 위에 내 제물의 피를 바치지 말라'=교회의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은 악으로부터의 거짓들과 뒤섞어서는 안된다.

속14:21-'제물을 바치는 그들 모두'=신성의 예배 안에 있는 이들.

레12:6-'태워마치는 공물로 어린 양, 그리고 제물로서 비둘기의 아들들, 또는 호도에'=순진의 선을 통하여 악들로부터 순수해짐.

출29:39-'어린 양을 처리하는 것', 즉 어린 양을 제물

제비-제사장-제1인자

로 바치는 것'=주님으로부터 순진의 선을 통하여 악들을 제거함.

출32:8-‘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다, 그리고 그것에 제물을 바쳤다’=그들은 그것을 선 자체로서, 진리 자체로서 예배했다는 것...‘제물을 바치는 것’=진리 자체로서 예배하는 것.

출34:15-‘그들이 자기들의 하느님에게 제물을 바친다’=고로 거짓들로부터 예배함.

이65:3-‘그들은 동산에서 제물을 바친다.’ ‘제물을 바치는 것’=반대적 의미, 즉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인 교리 속의 거짓들로부터 예배함.

호4:13-자아로부터 예배함이 ‘산꼭대기에서 제물을 바치는 것’에서 의미되어져 있다.

겔39:17-‘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큰 제물’=그들의 예배 속의 모든 것들.

예33:18-‘태워바치는 공물’=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예배; ‘식사 공물’=선행의 선으로부터의 예배; 그리고 ‘제물’=신앙의 진리들로부터의 예배.

예17:26-‘태워바치는 공물’=천적 선으로부터 예배함; ‘제물’=영적 선으로부터 예배함; ‘식사 공물’과 유향=선, 그리고 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

이19:21-‘그들은 제물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식사 공물’=말씀으로부터 그분의 가르침들에 따라, 고로 교리의 진리들로부터, 그리고 사랑의 선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함.

단9:27-‘일주일의 중간에서 그는 제물과 식사 공물을 중단하게 만들 것이다’=개혁된 이들과 더불어 아직도 여전히 내면적으로는 예배에서 선과 진리가 없다. ‘제물’=진리들로부터의 예배; 그리고 ‘식사 공물’=선들로부터의 예배.

제비 (swallow)

시84:3-새가 집을 발견하고 제비가 저를 위해 둥지를 발견했다고 말해지는데, 그이유는 ‘새’=영적 진리. 그리고 ‘제비’=자연적 진리, 이 진리를 수단으로 예배가 있기 때문.

제사장 (priest)

* 성직자(priest)를 보라

제 1 인자 (prince)

왕자 (prince)

대신 (prince)

공국 (principality)

창12:15-‘바로의 제 1 인자들’=제 1의 교훈들. 말씀에서 ‘제 1 인자들’=제 1에 속하는 것들.

창17:20-‘그는 열 두 왕자들을 낳을 것이다’=선행 속의 제 1의 교훈들.

요16:11-‘이 세상의 제 1 인자가 심판되어졌었다’=악들이 더 이상 해를 주지 않도록 그것들의 지옥으로 내던져졌다.

겔27:21-‘게달의 왕자들’=그들의 총명. (=영적 진리들).

애2:9-‘그녀의 왕과 왕자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진리들이 악들 안에 침몰되었다.

창23:6-‘나의 주여, 당신은 우리 한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왕자이시다’=그들과 더불어 선과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하느님의 왕자’=진리의 힘, 또는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왕자’=제 1의 진리들.

겔45:16,22-‘제 1 인자’=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창25:16-‘그들 백성들의 열 두 제 1인자들’=이 영적 교회의 첫째 되는 모든 것들.

민21:18-‘제 1 인자’=첫째의 진리들.

단8:11-‘군대의 제 1 인자’=신성의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이3:7-‘제 1 인자’=교리의 첫째인 것.

창32:28-‘왕자로서 겨루는 것’=전투들에서 정복하는 것. 여기서는 시험의 전투들에서.

창34:2-‘토지의 제 1 인자’=교회들 사이에서 첫째인 것.

창37:36-‘경호 대장’=해석(interpretation)을 위해 첫째인 것들.

창39:21-‘(감옥의) 제 1 인자’=첫째의 진리. (=시험의 상태에서 통치하는 진리.)

이9:6-‘공국이 그분의 어깨 위에’=천국들에 있는 모든 신성의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있다는 것. 그이유가 천국들은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따라 공국들로 분류되기 때문. 그러므로 천사들은 공국들이라 불리기도 한다.

제자

창40:2-‘주류의 제 1 책임자’, 그리고 ‘제빵의 제 1 책임자’...‘제 1 책임자’=첫째인 것.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첫째인 것. 그이유가 첫째인 것은 또한 일반적이기 때문.

예17:25-‘제 1 인자들’=진리의 첫째가는 것들.

창47:6-‘내 가족들의 제 1 인자’=과학물의 첫째되는 것들.

예8:1-‘왕자들’=제 1의 진리들.

출1:11-‘공물을 거두어들이는 제 1 인자들’=섬기도록 그들을 강제하는 거짓들. ‘제 1 인자’=여기서는 반대 의미, 즉 거짓들.

출2:14-‘누가 너를 사람을 위해 왕자로 앉히고 우리를 재판하는가?’=그는 아직 진보된 것이 없어 교회의 진리들 안으로 (들어오는데) 멀었다는 것...‘사람 왕자’=첫째의 진리들 안에 있는 자, 고로 진리의 교리 안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예증되어진 자. 이것이 표현 교회에서 ‘왕자’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겔46:12-‘왕자’=진짜 진들 안에 있는 이들, 하여, 이로부터 선 안에 있는 이들.

출16:22-‘회중의 제 1 인자들’=첫째의 진리들.

이3:14-‘그들의 제 1 인자들’=교회의 진리들.

출22:28-‘너는 네 백성의 제 1 인자를 저주 말 것이다’=진리로부터의 교리에 욕을 퍼부어서는 안된다는 것. ‘제 1 인자’=교회의 첫째의 진리들.

미5:5-‘사람들의 제 1 인자’=선으로부터의 첫째의 진리들.

겔26:16-‘바다의 왕자들’=제일 가는 과학물들, 이것이 교의(dogma)라 불린다.

시146:3-‘제 1 인자들을 신용하지 마라.’ ‘제 1 인자들’=첫째 되는 진리들, 고로 반대 의미에서 첫째 되는 거짓들.

겔46:8-‘제 1 인자’=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신앙의 진리.

출34:31-‘아론과 회중의 제 1 인자들’=내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 안에 있는 이들의 주요한 것.

계1:5-‘땅의 왕들의 제 1 인자’=교회에 있는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있다는 것.

이49:23-‘공주들’=그들의 선들.

이19:20-‘구세주와 제 1 인자’=주님, 이 분은 사랑의 선으로부터 ‘구세주’라고, 그리고 신앙의 진리로부터 ‘제 1 인자’라고 불리우신다.

겔30:13-‘머리되는 어떤 진리도 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부터의 생활의 어떤 진리도 있지 않는다는 것이 ‘이집트의 토지로부터서는 더 이상 왕자가 있지 않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19:13-‘소안의 제 1 인자들은 어리석어지고, 놈의 제 1 인자들은 미혹되어진다’=자연적 인간에 있는 지혜의 진리들과 영적 빛으로부터의 총명이 사악함의 거짓들로 변하여 졌다는 것.

단9:26-‘오는 제 1 인자’=거짓이 지배함.

시113:8-그들이 가르침 받아야하는 교회의 첫째되는 진리들이 ‘제 1 인자들, 그의 백성의 제 1 인자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제자 (disciple)

눅14:27,33-여기서는 교회 속에 있는 이들, 거기서 주님의 제자라 불리는 이들이 수행하는 시험들에 관한 것을 취급한다...그들은 자신들 스스로서는 시험을 이겨 낼 수 없고 오직 주님께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마10:42-‘제자’=생활 속의 진리. ‘예언자’=교리 속의 진리.

마10:41-‘제자’=교회의 어떤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의 상태.

마10:41-‘제자’=선행(charity), 동시에 주님으로부터의 신앙.

마10:41-‘제자’=진리로부터 있는 선.

마10:24-‘제자’는 선으로부터 이고, ‘종’은 진리로부터 이다.

마10:41-‘제자’=주님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선.

마10:41-‘제자’=말씀 속의 진리와 선, 그리고 교회 속의 진리와 선.

조각 (fragment)

부수리기 (fragment)

시68:30-‘그들은 은 조각(piece)을 발 아래 밟고 있다’

마14:20-‘부수리기 열 두 광주리’=모든 풍부함과 가득

조각-조각칼-조각으로 자르다-조력자-조롱하다-조사하다-조약돌-조언하다

함에서 파생된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조각 (piece)

창18:5-‘빵 조각을 수락함’=천적 평면으로부터의 어떤 것.

호8:6-‘조각나게 하는 것’=흩어지는 것.

창15:17-‘조각들 사이를 지나갔다’=그것이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나누게 하였다.

출29:17-‘너는 수양을 조각들로 자를 것이다’=내면의 것들은 구분하여 배열되어야 한다는 것.

조각칼 (graving tool)

출20:25-‘만일 네가 그것 위에서 너의 조각칼을 움직 인다면’=만일 자아로부터 있다면. ‘조각칼’=고안해낸 진리, 고로 자아로부터. 조각칼은 철이고, 이를 수단으로 자르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자아이다. 인간의 자아가 종교의 것을 진리의 형체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려고 개작(adaptation)한다. 이밖의 다른 구절에서는 조각칼 대신 ‘철’, ‘도끼’로 언급되고도 있다.

출32:4-‘그는 그것을 조각칼을 가지고 만들었다’=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조각칼로 만드는 것’이 우상에 관련될 경우,=자신의 총명으로부터 거짓 교리를 어울리게 하는 것, 이것은 글자 의미를 이리저리 응용함으로 행해진다. 이것이 지배할 때, 인간은 천국으로부터서는 어떤 계발도 없다. 단지 그는 자기 총명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가져다 놓고 그것들을 글자 의미로부터 확증한다.

왕상6:7-‘조각칼’, ‘망치’, ‘도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철’에 의해 최말단에 있는 진리가 의미된다. 이 진리가 인간의 자아로부터 주요하게 왜곡되었다. 그이유는 이 진리가 글자 의미 속의 진리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조각으로 자르다 (cut to pieces)

삼상15:33-‘사무엘은 그를 여호와 앞에서 조각으로 잘랐다’=그들은 지적 평면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거짓 안에 이들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 고로 악귀(Genii)가 영(Spirits)들로부터.

겔16:40-‘검을 가지고 조각으로 자르는 것’=진리의 왜곡화를 통하여 깡끄리 죽는 것.

조력자 (helper)

* 돕다(help)를 보라.

조롱하다 (mock)

창21:9-‘(이스마엘이) 조롱함’=신성의 합리성에 동의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음.

창39:14-‘우리를 조롱하는 것’=그것이 일어났음(rise up).

출8:29-‘마로는 조롱을 추가하지 마십시오’=그는 거짓 말로 사기쳐서는 안된다는 것.

조사하다 (explore)

시26:2-‘오 여호와여, 내 신장과 심장을 검사하소서’=진리의 양과 질을 찾고 조사하는 것.

계2:2-‘그리고 사도라 칭하는 그들을 심리했다’=그들은 교회 안에서 선들과 진리들이다 라는 것들을 자세히 조사해서 그것들이 악들과 거짓들임을 찾아냈다.

조약돌 (pebble)

계2:17-‘나는 흰 조약돌을 그에게 주겠다’=선을 좋아하여 하나가 되는 진리들. 조약돌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심판들에서 이 돌을 수단으로 투표가 수집되었기 때문. 그리고 흰 것에 의해서는 확증된 것들.

조언하다 (counsel)

겔7:26-‘조언하다’=옳은 것.

시73:24-‘조언해주심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신성의 진리를 통하여.

겔7:26-‘고대인들(ancients)로부터의 조언’=거기서부터의 지혜.

이30:1-‘조언을 구하나 나로부터가 아니다’=주님으로부터가 아닌 자아로부터 천국 속의 것들에 관하여 생각하고 결론 냄.

시1:1-‘조언’, 이로부터 ‘걷는다’가 서술되는바 생각에 관계되고 있다.

이11:2-그분의 신성의 지혜와 신성의 힘이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조언과 힘의 영’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미4:9-‘조언자’=말씀 속의 진리에 대한 이해.

이46:11-‘조언의 사람’=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 총명 있는 사람.

족장 (duke)

* 지도자(leader)를 보라.

존경하다 (venerate)

즉장-존경하다-졸다-졸림-좁은-좁-종기

출15:11-‘찬양을 수단으로 존경되어지는 것’=그분에게만 영광과 감사가 속한다는 것.

존경하다 (honour)

* 명예 (honour)를 보라

졸다 (slumber)

마25:5-‘그들 모두는 졸다가 잠들었다.’ ‘조는 것’=지체됨에 의해 교회의 것들에서 나태함이 되는 것.

졸림 (somniaece)

* 잠자다(sleep)를 보라.

좁은 (strait)

좁은 (narrow)

괴롭히다 (straiten)

신28:53-‘모든 문들 안에서 괴로워하는 것’=선과 진리의 모든 접근이 절단되는 것.

창32:7-‘아굽은 극도로 두려웠다, 그리고 그는 괴로움을 가졌다’=변화가 있어질 때 야기되는 상태; (그이유가) 두려움과 괴로움은 시험을 당할 때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 그리고 그것은 상태가 바뀔 때 먼저 있다.

창35:3-‘내 곤경의 날에 나에게 대답하셨던 분’=선 보다 진리를 선호했을 때의 상태.

창42:21-‘우리가 그의 혼의 괴로움을 보았을 때’=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으로부터 떼어졌을 때의 상태.

출6:9-‘영의 괴로움 때문에’=자포자기에 가까운 상태 때문에.

속10:11-‘괴로움의 바다를 통하여 가는 것’=시험들.

예6:24-‘괴로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진리들이 침입을 당해 악과 거짓에 감염된 것 때문에 슬퍼함.

눅21:25-‘땅에서 나라들의 괴로움...’=영계에 있는 이들 위에.

이8:22-‘괴로움과 짙은 어둠을 보라’=(선들과 진리들이)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단지 거짓들만이 발견된다.

이30:20-시험들 자체가 ‘괴로움의 빵, 그리고 억압의 물’에 의해 의미된다. ‘괴로움의 빵’=사랑의 선 측면에서 있는 시험들. ‘억압’=시험의 상태들.

이30:6-‘괴로움과 고통의 토지’=선행의 선도, 신앙의

진리도 없는 교회.

단9:25-‘그러나 시대의 괴로움 안에서’=가혹하게 그리고 곤경과 더불어, 그 이유는 영적 진리에 대한 지각이 거의 없는 나라들과 더불어 이기 때문.

눅21:23-그때에 교회 안에는 악이 득세하기 때문에 선이 거절됨이 ‘토지 위에 큰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겔4:3-이런 진리, 철 같고, 단아 곁고 어떤 진짜 진리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말해진다, ‘그것은 포위 공격을 위해서 일지 모른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괴롭힐 것이다’

이37:3-이것이 심정과 지성의 슬픔였다는 것이 ‘괴로움의 날’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종 (servant)

* 섬기다 (serve)를 보라.

종기 (ulcer, sore)

출9:9-그들의 황폐됨의 일곱째 단계가 ‘지독한 종기가 튀어나옴’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파생되는 신성 모독과 더불어 더러운 것들).

신28:27-36-이런 다양한 종기들이 ‘치질, 딱지, 가려움’이다. 이런 것들=악들로부터 있는 많은 종류의 거짓들. 무릎과 허벅지의 종기의 의미는 거의 같다.

레13장-나병의 종기들, ‘종창’, ‘농양’, ‘여드름’, ‘화상’, ‘비듬’, ‘피진’=이런저런 (거짓들). 그이유가 ‘나병’=진리를 모독함이기 때문.

눅16:21-‘종기를 앓는 것’=그들의 능력 내부에 있는 것을 수단으로 그들을 치료함.

계16:2-‘악하고 유해한 종기’=교회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를 파괴하는 내면의 악들과 거짓들.

계16:11-‘그들은 자기들의 종기 때문에 천국의 하느님을 모독하였다’=그들은 믿음만으로 라는 교의로부터 근원되는 내면의 악들 때문에 주님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 ‘종기들’=내면의 악들.

종려 (palm)

종려-나무 (palm-tree)

레23:40-‘종려들의 가지들(spathes)’=신앙으로부터의 선.

출9:29-‘나는 내 손바닥들을 여호와에게 펼 것이다’=

종려-종려 나무-종말-좋은 물건-죄

중재함.

출15:27, 레23:40-선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과 파생되는 즐거움이 '칠십 종려-나무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출15:27-'그리고 칠십 종려-나무들'=진리로부터의 선들이 대단히 풍부함...그이유가 '종려-나무들'=영적 교회의 선들, 이 선은 진리로부터의 선들이다; 그리고, 선들이 '종려-나무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는바, 그것들에 의해 또한 선에 애착함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즐거움도 의미되어진다. 이렇게 종려-나무에 의해 의미되기에, 거룩한 축제들에서 종려들이 고용되어졌다. 레위기에서도 '종려들'에 의해 영적 선, 또는 진리로부터의 선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요12:13, 계7:9-'종려들'=선으로부터 있는 거룩한 축제.

왕상6:29-'종려-나무'=선, 또한 지혜, 그이유가 지혜는 선으로부터 있기 때문. 이런 의미 때문에 종려-나무들은 거름들과 꽃들과 함께 성전의 벽 위에 새겨졌다. 벽 위에 새겨진 '거름들', '종려-나무들', 그리고 '꽃들'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섭리, 지혜, 그리고 총명을 의미했다; 고로 천국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계7:9-'그들의 손에는 종려들이...'=신성의 진리들로부터 고백함...그이유는 '종려들'=신성의 진리들이기 때문. 모든 나무=교회의 어떤 것; 그리고 '종려-나무'=최말단에 있는 신성의 진리, 이 진리는 글자 의미 속에 있는 신성의 진리이다.

시92:12-'올바른 자는 종려-나무 같이 무성할 것이다'에서 '종려들'=신성의 진리.

신34:3, 사1:16, 3:13-여리고는 요단 근처에 있는 성이었고, 요단강은 글자 의미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신성의 진리가 의미되어졌다. 하여 이 성은 '종려-나무의 성'이라 불리웠다.

계7:9-'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들이'=이 (진리들)에 따른 생활의 선 안에. '종려'=진리로부터의 선, 또는 영적 선...그러므로 '그들의 손에는 종려들이'에 의해 진리로부터의 선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 또는 그들이 진리로부터의 선 안에 있었다는 것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진리로부터의 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는 생활의 선이다.

왕상6:29,32, 겔41:18-20,25,26-'종려들'에 의해 영적 선이 의미되었는데, 이 선은 둘째 천국의 선이다...그러나 최고 의미에서 '종려들'은 주님의 신성한 지혜가 의미되어져 있다...그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의 진리와 하나된 신성의 선이 신성의 지혜로서 둘째 천국 안에서 받아지기 때문.

겔41:18-20,25,26-위와 같은 내용이 새 성전에 있는 '거름들', 그리고 '종려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레23:39,40-'종려들'=영적 선, 또는 진리로부터의 선.

욥1:12-'종려-나무'=영적 선으로부터의 심정의 환희(joy).

예10:5-진리들을 통하여 형성된 선 같이 그것의 나타남이 '그것들은 종려-나무 같은 고체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종말 (consummation)

* 극점에 달하다(consummate)를 보라

좋은 물건 (fair)

겔27:19-'좋은 물건들'과 '상거래 물품들'=진리와 선을 획득함

죄 (sin)

창4:7-'만일 네가 호의적이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드러눕는다'=만일 네가 호의적으로 뜻하지 않는다면, 선행은 없고 악이다.

요16:8-'죄'=모든 불신앙

창18:20-'죄'=악.

창20:9-'너는 나에게...큰 죄를 가져왔다'=믿음으로부터의 교리는...위험하다.

마9:13-영적 왕국의 교인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었다는 것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회개할 죄인을 부르러왔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31:36-'내 죄가 무엇인가? '=악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 '죄'=악.

창39:9-'어찌하여 내가 이 큰 악을 저질러 하느님에게 죄짓습니까? '=고로 분열 그리고 결합 없음. '악'과 '죄'=분열과 결합 없음...악 그 자체만 간주한다면, 그리고 또한 죄도 선으로부터의 분열 외 더 다른 것은 없다.

죄

창40:1-‘그들은 죄지었다’=뒤집어진 질서; 그 이유는 ‘죄짓는 것’=신성한 질서에 맞서 행동하는 것. 이 질서에 거스른 것은 무엇이든 죄이다...선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이 질서에 거슬러 있다...

창41:9-‘나는 오늘 내 죄들을 기억한다’=분열의 상태에 관하여; 그 이유가 ‘죄들’=거꾸로된 질서 속에 있는 것들; 고로 ‘죄들을 기억하는 것’=거꾸로된 질서 속의 것들과 결합되는 것, 그 결과 바로에 의해 표현된 자연적 평면으로부터 분리시켜지는 것.

창42:22-‘아이에 맞서 죄짓지 마라’=그들이 내적인 것으로부터 외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죄지움’=분열; 그 이유가 모든 죄는 분열시키기 때문.

창43:9-‘나는 당신에게 내내 죄짓고 있을 것이다’=교회의 선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죄짓는 것’=분열, 고로 그것은 있지 않을 것. 그 이유가 누군가로부터 분열된 것은 그와 더불어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

창44:32-‘죄짓는 것’=떠나는 것.

창50:17-‘네 형제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탄원과 회개...‘불법’=진리에 맞서는 악; 그리고 ‘죄’=선에 맞서는 악, 이는 더 크다.

출5:16-‘네 백성이 죄지었다’=그들은 악을 행하여 범 죄하였다. ‘죄짓는 것’=악으로부터 범 죄가 되는 것.

출9:27-‘나는 이 때 죄지었다’=진리와 선으로부터 분리됨; 그 이유가 ‘죄짓는 것’=신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고로 진리와 선으로부터 분열; 그 결과 분리.

출9:34-‘그는 죄를 추가했다’=아직 더 뒤로 물러감. ‘죄짓는 것’=선과 진리로부터 분열, 퇴거, 분리

출10:16-‘나는 너에게와 네 하느님 여호와에게 죄지었다’=그들은 신성과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죄짓는 것’=신성한 진리에 거슬러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즉 선과 진리로부터 자신의 자아를 돌리고 분리하는 것.

출20:20-‘너희가 죄짓지 않도록...’=영적 생명의 보존; 그 이유가 영적 생명은 죄짓지 않음에 의해 보존되기 때문이다.

출23:33-그들이 자기들 죄를 나에게 만들지 않도록...=악들이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들을 돌리지 않도록. ‘죄짓는 것’=돌리는 것.

출29:14-‘이것이 죄이다’=고로 악들과 거짓들로부터 순수해지는 것; 그 이유가 ‘죄’, 이것이 희생 제물을 뜻할 때=악들과 거짓들로부터 깨끗해짐; 그 이유가 원어에서, 희생 제물이 취급되는 부분에서 ‘죄’는 죄를 위한 제물이 뜻해지기 때문, 그리고 희생제물=악들과 거짓들로부터 깨끗해짐.

레5:15,18-‘실수로 죄지움’=순진이 안에 있는 무지로부터 있는 죄.

출29:36-‘너는 제단에서 죄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천국과 교회에서 악들로부터 순수해짐. ‘죄’=악; 그 이유가 인간으로부터의 모든 악이 죄라 불리우기 때문.

출30:10-‘죄의 속죄의 피’=무지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출32:21-너는 아주 큰 죄를 그들에게 가져왔다=이 나라는 신성으로부터 그 자신을 돌리었다...‘죄’=신성으로부터 돌아섬.

출32:30-‘너는 큰 죄를 지었다’=확실히 소원해지고 돌아섰음.

출32:34-‘나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할 것이다’=심판이 있을 때...‘죄를 벌하는 것’=판결되고 정죄되는 것.

출34:7-‘악과 과실과 죄를 가져감’=악과 거짓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제거함.

출34:9-‘우리의 불법을,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그들의 내면들은 악들과 거짓들로 꽂차있는데, 그것들은 제거될런지 모른다는 것.

계1:5-‘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씻으시는 분’=악들로부터 순수하게 됨, 고로 개혁되고 거듭남.

계18:4-‘너는 그녀의 죄들에 연관자 이지 마라’=그녀를 몹시 혐오함에 결합하는 것.

계18:5-‘그녀의 죄들이 하늘에 도달했다’=그들의 악들과 거짓들이 천국들에 침투한다는 것.

숙13:1=죄와 불결함을 위해=진리들을 통해 악들과 거짓들을 제거함.

단9:24-‘법 위반이 극에 이르고 죄들이 증명되는 것’=모든 자들이 교리로부터의 거짓들에 있을 때, 그리고 생활에 관하여는 악 안에 있을 때.

호13:12-‘불법’=거짓; ‘죄’=거짓으로부터의 악.

이59:12-‘우리의 범위반은 당신 앞에서 많이 불어났고,

죄인-주-주님

우리의 죄들이 우리에게 맞서 증언하고 있다'=악으로부터의 거짓들 때문에.

죄인 (sinner)

* 죄를 보라.

주 (week)

창29:27-‘이 주를 채워라’=공부가 더 계속됨, 또는 진지하게 근면함이 더 계속됨. ‘주’=상태, 그리고 또한 전체 기간(period). 여기서는 그러므로 잇따라 일어나는 상태와 기간, 결과적으로 계속적인 것...‘주’가 단수로서 언급될 때, 주=앞의 상태의 끝과 동시에 뒤를 잇는 상태의 시작, 고로 새로운 상태, ‘채우는 것’은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주’가 특별한 측면에서 있는 여느 때들(times) 같이 상태, 또는 기간인 이유는 모든 상태들은 그것 나름의 기간, 즉 시작, 연속, 끝을 가지기 때문. 다른 세상에서 이것들은 때들로서 지각되지 않고 상태들과 그것들의 연속적인 발달로서 지각될 뿐이다. 이 성경 대목으로부터서도 명백해지는바, 고대인들은 ‘주’에 의해 날들이든, 해들이든, 시대들이든, 일곱 부분들로 구별되어지는 어떤 기간으로 이해했다. 여기서는 그것이 일곱 해들의 기간을 뜻한다. ‘일곱’=거룩한 것, ‘주’=거룩한 기간, 또한 기간 속의 거룩한 것.

출7:25-‘칠 일이 채워졌다’=이 상태의 끝...‘칠 일’=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의 기간, 고로 ‘주’와 같은 의미, 즉 ‘충만한 상태’.

단9:25-‘제 1 인자 메시아에게 까지 칠 주’=주님은 시간의 충만함 안에서 오신다는 것; 고로 전체 기간이 의미되어진다.

단9:24-‘칠십 주가 네 백성 위에 공포되었다’=그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교회의 시간과 상태.

단9:25-‘칠십 주’=충만한 시간과 상태.

단9:25-‘육십 이 주 후에 그것은 회복 될 것이다...’=그분의 오심 이후 충만한 상태와 시간.

단9:27-‘그분은 한 주를 위한 언약을 확실히 하실 것이다’=개혁의 때, 이 때는 말씀이 다시 임혀지고, 주님이 인정되었다, 즉 신성이 그분의 인간 안에 계신다...개혁의 때가 ‘한 주’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단9:27-‘그러나 주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제물 바침과 식사 공물이 중지되게 하실 것이다’=개혁된 이들과 더

불어 아직은 내면적으로 예배 안에 진리와 선이 있지 않으리라는 것...‘주의 한가운데’란 이 시간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 교회인들과 더불어는 상태의 가장 안쪽을 의미한다...‘주’=교회의 상태.

주님 (Lord)

창18:3-‘나의 주님’=하나 안에 셋이 있음(the Trine in one), 즉 신성 자체, 신성의 인간, 그리고 진행되는 거룩...(이 셋은) 주님과 동일하다, 그리고 주님은 여호와와 동일하다.

미1:6-‘주’=교회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또는) 신성의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눅2:26-‘주의 그리스도’=신성의 선으로부터의 신성의 진리.

시110:1, 눅20:42-‘주’=신성의 인간으로부터의 신성의 선.

출15:17-‘당신의 손들이, 오 주여, 성소를 준비하셨습니다’=주님으로부터 신앙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 있는 천국.

시110:1-‘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하셨다’...여기서는 ‘주’에 의해 신성의 인간 측면에 관련한 주님이 의미되고 있다.

시110:5-‘주 당신의 오른 손(쪽)에서’=그분으로부터의 신성의 진리, 이를 수단으로 전능하심이 있다.

말3:1-‘주와 ‘천사’ 둘 다가 언급되는 이유는 ‘주’는 신성의 선으로부터, ‘천사’는 신성의 진리로부터 말해지기 때문.

계11:8-‘거기서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다’=주님의 신성의 인간을 인정하지 않음, 고로 거절의 상태.

계11:15-‘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님의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이다’...천국과 교회는 그것이 처음으로부터 있어 왔던 것 같이 주님의 것이 되어갔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것들은 그분의 신성의 인간이 되어갔다는 것; 고로 주님은 천국과 교회 모두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

계11:17-‘우리는 주 하느님 전능하신 분, 계시고, 계셨고, 오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주님은 계신 분, 그

주님의 기도-주님의 왕국-주다

분 자신으로부터 사시고 힘을 가지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 그이유는 그분 만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임이 천국의 천사들에 의해 고백되고 영광이 기려진다.

계14:13-‘이제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은 자들은 복되다’=사후 주님의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의 상태에 관하여 주님으로부터 예언이 있음; 즉 주님 안에서의 신앙과 그분의 가르침에 따른 생활 때문에 시험들로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가진다는 것이다.

계15:3-‘크고 경이로움이 당신의 일들입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세상의 모든 것들, 천국의 모든 것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신성의 지혜를 통하여 주님의 신성의 사랑으로부터 주님에 의해 창조되어 왔고 만들어져왔다.

계15:4-‘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오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입게 하소서’=그분 만이 사랑되어지고 예배되어져야 한다는 것.

계16:5-‘당신은 정의이시다, 오 주여, 계신 분, 그리고 계셨던 분, 그리고 거룩이신 분, 그이유는 당신께서는 이런 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모독되어지지 않을 말씀과 신성한 진리 자체가였고, 이신 주님의 신성의 섭리로부터 이다는 것.

계18:8-‘그녀는 불로 태워질 것이다, 그이유는 주 하나님이 그녀를 심판하심이 강하시기 때문이다’=그들은 주님과 그분의 천국과 교회를 몹시 싫어할 것이다, 그이유는 그때에 그들이 주님만이 천구안과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심을 볼 것이기 때문.

주님을 사랑함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

* ‘당신의 왕국이 임하고, 당신께서 천국에서 하신 것 같이 지상에서도 행하시옵소서. 나라와 힘과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고’=진리가 받아짐. ‘당신이 행시옵소서’=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에 의해 받아진다는 것. ‘왕국, 힘, 영광은 당신의 것’=신성의 진리는 당신의 것.

*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주님의 신성한 인간은 신성하게 계속 유지되어져야 하고 예배되어져야

한다는 것.

* ‘당신의 왕국이 임하고; 당신이 천국에서 하신 것 같이 땅에서도 하시옵소서.’ 여기서 ‘당신의 왕국이 임함’=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의 선과 신성의 진리를 받음. 이 받음 안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천사들, 교회인들과 더불어 계신다. 하여 이어진다, ‘당신이 천국에서 행하신 것 같이 땅에서도 행하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심정과 혼 안에서, 즉 사랑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진다.

주님의 왕국 (Kingdom of the Lord)

* 하나님의 왕국 참조

주다 (give)

창17:8-‘나는 네게 줄 것이다’=모든 것들은 그분의 것이다. ‘주는 것’, 글자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리라는 것, 또한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뜻하나, 영적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획득하셨음을 뜻한다.

창28:4-‘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신성으로부터 인 것...‘하나님이 주셨다’=그분에게 자기 것 되어졌다는 것.

창28:13-‘너에게 나는 이것을 줄 것이다’=자아로부터.

창28:21-‘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 나는 그것의 십분의 일을 당신에게 십일조로 바칠 것이다’=그분은 신성으로부터의 각각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 자신의 힘으로부터 만드셨다는 것. ‘주는 것’, 주님을 서술할 때,=그분이 그분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 고로 이것은 그분 자신의 힘으로부터 이다는 것.

창30:31-‘당신은 나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반에 의해 표현된 선으로부터 가져오지 않는 것, 그러나 야곱에 의해 표현된 선으로부터.

창34:11-‘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것,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다’=자기가 가진 마음과 같은 마음을 저쪽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그이유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주는 것’=진리와 선 측면에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를 만드는 것.

창35:12-‘네게 나는 그것을 줄 것이다’=자연 평면에 적합한 것.

창38:16-‘당신이 나에게 온다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먹-주인-주석-주 예수 그리스도-...주위에-주인

줄 것입니까?’=조건이 붙은 결합의 상호적인 것.
창39:4-‘그는 그의 손 안으로 주었다’=그의 능력 안으로...
창39:20-‘그는 그를 감옥의 집 안으로 주었다’=...시험 안으로 놓이게 하는 것...
창47:15-‘우리에게 빵을 주시오’=영적 생명을 받쳐주는 것에 관하여 (탄원함).
창47:19-‘씨를 주시오’=선행의 선과 신앙의 진리가 유입됨.
출2:21-아내에게 ‘주는 것’=인접함.
출3:19-‘이집트의 왕은 가라는 것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거짓은 그 자체 반대 쪽에 놓인다는 것.
출5:16-‘당신의 종들에게 겨를 주지 않았다’=진리의 그릇인 과학물이 더 이상 설비되지 않는다는 것.
출7:1-‘나는 너를 바로에게 신으로 주었다’=거짓들에 있는 이들 위에 신성으로부터의 법과 그것의 권능이 있음.
출10:25-‘당신은 우리의 손에 줄 것이다’=그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출12:23-‘그는 파괴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거짓과 악은 접근 않을 것.
출13:5-‘너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신성으로부터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에게 약속된 것...‘주려고 맹세하는 것’=약속.
출20:12-‘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신성이 있는 곳, 고로 유입...‘주는 것’=유입. 그이유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천국은 신성으로부터의 유입을 받음이기 때문.
출21:23-‘너는 혼을 위해 혼을 줄 것이다’=...네게 타인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네게도 해줄 것이다.
마5:42-‘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는 것’=주님 안에서 자신의 신앙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것.
출22:29-‘네 아들들의 첫 출생을 너는 나에게 줄 것이다’=신성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 자아가 아닌 주님이시다는 것. ‘나에게 주는 것’=주님에게 돌리는 것.
출23:31-‘손에 주는 것’=정복하고 명령하는 것.
출30:15-‘부자는 더 주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자는 덜

내지 않을 것이고, 반 세겔로부터, 여호와께 주는 것=무슨 능력을 지니고 있던 모든 이는 진리와 사랑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돌려야 한다.
출30:16-‘너는 그것을 만민의 천막의 일을 위해 줄 것이다’=모든 진리들과 선들이 주님으로부터 있음을 인정함을 통하여 천국과 결합함.
출31:6-‘심정에 지혜를 주는 것’=주님으로부터, 고로 사랑의 선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눅7:37,38-‘용서하고 타인에게 주는 이들의 품 안으로 주어질 너그러운 분량(good measure)’에 의해 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계13:15-‘짐승의 상(image)에게 영을 주도록 그에게 주어졌다.’ ‘주어진’에 의해 허용되었다가 의미되었다.
계21:6-‘목마른 자에게...무료로 줄 것이다’=영적 어떤 사용을 위하여 진리들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 사용에 도움이 될 모든 것들을 말씀에 통하여 그분 자신으로부터 주신다는 것. ‘무료로 주는 것’=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어떤 자아 총명으로부터가 아니다.
계1:1-‘그분은 말하라고 그들에게 주셨다’=계시.
계10:9-‘이 작은 책을 나에게 주시오’=이 교리를 받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지성(mind)의 운동(motion).
출2:22-‘무화과와 포도나무가 그것들의 힘을 줄 것이다’=...로부터 결과를 생산함.
계14:7-‘그분에게 영광을 주는 것’=신성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것.
계17:17-‘그들의 심정 안으로 주는 것’=애착을 고무하는 것.
계17:17-‘짐승에게 그들의 왕국을 주는 것’=말씀에 교회를 주는 것.
계19:7-‘영광을 주는 것’=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먹 (fist)
출9:8-‘한 주먹 가득히 하여 너에게 가져오라’=받아질 수 있는 만큼의 힘. ‘주먹’, 또는 ‘손바닥’=힘.
출21:18-‘(만일) 사람이 그의 동료들 돌로 치거나 그의 주먹으로 친다면’=어떤 과학적 진리, 또는 어떤 일반적 진리로부터 누군가의 진리를 약하게 하는 것. ‘주

주먹-주민-주석-주 예수 그리스도-...주위에-주민

떡'=일반적 진리.

주민 (inhabitant))

창23:4-'나는 나그네이고 당신과 더불어 주민이다'=비록 주님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그들과 더불어 있으실 수 있다.

이18:3-'세상의 거주자들과 땅의 주민들'=선들과 진리들 안에 있는 교회의 모든 이들.

주석 (tin)

겔27:12-다르시으로부터 '은, 철, 주석, 납'=최말단인 것, 즉 감각적인 것들까지 질서대로 있는 진리들.

겔22:18-글자 의미 속의 것들이 '놋쇠, 주석, 철 납'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이유는 이런 것들에 의해 자연적 인간의 선들과 진리들이 의미되어져 있기 때문.

주 예수 그리스도 (Lord Jesus Christ)

* Jesus, Lord를 보라.

...주위에 (around)

창23:18-'모든 그것의 경계선 주위에...'=외면의 지시들...'경계' 그리고 '주위'=외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창23:18, 여6:1-7, 예50:14,15-내면들이 어둠인 이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외면들은 마치 환한 듯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 주위에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파괴될 때, 그들은 곧두박질치듯 지옥으로 운반되어진다. 이런 모습에 케를 지닌 성직자가 성 주위를 돈 후 성벽이 무너지는 광경에서,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네 자신을 바빌론에 맞서 주위에 배열하고 활을 구부린 모든 자들, 주위에서 그녀에게 소리치는 모든 이들, 그녀는 그녀의 손에 주어졌다, 그녀의 기초들은 무너졌다, 그녀의 벽들은 파괴되어졌다'로 표현되어졌다.

출2:3-'그녀는 골풀 상자(ark, coffer)를 가져왔다'=주위에 있음을 뜻하는 것, 그러나 여전히 진리로부터 파생된 것...'상자, 또는 작은 케'=주위에 있는 어떤 것, 또는 안의 것을 에워싸는 어떤 것.

출19:16-'극도로 강력한 나팔 소리가 있었다'=천국 둘레에 있는 천국의 상태.

계5:11-말씀에서 '주위에'에 의해 더 먼 경계에 있는 것, 고로 더 먼 것이 뜻해진다. 그러나 천국이 취급되는 곳에서는 이는 총명과 지혜의 수준에서 더 먼 것, 고로 아래쪽에 있는 것이 뜻해진다.

계7:11-'둘러 씌'=결합.

주인 (master)

* 스승(master)을 보라.

주인 (lord)

창32:4-'고로 너희는 나의 주인 에서에게 말하라'=선이 더 높은 위치에 있음을 처음 인정함.

창37:19-'보라 꿈들의 저 주인이 온다'=그것들은 헛된 것이었다는 것.

창39:2-'그는 자기 주인 이집트인의 집 안에 있었다'=그것은 자연적 선 안에서 개시되어질런지 모른다는 것. '주인'=선.

창39:3-'그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더불어 있음을 보았다'=신성이 자연적 선 안에 있음을 지각했다는 것...'주인'=선, 여기서는 자연적 선, 그이유가 이집트인이기 때문.

창39:8-'보라 나의 주인은 집 안에서 나와 함께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자연적 선은 제것 삼는 것조차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창39:16-'자기 주인이 집에 올 때 까지'=자연적 선과 교통하기 위하여.

창41:1-'이집트의 왕 그들의 주인에게'=그들은 자연적 인간의 새로운 상태에 맞서 있었다는 것.

창42:30-'토지의 주인 남자가 말했다'=자연 평면을 지배하는 영적 평면으로부터의 천적 평면...'남자, vir'은 영적 평면을, '주인'은 천적 평면을 서술한다. 내적 의미에서 '남자'=진리; 그리고 '주인'=선.

창45:8-'(하느님께서) (바로)의 집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나를 세우셨다) '=그것으로부터 자연 평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말씀에서 '주인'은 선을 서술한다.

출21:3-'만일 여인의 주인'=선과 결합한 진리. '주인'=진리, 그이유는 여기서 주인은 종을 뜻하기 때문.

출21:4-'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여인을 주었다면'=전투 안에 있을 때 영적 평면을 수단으로 선이 진리에 결합했다는 것. 여기서 '주인'=영적 평면. '주인'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들들로부터의 한 명이기 때문.

출21:5-'나는 나의 주인을 사랑한다...'...'주인'=영적 선.

출21:8-'만일 그녀가 자기 주인의 눈에서 악하다면'=

주재하다-주조된

만일 자연적 즐거움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이 영적 진리에 일치 않는다면... '주인'=영적 진리.

출21:28-'수소의 주인은 죄없다'=내적 인간으로부터는 악이 없다, 그이유는 지적 측면이 아닌 자발적 측면으로부터 이기 때문. '수소의 주인'=내적, 또는 영적 인간; 그이유가 '수소'에 의해 자연적, 또는 외적 인간에서 악에 애착함이 의미되고 있기 때문...그리고 내적 인간은 외적 인간의 주인이다.

출21:34-'구덩이의 주인이 되겠으라'=그와 더불어 거 짓은 수정되어야 한다.

출22:8-'집의 주인이 하느님에게 가져올 것이다'=선으로부터 요구함. '집의 주인'=선.

출22:10-'그것의 주인이 가져갈 것이다'=선 아래 결합. '주인'=선.

출22:11-'그는 그것의 주인에게 되겠으라'=(가져가버린 것)을 위해 (진리의 선으로) 회복함. '주인'=선.

출22:13-'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면'=만일 진리의 선이 일반적인 것에서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면. '주인'=선.

출22:14-'만일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다면, 그는 되잖지 않는다'=만일 진리의 선이 그것과 함께 있다면, 회복됨은 없다.

출32:22-'내 분노가 뜨거운 밀랍이 되게하지 마라, 나의 주인이여'=내적 측면은 그자체를 돌아서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여기서 모세는 아론에 의해 '나의 주인'이라 불린다. 그이유는 내적 측면이 주인이고 외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종에 해당되기 때문.

이19:4-'고된 주인'=자아 사랑으로부터의 악.

계7:14-'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아십니까'=주님 만이 이것을 알았었다는 것.

계17:14-'그분은 주인(lord)들의 주(Lord)이시고 왕들 중의 왕이시기 때문'=주님은 선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

주재하다 (reside)

창26:2-'토지에 주재하는 것.'

창35:22-'이스라엘이 이 토지에 주재할 때=이 상태 안에 있는 동안...'주재하는 것'=생활하는 것...'주재하는' 것은 진리 측면을 서술하고, '거주하는' 것은 선 측면을

서술한다.

주조된 (molten)

호13:2-'은으로 주조한 것'=왜곡된 선. (=진리처럼 나타나는 거짓).

이30:22-'은으로 새긴 것의 덮개와 금으로 주조한 것의 덮개'=진리들과 선들로서 인정되고 예배되는 악으로부터와 거짓으로부터의 과학물들.

이48:5-'우상', '새긴 것', '주조한 것'=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교리적인 것들.

예10:14,15-'새긴 것', '주조한 것'=자신의 총명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 이것은 말씀의 외적 의미, 또는 외적 형체인데, 진리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내적 형체에서는 거짓들이다. 고로 인간은 '지식으로부터 어리석다'고 말해지고, 주조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해지고, '그것들에는 숨이 없다'라고 말해진다.

출32:4-'그는 그것을 주조하여 송아지로 만들었다'=이 나라의 사랑들로부터의 즐거움에 따라...'주조한 것'=예배가 외적 사랑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이44:10-'주조하여 만든 것'=자신의 사랑으로부터의 교리.

호13:2-거짓으로부터의 악과 악으로부터의 거짓이 들어 있는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교리적인 것들이 '은으로 주조한 것', 그리고 '우상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그들의 은'=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것. '장인의 일'=이 총명; 그러므로 그들의 총명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우상을 만들되 통째로 장인의 일로 만들었다'라고 말해진다. 이런 교리적인 것들은 거짓인바 사라진다는 것이 '그들은 굴뚝의 연기 같이 날아가버릴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예10:14-이 거짓이 '그의 주조한 것은 거짓이다'에 의해 뜻해져 있다.

이30:1-'주조한 것, 그러나 내 영으로부터서가 아니다'=지옥적 거짓으로부터의 예배, 그리고 신성의 진리로부터가 아니다.

호13:2-'주조한 것', '우상'에 의해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교리에 따른 예배가 의미된다.

주조자 (founder, refiner)

말3:2-'주조자의 불'=시험, 이를 수단으로 순수해짐이

죽다

있다

이40:19-‘금세공인이 그것을 금으로 덮어씌운다.’

예10:9-‘노동자의 일과 금세공자의 일’=인간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인 것.

죽 (pottage)

콩 (pulse)

창25:29-‘아곱은 죽을 요리했다’=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쌓아올린 것.

왕하4장-‘죽(국)’=기억적 지식의 잘못 조합된 덩어리 (mass).

창25:34-‘아곱은 에서에게 빵과 렌즈콩 죽을 주었다’=진리의 선과 교리물의 선으로부터 선물된 생활의 선... ‘렌즈콩 죽’=교리물로부터의 선; ‘죽’, 또는 ‘콩’=교리물로부터 쌓아올린 것(heap). 그리고 ‘렌즈콩’=그것들의 선.

왕하4장-‘죽(국)’=유대 교회의 외적 의식들로부터의 선.

왕하4장-‘죽, 이 안으로 그들은 쓴 호리병박을 넣었다’=말씀이 왜곡되었다; 그리고 치료되어진 음식 (meal)=선으로부터의 진리...

죽다 (die)

죽은 (dead)

죽음 (death)

창3:3-‘네가 죽지 않도록’...그들이 죽는 이유인즉, 신앙이 멸해지기 때문, 즉 모든 지혜와 총명이 멸해지기 때문.

이26:14, 25:8, 28:15, 마4:16, 요5:24, 8:21,24,51,52-한편 신앙 안에 있지 않은 그들이 ‘죽은’ 자라 불린다...즉 이사야서에서, ‘죽은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르바임은 다시 일어나지 못 할 것이다, 이것에 당신은 방문하셨고 그들을 소멸하셨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이유가 자아사랑으로 부푼 이되기 때문... 그리고 지옥이 ‘죽음’이라 불린다. 또한 주님에 의해 그들은 ‘죽은 자’라 불리고 있다.

창5:5-‘그리고 그는 죽었다’=거기에 이와 같은 지각은 있지 않았다.

민19:11,13-‘죽은 것에 접촉한 그는 칠일 간 불결해 있을 것이다’...내적 의미에서=인간에 어울리는 것, 이

것은 죽어있고 모독되어 있다.

창11:28-‘하란은 죽었다’=내면적 예배가 말살되었다.

이26:14, 시88:10-‘죽은 자’는 죽은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것.

창18:25-‘의로운 자를 불경한 자들과 함께 죽게 만드는 것’=선에 속하는 것은 죽을 수 없다는 것, 그이유는 악이 선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

창 19:19-‘어쩌면 어떤 악이 나에게 집착하여 있다면 그리고 제가 죽지 않도록’=그다음 악 안에 있는 도리밖에 더 다른 방도는 없다는 것, 고로 지옥에 떨어지리라 하는 것.

창20:3-‘보라, 너는 여인 때문에 죽을 것이다’=만일 합리성이 거기 있는 것들에 관하여 상담되어질 것이자면, 신앙 속의 교리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리라는 것.

창20:7-‘반드시 죽을 줄을 알라’=거기에 진리와 선에 관한 교리는 있지 않을 것이다.

창21:16-‘내가 아이의 죽음을 보지 않도록’=멸해질 것이기에 오는 슬픔. ‘죽음을 보는 것’=멸망하는 것.

창23:2-‘사라가 죽었다’=신앙 속의 진리에 관련하여 밤(night)이다. ‘죽는 것’, ‘죽은 자’, 그리고 ‘죽음’이 교회에 관해 서술할 경우=그것의 마지막 때, 즉 모든 신앙, 선행이 종료될 때의 마지막 때; 이런 때가 말씀에서 ‘밤’이라 불린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중지되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창23:3-‘죽은 자 위로부터’=그 밤에.

창23:4-‘나는 내 앞으로부터 죽은 자를 매장할 것이다’=그는 그들과 더불어 있었던 밤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나타나리라는 것...‘죽은 자’=그들 또는 밤의 상태, 즉 무지의 상태.

창 25:8-‘아브라함은 만기가 되어 죽었다’=아브라함에 의한 표현의 끝. ‘만기가 되어 죽는 것’=중지하는 것, 즉 끝을 가지는 것, 여기서는 표현함의 끝.

창25:32-‘에서가 말했다, 보라, 나는 죽으려 한다’=후에 그는 다시 일어나리라는 것...‘죽는 것’=어떤 것이 존재하기가 중지될 때, 상태의 마지막. 그리고 앞의 상태의 마지막은 그 뒤의 상태에게는 시작인 바, 여기서, ‘죽으려 한다’는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죽다

이9:1-‘죽음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그들’=선과 진리에 관하여 무지함에 있는 이들의 상태.

창26:11-‘이 사람과 그의 여인과 접촉하는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은 공개된채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접근되는 것조차 있어서는 안된다, 만일 그것이 모독된다면 영원한 저주의 위협에 직면한다...‘반드시 죽는 것’=영원한 저주,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다.

창27:2-‘나는 내 죽음의 날을 모른다’=자연 안에서의 생명...‘죽음’=다시 일어나는 것, 즉 생명 안으로 소생하는 것; 고로 ‘죽음의 날’에 의해 생명이 소생하는 상태, 마찬가지로 생명이 의미되어진다. 이것이 자연 안에서 인 이유는 여기서 취급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창27:4-‘내가 죽기 전’=자연 안에서 소생하는 첫 상태. ‘죽는 것’=다시 일어나는 것 또는 생명으로 소생하는 것.

창30:1-‘그리고 만일 아니면, 나는 죽어 있다’=고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 ‘죽는 것’=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고대 시대에서, 아내들은 자기들이 아들이든 딸이든 낳지 못할 경우, 자신을 죽은 자라 불렀다. 또한 자신들이 그와 같다고 믿고 있었다.

창35:8-‘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유전적 악이 추방되었다. ‘죽는 것’=끝, 또는 이와같이 있는 것이 중지되는 것; 여기서, 추방, 그이유는 유전적 악이 취급되기 때문.

창35:18-‘그녀의 혼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그녀는 막 죽으려하고 있었다’=시험들의 상태. ‘혼이 빠져나감’, 그리고 ‘죽는 것’=마지막 시험, 이것은 옛 인간이 죽고 새 인간이 생명을 받을 때이다.

창35:19-‘라헬이 죽었다, 그리고 에브라테로 가는 길에서 매장되었다’=내면적 진리에 대한 이전의 애착이 끝남. ‘죽는 것’=이렇게 있는 것이 중지됨.

창35:29-‘이삭은 만기가 되어 죽었다’=신성한 자연 안에서 소생함. ‘만기가 되고 죽는 것’=소생함. 그이유가 말씀에서 누군가가 죽어 있다고 언급되어질 때, 내적 의미에서는 그의 마지막 그리고 또다른 그의 새로운 것, 고로 연속이 의미된다; 마치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에 관련하여 그들이 죽어 있다라고 말해지는 경우, 또

는 대 성직자(제사장)에 관련해 그렇게 말해질 때, 이것은 내적 의미에서는 그들을 수단으로 있었던 표현의 끝, 그리고 또다른 것에서 계속됨, 고로 소생함이다. 저 세상에서도 그들은 이런 것들을 읽는 동안에도 어떤 죽음도 납득 못하는데, 그이유는 죽는 것이 무엇인지에 아주 무지하기 때문이다; 고로 그것 대신 그들은 또다른 것에서 계속인 것은 지각한다. 더욱이 인간이 죽을 때, 그는 땅에서의 사용을 위해 자기를 섬겼던 육체를 제외하면 그는 죽지 않는다; 그는 육체의 사용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계에서 그의 영혼에 관련된 삶을 계속한다.

창37:18-‘그들은 요셉을 죽게 만들려고 음모를 작당했다’=그들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영적인 것이 소멸되기를 원했다...‘죽게 만드는 것’=소멸하는 것.

창38:7-‘여호와께서 (에르)를 죽게 만드셨다’=교회를 표현하는 것이 없었다. ‘죽는 것’=이와같이 있는 것이 중지되는 것; 또한 표현의 끝; 여기서의 경우, 그로부터의 어떤 후손과 더불어 교회의 표현은 없다는 것.

창38:11-‘(셀라) 또한 그의 형의 경우 같이 죽지 않도록’=그가 멀해질까하는 두려움, 즉 야콥으로부터의 후손과 더불어 있었던 교회의 표현이 멀해지면 어찌나하는 걱정.

창38:12-‘수아의 딸이 죽었다’=거짓으로부터의 악에 관련하여. ‘죽는 것’=이와같이 있기가 중지됨...여기서의 경우, ‘많은 날들 후에 수아의 딸이 죽었다’에 의해 거짓으로부터의 악에 관련하여 상태의 바뀜, 그것은 전에 있어왔던 것과 같게 있지 않았다는 것.

창42:2-‘우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영적 생명...다른 삶에서...죽음에 의해서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옥이다, 그리고 특별한 의미에서 거기서의 영원한 불행... 그리고 지옥에서는 ...선 대신에 악이, 진리 대신에 거짓이 있다, 고로 영적 생명은 꺼져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볼때 거기는 죽음이 있다; 그이유가 영적인 죽음이 악과 거짓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더불어 영적 죽음은 그가 악을 뜻하고 거짓을 생각하는 것이다. 악귀나 악령들은 자기들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라고 자기들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죽다

다; 그이유가 그들은 자기들도 뜻하고 생각할 수 있기에 자기들은 살아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 관해 말해지는 바, 선과 진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악과 거짓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가능치 않다, 그이유는 그것들은 반대되기 때문이다.

창42:20-‘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고로 진리들 안에 생명이 있다.

창42:38-‘그의 형제가 죽기 때문에’=내적인 것이 현재 있지 않기에...‘죽어 있는 것’, 여기서의 경우=출석되지 않다; 그이유가 그는 살아있는 자 사이에 있었으나 면전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

창43:8-‘우리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가고, 그리고 살 것이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등차별로 있는 영적 생명...‘죽지 않음’=더 이상 저주되지 않음, 그리고 저주의 상태 바깥에 있음; 그이유가 말씀의 내적 의미에서 저주가 영적 죽음일 뿐 더 다른 죽음은 없기 때문...이로부터 생명 속에 있지 않은 이런 것들로부터 옮겨짐이 ‘죽지 않는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창44:9-‘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이든지 발견될 경우, 그를 죽게 하리라’=이런 것을 저지르는 자는 저주되어질 것이라는 것. ‘죽는 것’=저주되는 것; 그이유가 영적 죽음은 저주 외 더 다르지 않기 때문.

창44:20-‘그리고 그의 형제는 죽어 있다’=거기에 내적인 선은 없다는 것...‘죽어 있는 것’=더 이상 있지 않음.

창44:22-‘만일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난다면,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만일 분리됨이 있다면, 교회는 멸해질 것이다...‘죽는 것’=더 이상 있지 않는 것, 고로 멸해진 것.

창45:28-‘나는 죽기 전 내려가서 그를 보아야겠다’=새로운 것이 있기 전 결함을 갈망함...‘내가 죽기 전’=새로운 것에 앞서, 즉 표현의 새로운 것에 앞서; 그이유가 말씀에서 표현자(물)들은 서로서로 계승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죽을 때, 또다른 어떤 것을 수단으로 이와 비슷한 표현이 그 뒤를 잇는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표현은 이삭에 의해 계승되어졌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후손에 의해 표현은 이어져갔다.

시91:6-‘대낮에 황폐케 하는 죽음’=노골적으로 살아있는 악, 이 악을 수단으로 진리가 파괴되었다.

창46:30-‘이때 나를 죽게 하라’=새로운 생명. ‘죽는 것’=생명으로 부활, 고로 새 삶. ‘죽는 것’=생명의 새로운 것인 이유는...인간이 죽을 때, 즉시 그의 삶의 새로운 것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를 떠받힌 물질적 몸이 거절될 때 그는 생명으로 소생되어진다. 새로운 삶이 여기서 ‘죽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그이유는 이것이 내적인 것으로부터의 유입 덕택에 오기 때문이다.

창47:15-‘우리가 은이 떨어졌다 해서 당신 근처에서 왜 죽어야 합니까?’=이와 달리 진리의 결핍 때문에 영적 죽음이 있다는 것. ‘죽는 것’=영적 죽음. 또는 저주됨.

창47:19-‘어찌하여 당신의 눈에서 우리와 우리의 지면 모두가 죽어야 합니까?’= 만일 그것들이 황폐되어진다 면 내적인 것 아래 영적 생명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영적 생명의) 이 그릇이 죽는다고 말해지는데, 이 때란 영적 생명의 어떤 것도 내향적으로 있지 않을 경우이다; 그이유가 ‘죽는 것’에 의해 황폐됨이 의미되기 때문; 즉 영적 생명을 만드는 것인 선과 진리가 결핍됨을 의미하기 때문.

창47:29-‘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임박하였다’=거듭나기 직전의 상태...‘죽는 것’=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영적 생명이 자극되어 일으켜지려는 것, 고로 거듭나지려는 것; 그이유가 거듭나지는 그는 영적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기 때문, 그리고 새 삶으로 자극되어진다.

창48:21-‘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보라, 나는 죽는다’=새로운 삶에 관한 천적 왕국의 내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영적 선을 지각함, 그리고 표현함이 끝을 맺음에 관하여...‘죽는 것’=생명으로 소생함; 그리고 또한 이전 표현의 끝...

계8:9-‘바다에 있는 창조물의 삼분의 일, 혼들을 가졌는데, 죽었다’...‘그들이 죽었다’는 것=그들은 영적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창50:5-‘보라 나는 죽는다’=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중지됨. ‘죽는 것’=존재함이 더 이상 없는 것; 그리고 또한 교회가 만기가 될 때, 그것의 마지막 때.

창 50:15-‘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았다’=진리와 선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들, 그리고 교

죽다

회는 소생되어야 한다고 통각함...‘죽어 있는 것’=소생되어 있는 것, 즉 교회.

창50:16-‘당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죽기 전 명령했다’=이것은 교회의 명령을 수단으로 있었다는 것...‘그가 죽기 전’=교회가 아직 있었던 동안.

창50:16-‘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보라, 나는 죽는다’=교회의 내적인 것이 중지될 것이라고 예견함...‘죽는 것’=이와같은 있음이 중단하는 것, 고로 중지하는 것. 또한 ‘죽는 것’=교회의 마지막 때.

창50:26-‘그리고 요셉은 죽었다’=교회의 내적인 것의 있음이 중지되었다.

출1:6-‘요셉은 죽어 있었다’=지금은 교회의 내적인 것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 놓여졌을 때. ‘죽는 것’=이전 상태의 끝, 그리고 새로운 상태의 시작, 고로 교회의 상태가 지금 예전과 다른 상황이었다. ‘죽는 것’=이와같이 있는 것이 중지되는 것.

출2:23-‘그리고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이전의 거짓이 끝남. ‘죽는 것’=있는 것이 중지됨, 고로 끝남.

출 4:19-‘네 혼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진리와 선의 생명을 파괴하려 애쓰던 거짓들이 제거되었다. ‘죽어 있는 것’=제거되는 것; 그이유가 죽은 그들은 옮겨지기 때문.

출7:18-‘강 안에 있는 물고기가 죽을 것이다’=과학적 진리는 꺼질 것이다...‘죽는 것’=꺼지는 것.

출 8:13-‘개구리들이 집으로부터 죽었다’=그들과 더불어 자연 각 처에서의 거짓들로부터의 추론이 중지되었다. ‘죽는 것’=중지되는 것,

출9:4-‘이스라엘의 아들들 누구도 죽지 않았다’=그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출9:19-‘우박이 그것들 위에 내려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죽을 것이다’=교회 속에 있는 것은 거짓에 의해 온통 파괴될 것이다...‘죽는 것’=있음이 중지되는 것; 그리고 이는 선과 진리의 황폐해짐에 관해 말해지는바, 그것=파괴되는 것.

출10:17-‘그가 이 죽음을 내 위로부터 옮겨주도록...’=이 거짓은 괴롭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그이유가 ‘죽음’에 의해 저주와 지옥, 고로 괴롭힘이 의미되기 때문.

출10:28-‘그이유가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너는 죽

을 것이기 때문’=만일 중요하게 될 것이라면, 그것은 근절되고야 말 것이다...‘죽는 것’=근절되는 것

출12:30-‘죽은 자가 한명도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었기 때문’=저주받지 않은 자는 한명도 없었기 때문.

출12:33-‘우리 모두 죽는다’=그들과 더불어는 지옥...‘죽는 것’=지옥.

출14:11-‘이집트에는 문힐 데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를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만일 저주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로 인해 야기된 시험들을 통하여 서이트, 침입자들의 거짓들을 통하여서이트 매한가지일 것이다...‘무덤’=저주, ‘죽는 것’=저주.

출14:12-‘우리가 광야에서 죽기 보다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떼지어 몰려든 상태에서 거짓의 폭력을 통하여 있는 저주가 차라리 시험의 상태에서 야기되는 저주 보다 더 나을 듯하다.

출14:30-‘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이집트인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이리저리 흩어진 저주된 자의 모습.

출16:3-‘여호와의 손에 의해 죽어지는 것’=그들은 주님께 의해 떠나게 되는 것. ‘죽어지는 것’=악 안에, 그 결과 거짓 안에, 따라서 저주됨에 있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 의해 죽어지는 것’이라 말해질 때, 이것=주님께 의해 떠나게 되어지는 것; 그이유는 그분에 의해 떠나지는 그들, 즉 그분을 떠난 그들은 악 안으로, 그 결과 거짓 안으로도 돌진하는바, 저주를 자초하기 때문이다.

출17:3-‘나와 내 아들들, 내 소떼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만드는 것’=진리의 결핍으로부터 영적 생명의 모든 것은 종료된다. ‘죽는 것’=기한이 다됨; 여기서의 경우 영적 생명에 관하여서이다.

출20:16-‘어쩌면 우리는 죽을지 모른다’=고로 천국의 생명은 그들과 더불어 죽을 것이라는 것. ‘죽는 것’=영적으로 죽는 것, 고로 천국의 생명에 관련하여 사멸되는 것.

출21:12-‘사람을 치죽이는 자, 그는 죽는다’=신앙 속의 진리에 해를 가함, 그 결과는 영적 생명의 손실이다...‘죽는 것’=영적 생명의 손실.

출21:14-‘너는 죽이기 위해 그를 내 제단으로부터 데려갈 것이다’=설사 그가 주님의 예배로 도망하고, 용서

죽다

를 간청하고, 회개를 약속한다 해도 저주됨.

출21:18-‘그리고 그는 죽지 않는다’=그리고 꺼지지 않는다. ‘죽는 것’=이와같이 있는 것이 중지되는 것, 고로 꺼지는 것.

출21:20-‘그리고 그는 그의 손 아래 죽는다’=그가 보는 아래 꺼지도록.

출21:29-‘그리고 그의 주인 또한 죽을 것이다’=내적 인간이 저주됨

출21:34-‘그리고 죽은 것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악 또는 거짓이 그와 더불어 남아 있을 것이다...‘죽은 것’, 이것이 자연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련해 말해질 때, 이는 ‘황소’ 또는 ‘나귀’에 의해 의미되어진다=악 또는 거짓; 그이유가 선이 죽을 때, 그 자리를 악이 이어받고, 진리가 죽을 때, 거짓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죽어 있는 것=악과 거짓인바, 악을 뜻하고 거짓을 신봉하는 이들이 ‘죽은 자’라 불리운다.

출21:35-‘그리고 그는 죽는다’=그 때문에 선한 애착은 사멸된다. ‘죽는 것’=사멸하는 것.

출21:36-‘그리고 죽은 것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피해를 가하는 애착을 위하여. ‘죽은 것’=악과 거짓.

요5:25-‘죽은 자’=신앙 속의 진리에 무지해서 아직까지는 영적 생명을 가지지 않은 이들.

출28:35-‘그는 죽지 않는다’=표현함이 멀하지 않도록, 그리고 천국들과 결합하도록.

출28:43-‘그들이 그들의 불법을 짊어져 죽지 않도록’=모든 예배가 전멸됨...그이유가 표현적 예배가 죽었기 때문.

출30:20-‘그들은 죽지 않는다’=표현성은 멀하지 않는다. ‘죽는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직 임무와 관련해 말해질 때=표현성의 중지, 이로부터 천국과의 결합의 중지.

숙11:9-‘죽는 것’=영적 생명에 관하여 죽는 것.

출31:14-‘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천국으로부터 분리 그리고 영적 죽음. ‘죽는 것’, 안식일에 관련하여 말해질 때, 안식일을 수단으로 주님 그리고 그분을 인정함이 의미되어지는바,=천국과의 결합이 없음, 고로 그분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천국으로부터의 분리가 영적 죽음이다.

민25:10-‘(재앙에서 죽은 이들의) 죽음’=모든 진리들의 소멸. 이것은 모독한 이들과 더불어 거행된다.

출35:2-‘그것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이 각각은 죽을 것이다’=주님이 아닌 자신에 의해 그리고 자신 고유의 사랑에 의해 인도되는 이들과 더불어 영적 죽음...‘죽는 것’=저주, 또는 영적 죽음.

계6:8-‘죽음’=영원한 저주.

계1:17-‘나는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에 떨어졌다’=그의 자신의 생명이 실패함.

계1:18-‘그리고 죽어 있었다’=그분께 소홀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인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

계1:18-‘나는 지옥과 죽음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그분 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계2:10-‘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거짓들이 제거되고 마치 폐지되기 까지 (주님의) 진리들을 받고 인정함...영계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죽음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음’에 의해 그들의 시험들의 끝이 의미되어진다.

계2:11-‘두 번째 죽음에 의해 상처입지 않을 것이다’=후에 그들은 지옥으로부터 악들과 거짓들을 산출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 죽음’은 혼의 죽음이 의미되는데, 이것은 저주됨이다.

계2:23-‘나는 죽음을 가지고 그녀의 아들들을 죽일 것이다’=그들과 더불어 말씀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은 거짓들로 바뀔 것이다...또한 ‘그녀의 아들들을 죽음을 가지고 죽이는 것’=그들의 거짓들이 저주되는 것.

계3:1-‘너는 살아 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죽어 있다’=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그럼에도 자신들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그들이 살아 있는 듯 보이고 그렇게 믿어지고 있다는 것.

계3:2-‘이제 막 죽으려 하는 남아 있는 것들을 강권하게 하라’=그들의 예배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은 생명을 받고 꺼지지 않을 런지 모른다는 것.

계6:8-‘그 위에 앉은 그의 이름은 죽음이었다’= 영적 생명의 사멸...여기서는 ‘죽음’에 의해 영적 죽음이 의미된다; 그리고 ‘지옥’에 의해 저주가 의미된다. 이것에 이 죽음이 뒤따르고 있다.

죽다

계8:9-‘바다에 있고, 혼을 가졌던 창조물의 삼분의 일 이 죽었다’=이 신앙에서 살았고 살고 있는 이들은 개혁 되고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계8:11-‘많은 사람들이 물들 때문에 죽었다, 그이유는 그것들이 쓰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말씀의 왜곡된 진리들로부터 많은 이들의 영적 생명이 소멸됨.

계9:6-‘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죽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그들로부터 도망할 것이다’=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은 신앙의 것들에서 단혀진 이해성과 멈춘 의지를 원한다는 것, 고로 그들은 어떤 영적 생명과 빛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아직 주님께 의해 설비되어 있는 바, 영적 빛과 생명이 인간들과 더불어 소멸되지 않도록 이해성은 단혀지지 않으리라는 것이다...그이유가 이 죽음은 영적 죽음 외 더 다른 것은 아닌바, 이것은 이해성이 믿어지게 되는 것으로부터 옮겨지려 할 때 설득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12:11-‘그들은 죽기까지 조차 자기들의 혼을 사랑하지 않았다’=주님 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아니했었던 이들...‘죽기 까지 조차’=오허려 죽는 것을 원함; 결과적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으로 여겨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두 사랑들로부터 물러나기 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것.

계14:13-‘이제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은 자는 복 있다’=그분의 새 교회에 있을 사후 그들의 상태...‘죽은 자’란 자기의 혼이 괴로움을 받았던 이들, 자기의 육체는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이들, 그리고 시험들로 고통받았던 이들을 의미한다.

계16:3-‘그것은 죽은 것의 피 같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생 혼이 바다 안에서 죽었다’=그들과 더불어 지옥적인 거짓, 말씀 속의 모든 진리를 통하여...소멸되어 가고 있었다...그이유가 ‘죽음’에 의해 영적 생명의 소멸이 의미되기 때문, 이로부터 죽은 것에 의해서는 지옥적인 것이 의미되기 때문.

계18:8-‘죽음’=지옥의 생활과 지배함으로부터 내던져서 오는 속을 뒤집는 슬픔.

계20:5-‘죽은 자의 나머지=믿음 만에 있는 이들로부터

거절당해왔었던 이들...

계20:6-‘이들에게 두 번째 죽음은 권능을 가지지 못한다’=그들은 저주되지 않는다는 것. ‘두번째 죽음’에 의해서는 영적 죽음 외 더 다른 것은 없다. 이 죽음은 저주됨이다; 그이유가 첫 번째 죽음은 자연적 죽음, 즉 육체의 죽음이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 즉 혼의 죽음이다...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저주됨이고, 첫 번째 죽음은 사망인바, 이 죽음은 영적이지 아니한바, 첫 번째 죽음은 계시록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이를 주목하지 않은 이들은 두 개의 영적 죽음이 있다고 쉽사리 믿어질런지 모른다, 그이유는 이곳이 ‘두 번째 죽음’이라 말해지기 때문이다. 영적 죽음은 오직 한번 뿐 인바, 이것이 ‘두 번째 죽음’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계20:12-‘나는 죽은 자가 크든 작든 하느님 앞에 서있는 것을 보았다’=땅에서 죽은 모든 이들, 그리고 지금 영들의 세계 안에 있는 이들.

계20:13-‘바다는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포기했다’=교회의 외적이고 자연적 사람이 판결에 불리웠다.

계20:14-‘그리고 죽음과 지옥은 불의 호수에 내던져졌다’=그자체 악마와 사탄들인 심정이 불경한 자, 그럼에도 외부적으로는 교인인 자들이 지옥으로 내던져졌다...

계21:4-‘죽음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주님은 저주의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겔3:18-‘정녕 그는 죽을 것이다’=영원한 죽음으로 멸해지는 것, 이것이 저주이다.

요11:26-‘내 안에서 살고 믿는 모든 이 각각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죽지 않는 것’=영적으로 죽지 않는 것, 즉, 저주되지 않는 것; 그이유가 저주된 자의 삶이 ‘죽음’이라 불리기 때문.

시33:19-‘죽음으로부터 그들의 혼을 외락 붙잡는 것’=악들과 거짓들로부터, 그리고 그 결과 저주됨으로부터.

이25:8-‘그분은 영원히 죽음을 삼킬 것이다’=강림을 수단으로 주님은 그분으로부터 사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악들과 거짓들을 제거하실 것이다...‘죽음’=악, 그이유는 그것으로부터 영적 죽음이 있기 때문.

예9:21-‘죽음은 창문들을 통하여 오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궁전 안으로 온다’=지옥의 거짓이 이해성 안으로

죽이다

들어 왔다, 그리고 이로부터 생각과 애착의 모든 것들 안으로 진입했다.

예42:16-‘너는 죽을 것이다’=이로부터 교회의 황폐함이 있고 저주됨이 있다.

민19:16-‘죽은(몸)’=악들을 통하여 멸해진 자.

시88:5-‘죽은 자 사이에, 무시했다’=진리와 선의 아무 것도 없는 이들 사이에, 그러므로 거절 되어진다.

이53:9-악들로부터의 거짓들이 ‘죽음들’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거짓들 안에 있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6:9-‘죽는 것’=멸하는 것.

이28:15-‘죽음과 계약을 만드는 것’=지옥으로부터의 거짓을 수단으로 결합, 이로부터 인간은 영적으로 죽는다.

이26:19-그들은 그분으로부터의 진리들을 통하여 가르쳐지고 거듭나질 것임이 ‘너희 죽은 자는 살 것이다’에 의미되어 있다.

이59:10-‘우리는 ...죽은 자로서 살아있는 자 사이에 있다’=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영적 생명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있지 않은데, 그이유는 그들이 거짓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계13:3-‘죽도록 상처받음’=말씀과 불일치함; 그이유가 말씀과 불일치하는 교리는 죽은 것이기 때문....

죽이다 (kill)

출13:15-‘여호와께서는 이집트 토지에 있는 모든 첫 출생을 죽이셨다’=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모든 이는 지옥에 떨어졌다.

계6:8-‘땅의 사분의 일을 죽이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교회의 모든 선이 파괴됨. ‘죽음(death)’에 의해 인간의 영적 생명의 소멸이 뜻해지고, ‘지옥’에 의해 지옥에 떨어짐이 뜻해지는 바 여기서 ‘죽이는 것’에 의해서 인간 혼의 생명이 파괴되는 것이 뜻해진다.

창4:14-‘나를 발견하는 자는 누구나 나를 죽일 것이다’=모든 악과 거짓이 그를 파괴할 것이다. (그이유는) 인간이 선행을 자신에게서 박탈할 때...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짓이고 그가 뜻하는 것은 악(이기 때문). 이것들이 인간을 죽인다. 또는 인간을 생명 없게 하는 원인이다.

창12:12-‘그들은 나를[아브람을] 죽일 것이다’=그들은

천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다.

창20:4-‘당신께서는 의로운 나라 또한 죽이시렵니까?’=선과 진리가 소멸되어질 것인지 아닌지.

창20:11-‘그들은 내 아내라는 단어 때문에 나를[아브라함을] 죽일 것이다’=고로 신앙으로부터의 천적인 것들이 멸해질 것이다...‘죽이는 것’=멸해지는 것.

이14:30-‘굽주림으로 뿌리를 죽이고, 남은 자들을 죽이는 것’=주님에 의해 내면에 저장되어 있는 선들과 진리들을 가져가버리는 것.

창26:7-‘그 장소의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도록’=고로 신성의 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

마24:9-‘그때에 그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부인함으로 해서 선과 진리는 멸해질 것이다. ‘죽이는 것’이 선과 진리를 서술할 때,=받아지지 않는 것, 고로 부정하는 것.

창27:41-‘나는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자체로부터 생명의 진리를 박탈하는 것.

호6:9-‘그들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죽을 것이다’=그들은 내적인 것까지 조차, 고로 모든 외적인 것들에 있는 진리들을 소멸한다.

창49:6-‘자기들이 분노하면 사람을 죽이고, 기분이 유쾌한듯 싶으면 수소를 느슨해지게 했기 때문에’=의도적인 악 안에서 그들은 교회의 선과 진리를 소진되게 했다.

창37:20-‘지금 오고 있으니 그를 죽이자’=주님의 신성의 인간에 관한 교리의 필수 요소가 소멸됨. ‘죽이는 것’=소멸하는 것.

이14:19-‘죽여진(slain) 자의 의복’=모독된 진리.

창37:26-‘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이고 그의 피를 닳은들 무슨 이득이 있는가?’=만일 이것이 완전하게 소멸도 니다면, 이로부터 이득은 하나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10:4-‘죽임을 당한 자’=‘밀어졌히고 나감’보다는 덜한 수준에서 거짓의 원리들을 수단으로 자신들 안에 있는 신앙의 진리들을 소멸하는 이들.

신24:7-이것을 행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것이 그는 ‘죽음에 놓일 것이다’는 명령에 의미되어져 있다.

출1:16-‘만일 그것이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라’=만일

죽이다

이것이 진리라면, 그들은 자기들의 여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파괴할 것이다.

출2:14-‘너는 나를 죽인다고 말하는가?’=너는 내 신앙을 파괴하기를 원하느냐?...누군가의 신앙을 파괴하는 자는 그와 더불어 교회를 파괴한다; 그리고 이것 또한 그를 죽이는 것이다; 그이유가 신앙을 거두어감은 영적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기 때문.

예12:3-‘죽임의 날’=교회가 황폐해지는 때, 이때란 선행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도 없는 때이다.

속11:4-‘죽임의 양’=소유자가 파괴하는 신앙의 것들.

겔13:19-‘죽이는 것’=영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 즉 신앙과 선행을 파괴하는 것.

이10:4-‘죽은 자’=지옥 안에 있는 이들, 고로 악들과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

이14:19-‘죽은 자’=영적 생명을 빼앗긴 이들. ‘너는 네 백성을 죽였다’=그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와 선들을 파괴했다는 것.

요10:10-‘도적은 와서 ...죽이는 것 뿐이다...’ ‘죽이는 것’=신앙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

막13:12-‘형제가 형제를 배반하여 형제를 죽게 할 것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에 맞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형제’, ‘자녀’, 그리고 ‘부모’=교회의 선들과 진리들; 그리고 ‘죽이는 것’=그것들을 파괴하는 것.

민19:16-‘죽어 있었던 자’에 의해 영적 생명이 박탈되었던 자가 의미되어져 있다.

출2:14-‘네가 이집트인을 죽이듯’=네가 거짓을 파괴하듯...

출2:15-‘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거짓 과학물은 신성으로부터의 법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파괴하기를 원했다.

겔13:19-‘혼을 죽이는 것’=...영적으로 죽는 것, 또는 저주되는 것.

출4:23-‘나는 네 아들, 네 첫 출생을 죽일 것이다’=선행이 결핍된 신앙의 소멸, 그결과 그들과 더불어 있는 진리가 소멸됨.

출4:24-‘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표현 교회는 이 나라와 더불어 설립될 수 없다는 것. ‘죽이려

함’=받지 않은 것.

출5:21-‘우리를 죽이려 그들의 손에 검을 놓는 것’=그러므로 그들이 교회의 진리들을 거짓을 수단으로 파괴하고픈 열정 같은 것을 느끼는 것...‘죽이는 것’=신앙과 선행으로부터 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것.

출16:3-‘굽주립으로 이 모든 회중을 죽이는 것’=즐거움의 결핍과 선의 결핍으로부터 그들은 숨이 거두어지고 있다는 것.

출20:13, 마5:21,22-‘너희는 살인을 범하지 말라’=누군가로부터 영적 생명을 거두어가지 마라는 것; 또한 신앙과 선행을 가져가버리지 마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웃을 미워함을 낳지 마라는 것.

예4:31-‘죽이는 자’=선들과 진리들을 파괴하는 자.

마24:9, 요16:2-‘그들은 너를 죽일 것이다.’ 너를 죽이는 모든 이 각각은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거룩한 예배를 바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hour)이 오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죽이는 것’은 영적 생명의 박탈, 즉 신앙과 선행의 박탈이 의미되고 있다.

눅11:49-‘죽이는 것’=소멸하는 것.

계18:24-‘죽은 자(slain)’=영적 생명 측면이 멸해진 이들.

신19:4-6-실수로 자기 동료들을 죽이는 이들에 의해 이런 것들이 의미되도록 하기 위하여...

출21:14-‘사기쳐 그를 죽이는 것’=이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는 악의. ‘죽이는 것’=이웃으로부터 신앙과 선행을 제거해버리는 것, 고로 영적 생명을 박탈하는 것.

출21:29-‘그리고 (수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게 했다’=만일 이것이 신앙 속의 진리와 선을 파괴했다면.

단5:30-벨사살왕은 ‘그 밤에 죽임을 당했다’=진리와 선이라는 생명의 결핍, 고로 지옥에 떨어짐.

출22:24-‘나는 너를 검으로 죽일 것이다’=거짓들을 수단으로 그들은 자신들로부터 선과 진리를 박탈했다는 것.

출23:7-‘순진한 자와 정의로운 자를 너는 죽이지 마라’=내면과 외면의 선이 파괴되는 것을 극히 싫어함.

호9:13-‘죽인 자(slayer)’=영적 생명을 박탈한 자, 또는 선과 진리로부터 생명을 박탈한 자.

죽이다

출32:12-‘악을 위해 그분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기 위해 데려내왔다’=선 안에 있는 이들이 멸해진다는 것. ‘죽이려고 데려내오는 것’=파괴하는 것; 그러나 여호와를 두고 말해질 경우, 그분은 누구도 파괴 않으시는 바,=그들 자신의 악에 의해 멸해짐.

출32:27-‘너희는 그의 형제인 사람, 그의 동료인 사람, 그의 이웃인 사람을 죽이라’=선과 진리의 유입 측면이 마감됨, 그리고 그들과 친근 관계에 있는 것들이 단절, 하여 더 이상의 반응이나 교통함이 없도록.

계2:13-‘안다바스가 사탄이 거주하는 너희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다’=모든 진리가 교회에서 거짓에 의해 소멸되었을 때.

계2:23-‘나는 죽음과 함께 그녀의 아들들을 죽일 것이다’=그들과 더불어 말씀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이 거짓들로 변해갈 것이다.

계5:6-‘마치 죽임을 당한듯 서있는 어린 양’=주님의 인간 측면이 신성이라고 교회에서 인정 안됨.

계6:4-‘그들은 서로 죽일 것이다’=지옥의 침입으로부터 야기된 내부의 미움들, 내적인 불안.

계6:9-‘하느님의 말씀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붙잡은 증거를 위해 죽임을 당한 그들의 혼들’=말씀 속의 진리들에 따른 생활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신성의 인간을 인정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 의해 미움받고, 비난받고, 거절당했던 이들.

계9:5-‘그들을 죽일 수 없다는 것’=선행으로부터의 신앙 안에 있지 않는 이들로부터 선과 진리를 이해함과 뜻하는 능력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 그이유가 이 능력들이 제거될 경우,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지기 때문.

계9:15-‘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는 것’=교회의 사람들로부터 영적 빛과 생명을 제거해버리는 것.

계9:18-‘이 세 가자에 의해 사람의 삼분의 일이 죽었다’=교회의 사람들이 멸해지는 것은 이런 것들로부터이다는 것.

계11:5-‘만일 누군가가 그들을 다치게 한다면, 그로인해 그는 죽어야만 한다’=그를 정죄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그도 정죄된다.

계11:7-‘짐승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믿음 만으로의 교리 안에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그것들을 거절하게 하

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자들도 그것들을 거절하게 만들 것이다.

계11:13-‘지진에서 중요한 사람 칠 천명이 죽어졌다’=이 상태에서 믿음만을 고백했던 모든 이들은 멸해졌다.

계13:8-‘세상의 창설로부터 죽임을 당한’=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교회의 설립으로부터 인정되지 않았다.

계13:10-‘만일 누군가가 검으로 죽인다면, 그는 검으로 죽어야 한다’=거짓들을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혼을 파괴하는 자는 거짓들로 해서 파괴되고 파멸할 것이다.

계13:15-‘짐승의 상(image)을 예배하지 않는 만큼 죽어지게 한다’=자기들의 신앙의 교리를 인정 않는 이들 위에 저주를 퍼부음.

계18:24-‘죽임을 당한 이들에 의해 영적으로 죽임을 당해왔었던 이들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거짓을 수단으로 멸해진 자들이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 이들이라 말해진다.

계19:21-‘나머지는 말 위에 앉으신 그분의 검에 의해 죽어졌다...’=개혁 교회 사이에 있는 다양한 교회 집단들 모두는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았다. 그들은 이 가르침을 알고 있었는 바, 그 말씀이 그들을 판결하고, 멸해졌다.

겔13:19-‘죽어서는 안되는 혼들을 죽이는 것’=그들로부터 진리들로부터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계5:9-‘그이유는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에서 우리를 하느님에게 되찾으셨기 때문이다’=신성으로부터 모두를 분리함, 그리고 그분을 인정함을 수단으로,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신성의 진리를 받아들임을 수단으로 신성과 결합함.

계5:12-‘죽여진 어린 양’=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인정되지 않았음, 그리고 많은 이들에 의해 부정되었음.

계9:20-‘죽이지 않았던 나머지 사람들’=멸해지지 않은 모든 이들. ‘죽여지는 것’=영적으로 죽여지는 것, 이는 영원한 죽음에 멸해지는 것.

예4:31-‘살해자들(murderers)’=거짓들과 악들을 수단으로 영적 생명을 파괴하는 이들.

겔9:6-‘파멸 쪽으로 죽임(slay)’=완전하게 파괴함.

죽이다 (slay)

* 죽이다(kill)도 참조.

죽이다 - 준비하다 - 준수하다 - 줄기 - 줄기 식물

창22:10-‘그의 아들을 죽이려고’=오로지 인간성으로부터서만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죽여질 때 까지

창43:16-‘(짐승을) 죽이고(잡고) (잔치) 준비를 하라’=외면의 자연적인 것의 선들을 수단으로.

출22:1-‘그리고 그것을 죽일 것이다’=그것을 소멸할 것이다.

이66:3-‘죽이는 것’, 또는 제물, ‘수소’=외적인 것들에서 하느님을 예배함.

이57:5-‘어린이를 죽이는 것’=진리들을 소멸하는 것.

계13:8-‘세상의 창설로부터 죽임을 당한’=그분의 인간 안에 신성이 있음은 교회의 설립 때부터 인정되지 않았다.

준비하다 (prepare)

출19:13-‘그분은 던지는 창(dart)을 가지고 집행하실 것이다’=영적 선이 멸해질 것이다.

출19:11-‘그들은 셋째 날을 준비하라’=충분히 준비함.

계9:15-‘준비하는 것’=노력하고 있는 것.

계16:12-‘길을 준비하는 것’=입문을 준비하는 것.

계19:7-‘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속에 있을 이들이 모여지고, 시작되고, 가르쳐짐도 있다.

계21:2-‘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해 치장하듯 준비하고’=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했다는 것.

출16:5-‘그들이 가져온 것을 그들이 준비하게 하라’=자기 것 삼아진 선들을 배열함.

출23:20-‘내가 준비해둔 장소’=천국.

시11:2-‘그들은 자기들의 화살을 시위에 준비한다’=그들은 진리들 같이 나타나는 거짓들을 교리에 응용한다.

계7:6-‘하느님에 의해 준비되는 것’=주님에 의해 설비되는 것.

준수하다 (keep)

* 간직하다(keep), 보존하다(preserve)를 보라.

줄기 (stalk)

그루터기 (stubble)

출9:31-‘아마는 줄기였다’=진리가 앞쪽으로 나와 쏘고, 아래쪽을 향하여 보고 있었다.

출5:12-‘짚을 위해 (곡초) 그루터기를 그러모으는 것’=얼마간의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

출15:7-‘그루터기와도 같이 그들을 삼켰다’=자신들에 관하여 황폐됨과 지옥에 떨어짐. 그루터기 같이 라고 말해진 이유는 충분한 황폐됨이 의미되었기 때문이다.

이41:2-‘악들과 거짓들이 없던 것처럼 사라진다는 것이’ ‘먼지 같이, 바람에 날린 그루터기 같이’에서 의미되어져 있다.

줄기 식물 (cane)

창포 (calamus)

* 등나무, 대나무, 종려나무, 사탕수수 등등의 마디 있는 식물.

예6:20-‘세바’에 의해 지식들과 숭배함이 의미된다. 이것이 ‘향’과 ‘달콤한 줄기 식물’이다.

창41:5-‘한 줄기(stalk)에서 일곱 곡식 이삭이 올라오고 있었다’=자연 평면 속에 있는 과학물들이 다함께 결합되어 있음... ‘한 줄기에서’=다함께 결합함.

출25:31-‘쫓대의 ‘손잡이(shaft), 가지(branch), 그리고 사발(bowl)’=자연 평면에서 있는 영적인 것들.

출25:32-‘그것의 측면들로부터 여섯 가지들이 나가는 데...’=복합체에서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의 모든 것들... ‘측면들로부터 나가는 가지들(branches)’=선으로부터의 진리.

출25:33-‘그렇게해서 쫓대로부터 나가는 여섯 가지들이 있다’=영적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련되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의 힘... ‘가지들’=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그로부터의 힘.

출30:23-‘방향성 있는 창포’=내면의 진리에 애착함과 지각함... ‘창포’=이 진리; 그리고 ‘방향성 있는’=지각과 애착.

계10:1-‘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에게 주어졌다’=천국에 있는 교회와 세상에 있는 교회를 보고 아는 힘과 능력이 주님에 의해 그에게 주어졌다. ‘갈대’, 또는 ‘줄기(cane)’=인간이 자신으로부터 지니는 연약한 힘; 그리고 ‘지팡이’=인간이 주님으로부터 가지는 강한 힘. 그러므로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짐’은 주님으로부터의 힘이 의미된다.

계21:15-‘금빛의 갈대’=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능력, 또는 힘. ‘갈대’=힘 또는 능력(capacity).

이19:6,7-더 이상 진리들이 있지 않을 것, 가장 낮은

증언-증언하다-증오-증오하는-증인

수준의 진리인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진리들 까지도 있지 않을 것임이 '갈대와 아마가 시들고, 시냇가의 종이 갈대도 시들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이35:7-이전에 감각적 진리만을 지녔던 이들에게 자연의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지식이 있을 것임이 '갈대와 골풀(rush) 대신 풀'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갈대와 골풀'=감각적 근원으로부터의 지식, 또는 감각들의 오류를 통하여 확증한 지식.

시68:30-우리는 영적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응용된 잘못된 과학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갈대 속의, 줄기 속의, 골풀 속의 들짐승을 꾸짖음'에서 의미되어져 있다.

왕상14:15-이스라엘의 아들들 사이에 있는 교회의 황폐됨이 '물에서 흔들거리는 갈대, 또는 골풀'에 비교되고 있다; 그이유는 '갈대', 또는 '골풀'=감각적 인간의 진리, 이 진리는 최말단 진리이다; 그리고 이 진리가 영적 인간의 빛으로부터 분리될 때, 거짓이 되기 때문.

줄이다 (diminish)

출21:10-'줄이지 않는 것'=박탈하지 않는 것.

시107:39-이런 애착들이 어떤 다른 방법에서 악들을 통해 멸해진다는 것이 '그들은 사악함의 맹렬함과 슬픔 때문에 절하고 작아진다'에서 의미되어져 있다.

중간 (medium)

* 한가운데(midst)를 보라.

중간의 (middle)

*한가운데(midst)를 보라.

중단하다 (cut off)

* 베다(cut)를 보라.

중앙 (midst)

* 한가운데(midst)를 보라.

증얼거리다 (murmur)

출15:24-'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증얼거렸다'=시험의 쓴맛으로부터 있는 고통의 느낌, 또는 슬픔의 느낌.

출16:2-'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든 회중이 증얼거렸다'=시험의 무게 때문에 불평함, 그리고 슬픔의 느낌.

출16:7-'그분은 너희의 증얼땀을 들으셨다'=그들의 불평이 중단될 것이다.

출16:7-'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는 우리에게 증얼거리느냐?'=불평들이 신성에 맞서 있었다는 것.

출16:9-'그분이 너희의 증얼거림을 들으셨기 때문에'=그분은 시험에서 슬픔을 느끼기 때문에 원조를 해주실 것이다.

출16:12-'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증얼땀을 들었다'=시험으로부터 있는 불평은 중단 될 것이다.

출17:3-'백성들은 모세에게 증얼거렸다'=슬픔의 느낌이 더 큰 수준.

증기 (vapour)

창2:6-'그분은 안개가 땅으로부터 올라오게 하셨다, 그리고 지면의 온 얼굴을 적셨다...'비', 이 구절에서는 '안개'라 불리고 있는데=전투가 중단될 때 있는 평화의 고요함.

예10:13, 51:16-'그분은 땅의 끝으로부터 증기들이 오르게 만드신다'=교회의 최말단 진리들; '증기들'=이런 진리들; 그리고 '땅의 끝'=교회의 최말단에 속하는 것 (최말단 진리들, 이는 글자 의미로부터 있는 지식들인데, 이 진리들이 '땅의 끝으로부터의 증기들'에서 의미되고 있다.)

시148:8-'불과 우박, 눈과 증기'=자연적 인간의 사량들로부터의 기쁨들, 그리고 그것의 과학적 사실과 지식들; 그 이유가 인간이 재형성되고 영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의 인간은 '불과 우박, 눈과 증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명의 활동이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와질 때, 영계 안에서 똑같은 것들이 상연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여호와를 찬양하라'에서 의미되고 있다.

증언 (testimony)

증언하다 (bear witness)

창21:30-'이것은 나에게 증언일런지 모른다'=확실성.

마24:14-'증언을 위해'=그들이 알도록, 하여 그들이 몰랐다는 구실을 만들지 않도록.

출16:34-'아론은 그것을 증거판 앞에 놓아두었다'=이것은 신성의 현존에서 있었다는 것...'증거판'=신성...그 이유는 보편적 의미에서, 증거판은 말씀을 뜻하기 때문; 그리고 말씀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고로 주님이다.

계12:11-'그들의 증언의 말'=인간에 의해 받아들인 신성

지갑-지나다-지금-지도자

으로부터의 진리.

출25:16-‘너는 궤에 증거판을 놓아라’=신성의 진리, 이는 천국에서 주님이시다. ‘궤’=천국; 그리고 ‘증거판’=신성의 진리, 고로 천국에서의 주님.

계19:10-‘예수의 증언’=그분으로부터, 그분에 관한 신성의 진리.

계6:9-‘그들이 붙들고 있는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혼들’=그들이 주님의 신성의 인간을 인정함 때문에 악한 자에 의해 거절되고 미움을 받는 이들.

계11:7-‘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쳤을 때’=주님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다는 것, 그분의 명령에 따른 생활을 수단으로 그분과의 결합이 있다는 것이 가르쳐진 후에...

계12:11-‘그들은 자기들의 증언의 말을 수단으로 그를 이겨냈다’=주님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심을 인정하고, 십계명의 가르침들은 인간이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생활의 가르침임을 인정함을 통하여 승리함.

계12:17-‘하느님의 명령들을 준수하고,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씨의 남은 자’=주님에 관한 교리, 그리고 십계명에 관한 교리를 받은 초심자들 (novitiates).

계15:5-‘증언의 성막의 성전’=천국의 가장 안쪽, 말씀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 안에서, 그리고 십계명이 있는 법 안에서 주님이 계신 곳.

계19:10-‘나는 예수의 증언을 가진 네 형제로부터 있다’=...그는 주님의 인간 안에 신성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들에 따른 생활로 주님과 결합하고 있다는 것.

계19:10-‘예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주님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심을 인정함, 더불어 그분의 명령들에 따른 생활과 함께 이는 말씀의 모두,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교리의 모두이다는 것.

계20:4-‘그들의 혼들은 예수의 증언 때문에 목이 잘리웠다’=이들은 거절되었다...그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예배했고, 그분의 말씀 속의 진리들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증오 (enmity)

창3:15-‘나는 너와 여인 사이에 증오를 놓아둘 것이

다’...인간의 자아에 속하는 사랑과 주님 사이에 존재하는 증오.

증오하는(hatred)

* 미워하다(hate)을 보라.

증인 (witness)

* testify, testimony를 보라.

창31:48-‘이 무더기는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다.’ ‘증인’=진리를 통하여 선을 확증함. (고로 이 구절의 말들)=‘라반’에 의해 의미된 선이 주님의 자연 평면의 신성한 선과 결합함을 증거함, 결과적으로 이방인들과 더불어서의 경우, 선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함.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결합을 증거하는 것이다.

계11장-‘두 증인’=선과 진리, 즉 선에 진리가 있다, 그리고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모두 심정들에서 확증되었다. (=두 성경의 말씀은 주님에 관하여 증언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과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부터의 선, 주님으로부터 인바, ‘두 증인’이라 불리운다.) (=주님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인간이 신성이시다는 것을 심정으로부터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들, 하여 그분의 명령들에 의거 생활함으로 그분과 결합되어지는 이들. 그이유가 이것들이 새 교회의 두 본질들이기 때문.)

민35:30, 신17:6,7, 19:15, 마18:16-모든 진리는 하나의 증인이 아닌 두,세 증인의 말위에 서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진리가 아니고 여러 진리가 선을 확실히 한다는 신성한 법에서 발견되어진다.

창31:50-‘하느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다’=신성을 수단으로 확인함.

출21:29-‘증언되었다’=알려졌다.

출22:13-‘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오라’=똑같은 이 확인되었다.

출23:1-‘폭력의 증인이 되는 것’=선행의 선에 반대하는 것에는 확인하지 말라.

요15:26-‘그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에 관하여 증인이 되는 것’=그분을 가르치는 것.

계1:2-‘하느님의 말씀의 증인이된 누구’가 요한을 두고 말해짐=심정으로부터, 고로 빛 안에서 말씀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받는 누구. 이들이 ‘증인이 된다’. 즉 빛 안

지갑-지나다-지금-지도자

에서 심정으로부터 보고 인정하고 받는다. 그리고 말씀 속의 진리들을 고백한다.

계1:5-‘그분은 충실한 증인이다’=그분은 신성한 진리 자체이시다는 것. ‘증인’은 (참)진리(the Truth)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참 진리가 스스로 증인이 된다. 신성한 증인=주님, 신성한 진리 자체이신 분.

계3:14-‘아멘, 신시하시하고 참이신 증인’=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말씀은 그분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이다.

계17:6-‘예수의 증인의 피로 솔취한’=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들과 진리들에 섞음질하여 모독했다.

계22:16-‘나 예수는 교회들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의 증인이 되게 내 천사를 보냈었다’=전체 기독교 세계에서 주님께 의해 증명됨, 즉 주님 만이 이 책에 상술한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참이라는 것. 천사들이 그것에 관해 실지로 증인이 되었다. 그러나 천사들 자신으로부터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증인이 되었음은 20절의 ‘증인이 됨’이 참 진리(the Truth)를 두고 말해짐으로부터 분명해진다.

계22:20-‘이러한 것들의 증인이 되시는 그분이 말하신다’=주님, 이 분이 묵시록을 계시하셨고 지금 그것을 여셨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셨다는 것.

시89:37-‘구름들에 있는 신실한 증인’=글자 의미에서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증인’이라 불려진다. 그 이유는 그것이 증인이 되기 때문.

지갑 (wallet)

창42:27-‘그의 지갑의 입에서 있었다’=그것들은 자연 평면의 외면의 문지방에 비축되어져 있었다는 것.

창43:21-‘우리가 우리의 지갑을 열었을 때’=자연 평면의 외면 쪽으로 자기 반성(introspection)이 있음.

창44:1-‘식품으로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라’=진리의 선을 가지고 자연 평면 안으로 (유입됨).

창44:1-‘그리고 각 사람의 지갑의 입에 각 사람의 은을 놓아라’=자연 평면의 외면 넘어, 그리고 위에서 진리와 더불어 새롭게.

창44:11-‘그들은 각자 자기 지갑을 땅에 내려 놓았다’=그들은 자연 평면에 있던 것들을 감각적인 것들 쪽으로 아래로 가져왔다.

지나다 (pass)

* 통과하다(pass through)를 보라.

지금 (now)

출4:10-‘지금으로부터’, 또는 오늘로부터=영원인 것; 고로 영원 쪽으로; 그이유는 이것은 뒤의 시간을 포함하기 때문.

계14:13-‘주님 안에서 죽는 죽은 자는 지금으로부터 복되다’=그들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활함. ‘지금으로부터’라고 말해진 이유는 이전에 살았던 생명을 이후에도 살 것임을 뜻하기 때문.

지도자 (leader)

족장 (duke)

군주 (duke)

마2:6, 미5:1-‘너 베들레헬은 유다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작은 자는 아니다, 그이유는 너로부터 지도자가 배출되기 때문이다’...그들은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게 할 왕이나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었다...그들은 ‘지도자’가 자기들의 메시아 이라고 설명한다; ‘지도자’에 의해 주님이 뜻해진다.

창26:26-‘그리고 그의 군대 사령관 비술’=그들 신앙의 제 1의 것들. ‘사령관’은 제 1 인자(prince)와 마찬가지로=제일의 것들.

창36:15-19-‘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의 군주(족장)들이다.’ ‘족장’=선으로부터의 주요한 진리들.

출14:7-‘세 번째 높은 지휘관들이 그들 모두 위에 있었다’=일반성 아래 질서 안으로 환원됨. ‘세 번째 서열의 지휘관’=일반성 아래 있는 세부적인 것들...‘셋’=완전한 것; 그리고 ‘지휘관들’=주요한 것들; 그리고 이런 것 모두는 다함께 일반적인 것들이다.

출15:4-‘뿔아 세운 세 번째 서열의 지휘관’=각각과 더불어 모든 것들.

출15:15-‘에돔의 족장들은 당황했다’=자아 사랑으로부터 악한 생활 안에 있는 이들과 똑같이.

마15:14-‘그들이 거짓들을 가르쳤고, 거짓들은 백성들에 의해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소경의 눈먼 지도자들’이라 불리운다.

겔23:6-‘통치자들과 지도자들’=주요한 진리들.

지면

속12:6-‘유다의 수령들(chieftains)’=이 교회의 진리들과 더불어 선들.

겔23:5-‘이들 모두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주요한 진리들에 관련된 외관. 이것이 나머지 진리들 위에 놓여져 있다.

지면 (ground)

* 거듭나기 전의 인간은 선과 진리의 어떤 것도 뿌려지지 않은 ‘지면’이라고도 불리운다.

창2:5-‘지면’ 또는 ‘들판’=그가 천적인 수준이 되어 갈 때의 외적 인간.

창3:17-‘지면이 너를 위하여 저주 된다’=그의 삶의 상태는 비참해질 것이라는 것.

창3:19-‘네가 취해졌었던 지면으로 돌아가는 것’=그가 거듭나기 전과 같은 외적 인간으로...

창3:23-‘네가 취해졌었던 지면을 경작하는 것’=거듭나기 전 그가 소유했었던 것이 물질적으로 되는 것.

창4:11-곡해한 교리가 ‘지면으로부터 저주됨’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창4:2-‘지면의 경작자(농부)’=선행의 결핍,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으로부터의 많은 것, 이는 체아무리 많아도 신앙이 없다...물질적이고 지상의 것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들이 ‘지면을 경작한다’라고 말해지는데, 이는 사람이 ‘지면을 경작하도록’ 에덴으로부터 내보내지는 구절로부터 명백해진다.

창4:3-‘지면의 열매’=선행 없는 신앙의 일들.

창4:12-‘지면을 경작하는 것’=이 (교회의) 분파, 또는 이교를 경작하는 것.

창4:14-‘지면의 얼굴 위로부터 내던져짐’=교회의 모든 진리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지면’ 순수한 의미에서=교회, 또는 교인, 고로 교회가 공언하는 것 모두...그러므로 신앙에 관한 잘못 공언, 교파에 관한 잘못 공언, 이교에 관한 잘못 공언을 만들어내는 자 또한 ‘지면’이라 불린다.

창6:1-‘지면의 얼굴들’=교회가 있었던 모든 넓은 지면. 그 이유가 말씀을 꼼꼼히 살피면, ‘지면’은 ‘땅, earth’으로부터 구별되고 있다. ‘지면’이 씌어진 곳은 대부분 교회, 또는 교회에 관련된 어떤 것이 의미되고 있다; 이로부터 즉 지면으로부터 사람, 또는 아담의 이름이 오고

있다.

이7:16-‘지면은 사막이 될 것이다’=교회, 또는 신앙 속의 참 교리.

창6:7-‘지면의 얼굴 위로부터 내가 창조한 사람들...’=태고 교회의 후손들로부터의 인간...‘지면’=교회가 있는 곳.

창8:8-‘지면의 얼굴들’=교인과 더불어 있는 것들; 그리고 ‘지면’이 언급된 이유는 인간이 교회가 되어감에 있어 첫 상태이기 때문...신앙에 관련된 선과 진리가 잉태되어질 수 있을 때, 그 인간은 ‘지면’이라 불리워진다. 이 상태 이전의 경우 그 인간은 창세기 1장에서와 같이 ‘땅’이라 불리워진다, 이 첫 장에서, 인간이 천적 인간 이전 인 바, ‘땅’이 그 인간에 관련해 서술되지만, 2장의 경우, 그가 천적 인간이기에 그 인간에 관련해서는 ‘지면’ 또는 ‘들판’이 서술되고 있다. 본 8장의 경우도 똑같은 바, ‘땅’과 ‘지면’이라는 단어 만으로도 내적 의미가 보여질런지 모른다. 즉 ‘지면’이 보편적 의미에서 교회를 의미하고 교인 역시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각 교인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이다.

창8:13-‘지면의 얼굴이 말라졌다’=거듭남; ‘지면’=교인. 거짓들이 다 사라져서 더 이상 사라질 것이 없을 때, 지면의 얼굴들이 말라워졌다고 말해진다.

창9:2-‘지면이 기계 만드는 모든 것’=선에 애착함들, 이는 지면으로부터 기거나 생산되는 것들로부터 있는 지면의 의미로부터 명백하다. 일반적으로 ‘지면’=교회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무엇이든; 그리고 여기서는 주님께 의해 내적인 것을 통하여 외적인 것 안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든. 지면 자체는 외적 인간 안에, 그의 애착 안에, 그의 기억 안에 있다; 그 이유가 이것은 마치 인간이 선들을 생산한 것 처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본문에서, ‘지면이 기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라 말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외관일 뿐, 이것은 주님께 의해 내적 인간을 통하여 있어진다...

창9:20-‘노이는 지면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일반적으로, 인간은 신앙 속의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훈육되어진다. ‘지면’=교인, 똑같은 것으로 교회...교회가 ‘지면’이라 불리는 것은 지면이 신앙 속에 있는 씨들, 또는 신앙 속의 선들과 진리들을 받는다는 사실로부터 이다.

지방

‘지면’은 ‘땅’과 구별되어진다. 땅 역시=교회이다. 마치 신앙이 선행으로부터 있는 것과 같다. 선행이 신앙을 담는 그릇이듯, 땅은 지면을 담는 그릇이다. 고로 교회가 일반적으로 취급될 경우 이 교회는 ‘땅’이라 불리우고, 특별한 측면에서 교회가 취급되면 ‘지면’이라 불리워진다.

창12:3-‘네 안에서 지면의 모든 가족들이 복될 것이다’=모든 선들과 진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이것의 존재가 ‘지면의 모든 가족들’이라 말하는데, 그이유는 교회 속에 있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신앙 속에 있는 모든 선들과 진리들이기 때문이다. ‘지면’에 의해 교회가 의미된다는 것, 그러므로 교회 속에 있는 신앙도 의미하고 있다.

이7:16-‘저버린 지면’=그당시 신앙이 없는 신앙.

창19:25-‘지면의 어린 싹’=교회 속에 있는 모든 것... ‘지면’=교회

창28:14-‘네 안에서 지면의 모든 가족들이 복있을 것이다’=교리의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이 선과 결합할 것이다...‘지면’=교회 속에 있는 것, 결과적으로 외적 인간 안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

창28:15-‘나는 너를 이 지면으로 도로 데려다 놓을 것이다’=신성한 교리와 결합함...‘지면’=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 여기서는 신성한 교리.

창47:18-‘우리의 몸과 지면 외에는...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다’=선과 진리를 담을 용기들이 완전하게 황폐되었다...‘지면’=진리의 그릇...그 이유는 지면이 씨를 받기 때문이다...순수한 의미에서, ‘몸’=사랑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지면’=신앙으로부터의 진리.

창47:19-‘그리고 지면은 황폐해지지 않을 것이다’=마음은 교회의 과학적 사실로 경작되어 질 것이다. ‘지면’=진리를 담는 용기; 용기 자체는 마음(mind)이다; 여기서의 경우 자연적 마음, 그이유가 이 지면이 이집트의 지면이기 때문...이집트의 지면=특별한 측면에서 자연적 마음.

창47:22-‘그는 성직자들의 지면 만은 사지 않았다’=자연으로부터의 내적인 것은 선을 받는 자질을 스스로 포획했다, 그이유는 그것들은 자체로부터 있기 때문...‘지면’=진리를 담는 그릇; 여기서의 경우 선을 받는 자질;

그이유가 자질은 수용력이기 때문...선을 받는 자질이 자연으로부터 있다는 것이 지면이 이집트에 있음에서 의미되어져 있다.

창47:23-‘보라 나는 바로를 위해 오늘 너희와 너희 지면을 샀다’=그는 이런 것들을 자신을 위해 포획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내적인 것의 후원 아래 있었던 자연에 종속시켰다는 것...‘지면’=진리의 저장소.

출3:5-‘네가 서있는 장소는 거룩함의 지면이기 때문에...’=이와 달리해서는 신성이 들어 갈 수 없다...‘거룩함의 지면’=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거룩함.

출10:6-‘그들이 지면 위에 있었던 날로부터 오늘 까지’=그당시 있었던 교회에는 이와 같은 거것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지면’=교회.

출20:24-‘너는 나에게 지면의 제단을 만들 것이다’=선으로부터 있는 예배의 표현...‘지면’=선. 지면이 선인 이유는 ‘지면’이 선 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 이런고로 아담은 지면으로부터 그렇게 불리웠다; 그이유가 그를 수단으로 천적 교회의 사람, 또는 선 안에 있는 교회가 의미되었기 때문이다...선으로부터 있는 예배가 지면의 제단에 의해 의미되었다; 그리고 진리로부터 있는 예배는 돌들의 제단에 의해 의미되었다.

지방 (fat)

레3:17-‘지방’=천적인 생명

신32:14-‘밀의 콩팥의 지방’=사랑과 선행 속의 천적인 것; 그리고 ‘지방’=천적인 것.

신32:38-‘그들이 제물의 지방을 먹었다’=그들은 예배 속의 선을 파괴했다.

출23:18-‘내 절기의 지방을 밤을 지나 아침까지 남아 있게 마라’=예배의 선은 자아로부터가 아니고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새로이 (받아야 한다.)

출29:13-‘너는 모든 지방을 가져올 것이다’=선이 숙박했다.

출29:22-‘너는 숫양으로부터 지방을 가져올 것이다’=천국들에 있는 선.

창4:4-‘그것들의 지방’=천적 그 자체, 주님 속에 있는 것.

시36:8-‘지방이 많음’=사랑 속에 있는 천적인 것.

시63:5-‘내 혼은 지방과 지방이 많음에 만족할 것이다

지방-지배하다

'=천적인 것

겔34:14-사랑의 선들, 이것이 지방이 많은 (목초지)로 서술된다.

창27:28-'하느님이 내게 땅의 지방이 많음의 (것을)... 줄 것이다'=신성한 선으로부터.

창27:39-'땅의 지방이 많음으로부터 너희는 거주할 것이다'=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생명.

창41:2-'살에 있는 지방'=선행 속에 있는 것. '지방' 또는 '지방이 많음'=천적인 것, 그리고 사랑과 선행 속에 있는 선을 서술하고 있다.

창41:5-'지방이 있고 우량한'=이것 안으로 신앙과 선행 속의 것들은 응용되어질 수 있다. '지방', 과학물이 서술될 경우, '곡식의 이삭들'에 의해 의미되는 지방=신앙의 선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창45:18-'너는 토지의 지방을 먹을 것이다'=거기서는 선을 제 것 되게 함이 있다.

창49:20-'그의 빵은 기름지다'=선으로부터의 즐거움. '지방'=즐거움; '지방이 많음'=천적인 것, 또는 사랑의 선인 것; 그러나 '지방'이 언급되어질 때, 그리고 빵에 연관될 때, 이것=사랑의 선, 그다음 '지방'=이 사랑 속에 있는 즐거움.

숙11:16-'지방의 살을 먹는 것'=선을 악으로 변하게 하는 것.

시23:5-'기름으로 내 머리를 지방으로 만드는 것'=천적 선을 수여하심.

레3:17, 7:23,25-유대인들에게는 지방과 피를 먹는 것이 금하여졌다=그들이 거룩한 것을 모독 않도록; 그 이유가 '지방'=신성한 선; 그리고 '피'=신성한 진리.

계18:14-지방 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선과 진리에 대한 천적, 영적 애착들. (=선들과 진리들, 그리고 행복하고 격조 높은 것들)

이28:1-'지방 있는 것들의 계곡의 머리'=자연적 인간의 총명.

시36:8-'지방이 많음'=사랑으로부터의 선들.

이30:23-'지방 있고 넉넉한'=사랑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이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진리들로부터의 선이 가득 함.

지배하다 (dominate)

시8:6-8, 창1:28-인간이 영적 수준인 동안, 그의 지배 함은 외적 인간으로부터 내적 인간으로 진행된다. 하여 말해지는바는, '그들로 바다의 고기 위에서, 하늘들의 새 위에서, 그리고 짐승 위에서, 그리고 모든 땅 위에서, 그리고 땅에서 기는 모든 가는 것 위에서 지배하게 하자' 이다. 그러나 그가 천적 수준이 될 때, 그리고 사랑으로부터의 선을 행할 때, 지배는 내적 인간으로부터 외적 인간으로 진행된다. 하여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의 일들 위에서 지배권을 가지게 만드신다.'

창1:28-인간이 영적일 때, 그는 전투 중에 있다. 그러므로 말해진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지배권을 가져라.'

창4:7-'네게 그의 바램이 있다. 그리고 너는 그를 지배 할(rule) 것이다'=선행은 신앙과 더불어 있기를 원하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신앙이 선행 위에서 지배하기를 원하기 때문, 이것은 거꾸로된 질서이다. 신앙이 지배권을 가지기를 원하는 한,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러나 선행이 지배권을 가질 때, 비로소 신앙도 있다.

마12:24-30-거짓과 악의 지배와 선과 진리의 지배는 완전히 반대이다. 악과 거짓으로부터의 지배는 모든 이를 노예로 만들기를 원한다; 선과 진리로부터의 지배는 모든 이를 자유롭게 만들기를 원한다. 악과 거짓으로부터의 지배는 모든 것을 파괴함에 존재하나, 선과 진리로부터의 지배는 모든 것을 구원하는데 존재한다. 이로부터 분명한바, 악과 거짓으로부터의 지배는 악마로부터 있고, 선과 진리의 지배는 주님으로부터 있다. 두 지배권이 아주 반대임을 본 구절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선포로부터 분명해질 것이다.

민24:19-진리들을 지배함이 '그분은 야곱 위에 지배권을 가질 것이다'에서 뜻해진다. 지배권을 이들 위에서 가진다고 말해짐은 그것들이 선 쪽에 종속되고 복종할 때이다.

창27:40-'네가 지배권을 가질 때 일 것이다'=선이 제1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시114:2-'유다는 그분의 성소였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토였다.'...'요단'=선에 관한 지식들, 이것이 '자신을 뒤쪽으로 돌아서게 했다'고 말해지는데, 이는 사랑의 선

지붕-지역

이 지배권을 가질 때이다.

창37:8-‘네가 정녕 우리 위에 군림한다는 거냐? 또는 네가 정녕 우리 위에서 지배권을 가진다는 말이나?’=그들은 지적 측면과 자발적 측면에서 복종되어야 한다는 것. ‘군림(reign)하는 것’=지적인 것들 측면이 복종하는 것; 그리고 ‘지배권을 가지는 것’=자발적인 것들 측면이 복종하는 것.

창45:8-‘나는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그 자신이 거기의 과학물들을 배치 처분한다.

창45:26-‘그는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자연적 마음이 그의 권능 아래 있다.

시2:2-‘땅의 왕들’=거짓들; ‘통치자들’=악들.

시72:8-‘바다로부터 바다까지, 강으로부터 땅의 끝들까지 조차에서 지배권을 가지는 것’=천국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의 지배권.

삼하23:3-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그분이 지배하심이 ‘의로운 사람을 통치하시는(rule) 분;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치하시는 분’에서 의미되어져 있다.

시114:2-모든 힘은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있는 바,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토로 만들어졌다’고 말해진다.

단7:14-신성의 선으로부터 있는 그분의 힘이 ‘지배권’에 의해 뜻해져 있다; 신성의 진리로부터는 ‘영광’에 의해; 그리고 천국과 교회는 ‘왕국’에 의해 뜻해져 있다.

창1:26-사람은 ‘이런 것들 위에서 지배권을 가진다’란 주님이 사람 위에 지배권을 가질 때이다; 그이유가 인간은 자신으로부터서는 자신 안의 어떤 것 위에서도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

이40:10-‘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통치할 것이다’=그분 자신의 힘.

창1장-‘짐승들 위에서 지배함’=자연적 인간을 영적 인간이 지배함.

겔19:14-‘강한 막대기, 통치하는 그들의 홀이 그녀 안에 없다’=힘과 지배권 측면에서의 신성의 진리가 황무함.

이14:5-‘통치하는 그들의 막대기가 부러지는 것’=거짓의 지배권을 파괴하는 것.

지붕 (roof)

창8:13-‘노이는 방주의 덮개를 제거했다’=거짓들을 제

거함...‘덮개’=인간이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또는 빛을 차단하는 것들; 이것은 거짓이다.

마24:17-인간이 선으로부터, 또는 의지로부터 행동하는 상태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전의 상태에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으로부터 어떤 것을 가져오려고 자신을 내려가게 하지 마라’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이 말들=교회 내에서 인간의 두 번째 등급-이웃을 향해 선행 안에 있는 이들.)

출30:3-‘(제단의) 지붕’=가장 안쪽의 것. 지붕=가장 안쪽인 이유는 지붕=집의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 또한 지붕=인간의 머리 위치와 비슷하기 때문.

마24장-‘집의 지붕’=진짜 진리들로부터 있는 총명.

지역 (quarter)

* broad place도 보라.

눅14:21-‘거리들과 지역들로 가라’=진짜 진리, 또는 선으로부터 빛을 내는 진리가 어디에 있든 찾아나서라는 것.

예5:1-‘거리들을 이리저리 달려 다니고 예루살렘의 지역들에서 찾아보라’=이 교회의 교리적인 것들을 보고 조사하는 것.

사5:6-황무해짐이 ‘길들이 중지되었다...지역들이 이스라엘에서 중지되었다’에서 묘사되어 있다. ‘길’, ‘작은 길’은 ‘거리’나 ‘지역’ 처럼 인도하는 교리 속의 진리를 의미한다.

암5:16-‘모든 거리들에서 탄식함이 있고, 모든 지역들에서 그들은 아아 슬픈지고! 라고 말한다’=진리와 선이 모든 곳에서 황폐해졌기 때문에 있는 애통함.

시144:14-‘우리의 지역들에서 울음이 없다’=그것들의 결핍으로 인한 애곡함이 어느 곳에도 없다.

예9:21-‘거리들과 지역들’=총명과 지혜로 이끄는 생활 속의 진리들과 교리 속의 진리들.

지옥 (hell)

요2:2-‘지옥’=더 낮은 땅.

민16:33-‘땅이 그들을 삼켰다’=저주됨과 지옥.

계1:18-‘나는 지옥의 열쇠와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그분 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계20:13-‘죽음과 지옥이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를 포기했다’=심정에서 불경한 교인들, 이들은 그 자체로

지옥-지우다-지진-지체하다

사탄들과 악마들이었는바 모두 심판으로 불리웠다.

계20:14-‘죽음과 지옥은 불 못 안으로 내던져졌다’=심정에서 불경한 자, 그 자체로 악마들과 사탄들인바 이들은 악을 사랑하고 이 악에 일치하는 거짓을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 있는 지옥 안으로 내던져졌다.

시149:8, 암9:2-하느님은 천국에서 같이 지옥에서도 전능하심이 ‘만일 내가 지옥에 내 침대를 만든다면, 보라 당신은 거기에 계신다’, ‘만일 그들이 지옥 안으로 파고든다면, 거기로부터 내 손이 그들을 받을 것이다’로부터도 분명해진다.

지우다 (blot out)

창6:7-‘나는 인간을 파괴할 것이다’=인간은 자신을 소멸하리라는 것.

창7:4-‘내가 만든 모든 물질을 지면의 얼굴로부터 파괴하는 것’=인간이 거듭날 때, 인간의 자아는 마치 지워진듯 여겨지는데, 이것이 ‘파괴됨’에 의해 의미된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는 결코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다.

창7:23-‘그분은 모든 물질을 파괴하셨다’=탐욕들...

창18:23-‘당신께서는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파괴하시렵니까?’=주님의 비통하심...그리고 중재하심.

신25:19-‘너는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 버려라’=악귀는 영적 교회 속의 이들과는 무엇이든 공통됨이 없다.

출17:14-‘나는 하늘들 아래로부터 아말렉의 기억을 확실히 지우리라’=이런 거짓 종류는 완전하게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기억을 지우는 것’=제거하는 것. 이런 거짓 종류는 제거될 수는 있지만 지워지지 않고 지옥의 악귀와 더불어 여전히 존재한다.

출32:32-‘만일 아니다면, 저를 당신이 쓰신 당신의 책으로부터 지우십시오’=말씀의 내적 측면, 교회의 내적 측면, 예배의 내적 측면은 멀해지지 않는다는 것.

계3:5-‘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으로부터 지우지 않을 것이다’=그는 구원될 것이다.

이3:12-‘내가 다닐 길을 파괴하는 것’=인도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지진 (earthquake)

계6:12-‘큰 지진이 있었다’=그들과 더불어 교회의 상태는 완전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공포.

계16:18-‘큰 지진이 있었다, 이런 지진은 인간이 땅위에 있던 이래 있지 않았다, 이런 지진, 아주 크다’=말하자면, 혼돈, 경련, 전복, 그리고 교회 속의 모든 것들을 천국으로부터 끌어내림.

마24장-‘지진’=교회가 뒤집힘.

이9:4-‘지진’=진리를 왜곡함으로써 교회가 뒤집힘.

지체하다 (delay)

머무르다 (stay)

묵다 (tarry)

창19:16-‘(롯은) 머뭇거렸다’=악의 본성으로부터 있는 저항.

창27:43-‘너는 얼마동안 그에게 묵고 있어라’=연속인 것. (그이유가) ‘묵고 있는 것’은 ‘거주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로 ‘묵는 것’=사는 것. 그러나 ‘묵는 것은 선과 더불어 진리로부터의 생활’, ‘거주하는(dwell) 것은 진리와 더불어 선으로부터의 생활을 각기 서술한다.

창32:4-‘나는 라반에게 체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렀다’=그는 ‘라반’에 의해 의미된 선에 머물렀다는 것...‘머무르는 것’, 또는 ‘묵는 것’은 선과 더불어 진리로부터의 생활을 서술하나, 여기서는=(그 선에) 고취되는 것.

창35:1-‘그리고 거기서 묵다’=생활. ‘묵는 것’, 또는 ‘거주하는 것’=생활.

출12:39-‘그들은 이집트로부터 내물림을 당하여 머뭇거릴 수 없었다’=그들은 악으로부터의 거짓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해 제거되어졌다는 것...‘머뭇거릴 수 없음’=제거함이 필요함.

이11:6-‘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묵을 것이다.’...‘그것은 묵을 것이다’=평화의 상태...

지속하다 (endure)

시102:26-신성한 진리의 상태, 이 상태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가 ‘당신은 지속하시리라’에 의미되어져 있다.

지키다 (guard, keep)

경호인 (guard, keeper)

파수꾼 (guard, keeper)

경비원 (watchman)

지속하다 - 지키다

구치소 (custody)

창2:15-‘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양보하는 것, 그러나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마라는 것.

창4:9-‘내가 내 아우의 경호인 입니까?’=선행은 별것도 아닌바, 그것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

창28:5-‘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겠다’=신성의 섭리.

창28:20-‘만일 하느님이 내가 걷는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면=계속되는 신성.

창30:31-‘양떼 등등을 지키는 것’=선용(use)에 응용하는 것.

창37:11-‘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했다’=진리가 그들의 신앙심에 남아있었다.

창40:3-‘그는 그들을 구치소에 가두었다’=거절함.

창41:35-‘그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십시오’=거기에 비축하는 것. ‘지키는 것’=비축하는 것, 즉 자연적 마음의 내면에 비축하는 것.

창42:17-‘그는 그들을 구치소에 가두었다’=자신으로부터 분리함.

출12:6-‘간직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개시함의 시간과 상태.

출12:17-‘너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는 것이다’=신성의 질서에 따라 신앙과 선행으로부터 예배함. ‘지키는 것’=예배하는 것.

출12:24-‘영원까지 조차 이 말을 지키는 것’=모든 이것은 이후 준수되어야만 한다는 것.

출12:25-‘너는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이다’=자유함 때문에 예배함. ‘지키는 것’=준수되어지는 것.

출12:45-‘여호와께서 지키시는 밤’=진리와 선 안에 있는 이들과의 주님의 현존. 그리고 악과 거짓만에 있는 이들과의 주님의 현존하심. ‘여호와의 지키심’=주님의 현존, 그결과 보호하심.

출13:10-‘너는 해로부터 해까지 정해진 시간에서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질서의 이 법은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있어야만 한다는 것.

출14:24-‘아침 당직 시간 때가 되었다’=질은 어둠의 상태와 악으로부터 거짓 안에 있는 이들의 파멸의 상

태, 그리고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 계발되고 구원됨의 상태.

출15:26-‘만일 내가 그분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다면’=신앙의 진리들에 따른 삶. ‘지키는 것’=사는 것.

출16:23-‘보관함이 아침까지’=마치 자아로부터 인듯.

출16:28-‘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는 내 가르침들과 법들을 지키기를 거절할 것이냐?’=그들은 신성의 질서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

출16:32-‘너의 자손들에게 지킴을 위해’=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있는 것...‘그들에게 지킴을 위해’=기념 행사를 위해 있어질런지 모른다는 것.

출19:5-‘언약을 지키는 것’=가르침들에 따라 사는 것, 고로 선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결합되는 것.

출20:6-‘그리고 내 가르침들을 지키는 것’=신앙의 진리들을 받는 이들.

출21:29-‘그리고 그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억제함이 없다...‘지키는 것’, 이것이 지적 측면의 빛을 통과한 자발성으로부터의 악에 관해 말해질 때,=붙잡고 있는 것, 또는 억제하는 것.

출22:7-‘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지키라고 자기 은이나 집기들을 주었을 때’=선으로부터의 진리들과 기억 안에서 상응하는 과학물들...‘지키는 것’=기억 안에서 간직하는 것.

출23:13-‘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너는 지키는 것이다’=가르침들, 판단들, 규례들은 행해져야 한다...‘지키는 것’, 또는 준수하는 것,=행하는 것.

출23:20-‘길에서 너를 지키는 것’=그분의 섭리와 악의 거짓들로부터 지키심. ‘지킴’이 주님께 관련해 말해질 때=섭리.

출23:21-‘그분의 얼굴을 유념하라’=거룩한 두려움.

출31:13-‘내 안식일을 너는 지키는 것이다’=신성 자체는 주님의 신성한 인간과 합일되어 있다는 거룩한 생각을 끈임 없이 지님...‘다함께 지키는 것’=생각 안에 신성하게, 부단히 가지는 것.

출31:14-‘너는 안식일을 지켜라’=주님의 신성한 인간은 예배되어져야 한다는 것...‘지키는 것’, 신성에 관해 말해질 때,=예배하는 것.

출34:11-‘너 자신이 지키라’=만일 말씀을 인정한 그들

지탱하다-지파

이 그렇게 행한다면.

계2:10-‘악마가 너희 중 몇을 구치소에 내던질 것이다’=그들의 생활로부터의 선이 지옥으로부터 있는 악한 자들에 의해 감염되어질 것이다.

계2:26-‘끝에 까지 일들을 계속 하는 것’=그것들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서조차 그것들 안에 남아 있는 것.

계18:2-‘불결한 모든 영을 붙잡음’...=지옥, 그 이유는 그들이 거기에 감금되었기 때문.

시121:7-이 사랑으로부터, 이 거짓으로부터 모든 악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분은 네 혼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해진다.

계14:12-‘여기에 하느님의 명령들을 지킨 이들이 있다’=이들은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들에 따라 생활한 이들이다.

지키다 (observe)

창26:5-‘그는 내 명령(ordinance)들을 지켰다’=그분 자신으로부터의 계속적인 계시에 의해. ‘명령들’=일반적으로 말씀 속의 모든 것들.

계3:3-‘지키고 회개하라’=그들은 이런 것들에 주의하고 그들의 죽은 예배를 생명있게 하라는 것.

계3:8-‘너는 내 말을 지켰다’=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있는 가르침에 따라 산다는 것.

레26:3-선행의 삶이 가르침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에 의해 뜻해져 있다.

계12:7-‘하느님의 명령들을 지키는...’=선행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이들과 더불어.

호13:7-‘길에 있는 표범 같이 나는 지킬 것이다.’ ‘지티는 것’=남용하려드는 의도.

지탱하다 (bear)

* 나르다(bear)를 보라.

지파 (tribe)

마24:30-‘땅의 지파들’=신앙의 모든 것들. (=교회의 모든 진리들.)

민2:2,34, 26장-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왕국을 표현했으나, 고로 천국의 질서도 표현하게 되었는바, 그들은 지파들에 따라, 가족들에 따라, 가문에 따라 구별하

라고...또한 진영을 차릴 때도, 행군을 할 때도 구별된 질서에 따르도록 명령되었다.

마24:30-‘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슬퍼할 것이다’=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고통 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 (=신앙의 모든 진리와 사랑의 모든 선이 결핍됨.)

계7장-여기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의해 선들과 진리들 안에 이들이, 이로부터 주님의 왕국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어진다.

창49:16-‘(단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하나로서 그의 백성을 판결할 것이다’...이 진리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표현하는 일반적 진리들 사이에 있다는 것.

창49:28-‘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들이다’=복합체에 있는 모든 진리들과 선들.

계7장-‘각각의 지파’=교회 속의 특별한 어떤 것.

계1:7-‘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다’=교회 안에 더 이상 어떤 선들과 진리들이 없을 때.

계5:9-‘모두 각각의 지파와 혀로부터’=교회 안에, 또는 어떤 종교 안에서 주님에 의해 되찾아지는 이들은 그의 생활이 선 안에 그의 교리가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다.

계7:4-‘이스라엘의 모두 각각의 지파로부터 날인되었다’=그들로부터 있는 주님의 천국과 교회. ‘지파’=생활의 선 측면에서의 종교.

계7:9-‘모두 각각의 나라와 지파’=선으로부터 종교 안에 있는 이들. ‘나라들’=선 안에 있는 이들; ‘지파’=종교 안에 있는 이들. (=자기들 종교의 교리적인 것들에 따라 생활이 선 안에 있는 모든 이들. 지파들, 여기서=진리들과 선들이라고 믿는 종교 속의 교리적인 것들.)

계11:9-‘백성들로부터의 그들, 지파들로부터의 그들, 혀들로부터의 그들, 그리고 나라들로부터의 그들이 불 것이다’=믿음 만으로부터 교리의 거짓 안에, 이로부터 생활의 악들 안에 있는 개혁 교회로부터의 모든 이들. ‘지파들’=교회 속의 거짓들과 악들.

계13:7-‘모든 지파, 그리고 혀, 그리고 나라 위에 군림하는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교회의 모든 것들, 즉 교리와 생활 측면 모두를 지배함.

계14:6-‘모든 나라와 지파, 혀와 백성에게’=종교로부터 선들 안에, 그리고 교리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모든

지팡이-지혜

이들에게.

계21:12-‘그것들 위에 씌어진 이름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열 두 지파들의 이름이다’=이 지식들 안에 신성의 진리들과 선들이 있다.

마19:28-‘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들을 심판하는 것’=그들의 교회의 진리들에 따라 모두를 심판하는 것.

겔37:16-‘요셉,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들 그의 동료들’=주님의 영적 왕국; ‘요셉’은 선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그의 동료들’은 진리 측면에서.

지팡이 (staff)

* 막대(rod)도 보라.

이3:1-‘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막대와 지팡이를 가져가신다’

출21:19, 시18:18, 이3:1-‘만일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다면’=거기 안에 있는 생명의 힘. ‘지팡이’=힘(force). ‘막대기’=진리에 속하는 힘(power), 고로 세력(foece). ‘지팡이’도 막대기와 마찬가지로 지팡이는 건강치 못한 이들에 관련된다. ‘막대기와 지팡이’를 제거하는 것=진리와 선으로부터 있는 생명의 힘과 세력...원어에서 ‘지팡이’는 기댐과 받침으로부터 그렇게 불리운다. 영계에서는 이것이 진리와 선을 통하여 결과되어진다.

숙8:4-‘수많은 날들을 위해 자기 손에 지팡이를 가진 사람’=자신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한 자.

지혜 (wisdom)

슬기로운 (wise)

슬기롭게 (wisely)

이5:21-이들이 ‘자신의 눈에서 슬기롭고, 자신의 얼굴 앞에서 총명하다’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신앙의 진리에 맞서 추론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슬기로우미 다른 이들 위에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

겔28:4,5=지식들로부터 지혜와 총명이 온다는 것이 ‘네 지혜로 말미암아, 네 총명으로 해서...지혜가 불어남으로 해서 너는 재물을 얻었다’에서 뜻해지고 있다.

마10:25-이렇게 지혜의 문 바깥쪽에 서있다...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타인보다 더 슬기롭다고 믿는다...그러므로 주님은 말하신다, 이것들은 ‘슬기롭고 총명한 자로

부터 감추어져 있다.’

출41:8-‘이집트의 마법사와 현자’=내면과 외면의 과학물들...과학물에서 노련한 신비적이지 않은 자, 그리고 외면의 과학물을 가르치는 사람이 ‘현자’라 불리운다.

창41:33-‘총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선과 진리가 유입됨.

창41:39-‘슬기로운’=선.

시119:100-지혜는 생명으로부터, 고로 선으로부터 있다. ‘나는 노인 보다 더 슬기롭다, 그이유는 내가 당신의 명령들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예10:9-슬기로운 자의 일=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인 것.

출28:3-‘심정에서 슬기로운 모든 이=사랑의 선 안에 있는 모든 이.

출28:3-‘그들을 나는 지혜의 영으로 채웠다’=그들 안에 신성의 진리가 새겨져 왔다.

겔28:12-‘지혜로 가득함, 그리고 아름다움에서 완전함’...‘지혜’는 선을 서술하고, ‘아름다움’은 진리를 서술한다. 그이유가 천국들에 있는 모든 지혜는 선으로부터 있기 때문, 그리고 모든 아름다움은 파생되는 진리들로부터 있기 때문.

계13:18-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슬기롭고 총명한 자의 몫이다; 그러므로 말해진다, ‘여기에 지혜가 있다.’

출31:6-‘슬기로운 모든 이 각각의 심정에 나는 지혜를 주어왔다’=선과 진리 자체를 위하여 선과 진리를 뜻하고 행하는 모든 이; (그이유가 이들은) ‘심정에서 슬기로운’ (이기 때문)...그리고 ‘심정 안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주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고로 사랑의 선으로부터 행하는 것.

계5:12-‘어린 양이...부함, 지혜를 받으심은 당연하다’=전능인 신성의 지식과 지혜.

계7:12-‘지혜가...우리의 하느님에게 있다’=(주님 안에서 신성의 영적 측면, 또는 신성의 진리.)

예10:9-모든 것이 슬기로운 자의 일이다’=인간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인 것.

계13:18-‘여기에 지혜가 있다’=하느님에 관한 교리와 구원에 관한 교리가 성직자(clergy)들과 어떤 품질에서 있는지를 이 장에서 말했던 것으로부터 보는 것은 슬기로운 자가 담당해야 하는 몫이다

진(영)

계17:9-‘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있다’=이것은 자연적 의미에 있는 해석이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영적 의미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이다는 것. (=영적 의미로부터 자연적 의미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해함.)

이47:10-‘너를 잘못 인도한 네 지혜와 지식...’=자기들이 진리에 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자기들이 타인들 보다 더 총명하여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이들.

마2:11-‘동쪽으로부터의 현자’=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 안에 있는 이들.

이5:21-‘자신의 눈에서 슬기롭고, 자신의 얼굴 앞에서 총명하다는 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있는 이들, 그리고 자신의 애착으로부터 있는 이들.

예10:12, 51:15-‘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총명을 수단으로 그분은 천국들을 펼치셨다.’...‘지혜’와 ‘총명’=진행하는 신성으로부터 선으로부터의 지혜와 진리로부터의 총명이 천사들과 인간들에 있다.1

이19:11,12-‘어떻게 너는...나는 지혜로운 자의 아들이다...너의 슬기로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라고 말 하겠는가?’=영적 인간으로부터의 자연적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멀해졌다는 것; 그이유는 자연적 인간은 영적 인간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기 위하여 형성되어 있기 때문...

마23:34-‘나는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슬기로운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보낸다’=교리로부터의 진리와 선, 말씀으로부터의 진리와 선...‘슬기로운 사람들’=교리로부터의 선.

이11:2-‘지혜와 총명의 영’=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지혜의 영’에 의해 신성의 천적 평면이 뜻해진다, 이는 (천적) 천사들에 의해 받아지는 진행되는 신성이다.

진(영) (camp)

계20:9-‘거룩한 사람들의 진영’=사랑의 선들과 선행의 선들.

창26:17-‘진영을 치는 것’=질서 안으로 배치하는 것.

창32:2-‘야곱은 말했다, 이것은 하느님의 진영이다’=천국.

창32:2-원어에서 ‘마하나임’은 ‘두 진영’을 뜻한다. ‘두 진영’=두 천국들, 또는 주님의 두 왕국들, 즉 천적 왕국과 영적 왕국;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천적 측면과 신성한 영적 측면.

창32:7-‘(야곱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축떼, 낙타들을 두 진영으로 갈랐다’=에서에 의해 표현된 선을 받기 위하여 자연 평면에 있는 진리들과 선들을 배열하고 준비함...‘진영들’=질서.

창33:8-‘내가 만난 이 진영들은 무엇이나?’=거기로부터 있는 특별한 것들. ‘진영’=특별한 것들.

창33:18-‘(야곱은) 성의 얼굴에 진영을 차렸다’=이 진리의 선에 적용함. ‘진영을 차리는 것’=질서에 따라 배열함. 그러나 여기서는 적용함. 그이유가 ‘진영을 차리는 것’이 여기서는 그의 양떼와 가축떼가 정착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

출14:2-‘진영을 차리는 것’=진리와 선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것. 여기서는 시험들을 겪는 것.

출14:19-‘이스라엘의 진영 앞에서 행군함’=교회의 진리와 선들 주위에 있는 것. ‘진영’=진리들과 선들. 그이유가 ‘진영’에 의해 이스라엘의 전체 회중이 뜻해지기 때문.

출14:20-‘그리고 이집트인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왔다’=이쪽으로는 악의 거짓들과 저쪽으로는 진리의 선들 사이에. ‘진영’=복합체에 있는 선들과 진리들, 반대 의미에서는 복합체에 있는 악들과 거짓들.

출15:27-‘그들은 물들 옆쪽 거기에 진영을 차렸다’=시험 후에 신앙의 진리들이 사랑의 선을 통하여 질서 안으로 배열되어졌다. ‘진영을 차리는 것’=진리와 선의 질서적인 배열.

출16:13-‘(메추라기들이) 진영을 덮었다’=그것이 인간의 자연 평면을 채웠다. ‘진영’=선들과 진리들; 여기서는 자연 평면, 이 평면이 용기(containant)이다.

출17:1-‘그들은 르비딤에 진영을 차렸다’=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기 위해 내면들을 질서 있게 배열함...‘진영을 차리는 것’=시험들을 겪기 위해 진리와 선을 질서 있게 배열함.

출18:5-‘그가 하느님의 산에 진영을 차린 곳’=선으로부터의 진리 가까이. ‘진영을 차리는 것’=인간과 더불어

진주

은 교회 속에 있는 진리와 선을 질서있게 배열함.

출19:2-‘그들은 광야에 진영을 차렸다’=이 상태로 정
규적으로 배치함. ‘진영을 차림’=생활 속에 있는 진리
와 선을 질서있게 배열함., 또한 정규적 배치.

출19:2-‘그리고 이스라엘은 산 근처에 진영을 차렸
다’=신성의 천적 선을 수단으로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는 정규적인 배치.

레16:21-‘광야’=지옥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있던 진영=천국이기 때문.

율2:11-‘여호와와 진영’=천국.

출29:14-‘너는 진영 밖에서 불로 (그것들을) 태울 것
이다’=그들은 지옥에 건네주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아 사랑의 악들을 수단으로 소모되어져야 한다는
것...‘진영’=천국과 교회, 반대 의미에서 천국과 교회가
있지 않은 곳, 고로 지옥.

출32:17-‘진영에서 전쟁의 목소리가 있다’=지옥으로부
터 있는 거짓들과 악들을 수단으로 천국과 교회 속에
있는 진리와 선을 공격함. ‘진영’=천국과 교회, 여기서
의 ‘진영’의 경우, 금송아지가 예배되어진 곳인바=지옥.

출33:7-‘(모세는) 진영 밖, 진영에서 멀리 떨어져 (천
막을) 펼쳤다’=이 나라가 있었던 외적인 것들로부터 멀
리 떨어져...

출33:11-‘그는 진영으로 되돌아 왔다’=이 나라이었던
외적인 것 쪽으로. ‘진영’=말씀, 교회, 예배의 외적인
것, 이 안에 이스라엘 국가가 있었다.

계20:9-‘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의 진영을 에워쌌다’=용
의 원리주의자에 의해 선동되었을 때, 그들은 새 교회
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 무진 애를 썼다.

레10:4-‘그들이 ‘진영 밖으로 운반됨’=그들의 예배는
천국으로부터 있지 않았다는 것. 그이유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진영이 천국과 교회를 표현했기 때문.

진주 (pearl)

마13:45-‘아름다움 진주’=선행, 또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

마13:45-‘진주’=진리.

계17:4-‘진주들을 가지고 (치장하는 것)’=그들과 더불어
은 말씀 속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영적 의
미에서 ‘진주’는 말씀으로부터 있는 말씀의 천적, 영적

측면 모두에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나, 특
별할 경우, 말씀의 글자 의미에서 선과 진리에 관한 지
식도 의미한다.

계18:12-‘진주들’은 (영적 선들과 진리들)에 관한 지식
들에 상응한다.

계21:21-‘진주들’=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이 지식
들을 통하여 인간은 교회에 입문되어진다.

계21:21-‘열 두 문들은 열 두 진주들 이었다; 그리고
문들의 각각은 하나의 진주 이었다’=주님을 인정함과
그분에 관한 지식은 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와 선에 관
한 모든 지식을 하나로 결합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열 두 진주들’=총체적 측면에서 선과 진리에 관
한 지식들. 그러므로 문들이 진주들이었다. 문들 각각이
한 개의 진주인 이유는 ‘문들’, 그리고 ‘진주들’에 의해
의미된 진리와 선의 모든 지식들은 그것들을 담는 그릇
인 한 개의 지식에 관련되고, 이 지식은 주님께 관한
지식이기 때문.

마13장-‘진주들’=지식들, 그리고 또한 진리들 자체; 그
리고 ‘한 개의 귀중한 진주’=주님을 인정함; 그리고 ‘그
가 가진 모든 것을 파는 것’=자아의 사랑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을 멀리함; 그리고 ‘그것을 사는 것’=이 신성의
진리를 우리 자신을 위해 획득하는 것.

계17:4-‘진주들을 가지고’=내적으로는 악과 거짓인데,
마치 그들이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안에 있는 것처럼
외적으로 나타남. ‘진주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반대 의미에서 악과 거짓들에 관한 지식들, 이것으로부
터 그들은 속이고 악의를 품는다.

마13장-‘진주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그이유가
이것들은 자연적 인간의 진리들이기 때문; ‘한 개의 귀
중한 진주’=주님께 관한 지식, 그리고 그분의 신성에
관한 지식.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것을 사는
것’=그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기 위하여 자아를 거
절하는 것.

마7:6-‘돼지’=간음자들의 지옥들 안에 있는 더러운 사
람들과 선들, 그것들에 관한 지식까지 강그리 거절한
다...그러므로 말해진다. ‘너는 네 진주들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진주들을 밟아래서 짓밟지 않도
록 말이다.’

진흙-질문하다-질바-질병

계18:12-‘귀중한 돌과 진주’=모독된 말씀으로부터의 진리와 선에 관 지식들. ‘귀중한 돌’=진리에 관한 지식들, ‘진주’=선에 관한 지식들. 그리고 이 지식들은 과학적인 진리들, 또는 자연적 인간의 진리들인바, ‘귀중한 돌’에 의해서는 진리를 통해 선들이 있는 것, ‘진주’에 의해서는 선들을 통해 진리들이 있는 것이 의미된다.

진홍색 (scarlet)

* 두 번 물들인 (double-dyed)도 참조.

이1:18-‘진홍색’, 반대 의미에서,=영적 선에 반대되는 악; ‘만일 네 죄가 진홍 같았다면, 그것은 눈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악인 이유는 피 또한 그것의 빨강으로부터 =영적 선...그리고 반대의미에서 선행에 휘둘러진 폭력이 의미되기 때문.

출25:4-‘두번 물들인 진홍색’=서로의 사랑; (그이유가) ‘진홍’, 그리고 ‘두번 물들인’=천적 진리, 이 진리는 서로의 사랑으로부터의 선과 같다. 천적 왕국의 외부 측면은 서로의 사랑으로부터의 선이다; 이 선이 ‘진홍색 두 번 물들인’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진홍’에 의해서는 선 자체, 그리고 ‘두번 물들인’에 의해서는 진리 자체가 의미된다.

민4:8-‘진홍 두 번 물들인’=서로의 사랑으로부터의 선, 이 선은 천적 왕국 또는 천적 교회의 외적 선임은 ‘진홍 두 번 물들인 천을 탁자 위에 펼쳤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하다.

출26:1-‘진홍 두 번 물들인’=영적 선, 또는 진리의 선...이 구절에서 세 가지 색중 마지막 짙은 영적 선인 ‘진홍 두 번 물들인’이 있다.

계17장-‘진홍색의 짐승’=천적 사랑의 모독.

계17:4-‘여인은 심홍색(crimson)과 진홍색으로 차려 입었다’=말씀 속에 있는 천적 평면의 신성한 선과 진리. ‘진홍색’=천적 평면으로부터의 신성의 진리.

애4:5-‘진홍색 위에서 양육되는 것’=천적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서 유아기로부터 가르쳐지는 것.

계18:12-‘진홍’=영적 근원으로부터의 선. 이 선은 천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와 부합된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진홍’에 의해서도 의미된다.

진흙 (clay)

* 마지막 시대가 ‘철과 진흙’이라 불리운다.

단2:33-신상의 ‘밭’=자연 속에 있는 수준 낮은 것들, 이것 속의 진리들이 ‘철’에 의해 의미되고, 선들은 ‘진흙’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단2장-‘진흙’=진리와 선에 부합되지 않는 것, 즉 거짓.

나3:4-‘진흙을 밟는 것’=거짓들.

창11:3-그들은 진흙을 위하여 역청을 가졌다=선을 위해 탐욕의 악을...

이64:8-‘진흙’=교인들 자신을 형성하는 그것, 고로 진흙=선행의 선, 이를 통하여 인간의 형성이 있고 개혁과 거듭남이 있다.

출1:14-‘진흙과 벽돌’=그들이 고안한 악들 때문에, 그들이 창안한 거짓들 때문에. ‘진흙’=선, 반대 의미에서 악.

이64장-‘진흙’=형성되어가는 교인들, 고로 진흙=신앙으로부터의 선, 이를 통하여 인간이 형성되어진다, 즉 재구성(개혁)되어진다.

요9:6-‘그분이 침과 흙으로 만든 진흙’=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의 진리들을 통하여 재구성됨... ‘진흙’=만들어내는 최말단의 신성.

이57:20-‘진흙창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물들’=생활의 악들과 교리 속의 거짓들이 있게 하는 거짓들 자체.

합3:15-그것들의 최말단 안에 신성의 진리들이 있기에 ‘큰 물들의 진흙’이 첨가되고 있다.

시69:14-‘내가 가라앉지 않도록 나를 진흙에서 잡아채소서’=악의 거짓으로부터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미7:10-‘거리’=거짓, ‘거리들의 진흙창’=악을 사랑함으로부터의 거짓.

질문하다 (interrogate)

물어보다 (ask)

창24:57-‘그녀의 입에 물어보자’=그녀가 동의하는지를 지각하는 것...

창25:22-‘그녀는 여호와께 물어보려고 갔다’=교통하는 상태. ‘묻는 것’, 주님께 관련해 말해질 때,=교통되는 것.

창26:7-‘묻는 것’=열심히 문의하는 것.

창38:21-‘그는 그 장소의 사람들에게 물었다’=진리들이 상담되어지는 것. ‘묻는 것’=상담하는 것.

질문하다 -질바 -질병-질서-질투-질그릇-짚어지다

창43:7-‘우리들에 관하여 엄히 묻는 사람’=그는 자연 평면에서 있는 것들을 명백하게 지각했다는 것.

창43:27-‘그는 평화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었다’=잘있음을 지각함.

출13:14-‘네 아들이 네게 물을 것이다’=양심 속에 있는 진리로부터 지각함. ‘묻는 것’=지각으로부터의 지식.

출18:7-‘그들은 평화한지를 그의 동료 사람에게 물었다’=서로의 신성한 천적 상태.

질바 (Zilpah)

창29:24-‘라반은 자기의 몸종 질바를 그녀에게 주었다’=외적 애착들, 또는 외적 묶음들, 즉 도움이 되는 수단들.

창30:9-‘그녀는 자기 몸종 질바를 데려왔다’=결합함을 확인하는 매체.

창30:10-‘그리고 질바 레아의 몸종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외적 진리를 인정함.

창35:26-‘레아의 몸종 질바의 아들들; 갓과 아셀’=외적인 것들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그이유가 ‘레아의 몸종 질바’=(결합을 위한) 매체로서 외적 진리에 애착함에 도움이 되는 연속하는 애착이기 때문.

창46:18-‘이들은 질바의 아들들이다’=이것들은 외적 교회 속에 있다는 것.

질병 (disease)

이53:3-5-일반적으로 질병에 의해 죄가 의미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로부터 분명해질런지 모른다. 즉 ‘고통의 사람, 그리고 질병을 아는 사람...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짚어지셨고, 우리의 고통을 운반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상처들을 통하여 건강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출23:25-‘나는 너희 가운데로부터 질병을 제거할 것이다’=진리가 왜곡됨으로부터, 그리고 선에 섞임질함으로부터 보호됨....‘질병’=진리가 왜곡되고 선이 섞임질 됨. 이것들이 영적 생명 속의 질병이다. 그이유가 영적 생명은 신앙으로부터 있는 진리들과 사랑으로부터 있는 선들을 통하여 존재하고 존속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왜곡되고 남용될 때, 인간은 병든다. 이것들이 심정에서 부인될 때, 인간은 영적으로 죽는다.

신7:15-‘여호와께서는 모든 질병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악한 권태를 제거하실 것이다’=모든 악들과 거짓들을 제거함.

질서 (order)

시68:13-‘질서들 사이에 눕는 것’=규례들 안에서 사는 것.

질투 (envy)

창26:14-‘블레셋족들은 그를 질투했다’=영적 지식들을 단지 지식 수준에만 머물게 한 이들은 납득하지 못했다. ‘질투하는 것’=납득 못하는 것.

창37:11-‘그의 형제들이 그를 질투했다’=그들이 혐오함.

질그릇(earthenware)

토기 (earthenware)

레6:28-‘질그릇, 그 안에서 삶는다’=선과 부합되지 못하는 거짓.

짚어지다 (bear)

* 나르다 (bear)를 보라.

짐승 (beast)

창1:24,25-거듭남의 여섯 번째 상태는 그가 신앙으로부터, 고로 사랑으로부터 진리들을 말하고 선들을 행할 때 존재한다. 이 상태에서 그가 생산하는 것들이 ‘생 혼’. 그리고 ‘짐승’이라 불린다

* 의지 속의 것들이 여기서 땅이 생산하는 ‘생 혼’, 그리고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그리고 그 땅의 ‘들짐승’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 짐승들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해를 입히기 때문에 악한 짐승, 또 하나는 온순하기 때문에 선한 짐승이다. 인간 안에서 악한 것은 곰, 이리, 개 같은 짐승에 의해 의미된다; 선한 것들은 온순한 짐승인 소떼, 양떼, 어린 양 같은 짐승에 의해 의미된다. 여기서 취급되는 것은 거듭나는 이들에 관해서 인바, 여기서의 짐승은 선하고 온순한 짐승이고, 애착들을 의미한다. 보다 수준 낮은 애착들, 이것은 신체로부터 더 과생되는 바, 그 땅의 ‘들 짐승’이라 불리고, 탐욕들과 쾌락들이다.

* 예언서들에서는 짐승들과 땅의 들짐승 사이, 그리고 짐승들과 들판의 들짐승 사이를 조심스럽게 구분하고

짐승

있다.

* 앞 절에서 '땅은 생 혼, 짐승, 그리고 땅의 들짐승을 생산했다'고 말해진다; 그 뒤 구절에서 또다른 순서 즉 '하느님께서 땅의 들짐승, 또한 짐승을 만드셨다'고 말해진다; 그이유가 인간이 첫 번째 생산하는 것은 마치 자신으로부터 인양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듭 남은 바깥쪽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안쪽을 향하여 발전해가기 때문이다.

* 여기서 '짐승들'이 먼저 언급되고 그다음 '새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의 순서로 언급된다. 그이유는 천적 인간은 의지 속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발전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성에 관련되는 것인 '물고기'나 '새'와 더불어 영적 인간의 거듭남은 천적 인간과 그 진행이 다른바, 짐승이 뒤에서 언급되고 있다.

시104:14-'여호와께서는 짐승을 위해 풀이 싹틔우게 하신다.' 여기서 '짐승'은 11,12절에서 언급된 땅의 들짐승과 하늘들의 새를 나타내고 있다.

창2:19-'여호와 하느님이 지면으로부터 들판의 모든 짐승, 그리고 하늘들의 모든 새를 지으셨다.'...'짐승들'에 의해 천적인 애착들이, '하늘들의 새들'에 의해 영적인 애착들이 의미되고 있다. 또는 '짐승들'은 의지 속의 것들을, '새들'은 이해성 속의 것들을 의미한다.

예31:27-'나는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을 사람의 씨를 가지고 짐승의 씨를 가지고 씨뿌릴 것이다'; 거기서 '사람'= 내향의 인간; '짐승'= 외향의 인간.

창6:7-'(나는) 인간으로부터 짐승까지, 그리고 기는 것조차 (파괴할 것이다)'=인간은 의지 속의 것은 무엇이든 소멸할 것이리라는 것...의지 속의 모든 것들이 '짐승들과 기는 것들'이라 불린다....그러나 여기서 인간이 취급되는 것인바, 선한 애착들이 '짐승'에 의해 의미되지 않고 대신 악한 애착, 즉 탐욕이 의미되고 있다.

창6:20-'종류별로 있는 새로부터, 그리고 종류별로 있는 짐승으로부터'...'새'=지적인 것들; '짐승'=자발적인 것들.

창7:2-'모든 깨끗한 짐승'(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선에 관한 애착들이 의미되고 있다...이렇게 애착들이 의미되는 이유는 인간 자신만을 참작하면 그는 짐승밖에 더 아닌바, 그는 짐승과 비슷한 감각, 식욕, 탐욕,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애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그러나 그가 짐승과 차원이 다르게 사람인 이유는 그가 짐승에게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내면의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이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앙과 사랑의 생명이다.

창7:2-'깨끗지 않은 짐승'에 의해 악한 애착들이 의미되어진다...말씀에서 이런 애착들은 이리, 곰, 여우, 돼지, 여타 많은 짐승에 의해 본보기화 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탐욕과 사악함이 그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7:14-'종류별로 있는 들짐승'에 의해 영적 모든 선이 의미되어진다; 그리고 '종류별로 있는 짐승'에 의해 자연적 모든 선이 의미되어진다...'들 짐승'은 '짐승'보다 더 가치있고 더 우수한 것을 포함하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어에서 앞의 용어는 생 혼이 있는 동물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창7:21-'새에 관하여, 그리고 짐승에 관하여, 그리고 땅 위를 기는 모든 기는 것에 관하여'(탐욕들로부터) 설득함; 이 설득 안에 있는 '새들'=거짓으로부터의 애착들; '짐승들'=탐욕들; '들짐승들'=쾌락들; '기고 있는 기는 것들'=신체적이고 지상적인 것들.

창8:17-'새'=그의 지성적인 것들, 그리고 '짐승'=그의 자발적인 것들, 이것은 내향의 인간이다; 그리고 '땅 위를 기는 모든 기는 것들'=그의 외향의 인간과 더불어 연결되는 유사하게 상응하는 것들.

창9:2-'너를 두려워함, 너에 대한 공포가 땅의 모든 짐승 위에, 하늘의 모든 새 위에 있다'=내향의 인간의 지배는...외향 속의 탐욕 너머에, 추론 속의 거짓 너머에 있다는 것.

창9:9,10-'나는 내 언약을...새에게, 짐승에게, 그리고 너와 더불어 땅의 모든 들짐승에게 세워둘 것이다'=(거듭나는 영적 인간의) 지적인 것들, 특히 그의 새로운 자발적인 것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그의 보다 낮은 지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선행 안에 주님께서는 현존하실 것이다.

예50:3-'사람이 없다, 그리고 짐승도 없다'=선이 없다.

막1:13-'예수께서...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짐승들'에 의해 지욕이 의미되고 있다.

계19:19-'짐승'=사랑의 선들이 모독됨.

짐승

겔32:2,13-선들과 신앙 속의 진리들이 자연적 빛을 통하여 뒤집혀질 때, 이것이 '짐승의 발과 발굽에 의해 물들이 어지럽혀지고 양식이 그들의 발 아래 짓밟혔다'라고 묘사되고 있다

예33:10-'사람이 없음'=천적 선이 없음; '주민이 없음'=영적 선이 없음; '짐승이 없음'=자연적 선이 없음.

이30:6-'그들은 남쪽의 짐승들'이라 불린다.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지닌 이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생명 없게, 오직 지식에 머물게 만든다.

이30장-'남쪽의 짐승들'=지식의 빛에 있는 이들, 또는 지식들, 그러나 악한 삶에 있는 이들.

계19:19-'짐승'=자아 사랑의 악들.

계11:7-바닥 없는 구덩이, 또는 지옥으로부터의 '짐승'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교회 내에 있는 선과 진리가 황폐됨.

창34:23-'그들의 모든 짐승'=선들. '짐승'=선들.

계17:3-선과 진리의 모독이 요한에게 묘사된바, '나는 불경한 말로 된 이름들이 가득한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는 여자를 보았다'..

창49:21-'암사슴'에 의해 자연적 애착이 의미되었는데, 그이유는 그것도 일단 애착들을 의미하는 짐승들 사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긴하게 쓰이는 양, 소, 염소 등과 같은 짐승은 영적 애착들을 의미하는데 그이유는 이 짐승은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암사슴은 이런 용도에는 쓰이지 않는바 자연적 애착들을 의미한다. 그것들이 애착들을 의미하는 이유는 영들의 세계에 있는 표현성으로부터이다.

예12:4-'짐승들이 소멸되었다, 그리고 새들도'=선들과 진리들이 있는 것.

출8:17-'남자와 짐승에게 이들이 들붙었다'=거기로부터 탐욕 속의 내, 외면의 악들이 왔다...'짐승'=선에 애착함, 반대 의미에서 악에 대한 애착, 즉 탐욕.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같이 언급될 경우 '사람'은 내면의 선, 반대 의미에서는 내면의 악; 그리고 '짐승'은 내면의 선, 반대 의미에서 외면의 악이 의미되어진다...그 이유는 인간의 내적인 것이 짐승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짐승들이 가지는 내적인 것은 단지 외적인 것에 더 처박는 것, 그리하여 하나로 완전하게 있는 것이다. 동

시에 아래쪽 만을, 내적인 것들을 향하는 어떤 승강된도 없이 땅을 향할 뿐이다.

출14:21-사람과 짐승을 자르는 것=내, 외면의 선을 황폐하게 하는 것.

출9:10-'사람 위에, 짐승 위에 있을 것이다'=내면과 외면의 악으로부터 있는 것...사람과 짐승이 같이 언급될 때, '사람'에 의해서는 내면의 애정, 또는 탐욕, 그리고 '짐승'에 의해서는 외면의 악이 의미되어진다. '사람'에 의해 의미된 내면의 선, 또는 악은 의도, 또는 목적 속에 있는 것들이다...이에 비해 '짐승'에 의해 의미되는 외면의 선 또는 악은 생각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을 경우 행동 속에 있는 것들이다. 외면의 것이 '짐승'에 의해 의미되는 이유는 인간의 바깥쪽 것, 즉 자연적 인간은 짐승과 별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이유가 자연적 인간은 짐승과 비슷하게 탐욕과 쾌락에서 기쁨을 취하고 식욕과 감각 역시 유사하기 때문이다.

출11:5-'그리고 짐승의 모든 첫 출생'=신앙 속의 섞음 질된 선들. '짐승들'=선에 애착함, 반대의 경우 악에 대한 애착. 짐승들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짐승의 첫 출생'에 의해서는 여기서의 경우 섞음질된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해준다. 그이유가 이것이 이집트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출11:7-'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조차'=진리에 관련해서도 아니고, 더욱이 선에 관련해서도 아니다...'짐승'=선에 애착함, 고로 선.

출12:12-'사람과 짐승까지 조차'=내, 외면의 그들의 악한 탐욕들...'사람'에 의해서는 내면의 선에 애착함이 의미되고, '짐승'에 의해서는 외면의 선에 애착함이 의미되고 있다. 여기서의 경우 이집트인들의 첫 출생이 취급되는바 반대 의미이므로 악한 애착, 또는 내, 외면의 탐욕들이 의미되고 있다. '짐승'=선한 애착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악한 애착들 또는 탐욕들.

출13:12-'짐승의 후손을 연(open) 모든 첫 출생'=새로운 출생 속에 있는 모든 선행...'짐승의 후손'=선에 애착함; 고로 선행의 선.

출19:13-'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선과 진리는 영적 생명을 잃을 것이다. '짐승'=선에

짐승

애착함.

출20:10-‘너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네 짐승도...’= 그 다음 천국과 행복이 인간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안에 있는 각각 그리고 모두에 있다는 것...‘짐승’에 의해서는 일반적 측면에서 애착을 의미하고 있다.

출22:10-‘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나귀나 소, 양, 어떤 짐승을 위탁하였을 때’=내, 외면의 진리와 선, 그리고 기억 안에 그것의 애착에 속하는 모든 것...‘짐승’=선에 애착함, 그리고 진리에 애착함.

출22:19-‘짐승과 늙는 모든 이’=자아 사랑 속의 탐욕들의 악과 결합함...‘짐승’=선한 자와 더불어서는 선한 애착, 악한 자와 더불어서 악한 애착. 고로 탐욕들; 여기서는 자아 사랑의 탐욕들.

단4:12-‘들판의 짐승’=선에 애착함들에 있는 이들, 반대 의미에서는 악에 애착함들에 있는 이들.

계13:1-‘바다로부터의 짐승’=신앙 속의 진리를 파괴하는 과학적 사실.

계13:1-‘바다로부터의 짐승’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있는 과학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왜곡된 교회 속의 진리가 의미되고 있다.

계13:18-‘짐승의 수를 세는 것’=교회 속의 이런 왜곡된 진리들을 조사하고 이는 것.

이30:6-‘남쪽의 짐승들’=교회 내에 있는 이들, 고로 말씀으로부터 진리의 빛에 있는 이들, 그러나 지식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이들, 그럼에도 그 지식이 생활에 쓰여지지 않고 있는 이들.

시8:7-‘양떼와 목축떼’에 의해 인간과 더불어는 내, 외면의 선들이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들판의) 짐승들’에 의해서는 그들과 더불어는 애착들이 의미되고 있다.

계13장-용의 첫 짐승에 의해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이 의미되되 그것이 자연적 인간으로부터 확인됨에 관련하여서이다. 그리고 두 번째에 의해서는 선행에서 분리된 신앙을 의미해주되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확인함, 즉 진리를 왜곡함에 관련하여서이다.

계6:8-‘땅의 짐승들에 의해’=육의 욕망을 통하여.

계9:1~12-‘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온 이들, 메뚜기들 같이 보여진 이들은 믿음만의 교리를 내적 차원에서 지닌 이들

을 뜻한다,

계11:7-‘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만들 것이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믿음 만에 관한 교리의 내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은 새 교회의 두 필수 본질에 반대 위치에 서서 공격하고 그들 스스로 거절할 것이다. 그리고 할 수 만 있다면 타인들과 더불어 공격할 것이다

계13:1,2,4,11,12-‘나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보았다’=하느님과 구원에 관하여 용의 신앙과 교리 안에 있는 개혁 교회의 평신도...용에 대한 주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 장의 다음 서술로부터 명백하다. 즉 ‘용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그의 힘과 보좌와 큰 능력을 주었다...’그들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숭배했다...그리고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관하여, 그는 용같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용 앞에서 먼저 올라온 짐승의 모든 능력을 발휘했다.’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평신도인 이유,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성직자인 이유인즉, ‘바다’에 의해 교회의 외적인 것들이 의미되고 ‘땅’에 의해서는 교회의 내적인 것들이 의미되기 때문이다...그리고 평신도는 교회의 교리의 외적인 것들 안에 있다. 그리고 성직자는 내적인 것들 안에 있다; 그러므로 ‘땅으로부터의 짐승’이 ‘거짓 예언자’라 불린다.

막1:13-예수께서는 ‘짐승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계13장에서 ‘짐승들’에 의해 의미되는 악마들과 계셨다.

단7장-이 네 ‘짐승들’에 의해 교회의 계속적인 상태들, 그것의 처음부터 마지막 까지, 그리고 교회가 말씀 속의 모든 선과 진리를 철저히 황폐시킬 때까지를 묘사했다.

계13:3-‘온 땅이 기이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그 당시 이 신앙이 혼란히 받아들여졌고, 온 교회의 교리를 만들었다. 그이유가 그들은 법의 종들이 아니었고, 신앙 아래 자유했기 때문이다.

계13:4-‘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숭배했다’=율법의 일들 없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음에 관한 교리가 지도자나 선생들에 의해 인정됨. 선생과 지도자들은 일반 회중에 의해 그것이 수용됨을

짐승

통해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계13:4-‘그리고 그들은 짐승을 숭배했다’=자신에 관련하여 아무도 율법을 성취한다거나 선한 일을 행할 자는 아무도 없다 라는 주장이 거룩한 진리라고 일반 회중에 의해 인정됨.

계13:4-‘누가 짐승 같을까? 누가 그와 싸울 수 있을까?’=이 교리는 여타 다른 것에 비해 우월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반박할 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짐승’에 의해 일반 회중이, 고로 교회, 그리고 추상적으로는 교리가 의미된다.

계13:11-‘나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다’=하느님과 구원에 관련하여 용의 신앙과 교리에 있는 개혁 교회의 성직자.

계13:12-‘그는 그것 앞에서 이전 짐승의 모든 권세를 만들고 있다’=그들은 용에 의해 의미된 교의를 확증했고, 일반 신도가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것들은 더욱 강해졌다.

계13:12-‘그는 땅, 그리고 땅의 주민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치료되어졌던 이전의 짐승을 숭배하게 했다’=그리하여 이것은 확증을 수단으로 설립되어졌다는 것, 이것은 교회의 거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것, 아무도 자신의 선한 일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 구원받는 수단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고통받으셨고, 그럼으로서 율법의 정죄함을 거두어가셨다는 그리스도의 공적과 정의를 믿는 것이다.

창13:14-‘그는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이적들을 수단으로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있다’=증언과 증거들을 수단으로 삼아 그들은 교회의 사람들을 오류 쪽으로 인도한다는 것...그 앞에서 이적을 실시했던 ‘바다로부터의 짐승’에 의해 평신도와 더불어 용의 신앙이 의미되었고, 이적을 실시했고 그밖의 장소에서 ‘거짓 예언자’라 불리는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는 성직자와 더불어 용의 신앙이 의미되고 있다.

계13:14-‘땅 위에 거주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짐으로 상처받았고 살아났던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들은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교리로서 받으라고 유인하고 있다. 즉 믿음의 구

원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이유는 공적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자신으로부터 선을 행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 율법을 완성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교리이다.

계13:15-‘그리고 짐승의 우상이 말하도록 짐승의 우상에게 숨을 주기 위해 그에게 그것이 주어졌다’=그들은 말씀을 수단으로 교리를 확인하도록 허용되어졌다는 것, 그런 이유로 그것은 이야기할 때 생기 있었던 듯했다는 것.

계13:15-‘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숭배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하였다’=그들은 자기들 신앙의 교리를 교회의 거룩한 교리로서 인정 않는 이들에 맞서 그들을 정죄한다고 선포했다는 것...‘짐승의 우상’에 의해 이 교리가 의미된다.

계13:17-‘만일 그가 짐승의 표나 이름, 또는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도 사거나 팔 수 없다는 것’=이 교리를 인정하는 자, 그리고 이 교리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맹세하는 자, 또한 이 교리를 이리저리 뒤바꾸지 않는데 동의하는 자 외에 누구도 말씀으로부터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고로 성직 반열에 질 수 없다는 것...

계13:18-‘충명을 가진 그는 짐승의 수를 계산해보라’=주님으로부터 계발되는 그는 이 교리의 확증이 어떤 품성인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의 속성은 무슨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

계14:9-‘만일 누군가가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표를 이마 위에 손 위에 받을 것이라면’=믿음만을 통하여 의로워지고 구원도 받는다는 교리를 인정하고 받는 그 사람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간다. ‘짐승을 숭배하는 것’=이 신앙을 인정하는 것, ‘그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교리를 인정하고 받는 것;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것’=사랑과 신앙 안에 이 교리를 받는 것, 그리고 생활 안에서 그것을 확증하는 것.

계15:2-짐승에 관련하여, 그리고 그의 우상에 관련하여, 그의 표에 관련하여,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에 관련하여 승리를 거머쥔 이들, ‘믿음 만’을 거절한 이들, 그것의 교리를 거절한 이들, 고로 이 교리의 거짓들을 인

짐승

정하지 않았고 자신 속에 침투하지 않게 한 이들, 더구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던 이들. '짐승'에 의해 평신도와 더불어 용의 교의가 의미되었다.

* 그런다음 갑자기 일곱 머리를 가지고, 곰 같은 발, 사자 같은 입, 마치 계 13:1,2에서 묘사된 짐승과 똑같은 괴물이 땅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나타났다...

계16:2- '짐승의 표를 가졌고 그것의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위에'=믿음 만으로 사는 이들, 그리고 그것의 교리를 받는 이들.

계16:10-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보좌 위에 그의 대접을 쏟았다'=그들이 신앙 안으로 주님으로부터의 유입이 있다...'짐승'에 의해 믿음 만으로가 의미되었다.

계16:13- '용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짐승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거짓 예언자의 입으로부터'=신성에는 세 인물들이 있다 라는 교리, 그리고 정의로워짐은 율법에 따른 일함 없이도 믿음 만을 통하여 된다는 교리에 기초한 신학으로부터 지각된 어떤 것...'바다로부터의 짐승', 이것이 여기서 의미되는바, 이 짐승은 이 인정함과 신앙 안에 있는 외적 교회의 사람들을 의미했다; '거짓 예언자'는 이런 교리들로부터 신학을 가르친다는 내적 교회의 사람들을 의미했다. 거짓 예언자는 전에는 언급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땅으로부터의 '짐승'이 지금 그렇게 불리고 있다...

계17:3- '나는 불경한 이름들이 가득한 주홍색 짐승 위에 앉은 여자를 보았다'=그들에 의해 모독된 말씀 위에 있는 광신적 신앙...'주홍색 짐승'에 의해 말씀이 의미되었다; 그리고 '불경한 이름들이 가득함'에 의해 온통 모독됨이 의미되었다.

계17:8- '내가 본 짐승은 있었다, 그리고 있지 않다'=그들과 더불어 말씀이 거룩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실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짐승'에 의해 말씀이 의미되었다.

계17:8- '그리고 있었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있는 짐승을 볼 때 그들의 이름들이 세상의 기초로부터 생명의 책에 쓰여있지 않은 것을 땅 위에 거주하는 그들은 이상히 여길 것이다'=이 광신적 신앙 속에 있는 이들이 깜짝 놀람, 자기들이 구축한 조직으로부터 천국과 땅의 지배권을 강취하려 애쓴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람, 더욱

이 철저하게 거절되었던 말씀이 아직도 건재한 것에 깜짝 놀람이다.

계17:11- '있었고 있지 않은 짐승, 그는 여덟 번째이고, 일곱 속에 있다, 그리고 지옥(멸망)으로 가고 있다'=이전에 취급된 말씀은 신성한 선 자체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신성한 진리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속인과 평범한 사람들로 부터 거두어갔다는 것, 그 이유는 지도자들에 의해 말씀 안에 결합된 모독과 섞음질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해놓은 모독과 섞음질 때문에 (실망하여) 말씀을 철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때문이다.

계17:12- '그들은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 같은 권세를 받는다'=말씀은 그들과 더불어 강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마치 그들이 신성한 진리들 안에 있는 듯하다.

계17:16- 짐승 위에 내가 본 열 뿔들, 이것들이 음녀를 미워할 것이다'=프로테스탄트들과 더불어 있는 신성한 진리로부터 있는 권능에 관련된 말씀, 프로테스탄트들은 교회의 지배 굴레를 자신들로부터 완전하게 거절한 이들이다.

계17:17- '한 마음 속에 있도록,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려고'=그들이 말씀을 인정할 것이라는 것, 그것에서 교회가 발견되리라는 것이 만장일치로 판단하고 결말났다.

계19:19- '나는 짐승을 보았는데, 그리고 땅의 왕들,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그분의 군대와 더불어 말 위에 앉으신 그분과 전쟁을 만들려고 다함께 모여 있었다'=내면이 악한 모든 이, 믿음만을 고백해왔던 지도자들과 지지자들 모두가 그분의 말씀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진리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을 해치려 들 것이다. '짐승'에 의해 믿음 만을 고백함으로 구원됨이라는 교리에 미쳐있는 광신적 신앙인들이 의미된다. 이것이 내면적으로 악한 유일한 이들이다.

계19:20- '짐승이 잡혀졌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했고, 이것을 수단으로 짐승의 표를 받았고, 그것의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을 영똥한 쪽으로 이끌었던 거짓 예언자도 잡혔다'=믿음 만을 고백했던 이들, 고로 내면적으로

짐승

악한 이들, 즉 믿음 만이 구원의 단 하나 수단이라는 것을 갖가지 것을 후벼 파헤쳐 추론하고 증거로 들이댄 평신도와 성직자와 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받아 그것에 따라 살게 하였었다.는 것. 여기서의 '짐승'은 바다로부터의 짐승을 뜻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는 땅으로부터의 짐승을 뜻하고 있다...바다로부터의 짐승은 믿음만의 교리에 광신적으로 몰입된 평신도들이고,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이 광신적 신앙에 자신을 담근 성직자와 학식자들이다.

계20:10-'그들을 미혹한 악마가 불과 유향의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워할 것이다'=생활이 악하고, 거짓된 교리에 있는 이들은 지옥으로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을 사랑함과 자기들 악의 탐욕을 수단으로 계속적으로 해칠 것이다...'짐승과 거짓 예언자'란 생활과 교리 양쪽에서 믿음만 안에 있는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들을 의미한다. '짐승'은 무식한 자, '거짓 예언자'는 유식한 자이다.

겔31:6-'가지 아래에서 새끼를 낳는 들판의 짐승들'=선에 애착함 들.

예12:4-'짐승들과 새들'에 의해 선에 애착함과 진리에 애착함이 의미되었다.

단7장-'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 자아 사랑이 의미되었다...여기서 천국과 땅에 명령을 실시하는 사랑.

호2:8-'들판의 짐승, 그리고 하늘들의 새와 언약을 만드는 것'=선에 애착함들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 진리들을 가지고...

겔14:21-'사람과 짐승을 잘라내는 것'=영적 그리고 자연적 모든 애착.

을2:22-'들판의 짐승'에 의해 들판의 짐승이 아니라 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에 애착함들이 의미되었다. 이로부터 이런 애착들을 지닌 이들도 의미된다.

단7장-'네 짐승들'에 의해 모든 종류의 악이 의미되었다.

예31:27-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는 것=새로운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총명과 애착 속에 있는 진리들과 선들을 수단으로 재형성하는 것...'짐승'=선에 애착함 .

시78:48-'짐승' 그리고 양떼에 의해 악한 사랑에 근원되는 악한 애착들, 또는 탐욕들이 의미되었다.

단7장-'바다로부터의 짐승'에 의해 지배욕이 의미되었다. 이것은 거룩한 것들을 자기를 섬기는 수단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네 짐승들'에 의해 지배욕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이 의미되었다.

속14:15-'모든 짐승의 재앙'에 의해 선에 대한 모든 애착의 손실이 의미되었다.

단5:21-영적 인간 없이는...사람이 아니기에 그는 사람으로부터 내몰려졌고, '짐승 같이 되었다'.

단7:25-'네 짐승들'에 의해 교회를 막 충분히 황폐하게 하려는 악이 의미되었다.

속2:4-'삶들과 짐승들'에 의해 총명에 있고, 이 총명에서 파생된 생활의 선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었다...'짐승들'에 의해 선에 대한 자연적 애착 안에 있고, 그로부터 생활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계11:7-'바닥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만들 것이다'=지옥의 사랑의 강습.

시8:7-'들판들의 짐승들'에 의해 자연적 인간의 애착들이 의미되었다.

시104:14-'여호와께서는 풀은 짐승을 위해, 채소는 사람의 섬김을 위해 싹뜨게 만드신다'=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을 수단으로 자연적 인간과 영적 인간은 훈육되고 자양분도 얻는다...'풀'에 의해 자연적 인간의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이 진리는 과학적 진리이다; '짐승'에 의해서는 훈육받고 싶어하고 영적으로 자양분을 얻고 싶어하는 자연적 인간의 애착이 의미되고 있다.

시107:38-그다음 자연적 인간의 모든 선한 애착이 그들과 더불어 남아 있을 것이 '그들의 짐승은 줄지 않는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시148:7,10-'여호와를 찬양하라, 고래들과 모든 깊은 곳들, 들짐승들과 모든 짐승, 파충류,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여'...'들짐승들'에 의해 자연적 인간의 애착들, 그의 이해성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의지 속에 있는 것들 모두.

시147:9-'여호와...짐승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짐승'에 의해 (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로부터) 자양분이 얻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연적 인간의 애착이 의미되었

짐승

다.

시136:6-‘당신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신다, 오 여호와여’ ‘사람과 짐승’에 의해 영적인 내면의 애착이 의미되었다. 이로부터 총명이 온다, 그리고 자연적인 것인 외면의 애착은 지식인데, 이 지식은 총명에 상응하고 있다.

창2:19-‘(아담은) 모든 짐승에게, 그리고 하늘들의 새에게, 그리고 들판의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름을 주는 것’은 영적 의미에서=어떤 것의 품질을 아는 것; 고로 여기서는 모든 애착들, 탐욕들, 쾌락들, 욕구들, 뿐 아니라 자연적 인간의 생각들, 의향들의 품질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영적 인간의 애착들과 지각들과 상응하며 일치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창7:1~9-말씀에서 ‘사람’은 내향의 인간, 영적 인간을, ‘짐승’은 외향의 인간, 자연적 인간이 의미된다; 그리고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노아와 더불어 방주 안으로 들어진다...방주 안으로 노아와 함께 들어진 ‘짐승들’은 영적 애착과 상응하는 이 교회에 속하는 이들의 자연적 인간의 애착들이 뜻해지고 있다.

출9:22-25, 12:29, 민18:15-‘사람’에 의해 내향의 영적 인간이, ‘짐승’에 의해 외향의, 또는 자연적 인간이, 그리고 ‘이집트’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인간이 의미되었다, 이것이 깡그리 파괴되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것; 이집트로부터의 출발이 취급되는 대목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바, ‘여호와께서는 불과 뒤섞인 우박을 비로 쏟아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들판에 있는 모든 것,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조차 쳐부서졌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모든 첫 출생을 죽이셨다’ 한편 교회를 표현했던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첫 출생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명령되어졌다

신4:17-‘짐승들’에 의해 양쪽 의미에서 애착들을 의미했기에 어떤 ‘짐승’의 생김새도 만드는 것은 금하여졌다....그이유가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면), 그들은 그것들을 숭배하고야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레11장, 20:25,26-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교회 속의 사

람들에 속하는 다양한 것들을 의미했기에 율법이 짐승들에 관련하여, 즉 먹어도 되는 짐승, 먹지 말아야 하는 짐승 등등으로 놓여져 있었다. 먹어도 되는 것들은 선들을, 먹지 않아야 하는 것들은 악들을 의미했다.

단4:12-그것 아래 있어 그들을 가졌던 들판의 짐승; 그리고 그것의 가지들 안에 거주했던 하늘의 새들’은 선에 애착함, 그리고 생각들과 그로부터 진리에 대한 지각들이 의미되었다.

율1:20-‘들판의 짐승이 당신에게 외침을 만든다’=자연적 애착에 있는 이들의 슬픔, 그로부터 진리에 대한 지식과 선에 대한 지식을 갈망함이 있다.

율2:22-‘두려워 말라, 내 들판들의 짐승들아...’ ‘그분의 들판들의 짐승들’은 선에 애착함에 있는 이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교훈받기를 열망하는 이들이 의미되고 있다. ‘짐승들’=자연적 인간의 선에 애착함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들판들’=말씀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

속14:15-‘짐승’=자연적 인간의 애착; 그리고 ‘짐승의 재앙’=이 애착이 다치고 파괴됨.

예12:4-‘사라져버릴 짐승들과 새’는 선에 애착함들,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진리에 대한 생각들이 의미되었다.

이18:6-‘새와 짐승’에 의해 진리에 대한 생각들과 선에 애착함들, 합리적인 측면, 자연적 측면 모두에서 의미되어지고 있다.

시74:19-‘산비둘기의 혼을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영적 선을 악의 탐욕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지 말라.

합2:17-‘깜짝 놀랄 짐승의 황폐함’에 의해 악의 탐욕들을 통하여 진리들이 파괴됨이 의미되었다.

신22:24-‘짐승들의 이빨’에 의해 악의 탐욕들에 관련된 감각적인 것이 의미되었다.

겔8:10-‘파충류의 모든 형체, 짐승의 모든 형체를 보아라, 역겹다.’ 예언서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 이스라엘족들에게 있었던 끔찍한 탐욕들과 거짓들이 의미되었다.

이30:6-‘남쪽의 짐승들’에 의해 선에 섞임질함과 진리를 왜곡함이 의미되었다. 이 두 가지로부터 단지 외적인 것들에 있는 교회 속의 사람들과 더불어는 악과 거짓들이 근원된다; 그것들이 ‘남쪽의 짐승들’이라 불리는

짐승

이유는 그것들은 말씀을 지닌 이들과 더불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막1:13-‘주님은 짐승들과 함께 계셨다’에서 그분이 짐승과 더불어서가 아니라 지옥과 더불어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악들은 거기로부터 올라온다.

계11:7-영적 인간의 애착에서 떨어져 나간 자연적 인간의 애착, 이것은 지옥적 사랑들로부터 근원되는 모든 종류의 악한 탐욕들인바 이것이 그들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 ‘바다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서 의미되었다.

이30:6-‘남쪽의 짐승들’에 의해 교인들이 말씀으로부터 가질 빛을 끄는 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있는 탐욕들이 의미되었다.

속8:10-‘짐승’에 의해 자연적 선의 애착이 의미되었다.

창9:10-‘짐승’에 의해 선에 애착함이 의미되었다; ‘들 짐승’에 의해 진리에 애착함이; ‘새’에 의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그리고 ‘땅의 기는 것’에 의해 과학적인 것, 그리고 이런 애착들로부터 사는 것이 의미되었다.

출13:11~15-짐승들에 의해 애착들이 의미되었다; 가축때로부터의 짐승들에 의해 외면의 애착들이, 그리고 양때로부터의 짐승들에 의해 내면의 애정들이 의미되었기에 그것들의 첫 출생은 제물로 바쳐졌다.

겔 14:19-모든 영적인 진리와 자연적인 진리가 파괴될 것이라는 것, 그 결과 모든 총명과 진리에 대한 지식도 멸해지리라는 것이 ‘나는 그녀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잘라낼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신20:14-거짓들 만이 진리들과 선들과 싸우고 그것들을 파괴하기에, 나라들과 더불어 여인, 어린아이, 짐승들이 악들을 의미했지만 처죽이지 않았다. 그이유가 악들은 길들일 수 있고, 수정 가능하며, 진리를 수단으로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31:27-‘바다의 씨’에 의해 인간이 총명을 가지게 해주는 것인 영적 진리가 의미되었다; 그리고 ‘짐승의 씨’에 의해 인간이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인 자연적 진리가 의미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생활; 선에 애착함으로써의 양쪽 모두...‘짐승’=자연적 애착.

계13:1-‘나는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을 보았다’=생활과 믿음은 무관함을 확연하게 한 자연적 인간의 추론들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이런 것들; 그이유가 말씀에서 ‘짐승들’에 의해 양쪽 의미들에 있는 자연적 인간의 애착들이 의미되었다.

단7장-‘바다로부터 나오는 네 짐승들’에 의해 교회의 계속적인 황폐됨이 묘사되었다.

계13:3-‘기이하게 여겨 짐승을 따르는 것’=신앙과 더불어 일들의 창안된 결합들을 통하여 외관적으로 제거된 말씀의 불일치를 상술할 때,=더욱 학식있는 자에 의해 용인되고, 덜 학식있는 자에 의해 받아들여짐.

계13:4-‘그들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숭배했다’ = 믿음 만을 통하여 의로워지고 구원됨을 인정함, 결합을 창안된 방법을 통하여 견고하게 강화 시켰다, 그결과 교리를 위해 받았다...‘용으로부터의 짐승의 권세’=일들과 더불어 믿음이라는 창안된 결합의 방법을 통해 견고하게 하여 강력해지게 됨.

계13:4-‘그리고 그들은 짐승을 숭배했다’=말씀과 더불어 있는 불일치가 외관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수단으로 추론들을 인정함.

계13:4-‘누가 이 짐승과 같을까?’=이보다 더 진리인 것은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

계13:11-‘나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또다른 짐승을 보았다’=생활로부터 신앙을 분리한 것을 편드느라 이것을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확인해냄, 그런 결과 말씀 속의 진리가 왜곡되었다.

계13:12-‘그는 그것 앞에서 이전 짐승의 모든 능력을 만들어 낸다’=말씀의 글자 의미와 자연적 인간의 연결을 통하여 분리시킨 신앙의 종교는 강력해졌다.

계13:12-‘그는 땅과 그 위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전 짐승을 숭배하게 했다’=거짓들과 이로부터의 악들 안에 있는 교회인들이 일치함을 진심으로 인정한다...여기서 ‘이전 짐승’=말씀의 글자 의미를 가지고 추론함을 동의함; 그이유가 ‘짐승’에 의해 거기로부터 있는 확인들이 의미되기 때문이다.

계13:14-‘그는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이적들을 수단으로 땅위에 거주하는 그들을 꾀었다’=자연적 인간으로부터의 추론들을 결합시킨 말씀으로부터 증언함을 수단으로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미혹함...이

짐승

적을 행했던 ‘짐승’=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확인함; 그리고 이적이 행해진 앞에 있는 ‘짐승’=자연적 인간으로부터의 추론들, 여기서 그러므로 말씀으로부터 확인함이 이런 추론들과 결합함이 의미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합되었을 때, 그것들은 증명과 설복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계13:15-‘짐승의 우상에 숨을 주도록 그것에 주어졌다’=말씀과의 결합을 통해, 그것 안에는 영적 생명의 어떤 것이 있었다...‘짐승의 우상’=선한 일들로부터 분리된 신앙의 교리,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믿어지게 되었다.

계13:15-‘짐승의 우상이 둘 다 말할 것이라는 것’= 이로부터 언어에 가장 가까운 생각에 일치하는 어떤 것이 천국으로부터 흘러들었다, 이것이 자연적 사랑에 의해 흥분되고 불이 붙여졌다.

계13:15-짐승의 우상을 숭배 않는 자는 누구든 죽이게 했다=그러므로 이미 건립된 각각 그리고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위협함...‘짐승의 우상’=분리된 신앙의 교리, 그리고 그 교리 안에 세워 놓은 갖가지 규정들은 가르쳐지고 믿었다는 것.

계13:17-‘만일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으면 누구도 사거나 팔 수 없다’=교리로서 인정된 것, 고로 교리로 받은 곳 외에 어떤 것도 가르치거나 배워서 안된다 하는 것.

계13:17-‘짐승의 이름, 또는 그의 이름의 숫자’= 생활에 관련하여 거기서부터 있는 똑같은 것, 또는 신앙에 관련하여 거기서부터 있는 똑같은 것.

계13:18-‘총명을 가진 자는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계발되는 이들은 이 광신적 신앙의 특성을 조사할 것이다.

계15:2-‘짐승을 이겨냄’=선행의 삶을 영위했고, 그 결과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했던 이들...‘짐승’에 의해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을 지닌 이들이 의미되었다. 바꿔 말하면 선한 일들 없이 신앙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 신앙에 따라 산 자...또한 분리된 신앙으로부터 말씀을 확증함, 그결과 말씀을 왜곡함이 의미되었는바, ‘짐승을 이겨냄’에 의해 그들은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미되었다.

계16:2-‘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그 우상을 숭배한 자에게’=믿음 만과 그것의 교리를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 생활한 이들. ‘짐승’=믿음 만에 있는 이들, 또는 생활의 선들로부터 분리된 신앙에 있는 이들, 그리고 자연적 인간으로부터의 추론들을 수단으로 믿음만의 교리를 확인하는 이들...‘그것의 표시’=인정, 수용, 그리고 그것을 증언함. ‘그것의 우상’=교리. ‘그것을 숭배함’=심정과 생활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

계16:10-‘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왕좌 위에 쏟았다’=교회의 상태는 신앙의 교리에 관련하여 명명백백함을 만들었다...‘짐승의 왕좌’=신앙의 교리...‘짐승’에 의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신앙이 의미되었다.

계16:13-‘나는 용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짐승의 입으로부터...보았다’=생각으로부터, 추론들로부터, 종교로부터, 그리고 신앙 만에 있는 이들의 교리로부터, 그리고 이 신앙을 확증하는 자연적 인간으로부터...‘짐승’=자연적 인간으로부터의 추론들을 수단으로 신앙만을 확증하는 이들. 그 이유가 두 짐승들이 있었다...그리고 ‘바다로부터의 짐승’에 의해 자연적 인간으로부터의 추론들을 수단으로 확증한 신앙이 의미되었다; ‘땅으로부터의 짐승’에 의해서는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확증한 신앙, 그 결과 말씀을 왜곡함이 의미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바다로부터의 짐승’이 의미한 바는 추론들을 수단으로 확증한 신앙인데, 그이유는 ‘거짓 예언자의 입으로부터’가 추가되었기 때문, ‘거짓 예언자의 입으로부터’는 ‘땅으로부터의 짐승’과 아주 유사하다

계17:3-‘나는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는 여인을 보았다’=말씀의 거룩한 것을 지배하려는 광신적 신앙...‘주홍색 짐승’=거룩한 것들에 관련된 말씀. 신성한 진리가 ‘짐승’에 의해 의미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의 거룩한 많은 것들이 ‘짐승’에 의해 말씀에서 의미되기 때문이다...여기서 ‘짐승’에 의해 말씀, 즉 자연에 있는 말씀인 글자로 있는 말씀이 의미되고 있다 그이유가 말씀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짐승’은 애착에 관련된 자연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계17:8-‘있었는데 있지 않은 짐승을 보는 것’=말씀이 받아졌음에도 거절한 지식. ‘짐승’=말씀.

짐을 나르는 짐승

계17:11-‘있었고 있지 않은 짐승, 그 자신은 여덟째이고, 일곱 속에 있고, 멸망으로 가고 있다’=말씀은 신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절했는바, 이 진리 역시 모독되었다.

계17:12-‘그들은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는다’...=신성의 거룩함은 교황이 하는 말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결론짓는 이들.

계17:17-‘이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을 드리고 있다, 그리고 권능이 짐승에게...’=말씀이 신성한 진리이다, 이 위에 교회의 교리가 의존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만장 일치함...‘짐승’에 의해 말씀이 의미되고 있다.

계17:16-‘네가 짐승 위에서 본 열 뿔들’=개혁 교회와 더불어 말씀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특히 주님의 신성한 권능에 관하여, 그리고 말씀의 신성한 거룩함에 관하여이다.

계17:17-‘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는 것’=말씀을 신성으로 인정함, 그리고 그 위에서 교회가 발견되어야 함을 인정함...‘짐승’에 의해 받아들인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음녀’로 의미되는 이들에 의해 거절되고 있음, 그리고 아직 바빌로니아 안과 밖에 있는 다른 이들에 의해 유지됨이 의미되고 있다.

단4:12-‘짐승과 새’=애착들과 생각들.

슥12:7-‘짐승들’에 의해 그것의 애착들이 의미된다.

예9:10-‘하늘들의 새들, 짐승조차, 다 달아났다’=진리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생각함도, 선에 애착함도 없다.

슥1:3-‘사람과 짐승을 소모하는 것’=영적 애착과 자연적 애착을 파괴하는 것.

단7장-이 땅 위에 똑같은 네 교회들이 ‘바다로부터 부상하는 네 짐승’에 의해 묘사되었다.

짐을 나르는 짐승 (beast of burden)

창45:17-‘이렇게 하라, 네 짐승에 짐을 실어라’=그들은 선과 더불어 모든 진리를 가득차게 해야 한다는 것. ‘짐승에게 짐을 실음’=진리들로 채움...‘나귀’는 과학적 사실을 의미하는데, 지금 내적 선과의 결합이 매체를 통하여 결과되었는바, 그것들은 과학적 진리들이다; 이 대목에서는 그것들이 ‘나귀’ 대신 ‘짐승’이라 불리고 있

다.

눅10:34-‘짐승 위에 태우고...’=자기 고유의 지성으로부터 돕는 것...‘짐승’=지적인 것.

출22:5-‘그리고 그의 짐승을 보낼 것이다’=만일 그가 자각함 없이 이것을 행한다면. ‘짐승’=신체의 쾌락, 신체의 욕구 ...짐승이 그대로 ‘짐승’이라 불리울 경우. 이것은 오로지 육체적인 것만에 있는 애착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 안에는 이성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 그이유가 인간이 신체로부터 더 행동한다면 그만큼 덜 이성으로 행동하는 것이다...원어에서도 역시 ‘짐승’은 야만적인 것, 어리석은 것으로부터 그렇게 불리우고 있다; 고로 거의 자각 없음이 뜻해진다.

계18:13-‘짐승들과 양’=그들은 더 이상 교회 속의 선과 진리를 바깥쪽, 또는 자연적 측면으로부터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짐승과 양’에 의해 제물들이 수소, 어린 소, 숫염소, 양, 염소 새끼, 숫양, 염소, 어린 양으로 만들어짐이 의미되고 있다. 수소와 어린 소가 ‘짐승’과 ‘양’에 의해 의미된다.

눅10:34-‘그는 자기 소유의 짐승 위에 그를 실었다’에 의해 의미되는바, 그는 할 수 있는 한 자기 고유의 총명에 따라 이것을 실시했다는 것; 그이유가 말은 지성을 의미하는데, ‘짐승’의 경우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계18:13-‘짐승들과 양’=자연적 근원 속의 영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진리들과 선들로부터 예배함이 모독되었다. ‘짐승들’=선행을 중시하는 진리들...‘짐승들’에 의해 선행의 선들을 중시하는 진리들이 의미되었다. 그것들은 태우고 가는 나귀, 짐을 운반하는 짐승들이다, 이것들을 수단으로 사용 중에 있는 것, 가르침을 위해 있는 것이 의미되어진다.

짐을 지우다 (burden)

* 무거운 짐(burden)을 보라.

집 (house)

창7:1-‘너와 네 모든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의지 속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집’=의지, 그리고 의지 속의 것들.

창12:1-‘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내면의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이는 애착들과 과학물들이다.

창12:15-‘여인은 바로의 집으로 데려가졌다’=그들은

집

더 낮은 마음을 현혹시켰다.

창12:17-‘그리고 그의 집’=그가 그러모았던 것들. ‘집’, 여기서서는,=그러모아진 과학물들. 과학물들을 그러모으는 것, 이것들을 수단으로 외적 인간을 짓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65:21-‘집들’=지혜와 총명이 있는 곳, 고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곳.

암6:11-‘집들’=거짓들과 이로부터 파생된 악들.

창14:14-‘그의 집에서 태어난 이들’=같은 선들과 진리들이 그분 자신의 힘에 의해 획득되어왔다.

창15:3-‘내 집의 아들이 내 상속자이다’=주님의 왕국 안에 외적인 것만 있으리라는 것.

창17:12-‘집 안에서 태어난 자’=천적 평면...집 안에서 태어난 이들=집 안쪽에 있는 이들. ‘집’, 말씀에서,=천적인 것, 그이유는 이것이 가장 안쪽이기 때문. 그러므로 ‘하느님의 집’은 보편적 의미에서는 주님의 왕국, 덜 보편적일 경우, 교회, 특별한 의미에서는 주님의 왕국, 또는 교회가 있는 인간 자신이 의미된다. 인간이 ‘집’이라 불릴 때, 그와 더불어 신앙의 천적인 것이 의미된다. ‘성전’일 경우, 그와 더불어 신앙의 진리가 의미된다.

창18:19-‘집’=선들 안에 있는 모든 이.

창19:2-‘네 종의 집으로’=선행의 선 안에. ‘집’=천적인 선, 이는 오로지 사랑과 선행으로부터서만 있다.

창19:3-‘그들이 그의 집에 왔다’=선 안에서 확증함. ‘집’=천적인 선.

창19:4-‘그들이 집을 에워쌌다’=그들이 선행의 선에 맞서 있는 것.

창19:10-‘그들은 롯을 집 안으로 자신들에게로 데려왔다’=주님께서는 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신다...‘집 안으로 데려와지는 것’=선 안으로...그리고 선 안으로 데려와진 이들이 천국 안으로 데려와진다...하여 혼(soul) 측면의 모든 악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

창19:11-‘집의 문에서 있는 사람들’=합리적인 것들과 이로부터 파생하는 교리적인 것들, 이를 수단으로 폭력이 선행의 선에 가해진다. ‘집’=선행의 선.

눅17:31-‘집 위에 있는 것’=선 안에 있는 것...‘집에 있는 집기들’=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창20:13-‘집’=선. 여기서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의

외관으로부터 있는 즐거움의 선. 그이유가 모든 즐거움은 선 같이 나타나기 때문.

창20:18-‘아비멜렉의 집’=신앙의 교리로부터의 선.

이24:10-‘모든 집이 닫힐 것이다’=선이 결핍된 인간의 마음.

창24:7-‘내 아버지의 집’=주님께서 (세상에서) 싸우시고 정복하신 어머니쪽으로부터 유전받은 악.

창24:23-‘우리가 이 밤을 지낼 수 있는 장소가 당신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지?’=선행의 선에 관하여 조사함. ‘집’=선.

창24:27-‘여호와께서 저를 내 주인의 형제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진리의 선 쪽으로. ‘형제의 집’, 이로부터 리브가가 있었던바,=진리가 있게 한 선.

창24:28-‘그녀는 이 말들에 따라 자기 어머니의 집에 말했다’=계발이 가능한 자연적 선이면 무엇이든지에. ‘어머니의 집’=외적 인간의 선, 즉 자연적 선.

창24:31-‘나는 집을 청소했다’=모든 것들은 준비되어 선들로 가득차다...‘집’=선; 그리고 인간 자체는 안에 있는 선으로부터 ‘집’이라 불려진다.

창24:32-‘사람이 집에 왔다’=거기서 선 안으로 유입됨이 있다. ‘집’=선.

창24:40-‘내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거기 신성으로부터 있는 선과 진리로부터.

시23:6, 27:4-‘여호와와 집에서 거주하는 것’=사랑의 선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사랑의 선 안에서 사는 것. 그이유가 이것이 ‘여호와와 집’이기 때문.

솔2:9-‘집안으로 올라가는 것’=의지 속에 있는 선들을 파괴하는 것.

예22:13-‘정의 없이 집을 짓는 것, 공정 없이 침실들을 짓는 것’=비-선과 비-진리로부터 신앙심을 건축하는 것.

창27:15-‘집에서 그녀와 함께 있던 것’=신성의 합리성의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신성한 선으로부터 있는 것.

합3:13-‘불경한 자의 집으로부터 머리를 쳐부수는 것’=거짓의 원리들을 파괴하는 것.

창28:17-‘이것이 과연 하느님의 집이다’=질서의 최말단에 있는 주님의 왕국.

창28:21-‘나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평화로이 되돌아

집

갈 것이다’=완전한 합일(union)에 이르기까지. ‘내 아버지의 집’, 주님께 관해 서술할 경우,=신성 자체, 이 안에 주님께서는 임신 때부터 계셨다; 그리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버지’라 불리는 신성의 선으로 되돌아가는 것.

창29:13-‘그는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결합함 쪽으로.

겔12:2-‘반역의 집’ 인 악들.

이14:1-‘야곱의 집으로 자신들을 연합하는 것’=선행의 선 안에 있는 것.

창30:30-‘언제 나는 내 집을 위하여 할 수 있을까?’=지금 그의 자신의 선은 거기로부터 열매맺을 것임. ‘집’=선; 여기서, ‘내 집’=야곱에 의해 의미된 선.

창31:14-‘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더 이상 묵도 상속분도 없지 않는가?’=라반에 의해 의미된 선으로부터 분리되는 첫 상태. ‘우리 아버지의 집’=라반에 의해 표현된 선.

창31:30-‘너는 네 아버지의 집을 무척 그리워했다’=직접적으로 흐르는 신성의 선과 결합하기를 갈망함. 여기서의 ‘아버지의 집’=아브라함, 이삭의 집=직접적으로 흘러드는 선.

창33:17-‘(야곱은) 자신에게 집을 지었다’=이 상태에서 진리로부터 선이 증가함. ‘집을 짓는 것’=총명과 지혜 안에서 외적 인간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총명은 진리로부터, 지혜는 선으로부터 있는바, 여기서는 진리로부터 선이 증가함.

창34:26-‘그들은 세겜의 집으로부터 디나를 데리고 나갔다’=그들이 진리에 애착함을 거두어갔다. ‘세겜의 집’은 또다른 교회의 진리의 선이 의미된다.

겔9:7-‘집을 오염시키는 것, 그리고 살해된 자로 뜰을 채우는 것’=선들과 진리들을 모독하는 것.

창34:29-‘집 안에 있는 모든 것’=교회의 모든 것. ‘집’=선 측면에서의 교회, 고로 교회의 모든 것.

창34:30-‘나와 내 집’=진리와 선 측면에서... ‘집’=선 측면에서의 교회.

예6:1-‘예루살렘’=영적 교회; 그리고 ‘포도원의 집’, 또는 ‘벧학게렘’

마12:44-‘텅빈 집’=인간의 내면들이 다시 불결함으로, 즉 악으로부터의 거짓들로 가득참.

신25:9,10-‘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하지 않는 자에게 그와같이 그에게 해줘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자식 없이 있는 것은 선과 진리의 결핍이 의미되는바, 그 집에서는 교회의 표현이 더 이상 없다는 것.

창39:2-‘(요셉은) 자기 주인 이집트인의 집 안에 있었다’=그는 자연적 선 안에서 개시될런지 모른다는 것... ‘집 안에 있는 것’=개시되는 것인 이유는 ‘집’=선이 있는 마음, 여기서는 자연적 마음, 더구나 ‘집’은 선을 서술하기 때문.

창39:5-‘여호와께서는 요셉 때문에 이집트인의 집을 축복하셨다’=신성으로부터 자연적 평면에 천적인 것을 가졌다는 것... ‘이집트인의 집’=자연적 마음의 선.

창39:16-‘그녀의 주인이 집에 올 때까지’=그것은 자연적 선과 교통될런지 모른다는 것. ‘집’, 내적 의미에서,=자연적 마음; 자연적 마음, 또는 합리적 마음은 집과 비슷하다; 집안의 남편은 선, 아내는 진리, 딸과 아들은 선과 진리에 애착함, 남종과 여종은 섬기고 확인하는 과학물과 쾌락이다.

눅11:24-‘집’=자연적 마음, 이 집이 텅비고 청소되었다고 말해진다. 이는 남편과 아내인 선들과 진리들이 없을 때, 딸들과 아들들인 선과 진리에 애착함들이 없을 때, 남종, 여종들인 확증하는 것들이 없을 때이다. 인간 자신이 ‘집’인 이유는 합리적, 자연적 마음이 인간을 만들기 때문.

눅11:17, 막3:25,27-인간의 마음이 ‘집’에 의해 뜻해진다... ‘집’=고명해지려 있는 선.

창40:14-‘이 집으로부터 나를 데려가주오’=악들로부터의 해방... ‘집’=선, 반대 의미는 악.

을2:9-‘그들이 승강할 집’=그들이 파괴하는 선.

창41:40-‘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자연적 마음은 그속으로 복종되고 종속될 것이다. ‘집’=마음, 여기서는 자연적 마음, 그이유는 ‘내 집’이 바로에 의해 말해지기 때문.

창41:51-‘(하느님께서서는 나로) 모든 내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해주셨다)’=유전적 악들의 제거... ‘집’=인간; 그리고 사실상, 합리적 마음, 또는 자연적 마음; 그러나 특별한 측면에서, 거기 있는 자발성; 결과적으로 선, 또

집

는 악...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유전적 악들.
창42:19-'너희 집의 기근을 위해 농산물을 가지고 올라가라'=한동안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의견을 구하도록 자유했다는 것...'너의 집'=특별한 측면에서의 각각의 진리들이 거주하는 곳, 고로 자연적 마음.
이46:3-'아굽의 집'=외적 교회; '이스라엘의 집'=내적 교회.
창43:16-'그는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에게 말했다'=외적 교회 속에 있는 것에.
창43:16-'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와라'=자연 평면에 있는 진리들이 저쪽에 소개되어짐.
창43:17-'그리고 사람은 요셉의 집으로 사람들을 데려왔다'=천적 평면으로부터의 영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선 안으로 처음 소개됨...'집'=선; 그러므로 또한 '집'=교회, 그 이유는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이기 때문.
창43:18-'(사람들은) 자기들이 요셉의 집으로 데려와졌기 때문에 (두려웠다)'=자연 평면의 진리들이 내적인 것에 인접되고 종속 되었기 때문에 (주춤함...'집'에 의해 인간의 내적, 외적 모두가 의미되는데, 여기서는 요셉의 집인고로 내적 측면이 의미된다.
창44:14-'(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들어갔다)'=내적 평면과 교통함...'집으로 들어가는 것'=교통하는 것인 이유는 '집'에 의해 인간 자신, 고로 인간을 만드는 것, 즉 진리와 선과 더불어 인간 마음이 의미되기 때문. 그러므로 '집으로 들어간다'고 말해질 때,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고로 교통을 가지는 것.
창45:18-'네 아버지와 네 집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나에게 오라'=자연 평면의 과학물에 영적 선의 접근, 그리고 교회의 진리들의 접근...이스라엘의 아들들=자연 평면에 있는 교회의 진리들, 그 속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집들'이다.
창46:31-'(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집에게 말했다'=거기서 선들을 지각함이 있음. '집'=선.
창47:12-'요셉은 빵을 가지고 모든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받쳤다'=천적 평면의 내적인 것으로부터 자연 평면에 있는 교회의 진리들과 영적 선 안으로 선의 유입이 계속 있었다는 것...'모든 그의 아버지의 집'=한 개의 복합체 안에서 영적 선 속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영적 선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
창47:24-'네 식품을 위하여, 그리고 네 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그러므로해서 진리의 선이 각각에, 모든 것 안에 있음...'집에 있는 이들'=진리로부터 선의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
창50:4-'요셉은 바로의 집에 이야기했다'=내적인 것이 자연적 마음 안으로 유입됨. '집'=마음.
창50:7-'그의 집의 원로들'=선과 일치한 것들...'집'=선.
창50:8-'요셉의 모든 집'=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들.
창50:8-'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영적 선. '이스라엘'=영적 선; 그러므로 그의 '집'=이 선으로부터 있는 복합체 안의 모든 것들.
창50:22-'그와 그의 [아버지의] 집'=내적 측면으로부터와 그것의 선...'집'=선.
출1:1-'남자와 그의 집이 왔다'=진리 측면에 관련하여, 그리고 선 측면에 관련하여...'집'=선.
출1:21-'그분께서는 그들을 집으로 만드셨다'=그들은 천국적 형체로 배치되어졌다.
출2:1-'레위의 집의 사람이 갔다'=선으로부터 진리의 근원...'집으로부터 있는 것'=근원.
출7:23-'바로는 뒤를 돌아 보았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왔다'=거짓들로부터 생각함과 되새겨 봄...'바로의 집'=거짓.
출7:28-'그것들은 올라와서 네 집으로, 네 침실로 갈 것이다'=그것들은 마음을 채울 것인데 그것의 내면들까지 채울 것이다. '집'=인간의 마음.
출7:28-'네 종들과 네 백성의 집 안으로'=자연 평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출8:9-'집들'=자연적 마음 속에 있는 것들. '집'=자연적 마음; 그리고 '집들', 복수일 경우,=그 안에 있는 것들.
출8:17-'집들 안에'=자연적 마음의 내면들 안에도.
출8:17-'이집트인들의 집들에'=자연적 마음의 내면들.
출8:20-'바로의 집, 그의 종들의 집, 그리고 모든 토지'=자연 평면에 있는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 여기서,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로부터, 또는 모든 측면들로부터.
출9:19-'집으로 모아들이지 않은 것'=보존되지 않은

집

것... '집'=내면의 자연적 마음, 여기서 선은 진리와 함께 있다; 합리적 마음 역시 그러한바, 인간 자신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집으로 모아들이는 것'=안쪽에 모아들이는 것, 그리고 비축되는 것.

출9:20-'그는 그의 종들과 그의 가축들을 집으로 피신하게 했다'=그것들은 내면들 안에 비축되고 보존되었다... '집들'=인간 내에 있는 것들, 거기에 선과 진리가 주님께 의해 비축되고 보존되었다.

출10:6-'네 집들, 모든 너희 종들의 집들, 그리고 이집트인들의 집들을 채울 것이다'=거짓이 자연 평면에서 각각 그리고 모든 것을 내면으로부터 그것의 맨끝 까지 지배할 것이다.

출12:3-'그의 아버지들의 집을 위하여, 집을 위하여 작은 가축'=각각의 특수한 선에 따라서. '그의 아버지들의 집'=다른 가족의 선과 구분되는 이쪽 가족의 선. '그의 아버지의 집'에 의해 내적 선 측면에서의 사람이 의미되어져 있다.

출12:4-'만일 집이 작은 가축인데도 너무 작다면'=만일 특별한 선이 순진을 위해 충분치 않다면. '집'=특별한 선.

출12:7-'집들 위에'=선으로부터의 의지 속에 있는 것들.

출12:13-'내가 있는 집들이라는 표시'=그것은 선으로부터의 의지에 관한 증거이다는 것. '집들'=선으로부터의 의지 속에 있는 것들.

출12:15-'첫째 날에 너희는 내 집들로부터 누룩이 중지되게 만들어라'=선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거짓은 하나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집'=선.

출12:22-'너희는 집의 문으로부터 누구도 나가지 말 것이다'=그들은 선 안에 꾸준히 머물러야 한다는 것, 진리로부터 응시되어져서는 안될 것. '집'=선... '집 안에 남는 것'은 성 안에 남는 것이다. 그러나 '집의 문으로부터 나가는 것'은 선으로부터 진리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이유가 선은 안쪽에 있으나 진리는 바깥쪽에 있기 때문.

출12:23-'그분은 파괴자에게 네 집들에 오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지옥들로부터 있는 거짓과 악은 의지에는 조금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출12:27-'그분은 이스라엘의 집은 지나치셨다'=저주함이 주님을 수단으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선들로부터서는 도망쳤다... '집들'=선들.

출12:29-'구덩이의 집 안에 있는 포로된 자'=마지막 장소 안에 있는 이들...

출12:30-'죽은 자가 한명도 없는 집은 하나도 없었다'=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

출12:46-'한 집안에서 그것이 먹어져야 할 것이다'=하나의 선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일치하는 선이 제휴함. (그이유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각 집은 천국의 사회를 세부적 측면에서 표현했기 (때문).

출12:46-'너희는 집으로부터 바깥으로 고기를 가져가지 마라'=이 선은 또 다른 한 개의 선과 섞지 마라.

출20:2-'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종들의 집으로부터 데려왔다'=지옥으로부터 그분에 의해 해방됨... '종들의 집'=영적 포로됨.

시69:9-'여호와의 집의 열정'=선과 진리를 받는 이들을 향한 사랑. 그이유가 이들이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

욥24:16-'집을 관통하여 파는 것'=또다른 사람의 선을 은밀하게 가져가버리는 것.

출22:7-'도둑에 의해 그것이 사람의 집으로부터 가져가버림을 당했을 때'=기억으로부터 이런 것들의 손실이 있음.

출22:8-'집의 주인을 하느님에게 데려와야 한다'=선으로부터 면밀하게 조사함... 선이 '집'이라 불리운다. 그이유는 진리들과 과학물들이 그것들의 집 안에 있듯 선 안에 있기 때문.

이22:9-'다윗의 집'=주님의 교회

이23:1-'집이 없다, 하여 들어가지 못한다'=진리가 심어질 수 있는 선이 더 이상 없다는 것.

출23:19-'하느님의 집 안으로 가져오는 것'=주님에게 가져오는 것, 하여 그것들은 거룩해질런지 모른다. '하느님의 집'=주님.

마11:8-'왕들의 집'=천사들이 있는 대저택들; 보편적 의미에서 천국; 그이유가 '집'들이 선으로부터 라고 말해지기 때문.

출25:27-'장대들을 위한 집을 위해'...'집을 위해'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이것이 천적 선을 취급하기 때문, 그

집회-짓밟다

리고 그것의 용기(그릇)으로부터의 힘을 취급하기 때문...또한 '집'에 의해 최말단들에 있는 선이 의미되어진다. '집'=선.

겔40장-여기서 새 집이 취급되는데, 이를 수단으로 주님의 새 교회가 의미되어져 있다.

겔46장-거기서 '성전' 또는 집에 의해 천국과 교회가 의미되어져 있다.

* '왕의 집'=신성의 진리 측면에서의 교회 (이 22:21,22, 계3:7 참조).

요19:27-'자기의 집(home)으로 그녀를 데려가는 것'=교회는 선행의 선이 있는 곳에 거주할 것이다.

예5:7-교리 측면에서 이런 교회가 '간음녀의 집'이다.

겔7:24-'그들의 집들을 차지하는 것'=그들의 마음들을 차지하는 것.

마12:25-'서로 맞서 갈라진 모든 성이나 집은 서있지 못한다.' '성'과 '집'=교리로부터의 진리와 선, 이것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으면 서있지 못한다.

예31:27-'이스라엘의 집', 그리고 '유다의 집'=진리 측면에서의 교회와 선 측면에서의 교회.

학2:9-'하느님의 집'=교회; '이전의 집'=주님의 강림 이전에 있던 교회; 그리고 '이후의 집'=그분의 강림 후에 있었던 교회.

이60:7-'우아한 집'=신성의 진리 측면에서의 신성의 인간.

예6:1-'포도원의 집'=그 교회 자체.

이22:10-'예루살렘의 집들을 세는 것'=진리의 선들을 왜곡하는 것.

암6:11-'큰 집'=학식 있는 사람. '작은 집'=학식 없는 사람.

호11:11-'나는 그들이 자기들의 집에서 거주하게 만들 것이다'=진리를 이해하고, 선한 의지로부터 사는 것. 인간의 마음은 이 두 가지 것들에서 존재하는바 '집'에 의해 뜻해진다.

예2:14-'집으로부터 태어난 자'=선들 안에 있는 이들.

신6:11-'갓가지 좋은 것이 가득한 집들'=사랑과 지혜로 가득한 마음의 내면들.

애5:2-'우리의 집이 외국인들에게'=교회의 선들이 악들에게 돌아갔다.

이5:9-'황폐를 위해 있을 많은 집들'=특별히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측면에서의 교인들.

겔26:12-'원하고 바라는 집들을 그들은 무너뜨릴 것이다'=마음 속의 것들, 즉 이해성과 의지 속의 것들; 그 이유는 거기에 인간이 거주하기 때문.

왕상22:39-마음 속의 것들 측면에서의 인간이 '집'에 의해 의미되는바, 그러므로 아합에 관련해 읽는바, 그들은 이전에는 집들을 상아로 지었다. 상아 집을 수단으로 합리성 측면에서의 인간이 의미되어져 있다.

집회 (assembly, call together)

출12:6-'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시작에서 모두는 함께 있을 것이다...집회는 이스라엘의 전체 회중이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고로 천국을 표현한다...이로부터 축제 자체는 '거룩한 집회'라 불리워졌다.

이4:5-[시내산의]의 집회들=선들과 진리들.

이4:5-시내산의 집회들=천적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짓밟다 (trample)

창3:15-'그는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짓밟는 것'=의기소침, 내리누름

이63:3-'밟다', '짓밟다, 분노에서'=악들을 넘어 승리... '짓밟는 것' 말씀에서 악을 서술한다.

겔26:11-'거리들을 밟는 것'=진리의 지식들을 파괴하는 것.

징조 (portent)

출4:21-'내가 네 손에 놓는 모든 징조들을 본다'=영적 왕국으로부터 있는 힘의 매체들. '징조', 또는 기적=신성한 힘의 매체들.

짖다 (howl)

악쓰다 (howl)

예48:31-'악쓰고, 부르짖고, 그를 두고 슬피 우는 것'=불쌍히 여기고 비탄에 젖는 것.

예47:2-'사람들이 부르짖고, 모든 거주민들이 악쓰다'=교회에서 모든 진리와 선이 결핍됨.

질은 (dense)

레23:40-'두꺼운(thick) 나무 가지'=과학적 진리.

출19:9-'보라, 나는 질은 구름 안에서 네게 온다'=계시

징조-짚다 -짚은-짚-짜다 -짜는 사람-짧게하다 -쪼개다 -쪽-쫓아나다

는 자연적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자연적인 형체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예2:6-‘짚은 그들의 토지를 통하여’=거짓의 상태.

짚 (straw)

창24:25-‘또한 짚’=기억 속의 진리들...그이유는 이것이 낙타와 관련하여 서술되기 때문...이를 수단으로 일반적 과학물에 관련하여 자연적 인간이 의미되어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료인 짚도 이 범주에서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

창24:32-‘그는 낙타에게 짚과 마초를 주었다’=진리들과 선들을 가르침. ‘짚’=자연적 인간의 진리들.

창31:34-‘그녀는 그것들을 낙타의 짚 안에 놓았다’=과학물 안에...짚은 낙타의 양식이고 구성상 조잡하기 때문.

짜다 (weave)

짜는 사람 (weaver)

출28:33-‘짜는 사람의 일’=천적 평면으로부터 인 것...그이유가 ‘짜는 사람’=뭔가를 잊어지게, 출현하게 하는 자; 고로 천적 평면, 그이유가 영적인 것은 천적인 것으로부터, 천적인 것을 통하여 출현하기 때문.

이59:5-그들의 사기적 거짓들이 그들이 짜는 ‘거미줄’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짧게 하다 (shorten)

마24:22-‘이 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교회가 그것의 때 앞에서 끝내지지 않으면.

* ‘이 날들이 짧아 지게 하는 것’=현 교회에 끝을 놓고 새로운 것으로 복구하는 것.

쪼개다 cleave

갈라진 틈 (cleft)

겔29:7-‘모든 그들의 어깨를 쪼개는 것’=모든 힘을 박탈하는 것, 하여 그들은 아는 것이 없다.

창22:3-‘그는 태워바치는 공물의 장작을 쪼갰다’=정의의 공적...‘장작을 쪼개는 것’=일들로부터 있는 선들 안에 공적을 놓는 것.

이7:19-‘바위들의 갈라진 틈들’=희미함에 있는 신앙의 진리들, 그 이유는 천국의 빛으로부터 옮겨졌기 때문.

출33:22-‘나는 바위의 갈라진 틈 안에 너를 놓을 것이

다’=신앙 속의 거짓과 불명료한 것, 이는 내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 안에 있는 이들과 비슷하다.

이2:21-‘바위들의 동굴들 안으로, 그리고 바위들의 갈라진 틈 안으로 가는 것’=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자아 총명의 자만으로부터 악들과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이 지옥에 떨어짐.

쪽 (side)-측면(side)을 보라.

쫓아나다 (cast out)

창3:24-‘사람을 쫓아내는 것’=선을 뜻함과 진리를 이해함의 모두를 깡그리 박탈함, 사람은 박탈된 만큼 선과 진리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셈인바, 그는 사람이 아니다.

창4:14-‘지면의 얼굴 위로부터 쫓아내지는 것’=교회의 모든 진리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창21:10-‘이 몸종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인간적 수준일 뿐인 합리성 속의 것들이 종료되어지게 되었다.

출22:19-‘그는 저주될 것이다’=내쫓김.

계11:2-‘성전 밖인 뜰은 밖으로 쫓아내라.’ ‘밖으로 쫓아내는 것’=천국으로부터 옮겨지는 것.

신32:26-‘가장 먼 구석으로 쫓아내는 것’=모든 선과 진리가 박탈되어지는 것.

쭉정이 (chaff)

마3:12-‘쭉정이’=선이 안에 하나도 있지 않은 것들.

출5:7-‘너는 백성들에게 쭉정이를 보태주지 말라’=가장 낮은 과학물들, 그리고 모든 것 중에서 더 가장 일반적인 것. ‘쭉정이’, 또는 짚=과학적인 진리들.

출5:10-‘나는 어떤 쭉정이라도 주지 않을 것이다’=그 근원으로부터는 더 이상 가장 일반적인 과학물들은 있지 않을 것이다...‘쭉정이’=모든 것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과학물들.

마3:12-‘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그분이 태울 쭉정이에 의해 내적 근원으로부터 있고 파괴될 갖가지 종류의 거짓이 의미된다; 고로 이런 거짓 안에 있는 이들.

눅22:31-거짓으로부터의 신앙이 ‘바람 앞에 쭉정이’와 비슷한바, ‘사탄이 그들을 밀 같이 체질하려고 그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진다; ‘밀’=쭉정이로부터 분리된 선행의 선.

찌기 (dross)

죽정이-찌끼-찢레나무-찢다-찢다 -착복하다

겔22:18-‘이스라엘 가문은 나에게 찢기가 되어 있다... 그들은 은찌기이다.’...이 말들에 의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족이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골격을 짜고, 자신들과 자신들의 사랑들에 응용한 거짓된 교리적인 것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것들이 ‘은찌기’라 불리는 이유는 ‘은’=말씀 속의 진리; 그리고 ‘찌기’=진리가 없음, 또는 진리로부터 걸러내어, 거절된 것이기 때문.

찌끼 (froth)

* 더껍이(scum)를 보라.

찌르다 (sting)

계9:10-‘전갈 같은 꼬리들, 그리고 꼬리로 찌른다’=그들이 설득해서 상처를 주어 괴롭히는 수단인 거짓들로부터의 노련한 추론들.

찢레나무 (brier)

이32:13-‘가시와 찢레나무’=거짓들과 거짓들로부터 파생된 악들.

겔28:24-‘찌르는 찢레나무’=자아 사랑의 탐욕의 거짓; ‘가시’=세상 사랑의 탐욕의 거짓.

찢다 (rend)

창31:39-‘찢긴(torn) 것을 나는 당신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다’=악은 그의 과오에 의해서가 아니다.

* 인간이 자기 과오 없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악이 말씀에서 ‘찢긴 것’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레22:8-‘찢긴 것’=악한 자에 의해 주입된 거짓들로부터 있는 악, 이 악인은 ‘찢는’ 숲속의 ‘들짐승’이다.

창37:33-‘요셉은 갈갈이 찢겨졌음이 확실하다’=무엇이든 존재를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들을 수단으로 흘트림.

출22:13-‘갈갈이 찢긴 것이 분명하다면’=인물의 과오 없이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수단으로 가해진 상해.

출22:31-‘들판에서 찢긴 고기를 너는 먹지 마라’=신앙의 왜곡된 선은 결합되지 않을 것이다.

레17:15-‘시체나 찢긴 것을 먹는 것’=악과 거짓을 자기 것 되게 하는 것.

이3:24-‘띠 대신, 찢긴(rent) 것’=천적 선이 사라짐.

슌14:4-‘산이 찢어짐...’=천국과 지옥의 분리.

겔23:4r7-‘검으로 쪼개는(cleave asunder) 것’=거짓을 통하여 진리를 파멸함.

호13:8-선으로부터 진리가 분리함이 ‘그들의 심장의 대망막을 찢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출28:32-‘그것이 찢어지지 않게’=상해로부터 안전하게.

마7:6-‘그들이 돌아서서 너를 찢지 않도록’=치욕과 오만무례로 덮는 것.

찢다 (bruise)

상처자국 (bruise)

* grind도 참조.

출27:20-‘순수한, 두드린(beatened)’=진짜 그리고 맑은..

출30:36-‘너는 그것을 매우 작게 찢을 것이다’=그것 자신의 시리즈에서 진리들을 배열함. ‘찢다, beating’는 ‘갈다, grinding’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이36:6-‘부서진’=부서진, 그리고 안정성을 주는 내면의 어떤 진리와 부합 안됨.

이53:5-‘우리의 불법을 위한 상처 자국’=그분의 굉장한 시험들

착복하다 (appropriate)

* 먹다, 마시다도 참조

창27:7-‘먹는 것’=착복하는 것 (자기 것 되게 하는 것, 자기에게 어울리게 사용하는 것). 이런 때에 착복이 발생한다. 즉 진리들, 또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 유쾌하고 즐거워지게 하는 것들을 수단으로 자연적 평면 안으로 은근히 심어질 때 일어난다. 그리고 거기서 이 진리들이 선에 인접되어질 때, 합리적 평면 속의 진리와 선, 한마디로 합리적 평면과 친밀한 교제가 결과되어진다. 이때의 친밀한 교제가 소위 착복(자기 것 삼음)이다. 그이유가 그들은 자연적 평면 안에 있는 합리적 평면 속에 있기 때문이다.

창28:20-‘(옷을)입는 것’=자기 것 삼고 결합하는 것.

창33:19-‘그는 들판의 일부를 샀다’=이 진리로부터의 선을 자기 것 되게 함. ‘사는 것’=자신에게 잘 어울리게 하는 것.

창35:12-신성한 선이 착복했다...‘너에게 주는 것’=자연적 평면과 잘 어울리는 것.

창35:12-신성한 진리가 착복했다...‘네 씨에게 토지를 주는 것’ 최고 의미에서=신성한 선이 신성한 진리에 꼭 들어맞는 것(잘 어울리는 것). 그러나 이것이 신성한 진리가 착복했음 인 이유는 주님이 신성화되시기 이전,

찬-찬미하다 -찬양

즉 인간으로서의 주님은 신성한 진리이셨기 때문.

창39:4-‘(요셉은) (보디발을) 섬겼다’=과학적인 것이 그것 고유의 선에 꼭 들어맞았다는 것.

창39:8-‘주인은 이 집에서 무엇이 나와 함께 있는지도 모른다’=자연적 선은 착복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

마25:37-46-선행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모든 이가 ‘의로운 자’라 불리워진다. 그들은 자신들로부터 의롭다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다. 주님의 정의가 그들에게 착복되어진 것이다. (본문의 이 의로운 자는 자신들이 지닌 정의가 주님이 것임을 지각하고 있다)

창41:56-‘파는 것’=누군가에게 자기 것 삼아 지게 하는 것.

출4:6-‘네 손을 네 가슴 안으로 가져오라’=진리를 착복함.

미7:5-‘가슴’은...사랑을 통하여 결합하고 자기 것 되게 함이다...

출29:26-천국들에 있는 신성의 영적인 것, 그리고 거기서 자기 것 되게 함.

이9:19,20-‘불을 위한 식품’=악들을 착복함...

찬 (cold)

* 추운(cold)을 보라.

찬미하다 (glorify)

출14:4-‘나는 찬미(영광)될 것이다’=그들은 거짓의 흐트러짐에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결과를 볼 것이다...‘찬미되는 것’, 주님을 말할 때=신성한 결과. 여기서서는 그분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의 신성한 결과. 세상에 오시고, 인간을 입으시고, 입으신 인간을 신성으로 만드심을 수단으로 해서 주님은 모든 악들과 거짓들을 지옥들 안으로 던지셨고, 천국들은 질서 안으로 환원되게 하셨다, 그리고 영적 교회인을 지옥에 떨어짐으로부터 건져주셨다...이런 일반적 사항들이 ‘찬미되심’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계15:4-‘...당신의 이름을 찬미되게 하소서’=그분 만이 경배되어져야 한다는 것...‘그분의 이름을 찬미함’=그분을 경배함.

계18:7-‘그녀가 자신을 찬미한 만큼에 비례해서’=지배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뿔낸 만큼에 비례하여.

찬양 (praise)

이60:6-이것들이 ‘여호와의 찬양들’ ; 즉 내적 예배.

창12:15-‘그들은 그녀를 바로에게 칭찬했다’=그들은 흡족해 했다는 것.

이60:6-선들과 진리들, 이것이 ‘여호와의 찬양들이다.’

시100:4-‘찬양 안에서 그분의 안뜰에 들어가라’...‘찬양’은 진리로부터의 사랑이다.

마21:16-‘유아들의 입으로부터...당신은 완전한 찬양을 가지신다’=찬양은 순진만을 통하여 주님에게 올 수 있다.

출15:11-‘찬양을 가지고 공경되는 것’=그분에게만 영광과 감사가 있다.

시149:3-‘소고(timbrel)로 찬양하는 것’=신앙의 선에 애착함으로부터 있는 즐거움으로부터 영광을 기리는 것; ‘하프로 찬양하는 것’=신앙의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의 유쾌함으로부터 영광을 기리는 것.

계19:5-‘우리의 하느님을 찬양하라’=그들은 천국의 유일한 하느님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

이62:9-이런 것들로부터 예배함이 ‘여호와를 찬양함’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시148편-‘여호와를 찬양하는 것’=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42:10-진리에 관한 지식과 설교함으로부터의 그들의 환희가 ‘목소리를 높이고 찬양을 노래하는 것’에서 뜻해진다.

계19:5-‘하느님을 찬양하라 모든 그분의 종들아’=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해 주님이 예배됨.

시57:9-‘찬양을 노래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관계되고 있다.

시147:7-영적 진리로부터 고백함이 하느님에게 하프로 찬양을 노래하는 것’에서 표현되어 있다.

찰싹 때리다 (slap)

마5:39-‘찰싹 때리는 것’=그것에 상해를 주는 행동

참다 (bear)

* 나르다(bear)를 보라.

참새 (sparrow)

눅12:6,7-‘참새 다섯 마리’가 언급된 이유는 인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다섯), 가치가 적다는 것(참새)을 뜻하기 때문.

참아내다 (endure, tolerable)

창백한-창살-창조

계2:2-‘네 노동과 네 참아 냄’=그들의 공부와 인내함.

계2:19-‘네 신앙과 참아 냄’=진리와 진리를 획득하려는 공부와 진리를 가르침.

계3:10-‘너는 나의 참아 냄이라는 말을 지켰기 때문에’=그들은 악에 맞서 싸우고 거짓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참아냄이라는 말’=시험이라 불리우는 영적 전투...(이것은) ‘주님이 참아내심’이라 불리운다, 그이유는 시험들 안에서 주님은 인간을 위해, 그리고 그분 자신의 말씀을 수단으로 싸우시기 때문.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다는 것.)

계2:19-‘그리고 너의 참아냄’=외적인 것과 결합함, 그리고 그다음 전투함.

창 (spear)

이2:4-‘그들의 창을 두드려 낫으로’..‘창’=이와 같은 [영적] 전쟁 속의 것들.

예6:23-‘그들은 활과 창을 붙잡고 있다’=그들은 거짓 원리로부터 싸운다는 것.

겔39:9-‘창’=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내면의 힘.

시46:9-악의 어떤 거짓으로부터도 전투가 있지 않은 것임이 ‘그분은 창을 부러뜨릴 것이다’에서 의미되어져 있다.

합3:11-‘당신의 창 의 천둥번개’=그자체 거짓의 악들인 실체없는 선들.

시35:3-‘창’. 이것이 몸의 모든 것을 방어하기 때문에=일반적 측면에서는 방어함.

여8:18,26-유대인들은 권능이 여호수아의 창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창=주님의 전능하심.

창고 (store house)

출1:11-‘그들은 바로를 위해 창고의 성읍을 건설했다’=자연 평면에서 왜곡된 진리들로부터의 교리들. ‘창고’=왜곡된 진리들.

창문 (window)

창6:16-(방주의) ‘창문’=지적 평면

이54:12-‘태양들’, 또는 창문들=선행으로부터의 지적인 것들.

왕상6:4-성전의 모든 창문들은 같은 것을 표현했다; 가장 높은 창문은 지적인 것들, 중간 창문은 합리적인 것들, 아래쪽 창문은 과학물들과 감각적인 것들을 표현

하였다.

예9:21-중간 층의 창문이 뜻하여진다=합리적인 것들.

창8:6-‘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두번째 상태, 즉 신앙으로부터의 진리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이다...‘창문’=지적인 것, 그러므로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창26:8-‘아비멜렉은...창문을 통하여 쳐다보았다’=(영적) 지식들 안에서 합리적인 것을 찾는 신앙 속의 교리...‘창문을 통하여 쳐다보는 것’=내적 시야를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지각하는 것. 이는 일반적으로 외적 인간 속에 있는 영적 지식들이다.

솔2:9-‘도둑 같이 창문을 수단으로 들어오는 것’=진리들과 진리들에 관한 지식들을 파괴하는 것.

슥2:14-‘목소리가 창문들에서 노래할 것이다’=진리의 황무함, 고로 진리 측면에서의 지적 자질이 황폐함.

사5:28-‘창문을 통하여 밖을 보는 것’=진리를 부정하는 이들의 추론들을 수단으로...

이60:8-‘비둘기 같이 창문 쪽으로 나는 것’=진리의 탐구를 통하여...‘창문들’=빛 안에 있는 진리.

예9:21-‘죽음이 창문들을 통하여 왔다’=지옥의 거짓이 이해성 안으로 들어왔다.

말3:10-‘하늘의 창문들을 여는 것, 그리고 축복을 쏟는 것’=신성이 유입(inflowing)됨, 이로부터 총명과 영원한 생명이 온다.

창백한 (pale)

계6:8-‘창백한 말’=말씀을 이해함이 생활 속의 악과 이 악에서 파생된 거짓으로 인해 무익해짐. 이것이 교회의 네 번째, 또는 마지막 상태이다.

계6:8-‘잘보니 창백한 말’=말씀을 이해함이 선과 진리 양쪽 모두를 파괴했음...‘창백’에 의해 생명력을 가지지 않았음이 의미되어져 있다. 말씀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지 않은 이들은 교리 속의 진리들로부터 생활의 선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이다.

예30:6-‘모든 얼굴들이 창백함으로 변했다.’ 선과 진리가 없다는 것, 악과 거짓만 있다는 것; 고로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것, 영적 죽음만 있다는 것. 이것이 ‘얼굴의 창백함’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29:22-‘그의 얼굴은 창백해지지 않는다’=그들은 악들과 거짓들 안에 있지 않고 선들과 진리들 안에 있는

창백한-창살-창조

다.

창살 (grating)

* 체로치다(sift)를 보라.

창조 (creation)

*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세상의 창조가 아니라 인간을 새로이 창조하심을 다루고 있다)

* 거듭남 자체가 인간의 새로운 창조라 불리운다. 예언서들의 거의 모든 곳에 있는 ‘창조하는 것’, ‘형성하는 것’, ‘만드는 것’=각각 약간의 차이는 보여지지만 대체로 거듭나는 것.

* 신앙의 발전은 새로이 창조되는 이들과 더불어 있다.

* 인간 거듭남의 여섯 상태들이 그의 창조의 ‘날’이라 불린다.

* 태고 교회의 후손들로부터 모세는 창조에 관한 이런 것들을 가졌다.

* 인간은 주님에 의해 이렇게 창조되었다.

* 창세기 첫 장은 영적 인간의 창조를 취급하고, 이 뒤를 이어 천적 인간의 창조가 다루어진다.

창5:1-‘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날에’=영적 인간으로 되었을 때; ‘그리고 하느님의 모양대로 그분은 인간을 만드셨다’=천적 인간으로 되었을 때.

창6:7-‘내가 창조했었던 사람’=그분이 거듭나게 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사람=즉 그가 천적 인간이 될 때까지 그분이 완전해지게, 거듭나게 했던 사람.

이45:18-‘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고’=거듭나는 것; 고로 하늘과 땅의 창조자=거듭나게 해주시는 자.

말2:10-‘한분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여기서 ‘창조하는 것’=거듭나는 것.

겔28:13-‘당신이 창조하시던 그 날에’=그들이 거듭날 때의 첫 상태.

이43:1-‘창조하는 것’=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것; ‘형성하는 것’=품질; 그리고 ‘만드는 것’=결과.

출34:10-‘온 땅에서 창조되지 아니했었던 것’=이와같은 신성은 교회가 존재한 세계 안에 결코 있지 아니 했었다는 것...그들이 가장 안쪽으로부터 가장 바깥쪽, 또는 제일로부터 최말단까지 신성일 때, 그들은 ‘창조되

어진다 라고 말해진다...여호와께서 ‘온 땅에서 창조하시지 아니하셨던 경이로운 것을 행할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창조’란 단어가 가장 안쪽으로부터 가장 바깥쪽까지, 또는 제일로부터 최말단까지 신성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신성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시작하여 최말단 목적으로 내려가는 질서에 따라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국들을 통과하여 세상으로, 그리고 그것의 최말단에서 쉼을 갖게 된다; 그이유가 신성한 질서의 최말단은 자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품성 속에 있는 것이 창조됨이라 불린다...

계4:11-‘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그들은 창조되었고 존재한다’=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그분의 신성한 지혜를 통하여, 또는 신성한 선으로부터, 말씀이시기도 한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천국과 교회 속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고 형성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재구성되었다는 것. ‘창조하는 것’=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재구성되고 거듭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의지’=신성한 선...‘창조하는 것’=재구성하고 거듭나는 것.

계5:13-‘하늘에, 그리고 땅에, 그리고 땅 아래, 그리고 바다에 있는 창조된 모든 것’=천사들...그들의 존재는 말씀의 문체에 따라 있는 ‘창조된 것’이라 불린다, 말씀 안에서 창조된 모든 것들, 즉 동물과 식물 왕국 모두 속의 창조된 모든 것은 인간과 더불어 다양한 것들이 의미되어진다...

계10:6-‘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 땅과 그 안에 있는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천국과 교회, 그것들과 더불어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살아 있게 하시는 그분. 자연적 의미일 경우 ‘창조하는 것’=창조하는 것, 그러나 영적 의미일 경우 재구성하는 것, 거듭나는 것, 살아있게 하는 것.

요1장-창조는 순수한 사랑인 저 태양을 통하여, 즉 여호와 하느님에 의해 결과되었다; 그 이유는 사랑은 생명의 참 존재이고, 지혜는 그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부터 지혜를 통하여 창조되어 왔다. 이 내용이 ‘말씀이 하느님과 더불어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은 말씀이셨다. 모든 것들

창조물-창조자 -창포-찾다

은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분 없이 만들어져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창조물 (creature)

피조물 (creature)

막16:15-이들이 '창조물'이라 불리는데,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이유는 그들이 새로이 창조되었기 때문.

계8:9-'혼을 가진 바다에 있는 창조물'=선들과 더불어 과학적 진리들.

계8:9-'창조물'=진리의 교리적인 것들에 있는 이들.

계8:9-'혼을 가진 바다에 있는 창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었다'=이 신앙으로 살았고 살고 있는 이들은 개혁되어질 수 없고 생명을 받을 수도 없다...'창조물'=개혁되어질 수 있는 이들.

막16:15, 롬8장, 고후5:17, 갈6:15-세례받음, 즉 거듭나는 인물(person)이 '창조물', '피조물'에 의해, 그리고 새 창조물에 의해 뜻해진다. 그이유가 '창조물'이 '창조'로부터 불리우는데, 이를 수단으로 거듭남이 뜻해지기 때문.

막16장-'모든 창조물'=복음을 받고 개혁되는 이들.

계5:13-'모든 창조물'=천사들과 인간들 둘 다.

계3:14-'하느님의 창조물의 시작'...'창조물', 여기서=새로이 창조될 수 있는 이들, 즉 거듭나질 수 있는 이들, 고로 주님의 교회로 되어질 수 있는 이들.

창조자 (Creator)

* 창조(create)도 보라

이43:7, 45:11-12,18,21-주님이 '창조자', '형성자(Former)', '제작자(Maker)'라 불리실 때, 내적 의미에서 각 용어는 언제나 따로따로 구분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45:18,21,22-'하늘과 땅의 창조자'=거듭나게 해주시는 자(Regenerator)

창포 (flag)

은2:5-'창포가 내 머리에 묶여져 있었다.' (=거짓 과학물들이 선과 진리를 포위했다.)

출2:3, 이19:6-'그녀는 그것을 강둑 창포 안에 두었다'=처음에 거짓 과학물 사이에. '창포'=과학물들...그 이유는 말씀에서 모든 풀잎=어떤 종류의 과학물인 것.

강둑에서 자라는 창포=가장 낮은 과학물. 이19:6의 경우, '갈대와 창포'=가장 낮은 과학물들, 이는 감각적인 것.

출2:5-'그녀는 창포 사이에 있는 상자(coffin)를 보았다'=진리가 거짓 과학물 사이에서 가장 낮은 상태 안에 있었음을 지각함.

창포 (calamus)

* 줄기식물, cane을 보라.

찾다 (search)

시95:4-'그분의 손 안에 땅을 수색함이 있다'=교회의 진리들.

사5:15,16-'심정의 법령(statute)', 그리고 '심정을 수색함'=영적 인간에 있는 선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적 평면에서 결정되고 배열되어지는 것.

창31:35-'그리고 그는 찾아보았다, 그리고 드라빔을 발견 못했다'=그것들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

창44:12-'그리고 그는 [잔을] 찾았다'=조사함.

계2:23-'내가 생각들과 심정들을 찾는 분이다'=주님은 모든 이와 더불어 있는 진리와 선의 품질을 보신다.

예17:10-'심정을 찾는 것'=악을 분리시킴으로 선이 순수해지는 것.

채찍질하다 (whip)

나3:2-'채찍질하는 소리, 병거 바퀴의 소리'=오류들을 수단으로 거짓을 방어함.

채찍질하다 (scourage)

마23:34-'채찍질하는 것'이 말씀에 관련되고 있다. 이는 '서기관들'이다...그리고 (말씀을) 뒤집는 것

마20:19-'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는 것'=불경함, 거짓화합, 그리고 진리를 곡해함, 그리고 교회의 선과 말씀 속의 선에 섞음질하고 파괴함.

채우다 (fill)

창1:28-땅을 '계속 채우라'란 많은 선들과 진리들이 있는 것.

창42:25-'그들은 자기들의 그릇들을 채웠다'...'채우는 것', 무료인 바,=수여되는 것

창50:3-'사십 일을 그에게 채웠다(fulfill)'=시험들을 수단으로 준비되는 상태.

책 (book)

채찍질하다 - 채우다 - 책 - 처녀

창5:1-‘출생들에 관한 책’=태고 교회 속에 있던 이들의 목록표.

출24:7-‘언약에 관한 책’=그당시 그들이 가졌던 신성한 진리.

계10장-‘작은 책’=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신31:24, 시1편-‘법의 책’=모세의 책들...‘여호와와 법’=아직 존재하지 않은(기록되지 않은) 여호수아와 사사를 제외한 역사서와 예언서인 모세의 책들.

출17:14-‘책 안에 쓰이는 것’=영구한 기억을 위해.

예51:63-예레미야가 자신에 의해 씌여진 ‘책을 돌에 묶었다’=예언의 말씀은 비슷한 것들에 의해 멀해졌다.

출24:7-‘그는 언약의 책을 가져갔다’=글자 안에 있는 말씀, 이것과 천국 안에 있는 말씀은 결합되었다. ‘책’=전체 복합체 안에 있는 말씀.

출32:32-‘당신이 쓰신 당신의 책으로부터 저를 삭제하십시오’=말씀, 교회, 예배의 내적 부분은 멀해지지 않는다는 것...‘책’=내면 부분에 있는 것...‘여호와께서 쓰신 책이 그밖의 장소에서는 ‘생명의 책’이라 불린다=내적 부분인 것.

계5:1-‘안에, 뒤에 쓰인 책’=세부적으로 모두 각각,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두 각각에서의 말씀.

계5:2-‘책을 열고 그것의 봉인들을 푸는 것’=천국과 땅의 모든 이들의 생명의 상태들을 아는 것, 그리고 또한 그의 상태에 따라 모든 이 각각을 심판하는 것.

계6:14-‘천국은 책이 둘둘 말려지듯 떠났다’=천국으로부터 분리함, 그리고 지옥과 결합함.

계10:2-‘그분은 그분의 손에 작은 책을 가지셨다’=주님은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고, 그분의 인간은 신성이 시다는 교리 측면에서의 말씀.

계10:8-‘작은 책을 가져가는 것’=주님에 관한 교리를 받는 것.

계20:12-‘책들이 열려졌다, 그리고 또다른 책, 생명의 책이 열려졌다’=그들의 마음들의 내면들이 열려 놓였다...‘책들’=악한 자의 마음 속의 내면들, 그리고 죽음 쪽으로 심판된다, 그리고 ‘생명의 책’은 선한 이들의 마음 속의 내면들, 생명 쪽으로 심판되어진다. 이들이 ‘책들’이라 불리는 이유는 모든 이 각각의 마음들의 내면

위에 각자가 자기의 의지와 이해함으로부터 세상에서 생각했고, 의도했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예51:63-‘예언의 책’=일반적으로 책 안에 있던 말씀, 전체적 측면에서의 말씀.

처녀 (virgin)

* 마리아 (Mary)도 참조.

* 교회 자체가 선에 애착함으로부터 ‘처녀’라 불린다.

계14:4, 레21:13-15, 겔44:22-천적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 있는바, 이 교회는 결혼하지 않은 딸, 또는 처녀에 견주어졌다... 하여 ‘이들은 여인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던 이들, 그이유는 그들이 처녀들이기 때문...’; 그리고 이것이 유대 교회에서 표현되도록, 성직자들은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명령되어 있었다.

창24:16-‘처녀, 남자가 그녀를 알지 못했다’=거짓된 모든 것으로부터 순수한.

* ‘처녀’=천적 교회 속에 있는 선; 그러나 ‘소녀(girl)’=선으로부터의 진리, 이는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선이다.

암8:13-‘아름다운 처녀들’=진리에 애착함.

예31:4-‘이스라엘의 처녀’=영적 왕국의 교회.

출22:16-‘만일...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설득한다면’=진리와 결합하지 않은 선.

계14:4-‘이들은 여인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들이 처녀들이기 때문이다’=그들은 교회의 진리들에 섞임질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앙 속의 거짓들을 가지고 교회의 진리들을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들을 사랑했다, 자기들이 진리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적 애착으로부터이다. 이들이 ‘처녀들’에 의해 뜻해진 이유는 ‘처녀’=신부로서의 교회, 주님과 결합하여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이기 때문; 그리고 주님과 결합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자기들이 진리들이기 때문에 진리들을 사랑한다; 그이유가 결합은 그들이 살아낸 진리들을 수단으로 결과되기 때문이다.

애5:11-‘유다의 성읍에 있는 처녀들’=사랑의 선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들.

예51:22-‘젊은 사람, 그리고 처녀’=거짓된 것에 대한 이해와 애착.

처음-천-천국-천국의 왕국-천막

처음 (beginning)

* 시작, 첫째를 보라.

천 (thousand)

계5:11-‘그들의 수는 천의 천...이었다’=선들 안에 있는 모두...그이유가 ‘천’은 선들을 서술하고, 진리를 서술하는 ‘만’보다는 작기 때문. 진리는 여러 겹이나 선은 단순하다.

시91:7-‘천 명이 네 측면에서 쓰러진다’=악들의 파멸.

단7:10-‘천들의 천 명이 그분을 섬겼다’란 신성의 선에 관련된다.

민10:36-‘이스라엘의 천들의 만 명들’=심어진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이 속에 교회가 있다.

창20:16-‘은 천’=합리적 진리가 무한히 풍부함...‘천’=많은, 그리고 셀 수 없음; 여기서, 무한함, 또는 무한히 풍부함, 그이유는 주님을 서술하기 때문.

창24:60-‘너는 만들의 천을 위하여 있으라’=무한히 열매 풍성함.

출18:21-천들의 제 1 인자’=첫 등급에 있는 제일가는 것들; ‘천’=많은 사람들, 추상적으로는 많은 것들.

계20장-‘천’에 의해 1000이 의미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 없이 많은(much) 것.

출20:6-‘수많은(thousands)이들에게 자비를 보이심’=선과 진리는 그들에게 영원하다.

출34:7-수천들에 선함을 보이심’=영원히.

계20:2-‘그를 천 년간 묶는다’=한동안 그들과는 어떤 교통도 없다.

계20:4-‘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간 살고 지배했다’=주님과 결합하여 있고, 그분의 왕국에서 얼마동안 이미 있어왔던 이들. ‘천 년’=얼마 동안(for some time).

계20:7-‘천 년이 성취되었을 때’=더 낮은 땅에서 지금까지 감추여 보호되었던 이들이 주님에 의해 천국으로 올려진 이후.

이7:23-‘은 천에 천 그루의 포도나무’=산으로부터의 진리들이 풍부함.

* ‘열’, ‘백’, ‘천’=많음(much), 그리고 모두.

시144:13-‘우리의 양떼는 천이다’=선들.

천국 (Heaven)

* 하늘(heaven)에서 함께 취급됨.

천국의 왕국 (Kingdom of Heaven)

* 하나님의 왕국 참조

천막 (tent)

창4:20-‘천막 안에 거주하는 것’=사랑은 거룩하다.

* 천막=천적인 것.

시78:51-‘함의 천막들’=거기로부터 예배.

창9:21-‘천막 한가운데’=신앙 속의 제1순위; 그이유가 ‘천막’=선행, 또는 선행으로부터의 예배. 선행은 신앙과 예배의 가장 깊은 것; 그리고 이것은 ‘천막의 한가운데’이다. ‘천막’=사랑으로부터의 거룩한 것, 또는 선행.

창9:27-‘그는 썸의 천막들에 거주할 것이다’=예배의 내적 부분들은 외적 부분들 안에 있을런지 모른다.

창12:8-‘그는 그의 천막을 펼쳤다’=신앙으로부터의 거룩한 것들; 그이유가 ‘천막’=사랑으로부터의 거룩한 것, 결과적으로 사랑으로부터 신앙의 거룩한 것. 그의 천막을 거기에 펼침=이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

창13:3-‘그의 천막이 전에 있었던 장소로까지 조차’=전에 있었던 거룩한 것들 쪽으로...‘천막’=신앙의 거룩한 것들...고로 주님이 가자셨던 천적인 것들...

창13:5-‘(롯은) 양떼, 그리고 가축떼, 그리고 천막들을 가졌다’=외적 인간에게 풍부히 있는 것들.

창13:12-‘그는 소돔 가까이 천막을 쳤다’=탐욕들에로 빠져감.

창13:18-‘아브람은 천막을 쳤다...’...‘천막을 치는 것’, 즉 천막을 움직이고 고정하는 것=결합되는 것; 그이유가 ‘천막’=예배의 거룩한 것, 이를 수단으로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과 결합된다.

창18:1-‘그는 천막의 문에서 앉아 있었다’=주님이 그 당시 있으셨던 사랑의 거룩한 상태.

창18:9-‘보라 천막 안에’=거룩이었던 것 안에.

창18:10-‘사라는 천막의 문에서 들었다’=합리적 진리가 거룩이었던 것 근처에 있었다.

창24:67-‘그의 어머니 사라의 천막’=신성한 인간 안에서 진리의 거룩한 장소. ‘천막’=거룩한 것, 고로 거룩한 장소.

창25:27-‘천막들 안에서 거주함’=거기로부터 예배함.

암9:11-‘다윗의 천막’=교회와 주님을 예배함.

천막

창26:25-‘이삭은 거기에 자기 천막을 펼쳤다’=거기 거룩이었던 것.

창31:25-‘야곱은 산에 자기 천막을 고정시켰다’=이 사랑의 상태.

창31:33-‘라반은 야곱의 천막 안으로, 그리고 레아의 천막 안으로, 그리고 두 몸종의 천막 안으로’=그들의 거룩한 것들 안에 이런 진리들은 있지 않았다.

출16:16-‘천막’ 여기서=선 측면에서의 공동체; 그이유가 여기서의 천막은 집(house)과 비슷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

출18:7-‘그들은 천막 안으로 왔다’=합일의 거룩함...그 이유는 사랑이 합일이기 때문. 그러므로 ‘천막 안으로 가는 것’=거룩한 사랑으로부터 하나로 되는 것.

이54:2-‘네 천막의 장소를 확장함’=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예배의 거룩함.

예4:20-‘내 천막들이 황폐된채 있다’=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거룩한 예배.

출27:21-‘만남의 천막에서’=주님의 현존하심; 그 이유가 천막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 또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거기서 만나려 만들어졌기 때문; 이 때문에 예배의 거룩함이 거기서 조직되어졌다.

출28:43-‘그들이 만남의 천막 안으로 갈 때’=천국과 교회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예배에서...그이유가 천막은 주님이 계신 천국을 표현했기 때문...더 나아가 그 당시 모든 예배가 천막에서 거행되었다.

출29:10-‘만남의 천막 앞에’=순수해짐을 위해, 천국으로부터 진리를 받기 위해, 그리고 받은 진리가 선과 결합하기 위해; 그이유가 ‘만남의 천막’=주님이 계시는 천국이기 때문.

출29:44-‘나는 만남의 천막을 신성해지게 할 것이다’=보다 낮은 천국들에서 주님을 받는 것. ‘만남의 천막’=더 낮은 천국들이 이유는 ‘제단’=더 높은 천국들이기 때문.

출30:16-‘너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의 일을 위해 주어라’=모든 진리들과 선들은 주님으로부터 있음을 인정함을 통하여 천국과 결합함.

출30:20-그들이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감에서=신앙의 선으로부터 예배함.

출30:26-너는 그것 가지고 만남의 천막에 기름 부을 것이다=천국들 안에서 주님의 신성을 표현하기 위하여...‘만남의 천막’=전체 복합체에서의 천국.

출30:36-‘너는 그것을 증거의 궤 앞에 놓을 것이다’=천국과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함.

출31:7-‘만남의 천막과 증거를 위한 궤’=주님이 계신 천국을 일반적 측면에서 표현함.

출33:7-‘모세는 천막을 가져갔다’=예배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 그리고 말씀의 거룩함; 그이유가 ‘천막’=최고 의미에서 주님, 또한 천국과 교회이기 때문; 관계적 의미에서 천국과 교회의 모든 거룩함, 그러므로 또한 예배의 거룩함과 말씀의 거룩함.

예4:20-‘천막들’=교회의 선들; ‘커튼들’=교회의 진리들.

출33:7-‘천막을 펼치는 것’=교회와 예배 속의 것들을 설비하고, 배치하고, 배열하는 것.

출33:7-‘그는 이 천막을 만남의 천막이라 불렀다’=안에 내적인 것들이 있는 예배와 교회와 말씀의 외적인 것들.

숙12:7-‘유다의 천막들’=천적 왕국.

이32:18-‘안전한 천막들’=악들과 거짓들의 출몰함 없이 파생되는 사랑의 선들과 예배의 선들.

시21:20-‘네 천막에 숨는 것’=신성의 진리 안에.

시132:3-‘확실하게 나는 내 집의 천막 내부로 들어가 지 않을 것이다’=그는 교회의 거룩한 것들 안으로 들어가 알려하지 않을 것이다.

예30:18-‘야곱의 천막들’=교회의 모든 것들...‘천막들’=교회의 선들; ‘주택들’=교회의 진리들.

시78:60-‘천막’=교리의 진리들 안에 있는 교회.

천사 (angel)

창14:13-‘마므레, 에스골과 아벨’에 의해 주님이 그분의 아주 어린 시절 악과 싸우셨을 때 주님과 더불어 있었던 천사들을 의미하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주님은 그분과 더불어 있었던 선들과 진리들을 적용하셨는데, 이로부터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이름을 가진 천사가 천국에 있는 적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선들과 진리들이고, 이것으로부터 그들의 이름들이 서술되어지는바, 마치 ‘미가엘’, 또는 말

천사

씀에 있는 다른 천사들 역시 같다. 물론 이런 천사는 결코 없으나 단지 그 직능으로부터 명명되어지는 것 뿐이다.

창14:24-‘이들이 자기들의 몫을 가져가게 하자’=그들은 자기들의 힘 안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경우는 이렇다: 천사들이 악과 지옥의 영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창15:5-‘별들’=천사들, 또는 천사들의 사회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악령들,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 그들이 천사 내지 천사들의 사회들을 의미할 경우, 그들은 자리잡은 별, 그러나 반대 의미인 후자의 경우, 배회하는 별들이다.

창15:5-‘네 씨는 별들 만큼’=지혜와 총명으로부터의 무수한 선들과 진리들, 그들의 행복과 더불어, 모든 천사와 더불어.

창15:15-‘노령’ 같은 표현이 발생할 때, 천사들, 내향의 의미 안에 있는 이들은...노령을 결코 지각하지 않는다. 실로 그들은 노령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그 이유는 그들은 젊은 이의 삶과 청년의 삶으로 발전해가기 때문에서이다.

계1:20, 21:12, 14:6, 이63:9, 창48:16, 말3:1, 출23:20,21-‘천사들’=주님에 관한 특별한 어떤 것, 예를 들면, ‘일곱 교회의 천사들’=교회들에 연관되는 주님 속의 어떤 것. ‘새 예루살렘의 문들 위의 열두 천사들’=열두 지파들과 같은 것, 즉 신앙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고로 주님, 이 분으로부터 신앙과 신앙 속의 모든 것이 있었다. ‘영원히 있을 복음을 지니고 천국의 한가운데에서 날고 있는 천사’=복음, 이 복음은 주님만으로부터이다. ‘그분의 얼굴로부터의 천사가 우리를 구원했다’=보편적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가 인류의 구속을 결과되게 하고 있다.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구출한 천사가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구속하심, 이는 주님만으로부터이다. ‘너희가 바랬던 언약의 천사’=주님이 천사에 의해 의미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경우 그분의 강림 때문에 ‘언약의 천사라 불리우시고 있다. 천사에 의해 주님이 의미되는 경우는 더 있다. ‘보라 내가 너 앞서 천사를 보내 길에 있는 너를 보호하여 내가 준비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분은 네 범칙을 참지 않으실 것이다, 그 이유는 내 이름이 네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

런고로 천사에 의해 주님이 의미된다는 것, 주님의 속성은 내향의 의미에 있는 시리즈로부터 명백해진다.

이42:19-‘내 종 밖에 누가 맹인이며 내가 보낸 천사 같이 귀먹어리이겠느냐?’=주님에 관해 말하는데, 그분이 인간 안에 있으셨을 때, ‘종’과 ‘천사’라고 말해지고 있다.

계10:1-‘힘센 천사가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보여졌다’=내향의 의미에서의 말씀.

창24:7-‘그분은 네 앞서 그분의 천사를 보낸 것이다’=신성한 섭리. 말씀에서 ‘천사’=주님, 그러나 주님의 속성임이 연결 문맥으로부터 나타난다. 말씀에서 ‘천사들’에 의해 주님이 의미되어지는 이유는 예언서나 여타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서 말해지는 모든 것은 천사들의 받아쓰기 아래 주님으로부터 이기 때문이다...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선하고 참된 것은 자신들로부터서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으로부터서임을 인정하고 지각한다. 그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도출하는 모든 것을 혐오하는 만큼에서 인정하고 지각한다. 이로부터 ‘천사들’에 의해 즉 선, 주님이 의미되고, 그러나 주님의 속성임이 연결 문맥에서 나타난다.

창28:12-15-‘보라,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것(사다리)에서 오르고 내려가고 있었다’=무한하고 영원히 왕래함 그로부터 결합함...‘천사들’=주님의 신성으로부터의 어떤 것, 여기서서는 신성한 진리,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느님의 천사들’이라 불리기 때문.

창31:11-‘하느님의 천사가 꿈에서 나에게 말했다’=신성으로부터 받음...‘하느님의 천사’=신성으로부터인 것, 그이유가 ‘천사’, 말씀에서 언급될 경우, 주님의 어떤 것, 즉 신성의 어떤 것, 그이유는 천사는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말하기 때문. 특히 이 구절 같이 꿈에서 말할 경우 더욱 그렇다. 그래서 천사들은 선하고 참된 어떤 것이 자기들 공로 때문이라고 누가 말한다면 항의조차 한다. 게다가 타인 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주려 한다.

창32:1-‘거기서 하느님의 천사가 그를 만났다’=선을 수단으로 설명함. ‘하느님의 천사’=주님의 어떤 것, 여기서서는 ‘아버지’라 불리는 주님 안에 있는 신성...

마24:36-‘천국들 속의 천사들조차도 아니고 오직 나

천사

의 아버지만이...' =천국은 선과 진리에 관하여 특수한 측면에서는 교회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 만이 아신다는 것.

마25:31-'그분과 더불어 모든 거룩한 천사들'=천사들의 천국. '거룩한 천사들'은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이다, 그이유가 말씀에서 '천사들'은 천사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속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 그이유가 천사들은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의 생명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 그리고 그들은 받은 정도에 따라 천사들이다.

이63:9-'그분의 얼굴들로부터의 천사가 그들을 구했다.' 그분이 '천사'라 불리는데, 그이유는 '천사들'=주님의 어떤 것, 여기서는 그분의 자비, 그러므로 그는 '얼굴들로부터의 천사'로 불리워진다.

창48:16-'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천사'=주님의 신성한 인간, 이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됨이 있다.

계21:17-'사람의 자, 즉 천사의 자...' '사람'에 의해, 그리고 '천사'에 의해 신앙으로부터의 진리와 선에 관한 모든 것이 의미되고 있다.

출14:19-말씀에서 '천사'가 언급되어진다, 그리고 여기서의 경우 '하느님의 천사'라 말해지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 앞에서 행군한 천사는 많은 천사들로 구성된 일종의 천사 군단이다. 말씀에서 천사들은 이름으로 말해지기도 하는데, 미가엘, 라파엘 같은 경우이다. 말씀의 내적 의미를 모르는 이들의 경우, 그들은 이들이 그분과 더불어 있는 천사들 중 고위급 천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이름들은 어떤 천사 한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적 직능 자체, 즉 직능에 관련되는 주님의 신성을 의미한다.

출15:10-'당신은 당신의 바람을 가지고 호흡하셨다'=천사들과 더불어 주님의 현존.

* '하느님들(gods)'은 좋은 의미일 경우, 천사들을 뜻한다, 천사들이 하느님들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을 담은 진리의 그릇이기 때문이다.

말3:1-'너희가 찾던 주님이 그분의 성전에 갑자기 당도하실 것이고, 너희가 바래왔던 언약의 천사 조차도 당도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신성한 선으로부터, '천사'는 신성한 진리로부터 말해진다.

마13:39-'베어들이는 사람은 천사...'=주님으로부터의 진리.

출23:20-'보라 나는 네 앞서 천사를 보낸다'=신성한 인간에 관한 주님...'천사'=진행하는 것, 그이유가 원어에서 천사는 보내짐을 의미하기 때문.

계9:14-'유브라데에 묶인 천사'=감각의 오류들로부터 추론함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짓들.

마11:7-15, 눅7:24-28-'왕의 집들'=천사들이 있는 대저택...천사들이 주님의 진리를 받기에 '왕국의 아들들', '왕의 아들들', 또한 '왕들'이라 불리워진다.

* 천사들이 힘있는 자들, 또는 힘이라 불리는데 그 힘은 자신들로부터가 아닌 주님으로부터이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의 그릇일 뿐이다. 주님으로부터의 그들의 힘은 아주 위대해서 그들 중의 한명도 지옥의 것을 몰아내고 지옥을 단아 걸고 수천의 악마적인 무리들을 점검하여 꼼짝못하게 한다.

* 내가(스웨덴볼이) '어린 양의 피'를 읽으면서 주님의 피를 생각할 때, 나와 더불어 천사들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외 다르게는 알지 못하고 있다.

계21:15-17-'사람의 자, 곧 천사의 자'=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에 관한 교회의 상태와 천국의 상태, 그이유가 '사람'은 교회, '천사'는 천국이기 때문.

이63:9-11,14-'얼굴들의 천사'는 신성한 선에 관한 주님이다.

시104:4-'천사의 영들을 만드는 것'은 신성한 진리를 수용함을 명시한다.

계3:14-'교회의 천사'=거기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Truth Divine).

시33:6-'그때로부터 천국들, 모든 천국들의 천사 군단을 만들었다'란 신성한 진리를 받는 만큼에서 천사들이다.

* 말씀에서 '천사'=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그 이유는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받는 그릇이기 때문..

출32:30-35-'보라, 나는 네 앞서 내 천사를 보낼 것이다'=여전히 신성한 진리가 이끌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 최고 의미에서=신성한 인간에 관한 주님, 관계적 의미에서=천국들에 있는 천사들과 더불어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 고로 =신성한 진리.

천사

출33:1-3, 눅7:27- '나는 네 앞서 천사를 보낼 것이다' = '주님의 신성, 이로부터 교회와 교회의 예배가 있다...' 천사 = 인간과 더불어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신성... 그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사랑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들의 내면들이 천사들이었던 이들은 사후 천사가 된다

출33:12- '여호와에 의해 보내지는 것' = 신성한 인도, 또한 신성이 진행됨, 그러므로 원어에서 천사들은 보낸 자(Sent)로부터 그렇게 불리었다.

마24:29-31- '나팔과 큰 음성과 더불어 천사들' = 천국, 그곳으로부터 신성한 진리가 있다.

계1:1- '그분은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알리셨다' = 천국으로부터, 또는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하여 계시해왔었던 것들. 그 이유가 말씀 두루에서 '천사'에 의해 천사들의 천국이 의미되기 때문, 그리고 가장 높은 의미에서 주님 자신이 의미되기 때문. 그 이유는 이렇다. 천국으로부터 분리된 채 인간과 말하는 천사는 없다. 거기서는 각각은 모두와 결합함 속에 있고, 비록 그들이 함께함을 의식 못한다 해도 각각은 함께 함을 통하여 말한다... 주님이 최고 의미에서 '천사'를 수단으로 이해되는 이유는 천국은 천사들에 어울리는 것 가지고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즉 그들이 사랑과 지혜, 한마디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근원인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천국이 되기 때문. 이렇고로 해서 주님 자신은 말씀에서 '천사'라 불리기도 한다. 이로부터 분명한바, 천사는 그 자신으로부터 요한과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천국 한가운데 계신 주님이 그를 통하여 말하신 것이다.

계1:3- '예언의 말들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안에 쓰인 것을 지키는 자는 복있다' = 새 예루살렘의 교리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 천국의 천사가 함께 함. 여기서 '복있는 그 사람'은 그의 영이 천국 안에 있는 이를 뜻한다, 그리고 고로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의 천사와 교제함, 그 이유가 그는 그의 영의 측면에서 천국 안에 있기 때문.

계1:20-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다' = 천국들 안에 있는 새 교회... 이는 새 천국이다... '천사' = 천국의

사회.

* '이 교회의 천사에게' 씌여지는 이유는 '천사'에 의해 이렇게 존립하는 교회에 상응하는 천사의 사회로 이해되기 때문.

계3:5- '나는 그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고백할 것이다' =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들 안에 있는 그들, 고로 자신 들 안에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아버지'는 신성한 선을, 그리고 '천사들'은 신성한 진리들을 뜻하고, 모두 주님으로부터임을 뜻한다... '천사들'이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추상적으로는 신성한 진리들에 있는 이들을 뜻하는 이유는 천사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들과 더불어 있는 신성한 진리들에 있는 신성한 선의 그릇이기 때문.

계5:2- '나는 큰 음성으로 설교하는 힘 센 천사를 보았다' =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가 천사들과 사람들의 생각 안으로 친밀하게 흘러들 그리고 수색함. 영적 의미에서 '천사가 설교함'은 주님으로 이해된다, 그 이유는 천사는 자신으로부터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쳐지지만 마치 자신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듯 보일 뿐이다.

계6:2- '백마 위에 앉은 자'는 말씀으로부터 참된 것과 선한 것에 관한 교리에 관련한 사람-천사를 뜻한다...

계6:11- '흰 도포가 그들 각각에게 주어졌다' = 신성한 진리들에 있는 천사들과 결합하고 서로 왕래함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의복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천국들에 있는 모든 이는 자기들과 더불어 있는 진리들에 따라 옷입기 때문, 그리고 모든 이는 천사들의 사회와 결합에 의거 의복을 가지는 바, 그러므로 결합이 주어질 때, 그들은 즉시 그것에 걸맞는 옷을 입는다.

계7:1- '나는 땅의 네 모퉁이에 서있는 네 천사들을 보았다' = 영들의 세계에 있었던 이들 위에 마지막 심판을 수행하려 노력을 집중하는 천국 전체.

계7:2- '나는 태양이 올라 옴으로부터 승강하는 또다른 천사를 보았다' = 주님께서 설비하심과 온건해지게 하심. 여기서의 '천사'는 신성한 사랑에 관련되는 주님으로 이해되어진다, 그 이유는 그분이 태양의 떠오름으로부터

천사

승강하셨기 때문...

* 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천사'에 의해 가장 높은 의미에서 이해된다.

* '천사' 그리고 '보낸 자'는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이다. 이리므로 해서 주님은 '아버지에 의해 보내진 자'라고 자주 말해지는데, 이 말씀은 신성한 인간으로 이해된다.

* 그러나 관계적 의미에서 '천사'는 천국에서, 세상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이다.

계7:11-'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원로들과 네 동물들 주위에 둘러 서있었다'=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천국 전체에 있는 모두. '동물들과 원로들'은 보다 높은 천국들에 있는 천사들로 이해된다...그러나 여기서의 '천사'는 보다 낮은 천국들의 천사들로 이해된다, 고로 천국 전체에 있는 모두(=첫째 천국에 있는 이들).

계8:2-'나는 하느님 앞에 서있는 일곱 천사들을 보았다'=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그분의 현존에 있는 전체 천국. '일곱 천사들'이 천국 전체로 이해되는 이유는 '일곱'은 모두, 모든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 이로부터 전체와 전부 또한 의미한다. 그리고 가장 높은 의미에서 '천사들'은 주님을, 관계적 의미에서 천국으로 이해된다. 여기서는 영적 천국(왕국). (=주님과 더 가깝게, 내향적으로 결합한 모든 천국들).

계8:13-'나는 천국 한가운데를 날고 있는 천사를 보았고 들었다'=주님에 의한 가르침과 예견. 최고 의미에서 '천사'는 주님, 그리고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계9:11-'무저갱의 천사 왕'은 거기 있는 천사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군림하는 거짓을 의미한다.

계9:14-'큰 강 유브라테에 묶인 네 천사들을 풀어라'=바깥쪽 제약이 그들로부터 거두어진다는 것, 그리하면 그들 마음 속의 내향의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그 이유가 여기서 '네 천사들'에 의해 이해된 것은 지옥의 영들, 그 이유가 그들은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지기 때문...

계10:1-'나는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또다른 힘 센 천사를 보았다'=신성한 위엄과 능력에 계신 주님. 여기서 '천사가 주님이시다는 것은 천사에 대한 묘사로부터 명

백하다...그분이 천사로서 보여진 이유는 그분이 자신을 명백하게 하실 때, 그분은 천국들 안에서 그리고 천국들 아래에서 천사로서 나타나시어서 이다. 그분은 몇 천사들을 그분의 신성으로 채워 그분을 보도록 허락하는 이들의 받아들임을 조절하신다. 어느 천사, 사람의 경우 더더욱이 그분의 현존 자체, 그분의 본질 자체 앞에서는 견뎌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태양으로서 천국들 위에서 나타나신다. 이 태양은 세상의 태양이 인간들로부터 멀리 있듯 그러하다....여기서 그분은 신성한 권능으로부터 '힘 센 천사'라 불리운다. 그리고 그 외에 그분에 속하는 신성인 것이 여기서 묘사되는데 '또다른 천사'라고 말해진다.

계11:1-'천사가 거기에 섰고,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하느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그들을 측량하라'=주님의 현존 그리고 그분은 새 천국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보고 알아야 할 것이라는 그분의 명령. '천사'는 이 구절, 여타 구절에서도 주님으로 이해된다. 그 이유가 천사는 자신으로부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주님으로부터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11:15-'천국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세상의 왕국들은 우리의 주님의 것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천국과 교회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천사들에 의한 경축.

계11:17-'우리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주 하느님 전능자, 계시고 계셨고, 오시려 계신 분'=주님은 계시고, 살아 계시고, 자신으로부터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 그이유는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천사에 의해 고백되고 영광되심.

계14:6-'나는 땅에 거주하는 그들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천국 한가운데를 날고 있는 또다른 천사를 보았다'=주님의 강림에 관해 발표함,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천국을 통하여 내려 올 새 교회에 관한 발표가 있다. 최고 의미에서 '천사'는 주님으로 이해된다, 이로부터 또한 천국으로도 이해된다. '또다른 천사'에 의해 지금 주님으로부터의 새로이 있는 것이 의미되어진다.

천사

계14:8-'그리고 또다른 천사가 뒤이어, 말하기를, 바빌론은 무너졌다, 무너졌다...' '또다른 천사'에 의해 주님으로부터 새로이 있는 것이 지금 의미되고 있다.

계14:9-'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선행에서 분리된 신앙에 있는 이들에 관하여 주님으로부터 아직 더...'세번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름'이란 순서를 따라 주님으로부터 아직 더...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천사'는 최고 의미에서 주님으로 이해되기 때문. 그 이유인즉, 이 구절 같이 천사가 말씀에서 말하여질 때,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말하는 것이기 때문.

계14:10-'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황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 그리고 그로부터의 탐욕들...'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랑들은 신성한 진리들에 반대되고 말씀이신 주님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천사들'에 의해 신성한 진리들이 의미되기 때문,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릇들이기 때문.

계14:15-'그리고 또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갔다'=천사들의 천국.

계14:15-'구름에 앉은 그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당신의 낫을 보내 베어들이십시오, 그 이유는 베어들이는 당신의 때가 오기 때문에, 땅의 수확물이 말라졌기 때문입니다'=천국의 천사들이 낫을 보기 위해 심판을 수행하시라고 주님에게 간청함, 그 이유는 지금이 교회의 마지막 상태이기 때문...그 이유가 지상의 교회는 천사들의 천국에게는 집을 앉히는 기초요, 인간을 서게 하고 걷게 하는 발 같기 때문.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가 파괴되어질 때, 천사들은 슬퍼한다, 그리고 그 교회에 끝을 내고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시라고 간청한다.

마13:24-30,36-43-'추숫군은 천사들이다'=신성한 진리들.

계14:17-'또다른 천사가 천국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갔는데, 그도 역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다'=주님의 영적 왕국 속의 천국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 최고 의미에서 '천사'는 주님을 의미한다, 또한 천사들의 천국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천사는 영

적 왕국 속의 천국들, 그리고 그로부터 거기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이유는 이 뒤를 따라 제단으로부터 또다른 천사가 나갔기 때문, 이들은 주님의 천적 왕국 속의 천사들을 의미하고, 고로 거기에 있는 신성한 선들을 의미한다.

계14:18-'그는 불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 말해진 이유는 신성한 사랑을 보호하는 것이 천사들의 본연의 임무에 해당되기 때문.

계15:1-'일곱 마지막 재앙들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들'=주님에 의해 온통 까벌려지는 마지막 때에 교회 속의 악들과 거짓들. '일곱 천사들'이란 천국 전부, 그리고 천국은 천사들에게 타당한 것으로부터가 아닌 주님에 타당한 것으로부터 천국인바, '일곱 천사들'은 주님을 의미한다. 주님 외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있는 악들과 거짓들을 들추어 폭로할 수 없다.

계15:6-'그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갔다'=악들과 거짓들이 까벌려져서 악한 자가 선한 자로부터 분리되게 하기 위하여 가장 깊은 천국으로부터 교회 안으로의 유입을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심.

계16:1-'그리고 나는 성전으로부터의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땅 쪽으로 하느님의 분노의 대접들을 쏟거라'=가장 깊은 천국으로부터 개혁 교회 안으로 주님으로부터의 유입, 이 교회에서 교리와 생활 측면에서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들이 악들과 거짓들 안에 있음을 들추어보여주고, 그들을 주님을 믿으며, 그분으로부터 선행과 선행으로부터의 신앙에 있는 자들로부터 분리해낸다.

계16:5-'그리고 나는 물들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그 이유가 '물들'=진리들, 그리고 '천사'=주님으로부터 신성한 것.

계16:7-'제단으로부터 또다른 (천사)'=말씀 속의 신성한 선. '천사'는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것, 그리고 '제단'으로부터의 천사'는 주님의 신성한 선. 여기서는 말씀 속의 신성한 선, 그 이유는 말씀이 취급되기 때문, 그리고 '물들의 천사'는 말씀의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계18:1-'나는 큰 능력을 가진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보았는데, 땅은 그의 영광으로 인해 환해졌다'=

천사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천국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주님으로부터의 강력한 유입, 이로부터 그분의 교회는 천국의 빛 안에 있었다. '천사'는 주님을 의미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란 천국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주님의 유입이 있음.

계18:21-'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로 던지며, 말하기를, 이렇게 사정봐줌 없이 그 큰 도성 바빌론은 내던져졌다. 그리고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천국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주님의 강력한 유입에 의해 그 광적 신앙은 그 신앙 안에 있는 섞음질된 말씀과 더불어 지옥으로 거꾸로 곤박칠쳐 내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천사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천사가 집어들었다'란 주님으로부터의 강력한 유입이 천국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천사'는 주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분이 작업하심, 이것이 천국을 통하여 결과되어짐.

계19:5-'왕좌로부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우리의 하느님을 찬양하라, 너희 모든 그분의 종들이여,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이여'=천국 안으로 주님으로부터의 유입이 있다, 그리고 신앙의 진리들과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천사들은 모두 천국의 유일한 하느님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에 만장일치 동의함... 주님은 천국들 넘어 계시고 태양으로 천사들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분은 천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으로 흘러드신다, 이렇게 안으로 흐르는 방법으로 천국이 그분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그 음성이 왕좌로부터 왔다 해도 그것은 천국으로부터 요한에게 들려진 것, 또는 거기에 있는 천사들로부터 요한에게 들려진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천국으로부터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님으로부터이다.

계19:10-'나는 그를 경배하기 위해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아라. 나는 네 동료 중,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이다'=천국의 천사들을 숭배하거나 그들에게 간청하지 말 것, 그 이유는 그들 안에는 자체적인 신성이 없기 때문,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지상의 형제들 같이 인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 고로 주님만이 그들과 연계하여 숭배되어야 한다는 것...천국의 천사들이 인간 보다 우위에 있지 않은 이유, 인간과 동등하게 주님의 종인 이유는 모든 천사들은 그들 중 누구도 천국에서 직접 태어나지 않고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이었기 때문...사실 그들은 지혜에서 인간 보다 훨씬 우수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 이로인해 천국의 빛에 있기 때문...천사들은 지혜의 척도에 비례해 천사 각자는 자기들이 사람 위에 있지 않음을 더욱 강하게 인정한다. 그러므로 천사와 인간의 결합은 없고, 단지 인간과 연계되는 것만 있고, 결합은 주님과만 가능하다.

계19:17-'나는 태양에 서있는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큰 음성으로 외쳤다'=신성한 사랑, 이로부터 신성한 열정으로부터의 주님.

계20:1-'나는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보았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었다'=열고 닫고, 묶고 푸는 신성한 능력으로부터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다 더 낮은 것들에서 펼쳐짐.

계21:9-'일곱 마지막 재앙들로 가득한 일곱 대접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나에게 왔다'=새 교회에 관하여 가장 깊은 천국으로부터 주님에 의한 유입과 주님께서 명명백백히 하심.

계21:12-'문 위에 열 두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다'=천국의 신성한 진리들과 선들, 이는 교회의 신성한 진리들과 선들이기도 한데, 만일 주님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열 두 천사들'은 여기서 천국 속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을 의미한다. 그이유가 최고 의미에서 '천사'는 주님을 뜻하기 때문, 그리고 일반적 의미에서는 천사들로부터의 천국을, 세세한 의미에서는 주님으로부터 천국 속의 진리들과 선들이기 때문.

계21:18-'천사의 것인 사람의 척량'=이 교회의 품질은 천국과 하나를 만든다... '천사'란 천사로부터의 천국을 의미한다... '천사'에는 세 의미가 있다. 최고 의미는 주님, 일반적 의미는 천국, 또는 천국의 사회. 세부적 의미는 신성한 진리이다.

계22:6-'거룩한 예언자들의 주 하느님이 속히 행해져

천사

아만하는 것들을 그들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들의 천사를 보내셨다'=주님, 이분으로부터 양쪽 언약들의 말씀이 있는바, 이분은 그분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에게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천국을 통하여 밝히 알리셨다. 여기서 '천사'는 천국을 의미한다...이런 이유로 주님은 천국을 통하여 요한과 이야기하셨다...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이 말하시고자 하는 모든 이와도 천국을 통하여 이야기 하신다.

계22:8-'나는 승배하려고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다'=영의 상태에 있는 자기를 지켜주려 자기에게 보낸 천사는 하느님이었을 것이라고 요한은 생각했다는 것...

계22:16-'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네게 증언하게 했다'=이 책에 서술된 것들, 또한 지금 열려지는 것들을 명백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 만이시라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모든 기독 세계 앞에서 주님에 의해 증명됨...'증명하기 위해 천사를 보냄'이란 그것이 참이라는 것이 주님에 의해 증명됨을 뜻한다.

계1:1-3-'천사'가 천국으로부터를 뜻하는 이유는 천사들이 말하는 것들은 주님의 말씀이 인간의 경우 같이 그의 기억 안으로 먼저 흘러들고 그 다음 이해성과 말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성으로 직접 흐르고 말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천사에 의해 예언자들에게 말해진 모든 것은 신성이었다.

계2:12-'천사'=신성한 진리의 그릇,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자체.

눅7:27-'보라, 나는 너 앞서 천사를 보낼 것이다'=신성한 진리인 말씀.

시104:21-'사자들이 먹이를 쫓아 으르렁댄다'=사랑과 지혜의 상태에 일시분란하게 있지 않은 천사의 상태.

계5:2-'힘 센 천사'=천국.

계5:5-'천사'는 한명의 천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전체 사회를 뜻한다.

시68:17-'평화의 천사'=교리로부터의 선들.

계10:1-'천사들'=주님으로부터의 신성인 어떤 것, 그 이유가 그들로부터 나타나는 신성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계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 마찬가지로 그들이 말하는 신성한 진리 또한 그들 스스로의 것

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다.

시148:2-4-'그분의 모든 천사들이여 그분을 찬양하라'=사랑의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마18:10-'그들의 천사들은 언제나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다.' 그들의 천사들이 보고 있다라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영들과 천사들은 모든 인간과 더불어 있기 때문, 이 영들과 천사들은 인간이 존재하듯 마찬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아나 어린이와 더불어서는 가장 깊은 천국으로부터의 천사들이 함께 있다. 이들은 주님을 태양으로서 보는데, 그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함 안에, 순진함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63:9-'그분의 얼굴들의 천사가 그들을 구원했다..!' 여기서 주님이 취급되는데, 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인 신성한 진리로부터 '여호와의 얼굴들로부터의 천사'라 불리우신다. 그이유가 '천사'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 이로인해 천사들은 하느님들, gods'이라고도 부른다.

* 주님은 그분의 인간 측면에서 신성한 진리이셨다, 이로부터 '천사'라 불리우신다.

계7:1-'네 천사들이 땅의 네 모퉁이에서 서있다'=주님으로부터의 신성이 영계 전체 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104:3,4-'천사들'=영적 왕국 안에 있는 이들...'성직자들(봉사자들)'=천적 왕국 안에 있는 이들.

계7:2-'나는 태양의 떠오름으로부터 승강하는 천사를 보았다'=신성한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발출함. '천사'=주님으로부터 진행되어 나오는 신성의 어떤 것.

계8:3-'또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 섰다'=천적 선을 통하여 천국이 주님과 결합함.

계8:13-'또다른 천사가 천국 한가운데에서 날고 있다'=주님께서 교회의 마지막 때의 교회 상태에 관하여 천국들 안의 모든 이들을 계발시켜주심.

계9:11-'무저갱의 천사'=악으로부터의 거짓이 있는 지옥.

계9:14-'유브라테 강에 있는 천사들'=감각적 인간의 오류로부터 추론함.

계10:5-'내가 본 천사는 바다 위에 그리고 땅 위에 서 있다'=주님, 이분에게 천국과 교회의 모든 것들이 종속

천사와 같은 영-천조각-철

된다는 것, 또한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막1:13-와서 주님을 섬긴 '천사들'=주님이 지옥을 정복하신 수단인 신성한 진리들.

창19:1-28-소돔인들은 천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싶어했다는 것=[그들이 폭력을 휘두르기를 원했던 것은]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를 향해서 옳다는 것.

막16:5, 요20:12-'머리말의 천사'=첫째 원리되는 신성한 진리, '밭치에 있는 천사'=최말단에 있는 신성한 진리.

계12:9-'용의 천사들'=악으로부터의 거짓.

계14:9-12-'거룩한 천사들'=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들.

계14:18-'천사들이 나갔다'=주님에 의해 분명해짐.

계15:1-'천사들'=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들.

계15:6-'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들을 가지고 있다'=교회를 황폐하게 했던 모든 악들과 거짓들이 명명백백해짐.

계16:5-'물들의 천사'=주님의 영적 왕국.

계16:7-'제단으로부터의 천사'=주님의 천적 왕국.

천사와 같은 영 (angelic Spirit)

마19:12-천국적 결혼 안에 있는 이들이 '고자'라 불린다. 자궁으로부터의 고자는 천적인 천사들과 비슷하다. '사람에 의한 고자'는 영적인 천사들과 비슷하다. '스스로 만든 고자'는 천사와 같은 영들과 비슷하다. 이들은 선행으로부터서의 행동은 그다지 많지 않고 순종함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천조각 (pannicle)

창38:18-교회의 외적 측면이 '도장, 천조각(머리수건), 그리고 지팡이'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천조각'=외적 진리.

창38:18, 민19:15-'당신의 천조각'=진리를 통하여; 즉, 동의함의 표(token). '천조각'=진리인 이유는 천조각이 의복에 관련되기 때문. 그러나 천조각=가장 바깥쪽, 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진리; 천조각은 실들이 함께 꼬아져 만들어진다. 이를 수단으로 이와 같은 진리로부터 결정된 것이 의미되어진다. '덮개로 천조각이 그 위에 있지 아니한 열린 그릇들 모두 각각, 그것은 불결하다'에서도 역시 천조각=진리이다. 이를 수단으로 불확실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가 의미된다; 그이유가 불확실한 것이 열린 것이기 때문.

눅5:36,37, 마9:16,17, 막2:21,22-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이전 교회의 진리들을 '옛 의복으로부터의 옷 조각'에 비교해주시나; 그리고 영적 진리 자체인 새로운 교회의 진리들은 새 의복으로부터의 옷 조각에 비교해주시나.

철 (iron)

창4:22-'두발-가인, 놋쇠와 철의 모든 기술자의 선쟁'=자연적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

* 말씀에서 '철'=자연적 진리.

이60:17-'철을 위해 나는 은을 가져올 것이다'=자연적 진리를 위해 영적 진리들.... '돌을 위해 철을'=감각적 진리를 위해 자연적 진리들...

신8:9-'그 토지의 돌들은 철이다'...'철'=자연적, 또는 합리적 진리

신27:5, 여8:31, 왕상6:7-'돌들...그 위에서 철이 움직였었다'=가공적인 것들, 즉 예배에 있는 발명된 것들, 즉 인간 자아로부터 있는 것들...이 구절과 똑같은 이유에서 성전의 돌들 위에서는 철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신33:25-'그의 쇠로 된 신발'=자연적 진리.

단2:33-'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에 의해 교회의 네 번째 상태가 표현되었다. 이것은 '철'인 자연적 진리의 하나였다.

예15:12-'철'=자연적 진리.

겔27:19-'빛나는 철'=자연적 진리, 이것이 첫 번째이다.

시2:9-'쇠막대'=자연적 평면에 있는 영적 진리의 힘. 그 이유가 모든 자연적 진리 안에서 영적 진리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 '철'=자연적 진리.

미4:13-'철'=자연적 진리, 이것은 거짓을 파괴하는데 강력하다.

신19:5-'도끼의 철이 도끼의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진리가 선으로부터 분리됨...

계9:9-'그들은 철의 가슴판 같은 가슴판을 가졌다'=그들이 싸우고 강해지는 수단은 오류들로부터의 논쟁이다.

계2:27-'그는 쇠막대로 그들을 지배할 것이다'=글자 의미로부터의 진리들을 수단으로...그리고 동시에 자연

첩-첫 열매

적 조명으로부터의 합리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쇠'는 자연적 진리, 고로 말씀의 자연적 의미, 동시에 인간의 자연적 조명을 의미한다. 진리의 힘은 이 두 가지 것들에 있다.

계18:12- '철집기'란 자연적 진리로부터의 과학물을 의미한다.

예1:18- '철기둥'= 그것을 떠받치는 진리.

단2:43- '철'= 선이 없는 진리.

이60장- '철'= 자연적 진리로부터의 영적인 것

시105:18- '그의 혼이 철에 들어갔다'= 더 이상 자연적 진리마저 없고 오직 거짓만 있기 때문에...

겔22:18- 글자 의미 속에 있는 것들... '놋쇠, 주석, 철, 납'으로 의미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자연적 인간의 선들과 진리들을 의미해 주기 때문, 자연적 인간을 위해 이런 것들이 말씀의 글자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단7:7- '큰 철 이를 가졌다'=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에 맞서 감각적 인간으로부터의 견고한 거짓들.

이44:12- '부첫가락을 가지고 철을 제작하는 것'= 거짓들을 부화하는 것.

여6:24- '놋쇠와 철 집기들'= 자연적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겔4:3- 이와같은(왜곡되고 섞음질한) 진리가 '그가 자기와 도성 사이에 설치한 철 냄비'로 의미되었다.

계12:5- '쇠막대로 만국을 돌볼..'= 영적 (진리)로부터의 자연적 진리를 수단으로 거짓들과 악들에 있는 이들, 그런데도 말씀이 있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이들과 논쟁하고 확신시킬 것이다.

계18:12- '놋쇠와 철로'= 자연적 진리와 선들 또한 모독하였다.

첩 (concubine)

창22:24- '그는 첩을 가졌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르우마였다'= 우상 예배를 하며 선 안에 있는 이방인들.

창25:5- '아브라함이 가졌던 첩의 아들들에게 그는 선물들을 주었다'=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의해 양자로 삼은 영적인 것, 그것들은 주님의 영적 왕국에서 뭍을 가졌다.

창35:22- '르우벤은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누

웠다'= 분리된 신앙에 의해 선이 모독됨.

첫 열매 (first-fruit)

출23:19-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집으로 가져온 땅의 첫 열매들'= 유아 안에 존재하는 순진의 상태들.

신26:2- '땅의 열매의 첫 열매들'= 거기서부터 파생된 선들.

출23:16- '네가 들판에 뿌린 일들의 첫 열매들의 수확의 축제'= 선 안에 진리가 이식됨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함... '첫 열매들', 또는 일들의 시작= 가르침에서는 마지막째이고 생활에서는 첫 번째인 것들.,

출23:19- '네가 네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올 네 지면의 첫 열매들의 첫 번째'=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진리로부터의 선들, 이 모두는 거룩하다, 그 이유는 주님만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레23:10- '첫 열매들의 다발'= 거기로부터 집합적으로 있는 상태.

계14:4- '하느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들'= 기독교인의 천국이 개시됨... '첫 열매들'에 의해 처음 태어난 것, 또는 처음 수확한 것, 고로 개시한 것이 의미되어진다.

출22:29, 23:10, 민13:20, 15:17-21, 18:8-20, 신18:4, 26:1, 출23:14-16, 19, 26, 레23:9-15, 20-25, 민28:26-28, 겔24:1, 2, 겔20:40, 미7:1, 신33:15, 21- 이렇게 명령되었던 바... 들판의 생산물들, 모든 곡식, 기름, 포도액, 나무들의 과일들, 또한 양털의 첫 열매들은 거룩한 것으로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에 의해 아론에게, 후에는 제사장에게 주어졌다. 또한, '그들은 빵의 첫 열매들과 수확의 첫 열매들의 축제를 준수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인즉, 첫 열매들= 처음 태어나되, 후에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 고로 그들=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뒤를 잇는 모든 것; 그이유가 뒤를 잇는 모든 것은 처음 안에 이미 있다. 즉 성인이 유아 안에 잠재한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계승되는 것들에 앞서 처음 것이 존재해야 하기에 첫 열매들은 주님에게 거룩했다, 그리고 첫 열매의 축제가 거행되었다.

암6:6- '그들이 자신에게 부을 기름의 첫 열매들'= 선의 외적인 것들, 이로부터 또한 예배가 있다.

신33:15- '동쪽의 산들의 첫 열매들'= 주님을 사랑함의 순수한 선들, 그리고 이로부터 이웃을 향한 선행의 순

첫째-첫째의-첫 출생

수한 선들.

신33:21-이것이 제일가는 것들로부터 이다는 것이 '그는 자기를 위한 첫 열매들을 보았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첫째 (first)

* primary, alpha도 참조.

마19:30-그들은 첫째이기를 원했으나 꼴찌가 되었다.

* 그러므로 첫째 상태와 마지막 상태는 연합되어진다.

* 첫째로서 간주되는 그분에 관련된 모든 것은 마지막째로도 간주된다.

* 거기, 진리가 첫 자리에 있다...그러나 여기, 선이 첫 자리에 있다.

계2:8-'처음과 마지막'=주님, 그분이 유일한 하느님이 시다는 것. (=주님, 그분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처음 것으로부터 최말단에 걸쳐 있는 모든 것을 규율하신다)

첫째의 (primary)

* 제 1 인자(prince)를 보라

첫 출생 (first-born)

창4:4-'양떼의 첫 출생(새끼)=주님 만에 속해 있는 거룩한 것.

출13:2,12,15-'표현 교회에서, 첫 출생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했는데, 그이유는 그들은 주님 만에 첫 출생이시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사랑,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믿음은 첫 출생인 것이다. 모든 사랑은 주님 속에 존재한다...그러므로 주님 만에 첫 출생이시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 교회에서 사람과 짐승에서 첫 출생한 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표현되어졌다.

민3:40~46, 8:14~20-레위지파(=사랑)는...모든 첫 출생 대신에 받았다. 그리고 성직에 봉사하였다.

시89:27, 계1:5-주님은 그분의 인간 본질 측면에 관련하여 모든 것의 첫 출생이셨다.

시78:51-'이집트의 첫 출생=선행 없는 믿음. 이 믿음은 교회의 첫 출생이라 불리운다.

창10:15-'시돈은 '가나안의 첫 출생'이라 불리운다; 그이유가 모든 교회의 첫 출생=믿음이기 때문; 그러나 여기서 거기에는 믿음이 없다.

대상5:1, 창48:5- 교회의 첫 출생이 선행인지, 믿음인지에 관한 논쟁은 고대 시대에도 있어 왔다...믿음을 첫

출생으로 만든 이들은 이교로 전락했다...가인의 경우가 그것이고...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의 경우도 그러하다...그러므로 장자권이 요셉에게 주어졌다. 하여 이제부터 장자에 관한 모든 논쟁들, 말씀에 있는 법들 모두...교회의 첫 출생은 실지로는 선행(charity)이다.

창25:31-'네 장자 권리를 나에게 오늘 팔라'=진리로부터의 교리가 외관적으로 앞서는 때에 관련된 것. 장자권인 이 우선권은 시간적으로 앞섬 뿐 아니라 등급 차원에서 앞섬인바 선 또는 진리 중 어느 것이 지배권을 가져야 하느냐 와도 관련된다.

눅2:7,22,23-그분에 관하여 쓰여진 것이 완성되기 위하여 주님은 출생을 수단으로 첫 출생이셨다.

계14:4-그분을 사랑함 안에 그리고 선행 안에 있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첫 출생'이라 불린다는 것은...'이들은 하느님과 어린 양에게...첫 열매(출생)이었다'로부터 명백하다.

예31:9, 창48:5,20, 대상5:1, 출4:22-'에브라임'=영적 진리, 이것이 '첫 출생'이라 불리운다, 그 이유는 진리 속에 있는 지적인 것이 외관적으로 첫 출생인 교회가 심겨지는 것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이유가 에브라임은 르우벤의 자리를 계승했는바 그가 첫 출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셉은 신성한 영적 사랑에 관련되는 주님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본질적으로 첫 출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나의 첫 출생 아들'...로부터 명백하다. 여기서 '이스라엘'=신성한 영적 사랑에 관련되는 주님, 그리고 영적 사랑 안에 있는 이들...

출13:2,12~15-모든 첫 출생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리고 첫 출생이 신성한 영적 사랑에 관련되는 주님을, 동시에 이 영적 사랑 안에 있는 이들을 표현했을 때, 명령되었던 것은 그들이 출발 직전 첫 출생의 모든 것을 성별하라는 것이다.

창25:33-'그리고 그는 그의 생득권을 야곱에게 팔았다'=이 앞섬이 한동안 양보되어졌다.

창29:26-'첫 출생(언니)에 앞서 동생을 주지(않는다)=내면의 진리에 애착함은 외적 진리에 애착함에 선행하지(않는다)는 것.

청소하다 -청옥-체-체로 치다 -체류자 -체류하다

신15:19-‘양떼의 첫 출생의 털은 깎지 말라’=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

출11:5-‘이집트의 첫 출생’=선행의 선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의 진리들, 이 진리들은 거짓들이 되어간다. ‘방앗간 뒤에 있는 하녀의 첫 출생’=이와 같은 진리에 애착함, 이로부터 거짓들이 온다.

창35:23-‘야곱의 첫 출생인 르우벤’=믿음으로부터의 선...‘첫 출생’=믿음

창38:28~30-‘먼저 나오는 것’, 또는 첫 출생이 되는 것=앞섬과 우월함. 이 문단은 장자권을 취급하고 있다.

창48:14-‘므낫세가 첫 출생이었기 때문에’=참으로 선이 앞의 자리에 있다면...장자권=우선권과 우월함; 고로 첫 출생=앞 자리에 있는 자.

창49:3-‘르우벤, 나의 첫 출생’=믿음, 이것이 외관상으로는 첫째 자리에 있다...첫 출생=앞의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은 오로지 외관적으로만 앞 자리에 있다.

출4:22-‘나의 아들, 나의 첫 출생, 이스라엘’=영적 진리와 선 안에 있는 이들을 양자로 삼으시겠다는 것...‘첫 출생’=선행으로부터의 믿음, 이 믿음은 영적 교회에 속한다...그리고 이들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강림을 수단으로 구원하셨다...

출4:23-‘나는 네 아들, 네 첫 출생을 죽일 것이다’=선행 없는 믿음의 소멸...이집트인들은 그들이 지닌 과학적 사실들을 마술로 바꾸었다, 그 결과 그들의 행위들에는...선행이 결핍되었다...그들의 첫 출생=믿음에 관한 지식 속에 있는 것들; 고로 선행 없는 믿음이다. (이것은) 선행으로부터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첫 출생에 대한 의미이라는 것으로부터도 명백해진다.

출11장-이 장은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은 지옥에 떨어짐을 취급하고 있다. 이것이 한밤중 죽음으로 포기된 이집트의 첫 출생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출12:29-‘짐승의 첫 출생’=섞음질된 믿음으로부터의 선.

출13:1-‘첫 출생된 모든 것을 성별하여 나에게 돌리라’=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있는 것...‘첫 출생’=믿음...이 믿음을 수단으로 영적 교회에 어울리는 모든 진리도 의미해준다....그러므로 영적 교회 자체도 의미해주고...선이 교회의 참 본질이라는 것, 선이 실지로 첫 출생이다

는 것도 의미해준다...그러나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선은 그 자체로만 보면 진리이다.

출13:15-‘인간의 첫 출생된 것으로부터 짐승의 첫 출생까지 조차’=분리된 믿음의 내, 외면의 거짓.

출22:28-‘네 아들들의 첫 출생을 너는 나에게 줄 것이다’=믿음 속의 모든 것들은...자신의 잘남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허락으로 있어졌는바 그분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아들들의 첫 출생에 의미되는 믿음 속의 모든 것들은 선행으로부터 있는 것들이다.

계1:5-‘죽은 자로부터 첫 출생’=그분은 신성한 선 자체이시다는 것...교회의 모든 것은 첫째로 제일 인 것으로부터 존재하는바 이것이 첫 출생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는 것이 고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었다; 많은 이들에 의해 믿어졌던 것은 진리는 교리 안에,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에 의해 믿어진 바는 진리는 행동 안에, 일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생활의 선이다. 이 후자가...적절한 의미에서 첫 출생에 의해 의미되는 것에 해당된다. 교리 안에, 신앙 안에 진리가 있다 라고 믿겨지는 이유는 아마도 첫 번째로 학습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후자는 판단하고 있다.

출13:2,12,22:28,29-첫 출생의 이 표현 때문에 모든 첫 출생 그리고 모든 첫 출생한 것들은 성별하여 여호와께 바쳤다.

신21:15~17-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교회에서 모든 첫 출생 대신에 데려가졌다...그 이유가 레위=행동 안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또한 상속분의 두 몫이 첫 출생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는 ‘힘의 시작’이라 불려졌다.

시89:27-‘나는 그를 땅의 왕들 보다 더 높게 첫 출생으로 만들겠다’=그분의 신성한 인간 측면의 주님이 ‘첫 출생’이라 불려진다.

청소하다 (sweep)

창24:31-‘나는 집을 청소했다’=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선들로 가득해 있다. ‘청소하는 것’=준비하고 채우는 것...인간이 집을 청소하는 것, 즉 악으로부터의 탐욕과 파생되는 거짓의 설득을 거절하는 것, 그다음 선들로 채우는 것밖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없다. 그러므로 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이 ‘집을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것, 또한 ‘길을 청소하고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

청소하다 -청옥-체-체로 치다 -체류자 -체류하다

리고 '집을 청소하는' 것에 의해 자아를 악으로부터 깨끗이하는 것, 그리고 선의 입장함을 위해 자아를 준비하는 것이 뜻해졌다; 그리고 '길을 청소하는' 것은 진리들을 받기 위해 자아를 준비하는 것이 뜻해졌다.

눅15:8-'집을 청소하는 것'=전체 마음을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진리들이) 감추어진채 놓여 있는지 검사하는 것.

이14:23-진리의 무엇이든 남은 것이 없음이 '그녀는 멸망의 마당비(besom)로 청소할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청옥 (sapphire)

* 사파이어를 보라

체 (sieve)

체로치다 (sift)

창살 (grating)

출27:4-'창살, 그물 세공'=최말단인 감각 평면...이 (외적) 감각이 '창살'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그이유는 그물 세공인 창살은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들을 결정하는 첫 체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

눅22:31-'밀처럼 너를 체친다.'

이30:28-'헛됨의 체로 나라들을 체치는 것'=악들에 있는 이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수단으로 말씀에 섞음질함.

체류자 (sojourner)

체류하다 (sojourn)

낯선 (strange)

출12:45-'체류자'=자연적 수준의 의향(disposition) 만으로 선을 행하는 이들.

창12:10-'체류하는 것'=가르쳐지는 것.

창15:13-'네 씨는 낯선 자일 것이다'=선행과 신앙이 드물 것.

창19:9-'체류하려 온 (자)...'=또다른 교리 안에 있는 이들; (그이유가) '체류하는 것=가르침 받고 사는 것; 고로 교리와 생활.

창23:4-'나는 체류자이고 당신들과 더불어 주민이다'=비록 주님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으셨다해도 그들은 그들과 더불어 있으실 수 있다.

창26:3-'이 토지에서 체류하는 것'=가르침.

창28:4-'네 체류함들의 토지'=가르침들로부터의 생활.

창32:4-'체류하는 것'=가르쳐지는 것.

창35:27-'아브라함과 이삭이 체류한 곳'=신성의 삶 모두. '체류하는 것'=삶.

창47:4-'토지에 체류하려고 우리는 온다'=과학물 안에서 삶을 추구함. '체류하는 것'=가르쳐지는 것, 또한 사는 것.

창47:9-'체류함들'=삶과 가르침들; 고로 삶의 영속되는 상태들.

출2:22-'나는 낯선 토지에서 체류자이다'=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교회에 있는 진리들로 가르쳐짐. '체류되어지는 것'=교회의 것들 안에서 가르쳐짐.

출6:4-'그들이 체류했던 그들의 체류함들의 토지'=그들이 가르침 받아왔고, 그것에 따라 살았던 신앙과 선행으로부터의 것들이 있는 곳.

출12:19-'체류자와 토지에서 태어난 자 모두'=교회의 누구, 그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났든 아니든.

출12:48-'체류자가 너와 더불어 체류할 때'=교회의 진리와 선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왔었던 이들, 하여 그것들을 받았던 이들.

출12:49-'내국인, 외국인을 위해 한 개의 법이 있을 것이다'=교회의 선과 진리에 관해 가르쳐져 그것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살고 있는 이들은 교회 내에 있는 것과 같다.

출20:10-'네 문들 안에 있는 체류자...(도 일하지 말라) '=일반적 측면에서의 과학 평면.

출22:20(21)-'너는 체류자를 괴롭히거나 압제하지 마라'=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 안에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이들은 신앙으로부터의 거짓들과 생활로부터의 악들로 침입 당해지지 않는다는 것.

출23:12-'네 몸종의 아들들과 체류자가 숨을 돌릴런지 모른다'=교회 바깥쪽에서 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는 이들의 생활의 상태.

(식)초 (venegar)

요19:29-'초'가 그분에게 주어진 것=오고있는 교회 안에 진짜 진리가 없고, 거짓들과 혼합된 진리, 즉 신앙을 선행으로부터, 또는 진리를 선으로부터 분리한 이들과 더불어 진리만 있다는 것. 이것이 '초'가 의미하는 것이

총계-총명-최말단-최후-최후의 심판

다.

마27:34, 막15:23, 마27:48, 막15:36, 요19:29-그들이 '담즙을 섞은 초, 몰약과 섞은 포도주'를 주님에게 줌=말씀으로부터 신성의 진리는 유대 국가와 더불어 있었다는 것; 이것은 악의 거짓과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고로 전체적으로 이것은 왜곡되고 섞음질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그분은 그것을 마실 수 없으셨다. 그러나 그후에 '그들은 주님에게 해면에 초를 적서, 그것을 히속폴 즐기기에 놓아 주었다'=직바른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거짓의 종류들, 이 거짓은 진리에 무지함으로부터였다. 하여 이 거짓에는 선하고 유용한 것도 있었다; 그리고 이 거짓이 주님께 의해 수납되었을 때, 그분은 이 초를 마셨다. 그들이 이것을 놓은 히속폴 즐기=거짓으로부터의 순수해집.

(양)초 (candle)

* 등불(lamp)을 보라.

눅12:35-'네 허리에 띠를 매고 초를 켜놓고 있으라'...'그들이 켜놓아야 할 초'=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신성의 진리들.

눅15:8-'불켜있는 초'=애착으로부터 자신에게 문의함.

초록(색)의 (green)

* 원어에서 이 단어는 야채와 초록 둘 다를 뜻하고 있다....초록(색)은 지적인 것들로부터의 즐거움, 또는 영적 애착들로부터의 즐거움에 비교되는 것들.

출10:15-'어떤 초록(색)의 것도 남지 않았다'=진리를 잘 감지하는 특성이 말살되었다....'초록'=과학적이고 감각적인 것; 여기서, 진리를 감지하는 것...'초록의 것'=진리를 감지하는 것인 이유는 '풀잎', '풀', '나무의 잎'에 의해 진리들이 의미되어지기 때문; 이로부터, 그것들의 초록색=진리를 감지하는 것.

레23:14-'초록색의 이삭'=진리로부터의 선.

이57:5-'모든 초록색의 나무'=발생하는 모든 거짓.

예17:8-'초록색의'=진리들로부터 살아 있음.

시92:14-'지방이 많고 초록색의...'=선들과 교리 속의 진리들 안에서...

촛대 (candlestick)

출25:31-33,37, 37:17-19, 민8:2,3, 속4:2-'일곱 등불을 가진 촛대'=주님; '등불들'=사랑으로부터의 거룩한

것들.

계11:4-'촛대들'=이 선들로부터의 진리들.

계1:12-'금촛대들'=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속4:11-'촛대'=신성의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출25:31-'너는 촛대를 만들어라'=영적 천국. '촛대'=주님으로부터 천국에서와 교회에서 있는 신성의 영적 평면.

출26:35-'촛대는 남쪽을 향한 주택의 측면에서 탁자의 맞은편에'=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의 진리를 수단으로 영적 왕국의 조명이 선 안에 있는 이들에게 있음.

계11:4-'두 올리브-나무들', 그리고 '두 촛대들'= 똑같은 선들(즉,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과 이웃을 향한 선행의 선).

출30:27-'촛대와 그것의 집기들'=둘째 천국 속에 있는 영적 진리 안에, 그리고 섬기는 진리들 안에. '촛대'=영적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표현함, 이것은 둘째 천국 속에 있다.

출31:8-'순수한 촛대와 그것의 모든 집기들'=이 선으로부터 진리를 표현, 그리고 섬기고 있는 것들. '등불과 가지들을 가진 촛대'=영적 천국을, 그리고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앙과 총명을, 고로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표현.

계1:12-'돌아서니, 나는 일곱 금빛의 촛대를 보았다'=말씀의 안에서 밖으로 주님으로부터 계발됨에 있을 새 교회.

계1:20-'네가 본 일곱 촛대들은 일곱 교회들이다'=땅 위 새 교회, 이 교회는 새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일곱 촛대들'은 일곱 교회들을 뜻하는게 아니라 전체 복합체에서 있는 교회를 뜻한다. 즉 그자체로서는 교회 하나이고, 받는 양상에 따라 다양해진다.

계2:1-'일곱 금빛의 촛대들 한가운데에서 걷는 (분)'=이 분으로부터 그분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게 계발이 온다. '사람의 아들이신 분이 일곱 촛대 한가운데 계신다'=주님으로부터 계발됨에 있는 새 교회.

계2:5-'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촛대의 장소로부터 그것을 옮기겠다'=이와 달리해서 그들은 진리들을 보도

최후의 심판

록 계발함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촛대'=계발됨 측면에서의 교회.

계11:4-'그들은 땅의 하느님 앞에 서있는 두 올리브-나무들이고 두 촛대들이다'=사랑과 총명, 또는 선행과 신앙. 둘 다 주님으로부터 그들과 함께 있다...'촛대들'=진리들에서 계발됨, 그러므로 총명과 신앙.

총계 (tale)

출5:8-'벽돌 총계'=(거짓인 것의) 풍부함.

총명 (intelligence)

겔47:12-'잎'=총명

* '동산'=총명...고로 '동쪽으로부터 에덴에 있는 동산'=사랑을 수단으로 주님으로부터 유입되는 천적 인간의 총명. 이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수단으로 흐른다.

* '이집트'=지식, '앗수르'=합리성, '이스라엘'=총명.

창3:6-'총명을 주고 싶어 하는 것'=즐거움.

눅2:47-'그들은 그분의 총명함과 대답들에 놀라워했다.'

욥39:26,27-'매가 네 총명을 수단으로 날으느냐?...독수리, 여기서=추론. 이것은 총명 속에 있다.

창41:33-'총명하고 슬기있는 사람'=호르고 있는 진리와 선.

창41:39-'너 만큼 총명하고 슬기있는 자는 없다'=그러므로 진리와 선만이 있다.

단12:3-'총명한 자는 창공의 밝음 같이 빛날 것이다.'

단12:12,14-'그 사람 안에 지식과 총명의 특출한 영이 있다.'

출31:3-'지혜에서, 총명에서, 지식에서, 모든 일에서'=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안에서 이해함으로부터, 의지로부터 있는 이런 것들에 관련하여...'총명'=내적 인간 안에 이해함으로부터 있는 이런 것들.

계13:18-'총명을 가진 자'=예증(illustration) 안에 있는 이들.

단12:3-'총명한 자'=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계22:1-5에서-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들로부터의 총명에 관련되는 새 교회가 묘사되고 있다.

시136:5-교회는 진리들을 통하여 형성되어진다, 그리고 교회의 진리들은 총명을 만든다. 그러므로 말해지기를, '총명을 통하여 하늘들을 만드시는 여호와.'

이13:12-'사람'에 의해 총명이 뜻해진다; 그리고 '그를 순금보다 더 드물게(귀하게) 한다'=더 이상 어떤 총명도 거의 있지 않을 것.

이11:2-'총명의 영'에 의해 신성의 영적 평면이 뜻해지는데, 이는 진행되는 신성을 둘째 천국의 천사들에 의해 받아잡는다.

최말단 (ultimate)

최후(last)

* 맨 마지막(last)을 보라.

최후의 심판 (the last judgment)

마지막 심판 (a last judgment)

* judge도 참조.

눅17:34-36-...더 나아가 마지막 심판은 인간 각자가 죽을 때 있다. 각 자는 육체 안에서 했던 바에 따라 죽음이나, 생명이냐로 판결되어진다. '시대의 종말', '날들의 끝', '최후의 심판'에 의해 이 밖에 더 뜻해지는 것은 없다. 고로 세상의 파멸이 아님은 눅17:34-36절만 보아도 명백해진다. 즉 '그 밤에 한 침대에 둘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것이다. 들판에서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이 구절에서 마지막 시간이 '밤'이라 불려진다. 그이유는 신앙, 즉 선행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남겨질 것이다'라고 말해지는데, 이를 수단으로 세상은 멸해지지 않을 것임도 암시됨이 분명하다.

창19:23-'태양이 땅 위로 올라왔다'=마지막 때, 이는 최후의 심판이라 불리운다.

마25:32-46-외적 인간의 일들 안에서 내적 인간의 생명이 공표되기에 최후의 심판이 이 구절에서 인간이 일한 것 밖에 더 열거되는 것은 없다.

계4:4-'왕좌 빙 둘러 24 왕좌들이 있었고, 왕좌들 위에 24 원로들이 앉은 것을 나는 보았다'=천국에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 모든 것들이 배열됨.

계21장-이 장은 최후의 심판 이후 천국의 상태와 교회의 상태를 취급한다. 이 후, 새 천국을 통하여 새 교회가 땅 위에 출시되는데, 이 교회는 주님 만을 예배할 것이다.

마13:24-30, 38-40-...이것이 행해지기 앞서 최후의 심판은 결과되어 질 수 없었다. 그이유는 악한 자가 선

추수-추숫군-추운

들과 진리들을 소유하는 한, 그들은 외적 측면에서는 최말단 천국의 천사들과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 그럼에도 그들은 분리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본 구절에서 미리 말해지고 있다.

계1:1, 마24, 25장, 막13장-‘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교회의 마지막 때들에 관한 주님으로부터의 예보들 (predictions). ...그이유는 이 책이 이 때들을 특별하게 다루기 때문. 아마 이렇게 상상될런지 모른다. 즉 묵시록에서 교회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연속되는 상태들이 취급되고 있다 하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 책 안에서 취급되지 않는다. 오직 최후의 심판이 있는 때, 즉 끝(end)에 관련한 천국과 교회의 상태를 취급한다. 교회의 연속되는 상태들에 관하여서는 마24,25, 막13장에서 주님 자신에 의해 예보가 만들어져 있다.

계6,7장-이 장에서 기독교회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또는 주님의 때로부터 최후의 심판 까지 이르러 다루어진다. 교회의 이런 연속되는 상태들에 관한 예보가 마치 책으로부터 인 것인 양 이 두 장에서 명명백백해 있다.

이34:4-이 절에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관하여 말해진다. 그이유가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에 의해 미리 말해진 최후의 심판은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에 의해 집행되어졌다. 그리고 비슷한 것들이 묵시록에서 미리 말해진 최후의 심판에서 행해진 이들에게 이루어졌기에,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주님에 의해 집행되어졌기에 거의 비슷한 것들이 이 구절에서 말해진다...

눅21:28-31-이 구절은 시대의 종말을 다룬다. 이는 최후의 심판이다. 그리고 심판에 앞서 있게되는 표시들이 열거된다...그다음 새 교회가 시작되리라는 것, 시작 때의 이 교회는 외적 측면에서 일 것임이 ‘보라, 무화과 나무를, 그리고 모든 나무들, 그것들이 (씩을)내밀 때 (를 보라).’...‘무화과 나무’=외적 교회, 그리고 ‘나무들’=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하느님의 왕국’, 이 왕국이 ‘가까이’ 있다=주님의 새 교회. 그이유가 옛 교회가 멸해지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서 새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

숙14:3-7-이 구절들에서는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에 의해 집행된 최후의 심판에 관해 말해졌다. 그

분이 세상에 계셨을 때, 주님은 천국들과 지옥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질서 안으로 환원시키셨다. 그러므로 해서 그당시 그분은 선한 자와 악한 자 위에 심판을 실행하셨다. 이 심판이 구약 성서에서 ‘분개의 날’, ‘노염의 날’, ‘분노의 날’, ‘여호와와 복수의 날’, 그리고 ‘응보의 해’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이 14장은 주님의 강림에 관한 것, 그리고 그때에 심판에 관한 것을 취급한다는 것은 이 장에 있는 이런 말들로부터 분명해진다. 즉 ‘그때에 여호와 나의 하느님이 오실 것이다; 당신과 더불어 모든 성인들이; 그 날에 눈부시고 찬란한 빛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알려져 있는 한개의 날이 있을 것이다; 낮도 밤도 아니다; 그이유는 저녁의 때에 빛이 있을 것이기 때문.’ ‘저녁의 때’=교회의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 때; 악한 자를 위하여서는 저녁이 있거나 선한 자를 위하여는 빛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가시어 나라들에 맞서 싸우실 것이다’에는 악한 자 위에 있는 최후의 심판이 의미되어 있다.

이63:4,6, 계11:8-주님의 전투들에 관한 것을 취급한다. 이 전투들을 수단으로 그분은 지옥들을 복종되게 하셨다. 고로 그분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에 의해 실행되어졌던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도 취급한다. 전투들, 즉 그분 자신 안으로 들어오게 용인된 시험들을 수단으로 그분은 그들을 복종되게 했고 최후의 심판을 가져오셨다. 이것이 구약 성서에서 ‘여호와와 분노의, 노염의 날’에 의해 뜻해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에 의해 집행되어져왔었던 최후 심판은 묵시록에서 ‘그분의 노염의 날’에 의해 뜻해져 있다.

마24장-이 장에는 교회의 연속되는 모든 상태들이 그것의 끝까지 조차, 즉 최후의 심판이 있는 때 까지가 미리 말해져 있다.

추수(harvest)

창8:22-‘씨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거듭나지고 있는 인간, 그러므로 교회...말씀에서 인간은 들판에 비유되는바, 씨뿌리는 때와도 비교된다...그리고 그 결과인 생산물, 또는 추수와도 비교된다.

창30:14-‘르우벤은 밀 추수의 날에 나갔다’=사랑과 선행 측면에서의 신앙의 상태...‘밀’=사랑과 선행; 그러므로 밀 추수=사랑과 선행의 발전된 상태.

축제

창45:6-‘경작함도 추수함도 없을 것이다’=한동안 선과 파생되는 진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추수’=선으로부터 진리들.

출23:16-‘네가 들판에 뿌린 일들의 첫 열매들의 추수 절기’=주님을 예배함과 선 안에 진리를 심어주심 때문에 감사함.

마13:39-‘시대의 극점(종말), 이는 추수이다’=선 안에 신앙의 진리들을 받는 측면에서의 교회의 마지막 상태.

골3:13-‘추수’=시대의 극점, 또는 황폐된 교회의 마지막 상태.

예51:33-‘추수의 때’=거기서 교회의 마지막 상태.

레23:10-‘추수’=선으로부터 있는 신앙의 진리의 상태; 고로 선의 상태.

출34:21-‘경작하고 추수함에서 너는 쉴 것이다’=선 안에 진리를 이식함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을 받음...‘추수함’=선 안에 진리를 받음.

계14:15-‘추수가 익는다’=이것은 교회의 마지막 상태이다. ‘추수’=신성의 진리 측면에서의 교회의 상태.

마13장-‘추수’=마지막 심판.

예5:17-그러므로 뒤잇는바, ‘그는 네 추수와 네 빵을 먹을 것이다’; 그이유가 ‘추수’에 의해 진리를 통하여 선이 있음이 의미되기 때문; 그리고 ‘빵’에 의해 파생되는 선이 의미된다.

이27:11-‘시들어진 추수’=약한 사랑들을 통하여 파괴된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마9:37,38-‘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 주님의 추수 안으로 일꾼을 보내도록 추수의 주님에게 물어보라.’ 여기서 ‘추수’에 의해 모든 이와 더불어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어졌음이 뜻해진다; 또한 일반적 측면에서의 교회도 뜻한다; 그리고 ‘일꾼’에 의해 주님으로 가르칠 모든 이와 뜻해진다.

요4:35-이 교회를 설립함이 가까웠다는 것이 ‘네 눈을 들어올려 들판을 바라보라, 그들은 추수를 위해 이미 희어 있다’에 의해 뜻해진다.

막4:26-29-세부적 측면에서 인간과 더불어 교회의 증가, 일반적 측면에서는 인간들과 더불어 주님으로부터 교회의 증가가 ‘추수’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추수’=세부적, 일반적 측면에서 교회를 심음.

추수꾼 (reaper)

* 베어들이다(reap)를 보라

추운 (cold)

찬 (cold)

창8:22-‘추위와 더위’=거듭나지고 있는 때, 신앙과 선행을 받는 인간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 ‘춥다’=신앙과 선행이 없다.

* ‘차다’=사랑이 없다, 또는 선행과 신앙이 없다.

창31:40-‘낮에는 더위가 나를 삼키고, 밤에는 추위가 나를 삼키려 했다’=시험들. ‘더위와 추위’=너무 많은 사랑, 그리고 너무 없는 사랑, 고로 양 극단들(extremes)...영적 추위는 사랑 없음이다...어쨌든 추위는 모든 사랑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 사랑과 천적 사랑의 결핍을 의미한다...인간에게 이 사랑이 결핍될 때,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붙여진다; 이 사랑은 상대적으로 차갑고, 또한 차겨워져 가는데, 이는 그가 육체에서 사는 동안, 뿐아니라 그가 다른 삶에 왔을 때도 그러하다. 만일 그가 육체 안에서 사는 동안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그로부터 거두어간다면, 그는 점점 차겨워져 결국 어떤 생명도 남아있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의 경우는 만일 그가 천국의 것, 신성의 것들에 관하여 거룩하게 생각해보려 작정할 때이다. 다른 삶에서, 만일 그가 천국에 접근한다면, 그의 불과 열은 차겨움으로 변하는데, 그가 천국에 더 가까울수록 더 심해진다. 이 차겨움이 ‘이를 값’에 의해 뜻해진다.

계3:15-‘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말씀이 신성이고 거룩함을 어떤 때는 인정하고 어떤 때는 부정하는 이들.

예18:14-‘낮선 차거운 물들이 흐름’=안에 선이 없는 거짓들; ‘낮선 물들’=거짓들; 그리고 ‘차겨운’=안에 선이 없음. 그이유가 사랑의 선으로부터 진리의 열은 파생될 수 있기 때문.

시147:17-‘누가 그분의 추위 앞에 설 수 있는가?’=개혁 이전 인간의 상태.

시147:17-개혁 이전 사람들과 더불어 과학물과 지식이 ‘공(ball) 같은 우박, 누가 그분의 추위 앞에 설 수 있는가?’에 의해 의미되어져있다. 그이유가 개혁이전의 인간은 완전하게 차서 천국으로부터 신성이 흘러들 때 차겨움을 명백하게 느낀다. 그러나 이런 추위들은 신성

출구-출생-춤추다-충돌-충분한-충분히 만족시키다-충실한-취옥-축면

의 선과 진리를 받음을 통하여, 고로 개혁됨을 통하여 사라진다. 하여 이어져 말해진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보내신다, 그리고 그들을 녹이신다; 그분은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신다, 그리고 물들이 흐른다.’

예36:30-진리들을 싫어함이 ‘밤에는 추위’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그이유가 본질이 신성의 진리인 천국의 빛이 흘러들 때, 악으로부터 거짓 안에 있는 그들은 추위에 휩싸이는데, 악으로부터의 거짓이 따뜻해져감에 따라 더 심해진다.

나3:17-‘추위의 날’=악을 사랑하는 상태.

축제 (feast)

잔치 (feast)

* 여러 잔치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행되었다...그리고 이는 교통함과 결합함 그리고 천적 선들을 자기 것 되게 함을 의미했다.

창19:3-‘그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함께 거주함. 말씀에서 잔치가 언급될 경우=함께 거주함.

* 거룩해진 것들로부터 있는 잔치는 제물에 의해 표현되는 사랑의 거룩한 것들 안에서 인간과 더불어 주님이 함께 거주함을 표현했다. 이와 같은 것이 후에 성찬에 의해 원시 교회에서 표현되었는데, 잔치라 불리운다.

* ‘정찬(dinner)’, ‘만찬(supper)’, ‘잔치(feast)’=선행으로부터의 선, 이 선 안에서 주님은 인간과 함께 거주하신다.

창21:8-‘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함께 거주함과 합일...합일이 의미된 이유는 여기서 주님을 취급하기 때문.

창29:22-‘그는 잔치를 베풀었다’=개시함. (그이유가) ‘잔치’=자가 것 되게 함과 결합함. 여기서의 경우 개시함, 그이유는 이것이 결합에 앞서 진행되기 때문...고대 시대 때의 잔치는 상호간의 사랑이 개시됨을 의미했다. 결혼 잔치는 결혼 사랑의 개시를, 거룩한 잔치는 영적, 천적 사랑이 개시됨을 의미했다. 잔치에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잔치는 자기 것 되게 함과 결합을 의미했다.

창40:20-‘그는 자기의 모든 중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외면의 자연 평면과 결합이 개시됨.

이25:6-‘살진 것들로 잔치를’, ‘오래된 포도주로 잔치를’...‘잔치’=천국, 그리고 사랑과 천국을 통하여 거기서

천사들과 결합함.

예51:39-‘그들의 잔치들’=선과 진리에 섞음결함.

출12:14-‘축제를 여는 것’=주님을 예배함.

출23:14-‘한 해에 세 번 너희는 나에게 축제를 열이라’=지옥에 떨어짐으로부터 구조하신 주님께 감사함과 영원히 예배함.

출5:1-‘광야에서 나에게 축제를 개최하라’=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지닌 신앙의 희미함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런지 모른다는 것.

출10:9-‘그것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올리는 축제가 있기 때문’=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을 예배함.

출13:6-‘일곱째 날에 여호와께 축제...’=주님을 거룩히 예배함.

말2:3-‘축제들의 똥’=예배 속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힘.

출33:5-‘내일 여호와와의 축제’...‘축제’=기념일에 관련하여 여 있는 교회의 예배.

출34:18-‘너는 누룩 넣지 않은 것들로부터의 축제를 준수하라’=악으로부터, 그리고 악의 거짓들로부터 해방됨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함.

시118:27-‘제단의 뿔들에 축제를 묶는 것’=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함께 결합하는 것. ‘축제’, 그리고 ‘제단’=예배.

시74:8-그들이 신성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파괴했다는 것이 하느님을 경축하는 모든 장소를 태움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출구 (outlet)

* 나가다(go out)를 보라.

출생 (birth)

* (어머니가) 낳다(bear)를 보라.

춤추다 (dance)

예31:4,13-선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이 ‘소고와 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시30:11-‘춤을 춤’은 진리들을, ‘환희(joy)’는 선들을 서술하고 있다.

시150:4-‘소고와 춤으로 찬양하는 것’=신앙의 진리와 선으로부터.

출15:20-‘소고들과 춤들에서’=환희와 즐거움으로부터 경축함...‘춤’은 영적 진리에 애착함, 그리고 애착으로

치다

부터의 유쾌함과 즐거움을 서술하고 있다.

출15:20, 삼하6:14,16-‘스포츠(sport)와 춤’=사랑으로 부터 있는 내면들의 환희와 즐거움인바,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춤추러 나왔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출32:19-‘그는 송아지와 춤을 보았다’=이 나라의 외적 사랑들의 즐거움에 의거 있는 지옥의 예배, 그 결과 내면의 축제 기분. ‘춤’=내면의 축제 기분.

시114:3-‘산들이 수양들 같이 춤추었다’...‘춤추는 것’=환희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

레11:21-메뚜기는 ‘땅 위에서 뛰기 위해 자기들의 발 위에 다리를 가지고 있다’. ‘발 위 쪽에 다리를 가지고 땅 위에서 뛰는 것’에 의해 영적 생명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 있다는 것이 의미되어져 있다.

이13:21-‘춤추는 것’=사랑의 선을 섞음질한 더러운 사랑으로부터의 환희.

나3:2-‘(말이)울고 뛰는 것(leap, dance)’=바람과 즐거움을 수단으로 운반해버리는 것.

충돌 (collision)

창25:22-‘아들이 그녀를 한가운데에서 다투었다 (struggled)’=전투.

충분한 (plenary)

풍부함 (plenty)

출41장-‘이집트의 토지에 식량이 풍부한 칠 년’=영적 평면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선이 과학물에 응용되어질 수 있다.

출41:30-‘식량의 모든 풍부함이 망각에 주어질 것이다’=진리의 제거, 그로부터 나타나는 결핍이 자연 평면 양쪽에서 있다.

충분히 만족시키다 (satiety)

* 만족시키다(satisfy)를 보라.

충실한 (faithful)

계2:10-‘너는 죽기 까지 충실하라’=거짓들이 제거될 때까지 참 진리들을 받고 인정함.

계19:11-‘충실하고 참된’=신성의 선과 신성의 진리. ‘충실한, 인간이 취급될 때=세째 천국에 있는 자, 고로 천적 선 안에 있는 자.

계1:5-‘그분은 충실한 증인이다’=그분으로부터 천국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

계17:14-‘충실한 자’=선행으로부터의 신앙 안에 있는 이들. 선행의 신앙 안에 있는 첫째 천국의 천사들이 ‘충실하다’고 불리운다.

계21:5-‘이 말들은 참되고 충실하다’=그것들은 믿어져야 한다는 것, 그 이유는 주님 자신이 그것을 증거하시고 말하셨기 때문.

취옥 (emerald)

* 에메랄드를 보라.

측면 side

쪽 (side)

* part도 참조.

창49:13-‘그의 측면은 시돈쪽으로’=한쪽에서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쪽으로 확장됨.

예6:22-‘큰 나라가 땅의 측면들로부터’=선에 완전히 반대된 악들 안에 있는 이들.

예25:32-‘땅의 측면들’=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돌발하는 곳.

예31:8-‘땅의 측면들로부터 그들은 그러모아질 것이다’=교회의 진리와 선이 시작하는 곳; 그이유가 ‘땅’=교회; 그리고 그것의 ‘측면들’은 교회의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

출25:14-‘궤의 측면들 위에서’=최말단들에서; 그이유가 ‘궤의 측면들’=최말단들에 있는 천국을 둘러싼 신성의 영역(sphere)이기 때문. 측면들은 마무리됨; 천국에는 공간과는 관련이 없는 바, 이는 진리들과 결합한 선들에 관련된다.

출25:32-‘촛대의 이쪽으로부터 세 갈대들, 그리고 다른 쪽으로부터 세 갈대들’=선과 진리에 관련하여 충만한 것...‘이쪽으로부터와 다른 쪽으로부터’=선으로부터와 파생되는 진리로부터; 몸의 오른쪽에 있는 것들=선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들=진리들. 예를들면, 얼굴의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

출26:26-주택의 측면=쳐다봄이 어디쪽으로 향하든 (일정하게 있는) 천국의 방위

출27:7-‘제단의 두 측면에 있는 장대들’=진리가 있게 하는 선의 힘, 그리고 선이 있게 하는 진리의 힘.

단2:32-‘배와 측면(옆구리)’=교회의 세 번째 상태.

치료하다-치료자-치명적인-치수-치욕

출30:4-측면들, 이것이 '갈비들'로 불린다, 이는 남쪽과 북쪽 측면=진리들, 서쪽과 동쪽 측면으로 불리지는 측면들=선을 의미한다.

요19:34,35-'그분의 옆구리는 찔림을 당해, 피와 물이 나왔다'=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인류와 결합함.

시91:7-'측면에서 천 명이 쓰러질 것이다'=선.

겔38:15-'북쪽의 측면들'=선들과 진리들로부터 아주 먼 것, 그러므로 악의 거짓들.

이66:12-'측면'=영적 사랑.

시48:2-'북쪽 측면들'=천적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이37:24-'레바논의 측면들'=이 (선들이) 진리와 결합하는 곳.

민33:55-'네 측면들(옆구리)에 있는 가지 같이'...'측면들'=선행으로부터의 것들, 고로 선들.

시128:3-'잡'=마음; '그것의 측면들'=자연적 인간에 있는 모든 것들.

단7:5-'(꿈이) 자기 측면을 일으켰다'=탐욕이 말씀의 선들을 왜곡하고 있다.

치다 (beat)

두드리다 (knock)

이32:12-'가슴을 찢'=진리의 선이 손실되었기에 슬퍼지는 것.

계3:20-주님께서는 그분에게 문을 열으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두드리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 '보라, 내가 문에 서있고, 두드리고 있다'로부터 분명하다.

계3:20-'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린다'=주님은 말씀 안에서 모든 이 각각과 더불어 현존하시고, 받아지도록 역설하신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를 가르치신다.

계14:2-'나는 하프 연주자가 하프를 켜는 소리를 들었다'=더 낮은 천국들에서 영적 천국의 천사들에 의해 심정의 즐거움으로부터 주님을 고백함. '하프를 켜는 것'=영적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고백하는 것.

계3:9-'자기들이 진리들 안에 있다고 말하나 실상 그들은 선행이 없어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에 관하여, 말씀에서, 그들은 문에 와서 두드리나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진다. 문에 와서 두드리는 것이 '밭에서 숭배하는 것'이다.

계3:20-'보라, 나는 문에 서있다, 그리고 두드린다'=주님이 영원히 현존하심...동시에 그분이 허락받아져야 한다는 그분의 영원한 의지...'문'의 언급이 있을 때, '두드림'도 마찬가지로 인간과 더불어 결합하심, 그리고 결합한 인간에게 천국의 행복이 교통하게 해주시려는 그분의 영원한 의지가 의미되어져 있다.

계14:2-'나는 하프들을 연주하는 하프 연주자들의 소리를 들었다'=그분의 영적 왕국으로부터 주님의 영광을 기림...'하프 연주가 자기들의 하프를 켜'=주님의 영적 왕국 안에 있는 이들의 애착들.

치다 (strike)

들어받다 (strike)

넘어지다 (stumble)

출21:28-'(뿔로)들어받는 것'=상해를 입히는 것.

신33:17-'땅의 끝들 쪽으로 백성들을 (자기 뿔로) 들어받는 것'=교회 속에 있는 모든 이를 진리들 안에서 가르치고 진리들을 수단으로 거짓들을 흘리는 것.

이8:15-'넘어짐(stumble)='분개하게 함, 하여 진리들로부터 거짓들에 빠지게 함.

이28:13-'뒤쪽에서 치는 것'=선하고 참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돌림.

말2:8-'법 안에서 넘어지는(stumble) 것'=신성의 진리에 반대하여 사는 것.

치료하다 (cure)

* 낫게하다(heal)도 참조.

출21:19-'그는 그를 확실히 치료할 것이다'=회복, 즉 해석을 통하여.

출21:19-'확실히 치료함'은 영적 진리의 회복이 의미되는데, 이 회복은 과학적 진리, 또는 말씀의 글자적 의미의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결과되어진다.

치료자 (healer)

낫게하다 (heal)

건강한 (healthy)

창20:17-'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낫게하셨다'=선 측면의 교리가 완전함. '낫게하는 것'=완전하게 만드는 것...그의 아내 역시 '나왔다'고 말해지는데=진리 측면의 교리가 완전해짐.

치질-친구-침-침대

눅5:31-‘건강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건강한 자’는 정의로운 자를 뜻한다.

예8:22-‘내 백성의 딸의 건강’=거기 있는 교리 속의 진리.

출15:26-‘나는 여호와 너의 치료자이다’=주님 만이 악들로부터 보존되게 하실 수 있다.

요12:40-말해졌다, ‘내가 그들을 낮게하지 않도록’, 그 이유는 나는 자가 다시 거짓들과 악들 쪽으로 돌아간다면 모독이기 때문.

이53:5-(그분의 시험을) 수단으로 구원하심이 ‘그분의 상처를 수단으로 낮게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에서 의미되어져 있다.

예33:6-악들과 거짓들로부터 해방됨이 ‘나는 그들에게 건강과 치료함이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낮게 할 것이다’에서 의미되어져 있다. 그 이유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악들과 거짓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 이는 주님에 의해 진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여 말해지는바, ‘나는 평화와 진리의 풍부함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겠다.’

겔47:8-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 그리고 과학물을 확증함이 신성의 진리를 통하여 영적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 ‘바다의 물들이 낮게 됨’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겔47:11-악의 거짓들 안에 있기 때문에 개혁되어질 수 없는 이들이 ‘낮게 할 수 없어 소금(땅)으로 되어버리는 진창과 습지’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이19:22-‘여호와께서는 이집트를 쳐부수고 낮게도 하실 것이다...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간청을 듣고 그들을 낮게 하실 것이다’=시험들, 그리고 전환함, 그리고 진리들을 수단으로 거짓들로부터 낮게 됨.

계13:3-‘죽음의 이 재앙은 낮게 될 것이다’=외관의 불일치가 신앙과 일들이 고안해낸 결합을 수단으로 제거되었다.

치명적인 (mortal)

이5:13-‘(그들의 영광은) 가름으로 치명적이다’=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이 궁핍하다.

창34:30-‘나는 숫자에서 치명적이다.’ ‘숫자에서 치명적이다’=매우 적다.

치수 (measure)

* 재다(measure)를 보라.

치욕 reproach

불명예 (ignominy)

창30:23-‘하느님께서 내 치욕을 거두어가셨다’=...라헬은 더 이상 불임이 아니었다, 그리고 고로 ‘죽지’ 않았다.

나3:5-‘나는 왕국들에게 내 치욕을 보일 것이다’=지욕의 사랑들...

이30:3-‘이집트의 그들을 신뢰함이 치욕(disgrace)으로 있을 것이다’=악들에 저항하는 능력이 없다...‘수치(shame), 치욕(disgrace)’=악들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될 때 그들의 상태.

합2:16-‘불명예스러운 토해냄’이 왜곡된 진리를 서술하고 있다.

슘2:10-‘여호와와 백성에 불명예한 것’=진리들 위에 악을 입히는 것.

창24:14-‘이것은 우리에게 치욕이다’=이것은 그들에게 반대되어 있다.

예42:18-‘너희는 저주, 놀람, 통렬한 비난, 치욕 등을 위해 있을 것이다’=지욕에 떨어져야 하는 모든 것들.

치질 (haemorrhoid)

삼상5장-블레셋족을 친 ‘치질’에 의해 그것들의 더러운 사랑들이 의미되어져 있다.

삼상5장-그들을 친 ‘치질’=자연적 사랑들이 영적 사랑과 분리될 때, 이 사랑은 불결하다...‘금지질’=자연적 사랑들이 순수해지고 선으로 만들어짐.

친구 (friend)

요15:14,15-영적 인간...역시 ‘친구’라 불리워진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지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이5:1-‘나는 내 친구의 포도원에 관하여 그의 노래를 내 사랑하는 자에게 부를 것이다’...여기서 주님이 말하여 지는 바, 그분은 ‘사랑하는 자’, 그리고 ‘친구’이다.

요15:14-‘만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여기서의 ‘친구들’은 자유로운 이들을 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친구들’은 ‘종들’에 반대하여 대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으로부터 교리와 생활 안에 신성한 진리를

침묵-침상-침수-침수시키다-침실-침향-침향목-침찬-칼-커튼

받는 사람은 종들이 아니라 자유인, 또는 친구들임을 이렇게 가르치신다. ‘만일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 행한다면,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들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들이라 부를 것이다.’

눅21:16-신실한 자가 그 당시 진리들을 위하여 겪을 시험들이 ‘부모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에 의해 넘겨진다...’에서 묘사되고 있다. ‘부모들,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이란 같은 교회에 속하는 이들, 그러나 악들과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시45:14-‘그녀 뒤를 처녀들, 그녀의 여성 친구들이...’=섬김 속에 있는 진리의 자연적 애착으로부터 있는 영적인 것.

침 (sting)

* 뾰족한 끝(point)을 보라.

침대 (bed)

창49:4-‘네가 네 아버지의 침대들에 올라갔기 때문에’=선행 속에 있는 선으로부터 분리될 때, 신앙은 더러운 결합을 가지기 때문에.

레15:5-‘침대’가 교리를 의미하는바, ‘유출(병)을 가진 자가 누운 모두 각각의 침대는 불결하고, 그 침대와 접촉한 자는 자기 옷들을 빨고, 자신을 물들로 씻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였다.

슌2:15-‘어찌하여 이것이 황폐해져 들짐승의 침상 놓는 장소가 되었는가’=거기는 진리는 하나도 없고 거짓들로 꽂차 있다는 것.

이35:7-그들이 가지는 진리들과 선들이 전에 ‘용들’이 이 있던 곳, ‘드러누울 장소’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창47:31-‘이스라엘은 침대의 머리 위쪽으로 자신을 구부려 절하였다’=그는 자연 평면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 쪽으로 자신을 돌렸다...‘침대’=자연 평면.

창49:33-‘그리고 그는 자기 발을 침대 쪽으로 그러모았다’=내면의 것들을 안에 지닌 더 낮은 것 측면에 관하여; 더 낮은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선과 진리 쪽으로...‘침대’=자연 평면, 고로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선과 진리, 그이유는 이것들이 인간과 더불어 자연 평면을 구성하기 때문.

출7:27-‘네 침대 위에’=가장 안쪽의 것들...‘침대’=가장 안쪽 인 것; 그이유가 ‘침실’=내면의 것들, 침실 안에

있는 침대, 또는 침상(couch)=가장 안쪽 인 것.

출21:18-‘그리고 그가 침대에 눕는다’=자연 평면에서 분리되는 것...‘침대’=자연 평면.

암3:12-‘침대의 모퉁이와 침상의 맨끝’=가장 낮은 자연 평면, 이는 감각의 외적 부분들, 그리고 그것의 진리와 선.

요5:8-‘네 침대를 손에 쥐고 걸으라...’ ‘침대’=교리; 그리고 ‘걷다’=생활.

계2:22-‘보라, 내가 그녀를 침대로 던지겠다’=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교리 안에 남아있게 할 것이다. ‘침대’=교리이라는 것은 상응으로부터 인 데, 그이유는 몸이 침대에 눕듯, 마음은 그것의 교리에 눕기 때문이다.

눅17:34-‘한 침대에 둘’은 한 교리 안에 둘, 그러나 이들이 한 교리 안에 있다해서 삶도 비슷한 것은 아닌 둘이다.

막2:9-‘침대를 손에 쥐고 걷는 것’=교리 안에서 묵상하는 것.

암3:12-‘침대의 모퉁이에서, 그리고 침상의 맨끝에서’=교리의 진리들과 선들로부터 더 멀리.

계2:22-‘보라, 나는 그녀를 침대로 내던진다’=그들은 자연적 인간에, 그 속에 있는 거짓들로부터의 교리에 남아 있게 된다는 것. ‘침대’=자연적 인간, 또한 거짓들로부터의 교리.

암6:4-‘상아 침대들’=교리를 기초한 감각들로부터의 오류들.

눅17:34-‘한 침대 안에 있는 것’=교회의 한 교리 안에.

막2:11-‘일어나라, 네 침대를 손에 들고, 걸어라’=교리, 그리고 그것에 따른 생활. ‘침대’=교리.

침묵 (silence)

계8:1-‘천국 안에 침묵이...’=자기들이 신앙 안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을 보고 놀람.

시28:1-‘나로부터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두 번 말해진다. 그이유는 하나는 신성의 선에, 다른 하나는 신성의 진리에 관계되고 있다.

이47:5-‘침묵 안에, 침묵 안쪽에 앉으라’=거짓들 안에,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짐 안에.

침상 (couch)

암3:12-‘침대의 모퉁이, 침상의 맨끝’=가장 낮은 자연

케이크-코

평면, 이는 감각의 외적 부분, 그리고 그것의 진리와 선.

시132:3-‘내가 펼치는 침상’=교리.

창49:4-‘그는 내 침상에 올라갔다’=그는 자연 평면에 있는 영적 선을 오염시켰다.

침수 (submersion)

출15:4-‘수프 바다 안에 침수되는 것’=그들은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단아결었다.

이43:2-‘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 그것들이 너희를 압도하지 않을 것이다’=진리들에 맞서 거짓들로부터 추론함이 부패하게 못할 것이다.

시124:4-‘그다음 물들이 우리들을 덮쳤다’=거짓들, 인간이 진리들과 진리들에 따른 삶을 통하여 가지는 영적 생명의 파멸.

시69:14-‘내가 가라앉지 않도록 수렁으로부터 건져주소서’=내가 멸하지 않도록 거짓의 악으로부터...

침수시키다 (inundate)

* 범람시키다(inundate)를 보라.

침실 (bedchamber)

창43:30-‘그는 침실 안으로 와서 거기서 울었다’=가상적이 아닌 본래대로에서.

눅12:3-‘너희가 침실에서 귀에 말했던 것을 지붕들 위에서 전파할 것이다.’ ‘침실’=인간의 내면의 것들, 즉 그가 생각한 것, 의도한 것, 그리고 시도한 것.

마6:6-‘침실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기도함’=가상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닌.

침향 (aloe)

시45:8-‘침향’=두번째 등급의 선.

침향목 lignaloe

민24:6-‘자연적 인간의 것들; 그리고 ‘삼목’=합리적 인간의 것들.

칭찬 (praise)

* 찬미하다(glorify)를 보라.

칼 (knife)

* 검도 참조

창22:6-‘그는 불과 칼을 자기 손에 들었다’=사랑으로부터의 선과 믿음으로부터의 진리...희생제에서 사용되

는 칼이 믿음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는 것은 말씀에 있는 ‘검’, 또는 ‘작은 검’의 의미로부터 명백하다; ‘칼’ 대신 ‘작은 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나 이런 차이는 있다. 즉 희생 제물을 위해 사용된 칼은 믿음으로부터의 진리, 그러나 ‘검’=전투하는 진리; 그리고 ‘칼’은 비밀스런 이유에서 말씀에서 드물게 언급되는바,...우리는 ‘검’이 의미하는 것만을 어느 정도라도 알 수 있다.

창22:10-‘그는 칼을 잡았다’=진리 측면에서의 시험. ‘칼’=믿음으로부터의 진리.

이2:4-‘그들은 자기들의 검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 것이다’, ‘보습’=교리 속의 진리들, 이는 동산의 나무들=지각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커튼 (curtain)

양장 (curtain)

장 (curtain)

피륙 (curtain)

출26:7-암염소의 털(wool)로 만들어지는 천막 주택의 ‘커튼들’, 이는 그 안에서 표현되는 거룩한 모든 것들은 그것의 본질 측면에서 순진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다는 표시를 위해서이다. 암염소의 털=순진의 최말단, 또는 가장 바깥쪽, 이는 무지 안에 있는 순진, 즉 이방인들이 지닌 순진과 같은 것, 이 이방인들이 내적 의미에서 성막의 커튼들이다.

출26:1-‘열 커튼들’=이 천국을 존재하게 하는 모든 진리들.

출26:3-‘다섯 커튼들이 거기서 함께, 각각이 다른 것과 결합된다, 그리고 다섯 커튼들은 함께 각각이 다른 것과 결합된다’=진리가 선과, 선이 진리와 끈임없는 교통이 있다.

출26:7-‘너는 주택 위 천막을 위하여 염소들로부터 커튼을 만들어라’=천적 선의 외적 부분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 있는 천국의 외적 부분.

이19:9-‘커튼들’=영적 근원으로부터의 자연적 진리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고 짜깁는 것’=가르치는 것.

예10:20-‘커튼들과 실’=거기로부터 파생된 영적인 것들.

합3:7-‘미디안 토지의 커튼들’=거짓으로 있는 광신적

코를 불며 거칠게 숨을 쉬다-코-보석-코트

인(religiosity) 신앙.

예49:29-‘커튼들’과 ‘집기들’=(영적 왕국의 교회의) 진리들.

이54:2-‘주택의 커튼들을 펼치는 것’=신앙의 진리들로부터 있는 예배의 거룩함.

예10:20-‘커튼들’=이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들, 그리고 그것을 덮음.

케이크 (cake)

과자 (cake)

떡 (cake)

전병 (cake)

창18:6-‘고운 곡식가루 세 분량을 빨리 준비해서 반죽하여 케이크를 만들라’=이 상태에서 그분의 사랑으로부터의 천적 평면.

왕상17:13-그녀가 첫 장소에서 엘리야를 위해 만든 ‘케이크’=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

출12:39-‘그들은 반죽을 구웠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가져온 반죽이고, 누룩 없는 케이크이다’=선의 진리로부터 거짓이 없는 선이 다시 생산되었다... ‘케이크’=선인 이유는 그것들이 빵이기 때문.

출16:31-‘그것의 맛은 꿀 안에 있는 케이크와 비슷했다’=즐거워함이 있던 선, 이는 즐거움을 통하여 진리로부터 선을 만들어갔었던 것과 비슷하다... ‘케이크’=영적인 선.

왕상17장-‘식사(meal)’=선으로부터의 진리; ‘기름’=사랑으로부터의 선; 그리고 ‘그것들부터의 케이크’=그것 자신의 선과 결합된 진리.

출29:2-‘기름을 가진 누룩 없는 케이크’=중간 천적 왕국의 순수해짐. ‘케이크’=중간 천적 왕국.

레2장-‘케이크’=내적 인간 안에 있는 중간 천적 왕국인 이유는 그것들이 순서상 둘째에 있기 때문.

예7:18-‘하늘들의 여왕에게 케이크들을 만드는 것’=천적 사랑의 선으로부터 악마에게 예배하는 것.

호7:8-영적 사랑의 선이 호세아서에서 ‘케이크’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케이크가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케이크’는 원어에서 또다른 단어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즉 이 단어의 경우=영적 사랑의 선; ‘뒤집지 않은 케이크’는 외적 인간이 내적 인

간을 지배할 때 존재한다.

겔4:12,15-‘사람의 똥을 가지고 구운 보리 케이크’=자아 사랑의 악으로 더럽혀진 교회의 내면의 선. ‘수소의 대변을 가지고 구운 케이크’=이 사랑의 악들을 가지고 더럽힌 교회의 외적 선.

예17:17,18-‘하늘들의 여왕에게 케이크를 만드는 것’=갖가지 종류의 지옥의 악들을 예배함; ‘케이크를 만듦’=악들로부터 예배하는 것.

코 (nose)

* 냄새(odor), 냄새말다(smell), 콧구멍도 참조.

창24:22-금장식품이 코에 놓여졌다는 것은 24장 47절로부터 명백하다. 코가 생활의 선을 의미하는 이유는 호흡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적 의미에서 생명이요. 또한 냄새로부터 사랑을 고마워하는 것도 의미한다.

겔23:25-‘코와 귀들을 제거하는 것’=진리와 선에 대한 지각, 그리고 믿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제거하는 것.

겔16:12-‘코에 있는 코고리’=선을 지각함.

신33:10-‘네 코에’=지각하는 것.

이37:29-‘그의 코에 있는 갈고리’=그는 어리석고 아둔해 있을 것; 그 이유가 ‘코’=지각, 그리고 ‘갈고리’=그것에서 추출함; 더 적절한 의미는 육체의 감각적인 것에 폭 빠지고, 합리성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어리석다는 말이다.

코를 불며 거칠게 숨쉬다 (snort)

예8:16-거짓들을 확증함이 ‘그이 말이 코를 불며 거칠게 숨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코-보석 (nose-jewel)

창24:22-‘사람은 금 장신구를 가져왔다’=신성한 선... 금 장신구와 팔찌를 신부에게 주는 것은 관습 중의 하나였다...그리고 교회의 선은 장신구에 의해 표현되어졌다...금 장신구가 코에 놓여졌다.

* ‘코-보석’은 선에 관련되는 결혼의 표장(ensign)이었다.

호2:13- ‘코-보석’=교회의 선에 대한 표장.

겔16:12-‘코에 있는 고리’=선을 지각함.

코트 (coat)

창3:24-‘여호와 하느님께서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를 위

콜로신스-כות구멍-공-공팔

해 가죽 코트를 만드셨다’=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적 선 안에서, 그리고 자연적 선 안에서 가르치셨다...영적 선, 그리고 자연적 선이 ‘가죽 코트’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창25:25-‘첫째가 털많은 코트로 덮은듯하게 털이 많고 붉은 (색의 피부를 지니고) 나왔다’=자연적 평면에서 진리로부터 있는 생활의 선...‘털많은 코트’=자연적 평면의 진리.

창37:3-‘그는 다양한 색깔들로 된 코트를 그에게 만들었다’=거기서부터 진리의 나타남. ‘코트’=자연적 평면 속의 진리.

출39:27-‘아론의 코트’,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

눅9:3-‘한 사람에게 코트 두 (벌)은 안된다’=주님만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코트’=내면의 자연적 진리.

삼하15:32-‘아렉사람 후새가 찢은 그의 코트를 가지고 그를 맞으러 왔다’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5:40-‘코트’, 그리고 ‘망토’=외적 형체 안에 있는 진리.

출28:4-‘바둑판 무늬로 된 코트(튜닉)’=신성한 천적 평면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장 깊은 속에서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코트’=자연적 진리; 그러나 아론을 서술할 경우...‘코트’=영적 왕국에서 가장 깊숙하게 있는 신성한 진리, 고로 이것은 대략적으로 신성한 천적 평면으로부터 진행된다.

출28:39-‘너는 고운 아마포로 코트를 바둑판 무늬로 짠 것이다’=천적 사랑의 진리로부터 진행되는 영적 왕국 속의 가장 깊은 것들...‘코트’가 아론의 옷들의 가장 깊은 것이었는 바, 그것은 이 왕국의 가장 깊은 것들.

창3장-‘가죽 코트들’=천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이 교회의 진리가 ‘가죽 코트’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시45:13, 요19:24-‘왕의 딸의 의복’이 코트를 뜻하는가는 원어에 있는 이 단어의 의미로부터 명백해진다. 즉 육체 다음에 옷이 있음을 뜻하기 때문. 이것이 코트이다는 것은 주님의 가리개가 취급된 요19:24로부터도 명백하다.

삼하13:18-왕의 딸, 그리고 그녀의 의복, 또는 코트,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 왕의 딸들은 그 당시 이와 같은 것들로 옷을 입었다는 것이 삼하13:18, 즉 ‘다말은 여

러 색깔로 된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런 의복으로 왕의 딸들은 치장했기 때문이다.

레10:5-나답과 아비후는 ‘진지 밖으로 그들의 코트를 입은 채 끌어내졌다’, 그 이유가...그들의 코트들에 의해 의미된 영적 선들과 진리들이 더럽혀졌기 때문, 그러므로 그들은 진지 밖으로 코트를 입힌 채 끌려내졌다.

미2:8-‘너희는 안전하게 지나가는 그들로부터 코트를 벗긴다.’ 여기서의 경우 코트는 원어에서 또 다른 단어이다, 그럼에도 이것=영적 진리와 선. ‘안전하게 통과하는 그들로부터 코트를 벗김’=단순한 선 안에서 살고 있는 이들로부터 영적 진리들을 박탈함.

마5:40-‘너를 고소하여 네 코트를 가져가기를 원함’=진리들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설득하기를 원함; ‘코트’=천적 평면으로부터 있는 진리; 그 이유가 천적 인간은 왈가왈부하는 추론 없이 그의 진리를 누군가에게 남겨두기 때문.

마10:10-‘코트’=천적 평면으로부터의 진리; ‘두 벌 코트를 소유하지 마라’...‘두 벌 코트’=주님과 자아 양쪽으로부터의 진리.

출28:40-‘아론의 아들들을 위해 너는 코트를 만들 것이다’=믿음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코트’, 아론에 관련해 서술될 때,=영적 왕국에서 가장 깊숙이 있는 신성한 진리, 고로 천적 왕국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것; 그러나 아론의 아들들에 관련해 서술될 때, ‘코트’=믿음 속에 있는 것, 그 이유가 그것=천적 평면으로부터 있는 영적 평면으로부터 진행하기 때문; 이 진행이 소위 신앙 속의 진리이다.

출29:5-‘(너는 아론에게) 코트(를 입힐 것이다)’=이 왕국의 가장 깊은 것. 아론이 입는 ‘코트’=신성한 천적인 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신성한 영적인 것, 고로 영적 왕국의 가장 깊은 것.

출29:8-‘너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코트를 입혀라’=신성한 영적 진행의 표현. ‘아론의 아들들의 코트’=아론의 ‘코트’에 의해 표현된 신성한 영적인 것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창3:21-‘가죽 코트’=진리의 외관, 이 안에만 그들은 머물렀다.

미2:8-‘코트를 벗기는 것’=그들에게서 진리들을 뺏는

콜로신스-콧구멍-콩-콩팥

것.

마5:40-‘코트’=내면의 진리; 그리고 ‘외투(cloak)’=외면의 진리.

콜로신스 (colocynth)

왕하4:39-‘야생 덩굴식물(wild vine)로부터의 호리병박(gourd)들’=거짓화됨.

콧구멍 (nostril)

* 코, 냄새 참조

창2:7-‘생명들의 숨을 그의 콧구멍 안으로 불어 넣는 것’=그에게 믿음과 사랑의 생명을 주는 것.

출15:8-‘당신의 콧구멍들의 바람’=천국...이 표현에 의해 생명의 숨, 고로 신성한 생명이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의 생명을 만들기에 ‘여호와와 콧구멍들의 바람’은 천국을 의미하게 된다.

창2:7-‘콧구멍들을 통하여’라고 말해진 이유는 호흡이 콧구멍을 통하여 있기 때문, 그리고 호흡을 통하여 생명이 있기 때문.

창2:7-‘콧구멍에’=선을 뜻함과 진리를 이해함의 지각 안으로, 고로 ‘생명들의 혼’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

애4:20-‘우리의 콧구멍들의 영’=선과 진리의 지각의 생명.

콩 (bean)

겔4:9,12,13-‘콩과 렌즈콩’=선의 덜 고상한 종류들.

겔4장-‘밀, 보리, 콩, 렌즈콩’ 등등=선의 종류들과 이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종류들.

콩팥 (kidney)

신32:14-‘밀의 콩팥의 지방(fat)’=사랑과 선행의 천적인 것.

출29:13-‘두 콩팥, 그리고 그것들에 있는 지방’=외적 인간의 내면의 진리와 그것의 선. ‘콩팥’= 내면의 진리들.

시51:6-‘믿음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콩팥’에 의해 의미되어진다는 것은 다윗의 시 ‘여호와, 보라, 당신은 신장 속에서 진리를 원하신다’로부터 아주 명백하다.

출29:22-‘두 콩팥, 그것들 위의 지방’=자연적 인간의 순수해진 내면의 진리와 그것의 선. ‘콩팥’=외적 인간 또는 자연적 인간의 내면의 진리...순수하게 된 진리가 콩팥에 의해 의미된 이유는 콩팥이 피를 깨끗하게 하

는 기관이기 때문. 그리고 피=진리.

계2:23-‘나는 신장과 심장을 뒤지시는 분이시다’=주님만이 외면의 것들과 내면의 것들, 그리고 믿음과 사랑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시고 조사하신다는 것...‘신장’=믿음 속의 진리들, 그리고 거짓들로부터 그것들이 깨끗해짐.

예12:2-‘당신은 그들의 입에는 가까우나 그들의 신장으로부터는 멀다’=그들이 이야기할 때, 진리만이 그들의 기억 속에, 생각 안에 있으나 그들의 의지와 행동에는 있지 않다는 것. 의지에, 고로 행동에 있는 진리만이 거짓들을 분리하고 흠뜨린다...이 진리가 ‘신장’에 의해 특별히 의미되고 있다.

예17:10-‘신장을 입증하는 것’=거짓인 것을 분리함으로써 진리를 깨끗케하는 것.

시51:6-이 구절에서 ‘신장’은 또 다른 단어에 의해 독창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져 있다, 이 단어 신장은 진리들로부터 거짓들을, 그리고 선들로부터 악들을 분리함이라는 두 측면 모두를 망나하고 있다. 이로부터 ‘신장’에 의해 깨끗해짐과 분리됨이 의미되어진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시16:7-진리들이 거짓들과 전투함이 ‘내 신장이 나를 밤중에 응징했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시139:13-‘신장을 점유하는 것’=인간과 더불어 거짓들과 진리들을 아는 것.

* ‘신장을 점유하는 것’=거짓들로부터 진리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큐빗 (cubit)

* ‘큐빗’=품질, ‘측량, measure’과 같다.

크게 기뻐하다 (exult)

계18:20-‘그녀로 해서 크게 기뻐하라 오 천국아’=지금 천국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런지 모른다. 그이유가 크게 기뻐함은 심정의 환희이기 때문.

계19:7-‘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영혼의 환희와 심정의 환희(joy)

시45:15-‘그들은 환희와 크게 기뻐함과 더불어 데려와 질 것이다’=천국적 환희와 함께.

크게 하다 (enlarge)

이54:2,3-‘네 천막의 자리를 크게 하는 것’=선으로부터

큰 사람들-큰 짐승-큰 폭포-키스

터의 예배 측면에서 교회를 확장하는 것... '좌우로 퍼지는 것'=선행의 선, 신앙의 진리 측면에서 크게 하는 것.

이54:2-선이 열매맺음과 진리가 번창함이 '크게하는 것'과 '퍼는 것(extend)'에 의미되어져 있다.

창9:27-'하느님께서 야벳을 크게 하실 것이다'=거기로 부터의 계발.

이54:2-'네 천막을 크게 함'=영적인 것들에서 계발됨.

슌2:10-'백성 위에서 크게 하는 것'=거짓.

창26:22-'지금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더 커지게 만드신다'=진리의 증대. '크게 되어지는 것'=진리의 증대를 받는 것.

출34:24-'나는 네 경계를 크게 되게 만들 것이다'=선으로부터 진리가 번창하고 확장됨.

마23:5-'그들이 크게 한 성구함들'=외적 형체에 있는 선들.

크시타 (kesithae)

창33:19-'일 백 크시타'=충분한 것... '크시타', 이는 동전들(coins)인바, 내적 의미에서 이런 (내면의) 진리들이 의미된다; 그이유가 이 단어는 진리를 뜻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되기 때문. (시60:6 참조)

큰 (great)

위대한 (great)

창12:2-'나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것이다'=영광.

창18:18-'크고 수많은 나라'=선과 파생되는 진리. '큰'은 선을 서술한다.

창19:11-'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까지'=세세한 것에서와 전체적인 것에서.

창21:8-(신성과 주님의 인간의) 합일이 취급되기 때문에, '큰 축제'라 불리운다.

창25:23-'더 큰 것이 더 작은 것을 섬길 것이다'=이 선은 한동안 진리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창39:9-'그는 이 집에서 내 위에 있지는 않다'=이 선은 시간에서 앞서나 상태에서는 아니다.

창41:40-'나의 왕좌만이 네 위에 있을 것이다'=그것은 마치 자연 평면으로부터 이었던 것처럼 여전히 나타날 것이다.

창48:19-'그는 위대해질 것이다'=그것은 불어날 것이

다.

창50:20-여기서,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그이유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는 진리로부터 있는 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

출3:3-'위대한 광경(vision)'이라 불리운다. 그이유는 최고 의미에서 떨기나무에 있는 불꽃에 의해 신성의 진리가 주님의 인간 안에서 신성의 선에 하나됨을 의미하기 때문.

출34:6-'선함에서 위대하심과 진리'=그분은 선 자체요 진리 자체이시다는 것.

계11:18-'작고 큰'에 의해 주님을 경외하는 수준에서 덜한 자와 더한 자들.

계12:3-용이 '크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개혁 교파의 모든 교회들이 하느님을 세 인물들(three Persons)로 구별하고, 구원해주는 것은 믿음 뿐(faith alone)...

계13:5-'큰 것들과 성령 모독을 말하는 입이 주어졌다'=악들과 거짓들을 가르치는 것... '큰'은 선을 서술하나 반대 의미에서는 악을 서술한다.

계13:16-'작고 큰'은 여기서의 경우 각 사람의 칭호의 수준이 크든 작든, 고로 각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 이든을 뜻한다.

계15:1-'크고 굉장한'=사랑과 신앙에 관하여... '크고'는 애착과 사랑으로부터 있는 것들을 서술한다.

계19:5-'작고 큰'=신앙의 진리들로부터와 사랑의 선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이 덜한 자와 더한 자들.

계19:17-'큰 음성으로 소리치는 것'=신성의 열정으로부터.

계20:11-왕좌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심판은 신성의 선으로부터 결과되어진다는 것; 그이유가 '큰'이 선을 서술하기 때문.

계20:12-'작고 큰'=무슨 조건과 품질로부터 이든.

계21:3-'큰 음성'=사랑으로부터의 말(speech), 그이유가 '큰'이 사랑을 서술하기 때문.

계21:10-'크고 높은 산 위에'=세제 천국 안으로, 이 천국은 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고, 그분으로부터의 진짜 진리로부터의 교리 안에 있는 이들이 있는 천국이다; 그이유가 '크고'는 사랑의 선을, '높다'는 진리들로부터의 선을 서술하기 때문..

키작은 나무-(짐승을)타다

계21:12-‘크고 높은 벽’이라 말해지는 이유는 이 성벽이 신성의 선과 신성의 진리 측면의 말씀을 뜻하기 때문; 그이유가 ‘크다’는 선을, ‘높다’는 진리를 서술하기 때문.

계11:1-‘큰’=놀랄만한 것.

계13:13-‘그는 큰 표시들을 행한다’=증거함과 설득함들.

큰 사람들 (great man)

계6:15-‘큰 사람들’=선들 안에 있는 이들.

계18:23-‘큰 사람들’=교회 계급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예14:3-‘큰 사람들’=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이들.

나3:10-‘큰 사람들’=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예5:6-‘예루살렘의 큰 사람들’=진리들과 선들을 가르침에서 다른 이보다 앞 설 이들.

큰 짐승(하마 behemoth)

욥40,41장-‘큰 짐승’과 ‘거대한 해수(바다 짐승, Leviathan)’이 취급되는데, 자연적 인간이 이 둘 모두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큰 짐승’에 의해서는 자연적 사랑의 기쁨들이라 불리는 선들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을, ‘거대한 해수’에 의해서는 자연 빛이 오는 것, 즉 과학물들과 지식들이라 불리는 진리들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이 의미되어진다.

욥41:15-‘큰 짐승’에 의해 ‘짐승, beast’에 의한 뜻과 같다. 즉 인간 안에 있는 자연적 애착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큰 짐승을 보라’라고 말해진다.

큰 폭포 (cataract)

말3:10-‘하늘의 큰 폭포들’

창7:11-‘하늘의 큰 폭포들이 열려졌다’=지적인 것에 관련된 시험의 마지막 수준...‘하늘의 큰 폭포’는 거짓들, 또는 추론들이 범람함...높은데로부터 큰 폭포들이 열린다(이24:18).

이24장-‘높은데로부터 열린 큰 폭포’=악과 거짓의 범람.

키스 (kiss)

창27:26-‘나에게 키스해라 나의 아들아’=그가 하나가 될지 안될지. ‘키스하는 것’=하나가 됨과 애착으로부터

결합함.

창27:27-‘그는 다가가서 그에게 키스했다’=현존과 하나됨...‘키스하는 것’=애착으로부터 하나됨 또는 결합.

시2:12-‘아들에게 키스하는 것’=사랑으로부터의 신앙을 수단으로 주님과 결합되는 것.

시85:10-‘정의와 평화가 키스한다’=그것들이 자신들과 결합하는 것.

호13:2-그들은 ‘송아지들에게 키스한다’고 말해진다. 즉 마술을 포용하고, 그것에 자신을 연합하는 것.

왕상19:18-‘바알에게 키스하지 않은 모든 입.’ ‘키스하는 것’=애착으로부터 자신들을 결합하는 것, 고로 예배하는 것.

창30:11-‘야곱이 라헬에게 키스했다’=내면의 진리들을 향한 사랑. ‘키스하는 것’=애착으로부터 하나가 됨과 결합함. 결과적으로 사랑...

창30:13-‘그리고 그에게 키스했다’=개시함.

창31:28-‘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키스하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진리들과 선들 측면에 관련하여 분단됨.

창31:55-‘(라반은)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키스했다’=이런 진리들을 인정함, 그리고 이런 진리들에 애착함을 인정함.

창33:4-‘그는 그에게 키스했다’=사랑으로부터 있는 내면적 결합.

창41:40-‘네 입에 모든 나의 백성은 키스할 것이다’=거기 모든 것은 그에게 순종함 아래 있을 것이다. 그의 입에 키스하는 것’=그가 명령하는 것을 인정하고 행한다. 고로 순종한다.

창45:15-‘그는 그의 모든 형제에게 키스했다’=은총으로부터 인접됨.

창48:10-‘그는 그들에게 키스했다’=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결합함. ‘그는 그들을 포용했다’=선에 애착함으로부터 결합함.

창50:1-‘그는 그와 키스했다’=첫 결합.

출4:27-‘그리고 그에게 키스했다’=결합에 애착함. ‘키스하는 것’=애착으로부터 결합함.

겔1:23-‘날개들이 서로서로 키스했다’=결합하여 만장일치로 행동하는 것.

타다남은 나무-타락-타작기-타작 마당-타작하다-탁월함-탁자

키작은 나무 (shrub)

관목 (shrub)

창21:15-하갈은 '아이를 키작은 나무 중 하나 아래에 내던졌다'=어떤 진리와 선을 지각하지 못해 자포자기 함. '키작은 나무'=지각함, 그러나 지각함이 너무 적어 거의 어떤 것도 지각 못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음.

창2:5-천적 인간의 과학물과 합리성이 '관목'과 '풀잎'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 '들판의 관목'=그의 외적 인간이 생산하는 일반적인 모든 것.

* 평화로부터 있는 고요함이 '들판의 관목'으로 불리는 것을 생산한다. 그리고 '들판의 풀잎', 이는 특별한 측면에서=천적인 것의 영적 근원으로부터의 합리성과 과학적인 것들.

이7:17-'키작은 나무들'=비슷한 종류의 미성숙한 진리들.

(짐승을) 타다 (ride)

기수 (승마자, rider, horseman)

기병 (horseman, cavalry)

시45:4-'진리의 말(word) 위에 타는 것'=진리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 (=진리의 총명).

예17:25, 22:4-'병거를 타고 말을 타는 것'=지적인 것들이 풍부함.

창49:17-'(뒤쪽으로 떨어지는) 그의 승마자'=가르치는 자.

시68:4-'구름들을 타는 것'=말씀의 내면들 측면에 관련하여 말씀을 이해함.

시18:10-'그룹을 타시는 여호와'=인간이 말씀 안에 있는 신앙의 신비들 안으로 자신으로부터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섭리.

예17장-'병거 위에 타는 것', '말 위에 타는 것'=내적 이해와 더불어 말씀으로부터 진리의 교리 안에서 훈육 되는 것.

이58:14-'땅의 높은 곳 위에서 타는 것'=총명.

숙12:4-'내가 광기로 그의 기수를 강타할 것이다'=총명있는 자가 광기로 쳤다.

창24:61-'그들은 낙타들 위에 탔다'=지적 평면이 자연적 과학물 위쪽으로 승강했다.

창50:9-'기수'=지적인 것들.

출4:20-'그는 그들을 나귀 위에 태웠다'=새로운 총명을 섬기는 것들. '타는 것'=이해함으로부터 있는 것들.

겔26:10-'네 벽들은 기수들의 씨끄러움에 흔들릴 것이다...'-'기수'=뒤집힌 지적 평면의 것들.

출15:21-'말과 기병을 그분은 바다로 던지셨다'=그분의 현존하심에서 신앙으로부터의 거짓들과 생활로부터의 악들은 그 자체 지옥에 내던진다. '말과 기병'=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을2:4-'달린 기병들'=추론자들.

왕하8:14-엘리아와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기병'이라 불리웠는데, 그이유는 그들은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 했기 때문; 그리고 '기병'에 의해서는 총명이 의미되어져 있다.

계9:16-'기수들'에 의해 신앙 만에 관하여 추론함들, 그이유는 '말'이 파괴된 말씀의 이해를 의미하기 때문.

창49장-'그의 승마자'=그것들로부터 진리의 결핍, 이 로인해 진리들이 뒤집힘.

예6:23-'말 위에 타는 것'=감각의 오류로부터, 그로부터의 추론들을 통하여 설득하는 것.

합3:8-'말 위에 타는 것'=주님은 영적 의미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함 안에 계시다는 것.

타다남은 나무 (firebrand)

이7:4-'연기나는 타다남은 나무들'=분노.

숙3:2-'불에서 잡아뽑은 타던 나무 조각'=진리가 아주 조금 남아있음.

타락 (fall)

창2:17-신앙의 신비들을 감각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조사하고 싶은 인간의 바람은 태고 교회의 타락, 즉 이 교회 후손들의 타락의 원인이었을 뿐 아니라, 이것은 모두 각각의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 이유가 이 때부터 거짓 뿐만 아니라 악의 생활도 오게 하기 때문이다.

타작기 (threshing-sledge)

이41:15-외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날이 선 이빨을 가진 새로운 타작기'에 비교되고 있다. 그 이유가 타작기는 이삭으로부터 밀, 보리, 여타 다른 낱알들을 때려서 가려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들=교회의 선들과

탄원하다-탈 것-탈출하다-탐-탕자-태-태생

진리들; 여기서는 그러므로 악들과 거짓들을 깨트리고 부수는 것.

타작 마당 (threshing floor)

호9:2-사랑의 선은 낱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빵으로부터 '타작 마당'이다.

창50:10-'그들은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렀다'=첫 상태; 그 이유가 '타작 마당'=진리로부터의 선이 있는 곳이기 때문; 타작 마당에는 낱알이 있는바, 낱알은 진리로부터 있는 선, 또는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마3:12-'타작 마당'=분리가 결과하는 곳.

율2:24-'타작 마당'=교회의 교리.

호9:1,2-'모든 곡식 마당들 위에'=말씀 속의 모든 것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모든 것들; 그 이유가 '곡식', 이로부터 빵이 있는바,=영적으로 자양분을 주는 모든 것, 그리고 '타작 마당'=함께 집합되어 있는 곳, 고로 말씀. '타작 마당과 압착기가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다'=그들은 말씀으로부터 선행의 선들과 사랑의 선들을 길어내지 않을 것이다, 고로 영혼에 자양분을 대줄 어떤 것도 길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이유가 이 구절에서 '타작 마당'=선행의 선들에 관련하여 있는 말씀; 그리고 '압착기'=사랑의 선들에 관련하여 있는 말씀; '압착기'는 여기서 기쁨이 의미되어진다.

신16:13-'타작 마당의 생산물'=교회의 모든 선; '빵'과 '곡식'도 이와 같다.

타작하다 (thresh)

미4:13-'일어나 타작하라 시온의 딸아.' '타작하는 것'=홀으는 것.

탁월함 (eminence)

창49:3-'탁월함도 우수하고, 힘에서도 우수하다'=거기로부터 영광과 힘이 있다. '탁월함도 우수하고'=영광,

탁자 (table)

상 (table)

시23:5-'당신께서는 제 앞에 탁자를 준비하신다'=선행의 선을 수여하심.

이65:11-'갓을 위하여 탁자를 준비하는 것'=일 만에 있는 것.

출25:23-'너는 탁자를 만들어라'=천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receptacle)

출25:28-'탁자는 (장대들을) 가지고 운반된다'=(천적인 것들의 그릇으로부터의 선의 상태에서) 계속됨.

출26:35-'너는 베일 바깥쪽에 탁자를 놓을 것이다'=사랑 속에 있는 천적인 것들을 통하여 유입됨.

출26:35-위에 얼굴들의 (빵) 덩어리(loaves)가 있는 '탁자', 그리고 맞은 편에 촛대=천적 선 측면에서의 주님, 이 선 자체로부터, 이 선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영적 왕국 안으로 흘러드신다.

출26:35-'너는 북쪽에 탁자를 놓아라'=희미함에 있는 선...그이유가 영적 왕국에서는 선이 진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

출30:27-'그리고 탁자와 그것의 모든 집기들'=둘째 천국 속에 있는 천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영적 선 안에; 그리고 섬기는 진리들과 선들 안에.

눅16:21-부자의 탁자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로 (배) 채워지기를 바람=말씀으로부터의 얼마간의 진리들을 갈망함.

이28:8-'모든 탁자들이 무익하여 토해낸 것으로 가득하다...' '탁자'=영적 생명에 자양분을 주는 모든 것들; 그이유가 '탁자들'에 의해 그것들 위에 있는 음식이 뜻해지기 때문...그러므로 (위 구절에서는) 왜곡되고 섞음 질된 모든 것들이 의미된다.

시127:3-'탁자 빙둘러 아들들'=파생되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탁자'=가르침. '탁자 빙둘러'=영적으로 자기 것 됨으로부터의 즐거움들과 자양분.

시23:5-'당신께서는 내 적들의 현존에서 제 앞에 탁자를 놓으신다.'...'탁자'=영적 자양분.

시69:22-'그들 앞의 탁자가 덧이 되게 하신다'=...말씀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모든 진리 측면에서 타락 쪽으로 가고 있다. '탁자'는 영적 음식을 위해 말해지고 있다.

겔39:20-주님의 식탁에서 말과 병거와 용사와 전쟁의 모든 사람과 함께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말씀으로부터 충분히 가르침을 받는 것.

마21:12-'환전상의 탁자'=거룩한 진리들로부터 (이익을) 만드는 자들.

탄원하다 (supplicate)

출8:8-'여호와께 탄원함'=굴종함, 진저리남으로부터

태양

출8:9-‘탄원하는 것’,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탄원인 바=중재함.

탈 것 (carriage)

이66:20-‘말, 병거, 마차’=지적, 교리적인 것들.

계18:13-‘말들, 그리고 탈 것들’=말씀을 이해함에 따른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교리.

이66장-‘마차들’=진리에 관한 지식들.

계18장-‘탈 것들’=합리적 근원으로부터의 선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말들에 의해 견인되기 때문, 이를 수단으로 그 근원으로부터 진리들이 의미된다.

이66장-‘마차들’=선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

탈출하다 (escape)

창14:13-‘탈출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말했다’=주님께서 그분의 내적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셨다.

창45:7-‘큰 탈출로’=지옥에 떨어짐으로부터 구제됨.

출10:5-‘탈출된 것의 잔여분, 우박으로부터 너희에게 남은 것을 먹을 것이다’=진리로부터 뭔가를 지니는 모든 것들이 소진됨.

애2:22-‘탈출자도 남은 자도 없다’=선과 진리가 없다.

예42:17-‘그들은 탈출자도 남은 자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진리와 선 무엇이든 남아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탑 (tower)

* 경비원도 참조.

창9:4-‘도성과 탑을 건설하자’=그들은 어떤 교리와 어떤 예배를 창안했다는 것.

* 탑=자아를 예배함.

* 망루(감시탑)=몽상들

* 산들과 탑들=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주님은 악마에 의해 높은 산과 성전 꼭대기로 이끌려졌다.

창35:21-‘에텔 망대를 넘어’=그것의 내면 안으로.

이30:25-‘탑들’=거짓의 교리. (=악들과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 특히 교회의 거룩한 것들을 수단으로 지배욕 안에 있는 이들).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거짓들...그 이유가 영계에서 교회 속의 것들을 수단으로 지배하려드는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높은 장소에 탑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

이2:15-‘탑’ 그리고 ‘벽’=교리 속의 확증된 거짓들.

시48:12-‘그 탑들을 세어보는 것’=이 교회의 더 높은 진리인 내면의 진리들을 생각해보는 것.

이33:18-‘탑들’=내면의 진리들.

겔29:10-‘스웨네의 탑으로부터 구스의 경계까지’=첫 순위로부터 최말단에 까지.

이5:2-‘그들은 그것의 한가운데에 탑을 지었다’=내면의 것들 안으로 유입이 있다, 이를 통하여 천국과 소통함이 있다.

마21:33-‘그리고 탑을 건축했다’=이 선으로부터의 내면의 진리들, 이 진리가 천국을 찾는다.

탕자 (prodigal son)

눅15장-‘탕자’는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천국의 재물을 낭비한 이들을 의미한다.

태 (womb)

* 자궁을 참조.

태생 (nativity)

* 태어남(born)을 보라.

창2:4-‘천국들과 땅들의 태생들’=천적 인간의 형성들.

이29:23-‘태어난 자’, 또는 ‘아이들’=선과 진리인 것에 대해 총명을 가진 거듭나는 자.

창6:9-‘노아의 태생들’=새로운 교회의 개혁되는 자, 또는 거듭나는 자를 묘사함.

태양 (sun, solar)

마24:29-‘태양’=사랑, 이것이 어두워지리라는 것. (=사랑과 선행이라는 천적인 것이 어두워지리라는 것), (=선행 없음), (여기서의 ‘태양’=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선행), (이 구절의 ‘태양과 달’=사랑과 선행, 또는 선과 진리...이것이 그 당시 멸해진 것이다. 천사들은 ‘어두워질 태양’이 언급될 경우, 그들은 태양이 아닌 주님을 사랑함을 통각한다. 그리고 달의 경우, 주님에 대한 신앙을 통각한다. (‘태양’=사랑 측면에서의 주님, ‘달’=신앙 측면에서의 주님.)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사랑과 선행이 더 이상 없다.) (‘태양’은 이 구절, 기타 많은 구절에서 사랑을, ‘달’은 신앙을, ‘별’은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 ‘하늘들의 권능들’은 위 셋이 천국들과 교회를 떠받치고 안정되게 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셋이 한 구절에 모여 한 의미를 전달할 경우는 사랑 없음, 신앙 없음,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 없

태양

음이 교회의 마지막 때의 기독교 안에 잔존할 것이다를 의미하게 된다.)

계12:1-‘태양’=사랑. (=천적인 사랑) (=사랑의 선) (=주님으로부터의 사랑과 지혜.)

시139:36-‘태양’=사랑.

시72:5- ‘태양’=사랑.

이54:12-‘태양들’ 또는 창물들=선행으로부터의 지적인 것들.

을2:10-‘태양과 달’ 즉 사랑과 믿음. (사랑의 선과 그것의 진리.)

이1310-이런 예배의 내적인 것은 거룩한 사랑인 ‘태양이 검게 됨’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주님을 사랑함이 인간에게 공표될 수 없다는 것.)

창15:12-‘해질 때에’=종말 직전의 상태와 시간; 그이유가 ‘태양’=주님, 이로부터 사랑과 선행 속에 있는 천적인 것들, 결과적으로 사랑과 선행 자체. 고로 ‘태양이 저물’=교회의 마지막 때.

창19:23-‘태양이 땅 위로 솟았다’=마지막 심판이라 불리는 마지막 때...(그이유가) 태양의 떠오름, 또는 태양이 땅 위로 솟음=주님의 현존 자체, 그 이유는 ‘태양’과 ‘동쪽’ 둘 다=주님...그이유가 다른 삶에서 주님은 보편적 천국의 태양이기 때문; 이 태양은 그들의 눈 앞에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의 신성한 천적인 것이기 때문.

이24:23-‘해가 부끄러워한다’=선행이 부끄러워할 것임.

이60:19-‘태양은 낮에 더 이상 네 빛이 되어주지 않을 것’=자연적 빛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닌 영적인 빛 속에 있는 것들.

창28:11-‘해가 저물었기에’=희미함 안에.

미3:6-‘태양이 예언자들 위에서 내려 갈 것이다’=그들은 어떤 진리도 더 이상 가지지 못할 것이고 진리를 이해함도 더 이상 없다.

암8:9-‘정오에 태양이 내려가게 할 것’=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진리에 관련하여 희미해짐. (=천적 사랑의 선이 퇴조하리라는 것)

이60:20-‘태양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그들은 선속의 생활 안에, 지혜 안에 있을 것, 그 이유는 천적인 사랑과 주님의 빛 안에 있기 때문.

시104:19-‘태양은 그의 내려감을 알고 있다.’ ‘태양’=주님으로부터의 지혜.

창32:31-‘태양이 그 사람 위로 올라왔다’=선들의 결합.

창37:9-‘바라보니 해와 달’=자연적 선과 자연적 진리. (그이유가) ‘태양’=천적인 선...‘태양’ 최고 의미에서 =주님, 그 이유는 그분은 천적 사랑, 또는 선에 있는 천국의 사람들에게 태양이기 때문...여기서의 경우, ‘태양’=자연적 선...그 이유는 이 대목은 야곱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

예31:35-‘낮의 빛을 위해 태양을 주신 분’=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

계6:12-‘태양은 머리털로 짠 베포 같이 검게 되었다...’ 태양=사랑의 선.

겔32:7-사랑의 선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나는 구름으로 태양을 덮을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출16:21-‘태양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것은 녹았다’=그것은 육의 욕망이 증가함에 따라 사라진다는 것.

출17:12-‘해가 질 때 까지’=상대가 중단되었을 때.

출22:3-‘만일 태양이 그 사람 위에 떠올랐었다면’=만일 그가 그것을 내면인 것으로부터 볼 것이라면.

이30:26-‘태양’=주님으로부터의 사랑, 고로 주님을 사랑함...‘태양의 빛이 일곱 날의 빛 만큼 일곱 배’=사랑과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총명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

마13:43-‘정의로운 자는 하늘의 태양 같이 빛날 것이다’=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이들; 그이유가 주님은 다른 삶에서 태양이시기 때문

말4:2-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태양 같이 사랑의 선이 있다. 그런고로 주님은 ‘정의의 태양’이라 불린다.

예31:35-‘낮의 빛을 위한 태양’=사랑의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빛이 있다.

겔8:16-이 구절의 ‘태양과 태양의 떠오름은’ 세상의 태양과 그것의 떠오름을 뜻하고 이를 수단으로 자아사랑이 의미되어진다...그런고로 세상의 태양은 천사들의 생각에서는 그들 뒤에 지독하게 희미한 어떤 것으로 표출된다.

계9:2-‘태양과 공기가 검게 되었다’=진리의 빛이 짙은

태양

어둠을 만들었다.

마5:45-‘그분은 그분의 태양을 악한 자 위에,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만드신다.’ ‘태양은 이 구절, 여타 많은 구절에서도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이 의미되고 있다.

계1:16-‘그분의 얼굴은 그분의 권능 안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었다’=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지혜, 이는 그분 자신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으로부터 진행되어 나온다...주님은 천국에서 천사들 앞에 태양 같이 보여진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지혜와 함께 그분의 사랑이 해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계6:12-‘태양은 머리털로 된 베옷 같이 검게 되었다’=그들과 더불어 사랑의 모든 선은 섞음질 되었다...‘태양’은 신성한 사랑에 관련한 주님, 고로 그분으로부터의 사랑의 선이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하심이 부인됨, 고로 사랑의 선이 섞음질됨.

계7:16-‘태양이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이후 그들은 악에 대한 욕의 욕망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태양’=신성한 사랑과 이로부터 파생된 선에 애착함; 반대 의미에서 악마의 사랑, 그로부터 파생되는 악에 대한 욕의 욕망.

계8:12-‘태양과 달과 별들의 각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다’=거짓들로부터의 악들과 악들로부터의 거짓들 때문에 그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진리도 알지 못한다. (=사랑의 모든 선, 믿음 속의 모든 선과 진리, 그리고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들이 멸해졌다.)

계9:2-‘태양과 공기가 구덩이의 연기로부터 어두워졌다’=그로부터 진리의 빛이 짙은 어둠이 되었다. ‘태양과 공기’는 여기서 진리의 빛을 의미한다. 그이유가 ‘태양’은 사랑을 의미하고, 태양으로부터의 빛은 신성한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태양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동시에 ‘공기’가 말해질 때 신성한 진리가 짙은 어둠이 되었다를 뜻하게 된다.

계12:1-‘여인이 태양으로 둘러싸이고 달은 그의 발 아래’=천국들 안에 있는 주님의 새 교회, 이 천국은 새 천국이다; 그리고 땅 위에 있게 되는 주님의 새 교회, 이는 새 예루살렘이다...여인이 태양으로 둘러싸였음이 보여진 이유는 새 교회는 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기 때

문이다. 이 교회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함이다...땅 위에 교회가 있듯 천국들 안에도 교회가 있다...그리고 거기의 교회가 여인이 태양으로 둘러싸고 그녀의 머리에 열 두 별의 왕관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계16:8-‘네째 천사가 태양 안으로 그의 대접을 쏟았다’=그들의 사랑 안으로 유입이 있음...그이유가 ‘태양’을 수단으로 주님의 신성한 사랑이 의미되기 때문,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자아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

계19:17-‘나는 태양 안에 서있는 천사를 보았다’=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주님.

계21:19-‘그 성은 성을 비출 태양과 달이 필요 없다’=이 교회의 사람들은 자아 사랑 안에 그리고 자아 총명 안에, 이로인해 자연적 일 뿐인 인간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여기서 ‘태양’은 영적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사랑, 즉 자아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계22:5-‘그들은 등불과 태양의 빛이 필요 없다’=새 예루살렘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 고유의 총명인 자연적 빛(lumen)으로부터, 그리고 자만에 근원을 둔 영예로부터 하느님에 관한 지식들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24:23-‘태양과 달’=그들의 우상적 예배, 또한 믿음 속의 거짓과 사랑 속의 악.

예31:35-‘태양으로부터 낮의 빛이 있다’=천적인 사랑의 선으로부터 진리의 지각이 있다.

시104:22-‘태양이 떠오름’=사랑과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지혜에 관련된 주님.

말4:2-‘여호와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떠오르는 정의의 태양’=사랑의 선. ‘그의 날개에서 치료함’=신앙 속의 진리.

시121:6-‘태양’=자아 사랑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악.

말1:11- ‘태양의 떠오름부터 내려감 까지’=선이 있는 모든 곳.

겔32:7-‘나는 구름으로 태양을 덮을 것이다’=사랑의 선이 없음.

이49:10-‘열과 태양’=거짓의 원리로부터 그리고 악을 사랑함으로부터의 뜨거움.

사5:31-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 관해서 말해지는데,

태양의-태어남

‘그의 힘 안에서 태양이 떠오름 같이’...

마13:43-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그들은 태양 같이 빛날 것이다....그들의 얼굴에 관련하여 그들은 태양의 광휘 같이 빛날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의 신성한 사랑이 그들에 소통되고, 그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그럼으로 주님은 그들의 내면들 안에 있고, 이것이 얼굴에서 자신들을 명명백백해지게 하기 때문이다.

시89:36-‘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이’=사랑의 선인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그분의 천국과 교회.

시72:5-주님은 천적 왕국 안에 있는 이들에게 태양 같이, 영적 왕국 안에 있는 이들에게 달 같이 나타나시며, ‘그들은 태양과 더불어 당신을 두려워하며, 세세토록 달 앞에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말해지고 있다....그분으로부터 태양 같이 진행되는 빛은 그분으로부터 달 같이 진행되는 빛과는 다르다. 마치 세상에서 낮을 비추는 태양과 밤을 비추는 달 같다... 그러므로 태양의 빛 안에 있는 이들은 순수한 신성한 진리 안에 있다.

이30:26-천적 왕국에 있는 진리가 그 당시 사랑의 선이 되었을 것임이 ‘태양의 빛은 일곱 날의 빛 같이 일곱 배 일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60:20-그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은 멀해지지 않을 것임이 ‘태양은 더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이유가 주님은 그분을 사랑함의 선 안에 있는 이들에게 태양 같이 나타나기 때문...그러므로 ‘태양’에 의해 주님을 사랑함의 선이 의미되고 있다.

암8:9-‘태양이 저무는 것’=생활의 악...그이유가 ‘태양이 떠오름’=사랑의 선, 이것은 생활의 선이다; 그리고 ‘해가 짐’=악의 사랑, 즉 생활의 악.

여10:12-태양이 ‘기브은 위에 아직 서있었다’라고 말해졌다=교회는 선에 관련하여 완전하게 황폐되었다는 것.

이24:23-‘달이 얼굴을 붉히고 태양이 수줍어 할 것이다’=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의 어떤 받아들임도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그이유가 ‘달’과 ‘태양’= 믿음 속의 진리와 사랑 속의 선이기 때문; 그리고 이것들이 ‘얼굴을 붉히고 수줍어함’이라 말해질 때,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선과 진리의 받아들임은 없고 오히려 악과 거짓만이 그것들의 장소에 받아들여져 있다는 것.

시136:8-‘태양’은 ‘낮을 규율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말해진다. 그 이유는 ‘낮’=영적 인간의 빛, 그리고 그는 사랑의 선으로부터 지각과 계발을 가지기 때문, 그리고 ‘달과 별들’은 ‘밤을 규율하도록’ 만들어 졌다고 말해진다, 그 이유는 ‘밤’=자연적 인간의 빛; 그리고 그것의 빛은 영적 인간의 빛에 비교해볼 때 자연계의 달과 별들로부터의 밤의 빛과 같다.

시148:3-‘그분을 찬양하라, 태양과 달아’=사랑의 선과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

신33:13-‘태양’=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함의 선, 이것은 천적 왕국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해 소유된 선.

이54:12-‘나는 네 태양들을 홍보석 같이 만들겠다’=선들은 사랑의 불로부터 번쩍거릴 것이다; 여기서의 ‘태양들’=사랑의 선들.

마5:45-‘그분은 그분의 태양을 선인에게 그리고 악인에게도 떠오르게 하신다’=주님은 사랑의 신성한 선을 가지고 천국으로부터...유대국가 밖의 사람들, 그 안의 사람들에게 균일하게 흘러드신다.

마13:6-‘해가 떠오르는 것’=자아 사랑.

욘4:8-‘요나의 머리에 내려쨌 태양’=그 국가에 널리 퍼진 자아 사랑.

이60:19-‘태양은 낮의 네 빛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다’=단지 자연적 사랑만이...

삼하23:4-주님은 천사들의 천국의 태양이시고, 천사들과 사람들을 계발해주는 신성한 진리가 태양 처럼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바, ‘구름 없는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아침에 있는 빛 같이..’라고 말해진다.

민25:4-‘태양 앞에 목을 매는 것’=선과 진리의 파멸 때문에 있는 저주와 정죄함.

예8:2-‘그것들을 태양과 달과 천국들의 모든 군대에게 흠뿌릴 것...’=그것들을 지옥적 사랑들에, 지옥으로부터 있는 악들과 거짓들에 넘기는 것; 그이유가 ‘태양’=양쪽 의미에서 사랑; ‘달’=이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양쪽 의미에서 믿음.

이38:8-(아하즈의 시계판에서) ‘뒤로 갈 태양’=주님의 강림이 의미되고 있다.

계12:1-‘태양을 휘감고 있는 여인’=주님을 사랑함에, 이로부터 이웃을 사랑함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교

태우다-태우는 공물-태워 바침

회...그이유가 '태양'=신성한 사랑에 관련된 주님, 고로 또한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함; '휘감고 있음'=이 사랑으로부터 살아감.

시19:4-'(천국들) 안에 그분은 태양을 위하여 성막을 장치하셨다'=그분 자신의 사랑의 선에서 천국들 안에 거주하시는 신성한 사랑에 관련된 주님.

태양의 (solar)

이27:9-'태양 (우)상'=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예배함

겔6:4-'태양 (우)상'=교리의 거짓들로부터 있는 우상적인 예배.

태어남 (born)

태생 (nativity)

아이 (child)

* (어머니가) 낳다(bear), hereditary, connate, generation도 보라

창2:4-'하늘들과 땅들의 태생들'=천적 인간의 형성들.

이29:23-'태어남', 또는 '아이들'=선하고 참인 것로부터 총명을 가지는 거듭나는 자.

창6:9-'노아의 태생들'=새 교회 속의 재형성과 거듭남의 특징을 열거함.

창10:1-'이들은 노아의 아들들로부터의 태생들이다'=고대 교회의 교리물과 예배물로부터의 갈래들. 외향의 의미에서 일 경우, '태생들'은 이 세대로부터 또다른 세대로 이어질 때의 세대(generations)들이다. 그러나 내향의 의미일 경우,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 또는 선행과 신앙 속에 있는 것들, 고로 여기서는 교회 속에 있는 태생들이다.

창10:32-'그들의 출생들(births)에 따라'=그들이 재형성되어질 수 있었을 때, '출생'=재형성. 그이유가 인간이 주님에 의해 재출생, 또는 거듭나질 때, 그가 새로이 받는 각각 그리고 모든 것이 출생들이기 때문.

창11:10-'이들은 셈의 태생들이다'=두 번째 고대 교회로부터의 갈래들. '태생들'=교리물과 예배물들의 근원과 갈래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출생되어질 때, 그것의 '태생들'이 있었다고 말해진다.

창11:27-'이들은 데라의 출생들이다'=우상숭배들의 근원들과 갈래들.

창11:28-'그의 태생의 토지'=근원.

창12:1-'그들의 태생으로부터'=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외면의 것들.

창17:12-'집에서 태어난 이들'=천적 평면.

요1:13-'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남'=사랑 안에, 이로부터 신앙 안에도 있는 이들.

창21:3-'그에게 태어난 것'=신성으로부터 나온 것.

창24:4-'출생'=사랑의 영적 평면, 여기서는 신성으로부터의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창24:7-'내 출생의 토지'=거짓 측면에 관련하여 어머니쪽의 유전적인 것.

창25:12-'이들은 이스마엘의 태생들이다'=이 영적 교회의 갈래들.

시110:3-'내 출생의 이슬'=사랑으로부터의 천적 평면.

창30:26-'아이들'=진리들.

창31:3-'네 출생(지)에로'=거기서부터 진리 쪽으로. '출생'=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그이유가 모든 진리는 산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

창35:26-'그에게 태어남'=그것들의 근원.

창36:1-'이들은 에서의 태생들이다'=자연 평면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선에서의 갈래들.

창37:2-'태생들'=교회의 이것들의 갈래들, 즉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의 갈래들, 또는 사랑으로부터의 신앙의 갈래들.

창37:30-'아이는 있지 않다'=그분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 '아이'=신앙 속의 진리.

창40:20-'바로의 생일'=자연 평면이 거듭나질 때, '태어나지는 것'=거듭나지는 것.

창43:7-'우리의 출생에 관하여'=거기 신앙의 진리들에 관하여. '출생'=선으로부터 진리 속의 것.

출21:4-'아이들'=파생된 진리들과 선들.

이44:3-'아이들'=교회 속에 있는 이들.

태우다 (burn)

출29:13-'너는 제단 위에서 태워라'=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태우는 것'=신성의 사랑에 불을 붙이는 것.. 제단 위 불=신성한 사랑.

출29:18-'태우는 것'=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에 하나되는 것.

창11:3-'그것들을 견고히 구워내자'=자아 사랑으로부터

태초-떡빠-털-털 많은

터의 악들.

출21:25-‘태움을 위해서는 태움을’=만일 어떤 것이 자발성 안에서 내면적으로 사랑으로부터 있는 애착의 어떤 것이라면.

이3:24-‘태움’=사랑의 선에 상해를 입힘, 그이유는 ‘불’에 의해 사랑이 의미되고, 그리고 사랑의 선에 상해를 입힘이 자아 사랑으로부터의 현세에의 욕망이 의미되기 때문. ‘태움’에 현세에의 욕망이 의미되어 있다.

이3:24-‘태움’=자아 사랑의 악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소진함.

예51:25-‘태움의 산’=자아 사랑.

예32:29-‘성읍을 태우는 것’=거짓으로부터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을 황폐케하고 파괴하는 것.

계8:7-‘나무들의 삼분의 일이 태워졌다’=진리의 지식들이 탐욕들의 악에 의해 파괴되었다.

계17:16-‘불로 그녀를 태우는 것’=이 광신적 신앙을 통렬히 비난하는 것, 그리고 파괴하는 것.

계18:9-‘그들이 그녀를 태우는 연기를 볼 때’=그들이 모독인 것으로 변한 이것들을 볼 때. ‘태움’=모독인 것.

예36:29-‘태워진 두루마리’=말씀, 말씀이 왜곡되고 섞임질 당할 때 태워진다고 말해진다. 이는 악의 거짓으로부터 있는 현세에의 욕망을 통하여 결과되어진다.

신29:23-‘온 땅을 태움’=자아 사랑을 통하여 교회를 황폐하게 함.

나1:5-‘땅, 그리고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민들, 이것이 태워질 것이다’에 의해 교회는 지옥의 사랑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 측면에서 멀해질 것이다.

계18:9-‘태움’=이런 사랑들로부터 북받쳐 나가는 악들을 정죄하고 처벌함.

출29:18-‘여호와께 불로 만든 공물’=신성의 사랑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

계1:15-‘마치 그들이 불가마에서 태운 것처럼’=신성한 선.

시51:19-‘태우는 공물’=사랑.

태우는 공물 (burnt-offering)

태워 바침 (burnt offering)

번제 (burnt offering)

* 제물 (sacrifice)도 참조.

창8:20-‘(노아는) 제단에 태우는 공물을 바쳤다’=그 때부터 파생된 예배...‘태우는 공물’, 한 복합체에서,=표현적인 예배.

* ‘태워 바침 (번제)’=사랑으로부터의 예배; ‘죽여 바침 (희생제)’=사랑으로부터 파생된 신앙으로부터의 예배.

창22:2-‘태우는 공물로 (이삭을) 바치는 것’=그분은 신성과 더불어 자신을 신성해지게 해야 하리라는 것.

창22:7-‘태우는 공물을 위한 가족은 어디있습니까?’=어디에 신성해지게 될 인류 속의 이들이 있는가?

출18:12-‘이드로는 태우는 공물과 제물을 가져왔다’=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들로부터 예배함.

출20:24-‘너는 네 태우는 공물과 평화 공물을 (땅의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쳐라’=각각의 영적 생명에 따라 특별하게 예배함.

출24:5-‘그들은 여호와께 태우는 공물을 바치고 어린 수소의 평화 공물을 제물로 바쳤다’=선으로부터, 그리고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을 표현함.

출29장-외적 인간, 또는 자연적 인간 안에 선과 진리를 심는 것이 어린 수소를 제물로 함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그리고 내적 인간, 또는 영적 인간 안에 선과 진리를 심는 것이 수양을 태우는 공물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출29:18-‘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태우는 공물이다’=주님의 인간이 신성화 되심.

출29:18-‘태우는 제물이 ‘여호와께 대한 쉼의 냄새’라 불리는 이유는 태우는 공물에 의해 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신성 자체와 하나가 됨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출29:25-‘너는 그것들을 태우는 공물 위 제단에서 태울 것이다’=신성의 사랑으로부터의 신성의 선과 하나가 됨...‘태우는 공물’에 의해 결합 자체가 의미되고 묘사되고 있다.

출29:42-‘계속적인 태우는 공물’=일반적 측면에서 있는 모든 신성한 예배. ‘태우는 공물’=신성한 예배.

출30:9-‘태우는 공물도, 식사 공물도 안된다’=거기에 천적 사랑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을 수단으로 한 거듭남의 표현은 없다.

태초-턱뼈-털-털많은

출32:6-‘그들은 태우는 공물을 바쳤다, 그리고 평화 공물을 가져왔다’=그들 자신의 사랑들로부터 예배함, 고로 자기들의 즐거움들로부터 예배함,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거짓들로부터 예배함.

태초 (beginning)

* 시작 (beginning)을 보라.

턱뼈 (jawbone)

턱 (jaw)

뺨 (cheek)

마5:39-‘턱’에 의해 내면의 진리에 애착함이 의미되어진다. ‘오른쪽 턱’에 의해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이 의미되어진다.

마5:39-‘턱을 세계 치는 것’==진리들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거짓의 파멸.

* 입에 관한 것들, 즉 턱들, 입술들, 등등=진리를 발표함에 속하는 것들.

시3:7-‘적들의 턱뼈를 후려치는 것’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에 맞서 있는 내면의 거짓들을 파괴하는 것.

시3:7-‘턱뼈를 후려치는 것’, ‘이를 부러뜨리는 것’, 이런 행동에 의해 내면과 외면의 거짓들을 파괴하는 것이 의미되어진다. 이는 마5:39에서도 분명해진다.

마5:39-‘네 오른쪽 턱뼈를 찢아 때리는 자에게는 네 왼쪽 턱뼈도 돌려대어라’=만일 어떤 이가 내면의 진리를 지각함이나 이해함에 상해를 입히기를 원한다면, 그가 그것을 시도하는 한 그것은 허용되어질 것이다. ‘턱뼈’에 의해 내면의 진리를 지각함과 이해함이 의미되어진다. ‘오른쪽 턱뼈’에 의해서는 애착과 그것의 파생된 애착이, ‘왼쪽 턱뼈’에 의해서는 그것을 이해함이 의미되어진다. 그이유가 턱 등등 같이 입에 소속되는 것들=진리를 지각함과 이해함에 속한 것들과 상응하기 때문.

겔29:4-‘나는 네 턱들에 갈고리를 놓을 것이다’=거짓 이야기함 때문에 그는 응징되어질 것이다.

이30:28-‘턱들’=육체의 감각으로부터의 생각들, 고로 오류로부터의 생각들.

털 (hair)

머리털 (hair)

털많은 (hairy)

계1:14-‘깨끗한 양털 같이 흰 머리털들’=진리 측면에서의 신성의 자연 평면.

계9:8-여인들(의 것) 같은 ‘머리털들’=자연 평면의 외적인 것들; 즉 감각적인 것들, 또는 거기서의 오류들, 이것이 선의 외관을 만든다.

계1:14-‘그분의 머리와 머리털들은 양털 같이, 눈 같이 희었다’=첫째와 최말단에 있는 신성의 지혜로부터의 신성의 사랑. ‘머리’에 의해 사랑이 뜻해지는데, 동시에 사랑들의 첫째에 있는 지혜도 뜻한다. 고로 ‘머리털들’에 의해서는 최말단들에 있는 사랑과 지혜가 뜻해진다; 그리고 여기서 ‘머리털들’이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이신 사람의 아들에 관련하여 말해지는바, 그분의 ‘머리털들’은 말씀의 최말단들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있는 신성의 선, 그리고 지혜로부터 있는 신성의 진리가 의미된다; 그리고 말씀의 최말단들은 말씀의 글자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 의미 안에 있는 말씀이 ‘사람의 아들의 머리털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는 역설(paradox) 같이 여겨지지만 진실이다.

* ‘나지르인’, 히브리어에서 털이다.

신21:12-‘그녀가 각아야만 하는 머리의 털들’=자연적 인간의 거짓들과 악들.

겔44:20-‘머리털을 내려오게 앓는 것’=자연적인 것들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순응되게해서 존속시키는 것.

겔16:7-‘자란 머리털’=자연적 진리.

단7:9-‘그분의 머리의 털’=외적 형체에 있는 신성의 선.

단7:9-그것의 외적 선이 ‘그분의 머리의 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창25:25-‘첫째가 나왔는데, 그는 전체적으로 붉고, 털 많은 코트(coat) 같았다’=자연 평면에 있는 진리로부터의 생활의 선...‘털많은 코트’=자연 평면의 진리.

숙13:4-‘털많은 코트’=진리 측면의 자연 평면; 그리고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었는데, ‘그들은 거짓말했다’고 말해진다.

창27:11-‘에서, 나의 형은 털많은 사람이다’=자연 선의 품질...‘털이 많음’=자연 평면을 진리 측면에서 특별하게 언급할 때이다.

이7:20-‘머리를 깎는 것’=교회의 내적 진리들이 결핍

테두리-테레빈-토기-토기장이-토론하다-토지-토하다

되는 것;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미는 것’=교회의 외적 진리들이 결핍하는 것.

마10:30-‘네 머리의 털들이 모두 세어졌다.’ 이를 수단으로 인간 안의 각각 그리고 모든 것이 의미된다.

계6:12-‘태양이 머리털로 짠 삼베옷 같이 검게 되었다’=그들과 더불어 사랑의 모든 선은 섞음질되어졌다.

속13장-‘털 외투’에 의해 최말단들에 있는 신성의 진리가 의미된다, 이 진리는 일반적 측면에서의 신성의 진리이다. 그이유가 최말단은 모든 내면의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 더욱이 ‘털’=최말단인 것. 엘리야 역시 그의 외투로부터 ‘털많은 사람’이라 불렸다. 세례 요한도 낙타 털옷을 가졌다.

테두리 (border)

출25:11-‘(케 위에서 금으로) 테두리’=그들이 접근하여 악들에 의해 상처받지 않도록 선으로부터 종결함. ‘테두리’=종결함, 마무리함.

출25:24-‘너는 (탁자)를 위해 금으로 테두리를 빙둘러 만들어라’=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선의 영역을 마무리함.

출28:32-‘입술’, 또는 ‘테두리’, ‘도포의 위쪽을 둥글게 열(open)’=모든 측면에서 종결되고 마감된 것.

테레빈 (turpentine, terebinth)

창43:11-‘테레빈-나무의 견과들’=자연 평면의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상응하는 생활의 선. 이것이 유황(resin)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는데, 그이유는 이 견과들(알몬드 견과) 보다 덜 귀중하기 때문.

토기 (earthenware)

레6:28-‘토기(질그릇)에서 삶아라’=선과 일치 않는 것.

토기장이 (potter)

속11:13-토기장이=재구성파 거듭남.

이64:7-‘당신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진흙,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토기장이’, ‘진흙’=재구성되는 교회의 사람; 고로 인간을 형성하는 수단인 믿음으로부터의 선; 즉 재구성.

예18:1~6- 형성됨이 선행의 선과 믿음의 진리를 수단으로 결과되는바, 이런 것들이 ‘진흙’, 그리고 ‘토기장이의 그릇’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언자

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도록 명령되고 있다.

계2:27-‘토기장이의 그릇들 같이 그들은 조각으로 부서질 것이다’=무가치하고 무용임. ‘토기장이의 그릇들’이라고 말해진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총명 속에 있기 때문; 거짓들 속의 모든 것, 그래서 그 자체 쓸모없는 것을 의미해줄기 때문.

이30:14-유대인들은 말씀의 모든 진리들을 왜곡했다... 그들의 거짓들이 ‘부서진 토기장이의 그릇들’이다.

예4:2-‘토기장이 손의 작품, 질항아리’=자신의 총명으로부터인 교리 속의 거짓들로부터의 생활 속의 악.

토론하다 (debate)

마5:40-‘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그리고 코트를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진리들에 관하여 토론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설득하기를 원하는 것.

토지 (land)

* 땅 (earth)을 보라.

토하다 (vomit)

계3:16-‘나는 너를 내 입으로부터 토하겠다’=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은 천국에도, 지옥에도 있지 않는 것, 그러나 외따로 있는 장소, 인간의 생명이 빼앗긴 장소, 고로 오로지 몽상만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거짓과, 선을 악과 섞어 거룩한 것들이 모독된 것과 섞여 이 둘이 분리되어지지 못하기에 별도로 관리되어야 했기 때문.

통과하다 (pass through)

건너다 (pass over)

지나다 (pass)

창30:32-‘나는 오늘 당신의 모든 양떼를 통과할 것입니다’=선의 품질을 아는 것과 지각하는 것.

창31:52-‘나는 악을 위하여 이 무더기를 지나 너에게 가지 않을 것이니, 너도 악을 위하여 이 무더기를 지나 나에게 오지 마라’=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흐를 것인지를 규정하는 한계. ‘지나는 것(pass)’=흐르는(inflow) 것.

창32:10-‘나는 내 지팡이만 지니고 이 요단을 건넌다’=...개시함...

통솔하다 - 통솔자-투구-들어막다 - 티끌-파 - 파견하다

사5:17-‘요단 건너에서 거주하는 것’=시작함의 범주에 있는 것들; 고로 이것들은 주님의 왕국의 처음의 (prime) 것들, 또는 최말단의 것들이다.

창32:23-‘그는 그들로 강을 건너게 하고, 그가 가졌던 것도 건너게 했다’=더 은근히 주입됨.

창33:14-‘내 주인께서는 당신의 종에 앞서 건너십시오’=더 일반적인 현존.

창50:4-‘그의 곡하는 날들이 지나갔다’=슬픔의 상태가 성취되었다.

출12:23-‘여호와께서 통과하실 것이다’=신성의 현존.

출15:16-‘네 백성이 통과할 때까지’=모든 이는 악의 출몰로 인한 위험 없이 구원될 것이다.

출17:5-‘백성 앞을 통과하는 것’=그는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칠 것이다.

시104:9-‘당신께서는 그것들이 건너지 않도록 경계를 놓으셨다’=신성한 진리의 최말단, 그 안에서 내면의 것들은 멈춘다.

출32:15-‘판들은 두 횡단(transits)들로 쓰여 있었다’=이를 수단으로 주님이 인류와, 또는 천국이 세상과 결합함이 있다는 것.

출32:27-‘너를 통과하여 진영의 문으로부터 문까지 되돌아오라’=내적 부분으로 외적 부분까지 열린 것이 어디에 있든지; (그이유가) ‘통과하여 되돌아옴’=이쪽 끝으로부터 다른쪽 끝까지 조사하고 둘러봄이기 (때문).

출33:19-‘지나가게 만드는 것’=그것 위에.

사5:17-‘길르앗, 왜 너는 요르단 건너에서 사는가?’=왜 너는 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있는 것인 외적 측면에만 사는가?

이30:32-‘통과’=열림과 자유로운 받음.

통솔자 (captain)

계6:15-‘제 1의 통솔자들’=선에 관한 지식을 지닌 이들.

계19:18-‘통솔자들’=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지닌 이들; 추상적으로는 이런 지식들.

계19장-‘통솔자들’=특별한 측면에서의 신성한 진리들.

계6장-‘제 1의 통솔자들’=외적인 선들.

투구 (helmet)

예46:4-‘투구들’=이성에 관한 것들.

이59:17-‘구원의 투구’=신성의 선으로부터의 신성의 진리, 이를 통하여 구원이 있다; 그이유가 ‘투구’는 머리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

들어막다 (stop up)

창8:2-‘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큰 폭포가 들어막혀졌다’=시험이 중지되었다는 것.

창26:15-‘볼레셋인들이 우물들을 들어막았다’=그들은 내면의 진리들을 기꺼이 알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

이33:15-‘그는 피들이 듣지 않도록 귀를 들어막았다’=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듣지 않는 것.

티끌 (dust)

* 먼지(dust)를 참조

파 (leek)

민11:5-‘파, 양파, 그리고 마늘’=가장 낮은 자연 평면 속에 있는 것들; 즉 인간의 육체의 감각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들.

파견하다 (send forth)

* 내보내다(send forth)를 보라.

파괴 (ravage)

황폐함 (laying waste)

창49:19-‘군대가 그를 파괴할 것이다’=사려분멸함 없는 일들이 진리로부터 질주할 것이다.

창49:19-‘그는 뒤꿈치를 파괴할 것이다’=그러므로해서 있는 자연에 있는 무질서들.

이10:13-‘보물과 백성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총명과 지혜로부터의 진리들을 파괴하는 것.

파괴하다 (destroy)

이63:3-‘나는 내 분노에서 그들을 파괴했다’=거짓들을 눌러 승리함.

출15:7-‘파괴하는 것’=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거절하는 것.

출23:24-‘너는 그것들을 확실히 파괴해야 한다’=악들은 깡그리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

애2:5-교회의 완전한 황폐함이 ‘주님께서 유다의 딸의 본거지를 파괴하셨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겔6:3,4-‘높은 장소들을 파괴하는 것, 제단을 파괴하는 것’=거짓들과 악들을 통하여 있는 우상적인 예배의 모

파도-파리-파수꾼-파운드-판금-판

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

이49:17-‘파괴자들’과 ‘황폐자들’=악의 거짓들.

이14:17-‘성읍들을 파괴하는 것’=교회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

계17:8-‘파멸로 가는 것’=거절되어지는 것.

창6:13-‘나는 그들을 땅과 더불어 파괴할 것이다’=인류는 교회와 더불어 멸해진다는 것.

창19:13-‘그이유는 우리가 이 장소를 파괴했기 때문에’=그들이 있는 악의 상태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창19:13-‘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파괴하라고 우리를 보냈다’=그들은 멸해질 수 밖에 없다.

출8:20-‘토지는 피해를 입히는 날아다니는 것들 앞으로부터 파괴되어졌다’=자연적 마음은 모든 진리 측면에서 부패되었다. ‘파괴되는 것’=부패되는 것.

출12:13-‘파괴자’=지옥, 이것이 저주를 가한다.

출22:19-‘잃어진 모든 것에’=애매모호한 모든 것.

계11:18-‘땅을 파괴하는 그들을 파괴하는 것’=파괴해왔던 자들을 지옥으로 내던지는 것.

겔9:6-‘파멸 쪽으로 죽이는 것’=황폐함.

예4:7-‘사자’, 그리고 ‘나라들의 파괴자’=거짓과 악의 황폐해지게 함.

예12:10-교회의 황폐해짐이 ‘그들이 내 포도원을 짓밟고 파괴했다’에 의해 뜻해져 있다.

시5:9-북부에 ‘파멸들’이 있다고 추정된다, 또는 악한 생각들.

예12:10-‘파괴하는 것’=...파괴하기 위하여..

예4장-‘나라들의 파괴자’=교회의 선을 파괴하는 거짓의 악.

시88:11-‘무덤’=악들이 있고 악들을 있게 하는 지옥.

시91:6-‘대낮에 황폐케하는 파멸을 두려워 말라’=지식들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발생하는 지옥에 떨어짐, 그들을 타락케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

예49:32-‘홀뜨리는 것’과 ‘파멸’을 가져오는 것=황폐함.

욥31:23-‘하느님의 파멸하심에 대한 공포’=진리에 대한 모든 이해함을 잃음.

파다 (dig)

창26:18-‘이삭은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시절에 팅던 물들의 우물을 다시 팅다’=주님께서는 고

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진리들을 여시리라는 것...‘돌아가서’ 그리고 ‘다시 파는 것’=다시 여는 것.

창26:19-‘이삭의 종들이 계곡에서 팅는데, 거기서 그들은 살아 있는 물들의 우물을 발견했다’=글자 의미 측면에서의 말씀 안에 내적 의미가 있다. ‘계곡에서 파는 것’=그들이 있는 진리에 의거 더 수준 낮은 진리들을 문의하는 것. ‘파는 것’=문의 하는 것.

창26:25-‘그리고 거기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팅다’=거기서부터 파생된 진리...즉,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출7:24-‘그들은 마실 물을 (찾으려) 강 주위를 팅다’=그들이 거짓들에 응용해볼수 있을 지 모르는 진리들을 철저히 수색함. ‘파는 것’=철저히 수색하는 것.

이13:15-‘밀어젓히어 나아가지는 것’=신앙과 선행의 절멸.

출22:33-‘사람이 구덩이를 팅을 때’=만일 그 자신이 그것을 고안했다면...‘파는 것’=자신으로부터 받는 것, 또는 고안하는 것.

출22:2-‘만일 도둑이 꿰뚫어 파는데 잡힌다면’=만일 선과 진리가 가져가버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꿰뚫어 팅’=은밀히 악을 영속시킴. 그리고 이것이 도둑을 두고 말해질 때,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악의 거짓을 수단으로 선 또는 진리를 가져가버림.

겔8:8-‘벽을 뚫어 파는 것’=숨겨진 것 쪽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는 것.

암9:2-‘지옥 쪽으로 꿰뚫어 파는 것’=거기, 즉 악의 거짓들 안에 자신들을 숨기는 것.

눅12:39-‘그는 자기 집이 뚫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집을 뚫는 것’=은밀히 그것을 행하는 것.

겔29:7-‘모두 각각의 어깨를 밀어젓혀 나가는 것’=진리들을 납득하는 모든 힘을 박탈하는 것.

눅13:8-‘그가 그것 주위를 파는 것’=그들은 이후 기독교인들에 의해 혼용되어질 것.

민21:18-‘파는 것’=탐사하고 수집하는 것.

파도 (wave)

예51:42-‘파도가 바벨 위에 덮친다; 그녀가 많은 파도들로 뒤덮혔다.’ ‘바다’=과학물들로부터의 거짓; 바다의 ‘파도들’=이것들로부터 추론함들, 그리고 그결과 부정함들.

파도-파리-파수꾼-파운드-판금-판

예31:35-‘바다를 휘젓어 파도들이 소란스러워지게 하는 이가 누구요?’=과학물 속의 거짓들을 일소하는 것, 이로부터 진리들을 추론함이 와진다.

시89:9-‘바다가 그것의 파도를 일으켜 세울 때 당신께서는 그것의 일어남, 또는 바다를 다스리신다.’ ‘바다’=자연적 인간...그리고 ‘파도’=거짓들.

시107:25,29-‘바다의 파도들이 치켜올렸다’=시험들... 시험들로부터의 해방이 ‘그분은 폭풍을 고요하게 하여 그로부터의 파도들이 잠잠해지게 만드신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숙10:11-‘이스라엘은 바다에 있는 파도들을 쳐부술 것이다’=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은 진리들에 맞서는 거짓들로부터 추론들에 맞서 (주님에 의해 보호되어진다.)

시65:7-‘누가 바다의 소란함을, 파도의 소란함을 잠잠케하는가?’=천국들 아래 있는 이들의 논쟁이나 추론들, 그리고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이들의 논쟁이나 추론들 (위에 주님의 신성의 권능이 있다.)

파리 (fly)

이7:18-‘이집트의 파리’=(감각적) 거짓들.

파수꾼 (keeper, watchman)

* 지키다(guard)를 보라

창4:9-‘내가 내 형제의 파수꾼입니까?’=선행은 하등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을 챙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신앙이 판단하는 것.

파운드 (pound)

미나 (mina)

눅19:20-‘수건에 파운드를 싸든’ 자=신앙 속의 진리들을 자신들을 위해 포획하는 자, 그리고 그 진리들을 선행의 선들과 결합하지 않는 자.

* 만일 당신이 신성의 섭리에 의해 인도되기를 원한다면, 신중함(prudence)을 사용하라. 마치 그의 주인의 재화(goods)를 성실하게 시행한 중들 같이 이다. 이 신중함이 장사하여 이윤을 내라고 하인들에게 준 ‘파운드’이다.

* ‘열 파운드’=많은; ‘다섯 파운드’=작은.

눅19장-‘파운드’=말씀으로부터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그것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그것들을 수단으로

자신을 위해 영적 생명과 총명을 포획하는 것. ‘그것을 수건에 싸두는 것’=인간의 자연적 기억 안에.

판금 (plate)

출28:36-‘너는 순금으로 판금을 만들어라’=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예증. ‘판금’=예증함.

판 table

널판 (board)

겔27:5-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널판(plank) 같은 배(ship)’에 속하는 것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출24:12-‘나는 네게 돌판을 줄 것이다’=전체 복합체에서 있는 법의 책, 또는 말씀.

신9:9,11,15-판이 하나가 아니고 둘인 이유는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인류와 결합함을 표현하기 때문. 그러므로 그것들은 ‘언약의 판’이라 불리운다.

출27:8-‘속이 비게, 널판으로, 너는 그것을 만들어라... ‘속이 빈, 널판으로,’ 이는 제단을 두고 말해졌는바...=적용함.

출31:18-‘그분은 모세에게...증거의 두 판들을 주었다’=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인간은 결합함...‘두 판들’=전체 복합체에서의 법, 고로 말씀...결과적으로 인간과 더불어 결합이 판들이 돌임에 의해 의미되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함에서 함께 결합함도 의미되어 있다.

출31:18-‘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쓰인 돌판들’=주님 자신으로부터 있는 신성의 진리.

출32:15-‘그리고 그의 손에는 증거의 두 판들이...’=특별한 측면에서와 일반적 측면에서 주님의 말씀...=전체 복합체에서의 말씀.

출32:15-‘판들은 그것들 양쪽을 횡단함에 의해 씌여졌다 (직역하면 그것들의 두 횡단들로부터, from their two passingovers), 이것으로부터와 이것으로부터 그것들은 씌여졌다’=이를 수단으로 주님이 인류와의 결합, 또는 천국이 세상과의 결합이 있다는 것.

출32:16-‘이 판들은 하느님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 필체는 하느님의 필체였다, 돌들에 새겼다’=신성으로부터 있는 말씀의 외적, 내적 의미, 그리고 신성한 진리.

출34:28-‘그분은 언약의 말들을 판 위에 쓰셨다’=말씀, 이를 통하여 천국이 인간과 결합한다는 것.

팔 다-팔심-팔찌

예17:1-내부에 뿌리박은 악이 '그들의 심정의 판에 새겨 있다'에 의해 뜻해진다.

팔 (arm)

예17:5-'육을 그의 팔로 만드는 사람은...저주받는다'
'팔'=힘.

* '손'=능력, '팔'=(손 보다) 더 큰 능력.

이40:10-'그분은 강하심 안에서 오시고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통치하실 것이다'=그분 자신의 권능에 의해 그분은 지옥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단2장-(느부갓네살에 의해 보여진 신상의) '가슴과 팔'=이는 은으로 된 바, 영적이고 합리적인 것들.

단10:6-(다니엘에 의해 보여진 사람의) '...팔과 발'=말씀의 외면의 것들, 즉 글자 의미.

창49:24-'그의 손의 팔이 강하게 만들어진다'=싸움을 위한 완력의 힘.

출6:6-'나는 뻗친 팔로 너를 되찾을 것이다'=신성한 힘을 수단으로 지옥으로부터 인도하심... '뻗친 팔'이 전능, 또는 신성한 힘인 이유는 팔, 이것이 천국들 안에서 뻗친 채 나타날 때, 신성으로부터의 힘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뻗쳐진 모습이 아닌 구부러진 모습일 경우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힘이 표현되어진다.

이51:9,10-'여호와의 팔'=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

출15:16-'당신 팔의 위대하심 안에서'=전능하심으로부터. '팔'=힘, 그러나 신성에 관련해 말해질 경우 =전능.

예17:5-'육을 그의 팔로 만드는 것'=자신의 힘에 신뢰를 두는 것.

이9:20-'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 것'=자신 안에 신뢰를 두는 것.

겔30:22-'(바로의) 팔을 부러뜨리는 것'=그들의 무력을 흠으심.

단10:6-신성으로부터의 진리, 또는 최말단들에 있는 주님이 '잘 닦은 놋쇠의 광휘 같은 팔과 다리'에서 의미되고 있다.

시44:3-'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당신의 오른손이, 그리고 당신의 팔... '팔'=강함.

숙11:17-'...마르는 그의 팔이 아주 마를 것이다' '팔', 여기서의 경우=진리의 힘이 악을 확증하려고 응용되었

다.

이9:20-'그들은 (모두 각자)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악이 모든 진리를, 거것은 모든 선을 소멸하리라는 것... '팔의 고기'는 진리를 통하여 있는 선의 힘이다.

단2장-'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고대 교회를 뜻하고 있다.

신33:20-'(갓)은 팔, 또한 머리의 관을 움켜쥔다'..=그는 안쪽, 바깥쪽의 진리들에 의해 자양분을 받는다... 그이유가 희생 제물에서 '팔', 그리고 '머리의 면류관'이 내, 외의 진리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33:27-'아래에 세상의 팔이 있다'...'세상의 팔들'은 사람들이 있는 신성한 진리들이다; 말씀의 글자 의미 속의 진리들이 '세상의 팔들'에 의해 의미되어졌다; 그 이유가 이 의미는 신성한 진리의 참 힘 자체가기 때문이다; '팔'은 강함을 의미한다.

숙11:17-'양떼를 버린 목자에게 화있을 것이다! 검이 그의 팔에 있고, 그의 오른 손에 있다, 마르는 그의 팔이 아주 마르리라'...'그의 팔에 있는 검'은 의지 속의 모든 선을 파괴하는 거것을 의미하고 있다...그들에게서 모든 선과 진리가 결핍되어 지고야 만다는 것이 '마르는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어두워지는 그의 눈이 아주 어두워질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이62:8-'그분의 강하심의 팔'은 신성한 진리 측면에 관련된 주님, 고로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뜻해주고 있다.

시89:21-'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손'=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속의 전능, 그리고 '팔'=진리를 통하여 있는 선 속의 전능.

팔다 (sell)

* '거래(trade)하는 것', 즉 사는 것과 파는 것=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포획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선 자체

창25:31-'네 출생-권리를 팔아라'...'=그자체를 위해 주장하는 것.

창31:15-'그는 우리들을 팔았다'=그는 그것들을 소원해지게 했다.

팔다-팔십-팔찌

마25:9-‘너는 파는 자들에게 가는 편이 더 낫다’=공적의 선; 공적의 선을 떠벌리는 이들이 ‘파는 자들’이다.

창37:27-‘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단순한 선 안에 있는 이들은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이유가 ‘파는 것’=자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고로 다른 것들을 수단으로 받아지는 것; 그리고 진리를 서술할 때, 판다는 것=인정되는 것.

창41:56-‘요셉은 이집트에 팔렸다’=사유함 (appropriation). ‘파는 것’=누군가의 것이 됨.

창47:20-‘이집트인들, 모두 각각은 자기 들판을 팔았다’=교회에 도움을 주는 모든 것들이 재통일되고 종속함.

신24:7-‘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사람을 파는 것’=신앙의 진리들과 선들을 멀리하는 것, 또한 그것들이 섬기게 만드는 것...

출21:7-‘사람이 자기 딸을 몸종으로 팔 때’=자연적 즐거움으로부터 진리에 애착함.

출21:16-‘사람을 훔쳐서 파는 자’=악에 신앙의 진리를 응용함, 그리고 멀리함.

출21:35-‘그들은 살아있는 수소를 팔 것이다’=상처를 입힌 자의 애착은 멀어질 것이다.

출22:3-‘그는 그의 도둑질 때문에 팔려질 것이다’=선과 진리의 멀어짐이 가져가버림으로부터 남아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막10:21-‘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그는 자기 심정을 재물로부터 옮겨야 한다.

율3:6-‘유다의 아들들을 파는 것’=선들을 왜곡하는 것.

나3:4-‘나라들을 파는 것’=선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 ‘마법들을 수단으로 가족들을 파는 것’=진리들이 멀어지게 하는 것.

출22:1-‘파는 것’=뒤집는 것.

마21:12-‘팔고 사는 그들’==거룩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위해 이윤을 만드는 이들.

마13:46-‘그는 가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그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기 위하여 자아를 거절했다.

팔십 (eighty)

창16:16-‘아브람은 팔십 육 년의 아들이었다’=시험들

속의 전투들을 통하여 획득된 천적 선들에 관련된 주님; (그이유가) ‘80’은 ‘40’과 같은 의미인 시험들을 의미하기 때문.

창35:28-‘일백 팔십 년’=상태의 품질; ‘100’=충만된 상태; 그리고 ‘80’=시험들; 여기서의 경우, 시험들을 통하여.

출7:7-‘모세는 팔십 년 된 아들이었다’=신성으로부터 있는 법의 품질과 상태...이는 방문의 첫 시기에서 영적 교회 속의 이들 사이에 있었다. ‘80’이 이 구절에서 특별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어질 수 없다, 그이유는 그 숫자가 그때 당시 그들과 더불어 신성으로부터 있는 법의 모든 품질과 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80’=시험의 상태들; 이렇게 될 경우 ‘80’은 ‘40’과 같은 의미를 말해주나, 이 숫자가 10과 8의 배수로 구성될 경우 이 근원으로부터 추구해보아야 한다.

팔찌 (bracelet)

* 교회 속의 진리가 신부에게 주는 팔찌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창24:22-‘두 팔찌’=신성한 진리

겔16:11-‘그의 손들에 있는 팔찌들’=특별한 측면일 경우,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삼하1:10-‘팔에 있는 팔찌’는 ...악들과 거짓들에 맞서는 힘의 표징이었다

(물을) 퍼올리다 (draw)

창24:11-‘물을 퍼올리는 자가 나올 때 썸’=가르침의 상태...‘물을 퍼올리는 자’=가르쳐지는 것.

이12:3-‘너는 구원의 원천들로부터 환희 안에서 물들을 퍼올릴 것이다.’...‘물들을 퍼올리는 것’=가르침 받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슬기로워지는 것.

출2:16-‘그들이 와서 퍼올렸다’=그들은 말씀으로부터 진리들 안에서 가르쳐졌다는 것. ‘퍼올리는 것’=신앙의 진리들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 그리고 계몽되는 것.

펄롱 (furlong)

* 스타디온

계14:20-‘1600펄롱에’=오로지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펄롱’은 ‘길, ways’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이유는 펄롱이란 단위는 길을 재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길’에 의해 이끌어 주는 진리들이 의미되어진다. 반대

평 화

의미에서는 거짓들.

계21:16-'12000펠롱'=그 교회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펠롱'은 '치수, 재는 것, measures'과 비슷한 것을 의미한다. '치수'에 의해 품질이 의미되어진다.

페니 penny

계6:6-'밀 한 분량에 한 페니'=사랑이 아주 희귀하다는 것. 보리 세 분량에 한 페니='선행이 아주 드물다는 것.

눅10:35-'그가 두 페니를 여관 주인에게 줌'=그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의 최대한의 선행의 모든 것들.

페인트를 칠하다 (paint)

* 그림물감(Paint)을 보라.

평강(peace)

* 평화를 보라

평안(peace)

* 평화를 보라

평온한 (tranquil)

이32:18-'평온의 고요함들에서'=선으로부터의 즐거움과 진리로부터의 유쾌함.

막4:39-'큰 고요(calm)'가 있었다.

겔16:49-'고요함으로부터의 평온'=안전, 그리고 어떤 악으로부터 인한 흥분이 없음.

평지 (plain)

창13:10-'그는 요단의 모든 평지를 보았다'=외적 인간에 있는 일련의 선들과 진리들. 요단 근처 평지=그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에 관련한 외적 인간.

창13:11-'룻은 요단의 모든 평지를 선택했다'=외적 인간은 이와같았다는 것.

창13:12-'룻은 요단의 성읍들에 거주했다'=외적 인간이 과학적인 것들에 있었다.

평화 (peace)

평안 (peace)

평강 (peace)

화평 (peace)

말2:6-'평화와 정직'=신성의 사랑으로부터의 선과 그로부터의 진리.

창26:31-'그들은 ...평화로우니 갔다'=그들은 만족했다는

것.

사85:10-'정의와 평화가 키스함'=그들이 자신들을 결합함.

창29:6-'그는 평화한가?='이 선은 주님의 왕국으로부터인가?

이9:6,7-'평화의 제 1인자'는 주님을 뜻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통치와 평화가 붙어남'은 그분의 왕국에 있는 이들을 뜻한다. 고로 그분의 왕국 자체.

이32:18-'평화의 주택'=천국.

이33:7-'평화의 천사들'=주님의 왕국에 있는 이들; 고로 왕국 자체;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주님.

이52:7-'복음을 전함', 그리고 '평화를 듣게 만들'='주님의 왕국.

예12:12-'평화가 없다'=선을 애착함이 없다.

창37:4-'그들은 평화로이 그에게 말할 수 없었다'=그들은 신성의 진리로부터 자신들을 돌아서게 했다는 것.

창37:14-'가라, 네 형제들이 평화로우니 보라'=주님의 모두 각각의 강림...'평화'=구원.

숙8:12-'평화의 씨'=내면의 인간에 있는 선.

창41:16-'하느님께서 바로에게 평화를 답하실 것이다'=결합을 통하여 신성의 인간으로부터...

창43:23-'그는 말했다, 네게 평화가 있기를, 두려워말라'=잘되고 있으니 자포자기 말라.

창43:27-'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물었다'=잘있는지 어떤지를 지각함.

출4:18-'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했다, 평화로이 가라'=동 의함과 경건히 소원함.

출18:7-'그들은 그의 동료 사람이 평화한지를 물었다'=상호적인 신성의 천적 상태.

출18:23-'모든 이 백성들은 평화로이 각자의 장소에 가있을 것이다'=영적 교회 속에 있는 그들은 선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로 선으로부터 인도될 것이다.

출29:28-'평화를 만드는 그들의 희생 제물로부터'=그것은 주님만으로부터 있음을 인정함.

계1:4-'당신에게 은총이 있으라, 그리고 평화'=신성의 인사.

계6:4-그 위에 앉은 그에게 평화를 가져가는 것이 주어졌다'=선행, 영적 안전, 내적 휴식을 거두어 감.

평화

계14:13, 요16:33, 14:27-‘그들이 쉬도록’=그들이 주님 안에서 평화를 가진다는 것. 평화에 의해 지옥을 수단으로 악들과 거짓들이 판치지 않음으로부터 있는 영혼의 쉼이 뜻해진다...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노동들로부터 쉴 것이다’에 의해 주님을 뵈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세상에서 자기들의 혼이 고뇌하고 자기들의 육을 십자가에 못박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평화를 가질 것임이 의미되어져 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신다; ‘내 안에서 너희는 평화를 가진다; 세상에서 너희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 평화를 나는 너희에게 남겨둔다, 내 평화를 나는 네게 준다; 내가 네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요14:27-순진과 평화, 이 둘은 천국의 맨 안쪽에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이 맨 안쪽에 있다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그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이유가 주님이 순진 자체시오 평화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평화로부터, 그분은 말하신다, ‘평화를 나는 너희에게 남겨둔다; 내 평화를 나는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평화를 가지고 성읍이나 집에 (들어갈 때) 인사하라는 눅10:5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뜻이 있다. 순진과 평화가 천국의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인 이유의 또하나는 순진이 모든 선의 본질(esse)이고, 평화는 선으로부터 있는 모든 즐거움의 행복(bliss)이기 때문이다.

민6:26-천국과 영원한 행복(happiness), 이것을 주님은 그분의 신성한 진리와 그분의 신성한 선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네게 평화를 준다’에 의해 뜻해져 있다.

시128:6-‘이스라엘 위에 평화’=교회 (위에) 있는 일반적, 특수적 측면에서의 모든 영적 선.

속9:10-이방인들과 더불어 교회의 부흥이 ‘그분은 나라들에 평화를 말하실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평화’=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 그러므로해서 있는 교회의 모든 것들.

눅10:5-그들의 말, ‘이 집에 평화가 있으라’=그들은 거기 있는 이들이 주님을 영접했는지, 주님에 관한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천국, 천국적 환희와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 그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평화’에 의해 의미되고, 받았던

이들이 ‘평화의 아들’에 의해 뜻해지고 이들 위에 평화가 놓여 있기 때문. 그러나 만일 거기 있는 이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여 주님의 것에 속한 것, 또는 평화 속에 있는 것들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들로부터 거두어질 것임이 만일 성읍이나 집이 가치가 없다면 이들의 평화는 그들에게 되돌아 온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눅19:42-만일 네가 네 평화에 속하는 것들, 즉 주님 만으로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속하는 것들을 알았었다면; 그이유가 ‘평화’에 의해 주님과 결함을 통해 있는 천국과 영원한 행복이 뜻해지기 때문.

눅1:79-주님을 영접함과 그분과의 결함을 통하여 신성한 진리들에서 그것들이 예증됨이 천국과 영원한 행복이다가 ‘평화의 길’에 의해 뜻해진다.

눅19:38-‘천국에서 평화와 가장 높은 것들에서 영광’=‘평화’에 의해 의미되는 이런 것들이 신성 자체와 신성한 인간의 합일로부터 있고, 그리고 주님과 결합함으로부터 천사들과 인간들 안에 있음이 의미되어져 있다; 그이유가 지옥들이 주님에 의해 복종당해졌을 때, 평화는 천국 안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거기 있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가졌는바, 이것이 ‘가장 높은 것들에서 영광’이다.

눅24:36, 요20:19-‘평화’, 말씀의 내적 의미에서,=주님, 그리고 그로부터 천국과 영원한 생명, 특별한 의미에서, 주님과 결합함으로부터 근원하는 천국의 즐거움,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말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민6:26-그것을 악들로부터 보호함, 그리고 그로부터 천국과 영원한 행복이 ‘그리고 너에게 평화를 준다’에 의해 뜻해져 있다; 그이유가 악들과 거짓들이 제거되어 더 이상 그것들의 활개침이 없을 때, 주님은 평화와 더불어 흘러드신다. 이 안에, 이로부터 천국이 있고, 마음의 내면들을 복된 것으로 채워지는 즐거움, 고로 천국의 환희(joy)가 있다.

시4:6-8-이 구절에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를 받음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하고 있는 이들이 가지는 평화가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이 평화 안에, 이 평화로부터 천국의 환희가 있다는 것...평화가

평화

그들 안에, 그들로부터 있을 때, '평화 안에서 나는 높고 잔다'고 말해진다; 그이유가 '여호와 당신께서 나로 안전하게 거주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평화'에 의해 천국의 내적 즐거움이, '안전한'에 의해 외적 즐거움이 의미되어져 있다.

레26:3,4,6-평화가 어디서 있는지, 즉 천국과 천국의 환희가 어디로부터 있는지가 이 구절들에서 묘사되어 있다. 평화, 그 자체로만 간주한다면, 천국과 천국의 환희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평화 안에, 평화로부터 있다. 평화는 세상의 새벽, 또는 봄철과 같아서 눈 앞에 나타나는 대상으로부터 즐거움들과 유쾌함들을 심정 안에 받을 수 있게 인간의 마음을 처리해준다. 천국의 모든 것, 천국의 환희의 모든 것은 신성의 평화로부터 인바, 이것 또한 평화에 의해 뜻해진다...인간이 가르침에 따른 삶으로부터 천국을 가질 때, 말해지는바, '만일 너희가 내 가르침들을 준수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면, 나는 토지에 평화를 줄 것이다.'

시37:11,37-'그들은 수많은 평화로 즐거워질 것이다'에 의해 시험들에 이어지는 즐거움들이 의미되어져 있다...선과 진리의 결합으로부터 평화의 즐거움을 가진다는 것이 '완전한 자에 주목하라, 그리고 올바른 자를 바라보라; 그이유가 이 사람에게 끝은 평화이기 때문이다.'

시72:3-'산들이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평화'에 의해 사랑을 수단으로 주님과 결합함으로써 있는 천국의 환희가 뜻해진다...'그의 날들에 올바른 자는 번영할 것이다'=사랑의 선 안에 있는 이들; 그러므로 말해진다, '그리고 많은 평화.' 그이유가 평화는 주님 외 다른 근원으로부터서는 없기 때문, 그리고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이 그분과 결합함 안에서만 있기 때문.

시34:14-'평화를 얻으려하고 그것을 따라가라.'; '평화'=천국과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여기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행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선 안에 있는 이들에게만 있는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라고 말해진다.

시119:165-'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이들은 많은 평화를 가진다...' '평화'=천국의 복(bliss), 행복(happiness), 그리고 즐거움.

이26:12-평화는 여호와 만으로부터 있는바, 즉 주님

만으로부터 있는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선을 행하고 있는 이들 안에만 있는바, 말해진다. '여호와여, 우리를 위해 평화를 베푸소서; 그 이유는 당신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우리의 일들을 작업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33:7-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있고, 그분으로부터 천국 안에도 있는 바, 천사들은 '평화의 천사들'이라 불려진다. 악들과 거짓들에 있는 지상의 사람들에게 평화는 없는바, '그들은 지독하게 슬퍼한다'고 말해진다.

이48:18,22-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 평화가 있고, 그렇게 살지 않는 이들에게 평화는 없는바, '너는 내 가르침들에 귀기울였다면 네 평화는 강 같았을 것이다; 사악한 자에게는 평화가 없다.' '강 같은 평화'=풍부함.

이54:10,13-'평화의 언약'=주님과 결합함으로써의 천국의 환희.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을 아들들, 그리고 큰 평화를 가질 아들들'=주님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는 새 천국과 새 교회에 있는 이들; 이들은 영원한 복(bliss)과 행복(happy)을 가진다.

겔37:26-'그들과 더불어 평화의 언약을 만드는 것'=주님과 결합되어왔었던 이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환희.

말2:5-'생명의 언약과 평화의 언약'=신성 자체가 주님의 신성한 인간과 합일함, 이로부터 모든 생명과 평화가 있다...세상에서 결과되어진 이 하나됨 자체가 '정직과 평화 안에서 나와 걷는 자'에서 뜻해지고 있다.

숙8:12,16,19-선과 진리의 결합이 있는 이들이 '평화의 씨들'이라 불린다...진리와 선의 결합이 더 묘사되고 있다, 즉 '너는 네 동료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라; 네 문에서 평화의 판결과 진리로 판결하라; 오직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라.' '진실'에 의해 진리가, '평화의 판결', '평화'에 의해 선과 그것의 결합이 의미되어져 있다.

시85:8,10-'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말하실 것이다'=그분은 그들과 더불어 있는 선과 진리의 결합을 통하여 가르치고 그분 자신과도 결합함을 주신다는 것. '평화'에 의해 이 결합들 다가 의미되어져 있다. 양쪽 모두의 이런 결합들이 더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자비와 진리가 만날 것이다; 정의와 평화가 서로 키스할 것이다.'

포도

이52:7-‘평화를 듣게 하는 그의 발이 있는 산 위에서 얼마나 즐거운지!’...여기서 ‘평화’에 의해 주님 자신이, 또한 그분과 결합한 이들을 위한 천국도 의미되어져 있다...주님과 결합함으로써 선과 진리의 결합함이 ‘평화’에 의해 의미되는바, ‘평화를 듣게 하는 그 사람...’라고 말해진다.

이53:5-‘우리의 평화를 위한 응징이 그분 위에 있었다.’...그분의 소름끼치는 시험들...그러므로 ‘여기서 ‘평화’에 의해 주님과 결합한 이들을 위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의미되어져 있다.

예33:6-영적으로 치료되는 것이 악들과 거짓들로부터 치료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진리들을 통하여 주님에 의해 결과되는 바, ‘나는 그들에게 풍부한 평화와 진리를 밝히 알릴 것이다’라고 말해진다.

시55:18-‘그분은 내 혼을 평화 안에서 되찾으셨다’=주님과의 결합을 통하여 구원함.

시122:6-‘너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얻으려 하라.’...‘평화’에 의해 교리와 예배의 모든 것이 뜻해진다; 그이유가 그들이 천국적 근원으로부터 있을 때, 그들은 천국 안에, 천국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시147:14-네 경계에 평화가 있게 하는 분=천국과 교회의 모든 것들.

시128:6-모든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있는 평화를 통하여 있는바, ‘너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를 볼지 모른다’고 말해진다.

시76:2-예루살렘이 여기서 ‘살렘(Salem)’이라 불리운다, 그이유는 ‘살렘’에 의해 평화가 뜻해지기 때문이다.

이66:12-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결합으로부터 풍부해 있을 것임이 ‘보라, 나는 그녀에게 평화를 강 같이 펼쳐 놓는다’에서 의미되어져 있다.

이32:17,18-평화가 ‘여호와와 의 일’이라 불리운다. 그이유는 그것이 주님 만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평화의 주택’=주님이 계신 천국.

이60:17-주님이 사랑의 선을 통하여 통치하실 것임이 ‘나는 네 정부(government)를 평화로 만들고, 네 강제 징수자(exactor)는 정의로 만든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시72:7-‘평화’가 사랑의 선에 관해 말해진다.

겔34:25-‘평화의 언약’=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것들에 의해 주님과 결합함. 신성한 것들이란 말씀으로부터 사랑의 선과 교리 속의 진리들이다. 고로 대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있는 것들이다.

레26:6-‘토지에 평화...’=교회 안에서 거짓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함.

숙8:10-‘평화가 없다’=악들과 그로부터의 거짓들이 창궐함.

숙8:12-‘평화의 씨’=주님으로부터 있는 천국과 교회의 진리. 이것이 ‘평화의 씨’라 불리는 이유는 이것이 지옥들에 맞서 보호하여 안전을 주기 때문이다.

신20:10,12,13-‘네가 어떤 성읍으로 다가가서 싸우려 할 때, 먼저 너는 그 성에 평화를 선언하라...만일 평화를 받지 않겠다면...너는 칼끝으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처죽일 것이다...’...‘평화를 받지 않는 것’=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에 일치하지 않는 것.

포도 (grape)

송이 (cluster)

창40:10-‘거기로부터의 송이들이 포도들로 여물었다’=영적 진리가 천적 선과 결합함...‘송이들’=영적 선으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포도들’=천적 진리로부터의 선...감각 평면에서 그것들의 결합은 마치 송이들이 포도들로 익어가는 형국이다...이것은 나무의 열매가 익을 때 그것들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익지 않은 열매들, 여기서 ‘송이들’은 진리가 아직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선이 지배력을 갖는 것은 익은 포도들에서 지각되는 달콤함과 향기로 표현되고 있다.

암9:14-‘포도들을 만들고 그것들의 열매를 먹는 것’=거기로부터 파생된 선을 자기 것 되게 하는 것.

계14:18-‘땅의 포도들을 수확하는 것’=선행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계14:18-‘땅의 포도나무의 포도 송이들을 수확하는 것’=기독교 교회의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선행과 신앙의 일들에 말씀의 신성의 진리를 수단으로 있는 주님의 역사하심.

예8:13-‘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들’=영적 선.

신32:32-‘고모라의 포도들’=거짓들로부터의 악들.

창49:11-‘포도주와 포도들의 피’=자연 평면의 신성의

포도 수확-포도액

선과 신성의 진리.

이5:2-‘그는 포도들이 산출되리라 예상했다’=선행의 선; 그러나 ‘들포도가 산출되었다’=미움과 복수로부터의 악들.

예8:13-‘포도나무에 포도들이 없다’=내면의 선, 또는 합리적 선이 없다.

호9:10-‘광야에 포도들이...’=아직 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합리적 선.

신32:14-‘포도들의 피’=영적인 것으로부터의 천적 선; 이 선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천국에 있는 신성이라 불리운다. 포도주가 ‘포도들의 피’라 불린 이유는 둘 다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거룩한 진리이기 때문; 그러나 ‘포도주’는 영적 교회를 서술하고, ‘피’는 천적 교회를 서술한다.

신32:32-‘그들의 포도들은 담즙의 포도들이고, 그들에게 쓴맛의 송이들이다’=자발성(이 지옥의 사랑으로부터의 거짓들에 의해 사로잡혔다); 그이유가 ‘포도’, 좋은 측면에서,=선행인바, 자발성(Voluntary)을 서술하나, 여기서는 지적 측면에서의 자발성을 서술하고 있다.

창40:11-‘나는 포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바로의 컵 안으로 짜넣었다’=영적 근원으로부터 선들 안으로 상호 유입됨. ‘포도들’=선행의 선들, 고로 영적 근원으로부터의 선들.

계14:18-‘그것의 포도들이 익었기 때문에’=그것이 기독 교회의 마지막 상태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vine)

시128:3-‘네 아내는 열매 있는 포도나무 같다’=영적 교회.

요15:1-5,12-‘포도나무’=영적 교회, 그리고 선행은 영적 교회의 제 1의 원리이고, 이 원리 안에 주님이 현존하시며, 선행을 통하여 그분은 인간과 그분 자신을 결합시키시고, 이 선행을 통하여 그분만이 모든 선을 운행하시는 바, 주님은 그분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교하시면서 영적 교회, 또는 영적 교회인을 묘사하신다. 즉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나의 아버지는 포도원지기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 않는 모든 가지들...그분은 제거하신다...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시80:8-주님은 그분에게 가르쳐진 지식 측면에 관련하

여 ‘이집트로부터의 포도나무’라 불리신다

신32:32-‘포도나무’가 진리들에 관해서, 그리고 거짓들에 관해서 서술된다...고로 ‘소돔의 포도나무’=악으로부터의 거짓.

창49:11-‘포도나무’, 그리고 ‘고상한 포도나무’=영적 교회의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

숙8:12-‘포도나무가 자기 열매를 줄 것이다’=교회의 영적 평면, 즉 신앙으로부터의 진리가 선을 줄 것이다.

신8:8-‘포도나무와 무화과’=신앙으로부터의 선들.

이5:2-‘고상한 포도나무’=영적 선. (=영적 교회의 신앙으로부터의 선.)

창40:9-‘오 내 앞에 포도나무’=영적 교회의 지적 평면.

예2:21-‘고상한 포도나무’=영적 교회인, 이것은 지적인 것으로부터 ‘포도나무’라 불리운다. ‘이상한 포도나무의 타락한 가지’=뒤집힌 교회인.

겔17:6,8-‘울창한 포도나무’, 그리고 ‘장엄한 포도나무’로 되어감=영적 교회가 되어감, 이 교회는 영적 선, 또는 선행으로부터의 선을 의미하는 포도주로부터 ‘포도나무’라 불리우고, 이로부터 신앙으로부터의 진리가 지적 부분에 심어진다.

창49:11-‘포도나무’=영적 교회 속에 있는 지적 평면; 그리고 ‘고상한 포도나무’=천적 교회 속에 있는 지적 평면.

마26:29-진리로부터의 선을 통하여, 그리고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통하여 지적 평면이 새로이 만들어짐, 또는 거듭난다는 것이 ‘포도나무의 열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창40:10-‘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세 어린 가지가’=파생되는 파생물이 최말단의 것 쪽으로 내려감. ‘포도나무’=지적 평면.

예8:13-‘포도나무에 포도들이 없다’=내면적, 또는 합리적 선이 없다.

창49:11-‘그는 자기 젊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외적 교회를 위한 자연 평면에 있는 진리(를 통하여 결합)...‘포도나무’=영적 교회; 여기서, 영적 교회의 외적 측면, 그이유는 ‘선발된 포도나무’=내적 교회이기 때문.

창49:11-‘그의 새끼 나귀를 선발된 포도나무에 맨다’=내적 교회를 위해 합리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통하여).

포도액-새 포도주

시105:33-‘포도나무’=내적 교회의 진리와 선.
 왕하4:39-‘야생 포도나무로부터 호리병박’=왜곡됨.
 계14:18-‘땅의 포도나무를 수확함’=교회의 진리와 선이 소진되는 것.
 합3:17-‘포도나무’=영적 선.
 말3:11-‘들판에 있는 포도나무’=교회의 진리들.
 이24:7-‘포도나무가 시들 것이다’=(영적 교회의) 진리가 중단될 것이다...‘포도나무’=영적 진리.
 이7:23-‘천 그루의 포도나무’=선으로부터의 진리가 풍부함.
 숙8:12-‘포도나무가 그것의 열매를 줄 것이다’=진리가 선을 생산할 것이다...‘포도나무’=진리들 측면에서의 교회, 또는 교회의 진리들.
 신8:8-‘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영적 근원으로부터의 선과 진리.
 이5:2-‘고상한 포도나무’=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 진리, 또는 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진리.
 호2:12-‘나는 그녀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황폐한채 놓아둘 것이다’=영적, 자연적 선 모두 사라질 것이다...‘포도나무’=영적 인간으로부터 있는 내적 교회.
 호10:1-‘이스라엘은 텅빈 포도나무이다’=더 이상 어떤 진리도 없을 때의 교회.
 겔19:10-‘네 어머니는 포도나무 같다’=고대 교회, 이 교회는 생활의 선과 이 선으로부터 파생하는 진리들 안에 있었다.
 신32:32-‘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 속에 있다’=자아 사랑으로부터 모든 악들에 있는 교회.
 욥1:7-‘내 포도나무가 쓸모없는 쪽으로 쇠하여 지게 한다’=말씀의 영적 의미로부터 있는 것인 영적 진리들을 파괴함.
 시80:14-‘보라,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방문하소서’=영적 교회.
포도 수확 (vintage)
(포도를) 따다 (vintage)
포도 수확 자 (grape-gatherer)
 계14:18-‘땅의 송이들을 따는 것’=선행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교회의 진리와 선을 없애는 것).
 욥5절-‘포도 수확자’=악으로부터 있지 않은 거짓들.

예48:32-거두어간 선의 진리들이 ‘포도 수확...’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이32:10-‘...다 없애버릴 포도 수확’=교회의 어떤 진리도 더 있지 않다. rm 이유가 포도 수확=포도주와 같은바, 교회의 진리이기 때문.
 계14:18-‘날카로운 낫을 들이대는 것, 그리고 포도 수확’=선을 모두 그러모우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악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포도액 (must)
새 포도주 (new wine)
 이65:8-‘포도액이 송이에서 발견될 때...’; ‘송이’=선행; ‘포도액’=선행의 선들과 이 선에서 파생되는 진리들.
 호4:11-‘음행,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포도액이 심정을 소유했다...’포도주’=거짓; ‘포도액’=파생되는 악.
 창27:28-‘곡식과 포도액(새 포도주)이 풍성함’=파생되는 자연적 선, 그리고 파생되는 자연적 진리...‘포도액’=진리, 이것이 자연 평면을 서술할 경우,=자연적 진리; 그리고 ‘포도주’는 합리성을 서술한다.
 학1:11-‘포도액에 가뭄이’=진리의 부족.
 신33:28-‘곡식과 포도액의 토지’=교회의 선과 진리.
 이24:7-‘포도액이 슬퍼할 것이다’=진리는 중단될 것이다.
 예31:12-‘곡식과 포도액’=선과 파생되는 진리.
 창27:37-‘곡식과 포도액을 가지고 나는 그를 떠받히게 했다’=거기로부터의 선과 진리.
 욥1:10-‘포도액’=교회의 진리.
 이65:8-‘송이 안에 포도액’=자연 평면에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
 암9:13-파생되는 사랑과 선행으로부터의 선들이 ‘산들이 포도액을 떨어트리고, 언덕들에 흘러 간다’에서 의미되어져 있다.
 호9:2,4-신앙의 선이 ‘포도주-틀’, ‘포도액’, 그리고 ‘포도주의 음료 공물’이다.
 이49:26-‘그들은 포도액 가지고 술취하듯 피로 술취할 것이다.’
 미6:15-‘포도액을 밟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에 관하여 가르쳐지나 여전히 자신에게 사유화되지 않는다.

포도원-포도원의 일꾼-포도주

사9:13-‘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나의 포도액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율1:5-‘악쓰거라, 포도주로 취한 너희 모든 술주정꾼들이여, 그이유는 포도액이 네 입으로부터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호2:9-그분은 그분의 곡식, 그분의 포도액, 그분의 양털, 그리고 그의 벌거벗음을 덮었던 그분의 아마포를 가져가신다고 말해지고 있는 이유는 ‘곡식’에 의해 영적 교회의 내면의 선이, ‘포도액’에 의해 내면의 진리, ‘양털’에 의해 외면의 선이, ‘아마포’에 의해 외면의 진리가 의미되어지기 때문이다.

호4:11-‘음행’=진리를 왜곡함. ‘포도주’, ‘포도액’도 마찬가지이다.

호4:11-‘포도주’=내면의 거짓; ‘포도액’=외면의 거짓.

시4:7-선과 진리가 증가함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액이 증가함’에서 뜻해지고 있다. ‘곡식’=선, ‘포도액’=진리.

예31:12-‘밀’=자연적 인간의 선; ‘포도액’=그것의 진리.

율1:10-‘곡식’에 의해 외적 인간에 있는 갖가지의 선; ‘포도액’에 의해 거기 있는 진리가 뜻해진다.

예31:12-‘포도액과 기름’에 의해 진리와 선이 의미되어진다.

율2:24-‘포도액과 기름’에 의해 교회의 진리와 선이 의미되고 있다.

율1:10-‘포도액’=진리; ‘기름’=선.

호2:22-‘포도액’=진리; ‘기름’=선.

율3:18-‘산들이 포도액(또는 포도주)을 떨어트리고, 언덕들에 흘러내린다’에 의해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으로부터 모든 진짜 진리가 있다.

창27:28,37-‘곡식과 포도액’=교회의 모든 선과 진리.

신11:14-그들이 그러모을 ‘곡식, 포도액, 그리고 기름’에 의해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의 모든 선과 진리가 의미되어져 있다.

신33:28-‘곡식과 포도주의 토지에서 사는 것’에 의해 교회의 모든 선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의미되어져 있다.

예31:12-‘밀, 포도액, 기름’에 의해 갖가지의 선들과 진

리들이 의미되어져 있다.

이62:8-‘낮선 자의 아들들이 마시지 않을 포도액’에 의해 더 이상 거짓들에 의해 소진되지 않아야 할 교회의 일반적 진리가 의미되어져 있다.

호9:2-그들이 이런 것들을 듣는다고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포도액이 그들에게 거짓말할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율1:5-‘포도주’, ‘포도액’에 의해 교회의 진리가 뜻해져 있다.

이24:7-‘통곡할 포도액’에 의해, 그리고 ‘쇠약해질 포도나무’에 의해 교회의 모든 진리, 그리고 그것이 박탈됨이 의미되어져 있다.

호4:11-과생되는 거짓이 ‘포도액’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이24:7-‘포도액’=말씀의 진리; 그리고 ‘포도나무’=교회의 교리 속의 진리.

이62:9-‘그들은 곡식과 포도액을 그러모을 것이다’에 의해 교리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 안에서,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 안에서 가르침이 의미되고 있다.

신11:14-교인이 거기로부터 가지는 영적이고 천적인 선과 진리가 ‘그들이 그러모을 곡식, 포도액, 기름’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율2:24-거기로부터 그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진리와 선을 가진다는 것이 ‘포도주-틀이 포도액과 기름으로 넘쳐 흐를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신7:13-‘곡식과 포도액’에 의해 자연적 인간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가 의미되어진다.

속9:17-‘곡식은 젊은이들을 성장하게 만들고 포도액은 처녀들을 성장하게 만든다’=진리를 이해함, 진리에 애착함은 주님으로부터의 진리를 통하여, 그리고 주님으로부터의 선을 통하여 형성되어진다.

포도원 (vineyard)

창9:20-‘노아는 포도원을 창설했다’=과생적인 교회. ‘포도원’=영적 교회.

포도원의 일꾼 (vinedresser)

율1:11-‘밀과 보리 때문에 울부짖는 포도원의 일꾼들’=교회 속에 있는 이들.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이들.)

포도주

포도주 (wine)

* merum, must, drunk, strong drink, vine, vineyard, vintage 등도 보라

창9:21-'(노아는) 포도주를 마셨다'=그는 신앙 속의 것들을 (추론을 수단으로) 조사해보기를 원했다.

*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영적 교회...'포도'...=선행... 그리고 '포도주'=파생되는 신앙, 그리고 신앙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고로...'포도주'=그 교회 속의 영적인 것.

창49:11-'포도주'=천적 평면으로부터의 영적인 것. '포도의 피'=영적 교회들에 상대적인 천적 교회; 고로 '포도들'=선행 자체; 그리고 '포도주'=신앙 자체. (=자연 평면 속의 신성의 선과 신성의 진리.)

이16:10-'뜰들에서 포도(wine)를 밟지 않는 것'=신앙 안에 자가 누구도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

이24:9-'포도주'=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계14:8-'매춘의 포도주'=섞음질된 신앙 속의 진리들.

창14:18-'(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원기회복.

이55:1-'포도주와 젖을 사라'=신앙으로부터의 영적 평면, 그리고 사랑으로부터의 영적 평면.

이25:6-'[찌꺼 위외] 달콤하고 정제된 포도주=(선들)로부터 파생된 진리들.

창19:32-'우리의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그들이 이와 같은 선을 거짓에 물들이는 것.

이24:9-'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가르쳐지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즐거워함이 없는 것.

창27:25-'(에서는) 그에게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마셨다'=후에 있는 진리의 결합. (그이유가) '포도주'=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창49:12-'그의 눈은 포도주 보다 더 붉다' (또는 '포도주와 더불어 붉다')=신성의 지혜.

암9:14-'그들은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선행으로부터 있는 영적 교회의 진리들을 자기 것 삼는 것.

창49:11-'그는 그의 의복을 포도주에 빨다, 그리고 그의 덮개는 포도의 피에서 빨다.' 여기서는 주님이 취급되고 있다; '포도주'=신성의 사랑으로부터의 영적 선; 그리고 '포도들의 피'=파생되는 천적 선.

신32:14-포도주가 '포도들의 피'라 불리우고 있다. 그 이유는 둘 모두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거룩한 진리이기 때문; 그러나 '포도주'는 영적 교회를 서술하고, '피'는 천적 교회를 서술한다. 이런 이유에서 성찬에서 '포도주'가 (사용되도록) 명령되었다.

마26:27,28, 막14:23,24, 눅22:20-'그분은 잔을 손에 잡으시고, 감사를 드리셨다...말하시기를, 너희 모두는 이것으로부터 마셔라; 그이유가 이것은 나의 피이기 때문이다...' '포도주'가 아닌 '잔'이라 말해진 이유는 '포도주'와 '피' 모두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거룩한 진리이지만 '포도주'는 영적 교회를 서술하고, '피'는 천적 교회를 서술하기 때문; 영적 교회에는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부터 있는 신앙의 거룩함이 있고, 천적 교회에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있는 선행의 거룩함이 있다.

창49:11-'그는 자기 의복을 포도주로 빨다'=그분의 자연 평면은 그분의 신성의 선으로부터의 신성의 진리이다...(그이유가) '포도주'=이웃을 향한 사랑의 선, 그리고 신앙의 선; 그리고 최고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계6:6-'포도주'=영적 사랑의 선.

눅10:34-'(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그는 사랑과 선행의 일을 실시했다.

마26:29-'포도주'=사랑의 선과 신앙의 선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 말씀들로부터 분명하다. 즉 '나는 너희와 더불어 새로운 포도나무의 열매로부터 마실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의 이 열매로부터 마시지 않을 것이다...'

출27:29-'포도주의 첫 열매들을 너희는 지체 않을 것이다'=모든 진리들은 주님으로부터인 바, 그것들은 자아가 아닌,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 그이유가 '포도주'=선으로부터의 진리, 고로 신앙의 선으로부터의 진리.

미6:15-'너는 포도(must)를 밟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에 관하여 가르쳐지는 것, 그러나 아직은 그것들을 자아의 것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

출29:40-'음료-공물로 포도주 사분의 일 헌'==결합을 위해 충분한 영적 진리; 그이유가 '포도주'=진리, 여기서 천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영적 선에 상응하는 영적

포도주

진리.

계6:6-‘기름과 포도주는 다치게 말라’=말씀 안에서 감추여 놓인 거룩한 선들과 진리들은 어지럽혀지거나 모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마9:17-‘새 포도주를 헌 병에 놓지 마라...’. ‘새 포도주’=신약 성경의 신성의 진리, 고로 새로운 교회의 신성의 진리; 그리고 ‘옛 포도주’=구약 성경의 신성의 진리, 고로 옛 교회의 신성의 진리.

계14:8-‘그녀는 자기 매춘의 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했다’=말씀을 모독함을 수단으로, 그리고 선과 진리에 섞음질함을 수단으로 그녀는 모두를 유혹했다. ‘포도주’=선으로부터의 진리, 반대 의미에서, 악으로부터의 거짓.

계14:10-‘섞지 않은 포도주와 더불어 섞은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주’=왜곡된 말씀의 진리.

계18:3-‘포도주’=그들의 사악한 교의.

계18:13-‘포도주’=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진리.

계19:15-‘하느님의 분노와 격노하심의 포도주’=교회의 선들과 진리들, 이것들은 말씀으로부터인데, 모독되고 섞음질되었다. 고로 교회의 악들과 거짓들.

레10:9-(성직자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이유는 실로 술취함으로 표현들이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때문이었다. 그이유가 포도주는 몸의 생명과 마음의 자연적 생명을 어지럽힌다. 하여 영적 생명이 그것 안에서 적절히 행동할 수 없게 한다.

이24:11-‘거리들에서 포도주 위에 외침이...’=왜곡된 교리의 진리 위에 경쟁과 분노가 있다.

이28:7-‘그들은 포도주를 통하여 실수하고, 독주를 통하여 길을 잃어버린다...그들은 포도주를 수단으로 다 까먹었다’=거짓들과 혼합된 진리들.

이25:6-‘찌꺼기의 축제’, 즉 최상의 포도주의 축제=진리들을 자기 것 되게 함.

호4:17-‘포도주가 가버렸다’=교회의 진리가 떠났다는 것.

암9장-‘포도액’ 즉 ‘포도주’=진리.

이16:10-과생되는 진리들이 ‘포도즙 틀에서 포도(wine)를 밍는 것’에서 뜻해진다...그들은 포도가 포도주 안으로 밍아 으깨질 때, 노래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포도주’에 의해 의미된 진리들로부터의 즐거움들의 표현 때문이다.

예48:33-가져가버린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포도 수확’과 ‘포도즙틀에 있는 포도주’에 의해 뜻해진다.

애2:12-‘날알과 포도주’=일반적으로 교회의 모든 선과 진리.

겔27:18-‘헬본의 포도주’=자연적 진리.

속10:7-‘포도주’=이 천국의 즐거움이 있게 하는 선으로부터의 진리.

단5장-‘성전의 집기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말씀으로부터 있는 교회의 진리들을 흡입하는 것.

욥3:3-‘포도주’=왜곡된 진리.

창14:18-(멜기세덱이 가져온) ‘포도주’=신성의 진리, 또는 사람에게 응용한다면, 신성의 진리를 받음으로부터 오는 신앙의 선.

눅5:37-39-‘포도주’=진리; ‘묵은 포도주’=옛 교회, 또는 유대 교회의 진리...그리고 유대 교회의 규례나 판단들은 기독 교회의 진리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은 새 포도주를 옛 병에 담지 않는다’에 의해 뜻해져 있다...그리고 유대 교회의 외적인 것들 안에서 태어나고 양육된 이들이 기독 교회의 내적인 것 안으로 즉각 가져와질 수 없다는 것이 ‘묵은 포도주를 마셨는데 곧바로 새 것을 바라는 자는 없다. 그이유가 그들은 옛 것이 더 유용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에 의해 뜻해져 있다.

이28:1,7-‘포도주로 처부숨’=진리 대신에 거짓을 보는 이들...‘그들은 포도주를 통해 실수한다...’=거짓들을 통하여.

예13:12-‘모든 병이 포도주로 채워질 것이다’=인간의 마음이 거짓과 더불어.

이5:11-‘포도주로 빨개지는 것’=자신들로부터 교리적인 것들을 부화하는 것.

이5:22-‘포도주를 마심에서 영웅들’=거짓들을 흡입하고 큰 것들을 열망하는 이들.

창49:11-‘그는 포도주에서 그의 의복을 빨다’=주님의 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 이는 그분의 신성의 사랑으로부터의 신성의 진리이다; ‘그리고 그분의 덮개(vesture)는 포도들의 피에서 빨다’=주님의 내적, 또는 합리적

포로-포로 신세가 됨-포로로 끌려가다

인간, 이는 그분의 신성의 사랑으로부터의 신성의 선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보다 더 붉다'=내적, 또는 합리적 (주님의) 인간은 선 밖에 더 아니다.

신32:33-'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고, 독사들의 치명적인 담즙(gall)이다'=악으로부터의 거짓들...'포도주'=말씀으로부터의 진리; 그러나 '용들의 독', '독사들의 담즙'=왜곡해버린 말씀 속의 진리로부터 출현하는 괴상망칙한 거짓.

숙10:7-'그들의 심장은 포도주와 더불어서와 같이 즐거울 것이다'=진리들로부터와 같은 환희(joy).

이22:13-'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악과 거짓을 자아의 것으로 만듦...'포도주'=악으로부터의 거짓.

신28:39-'포도원을 심고, 그것을 경작하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비록 교회가 세워지고, 교리의 진리들이 가르쳐질지라도, 여전히 진리들의 영향을 받아 온전해지지 않는다. '포도주'=교리의 진리.

욥3:3-'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파는 것'=말씀으로부터의 선들을 왜곡하는 것.

예25:15-'여호와와 노염의 포도주의 잔'=지옥으로부터 있는 거짓.

계18:13-'포도주'=천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 그이유는 이것이 '기름'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

포로 (captive)

포로 신세가 됨 (captivity)

포로로 끌고가다 (take captive)

예32:9-숫자 '17'=그들의 바빌론 포로 신세가 됨, 이를 수단으로 신실한 자의 시험, 비신실한 자의 황폐해짐이 표현되어졌다, 그리고 시험의 시작, 동시에 시험들의 끝, 또는 시험에서 해방됨도 표현되고 있다.

창31:26-'칼에 붙잡힌 포로 같이'=그들이 그것들을 가져가버렸음.

창34:29-'그들은 ...포로로,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그들은 그것들을 홀랑 벗겼고 악용했다.

암9:14-'백성의 포로 신세를 되돌려 놓는 것'=거짓들로부터 해방하는 것.

신21:14-'포로된 여인으로부터 아내를'=진짜 지주로부터가 아닌 낯선 진리, 이 진리도 어쨌든 얼마 정도는

자기와 더불어 교회의 선과 결합될 수 있다.

출12:29-'구덩이의 집에 있는 포로들'=마지막 장소(서열)에 있는 이들, 이들은 첫 서열에 있는 왜곡된 신앙의 진리를 의미하는 '왕좌에 앉은 바로의 첫 출생'에 반대되는 위치이기 때문. 대략적인 영적 의미에서, '구덩이의 포로'는 육체의 감각인 것 안에 있는 이들, 고로 진리들과 선들에 관련하여 짙은 어둠에 묻혀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그들은 자기들 내면의 감각들 안에 있는 것조차 지각하는 능력이 없다. 하여 이들은 마지막 장소, 마지막 위치에 있다고 풀이된다.

출12:42-'그들을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데려오는 것'=영적 포로 신세로부터 해방되는 것.

출20:2-'종들의 집'=영적 포로 신세임.

출22:9(10)-'포로로 끌려감'=옮겨짐.

예30:18-'야곱의 천막들이 포로 신세 되어 있음에서 되돌려 가져다놓는 것'=과과되어있어 왔던 외적 교회 속의 선들과 진리들을 회복하는 것.

암4:10-'포로 신세 됨'=진리가 박탈됨.

계13:10-'만일 누군가를 포로 신세가 되게 한다면, 그도 포로 신세가 될 것이다'=이 이설(heresy)을 수단으로 잘 믿고 잘 사는 누군가를 이끄는 자는 그 자신의 악들과 거짓들로 해서 지옥 안으로 인도 당할 것이다.

눅21:24-'모든 나라들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갖가지 종류의 악들로 수단으로 소유당하는 것.

애1:18-'포로 신세가 되어 가버린 처녀들'=영적 진리에 애착함. '젊은 이들'=총명. '포로 신세가 됨'=그들로부터 제거됨.

암9:14-'백성 이스라엘의 포로 신세 됨을 되돌려 놓을 것'에 의해 이방인들 사이에서 교회가 회복됨이 의미된다.

예22:22-'포로 신세가 됨'=지옥 안에 붙들림.

신21:11-'외모가 아름다운 포로 신세의 여인'=진리에 애착, 또는 진리를 갈망함을 지닌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종교적인 것; '그녀를 집 한가운데로 데려오고, 그녀의 머리를 깎고, 그녀의 손톱을 만들고, 그후에 포로 신세 됨의 의복을 제거하는 것'=그것은 교회의 내면, 또는 영적인 것 안으로 인도될 것, 그리고 그들의 수단들인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인간의 악들과 거짓들을 제

포위공격-포플러 나무

거한다...‘포로 신세 됨의 의복’=진리를 갈망하는 자가 마치 포로인듯 붙잡혀 있는 종교의 거짓.

눅21장-‘그들은 모든 나라들 사이에 포로되어 데려가 질 것이다’=악들은 교회속의 선들과 진리들을 먹잇감으로 만들 것이다.

이45:13-‘그는 내 성을 건축하고, 나의 포로된 자를 가게 할 것이다’=그는 진리의 교리를 회복 할 것이다, 그리고 무지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성’=진리의 교리, 그리고 ‘포로된 자’=이방인들에 있는 무지로부터의 거짓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들은 영적 포로 신세가 되어 있었다.

예30:18-‘그들의 포로 신세 됨’=영적 포로 신세 됨,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통치하는 거짓 때문에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을 지각할 수 없을 때 존재한다.

애1:18-진리에 대한 모든 애착이 파괴되었다는 것이 ‘내 처녀들은 포로 신세 되어 가버렸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암9:4-‘만일 그들이 적들 앞에서 포로 신세가 되었다면’=만일 그들이 악들로 자기들을 점유하게 내버려둔다면; ‘적들’=악들; 그리고 ‘포로 신세가 되는 것’=그것들에 의해 점유당하는 것.

시78:61-‘그분이 준 강함이 포로 신세 됨 쪽으로’=천적 선으로부터 있는 영적 진리; 그리고 ‘포로 신세 됨 쪽으로 주는 것’=그것을 이해함을 단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고로 거짓들을 통하여 파멸하는 것.

합1:9-그들이 거짓들을 수단으로 모든 진리들을 파괴하리라는 것이 ‘그들은 포로 신세 된 자를 모래 같이 그러모을 것이다’에서 의미되어 있다.

예43:11,12-‘포로 신세가 될 자는 포로 신세가 되게 하고’=단아 잠금에 의해 파멸과 진리의 파멸...‘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거기로부터 파생된 거짓들을 수단으로 그들을 파괴하는 것.

이20:4-‘이집트로부터 포로된 자를 끌고 가는 아시리아 왕’=거짓들로부터 추론함은 자연적 인간에 있는 모든 진리들,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있는 진리들을 파괴할 것이다.

단11:8,33-‘그들의 선들, 그리고 그들의 제 1 인자들, 값나가는 집기들, 그리고 금과 은, 이것들이 이집트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방어하는 진리가 교회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을 거짓들에 있는 이들로부터 거두어갈 것이다...그것들을 거두어감과 방어함이 ‘이집트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의미되어 있다...‘포로되고 약탈 당함’=진리와 선의 모든 것들을 박탈함.

예22:22-‘네 사랑하는 자가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모든 진리들로부터, 그리고 이 진리들을 이해함으로부터 닫아 걸음.

신32:42-‘죽임을 당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와 더불어’=모든 진리를 끄고 차단함... ‘포로된 자’=거짓들을 수단으로 진리를 차단함.

욥1:11-‘자기의 강함을 포로로 끌고 간 낫선 자’=교회의 진리들을 파괴하는 교회 속의 거짓들.

이48:46-‘네 아들들이 포로로, 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그들의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이 거짓들과 악들에 의해 차단되었다...‘나는 날들의 맨끝에서 모압의 포로 신세 된 자를 도로 데려오겠다’=진리들은 ‘모압’에 의해 뜻해진 이들을 위해 열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극서들 안에서 가르쳐질 것이다. 말씀에서 ‘포로들을 되돌려 데려온다’고 자주 말해진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 의해 이방인들이 뜻해진다. 이들이 ‘포로된 자’라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들로부터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 그러나 이것들은 주님에 의해 그들을 위해 열릴 것이다.

이61:1-‘포로들에게 그분은 자유를 전파하실 것이다’=진리들로부터, 선들로부터 차단된 이들에게 진리들이 열려지고 선들이 스며들 것이다.

시68:18-‘포로를 포로신세로 이끄시고’=그들을 포로로 붙잡은 거짓들로부터 해방하는 것.

포위 공격 (siege)

나3:14-‘포위 공격에 대비하여 물을 길으는 것’=진리들에 맞서 다양한 것들을 수단으로 거짓들을 견고케하는 것.

포플러 나무 (poplar)

창30:37-‘야곱은 싱싱한 포플러 나무 가지를 가져왔다’=자연적 선에 적당한 힘...‘포플러’=자연 평면의 선.

창30:37. 호4:13-어떤 나무 종류의 경우=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있는 외면의 선과 진리들; 예를 들면 포플러 나무 같은 경우. 여기서 명명된 포플러 나무는 흰 포플

포위공격-포플러 나무

러 나무이다. 이로부터 이 포플러 나무는 진리로부터 있는 선, 또는 진리의 선이 의미되었다. 호세아서의 경우는 반대 의미인바 왜곡된 진리의 선이 의미되고 있다.

포피 (foreskin)

* 사랑이 없을 때 그들은 할례받지 않았음이라 부른다.

예4:4-‘네 자신을 여호와에게 할례받아라, 그리고 네 심정의 포피를 제거하라’=...천적인 사랑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

신10:16-‘심정의 포피를 할례하는 것’=더러운 사랑들의 악들로부터, 그리고 이 악에서 파생되는 거짓들로부터 깨끗해지는 것.

창17:14-‘할례받지 않은 남성’=신앙 속의 진리 안에 있지 않은 남자(him)...‘할례받지 않은 것’은 여기서의 경우...진리를 더럽히고 가로막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할례받지 않은 것이 어떤 다른 것과 접할 경우, 이것은 접한 다른 것을 오염되게 하고 어렵게 한다.

예6:10-‘할례받지 않은 귀’=경청함이 없는 것, 말씀이 자기들에게는 불명예스러운 것이었다는 것.

창34:14-‘포피를 가진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주는 것’=그들이 표현성 안에 교회 속의 선과 진리를 놓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이 의미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물러나야 하리라는 것; (그 이유가) ‘포피’=외적 표현성, 그들이 교회 속에 있다는 표시...이러므로 이 말들에 의해 자기들의 깊은 신앙에 접근함이 의미되어진다.

출4:25-‘그녀는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랐다’=더러운 사랑들을 제거함, 그럼으로써서 내적인 것이 드러나 놓임...‘포피’=천적, 영적 사랑을 더럽히는 지상적이고 육체적인 사랑...

출6:12-‘저는 입술을 할례를 받지 않았나이다’=그들에게 나는 불순하다는 것...=그는 교리에 속하는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불순하다는 것; 그 이유가 ‘할례받지 않았음’은 교리와 생활 양 측면을 서술하기 때문.

출12:48-‘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한다’=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들과 더불어 있을 수 없다.

합2:16-‘포피를 노출하는 것’=이런 것들을 더럽히는 것. ‘포피’=이런 사랑들로 해서 천적인 선들을 더럽힘.

겔44:9-다른 한편으로, ‘할례받지 않았음’, 또는 ‘포피가 있음’에 의해 오로지 자연적 사랑들의 악들로부터 깨끗해지지 않았던 자, 고로 선행 안에 있지 않은 자가 뜻해지고 있다; 그리고 심정이 깨끗하지 않은 자가 ‘포피가 있는 자’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에 ‘심정이 할례되지 않은 자, 그리고 육에서 할례되지 않은 자는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52:1-‘할례받지 않은 자와 불결한 자’=악들과 거짓들에 있는 이들.

합2:16-‘포피를 노출하는 것’=더러운 사랑들을 드러내는 것.

폭풍 (storm)

광풍 (storm)

허리케인 (hurricane)

이41:16-분산됨이 ‘폭풍’에 비교되고 있다. 이는 악에 관련해 말해지고 있다.

예25:32-‘큰 폭풍’=지배하는 거짓.

호8:7-‘그들이 거두어들일 허리케인’=결과되는 교회의 혼란.

나1:3-‘여호와의 길은 허리케인과 사나운 비바람에 있다’=글자 의미에 있는 말씀

이28:2-‘살륙’, 그리고 ‘그것의 폭풍’=교회의 선들을 파괴하는 악들.

예4:13-‘허리케인 같은 병거’=거짓으로부터의 교리물들.

슌9:14-‘주 여호비께서 남쪽의 폭풍에서 행군하셨다’=진리를 명백히 이해함에서.

예5:10-‘우리의 피부는 불가마 같이 검다, 가뭄의 폭풍 때문이다’=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터에 자연적 인간은 그 자신의 악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이41:16-‘당신은 그들을 흘트리실 것이다, 바람이 그들을 운반해 갈 것이고 허리케인이 그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그들은 하등 가치가 없다는 것. ‘바람’과 ‘허리케인’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그이유는 악들과 거짓들을 뜻하기 때문, ‘바람’은 진리를, 반대 의미로는 거짓을, ‘허리케인’은 반대 의미에서 거짓으로부터의 악들에 관해 말해진다.

시148:8-‘폭풍들의 바람’=받음 측면에서의 신성의 진

폭행-표-표범

리; 그리고 그러므로 '폭풍들의 바람이 그분의 말씀을 행함'이라고 말해진다.

시107:29-'그분은 폭풍을 중지하게 만드셨다, 그것의 파도들이 잠잠해진다'=영적 시험들로부터 해방됨.

눅8:23-'바람의 폭풍이 호수 위에 내려왔다...'=이 기적은 영적 시험들을 포함한다. 그이유가 영적 시험들은 거짓들의 침입이기 때문.

시11:6-'...폭풍들의 바람은 그들 잔의 몫일 것이다'=모든 진리의 파멸.

이54:11-'사나운 비바람으로 뒤흔들리고 고통받는 것'은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교회가 거짓의 침투로부터 여기저기로 끌려다님에 관해 말하고 있다.

폭행 (violence)

창6:11-'폭행으로 가득찼다'=그들의 불결한 탐욕들.

창6:13-'땅은 폭력으로 채워졌다'=그들은 선으로부터의 의지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았다.

표 (mark, characteristic)

* 가인에게 해준 표는 '표시' 단어를 참조.

계14:9-표시(sign)가 '표'라 불리워지고 있다

계14:9-'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지는 것'=품질이 어떠한 모든 인정하는 것.

계13:16-'그들의 오른 손과 그들의 이마들에 있는 표를 그들에게 주는 것'=신앙과 사랑에서 이 교리(용과 짐승으로 의미된 교리)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개혁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계13:17-'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한다'란 인정되어진 것, 곧 자기들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라는 것.

계14:9-'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는 것'=믿음 만의 교리의 악들을 교회의 선들로서, 교회의 진리로서 인정함으로부터 수용하는 것.

계16:2-'짐승의 표를 가졌던 이들 위에, 그리고 그것의 형상을 숭배했던 사람 위에'=믿음 만을 인정했던 이들, 그리고 그것의 교리를 인정했던 이들, 그리하여 그것에 따라 살았던 이들...'그의 표'=인정함, 수용함,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냄.

표범 (leopard)

이11:6-'표범'=(순진의 둘째 수준에) 반대되는 것.

계13:2-'내가 보았던 짐승은 표범 비슷했다'=교회를 파괴하는 이교(heresy), 그이유는 이교가 왜곡된 말씀의 진리들로부터 이기 때문...'표범'은 말씀 속의 진리를 왜곡함에 애착, 또는 탐욕이 의미된다.

단7:3-7-'이 네 짐승들에 의해 교회의 연속되는 상태들이 묘사되고 있다...세번째 상태가 '표범'에 의해 묘사되는데, 이는 진리 측면에서 왜곡된 말씀이 의미되고 있다; '그것의 등에 있는 새들의 것 같은 네 날개들'은 거짓들로부터 확증함이 의미된다.

합1:8-진리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짓들로부터 추론함을 통해 진리들을 남용하고 파괴해버려는 욕망이 '그의 말들은 표범보다 더 날래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11장-'표범'=선행에 반대인 거짓. 이 거짓은 신앙을 옹호하는 추론을 수단으로 선행을 파괴하려 골몰한다.

예5:6-'표범이 그들의 성읍들에 맞서 깨어있다'=교리의 진리들에 맞서 악의 거짓들로부터 추론함들.

단7장-'표범'=불일치하는 추론들, 그러나 여전히 일치하는 듯 나타난다.

호13:7-'길에 있는 표범 같이 나는 관찰한다'=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추론함을 수단으로 진리를 왜곡함. '표범'에 의해 추론들을 수단으로 진리들을 왜곡함이 의미된다.

표시(sign)

* 가인에게 장착된 표(the mark)=신앙은 손상입어서는 안된다.

창4:15-'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표(a mark)를 해두셨다'=주님은 보통이 아닌 방법으로 신앙을 구별해두셨다. 누군가에게 '표를 해두는 것'=구별해두는 것.

창9:12-'이것이 언약의 표시이다'=선행(charity)에 주님의 현존하신다는 암시 외 더 다른 표시는 아니다.

마24:24-'큰 표시들과 경이로움들'=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과 오류로부터의 설득과 확증들, 이것 때문에 단순 소박한 자들은 부추김을 받아 자신들을 고통받게 한다.

마34:30-'(영의) 하늘(heaven)에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의 표시'=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나타남. 제자들이 질문한 것, '당신의 오심의 표시는 무엇일 것입니까?'에 관련되는 표시 또는 나타남이다.

푸른

출3:12-‘이것은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시일 것이다’=신성이 그분으로부터 진행되었음을 앎. ‘표시’=참 진리(the Truth)를 확증함. 이로부터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앎.

출4:17-‘무엇으로 당신께서는 표시들을 하시렵니까?’=참 진리들의 확증과 예증들. ‘표시’=참 진리들의 확증.

출7:3-‘나는 내 표시들과 경이로움들을 배가하겠다’=이렇게 저렇게 혼계함, 그리하여 부족하지 않을 것임. ‘표시들과 경이로움들’=참 진리의 확증들; 또한 신성한 권능의 매체, 이 구절의 경우, 혼계.

출8:23-‘내일 이 표시가 있을 것이다’=신성한 권능의 명명백백함은 그때로부터 영원할 것이다...‘표시’=참 진리의 확증, 고로 참 지식, 그 결과 신성한 권능의 명백함; 그 이유가 참 진리는 이전에 표시들에 의해 명백해졌기 때문, 그리고 동시에 신성한 권능 역시 명백해졌기 때문.

출8:23-‘내일 이 표시가 있을 것이다’=그때부터 영원히 신성한 권능은 명백하다...‘표시’=참 진리의 확증, 고로 참 지식, 그 결과 신성한 권능의 명백함.

출10:1-‘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내 표시들을 놓을 런지 모른다는 것’=악한 자는 자기들이 악 안에 있다는 것을 알런지 모른다, 그리고 선한 자는 교회 내에 악하게 사는 이들의 상태에 관해 예증할런지 모른다는 것.

출12:13-‘네 집이라는 표시를 위해’=선으로부터의 의지임을 증거함. ‘표시를 위해 있는 것’=증거함.

출13:9-‘네 손에 표시를 위해’=의지에 영구적으로. ‘표시’=영구히 기억함.

출31:13-‘나와 너 사이에 표시’=교회 속에 있는 그들은 제일 가는 것에 의해 천국에서 알려진다는 것.

계12:1-‘큰 표시가 천국에서 보여짐’=그분의 새로운 교회에 관하여 주님에 의해 계시됨...‘천국으로부터의 표시’=여기서의 경우, 미래의 것들에 관한 계시...말씀에서 ‘표시’가 미래의 것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것은 계시, 참 진리에 관하여 이다면 증거함; 그리고 상태와(주님의) 어떤 것에 관하여 이다면 그것은 명백히 하심이다.

계12:3=‘또다른 표시가 하늘에 보임’=새로운 교회에 맞서는 이들에 관하여 주님으로부터의 계시.

계13:13-‘그는 큰 표시들을 행한다’=자기들이 가르치는(거짓들이) 진리라고 증거한다. 그이유는 이전의 표시들이 행하여진 것은 참 진리가 증거되도록 함이었기 때문.

계13:14-‘표시들이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그에게 주어졌다’=증거와 증명.

계15:1-‘크고 불가사리한 또다른 표시가(영의) 하늘에서’=사랑과 신앙에 관련하여 땅 위 교회의 상태에 관한 계시.

이11:10-‘백성의 표장(ensign)으로 설 것이다’=진리들 측면에 있는 것에 의해 보여짐.

겔9:6-‘표(mark) 있는 사람’=선으로부터의 진리.

이66:19-‘그들 사이에 표시를 두는 것’=악으로부터 구별하여 분리함, 그리고 선과 결합함.

겔27:7-‘돛과 표장’=명백함; 그이유가 영적 진리들은 지식들을 통하여 명백해지기 때문.

표창 (dart)

던지다 (dart)

쏘다 (shoot)

창21:16-‘활 사정거리(bow-shot)만큼 물러감’=진리의 교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만큼에서의 상태.

창21:20-‘그는 활 쏘는 자(사냥꾼)가 되었다’=영적 교회의 사람; 이는 ‘표창’, ‘화살 shaft, arrow’의 의미가 진리인바, 이로부터 분명하다.

시64:4-‘은밀히 곧바른 자를 쏜다; 갑자기 그들은 그를 쏜다.’

* 말씀의 많은 곳에서 표창, 화살, 활, 사냥꾼 등의 단어가 반대 의미를 가진다=거짓들, 거짓으로부터의 교리, 거짓 안에 있는 이들.

창49:23-‘그들은 쏜다’=그들은(거짓들)로부터 전투한다는 것. ‘쏘는 것’=거짓들로부터 전투하는 것.

시11:2-‘쏘는 것’=현혹하는 것.

푸른 (blue)

청색 (blue)

예10:9-‘푸른색과 의상을 가지고’=마치 일치하는 듯한 자연적인 것들.

겔27:7-‘엘리사아의 섬들로부터 푸른색과 자주색’=내향의 예배에 상응하는 예식들, 고로 천적인 것들의 표

푸른

현물.

출35:6-‘빨강’이 이 의미를 가지는데, 텐트의 덮개는 심홍색과 자주색(진홍색, purple), 그리고 푸른색의 실들로 짜집어졌다.

겔27장-진리의 선이 ‘청색과 자주색’이다.

출25:4-‘푸른색’=진리로부터의 천적 사랑. ‘푸른색’이 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것의 천적인 색깔 때문, 이 색깔에 의해 천적 근원으로부터 있는 진리가 의미되어 진다, 이는 주님을 사랑함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이다. 이 선이 가장 안쪽의 천국(세째 천국)을 지배한다. 그리고 둘째 천국에서 자주색과 푸른색으로 나타난다. 선 자체는 자주색이고, 이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는 푸른색이다.

겔23:6-‘푸른색으로 옷입은’=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외관.

계9:17-‘풍신자석, jacinth’=거짓으로부터의 지옥의 사랑.

출26:36-‘푸른색과 자주색과 두 번 물들인 진홍색과 고운 아마포를 다함께 짜집어’=선행과 신앙의 선으로부터...그이유는 ‘벽걸이천(hanging, 칸막이 천)’이 취급되기 때문.

출28:31-‘모두를 청색으로’=천적 왕국의 선으로부터 유입을 통하여. ‘푸른색’=진리로부터의 천적인 사랑, 이는 서로의 사랑(mutual love)의 선, 그리고 이 선은 천적 왕국의 외적 선이기 때문.

출28:37-‘너는 그것을 푸른색의 실로 붙여라’=천적 사랑의 진리 안쪽으로 유입됨. ‘푸른색’=천적 사랑으로부터의 진리.

계9:17-‘불같고, 푸른색이고, 유황빛의 가슴판을 가진...’=지옥의 사랑과 자기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현세에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상상적이고 환상적인 그들의 논쟁들. ‘풍신자석’=영적 사랑 속의 애착으로부터 있는 총명, 반대 의미에서는 그들 자신의 총명인 지옥의 사랑으로부터 있는 총명.

* ‘풍신자석’=영적 사랑의 애착으로부터 있는 총명인 이유는 이 색깔은 불의 빨강과 빛의 빛나는 흰 색깔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이다.

겔27장-‘자주색과 푸른색’=선의 천적 사랑과 진리의

천적 사랑.

겔23장-‘푸른색’=진리처럼 나타나는 거짓.

출28:37-‘푸른 색의 실 위에 판이 있었다’=영적 사랑으로부터의 선. 영적 사랑은 진리로부터의 선이다.

계9장-‘풍신자석(푸른색)’ 또는 ‘히아신스색(보라색, 적 등색)’=세상을 사랑함, 그리고 그로부터 있는 모든 거짓으로부터의 탐욕.

* 영적 의미에서, ‘히아신스색’=진리로부터의 천적인 사랑. 반대 의미에서, 거짓으로부터의 악마의 사랑, 또한 세상을 사랑함.

민15:38,39-‘히아신스색’=진리로부터의 천적인 사랑인 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푸른색의 실을 의복의 술에 놓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와 모든 명령을 회상하고 준행하도록 명령받았다.’

겔23장-오류와 거짓들로부터 ‘푸른색으로 옷입은’이라고 말해지는데, 이는 바깥쪽 형체로서는 진리들로서 나타나기 때문, 그이유는 그들이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왜곡하여 응용했기 때문.

풀 (grass)

풀이 무성한 (grassy)

예14:5-‘이런 애착들이 진리들과 선들 없이 있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버리고 돌보지 않는다, 그이유는 ‘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진다.

* ‘잎(blade), 이삭(ear), 낱알(corn)’의 비유에는 과학물,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선행으로부터의 선들이라는 인간의 거듭남이 포함되어 있다. ‘잎’=첫 과학물.

이35:7-‘갈대와 골풀 대신 풀’=진리가 없는 것들 대신 과학적 진리가 있을 것이다.

계8:7-‘태워져버린 푸른 풀’=진리의 과학물들이 파괴되었다.

계9장-‘땅의 풀에는 어떤 삼함도 있게 마라’=과학적인 것.

이51:12-‘사람의 아들에게 주어진 풀’=과학물을 통하여 거짓이 있다.

계8:7-‘모든 푸른 풀이 태워졌다’=신앙의 살아있는 모든 것이 멸해졌다.

계9:4-‘그들은 땅의 풀, 어떤 푸른 것도 다치게 하지 말라고 말해졌다...’=주님의 신성한 섭리, 즉 그들은 신

풍부한-풍신자석-풍지향-플라타너스 나무-피

양의 어떤 진리와 선도 제거해버릴 수 없다는 것.

시147:8-‘풀’=그들이 가지는 영적 자양분.

삼하23:4-‘땅으로부터 풀’=총명 그리고 거기로부터의 개혁.

이51:12-과학적 진리를 통한 총명이 ‘풀 한가운데에서 싹트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시104:4-과학적 진리를 통하여 있는 총명이 ‘풀 한가운데에서 싹틈’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시104:14-‘여호와께서는 짐승을 위하여 풀이, 그리고 인간의 봉사(ministry)를 위해 풀잎이 싹트게 하신다, 하여 땅으로부터 빵을 산출하신다’=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통하여 자연적 인간과 영적 인간을 가르치시고 자양분을 주심, 하여 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이 있어질런지 모른다는 것. ‘풀’은 자연적 인간의 진리, 이는 과학적 진리이다...‘풀잎’은 영적 인간의 진리이다.

이35:7-그들이 가지는 진리들과 선들이 ‘풀’ 등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단4:32-‘풀을 먹는 것’=감각적이 되어가는 것.

풀밭 (meadow)

이30:23-‘넓은 풀밭에서 풀을 먹는 것’=가르침이 풍부하게 있는 것.

시65:13-‘풀밭들’=영적 마음 속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 그리고 이로부터 합리적 마음 속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

풀어주다 (loose)

창24:32-‘그는 낙타들을 풀어주었다’=이런 것들로부터의 자유...‘풀어주는 것’=자유하게 만드는 것.

계9:14-‘네 천사들을 풀어주어라’=외적 속박이 그들로부터 거두어지는 것.

계20:3-‘그는 잠간 풀어나야만 한다’=용에 의해 뜻해진 이들은 잠간 동안 풀려나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과 교통함이 그들에게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

계20:7-‘사탄은 그의 감옥으로부터 풀려나질 것이다’=자신 안에 있는 신앙의 거짓 가지고 확증했던 모든 이가 풀려나진다는 것.

계5:3-‘책의 봉인을 풀어라’=모든 이의 생명의 상태를 알고 지각하는 것.

풀잎 (herb, herbaceous, herbage)

창1:12-거듭남의 셋째 상태에서, 그는 내적 인간으로부터 경건하고 헌신적으로 말하는데...(이 구절에서) ‘풀잎’, 또는 ‘씨 맺는 풀잎’이라 불린다.

*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연한 어떤 풀잎을 내게 하신다. 이것이 ‘연한 풀잎’이라 부르고 있다; 그 다음 더 유용한 어떤 것, 다시 좀더 많은 유용한 것을 내게 하시는데, 이것이 ‘씨를 가진 풀잎’이라 불리우고 있다.

*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선을 행한다고 상상하는 수준에 있는 동안, 그의 진리들은...‘연한 풀잎’, 그리고 ‘씨를 가진 풀잎’이라 불릴 뿐이다.

창1:30, 시104:14-‘야채와 푸른 풀잎’이 자연에게 음식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의 자연적, 영적 양식 모두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짐승을 위해 풀이 자라게 하시고 인간을 섬기도록 채소를 자라게 하셨다.’

창2:5-천적 인간의 과학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이 ‘수증기로 적셔진 지면으로부터의 풀잎과 관목’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창3:18-‘들판의 풀잎을 먹는 것’, 또는 야생의 음식=야생 동물들 같이 사는 것.

예12:4-‘모든 들판의 풀잎’=교회의 모든 과학적 진리 (=교회의 모든 진리)

출9:22-‘이집트의 토지에 있는 들판의 모든 풀잎 위에’=자연적 마음에 있는 교회의 모든 진리. ‘풀잎’=진리...그 이유는 ‘토지’ 그리고 ‘들판’=교회...‘들판의 풀잎’에 의해 들판으로부터 생산되어지는 일반적인 모든 것이 뜻해진다.

마13:26-‘풀잎’=들판의 생산물. 여기서의 경우 ‘풀잎’은 교회의 진리가, ‘가라지’에 의해서는 거짓이 의미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출9:25-‘우박이 들판의 모든 풀잎을 내리쳤다’=이런 거짓들이 교회의 모든 진리를 파괴했다.

출10:12-‘토지의 모든 풀잎을 먹어치울 것이다’=모든 진리가 깡그리 소진됨...‘토지의 풀잎’=교회의 진리.

출10:15-‘토지의 모든 풀잎을 먹어치울 것이다’=진리에 관한 모든 과학적 사실이 파괴될 것이다...‘들판의 풀잎’=교회의 진리, 그 이유는 ‘들판’=교회; 그러나 ‘토지의 풀잎’=진리에 대한 과학적 사실, 그 이유가 여기

서 ‘토지’=자연적 마음...

시106:20-‘풀잎을 먹는 것’=오로지 과학적으로만 그것을 자기 것 되게 하는 것.. ‘풀잎’=과학적인 것.

미5:7-‘풀잎 위의 물방울’=자연적 진리.

율2:22-‘광야의 거주자들이 목초지가 되어 갔다’=이전에는 아무 것도 없었던 진리에 관한 지식들. ‘목초지 (herbaged)’=그들의 성장과 번성함.

이42:15-‘나는 모든 그들의 풀잎을 말릴 것이다’=이 선들로부터의 진리들은 멀해질 것이다.

속10:1-‘들판에 풀잎을 주는 것’=말씀으로부터의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 그리고 파생되는 총명.

풍부한 (plenty)

* 가득한(full)을 보라.

풍신자석 (ligure)

호박 (jacinth)

* blue, dark도 참조.

출28:19-‘풍신자석, 마노, 자수정’=선으로부터의 영적 사랑. 이는 이 돌의 색깔로부터 분명하다; 흰색으로부터의 푸른 색=영적 선, 또는 선으로부터의 영적 사랑. 선으로부터의 영적 사랑은 이웃을 향한 선행이다...풍신자석은 푸른색으로부터 있다고 알려져 있다.

풍지향 (galbaum)

출30:34-‘풍지향’=내면의 진리에 한층 더 애착함. 이 진리는 영적 인간, 또는 내적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진리이다.

플라타너스 나무 (plane-tree)

창30:37-‘개암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자연적 진리들로부터의 힘. ‘개암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자연적 진리들.

겔31:8-‘전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자연적인 것들... ‘플라타너스 나무’=진리 측면에서의 자연적인 것들.

피 (blood)

* 살도 참조

창4:10-선행의 꺼짐이 ‘피들의 목소리’라 불려지고 있다.

* ‘형제의 피들의 목소리’=폭력이 선행에 가해짐.

레3:17-‘너희는 어떤 지방이나 어떤 피나 먹지 말라.’

‘지방’=천적인 생명, 그리고 ‘피’, 여기서의 경우=영적인 것에 있는 천적인 것(the Celestial Spiritual)

레17:10-14-‘이스라엘 집안의 누구든지, 또는 이 집안에서 체류하는 누구든지 어떤 피이든 먹게되면, 나는 피를 먹은 혼에 맞서게 내 얼굴들을 두기 조차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의 사이에서 그의 혼을 자를 것이다, 그 이유는 살의 혼이 이 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제단 위에서 너에게 그것을 주었다, 이는 너희 혼들을 보상하기 위해서였다, 그 이유는 피 자체가 혼을 위해 보상하기 때문이다. 모든 살의 혼은 살속의 피이다, 피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잘라질 것이다.’ 이 구절에서 공개적으로 말해지는 것은, 살의 혼은 피 안에 있다, 그리고 살의 혼은 피이라는 것, 또는 천적인 것, 즉 주님 속에 있는 거룩한 것이다.

신12:23-‘피를 먹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라, 그 이유는 피는 참으로 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살과 함께 피를 먹지 말라.’ 여기서 또한 분명한 것은, 피가 혼, 즉 천적 생명, 또는 태워바치는 제물과 희생 제물에 의해 표현된 천적인 것이라 불린다는 것이다.

창9:5-‘네 혼들과 함께 네 피를 요구한다는 것’=선행에 가해진 폭력은 그 자체 처벌 받는다는 것. ‘피’=폭력...순수한 의미에서, ‘피’=천적인 것, 그리고 관계적 측면에서, 거듭나는 사람에게 영적 인간, 선행, 이는 거듭나는 사람의 천적인 것이다. 그러나 반대적 의미에서, ‘피’=선행에 가해진 폭력, 고로 선행에 반대되는 것, 그러므로 모든 미워함, 모든 잔인함, 특히 신성을 모독함.

창9:6-‘사람에 있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선행이 꺼지게 하는 것...‘피’=선행으로부터의 거룩함. 그리고 이 선행이 존재함으로부터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피’, 즉 내향의 생명이라 불린다. 이 생명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더불어 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생명이 선행이기 때문, 이 생명은 사람 안에 있지 않고...그 사람과 함께 있다.

창49:11-‘포도들의 피’=영적 교회들에 비교하여 천적인 것.

시106:38-‘아들들과 딸들의 피를 뿌리는 것’=신앙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과 선행으로부터의 선들을 꺼지게 함.

III

계19:13-‘피에 담긴 옷을 입고’=글자로 있는 말씀.
 겔14:9-‘피들로 빠는 것’=악들로부터 순수해짐.
 창49장-‘포도주와 포도들의 피’=자연적 평면 속의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
 출12:12-‘집에 피가 있었던 곳은 파괴자로부터의 재앙이 없었다.’ 최고 의미에서=주님이 신성한 영적 사랑에 관련하여 계신 곳; 관계적 의미에서 영적 사랑, 즉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 곳.
 겔22:4-‘피를 뿌리는 것’=폭력이 선에 가해짐, 고로 죄지었음.
 겔24:3-‘술(단지)’=선과 진리에 가해진 폭력; 이로부터 이것은 ‘피들의 성’이라 불린다.
 요1:13-인간의 지적 측면의 자아로부터 결과하는 거짓...‘피’이다, 그리고 인간의 자발적 측면의 자아로부터 결과하는 악이 ‘살’인바, 주님께서 거듭나는 사람에 관하여 ...‘태어나되...피로도 아니고,...살의 뜻으로도 아닌...’이라고 말하였다.
 창37:22-‘피를 흘리지 마라’=거룩한 것에 폭력을 휘두르지 마라.
 숙9:11-‘언약의 피’=그분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그리고 그분이 신성화 하신 후 그분으로부터 나가는 거룩 자체이다.
 시72:14-‘그들의 피는 값질 것이다’=그들이 받게 될 거룩함.
 계12:11-‘어린 양의 피’=신성한 진리, 또는 그분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거룩함; 이는 ‘언약의 피’와도 같다.
 출24:7-‘언약의 책’=그때 당시 그들이 가졌던 신성한 진리, 이 진리가 그분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있다는 증거로서 피를 수단으로 입증되어졌다.
 창37:26-‘(요셉의) 피를 은닉하는 것’=거룩한 진리를 완벽하게 숨기는 것.
 창37:31-‘그들은 코트를 피에 담갔다’=그들은 악들로부터의 거짓들을 가지고 더럽혔다...그 이유가 반대적 의미에서, ‘피’=왜곡된 진리, 그 이유는 이 피는 숫염소의 피였기 때문, 숫염소는 외적인 선들과 기쁨들을 의미한다.
 창49장-‘포도들의 피’=그 때부터의 천적인 선.

신32:14-‘포도의 피’=영적 교회로부터 있는 천적인 선; 즉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천국에 있는 신성을 일컫는다; 포도주는 ‘포도들의 피’라 불리운다, 그 이유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거룩한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 그러나 ‘포도주’는 영적 교회를 서술하고, ‘피’는 천적 교회를 서술한다.
 창42:22-‘오 그의 피가 (값을)요구한다’=양심이 찌름. ‘피’=선, 또는 선행에 가해진 폭력.
 겔7:23-‘피들의 심판’=신앙의 파괴. ‘폭력’=선행의 파괴.
 창49:11-‘그의 의복을 포도들의 피에서 (빨다)’=그의 지적인 것은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이다는 것. ‘포도들의 피’=사랑의 선, 그리고 최상의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그분의 신성한 진리.
 출4:9-‘(물)이 마른 땅에서 피를 위해 있을 것이다’=모든 진리가 왜곡됨, 이리하여 자연적 평면에서 진리의 손실이 있음. ‘피’=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거룩한 진리, 그리고 반대 의미에서, 왜곡되고 모독된 진리.
 겔28:23-‘피’=진리가 왜곡됨
 나3:1-‘피들의 도성’=진리의 왜곡.
 출7:17-‘(물들이) 피로 바뀔 것이다’=그들이 진리들을 거짓화 할 것이라는 것. ‘피’=진리가 왜곡됨. 그 이유가 순수 의미에서, ‘피’=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 고로 신앙으로부터의 거룩함, 이것이 성만찬에서 ‘피’에 의해 의미된다. 그러나 반대 의미에서, ‘피’=신성한 진리에 가해진 폭력, 이 폭력 행사는 거짓화 함에 의해 결과된다... ‘피’=진리의 왜곡.
 출7:19-‘이집트의 모든 토지에 피가 있을 것이다’=전체가 왜곡됨.
 계8:7-‘피와 뒤섞인 불’=왜곡된 진리들과 더불어 탐욕 속의 악.
 출12:7-‘그들은 피를 취할 것이다’=(어린 양의 피인바) 순진한 선인 거룩한 진리.
 출12:13-‘나는 피를 볼 것이다’=저주를 선고하는 이들에 의해 그 진리가 지각됨.
 눅11:51-‘아벨의 피’=선행의 소멸.
 계18:24-‘피’=선행에 가해진 폭력, 또한 일반적 측면

피난-피곤해짐-피륙-피부

에서의 경우 모든 악, 특별한 측면에서의 경우, 진리의 왜곡.

계22:2-‘(도독을) 위한 피는 아니다’=제공된 폭력에 죄없다. 최고 의미에서, ‘피’=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내향의 의미에서 선으로부터의 진리’ 그러므로 ‘피를 뿌리는 것’=신성한 진리에, 또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또한 선 자체에 폭력을 행사함, 그 이유가 진리에 폭력을 행사한 자는 선에도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

신21장-‘순진한 피를 뿌리는 것’=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와 선, 고로 교회의 사람과 더불어 주님 자신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와 선을 꺼지게 하는 것.

출23:18-‘너는 누룩 있는 빵 위에 내 희생 제물을 바치지 마라’=교회의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은 악으로부터의 거짓과 혼합되어서는 안된다...‘피’=선으로부터의 진리, 고로 교회 속의 진리.

출24:6-‘모세는 피의 절반을 취했다’=생활과 예배를 만드는 신성한 진리...그 이유가 이 피는 모세가 백성 위에 뿌린 피였기 때문, 이를 수단으로 피는 인간에 의해 받아들여진 신성한 진리, 고로 생활과 예배를 만든 진리.

레위16:14,15-‘속죄소 동편과 그 후 제단의 뿔들 위에 일곱 번 뿌리는 수소의 피와 수 염소의 피’=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계8:8-‘피’=왜곡되고 모독된 진리.

출29:12-‘너는 수소의 피를 가져올 것이다’=자연적 인간에 숙박하는 신성한 진리.

출29:16-‘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는 것’=주님 안에서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과 더불어 하나되는 것.

출29:20-‘너는 (숫양의) 피를 가져올 것이다’=천국들에서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피’, 희생 제물, 또는 태워바치는 제물에 관해 말해질 경우,=신성한 진리.

출30:10-‘죄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순진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을 수단으로. ‘피’=신성한 진리.

요1:13-‘피들’=인간의 지적 측면의 자아로부터 진행되는 거짓들...‘피’=악으로부터의 거짓, 고로 자발적 측면의 자아로부터의 지적 측면의 자아.

요1장-‘피들’=말씀이 왜곡됨, 이 왜곡됨을 수단으로 있는 거짓의 확증들.

겔39:17-‘피를 마시는 것’=말씀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를 자신들에게로 자기 것 되게 함.

계1:5-‘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그분의 피에서 씻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에게’=사랑과 자비로부터 말씀으로부터의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

요19:14-‘피와 물’=영적, 자연적 평면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고로 영적, 자연적 의미로부터의 말씀.

계6:10-‘오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땅 위에 거주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피를 되갚지 않으시렵니까’=마지막 심판의 진행이 더딤, 그리고 말씀과 주님의 신성에 폭력을 휘두른 자들이 제거 되지 않고 있음.

계6:12-‘달이 피 같이 되었다’=그들과 더불어 믿음 속의 모든 진리는 왜곡되었다.

계7:14-‘그들은 그들의 도포를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만들었다’=그들은 진리들을 수단으로 악의 거짓들로부터 자기들을 순수하게 했다는 것, 고로 주님에 의해 개혁되었다는 것.

계8:7-‘피와 뒤범벅된 우박과 불’=지옥의 사랑으로부터의 거짓이 선과 진리를 파괴함, 그리고 말씀을 왜곡함.

계8:8-‘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었다’=그들과 더불어 모든 일반적 진리들이 거짓화 되었다.

계11:6-‘그들은 물을 제압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이 두 개의 본질들로부터 자신들을 돌아서게 하는 이들, 그리고 말씀 속의 진리들을 왜곡하는 이들.

계12:11-‘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를 이겨냈다’=말씀의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승리함.

계14:20-‘포도즙들로부터 피가 나와 말갈레에 까지 이르렀다’=폭력이 진리를 끄적하게 왜곡함을 통하여 말씀에 가해짐.

계16:3-‘(바다는)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었다’=그들과 더불어 지옥의 거짓.

계16:4-‘(물들이) 피가 되었다’=말씀 속의 진리들이 왜곡되었다.

피난-피곤해짐-피륙-피부

계16:6-‘그들이 성인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뿌렸기 때문이다’=법에 따른 일함 없이 믿음 만이 구원한다는 단 하나의 교의, 이것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부터의 모든 진정한 것들을 뒤집는다. ‘피를 뿌림’=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왜곡하는 것, 고로 그것들을 뒤집는 것.

계17:6-‘나는 여인이 성인들의 피와 예수를 목격한 자의 피로 술취한 것을 보았다’=주님과 말씀, 교회의 신성한 선들과 진리들에 섞음질하고 모독함과 더불어 그들의 신앙은 광기가 서려 미쳐 날뛰는 것. ‘피’=말씀을 왜곡함, 간음질함, 그리고 모독함.

계19:2-‘그분은 그분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 되갚았다’=상처 줌과 폭력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혼들에게 가해졌기 때문에 있는 응보.

계:19:13-‘그분은 피로 물들인 옷으로 입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불리운다’=최말단에서의 신성한 진리, 또는 글자로 있는 신성한 진리, 이것에 폭력이 가해졌다.

계12:11-‘피’=폭력이 악으로부터의 거짓을 수단으로 신성한 진리에 가해짐, 그리고 그들에 의해 신성한 진리가 파괴됨.

겔16:9-‘피들을 씻어냄’=악으로부터의 거짓을 제거함.

이4:4-‘피들’=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슥9:7-‘입으로부터 피가...’=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거짓화함.

호12:14-‘그는 그의 피들을 자기 위에 남길 것이다’=말씀의 진리를 간음질했기에 지옥에 떨어짐.

계11:6-‘물들을 피로 변하게 함’=...이와 같은 것들 속의 진리들이 악으로부터의 거짓들로 변함.

피난 (refuge)

이4:6-‘벼람과 비에 대비한 피난’=인간이 상처받음으로부터 안전해 있는 것.

피곤해짐 (fatigue)

창31:42-‘손바닥들의 수고함과 비참함’=시험들.

이44:12-‘그가 힘이 없을 때까지’ 그리고 ‘그가 피곤해질 때까지’=남은 선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리고 남은 진리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피륙 (web)

이59:6-‘그들의 피륙은 옷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

기서 ‘피륙들’, 그리고 ‘옷들’은 이해함과 생각으로부터 있는 것들을 서술한다. ‘피륙들’=가장된(거짓의) 진리들.

피륙 (curtain)

* 커튼(curtain)을 보라.

피부 (skin)

* 가죽도 참조

욥19:26-‘피부로 에워싸 있는 것’=인간이 사후 그와 더불어 가지는 것과 같은 자연적 평면.

애4:8-‘그들의 피부가 뼈에 달라붙었다’는 사랑의 천적인 것들에 관련되는 것들의 상태가 바뀌었음을 묘사한다; 즉 그들의 뼈에 붙은 살이 없는 것, 즉 선이 없음; 그 이유가 그 당시 모든 진리가 뼈에 붙은 피부 같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 그것은 시들고, 나무같이 되어간다.

출22:27-‘그의 피부를 위한 그의 옷’=외면의 것들을 싸는 감각적인 것들...‘피부’=외면인 것, 이것은 또한 내면의 것을 싸고 있다, 그러나 이 외면을 싸는 것이 더 있는데 그것은 감각적인 것들이다.

출34:29-‘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났다’=말씀의 외적인 것 안에서 빛을 내는 말씀의 내적인 것들...‘피부’=진리와 선의 외적인 것.

욥19:20-이것이 ‘그의 치아의 피부로 달아남’에 의해 의미된다. 피부 없는 치아=거짓들; 그러나 피부를 가진 치아, 거짓이 아님, 그 이유는 어느 정도나마 옷입혀져 있기 때문.

예13:23-‘에티오피아인이 그들의 피부를 바꿀 수 있는나?’=악은 그것의 속성을 바꿀 수 없다. 피부는 인간의 가장 바깥인 바, 이것은 감각적인 것에 상응한다.

피조물 (creature)

* 창조물(creature)을 보라.

필기사 (scribe)

* 서기관 (scribe)을 보라.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계3:7-‘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주님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이것들에 관하여.

*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선행으로부터 있는 신앙

피조물-필기사-필라델피아-하갈-하갈 사람-하나

안에 있는 교인들.

*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이아에 있는 교회에 쓰여진 것들에서는 생활에 의거한 신앙에 관련한 것을 취급하고 있다.

하갈 (Hagar)

* 외적 인간의 지식에 애착함이 '이집트 출신 몸종 하갈'이다.

창16:1-'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다'=외면의 인간, 또는 자연적 인간의 생명.

* 하갈은 머물고 있는 자(sojourner)를 뜻한다. 그리고 머물고 있는 자는 가르쳐지고 있는 이들을 표현했다.

창16:3-'하갈 그녀의 이집트 출신 몸종'=외적 인간의 생명, 그리고 지식에 애착함.

창16:4-'그는 하갈에게 들어갔다'=내적 인간이 지식에 애착함으로부터 있는 생명과 결합함. '하갈'=외면, 또는 자연적 인간의 생명, 이 생명은 지식에 애착함에 관한 생명이다.

창16:8-'그는 말했다, 하갈, 사래의 몸종'=통보함.

창16:15-'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았다'=합리적 인간이 결합과 임신으로부터 출생했다.

창16:16-'하갈이 이스마엘을 아브람에게 낳았을 때'=지식에 애착함으로부터의 생명이 하비리성을 산출했을 때.

창21:9-'이집트 출신 하갈의 아들'=단지 인간 수둔의 합리성 안으로.

창21:14-'그는 그것들을 하갈에게 주었다'=그의 생명에 이식함.

창21:17-'하느님의 천사가 천국으로부터 소리쳤다'=위로함.

하갈 사람 (Hagarene)

시83:6-'하갈 사람' 등등=예배와 교리의 외적인 것들에 있는 이들.

하나 (one)

*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속의 하나 하나는 많은 것들이 조화를 이룸으로부터 형성되어진다. 화합이 있는 곳에 하나가 존재한다. 절대적으로 하나인 것은 존재 할 수 없고, 오로지 일치될 이룬 하나, 즉 조화를 이룬 하나만이 존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천국에 있는 각각의 사

회 모두는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회들은 하나로 함께 한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 만으로부터 사랑을 통하여 가능하고 있다.

요17:21-23-주님을 사랑함은 인간을 주님과 하나되게 만든다...선행의 경우도 그러하다...이 하나는 주님으로부터인 바, 이를 주님께서 '그들 모두가 하나이기를,,,그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이기를...우리가 하나이듯 그들도 하나이기를...기원합니다' 라고 묘사하시고 있다.

창11:1-'온 땅은 한 개의 입술과 한 개의 말들 속에 있었다'=모든 곳에서 일반적으로나 특수적으로나 교리가 하나였다는 것.

창11:6-'이 백성이 하나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의 입술을 가지고 있다'=그들 모두 신앙으로부터 진리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교리는 하나였다는 것.

* 백성이 '하나',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하나' 모두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왕국에서도, 공통된 선을 그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창 1:1-9의 경우 반대 의미에서 서술된다.)

창21:15-'하나'=거의 어떤 것도 있지 않을 만큼의 적은 것.

창41:25-'바로 이 꿈은 하나이다'=이것은 둘 안에서 서로 같다는 것, 이것이 미리 보여졌다는 것.

창42:13-'하나는 있지 않다'=신성의 영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이유가 여기서 '하나'가 요셉이기 때문.

출12:46-'한 집에서, 먹어야 할 것이다'=어울릴 수 있는 선들끼리 연합함, 그리하여 하나의 선을 만드는 것...

천사의 사회들이 하나의 선을 만들게 되는 이유는 모든 각각은 하나로서 출현되지 않고 많은 것들로서 출현되기 때문; 그이유가 많다 하지만 일치된 많은 것들이 하모니를 통하여 하나를 이루는 형체가 만들어지기 때문; 천국에서 영적 하모니를 통하여, 이것이 사랑으로부터의 선이다.

출14:28-'하나도 남지 않았다'=모두 그리고 각각.

출17:12-'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모든 측면에.

출26:2-'한 커튼'=몇 진리들 속의 각각.

출26:6-'주택은 하나일 것이다'=천국 전체는 완전하게 하나이다.

하나님-하느님

출26:11-‘너는 천막이 하나이도록 다함께 연결해야 할 것이다’=천국의 외적인 것들은 완전하게 하나이다.

출28:17-‘한 열(row)’=셋 (trine)이 하나로서...하나로서 말해진 이유는 그 하나가 계속된 하나의 셋에서 공표되기 때문...이로부터 세 천국들은 최말단들에서 하나로 있다; 각 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셋이 하나로 계신 신성 자체로부터 파생된다.

출29:22,23-‘빵 한 조각, 과자 한 개, 웨이퍼(wafer) 한 개’라고 말해진 이유는 신성한 선, 그 자체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계17:10-‘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다’...‘하나’=뒤를 잇는 신성한 진리...

하나가 되다 (unite)

이14:20-‘너는 무덤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다’=생명 쪽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들과 연합하지 않는 것.

시86:11-‘제 심정을 당신을 경외함과 하나가 됨’=사라의 선은 신앙의 진리들과 결합되어야만 한다.

하나님 (God)

* 하느님을 보라.

하느님 (God)

창3:5-‘그들은 하느님 같이 있을 것이다’

창1장에서-‘하느님’이 복수로 사용되고 있다. 그이유가 그분께서는 권능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으므로 하느님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말했던 천사나 영들 역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들도 ‘하느님’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복수로 ‘엘로힘, Elohim’이라 불린다. 천사들은 자기들로부터서는 어떤 능력도 나와질 수 없고 오로지 한분 하느님으로부터서만 가능함을 아느냐, ‘여호와 하느님’에 의해 주님만이 뜻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천사들의 섬김에 의해 수행될 때, ...복수 숫자가 사용되어진다.

* 창 1장에서 교회가 있지 않았을 때, 단어 ‘하느님’이 사용되었다. 창 2장에서 교회가 있었을 때, 용어 ‘여호와 하느님’이 사용되었다...‘하느님’은 ‘여호와’ 만큼 기록하지는 않다. 그이유는 모든 나라가 제각기 ‘하느님들’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란 단어의 사용은

참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을 경우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 반면 누구라도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있다.

창6:13-‘하느님께서 말하셨다’=그와 같이 있었다는 것.

창8:1-‘하느님이 기억하셨다’=시험의 끝, 그리고 혁신이 시작됨...시험들이 지속되는 동안...인간은 때때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면서 도대체 하느님이 계신지조차 의아해진다...‘여호와’가 아닌 ‘하느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해질 때 이는 인간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에 아직 머물고 있기 때문...신앙이 선행과 아직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

요1장-사랑과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신앙이 있는 이들이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난’ 이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났기에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이라 불린다.

창16:13-‘하느님이 나를 보신다’=유임이 있다.

창17:1-‘나는 전능한 하느님(God Shaddai)이다.’ 글자 의미에서 =아브람의 하느님의 이름, 이를 수단으로 주님은 그들 앞에 처음 표현되어졌다. (그이유가)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의 집은 다른 하느님들을 숭배했기 때문...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잃었을 뿐 아니라 다른 하느님들을 숭배했다. 그리고 여호와 대신, 쇠다이(Shaddai)를 숭배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느님을 쇠다이이라 불렀다.

창17:7-‘너에게 하느님이 되는 것’=그분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의 신성.

창17:22-‘하느님께서서는 아브라함 위로부터 올라 가셨다’=이전 상태로 주님이 들어가심.

창20:13-‘하느님께서 나를 떠나게 만드셨다...’...그당시 아브라함은 ...다른 하느님들을 숭배했다; 그래서 하느님이 복수 형체에서 말해지고 있다. 이를 윈어 형태로 직역한다면, ‘하느님들이 나를 떠돌아다니게 만들었다’로 될런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이 아브라함에 의해 표현될 경우, ‘하느님이 나를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진다.

창21:6-‘하느님이 만드심’=천적인 것.

창21:20-‘하느님이 소년(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영적인 것과 더불어 주님의 현존.

하나님-하느님

창21:22-‘하느님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너와 함께 계신다’=그것은 각각 그리고 모든 것에 관련하여 신성하다는 것.

창21:33-‘거기서 그는 영원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예배...‘하느님의 이름’이 말해질 경우 그들은 하느님이 예배되어지는 한 복합체에 있는 모든 것, 그 결과 사랑과 신앙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예배의 내적인 것이 멀해졌을 때...‘하느님의 이름’이 말해지면, 그들은 이름 밖에 더 아무 것도 의미되는 것이 없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그러므로 나라들은 하느님들의 이름들을 수단으로 서로를 구별하기 시작했다.

창22:8-‘하느님은 자신을 위해 번제할 가축을 보실 것이다’=신성한 인간이 설비하실 것임이 ‘여호와’가 보실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느님이 보실 것’이라 말해진 사실로부터 명백해진다. 이 장에서와 같이 둘 다 언급될 경우, ‘여호와’에 의해서는 ‘아버지’와 같고, ‘하느님’에 의해서는 ‘아들’과 같다; 여기서의 경우, 신성한 인간; 그 이유는 영적 인간이 취급되고, 영적 인간은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구원을 가지기 때문이다.

창22:9-‘그들은 하느님이 그에게 말한 장소에 왔다’=신성한 진리로부터 지각함에 따른 상태.

창23:6-‘하느님의 왕자’=진리의 힘, 또는 진리에 관한 측면에서의 주님.

출12:12-‘이집트의 하느님들’=거짓들.

출23:24-‘나라들의 하느님들’=거짓들.

마5:8-‘하느님을 보는 것’=그분을 믿는 것, 고로 신앙 안에서 그분을 보는 것; 그이유가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신앙으로부터 하느님을 보기 때문이다.

창30:2-‘내가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자기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하느님은 능력 또는 권능으로부터 일컬어지고, ‘여호와’는 존재, 또는 본질로부터 일컬어진다; 이로부터 하느님은 진리가 취급될 경우, ‘여호와’는 선이 취급될 경우 언급되어진다.

창35:2-‘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의 하느님들을 내 버리라’=거짓들은 거절되어야 한다는 것.

창35:13-‘하느님께서는 그의 위로로부터 올라가셨다’=신성.

창45:8-‘해석은 하느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신성이 그것들 안에 있다는 것...신성이 ‘하느님’에 의해 미되고 있다.

창41:16-‘하느님께서는 바로에게 평화를 답하실 것이다’=결합을 통하여 신성한 인간으로부터...‘하느님’=신성.

창43:23-‘너의 하느님, 그리고 네 아버지의 하느님’=주님의 신성한 인간. 그 이유가 ‘하느님’ 또는 ‘여호와’가 언급되는 곳은 어디이든지 주님이 의미된다; 그리고 ‘너의 하느님 그리고 네 아버지의 하느님’, 즉 이스라엘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하느님이라고 말해질 때, 주님의 신성한 인간, 참으로 신성한 자연에 관련된 측면에서의 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의미되어진다...‘하느님’ 또는 ‘여호와’에 의해 주님이 의미된다는 것은 유대 교회에...기독교 교회에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후자의 경우) 신성을 세 인물들로 구별했기 때문이다...그러나 고대 교회...특히 태고 교회에서는...여호와와 하느님이 주님 외 다른 의미는 없었다. 특별히 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주님이라는 의미뿐이었다.

창45:5-‘하느님께서 당신 앞에 나를 보냈다’=그것은 섭리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

창45:8-‘그러나 하느님’=신성이 이것을 하셨다는 것.

창46:1-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다’는 것은 유대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들의 품질을 암시하고 있다. 즉 그들 각각은 그들 각각의 하느님을 예배했다는 것이다.

창48:15-‘내 조상들이 걸을 때 그 앞에 계셨던 하느님’=신성.

창48:21-‘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섭리...‘하느님’과 ‘여호와’에 의해 주님이 의미되어진다; 그 이유가 다른 하느님이 있지 않기 때문.

창49:25-‘네 조상의 하느님으로부터’=그분은 고대 교회의 하느님이시다는 것. (즉 주님)

창50:20-‘하느님은 선을 위해 그것을 생각하셨다’=신성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그이유가 하느님이 의도하는 것을 그분은 수행하시기 때문.

출1:20-‘하느님께서는 산파들을 잘 대우하셨다’=자연

하나님-하느님

은 신성에 의해 축복받았다는 것.

출1:21-‘그들은 하느님을 경외했다’=그들은 신성에 의해 안내 받았다는 것.

출3:6-‘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그리고 야곱의 하느님’=신성 자체와 신성한 인간, 고로 주님.

출3:14-‘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첫 가르침... 그 이유가 교회의 첫째 지식은 하느님이 계시고, 그분은 예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알려져 있는 그분에 관한 첫 번째 품질은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창조된 우주는 그분으로부터 생존한다는 것이다.

출4:16-‘너는 그에게 하느님으로 있을 것이다’=주님으로부터 즉각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주님은 진리가 취급되는 곳에서는 ‘하느님’이라 불리운다. 천사들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아 있는 진리들로부터 ‘하느님들’이라 불리운다.

출6:2-‘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신다’=새로운 어떤 것, 그러나 이전에 계속되던 것이 계속되는 상태 안에서의 새로운 어떤 것이다.

출6:7-‘나는 하느님으로 너에게 있을 것이다’=그들은 신성을 받을 것이라는 것.

출7:1-‘나는 너를 바로에게 하느님으로 만들었다’=신성으로부터의 법, 그리고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을 지배하는 법의 힘. ‘하느님을 만드는 것’= 신성한 진리; 또는 같은 것으로 신성한 법; 그리고 또한 이 법의 힘.

출8:19-‘이것은 하느님의 손가락이다’=능력은 신성으로부터였다는 것.

출12:12-‘이집트의 모든 하느님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저주받아져야 할 그들의 거짓들.

출15:11-‘여호와여 하느님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는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된다는 것; (그이유가) ‘하느님들’=진리들; 여기서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그 이유는 여호와와 견주고 있기 때문이다.

출18:4-‘나를 돕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자비와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현존... ‘아버지의 하느님’=고대 교회의 신성, 이 신성이 주님이셨다.

출18:5-‘그가 하느님의 산에서 진을 친 곳’=진리의 선 근처... ‘하느님의 산’=사랑의 선; 여기서 진리의 선, 그

이유는 영적 왕국의 교회인들의 선이 취급되기 때문. 그러므로 ‘하느님의 산’이라 불리는데, 그이유는 진리가 취급될 때 ‘하느님’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출18:11-‘여호와와 모든 하느님들 중에서 위대하시다’=주님 외 참 하느님은 없다는 것

출18:12-‘이것이 신성으로부터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느님 앞에서 빵을 먹음’에서 의미되고 있다.

출18:19-‘하느님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이것이 신성으로부터이라는 것... 이 신성은 신성한 진리로 간주된다.

요1:8-신성 자체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도 납득될리 없다는 것이 ‘하느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출18:22-‘만일 하느님이 명령하셨다면’=고로 그것이 신성으로부터이다.

출19:3-‘모세는 하느님에게 갔다’=천국 아래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이 진리는 천국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와 그 자체 결합하고 있다.

출18:17-‘백성들이 하느님을 만나러 나가게 만드는 것’=신성을 받기 위해 그들을 준비하는 힘.

출20:1-‘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들을 이야기하시어 말하기를’=천국 안에 있는 이들과 땅 위에 있는 이들을 위한 신성한 진리들.

출20:3-‘너는 내 얼굴들 앞에서 다른 하느님들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진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외 다른 근원으로부터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

출20:5-‘질투하는 하느님’=거기서부터 악과 거짓이 온다는 것. 순수한 의미에서 일 경우, ‘질투하는 하느님’=신성한 선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 그이유가 ‘하느님’은 진리를 서술하기 때문.

출20:7-‘너는 네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게 취하지 말 것이다’=신앙으로부터의 진리와 선을 모독함과 불경함; (그이유가) ‘하느님의 이름’=주님이 경배되어지는 수단인 복합체의 모든 것, 고로 신앙으로부터의 모든 선과 진리.

출20:19-‘하느님이 우리와 더불어 이야기하지 않게 하소서’=형체에 있는 진리가 조절되지 않음... 그이유가 ‘하느님’ 여기서의 경우 천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에 관

하나님-하느님

련한 주님이 의미되어진다; 결과적으로 신성한 진리 자체...

출20:23-‘너는 은으로 된 하느님들과 금으로 된 하느님들을 나와 비겨서 만들지 말 것이다’=그들은 외적 형체에서는 진리들과 선들인 듯 나타나나 내적 형체에서는 악들과 거짓들 뿐인 것들은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 ‘하느님들을 만드는 것’=예배하는 것.

출21:6-‘주인이 그를 하느님에게 데려올 것이다’=그 당시 그가 신성한 질서에 따라 들어가는 상태...‘하느님’=신성한 질서.

출22:9-‘하느님에게 까지 그들 양쪽의 말은 올 것이다; 하느님이 죄있다 하는 그는’=진리를 통한 결정과 확신....그러므로 또한 ‘하느님이 징죄하는 자’가 복수에서 말해지고 있다. 원어에서 ‘하느님’이 단수로는 ‘엘, Eil’인데, 복수 형태인 ‘엘로힘 Elohim’이 더 자주 사용되는 편이다. 그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는 천사들 사이에서 각각도로 나뉘기 때문이다...이로부터 천사들은 ‘하느님들’이라 불리기도 한다.

출22:28-‘너는 하느님께 욕설하지 말라’=신성으로부터의 진리는 불경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

출23:13-‘다른 하느님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 것이다’=우리는 거짓된 교리로부터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

출23:24-‘너는 그들의 하느님들에 네 자신을 곱혀 절하지 말라’=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은 예배되서는 안된다는 것.

출24:10-‘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보았다’=강림과 말씀 안에 주님이 현존하심. ‘이스라엘의 하느님’=영적 왕국의 교회의 하느님.

출21:11-‘그들은 하느님을 보았다’=신앙.

예7:18-‘다른 하느님들에게 술을 바치는 것’=신앙 속의 진리로부터 사탄을 예배하는 것; 그 이유가 ‘다른 하느님들’은 악한 영들의 지옥에 있는 이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

출29:45-‘나는 하느님으로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주님이 현존하심, 그리고 교회에 있는 진리 안으로 그들이 유입됨.

출32:1-‘우리들 앞에 갈 하느님들을 만들어라’=교리

속의 거짓과 예배 속의 거짓, 고로 우상적인 것들...‘하느님들을 만드는 것’=교리 속의 거짓들, 또는 거짓들로 부터의 교리

출32:4-‘이것들이 너희 하느님들이다, 오 이스라엘’=모든 것에 우선하여 예배되어져야 하는 것; (그 이유가) ‘하느님들’=예배되어야 하는 것들. 순수한 의미에서 이방의 하느님들=거짓들, 여기서의 경우 거짓들과 악들 모두; 그 이유는 새긴 것에 의해 거짓이, 부어 만든 것에 의해서는 그 거짓으로부터의 악이 의미되기 때문이다.

출34:6-‘여호와 여호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느님’=신성 자체, 신성한 인간, 그리고 진행되는 신성...진행되는 신성에 관련하여 주님은 신성한 진리이다.

출34:14-‘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느님이다’=만일 어떤 다른 것이 예배된다면, 신성한 진리는 물러난다는 것.

출34:15-‘그들은 자기들의 하느님들을 따라 매춘하러 간다’=거기서부터 파생된 악으로부터의 거짓.

계21:23-‘하느님과 어린 양’=신성 자체와 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측면에서의 주님.

이31:3-‘이집트는 사람이지만 하느님이 아니다’...‘하느님’과 ‘영’=주님으로부터의 삶.

계8:11-‘하느님’에 의해 그분의 신성이 의미되어진다. 이는 신성 그리고 동시에 신성한 인간이다; 그 이유가 둘 다 한 분 하느님, 그 이유는 한 분 인물이기 때문.

계11:13-‘천국의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주님을 천국과 땅의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것.

계12:10-‘우리의 하느님의 왕국, 그의 그리스도의 힘’=주님 만이 천국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이유가) ‘하느님’=신성 자체, 이는 여호와 아버지라 불린다; 그리고 ‘그리스도’=그분의 신성한 인간, 이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계19:5-‘우리의 하느님을 찬양하라’=그들은 천국의 유일한 하느님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

계19:9-‘하느님의’=주님으로부터의.

계19:17-‘위대한 하느님의 만찬’=주님과 결합함.

계21:3-‘그분은 그들의 하느님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주님은 그들의 것이다.

예11:13-‘너희 성읍들의 숫자에 따라서 너희 하느님들

하느님의 아들-하느님의 왕국

이 있었다'=교리적인 것들 만큼 거짓들이 있다... '하느님들'=종교의 거짓들.

계11:11-'하느님으로부터의 생명의 영'=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계11:13-'천국의 하느님'=주님

계11:17-'주 하느님'=신성한 선에 관련된 측면에서의 주님과 신성한 진리에 관련된 측면에서의 주님.

호4:12-'그들의 하느님 아래에서 매춘짓을 하는 것'=말씀 속의 진리들을 왜곡하는 것.

계12:5-'하느님과 그분의 보좌로 붙잡혀 올려짐'=주님에 의해 용으로부터 보호됨.

계12:6-'하느님이 준비하심'=주님에 의해 설비되는 것.

계13:6-'하느님을 비방하는 것'=신성한 진리 또는 말씀을 왜곡하는 것.

계16:11-'그들은 천국의 하느님을 비방했다'=말씀을 왜곡함... '천국의 하느님'=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하느님의 아들 (Son of God)

요1:12-천적 인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진다.

창6:2-'하느님의 아들들'=신앙 속의 교리물들.

요1:12-사랑이 있고, 이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신앙을 가진 이들은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리고 이들이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났기에,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요1장-'하느님의 아들'=거듭난 자. (=주님을 믿는 이들)

눅38:7-'하느님의 아들들'=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

요1:49-'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부은 자' 그리고 '왕'은 동의어들이다.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이 이름들의 각각 =신성한 진리...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린 이유는 '아들들'=진리들이기 때문; 이로부터 '하느님의 아들' =신성한 진리.,

하느님의 왕국 (Kingdom of God)

눅17:20,21-'하느님의 왕국', 보편적 의미에서 보편적 천국을 뜻한다; 덜 보편적 의미에서 주님의 진정한 교회들, 세부적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 속에 있는 모든 이를, 또는 신앙으로부터의 생활을 통하여 거듭나아져 가

고 있는 모든 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는 천국이라 불리우고...그리고 또한 '하느님의 왕국'이라 불리운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왕국은 그 사람 안에 있는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다. '하느님의 왕국은 관찰함과 더불어 오는 것이 아니다...그 이유가 보라 하느님의 왕국은 네 안에 있기 때문이다.'

* '에덴의 동산'...=주님의 왕국, 그리고 천국, 인간이 천적인 수준일 때 그는 이 안에 놓여진다.

* '가나안의 토지'=천국들과 지상의 주님의 왕국.

눅9:27-'하느님의 왕국을 보는 것'=믿는 것.

마25:1-'천국들의 왕국은 열 처녀들과 비슷할 것이다'='옛 교회의 마지막 때와 새 교회의 처음의 때; 교회는 지상에서 주님의 왕국이다.

막4:26-28-'풀, 이삭, 곡식에 비교되는 하느님의 왕국은 거듭남을 수단으로 인간과 더불어 천국이다; 그 이유가 거듭나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느님의 왕국을 가진다, 그리고 그의 형상 안에서 하느님의 왕국, 천국이 되어간다.

눅18:7-'어린이가 같이 하느님의 왕국을 받기 위해'=순진으로부터의 선행과 신앙.

막4:26-'하느님의 왕국'=인간과 더불어 천국, 고로 사랑의 선과 신앙 속의 진리.

계12:10-'우리의 하느님의 왕국,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힘'=주님 만이 천국에서, 교회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이것이 '왕국의 복음', 그리고 '하느님의 왕국.'

* 주님의 기도에서 '당신의 왕국이 옴'...에 의해 같은 것들이 의미되어진다. 주님의 왕국은 천국과 하나를 만드는 교회이다...

마6:33-그러므로 주님께서 말하신다, '너희는 먼저 천국들의 왕국과 그 왕국의 정의를 먼저 구하여라, 그런 다음 모든 것들이 네게 올 것이다.' '천국들의 왕국'은 주님의 왕국이다.

시145:12-'그분의 왕국'=천국과 그분의 교회.

눅21:31-'하느님의 왕국은 가까워지고 있다'=주님의 새로운 교회.

마13장-'천국들의 왕국'=영적 세계와 교회.

마6:33-'천국들의 왕국'=주님과 그분의 교회.

하느님의 천사 (Angel of God)

하늘

* 여호와와 천사를 보라

하늘 (heaven, heavenly)

창1:1-‘처음에 하느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내적 인간...

창2:1-‘하늘들과 땅, 그리고 그 속의 모든 무리(army)가 마무리되었다’=이제 인간은 여섯째 날인 만큼 영적으로 되었다; ‘하늘’=그의 내적 인간.

창2:4-‘하늘들 태생의 사람들(nativities)과 땅들 태생의 사람들’=천적 인간의 형성.

* 위 구절에서 ‘하늘’이 ‘땅’ 앞에 놓여지고 있다. 그 후 ‘땅’이 ‘하늘’ 앞에 놓여 있다. 그 이유는 ‘땅’=외적 인간, 그리고 ‘하늘’=영적 인간과 더불어 있는 내적 인간, 영적 인간에서 재구성은 ‘땅’, 또는 외적 인간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천적 인간이 취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재구성은 ‘하늘’, 또는 내적 인간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시편68:33-‘옛적의 하늘들의 하늘들’=태고 교회(Most Ancient Church)의 지혜

창6:17-‘하늘들 아래, 생명들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파괴하는 것’=태고 교회의 모든 후손은 자신들을 파멸 하리라는 것.

* ‘하늘들 아래 살(flesh)’=오로지 육체적인 것; ‘하늘들’=진리의 지적인 것들과 선의 자발적인 것들, 이것들이 육체로부터 분리될 때, 인간은 더 이상 살 수 없다; 인간을 지탱시켜주는 것은 그가 하늘과 결합되는 것이다; 즉 천국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해 있는 것이다.

겔1장-그러므로 보여진 분은 주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을 수단으로 천국이 표현되어졌다; 그 이유가 그분은 천국, 즉 천국 속의 모든 것들에 있는 모두이기 때문. 그분 자신 거기서 취급된 ‘사람’이시다; ‘왕좌’=천국...그러므로 천적인 천국, 또는 천적 천사들의 천국이 허리 위쪽으로부터 표현되어졌다; 그리고 영적 천사들 속의 것, 또는 영적 천국은 허리 아래로부터 표현되어졌다...

을2:10-교회와 교회 속의 것들이 황폐되었을 때 ‘하늘과 땅이 흔들렸다’라고 말해진다.

예4:28-교회의 외면들이 ‘땅’이고, 교회의 내면들이 하늘들이다. 교회의 내, 외면이 위 요엘서의 구절 같은 바 교회의 내, 외면들이 ‘검게 되었다’, 그리고 ‘빛이 없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창11:4-‘그것의 머리는 하늘에’=천국에 있는 것들까지 지배하려 든다.

창14:19-‘하늘과 땅의 소유자’=내적 인간 또는 여호와와 내면과 외면의 인간과 결합...인간 안의 내면이 ‘하늘’로 불리운다는 것...‘하늘’=인간 안의 내면인 이유는 인간은 자기의 내면들에 관련하여서는 하늘의 형상, 고로 일종의 작은 천국이기 때문. 주님의 내면적 인간은 우선적으로 천국이다, 그 이유는 주님은 천국의 모든 것들의 모두, 고로 천국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66:1-‘천국들’=주님의 두 왕국 속의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고로 가장 깊은 것들, 이는 지상에서 주님의 왕국에서도, 교회에서도 공히 같다; 또한 사랑과 선행, 이로부터 파생되는 믿음 속의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또한 내적 예배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말씀의 내적 의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모두가 ‘하늘들’이고 주님의 보좌라 불리워진다.

창21:17-‘하느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갈에게 소리쳤다’=위로함; (그이유가) ‘하늘로부터 소리치는 것’...=유입...이 유입은 주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내부적으로 흐르는 바 이것이 ‘하늘로부터 소리침’이라고 말해지기 때문. 그 이유는 이것이 천국을 통하여 있기 때문.

계19:11-‘하늘이 열려졌다’는 것은 말씀의 내적 의미는 천국 안에서를 제외하면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에 열려진 자에게만 보여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의미한다; 즉 사랑 안에 있으면서 이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주님에 대한 신앙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하늘이 열려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계19:14-‘백마 위에 계신 그분을 따랐던 하늘에 있는 군대들’=말씀의 내면의 것들을 이해하는 이들.

창24:3-‘하늘의 여호와 하느님과 땅의 하느님’=위에 있는 신성과 아래에 있는 신성; 또는 같은 것으로, 가장 높은 것들에 있는 신성과 이로부터 있는 것들에 있는 신성. ‘하늘의 여호와 하느님’, 주님에 관하여 말한 것인 바, ‘아버지’라 불리는 여호와 자신...‘땅의 여호와 하느님’은 이 경우에서 ‘아들’이라 불리는 여호와이다...주님은 천국들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하늘의 여호와 하느님’이라 불리고...더우기 천국들 안에 있는 신

하늘

성은 인간의 내적인 것과 더불어 인간과 함께 있다...그 이유가 인간의 내적인 것은 그 인간의 하늘이기 때문, 그것들을 통하여 그는 천사들과 결합되어져 왔다.

창28:12-‘그것의 머리가 하늘에 닿고 있다’=신성과 소통함...그 이유가 최고 높은 의미에서 ‘하늘’...=신성 자체, 그러나 표현적 의미에서 이 대목은 거듭나지고 있는 사람을 취급하고 있다. 그것=주님으로부터 있는 가장 깊은 선과 이 선에서 파생된 진리, 이럴 경우의 사람은 천국 안에 있고, 천국 자체의 품질로부터 있다; 이는 또한 그것이 주님으로부터이기 때문에 신성, 또는 주님 만으로부터인 신성이라 불리운다. 이 신성은 천국의 모든 것들의 모두이다: 신성으로부터 있지 않은 것은 천국 속에 없다. 이따라서 자주 말했던 바는 주님이 천국 자체이시다는 것, 그들은 천국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마24:29-‘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교회의 기초들...그 이유가 땅 위 교회는 천국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천국들을 통한 선과 진리의 유입됨은 결국 교회 속의 사람과 더불어 있는 선들과 진리들 안에서 종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 속의 사람이 선과 진리의 유입을 더 이상 용인 못할 정도로 뒤집어져 있게 될 때 하늘들의 권능들은 흔들려진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교회의 어떤 것이 남아 있도록 언제나 예비해두셨다...

마24:31-‘하늘들의 맨 끝에서 그것들의 맨 끝까지’=교회의 내적인 것들과 외적인 것들.

마24:35-‘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나, 내 말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앞 교회의 내적인 것들과 외적인 것들은 사라질 것이나 주님의 말씀은 남아 있을 것이다.

마24:36-‘천국들의 천사들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만이’=천국은 특별한 측면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련되는 교회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이 상태가 일어났을 때 (알게 된다.)

삼하22:10-‘하늘들을 굴복시키려고 그분이 내려가셨을 때’=말씀의 내면의 것들을 감추이게 하는 것.

출9:22-‘네 손을 하늘들을 향하여 뻗어라’=천국의 용의주도함과 천국의 접근...‘천국’=천사들의 천국

출9:23-‘그리고 모세는 그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내뻗었다’=천국과 소통함...‘하늘’은 천사들의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

마27:53-‘내적 의미에서의 하늘이 ‘거룩한 성’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출20:4-‘위로 하늘들에 있는 것, 그리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영적 빛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자연적 빛 안에 있는 것...

출20:22-‘너희는 내가 하늘로부터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았었다’=천국을 통하여 신성으로부터 유입을 통해 있는 말씀 속의 모든 것들.

눅4:25-‘하늘이 삼년 육 개월 동안 닫혀졌을 때’=내적 교회의 완전한 황폐; 그 이유가 ‘하늘’=교회의 내적인 것.

출24:10-‘깨끗함에 관하여는 하늘의 물질 같이’=천사들의 천국을 통과하여 빛남

계21장-‘예루살렘’은 더 저명한 의미에서 =천국.

계3:12-‘내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에서 내려온 것’=천국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인 주님의 신성한 진리로부터 있을 것임.

계4장-이 장은 심판을 위해 천국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고 정돈됨을 취급하고 있다.

계5:3-‘천국 안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자 아무도 할 수 없었다’=더 높은 천국들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더 낮은 천국들에 있는 자 아무도 없었다.

계5:13-‘그리고 하늘 안에, 그리고 땅 안에,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창조된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가장 낮은 천국들의 천사들에 의해 있는 주님께 대한 고백과 그들을 수단으로 있는 주님의 영광되심.

계6:13-‘하늘은 다 함께 말아버린 두루마리 처럼 떠났다’=천국으로부터 분리됨, 그리고 지옥과 결합함.

계7장에서-이 장은 기독교인의 천국에 있는 자 그리고 있을 자를 다루고 있다...이 후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부터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더 높은 천국들 속에 있다. 그리고 선행 안에 있고 이 선행으로부터 주님께 대한 신앙을 지닌 이들은 더 낮은 천국들에 있다.

하늘색-하다손다말-하란 -하맛족-하몰-하솔

계8:13-‘하늘 한가운데를 날고 있다’=주님에 의해 예견되고 혼용됨.

계10:6-‘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천국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생명있게 하시는 분...‘하늘’=천사들이 있는 천국을 뜻한다.

계11:6-‘이들은 하늘을 닫아 그들의 예언의 날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새 교회의 두 필수 본질로부터 자신들을 멀어지게 하는 이들은 천국으로부터 어떤 진리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하늘’은 천사들의 천국을 뜻하고 있다.

계11:12-‘그들은 천국으로부터의 큰 음성을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새 교회의 이 두 본질들은 주님에 의해 천국 안으로 들려져 보호된다.

계12:8-‘그들의 장소는 하늘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그들은 그러므로 천국과의 결합으로부터 떼어져 내던져졌다.

계14:7-‘하늘과 땅을 만드는 것’=천사들의 천국과 교회를 만드는 것.

계18:5-‘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다’=그들의 악들과 거짓들이 천국들에 침입하고 있다.

계18:20-‘그녀로 즐거워하라 하늘(아)’=지금 천국의 천사들은 기뻐할런지 모른다.

계19:1-‘하늘에 있는 큰 군중’=보다 낮은 천국들의 천사들.

계19:11-‘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주님으로부터의 계시 그리고 명명백백함.

계19:14-‘천국의 군대들이 흰말을 타신 그분을 뒤따랐다’=...새 기독교인의 천국에 있는 천사들.

계20:11-‘이들의 얼굴로부터 하늘과 땅은 도망할 것이다’=보편적인 심판이 이전의 모든 천국들 위에 주님에 의해 결과됨...그들의 토지와 함께 있었던 천국들은 완전하게 사라졌다...

계21:3-‘나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들었다’=주님께서 사랑으로부터 이야기하심...그 이유는 주님 외에 천국으로부터 이야기 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 천국은 천사들 각각의 입맛에 맞아야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이 신성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가능하다.

계21:10-‘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하여 내려오고 있다’=(요한에게) 도성의 형태로 있는 교리에 관련된 주님의 새 교회를 명명백백하게 만들어 주기 앞서...

시105:40-‘하늘들의 빵’이라 불리운 이유는 이슬과 함께 하늘로부터 비가 내렸기 때문;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그렇게 불리운 것은 (천국의 사랑의 기쁨)이 천사들의 천국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흐르기 때문이다.

마6:19,20-‘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영적 인간 안에; 그 이유는 영적 인간은 천국 안에 있기 때문이다.

계4:1-‘보니 문이 하늘에서 열렸다’=천국의 비밀이 계시되었다.

시136:5-‘그분께서 그분의 총명을 수단으로 만드신 천국들’이란 교회의 사람들의 내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영적 인간이라 부른다, 거기에 총명이 주재하고 있고, 그들의 천국도 있다.

계6:14-‘하늘이 둘둘 말아버린 책 같이 떠났다’=영적 인간이 단혀졌다는 것. ‘하늘’=일반적, 세부적으로나 공히 교회; 그 이유는 교회는 땅에 있는 주님의 천국이기 때문; 더욱이 교회는 결합을 통해 천국과 더불어 하나를 만든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언급될 때 교회의 내적, 외적인 것을 뜻하게 된다. 그 이유가 교회 속의 사람의 내적인 것은 그들과 더불어 있는 천국이다, 그리고 외적인 것은 그들과 더불어 세상이다; ‘하늘과 땅’이 교회의 내, 외적인 것을 의미할 때, 또한 내적, 외적 인간도 의미하게 된다...그러므로 해서 이 구절에서 ‘하늘’은 내적 또는 영적 인간을 의미한다. 영적 인간이 언급되어지고, 영적 마음도 의미되어지고 있다...

계8:1-‘하늘에 침묵이 흘렀다’=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음에 놀람; 그리고 그것의 끝장이 임박했음에 놀람.

예7:18-‘하늘들의 여왕(Melecheth)’=복합체로 있는 모든 악들; 그 이유가 ‘하늘들의 여왕’은 ‘하늘들의 군대들’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하늘색 (azure)

* 푸른 색(blue)을 보라.

하다손다말 (Hazezon-tamar)

창14:7-‘하다손-다말에 거주한 아모리족’=거기서부터 있는 악들의 한 종류.

하맛-하몰-하솔-하월라

하란 (Haran, 사람)

* 아브라함도 참조.

* 하란 등등은 우상숭배자들이었다.

* 아브람, 나홀, 하란은 데라의 아들들이었다. 후에 그들 이름을 따라 나라로 불려졌다. 여기서는 그들에 의해 우상적인 예배가 의미되고 있다...우상 예배가 데라의 세 아들에 의해 의미되었고, 후에 하란의 아들 롯에 의해서도 의미되었다.

창11:28-‘하란은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출생지의 토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의 얼굴 위에서 죽었다’=내적 예배는 말살되고 우상 예배만 남았다는 것.

하란 (Haran, 장소)

* 아브라함을 참조.

창12장-‘하란’=(주님의) 첫 번째 상태, 이는 희미한 상태였다.

창12:4-‘그가 하란으로부터 갔을 때’=주님의 희미한 상태, 인간의 어린 시절도 이와 흡사하다.

창12:5-‘그들이 하란에서 만들었던 혼’=이 희미한 상태에서 가능한 생명있는 모든 실체(essential).

창27:43-‘너는 내 형제, 라반에게로, 하란으로 피신하라’=외적, 또는 육체적 선에 애착함 쪽으로.

창28:10-‘그는 하란으로 갔다’=그 수준의 선과 진리 쪽으로. ‘하란’=외적인 선과 진리. ‘하란’은 외적인 것, 하란에 있는 ‘라반’=선과 진리.

창29:4-‘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하란으로부터 이다’=공동의 지주로부터의 선으로부터. ‘하란’=공동의 지주(common stock)로부터의 방계의(collateral) 선.

하맛족 (Hamathite)

창10:18-‘하맛족’ 등등은 여러 많은 나라들이었다. 이를 수단으로 많은 우상들이 의미되었다....그이유가 그들은 가나안의 토지의 거주민들이었기 때문. 이들은 그들의 우상들 때문에 거절되어졌고 부분적으로는 사멸되었다.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그들이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있던 우상 자체, 특별하게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우상 자체를 의미한다.

하몰 (Hamor)

창33:19-‘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으로부터’=어떤 다른 근원으로부터, 신성한 지주로부터 이 진리의

근원.

창34:2-‘히위족 하몰의 아들’=고대인들로부터...‘하몰’=이 진리의 아버지, 고로 고대인들부터; 그 이유가 예식들이나 표현성에서 내면이었던 진리가 고대 시대로부터 있었던 교회로부터 유출 되었기 때문; 이러한바, 하몰은 ‘히위족’이라 불리고 있다; 그 이유가 히위 나라는 고대인들 사이에 이와 같은 진리가 의미되어진 것을 수단으로 있었기 때문.

창34:8-‘하몰이 그들과 말했고, 말하기를’=고대인들과 더불어 교회의 선.

하솔 (Hazor)

예49:28-‘하솔의 주민들’, 또는 영적 재물을 소유한 이들, 이 재물은 신앙 속에 있다. 이것 ‘깊음 안으로 자신들을 내려가게 하자’고, 또는 멀해지라고 말해진다.

예49장-여기서, ‘아라비아, 그리고 하솔의 왕국들’. 반대 의미에서=자신들이 지닌 영적,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을 자신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명성을 날리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사용이 없는 가운데 있는 이들.

예49장-‘하솔’=진리에 대한 지식들.

예49장-이런저런 것들이 바빌론 왕에 의해 아라비아와 하솔의 황폐됨에 관해 말해지고 있다; ‘아라비아와 하솔’=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그리고 ‘바빌론왕’=황폐케하는 악과 거짓.

예49:33-‘하솔’에 의해 영적인 보물들이 의미되어진다. 이 보물이란 말씀으로부터의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이다; 이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황폐해지고 그 자리에 악들과 거짓들이 있음이 ‘하솔은 용들을 위한 주택일 것이고, 영영 황폐해 있을 것이다’에서 의미되어져 있다.

하월라 (토지) (Havilah)

창2:11-‘하월라 토지’=마음(지성, mind)

창25:18-이 구절 역시 ‘하월라 토지’가 이스마엘의 아들들에 관련되어 말해진다. 즉 ‘그들은 하월라에서 이집트의 얼굴 근처, 앗수르로 가는 술에 까지 거주했다’=총명 속에 있는 것, 또는 총명이 확장됨.

창 2:11-‘하월라로부터의 금’=지식들 속의 선.

하월라 (구스의 아들) (Havilah)

창10:7-‘구스의 아들, 스바와 하월라와...’ ‘구스의 아들

하월라 - 하프

들'에 의해 내적 예배를 갖지 않았던 이들, 그러나 믿음에 관한 지식들은 가졌고, 이를 소유한 가운데, 자기들의 종교를 거기에 놓았던 이들. '스바, 하월라' 등등은 이들과 더불어 있었던 많은 국가들. 내적 의미에서, 이 국가들은 지식들 자체를 의미했다.

하월라 (옥단의 아들) (Havilah)

창10:26,29-'옥단은 오빌과 하월라와... 낳았다' 이들은 에벨의 가문으로부터 출현된 여러 국가들이다. 이를 수단으로 여러 의식들이 의미되었다.

* 그러므로 (옥단의) 아들들은 외적 예배 속에 있는 것들, 즉 의식 밖에 더 의미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실상, 그것들의 종류는 아주 많다... 말씀에서 그들은 오빌과 하월라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지주로부터가 아니다; 그 이유가 '스바'와 '하월라'가 말씀 속에서 취급되는데, 이들은 '함의 아들'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프 (harp)

창4:21-'하프와 오르간을 연주하는 모든 자의 조상'= 믿음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

창31:27-'소구에서, 하프에서'=영적 선에 관해서; 즉 그 때 당시 그(하반)가 지녔던 자아로부터 믿어져 왔었던 선에 관해서 있는 상태. (그 이유가) '소구와 하프'는 선을 서술하되 영적 선이다...영적 선은 소위 신앙으로부터의 선이다; 그리고 선행이다.

이24:8-'하프의 기쁨'=신앙 속의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의 즐거움.

시81:2-'소구로 찬양하는 것'=신앙 속의 선에 애착함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으로부터 찬미함. '하프로 찬양하는 것'=신앙 속의 진리의 즐거움.

계5:8-'모든 이 각각은 하프를 가지고'=영적 진리들로부터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고백함...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고백은 노래들을 수단으로, 그리고 그 고백에 상응하는 악기를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악기들은 주로 트럼펫, 소고, 현악기 종류, 하프였다. 트럼펫과 소구는 천적인 선들과 진리들, 현악기와 하프는 영적 선들과 진리들에 상응한다. 상응은 악기들의 소리와 관계된다.

계14:2-'나는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연주자의 소리를

들었다'=보다 낮은 천국들에서 영적 천사들에 의해 심정의 즐거움으로부터 주님을 고백함. '하프를 연주함'=영적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고백함; 그리고 이것은 심정의 즐거움으로부터이다. 그러므로 영적 천사들은 '하프 연주자'로 의미된다...자기의 하프를 연주하는 하프 연주자의 소리가 들려진 이유는 낮은 천국들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소리나 강연은 때때로 하프 소리 같이 들리기 때문; 그들이 하프를 연주해서가 아니라, 심정의 기쁨으로부터 주님을 고백하는 소리가 아래쪽에서는 악기 연주 소리로 들렸을 뿐이다.

계15:2-'우리 바닷가에 서서, 하느님의 하프를 가지고...'=경계선에 있는 기독교인의 천국, 그리고 거기 있는 이들과 더불어 선행으로부터의 신앙...'하프'=영적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고백함. 영적 진리들은 선행으로부터 있는 신앙 속의 진리이다. 하프들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노래하는 것을 들음은...선행의 신앙으로부터의 고백을 표현한다. 생각들에 관한 애착들, 이로부터 천국의 천사들의 강연이 영계에서 아래쪽으로 다양하게 들려진다...이 구절의 하프의 소리 같다...이와같은 것들이 들려지는 이유는 소리, 그리고 말(연설)은 애착과 상응하기 때문.

계18:22-'하프 연주자와 음악가들의 음성(소리)가...네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영적 진리와 선에 대한 어떤 애착도 그들과 더불어 있지 않을 것... '음성(voice)'에 의해 소리(sound)가 뜻해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소리는 사랑 속에 있는 애착에 상응한다. 그 이유는 애착은 사랑에 그 근원이 있기 때문. 이로부터 하프의 소리나 음악 소리, 파이프의 소리는 상응으로부터 애착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애착들에는 두 종류가 있다. 즉 천적 애착과 영적 애착이다; 영적 애착들은 지혜의 애착이고, 천적 애착은 사랑의 애착이다...그러므로 악기들 중 어떤 것은 영적 애착과, 어떤 것은 천적 애착과 연관이 있다. 하프 연주자나 음악가의 음성, 또는 소리는 영적 애착들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파이프나 트럼펫 연주자의 음성 또는 소리는 천적 애착들과 연관이 있다. 줄로 된 악기 같이 불연속적으로 소리내는 악기는 영적 애착들 부류에 속한다. 연속적으로 소리내는 악기들, 즉 바람을 이용한 악기는 천적 애착들

학대하다-학살-한가운데

부류에 속한다. 그러므로 '하프 연주자나 음악가들의 음성 또는 소리'=영적 선과 진리에 애착함 ; 그리고 '파이프 연주자와 트럼펫 연주자의 음성 또는 소리'=천적 선과 진리에 애착함 이다. 상응으로부터 하프의 소리=영적 진리에 애착함 .

이24:7,8-‘포도나무’는 영적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영적 진리의 기쁨은 ‘하프’로 의미되어 있다.

시33:2-‘하프’=영적 진리들로부터의 고백인 바, ‘하프로 여호와께 고백하라’라고 말해진다.

시43:4-‘하프’=영적 진리들로부터의 고백인 바, ‘하스님, 나의 하스님, 하프에서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시57:8, 108:2-선으로부터의 진리가 ‘하프를 가지고 깨어나지는 것’이라고 말해진다.

시147:7-영적 진리로부터 고백함이 ‘하프에서 하스님께 노래하라’에서 의미되어 있다.

겔26:13-진리에 관한 지식의 황폐함이 ‘네 하프의 음성이 더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로 묘사되어 있다.

시98:5-‘하프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 하프로 그리고 노래함의 음성’=영적 선과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고백함; 그 이유가 사랑 속에 있는 모든 애착, 그것이 소리로 떨어질 때, 그 자체에 일치하여 소리하기 때문.

삼상16장-‘하프’=영적 진리들로부터의 고백; 그리고 영적 진리들은 영적 왕국의 천사들에게 감동을 주는 진리이기에 이를 수단으로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흩어진 다,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그것들 안에 있는 영들, 그러므로, 악령이 사울 위에 있었을 때, 다윗은 하프를 연주했다, 그러면 평온이 사울에게 있어졌다. 이렇게 행해진 이유는. 그 순간의 사울은 영적 진리들에 맞서려는 거짓들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프의 소리가 거짓들을 흩트린 것이다. 그 이유는 하프=영적 진리에 애착함 .

* 반대적 의미에서, ‘하프’=거짓을 고백함, 그리고 진리의 파괴에 대단히 기뻐함.

이23:16-‘하프를 취하는 것...’=진리를 과멸함에 거짓이 기뻐함.

겔26:13-‘하프 연주자의 음성’=영적 진리들과 선들로부터 즐거워함.

시33:2-‘너는 하프에서 고백하라, 그리고 수금에서 노

래하라’란 영적 사랑 안에 있는 이들을 두고 말해진 것이다.

시81:2-소고를 치는 것, 현악기와 더불어 유쾌한 ‘하프’=영적 그리고 천적 진리들로부터 고백함, 그리고 진리와 선에 애착함의 기쁨들.

시30:32-‘소고와 하프들’=진리에 애착함의 기쁨들.

학대하다 persecute

마5:11,12-‘사람들이 너를 학대할 때, 너희에게 복있다...그들은 예언자들 역시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옥에 의해 일으켜진 시험과 싸우고 정복함에 관해 말해지고 있다.

계12:13-‘용이 여인을 학대했다.’...‘학대하는 것’=미워함과 적개심으로부터 거절하고 비방하는 것.

계14:12-‘여기에 거룩한 사람들의 인내가 있다’=이 신앙 안에 있지 않고 선행 안에 있는 이들의 시험들과 학대함들.

학살 (slaughter)

* 살해하다(slay)를 보라.

한가운데 (midst)

중앙 (midst)

중간 (medium)

매개 (medium)

한가운데의 (middle)

중간의 (middle)

수단 (means)

* Benjamin, Laban, goshen, second(or middle) Heaven도 참조.

창2:9-‘동산의 중앙에’=내적 인간의 의지 안에.

창3:8-‘동산의 나무의 중앙’을 수단으로 그 안에 ‘그들은 자신들을 숨겼다’=자연적 선이 의미되어진다. 가장 안쪽인 것이 ‘중앙’이라 불리운다.

창9:21-‘천막 중앙에’=신앙의 주요한 것...‘중앙’, 말씀에서=가장 안쪽...선행이 가장 안쪽이다. 즉 선행은 신앙과 예배의 주요한 것이다. 고로 ‘천막의 중앙’이다.

출23:21-‘내 이름이 그의 중앙에 있기 때문’...‘중앙에’=가장 깊은 곳에.

창15:10-‘부분들 사이 중간의 공간’=인간과 더불어 지

한가운데

각이라 불리는 것, 내적 지령, 그리고 양심. 위쪽에 있는 것은 주님께 속하는 것.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인간과 더불어 있는 것.

창18:24-‘도성의 중앙에’...‘중앙’=안쪽에.

창23:10-‘헛의 아들들 중앙에 앉아있는 에브론’...‘중앙’, 또는 ‘중앙에’=제일인 것, 또는 주요한 것, 또한 가장 안쪽에 있는 것.

창37:7-‘들판의 중앙에서 단을 묶었는데’=교리로부터 가르치는 이들

창40:20-‘자기 종들의 중앙에’=외면의 자연 평면 안에 있는 것들 사이에 있는 것. ‘중앙에’=그것들 사이에.

창41:48-‘그것 주위에 있는 것들을 그는 거기로부터의 중앙에 쌓았다’=이전에 외면의 자연 평면 안에 있던 것들이 내면의 자연 평면으로부터의 내면적인 것 안에 저장되었음.

창45:6-‘토지의 중앙에 가근이 2년 동안...’=자연적 마음에 선이 결핍됨. ‘중앙에’=가장 안쪽에, 이곳에 선이 있다.

창48:16-‘토지의 중앙에서 그들이 번성하게 하소서’=가장 안쪽으로부터 (시작하여) 확장됨.

출3:20-‘그것의 중앙에서 내가 행하는 것’=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

출8:22-‘너희는 나 여호와와 토지의 중앙에 있다는 것을 알런지 모른다’=주님만이 교회의 하느님이심을 통각함.

출9:24-‘(우박의) 중앙에서 걷는 것’=함께 있는 것, 그리고 참으로 가장 깊게 있는 악으로부터의 탐욕.

출11:4-‘나는 이집트의 중앙 안으로 갈 것이다’=모든 곳에 신성이 현존한다.

출12:9-‘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그것의 중간의 것’=가장 안쪽으로부터 외적인 것 까지. ‘중간의 것’=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들, 즉 복부나 내장에 속하는 것들.

출23:21-‘나의 이름이 그 사람의 중앙에 있다’=그분으로부터 사랑의 모든 선과 신앙의 모든 진리가 있다는 것.

출23:25-‘나는 질병을 너희 중앙으로부터 제거할 것이다’=진리가 왜곡됨으로부터, 선이 섞임질됨으로부터 보호함.

출26:28-‘중간의 장대는 널판의 중앙에서 가장 끝으로부터 가장 끝 까지를 통과하여 갈 것이다’=제1인 힘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곳에서 힘(의 발휘는) 계속 된다는 것...‘중앙’=가장 깊은 것, 그리고 제1인 것.

출28:33-‘빙둘러 그것들 중앙에’=모든 측면에서 선으로부터의 과학물의 내면들로부터...‘중앙에’=내면인 것. 고로 ‘중앙에’가 교리와 예배로부터의 들음과 지각을 두고 말해질 때...=내면으로부터...그이유가 벨이 석류의 중앙에 놓여졌고, 이 과학물은 그릇(recipient)에 해당되기 때문.

출29:45-‘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중앙에 거주할 것이다’=주님이 현존하심, 그리고 그분의 유입

출33:3-‘나는 너희 중앙에서 승강 않을 것이다’=그럼에도 신성은 이 나라 자체와 더불어 있지 않다는 것...‘너희 중앙에’=그것의 내적 측면에서.

출34:9-‘부디 주께서는 우리들 중앙에서 가시옵소서’=신성이 그것에서 안쪽에 있을 런지 모른다는 것.

계1:13-‘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 일곱 촛대들 중앙에서’=말씀 측면에 관련된 주님, 이 분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중앙에’=가장 안쪽에. 안쪽으로부터 빙둘러 있는 것들의 본질이 파생된다, 여기서는 빛, 또는 총명.

계2:1-‘중앙에’=가장 안쪽에,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것의 모든 것 안에.

계2:7-‘하느님의 낙원의 중앙에 있는 것’=지혜로부터의 진리들과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내면적으로. ‘중앙에’=가장 안쪽에, 여기서는 내면적으로.

계4:6-‘왕좌 중앙에, 그리고 왕좌 빙둘러 네동물들’=첫째되는 것으로부터 최말단에 속하는 것이 이르기까지에서 있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의 지킴.

계5:6-‘왕좌 중앙에, 그리고 네 동물들의 중앙에, 그리고 원로들의 중앙에’=가장 안쪽으로부터, 그리고 안쪽으로부터 천국의 모든 것 안에, 말씀의 모든 것 안에,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 안에. ‘중앙에’=가장 안쪽의 것들, 이로부터 모든 것들 안에.

계6:6-‘나는 네 동물들의 한가운데에서...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들의 한가운데에서’에 의해 내적으로 있는 영적 의미 측면에서의 말씀이 뜻해진다. 이 말씀을 주

한 뺨-한 사람도 없다-한숨 쉬다-한웅큼-한조각-할렐루야

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

계7:17-‘왕좌 한가운데에 어린 양’에 의해 가장 안쪽에 계신 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 고로 천국의 모든 것 안에 계신 주님이 의미되어진다. ‘한가운데(중앙)에’=가장 안쪽에, 고로 모든 것 안에.

계8:13-‘하늘의 한가운데에서 날고 있는 천사’=주님에 의한 가르침과 예견...‘하늘의 한가운데에서 날면서 말함’=지각하고 이해하는 것.

계8:13-‘천국의 중앙에’=넓은 측면에서의 천국, 고로 천국들 안에 있는 모든 이.

신21:12-‘집의 중간’=내면들, 영적인 것.

이19:19-‘이집트 토지의 중앙에’=각처에 그리고 자연적 인간의 모든 것 안에.

시5:9-‘그것들의 중간’=내면적으로.

단9:27-‘주간(week)의 중간’은 시간 차원에서의 중간이 아니라 개혁 교회와 더불어 가장 안쪽의 상태.

한 뺨 (span)

출28:16-‘그것의 길이는 한 뺨, 그것의 넓이는 한 뺨이다’=선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동등하게.

이40:12-‘뺨으로 하늘들을 채는 것’=천국들을 배열하는 것...

한 사람도 없다 (no one)

창41:8-‘이런 것들을 바로에게 해석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려지지 않았다...그이유가 ‘한 사람도 없다’, 내적 의미에서=어떤 것의 부정적인 것, 고로 아니다이기 때문.

한숨 쉬다 (sigh)

출2:23-‘이스라엘의 아들이 한숨쉬었다’=슬픔.

예4:31-‘숨을 헐떡거리다’=슬픔.

겔9:4-‘가중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한숨쉬는 이들’=악들과 파생되는 거것들에 있지 않은 이들.

한웅큼 (handful)

레6:15-‘그들이 한웅큼을 가져가는 것’은 그들은 전심 전력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손’, 또는 ‘손바닥’=힘, 이로부터 한웅큼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이40:12-천국과 교회에서 그것들의 선과 진리의 품질에 따른 모든 것들의 올바른 배열과 평가가 ‘도량 단위

(measures)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도량 단위는 한웅큼이다.

이40장-‘한웅큼’ 등등에 의해 ‘도량 단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손’에 의해서도 그렇다; 즉 어떤 것의 품질; 그리고 자신의 힘.

한 조각 (morsel)

시147:17-‘조각 같이 우박을 내보내시는 분...’...거듭나기 전 인간과 더불어 있는 과학물들과 지식들이 ‘조각들 같이 있는 우박; 누가 그분의 추위 앞에 설까?’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요13:27-‘조각과 더불어 그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뱃속으로; 그리고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 안으로이다;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거것들이 생각 속에 있다.

할렐루야 (hallelujah)

출15:2-‘야(Jah)’=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할렐루-야의 ‘야’도 이와 같다.

계19:1-‘할렐루야(hallelujah)하고 말하는 그들의 음성’=그들에 의한 주님께 감사함, 고백함, 경축함. 히브리어의 경우 ‘할렐루야’는 ‘네 하느님을 찬양하라’이다.

계19:1-‘할렐루야를 말함’=주님의 영광을 기림...

할례 (circumcision)

창17:10-‘모든 남성은 할례받이라’=순수함...할례, 또는 포피를 자르는 것은 이런 것들, 즉 천국의 사랑들을 더럽히고 방해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탐욕들로부터의 악들, 특히 자아 사랑으로부터의 탐욕들로부터의 악들, 그리고 이 악들로부터의 거것들을 제거함을 의미한다.

여5장-천사들이 더러운 자연적인 것들로부터 순수해짐에 관한 생각을 가질 때, 거기서는 극히 빠른 속도로 영들의 세계에서 할례 같은 어떤 것이 표현되어진다...천국으로 입장 승인을 원하는 이들이 영들의 세계에서 아주 빠른 할례받는 자들로 표현되고 있다. 이로부터 왜 이스라엘 후손들이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할 때 할례받아야 한다고 여호수아에게 명령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확실해진다.

창17:11-‘너는 너의 포피의 살을 할례할 것이다’=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제거. ‘할례’=더러운 사랑들로부터 순수해짐.

창17:13-‘할례 함이 할례 될 것이다. Circumcising

할레-할레를 받지 않았음-핥다- 핥아먹음

shall be circumcised'=그들은 자아와 세상 사랑을 자신들로부터 완전하게 제거할 것이다...'할레'=자아와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 순수해짐.

창17:14-'자기 포피의 살을 할레받지 않은 그는...'=자아 사랑 안에 있는 그는...

창17:23-'그는 그들의 포피의 살을 할레했다'=그들의 순수해짐과 주님으로부터의 정의. '할레되어짐'=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 순수해지는 것.

창17:24-'그의 할레를 행함에서 자기 포피의 살'=그분은 외적 인간으로부터의 악들을 온전하게 추방하셨다. '할레되어짐'=자아와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 또는 악들로부터 깨끗해지는 것, 그 이유가 모든 악들이 위 두 사랑으로부터 있기 때문.

창17:26-'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레받았다'=주님은 그분의 인간 본질과 그분의 신성한 본질을 결합하게 하셨을 때, 그분은 진리를 수단으로 합리적으로 되어간 모든 다른 사람들과도 또한 결합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할레받아지는 것'=순수해지는 것, 그리고 이 단어가 주님께 관련해 서술될 경우=신성화하심 (to be glorified).

창17:27-'그들은 아브라함에 의해 할레되어졌다'=그들은 주님께 의해 정의로워졌다. '할레됨'=순수해짐.

창21:4-'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할레했다'=합리성의 순수해짐.

창34:22-'모든 남성이 할레받음 같이 그들은 할레받아라'=만일 그들이 단지 외적인 것들에 관련해서만 표현하기 시작했다면...'할레되는 것'=외적 표현성, 그들이 교회 속에 있다는 표시.

창34:24-'그들은 그의 문으로부터 나간 모든 남성을 할레했다'=외적인 것들에 접근.

창34:25-할레받은 후의 '아픔'=탐욕.

출4:26-'할레를 위한 피들의 신량'=비록 내적인 것이 진리와 선에 대한 증오와 폭력으로 가득하다 해도, 아직 할레는 더러운 사랑들로부터 순수해짐에 대한 표시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출12:48-'모든 남성은 할레받아라'=그의 진리는 불순한 사랑들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

예4:4-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 쪽에 (속하도록) 자신

들을 할레하고, 심정의 포피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즉 그들은 숨막히게하는 것들, 또는 결실도 없는 신앙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을 포기하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

신10:16, 예4:4-'심정을 할레하는 것', 또는 '심정의 포피'=악들로부터 자신들을 순수하게 함.

레19:23,24,25-열매들이 인간의 생활 속의 선들을 의미하는 바...나무들의 열매들은 할레되어야 한다고 명령되고 있다.

할레를 받지 않았음 (Uncircumcised)

* 포피를 참조.

핥다 (lick)

눅26:21-'종기를 핥는 것'=그들의 능력 내에 있는 수단으로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것.

핥아먹음 (lap)

사7장- 이 장의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은 진리의 왜곡됨, 그것 때문에 처벌 받음이 표현되고, 심지어 '개 같이 혀로 물을 핥아먹는 것'에 의해 의미되어진 것을 수단으로 그들은 파괴되어졌다.

사7장-'미디안'에 의해 진리를 돌보지 않는 이들, 그 이유가 그들은 자연적이고 외적이기 때문임이 뜻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개가 핥아먹듯, 자기들의 혀로 자기들의 손에 있는 물을 핥아먹는 이들에 의해 처부심을 당했다. 그 이유가 핥아먹는 이들에 의해 진리들을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이들, 고로 얼마간의 자연적 애착으로부터 진리들을 알려 분투하는 이들이 뜻해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개'에 의해 왕성한 욕구(appetite)와 바램이 의미되기 때문. '물들'에 의해 진리들이 의미된다. 그리고 '물들을 혀로 핥아먹는 것'에 의해 갈망함이 적극적인 것, 바램으로부터 분투노력하는 것이 의미되고 있다.

함 (Ham)

* '함'=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창9:18-'함'=부패된 교회...모든 교회에서 같이 고대 교회에도...부패된 내적 인간들이 있었다...내적 인간을 썩게 한 그들은 선행 없는 신앙을 신앙의 제일 순위로 만들었던 자들이다....고대 교회에서 내적 인간을 썩게 한 자들이 '함'이라 불린다.

함-합병하다-합환채-항구-항문-항아리

창9:18-‘함 그는 가나안의 아버지(조상)이다’=부패된 교회로부터 내적인 것들 없는 외적인 예배가 근원되었다는 것.

창9:18, 시78:51-‘함’=부패된 교회; 즉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을 종교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이들. 이는 시편 78:51에서 ‘이집트는 그로부터 함의 토지라 불린다’로부터 분명하다.

창9:22-‘함, 가나안의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다, 그리고 밖에서 그의 두 형제에게 말했다’=부패된 교회가 잘못들과 남용된 것에 주목했고 그것들로 해서 웃었다는 것. 그들이 ‘그의 형제들’이라 불린 이유는 그가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

창10:6-지식들, 과학물들, 그리고 의식들을 예배한 이들; 그리고 이것들을 내적인 것들로부터 분리한 이들이 ‘함의 아들들’이라 불린다.

창10:20-‘함의 아들들’=‘함’인 부패된 내적 예배로부터 있는 교리적인 것과 예배에 관한 갈래들(derivations).

시78:51-‘함의 천막들은 선으로부터 분리된 진리로부터 근원하는 거짓의 원리들로부터 이집트인들의 예배에 주어진 이름이다.

시105:23-교회의 모든 것들이 멸해진다는 것이 ‘아굽은 함의 토지에서 체류자가 되었다’에 의해 뜻해져 있다...‘함의 토지’에 의해 파괴된 교회가 의미된다.

합병하다 (combine)

출26:17-‘서로를 합병하는 것’=주님께서 이 천국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결합함.

합환채 (mandrake)

창30:14-‘그는 들판에서 합환채를 발견했다’=선행의 선과 진리, 사랑의 선과 진리에 있는 결혼 사랑으로부터 있는 이런저런 것들. ‘합환채(dudaim)’=결혼 사랑 속에 있는 것들.

창30:14-‘네 아들의 합환채를 나에게 달라’=결혼 사랑 속에 있는 것들을 갈망함, 또는 애착함.

항구 (haven)

창49:13-‘그는 바다들의 항구에서 거주할 것이다’=과학물들로부터 진리의 결말이 있는 삶. ‘항구’=과학물이 시작하고 종결하는 정거장(station); 여기서는 과학물들로부터 진리의 결말이 있는 정거장; 그이유가 여기서는

‘스블론’에 의해 신앙의 진리를 지닌 이들을 취급하기 때문. ‘바다들’=복합체에 있는 과학물들.

창49:13-‘그리고 그는 배들의 항구에서 있을 것이다’=말씀으로부터 교리적인 것들이 있는 곳. ‘항구’=정거장; 고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배들’=말씀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

* ‘바다들의 항구에서 거주하는 것’=자연적 진리들과 더불어 영적인 것들이 결합함. ‘바다들’=과학물들, 이는 자연적 진리들이다. ‘바다들의 항구에서 거주하는 것’=말씀으로부터 교리적인 것들과 더불어 영적 결합. ‘배들’=모든 종류의 교리적인 것들과 지식들.

* ‘스블론’=선과 진리의 결합; ‘그는 바다들의 항구에서 거주할 것이다’=진리로부터 생활함; ‘그는 배들의 항구에서 있을 것이다’=말씀으로부터 교리적인 것에 따라서.

항문 (anus)

이3:17-‘비밀한 부분들이 발가지게 만들었다’=악과 거짓을 사랑함.

항아리 (jar)

창24:14-‘네 항아리를 내려 놓아다오’=과학물들의 복종. ‘항아리’=과학물. ‘물동이(waterpot)’, 또는 항아리=과학물인 이유는 물=진리이기 때문. 그리고 항아리는 물을 담은 그릇, 마치 과학 평면이 진리를 담은 그릇인 것과 같다.

창24:15-‘그녀의 어계 위에 그녀의 항아리’=진리를 받음들, 그리고 받으려는 노력. ‘항아리’=과학물, 고로 진리의 저장소(receptacle). 항아리, 물동이, 또한 일반적으로 그릇들, 내적 의미에서,=저장소의 장소에 있는 것들, 마치 과학물과 지식이 진리와 연관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진리들 자체가 선에 연관되는 것과 같다.

창24:16-‘그녀는 그녀의 항아리를 채웠다’=받음의 그릇들. ‘항아리’, 물을 받기 위한 그릇인바,=진리의 지식들을 받는 것, 그리고 또한 진리 자체.

창24:17-‘내가 네 항아리로부터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다오’=어떤 진리이든 거기서 결합되어질 수 있다는 것.

창24:18-‘그리고 그녀는 서둘러 그녀의 손 위에 항아리를 내려 놓았다’=권능으로부터 수용자가 복종함. ‘항아리’=받는 것.

행하다(do)

창24:20-‘그리고 그녀는 서둘러구유에 물을 비웠다’=신성으로부터의 선에서 시작되어지는 진리에 애착함이 분리됨. ‘항아리를 비우는 것’=진리를 분리하는 것. 그 이유가 담고 있는 그릇이 이 구절에서의 항아리인바, 이는 진리를 담은 과학물, 뿐아니라 안에 선을 담은 진리도 의미하고 있기 때문. 여기서 이것이 시작되는 것을 취급하는바, 항아리=신성으로부터의 선에서 개시되어지는 진리. 그리고 진리 자체는 진리의 애착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결합되어지지 않는바, 여기서 항아리는 진리에 애착함이다.

왕상17장-‘거친 곡식 가루 항아리’=선으로부터의 진리.

항의하다 (protest)

창43:3-‘항의하는 것’=싫어해지는 것.

출19:21-‘항의하는 것’=권면하는 것.

해 (year)

* 연(year)을 보라.

해 (sun)

* 태양을 참조.

해달 (badger)

* 오소리를 보라.

해석하다 (interpret)

창40:5-‘그의 꿈의 해석에 의하면 각각이었다’=그들이 자신 안에 가졌던 사건.

창40:8-‘그것의 해석자가 없다’=이것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자 없다.

창40:8-‘해석들은 하느님과 더불어 있지 않습니까?’=신성이 그것들 안에 있다는 것.

창40:12-‘이것은 그것에 관한 해석입니다’=이것이 자체 안에 가진 것에 관하여 지각으로부터 밝히 얹.

창40:16-‘그가 좋게 해석했다는 것’=발생할 것.

창40:18-‘이것은 그것에 관한 해석입니다’=그것이 자체 안에 가진 것.

창40:22-‘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준대로 였다’=자연 평면에서 천적인 것에 의한 예언. ‘해석하는 것’=자체 안에 가진 것을 말하는 것. 또는 발생할 것을 말하는 것.

창41:8-‘이런 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

다’=발생되리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해석하는 것’=발생할 것을 아는 것.

창41:11-‘각각은 그의 꿈의 해석에 따라서’=각각에게 발생할 것.

창41:15-‘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한다’=그것 안에 무엇이 있는 지에 무지함.

창42:23-‘그들 사이에 통역자가 있었기 때문에’=영적인 것들이 아주 다르게 납득되었다는 것.

햇수 (age)

* 나이(age)를 보라.

행음 (fornification)

* 간통(scortate)을 보라.

행진 (march)

창49:22-‘벽 위에서 행진하는 것’=거짓에 맞서 싸우는 것.

이63:1-‘그분은 그분의 신성의 힘을 가지고 싸우셨다는 것이 ‘그분의 수많은 강함 안에서 행진하신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10:10-‘말하는 것’, 그리고 ‘가는 것’=사는 것.

행하다 (do)

창6:22-‘노아는 하느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것에 따라 행했다, 그렇게 그는 했다’=그것이 그와같이 행해졌다는 것. ‘그는 했다’가 두 번 말해지는데 이는 (선과 진리) 양쪽을 포함하고 있다.

창11:6-‘이것을 그들은 행하기 시작했다’=그들은 이제 달라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여기서 ‘행하기를 시작하다’=생각 또는 의도, 고로 목적

창16:6-‘당신 눈에 좋을대로 그녀에게 행하라’=명령.

창18:5-‘네가 말한대로 그렇게 하라’=그것이 그렇게 될 것임.

마16:27-‘그다음 그분은 그의 행위들에 따라 모든 이 각각에게 되갚으실 것이다.’ ‘행위들’=선행으로부터 진행하는 선들.

창21:1-‘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하나로 됨의 상태...‘행하는 것’, 주님의 신성에 관해 서술할 때,=결과의 모든 것, 고로 상태.

창26:10-‘아비멜렉이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나?’=분개함.

향-향기

창31:16-‘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한 모든 것을 행하라’=주님의 섭리.

창39:22-‘그들이 거기서 했던 모든 것, 그는 행위자였다’=절대적 힘.

창41:25-하느님이 행하시려는 것을 그분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셨다’=설비되는 것.

창41:32-‘그리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하시려 서두르신다’=전체 사건과 더불어.

창41:55-‘그가 네게 말하는 것을 행하라’=순종이 설비되어 있다.

창42:20-‘그들은 그렇게 했다’=이 상태의 끝; ‘하는 것, (to do)’, 또는 ‘...하게 되는 것(it came to pass)’=이전 상태의 끝, 그리고 이어지는 것의 시작을 포함한다.

창42:25-‘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결과.

창42:28-‘어찌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 까?’=큰 섭리 때문에 (공포).

창44:7-‘이 말들에 따라 행하는 것은 중들에게는 거리가 멍니다’=이것이 의지로부터 있지 않을 때.

창47:30-(요셉이 말했다), 나는 너희 말들에 따라 행한다’=그것은 그렇게 신성으로부터 섭리 속에 있을 것이다.

창50:12-‘그의 아들들은 그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대로 행했다’=유입에 따른 결과.

창50:20-‘오늘에 따라 행하시기 위하여’=그것은 영원으로부터 질서에 따라 있는 것. ‘행하는 것’=신성을 말할 경우,=질서,

출4:15-‘나는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치겠다’=있게 될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있는 신성인 것.

출12:28-‘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대로 가서 행했다’=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순종할 것이다.

출12:28-‘그렇게 그들은 했다’=의지로부터 행동함. ‘그들이 했다’가 반복될 경우, 처음의 ‘했다’는 이해함으로부터, 두 번째 ‘했다’는 의지로부터 이다.

출14:4-‘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순종.

출15:26-‘만일 네가 그분의 눈에서 올바른 것을 행한다면’=이 (명령들에) 따른 생활.

출19:8-‘그들은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할 것이다’=신성으로부터의 유입에 따라서.

출23:22-‘만일 네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한다면’=신앙과 사랑으로부터 따름(compliance).

출23:24-‘너는 그들의 일들에 따라 행하지 마라’=생활의 악들이 모방되어져서는 안된다.

출24:3-‘그들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하신 모든 말들을 행할 것이다’=심정 안에서 받음.

출24:7-‘그들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듣고 행할 것이다’=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를 받음, 그리고 심정과 혼으로부터 순종함.

출32:21-‘이 백성은 네게 무엇을 행했느냐?’=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출32:28-‘그리고 레위의 아들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행했다’=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한 결과.

계21:6-‘그분이 나에게 말했다, 다 되었다’=이것은 신성의 진리이다는 것.

계13:5-‘행하는 능력이 마흔 두 달 동안 그에게 주어졌다’=진리와 선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 까지 파멸함.

요14:21-본질 측면에서 사랑은 의지 쪽이다, 그리고 명백해짐에서 사랑은 행동 쪽이다. 그이유가 인간은 사랑하는 것을 뜻하고, 뜻한 것을 사랑으로부터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하신다, ‘내 명령들을 가진 자,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계16:17-‘다 되었다’=극점에 왔다.

향 (incense)

이65:3-‘벽돌 위에서 향을 바치는 것’=거짓들로부터 예배하는 것.

시66:15-‘숫양들로부터의 향(연기)’=신앙으로부터 있는 영적인 것들.

예32:29-‘집의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향을 바치는 것’=악을 예배함.

호4:13-거짓으로부터의 예배가 ‘언덕들 위에서 향을 바치는 것’에 의미되어 있다.

향기 높은-향나무-향로-향신료-향유

레10:1-‘불’=사랑의 선; 그리고 ‘향’=거기로부터의 신앙의 진리.

겔8:11-이런 것들에 따른 예배가 ‘향의 자욱한 구름’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출25:6-‘향신료의 향과 함께’=감사하고 있는 지각 쪽으로.

레16:12-‘아론이 베일 안으로 가져가는 향’=적합되게 함(adaptation).

출30:36-‘향’, 그것의 얼마를 증거께 앞에 놓였는데... ‘거룩들로부터의 거룩’이라 불리운다, 그 이유는 이것이 최말단들에 있는 천적인 선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이 선으로부터 진행하는 것들도 의미한다.

출30:7-‘그리고 아론은 그것 위에 향을 바칠 것이다’=사랑과 선행으로부터 있는 예배를 주님께서 들어올리심.

출30:7-‘향신료의 향’=감사하고 있는 들음과 받음. ‘향’=사랑과 선행으로부터 있는 예배의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께 의해 들으심과 받으심.

출30:9-‘너는 낮은 향이 그것 위에서 올라오게 해서는 안된다’=주님을 사랑함 외의 여느 사랑으로부터의 예배는 없다. ‘향’=사랑으로부터 예배함.

출30:35-‘너는 이 향을 만들 것이다’=이런 것들로부터 예배함. ‘향’=고백들, 숭배함들, 기도들, 그리고 심정으로부터 생각과 말 안으로 가는 예배 속의 이런저런 것들; 향의 연기에 의해 승강됨이, 향의 냄새에 의해 감사하고 있는 지각함과 받음이 의미된다.

출30:37-‘네가 만드는 향과 같은 품질의 향을 너를 위해 만들지 마라’=교회의 거룩한 진리들로부터의 예배는 인간의 사랑들을 옹호하는 쪽에 응용되어서는 안된다.

출30:37-‘여호와께 거룩함이 네게 있을 것이다’=예배는 반드시 신성한 사랑을 옹호하는 쪽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것.

출31:11-‘그리고 향신료의 향’=진리들로부터의 예배를 표현하는 것. ‘향’=예배의 표현인 것.

계5:8-‘그리고 향으로 가득한 금대접’=영적 선들로부터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고백함.

계8:3-‘금빛의 제단 위에 거룩한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주어진 많은 향들’=(영적 왕국의 천사들이) 사탄

같은 왕국의 영들에 의해 다치지 않도록 달램(propitiations).

계8:4-‘그리고 향의 연기가 올라갔다...’=주님께 의해 그들이 보호됨.

겔16:18-‘그것들 앞에 나의 기름과 향을 놓는 것’=천적 사랑의 선과 영적 사랑의 선 모두 섞임질되는 것. 말씀이 세상 사랑과 자아 사랑에 응용될 때 섞임질이 된다.

시141:2-‘향’=영적 선, 이는 선행의 선이다.

계8장-‘기도들’과 ‘향’=영적 선으로부터의 예배.

예18:15-거짓들로부터 예배가 있는 것이 ‘그들은 덧없음에 향을 바쳤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향을 바치는 것’=예배.

계18:13-‘그리고 계피와 향들’=천적 사랑으로부터의 예배가 모독되었다. ‘향’ 또는 ‘향기(perfume)’=천적 사랑으로부터의 진리, 이 진리는 지혜의 선이다.

향기 (fragrance)

출30:34-‘너에게 향신료를 가져오게 하라’=신성한 예배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선으로의 진리에 애착함들.

출30:24-‘향기나는 나감향’=자연적 진리에 애착함 : ‘나감향’에 의해 자연적 진리가, ‘향기 나는’에 의해서는 감사할 것에 대한 지각력이 의미된다.

출30:24-‘...이것들은 향기 있다’=영적 선으로부터의 애착들. ‘향신료’=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

향기 높은 (aromatic)

* 향신료(spice)를 참조.

향나무 (thyine wood)

계18:12-‘모든 향나무’=자연적 선들. ‘향나무’=자연적 선인 이유는 ‘나무’=선; 그리고 향나무(thyine wood)는 그것의 이름 ‘둘(two)’로부터인데, 2란 숫자는 선 측면의 것을 의미하기 때문. 자연적 선인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값비싼 나무는 아니기 때문. (=자연적 인간 안에서 진리와 결합한 모든 선)

향로 (censer)

레10:1-‘향로들에 낮은 불을 놓는 것’=천국의 사랑 외 다른 사랑으로부터 예배하는 것.

계8:3-‘또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썼

향기 높은-향나무-향로-향신료-향유

다'=영적 예배, 이 예배는 신앙 속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선행의 선으로부터 실행되어진다...그의 선에 가진 '금향로'=영적 사랑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함.

계8:5-'그리고 천사는 향로를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채웠다, 그리고 땅으로 던졌다'=천적 사랑이 있는 영적 예배, 그리고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던 이들이 있는 더 낮은 부분들 안으로 이 예배의 유입이 있음. '향로'도 '향과 동일하게 영적 사랑으로부터의 예배가 의미된다.

계8:3-'금향로를 가졌다'=(천적) 선이 영적 선과 결합함, 그리고 고로 더 높은 천국들에서 함께 결합함. '향로'=영적 선으로부터 예배함...그리고 '금향로'=천적 선으로부터 있는 영적 선.

향신료 (spice)

양념 (spice)

창37:25-'향신료를 실어나르는 낙타들'...'양념', 등등=선과 결합된 내면의 자연적 진리들.

출25:6-'기름부음의 기름을 위한 향신료들'=취임하는 (inaugurating) 선으로부터 있는 내적 진리들. '향신료'=내면의 진리들, 이는 내적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다.

출25:6-'향을 위한 향신료'=감사하는 지각을 위하여. '향신료'=선으로부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들.

이57:9-'향수를 불리는 것'=향을 불리는 것, 이를 수단으로 우상숭배가 의미된다.

겔17:4-'향수 제조인의 성'=내면의 진리로부터의 교리가 있는 곳.

겔27:22-'제일의 향신료'=내면의 진리들로부터 감사하고 있는 것.

출30:23-'최고의 향신료를 내자신에게 가져오라'=말씀으로부터 선들과 더불어 진리들, 이것들은 깊이 감사함으로부터 지각되어진다. 그이유가 '향신료'=선들과 결합한 진리들, 이것은 감사하고 있음이다.

출30:23-'향기 높은 육계'=자연적 진리에 대한 지각과 애착... 그이유는 '향기 높은'에 의해 감사함으로부터 있는 지각이 의미된다. (그리고 이것은) 애착으로부터 있다.

출30:23-'향기 높은 창포'=내면의 진리에 대한 지각과

애착. (그이유가) '향기 높은'=지각과 그것에 대한 애착.

출30:34-'냄새 좋은 향신료들을 내자신에게 가져오라'=신성한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 그이유가 '향신료'=선과 진리에 대한 지각들과 애착들.

출31:11-'향신료의 향'=진리들로부터 예배함의 표현물...'향신료들'=진리들과 그들의 애착들.

향유 (balm, balsam)

겔27:17-'사랑과 선행으로부터의 선들, 그리고 그것들의 행복한 느낌이 '민넛 밀과 구운 과자, pannag, 꿀, 향유'이다.

창43:11-'수지, resin'=선의 진리, 또는 선으로부터의 진리... 이 수지는 향기로웠다...그러므로 원어에서는 발삼(향유)을 뜻한다. 이 물질은 연고, 또는 매우 진한 기름임은 분명하다.

예8:22-'길르앗에는 향유가 있지 않던가?'

마26:7,12-'그분이 가만히 계셨을, reclined 때,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쏟았다...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녀는 내 장례를 위하여 내 몸에 이 향유를 쏟았다'

겔 27:17-'향유'에 의해 감사히 여김이 있는 진리들, 그리고 선으로부터 기뻐함이 있는 진리들이 의미되어진다. 그 이유가 천국에서 선으로부터 있는 모든 진리들은 향내음이 달콤한 것으로 지각되고, 이로부터 고마워하고 기뻐한다.

예46:11-'오 이집트의 딸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향유를 가져오라'=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의 진리들, 그다음 그로부터 추론하고 지킴. '길르앗'에 의해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추론함이 의미된다. 이를 수단으로 거짓들이 확증되어진다, 그이유가 길르앗은 유브라테로부터 멀지 않기 때문,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밀납(wax), 유향(opobalsam), 그리고 소합향(stacte)이 왔다...'향유'에 의해 거짓인 것에 적용함, 그리고 이로부터 확증함이 의미된다.

향유 (resin)

* 수지(resin)를 보라.

허가 (approbation)

허약함-헛된-헤레스-헤르몬-헤매다-헤브론-헤스본

출32:5-‘보는 것’=허가

허리 (loin)

겔1:27-‘허리로부터 위쪽으로’=사랑의 천적 평면...‘허리로부터 아래쪽으로’=천적 평면으로부터의 영적 평면. 고로 천적인 천국이 ‘허리로부터 위쪽으로’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그리고 영적 천국은 ‘허리로부터 아래쪽으로’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이11:5-‘정의’가 사랑의 선을 서술하는 바, ‘그분의 허리의 띠’라 불리운다. 고로 ‘허리’는 선을 사랑함, 그리고 ‘허벅지’는 진리를 사랑함을 서술한다.

단10:5-천적 왕국의 신성의 사랑이 ‘허리’이다.

창35:11-‘왕들이 네 허리로부터 나올 것이다’=신성한 결혼으로부터의 진리들...‘허리’=결혼 사랑으로부터 있는 것들. 결과적으로 천국의 결혼으로부터 있는 것들, 최고 의미에서 신성의 결혼으로부터 있는 것들.

창37:34-‘그는 자기 허리에 삼베옷을 놓았다’=파괴된 선을 위해 슬퍼함.

암8:10-‘모든 허리’=사랑으로부터의 모든 선들.

이32:11-‘허리 위에 자신들을 띠를 두르는 것’=잃은 선 때문에 슬퍼함 안에 있는 것.

출12:11-‘네 허리에 띠를 하고’=내면들에 관련하여.

예13:4-‘허리의 띠’=사랑의 모든 것, 이로부터 신앙의 모든 것을 다함께 붙잡는 외적인 묶음.

단10:5-‘허리’=결혼 사랑, 이는 선과 진리의 결혼 사랑이다. 이로부터 그의 허리는 ‘우바스의 금으로 띠를 하고’라고 말해진다. 그이유가 ‘금’=사랑의 선이기 때문.

출28:42-‘허리로부터 허벅지 까지 그것들이 있을 것이다...’=결혼 사랑의 외면들로 확장됨. 결혼 사랑이 ‘고운 아마포의 반바지’에 의해 의미된다. (그이유가) ‘허리’와 ‘허벅지’=결혼 사랑으로부터 있는 것들이기 때문. ‘허리’=결혼 사랑의 내적 측면으로부터 있는 것들. ‘허벅지’=결혼 사랑의 외적 측면으로부터 있는 것들.

이20:2-‘허리 위로부터 삼베옷을 벗는 것’, 즉 벗은 허리를 보이는 것=더러운 사랑들을 폭로하는 것.

눅12:35-‘허리에 띠를 함’에 의해 사랑의 선이 뜻해진다.

시66:11-‘허리를 압박함’=사랑의 선을 지각함이 없음.

예30:6-‘허리 위에 손...’=(자신의 총명으로부터의) 것

들을 피하는(hatch) 것.

신33:11-진리들을 수단으로 거짓이 사라짐이 ‘그에 맞서 봉기한 이들의 허리를 쳐부숨’에 의미되어 있다. 그리고 악들이 사라짐이 ‘그를 미워하는 이들의 허리를 쳐부숨’에 의미되어 있다.

시69:23-‘흔들여질 허리’=의지의 선과 이 선이 진리의 이해성과 결혼함.

겔47:4-‘허리에 (차는) 물들...’=영적 인간에 의해 소유되는 총명.

예30:6-‘허리’=결혼. 영적 의미에서 진리와 선의 결혼. 그러나 ‘산고에 시달리는 자 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놓은 각 사람 모두’=마치 선 없이 진리만으로 결혼한 것 처럼.

이11:5-‘그분의 허리’에 의해 그분을 사랑함에 있는 이들이 뜻해진다.

허약함 (infirmity)

이53:10-‘여호와께서는... 그분을 허약하게 ...만드셨다.’ 이 장 전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님의 굴욕적인 상태, 그분은 허약한 인간 안에 계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취급한다.

겔34:21-‘허약한 양을 자기들의 뿔로 밀치는 것...’=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을 갈망하지만 아직은 그런 상태 안에 있지 못한 곧바른 자들을 거짓들을 가지고 파괴하는 것.

헛된 (vain)

헛됨 vanity

출20:7-‘너는 헛된 것 안으로 네 하느님의 이름을 가져가지 말라’=하느님의 예배에 속하는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은 경멸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 더 나아가 모독하거나 더러운 것들로 오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출23:1-‘너는 헛됨의 보고를 채택하지 말라’=거짓들에 귀울이지 마라...‘헛됨’=종교와 교리의 거짓.

시144:8-‘헛됨’=교리의 거짓; ‘거짓말’=생활의 거짓.

이66:3-‘유향을 바치고, 헛됨에게 은혜를 베푼다’=영적 선 같은 것으로 하느님을 예배한다, 그럼에도 악과 거짓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뺏아들인다...‘헛됨’=악,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거짓.

예10:8-‘헛됨들’=거짓들.

예8:19-‘낮선 자들의 헛됨들’=종교의 거짓들.
 이30:7-‘이집트, 헛됨과 텅빔’=감각적 평면과 자연적 평면, 그 자체로만 본다면, 선이 결여되어 있고, 진리 또한 결여되어 있다.
헤레스 (Heres)
 이19:18-‘일 헤레스(ir heres)’=자연 평면에서 영적 진리들로 반짝거리는 교리; ‘일(ir)’은 ‘성(city)’을 뜻한다. 그리고 ‘헤레스’는 태양 같이 반짝거림을 뜻한다.
 이19:18-‘모든 이 각각은 헤레스의 성이라 불릴 것이다’=각각 안에 있는 선행의 선의 교리...‘헤레스’, 히브리어에서 태양과 그것의 광선을 뜻하는데,=선행의 선과 파생되는 신앙의 선.
헤르몬 (Hermon)
 시89:12-‘다볼과 헤르몬’=신성한 선 안에, 그리고 신성한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시133:3-‘헤르몬의 이슬’=신성한 진리...고로 ‘시온의 산 위에서 내려오는 헤르몬의 이슬’=진리와 선의 결합.
헤메다 (wander)
 * 잘못(error)도 보라.
 시58:3-‘사악한 자는 뱃속에서부터 헤메다’=그들은 진리들로부터 거짓들 쪽으로 물러난다.
헤브론 (Hebron)
 창13:18-‘아브람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에서 거주했다’=주님께서는 더욱 더 내면적 지각에 도달하셨다...이 지각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이라 불린다.
 창23장-‘가나안 토지의 헤브론’=새로운 교회.
 창23:2-‘기랴아르바에서, 이곳은 가나안의 토지에 있는 헤브론’=교회에서...‘기랴아르바’=진리 측면에서의 교회; 그리고 ‘가나안의 토지에 있는 헤브론’=선 측면에서의 교회.
 창23:19-‘이곳은 헤브론이다’=이것은 새로운 교회였다는 것; (그 이유가) ‘헤브론’=영적 교회...‘헤브론’에 의해 선 측면에서의 교회가 의미되어진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랴아르바라 라고는 더 이상 부르지 않고 ‘헤브론’인데, 그 이유는 거듭난 이들, 즉 진리로부터가 아닌 선으로부터 행동하는 이들이 취급되기 때문.
 창35:27-‘마므레 기랴아르바에 의해 진리 측면에서의

자연의 상태; 그리고 ‘헤브론’=선 측면에서의 자연의 상태.
 창37:14-‘그는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냈다’=자연 측면과 감각 측면으로부터 있는 신성...‘헤브론’=선 측면에서의 주님의 교회.
헤스본 (Heshbon)
 예49:3-헤스본은 갓 지파에게 주어졌다...그리고 그러므로 이 토지에 의해 일반적으로 갓에 의해 의미되는 것이 특별히 의미되어지고 있다...‘헤스본’=자연적 인간 안에서 진리의 결실이 풍성함.
 예49:3-‘곡하라, 오 헤스본아, 아이가 황폐해졌기 때문이다’=산으로부터 진리의 열매 풍성함이 더 이상 없다는 것, 그이유는 진리의 교리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이16:9-‘헤스본과 엘르알레’=외적 교회의 사람들, 이들은 세상 사랑을 옹호하는 쪽으로 말씀을 설명한다.
헬본 (Helbon)
 겠27:18-‘헬본의 포도주’=자연적 진리.
헛 (Heth)
헛족 (Hittite)
 겠16:45-‘헛족’=거짓
 창10:15-‘가나안이 헛을 낳았다.’ ‘헛’=천적인 것들에 관한 외면의 지식들.
 창15:20-‘헛족’ 등등=거짓의 설득들.
 창23:3-‘헛의 아들들’=이들과 더불어 새로운 영적 교회.
혀 (tongue)
언어 (language)
 창10:5-‘모든 이 각각은 자기 혀에 따라’=각자의 의견에 따라...‘혀’ 또는 ‘언어’=견해, 고로 원리들과 설득들인 이유는 혀가 인간의 지적 부분, 또는 생각 부분과 상응하기 때문...말하는 가운데 혀의 운동 안으로 인간의 생각이 유입될 뿐 아니라 그것들 안으로 천국의 유입도 있다.
 시140:11-‘혀’=거짓말.
 창10:20-‘그들의 혀에 따라’=그들의 견해에 따라.
 창10:31-‘그들의 혀에 따라’=신앙의 차이에 따라.
 출4:10-‘저는 입이 무겁고 혀가 무겁습니다’=신성으로

혀-혀대-현세에의 욕망

부터 있는 음성과 말(speech)이 들려지지도 않고 지각되지도 않는다는 것... '혀' = 말인 이유는 혀가 말의 몸의 기관이기 때문.

출11:7- '개가 자기 혀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 최소한의 정죄함과 탄식함도 없다.

계5:9- '모두 각각의 지파와 혀로부터' = 교회 안에 또는 어떤 종교 안에 교리 측면에서 진리들에 있는 이들이 (되찾아지는 것).

눅16:24-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다오' = 괴로움을 당하게 한 거짓들에 의한 교리들.

계10:11- '너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혀들 위에 예언을 다시 해야 한다...' = 믿음 만에 있는 이들의 품질이 더 멀리 가르쳐져야만 함에 틀림없다... '혀들' = 이런 것들 안에 외면적으로 있는 이들 ('혀들' 여기서의 경우 = 진리로부터의 선들, 그리고 각자의 종교에 따라 진리로부터의 선들을 고백함).

계11:9- '혀들' = 고백함과 이런 것들을 받음 (= 교리 속의 모든 진리들과 거짓들).

계13:7- '혀' = 그것의 교리. (= 교회 속의 교리, 그리고 또한 고백함과 종교, 여기서 신앙 속의 교리).

계14:6- '혀' = 교리 (= 심정의 선으로부터 고백함. 즉 교리의 선 안에 있는 이들).

계16:10- '그들은 심통(distress) 때문에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다' = 그들은 진리들을 견뎌낼 수 없었다.

계17:15- '혀들' = 고백함에 있는 이들.

이66:18- '나라들과 혀들' = 사랑의 선들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진리들 안에 있는 모든 이.

단7:14- '모든 언어들' = 모두, 즉 교리 또는 종교가 무엇 이든 모두.

시31:20- '혀들의 다툼' = 거짓으로부터의 악들과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숙8:23- '나라들의 혀들' = 종교적인 것들.

이3:8- '그들의 혀가 여호와와 맞서고 있다' = 그들의 교리.

계7:9- '백성들과 혀들' = 무지함으로부터,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모든 이.

사7:5- '혀로 활아 먹는 것' = 얻으려고 매우 열심인 것, 그리고 바램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

시57:4- '혀' = 종교의 거짓들.

이57:4- '혀를 잡아 늘이는 것' = 이런저런 것들을 늘리고 가르침으로부터의 즐거움

혀대 (belt)

* 띠(girdle)도 참조.

출39:29- '혀대' = 내적인 모든 것을 결합하는 외적인 것.

출28:4- '혀대' = 모든 것들이 한 목적을 쳐다보기 위한 공동의 묶음(bond).

출28:39- '혀대' = 묶음(bond), 그리고 (영적) 왕국의 외적인 것들로부터 분리함.

출28:40- '너는 그들을 위해 혀대들을 만들어라' = 연결된 것을 다함께 붙잡는 것.

출29:5- '너는 혀대로 그것들을 띠두를 것이다' =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함께 붙잡고 있어 천적 형체에서 있기 위하여 결합하는 묶음.

현세에의 욕망 (concupiscense)

민11:4,34- 그의 의지는 약박에 없다, 그러므로 '고기'... = 모든 탐욕, 또는 모든 현세에의 욕망... 이런 것들 그들이 광야에서 탐을 낸 고기가 표현하였다. 즉 '누가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그 장소의 이름을 욕망의 무덤들이라 불렀는데, 그이유는 거기서 그들은 탐을 낸 백성을 묻었기 때문이다.

이3:24- 현세에의 욕망이 '아름다움 대신 타짐이...'에서 '타짐, burning'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현악기 (psaltery)

* 여기서의 현악기는 옛날의 현악기임.

이22:24-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현악기들의 그릇들'이라 불린다. (= 영적 지주로부터의 과학적 진리들.)

사81:2- '현악기와 더불은 하프'는 영적 표현이다.

시33:2- '열 줄로 된 현악기' = 상응하는 영적 선...

현이 있는 (stringed)

* 하프와 여타 현이 있는 악기들 = 영적인 것들.

형상 (image)

* 그 다음 인간이 신앙으로부터, 동시에 사랑으로부터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는 영적 인간이 되어가고, 그를 두고 '형상'이라 부르고 있다.

* 태교 교회에서 이해되었던 '주님의 형상'은 말로 되어진 그 이상이었다.

형제

창1:26-‘형상(image)’은 ‘모습(likeness)’이 아니다; 형상은 ‘모습에 따라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영적 인간이 ‘형상’이다; 그리고 천적 인간은 ‘모습’이다..‘형상’인 영적 인간이 주님에 의해 ‘빛의 아들’이라 불리우고 있다...또한 그는 ‘친구’라 불리운다...

창1:27-‘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이 그를 창조한 하느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형상’이 두 번씩 말해진 이유는 이해성 속에 있는 신앙이 ‘그분의 형상’이라 불리고, 의지 속에 있는 사랑은 ‘하느님의 형상’, 이것은 영적 인간 뒤를 잇고, 천적 인간에서는 앞서 진행된다.

* 여섯째 날까지 그는 ‘형상’이 되어간다.

* 그러므로 (천사들은) 주님의 형상들이다...

* ‘하느님의 형상’=영적 인간...그 이유가 형상은 모습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5:3-새로운 교회, 이는 태고 교회를 아주 닮지 않은 것은 아닌바, 그것은 ‘그의 모습 안으로, 그리고 그의 형상에 따라’ 태어났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모습’은 신앙에 관계하고, ‘형상’은 사랑에 관계되고 있다. 이 교회가 ‘셋’이라 불리운다.

* 인간이 거듭나질 때, 그는 천국의 형상이 되어간다; 그러나 그가 거듭나기 이전에서는 외적인 것들이 내적인 것들에 우세해 있다. 그러면 그는 지옥의 모양이다; 그러므로 질서가 파괴되어질 때 그는 지옥의 형상이다; 그리고 질서는 주님에 의해, 거듭남을 통하여 회복된다; 회복될 때, 그는 천국의 형상이 되어간다.

창9:6-‘하느님의 형상으로 그분은 사람을 만드셨다’=선행(charity), 이것이 ‘하느님의 형상’이다.

* ‘하느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오늘날 까지도 거의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형상은 첫 인간에서 파괴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의 형상이 첫 인간 안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형상은 일종의 원상태대로의 것이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태고 교회가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이 교회가 멸망된 후, 주님은 새로운 것을 창조 하셨다, 이것은 천적인 교회는 아니나 영적 교회였다. 이 교회

는 ‘모습’은 아니고 ‘하느님의 형상’이었다. ‘형상’=영적인 사랑; 즉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 이 교회는 영적인 사랑으로부터...주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은 이 구절로부터 명백하다; 그리고 선행 그자체가 주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형상에서 그분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진 사실로부터 명백하다; 즉 선행 자체가 ‘그를 만들었다’. 선행이 ‘하느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랑 또는 선행의 참 본질로부터 가장 분명하게 명백하다. 사랑과 선행 외 어떤 것도 누군가의 모습을, 또는 누군가의 형상을 만들 수 없다. 둘을 마치 하나로써 만드는 것이 사랑과 선행의 본질이다.

* 주님을 사랑함이 인간을 주님과 하나되게 만든다; 즉 ‘모습. likeness’이다; 선행 또는 이웃을 향한 사랑 역시 같으나 ‘형상, image’이다. ‘형상’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형상은 모습을 향하고 있다.

* 천적 (왕국의) 천사들은 ‘모습’이다; 영적 (왕국의)천사들은 ‘형상들’이다

* 결과적으로, 모든 거듭난 영적 인간은 주님 만으로부터인 사랑 또는 선행으로부터 ‘그분의 형상’이다.

겔16:17- ‘남성의 형상들’=그들이 진리들로서 나타나는 것.

계13:14-‘(짐승의) 형상’=그 교회 속의 교리.

이2:16-‘다르신의 배들과 열망하는 형상들’= 악들로부터의 거짓에 대한 지식과 지각. (=지상적 사랑의 기쁨들을 열애하는 왜곡된 교리적인 것들)

겔7:20-‘혐오의 역겨운 형상들’=교회 속의 모든 것들; 고로 선과 진리를 모독해온 교리적인 것들.

겔23:14-‘갈대아인들의 형상’=이들의 사랑들의 비위를 맞추는 교리적인 것들.

형제 (brother)

* 교회의 두 번째 출생이 선행(charity)이고, 이것이 ‘아벨’, 그리고 ‘형제’에 의해 의미된다.

* 선행이 신앙의 ‘형제’인 것은 신앙의 본질 또는 신앙의 본성으로부터 누구에게나 분명해질 것이다; 그것들의 형제 관계는 에서와 야곱에 의해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장자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

암1:9-선행과 신앙의 합일이 ‘형제의 언약’이라 불린다.

눅8:21-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들은 주님에 의해 ‘형제’

형제

라 불려졌다. 듣는 자는 신앙을 가진다; '행하는'자는 선행을 가진다.

창9:5-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그의 지적 능력 전체로부터... 인간과 더불어는 지적 측면이 '사람의 형제'라 불리운다; 이것이 참된 지적인 것이든, 위조된 것이든, 거짓된 지적인 것이든, 이것은 아직도 '사람의 형제'라 불린다; 그 이유가 이해함이 '사람', 의지는 '형제'라 불리기 때문이다...

창9:22- 그들은 그의 '형제들'이라 불렸다. 그가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 (그 이유가) 선행이 신앙의 '형제'이기 때문.

창12:5- '그의 형제의 아들 롯'=감각적 진리... '형제' 또한=신앙으로부터의 진리, 고로 여기서 감각적 진리.

창13:8- '우리는 형제의 사람들이다'=그들 자신 안에서 그들은 하나되어 있다. '사람들의 형제'=합일, 그리고 사실상 진리와 선의 합일.

이9:19- 미워함이 '그의 형제를 아껴줄 사람이 없다'로 묘사되고 있다.

창16:12- '그는 모든 그의 형제에 맞서 거주할 것이다'=신앙 속의 것들에 관하여 계속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가 승자일 것이다.

창19:7- 롯이 (소돔인을 두고) 형제라 부른 이유는 그가 선이었던 것으로부터 그들을 타일렀기 때문. 말씀에서 '형제'는 이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 이유 때문에 누구나 이웃을 자신 같이 사랑해야 한다; 고로 '형제'는 사랑으로부터 그렇게 불린다. 똑같은 말로 선으로부터 그렇게 불린다... 천국에서 주님은 모든 이의 아버지이시다... 그럼으로부터 주님의 하늘 왕국, 즉 사랑과 선행의 왕국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은 서로에게 '동료 관계' 내지 '형제'라 불린다.

창20:5- '형제'=진리로부터의 선.

창20:16- '형제'=누이 되는 형제로서 합리적 진리에 인접된 천적인 선.

창24:29- '리브가의 형제'=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에 애착함 ... 말씀에서, '형제'=선에 애착함, 그리고 '자매'=진리에 애착함.

창24:53- '그는 그녀의 형제에게 귀한 것들을 주었다...' 형제=자연적 선.

창25:26- '그리고 후에 그의 형제(아우)가 나왔다'=진리. '형제'=선 그리고 또한 진리, 이것이 여기서 '형제들'이라 불려진다. 선행이 신앙의 형제이듯, 선은 진리의 형제이다. 바꾸어 말해 신앙은 선행의 형제이고, 진리는 선의 형제이다; 또한 자연적 평면에서, 선에 애착함은 '형제'라 불리고, 진리에 애착함은 '자매'라 불린다.

창26:31-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사람에게 맹세했다'=진리의 선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확증... '형제'와 더불어 '사람'=진리로부터의 선, 또는 그 선 안에 있는 이들; '사람'=진리, 그리고 '형제'=선.

창27:29- '네 형제에게 주인이다'=처음 나타나는 것은 자연적 진리가 자연적 선을 외관상 지배하는 것이다... '형제'=선에 애착함들, 여기서는 자연적 평면에서의 선에 애착함들.

이3:6-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그의 형제를 붙잡고...'=선을 위해 어떤 것을 인정하는 것.

창29:4- '내 형제여, 너는 어디로부터이나?'=어떤 기원으로부터 선행이 거기에 있는가? '형제'=선 안에 있는 이들, 고로 선 자체, 고로 선행.

창29:12- '형제', 이 구절의 경우 야곱이다=선.

창29:15-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너는 내 형제이기 때문이다'=그들은 선으로부터 혈연 관계이기 때문... '형제'=선, 여기서 혈족 관계, 그 이유가 라반에 의해 야곱에게 말해지기 때문, 즉 선에 의해 선에게 말해지기 때문; 그 이유가 모든 혈족 관계는 그것의 근원이 선으로부터 이기 때문, 선은 사랑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혈족 관계라 불리는 하강하는 계보에서 사랑에 가장 가까운 수준이다, 그리고 이 수준의 사랑은 '형제'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

창31:23-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그가 잃었던 이들의 자리에 선들을. '형제'=선들. 내향의 의미에서, '형제'는 서로 비슷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즉 서로 비슷한 선과 진리에 애착함을 지닌 이들을 의미한다; 저 세상 삶에서 모든 이들은 애착들에 의거 제후되어 있다. 그리고 제후된 그들은 형제 관계를 구성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형제라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결합을 통하여 형제 관계일 뿐이다.

형제

저 세상 삶의 선과 진리 자체는 지상에서 혈연과 결혼에 의해 불러지는 관계와 같은 것을 구성한다.

창31:37-‘내 형제와 당신의 형제’=공정과 공평인 것. ‘형제’=선들.

창31:46-‘야곱이 그의 형제에게 말했다’=일들로부터 선 안에 있는 이들. ‘형제’=선들, 여기서 일들로부터 선 안에 있는 이들. 이들은 이방인들이다. 그 이유가 선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신성과 결합되어 있다. 이 결합 때문에 주님에 의해 ‘형제’라 불리운다.

창31:54-‘그는 빵을 먹기 위해 그의 형제를 불렀다’=주님의 신성한 자연적 평면으로부터의 선을 자기 것 되게 함. ‘형제’=지금 언약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 이들, 즉, 친구 관계에 있는 이들; 그리고 내향의 의미에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창34:11-‘형제’,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진리들.

창34:25-‘다나의 형제’=교회의 진리들과 선들. ‘형제’=진리들과 선들, 또는 신앙과 선행.

창49:5-시므온과 레위...‘형제’라 불리운다, 그 이유는 선이 진리의 형제, 또는 신앙의 선행이기 때문.

창37:2-‘(요셉은) 그의 형제와 더불어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었다’=신앙 안에 있는 이들 사이에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 장에서. ‘형제’=선행으로부터 신앙으로 돌아 서고 있는 교회, 그리고 결국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 고로 거짓들 쪽으로 돌아선 교회.

창37:4-‘그의 형제가 보았다’=믿음 속에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대략의 의미에서, 야곱의 후손들.

창37:5-‘그가 그의 형제에게 말했다’=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이들 앞에.

창37:14-‘가서, 형제들이 평안한지 보라’=주님의 모든 강림, 가르침 받는 이들과 어떻게 있었는지를 지각함... ‘형제’=여기서의 경우 믿음으로부터 가르쳐지는 이들.

창37:19-‘사람이 그의 형제에게’=상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이 그의 형제에게’는 상호성을 뜻하는 고대인들의 언어 습관이다, 그 이유가 ‘사람’=진리, 그리고 ‘형제’=선, 이 둘 사이에는 참으로 상호성 자체가 존재한다.

창37:26-‘유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여하튼 갖가지 선에 맞서는 교회 안에 있는 타락된 자...‘그의 형

제’=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이들.

창37:27-‘그 이유는 그는 우리의 형제요 살(골육)이기 때문’=그들로부터 있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때문.

창37:30-‘(르우벤이) 그의 형제에게 돌아왔다’=가르치는 이들. 요셉의 ‘형제’=분리된 신앙에 있는 이들, 그리고 그들은 목자들 이었는 바, 그들 또한=신앙으로부터 가르치는 이들.

창38:29-‘보라 그의 형제가 왔다’=선으로부터의 진리, ‘형제’=선으로부터 혈족 관계인 것, 고로 선으로부터의 진리.

마25:40-‘내 형제’=선행으로부터의 선과 생활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이들, 그 이유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 그 이유는 그들이 선 자체 안에 있기 때문, 그리고 이들은 ‘이웃’이란 단어가 더 잘 어울릴 것이다.

창42:3-‘요셉의 열 형제’=교회 속의 이런저런 진리가 상응되었다. ‘형제’=교회 속에 있는 진리들; 이것들이 ‘요셉의 형제들’이라 여기서 불리워진다. 요셉의 형제들=신성으로부터의, 상응으로부터의 진리; 그 이유가 상응은 그것들을 형제가 형제에게 결합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

창42:6-‘요셉의 형제가 왔다’=매체들이 없는 교회 속의 일반적 진리들.

창42:13-‘우리 당신의 종들은 열 두 형제’=믿음 속의 모든 것들이 함께 결합되었다...‘형제’=선을 통하여 결합; 그 이유가 진리들이 선을 통하여 결합될 때, 그것들은 마치 서로가 형제 관계로 웃입는다.

창43:29-‘베냐민 그의 형제, 자기 어머니의 아들’=어머니로부터 있는 자연적 평면으로부터의 내적인 것...주님으로부터의 선행의 선의 어떤 것을 가진...모든 이는 주님에 의해 ‘형제’라 불리운다.

창47:6-‘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형제’...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을 뜻하는데=자연적 평면으로부터의 영적 선, 그리고 그 안의 교회의 진리들.

창49:8-‘네 형제가 너를 축하할 것이다’=이 교회는 나머지 교회를 넘어서 탁월할 것이다...‘형제’=이 교회 속에 있는 진리들, 고로 ‘유다의 형제들’로 표현된 진리들 안에 있는 교회들, 그 이유가 진리들과 선들이 교회를 구성하기 때문. 천적 수준의 교회 속의 진리들이 ‘네 형

형제 관계-형제애-호도애-호렘-호리병박-호리죽

제'에 의해, 또는 유대에 관한 것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영적 교회의 진리들은 '그의 아버지의 아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50:8-'그의 형제들'=거기로부터 파생된 진리들...(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아들들, 여기서는 요셉의 형제들=영적인 진리들, 이 진리는 '요셉'인 천적 수준의 내적 측면으로부터 이다; 또는 '이스라엘'인 영적 선을 통하여서 이다.

창50:15-'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보았다'=진리와 선에서 소원해진 것들.

창50:18-'그의 형제들은 갔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다'=자연적 평면 안에 있는 이런 저런 것들이 복잡함. 이스라엘의 아들들, 여기서는 '형제들'=자연적 평면에 있는 영적 진리들.

출2:11-'(모세가) 그의 형제들에게 갔다'=교회 속의 진리들과 결합...'형제들'에 관련하여 지금의 그들=선들, 지금의 교회 속의 진리들; 천적인 교회가 취급될 때 그들=선들이고, 영적 교회가 취급될 때 그들=진리들. 그 이유인즉, 천적인 교회는 선 안에 있고, 영적인 교회는 진리들 안에 있기 때문, 그리고 고대 시대 때는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서로를 형제라 불렀다;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서로를 참으로 선으로부터 있는 형제로 불렀다, 그러나 내적인 교회 속의 사람들은 선의 품질에 따라, 고로 진리들의 품질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선은 그 자체의 품질을 진리로부터 가지기 때문이다. 후에 교회가 선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고로 진리로부터도 돌아섰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영적 친족, 혈연 관계로부터 형제라 부르지 않았다....오직 자연적 친족, 혈연일 경우에만, 또는 친구 관계로부터서만 형제라 불렀다. 또한 자기 보다 더 수준 낮은 사람을 형제라 부르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여기기 시작했다.

요14:20-영적 형제 관계가 사랑으로부터 있는 바, 그렇게 이 사람은 저 사람에 속해 있다, 그리고 선 안에 있는 자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들은 주님에 의해 '형제들'이라 불려진다.

출10:23-'그들은 그의 형제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그들은 어떤 선으로부터의 진리도 가지지 못했다...'사

람'=진리들, 그리고 '형제'=선.

출32:27-'너희는 네 형제의 사람을, 네 동료의 사람을, 네 이웃의 사람을 죽여라'=선과 진리의 유입이 단핍, 그리고 선과 진리의 유사한 것들에 관련하여서도 유입이 단핍, 그리하여 어떤 받아들임과 소통함이 있지 않도록...'형제'=사랑의 선과 선행의 선.

계1:9-'나 요한, 당신의 형제요 동료'=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이로부터 신앙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계12:10-'우리의 형제들'=새 예루살렘의 교리 안에 있고, 그 교리에 따라 사는 이들.

계19:10-'나는 네 동료-종이고 네 형제들 (같이 종이 다)'=천사 안에 신성은 없다, 그러나 천사는 형제와 형제로서 사람들과 제휴되어 있다.

계1:9-'형제'=사랑의 선인 이유는 천국에서는 영적 차원의 형제 관계인 것만 있기 때문; 그 이유가 천국의 사람들은 출생으로 형제들이 되지 않는 바, 세상에서 형제들이 되어 왔던 사람들이라 해도 서로를 알지 못한다. 오직 모든 이는 사랑의 선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알 뿐이다; 아주 가깝게 결합된 이들이 자기의 형제로서 알아 본다...이로부터 말씀에서 '형제'=사랑의 선.

막13:12-'형제가 형제를 죽이기 위해 배반할 것이다'=거짓이 선을 파괴하리라는 것; 특히 믿음만(의 교리)가 선행을 파괴하리라는 것, 그 이유가 말씀 안에서 믿음은 '선행의 형제'라 불리기 때문.

이66:20-'형제'=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시133:1-여기서의 '형제'=선과 진리, 그 이유가 말씀 안에서 선과 진리는 '형제'라 불리기 때문; 그러므로 '형제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은 얼마나 선하고 즐거운지 잘 보라'에 의해 모든 천국의 선과 즐거움은 선과 진리의 결합 안에 있다가 의미되어 있다. 그 이유가 모든 천국의 선과 즐거움은 선과 진리의 결합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마5:23-'제단에 선물을 바치는 것'=동정(심)으로부터의 예배, 그리고 '형제와 재회하는 것'=선행으로부터의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다.

계6:11-'그들의 동료-종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듯, 그들도 죽임을 당하여...'=악들, 그 이유가

호마노-호렘-호바-호수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악이기 때문. '동료-종들'=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형제들'=선들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동료-종들과 형제들 함께'=선으로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신33:24-'아셀은 아들들을 초월해 복있다. 그는 자기 형제들에 의해 받아들임이 있게 하라.' '아들들'=진리들, 그리고 '형제들'=그들로부터의 교회.

창49:5-'시므온과 레위 형제들'=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겔4:17-'사람과 형제, 황폐해질 것이다'=신앙과 선행: '사람'=신앙으로부터의 진리, 그리고 '형제'=선행으로부터의 선.

신17:15-'낮선 사람은 형제가 아니다'=일치 않는 종교; 또한 거짓, 그 안에는 선이 없다.

계12:10-'우리의 형제'=선행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지상과 천국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형제'라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한 아버지, 주님을 모시기 때문,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아들들이기 때문.

마18:15,21,35-'형제', 여기서의 경우, 일반적 차원에서 이웃, 고로 모든 사람, 특별하게는 선행의 선 안에 있고 이 선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신앙도 가지는 이들은 누구이든 '형제'이다.

형제 관계 (brotherhood)

* 형제 참조

형제애 (brotherhood)

* 형제 참조.

호도애 (turtle-dove)

* 산비둘기(turtle-dove)를 보라.

호렘 (Horeb)

출3:1-'호렘'=품질(quality); 즉 나타난 신성의 사랑으로부터의 선의 품질...'호렘'이 포함하는 것들의 품질은 거기서 보여진 것들, 떨기나무 한가운데의 불의 불꽃으로부터 분명하다; 고로 이것=신성의 법으로부터 있는 진리에 의해 빛을 발하는 신성한 사랑의 선.

출17:6-'보라, 나는 호렘에 있는 바위 위 거기에서 네 앞에 서있다'=신앙의 진리들 측면에서의 주님...'호렘'=신성한 법.

시106:19-'호렘에서 송아지를 만드는 것, 그리고 녹여 만든 형상에 자신을 굽혀 절하는 것'=우상적인 예배, 예배가 외적 형체로만 있을 경우 그것의 의식들, 규례들, 판단들, 가르침들 속에 존재한다.

출33:6-'호렘산으로부터'=예배와 교회와 말씀의 외적인 것들 안에서. '호렘산'=외적인 것들에 있는 신성의 진리.

출17:6-'바위'=신성의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인 것은 '호렘에 있는 바위로부터 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졌음'으로부터 분명하다.

호리병박 (gourd)

민11:5-'호리병박' 등등=가장 낮은 자연 평면 속에 있는 것들; 즉 인간의 육체에 속한 감각들로부터의 것들.

욥4:7-'호리병박 식물을 쳐부순 벌레'에 의해 악과 그로부터 파생된 거짓의 파멸이 의미되어 있다.

호리족 (Horite)

* 세일(Seir)도 참조.

창14:6, 신2:22-'그들의 산 세일에 있는 호리족들'=자아 사랑으로부터 있는 거짓의 설득들...호리족이 세일 산에 거주한 자들임은 창36:8,20으로부터 더 분명하다...그리고 '호리족'에 의해 거짓으로 설득하는 자들을 표현하였는바, '에서가 세일 산으로부터 그들을 몰아낸' 구절에서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호마노 (onyx, sardonyx)

창 2:12-'거기에 베델리움과 호마노 돌이 있다'...'호마노'=사랑으로부터 있는 신앙 속의 진리, 이것이 천적 인간.

출25:7-'호마노 돌들, 그리고 채움들의 돌들'=일반적 측면에서의 영적 진리들과 선들; (그이유가) '호마노돌들'=사랑으로부터 있는 신앙 속의 진리들, 또는 영적 진리들(이기 때문)...'호마노돌'=신앙 속의 진리인 이유는 ...그것들이 에봇의 어깨들 위에 있었기 때문; 그리고 에봇의 어깨는 신앙 속의 진리, 또는 영적 진리들을 의미한다.

출28:9-'너는 호마노 돌 두 개를 가져올 것이다'=사랑으로부터 있는 신앙 속의 진리들로부터 인 내면의 기억...'호마노 돌들'=사랑으로부터의 신앙 속의 진리들. 그것들=기억인 이유,...그것들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호마노-호멜-호바-호수

이름들이 새겨졌기 때문.

출28:20-‘녹주석, 호마노, 그리고 벽옥’=진리에 대한 영적인 사랑, 이 안에서 더 높은 것들이 멈춘다; (그이 유가) 이런 돌들의 의미는 각 돌이 지닌 색깔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이다. 이 순서 속의 모든 돌들의 색깔은 푸른 하늘 빛으로부터 빛나는 흰색을 향하고 있다.

* 네 번째 열에서 두 번째인 ‘호마노’=사랑으로부터의 신앙 속의 진리들.

* ‘호마노 돌’=영적 왕국의 외부; 그러므로 이 돌들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에봇의 두 어깨 위에 놓여졌다.

출28:16-‘호마노와 청옥’, 일반적 의미에서=두 천국의 외부; 그러므로 이 돌들은 두 번째와 네 번째 열의 세 돌 중 가운데에 놓였다; 그이유가 가운데가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이다. 이 두 돌이 이 순서들에서 나머지 모든 돌에 의해 의미되는 모든 것을 내포하기에, ‘지혜는 오빌의 금과도, 호마노와 청옥과도 동등해질 수 없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출25장-호마노(sardonyx)는 살색이고 투명하다; 고로 사랑으로부터의 생활과 명료함을 의미하고 있다.

출28장-호마노(satdonyx)는 귀함의 정도가 덜한 편에 속한다; 그것의 색깔은 거의 살색, 붉음으로부터 흰색까지이다.. 이 중에서 귀한 것은 투명하다.

창2장-‘호마노 돌’=교리 속의 진리.

호멜 (homer)

이5:10-‘한 호멜의 씨가 한 에바를 만들 것이다’=남아 있는 천적인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것.

* ‘호멜’은 선을 서술한다, 그이유는 이것이 밀과 보리의 측정치이기 때문.

호바 (Hobah)

창14:15-‘그는 그들을 호바 까자 뒤쫓았다, 이는 다마스쿠스의 왼쪽이다’=확장의 분량(amount).

호수 (lake)

출7:19-‘그리고 그들의 못들 위에’=진리, 또는 거짓들을 섬기는 과학물 안으로.

이41:18-‘광야에 물들의 못을 놓는 것’=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주는 것, 그리고 이전에 그들이 있지 않던 파생되는 총명을 주는 것.

이19:10-‘혼의 못들’=지식들로부터 총명 속에 있는 것들.

출8:5-‘시내 위에, 강들 위에, 못들 위에’=거짓들에 맞서.

계19:20-‘유황이 타는 불의 호수’=이 거짓으로부터의 사랑들 안에, 동시에 악으로부터의 탐욕들 안에 있는 자들이 있는 지옥. ‘호수’에 의해 거짓이 풍부함이 의미된다.

계20:10-‘불의 호수 안으로 그는 던져졌다’에 의해 거짓으로부터의 사랑들과 악으로부터의 탐욕들이 있는 지옥이 의미된다.

계20:14-‘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의 호수 안으로 내 던져졌다’=심정에서 불신앙이 악을 사랑하고 이 악에 일치하는 거짓을 사랑함에 있는 이들의 지옥 안으로 내 던져졌다.

계21:8-‘그들의 뭍은 유황으로 타고 있는 호수 안에 있다’=거짓으로부터의 사랑들, 악으로부터의 탐욕들이 있는 지옥.

이41:18-‘물들의 못’, 그리고 ‘물들의 원천(spring)’=선, 그 이유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모든 영적인 선은 진리들을 통하여 포획되어진다.

시107:35-‘물들의 못’=진리의 풍부함.

시114:8-‘물들의 못’=진리에 관한 지식들. ‘물들의 수원(fountain)’=그것들이 있게 한 말쭙.

이42:15-‘나는 못들을 말리겠다.’...‘못들’=진리를 지각함. 진리를 이해함은 진리의 빛으로부터 있다. 그러나 진리를 지각함은 심정으로부터, 또는 진리를 사랑함으로부터 있다.

이41:18-‘물들의 못’=진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함.

이35:7-‘과거 어떤 것도 지니지 않았던 이들에게 신성한 영적 진리를 통하여 총명이 있을 것임이 ‘마른 장소에 못이 있는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이41:18-영적 인간 안에 진리가 풍부함이 ‘물들의 못’에 의해, 그리고 자연적 인간 안에 진리가 풍부함이 ‘물들의 원천’에 의해 뜻해져 있다.

호의 (good-will)

시68:9-‘하느님께서 떨어지게 한 은택(benivolences)의 비’=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호의-호흡-혼

호흡 (breath)

창7:22-'생명의 영의 호흡'=그들의 콧구멍에서 생명들의 호흡을 가졌던 태고 교회인들, 즉 사랑과 신앙의 생명을 가졌던 태고인들.

창23:12-'호흡하는 것'=신앙의 진리들과 선들 측면에서 생명의 상태...그이유는 호흡이 속하는 폐들은 영적 생명인 선행으로부터의 신앙의 생명에 상응하기 때문.

창31:17-'일곱째 날에 그분은 쉬셨고 호흡하셨다'=교회가 설립될 때, 또는 인간이 거듭나질 때 선의 상태... '여호와와 쉬고 호흡함'=신성 자체로부터의 합일과 주님 안에서 신성한 인간으로부터의 합일.

*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고, 말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유는 천국의 모든 호흡함은 주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이었다. 천사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호흡함, 심장의 박동을 가지고 있다; 천사들과 더불어 호흡은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지혜를 받음에 따라서이다...

애3:56-'호흡함'은 진리들에 관해서, '부르짖음'은 선에 관해서이다.

창15:10-'당신께서는 당신의 바람을 가지고 불었다'=천사들과 더불어는 주님의 현존.

혼 (soul)

* 내적 인간이 혼이다.

창1:20-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그들 안에서 생명을 가진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것이 '생 혼, living soul'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창1:24-의지 속의 것들이 땅이 낳는 '생 혼'에 의해 의미 되고 있다.

* (거듭남의 여섯째 상태에서) 인간이 생산하는 것들이 '생 혼' 과 '짐승'이라 불리워진다.

창2:7-천적 인간의 생명이 '그에게 생명들의 숨을 불어 넣으심'에 의해 묘사되어져 있다.

창2:7-'사람은 생 혼이 되었다'=외적 인간 역시 살아 있게 되었다.

창6:19-'생 혼'=이해성 속의 것...말씀에서 '생 혼'에 의해 일반적인 모든 동물이 의미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경우, '모든 육체(flesh)'라는 단어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성의 것들이 의미되어진다; 그이유가 이 교회의 사람들의 거듭남은 지적인 것이 먼저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

창9:4-'혼'=생명이라는 것...'혼' 말씀에서=일반적 측면에서 모든 생명, 즉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모두. 이 구절의 혼은 거듭나는 사람의 생명을 서술하는데, 여기의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 부분과 분리되어 있다. (즉 이해성이 거듭나고 그다음 의지의 거듭남이 있다는 말이다)...그러므로 '혼을 가진 고기(flesh)', 이것을 그들은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그들은 이 새로운 생명을...약 즉 자아와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창9:5-'나는 사람의 혼을 요구할 것이다'=모독을 위해 복수하는 것.

창9:10-'너와 함께 있는 생 혼과 더불어'=거듭나가고 있는 인간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있는 모든 것.

창9:15-'모든 고기의 모두 각각의 생 혼'=보편적인 측면에서의 인류...모든 사람 그 각각은 자기와 더불어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생 혼'이라 불리운다...즉 순진의 어떤 것, 선행, 그리고 자비. 인간의 구원을 위해 남아 있어야 하는 것들(remains)

창12:5-'그들이 하란에서 얻은 혼'=그 희미한 상태에서 주어질 수 있는 생명되는 모든 필수 요소

* '혼', 적절한 의미에서=살아있는 인간과 더불어는 것, 고로 그의 참 생명인 것. 살아 있는 인간에 있는 것은 몸이 아니라 혼이다, 그리고 혼을 통하여 몸이 살아 있는다. 인간의 생명 자체는 천적...사랑으로부터 이다...그러므로 여기서 '혼'에 의해 의미되는 것은 천적 사랑으로부터 살아있는 선이다, 이 선은 살아있게 하는 생명 자체이다.

이58:10-'혼을 주린 자와 고뇌하는 혼에게 꺼내드는 것'=일반적으로 선행으로부터의 선들.

창14:21-'혼을 나에게 주고...'=그분이 생명을 그것들에 주실 것이라는 것.

창17:14-'혼이 그의 백성으로부터 잘라낼 것이다'=영원한 죽음; '혼'=생명.

창19:17-'너희 혼을 위해 도망하라'=그는 영원까지 자기 생명을 돌보아야 하리라는 것.

창19:19-'내 혼을 살아 있게 만드는 것'=그를 구원하

혼동하다-혼합

는 것.

창19:20-‘내 혼이 살 것이다’=아마 그는 구원될 것이다.

겔47:9-‘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혼’=그들의 기쁨들.

창23:8-‘만일 네 혼과 더불어 이다면’=만일 심정으로부터의 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이다면...

창32:30-‘내 혼은 보전되었다’=그는 지탱되었다는 것.

창44:31-‘아버지의 혼이 아들의 혼에 매여져 있다’=결합이 마감되어 있다; 그이유가 ‘혼’=생명.

창49:6-‘그들의 비밀 안으로 내 혼이 오게 하지 않으리’...‘내 혼’이라 말해지는데, 그이유는 여기서 혼의 의미가 선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선은 영적 선이다.

계8:9-‘혼을 가진 바다에 있는 창조물들’=선들과 더불어 과학적 진리들.

출1:5-‘모든 혼들’=모든 것들. 일반적 의미에서 ‘혼’=인간, 영적 왕국의 교회의 인간.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혼’=진리와 선, 그이유는 이로부터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

이19:10-‘혼들의 웅덩이들’=지식들로부터 총명 속에 있는 것들.

출15:9-‘내 혼이 채워질 것이다’=기쁨.

출16:16-‘너희 혼들의 숫자’=사회 안에 있는 모두를 위해 충분한 양.

출21:23-‘혼을 위한 혼’=질서의 법칙...

신6:5-‘네 모든 혼으로’=신앙 속의 진리가 있는 이해성으로부터, 고로 신앙으로부터.

눅14:26-‘인간에게 어울리는 것들이...악들과 거짓들이기에...’그는 자기 고유의 혼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계8:9-‘생명들을 가지는 것’=재구성되어지는 것, 그리고 생명을 받는 것.

계12:11-‘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주님 보다 더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자아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이유가 여기서의 ‘생명’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출생 때부터 가지는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 이 생명은 무엇보다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계16:3-‘살아 있는 모든 혼이 바다에서 죽었다’=말씀 속의 모든 진리, 이로부터 교회 속의 모든 진리, 신앙 속의 모든 진리가 소멸되었다. 그이유가 ‘살아있는 혼’=신앙 속의 진리.

계18:13-‘인간들의 몸들과 혼들’=글자 의미 속의 선들과 진리들.

계20:4-‘이들의 혼들은 도끼로 찍어 죽여졌다’=악들(악한 자들)로부터 거절받아 왔었던 사후 인간들...

예44:30-‘그의 혼을 찾은 그들’=거짓들에 있는 이들.

예15:9-‘혼의 숨을 끄는 것’=모든 진리들에 관련하여 멀해지는 것.

요10:17-‘나는 내 생명을 내려 놓는다.’

혼동하다 (confuse, confound)

창11:7-‘그들의 입술을 혼동하게 하자’=교리 속에 있는 것들을 혼동하는 것...‘혼동하는 것’=어두워지는 것뿐 아니라 말살하고 흩어져 어떤 진리도 있지 않는 것.

창11:9-‘여호와께서는 온 땅의 입술을 혼동시키셨다’=고대 교회의 상태는 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

혼합 (mixture)

* 섞다(mix)를 보라.

홀 (sceptre)

민24:17-‘그분의 인간 실체가 ‘야곱의 별’,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의 홀’이라 불리운다.

창49:10-‘홀이 유다로부터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권능이 천적 왕국으로부터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홀’=권능. 사실상 선으로부터의 진리의 힘.

시2:9-‘너는 쇠 홀로 나라들을 부술 것이다’=자연적 인간 안에 있는 악들을 응징하고 지배하는 것. 여기서의 ‘홀’=‘막대(rod)’와 같은 의미이다.

사5:14-‘서기관들의 홀’=총명.

시45:6-‘정직(rectitude)의 홀이 네 왕국의 홀이다’=...힘과 왕국을 가진 신성의 진리.

겔19:14-‘그녀에게 강한 막대, 지배하는 이들의 홀이 없다’=힘과 통치 측면에서 신성한 진리가 황무해짐.

시110:2-‘시온으로부터 강력한 홀’=전능을 가진 신성한 진리...

홀로 (alone)

홍해-화내다 - 화살

창2:18-'사람이 홀로 있다는 것은 좋지 않다.' 주님의 의해 이끌려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에 의해 이끌리기를 원했다.

창32:24-'야곱 홀로 남았다'=진리로부터의 선이 포획했다.

창39:11-'이 집에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

출18:14-'어찌하여 자네 홀로 앉아 있는가?'=어떤 다른 근원으로부터의 선으로부터의 진리의 유입 없이. '홀로 앉는 것'=주님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해 말해질 경우, 그리고 이것이 모세에 의해 표현 될 경우=그분 만으로부터의 유입, 동시에 어떤 다른 근원에서가 아님.

홍보석 (sardius)

계4:3-'그분은...벽옥과 홍보석...이었다'=최말단에 있는 신성한 지혜와 신성한 사랑의 나타남...홍보석, 그것이 빨갛기 때문에=사랑의 선 속에 있는 것들.

계21:20-...여섯째 (기초)는 홍보석이었다.

* '홍보석(sardine stone)='선으로부터의 천적 사랑.

계4:3-(벽옥에 이어) '홍보석' 역시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이 돌이 선을 의미하기 때문; 여기서는 신성한 선. 이 돌은 마치 불로부터 빛이 나오듯 하는 홍석류석(pyrope), 또는 루비(ruby)라 불리우는 돌이다.

홍수 (flood)

창7:6-'물들의 홍수'=시험의 시작, 그 이유는 여기서 지적인 것들에 관련한 시험을 취급하기 때문, 그러므로 단순히 홍수라 말하지 않고 물들의 홍수라 말하고 있다.

창7:17-'홍수'=교회를 침수시킨 거짓들; 그 이유가 거짓속의 것 외에는 홍수, 또는 범람은 없기 때문. '물들의 홍수'=시험, 이는 그 당시 인간과 더불어 있던 악령들에 의해 흥분된 거짓의 범람이다. 이 구절도 앞의 7:6의 경우와 의미는 같지만 여기서는 시험이 없는 경우, 그러므로 '물들의 홍수'가 아닌 단순히 '홍수'라 말하고 있다.

창9:11-'모든 육은 홍수의 물들로 해서 더 이상 절단 내지 않을 것이다'=그들은 태고 교회의 후손 같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창9:11-'그리고 더 이상 홍수가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죽일 정도로, 숨막히게 하는 설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창10:1-'홍수 후에'=이 새로운 교회가 존재 안으로 왔을 때로부터...그 이유가 태고 교회의 끝이 홍수로 서술되고, 또한 고대 교회의 시작을 서술하기 때문.

창11:10-'홍수 후 2년'=홍수 후의 두 번째 교회.

마24:38-'그들이 홍수 이전의 날들에 있었을 때...'=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황폐한 상태, 이 황폐함이 태고 교회의 상태와 비교되고 있다, 즉 홍수에 의해 말씀에서 묘사한 시대의 종말, 또는 마지막 심판이다. 홍수에 의해 악들과 거짓들의 범람이 의미된다는 것, 그 결과는 시대의 종말이다.

마24:39-'그리고 홍수가 왔을 때까지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모두 침수 당했다'=교회인들은 자기들이 악들과 거짓들로 침수당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지닌 악들과 거짓들의 결과로 그들은 주님 사랑으로부터의 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부터의 선, 신앙으로부터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무식해 있기 때문이다....

홍옥 (ruby)

이54:12-'나는 네 태양들(창문들)을 홍옥들로 만들겠다'=선행으로부터 있는 지적 진리들; 그것들은 홍옥과 비슷하다.

겔27:16-'홍옥' 등등=선에 관한 지식들.

계4:3-'홍옥' 역시 언급되는데...그이유는 이 돌이 선을 의미하기 때문...홍석류석(pyrope)이라 불리는 이 돌은 마치 불로부터 처럼 빛을 낸다. 둘 모두 선으로부터 진리를 반투명함이 의미되어진다.

출28:17-'홍옥, 황옥, 그리고 석류석'=선으로부터의 천적 사랑, 이는 불꽃이는 색깔, 빨강 때문이다...여기서는 천적 사랑, 그이유는 그것들이 첫 줄에 있기 때문...그러므로 이 세 돌들은 가장 안쪽의 천국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결과 그 천국의 사랑을 표현한다.

홍해 (Red Sea)

수프 바다 (Sea Suph)

출10:19-'(메뚜기들이) 수프 바다로 던져졌다'=지옥 안으로.

홍해-화내다 - 화살

출14:2-인간이 시험받고 있을 때, 그는 특별하게 '수프 바다'에 의해 의미된 이 지옥 가까이 있다; 그이유가 이 지옥에 진리에 관한 지식을 지녔던 이들, 그러나 악한 생활 안에 있었던 이들,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옥으로부터 시험이 유입됨이 '너희는 수프 바다 근처...진영을 차려라'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출14:9-'그들은 바다 근처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악들로부터 거짓들인 지옥 영역 주위와 교통함. 바다, 여기서는 수프 바다=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고, 생활이 악한 이들의 악으로부터 거짓들이 있는 지옥.

출14:16-'바다를 가르는 것'=수프 바다로 표현된 지옥의 거짓들이 사라짐.

출15:4-'수프 바다 안에 침수되었다'='그들은 자신들을 악으로부터의 거짓들로 포진하게 했다.

출15:22-'모세는 이스라엘을 수프 바다로부터 여행하게 했다'='그들이 지옥의 영역을 통과한 후, 신성의 진리에 따라 계속 있는 것.

출23:31-'나는 수프 바다로부터 너희 경계를 둘 것이다'='과학적 진리들로부터 확장함...'수프 바다'=감각적, 과학적인 것으로부터의 진리들, 이것은 인간과 더불어 마지막(최말단) 진리들이다; 그이유가 수프 바다는 이 집트 최말단 경계였기 때문.

예49:21-'수프 바다'=저주(지옥에 떨어짐, damnation).
시114:3-'악들이 분산됨이 수프 바다를 통과함에 의해 의미되어지고 있다, 이에 관해 말해지는바, 그것이 '도망쳤다.'

왕상9:26-'에돔의 토지 안에서 수프 바다의 해안가 쪽으로'=자연적 인간의 지식...그이유가 수프 바다는 가나안 토지의 최말단 경계였다. 이것에 의해 교회의 최말단들이 의미된다. 이 최말단은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을 납득하는 지식들이다.

출23:31-수프 바다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토지를 소유하는 것=교회의 모든 확장과 더불어 교회, 이 교회는 신성의 진리를 통하여 그분과 결합되는 이들과 더불어 주님으로부터 있다.

화내다 (anger)

* 노염을 보라

화살 (arrow)

* 표창(dart), 활(bow)도 보라

창21:20-표창, 창, 화살=진리...교리 속의 진리들, 오히려 교리적인 것들이 '창', '표창', 그리고 '화살'이라 불리운다.

이49:2-'깨끗이 한 화살 (광을 낸 화살)'=교리 속의 진리

계6:2, 숙9:10,13-'화살', '표창', 그리고 '창'=전투하는 교리 속의 진리들.

계6:1, 시11:2-반대 의미에서 '활'=진리들과 선들에 맞서 싸우고 파괴한 거짓인 것의 교리, 그리고 '창' 그리고 '화살'은 그것의 거짓들 자체.

계6:1, 신32:23-'그들에게 다 써버릴 화살'에 의해 그들은 모든 악들과 거짓들 가지고 붙어넣어질 것이다가 의미되어 있다.

이5:28-'여호와의 화살들은 날카롭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활들은 구부러 있다...'활들'=영적 진리들.

겔39:9-'화살을 가진 활'=교리와 그것의 진리들; 다른 삶에서의 경우, 선들로부터 분리될 때 진리 자체.

시91:5-'낮에 날아다니는 화살'=공개적으로 가르쳐지는 거짓, 이를 수단으로 선이 파괴되어진다.

숙9:14-'번개 같이 나아가는 화살'=꾸짖고 통찰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겔39:9-'화살들', 등등=교리에 속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칠 년 동안 불을 지피는 것'=악한 수단으로 그것들을 완전하게 소진하는 것.

시77:17-'외국으로 간 화살'은 번개를 뜻한다. 이것들에 의해 신성한 진리들이 의미된다.

이49:2-'순수한 살(pure shaft)'=악을 사라지게 하는 진리.

시11:2-'그들은 화살을 시위에 준비되게 만든다'='그들은 진리들 같이 나타나는 교리 안으로 거짓들을 꼭맞춘다는 것.

시64:4,5-'그들은 모진 말과 더불어 자기들의 화살을 당기는데, 이는 곧바른 자를 은밀히 쏘기 위함이다...'화살'=교리의 거짓.

예50:9-'그의 화살은 강한 자의 것 같이 헛되이 되돌'

화살통-화 있다 -화평-화해-확대하다-확인

아 오지 않는다'=그들은 거짓들 만으로 감화되어질 것이다.

시7:13-'그는 죽음의 짐기들을 준비한다. 그는 그의 화살을 타게 만든다'=그는 자신을 위해 지옥의 사랑으로부터 거짓의 원리들을 만든다, 이를 수단으로 그는 선과 그것의 진리들을 파괴한다.

겔39:9-'화살을 가진 활'=그것의 거짓들을 지닌 교리.

합3:11-진짜 진리들과 선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대신 그자체 거짓들과 악들인 가짜 진리들과 선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당신 화살의 날아감의 빛 때문에, 당신 창 의 번득거림의 광휘 때문에'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화살', 또는 번개=그자체 거짓들인 가짜 진리들.

시77:17-'당신 화살이 날아갔다'=거기로부터 신성한 진리들이 파생되었다.

시45:5-'화살들'=전투하는 진리들.

시127:4-'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 같은 젊은 이의 아들들'=고대 교회의 진리들, 이것은 영적 평면으로부터 있는 자연적 진리들이었다; 이 교회가 '젊은 이'에 의해 뜻해진다; 그리고 이 진리들이 거짓들과 악들에 맞서 모든 힘을 장악할 때,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이라 말해진다. '화살들'=거짓들을 파괴하는 진리들.

화살통 (quiver)

시127:5-'화살통'=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

* 사냥을 위한 무기들, 즉 화살통, 활, 화살=진리에 관한 교리적인 것들.

창27:3-'네 화살통과 네 활을 가져가라'=(에서가) 가졌던 선에 관한 교리적인 것들.

이49:2-'그분의 화살통에 그분은 나를 숨겼다'=말씀.

시127:5-이 진리들이 이와같은 힘을 가지는바, 말해지기를, '그것들을 가지고 화살통을 채운 자는 복있다.' 여기서 '화살통'은 '화살'과 비슷한 의미, 즉 말씀으로부터의 교리를 지니고 있다.

화 있다 (woe)

* 슬프다(woe)를 보라

화평 (peace)

* 평화(peace)를 보라.

화해 (reconciliation)

마5:24-'네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웃을 향한 선행 (=

적개심, 미움, 복수를 금하는 것) (=선행으로부터 예배함).

확대하다 (magnify)

출15:6-'여호와여, 당신의 오른손은 힘에서 확대되어졌습니다'=주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졌다는 것.

확인 (affirmation)

창21:22-'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느님을 두고 나에게 맹세하라'=확인

창21:24-'그리고 아브라함은 말했다, 나는 맹세하겠다'=모든 확인.

창30:6-'이 (단)' 이란 첫 번째 원리, 즉 확인 또는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그 이유가 자신과 더불어 선행 없이 신앙만으로 확인하는 사람, 그리고 생활의 선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본질을 더 이상 맞볼 수 없다...확인 또는 인정함은 거듭나고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에 해당하는 원리이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마지막 원리에 해당된다.

창49:17-'단'은 거듭나고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 있어야 하는 것, 확인이다. 여기서의 '단'은 진리에 대한 확인, 이 확인에 관해 말해지는바, 그는 '길 위의 뱀, 작은 길 위의 독사일 것이다'. 이는 그가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진리에 관해 추론할 때이다...

신33:22-'사자의 새끼'=진리와 연결되는 첫 번째 것, 이는 확인과 인정이다.

예8:15-'말의 울음이 단으로부터 들려왔다'=확인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진리에 관하여 추론함. '땅이 진동했고, 그것들은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교회와 교회의 모든 것. 그 이유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진리에 관하여 추론하지 않는 이들은 신앙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

겔22:19-'단'=확인한 첫 진리들.

창30:9-'그리고 그녀는 자기 몸종 질바를 데려왔다'=확인이 수단과 접합함.

창30:18-'몸종'=확인된 수단들은 외향의 인간과 내향의 인간이 결합하는 것을 돕는다. 몸종의 아들에 의해 의미되는 것, 즉 확인과 인정이 먼저 있지 않으면 선과 진리의 어떤 결합, 상호적인 사랑도 존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확인함이 먼저 진행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

확인하다-확실히 하다-환난-환상-환전상

마25:1-13-'잠드는 것'=의심을 품는 것...'신중한 (처녀들)'=확언한 것이 안에 들어 있는 의심, '어리석은 (처녀들)'=부정적인 것이 안에 들어 있는 의심.

창37:13-'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를 보라'=확인하는 것

창38:25-26-'인정하라'=확인하라.

창49:13-여기서 '스블론'은 말씀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을 믿는 이들이 의미된다. 고로 이들을 통치하는 것은 확인한 어떤 것,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진리들이서가 아닌 과학적인 것들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그들은 과학적인 것을 교리적인 것에 응용하기 때문, 그리하여 그들의 확인은 강해진다.

출23:1-'폭력의 증거이도록'=어떤 것에 대한 비확인은 선행의 선에 반대된다.

확인하다 (confirm)

확실히 하다 (confirm)

단9:27-'그는 한 주를 위하여 언약을 확실히 할 것이다'=개혁 (교회)의 때.

환난 (tribulation)

* 고통을 보라.

환상 (vision)

창15:1-'환상'=가장 안쪽의 계시(밝히 않), 이는 지각으로부터 있다.

* (스웨덴봄에 의해) 일상적으로 보여진 것들은 환상들이 아니고 최고 높은 수준에서의 몸의 깨어 있음에서 보여진 것들이다.

숙13:4-'환상'=진리들; 여기서는 거짓들.

이22:1-'환상의 골짜기'=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감각적인 것으로부터의 몽상들.

창46:2-'하느님께서 밤의 환상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희미한 계시.

출3:3-'나는 얼굴을 돌려 이 위대한 광경(vision)을 보아야겠다'=이 계시를 되새겨 봄...'광경'=계시. '위대한 광경'이라 부른 이유는 최고 의미에서 '떨기나무에 있는 불꽃'에 의해 주님의 인간 안에서 신성의 선과 하나가 된 신성의 진리가 의미되어져 있기 때문.

겔12:24-'헛됨의 환상'=거짓 계시.

계9:17-'나는 환상에서 말을 보았다'=추론들은 가상적이고 몽상적이었다는 것. (=말씀을 이해함이 거짓화함.

겔7:26-'예언자로부터 환상'=교리; 여기서, 거짓인 것에 관한 교리.

미3:6-(이들이) 악들을 볼 것이고, 거짓들을 점칠 것이다는 것이 '환상을 위해 밤이, 점침을 위해 어둠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단9:24-'환상과 예언을 봉인하는 것'=주님에 관하여 말씀에서 말해진 것들을 단아두고 성취하는 것. (=외적(표현) 교회의 끝, 그리고 내적, 영적 교회의 시작. '환상과 예언'=교리로부터의 거짓들.) (=또한 주님은 말씀에서 그분에 관해 미리 말해진 것들을 완성하시리라는 것.)

율2:28-'환상들을 보는 것'=계시를 지각하는 것.

미3:6-'환상을 위해 너에게 밤을'=참된 것의 이해 대신 거짓인 것을 이해함.

사89:19-'당신은 당신의 거룩한 분에게 환상 안에서 이야기했습니다'=주님에 관한 예언적 신비.

이28:15-'지옥과 더불어 환상을 만드는 것'=마치 예언적인 듯, 지옥으로부터 점을 침.

환전상 (money-changer)

마21:12-'환전상들의 탁자들'에 의해 거룩한 진리들로부터 자신들을 위해 이득을 만드는 이들이 의미된다.

활 (bow)

*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상태가 '구름에 있는 활'로 묘사되고 있다.

창9:13-'나는 구름에 활을 놓을 것이다'=거듭나는 영적 인간의 상태, 이 상태는 무지개의 활 같다.

창9:14-'활이 구름에서 보여질 것이다'=인간이 아직은 거듭나질 수 있는 상태일 경우, '구름에 있는 활'=거듭남의 표시...활을 수단으로 자신이 거듭남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예46:9-'활을 다루고 당기는 것'=추론하는 것.

창21:16-'(하같은) 활이 미치는 거리...=진리의 교리가 없는 상태와 수준...'활'은 영적 인간을 서술하고 있다.

예50:14,29, 51:2,3-'활을 구부리고 쏘는 그들'=진리의 교리를 말하고 가르치는 이들.

* 활은 반대적 의미에서는 거짓의 교리

창21:20-(이스마엘)은 '활을 가지고 활쏘는 자'...=영

활-활동-황새-황옥-황폐-황폐시킴-황폐한

적 교회인... '활'=교리. 영적 교회인은 이전에는 활쏘는 자라 불리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진리들을 수단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

호2:18-'활을 꺾어버리고, 검들...'=사랑과 선행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

창49:24-'그는 자기 활의 강함에 앓을 것이다'=그는 교리 속의 진리로 전투함으로 안전하다는 것... '활'=교리.

이5:28-'모든 그들의 활이 당겨졌다'=거짓의 교리.

계6:2-'그 위에 앉으신 분은 활을 가졌다'=그들은 말씀으로부터 진리와 선에 관한 교리를 가졌다는 것,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지옥으로부터의 악들과 거짓들, 고로 지옥에 맞서 싸웠다는 것... '활'=악들과 거짓들에 맞서 싸우는 말씀으로부터의 진리와 선들에 관한 교리.

시37:14-'악인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내치려 활을 당긴다.' '활'=진리의 교리에 맞서 싸우는 거짓의 교리.

속10:4-'전쟁의 활'=교리로부터 싸우는 진리.

시18:34-'뿔활'=생활의 선으로부터의 교리.

활동 (activity)

창47:6-'활동적인 사람'=교리에서 뛰어난 이들. '활동'=빠어난 것.

출18:25-'활동적인 사람'=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 힘을 가지는 이들. '활동적임'=힘, 그 이유는 히브리어에서 힘, 능력 있음이 같은 단어 '활동적임'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

황새 (stork)

속5:9-'그들은 황새의 날개들 같은 두 날개들을 가졌다.'

예8:7-'하늘에 있는 황새는 지정된 때를 알고 있다.'

시104:17-'황새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새의 집은 전나무에 있다.'

황옥 (topaz)

출28:17-'황옥' 등등=선으로부터의 천적인 사랑; 이 돌들=그것이 지닌 빨강과 불꽃이는 색깔로부터 천적 사랑의 선; 여기서, 천적 사랑, 그이유는 그것들이 첫 줄에 있기 때문.

황폐 (desolation)

황폐 시킴 (desolation)

황폐한 (desolate)

이61:4-'그들은 영원으로부터 쓸모없는 것들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옛날의 황폐된 것들을 건립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대로 황폐시킨 것들, 쓸모 없는 성읍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쓸모없는 것들'=악들. '황폐시킨 것들'=거짓들.

겔12:19-'그들이 황폐시킴 안에서 마실 물들'=그들이 폭력을 행사한 영적인 것들, 또는 그들이 모독해버린 영적인 것들.

마24:15-'황폐시킴으로부터의 흉측한 것'=사랑과 선행이 없을 때 교회의 상태. 이런 것들이 황폐시켜질 때, 흉측한 것들이 통치한다.

슌2:9-황폐시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이유는 '영원히 황폐시킴' 때문

창21:15-'(하갈의) 물이 다 마셔졌다'=(영적 평면과 더불어) 진리가 황폐됨.

예31:8-'북쪽의 토지'=무지함 또는 진리의 황폐됨. '우는 것'과 '기도함(간구함)'은 탄식과 자포자기하는 그들의 상태. '물들의 원천으로 데려와지는 것'은 휴양과 진리 안에서 가르침.

이35:1-7-'광야'=진리의 황폐함. '물들' 등등=황폐됨에 있어온 이들과 더불어 휴양과 환희.

이24:11,12-'황폐되어진 즐거움'=진리를 서술하고 있다. 이로부터 '도성에 남겨진 것은 황폐함이다'에 의해 의미된 것도 명백해질 것이다.

애1:4-'(시온의) 모든 문들이 황폐되어졌다'=모든 접근함들이 거짓들에 의해 봉쇄되었다.

겔12:20-'거주하던 성읍들이 쓸모없게 놓여질 것이다, 그리고 토지는 황폐될 것이다.' '토지'=교회 자체, 이것이 선 측면에서 '쓸모없이 놓인다', 진리 측면에서 '황폐된다'고 말해진다.

예25:18-'그들을 황폐시키는 것'...여기서는 영적 (왕국의) 교회의 황폐시킴이 취급되어지고 있다.

출22:4-'사람이 들판 또는 포도원을 황폐케 할 때'=탐욕들을 통하여 교회의 선과 진리가 박탈됨.

출23:29-'토지가 황폐되고...'=이럴 경우에 있는 불충분함, 그리고 영적 생명은 거의 없음

겔19:7-'땅과 땅의 가득함이 황폐되는 것'=교회의 모

황홀케하는 것-헛불-회개-회당-회반죽-회색의 머리털-회전하다-회중-회합

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

이7:19-주님의 강림과 그당시 교회의 상태를 취급한다. 즉 영적 진리와 선의 모든 것들이 황폐되어져 있을 것임. '황폐시킴의 강들'=교리 속의 진리가 혹독하게 황폐됨.

계17:16-'그들은 그녀를 황폐시키고 벌거벗게 만들 것이다'=그들은 자신들로부터 그녀의 거짓들과 악들을 벗길 것이다. 말씀에서 '황폐됨'은 진리와 거짓을 서술하고, '벗음'은 선과 악을 서술한다.

겔33:28-'나는 토지를 황폐와 쓸모없음에 줄 것이다.'...'이것의 황폐와 황무함'=영적 교회의 마지막 상태, 이 마지막 상태는 교회 내에 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도 있지 않을 때, 또는 선행이 없기 때문에 신앙도 있지 않을 때 이다. '황폐함'은 신앙으로부터 있는 진리에 관해, '황무함'은 선행으로부터 있는 선에 관해 말해지고 있다.

슌3:6-교회의 모든 선들의 파멸이 '나는 나라들을 절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퉁이들을 황폐케 할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교리 속의 진리들의 파멸이 '나는 그들의 거리들을 황폐케 할 것이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성읍들이 황폐케 될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계10장-이 장의 이어지는 것들에서 교회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황폐해짐을 취급하고 있다.

겔4:17-'사람과 그의 형제가 황폐케 될 것이다'=신앙과 선행(charity)...'황폐되어짐'=둘 모두가 충분히 소멸됨.

욘1:18-'작은 가축의 양떼가 황폐시켜질 것이다'=신앙과 선행으로부터 있는 영적 진리와 선의 결핍.

겔30:7-교회의 모든 것들, 그리고 교회의 교리 속의 모든 것들이 멸해진다는 것이 '그들은 황폐된 토지들의 한가운데에서 황폐되어질 것이고, 그녀들을 성읍들은 황무해진 성읍들의 한가운데에서 황폐될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단9:26-'전쟁의 끝 쪽에서 황폐함이 결정되어 있다'=진리와 거짓 사이에 더 이상 어떤 전투도 있지 않을 때까지 진리의 왜곡이 있다는 것..'황폐함'=교회의 마지막 때, 그 때는 어떤 진리도 남아 있지 않고 오로지 거짓

만 있다.

이54:1-'결혼한 자의 아들들 보다 황폐된 자의 아들들이 더 많다.' 여기서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세워질 새로운 교회를 취급한다. 후자가 '...많은 아들들을 가질 황폐한 자'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예4:26-'황폐되는 성읍들'=진리 없는 교리적인 것들.

이54:3-'황폐된 성읍들이 거주되게 만드는 것'=지금까지 파괴되어 왔던 이런 것들 속의 신성한 진리들에 따른 생활...'황폐된 성읍들'=지금까지 파괴된 이런 진리들, 즉 유대 국가와 더불어는 진리들.

예3:8,9,10,11-교회에서 진리를 황폐시킴에 관하여 하느님에 의한 탄식.

예4:26-'황폐된 성읍들'=진리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것.

황폐함 (laying waste)

* 파괴(revenge)를 보라.

황혼 (twilight)

* daybreak도 참조.

예13:16-'황혼의 산들' (=거짓으로부터의 악들.)

이59:10-'황혼에서 같이 한낮에 넘어지는 것'=비록 말씀으로부터 빛 안에 있을 수 있다 해도 거짓 쪽으로 돌아서 가버리는 것.

이5:11-포도주가 자기들을 새빨개지게 만들 때까지 황혼 쪽에서 지체하는 자들에게 화있다'=자신은 계발되어졌다고 믿는 이들의 타락된 상태.

황홀케하는 것 (enchantment)

마술 (enchantment)

마술사 (enchanter)

계9:21-'마술행위'=진리들을 파괴하는 거짓들.

출7:11-'이집트의 마법사들도 자기들의 마술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실시했다'=질서의 목적들을 거꾸로해서도 비슷하게 나타남.

계22:15-'개들, 마법사들, 그리고 색골들'=신앙으로부터의 선과 진리를 거짓화하는 이들.

계9:21-'그들은 살인 행위, 마술 행위, 간음질,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믿음 만으로 구원됨이라는 신조는 그들의 심정들에 우둔함, 변절함, 완고함을 야기시키는

바, 그들은 십계명 속의 가르침에 관한 어떤 것이나, 믿음만으로 구원됨의 신조를 머리로 하는 논쟁의 결론에 이르면 하느님에 반대되고 악마를 추켜세우는 꼴이 되어 실로 죄가 되고 만다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는다는 것.

횃불 (torch)

* lamp도 참조.

창15:17-‘불의 횃불’=탐욕들의 열(heat).

출20:18-‘모든 백성은 음성들과 횃불들을 보았다’=선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들을 지각함.

속12:6-이 교회에 의해 흠어질 악들이 ‘나무 사이에 있는 불가마 같이, 그리고 묶은 것에 있는 횃불 같이’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회개 (repent)

* 후회(repent)를 보라.

(유대교) 회당 (synagogue)

계2:9-‘그러나 사탄의 회당이다’=그들이 교리 측면에서 거짓들 안에 있기 때문.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회당’이 언급된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쳤던바, ‘회당’에 의해 교리가 의미되어진다.

계3:9-‘나는 사탄의 회당으로부터 줄 것이다’=믿음만으로는 교리 안에, 그리고 선행 없음 안에 있는 이들.

회반죽 (plaster)

겔13:10,11-‘부적당한 것 가지고 회반죽을 바른 벽’=진리인듯 나타나는 꾸민 이야기

겔13장-‘회반죽을 바름’=응용함, 그리고 파생되는 눈에 보이는 확증.

겔13장-‘부적당한 것 가지고 회반죽을 바른 이들’=거짓들을 확증하는 이들, 하여 거짓들이 외견상 진리인듯 나타난다.

겔13장-‘부적당한 것으로부터 회반죽을 바름’=오류들을 수단으로 거짓을 확증함, 이를 통하여 거짓이 진리 같이 나타난다.

회색의 머리털 (grey hair)

백발 (grey hair)

창42:38-‘너희는 내 회색 머리털로 하여금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고로 거기에 교회의 마지막이 있을 것이

다.

창44:29-‘너희는 내 회색 머리털이 무덤 쪽으로 악 안에서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영적 선이 멀해진다는 것, 고로 교회의 내적 측면이 멀해진다는 것...‘회색 머리털’=교회의 마지막.

이46:3,4-출생, 그리고 그후 교육받음, 그리고 완전해짐이 ‘자궁으로부터 진행되어 노령에까지 조차에서도 나는 똑같다, 그리고 백발에서 조차 나는 너희를 받쳐 줄 것이다’에서 의미되고 있다.

회전하다 (rotate)

* 수레바퀴(wheel)를 보라.

회합 (congregation)

회중 (congregation)

모이다 (gather together)

마18:20-‘그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곳’=사랑과 선행에 관련하여 신앙의 교리 안에 있는 자, 고로 사랑과 선행 안에 있는 자.

레23:2-‘여호와와 회합’=천국.

창41:35-‘그들로 모든 식품을 모으게 하라’=사용함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 ‘모으는 것’=함께 가져와 보존하는 것.

창41:48-‘그는 칠 년의 모든 식품을 모았다’=선에 인접한 진리를 보존함.

창49:2-‘네 자신을 모으라’=그들 자신을 질서 안에서 자리잡아 앉히는 것.

창49:6-‘그들의 회합 쪽으로 너희는 내 영광을 하나되게 하지 마라’=그들의 생각 속의 거짓들과 결합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시107:32-‘백성의 회합’=총명 속에 있는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출7:19-‘물들이 모여있는’=거짓들이 모인 곳.

출9:19-‘모으는 것’=수집하는 것.

출12:6-‘이스라엘 회합의 전체 모임’=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일반적 측면에서의 모든 것에 의해.

출32:9-‘모으는 것’=그들 자신을 함께 가져오는 것.

출35:1-‘이 모임을 모으는 것’=모든 것을 일일이 열거함.

계19:17-‘오라, 그리고 네자신들을 큰 하느님의 만찬에

훔치다 - 훔장

모이게 하라' = 새 교회로, 그리고 주님과 결합함으로 부르시고 소집함.

계20:8-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우는 것' = 주님을 예배 하며 말씀에서 명령한 바에 따라 사는 이들과 맞서려고 그들 일당들을 충돌시키는 것.

슌10:8- '나는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이유는 내가 그들을 되찾을 것이기 때문' = 거짓들이 사라짐, 그리고 진리들을 통하여 개혁됨.

예50:9- '북의 토지로부터 큰 나라들의 회합' = 끔찍한 악들이 지옥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다.

사20:2- '하느님의 백성의 회합' = 교회의 것들에 관하여 상담함.

마24:31- '네 바람들로부터 뽑은 자를 모우는 것' = 새 교회의 건설.

마13:30- 선한 자가 보존되어지는 것이 '곳간에 밀을 모우는 것'에서 뜻해진다.

이66:18- '모든 나라들과 혀들을 모우는 것'은 '네 바람들로부터 뽑힌 자를 모우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이13:4- '나라들의 왕국들을 모우는 것' = 밀착하기 위하여 그들이 만든 악의 거짓들.

겔27:27- '회합' = 거짓 교리적인 것들.

겔29:5- '너는 가져와지거나 모아지거나 하지 못할 것이다' = 어떤 일이나 회복함이 없는 종교.

슌30:28- '회합에서 서있고, 외치는 것' = 진리들 사이에, 그런데 아직 거짓들 안에.

예30:20- '회합' = 이해함에서 교회의 사람 같이 형체들이 질서적으로 배열되고 결합함.

효소 (enzyme)

* 발효 (ferment)를 보라.

후르 (Hur)

출17:10- '모세, 아론, 그리고 후르' = 연속적으로 있는 신성의 진리... '후르' =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다시 간접적으로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출24:14- '그리고 너와 함께 아론과 후르' = 이와 같은 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로부터의 교리... '후르', 아론에게 연합될 때, = 이 교리의 진리.

후회 (repent)

회개 (repent)

창6:6- 주님의 자비가 '후회하심'으로 묘사되어 있다.

호11:8- '내 후회들' = 많은 자비.

출13:17- '백성들이 전쟁을 볼 때 그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 그들이 진리로부터 하향하는 것.

마11:21- '삼베옷과 재 안에서 회개하는 것' = 신성한 진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물이 된 악들과 거짓들 때문에 곡하고 슬피 울.

계2:5-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의 일들을 행하라' = 그들의 생활의 상태를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에 의해 행해진다.

계2:16- '회개하라' = 그들은 이런 일들에 맞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선이 있는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

계2:21- '그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다' = 그들은 물리나지 않는다.

계3:3- '경청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 유의하고, 죽은 예배에 생명을 주어라.

계3:19-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 진리에 애착함, 그리고 거짓을 혐오함.

계16:9-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 악들로부터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들 사이에 남아 있다.

훔치다 (steal)

도둑 (thief)

도둑질 (theft)

창30:33- '내가 훔친 것으로 간주하라' =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것.

창31:19- '라헬은 데라빔을 훔쳤다' = 상태의 변화... 여기서 '훔치는 것' = 소중하고 거룩한 것을 가져가버리는 것, 고로 상태가 변하는 것.

창31:39- '낮에 도적질 당하든, 밤에 도적질 당하든' = 공적(merit)으로부터의 악... 공적으로부터 있는 악은 인간이 자기에 있는 선이 자기로부터라고, 자신의 소유라고 여길 때 야기된다. 이 악이 '도둑'에 의해 의미된다. 대체로 개혁의 초기 인간은 선이 자신들로부터라고 생각한다.

창40:15- '참으로 나는 훔쳐짐을 당했다(유죄되었다)' = 천적인 것들이 악을 통하여 소외되어졌다는 것... '훔치는 것' = 소외되는 것. 도둑은 소외시키는 악이다. 도둑

흐르다-흐름-축단-흔들다-흔들리다-흔이 없음-출뜨리다-출어버리다

은 거기 있는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악이다.
신24:7-‘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흠치는 도둑들’=교회의 진리들에 따라 살려 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자신들을 위해 획득하는 이들. 또한 심정으로부터 가르치려는 목적도 없고 그 진리들을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이들. 이것은 정죄되어진다는 것이 ‘그 도둑은 죽을 것이다’에 의미되어져 있다.
출20:13-‘너는 흠치지 마라’=누군가의 영적 선들을 그 사람으로부터 가져가버리지 말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것에 속하는 것을 자아의 것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
출2:9-이런 거짓들이 ‘집 안으로 넘어들어가고, 창문으로 들어가는 도둑들’이다...‘도둑’=진리를 가져가버리는 거짓.
출21:16-‘인간을 흠치는 자’=신앙의 진리를 악에 응용하는 자.
출22:1-‘사람이 수소나 양을 훔칠 때’=누군가로부터 그의 외적 선 또는 내적 선을 가져가버리는 자. ‘흠치는 것’=누군가의 영적 선들을 그로부터 가져가버리는 것.
출22:2-‘만일 도둑이 파는 동안에 붙잡힌다면’=만일 선 또는 진리가 가져가버린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3:3-‘주님은 도둑 같이 오신다’고 말해지고 이것이 주님의 속성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는 지옥이 (예배의 외적인 선을) 훔쳐 가져가버리는 것을 뜻한다.
계9:21-‘그들은 자기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계16:15-‘보라, 나는 도둑 같이 온다’=주님의 강림, 그리고 그분을 찾는 이들을 위한 천국.
계3:3, 16:15-‘나는 도둑 같이 너에게 올 것이다’=죽음의 예상 못한 시간, 말씀으로부터 획득했으나 영적 생명을 받지 않은 모든 지식들이 제거되는 때. 3:3과 같은 표현이 16:15에서 반복된다. 모두 ‘도둑 같이’라고 말해진다, 그 이유는 자연적 인간에 있는 악들과 거짓들이 거기 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을 가져가 내던지기 때문; 그이유가 사랑받지 못한 것들은 내던져지기 때문.
욥5절-거짓들이 ‘도둑들’이다; 그리고 악들은 ‘밤의 파괴자들’이다.
호7:1-‘도둑’=거짓이 진리를 가져가 사라지게 함.

출22:1-‘흠치는 것’=가져가버리는 것.
욥5절-‘도둑들’=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을 소용없게 만드는 악들.
휘장 (veil)
덮개 (veil)
베일 (veil)
출26:31-34, 36:35,36- 성막에는 세 개의 휘장이 있다. 첫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기 위해. 두 번째 휘장은 성막의 문으로 사용되는 걸이용 휘장, 셋째는 성막뜰의 문으로 사용되는 걸이용 휘장이다. 첫 번째 휘장은 합리적 평면의 가장 (주님에게) 가깝고 가장 안쪽에서의 나타남들을 표현했는데, 이 안에 셋째 천국의 천사들이 있다. 이 나타남들이 ‘푸른색, 심홍색, 두 번 물들인 심홍색, 꼬아만든 고운 아마포’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이 묘사 안에서 빨간 색은 사랑의 선을, 흰색은 그것의 진리들을 표현했다.
마27:51, 막15:38, 눅23:45-‘성전의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짐’이란 주님께서 신성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 모든 나타남들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그분의 인간을 신성으로 만드심을 통하여 신성 자체에 접근함을 여셨다는 것이 의미되어 있다.
출26:36,37, 36:37,38-두번째 휘장은 첫 번째 휘장의 선과 진리 보다 더 낮고 더 외적인 선과 진리의 나타남을 표현했다. 즉 합리적 평면의 중간에서의 나타남들, 이 안에 둘째 천국의 천사들이 있다...
출27:16,17, 38:18,19-세 번째 휘장이 묘사되어 있다. 이 걸이용 휘장은 한층 더 낮고 한층 더 외적인 합리적 평면의 나타남들을 표현했다, 이 안에 첫 번째 천국의 천사들이 있다...
겔12:12-‘얼굴을 덮는 것’=진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출26:31-‘너는 휘장을 만들어라’=(두 천국들을) 하나로 묶는 매체, 고로 천적 선과 더불어 영적 선.
레16장-신성의 선으로까지 주님의 인간을 신성화 하심이 아론이 휘장 안쪽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속죄의 과정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과정에 의해 천적 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거듭남도 묘사하고 있다.
출26:35-‘너는 휘장 바깥쪽에 탁자를 놓아라’=사랑의

흐르다-흐름-흑단-흔들다-흔들리다-흠이 없음-흩뜨리다-흩어버리다

천적인 것들을 통하여 유입이 있음.

출27:21-‘증거케 넘어 있는 휘장 밖으로부터’=교통함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로 묶는 매체를 통하여 가장 안쪽의 천국에서 주님과 결합함.

출30:6-‘너는 휘장 앞에 (향 제단을) 놓아라’=가장 안쪽의 천국과 결합되어지는 내면의 천국 안에.

출34:28-‘모세는 백성들과 대화할 때, 자기 얼굴을 덮개로 가렸다’=말씀의 내적 의미는 이 백성에게서는 덮여졌다는 것, 하여 그 의미는 이 백성에게 불명료해진 것.

흐르다 (flow)

흐름 (stream)

출14:27-‘그것의 흐름의 힘으로’=지옥에 있는 공통적인 상태와 질서에 따라.

출15:8-‘흐름들(시내들)이 더미 같이 섰다’=악을 계속적으로 피하려드는 자들이라 해도 적어도 침입만큼은 할 수 없었다는 것...‘흐름들’=악으로부터의 거짓.

삼하 3:29-‘유출로부터 병들’=사랑의 선을 모독함.

레15:4-‘유출을 가진 자’=영적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사랑 안에 있는 자.

이44:3-‘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드는 것’=선으로부터의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충명을 주는 것.

흑단 (ebony)

겔27:15-‘상아뿔과 흑단’=예배 속에, 또는 예식(ritual) 속에 있는 외면의 선들.

겔27:15-(합리성이) 섬들이 가져오는 상아뿔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이유가 ‘섬들’=교회 안에 자연적 수준이긴 하나 여전히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

흔들다 (shake)

흔들리다 (shake off)

* 움직이도록 보라.

흠이 없음 (blamelessness)

창20:5-‘이 일을 한 제 손은 흠이 없다’=진리에 애착함으로부터, 그리고 고로 모든 능력으로부터...원어에서 ‘흠이 없음’은 깨끗함, 순수함을 뜻하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였다. ‘흠 없는 손’, ‘깨끗한 손’, ‘순수한 손’, 이는 진리들을 서술하는데, 선이 진리들 안에 있지 않으면,

즉 진리에 애착함이 없으면 존재 할 수 없다

흩뜨리다 (disperse)

흩어버리다 (scatter)

창9:19-‘그들은 온 땅으로 흩뜨려졌다’=금후 진실되든 거짓되든 모든 교리들이 파생되어졌다.

창10:5-‘이들로부터 그들의 토지들 안에서 나라들의 섬들이 흩뿌려졌다’=많은 나라들의 예배가 생겨났음.

창10:18-‘그후 가나안족의 후에들이 흩뿌려졌다’=모든 다른 우상 숭배적인 예배들이 거기로부터 있다는 것.

창10:32-‘이들로부터 땅에는 나라들이 흩뿌려졌다’=거기서부터 선하든, 악하든 교회의 모든 예배가 왔다는 것.

창11:4-‘우리가 온 땅의 얼굴들 위에 흩뿌려지지 않도록’=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창11:9-‘그때로부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의 얼굴들 위에 흩뿌리셨다’=내적 예배가 절멸되었음. ‘흩뿌려지는 것’=사라지는 것.

이11:12-‘유다의 흩뜨려진 자’=그들을 선들.

창49:7-‘나는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안에서 흩뜨릴 것이다’=선들과 진리들은 그들의 외적, 내적 교회 안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나누는 것’과 ‘흩뜨리는 것’=그들로부터 분리하고 근절시키는 것.

겔5:12-‘모든 바람 안으로 흩뜨리는 것’=진리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

출5:12-‘백성들은 이집트의 모든 토자에 흩어졌다’=그들은 모든 방위에서 자연적 마음을 흩뜨렸다.

시68:30-‘흩뜨리는 것’=사라지는 것.

숙1:21-‘그들을 흩뜨렸었던 뿔들’=교회를 황폐케해왔던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예51:20,21-‘너와 더불어 나는 나라들을 흩뜨릴 것이다...그리고 너를 수단으로 나는 말과 기수를 흩뜨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수단으로 나는 병거와 기수를 흩뜨릴 것이다.’

이28:25-‘그는 커민을 흩뜨린다.’

시144:6-‘천둥번개를 쫓아내고 그것들을 흩뜨린다’=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그들이 흩뜨려진다.

시137:9-‘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파괴함이 ‘그들을 바위에 흩뜨리는 것’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흩뜨리는

희게 반짝거리다-희년-희망-흰-흰색

것'=파괴하는 것...교회 안에 발생하는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흠뜨리는 자는 복있다 라고 말해진다.

예49:32-선과 진리의 모든 것 하나도 남지 않을 때 까지 황폐시킴이 '나는 그들을 모든 바람 안으로, 모퉁이를 잘라냄 안으로 흠뻑될 것이다'에 의해 의미되어 있다.

희게 반짝거리다(glitter white)

* 밝히 빛나다(bright)를 보라.

희년 (jubilee)

* jobel도 참조.

* '일곱'=거룩인 것...그리고 또한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기간. 이로부터 칠 년이 일곱 번 지난 후 희년이 있었다.

* 나팔은 바람으로 크게 소리내는 악기인바, 천적 선에 애착함과 상응한다; 그러므로 또한 희년이 거기로부터 명명되어졌다. 이를 수단으로 가장 안쪽의 천국 안에서 있는 선과 진리의 결혼이 표현되어지고 있다.

레25:11,12-(거듭남의) 두 번째 상태가 희년에 의해 뜻해진다; 즉 안식일 중의 안식일에 의해; 그리고 토지가 쉼에 의해.

* '일곱'=모든 것들과 모든 백성...그러므로 칠 년씩 일곱 번이 희년이라 불리운다; 이를 수단으로 교회에 있는 거룩으로부터의 모든 것이 의미되어져 있다.

희망 (hope)

욥31:24-'금을 희망으로 만드는 것'=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

눅6:35-'다시 아무 것도 희망하지 마라'=자아와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하여가 아닌 선과 진리를 위하여.

이14:32-'백성의 가련함 안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자신들로부터 슬기롭지 않는 이들, 이런 거짓들에 맞서 시험들을 극복하는 이들은 총명과 구원을 가질 것이다.

흰 (white)

백색 (white)

흰색(white)

눅9:29-그분의 신성의 인간으로부터의 거룩 자체가 '빛 같이', 그리고 '희게 반짝거림 같이' 나타난 '의복

(raiment)'이었다.

계1:14-'그분의 머리털들은 깨끗한 양털 같이 희었다'=진리 측면에서의 신성의 자연 평면. 말씀에서, 그리고 유대 교회의 의식에서 진리 자체가 백색에 의해 표현되어졌다...그 이유는 진리가 빛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창30:35-'그것에서 흰색을 가진 모두 각각'=안에 진리가 있는 것; 그이유가 '흰색'=진리, 그러나 적절하게 주님의 정의와 공적(merit), 이로부터 인간과 더불어 주님의 정의와 공적. '흰색'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있고, 반짝반짝 빛남의 근원인 천국의 빛=진리이기 때문; 그리고 이 빛에 의해 계발되어 반짝반짝 빛나지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주님의 정의와 공적이라 불리운다.

시51:7-'눈 보다 더 희어지는 것'=주님의 정의를 받고 그것을 옷입음으로써 죄들로부터 순수해지는 것.

창30:37-'(아굽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색이 나오게 하고, 가지가 흰색을 드러내채 있게 했다'=진리의 내면의 힘을 배양함...'백색'=진리.

계3:18-'흰 의복들'=영적 진리들 (=선으로부터 있는 신앙의 순수한 진리들.)

창49:12-'그의 이는 젖 같이 희다'=신성의 자연 평면은 진리의 선 밖에 더 아니다.

출16:31-'(만나는) 고수풀씨 같이 희었다'=거기에 있는 진리는 순수했다.

마5:36-'머리털 하나를 희게 만드는 것'=진리가 진리 이라고 자아로부터 말하는 것.

계2:17-'나는 그에게 흰돌을 주겠다'=진리들이 선을 좋아하고 하나됨.

계3:4-'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그들은 그분의 영적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분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기 때문.

계3:5-'흰 의복이 입혀질 것이다'=진리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되어간다. '흰 의복'=신성으로부터의 진리.

계4:4-'흰 의복으로 단장하고'=말씀의 신성한 진리들로부터.

계6:11-'흰 도포(robe)들이 그들 각각에게 주어졌다'=

히 위-힌-힌놈-힘(power)

신성의 진리들 안에 있는 천사들과 교통함.

계7:9-‘흰 도포로 옷입고’=더 높은 천국들과 교통하고 결합함.

계14:14-‘보라, 흰 구름’=글자 의미에 있는 말씀이 내면적으로 있는 경우...그 이유는 ‘백색’이 빛 안에 있는 진리들을 서술하기 때문; 그리고 글자 의미의 내면은 영적 진리들이고, 이 진리들은 천국의 빛 안에 있기 때문.

계20:11-‘나는 크고 흰 왕좌를 보았다’=신성한 진리들로부터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심판.

애4:7-‘나사렛 사람(Nazarite)들이 눈보다 더 희고, 젖보다 더 희었다’=천적 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진리.

요4:35-‘들판들은 추수를 위해 이미 희었다’=(주님으로부터 있는 새 교회가 가까이 있다.)

계14:14-천국들 안에서 신성의 진리를 통하여 빛남으로부터 ‘희게’ 나타난 ‘구름.’

흰가루병 (mildew)

암4:9-‘말림과 흰가루병’=끝단(extremes)들에 있는 악과 거짓, 또는 육체의 감각으로부터 있는 악과 거짓.

흰말 (white horse)

* 말 (horse)을 보라.

히라 (Hirah)

창38:1-‘그의 이름은 히라였다’=(거짓의) 품질.

히람 (Hiram)

왕상9:11-‘히람’=교회로부터 있는 이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 있다.

히브리 사람 (Hebrew)

창14:13-‘히브리인 아브람’=내적, 또는 신성의 인간이 인접해 있는 내면의 인간..

창40:15-그러므로 가나안의 토지로부터 있었던 이들이 일반적으로 히브리인이라 불리웠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들을 가졌고 제물을 바쳤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된 후,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라고 자주 명령받았다.

창39:14-‘그가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왔다’=중.

창40:15-‘히브리인의 토지로부터’=교회로부터.

창41:12-‘거기에 저희들과 더불어 히브리 소년이 있었

습니다’=시험 때문에 교회의 무죄함이 저쪽에서 거절되었다...‘히브리인’=교회 속에 있는 자, 고로 교회 속에 있는 것.

창43:32-‘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빵을 먹을 수 없다’=그들은 교회의 진리와 선과 결합되어질 가능성이 없다. ‘히브리인’=진짜 질서 안에 있는 이들, 고로 교회의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

출1:15-‘히브리 여인들’=교회 속에 있는 것들, 고로 교회 속에 있는 과학적 진리들.

출2:6-‘이것은 히브리 아이 중 하나이다’=이것은 교회 자체로부터 이었다는 것.

출2:11-‘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때림’=소외된 기억적 지식이 교회의 진리를 파괴하려 애쓰.

출2:13-‘두 히브리 사람들이 다투고 있었다’=교회 내에서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

출3:18-‘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셨다’=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신성.

출21:2-‘네가 히브리인 종을 살 때’=교리의 진리들 안에 있으나 그것에 따른 생활은 없는 교회내의 사람들.

히습 (hyssop)

우슬초 (hyssop)

출12:22-너는 우슬초 다발을 가져와라’=순수해짐을 있게 하는 외적 수단들.

시51:7-‘우슬초’=순수해짐의 수단들임은 ‘우슬초로 저의 죄를 씻으소서, 그리고 저는 깨끗해질 것입니다..’로부터 분명해진다. ‘우슬초로 죄를 씻는 것’=외적인 순수해짐.

요19:29-‘그것을 우슬초에 놓음’=어떤 종류의 교회의 순수해짐.

히위족 (Hivite)

창10:16-18-‘여부스족...히위족, 등등은 여러 많은 나라들이었다. 그들을 수단으로 여러 많은 우상들이 의미되었다.

출3:8-‘히위족과 여부스족’=선과 진리의 어떤 것이 안에 있는 우상적인 것.

힌 (hin)

출29:40-에바와 힌은 도량 단위였다, 그리고 도량 단위=취급되는 것의 양...포도주와 기름의 도량 단위인

히 위-힌-힌놈-힘(power)

힌= 진리의 양.

출30:24-‘힌’=결합의 양.

민15:6,7-‘힌’이 영적 진리와 결합함의 양을 의미했는 바, 수양을 제물로 함에서 식사 바침을 위해 기름 삼분의 일 힌을, 그리고 음료 바침을 위해 포도주 삼분의 일 힌을 취했다.

힌놈 (Hinnon)

예7:31,32-‘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지옥, 또한 진리와 선의 모독.

예7장-‘...도벳에, 그리고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매장되는 것.’ ‘도벳’과 ‘힌놈의 골짜기’=지옥들... ‘힌놈의 골짜기’=앞쪽에 있는 지옥, 이것이 ‘사탄’이라 불린다.

힘 (power)

능력 (power)

권능 (power)

* ‘손’=힘, ‘팔’=더 큰 힘, ‘어깨’=모든 힘.

마24:29-‘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교회의 기초들이 멸한다는 것.

마24:30-‘권능과 큰 영광과 더불어’=내적 의미로부터의 (계시), 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권능’은 선을 서술하고, ‘영광’은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서술한다.

계3:8-‘너는 조금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그들은 자신들로부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계11:17-‘당신은 당신의 큰 힘을 가져가셨다’=영원으로부터 그분의 것이었던 신성한 전능하심.

계12:10-‘구원과 권능’=지금 그들은 주님의 신성한 권능에 의해 구원되었다.

계17:13-‘그들은 자기들의 권능과 권위를 짐승에게 넘길 것이다’=교회에 대한 통치와 지배는 오로지 말씀에 기인한다는 것.

계19:1-‘주 우리의 하느님에게 권능이 있다’=주님이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함.

시80:2-‘당신의 권능을 휘젓는 것’=빛에서 저쪽으로 꿰뚫는 것.

계17:13-‘짐승에게 자기들의 힘과 권위를 넘기는 것’=말씀이 신성한 진리인바, 말씀에 교회는 교리를 의존한다는 것.

눅10:19-‘나는 뱀들을 밟는 힘을 내게 준다...그리고 적들의 모든 힘을 제압하는 힘을 준다.’ 이 말들은 지옥들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능을 묘사하고 있다.

계2:26-‘나는 그에게 나라들을 다스리는 힘을 줄 것이다’=그들은 지옥으로부터 있는 악들을 자신들 안에서 정복할 것이다.

계4:11-‘당신이 권능을 받으심은 당연하시다’=주님이 왕국을 가지신다는 것.

계5:12-‘어린 양이 권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신성한 인간 측면에 관련하여 주님은 전능하심을 가지고 있으시다.

계6:8-‘...그에게 죽이는 권능이 주어졌다’=모든 선이 파괴됨.

계9:3-‘땅의 전갈이 능력을 가지듯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졌다’=자기들의 거짓들이 진리들이라고 설득하는 능력.

계9:10-‘그들의 권한은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다’=그들은 인사불성을 일으킬 수 있다.

계13:7-‘능력이 (이 짐승에게) 주어졌다’=지배함.

계13:12-‘그는 첫 번째 짐승의 모든 힘을 발휘한다’=그들은 교의들을 확증했다.

계18:1-‘큰 권능을 가진’=강력한 유입.

계20:6-‘둘째 사망은 권능을 가지지 못한다’=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다.

계22:14-‘그들의 힘은 생명 나무에 있다’=사랑을 통하여 그들은 주님 안에 주님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목표로.

눅21:26-‘하늘들의 힘들’=글자 의미에 있는 말씀.

계12:10-‘지금 하느님의 힘,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힘...’=지금 주님은...구원하는 힘을 가지신다...그분이 할 수 있는 ‘힘’; 고로 가능성...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힘’=신성한 진리의 효험.

계13:5-‘행하는 힘’=선들과 진리들을 파괴하는 행동.

계16:9-‘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마지막 심판의 두려움이 없음... ‘힘을 가지는 것’, 하느님에 관해서 말해질 때,=마지막 심판에 관련된 주님.

출9:16-‘너로 내 힘을 보게 만드는 것’=...신성한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힘 줄-힘 데 겔

출15:2-‘야는 나의 힘이이다’=힘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있다.

출15:13-‘권능 안에서 이끄는 것’...신성한 힘에 의해 승강하는 것이다.

출32:11-‘큰 힘과 강한 손으로’=신성의 힘에 의해.

계8:12-‘명예, 그리고 권능, 그리고 강함’=천적 평면으로부터 있는 주님의 신성.

계15:8-‘힘’=천적 평면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

눅1:35-‘가장 높으신 분으로부터의 힘’=신성한 선.

마7:22-‘많은 능력들을 행하는 것’=많은 이들을 전환시키는 것.

예10:12, 51:15-‘여호와께서는 땅을 그분의 권능으로 만드신다’=주님께서 신성한 진리의 힘을 통하여 교회를 견고하게 만드신다.

계18:2-‘그는 큰 음성으로 힘차게 외쳤다’=천국 앞에, 그리고 교회에서 심정의 환희로부터 명명백백해짐.

힘 (strength)

강한 (strong)

이63:1-‘힘과 팔’=능력(power).

이49:5-‘힘’은 진리를 서술한다.

시18:1-‘힘’ 등등=진리의 힘

이40:31-‘힘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것’=선을 뜻함이 증가하는 것.

시95:4-‘교회의 진리들이 선으로부터의 힘으로부터 ‘산들의 힘’이라 불리운다.

이52:1-‘시온’=천적 교회...그리고 천적 교회는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교회인 바, 그러므로 ‘힘’은 시온을 서술한다.

예48:17-‘강한 지팡이’=선으로부터의 힘.

이30:2-‘바로의 힘 안에서 자신들을 강하게 하는 것’=신앙 속의 것들에서 과학물에 신뢰를 두는 것.

암2:9-자아 사랑의 악이 ‘상수리나무의 힘’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창49:3-‘너는 내 힘이이다’=이해함에 있는 신앙을 통하여 선은 능력을 가진다.

이40:29-‘여호와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박력 없는 자에게 능력이 불어나게 하신다.’ 여기서, ‘힘(strength)’은 선을 ‘박력(force)’은 진리를 서술하고 있

다.

출13:3-‘손의 힘 안에서 여호와께서는 너를 데려왔다’=그들은 주님의 신성한 힘(power)에 의해 해방되었다.

출15:6-‘당신의 오른 손, 여호와여, 힘 안에서 크게 확대되었다’=주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졌었다.

시150:1-‘힘의 광활한 공간에서 찬양하는 것’=주님으로부터 선행의 선으로부터.

이3:25-‘전쟁에서 힘이 없다’=악과 거짓에 저항함이 없다.

계1:6-‘그분에게 영광과 힘이 세세토록 있다’=그분에게 만이 신성한 위엄과 신성한 전능하심이 영원히 있다.

시68:34-‘너희는 하느님에게 힘을 드러라, 힘은 구름 위에 (있다).’ ‘힘(strength)’=말씀 속의 신성한 힘(power).

계18:21-‘힘센 천사가 집어들었다’=천국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있는 주님의 강한 유입.

시96:6-‘힘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다’=교회에 있는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

합3:4-‘뿔들에 그분의 힘이 감추여 있다’=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있는 신성한 선의 전능하심.

시18:1-‘여호와는 나의 힘이이다.’ ‘힘’, 주님을 서술할 때,=전능함.

이63:1-그분의 신성한 힘으로부터 싸우심이 ‘그분의 수많은 힘이 행군함’에 의해 의미되어져 있다.

숙6:3-‘강한’=거짓들과 악들에 저항하는 힘 측면에서 파생되는 품질.

이5:22-‘힘센 사람들’=똑똑하다는 이들, 그리고 자신이 총명하다고 생각되는 이들.

이44:12-‘그의 힘이 실패할 때까지’=남아있는 선이 없을 때까지.

계7:12-‘그리고 권능과 힘’=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신성한 선으로부터 있는 전능하심.

이1:31-‘강한 자가 삼부수러기 같이 있을 것이다.’ ‘강한 자와 그의 일’=자신의 총명으로부터 부화한 것.

이5:22-‘독주를 섞는 강한 자들’=말씀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

힘줄-히데겔

겔26:11-모든 힘이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속에 있는 바, 그들은 '힘의 기둥들'이라 불린다.

시88:4-'나는 힘이 없는 사람 같이 되었다'=그 당시 그분은 힘이 결핍된 듯 자신에게 여겨졌다는 것.

삼상2:10-'힘'=악을 누르는 선의 힘; '뿔'=거짓을 누르는 진리의 힘.

삼상2:4-'힘으로 띠를 두르는 것'=이와 같이 선으로부터 진리와 파생되는 힘을 가진다.

겔24:21-악들과 거짓들에 맞서는 말씀의 힘으로부터 그것은 '여호와와의 힘의 웅대함'이라 불리운다.

예48:17-'힘의 지팡이, 아름다움의 지팡이가 부러졌다'=그들은 권능 있는 신성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힘의 지팡이'=자연적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

시78:61-그분이 포로된 자 안으로 준 '힘'=천적 선으로부터 있는 영적 진리가 이해됨으로부터 닫혀 있다.

옵11절-'힘'=진리, 그 이유는 모든 영적 힘은 진리들에 존재하기 때문.

이52:1-'네 강함을 입으라, 오 시온아'=전능을 가지는 신성한 진리.

시110:2-'시온으로부터 힘의 홀'=전능을 가지는 신성한 진리.

시99:4-능력 자체를 가지는 신성한 진리로부터 시온이 여기서 '왕의 힘'이라 불리운다.

애1:15-'그분은 내 한가운데에서 나의 강한 모든 것들을 넘어뜨리셨다'=거짓들에 맞서는 진리의 모든 힘이 멸해졌다.

힘줄 (sinew, nerve)

* 신경(nerve)을 보라.

히데겔 (Hiddekel)

창2:14-'히데겔 강'=이성, 또는 명료하게 보는 이성.

찾아내기

가까이 15

..... 가까이 15

..... 가격 15

..... 가나 15

가나안(함의 아들) 15	가지 28	강도 41	계달족 56
가나안 (토지, 땅) 15	가지 28	강력한 41	게르숨 56
가나안족 17	가지고 있다 29	강림 42	게마 57
가난 17	가지다 29	강요자 43	게헤나 57
가난한 17	가축떼 29	강하게 하다 43	겐족 57
가다 18	가축의 떼 30	강한 44	겻세마네 57
가데스 20	가축의 떼 30	...같이 44	겨울 57
가두리 20	가치 없는 30	값다 45	겨자 57
가득한 20	가치 있는 30	개 45	격노 57
가라지 21	간음 30	개구리 46	격렬한 58
가려움 21	간직하다 31	개암나무 46	견고한 58
가루 21	간장 32	개천 46	견과 58
가루로 만들다 22	간통 32	거대한 바다 동물 46	견디다 58
가르치다 22	간통하다 32	거룩한 46	결혼식 58
가르침을 잘 받는 22	갈고리 33	거리 49	결혼의 58
가방 23	갈대 33	거만한 50	결혼생활 58
가벼우움 23	갈대아 33	거십 50	결혼하다 58
가브리엘 23	갈라 33	거주하다 59	경계 59
가사 23	갈라진 틈 33	거짓말을 하다 50	경계시키다 59
가슴 23	갈렙 33	거짓말쟁이 50	경멸하다 59
가슴(부위) 24	갈르엣 34	거짓 예언자 50	경미원 59
가슴받이 24	갈릴리 34	거친 곡식 가루 51	경이 60
가시 25	갈멜 34	거품 51	경작하다 60
가시나무 25	갈빗대 34	건강한 51	경작자 60
가시덤불 25	감각 34	건너다 51	경축하다 60
가위 25	감각적인 35	건조물 51	경호인 60
가을 25	감각적 진리 36	건축하다 51	계단 60
가인 26	감맛사람들 36	건축자 52	계발하다 60
가장 높은 26	감복숭아 36	걷다 52	계산하다 60
가장 좋은 26	감복숭아 나무 36	검 53	계속되는 60
가짜의 27	감싸다 36	검은 55	계속 채우다 60
가재도구 27	감옥 37	검게하다 55	계수 60
가져가다 27	감지하다 37	검음 55	계피 60
가져오다 27	갑도림 37	겉나게 하다 56	계피 60
가족 27	갑돌 37	계걸스럽게 먹다 56	고난 60
가족 28	갓 37	계난 56	고귀한 61
가족 28	갓후손 37	계네사렛 56	고뇌 61
가족 끈 28	강 38	계달 56	고대 61

고대 교회 61	공격하다 75	구해내다 91	그림 물감 105
고독한 63	공국 75	군기 91	그림자 105
고라 63	공기 75	군단 91	그만두다 105
고래 63	공물 75	군대 91	그모스 105
고레스 64	공작 75	군림하다 93	그물 106
고리 64	공적 76	군인 93	그밭 106
고리대금 65	공포 76	군주 94	극복하다 106
고멜 65	공허 76	군중 94	극점에 달하다 106
고모라 65	과부 77	굳건한 94	근심 107
고백하다 65	과부 생활(신세) 77	굳게 결합하다 94	근채 107
고생 66	과수 해충 78	굴레 94	금 107
고센 66	과일 78	굽다 94	금강석 109
고수풀 66	과자 78	궁전 94	급료 109
고아 66	관 78	궁창 95	기 109
고안하다 67	관대함 79	궁핍한 95	기근 111
고약 67	관목 79	권능 95	기념의 111
고약한 냄새가 나다 67	관악기 79	(노아의) 궤 95	기다 111
고용인 67	관절이 어긋남 79	(언약의) 궤 95	기대하다 112
고용하다 67	광대뼈 79	귀 97	기도하다 112
고운 곡식 가루 69	광야 79	귀고리 98	기둥 113
고운 아마포 69	광활한 공간 81	귀를 기울이다 98	기라다임 113
고자 70	팽이로 파다 82	귀리 99	기랏-아르바 113
고집 센 70	피로워 하다 82	귀머거리 99	기력을 빼앗다 113
고통 70	피롭히다 82	귀중한 100	기르가스족 113
고투하다 72	교회 82	컷바퀴 100	기름 114
고페르 목재 72	구덩이 84	그늘 100	기름나무 115
고함치다 72	구렁(텅이) 85	그다랴 100	기름을 부음 115
고환 72	구름 85	그돌라오멜 100	기름을 바름 115
곡 72	구리 88	그두라 101	기병 117
곡식 72	구매 88	그랄 101	기브아 117
곡해하다 73	구멍 88	그렇게 101	기브온 117
골리앗 73	구별하다 89	그루터기 101	기브온족 117
골방 73	구부리다 89	그루터기 101	기뻐 117
골짜기 73	구스 89	그롭 101	기수 118
골풀 74	구원 89	그릇 103	기술공 118
곰 74	구유 90	그리고 104	기억 119
곶간 75	구조하다 90	그리다 104	기억하고 있다 119
공간 75	구치소 90	그리스도 104	기울다 119

기적 119
 기초 120
 기초의 120
 기품있는 121
 기혼 121
 기회 121
 길 121
 길갈 123
 길르앗 123
 길이 123
 깃땀 124
 깊은 124
 까마귀 126
 깎다 126
 깜짝 놀라다 126
 깨끗함 127
 깨어나다 127
 깨어있다 127
 깨우다 129
 깨뜨리다 129
 깨뜨림 129
 꺼내다 129
 껌질 129
 경충 뛰다 130
 깨느른한 130
 꼬리 130
 꼬부라진 131
 꼭대기 131
 풀 131
 꽃는 구멍 131
 꽃이 피다 131
 피다 132
 꾸며낸 일 132
 꾸밈 132
 꾸짖다 133
 꿀 133
 꿈 134
 퀘메다 135

꿰찌르다 135
 끈 135
 끈 135
 꿩다 135
 끌어내다 137
 꿩이다 138
 끝 138
 끝내다 138
 끝머리 138
 나 138
 나가다 138
 나감향 140
 나귀 140
 나귀 새끼 140
 나누다 142
 나누어주다 143
 나단 1435
 나답 143
 나라 143
 나르다 147
 나머지 149
 나무 150
 나무 152
 나병 152
 나비 152
 나사로 152
 나실인 152
 나실 신분 152
 나아마 153
 나아만 153
 나이 153
 나일 153
 나타나다 154
 나타내다 156
 나팔 156
 나팔부는 사람 156
 나홀 157
 낙원 157

낙타 158
 난로 159
 날 159
 날개 164
 날다 165
 날랜 165
 날마다 166
 날인하다 166
 날카로운 166
 남기다 166
 남다 166
 남성 167
 남아있는 것 168
 남은 것 168
 남자 168
 남쪽 170
 남편 171
 남 171
 남달리 171
 남두힘 172
 남작한 냄비 172
 낮 172
 낮게 하다 172
 낮 172
 낮 동안 173
 낮은 쪽의 174
 낮선 174
 낮선 사람 174
 (어머니가) 낳다 174
 (아버지가) 낳다 176
 내려가다 176
 내보내다 178
 내어주다 178
 내일 178
 내장 179
 냄새 179
 냄새 맡다 179
 냅킨 179

너울 179
 넓은 장소 180
 넓이 180
 넓은 180
 넓적다리 180
 넘어지다 181
 녀마 181
 네필림 181
 넷 181
 넷째 181
 ...년 183
 노 183
 노 183
 노년 183
 노동 183
 노동자 183
 노랑 183
 노래 183
 노래하다 183
 노래 183
 노새 184
 노아 184
 노아의 홍수 이전 186
 노염 186
 노예 상태 189
 노하게 하다 189
 녹다 189
 녹옥수 190
 녹주석 190
 논쟁하다 190
 놀다 190
 낯 190
 낯쇠 190
 농부 191
 농포 191
 높은 장소 191
 높은 성직자 192
 높이 192

높은 192
 높다 193
 놓다 193
 (손을) 놓다 193
 누구 193
 누룩을 넣지 않은 193
 누이 194
 눈 194
 눈 195
 눈먼 196
 눈물 197
 눅다 197
 느릅나무 198
 느린 198
 느바웃 198
 느보 198
 느브갓네살 198
 늘리다 198
 늘이다 199
 늙다 199
 늙은 199
 능력 200
 니고데모 200
 니콜라당 200
 니느웨 201
 니므롯 201
 니씨 202
 다가가다 202
 다곤 202
 다니엘 202
 다리 202
 다마스쿠스 202
 다말 202
 다메섹 203
 다발 203
 다섯 203
 다섯째 203
 다수 204

다수의 205
 다시 일어남 205
 다시 태어남 205
 다이아몬드 205
 다이아몬드 같은 205
 다윗 205
 다투다 207
 다투다 207
 닭아 광을 내다 207
 닭아내다 207
 (곡식)단 208
 단 208
 단단한 210
 단단하게 하다 210
 단순한 211
 단언하다 211
 단봉 낙타 211
 단식하다 211
 단장하다 211
 단지 211
 단다 211
 달 212
 달 212
 달란트 214
 달리다 214
 달시스 214
 달아나다 214
 달콤한 215
 담즙 215
 담화하다 215
 대답하다 215
 대리석 216
 대망막 216
 대머리 217
 대신 218
 대야 218
 대저택 218
 대접 218

더경이 219
 더럼 안 탄 219
 더럽히다 219
 더레리스 219
 (...와)더불어 219
 더위 219
 더하다 220
 던지다 220
 (아래로) 던지다 220
 (앞으로) 던지다 221
 덤불 221
 덧 222
 덮개 222
 덮다 222
 데겔 223
 데라 223
 데려 오다 223
 데마 223
 데만 223
 데바 223
 도갈마 224
 도구 224
 도금양 224
 도끼 224
 도단 224
 도둑 224
 도둑질 224
 도망(자) 224
 도망함 225
 도벳 225
 도장 225
 (...에)도착하다 225
 독 225
 독사 225
 독사 225
 독사 225
 독생자 226
 독수리 226

독주 227
 돈 227
 돈주머니 227
 돌 227
 돌보다 231
 돌보지 않다 231
 돌리다 231
 돕다 231
 동굴 231
 동료 232
 동물 232
 동산 233
 동의하다 234
 동의하다 234
 동쪽 234
 동풍 236
 돼지 236
 되돌리다 236
 되돌아 가다 237
 되사다 237
 되살아나다 238
 되찾다 238
 두건 238
 두 겹 238
 두꺼운 판자 238
 두더지 238
 두드리다 238
 두려움 238
 두로 240
 두루마리 240
 두마 241
 두발가인 241
 두 배의 241
 두아디라 241
 (강)독 241
 둘 241
 둘과 반 243
 둘째 243

뚝뚝 243
 뒤 243
 뒤꿈치 243
 뒤돌아 보다 243
 뒤를 향하다 244
 ...뒤에 244
 뒤쫓다 244
 드단 245
 드라빔 245
 드러내 있다 245
 드럼 245
 드문 245
 드보라 245
 (리브가의 유도)
 드보라 245
 듣다 246
 들나귀 249
 들보 250
 들쭉우다 250
 들어가다 250
 들어올려 바침 251
 들어 올려짐 251
 들어올리다 251
 들이받다 252
 들짐승 252
 들짐승 252
 들관 254
 들포도 255
 등 255
 등불 255
 디나 256
 디달 257
 디라스 257
 디본 257
 덤나 257
 따뜻한 257
 (...을) 따라잡다 257
 따르다 257

딸 257
 땀 262
 땅 262
 때 268
 때가 참 268
 떠나다 268
 떠나가다 268
 떠들썩함 268
 떠오르다 270
 떠받치다 270
 떡 270
 떨다 270
 떨어뜨리다 270
 떨어지다 271
 때 271
 똑바로 세우다 271
 툇 272
 툇더미 272
 뜰 272
 뜨거운 272
 띠 272
 라가 273
 라마 273
 라메세스 273
 라멕 273
 라반 273
 라사 274
 라아마 274
 라오디게아 274
 라헬 275
 랍바 276
 랍비 276
 레바논 277
 레센 277
 레아 277
 레위 278
 레위 사람 279
 롯 280

루딤 282
 루즈 282
 룰 282
 르바임 282
 르비딤 282
 르신 282
 르우 282
 르우마 282
 르우벤 282
 르우벤 지파 282
 르우엘 283
 르호봇 283
 리밧 283
 리브가 283
 마감 284
 마곡 284
 마구간 284
 마길 284
 마노 284
 마늘 285
 마대 285
 마라 285
 마른 285
 마리아 287
 마므레 287
 마법 288
 마술 288
 마술사 288
 마스 288
 마시다 288
 마싸 290
 마을 290
 마음 291
 마일 291
 마지막 291
 마하나임 291
 마하랄렐 291
 마할렛 291

막벨라 291
 막게다 292
 막대 292
 만 293
 만 293
 만기가 되다 293
 만나 294
 만나다 295
 만들다 295
 만족 시키다 296
 만지다 296
 만찬 297
 많은 297
 맏아들 297
 맏배 297
 말 297
 말 300
 말다툼하다 303
 말더듬이 303
 말뚝 303
 말벌 303
 말쑤 304
 말하다 304
 말하다 309
 말하자면... 310
 맛보다 310
 맛있는 것 310
 맛있는 것 310
 망명 311
 망치 311
 망토 311
 맞붙어싸우다 311
 매개 311
 매끄러운 311
 매달다 311
 매복 312
 매장 312
 매장하다 312

매춘부 313
 맨끝 314
 맨마지막 315
 맹세하다 315
 (열매를)맺다 317
 머리 317
 머리카락 320
 머리털 320
 머리털로 짠 삼베옷 320
 머무르다 320
 먹다 320
 먼지 323
 멀리 324
 멀리하다 324
 명에 325
 명이 든 325
 메네 325
 메대 325
 메뚜기 326
 메사 326
 메섹 326
 메시아 326
 메추라기 326
 멜기세덱 327
 뎀피스 327
 며느리 327
 면도칼 327
 면도하다 327
 면제하다 327
 면죄 328
 멸망하다 328
 명령 328
 명령하다 328
 명예 330
 (신성을)모독하다 331
 모독하다 332
 모든 332
 모래 332

모래 333
 모르는 사람 333
 모리아 334
 모반하다 334
 모세 334
 모습 343
 모압 343
 모압족 343
 모양짓다 344
 모의를 피하다 344
 모이다 344
 모퉁이 344
 모퉁이돌 345
 목 345
 목걸이 346
 목구멍 346
 목수 346
 목소리 346
 목을 베다 349
 목이 마르다 349
 목자 350
 목재 351
 목초지 352
 목축 352
 뭇 353
 몰록 353
 몰아내다 353
 몰약 353
 몸 354
 몸종 354
 못 354
 (연)못 354
 무거운 354
 짐을 지우다 355
 무거운 짐 355
 무게 355
 무게를 달다 355
 무기 356

무늬있는 새 356
 무당 356
 무덤 356
 무딘 356
 무료로 356
 무릎 356
 무서운 356
 무서워하다 357
 무엇 357
 무저갱 357
 무죄 357
 무지개 357
 무화과 357
 무화과나무 357
 목다 358
 묶다 358
 묶는 것 358
 문 359
 문 360
 문기둥 362
 문설주 363
 문지기 363
 문지방 363
 문턱 363
 묻다 363
 묻다 363
 물 363
 물고기 368
 물동이 370
 물다 370
 (깨)물다 370
 물방울 370
 물뱀 370
 물어보다 370
 물웅덩이 370
 물을 대줌 370
 물의 흐름 371
 물주전자 371

물질 371
 물통 371
 물항아리 371
 므깃도 371
 므나 371
 므낫세 371
 므두사엘 372
 므두셀라 372
 므리바 372
 므후야엘 372
 미가엘 372
 미디안 372
 미디안족 372
 미루다 373
 미리암 373
 미망인이 된 373
 미스갑 374
 미스라임 374
 미스바 374
 미워하다 374
 미적지근한 375
 믱들 375
 민넛 375
 민중 375
 민다 375
 믿음 377
 밀 377
 밀가 378
 밀봉하다 378
 밀어내고 대신하다 378
 밀어젖히고 나아가다 378
 밀착하다 378
 밀초 378
 밀으로 내리다 379
 바구니 379
 바꾸다 379
 바늘 380
 바다 380

바닷가 382
바두루심 382
바둑판 무늬 382
바드로스 382
바라다 382
바라 383
바란 383
바람 383
바람직한 384
바로 384
바르게 387
바리새인 387
바벨 388
바보 388
바빌론 388
바빌로니아 388
바빌로니아 사람 388
바산 391
바서리스크 391
바알 392
바알세불 392
바위 392
바위 같은 392
바치다 394
바트 394
밧 394
박살내다 394
박쥐 394
...밖에 395
반 395
반씩 나누다 395
반란 395
반란하다 395
반바지 395
반시간 395
반점 395
반점 있는 396
반점이 있는 395

반죽덩어리 396
반죽통 396
반죽하다 396
반지 396
받침 396
발 397
발가락 399
발견하다 399
발광체 399
발굽 400
발라 400
발람 400
발림말하다 400
발목 400
발바닥 401
발언하다 401
발자국 401
발톱 401
발판 401
발표하다 401
발효 401
밝게하다 402
밝히 빛나다 402
밟다 403
밤 403
밤을 보냄 405
밧단아람 405
밧모 406
방 406
방랑자 407
방문하다 407
방법 407
방부처리하다 408
방울 408
방위 408
방주 408
방치하다 408
(작은) 방패 408

(큰) 방패 409
밭 409
배 409
배 409
배고픔 410
배반하다 410
배상하다 411
배설물 411
배우다 411
백 411
백 번째 411
백 배 411
백색 411
백성 411
백향목 411
뱀 411
뱀 411
뱀사람 412
(침을)뱀다 413
버가모 413
버둥거리다 413
버드나무 413
버리다 413
버터 413
버티다 414
번갈음 414
번개 414
번영하다 414
번제 414
번제물 414
번쩍이다 414
벌 414
벌거벗음 414
벌금 416
벌레 416
벌레먹은 416
벌집 416
범람시키다 416

범칙 417
범 417
범령 417
범들가 418
범을 어기다 418
벗기다 419
벗다 419
벗어나게 하다 419
(머리가) 벗어진 419
벙어리 419
베개 420
베냐민 420
베노니 422
베다 422
베데스다 422
베델리엄 422
베드로 422
베도갈마 423
베들레헴 423
베레스 424
베레스 424
베렛 424
베어들이다 424
베일 424
벤엘 424
벨렉 425
벨사살 426
벽 426
벽거리 천 427
벽돌 427
벽옥 427
변모하다 428
변통 428
별 428
별미 429
별자리 429
병거 429
병의 431

보고하다 432
 보금자리 432
 보내다 432
 보다 433
 보다 433
 (밖을)보다 433
 보다 433
 보답하다 437
 보디발 437
 보루 437
 보리 437
 보물 438
 보상 438
 보석 438
 보스라 438
 보이다 438
 보존하다 439
 복 439
 복수하다 442
 복중시키다 442
 복원하다 442
 복음 442
 복음을 전하다 442
 봄 442
 봉사 443
 봉사함 443
 봉인 443
 봉헌 443
 부과하다 443
 부끄러이 여김 443
 부드러움 443
 부드럽게 하다 443
 부르다 444
 부르짖는 짐승 444
 부분 444
 부상 445
 (뺨)부수리기 445
 부수리기 445

부스 445
 부싯돌 445
 부유하게 만들다 445
 부유한 445
 부정하다 446
 부정한 446
 부젓가락 447
 부채 447
 부추키다 447
 부패하다 447
 부활 447
 북 447
 북쪽 448
 북쪽에 있는 448
 분노 450
 분담자 450
 분량 450
 분배하다 450
 분별하다 450
 불 450
 불결한 453
 불꽃 454
 불명료한 454
 불명예 454
 불모 454
 불뱀 454
 불법 454
 불성실하게 455
 불성실한 455
 불쌍히 여김 455
 불어나다 455
 불이 붙다 455
 불집게 456
 불타다 456
 불행 457
 붉은 457
 붓 457
 붓다 457

붙들다 457
 붙잡다 457
 브누엘 458
 브니엘 458
 브드엘 458
 브라데 458
 브리스족 458
 브살렐 458
 브엘 458
 브엘-라해-로이 458
 브엘세마 458
 블레셋 사람 459
 비 460
 비난하다 461
 비골 461
 비누 462
 비느하스 462
 비늘 462
 비단 462
 비둠 462
 비둘기 462
 비밀 462
 비손 462
 비스듬한 462
 비슷함 462
 비어있음 463
 비열한 464
 비유 464
 비참한 464
 비참함 464
 비틀거리다 464
 비-하히롯 464
 빌라도 464
 빌려주다 464
 빌리다 464
 빌하 465
 빛 465
 빛남 466

빛나게하다 466
 빠른 466
 빠르게 466
 빨강 466
 (젓을) 빨다 467
 빨랫집 467
 빵 467
 빵 굽는 사람 469
 빵 470
 빼다 470
 빼앗다 470
 뺨다 470
 뺨치다 470
 뼈 470
 뼈골 471
 뿌리 471
 (씨를)뿌리다 4710
 (기름,액체등을)뿌리다 471
 빨 471
 뿔나무 474
 뾰족한 끝 474
 사가랴 474
 사과나무 474
 사기 475
 사냥하다 475
 사냥 고기 475
 사냥꾼 475
 사느사람 475
 사다 475
 사닥다리 476
 사데 476
 사도 477
 사두개인 478
 사라 478
 사람 479
 사람들 481
 사람의 아들 484
 사랑 485

사랑하는 485	살 497	새끼염소 510	섬음질하다 519
사래 485	살다 500	새 교회 510	섬지 않은 포도주 519
사렘다 485	살렘 500	새 땅 510	선 519
사론 486	살아있는 물 500	새로운 510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
사마리아 486	살아있는 창조물 500	새로이 510	무 520
사마리아 사람 486	살인 500	새로운 교회 510	선견 520
사막 486	살인자 500	새벽 511	선물 520
사무엘 486	살찌운 501	새벽녘 512	선생 521
사별 486	살해하다 501	새 예루살렘 512	선서 521
사분의 일 486	삶 501	새 포도주 512	선원 521
사수 486	삼목 501	새 하늘 512	선장 521
사슬 486	삼분의 일 502	샘 513	선택 521
사십 487	삼손 502	샘 514	선행 522
사십 이 488	삼십 502	샘 515	섬 525
사십 오 488	삼키다 503	생각 515	섬기다 526
사악함 488	삼다 503	생각에 잠기는 515	섬뜩 놀람 528
사울 488	삼드가 503	생각하기 515	설득하다 528
사울 488	상 503	생각하다 515	성 528
사웨 488	상 503	생동하게 하다 515	성경 533
사위 488	상금 504	생득권 515	성냄 533
사자 489	상속인 504	생명 515	성구함 533
사자 490	상속하다 504	생명들의 나무 516	성령 533
사절 490	상수리나무 505	생명의 책 516	성막 534
사정거리 490	상수리나무 숲 505	생생한 516	성만찬 534
사초 490	상아 506	생쥐 516	성소 534
사탄 490	상인 506	생선 516	성실 535
사티로스 490	상인방 506	서기관 516	성장하다 535
사과이어 490	상자 506	서다 516	성진 535
사할 490	상자 506	서두르다 517	성지 536
사흘째마다 일어나는 491	상처내다 506	서른 번째 518	성직 537
삿 491	상처를 입히다 506	서리 518	성직자 537
삿꾼 491	상처 입은 507	서약 5186	성직자 538
산 491	상처자국 507	서쪽 518	성폭행하다 539
산고 496	상품 507	석류 5187	세계 때리다 539
산물 497	새 508	석류석 518	세겔 539
산비둘기 497	새기다 509	석탄 5187	세겔 539
산과 497	새긴 509	석회 519	세 겹 540
산헤립 497	새끼 509	섞다 519	세다 540

세대 540	소합향 553	수소 567	스무 번째 577
세라 541	소회향 553	수수께끼 568	스물 577
세례 542	속박 553	수스 568	스물 넷 577
세례자 요한 542	속옷 553	수아 568	스물 여덟 577
세바 543	속이 비지 않은 553	수에네 568	스물 일곱 번째 577
세 배 543	속이 빈 553	수여하다 569	스미르나 577
세 번 543	속임 553	수염 569	스바 578
세 번째 543	속죄 553	수정 569	스발 578
세상 543	속죄 염소 554	수정하다 569	스보임 578
세상을 사랑함 544	속죄소 553	수지 570	스블론 578
세속적인 543	속죄하다 554	수집하다 570	스승 578
세일 544	손 555	수컷 570	슬기로운 579
셀라 544	손가락 558	수탉 570	슬기롭게 579
셀라 (유다의 아들) 544	손바닥 558	수탉이 울다 570	슬퍼하다 579
셈 544	손자 559	수태지 571	슬프다 579
셋 545	손톱 559	수프 바다 571	슬픈 580
셋 545	솔로몬 559	순교자 571	슬픈지고! 580
셋째 545	송곳 559	순수한 571	슬픔 580
소고 547	송백 559	순수해지게 하다 571	슬픔 580
소경 547	송아지 559	순종 571	습득물 580
소나기 547	송이 560	술 571	습지 580
(송진 채취용)소나무 547	솔 560	술 571	승리하다 580
소녀 547	쇠다이 560	술고래 572	승마자 580
소녀 547	쇠 561	술말은 자 573	시간 580
소녀다운 547	쇄신하다 561	술취함 573	시간 581
소년 547	수 561	숨기다 573	시날 582
소금 547	수가 565	숨긴 장소 574	시내 582
소다 548	수가 많은 565	숫곳 574	시내 582
소돔 548	수난 565	숫양 574	시내(산) 582
소매 549	수단 565	승배하다 575	시대 582
소리내어 울다 550	수로 565	숫 575	시돈 583
소리를 내다 550	수레 565	숲 575	시들게 함 583
소리치다 551	수레바퀴 565	쉬다 576	시땀 583
소문 552	수르 566	쉽 576	시리아 583
소비하다 552	수를 놓다 566	스랍 577	시므온 583
소안 552	수리하다 566	스룩 577	시몬 584
소알 552	수사슴 566	스룹바벨 577	시바 584
소유하다 552	수소 566	스말 577	시스라 584

시아버지 584	실밥을 풀다 595	쓴맛 605	아말렉족 621
시어머니 584	실로 595	쓴썩 606	아멘 621
시온 584	실로암 595	쓸모있는 606	아모리족 622
시작 587	실족하게하다 595	쓸쓸한 곳 606	아몬드 622
시작하다 587	실패하다 595	씨 606	아브람 622
시절 588	심다 596	씨름하다 608	아바돈 622
시종장 588	심연 596	씨뿌리는 때 608	아버지 623
시체 588	심장 596	썰라 609	아벨 625
시험 588	심정 596	씻는 통 609	아블루온 625
시험하다 588	심하게 움직여대다 596	씻다 609	아브라함 625
시홀 588	십마 597	아골 610	아브람 631
식량 588	십 597	아껴두시는 것 610	아비멜렉 631
식물 589	십분의 일 597	아나민 610	아비후 631
식물 589	십일조 597	아나킴 610	아빤 631
식사 공물 589	십관 597	아내 610	아사셀 631
식욕 590	십관하다 597	아넬 612	아셀 631
식품 590	심홍색 602	(...이)아니다 612	아셀 633
신 591	십계명 603	아다 612	아수르 633
신 591	십보라 603	아담 612	아스그나스 633
신경 592	십자가 603	아닷 613	아시리아 633
신랑 592	십자가에 못박다 603	아드마 613	아시리아 사람 633
신뢰 592	십 팔(18) 603	아들 613	아시아 638
신뢰 592	숫딤 603	아라랏 615	아싸 638
신뢰할 수 있는 592	숫다 603	아라비아 615	아웬 638
신바닥 593	싱거운 604	아람 6162	아이 638
신발을 신지 않은 593	싸우다 604	...아래에 616	아이 638
신부 593	씩 604	아래쪽으로 616	아이가 없는 641
신비 593	씩트다 604	아론 616	아이들 641
신성하게 하다 593	쌍 604	아르 619	아이를 못 낳음 641
신성화 하심 594	쌍쌍아 604	아르박삿 619	아주머니 642
신앙 594	쌍아올리다 604	아르왓족 619	아침 642
신앙 만으로 594	쌍인 것 604	아름다운 619	아픈 644
신앙이 분리되었다 594	써레 604	아름다움 619	아홉 644
신에게 바치다 594	써레질하다 605	아마 620	악 644
신음하다 594	쏘다 605	아마겔돈 620	악갓 644
신장 595	쏟다 605	아마 부스러기 620	악마 644
신중한 595	쓰다 605	아마샤 620	악쓰다 645
실 595	쓴 605	아마포 621	악어 645

악용하다 645
 악의 645
 안개 645
 안드레 645
 안디바 645
 안수하다 645
 안식일 645
 안에 들어가다 647
 안으로 들이다 647
 안장 647
 안전 647
 ...안쪽에 648
 앓다 648
 알가 648
 알다 648
 알락해오라기 649
 알을 품다 649
 알과 650
 암몬 650
 암시슴 651
 암사자 651
 암소 651
 암송아지 651
 압박하다 651
 압살롬 651
 (...에)앞서다 651
 애착 651
 (선예) 애착함 653
 (진리에) 애착함 653
 야 657
 야고보 657
 야곱 657
 야랩 664
 야렛 664
 야발 664
 야벳 664
 야살 665
 야생 665

야셀 665
 야엘 665
 야완 665
 야윈 665
 야원 665
 야위게 만들다 665
 야채 665
 약 665
 약탈품 666
 약탈하다 666
 약하다 666
 약혼하다 666
 압복 667
 양 667
 양날 667
 양념 667
 양동이 667
 양떼 667
 양상 670
 양식 670
 양우리 670
 양장 670
 양쪽의 670
 양털 670
 양과 671
 어깨 671
 어두운 671
 어둠 671
 어디 675
 어디서 675
 어리석은 675
 어리석음 675
 어린 나귀 675
 어린 시절 676
 어린 아이 676
 어린 암소 676
 어린 양 676
 어린 자 677

어머니 677
 어버이 678
 어부 678
 어제 678
 언급하다 678
 언덕 679
 언약 679
 언어 681
 얻다 681
 얻으려고하다 681
 얼굴 681
 얼빠지게 만들다 683
 얼혀있는 683
 얼히다 683
 엄지발가락 683
 엄지손가락 683
 엉킴 684
 에네글라임 684
 에노스 684
 에눅 684
 에담 684
 에덴 684
 에돔 685
 에돔족 685
 ...에 돌리다 686
 에렉 687
 에르 687
 에메랄드 687
 에바 687
 에바 687
 에베소 687
 에벨 687
 에봇 688
 에브라테 688
 에브라임 689
 에브론 691
 에서 691
 에섹 695

에스겔 695
 에스골 695
 에이 696
 에이취 696
 에워싸다 696
 에테르 696
 에티오피아 696
 엔게디 697
 엔머스밧 697
 엘 697
 엘로힘 697
 엘람 697
 엘르아살 697
 엘르알레 697
 엘리사 697
 엘리사아 698
 엘리아스 698
 엘리야 698
 엘리에셀 699
 엘리에셀 699
 엘리 699
 엘림 699
 엠 699
 여관 699
 여덟 700
 여덟(번)째 700
 여름 700
 여리고 701
 여물통 701
 여부스족 701
 여분의 702
 여섯 702
 여섯째 702
 여섯째의 702
 여성 703
 여 예언자 703
 여왕 703
 여자 703

여자 형제 706
 여정 706
 여종 706
 여주인 706
 여행하다 707
 여호비 708
 여호사밧 708
 여호수아 708
 여호수아 709
 여호와 709
 여호와니씨 711
 여호와와 천사 711
 여호와체바온 711
 여호위 712
 역병 712
 역연혼 712
 역청 712
 역청 712
 연 712
 연기 714
 연대기 714
 연하쪽의 714
 연합시키다 714
 열 714
 열 714
 열 714
 열넷 715
 열네 켜 715
 열다 715
 열 다섯 716
 열 다섯째 716
 열 두 켜의 716
 열들 716
 열매 717
 열매 717
 열매를 맺게하다 717
 열매를 맺다 717
 열매를 맺지 않는 722

열 세 켜 722
 열 셋 722
 열 일곱 722
 열 일곱 켜 722
 열쇠 723
 열의 723
 열정적인 723
 열(번)켜 723
 열하나 723
 엷은 723
 염소 723
 영 725
 영광 726
 영구의 728
 영원 728
 영구리 729
 예견하다 729
 예루살렘 729
 예물 730
 예배 730
 예복 731
 예복 731
 예수 731
 예술 731
 예언 732
 예언자 732
 예언하다 732
 오 732
 오난 733
 오늘 733
 오다 733
 오두막 734
 오르간 734
 오른쪽 734
 오멜 735
 오목 735
 오븐 735
 오빌 736

오소리 736
 오십 736
 오십켜 736
 오이 737
 오홀라 737
 오홀리바 737
 오홀리압 737
 올라가다 737
 올리브 739
 올리브나무 740
 올리브산 741
 올리브숲 742
 올바른 742
 올빼미 742
 옮기다 742
 옷을 입히다 743
 옷을 주다 743
 옷자락 743
 완전무결 743
 완전한 743
 완화된지 않은 743
 왕 743
 왕권 743
 왕국 746
 왕관 746
 왕의 748
 왕자 748
 왕좌 748
 외관 749
 외뿔의 들소 749
 외치다 750
 외투 750
 왼쪽 750
 요나 750
 요나 750
 요나단 751
 요나답 751
 요단 751

요리 752
 요벨 752
 요새 752
 요새화하다 752
 요셉 753
 요압 762
 요한 762
 옥단 763
 옥산 763
 읍 763
 용 763
 용광로 765
 용사 765
 용서하다 765
 용의주도함 765
 용해 765
 우두머리 766
 우르 766
 우물 766
 우바스 767
 우박 767
 우레 767
 우리 768
 우리아 768
 우림 768
 우상 768
 우세하다 769
 우수함 769
 우즈 769
 운반하다 769
 (소가)울다 769
 (말이)울다 769
 울다 769
 울려퍼지다 770
 울타리 770
 움직이다 770
 움켜쥐다 771
 웃다 771

옷사 771
 옷음 771
 원 771
 원기를 돋우다 771
 원로 771
 원시의 772
 원리 773
 원수 773
 원조하다 773
 월경이 있는 773
 위대한 773
 위로 773
 위로자 774
 위로 향한 774
 위선 774
 위증케하다 774
 위치 774
 유다 774
 유대 778
 유리 778
 유모 779
 유발 779
 유브라테 779
 유산 780
 유산하다 780
 유아 780
 유입 780
 유월절 781
 유죄 781
 유지하다 781
 유출 781
 유향 781
 유향 782
 유황 782
 옥 782
 옥계 782
 옥백 옥십 옥 782
 옥십 783

옥십째 783
 옥채 783
 옥축 783
 율법 783
 율법가 783
 으르렁거리다 783
 은 783
 은총 785
 음료 공물 785
 음성 786
 음식을 주다 786
 은행 786
 응결되다 786
 응징하다 786
 의롭다고 인정됨 786
 의류 786
 의복 786
 의사 786
 의술 791
 이 791
 이 791
 이끌다 791
 이 년 792
 이다말 792
 이드로 792
 이랏 792
 이름 792
 이리 799
 이마 799
 이브 799
 이사벨 799
 이삭 799
 이삭 800
 이상한 802
 이새 802
 이스라엘 803
 이스라엘 자손 803
 이스라엘의 803

이스라엘 808
 이스마엘 808
 이스마엘 사람들 809
 이슬 810
 이십 810
 이십 (번)째 810
 이십 사 811
 이십 일(번)째 811
 이십 칠(번)째 811
 이십 팔 811
 이야기하다 811
 이웃 812
 이웃을 사랑함 812
 이웃을 향한 사랑 812
 이웃을 사랑하는 것 812
 이익 813
 이전에는 813
 이집트 813
 이틀 827
 이튿날 827
 이혼 827
 이혼한 여인 827
 익은 827
 익지 않은 무화과 827
 인간 828
 인내 828
 인도하다 828
 인사 828
 인식 828
 인식력이 있는 828
 인장 828
 인척 관계 828
 일 828
 일곱 830
 일곱 교회들 832
 일곱 번 832
 일곱 배 832
 일곱의 833

일곱 제 833
 일어나다 833
 일어서다 833
 일으키게하다 833
 일찍이 833
 일흔 833
 일흔 번 834
 읽다 834
 임마누엘 834
 임신 834
 임신한 834
 입 834
 (옷 등을)입다 836
 입다 837
 입법자 837
 입술 837
 입천장 8381
 잇사갈 838
 있다 838
 잉태 못함 841
 잇다 841
 잎 841
 자 841
 자궁 841
 자고새 842
 자디 잔 842
 자루 842
 자르다 842
 자리 842
 자만 842
 자비 843
 자비석 844
 자선 844
 자세히 얘기하다 844
 자수정 844
 자유 844
 자유로이 844
 자식 845

자주색 845
 작은 845
 작은 길 845
 작은 북 846
 작은 뽕족탑 846
 작은 숲 846
 작은 책 846
 잔 846
 잔인한 847
 잔치 847
 잘 847
 잘못 847
 잡자다 847
 (불)잡다 848
 잡아떼다 848
 잡초 848
 장 848
 장대 848
 장대함 848
 장막 849
 장모 849
 장사하다 849
 장소 850
 장식품 850
 장애물 850
 장인 851
 재 851
 재다 851
 재다 852
 재물 852
 재생 853
 재앙 853
 재촉하다 853
 재출생 854
 잿물 854
 쟁기 854
 쟁기날 854
 쟁기로 같다 854

저녁 854
 저녁 식사 856
 저녁을 먹다 856
 저물다 857
 저울 857
 저주하다 857
 저주 받은 858
 적 858
 적재하다 860
 전가하다 860
 전갈 860
 전나무 861
 전능 861
 전리품 861
 전멸시키다 861
 전병 862
 전설상의 뱀 862
 전쟁 862
 전투 863
 전투 863
 전투하다 863
 절뚝거리다 864
 절름발이의 864
 젊은 865
 젊은이 865
 젊은 성인 865
 점을 치다 865
 점치다 865
 접근하다 866
 접시 866
 정복하다 866
 정사각 866
 정사각형 866
 정의 866
 정제된 금 870
 정제된 놋쇠 870
 정찬 870
 젓 870

젓꼭지 871
 젓을 떼다 871
 젓을 먹이다 872
 제거하다 872
 제거하다 872
 제단 872
 제물 877
 제물을 바치다 877
 제비 878
 제사장 878
 제 1인자 878
 제자 879
 조각 880
 조각 880
 조각칼 880
 조각으로 자르다 880
 조력자 880
 조롱하다 880
 조사하다 880
 조약돌 880
 조언하다 881
 족장 881
 존경하다 881
 (꾸벅꾸벅)졸다 881
 졸림 881
 좁은 881
 종 881
 종기 881
 종려 882
 종려나무 882
 종말 882
 좋은 물건 882
 죄 882
 죄인 884
 주 884
 주님 884
 주님의 기도 885
 주님의 왕국 885

주다 885
 주먹 887
 주민 887
 주식 887
 주 예수 그리스도 887
 ...주위에 887
 주인 887
 주인 887
 주재하다 888
 구조된 888
 구조자 889
 죽 889
 죽다 889
 죽이다 895
 죽이다 898
 준비하다 898
 준수하다 898
 줄기 898
 줄기 식물 898
 줄이다 899
 중간 899
 중간의 899
 중단하다 899
 중앙 899
 중얼거리다 899
 증기 899
 증언 900
 증언하다 900
 증오 900
 증오하는 900
 지갑 901
 지나다 901
 지금 901
 지도자 901
 지면 902
 지방 904
 지배하다 904
 지붕 905

지역 905	쪽정이 930	천사와 같은 영 945	치명적인 957
지옥 906	찌기 930	천조각 945	치수 957
지우다 906	찌끼 930	철 945	치욕 957
지진 906	찌르다 930	첩 946	치질 958
지체하다 906	찢레나무 930	첫 열매 946	친구 958
지키다 887	찢다 930	첫째 947	침 958
지속하다 907	찢다 930	첫째의 947	침대 958
지탱하다 908	착복하다 930	첫 출생 947	침묵 959
지과 908	찬 931	청소하다 949	침상 959
지팡이 909	찬미하다 931	청옥 949	침수 959
지혜 909	찬양 931	(고운)체 949	침수시키다 959
진(영) 910	찰싹때리다 932	체로치다 949	침실 959
진주 911	참다 932	체류자 949	침향목 959
진홍색 912	참새 932	체류하다 949	칭찬 959
진흙 912	참아내다 932	(식)초 950	칼 959
질문하다 913	창 932	(양)초 950	커튼 959
질바 913	창고 932	초록색 950	케이크 960
질병 913	창문 932	춧대 950	코 960
질서 913	창백한 933	총계 951	코를 불며 거칠게 숨쉬다
질투 913	창살 933	총명 951	961
질그릇 913	창조 933	최말단 951	코-보석 961
깊어지다 913	창조물 934	최후 951	코트 961
짐승 914	창조자 934	추수 953	콜로신스 962
짐을 나르는 짐승 923	창포 934	추숫군 953	콧구멍 962
짐을 지우다 924	창포 934	추운 953	콩 962
집 924	창포 934	축제 954	콩팥 962
집회 928	찾다 934	출구 955	큐빗 963
짓밟다 928	채찍질하다 935	출생 955	크게 기뻐하다 963
징조 929	채찍질하다 935	춤추다 955	크게 하다 963
짓다 929	채우다 935	충돌 955	크시타 963
질은 929	책 935	충분한 955	큰 963
질 929	처녀 935	충분히 만족시키다 955	큰 사람들 964
짜다 929	처음 936	충실한 955	큰 짐승(하마) 964
짜는 사람 929	천 936	취옥 955	큰 폭포 964
짧게하다 929	천국 936	측면 955	키스 964
쪼개다 929	천국의 왕국 936	치다 956	키 작은 나무 965
쪽 929	천막 936	치료하다 957	(짐승을) 타다 965
쫓아내다 929	천사 938	치료자 957	타다남은 나무 966

타락 966
 타작기 966
 타작 마당 966
 타작하다 966
 탁월함 966
 탁자 966
 탄원하다 967
 탈 것 967
 탈출하다 967
 탑 967
 탕자 967
 태 967
 태생 967
 태양 968
 태양의 971
 태어남 971
 태우는 공물 972
 태우다 972
 태위 바침 972
 태초 9731
 턱뼈 973
 털 973
 털많은 973
 테두리 974
 테레빈 974
 토기 974
 토기장이 974
 토론하다 974
 토지 974
 토하다 974
 통과하다 975
 통솔자 975
 투구 975
 틀어막다 975
 티끌 975
 파 975
 파견하다 975
 파괴 976

파괴하다 976
 파다 976
 파도 977
 파리 977
 파수꾼 977
 파운드 977
 관금 977
 관 977
 팔 978
 팔다 979
 팔십 979
 팔찌 979
 (물을)퍼올리다 980
 펄롱 980
 페니 980
 페인트를 칠하다 980
 평강 980
 평안 980
 평온한 980
 평지 980
 평화 980
 포도 983
 포도나무 984
 포도 수확 985
 포도액 985
 포도원 987
 포도원의 일꾼 987
 포도주 987
 포로 989
 포로 신세가 됨 989
 포로로 끌고가다 989
 포위 공격 991
 포플러나무 991
 포피 991
 폭풍 991
 폭행 992
 표 992
 표범 992

표시 993
 표창 993
 푸른 994
 풀 995
 풀이 무성한 995
 풀밭 995
 풀어주다 995
 풀잎 995
 풍부한 996
 풍신자석 996
 풍지향 996
 플라타너스나무 996
 피 996
 피난 999
 피곤해짐 999
 피륙 999
 피륙 999
 피부 999
 피조물 1000
 필기사 1000
 필라델피아 1000
 하갈 1000
 하갈 사람 1000
 하나 1000
 하나가 되다 1001
 하나님 1001
 하느님 1001
 하느님의 아들 1005
 하느님의 왕국 1005
 하느님의 천사 1006
 하늘 1006
 하늘색 1009
 하다손다말 1009
 하란 985 1009
 하란 (장소) 1009
 하맛족 1009
 하물 1009
 하슬 1009

하월라(토지) 1010
 하월라(구스의 아들)1010
 하월라(옥단의 아들)1010
 하프 1010
 학대하다 1011
 학살 1011
 한가운데 1011
 한뼘 1013
 한사람도 없다 1013
 한숨 쉬다 1013
 한응금 1013
 한 조각 1013
 할렐루야 1013
 할레 1014
 할레를 받지 않았음 1014
 할다 1014
 할아 먹음 1014
 함 1015
 합병하다 1015
 함환채 1015
 향구 1015
 향문 1015
 향아리 1015
 향의하다 1016
 해 1016
 해 1016
 해달 1016
 해석하다 1016
 햇수 1016
 행음 1016
 행진 1016
 행하다 1016
 향 1018
 향기 1018
 향기높은 1019
 향나무 1019
 향로 1019
 향신료 1019

향유 1019
 향유 1020
 허가 1020
 허리 1020
 허약함 1020
 헛된 1021
 헛됨 1021
 헤레스 1021
 헤르몬 1021
 헤메다 1021
 헤브론 1021
 헤스본 1021
 헬본 1021
 헛 1021
 헛족 1021
 혀 1022
 혁대 1022
 현세에의 욕망 1022
 현악기 1023
 현이 있는 1023
 형상 1023
 형제 1024
 형제관계 1027
 형제애 1027
 호도애 1027
 호렙 1027
 호리병박 1027
 호리족 1027
 호마노 1028
 호멜 1028
 호바 1028
 호수 1028
 호의 1029
 호흡 1029
 혼 1029
 혼동하다 1030
 혼합 1030
 흘 1031

홀로 1031
 홍보석 1031
 홍수 1031
 홍옥 1031
 홍해 1032
 화내다 1032
 화살 1032
 화살통 1033
 화있다 1033
 화평 1033
 화해 1033
 확대하다 1033
 확언 1033
 확인하다 1034
 확실히 하다 1034
 환난 1034
 환상 1034
 환전상 1034
 활 1035
 활동 1035
 황새 1035
 황옥 1035
 황폐 1035
 황폐시킴 1035
 황폐한 1035
 황폐함 1036
 황혼 1036
 황홀케하는 것 1037
 햇불 1037
 회개 1037
 (유대교)회당 1037
 회반죽 1037
 회색의 머리털 1037
 회전하다 1037
 회중 1037
 회합 1037
 효소 1038
 후르 1038

후회 1038
 흠치다 1039
 휘장 1039
 흐르다 1040
 흐름 1040
 흑단 1040
 흔들다 1040
 흔들리다 1040
 흠이 없음 1040
 흘뜨리다 1040
 흠어버리다 1040
 회개 반짝거리다 1041
 회년 1041
 희망 1041
 흰 1041
 흰(색) 1041
 흰가루병 1042
 흠이 없음 1042
 흰말 1042
 히라 1042
 히람 1042
 히브리 사람 1042
 히습 1042
 히위 1043
 힌 1043
 힌눔 1043
 힘 1043
 힘 1043
 힘 1044
 힘줄 1045
 히데겔 1045

A 696
 Aaron 616
 Abaddon 622
 Abel 625
 abib 631
 Abihu 631
 Abimelch 631
 abode
 abort 780
 Abraham 625
 Abram 631
 Absalom 651
 absolve 327
 abyss 596
 according to 15
 accursed 858
 Acad 644
 Achor 610
 acquisition 580

activity 1035
acute 166
Adad 613
Adah 612
Adam 612
adamantine 58,205
add 220
additment 220
Admah 613
adolescence 865
adore 575
adultry 30
adulterate 519
advent 42

air 75
alarm 59
alas 580
alienate 324
alive 515
all 332
allure 132
almond 36,622
almond-tree 36
alms 844
aloe 959
alone 1031
alpha 650
altar 872

anew
angel 938
angel of God 1006
angel of Jehovah 711
angelic spirit 945
anger 186,533,1032
anguish 61
animal 232
ankle 400
annihilate 861
annuals 714
announce 401
amounting 115
answer 215

Ararat 615
archer 486
architect 52
argue 190
arise 833
ark(of the covenant)
95
ark(of the Noah) 95
Arkite 648
arm 978
Armageddon 620
army 91
aromatic 1019
around 887
Arphaxad 619
arrow 1032
arrow-snake 225
art 731
artificier 118
Arvadite
as 44
as it were 410
ascend 737
ascribe 686
ashamed 443
Asher 631
ashes 851
Ashkenaz 633
Asia 638
ask 363,370
asp 225
aspect 670
ass 140
ass's colt 140
assembly 928
asseverate 211
associate 714
Asshur 633

INDEX

afar 324
affection 651
affection of good 653
affection of evil 653
affinity 828
affirmation 1033
affliction 70
afflux 780
aforetime 813
after 15,244
agate 284
age 153,582,588,1016
agitate 596
agree 234
Aholah 737
Aholiab 737
Aholibah 737
Ai 638
aid 773

alteration 414
Amalekite 621
amaze 126
Amaziah 620
ambassador 490
ambush 312
amen 621
amend 569
amethyst 844
Ammonite 650
Amorite 622
Amram 622
Anakim 610
Anamin 610
ancient 61
ancient church 61
and 104
Andrew 645
Aner 612

antediluvian 186
Antipas 645
antiquity 61
anus 1015
anxiety 1067
Apollyon 625
apostle 477
appear 154
appearance 749
appetite 590
apple-tree 474
apply
apprehend 37,848
approach 866
approbation 1020
appropriate 930
Ar 619
Arabia 615
Aram 616

Assyria 633	banner 91,109	begin 587	bittern 649
Assyrian 633	baptism 542	beginning 587,936,973	bitterness 605
Atad	baptize	behead 349	bitumen 712
attack 75	Barak 383	behemoth 964	black 55
augur 865	barley 437	behind 244,838	black cummin 553
aunt 642	barn 75	behold 433	blacken 55
autumn 25	barren 454,641,841	believe 375	blackness 55
Aven	base 120,396	bell 408	blamelessness 1040
awake 128	Bashan 391	bellow 769	blaspheme 331
Awen 638	basilisk 391	belly 409	blasting 583
awl 559	basin 370	beloved 485	bless 439
axe 224	basket 379	Belshazzar 426	blessing 439
Azal 633	bat 394	belt 1022	blessedness 439
Azazel 631	bath 394	bend 89	blind 196,547
azure 1009	battle 863	Benjamin 420	bliss 439
Azzah 638	bdellium 422	Benoni 422	blood 996
B 460	be 838	berevement 486	blot out 906
Baal 392	being 838	Bered 424	blue 994
Babel 388	beam 250	berry 717	boar 571
Babylon 388	bean 962	beryl 190	body 354,783
Babylonia 388	bear 74	best 26	bond 358,553
Babylonian 388	bear 147,174,317	bestow 569	bone 470
back 243,255	,908,913,932	Bethel 424	bony 470
backward 244	bear witness 900	Bethesda 422	book 935
badger 736,1016	beard 569	Bethlehem 423	book of life 516
bag 23	beast 914	Bethogarma 423	book of lives 516
baker 469	beast of burden 923	Bethuel 458	border 974
Balaam 400	beat 956	betray 410	bore
Balak 400	beautiful 619	betroth 666	born 971
balance 857	beauty 619	Bezaleel 458	born agai 205n
bald 419	bed 958	Bilah 465	borrow 464
bald head 217	bedchamber 959	bind 358	bosom 24
baldness 217	bee 414	bind up 36	both 670
balm 1019	Beelzebub 392	bird 508	bottle
balsam 1019	Beer 458	birth 955	bottomles pit 357
band 135	Beer-lahai-roi 458	birthright 515	boundary 59
bandage 135	Beersheba 458	bite 370	bow 1035
bank 241	beget 176	bitter 605	boy 547

box 506	builder 52	Capernaum 23	change 379
Bozrah 438	bullock 437,566,567	Caphor 37	channel 565
bracelet 979	bulrush 74	Caphorim 37	chanting 183
bramble 25	bulwark	captain 521,975	charcoal 575
branch 28	bundle 203	captive 989	characteristic 992
brass 190	burden 355,924	captivity 989	charge
bread 467	burial 312	carbuncle 518	chariot 429
breadth 152	burn 456,972	carcase 588	charity 522
breach 129	burnt-offering	cardiac 596	chastise 786
break 129	414,972	care 231	Chedorlaomer 100
breast 23,24	bury 313,363	Carmel 34	cheek 470
breastplate 24	butler 573	carnal 497	cheekbone 79
breadth 180	butter 413	carpenter 346	Chemosh 105
breath 1029	buy 475	carriage 967	chequer 382
breave 470	buyer 475	carry 769	cherub 101
breeches 395	Buz 445	cart 565	Chesib 50
brick 427	by day 173	cassia 60	chest 24
bride 593	Cain 26	cast 220	chide 461
bridegroom 592	Cainan 26	cast down 220	chief 766
bridle 94	Cainite 26	cast forth 221	child 638
brier 930	cake 78,270,862,960	cast out 929	childhood 676
bright 402	Calah 33	cataract 964	childless 641
brimstone 782	calamity 464	catch 457	children 641
bring 27,223	calamus 934	cattle 29,549,783	Chittim 124
bring back 236	Caleb 33	caul 216	choice 521
bring forth	calf 559	cavalry 117	choose
broad 180	call 444	cave 231	Christ 104
broad place 180	call together	cedar 411,501,559	Christian
brood 649	camal	cease 105	chrysopraxe 190
brook 582	camel 158	celebrate 60	church 82
brother 1024	camp 910	censer 1019	cinnamon 60,782
brotherhood 1027	Cana 15	cervical	circle
bruise 325,507,930	Canaan(Ham's son) 15	chaff 930	circumcision 1014
bruised 507	Canaan(land of) 15	chain 346,486	circumspection 765
bucket 667	Canaanite 17	Chaldea 33	cistern 371
buckler 408	candle 950	chamber 406	city 528
bud	candlestick 950	chamberlain	clay 912
build 51	cane 898	chance 121,955	claw 401

cleanness 127
clearly
cleft 33
clense
cleave 94,929
clemency 79
cloak 750
close 211
closure 284
clothe 743
clothing 786
cloud 85
cluster 560
coal 518
coat 961
cock 570
cockcrowing 570
cockatrice 862
coffer 506
cogitative 515,828
cohere 378
cold 931,953
collect 570
collision 955
colocynth 962
column 113
combat 863
combine 1015
come 733
comfort 773
conforter 774
command 328
commandment 328
commove 770
companion 232
company 271
compass 696
compassion 455

compute 60
conceive 834
conception 834
concord 234
concubine 946
concuiscence 1022
condemn
confess 65
confidence 592
confirm 1034
confound 1030
confuse 1030
cognitive 828
congregation 1037
conjoin
conquer 867
consent 234
constellation 429
consternation 528
consume 552
consummate 106
consummation 106,882
contempt 59
contend 207
continual 60
contrive 67
converse 215
cook 752
copper 88
cord 135
coriander 66
corn 72
corner 344
cornerstone 345
corpse 588
corrupt 447
couch 959
counsel 880

court 272
courtier 588
covenant 679
cover 222
covering 222
cow 651
cow-calf 651
crease
create
creatable
creation 933
Creator 934
creature 934,1000
creep 111
creeping 111
crimson 602
crecodile 645
crooked 131
cross 603
crowd 94
crown 746
crucify 603
crucifixion 603
cruel 847
crumb 445
cruse 371
cry 551
crystal 569
cubit 963
cucumber 737
cultivate 60
cumin 107
cup 846
cupidity
cure 957
curse 857
curtain 670,848,959
999

Cush 89
custody 90
cut 422
cut off 135,899
cut to pieces 880
Cyrus 64
Dagon 202
dailly 166
dainties 310,429
Damascus 203
damsel 547
Dan 208
dance 955
Daniel 202
darkness 671
dark saying
dart 993
dash 394
daughter 257
dahghter-in-law 327
David 205
dawn 511
day 159,172
day after 827
day, by
days, two
daybreak 512
dead 889
deaf 99
death 889
debate 974
Deborah 245
Decalogue 603
deceit
decollate
Dedan 245
deep 124
defile 219

delay 373,906	dissipate	drugs	egression 138
delicacy 310	dissolution 765	drum 245,447	Egypt 813
deliver 91,178	distinguish 89	drunk	eight 700
demon	distinction 89	drunkard 572	eighth 700
dense 929	distribution 450	drunkenness 573	eighteen 603
denude 419	disturb	dry 285	eighty 979
deny 446	ditch 46	dryness 285	El 697
depart 268	divide 142	dry up 285	Elam 697
descend 176	divine 865	duke 94,881	elation
desert 231,486	divorce 827	dull 356	elder 771
desirable 384	divorced woman 827	Dumah 241	Elealeh 697
desire 382	divour	dumb 419	Eleazar 697
desolation 1035	do 1016	dung 272	elect 271,521
desolate 1035	dominate 904	dunghill 272	elegant 121
despair	dog 45	dust 323,975	elevate
destroy	door 359	dwell 50	eleven 723
despoil 666	doorkeeper 363	E	Eli 699
destroy 976	Dothan 224	eagle 226	Elias 698
Devil 644	double 241	ear 97	Eliezer 699
devour 56	double-dyed 241	ear(of corn) 799	Eliezer(the second son of Moses) 699
dew 810	dough 396	earlap 100	Elijah 698
diadem	dove 462	early 833	Elim 699
diamond 109,205	downwards 616	ear-ring 98	Elisha 697
Dibon 257	dragon 763	earth 262	Elishah 698
die 889	draw 137,980	earthenware 913,974	elm 198
dig 976	draw away 470	earthquake 906	Elohim 697
diminish 899	draw out 129	east 320	embalm 408
Dinah 255	dread 357	eastward 234	embroider 516
dinner 870	dream 133	eat 320	emerald 687,955
dip	dress 211	Eber 687	Emin 699
dirty	drink 288	ebony 735,1040	eminence 966
discern 450	drink-offering 785	Eden 684	emptiness 463
disciple 879	drive away 353	edge 138	enchant 288
disease 913	dive out	Edom 685	enchanter 288
dish 867	dromedary 211	Edomite 685	enchantment 1037
disperse 1040	drop 270,370	effusion 781	encompass 696
dispose	dross 930	ego 138	end 138
dispute 303	drove 30		

endure 58,907,932	Ethiopian 696	fast 211	first-born 947
enemy 773	eunuch 70	fat 904	first-fruit 946
En-eglaim 684	Euphrates 779	father 623	firstling 297
enervate 113	evangelize 442	father-in-law 584	fish 368,516
Engedi 697	Eve 799	fatigue 999	fisher 698
enigma 568	evening 854	fatted 501	fisherman 678
enlarge 963	evil 644	fear 238	fist 887
En-mishpat 697	exacerbate 189	feast 847,954	fitches 553
enmity 900	exacto 43	feather	five 203
Enoch 684	exalt 193	feed 590,786	fifth 203
Enos 684	excellence 769	female 703	flag 934
enrich 445	excrement 411	fence 770	flame 454
ensign 109	exempt 328	ferment 401	flank 729
entangled 683	exhilarate 771	fever 714	flash 414
enter 250	exile 311	field 254,409	flatter 400
entwine 683	expanse 81,95	fifteen 716	flax 620
enuca	expect 112	fifteenth 716	flee 214
envy 913	expiate 554	fiftieth 736	flesh 497,782
enzyme 1038	expire 293	fifty 736	fleshy
ephah 687	explore 880	fig 357	flight 225
Ephesus 687	extend 470	figment 132	flint 445
ephod 688	extreme 474	fig-tree 357	flock 667
Ephraim 689	exult 963	fight 604	flood 1031
Ephrath 688	eye 195	fill 935	flour 51
Ephron 691	Ezekiel 695	find 399	flow 1040
Er 687	face 681	fine 416	flow to 780
Erech 687	fail 595	fin brass 870	flower 131
erect	fair 882	fine flour 69	flute-player
error 847	faith 377	fine gold 870	fly 165,977
eruca 78	faith alone 594	fine linen 69	flying
Esau 691	faith seperated 594	finger 558	foam 51
escape 967	faithful 955	fir 861	fodder 131
Esek 695	fall 271,966	fire 450	follow 257
Eshcol 695	false prophet 50	firebrand 966	folly 675
eternity 728	family 27	fireplace 159	fomerly 813
Etham 684	famine 110	fire-serpent 454	food 589,590,670
ether 696	fan 447	firm 94	fool 391
Ethiopia 696	fashion 344	first 947	foolish 675

foot 397	frontlet	Gerar 101	Gomorrah 65
footprint 401	frost 786	germinate 604	good 519
footstool 401	froth 930	Gershom 56	goodness 519
forehead 799	fruit 78,717	Gethemane 57	good-will 1029
foreinger 333	fruitbearing	Gibeah 117	gopher wood 72
foresee 729	fructify 717	Gibeon 117	Goshen 66
foresight 520	fruitful field	Gibeonite 117	gospel 442
foreskin 991	fry	gift	gourd 1027
forest 575	fugitive 224	Gihon 121	grace 785
forget 841	full 20	gilded 107	grandson 559
forgive 765	fullness 268	Gilead 123	grape 983
fornication 32,786	fuller 467	Gilgal 123	grass 995
1016	furlong 980	girdle 272	grasy 995
forsake 413	furance 765,980	Girgashite 113	grating 933
fortification 752	fury 57	girl 547	grave 356,509
fortify 752	Gabriel 23	girlish 547	graven 509
fortress	Gad 37	give 885	graving tool 880
forty 487	Gadite 37	glad 117	great 773,963
forty-two 488	gain 681,813	glass 778	great man 964
forty-five 488	galbanum 996	glitter white 1041	great toe 683
fundamental 120	Galeed 34	glorify 931	green 994
foundation 120	Galilee 34	glorification 594	grey hair 1037
founder 889	gall 215	glory 726	grief 580
fountain 513	Gammadim 36	gnaw 370	grind 22
four 181	garden 233	go 18	groan 594
foursqure 867	garlic 285	go away 268	ground 902
fourth 181,486	garment 786	goim 107	grove 846
fourteen 715	garner 75	go in 647	grow 535
fourteenth 715	gate 360	going 18	grow up 865
fragance 1018	gather 344,570	go out 138	guard 60,907
fragment 445,880	gather together	go up 737	guilt 781
frankincense 781	Gaza 23	goat 723	guiltless 357
fraud 475	Geba 106	God 1001	gulf 85,293
free 844	Gedaliah 100	Gog 72	H 696
freely 356,844	Gehenna 57	gold 107	haemorrhoid 958
friend 958	gem 438	golden 107	Hagar 1000
fringe 571	generation 540	Goliath 73	Hagarene 1000
frog 46	Gennesaret 56	gomer 65	hail 767

hair 320,973	Hazor 1009	Hiddekel 1045	Horeb 1027
half 395	head 317	hide 573	Horite 1027
half-an-hour 395	heal 172	hiding place 574	horn 471
hallelujah 1013	healer 957	high 192	hornet 303
halt 864	health	high place 191	horrible 356
halve 395	healthy 51	high priest 192	horrid 356
Ham 1015	heap 604	highest 26	horror
Hamathite 1009	hear 246	hill 679	horse 300
hammer 311	hearken 98	hin 1043	horseman 117,580
Hamor 1009	heart 596	hind 651	host 91
hand 555	hearth 159	hinder	hot 272
handful 1013	heat 219,714	Hinnom 1043	hour 581
handmaid 354	heaven 1006	Hirah 1042	house 924
hang 311	Heaven 936	Hiram 1042	house-stuff 27
hanging 427	heave-offering 251	hire 67,107,491	howl 645,929
happen 833	heaved up 251	hireling 491	howling
happy	heavy 354	Hitite 1021	human 828
Haran 1009	Hebrew 1042	hittern	humanity
hard 210	Hebron 1021	Hivite 1043	hundred 411
harden 210	hedge 770	hoar-frost 518	hundredth 411
harlot 313	heel 243	Hobah 1028	hundredfold 411
harp 1010	heifer 676	hoe 82	hunger 410
harrow 604,605	height 192	hold 457	hunt 475
harvest 953	heir 504	holding back 781	hunter 475
haste 517	Helbon 1021	hole 88	Hur 1038
hasten	hell 906	hollow 553	hurt 506
hate 374	helmet 975	holy 46	husband 171
hatred 900	help 231	holy land 536	husbandman 191
have 29	helper 880	holy scripture 533	hut 734
haven 1015	hem 20	holy spirit 533	hypocrisy 774
Havilah(the land)	herb 995	holy supper 534	hyssop 1042
1010	herbaceous	homer 1028	I 138
Havilah(son of Cush)	herd 30,352	honey 133	idol 768
1010	Heres 1021	honeycomb 416	ignominy 454
Havilah(son of Joktan)	Hermon 1021	honour 330,881	illuminate 60,402
1010	Heshon 1021	hoof 400	image 1023
hazel 46	Heth 1021	hook 33	immaculate 219
Hazezon-tamor 1009	hew 842	hope 1041	Immauel 834

impart 143	Ishmaelite 809	Jezebel 799	Kenite 57
impose 443,645	island 525	Jezreel 808	Kephas 57
impute 860	isle 525	Joab 762	Kesithae 963
incense 1018	Israel 803	Job 763	kessia 60
incline 119	Israelite 803	jobel 752	Keturah 101
income 237	Israelitish 803	John 762	key 723
increase 455	Issachar 838	John the baptist 542	Khesib 50
indemnify 411	itch 21	joining 866	kid 510
infant 780	Ithamar 792	joint, out of 79	kidney 595,962
infatuate 613	ivory 506	Jokshan 763	kill 895
infirmity 1020	Jabal 664	Joktan 763	kindle 455
inhabit 50	Jabbok 667	Jona 750	king 743
inhabitation 780	Jacob 657	Jonadab 751	kingdom 746
inhabitant	Jael 665	Jonah 750	kingdom of God 1005
inherit 504	Jah 657	Jonathan 751	kingdom of Heaven
inheritance 780	James 657	Jordan 751	936
iniquity 454	Japheth 664	Joseph 753	kingdom of Lord
injustice 446,866	jar 1015	Joshua the priest 708	885
injure 506	Jareb 664	Joshua 708	Kiriathaim 113
inn 699	Jared 664	journey 707	Kirjath-arba 113
inner chamber 73	jaspercc 427	jubal 779	kiss 964
inner room 73	Jasher 665	jubilee 1041	Kittim 124
innocence	Javan 665	Judah 774	knead 396
innovate 561	jawbone 973	Judea 778	kneading-trough 396
insane	Jazer	judge 597	knee 356
insidious 312	Jebusite 701	judgement 597	knife 959
insipid 604	Jehoshaphat 708	just 742	knock 238
insurrection 395	Jehovah 709	justly 387	know 648
integrity 535,743	Jehovah Nissi 711	justice 867	knowledge 828
intelligence 951	Jehovah Zebaoth 711	justification 786	Korah 63
interpret 1016	Jehovih 708,712	justify	Laban 273
interrogate 913	Jephthah 837	Kadesh 20	labour 183,496
introduce 647	Jericho 701	Kapernaum 23	ladder 476
inundate 416,959	Jerusalem 729	Kedar 56	lake 1028
Irad 792	Jesse 802	Kedarites 56	lamb 676
iron 561,945	Jesus 731	keep 439,898,907	lame 864
Isaac 800	Jethro 792	keeper 977	Lamech 273
Ishmael 808	Jew	Kenan 56	lamp 255

land 255,974	leprosy 152	loose 995	make 295
language 681	let down 379	Lord 884	Makkedah 292
languid 130	Levi 278	Lord Jesus Christ 887	malice 645
Laodicea 274	Leviathan 46	Lord's prayer 885	male 167,570
lap 1014	levirate 712	lord 887	mammon 852
Lasha 274	Levite 279	Lot 280	Mamre 287
last 291,315,951	liar 50	louse 791	man 168,479
last judgment 951	lick 1014	love 485	Manasseh 371
latchet 28	lie 50,197	love of the world	mandrake 1015
laugh 771	life 501,515	544	manger 701
laughter 771	lift up 251	love of neighbor 812	manifest 156
laver 218	light 465	love towards neighbor	manna 294
law 417,783	lighting 414	812	mansion 218
lawgiver 837	lign aloe	to love neighbor 812	mantle 311
lawyer 417,783	ligure 996	lower 174	many 297
lay in wait	likeness 343,462	Lucifer	Marah 285
lay on 193	lime 519	Lud 282	marble 216
laying waste 1036	linen 621	Ludim 282	march 1016
lead 171,791,828	lintel 506	lukewarm 375	mark 992
leader 901	lion 489,1020	luminary 399	marriage 58
Lazarus 152	lioness 651	lunar 212	marrow 471
leaf 841	lip 837	Luz 282	marry 58
Leah 277	little 845	lye 854	marsh 580
lean 665	little book 846	lying down 197	martyr 571
lean, to make 665	little child 676	machinate 344	Mary 287
leap 130	little one 677	Machir 284	masculine 167
learn 411	live 500,515	Machpelah 291	Mash 288
leather 27	liver 32	Madai 285	Massah 290
leave 166	livid 325	magi 288	master 578,887
Lebanon 277	living 515	magic	Matai
leek 975	living creature 500	magician 288	mature 827
left 750	living water 500	magnificence 848	meadow 995
leg 202	loathe	magnify 1033	meal 51
legion 91	locust 326	Magog 284	means 565
lend 464	long 123	Mahalalel 291	measure 450,851,957
length 123	look 433,670	Mahalath 291	meat 590
lentil 279	look back 243	Mahanaim 291	meat-offering 589
leopard 152,992	look out 433	maid-servant 706	mede 325

medicament 791	might one 765	mother 679	Nazarite 152
medicine 665	Milcah 378	mother-in-law 849	Nazariteship 152
meditate	mildew 1042	mountain 491	near 15
medium 311,899	mile 291	Mount of olive 741	Nebaioth 198
meet 295	milk 870	Mount sinai 582	Nebo 198
Megiddo 371	mina 371	mourn 579	Nebuchadnezzar 198
Mehujael 372	mind 291	mouse 516	neck 345
Melchizedek 327	minister 443,538	mouth 834	need
melt 184	Minnith 375	move 770	needle 380
memorial 110	minute 842	much 297	needy 95
memory 119	miracle 119	mute	neglect 408
Memphis 327	Miriam 373	multiply 198	neigh 769
mene 325	misery 457,464	multitude 204,565	neighbour 812
menstruous 773	Misgab 374	murder 500	Nephilim 181
mention 678	mist 645	murderer 500	nerve 592,1045
merchandise 507	mistress 707	murmur 899	nest 432
merchant 506	mitre 78	must 985	net 105
mercy 843	mix 519	mustard 57	new 510
mercy-seat 844	mixture 1030	myriad 293	(a) new church 510
Meribah 372	Mizpah 374	myrrh 353	(the)New church 510
merit 76	Mizraim 374	myrtle 224	new earth 510
merum 519	Moab 343	mystery 593	new heaven 512
Mesha 326	Moabite 343	Naamah 153	new jerusalem 512
Meshech 326	mock 880	Naaman 153	new wine 512
messenger 490	mole 238	Nadab 143	Nicodemus 200
Messiah 326	Molech 353	Nahor 157	Nicolaitions 200
mete out 852	molten 888	nail 354,401,559	night 403
method 407	money 227	naked	night, to pass 405
Methusael 372	money-changer 1034	nakedness 414	Nile 153
Methuselah 372	month 212	name 792	Nimrod 201
Michael 372	moon 212	Naphtali 171	nine 644
middle 899	Moreh 333	Naphuhim 172	Nineveh 201
Midian 372	Moriah 334	naphkin 179	ninth 644
Midianite 372	morning 642	narrow	Nissi 202
midst 899,1011	morrow 178	Nathan 143	No 183
midwife 497	morsel 1013	nation 143	Noah 184
Migdol 375	mortal 957	nativity 967	noble 61
mighty 41	Moses 334	nay 612	Nod 190

noise	olive-grove 742	pan 172	perfidiously 455
no one 1013	olive tree 740	pannicle 945	Pergamos 413
Noph	olive-wood 742	pap 23,871	perish 328
north 448	omer 735	parable 464	Perizzite 458
northern 448	onan 733	paradise 157	perjure 774
nose 960	one 1000	Paran 383	perpetual 728
nose-jewel 961	onion 671	pardon 765	persecute 1011
nostril 962	Only-begotten 226	parent 678	persevere
not 612	onycha 140	part 444	persuade 528
now 901	onyx 1028	partaker 450	pervert 73,419,645
number 60,540,561	open 715	pass 901	pestilence 712
numberous	Ophir 736	Passover 781	Peter 422
nuptial 58	oppress 651	pass over 51	Pharoh 384
nurse 779	opulence	pass through 975	Pharisee 387
nut 58	order 913	passage	Phicol 461
o 732	ordinance 417	passion 565	Philadelphia 1000
oak 505	organ 734	pasture 352	Philistine 459
oak grove 505	ornament 132,850	path 845	Phinehas 462
oar 183	orphan 66	Pathrusim 382	Phrath 458
oath 315	ossify 470	Pathros 382	physician 786
obey 571	outlet 955	patience 828	phytactory 533
oblation 443	oven 560,735	Patmos 406	Phython 356
obliquity 462	overcome 106	patridge 842	piece 880
obscure 454,671	overlay 250	peace 980,1033	pierce 135
observe	overtake 257	peacock 75	pig 236
ochim 444	overthrow	pearl 911	Pi-hahiroth 464
odor 179	owl 742	pebble 880	Pilate 464
offend 595	ox 567	peel 129	pile 604
offer 394	Paddan-aram 405	peg 303	pillar 113
offering 730	pain 644	Peleg 425	pillows 420
offspring 845	paint 104,105,980	Peniel 458	pinnacle 846
oil 114	pair 604	penny 980	pipe 79
oil tree 115	palace 94	Penuel 458	Pison 462
ointment 67,115	palate 838	people 375,411,481	pit 84
old 199	pale 933	percede 651	pitch 712
old, to grow 199	palm 558,882	Peres 424	pitch-pine 547
old age 183	palmerworm 78	Perez 424	Pithom 462
olive 739	palm-tree 882	perfect 743	pity 455

place 850	praise 931,959	provoke 833	rare 245
plague 853	pray 112	proximately 15	ravage 976
plain 980	precious 100	prudent 595	raven 126
plain-tree 996	pregnant 834	psaltry 1023	ravish 539
plank 238	prejure	pulse 227	raw 515
plant 589,596	prepare 898	purchase 88	razor 327
plaster 1037	present 520	pure 571	reach 225
plate 977	preserve 414	purify 571	read 834
platter	prevail 769	purple 845	reap 424
play 190	prey 666	purse	reaper 953
plenary 955	price 15	pursue 244	Rebekah 283
plenty 996	pride 842	pustule 191	rebel 334
plot 344	priest 537,878	Put 457	rebirth 853,854
plough 854	priesthood 537	put 193	rebuke 133
ploughshare 854	primary 947	put off 419	recompense 437
pluck off 848	primitive 772	put on 836	reconciliation 1033
pluvial 460	primogeniture 297,851	python	recount 844
point 474	prince 75,218,748,878	quail 326	red 457
poison 225	principle 773	quarrel 207	red sea 1032
polish 207	prison 37	quarter 408,905	redness 466
pomegranate 518	prodigal son 967	queen 703	redeem 237
pool 354,370	pridigy 60	quick 466	reed 33
poor 17	produce	quickly 466	refiner 889
poplar 991	product 497	quiescence 576	refractory 70
portent 929	profane 332	quiver 1033	refuge 999
potent	prolong 199	Raamah 274	regal
portion 353	prophecy 732	Rabbah 276	Rehoboth 283
possess 552	prophesy 732	rabbi 276	reign 93
post 362	prophet 732	Raca 273	relish 310
Potiphar 437	prophetess 703	Rachel 275	remain 166
pottage 889	propitiation 553	rag 181	remains 168,610
potter 974	propitiatory 553	raiment 731	remember 119
pound 977	proprium	rain 460	remit 328
pour 457	prosper 414	rainbow 357	remoteness 324
pour out 605	protest 1016	ram 574	remour 552
poverty 17	proud 50	Ramah 273	remove 742,872
powder 21	prove	Rameses 273	renal 595
power 95,200,1043	provision 588	rampart	rend 930

rent	rise up 395	salem	sea 380
repair 566	river 38	salt 547	seal 166,443,828
repay 45	roar 72,783	salutation 828	seal up 378
repent 1037,1038	roast 94	salvation 89	search 934
Rephaim 282	rob 41	Samaria 486	seat 428,842
Rephath 283	robber 41	Samariatan 486	Seba 584
Rephidim 282	robbery 41	Samson 502	second 243
replenish 60	robe 731	Samuel 486	secret 462
report 432	rock 392	sanctuary 534	security 647
reproach 957	rocky 392	santify 593,594	sedge 490
reprove 133	rod 292	sand 332	seduce 447
rescue 90	roll 240	Sanneacherib 497	see 433
Resen 277	roof 905	sapphire 490,949	seed 606
reside 888	root 471	Sarah 478	seed time 608
residue 149	rotate 1037	Sarai 485	seek 681
resin 570,782,1020	rouse 129	Sardis 476	seethe 138
resound 770	royal 746	sardius 1031	seir 544
rest 576	royalty 743	sardonyx 1028	seize 771
restore 442	ruby 1031	Sarepta 485	sell 979
resurrection 447	ruin	Satan 490	send 432
retain 781	rule 841	satisfy 296	seminal 606
return 237	Rumah 282	satiety 955	semination 606
Reu 282	rumour	Satyr 490	senary 702
Reuben 282	run 214	Saul 488	send
Reubenite 282	rush 74	saving 89,304	send away
Reuel 283	rye	say 304	send forth 178,975
revenge 442	sabbath 645	scale 462	sennachereb
revive 238	Sabtah 503	scape goat 554	sense 34
reward 438,504	Sabteca 503	scarlet 912	sensuous 35
Rezin 282	sack 842	scatter 1040	sensuous truth 36
rib 34	sackcloth	sceptre 1031	Sephar 578
rich 445	sackcloth of hair 320	scissors 25	septenary 833
ride 965	sacrifice 877	scold 133	sepulchre 356
rider 118	sad 580	scorpion 860	sepuldue
right 734	saddle 647	scortate 32	Seraph 577
ring 64,396	Sadducees 478	scourge 935	serpent 411
rise 270	salem 500	scribe 516,1000	Serug 577
rise against 395	salior 412,521	scum 219	serve 526

servant 881	Shiloh 595	silver 194,783	so 101
sevice 443	Shinar 582	Simeon 583	soap 462
set 857	shine 466	Simon 584	socket 131
Seth 545	ship 409	simple 211	soda 548
seven 830	shipmaster 521	sin 882	Sodom 548
Seveneh 568	shirt 743	Sin 591	soft
seven times 830	Shitim 603	Sinai 582	soften 443
seven churches 832	Shittah 603	sinew 592,1045	sojourn 949
sevenfold 832	shoe 591	sinful	sojourner 949
seventeen 722	shore 382	sing 183	solar 971
seventeenth 722	short	sinner 884	solder 93
seventh 833	shorten 929	Sisera 584	solid 553
seventy 833	shot 490,605	sister 706	sollitary 63
seventy-times 834	shoulder 671	sit 648	solitude 606
sew 135	shout 750	six 702	sole 401,593
Shaddai 560,861	show 438	six-hundred-sixty-six 782	Solmon 559
shade 100	shower 547	sixteen	sole 593
shadow 105	shun 214	sixth 702	somnoece 881
shake 1040	shurb 79,965	sixtieth 783	son 613
shake off 1040	Shuah 568	sixty 783	son of God 1005
shame 443	Shur 566,571	skin 27,999	son of Man 484
sharon 486	Sibmah 597	slap 932	son-in-law 488
sharp 166	sick 431	slaughter 1010	song 183
shave 327	sickle 172	slavery 189	sore 881
Shaul 488	Siddim 583	slay 501,898	sorcerer
Shaveh 488	side 929,955	sleep 847	sorcery 288
sheaf 208	Sidon 583	slow 198	sorrow 580
shear 126	siege 991	slumber 881	soul 1029
Sheba 578	sieve 949	smell 179	sound 550
Shechem 539	sift 949	smite 539	south 170
sheep 667	sigh 1013	smoke 714	southern 170
sheepfold 670	sign 993	smooth 311	sow 471,606
shekel 539	signet 225	Smyrna 577	space 75
Shelah 544	signify 786	snake 411	span 1013
Shem 544	Sihor 588	snare 222	sparrow 932
shepherd 350	silence 959	snort 961	spathe 28
Shibah 543	silk 462	snow 194	speak 811
shield 409	Siloam 595		spear 932

speckled 395
speech 300
spelt 99
spice 667,1019
spirit 725
spit 413
splendour 466
spoil 861
spot 395
spotted 395
spring 514
spring 442
sprinkle 471
spruious 27
square 867
stable 284
stacte
staff 909
stag 566
stagger 464
stairs 60
stalk 898
stammerer 303
stand 516
star 428
state 553
station 774
statue 417,503
stave 848
stay 320
steal 1039
sting 930,958
stink 67
stock 101
stone 227
stool 428
stop up 975
storehouse 932

stork 1035
storm 991
strait 881
straiten 82
strange 174,802
stranger 174
straw 929
stream 1040
street 49
strength 1044
strenghten 43
stretch 470
stretch out 470
strew
strike 252,956
stringed 1023
strong 44
strong drink 227
structure 51
strugglevv 72,413
stubble 101
stump 101
stumble 181
stumbling-block 850
submersion 959
subjugate 442
substance 371
Succoth 574
suck 467
suckle 872
suffer 82,856
sulphur 782
sum
sumerge
sumit 442
summer 700
sun 968,1016
sup 856

superfluous 702
Suph 571
supper 297
supplant 378
supplicate 967
sustain 270
swallow 503,878
swear 315
sweat 262
sweep 949
sweet 215
swift 165
swine 236
sword 53
Sychar 565
Sycomore
synagogue 474,1037
Syria 583
tabernacle 534,849
table 503,966,977
tail 130
take 27,29
take away 872
take captive 989
take care 231
Talaris 219
tale 951
talent 214
Tamar 202
tare 21
tarry 358
Tarshish 214
taste 310
teach
teachable 22
teacher 22,521
tear 197
Tebah 223

tekel 223
tell 309
Tema 223
Teman 223
temple 535
temptation 588
ten 597
tenderness 443
tent 936
tenth 597,723
Terah 223
teraphim 245
terebinth 974
terrify 56
term 59
terminate 137
ternary 540
terror 76
tertian 491,543
testicle 72
testimony 900
thanksgiving
theft 224
thice
thicket 221
thief 224
thigh 180
thin 665,723
think 515
third 502,545
thirst 349
thirteen 722
thirteenth 722
thirtieth 518
thirty 502
thistle 684
thorn 25
thorn-ticket 25

thorny 25	tooth 791	turn away 231	unspot 219
thought 515	top 131	turpentine 974	untempered 743
thousand 936	topaz 1035	turtle-dove 497,1027	unworthy 30
thread 595	Tophet 225	twelfth 716	Uphaz 767
three 545	torch 1037	twelve 716	upwards 774
thresh 966	torment 82	twentieth 577,810	Ur 766
threshing floor 966	touch 296	twenty 570,810	urge 853
threshing sledge 966	tow 620	twenty-first 811	Uri 768
threshold 363	tower 967	twenty-four 577,811	Uriah 768
thrice 543	trade 849	twenty-seventh	Urim 768
throat 346	trample 928	577,811	urn 211
throne 748	transfigure 428	twenty-eight	useful 606
through	transgress 418	577,811	usury 65
thrust-through 378	transgression 417	twilight 1036	utter 401
thumb 683	transparent	twins 604	Uz 769
thummin 243	tranquil 980	two 241	Uzzah 771
thunder 767	tread 403	two and a half 243	vain 1020
Thyatira 241	treasure 438	two days 827	vainly 1020
Thyine wood 1019	tree 150	two years 792	valley 73
tiara 238	tree of lives 516	two-edged 667	vapour 899
ticket 221	tree of knowledge of good	two-fold 238	vegetable 665
Tidal 257	and evil 520	Tyre 240	vehement 58
till 60	tremble 270	ulcer 881	veil 179,424,1039
tiller 60	tribe 908	ultimate 94,951	venenate 881
timbrel 547,846	tribulation 60,1034	uncircumcised 1014	veins 595
time 268,580	tribute 75	unclean 453	vension 475
Timnath 257	trouble 66	uncover 245	verge 202
tin 887	trough 90	under 616	vernicate 414
Tiras 257	trumpet 156	understand	vessel 103,409
tithe 597	trumpter 156	unfaithful 455	vestment 553
today 733	trust 592	unfruitful 722	vial 218
toe 399	trustworthy 592	unicorn 749	victory 580
Togarmah 224	truth	unite 1001	vile 464
tolerable 932	try 588	unjust 446	village 290
to-morrow 178	Tubal-cain 241	unleavened 193	vine 984
tongs 447,456	tumult 268	unripe figs 827	vinedresser 987
tongue 1022	turban 238	unsew 595	vinegar 950
tool 224	turn 231	unshoe 593	vineyard 987

vintage 985	weak 666	wild-ass 249	wrath 450
violence 992	wean 871	wild-beast 252	wrestle 311,608
viper 225	weapons 356	wild grape 255	wretched 464
virgin 935	weave 929	wilderness 79	write 605
viscus 179	weaver 929	willow 413	year 183,712,1016
visible	web 999	wind 383	yellow 183
vision 1034	wed 58	window 932	yesterday 678
visit 407	wedding 58	wine 987	yoke 325
visual	weeds 848	wine-press	young 865
vivid 515	wedlock 58	wing 164	young ass 675
vivify 515	week 884	winter 57	young man 865
voice 346,786	weep 769	wipe 207	younger 714
void 76	weigh 355	wisdom 909	zabuah 356
vomit 974	weight 355	wise 579	Zachar 490
vow 518	well 515,766,847	wisely 579	Zachariah 474
wafer	west 518	with 219	Zarah 541
wail 550	western 518	withering 285	zeal 723
walk 52	whale 63	within 648	zealous 723
wall 426	what 357	without 395	Zeboim 578
wallet 901	what is left 168	witness 900	Zebulon 578
wander 1021	wheat 377	woe 579,1033	Zemarite 577
wanderer 407	wheel 565	wolf 799	Zerubbabel 577
war 862	whelp 509	woman 703	ziim 252
warfare 863	whence 675	womb 841,967	Zillah 609
warm 257	where 675	wood 152,351	Zilpah 913
wash 609	wherefore	wool 670	Zion 584
wash-pot 609	whip 935	word 297	Zipporah 603
watch 128	white 411,1041	Word 304	Zoan 552
watchman 59,977	white horse 1042	work 828	Zoar 552
water 363	who 193	workman 183	Zuzim 568
watered 370	wicked	world 543	
watercourse 371	wickedness 488	worldly 543	
waterpot 371	widow 77	worm 416	
water-serpent 370	widowed 373	wormwood 606	
wave 977	widowhood 77	worship 730	
wax 378	wife 610	worthy 30	
way 121	wild 665	wound 445	

.....